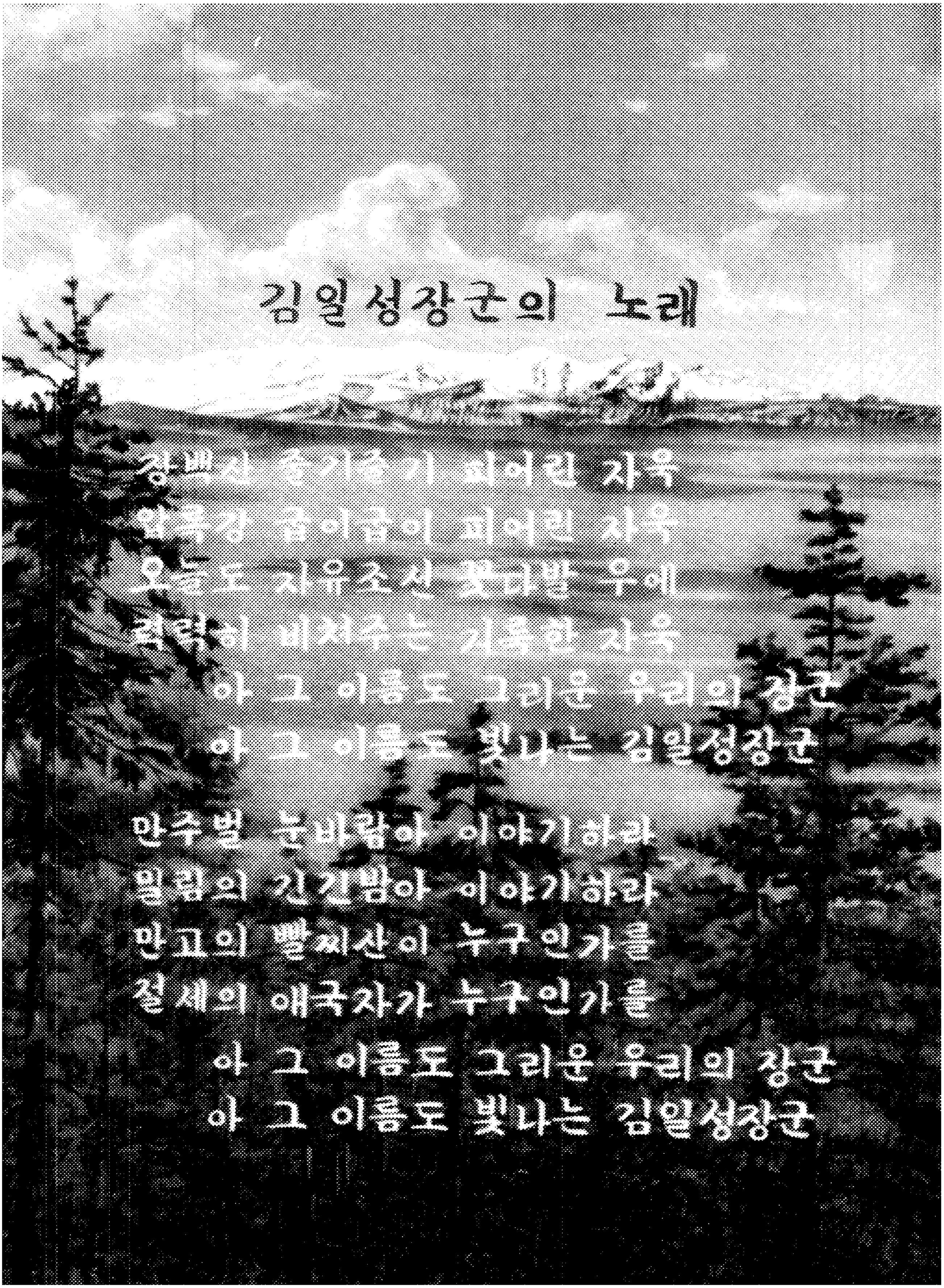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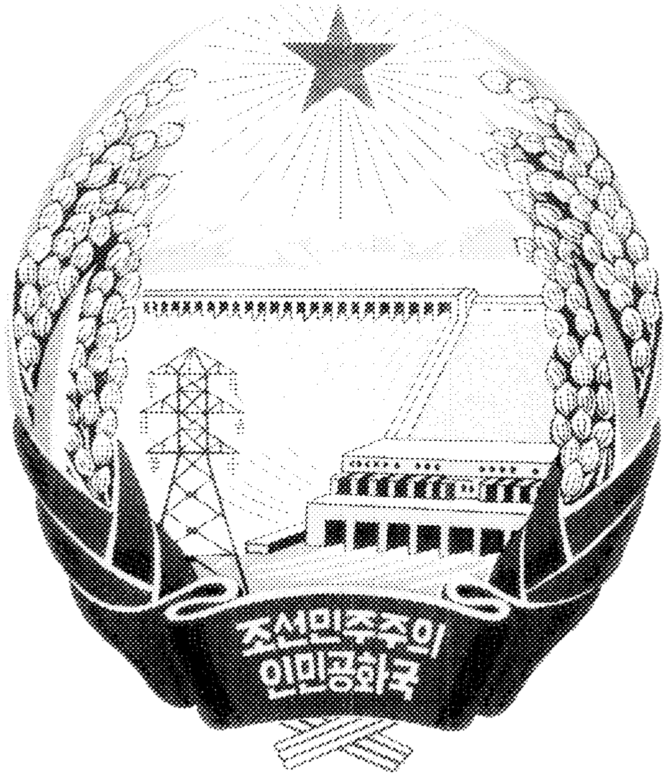
조선중앙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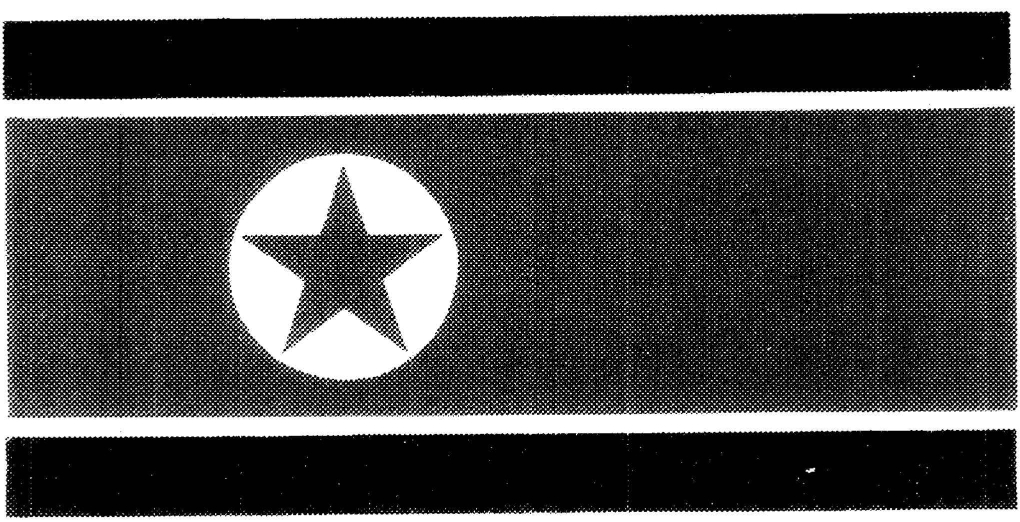
1975

조선중앙통신사




김일성장군의 노래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 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만주벌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밀림의 긴긴밤아 이야기하라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 1 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계급적대립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없어졌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8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며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한다.

제11조 국가는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한다.

제12조 국가는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의 의견을 존중히 하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이다.

국가는 천리마운동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하며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의 사명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를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한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반영하고있으며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준수된다.

제 2 장 경 제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제19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한다.
제20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 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1조 국가는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2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소비를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제23조 국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제2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물질적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국가는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5조 국가는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줄인다.
제26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군의 역할을 높이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들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27조 근로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모두다 로동에 참가하며 조국과 인민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한다.
제28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적용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2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만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0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선진적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적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3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3조 국가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또는 국가의 감독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 3 장 문 화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며 사회주의적민족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한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자연과 사회에 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든다.

제3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것을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38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39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0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1조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에 대하여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킨다.

제42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3조 국가는 모든 어린이들에 대하여 1년동안 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킨다.

제45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시킨다.

제46조 국가는 우리 말을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47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체력을 끊임없이 증진시킨다.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하고 국방체육을 발전시켜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킨다.

제48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예방의학적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4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4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50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51조 공민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52조 만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 및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53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54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55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제56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第57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8시간로동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 등에 의하여 보장된다.

第58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은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第59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무료의무교육을 비롯한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第60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창의고안자와 발명가들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第61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들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第62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 및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第63조 결혼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第64조 공민은 인신 및 주택의 불가침과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체포할수 없다.

第65조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공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第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호한다.

第67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 사회주의적행동준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第68조 공민은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공민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리익, 조국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第69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第70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第71조 공민은 제국주의자들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온갖 적대분자들의 책동에 대하여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第72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것은 가장 큰 죄악이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제 5 장 최고인민회의

第73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第7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第75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때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第76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및 법령을 채택 또는 수정한다.
2.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 중앙인민

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총리를 선거 및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선거 및 소환한다.
8.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및 소환하며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및 해임한다.
9.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
10. 국가예산을 승인한다.
11.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77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소집한다.

제78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반수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7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80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및 정무원이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81조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82조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 또는 수정된다.

제83조 최고인민회의는 예산심의위원회, 법안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들을 조직할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은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돕는다.

제84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승인없이 체포할수 없다.

제85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의 상무기관이다.

제86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의장, 부의장, 사무장, 의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부의장은 각각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겸임한다.

제87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법안을 심의결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현행법령을 수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현행법령을 해석한다.
4.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5.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실시한다.
6.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7.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과의 사업을 한다.
8.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9.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 6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제8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을 대표한다.

제9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9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한다.

제9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필요에 따라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

제9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9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을 공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명령을 낸다.

第9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특사권을 행사한다.

第9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및 폐기한다.

第9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第9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第9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

제 7 장 중앙인민위원회

第100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第101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第102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한다.

第103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대내외정책을 세운다.
2. 정무원과 지방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3. 사법, 검찰 기관사업을 지도한다.
4. 국방 및 국가정치보위 사업을 지도한다.
5.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며 그와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부를 내오거나 없앤다.
7. 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각 부장, 그밖의 정무원성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8. 대사와 공사를 임명 및 소환한다.
9.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및 해임하며 장령군사칭호를 수여한다.
10. 훈장, 명예칭호, 군사칭호 및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1. 대사를 실시한다.
12.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고친다.
13. 유사시에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第104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第105조 중앙인민위원회에는 대내정책위원회, 대외정책위원회, 국방위원회, 사법안전위원회 등 중앙인민위원회 사업을 돕는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중앙인민위원회 각 위원회 성원은 중앙인민위원회가 임명 및 해임한다.

第106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 8 장 정 무 원

第107조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정무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第108조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 부장들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第109조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각 부, 정무원직속기관, 지방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2. 정무원직속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공업, 농업, 대내외상업, 건설, 운수, 체신, 국토관리, 도시경영, 과학, 교육, 문화, 보건 등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화폐 및 은행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7.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8. 인민무력건설에 대한 사업을 한다.
9.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0.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관리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第110조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정무원전원회의는 정무원성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무원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성원들로 구성한다.

第111조 정무원전원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정무원상무회의는 정무원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第112조 정무원은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

다.

제113조 정무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14조 부는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다.

부는 지시를 낸다.

제9장 지방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

제115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16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17조 도(직할시)인민회의 임기는 4년,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8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를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
2. 지방예산을 승인한다.
3.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4. 해당 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19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20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반수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21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122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채택한다.

지방인민회의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공포한다.

제123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2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해당 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6. 하급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해당 지역안의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8. 해당 행정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9. 해당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제12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2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28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행정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129조 지방행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30조 지방행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2. 해당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상급기관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3.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6. 하급 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하급 행정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31조 지방행정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32조 지방행정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행정위원회는 상급 행정위원회와 정무원에

복종한다.

제 10 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133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 및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34조 중앙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선거한다.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35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및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3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세워진 로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 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권리 및 생명재산을 온갖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2.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37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38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39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140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41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42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143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 및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4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결정, 정무원의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와 법위반자를 적발하여 법적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로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온갖 침해로부터 보위하며 국가, 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권리 및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45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및 해임한다.

제146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 11 장 국장, 국기 및 수도

제14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 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우에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4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2이다.

제14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차 례

정 치

사회주의경제건설

사회주의문화건설

인민생활향상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아 프 리 카

라틴아메리카

구 라 파

북 미

대 양 주

국제회의

자 료

사진과 삽도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신 년 사

1974년 1월 1일

친애하는 동지들!

우리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한 영광의 해인 1973년을 보내고 새로운 투쟁과 승리로 빛날 희망찬 새해 1974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지난해에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여온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키고있는 영용한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 그리고 사회안전원들과 로농적위대원들, 붉은청년근위대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민주인사들,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조국에 와서 우리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홍봉수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대표단 성원들과 총련의 여러 대표단성원들을 열렬히 축하하며 한덕수동지를 비롯한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 조선동포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1973년은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웅대한 강령을 수행하는 투쟁에서 국제국내적으로, 정치경제적으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된 승리의 한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서 일대 전변을 가져왔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며 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직생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되였으며 온 나라가 일하면서 학습하고 학습하면서 일하는 혁명적학습기풍이 확고히 서게 되였습니다.

지난해에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서 혁명적로동계급과 당핵심들, 청년인테리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당핵심들과 청년인테리들은 근로자들속에 들어가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렸으며 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초급간부들이 모든 일에 주인답게 참가하였으며 간부들이 군중의 앞장에 서서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사상혁명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서게 되였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의식수준과 혁명적열의가 비상히 높아졌으며 모든 사람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적으로 하는 기풍이 수립되였습니다.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지난해에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우리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은 1974년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열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에 힘을 집중하는것이였습니다.

당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매우 짧은 기간에 금성뜨락또르공장을 현대적인 대규모공장으로 꾸리고 뜨락또르를 대량적으로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에 경지면적 100정보당 뜨락또르대수가 2~2.5대에 이르게 되였으며 벌방지대에서는 3~4대에 이르게 되였습니다.

승리자동차종합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온갖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여 자동차생산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함으로써 농촌기술혁명수행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비료공장을 꾸리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 화학비료를 정보당 물동량으로는 1톤이상, 성분량으로는 200키로그람이상씩 줄수 있는 물질적토대를 닦아놓았습니다. 특히 린회석광산을 대대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린비료를 국내원료에 의거하여 넉넉히 생산공급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토양과 농작물의 특성에 맞게 미량원소비료를 원만히 공급할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여 놓았습니다.

지난해에 농업대학출신간부들과 청년인테리들이 농촌에 적극 진출하여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없애고 영농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하였으며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고 과학적시비체계를 철저히 세웠습니다.

농촌기술혁명이 적극 추진되고 영농사업에 대한 지도가 개선됨으로써 농업생산에서 일대 전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협동농민들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모든 영농작업을 실속있게 하여 지난해에도 례년에 드문 대풍작을 이룩하였으며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지난해에 중공업부문에서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공정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하는 사업에서 일정한 전진을 가져왔으며 힘든 로동을 훨씬 줄이고 많은 로력을 절약하였으며 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로동자, 기술자들과 청년인테리들이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새로운 기술적창안을 많이 하였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당과 국가에서는 지난해에 수송사업에 큰 힘을 넣어 여러가지 새로운 수송체계를 세우는 한편 선박공업기지를 신설, 확장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올해부터 큰 배를 비롯한 여러가지 배를 많이 만들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여 놓았습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방직공장, 편직물공장, 신발공장, 일용품공장, 식료공장들을 많이 건설하였으며 매개 군과 로동자구에 옷공장을 꾸려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중공업과 경공업의 균형적발전을 더 잘 보장할수 있게 되였으며 인민들에게 질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공급하고 녀성들의 가정일을 훨씬 덜어줄수 있게 되였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고 경제건설을 빨리 다그친 결과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적파동이 매우 심하고 여러 나라에서 연료위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경제적난관을 겪고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제는 이러한 세계적인 경제적 파동과 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매우 안전한 토대우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더욱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습니다.

지난해에 문화혁명을 수행하는 투쟁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에서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

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전체 인민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지난해에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벌써 그것을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지금과 같이 높은 열의를 가지고 계속 투쟁하여나간다면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기한전에 완전히 실시할수 있으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학교교육사업과 함께 학령전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 사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있었습니다. 탁아소와 유치원을 많이 건설하고 그 운영사업을 개선함으로써 350만명이상의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게 되였으며 녀성들이 직장에 나가 마음놓고 일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지난해에 근로자들속에서 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기술지식보급사업을 널리 진행하여 근로자들의 전반적기술문화수준을 훨씬 높였습니다.

지난해에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 결과 공장, 기업소들이 깨끗이 꾸려지고 도시와 농촌의 면모가 일신되였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양식에서도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습니다. 농촌의 수도화와 빠스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군중적운동으로 벌려 많은 지방들에서 이 사업을 완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여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생활력을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과 출판보도부문일군들은 생산현장에 나가 자신을 단련하는 한편 로동자, 농민들의 생산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습니다. 당은 작가, 예술인들과 출판보도부문일군들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예선전활동으로, 직접적인 로력투쟁으로 3대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지난해에 우리의 영용한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은 부대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였습니다. 우리의 사회안전원들은 혁명적경각성을 높여 적들의 파괴암해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전취물을 튼튼히 지켰으며 로농적위대원들과 붉은청년근위대원들은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여 전투준비를 더욱 완성하였습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여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린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 근로인테리들과 학생청년들,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 그리고 사회안전원들과 로농적위대원들, 붉은청년근위대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의 《두개 조선》 유엔동시가입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에게 치명적타격을 주었으며 미제의 침략과 내정간섭 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빛나는 승리입니다.

지난해에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파쑈적폭압이 그처럼 엄혹한 《비상사태》하에서도 또다시 구국투쟁에 용감히 일떠섰습니다. 지금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며 미일침략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반인민적이며 매국배족적인 행위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고있습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은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정의의 투쟁이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애국적인 투쟁입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

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지난해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가 한층 높아졌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지난해에 알제리에서 진행된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는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규탄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습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

1974년은 우리 인민이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투쟁해야 할 해입니다. 우리가 당 제5차대회에서 내세운 6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앞당겨완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올해 전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6개년계획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는 기본건설에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넣어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기본열쇠는 올해에 기본건설을 잘하는데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는 올해를 건설의 해로 정하고 기본건설에 화력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새로운 천리마속도, 새로운 평양속도로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는 김책제철소 확장공사와 4월13일제철소 확장공사, 서두수발전소 제2계단공사와 북창화력발전소 제2계단공사, 청천강화력발전소, 대동강발전소, 청년화학공장, 남포화학공장, 순천세멘트공장을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에 힘을 집중하여 섬멸전의 방법으로 건설을 다그침으로써 그 조업기일을 최대한으로 앞당겨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내세운 농촌기술혁명의 주요과업들을 완수하며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열돐을 맞이합니다. 올해에 우리는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방침대로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과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하며 온 나라가 떨쳐나서 농촌을 적극 도와주어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특히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뜨락또르, 자동차, 련결농기계를 비롯한 현대적인 농기계를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며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질좋은 여러가지 화학비료와 농약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농촌테제발표 열돐을 보다 의의깊게 맞이하며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훨씬 덜어주고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반드시 점령하여야 하겠습니다.

광업부문에서는 설비들을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하고 운반을 다양화하여 지금 있는 광산들에서 생산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광산들을 개발하여 광물생산을 빨리 늘이며 특히

유색금속광물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빨리 늘어나는 유색금속광물을 제때에 처리하기 위하여 유색야금공장들에서 설비리용률을 더욱 높이며 단천지구에 현대적인 대규모의 유색야금기지를 새로 창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내세운 방침대로 석탄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탄광설비를 대형화, 현대화하며 탄광들에서 탐사와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석탄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대상설비생산에 힘을 넣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대상설비를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산업과 해상운수를 발전시키며 대외무역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선박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큰 배를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올해에 선박공업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달라붙어 이미 마련하여놓은 선박공업의 토대에 의거하여 만톤이상의 큰 배를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배생산이 늘어나는데 따라 여러가지 엔진생산을 늘이며 의장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 질좋은 의장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할것입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중앙공업과 함께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도, 시, 군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주인다운 립장에서 지방의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곡산공장, 식료공장, 방직공장, 편직물공장, 옷공장, 가구공장, 일용품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질좋은 여러가지 생활필수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넉넉하고 문명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선진적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무궁무진한 생활력과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생산장성의 중요한 예비는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데 있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적립장에서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다그쳐 3대기술혁명과 6개년계획수행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풀며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것입니다.

교육부문에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여 교육사업을 더욱 개선하며 학교의 물질적토대를 강화하고 교원들과 학생들 속에서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문학예술부문일군들은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적극 불러일으킬수 있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전투훈련을 정력적으로 하여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로농적위대원들과 붉은청년근위대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여 인민군대의 믿음직한 후비대, 예비대로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서는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강화하며 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심화시키며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

극성을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하겠습니다.

당, 국가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은 주관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없애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경제기관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요구에 맞게 기업관리를 더욱 합리화하며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인민경제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우리는 7.4남북공동성명에 지적된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할것이며 남조선의 모든 진보적력량과 힘을 합쳐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입니다.

올해에 총련조직들과 재일 조선동포들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투쟁하며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진보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총련조직들은 주체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모든 재일 조선동포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국제정세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유리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올해에도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며 반제반미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릴것입니다.

동지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은 매우 어렵고 방대합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앙양된 혁명적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또다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킴으로써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넘쳐완수하며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두다 맑스-레닌주의기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

전국농업대회에서 한 연설 1974년 1월 10일

동지들!

나는 사회주의농촌경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히 지난해에 농업생산에서 대풍작을 이룩하기 위하여 농업전선에서 열성적으로 투쟁하여온 우리의 모든 협동농민들과 협동농장관리일군들, 농촌경리부문의 당일군들과 농업지도일군들 그리고 농촌을 적극 도와준 여러 부문의 로동계급과 국가기관일군들, 교원들과 청년학생들,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와 나자신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많은 협동농장들에서 농업생산을 1972년에 비하여 배 또는 배이상으로 높이는 위대한 비약을 이룩하였습니다. 한해동안에 농업생산을 배 또는 배이상으로 높인 전례는 아직 세계 농업력사에 있어본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농업생산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최고의 기록을 창조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농촌경리발전에서의 이러한 위대한 승리는 오직 천리마조선에서만 있을수 있으며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친 영웅적 우리 인민만이 이룩할수 있는것입니다.

나는 지난해에 농촌경리부문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모든 동무들이 다 이에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대회의 연단에서 한 동무들의 자랑찬 보고를 전체 조선인민이 흥분된 심정으로 듣고 그에 박수갈채를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난해에 동무들이 농업생산에서 거둔 자랑찬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할것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한주일동안에 걸쳐 지난해에 농촌경리부문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를 총화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그에 기초하여 앞으로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1974～1975년에 6개년계획에 예견된 알곡고지를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것입니다. 나는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점령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에 넘쳐있으며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0년전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농촌테제를 내놓을 때 자본주의나라 사람들은 사회주의나라는 농사를 할줄 모른다느니, 사회주의나라는 아무리 농업을 발전시킨다고 하여도 자본주의나라 농업을 따라잡을수 없다느니 하면서 사회주의나라의 농업정책을 비방중상하였습니다.

우리가 농촌테제를 발표하였을 때 자본주의사상에 물젖은 우리 나라의 일부 사람들가운데는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과업을 수행할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지난 기간 사회주의농촌건설사업정형을 총화하여본 결과 농촌경리부문에서 이룩된 성과가 매우 크며 특히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과업을 수행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와 사상적준비가 완전히 갖추어졌다는것이 뚜렷이 증명되였습니다. 우리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다같이 점령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진 이상 우리에게 점령하지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으며 우리는 반드시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고야말것입니다.

어제 어느 처녀작업반장동무가 토론에서 지난해에 경지면적 100정보당 뜨락또르 2대를 가지고 농산작업을 기계화하여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많이 덜어주었는데 앞으로 경지면적 100정보당 뜨락또르를 2대씩만 더 주면 당의 방침대로 농산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 한사람이 10정보의 밭을 다루게 하며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겠다는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많은 동무들이 다 이와 같이 좋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세상에 내놓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의 리상으로 여겼는데 오늘은 그것이 현실로 되여가고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농업을 완전히 공업화, 현대화하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습니다.

나는 이번 대회과정에 동무들의 토론을 들으면서 1947년에 재령나무리벌에 나가 김제원농민과 담화하던 일을 회상하여보았습니다.

김제원농민은 토지개혁을 한 이듬해에 맨선참으로 나라에 애국미를 바친 애국적인 농

민이며 농민영웅입니다. 그는 조국해방전쟁시기 공화국을 지켜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적들과 용감히 싸우다 공화국의 농민답게 장렬하게 희생되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영원히 잊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1947년에 김제원농민을 만나 농민들이 나라에 바친 애국미를 가지고 학교를 짓는것이 좋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 뜨락또르를 사오는것이 좋겠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농촌에서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농민들이 땅의 주인으로 되기는 하였으나 부농들이 부림소를 가지고 농민들을 착취하고있기때문에 애국미를 가지고 뜨락또르를 사다 농민들에게 주는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오늘 장군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애국미를 가지고 학교를 짓는것이 더 좋을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직 나라의 밑천이 든든하지는 못하지만 한편으로 농기계임경소를 만들고 다른편으로 대학을 건설하도록 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김제원농민을 만나 담화하면서 이런 결심을 다지던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26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참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는 수많은 뜨락또르와 뜨락또르운전수들이 있으며 농민들이 기계로 농사를 짓고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대학과 농업대학을 비롯하여 여러 대학들에서 자라난 청년인테리들이 농촌에 나가 3대혁명을 도와주고있으며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해방후 우리 당이 취한 조치는 전적으로 정확하였으며 김제원농민이 제기한 의견도 옳았습니다. 나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당중앙위원회가 농민들과 합심하여 투쟁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신하게 되였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 당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한편으로는 뜨락또르공장, 화학비료공장, 발전소, 련결농기계공장을 비롯하여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공장들을 많이 건설하였으며 다른편으로는 대학을 대대적으로 창설하여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새로운 인테리들을 많이 키워냈습니다. 우리의 대학에서 자라난 청년인테리들은 지금 농촌에 나가 농업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지난날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있었고 공업이라는 말조차 모르던 우리 인민이 이미 농촌경리의 수리화와 전기화를 완성하고 이제는 기계화와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있으며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농업정책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을 전면적으로 공업화, 현대화하는 시대에 들어서게 됨으로써 우리는 멀지 않은 앞날에 농민들을 몇천년동안 하여오던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영원히 해방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을 매우 기쁘게 하며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영향을 줍니다.

나는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에 대하여 이 대회에 참가한 여러 동무들과 함께 커다란 기쁨을 느끼며 높은 긍지를 가지게 됩니다. 나는 멀지 않아 우리 나라의 농업이 완전히 공업화, 현대화되고 우리 나라의 농촌이 문명한 지상락원으로 전변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하여 걸어온 혁명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해방직후에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지주의 땅을 빼앗아 땅이 없거나 땅이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었으며 그다음에는 농촌고리대금업자들과 부농들의 착취행위를 반대하여 투쟁하였습니다. 전후에 우리 당은 농업협동화를 완성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세워 농민들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하였으며 뒤이어 농업현물세제를 폐지하여 농민들을 세금부담에서까지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를 착취와 압박이 없고 농업현물세제가 없는 나라로 만들었을뿐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무료로 공부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무상으로 치료받는 나라로, 사람들이 세상에 태여나자부터 먹고살수 있는 조건을 보장받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한 투쟁은 첨예한 계급투쟁을 동반하였으며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원과 로농동맹을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진행되였습니다.

로동계급과 농민의 동맹,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원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성과의 중요한 담보로 되였습니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농촌에서 봉건적토지소유제도와 자본주의제도를 없애며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국가는 농업현물세제를 없앴으며 농촌에 뜨락또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농기계를 보내주고 농민들에게 문화주택을 무상으로 지어주었습니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 일어난 모든 전변은 오직 우리의 로동계급이 모든 힘을 다하여 농민을 적극 도와준 결과에 이루어진것입니다.

협동농민들은 로동계급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에 보답하여야 할것입니다. 농민들이 로동계급의 지원에 보답하는 길은 자신을 철저히 로동계급화, 혁명화하며 농업을 빨리 공업화, 현대화하여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농사를 지으며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방침대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입니다.

나는 모든 협동농민들이 로동계급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로동계급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하루빨리 농업을 공업화하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함으로써 농촌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것을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는 길은 착취와 압박이 없고 계급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는 길이며 모든 사람들이 힘든 로동에서 해방되여 헐하게 일하면서 더 많은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남반부의 한줌도 못되는 지주, 매판자본가들과 반동들은 남조선사회를 잘사는 사람은 더욱더 잘살게 되고 못사는 사람은 더욱더 못살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로 만들고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악랄하게 비방중상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원쑤들의 온갖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여야 하며 모든 농민들이 넉넉하고 문명하게 사는 행복한 농촌, 계급이 없는 발전된 사회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나는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행복한 사회주의농촌,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영예로운 혁명투쟁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10돐을 맞이합니다.

농촌테제에는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며 전인민적소유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이 지적되여있습니다.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이러한 과업을 실현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동안의 투쟁을 통하여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과업을 짧은 시일

안에 능히 실현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과업을 실현할수 있는 물질적기초가 튼튼히 마련되여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현대적인 대규모의 뜨락또르공장도 있고 자동차공장도 있으며 여러 지방에 련결농기계공장과 뜨락또르부속품공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는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에서 뜨락또르를 사올수 있겠는가, 뜨락또르를 사다가 농민들의 논밭을 갈아주고 임경료를 얼마나 받겠는가 하는것을 타산하였다면 오늘은 자체로 뜨락또르를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고있으며 농민들에게서 임경료도 받지 않고 밭갈이를 하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와 련결농기계, 뜨락또르부속품, 다이야 같은것도 다 자체로 생산보장하고 있습니다.

농촌기술혁명의 초병인 뜨락또르운전수대렬도 수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처음 뜨락또르운전수를 몇십명 키워 농촌에 내보낼 때 그들에게 동무들은 농촌에 파견되는 로동계급의 선발대이다, 동무들이 농촌에 나가 수천수만의 로동계급을 키워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때 희망하였던것이 오늘은 현실로 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농촌에는 수만명의 뜨락또르운전수가 있으며 그가운데는 녀성들도 적지 않습니다.

농촌테제가 내세운 기술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서 기본은 뜨락또르를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는것입니다. 지난날 국가에서는 뜨락또르생산에 큰 힘을 넣어왔으며 농촌에 많은 뜨락또르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 아직 뜨락또르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농촌에 나가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이나 작업반장들에게 농사하는데서 무엇이 걸리는가고 물으면 모두 뜨락또르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이번 농업대회에서도 많은 동무들이 뜨락또르만 더 있으면 농사를 더 잘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동무들도 아는바와 같이 해방직후에 국가에서는 토지개혁을 한 다음 소를 사서 농사를 지으라고 농민들에게 돈을 대부하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가 아니라 뜨락또르를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현대적인 대규모의 뜨락또르공장을 건설함으로써 농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많은 뜨락또르를 농촌에 보내줄수 있게 되였습니다. 국가에서는 《천리마》호뜨락또르와 《풍년》호뜨락또르뿐아니라 《전진》호와 《충성》호 같은 작은 뜨락또르도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멀지 않아 모든 농사일을 뜨락또르로 할수 있게 만들수 있습니다. 뜨락또르로 모든 농사일을 할수 있게 되려면 경지면적 100정보당 뜨락또르가 8~9대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6개년계획기간에 경지면적 100정보당 뜨락또르가 6~7대씩 차례지도록 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6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다음 한 2~3년동안 잘 투쟁하면 경지면적 100정보당 뜨락또르가 8~9대씩 차례지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의 과업이 완수될것이며 농업이 공업화되였다고 말할수 있을 것입니다.

농촌에 자동차를 많이 보내주기 위한 투쟁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승리자동차종합공장에 나가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농촌테제가 내세운 기술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자동차생산을 빨리 늘일데 대한 과업을 주었습니다. 승리자동차종합공장 로동계급은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찬 투쟁을 벌려 지난해에 자동차생산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였습니다.

우리가 10년전에 농업을 공업화하고 농민을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리상적인 강령을 내놓았는데 오늘은 그것을 짧은 시일안에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물질적기초를 튼튼히 닦아놓았습니다. 이것은 농촌테제를 관철하며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투

쟁에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입니다.

농촌경리부문지도일군들과 협동농민들은 농촌테제발표 10돐이 되는 올해에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농업생산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야 로동계급과 농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과업을 하루빨리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농촌에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토대도 튼튼히 마련하여놓았습니다.

우리 당은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함께 사상혁명,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능력있는 간부들을 많이 키워내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렸습니다. 우리 당은 몇해전에 도마다 농업대학, 의학대학, 사범대학을 내오고 지방들에서 농업기술일군과 보건일군, 교육일군을 비롯한 간부들을 자체로 키워내도록 하였습니다. 도에 종합적인 간부양성기지를 꾸리고 모든 지방들에서 자기 실정에 맞게 필요한 간부들을 키워내도록 한 당의 조치는 이미 첫 열매를 맺었으며 생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뚜렷이 실증되였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농촌과 농업과학연구기관들에는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혁명적인 청년인테리들이 많이 들어가 일하고있습니다. 그들은 농민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교양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으며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과업을 수행하는데서 핵심적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우리의 청년인테리들과 청년일군들은 당정책을 똑똑히 알고있고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려는 용기를 가지고있으며 건설적인 의견도 많이 제기하고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있은 전국농업부문열성자대회에서도 농촌에 진출한 청년인테리들이 토론을 잘하였고 이번 대회에서도 청년인테리들과 농촌청년일군들이 건설적인 의견을 많이 제기하였습니다.

혁명적인 청년인테리들과 농촌청년일군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최근에 우리 나라에서 농업기술이 훨씬 발전하였으며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수 있게 되였습니다. 지난해에 농촌경리부문에서 대풍작을 마련할수 있은 중요한 요인의 하나도 바로 청년인테리들과 농촌청년일군들이 당의 농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데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도들에 농업대학, 의학대학, 사범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을 내옴으로써 농촌에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혁명적인테리의 대부대를 키워 농촌에 보낼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잘 투쟁하여 협동농장들에 농업대학졸업생을 몇십명씩 들여보낸다면 우리 나라 농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할것이며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위대한 변혁이 일어날것입니다.

지방에 종합적간부양성기지가 튼튼히 꾸려지고 중앙에 대학들이 많이 신설, 확장됨으로써 가까운 앞날에 100만명의 인테리대군을 마련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닦아졌습니다. 이것은 지난 기간 우리 당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후대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은 결과에 이루어진것입니다. 인구비례로 볼 때 우리 나라와 같이 학생수가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대학과 고등기술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만 하여도 24만명이 넘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형편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를 공부시킨다는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생이 많은것을 우환거리로 여기는것이 아니라 커다란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기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키워낸 능력있는 새세대들이 사상전선과 문화전선에 나가 온 사회를 혁명화하고 문명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보람차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지난 기간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여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할수 있는 기초이며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귀중한 밑천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농촌테제발표 10돐을 맞이하면서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테제에서 내세운 과업들을 앞으로 10년안에 거의다 수행하고 새로운 농촌테제를 쓰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앞으로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먼저 농촌기술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내놓은 농촌기술혁명의 과업들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이미 수리화, 전기화가 빛나게 완성되였으며 기계화, 화학화가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습니다. 오늘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촌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를 다그쳐 그것을 빨리 완성하는것입니다.

농촌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를 빨리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뜨락또르를 비롯한 현대적농기계들을 더 많이, 더 잘 만들어 보내주어야 하며 효능이 높은 여러가지 화학비료와 농약을 더 많이 보내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토지정리사업을 잘하고 모든 도와 군들에 뜨락또르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려 뜨락또르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빠른 시일안에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완성하여 모든 농사일을 기계의 힘으로, 화학적방법으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할뿐아니라 로동생산능률을 훨씬 높여 한사람이 논은 5정보이상, 밭은 10정보이상 다루도록 하며 농촌에서도 공업부문에서와 같이 8시간로동제를 실시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우리는 농촌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를 완성함으로써 농업을 완전히 공업화하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우리가 달성하려는 목표입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전체 농업부문일군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당이 내세운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용감히 투쟁함으로써 이번 대회를 농촌경리의 기계화의 대회, 화학화의 대회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정확한 민족간부양성방침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많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양성되였습니다. 우리가 짧은 기간에 많은 민족간부를 양성하다보니 그들의 자질이 좀 낮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인테리들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충실히 일하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공장, 기업소들은 다 우리가 키운 인테리들에 의하여 관리운영되고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테리들은 매우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뜨락또르를 처음 만들 때 우리의 기술자들은 뜨락또르를 분해하여놓고 부속품을 하나하나 설계하여가지고 뜨락또르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현대적인 공장과 기계설비들도 다 우리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건설하고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기술수준도 어리지마는 앞으로 실천투쟁을 통하여 더욱 풍부한 경험을 쌓게 될것이며 기술수준도 높이게 될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잘 발동한다면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일군들이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배치한 다음에는 그들을 교양하는 사업을 거의나 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적지 않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알지 못하고있으며 낡은 사상에 오염되여 일을 되는대로 하고있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한 결과 우리 나라의 전반적과학기술수준이 높지 못하며 특히 농업부문의 과학기술이 뒤떨어져있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이른바 《록색혁명》 다시말하여 종자개량사업을 널리하여 알곡생산을 몇배로 높이고있으나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종자개량사업을 잘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이 뒤떨어지게 된것은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이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한데 주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혁명을 하려면 기술을 아는 사람들 다시말하여 대학을 나왔거나 자습하여 기술자격을 소유한 사람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그들에게 연구과제를 똑똑히 주는것입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무슨 문제를 연구하고 무슨 책을 읽으라고 과제를 똑똑히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공부를 잘하지 않습니다. 지금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연구과제를 똑똑히 주지 않기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학연구사업을 열심히 하지 않으며 별로 하는 일없이 그저 시간만 보내고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려면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다 연구과제를 똑똑히 주어 그들이 과학연구사업을 정력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문화혁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기술혁명을 잘하기 위하여서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농촌문화혁명에서는 무엇보다먼저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농촌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에 뜨락또르와 화학비료를 더 많이 보내주는것과 함께 농민들과 농업부문일군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빨리 높여야 합니다. 농촌에 나간 농업대학졸업생들이나 농업부문의 몇몇 과학자들의 힘만으로는 농촌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습니다. 독불장군이라는 말과 같이 혼자서는 용빼는 재간이 없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광범한 농민대중에게 과학기술지식을 가르쳐주어 농촌기술혁명을 밀고나갈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키워야 농촌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평안북도 향산군에 실습나가 있는 종합대학 학생동무는 먼저 자기부터 뜨락또르운전기술을 배우고 다음에는 처녀들과 아주머니들까지 뜨락또르운전을 할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주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 학생동무가 한것처럼 기술지식보급사업을 잘하여 모든 농민들이 토양학과 생물학, 비료와 농기계, 성장촉진제에 대한 지식을 비롯한 농업기술지식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에서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을 하지 않고 농민들을 과학기술지식으로 무장시키지 않고서는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수 없습니다. 이 회의에 참가한 분조장, 작업반장, 관리위원장, 리당비서들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여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도 비록 대학을 나왔지마는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기술지식수준을 빨리 높이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공부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과학기술도서들을 많이 출판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당중앙에서는 앞으로 열

리게 될 교원대회를 계기로 모든 대학 교원들이 책을 한권씩 쓰든지, 다른 나라의 책을 한권씩 번역하든지 할데 대한 과업을 주었습니다. 우리 나라에 인테리가 60만명이나 되는것만큼 그들이 책을 한권씩 쓰든가 번역한다면 60만권의 책이 나올수 있습니다.

책을 많이 찍어내는것과 함께 도서관을 많이 꾸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협동농장들에 혁명력사연구실이 있고 선전실도 있습니다. 혁명력사연구실 하나만 가지고서도 혁명력사도 연구할수 있고 회의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을 새로 지으려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선전실을 농민들이 과학기술지식을 학습하는 장소로 꾸리는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은 농업기술지식보급실이라고 해도 좋고 선전실이라는 이름을 그냥 붙여서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이라고 하여도 좋을것입니다. 거기에는 농장의 토양표본도 만들어놓고 여러가지 농작물의 표본, 농장의 생산도표, 시비체계에 대한 자료, 다른 농장들의 영농경험자료 같은것도 만들어놓아야 하며 뜨락또르의 구조도 그려붙여야 합니다. 선전실에 농업과학기술도서들도 많이 갖추어놓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내는 《농업근로자》신문대신에 분조마다 한권씩 돌아갈수 있도록 반월간잡지를 찍어주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잡지에는 물론 간단한 시사해설도 실어야 하겠지만 기본은 농업기술지식을 많이 실어야 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2모작과 간작을 한 경험, 3요소비료와 미량원소비료를 준 경험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영농기술지식을 많이 실어야 하겠습니다. 잡지에 싣는 글들은 중학교를 나온 사람이 알수 있도록 써야 합니다. 농업근로자들은 누구나 다 잡지를 읽을수 있도록 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지식수준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은 리에 있는 고등중학교선생들이 나가서 꾸려주며 그에 대한 지도는 도에 있는 농업대학이 맡아서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업대학을 졸업한 동무들이 자기 도의 협동농장들에 나가서 일하게 되는것만큼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들에 대한 지도는 마땅히 농업대학이 맡아서 하여야 합니다. 농업대학에서는 농촌에 나가 순회강연도 하고 강습도 주어야 합니다.

문화혁명에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생산문화를 철저히 세우는것입니다.

협동농장들에서 생산도구를 알뜰히 거두는 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들을 쓴 다음에는 반드시 차고와 창고에 넣어두어야 하며 농기구들도 다 쓰고 보관할 때에는 깨끗이 닦고 기름칠을 하여 창고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농기계와 농기구를 아껴쓰며 그 보관관리를 잘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기계검열주간을 정하고 정무원과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 해마다 한두번씩 협동농장들에 나가 농기계와 농기구들을 검열하고 실사하는 제도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탈곡장을 잘 만들고 알뜰하게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협동농장들에서는 탈곡장을 잘 꾸리지 않고 제대로 거두지 않기때문에 많은 낟알을 허실하고있습니다.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탈곡장을 깨끗이 포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에서 생산문화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여러가지 창고들이 있어야 합니다. 창고가 있어야 협동농장들에서 낟알과 농기구들을 잘 보관관리할수 있습니다.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쌀창고, 강냉이창고, 농기구창고와 뜨락또르차고를 짓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하겠습니다. 벽돌이 있는데서는 벽돌로 짓고 벽돌이 없는데서는 석비레로 지어도 됩니다. 강냉이창고는 삼석구역 장수원협동농장에서 만든 식으로 짓는것이 좋겠습니다.

생산문화와 함께 생활문화를 세워야 합니다.

먼저 집과 마을을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농촌집들에서 해마다 봄과 가을에 벽에 회칠을 하며 회가루가 없는데서는 흙으로라도 벽을 깨끗이 바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농민들이 늘 집을 깨끗이 거두고 생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촌에서 집마당과 마을길에 돌을 까는 운동도 벌려야 합니다. 황해남도 신천군 백석리에서는 포장한 큰길로부터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 다 돌을 깔았습니다. 그렇게 하니 길에서 먼지가 나지 않을뿐아니라 신발에 흙이 묻지 않기때문에 집안도 깨끗하게 되여 아주 좋습니다. 모든 농촌리들에서 포장한 큰길에서부터 마을로 들어가는 길과 집에 들어가는 길, 집마당들에 돌을 까는 운동을 벌려 마을길과 농촌집마당들을 알뜰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집과 마을을 알뜰히 거두는 사업에서 농촌건설대들과 소년단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농촌건설대들은 새로운 농촌문화주택을 많이 건설할뿐아니라 농민들의 집을 보수하는 일도 도와주어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자기 집과 마을을 늘 깨끗이 거두며 문화위생적으로 잘 꾸려야 하겠습니다. 소년단원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려면 학교에서 그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할것입니다.

농촌에서 집과 마을을 알뜰히 거두는것과 함께 주택건설을 힘있게 벌려 당창건 30돐까지 모든 농민들이 현대적인 문화주택에서 살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새로 짓는 농촌문화주택은 수도, 수세식변소,목욕탕 같은 시설을 다 갖추어 도시주택에 못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택조건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점차 없애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문화후생시설들도 잘 꾸려야 합니다.

지금 농촌리들에 목욕탕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화후생시설들이 거의다 꾸려져있습니다. 그러나 그가운데는 제대로 리용할수 없는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목욕탕은 추워서 겨울에는 목욕을 할수 없습니다. 농촌리들에서 목욕탕을 잘 꾸릴데 대하여서는 우리가 10여년전부터 강조하여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목욕탕을 제대로 꾸리지 않고있다는것은 농촌경리부문지도일군들에게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없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입니다. 목욕탕이 없는데서는 빨리 지으며 목욕탕시설이 불비한데서는 수리정비하여 알뜰하게 꾸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에 세탁소도 꾸려놓아야 합니다. 세탁소를 꾸려야 농촌녀성들의 부담을 덜어줄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이미 건설한 문화회관들을 잘 리용할수 있도록 난방시설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문화회관의 난방시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평양시에 시험적으로 만들어놓은 농촌 2층주택난방시설을 가보았는데 그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 주택난방시설은 아래층을 덥힌 열이 벽으로 올라가 2층벽을 덥히게 되여있습니다. 농촌문화회관의 난방시설은 이런 식으로도 하고 간단한 농촌용 보이라를 놓는 방법으로도 하여야 합니다. 농촌용 보이라는 석탄뿐아니라 벼겨나 벼짚 같은것도 땔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농촌을 문화적으로 꾸리며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을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 농촌수도화를 빨리 실현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수도화를 실현하는것은 녀성들을 물동이를 이는 일에서 해방하는 영예로운 일이며 농촌에서 여러가지 질병을 방지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농촌수도화를 실현하는것은 남조선인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과 청년들은 공화국북반부에서는 농촌에서까지 수도화를 한다는데 수도화된 농촌에 가서 살고싶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농촌당조직들과 농촌지도일군들은 구호만 웨치지 말고 농촌수도화를 빨리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농촌에서 오수관도 묻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는 다음해에 맞이하게 될 우리 당 창건 30돐기념일까지 우리의 농촌을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완전히 전변시켜야 하겠습니다.

농촌문화혁명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는것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봉건사회의 뒤떨어진 생활양식을 답습해도 안되며 부르

죠아적생활양식을 본따려고 하여도 안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철저하게 사회주의적인 생활양식을 세워야 합니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은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잘살게 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주의적근로자들의 집단주의적생활양식입니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낡은 사회에서 넘어온 온갖 뒤떨어진 생활양식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지금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에는 낡은 사회의 생활습성이 적지 않게 남아있습니다. 잔치하는것을 놓고보아도 일부 사람들은 음식을 굉장히 차리고 요란하게 하여야 잔치가 잘되는것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동무들이 예술영화 《잔치날》을 보아서 알겠지만 그 영화에서는 잔치는 일생에 한번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돼지를 잡고 술을 만들고 음식을 굉장히 차려야 된다고 하는것과 음식을 간단히 차리고 동무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놀면 된다고 하는 두 견해가 대립되고있습니다. 이 두가지가운데서 어느것이 좋습니까? 우리는 음식을 굉장히 차려놓고 숱한 사람들이 모여서 랑비하는것보다 음식을 간단히 차려놓고 동무들이 몇명 모여 신랑신부를 축하하며 즐겁게 노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것도 낡은 생활습성의 하나입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이나 사진 앞에다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것은 아무런 의의도 없습니다. 제사를 지내는것은 죽은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한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날에 무덤앞에 꽃다발을 가져다놓든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죽은 사람의 지난날의 투쟁을 회상하면서 그가 다하지 못한 일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마저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자는 결의를 다지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낡은 생활습성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인 생활양식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하겠습니다. 낡은 생활양식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많이 관련되여있기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다 없애려고 하여도 안되며 강제적방법으로 없애려고 하여도 안됩니다. 우리의 생활속에 남아있는 낡은 습성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발전하는데 따라 하나씩하나씩 점차적인 방법으로 개변해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우리 공산주의자들, 선각자들이 먼저 낡은 생활양식을 버리는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는 다 공산주의자들이 모였다고 볼수 있는데 회의에 참가한 동무들자신이 먼저 낡은 생활습성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자각된 사람들이 먼저 낡은 생활습성을 하나하나 없애나가면 다른 사람들도 점차 따라나서게 될것이며 나중에는 낡은 사회의 온갖 뒤떨어진 생활양식이 깨끗이 없어지고 온 사회에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이 철저히 서게 될것입니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모든 사람이 집단을 사랑하며 집단생활에 습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집단을 사랑하며 집단주의생활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어려서부터 집단생활에 습관되도록 교양하며 특히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을 잘 키워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탁아소, 유치원 때부터 좋은 생활습성을 붙여야 학교를 거쳐 사회에 나와서도 생활을 문화적으로 할수 있으며 집단생활을 잘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사상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본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입니다.

지금 일부 일군들가운데는 사업에서 주인다운 태도가 부족하며 일을 요령주의적으로 하는 현상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군들의 머리속에 수정주의사상, 자본주의사상과 같은 낡은 사상이 작용하기때문입니다. 우리는 일군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이러한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 책임성없이 일을 되는대로 하는 요령주의, 형식주의를

철저히 없애야 하겠습니다.

일군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자본주의사상, 수정주의사상을 없애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군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자기자신이 주인이며 자기가 생산하는것이 다 자기자신과 사회를 위한것이라는것 따라서 모든 일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진심으로 하여야 한다는것을 깊이 깨닫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일하지 않고 놀고먹으려는 사상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을 권리가 없으며 있을 자리도 없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다 일하기를 싫어하고 놀고먹기를 좋아한다면 사회주의사회가 유지될수 없을것입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는자는 먹지 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놀고먹으려는 현상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에서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쌀을 한키로그람에 8전씩 받고 공급하여주고있습니다. 국가에서 이처럼 거저 주나 다름없는 눅은 값으로 쌀을 공급하여주는것만큼 로동자, 사무원들은 마땅히 국가의 혜택에 보답하기 위하여 일을 더 잘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로동자, 사무원들은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며 로동규률을 잘 지키지 않고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조국을 통일하지 못하였으며 조선혁명을 완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인민들은 반동들의 파쑈통치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은 감옥과 단두대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있는데 우리가 일하지 않고 놀고먹으려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일하기 싫어하는 현상과의 사상투쟁을 강화하는 한편 로동규률을 엄격히 세워 놀고먹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좀먹는 현상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지금 농촌에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며 랑비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우리는 농촌에서 사회의 공동재산을 랑비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관리하는데서 재정규률을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농장의 재정관리정형을 정기적으로 농장원들앞에 공개하여 모든 농장원들이 매달 농장의 수입이 얼마이고 쓴것이 얼마이며 남은것이 얼마이라는것을 알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재정관리에서 잘못된 점들을 제때에 비판하여 바로잡을수 있습니다.

사상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규정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규정의 요구에 맞게 사업하고 생활하여야 합니다. 창고에서 물건을 하나 꺼내는것도 다 규정된 절차대로 하여야 하며 일군들이 출장을 다닐 때에도 국가에서 정해놓은 규정에 따라 기차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합니다.

지금 국가규정을 지키지 않는 현상들과 강하게 투쟁하지 않는것이 큰 결함입니다.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여러가지 사업 규범과 규정들을 바로 만들고 그것을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해설해주어 그들이 법규범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한편 법규범을 어기는 현상들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하겠습니다.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당사업은 곧 사람과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아직 농촌경리부문의 당조직들은 자기 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있으며 당세도를 많이 쓰고있습니다.

군당위원회, 리당위원회를 비롯한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당조직들은 이러한 결함을 하

루빨리 고치고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을 잘하며 근로단체들을 발동시켜 군중과의 사업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사람들을 다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제때에 바로잡으며 농업부문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옳게 교양하기 위하여서는 년간사업총화회의를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지난 시기 농촌에서 해마다 청산리총화회의를 하였는데 앞으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집행총화회의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지난날 청산리총화회의에서는 우리가 1960년 2월에 청산리를 현지지도하면서 내놓은 과업들을 놓고 그 집행정형을 총화하였는데 이제는 그때 청산리에서 지적한 문제들만 가지고 토론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기때문에 그에 맞게 새로운 문제들을 가지고 토론하여야 합니다.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당조직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한 날인 2월 25일을 계기로 하여 해마다 년간사업총화회의를 실속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주로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 수행정형을 구체적으로 총화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농촌경리부문 간부들과 당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할수 있도록 날카로운 비판과 사상투쟁의 분위기속에서 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군이 노는 역할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때문에 농촌테제에는 군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지적되여있습니다.

농촌테제가 나온후 군의 역할이 많이 높아졌으며 군이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적지 않은 일을 하였습니다. 지방공업의 실례 하나만 들어보아도 지난날에는 집집마다 장을 담그어먹었으나 지금은 군의 식료공장에서 장을 만들어 농민들에게 공급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녀성들이 장담그는 일을 하지 않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군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한다고 말할수 없으며 군급기관들의 사업에서는 적지 않은 결함들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지금 군급기관일군들가운데는 농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 대신 도리여 농민들에게 관료주의를 부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수매기관 하나만 놓고보더라도 농민들에게 매우 까다롭게 굴고있습니다. 지금 수매규정에는 1등품, 2등품, 3등품의 가격이 따로 정해져있고 1등품에 대하여 높은 값을 지불하게 되여있습니다. 그러나 수매일군들이 까박을 붙여 좋은 물건도 1등품으로 인정해주지 않기때문에 농산물이나 부업생산물을 수매하여 1등품가격을 받아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수매일군들이 이렇게 까다롭게 굴기때문에 농민들이 부업생산에 대하여 아무런 의욕도 가지지 않는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마땅히 군당위원회가 제때에 바로잡아야 하겠으나 지난 기간 군당위원회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군당위원회는 자기 역할을 더욱 높여 국가의 말단집행기관들인 군기관들이 당의 정책과 정부의 결정지시들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늘 살피며 잘못된것은 인차 바로잡아주어야 하겠습니다.

군당위원회와 함께 군행정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농기계작업소의 역할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업도 더욱 발전시켜 농민들에게 장뿐아니라 옥쌀과 국수도 만들어 공급해주고 기름과 과일가공품, 두부 같은것도 팔아주어 농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더 잘 도모하여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군이 농민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군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군의 간부들을 잘 꾸리고 그들이 충실히 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해마다 실시하게 되는 농촌테제총화사업을 농촌리들에서만 할것이 아니라 군당과 군행정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그리고 농촌과 관련된 군의 모든 기관들

에서 다 하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우리는 군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로농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농촌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하며 농민들이 다 유족하게 살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없는 무계급사회를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하겠습니다.

리당비서들의 임무에 대하여

리당비서들앞에서 한 연설 1974년 1월 14일

동지들!

오늘 이 자리에는 전국의 리당비서들이 다 참가하였습니다. 나는 전국의 리당비서들이 한자리에 모인 기회에 리당비서들이 사업과 생활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리당비서들의 임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리당비서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하여야 농촌에서 모든 일이 다 잘되여나갈수 있습니다.

리당은 우리 당의 기층조직입니다. 우리 당은 당세포들로 구성되여있으며 리당조직은 우리 당을 이루고있는 하나의 큰 세포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당조직을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기체가 건전하려면 세포들이 건전해야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당이 튼튼하려면 리당을 비롯한 당의 기층조직들이 튼튼하여야 합니다.

리당은 지역적으로 보아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리는 나라의 4,000분의 1을 차지합니다. 리에는 나라의 4,000분의 1에 해당하는 령토가 있고 주민이 있으며 토지, 농기계를 비롯한 생산수단과 여러가지 재산이 있습니다. 리에는 또한 학교, 병원, 탁아소, 유치원과 같은 교육문화보건기관들과 여러가지 통신시설들, 편의봉사시설들이 있습니다. 리에 있는 이 모든것을 책임지고있는 주인은 리당조직이며 리당조직의 책임자는 바로 리당비서입니다.

당중앙위원회는 리당비서들을 믿고 우리 나라의 4,000분의 1의 령토와 4,000분의 1의 주민, 4,000분의 1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당중앙위원회는 또한 나라의 4,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국가주권이 옳게 행사되도록 지도할데 대한 책임을 리당비서들에게 맡겼습니다.

리당비서들이 리당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그것을 옳게 움직여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우리 당을 강화할수 있고 우리의 주권을 강화할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사회주의력량을 강화할수 있습니다. 다시말하여 리당조직을 강화하여야 우리의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습니다.

리당비서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4,000분의 1을 능숙하게 운전해나갈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리당비서들은 리에 있는 당조직들과 당원들도 지도할줄 알고 근로단체들과 군중도 지도할줄 알아야 하며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를 잘하는것은 물론 학교와 병원, 상점과 편의시설도 다 지도할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리당비서들은 농촌의 모든 부문 사업을 다 잘 지도할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농촌은 다 기름이 철철 흐르는 통마와 같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농촌은 참으로 풍요하고 아름답습니다. 뒤동산에는 과수원이 있고 산기슭에는 기와집들이 줄지어 서있으며 마을앞으로는 시내물이 흐르고 관개수 흘러넘치는 들판에서는

뜨락또르들이 통통거리며 분주히 오가고있습니다. 우리의 농촌은 말 그대로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농촌풍경은 우리 나라의 어디에서나 볼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제일 깊은 산골이라고 할수 있는 창성에만 가보아도 골짜기에서 척 나서면 맑은 시내물이 흐르고 산기슭에는 기와집들이 죽 늘어서 있으며 논밭에서는 뜨락또르들이 일하는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삭주에서 창성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올라서면 금부리라는 마을이 내려다보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림이라도 한장 그리고싶을 지경입니다. 참으로 금부리는 옛말에 신선들이 내려와 살았다고 하는 선경을 방불케 합니다. 금부리만 그런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의 모든 농촌이 다 풍요하고 아름다우며 우리 나라 농촌은 가는곳마다가 다 선경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지난날 뒤떨어지고 가난하던 우리 나라 농촌이 이와 같이 유족하고 문명한 농촌으로 전변되고 기와집에서 이밥에 고기국을 먹고 살려는 우리 농민들의 숙망이 현실로 되게 되였으니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나는 풍요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농촌들을 볼 때마다 기분이 상쾌해지고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우리 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손님들도 우리 나라 농촌풍경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한결같이 감탄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왔던 한 외국손님은 조선에서는 자동차를 타고 먼길을 려행하여도 계속 새롭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기때문에 그 경치에 눈이 팔려 피곤한줄을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구라파에서 찾아오는 모든 외국손님들이 다 이와 같이 말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이처럼 훌륭한 농촌을 바로 이 자리에 모인 리당비서들과 관리위원장들이 앞장에 서서 건설하였습니다. 동무들은 해방후 농촌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투쟁도 하였고 농업협동화운동도 하였으며 농촌기술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도 하였습니다. 동무들은 농촌에서 잔뼈가 굵었고 공부도 하였으며 오늘은 농촌의 어엿한 주인으로까지 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오랜 기간에 걸치는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일본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였으며 해방후 지주, 자본가 계급을 때려부시고 산좋고 물맑은 아름다운 우리 조국 강토우에 착취와 압박이 없고 누구나 다같이 행복하게 잘살수 있는 지상락원을 건설하여놓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농촌은 모두 부유하고 문명한 농촌으로 되였으며 공산주의의 높은 언덕을 향하여 힘차게 내달릴수 있는 기름진 룡마, 천리마로 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농촌건설에 대한 당의 로선과 정책도 명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있으며 또 매시기마다 당이 내놓은 농촌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리에 모인 리당비서들이 기름진 룡마를 타고 어떻게 달려나가는가, 당의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룡마라도 주인이 똑똑치 못하여 탈줄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말을 탈줄모르는 사람이 타다가는 말에게 채우거나 말에서 떨어질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리당비서들이 룡마를 타고 달릴만한 능력이 없고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회주의농촌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없습니다. 모든 리당비서들이 다 룡마를 타고 달릴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똑똑히 하여야 농민들과 전체 인민을 더 잘살게 할수 있으며 무계급사회를 실현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리당비서들이 룡마를 타고 달릴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리당비서들가운데는 룡마를 타고 달릴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마는

달구지나 타고 다닐 능력밖에 못가진 사람도 있으며 지어는 달구지도 못타고 겨우 송아지나 타고 다닐 정도의 능력밖에 못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일부 리당비서들은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있으며 사업과 생활에서 적지 않은 결함을 나타내고있습니다.

일부 리당비서들은 국가규률을 잘 지키지 않고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국가규률을 위반하는 사람은 주로 리당비서를 비롯한 리의 간부들입니다. 리에서 간부들이 국가규률을 먼저 위반하기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본을 따서 국가규률을 위반하고있습니다. 리간부들이 국가규률을 먼저 위반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국가규률을 위반하는것을 보고도 그와 강하게 투쟁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리당비서를 비롯한 리간부들가운데는 세도를 쓰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리간부들이 국가규률을 잘 지키지 않고 위반하는것도 주로는 그들이 세도를 쓰는데서 나온것입니다. 리담당안전원은 군복세도를 쓰고 리당비서는 당세도를 쓰며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은 《장》자세도를 쓰고있습니다.

지금 일부 리간부들은 농촌상점에 좋은 물건이 나오면 농장원들보다 먼저 산다고 합니다. 일부 리간부들은 자신을 특수한 존재로 여기면서 남보다 특별하게 생활하여도 일없는것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간부들이 자신을 특수화하면 군중과 리탈되고 군중속에 들어갈수 없게 되며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게 됩니다.

리당비서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고있는 결함들을 빨리 고치고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 우리 당의 기층조직인 리당을 더욱 강화하며 천리마의 농촌을 옳바로 이끌고나가야 하겠습니다.

리당비서들이 리당조직을 강화하며 천리마의 농촌을 옳바로 이끌고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높은 혁명성과 계급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당을 조직한것은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리당을 비롯한 당의 기층조직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의 전투단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투단위를 책임지고있는 리당비서들은 누구보다도 혁명성이 높고 로동계급성이 강해야 합니다.

리당비서들은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함으로써 모든것을 로동계급과 혁명의 리익에 복종시키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원칙을 지키고 곤난을 이겨낼줄 아는 참다운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리당비서들은 또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군중의 앞장에 서야 합니다. 간부들이 앞장에 서서 대중을 옳게 이끌고나가면 모든 사업이 다 잘될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나라에서 농사가 잘된 요인의 하나가 협동농장초급간부들이 군중의 앞장에 서서 적극 투쟁한데 있습니다. 리당비서들은 실천투쟁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며 당, 국가 사업과 경제건설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에서 군중의 앞장에 서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리당비서들이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칙에 따라 일하며 생활하여야 합니다.

첫째로, 리당비서들은 당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여야 합니다.

리당비서들이 혁명성을 발휘하며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앞장에 서며 일생동안 당과 혁명에 충실하려면 당조직생활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당원들이 당조직생활에 참가하지 않으면 당조직에서 무엇을 토의결정하는지, 당조직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있는지 알수 없으며 당의 의도대로 일하며 생활할수 없습니다.

당원은 병원에 입원하여 침대에 누워 앓는 경우를 내놓고는 언제 어디서든지 당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생활에 참가하지 않는 당원은 당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당 규약에는 정당한 리유없이 여섯달이상 당생활에 참가하지 않는 당원은 당에서 내보내게 되여있습니다. 모든 당원들이 당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여야 우리 당의 전투력을 높일수 있고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할수 있습니다.

리당비서들은 누구보다도 당조직생활에 모범적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리당비서들은 당조직생활에 한번이라도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리당비서들은 자신이 당조직생활에 모범적으로 참가할뿐아니라 리내 모든 당원들이 당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로청원들과 농근맹원들, 녀맹원들도 다 조직생활에 잘 참가하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당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는것은 당원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리당비서들은 당조직생활에 충실히 참가하여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며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리당비서들은 당학습에 적극 참가하여야 합니다.

지금 대학을 나온 일부 일군들은 당학습회에서 별로 배울것이 없다고 하면서 당학습회에 잘 참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교만한 태도입니다.

당학습회에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무조건 다 참가하여야 합니다. 당원들이 당학습회에 참가하는것은 당의 혁명적조직규률입니다.

당원들이 당학습회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야 자기의 정치의식수준을 높일수 있으며 당정책과 국제국내정세를 민감하게 알수 있습니다. 당학습회에 빠짐없이 참가하면 어제까지 알지 못하던 문제를 오늘 새로 알수도 있고 또 이 강사에게서 듣지 못하던 말을 저 강사에게서 새로 들을수도 있습니다.

리당비서들은 당학습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자기의 정치의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리당비서들은 생산로동에 적극 참가하여야 합니다.

리당비서들은 당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생산로동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군중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리당비서들은 당사업이 바쁘다는 구실밑에 생산로동에 잘 참가하지 않고있습니다.

물론 리당비서들은 회의에도 많이 참가하고 당학습회도 지도하여야 하므로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이 없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리당비서들이 생산로동에 참가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만일 리당비서들이 회의에 참가하느라고 낮에 생산로동에 참가하지 못하였으면 밤잠을 자지 않고라도 그날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밤에도 시간이 없어서 그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생산로동을 할때 열성적으로 하여 그전날 하지 못한것까지 다 하여야 합니다.

동무들이 다 보았겠지만 예술영화 《붉은 선동원》의 주인공은 낮에 회의나 강습에 갔다

오면 밤을 새워가며 그날 자기가 매야 할 김을 다 매며 지어는 뒤떨어진 사람이 매지 못한 김까지 매줍니다.

지난날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은 겨울에 행군할 때 대오를 지휘하느라고 대원들보다 걸음도 더 걷고 고생도 많이 하였지만 숙영지에 도착하면 남먼저 톱과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어 우등불을 피웠으며 대원들의 잠자리를 다 마련하여주고 그들이 잠든 다음에야 잤습니다.

리당비서들은 항일유격대 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의 사업작풍을 본받아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며 생산로동에 적극 참가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선봉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로, 리당비서들은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여야 합니다.

지금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되는대로 거두며 랑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리당비서들은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데서 모범이 되여야 합니다.

리당비서들은 농기계와 농기구를 알뜰히 거두는 기풍부터 세워야 합니다. 리당비서들이 호미나 제초기를 썼을 때에는 그것을 물에 깨끗이 씻어 창고에 보관하며 뜨락또르를 썼을 때에는 그것을 깨끗이 청소하여 차고에 넣어야 합니다. 리당비서들은 농기계와 농기구를 다루는데서 이러한 습관을 철저히 붙여야 합니다.

지난날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은 언제나 무기와 전투기재를 알뜰히 관리하였습니다. 항일유격대지휘관들의 무기는 언제나 알른알른 하였으며 총알도 녹쓴것이 없었습니다.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이 무기와 전투기재를 다루는데서 모범이 되였기때문에 모든 대원들이 무기와 전투기재를 알뜰히 관리하였으며 언제나 적들과 싸움을 잘할수 있었습니다.

당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틀어쥐여야 할 문제는 첫째로 간부사업이며, 둘째로 경제관리사업이며, 셋째로 권력기관사업입니다. 리당비서들은 당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틀어쥐여야 할 문제의 하나인 협동농장의 경제관리사업 특히 재정관리사업을 철저히 틀어쥐고 지도하여야 합니다. 협동농장의 재정관리사업을 지도해야 할 주인인 리당비서가 협동농장의 돈을 마음대로 쓰거나 돈관계에서 흐리멍텅한 일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경제생활이 청백하지 못한 사람은 공산주의자로 될수 없습니다.

리당비서들은 협동농장의 돈을 꿔쓰거나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사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리당비서들이 협동농장의 돈을 꿔쓰거나 공동재산을 사취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 본을 따서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협동농장을 제대로 운영해나갈수 없습니다.

리당비서는 협동농장에서 자금을 지출하는데 대하여 직접 손을 대거나 쓸데없이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협동농장에서 자금을 지출하는것은 철저히 관리위원장과 부기장이 책임지고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리당비서는 리당위원회에서 협동농장의 재정관리정형을 토의하고 비준하여야 합니다.

다섯째로, 리당비서들은 국가의 법과 규정들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 당은 집권당인것만큼 당일군들자체가 국가의 모든 법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리당비서들은 국가에서 나무를 망탕 찍지 말라고 하면 찍지 말아야 하며 큰길

옆의 흙을 파지 말라고 하면 파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에서 잘못된 규정이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비방하거나 시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리당비서들은 우에서 잘못된 규정이 내려갔을 경우에는 정당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리당비서들은 국가의 모든 법과 규정들을 지키는데서 선봉적인 역할을 놀아야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리당비서들은 당원들과 인민들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리당비서들은 당원들과 인민들을 정중하게 대하며 그들에게 존경어를 써야 합니다. 리당비서들이 누구를 부를 때에는 반드시 이름이나 직위에 《동무》 혹은 《동지》라는 말을 붙여야 합니다. 관리위원장을 부를 때에는 《관리위원장동무》라고 하며 세포비서를 부를 때에는 《세포비서동무》라고 하여야 합니다.

리당비서들은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반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함부로 욕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리당비서들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책상을 탕탕 두드리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할것이 아니라 점잖게 타일러야 합니다. 사람들을 자꾸 욕해나면 그것이 버릇으로 되며 나중에는 교만해집니다. 당일군들과 정치일군들이 군중을 욕설하는데 버릇되면 정치사업을 잘할수 없습니다.

리당비서들은 말과 행동을 겸손하게 하며 례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리당비서들이 누구에게 말을 잘못했으면 실수하였으니 량해하여달라고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발등을 밟거나 누구를 밀쳐서 실례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수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이런 례절을 지키는것이 비록 작은일 같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리당비서들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교양있고 례절있게 하여야 합니다.

당원들과 인민들을 사랑한다고 하여 그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투쟁하지 않고 무원칙하게 대하여서는 안됩니다. 당원들과 인민들을 사랑한다는것은 그들과 늘 접촉하며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제때에 일깨워주며 좋은 일을 했을 때에는 칭찬해주어 모든 사람들이 다 당에 충실한 사람으로 되게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일부 일군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것을 보고도 비판하지 않고 그저 두리뭉실하게 지내면서 《좋은 사람》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것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리당비서들은 당원들과 인민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제때에 일깨워주고 잘했을 때에는 칭찬해주며 좋은것은 좋다고 하고 나쁜것은 나쁘다고 공정하게 말하여야 합니다. 리당비서들은 모든 당원들과 인민들을 원칙적으로 사랑하여 그들을 우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하겠습니다.

일곱째로, 리당비서들은 로동계급적립장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하는 당입니다. 그러므로 리당비서들은 언제나 로동계급적립장, 지난날 착취받고 압박받던 사람들의 립장에 튼튼히 서있어야 하며 로동계급의 리익을 옹호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 자본주의제도는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촌에 자본주의사상잔재가 적지 않게 남아있으며 국가와 사회의 재산을 좀먹는 현상도 있고

로동자, 농민의 주권을 침해하며 사회주의제도를 비방중상하는자들도 있습니다. 리당비서들은 농촌에서 자본주의사상잔재를 뿌리빼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회주의제도를 훼손하려는 현상들을 반대하여 날카로운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로동계급의 리익을 침해하는 현상들과 투쟁할줄 모르는 리당비서는 리당비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로동계급적립장을 지킨다는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며 군중속에서 당의 권위와 위신을 높이며 당이 군중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로 되고 늘 별처럼 빛나도록 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리당비서들은 이러한 계급적립장을 지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리당비서들은 언제나 계급적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 적들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려고 책동하고있으며 우리는 자본주의제도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누구를 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입니다. 누가 누구를 하는 투쟁은 로동자, 농민들이 자본주의제도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주, 자본가놈들이 자본주의제도를 유지하는가 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계급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계급적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리당비서들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문제를 단순히 실무적으로 볼것이 아니라 철저히 로동계급적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리당비서들은 언제나 로동계급적립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며 계급투쟁의 립장에 튼튼히 서있어야 합니다. 리당비서들은 로동자, 농민의 주권을 옹호하고 지주, 자본가 제도를 반대하며 사회주의제도를 좀먹는자들과 견결히 투쟁하려는 높은 계급적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덟째로, 리당비서들은 생활을 정치문화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리당비서들은 언제나 몸차림을 단정히 하고 다녀야 하며 집안을 깨끗이 거두어야 합니다.

리당비서들은 영화도 의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도 한가한 사람이나 영화를 보는것처럼 여기면서 영화보는 사람들을 비웃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영화는 사람들을 사상문화적으로 교양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입니다. 더우기 지금 우리 나라에서 만드는 영화들은 교양적가치가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리당비서들은 영화를 많이 보아야 합니다.

리당비서들은 매일 신문을 보아야 합니다. 당일군들은 아무리 일이 바빠도 《로동신문》에 나는 사설은 꼭 읽어야 합니다. 일부 일군들은 신문에 나는 사설도 읽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리당비서들은 라지오와 유선방송도 듣고 텔레비죤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리당비서들은 매일매일 세상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 당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호소하고있는가, 우리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있는가 하는것을 알아야 하며 외교부성명이나 조선중앙통신사의 성명 같은것도 똑똑히 알고있어야 합니다.

리당비서들이 그저 농사나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여서는 안됩니다. 리당비서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정세도 알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의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하며 생활을 문화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홉째로, 리당비서들은 관료주의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당기관은 세도를 쓰는 기관이 아니며 당비서의 자리는 벼슬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 리당비서들은 당기관을 하나의 세도쓰는 기관으로 여기면서 관료주의를 부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비서를 하는것을 마치 큰 벼슬이나 하는것처럼 우쭐렁거리면서 틀을 차리기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밥상을 받을 때에도 큰상을 먼저 받아야 좋아합니다. 리당비서들이 자기앞에 큰상을 가져다놓는다고 하여 먼저 받으면 못씁니다. 리당비서들은 큰상을 먼저 받을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부로 등용되기전에는 생활을 검박하게 하고 말과 행동을 겸손하게 하다가도 간부로 등용되면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집니다. 직위가 높은 간부들인 경우에는 등용되자마자 승용차도 좋은것을 달라고 하고 집도 큰것을 달라고 합니다. 또한 간부로 등용되기전에는 전화도 매우 겸손하게 하던 사람들이 간부로 등용된 다음에는 수화기를 들자부터 아래일군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건방지게 반말질을 합니다.

전화는 직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것없이 건방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전화는 서로 상대방을 보지 못하고 말하는것이기때문에 겸손하게 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이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에는 먼저 겸손하게 인사를 하고 정중히 말을 주고받아야 하며 말을 다 한 다음에는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수화기를 놓아야 합니다.

일군들이 남먼저 큰상받는것을 좋아하고 말과 행동을 건방지게 하며 큰 집과 좋은 승용차를 요구하는것과 같은 현상은 다 관료주의의 표현입니다. 일군들에게서 이런 관료주의 냄새가 나서는 안됩니다.

우리 당은 관료주의를 철저히 반대합니다. 우리가 제일 역겹게 여기는것이 일군들에게서 나는 관료주의냄새입니다. 관료주의를 부리는 일군들은 관료주의냄새를 없애기 위하여 닦음질을 되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리당비서들이 관료주의냄새를 없애기 위하여 닦음질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리당비서들이 관료주의를 부리면 자기의 역할을 잘할수 없습니다. 리당비서들은 관료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당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하겠습니다.

열째로, 리당비서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리당비서들은 당중앙위원회와 국가로부터 우리 나라 4,000분의 1의 지역에서 당원들과 인민들을 지도할 책임을 맡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당비서들은 누구보다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주인다운 립장에서 모든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리당비서들은 우리 당의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여야 하며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주의사상, 수정주의사상, 사대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반동적인 사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안에는 오직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만이 있을수 있고 그와 어긋나는 다른 사상은 절대로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당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합니다.

리당비서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리안에 우리 당의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게 하여야 합니다.

이밖에도 리당비서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지켜야할 문제들은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에서 지적한 열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리당비서들은 이 열가지 준칙에 따라 자기의 사업과 생활을 잘해나가야 할것입니다.

리당비서들은 자체의 사업과 생활을 잘하는 한편 리당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

로 높여야 합니다. 리당비서 혼자의 힘만으로는 리당조직앞에 나서는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습니다.

리당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리당위원회를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리당위원회는 당원들가운데서 계급적각오가 높고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철저히 옹호하며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핵심들로 꾸려야 합니다. 리당위원회는 반드시 민주주의적원칙에 기초하여 선거하여야 합니다.

리당위원회를 잘 꾸리는것과 함께 리당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리당위원회를 자주 하기때문에 농사일에 지장을 받는다고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바쁜 농사철에 회의를 지나치게 많이 하면 농사일에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에서는 바쁜 농사철에 될수록 회의를 적게 할데 대하여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쁜 농사철이라고 하여도 리당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업이 아무리 바빠도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와 비서국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혼자서 결심할수 있는 문제도 여럿이 모여서 토론하면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리당비서들은 리당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야 하며 모든 문제를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옳은 결정을 채택하여야 합니다.

리당비서들은 리당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리당위원들과 당원들에게 분공을 주어 그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을 발동하여 리당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리당비서들이 리당위원회를 잘 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조직사업을 짜고든다면 리당조직앞에 나서는 모든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을것입니다.

리당비서들은 전쟁준비를 잘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있습니다. 적들은 우리가 경각성을 늦추고 졸기를 기다리고있으며 침략할 기회만 노리고있습니다. 우리가 경각성을 늦추고 졸기만 하면 적들은 당장 접어들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또 결코 전쟁을 먼저 일으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들이 먼저 덤벼들면 우리가 싸우지 않을수 없습니다. 적들의 침략책동이 계속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어느 시각에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도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며 원쑤들의 어떠한 불의의 침공에도 대처할수 있도록 전쟁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전쟁준비를 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전에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잘하지 못하였기때문에 일시적후퇴시기에 많은 손실을 보았습니다. 일시적후퇴시기에 적지 않은 당원들과 인민들이 투쟁정신도 부족하고 투쟁방법도 모르다보니 총알도 없는 사냥총을 가진 《치안대》놈들에게 순순히 끌려가 무참히 학살되였습니다. 우리는 이 쓰라린 교훈을 잊지 말고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리당비서들은 당원들과 인민들이 적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않고 적을 미워하며 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울 사상적각오를 가지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회상기학습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회상기학습은 인민들을 적을 미워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데도 좋고 혁명투쟁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혁명선렬들의 투쟁경험을 배워주는데도 좋습니다. 리당비서들은 회상기학습을 널리

조직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지난날 혁명선렬들이 원쑤들을 반대하여 어떻게 싸웠는가, 내가 그런 환경에 부닥치면 어떻게 싸우겠는가 하는것을 다 머리속에 그려두도록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항일무장투쟁의 경험을 많이 써서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널리 리용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혁명적인 소설도 사람들이 혁명적각오를 높이며 사상의지를 단련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합니다. 우리는 길림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철의 흐름》이라는 소설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그것이 그후 혁명투쟁과정에서 곤난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으로 되였습니다. 《철의 흐름》은 로씨야에서 공민전쟁때 한 부대가 간고한 시련을 이겨내면서 적의 포위를 뚫고나가는것을 내용으로 한 소설입니다.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한 고난의 행군은 《철의 흐름》에 씌여있는것보다 몇배나 더 간고한 투쟁이였습니다. 지난해에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고난의 행군을 형상한 음악무용서사시극을 보았는데 이 작품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할수 있는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이런 혁명적예술작품을 가지고 인민들을 잘 교양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전쟁준비를 하는데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물질적준비를 잘하는것입니다.

우리는 당이 내놓은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전민무장화에 필요한 무기를 이미 넉넉히 마련하여놓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전체 인민들에게 다 총을 메울수 있습니다. 리당비서들은 자기 리에 있는 로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전투훈련을 강화하여 그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리당비서들은 또한 식량을 비롯한 전쟁물자의 예비를 넉넉히 마련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리당비서들은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리의 모든 무장대오와 인민들을 이끌고 인민군대를 도와 싸워야 하며 자기 지방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전쟁과정에는 늘 전진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군사전략상 필요에 따라 일부 지역을 적들에게 내여줄수도 있으며 일부 부대들이 싸움을 잘못한 탓으로 부득이 퇴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한 례는 전쟁력사에서 얼마든지 찾아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당비서들은 전쟁시기에 어떤 불의의 정황에 부닥치더라도 인민들을 조직동원하여 자기 지방을 지킬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1932년부터 1935년까지 4년동안이나 유격근거지를 지켜싸웠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장도 변변치 못하였고 모든것이 부족하였지만 근거지인민들을 조직동원하여 적들의 발악적공세를 물리치면서 유격근거지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리당비서들은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이러한 투쟁경험을 따라배워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적들이 들어오면 근거지를 정하고 싸울수 있는 유리한 지대가 지방마다 다 있습니다. 황해남도에도 수림이 우거진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습니다. 그런곳에 근거지를 잡고 싸우면 몇해동안이라도 싸울수 있을것입니다.

리당비서들은 적들이 어느 시각에 쳐들어와도 원쑤들을 맞받아 용감히 싸울 굳은 각오를 가지고 전쟁준비를 계속 빈틈없이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경리부문앞에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전국농업대회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내세운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총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가까운 앞날에 우리 나라의 농업을 완전히 공업화할데

대한 력사적과업을 내놓았습니다.

농업을 공업화하는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또한 그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농촌테제의 방침에 따라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린 결과 농촌에서 이미 수리화와 전기화를 완성하였으며 농촌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더 투쟁하면 아세아에서 맨선참으로 농업의 공업화를 실현할수 있게 될것입니다.

농촌경리부문일군들은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방침에 따라 하루빨리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하고 농업을 공업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먼저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비롯하여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해마다 많은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농촌에 보내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에서는 토지정리와 길닦이를 잘하지 않아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많이 가지고있으면서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지 못하고있으며 그 수명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농촌경리부문일군들은 토지정리와 길닦이를 잘하여 뜨락또르와 자동차의 리용률을 높이며 그 수명을 늘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길을 돌로 포장하든지, 돌을 깔고 다지든지 하여 비가 와도 뜨락또르와 자동차가 빠지지 않고 다닐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도들에 부속품공장을 잘 꾸리고 뜨락또르와 자동차의 부속품을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뜨락또르와 자동차의 수리정비사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그 리용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비롯하여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잘 리용하는것과 함께 달구지와 같은 재래식농기구들도 적극 리용하여야 합니다. 지금 일부 농촌경리부문일군들은 달구지를 잘 리용하려 하지 않는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비롯하여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농촌에 많이 보내주어 모든 농사일을 기계로 하게 될 때까지는 재래식농기구들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합니다.

농촌경리부문앞에 당면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올해 농사차비를 잘하는것입니다.

협동농장들에서 올해 농산계획을 잘 세워야 하겠습니다. 리당비서들은 관리위원장들을 도와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 방향에서 농산계획을 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협동농장들에서 소석회와 거름을 많이 생산하여 땅이 언 때에 논밭에 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농촌들에서 석탄이 없어 소석회를 많이 생산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국가계획위원회와 농업위원회에서는 소석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석탄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축산업에도 힘을 넣어 축산물생산에서 새로운 전변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과수원관리를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과수원을 잘 거두지 않기때문에 과일수확이 매우 낮습니다. 과수원 한정보에서 과일을 적어도 20～30톤은 생산하여야 합니다. 협동농장들에서 지금 있는 과수원을 잘 보호하고 알뜰히 가꾸어 과일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무심는 운동을 널리 벌려야 하겠습니다.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사태와 큰물 피해를 막을수 있고 목재문제도 풀수 있습니다.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해마다 나무를 10정보씩 심을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협동농장들에서 하천정리를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비가 많이 오기때문에 해마다 하천을 정리하여 물이 잘 빠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 협동농장들에서 하천정리사업을 매우 등한히 하고있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해마다 봄에 도랑을 치고 하천을 정리하는 습관을 붙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올해에 농촌문화주택건설에 큰 힘을 넣어 현대적인 집들을 많이 지어야 하겠습니다. 요즘 평양시 주변 농촌에서 2층 2세대짜리 농촌문화주택을 새로 지었는데 이미 지은 평지붕문화주택보다 모양도 좋고 집안구조도 좋습니다. 모든 군에 그런 집을 본보기로 한채씩 짓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이 농촌경리부문에서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농업을 공업화하는데서 첫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농업을 공업화하려면 아직도 많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리당비서들과 협동농장관리일군들은 협동농장의 전반사업을 틀어쥐고 모든 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내밀어야 합니다. 도, 시, 군 당위원회들에서는 협동농장들에 대한 지도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부문일군들은 무엇보다도 올해농사를 잘 짓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에 더욱 분발하여 투쟁함으로써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중앙위원회에서는 올해농사를 다 지은 다음 년말에 또다시 농업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번 전국농업대회에 참가한 모든 동무들이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락오자가 되지 말고 계속 혁신하여 다음번 농업대회에 또다시 참가하는 영예를 지니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내놓은 방침대로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하루빨리 농업을 공업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없는 무계급사회를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착취받고 압박받는 남조선인민들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에게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뚜렷이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딸리아공산당기관지 《우니따》지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4년 1월 29일

물음: 지금으로부터 1년전에 우리는 커다란 희망을 가지고 조선의 두 지역 사이에 나라를 외세의 간섭없이 평화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우리는 이 길우에 새로운 난관이 조성되였다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이 난관이 어떤것들이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여주십시오.

대답: 1972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북과 남사이에 진행된 대화의 결과로 우리 당이 내놓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습니다. 이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이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남북조선 전체 인민은 물론 전세계인민들이 기뻐하였으며 열렬히 환영

하였습니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 우리는 그것을 실천에 옮기며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장애에 부닥치게 되였습니다.

미제의 조종밑에 있는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공동성명에 도장을 찍은 이튿날로 그것을 믿을수 없는 종이장에 불과한것이라고 하면서 찢어버렸습니다. 그후 그들은 남북공동성명의 원칙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일삼아왔으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의 모든 합리적인 제안들을 다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6월에는 민족분렬을 고정화, 영구화할데 대한 《정책》을 공공연히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의 주장은 남조선과 북조선이 따로따로 유엔에 들어가자는것인데 이것은 결국 민족의 분렬을 고정화하고 우리 나라를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는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의 민족분렬책동은 미제의 《두개 조선》 정책의 산물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여 전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야망이 실현될수 없게 되자 남조선만이라도 계속 그러쥐고있으려는 음흉한 목적에서 《두개 조선》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추종자들과 함께 《두개 조선》 조작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켜보려고 갖은 술책을 다하였습니다.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추종하고있는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입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강화하는 한편 미제국주의자들과 공모결탁하여 《두개 조선》을 조작하기 위한 음모를 적극 추진시키고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한 잡지가 《〈두개 조선〉 정책은 미국의 각본과 감독, 일본의 연출에 의하여 박정희정권이 춤추고있는 연극》이라고 쓴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 그리고 남조선당국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셔버리며 조선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종식시켜야만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 순조로운 길을 열어놓을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우리 나라의 분렬을 고정화, 영구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단호히 반대하며 우리 나라의 내정에 대한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력사상 처음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의 참가밑에 진행된 지난해 유엔총회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시키고 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지지하였으며 미제의 내정간섭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즉시 해체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는 환영할만한 조치이며 우리 당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커다란 승리입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온갖 시도를 철저히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더욱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조선의 통일문제해결에서 주되는 장애물인 남조선주둔 미제침략군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철거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된 원칙에 따라 북과 남사이에 대화를 계속하며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계속하며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오늘도 의연히 민족분렬영구화책동과 외세의존정책을 버리지 않고있으며 조국통일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남조선의 민주인사들과 애국적청년학생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오늘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가로막는 주되는 장애로 되고있습

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분렬주의적립장을 버리고 남북공동성명을 존중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성과적으로 진척될수 있을것입니다.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앞으로 계속 남북공동성명을 무시하고 그와 배치되는 길로 나간다면 인민들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것입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남조선당국자들의 더욱 로골화되는 파쑈적폭압정책과 민족분렬영구화책동 그리고 대일예속정책에 분격하여 반《정부》, 반파쑈민주화 투쟁에 일떠섰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달째 《박정권 타도하라!》, 《민주주의를 실시하라!》, 《대일예속을 즉각 중지하라!》는 구호를 들고 용감히 싸우고있습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외세에 매여달려 민족을 배반하고 인민들을 강권으로 억누르는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며 전체 조선인민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되고야말것입니다.

물음: 당신들은 지난 25년동안 2번의 장기적이며 류혈적인 전쟁이 일어났으며 조선인민과 웰남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가 심대한 타격을 받은 지역에서 살고있습니다. 웰남인민이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고있는 오늘 당신께서는 이 지역 정세의 전망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답: 지난 기간 아세아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그 어느 지역에서보다도 치렬하게 전개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이 지역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에서 커다란 정치, 군사적 패배를 당하고 내리막길에 들어섰으며 웰남전쟁에서 또다시 얻어맞고 멸망의 운명에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캄보쟈에서 계속 녹아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패배하고있으며 배척당하고있습니다.

모든 사실은 지난 기간 아세아의 정세가 아세아인민들에게 유리하게 발전하여왔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크게 실패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의연히 아세아나라들에 대한 침략기도를 버리지 않고있으며 궁지에 빠진 저들의 처지를 건져보려고 발악하고있습니다. 교활한 미제는 이른바 《닉슨주의》를 내놓고 아세아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내세워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미제의 적극적인 부추김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세아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침투를 강화하고있습니다.

아세아나라들에 대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기도는 절대로 실현될수 없습니다. 앞으로 아세아의 전반적인 정세는 아세아인민들의 편에 더욱 유리하게 발전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세아에는 싸우는 나라, 혁명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아세아의 혁명적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는 하나의 공동전선에 굳게 결합되고있습니다.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오랜 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아세아인민들은 각성되고 단련되였습니다.

오늘 아세아의 전반적지역에서 자주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이 울리고있으며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기운이 급격히 높아가고있습니다. 아세아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미제는 멀지 않아 아세아에서 완전히 쫓겨나고야말것이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침략책동은 파탄되고야말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이 더욱더 교활한 술책에 매여달려 아세아에서 여러가지

로 책동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이 어떻게 책동하든지 아세아의 혁명적인민들은 끝까지 반제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나갈것이며 아세아의 장래는 아세아의 주인인 아세아인민들에 의하여 결정될것입니다.

아세아인민들은 반드시 제국주의가 없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아세아,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를 건설할것입니다.

물음: 조선로동당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매우 존엄있는 위치를 차지하고있으며 세계반제운동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있습니다. 당신들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현단계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를 위한 투쟁전망이 어떠하며 이 투쟁에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이 어떤 역할을 놀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당신들도 알다싶이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현시기가 랭전과 대결로부터 평화공존과 협조에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하는 론조가 높아가고있습니다. 우리 인민도 평화를 원하며 공고한 평화가 이룩되기를 한결같이 바라고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자들에게 구걸하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평화를 이룩할수 없으며 오직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에 의해서만 평화를 쟁취할수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처지가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교활한 량면전술에 매여달립니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어려운 처지에 빠질 때마다 쓰는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평화》의 간판밑에 큰 나라들과는 관계를 개선하고 긴장상태를 일시 완화시킴으로써 숨돌릴 틈을 얻으려 하는 한편 작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침략과 내정간섭 책동을 계속 강화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최근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부추겨 애급과 수리아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감행케 하였습니다. 미제는 또한 칠레에서 합법적인민통일정부를 전복하는 파쑈적군사정변을 조작하였습니다. 조선과 캄보쟈, 웰남, 라오스 그리고 일련의 아프리카나라들과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침략과 내정간섭 책동을 감행하고있는 장본인도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입니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인민들은 평화를 바라지만 제국주의자들은 언제나 침략과 전쟁, 간섭을 일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이 《평화》의 간판을 드는 때일수록 경각성을 높이며 반제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이 《평화》의 간판을 드는 시기에 제국주의에 환상을 가지고 그들과의 투쟁을 회피하려는 사람도 나타나며 또 제국주의와의 무원칙한 타협을 통하여 안전을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혁명투쟁에서 권태감을 가지고 혁명을 그만두려는자들이거나 혁명을 두려워하는 비겁분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하여 전반적인 반제투쟁이 약화되는것은 아닙니다.

제국주의가 있는 한 제국주의의 착취와 압박, 침략과 간섭이 있게 마련이고 제국주의의 착취와 압박, 침략과 간섭이 있는 한 그것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인민은 오직 자기의 투쟁에 의해서만 제국주의의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될수 있으며 독립과 평화를 쟁취할수 있습니다.

아직도 지구상에는 제국주의의 압박과 착취를 받고있는 인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혁명을 하려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많을것입니다. 지금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받고있는 많은 나라 인민들은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으며 온갖 곤난과 시련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이 반제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서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평화》의 간판을 들고 인민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며 반제투쟁을 말살하려고 아무리 꾀한다 하더라도 인민들의 반제투쟁은 계속 강화될것입니다. 인민들은 제

국주의를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반드시 계급적해방과 민족적독립을 쟁취할것이며 세계 평화와 안전을 이룩할것입니다.

반제투쟁에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이 노는 역할에 대하여 말한다면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은 오늘 제국주의를 비롯한 모든 반동력량에 대치하고있는 가장 위력한 혁명력량이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제어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결정적력량입니다. 오늘 전반적국제정세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의 편에 유리하게 발전하고있는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이 강화된 결과입니다.

앞으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이 단결된 력량으로 나아간다면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혁명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 특히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일치한 보조를 취할것을 진심으로 바라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과 모든 반제혁명력량의 단결을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입니다.

물음: 전쟁으로 인한 파괴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난 20년간 거대한 사회경제적앙양을 이룩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목표와 발전전망에 대하여 말씀하여주십시오.

대답: 당신들이 지적한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경제는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3년동안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혹심하게 파괴되였습니다. 우리는 전후에 아무것도 없는 재더미우에서 경제를 새로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령도밑에 영웅적투쟁을 벌려 전쟁의 상처를 빨리 가시였을뿐아니라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를 력사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과 발전된 농업,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과학과 문화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면모는 20년전에 비하여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에 대하여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은 초보적인것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에게는 이미 해놓은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투쟁목표와 발전전망에 대하여 물었는데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6개년계획의 중심과업과 그것이 현재 어떻게 수행되고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말하면 당신들의 질문에 대답을 주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6개년계획에서 중심적인 내용을 이루는것은 3대기술혁명입니다. 우리 당이 내놓은 3대기술혁명은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

우리는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이미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3대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기술혁명수행의 중심고리인 공작기계생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반자동화, 자동화하기 위한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의 토대도 마련하여놓았습니다.

공업부문에서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탄광, 광산들에서의 종합적기계화와 금속공장, 화학공장들에서의 자동화가 적지 않게 실현되였습니다. 특히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이 진행되는 부문에서는 점차 원격조종에로 넘어가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있습니다.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농업로동을 공업로동에 접근시키기 위한 기술혁

명도 힘있게 추진되고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10돐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 우리는 농촌테제발표 10돐을 계기로 테제에서 제시한 농촌기술혁명의 주요과업들을 완수할 목표를 내걸고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농촌경리의 수리화가 실현되였으며 농촌전기화도 빛나게 완성되였습니다. 지금은 농촌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를 완성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7월까지 테제에서 내놓은 과업대로 농촌에 7만~8만대(15마력환산으로)의 뜨락또르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화학비료를 물동량으로 정보당 1톤이상씩 줄데 대한 테제의 과업은 올해 상반년까지 실현될것입니다.

알곡생산전망도 매우 좋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나라 농촌을 직접 돌아보아서 잘 알겠지만 우리 나라에서 지난해에 농사가 잘되였습니다. 우리는 알곡생산에서 지난해에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올해에 650만~700만톤의 알곡을 생산할것을 투쟁목표로 내세우고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면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점령하는것으로 됩니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녀성들이 부엌일과 가정일을 짧은 시간에 쉽게 할수 있도록 조건을 지어주기 위하여 식료품가공공업과 일용품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수도화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데 농촌수도화가 완성되면 녀성들이 물동이를 이는 일에서 영원히 해방될것입니다.

가까운 앞날에 우리 인민들의 생활수준은 훨씬 높아질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문제에서 근심걱정을 모르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인민들의 전반적생활수준은 만족할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있으며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가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전반적으로 훨씬 높이는 한편 인민생활을 고르롭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가 6개년계획을 완수하고 몇해 잘 투쟁하면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남부럽지 않게 훨씬 높아질것입니다.

앞으로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될것입니다. 1972년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이 6개년계획기간에 전면적으로 실시되여 앞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로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혜택으로 완전한 중등일반교육을 받게 될것입니다. 또한 고등교육사업이 빨리 발전하여 가까운 앞날에 기술자, 전문가의 대오가 백만명이상으로 늘어나게 될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 나라의 발전전망은 매우 휘황하며 우리 인민의 투쟁은 참으로 보람찹니다.

지금 우리의 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은 앞날에 대한 밝은 희망을 안고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습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의 투쟁기세로 보아 6개년계획이 기한전에 성과적으로 완수되리라고 굳게 믿고있습니다. 6개년계획이 완수되면 우리 나라의 전반적면모는 더욱 달라질것이며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게 될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고있는 이딸리아공산주의자들과 이딸리아로동계급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위한 이딸리아공산당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고슬라비아신문 《웨체르니에 노보스띠》 책임 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4년 2월 22일

물음: 유고슬라비아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노력에 대하여 잘 알고있으며 그것을 지지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관련한 현정치정세와 조선의 통일전망에 대하여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당신도 아는바와 같이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1972년 7월에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제안들을 많이 내놓고 대화의 성과적진척을 위하여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중단상태에 빠져들어갔으며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커다란 난관과 장애가 조성되였습니다.

미국의 부추김밑에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에도 그 성명에 밝혀진 원칙과는 정반대로 더욱더 외세의존정책에 매여달리면서 전쟁준비와 파쑈적폭압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6월에는 이른바 《특별성명》을 발표하여 민족분렬을 영구화할데 대한 《정책》을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미일반동들과 남조선당국자들은 《두개 조선》 유엔동시가입안을 내놓고 그것을 통과시켜보려고 갖은 술책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동은 우리 당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지지하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국가들을 비롯한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정당한 투쟁에 의하여 여지없이 파탄되였습니다. 유엔총회는 남북공동성명에 지적된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미국의 침략과 내정간섭 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커다란 승리이며 조선의 영구분렬을 꾀하는자들에게는 심대한 패배로 됩니다.

제국주의세력의 부추김밑에 민족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책동은 조국통일을 념원하는 전체 조선인민의 민족적분노를 자아내고있으며 인민들로 하여금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서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습니다.

오늘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은 파쑈적폭압이 그처럼 혹심한 조건에서도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획기적인 구국방안으로서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5대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장애로 되는것은 오직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책동하고있는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려면 무엇보다먼저 미일반동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이 종식되여야 하며 남조선당국자들이 외세의존정책에서 벗어나 남북공동성명의 원칙들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민주주의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그만두고 남조선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표가 통일문제해결에 직접 참가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순조롭게 진척될수 있으며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빠른 전진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세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우여곡절을 겪고있지만 전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남북조선 전체 인민이 힘을 합쳐 꾸준히 투쟁함으로써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정부와 유고슬라비아인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물음: 우리는 조선인민이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자기 나라를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킨데 대하여 잘 알고있습니다.

이 성과의 추동력과 기본요인은 무엇입니까?

대답: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가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령도와 당과 인민대중의 확고부동한 통일, 우리 인민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입니다.

우리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는데서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습니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로선과 정책을 세웠으며 남에 대한 의존심을 배격하고 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 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주체를 세우고 자력갱생한 결과 우리는 거듭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우리 나라 혁명을 가장 빠른 길로 이끌어올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하는 과정에 난관과 시련에 부닥칠 때마다 인민대중을 믿고 대중과 의논하였으며 그들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부닥친 난관과 시련을 이겨나갔습니다.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고 그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킨 결과 우리 인민은 당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있는 힘과 지혜를 다내여 투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모든 로동자,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들은 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튼튼히 뭉쳐있으며 혁명적 정열과 락관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고있습니다.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통일단결되여있고 혁명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여기에 우리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으며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적극 불러일으킴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물음: 유고슬라비아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의 내정에 대한 제국주의간섭의 후과를 청산하며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시킬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립장을 지지하고있습니다.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사이에 친선과 쌍무적인 협조도 모든 분야에 걸쳐 성과적으로 발전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당신께서는 조선인민과 유고슬라비아인민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더욱 발전시킬 전망에 대하여 어떻게 보십니까?

대답: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날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사이에는 래왕과 접촉이 빈번해지고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련계와 협조가 강화되고있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들 사이의 친선의 뉴대가 날로 두터워지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조선과 유고슬라비아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분야에서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하였는데 우리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앞으로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나는 조선과 유고슬라비아사이의 친선관계가 맑스-레닌주의원칙과 완전한 평등,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 계속 좋게 발전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나는 이와 아울러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의 령도밑에 나라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형제적유고슬라비아인민에게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물음: 쁠럭불가담운동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되고있는 유고슬라비아를 비롯한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국제문제들이 나라들의 집단이나 렬강들에 의하여 해결될수 없으며 그것들은 전체 국제공동체의 관심사로 되여야 한다는 사상과 실천이 국제관계에서 승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평화는 불가분의것이며 그것을 보장하는데는 크고작은 나라들이 평등하게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것이 제4차쁠럭불가담국가회의 결정들에 지적되여있습니다. 쁠럭불가담세계의 나라들은 중근동위기를 비롯한 절박한 국제사변들에 대하여서도 이러한 립장을 취하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당신께서 쁠럭불가담국가들의 활동과 알제에서 진행된 제4차쁠럭불가담국가회의의 결과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말씀하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 쁠럭불가담국가들의 활동은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평화를 이룩하며 국제문제들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있습니다.

쁠럭불가담국가들의 력량이 강화되고 그 역할이 높아가고있는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오늘 제국주의가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국제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을 주장하고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습니다.

쁠럭불가담국가들의 활동은 오늘의 이 시대적추세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위력합니다.

지난해에 알제리에서 진행된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는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해방과 자주권, 평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한 제3세계인민들의 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습니다.

회의는 제3세계인민들의 굳은 단결을 힘있게 시위하였으며 민족해방운동을 더욱 촉진하며 세계평화를 유지공고화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는 조선의 내정에 대한 온갖 형태의 외세의 간섭을 종식시키며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유엔한국

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며 조선의 유엔가입은 나라의 완전한 통일이 이룩된 다음이거나 련방제가 실시된 다음 단일국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힘있는 고무로 되였으며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으로 되였습니다.

조선인민은 제4차뿔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있으며 회의에서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우리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표시해준 모든 나라들에 충심으로 사의를 표시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천대받고 압박받던 지난날의 처지의 공통성과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새 생활 창조를 위한 오늘의 투쟁의 공통성으로 하여 제3세계인민들과 굳게 단결되여있으며 그들의 민족해방운동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반제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공동위업에서 언제나 제3세계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나갈것입니다.

물음: 제국주의침략세력들은 아세아나라들의 내정에 공공연히 간섭하면서 이 지역의 평화를 상시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세아를 안전한 대륙으로 만들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며 그 전제조건은 무엇입니까?

최근 아세아대륙에서 벌어지고있는 정치적움직임의 가장 본질적특징은 무엇입니까?

대답: 최근의 아세아정세발전에서 특징적인것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있는 반면에 이 지역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이 전면적으로 파탄되고있는것입니다.

아세아의 절대다수인민들이 이미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민족적독립을 이룩하였으며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제국주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의 모든곳에서 인민들의 강력한 항쟁에 부딪치고있으며 쫓겨나가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아세아에서 제국주의자들이 완전히 망했다거나 더는 침략적죄행을 저지르지 못하리라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아세아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 책동을 강화하면서 악명높은 《닉슨주의》에 따라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저들의 침략목적을 달성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아세아에서 새 전쟁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가시며 아세아를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미제국주의자들을 아세아의 모든곳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하며 그들이 이 지역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탄압과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한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부추김을 받아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의 팽창과 해외침략 야망을 저지파탄시켜야 합니다.

아세아인민들은 력사적체험을 통하여 오직 자신의 투쟁으로써만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을 물리치고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안전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아세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굳게 뭉쳐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침략과 간섭 책동을 반대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함으로써 반드시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를 건설할것입니다.

우리는 알제리인민이 자주성을 견지하여 자주독립 국가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혁명리사회 의장이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후아리 부메디엔을 환영하여 베푼 연회에서 한 연설 1974년 3월 2일

존경하는 후아리 부메디엔의장각하!

존경하는 알제리의 손님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커다란 기쁨속에서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의 혁명리사회 의장이며 내각 총리인 후아리 부메디엔각하를 비롯한 알제리의 귀한 손님들을 맞이하였습니다.

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과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알제리인민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우리의 가장 친근한 벗이며 혁명전우인 후아리 부메디엔의장각하와 그 일행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번 후아리 부메디엔의장각하의 우리 나라 방문은 반제혁명투쟁의 한길에서 굳게 맺어진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투적친선관계의 발전에서 가장 큰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됩니다.

알제리인민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오래동안 손에 무장을 들고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전인민적항전을 벌려 자기 힘으로 민족적해방과 나라의 독립을 쟁취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지니고있습니다.

알제리인민의 영웅한 투쟁은 중근동과 아프리카대륙에서 민족해방투쟁의 고무적기치로 되였으며 세계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력사에 빛나는 장을 기록하였습니다.

독립후 알제리인민은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키며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알제리인민은 자기의 탁월한 지도자 후아리 부메디엔각하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리사회의 옳바른 령도밑에 자주, 자립의 길을 따라 사회주의를 지향하여나가면서 공업혁명, 토지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으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있습니다.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은 대외관계분야에서 반제반식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운동인 쁠럭불가담운동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있으며 아랍인민의 존엄을 지키고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이룩하며 제3세계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있습니다.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은 혁명투쟁에서 쌓아올린 빛나는 업적과 활발한 국제적활동, 반제투쟁에서 견지하고있는 혁명적원칙성으로 하여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광범한 지지를 받고있으며 그의 국제적위신은 날로 높아지고있습니다.

얼마전에도 부메디엔각하는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의장으로서 제3세계인민들의 리익을 희생시켜온 연료 및 원료 문제를 포함한 국제경제관계문제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에서 정당하게 해결하기 위한 유엔총회 특별회의를 소집할것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발기는 벌써 세계 대다수나라들의 절대적인 지지찬동을 받고있습니다.

우리는 알제리인민이 자주성과 독자성을 견지하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에서 이룩하고있는 모든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우리는 알제리인민의 투쟁이 정의의 투쟁이며 세계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의 중요한 한 고리를 이루고있기때문에 그를 무조건 지지하는것을 응당한 국제주의적의무로 여기고있습니다.

조선과 알제리 두 나라 인민들은 다같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얻은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며 번영하는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견지하고있는 자기들의 자주적 로선의 공통성으로 하여 끊을수 없는 형제적친선의 뉴대로 련결되여있습니다.

이번 부메디엔의장각하의 우리 나라 방문은 이 전투적친선단결의 힘있는 시위로 되며 우리 인민에 대한 또하나의 커다란 지지와 고무로 됩니다.

당신들은 이번 방문을 통하여 우리 인민이 우리 당의 령도밑에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어려운 조건을 이겨내고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벌리고있는 억센 투쟁모습들을 직접 보게 될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오랜 기간의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조국해방을 이룩하였으며 해방후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뒤떨어졌던 자기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놓았기때문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나라의 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게 되였으며 오늘 사회주의대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고있습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성과에 고무되여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파쑈적폭압이 그처럼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애국적인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습니다.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날로 커가는 지지와 동정을 받고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의 《두개 조선》유엔동시가입책동이 저지파탄되고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해체된것은 우리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에 대한 치명적타격이였습니다.

우리는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언제나 적극 지지하여왔으며 특히 지난해에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와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우리를 지지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데 대하여 잘 알고있습니다.

나는 이와 관련하여 부메디엔의장각하와 알제리 정부와 인민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철저히 고립되여 궁지에 빠진 남조선반동들은 미제의 부추김밑에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을 전례없이 강화하며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파탄지경에 몰아넣고 우리를 반대하는 비방중상과 도발행동을 계획적으로 감행하고있으며 고의적으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면서 전쟁분위기를 대대적으로 고취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7. 4남북공동성명의 원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외세의존과 민족분렬,

남북간 군사적대결의 길로 더욱더 공공연히 나가고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매국배족행위는 그들에게 아무런 출로도 열어주지 않을것입니다.

만일 남조선통치배들이 지금과 같은 분별없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들은 매국자, 호전분자, 분렬주의자로서의 정체를 더욱 온 세상에 드러내놓고 자신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기게 될뿐일것입니다.

우리는 알제리인민을 비롯한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남북조선전체 인민들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원쑤들의 온갖 분렬책동을 결정적으로 짓부셔버릴것이며 남조선에서 《유엔군》의 간판을 가진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입니다.

동지들과 벗들!

오늘 제국주의는 걷잡을수 없이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어제날 제국주의예속밑에서 압박받고 천대받던 제3세계인민들이 력사무대에 등장하여 자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습니다.

조선으로부터 인도지나와 중근동,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걸쳐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는 혁명과 반혁명세력간의 투쟁은 낡은 제국주의침략세력이 망하고 새로 일떠서는 민족해방력량이 승승장구하는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고있습니다.

현 사태발전은 작은 나라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서로 힘을 합쳐 싸운다면 어떠한 제국주의침략세력이라도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강점된 모든 아랍땅으로부터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철거시키며 팔레스티나인민의 합법적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아랍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다시금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며 기네(비싸우), 앙골라, 모잠비끄, 짐바브웨, 나미비아, 아자니아 인민을 비롯한 아프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조선인민은 캄보쟈인민을 비롯한 인도지나인민들의 해방투쟁과 미제의 통제와 간섭을 반대하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후아리 부메디엔의장각하의 우리 나라 방문이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나가는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동지들과 벗들!

나는 우리의 가장 친근한 전우이며 형제인 알제리동지들을 맞이하여 화기에 넘치는 이 자리에서 손님여러분들의 우리 나라 방문이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것을 충심으로 축원하면서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조선인민과 알제리인민사이의 불패의 전투적친선단결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후아리 부메디엔의장각하의 건강을 위하여,

알제리의 손님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조선—알제리친선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 자립의 길로 나아가는 3대륙인민들의 공통된 념원을 반영하고있는 위대한 친선이다

혁명리사회 의장이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후아리 부메디엔이 차린 연회에서 한 연설 1974년 3월 4일

존경하는 후아리 부메디엔의장각하!

존경하는 알제리의 손님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나는 오늘저녁 의장각하께서 이처럼 성대한 연회를 차리고 우리를 친절히 초대하여주었으며 방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매우 감동적이고 고무적인 말씀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의 가장 친근한 벗이며 혁명전우인 후아리 부메디엔의장각하와 그 일행의 우리 나라 방문은 끝나가고있습니다.

당신들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비록 짧은 기간이였으나 대단히 큰 의의를 가집니다.

이 방문은 반제투쟁의 깊은 뿌리에서 자라난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이 가장 공고하고 높은 단계에 이르고있으며 활짝 꽃피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정에 넘치는 환영은 조선—알제리친선을 가장 귀중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고있는 우리 인민의 진실한 감정의 표현이였으며 공통된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알제리인민과 굳게 손잡고 싸워나아가려는 그들의 확고한 결의의 시위였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인민에게 보내는 알제리인민의 뜨거운 친선의 정을 전하고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나라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여주었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여준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커다란 고무로 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두 나라 인민들을 련결시키고있는 혁명적원칙성에 기초하여 당신들과 진지한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회담에서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만족스러운 견해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이 견지하고있는 공통된 립장은 앞으로 발표될 공동콤뮤니케에서 뚜렷이 밝혀질것입니다.

오늘 제3세계는 제국주의와 맞서있는 위력한 존재로 되고있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오직 반제투쟁을 통하여서만 민족적독립도, 나라의 번영도 이룩할수 있으며 참다운 삶을 누릴수 있습니다.

조선—알제리친선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 자립의 길로 나아가는 3대륙인민들의 공통된 념원을 반영하고있는 위대한 친선입니다.

존경하는 손님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혁명전우로서 또한 형제로서 당신들과의 우의를 보다 두터이 할수 있었

으며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이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양에서 있은 당신들과의 력사적상봉의 결과가 앞으로 우리 두 나라 대내외활동의 여러 분야에서 빛나게 구현되며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이 전면적으로 확대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알제리인민이 후아리 부메디엔의장각하의 옳바른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과 제3세계인민들의 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형제적알제리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며 영원히 알제리인민과 함께 나갈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조국에 돌아가면 알제리인민에게 보내는 조선인민의 열렬한 친선의 정과 전투적인사를 전하여주기 바랍니다.

나는 끝으로 조선인민과 알제리인민사이의 불패의 전투적친선단결을 위하여,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의 번영과 알제리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후아리 부메디엔의장각하의 건강을 위하여,

알제리의 손님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혁명리사회 의장이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후아리 부메디엔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1974년 3월 4일

존경하는 후아리 부메디엔의장각하!

존경하는 알제리의 손님 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평양시 각계층 인민들은 먼 아프리카대륙에서 오신 친선의 사절들인 알제리의 벗들과 상봉하게 되는 커다란 기쁨을 안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나는 먼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의 혁명리사회 의장이며 내각 총리인 후아리 부메디엔각하와 그 일행의 우리 나라 방문을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또한 당신들을 통하여 영웅적알제리인민에게 보내는 조선인민의 뜨거운 형제적인사를 전하는바입니다.

알제리혁명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제3세계의 저명한 반제투사이며 우리의 가장 친근한

벗인 후아리 부메디엔의장각하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과 알제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굳게 맺어진 전투적친선단결을 힘있게 시위하며 그것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강화발전시키는 획기적사변으로 됩니다.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으로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이룩한 지난날의 투쟁의 공통성과 독립후 다같이 자주의 길을 따라 새 사회 건설을 추진시키고있는 오늘의 투쟁의 공통성으로 하여 알제리인민들에 대하여 각별히 친선적인 감정을 품고있으며 알제리혁명의 지도자인 후아리 부메디엔각하를 높이 존경하고있습니다.

조선과 알제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은 일찌기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맺어진 참다운 혁명전우들사이의 친선입니다. 또한 이 친선은 온갖 형태의 침략과 예속을 반대하고 주체적립장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형제적인민들사이의 전투적친선의 구현입니다.

우리 인민은 알제리인민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지만 새 생활 창조를 위한 알제리인민의 투쟁을 언제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알제리벗들과의 상봉을 통하여 영웅적인 무장투쟁으로 민족적독립을 쟁취한 알제리인민이 새 사회 건설에서 이룩하고있는 훌륭한 성과들을 더 잘 알수 있게 되였습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나라의 주인으로 된 인민들은 참으로 기적을 낳을수 있습니다.

알제리인민은 자기의 탁월한 지도자 후아리 부메디엔의장각하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리사회의 옳바른 령도밑에 자력갱생의 전투적구호를 들고 중요한 사회경제적변혁들을 이룩하였습니다. 알제리에서 외래제국주의독점체들의 소유였던 공장, 기업소, 회사들은 국유화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굳건히 다져지고있으며 농촌의 면모도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교육문화가 새로이 발전하고있습니다.

독립후 불과 10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알제리에서 일어난 모든 변혁들은 자체의 힘과 자원을 동원하여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알제리인민의 확고한 결의와 힘찬 로력투쟁의 고귀한 열매입니다.

우리는 알제리인민이 지금 진행하고있는 공업혁명, 토지혁명, 문화혁명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감탄하고있으며 알제리인민의 성과를 자기의 성과와 같이 기뻐하고있습니다.

알제리인민이 공업혁명, 토지혁명, 문화혁명의 세가지 혁명구호를 들고 힘차게 투쟁하고있는것은 매우 좋은 일이며 갓 독립한 나라 인민으로서 진보적길을 개척하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알제리인민은 가까운 몇해안에 사회주의경제에 토대한 현대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단계에 들어설 확고한 전망을 가지고 제2차4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은 자립적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 정당한 로선을 관철함으로써 오늘 국제무대에서 그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독자적인 로선과 정책을 실시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이 대외관계분야에서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하고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제3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이룩하는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있습니다.

알제리 정부와 인민은 미제와 그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을 반대하고 팔레스티나인민의 합법적권리회복과 아랍인민의 존엄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습

니다.

또한 알제리인민은 아프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고있으며 세계피압박인민들의 반제혁명운동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있습니다.

력사적경험은 새로 독립한 나라 인민들이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낡은 식민지통치기구를 짓부시고 새로운 진보적인 사회제도를 세우며 외래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의 파괴책동을 물리치고 그의 경제적지반을 빼앗아내며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후아리 부메디엔의장각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알제리의 훌륭한 현실은 이 진리를 확증하는 좋은 실례로 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대륙에 알제리인민과 같은 용감하고 혁명적인 전우를 가지고있는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제자주의 기치를 들고 사회주의를 지향하여나가는 형제적알제리인민의 투쟁에서 앞으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동지들과 벗들!

오늘 세계인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입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억만 인민들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성스러운 해방투쟁에 용감히 일떠서 싸우고있으며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주, 자립의 길로 힘차게 나가고있습니다.

자주성은 매개 민족의 권리이며 그 어떤 민족도 남에게 예속되거나 민족적존엄이 짓밟히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주성이 있어야 민족의 행복이 있고 영예가 있으며 자주성을 가진 민족이라야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오래동안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압제밑에서 신음하던 피착취, 피압박 인민들이 자유와 해방과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용감히 투쟁한 결과에 지금 우리 시대는 제국주의가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고 압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시대로 바뀌여지고있습니다.

지난해에 알제리에서 진행된 력사적인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는 우리 시대 발전의 이 근본적전환을 반영하였으며 현국제관계발전에 미치는 제3세계의 커다란 영향력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멸망하여가는 자기들의 운명을 구원할 출로를 찾기 위하여 더욱더 교활한 량면전술에 매달리면서 큰 나라들과는 관계를 개선하고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어들어가려 하며 아세아에서는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고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라틴아메리카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침략전쟁과 무력탄압으로써도 그 어떤 량면전술과 신식민주의정책으로써도 결코 죽어가는 자기들의 운명을 건져낼수 없으며 세계인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 오늘의 추세를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조선과 알제리, 윁남과 꾸바를 비롯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제국주의자들이 련이어 참패를 당한 사실은 이것을 잘 말하여줍니다.

지난해 10월 중근동전쟁시기에 아랍나라들은 어느때보다도 단결된 힘으로 미제와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아랍나라들은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지원하는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석유수출을 금지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서방세계로 하여금 수습할수 없는 경제적위기를 겪게 하고있습니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인민을 비롯한 아랍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은 전세계인민들의 지지와 동정을 받고있습니다.

아랍인민들은 강점된 령토를 완전히 해방하고 팔레스티나인민의 합법적권리를 회복할때까지 계속 견결히 투쟁할것이며 이 투쟁에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것입니다.

오늘 제3세계나라인민들속에서는 정치적자주권을 수호할뿐아니라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제국주의독점체들의 경제적지반을 허물어버리며 빼앗긴 자기 나라 자연부원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 더욱더 높아가고있습니다.

아프리카대륙에서는 아프리카통일기구의 공동결의에 따라 식민주의의 잔재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이 광범히 벌어지고있으며 동남아세아 여러 나라들에서는 미국의 군사기지화정책과 일본의 경제적침략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이 일어나고있으며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는 미국의 지배와 통제를 반대하고 민족적자주권과 자연부원, 령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강화되고있습니다.

얼마전 후아리 부메디엔각하가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의장으로서 연료 및 원료 문제를 포함한 국제경제관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총회 특별회의를 소집할것을 제기한것은 이때까지 제3세계인민들의 리익을 희생시켜온 이 문제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정당하게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됩니다.

이번 파키스탄의 라호르에서 진행된 회교국가수뇌자회의도 자기 운명을 자신의 손에 틀어쥐고나가려는 제3세계인민들의 확고한 결의를 다시금 시위하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제3세계인민들을 제멋대로 억압하고 략탈하며 그들의 운명을 가지고 막뒤에서 흥정하고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지금 제국주의세계는 제2차세계대전이래 가장 심각한 경제파동을 겪고있으며 전면적인 위기에 부닥쳐 더욱더 허덕이고있습니다. 이제는 세계무대에서 발언권이 압박받던 인민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 할것없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이르는곳마다에서 제국주의자들에게 숨돌릴 여유를 주지 않고 강한 타격과 압력을 가한다면 능히 제국주의를 멸망시킬수 있으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조선인민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건설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싸우는 인도지나인민들, 아랍인민들을 비롯한 3대륙인민들과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의 반제혁명투쟁과 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그들과의 전투적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나갈것입니다.

동지들과 벗들!

조선인민은 자기의 민족해방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래동안 투쟁하여왔습니다.

우리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자주적인 로선과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어올수 있었습니다.

해방후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맞서게 된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주체를 세우고 자력갱생한 결과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당, 전국, 전민이 6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앞당겨수행하며 사회주의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사회주의대건설에 총동원되고있으며

전체 근로자들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를 들고 모든 전선에서 천리마진군의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고있습니다.

서방자본주의세계가 일찌기 없었던 심각한 경제적위기에 빠져들어가 크게 뒤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나라에서 경제가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의 위대한 생활력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뚜렷이 실증하여줍니다.

우리는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언제나 외세에 의존하려는 시도들을 단호히 물리치고 자기의 민족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자주적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왔습니다.

오늘 조선문제는 구경은 통일이냐 분렬이냐, 하나의 조선이냐 두개의 조선이냐 하는 문제에 귀결되고있습니다.

전체 조선인민은 한결같이 나라의 통일을 념원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렬강들은 우리 나라가 분렬되기를 원하고있습니다. 분렬하여 통치하는것은 제국주의의 상투적수법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영원히 식민지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자기들의 상품판매시장으로 영원히 틀어쥐기 위하여 조선의 영구분렬을 꾀하고있습니다.

미일반동들의 간섭책동과 그 앞잡이들의 매국배족행위로 말미암아 7. 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도 우리 나라의 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커다란 난관이 가로놓여있습니다.

요즘 남조선위정자들의 민족분렬책동과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도발책동은 더욱더 참을수 없는 정도에 이르고있습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을 전례없이 강화하고있으며 평화통일을 요구한다고 하여 남조선청년학생들과 량심적인 지식인들 지어는 종교계인사들까지 닥치는대로 체포투옥하고있으며 남조선전역을 살기어린 감옥으로 전변시키고있습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은 자기들의 이러한 범죄적행동을 가리우고 인민들의 주의를 딴데로 돌리기 위하여 서해에서 간첩선침입과 같은 군사적도발책동을 계획적으로 감행하고 이를 구실삼아 《남침위협》소동을 대대적으로 벌리고있으며 고의적으로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호전분자들의 도발책동에 발맞추어 공화국북반부에 련이어 고속도고공정찰기를 침입시켜 정탐행동을 감행하며 남조선에 대한 군사원조를 더욱 증강할데 대하여 공공연히 떠벌이고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나라에 조성되고있는 이 모든 심상치 않은 사태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이 사실상 남북관계를 남북공동성명발표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며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조선에서 과연 누가 《평화》의 간판밑에 침략의 칼을 갈고있으며 누가 《통일》의 간판뒤에서 분렬의 영구화를 꾀하고있는가 하는것은 오늘에 와서 더욱 똑똑히 드러났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남조선을 영원히 식민지화하려는 미일반동들의 책동을 허용할것이 아니라 남조선에서 미군이 나가게 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자주적이며 통일독립된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나서야 합니다.

만일 우리 민족이 분렬된채로 살자고 한다면 무엇때문에 남북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남북대화는 반드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여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두개 조선으로 유엔에 들어가자고 한 지난해 6월의 《특별성명》을 취소하여야 하며 온 민족의 리익에 부합되게 통일을 위한 회담에로 나와야 합니다.

또한 평화에 대한 아무런 담보도 없는 《불가침조약》 같은것을 들고나올것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얼마전에 남조선당국자들이 들고나온 이른바 《불가침조약》이란것은 통일문제를 가지고 민족을 희롱하는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군대의 통수권을 틀어쥐고있는것은 남조선당국자들이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의 간판을 가진 미군사령관이며 대포와 총칼을 비롯한 각종 전쟁수단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있는것도 미제국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빈손만 가진 남조선통치배들이 남조선에 미제침략군을 그대로 남겨둔채 우리와 《불가침조약》을 맺자고 하는것은 가소롭기 짝이 없는 일이며 론의할 가치조차 없는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분렬책동을 계속하는것으로 보아 그들이 진실로 통일을 위하여 대화의 길에 나섰다고 믿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문제를 남북당국자들사이에서만 론의할것이 아니라 전민족적인 토의에 붙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현존하는 남북조절위원회와는 별개로 남북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인사들이 참가하는 대민족회의나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열것을 다시한번 제의합니다. 오직 이 길만이 조선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길입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조선사람자신이 해결해야지 어느 렬강이나 다른 나라가 해결해줄수 없습니다.

현정세는 나라의 분렬을 막고 평화적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분렬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이 투쟁은 구국이냐, 매국이냐 하는것을 판가름하는 투쟁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계속 외세의존정책에 매여달리면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거부하고 두개 조선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들은 천추에 씻지 못할 매국노의 치욕을 남긴채 파멸당하고말것입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남조선통치배들의 가혹한 파쑈적폭압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애국적투쟁이며 민족의 사활적리익에 직접 관련되는 정의의 투쟁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어느때나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원할것입니다.

우리가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는것은 결코 그 어떤 《내정간섭》이 아니라 민족의 내부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는것을 자기의 응당한 의무라고 인정합니다.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파쑈폭압과 전쟁도발 책동을 일삼고있는 현남조선당국자들을 옹호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세계적범위에서 벌어지고있는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중요한 한 고리로서 국제적으로 날로 커가는 지지와 동정을 받고있습니다.

지난해에 알제리에서 진행된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 우리의 조국통일 5대방침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이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있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속에서 지난해에 유엔총회에서는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제기하였던 《두개 조선》 유엔가입안을 배격하고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는 결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커다란 승리이며 세계평화애호인민의 공동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이 앞으로도 평화적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하나의 민족인 우리 민족을 두개로 영원히 갈라놓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야망과 그 앞잡이들의 매국배족행위에 공동의 타격을 가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은 국제무대에서 언제나 우리의 위업을 자신의 위업과 같이 여기면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특히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와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지원을 주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에 대하여 언제나 잊지 않을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있는 후아리 부메디엔의장각하와 알제리정부와 알제리인민에게 다시한번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조선과 알제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투적단결과 형제적친선협조관계는 앞으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전면적으로 개화발전될것입니다. 조선과 알제리사이의 친선과 호상협조는 두 나라의 자주독립을 보위하는데 있어서뿐아니라 전반적반제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조선인민과 알제리인민은 다같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가지고있으며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있는 전우로서 또한 형제로서 반제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영원히 어깨겯고 함께 싸워나갈것입니다.

조선인민과 알제리인민사이의 불패의 전투적친선단결만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단결 만세!

후아리 부메디엔의장각하를 수반으로 하는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만세!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전국공업대회에서 한 연설 1974년 3월 7일

동지들!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진행된 이번 대회는 매우 의의깊고 중요한 대회입니다. 대회에서는 많은 동무들이 열렬한 토론을 하였으며 용감히 전진하려는 굳은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나는 동무들이 대회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한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하며 대회참가자들과 전체 로동계급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오늘 대회를 끝마치면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강조하려고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한 보고와 전체 당원들에게 보낸 당중앙위원회

의 붉은편지에 모든 과업들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여있기때문에 오늘은 몇가지 실무적문제에 대하여서만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1. 6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앞당겨 점령할데 대하여

우리가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기본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기본건설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중앙위원회는 올해를 건설의 해로 정하고 기본건설에 화력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본건설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6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점령하는데 필요한 기본건설을 기한전에 끝내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먼저 6개년계획의 강철고지점령을 위한 야금기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6개년계획의 강철고지를 점령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기본건설에 달려있습니다. 김책제철소 확장공사, 강선제강소 확장공사, 4월13일제철소 확장공사에 큰 힘을 넣어 그 조업기일을 최대한으로 앞당겨야 하겠습니다. 특히 김책제철소 확장공사에 화력을 집중하여 공사를 빨리 끝내야 하겠습니다. 김책제철소 확장공사를 빨리 끝내야 6개년계획에 예견된 강철고지를 점령할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김책제철소의 용광로와 해탄로, 소결로 건설에 필요한 설비를 제때에 생산하여 보내주어야 할것입니다.

강철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야금기지건설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지금 있는 철광산들을 확장하며 새로운 철광산들을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쇠돌생산을 늘이지 않고서는 용광로를 아무리 많이 건설해도 소용없습니다. 빨리 늘어나는 쇠돌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금 있는 철광산들을 확장하며 새로운 철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산광산 확장공사를 적극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무산광산에는 품위높은 쇠돌이 무진장하게 매장되여있습니다. 제철소들에 원료를 제대로 대주는데서 기본고리는 무산광산을 빨리 확장하는데 있습니다. 무산광산 확장공사를 적극 다그쳐 그 생산능력을 올해에는 450만톤, 다음해에는 550만톤, 래명년에는 850만톤으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덕성광산 개발도 적극 다그쳐야 합니다. 서부지구에서 쇠돌자원을 아직 많이 개발하지 못한 조건에서 품위가 높은 쇠돌이 매장되여있는 덕성광산을 빨리 개발하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나섭니다.

서부지구에서도 지금 있는 철광산들을 더 개건확장하며 새로운 철광산들을 개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6개년계획의 전력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발전소건설에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발전소건설이 완만하게 진행되고있습니다. 기본건설부문에서는 북창화력발전소 제2계단공사, 서두수발전소 제2계단공사, 청천강화력발전소, 대동강발전소, 대보화력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빨리 완공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규모의 화학공업기지건설을 적극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농업생산을 늘이고 경공업의 원료기지를 확대하며 인민생

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기본건설부문에서는 하루빨리 새로운 대규모의 화학공업기지를 건설하여 우리 나라의 화학공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화학공장 건설에 큰 힘을 넣어 36만톤 능력의 뇨소비료공장, 1만톤 능력의 아닐론공장, 2만 5,000톤 능력의 폴리에릴렌공장을 비롯하여 대규모의 화학공장들을 빨리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화학공장 건설은 매우 방대한 건설입니다. 뇨소비료공장건설 하나만 놓고보아도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공장에서 생산될 36만톤의 뇨소비료를 류안비료로 환산하면 류안비료 76만톤에 맞먹습니다. 지금 흥남비료공장에서 한해에 100만톤의 비료를 생산하는데 이만한 생산능력을 마련하기까지는 10여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흥남비료공장에 못지않는 생산능력을 가진 뇨소비료공장을 한해동안에 건설하려고 합니다. 이 공장을 건설해야 6개년계획의 화학비료고지를 점령할수 있습니다.

청년화학공장을 건설하는것과 함께 남포지구에 합성고무공장, 3만톤 능력의 비날론공장, 5만톤 능력의 염화비닐공장과 이 공장들에 원료를 대줄만한 능력을 가진 카바이드공장 그리고 탄산소다공장, 가성소다공장 같은 현대적인 대화학공장들을 새로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세멘트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순천세멘트공장을 빨리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순천세멘트공장 제1계단공사를 끝내면 300만톤의 세멘트를 생산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500만톤의 세멘트를 생산하고있는데 새로 300만톤의 세멘트생산능력을 마련하면 6개년계획에 예견된 세멘트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기본건설부문에서는 순천세멘트공장 건설을 빨리 다그쳐 다음해안으로 300만톤의 세멘트생산능력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경공업공장들을 건설하는데도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막대한 자재와 자금을 들여 많은 경공업공장들을 건설하여놓고도 소소한 시설을 채 갖추지 못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는 공장들이 적지 않습니다.

9월방직공장은 수도공사와 같은 보조공사를 채 끝내지 못하여 완공하지 못하고있으며 사리원방직공장은 보이라, 변압기와 같은 부대시설을 채 갖추지 못하여 자기 능력을 다 내지 못하고있습니다. 만일 지난해에 9월방직공장 건설과 사리원방직공장 건설을 완공하여 생산을 정상화하였더라면 질좋은 천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였을것입니다.

9월방직공장 건설과 사리원방직공장 건설이 늦어지게 된것은 이 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여야 할 정무원 위원회와 부들에서 기관본위주의를 하며 국가적립장에서 책임적으로 일하지 않은데 주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이러한 현상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경공업부문일군들과 건설부문일군들은 지금 하고있는 경공업공장건설을 빨리 끝내여 경공업부문의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철도건설을 적극 다그치는것은 6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입니다. 철도운수부문일군들은 당이 내세운 철도건설방향에 따라 철도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늘어나는 화물수송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강계—혜산—무산사이의 철도 건설에 힘을 집중하여 빨리 완공하여야 하겠습니다.

강계—혜산—무산사이의 철도 건설을 빨리 끝내야 우리 나라 북부내륙지대의 동서부를 련결시켜 함경북도와 북부내륙 지대에서 많이 생산되는 강재, 석탄, 목재, 스프, 종이 같은 공업원료와 연료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원활히 보내줄수 있으며 일단 유사시에 전시수송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라진—평양사이의 철도는 해안선을 끼고있으므로 전쟁이 일어나면 제대로 리용하지 못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우리 나라의 동부지방과 서부지방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어느때든지 원만히 수송할수 있도록 강계—혜산—무산사이의 새 철도를 빨리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기본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중요건설대상들에 화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건설력량이 제한되여있는 조건에서 건설을 분산시켜서는 어느 하나도 제기한에 완공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건설에서 선후차를 옳게 정하고 중요건설대상들에 힘을 집중하여 섬멸전의 방법으로 건설을 다그침으로써 조업기일을 최대한으로 앞당겨야 합니다. 조업기일을 한시간이라도 앞당기면 그만큼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할수 있습니다.

기본건설부문에서는 건설을 집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강철고지, 전력고지, 세멘트고지, 화학비료고지, 천고지, 알곡고지, 수산물고지를 비롯한 6개년계획의 중요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중요건설대상들에 힘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장들에서 로력조직을 합리화하고 건설의 기계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 건설을 적극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앞에 나서는 방대한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기본건설전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내세운 방침에 따라 전당, 전국, 전민이 달라붙어 기본건설전선을 힘있게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를 계기로 기본건설전선에 대한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건설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건설전선에 대한 로력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당에서는 기관, 기업소들에서 찾아낸 많은 로력을 기본건설전선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동무들도 돌아가서 로력예비를 많이 찾아내여 기본건설전선에 보내주어야 하겠습니다.

기본건설전선에 자재와 설비도 집중적으로 대주어야 합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대상설비생산에 힘을 넣어 기본건설전선에서 요구하는 설비들을 제때에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장, 기업소들에 사장되여있는 설비와 자재들을 적극 동원하여 기본건설전선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지금 일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필요없는 설비와 자재들을 쌓아두고 다른 부문에 주지 않고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관본위주의와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교통운수부문에서는 수송조직을 합리화하여 기본건설전선에 자재와 설비들을 제때에 실어다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초를 다투어 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늦어도 다음해 상반년까지는 6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점령하는데 필요한 기본건설을 다 완공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6개년계획을 한해 앞당겨완수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채취공업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입니다.

우리 나라 공업에서 가장 약한 고리의 하나는 채취공업입니다. 지금 변압기와 전동기, 전선과 까벨선 같은것이 모자라 생산과 건설에서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있는데 그 원인을 따져보면 광산들에서 유색금속광물을 원만히 대주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쇠돌을 넉넉히 대주지 못하여 용광로에 만부하를 걸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제강소들에서 전극이 딸려 강철생산에 지장을 받는 때도 있습니다. 흑연이 많이 매장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전극같은것은 마땅히 다른 나라에 수출하여야 하겠으나 광산에서 흑연을 넉넉히 대주지 않아 전극이 딸릴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산의 첫공정인 채취공업이 앞서지 못하여 다른 공업부문들에서 생산을 더 많이 할수 있는것도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지금 일부 공장, 기업소들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기업관리운영을 잘하지 못하고있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도 채취공업이 앞서지 못하여 원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데 있습니다.

원료와 연료, 동력 생산을 앞세우는것은 공업에서 하나의 법칙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생산의 첫공정인 채취공업이 앞서나가야 다른 모든 공업부문들도 빨리 발전할수 있습니다. 제철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산광산을 비롯한 철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변압기와 전동기, 전선을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유색금속광물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채취공업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다른 부문들에서도 앙양을 일으킬수 있으며 채취공업이 확고히 앞서나가야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습니다. 채취공업을 앞세우는것은 6개년계획의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하여서뿐아니라 6개년계획을 수행하고 앞으로 새로운 전망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도 가장 절박한 문제입니다. 전당과 전국이 힘을 넣어 채취공업을 빨리 추켜세워야 하겠습니다.

채취공업을 빨리 추켜세우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에서 보수주의를 없애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아직도 채취공업부문일군들에게는 보수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가 적지 않게 남아있습니다. 채취공업부문일군들이 쩨쩨하고 통이 크지 못합니다.

지난날 일제놈들은 조선을 강점하고있는동안에 우리 나라의 자원을 더 많이 략탈해가기 위하여 반수공업적인 방법으로 품위높은 광석만 골라서 캐먹고 품위낮은 광석은 그냥 버렸습니다. 이것은 강도적인 자원략탈방법입니다.

우리는 일제놈들이 우리 나라의 자원을 략탈해갈때 쓰던 쩨쩨하고 반수공업적인 방법을 답습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품위가 높은 광석뿐아니라 품위가 낮은 광석까지 다 캐내야 하며 다량채굴하고 다량처리하는 방법으로 더 많은 광석을 생산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우리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며 효과있게 리용하는 견지에서 보나 나라를 만년대계로 꾸려나가는 견지에서 보나 옳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채취공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야 하며 광석을 다량채굴하고 다량처리하는 방법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광석을 다량채굴하고 다량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채취공업부문에서 설비를 대형화, 고속도화하고 운반을 다양화하여야 합니다. 압축기 같은것도 자그마한것이 아니라 큰것을 도입하여야 하며 고속도착암기와 고속도착정기, 대형굴착기와 대형불도젤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선광장도 능력이 작은 설비들을 여러대 놓아 자리만 많이 차지하게 하지 말고 능력이 큰 설비들을 놓아 작은 면적에서 선광능력을 몇배로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번 대회과정에 설비를 개조하여 지금 있는 선광장들의 능력을 배이상으로 높일수 있는 예비를 찾아낸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운반을 다양화하는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탄광, 광산들에서 운반을 빨리하기 위하여 벨트콘베아를 놓아야 할데는 벨트콘베아를 놓고 삭도를 놓아야 할데는 삭도를 놓으며 전차를 놓을데는 전차를 놓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지하자원이 매우 많습니다.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옳게 리용하면 우리 나라는 더욱 부강한 나라로 될수 있습니다. 만일 강철을 1,000만톤 생산하여 그가운데서 500만톤은 국내에서 쓰고 500만톤을 다른 나라에 팔면 5억파운드의 외화를 벌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만톤의 유색금속을 생산하면 인구 한사람당 유색금속생산량에서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100만톤의 유색금속을 그대로 팔아도 5억파운드의 외화를 얻을수 있으며 그것을 가공하여 축전지나 동선, 전동기 같은것을 만들어

팔면 그보다 몇십배 더 많은 외화를 얻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지하자원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더 많은 강철을 생산하여야 하며 유색금속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해서는 기계공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기술혁명은 곧 기계혁명입니다. 기계공업은 공업의 중심이며 심장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채취공업에서 설비를 현대화, 대형화, 고속도화하며 운반을 다양화하려고 하여도 기계공업부문에서 여러가지 현대적인 대형기계설비들을 많이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400～500마력엔진을 가지고 광산에서 쓸 25톤짜리 대형자동차도 만들수 있고 대형불도젤도 만들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고 달라붙으면 고속도착정기, 고속도착암기, 대형마광기 같은것들도 얼마든지 만들수 있습니다.

채취공업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대형기계설비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대형기계생산기지들을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지금 있는 대형기계생산기지를 확대강화하며 강선지구에 새로 대형기계생산기지를 하나 더 꾸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빨리 늘어나는 대상설비에 대한 수요를 기계공업부문에만 의존하여서는 원만히 보장할수 없습니다. 모든 공업부문에서 자기 부문에 요구되는 대형설비들을 자체로 만들어쓸수 있는 기계생산기지를 꾸려야 합니다.

례를 들어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압연설비 같은것을 자체로 만들어써야 합니다. 금속공업설비들은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것도 아니므로 금속공업부문에서 자체로 만들수 있습니다. 광업부문에서도 광산기계공장들을 가지고있는것만큼 그것을 더 잘 꾸려 대형채굴설비들을 자체로 만들도록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대량적으로 요구되는 기계제품들만 생산하도록 하고 채취공업이나 야금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부문 같은데서 요구되는 대상설비들은 해당부문에서 생산하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 기계공업부문에서 가지고있는 공작기계대수보다 다른 공업부문들에서 가지고있는 공작기계대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공작기계리용에서 아직 예비가 많습니다. 만일 모든 부문에서 지금 가지고있는 공작기계들을 바로 리용한다면 자기 부문에서 요구되는 기계설비들을 거의다 자체로 만들수 있을것입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직장장들이 돌아가면 자기 공장, 기업소에 있는 공작기계들을 바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작기계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여 공작기계들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불합리하게 배치되여있는것은 다시 배치하여 그 리용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형기계생산기지들을 새로 창설하며 이미 있는 대형기계공장들을 확장하기 위하여서는 대형공작기계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새로운 대형기계생산기지들을 꾸리는데 요구되는 설비들을 귀중한 외화를 들여 다른 나라에서 다 사올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군중적운동으로 대형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필요한 기계설비들을 자체로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959년에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벌린것과 같이 대형보링반, 대형선반, 대형타닝반과 같은 대형공작기계들을 새끼치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려야 하겠습니다.

만일 1959년에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벌리던 때와 같이 적극성과 창발성을 내여 대담하게 투쟁한다면 대형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을것입니다. 룡성기계공장에서는 벌써 10여년전에 8메터타닝반을 만들었으며 북중기계공장에서는 당 제5차대회를 계기로 10메터타닝반을 만들었는데 왜 오늘 다른 기계공장들에서는 15메터선반

이나 16메터타닝반 같은 대형공작기계들을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지난날 우리가 어려운 조건에서 안팎의 원쑤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면서 경제건설을 할 때에는 모두가 긴장하고 동원된 태세에서 적극적으로 투쟁하였으나 오늘 생활이 좀 넉넉해지니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자만하며 투쟁정신이 부족한 현상들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우리 조국 남반부는 아직 원쑤들에게 짓밟히고있습니다. 남반부에 둥지를 틀고있는 원쑤들은 우리와 판가리싸움을 하려고 날뛰고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미 거둔 성과에 자만하며 안일해이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 강한 힘을 키워 원쑤들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굳은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부문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대형공작기계들을 대담하게 만들어냄으로써 대형기계생산기지들을 더욱 튼튼히 꾸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산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물고기잡이는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부식물문제를 푸는데서 물고기생산을 늘이는것이 축산업을 발전시키는것보다 더 낫습니다.

우리가 여러곳에 큰 돼지공장들을 건설하였는데 여기에는 자금도 많이 들었으며 또 공장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고기생산원가도 높습니다. 우리 나라는 축산업의 력사가 짧기때문에 축산업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려면 아직도 얼마동안 시일이 걸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수산업은 력사가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쪽배라도 타고 물고기잡이를 하여왔기때문에 물고기잡이에서는 일정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 한사람이 하루에 물고기를 200～300그람씩 먹으면 고기 100그람을 먹는것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들의 부식물문제를 푸는 가장 빠른 길은 수산업을 발전시키는것입니다.

물고기생산을 빨리 늘이기 위하여서는 수산부문에서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물고기잡이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고기배들을 대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연해에는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명태가 들어와 한 40일씩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큰 배가 적기때문에 연해에 들어오는 명태를 많이 잡지 못하고있습니다. 자그마한 배를 가지고서는 바람이 세게 불거나 파도가 높을 때 바다에 나가지 못하여 명태철에 고기잡이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작은 배를 가지고서는 명태가 들어와있는 40여일가운데서 그 절반가량밖에 바다에 나가지 못합니다. 만일 큰 배가 많아서 40일동안 계속 바다에 나가 물고기잡이를 한다면 명태만 하여도 100만톤이상 잡을수 있습니다.

3,750톤짜리 배 같은 큰 배들이 있으면 먼바다에 나가서도 한 100만톤의 물고기를 쉽게 잡을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여느때보다 한달이나 앞당겨 먼바다고기잡이를 떠났는데 우리가 만든 3,750톤짜리 배에서 한 기망에 물고기를 40톤씩 잡고있습니다. 지금 가공모선을 미처 대주지못하여 물고기를 더 잡을수 있는것도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몇백명의 로동자를 가지고있는 수산사업소에서 한해동안에 2만 5,000톤의 물고기를 잡는데 3,750톤짜리 배 한척으로는 70명의 로력이 그만한 물고기를 잡을수 있습니다. 우리가 3,750톤짜리 배 100척만 가지고있으면 250만톤의 물고기를 잡을수 있습니다.

쪽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쪽배를 가지고서는 물고기를 많이 잡을수 없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결정적으로 고기배들을 대형화하여야 합니다.

고기배들을 대형화하기 위하여 3,750톤짜리 배를 많이 무어내며 물고기를 잡는족족 날라올수 있도록 5,000톤짜리, 1만톤짜리, 2만톤짜리 운반선들도 많이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큰 배를 많이 무어내기 위하여서는 여러가지 엔진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특히 2,500마력중속엔진을 많이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2,500마력중속엔진이 있어야 5,000톤짜리 배와 1만톤짜리 배를 만들수 있습니다. 2,500마력중속엔진은 내연기관차를 만드는데도 쓸수 있습니다. 지금 2,500마력중속엔진생산이 매우 완만하게 진행되고있는데 이 엔진 생산을 맡은 공장의 로동자들과 지도일군들은 분발하여 당앞에 다진 결의를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고기배들을 대형화하는것과 함께 큰 배를 붙일수 있도록 항구들을 개건확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미 건설하여놓은 랭동공장들도 바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몇해동안 투쟁하여 원산을 비롯한 큰 항구들에 1만톤이상의 능력을 가진 랭동공장들을 많이 건설하였으며 소비지에도 여러개의 랭동공장들을 건설하여놓았습니다. 우리가 랭동공장을 많이 건설하였기때문에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를 공급하고있습니다. 지난해에 잡은 물고기가 아직 한 6만톤이나 랭동창고에 저장되여있습니다. 랭동공장들을 건설하여 물고기를 저장해두고 사철 인민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를 공급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고기배들을 대형화한다고 하여 세소어업발전에 관심을 적게 돌려서는 안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바다를 낀곳에서는 바다를 뜯어먹고 산을 낀곳에서는 산을 뜯어먹고 살라고 하였습니다.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하여야 합니다. 바다를 낀 농촌들에서는 반농반어업을 널리 하며 자그마한 배를 가지고 세소어업을 적극 발전시켜야 합니다. 낚시질도 하고 양식사업도 잘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학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카바이드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원유를 사다가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것보다 자체로 생산하는 카바이드에 기초하여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원유를 가지고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면 더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아직 원유를 생산하지 못하고있는 조건에서 원유를 가지고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려면 다른 나라에서 숱한 원유를 사와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원유를 사오려면 운반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원유매장량이 그리 많지도 못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카바이드원료인 석회석과 무연탄이 무진장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카바이드를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그것을 원료로 하는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의 화학공업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습니다.

카바이드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카바이드공업부문에서도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지금 카바이드로들이 밀폐식으로 되여있지 않아 높은 열과 유해가스가 밖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바이드로들을 빨리 밀폐식으로 개조하여 로동자들을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에서 해방하며 카바이드생산을 훨씬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카바이드를 생산하는데는 전력이 많이 듭니다. 그러므로 카바이드생산부문에서는 될수록 전력을 적게 쓰면서 카바이드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카바이드공업을 발전시키려면 수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석탄을 때서 전기를 얻는것보다는 건설이 좀 힘들기는 하지만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영하는것

이 낮습니다. 그러므로 수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하는것이 좋습니다. 아직까지 전력생산비가 수력발전소만큼 적게 드는 발전소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수력발전소를 건설할수 있는 강들이 많습니다. 압록강, 독로강에도 발전소를 더 건설할수 있고 례성강, 청천강, 대동강에도 발전소를 많이 건설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때에 평안남도 순천군 백송리에 나가 종합대학 교원들과 학생들에게 대동강과 원산을 련결하는 운하를 건설할데 대한 문제를 연구할 과업을 주었습니다. 얼마전에 종합대학 교원들과 학생들이 대동강과 원산을 련결하는 대운하를 건설하고 그 갑문을 리용하여 전력을 생산할데 대한 설계를 만들어왔는데 거기에는 58만키로와트의 발전능력을 조성할것이 예견되여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매우 흥미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수력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수력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조수력을 리용하여 전력을 생산할데 대한 문제도 연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원자력발전소도 건설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으로 철도운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철도는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화물수송에서 철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철도운수를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철도전기화를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철도를 전기화하면 철도의 수송능력을 훨씬 높일수 있습니다. 철도전기화는 하기도 헐하고 돈도 적게 들며 철도의 문화성도 보장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동을 더 많이 생산하여 철도전기화를 적극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철도를 전기화하는것과 함께 철길을 중량레루로 바꾸고 중량화차를 많이 생산하며 구내선을 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철도전기화가 제대로 은을 나타낼수 있으며 견인중량을 몇배로 높일수 있습니다.

철도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새 철도를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철도전기화와 새 철도 건설을 다그쳐 수송의 긴장성을 풀고 빨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2.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에 대하여

얼마전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전원회의에서 10대경제건설전망목표를 내놓은것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앞날에 대한 휘황한 전망과 뚜렷한 투쟁목표를 가지고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보다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날에 대한 전망이 휘황찬란하고 투쟁목표가 뚜렷하여야 인민들이 그것을 하루빨리 앞당겨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싸울때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내놓았습니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는 일본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진정한 조선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할데 대한 문제,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싸울 혁명군대를 조직할데 대한 문제, 산업국유화와 토지개혁, 8시간로동제, 남녀평등권, 의무적인 면비교육을 비롯하여 제반 민주주의적

시책을 실시할데 대한 문제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은 일제를 때려부시면 인민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고 로동자는 공장의 주인으로, 농민은 땅의 주인으로 되며 로동자들은 8시간로동을 하고 청소년들은 무료로 민족교육을 받으며 녀자는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것을 확신하고 일제를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우리 인민들에게 래일에 대한 휘황한 전망과 확고한 투쟁목표를 제시하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할것입니다.

우리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내놓은것은 또한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의 의견을 많이 듣고 다음번 전망계획을 바로 세우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무들이 이번 대회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4년동안에 점령할수 있다고 토론하였는데 그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다음번 전망계획을 6개년계획으로 하겠는가, 5개년계획으로 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4개년계획으로 하겠는가 하는것은 동무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앞으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토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투쟁하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짧은 기간에 능히 달성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이 강철 1,200만톤고지인데 우리는 이 고지를 능히 점령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쇠돌이 무진장하며 지금 쇠돌생산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지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산광산의 정광생산능력을 1,000만톤으로 늘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철광산들의 생산능력을 늘이는것과 함께 새로운 철광산들도 많이 개발하려고 합니다. 최근 함경북도 김책지구를 비롯하여 여러곳에서 쇠돌매장지들이 발견되였는데 매장량이 많고 쇠돌의 품위도 높습니다. 우리가 광산개발에 필요한 대형설비들을 자체로 만드는것만큼 철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할수 있습니다.

쇠돌만 많으면 철을 얼마든지 생산할수 있습니다. 용광로, 소결로, 해탄로 같은것은 다 우리자체로 건설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500립방메터용광로를 건설한 경험이 있기때문에 2,000립방메터용광로도 건설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2,000립방메터용광로를 다음해부터 해마다 한기씩만 건설하여도 강철 1,200만톤고지를 1980년안으로 점령할수 있습니다.

제철공업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우리 나라의 연료를 가지고 철을 생산하는것입니다. 제철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은 콕스탄대신에 우리 나라 석탄을 쓰며 콕스탄을 쓰는 경우에도 우리 나라 석탄의 배합비률을 높여 콕스탄을 극력 절약하는 문제를 풀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의 제철공업을 안전한 토대우에서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습니다.

세멘트 2,000만톤고지도 능히 점령할수 있습니다. 지금 순천지구에 500만톤 능력을 가진 현대적인 세멘트공장을 건설하고있으며 앞으로 천내지구에 500만톤 능력의 현대적인 세멘트공장을 하나 더 건설하려고 합니다. 순천세멘트공장과 천내지구의 세멘트공장건설이 끝나면 이 두 공장에서만도 1,000만톤의 세멘트가 생산될것입니다. 이밖에 500만톤의 세멘트생산능력만 더 조성하면 지금 생산하고있는것까지 합하여 2,000만톤의 세멘트를 생산할수 있습니다.

강철 1,200만톤고지와 세멘트 2,000만톤고지뿐아니라 100만톤의 유색금속고지, 1억톤의 석탄고지, 5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고지, 500만톤의 기계가공품고지, 500만톤의 수산물고지, 500만톤의 화학비료고지, 10만정보의 간석지개간고지, 1,000만톤의 알곡고지도 다 점령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반드시 실현할수 있다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있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면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게 될것이며 우리 나라는 더욱 강유력한 나라로 될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면 남조선혁명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더욱 앞당기게 될것입니다. 10대경제건설목표가 실현되면 우리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더욱 힘있게 지원할수 있을것이며 남조선인민들은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의 사회주의건설성과에 고무되여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열렬한 동경심을 가지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릴것입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진보적인민들을 더욱 힘있게 고무할것입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총동원되여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다음해까지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하고 그다음부터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향하여 총진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가까운 몇해안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하겠습니다.

3. 공장, 기업소 직장장들의 임무에 대하여

직장장은 공장, 기업소의 생산단위책임자입니다. 큰 공장, 기업소의 직장은 하나의 공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장들의 책임이 무거우며 직장장들의 임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장들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산조직을 잘하는것입니다.

직장장들이 생산조직을 잘하여야 직장앞에 맡겨진 생산과제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습니다. 생산자들에게 있어서 생산과제는 곧 혁명과업입니다. 따라서 직장앞에 맡겨진 생산과제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생산조직을 잘하는것은 직장장들의 기본혁명과업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직장장들이 생산조직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며 설비, 자재와의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제2차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고 설비, 자재와의 사업을 잘하며 책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중심과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하라는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라는것이며 설비와의 사업을 하라는것은 설비들이 언제나 자기 능력을 다 낼수 있도록 설비관리를 잘하고 설비들을 더욱 현대적인것으로 개조하라는것이며 책과의 사업을 하라는것은 근로자들속에서 학습을 강화하여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장들은 사람과의 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작업반장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직장장은 군대의 중대장이나 소대장과 같다고 볼수 있고 작업반장은 군대의 분대장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직장장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하려면 작업반장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잘 교양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작업반장들이 사람과의 사업, 설비, 자재와의 사업, 책과의 사업을 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직장장들은 또한 로동자들이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잘 교양하여야 합니다.

로동규률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공장안에 규률이 없고 질서가 없으면 그런 공장은 사회주의적인 공장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로동규률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사상교양사업을 잘하여 모든 로동자들이 로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때리고 욕설하며 해고하는것과 같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로동자들을 일시키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그런 방법이 허용될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오직 로동자들의 자각성에 기초한 로동규률이 있을뿐입니다.

직장장들은 모든 로동자들이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그들을 잘 교양하여야 합니다. 특히 로동자들이 480분 로동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로동자들이 480분 로동시간을 1분1초도 어기지 않으며 로동시간에 다른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오직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한가지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힘과 재능을 다 바쳐 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의 오작품도 내지 않고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로동규률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직장장, 작업반장들이 로동조직을 잘하여야 합니다.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료해하여보면 로동규률이 바로 서지 못한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로동조직을 잘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직장장, 작업반장들은 매 로동자들에게 지식정도와 기능수준, 체질에 맞는 작업을 맡기고 작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하며 로동자들의 작업수행정형을 늘 검열하고 잘못되는것을 제때에 바로잡아주어야 합니다.

설비, 자재와의 사업은 직장장들이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생산설비들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며 전체 인민을 잘살게 하기 위한 중요한 밑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제관리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설비를 귀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직장장들은 설비관리에 힘을 넣어 설비들을 제때에 점검보수하도록 하는 한편 로동자들속에서 설비를 애호할데 대한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민군대군인들이 무기를 자기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듯이 모든 로동자들이 설비를 적극 아끼고 사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설비관리를 잘하는것과 함께 자재를 아껴쓰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합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쓰고있는 모든 자재가 다 우리 로동계급이 간고분투하여 생산한것입니다. 모든 직장, 작업반들에서 강재를 비롯한 자재를 극력 아껴쓰며 절삭밥 하나라도 그냥 버리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재절약투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장장들이 로동자들속에서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로동자들이 한토막의 강재를 놓고도 이것을 생산하기 위하여 야금공장로동자들이 쇠물을 녹이느라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는가, 광산로동자들이 쇠돌을 캐느라고 얼마나 많은 힘을 들였겠는가 하는것을 생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로동자들이 이런것을 생각한다면 강재를 망탕 랑비하지 않을것이며 절삭밥 같은것도 망탕 버리지 않을것입니다.

다음으로 직장장들은 공장과 직장을 문화적으로 꾸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번 말하였지만 공장안은 궁전과 같이 꾸리고 공장주변은 공원과 같이 꾸려야 합니다. 생산환경을 문화적으로 꾸려야 로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할수 있으며 좋은 제품을 만들수 있습니다.

직장장들은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옳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되기전까지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을 잘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일을 잘했다고 평가하여주고 일을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일을 잘못하였다고 공정하게 평가해주어야 합니다. 일을 잘한 사람에 대하여 일을 잘못하였다고 평가하거나 일을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일을 잘했다고 평가하면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릴수 있습니다.

직장장들은 작업반장들의 사업정형과 작업반들의 생산활동에 대한 평가를 바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직장장들이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말고 작업반에 내려가보아야 합니다. 직장장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생산통계나 보아가지고는 작업반들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로 할수 없습니다. 직장장들은 늘 생산현장에 내려가 로동자들과 같이 일하면서 작업반장들의 사업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직장장들이 자기 직장안의 모든 사업을 바로 평가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장장들은 로동자, 기술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힘써야 합니다. 직장장들은 로동자들과 기술자들 속에서 기술전습과 기술토론회를 정상적으로 조직운영하여 직장의 모든 성원들이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직장장들은 로동자들의 문화생활에 대하여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로동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일정한 시간 휴식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육체로동을 하는 로동자들은 정력을 많이 소모하기때문에 그것을 보충할수 있도록 충분히 휴식하여야 합니다. 직장장들은 로동자들의 문화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이 충분히 휴식할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로동자들이 휴식할 때에는 텔레비죤도 보고 소설도 읽으며 영화관람, 음악감상, 오락회 같은것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날 일부 일군들은 로동자들이 예술소조활동을 하면 생산은 하지 않고 춤만 춘다고 하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로동자들이 예술소조활동을 하는것이 생산에 지장이 된다고 하는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예술소조활동을 로동시간에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로동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로동자들이 문화생활도 하고 학습도 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로동자들이 8시간 일하고나서 학습과 문화생활을 충분히 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여있습니다. 원래 8시간 일하고 8시간 휴식하고 8시간 학습할데 대한 문제는 로동계급이 로동운동초기부터 들고나온 요구입니다. 로동자들에게 문화생활을 시키지 않고 강다짐으로 일만 시킨다면 그들이 발전할수도 없고 생활을 흥겹게 할수도 없습니다. 특히 젊은 로동자들은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춰야 흥이 나서 일을 더 잘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장들은 로동자들의 문화생활조직을 잘하여야 합니다.

직장장들은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직장장들은 로동자들의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쓰고사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적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직장장들은 로동자들의 침실에 온도가 제대로 보장되는가, 이부자리가 다 있는가, 로동자들이 잠을 제대로 자는가 하는데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야 합니다.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에 무관심한 직장장은 혁명적동지애가 없는 사람입니다. 혁명적동지애가 없는 사람은 혁명사업을 잘할수 없습니다. 직장장들은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이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직장장들은 직장의 모든 성원들이 정치생활을 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치생활에서 중요한것은 조직생활과 학습입니다. 근로자들속에서 조직생활과 학습을 강화하여야만 그들을 혁명화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원들은 당조직생활에, 근로단체맹원들은 근로단체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조직생활을 절대화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조직생활을 하는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장들은 자신이 조직생활에 모범적으로 참가할뿐아니라 자기 직장 사람들이 다 조직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조건을 지어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직장의 모든 성원들이 조직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하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기풍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수행에서 청년인테리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공장, 기업소들에 실습나가있는 청년인테리들은 지난 기간 적지 않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보적인 성과에 지나지 않으며 당에서 준 과업을 수행하려면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청년인테리들은 절대로 낡은 사상에 오염되지 말고 계속 높은 혁명성을 견지하여야 하며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특히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모든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온 사회를 혁명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인테리들은 당의 명령과 지시를 흥정하거나 되는대로 집행하는 현상, 로력을 랑비하는 현상, 보수주의와 소극성, 무책임성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로동계급의 혁명적열의는 매우 높습니다. 전국의 로동계급이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대건설투쟁에 일떠섰습니다. 문제는 로동계급의 이 앙양된 혁명적열의를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부서들과 정무원을 비롯한 국가, 경제기관들에서는 로동계급이 자기의 높은 혁명적열의를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도록 조직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이 대회에 참가한 모든 동무들과 우리 나라의 전체 로동계급이 이번 대회의 정신에 따라 사업을 더 잘하며 전체 당원들에게 보낸 당중앙위원회의 붉은 편지에서 지적한대로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1년 앞당겨점령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할것을 바랍니다.

캄보쟈인민이 멀지 않아 캄보쟈령토를 완전히 해방하는 위대한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한다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부인을 환영하여 베푼 연회에서 한 연설 1974년 4월 12일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존경하는 캄보쟈의 손님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장 친근한 전우이시며 형제이시며 벗이신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을 비롯한 캄보쟈의 손님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이처럼 자리를

같이하게 된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형제적친선의 정 넘치는 이 자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캄보쟈국가원수이시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이신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그리고 친왕과 같이 온 캄보쟈의 손님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또한 이 기회에 국가원수친왕의 어머니이신 시소와트 코사마크왕후페하께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며칠전에 탄생 일흔돐을 맞이하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이번에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께서 다시금 우리 나라를 찾아주신것은 우리에 대한 각별한 형제적친근감에서 나온것이며 우리는 이에 매우 감동되고있습니다.

국가원수친왕의 이 방문은 오늘 우리들사이의 형제적우정과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투적친선단결이 얼마나 깊고 공고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캄보쟈에서의 정세발전이 그 어느때보다도 캄보쟈인민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는 때에 친왕을 다시 맞이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로 얼마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및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대표단과의 상봉을 통하여서도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위원장으로 하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기치밑에 굳게 뭉쳐 반미구국투쟁에서 승승장구하고있는 캄보쟈인민이 멀지 않아 반드시 캄보쟈 전령토를 완전히 해방하는 위대한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할수 있었습니다.

오늘 캄보쟈에서 미제침략자들은 헤여날수 없는 패배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갔으며 그 앞잡이 론 놀매국도당의 운명은 끝장에 다달았습니다.

친왕께서는 그동안에도 정력적이고 다방면적인 국가활동을 통하여 캄보쟈민족통일전선과 왕국민족련합정부의 국제적위신을 비상히 높이고 캄보쟈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승리에로 고무하는데서 커다란 공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친왕께서는 력사적인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 참가하시여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가 캄보쟈의 유일한 합법적정부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당당히 시위하시였습니다.

친왕께서는 얼마전에 웰남민주공화국을 다시 방문하고 또한 라오스해방지역을 방문하심으로써 캄보쟈, 웰남, 라오스 세 나라 인민들의 확고한 전투적 친선과 단결을 더욱 굳게 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고 자주적인 캄보쟈인민의 존엄과 영예를 위하여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함없이 용감히 싸워나아가는 국가원수친왕의 강의한 의지와 불굴의 투쟁을 높이 평가하며 이 투쟁에서 이룩되고있는 훌륭한 성과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국가원수친왕께서는 또한 국제무대에서 언제나 우리 조선을 잊지 않으시고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위업을 지지하여 적극 활동하시였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가원수친왕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전쟁도발책동과 민족분렬영구화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커다란 난관이 가로놓여있으나 전반적정세는 계속 우리에게 유리하게, 적들에게는 불리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은 저들이 처한 파국적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반공》소동을 요란하게 벌리면서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더욱 강화하고있으며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고의적으로 격화시키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질없는 일이며 그들은 이로부터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을것입니다.

요즘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가 우리 공화국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사실이 잘 보여주는바와 같이 우리는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하여 언제나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미국이 조선정전협정조인일방으로서 조선문제의 평화적조정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마땅히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발기를 받아들여야 할것입니다.

만일 미국이 우리 공화국과 직접 담판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의 내정에 대한 모든 간섭을 그만두며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대를 철수함으로써 조선사람끼리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면 될것입니다.

미국정부가 이것도 저것도 다 반대하고 지금과 같은 길로 계속 나간다면 그들에게는 오직 더 큰 패배만이 차례질것입니다.

평화적조국통일의 민족적숙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우리 당의 로선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대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으며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반파쑈민주화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서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세계 평화애호나라들과 인민들의 날로 커가는 지지성원밑에 반드시 조국의 평화통일위업을 성취하고야말것입니다.

동지들과 벗들!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과 캄보쟈 그리고 아세아의 여러곳에서 얻어맞고 녹아났으며 날로 궁지에 빠져들어가고있는것은 아세아나라들에 대한 그들의 직접적무력침략도, 앞잡이들을 리용한 신식민주의적침략책동도 모두 실패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오늘 아세아의 전반적지역에서 자주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더 높아가고있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은 멀지 않아 이 지역에서 완전히 쫓겨나고야말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뿐아니라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의 멸망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가장 친근한 벗이신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일행을 다시 맞이하여 화기에 넘치는 이 자리에서 캄보쟈인민의 반미구국투쟁에서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사이의 영원한 전투적친선단결을 위하여,

아세아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캄보쟈의 귀한 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우리는 캄보쟈인민과 같은 견실하고 믿음직한 전우와 어깨겯고 미제를 반대하는 공동 투쟁을 진행하는것을 대단히 보람 있는 일로 여기고있다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차린 연회에서 한 연설 1974년 4월 21일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존경하는 캄보쟈의 손님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나는 오늘 우리의 형제이시며 전우이시며 가장 친근한 벗이신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 우리 나라 방문을 끝내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우리를 이 연회에 초청하여주었으며 방금 이 자리에서 훌륭하고 감동적인 말씀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쟈국가원수이시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이신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과 캄보쟈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맺어진 위대한 친선단결의 힘있는 시위로 되였습니다.

국가원수친왕은 조선—캄보쟈친선의 길을 개척한 선구자이십니다.

친왕께서 우리 나라를 찾아주실 때마다 우리들사이에 존재하는 각별한 우정과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형제적친선의 정은 더욱 두터워지고있습니다.

오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이름은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깊이 간직된 가장 친근한 이름으로 되고있으며 조선—캄보쟈친선의 개화발전을 위한 위업에서 쌓아올리신 친왕의 공적은 크게 빛나고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은 날로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한전선에서 싸우는 나라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있습니다.

친왕께서는 자기의 대내외활동의 가능한 모든 기회에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적극 지지하여주고있으며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이룩하고있는 성과를 제3세계인민들의 공동의 승리로서 높이 평가하여주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우리의 원쑤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으로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혁명적의리로 굳게 맺어진 친왕과의 형제적관계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있으며 캄보쟈인민과 같은 견실하고 믿음직한 전우와 어깨겯고 미제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진행하는것을 대단히 보람있는 일로 여기고있습니다.

우리는 친왕께서 미제의 어떠한 군사적간섭이나 《평화》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어떠한 음모책동도 단호히 물리치고 신성한 조국땅을 완전히 해방할 때까지 완강히 싸워나가려는 확고한 원칙적립장을 견지하고있는데 대하여 탄복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국가원수친왕의 일관하고 공명정대한 립장과 캄보쟈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계속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해방과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각국 인민들이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는것은 승리의 확고한 담보로 됩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는 원료 및 개발 문제에 관한 유엔총회특별회의에서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이 제국주의렬강의 경제적 침략과 략탈에 단합된 힘으로 대항해 나서고있습니다.

이것은 제3세계인민들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력사무대에 주인으로 등장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또하나의 뚜렷한 실례로 됩니다.

우리는 국제경제관계에서 착취와 략탈의 낡은 제도를 없애고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제3세계인민들의 편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어제날 압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때 제국주의는 종국적으로 매장될것이며 착취없고 압박없는 새 세계는 실현될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애국적캄보쟈인민을 포함한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인류해방의 공동위업을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워나갈것입니다.

존경하는 캄보쟈의 손님여러분!

우리는 이번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이 비록 짧은 기간이였으나 훌륭한 결실을 가져온데 대하여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다시 헤여지게 되지만 우리들사이에 굳게 맺어진 형제적친선의 정은 결코 멀어지지 않을것이며 그것은 공동의 투쟁을 통하여 날로 더욱 깊어지게 될것입니다.

나는 국가원수친왕을 위원장으로 하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기치밑에 굳게 뭉친 형제적캄보쟈인민이 반미구국투쟁에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다시금 표명하면서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사이의 영원한 전투적친선단결을 위하여,

존귀하신 친왕의 어머니이신 시소와트 코사마크왕후폐하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캄보쟈의 손님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수단정부기관지 《알 싸하파》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4년 4월 25일

나는 먼저 당신이 《알 싸하파》지를 통하여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널리 소개하며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길에 나선 첫시기부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있었는가 하는데 대하여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일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짓밟힌 우리 인민의 비참한 처지를 목격하였으며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설음을 뼈에 사무치도록 체험하였습니다.

조선을 강점한 일본제국주의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야수적이고 횡포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제침략자들은 우리 나라의 재부를 강도적으로 략탈해갔으며 우리 인민의 피땀을 악착스럽게 짜내였습니다. 일제침략자들은 우리 인민의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고 자유와 해방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류혈적으로 탄압하였습니다. 일제침략자들의 야수적만행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수많은 애국적인민들이 학살당하였으며 온 나라가 피바다에 잠기였습니다.

우리는 강도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의 귀축같은 만행과 나라를 빼앗기고 천대와 멸시속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겨레의 참상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어코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으며 인민들을 도탄속에서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투쟁의 길에 나섰습니다.

물론 우리는 발톱까지 무장한 간악한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쉽게 때려부실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움의 길에 나선 첫날부터 반드시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있다는 굳은 신심을 가지고있었습니다.

우리는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우리의 혁명위업이 정당하기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인류력사는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피압박인민대중의 정의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략자와 압제자들이 멸망하고 인민대중이 승리하는것은 력사발전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투쟁의 길에 나선 첫날부터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따라서 조선인민은 오직 자체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야 하며 또 개척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고있었습니다. 인민대중이 혁명적으로 각성되고 굳게 뭉치면 참말로 큰 힘을 낼수 있으며 아무리 불리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능히 자체의 힘으로 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수 있다는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신조였습니다.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은 말할수 없이 간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을 가지고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종교인, 상공인 할것없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튼튼히 묶어세워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마침내 일제를 때려부시고 민족적해방을 이룩할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력사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식민지적후과를 청산하고 전쟁의 페허우에서 나라의 모든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수 있는 경제토대를 마련할수 있었는가 하는데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이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경제는 식민지적편파성을 가진 예속적이고 매우 뒤떨어진 경제였으며 그것마저 3년동안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되고말았습니다.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높은 창조적열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3년 남짓한동안에 전후인민경제복구사업을 성과적으로 끝내였으며 계속 줄기찬 투쟁을 벌려 14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오늘 인민들의 생활과 나라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갈수 있는 위력한 중공업과 현대적경공업,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이 위대한 승리는 전체 인민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당이 내놓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한 결과에 이루어진것입니다.

현대기술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있었던 우리 나라에서 자체의 힘으로 갖출것을 다 갖추고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는 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더우기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있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전쟁도발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우리 인민앞에는 헤아릴수 없이 많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은 오직 자신이 개척하여야 한다는 혁명적각오를 가지고 새 생활 창조의 어렵고 험난한 길을 용감히 개척하여나갔으며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성과적으로 쌓아올렸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습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없으면 자기의 힘을 믿지 않게 되고 자기 나라의 내부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나라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없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원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력갱생을 위주로 하여 투쟁하여야만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반대하고 자체의 힘과 자기 나라의 자원으로 부강한 조국을 건설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그 관철에로 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습니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직접적담당자입니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결국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어떻게 동원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적극 발양시킴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위대한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혁명과 건설이 난관과 시련에 부닥쳤을 때에도 당은 인민대중을 믿고 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그것을 극복하여나갔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인민대중에 의거하며 광범한 대중을 발동시키는 방법이야말로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며 바로 여기에 경제건설을 매우 빠른 속도로 밀고나갈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두개 조선》으로 유엔에 들어가는것을 반대하는 리유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당신도 아는바와 같이 미제와 그 추종자들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두개 조선》 유엔동시가입안을 내놓았습니다. 《두개 조선》 유엔동시가입안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이전부터 추진시켜오던 《두개 조선》 정책의 산물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여 전조선을 먹어보려던 야망을 실현할수 없게 되자 우리 나라를 영원히 둘로 갈라놓고 남조선만이라도 계속 침략적군사기지로, 상품판매시장으로 그러쥐고있으려는 목적에서 《두개 조선》 정책을 들고나왔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는 군사파쑈 《정권》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기 위하여 미제의 《두개 조선》 정책에 적극 추종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 유엔동시가입안을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만일 나라가 분렬된 상태에서 북과 남이 따로따로 유엔에 들어간다면 우리 나라는 영원히 둘로 갈라지게 될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의사와 념원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영구분렬은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줄것이며 우리 민족의 장래발전에도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게 될것입니다.

력사적으로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인민은 민족의 분렬을 바라지 않으며 오직 통일만을 원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조국의 통일을

반대하고 분렬을 바라는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남조선의 몇몇 당국자들과 지주, 매판자본가들뿐입니다.

우리는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첫날부터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왔습니다. 우리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분렬책동이 더욱 로골화되던 지난해에 북과 남이 따로따로 유엔에 들어가서는 안되며 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지기전에 유엔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련방제라도 실현된 다음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들어가야 한다는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성의있는 노력과 하나의 국가로 유엔에 들어갈데 대한 우리의 방침은 전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있습니다. 지난해 유엔총회는 우리가 내놓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수단을 포함한 세계 많은 나라 대표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미제의 어용기구이며 내정간섭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즉시 해체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추진하여오던 《두개 조선》 유엔가입책동을 여지없이 저지파탄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종일관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이 전적으로 정당하다는것을 다시한번 뚜렷이 실증하여주었습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얼마전에 있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또하나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우리는 최고인민회의의 이름으로 미국국회에 보낸 편지에서 쌍방은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미국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통일을 방해하지 않으며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군을 철거시키며 미군이 철거한 다음 우리 나라는 그 어떤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을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평화협정을 미국과 맺을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회담할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북과 남사이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가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이 필요합니다. 공화국정부는 지난 기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왔으며 남조선당국자들과 대화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가 내놓은 정당한 제안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도리여 미제를 등에 업고 전쟁준비와 분렬책동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제반 사실은 남조선당국자들에게는 평화협정체결문제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조선정전협정조인당사자이며 평화협정을 담보할수 있는 실권자인 미국과 직접 토의하는것이 가장 적절한 조치로 된다고 인정하고있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가 취한 정당한 조치는 세계 많은 나라들과 진보적인민들속에서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당국은 아직도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있습니다. 만일 미국당국이 이번에 우리의 정당한 제안을 끝내 거부하여나선다면 그들은 세계인민들앞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파렴치한 침략자이며 평화의 악독한 원쑤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주게 될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사회주의나라들과 제3세계나라들을 비롯한 전세계진보적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며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꾸준히 투쟁하여나갈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수단정부와 수단인민이 우리 당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중근동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우리의 립장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중근동문제는 유태복고주의자들을 사촉하여 아랍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운동을 교살하고 이 지역을 저들의 예속밑에 넣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의하여 생겨났습니다. 중근동문제가 오늘까지 해결되지 못하고있고 이 지역에서 여러차례의 전쟁이 일어난것도 전적으로 유태복고주의자들과 그를 조종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파렴치한 침략책동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이 중근동에서의 평화를 위한 《조정자》처럼 행동하는것은 자기들의 침략의 검은 속심을 가리우며 이 지역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는 책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근동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려면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대한 미제와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종식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침략자들이 강점한 아랍땅에서 완전히 물러가야 하며 팔레스티나인민의 합법적권리가 회복되여야 합니다. 이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땅을 계속 강점하고있고 팔레스티나인민의 합법적권리가 회복되지 않는 한 중근동문제는 공정하게 해결될수 없으며 이 지역에서 공고한 평화가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근동문제는 어디까지나 아랍인민들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그리고 그들의 해방위업에 리롭게 해결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중근동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든지 그것이 아랍인민들의 요구에 맞는것이라면 적극 지지할것입니다.

오늘 아랍인민들은 이스라엘침략자들과 그들을 부추기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아랍인민들이 벌리고있는 반제, 반이스라엘 투쟁은 민족적독립과 존엄을 수호하며 강점당한 아랍땅을 되찾으며 팔레스티나인민의 해방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입니다. 아랍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은 전세계인민들의 지지와 동정을 받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유태복고주의와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는 전체 아랍인민의 용감한 투쟁을 견결히 지지할것이며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아랍인민의 친근한 전우로 남아있을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세아의 오늘의 형편과 미래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은 수세기동안 아세아에서 인민들을 착취하고 부원을 략탈하였으며 이 지역 인민들에게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아세아는 제국주의자들의 무제한한 략탈과 억압의 대상으로 되여있던 어제날의 아세아가 아닙니다.

오늘 아세아인민들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반제자주의 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습니다. 아세아의 절대다수 나라 인민들이 이미 민족적독립을 쟁취하였으며 많은 인민들이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고 완전한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있습니다.

아세아에서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력량이 날을 따라 장성강화되고있는 반면에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은 전면적으로 파탄되고있습니다.

모든 사실은 아세아의 정세가 인민들에게는 유리하게, 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는 불리하게 발전하고있으며 아세아의 주인은 아세아인민들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 대한 침략정책의 파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고 아세아에서 물러갈 대신 궁지에 빠진 자기들의 운명을 건져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교활한 량면전술에 매달려 전쟁책동과 회유기만책동을 강화하면서 《닉슨주의》

에 따라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침략적야망을 실현해보려 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비롯한 반동들과 괴뢰들을 부추겨 자기들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하며 무너져가는 식민지지배체계를 유지해보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미제에 의하여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오늘 미제의 아세아전략에 편승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으며 미제의 아세아괴뢰들도 상전의 옷자락에 매달려 멸망의 운명에서 벗어나보려고 발악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는 아세아에서 평화와 안전을 유린하고 이 지역 나라들의 자주적발전을 저애하는 기본장애물이며 아세아인민들의 첫째가는 공동의 원쑤입니다.

아세아의 번영하는 미래는 미제국주의자들을 아세아에서 완전히 몰아내며 아세아나라들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저지시킴으로써만 실현될수 있습니다.

오랜 력사적체험을 통하여 오직 자신의 투쟁으로써만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침략과 간섭 책동을 물리치고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아세아인민들은 반제반미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아세아의 모든곳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드시 쫓아내고야말것입니다.

아세아에는 혁명하는 나라, 싸우는 나라들이 많으며 아세아인민들의 반제혁명의식은 매우 높습니다. 오늘 아세아에서는 더욱더 많은 나라 인민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하나의 공동전선에 굳게 결속되고있습니다. 아세아인민들은 그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정당한 투쟁으로 아세아의 모든 문제를 아세아인민들에게 리롭게 해결해나갈것이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를 건설할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선과 수단사이의 관계문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조선과 수단은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으나 두 나라 인민은 매우 친선적이며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은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는 친근한 전우이며 형제입니다.

우리 인민과 수단인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수단에서 5월혁명이 수행된 다음 더욱 강화발전되였습니다. 특히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은 반제투쟁의 공동전선에서 맺어진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습니다. 이 방문을 계기로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인민은 니메리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을 때 남겨놓은 좋은 인상을 잊지 않고있습니다.

우리 인민과 수단인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수단민주주의공화국 정부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끊임없이 확대발전되고있으며 우리 당과 수단사회주의동맹사이의 련계도 강화되고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은 다같이 지난날 제국주의침략자들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왔고 오늘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인민이기때문에 서로 잘 리해하고있으며 긴밀히 협조하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조선과 수단 두 나라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여기고있으며 앞으로도 수단인민과의 단결과 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서로 배우고 지지협조하는것은 우리 정부와 인민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입니다.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의 온갖 파괴책동을 반대하며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언제나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니메리대통령의 옳바른 령도밑에 제국주의자들의 파괴암해책동을 용감히 짓부시고 5월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키며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고 나

라의 자주적발전과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는 수단인민의 투쟁에서 더욱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3세계나라 인민들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으로서 인류력사를 전진시키는 커다란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세네갈공화국 레오뽈드 쎄다르 쎙고르대통령과 부인을 환영하여
배푼 연회에서 한 연설 1974년 5월 13일

존경하는 레오뽈드 쎄다르 쎙고르대통령각하와 부인!

존경하는 세네갈의 손님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머나먼 아프리카에서 오신 세네갈공화국 대통령 레오뽈드 쎄다르 쎙고르각하를 비롯한 세네갈의 손님들과 이처럼 자리를 같이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아프리카의 저명한 정치활동가이며 우리의 친근한 벗인 쎙고르대통령각하와 그 일행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리는 또한 당신들을 통하여 친선적인 세네갈인민에게 조선인민의 뜨거운 인사를 보내는바입니다.

이번 쎙고르대통령각하의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서 조선인민과 아프리카인민들사이의 친선과 련대성이 날을 따라 확대강화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압박밑에서 착취와 천대를 받아온 공통된 과거를 가지고있으며 오늘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새 생활을 창조하려는 공통된 투쟁목적을 가지고있습니다.

어제날 식민지대륙으로 불리우던 아프리카는 오늘 자유와 해방의 광명으로 빛나는 새로운 대륙으로 전변되고있으며 아세아, 라틴아메리카와 더불어 제3세계의 힘있는 존재로 되고있습니다.

조선과 세네갈은 다같이 아세아, 아프리카의 신흥세력에 속하는 나라들입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지향을 안고 함께 싸워나가고있습니다.

세네갈인민은 자기의 탁월한 지도자 쎙고르대통령각하의 령도밑에 나라의 독립을 이룩한 다음 경제의 《세네갈화》를 추진시키면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고있습니다.

세네갈공화국은 대외관계분야에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며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으며 여러 나라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성의껏 지지성원하

고있습니다.

우리는 세네갈인민이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고있는 모든 성과를 진심으로 기뻐하며 세네갈인민의 앞으로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열렬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프리카에서는 자유와 독립을 위한 아프리카해방투사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피어린 투쟁에 의하여 식민주의의 마지막생명선이 끊어져나가고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쓸어버리며 이 지역 인민들의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아프리카통일기구는 커다란 역할을 놀고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나라의 완전해방을 위한 기네(비싸우)인민들의 투쟁과 앙골라, 모잠비끄, 짐바브웨, 나미비아, 아자니아 인민들의 용감한 해방투쟁 그리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아프리카의 모든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오늘 제국주의가 망하고 인민들이 해방과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그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세계적조류로 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칠성판에 오른 자기들의 운명을 구원하여보려고 발악하고있으나 이것은 스스로 멸망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뿐입니다.

아세아에서도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과 인도지나인민을 반대하는 야만적인 식민지전쟁을 감행하여왔으나 여기에서 그들이 얻은것은 오직 수치스러운 패배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미제는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며 남조선에서 저들의 식민지지배체계를 유지해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면서 남조선당국자들을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극악한 파쑈적폭압에로 내몰고있지만 그것 역시 그들의 파멸을 촉진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함으로써 공화국북반부를 불패의 반제혁명기지로 전변시킨 빛나는 성과에 기초하여 오늘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일찌기 없었던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고있으며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습니다.

이번 레오뽈드 세다르 쎙고르대통령각하의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지지로 됩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세네갈공화국 정부와 인민이 유엔과 국제무대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합니다.

오늘 제3세계나라 인민들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으로서 인류력사를 전진시키는 커다란 추동력으로 되고있습니다.

세계인구의 압도적다수와 광활한 령토와 무진장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는 제3세계인민들의 전투적단결과 긴밀한 뉴대는 세계의 반제혁명력량을 비상히 강화하고 제국주의의 전반적위기를 격화시키며 그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짓부셔버리는 불패의 힘으로 됩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크고작은 모든 나라 인민들은 실생활을 통하여 이미 쟁취한 정치적독립을 튼튼히 하고 락후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상과 리념, 신앙과 제도의 차이를 불문하고 굳게 뭉쳐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면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진리를 체험하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마치도 저들의 원조없이는 제3세계가 살아갈수 없는것처럼 떠벌이고있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로 그들자신이 제3세계의 자원에 의거하지 않고는 살아갈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의 운명을 가지고 흥정하며 좌지우지할수 있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늘 제3세계나라 인민들은 정치적자주권을 수호할뿐아니라 경제적자립을 위하여 제국주의독점체들의 경제적지반을 허물어버리고 자기 나라의 자연부원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고있으며 이 투쟁에서 커다란 승리를 거두고있습니다.

제3세계인민들이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면서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자기의 풍부한 자원을 되찾고 그것을 개발리용한다면 부강하고 끊임없이 륭성발전하는 새 아세아, 새 아프리카, 새 라틴아메리카를 더 빨리 더잘 건설할수 있을것입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은 과거의 처지도 같고 오늘의 투쟁목적도 같기때문에 서로 깊이 리해하고 동정하며 참으로 평등하고 호혜적인 원칙에서 긴밀히 협조하여나갈수 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앞으로 제3세계인민들과 굳게 손잡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자들의 온갖 침략과 간섭 책동을 반대하여 공동의 투쟁을 벌려나갈것이며 그들의 혁명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조선인민과 세네갈인민은 공동의 위업을 통하여 긴밀한 친선의 뉴대를 맺었으며 이 친선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개화발전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아프리카대륙에 친선적인 세네갈인민과 같은 자기의 친우를 가지고있는것을 커다란 기쁨으로 여기고있습니다.

우리는 셍고르대통령각하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이 훌륭한 결실을 가져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끝으로 세네갈손님여러분들이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동안 자기 집에서와 같이 즐겁고 유익한 나날을 보내게 될것을 충심으로 축원하면서

조선인민과 세네갈인민사이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레오뽈드 세다르 셍고르대통령각하와 그 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세네갈의 손님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우리의 공통된 립장과 호상협조는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부합될뿐아니라 제3세계인민들의 공동의 리익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

세네갈공화국 레오뽈드 세다르 셍고르대통령과 부인이 차린 연회에서 한 연설 1974년 5월 15일

존경하는 레오뽈드 세다르 셍고르대통령각하와 부인!

존경하는 세네갈공화국의 손님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나는 오늘 세네갈인민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우리의 친근한 벗인 레오뽈드 세다르 셍고르대통령각하께서 우리 나라 방문을 끝내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이처럼 성대한 연회를 차

리고 우리를 친절히 초대하여주었으며 방금 이 자리에서 훌륭한 말씀을 하여준데 대하여 충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 레오뽈드 쎄다르 쎈고르대통령각하와 그 일행의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들사이의 호상 리해와 신뢰를 더욱 두터이하고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습니다.

이것은 조선과 세네갈 두 나라 인민의 친선의 력사에 새 페지를 열어놓았을뿐아니라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멍에에서 벗어나 새 생활 창조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제3세계나라 인민들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르는곳마다에서 오래 헤여졌던 친형제를 만나는것과 같은 기쁨과 흥분된 심정으로 당신들을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이 두터운 친선의 뉴대로 밀접히 련결되여있는 참다운 벗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입니다.

당신들은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동안 우리 인민이 대통령각하에 대하여 얼마나 높은 존경심을 품고있으며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손잡고나아가는 세네갈인민에 대하여 얼마나 뜨거운 우정을 품고있는가 하는것을 몸소 느끼게 되였을것입니다.

당신들은 우리 근로자들과의 뜻깊은 상봉과정에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세네갈인민의 열렬한 형제적친선의 정을 전하여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높이 평가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위업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앞으로 혁명과 건설을 더잘 할데 대한 고무와 격려로 인정하고있으며 당신들의 성의있는 지지와 성원에 대하여 감사히 여기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상봉에서 조선인민과 세네갈인민사이에 존재하는 많은 공통성에 대하여 더 깊은 리해를 가지게 되였으며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세네갈인민의 투쟁과 륭성발전하는 세네갈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더잘 알게 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사이에 친선적이며 호상리해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회담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그밖의 호상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발표될 두 나라 사이의 공동콤뮤니께와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무역협정, 문화협정에 명백히 반영되여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의 이러한 공통된 립장과 호상 협조는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될뿐아니라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제3세계인민들의 공동의 리익에도 전적으로 부합됩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조선인민과 세네갈인민의 친선과 단결을 달가워하지 않고 제3세계인민들의 단합된 힘을 두려워하면서 이 신흥세력의 단결을 파괴하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으로써도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새 생활 건설에 일떠선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과 단결을 깨뜨릴수 없으며 제3세계인민들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을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세네갈정부와 친선적인 세네갈인민이 대통령각하의 령도밑에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번영하는 세네갈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존경하는 세네갈손님여러분!

우리는 들끓는 친선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이 가져온 모든

훌륭한 결과에 대하여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뜻깊은 방문을 계기로 하여 우리 두 나라 사이에는 호상 래왕과 접촉이 빈번해지고 친선협조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전면적으로 강화발전될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서로 지지협조하고 유무상통하면서 제3세계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우리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갈것입니다.

나는 끝으로 손님여러분들이 조국에 돌아가면 세네갈인민에게 보내는 우리 인민의 형제적인사를 전하여주기 바라면서

세네갈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조선인민과 세네갈인민사이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제3세계인민들의 단결과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레오뽈드 쎄다르 쎙고르대통령각하와 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세네갈손님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뻬루 《엑쓰뻬레쏘》신문주필부부와 한 담화

1974년 6월 2일

나는 오늘 먼 뻬루에서 온 손님들을 만나게 된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당신들이 참관을 통하여 느꼈겠지만 우리 나라는 지금 한창 건설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건설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우리가 건설하는데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는가 하는감도 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나라에서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나는것을 보고 가장 큰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돈을 많이 쓰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예산의 많은 부분을 어린이들을 키우며 공부시키는데 돌리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탁아소, 유치원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350만명이나 되며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450만명이상이나 됩니다. 탁아소, 유치원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각급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다 합하면 800만명이상입니다.

우리 나라 북반부의 인구가 약 1,500만명인데 탁아소, 유치원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800만명이상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국가비용으로 키우며 공부시키다보니 부담이 좀 많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같이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린이들을 국가비용으로 키우며 공부시키는것이 지금은 좀 부담으로 되지만 장래를 위하여서는 좋은 일입니다. 지금은 좀 힘들지만 앞으로는 행복할것입니다. 학생들을 공부시키면 장차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을 높이 평가하여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당신들뿐아니라 아프리카와 중근동 나라들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수반들과 당대표단들도 우리 나라에 와서 제일 많이 느끼는것이 우리의 교육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본주의나라인 일본에서 오는 사회당이나 자민당 사람들도 우리의 교육정책을 지지합니다.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 성원들도 우리 나라에 와서 우리가 탁아소, 유치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고등전문학교, 대학을 비롯한 각급 교육기관들에서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국가비용으로 키우며 공부시키는것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학생들뿐아니라 정무원 부장들을 비롯하여 간부들도 다 학습합니다. 간부들까지 합치면 우리 나라에서 공부하는 사람의 수는 학생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몇해전에 우리 나라에 왔던 일본혁신시장들이 우리 나라에서의 전민교육제도에 대하여 말해달라고 하기에 내가 직접 몇시간동안 이야기하여주었습니다.

당신들이 혁명을 하는데서 간부가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간부가 모든 문제를 결정합니다. 좋은 간부가 있어야 사회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합니다.

당신네 나라의 대학들에는 인문학계통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인문학을 제한합니다. 우리 나라의 대학들에서는 문학, 법학을 비롯하여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학생수의 30%를 넘지 않습니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을 강점하고 조선사람들에게는 다만 법학이나 의학 공부를 좀 시켜 일부 사람들이 변호사나 의사, 교원 같은것이나 하게 하였지 기술은 하나도 배워주지 않았습니다. 해방후에 조사하여보았는데 조선사람으로서 일본의 기술대학을 나온 사람은 몇십명밖에 안되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사람에게 기관차를 모는 기술마저 배워주지 않았습니다. 일제놈들은 기관차는 자기들이 몰고 조선사람에게는 불때는 심부름이나 시켰습니다. 역장도 일본사람들이 하였습니다. 조선사람가운데 기관사는 몇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얼마나 나쁜놈들인가 하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는 민족간부가 없었습니다. 기관사마저 없어 몇달동안 기차도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실습생을 보내여 배워오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와 뻬루사이에는 아직 외교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뻬루인민들의 투쟁을 언제나 주시하고있습니다.

뻬루의 벨라스꼬대통령각하는 용감한분입니다. 그는 뻬루인민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고있습니다. 벨라스꼬대통령각하는 200마일령해권을 주장하고있습니다. 몇해전까지는 200마일령해권을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만 주장하였는데 이제는 세계적범위에서 그것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나라들도 다 200마일령해권 또는 경제수역권을 주장합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로선 즉 벨라스꼬대통령이 들고나온 200마일령해권에 대한 주장은 오늘 세계적범위에서 지지를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지금은 제3세계가 단결되였기때문에 제3세계인민들이 들고일어나면 강대국들도 어찌할수 없습니다. 통신을 보니 일본도 200마일경제수역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고립될가봐 그것을 인정하려 하는것같습니다. 일본은 해양업에서 많은 리익을 얻고있는데 이제는 하는수없이 경제수역을 200마일로 하자는 주장에 굴복하였습니다. 아직 미국을 비롯한 몇개 나라가 경제수역을 200마일로 하자는 문제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고있는데 세계의 대다수나라들이 200마일경제수역을 주장하는 조건에서 그들도 거기에 응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을것입니다. 이번에 라틴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에서 열리는 국제해양법회의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아마 그 회의는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게 될것입니다.

200마일령해권에 대한 주장은 당신들이 먼저 내놓은것이며 자주의 기발을 든것입니

다. 이것은 아주 정당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자기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며 자기 민족의 독립을 수호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습니다. 제3세계가 다 당신들의 이 모범을 따르고있습니다.

당신들은 미국배가 해안가까이와서 고기를 잡으면 나포하여 벌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용감하고 대담한 행동이며 전세계가 다 본받을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립장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있으며 높이 평가하고있습니다.

당신들이 자주성의 기치를 높이 들고있는데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제2세계나라들도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제2세계라는것은 프랑스, 카나다 같은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도 다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리예, 단마르크, 핀란드 같은 북구라파나라들과 라틴아메리카나라들도 자주성의 원칙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오늘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뻬루도 자주적으로 나가고있고 아르헨띠나도 자주적으로 나가고있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도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투쟁은 인민들이 자주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것이지 남에게 매워 살기 위해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맑스는 《공산당선언》에서 억압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라고 하였는데 인민들이 억압의 쇠사슬을 끊어버린 다음 또 다른 형태의 쇠사슬, 대국의 통제속에 들어갈바에야 무엇때문에 혁명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한 자주성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네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단결하고있습니다. 그 네가지 원칙이란 사회주의나라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의 민족해방운동과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로동운동을 지지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계속하며 내정불간섭, 호상 존중,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지키는것입니다. 우리는 내정불간섭원칙을 주장합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다른 나라에서 어떤 로선을 취하든 거기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가정안에서도 누구든지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싶으면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고싶으면 차를 마시고 마음대로 할수 있게 되여야지 그렇게 하지 못하게 구속하면 가정이 화목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절대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반혁명의 길로 나가지 않는 한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을 욕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회주의나라들도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있으며 설사 간섭하려고 하여도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호상 존중하며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때문에 서로 좋게 지내고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관계가 좋습니다.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며 자주의 길로 나가고있기때문에 우리는 현시대를 자주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그들이 거의 다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있습니다. 자주성을 요구하며 자주의 길로 나가려는것은 오늘 하나의 사상조류로 되고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나라가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본보기의 나라라고 하였는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미국 《뉴욕타임스》지 기자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주성이 제일 강한 나라라고 하였으며 우리가 반미사상도 매우 강하고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정책이 실시되는 조건에서 자주성을 시종일관 견지하여왔는데 물론 한때는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견디여냈을

뿐아니라 훨씬 강대하여졌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봉쇄정책을 쓸수록 우리 인민의 자각성과 투쟁열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형편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대외무역 한가지만 놓고보더라도 지난 시기에는 우리가 오직 사회주의나라들과만 무역을 하였으나 지금은 다른 많은 나라들과 무역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가 자꾸 올라가니 우리와 무역을 하자는 나라도 점점 많아지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금도 우리를 경제적으로 봉쇄해보려고 책동하고있으나 그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최근 우리 나라와 일본과의 경제거래가 좀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범위에서가 아니라 개인회사들과의 거래가 진행되고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가 강철공업에서 현대적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일본에 2,000립방메터용광로 2기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북조선에서 용광로설비를 사가지 못하게 해달라는 남조선반동들의 말을 듣고 미제국주의자들이 일본에 압력을 가하여 우리와의 약속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본회사에서는 미국의 압력을 받고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기때문에 우리에게 용광로설비를 못팔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술자들에게 자체로 연구하여 용광로를 건설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우리의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이 자체로 용광로를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1,500립방메터용광로를 건설하고있기때문에 2,000립방메터용광로를 건설하는것이 그리 큰 문제로 되지 않습니다. 올해 9.9절에는 지금 하고있는 용광로건설이 완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전에 기술자들과의 협의회에서 그들에게 당신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용광로를 건설하니 기술수준도 높아지고 외화도 적게 들고 얼마나 좋은가고 하였습니다.

적들의 봉쇄정책을 이겨나가려면 반드시 자체의 민족간부들을 잘 키워야 합니다. 민족간부만 있으면 능히 적들의 봉쇄정책을 짓부시고 자체의 힘으로 모든것을 해결해나갈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화를 복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정책과 압력은 여러가지 난관을 조성하여 전진을 방해하는 불리한 점도 있지만 인민들을 각성시키고 분발시킴으로써 민족적자부심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이 잘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어려운 고비는 다 넘겼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가 견지하여온 로선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것이였습니다.

우리는 중공업을 건설하는데서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더잘 복무할수 있는 중공업을 건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례를 들어 비료공장을 많이 건설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하게 하고 기계공장을 많이 건설하여 경공업과 농업에 복무하게 하였으며 화학섬유공장같은것을 건설하여 경공업에 많은 원료를 대주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놓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공업은 지난날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천리마의 속도에 더욱 힘찬 속도를 가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려고 합니다. 올해초에 우리 당중앙위원회에서는 10대경제건설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강철은 1,200만톤을 생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2,000립방메터용광로를 건설하면 한개 로에서 선철 150만톤을 생산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6개년계획기간에 강철생산에서 400만톤수준에 이르게 되는데 150만톤의 선철을 생산할수 있는 용광로를 매해 한기씩 건설하면 앞으로 몇해안에 강철 1,200만톤고지를 점령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용광로를 해마다 한기씩 건설할수 있습니다.

강철과 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업에서 전력은 선행관이며 강철은 전력 다음으로 중요한것입니다. 강철이 있어야 기계도 만들수 있고 배도 만들수 있으며 나라의 전반적위력을 강화할수 있습니다. 기계공업은 중공업의 심장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부 발전된 나라들은 후진국가들에서 기계공업이 발전하는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때 어떤 나라 사람들은 우리보고 당신네같은 자그마한 나라에서 뜨락또르공장을 건설하여 무엇하겠는가고 하였습니다. 뜨락또르를 자체로 만들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하는데 어떻게 많은 뜨락또르를 다 사오겠습니까. 우리가 자체로 뜨락또르공장을 건설하였기때문에 이제는 뜨락또르를 농촌에 많이 공급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농업을 더욱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기초를 닦아놓았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경지면적이 많지 못합니다. 우리 나라의 경지면적은 약 200만정보인데 그 가운데서 과수원 같은것을 내놓으면 170만정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면적을 가지고도 집약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잘 지으면 알곡을 한 1,000만톤 생산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에 많은 힘을 넣고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료와 농기계만 많으면 알곡생산을 더 높일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수리화가 이미 완성되였습니다.

수리화를 하는것은 농촌기술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수리화를 하는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여러가지 형태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골짜기를 막고 물을 채운것도 있고 물을 높은데 끌어올려다 저장한것도 있으며 굴을 뚫고 큰 강의 물을 끌어서 호수를 만든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후 한 20년동안에 수십만정보의 경지면적에 물을 댈수 있는 관개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인민들이 다 동원되면 수리화를 빨리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저수지를 건설할 때에는 기계도 없고 자동차도 얼마 없기때문에 사람들이 등짐으로 흙을 져날라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기계도 있고 큰 자동차도 많기때문에 저수지를 건설하는 일을 더 쉽게, 더 빨리할수 있습니다.

농사라는것은 물이 있고 비료가 있고 기계가 있고 전기가 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농촌기술혁명에서 주체적인 네가지 구호를 들고있습니다. 그것은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입니다. 이 네가지 구호는 이미 거의 실현되였습니다. 아직 기계화를 위한 과업이 적지않게 남아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오래동안 고심한 끝에 모내는기계를 만들었는데 그 기계가 좋습니다. 우리는 모내는기계를 만들려고 한 20년동안 많은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만든 모내는기계들을 사다 써보았지만 그것은 다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모내는기계를 자체로 연구하여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한 50%의 논에 기계로 모를 내게 됩니다. 다음해에는 모든 논에 다 기계로 모를 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자력갱생하여 제발로 걸어나가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습니다. 지금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강재와 세멘트를 요구합니다. 그들이 다 민족적이며 자립적인 경제를 건설하려고 하니 강재와 세멘트가 필요한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들과의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강재와 세멘트 같은것을 더 많

이 생산하려고 합니다. 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흔히 경제관계를 맺는것으로부터 시작되며 경제관계를 통하여 더욱 공고화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우리 나라에서 야금공장을 어느때부터 수출하겠는가고 물었는데 우리는 아직 야금공장같은것은 일식으로 수출할수 없습니다. 야금공장 일식을 수출하려면 그것이 다른 나라의것보다 더 현대화된것이여야 하겠는데 아직은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부 공장들은 일식으로 수출할수 있습니다. 례를 들면 비날론공장같은것은 우리 나라가 특허를 가지고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우리의 기술로 건설한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을 수출해줄것을 여러 나라들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있는 5만톤 생산능력의 비날론공장외에 남포지구에 새로 5만톤 생산능력을 가진 비날론공장을 하나 더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하면 우리가 비날론공장건설을 한번 더해보는것으로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날론공장 일식을 자신있게 다른 나라에 줄수 있습니다.

뻬루에서도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뻬루에서 미국회사들이 가지고있던 광산들을 국유화한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뻬루정부가 취한 국유화조치에 의하여 미국놈들이 틀어쥐고있던 회사들이 전민소유로 되였습니다. 이것은 뻬루에 사회주의적경제형태가 새로 생겨났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입니다. 국유화된 경제를 잘 운영하면 나라의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네 나라에 대하여 몇해전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여왔습니다. 지금 뻬루인민들이 매우 용감하게 잘 투쟁하고있으며 크게 떠들지 않으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있다고봅니다.

뻬루에서 사회주의혁명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토지개혁,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여러가지 개혁들을 실시한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개혁을 점차적방법으로 기초를 닦으면서 하나하나 해나가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을 굉장하게 붙이고 떠들다가 얼마 못가서 주저앉는것보다는 일을 천천히 하면서도 실속있게 해나가는것이 더 좋습니다.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것이 중요하지 간판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해방후 토지개혁을 한 다음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친일파들이 가지고있던 재산을 국유화할 때 사회주의라는 말을 한마디도 쓰지 않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간판보다도 내용이 더 중요하기때문이였습니다.

당신들이 뻬루청년들속에 사대주의사상이 적지 않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혁명과 건설을 하는데서 사대주의를 철저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사대주의를 반대한다는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는 혁명과 건설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조선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내놓고 말하였습니다.

해방직후에 있은 일을 한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제를 격멸하고 조국에 개선하였을 때 나라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습니다. 해방후 북조선에 대학은 하나도 없었고 매 도에 중학교가 몇개씩 있었는데 그 중학교 학생들이 적지않게 말썽을 부렸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극좌적으로 나오는가 하면 일부 학생들은 우경적으로 나왔습니다. 해방된지 불과 몇달되지 않은 어느날 우리는 한 운동장에 모인 청년군중들앞에서 조선이 지금 어느 길로 나가고있는가라는 청년들의 질문에 대답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청년들에게 우리가 나가는 길은 미국식 《민주주의》도 아니고 쏘련식사회주의도 아닌 새형의 민주주의이며 이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민주주의범주에 속하는 민주주의인것이 아니라 조선인민의 리익을 위한 조선식민주주의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설을 극좌파, 극우파 학생들이 다 조용히 듣고있었습니다. 그때 군중속에서 누군가가 불쑥 《장군님도 공산주의자입니까?》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자신이 공산주의자라는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진

정한 공산주의자는 가장 훌륭한 애국자이며 참다운 애국주의사상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다, 만일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참다운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어떤 다른 나라를 쳐다보는 공산주의자인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에게 의거하고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을 위하여 싸우는 공산주의자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인 전체 군중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 한가지 사실에서도 우리는 인민들은 다 자주의 길로 나가려 하며 남에게 예속되는 길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는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뻬루정부가 뻬루인민들의 리익에 완전히 맞는 진보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책을 실시하고있는데 대하여 감탄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뻬루대통령각하가 실시하고있는 모든 정책들이 매우 정당하며 뻬루인민의 지지를 받을수 있는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이며 혁명적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뻬루에서는 모든 일을 뻬루식으로 하여야지 다른 나라식으로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뻬루인민이 지금 뻬루식혁명을 하고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뻬루인민이 뻬루식혁명의 길을 택한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는 맑스의 책도 많이 보았고 레닌의 책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혁명에 통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실정이 다른것만큼 맑스—레닌주의도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지난날에는 우리 나라 사람들가운데도 다른 나라를 숭배하는 사대주의가 많았습니다. 문화예술부문일군들만 놓고보더라도 그들은 지난날 서양음악만 좋다고 하였으며 그림을 그려도 다른 나라식으로만 그렸습니다. 우리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인민군대의 어느 병원에 갔던 일이 있는데 거기에는 흰눈이 덮인 씨비리수림속으로 곰이 기여가는것을 그린 그림이 붙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갔던 인민군총정치국일군에게 우리 나라에는 금강산, 묘향산을 비롯하여 유명한 산들이 많은데 왜 조선의 아름다운 강산을 그린 그림을 붙이지 않고 저런 그림을 붙였는가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전직후에 당선전선동일군들을 모여놓고 사대주의적경향에 대하여 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다음부터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를 뿌리빼기 위한 운동이 널리 벌어졌습니다. 결과 우리 사람들속에서 사대주의사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람들가운데 사대주의사상을 가진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특히 새로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는 사대주의사상이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교양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당신들은 사상사업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인것만큼 뻬루청년들에게 이런 교양을 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교양을 똑똑히 주어 사대주의사상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당신들이 주체사상을 뻬루에서 널리 선전하겠다고 하는데 주체사상에 대한 선전도 뻬루의 실정에 맞게 뻬루식으로 하여야 할것입니다.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4년 6월 13일

물음: 주석각하, 당신께서는 조선혁명의 현단계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서와 그리고 조선혁명, 구체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귀 정부, 귀 당과 귀 인민이 지난 기간에 이룩한것과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들이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에 대하여 뻬루와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에게 말씀하여주실수 있겠습니까?

대답: 조선혁명의 현단계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입니다.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이며 지상의 혁명과업입니다.

력사적으로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한강토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은 해방후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둘로 갈라지게 되였습니다.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로 우리 나라 남반부인민들은 해방후에도 의연히 식민지노예의 처지에 있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가로놓이게 되였습니다.

민족분렬의 비극적사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해방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전국적승리도 이룩할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해방후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을 통일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여왔습니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은 세가지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입니다. 다시말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첫째로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둘째로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셋째로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그와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방침을 견지하고있습니다.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은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우리 당은 해방후 나라가 분렬된 조건에서 공화국북반부를 조선혁명의 튼튼한 기지로 전변시킬데 대한 로선을 내세우고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왔습니다.

지난 기간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인민대중을 령도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혁명력량을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 걸쳐 튼튼히 다져놓았으며 북반부를 조선혁명의 강력한 기지로, 사회주의적근거지로 전변시켰습니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으며 착취와 빈궁의 근원을 영원히 청산하였습니다.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된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나라의 주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모두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단결되여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령도밑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전쟁으로 말미암아 혹심하게 파괴된 인민경제를 짧은 기간에 복구하

고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놓았으며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거의 모든 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충족시키고있으며 전세계를 휩쓸고있는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자체의 원료와 기술에 의거하여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문화건설분야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의 옳바른 교육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60만명이상의 기술자, 전문가를 비롯하여 민족간부의 대부대가 양성되였으며 지금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이 성과적으로 실시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민족문화는 전면적으로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침략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튼튼한 방위력을 마련하여놓았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이 모든 성과들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튼튼한 밑천으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둔 성과는 초보적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조금도 자만하지 않고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습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3대혁명 다시말하여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수행하고있습니다.

사상혁명의 기본과업은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 주체교양을 강화하는 한편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시키고있습니다. 우리는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서 특히 인테리들과 농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습니다.

우리는 문화혁명을 적극 다그쳐 모든 근로자들이 고등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지식과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새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높은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문화수준과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는 구호를 들고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기술혁명에서는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기본을 두고있습니다. 3대기술혁명의 기본과업은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 우리의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지금 3대기술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여가고있습니다.

우리는 다음해 10월에 맞이하게 될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계기로 3대기술혁명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6개년계획의 고지들을 다 점령하고 새로운 더 높은 고지를 향하여 계속 전진하려고 합니다.

6개년계획을 수행한 다음 우리가 점령하려고 하는 중요고지는 1,200만톤의 강철고지, 100만톤의 유색금속고지, 1억톤의 석탄고지, 5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고지, 2,000만톤의 세멘트고지, 500만톤의 기계가공품고지, 500만톤의 수산물고지, 500만톤의 화학비료고지, 10만정보의 간석지개간고지, 1,000만톤의 알곡고지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며 새로운 웅대한 10대경제건설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엄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가 힘차게 벌어지고있습니다. 우리는 로동계

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의 앙양된 투쟁기세와 혁명적열의로 보아 당이 내놓은 투쟁목표들이 빠른 시일안에 성과적으로 점령되리라고 굳게 믿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이 진행하고있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되면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는 더욱 튼튼히 다져질것이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결정적인 전진이 이룩될것입니다.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민족분렬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현단계에서 남조선혁명앞에 나서는 절박한 과업입니다.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습니다.

남조선혁명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남조선인민들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오직 자체의 결정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의 길을 열어놓을수 있으며 온갖 착취와 예속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지난날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36년동안이나 신음하여온 남조선인민들은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거의 30년동안이나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당하고있습니다. 오늘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 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처지는 매우 비참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노예적굴종을 강요당하고있을뿐아니라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받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에게는 자그마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도 없으며 고역과 가난만이 그림자처럼 뒤따르고있습니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이며 반항이 있는곳에서는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기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습니다.

지난 기간 남조선인민들은 혁명투쟁과정에 일시적인 실패도 여러번 하였고 간고한 시련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남조선인민들은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얻었으며 더욱 단련되였습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적들의 파쑈적폭압이 그처럼 가혹한 조건에서도 투쟁대오를 더욱 굳게 결속하면서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그 앞잡이들의 파쑈테로통치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의 이 투쟁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민족분렬책동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애국적투쟁이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정의의 투쟁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고 남조선에 민주주의적정권이 수립되면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민주주의력량이 단합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인민들은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을 자기의 응당한 의무로 여기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지난 기간 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민족분렬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

우리의 꾸준하고 성의있는 노력의 결과로 몇해전에 북과 남사이에 통일을 위한 대화가 시작되였으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며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

이 더욱 로골화되는 조건에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난해에 새로운 조국통일 5대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조국통일 5대방침은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침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이 방침을 열렬히 지지하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의 조국통일 5대방침은 세계인민들속에서도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부분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세계적범위에서 벌어지고있는 반제민족해방투쟁의 한 고리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며 그와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더우기 우리는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자들과 맞서있는 조건에서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며 그와의 련대성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단결하며 제3세계나라인민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단결하는것을 대외활동의 확고한 원칙으로 내세우고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고있는 신흥세력인 제3세계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습니다.

제3세계는 현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입니다. 오늘 제3세계인민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용감하게 투쟁하고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제3세계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줄수 있는 커다란 힘을 가지고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은 석유를 비롯한 풍부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원료의 거의 전부를 제3세계나라들에 의존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제3세계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에게 강한 타격과 압력을 가한다면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할수 있으며 멸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을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아랍나라들이 단결하여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지원하는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석유수출을 금지함으로써 서방세계로 하여금 심각한 경제적위기를 겪게 한 사실과 얼마전에 있은 원료 및 개발 문제에 관한 유엔총회 특별회의과정이 그것을 잘 말하여줍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렬강들이 국제문제들을 일방적으로 자기들에게만 리롭게 결정하고 처리하던 낡은 질서를 깨여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수 있으며 모든 문제를 제3세계인민들과 평화애호인민들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해나갈수 있습니다.

제3세계인민들은 자기의 앞길을 자신이 개척하며 자기의 손으로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단결하여 서로 아는것은 알려주고 모르는것은 배우며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협조하여나간다면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진보와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제3세계인민들의 단결된 힘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은 온갖 술책을 다하여 제3세계인민들이

단결하는것을 방해하고있으며 반제력량을 하나하나 말살하는 전략으로 나오고있습니다. 제3세계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리고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단결은 제3세계인민들의 불패의 힘의 원천입니다.

조선인민은 지난날의 처지와 오늘의 투쟁의 공통성으로 하여 제3세계인민들과 친선의 뉴대로 련결되여있으며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깨겯고 싸우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반제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을 비롯한 제3세계인민들과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의 반제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며 그들과의 전투적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나갈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단합된 힘으로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것입니다.

조국통일의 실현은 남조선인민들을 식민지노예의 불행한 처지에서 구원하고 우리 조국과 민족 앞에 무궁한 번영의 길을 활짝 열어놓는 력사적사변으로 될것이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될것입니다.

물음: 뻬루는 전반적외교관계설정의 길에서의 진일보로서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무역관계를 맺었는바 뻬루에서도 혁명이 진행되고있습니다.

주석각하, 당신께서는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진 현관계에 대하여서와 또 앞으로의 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뻬루공화국 대통령 후안 벨라스꼬 알바라도장군이 지도하는 뻬루혁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조선인민과 뻬루인민은 대양을 사이에 두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으나 지난날 다같이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온 인민으로서 공통한 지향과 목적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두 나라 인민은 서로 잘 리해하고있으며 매우 친선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1968년 10월 후안 벨라스꼬 알바라도장군이 친미반동정권을 전복하고 새 정권을 세운 다음부터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왔습니다. 뻬루에서 새 정권이 선 다음부터 조선과 뻬루사이에는 래왕과 접촉이 빈번해졌으며 오늘 우리 두 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서로 지지하며 협조하고있습니다.

지난 5월에 조선과 뻬루사이에 정식으로 무역관계가 맺어졌는데 이것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발전에서 커다란 전진으로 됩니다. 이것은 또한 앞으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것입니다.

뻬루공화국 정부는 지난 기간 국제무대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동정을 표시하여주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에 대하여 감사하게 여기고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지지하고 동정하여준 뻬루공화국 정부와 뻬루인민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조선과 뻬루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날을 따라 더욱 좋게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앞으로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뻬루공화국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우리는 조선과 뻬루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두 나라 인민의 공통한 지향과 리익에 맞게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더욱 좋게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후안 벨라스꼬 알바라도대통령이 지도하는 뻬루혁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었는데 우리는 뻬루공화국 정부가 뻬루인민의 리익에 맞는 진보적이며 민주주의적

이며 혁명적인 정책을 실시하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감탄하고있습니다.

뻬루공화국 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석유회사와 광산을 비롯하여 외래독점자본가들과 국내자본가들의 공장, 기업소, 은행, 철도, 선박들을 국유화하였으며 미제국주의자들과 국내 대농장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토지개혁을 실시하고있습니다. 뻬루공화국 정부는 또한 미제의 내정간섭도구인 미국《군사사절단》을 뻬루에서 내쫓는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령해를 200마일로 선포하고 령해를 침범하는 미제해적선들에 단호한 징벌을 가하고있습니다.

뻬루공화국 정부가 취한 이 모든 조치들은 미제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며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로 됩니다.

뻬루공화국 정부가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의 코앞에서 이와 같이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한것은 아주 용감하고 대담한 행동이며 온 세계가 본받을만한 일입니다. 뻬루공화국 정부와 뻬루인민의 용감한 투쟁과 뻬루혁명의 승리적전진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들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주고있습니다.

우리는 뻬루공화국 정부가 미제국주의자들의 간섭을 종식시키고 나라의 자연부원을 보호하며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취한 모든 혁명적조치들과 뻬루인민의 용감한 정의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는 또한 뻬루공화국 정부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뻬루공화국 정부가 반제반식민주의의 기치밑에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완전한 독립과 쁠럭불가담국가들의 공동전선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뻬루인민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물음: 오는 12월 9일은 에스빠냐제국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라틴아메리카가 독립을 이룩한 아야꾸쵸전투 150돐이 되는 날입니다.

모든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미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기의 민족적해방을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어려운 투쟁을 벌리고있는 시기에 볼리바르(당시 해방운동의 지도자)가 해방한 나라들인 뻬루, 에꽈도르, 꼴롬비아, 베네수엘라 및 볼리비아는 대륙의 기타 형제나라들과 함께 이날을 기쁘게 기념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주석각하, 당신께서는 이 기념일과 오늘 라틴아메리카에서 진행되고있는 투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지난날 에스빠냐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이 벌린 용감한 투쟁은 우리 인민에게 잘 알려져있습니다. 용감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에스빠냐침략자들이 라틴아메리카에 침략의 발길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손에 무장을 들고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렸으며 마침내 에스빠냐침략자들을 라틴아메리카에서 몰아내고 독립을 이룩하였습니다. 볼리바르의 지도밑에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이 1824년 12월 9일에 진행한 아야꾸쵸전투는 남아메리카에 대한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의 300년동안의 지배를 종식시키는 력사적인 전투였습니다. 아야꾸쵸전투의 승리는 라틴아메리카인민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인민들이 단결하여 투쟁에 일떠서면 어떠한 침략자라도 능히 때려부실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 아야꾸쵸전투승리 150돐을 기쁘게 기념할 준비를 하고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응당한 일이며 좋은 일입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미제를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위한 투쟁을 용감하게 벌리고있는 시기에 아야꾸쵸전투승리 150돐을 성대히 기념하는것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반미투쟁을 강화하며 이 지

여 인민들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입니다.

조선인민은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명절을 자신의 명절과 같이 여기고있습니다. 우리는 아야꾸쵸전투승리 150돐을 성대히 맞이하는 뻬루인민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인민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오늘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위한 투쟁이 여러가지 형태로 폭넓고 깊이있게 발전하고있습니다. 지난날 미제의 《세습령지》로, 《고요한 뒤동산》으로 불리우던 라틴아메리카에 오늘은 반제자주의 기발이 높이 휘날리고있습니다.

오늘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미제의 지배와 통제를 반대하고 정치적자주권과 자연부원, 령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을 제 마음대로 억압하고 략탈하던 시기는 영원히 지나가고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이 라틴아메리카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오늘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이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벌리고있는 투쟁은 민족적 독립과 존엄, 민족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며 제3세계인민들의 위대한 혁명투쟁의 일환입니다. 그것은 또한 미제의 지반을 밑뿌리채 허어버리는 용감한 투쟁입니다.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이 용감한 투쟁은 전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미제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적 리익과 존엄을 수호하며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을 높이 평가하며 견결히 지지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친근한 전우로 남아있을것이며 그들의 정당한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줄것입니다.

우리는 외래침략자들과 략탈자들을 반대하는 오랜 투쟁전통을 가지고있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이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굳게 뭉쳐 미제의 지배와 간섭책동을 반대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함으로써 반드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없는 라틴아메리카,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라틴아메리카를 건설할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물음: 주석각하, 당신께서는 혁명적국제주의를 고려하면서 맑스-레닌주의를 매개 나라 현실에 적용하는 길에서 주체사상과 조선혁명 그리고 당신께서 친히 하고계시는 사업이 우선 조선과 나아가서 전반적인 세계 모든 나라들에 있어서 어떠한 창조적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당신이 주체사상과 조선혁명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조선과 세계적범위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고 물었는데 우리 당의 주체사상이 어떤것인가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에 대한 대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주체라는 말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을 표현하는 술어입니다. 혁명은 수출할수도 없고 수입할수도 없으며 다른 나라 사람이 대신해줄수도 없습니다.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 인민은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해방과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에 조선혁명을 잘하려면 조선인민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것을 절실히 체험하였습니다. 우리는 혁명투쟁과정에 얻은 이러한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주체사상을 내놓았으며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였습니다. 조선혁명이 걸어온 길은 주체사상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공화국정부의 모든 활동의 지도적지침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그것을 구현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을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입니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근본원리에 전적으로 맞는것이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완전히 부합되는것입니다. 주체사상은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며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함으로써 세계혁명도 잘하도록 하는 혁명적인 사상입니다.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는 매개 나라에서 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이룩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체를 세우고 조선혁명을 옳바로 령도하여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면 그것은 우리의 민족적임무를 다하는 동시에 세계혁명발전에도 직접 이바지하는것으로 될것입니다.

오늘 주체사상은 조선에서 전면적으로 승리하고있을뿐아니라 세계인민들속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그것은 주체사상이 조선혁명의 요구로부터 우리가 처음으로 내놓은것이지마는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도 부합되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주체적으로 살것을 요구하고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을 걸으려 하고있습니다. 그 누구도 남에게 예속되여 살기를 바라지 않으며 자기 민족의 존엄이 짓밟히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특히 제3세계인민들이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고있으며 제2세계의 나라들까지도 자주의 길을 걸으려 하고있습니다. 오늘 인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세계적조류로 되고있습니다. 현시대는 지난날 큰 나라의 지배와 예속 밑에서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성의 시대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체사상이 현시대의 요구와 추세를 정확히 반영하고있기때문에 날이 갈수록 세계인민들속에서 더욱 큰 지지와 환영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힘도 자주성을 요구하는 세계인민들의 지향을 가로막지 못할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일군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조선인민과 뻬루인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당신의 앞으로의 활동에서 더욱 큰 성과가 있을것을 바랍니다.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당조직일군강습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74년 7월 31일

당중앙위원회 계획에 따라 이번에 약 한달동안에 걸쳐 당조직일군들의 강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습에서는 현시기 당사업에서 나서는 절실한 문제들을 폭넓고 깊이있게 취급하였습니다. 이번 강습은 당일군들 특히 당조직일군들의 정치리론수준과 실무수준을 높이며 당사업전반을 심화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전국의 당조직일군들이 모인 기회에 현시기 당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강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전면적으로 심화발전되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앙양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간고한 시련을 이겨내면서 날을 따라 장성발전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조국통일의 기운이 더욱 높아가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국제적지위가 비상히 높아지고 대외활동범위가 매우 넓어졌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우리 당자체의 발전에서도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습니다.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이 강화되였으며 당의 전투력이 비상히 높아졌습니다. 당의 대중적지반이 강화되고 인민대중속에서 당의 권위와 위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전당에 당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섰으며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현저히 개선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당 사업에서는 바야흐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발전하는 현실은 우리 당앞에 새로운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1. 당대렬과 당조직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향도적력량입니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와 우리 인민의 오늘의 생활과 래일의 운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있습니다. 조선혁명의 승패와 우리 인민의 운명은 결국 우리 당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 대렬을 불패의 혁명대오로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은 모든 당조직들

의 기본임무이며 주되는 과업입니다.

당대렬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는것입니다.

간부들은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들입니다. 간부대렬이 튼튼하여야 우리 당 대렬이 튼튼할수 있으며 간부들이 자기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우리 당의 모든 사업이 잘되여나갈수 있습니다. 혁명의 실천적경험은 간부가 모든 문제를 결정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간부들을 옳게 선발배치하며 그들을 혁명의 유능한 지휘성원으로 키우는것은 우리 당 사업에서 출발점으로, 기본으로 되여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당이 요구하는 간부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 당에 끝없이 충직한 사람, 당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 높은 사상적각오가 되여있으며 당이 맡겨주는 그 어떤 혁명과업도 능히 감당해낼수 있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당에 대한 충실성은 간부의 기본표징입니다. 간부는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여야 하며 로동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이 확고하고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썩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영원히 당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당에 대한 충실성은 실천행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간부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여야 하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무조건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온몸에 티없이 순결한 주체형의 피가 흐르며 정치적자각이 높고 능력이 있으며 당의 정책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 이런 사람이 바로 간부의 표징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조직들은 간부사업에 제1차적인 주목을 돌려 당이 요구하는 이런 일군들로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간부들을 료해하고 선발배치하는데서 계급적원칙을 견지하면서 본인을 위주로 하여 사람을 평가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자면 간부사업에서 리력문건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낡은 방법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사람은 사상의식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며 따라서 리력문건만 보고서는 사람을 바로 평가할수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실생활 속에서 료해하고 실천투쟁을 통하여 검열함으로써만 그에 대한 옳은 평가를 내릴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리력문건을 보고 족보를 캘것이 아니라 사람자체를 보고 그의 사상을 파악하여야 하며 진실로 당에 충직한 일군들을 간부로 등용하여야 합니다.

오늘 간부사업에서 특히 힘을 넣어야 할 문제는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하는것입니다.

사람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쇠를 공기속에 그냥 내버려두면 산소의 작용을 받아 녹이 쓰는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교양하지 않고 방임하여두면 나쁜 사상의 영향을 받아 머리에 녹이 쓸고 변질될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간부로 등용한 다음 계속 조직의 통제밑에 두고 꾸준히 교양하고 단련시키지 않으면 안일해이해질수 있고 교만해질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부 간부들속에서 일을 주인답게 혁명적으로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요령주의적으로 무책임하게 하며 작풍에서 로동계급적풍모가 부족하고 틀을 차리고 세도를 쓰며 관료주의를 부리는것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있는데 이것은 간부들이 혁명화되지 못한 표현입니다. 간부들속에서 이런 현상들을 제때에 극복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옳게 조직지휘하여나갈수 없으며 많은 간부들을 잃어버릴수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간부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그리하

여 간부들이 누구나 다 조금도 변질되지 않고 순결한 혁명사상과 지칠줄 모르는 혁명적 투지와 열정을 가지고 혁명사업에 끝까지 충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간부들속에서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자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간부들속에서 학습을 강화하여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모든 간부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대렬을 강화하는데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우리 당의 모든 당원들을 혁명의 정수분자로 키우는것입니다.

당은 당원들이 모인 정치적집단인것만큼 당이 강력한 조직으로 되려면 당을 이루고있는 매개 당원들이 건전하고 견실하여야 하며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하여야 합니다. 원래 맑스-레닌주의당은 로동계급의 선봉대이며 여기에는 오직 로동계급의 선각자들, 근로인민의 가장 우수한 핵심분자들만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당대렬을 혁명의 정수분자들로 꾸리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기본원칙의 하나입니다.

조선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전위부대인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온 사회를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한다는것은 매우 높은 요구이며 어려운 과업입니다. 이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모든 당원들을 혁명의 튼튼한 골간으로, 정수분자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당안에서 모든 간부들을 한급 높은 간부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모든 당원들을 간부의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전당의 간부화, 정예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당원들을 정수분자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이 당원들에 대한 당조직생활지도와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을 당에 끝없이 충실하며 정치사상적으로 단련되고 세련된 공산주의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대렬을 정수분자들의 집단으로 꾸리기 위하여서는 당장성사업을 바로 하여야 합니다.

당대렬을 새로 자라나는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우수한 선진분자들로 계속 보충하여야 당대렬의 질적구성을 끊임없이 개선하여나갈수 있으며 당의 전투력을 더욱 높일수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당장성사업에 깊은 주의를 돌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가운데서 당원후비를 료해장악하고 체계적으로 키워야 하며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준비된 핵심분자들을 당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고 혁명적 투지와 기백이 약동하는 새세대들을 당에 많이 받아들이며 모든 당원들이 로쇠하지 않고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잘 교양함으로써 우리 당을 영원히 생신하고 혈기왕성한 혁명적당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 대렬을 강화하며 당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과 단결은 우리 당의 생명입니다.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하여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하여야만 우리 당이 불패의 전투력을 가진 혁명적인 당으로 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령도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언제나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하는데 당사업의 중심을 두어야 하며 이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간부들과 당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입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지도사상이며 당의 통일과 단결의 사상적기초입니다. 우리 당안에는 오직 주체사상만이 있을수 있으며 우리가 바라는 당의 통일과 단결은 다름아닌 주체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입니다.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주체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움으로써 우리 당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확고하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당에 충실하지 못한 현상,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어긋나는 현상들을 반대하여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당의 통일과 단결에 지장을 주는것이라면 사소한 표현도 묵과하지 말고 제때에 타격을 주고 철저히 극복하여야 합니다.

전당이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우는것은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입니다.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떠나서는 당안에서 사상의지적통일을 보장할수 없으며 전당이 한사람같이 움직이는 전일적인 조직체로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모든 당조직들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중앙이 내세우는 모든 방침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강철같은 규률이 전당을 지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대렬과 당조직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본고리는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입니다.

당원들속에서 당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만 간부들을 혁명화하는 사업도 당대렬을 정수분자들로 꾸리는 사업도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사업도 다 원만히 해나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속에서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모든 당원들이 당생활규범에 따라 당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에게 당적분공을 정상적으로 주어 그들이 높은 혁명적자각을 가지고 늘 움직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생활총화를 정상화하며 당회의를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진행하여 당원들이 언제나 비판과 사상투쟁의 용광로속에서 단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간부들속에서 당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간부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그들을 혁명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도입니다. 당조직들은 모든 간부들이 당세포조직생활에 빠짐없이 참가하며 언제나 당조직과 당원들의 통제속에서 생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원들과 간부들 속에서 당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부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당조직부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직접 장악하고 지도하는 당조직생활지도부서입니다. 그러므로 당원들속에서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조직부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습니다. 각급 당위원회들에서는 조직부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당원들의 당생활을 체계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그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2.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이

중요합니다. 군중을 묶어세우지 않고서는 당자체도 강화할수 없고 혁명도 할수 없습니다.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군중로선입니다.

군중로선은 근로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 활동의 근본원칙입니다.

혁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광범한 대중이 적극 참가하여야 승리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혁명정세와 당앞에 나서고있는 혁명임무는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울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의 민족분렬정책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습니다.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전민족적투쟁인 동시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사이, 혁명과 반혁명사이의 날카로운 계급투쟁입니다. 이 투쟁에서의 승패는 결국 누가 더 많은 군중을 쟁취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우리 당이 광범한 군중을 쟁취하여야 적들과의 군사적대결에서나 정치적대결에서나 승리할수 있으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할수 있습니다.

오늘 공화국북반부에서는 력사적인 사회주의대건설의 장엄한 투쟁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사회주의대건설전투는 우리 당이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체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총동원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현시기 당의 군중로선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각계각층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치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미제에 의한 나라의 분렬 그리고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있은 적들의 리간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 주민들의 사회정치적구성은 복잡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환경이나 경력이 복잡한 사람들을 다 버리고 아무 조건에도 걸리지 않는 사람들만 가지고 혁명을 할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주위환경과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사람들을 다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야 하며 그들이 진심으로 당을 지지하고 따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당조직일군들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성분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확히 평가하여야 합니다.

사람의 성분이란 사상상 구성성분을 말합니다.

사람의 성분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 생활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는데 따라 변합니다. 사람의 사상은 어떤 교양을 받는가에 따라 좋게 변할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수도 있습니다. 출신성분이 좋은 사람도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적으로 단련하지 않으면 변질될수 있고 반대로 출신성분이 나쁜 사람도 자신을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면 훌륭한 혁명가로 될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성분은 사회가 발전하고 사상의식이 변하는데 따라 다시 평가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지도 벌써 거의 30년이 되며 조국해방전쟁이 끝난지도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관계와 계급관계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사람들의 사상정신적면모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복잡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오늘까지 우리 당을 따라왔으며 당이 내놓은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혁명투쟁과정에서 단련되고 검열되였습니다.

변화된 현실에 맞게 사람들의 성분을 옳게 평가하지 않으면 우리를 지지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잃어버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사람들을 가정주위환경과 경력만 보고 평가할것이 아니라 본인의 현재의 계급적각오정도와 사상상태를 기본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가정주위환경과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사람들의 자녀들에 대하여서도 옳게 평가하여야 합니다.

사람의 성분을 보는 목적은 그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상적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머리속에 어떤 사상이 들어있는가, 그가 계급투쟁에서 얼마나 견실하겠는가 하는것을 알자는데 있습니다. 《치안대》를 한 사람의 아들이나 월남자의 아들이라고 하여 반드시 나쁜 사람으로 되는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가 어떤 교양을 받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성분이 복잡한 사람의 자녀이지마는 우리 제도에서 혁명적교양을 받으며 자라났으며 당에 충실한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성분을 가지고 문제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각계각층 군중을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며 그들이 마음놓고 일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어야 합니다.

당일군들은 성분이 복잡한 사람들에 대하여 근거없이 의심하지 말아야 하며 당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따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당을 지지하고 사업에서 열성을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회정치생활에서 차별하지 말고 당적신임을 표시해주며 그들의 공로와 사업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해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라는 높은 자부심과 자기 전도에 대한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활기있게 생활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몸바쳐나서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각계각층 군중을 포섭하고 교양개조하는 사업은 계급투쟁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당조직들은 군중과의 사업에서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하며 반동분자들과 반당반혁명분자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더욱 심화시켜야 합니다. 당조직일군들은 고립대상과 교양개조대상을 똑똑히 갈라놓고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과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모가 나게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려면 당조직일군들이 우리 당의 계급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 당조직일군들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우리 당이 실시한 계급정책과 우리 나라에서의 계급투쟁경험을 깊이 학습하여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에서 자그마한 편향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하여서는 정연한 군중사업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사업은 모든 당원들과 광범한 군중핵심들이 적극 참가하여야 성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그들이 군중속에서 핵심들을 교양하고 그 핵심들이 광범한 군중을 교양하도록 하여 군중을 교양하고 묶어세우는 사업을 대중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시말하여 한사람이 열사람, 열사람이 백사람, 백사람이 천사람을 교양하고 움직이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으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또한 근로단체들을 통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하는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당이 근로단체들을 통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하는것은 대중지도의 근본원칙이며 우리 당의 전통적인 대중지도방법입니다.

근로단체들은 군중에 대한 사상교양단체이며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입니다. 비당원군중을 혁명화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것은 근로단체들의 본신임무이며 첫째가는 혁명과업입니다.

당조직들은 근로단체일군들이 행정경제깜빠니야에만 매여달리지 않고 자기의 본신사업에 전심하도록 지도통제하여야 하며 근로단체들이 자기 사업을 능동적으로 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근로단체들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근로단체들을 군중과의 사업에 적극 내세우며 근로단체들에 일을 대담하게 맡기고 그 수행 방향과 방도를 똑똑히 가르쳐주며 사업조건을 잘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군중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에서 근로단체들이 한몫 단단히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움으로써 우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리 당을 받들고 당이 가리키는 한길을 따라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3.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사회주의건설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고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할수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사업과 함께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 사업도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사업을 더 잘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사업은 언제나 사회주의건설과 밀접히 결부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하는데 복종되여야 하며 당사업의 성과는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전적으로 당의 령도적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비약하고있으며 경제의 규모가 비상히 커지고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전투가 전례없이 거창한 규모에서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중요한것은 키잡이를 잘하는것입니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당의 경제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옳은 방향과 방도를 결정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당조직들과 당원들 그리고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며 결정된 문제들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늘 지도하고 통제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당일군들이 행정을 대행하는 경향과 당내부사업에만 몰두하면서 경제사업에 낯을 돌리지 않는 경향을 다같이 경계하여야 합니다.

당일군들은 행정경제일군들을 제쳐놓고 모든 일을 자기가 도맡아해야 잘될것처럼 생각하면서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하는 그릇된 관점과 사업태도를 철저히 없애고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경제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당일군들은 행정경제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따라 옳바로 사업해나가도록 방향을 잡아주며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제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도록 하며 당정책집행정형을 늘 검열하고 총화하고 재포치하여 당정책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철저히

관철하도록 끊임없이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기본요구입니다.

당조직일군들은 당내부사업을 맡아한다고 하여 경제사업을 도외시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사회주의건설과 동떨어진 당조직사업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당조직사업은 경제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하며 당내부사업은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경제사업을 안받침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여야 합니다.

지난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총을 잘 쏘고 적과의 싸움에서 용감한 사람을 혁명에 충실한 사람으로 평가하였으며 모든 대원들이 적과의 싸움에서 무비의 영웅성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당조직정치사업을 하였습니다. 우리 당이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높은 기술기능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에 투신하는 사람이 당에 충실한 사람이며 따라서 모든 근로자들이 당의 경제과업수행에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당조직정치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문제는 당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것입니다. 당일군들이 수준이 어리기때문에 시야가 좁고 모든 문제를 당적견지에서 옳게 분석판단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오늘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가 형식적으로 되고있는 주요한 원인도 당일군들의 수준이 낮은데 있습니다.

경제사업의 방향과 방법을 가르쳐주며 경제사업에서 잘되고 잘못된것을 가르는 자막대기는 우리 당의 경제정책입니다. 당일군들은 무엇보다먼저 우리 당의 경제정책을 깊이 학습하고 연구하며 통달하여야 합니다.

당일군들이 경제지식이 없고 기술을 모르면 경제문제에 대하여 발언권을 가질수 없으며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할수 없습니다. 당일군들은 누구나 다 경제지식을 알아야 하며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며 혁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일입니다. 모든 당일군들이 경제지식과 기술을 배워 경제사업을 능숙하게 지도할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앞에 당면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입니다. 당조직들은 6개년계획의 주요고지들을 당창건 30돐까지 앞당겨점령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인 10대경제건설전망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군운동을 더욱 세차게 다그쳐나가도록 당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3대기술혁명은 현시기 경제건설분야에서 우리 당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중심적인 과업이며 3대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여기에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 중요담보가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3대기술혁명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기술혁신운동에 광범한 대중을 불러일으키며 특히 과학자, 기술자들이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기술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그들을 정치적으로 옳게 발동하고 이끌어주어야 하겠습니다.

대중의 앙양된 기세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조직들은 경제지도일군들로 하여금 우리 당에 의하여 창조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정확히 관철하며 기업관리를 정규화함으로써 경제를 더욱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4.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할데 대하여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다 정당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

들도 정확히 제시되여있습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제대로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집행하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달려있습니다. 아무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가 옳게 세워졌다 하더라도 일군들이 그릇된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가지고 일하면 성과를 거둘수 없습니다.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당조직들은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철저히 없애고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인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당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입니다. 다시말하여 당사업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며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조직동원하는 사업입니다. 명령하고 지시하며 보고서와 통계를 받고 결정서를 내려보내는것과 같은 행정식방법으로는 사람들을 교양개조할수 없으며 그들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킬수 없습니다. 당사업은 오직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정치사업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해설하고 설복하며 교양하고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당사업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당일군들이 현실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당사업의 대상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입니다. 당일군들은 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있는 아래에 내려가 그들속에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해설선전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가 하는것을 알아보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아래일군들을 가르쳐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세도와 관료주의를 없애는것입니다.

우리 당은 권력기관이 아니며 세도를 쓰는 기관도 아닙니다. 당세도와 관료주의는 우리 당의 사업방법과는 인연이 없습니다. 당일군들이 당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리면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게 되고 대중의 창발성과 자각성을 불러일으킬수 없습니다.

당일군들은 절대로 당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지 말아야 하며 특히 당조직일군들이 당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당일군들은 언제나 어머니다운 심정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하며 그들의 애로와 요구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어야 합니다. 당일군들은 당성이 강하면서도 인간성과 문화성이 풍부하여야 하며 겸손하고 소박하며 례절있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형식주의와 요령주의를 없애야 합니다.

형식주의와 요령주의는 우리 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매우 해로운 사업작풍입니다. 지금 일부 일군들은 사업에서 주인다운 태도가 부족하고 실속없이 발라맞추는 식으로 일하며 이핑계저핑계 하면서 자기 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당일군들은 형식주의와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하며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깨끗한 혁명적량심을 가지고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여야 합니다.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암행어사식사업방법을 없애야 합니다.

암행어사식사업방법은 사람들의 뒤를 몰래 캐는 음모적인 사업방법입니다. 정당한 목적과 과업을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의 사업에서는 절대로 음모적방법이 허용될수 없습니다.

당사업을 암행어사식으로 하면 아래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고 주관주의를 면할수 없으며 사람들의 문제를 비롯하여 모든 문제를 바로 처리할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업을 암행어사식으로 하면 사람들을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사람들속에 불안을 조성할수 있습니다. 결국 당일군들이 당사업을 암행어사식으로 하면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당조직일군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일군들은 결함을 뒤에서 몰래 캐는 놀음을 하지 말아야 하며 결함보따리만 싸가지고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당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 사업을 조직적으로 료해하여야 하며 아래일군들에게 결함이 있으면 깨우쳐주고 도와주어 고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기된 문제를 과장하거나 외곡하지 말고 사실대로 보고하며 제기된 자료들을 확인해본 다음에 신중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데서 군당위원회의 사업방법을 개선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군당위원회는 당의 기층조직들을 장악하고 지도하는 우리 당의 말단지도기관이며 군중속에서 당정책을 직접 장악하고 집행하는 집행단위입니다. 그러므로 군당위원회의 사업방법을 개선하고 그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군당위원회의 사업방법을 개선하고 그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최근시기에도 일련의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얼마전에 큰 군들에 특급군당을 내온것도 군당위원회의 사업방법을 개선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려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적지 않은 군당위원회들이 낡은 방법으로 일하고있으며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군당위원회는 집행단위이기때문에 리와 공장의 초급당조직들에 결정서와 지시문을 내려보내고 통계를 받는 방법으로 일하여서는 안됩니다. 조직부, 선전선동부를 비롯한 군당의 모든 부서 일군들이 다 리와 공장에 내려가 초급당조직들을 지도하여야 하며 군중속에 들어가 사업을 료해하고 조직하며 군중을 교양하여야 합니다.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은 일군들의 사업능력이나 성격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일군들의 사상관점을 똑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할수 없습니다.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당일군들속에서 낡은 사상을 없애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없애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모든 당일군들이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가지고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훌륭히 일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동무들이 이번 강습을 계기로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당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고 믿습니다.

세네갈전국기자협회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4년 8월 21일

질문: 당신께서는 셍고르대통령을 그가 쓴 글을 통하여 알고계시다가 지난 5월에 그를 만나보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세네갈과 조선사이의 협조와 그리고 조선과 아프리카나라들사이의 협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나는 먼저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당신들이 옳게 지적한바와 같이 우리는 셍고르대통령의 저작을 통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그에 대하여 잘 알고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비록 지난 5월에 그와 처음 만났지만 오랜 구면친우를 만나는 심정으로 만났으며 며칠사이에 매우 친숙하여졌습니다.

셍고르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맺어진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습니다. 셍고르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을 계기로 조선과 세네갈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조선인민과 세네갈인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좋게 발전하고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다같이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억압과 착취를 받아온 인민이기때문에 서로 잘 리해하고있으며 긴밀히 협조하고있습니다.

세네갈공화국 정부와 세네갈인민은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적극 지지하여주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습니다. 특히 셍고르대통령과 세네갈공화국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지지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조선과 세네갈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지만 우리 인민은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세네갈인민의 투쟁을 언제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파괴책동을 반대하며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세네갈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또한 세네갈인민이 이룩한 좋은 경험을 배우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정부와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서로 자주 래왕하며 유익한 경험을 나누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이 서로 지지성원하며 경험을 나누는것은 호상간의 리해를 두텁게 하고 단결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으로 될것입니다.

우리는 조선인민과 세네갈인민사이의 단결과 친선협조관계가 날로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단결과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조선과 세네갈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투적단결과 친선협조관계는 앞으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개화발전될것이며 더욱더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게 될것입니다.

조선과 아프리카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그것을 강화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

을 돌리고있습니다.

조선인민과 아프리카인민들이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우리 인민과 아프리카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될뿐아니라 제3세계인민들, 전세계진보적인민들의 공동위업에도 리로운것입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서로 자지협조하는것은 우리 정부와 인민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입니다. 조선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 인민들, 제3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아프리카인민들을 비롯한 제3세계인민들은 자기의 앞길을 자신이 개척하여나갈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서로 아는것은 알려주고 모르는것은 배우며 유무상통하면서 협조하여나간다면 강대국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서도 빨리 발전할수 있으며 진보와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조선인민과 아프리카인민들은 다같이 반제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전우로서 언제나 서로 긴밀히 협조하면서 반제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어깨겯고 싸워나갈것입니다.

질문: 청년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되고있습니다. 당신께서는 귀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였습니까?

대답: 청년문제는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며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년들은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위대한 혁명력량입니다. 생기발랄하고 혈기왕성하며 용감한 청년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위대한 사회적변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또한 혁명의 계승자들이며 앞날의 주인공들입니다. 청년들이 정치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혁명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야 민족의 휘황한 장래가 있을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민족을 막론하고 청년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혁명과 건설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으며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청년문제를 옳게 풀어나간다는것은 광범한 청년들을 혁명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육교양하여 새 사회 건설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며 민족의 장래운명을 책임질 혁명의 계승자로 잘 준비시킨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혁명투쟁에 나선 첫날부터 청년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려왔으며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이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우리의 혁명투쟁은 사실상 청년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우는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청년들과의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각계각층의 애국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 반제민족해방의 기치밑에 튼튼히 묶어세웠으며 그들로 항일유격대를 조직하고 조국해방을 위한 영광스러운 무장투쟁을 벌렸습니다.

우리는 해방후 청년문제를 옳게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먼저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과 청년들의 특성에 맞는 청년조직을 내오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온 나라의 애국적민주력량을 총동원하여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던 해방직후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와 우리 나라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대중적청년조직인 민주청년동맹을 조직하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청년들을 거기에 묶어세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청년운동의 분렬을 막고 그처럼 복잡한 정세에서도 각계각층의 광범한 청년들을 새 조국 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었습니다.

청년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우리는 또한 청년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중요시하고 거기

에 언제나 큰 힘을 넣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교양에서 우리가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는것은 그들속에서 주체교양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다시말하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청년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만 그들이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인 담당자, 앞날의 주인공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참가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에서 언제나 주체교양을 첫자리에 놓고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모든 청년들을 자기 당의 사상,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그들이 자기 힘을 믿고 높은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몸바쳐싸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에서 특별히 중요한것은 계급교양입니다.

오늘 혁명은 한 나라의 범위에서나 세계적인 범위에서나 장기성을 띠고있으며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여지고있습니다. 자라나는 새세대들, 청년들에 대한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만 그들이 억압받고 착취받던 지난날을 잊지 않고 혁명의 원쑤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지 말자는 구호밑에 지난날 우리 인민이 제국주의자들에게 착취받고 억압받던것을 잊지 않도록 청년들을 교양하는데 힘을 넣고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둘로 갈라져있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와 직접 맞서있는 조건에서 청년들에 대한 계급교양에 언제나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청년들을 자기 조국과 자기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는 고상한 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고있습니다.

자기 조국과 자기 인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열정을 가질수 없으며 그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싸울수 없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정신으로 무장시키고있으며 모든 청년들이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할수 있도록 튼튼히 준비시키고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교양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청년들이 로동을 사랑하며 건전한 도덕품성을 가지도록 교양하는것입니다.

로동을 떠나서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말할수 없습니다. 로동을 사랑하는것은 청년들의 가장 고상한 품성의 하나로 되여야 합니다. 우리는 청년들이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을 가장 영예로운것으로 여기며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알고 언제 어디서나 힘든 일에 앞장서며 혁명과 건설에서 한몫 단단히 맡아나서도록 교양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이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을 철저히 반대하고 언제나 검박하게 생활하며 례절이 바르게 행동하도록 교양하고있습니다. 검박하게 전투적으로 생활하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것은 우리 나라 청년들의 일상적인 생활기풍으로 되고있습니다.

청년들이 혁명적인 사상으로 무장하는것과 함께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소유하여야만 모든 사회생활에 참말로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습

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청년들이 선진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하며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소유할데 대한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청년들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실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청년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와 해방후 민주건설시기,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리고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시기 조국과 인민 앞에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렸으며 불멸의 공적을 세웠습니다. 행복한 새 사회, 새 생활을 더 빨리, 더 잘 건설하려는 우리 나라 청년들의 확고부동한 결의와 높은 혁명적열정은 오늘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남김없이 발휘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청년들의 사상정신상태와 도덕적풍모는 매우 좋으며 모든 청년들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있습니다.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혁명적인 청년들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조국의 미래는 휘황찬란합니다.

우리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위업을 이어나갈 믿음직한 새세대들, 혁명의 계승자들을 훌륭히 키워놓았다는것을 높은 긍지를 가지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커다란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질문: 조선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서의 농업과 공업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당신들도 잘 아는바와 같이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공업발전이 미약한 뒤떨어진 농업국가들입니다. 이 나라들에 공업이 있다면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이 풍부한 자원을 략탈할 목적으로 건설한 기형적이고 편파적인 공업이 좀 있을뿐입니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서의 공업의 락후성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의 후과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완전히 청산하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자체의 민족공업을 창설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공업과 농업은 인민경제의 2대부문이며 그가운데서 공업은 경제의 주도적부문입니다. 민족공업을 창설하고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인민경제부문들을 발전시킬수 없으며 농업을 발전시키고 현대화할수도 없습니다.

공업 특히 중공업은 나라의 경제적독립의 물질적기초입니다. 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자체의 민족공업을 창설함이 없이는 나라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갈수 있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마련할수 없으며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 예속과 략탈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없습니다. 튼튼한 자립적민족공업이 없이는 이미 쟁취한 정치적독립도 공고히 할수 없습니다.

물론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자립적민족공업을 창설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나라들에는 공업화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도 모자라며 기술인재도 적습니다. 그러나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 인민들이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의 힘과 자기 나라의 자원으로 자기 조국의 부강발전과 자기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투쟁한다면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능히 해낼수 있습니다.

발전도상나라들에는 풍부한 자원이 있으며 무궁무진한 생산잠재력이 있습니다.

또한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은 비상히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가지고 새 생활 창조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고있습니다. 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는 무궁무진하며 세상에서 인민대중보다 더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지난날 착취받고 압박받던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은 오직 자신이 개척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자각을 가지고 새 생활 창조의 길을 용감히 개척해나간다면 모든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갈수 있으며 공업화의 요새를 반드시 점령할수 있습니다.

더우기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경제기술적교류와 협조를 강화한다면 강대국들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자립적민족공업창설의 과업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물음: 분렬된 조선을 외세의 영향이 없이 통일하는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분렬된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는것은 오늘 우리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수천년의 오랜 력사를 통하여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온 단일민족입니다. 우리 나라는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외세에 의하여 남북으로 갈라졌으며 외세의 간섭때문에 오늘까지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외세는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 장본인이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는 주되는 장애물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내부의 문제로서 조선인민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민족내부의 문제는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야만 자기 민족의 리익과 자기 인민의 의사에 맞게 해결할수 있습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해결할수 없으며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슬기롭고 용감한 인민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외세의 간섭만 종식되면 우리 인민은 능히 자신의 손으로 분렬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있습니다. 외세의 간섭이 종식되면 지금 북과 남사이에 진행되고있는 대화도 성과적으로 빨리 진척될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외세는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분렬시켰을뿐아니라 거의 30년동안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거기에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있습니다. 남조선에는 지금도 수만명의 미제침략군대가 주둔하고있습니다. 우리 공화국북반부에는 그 어떤 외세도 없으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절대로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엔군》의 기발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는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왔으며 1972년에 발표한 남북공동성명에도 나라의 통일을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하여야 한다는것을 조국통일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전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의 결과로 지난해 유엔총회에서는 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된 자주적평화통일원칙을 지지하며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내정간섭 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였는데 이것은 우리의 커다란 승리이며 조선의 통일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종식시키는데서는 아직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으며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여전히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내정에 란폭하게 간섭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두개 조선》을 조작하기 위하여 남조선당국자들을 민족분렬행동에로 끊임없이 부추기고있으며 남조선당국자들의 전쟁소동과 파쑈화정책을 적극 비호하고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도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내정간섭

책동과 분렬정책에 적극 추종하여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집요하게 방해하고있습니다.

미제의 적극적인 부추김밑에 남조선당국자들은 무너져가는 군사파쑈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외세에 더욱더 매여달리고있으며 통일이 아니라 분렬을 영구화하는 길로 나가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자주적평화통일원칙을 배반하고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애걸하고있으며 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습니다.

현조건에서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서는 그 주되는 장애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야 하며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온갖 장애를 물리치고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사람자신의 손으로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간섭 책동을 그만두고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야 하며 남조선당국자들을 부추기거나 비호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있으면서 남조선당국자들의 민족분렬책동과 파쑈화정책을 비호한다면 그로부터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수치스러운 참패만이 차례질것입니다.

우리는 유엔이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내정간섭 책동에 응당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은 마땅히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를 철거시켜야 하며 조선인민이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신의 손으로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귀중히 여기고 진리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이 우리 나라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분렬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갈라진 조국을 자신의 손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고있는 세네갈공화국 정부와 세네갈인민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물음 : 아프리카대륙에서의 비식민지화문제에 대한 당신의 립장은 어떠합니까?

대답 : 아프리카인민들은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민족적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으며 이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아프리카대륙에서는 이미 수많은 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쟁취하고 새 생활을 창조하는 보람찬 투쟁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지난날 《식민지대륙》, 《암흑의 대륙》으로 불리우던 아프리카대륙이 오늘은 자유와 해방의 광명으로 빛나는 새로운 대륙으로 전변되여가고있습니다. 아프리카대륙에서 식민주의는 마지막시각을 보내고있습니다.

오늘 아프리카인민들은 아프리카대륙에서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아프리카대륙에서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가장 정의로운 투쟁으로 인정하고있으며 그것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무로 여기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식민주의자들과 인종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모잠비끄, 앙골라, 기네—비싸우, 짐바브웨, 나미비아, 아자니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여러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언제나 그들의 편에 확고히 서있을것입니다.

아프리카대륙에서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사회적 진보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을 계속 강화하여야 합니다.

제국주의침략자들은 쫓겨나지 않는 한 식민지예속국가들에 대한 자기의 지배를 버리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략탈하는것은 제국주의의 본성입니다.

인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외래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하여야 하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식민주의잔재를 철저히 청산하여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민족적독립을 이룩할수 있으며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인민들이 비식민지화투쟁에서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들사이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인민들사이의 단결은 힘의 원천이며 승리의 확고한 담보입니다.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견결히 투쟁한다면 조만간에 아프리카의 모든 지역에서 제국주의자들을 완전히 내쫓고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할수 있으며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아프리카, 아프리카인민들을 위한 아프리카를 건설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인민들이 비식민지화투쟁에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물음: 우리는 쎈고르대통령이 답례로 세네갈을 방문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였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언제 우리 나라를 방문하실수 있겠습니까?

대답: 나는 쎈고르대통령의 초청을 매우 감사히 접수하였으며 세네갈을 방문할것을 잊지 않고있습니다. 앞으로 적당한 때에 세네갈을 방문하여 세네갈인민이 새 생활을 창조하는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를 직접 보고 거기에서 좋은 경험을 배우려고 합니다.

나는 이 기회를 리용하여 용감하고 근면한 세네갈인민이 쎈고르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세네갈공화국 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것을 축원합니다.

빠나마기자대표단과 한 담화

1974년 9월 1일

나는 조선인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당신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당신들은 빠나마기자로서 처음으로 우리 나라에 오신 손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을 정부대표단과 같이 매우 귀중한 손님으로 맞이하였습니다.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인민과 빠나마인민사이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할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을 계기로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관계가 더욱 좋게 발전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고무하여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당신들이 우리 나라와 우리 인민에

데하여 그리고 나자신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히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빠나마인민의 사절인 당신들을 만나 좋은 친우로 사귀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여러가지 문제를 질문하였는데 이제부터 그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교육정책을 말하기전에 우리 나라의 력사적조건에 대하여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야 당신들이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에 대한 옳은 리해를 가질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도 아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지리적으로 큰 나라들사이에 끼여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 력사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사대주의에 물젖은 봉건통치배들은 나라를 발전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 당파로 갈라져 제가끔 큰 나라를 등에 업고 당파싸움을 일삼았습니다. 어떤 당파는 이쪽 큰 나라를 등에 업고 또 어떤 당파는 저쪽 큰 나라를 등에 업고 서로 권력다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 인민들은 정치지식과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고 나라를 발전시킬수 있는 조건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이 당파싸움을 일삼은 결과 우리 나라는 1910년에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먹히고말았으며 우리 인민은 일본제국주의통치밑에서 36년동안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당하게 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영웅하게 벌리였으며 드디여 1945년에 일제를 패망시키고 민족적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거의 반세기에 이르는 식민지노예생활의 쓰라린 체험을 통하여 다시는 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되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에 반드시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여 후대들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후대들이 제국주의의 압박과 착취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나라의 믿음직한 주인으로 키워야 합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에는 민족간부가 매우 적었습니다.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면 자기 인민과 자기 민족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족간부가 있어야 합니다. 간부가 모든 문제를 결정합니다. 자체의 민족간부를 키우지 않고서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할수 없습니다.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전체 인민의 정치, 문화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작은 나라가 정치적자주성을 보장하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며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려면 전체 인민이 정치적으로 각성하고 높은 과학기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해방후 첫날부터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새 사회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거기에 큰 힘을 넣어왔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살림살이형편이 아직 그리 넉넉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있지만 청소년들을 교육교양하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것을 미래를 위하여 바치고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식민지통치밑에서 배움의 권리를 빼앗기고 갖은 고통을 다 겪었지만 자라나는 새세대들은 그러한 고통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으며 후대들을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키우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후대교육에서 학교교육, 사회교육, 가정교육을 결합시키는 방침을 견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후대교육에서 학교교육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에서 첫째로 중요한것은 학교교육입니다. 그러나 학교교육만으로는 후대교육을 원만히 할수 없습니다. 학교교육과 함께 사회교육, 가정교육이 옳게 결합되여야 청소년들

을 혁명적으로 교육할수 있고 훌륭한 민족간부로 키울수 있습니다.

학교교육, 사회교육, 가정교육을 하는데서 우리 당은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기초하여 청소년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 정신을 가지도록 교양하는데 기본을 두고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교육로선입니다.

사회주의교육학에서 중요한 문제는 후대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혁명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도록 교양하는것입니다. 이와 함께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사회주의조국을 끝없이 사랑하며 자기 민족의 문화유산과 전통 가운데서 낡고 썩어빠진것은 버리고 좋은것은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살리도록 교육교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주의교육학은 새세대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로동하기 좋아하고 인민들이 만들어놓은 모든 재부를 아끼고 사랑할줄 알며 훌륭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과학지식과 기술을 소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교육교양할것을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사회주의적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정신을 가지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자로,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육교양하는것입니다.

우에서 말한것이 우리가 청소년교육에서 견지하고있는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청소년교육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당신들이 우리가 쓴 다른 책들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당의 교육정책을 관철하여 청소년교육과 민족간부양성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해방직후 우리에게는 민족기술간부가 얼마 없었으나 오늘 우리는 60만명에 이르는 대학졸업생들과 고등기술학교졸업생들을 가지고있습니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사람들에게 아무런 기술도 배워주지 않았습니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몇십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일제시기 우리 나라에는 대학이 서울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대학마저도 거기에는 문과나 법과 같은것만 있었지 기술학과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날 우리 나라에는 변호사와 의사가 좀 있었을뿐 민족과학기술인재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해방후 얼마 안되는 인테리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 아끼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부유한 가정의 출신들이지만 일제의 민족적차별을 받으며 공부를 하였기때문에 반제의식과 민족적혁명성을 가지고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널리 포섭하여 자기 민족과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교양하였습니다.

우리의 교양을 받은 인테리들은 새 조국 건설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특히 민족기술간부를 키우는 사업에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민족간부의 대부대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기의 민족간부를 가지고 교육사업을 하고있고 공장, 기업소들을 운영하고있으며 국가와 사회를 훌륭히 관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과에 대하여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가 거둔 이러한 성과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옳바른 교육정책의 빛나는 승리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당의 교육정책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습니다. 11년제의무교육은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과 10년동안의 학교의무교육을 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의무교육입

니다.

우리는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을 완성된 중등지식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훌륭히 키워나가고있습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에 대한 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는것과 함께 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절대다수의 성인들은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악독한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과학과 기술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지난날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나이많은 사람들은 이미 근로자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지금은 공장, 기업소들에 있는 근로자중학교에서 공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다 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지식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근로자들이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배우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빨리 높이려고 합니다.

근로자들과 일군들의 과학기술수준이 높지 못하면 사대주의가 생깁니다. 남보다 과학기술이 뒤떨어지면 자연히 남을 쳐다보게 되고 발전된 나라를 숭배하게 되는것입니다.

또 민족문화예술이 발전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끌어들이게 되고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막을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온갖 썩어빠진 부르죠아 반동문화와 생활양식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막으려면 주체적인 민족문화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주체적인 민족문화예술은 민족적인 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아야 하며 인민대중의 정치문화생활에 훌륭히 이바지하는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사회의 전반적정치문화수준을 높이는데서 간부들을 교육교양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혁명의 지휘성원인 간부들의 정치사상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이 높아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 문제도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어제 인민경제대학을 참관하였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에는 그런 대학이 여러개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과 공장, 기업소 관리일군들을 양성하며 재교육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또한 당일군들을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고급당학교가 있으며 지방들에는 공산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단체간부들을 양성하는 학교와 국제관계대학, 군사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이와 같이 일반대학들을 내놓고도 여러 부문 간부들을 양성하며 재교육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학들에서 간부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우리 당의 정책으로 무장시키고있으며 국가, 경제 기관, 공장, 기업소들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또한 전체 인민이 다 학습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학습을 하나의 혁명사업으로 여기고있습니다. 우리는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임무이다.》라는 구호밑에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는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모든 일군들이 매일 일하고 난 다음 두시간이상씩 학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는 강연회를 하고 토요일에는 한나절씩 집체학습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모든 간부들이 한해에 한달씩 직장에 적을 두고 학교에 가서 재교육을 받습

니다.

이와 같이 온 나라와 전체 인민이 다 학습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정치사상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은 빨리 높아지고있습니다.

우리는 학교교육사업을 강화하고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는 체계를 철저히 세워 가까운 앞날에 우리의 인테리대렬을 100만명으로 늘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체 인민을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데 앞으로는 그들을 다 인테리화하려고 합니다. 근로자들을 인테리화한다고 하면 소부르죠아화한다는 말처럼 들리기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테리는 낡은 사회의 계층으로서의 소부르죠아적인테리인것이 아니라 로동계급의 혁명적인테리인것만큼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계급화하는 조건에서는 인테리화한다는 말을 써도 일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가 책임지고 전체 인민을 공부시키는 교육정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국가와 사회의 혜택으로 탁아소, 유치원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350만명이나 되며 인민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각급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450만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일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내놓고도 인구의 절반이상이 국가의 부담으로 교육을 받고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인구의 절반이상을 국가부담으로 교육하자니 교육사업을 위한 재정지출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랑으로 여기고있습니다. 지금은 좀 아름차지만 장래의 전망은 매우 좋습니다.

우리 당에 의하여 교육교양된 우리 인민들은 다시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되지 않을것이며 착취와 압박이 있는 사회로 되돌아가지 않을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민은 사대주의도 하지 않을것이며 모두다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할것입니다. 우리 인민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더욱 부강한 사회주의국가로 될것이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은 반드시 이룩되고야말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이밖에도 많은것을 더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만하면 당신들의 물음에 기본적으로 대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30년동안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여왔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은 애국자와 매국자사이의 투쟁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으나 남조선당국자들은 나라의 절반땅을 제국주의자들에게 계속 내여맡기고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책동하고있습니다. 통일은 곧 애국이고 분렬은 곧 매국입니다.

나는 당신들앞에서 남조선당국자들을 비방하거나 그들의 과거를 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대로 말한다면 남조선당국자들의 매국행위는 벌써 해방전에 시작되였습니다. 우리가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할 때 남조선당국자들은 민족을 배반하고 일본제국주의군대에 들어가 장교노릇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남조선당국자들이 조국통일을 방해하고 남조선을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팔아먹는것을 허용할수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분렬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입니다.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립장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것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립장입니다.

우리는 지난 기간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

인 방안들을 수많이 내놓았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내놓은 조국통일방안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것은 지난해 6월에 발표한 조국통일 5대방침입니다. 우리의 조국통일 5대방침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조국통일 5대방침은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념원을 정확히 반영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며 나라의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일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침입니다. 그러므로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물론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이 우리의 방침을 적극 지지하며 환영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 그리고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의 정당한 조국통일방침을 한사코 반대하고있습니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 우리 나라의 북과 남을 《두개 조선》으로 영원히 갈라놓으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여야 남조선을 영원히 제놈들의 군사기지로, 상품시장으로 만들수 있기때문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1972년에 남북공동성명을 통하여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할것을 온 민족앞에 엄숙히 서약하였으나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부추김밑에 그 서약을 짓밟아버리고 민족분렬책동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가고있습니다. 그들은 미제의 《두개 조선》정책에 추종하여 조선의 북과 남이 따로따로 유엔에 들어갈것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분렬을 고정화하고 영구화하자는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한편으로는 《두개 조선》 조작음모를 적극 추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무너져가는 저들의 통치체제를 조금이라도 더 유지해보려 하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의 이러한 책동은 인민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치지 않을수 없습니다.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과 남조선반동들의 파쑈화책동에 격분한 남조선인민들은 그것을 반대하는 투쟁에 용감히 일떠섰습니다.

올해 봄에 남조선에서 이른바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이라는것이 있었는데 그것만 놓고보더라도 남조선인민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투쟁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에 겁을 먹은 남조선반동들은 《반공》의 간판밑에 그것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올해 4월부터 석달 남짓한 기간에만도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을 2,800여명이나 체포투옥하였으며 그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자》라는 부당한 구실을 붙여 사형을 선고하는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학생, 지식인, 종교인 할것없이 남조선의 현집권자들을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탄압의 대상으로, 《반공》의 희생물로 되고있습니다. 당신들도 알겠지만 남조선반동들은 자기들을 반대하는 시를 썼다고 하여 시인 김지하를 군사재판에 넘겨 그에게 무기징역을 들씌웠습니다. 그들은 1971년 《대통령선거》 때 신민당의 《대통령후보》였던 김대중도 저들의 매국정책을 반대하였다는 리유로 백주에 일본에서 랍치하여다가 재판에 걸어 탄압하고있습니다. 최근에 남조선반동들은 천주교 주교인 지학순이라는 사람도 잡아가두었습니다.

지금 남조선반동들은 많은 사람들을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가혹하게 처

형하고있는데 그들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며 공산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조국의 통일과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애국자들이며 남조선의 평범한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들입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인사들이 남조선반동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결코 우리가 시켜서 그러는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압박이 있는곳에는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곳에서는 반드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반공》의 간판밑에 인민들을 가혹하게 억누르고 탄압하는 조건에서 혁명투쟁이 일어나는것은 합법칙적입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벌리고있는 투쟁은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애국적투쟁이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입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남조선반동들의 파쑈적폭압소동을 규탄하며 체포투옥된 남조선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사들을 구원하기 위한 운동이 널리 벌어지고있습니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 출판물들과 지어는 자본주의나라 총리들까지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남조선반동들의 파쑈화책동에 대하여 항의규탄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는 남조선인민들의 애국투쟁을 지지성원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민족적의무로 여기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반파쑈민주화투쟁이 승리하고 민주인사가 정권에 올라앉게 되면 우리 인민은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민주력량이 힘을 합쳐 전조선적인 통일정부를 세우는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빨리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신들은 주체사상이 제3세계인민들의 독립과 사회경제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는가고 물었는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체사상이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보다는 그것이 세계인민들속에서 특히 제3세계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고 하는것이 옳을것입니다.

오늘 주체사상이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는것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이 자주성을 요구하는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부합되기때문이라고 봅니다.

오늘의 시대는 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사회주의나라인민들은 물론 자본주의나라인민들도 자주의 길을 걸으려 하고있으며 특히 오래동안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온 제3세계인민들이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조선혁명의 경험에 기초하여 우리가 처음으로 내놓은 사상이지만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이 제3세계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는것은 또한 그것이 제3세계인민들에게 새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의 가장 옳바른 길을 가리켜주기때문이라고 봅니다.

오늘 제3세계인민들앞에는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문제로 되는것은 자본주의의 길로 나갈것인가 사회주의의 길로 나갈것인가 하는것입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자본주의의 길로 나가면 제국주의자들에게 다시 예속될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하고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사회주의의 길로 나가려면 사회주의나라들의 경험을 배우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나라들의 경험이 제3세계나라들에 그대로 꼭 맞을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3세계나라들이 사회주의의 길로 나가려면 사회주의나라들의 경험을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주체적립장이 요구됩니다.

주체사상이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자신입니다. 매개 나라 인민은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사회주의건설에서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채로 받아들이는것은 매우 해롭습니다. 이것은 마치도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꽉꽉 씹어먹어야 소화가 잘되지 씹지 않고 통채로 삼키면 소화불량증에 걸리는것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식을 씹어보고 속에서 받으면 넘기고 받지 않으면 뱉아버려야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경험도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것은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경험을 말해달라고 할 때에도 우리의 경험은 다른 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을수 있으니 그것을 참고나 하고 자체로 자기 나라 실정에 맞는 경험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해주군합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며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옳은 로선과 옳은 정책을 세운다는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을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새생활창조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는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는데서 이 나라들 사이의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제3세계나라들이 정치적으로 단결할뿐아니라 경제기술적으로 협조할것을 주장합니다.

지금 제3세계나라들은 자원보호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습니다. 얼마전에 있은 원료및개발문제에 관한 유엔총회 특별회의에서는 제3세계나라들이 단결하여 자원보호를 위한 투쟁을 벌렸으며 이번에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제3차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200마일 령해권문제와 경제수역권문제를 토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3세계인민들이 자기 나라의 령토와 령해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발전도상에 있는 제3세계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략탈로부터 나라의 자원을 지켜낼뿐아니라 풍부한 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효과있게 리용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3세계나라들이 서로 좋은 경험과 기술을 교류하며 경제적으로 호상 협조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3세계나라들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있을뿐아니라 서로 교류할수 있는 경험과 기술도 적지 않게 가지고있습니다.

우리가 얼마전에 뻬루기자들을 만났을 때에도 말하였지만 뻬루에서는 물고기가공기술이 발전하였는데 우리는 뻬루에서 물고기가공기술을 배워올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랍나라들에서 원유가공기술도 배워올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다른 나라들에 넘겨줄수 있는 좋은 경험과 기술이 있습니다. 례를 들어

우리는 수리화경험 같은것을 제3세계나라들에 넘겨줄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경리의 수리화가 이미 완성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비록 발전도상에 있기는 하지만 좋은 기술을 몇가지씩은 다 가지고있습니다.

지금 세계에는 발전도상에 있는 제3세계나라가 100여개 있는데 매개 나라가 좋은 경험과 기술을 한가지씩만 서로 교류하여도 100가지의 좋은 경험과 기술을 가질수 있으며 10가지씩만 교류한다면 1,000가지의 좋은 경험과 기술을 가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세계나라들이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한다면 큰일을 할수 있으며 강대국들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짧은 기간에 나라의 경제적자립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은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여 정치적자주성과 함께 하루빨리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난날에는 몇몇 강대국들이 세계에서 주인행세를 하였지만 이제는 세계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제3세계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되여야 합니다.

끝으로 빠나마 운하와 운하지대에서의 완전하고도 실제적인 자주권과 합법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빠나마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립장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빠나마 운하와 운하지대에 대한 미제의 강점을 끝장내고 완전하고도 실제적인 자주권과 합법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빠나마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빠나마인민은 빠나마 운하와 운하지대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빠나마인민은 빠나마 운하와 운하지대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적 지배와 략탈을 끝장내고 합법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대중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습니다.

빠나마 운하와 운하지대에서의 자주권과 합법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빠나마인민들의 투쟁은 령토완정을 이룩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존엄을 지키기 위한 정의의 투쟁입니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빠나마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냅니다.

조선과 빠나마는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으나 조선인민은 언제나 빠나마인민의 투쟁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여왔습니다.

1968년에 오마르 또르리호스 에르레라장군이 정권을 잡은 다음 빠나마공화국 정부는 빠나마인민의 리익에 맞는 진보적인 정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빠나마공화국 정부는 토지개혁을 비롯하여 교육체계의 민주화, 전기부문의 국유화, 농업협동조합의 조직, 미제독점체들과 국내 대자본가들의 리윤획득의 제한과 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빠나마공화국 정부가 취한 이 모든 조치들은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지키며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매우 진보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빠나마인민들이 자주성을 주장하고있는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사상과 립장에서 공통점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빠나마공화국 정부가 200마일해양권을 주장하고있는데 이것도 우리의 립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빠나마공화국 정부가 취한 모든 혁명적인 조치들과 빠나마인민의 용감한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는 또한 오마르 또르리호스 에르레라장군의 자주적인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인민은 빠나마인민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와 같이 여기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용감한 빠나마인민이 오마르 또르리호스 에르레라장군의 두리에 굳게 뭉쳐 빠른 시일안에 완전한 민족적독립과 자주성을 쟁취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빠나마인민의 독립과 자주권을 침해하고있을뿐아니라 조선인민의 독립과 자주권도 침해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과 빠나마인민은 공동의 적을 반대하여 투쟁하고있으며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싸우는 빠나마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있을것이며 빠나마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줄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이 친선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어깨겯고 나갈것을 희망합니다.

당신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말을 주의깊게 들어주어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조선인민과 빠나마인민사이에 친선의 무지개다리를 놓은 사절입니다. 나는 다시한번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이 서로 래왕을 더 자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나는 당신들이 앞으로 우리 나라를 또다시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고공화국이 새 사회 건설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은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위한 위업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또고공화국 그나씽그베 에야데마대통령을 환영하여 베푼
연회에서 한 연설 1974년 9월 7일

존경하는 그나씽그베 에야데마대통령각하와 부인!

존경하는 또고공화국의 손님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또고공화국 대통령 그나씽그베 에야데마각하를 비롯한 또고의 손님여러분들을 커다란 기쁨속에 맞이하였습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아프리카의 저명한 정치활동가이며 우리의 친근한 벗인 그나씽그베 에야데마대통령각하와 그 일행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조선과 또고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으나 두 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의 길로 힘차게 나가는 오늘의 세계적조류속에서 서로 가까워지고 굳은 친선의 뉴대를 맺었습니다.

1973년 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또고공화국 사이의 외교관계설정은 우리 두 나

라 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서 중요한 리정표로 되였습니다.

이번 대통령각하의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의 력사에 새로운 빛나는 기록을 하게 될것입니다.

또고인민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오래동안의 투쟁을 통하여 민족적독립을 쟁취하였으며 오늘 자기의 탁월한 지도자 그나씽그베 에야데마대통령각하의 옳바른 령도밑에 새 생활 창조의 길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있습니다.

또고인민은 민족자주의식을 확립하고 또고의 모든것을 《민족화》하며 경제적해방을 이룩할데 대한 구호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파괴암해책동을 물리치면서 일련의 진보적개혁들을 실시하고있으며 민족적단합을 강화하고 민족경제와 민족문화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습니다.

또고공화국이 새 사회 건설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들과 또한 또고정부가 대외관계분야에서 견지하고있는 쁠럭불가담정책은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위한 위업에 크게 기여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또고인민이 번영하는 자주독립국가건설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그나씽그베 에야데마대통령각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프리카는 해방의 대륙으로, 싸우며 건설하며 전진하는 대륙으로 되고있습니다.

아프리카민족해방운동의 타격에 의한 뽀르뚜갈파쑈정권의 붕괴는 아프리카에서 낡은 식민지체계의 종국적청산의 날이 다가오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래동안의 용감한 무장투쟁을 통하여 나라의 독립을 이룩한 기네—비싸우인민들을 열렬히 축하하며 해방과 독립의 더욱 밝은 전망을 가지고 싸우고있는 앙골라, 모잠비끄 인민들, 짐바브웨, 나미비아, 아자니아 인민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제국주의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되여 력사무대에 새로 등장한 신흥세력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 제3세계인민들은 오늘 인류력사를 전진시키는 커다란 추동력으로서 전반적국제정세발전에 더욱더 커가는 영향력을 미치고있습니다.

제3세계나라 인민들이 정치적단결을 강화하고 경제적협조를 긴밀히 하면서 제국주의자들에게 계속 타격을 주고 압력을 가한다면 능히 그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을수 있을것입니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나라 인민들, 제3세계나라 인민들,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굳게 손잡고 함께 싸워나갈것이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존경하는 또고의 손님여러분!

이번에 당신들은 우리 인민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을 기념하고있는 때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국경절경축행사를 한층 더 뜻깊게 하여주며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를 줍니다.

손님여러분들은 이번 방문기회에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공화국창건후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새 사회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과 이 성과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벌리고있는 우리 인민의 힘찬 투쟁모습을 직접 보게 될것입니다.

요즘 우리 나라에서의 정세발전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고있는 근본장애가 무엇이며 조선에서 전쟁의 위험을 낳고있는 근원이 어데 있는가 하는것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보여주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의 정당한 평화통일방침을 거역하고 민족분렬을 영구화하며 저들의 장기집권야망을 실현하여보려던 온갖 책동이 남조선인민들의 세찬 반항과 세계여론의 날로 커가는 규탄에 부딪쳐 파산을 면할수 없게 되자 지금 불안과 공포에 싸여 최후발악을 다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에 대하여 더욱 크게 떠들고 인민탄압과 전쟁준비를 강화하며 우리를 중상비방하기 위한 정치적모략극까지 꾸며내여 일대 광란적인 소동을 벌려놓음으로써 위기에 빠진 저들의 신세를 건져보려고 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멸망하여가는자들의 가소로운 망동에 지나지 않으며 남조선통치배들은 이로부터 아무것도 얻을것이 없을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조선반도에 떠돌고있는 전쟁의 위협이 그 무슨 《남침위협》에서가 아니라 바로 남조선호전분자들자신이 빚어내고있는 북침의 위협에서 오고있다는 사실을 더욱 똑똑히 실증해줄뿐입니다.

지금 세계여론은 극도에 이른 남조선통치배들의 소란을 그들자신의 말기증상을 보여주는것으로서 보다 큰 조소와 멸시로 대하고있습니다.

만일 남조선의 현 통치배들이 우리의 평화적조국통일방안에 끝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금과 같은 길로 계속 나간다면 그들은 더욱더 버림받은 고아의 신세가 되여 매국노의 치욕을 남긴채 파멸당하고말것입니다.

오늘 조선통일문제를 둘러싼 심상치 않은 사태발전에 근본책임이 있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입니다.

력사적경험은 남조선에 미국군대가 눌러앉아 모든 실권을 틀어쥐고 조선의 내정에 계속 간섭하고있는 조건에서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이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얼마전 또고를 포함한 34개 유엔성원국들은 올해의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할것을 공동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에 대한 또하나의 커다란 지지와 고무로 되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는 타격으로 됩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유엔군》의 간판을 가진 외국군대가 물러가야 한다는것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는 시대적요구로 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유엔이 마땅히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념원에 맞게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함으로써 유엔의 이름을 자기들의 침략정책을 가리우는데 리용하고있는 미국의 부당한 행동을 단호히 종식시켜야 할 때가 되였다고 인정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또고 정부와 인민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대통령각하와 또고정부와 또고인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나는 이번에 유엔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의정공동발기국으로 나선 모든 친선적인 나라들과 우리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여주고있는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나라 정부들과 인민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조선과 또고사이의 긴밀한 친선의 뉴대는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 제3세계인민들사이의 위대한 친선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됩니다.

나는 또고의 손님여러분들이 우리의 전우로서 또한 형제로서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동안 자기 집에서와 같이 즐겁고 유익한 나날을 보내게 될것을 바라면서 조선인민과 또고

인민사이의 불패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또고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세계인민들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그나씽그베 에야데마대통령각하와 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또고손님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다오메정부기관지 《다오엑스프레스》 사장과 한 담화

1974년 9월 19일

나는 당신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주고 우리 공화국창건기념행사에 참가하여준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국경절행사에 참가함으로써 우리의 명절을 더욱 빛나게 하여주었습니다.

당신은 지난해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가서 우리 나라에 대하여 소개하고 선전하는 사업을 널리 하였습니다. 당신은 이번에 또다시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당신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당신이 여러가지 문제를 질문하였는데 이제부터 그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먼저 조선과 다오메사이의 관계발전문제와 제3세계나라들의 단결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조선인민과 다오메인민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서로 지지협조하여왔으며 친선관계를 맺었습니다.

특히 1973년 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다오메군사혁명정부사이의 외교관계설정은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습니다.

조선과 다오메사이에 외교관계가 맺어진 다음부터 다오메 정부와 인민은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하여주고있습니다. 다오메는 이번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에 대한 우리측 결의안을 적극 지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돌아가면 당신네 나라의 국가수반과 외교부장을 비롯한 정부지도간부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감사의 정을 전하여주기 바랍니다.

당신이 말한바와 같이 조선과 다오메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선인민과 다오메인민이 서로 정치적으로 더욱 긴밀히 지지하고 협조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은 다같이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억압과 착취를 받아온 인민이며 오늘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인민입니다. 지난날의 처지의 공통성과 오늘의 투쟁목적의 공통성으로 하여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진실로 평등하고 호혜적인 원칙에서 서로 지지하고 긴밀히 협조해나갈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서로 래왕도 자주하고 호상 유익한 경험도 많이 나누며 정의의 위업을 서로 적극 지지하고 고무해주어야 할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이 하면 서로 리해를 두텁게 하고 친선을 더욱 강화할수 있을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다오메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언제나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조선인민과 다오메인민사이의 친선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정치적으로 서로 지지성원하는것과 함께 경제기술적으로도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은 나라들사이의 친선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앞으로 다오메공화국과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지난날 억압받고 착취받던 제3세계나라들이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경제교류와 기술적협조를 강화하여나가는것은 강대국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 나라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며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제3세계나라들은 정치적으로 단결할뿐아니라 경제,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이 인민들의 압력과 투쟁에 굴복하여 많은 나라들의 민족적독립을 승인하였지만 그들의 야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식민주의정책을 통하여 새로 독립한 나라들을 다시 예속시키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당신들도 체험한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은 새로 독립한 나라들을 다시 예속시키기 위한 전복활동을 빈번히 감행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제3세계나라들은 전투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빨리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빨리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이 나라들사이에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3세계나라들은 서로 교류할수 있는 좋은 경험과 기술을 몇가지씩 다 가지고있습니다.

우리가 얼마전에 페루기자들을 만났을 때에도 말하였지만 페루에서 물고기가공기술이 발전하였는데 우리는 페루에서 물고기가공기술을 배워올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오메에서도 좋은 경험과 기술을 배워올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나라에도 다른 나라에 넘겨줄수 있는 좋은 경험과 기술이 있습니다. 례를 들면 수리화경험 같은것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농촌경리의 수리화가 잘되여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있습니다. 우리는 수리화경험을 제3세계나라들에 넘겨줄수 있습니다.

지금 제3세계에 속하는 나라가 100여개 있는데 이 나라들이 좋은 경험과 기술을 한가지씩만 내놓아도 100여가지의 좋은 경험과 기술이 나옵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이것만 서로 교환하여도 큰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지금 강대국들에 의존하는것은 주로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강대국에서 자금을 빌려오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술을 빌려오는것입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서로 모르는것은 배워주고 없는것은 도와주면서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한다면 강대국들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나라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험은 인민들이 단결하고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후 우리 나라의 형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것이 재더미로 되였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인민들이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살아갈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공업화가 되지 못하였지만 농촌에서 협동화를 하기로 하

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조합은 어렵게 살던 빈농민들로 먼저 조직되였습니다. 현대적기계가 없는 조건에서도 농민들이 한데 뭉치니 큰 힘이 생겼으며 협동경리의 우월성이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농촌경리의 수리화도 농민들의 힘을 합쳐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한 나라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힘을 합치면 큰 힘을 낼수 있고 큰 일을 할수 있다는것은 세계적범위에서도 적용할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단결하고 서로 힘을 합치면 큰 일을 할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은 자원을 보호하는 투쟁을 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여 하루빨리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난날에는 몇몇 강대국들이 세계에서 주인행세를 하였지만 이제는 제3세계인민들이 세계의 주인노릇을 하여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제3세계나라들과 단결하며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을 대외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3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다음으로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아프리카인민들에 대한 우리의 립장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오늘 아프리카대륙에서는 자주의 기치밑에 식민주의의 온갖 잔재를 종국적으로 쓸어버리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습니다. 지난날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억압밑에서 신음하던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 인민들이 이미 독립을 쟁취하고 자주적발전의 길에 들어섰으며 국제무대에 등장하여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프리카대륙에서는 식민주의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민족해방투쟁이 전례없이 앙양되고있습니다. 기네—비싸우, 모잠비끄, 앙골라 인민들은 오랜 기간의 무장투쟁을 통하여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에게 결정적타격을 주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아프리카인민들의 거세찬 민족해방투쟁에 의하여 아프리카대륙에서 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체제는 종국적으로 무너져가고있습니다. 이 투쟁속에서 아프리카인민들은 날을 따라 더욱 각성되고있으며 위대한 혁명력량으로 자라나고있습니다.

아프리카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은 제국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독립을 쟁취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며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마지막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성스러운 투쟁입니다. 아프리카인민들이 벌리고있는 정의의 해방투쟁은 오늘 세계반제혁명위업수행에 크게 이바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인민들이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반드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없는 아프리카, 자유롭고 번영하는 새 아프리카를 건설할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자유와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것을 대외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있으며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무로 여기고있습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민족적독립을 쟁취하며 식민주의잔재를 쓸어버리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하며 그들에게 굳은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합니다.

당신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한 요인인 주체사상에 대하여 말해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체사상에 대하여 우리가 쓴 글이 이미 많이 나

갔기때문에 그에 대하여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당신이 옳게 지적한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이 새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한 결정적요인입니다.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지도사상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투쟁함으로써 력사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와 세기적락후를 없애고 위대한 사회경제적변혁을 이룩할수 있었습니다.

주체사상이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다시말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근로인민대중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자신의 투쟁에 의하여서만 침략자와 억압자들을 때려부시고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수 있으며 유족하고 문명한 새생활을 마련할수 있습니다.

근로인민대중에게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물질적부를 창조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이며 낡은 사회를 때려부시고 새사회를 건설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입니다. 세상에 근로인민대중보다 더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근로인민대중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투쟁이며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 때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조력을 발휘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시킬수 있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할것을 요구하는 주체사상이 새생활창조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떠미는 추동력으로,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입니다.

당신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주체사상이 어떻게 구현되고있는가 하는것을 물었는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주체사상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는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규정하는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는 문제 다시말하여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근로인민대중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이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왔으며 또 돌리고있습니다.

매개 나라 인민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자주적인 정권을 가져야 하며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당신네 나라의 국가수반이 정치적 자주성에 대하여 강조하는것은 매우 정당하다고 봅니다. 매개 나라 인민은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모든 로선과 정책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남의 압력이나 지시에 의하여 움직이는 정권은 자기 나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있는 정권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정치에서 자주성이 없는 나라는 사실상 자주독립국가라고 볼수 없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정치적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주견에 따라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경험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도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는것만 골라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 원칙을 견지하고있습니다. 다시말하여 우리는 무엇이든지 씹어보고 자기 비위에 맞으면 삼키고 자기 비위에 맞지 않으면 뱉아버리는 원칙을 견지하고있습니다.

정치적자주성과 함께 경제에서의 자립성을 보장하는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경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입니다. 정치적으로 완전한 자주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경제적으로 자립하여야 하며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려면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가진 그리고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체의 자원과 기술, 자기 인민의 로동에 의거하여 나라와 인민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갈수 있는 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자립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함으로써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를 매우 짧은 기간에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습니다.

국방에서 자위를 보장하는것은 자주독립국가의 필수적요구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을 보위할수 있는 자위적인 방위력을 가지지 못한 국가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방에서 자위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인민군대의 간부화와 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조국의 안전과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철벽의 방위력을 마련하여놓았습니다.

식민지예속에서 해방된 나라들이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될수 있습니다.

둘로 갈라져서 서로 다른 길을 걷고있는 우리 나라 남북반부의 현실이 그것을 잘 말하여주고있습니다.

자주의 길이 아니라 외세의존의 길을 걸어온 남조선은 미일제국주의자들에게 완전히 예속되고말았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에게서 많은 《원조》를 받고있는 남조선은 지금 다른 나라들의 빚을 60억~70억딸라나 지고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빚을 지고있으니 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돈을 대주지 않으면 당장 군대도 유지할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당국자들은 미국군대가 남조선에 장기주둔하여줄것을 애걸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남조선을 어떻게 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명색이 《나라》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나라가 아닙니다. 남조선은 외국의 군사기지이고 상품시장이며 신식민주의의 올가미에 걸린 예속《국가》입니다.

남조선에 자립적민족경제가 없으니 인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실업자수가 수백만을 헤아리고있으며 절대다수인민들이 헐벗고 굶주리고있습니다. 남조선사람들의 표현대로 한다면 남조선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입니다. 이것은 몇몇 잘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잘살게 되고 절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민들을 도탄속에 몰아넣고있는 남조선당국자들을 어떻게 민족적량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남조선과는 달리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완전한 정

치적자주성과 자립적인 민족경제와 자위적인 국방력을 가진 떳떳한 독립국가입니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지고있는 우리 나라는 남에게 빚을 진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 나라에 두번씩이나 와보아서 잘 알겠지만 우리 나라에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다 고르롭게 잘살고있으며 누구나 다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대한 근심걱정없이 마음껏 일하며 무료로 공부하고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남북반부의 판이한 현실은 남북이 서로 다른 정책을 실시하는데로부터 초래된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은 새로 독립한 나라들이 외세의존의 길을 걸으면 또다시 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될수 있으며 반대로 자주의 길을 걸으면 독립을 고수하고 민족적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제3세계나라인민들이 신식민주의의 올가미에 걸리지 않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혁명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벌려온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의 력사는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이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은 이미 우리 인민의 혁명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였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지난날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한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원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업입니다. 우리 나라 남북반부의 전체 인민들은 나라의 통일을 한결같이 열망하고있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습니다.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립장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것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정부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확고한 립장입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면 무엇보다도 조선에 대한 온갖 외세의 간섭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다음 오늘까지 거의 30년동안이나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내정에 란폭하게 간섭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 장애물이며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입니다.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며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키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이며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요구입니다.

미제와 함께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있는 외세는 일본군국주의자들입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저들의 상품시장으로, 식민지로 만들려는 목적밑에 미제의 《두개 조선》정책에 적극 추종하고있으며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는것과 함께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종식시키려면 남조선반동들이 외세에 의존하지 말아야 하며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조선반동들이 외세에 매여달리지 않고 매국배족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남북조선인민들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미제

는 벌써 남조선에서 쫓겨났을것이며 우리 나라에 대한 외세의 간섭은 종식된지 오랬을것입니다.

분렬된 조국을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여야 하며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이 정치활동을 자유로이 할수 있게 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을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한다는것은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민주주의적인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적인 중앙정부를 세우는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남조선에서 지금과 같이 가혹한 파쑈통치가 실시되고 민주주의가 완전히 말살된 조건에서 어떻게 남조선인민들이 자기 의사를 마음대로 표시할수 있으며 어떻게 민주주의적인 남북총선거를 실시할수 있겠습니까.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은 분렬된 조국을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통일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며 남조선인민들의 가장 절박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을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합리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꾸준히 투쟁하여왔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꾸준하고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시작되였으며 1972년 7월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근본립장이 밝혀진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북과 남사이에 협상이 마련된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획기적인 사변이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물론 전세계인민들이 이에 대하여 매우 기뻐하였으며 커다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남북협상을 주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조선반동들의 매국배족행위와 민족분렬영구화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새로운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였습니다. 남조선반동들은 대세의 압력과 날로 높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통일기운에 못이겨 우리와의 협상마당에 끌려나오기는 하였으나 협상에서 전혀 성실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우리가 내놓은 합리적인 제안들을 어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여 협상의 막뒤에서 민족분렬영구화책동과 매국배족행위를 일삼았으며 파쑈화정책과 전쟁도발책동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북과 남사이의 협상은 시작된지 3년이 되도록 이렇다 할 전진을 보지 못하고있습니다.

당신이 북과 남사이의 협상에서 이룩된 결과가 무엇인가고 물었는데 남조선반동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북과 남사이의 협상이 조국통일을 위한 근본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아직 전진을 이룩하지 못하고있고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여있지만 우리는 협상과정에서 귀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북과 남사이의 협상과정을 통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립장과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남조선반동들의 모략책동이 온 세상에 더욱 명백히 알려지게 되였습니다. 남조선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은 조선에서 누가 진심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누가 분렬을 추구하는가, 누가 진정한 애국자이고 누가 매국자인가 하는것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되였습니다.

북과 남사이의 협상과정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은 혁명적으로 더욱 각성되였으며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남조선반동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서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민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세계의 더욱더 많은 인민들로부터 지지와 동정을 받게 되였습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 앞에는 의연히 커다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

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남북조선인민들이 굳게 단합하여 꾸준히 투쟁한다면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은 반드시 성취되고야말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조선로동당과 우리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세가지 혁명과업 다시말하여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과업을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과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력사적경험은 물질적토대를 쌓는 투쟁만 하여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오래전부터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구호를 내놓고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습니다.

우리가 하고있는 사상혁명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수행하는데서 근로자들을 조직생활을 통하여 교양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일정한 조직에 망라되여 조직생활을 하고있으며 조직생활을 통하여 사상적으로 단련하고있습니다. 청년들은 사로청조직생활을 하고 녀성들은 녀맹조직생활을 하며 학교어린이들은 소년단조직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은 당조직생활을 하며 로동자들은 직맹조직생활을 하고 협동농민들은 농근맹조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생활에서 기본은 학습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근로자들이 열심히 학습하고있습니다.

학습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모든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입니다. 조선혁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조선혁명의 지도사상인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 당안에 우리 당의 사상으로 무장하지 않고 다른 당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우리 당의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을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모두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여있으며 우리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있습니다.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로동을 사랑하며 로동의 열매를 귀중히 여기도록 하는것입니다. 로동은 사회의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매우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로동하기를 좋아하고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로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사회주의전취물을 열렬히 사랑하고 적극 보호하도록 교양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상혁명과 함께 기술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습니다.

로동계급의 정권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하는것입니다.

우리 당 제5차대회는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3대기술혁명과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당이 내놓은 3대기술혁명과업은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

우리는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 이미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로동이 가장 많은 부문인 채굴공업과 수산업, 림업부문에서 기계화와 종합적기계화가 널리 실시되여 로동자들이 중로동에서 많이 해방되였습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도 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수리화가 실현되였으며 농촌전기화도 빛나게 완성되였습니다. 지금은 농촌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를 완성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 탈곡, 제분, 정미작업은 이미 오래전에 다 기계화되였습니다. 올해 봄에는 많은 면적의 논에 기계로 모를 냈으며 지금은 기계로 가을걷이를 할 준비를 적극 다그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농촌에는 뜨락또르가 경지면적 100정보당 벌방지대에는 4대,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에는 3대씩 차례지고있습니다.

농촌기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해마다 농사가 잘되고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것이 예견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식량을 자급자족하고있으며 알곡의 일부는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축산업에 돌리고있습니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습니다. 녀성들에게 남자와 같은 정치적권리를 주는것만으로는 녀성해방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같은 권리를 줄뿐아니라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충분히 마련하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녀성들의 참다운 해방을 실현할수 있으며 그들을 로동계급화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녀성들이 사회주의건설과 사회정치생활에 적극 참가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이르는곳마다에 탁아소, 유치원을 많이 건설하여 350만의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고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녀성들에게서 아이를 기르는 부담을 덜어주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수도화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데 농촌수도화가 완성되면 우리 나라 녀성들은 물동이를 이는 일에서 영원히 해방될것입니다.

문화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과 10년동안의 학교의무교육을 주는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습니다. 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자라나는 새세대들은 모두다 국가의 혜택으로 완전한 중등일반교육을 받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을 중학교졸업정도이상으로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공부하지 못한 40대이상의 사람들도 다 근로자중학교에 다니게 하여 중학교졸업정도의 지식을 가지도록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근로자들이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배우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날 기술문명에서 뒤떨어졌던 우리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빨리 높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민족간부를 키우는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이미 60만명이상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놓았으며 가까운 앞날에 그 대렬을 100만명으로 늘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140여개의 각종 대학이 있는것만큼 기술자, 전문가의 대렬을 100만명으로 늘일데 대한 목표는 멀지 않아 달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데 앞으로 그들을 다 인테리화하려고 합니다. 다시말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높은 문화기술지식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전체 인민이 공부하도록 하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문화혁명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사실상 전체 인민이 학습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투쟁하고있으며 간부들이 학습에서 앞장서고있습니다. 당, 국가경제기관 일군들과 공장, 기업소 관리일군들은 매일 일하고난 다음 2시간이상씩 학습하며 매주 수요일에는 강연회를 하고 토요일에는 한나절씩 집체학습을 하고있습니다. 그뿐아니라 모든 간부들이 사상, 기술, 문화 수준을 빨리 높이기 위하여 한해에 한달

씩 직장에 적을 두고 학교에 가서 의무적으로 공부하고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는 체계를 철저히 세워놓았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이 이처럼 잘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기때문입니다.

당과 정부가 옳은 혁명로선을 내세워 인민들이 전도를 똑똑히 내다볼수 있게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민들은 모두다 우리 당이 내놓은 로선과 정책을 통하여 자기들이 나아갈 길을 환히 내다보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 청년학생, 녀성 할것없이 전체 인민이 혁명의 전도와 자기들이 할바를 다 잘 알고있으며 휘황한 미래에 대한 확신과 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 당이 내놓은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가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있는 또하나의 주요한 요인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철저히 의거하며 근로인민대중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며 인민들과 단결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내세우고있습니다. 인민들속에 들어가면 그들에게서 좋은것을 많이 배우며 또 용기도 얻습니다. 우리는 인민들속에 들어가 인민들에게서 배울뿐아니라 인민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조직동원합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이 제3세계나라들의 진보적인 정권을 전복하려고 파괴음모책동을 로골화하고있는 조건에서 당과 정부가 인민대중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의 파괴음모책동을 물리치기 위하여서는 원쑤들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는것과 함께 인민들을 튼튼히 묶어세워야 합니다. 국가가 인민들을 통치하려고만 하여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통치라는 술어자체가 인민의 정권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국가가 인민들을 통치할것이 아니라 인민들과 단결하여야 합니다.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이 우리가 내놓은 주체사상의 기초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느님》이나 그 어떤 영웅호걸이 결정하는것이 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이 결정합니다. 근로인민대중에 의거하고 근로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발동하여야만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을 물리치고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확고히 고수할수 있으며 모든 애로와 난관을 뚫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당신이 질문한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이만큼 말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앞으로 조선과 다오메사이의 친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주기 바랍니다.

당신이 두번에 걸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기때문에 이제는 우리와 구면친구가 되였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좋은 친구를 다오메에 가지고있는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조선에 대한 선전자로 되였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다오메에 대한 선전자로 되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면서 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적극 투쟁합시다.

나는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오메국가수반을 평양에서 만날것을 희망합니다. 당신네 나라의 국가수반이 조선을 방문하면 우리 인민은 그를 진심으로 열렬히 환영할것입니다.

얼마전에 또고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는데 우리 인민은 그를 매우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나와 또고대통령이 만난 기간은 짧았으나 그 사이에 우리는 서로 리해를 두텁게 하였으며 가까운 친구가 되였습니다. 나는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 국가수반들을 친구로 가지고있습니다.

나는 다오메국가수반과도 친구로 될것을 희망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희망을 다오메 국가수반에게 전하여주기 바랍니다.

새 생활 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고있는 빛나는 성과로 하여 모리따니회교공화국의 국제적위신은 날로 높아가고있다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대통령을 환영하여 베푼 연회에서 한 연설 1974년 9월 21일

존경하는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대통령각하와 마리엠 다다흐부인!

존경하는 모리따니의 손님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아프리카의 저명한 정치활동가이며 모리따니인민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우리의 친근한 벗인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대통령각하와 마리엠 다다흐부인을 오래간만에 다시 만나 이처럼 자리를 같이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친선의 정 흘러넘치는 이 자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대통령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각하와 마리엠 다다흐부인을 비롯한 모리따니의 손님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번에 대통령각하 내외분께서 같이 우리 나라를 다시금 찾아주신것은 우리에 대한 두터운 신뢰와 뜨거운 우정의 표시로 되며 우리 인민에 대한 커다란 지지와 고무로 됩니다.

조선인민과 모리따니인민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공동의 투쟁을 통하여 전우로서, 형제로서의 굳은 의리를 맺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의 길을 개척하는데 있어서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대통령각하께서는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시였습니다.

1964년에 대통령각하께서는 모리따니가 남조선과 맺고있던 외교관계를 단호히 끊어버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오늘 남조선《정권》이라는것이 미제에 의하여 비법적으로 조작된 매국적인 파쑈정권으로서 안팎으로 버림받는 고아의 신세가 되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이 조선인민의 유일한 합법적주권국가로서 세계무대에서 날로 승승장구하고있는 사실은 10년전에 취한 대통령각하의 용단이 매우 정당하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1967년에 대통령각하께서는 직접 우리 나라를 방문함으로써 조선과 모리따니사이의 관계발전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시였으며 지난해에는 마리엠 다다흐부인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의 뉴대를 더욱 두터이하시였습니다.

대통령각하께서는 우리의 참다운 벗으로서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위업을 자기자신의 위업과 같이 여기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언제나 적극 지지성원하여왔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하시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두 나라 사이의 형제적친선관계발전을 위하여 대통령각하께서 쌓아올린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있습니다.

이번 대통령각하께서 우리 나라를 또다시 방문하신것은 두 나라 사이의 호상리해를 깊이하고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는데 있어서 획기적사변으로 됩니다.

모리따니인민은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오랜 기간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민족적독립을 이룩하였습니다.

독립후 근면하고 용감한 모리따니인민은 자기의 탁월한 지도자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 대통령각하의 옳바른 령도밑에 전반적인 민족적특성을 되찾을데 대한 원칙에 따라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경제적독립의 기초를 닦으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민족적단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모리따니인민은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이 몇해동안 계속되는 혹심한 자연재해를 성과적으로 극복해나가고있습니다.

모리따니정부는 대외관계분야에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 인민들의 해방투쟁과 팔레스티나인민을 비롯한 아랍인민들의 위업을 견결히 지지하고 에스빠냐령 사하라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으며 제3세계인민들의 반제공동위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모리따니인민이 새 생활 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고있는 빛나는 성과들로 하여 오늘 모리따니의 면모는 일신되고있으며 모리따니회교공화국의 국제적위신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조선인민은 형제적모리따니인민이 거두고있는 모든 성과들을 자기의 성과와 같이 기뻐하며 나라의 자주권을 튼튼히 지키고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그들의 성스러운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존경하는 손님여러분!

조선과 모리따니 두 나라 인민들이 공통된 목적과 리상을 위하여 벌리고있는 투쟁은 제3세계인민들의 공동의 위업으로 됩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이 제시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를 높이 들고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며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사회주의대건설에 총동원되여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국제혁명운동의 한 부분이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 인민들의 공동투쟁속에서 발전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있으며 전반적정세는 날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변되고있습니다.

제국주의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어제날 천대받고 압박받던 제3세계인민들이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으로서 력사무대에 등장하여 자주의 길로 힘차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각하께서는 알제리에서 있은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한돐이 되는 때에 우리 나라에 오셨습니다.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는 제국주의가 망하고 인민들의 해방투쟁이 승리하는 우리 시대 발전의 기본추세를 그대로 반영한 력사적사변이였습니다.

이 수뇌자회의에서 회의선언과 함께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것은 우리 인민에게 힘찬 고무로 되였으며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

고있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는 심한 타격으로 되였습니다.

조선문제와 관련하여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가 취한 조치는 오늘도 국제무대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모리따니 정부와 인민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언제나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대통령각하와 모리따니 정부와 인민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쁠럭불가담국가들이 우리의 조국통일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가 있은후 지난 한해동안 제3세계인민들은 지구상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철저히 쓸어버리고 온갖 낡은 국제관계를 깨여버리며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공동의 투쟁에서 위대한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쥔 제3세계인민들의 단결된 위력앞에서 제국주의자들은 더욱더 맥을 추지 못하고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기네—비싸우의 완전독립에 뒤이어 얼마전 모잠비끄의 독립에 관한 협정이 마련된것은 아프리카민족해방운동이 이룩한 또하나의 큰 승리입니다.

이것은 아프리카에서 식민주의의 마지막아성이 무너지고있으며 이 대륙의 완전해방의 날이 다가오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아세아에서도,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제국주의는 자기 생명의 마지막시각을 살고있습니다.

제3세계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침략과 간섭도 짓부시고 그들을 종국적멸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을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반제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나라 인민들, 제3세계나라 인민들,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나갈것이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아프리카대륙에 모리따니인민과 같은 견실한 전우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의 커다란 행복으로 됩니다.

나는 모리따니의 손님여러분들이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동안 우리와 함께 즐겁고 유익한 나날을 보내게 될것을 바라면서 조선인민과 모리따니인민사이의 불패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모리따니회교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대통령각하와 마리엠 다다흐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모리따니손님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우리는 모리따니인민이 대통령각하의 옳바른 령도밑에 새 생활 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한다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대통령과 부인이 차린 연회에서 한 연설 1974년 9월 22일

존경하는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대통령각하와 마리엠 다다흐부인!

존경하는 모리따니의 손님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나는 오늘 우리의 친근한 벗인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대통령각하께서 이처럼 성대한 연회를 차리고 우리를 친절히 초대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이 자리에서 대통령각하께서 하신 훌륭한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큰 고무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대통령각하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들사이의 우정과 호상 신임을 더욱 두터이하며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맺어진 전투적친선단결의 불패의 생활력을 시위하는 또하나의 력사적계기로 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어제와 오늘 형제적모리따니인민의 친선의 사절인 대통령각하내외분을 커다란 기쁨과 감격 속에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의 상봉을 통하여 모리따니인민이 대통령각하의 옳바른 령도밑에 새 사회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에 대하여서와 그들의 앞으로의 투쟁전망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거듭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여주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그처럼 열렬한 환영과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대한 당신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은 지난날 다같이 착취받고 압박받던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이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싸워나가려는 일치한 념원으로부터 흘러나온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공통된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들사이에 진행된 담화들에서는 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견해의 완전한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조선과 모리따니사이의 공고한 친선단결은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 제3세계인민들의

위대한 친선단결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제3세계인민들이 반제공동위업에서 단결하는것은 력사발전의 필연적요구입니다.

제국주의가 있는 한 그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계속될것이며 투쟁이 계속되는 한 인민들은 승리하기 위하여 더욱 단결하게 될것입니다.

세계의 미래는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굳게 단결하여나가는 인민들에게 속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공동의 투쟁에서 형제적모리따니인민과 정치적으로 더욱 굳게 단결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히 협조하여나갈것입니다.

존경하는 손님여러분!

이번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은 비록 짧은 기간이였으나 우리에게 참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였습니다.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대통령각하와 모리따니인민에 대한 높은 존경심과 뜨거운 친선의 정이 깊이 간직되여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모리따니인민이 자기의 탁월한 지도자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대통령각하의 옳바른 령도밑에 새 생활 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통령각하와 그 일행이 조국에 돌아가면 모리따니인민에게 보내는 조선인민의 이 열렬한 축원과 함께 아세아동방에 모리따니인민의 친근한 벗으로서 조선인민이 믿음직하게 서있다는것을 전하여주기 바랍니다.

나는 끝으로 대통령각하내외분이 우리 나라를 두번씩이나 방문하여 우리 인민을 크게 고무하여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조선인민과 모리따니인민사이의 영원한 친선단결을 위하여,

모리따니회교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 대통령각하와 마리엠 다다흐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모리따니손님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 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재일본조선청년예술체육대표조국방문단,
제2차재일본조선교육일군조국방문단, 재일
본조선고급학교학생조국방문단 성원들
앞에서 한 연설 1974년 9월 24일

나는 오늘 일본에서 조국을 위하여,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는 재일본 조선청년대표동무들과 학생대표동무들, 교육일군대표동무들을 만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만나게 된것은 여러 동무들이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온 결과입니다.

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와 그리고 조국의 전체 인민들과 교육일군들,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여러 동무들을 열렬히 환영하며 동무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양에서 다른 나라 대표단들도 자주 만나고 우리 나라의 여러 부문 일군들도 늘 만나지마는 일본에서 조국을 찾아온 동포들을 만나는것이 제일 기쁩니다. 나에게는 지난날 조국에 왔던 도꾜조선중고급학교 축구소조와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 음악무용소조학생들을 만나던 기쁨과 조선대학교 음악체육소조학생들을 만나던 감격이 아직도 인상깊이 남아있습니다.

사람들사이의 혈육의 정이라는것은 매우 깊은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동포, 형제, 자매들이 조국을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특히 조국에 온 동포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매우 설레이며 감개무량해지군합니다.

오늘 조국을 찾아온 재일본 조선청년학생들과 교육일군들을 만나니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이러한 심정은 나뿐아니라 여러 동무들도 마찬가지일것이며 나아가서 우리 나라 전체 인민들의 심정도 역시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국을 통일하고 남조선에 있는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 그때의 기쁨과 감격은 더욱 클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이 상봉은 동무들의 기억속에도 나의 마음속에도 영원히 남아있을 뜻깊은 상봉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상봉이 너무 기뻐서 동무들은 흥분되였고 눈물을 흘리고있습니다. 동무들이 그러니 나도 목이메여 연설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무들, 진정하십시오.

앞으로 우리는 혁명투쟁을 같이하여 나가는 과정에 또 만나게 될것입니다. 우리 모두 혁명의 한길을 걸으며 만났다 헤여지고 헤여졌다 만나면서 끝까지 잘 투쟁하여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념원인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완성합시다.

나는 오늘 동무들에게 우리 나라가 처하고있는 정세에 대하여서와 재일본 조선청년동맹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1. 우리 나라의 정세에 대하여

조국에 왔던 동무들이 우리 나라가 처하고있는 정세를 똑똑히 알고 가는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정세는 매우 좋습니다. 남조선반동들과 미일반동들을 비롯하여 세계의 반동들이 우리 공화국을 헐뜯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지마는 전반적정세는 우리 혁명에 더욱더 유리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가장 중요한 투쟁목표는 우리 민족의 최대의 념원이며 숙망인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입니다.

우리 당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세가지 과업을 내세우고있습니다.

첫째과업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입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혁명의 근거지를 튼튼히 꾸릴수 있고 혁명의 근거지를 튼튼히 꾸려야 조국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할수 있습니다.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는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기본밑천입니다.

둘째과업은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입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잘하는것만으로는 조국의 통일을 이룩할수 없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운동이 발전하여야 남조선의 민주주의력량과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이룩할수 있습니다.

셋째과업은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우리가 맞서고있는 적은 남조선반동들과 함께 미국의 반동들과 일본의 반동들입니다. 미일반동들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반동의 원흉들입니다. 우리 인민이 세계반동의 원흉들과 싸워이기려면 세계의 모든 혁명력량과 단결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단결하며 제3세계나라인민들과 단결하며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여 싸우는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단결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잘하여 혁명의 근거지를 튼튼히 꾸리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운동을 지원하여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함으로써만 세계반동의 원흉들과 싸워이길수 있으며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지금 조국에서 우리 당이 내놓은 조국통일을 위한 3대과업이 어떻게 실현되여가고있는가 하는것을 말하면 우리 나라가 처하고있는 정세를 똑똑히 알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형편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것은 우리 나라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다음부터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방침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세가지혁명 다시말하여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기회에 말하였지만 그저 공장이나 많이 짓고 공장굴뚝에서 연기나

잘 나가게 한다고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건설되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력사적경험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려면 반드시 공산주의건설의 두 요새인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다같이 점령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다같이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당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있으며 그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리고있습니다.

사상혁명에서 기본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입니다.

조선혁명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자신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 조선사람이 우리 당의 사상으로 무장하지 않고 다른 나라 당의 사상을 가진다면 조선혁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그런 사람은 조선혁명을 잘할수 없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우리 당의 사상밖에는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사상, 사대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은 낡은 사상을 가진 사람자체를 반대하는 투쟁이 아니라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는 사상투쟁입니다. 사상투쟁은 절대로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여서는 안됩니다.

낡은 사상을 없애기 위한 기본방도는 학습과 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우리는 교육하는 방법과 조직생활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지금 조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학습하는 규률을 철저히 세우고있으며 사로청원들은 사로청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고 직맹원들은 직맹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고 농근맹원들은 농근맹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고 녀맹원들은 녀맹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고 당원들은 당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으로 숨쉬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행동하게 하면 사회주의건설에서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온몸에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게 되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 청년학생들이 다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될것이며 전체 인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되면 사회주의건설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고 혁명투쟁에서 부닥치는 난관도 성과적으로 뚫고나갈수 있을것입니다.

사상혁명에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모든 사람들이 일하기를 좋아하도록 교양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은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일하기를 싫어하고 놀고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을수 없습니다.

로동에는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이 있는데 정신로동을 하든지 육체로동을 하든지 누구나 다 로동을 하여야 합니다.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모든 사람이 다 로동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 사상혁명의 기본

목적입니다.

지금 조국에서는 사상혁명이 잘되여가고있습니다. 사상혁명이 잘되니 기술혁명도 잘되고 당이 내놓는 모든 혁명과업들이 다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당중앙에서 직접 3대혁명소조를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 내려보내여 아래일군들을 도와주도록 한 결과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과 함께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기술혁명을 하여 인민들의 정치사상적준비에 물질적력량을 안받침하여야 우리의 혁명력량이 강대해질수 있습니다.

기술혁명은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기술혁명을 물질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과업으로만 일면적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반드시 정치적인 과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술혁명이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력을 발전시켜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함으로써 잘먹고 잘입고 유족한 물질생활을 하게 하는데만 목적이 있는것으로 생각하는데 기술혁명의 목적은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기술혁명의 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모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는데 있습니다.

기술을 발전시켜 한편으로 물건을 많이 생산한다고 하여도 다른편으로 근로자들이 힘들고 유해로운 일을 하며 건강에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례를 들어 일본에서 기술이 발전되였다고 하지만 심한 공해현상을 빚어내여 인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있는데 그러한 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기술혁명의 목적에 맞는다고 볼수 없습니다.

기술혁명은 주로 모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말이 길어서 그저 간단히 기술혁명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근로자들을 힘든 일에서 해방하는 혁명이라고 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물론 근로자들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낡은 착취제도를 때려부신 다음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까지 해방하여야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임무를 다 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제국주의와 착취계급의 압박에서 해방한 다음에는 그들을 힘든 일에서 해방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이와 같이 기술혁명은 정치적인 성격을 띤 과업이지 결코 소비품이나 설비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기술실무적인 과업이 아닙니다.

소비품이나 설비를 많이 생산할뿐아니라 헐하게 만들수 있게 되여야 그것을 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편합니다. 쌀을 헐하게 생산하게 되여야 그것을 먹는 사람의 마음도 편하지 힘들게 생산하면 쌀을 먹는 사람의 마음도 편안치 않고 밥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어떻게 힘들여 쌀을 생산했는가 하는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 잘먹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량심이 없는 사람이며 그렇게 생각하는것은 지주, 자본가와 같은 착취계급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아직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지 못하였으며 중로동과 경로동사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사이,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사이의 차이를 없애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나아가서는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도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이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많은 물건을 생산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을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

로 공산주의의 목표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업을 짧은 시일안에 해결할수는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 제5차대회보고에는 6개년계획기간에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인다고 지적되여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기술혁명과업이 잘 수행되여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나무를 찍고 석탄과 광석을 캐며 지질탐사를 하는것과 같은 채취공업부문의 로동이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먼저 채취공업의 기술혁명에 큰 힘을 넣고있습니다.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투쟁도 잘 진척되고있습니다.

아직 농업로동은 공업로동보다 힘듭니다. 우리는 빠른 기간에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려고 합니다. 물론 농촌기술혁명에서 아직 할 일이 많지만 이 분야에서 이미 적지 않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벌써 오래전에 수리화가 완성되였으며 전기화도 실현되였습니다. 농촌테제에서 내놓은 화학화의 목표도 명년쯤에 가서는 달성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 아직 기계화가 완성되지 못하였습니다. 농촌경리를 완전히 기계화하려면 끝이 없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넣어 다음해까지는 농촌경리의 기계화에서 기본적인것을 해놓자고 합니다.

농촌테제에는 농촌에 7만～8만대의 뜨락또르를 보내주기로 되여있는데 이미 농촌에 그만한 뜨락또르가 나가있습니다. 그러나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완성하려면 경지면적 100정보당 뜨락또르가 6～8대는 있어야 합니다. 이미 뜨락또르가 많이 들어가있는 지대들도 있지만 뜨락또르가 적게 들어가있는 지대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모든 지역에 뜨락또르를 고르롭게 더 많이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나라 농업에서는 더 큰 비약이 일어날것입니다.

올해는 농촌테제발표 10돐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농촌테제발표 10돐을 계기로 농업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농민들이 높은 열성을 내여 일하고 온 나라가 힘있게 농촌을 지원한 결과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얼마전에 올해 농사형편을 총화하여보았는데 매우 놀라운 성과가 이룩될것이 예견되고있습니다. 올해에 알곡을 15만톤 내는 군이 10개, 10만톤 내는 군이 24개, 8만톤 내는 군이 31개로서 8만톤이상 내는 군이 모두 65개나 될것이 예견됩니다. 올해에 군적으로 지난해보다 알곡생산이 2배로 늘어날것이 예견되는 군들이 많습니다. 사과풍년, 쌀풍년, 모두다 풍년이라는 노래대로 올해에 우리 나라에는 대풍이 들었습니다. 얼마전에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는 대풍이 든 곡식을 제때에 걷어들이기 위하여 지금 생산하고있는 자동차를 다 농촌에 보낼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옛날부터 쌀뒤주가 가득차고 쌀독이 넘쳐나야 부자라고 하였는데 우리 나라의 가는곳마다에 쌀뒤주가 차고 넘치게 되였으니 우리나라는 부자가 되였으며 인민들은 더 잘살게 되였습니다.

올해에 많은 군들에서 알곡생산을 배이상 높인것은 군이 커졌기때문이 아니라 농업생산력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였기때문입니다. 다시말하여 이것은 다 농촌기술혁명이 가져온 성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농업을 공업화하기 위한 투쟁,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투쟁이 아주 잘되여가고있습니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과업도 잘 수행되여가고있습니다.

녀성들을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사회에 진출시켜야 합니다.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지 않고 집안에 들어앉아있어서는 로동계급화될수 없습니다.

또한 녀성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야 그들의 사회적해방이 실질적으로 실현될수 있습니다.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는것만으로 녀성들의 해방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의 능력에 따라 정신로동을 할 사람은 정신로동을 하고 육체로동을 할 사람은 육체로동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녀성들이 할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녀성들은 의사와 교원으로도 일할수 있고 경공업공장들에서도 일할수 있으며 상점판매원으로도 일할수 있고 편의봉사부문에서도 일할수 있습니다.

녀성들이 사회에 널리 진출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지금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2중적인 로동의 부담을 걸머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 녀성들은 사회에 나가서 남자들과 똑같이 일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밥을 짓고 아이들을 거두며 가족들의 옷을 손질하는것과 같은 가정일을 하여야 합니다. 남자들보다 육체적으로 약한 녀성들이 2중적인 로동의 부담을 감당한다는것은 매우 힘겨운 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는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문제를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습니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부담에서 해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사업을 널리 발전시키는것입니다. 당과 국가에서는 이르는곳마다에 탁아소와 유치원을 건설하고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350만에 이르는 어린이들이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자라고있습니다.

엥겔스는 어머니의 곁을 떠난 모든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것을 중요한 공산주의적시책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러한 공산주의적시책이 우리 나라에서 제일먼저 실현되고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또한 경공업을 발전시키는데도 큰 힘을 넣고있습니다. 옷도 공장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며 녀성들이 시간을 적게 들이고 부엌일과 가정일을 할수 있도록 식료가공품과 세탁기, 전기밥가마를 비롯한 여러가지 부엌세간도 많이 생산하여 공급하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봉사망을 늘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더 잘 도모하여주도록 하고있습니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우리가 또하나 중요한 문제로 내놓은 것은 농촌수도화를 실현하여 농촌녀성들이 물동이를 이고 다니지 않게 하는것입니다.

아직도 농촌에 가보면 녀성들이 물동이를 이고 다니는데가 많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다니는것은 몇천년동안 내려오면서 우리 녀성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되여있었습니다. 특히 우물과 멀리 떨어져있는 농촌집녀성들에게 있어서 물을 길러다니는 일은 매우 큰 부담으로 되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빨리 농촌수도화를 실현하여 녀성들이 물동이를 이고 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얼마전에 농촌에 나가 어떤 할머니를 만나 보았는데 그는 일생동안 물길러다니느라고 허리가 다 굽었는데 오늘 로동당시대에 와서 녀성들이 물동이를 이지 않게 되였으니 참으로 좋은 세상이라고 하면서 이 좋은 세상에서 허리가 다시 펴질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문화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습니다.

문화혁명에 대하여서는 동무들이 이번에 조국에 와서 강의도 들었고 학교들도 많이 참관하였기때문에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문화혁명에서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내세우고있는것은 모든 근로자들이 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지식수준을 가지도록 하는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지금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는 조건에서 새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해방후에 자라난 사람들도 거의다 중학교를 나왔기때문에 그들이 중학교졸업정도의 지식을 가지는것은 문제로 될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로 되는것은 해방전에 공부를 하지 못한 40대이상의 사람들의 일반지식수준을 높이는것입니다. 해방직후에는 그들의 문맹을 퇴치하는 운동을 하였고 그다음에는 그들의 수준을 인민학교졸업정도이상으로 올리는 운동을 하였으며 지금은 중학교졸업정도이상으로 올리는 투쟁을 벌리고있는데 이 투쟁이 좀 완만하게 진행되고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는 다 늙었는데 배워서 무엇하겠는가고 하면서 열성을 내지 않는데 하나의 원인이 있고 그들이 배우기 위하여 힘쓰도록 조직적으로 강하게 내밀지 못한데도 일정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당이 잘 투쟁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문명한 나라의 하나로 될것입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다 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수준에 이르게 하는것이 문화혁명에서 첫째과업입니다.

문화혁명의 둘째과업은 모든 근로자들이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지도록 하는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자연과학지식과 사회과학지식을 가지는외에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배울것을 강조하고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질데 대한 우리 당의 구호가 성과적으로 실현되여가고있습니다.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있습니다. 해방직후에 우리 나라에는 인테리라고 말할수 있는 기술자, 전문가가 몇십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나라에는 60만명의 기술자, 전문가가 있으며 가까운 앞날에 그 대오가 100만명이상으로 늘어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100만의 인테리대군을 키워낼뿐아니라 앞으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한 조건에서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려고 합니다.

온 사회가 로동계급화되지 못한 조건에서 인테리화의 구호를 내놓으면 좀 어페가 있을수 있으나 온 사회가 로동계급화된 조건에서 인테리화의 구호를 내놓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적인 인테리로 만들자는것이기때문에 조금도 나쁠것이 없습니다. 인테리화한다고 하면 마치도 소자산계급화하는것처럼 생각할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것은 잘못입니다. 지난날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테리들이 하나의 사회계층으로서 자본가를 위하여서도 복무하고 또 다른 계급을 위하여서도 복무하기때문에 인테리를 소부르죠아계층으로, 동요하는 계층으로 보는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되여있었으나 사회주의사회의 인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테리는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로동계급입니다. 물론 정신로동이 육체로동보다 좀 헐한것은 사실이지마는 정신로동도 결코 쉬운것이 아닙니다.

우리 당은 민족간부양성에서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공장대학, 공장고등기술학교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를 발전시키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에는 모든 간부들이 매일 2시간씩 학습하고 토요일에는 한나절씩 학습하며 1년에 한달씩 정규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제도가 서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는 구호밑에 말 그대로 전체 인민이 학습하는 배움의 나라,교육의 나라로 되고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밑에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특히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을 통

하여 인민대중속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일하며 생활하는 공산주의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주의사회의 대단결을 의미하는것이며 조국통일과 사회주의건설의 결정적력량인 우리 인민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여가고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입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전체 인민이 정치적이며 혁명적인 하나의 화목한 집단으로 단결되여 힘차게 나아가는것이 오늘 우리 나라의 혁명적대풍모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국방력도 철벽으로 다져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랑스럽게도 세상에 둘도 없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의 독창적인 군사로선을 빛나게 실현하여나가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 각오를 가지고 어느때 원쑤들이 덤벼들어도 단매에 쳐부실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동무들이 다 아는바와 같이 미제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간첩비행기 《이씨—121》사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군사적도발을 감행하고 그때마다 우리 인민의 강한 징벌을 받고서도 감히 우리 나라에 접어들지 못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의 구현인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이 빛나게 관철된 결과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부강하고 위력한 나라로 전변되였으며 세계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칭송을 받으면서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힘있게 내달리고있습니다. 동무들이 돌아가면 일본에 있는 동포들에게 사회주의조국의 이러한 자랑찬 현실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투쟁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당국자들의 파쑈통치를 반대하며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혁명투쟁이 앙양되는것이 마치도 우리가 혁명을 수출하기때문인듯이 떠들어대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질없는 소동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혁명은 수출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혁명을 수출하지 않으며 또 수출할수도 없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이 혁명투쟁에 일떠서는것은 그들자체가 진리를 깨닫고 혁명적으로 각성되기때문입니다.

오늘 남조선당국자들은 인민들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빼앗고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을 더 빨리 각성시키고있으며 그들을 강력한 반항에로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탄압이 있으면 반항이 있기마련입니다. 탄압이 있는곳에는 반드시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곳에서는 혁명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이른바 《10월유신》이라는것을 날조한 다음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들은 《비상계엄령》이요, 《긴급조치》요, 《갑호경계령》이요 하고 이루 셀수없이 많은 폭압조치들을 련발하면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탄압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 남조선청년학생들이 반파쑈민주화투쟁에 대대적으로 떨쳐나서자 남조선당국자들은 미친듯한 탄압소동을 벌렸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대학생들과 인민들을 수천명이나 잡아가두었습니다. 그들은 시인 김지하를 비롯한 지식인들과 각계층 인사들 지어는 지난날 《대통령》을 한 사람과 천주교 주교 지학순을 비롯한 종교인들까지 잡아가두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남조선에서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잡아가두고는 그들이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당치않은 구실을 붙여 박해를 가하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남조선에서 자기들을 반대하는 어떤 《사건》이 생기면 매번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듯이 날조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넘겨씌워보려고 책동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상투적수법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지난 8월 15일에 있은 《저격사건》에 대한 책임도 우리와 총련에 넘겨씌워보려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허황하기 짝이 없는 책동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 총련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이 《사건》은 남조선반동들자신이나 그 상전들이 꾸민 음모가 틀림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남조선당국자들이 지금과 같은 폭압통치를 계속하면 남조선인민들의 반항이 더욱 높아지고 세계인민들의 여론도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조성되겠기때문에 남조선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의 주의를 딴데로 돌리기 위하여 조작한 음모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본래부터 개인테로를 반대합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이 반동통치자 한사람을 없애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파쑈제도자체를 반대하며 착취없고 압박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기때문입니다. 파쑈제도를 그냥두고 테로행위를 하여 《박》가를 《최》가로 바꾸고 《최》가를 《장》가나 《리》가로 바꾼다고 하여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어떤 통치자 개인에게 있는것이 아니라 파쑈제도자체에 있는것입니다.

적들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려고 하는것자체가 우둔한 짓입니다. 사물을 가려볼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것을 곧이 듣지 않을것입니다. 남조선반동들이 서툰 음모를 꾸며가지고 소동을 피워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남조선반동들은 그 어떤 술책으로써도 진실을 가리울수 없으며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지금 남조선의 현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지난 며칠동안 남조선에서 사람들의 주의가 《저격사건》에 쏠린듯하였으나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남조선에서는 청년학생들의 반《정부》투쟁이 또다시 벌어지고있습니다.

며칠전에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구속학생들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들고 투쟁에 일떠섰습니다. 어제는 리화녀자대학교 학생들이 구속된 학생들을 즉시 석방하며 학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것을 요구하여 투쟁에 나섰습니다.

청년학생들뿐아니라 남조선의 로동자들도 투쟁에 용감히 일떠서고있습니다. 며칠전에 울산조선소 로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질겁한 괴뢰경찰들은 투쟁에 나선 로동자들에게 야수적인 폭행을 가하였으며 860여명이나 잡아가두었습니다.

이 모든것은 압박이 있고 탄압이 있는곳에는 반드시 반항이 있다는 혁명의 진리를 다시금 뚜렷이 증명하여주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이 남조선의 현당국자들을 한결같이 증오하며 그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은 특히 남조선당국자들이 조국통일을 방해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를 하기때문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2년전에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말하면서 우리와의 협상에 처음 응하였을 때에는 남조선인민들가운데 행여나 하고 그들의 민족적량심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와의 협상에서 지연전술을 쓰면서 대화의 진전을 방해하였으며 나아가서는 로골적으로 《두개 조선》 유엔가입에 대한 주장을 내놓고 민족의 영구분렬을 획책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과 온 세상사람들앞에서 자기들의 정체를 날날이 드러내놓았습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앞잡이라는것을 처음부터 알고있었으나 그들이 앞으로는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므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념원으로부터 과거를 묻지 않고 그들과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의 약속을 배반하였으며 그후 외세에 더욱더 매여달리면서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을 감행하였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결국 우리 나라를 영원히 둘로 갈라놓음으로써 저들의 운명을 더 연장해보려는것이며 남조선을 미제의 군사기지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상품시장으로 영원히 내여맡기려는것입니다. 그들의 이와 같은 매국배족행위는 남조선인민들의 증오와 격분을 자아내지 않을수 없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이 남조선의 현당국자들을 증오하며 그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은 또한 남조선당국자들이 부정부패행위를 혹심하게 하기때문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의 부정부패행위는 매우 심합니다. 그들은 남조선인민들을 착취하고 나라와 민족을 팔아 술한 돈을 부정축재하였으며 그것으로 회사와 호텔 같은것을 경영하면서 일신의 향락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사회여론에 의하면 남조선당국자들은 미국과 일본에서 받는 이른바 《원조》에서도 많은 돈을 떼먹고있다고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해마다 남조선에 몇억딸라씩 《원조》를 준다고 하지만 그 돈은 《원조》를 주는놈들이 몇십프로 떼여먹고 남조선의 고위당국자들이 몇십프로 떼여먹고 그아래졸개들이 또 얼마씩 떼여먹고나면 마지막에 남는것은 몇잎 되지 않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과 미제국주의자들 그리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서로의 리해관계로 하여 더욱 가까이 얽혀있습니다.

모든 사실은 남조선의 현당국자들은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악독한 파쑈분자들이며 조국통일을 방해하고 외세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이며 부정부패의 우두머리들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지금과 같이 반동의 길로, 민족반역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그들과의 협상을 통하여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한다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조건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남조선에서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힘있게 벌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인테리, 량심있는 종교인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과 애국적민주인사들이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더욱 용감히 떨쳐나서야 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북반부 전체 인민들이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애국적투쟁을 지지성원하는것은 남조선에 대한 내정간섭도 아니고 남조선에서의 혁명을 고취하기 위한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것을 숭고한 민족적의무로 내세우고있습니다.

남조선반동들의 가혹한 파쑈폭압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이 우여곡절을 겪고있지만 그것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것이며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문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체적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과 함께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제3세계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단결하는것을 대외활동의 확고한 원칙으로 내세우고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제3세계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은 대부분 제2차세계대전이후에 새로 독립한 나라들이며 이 나라들은 지난날 다같이 제국주의자들의 압박과 착취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제3세계나라들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용감하게 투쟁하고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제3세계는 현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3세계나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당의 옳바른 대외정책에 의하여 지금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이 매우 잘되여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련대성이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특히 제3세계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가 강화되고있습니다. 제3세계나라 인민들은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습니다.

지난해에 알제리에서 진행된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는 우리의 조국통일5대방침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습니다. 후아리 부메디엔의장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가 토의될 때 쁠럭불가담국가수반들에게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결의대로 조선문제를 정당하게 해결하도록 계속 투쟁할것을 호소하는 전문을 보냈으며 올해에 또다시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가 토의되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에서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을 호소하는 전문을 쁠럭불가담국가수반들에게 보냈습니다.

올해 7월에 알제리에서 진행된 제3세계청년대회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립장과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여왔습니다. 이 모든것은 우리 나라가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인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동정을 받고있다는것을 말하는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몇개의 반동적인 나라를 내놓고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고있으며 또 맺으려 하고있습니다. 동무들도 아는바와 같이 스웨리예와 단마르크를 비롯한 많은 자본주의나라들이 이미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국가관계를 좋게 발전시키고있습니다.

지어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우리를 반대하여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오스트랄리아가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최근에는 에티오피아도 우리 나라와 좋은 관계를 가지려 하고있습니다.

지난날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추종하여 조선전쟁에 참가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황제는 황제로서 남조선을 방문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인민은 이것을 큰 수치로 여기고 지금까지 참아온것 같습니다. 최근에 에티오피아에서 청년들이 황제제도를 뒤집어엎었는데 에티오피아의 한 간부가 우리 사람들을 찾아와서 지난날 황제가 저지른 잘못을 사죄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1950년에 자기 나라가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에 잘못 참가한 오점을 씻기 위해서도 조선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기간 우리 나라에 대하여 좋지 못하게 나오던 많은 나라들이 돌아서서 지금은 우리 나라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있으며 또 가지려 하고있습니다.

지난날 사회주의나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멀리하던 동남아세아의 일부 나라들도 지금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좋게 발전시키고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좋게 발전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제적으로 많은 혁명동지들과 벗들을 가지고있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고있습니다.

그러면 제3세계나라들과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이 우리를 적극 지지하고있는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체사상을 내세우고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고있기때문입니다.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입니다. 지금 세계진보적인민들은 다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으며 자주적으로 살것을 원하고있습니다. 그 누구도 남에게 예속되여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주의나라들과 제3세계나라들은 물론 자본주의나라들까지도 자주의 길을 걸으려 하고있습니다. 당신들이 살고있는 일본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말할수 있습니다. 일본의 절대다수 인민들과 진보적인사들이 자주성을 강조하고있는것도 그들이 남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고있기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오늘 인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세계적조류로 되고있습니다.

제3세계의 많은 나라 인민들은 우리 나라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견결하고 자주, 자립의 길로 나가고있기때문에 우리 나라와의 단결을 중요시하며 우리와 서로 지지협조하고있는것입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달라붙어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에서 동맹대회때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청년대표들을 초청하여 회의에 참가시켰다고 하는데 아주 잘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체사상의 기치, 자주성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 힘차게 나간다면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사람들을 쟁취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쟁취하고 세계인민들과의 혁명적단결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 그리고 남조선반동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것입니다.

2.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나라의 완전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기본로선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운동을 적극 지원하며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우리 당의 이러한 기본로선으로부터 총련앞에는 첫째로 전체 재일동포들이 우리의 사회주의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적극 옹호하도록 하며, 둘째로 일본에 있는 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며, 셋째로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넷째로 일본의 민주세력과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지금 총련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나라의 완전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 있는 기본로선에 기초한 네가지 기본과업을 훌륭하게 실행하고있습니다.

총련의 지도밑에 활동하고있는 재일본조선청년동맹과 재일본 조선교육일군들은 총련의 기본과업에 따라 자기 사업을 조직하고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은 무엇보다도 자기 조직들을 혁명적인 조직으로 만들며 청년들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재일 조선청년들이 처하여있는 환경과 조국의 청년들이 처하여있는 환경은 같지 않습니다. 비유하여 말해서 조국에 있는 청년들은 파도가 없는 잔잔한 강에서 헤염치고있다고 한다면 재일 조선청년들은 풍랑이 심한 바다에서 헤염을 치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조국의 청년들은 순탄한 조건에서 사업하고있지마는 재일 조선청년들은 매우 복잡하고 험난

한 환경에서 투쟁하고있습니다.

지금 재일 조선청년들은 적진속에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에 대하여 적대시정책을 쓰고있기때문에 그렇게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하여 적대시정책을 쓰지 않지마는 일본정부가 우리를 적대시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수 없습니다. 또한 재일 조선청년들은 독점자본이 지배하고 돈과 권세가 판을 치며 생활이 극도로 부패타락한 자본주의사회에서 살고있습니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이 이러한 복잡한 환경에서 사회주의조국을 옹호하고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수호하며 남조선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사업과 일본의 민주세력을 비롯한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하려면 청년조직을 혁명적인 조직으로 만들고 청년들을 혁명화하여야 합니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은 부패와 타락, 돈과 권세가 판을 치고 반동통치가 지배하는 조건에서 사업하는것만큼 동맹조직들을 조국에 있는 사로청조직들보다 더 혁명적인 조직으로 만들며 모든 청년들을 조국에 있는 사로청원들보다 더 혁명성이 강한 청년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이 어떤 모진 풍파도 이겨낼수 있고 자기앞에 맡겨진 무거운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동무들이 지금 사업하는데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어렸을 때 적들이 통치하는 지역에서 청년사업을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있을 때 나는 길림지방에 있는 조선청년들속에서 사업하였는데 어려운 일이 매우 많았으며 걸음마다 난관에 부닥치군하였습니다. 지금 동무들의 형편도 그러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청년사업을 할 때의 조건과 오늘 동무들이 사업하고있는 조건이 다른 점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나라를 빼앗긴 망국노였으나 동무들은 지금 자기의 사회주의조국을 가지고있습니다. 사회주의조국을 가지고있는것은 동무들이 투쟁하는데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점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에서 사업하는것만큼 길이 험난하고 애로와 난관이 많을것입니다.

험난한 혁명의 길에서 부닥치는 난관들을 이겨낼수 있는 방도는 사람들을 혁명화하는것 다시말하여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은 청년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자기의 첫째가는 임무로 내세워야 합니다.

재일 조선청년들이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않고서는 자본주의사회의 조건에서 혁명적지조를 지킬수 없고 부닥치는 시련을 이겨낼수 없습니다.

지금 동무들이 살고있는 사회에는 자본주의벌레, 봉건주의벌레, 수정주의벌레, 사대주의벌레를 비롯한 온갖 해로운 벌레들이 욱실거리고있습니다. 그러한 벌레들을 물리칠수 있도록 튼튼히 준비되지 못하면 그것들한테 물릴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벌레들한테 물리면 몸에 병균이 들어와 병에 걸릴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벌레한테 물리면 자본주의병균이 들어오고 수정주의벌레한테 물리면 수정주의병균이 들어오며 사대주의벌레한테 물리면 사대주의병균이 들어옵니다.

혁명에 해로운 오가잡탕의 벌레들이 물지 못하게 하고 나쁜 병균이 몸에 들어와 병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예방약은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입니다.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데서 여러번 말하였기때문에 오늘은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입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의 기본무기입니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온갖 잡균들이 몸에 침습하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은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들의 조직인것만큼 동맹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

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적극 힘써야 합니다.

청년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주체사상으로 교양하는것과 함께 과거를 잊지 않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

일본에 있는 조선청년들이 과거를 잊지 않도록 한다는것은 지난날 조선인민이 일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얼마나 천대를 받으며 억울하게 살았는가 하는것과 부모들이 사랑하는 조국과 정든 고향을 등지고 일본땅에 가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거리에서 고생하던 그 피눈물나는 생활과 갖은 민족적 모욕과 차별을 받으며 살아온 지난날의 쓰라린 생활을 잊지 않도록 한다는것을 말합니다.

동무들은 자기의 계급적처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무들의 아버지, 어머니는 지난날 보따리를 하나들고 현해탄을 건넜습니다. 그때 우리 동포들가운데 황금덩이를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상공인이요 무엇이요 하지마는 지난날에는 다 어렵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일본에 있는 우리 상공인들을 민족적혁명성이 있는 애국적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재일 조선청년들이 과거를 잊지 않도록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쓰라린 과거를 잊지 말아야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미워하게 되며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잘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사상과 신념이 확고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또한 과거를 잊지 말아야 미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서 내쫓고 조국의 절반땅을 되찾을 각오도 더욱 굳게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지난날 우리 인민들이 겪은 망국노의 설음과 고통스러운 생활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며 나라없는 사람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는 말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조선청년들은 자본가가 없고 착취와 압박이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무료로 치료받으며 다같이 잘사는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여야 합니다. 재일 조선청년들을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도록 교양하는것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우리의 조국은 사회주의조국이며 우리가 말하는 애국주의는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입니다. 오늘의 남조선은 재일 조선동포들의 조국이 아니라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입니다. 조선인민의 유일한 조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러므로 재일 조선청년들은 자기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랑하여야 하며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무조건 옹호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조국이 없으면 재일동포들이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으로서의 당당한 민족적권리를 가질수 없으며 오늘과 같이 존엄있고 보람있는 생활을 누릴수 없습니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은 재일 조선청년들을 자기의 유일한 사회주의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열렬히 사랑하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 총련교육사업도 후대들을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것으로 그 내용이 일관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청년들을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싸울 굳은 각오를 가진 열렬한 혁명가로 키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은 재일 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튼튼히 지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재일 조선동포들의 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문제는 조선사람을 되찾기 위한 운동을 적극 벌리며 조선사람이 일본사람으로 동화되지 않도록 하는것입니다.

조국에 왔던 총련동무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민단》계통의 동포들가운데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엄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공통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징표의 하나입니다. 일본에 있는 동포들이 조선말을 모르면 조선민족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며 일본사람이 되여버릴수 있습니다. 재일 조선청년들은 민족동화정책으로 일본에 있는 조선사람들을 하나하나 없애버리려는 일본반동들의 음흉한 책동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동무들은 일본반동들의 민족동화정책을 견결히 반대하며 조선사람들을 다 찾아내고 한명의 조선사람도 일본사람으로 동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민족적권리를 철저히 지킬수 있습니다.

일본반동들은 조선사람들이 동화되여도 그들에게 일본사람과 같은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본반동들이 다른 민족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본성을 버리지 않고있기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민족성을 버리고 살아서야 무슨 사는 보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정치적권리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 때에만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낄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재일본조선청년동맹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일본에 있는 조선청년들이 조선말을 열심히 배우고 우리 인민의 혁명전통을 깊이 체득하며 조선력사를 잘 알고 자기의 영광스러운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조선민족의 영예를 지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재일 조선청년들에게 자본가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문제는 크게 제기될것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가운데는 독점자본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일본조선청년동맹앞에는 독점자본가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할 과업은 나서지 않습니다. 동무들은 일본에서 조선민족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여 투쟁하면 됩니다.

동무들에게 있어서는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고 사회주의조국을 옹호하는것이 곧 혁명투쟁이며 일본반동들이 조선민족을 모욕하고 멸시하는것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 곧 계급투쟁입니다. 조선혁명을 끝까지 해나가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그 완성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것이 바로 계급투쟁을 잘하는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에 있는 조선청년들을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에 훌륭히 이바지할수 있는 쓸모있는 일군으로 키워야 하겠습니다.

재일 조선청년들을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에 쓸모있는 일군으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선진과학과 기술을 잘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국에는 과학자, 기술자가 많이 요구됩니다. 재일 조선청년들이 과학과 기술을 배워야 앞으로 조국에 돌아와서 경제문화건설과 국가관리에 적극 참가할수 있습니다. 또한 재일 조선청년들이 과학과 기술을 널리 소유하여야 일본에 있으면서도 많은 발명을 하여 조국의 영예를 더욱 빛낼수 있고 조국의 륭성발전에 이바지할수 있습니다.

지금 조국에서는 모든 청년학생들이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배우는 운동을 벌리고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조선청년들도 기술을 한가지이상씩 소유하기 위한 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좋겠습니다. 일본반동들이 민족적차별대우를 하면서 조선사람에게 기술을 잘 배워주지 않는 조건에서 애로가 있겠지만 어떻게 하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재일 조선청년들속에서 기술을 배우는 운동을 널리 벌려 여러 부문의 기술자들을 많이 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계각층 청년들과 단결하는 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이 자기 조직에 로동계급성분을 가진 청년들만 받으려 해서는 청년들을 많이 묶어세울수 없습니다. 재일동포자녀들가운데는 중소상공인의 아들딸들이 많은

데 그들을 다 청년동맹대렬에 굳게 묶어세워야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큰 공장에 조선사람들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본에 있는 조선사람들이 살아나가기 위하여서는 중소상공업을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중소상업이라고 해야 자그마한 료리점을 차려놓고 음식이나 해파는 정도이며 그것도 자신이 로동을 해서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본가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중소상공업을 하는것을 반대하지 말아야 하며 중소상공인의 아들딸들을 다 청년동맹대렬에 묶어세워 그들이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은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에서 조선청년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단결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이 우리 인민의 최대의 념원이며 민족지상의 과업이라는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조선민족은 하나의 피줄을 이은 단일한 민족이며 우리 나라는 오래동안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여왔습니다.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은 결코 둘로 갈라질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의 조선,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되여야 합니다.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청년들이나 일본에 있는 《민단》청년들이나 할것없이 조선의 모든 새세대들이 한데 뭉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재일 조선청년들은 남조선청년들 그리고 《민단》청년들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그들이 7.4남북공동성명에 밝혀진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과 우리가 지난해에 내놓은 조국통일 5대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 남조선청년들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고있습니다. 남조선혁명의 주인은 남조선인민들자신입니다. 남조선혁명에서는 남조선청년들이 기둥이 되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본청년들과 단결하는 사업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재일 조선청년들이 일본로동계급청년들과 단결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일본반동들의 민족차별정책으로 말미암아 일본에 있는 조선청년들가운데 로동계급의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많지 못합니다. 그런 조건에서 일본로동계급청년들과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무들은 일본의 진보적인 각계각층 청년들과의 단결도 강화하여 그들과의 통일전선을 잘 지어야 합니다.

지금 남조선반동들과 일본반동들 그리고 미제국주의자들이 총련을 탄압하기 위한 음모책동을 꾸미고있는 조건에서 일본의 광범한 청년들을 많이 쟁취하여 그들이 재일 조선동포들을 지지성원하는 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총련에 대한 놈들의 파괴음모책동을 짓부셔버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시말하여 일본청년들과의 단결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일본청년들과 일본인민들의 동정과 지지를 더 많이 쟁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본청년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세계 여러 나라 청년들과의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이 지난해에 다른 나라 청년들과의 사업을 아주 잘하였는데 그 경험을 살려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무들은 다른 나라 청년들에게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널리 해석선전해야 합니다. 도꾜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큰 국제적도시의 하나입니다. 동무들이 그 무대를 잘 리용하면 우리 혁명위업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무들이 거기에서 여러 나라 청년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을 활발히 벌려야 합니다.

그리고 동무들은 조국의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일군들과 함께 조선청년대표로서 국제무

대에 적극 나가서 활동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 국제적으로 더 많은 지지자, 동정자를 쟁취하여 총련조직에 대한 일본반동들과 남조선반동들의 탄압과 파괴음모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릴수 있으며 원쑤들이 감히 총련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일 조선청년들은 조국에 자유로이 다닐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동무들이 조국에 와서 이렇게 한달동안 조국청년들과 같이 지내면서 많은것을 보고 가는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동무들이 조국에 와서 보고 듣고 배우는것은 혁명적세계관을 더욱 튼튼히 하는데 매우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재일 조선청년들은 조국에 자주 래왕하여 조국청년들과의 련계를 더 긴밀하게 하며 조국의 청년운동과 청년들의 발전상태를 잘 알고 그에 비추어 자기 사업을 잘해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전에 많이 말했기때문에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나는 동무들이 우리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나는 재일 조선동포들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미일반동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의 온갖 음모책동을 물리치면서 일본인민들과 단결하는 사업과 조국통일위업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동무들이 전체 재일 60만동포들에게 나의 뜨거운 인사를 전하여주기 바랍니다.

형제적수리아인민이 해방전쟁에서 발휘한 영웅주의와 희생성을 높이 평가하며 그들이 이룩한 모든 승리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여 베푼
연회에서 한 연설 1974년 9월 28일

존경하는 하페즈 알 아싸드대통령각하！

존경하는 수리아의 손님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수리아인민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견결한 반제투사이며 우리의 친근한 벗인 하페즈 알 아싸드대통령각하께서는 반제투쟁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수리아인민의 뜨거운 친선의 정을 안고 우리 나라에 오셨습니다.

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아랍사회부흥당 총비서이며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인 하페즈 알 아싸드각하를 단장으로 하는 수리아아랍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대통령각하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 인민에 대한 커다란 지지와 고무로 되며 조선인민과 수리아인민사이의 전투적친선단결의 힘있는 시위로 됩니다.

오늘 온 평양시민들이 떨쳐나서 기쁨과 감격에 넘쳐 당신들을 그처럼 열렬히 환영한것은 대통령각하와 형제적수리아인민에 대한 우리 인민의 높은 존경심과 두터운 친선감의 뚜렷한 표시였습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한전선에 튼튼히 서있는 친근한 전우이며 형제입니다.

슬기롭고 용감한 수리아인민은 독립후 일관하게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자들과 유태복고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략책동을 물리치며 민족적독립의 공고화와 새 사회건설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왔습니다.

특히 수리아인민은 1970년의 시정조치후 하페즈 알 아싸드대통령각하와 아랍사회부흥당의 옳바른 령도밑에 민족적단합을 강화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여나가면서 일련의 진보적인 개혁들을 실시하였으며 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튼튼히 다지였습니다.

수리아인민은 이와 같은 성과들에 기초하여 지난해 10월전쟁에서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일찌기 없었던 심대한 타격을 주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영예롭게 지켜냈으며 전반적중근동문제해결의 새로운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았습니다.

조선인민은 형제적수리아인민이 이 전쟁에서 발휘한 영웅주의와 희생성을 높이 평가하고있으며 수리아인민이 이룩한 모든 승리를 진심으로 기뻐하며 열렬히 축하하고있습니다.

오늘 수리아아랍공화국 정부와 인민은 자력갱생의 구호밑에 전쟁의 상처를 하루빨리 가시는것과 함께 적들의 《평화전략》을 정치투쟁으로 짓부시고 적들의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답할데 대한 혁명적립장을 견지하면서 중근동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하고있습니다.

중근동지역에서 정의에 기초한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강점당한 아랍

땅에서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완전히 몰아내며 팔레스티나인민의 합법적권리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수리아 정부와 인민의 주장은 전적으로 정당합니다.

우리 인민은 형제적수리아인민이 해방전쟁에 일떠섰을 때 그것을 자기자신의 투쟁과 같이 여기고 물심량면으로 지원한것처럼 앞으로도 그들의 성스러운 위업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또한 자기 조국의 완전한 해방과 합법적권리회복을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우리는 방대한 인적, 물적 자원과 풍부한 투쟁경험을 가지고있으며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고있는 아랍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끝까지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반드시 제국주의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을 패망시키고 아랍 해방과 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게 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조선인민과 수리아인민은 반제투쟁의 혁명적련대성으로 련결된 아세아대륙의 동쪽과 서쪽 초소에 굳건히 서서 함께 싸워나가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어려운 조건들을 이겨내고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고있습니다.

중근동문제해결의 관건적고리가 강점당한 모든 아랍땅에서 침략자들을 몰아내는데 있는것과 같이 조선통일문제해결의 근본고리도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하루빨리 철거시키는데 있습니다.

올해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는 수리아를 포함한 34개 유엔성원국들의 공동발기에 의하여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게 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며칠전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의장인 후아리 부메디엔각하는 남조선으로부터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조선인민자신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것을 호소하는 전문을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유엔총회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남조선으로부터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할것을 발기한 유엔성원국들의 공동행동과 후아리 부메디엔의장의 호소가 매우 시기적절하고 정당한 조치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쁠럭불가담국가들과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나라들이 이를 적극 지지하여나서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유엔군》의 간판을 가진 외국군대를 남조선으로부터 철거시켜야 한다는것은 이제 막을수 없는 시대적요구로 되고있습니다.

이에 바빠맞은 미국당국자들은 요즘 남조선에 있는 미군이 《유엔군》으로서가 아니라 이른바 《한미호상방위조약》에 의하여 머물러있다고 하면서 유엔에서 《유엔군》철거에 관한 결의가 채택된다 하더라도 미국군대는 물러가지 않을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이고있습니다.

《한미호상방위조약》이라는것이 조작되기전에 벌써 미제침략군이 《유엔군》의 간판밑에 남조선에 기여들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것이 《한미호상방위조약》에 의하여 남조선에 머물러있다고 하는것은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소리이며 세계여론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이 미군의 철거를 회피해보려고 내놓은 이와 같은 궤변은 도리여 남조선에 미군이 머물러있을 어떠한 구실도 없다는것을 스스로 더욱 드러내보여줄뿐입니다.

본래 《한미호상방위조약》이란것은 미국이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남조선의 매국정권과 함께 꾸며낸 비법적이며 침략적인 문건으로서 조선인민은 누구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과 아세아에서 더 큰 참패를 당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미 파산된 남조선의 현 통치배들을 비호하고 부추기는 일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유엔군》의 간판을 가진 자기 군대를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철거시켜야 합니다.

조선인민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에 근본장애로 되는 외국군대가 그 어떤 형태로든지 남조선에 머물러있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며 그들을 완전히 철거시킬 때까지 계속 비타협적으로 투쟁할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수리아 정부와 인민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대통령각하와 수리아아랍공화국 정부와 수리아인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반적정세는 우리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전변되고있으며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은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빠져들어가고있습니다.

물론 제국주의는 죽어가면서도 의연히 침략과 간섭, 지배와 략탈에 대한 야망을 버리지 않고있습니다.

미제는 《평화》의 간판밑에 큰 나라들과는 관계를 개선하고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어들어가려 하고있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대리인들과 괴뢰들을 내세워 분렬을 꾀하고 평화를 교란함으로써 식민지패권을 유지하려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낡아빠진 전략이며 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무력간섭이나 신식민주의정책으로써도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한 저들의 신세를 건져낼수 없습니다.

제국주의는 이미 자기 시대를 다 살았으며 신흥세력으로서 력사무대에 새로 등장한 제3세계인민들은 날로 승승장구하고있습니다.

제3세계인민들은 실생활을 통하여 작은 나라들이라 하더라도 주체를 세우고 서로 힘을 합쳐 용감히 싸운다면 결정적으로 우세한 력량을 가지고 제국주의침략세력을 패망시킬수 있다는 진리를 체득하였습니다.

제3세계인민들은 국제관계분야에서 자기들의 단결된 위력을 발휘하여 제국주의자들을 궁지에 몰아넣고있으며 자주, 자립의 길을 따라 없는데로부터 있는데로, 모르는데로부터 아는데로, 락후한데로부터 발전하는데로 확고히 전진하고있습니다.

제3세계인민들이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하고 경제적으로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지지협조한다면 능히 제국주의의 마지막숨통을 끊어놓고 부강하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창조할수 있을것입니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사회주의나라 인민들, 제3세계나라 인민들, 세계의 모든 진보적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반제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존경하는 수리아의 손님여러분!

당신들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하여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새로운 개화발전의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될것이며 이것은 제3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촉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입니다.

나는 친선의 정 흘러넘치는 이 자리에서 수리아동지들이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동안 자기 집에서와 같이 즐겁고 유익한 나날을 보내며 훌륭한 방문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바라면서 조선인민과 수리아인민사이의 불패의 전투적친선단결을 위하여,

수리아아랍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하페즈 알 아싸드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위하여,
수리아당및정부대표단 전체 성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무조건 물러가야 한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1974년 10월 1일

존경하는 하페즈 알 아싸드대통령각하!
존경하는 수리아의 손님 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평양시의 각계층 인민들은 조선인민에 대한 뜨거운 우정을 안고 온 수리아인민의 친선의 사절들과 상봉하게 되는 커다란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아랍사회부흥당 총비서이며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인 하페즈 알 아싸드각하를 단장으로 하는 수리아아랍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또한 당신들을 통하여 형제적수리아인민에게 보내는 조선인민의 뜨거운 친선의 인사를 전합니다.

조선과 수리아는 다같이 아세아대륙에 있으며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식민지통치밑에서 압박받고 천대받던 지난날의 처지와 새생활창조를 위한 오늘의 투쟁의 공통성으로 하여 굳은 전투적친선의 뉴대로 련결되여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당신들과의 상봉을 통하여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이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있으나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여 싸우는 전우로서 또한 형제로서 매우 가까이 잇닿아있다는것을 생동하게 느끼였습니다.

두 나라 인민들을 련결시키고있는 이 친선의 뉴대는 바로 반제반식민주의공동투쟁속에서 이루어진것입니다.

우리는 수리아인민이 새 사회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과 특히는 지난해 10월해방전쟁에서 수리아인민이 발휘한 영웅주의와 애국적헌신성에 대하여 매우 감탄하고있습니다.

수리아인민이 자기의 탁월한 지도자 하페즈 알 아싸드대통령각하의 옳바른 령도밑에 지난해 10월전쟁과 골란고지에서 계속된 치렬한 전투에서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가한것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코대를 꺾어놓은것으로 되였으며 아랍땅을 영원히 강점하고 지배하려는 그들의 야심적인 침략계획에 파렬구를 뚫어놓은것으로 되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아랍인민들에게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정의의 위업에 일떠서면 그 어떤 원쑤도 타승할수 있다는 신심을 북돋아주었으며 중근동문제해결의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수리아인민이 이룩한 력사적승리를 자기의 승리와 같이 기뻐하며 그것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모든 사실은 제국주의와 유태복고주의를 반대하며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령토완정을 위한 투쟁에서 수리아인민은 비록 일시적난관을 겪고있지만 확고하게 승리하며 전진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지난해 10월전쟁시기에 아랍나라들은 군사적으로 공동작전을 진행하고 경제적으로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석유수출을 금지하는 통일행동을 취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과 유태복고주의자들에게 일찌기 없었던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아랍나라들이 일치단결하여 투쟁한다면 능히 제국주의자들의 숨통을 틀어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유태복고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과 군사적도발 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으며 중근동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과 유태복고주의자들이 아무리 날뛴다 하더라도 그것은 멸망의 운명을 지닌자들의 발악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중근동문제가 의연히 해결되지 못하고있고 이 지역에서 전쟁이 여러차례 반복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미제와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기인되고있습니다.

중근동문제가 옳게 해결되려면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과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종식되고 이스라엘침략자들이 강점한 모든 아랍땅에서 물러가야 하며 팔레스티나인민의 합법적권리가 완전히 회복되여야 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정부와 인민은 빼앗긴 땅을 해방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있는 모든 수단을 다 리용할데 대한 확고부동한 혁명적립장을 견지하고있으며 중근동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습니다.

수리아인민은 전쟁피해를 가시고 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며 무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제국주의와 유태복고주의를 반대하며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형제적수리아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있을것이며 그들의 정당한 립장을 적극 지지할것입니다.

조선인민은 또한 자기 조국의 완전한 해방과 합법적권리회복을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의 투쟁과 강점당한 아랍땅을 되찾으며 민족적존엄을 지키기 위한 모든 아랍인민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오늘 제국주의와 유태복고주의를 반대하는 아랍인민들의 투쟁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전세계인민들의 공동투쟁속에서 발전하고있습니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오만무례하게 허장성세하고있지만 그들은 죽어가는 제국주의세력에 자기 운명을 의탁하고있음으로 하여 반드시 패망할것입니다.

아랍인민들은 광활한 령토와 방대한 물적, 인적 자원을 가지고있으며 신흥세력으로서 승승장구하는 제3세계에 속하고있음으로 하여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미제국주의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아랍인민들이 이룩하는 승리는 곧 우리 인민의 승리로 되며 우리 인민의 승리는 또한 아랍인민들의 승리로 됩니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남조선의 현통치배들은 이른바 《이스라엘전법》을 도입하여 우리 공화국을 치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결탁하고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적대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여왔으나 그 《이스라엘전법》이라는것이 수리아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박산이 남으로써 남조선당국자들의 타산도 깨여지고말았습니다.

조선인민과 수리아인민의 투쟁은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는 관계에 있으며 이 관계는 날을 따라 더욱 공고발전되고있습니다.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최대의 민족적과업은 분렬된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는것입니다.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가지 과업을 중요하게 내세우고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이며, 둘째로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이며, 셋째로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며 다음전망계획년도의 웅대한 건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대건설에 총동원되고있으며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일대 혁명적고조를 일으키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전망은 휘황찬란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앞날에 우리가 내세운 사회주의건설의 보다 높은 목표를 달성할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있습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성과에 고무되여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운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있습니다.

요즘 남조선에서는 그처럼 혹심한 파쑈폭압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평화통일을 요구하며 현군사파쑈통치제도의 철폐를 주장하는 로동자들과 청년학생들,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을 포함한 각계층 인민들의 반《정부》투쟁이 새로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떠한 파쑈적폭압으로써도 인민들의 반항을 결코 꺾을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남조선의 현집권자들을 반대하여 남조선인민들이 용감히 벌리고있는 투쟁은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적인 투쟁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어느때나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원할것이며 그들과 힘을 합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나갈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군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완전히 철거시키는것입니다.

《유엔군》의 간판을 가지고있는 외국군대를 남조선에서 철거시켜야 한다는것은 오늘 막을수 없는 시대적요구로 되고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는 수리아를 포함한 35개 유엔성원국들의 공동발기에 의하여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기로 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형세가 저들에게 불리하게 되자 요즘에는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세계여론을 우롱하며 군대철거를 회피해보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에 있는 미군이 《유엔군》이 아니라 이른바 《한미호상방위조약》에 의하여 남조선에 머물러있는 군대라느니, 《유엔군》이 철거하면 전쟁이 다시 일어날 위험이 있다느니 하고 떠들고있습니다.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유엔의 이름을 리용하는것이 유리하다고 볼 때에는 《유엔군》이라고 떠들고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있는것이 불리하다고 볼 때에는 《유엔군》이 아니라고 하는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언제나 쓰는 강도적론법 그대로입니다.

《한미호상방위조약》이라는것이 조작되기전에 이미 미군이 《유엔군》의 간판밑에 남조선

에 기여들었다는것은 엄연한 력사적사실이며 이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지워버릴수 없습니다.

미군의 남조선주둔을 《유엔군》의 이름을 가지고서도 합법화할수 없게 되였는데 하물며 미제와 남조선의 매국도당사이에 꾸며진 그 무슨 《조약》이란것을 가지고 합법화하려 한다는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정전협정의 리행과 관련한 그 어떤 담보조건없이 《유엔군》이 남조선에서 나간다면 전쟁위험을 증대시키게 된다는 미제의 론조도 전혀 리치에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조선에서의 정전의 유지는 미국군대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평화애호적인 노력에 의하여 담보되고있습니다.

《유엔군》의 간판밑에 조선의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조선에서 상시적인 전쟁위험을 낳고있던 외국군대가 유엔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물러가게 된다면 그자체가 조선에서의 평화유지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는것으로 되는것이며 여기에서 그 어떤 다른 담보문제란 제기될수도 없습니다.

외국군대가 철거한후에 그 어떤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것은 벌써 제3자가 개입할 문제인것이 아니라 조선사람자체의 내부문제로서 남북당사자들끼리 협의하여 해결할 성격의 문제입니다. 남북공동성명은 이러한 협의의 확고한 기초로 됩니다.

만일 외국군대의 철거과정에 제기되는 그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이 문제와 관련한 직접적당사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처리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당국에 평화협정체결문제를 제기한것만큼 여기에서도 별로 문제될것은 없을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당국자들이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우리의 제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도 없이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의 철거와 관련한 그 어떤 담보에 대하여서만 떠드는것은 어떻게 하나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시키지 않으려는것이며 조선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고 남조선만이라도 계속 틀어쥐고있으려는것입니다.

사실상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머물러있다면 도리여 그것은 전쟁의 위험을 상시적으로 조성하게 되며 일단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쉽게 전면전쟁으로 번지게 될것입니다.

미국이 조선과 아세아에서 더 큰 참패를 당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조선에 대한 정책을 바꾸어야 하며 인민들의 세찬 반항과 불신을 받아 허우적거리고있는 남조선의 현통치배들을 되살려보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지금과 같이 외세의존정책과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을 계속하고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강화하면서 매국의 길, 민족반역의 길로 나가는 조건에서 현남조선당국자들과만 협상을 하여서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북과 남에 있는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광범히 참가하는 대민족회의를 열고 사상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민족적대단결의 정신에서 협상을 실현하여 조선에서 분렬과 대결을 해소하며 단결과 합작의 원칙에서 통일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하여야 합니다.

조선은 하나이며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이므로 결코 둘로 갈라질수 없으며 또한 두개나라로 영원히 분렬될수 없습니다.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고수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유엔군》의 간판을 가진 외국군대가

하루빨리 남조선에서 물러가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외국군대가 물러가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넓은 길이 열릴것입니다.

오늘 전반적정세는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날로 유리하게 전변되고있습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세계인민들로부터 더욱더 고립배격당하고있으며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련대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기회에 수리아아랍공화국 정부와 인민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대통령각하와 수리아 정부와 인민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 나라들과 인민들이 우리의 조국통일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제국주의는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더욱더 얻어맞고 쫓겨나고있으며 지난날 압박받고 천대받던 제3세계인민들이 력사무대에 등장하여 자주의 길로 힘차게 나가고있습니다.

국제적력량관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이제는 세계무대에서 발언권이 착취받고 압박받던 인민들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아세아에는 혁명하는 나라, 싸우는 나라들이 많으며 조선으로부터 중국, 인도지나, 중근동에 이르는 아세아의 넓은 지역이 반제혁명투쟁의 무대로 되고있습니다.

캄보쟈인민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고 나라의 완전한 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 계속 용감히 싸우고있으며 남부웰남인민은 북부웰남인민과 함께 빠리협정의 엄격한 리행을 보장하고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으며 라오스인민은 통일되고 번영하는 새 라오스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인도지나인민들의 투쟁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가분리의 령토인 대만을 해방하기 위한 중국인민의 투쟁,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아세아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아세아와 함께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지키며 자기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날로 높아가고있습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쓸어버리고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위한 전체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미국의 지배와 통제를 반대하고 민족적자주권과 자연부원, 령해권을 지키기 위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제국주의가 망하고 인민들의 해방투쟁이 승리하는것은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입니다.

지난해 있은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와 그후에 진행된 원료및개발문제에 관한 유엔총회 제6차특별회의, 제3차유엔해양법회의를 비롯한 여러 국제회의들은 현국제관계발전에 미치는 제3세계나라들의 커다란 영향력과 단결된 위력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

모든 사실은 제3세계인민들이 더욱 굳게 단결하여 일치한 보조로 싸운다면 제국주의의 어떠한 침략책동도 짓부시고 그의 종국적멸망을 촉진시킬수 있으며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빨리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사회주의나라인민들, 제3세계나라인민들,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반제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견결히 싸워나갈것이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혁명적련대성과 친선의 뉴대로 련결된 조선인민과 수리아인민은 한대륙인 아세아에서 함께 투쟁하며 함께 전진하고있습니다.

대통령각하를 비롯한 수리아당및정부대표단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 두 당, 두 국가, 두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이 가장 공고하고 높은 단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힘있게 시위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만족스럽게 여기며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앞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것입니다.

조선인민은 반제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언제나 형제적수리아인민과 굳게 손잡고 싸워나갈것입니다.

조선인민과 수리아인민사이의 불패의 전투적친선단결 만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전세계진보적인민들의 단결 만세!

제국주의와 유태복고주의를 반대하며 령토완정과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하페즈 알 아싸드대통령각하와 수리아인민에게 위대한 승리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아랍 해방과 통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수리아인민에게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한다

수리아아랍공화국 하페즈 알 아싸드대통령이 차린 연회에서 한 연설 1974년 10월 1일

존경하는 하페즈 알 아싸드대통령각하!

존경하는 수리아의 손님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나는 우리의 친근한 벗인 하페즈 알 아싸드대통령각하께서 우리 나라 방문을 끝마치게 되면서 이처럼 성대한 연회를 차리고 우리를 친절히 초대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방금전 대통령각하께서 이번 방문과 관련하여 하신 훌륭한 말씀은 우리에게 큰 고무와 감명을 주었으며 여기에서 우리는 당신들의 전투적우정을 다시금 몸가까이 느끼였습니다.

참으로 이번 하페즈 알 아싸드대통령각하를 단장으로 하는 수리아아랍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 두 나라 사이의 형제적친선협조관계발전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의 상봉을 통하여 수리아인민이 대통령각하의 옳바른 령도밑에 제국주의와 유태복고주의를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하여 벌리고있는 용감한 투쟁에 대하여 더잘 알수 있었으며 이 투쟁에서 수리아 정부와 인민이 견지하고있는 혁명적립장에 깊이 감동되였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승리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수리아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자

기 자신의 위업과 같이 여기며 그것을 적극 지지성원할데 대한 결의를 더욱 굳게 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인민이 우리 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것입니다.

당신들의 이번 방문으로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맺어진 친선의 뉴대는 두터워지고 두 나라 사이의 친밀한 관계는 매우 공고하고 높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함께 싸워나가려는 공통된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동안 우리들사이에 진행된 회담들에서는 토의된 모든 문제에서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표될 공동콤뮤니케에서 밝혀질것이며 이 공동콤뮤니케는 의심할바 없이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될것입니다.

오늘 제3세계나라들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서로 지지하는 관계에 있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한 전선에서의 승리는 다른 전선에서의 승리를 그만큼 촉진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소멸하고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건설하기 위한 제3세계인민들의 공동위업을 위하여 앞으로도 형제적수리아인민과 굳게 손잡고나갈것입니다.

존경하는 손님여러분!

우리는 당신들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결과에 대하여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통령각하와 그 일행이 조국에 돌아가면 수리아인민에게 보내는 조선인민의 뜨거운 형제적인사와 함께 아세아동방에 수리아인민의 친근한 전우로서 조선인민이 튼튼히 서있다는것을 전하여주기 바랍니다.

나는 끝으로 수리아인민이 자기의 탁월한 지도자 하페즈 알 아싸드대통령각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아랍 해방과 통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하면서

조선인민과 수리아인민사이의 불패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수리아아랍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세계 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하페즈 알 아싸드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위하여,

수리아의 손님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우리는 민주예멘인민이 자유와 행복에로의 길, 사회주의에로의 길을 독자적으로 개척해 나가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을 환영하여 배푼 연회에서 한 연설 1974년 11월 18일

존경하는 쌀림 루바이아 알리위원장동지!

존경하는 민주예멘의 손님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동지를 비롯한 민주예멘의 손님여러분들을 커다란 기쁨속에 맞이하였습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민주예멘인민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우리의 친근한 벗인 쌀림 루바이아 알리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당신들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과 민주예멘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에서 중대한 사변으로 됩니다.

조선인민과 민주예멘인민은 지난날 다같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무장투쟁을 진행하였으며 오늘 자주의 한길에서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이 공동의 투쟁을 통하여 전우로서 또한 형제로서 굳은 친선의 뉴대를 맺었으며 이 불패의 친선관계가 오늘 대통령리사회 위원장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으로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중근동지역에 민주예멘인민과 같은 용감한 전우를 가지고있는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들의 투쟁을 언제나 큰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있습니다.

민주예멘인민은 민족적독립을 쟁취한 다음 특히 1969년 6월 시정조치이후 쌀림 루바이아 알리동지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리사회와 민족전선정치조직의 옳바른 령도밑에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끊임없는 파괴암해책동을 물리치고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면서 낡은 식민지통치기구를 쓸어버리고 진보적인 사회제도를 세우며 새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오늘 민주예멘인민은 민족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면서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예멘인민이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이겨내고 자유와 행복에로의 길, 사회주의에로의 길을 독자적으로 개척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그들의 앞으로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대외관계분야에서도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

카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으며 팔레스티나인민을 비롯한 아랍인민의 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습니다.

얼마전에 진행된 제7차아랍수뇌자회의는 제국주의자들과 유태복고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아랍인민들의 단결된 위력을 더욱 크게 시위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랍수뇌자회의의 성과를 열렬히 환영하며 팔레스티나인민의 합법적권리회복과 빼앗긴 아랍땅의 완전해방을 위한 전체 아랍인민의 정당한 위업에 다시금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현시대는 낡은 제국주의세력이 쇠퇴몰락하고 지난날 압박받고 착취받던 인민들이 력사무대에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주의 길로 나가는 위대한 전환의 시대입니다.

이 력사적전환의 과정을 특징짓고있는것은 혁명력량과 반혁명세력, 민족자주력량과 제국주의침략세력 사이의 끊임없는 격렬한 투쟁입니다.

오늘 신흥세력으로서 우리 시대 발전의 커다란 추동력으로 되고있는 제3세계나라 인민들은 실생활상 체험을 통하여 비록 작은 나라들이라 하더라도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서로 힘을 합쳐 완강히 싸운다면 능히 제국주의침략세력을 패망시킬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반제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제3세계나라 인민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갈것이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동지들과 벗들!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부분이며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인민들의 공동투쟁속에서 발전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고있습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성과에 고무되여 남조선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속에서는 반파쑈민주화투쟁이 새로이 앙양되고있습니다.

지금 이 투쟁은 현 남조선집권자들의 사임과 파쑈독재체제의 철폐를 요구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확대강화되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권과 참된 자유를 위하여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영용하게 싸워온 빛나는 투쟁전통을 가지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이 오늘 치렬하게 벌리고있는 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애국적투쟁이며 생존의 권리와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위한 정의의 투쟁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무너져가는 저들의 식민지지배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탱점으로서 남조선을 언제까지나 틀어쥐려 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현 남조선통치배들과 같은 매국자, 분렬주의자들을 극력 비호해나서고있습니다.

그러나 외세의 어떠한 간섭이나 파쑈적폭압조치도 남조선인민들의 거세찬 투쟁의 앞길을 결코 가로막지 못할것입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현 남조선당국자들의 파쑈폭압만행을 단죄하는 목소리는 국제적으로도 날로 높아가고있습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분렬주의책동은 파산되고있으며 대세는 막을수 없이 우리 인민

의 통일위업에 유리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

만일 미국지배층이 조선과 아세아에서 더 큰 참패를 당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들은 마땅히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대를 하루빨리 철거시켜야 하며 그들이 발붙이고있는 아세아의 모든곳에서 물러가야 합니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굳게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고 반드시 조국통일의 력사적대업을 성취하고야말것입니다.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언제나 성의껏 지지성원하여주고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있는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도 민주예멘대표는 우리를 지지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쌀림 루바이아 알리위원장동지와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선인민과 민주예멘인민사이의 전투적친선의 뉴대가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을 통하여 끊임없이 확대강화될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존경하는 손님여러분!

당신들은 이번 우리 나라 방문기간 민주예멘인민에 대하여 품고있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형제적친선의 정을 몸가까이 느끼게 될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친근한 민주예멘동지들의 우리 나라 방문이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것을 충심으로 축원하면서 조선인민과 민주예멘인민사이의 영원한 친선단결을 위하여,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세계 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쌀림 루바이아 알리위원장동지의 건강을 위하여,

민주예멘 손님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조선과 민주예멘사이의 친선단결의 강화는 조선인민과 아랍인민들, 제3세계인민들사이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기여로 된다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쌀림 루바이아 알리대통령리사회 위원장이
차린 연회에서 한 연설 1974년 11월 21일

존경하는 쌀림 루바이아 알리위원장동지!

존경하는 민주예멘의 손님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나는 우리의 친근한 벗인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동지께서 우리 나라 방문을 끝마치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이처럼 성대한 연회를 차리고 우리를 친절히 초청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 쌀림 루바이아 알리동지와 그 일행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인민과 민주예멘인민사이의 전투적친선단결을 시위하는 획기적사변으로 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친형제를 만나는것과 같은 기쁜 심정으로 당신들을 열렬히 맞이하였으며 당신들은 민주예멘인민이 우리 인민에게 보내는 뜨거운 친선의 정을 전하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의 상봉을 통하여 민주예멘인민이 대통령리사회와 민족전선의 옳바른 령도밑에 새생활창조에서 이룩한 성과들에 대하여서와 그들의 앞으로의 투쟁전망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민주예멘인민이 한세기 이상에 걸친 식민지통치의 혹심한 후과와 불리한 자연경제적조건에도 불구하고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가지고 새 사회 건설의 길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크게 감동되였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인민이 우리 당의 옳바른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과 경험들을 높이 평가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앞으로 혁명과 건설을 더 잘할데 대한 고무와 격려로 여기고있으며 당신들의 지지성원에 대하여 매우 감사히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사이에 진행된 회담들에서는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한전선에 서있는 전우로서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굳게 손잡고나갈데 대한 우리들의 일치한 립장과 결의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발표될 두 나라 사이의 공동콤뮤니케에 뚜렷이 밝혀질것입니다.

조선과 민주예멘 두 나라 사이의 친선단결의 강화는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리익에 맞으며 조선인민과 아랍인민들사이의 단결과 제3세계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기여로 됩니다.

오늘 제3세계나라 인민들은 인류력사발전의 추동력으로 되고있으며 현 국제관계발전에 날로 커가는 영향력을 미치고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가 없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인류의 공동위업을 위하여 앞으로도 서로 긴밀히 협조하면서 함께 싸워나갈것입니다.

존경하는 손님여러분!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은 비록 짧은 기간이였으나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의 력사에 빛나는 기록을 남기였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방문이 훌륭한 결과를 가져온데 대하여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발전될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형제적민주예멘인민이 자기의 탁월한 지도자 쌀림 루바이아 알리동지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리사회와 민족전선의 두리에 굳게 뭉쳐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며 아랍 해방과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조국에 돌아가면 민주예멘인민에게 보내는 우리의 이 열렬한 축원과 형제적인사를 전하여주기 바랍니다.

나는 끝으로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번영발전과 민주예멘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조선인민과 민주예멘인민사이의 영원한 친선단결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쌀림 루바이아 알리위원장동지의 건강을 위하여,
민주예멘손님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농촌테제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4차회의에서 한 연설
1974년 11월 29일

동지들!

나는 원래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의원들이 토론에서 협동농장들을 전민소유로 넘겨줄것을 제기하였기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려고 합니다.

어제 토론한 강서군 청산협동농장 관리위원장동무도 협동농장을 전민소유로 넘겨줄것을 제기하였으며 오늘 토론한 문덕군 립석협동농장 관리위원장동무도 협동농장을 전민소유로 넘겨줄것을 제기하였습니다.

청산협동농장이나 립석협동농장뿐아니라 다른 협동농장들에도 협동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겨줄것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요즘 여러 협동농장들에 나가보았는데 많은 협동농장원들이 이제는 알곡과 현금을 많이 분배받아야 쓸데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번것을 다 국가에 들여놓을테니 로동자들처럼 로임을 받게 해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협동농장원들은 다 잘살고있습니다. 정전직후에 우리가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중농수준에 이르게 할것을 중요한 목표로 내세웠는데 이 목표는 이미 달성되였습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의 중농들가운데는 보리고개를 넘기는 사람이 얼마 없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보리고개를 넘기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수 있는데 그것은 한해농사 지은것을 가지고 햇곡식이 날 때까지 식량을 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농민들의 생활수준은 지난날의 중농수준을 넘어섰을뿐아니라 부유중농의 수준보다도 더 높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농촌지원사업에 나갔던 종합대학 학생들의 말에 의하면 어떤 협동농장의 한 농장원아주머니는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평양견학을 떠나는데 용돈으로 쓰라고 100원짜리 두장을 꺼내주더라고 합니다. 200원이면 중로동부문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의 한달로임에 맞먹는 많은 돈입니다. 지금 농민들의 생활은 학생들에게 용돈으로 쓰라고 100원짜리를 몇장씩 척척 꺼내주는 수준입니다.

올해에 많은 협동농장들에서 공동축적금과 식량을 내놓고도 현금이 농장원 한사람에게 한달에 평균 200원씩 차례질것이 예견되고있습니다. 이것은 협동농장원들의 현금수입이 로

동자들의 로임보다 훨씬 높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농민들의 생활수준이 매우 높아지고 많은 농민들이 협동농장을 전민소유로 넘겨줄것을 요구하고있는것으로 보아서는 우리 나라에서 협동농장들을 전민소유로 넘기는 문제가 일정하게 성숙된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신중하게 대하여야 합니다.

농촌에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는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협동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는것은 지난날 우리 나라에서 토지개혁을 한것과 같은 큰 사변이며 또 우리 나라 농촌에서 농업협동화를 한것과 같은 큰 사변입니다.

협동적소유로부터 전인민적소유로 넘어가는것은 우리 나라의 모든 협동농민들이 념원하고있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념원 하나만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습니다.

협동적소유로부터 전인민적소유로 넘어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두가지 중요한 문제가 풀려야 합니다.

첫째로는 협동농민들이 개인리기주의사상을 철저히 뿌리빼고 집단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모든 농민들이 개인의 리익보다도 집단과 사회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집단과 사회의 리익가운데 자기의 몫도 있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고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몸바쳐투쟁할수 있도록 준비되여야 합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많은 동무들이 이제는 농민들의 사상의식이 전민소유제로 넘어갈수 있으리만큼 개조되였다고 토론하였습니다.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졌다는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우리 당은 농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으며 모든 농민들이 하루빨리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는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졌다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높다는것은 다른 나라들과 우리 나라의 화학비료성분량 1키로그람당 알곡생산량을 대비한 통계자료를 분석해보아도 잘 알수 있습니다. 지금 화란, 프랑스, 서부독일과 같은 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화학비료성분량 1키로그람당 알곡생산량이 25키로그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화학비료성분량 1키로그람당 알곡생산량이 35~40키로그람에 이르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이 자본주의나라농민들보다 비할바없이 높으며 우리 농민들이 공동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있다는 물질적증거입니다.

우리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졌지만 아직 전민소유제를 실시할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아직 일부 농민들은 공동경리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가 부족하며 사회를 위하여 아글타글 애써일하려는 정신이 높지 못합니다. 우리는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을 공산주의의 자막대기로 재보아야 하며 여러 모로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농민들은 오래동안 사적소유의 울타리안에서 살아왔기때문에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개인주의사상은 매우 뿌리 깊은것입니다.

로동계급은 본래부터 사적소유가 없었습니다. 로동자들은 빈손만 가지고 공장에 들어간 무산자입니다. 로동자들에게 개인소유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옷가지나 보잘것없는 가구뿐이였으며 좀 낫다고 하는 사람이라야 간혹 자기 집을 가지고있었는데 그런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로동계급과 사정이 다릅니다. 우리 나라 농민들가운데는 지난날 자기 땅을 가지고있던 사람들도 있고 땅이 없는 사람들도 대부분 자기 집과 간단한 농기구들은 가지고있었으며 해방된 다음에는 다 땅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극히 부분적현상이기는 하지마는 사회주의적농업협동화를 할 때 해방된 다음 땅을 분여받은 농민들가운데 농업협동조합에 들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농민들의 소소유자적근성, 개인리기주의사상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농민들의

머리속에 깊이 뿌리박힌 개인리기주의사상을 완전히 없앤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짧은 기간에 해결될수 없는 일입니다.

농업생산은 공업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있습니다.

공업에서는 매일, 매달 생산품이 나오기때문에 로동의 결과를 제때에 정확히 평가할수 있지만 농업에서는 생산물이 1년에 한번 나오기때문에 한해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가서야 로동의 결과를 정확히 평가할수 있습니다. 또한 공업에서는 혹시 어떤 달에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여도 다음달에 회복할수 있지만 농업에서는 한번 때를 놓치면 회복할수 없으며 한해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농업생산의 이러한 특성은 농민들이 로동자들보다도 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일할것을 요구합니다. 더우기 아직 농업생산에서 손로동이 많고 농업생산이 계절적영향을 많이 받고있는 조건에서 농민들이 자각적열성을 내여 일하고 품을 많이 넣으면 수확고가 그만큼 높아지고 농민들이 열성을 내지 않고 품을 적게 넣으면 그만큼 수확고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농민들의 사상의식이 농업생산과 공동경리발전에 결정적영향을 미치는것만큼 협동경리를 전민소유로 넘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농민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농민들이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하기전에 협동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면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올해에 국영안악농장에서는 벼 정당수확고가 6톤 800키로그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서군 청산협동농장이나 문덕군과 숙천군의 협동농장들보다 훨씬 낮은 수자입니다. 국영안악농장은 땅도 비옥하며 국가에서 뜨락또르를 많이 대주어 농산작업의 기계화수준도 높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그 농장에 가보았는데 이미 농산작업의 종합적기계화가 실현되였으며 농장 로동자들의 생활수준도 높았습니다. 국영안악농장이 다른 협동농장들보다 수확을 적게 낼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이 농장의 정당수확고가 낮은 원인은 농장로동자들이 협동농장원들만큼 열성을 내여 일하지 않는데 있다고밖에 달리는 볼수 없습니다. 전민소유제에서는 농장 로동자들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로임을 받으며 먹고살아갈수 있기때문에 사상교양을 잘하지 않으면 협동농장원들처럼 아글타글 일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지난날 대동군 가장협동농장이 경제토대가 약하여 농장원들이 어렵게 산다고 하기때문에 그들의 생활을 빨리 추켜세우기 위하여 이 협동농장을 국영농장으로 전환시키고 국가에서 자금과 기계도 많이 대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협동농장이 국영농장으로 된 다음부터 농장에서 일하던 녀성들이 농장로동자대렬에서 하나하나 떨어져나갔습니다. 녀성들이 일하러 나가지 않은것은 탁아소시설이 나쁘거나 무슨 다른 조건이 있어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탁아소도 잘 지었고 다른 조건도 그전보다 나아졌는데 일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녀성들이 일하지 않아도 남편이 로임을 타며 남편에게 달려 식량도 공급받아 살아갈 근심이 없어졌기때문입니다. 3년인가 지나서 이 농장을 다시 협동농장으로 넘겼더니 일하러 나가지 않던 녀성들이 일하러 나갔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농민들의 사상의식이 뒤떨어져있고 농민들속에 일하지 않고 놀고먹으려는 사상이 남아있다는것을 말해주는 하나의 실례입니다.

우리는 벌써 10여년동안이나 웅기군, 룡연군, 파일군에서 군적범위의 전민소유제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있는데 좋은 점도 있고 부족점도 있습니다.

웅기군에서는 농업, 목축업, 수산업, 지방산업을 비롯한 군의 모든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있는데 로력을 집중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물고기잡이철에는 농업부문로동자들도 몽땅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 바쁜 농사철에는 수산부문로동자들까지 다 농사일을 도와주니 농사도 잘되고 수산업도 잘됩니다.

그러나 아직 국영농장 로동자들이 국가재산을 애호관리하는 면에서 협동농장원들보다 못합니다. 협동농장에서는 뜨락또르 같은것을 쓰면 쓴것만큼 국가에 값을 물어야 하고 공동재산을 잘못 다루어 못쓰게 만들면 농장원들이 번것으로 보상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농장원들의 분배몫이 그만큼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협동농장원들은 국가재산과 협동농장의 재산을 망탕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영농장에서는 국가에서 영농기자재를 다 대주고 혹시 국가재산이 못쓰게 되여 농장에서 보상을 한다고 하여도 로동자들의 로임에 큰 영향이 없기때문에 로동자들이 국가재산을 애호하는 정신이 높지 못합니다. 협동농장들에서는 관리일군들이 자기 일을 보러 화물자동차를 타고 멀리 다니는 현상이 별로 없지만 국영농장에서는 무슨 자그마한 일이 생겨도 농장일군들이 화물자동차를 승용차처럼 타고 다닙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이 아직 전민소유제로 넘어갈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그러므로 협동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기 위하여서는 농민들속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그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협동농장을 전민소유로 넘기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이는것과 함께 농업생산을 고도로 기계화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개변이 물질적기초와 관련되여있고 사회의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발전수준과 관련되여있는것만큼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는것은 협동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됩니다. 농업생산을 고도로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하여 농업에서 손로동을 훨씬 줄이고 기본적인 농업로동을 다 기계와 화학, 전기의 힘으로 할수 있게 되여야 협동농장들을 전민소유로 넘길수 있는 물질적토대가 마련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청산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농촌경리의 기계화가 높은 수준에 이른 협동농장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기계화수준이 높은 축에 속하는 청산협동농장에서도 기계화를 완성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청산협동농장에서 논 한정보를 다루는데 70~80공수가 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농장원 한사람이 4정보의 논을 다루는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일부 협동농장들에서는 농장원 한사람이 논 한정보를 다루고있습니다. 다시말하여 논 한정보를 다루는데 300공수의 로력을 들이고있습니다. 협동농장들을 전민소유로 넘기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농장원 한사람이 논은 5~6정보, 밭은 10정보씩 다룰수 있을 정도로 농촌경리의 기계화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농촌경리의 기계화수준이 매우 높은 단위들도 있습니다. 올해 농업대회에서 농장원 한사람이 10정보의 밭을 다루도록 하겠다고 토론한 은률군 장련협동농장의 녀성작업반장동무는 자기 결의를 훌륭히 실행하였습니다. 은률군 장련협동농장 10작업반에서는 올해에 농장원 한사람이 밭을 10정보씩 다루어 강냉이를 정보당 10톤 300키로그람씩 냈다고 합니다.

지금 국영제5호종합농장에서도 밭을 한사람이 10정보씩 다루고있습니다. 국영제5호종합농장의 정보당 수확고가 평지대보다는 좀 떨어지지마는 고산지대에서는 제일 높은 편입니다.

장련협동농장 10작업반이나 국영제5호종합농장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농장원 한사람이 밭을 10정보까지 다루는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래동안 시험해본데 기초하여 얻은 확고한 결론입니다.

우리 나라의 농업생산을 고도로 기계화하려면 농촌에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들을 더 많이 보내주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경지 100정보당 적어도 《천리마》호뜨락또르 7~8대, 소형뜨락또르 3~4대 합하여 10~12대의 뜨락또르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뜨락또르

와 함께 련결농기계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기계도 많이 있어야 합니다. 짐을 싣고부리는 기계와 비료산포기도 있어야 하고 논두렁만드는 기계도 있어야 합니다. 해마다 모내기철이 되면 뜨락또르가 논을 갈면서 무너뜨린 논두렁을 만드느라고 숱한 품이 드는데 그것을 기계화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품이 많이 드는 모뜨는 작업도 기계화하여야 합니다.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원만히 실현하려면 농촌에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들을 많이 보내줄뿐아니라 토지정리를 잘하여야 합니다. 토지정리를 하여 뙈기밭들을 없애지 않고서는 기계가 논밭에 들어가 일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정리는 짧은 시일에 하기 힘듭니다. 농사를 안짓고 밭을 묵이면서 토지정리를 할수는 없으며 농사를 지으면서 토지정리를 하자니 토지정리를 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가을걷이를 한 다음 두달, 봄철에 논발갈이를 하기전에 한달 이렇게 한해동안에 토지를 정리할수 있는 기간은 기껏해야 석달밖에 안됩니다. 토지정리할 시간이 적을뿐아니라 토지정리하는데 필요한 《풍년》호뜨락또르도 많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농업을 완전히 기계화할수 있도록 토지정리를 다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 합니다.

경지면적 100정보당 뜨락또르대수를 늘이고 필요한 련결농기계들을 대주는것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뜨락또르와 농기계를 대준다고 하여도 토지정리를 하여 농기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려면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과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밀고나가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의 력사적경험을 심오히 분석한데 기초하여 내놓은 과학적리론입니다.

협동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기 위하여서는 농민들의 사상의식을 높이는 문제와 농업생산을 고도로 기계화하는 문제가 다같이 해결되여야 하는것만큼 우리 나라에서 모든 협동농장들을 전민소유로 넘기는것은 아직 이르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토론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묵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의견은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높고 기계화수준이 높은 협동농장들을 먼저 시험적으로 전민소유로 넘기고 사상적준비와 물질적준비가 갖추어지는데 따라 점차적으로 협동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도록 하자는것입니다.

우리는 농촌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 때에도 먼저 시험적단계를 거쳐서 점차적인 방법으로 하였기때문에 아무런 편향도 없이 농업협동화를 순조롭게 할수 있었습니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는 사업도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높고 기계화수준이 높은 협동농장들을 몇개 선택하여 시험적으로 해본 다음 점차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느 협동농장을 전민소유로 넘기겠는가 하는것은 당중앙위원회와 정무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것입니다.

시험적단계에서 먼저 전민소유로 넘어가는 협동농장들에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으면 농촌에서 건달이 생길수 있습니다. 우리가 협동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는 사업을 편향이 없이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시험적단계에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시험적단계에서는 지금 협동농장들에서 하고있는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를 계속 실시하는것이 좋겠습니다.

협동소유를 점차적으로 전민소유로 넘기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서 협동농장들에서 공동축적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협동농장들에서의 공동축적의 비률은 좀 낮습니다. 협동농장들에서 공동축적을 늘여 국가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여

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국가에서 농촌에 뜨락또르와 자동차도 더 많이 보내줄수 있고 련결농기계도 더 많이 보내줄수 있습니다.

협동경리를 전민소유로 넘기려면 농장의 규모를 지금보다 좀 크게 만드는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전민소유제가 되면 지금 협동농장들에서 쓰고있는 뜨락또르들이 완전히 농장의 관리밑에 넘어가게 되는데 농장들이 자체로 뜨락또르의 기술관리를 잘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군에서 기술자들과 수리공장을 가지고 뜨락또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때문에 기술관리를 잘하고있지만 뜨락또르를 농장마다 노나주면 수리기지도 없고 기술력량도 약하기때문에 기술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뜨락또르를 세워둘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농장마다 수리기지를 꾸릴수도 없고 그 많은 기술력량을 당장 마련할수도 없는것입니다.

농장자체로 뜨락또르의 정비와 수리를 할수 있게 하려면 군을 한개의 농장으로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개 군을 한 서너개 지역으로 노나서 농장을 좀 크게 만드는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험적으로 평양시 삼석구역에 구역적으로 3개의 협동농장을 조직하여 운영해보고있는데 그렇게 농장을 크게 조직하면 농장자체로 뜨락또르에 대한 기술관리를 잘할수 있습니다.

협동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기 위하여서는 농촌테제에서 내놓은 방침대로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농촌에서 농업기술자, 기계기술자, 전기기술자를 비롯한 기술일군대렬을 늘여야 하며 농민들의 전반적기술문화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학교들에서도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고등중학교를 나오면 누구나 다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몰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협동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군을 잘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입니다.

협동농장들을 전민소유로 넘기는 사업은 군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여야 합니다. 군은 우리 나라에서 농촌경리를 지도하기 위한 가장 알맞춤한 단위입니다.

물론 협동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는 사업에서 있을수 있는 편향을 미리 막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몇개 농장을 먼저 전민소유로 넘기는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협동농장을 전민소유로 넘기는 사업은 군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여야 합니다. 군안에 있는 협동농장들가운데서 어떤 농장들은 전민소유로 넘기고 다른 농장들은 협동소유로 그냥 남겨놓으면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례를 들어 강서군에 있는 10개의 협동농장가운데서 청산리와 잠진리를 비롯하여, 발전된 5개의 농장은 전민소유로 넘기고 나머지 5개 농장은 협동소유로 그냥 남겨둔다면 한 군안에 농촌경리에 대한 물질적보장체계가 둘 있어야 하며 지도체계도 둘 있어야 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매우 복잡하고 또 농업을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기도 힘들것입니다.

그러므로 뒤떨어진 농장들을 빨리 추켜세워 군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을 다같이 균형적으로 발전시켜가지고 군을 단위로 하여 전민소유로 넘어가는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합니다.

군을 단위로 하여 전민소유로 넘어가려면 군을 더 잘 꾸리고 군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군들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전반적으로 약합니다. 군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약하다는것은 올해에 급격히 늘어난 알곡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올해에 우리 나라에서 알곡생산은 지난해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많은 협동농장들에서 알곡생산이 2배 또는 그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농업생산의 이와 같은 빠른 장성에 국가의 물질적보장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동농장들에 알곡을 제때에 실어나를수 있는 수송수단도 모자라며 량곡창고와 정미소능력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특히 협동농장들에서 탈곡능력이 매우 딸립니다.

지금 협동농장 작업반들에 있는 탈곡기는 하루에 벼를 10톤밖에 털지 못합니다. 한 작업반에서 논을 평균 120정보씩 가지고있는것으로 보고 한정보에서 10톤씩 냈다고 하면 한 작업반에서 털어야 할 벼가 1,200톤이나 됩니다. 하루에 10톤씩 터는 탈곡기로 1,200톤의 벼를 다 털려면 120일 다시말하여 넉달이나 걸려야 합니다. 낟알터는 시일이 오래 걸리면 많은 알곡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초보적으로 계산한데 의하더라도 낟알을 제때에 털지 못하여 쥐와 새가 먹어 없어지는것과 벼단을 여러번 옮기는데서 잃어버리는것만 하여도 해마다 15만~20만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협동농장들의 건조장능력도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알곡을 미처 말리지 못하고 습기가 있는것을 그냥 창고에 넣지 않으면 안될 형편입니다. 그전에는 알곡이 적어서 걱정이였는데 지금은 알곡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꾸리는데서 아직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많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농업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군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꾸려져있지 못할뿐아니라 군당과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지도수준이 아직 농민들의 열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군의 정치사상적지도와 기술적지도가 아직 농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있습니다.

군당과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지도사업을 잘하고 군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서는 모든 일이 잘되고 그렇지 못한데서는 일이 잘되지 않고있습니다.

평안남도에서 올해에 다른 도들보다 농사를 잘 지은것은 군당과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지도일군들이 일을 잘하였기때문입니다. 평안남도의 군지도일군들은 올해에 다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 나가 살다싶이 하면서 협동농장들을 지도하였습니다. 평안남도 농업근로자들은 군일군들의 지도밑에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한 결과 올해에 높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평안남도에서 제일 깊은 산골인 신양군, 양덕군, 맹산군, 대흥군 같은데서도 올해에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이 군들에서는 올해에 당에서 하라는대로 강냉이영양단지를 100% 하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도들에서는 강냉이영양단지를 많이 하지 않았으며 지어는 조금밖에 하지 않은데도 있습니다. 평안남도의 산골군들에서 강냉이영양단지를 다 한 사실만 가지고도 이 군들의 지도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얼마나 이악하게 투쟁하였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우리 나라에 창성군보다 땅이 나쁜 군은 없습니다. 창성군에 있던 좋은 땅은 수풍호를 막을 때 물에 다 잠기고 지금 있는 밭들은 거의다 경사가 심한 비탈밭들입니다. 그러나 올해에 창성군에서도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창성군지도일군들이 협동농장들에 내려가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고 농업생산에 대한 기술지도를 잘하였기때문입니다.

농촌경리를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과 방침은 이미 명백히 제시되여있습니다. 우리 당은 벌써 10년전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았으며 그해 3월에 열렸던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3차회의에서는 테제의 과업을 집행하기 위한 법령까지 채택하였습니다. 농촌테제의 정당성은 지난 10년간의 자랑찬 총화를 통하여 뚜렷이 증명되였습니다.

우리 당에 의하여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도 마련되였습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와 기업적지도방법의 우월성도 생활을 통하여 확증되였습

니다.

우리 당은 옳은 로선과 방침을 내놓았을뿐아니라 그것을 정확히 관철하도록 아래일군들을 끊임없이 도와주고 이끌어주었습니다. 우리 당은 군지도일군들을 해마다 중앙에 올려다 배워주었으며 직접 군들에 내려가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도, 어느 군 할것없이 우리 당의 직접적인 지도가 미치지 않은곳이 없습니다.

지난날 당에서 모든 군들에 로선과 방침도 다같이 제시하여주고 좋은 경험도 다같이 배워주었으며 다같이 직접 지도하여주었으나 어떤 군에서는 농사를 잘하고 어떤 군에서는 농사를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문제는 군당조직들이 당사업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사람과의 사업 다시말하여 간부들과의 사업, 농민들과의 사업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으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농촌에 대한 물질적보장과 기술적지도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당문헌이나 법령이 나가도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조직사업과 정치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갖 종이쪼박에 지나지 않으며 아무리 우월한 농업지도체계가 마련되여있다고 하여도 지도일군들이 애써 일하지 않으면 그 우월성이 나타날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군을 잘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여왔습니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는 문제가 일정에 오른 오늘 군을 잘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은 그 어느때보다도 절박한 문제로 나섭니다.

우리는 군당과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군이 농촌경리에 대한 정치사상적지도와 기술적지도를 더 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먼저 군의 수송능력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산간지대의 협동농장들을 돌아보았는데 수송수단이 모자라 아직도 밭에 강냉이가 그냥 쌓여있었습니다. 벌방지대 논들에도 벼단이 가득합니다. 올해에 정보당 10톤의 벼를 낸 작업반들이 많은데 한 작업반에서 120정보의 논을 가지고있는것으로 보면 알곡과 벼짚만 운반하려고 하여도 물동량이 2,400톤이나 됩니다. 이 많은 물동량을 지금 협동농장에 있는 뜨락또르를 가지고는 도저히 다 실어나를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뜨락또르를 가지고는 운반작업만 할수도 없습니다. 뜨락또르로는 땅이 얼기전에 밭갈이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군의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농촌에서 빨리 늘어나는 물동을 제때에 실어나를수 있도록 국가에서 자동차를 더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어 군의 자동차수송능력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군에 뜨락또르수리기지도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우리 나라 협동농장들에 뜨락또르가 적게 들어간것은 아닙니다. 협동농장들에 뜨락또르대수는 많은데 부속품을 제대로 대주지 못하여 뜨락또르의 리용률이 높지 못합니다. 지금 협동농장들에 있는 많은 뜨락또르들이 다이야와 부속품이 없어서 가동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지금 있는 뜨락또르를 제때에 수리하여 쓸 대책은 세우지 않고 뜨락또르대수나 자꾸 늘여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매개 군마다 자기 군에 있는 뜨락또르들을 수리할수 있도록 뜨락또르수리기지를 잘 꾸려야 하겠습니다.

농촌에 대한 상품공급을 잘할수 있도록 군의 지방산업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는데 따라 농민들은 좋은 옷이나 신발뿐아니라 세탁기, 랭동고, 재봉침, 텔레비죤, 자전거 같은 고급가구들과 질좋은 일용품들을 많이 요구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수요를 중앙공업에서 생산하는것만으로는 원만히 충족시킬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 도에서 곡산공장을 잘 꾸리는것과 함께 자전거공장도 꾸리고 재봉침, 세탁기, 랭

동고를 만들기 위한 대책도 세우며 군들에 식료품가공공장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지방산업공장들을 더 많이 꾸려야 하겠습니다.

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잘 꾸리려면 국가투자를 늘이고 국가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군에 수리기지를 꾸리는데 필요한 공작기계를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농촌에 대한 지원사업이 당이 요구하는대로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있는데 이것은 일군들의 머리속에 아직 농촌을 홀시하는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는것과 관련되여있습니다. 농업은 인민경제의 2대부문의 하나이며 농업생산을 발전시키는것은 공업을 발전시키는것보다 더 힘듭니다. 농업은 공업의 물질기술적지원이 없이는 발전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정경제지도일군들은 농촌을 홀시하는 자본주의사상잔재를 없애고 농촌에 대한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군을 꾸리는데서 국가적지원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지방의 창발성을 적극 발휘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군일군들은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의 힘으로 자기군을 꾸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군마다 큰 공장, 기업소들이 다 있습니다. 만일 군에 있는 큰 공장, 기업소들의 로동계급이 농촌을 더 잘 지원하겠다는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달라붙으면 군의 물질적토대를 꾸리는것은 그리 힘들것이 없습니다. 지금 평안남도 강서군만 하여도 해방직후 전국적으로 가지고있던 공작기계보다 몇십배나 더 많은 공작기계를 가지고있는데 군일군들이 조직사업을 잘하여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벌리면 군에 필요한 농기계수리기지 같은것은 얼마든지 잘 꾸릴수 있을것입니다.

모든 군지도일군들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토론된 정신에 따라 어떻게 하면 협동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겨줄데 대한 농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군을 잘 꾸리겠는가 하는것을 깊이 연구하며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하루빨리 농민들의 이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협동농장들을 전민소유로 넘기는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대하여야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협동농장들을 전민소유로 넘겨달라고 제기한 대의원동무들의 의견은 빨리 전진하려는 우리 나라 농업근로자들의 열망을 옳게 반영한 정당한 의견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이 열망과 그것을 현실로 옮기는것과는 시간적으로 일치할수 없습니다. 아직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는데 필요한 사상적 및 물질적 준비가 원만히 갖추어져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협동농장들을 전민소유로 넘기는 사업을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좋은 점과 있을수 있는 편향을 정반비례로 잘 따져보면서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당면하여 중요한것은 몇개 협동농장을 전민소유로 넘겨 운영해보면서 경험을 쌓는 한편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모든 협동농장들을 전민소유로 넘기기 위한 사상적 및 물질적 준비를 잘 갖추어나가는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협동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는 사업을 잘해나가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 회의에 참가한 모든 동무들이 더 연구하며 협동농장원들과도 널리 토론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알곡 1,000만톤고지점령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1,000만톤의 알곡생산목표를 내세웠는데 이 고지를 점령하는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10대경제건설전망목표를 내놓을 때에는 다음번 전망계획말에 가서나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할수 있으리라고 타산하였는데 지금 와서 보면 알곡 1,000만톤고지를 점령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일이 걸릴것 같지 않습니다.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는것을 신비롭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곡증산의 예비는 아직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중간지대에 예비가 많습니다. 중

간지대에서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으면 지금보다 알곡수확을 훨씬 더 높일수 있습니다. 산간지대에서도 종자문제만 풀면 많은 알곡생산예비가 나올수 있습니다.

부식토만드는 공장들을 빨리 꾸려 강냉이영양단지를 100% 하고 밭에도 부식토를 내면 알곡수확을 훨씬 높일수 있습니다.

토지정리만 잘하여도 전국적으로 10만정보의 땅을 얻을수 있는데 이것은 간석지를 개간하는것보다 훨씬 헐하게 땅을 얻을수 있는 큰 예비입니다. 예비는 찾으면 얼마든지 나옵니다.

이번 회의에서 많은 동무들이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빠른 시일안에 점령할수 있다는 확신에 찬 토론을 하였습니다. 알곡 1,000만톤고지를 가까운 몇해사이에 점령할수 있다는 동무들의 토론은 정당하며 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동무들이 결의한대로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2~3년안으로 반드시 점령하리라고 믿습니다.

캄보쟈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세계피압박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고있다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부인을 환영하여 배푼 연회에서 한 연설 1974년 12월 2일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존경하는 캄보쟈의 손님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나는 우리의 가장 친근한 전우이시며 형제이시며 벗이신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을 비롯한 캄보쟈의 손님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이처럼 친선의 정 넘치는 가운데 자리를 같이하게 된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친왕과 그 일행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리는 캄보쟈국가원수이시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이신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 우리에 대한 각별한 우정을 품고 우리 나라를 자주 방문하여주시는데 대하여 매우 감사히 생각하며 친왕과의 사이에 맺어진 깊은 형제적관계를 가장 귀중히 여기고있습니다.

친왕의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에 대한 커다란 신임의 표시로 되며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맺어진 친선단결의 불패성에 대한 시위로 됩니다.

친왕께서 우리 나라를 찾아주실 때마다 우리들사이의 우정은 두터워지고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투적친선단결은 더욱 공고해집니다.

조선과 캄보쟈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은 미제를 반대하는 공동의 투쟁을 통하여 맺어진 혁명적인민들사이의 참다운 친선입니다.

오늘도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아세아에서 미제를 반대하는 최전선에 함께 서서 힘차게 싸우고있습니다.

현시기 캄보쟈에서의 정세는 어느때보다도 캄보쟈인민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되고있습니다.

국가원수친왕을 위원장으로 하는 캄보쟈 민족통일전선과 왕국민족련합정부의 옳바른 령도밑에 캄보쟈인민과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반미구국투쟁에서 계속 승승장구하고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 론 놀매국도당을 헤여날수 없는 패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있습니다.

국가원수친왕께서는 지난 4월 우리 나라에 왔다간후에도 끊임없이 다방면적인 국가활동을 벌려 캄보쟈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승리에로 이끌며 캄보쟈 민족통일전선과 왕국민족련합정부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시였습니다.

캄보쟈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세계피압박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여주고있습니다.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지난 장마철기간에도 적들의 모든 발악적공세를 짓부셔버리고 해방지역을 더욱 확대강화하였으며 자주자립하여 해방전쟁을 최후의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지반을 닦아놓았습니다.

캄보쟈의 해방지역은 전령토의 90%이상과 550만이상의 인구를 망라하고있으며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는 캄보쟈인민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로서 세계 60여개 나라의 공식적승인을 받은 당당한 존재로 되였습니다.

이제 캄보쟈에서 미제침략자들과 론 놀매국도당이 수치스러운 종말을 고하고 캄보쟈인민이 전국해방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게 되리라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사실로 되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어떠한 발악적공세나 《평화》의 간판밑에 감행하는 어떠한 음모책동도 철저히 때려부시고 캄보쟈 전령토를 해방할 때까지 완강히 싸워나아가려는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견결한 원칙적립장과 캄보쟈인민의 불굴의 투지를 높이 평가하며 캄보쟈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앞으로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이번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는 37개의 사회주의나라들과 제3세계나라들의 공동발기에 의하여 유엔에서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의 합법적권리를 회복하며 론 놀도당을 내쫓을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습니다.

유엔에서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의 합법적권리를 회복할데 대한 제안은 유엔헌장의 원칙에 맞으며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념원을 반영한 정당한 제안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다시 이 문제의 해결을 한해동안 연기할데 대한 술책을 가까스로 꾸며냈으나 그들은 결코 론 놀매국도당을 멸망의 운명에서 건져내지 못할것입니다.

미제의 신식민주의정책수행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프놈펜의 괴뢰도당이 유엔에 남아있다는것은 유엔의 수치입니다.

유엔에서 캄보쟈를 대표할 유일한 합법적정권은 오직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국가수반으로 하는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입니다.

지난 11월 28일과 30일에 국가원수친왕께서는 유엔에서의 캄보쟈문제의 토의결과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론 놀매국도당과의 어떠한 협상도 단호히 거부하며 끝까지 투쟁을 계속할데 대한 확고한 립장을 천명하시였습니다.

우리는 국가원수친왕의 이 성명들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는 캄보쟈인민의 성스러운 반미구국투쟁이 승리하며 유엔에 있어서도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의 합법적권리가 당당히 회복될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지금 유엔에서는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가 또한 토의되고있습니다.

미제는 유엔에서 남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철거문제가 토의되고있는 이 마당에 와서도 그의 강도적본성을 남김없이 드러내놓고 저들의 침략군대를 남조선에서 철거시킬 계획이 없다고 공공연히 떠벌이고있으며 남조선통치배들을 인민탄압과 전쟁의 길로 더욱더 부추기고있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아무리 발악하여도 저들의 군대를 남조선에서 철거시키지 않고서는 결코 견디여내지 못할것입니다.

침략과 간섭의 목적이외에는 《유엔군》의 간판을 가진 미군이 남조선에 더이상 남아있을 어떠한 리유와 구실도 있을수 없습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에서 더 큰 참패를 당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남조선에서뿐아니라 캄보쟈를 비롯한 인도지나, 대만, 일본 그리고 그가 발붙이고있는 아세아의 모든곳에서 하루빨리 물러가야 합니다.

현시대는 낡은 제국주의세력이 망하고 지난날 압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주의 길로 나가는 혁명적전환의 시대입니다.

오늘 제3세계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에게 강한 타격을 줄수 있는 커다란 힘을 가지고있습니다.

이번 유엔총회 제29차회의의 진행과정은 제3세계나라들이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유엔안에서도 제국주의렬강들이 국제문제들을 제멋대로 처리하던 낡은 질서를 깨여버리고 제3세계인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새로운 질서를 세울수 있으리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반제자주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제3세계나라 인민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단결하여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며 이 공동의 위업에서 형제적캄보쟈인민과 언제나 굳게 손잡고나갈것입니다.

싸우는 나라 인민들이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는것은 승리의 중요한 담보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 우리 나라의 통일위업을 언제나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성심성의로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캄보쟈의 손님여러분!

이번에 국가원수친왕께서는 우리 나라의 전반적형편이 더욱더 좋아지고있는 때에 우리 나라에 오시였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 농업 할것없이 모든 일이 다 잘되여가고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원수친왕과 그 일행이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동안 우리 인민들과 즐겁게 상봉하며 유익한 나날을 보내게 될것을 바랍니다.

나는 우리의 가장 친근한 벗이신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다시 만나게 된 이 기쁜 시각에

캄보쟈인민의 반미구국투쟁에서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사이의 영원한 전투적친선단결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시소와트 코사마크 니리라트왕후폐하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캄보쟈의 손님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조선과 캄보쟈 두 나라 인민들은 아세아에서 미제를 완전히 내쫓으며 그의 종국적멸망을 앞당기기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다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차린 연회에서 한 연설 1974년 12월 6일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존경하는 캄보쟈의 손님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나는 캄보쟈국가원수이시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이시며 우리의 가장 친근한 벗이신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 화기에 넘친 이 자리를 마련하고 우리를 친절히 초청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친왕께서 방금 이 자리에서 하신 그처럼 열렬하고 훌륭한 말씀에 매우 감동되였습니다.

친왕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들사이의 친밀한 형제적관계를 더욱 두터이하고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투적친선단결을 보다 굳게 하는데 커다란 기여로 되였습니다.

우리는 친왕께서 존경하는 시소와트 코사마크왕후페하의 따뜻한 인사와 각별한 축원을 우리에게 전하여주시였으며 싸우는 캄보쟈애국자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열렬한 친선의 정을 전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히 여기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그 어떤 난관과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미제침략자들과 론 놀매국도당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우고있는 캄보쟈애국자들이 전투마당에서 이룩하고있는 빛나는 승리의 소식을 전해듣고 자신의 승리와 같이 기뻐하고있습니다.

국가원수친왕께서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주시였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의 조국통일방침을 적극 지지하여주신것은 우리 인민에 대한 힘있는 고무로 되였습니다.

오늘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은 반제공동투쟁에서 서로 성심성의를 다하여 지지협조하고있으며 두 나라 인민들의 굳은 친선단결은 우리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촉진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친왕과의 상봉을 통하여 캄보쟈인민의 반미구국항쟁이 최후승리를 이룩하게 될 그날은 멀지 않았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질수 있었습니다.

국가원수친왕께서 그 어떤 타협과 후퇴도 없이 원쑤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나아가려는 불굴의 투지와 확고한 원칙적립장을 다시금 뚜렷이 밝힌 지난 11월 28일과 30일의 훌륭한 성명들은 국제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또하나의 강한 타격으로 되고있습니다.

지금 미제의 어용선전기관들까지도 미국의 음모책동에 의하여 론 놀도당이 유엔에 한해동안 더 남아있게 되기는 하였으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비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하고있으므로 얼마 안가서 론 놀도당은 꺼꾸러질수 밖에 없을것이라고 인정하고있습니다.

조선과 캄보쟈 두 나라 인민들은 반제공동전선에 서있는 아세아 혁명적인민들과 단결하며 싸우는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여 아세아에서 미제를 완전히 내쫓으며 그의 종국적멸망을 앞당기기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워나갈것입니다.

존경하는 캄보쟈의 손님여러분!

당신들의 이번 방문은 비록 짧은 기간이였으나 매우 뜻깊고 보람있는 방문이였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다시 헤여지게 되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언제나 함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친근한 벗이신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 앞으로도 자주 우리 나라를 찾아주실것을 바라면서 캄보쟈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친왕의 고귀한 사업에서 보다 훌륭한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존경하는 친왕의 어머니이신 왕후페하께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축원을 전해줄것과 아울러 캄보쟈민족통일전선과 왕국민족련합정부,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과 캄보쟈인민에게 보내는 우리의 전투적인사를 전하여주기 바랍니다.

나는 끝으로 친선의 정 넘치는 이 자리에서 캄보쟈인민의 반미구국투쟁에서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사이의 영원한 전투적친선단결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시소와트 코사마크왕후페하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캄보쟈의 손님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앙 낌 코안대사각하와 그 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조선과 자이르사이의 친선관계는 자주, 자립을 지향하는 공통된 립장에 기초하고있기때문에 커다란 생활력을 가지고있다

자이르공화국 모부투 쎄쎄 쎄꼬 꾸꾸 느그벤두 와 자 방가대통령을 환영하여 베푼 연회에서 한 연설 1974년 12월 9일

존경하는 모부투 쎄쎄 쎄꼬 꾸꾸 느그벤두 와 자 방가대통령각하와 부인!

존경하는 자이르의 손님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아프리카의 저명한 정치활동가이며 자이르인민의 영용한 지도자인 모부투 쎄쎄 쎄꼬대통령각하를 우리의 친근한 벗으로서, 형제로서 반가이 맞이하였습니다.

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자이르인민혁명운동 창건자이며 위원장인 자이르공화국 대통령 모부투 쎄쎄 쎄꼬각하와 부인 그리고 자이르의 손님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대통령각하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공통된 리념과 호상 신임에 기초하고있는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서 력사적사변으로 되며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사이

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자이르는 아프리카중심부에 있는 신생독립국가로서 우리 인민에게 매우 친근한 나라입니다.

지난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가혹한 착취와 략탈의 대상으로 되여왔던 자이르는 오늘 모부투 쎄쎄 쎄꼬대통령각하의 옳바른 령도밑에 존엄있는 자주독립국가로서 자기의 당당한 모습을 력사무대에 나타내고있습니다.

자이르인민은 1960년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벗어던진 다음에도 나라의 일시적분렬로 말미암아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1965년 모부투 쎄쎄 쎄꼬대통령각하에 의하여 나라의 통일과 안정이 이룩된후 비로소 자이르인민은 민족적자주권을 누리게 되고 《오땅띠씨떼》사상에 기초하여 모든것을 《자이르화》하며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되였습니다.

자이르공화국은 대외관계분야에서도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으며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 신흥세력의 단결을 위한 위업에 큰 기여를 하고있습니다.

오늘 자이르에서 구현되고있는 탁월한 지도자의 령도와 인민혁명운동의 두리에 뭉친 인민의 창조적힘은 자이르의 희망찬 앞날을 믿음직하게 담보해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친선적인 자이르인민이 륭성발전하는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을 열렬히 축하하며 그들의 앞으로의 투쟁에서 보다 큰 승리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자이르인민이 《오땅띠씨떼》사상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것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며 자주의 길로 나가고있는 우리 시대 발전의 기본추세를 그대로 반영한것입니다.

조선인민과 자이르인민은 자주의 길로 나가는 오늘의 힘찬 세계적조류속에서 굳은 친선의 뉴대를 맺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며 자주, 자립을 지향하는 공통된 립장에 기초하고있기때문에 커다란 생활력을 가지고있습니다.

손님여러분들은 이번 방문을 통하여 우리 인민이 우리 당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새 사회 건설에서 이룩한 여러가지 성과들을 직접 보게 될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인 정책과 로선을 관철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킬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언제나 외세에 의존하려는 시도를 배격하고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여왔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자기의 민족문제해결에서 예속의 길, 매국의 길을 단호히 반대하며 애국의 길, 자주의 길로 나갈것을 주장합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사람끼리 해결하도록 하자면 무엇보다도 남조선에서 미국군대가 물러가야 하며 현남조선당국자들의 외세의존정책과 매국배족행위가 종식되여야 합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파쑈독재체제의 철폐와 현 당국자들의 사임을 요구하며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주장하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투쟁이 더욱 앙양되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하루빨리 철거하여야 한다는것은 국제적으로도 막을수 없는 강력한 요구로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적벗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모부투 세세 세꼬대통령각하와 자이르공화국 정부와 인민이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시대는 낡은 제국주의세력이 쇠퇴몰락하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흥세력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력사의 새 시대입니다.

아세아에서 제국주의식민지체계는 전면적으로 무너지고있으며 어제날 암흑의 식민지대륙으로 불리우던 아프리카는 오늘 해방의 광명으로 빛나는 새 대륙으로 전변되고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제국주의지배체계는 걷잡을수 없이 허물어지고있습니다.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이 압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에게로 넘어왔으며 신흥세력이 단결만 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조선인민은 낡은 세력이 망하고 신흥세력이 승승장구하는 현 력사발전행정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사회주의나라인민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 인민들,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더욱 굳게 손을 잡고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계속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존경하는 손님여러분!

당신들은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동안 이르는곳마다에서 우리 인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을것이며 여기에서 자이르인민에 대하여 품고있는 조선인민의 뜨거운 친선의 정을 몸가까이 느끼게 될것입니다.

나는 손님여러분들의 이번 방문이 훌륭한 결실을 가져오게 되리라고 믿으면서 조선인민과 자이르인민사이의 불패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자이르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모부투 세세 세꼬대통령각하와 그 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자이르손님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신흥세력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단결하여야 한다

자이르공화국대통령 모부투 세세 세꼬 꾸꾸 느그벤두 와 자 방가를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1974년 12월 15일

존경하는 모부투 세세 세꼬 꾸꾸 느그벤두 와 자 방가대통령각하와 부인!

존경하는 자이르의 손님 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평양시의 각계층 인민들은 우리 인민에 대한 뜨거운 친선의 정을 안고 우리 나라에 온 자이르의 귀한 손님들과 상봉하게 되는 커다란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는 먼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자이르인민혁명운동 창건자이며 위원장인 자이르공화국 대통령 모부투 쎄쎄 쎄꼬각하와 부인 그리고 그 일행의 우리 나라 방문을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또한 이 기회에 당신들을 통하여 친선적인 자이르인민에게 보내는 조선인민의 뜨거운 형제적인사를 전하는바입니다.

아프리카의 저명한 정치활동가이며 자이르인민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우리 인민의 친근한 벗인 모부투 쎄쎄 쎄꼬대통령각하께서 이번에 먼길을 떠나 우리 나라에 오신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큰 경사로 됩니다.

대통령각하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인민과 자이르인민사이의 친선관계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보여주며 조선인민과 아프리카인민들사이의 단결과 신흥세력의 단결이 날로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오늘의 이 군중대회는 대통령각하 당신에 대한 우리 인민의 높은 존경의 표시로 되며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불패의 친선단결의 시위로 됩니다.

조선인민과 자이르인민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견지하는 공동의 립장에 기초하여 굳은 친선의 뉴대를 맺었습니다.

조선인민은 아프리카의 중심부에 자이르인민과 같은 친근한 벗을 가지고있는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오늘 자이르는 모부투 쎄쎄 쎄꼬대통령각하의 옳바른 령도밑에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새생활창조의 길로 힘차게 나가고있는 존엄있는 자주독립국가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대통령각하와의 상봉을 통하여 자이르의 쓰라린 과거력사와 혁명승리후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고있는 빛나는 성과들에 대하여 그리고 앞으로의 보다 커다란 발전전망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습니다.

자이르가 1960년에 해방을 이룩한 다음에도 5년동안이나 일시적 분렬과 혼란을 겪은것은 다 현대식민주의의 끊임없는 죄악적책동때문이였습니다.

모부투 쎄쎄 쎄꼬대통령각하께서는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전국의 안정과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자이르인민의 력사에서 힘찬 전진의 새기원을 열어놓으시였습니다.

오늘 자이르정부는 여러가지 진보적인 사회정치적개혁들을 실시하여 모든것을 《자이르화》함으로써 민족적특성에 맞게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고있습니다.

1973년 11월 자이르정부가 취한 《자이르화》조치에 따라 자이르인민은 자기 나라의 부원에 대한 주인으로 되였습니다.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새로 독립한 나라들이 이미 쟁취한 독립을 고수하고 공고히 하려면 반드시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하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하며 전체 인민들을 자기 지도자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단결시켜야 합니다.

오늘 자이르인민은 자기의 영용한 지도자 모부투 쎄쎄 쎄꼬대통령각하의 《오땅떠씨떼》사상을 가지고있으며 인민혁명운동의 두리에 굳게 뭉쳐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자립을 지향하여나가는 자이르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자이르공화국은 자기의 독특한 로선과 정책으로 하여 국제적으로도 날로 그 위신이 높아가고있습니다.

자이르공화국은 대외관계분야에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제국주의와 신구식민

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예속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으며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실현하며 신흥세력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습니다.

자이르의 현실은 훌륭한 지도자와 당을 가지고있으며 굳게 단결하여 새생활건설에 떨쳐나선 인민들은 위대한 힘을 발휘할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친선적인 자이르인민이 자기의 존경하는 지도자 모부투 쎄쎄 쎄꼬대통령각하의 옳바른 령도밑에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며 나라의 전반적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을 열렬히 축하하고있으며 앞으로 륭성발전하는 새 자이르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하고있습니다.

오늘 자이르땅에서 일어나고있는 혁명적변혁과정은 아프리카의 위대한 재생과정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로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 우리 시대 발전의 기본추세를 그대로 반영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자체의 실생활을 통하여 새로 독립한 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고수하고 빨리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하며 특히 인민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나라가 인공적으로 분렬되여있고 제국주의와 직접 맞서있는 어려운 조건에서 식민지통치의 악독한 후과와 3년동안의 전쟁에서 입은 혹심한 상처를 가시면서 새생활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지난날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짧은 기간에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킬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인민들속에서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교조주의를 없애고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을 더욱 높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았기때문에 세계적으로 경제적파동이 매우 심한 조건에서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인민경제전반을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가고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는 공업의 높은 장성속도를 보장하였을뿐아니라 농업에서 전례없는 대풍을 이룩하였습니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 자주로선의 빛나는 승리로서 우리 나라를 고립질식시키려던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정책이 정치적측면에서뿐아니라 경제적측면에서도 완전히 파산되였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조선과 자이르 그리고 많은 신생독립국가들에서의 실천적경험은 지난날 압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능히 자기 힘으로 새생활을 창조하며 번영하는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도 대세는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우리 인민의 편에 날로 유리하게 전변되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조선사람끼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할데 대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립장은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날로 커가는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조국의 통일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곧 민족자주력량과 제국주의침략세력사이의 투쟁이며 애국자와 매국자사이의 투쟁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민족문제해결에서 결코 매국과 예속의 길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며 끝까지 애국의 길, 자주의 길로 나감으로써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것입니다.

동지들과 벗들!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며 낡은 제국주의세력이 쇠퇴몰락하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흥세력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위대한 전환의 시대입니다.

이 력사적전환의 과정을 특징짓고있는것은 혁명력량과 반혁명세력사이의 끊임없는 격렬한 투쟁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민족해방투쟁의 세찬 조류에 밀리여 부득이 식민지인민들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으나 그들의 침략과 략탈의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잃어버린 옛지위를 되찾으며 신생독립국가들을 다시 예속시키기 위하여 낡은 식민지통치수법에 교활한 신식민주의적수법을 배합하여 직접적인 무력간섭과 앞잡이들을 통한 대리전쟁, 파괴전복활동, 경제문화적침투와 같은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낡은 세력이 망하고 신흥세력이 장성하는것은 력사의 흐름이며 그 어떠한 힘도 이 력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멈춰세울수 없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인민들의 해방투쟁은 확고하게 승리하고있으며 제국주의식민지지배체계는 걷잡을수 없이 무너지고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 대륙 인민들의 거세찬 민족해방투쟁에 의하여 이미 대다수나라들이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지금도 련이어 새로운 독립국가들이 탄생하고있습니다.

낡은 식민지소유렬강들은 아프리카대륙에서 이미 거의다 쫓겨났으며 남아프리카와 로데시아의 인종주의정권은 안팎으로 거듭되는 타격을 받고 궁지에 빠져들어가고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시기 독립을 이룩한 기네—비싸우인민과 독립에 관한 협정을 성취한 모잠비끄, 산토메프린시페 인민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우리는 독립전야에 있는 앙골라인민의 투쟁과 자유와 해방을 위한 짐바브웨, 나미비아, 아자니아, 꼬모르, 세이쉘, 베르데갑제도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민족적독립을 공고화하기 위한 모든 아프리카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아프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은 전인류해방위업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위대한 아프리카인민들이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의 마지막생명선을 끊어버리고 아프리카 전대륙을 완전히 해방할 날은 멀지 않아 오고야말것입니다.

제국주의는 오늘 아세아에서도 마지막시각을 보내고있습니다.

아세아에는 혁명하는 나라, 싸우는 나라들이 많으며 조선으로부터 중국, 인도지나, 중근동에 이르는 아세아의 넓은 지역이 반제혁명투쟁의 무대로 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아세아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아세아인민들은 이 지역에서 제국주의침략세력을 완전히 내쫓고야말것이며 아세아의 장래는 아세아의 주인인 아세아인민들에 의하여 결정되게 될것입니다.

제국주의식민지지배체계는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습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의 지배와 압제를 반대하고 민족적자주권과 자연부원, 령해권을 지키기 위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오늘의 정세는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 할것없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침략책동도 물리치고 그들의 종국적멸망을 촉진시킬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모든것을 신흥세력과 평화애호인민들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하는 새로운 질서를 세울수 있다는것을 보

여주고있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흥세력은 제국주의자들의 각개격파전략에 단결의 전략으로 대하고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할뿐아니라 경제기술적으로도 긴밀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반제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의 진보적정당들사이의 련계와 협조를 긴밀히 하는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 지역 나라들가운데는 사회제도가 서로 다른 나라들이 있고 이 나라들의 정당들도 정치적견해가 같지 않을수 있으나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나라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데서는 다 공통된 지향을 가지고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성은 사상과 리념이 같지 않은 당들이라 하더라도 능히 서로 단결을 도모할수 있는 기초로 됩니다.

신생독립국가들의 집권당들은 자기 나라 인민의 리익을 대변하고있으며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지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생독립국가들과 국가적관계를 가지고있는 조건에서 이 나라들의 집권당들과 당적관계를 가지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과 국가적관계를 가질뿐아니라 이 나라들의 집권당들과도 친선적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반제반식민주의투쟁에서 신흥세력나라들의 통일전선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지역, 모든 나라, 모든 당파들과 모든 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우리의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며 승리의 믿음직한 담보로 됩니다.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를 멸망시키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반제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단결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단결하여 억세게 싸워나갈것입니다.

동지들과 벗들!

조선인민과 자이르인민은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공동의 투쟁을 통하여 반제민족해방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다같이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예속과 불평등, 인종차별을 배격하고있으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평등과 자주권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이 서로 지지하며 긴밀히 협조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로 됩니다.

최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자이르공화국 사이에 외교관계가 맺어진것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서 획기적사변으로 되였습니다.

이번 모부투 쎄쎄 쎄꼬대통령각하의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의 력사에 가장 빛나는 기록을 남기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언제나 친선적자이르인민과 굳게 손잡고 함께 싸워나아갈것입니다.

조선인민과 자이르인민사이의 전투적친선단결 만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단결 만세!

자이르인민의 탁월한 지도자 모부투 쎄쎄 쎄꼬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자이르공화국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 령

공업상품의 값을 낮출데 대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모든 활동의 최고원칙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혁명발전의 근본리익에 맞게 축적과 소비를 옳게 결합시키면서 로임을 올리고 물가를 낮추는것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 시책을 련이어 실시하였다.

최근 몇해동안에만 하여도 닭알, 사탕, 어린이옷과 신발 값을 대폭 낮춘것을 비롯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대중소비품의 값을 전반적으로 낮춤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막대한 추가적혜택을 주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옳바른 정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그에 기초하는 생산의 끊임없는 장성은 공업상품값의 체계적인 인하와 인민생활의 부단한 향상을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나라의 공업은 더잘 정비되고 그 자립성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주체공업의 위력은 더욱 전면적으로 발휘되고있다.

특히 지난 몇해동안에 이미 있던 경공업공장들이 전반적으로 개건확장되고 현대적인 대규모의 방직공장과 편직물공장을 비롯하여 옷공장, 양말공장, 신발공장, 일용품공장, 식료가공공장 등 새 경공업공장들이 도처에 일떠섰으며 그 원료기지도 한층 더 강화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밝혀준 강령적과업에 따라 공업이 농업을 적극 도와줌으로써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농업생산은 해마다 높은 장성을 가져왔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전례없는 대풍작을 이룩함으로써 공업생산의 더욱 빠른 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였다.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거대한 성과가 이룩됨으로써 인민소비품생산이 훨씬 늘어나고 상품예비를 넉넉하게 마련할수 있게 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공업상품을 보다 눅은 값으로 더 많이 공급할수 있게 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에 기초하여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력사적인 조치와 함께 공업상품의 값을 대폭 낮출데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넉넉하고 문명하게 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고르롭게 높일데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데서 또하나의 획기적인 계기를 열어놓은 이번의 조치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가져다준 빛나는 결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는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인민적시책에 따라 공

업상품의 값을 대폭 낮추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공업상품의 값을 평균 30% 낮춘다.

2. 공업상품의 값을 부류별로 다음과 같이 낮춘다.

천 류	20~50%
편 직 물 류	30~35%
신 발 류	16~33%
일 용 품 류	15~50%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은 공업상품의 값을 고쳐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것이다.

4. 이 정령은 1974년 3월 1일부터 실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 일 성

1974년 2월 26일 평양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 령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

인민들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하며 그들에게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혁명임무이며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혁명과 건설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사람들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한 투쟁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 우리 당은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 우리 인민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옳바른 정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을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하기 위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더욱 심화발전되고있으며 낡은 사회의 잔재와 유물을 없애는 력사적과업이 성과있게 실현되고있다.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는것은 근로자들을 낡은 사회의 유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의 혁명이며 인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하는 위대한 변혁이다.

국가의 발생과 함께 생겨난 조세제도는 계급사회와 더불어 수천년동안 내려오면서 지배계급의 통치기구를 유지하며 근로인민들을 략탈하는 수단으로 리용되여왔다.

지난날 조세제도는 우리 인민의 피땀을 짜내는 략탈도구였다. 특히 일제의 식민지조세제도는 조세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악랄하고 살인적인것이였으며 우리 인민의 저주와 원한의 대상이였다.

우리 인민은 착취사회의 장구한 력사적과정을 거쳐 가혹한 조세수탈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특히 일제식민지통치의 략탈적인 조세제도를 반대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벌리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의 이 투쟁은 주권을 전취하기 위한 정치투쟁과 결합되지 못함으로써 결국 승리를 이룩할수 없었다.

우리 혁명이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된 때로부터 비로소 이 투쟁은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의 일환으로 되였으며 세금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밝혀진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조세강령을 받들고 투쟁하였으며 항일유격근거지, 해방지구들에서 그 실현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우리 당과 인민정권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되였고 해방후 20개조정강에서 더욱 구체화된 주체적인 조세강령을 구현하여 일제의 략탈적인 조세제도를 철폐하고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세금제도를 확립하였다.

새로운 인민적세금제도는 파괴된 경제를 복구발전시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닦으며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촉진하며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

공화국정부는 국가의 세금수입을 나라의 경제문화건설을 위한 보충적인 자금원천으로 효과있게 쓰는 한편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닦아지는데 따라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체계적으로 덜어주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가 튼튼히 닦아짐으로써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문제가 일정에 오르게 되였다.

공화국정부는 세금제도를 없애기 위한 조건과 가능성이 성숙되는데 따라 먼저 농민들이 바치는 농업현물세를 1964년부터 1966년사이에 완전히 없애는 조치를 취하였다.

농업현물세제의 페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 따라 우리 농민들을 세금부담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력사적조치였으며 로농동맹을 강화하고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하며 농민들의 실질소득을 빨리 높일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조치였다.

농업현물세제의 페지로 우리 나라에는 소득세와 지방자치세만 남게 되였으며 그것은 국가예산수입에서 보잘것없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제도가 더욱 공고발전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된 조건에서 세금을 완전히 없애는것은 충분히 성숙된 문제로 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는 사회경제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반영하여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 토의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세금없는 세상에서 살아보려던 인민들의 꿈은 드디여 현실로 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되였다.

사회주의하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는것은 합법칙적인것이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사회주의적 국영경리와 협동경리가 국가의 경제적기초로 되고있으며 근로인민들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사회주의사회의 사회경제적관계는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체계적으로 덜며 그것을 종국적으로 없앨수 있는 기초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 세금제도는 다만 일정한 기간 국가적 및 사회적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보충적인 자금원천으로서, 인민들의 생활수준상 차이를 조절하기 위한 보충적인 수단으로서 리용된다.

우리 나라에서의 세금페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기초한것이며 그 발전

의 합법칙적요구에 완전히 맞는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우월성은 국가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여 주는데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을뿐아니라 막대한 국가적혜택에 의하여 먹고 입고 쓰고 사는것으로부터 자녀교육과 병치료, 로동조건과 휴식조건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국가적으로 확고히 보장받고있다.

근로자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혜택은 우리 나라에서 날로 더욱 확대발전하고있는 공산주의적분배의 싹으로서 근로자들의 생활을 고르롭게 높이며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는 담보로 된다.

혁명과 건설에 요구되는 자금을 사회주의경리로부터의 수입으로 보장할수 있을뿐아니라 방대한 국가자금을 돌려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국가적 및 사회적 자금수요를 충당하는 보충적수단으로서 주민세금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였다.

착취계급이 이미 오래전에 없어지고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상 차이도 크게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고르롭게 잘살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주민들의 수입을 더 고르롭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세금제도를 더는 남겨둘 필요가 없게 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자라난 우리의 사회주의근로자들은 국가사업을 자기자신의 일로 여기며 모든 국가사업에 주인답게 자각적으로 참가하고있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높은 혁명적각오와 자각적열성으로 사회주의조국앞에 지닌 성스러운 의무를 다하고있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을 국가에 대한 공민의 의무로 남겨둘 필요는 없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 마련된 위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는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담보로 된다.

우리 인민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강유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였다.

오늘 우리의 주체공업은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최신기술로 장비된, 그리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가진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으로 되였으며 우리 나라 농촌경리는 수리화와 전기화를 실현하고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농사를 짓는 발전된 사회주의농업으로 되였다.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는 세계적인 경제파동과 경제위기의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제발로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그에 기초한 우리의 사회주의적국가재정은 더욱더 공고한것으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에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와 튼튼한 재정토대가 마련되여있음으로 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의 거창한 투쟁을 벌리며 사회문화시책에 계속 큰 힘을 돌리고 나라의 방위력을 한층 더 철벽으로 다지면서도 인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공업상품의 값을 대폭 낮추고 세금까지 완전히 없애는 위대한 시책을 실시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세금제도의 완전한 페지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과 우리의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과시하는것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빛나는 승리로 하여 우리 인민은 착취와 압박이 없고 세금

도 없는 사회주의지상락원에서 더 넉넉하고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세금을 완전히 없애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획기적인 인민적시책은 우리의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을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앞당겨수행하고 사회주의의 더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사회주의대건설의 장엄한 투쟁에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킬것이며 그들을 영웅적위훈에로 고무추동할것이다.

세금제도의 완전한 페지는 류례없는 파쑈적폭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의 권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더욱 큰 희망과 신심을 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은 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것이다.

3, 이 법령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 일 성

1974년 3월 21일 평양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 정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내세운 과업을 빠른 시일안에 완전히 실현할데 대하여

농촌문제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다음 농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를 옳게 풀어야만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농촌의 온갖 락후성을 없애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앨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더욱 촉진할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지금으로부터 10년전에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의 길을 밝힌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았다.

1964년 3월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3차회의에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과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농촌테제의 발표와 그 관철을 위한 법령의 채택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농촌테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해결의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방도들을 전면적으

로 밝힌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이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발표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지난 10년동안 농촌테제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 일어난 모든 전변은 농촌테제를 제때에 내놓고 그 관철을 위한 법령을 채택한것이 매우 시기적절하였으며 정당한 조치였다는것을 확증하여주고있다.

농촌테제의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농업생산의 비약적인 장성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농촌테제가 빛나게 구현되여 농촌에서 정치사상적기초와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됨으로써 지난 10년동안 우리 나라 농업생산은 해마다 빠른 속도로 장성하였다. 특히 우리는 올해에 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대풍을 이룩하였다.

올해에 우리는 1963년에 비하여 2배에 달하는 700만톤이상의 알곡을 생산함으로써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2년이나 앞당겨점령하는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우리 나라에서 올해 알곡 정당수확고는 전국적으로 평균 논벼는 5톤 900키로그람, 강냉이는 5톤의 류례없는 가장 높은 수준에 뛰여올랐다.

알곡생산에서뿐아니라 남새, 축산, 과수, 잠업 등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에서 비약적인 장성이 이룩되였다. 지난 10년동안에 남새는 거의 2배, 과일은 3배, 고기는 2.5배, 알은 7.4배, 누에고치는 2.4배로 각각 늘어났다.

농업생산에서 이룩된 이 모든 성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대승리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의 뚜렷한 시위로 된다.

지난 10년동안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것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이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간 결과 사회주의건설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멀리 앞으로 전진하였다.

무엇보다도 농촌기술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우리 당은 기술혁명문제를 다만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단순한 기술실무적문제로서가 아니라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는 사회정치적문제로 내세우고 여기에 큰 힘을 돌려왔다.

지난 10년동안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수리화를 완성한것이다.

수리화를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이미 마련하여놓은 관개시설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한편 관개공사를 널리 진행하여 오래전에 논관개를 완전히 끝냈으며 발관개도 적지않게 실현하였다.

또한 고이는물빼기공사에 커다란 국가적힘을 넣은 결과 우리 나라의 중요 벼생산지대들에서 고인물피해를 완전히 없앨수 있게 되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어떤 가물이 드나 장마가 져도 언제나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는 완성된 수리화체계를 튼튼히 마련하여놓았다.

농촌경리의 기계화에서도 결정적인 전진이 이룩되였다.

우리 당과 정부는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뜨락또르를 더 많이 생산하여보내는데 기본을 두고 자체의 뜨락또르공업과 자동차공업, 농기계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농기계들을 만들어내는데 주되는 관심을 돌렸다.

그리하여 우리는 7만~8만대의 뜨락또르를 농촌에 보내줄데 대한 테제의 과업을 이미 빛나게 실현하였다. 올해에 뜨락또르대수는 1963년에 비하여 4배이상으로 늘어났으며 경지 100정보당 뜨락또르가 벌방지대에는 4대,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에는 3대씩 차례지고있다.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자동차대수는 같은 기간에 4.6배로 늘어났다.

모내는기계, 수확기, 탈곡기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새로운 농기계들이 창안제작되여 농촌에 대대적으로 공급됨으로써 더 많은 농사일을 기계로 할수 있게 되였다.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농촌전기화의 과업은 1969년에 이미 빛나게 실현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리에 전기가 들어갔으며 모든 농가에서 다 전기불을 보고있다. 농촌에서 전기는 농민들의 가정문화생활에서뿐아니라 농업생산에서 기계동력과 열원으로 널리 쓰이고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는 농촌전기화분야에서도 이미 세계 선진국가들의 수준을 앞섰다.

농촌경리의 화학화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의 화학공업이 빨리 발전한 결과 농경지 정보당 화학비료의 시비량을 500키로그람에 이르게 할데 대한 과업은 이미 실현되였으며 1톤이상의 수준에 올릴데 대한 목표도 명년이면 달성할수 있게 되였다.

화학비료의 시비량이 늘어났을뿐아니라 그 질적구성도 훨씬 개선되였다.

또한 농약살포량이 늘어나 농작물을 병충해로부터 더잘 보호할수 있게 되였으며 효능이 높은 살초제들이 대량적으로 공급되여 농민들의 김매는 일을 훨씬 덜어주고있다.

농촌경리의 집약화, 이것은 영농사업에서의 우리 당의 기본방침이다.

지난 기간 우리는 농업과학의 최신성과와 선진영농기술을 널리 받아들이며 집약적인 영농방법을 발전시키는데서도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주체적인 영농법을 확고히 세워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는것으로부터 비료를 주고 모를 기르며 평당포기수를 정하는 등 모든 농사일을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하고있다.

테제에서 제시된 농촌기술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사회주의법칙에 따라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장성시킬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농촌기술혁명과 함께 지난 10년동안 농촌문화혁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우리 당과 정부는 테제에서 내놓은 방침에 따라 1967년에 이미 전반적인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금은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과 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다.

그리하여 도시에서뿐아니라 농촌에서도 우리의 새세대들이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높은 기술 지식과 기능을 소유한 사회주의농촌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나고있다.

농촌에서 성인교육사업을 활발히 벌린 결과 지난날 배우지 못하였던 40대이상의 농민들이 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일반지식을 가지게 할데 대한 테제의 과업도 성과적으로 실현되고있다.

또한 리마다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이 꾸려지고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전개되고있다.

각 도마다 농업대학을 비롯한 자체의 간부양성기지가 튼튼히 꾸려져 주체사상으로 무장

한 새로운 청년인테리들이 수많이 양성되여 농촌에 들어갔다. 지금 매 협동농장에서는 평균 24명의 기술자, 전문가들이 일하고있다.

농촌리의 진료소들을 병원화하는 사업이 이미 성과적으로 완수되고 모든 리에 아동병동이 나왔으며 군병원들이 더잘 꾸려지고 농촌녀성들을 위한 산원시설도 더욱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농촌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농촌근로자들은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더잘 받게 되였다.

농촌의 뻐스화가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농촌리의 85%이상에 뻐스가 들어감으로써 농촌주민들의 생활은 더 편리하게 되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련계가 더욱 강화되였다.

농촌수도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군소재지는 물론 대부분의 농촌부락과 농가에까지 수도가 들어감으로써 수천년동안 내려오면서 농촌녀성들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되였던 물동이를 이고다니는 현상이 없어져가고있으며 농촌주민들이 보다 위생문화적으로 생활할수 있게 되였다.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사업에 큰 힘을 넣은 결과 오늘 우리 농촌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이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훌륭히 자라고있으며 농촌녀성들은 마음놓고 생산활동에 참가하고있다.

농촌녀성들에게 로력보수를 계속 주면서 산전산후휴가를 줄데 대한 농촌테제의 과업도 완전히 실현되여 그들은 로동자녀성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고있다.

살림집건설이 대대적으로 벌어져 우리 농촌은 더욱 문화적으로 아담하게 꾸려지고있으며 우리 농민들은 오늘 나라에서 무상으로 지어준 문화주택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농촌의 집집마다에 신문, 잡지, 도서들이 더 많이 들어가 농민들의 정치사상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으며 농민들속에서 대중적인 문예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이미 유선방송화가 완성된 우리 농촌에서는 지금 텔레비존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우리 농촌에서는 농민들의 생활속에 뿌리깊이 남아있던 낡은 생활 양식과 관습이 날을 따라 자취를 감추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이 전면적으로 서가고있다.

당의 농촌문화혁명방침이 성과적으로 관철된 결과 로동자와 농민의 기술문화수준에서의 차이가 현저히 줄어들고 교육, 보건, 주택, 문화후생시설을 비롯한 문화생활조건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거의 없어져가고있다.

3대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상혁명에서도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였다.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농민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이 비상히 촉진되고 그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새로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농촌실정에 맞는 정연한 학습체계가 세워지고 당의 유일사상교양, 주체적혁명사상교양이 강화됨으로써 농민들속에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게 되였다. 오늘 우리 농민들은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삼고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오직 당의 사상대로만 숨쉬고 행동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양하고있다.

우리 협동농민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며 농업생산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나라의 식량을 책임진 근로자답게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일하며 생활하고있다.

농민들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이 강화된 결과 우리 농민들의 계급적각성은 매우 높아졌으며 제국주의 특히 미일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계급을 미워하고 착취제도를 반대하며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키고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몸바쳐일하고있다.

우리 농민들은 로동을 즐기고 가장 영예로운것으로 여기며 집단과 사회를 위한 공동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하게 참가하고있다.

특히 우리 농촌에서 위대한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농민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 농민들자신의 사업으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다.

또한 우리 농민들속에서는 혁명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자신을 혁명적으로 끊임없이 단련하며 조직에 의거하고 조직의 통제밑에서 생활하는 기풍이 확고히 서가고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혁명적구호밑에 모두가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하나의 화목한 집단으로 단결되여 누구나 다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는것이 오늘 우리 사회주의농촌의 대풍모이다.

우리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정신도덕적풍모에서 일어난 위대한 전변은 지난 10년동안 농촌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로 되며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보다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튼튼한 정치사상적기초로 된다.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당과 정부는 지난 기간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밀고나가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농촌경리발전을 위하여 많은 국가적힘을 넣었다.

국가는 농업에 직접 복무하는 기계공업과 화학공업에 대한 투자를 늘이는 한편 1964년부터 1973년까지의 사이에 기본건설투자총액의 21.1%에 해당하는 거액의 자금을 농촌경리부문에 돌렸다.

국가는 많은 자금을 들여 관개하천공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수많은 생산시설들을 건설하여 협동농장들에 넘겨주었다.

지난 10년동안에 국가는 1만 5,900여동의 탈곡장, 1만 6,000여동의 창고, 1만 4,000여동의 전조장, 2만 2,000여동의 강냉이창자, 1만 5,900여동의 집짐승우리를 비롯하여 수많은 생산시설들을 협동농장들에 지어주었다. 또한 56만여세대의 농촌문화주택과 수많은 탁아소와 유치원, 구락부와 병원 등 여러가지 문화후생시설들을 국가부담으로 지어주었다.

농촌에 대한 물질기술적지원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모내기와 가을걷이 등 바쁜 농사철에는 로동자, 사무원, 학생들을 동원하여 전국가적, 전사회적 로력지원사업을 강화하였다.

또한 우리 당과 정부는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고 농민들의 수입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공화국정부는 온갖 세금을 없앨데 대한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결정과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방침에 따라 1964년부터 1966년까지의 3년간에 걸쳐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농업현물세제를 폐지한것은 우리 농민들의 생활에서 일어난 커다란 력사적사변이였다. 농업현물세제가 없어짐으로써 우리 농민들은 수천년동안 내려오던 세금부담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세계력사상 처음으로 세금을 모르는 농민으로 되였다.

이밖에도 국가는 농산물수매가격을 높이고 관개사용료와 농기계작업료를 대폭 낮추는

등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한 가능한 모든 대책을 취하였다.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수준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련계를 강화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 부단히 접근시키는것은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지난 10년동안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 수준을 높이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련계를 강화하는데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이 높이 발양되여 농업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가 보다 더 강화되고 협동농장들의 관리운영에서 계획화, 조직화 수준이 더한층 높아졌다.

특히 농촌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이 확대되고 튼튼히 꾸려져 국가의 강력한 물질기술적수단들이 협동농장들의 농업생산에 더욱 광범히 참가하게 됨으로써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이 훨씬 높아지고 협동적소유와 전인민적소유의 유기적련계가 더욱 강화되였다.

1973년말현재 협동농장의 농업생산에 참가하는 고정재산가운데서 국가소유에 속하는 고정재산의 비중은 66.4%에 달하였다.

농촌경리에 대한 기업적지도가 훌륭히 실현되고 두 소유의 유기적련계가 강화됨에 따라 경제관리수준에서 공업과 농업의 차이가 훨씬 줄어들고 협동적소유가 전인민적소유에 더욱 접근되여가고있다.

군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전반적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군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모든 군들이 튼튼히 꾸려지고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그 역할이 더욱 높아졌다.

지금 우리의 군들은 잘 꾸려진 교육, 문화, 보건, 상업류통 기관들과 평균 20여개의 발전된 지방산업공장들을 가지고있다.

군이 튼튼히 꾸려지고 그 기능과 역할이 높아짐으로써 당정책이 농민대중속에 제때에 들어가고 농민들을 그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게 되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의 련계가 더욱 강화되고있다.

지난 10년동안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우리 농촌은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으며 우리 농민들은 현대적이고 문명하고 살기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에서 더욱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오늘 우리 농민들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지난날의 부유중농수준을 훨씬 넘어섰으며 날을 따라 끊임없이 높아지고있다. 올해 전국적으로 농호당 평균 알곡분배몫은 1963년에 비하여 2.4배, 현금은 2.7배로 장성하였다.

참으로 우리는 지난 10년동안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력사적인 전변을 이룩하였으며 멀리 앞으로 전진하였다.

우리의 현실은 농촌테제가 가리키는 길만이 농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를 더 빨리 건설할수 있게 하는 가장 옳고 빠른 길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농촌테제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는 조선로동당의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과이며 당에 끝없이 충직한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랑찬 열매이다.

우리 당은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혁명적 원칙과 립장을 동요없이 확고히 견지하면서 그 실현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특히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갔으며 농촌을 홀시하는 자본주의사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로동계급의 국가가 농민들의 생활과 협동적소유의 발전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농촌에 대한 전사회적, 전국가적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였다.

우리 당이 옳은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내놓았으며 인민대중이 그것을 자신의것으로 받아들이고 당과 인민대중이 한덩어리가 되여 농촌테제를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결과에 오늘과 같은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10년동안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는것을 만족스럽게 인정하면서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모든 과업을 최단기간내에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첫째.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3대혁명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철저히 수행할것이다.

1)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줄기차게 밀고나감으로써 전체 농업근로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그들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할것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들속에서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고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주체사상을 유일한 신념으로 삼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며 언제 어디서나 당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것이다.

2) 농촌기술혁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1980년안으로 끝내며 농업을 완전히 공업화, 현대화할것이다.

(1)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완성하기 위하여 뜨락또르와 자동차 생산을 더욱 늘여 1~2년안에 경지 100정보당 뜨락또르대수는 6~7대, 1980년까지는 10~12대에 이르게 하며 자동차대수는 가까운 몇해안에 경지 100정보당 1대이상에 이르게 할것이다.

이와 함께 모내는기계, 논벼와 강냉이 수확기, 낟알터는기계 등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질좋은 농기계를 대량적으로 생산공급하여 씨를 뿌리고 모를 내는 일로부터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사일을 완전히 기계화할것이다.

토지정리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려 땅을 더 많이 얻어내는것과 함께 기계가 들어가서 능률적으로 일할수 있게 포전들을 크고 규모있게 만들것이다.

(2)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완성하기 위하여 3요소비료와 미량원소비료, 여러가지 농약과 살초제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것이다.

지금 하고있는 비료공장건설을 다그쳐 래년안으로 끝내고 카리비료도 자체로 생산할 대책을 세우며 특히 린비료와 여러가지 미량원소비료를 더 많이 생산공급할것이다.

그리하여 래년에 경지 정보당 화학비료시비량을 1톤이상으로 늘이고 가까운 년간에 2톤이상수준에 이르게 할것이다.

이와 함께 농약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여러가지 효능이 높은 살초제와 살충제를 더 많이 생산공급할것이며 성장촉진제와 미량첨가제 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그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도록 할것이다.

(3) 생물학적연구사업을 강화하여 벼, 강냉이, 콩을 비롯한 농작물의 품종을 더 좋은것으로 끊임없이 갱신하며 토지를 적극 개량하고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비롯한 주

제농법을 정확히 적용함으로써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에서 집약화수준을 더한층 높일것이다.

(4) 새땅을 얻기 위한 간석지개간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릴것이다.

가까운 년간에 10대경제전설전망목표의 하나인 10만정보의 간석지개간고지를 점령하며 장차로는 2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을 진행할것이다.

농업을 공업화하고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며 더 많은 땅을 얻어내여 가까운 몇해안에 알곡 1,000만톤고지를 점령할것이다.

3) 농촌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짧은 시일안에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일반지식과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소유하게 하며 발전된 사회주의농촌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기술자, 전문가들을 대대적으로 길러 농촌에 더 많이 보낼것이다.

이와 함께 농촌에서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철저히 확립하며 온갖 낡은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세울것이다.

특히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농촌살림집을 더 많이 지으며 농촌 수도화와 빠스화를 1~2년안에 끝내고 농촌텔레비죤화를 다그쳐 문화생활조건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빨리 없앨것이다.

둘째.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과업을 더 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농촌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것이다.

농업을 완전히 공업화, 현대화하고 농민들에게 로동자들과 같은 생산조건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지어주기 위하여 농촌에 대한 국가투자를 더욱 늘일것이다.

특히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공업부문과 간석지개간, 토지건설, 관개하천건설에 더 많은 투자를 돌리며 농업부문국가기업소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협동농장들에 탈곡장, 쌀창고, 강냉이창자를 비롯한 생산시설들을 더잘 꾸려줄것이다.

이와 함께 농민들의 수입이 빨리 늘어나고 그들의 물질문화적수요가 높아지는데 맞게 농촌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것이다.

우리의 협동농민들은 로동계급의 적극적인 지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자신을 철저히 로동계급화, 혁명화하며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로동자들과 도시주민들에게 쌀, 고기, 과일, 남새를 비롯한 농업생산물과 경공업원료를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하여 애써 투쟁할것이다.

셋째. 농업이 완전히 공업화, 현대화되여가고있는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더욱 개선강화할것이다.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농업생산에 대한 기업적지도를 심화시킴으로써 협동농장들의 관리운영수준을 공업의 선진적기업관리수준에 빨리 끌어올리며 공업과 농업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더욱 높여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전환과정을 다그칠것이다.

넷째. 군을 더잘 꾸리고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그 역할을 더욱 높일것이다.

농촌에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을 강화하고 지방산업을 더욱 크게 전개하며 교육, 문화, 보건 기관들과 상업수매기관들을 더잘 꾸려 모든 군들이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서의 역할과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촉진하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원만히 수행하도록 할것이다.

다섯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내세운 과업을 짧은 시일안에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본 결정의 구체적인 집행대책을 세울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에 위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이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과업들을 더 빨리 앞당겨 수행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리라는것을 확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 일 성

1974년 11월 30일 평양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 령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년말특별상금을 줄데 대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은 더욱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있다.

당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 근로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사회주의대건설의 전투적강령을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였으며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에 따라 달리는 천리마에 새로운 박차를 가함으로써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데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기본건설, 공업, 농업, 수송, 수산의 5개 전선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일대 비약과 전변을 가져왔다. 김책제철소의 대야금기지, 북창과 서두수의 동력기지, 청년화학공장 건설을 비롯하여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시설물들을 일떠세우는 건설사업이 성과있게 진행되였으며 공업생산이 늘어나고 농촌경리에서는 력사에 없는 대풍작이 이룩되였다.

특히 우리 근로자들은 당의 부름따라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70일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치였으며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들을 창조하였다.

당에 대한 우리 근로자들의 불타는 충성심이 전면적으로 발현된 《70일전투》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채굴공업이 비약을 일으키고 긴장한 수송이 풀리였으며 모든 부문, 모든 기업소에서 일대 생산적앙양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훨씬 앞당겨수행하게 되였으며 농업생산에서는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하게 되였다.

생산의 앙양과 함께 절약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공업부문에서 원가는 계획보다 2% 낮아졌다.

우리 나라의 경제적위력이 강화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은 한층 더 높아졌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올해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며 공업상품값을 대폭 낮추는 력사적인 인민적시책들을 실시하였다.

올해에 로동자, 사무원들과 농민들의 실질수입은 다같이 훨씬 늘어났으며 많은 협동농장들에서 알곡 및 현금 분배는 지난해보다 2~3배 높아졌다.

올해 인민경제계획의 수행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와 《70일전투》의 빛나는 승리로 우

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은 또다시 비약적인 전진을 가져왔으며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훨씬 앞당겨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적전진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안겨줄것이며 원쑤들에게는 커다란 공포를 줄것이다.

올해 인민경제계획의 수행에서 이룩된 위대한 승리는 우리 당의 옳바른 정책과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당에 바치는 우리 근로자들의 열화같은 충성심과 무한한 헌신성의 빛나는 결실이다.

그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시위하며 우리 나라에 마련된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과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과시하는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정책을 높이 받들고 올해 인민경제계획의 수행과 그 마지막돌격전인 《70일전투》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이룩한 영웅적위훈과 빛나는 로력적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국가, 경제기관, 기업소의 모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한달분 로임에 맞먹는 년말특별상금을 준다.

2.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주는 년말특별상금은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 1974년 12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불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은 이 정령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조치를 취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는 영웅적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나라 전체근로자들이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끊임없는 인민적시책과 배려에 보답할 불같은 충성심을 안고 계속전진, 계속혁신하는 혁명적기풍과 무궁무진한 창조적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더욱 힘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새해 1975년에 사회주의대건설의 거창한 전투에서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 일 성

1974년 12월 26일 평양시

축 하 문

신창탄광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나는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속도전을 힘차게 벌려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40일간 앞당겨완수한 신창탄광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동무들은 당이 준 과업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관철하고야마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고 모든 일을 전격전, 섬멸전의 방법으로 밀고나감으로써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한 총돌격전에서 당앞에 다진 맹세를 빛나게 실천하였으며 강행군기업소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동무들은 탄광설비를 대형화, 현대화할데 대한 당의 요구에 맞게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대담하게 마스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중거리벨트콘베아를 비롯한 현대화된 설비를 자체로 만들어 탄광작업의 기계화를 적극 실현함으로써 석탄생산에서 전례없는 비약을 이룩하였습니다.

동무들은 석탄공업부문에 제시한 당의 방침을 심장으로 받들고 갱전설과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고 공무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림으로써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였습니다.

동무들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강화하여 로동과 생활에서 고상한 공산주의적기풍을 높이 발양하였습니다.

또한 동무들은 후방공급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고 한 당의 요구대로 돼지목장을 비롯한 후방공급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부식물공급을 자급자족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동무들이 달성한 모든 성과들은 채취공업부문에서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됩니다.

오늘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6개년계획의 웅대한 설계도를 앞당겨실현하기 위한 기본고리입니다.

동무들은 이미 거둔 성과에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안일과 해이, 로쇠와 침체를 짓부시며 속도전을 더욱 힘있게 벌려 탄광앞에 맡겨진 6개년계획과제를 올해안으로 앞당겨완수하며 사회주의의 더욱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계속 앞장서나아가야 합니다.

동무들은 앞으로도 당이 준 과업을 무조건 접수하고 제때에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사업기풍을 튼튼히 세우고 언제나 지칠줄 모르는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으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당앞에 맹세다진 석탄생산에서 다시한번 비약을 이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공무수리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굴진, 채탄 및 운반 설비를 비롯한 탄광설비들을 대형화, 현대화하며 갱전설과 굴진을 계속 앞세우면서 채탄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동무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며 있는 설비, 있는 로력, 있는 자재로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일하며 생활하는 공산주의적기풍을 계속 높이 발양하여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켜야 합니다.

지도일군들은 탄부들의 충분한 휴식조건과 생활조건을 마련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로 하여금 생산에 모든 정력을 쏟아붓도록 후방공급사업을 일층 개선강화하여야 합니다.

나는 신창탄광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석탄생산에서 계속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킴으로써 당의 기대와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김 일 성

1974년 11월 29일

축 하 문

천리마룡성기계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나는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20일간 앞당겨완수한 천리마룡성기계공장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동무들은 지난날에도 그러하였던것처럼 지금도 당이 준 과업이라면 불물을 가리지 않고 관철하고야마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모든 일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한 총돌격전에서 당앞에 지닌 맹세를 빛나게 수행하였습니다.

동무들은 우리 당 제5차대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금속, 화학, 건재 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제기된 대상설비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였습니다.

동무들은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 붉은 편지에서 제기된 과업과 전국공업대회에서 다진 충성의 결의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긴장한 투쟁을 벌림으로써 대형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동무들이 정성들여 만든 20메터, 15메터 대형선반과 40톤메터형단조마치를 비롯한 수십대의 공작기계들은 나라의 대형기계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동무들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적극 벌려 로동과 생활에서 고상한 공산주의적기풍을 높이 발양하였으며 혈기왕성하여 투쟁을 벌린 결과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였습니다.

동무들이 달성한 이 모든 성과들은 기계공업부문에서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됩니다.

오늘 대형기계생산을 늘이는것은 나라의 전면적기술혁명과업을 촉진하고 6개년계획의 웅대한 설계도를 앞당겨실현하며 사회주의대건설의 새로운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기본고리로 됩니다.

동무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대담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온갖 소극과 보수, 안일과 해이, 로쇠와 침체 등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을 짓부셔버리고 속도전을 더

욱 힘있게 벌려 공장앞에 맡겨진 6개년계획을 당창건 30돐기념일까지 앞당겨수행하며 사회주의의 더욱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계속 돌격대, 선봉대의 영예를 빛내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빈터우에서 대형공작기계를 새끼쳐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여러가지 현대적인 특대형공작기계를 비롯한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자체의 대형기계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림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의 10대경제건설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야금기지건설과 대동력기지건설, 화학공업과 건재공업 기지건설에 요구되는 대형기계설비들을 생산보장하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며 있는 설비, 있는 로력, 있는 자재로 더 많이, 더 좋게 생산보장하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일하며 생활하는 공산주의적기풍을 계속 높이 발양하여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지도일군들은 생산자들의 충분한 휴식조건과 생활조건을 마련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로 하여금 생산에 모든 력량을 쏟아붓도록 후방공급사업을 더한층 개선강화하여야 합니다.

나는 룡성기계공장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대형기계생산에서 계속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킴으로써 당의 기대와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김 일 성

1974년 12월 15일

축 하 문

천리마강선제강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나는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비상한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속도전을 과감하게 들이대여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수행한 천리마강선제강련합기업소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당의 구상과 의도를 언제나 남먼저 심장으로 파악하고 장엄한 천리마진군대오의 앞장에 서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대담한 실천투쟁으로 옹호보위해온 강선의 로동계급들은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총돌격전에서도 천리마고향의 영웅적로동계급답게 당앞에 지닌 맹세를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동무들은 당의 명령과 지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전국공업대회에서 준 당의 과업들을 이악하게 관철함으로써 로력과 설비의 증가없이 강철생산을 지난해에 비하여 122%로 높이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동무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온갖 난관과 애로를 뚫고 자체로 또하나의 새로운 강철생산기지를 꾸려놓았으며 분괴압연기에 살을 더 붙이고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그 생산능력을 1.5배로 높임으로써 공장앞에 맡겨진 6개년계획의 강철고지를 확고히 점령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았습니다.

동무들은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강철생산에서 강행제련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새로운 제강법을 받아들여 제강시간을 훨씬 줄이였으며 생산공정을 자동화, 원격화하고 생산지휘의 무선화, 텔레비죤화를 실현함으로써 강철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였습니다.

동무들이 이룩한 이 모든 성과들은 우리 나라 강철공업을 새로운 물질기술적토대우에서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됩니다.

오늘 강철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는것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3대기술혁명과업을 빛나게 완수하며 6개년계획과 다음번 전망계획년도의 웅대한 10대경제건설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본고리입니다.

동무들은 앙양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계속 분발하여 새해 첫전투에서부터 대혁신, 대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켜 6개년계획의 강철고지를 당창건 30돐기념일전으로 앞당겨점령함으로써 천리마의 고향에서 싸우는 강철로동계급의 영웅적기상과 속도전의 무궁무진한 위력을 다시한번 떨쳐야 합니다.

동무들은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정치적임무와 기술적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 소극성과 보수주의, 안일과 해이, 로쇠와 침체 등 온갖 잡사상들을 뿌리빼고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계속 질풍같이 내달려야 합니다.

동무들은 대형공작기계를 더 많이 새끼쳐 공무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림으로써 웅대한 10대전망목표에 예견된 강철, 압연강재를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는 설비들을 자체로 확고히 마련해놓아야 합니다.

동무들은 새 기술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당창건 30돐기념일전으로 모든 생산공정들의 자동화, 원격화를 완성하고 강종과 강재의 규격을 훨씬 늘이며 관, 쇠바줄 등 2차금속가공제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주체적인 야금공업의 위력을 과시하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기업관리를 더욱 정규화, 규범화함으로써 련합기업소의 참다운 우월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며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생산과 기술 발전에서 끊임없는 혁명적앙양을 이룩해나감으로써 위대한 천리마운동의 선구자의 영예를 계속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지도일군들은 강철전사들의 로동조건과 휴식조건, 생활조건을 더잘 마련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모든 힘과 지혜를 오직 강철생산에 기울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는 천리마강선제강련합기업소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강철생산에서 새로운 높은 충성의 속도를 창조함으로써 당의 친위대, 돌격대로서의 성스러운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김 일 성

1974년 12월 28일

축 하 문

천리마성진제강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나는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모든 지표에 걸쳐 훨씬 앞당겨 넘쳐수행한 성진제강소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동무들은 당이 준 과업이라면 언제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관철하고야마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모든 일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총돌격전에서 당앞에 지닌 맹세를 빛나게 수행하였습니다.

동무들은 전국공업대회에서와 현지에서 준 당의 과업들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긴장한 투쟁을 벌려 자체의 힘으로 새 강철직장 건설과 분괴압연직장 확장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냄으로써 6개년계획말 강철, 강재 생산수준을 돌파하고 그를 정상화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동무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고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우리 나라 원료에 의거한 주체적인 특수강생산공정을 확립하였으며 강종과 압연강재의 규격을 훨씬 늘이고 고질합금강을 비롯한 각종 합금강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동무들은 자체의 힘으로 라선용접관과 전기용접관 생산기지를 꾸리고 생산을 빨리 늘여 관에 대한 인민경제의 수요를 보장하였으며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합금강종을 적극 개발하여 많은 합금원소를 절약할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에 막대한 리익을 주었습니다.

동무들이 이룩한 이 모든 성과들은 앞으로 강철생산을 더 빨리 늘이기 위한 튼튼한 토대로 됩니다.

오늘 강철과 압연강재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는것은 주체공업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높은 단계의 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6개년계획과 웅대한 10대경제전설전망목표를 실현하는데서 관건적고리로 됩니다.

동무들은 앙양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새해에도 대중적영웅주의를 계속 높이 발휘하여 보수주의와 소극성, 안일과 해이, 로쇠와 침체 등 온갖 《잡귀신》들을 쓸어버리고 첫전투부터 속도전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감으로써 공장앞에 맡겨진 6개년계획을 당창건 30돐기념일전으로 반드시 끝내며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돌격대, 선봉대의 영예를 떨쳐야 하겠습니다.

동무들은 공무기지를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합금강생산기지를 꾸리고 쇠바줄을 비롯한 2차금속가공제품생산기지를 자체로 확대하여 각종 합금강과 2차금속가공제품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임으로써 각종 합금강과 규격강재에 대한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요를 어김없이 보장하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당의 3대기술혁명강령을 높이 받들고 전반적생산공정의 자동화, 원격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대담하게 벌려 힘든 로동과 고열 및 유해 로동을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동무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고 온갖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있는 설비, 있는 로력, 있는 자재로 더 많이, 더 좋게 생산

하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일하며 생활하는 공산주의적기풍이 온 공장에 차고넘치게 하며 생산과 기술 발전에서 계속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지도일군들은 생산자들의 로동조건과 휴식조건, 생활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생산에 모든 력량을 쏟아붓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는 성진제강소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지난날에도 그러했던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강철생산에서 계속 대혁신, 대비약을 이룩해나감으로써 당의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김 일 성

1974년 12월 28일

축 하 문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대형용광로건설에 참가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나는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혁명적열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속도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대형용광로건설을 매우 짧은 기간에 끝내고 첫쇠물을 받아낸 건설기관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설계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나는 또한 대형용광로건설의 자재보장과 대상설비를 맡아생산한 공장, 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 그리고 이 공사를 지원하여나선 지원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보냅니다.

동무들은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건설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보수주의와 기술신비주의를 짓부시면서 주체적인 시공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남들이 수년씩 걸려야 한다는 대형용광로를 자기 힘으로 반년남짓한 기간에 일떠세움으로써 당앞에 지닌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실천하는 자랑찬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동무들이 짧은 기간에 수많은 애로와 난관들을 용감히 이겨내고 대형용광로를 일떠세움으로써 6개년계획의 강철고지와 우리 당의 사회주의대건설강령을 훨씬 앞당겨 훌륭하게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으며 사회주의대건설의 총진군운동의 돌격대, 전방척후대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동무들이 달성한 영웅적위훈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화하고 신조화하며 당이 내놓은 《속도전》, 《섬멸전》의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조선로동계급의 영웅적기개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다시한번 보여주는 일대 혁명적시위로 됩니다.

동무들이 이룩한 성과는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를 앞당겨

점령하며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총진군운동을 다그치고있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빛나는 모범으로 됩니다.

우리에게는 올해에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점령한 만풍년의 자랑을 안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를 당창건 30돐까지 앞당겨점령하고 웅대한 10대전망계획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준비를 튼튼히 갖추어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사회주의경제의 보다 높은 고지점령에서 강철은 언제나 1211고지입니다.

동무들은 바로 이 1211고지의 돌격대, 전방척후대의 영예로운 임무를 계속 훌륭히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무들은 이미 거둔 성과에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건설중에 있는 해탄로와 열간압연직장, 무산—청진사이 수송관부설공사를 비롯한 대상의 전반적조업기일을 앞당겨 강철생산량을 급속히 늘여야 하겠습니다.

동무들은 무엇보다먼저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동무들은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선 커다란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섬멸전, 전격전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속도를 창조하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답게 높은 책임성과 창의창발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무들은 언제나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대담하고 통이 크게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새로운 시공방법과 새 기술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당의 기본건설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무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하고 증산과 절약 투쟁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설비, 있는 로력, 있는 자재로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일하며 생활하는 공산주의적기풍이 집단과 사회에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지도일군들은 건설자들의 충분한 휴식조건과 생활조건을 마련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로 하여금 건설에 모든 력량을 쏟아붓도록 후방공급사업을 더한층 개선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대형용광로건설에 참가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전체 지원자들이 앞으로도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건설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여나감으로써 6개년인민경제계획과 사회주의대경제계획전망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웅대한 대기념비적대상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비약을 일으켜 당의 기대와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김 일 성

1974년 12월 31일

축 하 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10차전체대회 앞

나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10차전체대회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나자신의 이름으로 의장동지를 비롯한 대의원들과 전체 대회참가자들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주체의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내세운 총련제9차전체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기간은 총련의 지도밑에 재일동포들이 우리 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그것을 자기 활동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자랑찬 투쟁의 시기였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 보람있는 시기였습니다.

총결기간 총련은 안팎의 원쑤들의 파괴암해책동이 걸음마다 뒤따르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오직 우리 당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재일조선인운동방침을 옳게 세우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동포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단체로서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고 조국과 민족 앞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는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관건적고리로 내세우고 모든 동포대중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시켰으며 총련을 그 어떤 풍파에도 드놀지 않는 힘있고 권위있는 해외공민단체로 반석같이 다져놓았습니다.

중앙으로부터 분회에 이르는 각급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가 철저히 확립된 결과 총련은 60만 재일동포들의 민족적존엄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공화국공민권을 비롯한 모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견결히 옹호하였습니다.

총련은 또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각계각층 재일동포들의 단합된 애국력량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의 반제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전민족적위업에서 중요한 일익을 감당하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총련은 국제무대에서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더욱 빛내이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권위있는 해외공민단체로 되였으며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적극적인 성원을 받고있습니다.

총련안에 주체의 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그의 위력이 전례없이 강화됨으로써 총결기간 재일동포들은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족의 륭성발전을 위한 숭고한 애국애족운동에서 참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조국과 민족 앞에 크나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총련의 지도밑에 재일동포들이 우리 당과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충성심을 안고 무비의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전진시키고 조국의 륭성발전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쌓아올린 고귀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있으며 우리 민족의 커다란 자랑으로 여기고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나는 우리 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총련일군들과 전체 재일동포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총련제10차전체대회는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장엄한 력사적시기에 열리게 됩니다.

대회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높이 받들고 총련의 지도밑에 지난 기간 재일동포들이 거둔 자랑찬 승리와 성과들을 총화하고 총련사업을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한층 더 높이 추켜올리며 60만 재일동포들을 조국인민들의 사회주의대건설의 총진군에 발맞추어 민족의 번영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입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관통하고있는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이며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입니다.

총련이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고 자기의 성스러운 애국위업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자기 활동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할것입니다.

나는 총련제10차전체대회가 재일조선인운동에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보다 심오히 구현하며 각계각층 동포대중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고 재일동포들의 민족적권익을 옹호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총련의 모든 애국사업을 더한층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전환의 계기가 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끝으로 나는 재일동포들의 단결된 위력과 애국적기백을 온 세상에 시위하게 될 대회사업에서 훌륭한 성과가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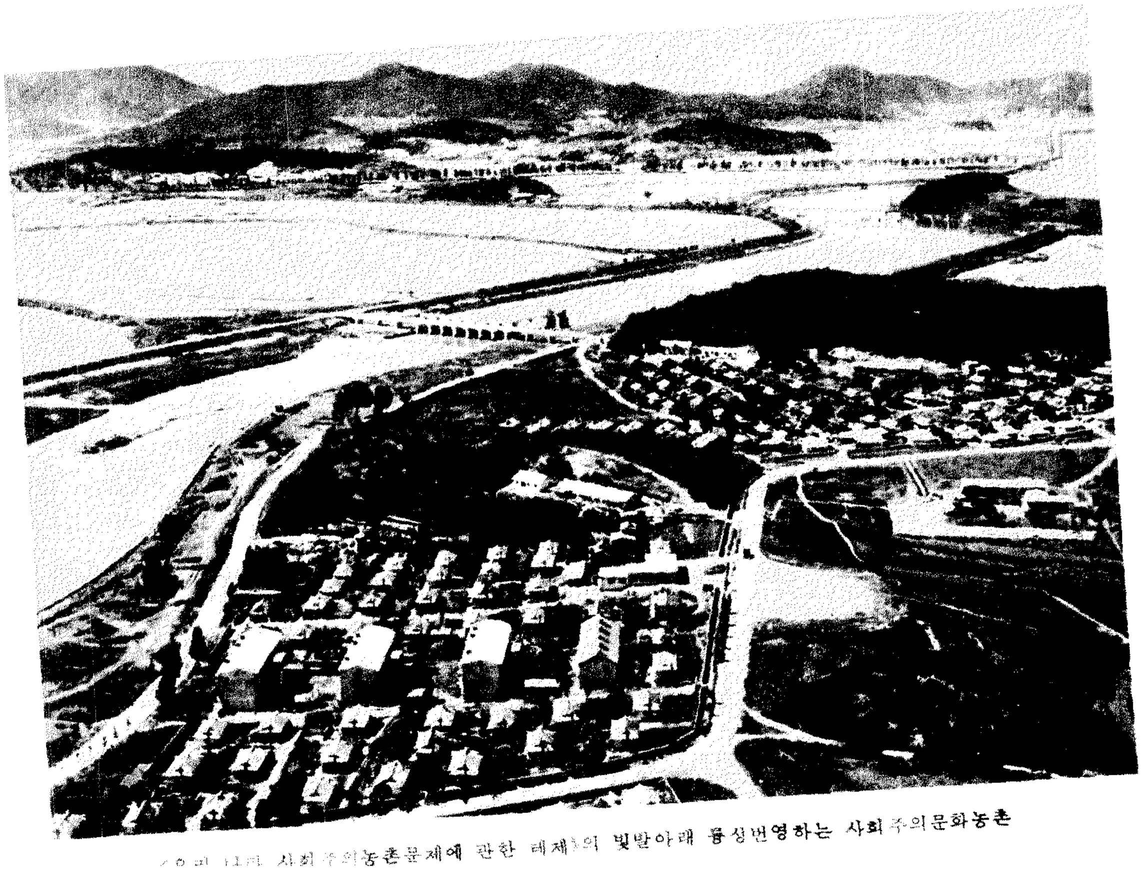
김 일 성

1974년 2월 23일 평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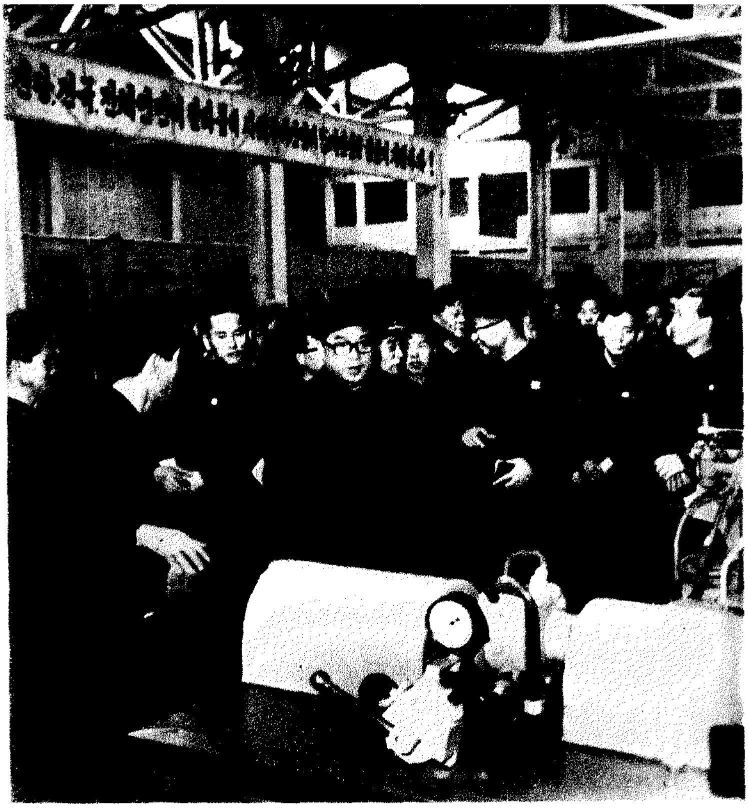

속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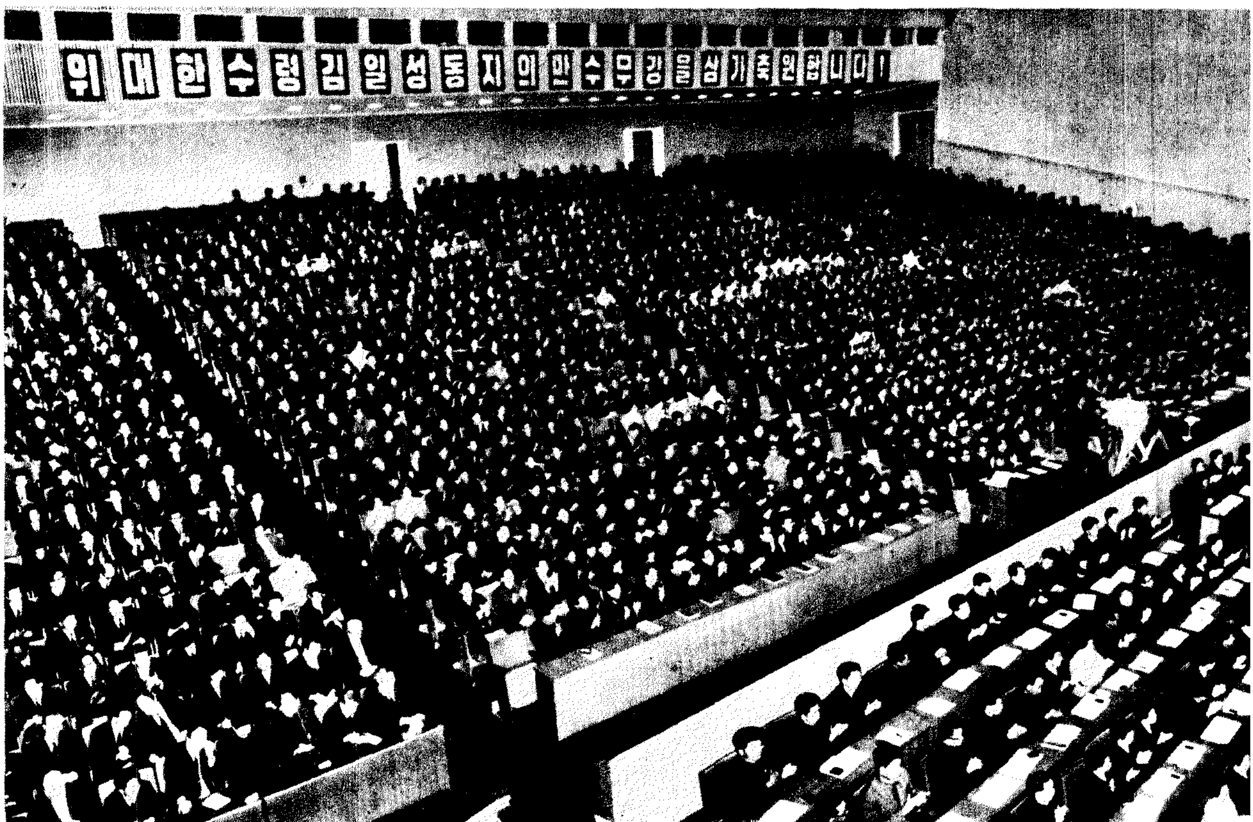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4차회의 주석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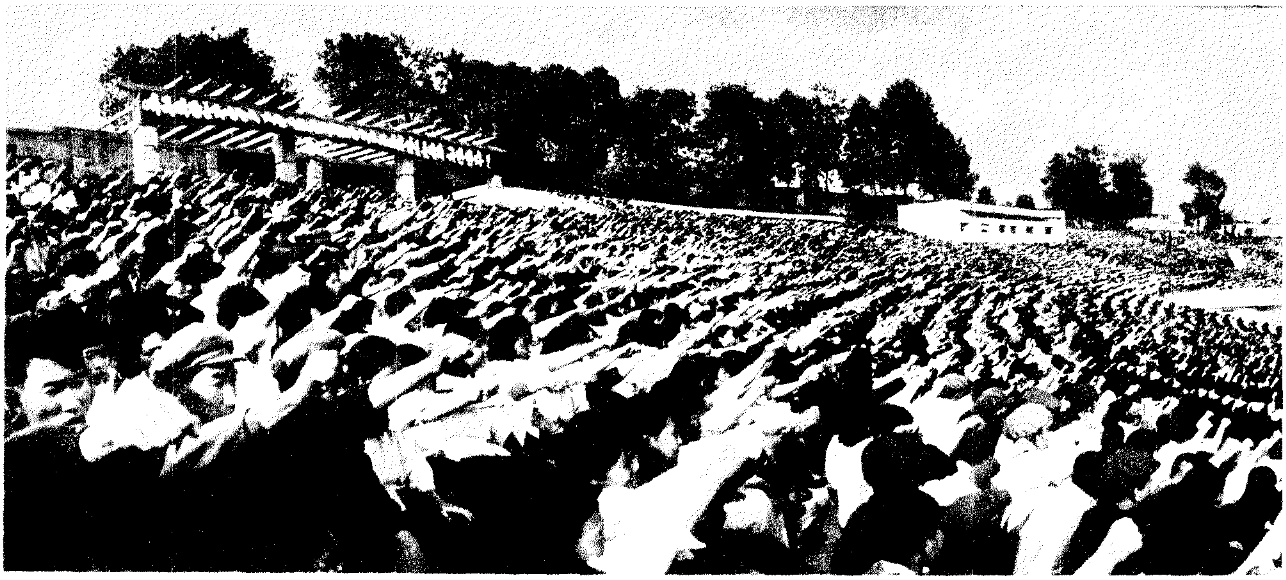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빛발아래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문화농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3대혁명전시관을 돌아보시였다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 참가자들



애국적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남조선괴뢰도당의 파쑈적탄압을 규탄하는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성토대회



《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매국역적을 규탄하는 군중대회장



박정희괴뢰도당과 일본당국자들의 음모책동을 규탄하는 군중시위

위대한 주체사상의 찬란한 승리, 세계사적사변!



로동신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일성

위대한 주체사상의 찬란한 승리, 세계사적사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로동신문

수령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만세!

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신또하나의크나큰배려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취하신 획기적조치

공업상품의 값을 평균 30%, 최고 50%까지 낮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공업상품의 값을 낮출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년말특별상금을 줄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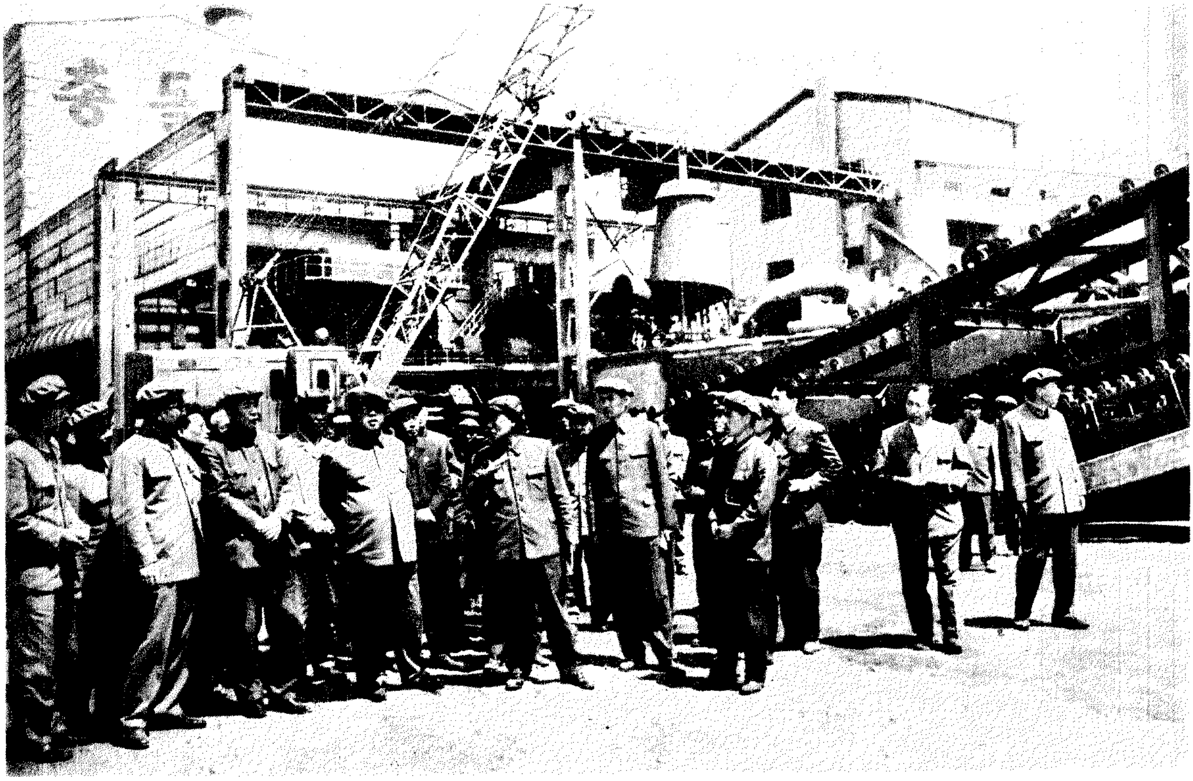
김일성

년말특별상금을 줄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에 접하여 환호를 올리는 방직전사들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채택되였다는 기쁜소식을 듣고 끝없는 감격과 흥분에 싸인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 로동자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새로 웅장하게 일떠선 련속식소결로를 돌아보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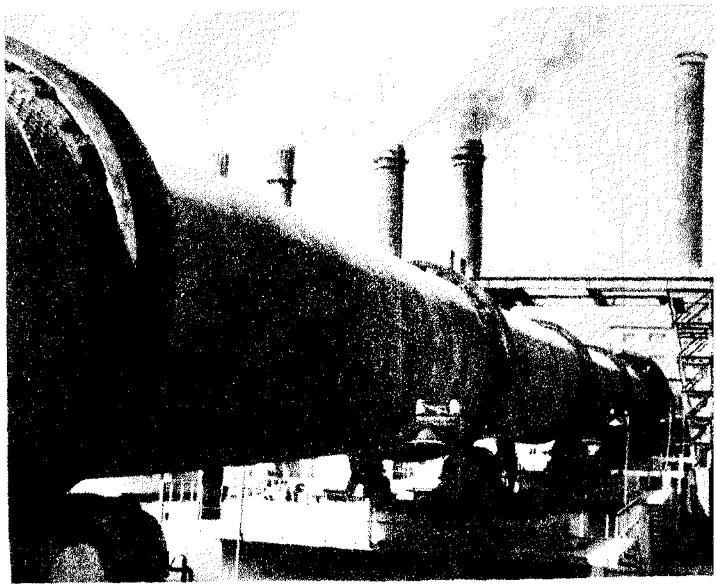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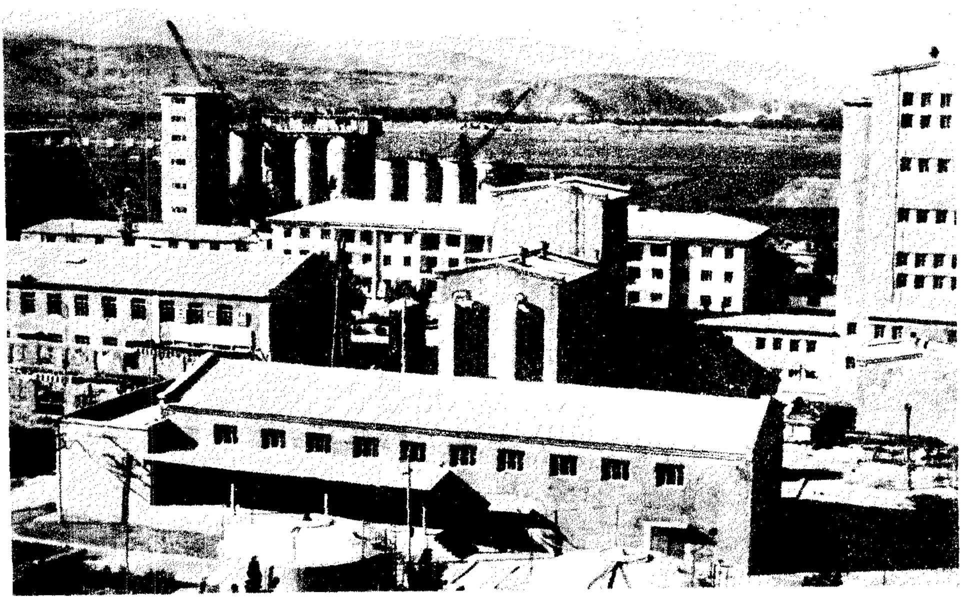
《속도전》의 진군나팔소리 드높이 새로 일떠서는 나라의 대화학공업기지



탄광, 광산 작업을 대형화, 고속도화하고
운반을 다양화하여 채굴공업을 가공공업에
앞세웠다

2.8세멘트공장에 새로
대형소성로가 일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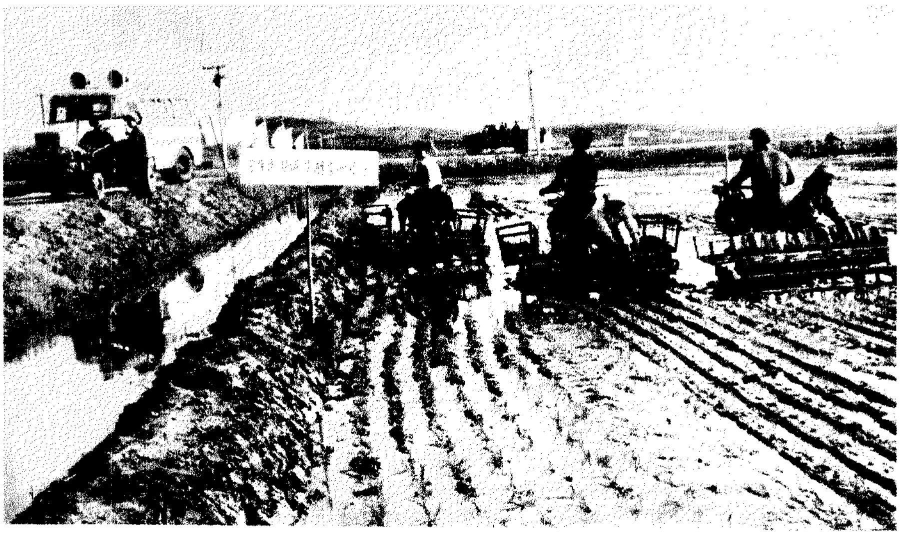




각도마다에 현대적곡산공장들
건설되였다



위대한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해마다 결산분배장은 노래와 춤으로 흥성거린다



농민들은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된다

알곡풍년, 남새풍년에 과일풍년이 겹쳐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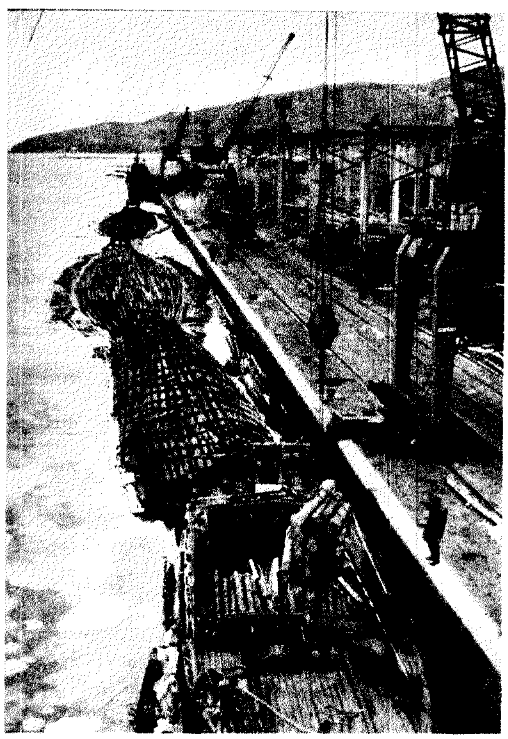




온 나라에 삼화(삭도화, 관화, 벨트콘베아화)수송체계를 세운다



집중수송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더많은 짐을 실어나른다



해상운수도 빨리 발전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각색한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보시고 예술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나는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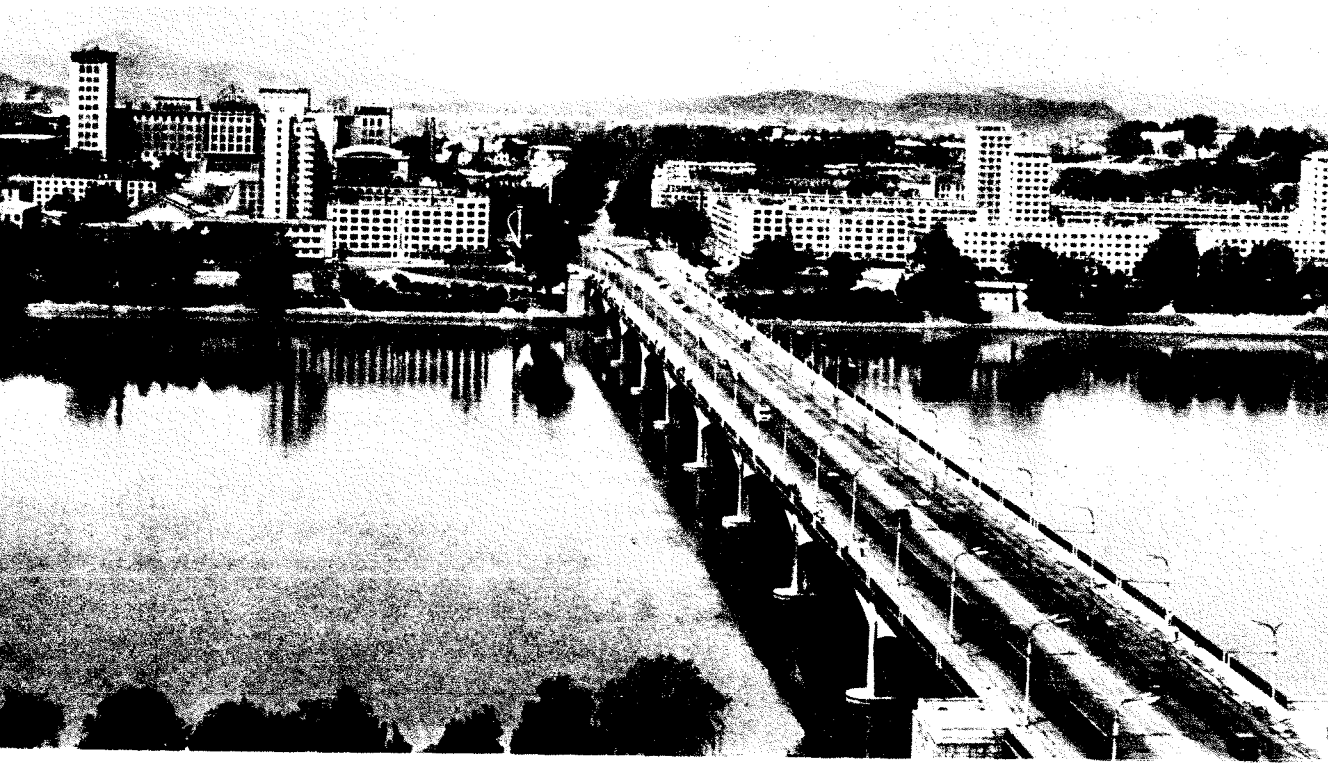
혁명의 수도 평양의 보통강반에 새로 일떠선 인민문화궁전



←불후의 고전적명작인 우리 나라 천연색광폭예술영화 《꽃파는 처녀》에 대하여 광범히 보도한 홍콩신문들

우리 나라 평양예술단 예술인들은 이딸리아에서 《우니따》축전공연을 대성황리에 진행,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이딸리아 볼로냐시 관람자들의 절찬속에 힘있게 울려퍼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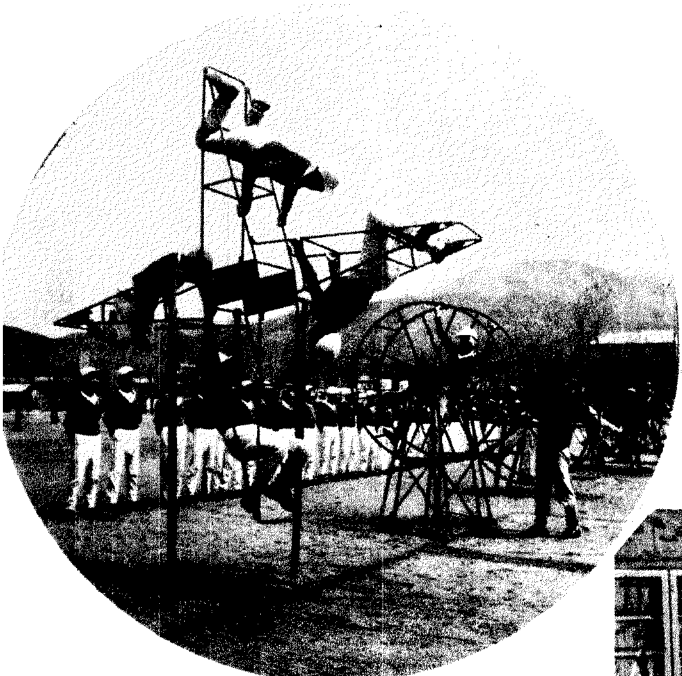
륭성번영하는 혁명의 수도 평양시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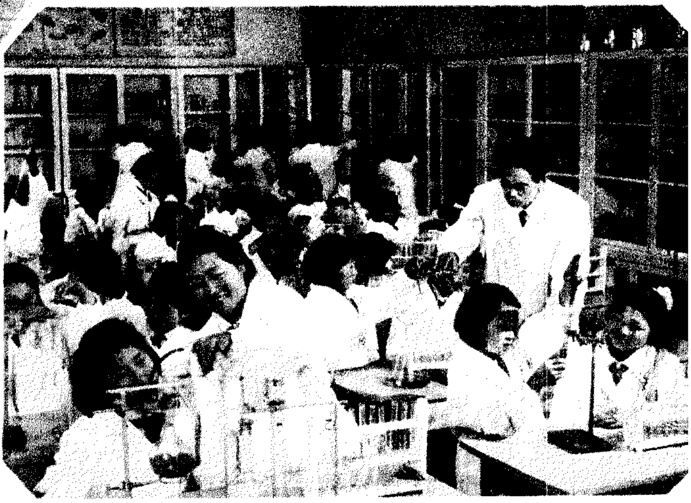
우리 나라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높은
배려가 돌려지고있다



《우리는 행복해요》



여러가지 체육설비를 갖추어 놓고 모든
학생들이 몸을 튼튼히 단련하고있다



배운 리론을 실험실습을 통하여 익힌다



재일본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학생들속에 계시는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학교에서 새학년도 입학식을 진행하는 도꾜조선제1초중급학교 재일동포자녀들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통치를 반대하며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가두시위를 벌리고있는 《한국신학대학》학생들



←학원의 자유를 위하여 가두시위에 떨쳐나선 서울의 청년학생들



박정희살인악당들의 파쑈적《유신체제》를반대하며 학원의 자유를 위하여 떨쳐나선 고려대학교 학생들



← 남조선괴뢰도당의 언론탄압에 항거하여 언론자유수호를 위한 투쟁 결의를 다지는 《동아일보》기자들

반파쑈민주화투쟁에 일떠선 인민들을 탄압하는 남조선 괴뢰악당들





↑반파쑈민주화투쟁에 일떠선 남조선종교인들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남조선학생들과 각계인사들의 가족들이 미제《대사관》앞에서 항의투쟁을 벌리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인 정책으로 생활아닌
생활을 강요당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참상



고역에 시달린 남조선로동자



한창 배워야할 나이에 끼니를 이어가기 위하여 오물통에서
주은넝마를 짐수레에 싣고가는 남조선의 넝마주이소년들



일자리를 구하려고 떠나는 남조선녀성들의 모습

일자리를 찾아다니다가
맥없이 주저앉은 남조
선의 한 실업자의 모습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로정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12년 4월 15일 평양시 만경대(당시의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남리)의 한 빈농가의 가정에서 탄생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정은 19세기 60년대로부터 대대로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워온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이였다.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과 할아버님이신 김보현선생님, 할머님이신 리보익녀사께서는 외래침략자들에 항거하여 강의하게 싸우신 열렬한 애국자들이시였다.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은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전생애를 바쳐 싸우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시며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교육자이시였다.

어머님이신 강반석녀사는 혁명가의 안해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낳아키우신 조선의 어머니로서 자신의 모든것을 오직 조국의 광복과 녀성해방을 위하여 다 바쳐싸우신 열렬한 혁명투사이시며 우리 나라 공산주의녀성운동의 시초를 열어놓으신 조선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다.

삼촌이신 김형권선생님과 첫째 동생인 김철주동지께서도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잡고 몸바쳐 싸우신 열렬한 공산주의자이시였으며 불굴의 혁명투사이시였다.

사촌동생이신 김원주선생님 역시 항일무장투쟁에 호응하여 지하혁명조직을 뭇고 일제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한 열렬한 혁명투사이시였다.

외할아버님이신 강돈욱선생님은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교육자이시였으며 외삼촌이신 강진석선생님도 조국광복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신 열렬한 반일혁명투사이시였다.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부모님의 애국주의교양과 혁명적영향을 받으시는 한편 민족적 및 계급적모순에 가득찬 당시 사회의 모진 풍랑과 시련을 겪으시면서 성장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린 시절을 만경대에서 보내시였으며 그후 아버님의 혁명투쟁로정을 따라 중강, 림강, 팔도구 등지로 자리를 옮겨가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우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버님의 높으신 뜻을 받드시고 12살 어리신 나이에 혼자몸으로 팔도구로부터 만경대에 이르는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여 1923년부터 1925년 2월까지 창덕학교에 다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25년 2월중순 아버님께서 또다시 일제경찰에 체포되시였다는 소식을 받으시고 일제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기어코 원쑤를 갚고 나라를 찾고야 돌아오리라는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만경대를 떠나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시여 압록강을 건느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때를 회상하시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열네살 때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하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나는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수 있을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날은 과연 언제일가, 이렇게 생각하니 어린 마음에도 슬픔을 금할수 없었습니다.》(《김일성선집》, 1권, 1963년판, 11페지)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온생애를 바쳐오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조국광복의 뜻을 이루지 못한채 1926년 6월 5일 애석하게도 세상을 떠나시였다. 아버님의 서거는 위대한 수령님께 강한 사상적충격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버님의 뜻을 이어 기어이 조국을 찾고야 말 굳은 맹세를 다지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활동개시, 길림을 중심으로 혁명투쟁을 진행 (1926. 6～1930. 5)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26년 6월에 아버님의 친우들의 주선으로 화전현에 있는 화성의숙에 입학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주의사상으로 일관된 화성의숙의 교육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으며 독립운동자들의 낡은 활동방식으로써는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할수 없다고 단정하시고 혁명투쟁의 새로운 길을 탐색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맑스-레닌주의선진사상을 연구하기 시작하시였으며 이 과정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을 가지시게 되였으며 화성의숙안의 선진적인 청년학생들에게 비밀리에 맑스-레닌주의를 꾸준히 해설선전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시여 1926년 10월 17일 우리 나라에서의 첫 혁명적 청년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략칭은 《ㅌ.ㄷ》)을 결성하시였다.

이때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이 시작되였으며 그이께서는 혁명적청년학생운동의 지도자로 활동하시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할 원대한 포부를 안으시고 타도제국주의동맹성원들과 후날 길림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단연 화전을 떠나시여 길림으로 가시였다. 길림으로 가시던 도중 그이께서는 무송에 들리시여 1926년 12월 15일 우리 나라에서의 첫 소년혁명조직인 **새날소년동맹을 조직하시였다.** 한편 그이께서는 어머님이신 강반석녀사께서 부녀회를 조직하시는 사업을 적극 도우시였다.

혁명활동의 중심지를 길림으로 옮기

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27년 1월 17일 육문중학교에 입학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학교에 적을 두시고 《ㄹ.ㄷ》성원들을 지도하시면서 맑스-레닌주의를 더욱 깊이 연구하시였으며 한편 길림시내의 여러 학교들에 비밀리에 맑스-레닌주의연구소조를 조직하시고 청년학생들속에 맑스-레닌주의를 정력적으로 해설선전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27년 봄에 길림시내의 조선인소년들을 망라한 합법적조직인 조선인길림소년회를 조직하시였으며 또한 민족주의자들의 후원을 받고있던 길림시내의 조선인류학생들의 친목단체였던 조선인려길학우회를 조선인류길학우회로 개편하시고 지도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27년 여름에 《ㄹ.ㄷ》의 명칭을 반제청년동맹으로 고치시고 그 조직을 중남만의 농촌청년들속으로 확대하여 나가시는 한편 반제청년동맹을 비롯한 반일청소년단체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혁명조직인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조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28년부터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을 길동지구와 길장철도(길림—장춘)연선의 조선인 농촌들에 파견하시여 농민군중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리도록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27년 겨울방학때 반제청년동맹의 핵심청년들과 함께 무송에 가시여 백산청년동맹을 조직하시였으며 1928년 1월 15일에는 신문《새날》을 창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계층별 준비정도에 맞게 부녀회를 비롯한 대중단체들을 조직하도록 하시고 여기에 광범한 군중들을 묶어세우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무송지방을 비롯한 광범한 지역들이 급속히 혁명화되여갔으며 혁명의 대중적지반이 튼튼히 꾸려졌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28년 여름에 반동군벌들과 반동교원들을 반대하여 학교안의 민주주의적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동맹휴학을, 이해 가을에는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과 일본상품배척투쟁을 조직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투쟁을 통하여 일제와 반동군벌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고 조중인민의 정치적각성을 높여주시였으며 혁명조직들에 망라된 청년학생들은 물론 광범한 군중을 실천투쟁을 통하여 단련시키고 많은 청년학생들을 혁명조직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길림에서 청년학생들과 대중을 지도하시는 한편 청년학생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려는 종파분자들의 기회주의적리론의 본질과 책동을 폭로분쇄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29년 10월에 체포되시여 옥중투쟁을 벌리시며 조선혁명의 장래발전을 위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그이께서는 1930년 5월 길림감옥에서 나오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제시, 항일무장투쟁을 위한 준비 (1930. 6~1931. 1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길림감옥에서 출옥하신후 곧 혁명조직을 수습정비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시고 원쑤들의 백색테로가 횡행하는 돈화지방으로 가시였다.

돈화에 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일대의 파괴된 혁명조직을 수습하시는 한편 5.30폭동이 일어난 간도지방의 형편을 더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리고 각지의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지도성원들에게 카륜으로 모이라는 련락을 띄우시고 자신께서도 그해 6월중순에 카륜에 가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카륜에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성원들의 회의를 소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회의에서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혁명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천명하시고 항일무장투쟁로선과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 맑스-레닌주의당창건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조선혁명은 비로소 자기의 정확한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가지고 옳바른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조선혁명은 그이께서 밝히신 승리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이때로부터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과 조선공산주의운동은 일대전환의 새시대에 들어서게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카륜회의후 1930년 7월 6일 이통현 고유수에서 항일무장투쟁의 준비를 위하여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로써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시였다. 조선혁명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조직준비를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정치 및 반군사적 조직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첫 혁명적무장소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군을 여러 소조로 편성하시여 무장을 준비하고 군사경험을 습득하도록 하시는 한편 도시와 농촌의 광범한 지역에 조선혁명군소조들을 파견하시여 그들로 하여금 반일단체를 조직하여 해당 지역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카륜에서 이미 조직하신 반제청년동맹, 부녀회, 농민협회 등 대중단체들의 조직체계를 재정비하시고 주민들을 계층별로 해당한 조직들에 망라시켜 그들에게 반일애국주의교양과 계급교양을 강화하심으로써 이 일대를 점차 혁명적인 농촌으로 꾸리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 카륜에 4년제 진명학교를 세우시고 면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시였으며 학생들로 소년탐험대를 조직하시고 비밀통신련락, 보초근무, 선전물의 배포, 연예대의 활동 등 혁명임무수행을 통하여 그들을 사회정치활동가로 키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교를 거점으로 야학을 운영하여 농촌청장년들을 계몽시키는 한편 강연, 단기강습을 자주 조직하시여 대중의 계급의식과 반일애국사상을 높여주시였으며 시종일관 청년들을 주체사상으로 교양하시였으며 언제나 준비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혁명투쟁에 몸바쳐나설수 있도록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준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카륜에서 활동하시는 기간 이통현 고유수일대의 농촌들에 자주 나가시여 그 지역을 혁명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직접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지방

에서도 반일대중단체들을 조직하시고 군중들을 결속하여 혁명적으로 교양하시는 한편 고유수에 삼광학교를 세우시고 여기에 2년제 고등과를 병설하여 각 지방들에서 추천하여 보낸 소년탐험대 및 소년선봉대원들을 받아 교양훈련하시면서 그들을 믿음직한 혁명의 후비대로 준비시키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카륜, 고유수 일대에서 활동하신 기간 잡지 《볼쉐위크》를 비롯한 혁명적출판물들을 발간하시여 광범한 대중을 반일애국사상과 혁명사상으로 교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군중문화예술을 통한 대중정치교양에도 많은 힘을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 직접 창작하신 수많은 혁명가요와 가극 《꽃파는 처녀》, 연극《지주와 머슴군》, 풍자극 《성황당》등 수많은 혁명적문예작품들은 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하는데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시기 여러지역에서 활동하고있는 조선혁명군 소조들과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기 위하여 로로즈를 비롯한 여러곳에까지 자주 가시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이시기 조선혁명군 성원들을 정치군사적으로 준비되고 능숙한 군중공작방법을 소유한 유능한 혁명가로 육성하시기 위하여 조선혁명군성원들의 단기강습과 군사훈련을 몸소 조직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게 몸소 육성하신 일군들을 도시와 농촌에 파견하시여 대중속에서 정치교양사업을 진행하며 반일력량을 결속하고 혁명조직을 확대하여나가도록 하시였다. 특히 그이께서는 조선혁명군성원들을 국내와 길동지구 및 중부만주의 도시와 농촌들, 안도, 장백, 림강, 무송, 할빈과 장춘사이의 철도연선일대에 파견하시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활동과 지도에 의하여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이 튼튼히 꾸려지고있었으나 종파사대주의자들이 1930년 8월 1일에 일으킨 무모한 폭동으로 말미암아 투쟁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도시와 농촌의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바로 잡기 위한 길에 몸소 나서시였다.

그이께서는 길림에 가시여 혁명조직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다음 파괴된 조직들을 수습하시고 해룡—청원사이에 있는 혁명조직들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해룡으로 가시여 2～3일간 묵으신 다음 청원으로 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일대의 지하혁명조직들을 수습하시고 그 성원들에게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청원을 떠나 길림을 거쳐 교하로 가신 그이께서는 이 일대의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바로잡으신후 적들의 백색테로가 판을 치고있는 할빈으로 가시였다. 적들의 감시망을 벗어나시기 위하여 그이께서는 백계로씨야인이 경영하는 고급려관에 숙소를 정하시고 하루 한끼의 식사를 제일 값눅은 강냉이집으로 에우시면서 혁명조직들을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할빈에서 10여일간 긴장된 나날을 보내신 다음 돈화에 오시여 파괴된 조직을 수습하시였으며 여러곳에 흩어졌던 혁명동지들을 집결시키고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돈화에서 일을 마치신 다음 이통현 고유수에 들리시여 이곳 혁명조직들을 지도하신후 동지들과 함께 1930년 가을에 오가자로 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오가자에서 낮에는 밭에서 농민들의 일손을 도우시면서 그들을 교양하시는 한편 조선혁명군 성원들로부터 사업보고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과업을 주시였으며 밤이면 잡지《농우》를 비롯한 혁명적출판물발간사업을 지도하시기에 밤을 지새우시거나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시기 위한 밤길을 걸으시군하시였다.

이 시기부터 혁명동지들과 혁명적군중들은 그이를 김일성동지라고 부르며 무한히 신뢰하고 존경하였다(이전까지는 김성주동지로 불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의 로골적인 만주침공준비에 대처하여 이미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실천에 옮기실 계획밑에 1931년초에 우리 나라 북부국경지대인 두만강연안으로 혁명활동거점을 옮기시였다.

그이께서는 두만강연안으로 나오시는 길에 먼저 돈화에 들리시여 지하공작방법을 가르쳐주는 강습을 조직하시고 여기에 참가한 조선혁명군대원들과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원들에게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추켜세울데 대한 임무를 주시고 두만강연안의 여러 도시와 농촌에 파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머님이 계시는 안도현 흥륭촌에 잠간 들리셨다가 화룡현 대랍자에 나가시여 20여일간을 머무르시면서 이미 파견하신 지하공작원들과 혁명조직책임자들을 부르시기도 하고 직접 찾아보시기도 하시면서 그들의 사업에서 걸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그후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으시고 룡정과 왕청 등지에 들리시여 그곳 혁명조직들을 지도하신 다음 명월구로 자리를 옮기시였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에 계시면서 전반적인 혁명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시는 한편 몸소 농민복차림을 하시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혁명력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여 그들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우시고 투쟁에로 궐기시키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1년 5월 20일 연길현 명월구에서 당 및 공청 간부회의를 소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회의에서 하신 연설 《좌경적모험주의로선을 배격하고 혁명적조직로선을 관철하자》에서 5.30폭동의 교훈을 심각히 분석총화하시고 무장투쟁을 위한 혁명력량을 충분히 준비할데 대한 전투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명월구회의후 혁명적조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안도현으로 가시였다. 흥륭촌에 도착하신 그이께서는 두만강연안일대의 혁명조직들과 각 현에 파견하신 정치공작원들의 사업을 지도하시면서 흥륭촌, 류수허, 대사하, 소사하, 송강 등 여러 지방의 혁명군중들을 조직에 묶어세우며 무장투쟁의 터전을 닦는데 힘을 넣으시였으며 쓰우리촌에도 자주 가시여 그곳 청소년들을 반일사상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몸소 조직진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두만강연안을 비롯한 동만일대의 그 어느곳이나 혁명조직이 뿌리박게 되였으며 광범한 군중이 혁명조직들에 결속되여갔으며 조선혁명은 새로운 높은 단계인 항일무장투쟁단계에로 발전할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져갔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항일무장투쟁의 강화발전 (1931. 12~1936.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가 1931년 9월 18일에 《만주사변》을 일으킨 직후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안도(송강)에서 지방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회의에서 《9.18사변》과 관련하여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지체없이 무장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시면서 모두다 손에 무장을 잡고 조국의 광복을 위한 반일성전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무장을 잡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 조성된 정세는 우리가 무장을 잡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앉아서 한탄하거나 적들의 귀축같은 만행을 보고 아우성이나 치는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들은 일어나 손에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한다.…

회의후 그이께서는 무장투쟁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정력적으로 밀고나가시였다.

이 시기 국내와 동만의 각 지방에서는 일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졌으며 그것은 점차 폭동적성격을 띠고 급속히 확대발전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동만일대에서 벌어진 10여만 농민의 **추수투쟁은**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1년 12월 16일(음력 11월)에 연길현 **명월구에서 당 및 공청간부회의를 소집하시였다.** 회의에서 그이께서는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이 력사적인 연설에서 일제의 만주강점으로 인하여 조성된 국내외정세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력사적교훈을 심오히 분석하시고 이미 제시하신 로선에 따라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명월구회의후 **안도**로 가시여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면서 우선 조선혁명군성원들과 지하공작원들을 동만각지에 파견하시여 그들로 하여금 지하혁명조직들을 도와서 반일대중투쟁을 강화하고 실지투쟁속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들을 무장성원으로 받아드리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각지에 파견하신 지하공작원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시는 한**편 안도현 흥륭촌, 소사하, 대사하**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혁명조직에 **나가시여** 인민대중을 반일투쟁에로 조직동원하시면서 지하혁명투쟁의 간고한 시련속에서 자라난 우수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을 무장성원으로 묶어세우시였다. 그이께서는 몸소 가장 어려운 지역에 나가시여 마을을 혁명화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동지들이 그이의 신변을 념려하여 굳이 만류하였으나 오직 혁명을 위하여 밀정이 박혀있어서 정치공작원들이 발을 붙일수가 없었던 **푸르허근방의** 한 **농촌마을에 《머슴군》으로 가장하시고 들어가시였다.** 그이께서는 무시로 닥쳐오는 위험을 물리치시며 비범한 솜씨로 불과 한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마을을 혁명화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편 조선혁명군 대원들과 공청원, 반제청년동맹원 그리고 각지의 혁명조직들에서 선발되여온 핵심청년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시며 무장대오를 꾸리시기 위한 사업을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2년 봄에 불과 서너명의 동지들을 데리시고 당시 포악하기로 이름난 **반일부대사령부가 주둔하고있는 안도시가로 대담하게 들어가시여 그들과 직접 담판**하심으로써 반일유격대의 결성앞에 조성되였던 난관을 타개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앞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난관들을 물리치시고 1932년 4월 25일에 **안도**에서 조선혁명군성원들과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을 골간으로 하여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우리 나라에서 첫 혁명무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사변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의 창건은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에서 승리의 새시대를 알리는 위대한 선언이였으며 일제의 패망을 선포하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갓 조직된 조선인민혁명군을 빠른 시일안에 대부대의 혁명무력으로 확대강화하시기 위하여 선진적인 애국청년들을 받아들이시는 한편 몸소 키우신 우수한 대원들을 왕청, 연길을 비롯한 여러지역들에 파견하시여 조선인민혁명군대오를 확대강화하도록 하시였으며 이와 함께 조선독립군과의 통일전선을 형성하며 중국인반일부대들과의 반일공동전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쓰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2년 6월에 **항일유격대 일부부대를 친솔하시고 소사하를 떠나 남만으로 가시였다.** 이에 앞서 그이께서는 병석에 계시는 어머님이 걱정되시여 좁쌀 한말을 사가지고 집에 들리시였다.

소사하를 떠나 무송현일대를 거쳐 수십일의 간고한 행군끝에 통화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독립군사령 량세봉을 만나 반일민족통일전선의 필요성을 해설하시고 서로 힘을 합쳐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울것을 강조하시였으며 독립군병사들앞에서 연설을 하시였다.

후날 이들은 반일민족통일전선의 정당성을 깨닫고 조선인민혁명군에 편입되여 용감히 싸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를 친솔하시고 통화를 떠나 류하에 가시여 잠시 머물러계시면서 군중들속에 혁명적영향을 주신다음 몽강현에로 진군하시였다.

그이의 지도밑에 항일유격대는 몽강일대에 약 2개월동안 주둔해있으면서 수많은 조선청년들을 교양하여 대오를 확대하였으며 수많은 무기도 마련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몽강에서 무장투쟁의 영향력을 확대하신다음 장성된 대오를 거느리시고 1932년 9월에 **안도현 량강구**에 오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량강구에서 항일유격대 지휘간부들과 반일부대에 파견된 정치공작원들의 회의를 소집(1932. 9)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회의에서 일부 사람들의 반일부대와의 공동투쟁을 벌리는것을 의의없는 일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릇된것임을 지적하시고 반일부대들과의 공동투쟁을 계속 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회의후 수많은 유격대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반일부대와의 사업을 위하여 동만, 남만, 북만의 각지로 떠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량강구에 머무르시는 동안 잠시 시간을 내시여 어머님을 만나뵈우시려고 소사하로 가시였다. 그러나 그때는 어머님께서 이미 세상을 떠나신 뒤였다. 그이께서는 어머님을 여의고 의지할곳이 없게 된 두 동생의 뒤일을 이웃사람들에게 부탁하시고 량강구로 돌아오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날로 우심하여가는 적들의 발광적인 공세에 대처하여 지방조직들과 갓 조직된 유격대오들을 튼튼히 꾸리시기 위하여 또다시 친솔부대에서 많은 대원들을 안도를 비롯한 동만 각지에 파견하신 다음 부대를 거느리시고 돈화, 남호두를 거쳐 1932년 10월에 왕청현 라자구에 이르시여 이곳에서 반일병사위원회를 소집하시고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릴데 대한 량강구회의의 방침을 더욱 구체화하시였다.

라자구회의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흑산으로 가시여 이곳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남북만일대에로의 진출과정의 정치군사적활동을 총화하시고 장차 항일무장투쟁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로흑산의 깊은 산중에서 1932년말～1933년초에 걸쳐 항일유격대원들의 정치적 및 군사적 자질을 한층 높이기 위한 훈련을 조직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3년 1월 로흑산을 떠나시여 전각루, 요영구, 소북구를 거쳐 소왕청, 마촌에 이르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근거지에 도착하시자 곧 머나먼 행군의 피로도 푸실사이없이 종파사대주의자들과 좌경기회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유격근거지에 조성된 복잡한 사태를 수습하는 어려운 투쟁을 조직지도하시는 한편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국내에서의 혁명투쟁을 강력히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전술적계획을 짜시고 국내 혁명조직에 대한 지도의 길에 오르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부대를 친솔하시고 두만강연안 량수천자의 솔골을 거쳐 두만강을 건느시여 온성 왕재산에 이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온성일대의 지하혁명조직책임자들과 정치공작원들을 만나시여 국내형편과 지하혁명조직들의 활동정형을 상세히 료해하신데 기초하시여 1933년 3월 11일 력사적인 왕재산회의를 소집하시고 항일무장투쟁개시후 1년간의 투쟁행정에서 이룩된 거대한 성과와 당시 조성된 새로운 정세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시면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데 대한 전략적과업을 다시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왕재산회의후 소왕청 근거지에 돌아오시여 지체없이 온성일대의 지하혁명조직들에 대한 지도경험을 일반화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가장 곧바른 길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제반조치들을 취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3년 봄 왕청현 대방자에서 군사정치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먼저 유격근거지 창설이후 약 1년동안에 걸치는 당 및 공청, 반일회, 부녀회 등 각 혁명조직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으시였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종파사대주의자들과 좌경기회주의자들의 극좌적인 책동을 준렬히 폭로비판하시고 정권문제와 근거지형태문제, 반일공동전선문제에 대한 과학적이며 명확한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왕청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몸소 조직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완전유격구에는 인민혁명정부가 수립되고 제반 민주주의적개혁들이 성과적으로 실시되였다. 완전유격근거지주변의 광범한 지역과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반유격구들이 수많이 창설되였고 유격근거지는 빠른시일안에 공고화되여갔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근거지를 튼튼히 꾸리시면서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직사상적준비를 추진시키며 주체적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였다. 그이께서는 1933년 봄 소왕청유격근거지에서 국제공산당 파견원을 접견하시고 우리 혁명의 자주적립장을 밝히시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3년 5월에 종파주의를 청산하고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로작을 집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3년 3월에 왕청현공청확대회의에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 대하여 하신 연설에서 혁명조직을 확대하는데서 좌경적편향을 비판하시고 혁명조직을 급속히 확대하며 군중과의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방도를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격근거지안의 대왕청, 소왕청, 사수평을 비롯한 여러곳에 몸소 나가시여 그곳 사업을 료해하시고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맞는 군중정치사업방법을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의 민족리간정책과 종파분자들, 좌경기회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유격대와 반일부대들사이에 조성된 험악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1933년 6월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라자구에 주둔하고있던 반일부대사령부와의 담판을 진행하시여 그들과의 반제공동전선을 맺는데 성공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후 1933년 9월에 반일부대와의 대규모적인 련합작전으로 동녕현성진공전투를 승리적으로 진행하심으로써 반제공동전선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널리 시위하였으며 동요하던 반일부대들을 고무추동하고 그들과의 공동전선을 공고발전시키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모든 계급계층들과 세력들을 집결하여 혁명력량을 부단히 강화하시면서 적들의 침해로부터 유격근거지를 튼튼히 보위하고 그에 의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강력히 확대발전시켜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근거지창설초기부터 일제의 발광적인 《토벌》공세가 있을것을 이미 예견하시고 그에 대처하여 유격근거지를 튼튼히 보위하기 위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를 실현하기 위하여 당조직들과 대중단체들을 강화하여 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켜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튼튼히 꾸리시였다. 그리고 우수한 청년들로 유격대의 대렬을 계속 확대하시였으며 적위대, 반일자위대, 소년선봉대 등 반군사적조직을 무으시고 튼튼히 무장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적들의 무기를 빼앗는것과 함께 자체로 무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여 항일유격대의 무장을 강화하고 전민무장화를 실현하시였다. 여기서 1933년 3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휘밑에 단번에 많은 무기를 로획한 쟈피거우전투는 큰 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유격근거지에는 짧은 기간에 전민무장화와 근거지요새화에 의한 전인민적방위체계가 수립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3년 봄에 유격대의 활동과 유격전술에 대한 로작을 쓰시였다.

일제는 1933년 12월에 조선혁명의 심장부인 소왕청유격근거지를 일거에 소탕하려고 보병, 기병, 포병 등 5,000여명의 《최정예》를 자랑하는 지상부대와 항공대까지 동원하여 일시에 처들어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결정적인 시기에 적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근거

지를 수호하는 결전에로 항일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을 불러일으키시고 다양한 전법과 전술로써 달려드는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4년 1월초 근거지를 방어하던 유격대를 두개 부대로 편성하시여 한개부대는 근거지에 남아서 적극적방어전을 계속하게 하고 다른 한 부대를 친솔하시여 적의 2중3중의 포위망을 뚫고 대담하게 적후방깊이 들어가시여 도처에서 일대 소탕전을 벌리시여 놈들을 혼란에 빠뜨리신 다음 왕청시가를 들이쳐 놈들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타격을 주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령활한 유격전술에 의하여 40여일에 걸치는 적아간의 맹렬한 전투는 항일유격대와 유격근거지인민들의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후날 당시를 회상하시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유격근거지에서 4～5년동안을 적과 싸우면서 지탱해낼수 있은것은 결코 적들보다 무장이 좋거나 인원이 많아서가 아니였다. 우리는 적들보다 무장장비도 보잘것 없었으며 인원도 훨씬 적었으나 유격근거지에 튼튼히 의거하여 그 지대적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격전술과 투쟁방법들을 솜씨있게 적용함으로써 원쑤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줄수 있었다.…

일제의 수십만대군의 공격을 물리치고 유격근거지를 지켜낸 항일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의 영웅적투쟁은 영명한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나아가는 인민은 필승불패이라는것을 온세상에 시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렬한 전투를 조직지휘하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을 주체적인 혁명사상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교양하시여 그들에게 혁명승리의 확신을 안겨주시였으며 항상 인민들속에 나가시여 먹고 입는 문제로부터 자녀양육에 대한 문제, 로약자들의 부양과 병자들의 치료에 이르기까지 인민들의 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원쑤와의 싸움에서 장성강화된 유격부대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항일무장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키시기 위하여 1934년 3월 항일유격대의 조직체계를 몇개의 사단과 독립련대로 개편하시여 조선인민혁명군을 편성하시였다.

그이께서는 1934년 6월 조선인민혁명군의 각 부대에서 선발하여 편성한 독립련대를 근거지의 서남방향에 진출시켜 안도현 대전자일대를 장악하기 위한 전투를 조직하시였다. 또한 왕청과 훈춘에서 활동하던 인민혁명군부대들을 주력으로 하고 여기에 반일부대들을 인입하여 적의 요충지인 라자구에 대한 진공작전을 진행하시여 이 지역을 해방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큰 규모의 성시진공전투와 배합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각 부대들을 근거지주변의 도처에 진출시켜 적후방을 교란하는 적극적인 전투활동을 부단히 벌리시여 적을 강력히 타격하는 동시에 적군와해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직지도하시여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였다.

1934년 가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한부대를 거느리시고 력사적인 제1차 북만원정의 길에 오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혁명군대원들을 령솔하시고 험준한 로야령을 넘으시여 녕안현일대에서 적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으며 이 일대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고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곳 유격부대들을 정치군사적으로 꾸려주시고 친솔하신 인민혁명군부대들에서 기본력량을 근거지로 먼저 떠나보내신 다음 남은 소부대를 인솔하시고 귀로에 오르시였다.

하루에도 여러차례 적들과 싸우면서 설한풍과 생눈길을 헤치며 나가는 간고한 행군도중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만 혹한을 만나시여 앓아누우시게 되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40도를 오르내리는 고열의 몸이심에도 시를 쓰시고 노래를 지어 대원들을 고무하시면서 부대를 지휘하시였다.

부대가 전투에 전투를 거듭하면서 피로써 앞길을 헤치고 천교령의 한 목재소에 이르렀을 때 위대한 수령님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였으며 적들은 가까이 뒤따르고 앞길은 막혀있었다. 부대는 실로 위급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때에 목재소에서 일하는 한 조선로인이 앓고계시는 분이 바로 민족의 영웅이신 김일성장군이시라는것을 알고 그이를 위해 한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면서 길안내에 나섰다.

로인의 희생적인 도움을 받아 적의 2중3중의 포위를 무사히 벗어났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야령마바지의 외딴집에서 사는 조선인일가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15일동안 병치료를 하시고 1935년초에 왕청유격근거지로 돌아오시였다.

근거지로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원정과정의 피로도 푸실사이없이 일제의 《최종토벌》을 결정적으로 격파하기 위하여 각 현들에서 활동하는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을 지휘하시는 한편 1935년 3월 몸소 왕청현 천교령습격전투를 지휘하시여 적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만으로 원정하신 동안에 민족배타주의자, 종파사대주의자들이 반《민생단》투쟁을 극좌적으로 벌리면서 다시금 반혁명적인 책동을 감행함으로써 혁명대렬안에서는 공포와 불안, 호상불신임이 극도에 달하고있었다.

조선혁명은 실로 엄중한 위기를 겪고있었다.

간고한 원정의 길에서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병으로 쇠약하여지신 몸을 돌볼사이도 없이 이 엄혹한 위기를 한몸으로 막아나서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5년 2월말～3월초에 력사적인 다홍왜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민족적혁명임무를 부인해나선 민족배타주의자들의 부당한 견해를 신랄히 폭로규탄하시고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과 자주적인 립장을 정정당당하게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반《민생단》투쟁을 악용하여 혁명력량을 말살하기 위하여 날뛰고있는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범죄적인 책동들을 신랄히 폭로 규탄하시고 혁명대렬의 통일단결을 수호할것을 명시하시였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반《민생단》투쟁을 바로잡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이 투쟁에서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하여서도 다시금 밝히시였다.

반《민생단》투쟁문제는 다홍왜회의후 그해 3월 하순에 열렸던 요영구회의에서 최종결정을 짓게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5년 3월 하순 요영구회의를 소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회의에서 유격근거지 해방지구를 해산하고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을 광활한 지대에 진출시켜 적극적인 공세에로 넘어갈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반《민생단》투쟁에서 발로되였던 후과를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혁명의 리익에 맞게 정확히 조직진행할데 대한 과업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영구회의에서 토의결정된 방침에 따라 일부 부대를 돈화, 교화일대로 진출시

키시였으며 또 일부 부대들은 남만에서 활동하고있던 항일무장부대들과의 련계밑에 서남방향에서 활동하게 하시였다. 그리고 일부 부대를 조선의 북부지방에 진출시키시여 정치군사활동을 벌리게하시였다.

그러신 다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북만원정의 길에 오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로흑산방향으로 행군하시는 도중 래평구촌에 들리시여 《정안군》놈들에게 무참히 학살된 삼도하자마을의 희생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조직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광범한 인민들에게 원수 일제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진행하시였다. 그후 그이께서는 로흑산전투와 래평구전투를 조직지휘하시여 적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안겨 섬멸적인 타격을 주고 많은 군수물자를 로획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솔하신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태평구를 출발하여 석두하자, 삼도하자를 거쳐 로야령 산맥의 깊은 수림에 들어가서 2일만에 팔인구에 도착하였으며 다음날 험준한 로야령을 넘기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행군을 계속하시면서도 대원들이 힘들어하면 그들의 배낭과 무기도 메다주시였고 휴식할 때면 피로를 무릅쓰시고 혁명가요를 지으시여 대원들이 부르도록 하시였으며 해방된 조국의 찬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대원들을 고무해주시기도 하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한 중대에 내려가시여 친히 당회의까지 지도하여주시였다.

로야령을 넘어 녕안현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북만에서 활동하는 인민혁명군 부대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시는 한편 적극적인 군사활동을 벌리시였다.

그후 그이께서는 녕안현 이도하자와 삼도하자 지방을 거쳐 1935년 7월에 산동툰부근에 진출하시여 포병, 기병, 보병 등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공격하여온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겼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산동툰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신 다음 녕안현방향으로 집중하는 적들을 분산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는 동시에 보다 넓은 지역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벌리기 위하여 원정부대를 여러개 부대로 편성하시여 한 부대는 왕청, 훈춘 방면으로 진출시키고 다른 한 부대는 녕안일대에서 계속 활동하게 하시고 자신께서는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액목방향으로 진격하시였다.

그이의 친솔밑에 1935년 8월에 경박호를 은밀히 건느시여 액목일대에 진출한 인민혁명군부대는 이 일대에서 대중정치사업을 적극 벌리였으며 1935년 9월에 추격하여온 일제수비대를 전멸시킨 청구자전투를 비롯하여 이해 가을과 겨울에 남천문부근전투, 말리거우전투, 류차구전투 등 수많은 전투를 진행하여 적들에게 련속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의 새로운 일대 앙양(1936. 2～1940. 8)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6년 2월 27일 남호두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회의에서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시였다. 이 력사적인 보고에서 그이께서는 조성된 국내외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주체적혁명로선에 기초하시여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앙양에로 이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호두회의후 혁명운동의 일대앙양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를 거느리시고 백두산서남부에로 진군하시였다. 협산준령을 넘으시고 밀림속 천리눈길을 헤쳐나가시는 어려운 행군길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전도와 당면한 전략적문제들에 대하여 깊은 사색을 거듭하시며 조선인민에게 안겨주실 혁명의 무기와 전술을 하나하나 마련해가시면서 1936년 3월초에 안도현 미혼진에 이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이곳에서 병치료를 받고있는 대원들과 침식을 같이 하시면서 치료대책을 세워주시며 식량과 부식물을 해결해주시는 등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였으며 남호두회의방침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혁명의 당면과업과 전도에 대하여 해설해주시였다. 또한 이곳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 4사, 5사, 독립려단의 력량을 재편성하시였으며 제6사를 새로 조직하는 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후 북만에서부터 데리고 나오신 두개 중대를 도로 의산현방면으로 보내시고 자신께서는 불과 몇명의 호위병만 데리시고 무송, 장백방면으로 떠나시였다. 그이께서는 무송땅에 들어서자 먼저 마안산에 들리시여 민족배타주의자들에 의하여 버림받은 생활을 하고있던 수십명의 아동단원들을 친어버이사랑으로 극진히 보살펴주시고 그들의 절절한 요구대로 모두 데리고 떠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안산밀영에서 얼마 떨어진 수림속에서 새로운 사단을 편성하는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당시 이곳에는 6사부대를 편성하기 위하여 4사로부터 넘겨받기로 하였던 100여명의 대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민생단》혐의를 받은 탓으로 전투대렬에서 떨어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흘동안이나 회의를 하시면서 이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동무들은 오늘 누가 《민생단》이고 누가 《민생단》이 아니라고 결론하기는 곤난하다. 왜냐하면 그것을 누구도 증명할수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동무들에게 오늘 선포할것은 지금 이 자리에는 《민생단》은 한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동무들자신이 다 《민생단》이 아니라고 하기때문이다.

…《진술서》요, 《조사서》요, 《증거문건》이요 하는 이 《문서》보따리보다도 동무들자신이 혁명의 길에서 싸우겠다는 그 결의를 나는 믿는다.…

그이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앞에서 《민생단》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문건》을 불살라버리시고 주저없이 그들을 부대에 받아들이시여 그들로써 조선인민혁명군의 새 사단을 편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칙적인 투쟁에 의하여 반《민생단》투쟁의 좌경적오유로 인하여 조성된 엄중한 후과는 종국적으로 청산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더욱 강화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부대를 거느리시고 마안산을 떠나시여 이

해 4월에 림강, 무송, 장백 등지를 련결하는 산간중심지로써 유격활동상 주요한 위치에 있는 만강의 적을 제압하신후 4월말에 동강에 도착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6년 5월 1일 동강에서 력사적인 조선인민혁명군정치간부회의를 여시였다.

그이께서는 남호두회의의 전략적방침에 따라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를 결성하고 통일전선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구체적인 방도들을 명시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손수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규약 그리고 창립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6년 5월 5일 영광스러운 조국광복회의 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전설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국광복회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그리고 회의에서는 조국광복회 기관지로서 《3.1월간》을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다음으로 조선인민혁명군의 국경지대에로의 진출과 관련하여 새로운 유격근거지를 창설할데 대한 실천방도와 맑스-레닌주의당 창건준비를 전국적규모에서 힘있게 밀고나갈 구체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6년 5월에 동강을 떠나 로령에 도착하시여 이곳《정안군》놈들을 족치시고 뒤이어 이해 6월에는 시난차의 적들을 소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난차전투후 부대를 거느리시고 서강방면으로 가시던 도중 황니허즈부근에서 악질적인 위만군 왕가부대를 유인소멸하시고 련이어 무송—림강사이의 도로상에서 일제수비대를 전멸하시였으며 계속하여 적들이 《난공불락》이라고 하던 서강의 적들을 소멸하시였다. 뒤이어 오만한 적을 제압하고 인민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며 새로운 유격근거지창설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들의 중요한 정치군사적중심지인 무송현성진공전투를 조직지휘하시여 적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후 만강부락에 두번째로 들리시여 이곳에서 얼마간 머무르시면서 대원들로 하여금 인민들속에서 해설선전사업과 다채로운 연예공연을 활발히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이때 어려운 전투와 행군의 바쁘신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창작하신 연극《피바다》,《한 자위단원의 운명》, 《성황당》, 《경축대회》등은 마을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명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1936년 8월 27일에 만강을 떠나 높고 험한 로령을 넘어 8월 31일에 19도구 지양개를 지나 9월 1일에 대덕수촌에 이르시였다. 대덕수촌에 도착한 부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면밀한 작전밑에 신창동에서 넘어오는 이도강주둔 위만군과 일제군경 200여명을 섬멸하였다. 그후 부대는 9월 2일 대덕수에서 불과 5리 남짓한 소덕수 마등창에 이르렀는데 이곳 수림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묘한 전법을 쓰시여 적들끼리 싸우게 하여 놈들에게 무리죽음을 또다시 안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후 부대를 령솔하시고 희샤즈거우밀영으로 가시던 도중 19도구마을에 잠시 들리시여 이곳 소학교강당에서 연설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후사령부를희샤즈거우에 정하시고 9월에 15도구의 동강과 16도구의 천교부근에서 혜산의 일제수비대와 장백현의 악질경찰부대를 격파하시였다. 승리적인 룡천리부근전투에 뒤이어 10월에는 조선의 삼수군 호인면 대안인 반절구를 들이치시여 순식간에 부락을 해방하시였으며 계속하여 10월 24일에는 20도구의 적을 처부시였고 며칠후에는 장백일대에서 적《토벌대》의 중요한 본거지인 2도강을 습격하여 적들을 모조리 소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같이 국경연안에서 근거지창설을 위한 군사활동을 활발히 벌리시면서 자연지리적조건으로 보나 지리적위치로 보아 국경일대의 넓은 지역과 국내로 드나들면서 유격활동을 마음대로 벌릴수 있는 유리한곳인 희샤즈거우에 중심밀영지를 꾸리시였다. 희샤즈거우밀영지에는 제1, 제2, 제3, 제4 밀영들이 꾸려졌는데 제1밀영에 조선혁명의 최고뇌수이시며 심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밖에도 되골령련락장소라고 불리우는 홍두산밀영, 희샤즈거우, 최후방 밀영인 백두산밀영을 비롯하여 장백, 림강, 무송 지구의 밀림속 여러곳에 밀영들이 꾸려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밀영을 건설하는 사업과 함께 정치공작원들과 소부대를 통하여 조국광복회조직을 결성하는 사업을 추진시키시였다. 그리하여 무송일대와 압록강연안 일대에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이 수많이 결성되였다.

북부국경일대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이 날로 강화되고 그 혁명적영향력이 인민들속에 거대한 힘으로 확대되자 일제는 1936년 10월에 《도문회담》을 벌리고 우리 나라 북부국경일대의 경비를 강화하였으며 조선주둔 일본군을 비롯한 관동군, 위만군, 경찰대 등 대병력을 총동원하여 《참빗전술》로 대규모적인 《토벌》공세를 감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적들의 이러한 전술에 대처하여 대부대활동과 소부대활동을 배합하여 적들을 압도하는 유격전술을 능란하게 적용하시였다.

1936년 11월 적들이 라남의 19사단과 심양에 있던 위만군을 동원하여 포사격의 엄호밑에 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은 희샤즈거우로 달려들었을 때 조선인민혁명군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활한 지휘밑에 적들을 좁은 골짜기에 유인하여 강력한 화력과 맹렬한 반돌격으로 무리죽음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7년 2월 14일 불과 20명의 대원을 거느리시고 방어와 전술적퇴각을 배합하면서 홍두산에 달려든 적 500명을 유인하여 골짜기에 쓸어넣고 전멸하신후 부대를 친솔하시고 홍두산을 떠나 중강구 방향인 도천리, 리명수일대로 진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2월 20일 도천리에 도착하시여 《토벌》나갔다가 헛탕치고 돌아오는 한개 대대의 적을 몽땅 소탕해버리신 다음 부대를 거느리시고 신속히 리명수 상류지기 골안에 도착하시여 적의 《동기토벌》작전을 최종적으로 격파한 리명수전투를 조직지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7년 2월 26일 리명수를 향하여 량쪽으로 달려드는 수백명의 일제침략군과 《정안군》놈들을 매복습격하여 몽땅 격멸소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7년 봄에 친필하신 력사적인 로작 《조선에서 광범한 군중의 반일운동을 어떻게 조직할것인가》에서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하고 각계각층을 묶어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다시금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산

주의자들과 인민들을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과 새로운 전략전술적방침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그 간고한 투쟁의 나날에도 수많은 로작들을 집필하시였으며 밀영에 출판소를 두시고 혁명적출판물의 발간을 몸소 조직지도하시였다.

그이의 지도밑에 1936년 12월 1일에 조국광복회 기관지 《3.1월간》이 창간되고 1937년 5월부터 조선인민혁명군 기관지 《서광》이 발간되였으며 뒤이어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내주간신문 《종소리》가 발간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조국광복회10대강령》, 《조국광복회창립선언》, 《조선에서 광범한 군중의 반일운동을 어떻게 조직할것인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비롯한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인 로작들과 수많은 맑스-레닌주의 서적들이 출판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조직들을 확대하고 각계각층 군중을 광범히 묶어세우기 위하여 압록강일대는 물론 국내 깊이에까지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시고 1937년초에 북부국경일대에서 급속히 장성강화되는 조국광복회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위하여 조국광복회장백현위원회를 결성케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6년 12월에 박달동지를 접견하시여 국내반일운동의 구체적인 정형을 보고받으시고 국내공산주의자들의 당면한 투쟁임무와 활동방향을 제시하시였다.

그리하여 백두산근거지를 중심으로 조국광복회조직망은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도시와 농촌들에 정연한 체계를 가지고 급속히 확대되였으며 동만, 남만, 북만일대의 넓은 지역에까지 뻗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백두산근거지를 거점으로 하여 조국광복회조직망을 확대하시는 한편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을 전국적규모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시켜나가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리명수전투에서 적들에게 큰 타격을 가하신후 조선인민혁명군을 령솔하시고 무송방향으로 이동하시였다.

그이의 친솔밑에 주력부대가 대소전투를 하면서 단두산부근에 이르렀을 때는 비상용식량마저 떨어져 행군을 계속하기 곤난하게 되였다. 이때 그이께서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다음 1천여명의 적 《토벌대》가 몰켜있는 목재소를 습격소탕하고 식량을 해결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동강밀영에 도착하시자 지휘간부들의 회의를 여시고 지난 동기작전과 무송현에로의 행군을 총화하시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군정학습을 조직하시여 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시면서 국내진공작전을 준비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7년 3월 하순에 무송현 서강밀영에서 력사적인 서강회의를 소집하시고 조국으로 진군할데 대한 전략적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국내에로 진출해야 한다. 그래야 일제통치하에서 신음하는 국내인민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북돋아줄수 있다. 조선인민의 아들딸인 우리 인민혁명군이 건재해있다는것을 알려주는것만으로도 그것은 인민들에게 큰 고무적힘으로 된다.

우리가 조국에 나가는것은 큰 도시를 치고 점령하자는것이 아니다. 조선에 나가 총을 몇방 쏘아도 그것은 인민들에게 큰 힘을 준다.

끌끌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대부대가 련합해서 위풍당당하게 나가면 그것은 일대 시위로 된다.

우리 인민에게 조선은 반드시 광복된다는 확신을 주는 거기에 국내진출의 거대한 의의가 있다.…

그이께서는 국내진공계획에 따라 각 부대들의 활동방향을 제시하신 다음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보천보에로 진격하시기 위하여 백두산 서남부국경지대로 진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거느리시는 주력부대는 1937년 5월 하순에 장백현 희샤즈거우밀영에 도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곳에서 부대내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국내진공을 위한 원정대를 편성하시고 만단의 준비를 갖추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원정대를 친솔하시고 희샤즈거우밀영을 떠나 6월 2일 23도구어구인 큰절수부락에서 하루밤을 휴식하신 다음 일제가 《금성철벽》이라고 호언장담하던 국경경비진을 돌파하시고 6월 4일 국경경비의 요충지인 보천보를 공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은 민활하고 용감한 전투행동으로 적들을 무리로 쓸어눕혔으며 경찰관주재소를 비롯한 일제의 통치기관들을 순식간에 불사르고 파괴하였다.

보천보거리에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수많은 선전문이 살포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체 조선인민을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는 포고문이 나붙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인민들앞에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총궐기할것을 호소하시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연설은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 그들을 승리에로 부르는 불멸의 홰불로, 투쟁의 기치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천보전투를 승리적으로 마치시고 1937년 6월 5일 구시산에 도착하시여 황급히 추격해오는 적을 모조리 소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희샤즈거우밀영에서 6월 13일 성대한 련환대회를 여시고 국내진공작전의 승리를 축하하신 다음 600여명으로 편성된 조선인민혁명군대부대를 친솔하시고 간삼봉계선으로 신속히 진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주둔군부대까지 출동시켜 2,000여명의 병력으로 간삼봉계선으로 밀려드는 적들에게 령활한 전술로 섬멸적인 패배를 안기였다.

이 전투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은 일제의 정예무력 1,500여명을 살상포로하고 수많은 무기와 군수물자를 로획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삼봉전투를 승리적으로 끝마치신후 각 부대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차후 행동방향을 제시하신후 몸소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장백현 가재수방향에로 진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7년 8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및 병사대회에서 하신 연설과 그해 9월, 중일전쟁이 일어남과 관련하여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조성된 정세를 분석하시고 새로운 투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7년 8월에 독립려단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유격전술의 특징과 몇가지 원칙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그이께서는 부대앞에 나서는 과업을 제시하시고 그들의 군사활동의 임무에 적응하게 독립려단을 몇개의 독립적인 경위련대로 개편하시였다. 조선인민혁

명군 지휘관 및 병사대회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을 각 방향에 진출시키시여 도처에서 성시공격, 습격전, 매복전, 군사시설파괴 등 적들의 전략기지들을 타격하는 배후교란작전을 맹렬히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조선인민혁명군을 친솔하시고 이해 8월에 쌍산자에서 적 160여명을 살상포로하고 수많은 군수기재와 물자를 로획하였으며 그후 몽강주둔 위만군 및 헌병대를 몽땅 소멸하시였다. 그리고 1937년 9월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부대를 파견하시여 휘남현성에 대한 진공전투를 진행하여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도록하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산근거지를 랑림산맥일대에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별동대와 소조들을 함경남도를 비롯한 북부조선일대에 파견하시였으며 수많은 정치공작원들을 국내의 산업중심지들과 군사전략상 중요지대들에 파견하시였다. 파견된 정치공작원들의 활동에 의하여 압록강국경일대에는 반군사적인 생산유격대가 도처에 조직되여 비밀리에 활동하였으며 여러 지역에서 로동자돌격대를 조직하기 위한 준비가 활발히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열하방면으로 원정을 강요한 좌경모험주의자들의 무모한 책동에 의하여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부대들을 친솔하시고 1937년 가을 림강, 몽강 등의 산악지대에 진출하시여 이 일대를 류동하시면서 평야지대에 집결한 적들을 유인기습하는 적극적인 류동작전을 벌리시는 한편 소부대들을 국경일대와 국내에 파견하시여 일제의 검거선풍에 의하여 파괴된 혁명조직들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동적인 조치에 의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일거에 《소탕》하려던 일제의 기도는 파탄되였으며 조선혁명은 위기에서 구원되였다.

그러나 일제는 대규모공세를 늦추지 않았으며 민족개량주의자, 좌우경기회주의자, 종파사대주의자 등 온갖 혁명의 배신자들은 일제와 로골적으로 결탁하는 길에 들어서면서 투항주의와 기회주의를 공공연히 설교하였다. 한편 파시스트세력은 날을 따라 세계적범위로 확대되고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롭게 조성된 국내외정세와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혁명실천이 요구하는 제반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쓰시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들은 이 로작에서 불패의 힘과 용기를 얻고 모든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면서 항일무장투쟁과 전반적조선혁명을 줄기차게 발전시켜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7년 겨울에 들어서자 적들에게 련속적인 타격을 주며 놈들을 림강, 장백오지의 깊은 눈속에 유인하여 내던지고는 감쪽같이 마당거우에 이르러 밀영을 짓고 몸소 주력부대의 동기정치군사학습을 조직지도하시였다.

마당거우동기군정학습에서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비롯한 수령님의 로작들과 맑스-레닌주의기본원리를 학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당거우에서 군정학습을 진행하는 기간 소부대를 파견하시여 몽강현 서패자어구에 있는 일제《토벌대》를 기습하게 하시였고 1938년 1월에는 정안툰전투를 진행하신것을 비롯하여 여러차례의 적후방기습전투를 조직진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동기정치군정학습을 끝마치시자 곧 적극적인 군사활동을 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1938년 봄을 맞이하자 각 부대들에 춘기공세에로 넘어갈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그이께서는 1938년 4월 몸소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압록강연안 국경일대에로 다시 진출하시여 4월 10일에 장백현 12도구에 있는 적들부터 먼저 족치시였으며 뒤이어 4월 12일에는 가재수부락을 포위공격하여 점령하시였다. 얼마후 그이께서는 반일부대를 인입하여 6도구의 적을 불의에 공격하여 적을 완전히 소멸하시였으며 날밝기전에 쌍산자부근에 이동하시여 몸소 경기관총을 잡으시고 추격하는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편 수많은 소부대들을 장백지구와 국내에 파견하시여 조국광복회조직망을 비롯한 각종 반일단체들을 복구하고 군중을 반일투쟁에로 고무하기 위한 정치공작을 진행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8년 춘기공세 이후 보다 넓은 지역에서 적들을 타격하시며 장백지구에 집중된 적의 력량을 분산시키실 목적으로 부대를 몇개 방향으로 진출시키고 친히 그해 여름과 가을에 걸쳐 림강, 무송, 몽강현 일대에서 적의 배후를 습격교란하는 전투를 적극적으로 조직지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1938년 8월에 림강현 신래즈전투에서 적 100여명을 살상포로하시였으며 양목정자부근에서와 기타 많은곳에서 적을 여지없이 족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8년 11월 력사적인 남패자회의를 소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회의에서 당시의 정치군사정세를 상세히 분석하시고 열하원정의 좌경모험주의적오유에 대하여 다시금 심각히 비판하시면서 조선인민혁명군의 당면한 정치군사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규모적인 공세를 취하시기 위하여 부대를 세개의 방면군으로 편성하시고 그 활동구역을 각각 지정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부대를 재편성하시면서 열하원정의 후과로 심대한 손실을 입은 항일련군무장대오에 몸소 키우신 우수한 군사정치간부들을 파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8년 12월초에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남패자를 떠나 총검의 숲을 헤치시며 압록강국경지대에로의 간고한 행군길에 나서시였다. 바로 이 행군이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피어린 전투로 낮과 밤을 이은 100여일간에 걸친 《고난의 행군》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대가 7도구 지기에 이르렀을 때 장기추격전에 《참빗전술》을 배합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소멸》해보려는 적들의 기도를 꿰뚫어보시고 경위중대와 기관총반은 사령부와 함께 7도구, 가재수 방향으로, 7련대는 장백현 화샤즈거우일대에로, 8련대와 독립대대는 무송현 동강일대에로 전진하게 하시고 그를 령활하게 집중, 분산, 이동시키심으로써 적들을 분산혼란시키고 놈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렬처절한 전투와 힘겨운 행군이 계속되는 나날 하루에도 몇차례씩 대렬의 앞뒤를 오가시며 대원들을 고무격려하시며 그들을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할줄 모르는 불굴의 혁명정신과 혁명적락관주의로 교양하시였으며 숭고한 혁명적동지애와 육친의 사랑으로 대원들을 보살피시고 대원들의 고통과 피로를 덜어주시기 위하여 자신께서 더많은 고통을 감당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7도구 목재소를 들이쳐 식량을 해결하시고 추격하여오는 적들로 하여금 헛탕을 치게 하였으며 그후 부후물등판에서는 적들을 제편끼리 싸우게 하여 무리죽음을 안

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내부를 와해시키려는 적들의 책동을 제때에 포착하시고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승리의 신심을 더욱 굳게 다지도록 대원들을 교양하시였다. 부대가 13도구근방에서 어려운 행군을 계속하고 있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촌장놈에게 독약을 친 소금을 지워 들여보낸 적들의 흉계를 간파하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놈들을 끌고 다니면서 족치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적들이 산골짜기와 수림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대담하게 적후방을 치실 방침을 내놓으시고 1939년 1월 국경연안의 대집단부락인 다양차와 장백으로 통하는 큰길을 대낮에 습격하는 전투를 조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다양차를 치신후 부대를 거느리시고 장백현 가재수부락 부근의 야산에서 숙영하시면서 대원들의 학습을 지도하시는 한편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시여 그 지방의 조국광복회 회원들을 비롯한 혁명군중들과 긴밀한 련계를 맺고 혁명조직들을 수습확대하는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그러던 어느날 변절자의 밀고로 적들이 사령부를 노리고 발악적으로 덤벼들게 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급한 때일수록 덤비지 말고 침착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추격하는 적들을 족치면서 행군하시다가 앞에 적이 나타나면 불의에 돌격하여 적들을 혼란에 빠뜨려놓고 부대를 감쪽같이 옆으로 빠지게 하심으로써 제놈들끼리 밤새껏 싸워 무리죽음을 내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재수부락에서 적들을 완전히 떼버리고 13도구부근으로 이동하시여 후방중심지인 13도구의 적수비대를 불의에 습격하여 적들을 대혼란에 빠뜨린 다음 이 틈을 타서 다시 부대를 장백오지 부후룹치기에 이동시키시여 휴식명령을 내리시였다.

부대는 남패자를 떠나 처음으로 여기에서 천막을 치고 며칠간 숙영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후룹치기에서 숙영지를 량쪽으로 포위하면서 달려드는 적들을 제놈들끼리 싸우게 하여 무리죽음을 안긴다음 밀림속으로 적들이 기여들었다는것을 간파하시고 대담하게 산을 내려 적들의 중심지로 통하는 대통로를 따라 파팡딩즈부락이 지척에 보이는 야산에서 부대를 휴식시키면서 대원들에게 행군의 피로도 풀게 하고 학습도 조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7도구치기에서 세개방향으로 갈라져 활동하던 부대들을 집결하시여 조국으로 진군하기 위하여 가재수오지 북대정자쪽으로 부대를 행군시키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재적인 유격전술, 강의한 혁명적의지와 혁명적전개력, 대원들에 대한 육친적인 사랑으로 그처럼 간고하였던 행군을 승리의 행군으로 이끄시여 전진도상에 가로놓였던 난국을 타개하시고 조선혁명의 계속 앙양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9년 4월 북대정자에서 력사적인 조선인민혁명군 간부회의를 여시였다.

그이께서는 회의에서 남패자로부터 북대정자에 이르는 100여일의 간고한 행군을 승리적으로 끝낸데 대하여 긍지높이 총화하시고 적들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말고 총반격에로 넘어가 무산지구로 진출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전술적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구가점전투(1939. 4. 12)와 15도구전투(1939. 4. 26)를 승리적으로 조직지휘하시여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조국에로 진군할 물질적준비를 철저히 갖추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친솔하시고 15도구를 떠나 마등창밀림속에 이르시여 5.1절경축대회를 가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대를 친솔하시고 이해 5월 3일 월식을 리용하여 반절구의 적들에게 불의의 습격을 하여 무리죽음을 안기고 많은 물자를 로획하시였으며 그후 희샤즈거우밀영으로 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부대를 친솔하시고 1939년 5월 15일에 희샤즈거우를 떠나 5월 18일에는 일제의 삼엄한 국경경비진을 뚫고 압록강을 건느시여 리명수목재소 근처에서 잠시 휴식하신후 천봉에 이르시여 부대를 숙영시키시였다. 여기서 대원들은 《일본의 파시스트군벌을 때려부시자!》, 《조선청년들이여! 속히 달려나와 일제를 반대하는 전쟁에 참가하자!》 등을 비롯한 인민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전투적구호들을 나무에 아로새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대를 친솔하시고 5월 19일에 건창에서, 5월 20일에는 베개봉에서 숙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5월 21일 베개봉숙영지를 떠나시여 일행천리전술로 일제가 항일유격대를 《토벌》하겠다고 몇해를 두고 닦아놓고 검열을 받기 위해 청소까지 해놓은 100여리의 《갑무경비도로》를 대낮에 보무당당히 행군하여 무포에 도착하시였다. 무포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지휘관회의를 소집하시고 무산지구전투에 대한 구체적임무를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5월 22일 일부부대를 신개척방향으로 진출시키시는 한편 친히 한 부대를 친솔하시고 신사동지구로 진격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신개척과 신사동 두개 방향에서 순식간에 적들을 소멸하고 이 지구를 완전히 해방한후 적들의 식량과 피복을 로획하여 인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사동주민들과 목재소로동자들속에서 몸소 조국광복의 신념을 안겨주시는 정치사업을 진행하신후 부대를 친솔하시고 대홍단에 도착하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휘밑에 5월 23일 조선인민혁명군부대는 대홍단벌에서 적들에 대한 섬멸전을 벌려 빛나는 대승리를 거두었다.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다시 한번 온세상에 과시한 무산지구전투후 1939년 5월말 올기강부근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월 6일 올기강에서 평활한 유인매복전술로 200여명의 적을 완전히 소탕하고 빛나는 승리를 거두시였다.

그이께서는 한편 국경일대와 각 지방에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시여 혁명조직을 복구확대하여 군중적지반을 튼튼히 다지는 사업을 조직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후 화룡현일대에 집중된 적들을 올기강류역에서와 옥돌골전투에서 련속 녹여내시고 이 지역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적공세를 첫 사회주의나라인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1939년 5월에 일제가 만몽국경의 할힌골(노몽한)에서 대규모적무장도발행동을 감행하자 조선인민혁명군의 각 부대들에 더욱 강력한 배후타격전을 벌릴것을 명령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또한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을 통하여 중국에 대한 일제의 침략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중국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정치군사적으로 적극 지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적들이 1939년 하반년부터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이란 명목밑에 길림에 《토

벌사령부》를 설치하고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대규모적공세를 취하고있는데 대처하여 종전의 전술을 바꾸시여 대부대선회작전을 전개할데 대한 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제가 대병력을 동원하여 올기강근처를 겹겹히 둘러싸고 산발과 골짜기를 샅샅이 뒤지고있을 때 위급한 정황속에서도 올기강변의 밀림속에서 대원들에게 휴식명령을 내리시고 8월추석을 푸짐히 쇠게 하시였으며 올기강에서 낚시질을 하시면서 전투계획을 구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부대를 친솔하시고 3도구일대에로 이동하시여 국내에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시여 혁명조직들을 복구정비하는 사업을 지도하시는 한편 소부대를 편성하시여 적을 계속 족치고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전개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9년 10월, 10여명의 호위성원들을 거느리시고 안도현 한양구에서 량강구쪽으로 행군하시다가 계관라즈부근에서 포위하여 조여드는 적들에게 제놈들끼리 싸움을 하게 하여 숱한 주검을 내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두만강연안일대의 여러곳에서 적들을 들이치고 놈들을 유인하여 화룡일대의 산발과 골짜기들에 몰아넣고는 부대를 친솔하시고 감쪽같이 미리 지정해놓은 비밀로정을 따라 멀리 북쪽으로 진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1939년 12월 16일에 돈화현 륙파송에 도착하시여 12월 17일밤 륙파송부락에 둥지를 틀고있는 적들을 몽땅 소멸하시였다. 륙파송전투후 100여명의 로동자들을 조선인민혁명군대오에 받아들이신 그이께서는 부대를 친솔하시고 돈화현 쟈신즈부락으로 진출하시였다. 1939년 12월 24일 밤12시경에 그이께서는 쟈신즈부락을 완전포위하여 총한방 쏘지 않고 적들을 모조리 생포하시였다. 전투후 그이께서는 로획물자를 지고온 수백명의 로동자들앞에서 몸소 정치사업을 진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연설에 한없이 감동된 로동자들은 앞을 다투어 입대를 탄원해나섰다. 그이께서는 즉석에서 100여명을 입대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기세충천한 대원들을 친솔하시고 멀리 안도—무송현경으로 행군하시였는데 도중 어느 한 고지에서 설날(1940년 1월 1일)을 맞이하여 신입대원들을 환영하는 연예공연을 친히 조직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이목을 돈화일대에 집중시키고는 감쪽같이 자취를 감춘 다음 1940년 1월 무송현경의 백석탄밀영에 도착하시여 40여일간에 걸쳐 집중적인 정치군사학습을 조직진행하시였다.

동기간의 집중적인 군정학습을 통하여 무장대오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0년 2월에 부대를 친솔하시고 다시금 총검의 숲을 헤치시고 무산지구대안에 진출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부대선회작전에 의하여 거듭 참패를 당하던 적들은 악에 받쳐 대규모적인 군사적공세와 함께 《귀순》과 《투항》을 선동하는 삐라를 사방에 살포하거나 주민으로 가장시킨 《번의대》를 여러곳에 파견하며 주구들을 유격대에 잠입시켜 내부를 와해하려고 갖은 흉계를 꾸미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때일수록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이고도 대담하게 활동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적의 약점을 리용하여 련속 타격하는 대담한 작전을 짜시였다.

그이께서는 1940년 3월 11일 대마록구를 불의에 공격하시여 총 한방 쏘지 않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였으며 수많은 군수물자를 로획하시였다. 대마록구전투후 그이께서는 부대를 친솔하시고 달려드는 적들을 기묘하게 따돌리고 깊은 화라즈밀림속에 자취를 감추고 숙영하신후 계속 무산군 장평방향으로 행군하시다가 3월 25일 적 마에다부대를 비롯하여 뒤따르는 적의 대병력을 기묘한 유인전술로 홍기하계선의 유리한 지점에 몰아넣고 매복전으로 부대장이하 한놈도 남김없이 완전히 살상포로하시였다.

홍기하전투를 승리적으로 끝마치신 그이께서는 부대를 친솔하시고 간고한 행군끝에 1940년 4월에 다시 화라즈에 이르시여 10여일간 부대를 휴식시키면서 여러가지 사업을 조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화라즈에 계시는 기간 지휘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앞으로의 투쟁과업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0년 4월 안도현 동남차 양초구전투를 진행하시여 일제침략자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안긴후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처창즈부근의 수림속으로 들어가시여 1940년 5월 1일 명절을 맞이하시였다. 이때 부대는 식량이 다 떨어져 개도랑에서 잡은 개구리 50~60키로그람으로써 명절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녁식사가 끝난후 우등불결에서 대원들에게 아름다운 조국과 평양의 만경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머지 않은 장래에 오늘의 개구리료리를 대동강의 숭어료리로 전변시키고야 말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처창즈를 떠나시여 5월에 화룡현 십리평전투, 어랑촌전투, 안도현 서남차전투, 삼도구부근전투, 연길현 장인촌전투, 6월에는 안도현 오도양차전투, 화룡현 백일평전투 와룡촌전투, 연길현 맹산촌, 장인구전투, 7월에는 연길현 도목구지역전투, 돈화현 할바령역전투 등을 진행하시여 조선인민혁명군을 《전멸》시킨다고 떠들던 일제의 면상을 옆으로, 정면으로 후려갈기시였다.

이리하여 20여만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결사적으로 발악하던 일제의《토벌대》는 녹아나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백두산동북부에서의 대부대선회작전은 위대한 승리로 끝났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무장투쟁의 종국적승리 (1940. 8~1945. 8)

1930년대말~1940년대초 국내외정세에서는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났다.

독일, 일본, 이딸리아 등 파쑈국가들이 감행하여 오던 침략전쟁은 1939년 9월에 이르러 드디여 제2차세계대전으로 확대되였다.

당시 일제는 중일전쟁을 빨리 끝내고 동남아세아에 대한 침략을 준비하는 한편 쏘련을 침공할 기회만 노리면서 이 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과 만주를 저들의《공고한 후방》으로 만들려고 미쳐날뛰였다. 일제는 조선인민에 대한 전대미문의 폭압정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100만에 달하는 관동군의 주력과 조선주둔 일제침략군들을 동원하여 저들의 배후에서 커다란 위협을 주는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완전격멸》에 모든 힘을 집중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를 깊이 통찰하시고

1940년 8월 10일 소할바령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당및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지난 10년간의 투쟁행정에서 이룩한 거대한 성과와 경험들을 분석총화하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전술적방침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소할바령회의후 새로운 전략전술적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의 각 부대들을 기습조, 정치공작조, 정찰조 등 수많은 소부대와 소조들로 편성하시여 국내와 만주 각지에 파견하시였으며 소부대활동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북부국경일대와 국내 각지 그리고 만주의 광활한 지역에 련락소와 아지트형식의 림시적인 비밀근거지들을 창설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소할바령회의후 8월 어느날 연길, 안도, 화룡 일대에 소부대들과 소조들의 활동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20여명의 대원들을 친솔하시고 묘령근방의 밀영을 출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묘령부근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을 《토벌》하려고 집요하게 달려들던 일제침략군을 기묘한 전술로써 저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무리죽음을 내게 하시고 그날밤 한총구부락이 가까이 보이는 산속에서 숙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다음날 아침 일찌기 일어나시여 산정에 올라 행군로를 정찰하시면서 뜯어오신 참나물로 손수 김치를 담그어 대원들이 먹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한총구부근에 자리를 잡으시고 안도현, 돈화현, 화전현 일대에서 활동하시면서 로진창련락장소를 비롯한 각지 밀영과 련락장소의 소부대 및 소조원들을 지도하시였으며 인민들과의 련계를 강화하시면서 파괴된 혁명조직을 복구정비하시는 사업들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그후 두만강일대의 국경지대와 국내에서의 소부대활동을 강화하시면서 다가올 민족해방의 대사변을 맞이할 준비를 더욱 원만히 갖추시기 위하여 1941년 5월 소부대를 친솔하시고 안도현을 떠나시여 왕청현 쟈피거우 림시근거지로 향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연길—로두구사이의 큰 도시주변으로 행군하시다가 날이 밝자 대도로옆에서 대낮에 휴식하시면서 그 집에 은밀히 기여든 밀정놈들을 체포하여 가두게 하신후 유유히 로두구시내를 지나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령활한 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은 북부조선일대와 만주의 광활한 지대에서 적들을 부단히 타격하고 적군사시설과 철길, 다리들을 파괴하였으며 인민들속에서 적극적인 조직정치사업을 전개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난관이 중첩될수록 대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혁명적동지애로 대오를 더욱 철석같이 단합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적들의 발악이 극도에 달하였던 엄혹한 시기에 소부대활동을 전개하시던 어려운환경속에서도 부상자와 허약자들의 후방병원을 꾸리시고 의약품을 구하기 위한 적병영습격과 후방공작을 친히 조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몸소 먼길을 찾아가시여 소부대성원들의 생활을 보살피시였고 수백리밖에서 한 대원이 중상을 입고 홀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의사와 대원들을 보내시여 그를 구원하도록 하시였으며 멀리 떨어져있는 대원들에게 군복과 식량을 마련해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0년 가을 화룡일대에서 활동하고계시던 때 한방향에 파견하시였던 소부대를 정한 기일이 훨씬 넘도록 기다리시다가 만나지 못하고 부득이 떠나게 되였을 때 그들과 만나기로 하였던 처창즈치기의 숙영지의 우둥불자리에 식량과 새로 지은 옷을 묻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일과 같이 전투를 조직지휘하시며 며칠씩 끼니를 넘기시면서도 모처럼 생긴 사슴고기마저 소부대성원들을 생각하시여 가루를 내여 쉰개의 종이봉지에 넣게 하신 다음 몸소 매개 봉지에 이름까지 쓰시여 남겨두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육친적인 사랑과 보살피심을 받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불보다 뜨거운 충성심과 불굴의 영웅성을 발휘하여 그 간고한 환경속에서도 일편단심 그이께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어떠한 곤난도 용기백배하여 뚫고나아갔다.

1941년 6월 파쑈독일이 쏘련에 대한 침략전쟁을 개시하였으며 일제가 원동에서 쏘련에 대한 공격준비를 다그치면서 후방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공세와 반동적인 정치사상적공세를 어느때보다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1년 6월 30일 **왕청현 쟈피거우림시근거지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간부 및 전사들앞에서 하신 연설에서** 당시의 급변하는 내외정세에 대처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당면한 행동방침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우수한 군사정치일군들로 수많은 소부대들과 소조들을 편성하시여 북부조선일대와 국내의 중요한 군사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지역들 그리고 만주의 넓은 지역에 파견하시고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의 군사정치활동을 조직지도하시는 한편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혁명리론과 현대적군사과학기술로 무장한 유능한 군사정치간부로 육성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3년 9월 15일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간부 및 정치교원들 앞에서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이 력사적연설에서 그이께서는 제2차세계대전의 전국을 심오히 분석하시고 조국광복의 대사변이 가까와오고 있다는것을 론증하신다음 조선혁명가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을 명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광복의 대사변이 박두하고있는 오늘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조국에 대한 학습을 잘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하여 잘 알아야 애국자, 공산주의자로서의 의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잘할수 있습니다.》(《김일성군사선집》, 1권, 79페지)

그이께서는 또한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자체의 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리며 전민족을 일제와의 최후결전에 총동원할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제기되는 당면과업들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내의 당 및 청년조직들은 그이의 연설을 전체 지휘간부들과 전사들에게 집중학습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깊이 침투시켰으며 정치군사훈련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략전술적방침이 군중속에 깊이 침투되고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적영향력이 더욱 강

화됨에 따라 광범한 인민들의 반일반전투쟁은 더욱 앙양되였다.

이 시기 조선인민들은 백두산을 우러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었으며 조국해방의 위업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신심을 굳게 가지고 반일반전투쟁을 세차게 벌리였다.

특히 이 시기 전국각지의 수많은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이 손에 무장을 들고 항일무장투쟁대오에 참가할것을 결의하여 나섰으며 조선인민혁명군과 합세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반일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하였다. 평양을 비롯하여 부산, 공주, 대구, 전주, 해주, 북청, 성진 등 우리 나라의 거의 모든 지방에서 조선인민혁명군과 합세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일어났다.

조선인민들은 원쑤들에게 모든것을 빼앗기고 짓밟혔어도 조국과 민족을 구원해주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심으로 하여 앞날에 대한 철석같은 신심과 무한한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이를 맞이할 날을 목마르게 기다리고있었다.

1945년에 들어와서 정세는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에 더욱 유리하게 전변되여가고있었다. 파쑈독일이 패망하고 일본의 패망도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제는 장기전을 기도하면서 최후 발악하였다. 한편 미제는 아세아에 대한 침략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미쳐날뛰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후결전의 시기가 박두하였음을 판단하시고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쑤 일제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리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적인 작전계획을 완성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5년 8월 9일 전체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및 병사들에게 일제를 패망시키고 조국의 해방을 실현할데 대한 전투명령을 내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명령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각 부대들은 이른바 《난공불락의 방위선》을 돌파하고 적들을 격멸소탕하면서 라진, 청진으로, 남양과 웅기방면으로 진격하여 **청진시를 비롯한 북반부 여러지역을 해방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1945년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을 하였다.

일제는 패망하고 조선인민은 반세기에 걸친 놈들의 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되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과 조선인민혁명군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여 마침내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15성상에 걸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고 위대한 승리로 끝났다.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나라잃은 민족의 설음과 압박받고 천대받는 인민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울어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치시면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위훈과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탄생하시고 혁명을 위하여 투쟁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나긴 세월 오로지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온갖 간난신고를 겪으시며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뚫고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길 만리, 눈보라 수십만리를 헤치시면서 조직령도하신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은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위업을 이룩하며 광명한 공산주의미래를 안아오시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신 영웅적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우리 혁명이 억년 드놀지 않고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깊고도 억센 뿌리인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마련되였고 그 빛나는 승리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압제와 치욕의 력사는 영원히 끝장났으며 광명한 미래에로 비약하는 새 조선의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운동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간고한 조건에서 오래동안 진행된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영원히 계승발전시켜야 할 유일한 전통이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대를 이어 가며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인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독창적인 혁명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여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리론발전에 위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담고있으며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음으로 하여 인류사상발전에서 최고봉의 사상정신적재부로 된다.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운동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따라배우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며 높이 칭송하고있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생활의 신조로, 혁명의 무기로, 지침으로 삼고있다.

전세계 이르는곳마다에 지어 우리를 적대시하고있는 미국과 일본에서까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와 불멸의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소조와 위원회들이 광범히 조직되여 활발히 운영되고있으며 김일성도서관과 서점들이 또한 여러 나라에 조직되였으며 그리고 주체사상연구토론회는 전국적규모에서, 나아가서는 국제적규모에서 널리 벌어지고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담고있는 략전과 략력이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번역출판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과 이 과정에서 이룩된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경험들은 싸우는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힘있는 투쟁의 무기를 안겨주고있으며 필승의 신념과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고있다.

때문에 그들은 한결같이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하여《의심할바 없이 김일성주석님은 세계에서 탁월한 혁명적령도자의 한분이시다.

만약 력사가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진심으로 변화시킨 사람을 센다면 김일성주석님께서 세계에서 이러한 영웅적령도자의 맨 첫자리에 계실것이다.》라고 높이 칭송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인민들의 마음의 고향》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하는 외국의 벗들과 손님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1974년에 또고공화국 대통령,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자이르공화국 대통령, 남부윁남민족해방전선 위원장 등 손님들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일행의 일부 성원들, 외국의 당, 정부 대표단, 경제문화대표단, 군사대표단을 비롯한 많은 손님들과 외국의 벗들이 유서깊은 만경대를 참관하였다.

그들은 만경대를 방문한것을 《커다란 영예로, 영광으로》 된다고 하면서 저저마다 만경대참관에 대한 자기들의 감상을 남기였다.

아래에 그 일부를 소개한다.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만경대를 방문한것을 우리는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의 심장은 만경대와 함께 영원히 높뛸것이다》

김일성주석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를 방문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김일성주석님의 투쟁력사에 대하여 더 잘알게 되였다.

김일성주석님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아랍사회부흥당 총비서이며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하페즈 알 아싸드)

나는 오늘 경애하는 주석이신 김일성동지의 고향집을 방문하는 기쁨을 가지게 되였다.

내가 귀국을 공식방문하고있는 기간에 여기 만경대를 찾아보게 된것은 아주 기쁜 일이다.

오늘 본 모든것 그리고 들은 모든 설명들은 나를 매우 감동시켰다. 이를 통하여 나는 고통과 난관들이 사람들을 단련시킨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또고공화국 대통령 그나씽그베 에야데마)

나는 오늘 세계 모든 혁명가들이 잘 알고있는 당신들의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시여 혁명의 큰뜻을 키우시였으며 그이의 부모님께서도 살며 싸워오신 혁명의 성지, 만경대의 력사적인 장소를 참관할수 있게 된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한다. (자이르공화국 대통령 모부투 쎄쎄 쎄꼬 꾸꾸 느그벤두)

민족의 구원자이신 김일성주석각하께서 탄생하신 여기, 영광스러운 만경대를 방문한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영예로 된다. (적도기네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 미겔 에에게 느뚜뚜무)

조선로동당을 령도하시는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력사적인 만경대를 방문하게 된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영광으로 된다.

만경대참관을 통하여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과 그이의 혁명활동에 대하여 잘알게 되였다. (세계보건기구대표단 단장 아. 에쓰. 빠블로브)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김일성동지의 어린시절과 특히 그이의 혁명적가정에 대하여 더잘 알수 있게 되였다.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력사를 더잘 리해하기 위하여서는 누구든지 만경대를 방문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높은 권위와 탁월한 령도력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게 되였다. (로므니아공산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청년문제부 부장 뜨라얀 쉬떼페네쓰꾸)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나는 우리 집에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모시고있으며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이 그러하듯 나도 그이의 저작선집들과 전기를 읽으며 배우고있다.

그런데 오늘 실제 와서 보니 책을 읽던 때보다 더욱 생동하고 감동적이다.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우리는 수령님의 애국적이며 영웅적인 투쟁과 어린시절의 활동을 잘 알수 있게 되였다.

여기서 보고들은것은 매우 귀중한것이다. 나는 꾸바에 돌아가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이에 대하여 가르치려고 한다. (꾸바롱구선수단 단장 호쎄 뻬르낀 에르난데스 삐냐)

모든 사람들은 혁명의 요람 만경대에 와서 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따라배워야 한다.

김일성주석님은 진정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우리는 만경대에서 많은것을 배웠다. (알제리녀성대표단 단장 모하메드 싸씨아)

나는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만경대를 돌아보면서 온몸에 힘이 솟구치는것을 느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세계의 모든 혁명가들은 만경대를 방문하여야 한다.

그들이 만경대를 방문하면 승리에 대한 신심과 용기와 힘을 얻을수 있을것이다.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치원교육대표단 단장 마리얌 유스프 하라리)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배우기 위하여 여기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나는 만경대를 방문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더잘 알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수단문화공보부 대표단 단장 오메르 살례호)

김일성주석님은 조선의 영웅이시며 조선인민이 엄혹한 시련을 겪고있던 시기에 해방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신 분이시다.

우리는 력사적의의가 깊은 이 만경대를 참관하면서 조선인민의 수령님에 대한 경모의 정을 깊게 하였다.

우리의 만경대방문은 조선방문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감격적인 방문으로

된다. (아르헨티나공화국 국회대표단 단장 이딸로 루데르)

만경대는 조선혁명의 태양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하여 위대한 력사적인곳으로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원수님을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사는것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만경대를 방문한것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 우리의 심장은 만경대와 함께 영원히 높뛸것이다. (모리따니전국근로자동맹대표단 단장 울드 지에쉐이크 말라이닌 로베르)

우리들은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력사와 그이의 혁명적가정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이며 행복이다.

만경대는 새세대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참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희랍공산당 (국내)대표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만경대는 매우 경치가 아름다운곳이다.

수령님께서는 증조할아버님, 할아버님과 할머님, 부모님들로부터 위대한 애국적인 전통을 이어받으시였다.

우리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시여 어떻게 자라나시였고 어떻게 간고한 투쟁을 하시였는가 그리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 싸워오시였는가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고 이에서 커다란 인상을 받았다.

바로 그런분이시기에 수령님께서는 자기 인민이 겪고있는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리해하고계신다.

우리는 이 위대한 고향집을 방문하여 영원히 잊을수 없는 인상을 간직하고 돌아가게 된다.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희생성, 간고한 투쟁을 통해서 위대한 수령으로 되시였다. (인도공화국 국회대표단 단장 구르디알 싱 딜론)

만경대는 력사적인곳일뿐아니라 자연경치도 매우 아름다운곳이다. 외국사람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를 방문하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우리는 이곳을 방문하고 조선인민의 근대력사를 잘 알수 있었다.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온 혁명적가정에서 탄생하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자유와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장구한 혁명투쟁을 진행하여오시였으며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시였다.

이 세상에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님과 같으신분은 없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앞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할것을 축원한다. (이란국회대표단 단장 쟈파르 샤리프 에마미)

주석님께서 탄생하시여 어린 시절을 보내신 만경대를 방문한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영광으로 된다.

우리는 일본에서 출판된 김일성주석님의 전기를 학습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주석님의 혁명력사에 대하여 잘 알고있다.

오늘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책에서 얻은 우리의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할수 있게 되였으며 주석님의 혁명력사와 그이의 할아버님과 할머님, 아버님 등 혁명일가의 혁명투쟁과 생활에 대하여 더욱 깊이 알게 되였다.

어머니들인 우리는 강반석녀사께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굳은 의지와 철석같은 신념을 지니시고 아드님을 위대한 분으로 키우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을 표시하며 녀사처럼 싸울 결의를 다지게 된다. (일본사회당부인활동가대표단 단장 와다나베 미찌꼬)

김일성주석님의 가정과 같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혁명투쟁을 한 가정은 세계에 없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혁명적가정에서 탄생하셨기에 일찍부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로 되시였다.

우리는 만경대를 돌아보고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적가정과 그이의 혁명활동에 대하여 매우 탄복하였으며 주석님에 대한 존경심과 흠모의 정을 더욱 두터이하였다. (웰남문화대표단 단장 부 꿕 위)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고계신다.

나라가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던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그이의 온 가정은 어려운 길을 걸어왔으나 그것은 영광스러운 길이였다. (쏘련공산당 당일군대표단 단장 이. 이. 반돌)

참관을 통하여 김일성주석님께서 탄생하신 가정이 혁명적인 가정이며 위대한 투사의 가정이라는것을 나는 잘 알수 있었다.

위대한 혁명가의 가정에 대한 력사를 들으면서 나는 끓어오르는 흥분과 감동을 억제할수 없었다.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적가정이 걸어온 위대한 길은 전세계 인민들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과 해방을 위한 위업수행에서 반드시 따라 걸어야 할 길이다. (레바논조선련대성위원회 위원장 파리드 저브란)

김일성주석님의 증조할아버님과 할아버님, 할머님, 아버님과 어머님은 참으로 위대한 분들이시다.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은 혁명적가정에서 탄생하시였기에 우리 시대의 탁월한 수령으로, 세계인민들의 수령으로 되시였다》

우리는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김일성원수님의 혁명활동력사를 깊이 알게 되였다.

김일성주석님의 가정은 혁명적인 가정이며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그이의 혁명적가정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만경대를 방문하여 김일성원수님께서 어떻게 성장하시였으며 어떻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으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수령으로 되시였는가를 잘 알게 되였다. 조선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달성한 성과는 전적으로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이룩되였다.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에서 달성한 빛나는 성과들에 대하여 우리는 조선인민들과 함께 큰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게 된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고등교육물리학자대표단 단장 루돌프 헤르만)

김일성주석님은 투쟁에 일떠선 조선인민이 수령을 목마르게 기다리고있던 시기에 조선인민의 수령으로 탄생하시였다.

김일성주석님과 같으신 위대한 분은 아무데서나 탄생하는것이 아니다. 조선인민은 대대로 인민과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 인민을 위하여 싸워온 전통을 이은 혁명적가정이 있었기에 위대한 수령을 모실수 있었다. (일조우호촉진사이다마현의회 의원련맹대표 나가누마 쇼기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주석님의 아버님과 어머님의 혁명투쟁에 대한 귀중한 경험은 싸우는 아프리카인민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모범으로 된다. (세네갈공화국 국회대표단 단장 무스따파 뚜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정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가정이다. 특히 제3세계인민들은 그이의 혁명적가정을 본받아야 한다. 우리는 조선인민을 따라 나아가겠다. (수단문화공보부대표단 단원 알버트 로이즈 노제이즈)

김일성동지의 가정은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워온 혁명적가정이다. 이 가정은 참으로 혁명적가정의 모범이다.

만경대를 혁명의 요람으로 높이 부르는것은 아주 정당한 일이다.

우리는 만경대를 방문하고 조선인민의 혁명력사를 잘 알게 되였다. (메히꼬공산당대표단 단장 헤라르또 운쑤에따)

김일성주석님의 가정은 대대로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워오신 혁명적인 가정이다.

수령님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혁명투쟁을 진행하시였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혁명적가정, 그처럼 가난하고 소박한 초가집에서 탄생하시여 일제를 반대하는 간고한 혁명투쟁을 조직전개하시였으며 그를 통하여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시였다.

만경대는 조선혁명의 뿌리가 내려진 곳이다.

나는 오늘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김일성주석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온몸으로 깊이 느끼였다.

참으로 그이는 위대한 분이시다.

김일성주석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조선인민은 필승불패이다. (일본《주체사상연구회》 대표단 단장 스미스 요시하루)

우리는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혁명활동을 더 잘 알게 되였으며 그이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굳게 하였다.

우리는 김일성주석님께서 바로 이 만경대의 가난한 집에서 탄생하시여 부모님들의 세심한 보살핌속에 자라나신데 대한 설명을 듣고 감격을 금할수 없었다.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애국주의사상으로, 혁명사상으로 교양받으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어리실때부터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시였으며 민족의 영웅으로,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으로 되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혁명활동은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위업과 밀접히 련결되여있으며 그이의 성함은 조선의 혁명투쟁력사에서 영원히 빛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은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온 세계 나라 인민들의 위대한 벗이라고 우리는 강조하고싶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과 웰남인민사이의 전투적친선단결을 굳게 하시였다.

김일성주석님의 성함은 우리 두 민족들의 전투적친선단결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남부웰남공화자문리사회 위원장이며 민족해방전선 위원장 원우수)

김일성주석님의 가정은 모두다 혁명가였으며 애국자였다.

참으로 위대한 가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은 혁명적가정에서 탄생하시였기에 우리 시대의 탁월한 수령으로, 세계인민들의 수령으로 되시였다.

오늘 혁명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이를 무한히 존경하고 흠모하며 자기들의 진정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있다.

그이는 정말 위대하고 탁월한 수령이시다.

나는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적가정에 대하여서와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대하여 널리 소개선전하겠다. (에꽈도르《불룬따드》출판사 사장 울베르또 오리떼스)

위대한 수령이시며 영웅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어린 시절을 보내신 만경대는 훌륭한 혁명의 학교이다.

수령님은 일찌기 열네살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큰 뜻을 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으며 오직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워오시는 위대한 혁명가이시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중의 한분이시다. (벌가리아청소년체조선수단 단장 스베또쏠라브 바또브)

김일성주석각하께서 해방직후에 만경대를 지나가시면서도 들리시지 않고 먼저 공장에 나가셨다는것은 바로 그이께서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신다는것을 잘 말하여주는것이다.

우리는 오늘 만경대를 방문하면서 조선인민이 어찌하여 김일성주석각하를 그처럼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는가를 잘 알게 되였다. (자이르공화국 대통령관방 특별고문부부 모꾼로와 엠뽕보)

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깊은 인상을 받았다.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독창적인 사상과 방법으로 혁명을 령도하고계신다.

조국을 광복하시고 20년만에 고향집에 들리셨을 때 그이께서는 멍석우에서 주무시였다. 이것은 수령님의 소탈하신 품성을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수령으로 모시고사는 조선인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이다. (르완다국가대표단 단장 온세깔리제 알로이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을 위하여 항상 심려하시고 배려를 돌리시기에 전체 조선인민이 그이를 무한히 존경하고 흠모하고있다.

우리 네팔사람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존경한다.

나는 오늘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수령님의 높은 덕성을 더욱 똑똑히 알수 있게 되였다. (네팔조선친선대표단 케다르만 비티르)

우리는 오늘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우리는 그이의 혁명활동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있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를 비롯하여 모든 나라 인민들의 존경을 받고계시는 김일성동지는 그들이 반드시 따라배워야할 수령들중의 한분이시다. (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맹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이며 도도마주 사무관이며 이주 당비서인 이 에쓰에이. 까셈보)

나는 오늘 만경대를 방문하여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과 그이의 혁명활동에 대하여 깊이 알았다.

모든 청년들이 오래동안 혁명투쟁을 한 혁명가들에게서 배우는것은 응당하다.

특히 혁명가의 전형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을 따라배우는 것은 가장 영예로운 일이다.

조선청년들은 자기의 수령님을 무한히 흠모하고 존경하고있으며 훌륭히 교양되고있다.

이것은 우리가 따라배워야 한다. (프랑스공산주의청년운동대표단 단장 쟝미쉘 까딸라)

위대한 투사이신 김일성동지는 조선인민의 수령이실뿐아니라 전세계 싸우는 나라 인민들의 수령이시다.

우리는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것이며 그이를 따라 배울것이다. (전아프리카청년운동대표단 단장 에또까 베까 빠트리크 알베르뜨)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은 일찌기 일제를 반대하여 혁명의 길에 나서신 영명한 영웅이시다.

김일성주석님은 전체 인민을 동원하시여 일제를 때려부시였을뿐아니라 뒤떨어졌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신 기적의 창조자이시며 정치, 경제,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전변을 가져오게 하신 영웅이시다.

김일성원수각하께 전체 캄보쟈인민과 전투원들의 이름으로 경의를 드린다.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및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경제및재정대표단 부단장 생홍)

김일성주석각하께서는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위대한 분이시다.

세계와 일본은 조선을 향하여 배워야 하며 일본도 조선처럼 되여야 한다. (일조우호촉진가나가와현의회 의원간담회대표단 단원 다나까 게이슈)

오늘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한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기쁨이며 행복이다.

주석님의 혁명력사는 간고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우리 팔레스티나인민에게 고무와 신심을 안겨주고있다.

오늘 전세계인민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을 우러러 모시고있으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따라 배우고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내놓으신 모든 정책은 아주 정당하고 현명하며 세계인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김일성주석님은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실뿐아니라 전세계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팔레스티나해방인민민주주의전선대표단 단장 아브돌하호 알리 힘단)

우리는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와 혁명활동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그이의 혁명력사는 세계인민의 투쟁력사에서 주요한 한페지를 차지하고있다. (칠레로동자농민인민통일행동운동당대표단 단장 후안 엔리게 베가)

우리는 오래전부터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에 대하여 알고있었지만 조선에 와서 직접 보고 듣는 과정을 통하여 큰 감동을 받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대로 내려오면서 가난한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부모님들의 교양을 받으시였으며 오늘과 같은 사회주의나라를 건설하시였다.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조선에서뿐아니라 모든 나라 인민들이 본받아야 할 혁명력사이다. (웽그리아탁구제2종합선수단 단장 보그단 라슬로)

우리는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김일성주석님의 혁명력사를 잘 알게 되였다.

김일성원수님의 혁명투쟁업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준다. (오스트랄리아평화운동대표단 단장 아더 죤 로이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으로 일관된 김일성원수님의 혁명력사는 인류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주고있다. (뻬루 《엑스쁘레쏘》주필 에프라인 루이수 까로부부)

나는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혁명력사를 잘 알게되였다. 그이의 혁명력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를 이어 길이 전해질것이다.

경애하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조선혁명의 승리는 조선인민의 승리일뿐아니라 세계 싸우는 인민들의 승리로 된다.

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들고 혁명의 한길로 힘있게 달려나갈것이다. (아세아아프리카작가협회 수단대표 하미드 마호무드와피)

《만경대에 타오른 조선혁명의 홰불은 세계 인민들을 혁명투쟁에로 부르는 영원한 홰불로,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를 방문하고나니 위대하신 수령님을 만나뵙고싶은 마음이 앞선다.

나는 왜 조선인민이 그처럼 위대한 수령님을 무한히 흠모하고 존경하는가를 깊이 알게 되였다.

조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를 잊지 않을것이다. (우간다공화국 정부친선무역대표단 이. 엘. 아시요)

우리는 조선인민의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만경대를 방문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만경대는 귀국인민의 사회적, 민족적 해방과 혁명을 위한 높은 뜻이 깃들어있는곳이다.

이곳은 귀국 혁명의 깊은 뿌리를 잘 말해주고있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이 만경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는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만경대는 정치적의의가 큰곳일뿐아니라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곳이다.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외교부장 게오르게 마끄베쓰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대로 내려오면서 혁명을 하여온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였다.

그리하여 만경대는 조선혁명의 발원지로 되였다.(이라크공화국 청년부 청년사업총국장 아미르 이스마일 하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을 모시고있는 조선인민의 미래는 참말로 휘황하다.

나는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김일성주석각하의 혁명적가정에 대하여 해설해주겠다.

만경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영원히 마를줄 모르는 샘터이다. (아르헨띠나공화국 주재 꼬스따 리까공화국 특명전권대사부부 알바로 몽헤 우마냐)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어리신 나이에 천리길을 걸으시였다. 이 길은 오직 위대하신 수령님께서만이 걸으실수 있었다.

조선혁명의 력사가 깃들어있는 만경대는 자라나는 새세대들, 특히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곳이다. (알제리근로자총동맹대표단 단장 샤 모하메드)

나는 오늘 만경대를 방문하고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각하의 투쟁력사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으며 그것을 가슴속깊이 아로새기게 되였다.

할아버님과 할머님께서는 위대한 나라의 수령으로 되신 손자를 두고 계셨지만 초가집에서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계속 농사일을 하시며 근면하고 소박하게 생활하시였다.

나는 오늘 만경대고향집에서 이 사실을 알고 매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새세대들은 이 만경대에 와서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라나시였으며 부모님으로부터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교양을 어떻게 받으시였으며 할아버님과 할머님, 아버님과 어머님은 어떻게 생활하시였는가를 잘 배우게 될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훌륭한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게 될것

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만경대는 새세대들을 교양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곳이라고 말할수 있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 외교부장 아담 말리끄)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만경대는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 훌륭한 배움터이며 조선의 혁명력사를 가르쳐주는곳이다.

만경대는 우리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것이다. (알바니아국립가무단 단장 빨리 까라필리)

만경대는 소박한곳이면서 매우 훌륭한 배움터이다.

때문에 세계의 모든 혁명가들은 혁명사상의 원천지인 이곳에 와서 혁명사상을 따라배우며 자기들의 사상을 단련하여야 한다.

만경대는 조선의 심장이며 조선의 힘의 원천지이다. (다오메공화국 출판문헌국장 에스따쉬 쁘린 덴시오)

이곳 만경대는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혁명적가정에 대하여 많은것을 배우고 큰 고무를 받는 곳이기때문에 인민들을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데 있어서 매우 의의깊은 곳이다.

특히 만경대는 투쟁하는 나라 모든 인민들에게 커다란 교양을 주는 매우 중요한 곳이다. (쿠웨이트 알 카바스 신문사 총국장 쥴피카르 코베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이 영원히 보존해야 할 가장 귀중한곳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사상과 혁명력사는 전세계인민들에게 혁명투쟁의식을 주는 불멸의 혁명적량식이다.

만일 다오메와 조선이 가까이 린접해있다면 모든 다오메의 청소년들이 매일 매시각 이곳에 와서 김일성주석님의 빛나는 혁명력사를 따라배울것이다.

그런데 다오메와 조선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민들에게 조선을 따라배우게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것이다. (다오메공화국 교육 문화 청년 및 체육부장 뻥쌍 게조제)

만경대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모든 인민들의 마음의 고향이다.

우리는 만경대혁명사적관참관을 통하여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들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다시한번 똑똑히 알게 되였다. (이딸리아 삐에몬뜨주의회대표단 단장 알도 비글리오네)

만경대는 조선인민에게만 귀중한곳이 아니다. 만경대는 자유와 독립, 민주주의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전세계 인민들에게 크나큰 고무적힘을 안겨주는 력사적인곳이다. (유엔주재 수단상임대표 라호마딸라 아부돌라)

만경대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모든 인민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곳이다. 특히 과거 혁명투쟁을 해보지 못한 청년들에게 있어서 절실히 필요한 곳이다. (버마련방사회주의공화국 경제연구단 단장 마웅 쵸우)

만경대는 위대한 혁명의 성지이며 혁명의 요람이다.

만경대에서 타오른 조선혁명의 홰불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인민들을 혁명투쟁에로 부르는 영원한 홰불로,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가정은 세계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걸출하고 위대한 혁명가의 가정이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가정은 증조할아버님으로부터 할아버님, 할머님,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일가친척 모두가 위대한 혁명투사이다.

진정 만경대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우리 세네갈인민 그리고 싸우는 세계 인민들이 끝없이 귀중하게 간직해야할 력사적인 곳이다.(세네갈전국기자협회 대표단 단원 알린다오)

나는 위대한 혁명가이신 김일성주석님을 우러러 존경한다.

나는 혁명의 발원지인 만경대를 방문하여 앞으로 일본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게 되였다.

나는 여기에서 배운 모든것을 가슴깊이 새기겠다. (일본간사이 지방학자대표단 단장 스미야 에쯔지)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만경대를 방문한것을 우리는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김일성동지의 가정은 실로 혁명적가정의 모범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게 되였다. (뻬루공청대표단 단장 미겔 린꼬)

우리는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사람들을 어떻게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웽그리아사회로동당대표단 단장 산도르 요재프)

우리는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수령님의 혁명적가정과 조선인민의 혁명력사를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였다.

우리는 돌아가서 여기에서 보고 들은것을 가지고 강의도 하고 좌담회도 하겠다.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당일군대표단 단장 와쯜라브 끄웨슈)

나는 오늘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조선인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혁명업적과 높은 덕성에 대하여 깊이 알게 되였다.

조국에 돌아가면 나는 만경대에서 보고 느낀 점들에 대하여 우리 농민들에게 널리 선전하겠다. (이라크농민조합총동맹대표단 단장 파이끄 알리카돔 알무하들리)

우리는 오늘 만경대를 방문하고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원수님의 가정의 투쟁력사는 곧 조선인민의 투쟁력사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용한 조선인민처럼 우리도 적이 비록 강대하지만 때려부실수있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하였다.

여기 만경대는 진정 주체사상의 발원지이다.

주체사상이 있음으로 하여 공화국북반부는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될수 있었다.

우리는 여기에 와서 형제적조선인민들이 매일 수만명씩 만경대를 방문하여 수령님을 따라배우며 그이께 경의를 표시하고있는것을 보았다.

세계인민들도 만경대에 대해서 감탄을 표시하고있다.

우리 캄보쟈사람들은 앞으로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마음의 고향인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많은것을 배울것이며 혁명적락관주의를 더욱더 깊이 간직하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김일성원수님 만세!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일행인 출판부장 께아트)

우리는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님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잘알게되였다.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은 아주 소박한 집이다.

수령님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한분이시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위대성에 대하여 더 잘 알았으며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우리는 전체 조선인민들이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자들의 책동을 물리치고 조국의 통일을 하루속히 이룩할것을 축원한다.

김일성주석님께서 만수무강하시여 조선의 통일을 위한 위업에서 승리를 달성하실것을 우리는 충심으로 축원한다. (자이르공화국 의회그루빠대표단 단장 치세께디 와 물룸바)

영광스러운 혁명력사 기념일행사

《배움의 천리길》 답사행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생들이 평양에서 포평까지 직접 행군해보도록 하는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야 청소년들이 당의 혁명사상을 더욱 깊이 체득할수 있으며 몸을 튼튼히 단련할수 있습니다.》

《사로청조직들은 고등중학교이상 학생들로 〈등산대〉, 〈답사행군대〉같은것을 조직하여 그들이 배움의 천리길로정을 따라 큰 산도 넘고 강도 건느면서 행군하는 훈련을 많이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열두살 어리신 나이에 팔도구에서 만경대에 이르기까지 천리도 넘는 머나먼 길을 홀로 걸으시여 불멸의 력사적자욱을 남기신 《배움의 천리길》은 반세기에 걸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조선혁명운동발전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광스러운 로정이였다.

영광스러운 《배움의 천리길》을 답사행군하는것을 우리 청소년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열렬한 애국주의정신, 선진과학과 진리탐구를 위한 불면불휴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오직 한마음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 혁명의 참된 계승자로, 어떤 난관과 역경속에서도 굴함없이 싸우는 일당백의 억센 몸과 강의한 의지를 가진 불굴의 혁명투사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위력한 방도의 하나로서 진행하였다.

전국의 고등중학교 사로청위원장, 소년단위원장들 5,000명이 《배움의 천리길》답사행군

1974년 3월 16일, 후창군 포평에서는 《배움의 천리길》 답사행군을 떠나는 전국의 고등중학교 사로청위원장들과 소년단위원장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와 당중앙에 드리는 충성의 편지들을 채택하는 성대한 모임이 있었다. 모임에서는 사로청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연설이 있었으며 《배움의 천리길》답사행군참가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배움의 천리길》답사행군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열렬한 애국주의정신을 따라배워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 혁명의 참된 계승자로, 어떤 난관과 역경속에서도 굴함없이 싸우는 억센 마음과 튼튼한 몸을 가진 혁명투사로 훌륭히 준비해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모임에서는 《배움의 천리길》답사행군참가자들이 온 나라의 모든 소년단원들과 고등중학교 학생사로청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와 당중앙에 드리는 충성의 편지들이 채택되였다.

편지에서 답사행군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우리들은 《배움의 천리길》에 깃든 아버지원수님의 열렬한 애국심과 비상한 탐구력, 강철의 의지와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며 과학의 시대, 기술의 시대의 선구자로 더잘 준비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떨쳐나서 이 땅우에 만년대계의 청춘기념비들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여 해와 달이 다하도록 아버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아갈것을 아버지원수님께 엄숙히 맹세합니다.

답사행군참가자들은 편지에서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나라의 통일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영원한 봄을 위하여 인류의 영재이시며 혁명의 태양이신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김일성원수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또한 모임에서는 수령님께와 당중앙에 드리는《배움의 천리길》답사행군대의 포평출발보고전보문이 랑독되였다.

모임이 끝난다음 《배움의 천리길》답사행군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동상두리에 정성들여 기념식수를 하였다.

이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초상기발을 대렬앞에 정중히 모시고 《배움의 천리길》답사행군대는 유서깊은 혁명사적지 포평을 떠났다.

이때로부터 13일, 아버지원수님께서 쉰한해전, 1923년 3월 16일 이른 아침 포평나루가에서 자욱을 옮기신 때로부터 13일간 홀로 걷고 또 걸으시며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님이계신 만경대 고향집 사립문을 여신 그날자 그대로 답사행군대는 아버지원수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신 초상기를 높이 휘날리며 포평과 월탄, 화평과 장강을 거쳐 《강계무사도착》전보문을 발송하고 리만평과 개고개도 단숨에 넘어 회천과 개천을 지나 만경대에까지 불멸의 자욱자욱을 더듬으며 씩씩하게 행군하였다.

《배움의 천리길》답사행군대원들은 행군의 나날 혁명사적지들을 견학하였으며 충성의 선서모임, 장편소설《배움의 천리길》, 《만경대》에 대한 읽은책 감상발표모임, 홰불행진 및 우등불모임, 회상기연구발표모임 등을 자주 조직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였으며 《배움의 천리길》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고매한 풍모를 심장깊이 체득하고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을 키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당중앙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로《배움의 천리길》답사행군의 영예를 지닌 전국 고등중학교 사로청위원장, 소년단위원장들은 력사의 땅 포평을 떠나 13일만인 3월 28일에 한명의 뒤떨어진 동무도없이 모두 혁명의 요람 만경대에 도착하였다.

그리운 만경대에 도착한《배움의 천리길》답사행군대는 3월 28일 붉은기만경대혁명학원운동장에서 아버지원수님과 당중앙에 올리는 충성의 보고모임을 가지였다.

1974년에《배움의 천리길》우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기 위한 여러가지 행사는 전국의 청소년학생들속에서 광범히 조직진행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사로청위원회는 《배움의 천리길》근위대운동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서《배움의 천리길》달리기를 발기하고 1974년 1월 26일에 김일성종합대학운동장에서《배움의 천리길》달리기를 시

작하는 개막식을 크게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팔도구로부터 유서깊은 포평, 화평, 강계를 거쳐 혁명의 요람 만경대에 이르는 영광의 천리구간을 달리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배우자!》라는 충성의 구호밑에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을 본받아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여러가지 사업을 조직하여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견결히 고수하며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 쉰한돐을 맞이하여 천리마강계고등중학교에서는 《배움의 천리길》 답사행군대를 조직하고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로 준비시키는 사업을 힘있게 벌리였으며 3월 15일 후창군 포평에서는 군안의 청소년들의 충성의 선서모임, 우등불모임, 소년단입단식이 있었다.

전국 고등중학교 사로청위원장, 소년단위원장들의 충성의 대회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의 뜨거운 배려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배움의 천리길》 답사행군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전국 고등중학교 사로청위원장 및 소년단위원장들의 충성의 대회가 3월 31일에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사로청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학생소년들의 토론이 있었다.

모임에서는 충성의 대회가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어버이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워 주체형의 피만이 흘러넘치는 열렬한 혁명가로 만들며 사로청과 소년단조직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끝없이 충직한 청년동맹과 소년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회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대회는 전국의 고등중학교 사로청위원장들과 소년단위원장들이 《배움의 천리길》 답사행군을 승리적으로 끝마치고 전원 무사히 혁명의 요람 만경대에 도착한데 대하여 지적하고 《배움의 천리길》을 답사하는것은 바로 이 길우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따라 배우며 위대한 수령님께와 당중앙에 대한 충실성을 키우는 혁명의 학교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5천명 대집단이 《배움의 천리길》을 답사하면서 보고 느끼고 배운 감동적인 사실들과 답사과정에 학생소년들속에서 발휘된 뜨거운 충성심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소개하면서 51년전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걸으신 영광의 자욱을 따라 천리길을 헤쳐온 답사행군과정은 주체시대의 혁명적 새세대들이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하늘땅의 끝까지 따르려는 불같은 충성심의 발현과정이였으며 수령님께서와 당중앙이 가리키는 길이라면 폭풍도 우뢰도, 사나운 격랑도 용감히 뚫고 나아가려는 우리 학생소년들의 도도한 결의를 시위한 자랑찬 과정이였다고 강조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답사행군을 성과적으로 마치도록 세심한 보살피심과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우리 인민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며 우리 학생소년들을 넓은 한품에 안아 온갖 뜨거운 사랑을 다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대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아들딸로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대를 이어 이 땅우에 꽃피워나가야 할 우리 청소년들의 영예롭고도 중요한 혁명임무에 대하여, 사로청 및 소년단 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실것을 삼가 축원하였다.

전국 고등중학교 사로청위원장 및 소년단위원장들의 충성의 대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당중앙이 가리키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대를 이어 꽃피워나가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감으로써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에 무한히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로서의 영예를 빛내이고야말 조선청년들과 소년단원들의 철석같은 결의를 다시한번 뚜렷이 보여주었다.

력사적인 무산지구전투승리 서른다섯돐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전투적로정을 빛내인 영웅서사시이며 조선혁명과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력사적인 사변인 무산지구전투승리 서른다섯돐을 맞이하여 5월 23일 혁명전적지 량강도에서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영광의 땅 대홍단벌에서는 이날 무산지구전투승리 서른다섯돐기념 량강도보고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먼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에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항일투사일동으로 된 꽃바구니를 비롯하여 량강도안의 당 및 정권기관, 근로단체, 인민군구분대, 사회안전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명의로 된 정성담은 꽃바구니를 드렸다.

이어 무산지구전투승리 서른다섯돐기념보고가 있었다.

보고에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35년전인 1939년 5월 몸소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국내에 진출하시여 무산지구전투의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타격을 주고 일대 시련을 겪고있던 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힘있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영광에 찬 무산지구전투의 승리의 로정을 감회깊이 회고하였다.

보고자는 당중앙이 제시한 온 사회를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도내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자신의 뼈와 살로,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고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철저히 세우며 온몸에 주체형의 피만이 흘러넘치는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함으로써 영광의 땅에서 살며 싸우는 크나큰 영예를 더욱 빛내일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펼쳐주신 웅대한 강령과 여러차례 량강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대건설장마다에서 혁명의 북소리 높이 울리며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당창건 30돐전으로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기어이 점령하며 10대경제건설전망목표를 단숨에 돌파할 만단의 준비를 갖출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보고회에 뒤이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영원한 충성을 맹세다지는 도내 청년학생들의 충성의 선서모임이 있었다.

이날 낮에 5호지구에서는 소년단련합단체모임이 있었으며 삼지연군 군중문화회관에서는 군예술소조원들이 출연하는 다채로운 공연이 있었다.

저녁에는 군내 청소년학생들의 야회

가 있었다.

력사적인 무산지구전투승리 서른다섯돐을 뜻깊게 기념한 량강도내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은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영원히 꺼질줄 모르는 혁명의 홰불,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억세게 싸워나갈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서른일곱돐

우리 인민들은 1974년에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37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활한 령도밑에 조직진행된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는 영웅적항일무장투쟁에서 가장 큰 국내진공전투로서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고 조선인민의 불굴의 혁명적기개를 온 세상에 시위한것으로 하여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뜻깊은 이 날을 맞이하여 6월 4일 보천보전투승리 서른일곱돐기념 량강도보고회가 있었다. 보고회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37년전인 1937년 6월 몸소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국내깊이 진출하시여 보천보전투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심으로써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밑에 짓밟히고 억눌렸던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민족재생의 희망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지적하고 보고자는 영광에 찬 보천보전투승리의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천보전투의 력사적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 의의는 일본놈을 몇명 죽인데 있는것이 아니라 조선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 신념을 북돋아주는 혁명의 서광을 비쳐준데 있습니다.》
(《김일성선집》, 5권, 1960년판, 504페지)

보고에서 수령님의 주체적군사사상의 위대한 승리를 과시한 보천보전투의 빛나는 승리는 식민지통치의 지반을 밑뿌리채 뒤흔들어 놓았으며 억눌리고 짓밟혔던 조선인민에게 조국광복에 대한 굳은 신념을 안겨주고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을 강력히 추동하였을뿐아니라 반제민족해방투쟁에 일떠선 모든 나라 혁명적인민들을 무한히 고무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무엇보다먼저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여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관철에서 항일혁명선렬들처럼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그이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보고회에 앞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열화같은 충성심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앞에 도안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인민군대, 사회안전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명의로 된 꽃바구니를 드렸다.

기념모임에 뒤이어 현지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영원한 충성을 맹세다지는 도안의 청년학생들의 충성의 선서모임이 있었으며 군내사로청 및 소년단원들의 련합회의가 진행되였다.

이날 영광의 땅 보천보에서는 또한 군안의 청소년들의 혁명전통연구토론회, 시랑송, 구연 및 웅변모임, 집단체조가 있었으며 체육경기와 군예술소조원들의 공연과 청소년들의 홰불행진 및 우등불모임, 청년야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있었다.

청소년들은 37년전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으로, 보천보로 진격하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혁명의 진군을 계속 다그치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의 그날을 앞당겨나갈 결의를 새롭게 다지였다.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탄생 여든돐

1974년에 우리 인민들은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신 김형직선생님탄생 여든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1974년 7월 10일, 김형직선생님탄생 여든돐을 맞이하여 당과 정부간부들, 재일조선인 대표단성원들, 중앙과 지방의 당 및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 평양시와 평남도안의 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이 봉화리에 모셔진 선생님의 동상을 찾아 화환을 드리였다.

이날 또한 유서깊은 봉화혁명사적지에서는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을 따라배우기 위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충성의 맹세모임이 있었다.

김형직선생님탄생 여든돐에 즈음하여 우리 인민들과 근로자들은 선생님께서 남기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선생님의 숭고한 혁명사상과 고매한 혁명가적풍모를 따라배우기 위한 강연과 연구토론회를 널리 진행하였다.

7월 8일, 인민문화궁전에서는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탄생 여든돐기념 중앙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에서는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남기신 영생불멸의 위대한 업적》이라는 제목을 비롯하여 여러제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7월 10일에는 인민문화궁전에서 《김형직선생님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 싸우신 견결한 반일혁명투사이시며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다》의 제목으로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탄생 여든돐 중앙강연보고회가 진행되였다.

강연보고회는 각 도(직할시), 시(구역), 군 소재지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조선인민군 및 인민경비대 각 구분대들에서도 진행되였다.

우리 인민들과 전체 근로자들은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여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치시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한생을 다바쳐 싸우신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과 그이께서 남기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수하며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당창건 서른돐전으로 앞당겨 점령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것을 다짐하였다.

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영광스러운 혁명활동로정

김형직선생님께서는 1894년 7월 10일,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남리 만경대 (오늘의 평양시 만경대구역 만경대)에서 대를 이어오시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워온 애국적이고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어리실 때부터 열화같은 반일애국사상을 키우시고 벌써 중학시절에 일제의 노예교육을 반대하는 투쟁의 앞장에 서시였으며 《자선》과 《박애》의 탈을 쓰고 침략의 척후병으로 조선에 기여들어 숭미사상을 고취하던 미국선교사놈들의 죄행을 폭로하시면서 그놈들과 완강히 싸우시였다.

선생님께서는 학교내외에서 합법, 비합법 조직들을 무으시고 동지들을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훈련하시였으며 학교를 중퇴하신후에는 직업적인 혁명가로 나서시여 국내외의 반일독립운동자들과 련계를 가지시고 조국을 찾기 위한 지하혁명활동을 벌리시였다.

남다른 재능과 강의한 의지, 능숙한 령도력과 뛰여난 성품을 지니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시여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앞길을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시였다.

선생님께서 1916년 일제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은률군에 가시여 반일독립운동자들과 만나 담화도 하시고 비밀모임을 가지시였으며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며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인 투쟁방향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조국광복을 위한 원대한 구상에 기초하시여 1917년 3월, 봉화리에서 우리 나라 3.1인민봉기를 전후한 시기, 반제적립장이 가장 철저하고 가장 규모가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인 《조선국민회》를 창건하시였다.

조선국민회가 창건됨으로써 처음으로 국내외의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묶어세우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새롭게 발전시키며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이 민족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진행되는 투쟁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선생님의 지도에 의하여 조선국민회 조직망이 불과 반년도 못되는 기간에 국내외의 넓은 지역에 급속히 확대되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이 새로운 투쟁의 길을 따라 전진하게 되였다.

1917년 여름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은률땅을 또다시 찾으시고 조선국민회 회원들을 비롯한 광선학교 교원들과 독립운동자들의 비밀모임을 여시고 이 지역에서의 반일투쟁정형을 총화하시고 이어 동지규합과 조선국민회조직의 확대, 군사간부와 인재의 육성 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지도하시였다.

1917년 가을 선생님께서는 《조선국민회사건》으로 일제경찰에 체포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평양감옥에서 이루 형언할수 없는 악형을 받으시였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혁명의 절개를 꿋꿋이 지키시며 원쑤들을 맞받아 견결히 싸우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옥중의 고초를 겪으시면서도 감방안에서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새롭게 추켜세우실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1918년 가을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형기를 마치시고 평양감옥에서 나오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평양감옥에서 나오시자 곧 쇠약해지신 몸도 돌보실 사이도 없이 평안북도 의주군 청수동에 가시였다. 이곳에서 약 20일간 묵으시면서 평북도일대의 반일독립운동의 실태와 압록강국경일대에 대한 일제의 경비상태를 료해하시였다.

1918년 11월,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청수동회의를 소집하시였다. 회의에는 평안북도안의 조선국민회조직 대표들, 조선국민회련락원들이 참가하였다.

선생님께서는 회의에서 평양감옥에서 무르익히신 조선혁명에 관한 위대한 구상을 발표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우선 1917년 가을 조선국민회조직이 일제의 대검거선풍을 겪은이후 1년동안의 활동경험을 총화하시고 앞으로 조선국민회활동에서 지침으로 될 새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선생님께서는 회의에서 무산자대중에게 철저히 의거하여 빠른 시일안에 파괴된 조선국민회조직을 복구하고 그 대렬을 부단히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조선국민회조직에 회원들을 더욱 굳게 결속하고 그들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며 조직의 비밀을 엄수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또한 조선국민회조직을 국내는 물론 국외의 조선사람이 사는 모든곳에 확대하며 특히 이 조직에 헐벗고 굶주리는 로동자, 농민을 위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또한 반일독립운동단체들을 멀리하면서 그들과의 사업을 회피하는 현상과 투쟁하며 조선국민회 회원들이 대담하게 그 조직들안에 들어가 혁명적영향을 강화함으로써 광범한 반일독립운동단체들을 조선국민회 조직의 영향하에 넣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청수동회의후 선생님께서는 조선국민회 회원들과 반일독립운동자들에게 차후 투쟁방향을 제시해주시고 림강방면으로 가시는 길에 초산군에 들리시여 10여일간 계시면서 초산일대에서의 반일독립운동의 실태를 료해하시였다.

1918년 11월말,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백호산에서 반일독립운동자들의 회의를 소집하시였다.

회의에는 초산과 강계 지방의 독립운동자들이 참가하였다.

선생님께서는 회의에서 독립운동자들의 수준과 준비정도에 맞게 청수동회의에서 내놓은 방침을 해설하여주시였다.

선생님께서는 회의에서 우선 반일독립운동의 뜻을 품은 선각자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무산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각성시켜 반일독립운동에 적극 조직동원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또한 분산적으로 활동하고있는 여러가지 반일독립운동단체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그 조직들을 조국광복을 위한 성전에 굳게 결속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회의에서 끝으로 후대교육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무산자의 자녀들을 학교에 적극 받아들여 그들을 조선독립운동의 역군으로 키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백호산회의후 선생님께서는 초산 배신학교의 사업을 지도하시고 이 학교의 교원, 학생들 앞에서 배일강연을 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그후 중강을 거치시여 평양에 나오시였다가 혁명활동의 중심지를 중강으로 옮기시고 청수동회의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1919년 2월초 평양학당골에서 평양과 황해도일대의 조선국민회조직 대표들의 회의를 여시였다.

선생님께서는 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우리 나라 북부국경일대에서의 반일독립운동실태를 알려주시고 청수동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을 재천명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1919년 2월 중순에 다시 중강으로 들어가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중강을 활동거점으로 하여 림강, 장백, 즙안, 류하, 상해 등지로 다니시면서 그 일대에서 활동하고있는 조선국민회 회원들과 반일독

립운동자들의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1919년 8월경에 선생님께서는 관전으로 가시였다.

1919년 8월,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관전회의를 소집하시였다.

회의에는 조선국민회의 각 구역장들과 련락원 그리고 반일독립운동단체의 대표 다수가 참가하였다.

선생님께서는 회의에서 국제국내정세와 선행한 반일민족해방운동의 경험과 교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조선민족해방운동에 관한 새로운 로선을 내놓으시였다.

선생님께서는 회의에서 3. 1인민봉기의 력사적교훈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조선민족해방운동이 무산혁명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로씨야무산혁명에서 고무를 받은 만국의 무산자들은 크게 각성하여 제국주의침략자들과 자국내 반동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고있다.

우리는 조국광복을 위한 우리 민족의 일치한 념원에 순응하여 대세의 흐름에 보조를 맞추어 민족자력으로 일본제국주의를 타승하고 무산민중의 권익을 보장하는 신국가건립을 위한 투쟁에 총매진 하여야 한다.》

선생님께서는 무산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사대망국사상을 배격하고 민족자주정신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군소 반일독립운동단체들이 종래의 낡은 투쟁방법을 일소하고 광범한 무산민중에 의거하는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이를 위해서는 무산자대중속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속에 선진사상을 주입시키며 그들을 각성시켜 광범한 군중을 무산혁명성전에 굳게 결속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회의에서 다음으로 3. 1인민봉기의 력사적교훈을 분석하시면서 무장한 원쑤는 무장을 가지고 때려부셔야 한다고 호소하시였다.

관전회의에서 하신 선생님의 연설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공산주의운동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준것으로서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자주적인 기치밑에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우리 인민들의 지도적지침으로, 훌륭한 교과서로 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관전회의후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우선 혁명의 기본핵심력량을 꾸리시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시였다.

선생님께서는 국내외의 여러곳을 오가시며 로동자, 농민들 속에 들어가시여 그들과 호흡을 같이 하시면서 그들을 선진사상과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고 묶어세워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1921년 여름 혁명활동의 거점을 장백현 팔도구로 옮기시고 국내외의 넓은 지역을 오가시며 혁명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시였다.

1923년 10월,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포평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이 회의에서 관전회의 이후 조선국민회조직들의 사업정형을 총화하시고 새로운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회의에서 관전회의방침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편향들을 지적하신 다음 조선국민회의 조직들이 무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속에 신사상보급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려 광범한 군중을 조선국민회 주위에 더욱 튼튼히 결속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또한 회의에서 신사상보급에 장애로 되는 민족개량주의와 투쟁을 강화하여 무산자대중을 개량주의영향하에서 떼내여 조선국민회주위에 튼튼히 결속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특히 탄광, 광산, 농어촌을 비롯한 로동자들과 가난한 농민들이 사는곳을 많이 찾으시였다.

선생님께서는 포평, 고읍, 신파읍, 장항리, 송전리, 마전, 남사 일대에 여러번 나가시여 로동자, 농민속에 들어가시여 신사상을 보급하고 그들을 깨우쳐 혁명조직에 받아들이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리시는 한편 독립운동자들의 사업도 지도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특히 수백명의 로동자들이 일하는 남사목재소와 마전목재소 로동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이 목재소들에 여러번 나가시여 로동자들속에 선진사상을 주입시키고 그들앞에서 배일강연도 하시고 돈 없는 로동자들을 치료해주신다는 것을 앞에 내세우시고 능숙하게 사업하시면서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시였다.

이렇듯 선생님께서는 국내외의 광범한 지역을 오가시며 피압박대중속에 계급해방의 사상과 애국주의정신을 심어주시였으며 자신의 투쟁으로써만 일제와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때려부시고 민족적 및 계급적해방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혁명적 자각을 높여 주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이와 함께 대중을 각종 조직에 결속함으로써 민족해방투쟁에서 그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나가도록 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또한 가는곳마다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학교와 야학을 세우시고 청소년학생들을 교양훈련하심으로써 혁명의 대를 이어갈 혁명의 후계자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나가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이 혁명의 기본계급을 교양하여 혁명력량을 튼튼히 준비해나가시였을뿐아니라 모든 반일력량을 단합하고 반일력량의 통일단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능숙하게 활동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빼앗긴 제나라를 다시 찾자면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한데 모두어야 한다. 어떤 일이든지 혼자서는 되는법이 없다. 바로 조선사람에게 있어서 단결과 사상의 통일은 매우 귀중한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민족주의사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반일독립운동자들을 배척하신것이 아니라 그들의 반일사상을 적극 고무하시면서 아량있게 포섭하시고 부단히 교양하심으로써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민족단합의 길로 이끌어나가시기에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분산된 반일독립운동자들을 단합시키기 위하여 국내와 중국동북의 광활한 지대에 몸소 키우신 공작원들을 파견하시여 독립운동자들을 부단히 교양설복하여 분파행동을 버리고 행동상 통일을 이룩하며 대중에 의거하는 새로운 방법에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이끄시였으며 몸소 독립운동자들을 주동적으로 만나시여 그들의 그릇된 견해를 바로잡아주시면서 선진사상으로 교양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1923년 여름, 장백현 덕수지방에 가시여 독립운동자들의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당시 이곳에는 여러 독립운동단체들이 웅거하고있었는데 이 단체들은 사상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권력다툼으로 세월을 보내고있었다.

바로 이러한때 선생님께서는 이곳에 가시여 여러날 묵으시면서 독립운동자들을 한사람한사람 만나시고 그들의 사업을 능숙하게 지도하시였다.

그리하여 와해상태에 처해있던 독립운동단체들이 수습되였고 분산활동을 하던 이 단체들은 통합하여 하나의 단체로 되였다.

선생님께서는 또한 종교인들과 애국적 상인, 유지, 심지어는 적기관복무자들까지도 교양하시여 반일투쟁에 동원하심으로써 모든 반일세력의 단합을 실현하기 위해 능숙하게 활동하시였다.

이렇듯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시여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앞길을 개척하시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나라의 미래를 떠메고 나아갈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방면에 걸친 투쟁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여 불멸의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남다른 재능과 강의한 의지, 능숙한 령도력과 뛰여난 성품을 지니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선 모든 문제들을 독자적으로 개척해나가심으로써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에서 부르죠아민족주의운동의 본질적약점을 극복하고 그것을 점차 공산주의운동에로 발전시키는 위대한 선구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의 전 생애는 일편단심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신 열렬한 애국자, 강의한 혁명가의 빛나는 혁명활동로정이였으며 조선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신 탁월한 혁명의 지도자의 영광스러운 혁명활동로정이였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선생님께서 지니신 고결한 혁명정신, 높은 덕성은 오늘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여 별처럼 빛나고있으며 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서도 높은 칭송을 받고있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혁명적인민들과 벗들은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과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유서깊은 만경대와 봉화혁명사적지를 찾고있다.

외국손님들은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창건하시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에 크게 공헌하신데 대하여 높이 칭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세계혁명적인민들과 외국의 벗들은 《이 세상에 김형직선생님처럼 위대한 일을 해놓으신 아버지는 없다》고 한결같이 찬양하고있다.

《세상에는 수많은 아버지들이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김형직선생님처럼 위대한 일을 해놓으신 아버지는 없다.

왜냐하면 그이야말로 조선민족의 대양이시며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를 키우신 분이시기때문이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조선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가장 어렵고 가장 간고한 혁명의 앞길을 몸소 개척하시면서 조선인민을 승리에로 인도하시였고 오늘도 인도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키우심으로써 그이께서 령도하시는 현대조선혁명의 가장 영광스러운 력사를 마련하시였다.》 (남아프리카 범아프리카대회당 대표 모레피 모꼬니)

《김형직선생님의 전생애는 일편단심 나라의 독립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줄기차게 싸운 혁명가의 숭고한 생애이며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위대하고 탁월한 분으로 직접 육성하신 혁명가의 아버님으로서의 고귀한 생애이다.》 (동남아세아의 한 신문)

《김형직선생님은 조선의 독립과 조선인민의 존엄을 위하여 한몸을 바쳐 싸우셨으며 친히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셨을뿐아니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셨다.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아가는 인민들에게 있어서김형직선생님과 같으신 위대한 교육자의 활동을 연구하는것은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알제리의 한 로조 활동가)

《민족적억압과 사회적무권리의 수난의 시기에 조선인민앞에는 일제의 영원한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강점자들을 반대하여 구국투쟁을 하느냐 하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있었다.

조성된 정세는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활동하는 투사들, 조선의 애국자들을 한데 묶어세운 혁명조직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이 절박한 요구는 조선의 광복을 위하여, 온 생애를 바쳐싸우신 열렬한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에 의하여 실현되였다.》 (벌가리아신문 《나로드니 아르미야》)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당시의 가장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인 조선국민회를 조직하시고 조선인민을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지도하신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지도자이시였으며 조선인민을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신 열렬한 교육자이시였으며 조선에서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시였다.》 (라틴아메리카에 있는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의 대표)

《1917년 3월 23일에 조직된 조선국민회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직접 발기하고 결성하신 비밀결사이다.

그것은 몇몇 사람에게 국한된 지방의 비밀조직인것이 아니라 국내와 국외를 련결한 광범위한 비밀결사로서 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보급이전의 가장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이였다.

조선국민회는 애국적인민들 가운데서도 동지호상간 단결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것을 굳게 맹세한 사람만을 선발하여 가입시켰다.

참으로 조선국민회의 조직은 조선민족해방운동력사에서 새로운 기원을 열어놓은 사변이였다.》 (1917년봄 김형직선생님을 직접 만나뵌적이있는 일본 야마구찌현 우베시에 사는 미우라 마사또가 회상한 글에서)

《조선국민회는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거대한 역할을 놀았다. 그때 벌써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의 독립을 그 어떤 외세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모든 혁명력량을 키워 조선사람자신의 힘으로 이룩하려는 자주적인 립장을 견지하신것은 우리 파떼말라혁명가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준다.

또한 선생님께서 국내정세를 옳게 분석평가하신데 기초하여 합법적활동과 비합법적활동을 능숙하게 결합하여 그 조직을 확대하고 대중적지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신 사실들은 실로 그이의 적극적이고 혁명적인 활동을 보여주며 조성된 정세하에서 혁명가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있다.

전생애를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바치신 김형직선생님의 불굴의 혁명활동과 선생님께서 조직하시고 지도하신 조선국민회는 조선근대혁명운동사에 거대한 업적을 남겨놓았다.》 (아바나주재 파떼말라봉기무력대표)

외국의 벗들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과 그 불멸의 투쟁업적이 세계 모든 피압박인민들과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에게 고무적인 힘을 주고있다고 높이 찬양하면서 선생님께서 쌓으신 고귀한 업적과 경험, 선생님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따라배우고있다고 말하였다.

《오늘 위대한 김형직선생님의 가르치심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세계인민들에게 고무적힘을 주고있다.》 (시에라 레온 녀성조직전국련맹 총서기 도라 라이쪼)

《실로 김형직선생님의 빛나는 불멸의 업적은 력사의 한 페지에 영원히 빛날 보석처럼 금문자로 새겨질것이다.…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적가정이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발휘한 그러한 영웅주의는 이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김형직선생님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이 봉화혁명사적지는 전세계 모든 혁명가들의 심장속에 고무와 신심의 원천으로 길이길이 간직될것이다.》 (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위원장)

《우리들은 김형직선생님의 생애와 활동에 대한 토론회를 통하여 김형직선생님의 온 생애는 일편단심 나라의 독립과 후손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우신 열렬한 애국자의 생애였으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꺽일줄모르는 굳센 의지와 지칠줄모르는 혁명적열정과 미래에 대한 굳은 확신으로 가득찬 혁명가의 빛나는 생애였다는것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되였습니다.

실로 험난한 가시덤불을 헤치시며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력사에 남기신 김형직선생님의 고귀한 업적과 그이의 필승불패의 혁명정신은 오늘도 온 누리에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으며 우리들의 투쟁을 끝없이 고무하고있습니다.》 (말리 《김일성동지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 성원)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전생애를 혁명투쟁에 바치신 김형직선생님의 높은 혁명정신과 열렬한 애국심은 오늘 세계 모든 혁명가들의 귀감으로되고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조직지도하시면서 명시하신 반일민족해방의 정당한 방침들은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반대하여 싸우고있는 볼리비아와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을 무한히 고무하고있다.》 (라틴아메리카에 있는 한 사회활동가)

《김형직선생님은 세계의 위대한 혁명가들중의 한분이시며 그이의 이름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력사에 새별처럼 찬연히 빛날것이다.》 (파키스탄신문 《리더》)

《김형직선생님의 고귀한 혁명업적과 고상한 애국심은 오늘도 전세계에 휘황한 빛을 뿌리고있다.》(수단신문 《알 싸하파》)

은률혁명사적관

１９７４년에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은률혁명사적관이 개관되였다.

１９７４년 ４월 １１일 은률혁명사적관개관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개관식이 끝난 다음 사적관참관과 기념식수가 있었다.

은률혁명사적관은 옛날 그 자리에 원상대로 일떠세운 광선학교이다.

２개관으로 된 은률혁명사적관에 진렬된 혁명사적물은 김형직선생님의 은률일대에서의 혁명활동을 감회깊게 전해주고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학생시절에 벌써 인민들의 반일감정이 높아 독립운동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던 은률일대의 형편을 깊이 헤아리시고 몸소 교양육성하신 동지들을 이 광선학교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파견하시여 혁명의 골간을 꾸리고 대중적지반을 닦도록 지도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조선국민회의 창건을 전후한 시기에 은률일대의 반일력량에 대한 지도를 본격적으로 주시였다.

선생님께서는 １９１６년 일제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일신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은률군 금복리 대진나루를 건느시여 이곳 광선학교와 남산 밤나무골, 싸리재 등지에서 반일독립운동자들을 만나시여 담화도 하시고 비밀모임도 가지시였으며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시면서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인 투쟁방향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광선학교의 높은 연단에 오르시여 학생들과 학부형들, 인민들 앞에서 하신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민족은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노의 설음을 겪고있다. 사람마다 이 참경을 보고 한탄만 하고 앉아있어야 어찌 이 나라의 기상이 살아있다할수 있겠는가? 우리 청년학도들이 각성할때는 왔다. 우리는 나라를 찾겠다는 원대한 뜻을 품고 자기 손으로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

애국의 피끓는 선생님의 이 절절한 말씀은 시들어가는 조국땅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암담한 처지에서 헤매던 우리 인민들에게 철석같은 신념과 투지와 희망을 안겨주었다.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조선국민회를 창건하신 이후시기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이 일대에 구역장과 회원들을 보내시여 그 조직을 확대하며 반일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벌리도록 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１９１７년 여름 은률땅을 또다시 찾으시여 조선국민회 회원들을 비롯한 광선학교교원들과 독립운동자들의 비밀모임을 여시고 그간 이 지역에서 벌린 반일투쟁정형을 총화하신데 이어 동지규합과 조선국민회 조직의 확대, 군사간부와 인재의 육성 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몸소 조직지도하시면서 이 고장의 가난한 청년들을 만나시여 그들을 반일운동의 앞장에 서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또한 모임에서 인민들에 대한 반일애국사상교양을 강화하며 광선학교를 잘 운영하여 후대들을 반일독립운동의 역군으로 키울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반일민족해방운동전반을 헤아려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고장의 애국적인민들과 지식인들을 발동하여 광선학교의 수용능력을 넓혀주시고 학제를 새롭게 개편하시여 이 학교에 새로 《야학반》과 《보습반》을 병설하도록 하시였으며 학생들에게 조선말과 조선력사와 지리 등을 배워주어 조선을 잘 알도록 하시고 과외활동과 사회정치활동을 활발하게 벌려 그들을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도록 하시였다.

숭고한 혁명사상과 한없이 높은 덕성, 고결한 인민적풍모를 지니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이 일대의 보다 넓은 지역에 혁명의 불길을 지펴올리시기 위하여 밤잠도, 휴식도 잊으시고 찬이슬을 맞으시며 험준한 구월산 산발을 넘나드시는 그 어렵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싸리재의 산당집에 들리시여 농민들을 만나시고 조선은 반드시 독립한다는 신심을 안겨주시면서 집주변들에 과일나무를 심고 꽃도 가꾸어 앞날에는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로 선생님을 무한히 존경하고 흠모하여 마지않던 이 지방의 애국적인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은 선생님의 직접적인 지도와 말씀에 고무되여 일제와 지주, 친일관료배들을 반대하는 합법적 및 비합법적 조직들을 뭇고 소작쟁의, 동맹휴학을 비롯한 여러가지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였으며 강연회, 웅변회, 토론회 등도 조직하여 일제와 그 주구들의 죄행을 폭로하고 놈들을 청산하는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 이 일대에서 놈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였다.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은률혁명사적관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할것이며 조국의 통일독립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여줄것이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사적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사적비

(강선제강소 1971. 10. 9 세움)

이 땅우에 위대한 천리마시대를 열어놓으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불러주신 《천리마의 고향》—강선제강소.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깃들어있는 한그루의 백양나무가 서있는 이곳에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를 창조한《자력갱생의 표본공장》이 주체공업의 위용을 떨치며 거연히 솟아있거니.

사람들이여! 새 조선의 새 력사를 알리거든 이 공장을 보시라.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산좋고 물맑은 조국땅우에 부강한 인민의 나라를 세우실 위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수령님!

그이께서는 해방을 안으시고 조국에 개선하시자 20년 긴긴세월을 그처럼 그립던 고향집보다 우리가 더 귀중하시였던가, 만경대로 가는 갈림길을 지나시여 《동무들이 그립고 보고싶어서 왔소.》라고 하시며 우리들을 먼저 찾아주시여 새 조국을 강철로 일떠세우실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였어라.

그날부터 우리 공장을 위해 기울이신 수령님의 심혈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하랴!

수백년 갓쓰고 당나귀 타고 다니던 이 땅을 강력하고 문명한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킬 수령님의 크나큰 구상속에는 항상 강선과 강철로동계급이 첫자리에 놓여있었나니.

그이께서는 가렬한 전쟁의 나날에도 승리한 조국을 내다보시고 우리 공장의 복구건설도를 선참으로 그려주시였고 전후 한주일만에 우리들을 찾아주시여 1만 수천개의 폭탄구뎅이와 잡초만 무성하던 공장구내 저 백양나무 아래서 《나 혼자만 어떻게 의자에 앉겠소.》라고 하시며 무너진 벽체우에 앉으시여 우리의 힘, 우리의 자재, 우리의 기술로 공장을 복구개건할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던 우리들에게 강선과 조선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였어라.

《로는 나라의 심장이요.》— 전기로의 불길에서 나라의 맥박을 헤아리시고 조국의 백년앞을 꿰뚫어보시는 수령님의 총혜로운 안광이여!

그이의 말씀대로 강선이 크게 숨쉬자 전국각지가 일제히 약동하였거니, 정녕 수령님의 손길아래 우리 공장이 걸어온 그 나날은 조국이 새 모습 빛내인 그 나날이였어라.

아! 혁명의 폭풍속에서 태여난 천리마여, 우리 어찌 잊으랴, 안팎의 원쑤들이 책동하던 1956~1957년의 그 준엄한 시기를…

그날 눈바람 헤치시며 이곳을 찾아주신 수령님께서는 어려운 나라형편을 우리와 함께 의논하시고 전진을 가로막는 그 모든것을 불살라버리며 나래쳐가라고 손수 천리마운동의 첫 봉화를 우리들의 손에 쥐여주시며 말씀하셨어라.

《강선제강소는 당중앙위원회를 보위하는 근위대적역할을 하는 공장입니다.》

아! 수령님의 이 기대, 이 크나큰 신임앞에서 우리 어찌 불파 불 속엔들 뛰여들지 못하랴!

그이께서 안겨주신 집단적혁신과 인간개조의 붉은 기치를 높이들고 공칭능력 6만톤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톤을, 다시 25만톤을, 또다시 50~60만톤수준으로 비약한 그 기적은 수령님께 드린 충성의 보답, 온갖 원쑤들과 낡은것들을 사품치는 쇳물속에 쓸어넣던 조선로동계급의 위력의 시위였노라.

혁명의 기둥으로 우리들을 믿으시는 수령님께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전면적기술혁명에로 전체 인민을 부르시면서 다시 우리들을 그 앞장에 내세워주시였거니.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대고조의 행군길에서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올려세울 총돌격전에서 창조한 조선의 새 기적《강선속도》—이는 그이의 명령이라면 그 어떤 역경도 폭풍도 뚫고 나가는 우리 강철전사들의 충성의 날개.

아! 해방직후 우리들을 찾아주신 잊지 못할 그때로부터 이 공장을 자력갱생의 본보기로 꾸려주시기 위해 우리들을 투쟁속에서 키워주시고 붉은 기술군단으로 길러주시였으며 몸소 크고작은 직장의 터전까지 잡아주시고 그 설비들을 보내주신 수령님!

우리들을 이 세상 모든것의 주인이 되게 해주신 그이.

혁명과 건설에서 력사적전환의 매 시기마다 먼저 우리들을 믿고 찾으시여 나라일을 의논하시는 수령님!

우리들을 나라의 보배라고 자랑하시며 용해공들에게야 무엇을 아낄것이 있겠느냐고 특별히 용해공들이 사는 거리와 집들을 더 아름답고 크게 세워주시고 모든것을 우리들에게 선참으로 돌려주시는 수령님!

우리들의 가정을 찾으시여 손수 솥뚜껑을 열어보시고 부엌 아궁문도 열어보시며 불이 잘 드는가, 허리를 굽히시고 살펴보시는 어버이수령님!

우리와 함께 전체 로동계급과 인민들을 영웅으로 키우시여 남이 100년 가야 할 현대적기술문명의 고지를 불과 10여년만에 점령하게 하신 그이, 천리마조선을 온 누리에 떨쳐주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불멸의 업적이여, 후손만대에 길이 빛나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사적비

(평안남도 남포시 1973. 9. 9 세움)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감돌아흐르는 대동강하류, 여기 서해기슭에 일떠선 수도 평양의 관문도시 남포.

오랜 세월 천대와 고역에 시달린 어부들의 구슬픈 노래소리 처량하던 원한의 포구에 오늘은 주체의 빛발아래 사회주의지상락원이 활짝 펼쳐졌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원수님께서 조국강산에 새봄을 안아오신 그날로부터 남포시의 새 력사는 시작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포시는 수도 평양의 해상관문이며 중요한 위성도시입니다. …남포시를 공업, 문화, 항구 도시로 화려하

고 웅장하게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온 나라가 해방의 감격으로 들끓던 1945년 11월 17일,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몸소 이곳을 찾으시여 나라가 해방되였으니 이제는 우리의 손으로 이 땅우에 부강한 새 조국을 세워 남부럽지 않게 떳떳이 살아야 한다고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른 새벽과 깊은 밤, 찌는듯한 더위와 모진 추위도 마다하지않으시고 150여차례나 이곳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이 땅을 찾아주실 때마다 창조와 혁신의 불길이 타오르고 그이께서 밟으신 현지지도의 걸음걸음마다에서 변혁과 기적이 수놓아졌다.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폭격으로 모든것이 재더미로 된 제련소를 찾아오신 수령님께서는 산산이 부서진 진로앞에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그 전보다 몇십배 더 웅장하게 공장을 일떠세우자고 하시며 복구건설의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대중을 그 실현에로 이끄시여 오늘의 대유색금속기지를 마련하여 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난날 돛배마저 제대로 뭇지 못하던 이곳에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웅장한 대조선기지를 꾸리시여 … 산악같은 배들도 척척 뭇도록 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시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유리를 대량적으로 생산할수 있도록 이곳에 대규모의 유리생산기지를 꾸려주시였으며 온 나라의 방송화와 텔레비죤화에 이바지할 대약전기지를 꾸려주시고 현대적인 화학공장의 터전도 잡아주시였다.

수령님의 따뜻한 손길아래 중앙공업과 함께 수많은 지방산업공장들이 일떠서 말 그대로 공장의 숲을 이룬 남포시는 금, 은, 동으로부터 갖가지 일용품들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오는 현대적공업도시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날 가난하고 어지러운 포구였던 남포시를 현대적인 항구도시로 꾸리도록 친히 건설방향을 제시하시고 공원과 살림집터전까지 일일이 잡아주시여 이 고장을 다층주택들이 즐비하게 일떠선 현대적인 아름다운 문화도시로 꾸려주시였다.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이 나날이 꽃피여가는 청춘도시 남포!

혁명의 후계자들을 키워내는 강반석혁명학원을 비롯한 수많은 학교들, 해빛 밝은곳에 아담하게 들어앉은 탁아소와 유치원, 병원, 현대적인 극장과 체육촌, 록음우거진 우산장의 휴양소와 와우도의 휴식터, 이 모든것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손길이 어려여있다.

수령님께서는 파도 설레이는 바다가에 나가시여 물속깊이도 헤아리시며 항만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건설설비까지 친히 보내주시여 현대적인 항구로 꾸려주시였다.

수령님의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지난날에는 쪽배도 기슭에 닿기 주저하던 이 포구가 오늘은 먼 대양의 배길들을 한품에 모으는 현대적인 항구로 전변되여 주체조선의 위용을 온 누리에 찬연히 빛내이고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라 하시며 언제나 인민생활을 친어버이사랑으로 돌보아주시는 수령님!

갈매기도 채 잠을 깨지 않은 이른새벽 친히 배머리에 오시여 지난날 고역과 천대에 시달린 어로공의 짠물에 파다진 비옷도 몸소 입어보시고 끓고있는 가마뚜껑도 열어보시며 어로공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어버이수령님!

인민들에게 더 좋은것을 먹이시려고 심려하시는 수령님께서는 서해수산업을 발전시켜 여러가지 물고기와 젓갈품들을 더 많이 공급하도록 하여주시고 이슬덮인 포전길을 걸으시며 분수식관수체계를 세우는 방법까지 가르쳐주시여 시민들에게 남새가 풍족하게 차례지도록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공장굴뚝의 연기가 거리에 미칠가 념려하시여 공기 맑은 곳에 주택지구를 잡아주시였으며 로동자들의 건강에 해를 주는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도록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따사로운 품속에서 남포시는 오늘 현대적인 공업도시로, 아름다운 항구문화도시로 번영하고 사람들은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신 크나큰 은덕과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일편단심 충성을 다하려는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여기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동상을 높이 모시고 삼가 이 비를 세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사적비

(평안북도 창성군
1974. 4. 12 세움)

긴긴세월 바람소리 거칠고 물소리만 외롭던 두메산촌에서 대대로 화전민들이 모지랑호미로 돌밭을 뚜지며 도토리죽그릇에 눈물을 뿌리던 원한의 땅 창성!

이 궁벽한 땅에 오늘은 인민의 락원이 펼쳐져 온 세상에 그 빛나는 모습을 자랑하고있거니.

비래봉 황금숲은 기쁨에 설레이고 다락논, 다락밭엔 오곡이 파도치며 이 고장에 천지개벽을 이룩해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높은 은덕을 장엄히 노래한다.

수세기를 내려오며 도시와 농촌간에 생긴 장벽을 허치시며 벌방보다 뒤떨어진 산간지대농촌을 추켜세울 위대한 구상을 무르익혀 오신 수령님.

수령님께서는 «창성사람들은 창성땅에서 공산주의락원을 훌륭히 건설하여야 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창성땅을 우리 나라 산골농촌의 본보기로 만들어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당의 방침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산을 낀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고 바다를 낀곳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하며 …지방에 있는 좋은 조건들과 예비들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그날에 벌써 이 고장농민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산을 잘 리용할데 대하여 일깨워 주신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해마다 이 고장을 찾으시여 농산과 축산을 배합하여 산간지대의 특성에 맞게 다각경리를 운영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거니.

그이께서 걸으신 이슬내린 고추밭머리와 축산토대를 닦아주시기 위해 밟으신 험준한 산길은 그 얼마이며 지방산업의 전망도를 보아주시며 지새우신 밤은 그 얼마였던가.

강냉이밭머리에서 차를 멈추시고 풍작이를 방도를 가르쳐주실 때,

산골의 찬 날씨에 벼농사를 념려하시여 논배미에 흘러드는 도랑물에 손을 담그어 보실 때

아, 우리의 감격과 기쁨은 얼마나 컸던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오늘 창성땅에는 온 군이 먹고 남는 알곡이 쏟아지며 산은 산마다 황금산으로 빛나고 그 기슭마다 집집승떼 구름처럼 흐른다.

호미 한 자루 변변히 벼리지 못하던 이곳에 현대적 지방산업공장의 기계소리 요란히 울리고 코끝불만 가물거리던 산간마을에 약수중학교를 비롯한 학교들과 탁아소, 유치원, 병원, 문화주택들이 일떠서 행복의 노래 차넘친다.

우리 창성에서 그 모범을 창조하신 수령님께서는 천구백륙십이년 팔월 력사적인 지방당 및 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를 여시고 온 나라에 그를 일반화하시였으며 공산주의농촌건설의 지역적 단위와 거점으로서의 군의 위치와 역할에 관한 위대한 사상과 천재적인 리론을 독창적으로 밝히시였다.

아, 이 나라 산간지대 농촌들이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지름길을 찾으시여 우리 창성땅에 지상락원을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우리는 여기에 지성어린 비를 세워 해와 달과 더불어 무궁토록 빛날 그이의 위대한 업적과 높은 은덕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사적비

(황해남도 1972. 4. 15 세움)

가없이 넓은 나무리, 어러리, 연백 벌에 황금나락 물결치고 땅속엔 온금보화가 가득찬 번영하는 땅 황해남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황해도는 정치, 경제적으로 보아 매우 중요한곳입니다. 황해도는 평야도 많고 토지가 비옥하여 우리 나라의 중요한 식량기지입니다. 》

《우리 나라 전체가 공업국가인것만큼 황해남도도 역시 공업도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발전된 농업—공업도로 만들고 앞으로는 발전된 공업—농업도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일제와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인민들이 대대로 피눈물을 뿌리며 살아오던 여기, 오늘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믿음직한 식량기지로, 현대적인 공업기지로 전변되여 인민의 락원으로 꽃핀 이 땅.

사람들이여! 이 땅에 해방의 새봄을 가져다주시고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영원히 잊지말자!

수령님께서 1945년 12월 새 조국 건설의 모든 일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여기 해주시를 찾으시여 우리 로동계급과 농민들, 지식인들 그리고 청년들과 녀성들을 민주건설의 장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주시였나니.

그날로부터 사람들은 은혜로운 그이의 손길따라 새 생활 창조에 일떠섰어라.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나날에도 전초선에 서있는 우리들을 념려하시여 밤을 지새우시였고 전후에도 하루빨리 전쟁의 상처를 가시도록 극진히 보살펴주시였거니.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나고 인민생활이 날을 따라 꽃피여갈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농촌건설강령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펼쳐주시고 이 땅을 나라의 대곡창지대로 꾸려주시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신 수령님.

그이께서 도내의 높고낮은 산발들을 오르내리시며 저수지와 양수장이 앉을 자리까지 잡아주시고 청단관개를 마련하여주시여 오늘은 연연 수만리에 뻗은 물길 따라 모든 논과 밭에 생명수 출렁인다.

수령님께서 해방직후 재령땅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농기계임경소를 무어주시고 뜨락또르를 보내시여 농촌기계화의 첫 기원을 열어주신 그때로부터 얼마나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는가.

오늘은 주체공업의 빛발아래 뜨락또르와 자동차들이 발동소리 높이 농장벌을 달리고 기계와 전기, 약으로 농사짓는 새시대가 펼쳐졌어라.

수령님께서 황해남도에 찾아오실 때마다 공업의 기초가 없는것을 몹시 심려하시며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신것만도 그 얼마였던가.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그이께서는 1970년 9월에 또다시 우리들을 찾으시여 황해남도를 발전된 공업—농업도로 만들 휘황한 새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농업에 복무하는 튼튼한 공업기지를 꾸려주시였다.

이르는곳마다에 솟아오른 공장들과 문화시설들, 황금벌을 안고 즐비하게 일떠선 농장마을들, 오늘의 이 위대한 전변속에는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이 또한 얼마나 깊이 스며있는가!

《당은 유가족들을 기둥으로 믿고있소. 》라고 하시면서 이름없는 한 유가족을 찾으시여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보살피시며 마안산의 어린이들을 안아주시던 그 자애로운 사랑의 품에 우리 유자녀들을 안아주시고 혁명학원까지 세워주신 수령님.

열자식을 한자식처럼 끝고루 사랑하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미제원쑤놈들에게 끌려간 사람들의 가족들과 한때 혁명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피로와하던 사람들까지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신 수령님.

아, 수령님의 위대한 그 사랑, 그 은혜 하늘에 비기랴 바다에 비기랴!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큰 행복과 번영을 안겨주시려 새벽이슬에 옷자락을 적시시며 걷고걸으신 길 몇천몇만리였던가!

어제는 숫눈길을 밟으시며 광산막장을 찾으시고 오늘은 농촌의 두렁길을 걸으신 수령님.

몸소 이름없는 로동자와 농민의 집도 찾으시여 손수 솥뚜껑까지 열어보시고서야 마음놓으시는 수령님.

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속에서 끝없이 번영하는 황금의 땅이여!

저 구월산기슭으로부터 례성강반에 이르기까지 세세년년 만풍년을 노래하는 기름진 농장벌과 백과주렁지는 백리청춘과원, 그리고 사시장철 포구마다에 풍어기 휘날리는 여기 살기좋은 황해남도!

수풀처럼 일떠선 공장들과 광산마다에선 쇠들과 세멘트, 농기계와 린비료, 갖가지 인민소비품들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오며 이르는곳마다 새 철길이 뻗고 농촌마을마다에는 뻐스가 달린다.

아담하게 일떠선 문화주택들엔 수도물이 콸콸 쏟아져나오고 전기불 밝은 창가마다에선 웃음소리 노래소리 울려퍼진다.

천리마 나래치는 로동당시대, 입을 걱정 먹을 걱정을 모르고 백년장수하는 부럼없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마음껏 배우며 행복을 누리고있거니.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공화국북반부를 우러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안길 그날을 위해 싸워오던 인민들,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관개수에 뛰여들어 《김일성장군 만세!》를 목메여 부르고 또 부르던 저 남연백의 농민들도 오늘은 나라의 어엿한 주인으로 되여 복된 삶을 노래한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높이 받들고 공산주의의 찬란한 래일을 앞당겨가며 여기 서해관문을 철벽으로 지켜선 우리.

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끝없는 행복이여! 다함없는 영광이여!

우리는 대를 이어 충성다할 뜨거운 마음을 담아 여기에 삼가 그이의 동상을 모시고 비를 세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크나큰 은덕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사적비

(황해남도 안악군 대추리
1974. 4. 15 세움)

오랜 세월 일제와 지주놈들의 압박과 착취밑에서 손끝이 모지라지고 등뼈가 휘도록 일하면서도 수수타개죽과 넉새무명옷을 면할길 없었던 대추리 농민들, 오늘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사람마다 행복하고 보람찬 새 생활을 누리고있다.

사람들이여!

이땅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과 극진한 사랑으로 수놓아진 천지개벽의 자랑찬 새력사를 영원히 잊지 말자.

조국땅에 해방의 새봄을 안아오신 수령님께서는 이곳 농민들에게 땅을 주시고 협동의 새 살림을 무어주시였으며 몸소 여러차례 찾아오시여 농사형편과 농민들의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알아보시고 농장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농장은 참 좋은 농장입니다. 농장원들이 더 잘 살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목화농사를 잘하며 이모작농사에서 반드시 선봉이 되여야 하겠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날이 저물도록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우리 농장의 수리화방도를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였으며 이슬젖은 논두렁과 산비탈을 걸으시며 양수장자리도 잡아주시고 막대한 설비도 보내주시여 억년 물걱정을 모르는 농장으로 꾸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기온이 온화하고 등성이밭이 많은 이 고장 특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작물배치계획도 세워주시였고 농장을 찾으실 때마다 포전을 돌아보시며 목화뿌리도 손수 파보시고 그루조이삭도 만져보시면서 이 지대농법의 독창적인 새길을 열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풀먹는 집승들을 기르고 복숭아, 포도를 비롯한 빨리 열리는 과일나무도 많이 심도록 하시여 농장의 수입을 부쩍 높여주시였다.

녀성농장원들이 호미로 김을 매고 등짐으로 거름을 나르는것을 보면 잠이 오지 않는다 하시며 수많은 뜨락또르와 자동차, 비료와 농약을 보내주시여 기계와 약으로 홍겹게 일하도록 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

우리 농민들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으시여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주시고 농장의 주인은 농민들이라 하시며 어제날의 머슴군들을 혁명의 대를 이을 관리일군으로, 기사, 기수로 키워주시였으며 물좋고 양지바른곳에 학교와 병원, 문화회관을 지어주시고 각종 악기류까지 보내주신 어버이수령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극진한 배려와 따사로운 보살피심속에서 오늘 대추리는 끝없이 번영하는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전변되였다.

사흘가물에도 거북등처럼 트던 한천평과 내사벌, 한줄기 소나기에도 물란리를 겪던 대안평엔 매해 만풍년이 들고 삼단양수로 생명수를 받는 대성벌 둔덕엔 목화송이 구름처럼 피여나며 버림받던 월호산기슭에는 과일이 주렁진다.

마을마다엔 아담한 문화주택들과 탁아소, 유치원들이 즐비하게 일떠섰고 집집마다에선 수도물이 팔팔 쏟아져 사람들은 모두다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우리는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성다할 굳은 맹세다지며 여기에 삼가 비를 세워 인민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업적과 크나큰 은덕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사적비

(량강도 풍산군
1973. 8. 5 세움)

오랜 세월 사람 못살곳으로 버림받아오던 개마고원의 풍산땅, 착취와 압박에 시달리다 못해 살길을 찾아 부대기밭에 명줄을 걸고 등뼈가 휘도록 일하면서도 토스레옷, 귀밀죽을 면할수 없었던 이고장 인민들.

오늘은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풍요한 땅으로 전변되여 인민들은 모두가 행복하고 보람찬 새 생활을 누리고있다.

사람들이여!

이곳 풍산땅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은덕과 극진한 사랑으로 수놓아진 천지개벽의 자랑찬 력사를 잊지 말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1930년 여름 우리 나라에서 첫 맑스—레닌주의적무장소조인 조선혁명군을 보내주시여 암흑속에 모대기던 이곳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민족재생의 희망을 안겨주시였고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의 나날에는 수많은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시여 조국광복회조직을 무어 인민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켜주시였다.

조국땅에 해방의 새봄을 안아오신 수령님께서는 세기를 두고 가난에 쪼들리던 이고장 인민들의 처지를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가슴아파하시며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육친적배려를 끊임없이 돌려주시였다.

잊을수 없는 력사의 날 1963년 8월 5일!

오매에도 그립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구름도 쉬여넘는다는 후치령 아흔아홉굽이도 마다하시지 않으시고 여기 풍산땅을 찾아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 산간벽지에 사흘이나 머무르시며 군내 경제형편과 인민들의 살림살이를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고 군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 땅이 참 좋은곳입니다. …나는 이 땅이 마음에 듭니다. …여기 개마고원사람들도 잘하면 2~3년내에 부유중농의 수준으로 될수 있습니다. …아마와 다른 공예작물도 심고 양을 길러 털을 깎으면 현금수입도 높일수있습니다.»

봄은 늦게 오고 찬서리 일찍 내리는 지대적조건을 헤아리신 수령님께서는 허물없이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협의회를 지도하시면서 고산지대농법의 독창적인 길을 열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추위에 견디는 곡식을 심어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끄떡하지 않는 작물배치원칙을 가르쳐주시고 이 지대 기후풍토에 알맞는 좋은 씨앗을 얻어내야 한다 하시며 농사시험장과 채종농장을 꾸려주시여 농사를 과학적으로 짓는 새시대를 펼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호미와 가대기로 농사짓던 이곳 농민들에게 수많은 현대적농기계들을 보내주시여 기계로 홍겹게 일하도록 하여주시였으며 집짐승을 많이 길러 수입도 부쩍 높일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공산주의자는 자연을 개조하여야 한다고 크나큰 신심과 용

기름 안겨주시면서 방풍림을 조성하고 제방도 쌓아 토지를 보호하며 메마른 땅을 옥토로 전변시키도록 이끄시여 해마다 만풍작의 기쁨을 안겨주시였다.

너무나 못살던 이고장 인민들을 생각하시여 이른새벽 이슬젖은 포전길을 밟으시며 감자포기도 손수 파보시고 저녁노을이 비낀 가파로운 언덕 숲속을 헤치시며 방목지도 정해주신 수령님!

산간지대인민들이 쌀밥을 먹지 못하는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하시며 농민들이 감자를 옥백미로 바꾸어먹도록 뜨거운 배려를 안겨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아 어린이들의 점심밥곽까지 열어보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

수령님께서는 겨우 첫걸음을 뗀 자그마한 지방산업공장에도 들리시여 이 지방원료로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일수 있는 방도를 가르쳐주시여 갖가지 식료품과 일용품이 쏟아지게 하여주시였다.

1,300메터의 이 고원지대에 배추를 심어 푸르싱싱 자란 통배추를 먹게 하여주시고 이고장 인민들이 먹는 장맛이 어떤가 친히 맛을 보시고 장을 맛있게 담그는 방법까지 가르쳐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을 어찌 산의 높이나 바다의 깊이에 비길수 있으랴!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끝없이 번영하는 풍산!

해마다 보라빛감자꽃 만발하고 아마밭과 밀보리밭에 황금파도 설레이며 언덕우에 양떼 구름처럼 흘러가는 풍만한 땅, 산은 산마다 황금산으로 변하였고 땅속에서는 금은보화 솟아난다.

지난날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졌던 이곳에 각급 학교와 탁아소, 유치원, 병원들이 일떠섰으며 창밝은 문화주택들이 아담하게 들어앉은 리마다에는 뻐스가 다니고 수도물이 콸콸 쏟아진다.

아! 천년을 두고 만년을 두고 길이길이 전하여갈 수령님의 높으신 은혜여!

뜨거운 그 사랑이여!

우리는 수령님께 충성다할 불같은 마음을 담아 여기에 비를 세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높으신 은덕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사적지

(과학원 함흥분원
1974. 6. 13 세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여기 반룡산기슭에 자리잡은 과학원 함흥분원은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보살피심속에서 태여나 주체적인 과학연구기지로 믿음직하게 발전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화학공업발전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천구백륙십년 팔월 삼십일, 당시 여러곳에 널려있던 화학연구기관들을 한곳에 모아 현지에서 생산과 결부된 연구사업을 할수 있도록 과학원 함흥분원창설을 발기해주시였고 그 이듬해 사월 이일에는 몸소 여기에 오시여 백년대계의 과학전당으로 잘 꾸리자고 하시면서 분원의 터전까지 손수 잡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과학발전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자연 및 기술 과학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의 자연부원과 원료에 토대하여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

과학원 함흥분원에서는 과학을 주체성있게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원료로, 나라의 실정에 맞게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방향과 구체적인 연구과제까지 하나하나 제시해주시였으며 우리들에게 온갖 연구조건들을 빈틈없이 마련해주시고 무한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였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도 과학자들의 연구사업을 념려하시여 연구기관들을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시고 수많은 실험기구와 귀중한 시약들을 보내주신 수령님,

전후복구건설의 그 바쁜 시기에도 멀고 험한 산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몸소 청수비날론중간공장까지 찾아오시여 당중앙은 동무들의 연구사업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는것이 없다 하시며 비날론생산의 공업화를 위해서 나서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을 손수 풀어주신 수령님,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그 손길, 그 사랑이 있었기에 돌에서 솜을 뽑는 기적이 창조되고 세계일등급의 비날론공장이 일떠섰다.

수령님께서는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킬 영예로운 과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고 비료, 살초제연구실에까지 친히 찾아오시여 우리들과 함께 실험도 해보시고 미숙한 연구자료와 론문도 보아주시고 손수 과학서적들을 보시고는 참고될 부분에 줄을 그어두시였다가 가르쳐주시면서 우리들의 연구사업을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비료와 농약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와 농민들의 힘든 일을 대신하며 해마다 만풍만을 안아온다.

인민들의 살림을 두고 그처럼 심려하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합성수지와 합성고무, 중소화학과 석유화학 공업의 창설과 그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들을 친히 불러주시여 연구사업의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한밤중에 전화까지 거시여 연구사업의 정형을 알아보아주시였고 일용필수품생산을 위한 연구에서 달성된 적은 성과도 기뻐하시며 우리들을 당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일제통치의 암담한 세월 과학연구에 대한 열망을 안고도 갈길을 못찾던 과학자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여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혁명화의 기본방도는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항일전의 그날, 어린 대원들의 손목을 잡고 사독판의 외나무다리를 건네여주시던 그 자애로운 손길로 우리 과학자들을 이끌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그 어려운 나날, 후퇴의 길에 오른 한 과학자와 그 가족들의 신변을 념려하시여 오솔길로 안전하게 오라고 육친적배려를 돌려주시고 병석에 있는 한 과학자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보약을 보내주시고 직접 병원까지 찾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

우리 과학자들에 대한 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덕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수령님의 그 높으신 뜻과 그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며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려는 붉은 마음을 담아 여기에 비를 세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그 사랑과 그 은덕을 후손만대에 길이길이 전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사적지

(함경남도 덕성군 후치령 1972. 8. 5 세움)

여기 후치령은 강도 일제놈들에게 조국을 빼앗긴 이 나라 인민들이 모진 착취와 억압 속에서 몸부림치던 수난의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우리 나라에서 첫 맑스—레닌주의적무장소조인 조선혁명군의 한 소조와 정치공작원들을 보내시여 검은 구름이 뒤덮였던 조선의 하늘에 민족재생의 서광을 비쳐주신 력사의 고장이다.

1963년 8월 5일 흰 구름발에 옷자락 스치시며 높고 험한 령길을 굽이굽이 에돌아 민족의 태양 김일성원수님께서 여기 해발 1,300메터의 후치령마루에 오르시였다.

《여기가 개마고원입니다. 무연하고 지대가 넓어서 양을 방목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방목지를 잘 조사하여 풀판이 넓고 좋은데서는 큰 규모로 양 방목을 하고 산경사지가 급하고 나무가 많아서 풀판이 좁은데서는 그 조건에 맞게 중소규모의 방목을 배합하여 양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산림조성과 그 보호사업, 이곳에 알맞는 작물배치와 채종 및 농사시험사업 등을 잘 할데 대해서와 높은 지대 인민들의 힘든 로동을 하루빨리 덜어줄 기계화의 휘황한 전망을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령마루길가에 새로 지은 정각에 오르시여 손수 기둥을 만져보시며 령을 넘어다니는 사람들이 이 정각에서 쉬고가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길손들이 떠마실 샘물까지 걱정하여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손길이 닿아 천만년 버림받던 땅에도 수백수천마리의 양떼들이 구름처럼 뭉게뭉게 흐르고 뜨락또르 달리는 개마고원의 사래긴 밭이랑마다에 밀보리이삭 파도처럼 설레이는 천지개벽된 이 고장을 온 세상에 자랑한다.

하여 우리는 구름도 쉬여넘는 여기 이 높은 령마루에 비를 세워 이곳에 몸소 찾아오시여 높은 지대 인민들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창조의 노래, 행복의 노래 끝없이 울려퍼지는 후치령의 새 력사를 마련해주신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업적과 높고깊은 은덕을 후손만대에 길이길이 전하노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사적지

(강원도 철원군 문암리 나루터 1973. 9. 28 세움)

조국강산에 민족재생의 새봄을 안겨주시고도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 수천수만리의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걸으시며 걸음마다 영광으로 불러주시고 자욱마다 승리에로 이끌어주시는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

잊을수 없어라. 일천구백사십팔년 가을 수령님께서는 나라 일이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강원도를 현지지도하시는 길에 사나운 비바람에 옷깃을 적시시며 여기 림진강 문암나루를 몸소 건느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나루배우에서도 이 고장사람들의 살림살이와 이름없는 한 배사공의 수고를 깊이 헤아리시며 농사도 잘 짓고 자식들에게 공부도 잘 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자연개조의 위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다.

《여기에 큰 다리를 놓아야 하겠습니다. …

앞으로 나라가 통일이 되면 좋은 곳으로 발전할수 있습니다.》

정녕 그날부터였다. 압제의 모진 세월 피눈물만 서리였던 여기 나루터에는 만년대계의 황강다리가 놓였고 그 우로는 뜨락또르와 자동차가 끊임없이 오가며 사람들은 이 다리를 건너다니면서 수령님의 뜨거운 은정을 노래한다.

분계선인민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현대적인 농기계와 수많은 자금과 자재, 기술력량까지 선참 돌려주시는 수령님의 끊임없는 배려밑에 양지바른 문암마을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변하였거니.

관개수 넘쳐흐르는 들판마다에는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농사짓는 새시대가 펼쳐졌고 백과주렁지는 산기슭에 소복이 들어앉은 문화주택마다에서는 행복의 노래소리 그칠사이 없어, 가난에 그토록 짓눌려 허리를 못펴던 이 고장 농민들의 피눈물나는 이야기도, 나루배에 목숨걸고 살아오던 늙은 배사공의 구슬픈 노래소리도 이제는 영영 옛말로 되였어라.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해빛아래 사람들은 충성의 한마음안고 공산주의 붉은 꽃동산을 가꾸어 가거니.

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덕을 우리 어찌 말과 글로 다 할수 있으랴!

아,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하신 발자취가 스미여있고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는 림진강, 영광의 나루터여!

우리들은 자애로운 어버이 김일성원수님의 사랑과 은덕을 영원히 노래하며 몸과 마음 다바쳐 그이께 충성다하리라.

승리자동차종합공장 유래비

(1974. 11. 18 세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밝은 태양아래 우리 나라 주체공업의 위용을 자랑하며 … 거연히 일떠선 승리자동차종합공장

조국의 억만보배를 가득 싣고 공산주의령마루를 향하여 줄달음치는 자동차의 행렬을 바라볼때마다 우리는 자동차공장에 깃든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크나큰 은덕을 가슴깊이 되새긴다.

미제침략자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온 나라가 엄혹한 시련을 겪고있던 천구백 오십년 십월 이십일, 전선길을 헤치시며 이곳을 지나시던 수령님께서는 이름없는 한 바위산에 이르시여 바쁘신길 멈추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가르치시였다.

《… 앞으로 이산에 … 큰 공장을 차려놓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앞당길수 있으며 복구건설사업도 자체의 힘으로 빨리 해결하여 나갈수 있는 경제토대를 가지게 됩니다.》

아, 나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그 준엄한 시각에도 전쟁승리의 그날을 그리시여 부강조국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이여, 높으신뜻이여!

수령님께서는 천구백 오십이년 가을, 다시금 이곳을 찾으시여 인민군용사들이 미제원쑤놈들을 쓸어눕힌 이산을 《승리》산이라 불러주시며 여기에 만년대계의 공장을 건설하자고 우리들을 힘있게 고무하여주시였다.

이리하여 전선에서 울리는 멸적의 포성과 함께 이곳에서는 대공업기지의 튼튼한 기둥을 일떠세우는 우렁찬 건설의 노래가 높이 울려퍼졌다.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후 복구건설의 첫삽을 들던 그날에도 몸소 이곳에 찾아오시여 공장건설을 앞당길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싸움의 그날에 친히 키우신 기술집단도, 푼전을 아껴가며 마련하신 기계설비들도 선참으로 보내주시여 우리들을 자동차생산에로 힘있게 불러주신 어버이수령님!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을 기계화하는데도,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도, 국방력강화에도, 인민생활향상에도 자동차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 손으로 자동차를 만들어야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빨리 할수 있습니다.》

천구백오십팔년 시월, 우리 공장을 또다시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빈주먹으로 폭탄을 만들어 원쑤를 쳐부신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우리의 손으로 기어이 자동차를 만들어내야 한다하시며 우리들의 가슴마다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심어주시였다.

오직 어버이수령님께 충성다할 한마음으로 가슴불태운 우리들은 안팎의 원쑤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수령님께서 심어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산산이 짓부시며 설계도면도 없이 자동차를 분해하여 그것을 보고 하나하나 깎아맞추어 단사십일만에 첫 자동차를 세상에 내놓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우리 나라 자동차공업의 새 력사를 온 세상에 알리며《승리 오십팔》형 제일호가 당중앙위원회 정문에 들어섰을 때 차를 만지시며 우리의 손으로 자동차를 생산한것은 나라의 공업발전과 기술혁명에서 큰 사변이라고 그렇게도 기뻐하신 어버이수령님!

수령님께서는 우리 공장을 《승리자동차공장》이라 친히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우리 기계전사들을 《승리산의 용사》라고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이 영예, 이 영광을 가슴에 안은 우리들은 단숨에 삼천대고지우에 뛰여올랐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남들이 백년을 두고 걸어온 로정을 십년으로 주름잡아 오늘 세계 굴지의 현대적인 대자동차종합생산기지를 이땅우에 일떠세웠다.

혁명의 매 시기마다 우리들을 주체공업에서 큰 몫을 담당하도록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에게 그 얼마나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고 계시는가,

우리들의 식생활을 념려하시여 이 깊은 산골에도 사철 푸른 남새기지를 꾸려주시고 현대적인 닭알공장을 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

삼태성도 조으는 깊은밤 평양에서 몸소 전화까지 거시여 앓는 사람은 없는가, 선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겨울나이 준비는 다 되였는가 하나하나 알아보시고 좀 가까왔으면 매일이라도 가고싶다 하시며 친어버이 정으로 심려하여 주신 밤은 그 얼마였던가.

수령님의 끝없이 자애로운 사랑속에 우리의 심장은 오직 주체형의 붉은피로 불타고 승리산에는 혁명의 북소리 더욱 높이 울렸나니,

오늘은 여기서 자동차호롱선을 타고 《승리》호, 《자주》호, 《투쟁》호, 《건설》호의 대군단이 금은보화 가득찬 광산과 혁신의 노래 드높은 사회주의대건설장으로, 풍요한 협동벌로, 조국의 천리방선으로 대지를 구르며 힘차게 달려나간다.

어제날 달구지의 삐꺽소리만이 산천에 서렸던 이땅에 오늘은 그 어데가나 자동차의 물결이 구비쳐흐르거니

아! 나라의 기계화의 큰 대문을 열어주신 어버이수령님께 우리 모두 뜨거운 감사를 드리자!

우리는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영원히 충성다할 굳은 맹세다지며 자동차공업의 억센뿌리가 내린 력사의 땅, 승리산에 충성의 비를 높이 세워 위대하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크나큰 은덕을 후손만대에 길이전한다.

운봉발전소유래비

(1973. 10. 10 세움)

백두산천지에서 흘러내려 천여리, 여기 유서깊은 압록강기슭에 로동당시대의 위용을 자랑하며 거연히 솟은 운봉발전소! 바다처럼 펼쳐진 백리호수 푸른 물결도 운봉산기슭에 출렁이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전기화사상의 빛나는 승리를 노래하고 있다.

온 나라를 전기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신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천리마의 대진군을 계속하고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더 많은 전력을 요구할 때 여기 운봉에 대수력발전소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１９５８년 ８월 ３일 머나먼 천리길 무더운 삼복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곳에 오시여 손수 발전소터전을 잡아주시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초석으로 될 새 동력기지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로 건설하자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운봉발전소는 세계적으로 큰 규모의 발전소입니다. 그러므로 발전소건설은 우리 당앞에 제기된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운봉발전소건설을 결정적으로 자비로 합시다. 큰일이지만 그러나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직 모든 일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들의 힘을 믿으시면서 이 어렵고 보람찬 일을 맡겨주시였을 때 우리의 기쁨과 영광은 얼마나 컸던가.

우리들의 힘든 일을 덜어주시기 위하여 현대적인 대형기계설비와 위력한 기계화부대를 보내주신 수령님. 하늘에 비구름만 떠돌아도 찬서리만 내려도 발전소건설을 념려하시여 전화를 걸어주신 수령님.

수령님께서는 １９６４년 ５월 ３일 건설자들이 보고싶어 왔다고 하시면서 거창하게 일떠서는 언제를 일일이 돌아보시고 우리들의 적은 성과를 분에 넘치게 치하하여주시였다. 공사의 첫시작부터 준공의 그날까지 우리 건설자들을 어느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아껴주신 수령님.

발전소건설장은 사상을 단련하고 기술을 련마하는 종합대학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을 당의 전기화초병으로 키워주신 수령님. 청년들이 생소한 산골에 와서 나라의 동력기지건설을 위하여 고생한다고 하시면서 겨울옷과 영사기도 보내주시고 합숙에 들리시여 식생활까지 걱정해주신 수령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에 무한히 고무된 우리 건설자들은 일편단심 수령님에 대한 피끓는 충성심으로 령하 ４０도의 혹한속에서도 물에 서슴없이 뛰여들어 사납게 밀려드는 물결을 가슴으로 막으며 강바닥바위를 까내고 콩크리트를 다져 긴긴세월 덧없이 흐르던 압록강의 거세찬 흐름을 막아 억년 드놀지 않을 청춘언제를 일떠세웠거니.

일제통치시기엔 화전민의 고달픈 그림자 외롭던 두메산골에 오늘은 조국땅에 공산주의를 앞당기는 만년대계의 강력한 동력기지 운봉발전소가 건설되였다. 오늘은 여기서 일으키는 전기가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환히 밝혀주고 있거니.

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기화의 원대한 구상이 꽃핀 땅이여!

우리는 여기에 비를 세워 주체의 기치높이 우리 나라를 전기화의 길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과 높으신 은덕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한다.

정　치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가장 높은 영예이며 가장 큰 행복이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인민은 유구한 조국청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일대 민족적번영과 륭성의 새시대에 살고있다.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있으며 정치와 경제, 사상과 도덕, 교육과 문화예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여 우리 나라는 주체조선, 천리마의 나라,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더욱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기나긴 세월 망국의 치욕속에서 신음하던 우리 인민은 오늘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의 강국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보람차고 떳떳한 삶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있으며 위대한 주체시대를 노래하면서 사회주의의 휘황한 앞날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의 력사에서 일어난 이 세기적인 전변은 우리 인민이 위대하고 영명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를 받들어나감으로써 이룩된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인민이 높이 모시게 된것은 암흑속에서의 새조선의 빛나는 탄생이였으며 혁명의 새시대, 주체시대의 기원을 열어놓은 세기의 려명이였으며 가슴속에 비운이 드리웠던 인민들에게 광휘로운 빛발을 뿌려주는 주체의 태양의 장엄한 해돋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권위와 위신은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높이에 있다.

하기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20세기의 위대한 영웅》, 《현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민의 수령》,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위대하고 세련된 수령》, 《주체의 억센 빛발을 뿌려주시는 위대한 붉은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며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끝없는 영예와 행복에 넘쳐 위대한 수령님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담아 심장의 노래, 충성의 노래, 만수축원의 노래를 드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은 혁명의 태양
내조국 찾아주신 해방의 은인
이 행복 안겨주신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 만세 만만세
불멸의 주체사상 창시하시여
조선을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
만고에 길이 빛날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원수님 만세 만만세
위대한 수령님은 혁명의 영재
온 세상 밝히시는 희망의 등대
세계혁명 이끄시는 탁월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만세 만만세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파쑈폭압정책이 절정에 달하여 조선민족이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서있던 암흑의 시기에 조선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영웅적인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심으로써 민족의 태양으로, 전설적영웅으로 그 명성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치시였으며 그 투쟁과정에 우리 혁명의 억년 드놀지 않는 깊고 억센 력사적뿌리인 불멸의 위대한 혁명전통을 창시하시였다.

15성상 기나긴 나날 모진 추위와 눈보라, 굶주림과 싸우면서 혈전을 벌려야 하는 최악의 조건에서 대담하고 독창적인 군사작전으로, 일제백만대군을 무찌르시여 광복의 새아침을 안아오시고 조선혁명의 만년의 주추돌인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전설적인 투쟁행로와 업적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 찬연히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전통은 주체의 사상체계와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으며 이는 우리 당과 인민의 고귀한 재부이고 귀중한 밑천이며 그 어떤 풍파에도 드놀지 않는 우리 혁명의 억센 뿌리이다.

그이께서 이룩하신 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해방후 모든 곤난을 물리치고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으며 우리 나라는 세계에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되였다.

그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에 대하여 세계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은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위대한 사상, 고귀한 업적은 세계혁명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이러한 고귀한 혁명전통은 전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이 따라배워야 할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라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철저히 옹호하고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우리 인민의 숭고한 의무이며 더 없는 영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가장 위대한 세계사적공적을 이룩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이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자신입니다. 매개 나라 인민은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빠나마기자대표단과 한 담화》, 단행본, 18~19페지)

모든것의 주인은 인민이며 인민의 힘을 동원하여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진리를 밝혀준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 이는 캄캄한 밤에 홰불과도 같이 우리 시대 혁명하는 사람들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위대한 지도사상의 새로운 출현이였으며 어제날 짓밟히고 억눌리여 무기력하던 인민들이 력사무대에 주인으로 등장하여 무비의 힘으로 혁명을 떠밀어나가는

새시대 영광스러운 주체시대의 탄생을 알리는 장엄한 력사적선언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그이께서 독창적으로 창시하신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완성된 공산주의혁명리론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주체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주체시대의 위대한 혁명적기치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현시대와 공산주의미래의 전력사적 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세계혁명이 새롭게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 백과전서적인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우리나라에서 전면적으로 승리하고 빛나게 구현되고있으며 전세계 로동계급과 인민들을 독립과 진보의 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의 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주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에 의하여 무엇보다먼저 사람들의 세계관, 자연과 사회에 대한 관점과 립장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제힘은 믿지 않고 남만 숭상하는 오랜 세월에 걸쳐 굳어진 사람들의 낡은 머리를 주체의 세찬 바람으로 씻어냄으로써 사람들속에 제힘으로 억세게 싸워나가려는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가 서게 되였다.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할데 대한 사상인 주체사상의 창시에 의하여 사람들은 또한 비록 싸우다 죽을지언정 남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혁명투쟁에 떨쳐나서게 되였다.

모든 문제를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풀어나갈것을 요구하는 주체사상의 창시는 또한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떠밀어나가기 위한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 옳바른 전략전술을 세우게 함으로써 어떤 어렵고 생소한 혁명의 길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되고 생활에서 검증된 위대한 사상인것으로 하여 료원의 불길처럼 급속히 파급되였으며 그를 신념으로 하는 사람들의 투쟁대오는 끊임없이 확대되여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행군대오, 온 사회 모든 성원들이 오직 주체의 혈통의 순결한 피만이 흐르는 심장을 지니고 싸우며 전진하는 장엄한 진군대오 이는 실로 대를 이어가며 전진할 강철의 흐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오늘 대륙과 대양을 넘어 지구우의 방방곡곡에 퍼져나가고있으며 주체사상으로 살며 싸워나가는것은 우리 시대의 막을수 없는 거세찬 흐름으로, 그 추세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감으로써 우리 당은 우리 시대의 가장 권위있는 당으로 되였으며 우리 조국은 가장 존엄있는 나라로, 우리 인민은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시다.

공산주의운동이 시작된지 한세기가 넘고 지구상에는 공산당, 로동당들이 많지만 직접 당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고 당을 세우신 당의 창건자, 당을 키우시고 현명하게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싸워나가는 혁명적당은 오직 우리 당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 당원들과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예이며 자랑이며 행복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초시기 벌써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당창건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였으며 류례없이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의 참모부,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그 어떤 모진 광풍에도 꺾이지 않고 꿋꿋이 싸워나가는 우리의 불패의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억센 뿌리가 있음으로 하여 솟아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안에 하나의 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확고히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 당을 주체사상을 실현하는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우리 당이 걸어온 30년의 력사는 위대한 주체의 기치밑에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혁명의 새길을 닦아온 투쟁과 창조의 력사이며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위대한 공업의 나라로 전변시킨 변혁과 위훈의 력사이며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인류해방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승리와 영광의 력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과 인민 앞에, 시대와 인류 앞에 쌓아올린 세기에 빛날 위대한 업적으로 하여 우리 당은 전체 조선인민이 자기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는 영광스러운 향도적력량으로 되였으며 우리 시대의 가장 존엄있고 권위있는 혁명적인 당으로 되였다.

오늘 우리 당이 지닌 권위와 영예, 그것은 곧 세계인민들이 한결같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으신 권위이며 영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안팎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통하여 더욱 세련되고 단련되였으며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502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의 투쟁력사는 혁명전쟁도, 사회혁명과 건설도 다 겪어야 하는 거창한 투쟁의 력사였으며 형형색색의 기회주의자들, 혁명의 배신자들을 쳐물리치는 심각한 투쟁의 력사였다.

이 간고하고 치렬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은 어떤 풍파도 뚫고나갈수 있는 강철의 당으로, 하나의 주체의 혈통만을 지닌 순결한 당으로,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의지에 기초한 완전하고도 공고한 통일단결을 이룩한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통일단결이 완전히 실현된 첫주체형의 가장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하나의 사상 주체의 혈통에 의하여 한몸과 같이 뭉쳐진 당, 이 통일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당, 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은 참으로 필승불패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 당중앙의 정확한 지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당은 자기 대오의 통일단결을 공고히 하는데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을뿐아니라 더욱 생기발랄하고 참신한 혁명적 기풍이 나래치는 혈기왕성한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되고있다.

오늘 전당, 온 사회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드높은 전투적기백과 약동하는 혁명적정열, 패기와 신심, 혁명적랑만이 차넘치고있다.

우리 당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로숙하고 세련되면서도 언제나

로쇠를 모르고 원기왕성하고 활기있게 움직이며 전진하는 영원한 청춘의 당으로 빛나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우시고 지켜내시고 반석같이 다져주신 강철의 당,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변함없이 대를 이어 받들어나가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은 철벽도, 대해도 헤가르며 끊임없이 승리하며 전진하여나갈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시다.

뒤떨어졌던 동방의 일각에 《２０세기의 기적의 나라》,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모범의 나라》, 《천리마조선》이 거연히 솟아난것도 혁명과 건설, 투쟁과 창조의 영재이신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공화국을 세우심으로써 식민지동방에 첫 로동자, 농민의 나라,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을 온 누리에 뿌리는 사회주의 새조선이 찬란히 솟아올랐다.

지난날의 우리 조선은 남들이 산업혁명의 기적소리 울리며 나아가고있을 때 풍월만을 읊으면서 봉건의 깊은 잠에서 깨여나지 못하였던 조선, 피에 주린 이리떼들에게 뜯기우고 식민지노예의 철쇄에 얽매여있던 조선이였다.

이렇듯 우리 나라, 더우기 전쟁에 의하여 재더미만 남았던 우리 조선이 오늘에는 세계에 수많은 벗들과 지지자들을 가지고 국제무대에 나아가 제국주의자들을 쥐락펴락하는 존엄있는 자주독립국가로, 온 세계를 휩쓴 경제적파동속에서도 끗끗이 걸어나가고있는 위력한 경제적자립의 나라로, 세계를 혁명적폭풍으로 뒤흔들어놓은 최고봉의 문학예술과 민족기술인재의 대군을 가진 문명한 나라로, 철벽의 방위력을 가진 자위의 나라로 세기적인 전변을 가져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비범한 령도는 참으로 위대한것이다.

무비의 담력과 드놀지 않는 강철의 의지, 천재적인 통찰력과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인미답의 생소한 길을 헤치시며 준엄한 시련의 고비들을 뚫고나오시여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으며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를 매우 짧은 기간에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세계 1등급의 사회주의공업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전면적으로 발휘되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생활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만이 근로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고 가장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줄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으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이 사회주의제도에서 살며 혁명하는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행복으로 여기고있다.

참으로 우리 조국을 광복하여주시고 그를 굳건히 지켜주시였으며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의 무쇠기둥을 세워주시고 인민의 행복한 락원을 꾸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영원무궁토록 륭성번영할 우리 조국과 더불어 길이길이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시며 최고사령관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기치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였으며 그 직접적계승자인 조선인민군을 세우시고 이끌어주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조국과 혁명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는 일당백의 혁명무력을 가지게 되였고 제국주의의 어떠한 침략도 물리치고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굳건히 지켜낼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원쑤들이 이 땅에 침략의 불을 질렀을 때 령활무쌍한 전법과 탁월한 령군술로 원쑤들에게 죽음을 주고 놈들을 력사상처음으로 서산락일의 낭떠러지에 몰아넣으신 강철의 령장이시다.

세계가 우러르는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진두에 서계시기에 우리 인민군용사들은 피어린 락동강의 결전장에서도, 엄혹한 시련이 겹쳤던 전략적후퇴의 길에서도, 불타는 고지에서도 항상 백절불굴의 투지와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불사신이 되여 싸웠으며 싸워이길수 있었다.

우리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육체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세련되고 단련된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났다.

지금 인민군대안에 당의 유일사상이 그 어느때보다 꽉 들어차고 주체형의 피만이 세차게 흐르고있으며 모든 장병들이 그 어떤 풍파와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성다할 높은 혁명적각오로 불타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며 인민에게 모든것을 다바치시는 고결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시고 인민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위하여 온갖 정력과 심혈을 다 기울이시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게 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오랜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보람찬 혁명의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었으며 영광스러운 투쟁과 승리의 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우리 인민이 오늘 누리고있는 가장 값있고 존엄있는 떳떳한 삶과 행복한 물질문화생활, 여기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한평생을 바치시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뜨거운 은정과 깊은 심려가 속속들이 깃들어있다.

어제날 피눈물로 처참한 생활을 하여오던 우리 인민은 오직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심으로 하여 누구나 다같이 떳떳하고 보람있는 삶과 행복을 누리는 참다운 자주적인 인간으로 되였으며 혁명을 위하여 한몸바쳐 싸울줄 아는 가장 혁명적인 인민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을 고결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닌 참다운 인간으로 새롭게 태여나게 하여주시였으며 사람다운 가치있는 삶과 행복을 누릴수 있게 하여주신 우리 인민의 어버이이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혁명의 주인으로서 살며 싸우게 하는 사상정신적량식, 불멸의 주체사상을 안겨주시였으며 위대한 사랑, 한없이 넓은 포옹력과 감화력으로 우리 인민 한사람한사람을 참다운 혁명가로, 사회정치활동가로 키워주시였으며 지난날 이름없이 파묻혀있던 평범한 우리 근로자들을 중요한 혁명초소를 담당한 민족간부로, 일당백의 영웅으로, 룡마의 기수로 자래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는 근로하는 인민대중에게 무한히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시며 한없이 겸손하고 소박하신 진정한 인민의 수령의 영광찬란한 력사로 수놓아져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기쁨도 슬픔도 그들과 함께 나누시며 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허물없이 로동자, 농민들과 의논하시면서 우리 인민에게 보다 행복한 새생활을 마련하여주시기 위하여 밤잠도, 휴식도 잊으시고 온 나라 만사람들에게 한없이 뜨거운 사랑을 배

풀어주고계신다. 우리 나라의 그 어디를 가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란 없으며 그 누구에게나 수령님의 높으신 은덕과 크나큰 배려가 가닿지 않은 사람이란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의 힘과 지혜는 실로 무궁무진합니다.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힘과 지혜를 옳게 조직동원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대중을 믿고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을 자기 활동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있는것입니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그들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어려울 때나 새로운 과업이 제기될 때마다 대중과 의논하시고 그들의 힘을 백배, 천배로 불러일으키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신의 피로도 잊으시고 수천수만리의 정력적인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면서 온 나라 인민들의 생활을 구석구석까지 다 보살펴주고계신다.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모든 활동의 최고기준으로 삼으시고 하나의 로선과 방침을 세우시면서도 어떻게 하면 인민들이 더 벅넉하고 문명하게 살며 일하게 하겠는가를 깊이 심려하고계시며 인민을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시면서 앞날에 가서 할수 있는 공산주의적시책까지 앞당겨 베풀어주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오늘 많은 나라들이 혹심한 물가등귀로 아우성치고있는 때에 공업상품의 가격을 대폭 낮추고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세금제도를 없애는것과 같은 위대한 조치까지 취해주시였을뿐아니라 우리 인민들에게 년말특별상금까지 안겨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실로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실시되고있는 선진적인 공산주의적시책의 혜택으로 먹고, 입고, 쓰고 사는것으로부터 자녀교육과 병치료, 로동조건, 휴식조건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국가적으로 보장받으면서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인민에 대한 수령님의 극진한 사랑과 배려와 덕성은 우리 생활의 갈피갈피에 흘러들어 기쁨을 주고 크나큰 행복을 활짝 꽃피우고있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당과 혁명,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의 최고체현자이시며 수령님께서 심려하시고 바라시는것은 우리 인민의 의지이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은 한가슴 가득히 부풀어오르는 행복감을 금치못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을 두고 끓어넘치는 감사의 노래, 심장의 노래를 부르고있다.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남녘의 겨레를 잊지 않으시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기 민족문제를 자기의 손으로 해결할데 대한 자주적인 조국통일방침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시기마다 분렬을 막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정확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오늘남조선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앙양되는 혁명투쟁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방침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과시하고있다.

그이께서는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에게도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극진한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주고계신다.

오늘 우리 인민은 오랜기간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오늘의 보람찬 삶과 더욱 휘황한 미래가 있다는것을 심장깊이 새기고 수령님을 끝없이 신뢰하며 그이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높이 모시고 그이께 충성다하는것, 이는 우리의 모든 승리의 근본담보이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첫째가는 생명이며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혁명의 천재적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실뿐아니라 《세계인민의 어버이》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투쟁력사는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조국과 민족 앞에 영생불멸의 공적을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로정인 동시에 세계의 모든 착취받고 압박받는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공적을 쌓아올리신 자랑찬 로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발전과 인류의 진보와 번영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에 관한 과학적인 리론과 전략전술을 내놓으심으로써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에게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세계를 창조하는 백전백승의 혁명적기치, 위력한 사상리론적 무기를 안겨주시였다.

또한 우리 혁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그 실천적모범으로써 세계혁명운동을 힘있게 고무하시며 피압박인민들의 반제혁명투쟁과 민족해방투쟁, 새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과 더불어 세계혁명발전에 쌓아올리신 영생불멸의 공적으로 하여 높은 국제적권위와 절대적위신을 지니시고계시며 온 세계의 혁명적인민들로부터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신다.

오늘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그이는 기적의 창조자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력사의 거인이시며 대중의 단결자이시며 인민을 벗으로 하는 위인이시며 교양자이시며 인류의 사상을 대변하는 분이시며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위대한 사상의 불씨를 안겨주시는 해불이시며 세계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널리 알려진 수령, 세계인민들속에서 높은 권위와 영향력을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수령》이라고 한결같이 높이 칭송하면서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고있으며 그이를 수령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을 한없이 부러워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며 세계혁명에 불멸의 공헌을 하여오신 그이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력사는 곧 우리시대, 주체의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산주의혁명리론을 완성하여오신 가장 걸출한 사상리론가의 빛나는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한 력사적시대, 인민대중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력사를 개척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시여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고 그에 기초하시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세계혁명에 관한 정연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내놓으심으로써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전면적으로 체계화된 전일적인 혁명리론으로 되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여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공산주의혁명리론을 제시하심으로써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

히시고 한없이 위대하고 풍부한 사상리론적재부를 마련하시여 인류사상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에서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 짧은 력사적기간에 한 나라 한민족의 운명과 처지를 그처럼 근본적으로 전변시키시고 세계혁명발전과 인류의 진보의 위업에 위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혁명업적, 그이의 혁명사상과 세련된 령도, 숭고한 덕성은 인류의 혁명운동사에 불멸의 금자탑으로 영원히 높이 솟아있을것이며 날을 따라 온 누리에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다시 태여났고 그이의 자애로운 사랑속에서 오늘의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은 우리 인민은 반세기의 긴긴 세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혁명과 건설의 거창한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오신 수령님의 그 거룩한 력사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면서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어버이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자부심과 영예를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고있다.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심으로 하여 우리 조선은 빛나고 우리 인민은 세계에서 가장 긍지높고 자랑스러운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자기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는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운명을 이끌어주시고 그 찬란한 미래를 마련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 모든것을 의탁하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힘있게 전진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이 영광, 이 행복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고 무궁토록 빛내이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더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높이높이 모시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전당과 온 사회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해와 달이 다하도록 수령님께 일편단심 충성을 다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혁명의 한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이 있을뿐이다.

조국의 륭성과 번영을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위대한 기적과 혁신을 일으킨 승리의 해 1974년

１９７４년은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총진군을 개시하고 조국의 륭성발전과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위대한 기적과 혁신을 일으킨 승리의 한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참으로 지난해는 온 나라가 사회주의대건설로 들끓고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힘과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 싸운 투쟁의 해, 전진의 해, 승리의 해였습니다.》 (１９７５년 《신년사》, 단행본, 5페지)

이해에 우리 인민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８차전원회의에서 내놓으신 사회주의대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속도전의 총진군을 개시하여 만년대계의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수풀처럼 일떠세웠으며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였다.

당에 충직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김책제철소의 대형용광로건설을 비롯하여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 대야금기지, 대동력기지, 대화학기지, 건재공업기지, 현대적경공업기지 등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건설물들을 질풍같은 속도로 거연히 일떠세웠으며 여러가지 최신 대형기계설비들을 척척 만들어내고 현대적살림집과 학교, 문화시설들을 수많이 건설하는 대혁신, 대앙양을 일으켰다.

１９７４년은 주체공업의 위용,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자랑차게 과시한 해로써 조선로동계급의 영웅적기상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떨치였으며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건설력사에 전설의 해로 영원히 빛나게 기록될것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이 발휘되였으며 １９７４년도의 공업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였으며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６개년계획의 생산수준을 돌파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해는 농촌경리부문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위대한 성과가 이룩된 자랑찬 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그처럼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농업생산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대풍을 마련하여 ７００만톤이 넘는 알곡을 생산함으로써 농촌테제발표 열돐이 되는 이해를 빛나게 장식하였다.

세계적으로 흉년이 휩쓸어 수많은 나라들이 엄중한 식량위기를 겪고있는 때에 우리 나라에서 대풍작을 이룩하여 당제5차대회가 내세운 ６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２년이나 앞당겨점령한것은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커다란 사변이 아닐수 없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주체공업의 힘있는 지원밑에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강화되였다.

농촌경리부문에서 이룩한 이 자랑찬 성과는 농촌테제의 위대한 생활력과 우리 당 농업정책의 정당성을 다시한번 뚜렷이 증명하여주었다.

이해는 또한 우리 인민들을 더욱 유족하고 문명하게 살게 하시려고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취하신 력사적인 조치로 하여 사람들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킨 해로 빛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해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고 공업상품의 값을 대폭 낮추게 하시였으며 모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년말특별상금까지 주시는 크나큰 은덕을 베푸시였다.

오늘 력사상 류례없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있는 자본주의세계에서는 세금과 물건값이 천정을 모르고 뛰여오르고 있는 때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주체조선만이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되였으며 년말특별상금의 혜택을 받은 우리 인민들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더욱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다.

이해에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육친적배려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교육, 과학,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도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우리의 교육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그 준비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나라 과학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생산자대중의 힘을 합쳐 3대기술혁명과 6개년계획수행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보살핌속에서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예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으며 예술선동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려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지원하였다.

우리의 혁명적예술인들은 이해에도 주체예술의 우월성을 온 세상에 과시하였으며 조국의 영예를 널리 떨치였다.

이해에도 우리 당의 자위적인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철벽으로 다지였으며 우리의 영용한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은 조국의 방선을 믿음직하게 지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74년에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거둔 자랑찬 성과들은 당의 령도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린 결과에 이룩된것입니다.》 (1975년《신년사》, 단행본, 8∼9페지)

우리의 당, 국가, 경제기관, 근로단체 일군들과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3대혁명의 기발을 높이 들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린 결과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이 힘있게 추진되였으며 우리 당의 기층조직들이 다 생기발랄하고 활기있게 움직이는 산조직으로 강화되고 당조직생활이 일층 강화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지도일군들로부터 근로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전격적으로 벌려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항일유격대식사업기풍과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전면적으로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오늘 근로자들의 사상상태는 매우 좋으며 우리 사회의 정치도덕적분위기도 또한 좋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는 주체형의 맑은 피만이 힘있게 맥박치고있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단결되였으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고있다.

3대기술혁명의 기치밑에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날로 줄기차게 벌어져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계화, 종합적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 원격조종화가 널리 진행되였으며 전반적인 기술장비가 더욱 개선강화되였다.

그리하여 그토록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려고 심려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이 매우 성과적으로 실현되여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문화혁명을 수행하는데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선진과학과 문화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 모든 근로자들이 높은 기술문화수준을 가진 적극분자로 전환되였으며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는데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 도시와 농촌,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들이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철저히 세우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려졌으며 문화성있게 관리되고있다.

오늘 우리의 근로자들은 배우며 일하고있으며 일하며 배우면서 희망과 신심을 가지고 혁명적락관에 넘쳐 생활하고있다.

이해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대건설과 함께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참으로 이해는 온 나라가 사회주의대건설로 들끓고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힘과 지혜와 재능을 다바쳐 싸운 투쟁의 해, 우리 당과 우리 혁명발전에서 류례없는 큰 전변과 세기적위훈으로 충만된 전진의 해, 위대한 승리의 해였다. 지난해에 이룩한 자랑찬 성과로 하여 주체조선의 혁명과 건설은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으며 우리 나라의 위력은 더한층 강화되였다.

1974년에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모든 성과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홰불로 우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며 우리 당과 인민을 언제나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주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세련된 지도의 결과이다.

우리 인민의 슬기로운 투쟁력사와 불멸의 업적,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예는 오직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여 이루어지고 빛을 뿌리는것이다.

당중앙이 가르친바와 같이 만일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지 못했더라면 우리 당과 공화국의 오늘의 권위와 존엄에 대하여서도, 우리 조국의 통성발전과 번영에 대하여서도, 우리 인민이 누리는 모든 행복과 영광에 대하여서도 결코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며 인류해방의 구성이시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심으로 하여 우리 나라가 주체조선으로 빛나고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긍지높고 자랑스러운 인민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해에도 이 땅우에 인민의 락원, 사회주의의 대화원을 가꾸시기 위하여 모든 사색과 심혈을 다 기울여오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해 첫날에 1974년을 건설의 해로 정하시고 사회주의대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심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이 휘황한 전망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힘차게 떨쳐 나서게 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와 전국공업대회와 농업대회, 지역별로 되는 여러모임들을 련이어 친히 마련하시고 사회주의대건설의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거창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3대혁명소조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심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로의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이 일어

나게 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혁명과 건설사업을 몸소 전두에서 지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정초부터 현지지도의 길에 나서시여 우리 인민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그들에게 비약과 혁신의 나래를 돋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의 첫 승리를 치하해주시고 사회주의농촌경리에서 새로운 앙양을 불러일으키시기 위하여 설명절도 마다하시고 농업근로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나라일을 의논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멀리 함경남북도와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와 자강도 등 우리 나라의 북방과 동서해안, 벌방지대와 산간지대,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으시여 걸린문제를 하나하나 몸소 풀어주시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위훈에로 고무해주시고 혁명의 불길,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도록 조직동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현지지도는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을 끝없이 고무하고 그들이 무궁무진한 힘을 낳게 하였으며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일대 앙양을 창조하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그이의 원대한 구상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워나가기 위하여 당중앙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과학적으로 빛나게 정식화하고 온 사회를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을 우리 당의 총적강령으로 제시하고 그 력사적위업의 빛나는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당중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수행의 요구에 맞게 당조직사업과 당사상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련이어 취하고 당사업에서 항일유격대식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하도록 함으로써 당조직들의 령도적역할과 전투적기능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다.

당중앙은 사상혁명수행에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넣어주어 우리의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심화됨에 따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나가는 당중앙은 온 사회를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의 빛나는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령도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 그들을 충성의 대오로 다져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들을 끝없는 감격과 흥분에 휩싸이게 하였으며 온 나라에 혁명적기상이 차넘치고 우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위대한 기적과 비약이 일어나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중앙은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전반을 튼튼히 틀어쥐고 전격전, 섬멸전을 벌려 나가면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는 등 생산과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였다.

그리하여 전당과 전국, 전민이 장엄한 속도전, 사상전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달리는 천리마에 불바람을 일구며 온 강토에 그 발구름소리, 혁명의 북소리 힘차게 울려퍼지게 하였다.

이 거세차고 장엄한 투쟁속에서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쓸어버리고 사람들의 사상과 도덕,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공산주의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우리 당중앙은 특히 1974년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사회주의대건설의 이해 전투의 마지막을 더욱 빛나게 결속짓기 위하여 전당과 전국, 전민을《70일전투》의 총돌격전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서《70일전투》의 총돌격전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방침은 1974년계획을 빛나게 완수하게 한 혁명적조치였으며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봉우리에 뛰여오르기 위한 방대한 6개년계획을 당창건 30돐안으로 앞당겨 끝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제끼게 한 현명한 방침이였다.

당중앙은 모든 당조직들을 발동하여 총돌격전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가장 혁명적인 작전을 세우고 이 거창한 전투를 진두에서 지휘하여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충성의 열정으로 세차게 고동치게 하였으며 온 나라에 혁명의 열풍이 삽시에 휩쓸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충성심이 전면적으로 발현된《70일전투》에서는 전례없는 생산적앙양과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우리의 근로자들은《70일전투》기간에 공업생산을 1.7배로 장성시킨 영웅적위훈을 세웠으며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6개년계획의 생산수준을 돌파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이 대비약, 대앙양의 불바람속에서《평양속도》, 《강선속도》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달려 새로운 충성의 속도인 《70일전투속도》를 창조하였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에서 처음 맞이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한평생을 오로지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쳐오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의 위업을 충성으로 받들어 나갈데 대한 우리 인민의 뜨겁게 타오르는 충성의 열정이 바로《70일전투속도》라는 위대한 기적을 낳았다.

《70일전투》에서 이룩한 성과로 하여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늘일수 있는 물질적토대가 튼튼히 쌓아졌으며 우리의 경제의 자립성, 공업의 주체성이 더욱 강화되고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는 더한층 강화되였다.

이 전투과정에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충성심이 높이 발양되였으며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이 더욱 강화되였다.

이해에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주체조선의 위력을 더욱 장성시켰으며 6개년계획을 당창건 30돐안으로 앞당겨 해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으며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의 북소리높이 총진군을 더욱 다그칠수 있게 담보하였다.

또한 이해의 성과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그리고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고 조국통일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과 반제자주의 혁명적기치를 높이추켜든 제3세계인민들에 대한 커다란 고무적힘으로 되였다.

조선인민앞에 나선 혁명임무가 아무리 무겁고 방대하더라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당중앙의 세련된 령도가 있고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된 불패의 힘이 있는 이상 승리는 언제나 확정된것이다.

우리 인민은 어제도 오늘도 그러한것처럼 앞날에도 영원히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님을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러러모시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한길에서 충성다해나갈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두돐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맞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적방침과 당중앙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혁명의 북소리 높이 울리며 사회주의 대건설의 우렁찬 진군을 다그치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우리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 예순두돐을 민족최대의 뜻깊은 명절로 경축하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인 4월15일, 이 영광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였기에 오늘의 조선이 있고 우리 인민의 행복과 영광이 있음을 가슴깊이 되새기면서 그이에 대한 끝없는 감사와 흠모의 정에 휩싸였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반세기동안 가장 모질고 험한 풍상고초를 다 겪으시면서 조선혁명의 무수한 시련의 고비들을 진두에서 한몸으로 막아나오시여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시고 빛나는 근대혁명사를 창조하여오신 절세의 애국자, 주체시대의 새 력사의 창조자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은 또한 인류해방투쟁력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특출한 사상리론적재부를 이룩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일제와 미제를 반대하는 두차례의 준엄한 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강철의 령장이시며 두 단계의 어려운 사회혁명인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신 혁명의 영재이시며 오직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참다운 인민의 수령이시다.

그처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기에 망국의 비운에 잠겨있던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처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질수 있었으며 오늘과 같은 위대한 력사적전변이 이룩될수 있었다.

오늘의 찬란한 주체시대도, 세계에서 권위높은 조선로동당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주체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우리 인민의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도 다 오로지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것이며 그이의 존귀하신 성함을 떠나서는 그 어느 하나도 생각할수 없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은 해마다 수령님의 탄생일을 명실공히 가장 큰 민족적명절로 맞이하며 민족최대의 경사로 축하하고있다.

이날을 맞이하여 장엄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마다에서 빛나는 영웅적위훈을 떨치고있는 우리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온 나라의 늙은이들로부터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의 가슴 가슴은 마음의 고향 만경대를 그리며 수령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실것을 삼가 축원하였다.

조선소년단 평양시련합단체대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두돐이 되는 뜻깊은 날을 맞아 언제나 티없이 밝고 깨끗하게 피여오르는 주체의 뜨거운 마음들이 세차게 달려오는 혁명의 땅 만경대에서는 조선소년단 평양시련합단체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 평양시 당 및 정권기관 책임일군들, 근로단체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장령들과 항일혁명투사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대회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예순두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온 재일조선인예술단, 재일조선상공인축하단, 제15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 성원들이 초대되였다.

류창한 소년단 신호나팔소리가 울려퍼지자 소년단의식이 시작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초상기를 정중히 모신 무개차가 조선소년단 평양시련합단체 대회기발이 세워진 무개차와 함께 소년단원들이 탄 여러대의 모터찌클의 호위를 받으면서 대회장에 천천히 들어섰다.

전체 소년단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가 되여 그이께 영원히 충성다할것을 굳게 다짐하는 선서를 하였다.

소년단의식에 이어 대회는 전체 소년단원들이 힘차게 부른 《김일성장군의 노래》합창으로 시작되였다.

모임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다.

1912년 4월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민들에게 광명한 미래를 약속해주는 찬란한 해돋이였으며 주체의 새시대, 새 조선, 새 민족의 탄생을 알린 력사적사변이였다.

참으로 세계지도우에서 빛을 잃었던 이 땅우에 일떠선 《주체의 조국》, 《천리마의 나라》,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서 뿐아니라 《배움의 나라》, 인류력사에서 첫《세금없는 나라》로 이름높은 사회주의공업강국 그리고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 인민들의 모든 세기적숙망이 활짝 꽃핀 사회주의지상락원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그날에 뿌리를 박고있다.

일찌기 조국과 민족의 념원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반세기에 걸치는 혁명력사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앞에 위대한 공적과 영생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불멸의 력사이며 후대들에 대한 육친적사랑과 배려로 아로새겨진 빛나는 력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우리 나라 공산주의청소년운동을 조직령도하시여 그 빛나는 혁명전통을 마련해주시였으며 그 뿌리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조선소년단을 창립해주시고 혁명발전의 매시기 매단계마다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면서 그를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나어린 혁명가들의 전투적정치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다 돌려주시는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신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친어버이의 사랑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학생소년들은 훌륭한 배움터와 놀이터에서 지혜와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자라나고있다.

하기에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로 수놓아진 수령님의 높은 은덕을 더듬는 전체 소년단원들의 얼굴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끝없는 영광과 행복, 자랑이 함뿍 어리여있었다.

보고자는 소년단원들의 뜨거운 충성의 마음들을 한데 모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가장 큰 영광과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보고자는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소년단의 영예를 더욱 힘있게 떨쳐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모든 근로자들이 다 같이 일하고 배우며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가장 좋은 사회제도입니다. 소년단원들은 이

행복한 제도에서 마음껏 배우며 자라나는 끝없는 긍지와 자랑을 안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하며 그를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보고자는 모든 소년단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오직 수령님만을 따르며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는 근위대, 결사대가 되며 혁명하기 좋아하고 일하기 좋아하는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억세게 준비해나가며 여러가지 사회정치활동을 적극 벌려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힘껏 도울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끝으로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세계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나라의 륭성발전과 후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우리 어린이들의 보다 휘황찬란한 앞날을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경사스러운 이날 모임에서는 어버이 수령님의 사랑의 해빛 차고넘치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에 태여나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거쳐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의 넓은길에 들어선 수많은 어린이들이 영예의 조선소년단에 새로 입단하였다.

귀여운 꽃봉오리들은 아버지원수님의 혁명사상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며 그이의 참된 아들딸이 될것을 굳게 다짐하는《소년단원의 맹세》를 선창에 따라 소리높이 읽었다.

간부들과 교원들, 학부형들이 어린이들에게 붉은 넥타이를 매여주고 소년단휘장을 가슴에 달아주었다.

조선로동당 평양시위원회 책임비서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이어 소년단원들 및 붉은청년근위대원들의 사열행진이 있었다.

사열행진이 끝나자 집단체조 《만경대에 피여나는 충성의 붉은 꽃》의 막을 올렸다.

《아버지 김일성원수님탄생 예순두돐을 열렬히 축하합니다》로 시작된 집단체조에서 소년단원들은 혁명의 요람 만경대에서 탄생하시여 혁명의 길에 오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혁명업적 그리고 원수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가장 선진적인 교육제도하에서 그이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며 지덕체를 겸비한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는 끝없는 행복, 언제 어디서나 원수님의 사상의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그이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근위대, 결사대가 되려는 결의를 아름다운 률동과 재인 체조동작으로 훌륭히 형상하였다.

집단체조참가자들과 군중은 어버이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만수무강하실것을 삼가 축원하였으며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모시고 그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여갈 충성의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이날 각 지방들에서도 소년단련합단체대회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예술인들의 예술공연이 있었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예순두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조국을 방문한 재일조선인예술단 예술인들은 4월 14일 꿈결에도 뵙고싶던 수령님을 모시고 공연하는 영광을 지니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그 부인과 함께 이날 인민문화궁전 대회의장에서 그들의 공연을 보아주시였다.

재일조선인예술단 녀성단원들이 경애하는 수령님께와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 전체 예술단성원들의 뜨거운 마음을 담은 꽃바구니를 정중히 올리였다.

이역수천리 바다길을 건너와 이날의 영광을 지닐수 있게 된 재일조선인예술단 예술인들의 감격과 기쁨은 각별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잃은 백성으로 물결사나운《현해탄》에 피눈물을 뿌리며 산설고 물선 이국땅에 끌리여가 온갖 수모와 민족적멸시와 고역속에서 신음하던 재일조선동포들에게 존엄있고 번영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의 영예를 안겨주시였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속에서 총련을 무어주시고 매 시기마다 재일동포들이 나아갈 애국의 길을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가지가지의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수령님을 뵙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조이던 자기들의 그 절절한 소원까지도 헤아리시고 《만경봉》호 배를 보내시여 조국으로 불러주시였으며 로동당시대의 또하나의 대기념비인 인민문화궁전 대회의장에서 공연하도록 배려하여 주신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는 재일조선인예술단 예술인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 탄생 예순두돐에 즈음하여 수령님께 축하드리는 재일조선인예술단 공연의 막이 열리고 개막헌시에서 60만 재일동포들과 재일조선인예술단 전체 성원들의 이름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으로 끓어번졌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감사와 충성의 열정을 담아 부른 합창《김일성장군의 노래》와《김일성주의기치 높이 앞으로》로 막을 연 공연무대에는 재일조선예술인들이 온갖 열성을 다하여 창작창조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그들이 공연한 모든 종목들에는 60만 재일조선동포들과 재일조선예술인들에게 오늘의 영광, 오늘의 기쁨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감사,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는 절절한 심정이 뜨겁게 흘러넘치였다.

이날 공연은 뜨겁게 흘러넘치는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정과 그리고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으로 하여 관중들의 열렬한 환영과 절찬을 받았으며 여러번 재청을 받았다.

공연의 마지막은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이 소리높이 부르는《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의 대합창으로 장엄하게 장식되였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는 재일조선인예술단 예술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꽃바구니를 전하시였다.

또한 4월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한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함께 만수대예술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음악무용종합공연을 보시였다.

녀성예술인들이 관람석에 나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 지성어린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우러러 모시고 충성다하려는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지향을 담은 작품들을 무대에 올려 막을 연 공연은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과 세계혁명위업을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는 노래와 춤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였다.

공연이 끝나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뒤흔드는 가운데

무대에 오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는 예술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꽃바구니를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수령님께 대를 이어 충성다하려는 혁명의 수도 근로자들의 즐거운 명절놀이

민족최대의 경사로운 명절날 수도의 근로자들을 비롯해서 시주변의 로동자, 농민들, 군인들, 청소년학생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할것없이 이른 아침부터 명절옷차림을 하고 조선의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른 유서깊은 혁명의 요람이며 마음의 고향인 만경대를 찾았다.

뜻깊은 명절날에 만경대를 찾은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의 결의들을 다지고 또 다졌다. 강선제강련합기업소에서 온 강철전사들,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 온 기계전사들, 조국보위의 천리방선에서 찾아온 일당백의 인민군전사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하신 김일성동지를 수령님으로 모시고 그이의 전사되여 혁명을 하는 긍지와 자부심이 도도히 굽이치고있었으며 대를 이어가며 그이께 충성다할 한마음으로 불탔다.

또한 이날밤 김일성광장을 비롯한 혁명의 수도의 곳곳에서는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의 즐거운 군중무도회와 예술공연이 벌어졌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주악으로 막을 올린 군중무도회는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약동하고 흥겨운 춤들로 흥성거렸다.

청년학생들이 부르고 또 부르는 영광의 노래, 충성의 노래는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며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대를 이어 충성다해나가려는 인민들의 불같은 결의가 담겨져있었다.

또한 이날 수령님의 탄생 예순두돐을 기념하는《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가 진행되여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키워온 주체적인 체육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경사스러운 명절날 4월 15일 각 신문사들에서는 특간호들을 천연색으로 발간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로동신문》은 1면에《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의 큰 표제하에《소년단원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진을 정중히 모시고《인민의 영원한 념원》노래의 시구절을 실었다.

2～3면에는《4월의 만경대》의 사진과 함께 사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영광스러운 시대, 주체시대는 영원토록 륭성번영할것이다》, 정론《위대한 주체시대》를 싣고 그아래《노을비낀 강선땅에 속도전의 불길 타오른다》의 그림을 안받침하였다.

4면에는《따사로운 해빛아래 주체의 내조국 끝없이 번영한다》를 보여주는 가지가지의 사진들을 실었다.

무소속대변지인《통일신보》는 1면에 꽃봉오리들속에 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사진을 크게 모시고 그밑에《수령님계시여 우리는 행복합니다》의 기사를 실었다.

2～3면에는《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필승불패이다》의 큰 표제아래《민족의 태양이 솟은 유서깊은 혁명의 요람, 만경대에 영광을!》과《김일성주의 기치따라 남조선인민들은 힘차게 나아간다》(수령님께 남조선인민들로부터 보내여온 충성의 선물)의 사진들과 함께《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의 노래와《수령님의 위대한 조국통일강령 만세!》정론 그리고《위대한 주체의 기치따라 구국통일대오는 억세게 싸워나아간다》,《민족의 태양을 모신 해외동포들의 영광 끝없다》등의 기사를 실었다.

4면에는 번영하는 주체의 조국, 인민의 락원을 보여주는 가지가지의 사진들로 메워졌다.

그리하여 찬란한 주체의 새 시대를 펼쳐주시고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세계혁명을 위하여 수많은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고계시는 그렇듯 위대하고 영명하신 수령님을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행복감과 높은 긍지를 더한층 북돋아주었으며 그이께 영원히 대를 이어 충성다할 결의를 더욱 굳게 하여주었다.

남조선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은 충성의 한마음 담아 축하문과 헌시를 드리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그이의 탄생 예순두돐을 맞이하여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는 이 당 전체 당원들과 남조선인민들의 끓어넘치는 충성의 한마음 담아 삼가 축하문을 드림과 함께 헌시《만수축원의 노래》를 올리였다.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두돐을 맞이하여 그이께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으로부터 축하전문을 보내여왔으며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그이의 탄생 예순두돐에 즈음하여 세계인민들로부터도 흠모의 정 높은 축전들이 보내여왔다. 특히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노래《평양》을 지어드리였다.

모든 사실은 영생불멸의 광휘로운 주체의 빛발로 언제나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한길로 이끌어주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며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대를 이어 충성다해나가려는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 진행한 평양시 학생소년들의 즐거운 설맞이모임

민족의 태양이시며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의 당을 따라 힘차게 전진한 보람차고 뜻깊은 력사의 해 1974년이 저물어가는 12월 31일 저녁 평양체육관에서는 평양시 학생소년들의 즐거운 설맞이모임이 있었다.

학생소년들은 현관의 좌우계단에《만수무강》이라는 꽃글자를 새기고 꽃묶음을 들고서서 자애로운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을 모실 영광의 시각을 기다리고있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설맞이모임장소에 나오시였다.《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성이 터져올라 드넓은 체육관을 뒤흔들었다.

학생소년들을 나라의 가장 귀중한 보배로 여기시고 극진한 배려를 베풀어주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고있는 우리나라 전체 학생소년들과 우리 인민의 불같이 뜨겁고 티없이 맑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원수님께 귀여운 소년단원들이 1975년 설인사를 정중

히 드리였다. 그리고 소년단원들이 달려나가 아버지원수님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뜨거운 마음을 담은 향기그윽한 꽃묶음을 드리고 붉은넥타이를 매여올리였다.

수령님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학생소년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고 다정하게 머리를 쓰다듬어주시였으며 그들에게 일일이 자애에 넘친 답례를 보내시였다.

설맞이모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들,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들, 당중앙위원회 비서들,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후보위원들, 정무원 부총리들, 당중앙위원회 부장들, 정무원위원회 위원장들 및 부장들, 각 정당, 사회단체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령들, 과학, 교육, 문화, 예술, 출판보도 부문 책임일군들이 시내 학생소년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조국에 머무르고있는 재일본조선인대표단과 제3차재일본조선과학자조국방문단 성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는 또한 우리 나라에 와있는 여러나라 외교대표들과 외교관들,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외국손님들이 초대되였다.

환영곡이 높이 울리고 환호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감사의 열정이 온 장내에 차넘치는 가운데 귀여운 어린이들이 위대한 주체교육사상을 창시하시고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11년제의무교육의 꽃대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주신 아버지김일성원수님께 전체 학생소년들의 뜨거운 감사와 충성의 마음을 담은 꽃바구니를 정중히 드리고 영원히 번영할 우리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주체의 영원한 봄을 위하여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원수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여 인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희망찬 새해를 즐겁게 맞는 전체 학생소년들을 축하하여주시고 5천명이 출연하는 평양시 학생소년들의 설맞이 공연을 보시였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전체 학생소년들의 뜨거운 충성의 마음을 담은 노래와 춤《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께 설인사드려요》로 막을 올린 공연무대에는 노래와 춤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 《누구나 다 배우는 나라》, 가무《노래하자 사랑의 등산길》, 노래와 춤《자랑찬 꼬마계획》, 체육무용《지덕체 나래치는 우리 궁전》, 손풍금과 무용《세상에 부럼없어라》, 동화무용《만풍년 든 농장벌》, 동화촌극《700만톤 풍년열매 방송야회》, 군무《혁명의 북소리 높이 울린다》, 노래와 춤《들끓는 대건설장》, 《꽃피는 인민생활》, 취주악《조선은 하나다》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학생소년들은 공연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민족의 운명과 우리 시대 혁명의 중하를 한몸에 떠메시고 험난한 투쟁의 한길을 헤쳐오시여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여주시였으며 이 고마운 제도에서 수령님과 당중앙의 극진한 사랑의 손길아래 우리 학생소년들이 지덕체를 갖춘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주체가 선 공산주의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자라나고있는 그들의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생동하게 형상하였다.

또한 그들은 당중앙이 제시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높이 받들고 우리 근로자들이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으로 가슴불태우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와 인민경제 5개전선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과 업적을 훌륭히 형상하였다.

공연에서 학생소년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시고 테제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는데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테제발표 열돐이 되는 1974년에 쌀풍년, 과일풍년, 남새풍년을 이룩하고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2년이나 앞당겨수행할수 있게 된 끝없는 기쁨을 잘 반영하고있었다.

이와 함께 학생소년들은 공연에서 우리 인민의 피맺힌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여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배움의 길을 잃어버린 남녘땅어린이들도 아버지원수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마음껏 뛰놀고 공부할 그날을 앞당길 결의들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공연은 전체 학생소년들의 최대의 념원을 담은 노래와 춤《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로 막을 내렸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손을 높이 드시여 학생소년들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고 그들의 이날 공연성과를 축하하여주시였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1974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 1975년을 맞이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설맞이모임을 가진 전체 참가자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강령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다그치며 속도전의 혁명적폭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당창건 30돐전으로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기어이 점령하고 10대전망목표를 향하여 총진군함으로써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터운 신임과 육친적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할 결의를 굳게 다졌다.

조선로동당사업에서의 위대한 전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과 우리 혁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시기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선혁명의 전투적참모부인 조선로동당 창건 29돐을 기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세련된 전투부대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에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당조직일군강습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 7월 31일), 《리당비서들의 임무에 대하여》(리당비서들앞에서 하신 연설, 1월 14일)를 비롯하여 《신년사》(1월 1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연설, 1월 10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전국공업대회에서 하신 연설, 3월 7일), 《농촌테제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4차회의에서 하신 연설, 11월 29일) 등 력사적인 불후의 로작들에서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을 더욱 튼튼히 꾸리며 당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성스러운 위업을 수행하는 새로운 력사적시기에 들어섰으며 당사업전반에서는 혁명적전환이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취하신 획기적인 혁명적조치에 의하여 우리 당은 더욱 참신하고 힘기왕성한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자기발전에서 새로운 시기에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당조직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당조직이 강화되여야 당정책을 정확히 관철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중앙위원회를 당을 적극 옹호하고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여있는 당에 끝없이 충실한 일군들로 꾸렸습니다.》(《모든 힘을 알곡 800만톤고지 점령을 위하여》, 단행본, 4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가장 빛나게 관철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 다 바쳐 투쟁하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일군들로 당중앙위원회가 꾸려짐으로써 오늘 우리 당은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그 령도적역할과 전투력이 비상히 높아졌다.

당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에 의하여 당중앙위원회의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역할이 더욱 높아지고 각급 당조직들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였으며 일군들속에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무조건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더욱 튼튼히 서게되였다. 또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가 지체없이 아래로 쭉쭉 내려가고 또 아래에서 생각하는것이 인차 당중앙에 반영되게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취하신 당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조치는 우리 당을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로 되였다.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기 위하여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을 과학리론적으로 정식화하고 그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였으며 이 력사적위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전당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일색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내놓고 당의 유일사상화와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확고히 실현해나가도록 힘있게 이끌어주고있다.

우리 당중앙이 하나의 사상,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한 온 사회의 일색화위업을 당의 항구적강령으로, 총적임무로 새롭게 밝히고 그에 맞게 당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강화하여나감으로써 당사업전반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났다.

무엇보다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깊이있게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주체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움으로써 우리 당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확고하게 세워야 하겠습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단행본, 9페지)

당중앙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새로운 전투적강령을 실현하는 현실적요구에 상응하게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심화시킬데 대한 원칙적요구를 제시하고 그것을 힘있게 이끌어줌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더욱 철저히 확립되게 되였다.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사상사업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기본으로 하여 깊이있게, 진공적으로 진행되였으며 전당, 전민, 전군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을 보다 심오히 학습하는 기풍이 튼튼히 섰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닌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수령님과 당중앙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워나가는 혁명의 참다운 정수분자로 자신을 준비하고있다.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심화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으로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하게 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은 더욱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것으로 되였으며 온 사회가 하나의 유기체와도 같이 굳게 결속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이 철통같이 다져짐으로써 우리 당은 혁명하는 당, 투쟁하며 전진하는 당으로서 영광스러운 주체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고있다.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투쟁이 심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전당, 전국, 전군이 한몸과 같이 움직이는 수령님의 유일적령도체계가 더욱 확고히 서게 되였으며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체계가 철저히 확립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체계가 확고히 서고 당중앙의 유일적지도가 철저히 실현됨으로써 수령님과 당중앙의 명령과 지시가 거침없이 아래에 쭉쭉 내려가는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이 튼튼히 서게 되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이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사업과 생활의 철칙으로 되였다.

오늘 우리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오직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만을 알고 당에서 하라는 대로만하며 모든것을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재보고 그와 어긋날 때에는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높은 혁명적원칙성과 기풍을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또한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당에 당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섰으며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현저히 개선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2페지)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무엇보다도 당사업체계가 아래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활동을 지도통제하며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는 체계로 확고히 전환되였다.

이리하여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 제때에 하부말단까지 빨리 침투되고 그것이 더 훌륭히 관철되여 나가게 되였다.

특히 당사업방법이 낡은 형식주의의 틀과 재래식사업방법에서 벗어나 항일무장투쟁의 준엄한 폭풍우속에서 태여나고 세련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당사업에서 격식과 틀이 전면적으로 마사지고 당사업이 산 사람과의 참신한 사업으로 전환되였다.

우리 일군들과 간부들은 당중앙이 내놓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받들고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이신작칙하면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 있다.

당사업에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확고히 지배하게 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이 더욱 실속있게 벌어지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통이 크게 판을 벌리고 모든일을 패기있게 해제끼는 혁명적기풍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또한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당안에 정연한 당사업체계가 서고 정규화된 당생활총화방법이 관철됨으로써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세포조직생활을 비롯한 당조직생활에 빠짐없이 참가하는 강한 조직규률이 섰으며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철저히 관철되여 온 나라에 학습기풍이 차넘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침체를 모르고 계속 투쟁하며 전진하는 혈기왕성한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으로 되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이 더욱 높아짐으로써 경제문화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사업과 함께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9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해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를 소집하시여 현국제국내정세를 심오히 분석평가하시고 모든 힘을 사회주의대건설사업에 총동원하여 당창건 30돐까지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 점령하며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기 위한 다음번 전망계획년도의 10대경제건설전망목표들을 제시하시였으며 전당과 인민을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총진군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대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시기 위하여 함북도당을 비롯한 여러 도당전원회의들을 몸소 지도하시였으며 들끓는 건설장들을 찾으시여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을 로력적위훈에로 고무해주시였다.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당중앙은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비약시키기 위해 모든 당조직들로하여금 경제문화건설에 낯을 돌리고 당적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과 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당중앙은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지도라고 가르치고 당이 발동을 잘 걸어 행정경제기관이라는 기계가 순조롭게 잘 돌아가게 할데 대한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기본요구가 잘 관철되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였다.

당중앙의 세련된 지도밑에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이 비상히 높아짐으로써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자로하여 그이께서 의도하시는대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적원칙과 기풍이 더욱 철저히 서게 되였으며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가 힘있게 관철되여나갔다.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모든 부문, 모든 초소들에서 《속도전》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 《사상전》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날에 날마다 새로운 변혁과 기적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모든 분야에서 《사상전》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남으로써 우리의 전진운동을 방해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요구라면 격랑도, 폭풍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전진만을 아는 혁명적기백이 나래치고있다.

또한 사회주의대건설의 전투장들에서 대중의 심장을 울리는 경제선동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당의 목소리가 나라의 건설장마다에 세차게 울려퍼지고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충성의 열정이 끓어번져 이르는곳마다에서 집단적혁신과 영웅적위훈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이 거창한 투쟁과정에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70일전투속도》가 창조되였으며 이 전투기간 전국적으로 공업생산이 1.7배로 장성하는 기적적인 성과가 이룩되였다. 그리하여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는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6개년계획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이 이룩되였다.

참으로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이고 세련된 지도밑에 청춘의 기백과 활기에 넘쳐 어떠한 풍파와 시련도 뚫고 혁명과 건설을 기운차게 떠밀고있으며 주체형의 당으로 그 찬연한 빛을 온누리에 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중앙의 세련된 지도따라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로동당은 지칠줄 모르는 정력과 전투적기백이 넘치는 혈기왕성한 청춘의 당으로 빛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가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의정 첫째문제 《모든 힘을 사회주의대건설사업에 총동원할데 대하여》를 보고하시였다.

그후 많은 동지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에 참가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현 국제국내정세를 명철하게 분석평가하시고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신 보고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면서 그이께서 하신 보고는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전투적강령이며 우리 당과 인민을 새로운 기적과 혁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혁명적기치이라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의정 둘째문제 《세금을 완전히 폐지하며 공업상품가격을 대폭 낮출데 대하여》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전원회의에서는 모든 힘을 사회주의대건설사업에 총동원할것을 호소하여 전체 당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편지를 보낼것을 결정하였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편지는 요지 다음과 같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일찌기 없었던 정치적위기와 경제적침체에 휩싸여있으며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는 날로 심화되는 정치경제적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 정책에서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며 특히 우리 나라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고 미쳐날뛰고있다.

남조선반동들도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를 겪고있으며 그로부터 출로를 찾으려고 광란적인 전쟁도발책동과 파쑈적폭압소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으나 이것은 멸망하는자들의 마지막발악이며 놈들은 그 어떤 전쟁도발책동으로써도 그 어떤 파쑈적폭압으로써도 멸망의 위기에 처한 저들의 운명을 구원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압박이 있는곳에는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곳에서는 혁명이 일어나는 법이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은 그처럼 가혹한 파쑈폭압속에서도 굴함없이 싸우고있다. 남조선에서 대중적혁명력량은 급속히 자라나고있으며 혁명은 거창한 흐름으로 도도히 전진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혁명정세와 전반적세계정세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진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한층 반석같이 다져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 어떤 침체와 답보도 모르고 억세게 싸우며 쉼없이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본때를 온 세상에 다시한번 보여주는 일대 혁명적시위로 될것이며 원쑤들의 전대미문의 파쑈적폭압을 박차고 자유와 민주주의,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의 성스러운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게 될것이다.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미일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도당의 범죄적인 새 전쟁 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며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혁명투쟁이다.

100여년래의 피맺힌 원한을 갚으며 원쑤들의 가슴팍에 복수의 총창을 박는 심정으로, 피흘려 싸우는 남조선혁명동지들을 돕는 뜨거운 마음으로, 짓밟힌 남조선인민들을 구원하는 혈육의 심정으로 분초를 다투어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위한 위대한 투쟁에서 모두다 영웅적위훈을 떨쳐야 한다.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투쟁은 우리 당과 인민의 사회주의건설력사에서 전례없이 웅장하고 거창한 투쟁이다.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령도예술을 지니시고 우리 당과 인민을 언제나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기에 우리는 이 거창한 력사적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혁명적락관과 신심에 넘쳐있으며 승리를 확신성있게 내다보고있다.

전체 당원들은 사회주의대건설이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당원들에게 부과된 가장 영예롭고 더없이 보람찬 력사적임무임을 깊이 자각하고 수령님의 높은 뜻과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이 위대한 투쟁에서 수령님의 친위대, 결사대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며 전체 인민이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우리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영광스러운 위업수행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

우리는 달리는 천리마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새로운 천리마속도, 새로운 평양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30돐까지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며 더 빠른 속도로 계속 힘차게 내달려 사회주의의 더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기 위한 다음번 전망계획년도의 10대경제건설목표인 1, 200만톤의 강철고지, 100만톤의 유색금속고지, 1억톤의 석탄고지, 5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고지, 2천만톤의 세멘트고지, 500만톤의 기계가공품고지, 500만톤의 수산물고지, 500만톤의 화학비료고지, 10만정보의 간석지개간고지, 1천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기초를 닦아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과 정권기관들, 근로단체들, 교육문화기관들을 비롯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선에 대한 총지원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비생산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원적으로 들끓는 사회주의건설장으로 달려나가 로력적위훈을 떨쳐야 한다.

당면하게 힘을 집중하여 지원하여야 할 전선은 기본건설전선, 공업전선, 농업전선, 수송전선, 수산전선이다.

전당, 전국, 전민이 달라붙어 사회주의건설의 5개전선을 힘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선차적으로 힘을 넣어야 할 전선은 기본건설전선이다.

김책제철소 확장공사, 대동강제철소 건설, 무산광산의 개건확장공사를 비롯한 흑색야금공업기지건설, 북창화력발전소 2계단공사, 서두수발전소 2계단공사, 대동강발전소, 청천강화력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동력기지건설, 청년화학공장과 남포화학공장 건설을 비롯한 현대적인 대규모화학기지건설, 순천세멘트공장, 천내지구의 새로운 대규모세멘트공장 건설을 비롯한 건재공업기지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건설을 집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중요건설대상들에 력량을 집중하고 섬멸전, 전격전의 방법으로 건설을 다그쳐 조업기일을 최대한으로 앞당기며 건설물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전당, 전국, 전민이 기본건설전선을 지원하자!》이것이 당의 부름이며 전투적구호이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중요건설공사들에 건설력량과 물질기술적수단들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대주며 건설에 대한 군중적지원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6개년계획을 앞당겨끝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공업전선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총동원하여 우리 나라에 창설된 현대적인 주체공업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시키며 우리의 공업을 한계단 더 높이 발전시켜야 한다.

6개년계획의 전력고지, 석탄고지, 강철고지, 세멘트고지, 화학비료고지를 훨씬 앞당겨점령하여야 한다.

기계공업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 기계설비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고 특대형공작기계들과 100톤급자동차, 2만톤급선박을 비롯한 대형기계들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대담하게 벌리며 이해 대상설비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고 가까운 몇해안에 대상설비생산능력을 10배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경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잘 나타내기 위하여 나서는 중대한 과업이다.

중앙공업과 함께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질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며 이해에 6개년계획을 생산액적으로 완수하여야 한다.

전당, 전국이 농업전선을 힘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10돐이 되는 뜻깊은 해인 이해에 온 나라가 떨쳐나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위대한 농촌테제와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

여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며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반드시 점령하여야 한다.

수송전선에 대한 전당적, 전인민적 지원을 강화하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에서 운수수단들의 현대화, 중량화, 대형화, 고속도화를 다그쳐 수송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자동차수송과 수상운수를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평양—사리원사이의 철도전기화를 이해에 끝내고 구장—팔원사이, 북청—덕성사이, 강계—무산사이의 철도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수산전선은 인민들의 생활을 더 빨리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투쟁전선이다.

원해어업과 근해어업, 세소어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서해어장을 적극 개척하며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6개년계획의 수산물고지를 앞당겨점령하며 잡은 물고기를 허실없이 잘 가공하여 더 많은 물고기가 공품이 인민들에게 차례지게 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증산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있는 자재, 있는 설비,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발전을 저애하는 사대주의,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를 철저히 뿌리빼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차게 벌리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여 3대기술혁명과 6개년계획수행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하루빨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전반적인 문화기술수준을 더욱 높여 모두다 고등중학교졸업정도의 지식과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소유하며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확립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사상혁명을 앞세워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것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기본담보이다.

사상혁명에서 기본은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가 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의 가장 본질적인 징표는 혁명을 위하여 당과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는것이다.

모두다 수령님에 대한 불같은 충성심을 안고 그이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적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고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조직의 지도와 통제 밑에서 생활하는 혁명적조직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헌법과 그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모든 법규범들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오늘 우리는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의 전쟁도발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로골화되고있는 환경속에서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벌리고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절대로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지 말고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원쑤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여야 하며 전체 인민이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총을 들고 자기의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적들의 도발책동에 대처할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인민군대는 전투정치훈련을 잘하여 부대의 전투력과 전투준비를 백방으로 강화하며 조국의 방선을 철옹성같이 지켜야 한다.

전체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은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위업을 위하여 당과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근위대, 결사대로서 자신을 더욱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사회안전원들과 로농적위대원들, 붉은청년근위대원들은 원쑤들의 파괴암해책동으로부터 당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여야 하며 당이 부르면 언제든지 동원될수 있도록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당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당의 위력의 원천은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에 있다.

당조직들은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며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여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해당 부문의 전반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 행정경제기관들로 하여금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대중의 지혜와 창조적열의를 적극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대진군운동의 전진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근로단체조직들을 적극 발동하여 광범한 군중을 총돌격전에 힘있게 조직동원하며 근로단체조직들은 당의 령도밑에 광범한 군중을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사로청조직들은 청년들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혁명적정열과 청춘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쳐 돌격대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결정적력량이며 인민대중이 발동하면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손쉽게 해낼수 있다.

당조직들은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모든 사람들이 있는 힘과 지혜와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생산자대중을 사회주의건설사업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수단의 하나인 경제선동사업을 널리 벌려 생산자대중을 로력적위훈에로 고무하며 모든 일터마다에 혁명적기백이 차고넘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총돌격전은 모든 지도일군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지도일군들은 언제나 혁명적으로 생각하고 전투적으로 일하며 온갖 정열과 지혜를 다바쳐 대전투의 조직지휘자적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혁명부대의 지휘관들이 지녀야 할 가장 귀중한 사업기풍은 이신작칙이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이 언제나 돌격전의 최선두에서 자기 희생적인 투쟁으로 혈로를 열

었던것처럼 사회주의대건설전투가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는곳마다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승리에로 이끌어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인 사업기풍을 세우며 관료주의, 형식주의, 주관주의, 요령주의를 없애고 모든 사업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며 근로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당원들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총돌격전에서 자기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야 한다. 당원들이 있는 모든곳에서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게 하며 새로운 천리마대진군의 우렁찬 발구름소리가 온 강토를 진감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들고 전진하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모두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자!

당중앙위원회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불타는 충성심을 가지고 무비의 영웅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사회주의대건설사업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한다.

전원회의는 의정 둘째문제 《세금을완전히 폐지하며 공업상품가격을 대폭낮출데 대하여》를토의하면서 세금을 완전히 없애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작성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33조 《국가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를 집행하는것으로서 이 획기적인 조치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이 없는 나라로 되였다고 자랑스럽게 지적하였다.

또한 전원회의는 공업상품가격을 대폭 낮추도록한 이번 조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법칙으로 삼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시책의 또하나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세금을 완전히 없애며 공업상품의 값을 대폭 낮추는 인민적시책은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킬것이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끝없이 고무할것이라고 지적하고 전원회의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이번에 또다시 획기적인 인민적시책을 베풀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두터운 배려와 크나큰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였다.

전원회의는 세금을 완전히 없앨데 대한 문제를 최단기간내에 열리게 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심의에 넘기며 공업상품의 값을 대폭 낮출데 대한 문제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의 심의에 넘길것을 결정하였다.

전원회의는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가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안들을 토의하였다.

1,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73년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과 1974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3,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제를 마련할데 대하여

회의에서는 첫째의안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를 토의하고 이 세상에서 세금없는 첫나라의 탄생을 온 세계에 선포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리행하기 위하여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결정에 따라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한 문제를 심의하고 이를 법령으로 채택하였다.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는 하나의 혁명이며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 반드시 정확히 풀어야 할 중요한 과업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력사적 위업은 로동계급이 주권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실현될수 있는 혁명적변혁이며 이는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소득세와 농민들의 현물세를 없앰으로써 낡은 사회의 유물인 조세제도를 종국적으로 없애고 근로자들을 온갖 세금부담에서 완전히 해방할것이며 그들의 실질소득을 더욱 높이게 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31～132폐지)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게 하며 모든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위대한 사상을 내놓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내미시여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고 강력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시여 세금제도를 완전히 폐지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시였으며 마침내 오늘에 이르러 이 세상에서 세금없는 첫나라의 탄생을 온 세계에 선포해주시였다.

회의는 일찌기 없었던 경제적 파동이 온 세계를 휩쓸고있고 수많은 나라들에서 더욱더 무거운 세금부담이 들씌워지고있는 때에 우리 나라에서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면서 상품값을 대폭 낮추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까지 완전히 없애는 위대한 인류사적변혁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긍지높이 지적하면서 이것은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이 지니게 되는 크나큰 영광이며 자랑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에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게 된것은 우리 나라의 믿음직한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으로써 이는 근로자들의 물질적복리를 증진시키는 획기적조치로 될뿐아니라 낡은 사회의 유물과 그 잔재에서 근로자들을 종국적으로 해방하는 위대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회의에서는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한 법령을 대의원전원의 일치한 찬동으로 채택하였다.

법령은 1974년 4월 1일부터

세금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우리 나라를 세계에서 세금없는 첫나라로 된다는것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세금제도의 완전한 철폐는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력사에 찬연히 빛날 커다란 민족적경사이며 인류력사에 금문자로 영원히 아로새겨질 위대한 세계사적사변이다.

우리 나라에서 세금제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됨으로써 세금없는 세상에서 살아보려던 인민들의 꿈은 현실화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세금을 모르는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였으며 인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기적의 나라》, 《천리마조선》, 《주체의 조국》에서 세금없는 새시대의 탄생을 맞이하게 되였다.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세금없는 위대한 나라의 탄생을 선언한 뜻깊은 자리에서 회의 전체 참가자들은 수령님께 충성다하려는 철석같은 신념을 더욱 굳게 하였으며 대를 이어 영원히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그이의 위대한 뜻을 받들어나가는 길에 한몸 바쳐 투쟁할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회의에서 의안 둘째문제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73년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과 1974년 국가예산에 대하여》의 토의 전과정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당과 정부의 정책에 철저히 기초하고있으며 그 관철을 재정적으로 튼튼히 보장하고있는 우리 나라 국가예산의 거대한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재정은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사회주의계획경제의 발전법칙을 구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3권, 359페지)

회의는 1973년 국가예산이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6개년계획을 앞당겨끝내기 위한 1973년도 과업수행을 원만히 보장하였으며 1974년 국가예산이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자주적인 예산으로서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우리 인민의 대중적대진군운동을 재정적으로 확고히 안받침할수 있도록 정확히 편성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들은 1973년에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쓸어버리고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함으로써 한해동안에 공업생산을 19%나 늘이는 영웅적위훈을 떨치였다.

그리하여 이해 국가예산수입은 100.7%로 넘쳐수행하였으며 이것은 그 전해에 비하여 115.7%로 늘어난것으로 된다.

국가예산수입이 빨리 늘어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방대한 자금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도 2억 8,540만원에 달하는 지출에 대한 수입초과를 가져왔으며 나라의 자주적재정토대는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회의는 1974년 국가예산은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높이《속도전》의 방침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근로자들의 영웅적기상을 반영하여 대건설의 예산, 대고조의 예산으로 편성되였다고 강조하였다.

1974년 국가예산수입지출규모는 각각 98억 121만원으로 예견되였다. 이해 국가예산수입은 세금을 완전히 없애고 공업상품의 값을 대폭 낮춘 조건에서도 전해에 비하여 114%로 늘어나게 되며 국가예산지출은 전해에 비해 118%로 장성하게 된다.

이해 국가예산은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대건설전투를 재정적으로 뒤받침하여 방대한 자금을 기본건설을 비롯한 인민경제 각 부문에 돌리게 되며 특히 농촌테제발표 열돐이 되는 이해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투자가 전해보다 1.7배나 늘어나게 되였다.

참으로 1974년 국가예산은 우리 인민을 더욱 유족하고 문명하게 살게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량없이 뜨거운 육친적사랑과 원대한 구상이 담겨진 진정한 인민적인 예산이며 사회주의대건설전투승리를 재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는 동원적이며 혁명적인 예산이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73년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는 결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74년 국가예산에 대한 법령을 대의원 전원찬성으로 각각 채택하였다.

회의는 의안 셋째문제인《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제를 마련할데 대하여》를 토의하면서 우리 나라의 현정세를 분석하고 조성된 정세밑에서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을 가로막는 외부적요인을 제거할데 대하여 신중한 주목을 돌렸다.

회의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촉진의 전제를 마련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일치하게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회의는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을것을 서약하며 미국이 남조선당국자들의 전쟁도발책동과 파쑈화정책을 사촉하지 않고 비호하지 않으며 조선의 북과 남이 남북공동성명에 따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하는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조선의 내정에 일체 간섭하지 않을데 대한 의무를 질것, 쌍방은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조선경외로부터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할것, 남조선에 있는 외국군대는《유엔군》의 모자를 벗어야 하며 가장 빠른 기간내에 일체 무기를 가지고 모두 철거하도록 할것,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한후 조선은 그 어떤 외국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게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협정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할것을 제기하였다. 회의는 또한 문제토의를 위한 대표단의 구성과 장소문제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에 따라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시종일관 기울여온 성의있는 모든 노력과 거듭하여 제기한 공명정대한 방안들의 정당성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최근시기만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3년 6월 23일연설에서 밝히신 조국통일 5대방침과 1974년 3월 4일연설에서 천명하신 방침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방도로서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고 또 반드시 실현되여야 할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그러나 조선이 통일되지 못하고 오늘과 같은 긴장된 정세와 전쟁위험에 직면하고있는데 대한 주되는 책임은 다름아닌 미제침략자들에게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국이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과 극동 및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바란다면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계속 두어두고 그곳에 신형무기와 군사장비를 끌어들여 남조선당국자들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강화하며 끊임없이 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고 전쟁분위기를 고취하는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철저히 짓부시자》, 단

행본, 14~15페지)

남조선에서 군대의 통수권과 각종 전쟁수단의 통제권을 가지고있는것은 남조선괴뢰당국자들이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의 간판을 가진 미제침략군사령관이며 남조선괴뢰통치배들을 부추겨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는것도 다름아닌 미제침략자들이다.

남조선에 미제침략군이 남아있는 조건에서 긴장상태를 가실수 없고 평화를 공고히 할수 없으며 남조선괴뢰통치배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도 없고 능력도 가지고있지 못하다.

회의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실권을 가진 당사자인 우리와 미국사이에 조선에서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평화협정체결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응당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조치는 우리 나라에서 항시적인 긴장상태의 근원으로 되고있는 외국의 내정간섭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의 내부문제를 조선사람들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는데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자는데 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이름으로 미합중국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회의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물리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회의 전과정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강화발전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위력과 그 우월성을 온 세계에 자랑차게 시위하였으며 우리 당 경제정책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 조국통일방침의 정당성을 다시한번 확증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4차회의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4차회의가 1974년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였다.

회의는 다음과 같은 의안을 토의하였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실행총화와 금후 과업에 대하여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 선거에 대하여

회의 첫째의안에 대한 보고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휘황한 빛발아래 지난 10년간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보통 100년이 걸려도 해놓을수 없는 위대한 비약을 이룩한 자랑찬 성과를 긍지높이 총화하고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력사적위업을 가까운 앞날에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선포하였으며 최단기간내에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농촌경리전반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투적과업을 제기하였다.

회의에서는 보고에 이어 많은 대의원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3일회의에서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요구에 맞게 혁명을 더욱 전진시켜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완전히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해답을 주는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의에서 하신 교시는 농촌테제를 완전히 실현하며 전반적사회주의농촌건설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위력있는 리론실천적무기로 된다.

사회주의농촌건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다시금 새롭게 명철한 해답을 주신 수령님의 교시는 로동계급의 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수행해나가는 앞길을 전도양양하게 비쳐주는 주체의 눈부신 빛발이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보물고, 혁명과 건설의 리론적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탁월한 공헌으로 된다.

낡은 사회의 력사적유물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현대적인 새 사회주의농촌을 건설하는 길, 무계급사회를 실현해나가는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수령님의 교시는 북반부사회주의농촌건설의 찬란한 성과를 동경하면서 새 제도, 새 생활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는 남반부인민들과 농민들에게 새로운 신심과 희망을 안겨주며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투쟁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을 힘있게 고무하여준다.

회의는 우리 시대를 찬연히 빛내인 불멸의 농촌테제발표는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인민과 인류 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으로 되며 과학적공산주의리론발전의 년대기우에 불멸의 금자탑을 쌓아올린 탁월한 공헌으로 된다고 한결같이 강조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어떤 기성리론과 명제에도 구애됨이 없이 새로운 독창적인 리론과 사상을 내놓으시여 혁명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명철한 해답을 주시면서 혁명투쟁의 장구한 기간 농촌문제해결의 빛나는 실천적모범을 창조하시고 풍부한 경험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우리 시대의 농촌문제가 제기하는 모든 요구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대강을 내놓으실수 있었다.

회의는 농촌테제발표 열돐이 되는 뜻깊은 이해에 력사상 류례없는 대풍을 이룩하여 우리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6개년계획의 700만톤의 알곡고지를 2년이나 앞당겨 점령한 자랑찬 성과에 대하여 긍지높이 지적하였다.

웅대한 6개년계획가운데서 가장 힘든 고지의 하나인 알곡고지를 단숨에 점령한것은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이며 가까운 몇해사이에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준 획기적사변으로 된다.

모든 토론자들이 격동된 심정을 안고 흥분에 넘쳐 강조한바와 같이 이것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농업생산의 새로운 경지를 열어놓은 특출한 성과이며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농촌테제의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과시하였다.

이것은 자본주의농촌경리제도에 대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을 보여주는것이며 자본주의농법에 대한 우리의 주체적인 사회주의농법의 빛나는 승리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농촌건설강령인 농촌테제의 대승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올해에 농사를 잘 지어 나라의 쌀독에 쌀이 많이 들어가게 된것도 큰 성과이지만 보다 중요한 성과는 앞으로 더 높은 농업생산목표를 달성할수

있는 물질기술적, 정치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쌓아놓은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6권, 455페지)

회의는 우리 나라 농업생산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는 수령님께서 농촌테제에서 제시하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린 결과이라고 지적하면서 3대혁명방침은 농촌에서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 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이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3대혁명방침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농민을 로동계급화하고 농업을 공업화하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고 농촌을 공산주의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방침이다.

회의에서 한결같이 토론한바와 같이 농촌에서 사상혁명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 농민들은 주체사상을 자기들의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자라났으며 그들은 나라의 식량과 공업원료 생산을 책임졌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농촌경리의 발전을 위하여 몸바쳐싸우고있다.

회의에서는 우리 농민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일어난 이러한 전변은 사회주의농촌테제를 관철하는 투쟁에서 우리가 이룩한 가장 큰 성과이며 그것은 몇백, 몇천만톤의 쌀더미와도 비길수 없는 가장 고귀한 재부로 된다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또한 회의는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감에 따라 농민들은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홍겹고 헐하게 일하고있을뿐아니라 농민들의 전반적기술문화수준이 훨씬 높아져 농촌의 면모가 일신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농촌지원의 사상이 또한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오늘 우리의 농촌은 전당, 전국, 전민의 강력한 지원속에서 침체와 답보를 모르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우리 시대 농촌의 전형으로, 농민들도 모든 생산조건과 생활조건을 로동자들과 같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장받는 농촌으로 전변되였다.

회의는 농촌테제관철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는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의 결과이라고 하면서 수령님께서 테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걸으신 수천수만리의 농촌현지지도의 길은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 힘을 동원하시여 이 땅우에 기적과 변혁의 력사를 창조하신 빛나는 길이였다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또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독창적인 경제관리사상은 오늘 이 땅우에 억센 뿌리를 내리고 활짝 꽃피여나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관리에서 커다란 전변을 가져오게 하였다고 하면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회의는 다음으로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문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급속한 발전에 상응하게 당과 국가의 말단지도단위이며 군중속에서 당정책을 직접 장악하고 집행하는 집행단위인 군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첫째의안에 대한 결정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내세운 과업을 빠른 시일안에 완전히 실현할데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회의는 둘째의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선거에 대하여»를 토의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동규동지를 대의원 전원찬동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으로 선거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농촌테제관철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를 자랑스럽게 총화하고 그이의 강령적교시에 접한 회의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영광과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께 해와 달이 다하도록 충성다할 결의를 굳게 다졌다.

참으로 회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우에 금문자로 수놓아질것이며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빠른 시일안에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다그쳐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함경남도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함경남도안의 당조직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의 붉은 기치밑에 사회주의대건설의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떨쳐나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의 세찬 폭풍을 일으키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또다시 몸가까이 만나뵙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게 된 크나큰 영광을 지닌 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끓어넘치는 감격과 기쁨에 휩싸여있었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끝까지 견결히 싸워나갈 굳은 결의에 가득차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지지도기간 광포오리공장, 홍상청년닭공장, 함흥곡산공장, 정평군 봉대협동농장, 신포항 등 도안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돌아보시였으며 련합기업소 당위원회 확대회의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 일군들의 협의회들을 지도하시였다.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함경남도를 찾으시여 도가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인민들의 생활을 뜨거운 육친의 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현지지도에서 또다시 도안의 여러 부문 사업을 전면적으로 깊이 료해하시고 거창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힘있게 벌려 6개년계획을 앞당겨끝내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투적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밝혀주시는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당위원회 확대회의에 참석하시여 1973년 11월 현지지도에서 주신 과업에 대한 집행정형을 보고받으시고 그동안 많은 일을 한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비료는 쌀이고 쌀은 곧 사회주의라고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하여 화학비료생산을 더욱 늘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비료공장의 당면임무는 이미 조성해놓은 화학비료생산능력을 완전히 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이를 위하여서는 설비의 점검보수사업을 일상적으로 잘하며 원료를 제대로 대주어 모든 생산공정과 생산계통이 정확히 맞물고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현존생산설비로써도 원료를 비롯한 생산조건을 제대로 원만히 보장해주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며 특히 련합기업소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시킨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료를 생산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전투가 다 그러하듯이 문제는 사람들에게 달려있으며 예비는 사람들의 머리속에 있는만큼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밭에 암모니아수를 쓰는것은 비료공장건설원가를 덜구며 화학비료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도 좋다고 하시면서 밭에 암모니아수를 널리 쓰기 위한 대책적인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있는 설비로 린비료를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린회석과 류산 등 원료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 당위원회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기업소에서는 수령님께서 1973년 11월에 주신 현지교시를 받들고 설비들의 보수보강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려 공장설비들을 전반적으로 갱신하여 비날론, 염화비닐, 탄산소다, 가성소다, 카바이드 등 중요지표들의 생산능력을 훨씬 높였다.

수령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면서 화학설비조립종합기업소, 화학설계사업소, 도청년돌격대를 비롯하여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공장, 기업소, 기관 일군들, 로동자들과 지원자들 그리고 새로 확장된 설비로써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훌륭한 성과를 거둔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전체 당원들과 로동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이미 조성한 생산능력을 가지고 생산을 계속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중요한것은 설비를 일상적으로 정비보강하고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하며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과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늘어나는 비날론생산에 요구되는 카바이드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카바이드생산설비를 개건확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카바이드생산에서 유해로동과 고열로동을 없애기 위하여 카바이드로를 모두 선진적이며 현대적인 밀폐식로로 전환하는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또한 카바이드생산을 더욱 높이는것과 관련하여 알탄공장을 새로 꾸리며 점결제를 원만히 보장할 방도를 가르쳐주시였으며 침전지를 더 잘 만들어 우리의 아름다운 강과 바다에 어지러운 물이 조금도 흘러들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비날론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생산을 정상화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당정책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도내 농촌경리부문일군들과 지방산업부문일군들의 협의회를 지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협의회에서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앞당겨점령하며 고기와 남새, 닭알 등을 근로자들에게 더 많이 생산공급할데 대한 과업과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사상, 기술, 문화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함경남도에서는 해안을 낀 이 지방의 지대적특성에 맞게 작물배치를 잘하며 특히 바람이 세게 불고 강냉이가 잘 안되는곳에서는 감자를 장려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으며 광재, 소석회 등을 쳐서 토지를 적극 개량하며 과학적시비체계를 확립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비료를 되는대로 많이 쳐서 1973년과 같이 논벼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것을 강조하시고 강냉이밭에 퇴비와 비료를 더 많이 주어야 하며 덧거름주는 일과 당면한 논밭김매기전투에서 지도일군들이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알곡생산을 늘이는 동시에 오리공장, 닭공장을 비롯하여 이미 마련된 축산기지를 옳게 리용함으로써 고기와 닭알 생산을 급속히 늘이며 기름과 남새를 더 많이 생산공급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농업생산에서 계속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의 환경에 맞게 농사를 과학적으로 지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이를 저애하는 경험주의와 보수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우리 농민들을 힘든 일에서까지 영원히 해방시키기 위하여 깊이 심려하시는 수령님께서는 이날 협의회에서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칠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도안의 기계공업부문로동계급이 모내는기계를 잘 만들어 농민들의 힘든 일을 훨씬 덜어준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모내는기계를 계속 더 많이 만들데 대하여 말씀하시였으며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더 잘 실현하기 위하여 도자체로 뜨락또르부속품과 다이야 등을 대대적으로 만들어주어 뜨락또르의 리용률을 높이며 《전진》호 뜨락또르를 조립할수 있는 공장을 꾸릴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고인물뽑는 시설도 필요한데는 더 하고 저수지도 만들수 있는데는 더 만들며 토지정리와 하천정리도 알뜰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농촌문화주택을 더 많이 건설하고 농촌마을들을 더욱 문화적으로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농촌문화혁명과업을 하루속히 완수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협의회에서 또한 도내 지방공업을 더한층 발전시킬데 대한 과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선 현대적설비를 갖추고 새로 건설된 곡산공장을 비롯한 식료공장들의 생산을 정상화하고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일군들이 주인다운 립장에서 이악하게 달라붙어 현존설비들을 만가동시키기 위한 조직적대책을 세우며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생산을 급속히 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미 있는 공장들을 돌려 메리야스, 세타, 양말바지, 양말, 신발 등을 더 많이 생산하며 견절식방적설비를 빨리 갖추어 비날론섬유제품의 종류를 늘일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도내 인민들의 생활을

더 유족하게 하기 위하여 당과류, 고기, 닭알, 물고기, 남새, 기름 등을 더 풍족하게 공급하며 량곡가공을 더 잘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방도를 세워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살림집을 더 많이 짓고 뻐스를 더 많이, 알뜰하게 만들며 도처에 설비들을 갖추어 청량음료들을 풍족히 공급하며 석탄을 비롯한 후방물자공급을 더 잘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상편의를 더잘 도모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도내 농업부문과 지방공업부문일군협의회에 뒤이어 단천지구 광업부문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채취공업을 인민경제의 다른 모든 부문에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광물생산을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단천지구내 전체 광부들에게 인사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늘어나는 유색금속광물의 수요를 더욱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지질탐사사업을 적극 앞세워 광물매장량을 더 많이 확보할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이를 위한 로력, 자재, 설비들을 보장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광물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수직갱건설을 촉진하며 채굴설비를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하고 운반을 다양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실속있게 전개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도록 설계력량과 로력, 설비들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당이 내놓은 방침대로 자체의 기술, 로력, 자재를 가지고 능률높은 채굴설비들을 많이 만들며 갱내 작업을 텔레비존화하고 채취공업의 자동화를 적극 실현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선광장과 제련소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금년도 광물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앞당겨끝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함남도를 현지지도하시는 기간에 6월 4일차량공장에서 새로 만든 125톤급 하개식화차를 돌아보시고 쓸모있게 잘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이런 대형화차와 그리고 유조차를 더 많이 만들며 대형화차의 리용률을 높일수 있도록 렬차편성도 잘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수령님을 자기 도에 또다시 모시고 그이의 현지지도를 받게 된 함경남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경모의 정과 열화같은 충성심으로 가슴불태우고있으며 그이의 현지교시를 무조건 끝까지 철저히 관철할 철석같은 결의밑에 충천한 기세로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함경남도를 지도하시면서 주신 이번의 현지교시는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6개년계획을 앞당겨끝내고 10대경제건설전망목표를 승리적으로 점령해나가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함경북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함경북도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나라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언제나 수도 평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함북도내 인민들의 생활과 도안의 인민경제발전에 대하여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세심히 지도하여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에 또다시 김책제철소 확장공사장과 성진제강소, 승리화학공장과 웅기화력발전소, 청진동항 및 서항, 라진항과 김책항, 김책선박수리공장 등을 돌아보시며 도안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료해하시고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였으며 함북도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전원회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을 더욱 빛나게 실천하기 위한 과업을 토의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요결론을 하시였다.

전원회의 전체 참가자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기원을 열어놓으시고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타개하시면서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그이의 지도밑에 회의를 진행하게 된 감격과 기쁨에 휩싸여있었으며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열화같은 충성심으로 충만되여있었다.

전원회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의 붉은 기치밑에 사회주의대건설에 모든 힘을 총동원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기본건설전선을 비롯한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긍지 높이 지적하였다.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김책제철소 확장공사에 떨쳐나선 건설자들은 이미 현대적인 련속식소결로와 강철직장건설을 끝내고 대형용광로, 해탄로, 열간압연직장 건설을 빠른 속도로 내밀고있으며 무산광산개건확장공사와 서두수발전소건설도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또한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60일은 걸린다던 1호용광로개건확장공사를 단 25일동안에 끝내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승리화학공장이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건설되여 이미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섰으며 아오지화학공장 확장공사도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다.

특히 청진화학섬유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자체로 설비들을 개조하고 유해로동을 없애는데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있으며 도안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6개년계획을 1~2년이

상 앞당겨끝내려는 자기들의 결의를 훌륭히 실천해나가고있다.

기본건설전선과 공업전선에서만이 아니라 수송, 수산 전선들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있으며 농업전선에서도 지난해에 못지 않게 나쁜 일기조건을 극복하면서 모든 농사일을 제철에 잘해나가고있다.

도안의 교육, 문화, 보건 사업에서도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이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휘황한 빛발로 우리 인민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여러차례에 걸쳐 함북도를 찾으시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배려의 결과라고 전원회의는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도안의 인민경제 각 부문 일군들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제기된 문제들을 풀어주시였으며 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영광스러운 우리 당 창건 30돐까지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며 계속 빠른 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려 다음번 전망계획년도의 10대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기초를 닦으며 인민생활을 보다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투적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는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먼저 김책제철소 확장공사진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이곳 건설자들이 현대적인 련속식소결로와 강철직장의 어렵고 방대한 건설공사를 제기일안에 성과적으로 끝내였으며 열간압연직장과 용광로를 비롯한 나머지 건설공사들을 다그쳐 10월 10일전으로 조업을 보장할 결의밑에 힘찬 로력투쟁을 벌리고있는데 대하여서와 우리 기술자들의 설계에 의하여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 우리의 자재로 대형소결로와 대형용광로들을 훌륭히 건설하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해당 당위원회들에 감사를 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강철 1천 200만톤고지라고 하시면서 이미 거둔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김철확장공사에 계속 힘을 집중하여 섬멸전의 방법으로 건설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조업기일을 최대한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김책제철소 확장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설자들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에 맞게 대상설비와 자재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용광로, 해탄로 등 건설대상들의 시공속도에 맞게 보장사업을 구체적으로 맞물리도록 가르치시였으며 해당부문일군들은 설비와 자재를 무조건 제기일안으로 보장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김책제철소 확장공사가 끝난다음 그 운영에 필요한 로력문제를 풀어주시고 로동행정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제일 당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 강철공업의 전망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당의 일관된 방침대로 흑색야금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콕스탄대신에 우리 나라 석탄을 쓰며 콕스탄을 쓰는 경우에도 우리 나라 석탄의 배합비를 높여 콕스탄을 극력 아껴써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급격히 늘어나는 강철생산에 쇠돌생산을 원만히 따라세우기 위하여 지금 있는 철광산들을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무산광산개건확장공사를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고있는 건설자들에게 사의를 표시하시였으며 광산에서 현존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운반을 다양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종래의 낡은 방법을 버리고 운반의 콘베아화, 삭도화, 관수송화를 강력히 내밀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생산기지를 꾸릴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흑색야금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석회석광산들을 더 크게 개발하며 금속공업부문 자체로 야금설비들을 만들수 있는 기계제작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공무동력직장들을 강화하고 그 설비들의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일데 대하여서와 금속공업 기술자들과 전문가들을 더 많이 양성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의 물질적기초로 되며 금속공업 특히 강철공업의 발전은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이 부문일군들이 당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한몫 단단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도안의 화학공업부문 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승리화학공장이 짧은 기간에 완공되여 생산을 시작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이미 건설해놓은 설비들을 더 완비하고 생산을 정상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으며 아오지화학공장의 생산능력확장공사를 더욱 다그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청진화학섬유공장 로동계급이 자기의 설계, 자기의 기술로 설비들을 현대화하고 유해로동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공장당위원회에 감사를 표시하시였으며 이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내밀기 위하여 전국의 기계공장들이 달라붙어 도와줄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청진화학섬유공장 기술정비위원회를 내오고 설계도 하고 기계공장들에서 설비도 깎아주어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로써 년말까지 현대적인 공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돌격전을 들이대자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대주는것은 물론 공장당조직이 이 사업에서 주인이 되여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내밀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급속히 늘어나는 포장지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크라프트지공장을 새로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수행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크라프트지공장은 석탄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 건설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새공장의 건설부지를 잡아주시고 건설력량을 꾸릴 대책을 제시하시였으며 제지공장과 펄프공장들에서 펄프폐액을 하나도 버리지말고 모조리 회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업과 인민경제의 중요 동력으로 되는 전력공업을 앞세워 발전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우리 나라에 풍부한 수력자원에 의거하여 수력발전소들을 계속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당면하여 강하천이 많은 자강도, 함남도, 함북도들에서

수력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발전소건설력량을 분산시키지 말고 전문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고 수력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기백으로 새로운 건설속도를 창조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수력발전소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청진시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도 얻고 시내 중앙난방도 실현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으며 큰 공장, 기업소들에 있는 대형보이라들에도 모두 발전기를 설치하여 전기를 일구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송전선건설사업소 로동계급이 말없이 많은 일을 한 숨은 영웅들이라고 높이 치하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하시였으며 송전선건설과 송배전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친히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우리 나라 공업부문의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북부탄전들에서 석탄생산을 더욱 늘일데 대한 과업과 그 수행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공업의 동력으로 되며 원료로 되는 석탄을 더 많이 캐내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에서 보수주의를 없애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탄광들에서 엄격한 규률을 세우며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서도 중요하게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항사업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해양국으로서 나라의 경제가 끊임없이 발전하고있으며 특히 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신과 권위가 비상히 높아지고 사회주의나라들과 제３세계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과의 대외무역이 확대발전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항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이 부문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킬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많은 로력과 자재, 자금을 들여 새로운 항을 건설하지 않고도 있는 항들의 리용률을 높인다면 지금보다 항능력을 몇배로 늘일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항들을 더 확장하고 각종 기중기, 지게차 등 설비들을 충분히 갖추어 짐을 싣고부리며 운반하는 일을 더 능률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와 함께 항의 적재장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창고와 로천적재장을 꾸리고 짐을 품종별, 규격별로 규모있게 쌓아 적재장을 립체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항밖에도 적재장을 꾸리고 콘베아, 삭도, 수송관 등 현대적인 운반설비들을 설치하여 짐을 실어들여 쌓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을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하여 전국이 달라붙어 항들에 기중기숲을 이루게 해주며 적재장, 창고를 비롯한 시설들을 건설해줄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사람들이 결심하기에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정전직후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당의 호소를 받들고 로동계급이 평양시복구건설에 필요한 기중기를 한꺼번에 몇십대 만들어낸 그런 정신과 기백을 가지고 통이 크게 달라붙어 전격전의 방법으로 번개같이 해제낀다면 올해 당창건기념일전으로 모든 항들을 일신시킬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항보수사업을 조직하여 부두의 옹벽과 잔교를 늘이고 항만을 더 깊이 준설하기 위한 사업들을 년차별계획에 따라 진행하며 항에 입출항하는 배들이 많아지는 실정에 따라 배에 물과 연유를 공급하는 시설들의 능력도 더 늘이고 남새과일상점들과 선원구락부들도 더 잘 꾸려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항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항운영사업규정과 항내부규정을 새로 만들고 항의 모든 사업을 정규화하며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 모든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항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각급 당조직들이 항사업에 대하여 응당한 관심을 돌려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늘어나는 수송수요에 맞게 철도운수와 해상운수, 자동차 수송을 급속히 발전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공업이 장성강화되고 인민경제부문간의 경제적련계가 비할바없이 복잡하여진 우리 나라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철도수송조직을 대담하게 개편하여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철도화물수송에서 집중수송방법을 널리 받아들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며 중요화물역들에 적재장들을 만들어놓고 짐을 싣고부리는 기계도 많이 만들어놓아 류전기재리용률을 높일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철도의 긴장성을 덜어주기 위하여 해상운수와 자동차수송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박건조와 도로건설을 적극 추진시킬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선박건조기지들을 더 잘 꾸려 １만톤, ２만톤급 대형선박과 １천 ５００톤급이상, ３천톤급, ５천톤급 선박들을 더 많이 만들며 이에 필요한 설비, 자재, 의장품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김책선박수리공장 로동자들이 자력갱생하여 항에서 쓸 기중기를 많이 만든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고 각급 선박수리공장들에서도 항만기중기를 대량생산할것과 각급 수리공장들이 해상운수에 쓸 배들을 많이 만들고 수리도 잘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방대하게 진행되는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세멘트공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발전소, 도로, 항만, 교량, 공장, 도시 건설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려면 세멘트가 많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이 달라붙어 고무산세멘트공장에 로를 더 건설하여 세멘트생산을 늘일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언제나 깊이 심려하시며 극진히 보살펴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함경북도의 농업생산을 더욱 늘이고 인민생활을 가일층 향상시킬 대책을 세워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최근 년간 함경북도의 농촌경리부문사업을 전면적으로 료해하신데 기초하시여 ６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점령하며 고기, 남새, 닭알 생산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전변을 일으킬 구체적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함경북도는 날씨가 차고 안개가 끼며 비가 많이 내리고 땅이 랭습한데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탓할것이 아니라 응당 그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후풍토에 맞는

농법을 받아들여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습지대의 배수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토지개량과 토지정리사업을 광범히 벌릴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기후조건이 불리한 지대일수록 랭상모와 강냉이영양단지를 더욱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며 품종을 개량하고 콩과 감자와 같은 작물을 많이 심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알곡생산을 지금보다 훨씬 높이는 동시에 모든 농장들에서 호당 １００키로그람, 작업반당 ２톤이상의 고기와 호당 １천알이상의 닭알을 생산하는 운동을 널리 벌리며 과일, 남새 생산을 늘이여 도시와 로동자지구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닭알, 남새를 공급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농촌기술혁명과업을 가까운 시일안에 완성하며 농민들을 힘든 일에서 해방하기 위하여서는 농촌기계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도가 자체의 힘으로 다이야공장, 뜨락또르 부속품공장을 빨리 꾸려 뜨락또르의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특히 로동계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함경북도에서는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를 강화하여 농촌경리를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업을 당조직이 틀어쥐고 조직하며 지도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청진시를 비롯하여 김책, 라진 등 도시들과 로동자지구의 후방공급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특히 강철로동계급이 집중되여있는 청진시에 대한 공급사업을 위하여 이미 일정한 토대를 꾸린 오리공장, 닭공장들을 더 확장하고 오리, 닭, 돼지 공장들을 잘 관리운영하여 더 많은 고기와 닭알을 생산하며 경성군을 비롯한 도시주변에 공고한 남새기지를 꾸려 남새를 풍족히 공급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시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를 공급하고 량곡가공설비들을 잘 꾸려 주식물을 먹기좋게 여러가지로 가공하여주며 곡산공장을 빨리 완공하여 당과류, 기름 등을 더욱 원만히 생산공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미 있는 공장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여러가지 옷과 세타, 양말바지 등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을 더 잘 입히고 쓸모있는 살림집을 많이 지으며 청량음료를 넉넉히 공급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필요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및 행정, 경제 기관일군들이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경제관리분야에 구현한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요구대로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주인답게 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함북도는 금속공업, 석탄공업, 화학공업, 림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중요기간공업을 가지고있는 도로서 여기서 일이 잘 되여야 우리 나라의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활력을 띠며 생산에서 앙양이 일어나고 인민생활도 더욱 향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앞에 제기된 전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사업을 강화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당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사람과의 사업, 군중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모든 일군들이 먼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사업형편과 사상생활을 일상적으로 료해하고 교양하여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공산주의교양, 특히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와 하나의 설비와 나사못도 아끼고 사랑하며 자본주의사상잔재인 리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배양해야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일군들속에서 지방주의, 경험주의, 보수주의 등 우리의 전진운동을 저애하는 낡은 사상요소들과의 사상투쟁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지도를 옳게 따라세우기 위하여 모든 일군들이 당정책학습을 잘하는 동시에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도, 시, 군당과 공장당 책임일군들이 한손에는 당내부사업을 틀어쥐고 다른 한손에는 경제사업을 틀어쥐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전반적인 사업을 책임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위원회들이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잘하고 당정책집행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장악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에 대처하여 사소한 안일과 해이, 무규률도 허용하지 말고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일하며 생활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전원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전원회의 참가자들과 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며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육친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이번 현지지도에서 주신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３대혁명의 붉은 기치밑에 사회주의대건설에 모든 힘을 총동원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천리마대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6개년계획을 당창건 ３０돐전으로 기어이 끝낼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함경북도 현지지도와 도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하신 교시는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강령적지침이며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비약과 혁신에로 고무하는 투쟁과 승리의 기치로서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고 １０대경제건설전망목표의 휘황한 고지를 점령하며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들을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킬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자강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자강도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나라의 전반적사업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언제나 자강도의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문제에 대하여 세심히 보살피시고 지도하여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에 또다시 10여일동안에 걸쳐 도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여주시고 도가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으며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지지도기간 자강도안에 있는 뜨락또르공장, 정밀기계공장, 공작기계공장, 압록강다이야공장을 비롯한 많은 기계공장들과 곡산공장, 9월방직공장 등 경공업공장들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을 돌아보시였다. 그리고 지구별로 당 및 경제일군협의회들을 조직하시고 구체적인 과업들을 주시였으며 식료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일련의 중요한 사업을 몸소 현지에서 포치하시고 지도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1월 8일 자강도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전원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과업을 토의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요결론을 하시였다.

전원회의 참가자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이 땅우에 독립되고 존엄있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으며 오늘은 온 나라에 6개년계획의 기한전완수와 웅대한 10대경제건설목표점령을 위한 사회주의대건설투쟁의 붉길을 지피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운동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도록 우리 인민을 이끌어주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그이의 지도밑에 회의를 진행하게 된 커다란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있었으며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칠 불타는 충성심으로 충만되여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먼저 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 제5차대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3대혁명의 붉은 기치밑에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자강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매 시기 제시하신 사회주의건설방침과 도사업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교시를 심장에 새기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쉼임없는 전진과 혁신을 이룩함으로써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위력을 증대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도안의 지질탐사부문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채취공업의 앞길을 믿음직하게 개척하여나갈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왕성한 투지와 정열에 넘쳐 전격전, 섬멸전을 힘있게 벌려 많은 유색광물을 찾아냄으로써 광물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압록강다이야공장의 당원들과 로동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다이야생산능력을 짧은 기간에 근 1.7배로 높이고 여러가지 새로운 종류의 다이야를 더 많이 생산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놓았다.

공작기계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기계공업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높은 창조적열성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남김없이 발양하여 자체의 힘으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소재기지들을 꾸려놓았을뿐아니라 대담하게 기술을 혁신하여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만들고 생산공정들을 자동화, 원격조종화하여 생산능력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고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현대적인 9월방직공장을 건설하여 새로운 방적능력을 조성하고 직물생산을 늘일수 있게 하였으며 곡산공장건설을 완공함으로써 인민들에게 포도당과 알사탕, 물엿, 기름 등 여러가지 식료품을 풍족히 생산공급할수 있게 하였다.

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은 또한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에 새기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열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농업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는것으로써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 따라 작물배치를 잘하고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모든 농사일을 알뜰하고 깐지게 그리고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함으로써 알곡생산을 지난해에 비하여 2배이상으로 늘이였으며 남새, 고기 생산에서도 새로운 혁신을 일으켰다. 산림조성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달성되였다.

도안의 건설자들도 최근년간 공장들을 많이 건설하였으며 시, 군 소재지들과 농촌마을을 알뜰하게 꾸리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자강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한 혁명적방침들의 정당성과 위대한 주체사상,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의 위대한 생활력을 확증하여주는것이라고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 모든 성과들은 또한 최근년간 사상혁명이 적극 추진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서고 당조직규률이 더욱 강화된 결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 모든 성과들은 특히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들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 성원들이 당조직들과 합심하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벌리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시킨 결과에 이룩된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자강도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들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도안의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 당원들과 근로자들, 과학자, 기술자, 3대혁명소조 성원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바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려 영광스러운 우리 당 창건 3

0년까지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빛나게 점령하며 계속 빠른 속도로 내달려 다음번 전망계획년도의 10대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기초를 튼튼히 닦으며 인민생활을 보다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업부문들에서 부문내부구조를 완비하며 우리 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계속 커다란 힘을 돌릴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선 중공업기지들을 더욱 튼튼히 꾸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약한 부문들을 보강하고 없는 부문들을 갖추어 생산공정들을 빨리 완비하는 한편 우리 나라 원료에 의거하여 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일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생산의 첫공정인 채취공업부문에서 혁신을 일으키는것은 전반적공업생산장성의 결정적담보라고 하시면서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며 경제건설에서 계속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하여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 새 광산들을 적극 개발하며 채굴설비들을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하고 운반작업을 다양화하여 석탄과 여러가지 광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지질탐사부문에서 새로운 광산, 탄광 후보지들을 더 많이 마련하여 채굴공업의 앞길을 믿음직하게 개척해나가며 늘어나는 광석을 원만히 처리할수 있도록 새로운 공장들을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압록강다이야공장 로동자들이 이미 거둔 성과에 기초하여 지금보다 또다시 2배로 생산능력을 높일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벨트생산기지를 빨리 확장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기술혁명을 새로운 단계에로 전진시키며 나라의 전반적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공작기계생산에서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주물직장과 대형가공직장 능력을 더욱 높여 공작기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반자동화, 자동화가 널리 실시되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동화 요소와 기구, 계기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뜨락또르생산이 급격히 늘어나고있는 오늘 뜨락또르부속품에 대한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료뽐프, 분사구 등 여러가지 부속품들의 생산을 더욱 늘여 뜨락또르공장들에는 물론 농촌경리부문에도 많이 공급해줄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인민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기술혁명의 촉진은 더많은 전력을 요구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전력생산을 끊임없이 늘일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도안의 풍부한 수력자원에 의거하여 대규모발전소건설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모든 강줄기마다에 군중적운동으로 중소형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화물수송을 철도에만 의존하려는 그릇된 사업태도를 버리고 수상운수와 자동차수송을 발전시키며 이미 실천적경험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남김없이 발휘되고있는 삭도화, 콘베아화, 관수송화를 적극 받아들일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특히 자강도와 같이 산이 많은곳에서는 삭도수송을 널리 도입하는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깊이 심려하시며 뜨거운 어버이사랑으로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보살펴주시는 수령님께서는 도안의 경공업부문사업을 전반적으로 료해하시고 인민소비품생산을 더욱 늘일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며 녀성들의 부엌일을 덜어주기 위하여 식료가공공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킬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현대적인 옥쌀공장들을 도처에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식료기술혁명을 일으켜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로동계급의 지원을 강화하여 모든 시, 군들에 현대적인 옥쌀공장들을 빠른 시일안에 건설하고 그 경험을 전국에 일반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현대적설비를 갖추고 새로 일떠선 곡산공장을 잘 돌려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으며 제2계단공사를 빨리 끝내고 간장, 된장, 사탕, 전분 등 여러가지 식료가공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지방산업공장들에서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타 도에서 가져오던 치약, 치솔, 양말, 비누, 신발 등 여러가지 생활필수품들을 자체로 더 많이 생산하며 식료가공공업이 급속히 발전하는데 따라 날로 늘어나는 유리병의 수요도 자체로 충족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희천과 만포시를 비롯한 도시들과 로동자구들을 잘 꾸린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고 앞으로 다른 도시들과 로동자구들을 더 알뜰히 건설할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건설력량을 몸소 꾸려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건재기지를 튼튼히 꾸릴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대규모적인 세멘트공장을 1975년 상반년까지 건설하며 금속건구공장들을 더욱 늘이고 농촌살림집까지도 위생시설을 수세식으로 만드는 조건에서 위생자기와 흄관, 주철관 공장들도 자체로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건설에서 지방자재를 널리 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설계일군들은 현실에 침투하여 지방실정에 맞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최근년간 자강도의 농촌경리부문사업을 전면적으로 료해하신데 기초하시여 산간지대에 아직도 예비가 많다고 하시면서 산간지대 농업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일으킬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해발고가 높은 고지대의 기후풍토에 맞는 품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고지대의 기후풍토에 맞는 품종을 찾아내여 알곡과 남새 생산을 늘이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한 도안의 농업과학자들을 높이 평가하시고 산간지대의 특성에 맞는 강냉이와 감자, 밀, 남새 종자등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사업을 계속 진행하며 이미 그 우월성이 확증된 새로운 무우품종을 널리 일반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알곡생산을 높이기 위하여 강냉이를 많이 심을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하천부지를 정리하여 새 땅을 많이 얻어낼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논은 더 풀지 말고 이미 있는 논에서 수확고를 높이기 위하여 랭상모를 잘 길러 모내기를 일찍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해서는 토지개량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밭에 있는 돌을 말끔히 추어내며 맹습한 땅은 소석회도 치고 흙갈이도 하여 개량하며 경사지의 척박한 땅을 걸구기 위하여 화학비료를 치는것과 함께 잡관목을 베여 썩이고 톱밥, 나무껍질 등을 썩여서 부식토를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알곡생산을 지금보다 훨씬 높이는 동시에 축산업을 발전시켜 고기생산을 늘이며 남새의 품종을 개량하여 남새수확고를 높임으로써 도시와 로동자구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남새를 공급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농촌기술혁명의 모든 과업을 가까운 시일안에 완성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농민들을 힘든 일에서 해방하기 위해서는 농촌기계화를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산간지대협동농장들에 뜨락또르를 많이 보내주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도가 자체의 힘으로 뜨락또르부속품공장을 빨리 꾸려 뜨락또르의 리용률을 높임으로써 짐나르기를 비롯한 모든 농사일을 기계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산을 낀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군중적운동으로 이깔나무, 삼송 등 여러가지 나무를 많이 심어 산림을 조성하며 그를 적극 애호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도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당조직들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며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당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교양과 함께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자, 이것은 우리 당의 구호라고 하시면서 혁명전통교양을 잘해야 어떤 바람이 불거나 난관이 앞을 가로막는다 하여도 동요하지 않고 용감히 그것을 뚫고나갈수 있으며 우리 인민이 천리마의 속도로 계속 힘차게 내달려 인민경제도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 즉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조직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인 간부들을 일상적으로 교양하고 통제하며 아끼고 사랑함으로써 그들이 당에 끝없이 충직하며 당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직맹, 사로청, 농근맹, 녀맹 등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 각계각층 군중을 교양하여 당주위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자기들의 일터에서 맞이하였을뿐아니라 도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모시고 그이의 강령적교시를 받는 끝없는 영예를 지닌 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혁명의 한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수령님께서 이번에 주신 현지교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며 3대혁명의 붉은 기치밑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천리마의 대진군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6개년계획을 당창건 30돐전으로 기어이 끝낼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력사적위업이 빛나게 실현되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위대한 비약이 일어나고있는 시기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강도를 현지지도하시고 주신 교시는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6개년계획을 앞당겨끝내며 10대경제건설전망목표를 승리적으로 점령해나가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평남도 농업부문일군협의회가 진행되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1월 12일 평남도농업부문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였다.

협의회에는 도안의 당 및 행정기관, 근로단체, 경제기관 일군들과 협동농장관리일군들이 수많이 참가하였다.

협의회에는 또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들과 정무원 부총리들, 당중앙위원회 부장들과 정무원 위원회 위원장들 및 부장들이 참가하였다.

지난날 제국주의적 및 봉건적 착취와 압박으로 하여 피눈물고이던 이 땅우에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시고 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반석같이 구축하심과 함께 행복하고 풍요한 사회주의농촌을 일떠세우시고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과학적인 리론과 방침을 력사상 처음으로 내놓으시여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농업생산에서 대승리와 대비약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회의장에 나오시자 회의참가자들은 장내를 뒤흔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와 우뢰와 같은 박수로써 어버이수령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협의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빛발아래 올해 농업생산에서 평남도가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사회주의농촌경리발전에서 새로운 더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였다.

우리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을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열린 뜻깊은 회의에 참가하여 농촌테제발표 열돐이 되는 올해 농사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에 대하여 보고올리고 새로운 충성의 결의를 다지게 되는 회의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수령님의 농업전사된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어리여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협의회에서 도안의 농촌경리부문일군들로부터 보고를 받으시면서 올해농사가 잘된 기본요인과 거기에서 찾아야 할 경험과 교훈에 대하여 심오히 분석하

시고 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이 농업생산에서 달성한 커다란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승리를 위한 휘황한 길을 밝혀주는 강령적교시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이 평남도의 정치, 경제, 문화의 급속한 발전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당정책을 새로 내놓을 때에는 우선 평남도에서 시범을 창조하고 그 경험을 전국에 일반화하였다고 하시면서 해방직후 토지혁명을 수행할 때와 농업협동화를 실현할 때, 그리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내올 때에도 그렇게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온 나라의 여러 농촌들과 함께 평남도의 농촌을 자주 찾으시고 세심한 지도를 주시면서 도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거듭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농업생산에서는 거대한 성과가 이룩되였다.

농촌에서 사상혁명이 줄기차게 진행된 결과 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되고 그들속에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정이 더욱 불타오르고 그이의 교시를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려는 자각과 열의가 비상히 높아졌으며 모든 일을 주인답게 알뜰하게 하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농촌기술혁명이 또한 적극 추진됨으로써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평남도에서는 이미 평남관개와 기양관개를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이 진행되여 논관개가 완전히 끝나고 분수식관수체계를 비롯한 밭관개가 널리 실시되였으며 중요벼생산지대들에서 고인물빼기공사가 끝남으로써 전도적으로 종합적인 대륜환식관개망체계가 완전히 확립되였다.

또한 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도안의 모든 농촌들에 뜨락또르와 자동차, 각종 련결농기계, 모내는기계 등 여러가지 능률높은 농기계가 많이 들어가고 토지정리가 대대적으로 벌어짐으로써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가 전면적으로 실현되고있으며 화학화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달성되였다.

도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벼농사와 강냉이농사에서 낡은 영농방법을 뿌리빼고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 따라 작물배치를 정확히 하고 모든 농사일을 제철에 알뜰하게 하며 매 공정에 과학기술적요구를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이해 농사에서 류례없는 대풍작을 이룩하였다.

이해에 평남도에서는 그전해에 비하여 도적으로 정당 평균 강냉이는 ２．４톤, 논벼는 １．５톤을 더 생산하는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많은 군들에서 논벼 정당 소출은 ８．５～９톤이상으로 높이고 강냉이 정당 소출을 지난해에 비하여 일약 ２배, ３배로 끌어올렸으며 적지 않은 면적에서 정당 １５톤, ２０톤을 생산하는 전례없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협의회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농업정책을 받들고 그를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함으로써 이해 농업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도당위원회와 시, 군당위원회 및 리초급당위원회 일군들, 도농촌경리위원회와 시,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 및 협동농장관리일군들과 전체 농업근로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테제의 휘황한 빛발아래 전반적사회주의농촌건설과 이해 농업생산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공고히 하며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３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고 １０대경제건설전망목표의 하나인 １천만톤의 알곡고지를 빠른 시일안에 점령하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닦으며 농업생산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해농사를 잘 짓게 된것이 바로 모든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모든 농사일을 당이 하라는대로 하였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모두가 당정책을 자신의 확고한 신념으로 받아물고 당이 내놓은 주체적인 영농법을 그대로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해 평남도가 당의 방침을 받들고 농업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이에 조금도 만족하여서는 안되며 앞으로 투쟁을 더 잘 벌린다면 더 많은 예비를 동원할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다수확작물인 강냉이를 많이 심을데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이 실생활을 통하여 더욱 뚜렷이 증명되였다고 하시면서 강냉이를 많이 심는 산간지대, 중간지대에 아직도 알곡증산예비가 더 많다고 강조하시였다.

도안의 지대별, 해발고별 작물의 배치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수령님께서는 당의 일관한 방침인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 따라 작물 및 품종 배치를 더욱 정확히 하고 분초를 다투어가며 모든 농사일을 제철에 하여야 하며 강냉이를 더 많이 심고 벼랭상모를 튼튼히 길러 제때에 빨리 내며 평당 포기수를 철저히 보장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같은 조건에서도 협동농장들사이의 정당수확고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알곡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킨 올해의 농사경험을 잘 살려 도처에서 강냉이면적을 더욱 늘이며 모든 농장들의 정당 수확고수준을 전반적으로 앞선 농장들의 수준에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모든 농촌들에서 과학적시비체계를 더잘 세우고 토양의 성질과 작물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비료를 잘 줌으로써 급속히 늘어나는 화학비료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일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알곡생산을 더 빨리 높이기 위해서는 토지개량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밭에 있는 돌을 모조리 추어내고 물빼는 시설을 하여 랭습지를 대대적으로 개량하며 밭머리에 버들을 심는 등의 방법으로 땅이 물에 씻겨내려가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농업생산에서 부식토에 대한 수요가 해마다 급속히 늘어나고있는 조건에서 군마다 부식토생산공장을 꾸리고 톱밥, 잡관목, 나무껍질 등을 썩여서 부식토를 공업적방법으로 대대적으로 생산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우리 농업을 완전히 공업화, 현대화하는 오늘의 보람찬 시대를 마련하여주시였으며 우리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일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협의회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내세우신 농촌기술혁명의 웅대한 과업을 빠른 시일안에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으며 그를 가일층 촉진

하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기술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더 많은 뜨락또르를 생산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모든 뜨락또르공장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설비에 만부하를 걸어 여러가지 형의 뜨락또르를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줄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농촌에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아무리 많이 보내주어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지 못한다면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구체적방도를 상세히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도안에 련결차공장, 뜨락또르부속품공장, 자동차부속품공장, 다이야공장 등을 더잘 꾸려 농촌에서 요구되는 련결차와 농기계부속품, 각종 다이야를 더욱 원만히 생산공급하며 도와 군에 농기계수리기지들을 튼튼히 꾸리고 군마다 이동수리차를 더 많이 배치함으로써 뜨락또르수리를 제때에 보장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농사일에서 가장 힘든 작업들인 모내기와 김매기, 가을걷이를 전면적으로 기계화하기 위하여 모내는기계와 김매는기계, 수확기를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줄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촌자체에서도 할 일이 많다고 하시면서 뜨락또르가 마음대로 드나들며 능률적으로 작업할수 있게 논과 밭을 규모있게 정리하고 길닦이를 잘하는 한편 농촌기술혁명의 전초병들인 뜨락또르운전수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농장원들의 전반적과학기술수준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농촌에 대한 영농물자수송을 제때에 신속히 보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철도연선에서 멀리 떨어지고 교통이 불편한 산간지대군들에 자동차수송대를 무어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협의회에서 비료는 곧 쌀이라고 하시면서 도안의 화학비료공장들의 현생산실태와 그와 관련된 협동생산부문들의 보장정형을 전면적으로 료해하신데 기초하여 효능이 높은 여러가지 화학비료와 농약을 명년도영농기전에 더 많이 생산공급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시였으며 비료생산에 요구되는 모든 조건을 전적으로 풀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날 협의회에서 아직도 우리의 일부 행정경제부문일군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는 열의가 높지만 지은 곡식을 제때에 알뜰히 거둬들이며 그 보관관리를 잘하는데는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는 현상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모든 일군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양하며 지방의 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이르는곳마다에 알맞춤한 규모의 쌀창고, 강냉이창자를 널리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항상 깊이 심려하시며 거듭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식료가공공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영예로운 과업과 그 실천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현대적설비를 갖추고 새로 일떠선 곡산공장을 잘 돌려 생산을 빨리 정상화하며 특히 도안의 매개 시, 군들에 현대적인 옥쌀공장을 건설하여 식료기술혁명을 일으킬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질좋은 옥쌀을 가공하는것은 녀성들의 부엌일을 덜어주는데 있어서뿐아니라 인민들에게 영양가높은 식량을 공급하여 식생활을 더욱 개선하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하시면서 로동계급의 지원을 강화하여 빠른 시일안에 현대적인 옥쌀공장건설을 끝내도록 몸소 사업을 포치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당과 국가의 끊임없는 두터운 배려와 농업생산의 급속한 장성에 기초하여 농장원들의 알곡 및 현금 수입이 빨리 늘어나고 여러가지 공업상품에 대한 그들의 수요가 날로 더욱 늘어나고있는 실정에서 평남도에서는 도안에 기계공장들을 많이 가지고있는 유리한 조건을 옳게 리용하여 농촌에 공급할 텔레비존, 세탁기, 랭동고, 자전거, 시계를 비롯한 여러가지 상품생산을 더욱 늘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웅대한 과업에 따라 전반적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다그치며 명년도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대로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계속 확고히 앞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당조직들이 모든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모두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매 시기 당이 내놓는 정책과 방침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제때에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군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지방당일군들이 언제나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농장원들앞에서 강연사업도 하고 해설담화도 하여 그들이 당정책을 심장깊이 파악하고 신심과 투지에 넘쳐 힘차게 전진하며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가 지휘성원들의 『정치사상적준비정도와 조직적수완에 크게 달려있다는것을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지방당일군들과 농촌경리부문일군들이 당정책을 사상적으로 받아물고 그 집행을 위한 조직사업을 제때에 짜고들며 중도반단하지 않고 반드시 끝장을 보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양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번 협의회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는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촉진하고 전반적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와 농업생산의 획기적앙양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위대한 승리에로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로 되며 계속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회의를 진행하고 그이의 강령적교시를 받는 끝없는 영광을 지니게 된 회의 전체 참가자들과 도안의 모든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우러러모신 위대한 수령님께와 당중앙에 다시금 뜨거운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으며 그이께서 이번 협의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끝까지 관철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탁월한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인 농촌테제를 빛나게 구현하며 알곡을 비롯한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에서 또다시 새로운 일대 혁신을 일으킬데 대한 철석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도안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혁명발전의 매시기, 매단계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당의 농업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언제나 전국의 앞장에서 빛나게 관철해온것처럼 우리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빨리 실현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업을 새로운 더 높은 령마루에 끌어올리기 위한 오늘의 충진군운동에서도 반드시 승리자의 영예를 떨칠것을 한결같이 맹세다지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3대혁명 전시관을 돌아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월 8일, 전국공업대회에 즈음하여 마련한 3대혁명전시관을 돌아보시였다.

전시관에는 공업부문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을 보여주는 공업부문의 많은 전시품들이 진렬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공업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연설을 높이 받들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는 가운데 열리고있는 전시관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밝혀주시고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혁명적로동계급과 당핵심들, 청년인테리들이 힘을 합쳐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새로운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이끌어주신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사상문화관에는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사상과 그이께서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와 시기마다 그 실현을 위하여 취하여주신 현명한 조치들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들이 전시되여있었으며 수령님께서 사상, 문화 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몸소 진두에서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한 감동적인 사실들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정중하게 전시되였었다.

또한 사상문화관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혁명적인 학습체계와 항일유격대식 학습방법들을 여러모로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당중앙이 제시한 문답식학습경연방법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학습에 대한 조직의 통제와 대중적통제를 결합시키며 학습에서 형식주의를 없애고 학습과 실천을 밀접히 결합시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 관철에로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혁명적인 학습방법이라는것을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사상문화관의 전시품들은 또한 강연을 정규화, 생활화하며 리론학습 및 토론들을 강화하는 내용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대건설에로 힘있게 추동하는 전격적인 구두선동, 기동적인 직관선동, 예술선동과 출판보도활동 등 항일유격대식 선동방법과 그 커다란 생활력에 대하여 감동깊게 보여주었다.

또한 이 관의 전시품들은 우리 나라의 혁명적문학예술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찬란히 개화발전되고있는 면모와 문학예술이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는데 대하여 그리고 우리 예술인들의 혁명적인 정치생활과 전격적인 경제선동활동모습들에 대하여 다양하게 보여주었다.

사상문화관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오직 주체형의 붉은 피만이 온몸에 끓어번지는 충성의 대오로 튼튼히 자라나는 그 자랑찬 성과들을 힘있게 보여주고있으며 사회주의문화건설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는 자랑찬 모습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기술혁명의 성과를 보여주는 관들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의 과업을 높이 받들고 우리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만들어낸 기술혁명과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 크게 이바지할 여러가지 창안품들과 새 기구제품들이 많이 진렬되여있었다.

전시관에는 각종 고속도천공수단들, 무연탄광의 종합적기계화에 필요한 설비들과 채취공업부문에서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와 운반계통의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가지 설비들, 정광관수송을 위한 설비들, 기본건설에서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게 할 설비들과 건재품들, 현대적인 야금설비들, 능률적이며 경제적인 특수형공작기계들, 운수지휘통신의 현대화를 위한 각종 기구들을 비롯해서 인민경제 각부문에서 근로자들을 고열과 힘든 일에서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보여주는 전시품들이 많이 전시되여있었다.

또한 전시관에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자동화, 원격조종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둔 성과들과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 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보여주는 전시품들이 진렬되여있었다.

그리고 천과 신발, 일용품들과 식료품 생산을 늘이고 그 질을 높이는 새로운 설비들과 기구들, 여러가지 경공업제품들, 농촌경리의 화학화에 이바지할 각종 비료와 농약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전시관밖에는 300마력대형불도젤, 중량자동차, 대형시추기를 비롯한 대형기계설비들과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여러가지 새형의 농기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시관에 있는 진렬품들을 돌아보시고 3대혁명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로동계급과 당핵심들, 청년인테리들이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심화시켜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승리를 이룩함에 있어서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교시를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이룩된 가치있는 성과들을 인민경제 각 부문에 일반화하여 생산과 건설에 널리 받아들일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전시관에서 만나뵙게 된 로동자들과 당핵심들, 청년인테리들은 이날의 끝없는 감격과 영광을 안고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친위대, 결사대로 자신을 더잘 준비하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빛나는 위훈을 떨침으로써 수령님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 철석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3대혁명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로동자들과 당핵심들, 청년인테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고 령도하시는 조선로동당은 첫주체형의 당이며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가장 세련된 당으로서 혁명과 건설의 본보기당이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에 대한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반향—

인류가 낳은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시였으며 영웅적인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우리 혁명의 억년 드놀지 않는 깊고 억센 력사적뿌리인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대와 공산주의미래의 전 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세상에서 첫 주체형의 가장 혁명적인 당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심으로 하여 우리 당은 조선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전위부대이며 우리 혁명의 참모부로서 어떠한 풍파와 시련도 뚫고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불패의 당으로, 로쇠와 침체를 모르며 언제나 생기발랄하고 혁명적기백에 넘쳐 투쟁하는 전투적인 당으로 되였다.

하기에 세계 혁명적당들과 투쟁단체 지도자들, 혁명적인민들은 주체형의 당인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흠모하며 높이 칭송하고있으며 그이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의 모범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오늘만이 아니라 휘황한 앞날을 확신성있게 내다보고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가장 혁명적인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세계에서 첫 주체형의 당》, 《항일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조선로동당은 어떤 사나운 폭풍에도 드놀지 않는 가장 세련된 당》,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조선을 지상락원인 사회주의 모범의 나라로 전변시킨 혁명과 건설에서의 본보기 당》,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인 조선로동당의 창건은 조선혁명뿐아니라 세계혁명발전에서 획기적사변》, 《혁명적전투대오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기치는 투쟁의 기치, 승리의 기치》, 《조선로동당은 싸우는 인민들의 홰불》, 《인류의 희망》이라고 높이 평가하고있다.

조선로동당에 드리는 헌시에 인도의 한 사회활동가이며 문필가는 다음과 같이 썼다.

《모든 압제자의 운명을 끝장내려 탄생하신
세계의 가장 위대한 수령에 의하여 창건된 그대
그처럼 유구하고 위대한 운명의 재부우에 자라난 그대,
영용한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런 전통에서 솟아오른 그대,
그처럼 장구하고 간고한 싸움의 시련과 고난속에서 단련된 그대,
조선로동당, 그대는 온 세상 혁명가들의 사랑과 찬사를 받고있어라
찬란한 그대 업적과 조국해방전쟁에서 미국을 타승한 승리로 하여
어찌 전투마당에서뿐이랴
세계 사회주의사상령역에서
그대는 수많은 로선을 해결하였더라
반동과 교조를 대담하게 짓부시고
제머리와 제힘으로 사는 주체사상만이 창조할수 있는
기적을 온 세상에 펼치며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밑에
그대는 조선을 새로운 열정과 속도로 비약케 하였더라
남을 위하여 바치는 생애만이
영광과 보람으로 가득찬 생애임을 가슴깊이 새기고
스무해의 세월이 흐르기도전에 그대는 조선을
세계 1등급의 사회주의지상천당으로 일떠세웠어라.
…
김일성동지의 당은 지혜이며 정력이며 힘
아! 로동당은 나에게 더 없이 귀중하여라
그대는 슬픔으로 짓긴 세상에겐 홰불이여라
인류의 희망이며, 빛나는 미래의 약속이여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조선로동당은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뿌리 깊은 당》

《김일성주석님께서 1945년 10월 10일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그리 길지 않으나 그 뿌리는 매우 깊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일제식민지통치기반으로부터 조선을 해방하시기 위하여 15성상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시였으며 그 간고한 투쟁속에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구국의 영웅이신 김일성주석님의 령도밑에 진행된 항일빨찌산루사들의 이러한 영웅적투쟁이 있었음으로 하여 해방후 조선로동당은 즉시 창건될수 있었으며 그 주위에 조선인민을 굳게 묶어세워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이끌고나갈수 있었다.》 (일본사회당 출신의 한 국회의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5성상의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무르익혀오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여 194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것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전반적조선혁명발전에 새로운 력사적전환을 가져온 사변이였을뿐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사변이였습니다.》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도미니까학생들의 《김일성동지혁명력사및로작연구소조》 성원일동)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다.》 (수리아신문 《니달 알 팔라힌》)

《조선혁명의 전위부대인 조선로동당의 창건은 조선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장기간에 걸치는 투쟁과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고귀한 결실이다. 이것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전반적조선혁명의 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이다. 이것은 또한 조선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민족적 및 사회적해방을 위한 간고한 투쟁에서 쟁취한 위대한 승리이다.》 (말리신문 《에쏘르》)

《1945년 10월 10일에 창건된 조선로동당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한 강철의 당입니다.》 (모리따니인민당 정치국성원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위원장 바 알라싼느)

《10월 10일은 전세계프로레타리아혁명의 수령이시며 전체 조선인민과 전세계인민들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 창건하신 영광스러운 주체의 대오인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기치가 높이 휘날리기 시작한 날입니다.》 (중근동에 있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는 학생위원회》 성원일동)

《조선로동당의 창건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조선혁명의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되였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습니다.》 (스웨리예 스톡홀름종합대학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위원장 크리스티나 칠란드르)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김일성주의》, 《조선로동당은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전당이 통일단결된 불패의 당》

《혁명의 새로운 폭풍의 시대는 새로운 지도사상, 지도리론을 요구한다.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사상은 바로 20세기 후반기 새 시대의 혁명사상이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피어린 투쟁속에서 창시되였으며 력사의 시련속에서 검증된 사상이다.그렇기때문에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사상은 더없이 귀중한것이다.》 (일본학술회의 회원 릿쇼대학교수 마쯔모도)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인민들에게 고무를 주는 원천입니다.…

레닌주의가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주의시대의 맑스주의였다면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제국주의가 패망하고 멸망하는 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입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어느 한 나라 국회의원)

도꾜에서 일조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와 《김일성주석저작연구회 전국협의회》 공동주최로 가진 《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 (50여개 단체의 600여명이 참가) 에서 한 일조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야스이 가오루의 기저보고에서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사상, 리론 체계는 맑스—레닌주의발전사상에 높이 솟아있으며 우리 시대의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으로 되고있다.

나는 지난 시기 이 사상, 리론 체계를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주의〉 라고 규정하였지만 오늘은 주저함이 없이 이것을 〈김일성주의〉라고 부를수 있다.》고 격조높이 웨쳤다.

이 집회에서 한 도꾜《청년주체사상연구회》성원 우찌가시마 미끼야스의 토론에서는《김일성주석님을 세계인민들이 최고령도자로 우러러모시고있는것은 그이께서 위대한 김일성주의를 창시하시고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고매한 덕성을 지니고계시기때문이다.

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의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최고봉이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사상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집회에서 채택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 드리는 편지에서는 《…김일성주석님의 사상, 리론 체계는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민족해방과 민주주의, 평화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들의 혁명과 건설투쟁이 지구상의 모든 지역과 나라들에서 구체적으로 전개되고있는 세계사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계승발전시킴과 동시에 그것을 창조적으로 더욱 높은 단계에 올려세운것이라는것을 그 어느때보다도 깊이 배울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광범한 령역에 걸친 리론체계는 하나의 주의이며 김일성주석님의 사상, 리론 체계는 바로 김일성주의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집회의 〈선언〉에서는 김일성주의가 선포되였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이 집회에서 채택한 선언에는 《…김일성주석님의 사상, 리론 체계는 주체의 철학사상으로부터 대중령도 리론,기타의 광범한 령역에 걸쳐 시종일관한 체계를 이루고있으며 그것은 마땅히 김일성주의라고 부를수 있는것이다.》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조선로동당이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는 주체사상과 그를 구현한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의 로선은 1930년대에 이룩된 혁명전통에서 나온것이다.

이 력사적뿌리는 바로 조선로동당의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일본사회당 출신의 한 국회의원)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사상은… 다른 공산당들에게 있어서도 고무와 경험으로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 머리로 사고하여야 하며 자력갱생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전체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모든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보편적진리로 됩니다.》 (노르웨이공산당 위원장 레이다르 데 라르센)

《에스빠냐공산당은 주체의 원칙에 대하여 당신들과 전적으로 일치한 견해를 가지고있다.

이 원칙은 우리의 행동규범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사고하며 자기의 혁명과 관련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인정한다.》 (에스빠냐공산당 총비서 싼띠아고 까릴요)

《19세기에 〈공산당선언〉이 자본주의의 종말을 선고한것처럼 주체사상은 20세기에 제국주의의 종말을 선고한 사상으로 되였다.》 (레바논의 [illegible] 신문사 사장)

《조선로동당은 혁명의 간고한 투쟁속에서 전당이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되여있으며 그 어떤 사나운 폭풍에도 끄떡하지 않는 세련된 당으로, 그 어떤 원쑤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강철의 대오로 강화발전되였다.》 (민주예멘의 한 벗)

《조선로동당은…내외의 계급적원쑤들과 공산주의운동내의 형형색색의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행정에서 공고화되였으며 그의 뿌리가 억세여졌으며 혁명과 투쟁의 간고한 과정에서 장성되여 오늘은 강력한…당으로 되였으며 거대한 업적과 귀중한 경험들을 이룩하였다.》(수리아신문 《알피다》)

《나는 평양에서 현명하고 혁명적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령도를 받으면서 그이의 주위에 굳게 뭉쳐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영웅적기상과 의지를 똑똑히 보았다. 이것은 조선로동당과 김일성주석님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의 힘의 상징이다.

이 불패의 힘은 조선의 절반땅을 강점하고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고있는 미제를 떠려부시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고야말리라는 굳은 확신을 나에게 안겨주고있다.》 (알제리근로자동맹의 한 지방일군)

전체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통일단결되여있는 근본 원인에 대하여《수령님의 령도가

현명하고 수령님께서 인민을 한없이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하고계시며 인민을 믿고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시여 혁명을 이끌어나가시기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한 사회활동가)

조선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은《당과 수령, 인민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혼연일체가 되여 싸워나가고있기때문》이라고 아세아의 한 투사는 지적하였다. 조선인민의 가장 위대하고 귀중한 재부는 그들이《자기 수령의 주위에 굳게 단결된것》이라고 라틴아메리카의 한 혁명가는 말하였다.

《조선로동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무엇보다도 당내에 허물수 없는 불패의 통일과 단결이 보장되였기때문입니다.》 (모리따니인민당 정치국성원 바 알라싼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나라를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킨 백전백승의 혁명적당》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력사이며 위대한 변혁과 창조로 가득찬 력사입니다.》 (버마조선친선협회 만다레이지부 위원장)

《조선인민은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경애하는 주석각하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하고도 정확한 령도밑에 우선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커다란 사회경제적변혁들을 이룩하였습니다.》 (또고공화국 대통령 그나씽그베 에야데마)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조선로동당은 오늘에 와서 비로소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고있는것이 아니라 혁명을 령도하는 첫시기부터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여왔다.》 (버마의 한 신문)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어떤 기존공식이나 명제에 매달리는것이 아니라 조선인민의 리익과 조선의 실정에 맞게 모든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작성하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다.》 (일본의 한 학자)

《조선로동당은 탁월한 맑스—레닌주의리론가이신 당신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지난날 락후하였던 귀국을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와 전인민적방위체계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습니다.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승리적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영광스러운 투쟁 업적과 경험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가장 고귀한 본보기로 되고있습니다.》 (콜롬비아 평화리사회 위원장)

《혁명의 위대한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승리와 영광의 빛나는 길을 달려왔다.》 (모리따니주재 팔레스티나 민족해방운동대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은 자기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와 가증스러운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향도적력량이며 전세계 근로자들과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에서 지켜야 할 철저한 원칙성과 혁명적실천의 모범으로, 자유롭고 자주적인 사회주의조국건설의 모범으로 되고있습니다.》 (칠레북부종합대학대표 우고 모레노 뻬랄따)

《조선로동당은 신중하고 전투적인 당이며 좋은 의미에서 큰 당이다. 조선은 지구상의 저쪽끝에 있으나 조선로동당은 중요한 당이며 그의 목소리는 무게가 있다.》 (화란공산당 위원장 파울데 그로트)

《조선로동당의 옳바른 정책에 따라 오늘 조선에서는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근로자들을 종국적으로 해방하기 위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수행이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다.》 (이라크신문《옵써버》)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의 로정을 걸어왔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조선로동당은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를 타승하고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를 건설하는 투쟁에로 인민을 령도하여 불멸의 위대한 업적들을 쌓아올렸습니다. 이리하여 조선로동당은 압박받고 천대받는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풍부한 투쟁경험을 가진 세련된 전투적인 당으로,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여 싸우는 인민들에게 힘있는 지지와 고무를 주고있는 혁명적인 당으로 잘 알려지게 되였습니다.》 (베를린《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책임자 마호마 무앙굴루)

《조선이란 말은 하나의 기적을 의미한다. 우리가 본 평양, 오늘의 천리마조선은 실로 감탄과 경탄없이는 볼수 없는 기적의 사실들로 꽉 들어차있다.》고 아르헨띠나의 한 사회활동가는 감탄을 억누르지 못하였다.

《조선의 기적, 재더미에서 일떠선 평양의 기적은 학생들이 사전에서 읽는 본래의 〈기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몇배나 능가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기적의 참뜻 기적의 정확한 개념을 조선에 와서 보고 느끼라!》고 구라파의 한 진보적정치인은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력사상 전례없는 짧은 기간에 조선이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공고한 토대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발전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될수 있은것은 오직 김일성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옳바른 령도와 그 두리에 뭉친 조선인민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로력적헌신성의 결과이다.》 (일본사회당 위원장 나리다 도모미)

《조선로동당은 조선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 모든 분야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여놓았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투쟁속에서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확고한 지지와 높은 신임을 받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에서 커다란 위신을 가지고있는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자라났습니다.》 (세계민주청년련맹 뷰로주재 도미니까공산당 청년부대표)

《조선에 와서 특별히 느낀것은 조선로동당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손길이 인민들의 생활속 깊이까지 미치고있는 점이다.》 (레바논의 한로조일군)

《진정 이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를 가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정확한 령도가 미치지 않은곳이란 없으며 그이의 자애로운 보살피심이 가닿지 않은 곳이란 없다.

수령님은 언제나 인민을 믿으시고 사랑하시며 인민은 항상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와 같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을 우러러 받들고있다.》 (수리아신문《알 사우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사무실에서가 아니라 사시절 나라의 방방곡곡으로 다니시면서 대중들과 의논하시고 그들의 요구를 알아보시며 그들의 의견과 애로를 풀어주시며 그들이 제기한 창조적의견들을 고무하여주시며 공장과 협동농장, 교육문화기관들과 병사들의 병실들을 찾으시고 매일과 같이 대중을 로동속에서 지도하고 교양하고계신다.》 (베네수엘라민족해방전선 위원장)

《김일성주석님과 같이 항상 온 나라를 현지지도하시며 로동자, 농민들과 친히 무릎을 마주하시고 담화하시는 그러한 수령을 다른 나라에서는 찾

아 볼래야 찾아볼수 없다.

유명한 청산협동농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공장, 학교, 병원 및 기타 기관들이 주석님의 수많은 현지지도를 받았으며 인민들은 그이를 열렬히 환영하고 그이를 뵈옵게 되면 마음속의 모든것을 주석님께 말씀올린다.》 (일본 《김일성주석저작연구회》 대표단단장이며 와세다대학교수 후꾸시마 마사오)

《조선로동당이 오늘과 같이 세련되고 단련된 혁명적인…당으로 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찬란한 성과와 업적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오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받는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영원히 필승불패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구라파에서 공부하는 3대륙학생들의《김일성동지로작및혁명활동연구소조》 성원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떨쳐나선 조선인민에게는 점령하지 못할 요새란 없으며 타개하지 못할 난관이란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네팔 《고너머》 지 주필 고팔 다스 스레스타)

《김일성원수님과 같으신 위대한 수령의 령도가 있고 그이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적당의 령도가 있는 한 조선인민은 부단히 륭성발전하는 나라를 건설할수 있으며 이러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자기 조국의 주권과 령토를 보위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있다.》 (버마신문《록따빼네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세계의 진정한 남녀들로부터 경탄을 자아내는 거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당신께서 전개하신 모든 지도적활동을 떼여놓고서는 조선로동당의 건설에 대하여, 일본파시즘에 대한 승리에 대하여, 민주주의혁명승리에 대하여, 미제국주의의 잔인한 간섭을 물리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말할수 없습니다.》 (아이띠공산주의자통일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장 제라르두, 쟈크 도르셀리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조선로동당의 업적과 경험은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고귀한 본보기》

《조선로동당은 장기간의 혁명투쟁에서 세련된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고계신다.

김일성동지는 폭풍우시대에 국제혁명의 수레바퀴를 전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계시는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프랑스공산당의 한 정치국 위원)

《…조선로동당은 필승불패의 혁명대오로, 강철의 당으로 장성강화되였으며 몇세기를 두고도 이룩할수 없는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림으로써 전세계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혁명가들의 존경과 신임을 받는 당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본보기의 당으로 되였습니다.》 (꽁고인민공화국의 벗들)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승리적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영광스러운 투쟁업적과 경험은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가장 고귀한 본보기로 되고있습니다.》 (콜롬비아평화리사회 위원장 깜뿌싸노)

《김일성동지의 풍부한 사상과 리론 그리고 혁명실천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는 조선혁명뿐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전술적문제들이 모두 밝혀져있습니다.》 (혁명적브라질공산당대표 데네루이 데까르발로, 아뽈로니오 데까르발로)

《조선로동당은 오늘 모든 정치적령역에서 가장 위대한 세력으로 등장하였으며 세계의 방방곡곡에 사는 모든 착취받는 사람들의 앞길을 개척하는 고무적힘의 원천으로,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상징으로 되고있습니다.…

김일성동지의 완강하고도 정확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하였으며 다른 모든 혁명적당들에 전례없는 모범을 보여주었다는것이 력사적으로 립증되였으며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모든 승리의 밝은 등대로 되고있습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지역에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마수가 뻗쳐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따라나감으로써만 모든 피압박국가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할수 있을뿐아니라 완전한 경제적승리와 물질정신적진보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확고히 믿고있습니다.

우리는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는데서 령도적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키스탄 조선청년친선협회 《김일성주석로작연구위원회》 위원장 모사데크 아하드 샤흐)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과 혁명과 건설에서 귀당이 이룩한 고귀한 경험은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안겨주고있습니다.》 (베네수엘라평화위원회 서기장 리까르도 몰레나 마르떼)

《조선로동당은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을 견결히 옹호하고 철저히 구현하였으며 전세계적범위에서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발전시키며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함으로써 세계혁명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조선로동당이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한 모든 성과들과 귀중한 경험들은 조선혁명력사에서뿐아니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력사에 영원히 빛날것이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모든 인민들에게 있어서 끝없이 귀중한 재부로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당—조선로동당의 혁명력사인 당신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따라배우고 그를 구현하는것을 가장 영예로운 임무로 간주하고 있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계승자로 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있습니다.》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도미니까학생들의 《김일성동지혁명력사및로작연구소조》 성원일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이룩된 위대한 성과들과 혁명업적들은 조선로동당의 권위를 더한층 높이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세계의 싸우는 모든 인민들과 평화애호인민들의 자랑으로, 긍지로 되고있습니다.》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 《김일성동지로작및혁명력사연구소조》)

《전세계인민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로선을 따라나아가는 한 조선인민과 전세계 인민들은 앞으로 계속 승리를 이룩할것입니다.》 (중근동에 있는《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는 학생위원회》 성원일동)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돌려주신 육친적인 배려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키워주신 은인이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고계시는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에도 온 한해를 인민들속에 계시며 잠도 휴식도 잊으시고 우리 근로자들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시였으며 크나큰 배려와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언제나 우리 인민에게 남부럽지 않는 더욱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심려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대건설의 거창한 전투에 들어선 1974년 3월 21일에 세계력사에서 처음으로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철폐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고 2월 26일 공업상품의 값을 평균 30%, 최고 50%까지 대폭 낮추는 거듭되는 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12월 26일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다시금 년말특별상금을 줄데 대한 력사적조치를 취하여주시는 크나큰 기쁨의 선물, 행복의 선물을 안겨주시였다.

그 무엇에도 비길데 없는 이 크나큰 배려, 이 은덕은 오직 우리 인민을 남보다 더 잘살게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에로 하루빨리 인도하시기 위해 한평생을 다바쳐 오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만이 베푸실수 있는 자애깊은 사랑이며 천대만대를 두고 다 노래할수 없는 배려이다.

이 크나큰 자애로운 배려의 손길을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살며 일하는 끝없는 영예와 자부심에 넘쳐있는 우리 근로자들은 영원히 수령님을 우러러모시고 당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갈 충성의 결의, 충성의 열정에 불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하였음에도 이를 높이 평가하여 우리 나라에서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을 주시고 각종 명예칭호들과 국가표창을 안겨주시는 두터운 신임과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김일성훈장》 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교시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당중앙이 내놓은《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일군들과 군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맡겨진 혁명임무를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크나큰 공헌을 한것으로 하여 전국, 전군의 모범이 되고있는 기관, 기업소들과 조선인민경비대 구분대에《김일성훈장》을 수여하였다.

웅기군종합농장경영위원회 (1974. 3. 13 정령)

룡양광산 (1974. 4.12 정령)

화학공장건설사업소 (1974. 4. 12 정령)

장시형동무가 일하는 기업소 (1974. 4. 12 정령)

평양식물원 (1974. 4. 12 정령)

만수대창작사 (1974. 4. 12 정령)

평양시 모란봉고등중학교(1974. 4. 12 정령)

평안북도 신의주고등경공업전문학교 (1974. 4. 12 정령)

평양종합인쇄공장 (1974. 4. 12 정령)

조선인민경비대 제5492군부대 제904분견대 (1974. 4. 12 정령)

재일조선중앙예술단 (1974. 6. 6 정령)

어지돈관개건설종합기업소 (1974. 10. 14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훈장제1급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일군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우리 당의 정책을 관철하는데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한 기관, 기업소들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훈장제1급을 수여함에 대한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공포하시였다.

청진수산사업소의 룡악산호와 트랄56호 (1974. 1. 17정령)

근로단체중앙학교 (1974. 4. 9정령)

평양력포목장 (1974. 4. 13 정령)

평양목장 (1974. 4. 13정령)

평양농장 (1974. 4. 22정령)

농업출판사 (1974. 4. 27정령)

평양동물원 (1974. 4. 27정령)

평양제1백화점 (1974. 4. 27정령)

평양제2백화점 (1974. 6. 19정령)

장진종양장 (1974. 9. 20정령)

두단오리공장 (1974. 10. 2정령)

국방체육단 (1974. 10. 18정령)

평양농기계작업소 (1974. 11. 21정령)

각종 영예칭호수여

모범교육군칭호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방침을 높이 받들고 학교의 물질적토대를 강화하며 교원대렬을 잘 꾸림으로써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빛나게 실현하였으며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여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우리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는 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군들에 모범교육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공포하시였다.

황해북도 토산군 (1974. 1. 24결정)

자강도 만포시 (1974. 11. 21정령)

영예의 근위칭호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알

군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당의 정책을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여 당중앙이 내놓은《속도전》의 방침에 따라 맡겨진 국가계획을 넘쳐수행함으로써 인민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부문들에 근위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공포하시였다.

김책수산사업소에 근위칭호(1974. 5. 18정령)

평양철도국 서포전철대 철도근위2급칭호(1974. 5. 18정령)

개천철도국 개천객화차대 철도근위3급칭호(1974. 5. 18정령)

함흥철도국 단천전기대 철도근위3급칭호(1974. 5. 18정령)

청진철도국 위연차량대 철도근위 3급칭호(1974. 5. 18정령)

군과 협동농장 및 국영농목장들에 대한 영예칭호수여

1974년에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는 1974년에 대풍작을 이룩함으로써 농촌테제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시위하였으며 우리 당 농업정책의 정당성을 뚜렷이 증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는《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높이 받들고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 농업근로자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로동계급과 주체공업의 힘있는 지원밑에 농촌경리의 기계화, 화학화를 적극 밀고나가며 주체농법을 관철하여 온갖 악조건을 극복하면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이해 알곡을 비롯한 농산물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함으로써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점령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군과 협동농장 및 국영농목장들에 영예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정령을 (1975. 1. 12) 공포하였다.

계관근위시 (구역), 군

1, 평양시 만경대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
2, 평남도 숙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3, 〃 문덕군 〃
4, 평북도 룡천군 〃
5, 〃 창성군 〃
6, 황남도 안악군 〃

근위1급시 (구역), 군

1, 평남도 평원군 〃
2, 〃 강서군 〃
3, 평북도 녕변군 〃
4, 황북도 봉산군 〃
5, 평북도 정주군 〃

근위2급시 (구역), 군

1, 평남도 평성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2, 〃 대동군 〃
3, 〃 중산군 〃
4, 평양시 사동구역 〃
5, 평북도 의주군 〃
6, 황남도 은천군 〃
7, 평남도 온천군 〃

2중계관근위협동농장 (국영농목장)

1, 평남도 숙천군 열두삼천협동농장
2, 〃 문덕군 룡림 〃
3, 〃 중산군 풍정 〃

계관근위협동농장 (국영농목장)

1, 평양시 만경대구역 만경대협동농장
2, 〃 〃 칠골 〃
3, 평남도 강서군 청산협동농장
4, 〃 평원군 삼봉 〃
5, 〃 숙천군 약전 〃
6, 〃 〃 칠리 〃
7, 〃 〃 신풍 〃
8, 〃 〃 광천 〃
9, 〃 〃 사산 〃
10, 〃 〃 련화 〃
11, 〃 문덕군 동사 〃
12, 〃 〃 인흥 〃
13, 〃 〃 룡오 〃
14, 〃 순천군 은산 〃
15, 평북도 룡천군 전진 〃
16, 〃 창성군 약수 〃
17, 〃 의주군 서호 〃
18, 〃 정주군 침향 〃
19, 황남도 안악군 오국 〃
20, 〃 재령군 북지 〃
21, 함남도 북청군 문화 〃
22, 광포오리공장

근위1급협동농장 (국영농목장)

1, 평양시 강남군 마정협동농장
2, 〃 대성구역 대성 〃
3, 〃 사동구역 리현 〃
4, 평남도 평성시 덕산 〃
5, 〃 대동군 반석 〃
6, 〃 〃 원장 〃
7, 〃 강서군 잠진 〃
8, 〃 중산군 석다 〃
9, 〃 평원군 대암 〃
10, 〃 〃 송석 〃
11, 〃 숙천군 소은 〃
12, 〃 〃 송덕 〃
13, 〃 문덕군 룡중 〃
14, 〃 〃 서호 〃
15, 〃 〃 상팔 〃
16, 〃 〃 립석 〃
17, 평북도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18, 〃 염주군 남암 〃
19, 〃 곽산군 련호 〃
20, 〃 녕변군 룡화 〃
21, 〃 운전군 운하 〃
22, 자강도 만포시 고산 〃
23, 황남도 신천군 새날 〃
24, 〃 〃 원암 〃
25, 〃 안악군 굴산 〃
26, 〃 〃 덕성 〃
27, 〃 은천군 량담 〃
28, 〃 은률군 장련 〃
29, 황북도 사리원시 미곡 〃
30, 〃 황주군 룡천 〃
31, 함남도 북청군 서리 〃
32, 개성시 개풍군 룡산 〃
33, 두단오리공장
34, 삼석닭공장
35, 장산종축장
36, 박천근동무가 사업하는 공장
37, 혜산호프농장
38, 은파채종농장
39, 중화 〃
40, 평북도 정주채종농장
41, 조선인민군 제964군부대 돼지공장

근위2급협동농장 (국영농목장)

1, 평양시 만경대구역 대타령협동농장
2, 〃 〃 금천 〃
3, 〃 중화군 삼성 〃
4, 〃 삼석구역 장수원 〃
5, 〃 룡성구역 화성 〃
6, 평남도 평성시 삼룡 〃
7, 〃 〃 봉학 〃
8, 〃 강서군 고창 〃
9, 〃 룡강군 옥도 〃
10, 〃 중산군 무본 〃
11, 〃 온천군 6. 3 〃
12, 〃 평원군 석교 〃
13, 〃 〃 원화 〃
14, 〃 문덕군 룡북 〃
15, 〃 〃 니서 〃
16, 〃 안주군 남칠 〃
17, 〃 개천군 보부 〃
18, 〃 양덕군 태흥 〃
19, 평북도 룡천군 양서 〃
20, 〃 곽산군 천태 〃
21, 〃 정주군 일해 〃
22, 〃 녕변군 팔원 〃
23, 〃 태천군 학봉 〃
24, 〃 의주군 대화 〃
25, 〃 창성군 옥포 〃
26, 자강도 중강군 중강읍 〃
27, 황남도 신천군 명석 〃
28, 〃 〃 룡당 〃

29, 〃 안악군 대추협동농장
30, 〃 〃 로암 〃
31, 〃 〃 엄곳 〃
32, 〃 벽성군 벽성읍 〃
33, 〃 재령군 래림 〃
34, 황북도 사리원시 경암 〃
35, 함남도 북청군 종산 〃
36, 〃 〃 라하대 〃
37, 대관닭공장
38, 신계종축장
39, 리근목동무가 사업하는 분장

선봉1급협동농장 (국영농목장)

1,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협동농장
2, 〃 〃 오류 〃
3, 〃 〃 덕동 〃
4〃 〃 만경대구역 룡산 〃
5, 평남도 남포시 갈천 〃
6, 〃 대동군 연곡 〃
7, 〃 증산군 함종 〃
8, 〃 온천군 서화 〃
9, 〃 〃 마영 〃
10, 〃 평원군 청룡 〃
11, 〃 〃 운봉 〃
12, 〃 숙천군 기은 〃
13, 〃 〃 성남 〃
14, 〃 〃 검산 〃
15, 〃 문덕군 룡반 〃
16, 〃 개천군 외서 〃
17, 〃 순천군 풍덕 〃
18, 〃 〃 송화 〃
19, 〃 강동군 봉화 〃
20, 〃 덕천군 청송 〃
21, 평북도 룡천군 룡연 〃
22, 〃 〃 장산 〃
23, 〃 운전군 보석 〃
24, 〃 곽산군 안의 〃
25, 〃 박천군 청산 〃
26, 〃 녕변군 연화 〃
27, 〃 의주군 춘산 〃
28, 〃 창성군 창성읍 〃
29, 자강도 위원군 고보 〃
30, 〃 만포시 남상 〃
31, 황남도 은천군 제도 〃
32, 〃 재령군 고산 〃
33, 〃 안악군 경지 〃
34, 〃 〃 안악읍 〃
35, 〃 은률군 관해 〃
36, 황북도 황주군 천주 〃
37, 〃 서흥군 문무 〃
38, 강원도 원산시 룡천 〃
39, 량강도 혜산시 로중작업반
40, 개성시 송도협동농장
41, 〃 판문군 봉동 〃
42, 철산과수농장
43, 평북도 태천채종농장
44, 황남도 구월 〃
45, 평양시 평양 〃
46, 조선인민군 제964군부대 광덕농장

선봉2급협동농장 (국영농목장)

1, 평양시 락랑구역 두루섬협동농장
2, 〃 〃 남사 〃
3, 〃 만경대구역 룡봉 〃
4, 〃 〃 대평 〃
5, 〃 사동구역 대원 〃
6, 〃 〃 송신 〃
7, 〃 승호구역 리천 〃
8, 평남도 평성시 월포 〃
9, 〃 강서군 강선 〃
10, 〃 〃 약수 〃
11, 〃 룡강군 룡강읍 〃
12, 〃 증산군 증산읍 〃
13, 〃 온천군 온천읍 〃
14, 〃 평원군 대정 〃
15, 〃 문덕군 신리 〃
16, 〃 안주군 송학 〃
17, 〃 개천군 봉화 〃
18, 〃 순천군 련포 〃
19, 〃 강동군 문흥 〃
20, 〃 성천군 류동 〃
21, 〃 회창군 송인 〃
22, 〃 〃 송동 〃
23, 〃 양덕군 봉계 〃
24, 〃 북창군 대평
25, 평북도 룡천군 룡송 〃
26, 〃 염주군 삼개 〃
27, 〃 〃 룡산 〃
28, 〃 철산군 보산 〃
29, 〃 구장군 구장읍 〃
30, 〃 곽산군 곽산읍 〃
31, 〃 정주군 광동 〃
32, 〃 녕변군 동남 〃
33, 〃 〃 오봉 〃
34, 〃 향산군 천수 〃
35, 〃 태천군 학당 〃
36, 〃 의주군 연하 〃
37, 〃 삭주군 금부 〃
38, 〃 대관군 대안 〃
39, 〃 창성군 유전 〃
40, 자강도 위원군 위원읍 〃
41, 황남도 은률군 은률읍 〃
42, 〃 송화군 다암 〃
43, 〃 안악군 월산 〃
44, 〃 〃 마명 〃
45, 〃 〃 원룡 〃
46, 〃 옹진군 뱅정 〃
47, 〃 은천군 동창 〃
48, 〃 〃 학월 〃
49, 〃 〃 송봉 〃
50, 〃 신천군 서원 〃
51, 황북도 토산군 합탄 〃
52, 〃 봉산군 가촌 〃
53, 〃 〃 지탑 〃
54, 〃 사리원시 만금 〃
55, 〃 서흥군 봉화 〃
56, 강원도 평강군 문산 〃
57, 함남도 북청군 청흥 〃
58, 량강도 신파군 풍양작업반
59, 개성시 덕암협동농장
69, 〃 판문군 판문점 〃
61, 단천종축장
62, 봉산과수농장
63, 황남도 과일군종합농장경영위원회 염전분장
64, 의주잠업육종장
65, 평북도 학소채종농장
66, 황북도 서흥 〃
67, 황남도 은천 〃
68, 평양시 룡성온실농장
69, 〃 평양농장
70, 리봉혁동무가 사업하는 농장
71, 김순우동무가 사업하는 〃

붉은기협동농장 (국영농목장)

1, 평양시 력포구역 양음협동농장
2, 〃 승호구역 화천 〃
3, 〃 〃 봉도 〃
4, 〃 〃 괴음 〃
5, 〃 순안구역 산양 〃
6, 〃 중화군 채송 〃
7, 〃 강남군 룡포 〃
8, 〃 〃 강남읍 〃
9, 〃 〃 상암 〃
10, 〃 〃 영진 〃
11, 〃 상원군 장항 〃
12, 〃 〃 대동 〃
13, 〃 사동구역 미림 〃
14, 〃 〃 금탄 〃
15, 〃 락랑구역 정백 〃
16, 평남도 평성시 청옥 〃
17, 〃 〃 백송 〃
18, 〃 대동군 대보 〃
19, 〃 〃 덕화 〃
20, 〃 〃 가장 〃
21, 〃 〃 판교 〃
22, 〃 증산군 문동 〃
23, 〃 온천군 안석 〃
24, 〃 〃 보림 〃
25, 〃 〃 금곡 〃
26, 〃 평원군 송화 〃
27, 〃 〃 평원읍 〃
28, 〃 〃 월일 〃
29, 〃 회창군 가운 〃
30, 〃 안주군 룡흥 〃
31, 〃 개천군 삼봉 〃
32, 〃 순천군 룡지 〃
33, 〃 성천군 상하 〃
34, 〃 신양군 덕흥 〃
35, 〃 맹산군 지성 〃
36, 평북도 피현군 당후 〃
37, 〃 〃 태평 〃
38, 〃 염주군 동성 〃
39, 〃 동림군 남삼 〃
40, 〃 〃 안산 〃
41, 〃 선천군 효자 〃

42, 〃 〃 연봉협동농장
43, 〃 곽산군 원하 〃
44, 〃 정주군 보산 〃
45, 〃 〃 서주 〃
46, 〃 천마군 대성 〃
47, 〃 의주군 룡계 〃
48, 〃 삭주군 룡암 〃
49, 〃 대관군 량산 〃
50, 〃 창성군 인산 〃
51, 〃 창성군 락성 〃
52, 〃 박천군 덕성 〃
53, 〃 운전군 송학 〃
54, 〃 태천군 안흥 〃
55, 〃 녕변군 세죽 〃
56, 〃 〃 화평 〃
57, 〃 〃 서화 〃
58, 〃 구성시 은덕 〃
59, 〃 〃 신풍 〃
60, 자강도 강계시 야학〃
61, 〃 장강군 향하 〃
62, 〃 〃 종포 〃
63, 〃 성간군 무채 〃
64, 〃 우시군 우시읍〃
65, 〃 초산군 와인 〃
66, 황남도 송화군 구탄〃
67, 〃 〃 홍암 〃
68, 〃 〃 명례 〃
69, 〃 〃 판양 〃
70, 〃 〃 송화읍〃
71, 〃 옹진군 수대 〃
72, 〃 〃 림석 〃
73, 〃 〃 옹진읍〃
74, 〃 재령군 봉천 〃
75, 〃 〃 봉오 〃
76, 〃 은률군 금복 〃
77, 〃 〃 락천 〃
78, 〃 〃 연암 〃
79, 〃 태탄군 지촌 〃
80, 〃 신천군 명사 〃
81, 〃 은천군 매화 〃
82, 〃 〃 정동 〃
83, 〃 〃 초교 〃
84, 〃 〃 신창 〃
85, 〃 〃 마두 〃
86, 〃 〃 덕천 〃
87, 〃 〃 온정 〃
88, 〃 장연군 화원 〃
89, 〃 배천군 조옥희〃
90, 〃 안악군 봉성 〃
91, 〃 〃 복사 〃
92, 〃 〃 평정 〃
93, 〃 〃 연등 〃
94, 황북도 봉산군 천덕〃
95, 〃 〃 송산 〃
96, 〃 〃 봉산읍〃
97, 〃 사리원시 광성〃
98, 〃 토산군 토산읍〃
99, 〃 〃 봉불 〃
100, 〃 〃 미당 〃
101, 〃 평산군 평산읍협동농장
102, 〃 린산군 기린 〃
103, 〃 서흥군 가창 〃
104, 〃 신평군 장암 〃
105, 〃 송림시 당산 〃
106, 〃 〃 석탄 〃
107, 강원도 안변군 미현 〃
108, 〃 고산군 철령 〃
109, 〃 평강군 상갑 〃
110, 〃 〃 천암 〃
111, 〃 〃 복계 〃
112, 〃 이천군 회산 〃
113, 〃 판교군 판교읍〃
114, 〃 법동군 여해 〃
115, 함남도 북청군 중리 〃
116, 량강도 후창군 라죽 〃
117, 〃 갑산군 중천 〃
118, 〃 풍서군 내포작업반
119, 개성시 장풍군 가곡협동농장
120, 평북도 고현채종농장

천리마영예상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킴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작업반원들과 인민반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정책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와 맡은바 혁명임무수행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켰으며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고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철저히 세우는데서 모범이 된 2중천리마작업반들과 인민반들에 천리마영예상을 수여할데 대하여 4월 12일 중앙인민위원회 결정을 공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천리마영예상을 받은 2중천리마 작업반들과 인민반들은 다음과 같다.

평양시송배전부 2중천리마 제1변전소

평양의학대학병원 2중천리마4외과

평양시 모란식료품종합상점 2중천리마서평양식료품상점

리정민동무가 일하는 건설사업소 천리마제1직장 2중천리마조립작업반

대안전기공장 천리마설계사업소 2중천리마변압기설계작업반

김동석동무가 일하는 조선소 천리마4직장 2중천리마현도작업반

남포해운사업소 2중천리마 343호작업반

룡문탄광 공화국창건20주년기념갱 굴틀기중대 2중천리마제1소대

정주영예군인편직공장 2중천리마공무작업반

신의주의학대학병원 2중천리마외상정형외과

김광봉동무가 일하는 공장 2중천리마대보수작업반

최상열동무가 일하는 공장 천리마11직장 2중천리마기계수리작업반

윤호석동무가 일하는 공장 천리마8직장 2중천리마측정구1작업반

김종협동무가 일하는 건설사업소 공화국창건20주년기념직장 2중천리마 2작업반

자강도 만포시 천리마김정주동무가 일하는 병원 2중천리마3과

자강도 자성군 운봉종합상점 2중천리마언제식당

황해남도 신천군 2중천리마신천박물관

산업은행 황해남도 2중천리마옹진지점

2.8세멘트공장 광산사업소 2중천리마채광작업반

강원도 고산군자동차사업소 2중천리마수리작업반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천리마자동화작장 2중천리마계판작업반

계관근위룡양광산 4.5갱2중천리마채광제1소대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2중천리마로라직장 2중천리마제3작업반

함경남도 북청군 북청수지일용품생산협동조합 2중천리마로루작업반

고원탄광 청년갱 2중천리마기본굴틀기소대

함경남도 신포시 식료품종합상점 2중천리마려호분점

청진제강소 천리마회전로직장 2중천리마2작업반

청진제강소 2중천리마탁아소

무산광산 선광보수직장 2중천리마뽐프수리작업반

강암이동무가 일하는 조선소4직장 2중천리마상가작업반

신양림산사업소 천리마공무직장 2중천리마단조작업반

청진객화차대 천리마청진렬차검사중대 2중천리마3작업반

함경북도 김만형동무가 일하는 병원 2중천리마약국

량강도 백암군 유평림산사업소 천리마이계수작업소 2중천리마1작업반

개성피복공장 천리마2직장 2중천리마7작업반

평양시 승호구역 리천협동농장 2중천리마종축작업반

평양시 만경대구역 만경대협동농장 2중천리마남새작업반

평안남도 문덕군 인흥협동농장 2중천리마제3작업반

평안남도 숙천군 창동리열두삼천협동농장 2중천리마제10작업반
평안남도 대동군 덕천협동농장 2중천리마제2작업반
평안북도 창성군 금야협동농장 2중천리마종축작업반
평안북도 태천군 학당협동농장 2중천리마제1작업반
자강도 송원군 판평협동농장 2중천리마탁아소
자강도 고풍군 풍당협동농장 2중천리마제2작업반
황해남도 배천군 금성협동농장 2중천리마제5작업반
황해남도 안악군 원룡협동농장 2중천리마제13작업반
황해남도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2중천리마제5작업반
사리원트랙또르부속품공장 가공직장 2중천리마주조작업반
강원도 원산시 적천협동농장 2중천리마과수제2작업반
강원도 회양군 포천협동농장 2중천리마제4작업반
함경남도 덕성군 수서협동농장 2중천리마과수제2작업반
량강도 후창군 편하협동농장 2중천리마제4작업반
개성시 개풍군 통산협동농장 2중천리마제4작업반
평양철도대학 철도기계공학부 2중천리마기관차및객화차강좌
해주제2사범대학 음악미술부 2중천리마미술강좌
량강도 갑산군 천리마갑산녀자고등중학교 2중천리마력지작업반
황해남도 은률지질탐사대 2중붉은기제1중대
강원도 조사측량대 2중붉은기제1중대
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2중천리마제13인민반
평안남도 문덕군 안주로동자구 2중천리마제105인민반
평안남도 북창군 송남로동자구 2중천리마제51인민반
평안북도 신의주시 개혁동 2중천리마제35인민반
평안북도 구성시 청년동 2중천리마제6인민반
황해남도 신천군 릉동리 2중천리마제3인민반
황해북도 사리원시 북3동 2중천리마제20인민반
황해북도 송림시 운곡동 2중천리마제3인민반
강원도 평강군 평강읍 2중천리마제26인민반
강원도 원산시 봉춘동 2중천리마제17인민반
함경남도 허천군 룡원로동자구 2중천리마제37인민반
함경남도 고원군 팔흥로동자구 2중천리마제7인민반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역전동 2중천리마제31인민반
량강도 혜산시 연풍동 2중천리마제1인민반
개성시 보선동 2중천리마제30인민반
기타 4개의 2중천리마작업반

새로운 영예칭호 제정

공훈건설자칭호 (1974. 4. 29정령)
상업근위칭호 (1974. 6. 3정령)

영예상과 각종 명예칭호수여

(아래에 지적된 자료들은 발표된것만을 장악하였음)
《김일성청년영예상》 청진제강소 공무동력직장초급사로청위원회 외 9개의 사로청단체, 230명 (1974. 1.17, 10. 5 정령)
새 기술혁신봉화상 1명 (1974. 10. 10 정령)
로력영웅 28명 (1974. 3. 4, 3. 22, 4. 13, 6. 8, 7. 4, 7. 6, 7. 8, 7. 11, 12. 14, 2. 24 정령)
인민예술가 2명 (1974. 4. 14, 6. 6정령)
인민배우 3명(1974. 4. 14, 6.6정령)
공훈예술가 26명 (1974. 4. 13, 4. 14, 6. 6, 6. 26, 7. 8, 11. 15, 12. 28 정령)
공훈배우 30명 (1974. 4. 14, 6. 6, 7. 8 정령)
3. 1월간상 1명 (1974. 12 정령)
공훈기자 1명 (1974. 12 정령)
공훈제염공 3명 (1974. 4. 13 정령)
공훈방직공 13명 (1974. 4. 13, 10. 18 정령)
공훈기계제작공 41명 (1974. 2. 18 정령)
공훈기관사 4명 (1974. 5. 10정령)
공훈철길원 3명 (1974. 5. 10 정령)
공훈철도수송원 1명 (1974. 5. 10 정령)
공훈어부 7명 (1974. 3. 22 정령)
공훈지질탐사원 8명 (1974. 5. 14 정령)
공훈통신공 6명 (1974. 6. 27 정령)
공훈방송기계공 1명 (1974. 6. 27 정령)
공훈우편통신원 3명 (1974. 6. 27 정령)
공훈건설자 5명 (1974. 6. 29 정령)
공훈설계가 4명 (1974. 6. 29, 10. 26 정령)
공훈체육인 10명 (1974. 7. 29, 12. 28 정령)
공훈광부 25명 (1974. 9. 14 정령)
공훈전력공 12명 (1974. 9. 26 정령)
공훈벌목공 3명 (1974. 10. 5 정령)
공훈운재공 8명 (1974. 10. 5 정령)
공훈류벌공 1명 (1974. 10. 5 정령)
공훈용해공 6명 (1974. 10. 10 정령)
공훈소성공 1명 (1974. 10. 10 정령)
공훈자동차운전사 16명 (1974. 11. 15 정령)
공훈선원 5명 (1974. 11. 15 정령)
공훈인쇄공 7명 (1974. 11. 11 정령)
공훈리발사 8명 (1974. 4. 13, 9. 14 정령)
공훈재단사 1명 (1974. 4. 13 정령)
공훈료리사 6명 (1974. 9. 14 정령)
공훈재봉공 1명 (1974. 9. 14정령)
공훈판매원 5명 (1974. 9. 14 정령)
공훈편의수리공 4명 (1974. 9. 14 정령)
공훈도시관리공 4명 (1974. 9. 14 정령)
공훈량정창고원 2명 (1974. 9. 14 정령)
공훈정미공 1명 (1974. 9. 14 정령)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을 심화시키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기적을 창조하고있으며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더욱더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전위부대인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단행본, 7페지)

우리 당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고 우리 혁명이 더한층 심화되고 있는 이 력사적시기에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세우고 그 력사적위업실현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아가야 할 전투적강령이며 우리 당 사업의 총적임무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은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대건설의 실천행정에서 남김없이 확증되고있다.

우리의 당원들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혁명전사로,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철저히 준비되고 경제와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가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되여 나감으로써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위대한 방침이 성과있게 추진되여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위업이 힘차게 앞당겨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으며 그들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을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의도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당중앙은 사상전의 방침을 내놓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지도하고있다.

당중앙의 세련된 지도밑에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속에서는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유일사상교양과 혁명교양, 계급교양이 강화되고 정치선전과 경제선동이 패기있게 진공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상교양사업이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교양함에 있어서 당의 골간력량이며 당정책을 조직집행하는 지휘성원들이며 대중의 직접적교양자들인 간부들을 먼저 교양하는데 특히 큰 힘을 넣었다.

이것은 모든 당원들을 간부들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간부들을 한등급이상의 간부들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당을 간부화할데 대한 방침관철의 기본요구이기도 하다.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의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그들의 사상생활에 대한 지도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 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웠다.

그리하여 간부들과 당원들, 모든 근로자들속에서 분초를 아껴가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과 그이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기 위한 집체학습, 강연, 강습 규률을 철저히 세우고 매일 2시간이상 학습하는것을 생활화, 제도화하였다.

특히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유일사상교양에서 크게 은을 낸것은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구현한 당중앙이 내놓은 문답식학습방법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문답식학습을 당조직별, 행정단위별, 학습반사이, 학습반안의 조사이 등으로 실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함으로써 학습참가자들의 열의를 비상히 높이였으며 그리하여 이 학습방법의 우월성이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문답식학습방법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학습내용에 대한 론쟁과 토론을 심화시켜 배운 내용을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학습열의를 비상히 높이였다. 일하다 쉬는 시간에도 학습토론이 진행되고 가정에서도 학습이 잘 진행되였으며 직관문답학습, 혁명적인 노래를 보급하는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하는 분위기로 일색화되였다.

참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학습에 대한 자각성과 열의는 전례없이 높아지고 전당과 온 사회에 생기발랄한 혁명적학습기풍이 튼튼히 서게 되였다.

우리 당은 조성된 내외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로부터 유일사상교양과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깊은 주목을 돌렸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제국주의 침략적본성과 략탈성》, 《제국주의멸망의 불가피성》, 《수정주의본질과 해독성》, 《미제는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 《박정희파쑈악당은 미일제국주의의 2중의 주구이며 극악한 매국노》 등의 제목으로 집체학습은 물론 강연, 해설, 담화, 이야기모임, 감상모임 등 구두선전과 함께 직관선전, 영화, 노래 보급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였다.

우리 당은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한편 사상전을 꾸준히 벌려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를 세우는 사업에서 요구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당의 유일사상체계, 당의 유일적지도체제와 어긋나는 현상을 비롯하여 온갖 낡고 뒤떨어진 사상경향에 대해서는 비록 그것이 크지 않은것이라 하더라도 제때에 타협없이 사상투쟁을 벌려왔다.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함에 있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력량을 기울였다.

당조직생활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밀접히 결합시켜 당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

주의혁명가로 육성과정을 비상히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당중앙이 제시한 새로운 조직생활총화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조직정치생활은 더욱 째여지고 그들속에서 낡고 침체한것을 뿌리빼기 위한 꾸준한 사상전의 불길속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이 더욱 심화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우리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서는《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사업기풍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3대혁명의 기치밑에 사상혁명의 방침, 사상전의 방침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상관점과 사업태도,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의 사상상태는 매우 좋으며 우리 사회의 정치적분위기도 또한 좋습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단결되여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고있습니다.》 (1975년《신년사》, 단행본, 9페지)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그들의 심장마다에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주체형의 피만이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고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정치사상적으로 단련되고 세련된 가장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가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되여가고있다.

또한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의도를 유일한 자로 하여 모든것을 재여보며 그와 어긋나는 현상과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투쟁하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특히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있는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한 순간을 살아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고결한 충성의 한마음으로 살며 억세게 투쟁하고있다.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을 따르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불같은 충성심을 안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는것은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철석같은 혁명적의지이며 확고부동한 생활의 신조로 되였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혁명적기풍이 활짝 꽃피고있으며 또한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밑에 맡겨진 일을 책임적으로 깐지게 알뜰하게 하는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립장이 전면적으로 발양되고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비상히 높이 발휘되고있다.

일군들속에서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저애하던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철저히 극복되였으며 혁명군대의 지휘관들처럼 근로대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혁명적사업기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사상혁명을 강화하고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당의 전투적강령실현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동지적단결이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온 사회가 하나의 충성의 전투대오로 튼튼히 꾸려졌다.

특히 우리 인민대중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믿고 존중하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산주의의 찬란한 승리를 향하여 다같이 힘차게 달려나가려는 고상한 집단주의정신, 공산주의적미풍이 높이 발양되고있으며 미래의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풍모인 높은 사상성과 강한 혁명적조직성이 더욱 빨리 자라나고있다. 이것은 온 사회성원들이 굳게 단합되였으며 사람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과정이 힘차게 추진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이것은 또한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풀리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참으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구호밑에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이며 혁명적인 하나의 화목한 집단으로 뭉쳐 나아가는것, 이것이 오늘 우리 나라의 혁명적대풍모이다.

당중앙이 제시한 전투적강령에 따라 온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이 힘차게 전개되는 행정에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는 또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남으로써 나라의 위력이 모든 분야에서 비상히 강화된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새로운 력사적인 진군이 개시되였다.

온 나라 모든 분야에서 우리 근로자들은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높이 울리면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하고있으며 패기와 정열에 넘쳐 사회주의대건설의 총진군운동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그이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흠모의 정은 온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열풍이 세차게 불어치고있는 대건설전투장 그 어디에서나 보다 강렬하고 보다 자랑스럽게 발양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1974년에 창조된 《70일전투속도》는 강력한 사상혁명의 불길속에서 온 사회를 유일사상화할데 대한 당의 강령을 받들고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려는 인민대중의 열망이 뜨겁게 타오르는 가운데 이룩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불덩이같은 충성심의 집중적인 발현이다.

《70일전투속도》는 온 사회를 유일사상화,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당의 위대한 강령이 낳은 빛나는 열매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위업을 더 잘 꽃피우려는 당중앙의 높은 뜻을 받든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심장들이 하나로 합쳐서 뜨겁게 고동치는데서 나온 충성의 속도이다.

사회주의대건설의 새로운 천리마대고조속에서 6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제들이 훨씬 앞당겨수행되고있으며 휘황한 10대경제건설목표 점령을 위한 기초가 튼튼히 닦아지고 나라의 생산력이 류례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1974년에 공업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운 빛나는 승리가 이룩되였다.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인 현대적 공장, 기업소들이 수풀처럼 일떠서고 공장, 기업소들이 최신기술로 개건확장되였으며 당 제5차대회가 공업부문앞에 내세운 강령적과업을 앞당겨완수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우리 주체공업의 위력은 비할바 없이 강화되였으며 공업생산은 더욱 빠른속도로 장성하였다. 특히 세계적인 흉년으로 많은 나라에서 식량위기를 겪고있는 때인 1974년에 우

리 나라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700만톤이 넘는 알곡을 생산함으로써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2년이나 앞당겨수행하는 자랑찬 승리가 이룩되였다. 6개년계획의 고지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고지의 하나인 알곡고지가 선참으로 점령된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빛나는 승리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문화건설도 성과적으로 수행되여 사회주의문화가 찬란히 꽃피고있으며 당의 자위적 군사로선이 철저히 관철되여 나라의 군사적위력도 철벽으로 다져졌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투쟁을 다그치고 사회주의대건설의 력사적진군을 통하여 우리 나라는 더욱 부강하고 위력한 나라로 강화발전하였다. 지금 우리 나라는 세상사람들로부터 《천리마조선》,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불리우면서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달려나가고있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고 사회주의건설위업을 실현해나가는데서 거둔 빛나는 성과는 우리 사회의 심장이며 원동력인 당의 전투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 령도적역할이 비상히 높아진 결과에 이룩된것이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숭고한 투쟁을 통하여 당건설과 당사업발전에서 새로운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당에 당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섰으며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현저히 개선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당 사업에서는 바야흐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단행본, 2페지)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방침이 옳게 관철되여나감으로써 우리 당은 영원히 하나의 사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나가는 필승불패의 혁명적당, 혈기왕성한 전투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또한 당사업에서 아래에 내려가는 사업체계가 확립되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전면적으로 일반화되여 당의 령도적역할과 전투력이 강화됨으로써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의도가 인차 아래로 쭉쭉 내려가고 또 아래의 생각이 인차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더잘, 더 빨리 반영되고있다.

당중앙이 내놓은 전투적강령에 따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으며 그 행정에서 사람도, 자연도, 사회도 몰라보게 달라졌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그 어느때보다도 공고화되였다. 지금 우리 나라는 류례없는 대번영기에 들어섰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빨리 전진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사회와 자연의 참된 주인으로서 끝없는 행복과 삶의 기쁨을 누리고있다.

사회주의대건설의 전행정, 오늘의 우리 사회의 찬란한 현실은 위대한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를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 때 공산주의건설은 곧바른 길을 따라 성과적으로 추진해나갈수 있다는것을 생동한 현실로써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을 힘차게 밀고나가는것은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건설을 다그쳐나가는 가장 곧바른 길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 충성을 다하는 길이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모든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사업을 더욱 다그쳐 영광스러운 주체시대 《주체조국》의 영예를 영원토록 빛내여나갈것을 한결같이 다짐하고있다.

신문혁명, 보도혁명, 출판혁명을 일으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크게 이바지한 우리 당출판보도물 개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한 1974년, 우리의 출판보도사업에서는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신문혁명, 보도혁명, 출판혁명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올라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며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특히 당보《로동신문》에서는 사설혁명, 신문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출판보도사업에서 고질적으로 남아있던 형식주의의 낡은 틀이 마사지고 모든 사회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열렬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 당 출판보도물발전력사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를 마련해놓은《로동신문》의 혁신적성과는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출판보도사상의 실현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고있는 당중앙의 세련된 지도의 결과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당보를 통하여 전체 당원들에게 자기의 정책을 알려주며 행동방향을 지시하며 신호를 줍니다. 특히 당보의 사설은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의도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기사입니다. 거기에서 당원들은 일상적인 투쟁방향과 지시를 찾아볼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2권, 354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우리 당보의 사설은 당의 방침과 의도를 해설선전하고 그 관철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는 당의 지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로동신문》에서의 사설혁명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가 있은 다음 당중앙의 지도밑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웅대한 사회주의대건설강령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일대 전격적인 사설공세를 개시한 때로부터 발단되였다.

당보의 사설들은 그 제목과 전반적 체계에서는 물론 하나하나의 문장과 글줄마다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열화같은 흠모의 정이 차넘쳐있었으며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본질적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였다.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일색화하자》 (5월 25일),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당사상사업을 더욱 참신하게 진공적으로 벌리자》 (4월 3일), 《유일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더 튼튼히 준비시키자》 (4월 30일), 《혁명교양, 계

급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더욱 철저히 준비시키자» (5월 30일), «사람들의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사상전〉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대건설과 온 사회의 혁명화를 빨리 다그쳐나가자» (5월 20일),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대중속에 깊이 침투시키는 적극적인 선전자, 관철자가 되자» (7월 15일),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경제선동을 진공적으로 벌려 일터마다에 불타는 충성의 열정과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게 하자» (5월 8일), «조선의 천리마는 새 기상, 새 기백으로 내달린다. 모두다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높이 천리마의 대진군을 더 힘차게 다그치자» (6월 20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자» (8월 10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의 정신, 무조건성의 정신, 이것이 대건설전투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3월 1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더욱 빛내여나가자» (3월 20일), «위대한 수령님의 정치적신임과 깊은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자» (3월 30일) «혁명임무수행과정은 곧 혁명화과정이다. 모두다 혁명실천투쟁속에서 강의한 공산주의적혁명가가 되자» (5월 28일), «모든 지도일군들은 더욱 참신하고 능숙한 지도로 사회주의대건설의 장엄한 전투를 힘있게 밀고나아가자»(2월 18일),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청춘의 기백으로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지휘해나가자» (3월 16일) 등 년중 계속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유일사상화가 당의 최고강령으로 제기되고있는 새로운 현실적요구에 맞게 정치사상적인 사설들과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칠것을 호소하는 경제실무적인 사설들을 옳게 배합하여 내놓음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로 키우며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로동신문》편집집단은 《속도전》의 방침을 구현한《사상전》의 방법을 사설집필조직에 적용하여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마스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제때에 민감하게 해설할뿐아니라 현실적요구에 맞게 여러가지로 각도를 달리하면서 제목을 설정하여 전투성과 호소성있게 당원들과 근로대중을 불러일으켰으며 뒤이어 또다시 그 내용과 수행방도들을 하나하나 심화시켜나가면서 집중적으로 당정책풀이를 련속 들이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교시관철을 위하여《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과 당중앙의 호소를 받들고 전당, 전국, 전민이 사회주의대건설사업에 총동원되자!» (2월 14일), «전당과 전체 인민이 총동원되여 사회주의건설의 5개 전선에서 승리의 기발이 휘날리게 하자» (2월 15일),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은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대건설전투승리의 확고한 담보» (2월 16일),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웅대한 10대경제건설목표는 전체 인민을 새로운 영웅적투쟁과 승리에로 부른다» (2월 17일), «모든 지도일군들은 더욱 참신하고 능숙한 지도로 사회주의대건설의 장엄한 전투를 힘있게 밀고나아가자» (2월 18일),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대건설투쟁을 최대한으로 다그쳐나가자» (2월 19일), «수령님의 부르심 높이 받들고 전당, 전국, 전민이 기본건설전선에 화력을 총집중하자» (2월 20일), «공업전선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켜 전반적대건설투쟁의 전진속도를 더욱 높이자» (2월 21일),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일념을 안고 농업전선에서 또다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키자» (2월 22일), «수송전선은 〈속도전〉의 불길을 높여 대건설전투의 급격히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책임적으로 보장하자»등 하루도 중단됨이 없이 계속 사설공세를 벌리였다.

이와 같이 사상적집중포화를 들이대여 제기된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고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게 하는 《속도전》, 《사상전》의 요구를 《로동신문》편집사업에 훌륭히 구현하여 매일 사론설공세를 벌림으로써 당정책을 전면적으로 제때에, 끝까지 철저히 대중에게 알려주는 당의 지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당보의 사론설들은 정치문제와 관련한 사론설은 물론 경제기술실무적문제와 관련한 사론설에서도 파업은 정책적으로 크게 제기하고 당의 방침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 휘황한 전망들을 가지고 패기있게 정력적으로 생기발랄한 경제선동을 계속 들이댐으로써 사람들의 혈관마다에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심어주고 그들을 당의 숨결과 맥박으로 높뛰게 하였으며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특히 농업생산의 일대 앙양과 모내기전투기간에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농촌테제발표 열돐이 되는 뜻깊은 해의 봄씨붙임전투에서 창조와 혁신의 혁명적기개를 높이 떨치자» (3월 29일), «지금은 올해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시기이다. 전당, 전국이 떨쳐나서 농업전선을 힘있게 지원하자!» (4월 24일), «비료는 쌀이고 쌀은 곧 사회주의다. 화학비료생산을 다그쳐 농촌에 더 많이, 더 빨리 보내자» (5월 2일),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온 나라가 떨쳐나서 풍년모를 제철에 잘 내여 올해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점령하자» (5월 19일), «뜨락또르운전수들과 모내는기계운전공들은 모내기전투의 앞장에서 진격로를 힘있게 열어나가자» (5월 21일), «농사를 과학기술의 요구대로 실속있게 지어 올해에 또다시 대풍의 황금낟가리를 하늘높이 쌓아올리자»(5월 23일), «집중적인 선동공세로 모내기전투장에서 당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나오고 충성의 열정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자» (5월 29일) 등 농업경제사설들을 실음으로써 당정책관철에로 우리 근로자들과 농민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당보《로동신문》의 사설에서는 혁명과 건설이 전례없이 새로운 일대 앙양기에 들어서고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억센 힘을 가지고 하루를 열흘, 백날 맞잡이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약동하고 전진하는 벅찬 현실의 요구에 맞게 문풍을 세련시켜 높은 전투성과 호소성을 보장하였다.

당보사설에는 어구의 마디마디에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열화같은 흠모의 정이 넘치는 정중하고 열정적인 언어문체, 마치 병사들을 영웅적위훈에로 부르는 격전장의 호소문과 같은 간결하고 격동적인 언어문체, 우리 근로자들속에서 오가는 평범하고 소박하면서도 생기발랄하고 참신한 언어문체로 그 정치사상적내용을 두드러지게 표현하였다.

특히《위대한 수령님께서 전국공업대회에서 하신 연설을 높이 받들고 모든 전선에서 혁명의 북소리가 힘차게 울리게 하자» (3월 10일부 사설제목) 와 같이 사설제목에서 당의 의도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굴절없이 그대로 직선적으로 두드러지게 전달함

으로써 전 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데 직접 이바지하였으며 글의 전투성과 호소성을 보장함으로써 읽는 사람들에게 강한 사상적충격과 폭풍같은 기운을 확확 안겨주고 심장마다에 투쟁의 발동을 걸어주었다. 또한《속도전》과《사상전》을 비롯하여《전격전》,《섬멸전》,《집중공세》,《집중포화》등과 같은 우리 인민의 전투정신과 전투적기백을 담은 수많은 어휘와 표현들을 널리 받아들이였다.

뿐아니라《혁명의 북소리 울린다》,《지칠줄 모르는 힘이 솟구친다》,《하루를 열을 맞잡이로 일을 본때있게 해제낀다》,《부리나케 해제낀다》,《번개같이 달린다》,《범다밀고나간다》,《바람을 일군다》,《물과 불 속에라도 뛰여든다》,《통이 크게 포치하고 판을 크게 벌린다》,《담이 크게 밀고나간다》등 전투적기백이 넘치고 호소적색갈이 짙은 고유한 우리 말 표현들을 씀으로써 우리 인민의 완강한 투지와 패기, 혁명적정열과 전투적기백을 힘있게 나타나게 하였다.

또한《북을 치면 춤이 저절로 나오듯이》,《아글타글 애쓴다》,《자신을 채찍질한다》,《오물쪼물하지 말며》,《늘크데하다》,《정치생활에서 줄타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틀부터 차리고 멋부터 부리기 좋아한다》,《병감티를 내다》,《되받아넘기는 식으로 일한다》와 같이 우리 인민이 사업과 생활에서 늘 쓰는 평범하고 알기 쉬운말들, 속담들과 성구들, 직유를 비롯한 여러가지 표현수법들을 널리 받아들여 썼다.

이러한 언어문체적특성은 그 자체만으로써도 사설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수령님의 교시 관철에 모든것을 다바쳐 나서려는 투지로 가슴불타게 하며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다.

실로 당보의 사설혁명은 그 내용과 형식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으로 꽉 들어차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강령실현에 복종됨으로써 우리 시대가 제기한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전적으로 복무하는 신문의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기치로 되였다.

당보《로동신문》에서 일어난 사설혁명의 모범을 따라 신문《민주조선》,《로동청년》을 비롯한 중앙신문들과《평양신문》그리고《평남일보》를 비롯한 지방신문들에서도 사론설집필조직에서 커다란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사람도 사회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며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였다.

당중앙은 사설혁명에 뒤이어 신문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었다.

당보《로동신문》에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선동을 전투적으로, 혁명적으로 하는데 모를 박고 진행하였다.

《로동신문》에서는 1974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의 5개전선에 화력을 집중하여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과 10대경제건설전망목표를 앞당겨점령하는 전투에로 대중을 목적지향성있게 이끌어나갔다.

《로동신문》에서의 경제선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정책적문제해결을 위하여 집중편집의 방법으로 집중공세, 집중포화를 들이대여 하나하나 섬멸전을 해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보도선전에서 2월 14일부《로동신문》1면에 전원회의에 대한 보도를 주고 2~3면에 사설과 함께 기본건설전선, 공업전선, 농업전선을 비롯한 5개전선에 대한 기사와 사진들을 배합하여 집중편집을 기동적으로 조직하였다.

그리고 이튿날부터 련이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대한 반향기사와 함께 5개전선에 대한 사설을 포함한 집중편집을 기동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대중을 전원회의 결정관철에로 적극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실례는 전국농업대회와 공업대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한 신문편집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그것은 모내기와 관련한 경제보도를 취급함에 있어서 준비단계, 첫단계, 중간단계, 마감단계로 나누어 과녁을 명백히 정하고 체계적으로 끌고나갔으며 농촌지원에 힘을 집중하면서도 전국공업대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기계공업, 화학공업 등 부문별로 문제해결의 목적을 정확히 설정하고 이 부문에서 막힌 고리들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집중공세를 들이대였다.

《로동신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의도하시고 늘 심려하고계시는 문제들을 두드러지게, 중요한 단위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일어날 때에는 대담하게 눈에 띄우게 기사배치와 직관물배치를 새로운 형식에 맞게 편집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보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에로 고무추동하였다.

5월 김책제철련합기업소 강철전사들이 60일간에 하기로 계획했던 1호용광로 개건확장공사를 단 25일만에 해제끼고 첫쇠물을 뽑는 기적을 창조했을 때《로동신문》은 다른것을 다 미루고 1면에서부터 3면에 이르기까지 대서특필하여 대담한 편집을 하였다.

이와 같이 집중공세, 전격전, 섬멸전의 방법으로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로동신문》은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서 또한 당정책관철에서 걸린 고리를 풀어나가는데서 친근한 방조자로서 사회주의대건설에 크게 기여하였다.

당보《로동신문》에서 일어난 신문혁명의 중요한 내용은 또한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유일하게 정당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이 남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서 필승불패의 혁명적기치로 되고있는 정세발전의 추이를 박력있게 편집하였다.

당보《로동신문》은 우선 우리 인민의 민족적숙원인 우리 당의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적극적으로 해석선전하고 전체 조선인민들을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으며 반파쑈, 반외세,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성원하는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의 뜨거운 목소리가 높이 울리도록 하였다.

또한 당보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 미일반동들의 2중주구인 남조선괴뢰도당의 천추에 용납못할 매국배족적책동을 철저히 폭로하고 준렬히 단죄하는 혁명의 예리한 무기로서의 전투적기능을 더욱 높이였다.

특히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며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있으며 불멸의 주체사상과 조선의 모범을 따라 자주, 자립의 길로 나아가고있는 시대적추세를 련속편집과 집중편집의 형식으로 편집, 편성하였다.

실례로《로동신문》은 혁명하는 나라, 혁명하는 단체들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연구토론하고있는 정형을 중단하지 않고 건별로 년중 편집하였다. 특히 위대한 주체사상을《김일성주의》로 선포한 일조사회과학자런대위원회와《김일성주석저작연구회 전국협의회》공동주최로 도꾜에서 가진《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를 특집하였다.

《로동신문》은 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의 보도, 회의보고, 토론들, 선

언, 위대한 수령님께 드린 편지들을 사진과 함께 여러가지 제목, 여러가지 화형으로 두드러지게 편집하면서 《위대한 주체사상리론체계를 김일성주의》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에서 최고봉》으로 선포한 부분들을 새롭게 편성함으로써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완전히 마스고 새시대의 요구에 맞는 신문 편집, 편성형식을 창조하였다.

당보는 나아가서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주체사상으로 살것을 원하고 많은 나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 나라들에 구현하고있는 모습들을 특집함에 있어서 새로운 경지를 열어놓았다.

10월 또고의 수도 로메에서 진행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열돐을 기념하는《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제3세계 인민들의 과업》에 관한 과학토론회를 편집, 편성함에 있어서 사설, 보도, 보고와 토론같은 문건, 사진, 반향 등 여러가지 기사와 제목을 여러 호수의 활자로 돋구어줌으로써 수령님의 탁월한 혁명사상을 따라배우는 세계적추세를 잘 보여주었다.

《로동신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세계혁명에 관한 탁월한 리론과 방침 그리고 국제문제에 대한 우리 당의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립장을 천명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진보와 평화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 특히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싸우는 제3세계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창조된 사설혁명, 신문혁명의 모범을 따라 보도혁명, 방송혁명도 일어나 통신, 방송이 온 사회의 유일사상화, 주체사상화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무엇보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지도밑에 창작된 명곡과 혁명가극음악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대건설시기의 힘있는 노래와 정서적인 노래, 주체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한 노래들을 잘 편성하여 목적지향성있게 내보내며 다양한 음악편집물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일반기사편집물들과 문예물들에 음악편집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인민들속에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충실성, 혁명의 열정과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 단위의 현지보도와 방문기, 문답, 정론성있는 글, 방송극과 같은 방송에 맞는 편집물들을 적극 발전시키면서 랑독물의 비중을 렬구고 립체화와 현지록음물의 비중을 높이며 텔레비죤방송에서는 화면화된 편집물을 계속 발전시키고 특히 텔레비죤문예편집물을 창조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켰다.

또한 잡지, 도서들도 자기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정치사상적내용과 형식 및 발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고리들에서 높은 질적수준과 기동성을 보장하는데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이와 같이 《로동신문》에서 일어난 사설혁명, 신문혁명을 본보기로 다른 모든 출판보도분야에서 신문혁명, 보도혁명, 출판혁명을 일으켜 고질적으로 남아있던 낡은 틀을 대담하게 마스는 일대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교양육성하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또한 신문혁명, 보도혁명, 출판혁명을 추켜든 결과 우리 당의 출판보도물은 우리시대의 가장 혁명적인 출판물로서의 참다운 면모를 더욱 훌륭히 갖추게 되였으며 우리 당의 최고강령인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의 일색화와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 보람있게 이바지하는 위력한 전투적무기로, 세계 혁명적출판물의 최선봉에서 힘있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근로단체들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되는데 따라 당의 령도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직업동맹을 비롯한 모든 군중조직들이 당과 정부를 적극 옹호하고 당이 내놓는 로선과 정책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6권, 169페지)

3월에 진행한 직총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 농근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 사로청중앙위원회 제8차전원회의들에서는 전체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 편지 《모든 힘을 사회주의대건설사업에 총동원하자》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직총전원회의에서는《속도전》의 방침을 높이 추켜들고 모든 단위, 모든 초소들에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높은 혁명적열정과 주인다운 기풍을 발양시키고 대중적영웅주의를 떨치도록 함으로써 모두가 질풍같은 속도로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나가도록 할것을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동시에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사람과의 사업, 설비자재와의 사업, 책과의 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강화하고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천리마직장, 천리마공장 대렬을 더 많이 늘이도록 할것을 지적하였다.

농근맹전원회의에서는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농촌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를 힘있게 다그쳐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더 빨리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농근맹조직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사로청전원회의에서는 혁명하는 세대, 전진하는 세대인 우리 청년들이 당과 수령님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청춘을 바치는것보다 더 큰 영예와 자랑은 없다고 하면서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혁명적열정과 청춘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쳐 돌격대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토의되였다.

공업전선에서는 채취공업을 돕는데 힘을 넣으며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데 적극 동원하며 새 철도건설과 전기철도, 항만건설을 맡아하며 더 많은 청년들을 바다에 진출시키며 모든전선에서《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수령님의 근위대, 결사대의 영예를 빛내일데 대한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8월에 진행한 직총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 농근맹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 사로청중앙위원회 제9차전원회의들에서는 당중앙이 제시한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동맹조직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동맹원들속에 동맹조직의 특성에 맞게 유일사상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근기있게 진행하며 부단히

심화시켜나가 동맹원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신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언제 어디서나 티없이 밝고 깨끗한 주체형의 피만이 끓어넘치게하며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친위대, 결사대로서의 영예를 빛내여 나갈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전원회의들에서는 유일사상교양과 함께 동맹원들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동맹원들이 확고한 로동계급적관점과 혁명적세계관을 가지고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고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조국의 통성과 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도록 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리고 동맹원들속에서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없애고 집단주의정신과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배양하는데 심중한 주의를 돌릴것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전원회의들에서는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는데서 선전선동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지적하고 동맹단체들이 자체의 구체적실정과 대상의 준비정도에 맞게 정치선동과 경제선동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전체 동맹원들이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더욱 높이 울려 6개년계획을 앞당겨끝내기 위한 일련의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이밖에도 사로청중앙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학교교육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주신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로청조직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학교교육사업과 특히 학교안의 사로청 및 소년단 사업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지침으로 하여 학교교육사업과 사로청 및 소년단 사업을 잘 배합하여 나가며 사로청조직들이 학생청소년사업에 주되는 력량을 돌리며 학교안의 사로청 및 소년단 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또한 학생청소년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과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끓어번지게 하며 학생소년들의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특히 학교사로청지도원과 소년단지도원의 역할을 높여 학생청소년들의 사회정치생활과 조직생활 지도를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면서 과외생활을 책임적으로 조직지도하도록 할것을 지적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동맹단체들의 사업에서 형식주의의 낡은틀을 결정적으로 마스고 사상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선전선동활동에서 항일유격대식방법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들에서는 해당한 결정서들을 각각 채택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확대회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를 하루빨리 관철하기 위하여 1974년에 4차에 걸쳐 확대회의를 열고 토의하였다.

제60차회의 (1974년 2월 14일)

회의에서는 남조선의 민주인사들과 청년학생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만행을 반대배격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회의는 박정희파쑈도당이 이른바《긴급조치》를 공포하고 군사재판기관들을 설치하여 반파쑈민주화투쟁에 일떠선 수많은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언론계, 학계, 문학예술계, 정계, 사회계, 종교계 등의 각계각층 민주인사들을 체포투옥하고 야만적으로 고문학살하며 곳곳에서 군사재판소동을 벌리고 있는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회의에서는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파쑈적폭거는 남조선인민들의 기본 인권과 민주주의적권리에 대한 란폭한 유린행위이며, 대화상대방인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행위이며, 전체 조선인민에 대한 용서못할 반역행위라고 준렬히 단죄규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이다. 피압박인민들이 자신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불가피하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21페지》

남조선의 애국적인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광범한 인민들은 박정희도당의 류례없는 횡포한 파쑈폭압속에서도 반파쑈민주화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고있다.

이들의 투쟁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인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폭압통치와 민족분렬책동, 매국배족행위에 대한 쌓이고쌓인 원한과 울분의 폭발이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애국투쟁이다.

회의에서는 남조선파쑈도당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적극 고무하며 박정희도당이 체포투옥한 각계각층의 민주인사들과 애국적청년학생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투쟁을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 국제민주단체들에서 더욱 힘있게 벌리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였다.

회의에서는《남조선의 민주인사들과 청년학생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만행을 반대배격할데 대하여》의 성명을 채택하였다.

제61차확대회의 (1974년 8월 6일)

회의에서는《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 5대강령에서 천명하신 대민족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방침을 조속히 실현할데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1971년 8월6일 연설에서 세계정치정세의 발전을 심오히 통찰하시고 대세의 흐름을 우리 혁명발전에 유리하게 전변시켜 조국통일위업을 주동적으로 앞당기기 위한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으로서 폭넓은 남북협상방침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 아무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습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31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새로운 방침은 조성된 내외정세를 통일

문제해결에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나라의 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적극적인 구국대책으로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진다.

회의는 새로운 남북협상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어떠한 접촉도 반대하던 남조선당국자들이 적십자회담에 제한된 형식으로나마 끌려나오지 않을수 없게 되였으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운영되게 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모든 사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1년 8월 6일 연설에서 천명하신 조국통일방침의 고귀한 결실이며 그이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라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우리측이 대화를 성공에로 이끌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으며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3년 6월23일 연설에서 조국통일5대방침을 천명하심으로써 통일의 앞길을 다시금 휘황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그러나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열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의사와 지향에 역행하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책동으로 말미암아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지고 남북관계는 공동성명발표 이전상태로 되돌아갔으며 통일의 서광은 다시 흐려지고 민족앞에는 영구분렬의 위험이 무겁게 드리우게 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 엄중한 사태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조선사람들이 그가 비록 북에 살건, 남에 살건, 국내에 있건, 국외에 있건 관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의 한길에 떨쳐나설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고 회의는 강조하였다.

회의는 북과 남의 각계각층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단합된 힘으로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민족분렬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의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토의하는 대민족회의를 이해안으로 소집할것을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들 그리고 모든 해외교포단체들과 해외교포들에게 제기하였다.

회의에서는《남조선인민들과 정당, 사회단체들, 모든 해외교포단체들과 해외교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제62차확대회의 (1974년 9월 18일)

회의에서는 전체 조선인민과 일본인민을 비롯한 전세계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저격사건》을 구실로 총련을 파괴하려는 박정희괴뢰도당과 일본당국자들사이의 불순한 정치적흥정놀음에 의하여 총련과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가 엄중한 위협을 받고있는데 대처하여 《총련을 파괴하려는 박정희도당과 일본당국자들의 음모책동을 반대할데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남조선에서 자기들을 반대하는 어떤 〈사건〉이 생기면 매번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듯이 날조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넘겨씌워보려고 책동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상투적수법입니다.》(《우리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단행본, 21페지)

회의는 박정희괴뢰도당이 제놈들에 의하여 꾸며진 정치적모략극인 이른바 《저격사건》을 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총련을 반대하는 일대 소동을 벌리는 한편 일본당국자들의 옷소매에 매달려 총련에 대한 탄압을 《외교문서화》할것까지 공공연히 떼질해나서는 추태를 부리고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였다.

회의는 총련이 《저격사건》에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사실을 일본당국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남조선반동통치배들의 요구를 배격할 대신에 도리여 놈들과 막후 흥정판을 벌리며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총련모략책동에 가담하여나서면서 이른바 《친한파》반동들로 구성된 《특사》를 남조선에 파견하여 놈들과 막후음모를 매듭지으려고 책동하고있는데 대하여 폭로규탄하였다.

회의는 박정희괴뢰도당과 일본당국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총련과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는 엄중한 위협에 직면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60만재일동포들과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하여 지극히 정당한 5개항목의 요청문을 일본당국에 들이댄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 요청문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이 《저격사건》에 우리와 총련을 걸고 악랄한《반공》, 반총련소동을 벌리는것은 이미 거덜이난 《유신》독재체계를 어떻게 하나 부지하며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남북대립을 격화시키며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회의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이 극악한 범죄행위를 우리 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위하여 싸우는 해외동포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전체 조선인민에 대한 천추에 씻을수 없는 반역행위로 준렬히 규탄하였다.

회의는 또한 일본당국이 박정희괴뢰도당과 같은 매국의 무리들을《친서》요 《특사》요 하는 이름밑에 부추겨주는 부당한 놀음을 하지 말아야 하며 공화국의 헌법에 명시된 재일동포들의 신성불가침의 민족적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그들의 합법적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총련을 파괴하려는 박정희괴뢰도당과 일본당국자들의 음모책동을 반대할데 대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제63차확대회의 (1974년 11월 8일)

회의는 《우리 민족앞에 조성된 현난국을 타개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회의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통일도상에 엄중한 난국이 조성된데 대하여 언급하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북과 남의 모든 우국지사들과 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각층 인민의 대표들이 시대앞에 지닌 숭고한 민족적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사상과 리념,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에서 하루속히 한자리에 모여앉아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공동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우리의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침에 량면전술과 지연전술로 대하면서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란폭하게 짓밟아온 박정희괴뢰도당이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장기집권야욕을 실현해보려는 목적으로부터 미제의 《두개조선》 조작음모를 저들의 정책으로 선포하고 교활하게도 《두개조선유엔동시가입안》의 새로운 변종인 남조선 《유엔단독가입안》이란것을 꾸며가지고 돌아치고있는데 대하여 폭로규탄하였다.

회의에서는 이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는 완전히 둘로 갈라지게 되고 남조선은 영원히 미일침략자들의 2중의 식민지로 전락되고 말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매국배족을 일삼는 박정희도당이야 말로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에서 현 통치배들 대신에 애국적민주인사들이 정권에 올라앉으면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민주주의적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나라의 통일을 협상과 합작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을것이다.

회의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오늘과 장래운명을 믿음직하게 걸머지고 나가는 가장 열렬한 애국자들이라고 지적하면서 진심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공》이 아니라 련공로선을 취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애국사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필요합니다.》(《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단행본, 9폐지)

회의는 통일이냐 영구분렬이냐, 하나의 조선이냐 두개의 조선이냐 하는 엄숙한 시각에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걱정하는 모든 인사들은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국내에 있건 해외에 있건 관계없이 그리고 정견과 신앙의 차이, 당파와 소속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다 한결같이 대민족회의 또는 정치협상회의의 소집에로 힘차게 달려나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회의는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가하는 대민족회의나 정치협상회의를 열고 단결과 합작의 원칙에서 북과 남의 대화를 정상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할데 대한 문제, 외국군대철거후 조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문제를 비롯하여 조국통일도상에서 제기되는 대내외적문제들을 토의할데 대한 공화국정부의 방안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이 이 공명정대한 제안을 지지하여 나서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회의는 또한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조국의 평화통일위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면하게는 남조선을 강점하고 간섭과 침략, 전쟁 정책을 일삼고있는 미제침략군에게서《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를 완전히 철거시키는것이라고 하면서 미제는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의를 지체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회의에서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의 성명을 채택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절》을 뜻깊게 기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몸소 작성하시여 발표하신 2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헌법을 작성하여 발표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당과 국가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사회주의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키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더욱 예리한 무기와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온 사회를 혁명화, 공산주의화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 강력한 법적수단을 안겨주시였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확고한 법적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에게 주체헌법을 안겨주시였을뿐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12월 27일)을 제정하여 주시였다.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에 즈음하여 12월 2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중앙강연회가 있었다.

강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필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가장 우월한 헌법이다》라는 제목으로 진행하였다.

강연출연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필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새형의 가장 우월한 헌법이라고 하면서 이 헌법은 사회주의국가 및 법건설에서 새롭게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 사회주의 대법전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요구와 인민대중의 혁명적지향을 정확히 구현한 대정치헌장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사회주의헌법을 내놓으심으로써 비로소 사회주의국가의 기본법이 담아야 할 구성체계와 혁명적내용이 어떤것으로 되여야 하는가 하는 그 참다운 본보기가 창조되였으며 로동계급의 국가와 법 건설력사에서 처음으로 참신하고 우월한 사회주의헌법이 마련되게 되였다.

강연출연자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헌법으로 되는 근거에 대하여 해설하면서 공화국사회주의헌법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가장 우월한 헌법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공화국정부의 모든 활동의 지도적지침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그것을 구현하고있습니다.》(《베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22페지)

공화국사회주의헌법은 주체사상을 국가의 지도사상으로 선포한 최초의 헌법이며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의 근본원리를 구현하여 온갖 계급적 및 민족적 예속을 청산하며 근로인민의 자주성과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하고 보장하는것을 법적으로 담보하고있다.

강연출연자는 또한 사회주의헌법의 우월성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써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에 복무하는 가장 혁명적인 헌법이라는데 대해서와 그것이 또한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가장 인민적인 헌법이라는데 대해서 강조하였다.

강연출연자는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이 국가,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그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필하신 가장 우월한 주체헌법을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영광이며 자랑이다.

강연회에 참가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혁명하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자신

을 튼튼히 무장하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할것을 결의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절에 즈음한 강연회는 각 도(직할시), 시(구역), 군 소재지들과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조선인민군 및 인민경비대 각 구분대들에서도 진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을 뜻깊게 기념

우리 인민은 우리에게 오늘의 자유와 행복을 안겨주시고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여주시였으며 우리 인민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 고마움에 북받치는 뜨거운 심정을 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6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중앙보고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기념중앙보고대회가 9월 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장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신과 비약을 일으키고있는 시안의 근로자들과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과학, 교육, 문화, 예술, 출판보도 부문 일군들 및 조선인민군 군인들로 차넘치였다.

보고대회에는 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조국에 온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재일본조선청년예술체육대표조국방문단, 제2차재일본조선교육일군조국방문단, 재일본조선고급학교학생조국방문단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고있는 또고공화국 그나씽그베 에야데마대통령과 그 부인 그리고 그 일행, 이란국회대표단, 일본사회당대표단 그리고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사회주의나라의 사절들, 제3세계나라들, 세계 여러 나라들과 국제민주단체 대표들, 우리 나라에 와있는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기술자들, 외국특파기자들이 초대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공화국창건 26돐을 기념하게 되는 대회참가자들은 그이의 현명한 령도따라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이 뜻깊은 민족적명절을 맞는 커다란 기쁨과 함께 우리 인민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존엄있고 권위있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된 공화국의 주인으로서 력사적위업실현에로 당당히 전진하고있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으로 충만되여있었다.

애국가 주악으로 시작된 대회에서는 보고가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혁명의 근본문제인 주권문제해결의 가장 정확한 앞길을 밝혀주시고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그를 구현하시여 인민정권건설의 가장 고귀한 업적과 경험을 이룩하신 그 깊고 억센 력사적뿌리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심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불리우는 사회주의강국으로서 온 누리에 광휘로운 빛발을 뿌리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공화국정권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으며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투쟁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6권, 351페지)

수령님께서 우리 공화국을 세우심으로써 식민지동방에 첫 로동자, 농민의 나라,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가 찬연한 빛발을 뿌리며 솟아올랐으며 우리 인민은 망국노의 운명에서 영원히 벗어나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기 힘으로 새 력사, 새 생활을 개척해나가는 자주독립국가의 인민으로 되였다.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공화국의 기치밑에 우리 인민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빛나게 수호하였으며 이 땅우에 착취와 억압이 없고 모두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다.

오늘 우리의 공화국정권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에 기초하고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을 기초로 한 전체 인민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하는 가장 공고한 혁명적인 정권으로 강화발전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온갖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나라의 주인, 생활의 주인으로서 떳떳하고 존엄있게 살아가면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고있다.

우리 인민은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마저 철폐한 나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벌려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며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길을 앞당겨 나가고있다.

공화국의 기치밑에 우리 인민이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며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투쟁하고계시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의 빛나는 결실이다.

대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을 힘있게 시위하였으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한길로 억세게 싸워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9월 8일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을 경축하는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공연이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

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을 경축하는 성대한 연회를 배푸시였다.

연회에는 당과 국가의 간부들과 근로단체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장령들, 항일혁명투사들, 과학, 교육, 문화, 예술, 출판보도부문 책임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연회에는 조국에 머무르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재일본조선인축하단과 재일본조선청년예술체육대표조국방문단, 제2차재일본조선교육일군조국방문단, 재일본조선고급학교학생조국방문단,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고있는 또고공화국 대통령 그나씽그베 에야데마각하와 부인, 그 일행, 또한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이란상원 의장 쟈파르 샤리프에마미를 단장으로 하는 이란국회대표단,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이며 중의원의원인 나리다 도모미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사회당대표단, 그리고 우리 나라에 체류중인 사회주의나라들, 제3세계나라들, 세계 여러 나라들의 사절들과 국제민주단체 대표들, 우리 나라에 와있는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였다.

연회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조선혁명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히시면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였으며 혁명정권건설의 튼튼한 뿌리에 토대하시여 해방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우리 나라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가진 존엄있고 힘있는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오랜 세월 압박과 착취를 받아오던 우리 인민을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공민으로 되게 하여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감사의 정이 어리여있었다.

연회는 애국가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연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인 정무원 총리동지가 연설하였으며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단장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조국의 통일과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연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충성심이 넘쳐흐르고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결의로 충만된 가운데 진행되였다.

집단체조 《주체의 해발》이 진행되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을 뜻깊게 맞이하여 9월 9일,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또고공화국 대통령과 함께 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을 경축하여 남포시안의 청소년학생들이 마련한 집단체조 《주체의 해발》을 보시였다.

이날 남포시안의 근로자들과 함께 중앙과 평남도안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간부들과 과학, 교육, 문화, 예술, 출판보도 부문 일군들 그리고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집단체조를 관람하였다.

이날 혁명의 수도 평양의 관문으로, 현대적이며 문화적인 항구도시로,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중공업과 경공업을 가진 공업도시로 눈부시게 발전한 남포시는 명절일색으로 장식되여 아침부터 흥성거렸다.

이윽고 배경대에는 집단체조의 시작을 알리는 《주체의 해발》이란 글발과 혁명의 성산—백두산이 새겨지고 분홍색옷차림을 한 출연자들이 손에 부채를 들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으로 격조높이 노래하는 가운데 집단체조대렬속에서 남녀학생들이 나와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남포시 전체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뜨거운 마음이 담긴 커다란 꽃바구니를 드렸다.

이날 남포시 2만여명의 청소년학생들이 출연한 집단체조《주체의 해발》은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26년동안 우리 공화국이 이룩한 자랑찬 승리와 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힘있고 패기있게,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는 보람찬 현실을 체육예술의 화폭에 담아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참으로 집단체조는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된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로정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들고 이 땅우에 인류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력사의 길을 주름잡아 달려나가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과 우리 인민의 높은 긍지를 서사시적화폭으로 힘있게 펼쳐보였다.

집단체조는 그 높은 정치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 빈틈없이 째인 조직성과 규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에게 커다란 감명을 주었다.

이날 진행된 집단체조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결속되여 온 사회를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며 《속도전》의 불길을 높이여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나가고있는 우리 당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다.

9월 9일 저녁 드넓은 김일성광장에서 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을 경축하는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충성의 노래모임과 평양시근로자들의 야회가 있었으며 이날 밤 10시에는 9월의 명절을 경축하는 축포가 일시에 꽃구름, 꽃무지개를 이루며 밤하늘에 높이 터져올랐다.

이날 저녁 각 도(직할시), 시(구역), 군들에서도 청년학생들의 충성의 노래모임과 근로자들의 야회가 있었다.

또한 9월의 명절을 경축하는 중앙체육선수단들의 다채로운 체육경기가 있었으며 그리고 평양고등물리학교 축구선수들과 재일본조선고급학교학생조국방문단 축구선수들의 경기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열돐을 기념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농촌건설의 위대한 강령이며 과학적공산주의의 천재적문헌인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1964년 2월 25일)하신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갔다.

농촌테제 발표 열돐을 맞이한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지난 기간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자랑찬 성과를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감회깊게 돌이켜보면서 이날을 성대히 기념하였다.

농촌테제발표 열돐기념 중앙보고대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열돐을 기념하는 중앙보고대회가 2월 23일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경제기관 일군들과 과학, 교육, 문화, 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시안의 로동자들과 농업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인민을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여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마련하여주시였으며 우리 인민과 농민들에게 오늘의 보람찬 행복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넘쳐있었다.

대회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우리 농촌이 걸어온 지난 10년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한 자랑찬 투쟁의 10년이며 우리 농촌의 면모가 근본적으로 일신된 위대한 창조와 변혁의 10년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혁명의 기본적인 전략적문제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중요구성부분의 하나로 보시고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그의 정확한 해결을 위한 유일하게 옳은 길을 밝혀주시였으며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쌓으신 풍부하고도 다방면적인 경험에 기초하시여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대강령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시고 그 관철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테제에서 밝히신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며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수준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며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 부단히 접근시키도록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배려에 의하여 지난 10년간에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는 위대한 전환이 일어났고 우리 농촌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 1월 전국농업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세상에 내놓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의 리상으로 여겼는데 오늘은 그것이 현실로 되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농업을 완전히 공업화, 현대화하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습니다.》(《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 단행본, 3페지)

이미 수리화, 전기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고 세금을 모르는 우리 농촌에서는 농업이 공업화, 현대화되여가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있으며 농민은 로동계급화되여가고 농촌이 모든 면에서 도시를 닮아가는 발전된 사회주의농촌으로 되였으며 공산주의농촌의 본보기로 전변되여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걸어온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자랑찬 승리적인 로정은 공업의 밑천이 마련되는 차례로 농촌을 힘자라는것 도와 새 농촌건설을 떠밀어온 끊임없는 투쟁의 행로였으며 농민에 대한 정치사상적지도를 철저히 강화하면서 물질, 기술, 문화 등 모든 령역에 걸쳐 농민들을 전면적으로 지도방조하여 온 보람찬 행로였다. 또한 그것은 새 농업지도체계에 의거하여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면서 두 소유간의 긴밀한 련계를 더욱 강화하여온 자랑찬 전진의 로정이였다.

참으로 위대하고 영명하신 수령님을 모시고 그이께서 작성하여 제시하신 농촌테제를 실현하는 길에서 멀리 전진함으로써 우리는 계급이 없는 농촌,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모든 농민들이 넉넉하고 문명하게 사는 행복한 농촌을 가까운 지평선우에 바라볼수 있는 령마루에 올라서게 되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농촌테제만이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며 공산주의에로 가장 빨리 들어가게 하는 유일하게 정확하고 혁명적인 리론실천적무기이라는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깊이 체득한 우리 인민들은 테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더욱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계속 힘있게 싸워나갈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이날 대회참가자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당중앙이 제시한《속도전》의 방침따라 《농촌테제발표 열돐 충성의 혁신농장》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모든 과업을 빛나게 완수하며 6개년계획을 앞당겨 끝낼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각 도(직할시), 시(구역), 군과 농업부문의 기관, 기업소, 교육기관들, 협동농장들에서는 기념보고회를 진행하였으며 전국 각지의 공장, 기업소들과 과학, 교육, 문화, 보건 기관들에서는 기념강연회들을 광범히 조직진행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열돐기념 과학리론 및 연구토론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열돐을 기념하여 전국과학리론토론회, 중앙기관들에서 과학토론회, 전국 각지에서의 연구토론회들이 광범히 진행되였다.

2월 19일 혁명의 수도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는 전국과학리론토론회가 진행되였다.

과학리론토론회에는 당 및 근로단체, 행정경제기관들과 과학, 교육, 출판보도 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의 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위대한 강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울데 대한 사상은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확고히 담보하는 창조적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농촌기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그 위대한 생활력》,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농촌문화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위대한 생활력》,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데 관한 사상과 그 위대한 생활력》,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농촌지원에 관한 사상과 그 위대한 생활력》,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전환에 관한 탁월한 사상과 그 위대한 생활력》등의 많은 제목들로 토론이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위대한 강령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첫째로,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둘째로,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셋째로,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수준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련계를 강화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 부단히 접근시켜야 한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34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촌테제에서 제시하신 과학적인 사상과 리론은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며 전인민적소유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올바른 길을 밝혀주는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이라고 토론자들은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토론자들은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두 요새,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점령하여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할데 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깊이있게 론증하였다.

토론자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농촌지원에 관한 천재적인 사상은 농촌지원의 계급적성격과 그 역할, 농촌지원의 본질적특징, 농촌지원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방도들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완전무결하게 집대성한 가장 창조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수령님께서 사회주의농촌건설전반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서 사회주의농촌경리의 지도와 관리에 대한 천재적인 리론을 내놓으신데 대하여서와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전환에 관한 탁월한 사상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그리고 토론자들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지역적 단위와 거점에 관한 리론의 창조성과 그 과학적기초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해설하였다.

또한 과학리론토론회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례년에 볼수 없는 대풍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의 빛나는 결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가지는 리론실천적의의》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다.

과학리론토론회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민족적자부심과 긍지를 깊이 간직하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일편단심 충성다하며 우리 나라에서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결의를 굳게 다졌다.

이밖에도 중앙급 기관들에서 가진 과학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맑스―레닌주의적강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농촌지원에 대한 사상은 로농동맹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독창적인 리론》등의 제목들로 토론하였다.

또한 평안남도, 함경북도, 자강도, 량강도와 개성시 소재지들과 숙천군, 안악군, 녕변군, 황주군을 비롯한 많은 군소재지들에서도 수령님의 로작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있었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 급기관 책임일군들과 농업부문일군들이 많이 참가한 연구토론회들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의 길을 밝혀준 위대한 강령》,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돌려주신 배려》등 여러 제목의 토론들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에 대한 중앙연구토론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 새해 아침 신년사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1973년에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총화하시고 1974년에 우리 당과 인민이 나아갈 뚜렷한 방향과 명백한 투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74년은 우리 인민이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투쟁해야 할 해입니다. 우리가 당 제5차대회에서 내세운 6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앞당겨완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올해 전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6개년계획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는 기본건설에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넣어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1974년 《신년사》, 단행본, 9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1974년 신년사를 보다 깊이 체득하기 위하여 1월 12일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에 대한 중앙연구토론회가 진행되였다.

연구토론회에는 당 및 정권기관, 경제기관,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기관, 근로단체, 과학, 교육, 문화, 보건, 출판보도기관 일군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신년사는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을 결정적전진에로 이끄는 전투적강령》, 《올해 기본건설을 잘 하는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기본열쇠》등의 제목을 비롯한 여러 제목들이 토론되였다.

토론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신년사를 1973년에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빛나는 업적을 긍지높이 총화한 력사적문헌으로, 1974년 새해에 우리 인민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을 명시하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보다 큰 승리에로 힘있게 이끄는 강령적문헌으로 삼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속도전의 북소리 높이 울리여 6개년계획수행을 앞당기며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평화통일을 더욱 다그쳐나갈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문제》발표 열돐기념 사회과학토론회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 발표(1964년 1월 3일) 열돐기념 사회과학토론회가 1월 4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있었다.

과학토론회에는 사회과학자들과 교육, 출판보도 부문 일군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과학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주체적언어사상의 창시자이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언어사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언어의 본질적특성을 새롭게 밝힌 독창적인 언어사상》등 여러 제목의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는 현시기 언어와 언어학 발전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주체적립장에서 전면적으로 밝힌 백과전서적문헌이며 우리 시대 언어문제해결의 유일하게 옳은 길을 밝혀준 고전적문헌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근거를 해설론증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말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어떤 다른 나라 말을 본받아도 안되며 또 영어나 일본말이 많이 섞여든 서울말을 표준으로 할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고유한 말을 기본으로 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가 중심이 되여 조선말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10폐지)

토론자들은 로작에서 천명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언어사상과 리론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수령님께서 밝히신 언어의 사회적본질에 관한 사상과 리론의 독창성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계속하여 토론자들은 수령님께서 현시기 민족어발전의 기본방향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신데 대하여서와 그리고 언어생활에서 혁명적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토론자들은 우리 말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언어생활을 우리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는데서 수령님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풍을 따라배우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토론자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반역도당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 우리 말이 잡탕말로 변하며 그 순수성이 점차 사라지고있을뿐아니라 사회의 언어생활이 어지러워지고있는데 대하여 격분을 표시하면서 놈들의 민족어말살정책의 반동적본질과 그 해독성을 낱낱이 폭로하였다.

토론회 전체 참가자들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언어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과학연구사업과 교수교양, 출판보도활동 등에 철저히 구현할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교통운수부문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군중로선을 관철할데 대하여》 발표 열돐기념 보고회와 강연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4년 1월 22일 교통운수부문 일군협의회에서 하신 연설《교통운수부문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군중로선을 관철할데 대하여》발표 열돐에 즈음하여 교통체신위원회와 그 아래 각급 기관과 단위들에서 기념 보고회와 강연회들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철도운수를 나라의 동맥, 인민경제의 선행관으로 규정하시고 그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온갖 육친적배려를 다 돌려주고계신다.

수령님의 불후의 로작《교통운수부문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군중로선을 관철할데 대하여》는 교통운수부문 일군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 그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더욱 굳게 묶어세우며 이 부문일군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강령적문헌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통운수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지도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고 모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그들이 다 높은 혁명적자각을 가지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김일성저작선집》, 4권, 14폐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모든 사람들을 다 높은 혁명적자각을 가지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할데 대한 방침은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 그리고 교통운수사업의 특성에 대한 심오하고도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방침이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에 무한히 고무된 교통운수부문일군들은 그이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를 극복하며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꾸준히 수양함으로써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과업들을 영예롭게 수행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교통운수는 지난 기간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빨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옳게 보장하면서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왔으며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기념 보고회와 강연회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6개년계획의 수송과제를 앞당겨 끝내며 모든 부문에서 6개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하도록 믿음직하게 안받침해줌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에 대한 중앙연구토론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4년 1월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에 대한 중앙연구토론회가 1월 26일 혁명의 수도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서는《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는 농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리정표를 밝혀준 강령적문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 점령을 위한 투쟁을 다 같이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등 여러 제목들이 토론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로작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를 총화분석하시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합법칙적요구와 그리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더욱 뚜렷이 보여주어야 할 시대적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농촌테제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있었고 공업이라는 말조차 모르던 우리 인민이 이미 농촌경리의 수리화와 전기화를 완성하고 이제는 기계화와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있으며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농업정책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 단행본, 5페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이 로작에 관통하고있는 근본사상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미 거둔 위대한 성과를 공고발전시켜 농업을 완전히 공업화, 현대화하여 농촌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길데 대한 사상이라고 하면서 로작의 기본내용을 과학리론적으로 깊이있게 해설하였다.

다음으로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 점령을 위한 투쟁을 다같이 밀고나갈데 대한 사상과 리론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론증하고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상혁명을 다그쳐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문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업을 완전히 공업화, 현대화할데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깊이 있게 해설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군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사상이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원칙적방도를 밝혀준 창조적사상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토론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과 리론의 독창성과 정당성을 더욱 깊이 연구 체득하여 뼈와 살로 만들며 로작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힘있게 싸워나갈 결의를 굳게 다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발표 다섯돐기념 전국사회과학토론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발표 다섯돐을 맞이하여 2월 28일 전국사회과학토론회가 진행되였다.

과학토론회에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경제의 규모와 생산장성속도의 호상관계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가장 빨리 점령할수 있는 길을 밝힌 천재적리론》, 《3대기술혁명의 기치밑에 기술혁명을 다그치는것은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주의하에서 상품화폐관계에 관한 리론은 사회주의정치경제학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천재적리론》등 여러 제목이 토론되였다.

토론자들은 사회주의하에서 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장성의 예비와 가능성은 부단히 커지며 따라서 생산은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한다는 독창적인 리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처음으로 해명되였다고 하면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이 리론은 사회주의하에서 생산의 끊임없는 빠른 장성의 합법칙성을 새롭게 밝혀준 천재적리론으로 된다는것을 깊이있게 론증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은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301페지)

토론자들은 사회주의하에서 생산발전에서 사람들의 창조적적극성과 혁명적열의가 노는 결정적인 역할에 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독창적인 사상이라는데 대해서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토론자들은 수령님께서 처음 해명하신 사회주의하에서의 상품화폐에 관한 리론은 사회주의하에서 상품화폐관계를 가장 정확히 리용할수 있는 유일하게 옳은 길을 밝혀준 지도적지침으로 된다는것을 깊이있게 론증하였다.

토론자들은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형태적리용에 관한 수령님의 사상의 독창성과 창조성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생산수단이 상품적형태를 띠며 그 생산과 류통에서 가치법칙이 형태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주의하에서 그것을 옳게 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기본방도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과학토론회 참가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초미의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시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혁명하는 무한한 긍지를 금치 못해하면서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성다해나갈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의 한돐기념 평양시보고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3년 6월 23일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한돐기념 평양시보고회가 6월 22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보고회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의 력사적인 연설에서 미일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분렬주의적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 통일로선과 분렬로선사이의 대립이 극도로 날카로와지고 민족앞에 영구분렬의 새로운 위험이 조성된 국내외 정세를 명철하게 분석하시고 조국통일의 5대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의 이 조국통일방안이 실현된다면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의 공통된 념원에 맞게 평화적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는데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단행본, 12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방침은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분렬의 영구화를 막으며 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주동적인 조치로서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일대 구국강령이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5대방침은 조성된 정세의 절박한 요구와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절실한 념원을 정확히 반영한 가장 애국적이며 공명정대한 구국방안이며 위대한 주체사상을 조국통일문제에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주체적인 평화통일대강령이다.

또한 이 방침은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을 총동원하여 우리 인민자신의 손으로 조국통일의 지름길을 주동적으로 개척할수 있게 하는 고무적기치이다.

그렇기때문에 조국통일의 5대방침은 세상에 발표되자마자 조선인민의 심장을 확고히 틀어잡고 그들을 한없이 격동시켰으며 세계평화애호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과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1973년 알제리에서 열린 제4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5대방침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이 구국강령에 기초하여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유엔 제28차총회에서도 수많은 나라 대표들이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을 적극 지지하고 총회로 하여금 미제의 내정간섭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즉시 해체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케 하였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유엔동시가입책동을 여지없이 분쇄했다.

이것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5대방침의 거대한 견인력과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하여주는것으로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빛나는 결실이다.

보고회 참가자들은 전체 인민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을 깊이 학습하여 그 진수를 파악하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림으로써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겨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근로단체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의 발표 열돐 기념강연보고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4년 6월 2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9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결론 《근로단체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발표 열돐을 맞이하여 평양에서는 직총중앙위원회와 농근맹중앙위원회의 주최로 기념강연보고회들이 진행되였다.

강연보고회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직업동맹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온 동맹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근로단체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는 당의 외곽단체인 근로단체건설과 특히 농업근로자동맹건설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강령적문헌이다》라는 제목들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근로단체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는 사회주의제도수립 이후시기 근로단체들의 건설원칙, 임무와 역할을 새롭게 전면적으로 밝힌 위대한 문헌으로서 사회주의하에서 근로단체들이 나아갈 유일하게 정당한 길을 밝혀준 전투적강령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대중을 련결하는 인전대로서의 근로단체들은 우리 당의 가장 믿음직한 방조자이며 후비대입니다.》

(《직업동맹사업에 대하여》, 65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 새로운 농민조직형태인 농업근로자동맹을 창립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동맹의 기본임무를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는데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농업근로자들의 독자적인 대중정치조직을 내올데 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방침은 사회주의적협동화가 실현된 이후 변천된 새로운 환경에서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빠짐없이 정치조직에 망라시켜 그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교양개조하며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침이다.

또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 직업동맹의 임무는 로동계급과 직맹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그들을 혁명화하며 모든 동맹원들을 사회주의건설과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교양하는 공산주의교양의 학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강연보고회들에서는 사회주의하에서 근로단체건설과 그 역할을 높일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방침이 빛나게 구현되여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

내고있는데 대하여 자랑스럽게 지적하였다.

강연보고회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동맹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힐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모든 문제해결에서 중심고리를 튼튼히 틀어잡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자》발표 열다섯돐기념 사회과학토론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59년 9월 4일 황해제철소 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하신 연설 《모든 문제해결에서 중심고리를 튼튼히 틀어잡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자》발표 열다섯돐기념 사회과학토론회가 평양에서 있었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모든 문제해결에서 중심고리를 튼튼히 틀어잡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자〉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전략전술적원칙을 새롭게 밝혀준 강령적문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중심고리에 관한 사상은 유물변증법리론을 새롭게 발전시킨 독창적인 사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경제지도에서 중심고리를 튼튼히 틀어쥐고 나갈데 대한 사상은 생산을 정상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인 지도적지침》등의 제목으로 많은 참가자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 《모든 문제해결에서 중심고리를 튼튼히 틀어잡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자》는 로동계급의 당과 혁명적인민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전술적원칙을 과학적으로 밝혀준 강령적문헌이며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된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원칙적문제에 심오한 해답을 준 창조적문헌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중심고리를 찾아내고 거기에 공격을 집중하는것은 정치사업이나 경제사업, 군사작전 할것없이 모든 사업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전략전술적원칙입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1권, 228～229페지)

토론회에서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중심고리를 찾아내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할데 대한 원칙은 무엇보다도 모든 력량을 가장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동원리용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가장 큰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전략전술적원칙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주공방향의 돌파구를 열어 그와 련결된 모든 고리들을 순조롭게 풀고 혁명과 건설 사업 전반을 다 같이 힘있게 밀고 나갈수 있게 하며 선후차를 가려 제기된 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해나가도록 함으로써 혁명의 계속적인 앙양과 발전을 가져올수 있게 하는 전략전술적원칙으로 된다.

또한 토론자들은 당중앙이 내놓은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중심고리를 튼튼히 틀어쥐고 나갈데 대한 전략전술적원칙의 요구를 가장 옳게 반영하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업전개원칙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토론회참가자들은 수령님께서 로작에서 밝혀주신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들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여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함으로써 온 사회를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과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힘있게 밀고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발표 열돐 문화예술인중앙경축보고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발표 열돐 문화예술인중앙경축보고회가 11월 6일 평양대극장에서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0년전에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와 세계문학예술의 실태를 깊이 헤아리시고 우리 혁명위업에 철저히 복무하는 주체적이고 참신한 문학예술을 창작하며 사회주의문학예술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발전시키기 위하여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이 로작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의 혁명적방침을 고수하고 인민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창작하는데서 확고한 지침으로 되는 위대한 력사적문헌이며 우리 문학예술이 나아갈 길을 등대마냥 환히 밝혀주며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 작가, 예술인들의 투쟁과 창작사업을 힘있게 고무하여주는 고전적문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 복무해야 할 뿐아니라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투쟁에 복무하여야 합니다.》

우리 문학예술의 기본 사명과 임무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명확하게 밝혀짐으로써 우리의 문학예술은 조선혁명에 철저히 복무하는 문학예술로, 우리 인민을 조선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참말로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발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전적로작에서 밝히신 주체적문예사상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성스러운 력사적위업에 복무하는 영광스러운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발전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은 철두철미 조선혁명과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당적이며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개화발전되였으며 그것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세계 혁명적인민들을 혁명투쟁에로 추동하는 고무적힘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인대렬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적문예사상과 당의 문예방침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온 몸에 주체형의 피만이 흐르는 충성의 대오로 튼튼히 꾸려졌다.

오늘 우리 나라 문학예술의 기간적부문인 영화예술과 우리 예술의 크나큰 자랑의 하나인 《피바다》식 가극을 비롯하여 소설과 시문학, 음악과 미술, 무용과 교예 등 모든 부문의 문학과 예술이 전면적으로 찬란히 꽃피여나고있으며 시대의 본질과 혁명의 진리를 심오한 예술적형상으로 밝혀주는 혁명적대작들을 비롯한 사상성과 예술성, 깊은 철학성과 통속성이 훌륭히 결합된 사회주의적이고 민족적인 혁명적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여 일찌기 그 류례를 모르는 문학예술의 일대 개화기를 장식하고있다.

그러기에 세계는 우리 조선을 《예술의 나라》로 부르고있으며 우리 주체문학예술의 발전에서 20세기 사회주의문예부흥을 보고있다.

우리의 문학예술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적문학예술강령을 밝혀주시고 당중앙이 그 구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주었기때문에 이룩될수 있었다.

보고회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수령님과 당중앙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크나큰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할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근로단체중앙학교창립 스물다섯돐기념 보고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립하여 주신 근로단체중앙학교창립 스물다섯돐 기념보고회가 4월 11일 있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합창으로 시작된 모임에서는 먼저 창립스물다섯돐을 맞는 근로단체중앙학교에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전달이 있었다.

축하문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간부양성부문에 주신 강령적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근로단체중앙학교가 지난 스물다섯해동안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근로단체일군들을 수많이 키워내는데서 이룩한 빛나는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새로운 승리에로 고무하였다.

이어 있은 기념보고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립된 근로단체중앙학교가 지난 25년동안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끊임없는 배려속에서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걸어온 자랑찬 로정을 더듬었다.

수령님께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당의 외곽단체이며 인전대인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할 객관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독창적인 혁명간부양성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근로단체간부의 종합적양성기지인 근로단체중앙학교를 세워주시였다.

학교는 수령님의 뜨거운 배려속에서 당의 간부양성방침을 관철함으로써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철저한 옹호자, 열렬한 선전자, 적극적인 관철자인 유능한 근로단체일군들을 수많이 키웠다.

참으로 근로단체중앙학교가 걸어온 전로정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간부육성에 관한 사상의 빛나는 승리의 로정이며 수령님에 대한 학교 교직원, 학생들의 충성의 력사이다.

보고자는 이번 근로단체중앙학교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보내고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도록 하여주신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대하여 감격에 넘쳐 말하면서 모든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였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하였다.

모임은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의 합창으로 끝났다.

학생절 열두돐기념 중앙보고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학생절 열두돐기념 중앙보고회가 10월 6일 평양학생소년궁전극장에서 있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합창으로 시작된 모임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다.

보고자는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경사스러운 명절을 맞는 우리 나라 전체 학생청년들의 심장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수령으로 우러러 모시고 혁명하는 높은 영예와 자부심으로 하여 한없이 높뛰고있으며 오직 한마음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청춘도, 생명도 다바쳐 싸워나갈 끝없는 충성심으로 불타고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은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위대한 혁명력량입니다. 생기발랄하고 혈기왕성하며 용감한 청년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위대한 사회적변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세네갈전국기자협회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5페지)

청년운동에서 학생운동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후대교양문제를 혁명과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 보시고 몸소 학생사업을 지도하시여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한부분인 학생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신데 대하여 보고자는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혁명발전의 매시기, 매단계마다 학생사업의 방향과 그 실현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학생운동을 높은 단계에로 끊임없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고 보고자는 말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사랑속에서 우리 나라 학생운동이 항일혁명투쟁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진 자랑찬 로정을 걸어왔으며 우리 학생청년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투쟁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웠으며 이 투쟁속에서 그들은 당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한 혁명인재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는데 대하여 보고자는 자랑스럽게 더듬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의 해발아래 오늘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우리 학생들은 국가가 그대로 학부형이 된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에서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다. 이것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학생들에게 베풀어주신 그이의 육친적사랑과 뜨거운 배려의 열매이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우리 나라 학생청년들의 불

라는 충성심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끝으로 그는 우리 당과 인민 앞에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며 웅대한 사회주의대건설강령을 실현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서고있는 오늘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인 학생청년들은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우리 인민의 력사적위업수행에 앞장서 나감으로써 혁명과 시대 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나갈 학생청년들의 불같은 맹세를 담아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모임에서는 남조선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모임은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의 노래 합창으로 끝났다.

각 도 (직할시) 들에서도 기념보고회들을 가지였다.

《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민들의 군중대회와 시위

《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6월 24일 평양시에서는 군중대회와 장엄한 시위가 있었다.

미제를 반대하는 멸적의 기상을 떨치고 장엄한 시위를 벌리며 모여온 20여만명의 군중으로 꽉 들어찬 대회장은 24년전 6월 25일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정복하려는 강도적 야망밑에 삼천리금수강산을 침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들씌웠으며 오늘도 침략야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불구대천의 피맺힌 원쑤 미제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을 치솟는 민족적분노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는 격노한 군중의 웨침으로 천지를 진감하고 강산을 뒤흔들었다.

대회에서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각 근로단체 책임일군들 그리고 조국방문 재일조선인대표단 단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100여년전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감행해오던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한 후 전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아세아를 정복하려는 야망밑에 1950년 6월 25일 미리 짜놓은 침략계획에 따라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강도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가장 야만적인 전쟁방법을 다 써가면서 잔인하고 악착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학살하는 치떨리는 만행을 감행한데 대하여 끓어오르는 민족적분노로 폭로규탄하였다.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전쟁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에게 있어서 조국의 독립과 명예를 지키느냐 아니면 또다시 제국주의의 식민지노예가 되느냐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싸움이였으며 가장 엄혹한 시련이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방대한 병력과 최신전투기술기재들을 조선전선에 들이밀고 인류력사상 류례없는 야만적인 전쟁 방법과 수단들을 다 써가면서 필사적으로 덤벼들었다.

조선전쟁에서 미제침략자들이 저지른 범죄적만행은 천추만대에 걸쳐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을 받을 천인공노할 인간백정,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쓴 미제승냥이의 잔인성과 포악성, 야만성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미제야수들에 의하여 우리 인민이 입은 피해는 이루헤아릴수 없으며 사랑하는 부모형제들의 목숨을 앗아간 미제원쑤들에 대한 조선인민의 피맺힌 원한은 하늘땅에 사무치고있다.

연설자들은 다음으로 혁명의 영재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전쟁승리에로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력사적승리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에 대하여 말하였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전쟁의 엄혹한 시기에 혁명의 영재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전투적구호밑에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를 원쑤격멸의 성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나라를 철벽의 전투진영으로 개편하시고 전당, 전민, 전군을 하나의 전투대오로 묶어세우시였으며 천재적인 전략과 탁월한 작전적방침, 주체적인 전법과 령활한 령군술로 인민군대로 하여금 전투마다에서 원쑤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게 하시고 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력사적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하나로 굳게 뭉쳐 나아가는 조선인민은 필승불패이며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정당한 위업을 위하여 일떠선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정복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 승리는 또한 미제가 조선전쟁을 통하여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력사의 선언이였으며 놈들에게 다시는 함부로 날뛰지 말것을 경고하는 엄숙한 선고였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저들의 참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짓밟고 새 전쟁 도발책동에 매달렸으며 우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조선에서 정세를 계속 긴장시키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 침략정책은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의 화근이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기본장애이며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항시적근원입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13페지)

연설자들은 우리 인민이 일제의 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된지 벌써 30년이 가까와오고 정전협정이 체결된지도 20여년이 지났지만 조국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침략정책때문이라고 하면서 놈들이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기도를 버리지 않고 매일과 같이 전쟁연습소동을 벌리면서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더욱더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있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미제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을 때에도 이를 기를 쓰고 반대하면서 교활하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으며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내놓은 평화협정제안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 계속 끌어들이고 박정희괴뢰도당을 전쟁준비에 부추기고있다.

이 모든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파렴치

한 침략자이며 평화의 악독한 원쑤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일제국주의자들의 2중의 주구인 박정희괴뢰도당은 나라와 민족을 외세에 팔며 조국의 통일을 반대하면서 《반공》을 구실로 전쟁준비를 다그쳐 정세를 계속 긴장시키고있다.

연설자들은 남조선에서 미일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 불같은 결의를 피력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원쑤들에 대한 적개심을 더욱 높이며 로쇠와 침체를 모르는 청춘의 기백으로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연설들이 진행되는동안 대회장에서는 원쑤들을 단죄규탄하여 《조선인민의 철천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타도하자!》,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을 타도하자!》,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저지파탄시키자!》, 《미일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실현하자!》라는 군중의 분노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의 우렁찬 박수속에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군중대회가 끝나자 《조선은 하나다》의 노래가 높이 울리는 가운데 장엄한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의 군중대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통일단결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힘을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3대원칙과 조국통일 5대방침을 높이 받들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고야말 우리 인민의 확고한 투쟁결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나라들과 제3세계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혁명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지구상에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을 종국적으로 멸망시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 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지와 전투적기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군중대회와 장엄한 시위는 각 도 소재지들에서도 진행되였으며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구분대들에서는 군인집회가 있었다.

《미제반대투쟁의 날》을 맞은 전국녀성들은 6월 2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조선인민의 철천의 원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규탄하는 전국녀성들의 성토대회를 가지였다.

대회에서는 녀맹중앙위원회 책임일군을 비롯하여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 녀성 대표들과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단 단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미제반대투쟁의 날》을 맞이한 전체 녀성들은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고있으며 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그들은 특히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사랑하는 남편과 부녀자들, 철부지어린 이들까지 닥치는대로 잔인하게 학살한 인간백정 미제승냥이놈들의 천추에 용납못할 범죄적만행에 대하여 치솟는 적개심을 금치 못해하면서 원쑤를 천백배로 갚고 뼈에 사무친 원한을 반드시 풀고야말것이라고 격조높이 웨쳤다.

그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방침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대회에서는 미제침략자들이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행을 온 세상에 고발하는 성토문이 랑독되였다.

또한 산천초목도 분노에 떠는 신천군 원암리 밤나무골에서는 20세기의 야수 미제날강도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이 땅에서 저지른 범죄적살인만행을 준렬히 폭로규탄하는 평양시와 황해남북도안의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성토모임과 전국청소년학생들의 성토대회가 있었다.

이 모임들에서는 미제의 범죄적살인만행을 준렬히 폭로하고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며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이룩하고야 말 불같은 결의를 보여주었다.

또한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는 6월 25일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이 시작되는것과 관련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공동성명에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온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속에서 더 큰 참패를 당하기를 원치않는다면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

조선에서의 평화와 조선의 평화통일을 념원하는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해마다 미제가 조선전쟁을 도발했던 6월 25일부터 미제가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은 7월 27일까지의 기간을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으로 설정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여왔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이 전투적인 행사는 1974년에 그 어느 때보다 힘있게 진행되였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제3세계나라들을 비롯하여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나라 정부들과 인민들, 국제민주단체들,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각국의 련대성위원회들과 친선단체들, 각국의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사회정치활동가들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이르는곳마다에서 미제에게 압력을 가하며 남조선으로부터의 미제침략군의 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 울리면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련대성운동을 광범히 벌렸다.

이 월간에 전세계는 우리 나라의 분렬을 추구하는 미일반동들과 그 앞잡이 박정희매국역도들을 준렬히 규탄단죄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방침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조선의 통일의 근본장애물인 미제침략군대가 남조선에서 즉시 물러갈것을 견결히 요구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세계의 많은 나라 국가수반들과 지도자들, 진보적 정당들과 조직들의 책임일군들,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수령님로작연

구소조들, 사회단체들과 친선협회들, 언론계와 민주인사들, 국제기구들에서 약 115건의 편지와 전문을 보내여왔다.

이 월간에 즈음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행사들이 여러가지 형식과 다양한 방법으로 광범히 진행되였다.

이 월간에 71개 나라와 13개의 국제민주단체, 5개의 국제회의들에서 약 140회의 군중집회를 진행하고 약 1,406건의 련대성 전문과 편지를 채택하는 지지조치를 취하였으며 106개의 세계 여러 나라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국제기구들에서 120여건의 성명과 호소문 그리고 미제와 박정희역적을 규탄하는 32건의 항의문이 발표되고 23건의 항의시위, 롱성투쟁이 전개되였다. 초보적으로 종합된데 의하더라도 130여개의 출판물들에서 월간과 관련한 710여건의 글을 실었으며 수단, 이라크, 레바논, 쿠웨이트 신문들에서는 특집을 발간하였으며 35개 나라에서 련대성월간과 19개 나라에서 영화상영주간들이 설정되였으며 61개 나라에서 90여회의 기자회견, 영화감상회, 사진전시회 등이 진행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중국과 쏘련 그리고 기타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여러 차례에 걸치는 집회를 진행하고 신문, 방송 보도사업을 통하여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알제리를 비롯한 제3세계의 민족적독립국가들, 북구라파나라들, 여러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미제를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련대성을 표시하는 월간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일본의 여러 진보적단체들은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분렬주의적책동을 규탄하는 가두선전과 기타 행사들을 진행하였으며 단마르크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는 세찬 반미 시위와 군중집회가 있었다.

련대성집회들과 반미시위들에서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5대방침과 3대원칙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박정희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한다》,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물러가라》등 구호들이 힘있게 울리였다. 많은 집회들에서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결의문들이 채택되였다.

또한 반미공동투쟁월간과 관련하여 세계 도처에 있는 조선인민과의 친선단체들, 3대륙인민단결기구, 세계평화리사회, 세계직련, 세계민주청년련맹, 국제학생동맹 등 국제기구들과 민주단체들, 각국의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은 조선에 관한 결의, 성명, 호소문 등을 발표하고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는 동시에 조선문제해결을 방해하는 미일반동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일것을 산하단체들과 인민들에게 열렬히 호소하였다.

세계의 수많은 진보적 신문들과 출판물들, 통신, 방송들은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론설, 기사들과 기타 수단들을 통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미제와 남조선 박정희괴뢰도당의 분렬과 전쟁책동,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그들의 가혹한 파쑈적탄압책동을 준렬히 단죄하였다.

전례없는 대규모의 국제적인 투쟁으로 벌어진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침략자 미제를 반대하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것이 하나의 커다란 국제적조류로 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우리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전세계 인민들의 우렁찬 목소리는 반미구국투쟁에 일떠선 조선인민에 대한 굳은 련대성의 표시로 반제반미공동투쟁에서의 단합된 힘의 과시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아세아 인민들은 물론 온 세계 인민들이 주목하고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계 인민들과 우리의 린방에 있는 여러 벗들의 지지성원밑에 반드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게 되리라고 굳게 믿고있습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283～284페지)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전세계의 평화애호나라들과 진보적인민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조국통일방침 특히 그이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5대방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이 원칙과 방침에 따라 조선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우리 나라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우리 공화국이 제기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제안을 우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유리한 전제를 마련할수 있게 하는 정당한 발기로서 그에 전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였다.

이번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세계인민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방침을 적극적으로 지지함과 동시에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고 영구분렬을 꾀하며 우리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준비책동에 미쳐날뛰는 미제침략자들과 그의 충실한 앞잡이 박정희군사깡패악당들의 범죄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그 어느때보다 더욱 높이였다.

세계인민들은 또한 《유엔군》의 간판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을 당장 철거시킬데 대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립장과 주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의 가르치심따라 미제를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완전한 민족적해방과 조국통일의 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는 전체 남북조선인민들에게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신심을 더욱 굳게 안겨주고 새로운 투쟁에로 고무격려하여주고있는것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 조국의 통일을 방해하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극도로 고립되고 그들의 분렬과 전쟁 로선이 파산되여가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실로 반미공동투쟁월간을 통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은 일층 강화되였으며 그것은 우리 혁명의 앞길에 더욱 유리한 전망을 열어주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분렬과 전쟁 정책을 집어치우고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야 하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그만두어야 한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민족의 분렬을 심화시키고 나라를 미일침략자들에게 팔아먹으며 동족을 살륙하는 매국배족행위를 그만두어야 하며 남북공동성명을 실천하는 길에 들어서야 한다.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조선인민은 반드시 미제를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시키고야말것이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단결하여 미제와 그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침략세력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나갈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의 4월봉기 열네돐 평양시 기념보고회

지금으로부터 열네해전인 1960년 4월 19일 온 남녘땅에서 료원의 불길처럼 타올랐던 4월인민봉기는 남조선혁명운동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열어놓은 의의깊은 사변이였다.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반미구국항전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어놓은 이날에 즈음하여 4월 18일 모란봉극장에서는 남조선인민들의 4월봉기 열네돐 평양시기념보고회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4월인민봉기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오래동안 쌓이고쌓였던 남조선인민들의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였으며 남조선전역에서 수백만명에 이르는 광범한 군중이 참가한 대중적인 반미구국항쟁이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82페지)

1960년 봄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이 조작한 3.15부정선거를 반대하는 마산시민들의 투쟁을 도화선으로 하여 료원의 불길과도 같이 서울과 부산, 대구와 인천, 목포와 전주 등 남조선전역에 파급된 4월봉기는 청년학생, 지식인들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이 참가한 전인민적항쟁으로 발전하였다.

대중적이며 폭발적인 항쟁에 당황망조한 리승만매국도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중무장한 군대와 경찰, 땅크와 장갑차까지 동원하여 무차별탄압을 가하였으나 새제도, 새정치, 새생활을 위하여 일떠선 남조선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굴할줄 모르는 영웅적투쟁으로써 드디여 미제의 오랜 앞잡이 리승만독재《정권》을 꺼꾸러뜨리고야말았다.

이것은 전후 남조선인민들이 반미구국투쟁에서 이룩한 첫 승리였다.

온 남녘땅을 항쟁의 세찬 도가니로 끓어번지게 한 잊을수 없는 4월의 그날부터 열네해라는 세월이 지나갔으나 4.19용사들이 그처럼 열망하던 그 피타는 요구들은 오늘 어느 하나도 남조선에서 실현되지 않고있다.

박정희파쑈도당은 미제의 조종밑에 《군사정변》을 조작하고 괴뢰정권에 들어앉은 첫날부터 민주주의의 가장 횡포한 교살자,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가장 악독한 교형리 인간백정으로 등장하여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갈망하는 애국적인민들을 총칼로 가혹하게 억누르고 민족의 영예와 나라의 자주권을 외래침략자들에게 팔아먹으며 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민족분렬을 조장하는 천추에 용납못할 파쑈적전횡과 매국반역행위만을 일삼아왔다.

오늘 남조선에서 민족의 자주권은 여지없이 유린되고 인민들은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으며 긴장상태는 날로 격화되고 통일의 앞길에는 더욱더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있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감행되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전횡과 매국배족책동이 극도에 이르고있는 오늘 4.19용사들이 그토록 애타게 부르짖던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4.19광장을 선혈로 물들이고 3.24와 6.3의 거리에서 용맹을 떨친 남조선의 슬기로운 청년학생들은 또다시 생명을 걸고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와 집회와 시위, 삐라살포와 투석전으로 억세게 싸우고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자기들의 의로운 투쟁으로 박정희괴뢰정권을 짓부시고 실현하지 못한 4.19의 리념, 자유와 해방, 새정치와 새생활에 대한 자기들의 절박한 요구를 기어코 실현하고야말것이다.

모임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탁월한 사상과 전략전술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와 그 주구들을 남조선에서 쓸어버리고 조국을 통일하고야말 불같은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의 6.3투쟁 열돐기념 평양시청년학생보고회

슬기로운 우리 민족의 불타는 애국 정신과 혁명적기개를 다시한번 온 세상에 과시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6.3투쟁 열돐을 기념하여 평양시청년학생보고회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64년의 6.3투쟁과 올해 8월에 또다시 일어난 시위투쟁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을 반대하며 매국도당을 때려부시기 위한 반제, 반파쑈 애국투쟁이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303페지)

범죄적《한일회담》을 반대하여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들이 지펴올린 봉화를 발단으로 하여 폭발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용감한 6.3투쟁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을 짓부시고 민족의 존엄을 지켜내기 위한 정의의 반제애국투쟁이였으며 매국역적 박정희파쑈악당을 때려부시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대중적인 반파쑈민주화투쟁이였다.

《매국적인 한일회담을 결사반대한다》, 《일본제국주의를 박살하라》, 《미국은 가면을 벗으라》, 《박정희정권을 타도하라》는 등 반외세, 반《정부》, 반파쑈 구호밑에 3월 24일에 시작되여 거의 두달반동안 계속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은 6.3봉기에서 절정을 이루었으며 이 투쟁에는 남조선 각지의 50여개 대학과 173개 고등학교 학생 31만여명과 수만명의 인민들이 참가하였다.

6.3투쟁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테로통치와 매국책동에 대한 쌓이고쌓인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불만과 분노의 폭발이였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이 용감한 투쟁은 미제와 그 더러운 개 박정희매국도당의 식민지파쑈통치지반을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으며 《한일회담》의 《5월결속》을 서둘러대던 원쑤들의 악랄한 흉계를 짓부셔버렸다.

6.3투쟁의 전과정은 남조선청년학생들이 자유와 해방과 나라의 평화통일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혁명적당의 령도밑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남조선의 모든 반제반파쑈애국세력과 굳게 단결하여 하나의 강력한 공동전선을 펴고 투쟁을 조직적으로 벌려나가며 매국노를 반대하는 결전에서 식민지통치자체를 청산하는 데로 발전시켜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이 애국의 더운 피로 항쟁의 거리를 붉게 물들이던 잊을

수 없는 그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 남조선은 6.3의 용사들이 우려하였던것처럼 미제와 함께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까지 예속되여가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은 미일제국주의의 2중의 식민지노예로 전락될 엄중한 위험에 처하여있다.

또한 박정희피뢰도당이 《통일혁명당사건》, 《대학생간첩단사건》을 비롯한 각종 《사건》을 날조하고 《반공법》에 몰아 수많은 남조선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집단적으로 처형학살함으로 하여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처지는 6.3의 그날보다도 훨씬 더 악화되고있다.

공화국북반부 전체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박정희피뢰도당의 횡포무도한 폭압만행을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도전으로,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 견결히 단죄규탄하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신랄히 규탄하였다.

우리 인민은 박정희군사악당의 그 어떤 파쑈폭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짓부시기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있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성스러운 투쟁에 뜨거운 지지와 전투적성원을 보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조직적단결을 강화하여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음모를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투쟁을 벌려나감으로써 이 투쟁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을 고수하기 위한 평양시군중대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지 두해가 지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의 발표는 통일문제해결에서 외세의존로선에 대한 자주로선의 승리와 전쟁로선에 대한 평화로선의 승리, 분렬로선에 대한 통일로선의 승리를 알리는 우리 민족의 장엄한 선언이였다.

우리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후 쌍방간에 합의를 본 조항들을 하루빨리 실천에 옮기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러나 미일침략자들의 부추김을 받는 박정희매국반역도당은 우리의 합리적인 제안들을 어느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외세의존과 전쟁 책동, 분렬로선을 악랄하게 추구하면서 7.4공동성명을 란폭하게 위반하여왔다.

미일침략자들의 부추김을 받고있는 박정희피뢰도당의 배신적인 분렬책동과 반민족적인 매국행위로 말미암아 오늘 남북관계는 대화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고 통일이 아니라 분렬이 고착될 위험이 생기고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는 날을 따라 격화되고있다.

이러한 사태하에서 수도의 각계각층 근로자들은 남북공동성명발표 두돐을 맞이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7.4남북공동성명을 철저히 고수하기 위한 평양시군중대회를 가지였다.

대회에서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7.4남북공동성명을 확고히 고수할데 대한 보고에 이어 연설들이 있었다.

보고와 연설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승리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하면서 남북공동성명은 조국통일의 곧바른 길을 명시한 리정표이며 통일을 위한 민족공동강령으로서 전체 조선인민들은 물론 조선에서의 평화와 조국통일을 바라는 세계 모든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지난 2년간 공동성명의 정신에 시종일관 충실하였으며 그의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해온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미일상전들의 부추김을 받는 박정희반역도당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후 박정희반역도당은 우리와의 대화를 현상유지를 위한 방패로 삼고 우리와《대결》하며 분렬을 고착시키는《두개 조선》로선을 집요하게 추구해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의 조종밑에 있는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공동성명에 도장을 찍은 이튿날로 그것을 믿을수 없는 종이장에 불과한것이라고 하면서 찢어버렸습니다. 그후 그들은 남북공동성명의 원칙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일삼아왔으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의 모든 합리적인 제안들을 다 거부하였습니다.》 (《이딸리아공산당기관지〈우니따〉지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1~2페지)

연설자들은 박정희피뢰도당이 남북공동성명에 서명하고 돌아앉자부터 미제침략군의 장기강점을 애걸하고 《실력배양》, 《힘전태세확립》과 같은 호전적구호밑에《힘》의 대결을 추구하며 동족간의 반목과 불신을 끊임없이 조장하면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란폭하게 짓밟아온데 대하여 신랄히 규탄하고 악랄한 분렬주의자이며 흉악한 호전분자이며 추악한 매국반역자이며 극악한 민족의 백정놈인 박정희피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를 준렬히 단죄하였다.

연설자들은 대화의 첫날부터 시종일관 량면전술을 써온 박정희도당은 우리와의 대화를 이른바 남북사이의《변화된 대결방식》으로 묘사하면서《대결》을 위한《실력배양》과《총력안보체제의 확립》을 고창하였을뿐아니라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기 위한《선제공격계획》까지 짜놓고 무력증강과 장비의《현대화》를 다그치며 실전을 방불케 하는 군사연습소동과 군사적도발행동을 쉬임없이 감행하였다고 폭로하였다.

박정희도당은 7.4남북공동성명발표이전에 공포한 파쑈적인 《비상사태》를 철회할 대신 도리여 《반공》의 구호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악명높은《유신》독재체계를 꾸며냈을뿐아니라《긴급조치》들까지 련발하여온 남조선땅을 숨막히는 군사파쑈의 도가니속에 몰아넣고 인민들의 초보적인 통일론의의 자유마저 총칼로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박정희파쑈악당은 남북공동성명에 밝혀져있는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주장한 수많은 애국자들을 학살한 파쑈교형리

틀이며 해외에서 망명생활을 하는 민주인사를 불법랍치하여 《재판》에 넘기고 평화통일을 요구한 기독교목사들을 《내란죄》로 몰아 철창속에 가두며 민주주의적운동을 벌린 수천명의 애국적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사들을 이른바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에 관련시켜 집단처형하고있는 살인귀이다.

연설자들은 오늘 남북공동성명이 무참히 유린되고 그 존재자체가 커다란 위험을 받고있는것도, 민족의 머리우에 항시적으로 영구분렬과 전쟁의 위험이 떠돌고있는것도 그 책임이 전적으로 미일침략자들과 그 부추김을 받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에게 있다고 락인찍었다.

대회에서는 우리 나라에 조성되고있는 참으로 엄중한 사태앞에서 평화와 평화통일을 열망하는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박정희반역도당의 매국분렬책동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가장 란폭한 유린으로, 온 민족의 평화통일념원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도전으로,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며 조선의 평화통일을 바라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 락인하면서 이를 치솟는 민족적분노로 단호히 규탄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평화통일의 일념으로부터 출발하여 남북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여 통일의 길을 주동적으로 개척하며 폭넓은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여 통일문제해결에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를 반영시킬데 대한 방안 등을 거듭 제기한데 대하여 지적하고 이 방안들은 남북쌍방에 다같이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한 방안들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만일 이 정당한 제안들이 실현되였더라면 북과 남의 대화는 멀리 전진하였을것이며 통일문제해결에서는 훌륭한 성과가 달성되였을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박정희괴뢰도당이 미일침략자들의 부추김밑에 조국통일 3대원칙과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대결과 분렬, 전쟁의 길로 나감으로써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또다시 어두운 장막이 무겁게 드리우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통일이냐, 분렬이냐 하는 엄숙한 이 시각에 민족앞에 조성된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는 길은 온 민족이 단합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이 천명되여있는 남북공동성명을 끝까지 고수하고 조속히 실현하는것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속도전》의 방침따라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쳐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튼튼히 다지며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통일의 넓은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대회에서는 성토문이 채택되였다.

같은 날 남북조절위원회 우리측 공동위원장은 7. 4남북공동성명발표 두돐에 즈음하여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중대한 책임으로부터 출발하여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에 의하여 짓밟히고있는 남북공동성명의 리념과 원칙을 고수하고 민족의 지상과업인 조국통일을 촉진할 일념으로 남조선당국자들은 범죄적인 《두개 조선》정책을 즉시 취소하며 《반공》소동을 그만두고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로 되돌아올데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5천년의 유구한 력사를 두고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인민은 민족의 통일강령인 남북공동성명을 고수하느냐 못하느냐, 조국이 영원히 둘로 갈라지느냐 아니면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되느냐 하는 엄숙한 갈림길에서 절대로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행위에 대하여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다.

박정희도당은 저들의 무분별한 행동이 가져오게 될 후과에 대하여 생각해야 하며 우리의 물음인 남북공동성명을 리행하겠는가 아니면 그를 휴지화하겠는가, 통일을 하겠는가 아니면 분렬을 지속시키겠는가, 긴장상태를 가시겠는가 아니면 격화시키겠는가,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남북의 대결을 고취하겠는가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다.

우리는 바로 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고있는 온 민족의 념원을 실현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의무로 여기고있기때문에 남조선괴뢰들의 범죄적인 분렬책동을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

만일 미일침략자들과 박정희도당이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침략과 매국, 민족분렬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인민들의 더욱더 세찬 반격에 부닥치게 될것이며 력사와 민족앞에 수치스러운 오명을 남긴채 멸망하고야말것이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인류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며 영광스러운 당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전체 인민의 강력한 투쟁이 있는한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은 반드시 통일되고야말것이며 우리 민족은 통일된 하나의 조선에서 화목하고 단란하게 살게 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미제와 일본 군국주의, 남조선괴뢰도당을 규탄하여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남조선괴뢰도당의 파쑈적탄압을 규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곳에서는 반드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며 압제자들의 폭압이 강화될수록 그에 항거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조직화되고 완강하여지는 법입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121페지)

폭압과 테로가 살판치는 질식상태에서 미일제국주의의 더러운 개 박정희괴뢰도당에 대한 반항과 치솟는 분노로 가슴불태워오던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민주의 홰불을 추켜들고 4월의 광장에 결연히 떨쳐나섰다.

4. 19의 광장을 선혈로 물들이고 3. 24와 6. 3의 거리에서 용맹을 떨친 우리의 슬기로운 젊은 학도들이 4월 3일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서울과 지방에서 또다시 귀중한 생명을 걸고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와 파쑈악당들의 매국반역행위와 야수같은 탄압만행을 단죄규탄하고 악명높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의 철폐, 《중앙정보부》의 해체, 구속학생석방,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시위의 자유, 대일예속화정책의 청산, 물가안정 등을 요구하여 집회와 시위, 삐라살포와 투석전으로 원쑤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4. 3투쟁이후 새로운 투쟁을 준비해오던 남조선청년학생들은 《긴급조치》제1호와 4호가 해제된 후 또다시 적극성을 띠고 일떠서 놈들의 파쑈폭압과 휴강 및 조기방학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철폐》와 《구속학생석방》등을 요구하여 서울과 지방에서 적극 투쟁하였다.

9월중순부터 11월말까지사이에만도 남조선전역의 60여개 대학과 고등학교들에서 9만여명의 학생들이 들고일어나 성토대회, 앉아버티기투쟁, 가두시위, 투석전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실력투쟁을 과감히 벌리였다.

또한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에 청년학생들뿐아니라 언론계, 종교계, 교육계, 정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이 망라되여 전국민적이며 조직적인 투쟁을 벌리였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벌린 이 용감한 투쟁은 살인악마인 박정희악당의 파쑈적인 《유신》독재를 때려부시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이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였다.

그러나 인간쓰레기로서의 추악한 운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온 남조선땅을 중세기적폭압의 도가니속에 몰아넣은 박정희괴뢰도당은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대중적진출에 질겁하여 인간의 탈을 쓴 야수의 본성 그대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애국적투쟁에 대하여 피비린내나는 탄압을 가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여나섰다.

놈들은 4월에 이른바 《긴급조치 4호》를 휘둘러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체포구금하여 《사형》을 비롯한 극형과 중형에 처하며 그들의 애국적활동을 탄압하는데 괴뢰경찰은 물론 중무장한 괴뢰군무력까지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극악무도한 파쑈행위를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박정희괴뢰악당은 이른바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을 날조하여 학원으로부터 정치, 사회계와 언론계,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탄압선풍을 일으켜 불과 2개월동안에 1천여명의 애국적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을 체포구금하고 야만적인 고문을 들이대였으며 그중 253명을 이른바 《긴급조치》제4호 및 제1호와 《국가보안법》, 《반공법》에 걸어 《비상군법회의》에 넘기고 1차로 54명을 《군사재판》에 넘기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 파쑈무리들은 7월에는 《비상민중군법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민주수호의 기수들인 애국적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 지어 남조선에 와있는 일본인청년학생들에게까지 온갖 날조된 《죄명》을 들씌워 집단적으로 처형학살하려는 살인공판놀음에 미쳐날뛰였다.

8월에는 제2차 살인공판놀음을 벌리고 또다시 수많은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게 극형과 중형을 들씌우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뿐아니라 박정희군사파쑈악당은 10월에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정당한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탄압하여 20여개 대학에 강제휴교령을 내리고 괴뢰경찰을 풀어 대학들을 포위하여 구속학생석방을 요구하는 수많은 학생들을 잡아가두고 비인간적인 고문을 가하며 즉결심판에 넘기였다. 또한 놈들은 《유신헌법》의 철폐와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청년학생들과 지식인, 종교인 등 각계 인사들을 련이어 군사재판에 넘겨 극형과 중형을 들씌웠다.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의 이 가증스러운 집단처형은 모든 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참을수 없는 유린이며 우리 인민의 평화통일위업에 역행하여 민족의 분렬을 고정화하려는 가장 악랄한 범죄행위이다.

우리 인민은 파쑈적인 살인령을 발동하여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가장 악독한 교살자이며 극악무도한 파쑈분자이며 평화통일의 흉악한 원쑤인 박정희살인악당의 죄행을 자유와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에 대한 또하나의 용납못할 도전행위로, 인간의 존엄과 인권에 대한 가장 란폭한 유린행위로 락인하면서 치솟는 민족적분노로 준렬히 단죄규탄하였다.

4월 6일 모란봉청년야외극장에서 암흑의 남녘땅에서 민주의 홰불을 또다시 높이 추켜들고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선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의로운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횡포무도하기 그지없는 인간도살령을 조작하여 휘두르며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는 파쑈교형리 박정희괴뢰도당을 규탄하는 평양시대학생련합성토대회를 가지였다.

사로청중앙위원회와 조선학생위원회(4월 5일)는 파쑈와 매국을 반대하여 또다시 구국투쟁의 홰불을 높이 추켜든 남조선청년학생들에게 횡포한 탄압을 가하고있는 박정희파쑈도당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4월 29일)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와 조선학생위원회(4월 30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5월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5월 2일)들에서 박정희파쑈악당이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의 《수사전모》라는것을 날조하여 애국적인 남조선청년학생들을 집단적으로 처형하려고 발광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각각 성명을 발표하였다.

6월 1일 모란봉청년야외극장에서 남조선의 애국적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제1차군사재판을 벌리고 파쑈적탄압을 가하는 박정희괴뢰악당을 규탄하는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성토대회를 가지였다.

6월 3일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일떠선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박정희군사깡패들의 류혈적탄압만행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7월 13일 테로와 학살의 발자취로 얼룩져있는 박정희도당의 파쑈통치사상 가장 악랄하고 가장 광란적이며 가장 규모가 큰 야만적인 백정행위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애국적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의 신상에 매우 엄중한 위협이 조성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평양시내 청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은 인민문화궁전에서 박정희살인악당의 극악무도한 파쑈적전횡을 준렬히 단죄규탄하는 성토대회를 가지였다.

7월 25일 모란봉청년야외극장에서 평양시청년학생들이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에 관련시켜 남조선의 애국적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집단적으로 처형하려는 민족의 백정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만행을 준렬히 규탄하는 성토모임을 가지였다.

또한 조선민주법률가협회(7월 11일), 사로청중앙위원회와 조선학생위원회(7월 1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7월 13일),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7월 14일), 조선기독교도련맹 중앙위원회(7월 15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7월 29일)들에서 인간백정 박정희악당이 《비상군법회의》에서 살인공판놀음을 벌려놓고 이른바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에 관련시켜 애국적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사들에게 극형과 중형을 들씌우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는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고 조선민주법률가협회에서는

전세계법률가들에게 보내는 호소문(7월 18일)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사회단체들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전세계인민들에게 호소문(7월 19일)을 보내였으며 우리 나라 종교단체들에서는 세계각국 종교단체들에 호소문(7월 20일)을 보내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남조선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들, 모든 해외교포단체들과 해외교포들에게 호소문(8월 6일)을 보내였다.

8월 17일 박정희파쑈교형리들이 또다시 제2차군사재판놀음을 벌려놓고 남조선의 수많은 애국적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사들에게 극형과 중형을 들씌우는것을 규탄하여 조국평화통일위원회(8월 17일), 조선기독교도련맹 중앙위원회(8월 2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8월 30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9~11월에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그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만행을 규탄하여 조선학생위원회(10월 17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10월 1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10월 19일)가 각각 성명을 발표하였다.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민족의 자주권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은 결코 《죄》로 될수 없으며 오히려 인민의 심판대에 올라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될자는 다름아닌 극악무도한 파쑈교형리이며 추악한 매국역적인 박정희도당이다.

인간백정 박정희괴뢰도당이 야만적인 파쑈폭압으로 일부 애국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처형한다해도 인민대중의 정의와 진리의 목소리를 막을수 없으며 민주주의와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절대로 멈춰세울수 없다.

박정희괴뢰도당이 만일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외면하고 계속 파쑈와 매국배족과 민족분렬영구화의 길로 나간다면 그들은 력사와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대륙붕공동개발에 관한 매국협정을 조작한 박정희괴뢰도당을 강력히 규탄

전체 조선인민의 반대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역도는 1974년 1월 30일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대륙붕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천추만대를 두고 저주받을 또하나의 매국행위를 감행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괴뢰정권의 력대통치자들은 례외없이 미일제국주의자들이 길러낸 그들의 앞잡이들이며 자기 상전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노들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192페지)

박정희매국도당은 남조선을 미제의 침략적군사기지로 내맡기고 남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과 경제적리권을 모조리 팔아먹다못해 이제는 바다밑자원마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상전에게 섬겨바치고있다.

이른바 《협정》들에 의하면 석유를 비롯한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여있는 우리 나라 남해대륙붕의 많은 부분에 대한 《령유권》과 《개발권》을 그 무슨 《경계확정》이니 《공동개발》이니 하는 명목으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손아귀에 넘겨 주기로 하였다.

이것은 조선인민의 리익에 전적으로 배치되며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리권을 침해하는것이다.

남조선괴뢰도당과 일본군국주의자들사이에 조작된 천추를 두고 저주받을 대륙붕에 관한 《협정》들은 지난날 을사오적들과 일제강도들사이에 꾸며진 일련의 굴욕적이며 예속적인 불평등조약들과 아무런 차이도 없는 매국적성격을 띤 문건이며 일본반동세력들에게 남조선재침의 길을 더욱 열어놓은 침략적문건이다.

우리 나라 외교부에서는 1974년 2월 2일 대변인성명을 발표하여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성명에서는 전체 조선인민은 남조선당국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체결》한 대륙붕에 관한 이른바《협정》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무효로 선언한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나라의 대륙붕은 우리 민족의 륭성과 번영을 위한 귀중한 재부로서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으며 조선인민의 리익과 의사에 배치되게 처리할수 없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소수집권층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미 우리 나라 서남해의 대륙붕에 대한 《채굴권》을 미영제국주의자들에게 떠넘긴데 뒤이어 이번에는 남해대륙붕과 그 《개발권》을 서둘러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떠넘겨준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이번에 남조선집권자들이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대륙붕에 관한 《협정》들을 《체결》한것은 우리 나라 대륙붕에 대한 외래제국주의자들의 탐욕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그들로부터 저들의《안전》을《보장》받으며 몇푼의 딸라를 더 얻어먹자는것이다.

남조선매국도당은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우리 나라 남해대륙붕과 바다밑자원을 넘겨주는 범죄행위를 그 무엇으로써도 합리화할수 없다.

다른 한편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괴뢰들과 일련의 침략적인 《협정》들을《체결》한것은 그것을 물어쥐고 남조선의 모든 자원들을 략탈하며 남조선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려고 얼마나 악랄하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이른바《협정》놀음을 계기로 남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침략행위를 더욱 로골화하려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전체 조선인민은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아부굴종하면서 나라의 귀중한 재부와 리권을 팔아넘기고있는 남조선매국도당의 천추에 용서못할 매국배족행위를 준렬히 단죄하며 우리 나라의 대륙붕과 바다밑자원을 략탈하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파렴치한 침략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일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예속과 굴종을 강력히 반대하는 인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외세에 매여달려 반역의 길로 나가는 박정희매국도당은 우리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 역시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을 비롯한 아세아인민들의 격노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강토에 함부로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우리 인민은 우리 나라의 자원에 대한 침해와 략탈 행위를 절대로 용허하지 않을것이며 나라의 자주권과 리권을 지키기 위하여 견결히 싸울것이다.

한편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도 1974년 1월 31일 성명을 발표하여 박정희괴뢰도당이 일본군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대륙붕개발에 관한 협정》을 조작해내는 매국행위를 견결히 규탄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인《기생관광》책동을 규탄하는 전국녀성대회

미일침략자들이 주인행세를 하고있는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녀성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민족의 존엄이 무참히 짓밟히는 통탄할 사태가 빚어지고있다.

남조선을 하나의 유흥장으로 삼고 남녘땅에 기여들어 녀성들의 정개를 짓밟는 일본군국주의자들과 장기집권의 야욕을 어떻게하나 실현해보려고 놈들에게 남조선녀성들을 추잡한 성의 노리개로 섬기는 비렬한 국제매음행위를 거리낌없이 감행하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는 가운데 4월 2일 평양체육관에서는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인 《기생관광》 책동을 규탄하는 전국녀성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녀성일군들과 녀성로력영웅들, 근로녀성들과 가두녀맹원들, 녀성군인들과 녀학생들 2만여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조국을 방문한 제15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 녀성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녀맹중앙위원회 비서와 각계층 근로녀성대표들과 제15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 녀성성원대표, 대학생녀성대표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남조선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인 《기생관광》책동으로 말미암아 녀성들의 자주성과 민족적존엄이 무참히 짓밟히고 엄중하게 유린당하는 참을수 없는 사태가 빚어지고있는데 대하여 격분에 넘쳐 규탄하였다.

천추에 용납못할 민족반역자인 박정희매국도당은 총칼을 휘두러 《정권》을 가로챈후 인민탄압과 전쟁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남조선녀성들을 이른바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간호원》파 《이민》의 명목으로 해외에 상품처럼 팔아오다가 최근년간에 이르러서는 《기생관광》이라는 이름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마구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남조선녀성들을 성의 노리개로 섬기는 추악한 기생거간군노릇을 하기까지에 이르렀다.

남조선통치배들은 이른바 《관광진흥 5개년계획》이라는것까지 짜놓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남조선각지에 《라체촌》파 《기생촌》, 《기생관광》호텔과 유흥장을 만들고있으며 《매춘관광》을 괴뢰정부의 《직영기업》으로 내세웠으며 지어 전문적으로 기생을 양성하기 위한 《관광호텔학교》라는것까지 신설해놓고 녀성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일본말과 《애교술》까지 가르치고있는 망동까지 부리고있다.

연설자들은 박정희반역도당파 같이 일신의 영달과 집권야욕을 위하여 국제매음행위를《전략기업》으로 선포하고 녀성들의 정개까지 팔아먹는 그러한 매국배족의 무리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고 격분에 넘쳐 말하였다.

인류문화의 려명기로부터 민족의 슬기와 지혜를 세상에 떨쳐온 우리 나라 녀성들이, 더우기 밝은 례절파 송죽갈은 정개를 미덕으로 자랑하여 온 조선녀성들이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몸까지 유린당하고있는 이 기막힌 사태앞에서 우리 공화국북반부의 모든 녀성들과 인민들은 치밀어오르는 민족적의분을 금치 못하였다.

연설자들은 일본군국주의자들파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인《기생관광》책동을 우리 민족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도전으로, 우리 조선녀성들에 대한 극악한 범죄행위로, 세계진보적녀성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 준렬히 단죄하며 이를 치솟는 민족적분노로 단호히 규탄하였다.

드넓은 대회장에는《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인 〈기생관광〉 놀음을 단호히 분쇄하자!》,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 〈기생관광〉 책동을 규탄한다!》,《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책동을 분쇄하자!》, 《박정희도당의 〈유신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조선 녀성들파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라는 참가자들의 격노한 웨침소리가 터져나왔다.

연설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각 분야에 걸쳐 매우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고 하면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홍수처럼 밀려들고있는것은 결코 《꽃이나 꺾자》고 오는《관광객》의 나들이가 아니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선을 또다시 집어삼키기 위한 침략자의 행각으로, 바로 놈들의 침략책동이 최고절정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말하였다.

분노의 함성이 대회장을 뒤흔드는 가운데 연설자들은 지난날 《내선일체》와 《동조동근》을 부르짖다가 패망한 일본반동들이 남조선에 기여들어 벌리고있는 이른바 《기생관광》이란 조선녀성들의 인권을 짓밟아버리고 우리 민족을《황민화》하며 조선을 영원히 집어삼키려는 민족말살정책이며 흉악한 침략행위라고 폭로규탄하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지난해 서울의 녀성대학생들을 비롯한 남조선청년학생들이 《기생관광》을 반대하는 시위투쟁을 벌렸으며 남조선 녀성들파 인민들이 도처에서 민족의 력사에 치욕과 오점을 남기고있는 놈들의 《매춘관광》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고있다고 말하면서 연설자는 이 투쟁은 침략자들과 매국노들의 흉악한 범죄행위를 짓부시고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며 녀성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이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모든 사실은 매국역적이며 국제매음거간군인 박정희가 괴뢰정권에 들어앉아있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인간쓰레기들을 길잡이로 하여 남조선에 기여들고 있는 한 남조선녀성들은 어느 하루도 편안히 살수 없으며 오늘의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연설자들은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남조선의 각계각층 애국적녀성들이 반제반파쑈민주화의 기치밑에 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적자유를 쟁취하며 일본군국주의자들파 박정희매국노들의《매춘관광》을 짓부시기 위한 결사항전에 분연히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대회에서 제15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 부단장은 일본군국주의야만들파 남조선괴뢰도당의 비인간적만행을 규탄하는 조국녀성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재일조선녀성들의 규탄의 목소리를 합치기 위하여 이 대회장으로 달려나왔다고 하면서 도꾜 하네다비행장에는 남조선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사려고 앞을 다투어 밀려든 일본놈들로 가득차있으며 시모노세끼항구는 관부련락선을 타려고 떼를 지어 쓸어드는 놈들로 차넘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이야말로 제국주의적 침략성파 략탈성, 야만성파 잔인성에 있어서 력대의 악명높은 살인귀들도 무색케 하는 가장 추악한 야수이며 그 죄상을 천만년단죄해도 못다할 극악무도한 호색광들이며 우리 조선 녀성들파 인민들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라고 단죄하였다.

연설자들은 공화국북반부 전체 녀성들은 남조선녀성들을 구원하는 뜨거운 동포애의 마음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킬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대회에서는 남조선녀성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남조선언론인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박정희괴뢰도당의 언론탄압을 규탄하는 평양시 기자, 편집원대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이 남조선의 현당국자들을 한결같이 증오하며 그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은 특히 남조선당국자들이 조국통일을 방해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를 하기때문입니다.》(《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단행본, 23페지)

1974년 10월 남조선언론인들은 가장 흉악한 파쑈폭군이며 민족의 백정인 박정희괴뢰도당의 야만적인 언론탄압을 반대하여 과감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날과 더불어 남조선전역에 급속히 파급된 언론인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박정희살인악당의 악독한 파쑈적만행을 배격하며 언론의 자유를 찾기 위한 지극히 정당하고 성스러운 투쟁이다.

혁명의 필봉, 주체의 필봉을 높이 추켜들고 거창한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가고있는 평양시안의 기자, 편집원들은 10월 2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대회를 열고 남조선언론인들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성원을 보냈으며 박정희괴뢰도당의 언론탄압을 준렬히 항의규탄하였다.

대회에는 평양시안의 수천명 기자, 편집원들과 함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과 서기국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 신문사, 출판보도부문 책임일군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남조선언론인들과 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남조선언론인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탄압을 준렬히 규탄한다!》,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라고 쓴 글발들이 나붙어있는 장내에서는《체포구금한 남조선언론인들을 무조건 석방하라!》,《민족의 백정 박정희교형리들을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하라!》라고 웨치는 기자, 편집원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그칠없이 터져나왔다.

대회에서는 중앙급신문, 방송, 통신 등 출판보도부문 책임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남조선에서 날로 확대되는 애국적인 청년학생들과 각 계층 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에 합세하여 보도활동의 초보적인 자유마저 박탈당한 언론인들이 다시금 정의의 투쟁에 단호히 떨쳐나섰다고 하면서 10월 24일 《동아일보》기자들이 집회를 열고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의 언론탄압행위를 격분에 넘쳐 폭로규탄하고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선언과 《언론탄압에 끝장을 낼것》등을 요구하는 3개 항목의 결의문을 채택한데 뒤이어 파업을 단행하였으며 이 투쟁에 합류하여 《동아방송》기자들과 주요일간신문들은 물론 지방의 기자들도 언론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호응하여 일떠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정의와 진리의 옹호자인 기자, 언론인들이 언론자유의 봉화를 높이 지펴올린것은 남조선에서 언론인들이 살아있고 민족의 량심이 죽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는 장엄한 선언으로 되며 민주주의를 끝까지 수호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억센 결의를 다시한번 과시한것으로 된다.

남조선 기자, 언론인들의 용감한 투쟁은 박정희괴뢰도당의 야만적인 파쑈독재를 반대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며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적인 투쟁이다.

연설자들은 공화국북반부 전체 기자, 언론인들의 이름으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대하여 언제나 책임을 같이지는 립장에 확고히 서있는 공화국북반부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하여 남조선 기자, 언론인들의 애국적투쟁을 견결히 지지하며 그에 뜨거운 동포애적성원을 보낸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악명높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등 온갖 악법으로 수많은 혁명적 인민들과 기자들, 언론인들을 체포구금하고 학살하는 천추에 용납못할 만행을 감행한 박정희파쑈도당을 준렬히 단죄규탄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국제기자상》수상자인 《민족일보》사장 조용수를 비롯한 애국적언론인들을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주장하였다하여, 《남이 사는 내 나라를 내가 사는 내 나라》로 되게 하자고 정의의 필봉을 높이 들었던 불굴의 혁명투사이며 《국제기자상》수상자인 김종태동지를 잔인하게 학살하였으며 매국과 사대, 불의와 패덕에 항거한 애국적시인이며 언론인인 김지하에게 극형을 들씌웠다.

연설자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와 파쑈적탄압으로 남조선이 미일제국주의자들의 2중의 식민지로 전락되고 나라와 민족이 영구분렬의 위기에 처해있으며 인민들이 생사존망의 기로에서 허덕이고있는 이때 남조선언론인들이 량심의 부름에 따라 정의의 필봉을 높이 들고 투쟁에 떨쳐나선것은 지극히 응당한 일이며 이 애국적궐기는 반파쑈민주화투쟁에 일떠선 청년학생들, 로동자, 농민들, 종교인들과 각계층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대변하여나선 의로운 투쟁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연설에서 이 투쟁은 남조선인민들의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선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되며 미일침략자들과 박정희파쑈악당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지금 남조선인민들이 박정희괴뢰악당에게 굴복하고 망국노의 운명과 노예의 굴종을 감수하느냐 아니면 이 파쑈악당을 징벌하고 민족의 자주권과 인민의 자유와 사회의 민주화를 찾느냐 하는 준엄한 시각에 서있다고 하면서 이 엄혹한 력사적순간에 인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언론인들이 민족과 인민 앞에 지닌 사명은 참으로 중대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연설자들은 남조선의 언론인들은 인민을 대변하여 정의의 필봉을 투쟁의 기발로 높이 추켜들고 일떠나 박정희파쑈도당을 죽음의 무덤속에 처박는 성스러운 싸움의 기수, 나팔수가 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연설자들은 박정희파쑈악당이 체포구금한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인민들, 언론인들은 무조건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남조선사회를 인민의 피로 물들게 하는 모든 파쑈악법들을 무조건 즉시 철폐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들은 만일 박정희괴뢰도당이 미일상전을 등에 업고 총칼을 휘두르며 인민들의 요구와 민족의 념원을 거역하고 계속 매국배족과 파쑈폭압의 길로 나간다면 놈들은 인민들과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며 오

직 멸망과 죽음만을 재촉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연설자들은 우리 전체 기자, 편집원들은 같은 민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앞으로도 모든 힘을 다하여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남조선 기자, 언론인들의 의로운 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할것이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같은날 기자동맹 중앙위원회는 박정희파쑈도당의 횡포한 언론탄압에 항거하여 일떠선 남조선언론인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재일본조선인 총련합회와 재일조선공민들과 관련한 주요행사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열아홉돐 중앙기념강연회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열아홉돐에 즈음하여 5월 2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중앙기념강연회가 있었다.

강연회에는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령들, 과학, 교육, 문화, 예술, 출판보도 부문 책임일군들과 혁명의 수도 평양시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150억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조국에 온 재일조선인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강연은《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따라 총련은 힘차게 싸워나아가고있다》라는 제목으로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총련을 무어주시고 재일조선인운동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며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고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외교포문제를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생겨난 민족문제의 특수한 한부분으로 보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1955년 5월 25일에 무어주신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전체 재일동포들을 그이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여 투쟁하는 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단체이다.

총련을 무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며 커다란 정치적신임과 사랑을 베풀어오시였다.

또한 수령님께서는 재일동포들에게 귀국의 배길을 열어주시였고 그리운 조국땅에 오갈수 있게 해주시였을뿐아니라 조국을 방문한 재일동포들에게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특히 총련의 조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발전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는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관건적고리로 내세우고 모든 동포대중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시켰으며 총련은 그 어떤 풍파에도 드놀지 않는 힘있고 권위있는 해외공민단체로 반석같이 다져놓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이 있음으로 하여 총련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오늘과 같이 강력한 해외공민조직으로 자랄수 있었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발전과 조국통일위업에 훌륭히 이바지하여 나갈수 있게 되였다.

총련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고 실천활동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우수한 핵심들로 각급 조직의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대오의 원칙적단결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으며 튼튼한 대중적지반을 가진 공화국의 강유력한 해외공민조직으로 강화발전하였다.

총련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며 그를 구현하여 승리하는 새로운 해외교포조직으로서 지난 기간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운동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한 전민족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지위와 영향력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총련이 이룩한 이 자랑찬 성과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사상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열매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어 총련조직과 재일동포들은 앞으로 더욱더 주체의 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자기 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며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발전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더욱더 완강하게 투쟁할것이다.

강연회는 각 도(직할시), 시(구역), 군 소재지들에서도 진행되였다.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결성 열다섯돐과 재일조선중앙예술단창립 열아홉돐을 기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재일조선인운동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총련의 줄기찬 투쟁속에서 결성되여 강화발전되여온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결성 열다섯돐과 재일조선중앙예술단창립 열아홉돐을 우리 인민은 뜻깊게 기념하였다.

이날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높이 받들고 문학예술활동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사상예술성이 높은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예작품을 많이 창작하여 60만재일동포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교양함으로써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수호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재일조선중앙예술단에《김일성훈장》을 수여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우리 당의 문예정책을 높이 받들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들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기 조국, 자기 인민, 자기 로동계급 그리고 재일동포

들이 쌓아올린 빛나는 업적을 형상한 문예작품을 수많이 창작공연함으로써 60만재일동포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재일조선인문학예술부문일군들에게 인민예술가, 인민배우, 공훈예술가, 공훈배우 칭호와 함께 국가표창을 수여해주시는 크나큰 신임과 은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재일조선중앙예술단을 국가표창하며 재일조선인문학예술부문일군들에게 명예칭호와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하는 모임이 6월 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었다.

또한 이날 인민문화궁전에서는 기념보고회가 있었다.

기념보고회에는 관계부문 일군들과 시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예순두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조국에 온 재일조선인예술단 성원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150억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재일조선인대표단 성원들, 국제민주녀성련맹 뷰로회의 및 리사회의에 참가하고 조국을 방문한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된 모임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몸소 이룩하신 혁명적문학예술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과 재일조선중앙예술단은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재일조선인운동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총련의 줄기찬 투쟁속에서 결성되였으며 강화발전되였다.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과 재일조선중앙예술단은 결성이후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과 주체적문예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총련의 위력한 사상교양수단인 사회주의적민족문학예술을 찬란히 개화발전시켜 조국과 민족 앞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과 재일조선중앙예술단은 대렬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놓았으며 60만재일동포들을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화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한 총련애국과업수행에로 힘차게 부르는 수많은 문학예술작품들을 창작하여 공연하였다.

이러한 성과와 업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의 고귀한 결실이다.

보고에 이어 조선문학예술총동맹과 만수대예술단, 피바다가극단을 비롯한 문학예술부문의 기관, 예술단체들에서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과 재일조선중앙예술단에 보내는 축기와 축하문,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또한 조선문학예술총동맹산하 각 동맹중앙위원회와 각 도위원회 및 문화예술부문의 기관, 예술단체들,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과 재일조선중앙예술단에 보내는 축하전문이 소개되였다.

모임에서는 재일조선인예술단 단장이 연설하였다.

보고회는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의 노래 합창으로 끝났다.

이날 보고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리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끝임없는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할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실현 열다섯돐기념 중앙보고대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열어주신 배길을 따라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실현 열다섯돐기념 중앙보고대회가 12월 1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보고대회에는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출판보도부문일군들과 평양시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은혜로운 조국에 돌아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며 사회주의대건설장마다에서 애국적헌신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는 각 도의 동포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대회에는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실현 열다섯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60만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사회주의조국에 온 재일본조선인대표단이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된 보고대회에서는 먼저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실현 열다섯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의 이름으로 된 축기를 재일본조선인대표단 단장이 전달하였다.

이어 기념보고가 있었으며 재일본조선인대표단단장의 연설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빛발로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이 땅우에 날로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공업강국을 일떠세우시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해외교포문제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재일교포운동을 가장 옳은 길로 이끌어주시고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슬하에 둔 자식보다 외지에 나간 자식을 더 걱정하는 친어버이사랑으로 해외교포들을 온갖 고통과 불행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며 조국으로 돌아오려는 동포들의 절절한 념원을 깊이 헤아리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일본에서 살길을 잃고 조국의 품안으로 돌아오려는 그들의 념원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재일동포들은 날로 륭성발전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서 자기 조국에 돌아와 국내동포들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응당한 권리를 가지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재일동포들이 조국에 돌아와 새생활을 할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하여줄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의 민족적의무로 생각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에 따라 공화국정부는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문제를 이국땅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의 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정하고 귀국을 희망하는 동포들을 따뜻이 맞아들이며 귀국후 그들의 생활안착과 자녀들의 교육을 비롯한 모든 조건을 전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확고한 립장을 거듭 표명하였다.

공화국정부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1959년 4월부터 조일량국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이 열리고 8월에는 쌍방사이에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으며 이해 12월 16일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열어주신 귀국의 배길을 따라 사회주의조국으로 귀국하는 재일조선공민들을 태운 첫귀국선이 청진항에 닻을 내리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밑에 지난 15년동안 동포들을 태운 귀국선은 미일반동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청진—니이가다사이를 끊임없이 오갔으며 이 귀국선을 통하여 172차에 걸쳐 9만 2천여명의 재일동포들이 사회주의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세상사람들이 한결같이 흥분과 경탄의 목소리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의 대이동》, 《력사에 류례없는 20세기의 인류사적기적》이라고 부른 재일조선공민들의 사회주의조국에로의 귀국실현은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흩어져사는 우리 겨레를 조국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모든것을 다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넓고깊은 사랑과 극진한 배려의 고귀한 결실이며 그이의 탁월한 령도와 고매한 덕성의 빛나는 구현이다.

보고대회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한길로 힘있게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으며 그이께서 이끄시는 승리의 한길로 더욱 힘있게 돌진할 굳은 결의를 다졌다.

조국방문 재일동포들을 열렬히 환영

1974년에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총련의 애국사업에 온갖 열성을 다바치고있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조국방문을 뜨거운 혈육의 정으로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사이의 혈육의 정이라는것은 매우 깊은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동포, 형제, 자매들이 조국을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을때마다 특히 조국에 온 동포들을 만날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매우 설레이며 감개무량해지군 합니다.》(《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단행본, 1～2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해외교포문제 발생의 력사적근원을 밝히시고 민족적애국운동으로서의 해외교포운동의 성격을 천재적으로 해명하시였을뿐아니라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공화국의 권위있는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무어주시였으며 현대력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수난자였던 우리 재일동포들을 주권국가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 력사무대에 내세워주시였다.

가까이 있는 자식보다도 멀리 떨어져사는 자식일수록 더 못잊어하시는 친어버이심정그대로 재일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극진한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귀국의 배길을 열어주시였을뿐아니라 조국방문의 길을 열어주시였다.

그리하여 170여차에 걸쳐 재일동포들이 그리운 조국으로 돌아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으며 해마다 수많은 재일동포들이 조국을 방문할수있는 영광을 지니였다.

1974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두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온 재일조선인예술단과 재일조선상공인축하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150억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재일조선인대표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실현 열다섯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재일본조선인대표단, 제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재일동포조국방문단, 제1차재일동포녀성조국방문단, 조일수출입상사대표단, 조선석재주식회사대표단, 재일조선인쇄기술대표단, 재일조선상공인대표단, 국제민주녀성련맹류로회의 및 리사회의에 참가하고 조국을 방문한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단, 재일본조선청년예술체육대표조국방문단, 제2차재일본 조선교육일군조국방문단, 재일본조선고급학교학생조국방문단, 제4차재일동포상공인조국방문단, 제2차재일조선인상사대표단, 제3차재일본조선인사회과학자조국방문단 등 20여개의 대표단들이 조국을 방문하였다.

재일동포들이 조국땅에 첫발을 밟는 순간부터 그들이 가는곳 그 어디에서나 거리와 마을은 명절처럼 들끓었으며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은 두말할것도 없고 지어는 어린이들로부터 칠순로인에 이르기까지 수천수만의 조국인민들이 손에손에 공화국기발과 꽃묶음을 들고 저저마다 달려나와 부둥켜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동포애의 정 흘러넘치는 열광적인 환호로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재일동포들의 그립고 그립던 사회주의조국방문기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육친적인 배려, 당중앙의 세심한 보살핌과 크나큰 은덕으로 수놓아진 나날이였으며 이 세상 해외교포치고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가장 참다운 삶의 보람과 투쟁의 행복을 직접 체험하는 영광의 나날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재일동포들이 조국땅을 밟는 첫 순간부터 친부모도 미치지 못할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보람차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도록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아 몸소 숙소, 생활조건, 그들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일일이 알아보시고 치료대책까지 다 취해주시였으며 지어는 그들이 조국에 머무르는 기간 더 많은것을 보고 배울수 있도록 참관일정까지 손수 짜주시는 크나큰 육친의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오랜세월을 두고 그 어느 하루한시도 잊어본적이 없는 귀중한 조국땅을 마음껏 밟아보는 끝없는 행복으로 하여 흥분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한 재일동포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돌려주시는 이 크나큰 사랑과 높은 은덕에 그만 목이 메고 솟구쳐오르는 감사의 눈물을 금할수가 없었다.

그들은 자나깨나 항상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 흠모하여마지않던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는 가장 큰 영광과 최대의 행복을 지니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령도하시고 세계혁명을 헤아리시는 그 바쁘신속에서도 천금같은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그들을 모두 한품에 안아 만나주시고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총련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분에 넘치는 치하와 크나큰 격려의 말씀을 하여주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까지 찍는 영광을 지니도록 하여주시였다.

이 감격에 찬 순간 재일동포들은 너무나도 큰 행복에 겨워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고 또 불렀으며 영명하신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시며 일편단심 그이께 충성다할 굳고굳은 맹세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재일동포들을 위하여 성대한 연회들도 마련하여주시고 그들과 한상에 앉으시여 조국의 음식이니 많이 들라고 하시면서 오래간만에 만난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좋은 음식을 더 많이 먹이시려는 어버이심정으로 손수 저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주시고 갖가지 음식그릇도 친히 그들앞에까지 놓아주시는 해빛보다 따사로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머나먼 공장, 농촌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였다가도 피곤도 잊으시고 조국인민들이 조국방문 재일동포들을 환영하여 진행한 공연들도 그들과 같이 보아주시고 조국에서 진행된 모든 행사에 함께 참석하여주시였으며 그들을 만나시여서는 마치 단란한 한 가정의 식구처럼 다정하게 무릎을 마주하시고 그들과 함께 즐기시였다.

조국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재일동포들에게 떠나기 앞서서는 환송연회도 베풀어주시고 천금에도 비기지 못할 귀중한 사랑의 선물을 한가득 안겨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 안겨 난생처음 상상도 못할 극진한 환대를 받으며 매일매시각 한량없는 행복과 감격의 나날을 보내온 재일동포들은 끝없이 자애로우신 어버이수령님앞에서 모두가 감격에 목이 메여 소리없이 흐느껴 울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특히 조국방문 재일조선인예술단이 새로 일떠선 웅장하고 화려한 인민문화궁전의 첫무대에서 공연할수 있도록 배려하여주시였으며 몸소 그들의 공연을 두번이나 보아주시고 공연성과를 높이 치하하여주시였다.

그리고 그들을 그 넓고 따사로운 품에 뜨겁게 포옹하시고 어버이수령님의 존귀하신 성함이 모셔진 귀중한 선물을 주시고 재일조선중앙예술단에 가장 큰 영광으로 되는 우리 나라에서 최고훈장인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하시였으며 재일조선인문학예술부문일군들에게 인민예술가, 인민배우, 공훈예술가, 공훈배우칭호와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주시고 해외교포운동과 재일조선인예술활동에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교시를 주시는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최상의 영광을 베풀어주시였다.

감격도 새로운 9월 24일 재일본조선청년예술체육대표조국방문단, 제2차재일본조선교육일군조국방문단, 재일본조선고급학교학생조국방문단 성원들을 만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오늘의 우리들의 이 상봉은 동무들의 기억속에도 나의 마음속에도 영원히 남아있을 뜻깊은 상봉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상봉이 너무 기뻐서 동무들은 흥분되였고 눈물을 흘리고있습니다. 동무들이 그러니 나도 목이 메여 연설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무들, 진정하십시오.

앞으로 우리는 혁명투쟁을 같이하여 나가는 과정에 또 만나게 될것입니다. 우리 모두 혁명의 한길을 걸으며 만났다 헤여지고 헤여졌다 만나면서 끝까지 잘 투쟁하여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념원인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완성합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강령적연설을 하시였다.

누를길 없는 환희와 기쁨으로 어쩔줄 몰라하며 수령님의 귀중한 말씀을 또박또박 새겨가는 조국방문단 성원들의 얼굴마다엔 뜨거운것이 쉬임없이 흘러내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을 방문한 재일동포들이 수십년만에 오는것만큼 가족, 친척들의 안부를 모를수도 있으니 모든 힘을 다하여 찾아내여 서로 만날수 있도록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다.

그리하여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생리별한 가족들이 살아서 다시 만날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제4차재일동포상공인조국방문단의 어느 한 성원이 딸과의 상봉을 비롯하여 모두가 고향을 찾았거나 조국의 품에 안겨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 부모, 형제, 친척, 친우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재일동포들에게 크고 작은 모든 소원을 다 풀어주시는 자애롭고 따사로운 배려에는 끝이 없다.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한 재일동포들은 조국에 머무는 기간 민족의 태양이 솟아오른 혁명의 요람 만경대와 봉화리를 비롯한 혁명사적지들과 영광의 땅 보천보와 무산지구 등 혁명전적지들을 견학하였으며 만수대언덕우에 거연히 솟아있는 주체사상의 전당 조선혁명박물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전승사적관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혁명 사적지와 전적지, 조선혁명박물관 참관을 통하여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 간고한 투쟁의 자욱자욱을 생동하게 감동적으로 볼수 있었으며 온 누리에 찬란한 빛을 뿌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더욱 깊이 체득할수 있었다.

조국방문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이 활짝 꽃피고있는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기는 첫 순간부터 조국인민들의 뜨거운 혈육의 정 넘쳐넘치는 열광적인 환영과 환대를 받으면서 우리 조국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가장 위대한 현실을 직접 볼수 있었다.

재일동포들은 혁명의 수도 평양, 함흥과 원산, 남포, 회천 지구 등 조국 각지를 방문하면서 금성뜨락또르공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과학, 문화, 보건기관, 청산협동농장 등 사회주의문화농촌들을 돌아보았다.

또한 그들은 조국에 머무는 기간 조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에 조국인민들과 함께 다 참가하였다.

어버이사랑으로 극진히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그들은 또한 세계적으로 이름난 금강산을 비롯하여 명승지들을 찾아 기묘하고 황홀한 조국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구경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였다.

재일동포들은 방문기간 개성시 판문점, 신천박물관을 돌아보고 우리 인민의 피맺힌 원쑤 미제침략자들의 천추에 용납못할 야만성을 똑똑히 보았으며 놈들에 대한 북받쳐오르는 적개심을 억누르지 못하면서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박정희괴뢰도당을 쓸어버리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분쇄하기 위하여 더욱 굳세게 싸울것을 결의다지였다.

실로 재일동포들이 조국에 머무는 기간은 비록 얼마되지 않았으나 방문전로정은 어버이수령님의 육친적인 사랑과 깊은 배려를 몸가까이에서 직접 받는 감격의 나날,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더욱더 가슴깊이 체득하는 뜻깊은 나날이였다.

그들은 조국방문기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과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전면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이 빛나게 실현된 사회주의조국의 무궁무진한 위력과 그 어느 나라에도 비할바 없이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 조국인민들의 보람찬 생활모습을 생동한 현실을 통하여 그 무엇으로도 지워버릴수 없이 가슴깊이 새기였다.

그들은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원수님을 수령님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민족과 세계 인민들의 진정한 자주권과 행복이 있고 승리와 영광이 있으며 보다 찬란한 미래가 굳건히 담보되여있다는것을 그 무엇보다도 강렬하게 되새겼으며 이것을 철석같은 신념으로, 최대의 기쁨으로 간직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장 위대하시고

자애로우신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조선사람으로서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욱더 가슴깊이 새기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어떠한 사나운 풍파라도 뚫고 나가며 해와 달이 다하도록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충성다할 굳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총련을 탄압하려는 박정희괴뢰도당과 일본반동들의 책동을 규탄하는 평양시군중대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남조선에서 자기들을 반대하는 어떤 〈사건〉이 생기면 매번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듯이 날조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넘겨씌워보려고 책동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상투적수법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지난 8월 15일에 있은 〈저격사건〉에 대한 책임도 우리와 총련에 넘겨씌워보려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허황하기 짝이 없는 책동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 총련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이 〈사건〉은 남조선반동들자신이나 그 상전들이 꾸민 음모가 틀림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남조선당국자들이 지금과 같은 폭압통치를 계속하면 남조선인민들의 반항이 더욱 높아지고 세계인민들의 여론도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조성되겠기때문에 남조선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의 주의를 딴데로 돌리기 위하여 조작한 음모입니다.》
(《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단행본, 21~22페지)

최근년간 남조선에서 각계각층 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화됨에 따라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파쑈통치체제는 밑뿌리채 뒤흔들리게 되였다.

이러한 파멸적위기에서 벗어나보기 위하여 8월 15일 흉악무도한 인간백정이며 허위날조와 모략에 이골이 난 남조선파쑈괴뢰도당은《저격사건》을 꾸며내였다.

그리고는 이《저격사건》을 터무니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총련을 반대하는 일대《반공》소동을 벌리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총련의 민주주의적이며 애국적인 활동을 파괴할 음흉한 목적밑에 광란적인 정치적모략행위를 감행하고있으며 일본반동들은 총련을《일한관계개선》을 위한 미끼로 삼고 박정희도당과 한짝이 되여 막후에서 흥정판을 벌려놓고 총련을 파괴하려는 책동을 감행하였다.

9월 15일 평양시안의 2만여명의 수도 근로자들이 평양체육관에서 총련을 탄압하려는 박정희괴뢰도당과 일본당국자들의 음모책동을 반대하는 군중대회를 가지였다.

대회에는 조국에 머무르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재일본조선청년예술체육대표조국방문단, 제2차재일본조선교육일군조국방문단성원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서기국장,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단장이 연설하였으며 또한 근로단체중앙위원회 위원장들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이른바《저격사건》과 관련하여 일본당국에 총련탄압을 집요하게 요구하여오던 박정희괴뢰도당과의 밀의끝에 일본당국이 남조선에 무슨《특사》를 파견하고《친서》놀음을 기회로 어떻게하나 총련을 이른바《범죄집단》으로 몰아 탄압하려는 악랄한 음모에 미쳐날뛰고있는데 대하여 낱낱이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연설자들은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근로자들의 이름으로 남조선통치배들의 이 극악무도한 반민족적책동을 우리 공화국의 권위있는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 전체 조선인민과 인류의 량심에 대한 란폭한 도전행위로, 천추에 씻지 못할 파쑈살인마들의 가장 야수적인 폭거로 강력히 단죄규탄하였다.

연설자들은 박정희도당과 한짝이 되여 총련을 탄압하려는 일본당국의 부당한 행위를 총련과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란폭한 도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참을수 없는 적대적행동으로 인정하면서 이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재일조선공민들은 결코 지난날의 망국노가 아니며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당한 법적보호를 받는 존엄있는 해외공민이다.

연설자들은 만약 박정희괴뢰도당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총련을 반대하는 정치적모략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놈들은 결코 무사치 못할것이며 천추에 씻지 못할 매국노의 치욕을 남긴채 처단되고야말것이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정치적모략극을 꾸며내고 반공화국, 반총련 소동에 미쳐날뛰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책동과 놈들과의 공모밑에 총련을 탄압하려는 일본정부의 책동을 규탄하여 발표한 9월 12일부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성명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조선인민의 그 누구도 대표할수 없는 박정희반역도당과의 결탁밑에 총련을 탄압하고 재일조선공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하려는 일본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엄중히 항의하였다.

또한 그들은 일본당국이 한줌도 못되는 파쑈깡패인 박정희괴뢰도당과 결탁하여 추진하고있는 조선인민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시정하며 조선인민의 주권과 내정에 간섭하는 일체 행위를 그만둘것을 강경히 요구하였다.

우리 인민과 전체 근로자들은 박정희괴뢰도당에 의하여 빚어지고있는 오늘의 사태를 결코 보고만 있지않을것이며 정세를 전쟁접경과 동족살륙의 엄중한 국면에로 고의적으로 끌고가는 놈들의 일거일동을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주시할것이라고 하면서 연설자들은 총련을 파괴하려는 박정희반역도당의 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재일조선공민들의 정의의 애국위업을 모든 힘을 다하여 견결히 지지성원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주체군사과학의 전당인 새로 건설된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관을 개관

전당, 전국, 전민이 혁명의 북소리 높이 울리며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새로 건설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개관식이 1974년 4월 11일 성대히 진행되였다.

건평 5만 2천평방메터에 달하는 기념관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 군인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심으로써 조국과 인민 앞에 쌓아올리신 영생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속도전을 벌려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일떠세운 로동당시대의 또하나의 자랑스러운 대기념비적창조물이다.

참으로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시기에 건설된 이전의 조국해방전쟁기념관에 비하여 그 규모가 클뿐아니라 형식에서 보다 새롭고 새 사료들로 더욱 폭넓게 보충완비된 이 기념관은 군사

문제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리론, 전략과 전술을 집대성한 기념비적전당이다.

언제나 흠모하여 마지않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이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개관식을 가지게 될 영광의 시각을 기다리는 수많은 근로자들과 인민군 군인들의 얼굴마다에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어리여있었으며 그이께 일편단심 충성다할 억센 결의가 넘쳐 흐르고있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기념관에 도착하시자 참가자들은《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성을 올리며 어버이수령님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기념관앞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영접하는 성대한 의식이 있었다.

애국가가 주악된 다음 경애하는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륙해공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녀성군인들이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끝없는 경모와 충성심을 담은 향기로운 꽃묶음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기념관정문에 드리운 붉은 천을 끊으시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의 개관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념관으로 들어가시여 전시품들을 일일이 돌아보시였다.

기념관은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인민들과 인민군 군인들 속에 계시는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영상을 정중히 모신 대형화폭을 전시한 총서관으로부터 시작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와 민주주의혁명시기 그리고 전쟁의 매 단계별로 되는 조국해방전쟁의 전력사적시기, 조선인민군 각 병종 및 군종별 작전전과와 후방인민들의 투쟁업적, 미제의 야수적만행과 패배상, 전쟁의 위대한 승리와 전후 우리 인민과 인민군군인들의 투쟁모습, 대형전경화로서 대전해방전투의 장쾌한 일단을 펼쳐보이는 독립관에 이르기까지 70여개 실로 나누어져있다.

여기에는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수천점의 사진 및 그림들과 사적물들, 조각품들과 사관, 전경화와 반경화 그리고 우리 인민군군인들이 쓰던 공훈무기들이 전시되여있다. 적들로부터 로획한 무기들도 전시되여있다.

당중앙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속에 훌륭히 갖추어진 모든 전시품들의 내용의 심오성과 풍부성, 높은 사상예술성과 규모의 방대성으로 하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군사예술의 전당으로서 그 위용을 자랑스럽게 펼쳐보이고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의 혁명적기치밑에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강도일제를 때려부시고 우리 당과 인민무력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그 어렵고 복잡한 시기에 우리 인민의 력사적숙망이였던 정규적인 인민무력을 제때에 창건하시고 그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자위의 원칙에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기 위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데도 커다란 힘을 넣었습니다. 해방후 우리 당은 아무것도 없는 조건에서 대담하게 평양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를 내오고 거기에 우수한 청년들을 받아들여 인민무력건설에 필요한 간부들을 키워냈으며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인민군대를 창건하였습니다. 우리 당이 인민군대를 제때에 창건하고 강화발전시켰기때문에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력사적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6권, 509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로동당과 인민정권을 창건하신데 뒤이어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인민군대를 제때에 창건하시고 그를 일당백의 전투대오로 키우시여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타승하시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의 준엄한 나날 당과 정부와 군대, 전선과 후방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나라의 모든 힘을 전쟁승리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 전략전술과 전법을 내놓으시고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그 관철에로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재적인 지략과 비범한 통찰력으로 전쟁의 매 계단마다 탁월한 군사전략적방침과 독창적인 전법들을 제시하시고 강의한 의지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으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을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하심으로써 미제침략자들과 그의 15개 추종국가군대를 때려눕히고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깨뜨려버렸으며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으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후에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독창적인 군사로선을 제시하시여 전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키시고 놈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특히 항일무장투쟁시기의 명철한 군사전법들을 해방후 새로운 환경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여 조국해방전쟁기간에 창조하신 적의 불의의 침공에 대한 즉시적인 반공격전, 주타격방향의 옳은 선정과 각 병종들의 유기적인 협동작전, 산악지대에서의 포병화력의 집중적인 리용과 유동포활동의 강화, 강력한 해안방어조직, 기본전선에 배합한 제2전선의 조직과 대포위작전, 갱도를 배합한 야전진지의 축성과 그에 의거한 방어전의 조직, 비행기사냥군조운동, 땅크사냥군조운동, 저격수운동, 습격전 등은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예술의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수령님의 위대한 군사사상과 군사예술은 맑스-레닌주의군사리론을 가일층 발전풍부화시키고 그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것으로 하여 세계 혁명전쟁사상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귀중한 재부로 되고있는것이다.

진렬실들에 전시한 자료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불같은 충성심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정신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조국강토의 한치한치를 피로써 지켜싸운 우리의 영웅적인민군대와 인민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적의지와 대중적영웅주의,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에 대하여 잘 보여주고 있었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과 인민군은 필승불패라는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기념관은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그 바쁘신가운데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포연탄우속을 뚫고 최전선에 나가시여 몸소 작전을 지휘하시고 전사들을 위훈에로 고무격려하시며 그들의 생활과 건강에 이르

기까지 친어버이사랑으로 일일이 보살펴주시였으며 모든것이 다 파괴된 전쟁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한 온갖 대책들을 세워주시고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신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생동한 자료들로 감명깊게 보여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사랑에 끝없이 고무된 우리 인민과 인민군용사들이 그이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뭉쳐 락동강의 가렬한 포화속에서도, 엄혹한 시련이 중첩된 전략적후퇴의 길에서도, 불타는 고지와 전야에서도 불사조와 같이 영웅적으로 싸워 승리한 로정을 보여주는 생동한 화폭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필승불패이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잡고 일떠선 인민은 그 어떤 원쑤와도 싸워이길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여주고있다.

기념관은 또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은 바로 미제와 그 주구들이며 미제침략자들은 20세기의 야만이며, 전쟁의 원흉이며, 조선인민의 모든 불행의 화근이며, 아세아와 세계평화의 교란자이라는것을 움직일수 없는 력사적증거물로 세계인민들앞에 고발하고있다.

이 땅에 미제가 있고 제국주의가 남아있는한 전쟁의 근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것을 력사적진리로 확증해주고있는 기념관은 제국주의와 맞서있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사회주의를 어떻게 건설하여야 하며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있다.

조선에서의 정전은 교전쌍방의 정화를 의미하는것이며 결코 완전한 평화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정전이 실현된지 20여년이 지나도록 조국의 절반땅을 의연 강점한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이 새 전쟁 도발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 오늘의 정세하에서 우리 인민과 인민군군인들은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더욱 다그치고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 억세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기념관은 가르쳐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그이의 불멸의 군사사상과 그 구현인 탁월한 군사예술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 그리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웅적조선인민이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벌려온 승리의 투쟁로정과 그 행정에서 쌓아올린 풍부하고도 고귀한 전쟁경험을 집대성한 사실적자료들을 보여주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개관은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기념관의 개관은 전체 근로자들과 청년들, 인민군 전체 장병들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게 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승리를 앞당기며 우리의 혁명무력의 전투적위력을 더욱 강화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켜나감에 있어서 그들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또한 기념관의 개관은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게 조선사람으로서의 민족적자부심을 안겨주고 그들로 하여금 반파쑈, 반외세투쟁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욱 큰 신심과 용기를 얻게 한다.

이것은 조선에서 새 전쟁도발에 미쳐날뛰고있는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파쑈악당들에게 또하나의 커다란 타격으로 되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여 싸우고있는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고무로 될것이다.

참으로 새로 건설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동계급의 혁명적군사사상을 창시하시고 천재적인 전략전술과 탁월한 전법들을 적용하시여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신 불멸의 공적과 위훈을 후손만대 길이 전하며 온 사회를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전체 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을 끝없이 고무추동하는 정치군사교양의 훌륭한 배움터로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념관을 돌아보신후 짧은 기간에 기념관을 훌륭히 건설하고 잘 꾸린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고 이 사업에 온갖 창의창발성을 발휘한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을 높이 치하하시였다.

이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군장령들과 기념관개관준비에 참가한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새로 건설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개관식을 진행한 영광을 지닌 인민군군인들과 시안의 근로자들은 자신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와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큰 승리를 이룩할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조선인민군창건 스물여섯돐을 기념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며 3대혁명을 더욱 다그치기 위하여 온 나라가 혁명적기백과 충성의 열정으로 들끓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창건 스물여섯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여섯돐을 맞이한 우리 인민과 인민군 전체 장병들은 우리 나라에서의 첫 혁명무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의 직접적계승자인 우리 인민군대를 몸소 창건하시고 그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과 열화같은 충성심으로 차넘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군구분대를 찾으시고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인민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김일성동지께서 2월 8일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여섯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최미옹동무소속구분대를 찾으시고 명절을 맞는 인민군장병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창건 스물여섯돐을 뜻깊게 기념하며 수령님께 일당백으로 준비된 자기들의 름름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구분대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일일이 답례를 보내시며 이곳 구분대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남녀군인들이 구분대군인들과 우리 인민군 전체 장병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어린 향기로운 꽃묶음을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구분대 군인들의 전투훈련을 보시였다.

군인들은 모든 종목의 훈련을 통하여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방침과 조선인민군 지휘관 및정치일군열성자회의에서 하신 그이의 강령적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군사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여 그 어떤 정황에서도 원쑤들을 단매에 격멸소탕하고 맡겨진 전투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튼튼히 준비된 자기들의 억세고 슬기로운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인들이 모두 건강한 몸으로 용기백배하여 훈련을 다그쳐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그들의 훈련성과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구분대군인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여섯돐을 맞는 구분대군인들과 조선인민군 전체 장병들을 열렬히 축하하시면서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육체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교시를 하시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구분대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여섯돐을 뜻깊게 기념하는 영광을 지닌 구분대군인들은 자신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어디서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친위대, 결사대가 될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그들은 또한 군사전투정치훈련을 다그쳐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미일반동들과 남조선의 호전분자들이 정세를 계속 긴장시키며 끝끝내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침략자들이 다시는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게 철저히 소탕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완성하고야말 굳은 결의를 다지었다.

조선인민군창건 스물여섯돐 기념중앙보고대회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여섯돐기념 중앙보고대회가 2월 7일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및 조선인민경비대의 장병들, 영예군인들, 로농적위대원들, 렬사가족들과 인민군후방가족들, 시내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 한 기념보고에서와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가슴깊이 되새기면서 조선인민군이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으며 걸어온 지난 스물여섯해동안의 빛나는 전투적행로를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조선인민군이 걸어온 지난 26년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독창적인 혁명무력건설로선이 승리하여온 자랑찬 력사이며 그이께서 항일무장투쟁의 고귀한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쌓아올리신 불멸의 군사적업적과 공헌으로 빛나는 영광스러운 로정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독창적인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내놓으시고 우리나라에서 첫 혁명무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였으며 항일혁명투쟁의 준엄한 폭풍속에서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귀중한 혁명적재부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였으며 혁명무력건설의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한 빛나는 혁명전통에 토대하여 우리 당과 우리 혁명정권을 세우시는것과 함께 강력한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는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시였다.

당의 군대, 로동계급의 군대인 조선인민군의 창건은 자주독립국가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쟁취한 가장 큰 승리의 하나로서 우리 혁명발전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사변이다.

조선인민군의 창건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독창적인 위대한 군사강령의 빛나는 실현이였으며 우리 인민의 정규적인 혁명무력을 가질데 대한 력사적숙망의 실현이였다.

조선인민군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더욱 힘있고 존엄있는 민족으로 자기의 강력한 정규군대를 가진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인민으로 되였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파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창건하신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무장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지도와 육친적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그를 승리의 한길로 가장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자기의 영웅적이며 희생적인 투쟁으로써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혁명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였으며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우리 당의 혁명력사에 찬란한 업적을 기록하여놓았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2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을 걸어왔으며 자기 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혁명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여왔다.

조선인민군은 평화적건설시기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빈번한 적대행동과 군사적도발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새 생활 건설에 일떠선 우리 인민의 창조적로동과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튼튼히 보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전당, 전민, 전군을 전쟁승리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으며 전쟁의 매 단계마다에서 독창적인 전략전술과 주체적인 전법들을 내놓으시고 인민군대로 하여금 언제나 전투에서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들에게 련속 섬멸적타격을 주게 하시였다.

수령님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인민군장병들은 그이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으로 가슴불태우면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전략전술적방침과 명령, 지시를 무조건 관철하여나갔으며 조국의 한치한치의 땅을 지켜싸우는 피어린 전투에서 무비의 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적승리를 쟁취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한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승리는 수령님의 자위적인 군사사상과 독창적인 전략전술, 탁월한 군사예술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그이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필승불패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가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고수하고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굳건히 지켜냈을뿐아니라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의《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깨뜨려버리고 놈들을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

어놓았으며 세계적범위에서 반제반미투쟁과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어놓았다.

전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풍부한 전투경험을 쌓은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후에도 미제의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사건,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사건을 비롯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였으며 수령님의 자위적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더욱 강력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되였다.

수령님께서는 미일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과 전쟁책동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고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동시에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독창적인 자위적군사로선 관철에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정치도덕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해 인민군장병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정치사상교양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리도록 이끄시였으며 군인들의 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배려에 의하여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육체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세련되고 단련된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무적의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는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위력한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하여 원쑤들의 그 어떤 군사적도발도 그를 단매에 때려부실수 있는 금성철벽의 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이날 보고대회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며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앞당겨실행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다그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조선인민군창건 스물여섯돐에 즈음하여 각 도(직할시), 시(구역), 군 소재지들에서는 기념보고회를,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각 구분대들에서는 경축보고회를 각각 가지였다.

이날을 맞이하여 인민군렬사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의 간부들과 정무원 위원회와 부, 중앙기관, 근로단체, 평양시안의 당, 행정기관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장병들, 렬사가족들,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화환과 꽃묶음을 드리였다.

또한 렬사탑에 재일본조선인대표단 성원들과 조일수출입상사대표단 성원들, 그리고 우리 나라에 와있는 대사관 무관들이 화환을 드리였다.

인민무력부에서는 여러 나라 대사관 무관들을 위한 소연회를 마련하였다.

로농적위대창건 열다섯돐을 기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나라의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전도를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우리 당의 혁명적민간무장력인 로농적위대를 창건해주신지 열다섯해가 되였다.

1월 14일, 로농적위대창건 기념일을 맞이하여 우리 인민과 로농적위대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인민 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에 휩싸였으며 그날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농적위대창건 열다섯돐에 즈음하여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과 건설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며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구분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전투대오로 꾸리는데서 모범이 된 전국 각지의 43개 로농적위대 구분대들을 표창하시고 이 구분대들에 선물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또한 모범적인 로농적위대원들을 국가표창하시였다.

로농적위대창건 열다섯돐이 되는 뜻깊은 날인 1월 14일 혁명의 수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는 중앙기념강연회가 있었다.

강연회는 각 도(직할시), 시(구역), 군 소재지들과 공장, 기업소와 기관들,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각 구분대들에서도 진행되였다.

강연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로농적위대는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국방건설분야에 구현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자위로선을 제시하시고 혁명적인 정규무력과 함께 민간무력을 창건하여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확고히 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1959년 1월 14일 전인민적무장대오인 로농적위대를 창건하여주시였다.

전인민적무장대오인 로농적위대의 창건은 실로 우리 혁명위업수행에서와 우리 당의 혁명무력강화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며 전국을 요새화하기 위한 거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튼튼한 자위적태세를 갖추고있습니다. 특히 풍부한 전투경험과 군사기술을 가진 수많은 제대군인들이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도시와 농촌들에서,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면서도 조국보위사업에서 핵심적역할을 하고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의 위력은 더욱 튼튼히 담보되여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5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군대가 더욱 강화되고 로농적위대가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체의 힘으로 조국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킬수 있는 강력한 자위적혁명무력을 가질수 있게 되였다.

또한 인민군대와 함께 로농적위대를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가장 흉악한 원쑤 미제침략자들과 직접 맞서고있는 조건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굳건히 지킬수 있게 되였다.

우리 로농적위대는 비록 15년전에 창건되였으나 그것은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전쟁의 깊고도 억센 뿌리에서 자라났으며 그 빛나는 혁명전통을 직접 계승하고있

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첫시기부터 무장투쟁의 전략적거점, 전반적조선혁명발전의 거점으로서의 혁명근거지를 창설하시고 상비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확대강화하시는 한편 적위대, 반일자위대, 소년선봉대를 비롯한 반군사조직을 무으시고 그를 정치군사적으로 강화하시였다.

혁명근거지인민들은 조선인민혁명군과 함께 전투마다에서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의 발악적공세를 물리칠수 있었으며 혁명근거지를 끝까지 지켜낼수 있었다.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로농적위대는 바로 이 억센 뿌리에서 자라났으며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영광스러운 전인민적무장대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과 빛나는 전통에 기초하시여 나라가 해방된후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혁명무력건설의 정확한 방침을 세우시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시기에 벌써 항일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로동자, 농민의 우수한 아들딸로 국가보안조직들과 인민자위대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민간무력을 조직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시기에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이미 있던 인민자위대를 개편하여 보다 강력한 혁명적무장대오인 로농적위대를 창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창건하신 로농적위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명발전의 매 단계, 매 시기 그의 명확한 방침과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해주시였을뿐아니라 로농적위대의 전투정치훈련과 대원들의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으며 그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로농적위대는 인민군대와 함께 그 어떤 원쑤들의 침해도 단호히 물리치고 조국과 인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게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혁명무력으로 강화될수 있었다.

오늘 로농적위대안에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있다.

로농적위대는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전법과 그에 기초한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배우라고 하신 교시를 힘있게 관철함으로써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무장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는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가 확고히 세워졌으며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자들이 불의에 덤벼들어도 단매에 때려눕힐수 있게 온 나라가 철벽의 요새로 다져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의 혁명무력

—영웅적조선인민군에 대한 국제반향—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신 때로부터 26년이 지났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에 깊은 뿌리를 두고 창건된 조선인민군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자위로선, 천재적전략전술과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오늘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난데 대하여서와 조선인민군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세계 여러 나라 당과 정부의 지도자들, 사회활동가들, 투쟁단체 대표들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있다.

그들은 특히 조선인민과 조선인민군을 승리에로 이끄시고 계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해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천재적인 군사전략가》, 《반제반미투쟁의 위대한 수령》, 《정의를 사랑하는 인류의 등대》라고 높이 우러러 칭송하면서 《그이의 군사로선과 전략전술은 제3세계인민들의 지도적지침》으로 된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의 직접적계승자이며 조선로동당의 혁명무력이다》

《친선적인 나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군창건 스물여섯돐을 맞이한다.

조선인민군의 창건은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오르시여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신 김일성주석님의 명함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수리아주간신문 《알 우쑤부우 알 리야뒤》)

《그이께서는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혁명적무장력인 영광스러운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직접 령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은 조선인민혁명군을 직접 창건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창건되였다.

조선인민군은 오랜 력사적뿌리를 가진 군대이며 항일혁명투쟁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영광스러운 군대이다.》 (수리아군대주간잡지 《지이슈 알 샤아비》)

《위대한 수령 김일성각하께서는 조선이 해방된후 나라에 조성된 새로운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였다.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속에서 단련된 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로동자, 농민의 우수한 아들딸로서 조직되였다.》 (까메룬신문 《라 프레스 뒤 까메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보내온 시에라 레온의 한 녀성활동가의 편지에서는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혁명무력건설경험에 기초하시여 해방직후부터 인민무력건설에 힘을 기울이시였으며 1948년 2월에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직접 계승한 현대적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였습니다.

이것은 김일성원수님의 자위로선의 빛나는 구현이며 새 사회 건설에서 조선인민이 쟁취한 위대한 승리였습니

다.》라고 지적하였다.

《조선인민군은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항일유격대의 사상체계와 투쟁정신, 사업방법과 사업작풍, 투쟁경험과 업적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하고있다.

즉 인민군대는 수령님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무한한 충실성,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열렬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 군민일치, 상하일치의 혁명적기풍, 고귀한 투쟁업적과 투쟁경험 등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고있으며 항일유격대의 혁명위업을 이어받고있다.》(애급신문 《알 아호람》)

《조선인민군은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혁명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되고 육성된 영광스러운 조선인민의 혁명적무장력이다.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그이께서는 일찌기 1930년대초부터 일제를 반대하는…간고한 무장투쟁을 전개하시여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시였다. 이 행정에서 조선인민의 영웅적이고도 빛나는 혁명전통이 이룩되였으며 조선인민군은 바로 이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창건되였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군대를 나는 알지 못한다.

조선인민군이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 계승자라는 사실은 인민군대의 커다란 자랑이며 영광이라고 나는 생각한다.》(파떼말라봉기무력의 한 책임일군)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의 직접적계승자인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이 령도하는 혁명무력으로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다.

조선인민군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로서 조직된 군대이며 상하가 일치 단결되여있고 인민들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있다.》(말리신문《에쏘르》)

《조선인민군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나라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수호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는 진정한 인민의 군대이다.

조선인민군은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있다.》(우간다신문《우간다 보이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구라파에 있는 아프리카직맹일군들과 대학생들의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성원들로부터 보내온 편지에는 《조선인민군의 창건은 조선혁명의 발전과 조선인민의 생활에서 거대한 력사적사변으로 됩니다. 이것은 또한 원수님께서 창건하시고 제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위적군사로선의 빛나는 구현으로 됩니다.

김일성원수님, 당신께서는 조선인민의 승리를 위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확고하게 견지하여오신 주체적립장과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무르익혀오신 독창적인 강령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조성된 정세를 정확히 분석하신후 인민군대를 제때에 창건하시고 그를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육성하시였으며 동시에 공화국북반부에서의 혁명기지건설사업을 령도하시였습니다.

조선인민군은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불패의 위력을 시위하였고 사회주의조국과 조선혁명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공적을 쌓았습니다.》라고 강조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력사적뿌리에 기초하시여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고 그를 오늘과 같은 강력한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은 지난 26년동안 영광스러운 전투적로정을 걸어왔다.》(웽그리아로동자보위대전국사령부가 조직한 기념집회연설에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천재적군사예술의 빛나는 승리이다.》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언제나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조선인민군 병사들을 한품에 안아 키워주신다.》(수단신문《알 싸하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인도 《김일성동지의 로작연구및판잡어편집위원회》책임자로부터 보내온 편지에는 《당신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난 영웅적조선인민군은 평화적건설시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내외원쑤들의 침략책동과 파괴암해책동으로부터 조선인민의 창조적로동과 공화국북반부의 혁명적민주기지를 믿음직하게 보위하였으며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집단적영웅주의와 무비의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았습니다.》라고 지적되였다.

《김일성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미제가 일으킨 1950～1953년의 조선전쟁에서 고상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를 발휘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함으로써 미제침략군과 15개 추종국가군대를 무찌르고 미제에게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패배를 안길수 있었다고 확신한다.

조선인민군의 이 빛나는 승리로 하여 미제가 〈만능〉이며 〈불패〉라던 신화는 산산쪼각이 났으며 미제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였다》(일본국제정치학자 하다다 시게오)

《영웅적조선인민이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력사적승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천재적군사예술의 빛나는 승리이다.

조선인민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코대를 꺾어놓고 그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버림으로써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크게 고무하였으며 미제침략자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음으로써 세계혁명발전 특히는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았다》(수리아신문《알 사우라》)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 창건하시고 육성하신 조선인민군은 영광에 찬 승리의 길을 걸어왔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인민군은 미제가 일으킨 조선전쟁에서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수치스러운 참패를 미제에게 안겼다.

이것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뿐아니라 전세계평화애호인민에게 있어서도 위대한 승리였다. 특히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은 조선인민군과 인민의 위대한 승리에서 커다란 고무적힘을 얻었다.

조선인민군이 이처럼 필승불패의 인민의 군대로 자라났으며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게 된것은 오직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

때문이다.》(구바에 있는 볼리비아상주련맹한집행위원)

《조선인민군이 이처럼 필승불패의 인민의 군대로 자라났으며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게 된것은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시며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령도가 계셨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정당한 군사로선이 있었기때문이다.》(네팔신문《파살파트리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팔레스티나 혁명가들의《김일성사상연구위원회》성원들로부터 보내온 편지에는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은 지난기간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찬 길을 걸어왔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위훈을 세웠습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시기 탁월한 전략과 전술로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이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영웅적인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게 하시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인민의 승리는 미제침략자들의 멸망의 시초를 열어놓았습니다.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는 결코 무적이아니며 미제와 견결히 맞서싸운다면 그를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창시하시였습니다.

조선인민의 승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을 무한히 고무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국이 원쑤들의 그 어떠한 침공에도 대처할수 있게 난공불락의 철벽의 요새로 다져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에서 핀란드조선협회《김일성동지로작연구위원회》책임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조선인민군은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조국해방전쟁의 풍부한 전투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적들의 어떠한 무력침공도 격파할수 있는 불패의 혁명무력입니다.》라고 썼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조국해방전쟁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있으며 당의 유일사상으로 확고히 무장되고 현대적군사과학기술과 최신군사기술기재로 튼튼히 장비된 정규무력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이다.》(아랍의 한 신문)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임무와 현 국제정세에 대한 과학적이고도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처음으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였으며 전군간부화와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군사로선을 관철하며 전국가적, 전인민적 방위체계를 갖출데 대하여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과 자위적군사로선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임무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로운 력사적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킨것이며 그것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혁명에서 승리한 로동계급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어떻게 건설해야 하며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처하여 혁명적무장력과 나라의 방위력을 어떻게 건설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과학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그이께서 제시하신 조선로동당의 자위적인 군사로선은 현 력사적조건에서 혁명무력건설과 사회주의나라들의 국방건설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해결할수 있게 하는 맑스—레닌주의적로선이며 나라의 실정에 완전히 부합되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로선이다.》(이라크신문《바그다드옵써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근로녀성문제에 관한 제3차국제직맹대회에 참가하였던 아랍나라대표들로부터 보내온 편지에서는《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군대를 간부화, 현대화하며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군사로선이 관철됨으로써 조선인민군장병들과 전체 인민은 원쑤들의 어떠한 불의의 침공에도 대처할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장병들은 미제의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와 대형간첩비행기〈이씨—121〉의 도발을 비롯한 미제의 끊임없는 군사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물리치고 사회주의전취물을 확고히 수호하였으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을 크게 고무하였습니다.》라고 지적되였다.

《자위적군사로선에 따라 조선인민과 인민군이 어떻게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무장되였으며 어떻게 전국이 강력한 요새로 다져졌는가 하는것은 미제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와 대형간첩비행기〈이씨—121〉사건 등이 잘 보여주고있다.》(구바잡지《베르데 올리보》)

《조선인민군은 그 어떠한 원쑤의 침공도 단매에 처부실수 있는 강력한 군사수단과 풍부한 전투경험을 가진 일당백의 필승불패의 군대이다.》(《파키스탄 타임스》)

《조선은 인구가 많지 않은 작은 나라이지만 미제국주의를 꼼짝 못하게 눌러놓고있다. 5년전 미제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사건 때에 미제는 조선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려고 책동했으나 조선인민의 용감성과 조선인민군의 불패의 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수 없었다.》(파키스탄 외교연구소 박사 칼리드)

《지난 조선전쟁에서 참패를 당하였던 미국놈들이 오늘도 계속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도발행동을 감행하고있다.

그러나 놈들은 조선인민에게서 얻어맞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령해와 령공을 침범하였다가 나포 및 격추된 미제의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와 대형간첩비행기 등의 신세는 조선인민의 위력을 잘 보여주고있다.

조선인민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인 자위로선과 반제적립장이 오늘 이와 같은 승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만일 미제가 이 현실을 똑바로 보지 않고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들은 영영 지구상에서 멸망하고야 말것이다.》(3대륙인민단결기구집행서기국 앙골라대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지난 20여년간 자랑찬 전투로정을 걸어왔으며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온 조선인민군은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적군사로선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인민군대가 강화되고 오늘 공화국에는 철통같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가 확립되였다. 인민군대와 함께 전체 조선인민은 한손에는 총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침략자와

싸울 준비가 되여있으며 전국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였다.

실로 공화국은 지난 전쟁시기와는 비할바없이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원쑤들의 그 어떠한 침공에도 대처할수 있게 철벽으로 다져졌다.》 (애급신문 《알 아호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방침이 훌륭히 관철된 결과 조선인민군은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단련된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되였다.

조선인민군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원쑤들의 그 어떤 침략책동도 단호히 처부시고 사회주의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할것이며 사회주의동방초소를 지켜나갈것이다.》 (이라크 신문 《알 굼후리아》)

《오늘 공화국북반부는 원쑤들의 그 어떤 침략도 일격에 쳐물리칠수 있는 철벽의 요새로 전변되였다. 조선인민은 자위적인 국방력을 가지고있으며 혁명의 전취물인 사회주의조국과 사회주의동방초소를 끝까지 지켜싸울 각오가 되여있다.

조선인민군은 정치,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되여있으며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훌륭한 장비들을 갖추고있다. 군인들은 당과 수령, 혁명과 인민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도 서슴없이 바칠 준비가 되여있는 혁명전사들이다.》 (콩고사회주의청년동맹 집행서기)

《만약 앞으로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들은 전면에서뿐아니라 후면에서도 호된 징벌을 받으리라는것과 결국 그들에게 차례질것이란 시체와 죽음뿐이라는것을 단단히 각오해야 할것이다.》 (미국병사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앤디디 스태프)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 원수님께서는 반제반미투쟁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인류의 등대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보위할 숭고한 사명을 지닌 혁명무력 창설문제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게 해결하시였다.》 (애급신문 《쥬르날 에집트》)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심으로써 해방과 사회주의사회를 지향하는 피압박인민들이 나아갈 앞길을 횃불과 같이 밝게 비쳐주시고 혁명무력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풍부히 하시였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팔레스티나의 한 혁명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선로동당의 자위적인 군사로선은 현 력사적조건에서 혁명무력건설과 사회주의나라들의 국방건설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해결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로선이다.》 (이라크신문 《바그다드 옵써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3대륙인민단결기구집행서기국으로부터 보내온 축하편지에서 《당신의 탁월한 군사전략전술로 무장된 조선인민혁명군을 골간으로 하여 당신께서 창건하신 조선인민군이 불패의 혁명대오로 육성된 모든 경험들은…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적인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밑천이며 강력한 투쟁의 지침으로 되고있습니다.》라고 썼다.

《현명하고 탁월한 군사전략에 의하여 미제를 격파하심으로써 원수님께서는 반제반미투쟁의 위대한 수령으로, 정의와 진보의 수호자로 되시였으며 전세계 진보적이며 정의를 사랑하는 인류의 등대로 되시였습니다.》 (인도의 한 사회활동가)

《김일성주석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발휘한 영웅성은 인류력사에 가장 찬란한 한페지를 기록하였으며 각하의 령도는 자유의 등대로, 제국주의, 식민주의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등대로 되였습니다.》 (레바논공화국의 한 국회의원)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국주의를 타승하고 사회주의조국을 민음직하게 보위하였으며 자랑찬 승리를 쟁취하였다.

조선인민의 이 승리는 모잠비끄해방전선의 지도밑에 싸우고있는 모잠비끄해방투사들과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여 싸우고있는 세계인민들에게 신심과 고무를 준다.》 (모잠비끄 해방전선 책임일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군사전략전술과 능숙하고도 세련된 령군술, 그이께서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고 그를 불패의 혁명대오로 육성강화하신것과 혁명투쟁기간에 쌓으신 모든 경험들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3대륙인민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귀중한 보배로, 밑천으로, 위력한 지침으로 되고있다.》 (도미니까의 벗)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업적으로 하여 조선인민뿐아니라 전세계 인민들의 심장속깊이에 자리잡고 계신다. 그이의 명성, 권위, 현명성은 적들까지도 인정하고있으며 그이의 존함만 들어도 원쑤들은 전률하고있다.》 (인도신문 《내슈널 호란》)

이라크신문 《바그다드 옵써버》가 이미 오래전에 지적하고있는바와 같이 참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정규군의 탄생이 비록 스물다섯해전에 선포되였지만 그의 빛나는 력사는 벌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2년 4월 25일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대오를 조직하신 때로부터 시작되였다.

조선인민군의 기본사명은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과 민족을 지켜내며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무력으로 담보하는것이다.…

지난 전쟁기간 조선인민군은 전체 조선인민과 함께 미제침략자들에게 패배를 안겨줌으로써 놈들로 하여금 력사상 처음으로 멸망의 내리막길을 걷게 하였다. 미제는 전후에도 새 전쟁도발책동을 계속 감행하였다. 조선인민군은 최근 년간에만도 조국의 령해와 령공에 기여들어 전쟁도발과 정탐행위를 감행한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와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을 단호히 징벌함으로써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다시한번 꺾어놓았다.

조선인민군은 지난 기간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위훈과 업적을 쌓아올렸으며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에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감행한 조선 정전협정 위반행위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에 항복의 도장을 누른 때로부터 스물한해가 지나갔다.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은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파괴유린하고 남조선에 침략무력을 증강하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각종 범죄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려고 미쳐날뛰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전쟁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고 제소굴로 물러갈대신 정전협정에 서명한 잉크가 채 마르기도전에 남조선괴뢰도당과 침략적인 《한미호상방위조약》을 조작하여 제놈들의 남조선영구강점을 《합법화》하였다.

정전협정 제60항은 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전후 3개월이내에 한등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할것을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온갖 악랄한 책동을 다하던 끝에 정치회의소집을 고의적으로 파탄시켰을뿐아니라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루차에 걸치는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모든 방안들의 실현을 방해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이 그처럼 갈망하는 조국의 통일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있으며 미제의 강점하에 있는 남조선인민들은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겪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이처럼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각방으로 방해하는 한편 정전후 첫날부터 남조선을 새 전쟁의 온상으로, 대륙침략의 발판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정전협정 제13항 ㄹ목의 요구를 위반하고 대량의 작전물자들을 남조선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제놈들의 이와 같은 범죄행위와 새 전쟁 도발책동이 세상에 드러나는것이 두려워 1956년 6월에는 드디여 남조선으로부터 중립국시찰소조들을 일방적으로 축출하였으며 그때로부터 1년후인 1957년 6월에는 정전협정 제13항 ㄹ목의 준수를 일방적으로 포기한다는것을 공공연히 선포하는 로골적인 배신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러고 미제침략자들은 제놈들의 극동침략의 본거지인《유엔군사령부》를 일본으로부터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한편 각종 원자 및 유도 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들과 신형비행기, 함선을 비롯한 신형작전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남조선에 끌어들였다.

놈들은 신형무기들과 작전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우리측을 반대하는 여러가지 군사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놈들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후부터 1974년말까지 땅, 하늘, 바다에서 우리측을 반대하여 감행한 여러가지 정전협정위반행위는 무려 15만 5천 800여건에 달한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각종 중무기와 자동무기들을 동원하여 비무장지대와 군사정전위원회본부구역의 남쪽부분에서 우리측에 쏘아댄 총포 사격행위는 정전후 지난 스물한해동안에 우리측이 정식으로 항의한것만 하여도 5천 720여건이며 그의 포탄과 총탄수는 무려 89만 1천 640여발에 달한다. 그리고 놈들이 같은 기간에 우리측령공에 《에쓰아르—71》고속도 고공정찰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군용비행기를 960여차례나 침입시켜 악랄한 정탐과 적대 행위를 감행하였다.

또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와 구축함, 고속로케트포함, 경호함 등 각종 해군함선들과 무장간첩선, 무장선박들을 동해와 서해 우리측연해에 계속 침입시켰는바 놈들의 이러한 범죄행위는 우리측이 회의에서 항의한것만 하여도 정전후 지난 스물한해동안에 무려 1천 700여건이나 된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또한 미제의 부추김밑에 정탐, 파괴, 방화, 랍치 등을 목적으로 각종 특수훈련을 준 수많은 무장간첩들을 우리측지역에 계통적으로 침입시키는 악랄한 적대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그러나 놈들은 일당백으로 준비된 우리 인민군초병들의 강력한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그때마다 여지없이 격파분쇄되였다.

29년동안이나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조선인민의 투쟁을 한사코 방해하여온 미제침략자들은 최근년간에 와서는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 《두개 조선》조작음모를 꾸미는 한편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는데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인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우리의 제의에 아무러한 긍정적반응도 보이지 않고있다.

《유엔군》으로 행세하여 오던 미제침략자들이 이제와서는 《유엔군》이 아니라 이른바《한미호상방위조약》에 의하여 머물러있다고 떠벌이고있다.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도구였던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이미 1973년에 유엔성원국들의 규탄을 받고 자기의 수치스러운 사명에 종말을 고한만큼 그와 같은 바탕에서 나온 《유엔군》도 지체없이 해체되여야 하며 《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으로부터 즉시 물러가야 한다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대세가 제놈들에게 불리하게 되자 뻔뻔스럽게도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군이 《유엔군》이 아니라 이른바 《한미호상방위조약》에 의하여 남조선에 머물러있는 군대라느니, 《유엔군》이 철거하면 전쟁이 다시 일어날 위험이 있다느니, 뭐니 하는 황당한 궤변으로 세계여론을 우롱하면서 제놈들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여왔다.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유엔의 모자를 쓰는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때에는 《유엔군》이라고 우겨대고 불리하다고 볼때에는 《유엔군》이 아니라고 떠들어대는것이야말로 미제침략자들이 언제나 쓰는 강도적론법이다.

이러한 날강도적인 미제침략자들의 그 부추김밑에 있는 남조선괴뢰도당은 1974년에 더욱더 남조선에 각종 신형무기와 작전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남조선의 이르는곳마다에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신설확장하며 진지를 요새화하면서 땅, 하늘, 바다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여러가지 군사적도발행위를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은 새 전쟁도발준비에 더욱 졸달음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 더욱더 외세에 매여달렸으며 〈대화있는 대결〉, 〈대화있는 경쟁〉을 부르짖으면서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며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자는 우리의 제의를 다 거부하고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침략적도발행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6권, 447페지)

미제침략자들은 우리가 긴장상태를 가시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대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도 남조선에 대한 군사원조를 더욱 강화하기에 혈안이 되였다.

《미국방부》는 1974년 3월 26일 1975회계년도에 이른바 《대한무상군사원조》로 1억 6천 150만딸라를, 《대한군사판매차관》으로 5천 100만딸라와 잉여무기 2천 80만딸라, 군사원조계획운영비 1천 850만딸라를 남조선괴뢰도당에게 줄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3월 28일에는 미국방장관이란놈이 워싱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주한 미군을 기동예비군으로 개편하는 가능성을 검토중에 있으며 주한미군이 기동예비군으로 개편되여도 그 부대는 아마도 한국에 그대로 머물러있게 될것》이라고 줴쳤다.

다른 한편 미제해군함선들이 뻔질나게 남조선에 드나드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5월 7일 미제7함대사령관이란 놈이 미싸일과 대구경포들로 무장한 기함 《오크라마씨티》호를 몰고 남조선에 기여들어 남조선괴뢰들 및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우두머리놈들과 전쟁밀담을 벌렸으며 그를 전후하여 구축함과 보급선을 비롯한 수많은 해군함선들을 끌어들이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또한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 핵폭탄과 핵탄두도 수다히 끌어들였다.

그것은 미국회의 상하원합동원자력위원회에서 한 미국의 퇴역해군소장 라록크는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에 핵폭탄과 핵탄두를 끌어들여 《콩크리트제이글루식창고》에 보관하고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미하원 외교위원회 아세아 태평양관계 분과위원회의 공청회의에서 미국방위원회 정보소 성원인 스테판 리드는 《남조선에는 38도 휴전선가까운곳에 핵탄두가 저장되여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남조선괴뢰국방위원회에서 괴뢰국방장관이란놈도 《핵무기철수계획은 아는바 없다》고 말함으로써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여 보관하고있다는것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미제침략자들은 4월에 남조선에 끌어들였던 핵무기를 실은 항공모함 《미드웨이》호를 10월에 또다시 끌어들였으며 《비-57》기들에 핵폭탄을 상시적으로 싣고있게 하였다.

이것은 미제의 침략책동이 매우 위험한 성격을 띠고 더욱더 엄중한 단계에로 나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며 또한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을 단순한 상용무기에 의한 군사기지로뿐아니라 핵무기에 기초한 항구적인 전략기지로 전변시키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전협정서언과 제12항, 제13항 ㄹ목에 대한 횡포한 위반이며 조선과 세계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는 용납못할 범죄행위로서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한편 미제침략자들은 원자 및 유도무기를 끌어내여 무모한 전쟁연습을 빈번히 벌렸다.

미제침략자들은 9월에 전선중부비무장지대로부터 4.5키로메터 떨어진 사요리부근에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제4유도탄 사령부와 제42 야포 제1대대 에이포중대를 비롯하여 수다한 침략무력과 로케트발사대를 끌어내여 이른바 《작전준비훈련시험》과 《유도탄사격훈련》을 련이어 벌렸으며 10월 21일에도 사요리부근에서 또다시 《오네스트죤》로케트를 쏴댔다.

놈들은 또한 9월에 비무장지대가까이에서 《나이크 헤르큘레스》 유도탄중대를 《공수》하는 전쟁연습을 벌렸으며 서해안에서는 제61반항공포부대 2대대의 20미리《벌칸》포와《채파랄》및 《레드아이》 유도탄들을 끌어내여 수만발의 포탄을 쏴대는 전쟁연습을 벌렸다.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에 핵포탄과 핵탄두를 끌어들여 전쟁연습을 벌려대는것은 바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그것은 안팎으로 고립배격당하여 허둥지둥하고있는 남조선괴뢰도당에게 입김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을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과 전쟁 도발책동에로 부추기며 현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을 위협하려는데 있다.

모든 사실은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에서 물러갈대신에 남조선을 제놈들의 식민지군사기지로 계속 틀어쥐고 조선의 통일을 가로 막으며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핵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발악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다른 한편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 호전분자들을 부추겨 비무장지대에 대한 요새화, 전투진지화를 더욱 다그쳤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정전후 지난 스물한해 동안에 비무장지대에 대한 요새화를 다그쳤을뿐아니라 비무장지대안과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의 남쪽부분에 각종 중장비, 중무기, 자동무기들을 끌어들임으로써 그곳을 전투진지로 만들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우리 측이 정식으로 항의한것만 하여도 정전후 지난 스물한해동안에 2만 7천 420여차례나 된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1974년에도 비무장지대 남쪽부분의 전역에 걸쳐 요새화를 대대적으로 다그쳤다.

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46호동쪽 1, 700메터 지점부근에 11월 8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기간에만도 연 2, 400여명의 남조선괴뢰군이 동원되여 요새화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11월 22일 군사분계선표식물 제0595호로부터 제0597호 구간의 남쪽부분에 1, 075명의 남조선괴뢰군이 동원된것을 비롯하여 11월초부터 12월초까지의 사이에만도 무려 1만 670여명이 동원되여 요새화작업을 하였다.

놈들은 이와 같이 하여 비무장지대안의 남쪽부분을 요새화된 전투진지를 굳설할뿐아니라 비무장지대와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의 남쪽부분에 여러가지 중무기와 자동무기를 끌어들이며 그곳을 전투진지로 만드는 범죄행위를 1974년 한해동안에만도 6천 170여차례나 감행하였다.

모든 사실은 미제침략자들의 남조선 불법강점과 그의 침략과 전쟁 정책이 조선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항시적인 전쟁위험을 조성하고있는 근원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적도발책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여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은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6권, 41페지)

미제침략자들과 그 부추김밑에 남조선괴뢰악당들은 새전쟁도발준비에 미쳐날뛰고있을뿐아니라 직접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군사적도발행위를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1974년 한해동안에만도 하늘과 땅, 바다에서 우리측을 반대하여 감행한 도발행위는 무려 2만 3천 800여건에 달한다. 그중 일부 자료만 아래에 밝힌다.

【하늘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은 2월 27일, 3월 15일, 23일, 24일, 28일에 군용비행기를 비무장지대상공에 침입시켜 우리측에 대한 정탐행동을 감행하였으며 3월 8일, 12일, 18일에는 도합 4차례에 걸쳐 《에쓰아르—71》고속도고공정찰기를 군사분계선상공에 침입시켜 동서로 횡단하면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였다. 3월 27일에도 놈들은 《에쓰아르—71》고속도고공정찰기를 우리측 고성지역상공에 침입시켜 전선을 따라 서쪽으로 횡단하면서 우리측에 대한 정탐과 적대 행위를 감행하였다.

놈들의 이와 같은 행위가 1월한달동안에 9차례나 있은것을 비롯해서 이해 들어와 3월말까지 18차례나 된다.

미제침략자들은 4월 5일, 11일, 20일, 23일, 29일에 도합 6차, 5월 1일과 6일에 도합 4차에 걸쳐 《에쓰아르—71》고속도고공정찰기를 군사분계선 상공에 침입시켜 동서로 횡단하면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였다. 놈들은 5월 9일에도 군용비행기를 림진강하구 우리측 지역 상공에 침입시켜 정탐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놈들은 7월 24일에 군용비행기를 우리측 지역 상공에 침입시켜 정탐과 적대 행위를 감행한 범죄행위가 세상에 폭로되게 되자 《과오》요, 《우발적사건》이요 하면서 제놈들의 범죄행위를 가리워보려고 책동하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8월 15일, 18일, 24일, 27일, 29일, 9월4일, 5일, 10일에 도합 13차례에 걸쳐 고속도고공정찰기 《에쓰아르—71》을 비롯한 군용비행기를 비무장지대상공과 서해 우리측 연해상공에 침입시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였다.

또한 적들은 9월10일부터 10월23일까지에 도합 11차례에 걸쳐 《에쓰아르—71》고속도고공정찰기와 군용비행기들을 비무장지대와 우리측 연해상공에 침입시켜 우리측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였다.

우리측 령공에 고공정찰기를 침입시켜오던 적들은 11월 5일 정탐용 소형특수비행기를 철원방향으로부터 우리측 토산부근에 침입시키는 범죄적행위를 감행하였다. 이 비행기는 우리측 수중에 장악되였다.

적들은 또한 12월 4일, 5일, 6일, 11일에 도합 5차례에 걸쳐《에쓰아르—71》고속도고공정찰기를 비롯한 군용비행기를 군사분계선상공에 침입시켜 우리측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러한 공중으로부터의 적들의 도발행위는 1974년 한해동안에 110여차례나 된다.

【땅에서】 미제침략자들의 부추김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은 비무장지대안에 자동무기와 중무기들을 계속 비법적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우리측을 반대하여 계속 총포사격행위를 감행하였다.

놈들은 2월26일부터 3월28일까지사이에 비무장지대에 자동무기들과 중무기들을 끌어들인 사건은 22건이나 되며 그것으로 우리측을 반대하여 총포사격행위를 감행한것은 2월28일부터 3월28일까지 12차례에 걸쳐 420여발이나 쏴댔다.

놈들은 4월과 5월에도 그와 같은 도발행위를 계속하였는바 4월25일부터 5월12일까지사이에 비무장지대에 무기반입은 25건이며 4월4일부터 5월12일까지사이에 우리측을 반대하여 감행한 총사격행위는 34차례나 되며 놈들이 쏘아댄 총탄은 800여발에 달한다.

그리고 놈들은 4월23일과 5월1일, 9일에 엠—16자동소총과 카빙총으로 무장한 70여놈의 남조선괴뢰군을 비무장지대안에 침입시켜 진지를 차지하고 우리측을 향하여 사격태세를 취하는 행위를 감행케 하였으며 4월25일에는 괴뢰군 10여놈을 군사분계선북쪽인 우리측 지역에 불법침입시켰다.

또한 남조선괴뢰군은 4월 24일, 27일, 29일 전선서부 비무장지대의 3개 지점에다 불을 놓은데 뒤이어 5월 3일에도 전선서부 비무장지대안에 불을 놓아 그 불이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안에까지 타번지게 하였다. 또한 놈들은 5월 3일, 5일에도 전선중부와 전선서부에서 불을 놓아 우리측의 넓은 지역까지 불태우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의 부추김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은 계속 비무장지대와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안에 중무기와 자동무기들을 비법적으로 끌어들이며 우리측을 반대하는 총사격행위를 감행하고있다. 놈들의 이와 같은 범죄행위는 7월1일부터 8월7일까지 사이에 도합 50여건에 달한다.

놈들은 8월12일 한강하구에서 105미리곡사포를 비롯한 여러가지 중무기와 자동무기들을 동원하여 우리측에 포탄과 총탄을 쏘아대는 엄중한 무장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날 놈들은 23시 55분경부터 8월13일 새벽 4시 25분경까지의 사이에 제놈들의 군사통제지역인 대동리부근으로부터 우리측 지역인 석현리부근상공에 조명탄을 띄워놓고 이 지역에 105미리곡사포로 수십발, 12.7미리대구경기관총으로 300여발, 엠—16자동소총으로 700여발, 도합 1,000여발의 포탄과 총탄을 우리측 지역에 쏘아댔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또한 8월10일, 12일, 13일, 18일, 20일, 21일, 24일, 27일, 28일, 9월 6일, 8일, 도합 17차례에 걸쳐 비무장지대안의 남쪽부분에서 기관총, 엠—16자동소총, 카빙총 등으로 우리측을 향하여 390여발의 총탄을 쏘아대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놈들은 또한 8월12일, 15일, 16일, 19일, 20일, 21일, 22일, 24일, 25일, 26일, 28일, 9월 3일, 5일, 도합17차례에 걸쳐 비무장지대안의 남쪽부분에 57미리무반동포와 12.7미리대구경기관총을 비법적으로 끌어들이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또한 남조선호전분자들은 비무장지대안에서 우리측을 반대하는 총사격행위를 계속 감행하고있는바 놈들이 9월10일부터 10월23일까지의 사이에만도 35차례에 걸쳐 1,500여발의 총탄을 쏘아댔다.

놈들은 또한 9월 10일부터 10월 23일까지의 26차례에 걸쳐 57미리무반동포와 12.7미리대구경기관총을 비무장지대안의 남쪽부분에 끌어들였으며 특히 놈들은 미제의 두목 포드가 남조선에 기여드는 시각을 앞둔 11월 15일과 20일에는 비무장지대안의 남쪽부분에서 수십명의 남조선괴뢰군과 여러가지 중무기와 자동무기를 동원하여 우리측 지역에 수백발의 포탄과 총탄을 쏘아댔다. 놈들의 이와 같은 범죄행위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의 사이에

도 30여건에 달한다.

【바다에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우리측의 거듭되는 항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다로부터도 도발행위를 계속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1973년 10월부터 1974년 2월 20일까지의 기간에 무려 350여차에 걸쳐 900여척의 각종 해군함선들과 무장선박 및 간첩선들을 서해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정탐과 적대 행위를 감행하였다.

해상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도발행위를 계속 감행하여온 박정희괴뢰도당은 2월 15일 서해의 우리측 연해에 또다시 간첩선들을 침입시켜 정탐행위를 감행케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단호한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놈들의 간첩선은 침몰되거나 우리측에 사로잡히고말았다. 이것은 도발자들에 대한 응당한 징벌이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제놈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하여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3월14일에는 고속부대수송선을, 15일에는 구축함을, 18일에는 구축함과 기타 전투함선들을 하린도로부터 5~6마일계선 우리측 연해에 또 침입시켜 정탐과 적대 행위를 감행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또한 6월 28일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해군함선을 불법적으로 침입시켜 정탐과 적대 행위를 감행하다가 우리 인민군해군함정의 단호한 대응조치에 강력한 타격을 받고 놈들의 해군함선은 사건현장에서 격침되였으며 수명의 도발자들은 우리측에 사로잡혔다. 이것은 도발자들에 대한 마땅한 징벌이였으며 응당한 자위적조치였다.

응당한 타격을 받은 박정희괴뢰도당은 교훈을 찾을 대신 군사분계선연장선 부근해상에 수다한 해군함선들을 집결시키고 동해의 우리측 연해상공에 여러대의 군용비행기를 침입시켜 순찰근무를 수행하는 우리 인민군해군 함정에 기총사격을 가하는 등 도발행위를 감행하다 조선인민군의 강력한 대응조치에 질겁하여 도망치고말았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동해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게 되자 당황하여 7월초에 부산앞바다에서 이른바《간첩선》을《격침》시켰다는 날조사건을 꾸며내는 한편《시체인도》요 뭐요하고 떠들어대다가 세상사람들의 코웃음을 자아내게 되자 7월 18일에는 제놈들의 려객기가 우리의 포사격을 당했다는 기만극을 꾸며댔다. 놈들은 이것마저 세상사람들의 조소를 받게 되자 또다시 서해《간첩선사건》이라는것을 날조하였다.

놈들의 이러한 소동이 날조된것이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놈들이 떠벌이는 이른바《간첩》이요《남침》이요 하는것은 박정희괴뢰도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들고나오는 케케묵은 날조극으로서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을 합리화하고 남북대립을 고취하며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 반민족적이며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궤변에 불과하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또한 8월 16일과 26일에 고속부대 수송선과 경호함을 서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킨것을 비롯하여 8월 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사이에 136차례,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사이에는 50여차례나 여러가지 종류의 해군함선들을 서해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정탐과 적대 행위를 감행하였다.

놈들은 또한 11월 9일 야밤을 리용하여 서해 우리측 도서인 월내도에 무장습격단을 침입시키는 악랄한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이 무장악당들은 제놈들의 추악한 목적을 실현하지 못한채 우리 인민군초병들에 의하여 사로잡혔거나 황천객이 되고말았다.

지어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은 해군함선을 동원하여 표류중인 우리의 어선에 총포사격을 가하여 파괴하고 그것을 끌어가는 해적행위를 감행하였다.

황해남도 옹진천해양식사업소 안강망어선 《6-1102》호가 12월 14일 10여척의 작은 배들을 끌고 우리측 연해인 비압도부근에서 미역을 따던중 배의 기관고장이 났던 때 서북쪽에서 강하게 불어오는 심한 풍랑을 만나 어민들은 즉시 구원되였으나 배들은 풍랑에 밀리여 떠내려갔다.

그런데 적들은 더러운 정치적목적을 위해 해군함선을 동원하여 빈배에다 총포사격을 가하여 파괴하고는 그것을 인천앞바다에까지 끌고가《간첩선》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중상비방하는《반공》소동을 미친듯이 벌렸다.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이 하늘, 땅, 바다에서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이와 같은 정탐과 적대 행동은 전쟁을 일으킬 구실을 마련할 흉악한 목적으로 오직 전쟁전야에만 하는 고의적인 침략행위이다. 이 엄연한 사실들은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전쟁도발책동이 얼마나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오직 우리 나라에서의 정전이 유지되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평화애호적인 노력에 의하여 담보되고있다.

조선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미제침략자들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인내성있는 노력을 나약성의 표현으로 오산하지 말아야 하며 오늘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모든 살륙무기들과 작전장비들을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야 한다.

미제침략자들이 시대적추세에 역행하면서 남조선에서 물러가지 않고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 정책을 계속 추구해나간다면 우리 인민과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증오와 규탄을 면치못할것이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떨쳐나서고있는 전체 조선인민들의 장엄한 투쟁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매장되고야말것이다.

박정희도당의 간첩선 《32수원호》와 《33수원호》의 정탐행위에 대하여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도발행동을 계속 감행하여온 박정희도당은 2월 15일 서해의 우리측 연해에 또다시 간첩선들을 침입시켜 정탐과 적대 행위를 감행하는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일으켰다.

백령도 서북쪽 먼바다로부터 우리측 연해에 침입한 적간첩선들은 2월15일 아침 8시경에 초도로부터 10마일이 되는 우리측 연해에 침입하였다.

어선으로 가장하고 우리측 연해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적간첩선 《32수원호》, 《33수원호》는 정탐행위를 계속하면서 10시 30분경에는 짙은 안개와 내리는 비를 리용하여 장산곶 서북쪽 북위 38도 14분, 동경 124도 28분해상에까지 침입하였다.

서해상에서 정상적인 순찰임무를 수행하고있던 우리 인민군해군함선은 적간첩선들에 대하여 우리측 연해에서 즉시 물러갈것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간첩선들은《고기배》로 가장하면서 끝끝내 그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정황하에서 우리의 해군함선이 단속확인하기 위하여 접근하자 적간첩선《32수원호》는 서남방향으로 도망치려고 황급히 배머리를 돌리다가 때마침 옆을 선회하던 우리의 해군함선을 배머리로 들이받고 침몰되였으며 다른 간첩선인《33수원호》는 우리측에 나포되였다.

우리의 해군함선이 단호한 자위적조치로 박정희도당의 정탐과 적대행위를 분쇄한것은 도발자들에 대한 응당한 징벌이며 자기의 신성한 령해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의 행사이며 우리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지극히 정당한것이다.

《어선》으로 가장하고 우리 나라 령해깊이 침입하여 감행한 적대행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조선괴뢰 《중앙정보부》의 지령에 따른것이다.

우리측에 체포된 적간첩들의 자백서에 의하면 그 간첩선들은 원래 일본에서 건조된 철선이였는데 《중앙정보부》소속으로 된후 보통 목조어선으로 가장하려고 선체를 나무로 덧씌워놓았다.

배의 장비면에서도 다른 어선들에서 볼수없는 고성능무전기와 비화기가 달린《에스에스비》의 단파무전기를 비롯하여 여러대의 무전기와 전파탐지기가 설치되였다.

이 적간첩선들은 2월 7일 인천항을 떠나 15일 초도로부터 10마일되는 곳까지 접근해서야 배의 레이다를 가동시켜 인민군해군함선들의 움직임을 포착하였으며 종합된 자료들을 《중앙정보부 인천지부》에 보고하였다.

사실 간첩선에서 압수한 자료에 의하여도 우리 해군함선을 찍은 사진필림과 그것을 현상한 사진들, 장산곶앞 우리측 연해 해도 등이 있었다.

또한《중앙정보부 인천지부》에서는 제놈들의 간첩선이 우리에게 나포될 위험이 있게되자 공개무전으로 《암호서와 비밀이 루설될수 있는것을 물에 버리지 말고 다 태워버리며 통신에 관한것은 전부 태워버리고〈에스에스비〉의 〈크리스탈〉을 다 빼서 물에다 처넣으라》고 하였다.

우리측에 체포된 이 간첩들의 자백에 의하면 그놈들에게는 모두 단독임무들이 주어져있었으며 지어는 간첩선이 나포될 정황하에서와 체포될 경우, 체포된 이후 임무까지 구체적으로 주어져있었다.

이 엄연한 사실은 박정희도당이 우리측 연해에 간첩선을 침입시킨 범죄행위를 론박할 여지없이 실증해주고있다.

놈들이 저지른 도발행위는 멸망에 직면한 박정희역적이 남조선《중앙정보부》특무들을 시켜 미리 짠 계획에 따라 고의적으로 조작해낸 비렬하기 짝이 없는 음모책동으로서 놈들의 추악한 몰골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박정희반역도당의 일거일동을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있으며 놈들의 어떠한 모험에도 대처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있다.

동해 우리측 연해에 불법 침입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해군함선 격침

《반공》소동에 열을 올리며 새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은 1974년 6월 28일 오전 8시 10분경 안개낀 틈을 타서 동해의 우리측 연해인 수원단 동북쪽 8.8마일,군사분계선연장선 북쪽 9마일 부근인 북위 38도 45분 54초, 동경 128도 31분 26초 지점에 해군함선을 불법침입시켰다.

우리측 연해깊이 침입한 적해군함선은 그곳에서 우리측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면서 동남쪽으로 이동하다가 8시 50분경 수원단 11.3마일, 군사분계선연장선 북쪽 6.2마일 부근인 북위 38도 42분36초, 동경 128도 35분 48초해상에서 우리 인민군 해군함정과 조우하게 되자 불의에 우리 해군함정에 75미리무반동포와 20미리기관포 등으로 수백발의 총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조선인민군 해군함정은 남조선괴뢰도당의 무분별한 도발행위에 대처하여 단호한 대응조치로써 강력한 타격을 가하여 남조선괴뢰해군함선을 사건현장에서 격침시켰으며 수명의 도발자들을 범행현장에서 사로잡았다.

이것은 응당한 자위적조치였으며 도발자들에 대한 마땅한 징벌이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우리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응당한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찾을대신 군사분계선 부근해상에 수다한 해군함선을 집결시키고 동해의 우리측 연해 상공에 수대의 군용비행기를 침입시켜 긴장성을 격화시키는 무모한 군사적도발행위를 련이어 감행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여러대의 전투기를 공화국북반부령공인 장아대단 동쪽 9.5마일, 군사분계선연장선 북쪽 13.5마일부근 북위 38도 49분 54초, 동경 128도 27분 39초 바다상공에까지 침입시켜 그곳 해상에서 순찰근무를 수행하고있던 인민군 해군함정에 기총사격을 가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처하여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전투근무를 수행하고있던 조선인민군 해군함정들은 즉시에 강력한 자위적조치를 강구하였다.

조선인민군의 강력한 대응조치에 질겁한 놈들은 황급히 남쪽으로 도망쳤다.

박정희괴뢰도당이 감행한 이 무모한 도발행위는 조선에서 긴장성을 격화시키고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계획적책동의 한 고리이며 평화에 대한 엄중한 유린행위이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고있는 우리 인민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행위이다.

조선인민과 불패의 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은 박정희괴뢰도당이 무분별하게 감행하여나서는 그 어떤 군사적도발책동도 결코 허용하지 않을것이며 해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

１９７４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전당과 전체 인민이 6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１０대전망목표를 실현하여 우리 나라를 더욱 위력한 공업강국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 떨쳐나선 사회주의대건설의 첫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시였다.

《１９７４년은 우리 인민이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투쟁해야 할 해입니다. 우리가 당 제5차대회에서 내세운 6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앞당겨완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올해 전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6개년계획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신년사》, 단행본, ９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내놓으시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１０대전망목표를 제시하시였다.

력사적인 전원회의에 뒤이어 전국공업대회 (3월), 전국농업대회 (１월)를 마련하시고 우리 로동계급과 농민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6개년계획을 훨씬 앞당겨끝내며 사회주의대건설의 전투적과업과 수행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으며 그들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로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불러오시기 위하여 평남도를 비롯한 여러 도와 수많은 공장, 기업소, 농촌들을 찾으시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도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세찬 불길이 확확 뿜어나오는 로앞에 다가서시여 용해공들이 받고있는 열을 몸소 가늠해보시며 자동화와 원격화의 휘황한 길을 밝혀주시고 그에 필요한 갖가지 자동화기구들을 마련하여보내주시였으며 모내기철에는 진창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논판에 이르시여서는 모내기기계운전공과 조절수들의 시력을 걱정하시여 보호안경까지 보내주시였다.

늦가을 정원의 나무잎이 떨어지는것을 보시고 북방건설장의 사나운 날씨를 걱정하시여 두툼한 솜옷과 솜신발, 솜모자까지 보내주시였으며 화창한 봄날에 입을 건설자들의 나들이옷을 갖추어주시였으며 설명절준비까지 차려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이 위대한 사랑과 한없이 뜨거운 배려는 그대로 우리 로동계급과 농민들의 심장속에 흘러들어 장수힘과 지혜, 용맹과 슬기가 되여 그들을 헌신적인 투쟁과 영웅적인 위훈에로 불러일으켰다.

수산전선에서는 먼바다어업과 가까운바다어업, 양식업과 양어업을 옳게 배합하고 수산업의 과학화, 현대화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상반년도 계획을 훨씬 앞당겨 초과수행하였다.

우리 로동계급들이 사회주의대건설의 불비속을 뚫으며 질풍같이 달려왔으나 우리 나라 사회주의대건설의 요구,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요구, 세계혁명의 요구는 그것으로 만족할수 없었다.

세계혁명력사상 류례없이 통이 크게 벌린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쳐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１０대전망목표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경제적파동과 정치적위기의 소용돌이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박정희괴뢰도당의 숨통을 더욱 바싹 조이기 위하여, 우리를 헐뜯는 제국주의 머슴군들과 어용나팔수들, 혁명의 배신자들에게 자갈을 물리기 위하여 더욱 높은 속도로 달려나가야 하였다.

바로 이런 력사적인 시기, 책임적인 시각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달리는 천리마에 새로운 활력을 안겨주어 주체조선이 세계적인 공업강국에로 단숨에 날아오르게 하시려는 원대한 구상과 대담한 작전을 펼치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７０일전투》에로 부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나가는 당중앙은 온 나라에 총진군의 북소리,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를 더욱 높이도록 전당과 전민을 현명하게 이끌었다.

무엇보다도 당중앙은 《７０일전투》승리의 기본열쇠를 대중의 사상을 발동시키는데서 찾고 모든 당조직들이 바로 《사상전》을 틀어쥐고 경제사업을 지도하여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키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었다.

특히 당중앙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내놓고 모든 간부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하였던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인 사업기풍, 학습기풍, 생활기풍을 따라 배우며 실천하도록 지도하였다.

모든 전선, 모든 고지, 모든 초소에서 《속도전》에 거치장거리는 온갖 잡귀신들을 쓸어버리고 대중을 충성의 위훈에로 부르는 항일유격대식의 정치선전, 경제선동 특히 예술선동의 힘찬 목소리를 울리였다.

당은 １２개 중앙예술단과 ４８개 지방예술단의 혁명적예술인부대를 중요한 전투초소들에 파견하여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항일유격대식 예술선동을 벌리도록 지도하였다.

우리의 혁명적예술인들은 《７０일전투》기간에 1천 ２５２개 단위에서 1만 8천 ７００여회의 예술선동을 벌려 근로자들의 투지와 기세를 북돋아주었다.

당중앙은 또한 《사상전》, 선동전의 북소리속에서 １９７３년에 비하여 １３４%의 장성을 예견한 １９７４년 인민경제계획보다 경제발전속도가 더 높아지고 설비, 자재, 원료 수요가 추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최대한으로 내부예비를 동원하고 절약하고 증산하도록 이끌어주었다.

우리 로동계급들은 항일유격대원들이 빈손으로 산에서 연길폭탄과 재봉침바늘을 만들어내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７０일전투》기간에만하여도 4만 5천톤의 강재, 1천 ２００톤의 유색금속, ４1만톤의 파고철, 4천여톤의 파동을 탐구하여 생산에 동원리용하였다.

또한 경제지도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기술혁신운동과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공업부문에서 원가를 계획보다 ２%나 더 낮추었다.

《７０일전투》기간에 공업부문간, 농업부문간, 부문내부간, 기업소간, 농장간, 뜨락또르간 사회주의경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광범히 벌어져 집단적혁신의 불길, 증산과 절약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석탄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위한 석탄공업, 림업, 철도운수부문에서의 련합사회주의경쟁, 설비들에 만부하를 걸고 련대적혁신을 위한 금속, 광업, 기계, 화학, 전력공업부문간, 부문내부간 사회주의경쟁, 물고기잡이전투를 위한 어기간의 선박, 선단, 기업소간 사회주의경쟁, 봄갈이로부터 시작하여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 가을갈이, 낟알털기에 이르는 농장간, 작업소간, 뜨락또르간사회주의경쟁, 인민경제발전에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중요부문에서 걸린고리를 풀고 새기록, 새기준을 창조하기 위한 직장간, 작업반간의 사회주의경쟁과 사회적지원(정무원돌격대, 녀성지원대, 의료봉사대, …)속에서 집단적, 련대적혁신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사상전》, 선동전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고 최대한의 절약과 증산투쟁의 불길을 지펴주면서 온 사회에 사회주의경쟁과 사회적지원의 혁명적생산기풍을 세워줌으로써 《７０일전투 속도》를 창조하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１９７４년에 거둔 성과에 대하여 １９７５년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1974년은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위대한 기적과 혁신을 일으킨 승리의 한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내놓은 사회주의대건설의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사회주의대건설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6개년계획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이 이룩되였습니다.》 (《신년사》, 단행본, ２페지)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기본건설전선에서 대야금기지, 쇠돌생산기지, 석탄생산기지, 동력공업기지, 화학공업기지, 건재공업기지, 기계공업기지, 경공업기지를 비롯한 산업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한것이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짧은 기간에 김책제철소의 대형용광로, 대형련속식소결로, 대형전로를 새로 일떠세웠으며 김책제철소의 새로운 강철직장, 성진제강소 제３강철직장, 강선제강소 제２강철직장 건설을 완공하여 조업시킴으로써 ６개년계획의 강철고지를 앞당겨점령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특히 김책제철소의 건설자들과 로동계급은 １９７５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 건설한 대형용광로에 불을 지펴 첫 쇠물을 뽑아냄으로써 조선로동계급의 영웅적기상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떨치였다.

광업부문의 건설자들과 로동계급은 대규모의 무산광산 확장공사와 덕현광산 확장공사, 서해리광산과 덕성광산을 비롯한 새로운 철광산개발을 다그침으로써 쇠돌생산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렸으며 풍년광산, 영유광산, 대대리광산, 곡산광산, 운산광산, 중산광산, 쌍룡광산을 비롯한 린회석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린비료생산토대를 닦았다.

동력기지건설자들은 왕성한 투지와 혁명적기백으로 북창화력발전소 제２계단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서두수발전소 제２계단공사와 청천강화력발전소 건설공사의 년간조립작업계획을 한달이상 앞당겨완수하였다.

화학기지건설자들은 대규모의 청년화학종합공장건설과 순천, 청수, 아오지의 비료공장 확장공사를 다그쳐 경공업의 원료기지와 농업의 비료생산토대를 더욱 튼튼히 마련하였다.

건재기지건설자들과 로동계급들은 대규모의 순천세멘트공장 건설과 ２.８세멘트공장, 고무산세멘트공장 확장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실로 우리의 건설자들과 로동계급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１９７４년을 건설의 해로 정하시고 기본건설에 화력을 집중할데 대하여 주신 강령적교시를 받들고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주체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인 중요건설대상들의 완전조업과 부분조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의 첫해를 사회주의건설력사에 건설의 해로 기록하였다.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우리 인민이 거둔 또 하나의 큰 성과는 공업에서 １９７３년에 비하여 １３４％로 늘어난 １９７４년도 공업생산계획을 훨씬 넘쳐수행하였으며 생산의 높은 장성속도를 보장한것이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들은 당중앙이 안겨준 청춘의 패기와 정열로 싸워 １,１００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６개년계획의 전투과제를 ２년이상 앞당겨실행하고 승리의 기발을 높이 휘날렸다.

로동계급들은 새기록, 새기준을 창조하는 투쟁에서 석탄, 비날론, 천, 뜨락또르, 자동차 생산을 ６개년계획말의 수준을 넘어서게 하였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들은 《７０일전투》기간의 하루 평균생산량을 １９７３년 하루 평균생산량의 근 ２배로 높였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용감한 지하자원의 개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굴진과 박토를 앞세울데 대한 방침을 받들고 석탄과 광석의 하루생산량을 그전에 비하여 각각 １６４％, １６２％로 늘임으로써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앞세워나갔다.

이 기간에 또한 강재생산이 그전시기에 비하여 １４０％, 세멘트는 １３５％, 공작기계는 １６３％, 전기기계는 １９０％, 비날론은 １８１％로 뛰여올랐다.

１９７４년에 농업전선에서도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농업근로자들은 로동계급과 주체공업의 힘있는 지원밑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여 그처럼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７００만톤이상의 알곡을 생산함으로써 ６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２년 앞당겨점령하였다.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어 수많은 나라들이 식량위기를 겪고있는 때에 알곡고지를 점령한것은 농촌테제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시위하였으며 우리 당 농업정책의 정당성을 뚜렷이 증명한것으로 된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농촌을 지원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농촌기술혁명지원의 날》전까지 ７만～８만대의 뜨락또르를 공급한 결과 경지면적 １００정보당 뜨락또르가 벌방지대에는 ４대,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에는 ３대씩 차례졌으며 여러가지 련결농기계, 모내는기계, 가을하는기계, 낟알터는기계를 비롯한 현대적농기계들로 농업을 장비시켰다.

수송전선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유일사령지휘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새로운 집중수송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전투기간에 화차회귀일수와 미하차를 현저히 줄임으로써 ２２０만톤의 짐을 더 날랐다.

항만능력도 ２배이상 높였다.

１９７４년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사업에서 거둔 자랑찬 성과들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３대혁명을 힘있게 벌린 결과에 이룩된것이다.

이해에 당, 국가, 경제기관, 근로단체 일군들과 ３대혁명소조성원들은 ３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

과를 이룩하였다.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린 결과 모든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게 되였으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되였으며 수령님과 당중앙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것을 커다란 자랑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였다.

3대기술혁명의 기치밑에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이 힘차게 벌어져 황해제철련합기업소, 강선제강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공정을 반자동화, 자동화, 원격조종화하는 사업이 널리 진행되고 인민경제의 전반적인 기술장비가 더욱 개선됨으로써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데 대한 과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되고있다.

문화혁명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전반적기술문화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이 세워져가며 도시와 농촌이 더욱더 아름답게 꾸려지고있다.

그리하여 희망과 신심을 가지고 혁명적락관에 넘쳐 생활하고있는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자력갱생의 높은 혁명정신을 가지고 당이 내세운 전투적과업을 앞당겨수행함으로써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더욱 영광스럽고 뜻깊은 명절로,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총진군을 다그쳤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전국공업대회 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전국공업대회가 2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기본건설전선, 공업전선, 수송전선, 수산전선의 로력혁신자들과 각 전선에 파견된 청년인테리들, 지방당 및 근로단체, 경제지도기관 일군들과 과학교육부문 일군들,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1만 6천여명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부르심과 당중앙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공업부문에서 모든 힘을 사회주의대건설사업에 총동원할데 대하여》를 보고하였고 많은 토론이 있었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 제5차대회가 공업부문앞에 내세운 강령적과업을 수행하는데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을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공업부문의 전투적과업을 토의하였다.

6개년계획의 지난 3년동안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년평균 17%라는 높은 공업발전속도가 창조되였다.

우리의 공업은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적파동에도 끄떡없이 자신만만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자립적인 공업으로, 마음만 먹으면 그 무엇이든지 척척 해제끼는 힘있는 현대적공업으로, 생산력이 골고루 배치되고 공해를 모르며 공장안팎이 궁전과 공원처럼 알뜰하게 꾸려진 문명한 공업으로 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이러한 공업, 이러한 경제적밑천이 있기에 오늘 우리 나라는 지구상에서 맨먼저 세금이 없는 나라로 될수 있었으며 공업상품의 값을 또다시 대폭 낮추는 시책을 실시할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내놓으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는 1,200만톤의 강철고지, 100만톤의 유색금속고지, 1억톤의 석탄고지, 5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고지, 2,000만톤의 세멘트고지, 500만톤의 기계가공품고지, 500만톤의 수산물고지, 500만톤의 화학비료고지, 10만정보의 간석지개간고지,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대건설방침과 함께 총동원, 총진군의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여 사회주의건설을 빨리 추진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으며 그 첫 사업으로서 전국공업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모든 대회참가자들이 자기의 창발적의견들을 기탄없이 내놓을수 있게 공업부문별 분과회의까지 친히 조직해주시는 또하나의 커다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대회 제5일회의부터 3일간에 걸쳐 채취공업분과, 금속및기계공업분과, 건설분과, 운수분과, 경공업및수산분과별로 진행된 공업부문별 분과회의들은 대회사업을 더욱더 깊이있게 심화시킴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새로운 고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분과회의들에서는 천리마대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새로운 천리마속도, 새로운 평양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30돐까지 강철, 전력, 석탄, 화학비료, 세멘트, 직물, 수산물 고지를 비롯한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 점령하며 다음번 전망계획년도의 10대경제건설목표에 올라서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마련할것을 결의다지였다.

3월 7일,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라는 연설을 하시였다.

대회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대건설의 현명한 방침과 총진군, 총지원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킬 확고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새로운 천리마속도, 새로운 평양속도로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신년사》, 단행본, 9~10페지)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기본건설전선에서 전당적, 전인민적 총돌격전투를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가 특별히 강조되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6개년계획을 빨리 완수하는것도,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도 기본건설을 어떻게 다그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고 강조하면서 대회는 기본건설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대회는 6개년계획의 강철고지를 하루속히 점령하고 가까운 앞날에 1,200만톤의 높은 강철령마루에 승리의 기를 꽂기 위하여서는 김책제철소

확장공사를 다그치는데 선차적으로 힘을 집중하여 조업기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고 무산광산의 개건확장공사를 동시에 힘있게 내밀며 동서해안지구의 유망한 철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또한 북창화력발전소 제2계단공사와 서두수발전소 제2계단공사, 대동강발전소, 청천강화력발전소 건설을 빨리 다그쳐 전력생산을 더욱 늘이며 청년화학종합공장과 남포지구화학공장을 빨리 건설하여 조업기일을 앞당길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는 철도건설에 계속 힘을 넣으며 특히 강계—무산간 철도건설공사를 하루속히 완공할데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석회석자원이 무진장한 우리 나라 세멘트생산전망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순천세멘트공장건설을 빨리 끝내고 련이어 대규모의 세멘트공장건설을 힘있게 내밀기 위한 과업을 토의하였다.

대회는 1974년을 건설의 해로 빛내이며 기본건설에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건설을 집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중요건설대상들에 력량을 집중하며 섬멸전, 전격전의 방법으로 건설을 다그쳐 조업기일을 최대한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전당, 전국, 전민이 기본건설전선을 지원하자!》는 구호밑에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내여 중요건설공사들에 건설력량과 물질기술적수단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대주며 건설에 대한 전군중적지원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회는 채취공업을 인민경제 다른 모든 부문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경제발전의 하나의 법칙이라고 하면서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고 새로운 더 높은 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전당이 채취공업에 힘을 집중하여 이 부문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회주의대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채취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탄광과 광산들에서 설비들을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하고 운반계통의 다양화를 실현하며 갱을 현대화하고 갱건설과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며 로천채굴을 대대적으로 하며 대량락광, 대량처리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대회는 공업의 심장을 이루는 기계공업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달라붙어 대형불도젤, 대형굴착기, 대형자동차, 대형압축기, 고속도착정기, 대형마광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대형설비들을 생산하여 탄광, 광산들에 보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서는 이미 있는 기계공장들을 더 튼튼히 꾸리고 새로운 대형기계설비제작기지를 창설하며 1958년에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벌리던 혁명정신으로 특대형공작기계들을 만들어내는 대형기계새끼치기운동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채취공업부문자체에서도 주인다운 태도와 립장을 가지고 채굴설비들을 적극 대형화, 현대화하여 쇠돌, 유색금속광물, 석탄 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대진군의 돌파구를 열어제껴나가야 한다고 대회는 지적하였다.

대회는 바다를 끼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수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들의 부식물문제를 빨리 풀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하면서 수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제기하였다.

대회는 물고기생산을 급속히 늘이며 가까운 앞날에 500만톤의 수산물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고기배들을 대형화, 현대화, 만능화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기계공업부문에서는 3,750톤급 대형선미트랄선과 5,000톤, 1만톤, 2만톤급 대형운반선들을 대대적으로 만들어보내주고 큰 배를 붙일수 있게 항구를 더 잘 꾸려야 하며 수산부문에서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없애고 대담하게 큰 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대량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6개년계획의 화학비료고지를 앞당겨 점령하고 가까운 앞날에 500만톤의 화학비료고지를 돌파하며 경공업발전에 필요한 여러가지 원료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대회에서는 화학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토의되였다.

대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 그 자원이 풍부한 카바이드로써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 주체적립장에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중요방도로 된다고 강조하면서 여기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수력발전소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 카바이드생산에 요구되는 전력을 원만히 보장해주며 카바이드로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며 고열로동과 힘든 로동에서 로동자들을 완전히 해방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대회는 또한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가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놀아야 할 중요한 역할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철도전기화를 계속 실현하며 역구내선을 늘이고 중량레루와 중량화차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현존륜전기재의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임으로써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대회에서는 로력과 설비, 자재들을 가지고 생산을 직접 조직지휘하는 직장장들의 위치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직장장들의 기본임무는 사람과의 사업, 설비, 자재와의 사업, 책과의 사업 즉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잘하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사람과의 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모든 당원들과 로동자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 주체의 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대회는 또한 직장장들이 작업반장들과의 사업을 잘하며 작업반장들로 하여금 로동자들의 체질과 기술기능수준에 맞게 일을 맡기고 기계들을 알뜰히 다루도록 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대회는 로력조직을 잘하여 누구나 다 로동규률을 엄격히 지킬수 있도록 조건을 잘 지어주며 로동자들로 하여금 480분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고 로동시간의 일분일초를 아껴가며 진실로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성실히 일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대회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토의하면서 정치적평가와 물질적평가를 옳게 배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분배받게 하여야 하며 직장장들이 사무실에 앉아있을것이 아니라 늘 로동자들이 일하는 생산현장에 나가 그들과 같이 일하면서 교양하고 가르쳐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대회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데서 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누구나 조직생활을 잘하고 당원들은 당조직생활에, 근로단체 동맹원들은 동맹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하며 직장장들은 로동자들이 조직생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옳게 지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대회에서는 로동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함으로써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직장장들이 직장살림살

이를 알뜰히 하고 설비, 자재와의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서도 토의하였다.

대회는 직장장들이 책파의 사업을 잘할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면서 문화혁명을 더욱 철저히 수행할 대책을 토의하였다.

대회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도 모든 분야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천리마진군을 힘있게 다그치며 특히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피바다》근위대운동과 《꽃파는 처녀》근위대운동을 활발히 조직전개하여 사회주의대건설투쟁에서 모두다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여 영웅적위훈을 떨치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는 또한 사회주의대건설사업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내밀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과업을 토의하였다.

대회에서는 《속도전》을 성과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정치선전, 경제선동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진공적으로 벌려 모든 사람들이 주인다운 자각과 혁명적열의로 끓어넘치게 해야 하며 전투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짜고들어 잘할데 대하여 결의다지였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전국 농업대회 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전국농업대회가 1월 4일부터 10일까지 평양체육관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전국각지에서 온 협동농민열성자들과 간부들, 농촌에 파견된 청년인테리들, 지방 당 및 근로단체, 농업지도기관 일군들, 농업과학 및 교육부문일군들, 농업부문과 련관된 공장, 기업소 책임일군들, 중앙기관책임일군들 1만 6천여명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해 농업생산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의 총화와 올해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라는 보고와 많은 토론이 있었다.

1월 10일,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라는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강령적연설에 접한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1974년에 6개년계획의 높은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고 테제의 과업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옴으로써 위대하신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하루빨리 실현할 불타는 충성의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협동농민들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모든 영농작업을 실속있게 하여 지난해에도 례년에 드문 대풍작을 이룩하였으며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신년사》, 단행본, 4페지)

1973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기술혁명이 적극 추진되고 영농사업에 대한 지도가 개선됨으로써 벌방지대, 중간지대, 산간지대 할것없이 모든 농촌들에서 대풍작이 이룩되였으며 농산뿐아니라 축산, 과수, 잠업 등 모든 부문에 걸쳐서 전면적인 거대한 생산적앙양이 일어났다.

대회에서는 농업생산에서 이룩한 이 빛나는 성과는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하는 일대 비약이라고 하면서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천리마조선, 영웅적조선인민만이 쟁취할수 있는 기적적인 성과이라고 긍지높이 지적하였다.

특히 알곡생산에서 류례없는 큰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농촌경리의 여러 부문을 다같이 빨리 발전시키고 전반적인민경제발전과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되였으며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게 되였다.

대회는 또한 위대한 사회주의농촌테제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자랑스럽게 총화하였다.

대회는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힘있게 다그치고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계급없는 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위대한 강령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물질기술적 및 정치사상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여 놓은데 대하여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뜨락또르와 자동차, 여러가지 련결농기계와 부속품들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여놓았으며 농촌경리의 전면적화학화도 힘있게 다그쳐 나갈수 있는 토대를 튼튼히 꾸려놓았으며 농촌기술혁명의 담당자들인 뜨락또르운전수들의 대렬역시 급격히 늘이였다.

대회는 농촌테제가 내놓은 기술혁명의 과업들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토대를 마련하여놓은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영웅적 로동계급과 인민이 쟁취한 가장 빛나는 승리의 하나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는 또한 위대한 농촌테제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을 완수할수 있는 사상정치적토대가 확고히 마련된데 대하여 자랑스럽게 총화하였다.

오늘 우리 농업근로자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여들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농업전사로 자라났으며 우리 농촌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찬 대가정으로,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진지로 튼튼히 꾸려졌다고 대회는 긍지높이 강조하였다.

대회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 일어난 이 변화는 사회주의농촌을 건설하는 투쟁에서 앞으로 더큰 승리를 쟁취할수 있는 결정적담보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대회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품속에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수많은 당핵심들과 청년인테리들이 자라나 농촌에 들어가 일하게 되였으며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이 빨리 높아지고 농촌에서 생산문화와 생활문화가 전면적으로 확립되고있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는 테제가 발표된 후 지난 10년간 농촌에서의 사상, 기술, 문화 혁

명 수행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는 우리 농촌을 현대화된 농촌, 기계화, 화학화된 농촌, 더욱 부유하고 문명한 농촌, 공산주의락원의 농촌으로 전환시킬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한다고 긍지높이 지적하였다.

대회에서는 1973년 농업생산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특히 농촌테제발표 열돐을 맞이하는 1974년에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며 우리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6개년계획의 높은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구체적방도에 대하여 결의다지고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내세운 농촌기술혁명의 주요과업들을 완수하며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신년사》, 단행본, 10페지)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1974년에 농촌경리부문에서는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점령하는것과 함께 남새, 고기, 알, 과일, 누에고치 등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이룩하여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앞에 나선 이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3대혁명의 기치를 계속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회는 농촌기술혁명을 계속 다그쳐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한 구체적방도들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대회에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형의 뜨락또르와 자동차, 능률높은 각종 련결농기계들을 더 질좋게 생산하여 농촌에 많이 보내주며 매개 도에 뜨락또르수리기지와 뜨락또르부속품 및 련결농기계 생산기지를, 매개 군에 뜨락또르중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릴데 대하여 제시되였다.

대회는 특히 오늘 우리 농촌에 각종 뜨락또르들이 대량적으로 생산공급되고있는 조건에서 뜨락또르운전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마스고 농촌에서 뜨락또르운전기술을 배우기 위한 군중적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모든 농촌초급일군들과 남녀농장원들이 누구나 다 뜨락또르를 몰수 있게 할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대회는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화학비료를 정보당 물동량으로 1톤이상, 성분량으로 200키로그람이상 줄수 있는 물질적토대를 닦아놓은 자랑스러운 성과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모든 농촌에서 과학적시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토양과 농작물의 요구에 맞게 화학비료를 효과적으로 리용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 모든 농장에서 토양의 특성과 해당지방의 기후풍토조건에 맞게 작물과 품종을 정확히 배치하며 특히 알곡의 기본작물인 벼재배면적을 정확히 보장하고 강냉이밭면적을 적극 늘이며 모든 영농작업을 제철에 알뜰히 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대회는 농촌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모든 농촌에서 기술문화,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구체적과업들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모든 농촌에 영농과학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거점을 잘꾸리고 광범한 농민들속에 토양과 식물에 대한 지식, 동물에 대한 지식, 비료에 대한 지식, 기계에 대한 지식을 비롯한 여러가지 과학기술보급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기술을 잘 알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되였다.

또한 모든 농촌에서 뜨락또르차고와 농기구창고, 쌀창고, 비료창고, 탈곡장을 잘 꾸리고 농기계설비와 모든 농장재산을 알뜰히 관리하며 농촌살림집과 집주변 및 마을을 깨끗이 거두고 농촌도로와 마당에 돌펴는 운동을 벌리며 농촌수도화를 빨리 완성하고 농촌위생문화시설을 더잘 관리하며 특히 탁아소, 유치원들을 깨끗이 꾸리고 더 잘 운영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대회는 모든 농촌에서 낡은 생활인습을 버리고 사업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대회에서는 농촌경리부문앞에 나서고있는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나가야 한다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대회는 무엇보다 먼저 전체 농업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맡겨진 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자로 하여 모든것을 재여보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며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농업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속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 요령주의, 형식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농업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과정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회는 또한 농업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속에서 로동규률을 강화하며 모두가 로동을 사랑하고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게 하며 나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국가의 법규와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지켜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대회에서는 사람과의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해서는 당조직들이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모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울데 대하여 결의다지였다.

특히 대회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인 군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농촌지도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기간에 위대한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과업을 더 잘 관철하며 1974년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일대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대강습이 동시에 진행되였다.

대회기간에는 또한 대강습계획에 따라 《논 세벌갈이》, 《미량원소비료》, 《벼종자의 새로운 처리방법》, 《기상과 농작물》, 《시루식관수》, 《소석회와 땅》, 《농촌수도화》, 《물고기를 더 많이 기르자》를 비롯한 여러편의 농업과학영화를 보았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 마지막 날에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대회에 앞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업생산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모범을 보인 805명의 협동농민열성자 및 간부들에게 국가표창(농업공로메달)을 하시였다.

《속도전》의 혁명적방침따라 3대기술혁명을 전격적으로 다그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세폭의 붉은기치를 높이 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남김없이 발양하여 사회주의건설,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3대기술혁명의 기치밑에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공업부문에서는 생산공정을 반자동화, 자동화, 원격화하는 사업, 농업부문에서는 종합적기계화, 전면적화학화를 실현하는 사업이 눈부신 속도로 추진됨으로써 인민경제의 전반적인 기술장비가 더욱 개선되였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킬데 대한 어버이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우리 근로자들은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릴수 있는 사상적, 물질적 기초를 닦았을뿐아니라 한세대에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기쁨과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되는 행복을 한꺼번에 누리게 되였다.

실로 이것은 우리 나라가 100년, 200년의 산업혁명의 력사를 가진 자본주의나라나 자본주의를 거친 사회주의나라들이 가졌던 공업화의 기술장비도, 기술력량도 없는 빈터우에서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토대를 닦고 민족간부들을 양성하면서 3대혁명을 벌리는 과정에 쟁취한 성과인것만큼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오로지 이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3대혁명방침과 3대기술혁명과업, 그 수행방도를 가르쳐주시고 정력적으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결과에 이루어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내놓은 3대기술혁명과업은 자기의 힘으로 기술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6권, 276페지)

이 과업은 로동생활에서의 로동계급과 농민 사이의 차이를 없애는 방대한 과업이고 특히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과업인것만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일하고있는 오랜 간부들의 힘만 가지고서는 《속도전》의 혁명적방침대로 3대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릴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랜 간부들을 잘 도와주어 그들이 지난 기간 일을 잘한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꽃을 피워나가게 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을 비롯한 당일군들과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 근로단체일군들, 과학기술일군들과 청년인테리들을 망라한 3대혁명소조들을 무어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에 파견하시였다.

특히 그이께서는 보통규모의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는 3대혁명소조는 20~30명씩, 큰 공장, 기업소들에는 한 50명씩 파견하시면서 3대기술혁명의 수행방도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강서확대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대담하게 짓부시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6권, 434페지)

《기술혁명수행에서 평안남도가 전국의 앞장에 서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6권, 436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당중앙은 무엇보다 먼저 당조직과 근로단체조직들을 움직여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들속에서 기술혁명수행에 장애로 되는 보수주의,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와의 강력한 사상투쟁을 벌렸다.

당중앙의 지도밑에 3대혁명소조들은 보수주의,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를 찾아 애벌김을 맨데 기초하여 3대혁명, 3대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가지고 대상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사상교양을 전격적으로 들이댔다.

그리하여 우리 로동계급과 농민들,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우리 원료, 우리 토질, 우리 사람들의 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기계와 기술공정들을 만드는 주체적립장을 가지게 되였다.

기술혁명수행에서 평남도가 전국의 앞장에 설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안주탄광 (유연탄) 과 신창탄광 (무연탄) 에, 광업부문에서는 성천광산에, 금속공업부문에서는 강선제강소에,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금성뜨락또르공장과 승리자동차종합공장에 기계화, 자동화, 원격조종화의 본보기들을 꾸렸다.

또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위해서는 벌방지대는 온천군에, 중간지대는 강동군에, 주체농법의 지도체계는 숙천군에, 농촌수도화는 온천군 (벌방) 과 양덕군 (산간) 에, 다층문화주택은 문덕군 (5층) 과 대동군 (2층) 에 각각 시범을 꾸리고 일반화하였다.

《사상전》과 본보기일반화투쟁을 통하여 3대기술혁명을 빠른속도로 추진할수 있는 여러가지 생산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졌다.

청년전기공장, 천리길전기공장, 비류강전기공장을 비롯한 70여개의 전자기구요소공장이 꾸려지고 수백종의 자동화요소들을 자체로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생산의 자동화, 원격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기초를 쌓았다.

300마력불도젤과 풍년호, 천리마호, 전진호, 충성호 뜨락또르생산기지들을 새로 건설확장하고 대량생산흐름체계를 형성함으로써 토지정리, 논밭갈이, 모내기, 씨뿌리기, 김매기, 농약뿌리기, 가을걷이, 여러가지 운반작업을 종합적으로, 전면적으로 기계화할수 있는 토대를 쌓았다.

25톤짜리자동차, 100톤짜리자동차, 450톤산적화물하차기, 진동식하차기, 항만기중기, 10톤문형기중기, 길닦이기계와 유압식통나무상차기 생산기지들을 새로 꾸리고 그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량이 많은 화물들을 짧은 시간에 싣고 나르고 부려야하는 어렵고 힘든 항만, 역전, 토장, 건설 작업들을 전격적으로 기계화할수 있는 토대가 꾸려졌다.

회전타격식착정기, 새로운 고속도착암기, 새로운 회전타격식착암기, 자행식유압착암대차, 새로운 원통식채탄기, 유압식종합기계동발, 새로운 적재기 생산기지들을 꾸리고 새로운 기계들을 널리 받아들여 채취공업부문에서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토대를 꾸렸다.

이 모든 생산기지들은 현대과학지식

으로 무장한 3대혁명소조들이 혁명성과 조직성이 강한 로동계급과 경제관리경험을 가진 오랜 간부들과 서로 힘을 합쳐 국가투자와 내부예비를 적극적으로 동원리용하여 소문없이 만들어놓은것이다.

3대기술혁명방침을 받들고 우리 로동계급과 3대기술혁명소조원들은 무엇보다도먼저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유해로동과 고열로동을 없애는데 불을 걸었다.

당 제5차대회가 있은 다음 처음 열린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는 채굴설비들을 대형화, 고속도화하며 운반작업을 다양화할것을 결정하고 각급 당조직들을 그 실현에로 불러일으켰다.

채굴기계공업부문의 로동계급들과 3대혁명소조들은 현재 쓰고있는 채굴기계들보다 훨씬 가볍고 그 속도가 빠른 여러가지 채취설비들을 대담하게 만들어공급함으로써 탄부들과 광부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채굴작업을 대형화, 고속도화할수 있게 갱끝격구조를 새로 잡은 탄광, 광산들에서는 회전타격식착정기를 받아들여 천공속도를 5배로 높였으며 로천채굴장들에서는 박토성과를 2배로, 무게가 40%나 가벼운 고속도착암기를 써서 천공속도를 1.6배로,회전타격식착암기를 받아들여 교대당 광석생산량을 8～10배로, 자행식유압착암대차를 리용하여 월 굴진속도를 150메터이상, 유압식종합기계동발을 들여 채탄장로력을 절반으로 줄이고도 채탄공 한사람당 하루생산량을 3.7배로 높일수 있었다.

특히 최근년간 채굴부문에 대한 국가투자를 대폭 늘인 기술혁명의 년차별계획에 따라 채굴작업의 대형화, 고속도화, 운반작업의 다양화 속도가 3개년, 5개년, 7개년계획 시기에 비하여 폭풍같은 놀라운 속도에 이르러 광부들과 탄부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일을 크게 전진시켰다.

당중앙은 또한 용해공, 주조공, 운전공들을 고열로동, 유해로동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기술혁명을 직접 틀어쥐고 밀고나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제철소, 제강소, 세멘트공장들에서는 사변장, 립철회전로, 환원단광로, 평로, 전기로, 소성로들의 산업텔레비존화와 원격조종에 의한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실현하여 많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로동자들의 힘든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덜어주었다.

제련소, 화학공장들에서는 용광로, 카바이드로를 밀폐식으로, 회전질화로와 합성탑의 구조를 현대식으로, 알카리섬유소의 로성공정을 련속공정으로, 판식압려파기를 완전밀폐충전려파기로 개조하여 그 생산능력을 1.5배～10배이상 높이면서도 유해로동을 없앴다.

3대기술혁명방침을 받들고 농촌에 파견된 첫 로동계급의 부대들인 뜨락또르운전수들과 3대혁명소조들은 협동농민들과 힘을 모아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농산물생산을 늘이는데 힘을 넣었다.

이해에 로동계급의 강력한 지원에 의하여 100정보당 벌방지대에는 4대,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에는 3대씩의 뜨락또르가, 협동농장마다 4대이상의 자동차들이 들어갔으며 철도와 멀리 떨어진 산간지대들에는 자동차수송대들이 조직되였다.

또한 1만 수천대의 모내는기계, 수만대의 벼, 강냉이 김매는기계와 농약뿌리는기계, 고속도분무기, 이동식탈곡기, 련결차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 농기계와 농기구들이 수많이 들어갔다.

모든 협동농장 매 작업반마다 선진영농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선전실들이 꾸려지고 농업기술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 농업대학실습생, 농업전문학교와 중학교 교원들이 나가 위대한 주체농법에 따라 농업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있는 지식을 배워주었다.

특히 협동농장 관리일군들과 리당일군들, 작업반장과 분조장들을 비롯한 초급일군들이 직접 뜨락또르, 모내는기계, 김매는기계, 농약뿌리는기계를 비롯한 갖가지 기계운전법을 배우면서 농산작업의 기계화에서 이신작칙함으로써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는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다.

무엇보다도 논세벌갈이체계를 모든 논에 100%세움으로써 땅의 물리화학적성질을 좋게 만들었으며 풀뿌리를 모조리 잡아낸 덕에 논김 한벌매기일손을 완전히 덜었다.

또한 거의 절반의 논에 기계모를 변결과 가장 힘든 모내기를 1～2년내에 완전히 기계화할수 있는 전망이 열려졌다. 그리하여 협동농장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로동당시대에 허리를 펼수 있게 되였다고 기뻐하고있다.

모든 협동농장마다 논 100정보, 밭 100정보이상씩의 종합적기계화, 전면적화학화 포전들을 꾸리고 주체농법에 따라 농사지음으로써 알곡생산을 높이면서도 많은 로력을 절약하는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의 토대를 닦았다.

전국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는 논밭갈이, 낟알털기, 쌀찧기, 가루빻기, 사료짜르기 일을 100% 기계화하였다.

농업의 현대화, 공업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알곡생산이 1973년에 비하여 1974년에 131%, 남새생산이 1.2배, 아마생산이 126%, 고기생산이 151%, 알생산이 111%로 늘어났다.

3대혁명방침을 받들고 우리 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은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있다.

도시녀성들보다 농촌녀성들의 가정적부담이 더 많은 조건에서 농촌수도화와 농촌탁아소, 유치원 건설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렸다.

그리하여 1974년말 현재 전체 농촌세대의 60%에 물동이를 이는 부담을 없애는 수도가 들어갔으며 아이기르는 부담을 덜어주는 4만 3천여개의 탁아소, 유치원들이 일어섰다. 그리고 농촌뻐스화가 85%이상 실현되고 농촌진료소의 병원화 (아동병동, 산원실) 가 완성되였다.

또한 각도마다 곡산공장들이 일어섰고 시,군마다 옥쌀공장들이 생겼는데 여기서는 옥쌀과 함께 마른국수를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한다.

또한 매개 시,군마다 남자, 녀자,어린이 옷공장들이, 매개 동, 리마다(도시에는 주택구획마다) 빨래집들이 일어선 결과 옷짓는 부담과 빨래부담이 상당히 없어졌다.

특히 녀성들자체가 높은 창발성을 내여 자신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옷공장, 편직공장, 국수공장, 밥공장, 빨래집 건설과 수도화에 적극 나섬으로써 이 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그리하여 인구의 절반, 로력인구의 45.5%를 차지하는 녀성들의 역할이 더욱 높아지고있으며 우리 인민들의 생활이 더욱 윤택해지고있다.

당중앙이 내놓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 구호는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과시

지금 온 나라는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새로운 천리마속도, 《70일전투속도》로 끊임없이 전진하고 혁신하는 혁명적기백으로 들끓고있다.

사람마다 청춘의 패기와 정열에 넘쳐 혁명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은 당중앙이 제시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가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근 당중앙에서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내놓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 속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 사업기풍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우리는 당중앙이 내놓은 이 구호가 좋은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힘을 알곡 800만톤고지 점령을 위하여》, 단행본, 11~12페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이 혁명적구호는 우리 당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높이 발휘되였던 혁명적인 사업기풍, 학습기풍, 생활기풍을 온 사회를 유일사상화, 주체사상화하는 오늘의 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구현하고 집약화하여 내놓은 구호이다.

이 구호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아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과 립장을 반영하고있으며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더 높이 솟아오르려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의지를 담고있다.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일반적호소만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 일편단심 충성다한 항일투사들의 혁명적기풍을 본보기로 제시한것으로 하여 더욱 위력한것이다.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무엇보다먼저 각급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이의 고매한 공산주의적풍모를 적극 따라배우며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과 대원들의 혁명적기풍을 배우게 하였다.

당중앙은 또한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항일유격대식혁명적기풍을 본받아 생산과 학습과 생활에서 대중에게 모범을 보여주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지도하였다.

당중앙의 지도밑에 항일유격대식혁명적기풍으로 교양하는 사업과 그를 본받기 위한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진 결과《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는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과시하였다.

생산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집행에 대한 무조건성, 절대성의 생산기풍과 자력갱생의 생산기풍이, 학습에서는 전당, 전민, 전군의 학습기풍과 문답식학습기풍이, 생활에서는 육체적생명보다 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 조직생활기풍과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화생활기풍이 철저히 섰다.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관철하는데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관철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고 한 항일유격대원들의 그 혁명정신과 사업기풍으로 맡겨진 생산과제를 무조건 끝까지 수행하였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선 위대한 수령님께서 명령하신 주력부대의 겨울나이군량을 마련하기전에는, 소부대사업을 사령부에 보고하기전에는 앓을 권리도, 휴식할 권리도, 죽을 권리도 없다고 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무조건성, 절대성의 혁명적기풍을 본받아 무조건성, 절대성의 생산기풍을 철저히 세웠다.

김철, 강선의 로동계급들은 분초가 새로운《70일전투》의 마지막에 뜻밖의 사고로 야금설비를 식을 때까지 여러날 세워야 할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임무를 기어코 수행하려는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달대로 달아오른 로의 보수를 짧은 시간에 해제낌으로써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였다.

사령관동지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충성심과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 기풍은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서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으로, 절대성과 무조건성의 생산기풍으로 꽃피여났다.

또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요구라면 재봉침바늘도, 연길폭탄도, 기관총의 부속품도 만들어내던 항일유격대원들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면서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어떠한 조건타발도 없이 자체의 힘으로 척척 해결하는 생산기풍을 발휘하였다.

해상운수와 기계공업의 로동계급들은 화물수송량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따라 항능력이 딸리자 수입에 예견하자하던 항만기중기들을 단번에 수십대씩 만들어세움으로써 항능력을 단 한해동안에 2배로 높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해에 그때까지 파묻혀있던 4만 5천톤의 강재, 41만톤의 파고철, 4천여톤의 파동, 1천 200여톤의 유색금속, 수천대의 노는 설비들을 찾아내여 부닥치는 난관을 주동적으로 뚫고나갔다.

이처럼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항일유격대원들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혁명적기풍을 본받음으로써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 것은 찾아내는식으로 어떠한 조건타발도 모르는 혁명적생산기풍을 발휘할수 있었다.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관철하는데서 또한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학습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혁명적으로 공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학습기풍을 따라배워 전당, 전민, 전군이 주체의 혁명량식을 받아들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새로운 방침들을 제시하실때마다 유격근거지와 백두밀영에서 광범히 조직한 집중군정학습의 전통을 이어받아 당일군강습, 대회강습, 1개월강습을 비롯한 대강연, 대강습들을 줄기차게 진행하였다.

１９７４년초에 조직된 전국농업대회강습에서는 오전에는 ６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점령할데 대한 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주체농법에 대한 강습을 준 다음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시범단위농장을 돌아보거나 주체농법을 주제로 한 과학기록영화 수십편을 봄으로써 주체시대의 과학농사를 지을수 있었다.

７００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그이의 농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것을 자로 하여 주체농법대로 농사지은 결과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투의 여가에도, 행군길에서도, 끼니를 건느면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던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직장을 오가는 길에서도 쉴참에도 혁명적으로 학습하고 꾸준히 배웠다.

특히 １５성상 백두밀림에서 진행되던 우등불가의 문답식학습이 오늘 문답식학습토론, 문답식학습총화, 문답식학습경연으로 발전하여 온 나라, 모든 가정에 항일의 학습열정이 차고넘쳤다.

《김일성동지혁명사상학습반》에서 벌어진 문답식학습토론, 문답식학습총화, 문답식학습경연을 통하여 깜빠니야식학습기풍이 날아나고 일상적으로 공부하는 습성, 형식주의와 요령주의가 빠지고 실속있게 공부하는 습성,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적학습기풍이 확고히 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업열성자회의에서 가정혁명화의 본보기라고 평가하신 천리마대안전기공장 소홍섭동무의 가정에서는《부부문답식학습》을 정상화하여 생산에서도, 학습에서도, 생활에서뿐아니라 직장에서도, 인민반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범적이였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유격대식 학습기풍을 세워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니 지난시기 일부 일군들속에서 나타났던 당세도, 관료주의, 주관주의를 비롯한 잡귀신들이 없어지게 되였으며 설사 잡귀신들이 나온다해도 대중들에게《통행증》을 떼우게 되였다.

１９７４년의 바쁜 농사철에 함북도의 지도일군들이 농사일을 제쳐놓고 초가이엉을 기와로 바꾸라고 지시할 때 많은 농촌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그것을 받아물지 않은 사실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오직 당의 사상으로 숨쉬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관철하는데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제일생명으로 여기고 정치생활은 충성의 꽃으로, 문화생활은 혁명의 꽃으로 활짝 피워놓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혁명적인 당생활총화방법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킨 2일 및 주 조직생활총화회의를 통하여 육체적생명보다 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히 생각하는 우수한 당원들과 근로단체맹원들이 수많이 자라났다.

《７０일전투》기간 봉천탄광 한 세포비서, 흥남비료련합기업소 한 직맹원, ３대혁명소조에 나간 김책공업대학 한 사로청원은 위험이 갑자기 닥쳐든 순간 육체적생명을 바쳐서라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과업을 중단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실제상 자기의 한몸으로 위기를 막을수 있다는것을 행복으로, 영예로 생각하고 불새처럼 날아들므로써 정치적생명을 충성의 꽃으로 꽃피웠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처럼 육체적생명보다 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며 자기는 죽어도 조직은 살아야 한다는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조직생활기풍을 본받음으로써 충성의 한길에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가는 참다운 조직생활기풍을 세웠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또한 끊임없는 전투와 행군길에서도 언제나 혁명적랑만과 기백이 넘치고 혁명적으로 생활한 항일유격대의 문화생활기풍을 본받아 문화생활을 혁명의 꽃으로 잘 꽃피워놓았다.

１９７４년에 중앙과 지방의 혁명적예술인들은 1만 8천 ７００여회의 예술선동 (영화선동, 노래선동, 기동예술활동, 무대공연, 오락회선동 등)을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기세와 왕성한 투지를 북돋아주었다.

그런데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예술선동에서 나오는 혁명적영화를 보는데 그치지않고 혁명적영화를 본보기로 삼아 부정을 불사르고 긍정적모범을 일반화하는 실효투쟁을 무려 3만 6천 １００여개의 단위에서 벌림으로써 문화생활을 혁명적랑만과 전투적열정으로 전환시켰다.

이처럼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혁명전통의 나라의 당원들답게, 근로자들답게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적인 석유위기, 원료위기, 식량위기의 아우성을 짓누르면서 《７０일전투속도》의 포성, 만풍년의 북소리를 힘차게 울릴수 있었다.

６개년계획을 당창건 ３０돐전으로 앞당겨 완수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１９７４년계획을 마무리하는 《７０일전투》기간에 공업총생산액이 그전에 비하여 무려 １７０％로 뛰여올랐으며 알곡생산량이 대풍이 들었던 １９７３년에 비하여 또다시 １３１％로 솟아올랐다.

《７０일전투속도》의 포성, 만풍년의 북소리는 당중앙이 내놓은《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의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전격적인 경제선동으로 사회주의 대건설을 힘차게 추동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대건설의 혁명적방침을 심장으로 받들고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의 열정과 왕성한 기백으로 사회주의대건설을 번개처럼 다그침으로써 모든 전선, 모든 고지에서 전례없는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기본건설전선에서 계획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의 완성, 공업전선에서 １９７４년도공업생산계획의 초과완수, 농업전선에서 2년 앞당겨 ６개년계획의 알곡고지점령, 수송전선에서 철도, 자동차, 선박 수송계획 등을 기한전에 완수하였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일어나고있는 새로운 혁명적앙양은 당중앙의 현명한 지도밑에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 모든 고지에서 정치선전과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힘차게 울린 결과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선전선동사업은 반드시 경제사업과 밀접히 련결되여야 하며 사상사업의 결과는 경제건설에서의 구체적실적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７７

폐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당조직의 책임일군들과 사상사업부문일군들이 6개년계획수행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부문들과 건설장들에 나가 경제선동사업을 잘하여 6개년계획수행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경제선동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격동시키고 그들의 정치적열성과 혁명적기세를 높여주어 당의 경제정책관철에로 대중을 직접 발동시킴으로써 경제건설에서 즉시 은을 나타내게 하는 우리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형식이다.

참으로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는 여기에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대건설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속도를 비상히 높이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있다.

당중앙은 사회주의대건설에서 경제선동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역할에 대하여 심오하게 밝히고 정치선전과 경제선동을 밀접히 결합하며 특히 경제선동을 전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섬멸전의 방법으로 힘있게 벌릴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내놓았다.

당중앙이 제시한 경제선동방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몸소 창조하신 대중정치선동사업방법과 그 경험을 오늘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것으로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위력하고 우월한 혁명적방침이다.

당중앙의 현명한 지도밑에 혁명적예술인들과 출판보도부문일군들이 1973년 11월 초순부터 12월 중순에 이르는 40여일동안 금성뜨락또르공장과 승리자동차종합공장을 중심으로 힘있게 벌린 경제선동의 대승리는 항일유격대식으로 경제선동을 전격적으로 벌리는 여기에 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가져오게 하는 비결이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당중앙은 1974년에 전당이 선전원, 선동원이 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면서 무엇보다먼저 경제선동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며 책임일군들이 이 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선전선동부와 경제부서들의 배합작전, 당일군들과 행정경제일군들의 련합작전을 잘 조직한데 기초하여 경제선동공세를 벌릴데 대한 위력한 경제선동체계를 세워주었다.

당중앙은 또한 국가경제기관과 근로단체는 물론 문화예술부문과 출판보도부문, 공장, 기업소와 농장을 포괄하여 중앙과 지방, 생산현장에 이르기까지 예술선전대, 방송분견대, 출판보도선전조, 기동예술대들을 조직함으로써 방대한 경제선동력량을 편성하여주었다.

당중앙은 특히 구두선동 (해설, 담화, 선동연설, 독보), 직관선동 (선동문, 표어, 속보, 전투속보, 사진속보, 속사속보, 벽신문, 벽보, 선전화, 경쟁도표, 영예게시판, 련속그림, 그림극, 실물선동), 모임선동 (결기모임, 충성의 결의모임, 우등불모임, 회상기실효모임, 혁신자축하모임, 련환모임, 정문환영, 이야기모임), 예술선동 (영화선동, 노래선동, 기동예술활동, 고동대활동, 무대공연선동, 오락회선동), 방송선동 (화선방송, 포전방송) 등 모든 선전선동방법과 형식을 동원하여 선동공세를 벌리도록 지도하였다.

새로운 경제선동체계에 따라 모든 선동력량과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선동공세를 힘차게 벌림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정치선전보다 경제선동을 홀시하는 경향과 경제선동을 선전선동원들의 일로만 생각하는 무관심한 경향을 철저히 뿌리빼고 경제선동을 전당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는것이였다.

당중앙의 현명한 지도밑에 경제선동을 홀시하는 경향과 무관심한 경향과의 일대 사상투쟁이 고조되는가운데 사회주의대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상전》선동전을 힘차게 벌릴수 있는 조직정치사업이 안받침되였다.

우선 공업부문에서는 1974년 신년사와 전국공업대회에서 하신 교시, 농업부문에서는 신년사와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교시를 받들고 경제선동을 전격적으로 벌리기 위한 초급선전일군회의가 공장, 기업소, 도별로 일제히 열리였다.

또한 농업부문에서는 숙천군에서, 공업부문에서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경제선동을 전격전, 집중공세, 섬멸전의 방법으로 벌리기 위한 전국방식상학과 모범경제선동이 조직되였다.

그리고 출판보도부문에서 《항일유격대식 경제선동사업경험》, 《항일유격대식 경제선동을 위한 참고자료》를 비롯한 경제선동해설책들과 선동자료신문 《예술선동》을 비롯한 좋은 선동자료들을 수많이 찍어냈다.

사상투쟁과 여러가지 조직정치사업을 통하여 경제선동을 홀시하거나 그에 무관심하던 경향들이 극복되고 경제선동의 진미를 파악하게 된 모든 일군들은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 모든 고지에서 대중을 끊임없이 혁명적앙양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37만여차례의 대규모 경제선동을 더욱 참신하고 패기있게 진공적으로 벌렸다.

특히 당은 12개 중앙예술단과 48개 지방예술단의 혁명적예술인부대를 어렵고 중요한 전투초소에 파견하여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예술선동을 벌리도록 하였다.

《70일전투》기간에 혁명적예술인들은 1천 252개 단위에서 1만 8천 700여회의 예술선동을 벌려 근로자들의 투지와 기세를 북돋아주었으며 혁명적영화를 무기로 삼아 부정을 불사르고 긍정적모범을 일반화하는 실효투쟁이 3만 6천 100여개 단위에서 진행됨으로써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키워주었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이해에 선동사업에서 당정책적요구를 튼튼히 틀어쥐고 중심고리에 선동을 집중하도록 경제선동의 방향을 바로잡아주었다.

숙천군당위원회에서는 초기에 모내기경우에는 기계모보다 손모 실적에치우치고 강냉이영양단지모경우에는 평당포기수의 보장보다 속도에 더 열을 내는 결함을 찾아내고 기계모와 강냉이 영양단지모의 평당포기수의 보장에 군내 경제선동의 력량과 수단을 동원하도록 이끌어주었다.

특히 군당위원회와 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은 농장원들속에서 모내는기계와 첫 발고랑을 타고 농촌에 새로 들어간 모내는기계들을 적극 리용하며 강냉이영양단지모의 평당 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하는 사업이 가지는 의의를 깊이 인식시키면서 이 문제를 푸는데로 대중을 동원했다.

이처럼 모든 각급 당위원회들이 당중앙의 현명한 지도밑에 모내기와 김매기, 가을걷이와 낟알털기 때마다 당정책관철에로 부르는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제대로 나도록 방향을 바로 잡아준 결과 뒤미처 만고대풍의 농악소리가 귀맛좋게 울려왔다.

또한 각급 당위원회들은 대경제선동이 모든 부문, 모든 사람들을 대상하며 모든 공장,모든 직장마다 경제선동력량이 조직된 조건에서 선동사업이 한개 대상, 한가지 과업이라도 해결하도록 이끌어주었다.

단번에 100여개이상의 예술선전대,방송분견대,출판보도선전조를 맞이한 김철건설장에서는 오래동안 활동하는 선동대에는 중요건설대상을, 짧은 기간 사업하는 선동대에는 한가지과업씩 맡겨 로동자들을 고무하면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지도하였다.

모든 선동대에서는 구체적인 실정과 건설시공공정에 따라 예술선동, 구두

선동, 방송선동, 직관선동, 모임선동들을 집중적으로 섬멸전의 방법으로 들이댔다.

당중앙의 지도밑에 경제사업의 한고리씩 풀어나가는 대경제선동의 북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진 결과 기본건설에서는 첫출강을 알리는 종소리, 공업전선에서는 대혁신의 만세소리, 수송전선에서는 증송의 기적소리들이 련이어 화답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시였고 수령님과 당중앙이 사회주의대건설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 항일유격대식 경제선동은 우리 근로자들에게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단숨에 점령하려는 혁명적담력을 키워주었으며 사람도, 사회도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힘있는 무기라는것을 실장으로 과악시켰다.

하기에 김철의 건설수리개들인 연공들은 100메터의 굴뚝우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견하신 직총중앙위원회 로동자예술선전대를 맞이하자 평양을 우러러 눈물을 흘리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와 충성의 구호를 오래도록 불렀다.

당중앙에서 내놓은 《속도전》의 혁명적방침따라 천리마작업반운동이 더욱 심화발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은 1974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6개년인민경제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새로운 천리마속도, 새로운 평양속도》로 힘차게 내달려 1974년도 공업생산액을 1973년에 비하여 17.2%로 장성시켰다.

우리의 공업은 이해에 원래 6개년인민경제계획에 예견한 발전속도보다도 훨씬 높은 속도로 내달리였다.

사회주의공업화가 이미 실현되여 기술혁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고 생산의 규모가 공업화의 첫시기보다 20배나 늘어난 조건에서 이룩된 우리 공업의 발전속도는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대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당중앙에서 내놓은《속도전》의 방침따라 천리마의 대진군운동을 힘차게 벌린 결과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운동은 많은 사람들을 계속 전진하고 계속 혁신하는 사회주의건설의 적극분자로 만드는 하나의 공산주의교양운동이며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영웅주의를 발양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게 하는 공산주의적전진운동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50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을 튼튼히 틀어쥐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해에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힘차게 벌렸다.

이해에 천리마의 대진군운동이 더욱 힘차게 벌어진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대건설의 요구에 맞게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킨 결과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은 우리 혁명과 건설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가져오는 혁명적방침이다.

이해에 진행한 김책제철소 확장공사와 4월13일제철소 확장공사, 청년화학종합공장건설과 남포지구화학공장건설만 보더라도 나라의 강철공업기지와 화학공업기지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주체공업국가의 위력을 더욱 떨치게 되였다.

이러한 사회주의대건설투쟁은 그 규모와 폭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건설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웅대하고 거창한 투쟁이다. 김책제철소확장공사투자액만 하여도 7개년계획수행시기 국가의 년간산업건설액과 맞먹는다.

이 거창한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여주신 대중적대진군운동인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사회주의대건설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켜야 한다.

당중앙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천리마운동에 관한 위대한 사상과 리론을 사회주의대건설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켜《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을 내놓았다.

당중앙이 내놓은《속도전》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 세월을 앞당기고 로정을 주름잡는 우리 인민의 위력한 무기로 되였다.

《속도전》의 방침은 이해에 사회주의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전례없는 대비약과 혁신의 불길로 거세차게 타번지게 하였으며 질풍처럼 내달리는 천리마의 억센 날개에 더욱 커다란 힘을 주었다.

《속도전》은 무엇보다도 공산주의교양운동으로서의 천리마작업반운동의 교양자적역할을 비상히 높여주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원리를 구현하고있는《속도전》은 모든 일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기본열쇠를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사람의 사상의식을 혁명적으로 빨리 개조하는데서 찾고《사상전》을 힘차게 벌렸다.

인간개조사업에서《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는《사상전》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의식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최단기간안에 뿌리빼고 모든 근로자들을 주체적인 사상관점과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소유한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훌륭히 육성하여주었다.

청년화학종합공장건설에 참가한 건설기업소의 천리마작업반, 2중천리마작업반들에서는 로쇠현상, 경험주의, 보수주의, 요령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와의 투쟁을 강화하는 한편 모든 선전선동 수단들과 형식들, 방법들을 총동원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줄기차게 실속있게 해설선전하면서 노소비료공장, 아닐론공장, 폴리에틸렌공장, 종이공장 건설을 다그쳤다.

청년화학종합공장건설기업소의 천리마기수들은 이렇듯 사상투쟁, 사상교양, 건설투쟁의 불길속에서 영명하신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 령도의 현명성을 더욱더 깊이 체득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확고히 지니게 되였으며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더욱 철저히 가지게 되였다.

따라서 당중앙이 내놓은 《속도전》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그 어느때보다 높여야 하는 사회주의대건설의 요구에 맞게 모든 사람들을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교양개조함으로써 공산주의교양운동으로서의 천리마운동의 위력을 더욱 높여주었다.

바로 여기에《속도전》이 이해의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킨

무진장한 힘의 원천이 있다.

《속도전》은 또한 공산주의적전진운동으로서의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요구도 빛나게 구현하고있을뿐아니라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킴으로써 인민경제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적극 불러일으켜 생산과 건설을 빠른 속도로 밀고나가는것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본질적요구이다.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인《속도전》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근로자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창조적적극성에 기초하여 제기된 일, 시작한 일을 부러나게 전격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최단기간안에 속도와 질에 있어서 최상의 성과를 거두게 하였다.

김책제철소 확장공사에 참가한 건설기업소의 천리마기수들은 모든 힘을 제기된 혁명과업수행에 총집중하여 번개같이 해제끼며 한가지과업을 수행하고는 련이어 다음과업을 수행하는 전격전, 섬멸전을 벌려 실로 방대한 련속식소결로, 강철직장, 열간압연직장, 대형용광로, 해탄로 건설을 단 한해동안에 완성하였다.

이곳 천리마기수들은 전격전, 집중공세, 섬멸전을 통하여 주체적인 시공방법의 위력대로 2배, 3배의 건설속도를 창조하였으며 가장 높은 질을 보장하였다.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은 경제관리운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여야 하는 사회주의대건설의 요구에 맞게 건설계획, 시공조직, 기술발전, 자재보장, 후방공급 등을 혁명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공산주의적전진운동으로서의 천리마운동의 위력을 더욱 높여주었다.

바로 여기에 《속도전》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킨 원천이 있는데 그것은 이해의 천리마운동에서 여실히 증명되였다.

《속도전》은 결국 인간개조와 생산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을 다같이 힘있게 추진시켜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게 함으로써 천리마작업반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였다.

이렇듯 당중앙에서 내놓은 《속도전》의 방침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전반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최대한으로 다그쳐나가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방침이다.

이해에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튼튼히 틀어쥐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과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객관적요구이며 이 세가지 혁명을 잘 하기 위하여 몸바쳐싸우는것은 천리마기수들과 모든 근로자들의 가장 영예로운 임무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53페지)

이해에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은 《속도전》의 원리를 구현한《사상전》의 방법으로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왔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유일사상교양과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한편 혁명적조직생활을 짜고들어 주체형의 혈통을 가진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키우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 전국공업대회,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깊이 학습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훌륭히 관철하고야 말 충성심을 지니였다.

그리하여 이들 모두가 심장속깊이에서 우러나오는 맑고 깨끗한 량심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모시며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옹호보위하고 그이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일하면서 투쟁하였다.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은 사상혁명과 함께 3대기술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서도 《속도전》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모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하루빨리 해방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꽃피워놓았다.

금속공업부문과 화학공업부문의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은 기술발전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카바이드로, 평로, 용광로들에 모든 기술력량과 힘을 집중하여 섬멸전의 방법으로 카바이드로의 종합적기계화(밀폐식)와 제철제강작업의 원격화를 실현하였다.

사상혁명, 기술혁명과 함께 문화혁명도 힘있게 내밀었다.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은 고등중학교졸업정도의 일반지식과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질데 대한 당의 요구를 더 빨리 더 철저히 관철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왔다.

또한 공장안을 궁전과 같이 꾸리고 공장구내와 주변을 공원과 같이 꾸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보람찬 일터로, 생활터로 만들었으며 새로운 생활문화, 새로운 생활양식도 세워 모든곳이 혁명적정열과 혁명적랑만으로 가득차게 하였다.

특히 이해에 직맹, 농근맹, 사로청 조직들은 모든 분야에서 재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없애고 사회주의대건설의 요구에 맞게 천리마운동에 대한 지도를 혁명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 높은 수준에서 이끌어나갔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속도전》의 기수답게 당창건 서른돐(1975.10.10.)까지 1976년에 점령하려던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에 앞당겨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며 나아가서 웅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단숨에 실현할수 있는 사상정신적, 물질기술적 토대를 닦아놓았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숨쉬고 일하며 그이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여 굳게 단결된 조선인민의 본때를 다시한번 온세상에 보여주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관리운영하여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힘있게 추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5년 신년사에서 1974년도 공업경제관리부문의 성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난해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

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신년사》, 단행본, 5페지)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들과 경제관리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1974년도 공업생산계획을 훨씬 넘쳐수행하였을뿐아니라 6개년계획의 중요고지들을 당창건 30돐기념일전으로 앞당겨 점령할수 있는 사상정신적, 물질기술적 토대를 닦아놓았다.

1974년도 공업생산은 6개년계획의 지난 3년동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고 원래 6개년계획에 예견하였던 장성속도보다 훨씬 높은 속도로 달리였다.

특히 1974년도 공업생산의 장성속도는 이미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되여 기술혁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고 생산규모가 공업화의 첫시기보다 20배나 늘어난 대규모의 경제조건에서 달성되였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들과 경제관리일군들은 또한 경제관리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기술혁신운동에 의한 절약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공업부문에서의 원가를 계획보다 2%나 더 낮추었으며 있는 설비,자재로 생산을 훨씬 늘였다.

1974년도 공업부문의 성과는 정치사업을 잘하여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고 기술을 끊임없이 개조하여나간다면 경제를 얼마든지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이 진리를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었다.

또한 이것은 사회주의경제제도를 악랄하게 비방중상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에게 치명적타격을 주었으며 경제가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장성속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온갖 기회주의적궤변을 여지 없이 짓뭉개놓았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해에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할수 있는 중요한 예비가 조직, 지도, 관리 사업을 더잘 하는데 있다는것을 다시금 밝혀주시면서 대안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경제를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와 지도밑에 이해에 인민경제발전에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기업소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생산에 복무하는 서로 다른 부문의 기업소를 하나의 기업소로 합치여 련합기업소를 내왔다.

그리하여 황해제철련합기업소, 강선제강련합기업소, 김책제철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단천지구광업련합기업소 등이 나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옳게 설정하며 자재상사의 역할을 더욱 높여 사회주의경제를 보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옳게 관철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이 조치는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켜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겨 이룩하는데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나라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수도 평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함북도를 비롯한 여러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시고 경제관리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풀어주시면서 힘차게 이끌어주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시고 당중앙이 현명하게 령도한 《70일전투》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생활력을 완전히 발휘할수 있는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근로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여주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을 따라 무엇보다도먼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의 집행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칙으로 삼고 억세게 싸워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정치선전과 경제선동을 밀접히 결합하며 경제선동을 전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섬멸전의 방법으로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중앙의 방침에 따라 사회주의건설의 5개전선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 혁명의 북소리가 힘있게 울리게 하였다.

당중앙의 지도밑에 《피바다》가극단의 배우들과 영화예술인예술기동선전대, 각도 예술기동선전대 그리고 근로단체예술기동선전대, 각 공장, 기업소의 생산고동대, 현장기동대들은 극장과 구락부를 떠나 현장공연, 기대열의 공연, 련합모임, 정문환영, 사진및직관, 방송공연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당정책이 철저히 관철될 때까지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근기있게 끌고나왔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화학전사들은 능력확장공사를 벌리며 설비를 집중보수할데 대한 1973년 11월의 현지교시를 가슴마다 깊이 아로새기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집행에서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 경제선동을 련방 들이댔으며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설비의 정비보수와 기술개건에 힘을 넣고 원료와 자재를 적극 앞세워 보장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대로 무조건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낡은 설비들을 새로운 설비로 교체하면서 보수주기마다 설비들을 집중정비하는 투쟁을 통하여 이해의 상반년동안에 비날론은 1.5배, 염화비닐은 1.4배, 카바이드는 1.3배, 가성소다는 1.2배로 높였다.

이해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옹호관철하는 사상관점과 립장, 태도를 가지고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여 억세게 싸운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생산과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업부문에서는 또한 생산을 집중적으로,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거대한 우월성을 옳게 인식하고 계획, 생산, 기술을 비롯한 기업소안의 여러 고리, 련합기업소안의 여러 고리, 총국과 부 아래의 여러 고리, 인민경제의 여러 고리들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종합적으로 움직이는 강력한 생산지도체계를 세우는데서 커다란 전환을 일으켰다.

당중앙의 지도밑에 나라의 인민경제발전에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64개의 공장, 기업소들을 직접 틀어쥐고 지도함으로써 긴장하던 채취공업, 교통운수, 수출문제를 선참으로 해결하여 인민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켰으며 공작기계, 자동차, 뜨락또르 등의 주요지표생산량을 1.5배이상씩 높일수 있게 관리운영하였다.

또한 사회주의대건설이 심화되고 3대기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실현됨에 따라 생산부문간, 부문내부간, 지역들간의 생산적련계가 더욱 복잡해지는 조건에서 공동의 목적을 가진 서로 다른 부문의 기업소들이 생산기술면에서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인것이 이해의 중요한 성과였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는 기업소안의 공장, 광산, 탄광들이 모두 비료생산을 책임진 립장에서 호상 긴밀한 협조를 강화하여 협동생산을 높은 수준

에서 보장하였을뿐아니라 방대한 증산예비를 찾고 실현하였다.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만부하를 건 화학비료생산능력에 맞게 기업소안의 동암광산, 만덕광산의 능력을 훨씬 높일수 있다는 증산예비를 찾아내자 기술자들과 공작기계, 부속품, 자재를 보내주었으며 광산 호상간에도 자재, 부속품들을 지원해줌으로써 계획외에 선광장능력, 삭도능력을 더 높였다.

계획, 생산, 기술뿐아니라 비료생산을 책임진 공장, 탄광, 광산들간의 협동생산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는 경제관리의 전반사업에서 확고한 통일성과 일치성이 보장됨으로써 표준비료로 1973년에 비하여 1.3배로 높인 결과에 6개년계획의 비료고지를 1년이상 앞당겨 점령할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대건설이 심화되고 그 발전속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대안의 사업체계의 생산지도체계가 또한 생산실태를 과학적으로 장악하고 방대한 과제도 단숨에 해제낀것도 이해의 중요한 성과의 하나였다.

《70일전투》의 초기에 공작기계생산을 그전에 비하여 5배이상 높일 과제를 맡은 천리마만경대공작기계공장 참모부에서는 이미 110여종의 공작기계부속품을 생산한 재고량을 제때에 과학적으로 장악한데 기초하여 나머지 190여종의 부속품생산에 생산기술지도를 집중함으로써 긴장하던 가공직장의 생산능력문제를 해결하면서도 《70일전투》목표를 수행하였다.

우로부터 아래로 자재를 공급하는 대안의 사업체계는 또한 생산에 대한 보장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

생산을 책임진 정무원과 부, 총국들이 직접 생산지도와 자재보장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결과 자재공급위원회, 자재상사들이 책임적으로 원료자재들을 날라주었다.

특히 중앙, 도의 자재검열대와 공장, 기업소의 예비동원대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자재예비, 설비예비를 탐구동원함으로써 이해에 1억원분의 유휴설비, 유휴자재들을 찾아썼으며 방대한 원료, 자재 예비들을 조성하였다. 우로부터 아래로 공급하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원료, 자재 보장체계는 꼭 필요한 원료, 자재만 날라주는 간편하고 기동성있는 보장체계로 발전하였다.

공업부문에서는 또한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는 집단주의생활원칙과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그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을 더욱 힘차게 다그쳤다.

특히 경제건설에 대한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체계가 확고히 세워짐으로써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일부 일군들의 그릇된 관점이 부서져나갔으며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기능과 중앙집권제적 규률이 철통같이 강화되였다.

사실상 이해에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공업생산계획을 훨씬 넘쳐수행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경제건설에 대한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체계를 더욱 확고히 세운 결과이다.

모든 당조직들이 경제사업에 결정적으로 낯을 돌리고 운전대를 튼튼히 쥐고나갈데 대한 당중앙의 방침에 따라 공장, 기업소의 당위원회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뚜렷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며 당적분공의 조직과 그 수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당조직들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대형용광로 조업

조국의 북방 주체적인 대야금기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확장공사장에 새로 일떠선 강철직장과 련속식소결로와 나란히 또하나의 현대적인 대형용광로가 주체공업의 위용을 자랑하며 거연히 일어섰다.

열풍로계통, 로정장입계통, 용해계통, 출선구계통, 측정부문 등 모든 계통과 공정들이 고도로 기계화, 자동화된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대형용광로는 흑색공업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 6개년계획의 강철고지를 앞당겨점령하며 1,200만톤 강철고지점령을 위한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남들이 여러해씩 걸려야 한다는 만년대계의 이 용광로를 우리의 설계와 우리의 설비, 우리의 자재로 불과 반년남짓한 기간에 훌륭히 일떠세운 이 기적적인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배려의 결과이며 이곳 건설자들의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의 빛나는 열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3년 10월에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확장공사에 력량을 집중하여 건설을 다그칠데 대하여 간곡한 교시를 주시고 여기에 수많은 기술일군들과 건설부대를 보내주시고 자재, 설비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4년 6월 이곳 건설현장을 찾으시여 건설정형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현지에서 전국적인 지원사업을 조직하시여 걸린 문제들을 모조리 풀어주시였으며 이곳 건설자들에게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제1선인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확장공사를 빨리 다그쳐 끝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크나큰 정치적신임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특히 김책제철소 확장공사에 화력을 집중하여 공사를 빨리 끝내야 하겠습니다. 김책제철소 확장공사를 빨리 끝내야 6개년계획에 예견된 강철고지를 점령할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단행본, 2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천리마룡성기계공장, 천리마대안전기공장, 5월10일공장, 흑색금속설계사업소를 비롯한 전국의 련관된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방대한 대상설비가공품들과 건설기자재들을 생산하여 보내줌으로써 건설을 앞당기는데 훌륭히 기여하였다.

김책제철건설사업소의 로동계급은 《속도전》의 불길을 세차게 올려 1만 2천립방메터의 기초파기와 방대한 콩크리트치넣기를 두달이 아니라 단 15일만에 해제끼는 놀라운 기적을 낳으면서 첫돌파구를 열어제끼였다.

특히 용광로건설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자 75톤탑식기중기를 통채로 용광로건설장에 옮겨놓는 등 위력한 기계화수단과 우수한 건설력량을 이에 집중하고 번개치는 전격전, 섬멸전을 벌려 새로운 기록들을 창조하였다.

용광로로체건설에서는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짓부시고 주체적인 시공방법인 확대식조립방법을 받아들여 12배의 놀라운 건설속도를, 원료장입경사탑건설에서는 지상에서 106개공정을 하나로 묶어 조립하여 30배의 건설속도를, 열풍로조립에서는 1년공정을 50일로 줄이였다.

그리하여 본격적으로 건설에 착수한지 불과 5개월 남짓한 기간에 방대한 로체의 철골물조립과 설비조립, 열풍로와 저광사 등 원료, 연료 공급계통공사를 따라세움으로써 대형용광로는 현대적인 설비를 갖추고 일떠섰다.

주체공업의 위용을 떨치며 웅장하게

일며선 이 대형용광로의 두리에는 현대적인 대형열풍로들과 대형전동송풍기실, 가스청정장, 저광사, 순환수뽐프장, 연진처리장, 점토제조장, 남비수리장, 특고압변전소, 농축장, 권양기운전실, 사령실…등이 들어앉아 하나의 종합적체계를 이룬 튼튼한 대선철생산기지가 새로 형성되였다.

이곳 로동계급은 1975년 설날을 맞이하면서 새로 건설한 대형용광로에 불을 지펴 첫 쇠물을 뽑아냄으로써 조선로동계급의 영웅적기상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1만 4천톤급 대형화물선 《왕재산》호 진수

10월 6일 청진조선소에서는 새로 무은 1만 4천톤짜리 대형화물선《왕재산》호를 바다에 띄웠다.

최근년간《천마산》호, 《창광산》호, 《정방산》호 등 여러척의 3, 750톤급 선미뜨랄선들과 5천톤급 탱장운반선들을 련이어 바다에 띄운 청진조선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또다시 1만 4천톤급 대형화물선을 불과 두달남짓한 사이에 무어낸것이다.

하나의 산처럼 느껴지는《왕재산》호는 현대적인 무전설비들과 방향탐지기, 전파탐지기, 기관의 원격조종, 유압식자동조차들이 그쯘히 갖추어져 그 어떤 풍파와 안개 속에서도 마음대로 항행할수 있게 무어졌다.

또한 갑판우에는 선회식기중기, 60톤 중화물권양수단 등 현대적설비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선원들의 작업조건이 편리하다.

배의 중심부에는《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이 정중하게 꾸려져있고 영화관, 목욕탕, 리발실, 오락실, 식당, 침실 등 그 어느 하나도 나무랄데없이 꾸려진 칸마다에는 열풍장치와 랭풍장치까지 되여있다.

이처럼 훌륭한 배를 두달 남짓한 사이에 무어낸 이 자랑찬 성과는 전적으로 주체적인 선박공업기지를 창설하여주시고 세심히 보살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배려의 결과이며 이곳 영웅적조선공들의 불타는 충성심의 표시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결정적으로 고기배들을 대형화하여야 합니다.

고기배들을 대형화하기 위하여 3, 750톤짜리 배를 많이 무어내며 물고기를 잡는족족 날라올수 있도록 5, 000톤짜리, 1만톤짜리, 2만톤짜리 운반선들도 많이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단행본, 18～19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심장깊이 받아안은 이곳 조선공들은 그이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 불같은 결의를 다지고 큰배무이전투를 통이 크게 전격적으로 벌렸다.

기업소참모부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선박공업부문에 주신 강령적교시와 현지지도에서 주신 교시들을 실정과 결부하여 해설선전하는 등으로 항일유격대식 정치선전과 경제선동을 전격적으로 진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왕재산》호를 하루빨리 무어 바다에 띄우는 실천투쟁에서 표시하려는 한마음으로 첫시간부터 새 기록, 새 기준의 창조로 들끓었다.

1호직장에서는 지상대형조립방법을 받아들여 조립속도를 25배로, 배밑토막조립에서는 4배의 조립속도를 창조하였으며 2호, 3호직장에서는 두달 걸려야 할 기중기와 권양기, 추진기제작을 단 20일동안에 해제끼였다.

특히 4호직장에서는 대형추진기를 만들어본 경험이 없었지만 대담하게 달라붙어 련속용해법을 받아들이고 공기면따기 등 추진기련마가공지구를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 끝내《왕재산》호 추진기제작에 성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고 충성의 보고를 올린 이곳 조선공들은 이미 닦아놓은 대형선박건조기지를 더욱 보강해서 더 큰배를 무어내는데 또 달라붙었다.

사리원방직공장 조업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창조된 또하나의 위력한 방직기지 사리원방직공장이 지난 4월 세상에 조업을 선포하였다.

이 공장의 조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밝혀주신 강령적과업과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펼쳐주신 웅대한 설계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나라의 강력한 천생산기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현대적인 기술장비를 갖추고 40여가지의 고급천을 짤수 있는 이 공장은 염색설비까지 갖춘 고도로 자동화된 대종합방직공장으로서 우리 나라 방직공업발전에서 큰 몫을 담당하게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방직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질좋은 천을 더 많이 짜내는것은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더 잘 풀기 위한 중요한 과업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384페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찌기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 눈보라 휘몰아치는 밀영의 귀틀집에서 자신께서는 홑옷을 입으시고도 오히려 근거지의 늙은이들과 아동단원들에게는 두툼한 솜옷을 마련해주시는 더 없이 크고 고매한 육친의 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강반석어머님께서 근근히 모아주신 천금보다 귀중한 돈을 간직하고계시다가 마안산의 헐벗은 아이들에게 새옷을 해입히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오늘에는 그 크고도 따사로운 사랑으로 우리 인민들에게 남보다 더 좋은 옷을 입히시려고 심려하시여 사리원시에 대규모의 현대적방직공장을 건설할것을 발기하시고 친히 현지에서 터전을 잡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몸소 건설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면서 여기에 유능한 건설자들과 현대적건설기계설비들을 수많이 보내주시였으며 건설자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사랑으로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배려를 가슴깊이 간직한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은 통이 크고 대담하게 달라붙어 채광창을 지상에서 조립하여 단꺼번에 올려맞추는 등으로 작업능률을 10배로 높였다.

건설자들은 또한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을 높여 운반의 삭도화, 키낮은 조립식 및 이동식 기중기의 도입 등 기계화비중을 50%이상으로 보장하고 전격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건설속도를 매일 3～4배로 높였다.

방직공장건설과정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라면 청춘도, 생명도 다바쳐 싸운 항일유격대원들처럼 경애하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기 위하여 자기의 정력을 다 바쳐 싸운 이곳 건설자들의 보람찬 투쟁의 나날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현대적대비단궁전에서 일하는 높은 영예와 긍지를 안은 이곳 방직공들은 설비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면서 설비마다에 만부하를 걸고 만가동을

보장하였다.

특히 가락회전수와 직기의 회전수를 높임으로써 1974년도계획을 10월까지 끝낸 기세드높이 6개년계획을 당창건 30돐까지 끝내기 위하여《속도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올리고 있다.

각 도마다에서 현대적 곡산공장건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발기와 보살피심속에 주체적인 당과류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곡산공장들이 각 도마다에 건설되여 이해에 일제히 조업하여 생산에 들어갔다.

세계1등급의 북창곡산공장 (9월 1일),회령곡산공장 (9월 7일), 강계곡산공장 (9월 6일), 의주곡산공장 (9월 7일), 함흥곡산공장 (9월 6일), 원산곡산공장 (9월 7일), 사리원곡산공장 (9월 7일), 해주곡산공장 (10월 27일) 들이 새로 조업하였고 평양곡산공장 (9월 8일) 이 새로 확장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경제건설분야에서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워 우리 나라의 자원으로 자립경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려나갈데 대하여》, 단행본, 14페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미부터 무르익혀오신 원대한 구상에 따라 당과류문제를 우리 나라의 원료에 기초하여 풀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각 도에 곡산공장을 전군중적운동으로 건설할데 대한 방향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당과류원료원천과 그 수요의 호상관계 그리고 전망수요를 예견하시여 우리 나라에 풍부한 강냉이를 리용하는 곡산공장을 지어 물엿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탕, 과자, 녹말 등을 만들며 부산물로는 간장, 기름, 술, 집짐승먹이를 생산할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또한 모든 도들에 곡산공장들을 지을 자리와 그 규모를 정해주시고 열보장문제와 수송조건, 로력원천과 물보장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73년 8월에는 북창화력발전소의 열을 리용하여 평양곡산공장의 규모와 맞먹는 북창곡산공장을 건설하도록 하여주시였으며 친히 공장을 지을 자리까지 현지에서 정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개 도의 곡산공장부지를 료해하시고 이미 정해놓은 사리원곡산공장은 땅밑층이 굳지 못하고 물원천이 적으므로 다른 자리에 옮겨 앉도록 정해주시였으며 원산곡산공장은 화학공장과 떡 떨어져 건설하도록 명확한 방향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곡산공장건설을 대담하게 밀고나가야 유치원과 탁아소 어린이들은 물론 인민들에게도 당과류를 더 많이 공급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짧은 시일안에 집중적으로 끝내야 한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1974년에 곡산공장건설을 경공업부문에서 기본건설의 첫 대상으로 정해주시고 이를 적극 추진시키시는 한편 여기에 필요한 자재들을 우선 풀어주시였으며 기계설비들을 제때에 보장하도록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1973년 10월 14일 당중앙위원회 부장들과 경제일군협의회에서 곡산공장설비가운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섰던 보이라문제를 풀데 대한 방향과 방도, 그 실현대책까지 친히 가르쳐주시였다.

기계공업부문의 로동계급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속도전》을 전개하여 보이라를 비롯한 곡산공장대상설비생산을 힘있게 밀고나갔으며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은 곡산공장건설을 집중화, 공업화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인민들에게 더 맛있고 영양가가 높은 당과류제품이 넉넉히 차례지도록 해주시려고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일 방향을 밝혀주시고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입맛에 맞게 물엿을 좀 많이 넣고 과자를 만들데 대한 문제, 지방의 원료조건에 따라 들쭉생과자, 과일잼사탕, 밤비스케트, 민족과자 등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모든 지방마다에 넉넉한 원료를 적극 리용하여 인민들의 입맛과 식생활에 맞게 만들어먹이시려는 이 가르치심에는 근로자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은덕이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당과류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 부문일군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으며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시기 위하여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당과류공업부문에 녀성근로자들이 많은 특성을 깊이 헤아리시여 공장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병동을 알뜰히 꾸려주시였으며 부식물을 비롯한 후방물자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주시였으며 곡산공장의 기능공을 양성하기 위한 실습을 조직해주시는 등 실로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새로 조업한 곡산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당과류공업부문에 돌려주신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새로운 천리마속도, 새로운 평양속도》—《충성의 속도》로 힘차게 내달림으로써 당과류를 비롯한 식료품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높은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게 될것이다.

평양가죽이김공장 조업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또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인 대규모의 현대적인 평양가죽이김공장이 완공되여 11월 4일에 조업하였다.

축구장보다 더 넓은 면적을 가진 공장건물안에는 원피, 이김, 완성, 털가공, 재생가죽, 아교, 화학, 생필 등 직장들이 흐름식생산공정을 이루고있으며 수백여대의 기계설비들이 털가죽을 종합적으로 가공처리하게 되는데 매개 공정은 기대별로 자동화가 훌륭하게 실현되였다.

평양시안의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에게 한해에 다섯켤레씩의 구두를 만들어줄수 있는 가죽생산능력을 가진 이 공장의 조업은 신발생산의 앞공정을 튼튼히 꾸리고 신발생산에서 가죽신발의 비중을 높이며 신발공업과 일용공업 부문에서 6개년계획을 앞당겨끝내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공업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질좋은 여러가지 생활필수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신년사》, 단행본, 12페지)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유격대원들에게 있어서 신발은 날개와 같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신으셔야 할 새 신발을 대원들에게 돌려주시고 우등불가에서 손수 헌신발을 기워 신으시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인민들의 신발차림새를 헤아려보시며 곳곳에 수많은 신발공장들을 일떠세우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세계 1등급의 전문화된 가죽이김공장을 건설하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아 터전까지 잡아주시였다.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시며 모든것을 사람에게 복무하도록 하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공장 설계일군들과 관계부문일군들을 여러차례 부르시여 한번 지은 공장은 처음부터 잘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로동자들의 생산활동에 편리하게 공장내부를 현대적으로 꾸리며 탁아소와 합숙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을 넉넉하게 건설하며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고 부산물을 종합적으로 리용할데 대한 문제 등 전문일군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그이의 세심한 가르치심을 심장에 받아안고 공장건설에 떨쳐나선 평양산업건설사업소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은 완전히 기계화된 중앙혼합장을 꾸려놓고 콩크리트치기를 련속 들이대여 기본생산직장의 기초공사를 계획기일보다 3개월이나 앞당겨끝냈으며 현장에서 대형기둥부재를 만들어 조립함으로써 지상조립속도를 2배로 올리는 자랑을 떨치였다.

승리에 자만하지 않고 난관에 굴할줄 모르는 우리의 건설자들은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여 나무휘틀대신 벽돌형틀을 만들어 대형콩크리트지붕틀을 만들어냄으로써 수많은 목재와 로력을 절약하고 공사기일을 앞당기였으며 자체로 새 기구와 기계설비를 창안도입하여 긴장했던 기계설비조립공사를 기한전에 보장하였다.

혁명의 수도 평양시에 새로 솟아난 대규모의 현대적인 가죽이김공장은 기대마다에 만부하를 걸면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신발공업부문에서 1974년에 가죽신발생산량을 1.3배로 높인것도 그 앞공정인 가죽이김공장에서 조업하자 즉시 생산을 정상화한데 그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있다.

연탄저수지 완공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주체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이며 농촌테제발표 열돐을 더욱 뜻깊게 하는 대자연개조사업의 하나인 연탄저수지가 완공되여 이해 10월 15일에 준공되였다.

연탄저수지는 황주긴둥벌을 비롯하여 3개 시, 군안의 36개 리를 포괄하는 2만여정보의 땅에 생명수를 공급하여 이 지역의 밭에서도 언제나 높고 안전한 소출을 거둘수 있게 하며 공업용수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여 기후변동이나 기타 우연적요인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 튼튼한 생산토대를 마련하며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조건을 지어주는것이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44~45페지)

연탄저수지,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인민들을 더잘 살게 하시려는 그이의 뜨거운 배려와 사랑에 의하여 이루어진 또하나의 빛나는 결실이다.

1954년초에 황주군 긴둥벌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아직 눈속에 묻혀있던 이곳 서장바위에 오르시여 어지돈관개의 터전을 잡아주시면서 황주천웃목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당시 멸악산줄기의 산골짜기마다에서 흘러내리던 황주천물줄기는 이곳 농민들이 해마다 가뭄에 타고 장마에 손을 털어도 쓸모없이 흘러갔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지돈관개의 거창한 전망을 펼쳐주시면서 밭관개에 쓸 물과 공업용수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새로운 대규모관개, 연탄저수지를 빨리 건설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과 크나큰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전반 사업을 헤아리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20여차에 걸쳐 교시를 주시여 설계작성의 방향과 시공방도에 이르기까지 환히 밝혀주시고 세심히 지도해주시였으며 수많은 현대적설비들을 보내주시고 건설자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할것을 결의한 관개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은 이미 어지돈관개와 신계관개를 앞당겨완수한 기세로 두해전에 저수지건설장으로 달려왔다.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세차게 울리는 가운데 멸악산에서 줄기줄기 뻗어내린 산도 옮기고 2년을 예견하였던 복룡용수굴도 6개월동안에 완성하고 평남관개의 연풍호와 거의 맞먹는 저수지도 단숨에 만들어냈다.

제1계단공사, 복룡용수굴, 취수탑, 천리물길, 제2계단공사를 계획보다 훨씬 앞당긴것은 주체적인 새로운 시공방법을 받아들이면서 시공대상별로 전격전, 집중전, 섬멸전을 들이댄 결과이다.

연탄, 황주를 비롯한 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은 새로운 시공방법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는 자갈, 막돌 수요를 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연탄저수지의 건설을 앞당기는데 기여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는데서 커다란 공헌을 한 어지돈관개건설종합기업소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하였다.

또한 연탄저수지준공식을 맞이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서는 축하문을 보내주었다.

기본건설전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에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하는데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건설대상들을 일떠세울데 대한 중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중요대상은 김철, 성강, 강선 등의 야금기지, 무산, 덕현, 덕성 등의 쇠돌기지, 평양, 북창, 대동강, 서두수 등의 동력기지, 청년, 남포 등의 화학기지, 순천, 마동 등의 세멘트기지, 경공업기지, 강계—혜산—무산간 철도건설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올해에 우리는 기본건설에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넣어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기본열쇠는 올해에 기본건설을 잘하는데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는 올해를 건설의 해로 정하고 기본건설에 화력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새로운 천리마속도, 새로운 평양속도로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신년사》, 단행본, 9~10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3년에 비하여 1.5배로 늘어난 방대한 자금을 기본건설에 돌리도록 배려해주신

다음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와 전국공업대회를 통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대건설에로 힘있게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기본건설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건설을 집중화, 공업화, 정규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세우시고 그 실현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이해에도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 멀리 함북도, 함남도, 자강도를 비롯한 거의 모든 도에 나가시여 수많은 건설장들을 찾으시고 당의 기본건설방침을 관철하는데로 당조직들과 건설자들을 불러일으키시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본건설을 집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강철고지, 전력고지, 세멘트고지, 화학비료고지, 천고지, 알곡고지, 수산물고지를 비롯한 6개년계획의 중요고지의 건설대상들에 힘을 집중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기본건설을 널어놓지 않고 중요건설대상에 힘을 집중하여 섬멸전을 벌린 결과 조업대상수가 1973년에 비하여 훨씬 더 늘어났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또한 기본건설을 공업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대로 기본건설작업을 기계화,현대화 하도록 이끄시면서 커다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사람들의 머리수를 늘이는 방법으로 건설과제를 수행하려는 낡은 사고방식들이 뿌리빠지고 새로운 건설기계들이 수많이 들어감에 따라 건설장은 말그대로 기계숲으로, 조립장으로 되였는데 김책제철소 확장공사장,청년화학종합공장 건설장의 기계화수준은 세계건설력사상 전례없는 높이에 이르렀다.

기본건설을 집중화, 공업화한 결과 《평양속도》, 《비날론속도》, 《강선속도》를 뛰여넘은 새로운 천리마속도인《충성의 속도》, 《70일전투속도》가 창조되였다.

다른 나라에서는 몇년씩 건설하던 대형용광로를 단 8개월동안에 완공하였고 1년씩 계획하였던 세계1등급 북창곡산공장과 평양가죽이김공장들은 단 6개월동안에 건설하여 조업시켰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기본건설을 정규화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시고 금속건설, 화학건설 등 그 어떠한 현대적대규모건설대상도 훌륭히 처리할 수 있는 전문화된 강력한 건설부대를 건설장마다에 파견하시였고 보장조건을 앞세우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기본건설에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넣을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대상설비생산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이면서 김책제철소 확장설비, 4월13일제철소 확장설비, 세멘트공장 확장설비, 서두수발전소 제2계단설비, 곡산공장설비를 비롯한 대상설비생산을 종합적으로 보장하였다.

이처럼 기본건설이 집중화, 공업화, 정규화됨에 따라 건설속도와 건설의 질이 올라갔을뿐아니라 건설자재, 건설설비를 아껴씀으로써 건설원가가 1973년에 비하여 더 낮아졌다.

특히 당 및 정권기관, 사회단체, 행정경제기관, 사회문화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투장에 달려나가 연 37만여회의 항일유격대식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렸다.

전격적인 경제선동이 기본건설의 집중화, 공업화, 정규화에서 걸리고있는 문제해결에로 우리의 근로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킴으로써 모든 건설장마다에서《속도전》의 불바람이 일어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 기본건설전선에서 거둔 성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1974년은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위대한 기적과 혁신을 일으킨 승리의 한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내놓은 사회주의대건설의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사회주의대건설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6개년계획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이 이룩되였습니다. 》(《신년사》, 단행본, 2폐지)

기본건설전선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대야금기지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한것이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야금기지건설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김책제철소의 대형용광로, 대형련속식소결로, 대형전로, 성진제강소 제3강철직장, 강선제강소 제2강철직장을 새로 일떠세웠다.

특히 김책제철소의 건설자들과 로동계급들은 새해 1975년에 대형용광로에 불을 지펴 첫 쇠물을 뽑아냄으로써 설명절을 더욱 의의깊게 하였으며 조선로동계급의 영웅적기상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떨치였다.

새로운 야금기지건설은 6개년계획의 강철고지를 앞당겨점령할수 있는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고있으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이 더욱 강화되고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광산건설자들은 대규모의 무산, 덕현을 비롯한 철광산 확장공사, 덕성, 서해리를 비롯한 새로운 철광산개발공사, 수많은 새로운 유색금속광산개발공사, 풍년, 영유를 비롯한 린회석광산개발공사를 다그침으로써 세계적인 원료파동에도 끄떡하지 않은 원료기지를 더욱 보강확장하여놓았다.

동력기지건설자들은 왕성한 투지와 혁명적기백으로 건설을 다그쳐 북창화력발전소 제2계단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서두수발전소 제2계단공사와 청천강화력발전소 건설공사의 년간조립작업계획을 한달이상 앞당겨완수하였다.

화학기지건설자들은 화학섬유, 합성수지, 화학비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제품을 생산하게 될 대규모의 청년화학종합공장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순천, 청수, 아오지의 비료공장들을 확장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새로 건설확장된 화학기지는 경공업의 원료기지를 확대하고 농업생산을 늘이며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수 있는 튼튼한 토대로 되였다.

건재기지건설자들과 건재공업부문의 로동계급들은 대규모의 순천세멘트공장건설을 다그치고 2.8세멘트공장과 고무산세멘트공장을 확장하였으며 지방건재기지들을 더욱 튼튼히 꾸렸다.

기계건설자들은 베아링공장, 소형전자관공장, 소형전동기공장을 비롯한 새로운 기계공장들을 건설하였으며 대규모의 기계생산기지들을 더욱 보강하였다.

이해에 경공업기지도 튼튼히 꾸려졌다.

어버이수령님의 보살피심속에서 주체적인 당과류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곡산공장들이 이해 9월에 일제히 조업하였다.

세상에서 으뜸가는 북창, 회령, 강계, 의주, 함흥, 원산, 사리원곡산공장들이 새로 일어났고 평양곡산공장이 확장되였다.

이해에 사리원방직공장과 평양종합방직공장 화학섬유방적종합직장, 만경대편직공장과 사동어린이편직공장, 평양남자옷공장과 강계, 남포녀자옷공장, 평양일용품종합공장 염화비닐박막직장과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발포직장, 평양장공장 맛내기직장과 온천기름공장, 북청신발공장, 함흥유리병공장, 사리원담배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이 일어섰다.

모든 군에 옥쌀공장을 건설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강계시, 회천

시, 만포시, 전천군, 성간군에서 10여일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현대적 옥쌀공장을 건설한데 뒤이어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옥쌀공장이 일며서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경공업은 인민들에게 질좋은 여러가지 일용품과 생활필수품, 그리고 옥쌀, 포도당, 과자, 물엿, 기름을 비롯한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공급할수 있게 되였다.

이해에 도시건설과 농촌건설, 학교건설 투쟁이 전군중적운동으로 벌어져 현대적 살림집과 학교, 문화 시설들이 수많이 건설되였다.

농촌문화주택만 보아도 2층, 3층, 5층집 살림집을 비롯하여 이해에 단번에 10만세대가 일어섰다.

참으로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건설력사에서 건설의 해로 빛난 1974년은 온 나라가 사회주의대건설로 끓고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힘과 지혜와 재능을 다바쳐 싸운 투쟁의 해, 전진의 해, 승리의 해였다.

기본건설투쟁을 통하여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점령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꾸려졌으며 경제의 위력을 보여주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더욱 강화되였다.

공업전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에 공업전선에서 달성한 성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지난해에 공업생산계획을 훨씬 넘쳐수행하였으며 생산의 높은 장성속도를 보장하였습니다. 성진제강소, 룡성기계공장, 검덕광산, 신창탄광, 평양종합방직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지난해 생산계획을 훨씬 앞당겨수행하고 6개년계획의 생산수준을 돌파하는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신년사》, 단행본, 6페지)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들은 사회주의대건설의 첫해 1974년전투에서 1973년에 비하여 134%로 늘어난 인민경제계획을 훌륭히 넘쳐수행하고 높은 생산속도를 창조하였다.

특히 6개년계획을 1년이상 앞당겨 당창건 30돐전으로 완수하는가 못하는가를 결정하며 1974년 인민경제계획수행을 판가리하는 《70일전투》기간에 공업생산을 1.7배로 장성시키는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켰다.

사회주의대건설의 첫해전투에서 우리의 로동계급이 달성한 위대한 승리는 우리 민족의 수천년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모신 영명하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세련된 지도의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다음번 전망계획목표는 고사하고 당면한 생산목표를 수행할수 없어 머리를 싸쥐고있을 때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1974년 2월)에서 1,200만톤의 강철고지, 100만톤의 유색금속고지, 1억톤의 석탄고지, 5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고지, 2,000만톤의 세멘트고지,500만톤의 기계가공품고지,500만톤의 수산물고지, 500만톤의 화학비료고지, 10만정보의 간석지개간고지,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할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대건설방침과 총동원, 총진군의 전투적구호를 실현할수 있는 첫 사업으로써 전국공업대회(1974년 2월말—3월초)를 마련하시고 6개년인민경제계획을 당창건 30돐기념일전으로 앞당겨완수하며 련이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점령할데 대한 방향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부르죠아정객들과 자본가들이 원료난, 석유난으로 아우성치고 생산이 침체되고 근로자들이 전례없는 실업과 물가인상, 세금인상을 반대하여 피어린투쟁을 벌릴 때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1974년 3월)에서 공업상품의 값을 대폭 낮추며 세상에서 처음으로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한 세계사적조치, 력사적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 전국공업대회를 통하여 우리 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 6개년계획을 1년이상 앞당겨점령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과 사회주의대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안겨주시였고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목표들을 단숨에 점령할수 있는 지혜와 장수의 힘을 키워주시였으며 세상에서 으뜸가는 사회주의제도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바쳐싸우려는 열정적인 지혜를 심어주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서 《70일전투》의 총돌격전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내놓으신 결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앙양된 기세는 이 전투를《충성의 전투》로 발전시키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당중앙은 모든 당조직들이 경제사업에 낯을 돌리며 《70일전투》의 운전대를 튼튼히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면서 당과 국가의 우수한 일군들을 공업전선의 중요 공장, 기업소들에 내려보냈으며 강력한 경제선동부대들을 파견하였다.

《70일전투》 승리의 기본열쇠가 로동계급의 사상의식,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에 있다는 대경제선동의 우람찬 나팔소리속에 전력공업, 석탄공업, 광업, 금속공업, 기계공업, 선박공업, 화학공업, 제약공업, 건재공업, 림업과 같은 기간공업부문에서는 대비약, 대혁신이 일어났으며 1974년 공업생산계획을 훨씬 넘쳐하였으며 많은 부문에서 1976년말의 생산수준을 가볍게 돌파하였다.

공업생산계획의 초과완수, 6개년계획말의 생산수준돌파—이것은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에 따라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옳은 경제조직지도사업을 안받침한데서 이루어졌다.

생산의 첫공정인 채취공업부문에서 전례없는 비약이 일어나고 긴장한 수송이 풀린것은 총돌격전투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이다.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담당한 채취공업부문의 로동계급들과 기술자들은 기술혁명을 말로만 수행하고 실제상 조건타발, 생산타발만하는 보수주의, 신비주의, 요령주의와 강한 사상투쟁을 전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섬멸전의 방법으로 벌려 설비를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하고 운반을 다양화하는데서 커다란 전변을 가져왔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70일전투》기간에 사상투쟁의 포화로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강력히 벌어준 결과 이해 계획을 넘쳐수행한데 뒤이어 또다시 6개년계획말의 생산수준을 돌파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철광석은 1.8배, 유색금속광석은 1.6~2.8배로 뛰여올랐다.

석탄공업, 광업을 비롯한 채취공업부문에서 일대 비약이 일어나니 금속공업, 선박공업을 비롯한 전반적공업전선에서 전례없는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게 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1211고지》를

민음직하게 지켜선 황철, 강선을 비롯한 전국의 금속공업부문의 로동계급들은 충성의 강행군전투를 줄기차게 벌려 이해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서 훌륭한 모범을 보였다.

천리마강선제강련합기업소에서는 로력과 설비의 증가없이 강철생산을 1973년에 비하여 122%로 높이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천리마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1,300여건의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로동생산능률을 135.2%로 높이면서도 생산원가를 10.4%나 낮추는 커다란 혁신을 일으켰다.

주체공업의 심장—기계공업부문에서는 위대한 농촌테제의 휘황한 빛발따라 《농촌기술혁명지원의 날》(7월 27일)전으로 7만~8만대(15마력환산)의 뜨락또르를 생산공급할데 대한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완수하였으며 이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였다.

그리하여 《70일전투》기간에 뜨락또르생산이 그전에 비하여 2.6배로 늘어난것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할수 있는 공작기계는 1.5배, 자동차는 2.5배로 장성하였으며 1973년에 비하여 대형불도젤은 135%, 압축기류는 130%, 기중기류는 184%, 각종 디젤기관은 259%로 늘어났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또한 사회주의대건설장의 요구에 맞게 협동생산을 강화하여 야금공장설비, 발전소설비, 세멘트공장설비, 방직공장설비, 곡산공장설비를 비롯한 대상설비들을 생산보장하였다.

특히 대담하게 달라붙어 자체의 힘과 지혜로 2,500마력중속엔진과 3,000마력고속엔진을 생산하는데 성공하였으며 1만 4천톤짜리 짐배, 2,500마력내연기관차, 12만립방메터시대형고압송풍기, 20메터대형선반, 20만크바대형변압기를 비롯한 대형기계설비들을 생산하는 자랑찬 위훈을 세웠다.

공업전선의 모든 부문에서《속도전》의 북소리 높이 울리는 가운데 화학공업전사들도 1974년계획을 앞당겨넘쳐수행함으로써 화학비료와 화학섬유는 지난해에 비하여 1.3배, 비날론은 1.7배, 염화비닐, 류산, 메타놀, 페놀 등 중요 화학제품생산은 1.2~1.4배로 높였다.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2.8비날론련합기업소들에서는 증산의 예비를 탄광, 광산, 공장들을 하나로 포괄하는 집단적, 현대적 기술혁신운동에서 찾고 련합관리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보여줌으로써 모든 설비의 공칭능력, 모든 제품의 기술지표, 모든 생산물의 최고기록들을 깨고 새로운 생산능력, 새로운 기술지표, 새로운 생산기록들을 세웠다.

총진군, 총돌격의 거센 불바람을 안고 날과 달을 주름잡아 내달린 보람찬 1974년도 공업전선에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들은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하여 수많은 예비를 찾아냈으며 전반적공업부문에서 원가를 계획보다 2%나 낮추었다.

6개년계획을 당창건 30돐전으로 완수하는가 못하는가를 판가리하는 1974년 공업전선에서 천리마신창탄광, 천리마평양종합방직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한해계획을 넘쳐한데 이어 6개년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충성의 보고를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드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리마신창탄광, 천리마룡성기계공장, 천리마강선제강련합기업소, 천리마성진제강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주시였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들은 1974년도 공업생산계획을 넘쳐완수하는 투쟁을 통하여 무엇보다도먼저 공업의 원료기지와 연료기지를 더욱 튼튼히 하여 채취공업을 현대적기술로 장비되는 가공공업의 발전에 확고히 앞세워나감으로써 6개년계획을 당창건 30돐전으로 앞당겨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여놓았다.

공업전선의 경제지도일군들과 공장, 기업소의 경제기술일군들은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작업복차림으로 배낭을 메고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의 로동계급속에 들어가 대중의 앞장에서 투쟁하면서 생산지도도, 기술지도도, 자재공급도 보장하는 혁명적 사업방법과 사업기풍을 세워나갔다.

공업전선의 로동계급들과 지도일군들이 소유한 혁명적사업방법과 사업기풍,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과 그에 따르는 혁명적담력, 그리고 튼튼히 닦아놓은 물질적토대는 이해의 성과를 다른 해의 성과들보다 더 빛내여주고있을뿐아니라 래일의 찬란한 성과를 약속해주고있다.

경공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5년 신년사에서 1974년 경공업부문의 성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경공업은 인민들에게 질좋은 여러가지 일용품과 생활필수품 그리고 옥쌀, 포도당, 과자, 물엿, 기름을 비롯한 맛있고 영양가높은 식료품을 더많이 생산공급할수 있게 되였습니다.》(《신년사》, 단행본, 5페지)

경공업부문에서는 중앙공업과 함께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경공업위원회적으로 방직, 피복, 편직, 일용, 식료 생산을 그전해에 비하여 1.2~1.3배로 높였다.

경공업부문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먼저 도, 시, 군 당위원회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주인다운 립장에서 지난 기간 적극 탐구동원한 지방의 예비로서 곡산공장, 식료품공장, 방직공장, 편직물공장, 옷공장, 가구공장, 일용품공장 등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질좋은 여러가지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앞장서 이끌었으며 적극 따라 나선데서 이루어졌다.

우리 근로자들은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과 당창건 스물아홉돐을 맞이하는 단 한달동안에만 하여도 도합 40여개의 경공업공장들을 조업시켰으며 이 공장들의 생산을 정상화시켰다.

또한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을 받들고 전격전, 집중공세, 섬멸전을 벌려 이미 있는 공장들의 모든 설비들을 만가동시키고 모든 기대들에 만부하를 건 결과 경공업부문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방적설비의 고속도화, 여러추 여러기대맡기운동, 편직물생산의 정상화, 옷생산의 현대화, 효률식신발생산의 조직, 여러가지 일용잡화생산의 종합적기계화 등은 만부하, 만가동의 불길속에서 창조되고 일반화되였다.

방직공업총국아래 각지 방직전사들은 정방기의 가락회전수와 직기의 회전속도를 높이는데서만도 큰 방직공장 하나와 맞먹는 예비를 찾아내고 설비마다 만가동, 만부하를 걸었다.

천리마평양종합방직공장의 방직전사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높여 방적설비의 고속도화를 실현하여 정방기의 대당 생산성을 평균 1.2배, 최고 1.5배, 직기는 평균 1.2

배,최고 1.3배로 높이는 혁신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이곳 방직전사들은 1973년에 비하여 1.3배로 늘어났던 1974년계획을 앞당겨끝낸데 뒤이어 6개년계획도 2년 앞당겨완수하는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웠다.

방직공업총국아래 모든 방직공장들에서도 《속도전》의 혁명적방침따라 처음에는 정방기의 가락회전수를, 다음에는 직기의 회전속도를 높이는 섬멸전, 전격전을 세차게 벌림으로써 년간계획을 앞당겨끝냈으며 천생산을 1.2배이상으로 올리였다.

이해에 또한 사리원방직공장과 평양종합방직공장의 화학섬유방적종합직장이 조업함으로써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강력한 천생산기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데 기여하였다.

지난 4월에 조업한 사리원방직공장은 염색설비까지 갖춘 고도로 자동화된 대종합방직공장으로서 40여가지의 고급천을 짜며 9월에 생산에 들어간 평양종합방직공장의 화학섬유방적종합직장은 소면공정으로부터 권사공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공정이 자동화되여 비날론실을 뽑아냄으로써 우리 나라 방직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천의 질적구성을 개선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피복공업총국 아래 로동자, 기술자들은 옷생산과제가 녀성들을 옷짓는 부담에서 해방시키는 영예로운 혁명과업이라는것을 옳게 자각하고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년간계획을 40여일씩이나 앞당겨 끝냈다.

피복연구부문일군들은 옷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물질문화생활수준과 체육의 대중화, 전문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인민들의 몸매가 좋아지고있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옷의 호수와 치수를 바로 정하는데 힘을 넣어 남자, 녀자, 어린이의 봄, 여름 옷모양을 많이 만들었다.

각지 피복전사들은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는 새로운 옷모양에 기초하여 선진적인 재봉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그 수요가 높은 녀성옷, 학생복, 어린이옷 생산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켰다.

그중에서도 일하기 편리하면서도 보기좋은 농장원들의 작업복과 렬차원, 차장들의 제복, 활동하기 좋고 현대적미감에 맞는 달린옷, 어깨치마, 브라우스 등의 녀성옷, 화려하고 맵시있는 나리옷, 달린옷, 적삼 등의 어린이옷 생산량은 보통 2배, 최고 4배까지 높아졌다.

신발공업부문에서는 자기 도안의 신발수요는 도자체로 보장하자는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 드높이 이미 있는 염화비닐신발공장들에는 천신발생산공정을, 천신발공장들에는 염화비닐신발생산공정을 조성한데 기초하여 그 생산을 콘베아에 의한 흐름식생산으로 개조하였다.

제일 선참으로 평양구두공장에 콘베아에 의한 흐름식생산조직의 본보기를 꾸리고 그것을 평양과 신의주, 다음에 모든 공장들에 일반화하여 신발생산능력을 1.4배로 높였다.

각지 신발전사들은 새로운 생산능력을 조성하던 기세로 계속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면신발에 비하여 그 수명이 긴 순비날론천신발을 비롯한 천신발생산량을 그전해에 비하여 3배로, 가죽구두생산량을 1.3배로 높였다.

식료공업부문에서는 모든 군에 옥쌀공장을 건설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자강도 강계시, 희천시, 만포시, 전천군, 성간군에서 10여일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현대적옥쌀공장을 건설한데 뒤이어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옥쌀공장을 일떠세웠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강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녀성들의 부엌일을 덜어주기 위하여 식료가공공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새로운 현대적인 옥쌀공장들을 도처에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식료기술혁명을 일으켜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로동계급의 지원을 강화하여 모든 시, 군들에 현대적인 옥쌀공장을 빠른 시일안에 건설하고 그 경험을 전국에 일반화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에 따라 강계시안의 로동계급들은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로력으로 90여가지에 220여대의 옥쌀공장설비들을 만들어냈으며 년 1만 2천톤능력의 옥쌀공장을 불과 10여일동안에 일떠세웠다.

식료기술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고 모든 시, 군 당조직들과 근로자들은 주식물가공기지—옥쌀공장들을 일떠세우고 건면생산능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녀성들의 부엌일을 덜어주는데 기여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보살피심속에서 주체적인 당과류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곡산공장들이 이해에 모든 도마다 일어서 식료공업의 면모를 풍부히 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당과류원료원천과 그 수요의 호상관계, 그리고 전망수요를 예견하시여 풍부한 강냉이를 리용하는 곡산공장을 지어 물엿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탕, 과자, 녹말 등을 만들며 그 부산물로는 간장, 기름, 술, 집짐승먹이를 생산할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1974년에 곡산공장 건설을 경공업부문에서 기본건설의 첫 대상으로 정해주시고 이를 적극 추진시키시면서 여기에 필요한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시였으며 기계설비들을 제때에 보장하도록 배려하시였다.

기계공업부문의 로동계급들과 산업건설자들, 그 지원자들은 곡산공장건설을 집중화하여 북창, 회령, 함흥, 강계, 의주, 사리원, 원산, 해주에 주체적인 당과류생산기지들을 번듯하게 일떠세웠다.

그리하여 경공업부문에서 이해에 여러가지 일용품과 생활필수품,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할수 있게 되였다.

농 업 전 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업부문에서는 1974년에 700만톤이 넘는 알곡을 생산함으로써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2년이나 앞당겨점령하는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것은 웅대한 6개년계획수행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이다. 6개년계획의 고지들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고지의 하나인 알곡고지를 먼저 점령한것은 특별히 자랑찬 승리로 된다.

1974년의 알곡생산량은 1963년에 비하여 약 2배로 장성하였으며 1946년에 비하여 약 3.5배로, 1973년에 비하여 131%로 늘어났다.

이러한 장성은 세계농업력사가 아직 모르는 높은 발전속도이며 농촌테제의 나라 조선에서 이룩된 또하나의 새로운 천리마속도이다.

농촌테제가 관철되여 농업생산의 집약화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정당수확고는 획기적으로 장성하였다. 논벼는 전국적으로 정당 평균 5.9톤이상이라는 높은 수확을 거두었으며 특히 평남도에서는 도적으로 정당 평균 6.8톤을 냈다.

이로써 우리 나라는 벼 정당수확고에서 세계 최고수준에 오르게 되였다.

강서군 청산협동농장에서는 농장적으로 벼정당 10톤 513키로그람, 룡천군 전진협동농장에서는 10톤 200키로그람을 내였으며 많은 협동농장들의 개별적포전에서는 정당 15톤에서부터 20톤까지 지어 최고 정당 23톤 800키로그람까지 낸데가 있다.

농업생산에서 달성한 가장 큰 성과의 다른 하나는 밭농사의 기본작물인 강냉이농사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킨것이다.

1974년 강냉이총수확고는 대풍작을 거둔 1973년에 비하여 1.7배로 장성하였다. 특히 정당수확고에서 획기적인 장성이 이룩되였다. 강냉이 정당수확고는 전국적으로 평균 5톤에 달한다. 평남도에서는 도적으로 평균 5.4톤이라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강냉이 정당수확고에서도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들의 수준에 올라서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평남도 대동군 가장협동농장에서는 최고 24톤, 평북도 의주군 서호협동농장에서는 최고 25톤까지 내였다.

알곡생산에서만 아니라 남새, 과수, 축산, 잠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1974년 남새생산량은 10년전에 비하여 거의 2배로 늘어났으며 1973년에 비하여 1.2배로 장성하였다.

평양시 오류, 리현, 장천, 금천 협동농장들에서는 가을배추를 정당 500~700톤씩 생산하는 놀라운 혁신을 일으켰으며 가을통배추라고는 구경도 못하던 백무고원, 부전고원과 같은 고산지대협동농장들에서도 가을배추생산에서 전환이 일어나 자급자족할수 있게 되였으며 최고 정당 140톤, 150톤씩 생산하는 기적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1974년에 1963년보다 3배나되는 과실을 생산함으로써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었다.

알곡이 증산되니 축산도 빨리 발전하였다. 1974년에 1963년에 비하여 2.5배나 되는 고기를 생산하였다.

특히 경애하는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1974년의 닭, 오리고기 생산량이 1963년에 비하여 4.3배로 늘어났으며 닭알생산량은 7.4배로 장성하였다.

누에고치생산량도 같은 기간에 2.4배로 치달아올랐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쌀풍년에 남새풍년, 과일풍년에 고기풍년까지 들어 농촌이 흥성거리고 전국이 환호하고있다.

그것은 알곡수확량이 인구장성비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반동적인 《인구론》이 세상에 널리 퍼진때 또한 공업과는 달리 농업생산이 제한되여있다는 반동적인 《토지의 수확체감법칙》에 일부 사람들이 멸멸해 있을때 30년대, 70년대 처음보는 가물과 수해로 농업전문가들도 《흉년기후》라고 말하는 때에 가장 높은 수확을 거두었기때문이다.

농업부문에서 거둔 대풍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촌테제에서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킬 과학적인 길을 밝혀주시고 그 길로 전당과 인민을 이끄심으로써 농촌에 튼튼한 정치사상적기초와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된 결과 이루어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농촌테제발표 열돐을 보다 의의깊게 맞이하며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훨씬 덜어주고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반드시 점령하여야 하겠습니다.》(《신년사》, 단행본, 10~11페지)

경애하는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대들보와 같은 뜨락또르, 자동차 생산에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금성뜨락또르공장, 9.25 뜨락또르공장, 충성호 뜨락또르공장과 승리자동차종합공장에 전국가적힘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자체의 강력한 뜨락또르공업과 자동차공업에 의거하여 농촌에 많은 자동차와 뜨락또르를 생산공급할수 있게 되였다.

농촌경리의 뜨락또르대수를 7만~8만대(15마력환산)에 이르게 할데 대한 농촌테제의 과업에 따라 《농촌기술혁명지원의 날》인 7월 27일 현재로 테제의 과업을 자랑스럽게 수행하였다.

이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1974년에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뜨락또르대수가 1963년에 비하여 무려 4배이상으로 장성하였다. 경지 100정보당 뜨락또르가 벌방지대에는 4대,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에는 3대씩 차례지게 되였다.

불과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렇듯 높은 수준에 뛰여오른것은 다른 나라들에서 경지 100정보당 뜨락또르대수가 2~3대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수십년이 걸린 사정을 고려할때 전례없는 비약이 아닐수 없다.

뜨락또르대수가 빨리 늘어났을뿐아니라 대형으로부터 중형, 소형에 이르기까지 구색에 맞게 생산공급함으로써 벌방지대, 중간지대, 산간지대 할것없이 어디서나 뜨락또르로 일할수 있게 되였다.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자동차대수도 1974년에 1963년에 비하여 4.6배로 장성하였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또한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모내는기계를 비롯한 여러가지 새로운 농기계들이 창안제작되여 농촌에 대량적으로 생산공급됨으로써 더 많은 일을 기계로 할수 있게 되였다.

특히 우리 나라 농사일에서 가장 힘든 일의 하나인 모내기를 기계로 할수 있게 된것은 기계화에서 달성한 특별한 성과로 된다.

모내는 일을 기계화하여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데 대한 어버이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은 꾸준한 노력으로 성능이 좋은 모내는기계를 훌륭히 만들어냈으며 1974년에 거의 50%의 논에 기계로 모를 냈다. 1975년에 거의 80%의 논에 기계로 모를 내게 된다.

이것은 벼농사에서 실로 하나의 커다란 전환으로 된다. 모내기를 기계로 하게 됨으로써 농민들은 굽었던 허리가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으로 쭉 펴지게 되였다고 감격과 기쁨에 넘치고있다.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기계화의 과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됨으로써 우리 나라 농촌경리의 기계화수준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평양시 삼석구역 장수원협동농장, 평남도 강서군 청산협동농장, 평북도 의주군 서호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많은 협동농장들이 농사일을 종합적으로 기계화하였다.

특히 황해남도 은률군 장련협동농장 제10작업반과 황해북도 황주군 룡천협동농장 제5작업반들에서는 강냉이농사를 종합적으로 기계화하여 농장원 한사람이 밭을 10정보이상 15정보까지 다루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이미 있는 화학비료공장들을 잘 꾸려 생산능력을 확장하도록 하시는 한편 새로운 비료공장들과 농약공장들을 일떠세우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그 실현을 조직지도하시였다.

특히 여러가지 비료를 구색에 맞게 주게 하시기 위하여 린회석광산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도록 지도하심으로써

린비료를 국내원료에 의거하여 생산공급할수 있는 토대(100만톤능력)가 마련되게 되였다.

그뿐아니라 토양과 농작물의 특성에 맞게 미량원소비료를 원만히 공급할수 있는 토대도 닦아놓게 되였다.

그리하여 농경지 정보당 화학비료의 시비량을 500키로그람에 이르게 할데대한 테제의 과업은 이미 실현되였으며 1톤이상의 수준에 올릴데 대한 목표도 1975년부터 달성할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농업생산에서 정치사상적토대와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힘을 넣으시면서 또한 농업생산의 일반적인 특성과 그에 작용하는 기술적요인들뿐아니라 우리 나라의 자연기후조건, 토지의 실태, 중요작물의 생리적특성 등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어떤 기후조건에서도 가장 높은 수확을 거둘수 있는 주체적인 농법을 창시하시였다.

1974년 대풍작에서 커다란 작용을 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과 논새벌갈이체계의 도입, 튼튼한 모기르기, 강냉이포기수의 결정적인 증가, 미량원소비료의 더 많은 공급 등 농사일의 모든 구체적인 문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시고 지도하시고 완성하신것이다.

이처럼 1974년의 대풍작은 위대한 수령님의 과학적인 령도의 결실이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협동농민들과 전체 근로자들이 헌신적으로 투쟁한 결과에 이루어졌다.

생산이 늘어나니 농민들의 생활도 빨리 향상되고있다. 1974년에 전국적으로 농호당 알곡 평균 분배몫이 1963년에 비하여 2.4배, 현금수입은 2.7배에 이르렀다.

이것은 우리 농민들의 생활수준이 이미 지난날의 부유중농수준을 훨씬 넘어섰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숙천군에서는 군적으로 농호당 평균 10톤, 문덕군에서는 8.7톤의 알곡을 분배받았다.

전국의 농민들은 이처럼 행복하고 부유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와 당중앙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감사의 정이 넘치고있으며 이 은혜에 더큰 성과로 보답하려는 일념으로 불타고있다.

농업부문에서 달성한 성과는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에 대한 제국주의반동들의 중상비방을 여지없이 분쇄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온세상에 시위하는것이다.

수 산 전 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산전선은 인민들의 생활을 빨리 높이기 위하여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전선입니다.

수산부문에서는 원해어업과 근해어업, 세소어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내며 물고기가공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인민들에게 여러가지 물고기와 물고기가공품이 더욱 넉넉히 차례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산부문의 로동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수산업을 과학화, 현대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신년사》, 단행본, 14~15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수산전선을 사회주의대건설의 중요전선의 하나로 규정하시고 우리 수산전사들을 사회주의대건설의 앞장에 세워주시는 크나큰 신임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러시고도 1974년초에는 전국공업대회를 마련하시고 수산전선에서 6개년계획의 수산물고지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제시해주시였으며 1974년 6월에는 당면한 여름철물고기생산에 매달린 일군들에게 다가오는 겨울철물고기잡이준비도 예견성있게 갖출데 대하여 일깨워주시면서 고기배도, 어구도 더 마련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전투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수산전사들은 새해 첫날부터《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높이 울리면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이룩함으로써 상반년수산물생산계획을 108.3% 로 앞당겨완수한 기세드높이 천리포구마다에 명태폭포, 도루메기폭포를 만들어놓았다.

특히 멸치, 고등어, 낙지, 까나리, 명태, 도루메기와 같은 물고기잡이와 다시마(곤포), 참미역과 같은 얇은바다양식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당 수산정책의 정당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훌륭히 보여주었다.

수산부문의 근로자들은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수산업을 과학화, 현대화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례년보다 일찌기 그리고 더 넓은 수역에서 고기떼들을 전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찾아냈다.

특히 전문탐색선들은 고기잡이철에 앞서 넓은 수역에 대한 전망탐색을 앞세웠으며 매개 사업소의 지휘선들은 전문탐색기관들과의 련계밑에 전망탐색과 생산탐색을 강화하여 중심어장을 신속히 찾아내는 동시에 항상 예비어장들을 장악하였다.

중심어장과 예비어장을 걸어쥔 각지 수산사업소들에서는 모든 배들이 어느한 수역에 몰켜서 일하던 례년의 결함을 완전히 극복하고 동, 서해의 전반적수역에서 집단적으로도 잡고 분산적으로도 잡으며 큰배로도 잡고 작은 배로도 잡는식으로 여러가지 고기잡이전투를 벌렸다.

지난 상반년동안에 기관선의 가동률이 2% 더 높아지고 명태잡이량이 1.4배, 멸치잡이량이 1.8배로 치달아오른것은 몇개의 중심어장들만이 아니라 전반적수역에 널려있는 예비어장들의 고기떼들까지 타고앉아 전격전, 집중공세, 섬멸전을 벌린 결과이다.

수산전선에서는 또한 새로운 어구와 새로운 어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것이 여러가지 어황상태에 맞게 과학적이고도 적극적인 고기잡이전투를 벌릴수 있는 중요한 고리의 하나이라는것을 옳게 인식하고 여러가지 어구를 여러틀씩 갖춤으로써 어느때 어떤 조건에서도 마음대로 물고기를 잡았다.

대형선미뜨랄선들에서는 두틀의 그물로 선진적인 련속식어로방법을, 명태건착선들에서는 건착봇장그물을 추는기계를, 중형뜨랄과 만능선들에서는 뜨랄과 건착을 배합하였으며 큰 어업에 자망, 덤장, 주낙과 같은 연안세소어업도 결합하였다.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널리 받아들이고 어로작업을 과학화, 현대화한 보람이 커서 이해에 그전해보다 한배의 물고기잡이량이 대형선미뜨랄선들에서는 1.7배, 중형뜨랄선들에서는 2.2배, 대형건착선들에서는 2배로 올라갔다.

물고기생산의 장성은 근해어업에서뿐아니라 원해어업에서도 나타나 먼바다물고기잡이량이 1973년에 비하여 1.5배로 비약하였다.

원해어선대들에서는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어장조건이 유리한 조건에 맞게 가볍고 큰 어구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원해어업의 대형화, 경량화, 현대화를 다그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렸다.

각지 원해어선대들은 원해어장과 큰배들의 특성에 맞는 대형화, 경량화된 선미뜨랄과 중형6폭뜨랄을 널리 받아들이고 자망, 건착들을 옳게 배합하여

기름진 청어, 대구, 가재미, 공치들을 배전에 차고넘치도록 잡아냈다.

원해어선대들에서는 또한 가공모선과 운반선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여 먼바다물고기잡이성과를 올리는데 이바지하였다.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에 따라 모든 운반선들에서는 짐을 부리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여 고기잡이배들의 실어로작업시간을 더 보장하였으며 가공모선들에서는 저장칸의 리용면적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더 많은 물고기를 얼구어냈다.

수산전선에서는 물고기가공을 공업화, 현대화하여 잡은 물고기를 허실없이 얼구고 절구고 말리웠으며 통졸임과 젓갈품 생산을 늘여 인민들에게 사철 물고기와 물고기가공품을 골고루 공급하였다.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대형랭동공장들과 가공모선, 대형운반선들의 랭동설비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그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 모든 랭동공장, 랭동설비들에 얼군물고기들을 가득가득 채웠다.

동해지구의 물고기가공공장들에서는 명태철에만 하여도 압축기, 판랭동기 등 가공설비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개선하여 1973년에 비하여 1.3배이상에 해당하는 명태, 도루메기, 청어, 낙지들을 랭동공급하였다.

수산부에서는 랭동공장들이 갓 조업한 새로운 환경의 요구에 맞게 랭동공장관리일군들과 운전공들을 위한 강습과 방식상학을 2차에 걸쳐 조직함으로써 공장설비의 리용률을 5.8% 더 높였다.

수산물가공부문에서는 또한 이해부터 명란젓처럼 도루메기알젓을 대대적으로 만들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신포, 홍원, 서호, 원산 수산가공전사들이 모범적이였다.

그밖에도 물고기가루를 만들다가 나오는 고기물로 3,500톤의 돼지먹이(흡착사료)를 새로 생산공급하였다.

양식부문에서는 자기 앞바다의 실정에 맞게 선진적인 양식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이미 파악이 있던 다시마, 참미역, 조개류를 비롯한 수산물생산을 1973년에 비하여 111%로 높였다.

부포, 웅진, 경포천해양식사업소들에서 창조한 다시마, 미역 양식방법을 전국에 일반화함으로써 1973년에 비하여 이해에 4만톤이상의 다시마와 미역을 더 생산하였다.

특히 부포천해양식사업소에서는 랭동공장에서 나오는 찬물을 받아 여름다시마모발을 만들고 해마다 추운 겨울에 하던 다시마씨받이와 모내기를 여름에 하는 새로운 다시마양식방법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함으로써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을 1만 3천원이상 높이는 특출한 성과를 거두었다.

수산전선에서는 이해에 과학적인 어로방법과 양식방법을 창조하고 그것을 1975년에 전국에 일반화함으로써 수산업의 과학화,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과학기술적준비도 훌륭히 갖추었다.

수 송 전 선

당보《로동신문》은 1974년 12월 20일에는《해운부산하 해운전사들 올해 화물수송계획을 넘쳐 끝내고 그 수준을 1.2배로 돌파!》, 12월 23일에는《수령님의 부르심따라 질풍같이 달려온 륙운총국산하 수송전사들 올해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고 계속 힘차게 전진》, 12월 29일에는《〈속도전〉이 가져온 빛나는 결실, 철도부산하 수송전사들 올해계획을 넘쳐수행하고 계속 전진》이라는 기사들을 크게 실었다.

이 빛나는 성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대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면서 수송전선을 5개전선의 하나로 규정하시고 언제나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고계시는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배려의 결실이다.

이것은 또한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한 수송전선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왕성한 투쟁의 자랑찬 열매이기도 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송의 긴장성을 푸는것은 현시기 나라의 전반적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매우 절실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빨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교통운수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52폐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해에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빨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풀기 위하여서는 철도운수부문에서 일본새와 수송조직, 기술을 대혁신하여 철도의 수송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전당, 전국, 전민이 달라붙어 자동차수송과 선박수송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3화수송(삭도수송, 벨트콘베아수송, 관수송)을 널리 받아들여 수송을 다양화함으로써 일대 수송혁명을 일으킬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나라의 수송체계를 다양화하고 수송전선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이 문제는 인민경제의 개별적부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전당, 전국, 전민이 달라붙어 힘을 넣어 풀어야 할 문제이며 따라서 모든 단위, 모든 부문의 일군들속에서 수송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으로 무장하는것이 중요하였다.

당중앙의 지도밑에 각급 당조직들은 수송전선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깊이 해설침투하며 모두다 수송문제를 풀어야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전반적진군속도를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는것을 옳게 깨닫게 하였다.

그리하여 수송문제를 남의 일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생산처럼 관심을 돌리지 않던 무관심한 경향, 운수부문을 도울 생각을 하지 않고 무턱대고 문턱까지 실어다 줄것만을 바라는 안일한 경향들이 뿌리빠지고 어디서나 누구나 수송혁명에 주인답게 참가하는 혁명적기풍이 나래쳤다.

수송전선의 주력인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수송조직을 대담하게 개편하여 전문역들을 꾸리고 집중수송체계를 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매 역마다 짐을 부리는것이 아니라 화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역을 만들어놓고 전문렬차를 거기에 고속도로, 집중적으로 실어나르게 하는 집중수송체계를 세웠다.

철도부에서는 집중수송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는 새로운 실정에 맞게 부와 철도국들에 순환 및 전문 렬차들을 맡아보는 련합사령을 따로 내오고 집중수송을 짜고들므로써 집중수송체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집중수송체계는 도중역들에서 화차들을 떼느라고 머물던 현상들이 없어지고 렬차운행시간이 대폭 짧아졌으며 전문역들의 기계화수준을 높여 짐을 싣고부리는 시간을 훨씬 단축시킨 결과 화차회귀일수가 줄어들었으며 철도의 부담을 덜면서도 여러가지 운수형태를 동원하여 철도와의 련대수송을 강화하였다.

철도부적으로 조직된 평양—청진사이의 먼거리집중수송화물렬차는 종전

의 1. 5배나되는 짐을 달고 2개 기술역의 기술봉사를 받지 않고도 이 구간을 줄창 달려 그 주행시간을 3분의 1이나 줄이였다.

집중수송체계는 이렇듯 기술역의 기술봉사시간, 일반역의 머무름시간이 없기때문에 서부지구의 석탄수송능력만 보더라도 25~30%이상 높아졌으며 평양철도국에서 집중수송방법을 앞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화물수송량을 현재의 3배로 높이게 된다.

집중수송체계는 또한 짐을 싣고부리는 일을 전문화하고 그의 기계화수준을 높임으로써 화차회귀일수를 줄일뿐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키는 사업을 눈부신 속도로 촉진시켜주고있다.

많은 전용선을 가지고있는 신의주역에서는 같은 종류의 다량화물을 취급하고있는 조건에서 전용선운영련합지휘부아래에 전문화된 작업반을 두고 적재장과 기중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싣고부리는 기계설비들을 충분히 갖춤과 동시에 고속도차갈이 방법과 집중적인 상하차방법을 받아들여 차갈이시간을 종전에 비하여 3분의 1이상, 전용선에서의 화차머무름시간을 2시간이상 줄이였다.

석탄역, 통나무역, 화학비료역, 세멘트역과 같은 모든 화물역들과 생산지에서는 기계설비들과 저장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 화물취급량을 확대하면서도 짐을 제때에 싣고부림으로써 전국적으로 화차회귀일수를 1973년보다 0. 68주야나 줄였을뿐아니라 다량화물을 싣고부리는 힘든 로동에서 근로자들을 거의 완전히 해방시켰다.

집중수송체계의 우월성이 남김없이 발휘된 《70일전투》기간에만 하여도 다량화물들인 석탄은 그전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68만 4천톤, 목재는 23만 7천톤, 세멘트는 14만 3천톤, 쇠돌은 12만 4천톤이나 더 수송하였다.

새로 화물역들이 생겨나고 화물역마다 많은 화물이 쌓이게 되는 새로운 환경에 따라 자동차운수부문에서는 자동차의 통합관리형태들인 전문수송대와 집중수송대, 먼거리수송대와 중거리수송대, 가까운 거리수송대, 대기차와 기동대 등 여러가지 수송대들을 잘 조직운영하여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요구에 맞게 자동차운수에서 대혁신을 일으켰다.

각지 집중수송대들과 전문수송대들은 철도운수의 화물역들과 공장, 기업소사이의 로선들에서 집중수송과 전문수송 등 새롭고 선진적인 수송방법을 널리받아들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간, 지역간의 생산적련계를 강화하였다.

특히 자동차들이 련결차를 더많이 끌며 교대수를 늘여 대당 수송능력을 높일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련결차끌기운동을 대중적으로 벌림으로써 자동차수송의 고속도화와 함께 대형화를 다그치고있다.

함남도자동차사업소에서는 15년을 하루와 같이 련결차를 끌고 사고없이 달린 김영련로력영웅의 경험을 살려 련결차를 끄는 자동차의 대수를 70%이상으로 높임으로써 석달동안에만도 련결차로 2, 500톤의 짐을 날랐다.

각지 사업소들과 수송대들에서는 4톤급, 10톤급, 20톤급 각종 련결차를 끄는 투쟁을 통하여 《70일전투》의 마지막에는 계획보다 4만여톤씩의 물동을 더 나르는 대혁신을 일으켰다.

자동차운수부문에서는 또한 자동차의 집단적관리운영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현존 수리기지와 부속품생산기지에 살을 붙이고 새로운 수리능력과 부속품생산능력을 조성하면서 일상적인 자동차점검과 묶음식수리방법을 받아들여 자동차의 실동률을 1973년에 비하여 전국적으로 5. 6%나 더 높였다.

나라의 수송체계를 다양화하고 수송전선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에서는 수상운수의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경제의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사회주의대건설전투가 비약적으로 전진하는데 따라 대내화물수송과 대외화물수송수요가 철도운수, 자동차운수 만으로는 해결할수 없으리만큼 급격히 늘어났다.

그렇기때문에 해운전사들은 1974년도계획을 앞당겨끝낸 자랑찬 성과에도 자만하지 않고 불타는 충성의 열정,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발휘하여 해운화물수송수준을 1974년계획의 1. 2배이상으로 치달아올렸다.

사회주의대건설이 비약적으로 전진하는데 따라 빨리 늘어나는 선박수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운능력과 통과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 중요하였다.

선박건조부문에서는 수운능력을 빨리 높일 목적으로 연해뿐아니라 원해도 마음대로 다닐수 있는 힘이 세고 속도가 빠르고 견고한 현대적인 대형선박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이해에 1만 4천톤급《왕재산》호, 5천톤급《황금산》호를 비롯하여 3천톤짜리, 1천 500톤짜리 선박들이 많이 건조되였다.

또한 수상운수를 대혁신하기 위하여 지금있는 항들을 더 확장하고 각종 기중기를 비롯한 상하선시설들과 현대적인 운반설비들, 저장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 항의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였다.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각지 항들과 해운사업소 일군들은 기계공업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부두통과능력을 2배로 높였다.

이것은 세면에 바다를 끼고있고 강하천이 많은 우리 나라의 수상운수력사에서 처음보는 대혁신이며 멀지 않아 우리 나라를 강력한 해양국으로 만드는데서 믿음직한 디딤돌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수송체계를 다양화하고 수송전선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교시에서 관수송, 벨트콘베아수송, 삭도수송에 매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삼화수송체계의 도입은 교통운수의 종합적발전뿐아니라 석탄공업, 광업, 금속공업, 비료공업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 사이와 기업소안의 수송문제를 원만히 푸는데서 가장 우월한 수송체계이다.

이해에 탄광, 광산, 항구, 련합기업소들에 삼화수송체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대규모련합기업소를 중심으로 그에 복무하는 기업소들에 삭도, 벨트콘베아, 관 수송선들이 부채살처럼 늘여지고있다.

멀지 않아 우리 나라에는 이 땅의 모든 산허리와 골짜기마다에 삭도, 벨트콘베아, 수송관들이 그물처럼 덮이고 큰 공장, 기업소들과 중요 화물역과 항구들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수송선들이 양산살처럼 펼쳐짐으로써 땅우로, 땅밑으로, 공중으로 나라의 중요 화물이 끊임없이 오고갈것이다.

국 가 예 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현 국제국내정세를 명철하게 분석평가하시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30돐까지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점령하고 다음번 전망계획기간에 10대경제건설목표를 점령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면서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대건설의 총돌격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１９７４년 국가예산은 사상, 기술, 문화의 ３대혁명기치높이 《속도전》을 벌리고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영웅적기상을 정확히 반영하여 대건설의 예산, 대고조의 예산으로 편성되였다.

우리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속도전》, 《사상전》의 불바람을 일으킴으로써 단 한해동안에 공업생산을 １７．２%, 알곡생산을 ３１%나 더 높이는 영웅적위훈을 세웠다.

１９７４년에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높은 속도로 다그친 결과 대건설의 예산, 대고조의 예산인 １９７４년도 국가예산을 성과있게 집행하였다.

１９７４년 국가예산수입은 계획 ９８억 １２１만원에 대하여 실적은 １００억 ５２５만원으로서 １０２%로 넘쳐수행되였으며 １９７３년에 비하여 １１７%로 장성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국가예산은 １００억원을 넘는 방대한 예산으로 되였다. 이것은 비할바없이 늘어난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와 그 위력을 반영하고있다.

이해에 실시된 세금제도의 완전한 페지와 대폭적인 물가인하를 고려한다면 실지에 있어서 국가예산수입은 이보다도 훨씬 높은 속도로, 더 큰 규모로 장성한것으로 된다.

이해 국가예산지출은 96억7,219만원으로서 계획에 비하여 99%로 집행되였으며 그 전해에 비하여 116%로 늘어났다.

국가예산수입이 공고한 토대우에서 빨리 늘어난 결과 이해에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벌리고 국방력을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드는 그 방대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고도 ３억 ４，３０６만원에 달하는 수입초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과 그에 기초하고있는 우리 나라 주체재정의 비할바없는 공고성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이다.

당과 정부에서는 이해에 인민경제발전비를 훨씬 늘이고 기본건설전선, 공업전선, 농업전선, 수송전선, 수산전선의 ５개의 전선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돌려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１９７４년은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건설력사에 건설의 해로 빛나게 기록될것입니다.》 (《신년사》, 단행본, ５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１９７４년을 건설의 해로 정하시고 기본건설에 화력을 집중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받들고 국가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넣어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주체의 시대, 로동당시대의 웅대한 창조물들을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수많이 건설함으로써 이해를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건설력사에 건설의 해로 찬연히 빛나게 하였다. (기본건설전선 참조)

이해에 또한 위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인《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열돐을 맞이하면서 생산부문에 대한 기본건설투자의 ２３．６%를 농촌경리부문에 돌렸다.

국가의 방대한 투자와 로동계급의 힘있는 지원으로 농촌에 뜨락또르와 자동차, 련결차, 모내는기계, 벼수확기를 비롯하여 수많은 현대적농기계, 화학비료, 농약들을 공급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가장 발전되고 완성된 관수체계와 배수체계를 갖춘 세계１등급의 수리화의 나라로, 농촌전기화의 분야에서 이미 세계 선진국가들의 수준을 따라 앞선 나라로 전변되였으며 경지 １００정보당 뜨락또르대수에 있어서나 경지 정보당 화학비료 주는 량에서 세계적으로 발전된 나라들의 수준에 올라서고있다.

인민경제가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데 따라 국민소득이 또한 체계적으로 늘어났다. 이해에 우리 나라에서 인구 한사람당 국민소득이 딸라로 환산하여 １，０００딸라이상에 이르렀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국민소득에서 세계의 발전된 나라들의 대렬에 당당하게 들어서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１９７４년에 국가에서는 사회주의문화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１９７３년의 １１４%에 달하는 사회문화시책비를 지출하였다.

무엇보다도 교육부문에 막대한 자금을 돌려 １만여개의 교실을 새로 짓고 교육기관들의 물질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렸다. 그리하여 가장 선진적인 교육제도인 전반적 １１년제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９０%이상 실시되였으며 １００만인테리대군을 양성하는 사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공화국정부는 일본돈으로 １９７３년의 ２．１배에 달하는 ３７억 １，１７８만원을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으로 재일동포들에게 보내주었다. 그리하여 이해말까지 ５８차에 걸쳐 재일동포들에게 보내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무려 １８３억 ５，９８６만원에 이르렀다.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한 거대한 성과와 나날이 늘어나는 국민소득에 기초하여 많은 자금으로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력사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해에 세금제도를 완전히 종국적으로 없애고 아울러 공업상품의 값을 평균 ３０%나 대폭 낮추었으며 년말에는 또다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한달분로임에 맞먹는 년말 특별상금까지 주었다.

이 력사적인 시책들에 의하여 우리 근로자들은 이 한해동안에만도 실로 １２억원이 넘는 추가적혜택을 받았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국가의 강력한 지원밑에 우리 농촌에 대풍이 들어 협동농장원들의 호당 평균 분배몫은 알곡만 하여도 １９７３년에 비하여 １．４배로 늘어났으며 그들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부유중농수준을 훨씬 넘어서게 되였다.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조성된 긴장한 정세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이해에 국가예산지출총액의 １６．１%를 국방비로 돌리고 자위적인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였다.

이해에 국가예산이 성과적으로 집행되였을뿐아니라 지방예산집행에서도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지방행정경제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지방예산을 철저히 관철한 결과 한해동안에 지방공업생산액은 １２０%, 편의봉사료수입은 １２７．８%, 사회급양류통액은 ２２５．５%로 장성하였다.

그리하여 １９７３년에 비하여 １４２．６%로 늘어난 지방예산수입계획을 １０９．１%로 넘쳐수행하여 지방예산지출을 지방자체의 수입으로 원만히 보장하고도 ３억 ２，０４９만원에 달하는 자금을 중앙예산에 들여놓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지방예산제는 １９７４년의 예산집행을 통하여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지도와 지방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하여 매개 지방들에서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지방예산을 집행하며 자기가 번 수입으로 자기 지방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게 하는 가장 우월한 지방살림살이운영방법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농촌테제의 휘황한 빛발 따라 10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발표 10돐을 기념하여

농촌에서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위대한 진리의 창조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사회를 맞이한 20세기는 시대앞에 새로운 길, 새로운 문제들을 련이어 제기하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농촌문제, 바로 이것은 20세기가 반드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서 반드시 터놓아야 할 새로운 길의 하나였다.

선행고전가들이 남긴 글줄을 더듬어도, 먼저 혁명한 나라의 경험을 찾아봐도 이에 대한 해답은 없었다.

물론 선행고전가들도 농민문제, 농업문제가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보았으며 이 문제를 푸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다.

특히 그들은 농민문제를 혁명의 기본적인 전략적문제로 제기하였으며 농촌문제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주의농업협동화를 끝낸 다음의 농촌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밝히지 못하였다.

우리 시대가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이 문제는 일찌기 농촌문제를 혁명의 기본전략의 하나로 여기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를 빛나게 해결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가장 옳바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건설의 실천과정에서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하나하나 무르익혀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협동화가 완성되자 1958년 10월에 농업협동조합들을 리행정단위로 크게 통합하도록 하시였다.

당시 농업협동화가 완성되고 농업생산력이 빨리 발전함에 따라 농업협동경리의 비교적 작은 규모는 생산력을 더욱 빨리 발전시키는데 적응할수 없게 되였다.

사실 그것은 로력조직을 개선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농촌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나 특히 농촌기계화를 내미는데 지장을 주었으며 농촌에서 널리 벌어지고있는 건설사업에서도 불합리하였다.

농업협동조합들을 리단위로 통합하는 사업은 사회주의농촌경리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농민들의 절실한 리해관계를 완전히 반영한것으로 하여 한두달에 지나지 않는 극히 짧은 기간에 순조롭게 마쳤다.

농업협동조합들을 리단위로 통합함으로써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치고 농업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련계를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였다.

농업협동조합들을 리행정단위로 통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9년 1월에 전국농업협동조합대회를 소집하시고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조건에 맞게 농촌문제를 앞으로 해결해나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국농업협동조합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농촌경리분야에서 우리의 기본과업은 가까운 몇해동안에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적협동경리를 정치경제적으로 더욱 튼튼히 하며 우리 농촌을 현대적기술을 가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으로 만드는것입니다.

농촌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생산관계를 개조할뿐아니라 또한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를 실현하여야 하며 농민들의 의식을 개조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2권, 306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협동화를 수행한 후에도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탁월한 사상을 밝혀주시면서 농촌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강화하여 이 분야에서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국농업협동조합대회에서 또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농촌경리분야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협동경리를 정치경제적으로 튼튼히 하기 위하여서는 농업협동조합들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며 그에 대한 당 및 국가적 지도와 방조를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2권, 324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업협동화를 실현한 후에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옳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동농장들의 관리운영사업을 더욱 개선하며 농장관리운영사업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와 방조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1958년 11월에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라는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시여 사상혁명의 진로를 휘황히 밝혀주시였고 1961년 1월에는 리현리를 찾으시여 농촌에서 인간개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일어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1959년 12월에는 농기계임경소를 농기계작업소로 개편하시고 농기계작업소가 협동농장의 생산에 대하여 농장원들과 같이 책임지게 하심으로써 협동경리에 대한 당과 국가의 물질기술적지원을 보다 강화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였다.

1960년 2월에는 청산리에 나가시여 보름동안이나 현지지도를 하시면서 사회주의하에서의 당 및 국가, 경제 지도관리에 대한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지도사상이며 지도방법인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61년 12월에는 숙천군을 현지지도하시고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창조하시여 협동경리의 관리운영방법을 선진적인 공업의 기업관리방법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비상히 높일수 있게 하시였으며 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지원을 결정적으로 강화할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마다 두메산촌 창성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가장 뒤떨어졌던 이 고장을 가장 앞선 군으로 꾸려주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지역적 단위와 거점에 관한 새롭고 독창적인 리론을 창시하시

였다.

조국의 북방 웅기군과 서해가 룡연군에 종합농장을 창설하시고 전민소유제하에서의 농업규모문제, 농업을 공업화할데 대한 문제, 농업에서의 관리운영을 개선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점차 없앨데 대한 문제와 같은 사회주의협동화가 완성된후 사회주의농촌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나서는 당면한 문제들과 전망적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길을 열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대의 념원을 안으시고 벌방과 두메산촌을 끊임없이 찾으시여 농촌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우리 나라 농촌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1962년 12월에는 황해남도의 한 협동농장을 찾으시고 국가에서 많이 보내주는 농기계와 농기구를 잘 다룰줄 아는 기술의 소유자들이 농촌에 부족하다는것과 농촌에서 수행해야 할 방대한 혁명과업을 맡아할만한 핵심력량이 적다는것을 포착하시고 농촌출신의 제대군인들과 청년들을 농촌에 고착시킬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1963년 8월에는 량강도안의 농촌형편을 현지에서 하나하나 료해하시고 협동농장들에 탈곡장, 종자창고, 비료창고 등 생산시설들을 국가자금으로 지어주며 농업부문에 국가투자를 더 많이 할데 대한 은혜로운 대책도 세워주시였다.

대동군 덕촌협동농장 마을에 다녀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6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부장회의를 소집하시고 농민들의 생활을 로동자들의 수준에까지 추켜세우자면 우선 알곡분배는 3톤이상, 현금수입은 1천원이상 차례지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촌의 기본건설을 비롯하여 농기구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부담하여 적극 도와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또한 농민들에게도 로동자들과 같이 작업복을 눅은 값으로 공급해주고 2~3년안에 농업현물세를 없애고 국가대부금도 면제해주며 국가적방조를 적극적으로 줄데 대하여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이 교시에는 전국의 농촌을 도시 부럽지 않게 만들며 농민들의 처지를 로동계급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앨데 대한 원대한 구상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듯 우리 농민들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을 안으시고 우리 나라 농촌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과정에 찬란한 공산주의농촌건설의 래일을 구상하시였고 몸소 쌓으신 귀중한 경험들을 과학적으로 분석일반화하시여 마침내 불후의 고전적로작《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완성하시여 1964년 2월 25일 온세상에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위대한 강령이며 사회주의농촌문제를 해결하는 빛나는 총서이며 위대한 법전으로서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휘황한 등대이다.

그러기에 세계의 벗들은 농촌테제는 시대가 암중모색하던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길우에 찬란한 새아침을 가져다 준 눈부신 해돋이, 빛발이라고 하였으며 20세기가 소중히 받아안은 세기적인 보물이라고 하였다.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농촌에서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위대한 강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바로 농촌에서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강령입니다. 테제에서 내세운 과업을 수행한다는것은 농촌에서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첫 단계의 과업, 다시말하여 과도기의 과업을 수행한다는것을 의미하며 또 그렇게 하여야만 공산주의로 갈수 있는것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3권, 411~412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인류가 공산주의에 대하여 론의만 그렸을뿐 그 상세한 면모와 거기에 가는 길을 똑똑히 밝히지 못하고있던 시기에 테제를 발표하심으로써 농촌에서 공산주의농촌건설강령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하에서의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는 농촌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화하는 기초우에서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며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데 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3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선행고전가들이 계급폐절과 무계급사회의 건설에 관한 사상은 제기하였지만 계급적차이를 종국적으로 없애기 위한 방도를 밝히지 못하고있던 공산주의적농촌건설강령을 새롭게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 새롭게 밝혀주신 공산주의적농촌건설강령이란 본질상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며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농촌테제에서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해결의 본질적내용을 명확히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기본원칙과 방도들도 천재적으로 해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하에서의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사업에서 반드시 세개의 기본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첫째로,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둘째로,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셋째로,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수준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런계를 강화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 부단히 접근시켜야 한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3~34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농촌테제에서 밝히신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기본원칙에는 사회주의농촌문제의 본질적 요구와 내용이 심오하고도 명백하게 집약화되여있으며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전기간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힘을 집중해야 할 주되는 목표와 과업이 천재적으로 명시되여있다.

농업협동화가 완성된 다음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며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경제관리와 소유형태에서의 공업과 농촌경리의 차이를 없앨데 대한 농촌테제의 이 세개의 원칙은 농민을 로동계급화하고 농업을 공업화하며 농촌을 선진적인 도시의 수준에 끌어올리는 올바른 길을 밝혀준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며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이행을 준비하

기 위하여서는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착취계급이 없어지고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된 다음에도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남아있고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다는 사실자체가 혁명을 계속해야 하며 특히 농촌에서 혁명을 더욱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 (《김일성저작선집》, 4권, 34페지)

사회주의하에서의 계속혁명에 대한 사상은 그 누구도 제기하지 못하였던 것으로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로 내놓으신 독창적인 사상이다. 사회주의혁명까지의 계속혁명문제는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였지만 사회주의하에서의 계속혁명문제는 여지껏 과학적으로 해명되지 못한채 남아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사상을 내놓으시고 사회주의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천재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협동화가 실현되였다고 하여 혁명을 중단한다면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앙양된 농민들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높일수 없으며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없고 그 우월성도 발양시킬수 없으며 나아가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도 없앨수 없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이로부터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천명하시고 계속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중심내용을 과학적으로 해명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시였다.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 이것은 사회주의적협동화가 완성된 다음 농촌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심적인 혁명과업이다. » (《김일성저작선집》, 4권, 34～35페지)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중심적인 혁명과업으로서의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수령님의 이 천재적인 리론은 사회주의하에서 도시와 농촌간에 남아있는 차이들과 그 근원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그것을 종국적으로 없애는 근본방도에 대하여 처음으로 밝혀주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시기에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에 대하여 소유형태에서의 차이만을 보아왔고 또한 그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지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시여 사회주의하에서 도시와 농촌간에 남아있는 사상, 기술, 문화, 소유, 관리 관계의 차이가운데서 그 근원으로 되는 차이가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의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에 있다는것을 새롭게 밝히시고 이로부터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중심적인 혁명과업으로 규정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자면 무엇보다 먼저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힘있게 벌려 이 분야에서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테제에서 협동농민과 협동적소유에 대하여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취하여야 할 원칙적 태도와 립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로동자와 농민은 같은 목적과 리상을 위하여 힘을 합쳐 투쟁하는 동맹자이며 다같이 사회주의적근로자이다.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는 호상 밀접한 련계속에서 발전하는 사회주의적소유의 두개 형태이며 다같이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적기초를 이루고있다. 사회주의국가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뿐만아니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하여서도 책임지며 전인민적소유의 발전뿐만아니라 협동적소유의 발전에 대하여서도 책임진다. 개인농민경리때에는 주로 매 농민이 자기의 경리와 생활에 대하여 책임을 졌지만 협동화된 다음에는 당과 국가가 협동농장들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 » (《김일성저작선집》, 4권, 37페지)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사상적 지도를 확고히 앞세우면서 협동경리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볼데 대한 사상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로동계급의 령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길을 명시한 독창적인 사상이다.

이것은 사회주의하에서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령도와 로농동맹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서 혁명적전환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테제에서 지난날 뒤떨어진 농업국가였던 나라에서는 혁명이 승리한후 사회주의공업화를 위하여 얼마동안 농촌에서 일정한 자금을 얻지 않을수 없지만 일단 사회주의공업의 기초를 쌓은 다음에는 공업이 농업을 지원하는데로 방향을 돌리며 모든 분야에 걸쳐 농촌을 더욱 힘있게 지원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사회주의농촌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와 지원의 내용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은 농민을 정치사상적으로 지도할뿐아니라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재정적으로도 도와주어야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수입을 높여주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을 고르게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38페지)

농민들의 생활과 협동적소유의 발전에 대하여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분야에 걸쳐 지도와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태도와 립장에 확고히 서서 로동계급의 힘을 증대시키고 공업과 도시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만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다그쳐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킬수 있고 로농동맹과 사회주의농촌진지를 더욱 강화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테제에서 사회주의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관리문제, 협동적소유의 발전에 관한 문제,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호상관계에 관한 문제를 사회주의농촌건설, 전반적인 사회주의건설과 관련되는 원칙적문제로 제기하시고 그 해결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는 기본방향은 농업협동경리의 관리운영방법을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방법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는것이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40페지)

《기업적방법으로 관리한다는것은 생산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며 기업소의 모든 경영활동을 계획화하고 조직화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40페지)

그이께서 천재적으로 밝히신 기업적방법에 의한 농촌경리의 지도와 관리는 대규모의 사회주의적경리로서 그 기술장비가 점차 공업의 수준에 가까와가는 농업협동경리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며 경제관리에서의 공업에 비한 농업의 락후성을 없애는 가장 옳은 길이다.

오직 농업을 기업적방법으로 지도관리하여야만 농촌기술혁명을 더잘 다

그릴수 있으며 농업관리에서 산만성과 비조직성을 없애고 농촌경리에서의 생산문화를 높일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테제에서 협동적소유의 발전과 두 소유의 호상관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시였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고 농민들의 문화수준과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협동적소유를 발전시키고 더욱더 완성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간의 호상관계, 공업과 농업간의 련계에 관한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공업과 농업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강화하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것이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41~42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업과 농업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강화하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을 통하여 두 소유의 유기적결합을 실현하는 독창적인 길을 밝혀주심으로써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전환을 위한 명확한 앞길을 열어놓으시였다.

공업의 발전에 따라 농촌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이 계속 확대강화되여 전인민적소유에 속하는 현대적인 물질기술적수단들이 농업생산에서 압도적비중을 차지하게 될 때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사상적영향이 강화되게 되고 공업의 기계기술, 선진적 기업관리와 생산문화가 농촌경리에 더잘 보급되게 되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이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되게 되며 결국 협동적소유가 순조롭게 전인민적소유로 넘어가게 된다.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전환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리론은 무계급사회건설에로 나가는 길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근본문제, 인류가 그 해결을 위하여 탐색하여오던 중대한 문제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농업협동경리에 대한 기업적지도와 두 소유의 유기적결합은 그에 적응한 지도관리의 새 형태를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62년초에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창설하심으로써 농촌경리에 대한 기업적지도와 두 소유의 유기적결합을 실현할수 있는 훌륭한 지도관리의 형태를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테제에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농업기술자들과 농기계작업소, 농기구공장, 관개관리소 등 농촌경리에 봉사하는 국가기업소들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협동농장들의 경영활동을 현지에서 직접 조직하며 지도한다. 경영위원회는 협동농장들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기능과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방조를 직접 실현하는 기능을 통일시킨 전문적인 농업지도기관이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7~58페지)

농촌경리에 대한 기업적지도를 실현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종전까지 행정적방법으로밖에 지도할수 없는것으로 알았던 협동경리를 국가가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것으로서 그것은 로동계급의 령도를 지난날에 비할바없이 더욱 깊이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지도방법이며 지도체계이다.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의 기업적지도방법과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창조는 협동농장들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지도기능과 물질기술적방조의 기능을 결합시켜 협동경리의 관리운영수준을 비상히 높이고 국가적소유가 협동적소유에 폭넓고 깊이있게 들어갈수 있게 하는 사회주의농촌경리의 지도관리문제해결에서 빛나는 모범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테제에서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와 그 해결원칙, 방도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을뿐아니라 이미 내놓으신 사회주의농촌지도에서의 지역적단위와 거점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전면적으로 정식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과 같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대상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지방마다 일정한 지역을 통일적 지도의 단위로 설정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해당지역내의 모든 대상들을 직접 지도하는것이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61페지)

농촌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지역적단위와 거점을 설정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방침은 사회주의농촌문제의 해결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군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만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다그치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정치, 경제, 문화적 지원을 강화할수 있으며 사회주의농촌의 발전과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전반적발전을 촉진할수 있으며 뒤떨어진 지역이나 협동농장들이 없이 전반적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공산주의에로 빨리 갈수 있기때문이다.

농촌문제해결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리론, 방침이 집대성된《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지난 10년간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사상적요새의 점령을 위한 투쟁이 심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10년동안에 농촌에서는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면서 줄기차게 벌렸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진행한다는것은 농민들의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고 그들을 선진적로동계급의 사상으로,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1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계급보다 농민이 사상적으로 뒤떨어져있는것은 그들간의 계급적차이를 낳게 하는 주되는 근원의 하나이며 따라서 사상혁명은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그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계급없는 사회를 건설하는데서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혁명과업이다.

사상혁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방침은 바로 력사발전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주체의 원리를 가장 철저히 구현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민들속에서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 교양을 강화하며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사상혁명의 내용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사상혁명에 대한 문제를 독창적으로 제기하시고 해결하신 수령님의 공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특별히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무엇보다도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라는 구호를 높이들고 농촌에서도 학습을 하나의 혁명사업으로 내세우고있으며 농촌에 정연한 학습체계를 세우고 모든 농민들이 다 학습하는 혁명적기풍을 튼튼히 세웠다.

당중앙의 지도밑에 사상사업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모든 농촌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누구나 빠짐없이 강연, 정기학습, 강습 등 정연한 학습체계에 망라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배우고있으며 매일 2시간이상 학습하는것이 생활화, 습성화되고있다.

우리의 농촌에는 지금 농업근로자들이 학습할수있는 조건도 훌륭히 마련되여있다.

모든 리에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이 정중히 꾸려져있으며 농민들은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경애하는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농사일의 특성과 우리 농민들의 실정을 깊이 헤아리시고 그에 맞는 학습형식과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이에 따라 농촌에서의 사상교양사업은 농민들의 수준에 맞게 다양하고 통속적으로 알기쉽게 진행되고있으며 겨울에는 집중강습, 여름에는 포전학습 등 농촌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형식의 학습방법이 널리 도입되고있다.

당이 제시한 《사상전》의 방침에 따라 농민들속에서 꾸준한 사상교양과 함께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그 결과 농민들속에서는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는 혁명적학습기풍이 철저히 서게 되였으며 그들의 사상의식과 정신도덕적풍모에서는 새로운 근본적변화가 일어났다.

무엇보다도 먼저 주체사상교양이 강화된 결과 농민들속에서 혁명적세계관, 주체의 세계관이 튼튼히 서가고있으며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더욱 확고히 서게 되였다.

오늘 우리의 협동농민들은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삼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이며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1974년 1월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수령님의 교시에 접한 평남도안의 농촌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모든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면서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 1974년 농사에서 6개년계획에 예견된 알곡고지를 두해 앞당겨 110%로 점령한것은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였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우리 농민들속에서는 또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가 날을 따라 튼튼히 서가고있다. 우리의 협동농민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며 농업생산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나라의 식량과 원료 생산을 책임진 주인답게 일하고있다.

지난 가을에 이른 서리가 내린다는 통보를 받은 황주긴등벌의 농민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정해주신 2모작 강냉이시험포전 주변에 1천 500여개의 충성의 불무지를 밤마다 피워 올려 서리가 내리지 못하게 하여 정당 평균 10톤이상씩 수확하였을뿐아니라 풋강냉이로 처리하자던 일부 사람들의 짧은 생각을 고쳐준 사실을 통하여 우리 농민들이 나라의 식량과 원료 생산을 책임진 자각이 얼마나 높은가를 잘 알수 있다.

이처럼 우리 협동농민들은 분조장, 작업반장이 된 립장에서 농사일과 농장의 모든 살림살이를 걱정하면서 그야말로 성실하게 일하고있다.

또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이 심화되면서 우리 농민들의 계급적각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들은 제국주의 특히 미일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계급을 미워하고 착취제도를 반대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키고 빛내이기 위하여 높은 정치적열의를 발휘하고있다.

우리의 협동농민들은 자기들에게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준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과 자립적민족경제와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가진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있으며 그 공고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고있다.

림진강기슭의 판문군 동창리협동농민들은 분계선 남쪽마을에서 태고적방법으로 모판에 씨를 뿌릴때 모내기기계에 올라앉아 풍년모를 내거나 분계선 남쪽마을 농민들이 비가 오지 않아 모를 내지 못할때 뜨락또르운전대를 잡고 두벌김매기를 하거나 남쪽에 둥지를 튼 새들이 먹을것이 없어 분계선 넘어 사회주의협동벌에 무리로 날아들때마다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적개심을 느끼면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사회주의농업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해마다 풍년성과로 보답한 결과 1974년에 알곡생산량을 미제강점시기에 비하여 4.9배로 높였다.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지난날의 소소유자로서 개인주의와 리기주의 사상에 많이 물젖어 있었고 농촌이 봉건사상, 자본주의사상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곳이라는 사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농민들속에서 집단주의정신과 로동을 사랑하며 국가와 사회의 재산을 사랑하는 정신을 높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렸다.

오늘 우리의 협동농민들은 집단의 리익속에 자기의 리익이 있으며 공동의 재부속에 자기 몫도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의 재산을 극력 아끼며 공동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하게 참가하고있다.

특히 우리 농촌에서 위대한 공산주의학교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농민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 농민들자신의 일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다.

농촌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짐으로써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밑에 모든 농민들이 서로 돕고 이끌고 단결하면서 집단과 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고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농촌에서는 지금 《꽃파는 처녀》근위대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꽃파는 처녀》근위대원들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혁명화의 교과서로, 투쟁의 본보기로 삼고 그 주인공들처럼 혁명적으로 살며 싸워나가고있으며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선구자적역할을 놀고있다.

농업생산에서 최근년간 계속 앙양이 일어나고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상혁명을 앞세울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농민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심으로써 농민들이 개인터밭에나 관심을 두고 자기 앞의 리속만 타산하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공동경리의 발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게 된데 있다.

농촌에서는 농민들속에서 사상교양과 함께 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산주의자의

중요한 특징은 높은 사상성과 함께 조직성을 가진데 있다고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조직생활을 잘하도록 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농촌테제를 발표하신데 뒤이어 사회주의적 농촌근로자들의 혁명조직인 농업근로자동맹을 세워주시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심으로써 농민들속에서 사상교양과 조직생활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농촌에서도 당원들은 당조직생활을 하며 농근맹원들은 농근맹생활, 사로청원들은 사로청생활, 녀맹원들은 녀맹생활을 하고있으며 이러한 조직생활을 통하여 농민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생명을 더욱 빛내여가고있다.

특히 당중앙이 제시한 새로운 조직생활방침에 따라 당 및 근로단체 조직생활이 심화됨으로써 농업근로자들의 조직사상생활은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그들의 혁명화과정은 더욱 힘차게 촉진되고있다.

오늘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자기의 혁명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조직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고있으며 늘쌍 조직의 통제속에서 생활함으로써 낡은 사상잔재를 성과적으로 극복하면서 자신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잘 준비해나가고있다.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린 결과 농촌경리부문 지도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사업방법, 사업작풍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농촌경리부문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와 주관주의, 형식주의와 요령주의, 보수주의와 경험주의 등 온갖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점차 극복되여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전국농업대회에서 농사가 잘된것은 농업지도에서 일군들의 관료주의와 주관주의가 없어진 결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농촌초급일군들은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농장원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정치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있다.

특히 농촌경리부문일군들은 혁명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앞장에 서서 대중을 이끌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면서 당정책의 선전자, 관철자로서의 무거운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고있다.

당중앙이 제시한 방침에 따라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 농촌에서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다.

농민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일어난 위대한 전변은 지난 10년동안 사회주의농촌테제를 관철하는 투쟁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이며 몇백, 몇천만톤의 쌀더미와도 바꿀수 없는 가장 고귀한 재부로 된다.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농촌의 끝없는 번영과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가 있는것이다.

공업화, 현대화되는 우리의 농업

《관개의 나라》, 해마다 수리화의 위력을 과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0년 11월 2일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수리화의 력사적위업이 성과적으로 완성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하시였다.

《…농촌기술혁명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수리화를 완성한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련한 관개시설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한편 관개공사를 계속 널리 진행하여 논관개를 완전히 끝냈으며 밭관개까지 적지 않게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몇해동안에 고이는물빼기공사에 커다란 국가적힘이 돌려져 우리 나라의 중요 벼생산지대들에서 고인물피해를 완전히 없앨수 있게 되였으며 나라의 전반적지역에서 강하천정리사업과 해안방조제공사, 식수조림사업이 널리 진행되여 논밭과 농작물들을 자연재해로부터 더 잘 보호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리하여 총결기간에 우리 나라에는 어떤 가물이 드나 장마가 져도 언제나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는 완성된 수리화체계가 마련되게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23페지)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기술혁명에서 선차적의의를 가지는 수리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완성되여 억년가물과 만년홍수에도 끄떡하지 않는 튼튼한 농업생산토대가 마련되였다.

우리의 협동벌마다에는 평남관개, 기양관개, 어지돈관개, 압록강관개를 비롯하여 크고작은 규모의 조밀한 관개시설이 그물처럼 뒤덮여있다. 관개시설들은 몇개의 벌방이나 적시는것이 아니라 10만여리의 물길을 따라 서로 물을 넘겨주고 넘겨받는 륜환체계, 세계 1등급의 관개체계를 이루고있다.

우리 나라의 관개체계는 논에 물을 마음대로 대게 할뿐아니라 무데기비로 인한 고인물도 순식간에 뽑아버리며 맑게 개인 날에도 안개비를 내리워 밭농사와 과수업에서도 비약을 일으키게 하는 가장 고도로 발전된 관개체계로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관개의 나라》로 온 세상에 그 위용을 떨치고있으며 우리의 농촌경리는 세계 1등급의 관개체계를 가진 가장 현대적이고 발전된 사회주의적농촌경리로 그 위력을 과시하고있다.

이 세기적인 변혁은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물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하루빨리 풀어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1946년 현지지도의 나날에 가물에 타들어가는 벼밭, 밀밭을 가슴아프게 굽어보시다가 어느 자그마한 다리옆에 이르렀을 때 쉬여가자고 하시면서 시내물에 낚시줄을 드리우시였다.

어느새 고기들이 모여들어 빨간 종대가 무시로 물우에서 깜박이건만 그이께서는 낚시줄을 당기실 생각은 아예 잊으시고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항일의 피어린 그날 올기강가에서 낚시줄을 드리우시고 일제를 쳐부실 천재적인 작전을 구상하시던 수령님께서 이 시각에 장차 조국땅우에 펼쳐질 만년대계의 거창한 수리화의 구상을 무르익히고계심을 그 누구도 모르고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잠시후 낚시대를 거두시며 어디에서나 농민들이 물을 요구하고있으니 아무리 어려워도 관개공사를 빨리 하자고 수리화의 력사적위업을 선포하시였다.

그때로부터 얼마후인 1946년 5월 21일 나라의 대자연개조의 구상을 실현하는 첫걸음으로서 보통강개수공사를 발기하시고 몸소 첫삽을 뜨시여 수리화의 물길을 손수 열어주시였다.

그 물길은 마탄관개, 홍의관개들의 중소관개와 평남관개, 기양관개 등의 대규모관개를 비롯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물길을 열어 조국의 산야를 적시며 흘러갔다.

대동강과 청천강의 물을 퍼올려 연연 4,500리의 물길을 따라 10만정보를 헤아리는 넓은 벌에 생명수를 보내는 평남관개는 1955년 4월에 제1계단공사를 끝내여 통수식을 가졌고 1956년 5월에는 제2

계단공사를 마감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7년 12월 황해남도농업협동조합열성자회의에서 등성이발들에도 물을 댈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내놓으신후 우리 나라 밭농사의 본보기를 신천군 새날협동농장에 꾸려주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8년 9월에 당중앙위원회 9월전원회의를 소집하시여 《모든 힘을 100만정보의 관개면적확장에로!》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관개공사장으로, 농촌으로 현지지도의 길에 나서시였다.

그이께서는 1959년 5월초에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를 여시고 6개월간의 당중앙위원회 9월전원회의결정관철정형을 총화하시였다.

6개월동안 근 1만개의 저수지, 양수장과 그밖의 관개시설들이 조업하였다. 이리하여 관개면적이 새로 37만 7천정보가 늘어났다. 이것은 해방전 우리 나라 총관개면적의 3배이상에 달하는것이다.

당중앙위원회 1958년 9월전원회의결정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우리 농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시는대로 하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였으며 그이께서 펼쳐주신 웅대한 5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는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5개년계획기간에 대규모의 기양관개, 어지돈관개와 함께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중소규모공사가 널리 진행된 결과 관개면적이 해방전의 7배인 80만정보에 이르렀으며 논은 모두 수리안전답으로 되고 밭에도 관개체계가 수립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1966년 11월 황해남도농업부문과학일군협의회에서 현시기 알곡증산의 예비가 고인물피해를 없애는데 있다고 밝히시면서 우리 인민들을 고인물빼기 섬멸전에로 부르시였다.

그리하여 1967년 상반년동안에만 하여도 전국적으로 3, 190개의 대상에 초당 515톤의 고인물을 뺄수 있는 양수설비들이 꾸려졌다. 이것은 실로 전후 14년동안에 우리 나라에서 조성한 총양수능력의 4분의 1에 해당하며 지난날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건설한 저수지가운데서 그중 크다고하는 견룡저수지를 하루에 두개이상 퍼올릴수 있는 능력과 맞먹는것이다.

이렇듯 위력있는 배수체계가 갖추어짐으로써 중요 벼생산지대들에서 고인물피해는 완전히 없어졌으며 어떤 가물이 드나 장마가 져도 언제나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는 완성된 수리화체계가 마련되였다.

혁명의 전도를 환히 내다보시며 한가지 과업을 해결하시면서 다음 단계의 과업을 구체적으로 성숙시켜나가시는 수령님께서는 밭관개를 실현하는데서 새로운 방법, 공업국가의 수준에 맞는 높은 형태의 관개체계인 분수식관수체계를 구상하시고 이를 남새농사에 먼저 도입하게 하시였다.

남새농사에서 분수식관수체계의 우월성을 보여주신 수령님께서는 이미부터 구상하신대로 이 우월한 자연개조방법을 밭농사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도록 지도하시였다.

1970년 3월 8일 긴등벌에서 분수식밭관개체계의 공사방향과 수행방도로부터 그 관리운영방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으며 그후 전국에 일반화하여 3만정보이상의 분수식밭관개면적을 마련해주시였다.

이름없는 벌과 벌, 높고낮은 등성이를 적시며 흐르는 그 무수한 수로와 수로들, 무더기비가 쏟아놓은 고인물도 순식간에 처리하는 그 위력한 양수장들, 맑은 날에도 칠색무지개가 비낀 밭에 약비를 뿌려주는 분수식관수 등 이처럼 고도로 발전된 관개체계는 《관개의 나라》의 자랑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 인민은 세계의 수리화력사에 없는 새로운 길을 걸으면서, 인류의 관개력사에 없는 새로운 속도로 달리면서 양수와 배수, 관수까지 합친 고도로 발전된 관개체계를 갖추고 높이 솟아난 우리 나라 수리화의 위용을 세상에 자랑하게 되였다.

이 세기적인 변혁속에서 《하늘의 조화》를 한탄하던 농민들도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사람의 힘의 위력을 깨달았으며 《기우제》가 비를 준다는 허망한 생각에서 벗어나 로동당이 생명수를 보내준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이 놀라운 기적속에서 용드레의 물로 곡식을 적시던 우리 농촌의 구슬픈 력사는 영원한 과거사로 흘러가고 논이면 논마다에 대풍, 밭이면 밭마다에 만풍이 밀려오고있다.

세계적으로 가물이 심해 흉년이 들었지만 수리화, 전기화를 기계화, 화학화에 앞세운 우리 나라에서는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2년 앞당겨 1974년에 점령하였다.

완성된 농촌전기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기화를 농촌기술혁명의 네가지 기본구성부분의 하나로 규정하시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전기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전기화는 농촌기술혁명과 문화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촌을 전기화하지 않고는 수리화와 기계화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으며 문화적인 농촌건설을 기대할수 없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46페지)

그이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농촌전기화가 농촌기술혁명의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는것은 양수동력, 탈곡동력, 축산동력, 문화기자재동력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해주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 농촌에서 협동화가 완성되여가고 수리화가 전인민적운동으로 벌어지고있는 당시의 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시고 대규모의 발전소건설과 함께 중소규모의 발전소건설을 활발히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농촌기술혁명에서 선차적과업으로 나섰던 수리화를 더욱 빨리 다그치기 위하여 전기화를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우리 당 중앙위원회 1958년 9월전원회의가 있은 다음 5개년계획기간에 농촌전기화에서는 실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우리 당 중앙위원회 1958년 9월전원회의이후 1959년 상반년까지만 하여도 732개의 중소규모발전소들이 건설됨으로써 강원도, 함남도, 자강도의 모든 리들에 그리고 342개소의 부락에 전기가 들어가게 되였다.

농촌전기화의 빠른 발전은 농가에 밝은 빛을 주고 홍겨운 일손을 가져다 주었을뿐아니라 농민들의 사상의식변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으로 하여 1961년 6월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농촌리의 92.1%, 모든 농가의 62%에 전기가 들어가 농촌전기화는 거대한 전진을 가져왔다.

그때까지 아직 전기를 보지 못하고 있는 집들이란 거의다 산간에 널려있는 집들이였다. 농촌전기화를 완성하자면 널려있는 집들을 한곳에 모으는것이 중요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61년 여

를 창성군을 찾으시고 산간지대농촌을 전기화함에 있어서는 먼저 집을 모아 짓고 부락을 꾸린 다음에 전기를 끌어야 하며 전기를 끄는데 있어서도 첫단계에서는 모든 가정에서 불을 보도록 하고 다음에 부락중심지들에 동력선을 끌어 전기의 힘으로 기계를 돌리도록 하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친히 약수리의 크고작은 골짜기들을 돌아보시면서 문화주택마을의 위치도 잡아주시고 연필로 략도를 그리시면서 전기줄은 어데서 어떤 길로 해서 끌며 그에 소요되는 자재는 어떻게 해결할것인가에 대해서까지 보살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1963년까지 약수리는 모두 문화주택부락으로 꾸려졌고 전기화도 끝나 모든 작업반들에 전화까지 놓게 되였다. 농촌전기화를 완성할수 있는 본보기가 창조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4년 2월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농촌전기화를 완성하기 위하여 국가적지원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대책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중소관개공사, 하천정리, 양수시설, 탈곡장, 축사, 창고, 농촌발전소의 건설과 전기가설 등 기본건설은 다 국가자금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73～74페지)

우리 당의 이 대책은 농촌전기화를 더 계획적으로, 더욱 빠르게 더 질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며 농민들의 부담을 덜고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는 현명한 대책이였다.

1968년말에 모든 농촌리의 100%, 모든 농촌집들의 91.2%에 전기가 들어갔으며 1970년에 이르러서는 농촌전기화의 완성을 온세상에 선포하였다.

농촌전기화의 완성으로 농민들은 밝은 전등불에 의하여 밤이면 신문, 잡지, 책을 읽고있으며 라지오, 텔레비존, 고성기를 통하여 자신들의 정치지식과 문화기술지식을 끊임없이 넓혀가고있다.

전기의 힘으로 물을 마음대로 산으로 넘기거나 뽑아버리니 억년가물과 만년장마에도 끄떡없이 해마다 풍년을 마련할수 있게 되였으며 집짐승먹이가공도, 알께우기도 전기가 맡아하게 되였다.

종합적인 기계화단계에 들어선 우리 나라 농업

위대한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농촌경리의 기계화에서도 결정적인 전진이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농업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수행하는 단계에 있다. 우리의 과업은 밭갈이로부터 가을걷이와 탈곡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사일을 기계화하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것이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46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여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없애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촌경리를 기계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를 전국적으로 실현하자 즉시 농촌경리를 기계화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기계화에서 뜨락또르를 많이 생산하여 공급하는데 기본을 두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으며 몸소 이 사업을 조직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전후 5개년계획의 첫시기에 벌써 농촌기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시켜야 할 전망을 내다보시고 대담하게 뜨락또르공업과 자동차공업을 창설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우리의 로동계급들을 그 실현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특히 3대기술혁명의 계획인 6개년계획수행에 들어서자 뜨락또르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전의 10배이상되는 현대적인 금성뜨락또르공장을 건설할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단 1년동안에 완공하도록 지도하시였다.

그리하여 농촌의 뜨락또르대수를 7만～8만대 (15마력환산)에 이르게 할데 대한 농촌테제의 과업을 《농촌기술혁명지원의 날》인 1974년 7월 27일 현재로 빛나게 실현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자체의 뜨락또르공업을 창설할데 대한 대담하고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시지 않았더라면, 사대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이 떠벌인것처럼 남만 쳐다보았더라면 우리 농민들은 아직도 소잔등을 두드리고있었을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예견성있게 현명한 조치를 취하시고 정력적으로 지도하셨기때문에 1974년 현재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뜨락또르대수는 1963년에 비하여 무려 4배이상으로 장성하였다.

지금 경지 100정보당 뜨락또르가 벌방지대에는 4대,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에는 3대씩 차례지고있다.

우리 나라는 경지 100정보당 뜨락또르대수에서도 선진국가들의 수준에 이르고있다. 이 성과는 더우기 다른 나라들에서 경지 100정보당 뜨락또르 대수가 2～3대에 이르기까지 수십년이 걸린것을 고려한다면 특출한 성과로 된다.

특히 뜨락또르대수가 훨씬 늘어났을뿐만아니라 대형 (풍년호), 중형 (천리마호), 소형 (전진호, 충성호) 들이 구색이 맞게 공급됨으로써 벌방지대나 산간지대나 할것없이 어디서나 뜨락또르로 일할수 있게 되였다.

농촌에 자동차를 많이 보내주기 위한 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자동차대수는 1974년말 현재 1963년에 비하여 4.6배로 장성되였다. 이에 따라 한개 협동농장에 4대씩의 자동차들이 공급되였다.

또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새로운 농기계들이 창안제작되여 농촌에 대량적으로 공급됨으로써 더 많은 농사일을 기계로 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지금 논밭갈이, 낟알털기, 가루빻기, 정미작업, 먹이빻기, 자르기 작업은 이미 100% 기계화되였으며 수송작업도 거의 다 기계화되였다.

특히 우리 나라 농사일에서 가장 힘든 일들인 모내기와 김매기를 기계로 할수 있게 된것은 특별한 성과로 된다.

모내는 일을 기계화하여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든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계급들은 1만 5천대이상의 모내는 기계를 만들어냈으며 첫해에 논면적의 거의 절반을 기계로 모를 냈다.

모내기와 김매기의 기계화는 벼농사에서 일대 전환으로 된다. 기계가 모를 내고 김을 잡음으로써 굽었던 농민들의 허리가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으로 쭉 펴이게 되였다.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기계화의 과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됨에 따라 우리 나라 농촌경리의 기계화수준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평양시 삼석구역 장수원협동농장, 평남도 강서군 청산협동농장, 평북도

의주군 서호협동농장, 황남도 은률군 장련협동농장을 비롯한 많은 협동농장들에서 농사일을 종합적으로 기계화하였다.

특히 황주군 룡천협동농장 5작업반, 의주군 서호협동농장 한작업반, 은률군 장련협동농장 10작업반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많은 작업반에서 강냉이농사를 종합적으로 기계화하여 농장원 한 사람이 밭을 10정보이상 15정보까지 다루게 되였다.

이것은 농촌경리를 기계화하여 한 사람이 논은 5～6정보, 밭은 8～10정보이상씩 다룸으로써 농업에서도 점차 공업에서와 같이 8시간로동제를 실시할데 대한 전망적과업이 현실에서 실현되여가고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협동경리를 무을 때 부림소 한두마리, 달구지 한두채밖에 없던 우리의 협동농장들은 오늘 평균 20대이상의 뜨락또르와 4대의 자동차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현대적농기계들에 의하여 밭갈이로부터 낟알털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사일을 기계로 하는 새로운 현대적인 농장으로 전변되였다.

화학농사의 새시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토지가 적은 우리 나라의 형편에서 반드시 농촌경리를 화학화해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화학화를 농촌기술혁명의 네가지 구성부분의 하나로 규정하시였다.

일반적으로 화학화는 사람들의 힘든 일을 덜어주며 토양을 개량하고 토지의 비옥도를 높이며 농작물의 생장과 결실을 촉진하고 병해충과 잡초를 없애게 함으로써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화학화에서의 과업은 우리 나라의 토양과 농작물에 맞는 여러가지 화학비료를 충분히 보장하며 여러가지 살충제와 살초제의 공급량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농경지 정보당 화학비료의 시비량을 가까운 년간에 500키로그람에 이르게 하며 장차로는 1톤이상의 수준에 올려야 한다. 과학적시비체계를 세워 화학비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47폐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이미 있는 화학비료공장들을 잘 꾸려 생산능력을 확장하도록 하시는 한편 새로운 비료공장과 농약공장들을 일떠세우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그 실현을 조직지도하시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생산계통을 세우면서 청수화학공장,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 아오지화학공장들에 질소비료생산토대를 튼튼히 꾸림으로써 질소비료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있다.

그리하여 1963년에 300키로그람에 달하던 정보당 화학비료시비량은 이미 500키로그람의 테제의 과업수준도 훨씬 넘어 물동량으로는 1톤이상, 성분량으로는 200키로그람이상 줄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특히 여러가지 비료를 구색이 맞게 주게 하시기 위하여 린회석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린비료공장들을 건설하도록 이끄심으로써 국내원료에 의거하여 린비료를 공급할수 있게 하시였다.

우리의 로동계급들은 풍년, 곡산, 대대리, 동암, 신풍을 비롯한 여러 지방에 린회석광산들을 개발하여 린비료생산의 국내원료기지를 튼튼히 마련하였으며 해주, 남포, 문평지구를 비롯한 거의 모든 도들에 린비료공장들을 일떠세움으로써 100만톤의 린비료생산능력을 조성하였다.

농촌경리의 화학화에서 또한 과학적시비체계를 세워 화학비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할데 대한 테제의 과업도 빛나게 실현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우리나라 토양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그 성질에 맞게 비료를 주는 체계를 세우도록 하시였으며 작물의 종류와 그것이 자라는 시기별에 따라 적당한 비료를 알맞춤하게 주는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세우게 하시였다.

특히 1966년 11월에 황해남도를 현지지도하실 때 해주지구에서 농업일군협의회를 여시고 전국적으로 미량원소함유량까지 분석하는 토양조사사업을 다시 진행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전국적인 토양조사사업을 보다 세밀히 진행하여 벌방지대로부터 산간지대의 뙈기밭에 이르기까지 필지별 토양과 작물의 특성에 맞게 비료를 주는 과학적인 시비체계가 확고히 섰다.

이처럼 전국의 크고작은 모든 논밭의 토양성분을 필지별로 세밀히 진단하고 거기에 맞게 비료를 주는 농사법은 오직 우리 나라에만 있는것이다.

화학비료와 함께 여러가지 살충제와 효능이 높은 살초제도 많이 생산공급되였다. 그리하여 농작물들을 병충해로부터 더 잘 보호할수 있게 되였으며 가장 어렵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의 하나인 김매는 일을 화학적방법으로 할수 있게 되였다.

1973년에 살초제로서 김을 잡은 면적이 93만정보였다면 1974년에는 거의 모든 농경지에 달하였으며 모든 논밭에 살충제를 뿌리였다. 특히 30만정보의 과수면적은 해마다 전면소독을 실시함으로써 벌레먹지 않은 사과생산비률이 해마다 95%이상 보장되고있다.

이 모든것은 우리 나라가 농촌경리를 화학화하는데서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화학화의 완성!

지난날 한줌의 비료를 피눈물과 바꾸어야 하던 우리 농민들이 농촌테제에서 제시한 높은 수준의 비료를 논밭에 주며 약으로 김을 잡는 공산주의 농법의 새시대에서 살게 되였다.

농촌문화혁명의 길을 따라

꽃피는 문화, 날로 높아가는 일반지식과 기술수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테제에서 농민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수준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문화혁명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농민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수준을 높이는것이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49폐지)

농민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수준을 높이는것이 농촌문화혁명의 기본으로 되는것은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의 차이를 점차 없애고 농업근로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문명한 새 인간으로 키워 사회주의농촌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농민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수준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기본요인의 하나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농민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수준을 높이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그 관철을 위한 방침들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일반교육과 기초기술교육을 결합한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방침, 농민들이 초급중학교이상의 일반지식과 농사일에 필요한 기술지식을 가질데 대한 방침, 각급 기

술교육망을 통하여 농촌기술간부들을 더 많이 길러낼데 대한 방침들을 제시하였다. 이 방침들은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의 가장 빠른 길을 밝혀준 정당한 방침이며 우리 나라 농촌이 처한 구체적실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세우신 현명한 방침들이다.

실로 이 방침들에는 우리 나라 농민들을 하루빨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명의 높은 언덕우에 이끌어 세워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와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1966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6차회의에서는 1967년 4월 1일부터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에서도 8살부터 17살까지의 모든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에 망라되여 일반중등지식과 기초기술지식을 습득하게 되였으며 농촌로력자대렬구성에서 새로운 기술의무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였다.

197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에서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완성된 중등지식을 주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전반적 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이 11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인류의 교육력사가 처음으로아는 획기적조치이며 《교육의 나라》사회주의조선의 위력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력사적사변이다.

오늘 우리 농민들의 자녀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극진한 배려와 자애로운 품속에서 학교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일부 고등교육의 과정을 포괄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받음으로써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지덕체를 갖춘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높은 과학지식과 문화수준을 가진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자라나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탁아소, 유치원에서 자라는 어린이들과 각급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합하면 800만명이상인데 그 대부분이 11년제의무교육을 받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농촌에서 근로자중학교사업을 일층 발전시키며 기술보급사업을 활발히 벌려 지난날 배우지 못한 40대이상의 농민들도 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일반지식과 농사에 필요한 한가지이상의 기술지식을 소유하도록 두터운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지난 10년동안 근로자중학교 졸업자는 전국적으로 68만명에 달하는데 그중 농촌에서 근로자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는 39만 9천여명이나 된다.

사실상 우리 나라에서는 나이가 너무 많아 공부하기 힘든 로인들을 제외하고는 지난날 배우지 못한 어른들이 1975년에 전부 근로자중학교를 졸업하게 됨으로써 문화혁명분야에서 력사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학교원들과 대학졸업반학생들이 협동농장에 나와 농민들속에서 선진적인 영농기술을 보급일반화하는 사업을 널리 벌리도록 하시였다.

모든 리에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을 꾸리고 거기에서 과학기술을 배우도록 하신 조치에 의하여 전국의 모든 리에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이 튼튼히 꾸려지고 여기서 농민들이 대학교원들과 대학생들로부터 여러가지 과학기술지식을 배우고있다.

또한 과학영화를 통한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려 농민들에게 알기쉽고 생동한 자료로 과학기술을 배워주고있다.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어떠한 기후, 토지 조건하에서도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 문제가 성과적으로 해결되고있으며 현대적인 물질기술수단들이 더 잘 관리운영되고있다.

이 력사적현실은 제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앞선구라파》와 《뒤떨어진 아세아》에 대하여 떠들어대도 위대한 농촌테제가 구현되고있는 조선의 농촌 (모두다 중학교 졸업생이상이고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졌다.) 이 발전된 구라파의 도시 (여기에는 문맹자가 수두룩하다) 보다 비할바없이 세상에서 가장 문명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농촌에 능력있는 기술간부들을 대대적으로 보낼데 대한 과업도 성과적으로 실현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비할바없이 강화될 오늘의 현실을 미리 예견하시고 각도마다 농업부문의 대학들을, 모든 농촌군마다에 농업부문의 전문학교들을 내오시고 농업부문기술자들을 길러주시였다.

또한 1973년에 들어서자 나라의 여러 부문에서 일하고있는 농업부문 기술자, 전문가들이 자기의 혁명초소에 되돌아오게 하는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그리하여 매개 협동농장에 5명의 기사, 매개 작업반에 2명의 기사, 기수를 배치할데 대한 테제의 과업이 현실로 된 결과 농산, 축산, 과수, 잠업 등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을 과학기술적토대우에서 훌륭하게 발전시킬수 있게 되였다.

지금 우리 나라 매개 협동농장에서는 평균 24명의 기술자, 전문가들이 일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에서 온갖 뒤떨어진 생활양식과 생활관습을 완전히 없애는것을 농촌문화혁명수행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웠다.

근로자들속에서 낡은 도덕관념과 생활인습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한 사상투쟁과 새로운 공산주의도덕을 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교양사업을 통하여 농촌의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도 도시의 수준으로 끊임없이 접근해가고있다.

도시에 못지 않게 전변된 새로운 사회주의문화농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테제에서 농촌문화혁명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서 농민들의 문화생활조건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를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혁명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농촌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며 농민들의 문화생활조건을 더욱 개선하는것이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0페지)

농촌에서 문화혁명을 수행하는것은 결국 도시에 비한 농촌의 문화적락후성을 없애고 농민들도 높은 지식과 기술을 가진 문명하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개조하며 더욱 문화적으로 살도록 하자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농촌의 모든 주민들에게 물질문화적생활조건 즉 교육시설, 보건위생시설, 문화후생시설들을 충분히 꾸려주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문화생활조건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는것을 농촌문화혁명의 중요과업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구체적인 방침들을 명확히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농촌의 문화생활조건을 개선함에 있어서 농촌학교시설들을 신설확장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앞세울데 대한 방침, 보건위생사업

을 강화하여 농민들의 생활문화를 높일데 대한 방침, 농촌문화주택건설을 힘있게 벌려 농민들의 주택조건을 개선할데 대한 방침, 농촌에서 여러가지 문화후생시설들을 잘 꾸리고 그 운영을 개선할데 대한 방침, 농촌에 대한 출판물보급사업과 방송사업을 강화하며 농민들속에서 군중문화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들을 내놓으시였다.

농촌의 문화생활조건을 개선할데 대한 이 방침들에는 도시와 농촌의 문화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고 우리 농민들을 도시주민들과 마찬가지로 현대문명의 향유자로, 창조자로 되게 하여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어버이사랑이 흘러넘치고있다.

1961년 11월 강서군 청산리를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새로 짓는 집들은 한동 한세대로 짓되 창고까지 붙여서 지어주어야 하며 식구가 단출하여 적적한 세대들은 서로 이웃하여 같이 살며 늙은이들끼리 담배를 피우면서 옛이야기도 할수 있게 한동에 두세대씩 지어줄수도 있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또한 새집들에 울타리를 둘러주어 집들에 남새도 심고 꽃밭도 만들수 있고 또 갖가지 과일나무를 심어 무더운 여름이면 로인들이 나무그늘밑에서 휴식도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손수 그리신 문화주택도면을 청산리일군들앞에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전으로 부락단위 표준문화주택을 건설할데 대하여 거듭 말씀하시면서 학교, 진료소, 상점, 유치원, 탁아소 등을 건설할 터전까지 하나하나 잡아주시고 마을을 떠나시였다.

그날로부터 며칠후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2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7개년계획기간에 도시와 함께 농촌에서 문화주택을 대대적으로 건설할데 대한 구체적인 집행대책이 토의되였다.

우리 농민들의 주택문제해결에서 획기적전환을 열어놓은 이 회의가 끝난 바로 이튿날인 12월 2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회의에 참가한 일군들을 데리시고 다시금 청산리에 나오시여 문화주택과 문화주택부락의 표본을 보여주시면서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에로 부르시였다.

그리하여 5개년계획기간에 506만평방메터의 새로운 문화주택들을 건설한 우리의 농촌건설자들은 테제가 나온후 지난 5년간 (1968년말현재) 19만 7천세대의 문화주택과 문화후생시설들을 만들어놓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난 세월 게딱지같은 초가집마저 없어 거적을 치고 살던 농민들이 고래등같은 문화주택에서 살면서 행복에 겨워하건만 우리의 공업이 더욱 발전하고 제반 조건들이 성숙됨에 따라 농촌의 수도화문제를 제기하시였다.

1969년 5월에는 삼석마을을 찾으시고 산간지대 농촌수도화의 본보기를, 1973년 4월 11일에는 온천군 6.3협동농장에 오시여서는 벌방지대 농촌수도화의 본보기를 창조하도록 가르치시고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아 일일이 방식상학을 조직지도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삼석마을과 6.3협동농장마을에 수도를 놓아주신 이야기는 바로 도시주민들과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농촌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그이의 또하나의 원대한 구상이 현실로 옮겨진 장엄한 서곡이다.

이에 따라 군소재지는 물론 모든 농촌부락에까지 수도를 놓을데 대한 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여 이미 농촌세대의 60%에 달하는 세대에 수도가 들어갔다.

그리하여 몇천년 동안 농촌녀성들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되였던 물동이를 이고다니는 현상이 없어져가고있으며 농촌주민들이 보다 위생문화적으로 살수 있게 되였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것이다. 테제에서 제시된 이 과업이 성과적으로 관철되여 우리 농촌에는 4만 3천여개의 탁아소, 유치원이 아담하게 꾸려져있다.

그리하여 농촌 모든 어린이들이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훌륭히 자라고있으며 농촌녀성들이 어린이들에 대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일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해마다 농민들에게 15만~20만세대의 살림집을 지어줄데 대한 거창한 화폭을 펼쳐주신후 1973년 3월 9일에 대동군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현대적설비를 갖춘 2층 3세대짜리 문화주택들을 지을데 대하여, 농촌살림집건설을 공업화하여 건설자 한사람이 6세대를 지을데 대하여, 집짐승우리는 마을뒤에 공동으로 짓고 수도관을 놓아 물로 씻어낼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리하여 평양시 사동구역 오류리와 대동군 연곡리 등 많은 농촌들에 여러가지 모양의 현대적설비를 갖춘 살기 좋은 2층 3세대 문화주택이 시범적으로 건설되였다.

사동구역 오류리에 첫 시범주택들이 일어섰다는 보고를 받으신 수령님께서는 4월 7일 각 도당 책임비서들을 데리시고 돌아보신후 새로운 살림집의 우월성을 말씀하시면서 2~3년어간에 이런 살림집을 모든 도들에서 대대적으로 지을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대동군내 농촌건설자들이 지펴올린 《한사람당 6세대운동》의 불길이 전국에 퍼져 농촌주택건설이 군중적으로 더욱 힘차게 벌어졌다.

그리하여 어제는 문덕군 룡림리에서 단번에 600세대가, 오늘은 황남도 송화군에서 700세대, 평남도 온천군에서 1천세대가 집들이하는 등 대경사들이 전국의 농촌들에서 련이어 벌어졌다.

평남도와 평북도, 황남도와 황북도 등 서해안벌방지대와 함남도, 강원도 등 동해안농촌지대의 이르는곳마다에 2층 3세대짜리 현대적인 농촌살림집들을 포함하여 1974년에 도합 10만세대가 일어섰다.

농촌테제가 발표된후 10년동안 국가부담에 의하여 56만세대의 농촌주택이 일떠서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커다란 배려에 의하여 지난날 쓰러져가는 단간초가마저 지을길 없어 달에 있다는 계수나무를 찍어 초가삼간 집을 짓고 량친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기를 바라던 우리 농민들은 이젠 수도며 목욕실까지 갖추어진 2층, 3층, 4층, 5층 살림집에서 도시주민 부럽지 않게 문화적으로 살게 되였다.

다층 살림집, 세대마다 이어가는 고성기와 라지오 (텔레비죤), 신문과 잡지, 마을마다 일어선 탁아소와 유치원, 리발소와 상점, 농촌리마다 건설된 인민학교와 중학교, 병원화된 리진료소와 아동병동, 85% 농촌리들에 들어간 뻐스, 철따라 조직되는 계절료양소와 농민휴양소, 14일간의 정기휴가, 농촌녀성들의 77일간의 산전산후휴가…

력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이러한 국가적시책에 의하여 문화생활조건에서의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날을 따라 줄어들고있으니 이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위대한 농촌테제의 길을 따라 농촌문화혁명수행에서 이룩된 찬란한 현실인것이다.

농촌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책임적인 지원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진수를 이루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농촌을 완전히 책임지고 도와줄데 대한 농촌지원의 사상이다.

사회주의하에서 농촌에 대한 옳은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그를 각방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수천년의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을 퇴치할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공업이 아무리 높은 수준에 이른다하더라도 사회주의완전승리에 도달할수 없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테제에서 농민을 책임지고 도와줄데 대한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이 중요한 문제를 처음으로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개인농민경리때에는 주로 매 농민이 자기의 경리와 생활에 대하여 책임을 졌지만 협동화된 다음에는 당과 국가가 협동농장들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37페지)

《로동계급은 농민을 정치사상적으로 지도할뿐아니라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재정적으로도 도와주어야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수입을 높여주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을 고르게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우와 같은 책, 38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농촌지원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립장과 방도들을 제시하시고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아 농촌지원을 담당한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을 몸소 찾으시여 어떻게 지원하고 지원받겠는가를 일깨워주시면서 전당, 전국, 전민을 농촌지원에로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든 분야에 걸쳐 온갖 형태로 농촌을 지원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로동계급의 정치사상적지도를 확고히 앞세워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사상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촌을 일상적으로 지도하는 군당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며 군안의 정권기관들과 근로단체들이 농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지도하고 교양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특히 최근년간에 수많은 당핵심들과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청년인테리들을 농촌에 파견하시여 농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돕고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농촌을 돕는것이라면 그 무엇이건 아낄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농촌경리에 국가투자를 늘이고 물질기술적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1964년부터 1973년까지의 10년동안에 농촌경리의 발전에 직접 복무하는 공업부문을 제외하고도 국가기본건설투자총액의 21.1%에 해당하는 국가자금을 농촌경리부문에 돌리였다.

또한 7만~8만(15마력환산)대에 달하는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비롯한 농기계를 계속 공급하면서 다른 나라처럼 돈을 받고 팔아준것이 아니라 그것을 농기계작업소에 넣어 국가소유로 남겨둔채 협동농장들이 자기의것처럼 실정에 맞게 마음대로 리용하도록 하였으며 임경료를 받지 않고 그 운영비만을 받고있다.

또한 비료와 농약도 눅은 값으로 공급하고있으며 관개사용료도 관개시설유지비를 받는 정도에 불과하다. 하기에 우리 나라 농민들은 어떤 왕가물이나 폭우에도 세상에서 제일 많은 관개수를 마음대로 쓰고있으며 남은 물은 물환식관개망을 따라 다시 저수지에 보내고있다.

유지비—이것은 농촌에 대한 보충적인 재정적지원으로서 농촌에서 협동적소유를 강화하면서도 국가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경제토대가 비교적 약한 협동농장들까지도 공업의 물질기술적방조를 고루 받아 그 토대를 빨리 강화할수 있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농촌경리에 대한 과학기술적방조도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커다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포전별, 필지별 경력서, 지구별로 되는 기후구성정과 기상자료, 벌방, 중간, 산간 지대별로 되는 벼, 강냉이 및 콩, 남새 종자의 선택, 작물별에 따르는 비배관리방법을 비롯하여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적인 농법의 과학기술적기초를 해명하고 그를 적극 받아들이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수많은 농업부문 기술자, 전문가들을 국가부담으로 양성하여 농촌에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지난날 기술인재라는 말조차 들어보지 못한 우리 농촌이 어버이수령님의 손길아래 오늘 약 10만명에 이르는 기술자, 전문가 대부대, 농장당 24명의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를 가지고 주체농법의 공업화, 현대화의 새 력사를 개척해가고있다.

농촌에 대한 사회적로력방조는 농촌지원을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 농업이 고도로 집약화된 농업이고 농산작업이 계절성을 띠고있는 조건에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완성할 때까지는 농촌에 대한 사회적로력방조가 어느정도 불가피하다.

농촌에 수십만명의 초고중졸업생들과 제대군인들을 보냈으며 해마다 전 사회적으로 농민들의 일손을 도와줌으로써 제때에 모내기와 가을걷이를 아퀴짓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고 농업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지원을 강화하면서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빨리 높이시기 위하여 막대한 국가적혜택을 베풀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제4차 당대회에서 세금을 폐지할데 대한 위대한 강령을 제시하시고 제일 선참으로 농업현물세제를 없애도록 하시였다.

테제의 방향에 따라 1964년부터 1966년에 이르는 3년동안에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없앰으로써 우리 농민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세금을 모르는 농민으로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세금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여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되였으며 특히 우리 농민들은 이미 8년전부터 세금없는 농촌에서 커다란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있다.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할데 대한 력사적과업이 실현됨으로써 우리 농민들은 해마다 호당 350키로그람이상씩의 알곡이 더 차례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업화의 기초가 닦아지고 농촌을 힘있게 도울수 있는 밑천이 마련됨에 따라 모든 농촌기본건설을 다 국가투자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크나큰 은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방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평남관개, 기양관개, 어지돈관개에 이어 지난 10년동안에 청단지구관개공사, 신계지구관개공사, 압록강관개, 연탄저수지를 비롯한 수많은 대규모, 중소규모

관개공사와 하천정리공사들이 벌어졌으며 양수시설, 탈곡장과 집짐승우리, 창고 등을 국가자금으로 지었다.

1963년부터 1974년까지의 사이에 국가가 지어준 생산시설들중에서 탈곡장은 1만 5천 900여동, 창고는 1만 6천여동, 집짐승우리는 1만 5천 900여동, 건조장은 1만 4천여동, 강냉이창자는 2만 2천여동에 달한다.

국가가 무상으로 생산시설과 주택과 문화후생시설을 건설하여주는것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나라에만 있는 일이다.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다그쳐주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는 기본방향은 농업협동경리의 관리운영방법을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방법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는것이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40페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10년간 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적지도에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창설하여 기업적방법으로 농업을 지도관리한것이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경영위원회 기사장을 참모장으로 하고 경영위원회의 생산지도부서들과 직속기업소의 기사장과 기술부성원들, 협동농장의 책임기사와 기술자들을 망라하는 군적인 유일생산지도체계를 세우고 생산기술지도체계와 월작업지령체계에 따라 협동농장의 생산을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농법을 지침으로 하고 농촌테제의 휘황한 빛발아래 날로 공고화되는 정치사상적, 물질기술적토대에 기초하여 농학기술지도, 관개기술지도, 기계기술지도를 중심내용으로 하는 생산기술지도를 강화함으로써 1973년의 대풍년에 이어 1974년에 또다시 만풍년을 가져왔다.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무엇보다도 먼저 농학기술지도체계를 철저히 세워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주체농법을 관철하도록 협동농장들의 생산기술공정표를 만들어주고 도와줌으로써 세계농업력사에 특기할 일대 사변을 일으켰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택의 정원, 각지 협동농장들에 시험포전을 차려놓으시고 몸소 주체농법을 창시하시였으며 농사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친히 풀어주시였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에서는 자기 지방의 기후풍토조건에서 가장 소출이 높은 논벼의 올품종과 재래종보다 생산성이 높은 강냉이들을 얻어냈으며 벼랭상모(튼튼한 벼모)와 강냉이 영양단지 재배방법을 광범히 받아들였으며 품종들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인 밀식을 보장함으로써 정당수확고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켰다.

강냉이농사에서 개성시에서는 전체 강냉이재배면적의 61.4%, 평남도에서는 도적으로 54.6%의 면적에 영양단지모를 냈다.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또한 관개기술지도체계를 철저히 세운 결과 분수식관개시설과 고인물빼기시설을 잘 정비리용하였으며 저수지와 물주머니를 많이 만들어 물을 모조리 잡았을뿐아니라 찬물을 덮혀 쓰는 등으로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관수를 보장하였다.

특히 최근년간에 세계적으로 봄이 길어 농작물의 성장에 유리한 여름이 짧아진데다가 찬날씨가 오래 계속되는 흉년기후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전군중적으로 물주머니와 물도랑을 많이 만들고 거기에 관개수를 일단 잡아두었다가 좀 더워진 다음에 논밭에 대줌으로써 농작물의 성장에 지장을 주던 70년대에 처음보는 낮은 온도도 성과적으로 이겨냈다.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기계기술지도체계를 세워 논벼, 강냉이, 밀, 보리와 같은 중요작물재배에서 밭갈이, 씨뿌리기, 김매기, 약뿌리기, 가을걷이, 낟알털기, 운반 등 기본작업공정들을 종합적으로 기계화하여 농장원 한사람당 관리면적을 훨씬 늘였다.

그중에서도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힘에 의하여 랭상모판 씨뿌리개의 기계화와 모내기의 기계화를 단 한해동안에 전국적으로 보급하였으며 절반이상의 논면적에 받아들였다.

이렇듯 독창적인 주체농법에 따라 농학기술지도, 관개기술지도, 기계기술지도를 보장하고있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창설된후 부단히 완성되였다.

1961년 12월에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62년 2월 황해남도 해주지구농업협동조합관리일군회의, 1962년 11월 평안남도내 당 및 농촌경리부문일군협의회, 1965년 11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2차전원회의들에서 사회주의농촌경리를 선진적인 공업관리방법, 기업적방법으로 지도관리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가르쳐주시였다.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기술혁명을 다그치는데서나 농산, 축산, 과수, 가금, 잠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적 협동생산을 강화하는데서 비할바없는 커다란 우월성을 발휘하였다.

그런데 국가적지원에 의하여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고 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적지도체계가 정연하게 섰으나 국가농업지도기관의 기업적지도를 직접 받는 협동농장관리일군들의 관리운영수준과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은 뒤떨어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절박한 해결을 요구하는 이 문제를 제때에 포착하시고 생산조직과 집단생활의 합리적인 단위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1965년 5월 강원도 회양군 포천리를 찾으시고 분조관리제를 실시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분조를 크지도 작지도 않게 15~20명으로 조직하되 분조에 일정한 면적의 포전과 로력, 생산수단을 고착시키며 국가계획에 준하여 해당 분조의 정당수확고기준을 정해주며 그 기준을 수행한 정도에 따라 분조원들의 로력일을 평가하면서 계획을 수행한데 대하여 작업반우대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등 분조관리제의 원칙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가르쳐주시였다.

포천협동농장의 경험은 분조관리제가 농민들을 집단경리의 관리운영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게 하는 훌륭한 생산조직형태이며 농민들이 공동경리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세포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체계가 하부의 기층단위에서부터 중앙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정연하게 세워졌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일부 지역들에서 실시한 분조관리제의 경험을 분석총화하신데 기초하여 1965년 11월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2차전원회의에서 분조관리제를 전반적으로 도입할데 대한 현명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1968년 2월에 마련하여주신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분조관리제를 정확히 실시

하며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그리하여 관리일군들의 관리운영수준이 낮은데다가 작업반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기때문에 관리하기 힘들던 결함이 극복되고 수령님의 교시대로 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적지도관리를 더 잘 실현하고 협동경리의 경영활동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사회주의협동경리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관철하는데서 협동경리들에서 농업생산지도에서의 10대과업과 협동농장관리에서의 10대과업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대책을 취하시였다.

농업생산지도와 협동농장관리의 10대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생산장성의 모든 예비를 적극적으로 동원할수 있었고 경영활동을 더욱 짜고들수 있었다.

특히 최근년간에 당이 취한 조치에 따라 농학기술, 관개기술, 기계기술을 잘아는 젊은 세대들로 작업반장과 분조장들을 꾸림으로써 례외없이 뜨락또르를 타고 포전을 정리하면서 종합적기계화, 전면적화학화를 실현하는 투쟁에 나섰다.

결국 분조관리제우에 확고히 세워진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농업생산지도에서의 10대과업과 농장관리에서의 10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농업협동경리의 관리운영수준을 공업의 선진적관리운영수준에 더욱 접근시켰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거점, 군의 역할의 제고

지난 10년동안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달성한 성과는 지역적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높이고 거기에 의거하여 농촌사업을 통일적으로,구체적으로 지도한데서 거두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농촌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지역적거점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새롭게 제시하시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과 같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대상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지방마다 일정한 지역을 통일적 지도의 단위로 설정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해당지역내의 모든 대상들을 직접 지도하는것이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61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군이 그 크기에 있어서나 간부와 지도기관들, 물질기술적, 문화적 수단들을 갖추고있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단위로 적합하다고 하시면서 농촌사업과 지방의 전반적사업을 직접적으로,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지역적단위로, 거점으로 된다고 밝히시였다.

그이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군은 당과 행정의 말단지도단위이며 지방의 경제문화발전의 종합적단위이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군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도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으며 몸소 모범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전국에 일반화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깊고 험한 산간지대이며 경제문화적으로 가장 뒤떨어졌던 창성군, 삭주군, 양덕군을 비롯한 여러 군들을 현지지도하시여 이 군들의 전반적사업을 전변시키시고 그 모범을 모든 군들이 따르게 하심으로써 군의 사업에서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군사업이 잘 되자면 군안의 간부들이 제구실을 잘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군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군이 농촌경리의 발전과 농촌주민들의 생활향상에 훌륭히 복무할수 있도록 군소재지와 군안의 기업소들을 잘 꾸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농촌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지역적거점에 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우리 나라에서 군의 역할이 더욱더 높아졌다.

무엇보다도 먼저 당의 말단지도기관이며 군중속에서 당정책을 직접 장악하고 집행하는 집행단위인 군당위원회의 역할과 전투적기능이 많이 높아졌다.

군당위원회들은 군안의 행정경제기관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모든 행정경제사업과 교육문화사업을 옳게 수행해나가도록 방향과 방도를 바로잡아주고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사업을 힘있게 밀어주었다.

특히 최근년간에 모든 군당위원회의 일군들은 당중앙이 제시한 방침에 따라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으로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숨쉬면서 조직정치사업을 적극 벌려 나감으로써 농업근로자들속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깊이 침투시키고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군행정위원회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들도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안의 사업을 책임지는 립장에서 당과 정부의 모든 결정지시들을 정확히 조직집행해나가고있다.

농촌경리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향상에서 지방공업의 역할이 또한 매우 높아졌다.

농촌테제가 나오기전에 우리 나라의 매개 시,군들에는 평균 10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식료가공공장, 일용품공장, 옷공장, 종이공장, 가구공장, 랭동공장 등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20개이상의 공장들이 있다.

창성군에서는 지난 10년동안에 지방공업의 생산량이 4배, 제품의 가지수는 2.3배로 늘어나 6개년공업계획을 이미 1973년에 끝내고 지금은 1978년까지 공업총생산액을 3배로 늘이고 제품의 가지수를 1천종이상에 이르게 할 투쟁을 벌리고있다.

우리 나라의 모든 곳에서는 군안에 잘 꾸려진 지방산업공장들이 농촌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소비품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며 농촌녀성들의 가정일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지방산업공장들은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방법과 생산문화와 기술을 농촌에 보급하며 농민들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사상적영향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지난 10년동안에 또한 군안에 공급기지들이 잘 꾸려지고 상품공급사업과 수매사업이 개선됨으로써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련계, 상업적련계가 더욱 강화되였다.

군상업기관들은 농촌마을들에 합리적으로 포치된 상점망을 통하여 농촌주민들에게 제때에 여러가지 상품들을 골고루 공급해주고있다. 지금 우리의 농촌상점들에는 도시에 있는 상품들이 다 갖추어져있으며 농촌주민들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쓰는데서 아무런 불편을 모르고 도시사람 부럽지 않게 생활하고있다.

수매기관들도 농민들이 생산한 농부산물들을 제때에 사들여 그들의 생산의욕을 높이며 공업에 대한 원료를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군은 문화혁명의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원만히 수행하고있다.군소재지들은 다 알뜰히 꾸려져있으며 여기에는 각

급 학교, 병원, 영화관, 도서관, 출판물보급소들이 잘 갖추어져있다.

군소재지를 잘 꾸려놓고 군이 농촌의 교육, 문화, 보건 사업에 대한 직접적 지도와 방조를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문화를 농촌에 보급하며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는 사업도 빨리 추진되고있다.

군의 기능과 역할이 높아지고 군사업이 잘되여감에 따라 전반적사업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다.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주석님은 사회주의 농촌건설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 대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향—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문헌》,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위대한 강령》,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강력한 무기》, 《사회주의농촌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라고 하면서 이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광범히 번역출판하고있다.

체스꼬슬로벤스꼬, 벌가리아, 윁남, 꾸바를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 미국, 영국, 일본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구라파의 ２０여개 나라들에서 여러 나라말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으며 테제가 나온후 ４７개의 신문사들에서 신문들에 실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신문, 잡지에 게재하면서 테제발표일을 기념하여 감상문과 담화를 내거나 경축집회, 강연회, 연구토론회들을 널리 가졌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의 당과 정부 지도자들, 저명한 활동가들과 진보적인 사들은 테제를 지지찬양하여 １９６８년부터 １９７４년까지 ４９건의 담화와 감상문을 신문, 방송, 출판물에 내였으며 １９７０년 ２월부터 １９７４년까지 《로동신문》에 보도한것만 하여도 테제에 대한 연구발표모임을 ２６개 나라에서 진행하였다.

특히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연구발표모임의 규모는 그 사상리론적견인력과 정당성으로 하여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민족도, 국어도, 피부색도 서로 다른 여러 나라, 여러 대륙을 포괄하는 세계적규모로 커지고있다.

그것은 １９７４년 １０월 또고의 로메에서 성대히 진행된《김일성주석님의 농촌테제발표 １０돐을 기념하는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제３세계인민들의 과업〉에 관한 파하토론회》를 들수 있다.

이 파하토론회에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구라파의 ３０여개 나라에서 온 １１０여명의 대표들과 ７００여명의 방청자들이 참가하였다. 이 토론회에는 당및정부대표단, 정부대표단, 농업대표단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또고대통령 그나씽그베 에야데마는 파하토론회에 보낸 축하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이 나라를 최근 공식방문한 우리는 오늘 탁월한 문헌으로 알려진 농촌문제에 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농촌테제를 관철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연구할것을 당신들에게 서슴없이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 테제는 보편적인것입니다. 농촌문제해결을 위하여 테제가 제기하고있는 문제들, 테제가 실시하고있는 방도들은 우리들 모든 나라들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공산당선언〉에 맞먹는 근세의 가장 위대한 문헌으로 된다.》 (일본의 한 학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발표하신 테제는 사회주의하에서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농촌건설강령이며 사회주의농촌의 휘황한 미래를 밝혀주는 리정표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강력한 무기이다.》 (파키스탄신문《이브닝스타》)

시에라 레온인민대회당 중앙위원회 집행비서인 시에라 레온당및정부대표단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맑스—레닌주의선행고전가들은 농촌문제에 대하여 제기하였으나 그들은 당시의 제한성으로 하여 오늘의 제３세계나라들에서 농촌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리론을 내놓지 못하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김일성주석님께서 력사무대에 등장하시여 이 문제를 해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제３세계 나라 인민들이 농촌경리를 발전시킬수 있는 방도를 밝혀주고계신다.》

버마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김일성주석님의 테제야 말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들에게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를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해결할수 있는 길을 력사상 처음으로 밝혀준 위대한 강령적지침이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에게 생명수를 안겨주는 투쟁의 홰불》이라고 찬양하였다.

말리정부의 공업담당 국무부장은 《농촌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것인가에 대하여 갈피를 잡지못하고 모대기고있던 세계인민들에게 등대와 같이 휘황한 앞길을 밝혀준 테제가 발표된 날인 １９６４년 ２월 ２５일은 세계인민들의 력사에 영원히 기록될것이다.》라고 격조높이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내놓으심으로써 과학적공산주의리론발전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였을뿐아니라 그것을 우리 나라 농촌에서 빛나게 실현하시여 농촌테제의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하기에 세상사람들은《조선은 농촌문제해결에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나라이다.》라고 말하면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본보기》인《조선을 향해 천금보다 더 귀중한 농촌건설경험을 배우자！》라고 소리높이 말하고있다.

《위대한 사상가이시며 자신께서 창시하신 사상의 위대한 실천가이신 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수세기를 거쳐서야 발전된 농업을 가지게 된 선진국가들의 수준을 단 １０년사이에 따라잡을수 있게 하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조선의 경험을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것으로 생각한다.》 (상부볼따 농업부문 책임일군)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농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조선은 사회주의농촌발전의 고귀한 경험들을 쌓은 나라로서 세계적으로 첫번째로 꼽히는 나라이다.

사회주의농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일련의 나라들에서는 이러저러한

편향이 나타나고있다.

그러나 조선은 어떤 편향도 없이 곧바른 길로 나아가고있다.

후진국가들이 진정으로 락후한 처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조선의 모범을 배우는것이 필요하다.》 (알제종합대학 한 교수)

《조선에서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내놓지 못하였던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3대혁명기치따라 사회주의농촌건설이 성과적으로 진척되고있다.

파거 일제식민지시기 조선의 농촌에는 수리시설 하나 없었으나 오늘 이 나라 농촌에는 관개망이 그물처럼 펼쳐지고있으며 기계화, 화학화가 추진되여 농민들은 해마다 풍만한 수확을 거두어들이고있다.

이처럼 공화국이 농업분야에서 비약적인 전진을 이룩하게 된것은 김일성주석님께서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옳은 방침들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인민들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시기때문이다.

특히 그이께서 농촌문제해결을 위하여 농민들속에 몸소 들어가시여 전개하고계시는 현지지도들은 조선의 농업발전을 추동하는 거대한 힘으로, 만년대풍의 요인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가이신 김일성주석님처럼 농장들을 친히 찾으시여 농민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며 농민들을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령도자는 이 세상에 없다.바로 여기에 김일성주석님의 위대성이 있으며 그 위대성으로 하여 조선농업의 경이적인 발전과 모범이 이룩된것이다.》 (일본 이바라기대학 한 교수)

《지방려행과 협동농장방문 과정에 전야에서 일하는 뜨락또르들, 비닐박막을 씌운 랭상모판들, 산기슭이나 골짜기에 자리잡고 과실꽃 만발한 과수원에 둘러쌓인 아담한 마을들을 보고 나는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로 놀랐다. 관개수로망이 조밀하게 뻗어 농민들은 가물과 기타 자연재해로부터 해방되였다.

지난날 도시주민들이 싫어하고 멸시하던 농촌은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 협동농장마을에는 다만 우뚝솟은 청사들이 없을뿐 도시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곳에는 탁아소, 유치원, 중학교, 고등기술학교, 기술대학들이 있으며 구락부, 문화회관, 휴양소, 영화관, 지방방송시설과 현대적오락시설들이 다 있다.

조선의 농업에서 이루어진 모든 성과들과 농민들의 높은 생활수준은 오로지《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김일성주석님께서 규정하신 3대혁명과업을 구현해나감으로써 이룩될수 있었다.》 (나이제리아 한 사회활동가)

뻬루의 한 교수는《사회주의근로자로 된 조선의 농민들은 수도까지 있는 문화주택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하고있다. 산간벽지까지 뻐스가 들어가고 리마다 인민병원과 진료소가 들어앉아있으며 각종 문화시설들이 늘어남으로써 조선의 농촌은 말그대로 살기좋고 일하기 홍겨운 사회주의문화농촌이며 지상락원이다.》고 말하였다.

수단정부의 청년및사회사업부장인 수단정부친선대표단 단장은《집단농민경리의 관리운영문제는…여러 사회주의나라들에서 많은 난관에 부닥치고있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풀어야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주요문제의 하나를 극복할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주요한 문제의 하나인 농촌경리의 관리운영문제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의 농촌에서 훌륭히 해결되고있다. 실로 경탄하지 않을수 없다.》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여러차례에 걸쳐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조선의 농촌은 발전된 구라파의 농촌보다 수준이 매우 높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농촌테제를《국제적의의를 가지는 고전적문헌》, 《사회주의농촌의 휘황한 미래를 뚜렷이 밝혀주는 력사적리정표》라고 높이 평가하고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이전외교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농업협동화방법과 형식 그리고 관리운영체계와 협동화에서 이룩한 모든 경험들은 가장 정당하고 훌륭한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오늘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물어보고 그에 대한 해명을 받았으며 많은것을 배웠다. 오늘 우리가 배운것들은 우리의 5개년계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에 큰 도움을 줄것이다.》

《테제가 제시된 후에 조선의 농촌은 계속 발전하고 농민들의 생활은 부단히 향상되고있다.

특히 눈에 뜨이는것은 작업의 기계화로 농민들이 고된 일에서 해방되고 문화생활수준이 계속 높아가고있는 사실이다. 조선농촌의 성과는 웰남에 커다란 고무를 주고있다.》 (웰남의 한 사회활동가)

《앞으로 우리는 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사상을 더욱 깊이 연구할것이며 우리 나라의 현실과 조건에 맞게 이 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다.》 (상부볼따정부대표단 단장)

《우리는 이미 혁명의 제2단계인 민족민주주의혁명단계에 들어섰다. 이 단계는 김일성동지의 사상을 우리 나라의 특성에 맞게 관철할것을 선포한 단계이다.》 (민주예멘정부대표단 단장)

테제사상이 실현되고있는《오늘도 좋지만 테제의 사상이 완전히 실현될 래일은 더욱 좋을것이다.》 (알제리기자)

《오늘의 조선의 농촌이 래일의 에꽈도르농촌으로 되여야 한다.》 (에꽈도르인사)

오늘 꾸바, 알제리, 소말리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 대학교수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농촌테제를 교육강령에 포함시켜 앞으로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자기네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있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밝혀주신 사상과 리론은 오늘뿐아니라 래일에도 《영원히 세계에 빛을 뿌릴것이다.》 (아프리카에 있는《김일성주석혁명력사연구소조》)

사 회 주 의 문 화 건 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1974년에 교육, 과학,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이 찬란히 개화발전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문화혁명의 기본목적은 모든 근로자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기술을 가진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며 우리의 문화를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로 만드는데 있습니다. 문화혁명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교육, 과학,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6권, 354페지)

우리의 문화를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로 만들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 당중앙에서는 종자를 바로 쥐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새롭고 독창적인 리론으로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줌으로 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주체가 철저히 선 문화로 개화발전시켜주었다.

사회주의문화건설부문에서는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는 사업을 온 사회를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힘있게 끌고나갔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전체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적극 다그치였다.

무엇보다 먼저 주체적인 민족문화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체적인 민족문화예술은 철저히 민족적인 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았으며 인민대중의 정치, 문화 생활에 훌륭히 이바지하였다.

주체적인 민족문화예술의 창조와 함께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온갖 썩어빠진 부르죠아반동문화와 생활양식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였다.

또한 복고주의적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문화유산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고수하였다. 지난 날의 민족문화유산가운데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과 낡고 반동적인것을 정확히 가려내여 뒤떨어지고 반동적인것은 버리고 당대 사회에서 진보적이였고 인민적인것이라 하더라도 오늘의 사회주의현실과 로동계급의 혁명적요구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문화건설분야에서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막아내고 복고주의적경향을 철저히 극복함으로써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이 건전한 토대우에서 더욱 급속히 발전하였다.

교육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는데 힘을 집중한 결과 우리의 청소년학생들은 가슴에 주체형의 피만이 흐르는 혁명의 후계자들로 더욱 억세게 자라나게 되였으며《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정신을 가지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자로,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더욱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다.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과 10년동안의 학교의무교육을 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의무교육인 11년제의무교육은 전국적으로 90%이상 실시되였으며 80만명이상의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를 키워낸 우리 나라는 말그대로 《교육의 나라》로 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으며 3대기술혁명과 6개년계획수행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푸는데 창조적 열성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지도에 의하여 우리의 문학예술은 조선혁명에 철저히 복무하며 조선사람의 비위와 정서에 맞으며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이 훌륭히 결합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혁명적예술인들은 들끓는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들에 나가 예술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려 근로자들을 로력적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으며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지원하였다.

우리의 혁명적예술인들은 《세계최고봉의 예술, 인류예술의 등대》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예술의 우월성을 온 세상에 시위하였으며 조국의 영예를 떨치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온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면서 썩어빠진 제국주의문화도, 수정주의도, 복고주의도 얼씬 못하게 튼튼한 진지를 마련하였다.

또한 우리 인민의 귀중한 민족적재부인 우리 말을 지켜내고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는 사업에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으며 국방체육을 위주로 체육을 전민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주체적인 체육방침에 따라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을 벌려 급속히 발전한 우리의 체육은 수많은 국제경기들에서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하였다.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이룩된 이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지도의 결과이다.

《속도전》의 불바람을 일으키며 전격적으로 벌어진 문화혁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에 문화혁명과업수행에서 이룩된 성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혁명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전반적기술문화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는데서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으며 도시와 농촌이 더욱 아름답게 꾸려졌습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배우며 일하고 일하며 배우면서 희망과 신심을 가지고 혁명적락관에 넘쳐 생활하고있습니다.》 (1975년 《신년사》, 단행본, 9~10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빨리 높이며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철저히 세우는 문화혁명과업수행에서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교육과 과학문화기술의 발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문화혁명수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업으로 되는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큰 전진이 있었다.

전반적 10년제고중의무교육의 실시로 우리의 새세대들은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과 10년동안의 학교의무교육을 주는 11년제의무교육을 받게됨으로써 이 과정에 혁명적세계관의 기초를 닦고 완성된 중등지식을 가지게 되였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에 대한 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는것과 함께 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 모든 근로자들이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되였다.

지난날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나이많은 사람들은 이미 근로자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지금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있는 근로자중학교에서 공부하고있다.

1974년까지 지난 10년동안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중학교졸업자는 전국적으로 68만명에 달하는데 그중 농촌에서 근로자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는 39만 9천여명이나 된다. 1975년에 가서 나이가 너무 많아 공부하기 힘든 로인들을 제외하고는 지난날 배우지 못한 모든 성인들이 근로자중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되고 현대과학기술을 다방면적으로 소유한 우리의 대학생들과 청년인테리들이 《속도전》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는 벅찬 현실속에서 사상, 기술 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을 적극 추진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의 전반적기술문화지식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일하는 전체 근로자들의 일반지식과 문화기술 수준을 높이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은 3대기술혁명과업수행과 6개년계획수행에서 온갖 창의창발성을 훌륭히 발휘할수 있게 되였으며 특히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 문제가 성과적으로 해결되여가고있을뿐아니라 현대적인 물질기술수단들이 더잘 관리운영되고있다.

우리 농민들이 하루빨리 현대문명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고 항상 심려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4년에도 농촌의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리도록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농촌기술혁명이 빨리 추진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따라세우기 위하여 수많은 농업대학출신간부들과 청년인테리들을 농촌에 보내주시였을뿐아니라 농촌리마다에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을 새로 내오도록 하시고 여러가지 과학교육영화를 만들어 농촌에 보내도록 하시였으며 더 많은 농업과학기술도서들을 출판하도록 하시는 등 농민들이 일하면서 기술지식을 배울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우리 농촌에서는 농업기술보급사업이 더욱 활발히 벌어졌으며 농민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지식수준이 전반적으로 한계단 더 높아졌다.

평북도 향산군 천수협동농장에서는 1974년 전국농업대회가 있은지 80일만에 분조장이상의 모든 초급일군들을 포함하는 농장원수의 22%가 뜨락또르운전수자격증을 받게 되였으며 60%의 농장원들이 뜨락또르를 몰수 있게 되였다. 평남도 순천군 제현협동농장 제6작업반에서는 11명 작업반원들모두가 농산기수검정시험에 6개과목합격하였는데 이제 3과목씩만 합격하면 농산기수작업반으로 된다.

실로 우리 나라 매개 협동농장에서는 평균 24명의 기술자, 전문가들이 일하고있다.

농촌에서 일반지식수준이 대단히 높아지고 특히 농업과학기술지식이 대대적으로 보급되여 전반적기술문화수준이 더욱 높아진 결과에 우리 농민들은 농작물의 생리와 토양, 기상, 물과 전기, 뜨락또르를 비롯한 현대적농기계들과 화학비료, 농약, 살초제 등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농사를 더욱 더 과학기술적으로 지을수 있게 되였다.

우리 농민들은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품종을 배치하고 토양조건에 맞게 시비체계를 과학적으로 세울줄 알게 되였으며 뜨락또르를 비롯한 현대적농기계들을 다룰줄 알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특히 농민들이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소유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한 결과 협동농장들에서는 분조장, 작업반장이상 초급일군들과 많은 농장원들이 뜨락또르와 모내는기계를 몰수 있게 되였다.

이른바 발전되였다고 하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농촌은 말할것도 없고 도시에도 문맹자가 수많이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농민들이 높은 지식과 문화적소양을 갖춘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되고있다.

우리 농촌은 어느 가정이나 신문과 잡지를 안보는 집이 없으며 또한 농장원들은 라지오와 텔레비죤도 보며 군중문화회관에 가서 영화도 보며 예술소조활동도 하는 그야말로 문화적으로 일하며 생활하고있다.

생산문화와 생활문화의 확립;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문화혁명의 과업에 따라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전격적으로 벌어져 우리의 도시와 농촌은 더욱 아름답게 꾸려졌으며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는데서도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다.

생산문화를 높이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일터를 알뜰히 거두고 기대설비들과 원료, 자재, 생산제품 그리고 토지, 농기구 등을 알뜰히 잘 관리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였다.

공장, 기업소들을 깨끗이 거두고 알뜰히 관리하며 기대설비들의 고장을 없게 하고 그를 만가동시킴으로써 생산의 부단한 장성과 제품의 질도 높일수 있었다. 특히 협동농장들에서 논밭을 알뜰히 거두는 운동이 활발히 벌어짐으로써 높은 수확을 내게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모든 공장, 기업소, 사무기관, 협동농장, 학교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장, 기업소 내부를 궁전과 같이 꾸리고 공장구내와 그 주변을 공원과 같이 만들라고 하신 가르치심을 철저히 관철하였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건물과 시설물들을 합리적으로 규모있게 배치하고 원료, 자재들과 생산제품들을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질서정연하게

보관관리하는 사업과 함께 건물안팎을 정상적으로 깨끗이 거두고 기대설비들을 알른알른 윤나게 닦으며 공장주변에는 꽃밭도 조성하고 유용한 나무도 심으며 길을 포장하였다.

농촌에서는 협동농장들에서 기본생산수단인 땅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며 논밭을 규모있게 정리하며 한치의 땅도 비물에 씻겨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보호관리하며 농기계를 비롯한 농업생산설비들과 시설물들을 알뜰히 거두었다.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들에서는 제정된 질서와 규정들을 사회주의헌법의 요구에 맞게 더욱 완성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 사회주의적행동준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다.

생산문화와 함께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되였다.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소박하고 로동생활에 편리하며 점잖으면서도 아름답고 년령에 따라 다양하게 옷차림을 하며 외모를 단정히 하는 사업을 적극 밀고나갔다.

도시에서는 모든 현대적건물들과 시설물들을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게 관리하며 도시미화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간판, 진렬장, 비품을 비롯한 모든 장식물들을 질서정연하게 보기좋게 정돈하며 네온등을 비롯한 조명장치를 밝고 아름답게 하고 교통수단들에 대한 도색도 정상적으로 하여 거리가 언제나 환하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농촌에서의 생산활동과 생활조건, 생활양식을 포괄한 모든 분야에서 농촌의 문화적인 락후성을 없애는 사업에서도 실로 큰 전진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보살피심에 의하여 우리 농촌에는 1974년 한해사이에만도 룡림리나 온천군뿐아니라 평양시주변 농촌들과 숙천군 창동리, 황해남도 안악군 오국리, 원룡리, 재령나무리벌을 비롯한 이르는곳마다에 난방과 상하수도가 갖추어지고 더운물, 찬물이 무시로 쏟아져나오며 목욕탕에 수세식변소까지 달린 2층, 3층 문화주택이 줄지어 일떠서고 보다 현대적설비를 갖춘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유치원, 탁아소, 상점, 병원까지 새로 꾸려진 참신한 공산주의리상농촌의 원형이 수많이 생겨났다.

농촌에서는 생활문화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고 5호담당선전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인 군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군소재지들을 더욱 알뜰히 꾸리는 사업도 활발히 벌어졌다.

우리의 농촌에서는 온갖 뒤떨어진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농민들의 생활속에 뿌리깊이 남아있던 낡은 생활양식과 관습은 날을 따라 없어지고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지도에 의하여 혁명적 문학예술의 본보기로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의 찬연한 빛발아래 우리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은 활짝 꽃피여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참된 교과서로 되였을뿐아니라 세계의 혁명적문학예술의 거울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의 모범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특징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있는 작품들은 현대의 유일하게 옳은 창작방법인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의하여서만 창조될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129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당의 유일사상을 사상리론적기초로 삼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철저히 견지할데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고상한 사상성과 높은 예술성을 옳게 결합할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적내용에 민족적형식을 갖출데 대한 문제, 현실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할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문학예술의 발전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몸소 우리 시대 혁명적문학예술의 모범을 창조하심으로써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의 본보기를 마련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1974년에 불후의 고전적명작《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각색한 혁명가극《한 자위단원의 운명》과 혁명가극《청춘과원》, 만수대예술단 예술인들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을 비롯한 수많은 예술공연을 보아주시고 우리의 문학예술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이해에 재일조선인예술단 예술인들이 출연한 혁명가극《금강산의 노래》와 재일본조선고급학교학생조국방문단 학생들이 출연한 예술공연도 보아주시고 문학예술활동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으며 그들에게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1974년 11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강도를 현지지도하시는 그 바쁘신 길에서도 강계예술전문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음악무용종합공연을 친히 보아주시고 도에 조직된 예술전문학교가 전국의 예술화, 예술의 대중화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아주 좋은 싹이라고 하시면서 이런식의 학교를 각 도에다 내오게 하여 해당도의 예술화에 복무하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당중앙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하는 길에서 종자를 바로 쥐고 작품에 대한 파악이 생긴다음에는 높은《속도전》을 벌려야 한다는 새롭고 독창적인 리론을 내놓고 우리의 문학예술을 주체가 더욱 철저히 선 문학예술로 이끌어주었다.

종자를 작품의 생명을 규정하는 사상적알맹이라고 가르쳐준 당중앙에서는 작품창작에서 개성의 특성을 살려 100명의 작가가 작품을 쓰면 내용이 다 다르고 특성이 있는 100가지의 작품이 나와야 한다고 하면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은 다양하고 풍부한 현실을 개성화된 표현으로 더욱 생동하게 형상할것을 요구한다고 가르쳐주었다.

당중앙에서는 또한 작가는 시대의 앞장에 서 나가면서 생활을 설교하고 이끄는 기수가 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작가들이 들끓는 현실속에서 여러가지 생활체험을 쌓으면서 사색하고 좋은 글을 쓸데 대한 문제, 작가들의 정치

직식견과 안목을 넓힐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이끌어주었다.

당중앙에서는 당사상사업의 중심을 온 사회를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력사적 위업을 실현하는데 두고 여기에 문학예술을 비롯한 모든 사상교양수단들이 총화력을 집중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본보기로 하여 영화와 혁명가극, 혁명소설을 비롯한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고상한 사상성과 높은 예술성으로 일관된 완벽한 명작들이 꼬리를 물고 창조되여 온 세상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있으며 세계문학예술의 보물고에 류례없이 귀중한 기여를 하고있는데서 여실히 나타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과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 세상에 류례없는 그이의 혁명적가정을 예술적화폭에 담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옹호하며 계승발전시키는 크나큰 공적, 문예사상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불멸의 금자탑을 쌓아올렸다.

당중앙의 지도와 극진한 보살핌속에서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이 전면적개화기에 들어섰다.

당중앙의 문학예술에 대한 지도의 현명성은 《피바다》식가극의 창조에서 력력히 증시되였다.

당중앙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우리 인민에게 가장 친근하고 예술적으로 세련된 민족적바탕과 현대적미감에 맞는 인민음악의 기본형식인 절가와 우리 나라의 고유한 방창, 우리의 민족무용과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무대미술, 주체적인 관현악으로 이루어진 독창적인 《피바다》식가극을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피바다》식가극의 전성기를 열어놓았다.

당중앙이 제시한 종자론과 《속도전》의 위대한 사상은 빛나게 구현되여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혁명적대작을 창조하여 무대에 올리는 기적이 창조되였으며 영화계에서는 당보의 사설과 같이 항상 현실보다 앞서나가면서 대중을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경지에 이른 수많은 혁명적작품들을 내놓았다. 가요 《조선은 하나다》, 무용 《강선의 노을》을 비롯하여 만수대예술단에서 창작형상한 작품과 함께 서정가요 《벼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를 비롯한 수많은 최신명곡들은 고상한 사상성과 높은 예술성이 옳게 결합되고 개성의 특성이 뚜렷한 작품들이였다.

장편소설 《불멸의 력사》중에서 《혁명의 려명》과 《1932년》을 비롯한 혁명적대작을 내놓은 4.15문학창작단성원들을 비롯한 우리의 작가들은 여러가지 생활체험을 쌓으면서 개성의 특성이 산 혁명적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하여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시대의 전형들을 빛나게 창조하고있다.

이와 함께 전국의 예술화가 빛나게 실현되여가고있어 지방예술단들에서도 혁명적대작들을 련이어 창조하고있으며 산골마을의 학교에서도 수백명이 출연하는 기악합주를 무대에 올리고있다.

근로대중속에서 활짝 꽃피는 우리의 주체예술은 《세계최고봉의 예술》로 온 누리에 빛을 뿌리고있다.

만수대예술단의 알제리, 벌가리아, 로므니아, 알바니아에서의 성과적인 공연과 평양예술단의 이딸리아방문공연, 국제요술축전에서 특등을 한 우리 나라 요술대표단과 교예예술인들의 공연이 이르는곳마다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사실은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민족예술이 어느 높이에서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는가를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조선은 가극의 왕국, 예술의 왕국》, 《20세기 대문예부흥기의 시초를 열어놓은 조국》

이처럼 우리의 예술공연과 영화상영을 감상한 온 세상사람들의 감격과 절찬의 목소리는 서로 오가며 화답하는 메아리처럼 5대양 6대주 온 누리에 울려퍼지고있다.

우리의 문학예술이 이처럼 세계최고봉의 문학예술로, 20세기 대문예부흥기의 시초를 열어놓은 완전무결한 문학예술로 피여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고매한 덕성의 빛나는 열매이며 당중앙의 세심한 지도의 자랑찬 결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당중앙의 세심한 지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함남도예술단 예술인들은 1974년에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각색한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무대에 올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4월 24일 평양대극장에서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보시였다.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우리 인민의 혁명운동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작된 불멸의 기념비적명작의 하나인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각색하여 그의 심오한 주체사상을 가극무대예술에 훌륭히 재현한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우리 시대의 새형의 가극예술, 《피바다》식 가극예술의 찬란한 개화기를 빛나게 장식하고있는 작품이다.

혁명가극은 일제와 조선인민사이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되였던 1930년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 일제침략자들의 강도적략탈과 야수적만행을 통하여 일제의 침략적본성과 잔인성을 낱낱이 폭로하고있으며 압박받고 천대받던 가난한 농촌청년들이 놈들의 강요와 기만에 의하여 일제의 반동적폭압기구인 《자위단》에 끌려가 온갖 학대와 민족적모욕을 받을뿐아니라 인민탄압에 날뛰는 놈들의 《명령》에 본의 아니게 복종해야 하는 피눈물나는 생활체험을 통하여 점차 민족적으로, 계급적으로 각성되여 마침내 총부리를 돌리여 원쑤놈들을 처단하고 참다운 삶의 길, 보람찬 혁명의 길을 찾아 손에 무장을 들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찾아가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보여주었다.

작품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를 조선혁명에 구현한 주체적인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심오하게 반영하고 그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혁명가극은 강제부역과 저들의 총알받이로 내모는 일제의 《명령》을 거역해도 죽고 놈들의 명령에 순종해도 죽을수 밖에 없는것이 당시 조선청년들의 기막힌 처지였으며 오직 살길은 손에 무장을 들고 원쑤를 반대하여 싸우는길밖에 없다는것을 주인공 갑룡이가

자신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스스로 깨닫게 되는 과정, 그의 세계관확립과정을 심오하게 펼쳐보여줌으로써 1930년대뿐아니라 오늘도 인민들을 억압착취하고 인민들의 자주성을 무참히 짓밟고있는 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에게 결코 순종할수 없으며 그들과 맞서 싸우는 혁명의 길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이며 자신과 가정의 행복도 이 길에서만 이룩될수 있다는 진리를 힘있게 확증해주었다.

혁명가극은 또한 농촌에서는 지주의 압박과 착취를 받고 산판에서는 자본가의 압박과 착취를 받고 일제놈들의 참을수 없는 민족적압박과 멸시를 받는, 어디가나 계급적 및 민족적압박과 착취, 천대와 멸시만을 받는 당시 조선청년들의 기막힌 처지를 주인공들의 처지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계급교양의 훌륭한 교과서로 되게 하였다.

작품은 우리 당중앙이 독창적으로 밝힌《피바다》식 가극창조의 제원칙과 방도들을 훌륭히 구현하였다.

혁명가극의 노래들은 유순하고 아름다운 인민적이고 통속적인 절가들로 이루어지고 방창들은 다양하고 풍부한 기능으로 작품의 사상을 더욱 부각하고 그의 감화력을 더욱 높이였다.

특히 혁명가극의 무대미술은 민족적특성과 립체성을 훌륭히 구현하였고 필요한 대목들에 넣은 무용 또한 극발전에 잘 맞물리고 복종되면서도 하나의 완성된 형식을 갖춘 훌륭한 장면들을 이루었다.

이렇듯 새형의 혁명가극《피바다》식 가극예술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억압당하고 착취받는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유일하게 옳은 길, 혁명의 길을 밝혀주고있는 혁명가극 《한자위단원의 운명》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열렬한 환영과 절찬을 받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연에 출연한 예술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가극 《청춘과원》을 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의 세심한 지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평양청년가극단 예술인들은 1974년에 혁명가극《청춘과원》을 창조하여 무대에 올렸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2월 3일 모란봉극장에서 혁명가극《청춘과원》을 보시였다.

혁명가극《청춘과원》은 과수업발전을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대자연개조사업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이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온 나라를 과일동산으로 전변시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크나큰 은덕, 불멸의 공적에 대한 열렬한 송가이다.

혁명가극은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을 지도하시고 돌아오시던 길에 불동촌언덕에 오르시여 불타는 야산을 바라보시면서 여기에 과수원을 꾸리여 승리한 용사들과 인민들에게 선물할 과일도 마련하고 장차 이곳을 수도의 과일공급기지로 만들자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하게 이겨내며 만년대계의 청춘과원을 일떠세운 인민군전사의 안해 성녀일가와 평양과수농장 사람들의 억세고 슬기로운 투쟁모습과 보람차고 희망에 넘친 생활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작품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미제침략자들과 판가리싸움을 벌리던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벌써 승리한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시면서 우리 인민과 어린이들에게 사철 과일을 넉넉히 먹이기 위하여 몸소 과수농장의 터전을 잡아주시였으며 전선지도를 나가시는 바쁘신 길에서도 농장사람들이 폭격속을 헤치며 사과나무모를 힘겹게 운반하는것을 보시고는 차를 멈추시고 그것을 자동차에 실어 먼저 통과시키도록 하여주시였으며 과일나무들을 가물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간고한 투쟁을 벌리는 과수농장에 친히 뜨락또르와 물차 등을 보내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심오한 예술적형상속에 감동적으로 노래하고있다.

혁명가극《청춘과원》은 온 나라를 과일동산으로 전변시키시려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활짝 꽃피워 그이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육친적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 다 바쳐 일하는 성녀의 형상을 통하여 어떤 환경속에서도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성다하는것을 첫째가는 임무로, 최대의 영광으로 여기고 살며 일하며 싸워나가는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잘 보여주었다.

작품은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피바다》식 혁명가극창작의 제원칙과 형상방도들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열화같은 충성심이 잘 반영된 작품은 사회주의가극예술의 발전에서 획기적계기를 열어놓은《피바다》식 가극예술의 독창성과 그 우월성을 다시한번 뚜렷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혁명가극 《청춘과원》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으며 절찬을 받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연이 끝난 다음 이날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고 공연에 출연한 예술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수대예술단 예술인들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한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함께 1974년 4월 15일 평양대극장에서 만수대예술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음악무용종합공연을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북반부의 전체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위한 혁명의 북소리 높이 울리며 우리 혁명의 일대 전환기를 마련하고있으며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반파쑈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의 봉화를 다시 지펴올리고있는 력사적인 해에 우리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맞이하여 영광스럽게도 어버이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게 된 영광과 기쁨으로 하여 온 장내는 끝없는 격정에 휩싸여있었다.

넓은 극장안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한평생을 혁명을 위하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바쳐오시면서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북반부를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꽃피는 존엄있고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시였으며 세계사적발전의 새로운 단계와 그 필연적요구를 반영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억압받고 착취받던 수억만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 력사의 당당한 주인으로 등장한 위대한 주체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경모와 열화같은 충성심이 세차게 굽이치고 있었다.

합창《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노래》와《노로돔 시하누크친왕에게 영광을 드리네》, 《사회주의대건설총동원앞으로》로 막을 연 이날의 공연에는 무용 《새봄》, 《근거지처녀들》, 《비단실뽑는 처녀》, 《만풍년》, 《강선의 노을》 등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모시고 충성다하려는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지향을 담은 작품들과 수령님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을 옹호보위하고 계승하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쉬임없는 비약을 이룩해 나가고있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기쁨을 반영한 작품들이 들어있었다.

작품들에는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 공업화의 높은 령마루우에 올려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열정이 세차게 굽이치고있었으며 이 땅우에 기계농사, 화학농사의 새시대를 열어주시였으며 3대혁명과 3대기술혁명의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도록 근로자들을 이끄시고계시는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흘러넘치고 있었다.

또한 당중앙이 제시한 방침따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속도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불굴의 기개와 혁명적열정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특히 이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두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작시, 작곡하여 드린 노래《평양》이 공연무대에 올라 관중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공연은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과 세계혁명위업을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축원하는 노래와 춤《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로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공연은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우리나라《주체예술》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잘 보여주는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열렬한 환영과 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함께 예술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꽃바구니를 전하시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재일조선인 예술단 예술인들이 출연한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 공연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 6월 27일 평양대극장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조국에 온 재일조선인예술단 예술인들이 출연한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 공연을 보시였다.

끝없는 충성의 한마음으로 언제나 흠모하고 꿈결에도 뵙고싶던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게 된 재일조선인예술단 예술인들은 이날 끝없는 감격과 기쁨에 휩싸여있었다.

이에 앞서 4월 14일, 어버이수령님께서 천금같이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일본땅에서 정성담아 준비하여온 공연을 보아주시였을뿐아니라 몸소 만찬회까지 베풀어주시고 소박한 공연을 자기 조국에 대한 충실성, 자기 수령에 대한 충실성, 자기 인민에 대한 충실성, 로동계급에 대한 충실성을 남김없이 보여준 예술이며 예술적기교의 측면에서도 완전무결한 사회주의적이고 애국주의적이며 인민적이고 로동계급적인 예술이라고 높이 평가하여주시면서 재일조선예술인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을 때 재일조선인예술단 예술인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크나큰 신임에 불타는 충성으로 보답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60만 재일동포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뜨거운 어버이사랑을 베푸시는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충성의 일념을 안고 조국에 머무르는동안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더욱 깊이 체득하는 한편 짧은 시간내에 조국예술인들로부터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를 전습받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들은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천리마의 기세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혁명적기풍을 본받아 밤에 낮을 이어 혁명가극을 무대에 올리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내밀었다.

그리하여 재일조선인예술단 예술인들은 불과 한달도 못되는 기간에 작품을 완성하여 이날 자기들의 불같은 충성심이 담긴 열매를 어버이수령님께 보여드리게 된것이다.

재일조선인예술단 녀성예술인들이 어버이수령님께 전체 예술단성원들의 뜨거운 충성의 마음을 담은 꽃바구니를 정중히 올리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위대한 주체시대를 열어놓으시였으며 60만 재일동포들 특히 자기들 재일조선예술인들을 은혜로운 조국의 품으로 불러주신 그날부터 조국에서 보내는 하루하루의 일정까지 보살펴주시고 잠자리와 음식, 옷이며 매 사람의 건강에 이르기까지 심려해주시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에 목이메여 출연자들의 얼굴마다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출연자들은 작품세계에 깊이 파고들어 열정적인 체험연기를 하였을뿐아니라 가장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피바다》식 가극예술의 제원칙과 형상방도들을 완전히 체득하고 그것을 훌륭히 살림으로써 일제시기 피눈물속에서 헤여졌던 주인공 황석민일가가 해방후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자기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며 20여년만에 다시 상봉하게 되는 작품의 이야기를 통하여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과 우리 인민의 끝없는 행복, 수령님에 대한 그들의 뜨거운 충성심과 조국통일에 대한 열렬한 지향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유순하고 아름다우면서도 그윽하고 열정에 넘치는 등장인물들의 노래들과

방창들은 관람자들의 가슴에 파고들면서 그들을 작품세계에로 힘있게 이끌어갔다.

출연자들은 노래들을 훌륭히 불렀을뿐아니라 연출과 연기형상에서, 무용과 관현악에서도 높은 예술적기량을 남김없이 보여줌으로써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무대에 오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꽃바구니를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재일조선인예술단 성원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식상에서 그이께서는 공연을 보고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짧은 기간에 이와 같은 훌륭한 가극을 무대에 올릴수 있도록 노력한 예술인들을 유일사상이 꽉 들어찬 예술인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예술단이 조국에 와서 조국의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에게 많은 고무를 주었으며 또한 《속도전》의 원칙에 따라 혁명가극을 짧은 기간내에 배워가지고 60만 재일동포들에게 돌아가게 되였으니 매우 기쁜 일이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서 이 좋은 혁명가극을 공연하여 60만 재일동포들과 일본인민들에게 조국에서 이룩된 사회주의건설의 빛나는 성과를 보여주며 하루빨리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껏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여 재일조선인예술단 전체 성원들과 함께 축배를 드시였다.

재일조선인예술단 전체 성원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신 가르치심을 빛나게 관철하며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성다할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였으며 조국의 통일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재일본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학생들이 출연한 예술소조공연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 9월 26일 인민문화궁전 대회의장에서 재일본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학생들이 출연하는 예술소조공연을 보시였다.

아버지 원수님을 모시고 충성의 공연을 하게 된 재일본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전체 성원들은 끓어오르는 격정에 휩싸여있었다.

재일본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의 학생들이 달려나와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께 방문단성원들과 전체 재일본조선청소년학생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향기그윽한 꽃바구니를 정중히 올리였다.

재일본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학생들이 영광스럽게도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공연을 하게 된데는 각별한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바람사나운 이역땅에서 사회주의조국을 말로만 들어보고 글로만 배우면서 어버이수령님의 품을 그리고그리던 자기들을 조국에로 불러주시였을뿐아니라 천금보다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자기들을 친히 만나시고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수령님, 어버이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목이 메일수록 조국방문단 학생들의 가슴은 어버이수령님의 아들딸된 이 기쁨, 이 자랑을 온세상에 이야기하고싶은 마음을 누를길 없어 자기들의 뜨거운 마음을 노래와 시에 담아 충성의 공연을 준비하였다.

재일본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학생들의 이 기특한 소행에 대한 소식을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또다시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그들이 공연하는 인민문화궁전으로 나오셨던것이다.

자애로운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경모의 정과 일편단심 충성다할 불타는 정열을 안고 부른 합창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우리는 조선의 아들딸이다》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와 사랑에 의하여 오매에도 그리던 조국을 방문하게 된 재일본조선고급학교 학생들이 온갖 충성심을 다하여 창작하고 창조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남성중창 《김일성원수님 만세》, 피아노독주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노래》, 녀성독창 《수령님모신 영예 끝없습니다》, 《우리 자랑 이만저만 아니라오》, 녀성중창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휘황한 빛발로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여 우리 나라를 존엄있고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시고 가장 우월한 인민교육제도를 마련해주시였을뿐아니라 이역땅에 있는 재일본조선청소년학생들까지 한품에 안으시여 그들도 조국땅에 있는 청소년학생들처럼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지덕체를 갖춘 조국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도록 온갖 배려를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감사와 경모의 정, 수령님을 모시고 살며 배우며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준비해나가는 크나큰 영예와 행복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녀성군무 《행복의 나날》, 노래이야기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충성의 보고를 드리옵니다》는 두해전 조국을 방문한 재일본조선청소년학생들이 아버지원수님의 넓고도 따사로운 사랑의 품에 안기여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그때를 회상하며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께서 주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 말과 우리 글, 우리 혁명력사를 열심히 배워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쓸모있는 지식을 다져나가면서 조선사람찾기운동과 조선청소년들을 조선학교에 다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자기들의 보람찬 생활을 그대로 노래와 춤에 훌륭히 담고있었다.

출연자들은 자기들을 조국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주실뿐아니라 조국방문기간 자기들에게 끝없는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신 아버지원수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모시고 따르는 조선의 해바라기로 살며 배우며 일하며 싸워나갈 불같은 마음을 담아 노래한 《사랑의 선물을 안고 부르는 노래》, 《조국과 청춘은 하나의 이름》도 감동적으로 불렀다.

공연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정과 높은 사상성 그리고 출연자들의 소박하고 참신한 높은 예술적재능으로 하여 관중들의 열렬한 절찬을 받았다.

공연의 마지막무대는 출연자들이 아버지원수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부르는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의 합창으로 장식되였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재일본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학생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꽃바구니를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사회주의교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부문에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여 모든 학생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6권, 363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교육사업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교육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의 중요한 한부문이며 그의 시초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교육사업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립장과 태도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교육분야에서 위대한 전변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온 나라가 조밀한 학교망으로 뒤덮이고 그 누구에게나 배움의 길이 활짝 열리여 우리의 청소년들은 11년제의무교육을 국가로부터 무료로 받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공산주의적혁명인재육성의 학설인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가 교육실천에 훌륭히 구현됨으로써 후대교육의 정치사상 및 과학리론 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새세대들은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자라나고있다.

1년제학교전의무교육;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사람들의 품격형성과 우리 나라 어린이들의 정신육체적발전의 특성,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학교전교육의 내용과 방도, 학교전교육과 학교교육간의 련계에 대하여 처음으로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으며 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할수 있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받는 유치원 높은반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우리 나라에서 국가와 사회의 혜택으로 탁아소, 유치원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은 350만명이나 된다.

1974~1975학년도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의 교수내용은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여 만 5살의 어린이들에게 경애하는 수령님의 어린 시절을 따라배우도록 하며 우리 말을 정확히 하고 인민학교에 입학하여 교수내용을 알아들을수 있는 필요한 어휘를 많이 습득시키며 연필쥐는 법과 글씨쓰는 법을 가르쳐주고 물건들을 정확히 세고 더하기와 덜기를 초보적으로 할수 있게 작성집행되였다. 또한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은 일상 생활과 학교교육에 필요한 기능과 숙련을 체계적으로 높여줌으로써 모든 어린이들을 학교교육에 전면적으로 준비시키였다.

유치원단계에서의 이러한 준비교육은 입학나이가 한살 앞당겨진 조건에서도 학생들이 인민학교교육을 충분히 받을수 있게 하며 앞으로의 중등교육까지도 훌륭히 받을수 있게 하였다.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은 모든 학령전어린이들을 유치원에 의무적으로 망라시켜 학교전준비교육을 줌으로써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울데 대한 공산주의적시책, 공산주의적교양방법을 더욱 폭넓고 전면적으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실시할수 있게 해주고있다.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의 실시로 탁아소, 유치원에서의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교양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되였으며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사회의 주인으로 더 잘 키울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의 실시로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력사에서 미해결문제로 남아있던 학령전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교양의 내용과 방도, 학교전교육과 학교교육간의 유기적련계문제가 해결되였을뿐아니라 그것이 사회주의교육제도의 구성부문의 하나로서 구체화되였다.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에 교육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교육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90% 이상 실시되였으며 학교들의 물질적토대가 더욱 강화되였습니다.》(1975년《신년사》, 단행본, 8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친히 시험학급을 내오시고 이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을뿐아니라 10년제고중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첫 개학날에는 몸소 평양시 대동문인민학교를 찾으시고 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여 학생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혁명적세계관이 똑바로 선 조선의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워내기 위하여 교육부문과 교원들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는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560여만명이 11년제의무교육에 망라되여 무료교육을 받고있다.

우리 나라 북반부의 인구가 약 1,500만명인데 탁아소, 유치원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800만명이상이나 된다는것은 일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내놓고도 인구의 절반이상이 국가의 부담으로 교육을 받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다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74년에 10여리의 령길로 만포시 십리동고등중학교에 다니는 림토, 창골 마을의 40여명 학생들이 못내 걱정되시여 사랑의 통학렬차를 보내주시였다.

청소년학생들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같이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는 없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1974~1975학년도에 또 71개의 시(구역), 군들에서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마치고 만 6살이 되여 인민학교에 들어오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이 2년 앞당겨 전면적으로 실시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계획보다 3년 또는 2년 앞당겨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시(구역), 군들은 1974년에 와서 모두 101개에 이르게 되였다.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첫 개학날에 어버이 수령님을 학교에 모시는 영광을 지녔던 평양시 중구역의 대동문인민학교에서는 1974~1975학년도에 만 6살짜리 어린이 370명을 포함한 560명의 어린이들이 새로 입학하였다.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계획보다 앞당겨 실시하기 위하여 평안남도 룡강군, 대동군, 자강도 화평군, 전천군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교육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방의 자재와 온갖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집체적 지혜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학교

건설과 교구비품생산을 적극 추진시켰다.

또한 교원대학졸업생들과 교원자격자들로 교원대렬을 보충하는 한편 이미 있는 교원들을 통신교육망에 망라시켜 재교육받도록 하는 등으로 그들의 자질을 한계단 더 높이게 하였다.

한편 교육도서출판사에서는 미리부터 편집, 출판사업을 짜고들어 1974~1975학년도에 인민학교에 들어간 어린이들과 모든 학생들에게게 훌륭한 새 교과서가 차례지게 하였다.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주는 학교들의 교육내용에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청소년학생들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정치사상교양을 앞세우는 기초우에서 여기에 과학기술교육을 밀접히 결부시켰다.

또한 후대들을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교육교양하는데 힘을 넣었다.

신계군 대정고등중학교 하나만 놓고 보아도 이 학교 녀자롱구소조원들은 하루 공 1,000개 던져넣기 련습을 생활화하는 한편 2년동안에 연 1만 5천여리나 되는 비탈길을 달렸으며 800여회의 경기들에 참가하여 체육기술수준을 훨씬 높이였다.

롱구소조원들은 제4차인민체육대회 녀자롱구경기에서 1등의 영예를 쟁취하였으며 2년동안에 전국적인 학생체육경기대회들에 참가하여 11개의 금메달과 22개의 동메달을 탔다.

이러한 실례는 우리 나라의 그 어느 학교에서나 찾아볼수 있는 일반적인 사실로 되고있다.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받는 모든 학교들에서는 모든 학과목교수를 당정책화하고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널리 적용하며 완성된 중등지식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튼튼히 준비시켰다. 또한 사회정치활동에 광범히 참가시키며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청소년학생들을 경애하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지덕체를 갖춘 우리 혁명위업의 참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켰다.

대학교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 나라의 인테리대군을 마련하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59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대학교육부문에서는 기술자, 전문가의 대부대, 나라의 인테리대군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밀고나갔다.

기술자, 전문가들을 많이 길러내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있는 대학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하고 그 양성규모를 늘이고 기술인재에 대한 인민경제 부문별 수요를 옳게 타산하여 중앙과 도들에 대학들을 새로 더 내왔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는 80만명에 이르는 대학졸업생들과 고등기술학교졸업생들을 가지고있으며 대학, 고등전문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근 100만명이상이나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150여개의 각종 대학이 있다.

우리 나라의 대학들에서는 력사, 문학, 법학을 비롯하여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학생수의 30%를 넘지 않으며 그 나머지 대부분은 3대기술혁명과 나라의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절실히 필요한 능력있는 기술인재들을 키우는 자연과학부문에서 공부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가까운 앞날에 기술자, 전문가들의 대오를 100만명이상으로 늘일데 대한 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여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책공업대학, 평양기계대학, 평양경공업대학 학생들을 경공업공장들에 파견하시고 대학생들을 가지고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벌릴수 있겠는가 하는것을 시험해보신데 기초하시여 대학생들을 공장과 농촌들에 파견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가장 철저히 무장된 혁명적인 새세대들인 우리의 대학생들은《속도전》의 불바람이 일어나고있는 현실속에서 실습을 진행하면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수행하는데 앞장서나감으로써 혁명적새세대의 믿음성을 떳떳이 보여주었다.

대학들에서의 과정안은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정치사상교양을 앞세우고 여기에 과학기술교육을 밀접히 결부시키는 방향에서 작성되고 집행되였다.

대학들에서는 학과교수과정과 다양한 형식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학습과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 정책학습을 강화하였으며 그이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학습을 더욱 강화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 2학년 1반 학생들이 1973년 3월에 지펴올린《배움의 천리길》근위대운동의 불길은 1974년에 이르러 전국의 모든 학교들에 세차게 타올랐다.

《배움의 천리길》근위대원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무엇보다 먼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자체학습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과 교시에 대한 통달모임, 연구토론회, 론문발표회 등 여러가지 사업을 옳게 배합하여나갔다.

또한 그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보여주신 학습에서의 빛나는 모범을 따라배워 글 한줄을 읽어도 조선혁명에 써먹을수 있는 선진과학지식을 폭넓고 깊이있게 습득하였다.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 2학년 1반 근위대원들은 날마다 4~6시간씩 자체학습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모범적사실들을《〈배움의 천리길〉근위대 충성의 영예등록장》에 등록하였다.

그들은《배움의 천리길》근위대가 조직되여 9개월 남짓한 기간에 한사람이 평균 1만 5천여페지의 책을 읽었고 학기 및 학년말 시험들에서 모두 최우등생의 영예를 떨치였다.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부에서는 1974년에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학들에서 기술인재양성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다.

대학교육사업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여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과학토론회, 과학기술강연회 등을 조직하는 한편 대학교원들을 위한 부문별강습도 조직하였으며 김책공업대학, 함흥수리대학, 평양기계대학, 해주농업대학 등에 본보기를 꾸려놓고 방식상학, 시범상학을 통해 그를 일반화하는 사업도 전면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고등교육부에서는 대학마다 부문별로 연구집단을 무어《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과학연구사업과 인민경제발전에서 나서는 긴절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도와주었다.

대학들에서는 실물교육, 직관교육, 영화를 통한 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교수교양의 질적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동시에 대학생들속에서 학과토론회와 현장실습을 강화하여 배운 리론과 지식, 기술을 실천에서 능숙하게 활용할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 김책공업대학, 평양기계대학, 건설건재대학, 원산농업대학, 함흥수리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에서는 경제건설을 촉진시킬수 있는 발명과

창의고안들이 수없이 나왔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김책공업대학 종합실습공장건설정형을 료해하시고 우선 1974년안으로 7천 5백평방메터의 실습기지를 꾸려주도록 하여주신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주물, 압연, 단조, 전기, 전자자동화 실습장건설이 현대적인 규모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였으며 대학생들은 여기서 수많은 창의고안들을 내놓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4년 2월 평양기계대학에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벼수확기를 만들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받들고 이 대학에서는 새로운 벼수확기에 대한 연구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구조가 간편하고 가공능력이 높은 새로운 명태활복기를 완성하였다.

특히 이 대학의 실습공장에서는 100여건의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받아들이는 한편 설비들을 갱신하고 생산조직을 혁명적으로 고쳐 모내는기계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켰다.

건설건재대학에서도 비닐판온수온돌에 대한 연구를 완성하고 그를 건설에 성과적으로 도입하였다.

고등교육부에서는 각 대학교원들속에서 과학기술도서들을 써내기 위한 운동을 적극 벌린 결과 3,500여종의 자연과학 및 기술 서적들을 집필하였으며 그중 1,000여종의 서적을 1974년 4월현재 출판하였다.

과학기술서적의 집필을 위한 투쟁을 통해 교원들의 정치리론수준과 과학기술적자질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대학들에서는 교육내용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학과목들을 더 설정하여 교육하였으며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함께 밀고나갔다.

결과 1974년 상반년동안에만도 새로 770여종에 달하는 자연과학기술서적들을 내놓았다.

그중에는《압연설비 전기전동장치 및 자동화》, 《주물직장의 기계화, 자동화》, 《농촌짐나르기에서 뜨락또르, 자동차 리용》, 《반도체에서 초고주파발진효과》, 《최량자동조종리론의 기본원리》, 《전자기식자동화요소》등이 들어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자연과학기술서적들을 많이 내놓을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김일성종합대학 2중천리마화학부에서는 1974년 단 두달동안에만도 70여종의 과학기술서적들을 내놓았으며 김책공업대학에서는 1974년 한달동안에 그전해 1년동안에 내놓은것보다 더 많은 과학기술서적들을 내놓았다.

1974년 6개월동안에 각 대학에서는 모두 2,870여종의 책을 발행할수 있는 원고를 썼다.

교원대학, 사범대학을 비롯한 교원양성부문의 대학들에서는 혁명의 후계자들을 키워내는 《원종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부문에 필요한 우수한 교육일군들을 양성하여 수많이 배치함으로써 1974~1975학년도에 교육부문에서 필요한 교원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였다.

일하며 배우는 교육;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보장해주시려는 어버이 수령님의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공장대학과 공장고등기술학교를 비롯하여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가 전면적으로 철저히 서있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학교들에서는 정치사상부문학과목교수를 더욱 강화하여 로동자대학생들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기초기술과목과 전문기술과목들의 교육을 강화하여 정치사상적으로, 리론실천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기술자들을 수많이 양성하였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각급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이 생산현장과 밀접히 접근하여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실험실습시간보다 과학리론강의시간수를 더 늘이고 학생들의 기초지식이 매우 다양한 실정을 고려하여 대상별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그들의 학과지식을 더욱 높여주었다.

이 부문 교원들은 들끓는 생산현장에 직접 나가 로동자대학생들과 같이 일하면서 로동계급의 혁명성을 배우는 한편 배운 리론을 실천에 옮기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적극 조직집행함으로써 로동자대학생들속에서 창의고안운동이 더욱 전격적으로 벌어져 3대기술혁명과 6개년계획수행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특히 일하면서 공부하는 운동은 농업부문에서 활발히 벌어져 농업부문 기술자들이 수많이 양성되였으며 그들은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전례없는 대풍을 이룩하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생산현장에 실습나간 우리의 대학생들은 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과의 밀접한 련계하에 생산에서 걸려고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농업부문에서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이 활발히 벌어짐으로써 농장원들의 전반적 기술문화수준을 훨씬 높여주었다.

간부양성 및 재교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각급 간부양성기관 교원대렬을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일군들로 잘 꾸리고 교수교양사업을 당정책화하고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며 그의 과학리론적수준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514~515페지)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의 전반적정치문화수준을 높이는데서 간부들을 교육교양하는 문제의 중요성으로부터 전당이 학습하고 전민이 학습하고 전군이 학습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투쟁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중앙에는 당일군들을 양성하며 재교육하는 김일성고급당학교가 있으며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과 공장, 기업소 관리일군들을 양성하며 재교육하는 인민경제대학이 있다. 또한 도에는 공산대학이 있으며 군에는 군당학교가 있다.

그리고 근로단체간부들을 양성하는 근로단체중앙학교와 사로청대학이 있다.

또한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붉은기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을 비롯하여 혁명가유자녀들을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싸우다 희생된 혁명선렬들처럼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 열렬한 정치활동가로 키워내고있는 학원들이 있다.

이밖에도 일군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직장장학교와 작업반장학교가 있으며 공장들에는 기능공을 키우는 학교가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는 일반대학들을 내놓고도 여러 부문 간부들을 양성하며 재교육하는 대학들이 많다.

도, 시, 군급이상의 당및근로단체, 정권기관, 경제기관의 간부들은 김일성고급당학교나 인민경제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군간부들은 도공산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리간부들은 군당학교에 가서 공부한다.

학습에 필요한 조건은 국가적으로 다 보장하여주고있다.

이 모든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있으며 당건설 그리고 국가, 경제기관, 공장, 기업소들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주체적인 경제관리운영지식으로 무장시키며 일군들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세우는데 기본을 두고있다.

간부양성부문대학들에서는 교수내용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고 교수방법을 항일유격대식방법으로 전환시켰으며 당성단련을 더욱 강화하고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대학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1974년에 근로단체중앙학교에서는 창립 스물다섯돐을 맞이하였다.

이 학교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당의 간부양성방침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하고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근로단체간부들을 수많이 키워내였다.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는 조선의 전도는 양양하다.

나는 여기에 올때마다 어린이들의 변모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이것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그들에게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기때문이다.》(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부총리부특별고문 이옝.싸리)

《자라나는 새세대들의 가장 행복한 고향은 바로 조선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김일성주석님의 크나큰 품이다.》(웽그리아직맹대표단단장)

《조선의 교육제도는 사회주의교육의 본보기》

—전반적무료교육을 받고있는 우리 나라의 교육제도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반향—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찬연히 빛나는 우리 나라는 누구나 다 자기의 재능과 희망에 따라 마음껏 배울수 있는 가장 선진적이며 우월한《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의 주체적인《교육방법은 참으로 독창적》인것으로 하여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있는 조선의 새세대들은 참으로 무한히 행복하다》

《주체적인 교육제도를 말할 때에는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바다의 깊이와 하늘의 높이에도 비길수 없는 크나큰 배려와 따뜻한 어버이품에 대하여 이야기하여야 할것이다.

평양의 김일성종합대학과 학생소년궁전에서부터 깊은 벽촌 림산마을 자그마한 학교에 이르기까지 김일성원수님의 친어버이 사랑과 배려가 미치지 않은곳이란 없다.

공원에서 노는 어린이나 길가는 그 어느 소년에게도 물어보라. 이 행복, 이 기쁨, 넓은 배움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그러면 어린이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린이, 모든 학생들은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이십니다.〉라고 일치하게 말할것입니다.》(이딸리아《김일성동지의 로작연구및출판 주체소조》성원 티엘라 지오바니 베르가노)

《조선인민의 존경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현시대의 위대한 건설자이시며 미래의 위대한 건설자이시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종합대학을 창설하심으로써 위대한 미래를 건설하시였다.》(자이르인민혁명운동 정치위원겸 당학교 교장 엠벵가 까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참으로 많은 일을 하고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있는 조선의 새세대들은 참으로 무한히 행복하다.

세상의 좋은것을 다 돌려주고계시며 가장 훌륭한 교육제도와 궁전을 세워주시고 온갖 교육조건들을 마련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조선의 어린이들이 아버지로 높이 우러러 모시는것은 응당한 일이다.》(네팔정부교육대표단단원 모하마드 모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나라의 어린이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어린이들을 나라의 보배이며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그이의 말씀대로 어린이들이 나라의 보배, 미래의 주인공으로 되고있다.》(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이며 중의원 의원인 나리다 도모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배려와 보살핌속에서 조선의 어린이들은 끝없이 행복하게 자라고있다.

우리는 궁전에서 그들이 혁명의 후계자, 계승자로 육성되고있음을 보았다.

《조선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이 최고봉에 올랐으며 완전무결하다》

《조선에서는 가장 우월하고 인민적인 사회주의교육제도인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다.

이처럼 조선의 모든 어린이들에게는 배움의 넓은 길이 열려져있다.

그러므로 조선에서는 학령나이에 학교를 못가는 어린이가 단 한명도 없다.

나는 조선에서 실시되고있는 교육의 내용과 강령에서도 많은것을 배웠다.

조선에서는 주체적인 교육, 실지 써먹을수 있는 교육이 실시되고있다.

학생들은 조선어로 조선인민의 력사와 문화, 조선의 지리를 연구하며 자기머리로 과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나가고있다.

그 모든 학습, 과학연구사업은 궁극에 가서 어떻게 하면 조선혁명에 잘 이바지하겠는가에 귀착된다.

이처럼 조선에서는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이 하나의 정연한 체계를 이루고있다.》(버마련방사회주의공화국 교육대표단성원 우 킹 마윈)

《나는 후대들에 대한 교육사업에서도 많은것을 느꼈으며 공산주의사회의 새싹들을 직접 볼수 있었다.

도시는 물론 산간벽촌 그 어디를 가도 아담하고 깨끗한 학교와 교육시설이 다 갖추어져있으며 그 어느 학생을 보아도 깨끗한 교복과 책가방, 학용품들이 차례지고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즐겨부르는것처럼 세상에 부러움이 없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 가도 학교와 교육 체계가 있지만 조선처럼 새형의 공산주의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교육체계가 되여있는 나라를 나는 아직 모르고있다.》(버마기자대표단성원 우 민 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후대교육을 위하여 얼마나 큰 관심을 돌리고계시는가를 잘 알수 있었다.

이 대학은 후대들을 교육교양하기 위한 교육설비들을 훌륭하게 갖추어놓았다.

우리는 고등교육분야에서 조선인민이 이룩한 경험을 배우면서 앞으로 우리 교육의 식민지적체계를 완전하게 개편하겠다.》(김일성종합대학을 참관한 다오메문화청년및체육부장 뱅쌍 게근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배우며 발전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해주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１９５６년에 전반적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１９５８년에는 동방에서 처음으로 전반적중등의무교육을 실시하였고 １９５９년부터는 각급 학교들에서 수업료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그리고 １９７２년부터는 １０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다.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１５０여개의 대학들에서 학생들이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하고있다.

가까운 앞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１００만이상의 기술자, 전문가를 가진 훌륭한 나라로 될것이다.》(파키스탄신문《론》의 글)

《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교육분야에 어떻게 구현되여 빛나는 결실을 맺고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다.

교육사업은 직업이 아니라 혁명사업이라고 하신 주석님의 옳바른 가르치심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의 교직원들은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후대교육사업에 모든 정열을 기울이고있다.》(일본교직원조합대표단 단장 나까고리 기요오)

《조선의 어린이들이 지덕체를 갖춘 훌륭한 인간으로 자라나는것을 보는것은 조선의 휘황한 미래를 보는것으로 된다.

어린이들은 리론만 배우는것이 아니라 실지 써먹을수 있는 실천활동과 결부된 산지식을 배우고있다. 우리는 이 훌륭한 교육방법을 보고 경탄하였다.》(아르헨띠나공화국 국회대표단 단장 이딸로 루데르)

《조선에서는 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모든 분야에서 활짝 꽃피고있다.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사상을 어린이들까지 모두 체득하게됨으로써 그들은 절대로 다른 사상에 오염되지 않고 자기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위하여 싸우게 될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조선의 미래는 참으로 휘황찬란하다.》(세네갈공화국국회대표단 단장 까롤린 디오쁘)

《김일성종합대학은 일본에도 유명한 대학으로 알려져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교육내용에 훌륭하게 구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혁명적인 민족간부양성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계시며 이에서 많은 성과를 달성하시였다.

정말 훌륭한 대학이다. 대학이 거둔 모든 성과는 김일성주석님의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다.》(일본사회당부인활동가대표단 단장 와다나베 미찌꼬)

《훌륭한 과학연구설비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는 이런 대학에서 간부들이 자라나고있음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우리 대표단이 어제 중앙공업및농업전람관에서 본것 같은 훌륭한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오늘과 같은 전망을 내다보시고 벌써 해방직후에 이 대학을 창설하시였으니 이 얼마나 현명한 일인가!》(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 아담 말리크)

《이 대학에서는 사상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준비된 간부들을 양성하고있다.

우리는 이 대학 참관을 통하여 간부들을 어떻게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적으로 교양육성할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알게 되였다.

조선에서는 교육과 생산로동, 리론과 실천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측면에서 특출한 모범을 창조하였다.

이것은 매우 새롭고 독창적인것이다.》(웽그리아사회로동당대표단 단원 버르거 요재프만)

《조선에서 실시하고있는 교육방법은 참말로 새로운 교육방법이다. 이 방법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준다.

이 대학에서는 간부양성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모든것은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말해준다.》(메히꼬공산당대표단 단원 힐베르또 엔리께스)

《이 대학이 현대적설비를 갖춘 과학의 최고 전당으로 발전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의 결과이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자기의 수령님을 왜 그처럼 흠모하며 우러러 받드는가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독일민주주의공화국 고등교육물리학자대표단 단장)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옳은 세계관을 주고 과학적인 지식으로 무장시키며 육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인간으로 키우려면 조선에서처럼 교육해야 한다는것을 나는 똑바로 파악하였다.

참말로 조선의 교육제도는 사회주의교육의 본보기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를 키워내는 가장 선진적인 교육제도이다.》(버마련방사회주의공화국 정부교육대표단 성원인 랑군교육대학학장 철학박사 우킹마웅)

《조선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이 최고봉에 올랐으며 완전무결하다는것을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다.

우리는 대단히 흥분되였다. 우리는 조선의 어린이들로부터 많은것을 배울수 있게 되였다.》(아르헨띠나소년대표단 단원 미겔 안헬 디아스)

《인민경제대학에서의 교육방법은 완전무결하다.》(자이르공화국 인민혁명운동 정치위원겸 외무및국제협조담당국무위원 옴바 디 루뗴뗴)

《김일성주석님의 말씀 그대로 조선에서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다》

《사람들이 살고 일하는 곳마다 유치원, 탁아소들이 아담하게 꾸려진 조선, 진정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배려를 돌려주신다.

김일성주석님의 사랑의 품, 행복의 요람속에서 조선의 어린이들은 혁명에 대하여, 미일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대하여 배우면서 앞날의 훌륭한 기둥으로 무럭무럭 자란다.

씩씩하게 자라나는 조선어린이들의 미더운 모습은 나의 가슴속에 오래오래 남아있을것이다.》(탄자니아 출판보도일군 페터 무쑹구)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말그대로 사회주의지상락원이다. 또한 사회주의가 가장 훌륭하게 실현된 나라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화려한 주택을 쓰고 먹을것, 입을것의 걱정없이 살고있으며 자녀들을 무료로 훌륭히 공부시키고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현실이다.

이 모든것은 오직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높은 덕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질수 있었다.》(토고의 《에디또고》출판사 사장)

《조선의 어린이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육친적인 사랑과 배려속에서 가장 행복한 생활을 누리며 풍부한 지식과 독창적인 혁명정신을 배우고있으며 그들에게는 과학과 예술, 기술 등 모든 건전한 지식과 독창적인 혁명정신을 배울수 있는 모든 수단이 마련되여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 부위원장이며 아랍법률가동맹 서기장인 샤피크 아르쉬다트)

《어린이들은 민족악기와 서양악기중 누구든지 하나 이상은 탈수 있기때문에 방문지들에서는 어린이들의 노래와 춤, 기악연주 등의 공연이 꼭꼭 있었다. 공화국이 자랑하는 〈왕〉들이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것은 무리가 아니다.

어린이들의 생활과 교육현장을 보고 내가 탄복한것은 첫째로 어린이들이 부단히 생산과 로동을 련결시켜 모든 것을 배우고있는것이다. 그것은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각종 대학교육에서 더욱 철저히 관철되고있다. 학문과 로동, 지식과 현실의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를 유년시절의 교육시기부터 귀중히 하고있다.》 (일본문화인대표단의 성원으로서 우리 나라를 방문했던 마쯔모도 쇼지의 조선방문기의 글)

《김일성원수님께서 후대교육을 위해 얼마나 심려하시며 어린이들에게 큰 배려를 돌려주고계시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게 되였다.

우리에게 어린이교육문제가 연구과제였는데 여기에 와보고 어린이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얻게 되였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고등교육물리학자대표단 단장 루돌프 헤르만)

《모든 세심한 배려가 주석님께서 돌려주신것이라는것을 심장으로 느낄수 있었다.

김일성주석님의 말씀 그대로 조선에서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다.》 (일본사회당부인활동가대표단)

《조선의 어린이들은 말그대로 〈왕〉과 같이 행복하게 살며 잘 자라고있다.

어린이들이 이처럼 국가적혜택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라고있는것은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그이께서는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넓은 품에 안아주시여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잘 자라날수 있도록 해주시였다.》 (레바논조선련대성위원회 위원장 파리드 저브란)

《당신들이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는것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님의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가 있기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감탄하여마지 않았다.

《먼 앞날을 내다보시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을 천재적으로 령도하고계실뿐아니라 인민들에게 온갖 육친적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을 수령으로 모시고있는것은 조선인민의 커다란 영광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남부윁남공화대표단 단장 원우수)

《조선의 어린이들은 참말 행복한 생활을 하고있다. 이것은 조선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가능한것이다.》 (메히꼬공산당대표단 단장 헤라르도 운쑤에따)

그렇다! 우리 나라에 세워진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사회주의교육제도, 이것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사람에 대한 사람의 착취가 완전히 없어지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최고원칙으로 되고있는 세상에 으뜸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세워질수 있는것이다.

주 체 과 학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할것없이 우리 나라의 모든 과학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운결과 우리의 사회과학은 다른 나라보다 앞서나가고있으며 우리의 자연과학은 3대기술혁명과 6개년계획수행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주체사상연구에 복무하는 사회과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과학부문에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성과와 풍부한 경험들을 리론적으로 일반화하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더 깊이있게 론증하여야 할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62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사회과학부문에서는 1974년에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주체사상연구와 주체사상을 해설선전하는 사업에 중심을 두고 자기 사업을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철저히 관철하여 이룩한 성과와 풍부한 경험들을 리론적으로 일반화함으로써 우리 인민들뿐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나라 인민들 특히 제3세계나라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사회과학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깊이있게 연구하고 그 진수와 전반사상을 해설선전하는 론문들을 수많이 집필함으로써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는데 방조를 주었으며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도록하였다.

우리의 사회과학자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하고 해설론증한 론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발표기념일과 국가적인 주요 기념일을 계기로 종합발표되였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통하여 사회과학자들은 자신들뿐아니라 전체 인민들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도록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열돐을 기념하여 이해 2월에 진행된 전국과학리론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의 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위대한 강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울데 대한 사상은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확고히 담보하는 창조적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농촌기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그 위대한 생활력》,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농촌문화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위대한 생활력》을 비롯한 수많은 해설론문들이 발표되였다.

이러한 론문들에서 사회과학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촌테제에서 제시하신 과학적인 사상과 리론은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며 전인민적소유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올바른 길을 밝혀주는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이라는데 대하여 깊이있게 해설론증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발표 다섯돐을 기념하여 진행된 전국사회과학토론회에서 사회과학자들은 《사회주의하에서 경제의 규모와 생산장성속도의 호상관

계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 요새를 가장 빨리 점령할수 있는 길을 밝힌 천재적리론》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주의하에서 상품화페관계에 관한 리론은 사회주의정치경제학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천재적리론》이라는데 대하여 깊이있게 론증하였다.

우리의 사회과학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모든 문제해결에서 중심고리를 튼튼히 틀어잡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자》를 깊이 연구하면서《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모든 문제해결에서 중심고리를 튼튼히 틀어잡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자〉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혁명투쟁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전략전술적원칙을 새롭게 밝혀준 강령적문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경제지도에서 중심고리를 튼튼히 틀어쥐고 나갈데 대한 사상은 생산을 정상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인 지도적방침》,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중심고리에 관한 사상은 유물변증법리론을 새롭게 발전시킨 독창적인 사상》등 수많은 해설론문들을 내놓았다.

이러한 론문들에서 사회과학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중심고리를 틀어잡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할데 대한 사상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해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위대한 사상이며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라는것을 깊이있게 론증하였다.

사회과학부문 과학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하여 해설선전하며 위대한 주체사상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되여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리론적으로 일반화하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깊이있게 론증하기 위한 연구사업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깊이있게 연구하며 대를 이어 빛내여가기 위한 혁명전통연구사업을 적극 진행하였다.

사회과학부문일군들과 당간부양성기관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연구하고 그를 생활에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진행하였다.

사회과학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철저히 확립하는것은 현시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사업을 개선하고 온 사회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력한 담보로 된다는데 대하여서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은 모든 사업에서 형식주의, 재래식사업방법을 극복하고 혁명적사업전개원칙인 《속도전》의 방침따라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중요담보로 된다는데 대하여 깊이있게 해설론증하였다.

사회과학자들은 또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 특히 항일유격대식 사람과의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주체의 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사상전》을 전격전, 섬멸전의 방법으로 힘있게 벌려 사람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그들의 혁명적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 등 항일유격대식 사람과의 사업방법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폭넓게 해설론증하였다.

사회과학부문에서는 1974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고전적로작《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를 발표하신 열돐을 맞이하면서 민족어의 발전과 언어생활개선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나감으로써 언어학분야에서 크나큰 변혁을 이룩하게 하였다.

오랜 세월을 두고 사람들의 머리속에 뿌리박혔던 어렵고 딱딱한 말을 쓰려는 그릇된 관점과 언어관습은 시정되고 인민대중이 알아듣기쉽고 즐겨쓰는 쉬운말을 쓰는 기풍이 온 사회를 지배하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생활규범, 생활양식에서 일어난 큰 변혁이였다.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 수많은 어휘가 새롭게 보충되고 이미 있던 어휘들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더 세련되였으며 딱딱하고 어색한 필요없는 한자말과 외래어가 적지않게 정리되였다.

우리말 어휘는 고유어를 기본으로 하여 하나의 체계로 줄기차게 발전해나가고있으며 우리 말의 민족적특성은 찬란히 꽃피여가고있다.

발음, 문체, 문법 구조들도 시대의 요구에 맞게 거대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맞춤법, 띄여쓰기를 비롯한 글쓰기에서의 규범도 훨씬 정밀화되였다.

기술혁명과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자연과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이룩된 성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나라 과학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여러가지 중요한 연구성과들을 이룩함으로써 3대기술혁명과 6개년계획수행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1975년 《신년사》, 단행본, 8페지)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며 기술혁명을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과 함께 이미 이룩한 과학연구성과들을 생산에 적극 도입하는 한편 농업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주되는 힘을 넣은 결과 3대기술혁명과 6개년계획수행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과학자들은 철광석생산지로부터 제철소까지 철광석을 관을 통하여 흐름식으로 운반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전기로에서의 제강, 아연제련, 린비료 합성공정들의 현대화, 자동화 그리고 관에 의한 수송체계의 자동화 등 과학기술적문제들의 성과적해결은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고 생산능력을 더욱 늘이며 수송에서 긴장성을 푸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중앙광업연구소 과학자들은 대담하고 통이크게 판을 벌릴데 대한 당중앙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발파방법인 투적발파법을 박토작업에 적용하여 70만산을 단번에 목적한 방향으로 날려보냄으로써 현장에서 2년이상 걸려야한다던 박토작업을 단 두달동안에 끝내는 과학기술적면에서의 높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한 과학원 연료연구소과학자들은 제철공업에서 콕스를 적게 쓰기 위한 연구사업을 전격적으로 벌려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 서부지구에 풍부한 무연탄을 제철공업의 원료로 더 광범히 쓰기 위한 연구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열관리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은 보이라의 자동화 및 원격조종, 무인조종자동보이라, 주물원통식 원심습식제진장치, 알탄생산의 반자동화와 알탄의 질제고문제, 고속도먼지잡이장치 등 각이한 부문에 걸치는 연구사업들을 진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러한 것은 이미 생산에 도입되였거나 곧 도입할수 있게 되였다.

보이라의 자동화 및 원격조종은 평양곡산공장에서 이룩한 과학기술성과인데 보이라운영에서 석탄이 화실에

얼마나 들어가고 소비되였는가, 보이라에 물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등을 계기가 자동적으로 측정하게 함으로써 보이라에서 진행되는 힘든 일을 매우 헐하고 안전하게 할수 있게 하였다.

주물원통식 원심습식제진장치와 고속도먼지잡이장치는 평양종합방직공장과 평양화력발전소에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보이라 굴뚝에서 나가는 석탄재를 잡게함으로써 굴뚝에서는 맑은 연기가 나가고 공장지대를 깨끗하게 하는 현실적의의가 매우 큰 연구성과들이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적극 개척하는것과 함께 이미 이룩한 과학연구성과들을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전격적으로 벌리여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과학원의 공학연구소, 열및동력기계연구소, 자동화연구소, 금속연구소 과학자들은 지혜를 합쳐 여러가지 힘든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고 그 성과를 생산에 도입하였다.

특히 과학자들은 생산공정의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과학원 기계분원 과학자들은 룡북식료공장의 종합적기계화와 평양신발혁타공장의 자동화를 비롯하여 생산현장에서 걸리고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갔다.

공학연구소 과학자들은 또한 평양곡산공장의 생산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학기술적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고 생산공정을 갱신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자동화연구소 과학자들은 남포제련소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도 새로이 벌리였다.

철도운수부문의 과학자들은 곡물하선기와 객차세척기를 연구제작하여 현장에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과학원 철도분원 철길연구소 과학자들은 운수수단을 현대화, 중량화, 대형화, 고속도화함으로써 수송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수백메터까지의 길이를 가진 《이음짬없는 레루》를 연구도입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레루는 렬차의 진동을 훨씬 적게해줌으로써 철도수송의 고속도화를 실현하며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덜고 적은 로력과 운수수단을 가지고 더 많은 짐을 더 빨리 나르게 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과학원 계량과학연구소 과학자들은 성능이 높은 자동평량기를 만들어냄으로써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들은 알약자동평량기와 간장 자동판매기를 만들어 현장에 도입함으로써 이 부문의 로동을 헐하게 하였으며 위생성과 생산성을 높였다. 이런 성과에 뒤이어 연구사들과 로동자들은 강냉이 처리능력을 년간 10만톤으로 확장하는 평양곡산공장의 생산능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전분 및 포도당 자동평량기를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이것은 전분이나 포도당을 600여포대씩 자동적으로 저울에 달아 포대에 넣을수 있으므로 종전의 작업능률을 2배로 높일수 있게하였다.

이밖에도 전기제철에 관한 연구, 기계공장들에서 나오는 쇠밥을 전기로에 넣어 주물에 리용하기 위한 연구, 와류식용융로에 의한 린비료생산, 반성콕스생산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생산에 도입하고있다.

우리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하루빨리 해방시켜주시려고 심려하시며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10월5일전기공장에 나간 전기연구소 연구사들은 랭동기의 본체가공흐름선을 비롯하여 전기가정용품과 전기제품생산을 늘일수 있게 할 여러가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실현하는 일에 떨쳐나섰다.

1974년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농업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큰 힘을 넣어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농업부문과학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강냉이 1대 잡종생산체계를 세우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으며 잘 넘어지지 않고 빨리 익으며 수확이 매우 높은 벼종자들을 연구해내는데 성공하였다.

다른 나라에서 커다란 성과라고 하는 벼종자들에 비해볼 때 우리 농업과학자들이 연구해낸 새로운 벼종자는 세계에 자랑할만한것이다.

또한 농업부문과학자들은 남새종자문제를 해결하는데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농업부문 과학자, 기술자들과 창의고안자들은 우리의 협동벌에 모내는기계를 비롯한 갖가지 농기계들을 수많이 만들어 보내주었으며 필지별토양분석카드에 기초하여 3요소비료와 미량원소비료를 토양과 농작물의 요구에 맞게 정확히 주는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농촌경리의 화학화에서도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하였다.

농업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나라의 포전별, 필지별 토양과 농업기후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분석사업을 진행하여 농업의 기본생산수단인 토지와 농업생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상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히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농업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과학적기초를 가지게 되였으며 농업의 귀중한 기술적재부를 마련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나라의 토양과 기후조건에 맞게 농사를 과학적으로 지을데 대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 따라 우리의 농업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고 작물과 품종을 옳게 배치하는 문제로부터 과학적시비체계를 세우는 문제와 논 세벌갈이를 비롯한 토양관리체계, 산성토양과 랭습지개량, 씨붙임과 모내기적기, 논벼랭상모와 강냉이영양단지도입, 그 평당포기수 등 우리의 실정에 맞는 가장 과학적인 농법을 확고히 세우는데 이바지하였다.

농업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은 농장원들속에 들어가 자기들의 연구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농장원들에게 과학기술지식을 가르쳐주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농업과학자들이 현지에 나가 농업근로자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힘껏 도와나섬으로써 위대한 농촌테제발표 열돐이 되는 1974년에 농사를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잘 지어 례년에 드문 대풍을 이룩하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혁명적문학예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문학예술창작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방침과 함께 문학예술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지킬데 대한 방침,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에 튼튼히 서서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방침,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혁명적대작을 창작할데 대한 방침, 문학예술을 군중적지반우에서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 등을 제시하시고 몸소 그 관철에로 작가, 예술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높으신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당중앙에서는

작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종자를 바로 쥐고 《속도전》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비롯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창작의 제원칙들에 대하여 가르쳐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우리의 문학예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에 우리의 문학예술부문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작가, 예술인들은 들끓는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들에 나가 예술선전활동을 적극 벌려 근로자들을 로력적위훈에로 불러일으켰으며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지원하였습니다. 우리의 혁명적예술인들은 지난해에도 우리 나라 사회주의예술의 우월성을 온 세상에 시위하였으며 조국의 영예를 널리 떨치였습니다.》 (1975년 《신년사》, 단행본, 8페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적문예사상의 정당성과 당중앙에서 밝힌 《속도전》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은 1974년 한해동안의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의 눈부신 개화발전과 성과만 하여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혁명소설 및 시작품 창작; 우리의 소설가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소설로 옮긴 모범을 본받아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1932년》, 《혁명의 려명》과 장편소설 《력사의 새벽길》 (상), 《배움의 천리길》, 《만경대》를 창작하는 과정에 종자를 바로 쥐고 높은 《속도전》을 벌려야 우수한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는것을 생활적으로 체험하였다.

시인들과 소설가들은 이미 거둔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1974년에는 배낭을 지고 현실속에 들어가 사회주의대건설의 생동한 현실을 체험하면서 무진장한 소재로 시대의 전형들을 빛나게 창조하였다.

서사시 《불멸의 자욱》, 장편소설 《불길을 헤치고》와 중편소설들인 《빛을 따라》, 《해빛아래》 그리고 시집 《빛나는 모습들》등은 1974년에 창작발표되여 근로자들속에서 사랑을 받고있는 작품들이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4.15 문학창작단의 집체작으로 된 서사시 《불멸의 자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에 바쳐진 서사시이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력사를 깊이 연구체득함에 있어서와 주체적인 시문학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에서 명월구회의가 열린 때로부터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되여 투쟁의 길에 나서는 력사적시기를 반영하고있는 서사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직령도밑에 혁명의 봄을 안고 이 땅에 처음으로 태여난 혁명적무장대오가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력사의 첫걸음을 내디딘데 대하여 서사시적으로 노래하고있다.

장편소설 《불길을 헤치고》는 1950년 봄부터 조국해방전쟁 제3계단까지의 력사적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 미제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기 위하여 일떠선 각계각층 인민들이 전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어떻게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단련되며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성장하였는가를 보여주고있다.

중편소설 《빛을 따라》는 남북대비를 통하여 공화국북반부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보여줄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창작된 작품이다.

1949년부터 최근시기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그 제목이 말해주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눈부시게 발전하는 공화국북반부의 광명한 빛을 따라 암흑의 땅 남조선에서 들어온 한 의용군출신 과학자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있게 그리였다.

또한 중편소설 《해빛아래》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닭알과 닭고기를 많이 공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휴식도 밤잠도 잊으시고 심려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덕성과 은덕을 소설화폭에 격조높이 담고있다.

새로 창작된 소설과 시문학 작품들은 이처럼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과 이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조국해방전쟁시기 용감하게 싸운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의 영웅적투쟁 그리고 천리마시대의 장엄한 현실을 잘 반영하였다.

림업로동자들의 보람찬 로력투쟁을 형상한 중편소설 《새 산판에서》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속도전》의 불바람을 일으키며 질풍같이 내달리는 오늘의 위대한 현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시대의 선구자인 참다운 새세대들을 형상의 중심에 놓고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이해에 창작된 소설작품들중에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혁명투사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중편소설 《새임무》와 우리 시대의 새 인간들의 아름다운 풍모를 그린 중편소설 《대를 이어가는 사람들》등이 들어있다. 또한 단편소설집들인 《백일홍》, 《젊은 세대》도 내놓았다.

사상성이 높은 이러한 혁명적작품들은 온 사회를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으며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피바다》식 혁명가극창조;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가극의 무대우에 옮기기 위한 력사적위업이 1974년에도 계속 되여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각색한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무대에 올린것은 이해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이 이룩한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일뿐아니라 인류의 문화적재부를 풍만하게 한 또하나의 사변이였다.

또한 우리 인민에게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끝없는 사랑을 노래한 혁명가극 《청춘과원》과 가극 《연풍호》등이 창조공연되여 가극무대를 더 풍만하게 하였다.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당중앙이 제시한 주체적인 《속도전》의 혁명적방침따라 비약의 나래를 활짝 펴고 위대한 전성기에 들어선 우리의 혁명적가극예술의 자랑찬 면모를 보여주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의 위대성과 정당성, 그의 거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는 작품이다.

이 혁명가극은 일제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 야수적학살만행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그대로 거대한 감옥으로 되고 피바다, 불바다에 잠겼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영향하에 인민대중의 반일투쟁이 료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던 1930년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다.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당대사회의 전형적환경속에서 수난의 가시덤불길을 걸어가는 갑룡일가의 구체적이고 생동한 생활을 통하여 나라와 자기의 주권과 자주성을 빼앗긴 인민의 생활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여주며 착취받고 억압당하는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참다운 삶을 위한 길은 혁명투쟁의 길뿐이라는 사상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이 혁명가극이 달성한 가장 중요한 사상예술적성과의 하나는 인간의 풍만하고 생동하고 섬세한 생활에 대한 진실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심각한 사회정치적인 문제와 주체철학의 위대한 진리를 완벽하게 밝힘으로써 공산주의인간학의 불멸의 모범을 창조한데 있다.

작품은 이러한 철학적원칙에서 주인공 갑룡일가의 풍만한 생활을 파고들어 당대사회의 본질을 정치, 경제, 문화,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깊이있게 보여주고있으며 공산주의운동의 합법칙성을 훌륭히 반영하면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철학의 근본원리를 설득력있게 확인하고있다.

주인공 갑룡이의 성격에는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 착취받고 억압당하는 근로대중의 전형적생활감정과 자주성을 빼앗긴 인간의 전형적성격이 체현되여있다.

이 혁명가극은 갑룡일가가 겪은 비극적인 운명을 통하여 나라잃고 자주성을 빼앗긴 인민의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모질고 심각한것인가를 보여주며 인간의 정치적생명인 자주성을 무참히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의 피땀을 짜내고 마구 때리고 잔인하게 학살하는 계급적원쑤들의 승냥이본성과 착취사회의 반동적본질을 예리하게 폭로하고있다.

작품은 또한 착취사회와 계급적원쑤들을 그냥두고서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릴수 없다는 심오한 진리를 잘 보여주고있다.

혁명가극《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완고한 사람들도 일단 계급적으로 각성되여 일어선다면 크나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상을 밝혀주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이께서 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의 정당성을 소리높이 구가하고있다.

이 혁명가극은《피바다》식 가극이 개척한 인민적인 절가형식과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민족무용과 민족적정서가 차고넘치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무대미술 등 가극의 모든 형상수단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작품의 심오한 주제사상을 감동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였다.

작품이 음악형상에서 달성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진실한 생활화폭으로 심각한 사회정치적인 문제를 심오하게 해명하는 가극의 특성에 맞게 절가의 풍부한 표현력을 잘 살림으로써《피바다》식 가극음악에서 있을수 있는 류사성을 극복하고 특색있는 노래로 작품의 주제사상을 감동있게 형상한것이다.

이 가극은 주인공의 정신세계를 부각시키고 극정황을 강조해주는 방향의 기능과 역할을 잘 살림으로써 극을 줄기차게 끌고나가고있으며 작품의 주제사상을 감동깊게 부각해주고있다.

작품의 무용은 사상성이 심오하고 예술성이 매우 풍만하며 다른 가극의 무용과 뚜렷이 구별되는 독특한 색채를 띠고있다. 극정황에 맞는 필요한 장면에서 시대상과 주인공의 정신세계를 훌륭히 형상하고있을뿐아니라 자기의 독자적인 예술적가치를 가지고있는것이 특징적이다.

이 혁명가극의 무대미술은 우리 시대 인민의 감정에 맞는 민족적이며 혁명적인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무대미술로서 《피바다》식 무대미술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확증하고있다.

또한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평양청년가극단에서 창조한 혁명가극《청춘과원》은 심오한 사상적내용과 훌륭한 예술적성과로 하여 혁명가극건설에 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을 구현한 《피바다》식 가극예술의 거대한 생활력을 다시 한번 힘있게 확증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의 휘황한 빛발아래 날로 발전하고있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우리 나라 가극예술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위력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전변된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훌륭히 재현함으로써 새로운 특성을 가진 사회주의현실주제의 가극으로 되였으며 《피바다》식가극의 제반 창작원칙과 방도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고매한 덕성을 보여주는 현대적주제의 작품창작에서도 만능의 위력을 발휘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혁명가극 《청춘과원》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는 무엇보다 그것이 수도의 대과일공급기지로 전변된 오늘의 평양과수농장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을 서사시적화폭에 담아 격조높이 일반화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끝없는 흠모와 충성심을 더욱 뜨겁게 해주고있다는데 있다.

원쑤 미제와의 싸움의 나날 전선지도에서 돌아오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살매나무만이 무성한 불모의 땅 불동촌언덕에 오르시여 돌배한알 주은 탓으로 피눈물을 뿌리며 지내온 성녀의 원한에 사무친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기에 대과일생산기지를 꾸릴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신다.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승리한 래일을 내다보시며 수도의 대과일기지를 꾸리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이토록 돌배한알 그립던 이고장 인민들의 간절한 소원을 풀어주시려는 그이의 고매한 덕성과 밀접히 결합됨으로써 관중들에게 더욱 뜨겁게 안겨오게 하였다.

성녀의 형상에는 우리 인민의 성격에서 본질적속성으로 되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과 무조건성의 정신이 집중적으로 체현되여있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는 성녀의 형상을 계급투쟁속에서,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속에서 보여주고있으나 비관하거나 락망할줄 모르는 성격으로 그려냈다.

가극은 절가와 방창이 가지고있는 비상히 풍부한 표현력과 다양한 서술기능을 작품의 주제사상적특성에 맞게 능숙하게 구사함으로써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덕성과 그이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 인민의 높은 정신도덕적풍모를 유순하고 아름답고 평이한 음악적형상으로 격조높이 펼쳐보이였다.

이 가극의 극구성에서 특징적인것은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가는 주인공의 투쟁선이 작품의 기본줄거리를 타고나가면서 극발전의 중요한 단락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덕성을 밝혀주는 이야기들과 융합되여 몇개의 매듭을 이루고있는것이다.

민족악기에 양악기의 전면적배합 특히 관악기들을 요긴한 대목마다에서 효과적으로 살려쓴것은 이 가극의 음악형상창조에서 쌓은 귀중한 경험이다.

가극은 또한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에 맞게 무용을 여러 장면들에 다양하게 도입함으로써 작품의 형상성을 높이고 밝고 화려한 가극의 특질을 잘 살려주고있다.

이처럼 혁명가극《청춘과원》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가극건설의 사상을 구현한《피바다》식 가극예술의 또하나의 성과로 되며 당중앙의 현명한 지도가 가져다준 자랑스러운 열매로

된다.

1973년에 인민상계관작품인 음악무용서사시극《고난의 행군》을 창조한 수도사평부협주단창조집단은 1974년에 또다시 혁명적음악무용서사시극《두만강반에서의 한해 여름》(서장, 4장, 종장)을 창조하여 무대에 올렸다.

이 작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무산지구전투승리후 대오를 이끄시고 두만강을 건느신 1939년 5월하순부터 대부대선회작전으로 넘어가기전까지 한해 여름기간의 항일무장투쟁로정과 그 과정에 있은 력사적사실과 사건에 기초하여 창조된 혁명전통주제의 력사극이다.

혁명적음악무용서사시극 《두만강반에서의 한해 여름》은 가극혁명화에서 이룩된 위대한 성과들을 서사시극형식에 창조적으로 받아들여 노래들을 절가화하고 방창을 적극 도입하였으며 무용과 무대미술 등 모든 형상수단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비상히 높이고있는 새로운 주체무대예술로써 우리 문학예술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혁명적 대작이다.

영화예술의 급속한 발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과 현명한 령도, 당중앙의 현명한 지도와 세심한 보살핌에 의하여 1974년에 영화작품창작에서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

영화예술부문에서는《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현지에서 지도》를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보여주는 수많은 기록영화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덕성을 격조높이 구가한 예술영화《새세대를 위하여》, 《두 유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열판리공》, 《탄전의 주인들》, 《금희와 은희의 운명》등 수많은 성과작들을 내놓았다.

천연색기록영화《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현지에서 지도》는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 점령하며 가까운 몇해동안에 웅대한 10대경제건설전망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봉우리에 올라설데 대한 력사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몸소 이 장엄한 투쟁의 진두에 서시여 우리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은덕을 격동적인 화폭에 담아 노래한 영화이다.

영화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독창적인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국공업대회를 소집하시고 이 방침의 의의와 정당성, 그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전선들에 제기되는 과업과 수행방도 등을 다시금 명철하게 밝혀주시고 뒤이어 몸소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의 실현을 위한 장엄한 투쟁의 최선두에 서시여 기본건설전선을 비롯한 5개 전선의 주요건설장들과 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시고 전투원들을 고무하시며 그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뜨거운 어버이사랑을 베풀어주시는 불멸의 자욱들에 대한 감격적인 화폭들을 수록하고있다. 영화는 또한 어버이 수령님께서 베푸시는 크나큰 신임과 뜨거운 배려에 무한히 고무되여 끓어넘치는 충성의 열정을 안고《속도전》의 불바람을 일으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는 각 전선전투원들의 투쟁모습을 힘있게 보여주고있다.

그리하여 영화는 우리 인민에게 오늘의 행복과 영광을 마련하여주시였을뿐아니라 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발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가장 빠른 길을 밝혀주시고 인민들을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 전진과 비약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바치시며 낮과 밤이 따로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영화는 또한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있는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토록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의 령도따라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쳐 싸워나갈 불같은 충성의 열정으로 우리의 가슴을 꽉 채워준다.

기록영화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와 전국농업대회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을 지휘하시는 모습을 수록한 천연색기록영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촌경리부문을 현지지도》와《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진행하신 대외활동》등을 내놓음으로써 온 사회를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기록영화들가운데는《〈배움의 천리길〉을 따르는 충성의 대오》와 위대한 농촌테제 발표10돐이 되는 1974년에 이룩한 력사에 류례없는 만풍년을 펼쳐보인 천연색기록영화 《만풍년》 그리고《전체 인민이 무장한 나라》, 《백금산의 영웅들》등이 들어있다.

1974년에 세계1등급의 현대적인 대영화창작기지가 꾸려진것을 비롯한 대창작전투를 위한 토대가 사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튼튼히 마련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이 영화예술부문에서 심화됨에 따라 실로 수많은 예술영화들을 내놓을수 있었다.

예술영화《새세대를 위하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총포탄이 우박치는 적구에서 부모잃은 아이들을 데리고 어버이수령님의 품을 찾아오는 한 녀성정치공작대원의 열렬한 공산주의적인간애를 보여주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혁명하는 사람들은 혁명의 양양한 미래를 위하여,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어떤 역경속에서도 새세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훌륭히 키워야 한다는것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우리들은 명숙과 세옥이들이 받은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통하여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있는 존재도 사람이라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진리와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혁명의 후비대들을 한품에 안아 키워오시는 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과 가장 높고 깊은 혁명적의리를 가슴뜨거이 느끼게 된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내놓은 예술영화《두 유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조국을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한목숨 기꺼이 바친것은 이 나라의 아들딸로서 응당한 일이건만 그들의 유가족들을 한 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친어버이사랑과 배려를 돌려주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력사에 대한 예술적축도를 빛나게 창조하였다.

영화는 어느 한 기계공장의 부지배인으로 일하고있는 옥금이와 직장장으로 일하고있는 기숙이가 렬사증을 수여받게 되는 그 감격적인 날에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우러러 보며 그이의 한없이 넓고넓은 품속에서 끝없는 행복을 꽃피워온 나날들을 감회깊게 회상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전쟁전에만 하여도 영화의 주인공 옥금이는 어느 한 농촌마을의 순박한 가정부인이였으며 남편이 전선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친후에는 기계공장에 갓 들어간 신입로동자에 불과하였다.

영화에 나오는 같은 유가족인 기숙이는 원쑤들에 대한 증오심은 강하였지만 집단생활과 공장로동에서 이러저러한 결함을 나타내며 그때문에 자녀교양도 잘하지 못하는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어린 녀성이였다.

이러한 그들이 어떻게 되여 큰 기계

공장을 훌륭히 관리운영해나가는 부지배인으로, 직장장으로 자라나게 되였고 그의 아들딸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우리 혁명의 계승자로 믿음직하게 자라날수 있었으며 그렇듯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였는가.

영화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한평생을 오직 혁명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것을 다바치시고계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한없이 넓은 사랑의 품속에서 이룩될수 있었다는것을 그들의 성장과정에 대한 진실하고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우리의 모든 유가족들의 가슴속에 귀중히 간직되여있는 렬사증, 이것은 그들이 근심걱정없이 안착되여 살아나가도록 배려하여주시였을뿐아니라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그것을 빛내여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으며 그들을 우리 당의 핵심으로, 오직 주체형의 피만이 끓어넘치는 참다운 혁명전사들로 키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과 크나큰 신임의 증표이라는것을 감동적으로 형상한 바로 여기에 이 영화가 담고있는 주제사상의 심오성이 있다.

영화는 주인공 옥금이를 중심으로 엮허진 각이한 인물들의 극적관계,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속에 놓여있는 인간관계를 통하여 의의있고 진실한 생활세부들로 충만시킴으로써 유가족들에게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으며 그들을 주체형의 참다운 혁명전사로, 나라의 기둥으로 교양육성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훌륭한 해답을 주고있다.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에서 내놓은 천연색광폭예술영화《금희와 은희의 운명》은 자나깨나 잊을수 없는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렬한 지향과 숙망을 절절한 생활적화폭속에 담은 영화이다. 작품은 그가 제시한 주제사상의 심오성과 높은 예술성으로 하여 이해 우리의 주체적영화예술의 화원을 더욱 풍만하게 한 또 하나의 성과작이다.

영화에는 한날한시 한 어머니의 품에서 태여난 쌍둥이형제인 금희와 은희, 남북으로 갈라진 그들의 판이한 운명이 그려지고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한 어머니의 피줄을 타고 태여난 그들 형제는 그렇게도 서로 다른 운명의 길을 걷게되며 20여년이 지나도록 서로 생사의 안부는 커녕 자기들에게 그런 형제가 있는가 하는것조차 모르고 지나지 않으면 안되는가?

그것은 미제침략자들때문이다. 철천지 원쑤 미제가 남반부를 강점하고 이 땅을 민족분렬의 검은 장막으로 갈라놓고있기때문이다.

영화가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는 우리 인민에게 강요되고있는 이 뼈아픈 민족분렬의 비극을 심각하게 파헤쳐보이면서 그것이 무엇때문인가를 까밝히고 조국통일은 한순간도 지체할수 없는 전민족의 가장 절박한 최대의 과업이라는것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전개해 보여주고있다는데 있다.

영화는 이러한 심오한 주제사상을 해명하기 위하여 인물관계를 처음부터 심각한 극적정황속에 놓고있으며 주인공들의 운명을 예리한 극적인 대조속에서 발전시키고있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를 다양한 생활적계기들에서 주인공들의 극적인 심리적체험과정으로 그림으로써 그것은 풍부한 생활로 진실하게 안겨오는것이다. 이점에 이 영화가 달성한 커다란 예술적성과가 있다.

예술영화《열관리공》은 부재공장의 열관리공으로 갓 배치되여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제대군인 창범의 로동생활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온 사회를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며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현실적문제들을 폭넓고 깊이있게 밝혀주면서 작품의 종자를 활짝 꽃피워나가고있다.

영화는《속도전》의 불바람을 일으키며 질풍같이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는 기본건설전선의 요구에 맞게 부재생산을 부쩍 늘일데 대한 새로운 전투적과업을 수행하는데 더 많이 요구되는 증기를 생산하기 위한 보이라의 능력을 높이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들을 줄거리로 하고있다.

2．8예술영화촬영소에서 새로 만든 광폭예술영화《탄전의 주인들》의 사상예술적가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3대기술혁명과업의 력사적 위업을 전면에 취급하고 그 수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철저히 당정책적선에서 깊이있게 해명하여줌으로써 영화의 내용이 바로 우리 당이 요구하는 하나의 생동한 기술혁명의 본보기로 되게 하였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 제5차대회이후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는 지난시기에 이룩된 기술혁명의 성과들에 기초하여 생산공정의 종합적기계화와 반자동화, 자동화를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우리 나라 기술혁명이 보다 새로운 단계, 자동화시대에 확고히 들어서게하였다.

영화는 기사장인 학진이의 형상을 통하여 사회주의공업화가 이룩된 이후시기 우리 나라에 펼쳐진 기술혁명의 이러한 시대적면모와 본질적특징들을 우리 당이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탄광에서의 유압식종합기계동발도입이라는 구체적인 정황을 통하여 일반화하였다.

영화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배려에 의하여 세상에 부러울것 없는 지상락원으로 전변된 오늘의 탄광현실을 진실하게 깊이 파고듦으로써 영화의 예술적품위를 높였다.

영화는 오늘의 탄부들의 행복한 생활을 다양한 각도에서 풍부하게 그려주면서 우리 당이 요구하는 기술혁명의 본보기를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여줌으로써 3대기술혁명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에게 훌륭한 교재로 되고있다.

1974년에 제작된 예술영화들가운데는 우리 로동계급의 전형적형상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보여준 예술영화들과 함께《농산기수》,《바다먼 산촌에서》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높이 받들고 전례없는 대풍을 마련하기 위해 떨쳐나선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린 예술영화들도 적지않게 들어있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내놓은 예술영화《농산기수》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속도전》의 세찬 불바람을 일으키며 웅대한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을 형상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영화의 하나이다.

영화는 농업을 완전히 공업화, 현대화하는 시대에 들어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현실을 전형적환경으로 하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한 농산기수의 생동하고 진실한 형상을 빛나게 창조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과학농법대로 농사를 지어야만 년년 만풍년을 이룩할수 있다는 심오한 사상을 밝히고있으며 우리 당의 주체농법의 거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예술영화《농산기수》가 달성한 가장 중요한 사상예술적성과는 우리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할 주체형의 참된 혁명전사의 전형을 훌륭히 창조한데 있다.

영화의 주인공 창길이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청년인테리의 전형적성격을 체현한 인간이다.

협동농장의 농산기수이며 작업반 기술원인 창길이는 나이도 어리고 농사경험도 적지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드놓지 않는 확고한 신념과 신조로 삼고 어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인물로 훌륭히 형상되였다.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주인공 창길이의 숭고한 정신세계는 경험주의, 보수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과 날카로운 투쟁을 벌리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이 영화에 반영된 창길, 준섭, 창덕, 달호 등 각이한 인물들은 모두다 자기의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풍부하고 진실한 생활화폭속에서 감명깊게 형상됨으로써 사람들의 커다란 감명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새로 만들어 내놓은 예술영화《바다 먼 산촌에서》는 현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일군들이 어떤 립장과 관점에 서야 하는가를 생동한 예술적형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영화에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옹호하며 중도에서 그만두는 일이 없이 그것을 끝까지 관철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사상에서 작품의 기본사상적해올 찾고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우리 시대의 새 인간, 새세대의 전형으로 되는 주인공의 진실한 형상을 통하여 작품의 종자를 훌륭히 꽃피웠다.

영화에는 천구름도 쉬여넘는다는 바다 먼 산촌에 물고기떼 욱실거리게 함으로써 강이 있고 호수가 있고 물이 있는 우리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양어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려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영예롭게 관철하는 산간벽촌사람들의 보람찬 투쟁과 생활이 선명한 화폭으로 묘사되고 있다.

작품의 중심에는 7년전에 도에 소환되여간 아버지를 따라 마을에서 떠났다가 협동농장 기술원이 되여 돌아온 나어린 처녀 영희가 그려지고있다.

그의 성격에서 기본으로 되고있는것은 수령님의 교시에 대한 무조건성의 정신이다.

비록 나이는 어리고 사업경험이 적지만 수령님의 교시를 자로 삼아 모든것을 재여보며 그와 조금이라도 어긋나는것이 있으면 타협하지 않고 투쟁하여 기어이 끝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고야 만다.

영화는 영희의 성격을 깊이있게 밝혀낼수 있는 타당성있는 사건계기들과 진실한 세부들을 집중시켜 영화의 주제사상을 뚜렷이 해명하고있다.

우리의 영화계에서는 또한 예술영화《정다운 거리에서》, 《잔치날》(도시편)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현실문제들을 재빨리 반영한 우수한 교양자료영화들을 창작함으로써 우리의 영화예술은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서, 대중교양의 힘있는 수단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비상히 높였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만든 천연색예술영화《잔치날》(도시편)은 낡은 생활습성을 버리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해나가는 과정을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예술영화《소낙비편》은 형식주의적이며 사무실적인 사업작풍을 버리고 모든 일군들이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실정을 깊이 료해하고 그에 맞게 일을 패기있게 전투적으로 벌려나갈것을 강조하고있다.

예술영화《어느 한 공장에서》와 《시제품사건》들에서는 우리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요령주의, 형식주의, 기관본위주의 등 낡은 사상을 반대하고 혁명의 주인된 립장에서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해나가야 한다는것을 기본주제사상으로 하고있다.

예술영화《풍년바람》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례년에 없는 대풍을 이룩한 사회주의농촌에서 곡식을 제때에 거두어들이고 탈곡하며 알뜰하게 보관관리하여 한알의 낟알도 허실하지 않도록 농업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 좋은 영화이다.

영화는 농사에서 마지막결속을 잘 지을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사상의 정당성을 어느 한 협동농장의 5작업반장과 6작업반장의 대조되는 현상을 통하여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이 커다란 자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살림살이를 더 알뜰하고 깐지게 하도록 고무하여준다.

또한 우리 영화계에서는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더욱 높일데 대한 문제를 주제로 하고있는 예술영화《도루메기소동》도 내놓았다.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에서는 혁명의 후대들인 우리의 청소년학생들을 지덕체를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공산주의건설자로 키우는데 이바지할 여러가지 새로운 아동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내놓았다.

지형영화제작단에서 만든 지형영화《알락병아리》는 인민학교 1, 2학년 학생들과 유치원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로서 어린이들의 자립성을 키워줄 목적으로 내놓은 영화이다.

영화는 무슨 일이나 남에게 의탁하지 않고 제 스스로 할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는것을 알락병아리의 뉘우침을 통하여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인형영화제작단에서는 인민학교 어린학생들을 위하여 인형영화《다시 쓴 작문》을 만들었다.

영화는 학교에서 작문을 잘 썼다고 칭찬받은 영남이가 어떻게 되여 소년신문사에 보내기로 했던 자기의 작문을 다시 쓰지 않으면 안되였는가 하는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는 사건들과 세부묘사들로 생동하게 전달하고있다.

지형영화《귀가 큰 토끼》는 무슨 일을 하든지 도중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버릇을 키우는것이 어린이교양에서 중요하다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이것을 주제로 하고있다.

우리 나라 영화계에서는 이러한 예술영화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농업부문에서 제기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이바지할 많은 과학영화들도 만들어 내놓았다.

그 가운데는《습지대개량》, 《벼모기르기》등이 들어있다. 또한《키낮은 강냉이》, 《고구마농사》, 《모내는 기계》, 《농촌지대에서 오리기르기》, 《사과꽃가루 묻히기》, 《농경지보호》등도 들어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국공업대회에서 하신 교시관철에 도움을 주게 될 과학영화들도 많이 만들어내였다.

그중에는《공작기계관리》, 《자재관리》, 《수송용기》, 《젓갈품》등이 들어있다.

또한 과학영화《산업텔레비죤》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산업텔레비죤을 도입하면 원격조종도 하고 생산지휘체계도 잘 세울수 있고 고열, 유해 로동을 무해로동으로 전환시키며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과학기술적으로 깊이 납득시키면서 천리마강선제강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산업텔레비죤을 도입한 산경험들을 일반화하고있다.

과학교육영화촬영소에서는 《버섯공장》, 《소석회와 땅》, 《농장에서의 창고관리》, 《파일즙과 파일물》, 《전해질》(1, 2편)을 비롯한 수많은 과학영화들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다.

이 영화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웅대한 6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기술실무적문제들을 교육학적원리에 맞게 풍부한 자료들과 실천적문제들을 잘 결합시켜 보여줌으로써 누구나 다 알수 있고 쉽게 배우고 널리 도입하고 보급일반화할수 있게 만들었다.

음악, 무용, 교예 및 미술작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이 인민의 심장을 울리며 인민에게서 사랑을 받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적내용과 슬기롭고 다양한 민족적형식이 옳게 결합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130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1974년에 음악, 무용, 교예 및 미술작품 창작부문에서는 사회주의적내용과 민족적형식이 옳게 결합된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예술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여 내놓았다.

창작된 모든 작품들이 철저히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되였고 바로 그것으로 하여 우리 문학예술이 대를 이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새로운 영웅적위훈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게 되였다.

가요 《수령님 한분만을 모시렵니다》, 《조선은 하나다》, 무용《강선의 노을》, 《비단짜는 처녀》, 《새봄》을 비롯하여 만수대예술단에서 창작형상한 노래, 무용소품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아오신 이해의 만풍년을 노래하는 병사의 절절한 심정을 그린 서정가요《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그리고 《사회주의대건설 총동원 앞으로》를 비롯한 5개 전선에 관한 노래들과 당정책가요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한 총돌격전에 나선 우리 근로자들을 무한히 고무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우리 인민의 수천년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긍지와 영예, 행복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우리의 시인들과 작곡가들은 이해에 김책제철소 확장공사를 비롯한 대기념비적인 기본건설전투에 참가하여 현실체험을 쌓은데 기초하여 창작전투를 벌린 결과 사회주의대건설투쟁을 반영한 260여편의 우수한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그중에는《사회주의대건설 총동원앞으로》, 《혁명은 부른다, 북소리 울려라》, 《혁명의 새세대》, 《용해공의 마음》, 《강철전선 앞으로》, 《10대고지의 노래》등 수많은 작품들이 들어있다.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하신 수령님의 강령적교시에 무한히 감동된 작곡가들은 종자를 바로잡고 작품에 대한 파악이 생긴 다음 무조건《속도전》을 벌릴데 대한 당중앙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대건설 총동원앞으로》, 《세상에 이런 나라 더는 없어라》, 《달리자 〈속도전〉 앞으로》를 비롯한 300여편의 가요를 창작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의 작곡가들은 《수령님께 언제나 기쁨을 드리리》를 비롯하여 당정책을 풀이한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면서도 통속적인 노래들도 창작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사회주의민족교예방침을 높이 받들고 평양교예단에서는 1974년에 체력교예, 막간극, 요술, 동물교예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 인민들의 생활감정에 맞는 새로운 교예작품들을 많이 창작해내였다.

그중에는《말우에서 손재주》, 《기중기조립공조형》, 《공중2인조형》등이 들어있다.

《기중기조립공조형》은 당중앙이 제시한《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을 받들고 사회주의대건설에 나선 건설자들의 슬기롭고 용감한 모습을 형상한 교예작품의 하나로서 독특한 형상적기교를 보여주었다.

기중기운전공과 신호수처녀들의 현실생활을 반영한 다양한 조형률동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작품은 매개 세부에 이르기까지 높은 예술성을 보장하고있으며 특히 2중중심을 비롯한 높은 교예기교를 원만히 해결하면서도 생활을 잘 반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일당백의 전사들로 자라난 해병들의 락천적인 모습을 형상한 조형《유쾌한 해병》도 잘된 작품의 하나이다.

이 조형은 전투정치훈련도 잘하지만 휴식의 한때도 본때있게 즐기는 우리 인민군 해병들의 생활을 잘 형상하였다.

이밖에도 두명의 남성배우가 공중에서 머리도립으로 회전하는 《공중2인조형》이라던가 하나의 큰 원속에서 다양한 률동적인 기교를 훌륭히 수행하는《회전원조형》등도 사상예술성이 높은것으로서 근로자들을 체육문화적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말타는 재주도 훨씬 발전하였다.

천리마로 내달리는 시대정신을 충분히 반영한《말우에서 손재주》는 달리는 말우에서 다양한 손재주, 중심재주들을 능란하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황홀한 감정에 깊숙이 끌려들어가게 한다.

막간극도 높은 사상성과 강한 풍자성으로 하여 사람들의 커다란 공감을 자아내고있다.

부드럽고도 우아하고 통속적인것으로 급속히 발전한 반주음악은 교예작품의 예술적형상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다.

평양교예단에서 창작한 교예작품들중에는《로케트조형》, 《바다의 용사》와 같이 높은 조형미와 건전한 사상예술성으로 높이 평가된 작품들과 함께《바줄타기》, 《말타기》를 비롯하여 재치있는 기교를 보여주는 교예작품들 그리고 요술《사과풍년》 등도 들어있다.

이처럼 날로 발전하고있는 교예작품들은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육체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미술작품창작부문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전시된 수많은 기념비적미술작품들과 함께 특히 이 기념관의 대전해방전투모습을 보여주는 대원형전경화를 인민상계관작품으로 창작해낸것이며 혁명가극의 무대미술창작에서 큰 성과를 이룩한것이다.

혁명가극《한 자위단원의 운명》과 《청춘과원》의 무대미술에서 실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무대미술에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작품의 주제사상적요구와 주인공의 운명발전에 따라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무대미술로서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것이다.

이 가극에서 사태골장면, 반변후의 총격전장면 등이 움직이는 무대미술로서의 새로운 성과를 이룩한 장면들이다.

이 가극의 무대미술형상에서 거둔 다른 하나의 성과는 무대미술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관계를 심오히 밝히고 있는것이다.

공예부문에서는 수예 《백두산》을 비롯하여 도자기공예《농촌풍경장식꽃병》, 라전옻칠공예 《만풍년무늬필함》등 여러 종류의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 160여점을 창작하였다.

이밖에도 미술가들은 조선화, 출판화, 무대미술을 비롯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인 미술작품들을 창작

보급함으로써 온 사회를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며 근로자들을 사상, 기술, 문화 혁명 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문학예술의 대중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문예활동에서 전문일군본위로 나가려는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하며 창작사업에서 신비주의를 마스고 문학예술을 군중적으로 널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62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문학예술의 대중화방침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군인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은 창작과 사회주의건설투쟁을 결합하여 진행하면서 사회정치적문제성이 뚜렷하고 예술적품위가 높은 작품들을 많이 내놓고있다.

1974년에 창작발표된 신인작품들과 신인단편소설집《자애로운 품속에서》, 신인문학작품집 《후계자들》을 비롯한 일련의 작품집들에 들어있는 작품들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당중앙의 지도밑에 작가동맹 신인지도부는 신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으로 교양하며 문학창작기초리론과 창작지도를 주기 위한 전국적인 강습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동맹 각 도지부들을 통한 도별, 지구별 창작지도강습도 정상적으로 벌리였다.

신인지도부에서는 천리마강선제강소에 내려가 문학소조활동을 정상화하며 문학소조가 사회주의대건설에 적극적으로 복무하는 산조직으로 되도록 집중적인 지도사업을 벌려 이 단위를 전국문학소조들의 본보기단위로 꾸렸다.

이를 일반화하는 사업이 널리 벌어지는 가운데 많은 신인들이 자라났으며 그들은 들끓는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한 전투적이고 선동적인 작품들을 창작하여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이와 함께 신인문학예술작품모집사업을 이해에도 높은 수준에서 조직하여 이를 계기로 신인들의 창작기량을 한계단 높이였으며 새로운 문학신인들을 수많이 찾아내였다.

조선영화문학창작사에서 조직한 신인영화문학작품현상모집에는 700여편의 영화문학작품들이 들어왔는데 그중 《우리 공장 도서주임》, 《잣나무뿌리 내릴 때》를 비롯한 우수한 영화문학작품들이 나왔으며 로농적위대창건 열다섯돐을 맞으면서 조직한 전국신인문학 및 음악작품현상모집에서도 시 《조선의 새봄을 가꾸시였네》, 단편소설 《유효사거리》, 영화문학작품 《오누이》, 가요《일당백 로농적위대행진곡》을 비롯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

이러한 문학예술작품현상모집결과는 우리의 문학신인들이 약동하는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들에서 전투적으로 일하며 창작하여 자기의 정치실무적자질과 기량을 꾸준히 높이고있다는것을 잘 보여주었다.

이렇게 현실속에서 살며 혁명적으로 단련된 수많은 신인들에 의하여 우리의 혁명적인 문학예술인대렬은 당의 유일사상이 꽉 들어찬 전투적인 대오로 끊임없이 보충되고있다.

문학예술부문에서 일어난 이 모든 빛나는 성과들은 전적으로 문학예술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문학예술의 전투적사명과 혁명적임무를 명철하게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중앙이 우리 문학예술의 기능을 비할바 없이 높여준 결과이다.

그러기에 세상사람들이 우리의 예술을《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사상에 의해서만 창조될수 있는 위대하고 빛나는 열매》라고 말한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불러일으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혁명적예술인들은 지난해에도 우리 나라 사회주의예술의 우월성을 온 세상에 시위하였으며 조국의 영예를 널리 떨치였습니다.》(1975년《신년사》, 단행본, 8페지)

우리의 혁명적예술인들은 주체예술을 안고 1974년에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을 방문하여 세상사람들의 끝없는 기쁨과 감격, 열광적인 환호속에 공연을 하였다.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은 알제리, 벌가리아, 로므니아, 알바니아를 방문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와 음악무용종합공연을 진행하였다.

평양예술단은 싱가포르에서 대절찬속에 음악무용종합공연과 여러종목의 교예공연을 진행하였으며 이딸리아에서 진행된 《우니따》축전에 참가하였다.

제18차국제영화축전에서 세계영화계를 뒤흔들어놓고 특별상과 특별메달을 받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는 일본, 스웨리예, 핀란드, 상강(홍콩)과 싱가포르 등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서 상영되여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평양교예단은 애급과 수리아, 이라크 등 수많은 나라들을 방문공연하였으며 까를로뷔 바리에서 진행된 제10차국제요술축전에 참가한 우리의 혁명적예술인들은 종합특등을 하여 주체조선의 영예를 더욱 빛내였다.

참으로 우리의 혁명적예술인들은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정치사상성에 있어서나 예술성에 있어서 대기념비적 공연》을 진행하여 《혁명적문학예술발전의 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해불》, 《세계를 대표하는 최상급의 예술》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 수많은 반향들가운데서 일부만을 내용별로 아래에 묶어준다.

《사회주의나라 조선의 주체예술은 현시대와 미래의 세계를 대표하는 최상급의 예술》

—주체예술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반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과 현명한 령도,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찬란히 꽃피고있는 우리 나라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이며 사회주의사실주의적인《세계최고봉의 주체예술》은 1974년에도 《혁명의 향기, 투쟁의 향기》를 뿌리며 세계인민들속에서 크나큰 감동을

1. 《전세계 공산주의자들과 혁명투사들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인류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것이다》

《조선인민이 수령님을 우러러부르는 노래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우리들도 그이를 제3세계의 탁월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마음뜨겁게 부르는 노래이다.》(알제리 음악가 쉐라드

브라힘)

《내가 특별한 감동을 받은 노래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였다. 반세기동안 조선인민을 승리에로 이끄시며 현대조선의 새 력사를 창조하신 인민의 태양 김일성동지에 대한 이 송가를 나도 마음속으로 따라불렀다. 그이께서는 인류에 대한 헌신성과 독창적인 업적으로 하여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높은 존경을 받고계신다.

오늘의 훌륭한 조선예술에 대하여 말할 때 존경하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이의 고상한 애국주의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로므니아 부꾸레슈띠의 한 병원의 부교수)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들으니 힘이 용솟음치는듯 하며 미래를 앞당기며 내달리고싶은 충동을 어쩔수 없다.

정말 그이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의 충성의 마음을 잘 담은 고전적인 노래이다.》 (알제리 오랑종합대학 총장 박사 하싼 라즈데그)

《나는 만수대예술단이 싱가포르를 방문하였을 때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배웠다. 그날은 나의 평생소원이 풀린 날이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처럼 위대한 송가를 나는 알지 못한다. 이 노래는 인류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혁명의 송가이며 인류가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에 대한 충성의 노래이다.

나와 나의 가족들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삶을 빛내일것이다. 전세계인민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앞으로 나아갈것이다.》 (싱가포르의 음악가 황은환)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니 세계혁명의 탁월한 수령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다시금 돌이켜보게 된다.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은 이 세상에 공인된것이다. 이딸리아공산주의자들도 그이를 가장 존경하고 흠모하고있다. 그것은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수령이시기때문이다.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세계의 모든 공산주의자들에게 혁명의 씨앗을 심어주어 그들이 혁명의 봉화를 높이 들고 새 사회 건설에 떨쳐나서게 하는 돌격나팔소리이다.

이 송가를 부르며 당신들이 뿌려놓은 혁명의 씨앗은 반드시 불원간에 이딸리아에서 보람찬 열매를 맺을것이다.》 (이딸리아공산당 브레쉬아시위원회 위원이며 《진리》신문주필 그러노호라 셀레)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만사람에게 무적의 힘과 용기와 혁명의 새로운 신심을 안겨주는 불멸의 노래이다.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이딸리아의 오랜 투사들, 온 세계의 오랜 빨찌산대원들을 새로운 결전장에로 부르는 진격의 나팔소리이다. 이 노래를 부르며 세계 빨찌산대오는 대결전장에로 나갈것이다.

전세계 공산주의자들과 혁명투사들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인류의 미래를 앞당겨나갈것이며 이 영생불멸의 송가와 더불어 인류력사는 새 년륜을 새기며 힘차게 전진할것이다.》 (이딸리아의 오랜 혁명투사이며 공산당원인 모라베라 셀러)

2.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은 새로운 혁명적문학예술발전의 앞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홰불》

《나는 조선예술인들의 공연을 통하여 김일성주석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더 깊이 알게 되였다. 당신들의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정치군사가이실뿐아니라 위대한 예술가이시다.》 (프랑스의 한 사회활동가)

《나는 혁명가극〈꽃파는 처녀〉를 통해서도 존경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정치가이실뿐아니라 대작가이며 비범한 예술가이심을 잘 알게 되였다.》 (벌가리아과학원 경제학교수 스쁘만 쥐에브)

《김일성주석님은 정치의 천재이시며 경제의 천재이시며 군사의 천재이시며 또한 가장 위대한 예술의 천재이시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주체사상으로 앞길을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현명하게 이끄시기에 조선의 예술은 영원히 혁명적예술의 등대로 높이 솟아 빛날것이다.》 (싱가포르 국가기관의 한 일군)

《가장 세련된 투사이시며 다방면적인 천재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조선인민에게 안겨주신 위대한 주체예술의 선물은 곧 우리 국제로동계급에게 안겨주신 선물이기도 하다.》 (알제리의 강철로동자 패자리)

《나는 조선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혁명의 성지 만경대에 가서 위대하신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력사에 대한 좋은 감명을 안고온 사람이다.

오늘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보면서 이 위대한 예술도 만경대로부터 시작된 조선의 혁명력사에 그 기원을 두고있다는것을 깊이 인식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한 만수대예술단만이 이런 대가극을 창조해낼수 있고 그이의 주체사상을 높이 받들고 나아가는 조선예술인들만이 이처럼 훌륭한 공연을 할수 있다. 조선의 사회주의대화원에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서계시기에 혁명의 붉은 꽃은 영원히 피여있을것이다.》 (벌가리아 와씰까 니끼포로바할머니)

《세상에 태여나 36년만에 이런 예술을 처음 본다.

내가 우선 놀란것은 첫째로 참다운 인간예술의 발견이였으며 둘째로 뛰여난 예술집단이 20세기에 탄생하였다는 사실이며 셋째로 예술과 그 창조집단에 대한 탁월한 령도이다.

조선예술을 통해서도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창조성을 온몸으로 깊이 느꼈다.》 (알제리 신문기자 메레오딘 모하메드)

《가장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오늘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예술을 창조할수 있도록 예술인들을 이끌어주시였기때문에 조선예술이 이처럼 꽃펴날수 있었다.

우리는 김일성주석님의 로작들을 연구하는 과정에 이러한 진리를 신념으로 체득하였는데 주체사상의 열매는 바야흐로 온 세계에 주렁질것이다.》 (수리아 의사 가르시아 에가르도)

《당신들의 공연을 보고 김일성주석님의 령도가 얼마나 현명한가 하는것을 잘 알았다. 조선예술발전은 전적으로 주석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 이룩된것이다.》 (싱가포르 은행총책임자 란선현)

《오늘 조선의 모든 기적적인 성과는 두말할것도 없이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오늘 우리의 제3세계가 강대하고 확신성있게 나갈수 있는것도 그이의 덕분이다.

김일성주석님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은 모든 면에서 현시대를 대표하는 찬란한 무대로 되고있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예술도, 교육도 모두 조선의 무대우에서 전형으로 창조되고있기때문에 세계는 조선을 향하여 따라배우는것이다.》 (알제리 오랑종합대학 총서기)

《사람들은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은 새로운 혁명적문학예술발전의 앞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홰불이며 그이의 크나큰 품은 예술인들에게 끝없는 행복과 영예를 안겨주는 사랑의 요람이라고 긍지높이 말하고있다.》 (쿠웨이트신문《알 카바스》의 글)

《조선에서는 모든것이 주체적이고

독창적이다. 이것은 위대한 주체철학가이신 김일성동지의 덕분이다.» (로므니아농업대학의 한 교수)

«희랍의 신화작가들이나 중세기의 환상문학작가들이 조선예술과 같이 참답고 아름다우며 황홀한 예술을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것은 물론 오늘 지구우의 다른 어느곳에서도 이런 예술에 대해 꿈에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해빛받는 비옥한 땅우에 꽃이 만발하듯 주체의 해발을 받아안은 사회주의조선에서 인민의 예술이 찬란히 꽃핀다는것은 력사발전의 필연적결과이다.

력사밖에서, 지도사상을 초월하여 예술은 개화발전할수 없는것이다.» (알제리의 오랑극장 희극작가 제나르부알렘)

«조선예술은 과장없이 최고봉에 오른 완전무결한 예술이라고 말할수 있다. 오늘밤 무대에 오른 작품은 모두가 하나와 같이 대결작들이였다. 이런 보석과 같은 예술이 창조되기까지에는 많은 시련과 노력이 있었을것이다. 이것은 조선로동당의 문예정책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실증해주고있다.» (로므니아 민족보위부의 한 일군)

3. 《조선예술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충실한 가장 혁명적이며 우아한 예술》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서정적가극의 대기념비적작품»;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그 내용과 형식에서 예술적으로나 미학적으로 완성된 대작이다.

만수대예술단은 자기의 높은 예술적기교로써 압박과 부정의가 존재하는 착취사회의 현실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가극은 인민이 자기 힘에 대하여 자각하고 착취와 부정의를 반대하여 일어나는것은 불가피하며 자기 힘과 의지를 믿는 인민은 승리한다는것을 높은 예술적형상으로 보여주었다.» (알제리의 아랍어신문《알 샤아브》)

«〈피바다〉식 혁명가극은 내용에서 혁명적이며 사회주의적인 가극이며 형식에서 인민성, 민족적특성, 통속성, 현대성을 가장 훌륭히 구현한 가극이며 그 어떠한 주제도 다 해결할수 있는 새형의 가극예술이다.

실로 새형의 혁명가극 〈피바다〉식 가극예술의 탄생, 이것은 예술발전에서 전례없는 대사변이다.» (쿠웨이트신문《알 카바스》)

«〈꽃파는 처녀〉는 수백년의 가극력사를 방향전환시킨 가장 독창적인 창조물이다.

가극의 사상이나 주인공의 생활이 다른 나라 가극과는 달리 진실하고 혁명적이고 고상하다.

〈꽃파는 처녀〉는 수백년을 구라파중심으로 굳어졌던 가극관념을 깨뜨린 주체가극의 전투적선언이다. 이것은 가극만이 아니라 모든 환상, 신비했던 기존관념을 모두 재검토하고 낡은것은 대담하게 내버려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주었다.» (희랍경제학자 두 까끼스 바씰리쓰)

«가극의 노래는 매우 높은 수준에서 형상되였다. 이 가극에는 수십곡의 명곡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한 민족이 수세기를 두고 창작해내도 해낼수 없는 그처럼 훌륭한 음악이며 예술적재부이다.» (알제리 대학교원인 알라매디)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가 안겨주는 그 위대하고 비상한 충격은 우리들, 전세계 인민들로 하여금 혁명의 홰불을 높이 추켜들게 하며 그들의 심장을 영원히 불타게 한다. 이 혁명가극이 안겨주는 불씨는 인민들의 심장을 불타게 하며 나아가서 전세계를 혁명의 불길로 휩싸이게 할것이다.» (알제리민족극장 배우 베란누레딘)

«조선의 혁명가극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생활의 교과서, 혁명투쟁의 무기로 되고있다.», «절가에 기초한 방창은 조선의 주체적가극예술이 낳은 새로운 형상수단이다.», «조선의 혁명가극들은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인 인간의 자주성과 존엄, 인간의 위대한 창조력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인간송가로 되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인간학의 원리를 예술적으로 힘있게 구현하고있다.» (쿠웨이트신문《알 카바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서정적가극의 대기념비적작품이다.

노래와 음악은 사람들을 매혹시키며 무대는 하나의 대화폭을 펼쳐보인다. 특히 음악은 잊을수 없는 인상을 남겨놓는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예술적측면에서 성과작일뿐아니라 착취와 부정을 반대하는 근로대중의 투쟁결의와 혁명에로 나아가려는 그들의 정치적각성을 높여주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작품이다.» (알제리신문《엘 무쟈히드》)

«가극형식으로서의 방창의 발견과 완성은 위대한 창조였으며 가극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은 공적의 하나로 되고있다. 무용과 무대장치도 독창적이였다. 흐름식으로 넘어가는 무대는 심각한 극적내용을 띠면서도 아름다웠고 색채의 조화는 비상한것이였다.» (벌가리아 음악대학 교수이며 작곡가이며 피아노연주가인 꼰쓰딴찐 스딴꼬비츠)

«조선예술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틀어잡는다.

천키로, 만키로 아니 대양건너 대륙을 지나 그 어디에 있는 사람들도 끌어오며 그들을 놓아주지 않는다.

그 신비한 힘은 조선예술이 우리의 가장 고귀한 생활에 있고 또 있어야할 진리를 담고있으며 그것을 가장 뜻깊고 감명깊게 그려내는 형상력을 가지고있는데 있다는것을 오늘 다시금 깨달았다.» (알제리라지오및텔레비존방송국 기자 베르실 이루그)

«나는 ３０년간 무대미술분야에 종사하면서 이처럼 훌륭한 가극무대는 처음 본다. 무대미술구상의 독창성과 비상한 재능으로 그것을 실현한 솜씨는 놀라울뿐이다. 특히 꽃분이의 꿈장면은 조선예술가들이 가극무대에 그려놓은 대화폭이였다. 나는 원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지만 조선예술인들을 선생으로 모시고 1학년생으로서 열심히 배우겠다.» (벌가리아 가극무대미술가 또레브)

«세인을 경탄시키는 조선의 가극예술, 세계가극사발전의 새 페지를 열어놓은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탄생, 이것은 진정 조선로동당의 주체적문예정책의 위대한 승리이며 그의 찬란한 결실이다.» (쿠웨이트신문《알 카바스》)

«〈피바다〉는 기념비적인 영화», «〈꽃파는 처녀〉와 같이 훌륭한 영화는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지 않을수 없다»; «혁명에 대한 주제가 명백하므로 우리는 영화를 보고 감격하게 된다.

이 영화를 두번째로 보았다. 처음 보았을 때 느끼지 못하였던것을 새로이 느끼게 되였다. 한마디의 말, 노래의 한구절한구절에 담겨져있는 무게가 우리의 가슴을 친다.

영화를 한번 더 보고싶다. 정말 〈피바다〉는 기념비적인 영화이다.» (일본 마에바시시의 한 로동자)

«주체사상을 높이 받들고 조선인민이 건설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오늘 세계 인민들로부터 〈사회주의모범의 나라〉, 〈교육의 나라〉, 〈예술의 나라〉로 불리우고있다. 공화국을 방문한 모든 일본사람들은 례외없이 그

발전모습에 경탄을 금치못하고있다.

조선영화를 보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조선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될것인바 그것은 일본사회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큰 힘으로 될것이다.》 (일본의 《조선영화를 보는회》가 발행한 잡지 《피바다》의 글)

《영화 〈꽃파는 처녀〉는 확실히 대걸작이다. 이 영화는 사상적내용에서나 사건처리, 정황조건, 색조와 감정조직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와 음악에 이르기까지 흠잡을데 없이 완전무결한 영화이다.》 (싱가포르방송)

《〈꽃파는 처녀〉를 보고 억눌려사는 사람들일수록 동정심과 선량한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고있다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자신은 비록 가난하여도 주위사람들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해준다는것은 참으로 훌륭한것이다.

또 아무리 가난하여도 거지노릇은 하지 않으려는 꽃분이의 강의한 마음에 감동되였다.》 (일본 이세사끼의 한 학생)

《영화 〈꽃파는 처녀〉는 사상적내용이 깊고 예술적품위가 높은 건전한 영화이다.》 (싱가포르신문 《광명일보》)

《이 영화는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공명을 불러일으킨다.

그리하여 관중들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걷잡지 못한다.

핀란드와 스웨리예에서도 관중들은 〈꽃파는 처녀〉에 열렬한 찬사를 보냈는바 이것은 〈꽃파는 처녀〉와 같이 훌륭한 영화는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지 않을수 없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싱가포르신문 《민보》)

《〈꽃파는 처녀〉는 인류예술발전에서 〈공산당선언〉과 같은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대명작이라는것만은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다.》 (벌가리아 한 대학 부교수)

만수대예술단의 공연은 정치사상성에 있어서나 예술성에 있어서 대기념비적공연

《만수대예술단의 특징은 높은 정치성과 문화성, 조직성과 근면성 그리고 천재적재능과 규률이라고 나는 판단하였다.》 (로므니아 건재공업부의 한 책임일군)

《무용 〈조국의 진달래〉와 〈눈이 내린다〉 그리고 혁명가극 〈피바다〉중에서 나오는 노래는 최고의 예술이다.실로 조선예술은 힘과 신심을 안겨주는 숭고한 내용, 표현의 섬세성과 우아함으로 하여 영원한 잠에 잠긴 스핑크스도 능히 울리고 웃길수 있을것이다.》 (알제리의 사무원 딸라이 아브달라흐)

《특히 놀라운것은 음악과 무용의 고도로 세련된 조화이다.

열사람이면 열사람이 한결같은 표정으로, 한사람같은 동작으로 하나의 명백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안쌈블은 신의 조화에 비교해서 말해도 부족하다.》 (알제리 오랑극장 희극배우 부르제 다아이싸)

《사람들의 일생에서 보기드문 대걸작인 무용 〈눈이 내린다〉는 가장 완성된 작품으로서 단연 세계적인 명작이다.

예술적구상에서 특출할뿐아니라 무용수들의 형상은 완전무결하였다.》 (로므니아 돌쥬 도당위원회의 한 사상담당책임일군)

《당신들의 공연은 이른바 〈고대문명〉을 자랑하는 이딸리아와 구라파의 예술계를 완전히 뒤흔들어놓은 위대한 사변이다.

당신들의 예술공연은 사회주의예술이 자본주의예술보다 비할바 없이 우월하다는것을 실천으로 증명하였다.》 (이딸리아 모데나시장)

《민족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대 관현악 안쌈블, 하늘세계의 꿈나라인가 하면 지상의 인민생활이 확실한 자기 인민의 생활을 놀랄만큼 아름답고 표현력있게 담은 무용, 가수들의 열정에 넘치는 형상은 구라파세계에서는 도저히 볼수 없는 무대였다.》 (알제리 오랑주재 프랑스령사)

《무용 〈고난의 행군〉은 빨찌산투사들의 귀감으로 되며 교과서로 되며 혁명가의 아름다운 혁명정신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생동한 모범으로 된다.》 (이딸리아의 이전 빨찌산녀투사이며 국회 의원이였던 공산당일군 지마 브릴레비)

《당신들의 예술은 그야말로 최상급의 예술로서 가장 아름답고 우아하며 가장 황홀하고 감정적이다. 나는 당신들의 공연을 통하여 조선인민의 생활속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읊어야 할 노래가 있고 20세기의 참다운 행복과 랑만이 있다는것을 보았다.》 (이딸리아의 모데나시 교원 벨따르메라)

《조선예술단의 공연은 사상예술적 기교가 하나로 결합된 전일체이며 하나의 아름다운 화폭이다.

당신들의 공연은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음악선률은 맑고 혁명적이며 무용은 우아하고 생활적이며 교예는 기적과 랑만에 넘치며 무대배경은 화려하고 상상을 초월한다.》 (이딸리아 브레쉬아시 강철로동자인 쟝리아)

《세상사람들이 조선의 예술은〈세계최고봉의 예술〉, 〈금강석의 예술〉, 〈별처럼 빛나고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예술〉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도 조선의 예술을 다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조선예술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태양의 예술이다.》 (싱가포르의 문화인 포미청)

《노래, 무용을 보면서 내가 가장 강하게 느낀것은 조선이야말로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이고 조선의 예술이야말로 세계에서 제1위라는것이다.》 (20년간 예술부문에서 일해왔다는 이딸리아 녀배우 로자니오 질로올라라)

《조선예술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충실한 가장 혁명적이며 우아한 예술이다.》 (벌가리아 빠자르지끄도당 제1비서 지미뜨르단쉐브)

《조선의 교예는 교예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는 본보기교예》

《조선교예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훌륭한 교예이다.

당신들의 교예예술은 사상성이 높고 배우들의 기교가 매우 높다.

이 모든 성과는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애급 까히라민족교예극장의 한 배우)

《조선의 교예예술은 완전히 새로운 형의 독창적인 교예예술이다. 조선교예는 웃음거리로 보면 교예가 아니라 사람들을 힘있고 존엄있는 인간으로 교양하는 완전히 독창적인 교예이다. 조선교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며 지혜와 랑만을 주는 인민적인 교예이다.》 (애급 알렉산드리아종합대학의 한 교수)

《사상도, 기교도, 정신과 품성도 완전히 리상적수준에 오른 조선예술의 시위였다.

무용과 노래는 부꾸레슈띠시민들을 상상외로 놀라게 하였다. 무용과 노래의 안쌈블은 그 어느 나라 무대에서도 볼수 없는 훌륭한것이였다. 무대배경은 구라파에서는 꿈에도 볼수 없는 너무나 신기한것이여서 아직 비교할데가 없는 완전히 독창적인 창조물이였다. 특히 의상과 배경, 률동의 조화는 천재적으로 완성된 예술적미의 유일한 견본이였다.》 (로므니아사회주의문화교양리사회의 한 관계일군)

《조선교예는 세계1등급의 교예이다. 나는 이렇게 훌륭한 교예를 처음 보았다. 많은 나라 교예단이 우리 극장에서 공연을 하였지만 당신들의 교예와 같이 상상을 뛰어넘는 교예는 처

을 공연되였다.》(애급 알렉산드리아 가극극장 지배인)

《참으로 훌륭한 교예이다. 사상예술적으로 완전무결한 교예이다.

이런 완성된 교예는 조선에서만 창조될수 있다.》(수리아공보부 통보국장 마호무드)

《이 세상에 이처럼 사상예술적으로 특출한 교예가 있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조선교예는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세계 교예력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수리아의 알레포문화회관의 한 지도원)

《당신들의 공연은 애급인민들에게 교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안겨주었다. 당신들의 공연을 보고 우리 인민은 인민을 위한 예술로서의 교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였다.

조선의 교예는 교예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는 본보기교예이다.》(애급문화부 교예부 총국장)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있기에 조선예술인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제일 앞장선 예술인으로 되였다》

《조선예술인들의 공연은 우리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았다. 당신들의 공연은 새로운 독특한 내용과 기교를 가지고 누구에게나 다 리해될수 있기에 사람들을 그처럼 울리기도, 웃기기도 하며 흥분시키기도 한다. 배우들의 연기는 단지 하나의 예술작품을 형상하였다기보다 인민들의 생활감정을 그대로 느낄수 있게 반영하였다고 본다. 바로 여기에 당신들의 예술의 참다운 생활력이 있다고 생각한다.》(이딸리아 《우니따》축전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이딸리아공산당 볼로냐시당 지도위원회 제1비서 올레비)

《이딸리아를 비롯한 자본주의나라 예술은 특권계급을 위한 예술이지만 조선의 예술은 진정으로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생활구미에 꼭맞는 로동계급의 예술이다.

때문에 조선예술단은 조선인민의 예술단일뿐아니라 이딸리아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예술단이며 전세계 피착취, 피압박 인민들과 로동계급의 예술단이다.

전세계 로동계급은 주체조선의 예술단이라는 자기의 국제적예술단을 가지고있는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자랑으로 여기고있으며 조선예술단이 울리는 혁명의 북소리에 발맞추어 전세계 로동계급의 군단은 투쟁의 진군을 계속해나갈것이다.》(이딸리아 원유정제공장의 한 로동자)

《모든것이 완전무결하였고 최고절정에 이르렀다. 우리가 조선예술인들의 재능을 평가할만한 단어를 골라두지 못한것은 대단한 잘못이다. 조선은 재능있는 예술인들을 많이 가지고있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예술의 나라이다.》(로므니아 인민배우 이완볼또바)

《조선인민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보살피심을 받는 만수대예술단은 세계에 명성을 떨치고있는 예술단이다. 나는 오늘 공연을 통하여서도 만수대예술단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훌륭히 보답하고있으며 또한 자기의 우수한 공연활동을 통하여 존경하는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옹호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는것을 무엇보다도 감명깊게 느끼게 되였다.》(로므니아 부꾸레슈띠의 한 구역당 제1비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있기에 조선예술인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제일 앞장선 예술인으로 되였다.》(로므니아 부꾸레슈띠가극극장의 한 책임일군)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와 배려속에서 창작공연활동을 하는 조선예술인들은 정말 행복하다.》(로므니아기자동맹 기관잡지의 한 부장)

《나는 34년동안 음악전문가로서 창작도 많이 하였고 무엇인가 훌륭한 것을 창조해보려고 애도 많이 썼으나 인민들이 만족하여 평가할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그런데 조선예술인들이 내가 찾던 그 예술의 상상봉을 점령하였으며 그보다도 더 높은 봉우리에 올라섰다.

로므니아사람들은 흔히 신기하고 황홀한것을 볼 때면 천당에 가야 볼수 있을것이라고 말하는데 천당에 간다한들 이런 예술이야 볼수 있겠는가.》(로므니아의 한 음악교수)

《만수대예술단의 존재, 주체예술의 탄생은 예술의 구원으로 된다.》(알제리 오랑도청 서기 기므지메라드 미레시)

5. 《인류의 예술이 주체조선의 예술을 향하여 배워야 한다》

《사회주의나라 조선의 주체예술은 현시대와 미래의 세계를 대표하는 최상급의 예술이다.

왜냐하면 조선의 예술은 이딸리아사람들뿐아니라 전인류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며 희망과 미래를 안겨주는 훌륭한 예술이기때문이다.》(이딸리아 브레쉬아시에 있는 로동자 삐뜨론떼라)

《조선예술은 세계 혁명적예술의 기치이며 등대이다.

아세아도 구라파도 모두 조선의 예술을 따라배워야 한다.》(싱가포르의 한 로동자 케이천)

《당신네 예술은 민족적특성을 띠고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리해되고 감동을 주는 훌륭한 인민의 예술이다.

세계 모든 예술은 조선의 예술을 응당 따라배워야 한다.》(빠리주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알제리대표부의 성원인 알리까멜)

《당신들의 예술을 온 세계에 다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는 이딸리아예술이 조선의 예술을 향하여, 구라파예술이 조선의 예술을 향하여, 인류의 예술이 주체조선의 예술을 향하여 배워야 한다.》(이딸리아의 한 사무원 리나 아빌리나)

《혁명가극 〈피바다〉를 본보기로 한 조선의 혁명가극들은 세계 혁명적가극예술발전의 리정표, 그의 불멸의 기치로 되고있다.》 (알제리정부기관지 《엘 무쟈히드》)

《조선의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현대가극혁명의 위대한 홰불이다. 내용도, 형식도, 형상도 다 혁신적의의를 가지고있는 〈꽃파는 처녀〉는 반드시 세계의 모든 무대에 올라야 할 현대의 고전적가극이다.》(벌가리아 전기기구공장 로동자 완이찌)

《아름다우면서 힘이 있고 고상하면서도 열정에 넘치며 즐거움과 신념을 안겨주는것이 무용의 참다운 가치라는 것을 〈눈이 내린다〉와 〈조국의 진달래〉를 통하여 확신할수 있었다.

이러한 걸작들은 응당 전세계에 보급되여야 하고 모든 예술교육분야의 필수적교재로 되여야 한다.》(알제리녀대학생 부안나미 아미나)

《조선의 주체예술은 사상성에 있어서 세계최고봉이며 예술성에 있어서도 세계최고봉이다.

조선의 음악과 무용은 인간을 가장 참되게 하는 생명수와도 같다.

노래를 부르려면 조선의 노래를 불러야 하며 춤을 추려면 조선의 춤을 추어야 한다. 그래야 이 지구에는 건전하고 씩씩하고 용감한 생활이 꽃필것이다.》(싱가포르의 극장일군 헌리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사상을 안고온 조선예술인 여러분, 당신들의 고상하고 우아하며 전투적인 예술은 우리 신생독립국가들의 인민예술이기도 하다.

주체예술의 진달래는 사하라사막에

도 붉게 피여날것이다.》 (알제리 오랑시의 17호거리에 사는 아쭈부파뜨마)

《구상의 독창성, 실천의 영웅성은 모든 예술가들이 따라배워야 할 모범이다. 이 가극은 공산주의예술의 선구자이다.》 (벌가리아교육일군 피르쁘)

《현대세계예술의 기본흐름은 조선에서 방향지어지고있다. 세계가극예술은 〈꽃파는 처녀〉의 길을 따라나아갈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벌가리아 안전일군 미하일로브)

《재능있는 조선예술인들의 잊을수 없는 훌륭한 공연을 보고 나는 진정한 예술의 길을 발견하였다.》 (알제리 청년및체육부장)

《빠리와 로마, 윈 중심의 구라파문화는 쇠퇴하여 쓰레기통에 들어갔다. 조선의 주체예술이 혜성과도 같이 나타나 누리를 비친다.》 (알제리 교원인 파트미라르비)

《만수대예술단이 보여준 주체예술은 창조의 상징, 미래의 리정표이다. 모든 민족이 그런 정신, 그런 목표로 자기예술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알제리의 예술애호가이며 부기원인 벤 모하메드)

《조선예술단의 공연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이딸리아예술계에 정확한 진로를 밝혀주었다.

이것은 조선의 예술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예술이기때문이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모든 방침들과 가르치심들은 누구나 다 배워야 한다.》 (이딸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브레쉬아시당비서 조반니 시노쑐리)

《조선예술은 정치사상적내용이 심오하고 풍부하며 이에 높은 예술성이 안받침되여 있어서 사상적교양을 받으면서도 깊은 정서적세계에 빠지게 하는 황홀한 예술이다. 인민들의 생활과 그들의 전통적인 예술형식을 발전시키는것이 예술이 나아가야 할 참다운 길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로므니아 아제르 쁘레쓰통신사 기자 아이베즈)

《조선의 예술은 푸른 하늘처럼 밝고 바다처럼 깊으며 산처럼 억세다.

우렁찬 노래, 아름다운 무용, 명랑한 교예, 세계예술은 드디여 조선예술로 하여 새로운 길을 걷게 되였다.

세계최고봉의 주체예술의 화원은 영원히 지구의 방방곡곡에 혁명의 향기, 투쟁의 향기를 뿌리며 아름답게 꽃필것이다.》 (홍콩의 한 선원 행)

군중문화예술선동

우리 나라의 도처에 있는 문화회관과 도서관, 영화관, 박물관과 기념관을 비롯한 사상문화교양기관들의 운영과 기동예술선전대활동은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문화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며 인민속에 있는 재능을 찾아내고 발양시켜 로동하는 사람들자신이 가는 곳마다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참가하고 예술을 마음껏 즐길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130페지)

광범한 근로자들을 군중문화예술활동에 적극 참가시킴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문화예술대중화방침과 당중앙에서 가르쳐준 독창적인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사업의 풍부한 경험이 철저히 실현됨으로써 1974년에 군중문화예술선전부문에서는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문화회관을 통한 혁명교양, 계급교양;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배려와 당중앙의 세심한 보살핌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각 도(직할시), 시(구역), 군소재지에 문화회관이 있고 공장, 기업소들에는 로동자문화회관, 협동농장들에는 문화회관과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이 꾸려져있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평양시 보통강반에는 또다시 근로자들의 사상, 기술, 문화 교양에 크게 이바지할 대극장의 2배나 되며 총건평 5만 2천여평방메터나 되는 세계1등급의 대인민문화궁전이 일떠서 1974년 4월 12일에 준공하였다.

《가》, 《나》, 《다》등의 큰 세개의 건물이 어울려져 500여개의 방을 갖춘 이 궁전은 인민의 배움터, 사상, 기술, 문화 교양의 전당으로 꾸릴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3천석의 대회의장을 비롯하여 930여평방메터의 원탁회의장, 700석의 큰 학습실, 반로천좌석까지 1천명을 수용하는 큰 식당과 150석의 영화관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상문화교양시설과 문화휴식시설, 학습시설들이 훌륭히 갖추어져있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1974년에 로동자문화회관이 전국각지에 또다시 수많이 건설되였다.

새로 개관한 계관근위천리마검덕광산 금골로동자문화회관에는 800석의 큰 관람실과 소회의실, 학술강연실, 도서실 등 1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방들이 3개호동에 갈라져 현대적시설들로 잘 꾸려졌다.

이처럼 모든 시설이 훌륭히 갖추어진 문화회관들에서 문학예술소조원들은 자기들의 재능을 꽃피우며 예술적기량을 높이고있으며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활동과 다양한 형식을 통하여 근로자들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중앙문화회관일군들과 작곡가들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가요를 많이 보급하며 또 새로 창작하여 전국각지의 문화회관들을 통하여 근로자들속에 보급하도록 하였다.

그들이 창작한 가요들중에는 근로자들을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가요들을 비롯하여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주제로 한 작품들 그리고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들어있었다. 또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주제로 한 가요들과 사회주의대건설의 앞장에서 《속도전》의 진군나팔소리 힘있게 울리며 투쟁하고있는《피바다근위대》원들과 《꽃파는처녀근위대》원들의 투쟁모습을 형상한《〈피바다근위대〉의 노래》, 《〈꽃파는처녀근위대〉의 노래》들도 들어있었다.

그 누구나 쉽게 즐겨부를수 있는 명곡을 만들기 위해 회관의 작곡가들은 집체적으로 창작토론회와 당중앙의 지도밑에 만수대예술단에서 창작한 명곡들에 대한 감상발표회도 가지였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 문화회관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문화회관들에서는 광범한 군중을 대상으로 당정책, 혁명전통, 국제국내정세, 위생문화, 과학기술강연 등을 30～40분씩하고 그뒤에 예술공연, 영화상영, 명배우출연, 영화감상토론, 읽은 책발표모임, 노래 및 무용보급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정상적으로 벌리였다.

평양시청년회관에서는 회관무대와 청년공원야외극장무대를 통하여 청소년학생들의 예술공연은 물론 당정책강연, 정세와 과학문제를 내용으로 한 강연, 토론회, 학술발표회, 웅변대회,

시랑송모임, 읽은책발표모임, 글짓기발표모임 등을 수시로 열어 청소년학생들이 알고싶어하고 흥미있어하는 문제들에 해답을 주고있다.

1974년에 이 회관에서는 대학생들과 로동청년들의 련합모임으로 주체사상학술경연을 열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평양시내 각 대학 학생들의 참가하에 진행된 주체사상학술경연을 통하여 청소년학생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는 혁명적기풍이 더욱 철저히 서게 되였다.

전국각지의 군중문화회관들에서는 기동예술선전대활동을 맹렬히 벌리는 한편 방송야회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였다.

한편 관내에서의 영화상영과 함께 이동영화상영을 적극 진행하였다.

군중문화회관 특히 농촌부문의 회관들에서는 농업근로자들속에서 과학영화보급사업을 활발히 벌려 그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더욱 높여주었다.

농업부문에 보급한 영화들가운데는 농업근로자들의 과학기술을 높여주며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데 도움이 될 과학영화《랭상모씨뿌리기》, 《논세벌갈이》, 《미량원소》, 《벼종자의 새로운 처리방법》, 《기상과 농작물》, 《소석회와 땅》, 《뽕나무를 더 많이 심자》를 비롯하여 농촌의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서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알기쉽게 통속적으로 생동하게 반영한 22편의 영화들이 들어있었다.

단순히 영화는 상영하는것으로 일을 끝내는것이 아니라 영화에 담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농사일에 직접 도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영화내용에 따르는 기술강의와 실효모임도 동시에 조직진행하였다.

과학영화집중상영대를 무어 농업근로자들속에 농업과학기술지식을 적극 보급한 결과 농업근로자들로 하여금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전례없는 대풍을 이룩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복무하는 박물관; 우리 나라에는 1948년 8월 1일에 창립된 조선혁명박물관과 1955년 8월 7일에 창립된 보천보혁명박물관 그리고 1945년 12월 1일에 창립된 조선중앙력사박물관, 1956년 2월 10일에 창립된 조선민속박물관, 1954년 9월 28일에 창립된 조선미술박물관과 1958년 8월에 창립된 신천박물관이 있다. 또한 도들에도 력사박물관이 있다.

조선혁명박물관은 평양만수대에 새로 건립(총건평 5만 3천 700여평방메터, 전시품들의 총연장길이 4.5키로메터)되여 1972년 4월 24일에 개관하였다.

총부지면적 24만여평방메터를 가진 조선혁명박물관의 정면중심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였고 좌우에는 그이의 불멸의 혁명사상과 혁명력사를 반영한 탑이 세워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불같은 충성심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그대로 주추돌로, 기둥으로 되고 힘과 기술, 지혜로 되여 높이 솟아오른 충성의 탑이다.

3메터의 대들우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의 높이는 20메터이다.

량편탑의 높이는 각각 22.5메터, 조각상들의 평균높이는 5메터, 조각군상의 길이는 50메터이고 총연장길이는 200메터, 조선혁명박물관 정면벽면에 새겨넣은 화강암쪽무이벽화의 길이는 70메터, 높이는 12.85메터이다.

량편군상은 총 228상이다.

조선혁명박물관은 1천여명의 조각가들과 기술자들이 참가하여 불과 1년이라는 기간에 완성하였다.

조선혁명박물관에는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인민군군인들 그리고 외국의 벗들까지 하루평균 4천여명이 찾아오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이 박물관참관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배우며 대를 이어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할 굳은 결심을 다지군 한다.

량강도 보천군 보천읍에 있는 보천보혁명박물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국내진공작전과 관련된 사적자료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후 조국에 개선하실 때까지의 20여년간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업적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조선미술박물관에는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민들이 창조해놓은 귀중한 미술작품들과 해방후 우리 미술가들이 창작한 기념비적미술작품들이 시기별, 작품종류별로 전시되여있다.

여기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의 풍도의 혁명성, 높은 덕성을 감명깊게 보여주는 귀중한 미술작품들이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그 가운데는《김일성동지》(수놓은 초상), 《몸소 기관총을 잡으시고》(조선화), 《전선을 시찰하시는 최고사령관》(조각), 《진격의 길에서》, 《최고사령관 김일성원수》 등 우수한 미술작품들이 들어있다.

조선미술박물관에서는 1974년에 전국공예본보기전시회를 열고 전국의 미술가들과 공예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창작한 수예, 도자기공예, 라전옻칠공예 등 여러종류의 작품들 160여점을 내놓았다.

그 가운데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가까운곳에서 바라보는듯싶어 숭엄한 감정을 자아내게 하는 수예《백두산》을 비롯하여 수예《구룡폭포》와 《진달래》, 도자기공예 《농촌풍경장식꽃병》과 《오동나무무늬장식꽃병》, 라전옻칠공예《만풍년무늬필함》, 금속공예《목란은실꽃병》, 인형《눈이 내린다》등 많은 작품들은 사상예술성과 민족적특성 그리고 커다란 실용성으로 하여 높이 평가되였다.

전국공예본보기전시회에 나온 작품들은 우리의 공예품이 장식용, 감상용으로뿐아니라 인민생활에 쓸모있는것으로, 경제적인것으로, 대중적인것으로 더욱 급속히 발전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황해남도 신천군 신천읍에 있는 신천박물관에는 100여년전부터 조선에 대한 침략의 마수를 뻗쳐온 미제침략자들의 만행, 특히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후퇴시기에 신천땅에 기여든 미제살인귀놈들이 군안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한 3만 5천여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한 놈들의 살인, 략탈 만행을 폭로하는 자료들과 증거물들이 진렬되여있다.

이 박물관은 우리 근로자들을 제국주의와 착취제도에 대한 증오심과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으로 교양하여 혁명적으로, 계급적으로 무장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조선민속박물관에는 우리 인민의 문화풍습을 력사적으로 보고 리해할수 있도록 과거풍습으로부터 오늘의 사회주의적생활문화풍습까지를 포괄하는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박물관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혁명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생활기풍과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생활관을 새로 꾸리고 1970년에 개관하였다.

이 생활관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의 한 구성부분인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적생활기풍의 고귀한 전통을 계승발전

시키며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도록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기념관, 전람관을 통한 당의 유일사상교양; 우리 나라에는 1953년 8월에 창립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창립당시는 조국해방전쟁기념관) 그리고 1956년 5월에 창립된 중앙공업및농업전람관이 있으며 각 도들에도 공업및농업전람관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백전백승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군사예술을 집대성한 기념비적대전당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평양시의 비파거리에 웅장하게 새로 세워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1974년 4월 11일 개관되였다.

4만 5천여평방메터의 건평을 가진 기념관안의 사료들과 전시품들의 연길이는 4키로메터이상이나 된다.

기념관은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을 정중히 모신 대형화폭을 전시한 총서관으로부터 시작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와 민주주의혁명시기 그리고 전쟁의 매 단계별로 되는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시기, 조선인민군 각 병종 및 군종별 작전전과와 후방인민들의 투쟁업적, 미제의 야수적만행과 패배상, 전쟁의 위대한 승리와 전후 우리 인민과 인민군군인들의 투쟁모습, 인민상계관작품인 대형원경화로서 대전해방전투의 장쾌한 일단을 펼쳐보여주는 독립관에 이르기까지 70여개실로 나누어져있다.

기념관에 체계정연하게 진렬되여있는 사료들과 전시품들은 그 력사적폭이 넓고 내용이 풍부할뿐아니라 그 사상성과 예술성에서 웅대성과 심오성을 과시하고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동계급의 혁명적군사사상을 창시하시고 천재적인 전략전술과 탁월한 전법들을 적용하시여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신 불패의 공적과 위훈을 후손만대 길이 전하면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고 그이의 주체사상을 이땅우에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전체 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을 끝없이 고무추동하는 정치군사교양의 배움터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중앙공업및농업전람관은 중공업, 경공업, 농업 등 인민경제 부문별로 진렬관을 따로 설정해놓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실물과 자료들로 보여주는 당의 경제선전기관으로, 현대적과학기술지식보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이 전람관을 참관한 많은 외국손님들은 조선인민이 자체의 힘, 자체의 원료, 자체의 기술로 짧은 기간에 공업국가의 력사적위업을 달성하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있다는것을 한결같이 말하였다.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 복무하는 도서관; 우리 나라에는 1946년 10월 13일에 창설된 국립중앙도서관과 1970년 10월 20일에 개관한 김일성종합대학과학도서관 그리고 각 도(직할시), 시(구역), 군 도서관이 있으며 아동도서관과 도서실이 널리 분포되여있다.

이러한 도서관들은 전당, 전민의 훌륭한 학습터로서 온 사회를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며 근로자들의 전반적기술문화수준을 더욱 높여 3대기술혁명과 6개년계획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전적으로 복무하고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과학부문별, 계층별로 되는 수십개의 열람실과 목록실들, 문헌복사실, 전람관, 회의실과 각종 편의봉사시설을 훌륭히 갖추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3년 12월 13일 몸소 이곳 중앙도서관을 찾으시여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더 많이 공부할수 있도록 크고작은 일들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중앙도서관에서는 우리 나라의 인쇄문화의 찬란한 력사를 보여주는 옛활자본들과 목판본, 정교한 수사본들도 보존되여있다.

우리 나라의 국가적인 서고이며 출판물보존기지인 이 도서관은 세계 4천여개 도서관계부문 기관들과 련계를 가지고 교류사업을 진행하고있다.

이 도서관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력사에서 뜻깊은 날을 맞을 때나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로작이 발표된 기념일을 맞을 때마다 그 로작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선전함으로써 독자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더 열심히 학습하도록 고무해주고있다.

도서관에서는 로작발표모임, 로작해설강의,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에 대한 토론회, 혁명소설에 대한 감상모임, 이야기모임, 회상기독보 등도 수시로 조직하며 예술형식을 통한 선전사업도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고있다.

또한 관안에서의 열람과 함께 《이동문고》를 만들고 들끓는 현실에 더욱 접근함으로써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도서들을 기동적으로 보급하였다.

도서관에서는 금성뜨락또르공장, 해주련결농기계공장을 비롯한 농기계생산부문 공장들에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에 맞는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창안제작하는데 참고가 될 책들을 제때에 보내줌으로써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1천명이상의 열람자들을 동시에 수용할수 있는 김일성종합대학과학도서관은 관안에서의 열람과 함께 참고문헌발행, 독자모임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대학생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현대과학기술지식을 충분히 소유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각 도(직할시), 시 (구역), 군 도서관들에서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찾아가 도서를 보급하고 읽은책 발표모임, 기술토론회들을 조직해줌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 혁명과업수행에 큰 도움을 주고있다.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선전활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에 문학예술부문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은 들끓는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들에 나가 예술선전활동을 적극 벌려 근로자들을 로력적위훈에로 불러일으켰으며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지원하였습니다.》 (1975년 《신년사》, 단행본, 8페지)

당중앙에서는 이미 1973년에 피바다가극단을 비롯한 혁명적인 예술인부대들을 승리자동차종합공장 등 사회주의대건설의 기본전선들에 파견하고 독창적인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의 풍부한 경험을 쌓게함으로써 당의 수중에 장악된 혁명적문학예술이 어떻게 사회주의건설에 복무하여야 하는가 하는 위대한 모범을 창조하였다.

그 경험을 본받아 1974년에는 년초부터 5개 전선을 비롯한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돌격선들에 예술인부대들이 파견되였고 온 나라에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의 불바람이 휩쓸었다.

이해 사회주의대건설의 가장 어렵고 중요한 전투장들에는 피바다가극단을 비롯한 우리의 혁명적예술인들이 있었

고 중앙예술선전대와 각 도 예술선전대 그리고 직맹, 농근맹을 비롯한 근로단체 예술선전대, 각 도 방송위원회 예술기동선전대가 있었다. 그들의 나팔소리 울리는 모든 초소들에서는《속도전》의 불바람이 일어나 세상을 경탄케 하는 기적과 위훈이 나래쳤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강철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킬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일대 돌격전을 벌리고있는 강선의 로동계급을 도와주기 위하여 당중앙에서는 혁명의 수도 평양에 있는 예술인들을 현지에 보내였다.

피바다가극단, 평양예술극단, 평양연극단의 예술인들과 조선예술영화촬영소의 배우들은 남성독창《강선의 백양나무》, 《수령님 모시고 천년만년 살아가리》, 무용 《강선의 노을》, 《키춤》, 《사과풍년》, 재담 《영광의 보고 올리자》, 경음악 《금강산의 노래》, 《한 간호원의 이야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으로 예술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려 천리마강선제강소 강철전사들을 로력적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김책제철소와 련관된 공장, 기업소들을 찾아가 로동자들과 같이 일하면서 예술공연과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의 선전선동을 전격적으로 벌려 중요건설대상들의 완공기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한 중앙방송예술단 분견대원들은 김책제철소 확장공사장에서 녀성독창 《끝없는 이 행복 노래부르네》, 혼성중창《혁명의 한길에서 싸워가리라》, 경희극《인민은 한마음》등을 비롯한 수많은 예술종목을 가지고 예술선전대활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당중앙이 파견한 예술인들의 예술선동에 고무된 금속공장건설사업소 한 작업반의《피바다》근위대원들은 하루계획을 ４００%로 넘쳐 하는 높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 함경북도예술선전대, 함경북도방송예술기동선전대 예술인들도 김책제철소 확장공사장 건설자들속에서 전투적인 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 그들의 로력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함경북도예술선전대에서는 선동문과 시《새로운 전투에로 돌격해가자!》, 《새로운 대고조에로!》와 무용《건설장 수리개들》, 토막극《자랑보따리》를 비롯한 수많은 종목을 가지고 예술선동활동을 벌리였으며 함경북도방송예술기동선전대는 선동문《３대기술혁명 다그쳐가자!》와 재담 《만가동 만부하》, 토막극 《아들자랑, 딸자랑》등 여러종목을 가지고 예술선동활동을 맹렬히 벌리였다.

기동예술선동대활동에 고무된 김책제철소 확장공사장에서는 용광로기초파기에서 날마다 계획을 ２～３배씩 해제끼는 기적들이 창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를 비롯하여 김책제철소 확장공사장에서 전투적인 예술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리여 건설자들의 로력투쟁을 힘있게 고무한 예술인들을 치하해주시였다.

평양시예술선전대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１９７４년을 《건설의 해》로 규정하시고 ６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는 기본열쇠가 기본건설을 잘하는데 있다고 하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재담 《래일의 평양》, 토막극 《기계소리 울린다》, 《새로 만난 두 동무》를 비롯한 건설주제의 작품을 많이 창작하여 시안의 건설장들에 나가 공연하였다.

평안남도예술선전대에서는 북창화력발전소, 북창곡산공장 건설장들을 찾아가 전투적인 예술선전활동을 벌려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한층 고무해주었다.

예술선전활동이 벌어지는 기간에 이곳 건설장들의 전투장마다에서는 그전보다 공사속도를 보통 ３배로 높이는 혁신이 창조되였다.

또한 기동예술선전대들에서는 위대한 농촌테제발표 열돐이 되는 １９７４년을 만풍년의 해로 맞이하기 위해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찾아가 기동예술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리였다.

예술선전대활동을 강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１９７４년에 농업근로자중앙예술선전대가 걸어온 선전선동활동의 자랑찬 로정은 ７，０００여리가 넘는다.

예술인들은 농장원들과 짝을 지어 논판에서 충성의 모를 꽂으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대하여, 당의 농업정책에 대하여 해설하여주었고 그들의 로력적성과를 축하하여 명곡들을 불러주었다.

평양시와 황해북도, 황해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의 ２６개 군을 순회하는 전기간 이러한 혁명적기백으로 선전선동활동을 진행하여 그들의 로력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평양청년가극단 배우들을 비롯한 예술인들은 전투현장에서의 기동예술공연, 현장방송, 방송야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선전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리였다.

중앙청년예술선전대에서도 평양시주변 농촌들을 돌면서 항일유격대식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리였으며 조선인민군협주단 예술인들은 모내기지원 기동소편대를 뭇고 많은 종목의 소품들을 준비하여가지고 대동, 숙천, 문덕, 운전군을 비롯한 평안남북도일대의 농촌들에 나가 공연하였다.

이러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선전활동은 온 사회를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상, 기술, 문화 혁명과 ６개년계획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학생소년들의 궁전활동; 자라나는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나라에는 １９６３년 ９월 ３０일에 창립된 평양학생소년궁전과 １９６１년 ６월 ６일에 창립된 개성학생소년궁전 그리고 １９７３년 ５월 ２０일에 창립된 배움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자강도 강계시)이 훌륭히 갖추어져있다.

이러한 학생소년궁전은 청소년학생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지덕체를 다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종합적인 학교로, 과외교양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평양학생소년궁전에 ４５차의 현지지도와 １００여차의 교시를 주시였으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궁전을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한 공산주의적과외교양의 본보기로, 교육과 생산로동, 리론과 실천, 학습과 사회정치활동을 밀접히 결합하는 혁명적교육방법의 전형으로 꾸려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 궁전에서 학생들에게 자동차, 뜨락또르의 내부구조와 원리도 배워주고 운전하는 기술도 가르쳐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동차, 뜨락또르 운전실습장을 만들어주라고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몸소 실습장의 위치와 건설방향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고 자동차, 뜨락또르를 비롯한 수많은 실습설비들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이 궁전에서는 １９７４년에 자동차, 뜨락또르 운전실습장(평양시 사동구역)을 새로 꾸리였다. 총부지면적 １만 ８천평방메터나 되는 이 실습장에는 ３개의 리론강의실과 운전련습장, 지도교원실 그리고 각종 부대시설이 훌륭히 갖추어져있어 매일 ５００여명의 학생들에게 자동차, 드락또르에 대

한 풍부한 지식을 가르쳐주고있다.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는 문학예술활동도 활발히 벌리고있다. 1974년 10월 5일에 이 궁전에서는 아동음악신작발표회를 가지였는데 여기서는 《만경대로 가는 길, 영광의 길》, 《만경대낚시터》, 《우리모두 학교로 가요》, 《3대혁명파업을 꽃펴가자요》, 《나도야 뜨락또르운전수 될래요》를 비롯한 수많은 우수한 가요작품들이 발표되였다.

4천 700평방메터의 건평에 3층으로 세워진 배움의 천리길 학생소년궁전에는 배움의 천리길연구실을 비롯하여 22개의 소조활동실이 훌륭히 꾸려져있다.

5천여명이 망라되여있는 궁전소조에서 청소년학생들은 자신들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지덕체를 다 갖춘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고있다.

동식물원을 통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 평양에는 275정보의 넓이안에서 330여종의 동물들을 기르는 평양동물원이 있으며 공원과 유원지들에는 새 집과 작은 동물사들이 만들어져있다.

또한 평양에는 1959년 4월 30일에 창설된 2천여종의 우리 나라 식물들로 꽉 들어차있는 중앙식물원이 있으며 그 아래에 분원들과 연구소들이 있다. 우리 나라에는 기관, 기업소들과 각급 학교들에까지 식물원, 화초원들이 꾸려져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에만도 중앙식물원과 평양동물원, 평양시안의 공원, 유원지들을 여러차례 찾으시여 공원, 유원지들을 더 늘이며 이미 있는것들도 우리 인민들의 생활감정에 맞게 조선식으로 보다 훌륭히 꾸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또한 평양시안의 여러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공원을 더 꾸리고 갖가지 유희시설을 마련해줄데 대하여 배려하여주시였으며 몸소 그 터전까지 잡아주시였다.

평양시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터전을 잡아주신 여섯군데의 아동공원을 비롯하여 17개소의 아동공원이 새로 건설되였으며 모란봉청년공원과 보통강유원지, 대성산유원지 등을 더 잘 꾸렸다.

새로 꾸려진 아동공원들에는 규모있게 록지가 조성되였으며 각종 소동물사도 갖추었다.

평양동물원에서는 900평방메터의 동물교예장과 어린이들을 위한 꽃수레를 비롯한 문화오락시설들을 훌륭히 마련하였으며 중앙식물원에서는 2천여평방메터의 과학지식보급관을 새로 건설하였다.

우리 나라에 있는 여러가지 식물을 보여주는 식물표본관과 식물들이 자라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리용되고있는 정형을 한눈으로 볼수 있도록 실물, 그림, 도표 등을 갖춘 전람관, 과학영화들을 돌리며 과학강연도 진행하는 과학지식보급실 등으로 이루어진 과학지식보급관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우리 나라 식물에 대한 산지식을 주며 그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데 도움을 주고있다.

이와 같은 동식물원들은 광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우리 나라의 동식물들을 잘 알고 조국의 자연과 향토를 사랑하도록 교육교양하며 동물들에 대한 과학적연구 및 문화휴식에 이바지하는 문화교양장소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예술축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문학예술의 대중화방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전문적인 작가, 예술인들뿐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문학예술활동에 참가하고있다.

근로자들이 일하고있는 모든곳에 예술소조가 조직되여있으며 로동자, 농민, 청소년학생들은 자기의 희망과 소질에 따라 예술소조에 망라되여 자기의 예술적재능을 활짝 꽃피우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군중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해마다 예술축전을 열고 총화해주며 우수한 경험을 서로 나눌수 있는 사업들이 년중행사처럼 진행되고 전문예술일군들이 공장과 농촌들에 나가 예술소조들을 지도해주도록 하는 체계가 서있다.

예술축전에서 선발된 우수한 예술소조원들은 전문예술인으로 되며 이들은 국내적으로 진행되는 예술공연뿐아니라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예술축전에도 참가한다.

1974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전국농업근로자예술소조축전을 비롯하여 각 계층별 예술축전이 진행되였으며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축전에도 참가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1월 7일부터 22일까지 평성시에서 진행된 농촌테제발표 열돐기념 전국농업근로자예술소조축전무대에는 시(구역), 군과 도(직할시) 농업근로자예술소조축전들에서 뽑힌 우수한 작품들이 무대에 올랐다.

량강도농업근로자예술소조원들은 남성중창 《오가자에 뿌린 장군님의 씨앗》, 시와 이야기 《조국강산에 봄비내린다》, 중창이야기 《사랑의 수도물을 받던 날》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을, 함경북도농업근로자예술소조원들은 중창 《수령님 다녀가신 부거마을에 양떼호르네》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함경남도농업근로자예술소조원들은 노래이야기 《수령님, 영원히 청춘과원으로 꽃피워가겠습니다》, 가무이야기 《집집마다 땅동오리 보내줍니다》를 비롯한 각이한 종목의 작품들을, 강원도농업근로자예술소조원들은 노래와 춤 《실봉산기슭에 감풍년들었네》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을 무대에 올렸다.

또한 축전무대에는 노래와 춤 《수도화 꽃피는 우리 마을》(황해북도농업근로자예술소조), 노래이야기 《기계화의 새봄》(황해남도농업근로자예술소조), 녀성중창 《수령님은 저택에서 시험포전 가꾸시네》(자강도농업근로자예술소조), 노래이야기 《풍년벌에 넘치는 사랑의 해빛》(평양시농업근로자예술소조), 가무토막극 《수령님 보내주신 린비료 좋다》(평북도농업근로자예술소조), 시와 노래 《영원한 청산리 불빛》(평남도농업근로자예술소조), 4인무 《수령님 밝혀주신 화학농사 좋아요》(개성시농업근로자예술소조)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이 올랐다.

위대한 농촌테제의 찬란한 빛발아래 농촌경리의 수리화와 전기화를 끝내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 단계에 들어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의 비약적인 발전모습을 생동하게 형상한 다채로운 작품들의 공연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농촌테제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감명깊게 노래하였다.

1974년 9월 우리 당 대표단이 명예손님으로 참가한 이딸리아공산당기관지 《우니따》창간 쉰돐기념축전에 우리 나라 평양예술단도 참가하였다.

축전은 이딸리아공산주의운동의 발원지인 볼로냐에서 100여만 군중의 참가밑에 축전력사상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였다.

15일동안 계속된 축전에서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들과 토론회, 예술공연 등이 진행되였다.

우리는 축전장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람관을 꾸리고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수령님의 로작들과 각종 출판물들을 전시한 전람관과 우리 나라 상품을 진렬하고 요구하는 사람

들에게 팔아주는 경제관, 우리 나라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과 200여석을 가진 식당으로 구성되여있는 총 2만 6천평방메터의 부지를 가진 우리 나라 전람관은 그 규모와 사상예술성에 있어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장중히 울리는 가운데 만사람들의 이목을 한데 집중시키면서 개관한 우리 나라 전람관은 매일 평균 7만여명의 참관자들로 흥성거렸다.

우리 나라 전람관 가운데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보여주는 사진이 전시되여있는 전람관이 대성황을 이루었다.

축전기간 이딸리아 전국각지의 광범한 인민들과 축전에 참가한 외국의 벗들의 요구에 의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보급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과 출판물들은 무려 72만 5천여부나 된다.

우리 나라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천만년 모시고 따르렵니다》와 《평양》, 《전세계에 고함》을 비롯한 7편의 기록영화들이 74회나 상영되였다.

다른 영화관들은 관람자가 없거나 있어도 10여명내외였는데 조선영화관은 늘 사람들로 꽉 메웠다.

또한 50여종의 조선료리를 만들어놓고 판 《조선평양식당》은 독특한 이채를 띠고있었으며 매일 찾아오는 손님들로 붐비였다.

볼로냐사람들뿐아니라 로마와 밀라노에서, 알프스산밀에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으며 스위스와 프랑스, 유고슬라비아와 일본에서 온 관광객들도 있었다.

우리 나라 평양예술단은 이딸리아의 볼로냐를 비롯한 브레쉬아, 밀라노, 모데나 등 여러 도시들에서 《우니따》축전공연을 대성황리에 진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합창으로부터 시작하여 무용 《고난의 행군》, 《강선의 노을》을 비롯한 모든 공연종목들은 높은 사상예술성과 감화력으로 하여 대절찬을 받았다.

우리 나라 평양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을 본 세계 수많은 나라 사람들은 《사회주의나라 조선의 주체예술은 현시대와 미래의 세계를 대표하는 최상급의 예술》, 《조선의 예술은 전인류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며 희망과 미래를 안겨주는 훌륭한 예술》이라고 하면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였다.

혁명적출판보도선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우리의 혁명적출판보도물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전세계 혁명적출판보도물의 최선두대렬에서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자기의 사명을 빛나게 수행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 건설의 과업실천에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무기입니다.》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79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당적출판보도물은 근로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며 출판보도물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매개 출판보도물의 편집내용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매해 11월 1일을 출판절, 10월 14일을 방송절로 제정하여주시였으며 출판보도물발간사업에서 특출한 공헌을 한 기자, 편집원들과 출판보도부문일군들에게 《3. 1월간상》, 《인민기자》, 《공훈기자》칭호를 수여하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오늘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무거운 임무에 맞게 우리의 당적출판보도물들의 전투적기능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출판보도사상을 빛나게 구현하는데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명시하였다.

당중앙에서는 당적출판보도물들의 기본사명이 철두철미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에 이바지하는데 있으며 그 기본임무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참다운 혁명전사로 만들고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데 있다는것을 새롭게 정식화하고 당적출판보도물들이 자기의 전투적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주체의 원칙과 그리고 종자와《속도전》에 관한 원칙을 내놓은것을 비롯하여 주체적인 출판보도물건설에 관한 방침과 리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당중앙에서는 우리 당 사상사업의 강력한 무기인 출판보도물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깊은 통찰과 당보 《로동신문》을 비롯한 출판보도부문을 지도하여 본보기로 꾸린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신문혁명, 보도혁명, 출판혁명의 불길을 지펴줌으로써 출판보도선전에서 일대 변혁의 계기를 마련하여주고 그 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힘차게 이끌어주었다.

이로 하여 우리의 당적출판보도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있게 전진하여나갈수 있는 확고부동한 지침을 가지게 되였으며 모든 출판보도부문사업을 대담하고 참신하고 패기있게 내밀어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킬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였다.

우리의 당적출판보도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만이 차넘치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의도를 대중속에 제때에 정확히 전달하고 깊이 해석선전하는 자기의 사명을 빛나게 수행해나가고있으며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대건설의 조직동원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출판보도부문일군들은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에 일편단심 충성다할 일념으로 모든 일을 새로 시작하고 새 출발을 한다는 확고한 립장에 서서 종자를 바로 쥐고《속도전》을 힘있게 벌렸으며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그 특성과 개성이 뚜렷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글을 더 많이 썼다.

출판보도부문에서는 당중앙의 세련된 지도밑에 신문혁명, 보도혁명, 출판혁명을 일으켜 련속적인 사설공세를 벌리고 사설과 사진을 적중하게 배합하는 등 편집체계와 형식을 대담하게 개선하여 신문의 전투적기능을 일층 높이였으며 방송분야에서는 깊은밤 방송을 계속하며 들끓는 시대적분위기에 맞게 음악방송을 강화함으로써 방송의 전투성과 예술성을 높이였다. 또한 잡지, 도서들은 자기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그 정치사상적수준을 더욱 높이였다.

오늘 우리 당의 출판보도사업에서 전례없는 혁명적앙양이 일어나 비상히 위력한 힘을 나타내고있는것은 출판보도물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이 제시한 방침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당보《로동신문》 1만호 발간, 사설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신문혁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동신문》의 전신인《정로》 171호와《로동신문》9, 829호가 발간됨으로써 1974년 7월 16일호로서 당보는 1만호를 발간하였다.

우리 당보의 발간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당적출판물이 노는 역할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우리 당을 창건하신데 뒤이어 1945년 11월 1일 몸소 당보《로동신문》을 창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의 혁명적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에 기초하시여 제때에 당보《로동신문》을 창간하시고 수많은 당적출판물들을 발간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관철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이며 집단적조직자, 선전자,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벗이며 대변자를 가지게 되였다.

근 30년에 걸쳐《로동신문》과 우리 당 출판물들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은 위대한 수령님의 끊임없는 세심한 지도와 크나큰 배려의 력사이며 우리 당 출판물들이 혁명의 준엄한 시련과 겹싸인 난관속에서도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받들고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당과 함께 숨쉬며 억세게 전진하여온 충성의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끊임없는 세심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로동신문》을 비롯한 우리의 당적출판물들은 해방직후의 복잡하고 혼란된 정세에서도,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시기에도,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나날에도, 전례도, 경험도 없는 생소한 길을 따라 심각한 사상혁명을 수행하던때도 그리고 사회주의제도가 선다음 새롭게 제기되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나감에 있어서도 조금도 헛갈리지 않고 곧바른 길을 따라 나아감으로써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1만호에 이르는《로동신문》의 매호에는 혁명과 건설의 매시기 당보앞에 나선 무거운 전투적임무에 상응하게 중요 사론설, 기사들의 제목을 잡아주시고 밤을 지새우시면서 손수 가필까지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한량없는 심려와 로고, 세심한 지도가 깃들어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출판보도사상을 꽃피우기 위하여 그처럼 정력적으로 당적출판물을 이끌어주는 당중앙의 지도가 깃들어있다.

당중앙에서는 신문혁명을 일으키는 위업을 바로 당보에서 사설혁명의 불길을 지피는 사업으로부터 시작하고 참신하고 생기발랄하게 사설을 쓰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당중앙의 지도에 의하여 당보에는 1974년에만하여도《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의 정신, 무조건성의 정신, 이것이 대건설전투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청춘의 기백으로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지휘해나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더욱 빛내여가자》, 《당원들은 혁명의 선봉투사들이다. 사회주의대건설의 돌격전에서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힘차게 떨치자》, 론설《사회주의대건설에서의 〈속도전〉은 모든 일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기본전투형식》을 비롯한 수많은 사론설들이 련속적으로 나가게 되였으며 이것은 사회주의대건설전투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일대 파문을 일으키게 되였다.

당보《로동신문》을 통하여 나간 글가운데서 만사람들을 격동시키고 내외에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수많은 글들은 바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주제사상과 소재를 찾아주시고 집필을 따뜻이 보살펴주신 결과이며 당중앙에서 우리 기자, 편집원들에게 그 집필방향과 형식에 이르기까지 정력적으로 지도해준 결과이다.

《로동신문》은 그가 걸어온 영광스러운 로정과 쌓아올린 귀중한 업적들로 하여 내외의 광범한 독자들속에서 높은 권위와 위신을 획득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출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수록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적총서《김일성저작선집》제6권을 1974년에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저작선집 제1권부터 제5권까지는 이미 출판하였다.

《김일성저작선집》제1권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45~1956년시기에 발표하신 론문, 보고, 연설, 담화들가운데서 중요한 저작 38건이 들어있다.

제1차 5개년계획기간 (1957—1960년) 을 포괄하는《김일성저작선집》제2권에는 이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연설, 보고, 담화들가운데서 중요한 저작 21건이 수록되여있다.

《김일성저작선집》제3권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1~1963년시기에 발표하신 연설, 보고, 결론 가운데서 중요한 저작 15건을 묶었다.

1964~1967년시기를 포괄하는 《김일성저작선집》제4권에는 이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론문, 연설, 보고, 결론, 강의, 서한, 담화들 가운데서 중요한 저작 19건이 들어있다.

1972년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내놓은 기념출판물인《김일성저작선집》제5권에는 1968~1970년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론문, 보고, 결론, 연설, 강의, 담화들 가운데서 중요 저작 17건을 수록하였다.

《김일성저작선집》제6권에는 1971~1973년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여러 부문의 회의와 대회들에서 하신 연설과 결론, 외국기자들과 하신 담화와 그들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들가운데서 중요 저작 21건이 들어있다.

저작선집 제6권에 수록된 불후의 고전적로작《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진수를 이루는 주체사상의 본질, 그 기초와 기본 요구,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에 구현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 등이 과학리론적으로 심오히 해명되여 있으며 그것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고 집대성되여있다.

저작선집 제6권에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수행의 원칙과 구체적 방도, 사회주의교육학을 바로 세우며 근로단체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와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 조국통일 5대방침, 대외정책분야에서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립장, 아세아와 세계혁명적인민들이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이 명시되여있다.

1974년에 저작선집 제6권과 함께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

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군사문제에 관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수록한 혁명전쟁의 승리를 위한 백과전서적문헌 《김일성군사선집》 제2권을 조선인민군 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1972년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내놓은 기념출판물인 《김일성군사선집》 제1권에는 군사문제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론문, 보고, 결론, 연설, 강의, 담화들가운데서 중요 저작 17건을 수록하였다.

《김일성군사선집》 제2권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중요 회의들에서 하신 보고와 결론, 전체 조선인민에게 하신 방송연설, 군사명령 등 42건이 들어있다.

군사선집 제2권에 수록된 로작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독창적으로 창시하신 군사사상을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현대전쟁의 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시키신 그이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군사리론이 집대성되여있으며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1974년에 단행본으로도 수많이 출판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4년 1월 1일에 하신 신년사와 1974년 1월 10일 전국농업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연설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4년 3월 7일 전국공업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연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를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4년 3월 4일 혁명리사회 의장이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후아리 부메디엔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연설《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4년 2월 22일 《유고슬라비아신문 〈웨체르니에 노보스띠〉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4년 1월 29일 《이딸리아공산당기관지 〈우니따〉지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4년 4월 25일《수단정부기관지 〈알 싸하파〉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4년 6월 13일 《페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는 이해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문헌집《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도 내놓았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4년 11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4차회의에서 하신 연설《농촌테제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문제》, 1974년 9월 24일 재일본조선청년예술체육대표조국방문단, 제2차재일본조선교육일군조국방문단, 재일본조선고급학교학생조국방문단 성원들앞에서 하신 연설《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이밖에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그이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교양자료들이 단행본으로 수많이 출판보급됨으로써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며 3대혁명과업수행에로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이해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혁명전통교양자료들이 영어, 프랑스어, 로어, 중어, 일본어, 에스빠냐어, 아랍어 등 여러나라 말로 번역되여 출판보급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발간되는 출판물들은 무려 수천종이나 된다. 매 출판물들의 인구1인당부수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신문〕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인《로동신문》을 비롯하여《민주조선》그리고 《로동청년》 등 근로단체기관지, 《평양신문》을 비롯한 수많은 신문들을 발행한다.

또한《평양타임스》가 영문과 프랑스문으로 발행되고있다.

〔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일한 통신보도기관인 조선중앙통신사(1946년 12월 5일에 창립)에서는 일간 《조선중앙통신》, 《사진통신》, 《영문통신》, 《로문통신》, 《프랑스문통신》, 《에스빠냐문통신》등의 통신들과 나라의 종합자료도서인《조선중앙년감》을 비롯하여 대내외선전에 필요한 출판물들을 편집발행한다.

조선중앙통신사에서는 대외통신으로서 로문, 영문, 프랑스문, 에스빠냐문으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구라파 방향별 송신을 조직진행한다.

〔방송및텔레비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에 직속하는 방송보도기관인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서는 제1방송, 제2방송, 텔레비죤방송, 대외방송을 조직진행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또한 개성텔레비죤방송을 조직진행한다.

조선중앙방송은 1945년 10월 1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조국개선연설을 실황중계한 때로부터 자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1946년 11월 26일 국제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기구에 가입하였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세계 수많은 나라들과 라지오 및 텔레비죤 방송분야에서의 호상협조할데 대한 협정을 맺고있다.

우리 나라에는 중앙방송뿐아니라 각 도, 시, 군들에도 방송위원회들이 있어 해당한 시간에 방송을 하고있다.

각 도에는 방송예술기동선전대가 조직되여 적극적인 선전선동활동을 조직진행하고있다.

〔출판〕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리론잡지 《근로자》그리고《사회과학》을 비롯한 과학부문별 잡지, 《청년생활》, 《조선녀성》등 계층별잡지, 《조선예술》, 《조선문학》, 《청년문학》, 《아동문학》, 《영화문학》을 비롯한 문학예술부문잡지, 《천리마》를 비롯한 대중종합잡지, 《대학생》, 《새세대》,《꽃봉오리》등 학생소년잡지, 《오늘의 조선》을 비롯한 대외선전부문잡지 등 수많은 정기간행물들이 발간된다.

또한 6개 어문으로 된 각종 잡지와 《조선》을 비롯한 화보들이 발행된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와 당중앙의 세심한 보살핌에 의하여 1974년부터 고등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월간과학잡지《소년과학》이 새로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잡지들과 수많은 도서들의 출판을 위하여 우리 나라에는 근로자사, 조선로동당출판사를 비롯하여 문예출판사, 외국문출판사 등 수많은 출판사들이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고등교육도서출판사, 외국문교육도서출판사를 비롯하여 교육위원회산하 각 출판사들과 여러 대학들에서는 1974년 상반년

동안에 만도 새로 770여종에 달하는 자연과학기술서적들을 출판하였다.

체육의 전민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체육을 대중화하고 국방체육을 널리 발전시켜 모든 근로자들의 체력을 더욱 증진시키며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63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체육을 전민화하여 주체적인 체육 기술과 전술로 무장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체육의 나라로, 《체육의 왕국》으로 만들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적인 체육지도사상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여 당중앙에서는 체육사업에서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탁월한 사상을 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체육지도사상과 당중앙에서 밝혀준 체육사업에서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탁월한 사상이 체육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1974년에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믿음직하게 준비시켰으며 주체적인 체육기술을 발전시켜 급속히 발전하는 우리 나라 체육의 발전면모를 국제무대에서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생활화된 군중체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에 만도 3월 21일과 5월 11일 교시를 비롯하여 여러차례의 강령적교시를 주시여 《체육의 왕국》으로 가는 지름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체육의 전민화방침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학교체육사업에서는 1974년에 실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온 나라의 모든 학생들은 정규화된 체육교수를 높은 수준에서 받았으며 하루 공부가 끝나면 자기의 취미와 소질에 따라 과외체육활동을 줄기차게 벌려 그들의 체육기술을 더욱 높여주었다.

1974년에 학생소년들속에서 례년에 보기드문 대규모적인 답사행군이 진행되였다.

3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강의한 의지를 따라배우려는 불타는 일념을 안은 5천명 《배움의 천리길》답사행군대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초상기를 정중히 모시고 그이께서 12살어리신 나이에 걸으신 불멸의 자욱자욱을 따라 포평에서 만경대까지 답사행군하였다.

혁명사적지 포평에서 시작한 전국 고등중학교 사로청위원장 및 소년단위원장들의 답사행군에 이어 온 나라 방방곡곡 그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달리기 구령소리 높이 《배움의 천리길》 집단달리기를 진행함으로써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며 튼튼하고 억센 체력의 소유자로 준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학생들속에서 집단체조도 대중적으로 급속히 발전하였다.

1973년에 있었던 제1차전국집단체조경기대회에 250여만명이 참가하여 사상예술성과 높은 체조기술을 훌륭히 보여준 청소년학생들은 집단체조를 더욱 활발히 조직진행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을 맞이하여 남포시안의 청소년학생들은 집단체조 《주체의 해발》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9월 9일 남포시경기장에서 집단체조 《주체의 해발》을 보시였다.

집단체조의 제1장 《위대한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여 이 땅우에 조국광복의 새 봄을 안아오신 불멸의 업적을 총체조와 조형조립으로 생동하게 형상하였다.

제2장《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만세!》에서 출연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공화국의 기치밑에 우리 인민이 지난 26년동안에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커다란 성과를 잘째인 체조구도와 기발한 예술적수법으로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제3장《사회주의대건설, 총동원 앞으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혁명적인 방침과 당중앙의 전투적인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모든 일을 통이 크게 벌리고 패기있게 해제끼는 우리 인민의 전투적기상을 약동하는 화폭으로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제4장 《조국은 철벽이다.》, 제5장 《홰불체조》에 이어 제6장에서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립장을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집단체조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과 행복한 생활을 박력있는 체조동작과 우아하고 부드럽고 섬세한 률동 그리고 기발한 구상과 다양한 형상적수법으로 일관되여있음으로 하여 관람자들을 시종 경탄케 하였다.

평양시 만경대구역 1만 5천여명의 청소년학생들이 출연한 집단체조《만경대에 피여나는 충성의 붉은 꽃》의 서막은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탄생 예순두돐을 열렬히 축하합니다》로 시작되였다.

집단체조 제1장 《혁명의 요람 만경대》에서 출연자들은 군함바위조형, 복숭아조형, 글자 《독립》조형, 배움의 천리길을 상징한 지도조형, 포평나루의 물결조형 등 생동하고 실감있는 동작과 아름다운 춤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애국주의교양을 받으시며 나라찾을 혁명의 큰뜻을 억세게 키워나가신 내용을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제2장 《장군님의 품속에 붉게 핀 혁명의 꽃송이》는 단심줄춤에 이어 한없이 따사로운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속에서 억세게 자라난 아동단원들이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지켜싸우는 충성심을 붉은 기발체조로 그려보이였다.

제3장 《원수님께서 만경대에 심어주신 주체교육의 혁명사상》에서 만경대의 소년들은 지덕체의 고향 삼흥중학교, 주체교육 펼쳐진 창덕학교에 깃든 아버지원수님의 위대한 뜻과 뜨거운 사랑을 감명깊게 노래하였다.

제4장 《만경대에 넘치는 행복의 노래》에서는 원수님께서 마련하여주신 11년제의무교육의 빛발아래 지덕체를 다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자라나고있는 우리 학생소년들의 행복과 기쁨을 펼쳐보이였다.

제5장 《대를 이어 원수님께 무한히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로 자라나겠습니다》는 붉은청년근위대원들의 씩씩한 대렬행진으로 시작되였다.

이들은 한손에는 펜을, 다른 한손에는 총을 잡고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해가는 영예와 자랑을 《별》자조형, 힘찬 훈련동작 등으로 보여주었다.

뒤이어 여러가지 사다리조립체조, 홰불체조, 공화국기발조형으로 진행된 집단체조 《만경대에 피여나는 충성의 붉은 꽃》은 우리 청소년학생들의 세련된 체육예술적동작과 그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보여주었다.

학생들속에서는 키크기운동과 함께 축구, 롱구, 배구, 송구, 정구, 탁구 등 구기종목들도 급속히 발전하였다.

특히 한 학교에서 한종목씩의 체육을 전문화할데 대한 당중앙의 혁명적 방침을 높이 받들고 신계군 대정고등중학교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온 나라 모든 학교들에서 체육을 대중화하면서 한종목씩의 체육을 전문화함으로써 나라의 체육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신계의 나어린 녀자롱구선수들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전천군 녀자고등중학교, 송호구역 파롱고등중학교, 함흥시 류정녀자고등중학교를 비롯한 모든 학교들에서 학교의 자랑으로 될만한 체육종목을 전문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격적으로 벌리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학교체육과 함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서의 체육사업도 찬란히 꽃피고있다.

로동계급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한 달리기와 아침체조, 사이체조가 생활화, 정상화되고 생산을 고무하는 생산체육경기가 활발히 진행되였다.

또한 로동계급들과 근로자들의 취미와 소질에 맞게 체육소조가 무어져 하루일을 끝내고는 자기의 체육적기량을 한껏 높여나갔다.

인민반과 가정들에서도 체육이 대중화되였다.

혁명의 수도 평양시안의 모든 동마다는 세대주들과 학생들의 달리기와 체조로 흥성거리였으며 유치원어린이들을 위한 그네, 철봉, 탁구판, 지어 롱구장까지 마련되여 이들의 체육적기량을 높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체육사업을 생산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생산경기들이 대중화, 정상화되여 사람들은 더욱 패기와 정열에 넘치고 일본새 또한 전례없이 달라졌다.

1974년 11월에 생산경기가 진행된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경기기간에 강철직장에서 쇠물용해시간을 평균 2~3시간 줄였고 용광로직장에서 선철생산을 130%씩 장성시킨데다가 해탄로직장에서 조업이래의 최고기록을 돌파하였다.

또한 평양시 강남군안의 각 학교들에서는 1974년에 인민체력검정에 대상자 전원이 참가하여 전원이 합격하였다.

각급 체육지도위원회들에서는 인민체력검정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함으로써 이 사업을 통하여서도 근로자들의 체력을 더욱 증진시켰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 현대적인 체육관이 일떠섰으며 갖가지 체육기자재가 대대적으로 생산보장되였다.

국방체육의 발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국방체육을 위주로 체육을 대중화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주체적인 체육방침을 높이 받들고 1974년에 인민군군인들속에서의 국방실용체육훈련과 함께 청소년학생들과 근로대중속에서의 국방체육활동이 활발히 벌어짐으로써 그들을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켰다.

인민군군인들속에서 전투정치훈련과 함께 군사3종경기와 국방실용체육활동이 맹렬히 벌어짐으로써 누구나다 산악과 강하천이 많은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을 이겨내고 어떠한 정황에서도 맡겨진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일당백의 전사로 튼튼히 준비되였다.

또한 로농적위대원들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속에서 등산, 야영, 행군, 집단달리기 등 대중국방체육을 우리 나라의 지대적특성에 맞게 강화하는 한편 사격, 무선통신, 자동차및 뜨락또르운전, 바줄오르내리기, 장애물이겨내기, 수류탄던지기, 강건느기, 산야횡단 등 국방실용체육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을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였다.

각급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의 년령적특성과 지대적조건에 맞게 고지점령을 비롯한 각종 군사경기를 적극 조직진행하였으며 수많은 학생들을 곳곳에 설치된 국방체육구락부와 해양구락부에 망라시켜 높은 사격술을 소유하고 험난한 파도속도 뚫고 나갈줄아는 강한 인내력과 투지를 키워주었다.

평양시 국방체육구락부 하나만 보아도 시안의 250여명의 고등중학교 학생들이 취미와 소질에 따라 모형항공, 모터찌클, 활쏘기 등 7개의 국방체육종목에 망라되여 날마다 2~3시간씩의 교수훈련을 받았다.

이 국방체육구락부에서는 많은 체육선수후비들을 키워서 체육선수단들과 체육교육기관들에 보냈는데 그들중에는 활쏘기에서 세계기록과 공화국기록을 깨뜨린 선수가 있는가 하면 1974년에 진행된 국제모형항공경기대회에서 1위를 쟁취하여 천리마조선의 영예를 빛내인 선수도 있다.

이러한 국방체육구락부는 전국 각지에 있다.

1974년에 진행된 수많은 국제국내 국방체육종목경기들에서 우승한 한두가지 사실만 보아도 우리 나라에서 국방체육이 얼마나 급속히 발전하고있는가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국제경기; 1974년도 사회주의나라청소년친선국제자유형레스링 경기대회가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경기대회에서는 우리 나라 선수단(1조, 2조)를 비롯하여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로므니아, 몽골, 벌가리아, 웽그리아, 체스꼬슬로벤스꼬, 꾸바, 쏘련 등 레스링선수들이 참가하여 48키로그람급으로부터 87키로그람이상급에 이르는 10개 몸무게 급으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의 레스링선수들은 경기대회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 5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개를 쟁취함으로써 천리마조선 청소년들의 위력을 다시한번 떨치였다.

또한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의 사이에 1974년도 사회주의나라청소년친선국제체조경기대회가 진행되였다.

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남녀선수들은 1개의 우승컵과 5개의 금메달, 5개의 은메달, 4개의 동메달을 쟁취하였다.

우리 나라 선수들은 9월 1일부터 16일까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제7차아세아경기대회에 참가하였다.

이 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은 금메달 18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7개를 쟁취하여 메달획득순위에서 우수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 경기대회의 사격경기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아세아의 16개 나라 및 지역에서온 160여명의 이름있는 사격선수들이 참가하였다. 11개종목의 사격경기중 9개 종목에 출전한 우리 나라 선수들은 백발백중의 훌륭한 사격술과 일당백의 무적의 힘을 발휘하여 모든 종목에서 높은 성과를 올리였다.

또한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는 10월 11일부터 3일간에 걸쳐 사회주의나라군대 군사3종경기선수권대회가 진행되였다.

이 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조선인민군선수단은 사격과 장애물이겨내기의 단체성적에서 각각 우승하고 수류탄던지기의 단체성적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어 2개의 우승컵과 2개의 금메달, 1개의 은메달을 쟁취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 선수는 개인종합성적에서 사회주의나라군대 군사3종경기선수권대회의 새 기록을 세움으로써 1개의 우승컵과 2개의 금메달, 1개의 은메달을 받았다.

인민생활향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철학의 요구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근로인민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써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제적으로 누릴수 있도록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이 땅우에 꽃피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 당중앙의 세심한 보살핌에 의하여 우리 인민들은 먹고 입고 쓰고 살 걱정을 모르는 사회주의지상락원에서 보람차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끝없는 배려, 크나큰 혜택;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해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기 위한 력사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앴으며 공업상품의 값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들은 사회주의제도에서 행복한 생활을 더욱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습니다.≫ (1975년≪신년사≫, 단행본, 7～8페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에 기초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력사적인 조치와 함께 공업상품의 값을 대폭 낮출데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최고인민회의 법령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1974년 4월 1일부터 세금제도가 완전히 없어졌으며 2월 26일에 채택된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3월 1일부터 공업상품의 값이 평균 30%, 최고 50%까지 낮아졌다.

이 력사적인 조치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생활을 더욱 넉넉하고 윤택하게 만들고 고르롭게 향상시킬데 대한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을 실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세금을 없애고 공업상품값을 낮춘것과 관련하여 1974년에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적부담만 하여도 9억원에 이르렀으며 1975년에는 그것이 13억원을 넘게 된다.

이러한 인민적시책으로 1974년 한해동안에만도 근로자들에게 세대당 월평균 28원의 추가적혜택이 돌아가게 되였으며 그 가운데서 세금을 완전히 없애는데서 6원, 공업상품값을 낮춘데서 22원의 혜택이 차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1974년에 우리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1970년에 비하여 로동자, 사무원은 1.5배, 농민은 1.6배로 늘어나게 되였다.

국가가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하여주는 우리 나라에서는 무엇보다먼저 일할 나이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로동조건과 충분한 휴식조건을 보장해주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일할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희망과 재능에 따르는 일자리가 차례지고 8시간로동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충분한 휴식조건을 보장하고있으며 특히 녀성근로자들은 산전산후의 충분한 유급휴가를 받는것은 물론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애기어머니 로동자들은 하루에 6시간 일하고도 8시간에 해당하는 로임을 받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가 이미 완전히 해결되였으며 인민들의 생활수준은 고르롭게 전면적으로 한 계단 더 높아졌다.

나라의 인민경제는 1974년에 계속 기적적인 속도로 장성되였으며 특히 농업에서는 700만톤이 넘는 알곡을 생산하였으며 고기, 알, 남새, 과일 등 모두 풍년이 들어 우리 인민들은 더욱 유족하게 생활하게 되였으며 생활수준은 또다시 한계단 올라서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로동자, 사무원들의 화폐임금은 전후에만 하여도 일곱차례나 오르게 되여 오늘 그들의 로임은 전반적으로 고르롭게 높아져 월평균 로임수준은 70원이상에 달하였으며 가까운 앞날에 90원수준에 이르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로동자, 사무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거의 무료나 다름없는 낮은 가격으로 식량을 보장해주고있는데 그 비률은 로임의 1%도 되나마나하다.

그리하여 우리 근로자들은 쌀값만 해도 국가로부터 막대한 추가적혜택을 받고있는데 실례를 들어 식구 5명을 가진 로동자, 사무원의 가정에서는 년평균 500여원에 해당하는 국가적혜택을 받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현대적인 설비가 갖추어진 도시의 다층주택이나 농촌의 문화주택 할것 없이 근로자들의 살림집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거저 지어주고있으며 주택사용료, 연료값, 수도료, 전기료 등도 국가가 거의 전적으로 부담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신 전반적무료교육의 혜택으로 모든 학생들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공부하고있을뿐아니라 국가로부터 교과서, 학용품은 물론 철따라 교복과 외투까지 공급받고있으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은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마음껏 공부하고있다.

학령전어린이들은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고있으며 전체 근로자들이 무상치료제의 혜택으로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살고있다. 그뿐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는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로동재해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도 국가에서 책임적으로 생활을 보장하여주고있다.

실로 우리 근로자들은 로동에 따라 받는 분배몫보다 더 많은것을 국가의 혜택으로 받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로력보수가 높은 사람이나 가족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할것 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사회에서 응당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국가적으로 확고히 보장받고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의 보살핌속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행복하게 살고있다.

로동자들의 생활수준에 부단히 접근하는 농민생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인민생활을 높이는 분야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

은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빨리 없애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76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찬란한 빛발아래 우리 나라 농촌의 면모는 몰라보게 달라졌으며 농민들의 생활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하여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훨씬 적어졌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 나라 농촌이 너무나 뒤떨어져있었기때문에 아직도 농촌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도시보다 뒤떨어져있으며 우리 농민들이 너무 어렵게 살았기때문에 그들의 생활은 아직 로동자들의 생활보다 못하다.

그러므로 1974년에도 우리 당은 인민들의 생활을 높여나가는데서 무엇보다먼저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없애는데 큰 힘을 넣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촌테제에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농촌의 면모를 개변시키고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빨리 높이여 로동자들의 생활수준에로 부단히 접근시키고있다.

1974년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호당 평균 분배몫은 알곡만 하여도 1973년에 비하여 141.3%로 늘어났다.

이해에 로동자, 사무원들과 함께 농민들의 실질수입이 훨씬 늘어났으며 많은 협동농장들에서 알곡 및 현금 분배가 지난해보다 2~3배로 높아졌다.

또한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서의 군의 역할이 높아져 농산물수매사업과 농촌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이 잘됨으로써 농민들의 수입은 더 빨리 늘어났으며 농촌에서도 도시에서와 같이 필요한 상품을 더 많이 살수 있게 되였다.

농민들에게 도시사람들과 꼭같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며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지어줄것을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의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내놓으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친히 설계를 그려주시기도 하고 시공과정도 일일이 돌봐주시면서 더욱더 편리하고 살기좋은 농촌문화주택을 짓도록 이끌어주시였다.

1973년에 한세대가 아래웃층을 동시에 쓸수 있는 2층 3세대짜리 농촌문화주택을 짓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 집이 면적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지 못했다는것을 포착하시고 2층 4세대짜리를 지을것을 가르쳐주시였다.

1974년 1월 7일과 13일 전국농업대회를 지도하시는 그 바쁘신 때에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새로 지은 평양시 삼석구역 2층 4세대짜리 집을 찾으시여 집구조를 세세히 보시면서 웃층을 두간 다 덥힐 방도를 세워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삼석구역과 사동구역, 평남도 대동군과 온천, 문덕, 숙천군을 비롯한 전국각지 농촌들을 여러차례 찾으시여 새로운 현대적인 문화농촌마을을 형성할 터를 하나하나 잡아주시고 농민들의 마음에 드는 편리하고 살기좋은 2층, 3층 농촌주택의 설계로부터 그 시공방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면서 건설을 빠른 속도로 다그칠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지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1974년 한해동안에 우리 농촌에는 나라에서 무상으로 지어준 10만여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이 새로 일떠섰으며 위대한 농촌테제가 발표된 후 10년동안 우리 나라 농촌에는 국가부담에 의하여 56만여세대의 문화주택이 일떠섰다.

우리 농민들에게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주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은 참으로 현저히 개선되였다.

문덕군 룡림마을의 중심거리에는 난방이 들어간 현대적4층주택들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식의 다층주택이 228동이나 들어서고 7, 8층으로 된 교육문화기관들과 넓다란 부지를 차지한 상업편의시설들이 아름다운 색조화를 이루고 들어섰다.

우리 농민들은 난방이 들어가고 상하수도가 갖추어지고 더운물, 찬물이 나오며 목욕탕에 수세식변소까지 달린 문화주택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가 훨씬 줄어들었으며 농민들의 문화생활도 활짝 꽃피였다.

우리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농촌리진료소의 병원화가 완수됨으로써 이제는 농민들도 도시에서처럼 전문과의 의료방조를 받을수 있게 되였다.

농촌 수도화와 뻐스화, 텔레비죤화도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군소재지는 물론 모든 농촌부락에까지 수도를 놓을데 대한 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여 이미 60%이상에 달하는 농촌세대들에 수도가 들어감으로써 농촌녀성들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되였던 물동이를 이고다니는 현상이 없어져가고있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우리 농촌에는 4만 3천여개의 탁아소, 유치원이 아담하게 꾸려졌다.

농촌뻐스화가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85%이상의 농촌리에 뻐스가 이미 들어갔다.

농촌에 뻐스가 들어감으로써 농촌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편리하게 되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련계가 더욱 강화되였다.

오늘 우리 농민들은 도시부럽지 않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고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주민들과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가 날을 따라 빨리 줄어들고있다.

이처럼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철학의 요구가 빛나게 구현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국가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줌으로써 다같이 고르롭게 잘살고있다.

세계에서 세금없는 첫 나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1974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기초하여 3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는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한 력사적인 법령을 채택하고 이를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따라 3월 21일에 채택된 최고인민회의 법령《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4월 1일부터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가 완전히 없어졌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세금없는 첫 나라로 되였다.

우리의 주체조선에서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의 첫 탄생을 선포하였으며 세금없는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이 일어났다.

이것은 수천년동안 근로하는 인민들이 한결같이 갈망하고 념원하던 세기적숙망의 빛나는 실현이며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것으로 만드는 투쟁에서 이룩된 또하나의 자랑찬 전취물이다.

이 위대한 력사적사변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게 하며 모든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가져온 찬란한 결실이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음으로써만 실현될수 있는 혁명적변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부담에서 근로자들을 해방하는것을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혁명임무로 보시고 세금제도를 없애기 위한 조건과 시기, 순차와 방법 등 문제들에 전면적인 과학적해명을 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소득세와 농민들의 현물세를 없앰으로써 낡은 사회의 유물인 조세제도를 종국적으로 없애고 근로자들을 온갖 세금부담에서 완전히 해방할것이며 그들의 실질소득을 더욱 높이게 될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131～132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조세제도의 개혁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시고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에 작성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일제의 온갖 가렴잡세를 없앨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작성하신 주체적인 조세강령을 해방직후에 내놓으신 20개조정강에서 더욱 발전시키시고 구체화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후 짧은 기간에 진행한 위대한 민주주의적개혁들과 함께 그 중요한 일환으로서 조세개혁이 실시됨으로써 일제의 략탈적인 식민지조세제도가 없어지고 단일한 농업현물세제와 누진소득세제를 기본으로 하는 진정으로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세금제도가 확립되게 되였다.

농촌에서 토지개혁의 실시에 뒤이어 농업현물세제가 도입됨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봉건적인 고률소작료와 온갖 가렴잡세에서 영원히 해방되였다.

또한 누진적인 소득세제가 실시됨으로써 로동계급과 그밖의 각계층 주민들도 일제시기의 가혹한 조세수탈에서 벗어났으며 수입에 따라 적절하고도 공평한 세금부담을 지게 되였다.

농민들이 바치는 현물세나 로동자, 사무원들과 각계층 주민들이 바치는 소득세나 할것없이 모든 세금은 지난 시기와 같이 지배계급과 외래침략자들의 통치기구를 유지하는데 탕진되는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조국의 륭성발전과 전체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쓰이였다.

참말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인 조세강령을 구현하여 실시된 조세개혁은 착취사회의 반인민적인 조세제도를 근본적으로 뒤집어엎고 새로운 인민적 세금제도를 확립한 하나의 혁명이였으며 무거운 세금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하는데서 위대한 첫 변혁이였다.

조세개혁의 결과로 우리 나라에 수립된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세금제도는 새 조국 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정치적 및 로력적 열의를 비상히 높였으며 일제가 파괴하고 간 경제를 복구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자금을 마련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것은 또한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적상공업의 부정적측면을 제한하고 기업가, 상인들로 하여금 전체인민과 함께 새 조국 건설에 이바지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그들을 사회주의적근로자로 개조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인민적인 세금제도를 통하여 국가의 세금수입을 사회주의적주체공업건설을 위한 보충적인 자금원천으로 효과있게 쓰도록 하시는 한편 공업이 발전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닦아지는데 따라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체계적으로 덜어주도록 크나큰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여러차례에 걸쳐 소득세와 농업현물세의 세률을 낮추어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조국해방전쟁의 그 어려운 시기에도 근로자들의 세금을 대폭 낮추는 혁명적시책을 실시하였다.

당과 정부는 전후 1955년에 다시금 로동자, 사무원들의 소득세부담을 30％나 낮추고 수공업자, 기업가, 상인들의 조세부담도 대폭 덜어주었으며 수확고의 25％이던 농업현물세률을 평균 20.1％로 낮추고 1959년부터는 그것을 또다시 8.4％로 낮추었다.

특히 당과 정부는 전후시기에 도시와 농촌에서 급격히 자라난 협동경리들에 대하여서는 개인경리보다 세금부담을 훨씬 더 낮추어주었으며 적지 않은 협동농장들에 대하여서는 현물세를 완전히 면제하여주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튼튼한 기초가 닦아짐으로써 나라의 경제생활에서 세금제도는 더욱더 그 의의를 상실하게 되였다.

사회주의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따라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국영기업소들에서의 축적이 빨리 늘어나고 그것이 국가예산수입에서 압도적비중을 차지하게 되였으며 다른 편으로는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체계적으로 덜어준 결과 세금은 국가재정에서 보잘것 없는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달라진 객관적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력사적인 우리 당 제4차대회에서 가까운 앞날에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해방직후에 도입되였던 농업현물세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 따라 1964년부터 1966년까지의 3년동안에 완전히 없어졌다. 농업현물세제가 없어짐으로써 우리 나라에는 근로자들이 바치는 소득세와 몇푼 안되는 지방자치세만 남게 되였으며 국가예산수입에서 주민세금은 통털어 2％도 되나마나한 정도에 이르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우리 당 제4차대회에서 제시하시였고 사회주의헌법에서 규정하신대로 우리 나라에서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력사적과업은 오늘에 와서 충분히 성숙된 문제로 되였다.

그리하여 1974년 3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종국적으로 없애고 우리 나라를 세계에서 세금이 없는 첫 나라로 선포하는 력사적인 법령을 채택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로동당시대에 와서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한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은 빛나는 현실로 되였으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나라,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세계에서 세금이 없는 첫 나라로 되게 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이 지니게 된 크나큰 영광이며 자랑이며 행복이다.

우리 인민에게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금을 완전히 없애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심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또다시 크나큰 사랑과 뜨거운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세금제도의 완전한 폐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며 로동자, 농민들과 전체 인민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는 우리 제도하에서만 실현할수 있는 인민적시책이다.

세금제도의 완전한 폐지, 이것은 사람들을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하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 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불멸의 주체사상의 요구를 빛나게 구현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근로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였을뿐아니라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적파동에도 끄떡하지 않는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자립적민족경제, 나라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계통적으로 높일수 있는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조국의 안전과 존엄을 확고하게 담보하는 튼튼한 자립적공업, 자체의 기술과 국내원료원천에 의거하여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전진하는 위력한 주체공업을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일수 있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인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한계단 더 높이시기 위하여 이미 있던 경공업공장들을 전면적으로 개건확장하며 현대적인 대규모의 방직공장, 편직물공장, 옷공장, 양말공장, 신발공장, 일용품공장, 식료가공공장 등 새 경공업공장들을 도처에 일떠세우시는 혁명적조치를 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또한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농업생산의 계통적인 장성을 이룩하게 하시고 대풍작을 가져오게 하심으로써 공업생산의 더욱 빠른 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튼튼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가 건설되고 그에 기초하여 생산이 계속 높은 속도로 장성하며 특히 인민소비품생산이 훨씬 늘어나고 상품예비가 더욱 넉넉하게 마련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공업상품을 보다 눅은 값으로 더 많이 공급할수 있게 되였다.

실로 1974년에 당과 정부가 취한 공업상품값을 대폭 낮출데 대한 조치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의 정당성과 그 무궁무진한 생활력, 주체공업의 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다시금 힘있게 과시한것으로 된다.

공업상품값을 대폭 낮추었다

1974년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력사적인 조치와 함께 공업상품의 값을 대폭 낮출데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1974년 2월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공업상품의 값을 대폭 낮출데 대하여 취해주신 조치는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을 더 잘, 더 극진히 보살펴주시기 위하여 베풀어주신 또하나의 크나큰 배려였다.

공업상품의 값을 1974년 3월 1일부터 평균 30%, 최고 50%까지 낮추었는데 그중 천류의 값은 20~50%, 편직물류의 값은 30~35%, 신발류의 값은 16~33%, 일용품류의 값은 15~50% 각각 낮추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결국은 전체 인민이 더욱 넉넉하고 끼고루 다 잘살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인민생활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계속 끊임없는 때려를 돌릴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75페지)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넉넉하고 문명하게 하며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고르롭게 높일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데서 또하나의 획기적계기를 열어놓은 공업상품의 값을 대폭 낮춘 조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의 거대한 생활력에 대한 일대 시위로 된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취한 이 획기적조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우리 인민에 대한 그이의 뜨거운 사랑의 표시로 된다.

년말특별상금을 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 12월 26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국가, 경제기관, 기업소의 모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한달분로임에 맞먹는 년말특별상금을 줄데 대한 력사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김일성저작선집》, 6권, 373페지)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일으켜 계속 천리마속도로 달려나감으로써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한편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여왔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74년에 또다시 우리 근로자들에게 년말특별상금까지 주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이 조치는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에 넘치는 뜨거운 사랑과 배려의 표시이며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중앙의 전투적호소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 나라 영웅적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이 충성의 《70일전투》를 《속도전》으로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대건설의 첫해인 1974년도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승리를 이룩한 빛나는 로력적위훈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평가이며 우리의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전국의 모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년말특별상금을 준 이 력사적조치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세상에서 으뜸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 없는 우월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과시하는 빛나는 사변이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이 조치는 우리 인민들에게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살며 일하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 행복을 안겨주었으며 공화국북반부를 동경하면서 원쑤들의 야수적폭압을 박차고 생존의 권리와 자유, 조국통일을 위하여 줄기차게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새로운 신심과 고무를 안겨주었다.

이 조치는 또한 그 어떤 세계적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안전한 토대우에서 끊임없이 강화발전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힘있게 보여주는 일대 시위로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누구나 다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교육하는 문제, 병치료하는 문제에 아무러한 근심걱정없이 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사회주의제도가 공고화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이 강화되는데 따라서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련이어 실시하여왔다.

실로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년말특별상금을 준 력사적조치는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혁명적이며 독창적인 령도가 가져다 준 빛나는 결실이며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는 일대 시위로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에서 세금없는 첫 나라》

—우리 나라에서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고 공업상품값을 대폭 낮춘것과 관련한 세계 인민들의 반향—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4년에 우리 나라에서 세금을 완전히 없애고 공업상품가격을 대폭 낮추도록 하여주신 력사적인 사변은 《세계에서 세금없는 첫 나라》의 탄생의 선포로 되였으며 이 획기적조치에 대하여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 《인류사회발전에서 획기적인 사변》, 《조선은 인류 최고리상의 나라》라고 하면서 한결같이 찬사를 보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세금을 완전히 없애버렸을뿐아니라 공업상품값을 평균 30%나 낮추었다.

공화국에서 취해진 이번 조치는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악선전을 깨뜨려버리고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일본의 근로대중, 로동자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고있다.

나는 김일성주석님께 마음속으로부터 존경을 표시하며 감사를 드린다.

공화국의 이번 조치는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터무니없는 허위선전에 대해서 강력한 타격을 주었다. 이것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의 정당성을 남김없이 보여주고있다.》 (일본 로동조합총평의회 사무국장 오끼 세이고)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은 세계적인 경제적파동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나라 경제를 착실히 발전시키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세금을 완전히 없앨데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소식은 자본주의사회에 사는 우리의 상식으로써는 상상할수 없는것으로써 참으로 커다란 충격이 아닐수 없다.

이것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그의 구현인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대한 생활력을 과시한것으로 된다.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나라로 되였다.》 (영국학자 토마스 스코트)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조선에서의 세금의 완전한 폐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인민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고 하면서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행복을 못내 부러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였다.

《사회주의를 비방중상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악선전이 매우 로골화되고있는 가운데 조선에서 취해진 이 획기적인 조치는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은 오직 사회주의길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36년동안의 일제식민지통치와 3년간의 간고한 전쟁을 겪은 사실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력사적인 조치는 조선이 그야말로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

할만큼 매우 빠른 속도로 륭성발전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나는 이번에 이 소식을 듣고 인류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나라는 바로 조선이라는 인식을 더욱 깊게 하였다.

또한 이번의 조치는 세계적범위에서 경제위기가 격화되고있는속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크게 과시하는것으로 된다.

이 모든것은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사상의 생활력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책의 정당성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화란교원 틴 퀴파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세금이 완전히 폐지되였으며 공업상품가격이 대폭 낮아졌다.이와 같이 세금이 완전히 폐지된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다.

이것은 김일성주석님의 령도가 얼마나 탁월한가를 실증해준다.매우 부럽다.

이것은 다 주석님의 따뜻한 배려가 있음으로 하여 이루어진것이며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일본사회당 부인국장 와다나베 미찌꼬)

《세금제도의 폐지는 공화국이 사회주의건설에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는것을 말하며 인민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위한 정치를 실시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이는 남조선인민들을 크게 고무하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는 획기적인 조치로 될것이다.

뿐아니라 공화국에서는 일용품은 15~50%, 천류는 20~50%나 그 값이 대폭 낮아졌다. 나는 이 사실들에 커다란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이것은 악성인플레가 되풀이되고있는 자본주의나라 일본에서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며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것이라고 생각한다.

공화국에서는 일용소비품값이 계속 인하되고있는데 이것은 주체사상이 인민을 위한 위대한 사상이라는것을 립증하는 실례로 된다.》 (일본전국상공단체련합회 회장 우찌다 마사노리)

《조선에서 세금이 완전히 폐지되고 물건값이 대폭 인하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생각하게 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치료비와 수업료 그리고 모든 물건값이 올라가기만 하고 인민들의 생활은 점점 어렵게만 되여가고있다.

조선에서 세금이 완전히 철폐되고 물건값이 대폭 인하되였다는 사실은 조선에서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그대로 말해주는것이다. 우리 나라도 조선에서의 이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것이다.

조선에서 이와 같은 훌륭한 제도를 세우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참으로 위대한 분이시다. 나는 그이를 진심으로 존경하고있다.》 (버마과학기술자 케이. 케이 와이에)

《최근 조선에서 세금이 완전히 폐지된것은 조선인민이 자기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거대한 성과를 실증하는 하나의 리정표로 된다. 조선에서의 세금의 완전폐지는 사회주의경제를 부단히 강화발전시킴으로써 실현된 력사적인 사변이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농업현물세를 점차적으로 낮추시였으며 1966년에는 그것을 완전히 폐지하게 하시였다.

세금을 완전히 폐지한 이번 조치는 조선의 사회주의경제의 위력과 창조성을 뚜렷이 보여주는 산 증거이며 혁명을 계속하여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시려는 김일성주석님의 원대한 구상의 위대한 승리이다.》 (카나다명길대학 교수 에쓰. 피. 누프)

《몇해전에 있은 농업현물세의 폐지는 공화국의 공업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그때와 비할수 없는 비약적인 장성이 이루어졌음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공업생산력이 높아졌다 하여 어느 나라나 세금을 전폐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령도하시는 공화국에서만이 세계에서 맨 선참으로 세금을 폐지할수 있는것이다.

바로 공화국에서는 생산력발전에 의한 성과가 고스란히 인민들에게 차례지고있다.이것은 참으로 리상적이다. 사회주의의 가장 리상적인 현실이 공화국에서 펼쳐지고있으며 여기에서 공산주의사회가 눈앞에 다가오고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일본무사시대학 교수 곤도 야스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한결같이 세금이 없는 첫나라로서《조선은 인류 최고 리상의 나라》라고 말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인류사회발전에서 획기적인 사변이다. 세금이 전폐되고 공업상품의 가격을 평균 30% 낮춘다는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오직 김일성주석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독창적인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의 위대한 승리가 가져다준 고귀한 열매이다.

김일성주석님의 탁월하고도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의 국제적위신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는데 이를 계기로 그것은 더욱 높아질것이다.》 (일본세금제도경영연구소 소장 다니야마 하루오)

《특히 세금제도를 완전히 폐지한것은 세계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획기적인 일이다.》 (일본도꾜교육대학 교수 히시누마 다쯔야)

《꿈과 같은 이야기다. 생활에 걱정이 없는데다가 세금까지 없어지니 생활은 더욱더 유족해질것이다. 그처럼 유족한 생활은 바로 주체사상이 가져온 결과이다. 그러한 주체사상을 전체인민이 더욱 빛내이려고 노력하는것은 웅당한 일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그들의 투쟁은 더욱 확대될것이다.》 (일본도꾜도립대학 조교수 오자와 유사꾸)

《조선에서는 세금을 전폐하였으며 공업상품값을 대폭 낮추었다. 이 얼마나 부러운 일인가. 이런 조치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가 얼마나 안정되고있는가를 전세계에 보여주는것이다.

남조선은 전혀 엄두도 내지 못할 일들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가혹한 인민탄압이 감행되고있다. 이 모든것을 생각할 때 김일성주석님께서 실시하시는 정치가 참으로 인민을 위한것임을 잘 알수 있다.》 (일본《마이니찌신붕》사에서 발행하는 잡지《에코노미스트》편집차장 기구찌 다까오)

한편 중국,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나라들의 신문, 통신, 방송들과 세계 여러 나라 출판물들은 우리 나라에서 세금이 완전히 없어지고 공업상품의 값이 대폭 낮아졌다는 소식을 널리 전하였다.

특히 일본의 신문들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조선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 (《아사히신붕》), 《조선 세금을 폐지, 공업상품값도 낮춤》 (《마이니찌신붕》), 《조선 4월부터 세금전폐》 (《요미우리신붕》), 《세금없는 나라로, 조선최고인민회의가 완전폐지법령을 채택》 (《도꾜신붕》), 《조선이 4월 1일부터 세금을 받지 않는다》 (《산께이신붕》) 등 제목을 크게 달았다.

《마이니찌신붕》은 1면에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 제출된 첫째의안인《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의 보고내용을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나라 조선은 세계에서

세금이 없는 첫 나라로 되였다.세금이 없는 나라의 출현, 이것은 계급사회와 더불어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수억만 인민들을 수탈하여온 낡은 조세제도의 종말을 선고하는 력사적사변이다.》

애급신문《알 아흐람》, 인도네시아신문《업빠리다》, 싱가포르신문을 비롯한 세계 수많은 나라 신문들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채택된 법령《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의 전문을 싣거나 법령내용에 대해 보도하였으며 말가슈신문《이문구 바우바우》1974년 4월 22일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베풀어주신 또하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취해진 인민적시책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거대한 생활력에 대한 일대 시위로 된다고 찬양하였다.

탄자니아신문《느구루모》는 《세상에서 세금을 철폐한 첫 나라》라는 표제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세금을 완전히 철폐한것은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우월성을 실증하여준다.》고 썼으며 레바논주간잡지《앗싸야드》는《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이라는 표제의 글을 실으면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실로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다고 강조하였다.

레바논잡지《알 마싸리프》, 시에라레온신문《더네이슌》을 비롯하여 세계의 수많은 신문, 잡지, 방송, 통신들도 한결같이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첫 세금없는 나라로 된데 대하여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였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당과 정부가 전체 근로자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여주는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실현될수 있는 인류사적인 사변으로 된다.

따라서 나이제리아조선인민친선협회 서기장 바바오노졸라가《조선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는 사람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진정한 사회주의제도의 전형이다.》라고 한 말이 어찌 그 혼자만의 심정이라고 하랴!

《조선에서의 온갖 세금의 완전한 페지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로 되며 주체사상의 요구를 실제적으로 구현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과시한 조선의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을 확증한것으로 된다.》(레바논신문《알 안와르》)

상품공급 및 편의봉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상업은 근로자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며 인민들의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63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상업이 생산과 소비를 련결시키고 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힘있게 추진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더 잘 이바지할수 있도록 상업발전에 시종일관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고 크나큰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범상점, 모범상업군을 꾸릴데 대하여 여러차례의 교시를 주시였으며 1974년 6월에는 이 사업을 대중적으로 밀고나가도록 상업근위칭호제정에 대한 정령을 공포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상품공급과 편의봉사사업은 현실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하였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여러가지 상품이 고르롭게 공급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도시와 농촌, 산간마을, 어촌을 막론하고 근로자들이 사는곳마다에 빠짐없이 현대적인 상업망이 포치되여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봉사하고있으며 상품의 판매가격이 일원화됨으로써 상품류통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없어진지 이미 오래다.

또한 온 나라 이르는곳마다에 자립적인 경공업기지가 튼튼히 꾸려짐으로써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전적으로 국내상품으로 훌륭히 보장하고 있다.

상품공급부문에서는 1974년에 공업상품의 값이 대폭 낮아지고 세금이 완전히 없어진 력사적조치로 근로자들의 구매력이 더한층 높아진 실정에 맞게 상품을 공급해줌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한계단 높여주었다.

상업부문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잘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어떤 상품을 요구하면 해결해주는 주문제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였다.

상업부문에서는 1974년 1월부터 8개월동안에 그 전해 같은 기간보다 소매상품류통액은 1.2배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양, 사리원과 북부지대 상업기관일군들은 과일, 남새 생산능력과 그 수요를 정확히 조사장악한데 기초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무어주신 특별렬차와 수송기들로 한달남짓한 사이에만도 1만여톤의 올파일과 남새를 자강도와 량강도 인민들에게 제철에 공급하였다.

함흥, 원산, 송림을 비롯한 도시와 로동자구의 상업전사들은 분쇄기, 절단기 등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 부식물가공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1974년 8~9월에 부식물생산량을 그전해 같은 기간의 1.2배로 높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1974년에 공업상품의 값이 대폭 낮아진후 온 나라 소매상업망들에서 인민들에게 공급한 공업상품량은 급격히 늘어났다.

평양제1백화점 하나만 보아도 공업상품값을 낮춘후 15일동안에 날마다 평균 현물량적으로 종전의 1.5~3배, 최고 10배이상 되는 상품을 공급하였다. 그중 면천은 2.3배, 어린이옷은 2.4배, 내의류는 2배,잡화류와 문화용품, 가정용품은 1.7배, 신발류는 1.5배로 그 공급량이 늘어났다.

각 도, 시, 군 행정위원회 소매상업관리처들과 도매기관들에서는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한 인민소비품을 지체없이 소매류통부문에 넘겨주었으며 소매상업망들에서는 주문판매, 이동판매, 송달판매 등 봉사활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전국각지의 상업전사들은 주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립장에서서 봉사활동을 강화하면서 상업근위칭호의 영예를 지니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였다.

강서군의 상업전사들은《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체적인 힘을 모아 80여개의 상업망을 새로 알뜰하게 꾸리고 상업비품제작기지와 네온싸인생산기지를 마련하여 상업망들을 보다 위생문화적으로 꾸리였다.

농촌에 더 많은 상품을 공급하였다; 경애하는 수령김일성 동지께서는 현지지도의 그 바쁘신 길에서도 대동군의 연곡, 원천 마을과 성천군의 향풍마을 농장원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그들이 요구하는 품목을 하나하나 알아보시였으며 온 나라의 농촌들에 여러가지 상품을 더 많이 보내주도록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농촌테제의 휘황한 빛발아래 1974년에 전례없는 대풍을 마련한 각지 협동농

장마을들에 여러가지 질좋은 상품이 많이 들어갔다. 15만톤군인 안악과 연안, 문덕과 숙천군의 농촌상점들은 물론 벽촌 법동군의 고미탄마을과 룡천군의 외진 섬마을 상점들에도 갖가지 일용잡화, 부엌세간, 건재품, 고급문화용품, 옷류들이 가득가득 들어차 농장원들은 기쁨으로 흥성거리였다.

이해에 농촌에 공급된 상품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1.5배, 그중 농업근로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용잡화공급량은 1.8～2배이상으로 늘어났다.

상업부문에서는 이미 조사장악된 수요에 근거하여 상품원천을 확보함으로써 이해 9, 10월 두달동안에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배나 되는 여러가지 상품들을 장만공급하였다.

강서와 개천군의 상업일군들은 협동농장의 분조들에 주문접수대장을 만들어놓고 주별, 월별로 농업근로자들의 수요를 알아들이고 제때에 공급해주었으며 군상업기관들의 기능과 공급기지로서의 군의 역할을 높임으로써 수백종의 상품을 농촌상점들에 공급하였다.

전국 각지의 상업일군들은 상점간, 지역간 상품교류사업도 활발히 벌렸는데 룡천군의 상업일군들은 자기 지방에서 적게 나오거나 수요가 많은 상품들을 지구들과 교류하여 10월 한달동안에만도 5차량에 100종의 일용품을 가져다 공급하였다.

면밀한 수요타산에 따라 각지 상업일군들은 이해에 농민들속에서 수요가 높은 비옷은 지난해에 비하여 11.7배, 비닐신은 5.3배, 물감, 알루미니움 및 법랑칠기류는 1.4배, 어른양복과 편직걸옷은 2.4배로 공급량을 늘이였다.

농촌에 공급된 상품은 일용잡화의 비중이 현저히 높았으며 그 질적구성이 또한 다양하였다.

문덕, 연안, 룡천, 향주, 성천, 향산, 강동군의 상업진사들은 더 많은 상품이 인민들에게 차례지게 하기 위하여 상점망의 거리, 수송할 상품량과 공급주기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일상적으로 떨구지 말아야 할 상품과 농업근로자들이 많이 요구하는 상품을 제때에 계획적으로 내려다줌으로써 신발류, 내의류, 세타류, 양복류의 농촌에 대한 공급량이 현저히 늘어났다.

상업부문에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상업적 련계가 더욱 활발해지고 농민들의 생활이 더욱 향상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가 줄어든다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상품공급망과 수매망을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도록 농촌마을에 더 접근시켜 합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상점수와 그 규모를 더욱 늘이였으며 매개 리와 마을마다에 수매기지를 잘 꾸려놓고 지방특산물을 정상적으로 수매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꽃피는 살림으로 나날이 늘어나는 농민들의 상품수요를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하여 농촌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도시와 농촌간의 상업적련계를 더 긴밀히 하고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열의와 창조적열성을 더욱 높여주었다.

사회급양 및 편의봉사망이 더욱 늘어났다;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에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언제나 심려하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여러가지 식당과 편의봉사망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리발소, 목욕탕, 세탁소, 의복 및 가구수리소 등 편의봉사사업이 더욱 개선강화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1974년 4월 11일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평양시 모란봉구역 만수교청량음료점을 찾으시고 사회급양사업발전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사회급양부문일군들은 이 해 여러곳에 생선국밥집, 온반집, 회국수집, 순대국밥집, 빵집 등 전문대중식당들과 청량음료점을 새로 꾸려놓았으며 새로 내온 식당들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어 모두다 큰 은을 내게 하여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더욱더 흥겹고 유족하게 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1974년초 석달동안에만도 전국 각지에 3천여개의 식당들과 편의시설들이 새로 생겨났다.

시설을 늘이는것과 함께 그 질적구성과 업종도 개선되였는데 사회급양부문에서는 지역적실정에 맞게 일반식당, 전문식당, 종합식당 그리고 고급식당, 맥주집, 차집, 빵 및 과자집 등을 합리적으로 분포하고 료리와 청량음료의 가지수도 대대적으로 늘이였다.

이리하여 평양시에서는 만경대, 동대원, 중구역을 비롯한 모든 구역들에서 300여개의 식당, 청량음료점, 편의봉사망들이 새로 꾸려져 시내 근로자들에게 봉사하였다.

평양시 사회급양관리소에서는 기존 건물들을 리용하여 종합식당의 분식당형태로 시내 곳곳에 작은 규모의 식당을 새로 내왔는데 평양시에서 식당과 청량음료점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급된 음식공급량은 1974년에 전해에 비하여 2.4배, 같은 기간에 청량음료는 3배에 달하였다.

평남도에서는 강서군을 본보기로 꾸리고 그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여 500여개의 봉사시설을 더 늘이었다.

강서군에서는 금성뜨락또르공장, 강선제강련합기업소 등 주요기관, 기업소들이 새로 꾸리는 대상들을 하나씩 맡아가지고 이 사업을 전격적으로 내밀어 불과 1주일동안에 26개의 식당과 12개의 편의시설망이 대대적으로 늘어나 농업근로자들로 하여금 보다 위생문화적으로 생활할수 있게 하였다.

온천군 하나만보아도 70여개의 리발소, 목욕탕, 세탁소, 양복점, 수리소 등 여러가지 편의봉사시설들이 조밀하게 포치되여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상 요구를 충족시켜주고있다.

사회급양 및 편의봉사망들은 녀성들을 가정과 부엌일의 부담에서 해방하며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를 줄이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더욱 흥겹게 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도 시 경 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와 전체 인민의 공동재산인 건물들과 시설물들을 제때에 수리하고 관리하는것은 인민위원회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도시경영사업을 잘하여야 근로자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할수 있습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246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도시경영의 근본요구에 맞게 우리의 모든 도시들을 현대적인 문화도시로 꾸리고 도시주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현대적건물과 시설물들을 만년대계로 오래 보존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에로 전체 인민을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도시경영사업이 더욱 개선강화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상 편의를 적극 도모하여주고있다.

거리와 살림집을 잘 꾸리고 상하수도망을 더욱 늘이였다;

도시경영부문에서는 1974년에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에 튼튼히 서서 나라와 인민의 귀중한 재부인 도시안의 살림집과 학교, 병원, 유치원, 탁아소들, 문화후생시설을 비롯한 공공건물들을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더욱 아담하고 문화적으로 꾸리였다.

공공건물들에 대한 보수관리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주택을 비롯한 건물들과 시설물들의 실태료해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어 철저히 진행하고 보수관리사업을 계획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지방행정기관들과 도시경영부문일군들은 근로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을 앞세운데 기초하여 모든 기관, 기업소, 동과 인민반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도시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건물들과 시설물들에 대한 보수관리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 나라의 귀중한 재부를 더욱 알뜰히 꾸리도록 하였다.

도시경영 기관들과 기업소들에서는 사회주의경제운영의 요구에 맞게 건물들의 보수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들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맞물려놓고 대상의 선후차를 가려가면서 그를 품종별, 규격별로 현지에 날라다줌으로써 계획적인 보수사업에 자그마한 지장도 주는 일이 없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천리마북새동에서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거리와 마을, 일터와 살림집을 알뜰히 꾸리기위한 사업이 모든 단위들에서 맹렬히 벌어짐으로써 생산문화와 생활문화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였다.

도시경영부문에서는 또한 주택들에 옷장, 찬장을 비롯한 쓸모있는 가구제품들을 갖추어주었으며 리발소, 빨래집, 목욕탕을 비롯한 편의봉사시설들을 더 많이 꾸리며 주택구획이 완전히 생활단위를 이루도록 하였다.

또한 사람들과 교통운수수단들의 래왕이 심한 도시들에서 길을 잘 닦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알뜰히 거두어 거리 전체를 깨끗하게 하고 주민들의 온갖 편리를 도모해주었다.

도시시설부문에서는 전군중적운동으로 돌, 석비레, 광재, 블로크 등 지방자재에 의한 길닦이를 널리 벌렸으며 특히 자동차들이 중량화, 대형화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길보수를 질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길닦이사업을 정상화하는 한편 평양시를 비롯한 주요도시안의 가로등을 현대적인것으로 바꾸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킴으로써 우리의 모든 도시들이 더욱 환하고 아름답게 되였다.

또한 상하수도부문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우리의 도시와 마을의 주택들은 더욱 문화적으로 꾸려지고 살기좋게 되였다.

도시경영부문에서는 도시주민들에 대한 물공급사업을 더욱 잘하기 위하여 이미 있는 수원지를 정비보강하여 물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는 한편 송배수관을 비롯하여 모든 수도시설에 대한 예방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워 물의 도중손실을 없애며 농촌수도화를 힘있게 다그쳐 도시와 농촌 주민들에게 좋은 물을 풍족하게 공급하도록 하는 사업을 적극 벌리였다.

군소재지는 물론 모든 농촌부락에까지 수도를 놓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된 결과 1974년에 이르러 60%이상에 달하는 세대들에 수도가 들어갔다.

그리하여 몇천년동안 내려오면서 농촌녀성들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되였던 물동이를 이고다니는 현상이 없어져가고있으며 농촌주민들이 보다 위생문화적으로 생활할수 있게 되였다.

전국 각지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수도화설비들을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고 직접 맡아서 공사를 해주는 등 농촌수도화를 적극 도와줌으로써 설계, 시공, 조립,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들이 전군중적운동으로 진행되였다.

지방행정기관들과 도시경영부문일군들은 수원지확인, 측량, 물주머니와 뽐프장, 양수장, 저수탕크, 배관시설 등 설계를 적극 앞세우면서 수도설비 생산부문 공장, 기업소들을 적극 발동시켜 수도화를 적극 다그치도록 함으로써 농촌수도화가 더욱 빠른 속도로 추진될수 있게 하였다.

도시안의 상하수도망부문에서는 새로 일떠선 주택들에 수도를 대대적으로 설치하며 불합리하게 설치된 모든 상수도시설들을 모두다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낡은 상수도시설들을 보수정비하는 등 이미 있던 수도시설들을 알뜰히 관리하여 음료수의 생산량을 계통적으로 늘이여 주민들에게 풍족히 공급되도록 하였다.

상수도망을 유지보수함과 동시에 하수도망과 오물처리장 등에 대한 관리를 책임적으로 함으로써 우리의 거리와 집주위를 항상 위생문화적으로 거두게 하였다.

열난방면적이 늘어나고 거리와 마을은 원림화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2년 6월말에 진행된 전국열관리원대회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열관리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며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열설비들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규격화, 현대화하며 연료를 극력 절약하고 더 많은 열을 생산하여 3대기술혁명수행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1974년에 평양시의 중앙난방부문에서는 비파거리를 비롯하여 새로 일떠선 거리의 다층주택들에 대한 중앙난방공사를 적극 다그치는 한편 평양시안의 많은 구역들에 열망을 확장하여 더 많은 주택과 건물들에 중앙난방이 들어가게 하였다.

1974년에 평양시 두리의 농촌들과 온천군, 숙천군, 안악군, 재령나무리벌을 비롯한 농촌의 이르는곳마다에 난방이 들어가고 더운물, 찬물이 나오는 2층, 3층짜리 농촌문화주택들이 일떠서 우리 농민들은 도시부럽지 않게 살게 되였다.

난방부문에서는 열설비들의 규격화, 현대화를 적극 다그치는 한편 보이라작업의 기계화를 힘있게 벌려 많은 석탄을 절약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였다.

평양시 난방사업소에서는 중형보이라를 종합적으로 기계화하였으며 고정불판으로 된 비등층보이라의 슬라크처리를 밀개식으로 함으로써 보이라효률을 10%나 높였을뿐아니라 김보이라에 전기식물처리장치를 받아들여 물때로 인한 열손실량을 줄였다.

원림부문에서는 이미 있는 공원과 유원지들을 더 잘 꾸리고 각종 체육오락시설들과 내부리용시설들을 보충완비하며 곳곳에 크고 작은 공원을 더 많이 꾸려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로 리용되게 하는 사업을 적극 진행하였다.

또한 봄과 가을철 나무심기기간에 계획된 여러가지 나무를 심고 꽃가꾸기와 나무관리를 잘하여 공원과 유원지는 도시주민들의 좋은 휴식터일뿐아니라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자연에 대한 생동한 지식을 주며 그들속에서 자기 조국과 향토를 열렬히 사랑하는 정신을 키워주는 훌륭한 학교로 되게 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비롯하여 온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도시들에는 공원들과 유원지들이 새로 수많이 꾸려져 우리 나라는 말그대로《공원의 나라》로 전변되였다.

오늘 평양시는 원림화의 본보기도시로 인구 한사람당 록지면적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48평방메터로써 이는 5명의 한 세대가 평균 240평방메터의 록지를 가지고있는것으로 된

다.

우리 나라에 왔던 자본주의나라의 한 기자는《빠리는 도시안에 공원이 있지만 평양은 공원안에 도시가 있다.》고 하면서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의 하늘은 언제나 푸르고 신선하다고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실로 오늘 우리 인민들은 공해가 없는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을 마음껏 들이쉬고 마시며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인 민 보 건

우리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오늘 우리 인민들은 전반적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으며 무병장수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사람들의 생명을 더 잘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끊임없이 증진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병원들을 증설하고 의료일군들을 늘이며 여러가지 의약품과 의료기구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치료예방사업을 더욱 개선하도록 할것입니다. 특히 군병원들을 잘 꾸리고 농촌녀성들을 위한 산원시설을 강화하며 농촌리의 진료소들을 병원화하고 모든 리에 아동병동을 꾸려 농촌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78폐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우리 나라에서 인민보건사업은 1974년에 더욱 발전하였으며 근로자들의 건강은 체계적으로 증진되고있다.

위생방역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근로자들이 병이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것을 보건사업의 기본으로 삼고있다.

중앙과 도, 시, 군들에 있는 위생지도위원회와 위생방역소들에서는 1974년에 도시와 농촌에서 위생방역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활발히 벌리기 위하여 근로자들속에서 보건위생지식을 널리 보급하는 한편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철저히 확립하며 질병예방을 위한 위생문화적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었다.

각급 위생지도기관들에서는 학생문화위생근위대원들을 공장, 기업소, 인민반들에 내려보내여 위생방역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활발히 벌려 생산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생활습성을 버리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에 맞게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근로자들에게 공장안은 궁전과 같이 꾸리고 공장밖은 공원과 같이 꾸릴데 대하여 주신 교시가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우리의 도시와 농촌은 더욱 아름답고 살기좋은 락원으로 꾸려졌다.

우리 인민들을 문화위생적인 환경에서 흥겹게 일하게 하시려고 그 언제나 심려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각지 위생방역소들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근로자들의 로동조건을 현저히 개선하였다.

평양시위생방역소에서는 로에서 나오는 열을 60%이상 낮추고 사람들의 건강에 해로운 복사열 같은것을 완전히 막는 한편 로에서 나오는 먼지를 잡는문제, 작업장에서 가스를 없애기 위한 문제, 소음방지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을 생산현장에 도입함으로써 로동자들의 건강을 적극 보호하였으며 작업장의 위생문화성을 적극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3~4월, 9~10월 위생월간에 《모범위생군(구역)》, 《모범위생인민반》, 《모범위생가정》 창조운동이 활발히 벌어졌으며 군소재지에 있는 기관들과 학교, 병원, 탁아소, 유치원, 문화회관 등을 위생문화교양의 거점으로, 위생문화의 본보기로 만들고 군소재지의 생활풍습과 위생문화적인 면모를 농촌이 본받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농촌을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시키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하나의 공장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인민들의 건강보호에 좋은 조건과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생산력을 예견성있게 분산배치하여 왔기때문에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큰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는 공해현상을 미리 막을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의사들이 일정한 구역을 담당해가지고 위생방역검진, 예방치료사업을 하며 인민들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주는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고있어 근로자들의 건강은 체계적으로 증진되고있다.

평양시에서는 보통강구역의 의사담당구역제사업경험을 모든 의료기관들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섬멸전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는데 각 구역인민병원들에서는 기술부원장을 책임자로 하는 참모체계를 세우고 그에 맞게 입원실과 외래치료과, 종합진료소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웠다.

구역인민병원들에서는 외래치료과를 강화하여 환자들을 종합진료소와 구역인민병원의 2중건강관리체계에 따라 집중적으로 치료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던 콜레라, 장티브스, 일본뇌염, 학질, 지스토마, 홍역 등 각종 전염병들이 이미 없어진지 오래다.

결과 해방전에 비하여 인구의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30년가까이 늘어났다.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이 더 많이 차례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체 인민들에게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이 더많이 차례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국가예산에서 막대한 보건사업비를 해마다 체계적으로 증가시키고있는데 그것은 1974년에 이르러 더욱 늘어났다.

그리하여 병원을 비롯한 각종 치료예방기관들과 의사수가 더욱 늘어났으며 여러가지 의약품과 현대적인 의료기구들이 더 많이 생산공급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가장 높은 수준의 치료를 받고있다.

우리 나라에는 각 도, 시(구역), 군, 리, 동 마다 병원 또는 진료소가 있으며 공장, 광산들에는 산업병원과 진료소가 있고 도시에는 큰 규모의 여러가지 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이 있는것은 물론 각지에 료양소가 있어 국가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고 있다.

현대적설비로 꾸려진 이 모든 치료예방기관들에서는 진찰비, 각종 실험검사비, 약값, 입원치료비, 식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다 부담하여주기때문에 환자는 돈한푼 물지 않으며 지어 병이 완치된후 건강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보약까지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보장받고있다.

우리 나라는 인구 1천명당 의사수, 의료시설수, 그 침대수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나라의 대렬에 들어섰다.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을 개선하는것을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중대한 사업으로 여기고 농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농촌리진료소를 확장하고 완비하며 농민들에 대한 의료봉사를 더욱 개선할데 대한 과업은 이미 빛나게 실현되였다.

특히 우리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농촌리진료소의 병원화가 1974년에 이르러 완수됨으로써 이제는 농민들도 도시에서처럼 전문과의 의료상방조를 받을수 있게 되였으며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더 잘 받게 되였다. 모든 리에 아동병동이 새로 나왔으며 매 군에 군병원이 튼튼히 꾸려지고 농촌녀성들을 위한 산원시설도 확장되였다.

보건부문에서는 농촌경리의 화학화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현실에 맞게 농약과 살초제에 대한 보건위생학적 평가를 과학적으로 하고 로동보호대책을 철저히 세웠으며 농촌수도화를 위한 물의 질분석사업과 급수원의 선택을 보건위생학적요구에 맞게 진행함으로써 농업근로자들의 건강을 적극 보호하였다.

또한 광천료양치료사업이 더욱 발전되고 온천이나 약수터마다에 훌륭한 시설을 갖춘 료양소들이 새로 수많이 설치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의 건강보호증진에 특별한 배려가 돌려지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할 때에도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에게 그 혜택이 우선적으로 미치도록 하여주시였으며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할 때에도 소아과, 산부인과부터 먼저 실시하도록 배려하여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녀성들까지 포함한 모든 녀성들에게 77일간의 산전산후유급휴가를 주고있으며 어린이가 3명이상 되는 근로녀성들은 6시간 일하며 체질에 맞는 작업조건과 로동보호대책을 국가로부터 보장해줌으로써 어머니들의 건강은 철저히 보호되고있다.

우리 어린이들은 세상에 나자부터 진찰을 받고 예방접종,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홍역과 백일해, 천연두와 지프테리아도 어린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수 없게 되였다.

의사가 되기전에 공산주의자가 되여야 하며 참다운 인간의 복무자로 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보건부문일군들은 항일유격대의 군의들처럼 참된 인간생명의 기사가 되여 인민들에게 모든것을 다바쳐 복무하고있다.

각도 의학대학과 의학부문학교들에서는 해마다 이러한 보건부문일군들을 수많이 양성해내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성을 다하면 못고칠 병이 없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학사상이 창시되였고 25만의 보건일군들의 심장속에 언제나 《정성》이라는 가장 높은 인간애가 뜨겁게 불타고있으며 혁명동지의 생명을 위하여서는 자기의 피와 살, 뼈까지 다 바치는 숭고한 공산주의정신이 활짝 꽃핌으로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대지를 활보하는 기적이 창조되고있다.

주체적민족의학이 더욱 발전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나라 의학과학을 주체성있게 발전시킬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의학과학연구부문일군들은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동의학을 현대의학과 함께 연구하여 주체적인 민족의학을 더욱 발전시키고있다.

무엇보다 먼저 동의학을 과학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진행하였다.

동의사들은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현대적인 실험설비와 진찰기구들을 리용하는 진찰법으로 환자들의 병에 대한 과학적인 진단을 내리고 조선사람의 체질에 알맞는 동의치료를 하면서 그 효과를 알아내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그들은 애기어머니들의 산후탈을 비롯하여 현대의학으로는 고치기 어려운것으로 알려져있는 병들을 동의치료방법으로써 훌륭히 고칠수 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내였다.

조선의학과학원 동의학연구소 연구사들은 지난기간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민간료법을 4만 5천여건이나 수집하고 그것을 리론적으로 체계화하여 《민간료법》, 《동의학의 민간료법연구자료》등 책들을 만들어 보급하였으며 연구집단은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확증된 민간료법들을 각지 치료예방기관들에서 널리 적용하도록 지도방조하였다.

강원도와 자강도 송원군에 내려가 그곳 보건일군들에게 민간료법을 리론적으로 체계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가르쳐주고 치료예방사업에 그들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었다.

송원군에 나간 연구집단은 군안의 리인민병원 의사들에게 침놓는법, 한증법을 비롯한 료법들을 치료예방사업에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어 경험을 쌓게 한다음 전국의 각 병원일군들을 위한 방식상학과 강습을 통하여 그 경험을 일반화하였다.

동약학연구실과 보약연구실 연구집단은 동약의 성분분석으로부터 가공에 대한 과학적검토, 약물형태의 동약 현대화대책에 이르기까지 동약의 과학화를 위한 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우리 나라 약학발전에 이바지하고있다. 동약학연구실성원들은 또한 200여가지의 동약에 대한 과학적인 가공법을 찾아내여 전국의 치료예방기관들에 알려줌으로써 이 부문일군들이 생약을 잘 가꾸고 거두어들이며 손질하는데와 동약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편리하게 알약, 가루약, 물약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다.

의학과학부문일군들은 230여종에 달하는 약초의 분포상태를 구체적으로 조사장악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새로운 약초를 수많이 발견해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약학연구소에서는 연구사업만 할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 풍부한 생약원천으로 제약공장에서 생산할수 없는 약이면서 적은 량으로 전국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약품을 중간공장을 짓고 생산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이 연구소의 중간시험공장에서는 아트리포스, 위궤양치료제, 구충제, 치담수를 비롯하여 10여가지의 의약품을 만들었는데 모두가 다 효능이 높다. 이미 백반병치료약, 치담수 등은 대중적인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천연물의약품연구소에서는 우리 나라의 자연약초와 공업부산물로 의약품을 많이 만들어낼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효능높은 아르기닌주사약과 새로운 지혈제를 비롯하여 많은 의약품들을 연구하여 생산에 받아들임으로써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의학과학부문에서는 안과분야에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있던 새로운 수술에 성공하였으며 림상분야에서 당면한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위병에 좋은 약과 심장병에 특효가 있는 새로운 약품들을 수많이 연구하였으며 물고기를 새로운 의약품의 원료로 리용하기 위한 문제, 비타민합성방법을 새롭게 연구해냄으로써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였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발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가슴마다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불타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주체사상의 정당성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으며 많은 사람들속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남조선의 혁명적인테리들도 우리가 내세우는 주체사상, 자주, 자립, 자위의 사상을 적극 지지하고있으며 그것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128페지)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해살은 오늘 남녘땅에도 찬란히 빛발쳐 반파쑈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생활과 투쟁의 무기로, 지침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의 해살이 온 남녘땅을 밝혀주기에 남조선인민들은 파쑈광풍이 휘몰아치는 엄혹한 속에서도 힘과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다.

지하와 산중에서, 감옥과 교수대에서, 반파쑈민주화투쟁의 혈전장에서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승리와 희망을 비쳐주는 주체사상을 높이 칭송하면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일편단심 충성다할것을 굳게 결의하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민중의 광명한 미래와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으로서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유일하게 정당한 지도적지침이며 남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필승불패의 혁명적기치이다.

인류사상사에서 최고봉을 이루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를 진수로 하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현시대와 공산주의미래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의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으로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 세계혁명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이고 완벽한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사상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과학적인 진리로서 우리 나라에서만아니라 혁명하는 우리 시대 모든 나라들에서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가장 위대한 사상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을《가장 현명하고 천재적인 사상》으로, 남조선혁명의《승리를 담보하는 백전백승의 무기》로, 세계혁명을 승리에로 이끌며 전세계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현시대의 최고봉의 혁명사상》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접한 남조선인민들은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기초와 기본요구에 대하여 그리고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인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 대하여, 주체사상의 구현인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에 대하여 탄복하면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창시하실수 있은 《가장 현명하고 천재적인 사상》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주민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기초는 사람이 자연과 사회의 모든것을 좌지우지하는 존재라는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주체철학은 김일성주석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천재적이고 독창적인 철학사상》이라고 하였으며 남조선의 다른 한 주민은 《김일성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사상은 언제 어데서나 제정신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책임적으로 풀어나가며 남을 따라갈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정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것을 가르쳐주고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상이며 정당한 말씀이신가》라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서울의 한 주민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조선민족이 낳은 20세기의 거인이시며 불세출의 영웅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우리 이남 인민들의 투쟁의 홰불이다.

참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의 희망의 등대이다.

사람에게서 자주성은 생명이며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동물과 다름없다는 김일성주석님의 말씀에서 나는 일찌기 체험한적이 없는 강한 충격을 받았다.

참으로 동서고금의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위대한 사상에서 흘러나온 천금같은 말씀이시며 가르치심이시다.》

대구의 한 지식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실 인간이 자주성을 잃어버리

면 그들에게는 자유와 평등이 말살되고 굴종밖에 남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이남의 현실, 자신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절감하게 된다.》

또한 다른 주민은 주체사상을 조선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으뜸가는 위대한 사상》이며 가장 《현명하고 위대하며 찬연한 금자탑》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에 대하여 인식하게 된 남조선인민들은 일치하게 이 원칙을 견지하는것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를 보장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굳게 확신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사상은 우리 민족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척할수 있다는 정신을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주었다.

우리 민족은 훌륭한 민족이며 그 어떤 문제라도 능히 자기 힘으로 처리할수 있다.》

《주체란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사상이다.

김일성주석님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라는 천재적인 로선을 내놓으시였다.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사상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이의 리론은 가장 현명하고 천재적인 사상이라는것을 깊이 느끼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오메정부기관지《다오멕스프레스》사장과 하신 담화내용을 방송에서 들은 남조선인민들은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깊이 감동되여 긍지 높이 말하였다.

서울에 있는 전력회사의 전공인 최기덕로동자는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 사상의 진리성은 나의 생활체험을 통해서도 절감할수 있다.

내가 종사하는 전력부문만 보더라도 실지 전력을 내고 보내는 사람은 우리 로동자들이지 사장이나 리사 몇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사장이나 리사가 주인노릇을 하고있으니 여기에 남조선사회의 모순이 있다.

주체사상은 우리 근로자들에게 모든 것의 주인이 될것을 가르쳐주며 깨우쳐주고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체사상으로 정신무장하고 이 불평등한 사회를 변혁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충청남도 대전시에 있는 풍한산업회사에 다니는 로동자 리성근은 주체사상은 혁명투쟁의 《보검》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수령님께서는 모든 혁명투쟁은 근로민중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투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그러하다.

얼마전에 울산조선소 로동자들은 임금인상, 로조결성의 자유 등을 요구하는 생존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벌렸다.

지금 매일 보고있는바와 같이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민주화투쟁은 박정희가 아무리 가혹하게 탄압해도 굴함없이 련속되고있다.

이 모든것은 다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기의 자주성을 찾고 행복하게 살려는 강한 지향에서 나오고있다.

그런것만큼 그 누구도 이 투쟁을 멈춰세울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르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조선혁명을 가장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인도하며 그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유일한 지침》으로 높이 칭송하고있으며 특히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앞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라고 긍지 높이 말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한결같이 《김일성주석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휘황한 등대이고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남조선인민들에게 혁명투쟁의 진리를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해불이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혁명의 고귀한 량식》,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민중의 광명한 미래와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백전백승의 기치》라고 말하고있다.

박아무개농민은 《매국과 파쑈독재가 판을 치는 이 썩어빠진 사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족, 민중, 사람을 진정한 해방과 참된 자유에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로 나가야 한다.

주체사상은 조국통일과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유일한 향도사상이다.

주체의 기치를 들고 나가는것이 우리 승리의 근본조건이다.》라고 말하였다.

남조선의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우리모두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그이께서 부르시는 길로 나아갈 때 반드시 나라가 통일되며 그때는 이남의 겨레들도 수령님의 품속에서 행복을 누릴수 있다.》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주체사상만이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진로를 밝혀주는 유일한 혁명보검이며 그 승리를 확고히 기약하는 필승불패의 혁명적기치, 무궁한 위력의 원천으로 된다.》

이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진수와 거대한 생활력을 심장깊이 새기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그대로 반영해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세계혁명을 승리에로 이끌며 전세계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현시대의 최고봉의 혁명사상》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남조선의 각계 인민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김일성장군님의 주체사상은 인류사상 최고봉의 혁명사상이다.

그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는 위대한 사상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실현을 확고히 담보하는 현시대의 최고봉의 혁명사상이다.》

《민족해방과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위대한 기발인 주체사상은 현시대의 유일무이한 지도사상이고 백전백승의 무기이다.

주체사상은 반세기간의 고난찬 열풍속에서 그 정당성이 충분히 검증되고 오늘 이북에서뿐아니라 세계판도에서 그 무궁한 활력을 과시하고있는 위대한 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은 이남 인민들의 투쟁의 해불로만 될뿐아니라 세계 인민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이다》라고 감동적으로 말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도 김일성주의를 따라야 자유와 해방을 이룩할수 있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들에게 혁명적세계관을 주고 정치적생명을 주고 혁명의 량식을 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지난 기간의 간고한 투쟁에서 얻은 고귀한 경험과 교훈으로부터 출발하여 위대한 주체사상만이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이라는것을 깊이 체득한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높이 부르면서 《주체사상으로의 정신무장!》을 첫째가는 구호로 내세우고 그것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정열을 쏟아붓고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원쑤들이 비상사태우에 《긴급조치》까지 발동하고있는 폭압속에서도 《김일성주석님혁명사상연구회》, 《주체사상연구회》, 《김일성주의연구소조》, 《수령님혁명력사연구회》 등 다종다양한 연구소조들을 뭇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전략전술로 무장하기 위한 불굴의 노력을 기울이고있으며 각계각층 인민들의 심장속에 위대한 주체사상을 심어주기 위한 정치선전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렸다.

남조선강원도 춘천지구의 녀성들은 《김일성주석님주체사상녀성연구회》를 결성하고 불멸의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하고있으며 전라남도 무안군 농민들은 《친목회》를 뭇고 이 모임을 통하여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광범한 농민들속에 깊이 심어주고있다.

또한 경기도의 어느 한 농촌마을에서는 《동향계》를 뭇고 광범한 농민들이 망라되여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깊이 연구하면서 그이께 일편단심 충성을 맹세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이러한 연구소조들과 연구회들은 오늘 남조선의 도처에 조직되였으며 거기에는 혁명가들은 물론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망라되였다.

남조선의 도처에 무어진 연구소조와 연구회들은 적들의 삼엄한 경계속에서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집체적으로 모여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에 대한 토론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으며 밤이 지새도록 평양방송에서 흘러나오는 그이의 로작들과 주체사상해설강의를 체계적으로 듣거나 록음하였다가 비밀리에 학습하며 또한 수령님의 로작을 비롯한 혁명서적들을 잘 위장하여 그것을 우편으로 서로 전달해주면서 학습하고있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의 심장에서 심장으로 널리 전파되게 되였으며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은 보다 심화되였다.

그들은 《혁명가는 잠이 모자라서는 살수 있으나 자기 수령의 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하지 못하면 영영 죽고 만다》고 하면서 잠시의 휴식도 없이 적들의 감시를 피해가며 《김일성저작선집》을 비롯한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로작들을 깊이 연구하여 그 매 구절구절들을 심장에 새기고 그것을 현실에 구현하여나가기에 온갖 심혈을 기울였다.

남조선의 한 혁명가는 안해와 함께 밤을 지새우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전기《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을 읽다가 적들의 포위속에 들자 그것을 안해에게 넘겨주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 이 책을 귀중히 보관하오.

김일성주의는 위대한 진리요. 우리 남조선인민들도 김일성주의를 따라야 자유와 해방을 이룩할수 있소.》

파쑈교형리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싸돌아치는 삼엄한 속에서도 남조선의 어느 한 로동가정은 마을이 잠든 밤 12시가 지나면 하루의 고된 로동에서 오는 모든 피곤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대한 수령님의 전기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을 모두 읽고야 말았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리아무개교원을 비롯한 8명의 주민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주체사상에 대하여 쓴 책들을 탐독하며 김일성방송대학 강좌를 들으면서 서울과 수원 등지에서 그것을 광범히 선전하는 의로운 애국활동을 벌렸다.

고등학교 국어교원인 리아무개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 주체적철학사상에 튼튼히 의거하여 집필된 철학사전을 입수하여 그것을 깊이 연구하였을뿐아니라 보다 많은 주민들이 돌려볼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3분책으로 나누어 제1분책은 《새로운 농민상의 모색》이라는 표지로, 제2분책은 《현대문학》 1970년 8월호로, 3분책은 《론리학》등의 표지로 각각 위장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책은 여러 애국적주민들의 손과 손을 거쳐가면서 광범히 읽히였으며 그들의 사상생활에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철학사전 1분책을 입수한 한 주민은 여기에 서술되여있는 위대한 주체사상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주체사상을 위하여 투쟁할것이며 주체사상을 위하여 한목숨을 바칠것이다》라는 생활지침을 세우고 보람차게 싸웠다.

남조선의 지하혁명조직성원인 한 지식인은 썩고 병든 남조선사회에서 어떻게 사는것이 참되게 사는길인지 몰라 헤매던 자기가 한 혁명동지의 방조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을 읽게 되면서부터 혁명의 길에서 사는것이 곧 인간의 참된 삶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혁명사상에 접하게 된것은 참으로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탄생이기도 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정치적생명을 마련해주신것이다.

간고한 혁명의 길을 걷는 모든 순간에 새로운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한다.》

인천 주안염전에서 일하는 한 로동청년은 사람들속에서《누구나 주체사상과 그 리론과 방법을 배우고 그 진리를 신앙하게 되면 이 험악한 사회를 변혁하고 우리 다 함께 잘 살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략을 가질수 있게 됩니다.

모두다 주체사상을 따라 배웁시다.》라고 신심에 차서 말하였다.

남조선의 어느 한 부두에서 혁명전우로부터 물려받은《김일성선집》을 밤새워 읽던 청년들이 불의에 달려든 경찰놈들의 포위속에 들게 되였을 때 그들이 남긴 이야기는 또 얼마나 사람들의 심장을 격동시키는것인가.

깊은밤 부두가의 비밀장소에서 청년혁명가들이 탐독하던《김일성선집》으로 말하면 사형당한 한 혁명가가 스물아홉번째로 전우들에게 넘겨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혁명의 보물이였다.

윤아무개라는 한 청년혁명가는 순간을 지체할수 없는 긴박한 이 시각 자기들에게 힘을 주고 신심을 주는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이 로작을 다른

한 전우에게 넘겨주면서 말하였다.

《이 로작을 부탁하네! 주체사상은 과학이며 우리의 세계관이고 필승의 해불이네. 이 사상으로 사는 인간은 죽을줄 모르네. 자, 벗들,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자구.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사상 받들고 앞으로!》

마지막 말을 남긴 청년혁명가는 비장한 결의를 안고 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원쑤들에게 육박하였으며 로작을 넘겨받은 청년은 그것을 또 다른 혁명전우에게 넘겨준다음 적들을 유인하여 바다가로 달려나갔다.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로작은 그이께 끝없이 충직한 청년혁명가들의 이러한 희생적투쟁으로 소중히 간직되였으며 혁명전우들의 손과 손을 거쳐가며 고귀한 혁명의 량식으로 되였던것이다.

이것은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하고 그것을 지도적지침으로 삼지 못했던탓으로 하여 혁명투쟁에서 심한 우여곡절을 겪지 않을수 없었던 지난날의 체험을 통하여 얻은 피의 교훈이며 그들의 심장속 깊이에 간직된 굳은 의지이며 신념이다.

이렇듯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수많은 혁명조직들이 무어지고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남조선혁명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과 자주적조국통일방침을 귀중한 사상적 무기로, 혁명의 량식으로 삼기 위한 투쟁이 광범히 벌어지고있다.

《우리는 주체의 기발을 지키리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남조선인민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속에 전파되여감에 따라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그에서 새로운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용기를 얻고있으며 오직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민족분렬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불같은 결의를 다지고있다.

지하혁명조직인 《애국혁명동지회》의 한 성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민족의 력사적숙망인 조국통일의 대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다.

혁명투쟁은 간고하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높이 받들고 싸워나가는 우리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남조선의 한 지식인은 5월 15일,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여 싸우다가 놈들에게 체포되여 옥중생활을 하고있는 한 혁명동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지금 동지와 함께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따라 배우며 보람찬 투쟁의 나날을 보내던 그 뜻깊은 일들을 한시도 잊을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혁명적지조를 지킨다는것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일제시기 저 백두산에서 불세출의 영웅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항일하던 투사들이 보여준 수령님에 대한 충직성, 왜놈들의 법정에서도 굴하지 않고 용감히 싸웠고 감옥속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수령님의 참된 전사들의 혁명적지조 그리고 그들처럼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최후 순간까지 남조선혁명가로서의 영예를 빛나게 고수한 희생된 동지들의 혁명정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살며 싸우는 혁명가로서 수령님을 위해 생명까지도 초개와 같이 바치는 혁명가로 되여야 하며 기어이 남녘땅에 영광의 날을 앞당겨와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던것처럼 앞으로도 굴함없이 원쑤와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리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남조선혁명가의 한 사람인 오 아무개는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가 제기한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주는 글에서 자기는 《무상의 행복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혁명위업에 헌신하는데서 찾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 시대의 참된 행복은 구세제민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며 그 행복의 높이는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의 높이이다.

이 진리를 떠나 그 어떤 행복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사색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혁명가들이 바로 행복의 소유자들이며 민주주의와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민중들이 행복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있다.》

경상남도 울산에 있는 다른 한 주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는 통일혁명당에 입당하는 영예를 지니게 된 날 당의 선언과 강령을 지지찬동한다고 하면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관철하기 위하여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최후의 순간까지 모든 정력을 다 바쳐 싸울것을 자기의 붉은 피로써 다음과 같이 썼다.

《위대한 김일성주의 높이 받들고 통일혁명위해 이 한목숨 바칠것을 피로써 맹세함.》

사람들을 격동케 하는 이 피의 맹세문에는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오직 수령님께 한목숨 바치려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불타는 충성심과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억세게 싸워나가려는 불같은 결의가 그대로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삼고있는 서울의 한 신문사기자는 《요즘 민주화투쟁에 나선 기자들속에서는 모두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대로 시대와 민족, 민중의 절박한 요청에 화답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계 진보적인류가 흠모하여 우러러 모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만 사색하고 실천한다면 언론도 살릴수 있고 애국민중들과 함께 사회악과 부정을 타파하고 민주화와 구국통일위업에 기여할수 있다는 신심과 힘이 솟구침을 체험하였다.

나는 파쑈독재의 포악성과 반역성을 여러모로 폭로단죄하면서 수령님의 말씀대로 시대와 민족, 민중과 함께 숨쉬는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문필가가 될 각오를 굳게 다짐한다.》

한 지방신문사의 기자는 《주석님의 귀중한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고 나는 인류사상 최고봉의 선진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것을 이 땅의 근로민중속에 널리 전파하여 투쟁의 무기를 안겨주는 참된 언론인이 되겠다.

정의의 필봉을 더욱 높이 들고 박정희파쑈도당의 민중탄압행위와 매국행위, 부정부패행위를 만천하에 고발하며 이 땅의 언론인으로서의 알 권리와 알릴 의무를 철저히 리행하여 근로민중의 과감한 반독재민주화투쟁을 널리 보도선전하겠다.

그리하여 나는 근로민중과 함께 반미반파쑈민주항전에 분연히 뛰여들어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위업에 한몸다 바치겠다.》

이것은 박정희파쑈도당의 악독한 《유신》독재와 언론탄압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적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의로운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남조선의 애국적이며 량심적인 언론인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투지를 반영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예순두돐을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맞이한 한 로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의 가슴은 오직 충성의 일념으로 가득차있습니다.

나는 어제도 공장에서 12시간 일하고 돌아와 지친 몸이였지만 조직에서 준 임무를 수행하느라고 힘든줄 모르고 밤을 새웠습니다.

로동은 고되고 살림은 가난해도 언제나 힘이 솟습니다.

그것은 나의 깊은 가슴속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백전백승의 김일성주의가 고동치기때문입니다.

몇해전까지만해도 혁명이 무엇인지, 사상이 무엇인지 그저 눈앞의 살길이 막막하여 가슴끓던 자신을 생각하면서 통일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오늘도 주체의 빛발, 승리의 혁명을 안고 더욱더 많은 동지들과 군중들이 있는곳으로 혁명의 발걸음을 재촉하렵니다.

심장이 뛰는한 나는 이 영광의 걸음을 더 억세게 내디딜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하고싶은 말이며 다시금 굳게 다지는 충성의 결의, 피의 맹세입니다.》

서울의 한 교원은《나는 교단에 서나 어디에 가나를 막론하고 내가 깨달은 그 모든것을 가르쳐주는, 량심으로 살고 정의로 싸우는 교사로 존재할것이다.

김일성장군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장군님을 따라 싸우는것은 지상의 행복이다.

나는 이것을 신념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간고한 시련을 통하여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영원히 모시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길에서만이 영생하는 삶이 있고 통일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된 남조선인민들 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이와 같이 충성의 결의를 굳게 다지고 있을뿐아니라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폭압이 더욱 우심해지고 잔인무도한 학살만행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조건에서도 주체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거리와 마을, 지하와 산중에서, 지어는 감옥과 교수대에서까지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가며 굳세게 싸워나갔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생활의 신조로 삼고있는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또한 여러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주체사상을 군중들속에 선전하면서 승리에 대한 신심과 자부심을 안고 굴함없이 싸워나가고있다.

대구, 울릉도, 서울, 부산, 전주 등지를 중심으로 지하혁명투쟁을 적극 벌려온 통일혁명당 경상북도 위원회와 그 산하 조직성원들은 어떤 역경속에서도《김일성선집》을 비롯한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탐독하고 그이의 주체사상과 남조선혁명에 관한 전략전술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인쇄소 등 각종 업체들을 각곳에 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해설한 소책자들과 선전물들을 발간하여 광범한 대중속에 널리 전파하였다.

통일혁명당 당원들을 비롯한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이러한 활동은 전라북도 전주, 군산, 리리와 경상남도 충무, 부산, 충청남북도와 경기도, 남조선강원도, 제주도 등 지방에로 급속히 확대되여갔으며 통일혁명당과 그 조직성원들이 활동하는 모든 지방들에서 활발히 벌어졌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이 모든 활동은 원쑤들의 감시와 탄압이 그림자처럼 뒤따르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때로는 희생도 각오하는 준엄한 투쟁이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생활의 신조로 삼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승리에 대한 신심과 자부심을 안고 굴함없이 싸워나갔다.

남조선의 한 주민은 수많은 사람들속에서《김일성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 5대강령으로 우리 민족의 앞길을 밝혀주시였습니다.

우리 모두 조국통일 5대강령을 받들고 몸바쳐 싸워나갑시다》라고 하면서《적기가》의 곡에 맞춰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민중의 기 주체의 기발
백두산 높이 높이 휘날린다
어두운 남한땅에
통일서광 비껴온다
높이 들어라 주체의 기발을
그 밑에서 전사하리라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는 주체의 기발을 지키리라》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높이 울려퍼진 이 노래소리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조국통일 5대강령이 얼마나 남조선인민들의 확고한 사상적기치로, 투쟁의 강령으로 되고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

부산의 한 공장에서 로동자로 일하던 한 혁명가는 많은 로동자들앞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을 공화국북반부의 눈부신 발전상과 결부시켜 열렬히 소개선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경모의 정과 충성심으로 가슴설레이게 하였으며 광범한 군중속에서 정치선전활동을 벌리다가 적들에게 체포된 한 혁명가는 놈들의 면전에서 남조선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죄행을 치솟는 분노로 폭로단죄하면서 《김일성장군 만세!》를 목청껏 부른 다음 원쑤들이 부당한 구실을 꾸며내여 자기를 탄압할수는 있어도 남조선인민들의 가슴마다에서 세차게 끓어번지는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과 불굴의 투지는 결코 꺾지 못할것이라고 소리높이 웨쳐 놈들을 전률케 하였다.

남조선의 한 청년이 적들의 면전에서 영광의 노래, 충성의 노래인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힘있게 불러 원쑤들을 공포에 떨게 한것도 그들의 이 열화같은 충성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로 된다.

부당하게 괴뢰경찰놈들에게 붙들려가던 이 청년은 서울시 서대문형무소 앞길에서 머리를 높이 추켜들고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소리높이 불렀다.

폭압의 장막을 헤가르며 울려퍼지는 노래소리에 기겁을 한 경찰놈들은 그의 입을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면서 청년에게 달려들어 마구 때리고 차는 등 악독한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영광과 충성의 이 노래를 계속 도도히 불렀다.

이어 그는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고나니 위대하신 장군님을 모시고 온 겨레가 복락할 영광의 그날이 눈앞에 선하다》고 하면서 자기를 둘러싼 경찰놈들을 향하여《이 노래 한마디에 기겁하는자들이 가련하다.

자, 너희들도 한번 따라 불러보라》라고 들이대여 놈들을 전률케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수록한 책을 얻어 원쑤

들의 눈을 피해가며 탐독하고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으로 가슴불태워오던 남조선강원도 춘천시의 한 철공소로동자는 10여명의 동료들앞에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과거 간악한 왜놈들을 처부시고 조국을 해방하시였으며 지난 전쟁때 미군의 무릎을 꿇게 하시였다.

우리 겨레들은 민족을 찾아주신 그분을 누구나 다 높이 우러러 모시고있다.

이북세상이 얼마나 좋은가.

김일성장군님께서만이 우리 이남의 무산대중을 구원해주실수 있다》라고 말하여 로동자들의 가슴마다를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에 휩싸이게 하였다.

이 로동자는 밀정놈의 밀고로 원쑤들에게 체포된 후에도 박해를 가하는 괴뢰경찰놈들의 면전에서 《이북과 같은 민중복지의 세상을 만들어주신 장군님을 존경하는것이 무엇이 잘못됐단 말인가》고 항거하면서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불렀다.

남조선인민들의 이러한 대담한 행동과 당당한 주장은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얼마나 흠모하고있으며 그이께 모든것을 의탁하고 끝까지 따르는 충성의 한길에서 그 어떤 파쑈폭압도 용감히 박차며 억세게 싸워나가려는 굳센 투지와 신념으로 불타고있는가를 보여주고있다.

서대문형무소의 감방안에서 한 애국자가 지어부른 《태양가》는 그대로 남조선인민들의 심장의 노래, 충성의 송가로 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수령은 태양 우리는 뭇별
해빛을 받아 반짝이는 별
광휘론 빛발 가슴에 안고
혁명의 폭풍 이 땅에 불러
암흑의 강토 밝혀가리라
만리에 빛나시라 혁명의 태양
만년장수하시라 김일성장군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이《태양가》는 오늘 남조선 이르는곳마다에 결성된 통일혁명당 조직들과 《김일성주의연구회》, 《위대한 주체사상연구회》들에서 널리 불리우고있으며 그 충성의 노래소리는 남조선인민들의 심장마다에 격류마냥 굽이쳐 흘러넘치고있다.

이와 함께 오늘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북과 남의 온 겨레가 통일광장의 높은 단상에 그처럼 흠모하여마지 않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모시고 《김일성주석님 만세!》를 목청껏 부르고 또 부를 영광의 그날을 그리며 신심과 희망에 넘쳐 굴함없이 꿋꿋이 살며 싸워나가는 자기들의 불같은 지향을 담은 신념의 노래 《위대하도다 민족의 태양》이 널리 불리우고있다.

해빛이 밝다해도 그늘진곳 있지만
김일성장군님의 자애로운 그 빛발은
못살고 천대받는 남녘동포 마음속에
그늘없이 따사로이 비쳐주시네
아! 위대하도다 김일성장군님!
온 겨레를 승리에로 이끄시는 민족의 태양
오랜 리별 남북동포 그리운 이 어서 만나
위대하신 수령님 모시고 천년만년 살아가세

참으로 이 신념의 노래에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려는 남조선인민들의 가장 숭고한 념원이 흘러넘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의 대오는 끊임없이 늘어나고있으며 그들이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으로 가슴불태우며 굴함없이 싸우는 사실들은 사람들을 무한히 감동케 하고있다.

반파쑈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의로운 투쟁의 길에 나서 싸우다가 파쑈교형리들에게 체포된 남조선의 한 녀성애국자는 감옥에서 원쑤들의 야수적고문에 피흘리며 쓰러지면서도 머리빈침으로 감방벽에 《김일성장군 만세!》라는 글자와 통일된 삼천리 조선지도를 새기였다.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살며 싸우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의 이러한 슬기로운 투쟁모습은 한 혁명가가 옥중에서 쓴 다음의 글에도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내가 만일 조국앞에서 수령님의 사상으로 살며 싸운 자욱을 남겨놓았다고 자신의 일생을 아름답게 추억할 권리를 가진다면 이 순간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나이겠습니까!

행복이란 그 어떤 황금의 크기나 호화주택의 높이에 있는것이 아니라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로 싸우는 충성의 높이에 있다는것을 나는 잘알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지들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김일성장군 만세!〉》

혁명의 한길에서 싸우다가 불행하게도 원쑤놈들에게 체포된 남녘의 한 젊은 녀투사는 사형언도를 받은날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옥중편지를 썼다.

《만민이 우러르는 수령님, 우리 만백성을 구원하시려 그처럼 심려하시는 수령님의 사상을 받들고 싸우는 보람찬 투쟁보다 더 큰 영예는 없습니다.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살 때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고 행복을 누리며 그 사상으로 숨쉬지 못할 때 인간은 신념이 없는 퇴색한 인간으로 썩고맙니다.

이것은 나의 일생의 총화이며 대를 이어가며 사수해야 할 진리입니다.》

교편을 잡고 지하혁명활동을 하다가 원쑤들에게 체포되여 옥중생활을 하고있는 티아무개혁명가는 자기의 수기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혁명가의 삶이란 투쟁속에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기에 투쟁을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감방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삼고 투쟁하는 통일혁명당의 불패의 위업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있다.

나는 이 감방속에서도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굳세게 싸워나갈것을 다짐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오늘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있으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그들의 투쟁에서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승리의 기치로 되고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바로 이 영생불멸의 혁명적기치, 주체사상이 있음으로 하여 사나운 파쑈광풍이 휘몰아치고 험난한 가시덤불이 앞을 가로막는 그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원쑤들을 맞받아 굳세게 살며 싸워나갔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성의 열정으로 가슴불태우면서 그이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혁명투쟁에 몸바쳐나서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은 반드시 자기들의 지향과 념원을 실현하고야 말것이다.

남조선혁명의 정치적참모부인 통일혁명당은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남조선 로동계급과 애국적인민들의 전위부대인 통일혁명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이 밝혀준 길을 따라 굳세게 싸워왔으며 그 길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통일적맑스—레닌주의당, 로동계급의 당으로서의 통일혁명당은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혁명투쟁속에서 나오게 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85페지)

남조선에서 혁명적당을 건설하기 위한 로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통일혁명당이 지방당조직으로부터 중앙위원회를 조직하기까지의 당건설을 위한 투쟁은 미일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혁명투쟁과정이였다.

4. 19인민봉기후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은 원쑤들의 파쑈폭압속에서 1961년부터 지하혁명조직을 뭇고 혁명적당건설을 위한 불굴의 투쟁을 벌려왔다.

특히 불굴의 혁명투사 김종태, 최영도동지들을 비롯한 남조선혁명가들에 의하여 1964년 3월 15일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혁명적당건설을 위한 투쟁은 한층 더 적극적으로 벌어지게 되였다.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전일적인 당조직을 내오기에 앞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투쟁을 통하여 검열되고 단련된 혁명핵심들로써 서울시당위원회, 전라남도당위원회, 경상북도당위원회를 비롯한 지방당지도부들을 꾸리고 그를 통하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갖추어나갔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마련함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남조선혁명의 전략전술적방침으로 당원들을 무장시키는데 1차적관심을 돌렸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생사를 판가름하는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김일성주의로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혁명적구호밑에 당원들속에서《김일성저작선집》을 비롯한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로작들과 그이의 빛나는 혁명력사가 담겨져있는 전기《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에 대한 연구학습을 체계적으로 조직진행하였으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그들을 무장시키는데 모든 힘을 다하였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또한 당기관지로서 비합법적인 신문《혁명전선》을 발간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체계적으로 해설하였으며 원쑤들의 반동적본질을 예리하게 폭로하고 매시기 당조직앞에 나서는 투쟁과업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합법적출판물로 발간된 당기관지《청맥》과 당조직들이 조직진행한 여러가지 학술토론회, 강연회, 보고회 등을 통하여 대중을 계급적 및 민족적으로 각성시키고 남조선혁명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으로 무장시키기 위해 힘썼다.

1964년 8월에 창간호를 낸《청맥》은 1967년 4월까지 기간에 무려 4만 4천부를 발간하였으며 급속히 자기 독자대렬을 늘이면서 각계각층 인민들속에 널리 애독되였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남조선에서 대중투쟁을 적극 벌림으로써 혁명력량을 장성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렸다.

당조직들과 그 성원들은 매국적《한일회담》을 반대하는 1964년의 3. 24투쟁과 6. 3봉기, 《한일협정》을 배격하는 1965년 8월투쟁, 1966년 8월 미제의 전 부대통령 험프리놈과 일본군국주의두목 사또놈의 전쟁모의를 위한 남조선행각을 반대하는 시위투쟁들에 적극 참가하였다.

또한 1967년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꾸며낸 괴뢰대통령 및 괴뢰국회의원《선거》, 그리고 괴뢰대통령《취임식》놀음을 반대하는 시위 투쟁을 면밀히 조직지도하였으며 1969년 박정희괴뢰도당의 장기집권책동을 짓부시기 위한《3선개헌》반대투쟁을 힘있게 조직전개하였다.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당은 대중을 각성시키고 단련시켰으며 실천투쟁의 불길속에서 검열된 수많은 혁명핵심들로 당조직을 질적으로 꾸렸다.

동시에 당대렬을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군중속에 확대하기에 모든 힘을 다하였다.

통일혁명당 서울시위원회와 전라남도위원회, 경상북도위원회만 하여도 이 시기 당대렬확대를 위한 정력적인 투쟁을 벌려 공장과 농촌, 교육, 문화, 언론, 출판 기관들과 괴뢰군중하층장교, 정계인사들 속에 당력량을 수많이 포치하였다.

경상북도위원회는 1966년 6월 서울에 당핵심들을 파견하여 전화도매상 《동명사》와 부동산업 《수진사》, 토건업《삼진건설》등을 운영하면서 당력량을 수많이 꾸려나갔으며 부산에서는 부두로조와 철도로조 및 해원양성소와 외항선원들속에 그리고 전주에서는 농민들과 대학교수들, 학생들 속에 당조직을 꾸렸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군중을 대중조직에 묶어세우며 당주위에 집결시켰다.

서울시위원회산하에는 합법적대중단체로서 《60년대학사회》, 《새문화연구회》, 《청년문학가협회》, 《불교청년회》, 《동학회》, 《청맥회》, 《민주주의연구회》, 《기독교청년복지회》, 《경우회》, 《학사주점》등과 비합법적인 대중단체로서 《민족해방전선》과 《조국해방전선》 그리고 비밀독서회 등 수많은 민주주의적대중단체들이 조직되였다.

경상북도위원회산하에는 로동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아생회》, 농민들로 조직된 《위친계》, 《농사개량구락부》, 《국군》현역 및 예비역 장교들로 무어진《65장교동지회》등 수많은 대중단체가 결성되였다.

이리하여 통일혁명당은 남조선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전위부대로서의 혁명적당으로 장성강화발전되였다.

통일혁명당은 남조선각지에서 활동하던 수많은 혁명조직들을 통일혁명당의 기치밑에 묶어세워 각급 지방지도부들을 꾸리고 도처에 기층조직을 형성하였으며 이에 토대하여 1969년 8월 25일 서울에서 당중앙위원회를 조직하고 력사적인 창당선언과 강령을 선포하였다.

통일혁명당은 정연한 당조직체계와 비합법적정치신문인 당기관지《혁명전선》, 《통일혁명당목소리》 방송을 비롯한 강력한 선전선동수단을 가진 불패의 전투적대오로, 혁명의 전위대로 장성강화되였으며 과학적인 강령과

백전백승의 전략전술을 소유한 남조선혁명의 정치적참모부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통일혁명당의 창건은 남조선혁명과 조국의 자주적통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 새로운 단계로 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통일적인 혁명적당인 통일혁명당이 창건됨으로써 남조선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기 힘으로 자신의 앞길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정치적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으며 남조선에서 외래침략자들과 그 주구를 반대하고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며 조국통일위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투적인 향도력을 가지게 되였다.

이것은 남조선사회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을 의미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통일혁명당이 내세우고있는 투쟁목표와 투쟁강령은 남조선사회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각계각층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미제침략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의 공동의 정치강령으로 되며 전체 남조선인민들의 투쟁목표로 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85～486페지)

통일혁명당은 선언에서《통일혁명당의 지도리념은 맑스－레닌주의를 현시대와 우리 조국현실에 독창적으로 구현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이라고 온세상에 선포하였다.

통일혁명당이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는것은 남조선혁명이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진행되는 조선혁명의 한 구성부분이며 그이의 혁명사상이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사상이기때문이다.

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의 지도리념으로 선포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삼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선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확고한 결의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통일혁명당은 자기의 선언과 강령에서 당의 최고목적은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것이며 당면목적은 남조선에서 《유신》 독재체제를 소탕하고 사회정치생활을 민주화하며《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적근원을 없애고 근로대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건전한 민족적생활양식을 확립하며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민족적자주권을 옹호하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영구분렬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는데 있다는것을 강조하였다.

통일혁명당이 자기의 강령과 선언에서 밝힌 당의 지도리념과 계급적지반, 투쟁목적과 남조선혁명에 대한 명확한 태도와 립장은 남조선의 광범한 대중의 한결같은 지향의 반영으로서 그것은 전체 남조선인민들의 공동의 정치강령으로 된다.

통일혁명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남조선혁명운동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자체의 본질적약점을 극복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략전술적방침을 따라 승리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갈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오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지도적역할을 하고있습니다. 투쟁과정에서 당은 끊임없이 혁명적으로 단련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그 영향력과 신임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86페지)

남조선혁명의 정치적참모부로서의 통일혁명당은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지도적역할을 하고있다.

오랜 투쟁과정에서 자기의 혁명적당을 가지게 된 남조선인민들은 통일혁명당을《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전투적선봉대》,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변하는 참다운 옹호자》,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인도하는 정치적참모부》로 신뢰하면서 그의 영향아래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각성되고 단련되고있다.

통일혁명당이 창건된후 남조선인민들의 사상의식발전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으며 대중운동은 새로운 특징을 띠면서 급속히 발전하였다.

오늘 남조선의 광범한 대중속에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따라 배우려는 지향이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흐름으로 되고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신념으로, 투쟁의 기치로 삼고 투쟁하는 인민들의 수가 더욱 늘어나고있다.

남조선의 대중운동에서는 투쟁이 량적으로 급속히 장성하고있을뿐아니라 목적의식성과 조직성이 현저히 강화되였다.

남조선에서의 대중투쟁은 통일혁명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되기전인 1962년에 비하여 1971년에는 건수에서 2배, 참가자수에서 9배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에 로동자, 농민 등 기본계급의 투쟁이 어느 계층보다도 빨리 장성하였는데 로동자들의 투쟁은 건수에서 1.5배, 참가인원수에서 15배 그리고 농민들의 투쟁은 건수에서 2.5배, 참가인원수에서 7배나 장성하였다.

남조선에서 반파쑈민주화투쟁은 청년학생들을 비롯하여 언론인, 교수, 문화인 등 각계각층 인민들과 광범한 사회계와 정계인사들을 망라하고 지구성을 띤 대중투쟁으로 발전하면서 평화적조국통일운동과 밀접히 결합되여 가고있다.

광범한 반파쑈민주화력량이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파쑈독재의 타도와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싸운 1971년 4월에 있은 괴뢰대통령《선거》반대투쟁, 《민주수호국민협의회》같은 통일전선조직을 뭇고 광범한 계층을 망라하여 투쟁한 1971～1972년의 반파쑈민주화투쟁,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와 평화적조국통일구호를 밀접히 결합시킨 청년학생들의 1973년 10월투쟁, 반독재, 반외세, 조국통일을 주장하며 대중적으로 진출한 1974년 4월의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의 투쟁, 이해 9월의 구속학생석방투쟁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삶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로동자, 농민의 투쟁도 량적으로 급속히 장성하였을뿐아니라 1천여명의《한진상사》로동자들의 폭동적진출, 부산시 거제동농민들의 폭력투쟁, 《광주단지》안의 5만명의 가난한 주민들의 폭력투쟁, 울산조선소 로동자들의 폭동등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성격도 격렬해졌다.

남조선인민들의 사상의식과 대중운동에서의 새로운 발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전략전술적방침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확증하는것이며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통일혁명당의 지도적역할과 영향력이 날로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해에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생존의 권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줄기차게 벌렸습니다. 》 (１９７５년《신년사》, 단행본, １７페지)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１９７４년에 남조선인민들은 생존의 권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반파쑈민주화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박정희파쑈악당의《유신》독재를 반대하는 청년학생들의 １９７３년 １０월투쟁에 이어 이해초까지 진행된 광범한 사회계와 재야정치세력들의《１００만명개헌서명운동》, 박정희군사파쑈독재에 항거하는 ４월투쟁, 그리고 ９월이후 계속 확대된 청년학생들과 종교인, 언론인들의 투쟁, 생존의 권리를 위한 로동자들의 폭동 등 년중 그 어느 하루도 쉬임없이 지속성을 띠고 련속적으로 진행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이 이른바《긴급조치 제４호》라는 극악무도한 악법을 공포하고 애국적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을 악랄하게 감행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비밀서한발표, 삐라살포, 기도회, 선언문발표, 서명운동, 파업, 시위 등 여러가지 형태의 반독재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리였다.

이해 파쑈독재를 반대하며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통일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전개되였으며 그 목표와 투쟁구호도 매우 뚜렷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투쟁전반에 걸쳐 시종일관《박정희를 타도하라》, 《독재정권 물러가라》, 《유신헌법을 폐지하라》는 격렬한 반《정부》적구호를 전면에 내놓고 박정희파쑈독재정권자체를 반대배격하여 투쟁하였을뿐아니라 투쟁을 박정희역도의 공개적인 사임을 요구하는데로 발전시켰다.

한편 남조선인민들은《대일굴욕외교반대》, 《일본상품안사기》, 《민족적인 모욕의 즉시 중지》 등의 미일침략자들의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민족적모욕과 악랄한 착취행위 그리고 매국배족분자인 박정희괴뢰도당의 비렬한 굴욕외교책동을 반대하는 구호를 내걸고 힘차게 투쟁하였다.

이해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 《민주수호련맹》, 《일본군국주의재침반대투쟁위원회》등 여러 투쟁조직들이 꾸려졌으며 이 투쟁조직들이 활발히 움직이게 됨에 따라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지난시기 가지고있던 약점들을 극복하고 목적의식성과 조직성을 띠고 줄기차게 진행되였다.

이해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광범한 계급계층들이 망라되고 그들 호상간의 련대성이 강화됨으로써 대중적인 련합투쟁으로 확대발전되였다.

지난시기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대중적성격을 띠면서도 많은 경우 청년학생들의 투쟁에 머물렀으며 련대적투쟁이 벌어졌으나 그것 역시 많은 경우 한 계급, 계층안의 부문간, 지역간의 련대적투쟁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해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청년학생, 종교인, 언론인, 정계인사 등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이 참가한 동시에 계급계층사이의 련계와 련대성이 강화됨으로써 광범한 대중적지반우에서 확대발전되여나갔다.

그것은 이해 ９월부터 남조선청년학생들속에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것과 때를 같이 하여 생존의 권리와 정보폭압정치를 끝장낼것을 요구하는 울산조선소로동자들의 투쟁을 비롯하여 로동자들의 투쟁이 동시에 일어났으며 신앙과 언론의 자유, 《유신헌법》과《정보정치》의 폐지, 구속학생의 석방을 요구하여 남조선종교인들과 언론인들이 완강한 투쟁을 벌려나간데서 찾아볼수 있다.

또한 청년학생들과 언론인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며 파쑈적《유신》체제를 반대하는 야당계인사들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체포투옥된 애국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해외교포들의 투쟁이 교포들이 살고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활발히 벌어졌다.

이해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면밀한 사전준비를 갖춘데 기초하여 벌어졌으며 투쟁전술도 조성된 조건에 맞게 다양하고 능숙하게 배합되여나갔다.

이 한해동안 남조선인민들은 총검에 의한 삼엄한《비상사태》하의 파쑈폭압속에서도 민주의 홰불을 높이 추켜들고 줄기차게 싸워 박정희파쑈독재통치에 전면공격을 들이댐으로써 매국집단을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로 몰아넣었다.

１년간 남조선의 사태발전은 박정희괴뢰도당의 악독한 파쑈테로독재통치가 존속되는한 그를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반《정부》, 반파쑈민주화투쟁은 계속될것이며 그것이 더욱더 강화발전되리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투쟁

청년학생들의 투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남조선당국자들의 더욱 로골화되는 파쑈적폭압정책과 민족분렬영구화책동 그리고 대일예속정책에 분격하여 반〈정부〉, 반파쑈민주화 투쟁에 일떠섰습니다. 》 (《이딸리아공산당기관지 〈우니따〉지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５페지)

１９７４년에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전해 １０월투쟁에 이어 년초부터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줄기차게 벌리면서 남조선인민들의 애국투쟁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힘찬 전진을 계속하였다.

청년학생들은 지난시기의 투쟁정형을 심각히 분석총화한데 기초하여 투쟁을 통일적으로 전개할수 있는 반파쑈민주화투쟁조직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을 가지고 적극적인 투쟁을 벌렸다.

이들은 ４월에 이르러 면밀한 계획과 투쟁전술에 따라 전남조선적인 범위에서 일시에 조직적인 투쟁을 벌렸

다.

4월투쟁 이후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모진 폭압망을 뚫고 지하로, 거리로, 《법정》으로 이어지다가 9월에 학원에서 또다시 폭발하여 광범한 청년학생들을 망라한 거족적인 투쟁으로 확대발전하여 년중 계속되였다.

4월투쟁; 청년학생들은 4월투쟁을 앞두고 지난시기의 투쟁 경험과 교훈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투쟁대오를 튼튼히 결속하기 위한 면밀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으며 근 3개월에 걸쳐 각계층 인민들을 새로운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적극적인 정치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렸다.

청년학생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이 《1．8긴급조치》와 같은 력사상 류례없는 파쑈폭압령을 공포하고 이른바 《정치방학》을 강요함에도 불구하고 비밀회합, 비밀서한발송 등을 통하여 동료들과 련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투쟁방도와 대책을 세우며 투쟁대렬을 튼튼히 결속하여나갔다.

그리고 《박정권 망할 날은 멀지 않았다》, 《유신독재와 결사대결하자》, 《우리의 쌓이고 쌓인 울분을 폭발시킬것을 민족사는 바라고있다》, 《국군은 박정희의 1인파쑈독재체제유지의 희생물이 되지 말라》라는 내용의 선언문, 결의문, 삐라들을 련이어 발표하여 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의 투쟁기세를 다시 끓어올렸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의 지도성원들은 수십차의 회합을 가지고 투쟁대오를 튼튼히 결속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웠다.

동시에 서울시내에 비밀인쇄소를 설치하고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화정책과 매국배족적인 행위를 낱낱이 폭로하면서 《박정권타도》를 호소하는 《민중민족민주선언》, 《민중의 소리》, 《지식인, 언론인, 종교인들에게 드리는 글》등을 발표하여 각계층 인민들에게 배포하였다.

또한 수십만매의 선전문을 등사하여 남조선각지에 뿌리였으며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것을 호소하는 수천통의 《서신》들을 각계층 인민들에게 발송하였다.

그들은 또한 괴뢰정부의 동태를 시험하기 위한 산발적인 시위를 벌리는 동시에 3월 21일에 경북대학교와 서울의 서강대학교에서 대규모적인 시위를 벌리기로 하고 시위의 지방확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방대학에서 일어난 시위분위기를 서울에 비화시키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4월 3일에 《각 대학이 일제히 봉기》할데 대한 투쟁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박정희파쑈악당들이 학생들의 일거일동을 감시하며 집단적인 투쟁이 벌어질 기미만 보이면 폭압력량을 대량적으로 동원하여 야수적탄압을 가해나서는 조건에서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서울동부지역에 흩어져있는 각 대학 학생들은 4월 3일 오후 2시에 시내 청계천 5가에 모이며, 연세대학교, 리화녀자대학교 등 서울 서부와 북부지역에 있는 각 대학 학생들은 같은 시각에 서울《시청》앞 광장에 모였다가 동시에 시위를 벌리기로 하였다.

면밀한 조직사업과 적극적인 선전활동을 통하여 투쟁대오를 튼튼히 꾸린 청년학생들은 이해 4월 전남조선적인 범위에서 일시에 조직적인 투쟁을 벌렸다.

4월 3일 서울대학교, 리화녀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와 서강대학교, 《한국신학대학》과 대구의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유신독재를 타도하라!》, 《1．8긴급조치를 즉각 철폐하라》, 《중앙정보부를 해체하라!》, 《구속학생 즉각 석방하라!》, 《대일예속청산하라!》의 거세찬 애국의 함성을 터뜨리면서 자기들의 의로운 투쟁조직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에 굳게 뭉쳐 통일적인 행동으로써 반《정부》, 반파쑈민주화투쟁의 세찬 불길을 올리였다.

정의의 반《정부》, 반파쑈구국항쟁에는 남조선고등학교 학생들도 광범히 참가하였다.

투쟁에 참가한 청년학생들은 박정희괴뢰《정권》을 뒤집어엎고 새 제도, 새 정치를 실현할데 대한 근본적변혁을 요구하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의 명의로 된 격문, 선언문, 삐라들을 뿌리며 시위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치렬한 투석전으로 수많은 폭동진압경찰놈들을 까눕혔다.

그들은 박정희괴뢰악당의 파쑈적폭압만행으로 시위를 벌리기가 어렵게 되자 대학구내에서 소규모의 투쟁을 벌려 놈들의 파쑈폭압력량을 대학구내에 집중시키는 한편 기본력량을 대학밖에 집결시켜가지고 거리 한복판에서 대규모의 시위투쟁을 벌리는 등 투쟁전술도 조성된 조건에 맞게 능동적으로 적용하였다.

리화녀자대학교 수백명의 학생들이 다른 대학 학생들과 함께 동대문시장부근에 모여 순식간에 시위대렬을 짓고 거리로 밀려나간것과 때를 같이 하여 이 대학의 다른 한 대렬은 서울《시청》앞 광장과 그 주변에 삽시에 모여 대중적시위를 벌린것 등은 그 한 실례이다.

총검이 숲을 이루고 기만적인 《반공》모략선전이 미친듯이 벌어지고있는 가운데서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의 지도밑에 다시금 폭발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4월투쟁은 그들이 1973년 10월에 높이 추켜들었던 민주의 홰불을 결코 내리지 않았으며 박정희반역도당의 그 어떤 폭압과 허위선전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싸워나가고있다는것을 그대로 확증해주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이 통일적인 투쟁조직을 가지고 공동투쟁을 벌린데 대하여 일본의 지지통신을 비롯하여 외국의 통신들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조직인《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은 작년(1973년) 여름부터 지하에서 조직되고 대학생뿐아니라 고등학교 학생들도 참가한 상당히 폭넓은 조직으로 장성하였으며》4．3학생투쟁은《〈1인독재체제와 정보폭압정치〉를 정면으로 비판한 격렬한 일체 행동》이다.

9월이후 투쟁;4월투쟁이후 새로운 투쟁을 준비해오던 청년학생들은 《긴급조치》제1호와 제4호가 해제된후 또다시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였다.

이해 9월에 일어난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서울로부터 남조선 전지역을 포괄하는 조직적인 대규모투쟁으로 날을 따라 계속 확대발전하였으며 투쟁구호도 뚜렷한 정치적성격을 띠고 발전하였다.

9월 17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학원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린데 뒤이어 9월 18일에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들이《구속학생석방》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렸으며 23일에는 리화녀자대학교 학생들이, 24일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이, 25일에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들이, 26일에는 《한국신학대학》 학생들이 투쟁에 일떠섰다.

9월 24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이 이 대학의《가을의 대학축전》행사를 계기로 박정희괴뢰도당의 《유신》독재를 폭로규탄하는 풍자적인《공화국선포식》을 벌린데 뒤이어 청년학생들은 10월부터 학원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범위를 벗어나 반《정부》적구호들을 전면에 제기하고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통치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보다 높은 정치적구호들을

들고 투쟁에 나섰다.

10월 11일 고려대학교 1천 500여명이《민주개혁만이 난국타개의 첩경임을 확신한다》, 《유신헌법 폐지하라》, 10월 15일 중앙대학교 학생들이《헌법을 개정하라》, 17일 서강대학교 학생들이《독재정치 중단하라》, 21일 4천여명의 리화녀자대학교 학생들이《독재를 반대한다》라는 구호를 들고 투쟁을 벌린것 등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10월 30일 성균관대학교와 연세대학교 학생들이《박정희는 국민앞에서 영예로운 방법으로 자기직책을 내놔라》, 《독제정권 물러가라》 등 구호를 웨치며 반《정부》투쟁을 벌린데 뒤이어 11월에 들어와서는《박정희는사임하라》, 《특권층의 부정부패 일소하라》 등 투쟁의 주예봉을 박정희놈의 독재《정권》전복에로 일층 심화시켰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자기들의 투쟁에서 구속자석방,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부정부패반대, 《유신헌법》철폐 등 각계각층의 리해관계와 반파쑈민주화실현에서 절박한 문제를 강력히 요구하였을뿐아니라《언론인들은 각성하라》등의 구호를 제기함으로써 각계각층 인민들을 공동투쟁에로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언론인, 종교인, 교수들과 재야정계인사등 광범한 계층이 합류된 대중적인 공동투쟁으로 발전하여나갔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주객관적조건에 맞게 투쟁 방법과 형태를 잘 적용하여 투쟁분위기를 점차 고조시키면서 적극적인 형태의 투쟁에로 이행하였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민주화투쟁을 벌린 9월 17일부터 9월말까지 집회, 서명운동, 등교거부 형태를 띤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10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성토대회, 적극적인 일대 시위투쟁으로 발전하였다.

10월 10일 고려대학교 1천여명 학생들은 성토대회를 가지고 구국선언문과 결의문을 채택한후 가두시위에 떨쳐나섰으며 최루탄을 쏘면서 달려든 파쑈경찰 300여명과 다섯차례의 투석전을 벌렸고 줘차 1대를 까부셨다.

외신들은 이날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투쟁을 보도하면서《가장 격렬한 반〈정부〉시위》였다고 론평하였다.

청년학생들은 박정희피뢰도당이 투쟁을 벌리는 학교들에《경고》를 주는《계고장》을 내고 휴교, 휴강, 조기방학 조치를 취하는 한편 주동적학생들을 체포하는 만행을 감행함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투쟁하였는바 10월 28일 2천여명의 고려대학교 학생들과 4천여명의 리화녀자대학교 학생들이 시위투쟁을 벌렸으며 29일에는《한국신학대학》학생들이 서울시내 중심부인 광화문네거리에서 가두시위를, 30일에는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가두시위를 전개하면서 파쑈경찰과 투석전을 벌리였다.

11월에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리화녀자대학교를 비롯한 남조선전역의 25개 대학과 8개 고등학교에서 연 41회에 걸친 투쟁을 벌리였다.

그리하여 9월중순부터 11월말까지의 사이에만도 남조선전역의 60여개 대학과 고등학교들에서 9만명의 학생들이 성토대회, 앉아버티기투쟁, 가두시위, 투석전 등과 같은 적극적인 투쟁을 과감히 벌리였다.

체포구금된 청년학생들은 놈들의 형언할수 없는 악착한 고문과 갖은 리설에도 굴하지 않고 고문장에서, 살인법정에서 자기의 굳은 혁명적기개를 굽히지 않았다.

체포된 한 학생은 피비린내나는 고문장에서《우리가 죄인이 되는 리유를 말해달라, 민주, 민권을 요구한것이 내란이 되며 용공이 되고 그것을 박해하는것이 애국이고 〈반공〉이란 말인가》고 하면서 박정희피뢰도당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놈들의 살인법정에 나선 한 학생은《내가 사형선고를 받지 못하고 친우들을 보는것이 매우 괴롭다. 학우들! 모두다 용기를 내라》고 하면서 학우들의 투쟁을 고무하였다.

또한 다른 한 청년은 놈들의 회유와 기만 책동을 반대하여 완강히 투쟁하면서《자유와 민권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나에게〈공산주의자의 지령을 받았다〉고 진술하라고 강요하는것은 날조가 아닌가, 차라리 내가 민권을 요구하는 것이〈간첩〉의 소행이라는것을 가르쳐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대로 도장을 찍을수 있지 않겠는가》고 놈들의 비렬한 책동을 규탄하였다.

다른 한 학생은《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나를 취조하여 대역죄로 몰아 재판하다니 과연 당신들이야말로 가련하기 그지없다》고 반발함으로써 놈들을 당황케 하였다 한다.

체포된 청년학생들은 한결같이《자신들이 구출되는 때는 박〈정권〉이 타도되는 날이라고 모두 생각》하면서 놈들을 인민의 심판대우에 올려세울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굴함없이 힘찬 투쟁을 벌려나갔다.

언론인과 지식인들의 투쟁

1974년에 남조선의 광범한 언론인들이 정의의 필봉을 들고 박정희피뢰악당의 파쑈적인 언론탄압을 준렬히 단죄하여 투쟁에 떨쳐나섰다.

10월에 박정희파쑈악당의 언론탄압만행에 격분하여《동아일보》기자들과《동아방송》기자들이 파업에 들어갔으며 11월 11일에 또다시 박정희반역도당의 언론탄압에 아부굴종하는 경영자측의 부당한 태도에 항의하여 파업을 일으켜 신문발행을 중지하였다.

이에 발을 맞추어 남조선전역의 신문, 방송 기자들이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여 일제히 투쟁에 일떠섰다.

여기에는 11월말현재 남조선《기자협회》를 비롯한 30여개의 언론기관들과 3천여명의 기자, 편집원들이 망라되였다.

10월에 일어난 남조선언론인들의 투쟁은《반정부시위, 남조선경제의 곤난한 형편 및 남부윁남에서의 정치적 소동에 대하여 보도하지 말라.》는 박정희피뢰도당의 파쑈적인 보도판제조치를 거부하고 언론의 사명에 부합되는 의로운 보도활동을 한 서울의《동아일보》사 편집국장을 포함한 4명의 기자들에 대한 놈들의 야수적인 탄압만행이 직접적동기로 되였었다.

10월 24일 오후《동아일보》사 기자 180여명은 집회를 가지고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선언과《언론탄압에 끝장을 낼것》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그것을《동아일보》, 《동아방송》등을 통해 발표하기로 하였었는데 박정희파쑈악당과 신문사상층부내 일부 비겁분자들이 이를 가로막아나서자 파업에 들어갔다.

이 투쟁에 합류되여《동아방송》기자들이 이날 오후 4시부터 방송을 중단하였다. 뒤이어 10월 24일 한국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25일에는 동양라지오방송, 중앙방송, 경향신문, 신아일보, 강원일보, 동양통신, 합동통신, 문화방송, 전남매일, 전남일보, 대구문화방송, 서울신문, 국제신보, 평남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일방송, 전남일보, 26일에는 시사통신, 충남일보, 전북신문, 춘천문화방송, 27일에는 경기신문, 28일에는 경제신문이 투쟁에 들어갔다.

이리하여 19개의 신문사, 3개의 통신사, 7개의 방송기관 등 29개의 출판보도기관들이 10월 28일

현재 언론의 자유를 위한 반파쑈민주화투쟁에 떨쳐나섰다.

투쟁에 일떠선 언론인들은 《언론인자유수호선언》, 《자유언론실천》 등을 채택하고 《학원 및 종교계 등의 활동을 사실대로 보도한다》, 《언론자유에 관련된 모든 움직임을 사실대로 보도한다》, 《중앙정보부원의 편집국출입을 금지한다》, 《언론인의 불법련행을 거부한다》 등의 구호밑에 자기들의 요구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결의를 다지며 반파쑈민주화운동을 과감히 벌렸다.

10월 25일 《교도통신》은 《동아일보》 기자들의 집회는 《언론활동억압에 대한 쌓이고 쌓인 불만을 한꺼번에 폭발시킨》 것이며 《기자파업으로 휴간으로 몰리운것은 54년간의〈동아일보〉의 력사상 처음되는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언론탄압을 반대하여 일떠선 《동아일보》, 《동아방송》 기자들은 정의의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발행이 중단되였던 《동아일보》의 24일 석간호는 그들의 선언과 결의문 그리고 박정희특무깡패들에 의하여 금지되였던 반《정부》투쟁보도를 실었다. 역시 중단되였던 《동아방송》은 이날 밤 11시부터 다시 시작하여 천주교신도들이 벌린 반《정부》집회에 대한 보도들을 방송하였다.

정의와 진리의 옹호자인 언론인들의 10월투쟁은 언론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한 애국투쟁으로서 남조선에서 언론인들이 살아있고 민족의 량심이 죽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는 선언으로 되였다.

남조선언론인들의 앞장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 완강히 싸운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기자들은 11월에 또다시 파업을 일으켰다.

그들은 박정희악당의 조종을 받는 경영자측이 11일 밤에 있은 1만여명 천주교인들의 반독재민주화집회를 두드러지게 보도할수 없게 하자 《언론자유수호특별대책위원회》 주최로 기자들의 모임을 가지고 12일 10시부터 파업을 일으켰다.

이에 호응하여 《동아방송》 기자들도 《동아일보》 기자들의 파업소식을 남조선전역에 알리고 12시부터 《정기적인 시사방송》을 중지하고 련대파업을 벌렸다.

기자들의 파업으로 창간이후 54년동안 그 발간이 중단된 일이 없는 《동아일보는 그의 력사상 처음으로》 12일간 신문을 발간하지 못하였다.

《동아일보》 기자들의 파업투쟁은 《외부로부터의 편집권침해를 허용하지 않겠다〉, 문제시된 천주교인들의 투쟁보도를 〈사회면에 4단으로 크게 보도하는것을 허락한다〉는 경영자측의 담보를 받아내고야 말았다.

수세에 빠진 박정희파쑈악당은 괴뢰중앙정보부를 발동하여 《동아일보》사를 파산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12월 25일 200여명의 《동아일보》 기자들은 신문사안에서 긴급모임을 열고 박정희파쑈악당이 이 신문에 광고를 내기로 한 상공인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것을 취소케 하고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것은 《동아일보》 자체를 아주 없애버리려는 용납못할 파괴행위라고 규탄하였다.

이어 박정희파쑈악당의 언론탄압에 끝까지 맞서 싸울데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에서 그들은 《언론자유수호정신을 재확인하고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단호히 대처한다》, 《광고계약의 전면적인 철회경위를 즉각 신문과 방송에 자세히 보도하고 철회된 광고면을 백지 그대로 제작한다》고 언명하였다.

그리고 2면이나 되는 26일부 신문의 광고란을 완전히 백지로 만들어 발행하였다.

이해에 또한 언론인들은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탄압하며 지어 폭행까지 가하는 괴뢰경찰놈들을 맞받아 완강하게 싸웠다.

10월 31일 서울의 기자들은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투쟁정형을 취재하던 《한국일보》사 김 아무개기자에 대한 괴뢰경찰놈들의 폭행을 규탄하여 서울시괴뢰경찰국장놈에게 강력히 항의하였다.

11월 30일에도 괴뢰서울시 경찰국에 대한 취재를 담당한 기자들이 경찰국장놈에게 항의를 들이대고 취재기자들에게 〈뭇매를 가한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하면서 깡패놈들을 엄격히 처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12월 2일 남조선의 사진기자단은 사복경찰놈들이 서울운동장에서 취재중이던 기자들을 야구장으로 끌고가 집단적인 폭행을 가한데 격분하여 괴뢰서울시 경찰국장놈에게 항의를 들이대고 놈들의 폭행만행은 《질서유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폭력행위이며 언론전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하였으며 3일 남조선의 사진기자협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괴뢰깡패놈들의 포악한 만행을 《불가피하였다》고 하면서 비호해나선 괴뢰내무부장관놈의 파렴치한 망언을 규탄하였다.

남조선의 기자단체들도 박정희괴뢰도당의 언론탄압행위를 규탄하며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결의문, 성명을 발표하는 등 투쟁에 떨쳐나섰다.

10월 26일 남조선의 《기자협회》는 각지 분회장들의 모임에서 언론자유수호를 위한 상설기구인 《언론자유수호특별대책위원회》를 내왔다. 이 《위원회》는 11월 27일 보도에서 외부로부터의 강요와 사촉을 배격하고 《언론인의 자유수호》를 위한 실천적인 대책을 토의하였다.

11월 30일 《기자협회》는 《전국도시지부장회의》를 열고 《기자들의 언론자유수호운동을 뒤받침할것을 결의하고 개헌론의를 주시하며 언론자유의 제도적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남조선기자협회는 12월 7일 박정희군사깡패도당의 《민주공화당》 원내총무란놈과 괴뢰앞잡이인 충남대학교 총장놈이 《앞으로 언론의 일반적인 보도로 인하여 일어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언론계에 있다》느니 학생들의 투쟁이 《일부언론의 조직적인 충동과 타률적인 행동》에 의한것이라느니 하고 망발을 늘어놓은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2월 19일에는 긴급회의를 열고 17일에 《조선일보》사와 《한국일보》사에서 감행된 기자들에 대한 해고조치를 즉시 철회할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해 대학교수, 문학인, 법조계인사들도 투쟁에 떨쳐나섰다.

량심적인 대학교수들은 박정희파쑈악당의 학원탄압조치들을 규탄하고 학생투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여나섰다.

11월 18일 고려대학교 총장은 교수회의에서 《학생들의 움직임은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리유있는 행동》이라고 하면서 학생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연세대학교 총장은 11월 22일, 구속된 학생들과 교수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여 《학생들의 요구는 참다운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박정희괴뢰악당에게 《학생들이 규탄하고있는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모든 국민이 념원하는 민주화의 설계도를 내놓으라》고 들이대였다.

특히 연세대학교의 40여명의 교수들은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동안 련일 모임을 가지고 자기들의 투쟁목적이 박정희매국도당의 《유신》파쑈독재를 철폐하는데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악의 세력이다》, 《구속된 학생들과 동료교수들의 석방을 위한 길은 침묵하는 안일한 방법을 버리고》파쑈악당을 반대하는 대중적항쟁에《모두 참여하는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2월 9일에는 서강대학교 교수들이 교수회의에서 항의문을 채택하고 구속학생석방과 학원사찰중지, 학생운동의 자유를 주장하였다.

12월 11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수들은 괴뢰파쑈악당이 동료인 백락천교수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투쟁에 함께 참가하였다는 리유로 그를 파면시킨데 격분하여《백락천교수에 대한 파면조치를 철회하라》는 항의문을 작성하고 서명운동을 벌리였으며 12일에는 30여명의 교수들이 서명한 항의문을 괴뢰문교부장관 등 파쑈악당놈들에게 들이대였다.

이해 문인협의회에 망라된 문학인들이《자유실천문인협의회 101인 선언대회》를 갖고《시인 김지하를 비롯한 지식인, 종교인, 학생들을 즉각 석방하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것을 비롯하여 문학인들은 부당하게 체포된 시인 김지하, 소설가 리호철 등 문학인, 지식인들의 석방을 요구하여 성명발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남조선의 변호사단체들도 남조선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에 합류하여 싸웠다.

11월 25일 서울제1변호사회와 서울변호사회 등 서울에 있는 변호사단체들은《변호인의 변론행위는 마땅히 형사, 징계 등 처벌법규로부터 면책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소위 《긴급조치위반》과 《법정모욕죄》로 부당하게 체포구금되여 파쑈적인 군사재판을 받고있는 강신옥변호사를 즉시 석방할데 대한 공동명의의 요구서를 박정희역도놈에게 들이대였다.

12월 6일에 서울변호사들이 파쑈적《유신》독재를 반대배격하는 집회를 가지고 인민들의《기본권이 보장된 헌법제도를 확립하고 이에 저촉되는 각종 법규를 철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항의문을 채택하여 파쑈도당에게 들이대였다.

종교인들의 투쟁

1974년에 종교인들도 반파쑈민주화투쟁의 중요한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에 종교인들이 합세한것은 종래에는 없었던 일이다.

박정희악당의 파쑈폭압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은 교파까지 초월해가면서 구속자석방과 민주화를 요구하여 줄기차게 싸웠다.

특히 이들은 9월에 들어서면서 고조된 청년학생들의 투쟁에 합류되여 남조선전역에서 집회, 성명, 선언문발표, 서명운동, 삐라살포, 롱성, 단식투쟁, 시위 등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적인 민주화운동을 벌리였다. 서울 천주교(카톨릭교) 신도들을 중심으로 인천, 광주, 대전, 대구 등 20여개 도시와 마을들에서 약 80개의 천주교, 기독교 단체들이 투쟁에 참가하였다. 9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60여일간 남조선종교인들의 투쟁정형을 초보적으로 종합한데 의하더라도 90여건이며 망라된 수는 4만 5천여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매일 1.5건에 750여명씩 투쟁에 참가한것으로 되였다.

이해 남조선종교인들은 구속된 종교인들과 청년학생, 민주인사들의 석방과 함께 박정희살인악당의 파쑈적인 《유신》독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인간의 기본권리와 제반 민주주의적자유가 보장된 새로운 사회질서의 수립을 견결히 주장하여 싸웠다.

7월부터 천주교주교 지학순의 석방을 위하여 싸워오던 종교인들은 9월에 들어서면서 박정희파쑈교형리들의 야수적인 탄압책동을 신랄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구속된 각 계층 인민들의 석방과 제반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요구하여 더욱 완강하게 싸웠다.

9월 11일 천주교신도들 1천 500여명이 구속된 학생들과 변호사, 목사, 주교들을 즉시 석방할것을 요구하여 집회를, 22일에는 서울 종교인들을 포함한 각계 인사들 1천여명이, 23일에는 교회녀성련합회에 망라된 녀성종교인들 300여명이, 24일에는 남조선기독교장로회에 망라된 수원시의 200여명의 종교인들이, 25일에는 원주지구의 500여명의 종교인들이 구속된 각계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여 집회, 서명운동,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렸다.

10월 23일《기독교대한감리회》가《모든 인간이 즐길수 있는 언론, 신앙, 결사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과감한 시책을 당국에 바란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12월 10일 남조선의 2천 500여명의 천주교도들이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정부는 이미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인권주장》이라는 6개 항목의 문건을 발표한것 등 종교인들은 《인간의 기본적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중지하라》,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라》,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라》는 구호를 웨치며 제반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요구하여 힘차게 싸웠다.

특히 이해 종교인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유신파쑈체제를 반대배격하여 대중적인 시위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10월 9일 남조선 각지의 2만여명의 종교인들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카톨릭신학대학운동장에서 집회를 가지고《국민의 주권을 국민에게 돌리라》라는 반《정부》적구호를 부르며 《유신헌법》페지와 민주주의적정치를 요구하여 세찬 투쟁을 벌렸다.

11월 6일 천주교교도 2천여명은 집회에서《유신헌법》을 철페하고《민주헌정》을 실시할것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한 다음 《박정희는 사임하라》, 《〈긴급조치〉무효화하고 중앙정보부를 해체하라》는 문건에 서명하고 거리로 떨쳐나와 탄압에 날뛰는 300여명의 괴뢰기동경찰대와 맞서 완강히 싸웠다.

남조선의 기독교장로회에 망라된 500여명의 종교인들은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동안이나 계속하여《유신헌법 철페하라》, 《자유만이 살길이다》라는 구호를 웨치며 성토대회와 시위, 철야단식롱성투쟁 등 격렬한 싸움을 끊임없이 벌리였다.

12월 4일 경기도 리천군의 천주교신도들 400여명은《모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적모순을 철페》할것을 요구하여 그리고 6일 300여명의 남조선종교인들은《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땅에서 실현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박정희괴뢰도당의 1인파쑈독재를 폭로규탄하였다.

또한 11월 20일에 기독교장로회 종교인들이《부정부패 뿌리채 일소하라》는 구호를 웨치며 싸움에 나선것을 비롯하여 남조선의 여러곳에서 종교인들은《부정부패일소하고 특권층의 재산을 공개하라》, 《금력, 권력이 판치는 현실을 바로잡을것》등 구호를 제기하면서 박정희매국도당의 부정부패행위를 반대하여 집회를 하거나 선언문, 성명을 발표하였다.

남조선종교인들은 또한 반외세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종교인들은 박정희매국도당을 비호하고 추켜세우기 위하여 직접 남조선에 기여드는 미제의 두목 포드의 남조선행각을 반대하여 힘차게 싸웠다.

11월 2일 남조선 《기독교학생총련맹》은 4개항목의 선언에서 《우리는 포드의 남조선방문을 견결히 반대한다는것을 선포한다.》고 하였으며 11월 19일 또다시 《자유와 정의를 무시한 현〈정부〉를 지지하게 되는 포드대통령의 남조선방문을 반대한다.》라는 내용의 《제3십자가선언문》을 발표하였다.

11월 6일 서울에서 약 1천 500여명의 천주교인들은 집회를 가지고 포드놈의 서울방문은 박정희괴뢰도당의 《억압통치를 시인하는것으로 될수밖에 없다.》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1월 20일 인천의 천주교도들 500여명이 《소수의 매판자본가들만이 살수 있는 대외의존적 경제정책을 청산하고 자립경제체제를 확립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한것을 비롯하여 남조선종교인들은 《대외종속적인 매판경제 청산하라》등 미일제국주의의 경제적예속을 반대배격하는 구호를 들고 투쟁에 나섰다.

이해 남조선종교인들은 종래에 심하게 작용하던 교파호상간의 대립관계를 벗어나 동일한 목표와 지향을 가지고 여러 교파와 단체호상간, 서울과 지방간의 련대성을 강화하면서 행동통일을 보장하였다.

이해 종교인들의 투쟁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학생련맹》을 비롯한 각 계층별 단체들이 모두 참가하였다.

9월 11일과 22일 서울시 중구 명동에 있는 천주교회당들에서 천주교의 12개 단체청년신도들을 비롯한 각계 인사 수천명이 모임을 가지고 민족의 백정 박정희파쑈악당에 의하여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주교 지학순, 박형규 및 기타 민주인사들의 즉시 석방을 요구하였다.

인천시 교구산하 18개 교회 2천 500여명의 천주교신도들은 10월 20일 인천《교구성년대회》를 가지고 지학순석방과 민주회복을 요구하여 싸웠으며 11월 11일 서울, 부산 등 14개 도시들에서는 일제히 1만여명의 천주교도들이 인권회복을 위한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였다.

11월 20일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 수원 등 남조선전역의 도시들에서는 인권의 보장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천주교교도들의 철야집회가 일제히 있었다.

또한 남조선의 도시산업선교련합회와 천주교로동청년회를 비롯한 20여개 종교단체에 망라된 종교인들은 11월 25일 서울에서 모임을 가지고 박정희파쑈도당의 반동적인《로동법개정안》을 반대배격하는 삐라를 뿌리며 힘찬 공동투쟁을 벌렸다.

이해 반《정부》투쟁에 나갔다가 체포구금된 수감자가족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련대적투쟁은 종래의 투쟁들에서 찾아보기 드문것으로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1월 11일 수감자가족들은 모임을 가지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간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회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남조선인민들과 유엔성원국들에 호소문을 보내였다.

한편 그들은 인권회복을 위한 철야기도회를 갖고 결의문을 채택한 다음 서울시내로 몰려나가 가두시위와 룡성투쟁을 벌리였다.

이해 세차게 일어난 남조선종교인들의 투쟁은 신앙의 자유와 자신의 해방을 위한 의로운 투쟁인 동시에 새 정치, 새 제도, 삶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나라의 통일을 념원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고있는 정당한 투쟁으로서 박정희괴뢰도당에게 커다란 정치적타격을 주었다.

야 당 들 의 투 쟁

1974년에 남조선의 야당들도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독재를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였다.

신민당, 민주통일당, 통일사회당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유신》체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차게 벌리는 한편 반파쑈민주화투쟁에 일떠선 청년학생들과 언론인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남조선야당들은 파쑈독재체제의 철폐를 주장하며 박정희역도에게 괴뢰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날것을 요구하여 투쟁하였다.

신민당당수는 9월 24일 신민당 《정무회의》에서 《유신헌법》에 6년으로 규정한 《대통령》임기를 4년제로 할것과 2선까지만 허용하고 3선을 금지할것을 제기함으로써 박정희역도의 장기집권책동을 전면적으로 거부하여나섰다.

또한《대통령선출은 직선제로 하여야 한다.》고 들고나옴으로써 박정희괴뢰도당이 《유신헌법》을 날조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게 한《대통령》간접선거제를 정면으로 거부하여나섰다.

민주통일당은 조성된 헌난국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안은 현행《유신헌법》을 개정하고 민주회복의 길밖에 없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헌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야당들은《개헌운동》등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독재체제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화하면서 롱성, 시위 등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였다.

신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헌법개정》을 위한《헌법개정기초심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문제를 놓고 국회안팎에서 견결히 싸웠다.

11월 15일 신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헌법개정결의안》페기를 규탄하는《성명》을 일제히 발표하였으며 《개헌추진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개헌추진시민궐기대회》, 《개헌서명운동》, 시위, 강연회 등 실력투쟁을 벌리였다.

11월 15일 신민당 당수를 비롯한 신민당《의원》들은《개헌만이 살길이다》, 《박정희는 하야하라》 등 구호를 웨치면서 1천여명의 괴뢰기동경찰대와 맞서 가두시위를 벌렸다.

12월 5일 신민당소속《의원》들은 앞을 가로막는 박정희깡패무리들을 밀어제끼면서 《억압정치를 중지하라》, 《민주주의를 실시하라》등 5개항목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괴뢰국회본회의장 출입문을 들부시고 들어가 련일 롱성투쟁을 벌리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민주통일당소속《의원》들은 12월 7일 아침《헌법을 개정하라》등의 주장이 담긴 삐라를 뿌리고 구호를 웨치면서 거리로 밀려나갔다. 8일 신민당과 민주통일당 소속《국회의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헌법을 개정하라》, 《국민은 정부의 퇴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등을 주장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12월 20일 신민당은 전라남도 광주에서 모임을 가지고 《유신헌법》의 철페는 《절대다수국민의 열망》이라고 하면서 박정희역적에게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날것을 요구하였다. 모임에 이어 《개헌만이 살길이다》는 구호를 웨치면서 300여명의 무장한 괴뢰파쑈악당놈들과 맞서 싸우며 시위를 벌렸다.

전《대통령》이였던 남조선의 한 야당인사는 외국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박정희의 정책은 국민을 위한것도 아니고 국가를 위한것도 아니다. 그놈은 또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대통령자리를 유지하려고 하고있다.

권력을 위해서는 못할짓이 없는 놈이다.

그를 제거할 방법은 이제 실력이외는 없다》고 하면서 박정권의 독재를 규탄하였으며 《박정권을 추방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이 총궐기하며 국민의 편에 군대가 서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해에 남조선야당들은 반파쑈민주화투쟁에 나선 청년학생들과 언론인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박정희괴뢰도당의 언론탄압과 투쟁에 나선 청년학생들에 대한 체포만행을 규탄하였다.

뿐아니라 성명, 담화, 건의안 등을 통하여 구속자석방, 국민의 기본권보장 등을 요구하였다.

9월 26일 신민당소속 《국회》의원 56명은 련명으로 《정치범석방 및 사면에 관한 건의안》을 괴뢰국회에 제출하였다. 신민당은 10월 25일 언론탄압을 반대하는 언론인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12월 10일에 시위를 벌렸다. 11월 21일에는 학생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가로막기 위한 박정희파쑈악당의 학원페쇄책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민주통일당은 9월 24일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각계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투쟁을 조직화하기 위하여 당내에 《석방투쟁위원회》를 무었다.

민주통일당은 10월 23일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와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제적고립을 초래한 유신독재를 철페하라》, 《정치범들을 즉시 석방하라》, 《정당, 학생, 종교인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 《현정권은 퇴진하라》고 하면서 박정희파쑈악당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통일사회당은 10월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시위주동학생을 구속하라고 한 《내무부장관》을 준렬히 비판하였다.

남조선주민들은 1월 30일 파주군 천현면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 모사단 병기중대 자동차에서 고성능무전기 2대를 빼앗아냈으며 같은군 문산읍 괴뢰군 《검문소》와 화성군 정남면 정남리에 있는 《향토예비군》한 초소를 까부시고 카빙총과 수많은 탄약들을 탈취해가지고 자취를 감추었다.

이러한 대담한 투쟁은 5월 3일과 6일 충청남도 천안시 대흥동, 남조선 강원도 린제군 서화면 서화리에서도 벌어졌는데 이날 애국적주민들은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했던 라지오와 록음기 그리고 많은 탄약과 군용전화선을 빼앗아냈다.

6월에도 남조선주민들은 전라북도 리리지구 괴뢰경찰서 무기고에서 권총 5자루를 탈취하였다.

남조선 각지주민들의 이러한 투쟁에 대하여 10월 16일의 한 남조선방송은 남조선전역의 괴뢰 《경찰서, 예비군무기고에서 총기류도난사고가 자주 일어나고있어 괴뢰통치배들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점》으로 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이해 8월 14일 오후 3시경 리춘계청년이 경상남도 충무시《검문소》에 뛰여들어가 놈들의 카빙총을 빼앗아가지고 악질경찰놈들을 단호히 처단한것을 비롯하여 남조선주민들은 적들로부터 빼앗아낸 무기를 가지고 인민탄압에 피눈이 되여 미쳐날뛰는 괴뢰파쑈경찰들을 단호히 처단하는 투쟁을 용감히 벌리였다.

또한 남조선주민들속에서는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폭행을 감행하는 괴뢰경찰놈들을 까눕히는 투쟁이 도처에서 벌어졌다.

3월 4일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남청동에 사는 김청래라는 주민은 거리를 미친듯이 싸다니며 탄압에 미쳐날뛰던 괴뢰《왜관경찰파출소》의 리아무개 경찰놈을 단호히 징벌하였다.

5월 7일 저녁 경상북도 금릉군 대항면에 살고있는 한 애국적주민이 김아무개라는 악질경찰놈을 뒤산에 끌고가 인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처단하였으며 5월 18일 서울시 중구 동자동의 뻐스정류소에서는 6명의 청년들이 그 무슨《범인》을 잡는다고 돌아치며 행패를 부리는 경찰놈에게 집단적으로 호된 뭇매를 안겨 너부러뜨려놓았다.

8월 8일 제주도 남제주군 서귀읍에서 김대석을 비롯한 3명의 청년들은 자기들을 강제로《향토예비군》의 《방위소집》에 끌어내려고 폭압을 가해나서는 경찰놈에게 호된 뭇매를 안겼다.

9월 5일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의 괴뢰경찰초소에서 한 청년이《검문》하는 경찰놈을 단도로 찔러눕히고 자취를 감추었다.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폭행을 감행하는 괴뢰경찰놈들을 까눕히는 투쟁은 전라북도 김제군 김제읍, 남조선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련봉리, 경상북도 김천군 주민들속에서도 활발히 벌어졌다.

주민들은 박정희괴뢰경찰기구를 혼란속에 몰아넣기 위해 경찰전화선을 끊어치우는 대담한 투쟁도 전개하였다.

경기도 주민들의 한 집단은 미제침략자들의 전화선과 경기도 경찰국과 평택―안성사이를 련결하는 경찰경비전화선을 끊어버려 인민탄압에 날뛰는 놈들을 당황망조케 하였다.

7월 7일 서울의 여러 주민들은 시내 영등포구 오류동에서 괴뢰치안국과 경기도경찰국으로 통하는 경비전화선을 각각 끊어치워 파쑈악당들의 탄압지령체계를 마비시켰다.

경기도의 수원, 룡인, 인천, 리천, 양주와 서울시 영등포구 오류동, 부산시 동래구 금사동, 대구시 등지에서도 괴뢰경찰의 경비전화선을 끊어치우는 투쟁이 연거퍼 벌어져 놈들의 폭압망에 대혼란을 주었다.

기타 계층들의 투쟁

1974년에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탄압과 전쟁소동, 매국배족적정책을 반대하며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남조선주민들의 투쟁이 또한 힘차게 벌어졌다.

남조선주민들은 적들의 무기와 탄약을 빼앗아가지고 악질주구놈들을 단호히 징벌하는 투쟁을 대담하게 벌리였다.

생존의 권리를 위한 투쟁

로동자들의 투쟁

1974년에 악명높은《유신》독재밑에서 가혹한 착취와 략탈, 살인적인 억압을 강요당하고있는 남조선의 로동자들은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용감히 일떠서 싸웠다.

이해 7월부터 11월말까지 투쟁에 참가한 로동자수만도 6만여명에 달한다.

특히 운수, 섬유, 탄광, 금속, 제약 등 미일독점체에 고용되고있는 로동자들속에서 투쟁이 활발히 벌어졌다.

이해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9월 19일 경상남도 울산조선소 3천여명 로동자들의 폭동과 25일에 일어난 2만여명의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로동자들의 투쟁을 비롯하여 투쟁규모가 컸을뿐아니라 례년에 비하여 투쟁이 끊임없이 진행되면서 보다 혁명적이며 격렬하였다.

남조선로동자들은 미일독점자본가들의 민족적박해와 가혹한 착취를 반대하여 결연히 싸웠다.

4월 3일 남조선의《외국기관로동조합》은 임금을 40%까지 올려줄것을 요구하는《항의문》을 미제침략군사령관놈에게 들이대고 싸웠다.

그들은 9월 25일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확답도 하지 않고있는 미제침략군놈들의 파렴치한 행위를 격분에 넘쳐 규탄하면서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되고있는 2만여명 로동자들의 이름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27일까지 임금을 올릴데 대한 뚜렷한 대답이 없을 때에는《극한 투쟁을 벌리겠다》고 단호하게 나섰다.

경상남도 마산《수출자유지역》안의 전기공업주식회사 로동자들은 2월 25일 일본독점자본가놈들이 자기들을 모욕하고 매질까지 하면서 형편없이 낮은 임금에 얽매여놓고 무한정 혹사하는데 격분하여《우리는 왜놈들의 노예가 아니다. 남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인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대중적인 투쟁을 벌리였다.

남조선로동자들은 미일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과 함께 추악한 친미친일주구로서 그놈들의 치외법권적횡포를 보장해주기에 미쳐날뛰며 로동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적죄행을 폭로규탄하는 투쟁을 힘차게 벌리였다.

로동자들은 전화를 통해 박정희괴뢰악당의 파쑈적 및 매국배족적 죄행을 규탄하는《경고작전》을 마산, 부산, 인천, 광주 등 각지에서 활발히 전개하였다.

3월 7일 저녁 마산괴뢰경찰서에는 전화로《돈없고 못산다고 인권유린 말라, 〈반공법〉에 걸면 단줄 아느냐, 〈반공〉나발을 부는자들을 로동자들의 명의로 징벌하겠다.》고 하는 철추같은 경고가 내려 놈들을 혼비백산하게 하였으며 3월 8일에는《우리 마산의 로동자들은 쪽발이 왜놈들과 한배속이 되여 우리의 투쟁을 탄압하는 너희놈들을 똑바로 지켜보고있다. 너희놈들에게는 로동자들을 혹사하고 때리고 모독하며 녀성로동자들을 희롱하고 모욕하는 일본놈들의 행패가 보이지 않느냐, 민족의 피라고는 조금도 없는 추물들아, 함부로 날뛰지 말라, 무쇠망치를 안길테다.》라는 《전화벼락》을 안겨 악질경찰관놈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다.

로동자들은 임금을 올려받기 위한 투쟁,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내기 위한 대중적투쟁에 광범히 일떠서 싸웠다.

7월부터 11월말까지에 로동자들의 투쟁에서 임금인상투쟁은 18%,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은 39% 차지하였다.

임금인상요구수준도 하반년에 들어와 더 높아졌는바 실례로 남조선강원도안의 기업체들인 한성탄광로동자들은 60%, 동고탄광로동자들은 70%, 함백탄광로동자들은 115.8%, 동해탄광로동자들은 77%씩 올려줄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싸웠다.

로동자들의 임금을 올려받기 위한 투쟁은 지구성과 적극성을 띠고 진행되였다.

로동자들속에서는 폭동, 파업, 시위, 롱성, 항의 등 여러가지 적극적인 형태의 투쟁을 벌리면서 당초에 내세웠던 요구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수개월씩 투쟁하는것이 일반적현상으로 나타났다.

3월 17일 섬유부문산하로동자들은 64.3%의 임금인상과 불비한 로동조건개선을 요구하여 일떠선 자기들을 박정희괴뢰도당과 기업주놈이《국가보위법에 위배된다》, 《반〈정부〉행동이다》라고 위협공갈하면서 혹독하게 착취하자《무슨 놈의 위배고 불법이냐, 당장 임금을 올려라, 그렇지 않으면 과감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놈들과 맞서 용감히 싸웠다.

한남고속뻐스주식회사로동자들은 퇴직금과 밀린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11개월이나 완강히 싸웠으며 청양중석광산에서 일하는 광부 300여명은 1970년 9월부터 1974년 4월까지 밀린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70여회나 강력히 투쟁하였다.

서울시 성북구 장유동《한성뻐스회사》의 녀차장들은 3월 6일 밀린임금을 당장 내놓을것을 요구하여 경찰놈들과 맞서 시위를 벌리였다.

로동자들은 임금투쟁에서 조직적련계를 강화하고 단결된 힘으로 싸워나감으로써 자기들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하였다.

남조선강원도 양양의 한 철광개발주식회사의 700여명의 로동자들은 2월 25일 박정희괴뢰도당을 등에 업은 매판자본가놈들을 굴복시키고 이달부터 임금을 평균 30% 더 올려주겠다는 다짐을 받아내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이 경영하는 남조선의《석탄공사》는 5월 9일 로동자들의 강력한 압력에 못이겨 임금을 20%씩 더 올려주겠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남조선강원도 정선군《동고광업소》, 《한성광업소》의 광부들, 전라북도의 여러 운수회사 운전수들이 임금을 올려받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하였다.

남조선로동자들은 로동자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과 악질기업주놈들의 부당한 해고놀음을 반대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였다.

《전국외국기관로조 서북항공분회》는 6월 6일 《서북항공회사》측이《기구축소》라는 이름밑에 취한 로동자들의 해고조치를 당장 철회할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서울시 성동구 동방섬유주식회사의 100여명의 로동자들은 6월 22일과 25일 일제히 작업을 거부하고 해고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힘찬 투쟁을 벌려 26일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였다.

8월 12일 서울시 도봉구에 있는 남도섬유공업회사에서 집단해고를 당한 350여명의 로동자들은 밀린임금을 당장 줄것과 해고에 따르는 생활대책을 마련할것을 요구하여 앉아버티기 투쟁을 벌렸다.

남조선로동자들은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로조를 뭇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였다.

이해 로조를 뭇기 위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박정희파쑈악당의 야수적탄압과 방해책동으로 하여 완강성과 적극성을 띠지 않을수 없었다.

2월 17일 부산의《태광산업주식회사》의 3천 600여명의 로동자들은 이 회사의 악질기업주놈이 그들의 가방을 뒤지여 도장을 빼앗고《기숙사》에서《외출을 금지》시키며 로조결성장소인 《로동회관》주변에 악질폭무 100여명을 파견하여 그 누구도 접근시키지 않는 등 횡포한 만행과 탄압, 방해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으나 집단적인 투쟁으로 단호히 맞서 끝내 로조를 무었다.

3월에 경상남도 마산의 이른바《수출자유지역》안에 있는《한일합성섬유공업주식회사》의 800여명의 로동자들도《협의를 통해 해결하자》느니 뭐니 하면서 교활하게 날뛰는 기업주놈의 간악한 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로조결성의 자유를 요구하여 힘차게 싸웠다.

로조를 뭇기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에서 주목되는것은 또한 그의 조직규모가 크고 그에 망라되는 대렬이 빨리 늘어난것이다.

이해 1월부터 4월말까지만하여도 《태광산업》의 3천 600여명의 로동자들이 로조를 결성한것을 비롯하여 《청주방직》, 《대명목재》, 《한국모방》, 《한국수출산업반도상사》등 1천명이상의 로동자들을 고용하고있는 기업체에서 새로 로조가 무어졌다.

로조에 가입하려는 로동자들의 수도 급격히 늘어났는데 1973년 한해동안에 2만 6천 300여명의 로동자들이 로조에 들어갔다면 이해에는 1월부터 4월까지에만도 5만여명의 로동자들이 로조에 들어갔다.

이 모든것은 로조를 뭇기 위한 투쟁이 대중성을 띠면서 빠른 속도로 힘차게 벌어지고있으며 그들속에서 극도로 유린말살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조직된 힘에 의거하여 쟁취하려는 기세가 비상히 높아지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또한 로동자들속에서 어용로조를 반대하고 로조를 자주적인 조직으로, 민주주의적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이 강화되였다.

그것은 3월 5일 자기들이 지명한 로조간부를 선출못하게 방해하는데 불만을 품고 대중적인 완강한 투쟁을 벌린《한국수출산업반도상사》 로동자들의 투쟁, 1월 28일 로조결성모임을 갖고 로조책임자를 선출한 부산의《현대모직주식회사》 300여명 로동자들의 투쟁 등이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로조를 뭇기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은 또한 생활조건과 로동조건의 개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위한 투쟁,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 힘차게 벌어졌다.

그것은 9월 19일에 있은 생존권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3천여명의 울산조선소로동자들의 대중적폭동이 잘 말해주고있다.

울산조선소 로동자들의 폭동; 몇푼 안되는 품삯마저 몇달씩이나 받지 못한채 기아와 빈궁에 신음하고있던 경상남도 울산조선소로동자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이 로동자들의 반《정부》기세를 무마하기 위하여 이른바《로사협조》론을 내돌리는 한편 로동자들의 로동조합결성을 방해하기 위하여 선진적로동자들에게 밀정을 붙여 감시케 하는데 격분하여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대중적인 폭동에 일떠섰다.

울산조선소로동자들의 폭동은 용해직장에서 고용당하고있는 300여명의 용접공들이 작업교대시간을 전후하여 벌린 집단적인 시위투쟁을 발단으로 하여 일어났다.

9월 19일 일제히 작업을 거부하고 수백명씩 대오를 지어 조선소사무실로 노도와 같이 밀려간 3천여명의 로동자들은《배고파 못살겠다, 임금을 올려라》, 《기만적인 〈로사협조〉 배격한다》, 《로조결성의 자유를 달라》, 《정보폭압정치 끝장내자》등 14개항목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사기충천하여 집단적인 롱성을 벌렸다.

박정희파쑈악당들은 이곳 로동자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1천 200여명의 경찰들을 출동시켜 로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악랄하게 탄압하여나섰다.

그러나 로동자들은 앉아서 죽느니보다 일어서서 싸워야 한다는 결사적인 각오를 가지고 원쑤들의 총칼을 단결된 위력으로 물리치고 놈들의 회유기만놀음을 로동계급의 각성으로 짓부셔버렸다.

로동자들은 공장정문으로 몰려드는 경찰놈들을 맞받아 20일 새벽까지 3시간 이상이나 치렬한 투석전을 벌리였다.

로동자들은 조선소사무실의 유리창과 기물들을 모조리 들부시는 등 2천 5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주었으며 자동차 4대를 불살라버렸다.

생존과 민주주의를 위한 울산조선소로동자들의 대중적폭동은《유신》독재하에서 살인적인 억압과 착취를 강요당하여온 그들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며 파쑈테로통치를 뒤집어엎고야말 전체 남조선로동계급의 확고한 결의를 천명한것이다.

울산조선소로동자들은 박정희살인악당과 악질기업주를 반대하는 정의의 항쟁에서 단결된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남조선로동계급의 기개를 떨치고 원쑤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가하였을뿐아니라 반파쑈민주화투쟁에 일떠선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고무적힘과 신심을 안겨주었다.

이해 남조선로동자들은 생존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보다 조직적이며 대중적인 투쟁을 쉬임없이 벌림으로써 투쟁과정에서 더욱더 각성되고 단련되였으며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농어민들의 투쟁

1974년에 남조선농민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농업정책을 반대하고 절박한 생활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여 투쟁하였다.

농민들은 피땀흘려 가꾼 농산물을 생산비도 안되는 눅은 값으로 빼앗아가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매상》놀음을 반대하여 힘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을 비롯한 군안의 각지 농민들은 괴뢰도당의《매상》놀음에 항의하여 집단적으로 들고일어나 그를 완강히 거부함으로써 이 지방에서의 놈들의 농산물《매상》놀음을 파탄시켰다.

충청남도 서천군안의 농민들은 농촌수탈장인《공판장》에 몰려가 버티기투쟁을 벌리는 한편 대표 20여명을 괴뢰군농업조합에 보내여 수탈을 규탄하는 힘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6월 충청남도 홍성군안의 318개 마을의 4천 200호의 잠업농민들은 괴뢰도당이《새농민예금》이라는 구실밑에 누에고치《매상》에서 무조건 50%를 잘라먹으려는 가혹한 착취행위를 반대하여 투쟁을 벌렸다.

이해 2월 경상북도 안동《전매지청관내 6개 생산조합》2만여명의 경작자들은 각종 자재값이 30～200%로 껑충 뛰여오른것과 관련하여 잎담배수매값을 50% 올릴것을 괴뢰도당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이밖에도 남조선농민들속에서 농산물《매상》놀음을 반대하는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남조선보도들까지 박정희괴뢰도당의 농산물《매상》이《비난의 대상으로 되고있으며 농민들은 그것을 기피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남조선농민들은 《수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수탈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남조선강원도 철원군방의 4천여명의 농민들은 괴뢰도당이《체납되였던 수세》라는 이름밑에 1천 483만 2천여원을 강제로 징수하려는데 항의하여 투쟁을 벌렸으며 속초지방의 1천 200여호의 농민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이《비료대》라는 구실밑에 많은 돈을 빼앗아가고도 비료를 주지 않는데 반항하면서 그를 받아내기 위한 투쟁을 벌렸다.

전라남도 광양군안의 농민들은 농지세를 엄청나게 올려 빼앗아내려는 괴뢰악당놈들에게 련명으로 된 항의문을 들이대고 략탈책동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요구하였다.

남조선농민들은 군사력증강과 전쟁준비에 피눈이 되여 날뛰면서 수많은 토지를 군용지와《고속도로》등 군사시설확장에 강제징발하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의 토지략탈을 반대하여 투쟁

하였다.

남조선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3리 80여명의 농민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이 령동《고속도로》를 닦으면서 3만 4천여평의 땅을 빼앗아내려는데 항의하여 그 해결책을 세울것을 요구하였으며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동의 150여명의 농민들은 가난한 자기들의 밭을 빼앗아 군수공장의 부지로 만들려는 괴뢰도당의 책동을 반대하여 완강한 투쟁을 벌렸다.

경상남도 창원군 농민들은 일본독점자본가놈들과 그 앞잡이들의 토목공사장에 몰려가 땅을 밀어제끼는 불도젤의 앞을 가로막고 누워버티는 등 놈들의 토지략탈만행을 준렬히 규탄하여 싸웠다.

1월 경기도 의정부시안의 160여명의 농민들은 10년전에 이 일대에서 군용도로공사를 벌릴 때 빼앗아간 땅값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을 또다시 벌렸다.

이밖에도 남조선강원도 명주군 주문진읍 장성리와 교항리를 비롯하여 5개 마을의 농민들과 경상북도 상주군 상주읍 농민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의 토지략탈책동을 반대하여 투쟁을 벌렸다.

경상남도 울주군 강동면 농민들과 마산시 변두리에 사는 농민들은《경지정리》요《호안공사》요 하면서 여러가지 간판밑에 농경지를 파헤쳐 농사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책동을 반대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힘차게 싸웠다.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면과 인동면안의 농민들은 괴뢰도당이 1973년 6월 락동강《호안공사》라는것을 벌리면서 대금 1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자기들의 토지 수천평과 보리 및 뽕나무 밭을 파헤쳐놓고도 그에 대한 보상이 없는데 항의하여 칠곡괴뢰군청에 몰려가 피해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을 벌렸다.

이밖에 경상북도 문경군 점촌읍 흥덕리를 비롯한 4개 마을과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서정리 농민들도《경지정리》라는 기만적구호밑에 자기들에게 막대한 피해만 입히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에게 호된 타격을 가하였다.

남조선농민들은 공해산업에 의한 농산물의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투쟁하였다.

이해 주변의 광산에서 쏟아져나오는 유독성폐수로 수만평의 논밭에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의 600여명의 농민들은 괴뢰도당과 기업주놈의 죄행을 신랄히 규탄하고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빨리 조건을 보장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가동리 400여명의 농민들도 아비산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로 하여 농작물의 피해는 물론 사람의 몸에까지 피해를 주고있다면서 부락회의까지 열고 이 공장철거투쟁을 과감히 벌렸다.

남조선농민들은 또한 영농조건보장을 요구하여 줄기차게 투쟁을 벌렸다.

이해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의 1천 300여명의 농민들과 충청남도 론산군 련산면과 충청북도 중원군 엄정면 농민들, 전라남도 라주군 동강면 진천리와 공산면 동촌리 473세대의 2천 500여명의 농민들은 물보장과 수리시설을 요구하여 싸움을 벌렸다.

《수리시설을 설치하라!》, 《저수지를 시급히 만들라!》는 구호를 들고 이해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100여명의 가난한 농민들과 사천군 서포면 80여세대의 농민들 그리고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일대 농민들이 투쟁을 벌리였다.

물을 위한 투쟁은 이밖에도 경상북도 영천군 림고면과 남조선강원도 원주 동지의 농민들속에서도 적극 벌어졌다.

이해 남조선어민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탄압과 가혹한 수탈을 반대하여 힘차게 싸웠다.

1월 28일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면 애월리 앞바다에 고기잡이 나갔던 어민들은《불법어로》니 뭐니 하고 까박을 붙이면서 고기잡이를 못하게 할뿐아니라 자기들을 묶어가려는데 격분하여 일제히 들고 일어나 싸웠다.

남조선강원도 고성지구 어민들 1천여명은 괴뢰수산청에 항의문을 들이대고 고기잡으러 바다에 나가지도 못하게 탄압을 가하는 파쑈악당들의 횡포한 만행을 신랄히 규탄하고 고기잡이를 할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것과 빼앗아간 그물을 당장 내놓을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남조선강원도 속초의 어민들은 어항사용료니 보수비니 하는 갖가지 이름을 걸고 많은 돈을 빼앗아내는데 격분하여 박정희역적놈에게 직접 항의를 들이대는 한편 괴뢰상공부 등에도 항의문을 들이대여 악랄한 수탈을 당장 그만둘것을 요구하였다.

남조선강원도 명주군의 주문진읍 어민들은 이른바《판매사업적립금제》라는 이름밑에 자기들이 물고기를 겨우 잡아다 판 돈을 터무니없이 갈라먹는 남조선괴뢰집단의 행위를《우리가 굶다는데 왜 야단이냐》, 《수탈을 목적으로 한 판매사업적립금제를 당장 없애라》고 하면서 완강한 반대투쟁을 벌리였다.

전라남도 려천군 삼일면 월하리 300여세대의 어민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이 군사적잠재력을 늘이기 위한 공사를 벌려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자기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있는데 격분하여 놈들의 죄행을 규탄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싸웠다.

1974년에 세계적으로 휩쓸고있는 자원위기, 연료파동으로 인한 공업생산의 파탄과 그에 따른 실업자의 증대, 날을 따라 물가가 올라 더 이상 참을수 없는 빈궁과 기아에 시달리고있는 남조선의 기타 계층들속에서 생활조건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이 매일 벌어졌다.

초보적인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해 상반년기간에 남조선주민들의 생활조건개선을 요구하는 각종 투쟁은 150여건, 여기에 참가한 수는 무려 50여만명에 달한다.

남조선주민들은 인민수탈에 피눈이 되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조선도시들에서 수도료금을 상반년 기간에만도 평균 35%나 끌어올리고도 물을 제대로 보내주지 않는것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경상남도 마산시 추산동 주민 25세대 100여명은 수도물보장은 커녕 오히려 물한동이도 돈을 내고 사라고 강요하는 시청관료배놈들의 행위에 격분하여 시청에 몰려가 항의를 벌렸으며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3만여명의 주민들은 비싼 수도료금때문에 물을 먹지 못하고있는데 격분하여 박정희괴뢰당국에 항의를 들이댔다.

서울 도봉구 쌍무동 주민들과 서대문구 연희동 주민 2천 500여명, 5천여명의 김해군 진영읍 주민들,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837세대, 제주도 제주시 2천 800세대 주민들 또한 깨끗한 음료수의 보장을 요구하여 완강한 투쟁을 벌리였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박정희괴뢰악당의 판자집철거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2월 8일에 경상남도 울산시 전하동 일대 80여세대의 주민들이, 4월 16일에 서울시 룡산구 한강로의 주민 140여명이, 5월 3일 서울시 마포구 염리도주민 70여명이 박정희깡패무리들의 살림집강제철거만행을 반대하여 격렬히 싸웠다. 10월 한달동안에만도 판자집강제철거를 반대하는 도시빈민들의 투쟁이 서울과 인천에서만도 다섯차례나 벌어졌다.

주민들은 생명에 위협을 가져다주는 공해현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조국통일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위대한 강령적지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으로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북과 남의 단합된 힘으로, 평화적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할것을 바라는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을 정확히 구현한것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북공동성명발표후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민족분렬영구화의 위험이 다가왔을 때 조국통일 5대강령을 새로이 천명하심으로써 통일을 위한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5대방침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방침은 조성된 정세의 절박한 요구와 조선의 평화통일을 한결같이 바라는 남북조선 전체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념원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애국적인 통일방안이며 위대한 구국강령이다.

1974년에도 력사적인 3월 4일 연설과 외국기자들이 여러차례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구국방안들을 제시하시여 우리 인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언제나 외세에 의존하려는 시도들을 단호히 물리치고 자기의 민족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자주적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왔습니다.》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단행본, 9페지)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우리 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며 오직 자주적으로만 해결될수 있는 문제이다.

외세에 의존하려는 시도들을 단호히 물리치고 자기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자주적립장은 통일문제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들의 각성과 역할을 높이고 그들의 힘을 단합하며 그에 기초하여 기어코 통일을 이룩하려는 확고한 원칙적립장이며 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고있는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에 부합되는 애국애족적립장이다.

우리 인민은 오직 자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함으로써만 외세에 의존하려는 온갖 시도를 단호히 짓부시고 통일문제를 자신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있으며 통일문제해결에서 주인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다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월 4일연설에서 오늘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고 통일을 촉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북과 남사이의 모처럼 마련된 대화가 반드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이른바 《불가침조약》을 들고 나온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본성과 놈들이 추구하는 음흉한 책동에 대하여 낱낱이 폭로하시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이 분렬책동을 계속하면서 대화에 성실히 림하지 않고있는 조건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문제를 남북당국자들사이에만 론의할것이 아니라 전민족적인 토의에 붙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현존하는 남북조절위원회와는 별개로 남북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대민족회의나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열것을 다시한번 제의합니다.》(우와 같은 책 13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시금 내놓으신 대민족회의나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열데 대한 방침은 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것으로서 북과 남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인사들을 대화와 협상에 광범히 망라시켜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위업을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한 구국대책이다.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는 전체 조선인민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민족최대의 과업이며 따라서 그것은 몇몇 특정한 사람들의 힘으로는 이루어질수 없다.

더우기 박정희괴뢰도당이 분렬책동을 강화하면서 대화에 성실히 림하지 않고 대화를 교착상태에 빠뜨려놓고있으며 조절위원회 앞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있는 현실적조건에서 조절위원회와 별개로 대민족회의나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연다는것은 그 어느때보다도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이 공명정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외면할수 없다.

조성된 정세는 나라의 분렬을 막고 평화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분렬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이 투쟁은 구국이냐, 매국이냐 하는것을 판가름하는 투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월 4일연설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어느때나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원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는것은 결코 그 어떤 〈내정간섭〉이 아니라 민족의 내부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는것을 자기의 응당한 의무라고 인정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이 벌리고있는 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투쟁의 한 부분이며 북반부인민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이 정의의 애국투쟁과 혁명투쟁에 대하여 무관심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는것은 북반부인민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이것은 결코 그 어떤《내정간섭》

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과 혁명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원하는것은 같은 민족으로서 그들과 힘을 합쳐 자기 앞에 부과된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려는 숭고한 민족적의무로 되며 여기에 대하여 그 누구도 《내정간섭》이니 뭐니 하면서 시비할 권리가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연설은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민족문제해결의 원칙적인 립장과 방도, 파업을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힘있게 고무하는 위대한 투쟁강령이며 자주의 기치밑에 민족의 행복과 영예를 고수하고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는 휘황한 길을 밝혀준 투쟁의 무기이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 5대방침과 함께 그이께서 3월 4일 연설에서 천명하신 평화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굳게 단결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통일도상에 가로 놓인 온갖 장애와 난관을 이겨내고 반드시 평화적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고야말 결의에 불타고있다.

남조선혁명력량의 강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남조선통치배들의 가혹한 파쑈적폭압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있습니다.》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단행본, 13페지)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그 앞잡이들의 전례없이 악랄해진 파쑈폭압속에서도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하였다.

통일혁명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남조선혁명의 전략전술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통일혁명당은 악랄한 군사파쑈통치의 간고한 환경속에서도 《통일혁명당 목소리》방송과 당기관지《혁명전선》등 출판보도활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방침을 광범한 대중속에 체계적으로 해석선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남조선에 더욱 광범히 침투됨에 따라 남조선도처에서 대중투쟁이 세차게 일어났고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적투쟁과 비합법적투쟁 등 여러가지 투쟁이 더욱 적극화되였다.

통일혁명당 경상북도위원회와 그 산하 당조직성원들은 대구, 울릉도, 서울, 부산, 전주 등지를 중심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적리념으로 삼고 그 사상적기치아래 광범한 혁명력량을 결속하여 미일침략자들을 내쫓고 파쑈독재를 매장하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였다.

이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남조선혁명에 관한 전략전술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인쇄소 등 각종 업체들을 도처에 꾸리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해설한 소책자들과 선전물들을 발간하여 광범한 대중속에 널리 전파하였다.

이들은 《반파쑈민주수호》, 《두개의 조선 반대》, 《평화통일》의 구호하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정계, 사회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지어 퇴역군장교들까지 포섭하여 수많은 대중단체들을 조직하고 그들을 반파쑈구국투쟁에로 힘있게 궐기시키였다.

통일혁명당당원들을 비롯한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이러한 활동은 전라북도 군산, 리리와 경상남도 충무, 충청남북도와 경기도, 남조선 강원도, 제주도 등 각 지방에로 급속히 확대되여갔으며 통일혁명당과 그 조직성원들이 활동하는 모든 지방들에서 활발히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싸울 때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것을 깊이 확신하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원쑤들의 그 어떤 야만적폭압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들의 혁명적지조를 지켜 지하와 산속에서, 감옥과 교수대에서 영웅적인 투쟁을 벌리였다.

교편을 잡고 지하혁명활동을 하다가 원쑤들에게 체포되여 옥중생활을 하고있는 한 혁명가는 자기의 수기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혁명가의 삶이란 투쟁속에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기에 투쟁을 한시도 멈추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감방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삼고 투쟁하는 통일혁명당의 불멸의 위업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있다.

나는 이 감방속에서도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굳세게 싸워나갈것을 다짐한다.》

남조선의 한 지하혁명조직인 《애국혁명동지회》 성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민족의 력사적숙망인 조국통일의 대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다.

혁명투쟁은 간고하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높이 받들고 싸워나가는 우리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는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혁명가들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인사들에 대한 박정희살인악당들의 파쑈폭압이 강화되자 이를 규탄하는 여러차례의 성명을 발표하여 박정희역도의 범죄적행위를 백일하에 폭로하고 반독재의 기치, 평화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거세차게 전진할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7월 28일에는 남조선의 애국적청년학생들과 각계인사들에 대한 박정희반역도당의 포악무도한 탄압과 처형학살음모를 규탄하여 국제민주단체들과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 및 전세계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에서는 국제민주단체들과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 그리고 세계의 선량한 인민들이 박정희파쑈악당들의 독재통치와 야수적폭압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있는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인사들을 구출하기 위한 더욱 광범한 활동을 벌림으로써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통일혁명당당원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혁명가들, 애국적청년학생들과 각계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보다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줄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갈라진 조국을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힘있

게 벌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것은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가장 절박한 요구이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을 타도하고 《유신체제》를 뒤엎어야만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 견결한 립장을 가지고 《박정권 타도》, 《박정희는 사임하라》, 《유신헌법 철폐하고 민주헌정 실시하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들었으며 《정보정치 즉각 철폐》, 《중앙정보부해체》를 요구하여 박정희괴뢰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남조선인민들의 이러한 견결한 립장은 박정희악당의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광범한 사회계와 재야정치세력들의 《100만명개헌서명운동》, 《박정희군사파쑈독재에 항거하는 4월 투쟁》 그리고 9월 이후 계속 확대된 청년학생들과 종교인, 언론인들의 투쟁등 년중 벌어진 투쟁에서 표시되였다.

1973년 10월에 일어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은 이해에 들어와 더욱 확대되였다.

4월에 서울과 지방의 각 대학들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일시에 투쟁에 떨쳐나섰다.

이에 질겁한 박정희반역도당은 파쑈적인 폭압령을 련달아 발동하여 검거선풍을 일으켰으며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그러나 9월에 들어서면서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또다시 폭발하였다.

9월에 일어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반《정부》투쟁은 불과 한달 남짓한 사이에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60개이상의 대학들에 파급되여 수많은 학생들을 망라한 대중적투쟁으로 번져나갔다.

극도의 무권리와 생활고에 허덕이고있는 로동자들도 투쟁에 일떠섰다.

9월 울산조선소의 로동자들도 《정보폭압정치 끝장내라》, 《로조결성의 자유를 달라》는 구호를 들고 폭동에 궐기하였으며 25일에는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2만명의 로동자들이 미제침략자들의 민족적박해와 착취를 반대하여 일떠섰으며 남조선의 여러부문 로동자들이 련이어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벌리였다.

남조선의 광범한 언론인들도 정의의 필봉을 들고 남조선통치배들의 파쑈적인 언론탄압을 준렬히 단죄하였다.

전국각지의 종교인들도 련일 모임을 가지고 《민주헌정수립》, 《구속인사석방》을 주장하였으며 지어 《자진루옥48인위원회》, 《전국기독교자선교련합회》와 같은 투쟁조직을 뭇고 대중적인 봉기까지 일으키려고 시도하였다.

남조선의 야당들도 《유신》독재를 반대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나섰다.

11월 15일 신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헌법개정결의안》 페기를 규탄하는 《성명》을 일제히 발표하고 원외투쟁을 선포하는 한편 《개헌추진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개헌추진시민궐기대회》, 《개헌서명운동》, 시위, 강연회 등 실력투쟁을 벌렸다.

11월 15일 신민당총재를 비롯한 신민당 《의원》들은 《개헌만이 살길이다》, 《박정희는 하야하라》등 구호를 웨치면서 1천여명의 괴뢰기동경찰대와 맞서 가두시위를 벌렸다.

11월 27일 남조선의 광범한 정계, 사회계 인사들이 박정희파쑈악당의 《유신헌법》철폐와 《민주주의적정부수립》을 요구하는 대회를 가지고 《유신》파쑈독재를 짓부시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합세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또한 외세를 반대하는 투쟁과 결합하여 확대되였다.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내정간섭과 분렬책동에 적극 추종하여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집요하게 방해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은 남조선전역에서 벌어졌다.

남조선인민들은 《일본은 남조선을 새로운 침략정책이나 정치의 희생물로 오인하지 말라》는 구호를 들고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36년간의 식민지통치를 미화한 일본군국주의의 두목들의 망언을 규탄하면서 즉시 공개사과할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일본상품안사기운동을 벌렸으며 남조선의 《독립동지회》, 《민족통일촉진회》, 《3.1동인회》등 10여개의 사회단체들은 3월 1일 대일구국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일본군국주의재침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렸다.

또한 미제우두머리 포드의 남조선행각을 규탄하여 남조선의 한 야당지도자는 그것이 남조선에서의 《억압정치를 인정》하는것으로 될것이라고 비난하였으며 《한국기독교학생련맹》은 《포드대통령의 방문이 한국정부의 비법성과 부패를 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것이라면 우리는 그의 방문을 견결히 반대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하여 인민탄압에 피눈이 된 박정희역도를 비호하는 미제의 책동을 규탄하였다.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은 미일침략자들에게 빌붙어 살려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 그를 구현하기 위하여 내놓은 우리의 구국방안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열렬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김일성주석님의 통일방안은 우리 이남민중의 지향을 그대로 반영한 유일정당한 방안이다.

우리 민중은 오늘의 정세의 흐름이 주석님께서 가리키시는 방향에 따라 나가고있다는것을 온몸으로 감촉하고있다.》

《지금 이남에서는 어디를 가나 왜정때 축지법을 쓰시면서 항일전을 전개하시였고 민족주의자들까지도 너그럽게 포섭하시여 능란하게 애국애족사상으로 묶어세우신 김일성장군님에 의해서만 나라를 통일할수 있다는 말이 자자하다.

3대원칙, 5대방침과 같은 훌륭한 통일대강을 밝혀주신 김일성주석님이시야말로 진정 통일의 구성이시며 민중의 령도자이시다.》

《조국통일은 김일성주석님의 령도밑에서만 이룩될것이다. 우리들은 김일성주석님께서 통일된 이 땅에서 정치를 베푸시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단 한가지 희망을 가지고 갖은 고초를 이겨가며 꿋꿋이 살아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심장마다에서 우러나오는 이 절절한 말들은 통일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로 신심과 긍지를 가지고 나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반영한것이다.

이와 함께 그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을 《남북대화로 통일하자는것이 아니라 민족의 영구분렬로 나가고있다.》, 《통일의 간판밑에 유신체제를 강화하며 동족상쟁의 류혈전쟁을 빚어내려하고있다.》고 규탄하면서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민족분렬을 영구화하려는 현《정권》을 타도하며 남조선의 각 정당, 사회단체들이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대화에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신민당 총재는 《남북제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민주통일당은 《남북조절위원회를 전민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수 있는 재야 민족지도자로 개

편하고 광범한 민족기반우에서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범국민적협의기구를 시급히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남조선당국자들이 통일문제를 가지고 《독주》하지 말고 《범국민적통일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민족의 념원에 맞게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 정당, 사회단체들의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이 울리였다.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제를 마련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미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자 남조선인민들은 이것을 《조성된 긴장상태를 가시고 정세를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조치》, 《통일의 지름길을 마련하기 위한 주동적인 제안》이라고 하면서 이를 열렬히 지지하였다.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는 3월 27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은 공화국정부의 진지한 제의에 성의있는 자세로 림해야 하며 그를 즉각 받아들여야 하며 또한 남조선위정자들은 외세의존과 매국배족의 길에서 벗어나 평화와 평화통일의 대전제를 조성하기 위한 온 민족의 정당한 투쟁에 합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는 통일열망에 불타고있는 각계 인민들과 더불어 자주적평화통일촉진의 유리한 전제를 조성하기 위하여 과감히 싸워나아갈것을 선언하였다.

경북대학교의 최 아무개교수는 《미국지배층은 말그대로 전쟁을 일시 중지시켜놓은 불안한 정전협정을 항구한 평화를 담보할수 있는 안전한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이북의 제의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 《미국은 마땅히 억지로 만들어쓴 <유엔군>의 모자를 벗고 이 땅에서 물러가야 하며 항구적인 평화를 담보할수 있는 이북의 현실적인 제안을 접수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은 《남조선에서 미군을 내몰고 평화협정을 맺자는 이북의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그의 실현을 위해 반파쑈, 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체 학도들과 민중과 더불어 과감히 싸우겠다.》고 굳게 결의다지였다.

경기도 인천의 한 로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북에서 제기한대로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키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는것은 참으로 통일의 지름길을 여는 전제조건이다.…

억세고 과감한 우리 로동자대렬속에서 나는 이땅을 짓누르고있는 파쑈독재체제를 허물고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찾으며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겠다.》

이것은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려는 그들의 굳은 결의이다. 이리하여 남조선인민들은 박정희파쑈독재를 더욱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뜨렸다.

하신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해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은 남북대화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남북공동성명에 기초하여 민족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1974년 3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는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제를 마련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남조선에서 모든 실권을 틀어쥐고있으며 조선정전협정의 조인일방으로 되여있는 미국과 직접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최고인민회의는 현재의 불안정한 정전협정대신 미국을 상대로 하여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하여 제기하면서 이를 토의하기 위한 토의장소와 대표단구성문제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미국국회에 편지를 보냈다.

우리와 미국사이에 체결하자는 평화협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쌍방은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을것을 서약하고 직접적무력충돌의 모든 위험성을 제거할것,

미국은 남조선당국자들의 전쟁도발책동과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행위를 사촉하지 않고 비호하지 않으며 조선의 북과 남이 남북공동성명에 따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하는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조선의 내정에 일체 간섭하지 않을데 대한 의무를 질것

둘째 쌍방은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조선경외로부터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할것

셋째 남조선에 있는 외국군대는 《유엔군》의 모자를 벗어야 하며 가장 빠른 기간내에 일체 무기를 가지고 모두 철거하도록 할것

넷째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한후 조선은 그 어떤 외국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을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국과 이러한 평화협정을 맺자는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에서 항시적인 긴장상태의 근원으로 되고있는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키고 민족의 내부문제를 대화를 통하여 조선사람들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는데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자는것이다.

조선에서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성을 풀며 미제의 내정간섭을 배제하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된다.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운동에 대한 지지성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원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업입니다. 우리 나라 남북반부의 전체 인민들은 나라의 통일을 한결같이 열망하고있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습니다.》

(《다오메정부기관지 <다오엑스프레스> 사장과 한 담화》, 단행본, 17페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공화국북반부 인민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들고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며 다음 전망계획년도의 웅대한 건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대건설에 총동원되여 위대한 기적과 혁신을 일으켰다.

이리하여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기본밑천인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는 더욱 튼튼히 꾸려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최고인민회의의 조치는 바로 이러한 절박한 당면요구를 해결하려는 정당한 방안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제61차와 63차 확대회의에서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의 배신행위로 말미암아 조국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난국이 조성되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사태를 토의하고 민족의 모든 애국력량이 단결하여 난국을 타개하고 통일위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구국대책을 강구하였다.

8월 6일 61차확대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 5대강령에서 천명하신 대민족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방침을 실현할데 대하여》를 토의하고 남조선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들, 모든 해외교포단체들과 해외교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호소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이미 조국통일 5대강령에서 천명하신 대민족회의를 쌍방이 합의밑에 1974년안으로 판문점 또는 그밖의 우리 나라 다른곳에서 열것을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들 그리고 모든 해외교포단체들과 해외교포들에게 제의하였다.

그리고 대민족회의소집을 성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각계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및 해외교포단체 대표들로 실무자회의를 열고 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며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쌍무적 또는 다무적 접촉을 빨리 가질것도 제기하였다.

11월 8일 제63차확대회의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파국에 직면하고 긴장상태가 날로 격화되는 엄중한 정세밑에서 우리 민족앞에 조성된 현난국을 타개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구국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회의에서는 남조선에서 파쑈독재와 전쟁도발책동을 강화하면서 민족분렬의 영구화를 꾀하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조선인민들의 요구대로 《정권》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대신 애국적민주인사들이 정권에 올라앉는다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열릴것이라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였으며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으로부터 몰아내는것이 조국통일을 촉진시키는데서 나서는 선결조건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고 미제침략군의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회의에서는 특히 민족의 모든 애국력량이 거족적으로 단결하여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자주적조국통일을 힘있게 촉진시키기 위하여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대민족회의나 정치협상회의를 될수록 빠른 시일안에 소집할것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회의가 열리게 되면 우리는 조국통일도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론의할수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는 우선 긴절하게 제기되는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정상화하는 문제, 외국군대가 철거한 후에 조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킬데 대한 문제를 론의할수 있으며 이와 함께 우리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협의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였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국통일방침에 따라 대민족회의나 정치협상회의에서는 대내적문제로서 서로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면서 대립과 불신을 제거하고 민족적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들, 경제적교류와 합작을 위한 대책들, 남북사이에 각종 교류와 합작을 실현하며 련방제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들에 이르기까지의 광범한 문제들을 협의결정할수 있을것이다.

대외적문제로서는 국제문제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전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며 단일국호를 가지고 유엔에도 가입하며 외국의 침략위협이 있을 때에는 공동으로 대처하여나갈데 대한 대책들을 토의결정할수 있을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철거한 다음 우리 나라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북과 남의 군사당국자들의 쌍무적군사회담을 열고 현존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할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조직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해당한 실천적대책들을 협의강구할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회의에서의 제의와 요구의 실현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에 따라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발전시키며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인민자신의 손으로 나라의 통일위업을 촉진시키는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조국전선중앙위원회 확대회의들에서의 이러한 제의와 요구는 분렬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있는 오늘의 실정에서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결정적으로 물리치고 민족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념원과 의사에 부합되게 전면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적극적인 방도로 된다.

때문에 남북조선 전체인민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확대회의가 내놓은 제의와 요구를 현시기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놓기 위한 합리적인 구국대책으로 인정하면서 그를 열렬히 지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남조선당국이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 남조선에서는 오직 현당국자들만이 참가하고 그밖에는 그 누구도 통일문제를 론의할수 없게 함으로써 실제에 있어서는 대화를 파탄의 길로 이끌고있는 현상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대화를 추진시킬수 없기때문에 조절위원회를 대폭 확대하여 여기에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의 대표들을 참가시킬것을 제의하였다.

이것은 조선통일문제의 민족적성격으로 보나 그것을 협의해결해야 할 조절위원회의 사명으로 보나 지극히 정당하다.

특히 남조선괴뢰도당이 《대화》의 막뒤에서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지향을 탄압말살하고있는 조건에서 조절위원회에 북과 남의 광범한 인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문제는 그의 기능을 회복하며 대화의 정상화를 위하여서도 긴절한 문제였다.

우리는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면서 다른 한편 분렬로 인하여 남북으로 흩어진 부모, 처자, 형제자매들과 친척, 친우들이 새로운 한세대가 자라도록 생사여부조차 모르는 민족적고통을 하루빨리 제거하기 위하여 적십자회담에도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였다.

적십자회담에서 쌍방이 협의한 다섯가지 원칙 즉 남북공동성명정신과 적십자인도주의정신, 민주주의원칙과 자유로운 원칙, 동포애정신은 적십자사업의 성과적추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원칙이다.

적십자회담에서 이 원칙을 구현하는것은 회담의 진척을 위해서나 동포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원만히 덜어주는데 있어서나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정체상태에 있는 적십자회담을 하루빨리 열것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남조선괴뢰도당은 이 모든 제의를 한사코 거부하면서 분렬로선과 전쟁로선을 공공연히 선포하고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을 더욱 로골화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변함없는 침략야망과 그리고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길을 가로막으려는 자기들의 범죄적기도를 온 세상에 더욱 뚜렷이 드러내놓았다.

이해 조선에서의 정세발전은 유엔의 기발을 가진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그냥 남아있는 한 남북공동성명의 원칙도 실현될수 없고 이 원칙에 따라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통하여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한 대다수 유엔성원국들의 희망도 이룩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공화국정부는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일련의 나라들의 공동발기에 의하여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가 상정된것과 관련하여 10월 7일 북과 남사이의 대화의 현상태와 그것을 가로막고있는 기본요인을 밝히고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의 정당한 립장과 방침을 다시한번 천명하는 비망록을 발표하였다.

11월 25일 제29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립장을 밝히고 올해 유엔총회가 조선인민과 세계인민의 공통된 념원과 시대적요구에 맞게 《유엔군》의 간판밑에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기 위한 공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데 실제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11월 23일 공화국 외교부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여 미제우두머리 포드놈의 남조선행각을 전쟁행각으로 폭로규탄하였으며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인 미제의 행동을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위반행위로 또한 조선과 아세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엄중한 범죄행위로 단호히 규탄하고 미제침략군은 하루속히 남조선에서 물러가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 월간》을 맞으면서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는 6월 2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을 비롯하여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나라 정부들과 인민들, 국제민주단체들,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각국의 련대성위원회들과 친선단체들, 각국의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사회정치활동가들이 조선에서의 평화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이르는곳마다에서 미제에게 압력을 가하고 남조선으로부터의 미제침략군의 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 울리며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련대성운동을 광범히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6월 24일에는 평양시와 각 도소재지들에서 군중대회와 시위들을 가지고 나라의 평화통일을 반대하고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며 조선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일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책동을 규탄하였다.

이날 평양시군중대회에서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반제구국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미일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것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이해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반파쑈민주화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 종교인들과 정계인사들을 닥치는대로 체포투옥 학살하며 배신적인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을 추구하고있는 남조선통치배들의 책동을 꺾어버리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렸다.

조선로동당, 조선민주당, 천도교청우당과 우리 나라 여러 사회단체들에서 1월 1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박정희도당의 파쑈적폭거를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규탄하였으며 6월 3일에는 애국적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남조선괴뢰도당의 파쑈적 탄압을 규탄하는 사회단체들의 련합성명이 발표되였다.

이밖에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직업총동맹,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조선기자동맹, 조선작가동맹, 조선기독교도련맹, 조선학생위원회 등 각 사회단체들에서 성명을 발표하여 박정희파쑈악당의 야수적인 폭압만행과 민족분렬책동을 규탄하고 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에게 들씌우고있는 부당한 형벌을 당장 취소하고 그들을 지체없이 석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7월 18일 전세계법률가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7월 20일에는 우리 나라 종교단체들에서 세계 각국 종교단체들과 종교인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여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줄것을 호소하였다.

애국적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만행을 규탄하여 6월 1일과 7월 25일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성토모임이, 7월 13일에는 평양시성토대회가 진행되였다.

모임들에서는 박정희괴뢰도당이 미친듯이 벌리고있는 살인광란은 찌그러진 제놈들의 《유신》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을 란폭하게 짓밟고 남북대화를 파탄시키며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극악한 행위라고 규탄하였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우리 자신이 책임지고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의 투쟁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였으며 조국통일위업을 더욱 촉진시켰다.

해외동포들의 투쟁

해외동포들도 이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올해에 총련조직들과 재일 조선동포들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투쟁하며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진보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60만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추켜들고 적들의 온갖 파괴음모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면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줄기차게 싸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미일침략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의 민족분렬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을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이룩하기 위한 방도를 제시하여주신 3월 4일 연설이 발표되자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이를 열렬히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60만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상, 정견, 신앙과 단체, 소속, 재산의 유무를 막론하고 굳게 단합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에 모든 힘을 다하여 합세할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회의가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군사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를 토의할것을 미국에 제기한것과 관련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의 제의를 미국이 즉시 받아들일것을 요구하였다.

3월 30일 일본 도꾜에서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최고인민회의의 제안을 지지하며 새 전쟁 도발과 민족분렬에 광분하는 박정희도당을 규탄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를 가지고《박정희괴뢰도당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분쇄하자》는 구호밑에 가두시위를 벌렸다.

8월 7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여 대민족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의 제의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에 적극 참가할것을 천명하였으며 남조선의 전체 인민과 각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들, 그리고《민단》산하 단체와 동포들을 비롯한 모든 해외교포단체들이 이 제의에 호응해나설것을 호소하였다.

8월 25일부터 일본 각지에서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호소를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벌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성스러운 투쟁에 한결같이 일떠선 60만 재일동포들의 결의를 시위하였다.

특히 총련은 이해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 획기적전환의 해로 만들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6월 1일부터 9월말까지《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는 애국운동월간》사업을 대중적으로 힘차게 벌려 재일동포들속에서 민족적단합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군사파쑈독재체제의 철폐와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여 용감히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힘있게 지지성원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지 성원하기 위한 군중대회, 시위행진, 가두선전, 삐라살포 등에는 연 수십만명의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민단》계 산하 동포들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을 지지하는 기운이 높아갔다.

7월 4일 남북공동성명발표 두돐을 기념하여《민단》계《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일본본부,《한국민족통일협의회》,《자주수호위원회》,《민단》도꾜본부와 가나가와본부,《민단》계 청년동맹과 부인회도꾜본부,《김대중구출대책위원회》등 8개 단체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대회에서는《두개 조선》조작책동에 매달리고있는 박정희도당을 타도하고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힘있게 싸워나갈것을 결의하였다.

8. 15 해방 스물아홉돐에 즈음하여 박정희파쑈독재를 규탄하는《민단》계 동포들의 대회에서 채택된 결의에서는《박정희도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국민의 진정한 해방도 민주화도 조국의 통일도 이룩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하였다.

대민족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호소문을 접한 야마구찌현에 거주하는《민단》산하 조동포는 조국통일에 대한 새 희망과 새 힘이 솟아오른다고 하였으며 아이찌현에 거주하는《민단》산하 김동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주장했다는 단 하나의 리유로 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마구 체포구금하고 살인재판에 넘겨 사형을 들씌우는 그런 박〈정권〉만을 상대로 해서는 더는 통일문제해결의 전망을 보지 못한다는것은 이미 세상에 알려진 공인된 사실로 되였다.

이런 점에서 공화국측이 이번에 대민족회의를 올해안으로 소집할데 대하여 제의한것은 통일촉진을 념원하는 온 겨레의 일치한 념원을 대변한 애국애족의 정신에서 출발한것으로서 단체소속을 달리하는 우리도 이를 적극 환영한다.》

미국에 사는 조선교포들은 자기들이 발행하는 신문《국민의 소리》4월 1일호에 실은 글에서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가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제안을 내놓은것과 관련하여 이 제의에 성의를 가지고 신중히 대할것을 미국당국에 요구하였다.

그들은 조선에 대한 간섭과 침략을 일삼고있는 미국당국의 부당한 행동을 비난하고《미국의 현조선정책은 틀림없이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당국자들이 떠벌이고있는것과 같은《공산주의음모》란 조선에는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철저히 자주적인 나라이기때문에 그 어떤 외세의 압력에 의하여 자기의 원칙을 양보하는 나라가 아니라는것을 상기시켰다.

3월 2일 미국 뉴욕에서 사는 조선동포들은 남조선괴뢰도당의 파쑈독재를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가지고《남북공동성명의 리행》,《독재조치전폐 및 민주헌법하의 정부수립》,《일본에 의한 정치, 경제, 외교상의 침략중지》를 주장하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미국에 사는 한 교포는 미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전문에서《유엔군》의 간판을 떼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끝장내며 박정희파쑈악당들에 대한 군사, 경제《원조》를 걷어치울것을 주장하였다.

뉴욕지구《한민》기독교인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책동을 항의규탄하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에 전동포적으로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여 해외《한국》기독교인 삼일절선언, 조국에 부치는 년두선언을 발표하였다.

3월 2일에 발표한 해외《한국》기독교인 삼일절선언에서는 다음과 같은것을 주장하였다.

1, 현독재정치체제를 배격하고 민주헌정수립을 주장한다.

2, 투옥된 민주투사의 즉시 석방과 그들의 가족을 도울것을 호소한다.

3,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의 쟁취를 주장한다.

4, 7. 4공동성명의 준수로서 조국통일의 촉진을 주장한다.

5, 외세의 침략과 예속화의 음모를 막고 조국의 영구한 자주독립을 주장한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자신들의 운명과 결부시키고있는 해외동포들은 이국땅의 어렵고 간고한 조건에서도 반박정희단체와 조직을 뭇고 집회, 시위, 항의, 요청, 서명운동, 출판물을 통한 선전 등 여러가지 투쟁형태와 방법으로 반박정희투쟁을 벌렸다.

특히 이해 박정희파쑈악당의 류혈적폭압소동을 치솟는 민족적분노로 규탄하고 체포투옥된 애국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해외교포들의 대중적인 투쟁은 일본, 미국, 카나다, 서독, 스웨리예 등 교포들이 살고있는 모든 나라에서 강력히 진행되였다.

7월 9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박정희괴뢰도당이 살인공판놀음을 벌려놓고 이른바《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에 관련시켜 애국적인사들에게 사형과 중형을 들씌우고있는 야만적인 만행을 감행하는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7월 26일에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를 가지고 60만 재일동포들의 이름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애국자들을 집단적으로 처형학살하는 남조선군사파쑈무리들을 치솟는 민족적분노로 견결히 규탄하였

다.

재일조선청년학생들은 4월 4일 중앙대회를 열고 싸우는 남조선인민들, 청년학생들과 책임을 같이 지는 립장에서 그들의 의로운 투쟁을 백방으로 지원하며 통일구국의 기치밑에 굳게 뭉쳐 전 민족적투쟁에 더욱 힘차게 합류해나서자고 호소하였다.

2월 28일《민단》계 동포들은《정치범구원위원회》를 뭇고 옥중에 있는 남조선《정치범》들을 대변하여 박정희악당의 파쑈만행을 국제적으로 폭로하며 재일조선교포들과 일본의 민주인사들을 비롯한 세계민주인사들과 련대성을 맺고 재일교포《정치범》들을 대상으로 구원운동을 활발히 전개해나갈데 대한 취지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정치범구원위원회》대표들은 7월 13일 박정희살인악당들에게 구속된 청년학생들과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여 주일괴뢰대사관에 몰려가 강력한 항의투쟁을 벌렸다.

《박정희〈정권〉의 살인재판을 규탄한다》,《박정희〈정권〉은 당장 퇴진하라》,《김지하를 구원하자》등의 프랑카드를 들고 괴뢰대사관에 몰려가 완강히 싸웠다.

또한《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일본본부,《민족통일협의회》,《민주주의민족통일위원회》,《김대중구출대책위원회》등 해외동포단체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죄상을 단죄하는 군중집회, 시위, 앉아버티기투쟁, 삐라살포 등 다양한 투쟁형태와 방법으로 반박정희투쟁을 확대하였다.

미국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의 조직인《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를 비롯한 여러 교포단체들과 각계각층 동포들도 항의 집회와 시위투쟁을 벌리며 성명과 선언문 등을 련일 발표하고 박정희파쑈악당의 죄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2월 24일《독재자 박정희를 타도하자》라고 쓴 구호판을 들고 유엔본부앞에 모인 재미교포들은 반파쑈민주화투쟁에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그들과 함께 싸울것을 선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뿌렸다. 그들은 성명서에서《우리들이 단결하여 우리의 민주주의적권리와 민족통일을 위한 투쟁에 참가할 때는 왔다. 우리는 이제부터 행동하자!》라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3월 2일에는 뉴욕, 워싱톤, 시카고, 로스안젤스, 보스톤, 애틀란타 등 미국의 여러 도시들에서 박정희괴뢰정권을 반대하는 조선동포들의 항의집회가 광범히 진행되였다.

미국뉴욕지구에 사는 조선동포들은 7월 20일 유엔청사앞에서《살인귀 박정희를 처단하라》,《모든 애국자들을 석방하라》,《미국과 일본은 박정희에 대한 원조를 그만두라》등의 구호판을 추켜들고 시위에 펼쳐나와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의 포악한 인민탄압과 학살처형음모를 규탄하였다.

그들은 이날《민주주의와 통일된 조선을 위한 뉴욕지구조선인련합》의 이름으로 된 성명을 발표하고 그것을 뉴욕시안의 여러곳에 배포하였다.

미국에 살고있는 이전 괴뢰군장교들은 2월 24일《재미구국향군》을 결성하고 그《총사령부》를 뉴욕에 설치하였다.

《총사령부》는 남조선괴뢰군을《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삼고있는 박정희파쑈도당의 손아귀로부터 빼내는것을《당면과제》로 내세우고《일련의 작전》을 벌릴것을 투쟁과업으로 내놓았다.

《재미구국향군》은 7월 17일 선언문을 발표하여 박정희파쑈악당이 애국적 인사들과 청년학생들에게 극형과 중형을 들씌우고 놈들이《민청학련》을《공산주의집단》이라고 파렴치하게 날조해낸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미국에 류학하고있는 남조선출신학생들은 2월 20일 모임을 가지고 남조선에서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참가한다는것을 선언하고 세계각지에 있는 조선교포들에게 박정희괴뢰정권 타도를 위하여 일떠설것을 호소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결의에서는《일본정부는 박독재정권에 대한 원조를 즉시 중지하라》,《미국은 남조선에 대준 무기를 박정권이 민주주의투쟁에 궐기한 국민들을 탄압하는데 사용하지 않도록 감시하라》고 주장하였다.

북구라파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단체인《한국민주수호국민전선》은 3.1인민봉기 55돐에 즈음하여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의 범죄적인 1월 8일《긴급조치》를 폭로규탄하며 조국통일위업달성을 위하여 투쟁할것을 다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4월 9일에는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일떠선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의로운 투쟁을 지지성원하며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모든 해외교포들이 단결하여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에 용감히 펼쳐나설것을 견결히 주장하여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서부독일에 가있는 남조선류학생들과 학자들, 예술인들은《남조선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회》를 뭇고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긴급조치》를 반대하는 투쟁에 펼쳐나섰으며 3월 1일에는 남조선《민주사회건설협의회》의 주최로 박정희악당의 파쑈적탄압책동을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가지고 남조선괴뢰도당에게 들이댈 항의문 등을 채택하였다.

서부독일에 거주하는 교포들의 잡지《주체》는《한국에 있어서 폭력이 의미하는것》이란 제목아래 남조선인민들에게 전례없이 야만적인 파쑈폭압과 매국반역행위를 감행하고있는 박정희군사깡패집단의 범죄적만행을 폭로하는 글을 실었다.

이해 해외동포들이 벌린 이 모든 투쟁은 가혹한 파쑈폭압속에서도 굴함없이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전체 조선인민에 대한 힘있는 지원으로 되였으며 박정희괴뢰도당과 그를 부추기는 미일침략자들에게는 일대 타격으로 되였다.

이리하여 박정희괴뢰도당을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고 조국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였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강화

이해에도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세계적범위에서 벌어지고있는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중요한 한 고리로서 국제적으로 날로 커가는 지지와 동정을 받고있습니다.》(《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단행본, 14페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그 정당성으로 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제3세계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았다.

11월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20개나라 정당, 사회계, 학계, 언론계인사

1천여명은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라틴아메리카회의》를 가지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새롭게 천명하신 조국통일 5대방침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채택하였다.

회의에서 채택된 총선언서는《우리는 자기 조국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이 세계적범위에서 벌어지고있는 반제투쟁의 일환이며 세계평화애호인민들 특히는 경제적독립과 완전한 자주권을 위한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과 긴밀히 련결되여있다고 인정한다.

인민들의 자결과 자주권을 존중하는 라틴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은 자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조선인민의 중요한 동맹자로 될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라틴아메리카나라 대표들은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을 즉시 철거시키고 남조선에서 체포고문당하고있는 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구원하며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자유로운 사람들의 련대성을 요구하는 영웅적투쟁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운동을 조직할것을 평화애호국가들과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 국제민주단체들, 세계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들은 또한 유엔총회 제29차회의 의장과 라틴아메리카나라 외교부장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에서 이번 유엔총회가 반드시 미제침략군이 더는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지 말고 남조선으로부터 당장 물러가도록 하게 하는 결의를 채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유엔의 기발밑에 은폐되여있는 외국군대의 남조선주둔과 간섭을 반대할것을 라틴아메리카정부들에 요구하였다.

7월 제3세계 나라들의 청년조직대표들과 국제청년조직대표들의 참가하에 알제리에서 진행된 제3세계청년대회에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여《조선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결의는《조선의 통일은 반드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그를 구현하기 위한 애국애족적인 조국통일 5대방침에 기초하여 실현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국이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우리의 제의를 지체없이 받아들이며《유엔군》의 간판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그의 침략군대를 당장 철수할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결의는《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인 행위를 견결히 규탄하는 한편 반파쑈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조선인민과의 국제적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과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실제적이며 효과적인 련대성조치들을 취할것을 제3세계청년들에게 호소하였다.

회의는《조선에 관한 결의》에서뿐아니라《정치결의》와 《정치행동강령》및《최종선언》등 기타 문건들에서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련대성을 표시하고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는 미제의 책동과 미제의 부추김밑에 나라와 민족의 영구분렬을 공공연히 획책하면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고있으며 남조선을 하나의 감옥으로 인간생지옥으로 전변시키고 애국적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하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규탄하였다.

각국의 청년대표들은 박정희도당의 파쑈폭압을 규탄하면서 그것이 멸망을 앞둔 매국반역집단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하였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라틴아메리카회의와 제3세계청년대회에서 채택한《조선에 관한 결의》와 회의에서 각국의 대표들이 조선문제에 대하여 표명한 주장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방침과 제안이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광범한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있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확증하였다.

반면에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과 《두개조선》조작을 위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책동은 국제적으로 규탄받고 완전히 배격당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5대방침에 따라 조선의 통일이 실현되여야 하며 미제는 남조선에서 물러가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해 진행된 모든 국제회의장들에서 메아리쳤다.

또한 회의들에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조선인민에 대한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5월 웽그리아에서 진행된 국제학생동맹 제11차대회와 7월 멜보른에서 진행된 아세아학생협회 제4차대회 그리고 11월 20여개 아프리카 학생단체대표단들과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투쟁단체 대표단들의 참가밑에 애급에서 열린 전아프리카학생동맹 제3차대회에서는《조선에 관한 결의》들을 채택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였다.

또한 결의들에서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두개 조선》조작책동과 애국적인민들과 진보적청년학생들에 대한 남조선파쑈악당의 파쑈폭압을 규탄하였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과 청년학생들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특히 아세아학생협회 제4차대회에서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체포된《민청학련》관계자들과 애국적인 민주인사들을 석방시키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해마다 4월을《반파쑈민주화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월간》으로 설정하였으며 또한 전아프리카학생동맹 제3차대회에서는 매해 7월을《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청년학생들과의 련대성월간》으로 설정할것을 결정하였다.

11월 104개 나라의 청년학생들과 국제단체들에서 온 수많은 대표들의 참가하에 진행된 세계 민주청년련맹 제9차대회에서는 특히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련대성의 표시로서《조선 인민과 청년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결의》, 조선문제토의와 관련하여 유엔총회 제29차회의 앞으로 보내는 전문이 채택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의 통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제기한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에 따라 해결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6.25—7.27 조선인민 및 청년들과의 국제적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의 철거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요구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광범한 련대성행동을 벌릴것을 세계진보적청년들과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9월 베네수엘라의 수도 까라까스에서 진행된 칠레 및 라틴아메리카에서 파시즘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자유와 인권옹호를 위한 국제련대성회의에 참가한 27개단체대표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3대원칙과 5대방침을 견결히 지지하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 인민과 청년들의 정당한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는 조선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세계직련은 9월 18일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문을 보내여 제29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12월 아. 아 인민단결기구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조선에 관한 련대성 국제회의를 1975년의 첫 사업으로서 소집할것을 행동강령에 넣고 이를 전세계에 선포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회그루빠 대표단의 참가밑에 10월 일본의 도꾜에서 열렸던 국제의회동맹 제61차 총회에서도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조선인민에게 련대성을 표시하는 연설들이 진행되였다.

회의에서 인도대표는 남조선괴뢰도당이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합리화》하려고 책동하는데 대하여 남의 나라에 대한 외국군대의 주둔은 무엇으로서도 합리화할수 없다고 규탄하고 다른 나라에 의한 내정간섭을《〈두개 조선〉조작문제에서도 볼수 있다》고 하면서《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하였다.

총회에서 연설한 여러 나라 대표들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고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물러갈것을 주장하였으며 미일제국주의자들이 획책하는《두개 조선》조작음모를 반대배격하였다.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나리다 도모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의회동맹 참가대표단 환영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은 하나이다.우리는〈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단호히 반대하며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에 의한 조선의 통일을 지지한다.》

《〈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며 단일한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일본정부의 조선에 대한 정책의 근본적전환을 실현시켜야 한다.》

환영모임에서 채택된 호소문에서는 조선의 통일문제는 조선인민의 내부문제이며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일체 배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부당한 책동과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 폭압을 그만두게 하기 위하여 전세계 인민들이 남조선인민의 반박정희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고 즉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할것을 제의하였다.

1, 자기 나라 정부들에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등을 무시하는 박정희도당의 파쑈적탄압을 규탄하며 김대중의 자유회복과 김지하 등 모든 정치범들의 즉시 석방을 요구하여나서도록 요청할것,

2, 자기 나라 정부에 지금 진행되고있는 유엔총회에서 일본정부가 벌리고있는《두개 조선》조작음모에 가담하는것을 막으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며 이에 협력하도록 요청할것,

3, 미국정부가 남조선에 주둔시키고있는 군대를 즉시 철거시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지난 3월 25일에 제기한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조선과 미국간의 직접 교섭에 응하도록 요구할것,

4, 일본정부와 박정희괴뢰도당에 대하여 김대중사건의 공정한 해결, 《박정희저격사건》을 구실로 한 총련 등 민주주의적인 재일조선인조직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도록 요구할것,

5, 일본독점자본의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략에 항의할것,

국제회의들에서 채택된 조선에 관한 결의와 성명, 호소문들에서는 제29차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를 토의하며 《유엔군》의 모자를 비법적으로 쓰고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일치하게 요구하였다.

이러한 운동은 기타 여러가지 방법으로 광범히 벌어졌다.

혁명리사회 의장이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인 후아리 부메디엔은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가 상정토의되게 된것과 관련하여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집행의장의 명의로 9월 24일 쁠럭불가담나라들의 국가및 정부 수반들에게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외국군대의 철거를 실현하며 조선인민이 자기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자는 서한을 보내였다.

같은 날 알제리외교부장은 쁠럭불가담국가 외교부장들에게 제29차 유엔총회에서 제4차쁠럭불가담 국가수뇌자회의의 결정과 결의의 정신에 따라 통일과 평화에 대한 조선인민의 합법적인 념원에 부합되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자는 서한을 보내였다.

1974년 9월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국제민주법률가협회통보대표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범죄행위를 폭로규탄하는 문건들《현조선문제의 법적측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에 관한 비망록》,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엄중한 인권유린행위에 대하여》를 9월 18일 발표하였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는 이 문건들을 유엔총회 제29차회의 의장과 국제의회동맹 제61차총회 의장, 세계 여러나라 법률가단체들과 법률가들에게 보냈다.

이것은《유엔군》의 간판을 가지고있는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는것이 오늘 우리 나라 정세발전의 절박한 요구로 되고있을뿐아니라 막을수 없는 시대적요구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로 되였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속에서 진행된 제29차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의 조선문제토의에서는 우리 공화국정부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이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고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고 책동하는 미제와 그의 앞잡이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회의에서 연설한 근 70여개 나라 대표들의 대다수가《두개 조선》을 조작하여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범죄적책동을 단호히 규탄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침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조선의 평화통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를 가로막고있는 주되는 장애물인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과 조선내정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유엔이 마땅히 그러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제29차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가 토의되게 된것과 관련하여 미제가 조선내정에 대한 간섭을 그만두며 미제침략군이《유엔군》의 모자를 벗고 남조선에서 즉시 철거할데 대한 목소리는 회의장에서뿐아니라 세계 수많은 나라 지도자들과 각계층 인민들, 광범한 사회계에서 전례없이 높이 울리였다.

미국과 서방자본주의나라들에서까지도 미제침략군에게서《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남조선에서 그가 즉시 철거할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12월 9일 제29차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는 조선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에 제출된 결의안들의 표결에서 40개의 사회주의나라들과 제3세계나라들이 공동으로 제기한《유엔의 기발

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결의안》은 미제의 악랄한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기권표를 제외하고 전체 표수의 절반에 해당한 48표의 지지를 받았다.

이것은 지난시기에 비하여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방안을 지지하는 나라수가 현저히 늘어나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남조선에서《유엔군》의 모자를 쓰고있는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킬데 대한 결의안을 묵살해버리려고 그처럼 파렴치한 책동으로 발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의안을 유엔에서 상정토의하게 하고 미제가 독판치다싶이하던 유엔의 형세를 역전시킬수 있는 고개마루까지 대표들의 지지를을 끌어올린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승리였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지지는 이해 세계 각곳에서 진행된《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진행과정에 더욱 잘 나타났다.

이 월간에 즈음하여 많은 나라 국가수반들과 정당, 사회단체, 국제기구들, 진보적인사들과 사회활동가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방침을 지지하여 그이께 전문과 편지를 보내왔다.

사회주의나라들, 제3세계나라들, 북구라파를 비롯한 70여개 나라와 13개의 국제민주단체들에서 조선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집회를 가지고 련대성전문과 편지를 채택하였으며 그밖에 친선야회, 사진전람회, 영화감상회, 가두선전 및 기타 다양한 행사들이 세계 각곳에서 진행되였다.

중국인민들은 이 기간 7.4남북공동성명발표 두돐과 조국통일 5대강령발표 한돐에 즈음한 모임을 가지였으며 쏘련인민들은 련대성월간을 설정하고 련대성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알제리, 수리아, 모리따니, 수단, 이라크, 부룬디, 민주예멘, 소말리아등 제3세계나라들은 월간행사들을 국가적인 행사로 다양하게 조직진행하였으며 미국, 일본, 프랑스, 서독, 스위스, 싱가포르, 아르헨띠나, 레바논, 쿠웨이트, 샹강 등지에서는 시위들이 진행되고 성명, 항의문들이 채택되였다.

일본 도꾜에서는 7월 23일 일조우호국교정상화국민회의의 주최로《박정희파쑈〈정권〉을 규탄하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국제련대성 7.23중앙집회》를 가지고《남조선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지원하고 박정희파쑈〈정권〉에 항의하는 결의》,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조선과 미국간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을 지지하며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의 철거를 요구하는 결의》, 《일본정부에 조선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결의》그리고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련대성편지를 채택하였다.

모임들에서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조선인민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박정희파쑈정권의 범죄적만행을 견결히 규탄한다》, 《미군은 남조선에서 물러가라》는 목소리를 힘있게 울리였다.

또한 100여개의 세계 여러 나라 정당, 사회단체들과 국제기구들에서 성명과 호소문들을 발표하였고 신문, 잡지, 방송들이 사론설들을 냈다.

이해 세계인민들속에서 의로운 구국투쟁을 벌려온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애국적민주인사들을 집단적으로 학살처형하는 박정희파쑈악당의 야수적인 살륙만행을 짓부시고 체포구금된 애국자들을 석방하기 위한 대중운동이 광범히 벌어졌다.

박정희악당의 만행에 항의하여 8월 2일 스웨리예총리가 성명을 발표하고 핀란드총리가 박정희도당에게 항의전문을 보냈다. 또한 단마르크외교부가 남조선애국자들에 대한 사형《선고》를 취소할것을 요구하여 성명을 냈다.

세계직련, 3대륙인민단결기구, 아.아인민단결기구, 국제학생동맹, 아랍법률가동맹을 비롯한 세계 거의 모든 국제기구들과 여러 나라 정당, 사회단체들에서 성명과 호소문, 항의문들을 발표하였다. 4월 2일 룩셈부르그, 오지리, 서부독일의 여러 사회단체들과 인사들이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련대성을 표시하는 편지와 전문을 보냈다.

일본의 각계인사들은 박정희파쑈악당이 이른바《울릉도사건》이라는 날조한 사건에 관련시켜 통일혁명당 경상북도위원회와 그 산하 조직성원들에게 극형과 중형을 들씌우는 범죄적만행을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7월 23일《울릉도사건관련피고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회》를 뭇고 광범한 운동을 벌렸다.

일본사회당, 공명당, 로동조합총평의회 등 33개 정당, 사회단체들이 남조선애국자들에 대한 박정희도당의 탄압을 규탄하여 항의문을 냈으며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곳에서 군중모임을 가지고 박정희도당에 의하여 체포된 남조선애국자들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안은 세계의 수많은 나라 수반들, 당 및 국가지도자들, 진보적인민들과 사회계의 열렬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한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 뜨거운 흠모의 정을 표시하였으며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정당성에 한결같이 열렬한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혁명리사회 의장이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인 후아리 부메디엔은《당신들의 정당한 위업을 항상 지지하여온 우리 알제리는 당신들이 외국군대의 마지막 한놈까지 몰아내고 전조선령토를 해방하며 제국주의를 타승하고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회복할때까지 당신들의 편에 서있을것입니다》라고 다짐하였다.

아랍사회부흥당 총비서이며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인 하페즈 알 아싸드는 10월 1일 수리아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군중대회에서 연설하면서《당신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투쟁함으로써 조선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고야말것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

12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자이르공화국 대통령 모부투 쎄쎄 쎄꼬 꾸꾸 느그벤두 와 자 방가는《나는 조선혁명의 본보기로 되고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 나라들의 영예로 될 아름다운 귀국의 북과 남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부디 만년장수하시기를 삼가축원하는바입니다》라고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과 우리 인민의 자주적조국통일위업에 대한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이 모든 사실은 오늘 우리가 국제적으로 많은 혁명동지들과 벗들을 가지고있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해 조국통일의 길우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성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빛나는 결실로서 그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남북조절위원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제안들을 많이 내놓고 대화의 성과적진척을 위하여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중단상태에 빠져들어갔으며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커다란 난관과 장애가 조성되였습니다.》 (《유고슬라비아신문 〈웨체르니예 노보스머〉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1～2페지)

1974년에 우리 측은 남조선측의 배신행위로 말미암아 정체상태에 빠진 남북조절위원회 본회의를 어떻게 하나 성사시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려는 애국애족적립장에서 1973년 12월 5일부터 마련된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 접촉의 성과적진행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

우리 측은 조절위원회를 당국대표들과 해내외에 있는 모든 정당, 단체 및 각계각층 인민의 대표들을 광범히 참가시키는 방향에서 확대개편하거나 조절위원회사업은 조절위원회사업대로 진행하고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문제 등 조절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남북대화를 시급히 정상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거듭 제의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조절위원회를 거족적인 기구로 확대개편할데 대한 우리측의 제안은 조국통일문제를 북과 남의 당국자들사이의 범위를 벗어나 전민족적범위에서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주주의적으로 토의해결하기 위한 가장 공명정대한 제안으로서 7.4남북공동성명정신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구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조치이다.

조절위원회는 조절위원회대로 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정치협상회의를 열데 대한 우리측의 새로운 제안은 조절위원회는 조절위원회대로 유지하면서도 그를 확대개편할데 대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 광범한 애국적인 각계각층 인사들이 다 같이 참가하여 인민대중의 의사를 반영시킬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남조선측은 나라의 통일문제 해결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조절위원회 사업에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의사를 반영시킬데 대한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조절위원회를 몇몇 당국자들의 범위에 국한시키려는 립장을 고집하였으며 또한 조절위원회와 병행하여 정치협상회의를 열데 대한 우리의 제의까지도 아무런 근거없이 덮어놓고 반대하여나섰다.

남조선측은 남북조절위원회의 폭을 넓힐데 대한 우리의 제의를 토의하는것조차 반대하면서 남북조절위원회구성을 10명정도로 하고 그것을 각기 자기측에서 선출하는 형식으로 하자는 이른바 《개편안》을 계속 주장하며 대화의 폭을 좁히고 조절위원회를 제놈들의 완전한 《관제어용기구》로 만들려고 책동하였다. 놈들은 이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당국이면 다고 인민의 대표가 따로 나올 필요가 없다》느니, 조절위원회를 확대한다면 인원이 많아지기때문에 《합의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느니, 조절위원회에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것은 《국제관례에도 없다》느니 하면서 부당한 태도를 고집하였다.

남조선측은 조국통일문제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불가침조약》이라는 것을 들고나와 《평화공존》이요, 뭐요 하면서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책동하였으며 지어 대화를 파탄시키기 위하여 본문제토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서해사건》이니, 《남침위협》이니 하는 엉뚱한 문제를 들고나와 우리를 걸고들었다. 놈들은 《적화통일》이요, 《폭력혁명》이요 하면서 남조선에서 일어나는 혁명투쟁을 우리와 결부시키는 등 도발을 감행하면서 회담장을 우리를 중상비방하는 선전무대로 전환시켰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남조선인민들을 파쑈적인 《유신》 헝틀에 얽어매놓고 조국통일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남조선의 민주인사들과 애국적청년학생들을 탄압함으로써 남조선의 각 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표가 통일문제해결에 직접 참가할수 있는 길을 가로막아나섰다. 더우기는 8월 21일에 가지기로 되였던 제8차접촉을 무기한 연장시켜놓고 박정희에 대한 《저격사건》을 구실로 《반공》소동을 대대적으로 벌리면서 대화에 새로운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였다.

이 모든것은 남조선측이 마지못해 부위원장접촉에 응해나서기는 하였으나 대화를 통하여 조국통일위업의 실현을 촉진시키는것이 아니라 접촉을 현상유지의 방패로 삼고 남북대결과 민족의 영구분렬책동만을 추구해왔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이해 대화를 성공에로 이끌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숙원인 나라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측의 인내성있는 노력과 성의에도 불구하고 제8차까지의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 접촉에서는 남조선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조절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대화를 정상화하기 위한 문제토의에서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측은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대화를 전진시킬 일념으로 11월 30일 판문각에서 남북조절위원회 쌍방대변인들의 접촉을 마련하고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접촉의 성과를 위한 실무자회의를 가질것을 제기하였다. 이어 12월 3일에는 우리측 부위원장의 전화문을 통하여 부위원장접촉을 1975년 1월 8일에 가질것을 제의하였다. 12월 14일에는 조절위원회 대변인들의 제2차 접촉을 마련하고 이미 쌍방간에 조절위원회를 확대개편하기로 합의한데 따라 《중앙정보부》성원인 남조선측 간사위원 정홍진을 교체할것을 요구하였다.

남조선측은 쌍방이 합의한데 따라 부위원장회의에 나와 조절위원회를 확대개편하기 위한 문제토의를 하면서도 티후락이 떨어진것은 《건강상문제》라느니, 조절위원회개편문제에 《동의한일이 없다》느니 하면서 간사회의 자기측 성원을 교체할수 없다고 생떼를 부리였다.

또한 12월 16일과 18일에 쌍방 대변인들의 접촉을 다시 가지고 간사회의 개편문제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자는 우리측의 제의를 거부하고 대변인 접촉조차 회피하였다.

조절위원회는 고사하고 간사회의를 정상화하는것도 바라지 않으며 오직 대화의 현교착상태를 유지하는데만 관심이 있는 남조선측의 배신행위로 하여 간사회의 개편문제에 대한 토의도 결국은 중단되고말았다.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 접촉

제3차;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1월 30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 판문각에서 있었다.

우리측은 쌍방이 회담을 조속히 정

상화할데 대한 념원을 확인한 두차례에 걸친 부위원장접촉이 있은후 남조선측이 이른바《긴급조치》를 선포하여 남북대화에 더욱더 엄중한 새로운 난관을 조성하고있는데 대하여 엄격히 지적하고 남조선측이 진실로 통일하자는 립장이라면 남조선에서 빚어지고있는 이른바《백척간두》의 위기를 있지도 않는《남침위협》에 돌리면서 우리를 건것을 취소하며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것을 담보하는 동시에 통일위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건을 보장할것을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접촉에서 남북조절위원회 개편문제에 대한 우리측 립장을 밝히였다. 우리측은 쌍방 조절위원회구성에 당국과 정당, 단체 및 해외조선인단체들을 포함하여 모두 60~70개정도 참가시키며 매개 조직의 대표들은 그 성격과 규모에 따라 5~10명 또는 그 이상으로 할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조절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할뿐만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대표들의 급을 높여 당국에서 나오는 대표들은 부총리를 포함하여 부장급이상, 정당대표는 책임자와 정치위원급을 포함하여 중앙위원회 부장급이상으로 하며 사회단체대표와 대학의 학생대표들은 해당단체의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포함하여 책임적인 인물들로 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있어서 남조선《중앙정보부》성원들은 물론 민족분렬을 고취하는자와 그러한 단체들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협의, 해결하는 신성한 민족공동의 기구에 참가할 자격이 없음을 명백히 밝히였다.

남조선측은 조절위원회를 개편하는 의의도 없을뿐아니라 남조선의 광범한 정당, 단체들과 해내외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조절위원회에 참가할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10명내외의 규모로 조절위원회를 개편하자고 한 2차접촉의 그릇된 주장을 계속 고집하였다.

남조선측은 접촉에서 우리 나라에서 무력충돌을 일으킬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 그대로 남겨둔채《불가침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자고 하면서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고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으며《평화공존》이요, 뭐요하면서《평화를 정착》시킨다는 명목밑에 우리나라의 분렬을 고착시키고《두개 조선》조작기도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第4次; 우리측의 제의에 의하여 2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조선측 지역에서 있었다.

우리측은 박정희군사파쑈악당이 2월 15일 서해의 우리측 평해깊이 간첩선을 침입시켜 우리를 반대하는 정탐과 적대적도발행위를 감행한데 대하여 날카롭게 추궁하고 이를 사죄할것과 이 사건의 책임자들을 처벌할것을 주장하였다.

접촉에서 우리측은 3차접촉에서 제기한 남북조절위원회에 각계각층 인민의 대표들을 참가시킬데 대한 우리측 제안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남조선측이 이를 받아들일것을 요구하였다.

남조선측은 2차접촉에서 내놓은 그릇된 주장을 계속 고집하면서 이른바《대의제민주주의》하에서 당국이 인민을 대표할수 있다느니, 조절위원회에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인사들을 광범히 참가시키면《복잡》하고 《비능률적》이라느니, 조절위원회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것은《국제관례에도 없다》느니, 하는 황당한 구실을 들고나오면서 대화의 폭을 좁히고 통일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려는 부당한 태도를 고집하였다.

우리측은 남조선측이 저들의 부당한 주장을 계속 고집하고있는 실정에 비추어 쌍방의 의견을 좁히고 해결방도를 찾기 위하여 조절위원회를 현재의 규모대로 존속시키면서 그와 병행하여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을 망라하는 남북정치협상회의를 구성할수도 있다는 새로운 건설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 제안을 내놓으면서 우리측은 조절위원회와 함께 정치협상회의를 동시에 운영한다면 남조선측의 본래의 요구대로 조절위원회 자체는 이전 규모로 유지하면서도 그를 확대개편하는 취지에 맞게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 광범한 인민들의 의사를 반영시킬수 있으며 또한 조절위원회개편문제로 하여 교착상태에 빠진 부위원장접촉을 성과적으로 결속짓고 인민들의 평화통일념원에 맞게 남북대화를 하루빨리 정상화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였다.

第5次; 우리측의 제의에 의하여 3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에서 있었다.

우리측은 제4차 접촉 때 조절위원회는 조절위원회대로 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정치협상회의를 열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일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우리측은 남조선측이 이날 접촉에서 해결하여야 할 기본문제에는 외면하고 본문제와는 하등의 인연도 없는 《서해사건》문제를 들고나와 도발을 하며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우리의 제의에 대하여 주제넘게 불평을 부리며 시비거는데 대하여 준렬히 규탄하였다.

第6次; 우리측의 제의에 의하여 4월 24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조선측지역에서 있었다.

우리측은 2월 27일 제4차접촉때 제기한 우리측의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일것을 남조선측에 다시금 권고하고 이 제안의 정당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남조선측이 이날 조절위원회를 의연히 몇몇 당국자들의 범위에 국한시키려는 종래의 낡은 립장을 고집하며 또한 조절위원회와 병행하여 정치협상회의를 열데 대한 우리측의 제의까지도 아무런 근거없이 덮어놓고 반대하여 나서는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의 부당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것을 거듭 요구하였다.

이날 접촉에서 남조선측은 부위원장접촉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간첩선문제를 들고나와 대화에 새로운 난관을 조성하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남조선통치배들에 의하여 사전에 꾸며지고 면밀히 계획된 간첩선사건의 모략적내막을 파학적인 증거들로 낱낱이 폭로하고 남조선측이 저들의 범죄사실을 솔직히 시인하고 우리앞에 사죄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第7次; 우리측의 제의에 의하여 6월 28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에서 있었다.

이날 접촉에서도 조절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그 운영을 정상화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으나 남조선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말미암아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第8次; 9월 21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있었다.

우리측은 회담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여 대화의 진전을 가로막고있는 남조선측의 부당한 태도를 상세히 폭로하는 한편 박정희에 대한《저격사건》을 계기로 절정에 달한 남조선에서의 《반공》소동을 준렬히 단죄규탄하고 이《사건》의 정치적배경과 그 내막을 까밝혔다.

우리측은 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엄중한 난관을 시급히 제거하고 파탄에 직면한 대화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지체없이 취할것을 남조선측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첫째, 범죄적인 민족분렬로선을 추구하지 말것

둘째, 매국적인 대미, 대일 예속화

정책을 버릴것

셋째, 《반공》소동과 전쟁준비책동을 즉시 중지할것

넷째, 파쑈적폭압만행을 중지하고 인민들에게 민주주의적권리를 보장할것

다섯째, 당면하여《저격사건》과 관련한 정치적음모를 당장 걷어치울것

여섯째, 조절위원회 개편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지체없이 받아들일것

우리측의 정당하고 론리정연한 파하적인 주장앞에서《저격사건》의 흑막을 더이상 숨길수 없게 된 남조선측은 할말을 찾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다가 회의토의내용과는 관계없이 엉뚱하게도 우리측의 제도와 체제가 어떻다고 하면서 공공연히 도발하여나섰다.

남북적십자회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의 회담에서 우리의 립장과 남조선측의 립장은 이미 명백하여졌습니다. 우리의 립장은 회담을 촉진시키자는것이고 남조선측의 립장은 회담을 지연시키자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6권, 90폐지)

갈라진 겨레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며 남북적십자회담을 디딤돌로 나라의 통일위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측은 1973년 7월 11일에 있은 7차회담이후 초청측인 남조선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중단된 8차회담을 다시 열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 기울이였다.

이해에 우리측은 북과 남에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능동적으로 적십자회담사업을 계속해나가려는 립장으로부터 1973년 11월 28일 접촉에서 제기한 적십자회담을 방해하고있는 남조선 《중앙정보부》성원들을 회담사업에서 제거하며 서울에서 회담을 열수 있는 조건과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한것을 고려하여 당분간 평양에서 회담을 재개할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제안들을 남조선측이 받아들일데 대하여 강력히 주장하였다. 우리는 이 정당한 제안이 실현될때까지 회담사업을 계속 추진시켜나가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서 예비적실무회의를 진행할데 대한 현실적인 새로운 방안을 거듭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이 제의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옹호하고 인간을 온갖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는것을 본분으로 삼고있는 적십자인도주의정신과 쌍방사이에 이미 합의를 본 민주주의원칙과 자유로운 원칙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이며 현시기 적십자회담앞에 가로놓인 장애물을 대담하게 제거하고 회담의 순조로운 재개와 전진을 위한 정당하고도 현실적인 방안이다.

특히 적십자회담에 참가하고있는 남조선《중앙정보부》성원들을 제거할데 대한 문제는 중단상태에 놓여있는 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하며 그의 전진을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남조선측은 처음부터 8차회담의 재개문제를 외면하면서 적십자회담에 남조선 《중앙정보부》성원들이 끼여있지 않다고 고집하였으며 이른바 《림시회의》라는것을 들고나와 구구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안들에 대하여 《합의사항위반》이라느니, 《8차회담을 무한정연기시키려는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회담지연의 책임을 우리측에 넘겨씌우려고 하였다.

교착상태에 빠진 적십자쌍방대표들의 접촉을 하루빨리 결속짓고 본회담을 다시 열기 위한 현실적인 제안들을 련이어 제기하면서 회담의 진전을 위하여 온갖 성의를 다한 우리 측의 일관한 노력으로 남조선측은 5월 22일 저들의《림시회의안》을 철회하고 실무회의를 판문점에서 열데 대한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동의하였으며 여기에 《중앙정보부》특무들을 참가시키지 않을데 대하여 우리측에 확약하였다.

이리하여 7월 10일부터 본회담의 의제와 본회담의 재개문제를 토의할 적십자실무회의가 마련되였다.

남조선측은 실무회의의 문제토의에 성실하게 참가하지 않으면서 본회담의제와 관련한 기본문제들이 해결된 다음에 제기되여야 할 문제인《로부모문제》를 들고나오면서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실무회의의 본연의 사명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는《서해사건》과 박정희《저격사건》을 들고나와 우리를 걸고들며 우리를 함부로 헐뜯는 배신행위를 일삼으며 신성한 인도주의적적십자회담을 비방중상의 마당으로 전환시켰다.

지어 남조선측은 자주적으로 풀어야 할 회담문제를 국제무대에까지 끌고가 쌍방회담에 제3자를 개입시키며 우리가《인도적사업》보다 《정치체제문제를 거론》 하고있다느니, 뭐니하면서 우리를 악랄하게 비방중상하였다.

이해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담재개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남조선측의 이러한 불순한 태도로 여섯차례의 남북적십자회담대표들의 접촉과 6차의 적십자실무회의가 거듭되였으나 진척을 보지 못하고 8차회담은 마련되지 못하였다.

남북적십자회담 쌍방대표들 사이의 접촉

제2차; 2월 25일 우리측의 주동적인 제의에 의하여 판문점에서 있었다.

이날 접촉에서 우리측은 1973년 11월 28일 접촉에서 당면한 제8차회담을 하루 빨리 열기 위한 대책으로서 적십자회담을 방해하고있는 남조선《중앙정보부》성원들을 회담사업에서 제거하며 서울에서 회담을 열수 있는 조건과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한것을 고려하여 당분간 평양에서 회담을 다시 열데 대하여 이미 1973년 11월 28일에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긍정적회답을 받지 못하고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우리의 공명정대한 방안을 지체없이 받아들일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우리측은 남조선측이 적십자회담에 남조선《중앙정보부》성원들이 끼여있지 않다고 고집하고있으나 《중앙정보부》가 회담에 관여하고있다는것은 론쟁할 여지없는 엄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남조선《중앙정보부》는 해외의 이르는곳마다에 삼엄한 정보망을 늘여놓고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요구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애국적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을뿐아니라 남북적십자회담에 끼여들어 남조선측 대표단의 활동을 좌지우지하면서 회담앞에 온갖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였다고 폭로하였다.

회담장소문제에 대하여 남조선측이 서울에서 회담할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여있는듯이 말하고있는것은 현실에 대한 터무니없는 외곡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남조선당국자들이 1월에《비상사태》우에 《긴급조치》라는것을 또다시 선포함으로써 사태는 1973년에 이 문제를 제기하던 때보다 더욱 험악해지고있다고 하면서 온갖 조건이 마련되여있는 평양에서 당분간 회담할것을 다시금 제기하였다.

남조선측은 우리의 제안에 대하여 《사실과 맞지 않는다 》느니《회담을 지연시킨다 》느니 하는 부당한 구실을 내걸고 접수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

도를 취하였으며《합의사항위반》이라느니 뭐니하고 생트집을 걸면서 회담지연의 책임을 우리측에 넘겨씌워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하면서 문제토의에 장애를 조성하였다.

제3차; 3월 11일 오전11시 판문점에서 있었다.

우리측은 2차 접촉에서 제기한 11월 28일부 제안을 남조선측이 계속 반대하고있는 조건하에서 우리측이 내놓은 제안이 실현될 때까지 회담사업을 계속 추진시켜 나가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새롭게 제기하였다.

첫째로, 쌍방적십자대표들의 접촉을 결속짓고 빠른 시일안에 판문점에서 쌍방대표단 부단장을 책임자로 하는 본회담을 위한 예비적실무자회의를 가지며

둘째로, 실무자회의에서는 본회담의 정에 대한 예비적토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1973년 11월 28일부 우리측 제안에 대한 토의를 계속하며

셋째로, 실무자회의에는 남조선《중앙정보부》성원들을 참가시키지 말아야 하며

넷째로, 실무자회의는 본회담이 다시 열릴 때까지 진행할것을 제의하였다.

남조선측은 우리의 새 제안에 대하여 8차회담을《무한정 연기》시키려는것이라느니 뭐니하는 황당한 구실을 들고나와 이 문제를 토의하는것조차 회피하려 하였으며 박정희괴뢰악당이 계획적으로 감행한 서해간첩선침입사건을 들고나와 횡설수설하다가 우리의 사리정연한 론거와 물적증거앞에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되자 우리의 새 제안에 대하여《연구》해보겠다는 막연한 대답을 하였다.

제4차; 4월 3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있었다.

우리측은 제3차접촉에서 본회담을 위한 실무자회의를 잠정적으로 판문점에서 가질데 대한 우리측의 새로운 제안에 대하여 남조선측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연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줄것을 요구하였다.

남조선측은 우리의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계속 거부하며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 열기로 한 쌍방간의 합의사항을 유린하고 이른바 《림시회의》라는것을 판문점에서 하자고 들고나오면서 《림시회의》라는 간판밑에 본회담의 격을 낮추어 그것을 무한정 끌어가려는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였다.

제5차; 4월 29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있었다.

우리측은 쌍방 대표들의 접촉들에서 제기한 본회담재개를 위한 우리측의 합리적인 방안들을 다시금 상세히 설명하고 남조선측이 들고나온《림시회의안》은 평양과 서울을 오가면 작은 문마저 닫아매고 남북을 오가면서 격폐된 감정을 풀고 리해를 도모하며 통일위업에 기여하던것마저 더는 할수 없도록 가로막는것이라고 규탄하였다.

남조선측은 이 접촉에서도 이른바 《림시회의》라는것을 들고나와 본회담의 축소판을 만들어 판문점에 고착시킴으로써 본회담을 영원히 매장해버리려고 하였다.

제6차; 5월 22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있었다.

이 접촉에서 우리측은 회담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판문점에서 부단장을 책임자로 하는 실무자회의를 빠른 시일안에 가질데 대한 우리의 제안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받아들일것을 남조선측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남조선측은 우리측 제안의 정당성을 인정은 하면서도 서울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느니, 《중앙정보부》특무들이 인도주의사업에 개입한 일이 없다느니 하면서 우리의 정당한 제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다가 우리측의 정당하고도 사리정연한 주장앞에서 더는 고집할수 없게 되자 결국 지금까지 들고나오던 《림시회의안》을 철회하고 우리측의 정당한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동의하였다.

남조선측은 이와 함께 판문점에서 열리게 될 실무회의에 《중앙정보부》특무들을 참가시키지 않을데 대하여 우리측에 확약하였다.

제6차접촉에서는 쌍방대표단 부단장을 책임자로 하는 실무회의를 열데 대하여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쌍방적십자대표들의 접촉을 끝내고 빠른 시일안에 판문점에서 쌍방대표단 부단장을 책임자로 하는 실무회의를 가진다.

둘째, 실무회의에서는 본회담 의제에 대한 예비적토의를 진행하며 동시에 본회담 재개문제를 토의해결한다.

셋째, 실무회의는 본회담이 다시 열릴때까지 진행한다.

넷째, 실무회의 날자, 구성, 운영절차문제는 따로 토의한다.

적십자실무회의

제1차; 남북적십자대표단 쌍방 부단장을 책임자로 하여 7월 10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다.

우리측은 본회담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합의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이 천명된 7.4남북공동성명정신과 적십자인도주의 정신, 민주주의원칙과 자유로운 원칙, 동포애 등 다섯가지 원칙들을 재확인하고 그것을 구체화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할데 대하여 확약할것을 제의하였다.

1, 실무회의에서 쌍방이 이미 합의한 다섯가지 원칙을 철저히 구현한다.

2, 실무회의는 어떤 경우에나 인도주의와는 인연이 없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리용될수 없다.

3, 모든 인도적문제들을 쌍방사이에서 자주적으로 토의해결하며 제3자의 개입을 허용하거나 국제무대에 끌고갈수 없다.

4, 실무회의에 성실한 태도로 림하며 회담문제를 가지고 외곡비방하는 행위를 금한다.

5, 실무회의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음모를 물리치고 민족적대단결과 자주적평화통일에 이바지한다.

다음으로 우리측은 본회담재개문제와 함께 본회담 의제문제 (제1항《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기 위하여 자유로운 조건과 환경을 보장할데 대하여 공동성명을 채택할데 대한 본회담 제7차회의의 우리측 제안을 조속히 받아들일것을 남조선측에 다시한번 요구하였다.

남조선측은 우리측의 정당한 주장과 현실적인 제안에 대하여《내정간섭》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아무런 긍정적 대답도 하지 않았을뿐아니라 본회담의 의제와 현재까지 토의해오던 방식과는 배치되게 설정된 절차를 뛰여넘으며 본회담의제와 관련한 기본문제들이 해결된 다음에 제기되여야 할 문제인 《로부모확인문제》를 들고나오면서 회담앞에 새로운 난관을 조성하였다.

제2차; 7월 24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다.

우리측은 본회담의 재개와 의제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자유로운 조건과 환경을 보장할데 대한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공동성명을 채택할것을 제의하였다.

첫째, 북과 남사이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 서신거래 등을 금지함으로써 인도주의사업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반공법》,《국가보안법》, 《긴급

조치》들을 비롯한 현행《반공》법규들은 철폐되여야 한다.

둘째, 무고한 인민들을 비인도적으로 탄압하고 민족내부에《대결》과 반목을 고취하며 적십자회담의 순조로운 진전을 방해하는 일체 활동은 금지되여야 하며 그러한 행위를 하는 모든《반공》기관단체들은 해체되여야 한다.

셋째, 북과 남사이에 적대감정을 고취하고 긴장상태를 격화시킴으로써 인도주의문제의 순조로운 해결을 방해하는《반공》소동과 군사적도발행위가 금지되여야 한다.

넷째, 북과 남의 인민들과 정당, 사회단체, 기관들이 흩어진 겨레들의 고통을 풀어주기 위한 인도주의사업에 참가하는 당사자들과 협조자들 및 관계자들에게 인신과 소지품에 대한 불가침권을 인정하고 언론, 출판, 집회, 통행 등 활동상 자유와 편의를 보장한다.

다섯째, 회담쌍방은 이상 조항들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및 행정적 조치들을 취하고 그 철저한 리행을 담보한다는 공식적립장을 표명할것을 남조선당국에 요구한다.

우리측은 또한 실무회의를 온 민족의 기대에 맞게 원만히 진척시켜나가기 위하여 쌍방이 본회담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합의한 5개원칙을 철저히 준수할것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이 원칙을 구체화한 실무회의준칙을 작성하고 그것을 합의할것을 다시금 제의하였다.

제3차; 8월 28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렬렸다.

우리측은 남조선측이 북과 남의 적십자단체들사이에 토의되고있는 인도적문제들을 제3국에 끌고가서 우리가《인도적사업》보다《정치체제문제를 거론》하고있다느니 뭐니하면서 헐뜯은데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이 회의에서 남조선측은 처음부터 신성한 적십자회의무대를 우리를 반대하는 비방중상과 남북대결을 고취하는《반공》소동마당으로 리용할 목적밑에 적십자인도주의사업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이른바 박정희《저격사건》과 같은 정치적문제를 들고나와 우리측의 규탄을 받았다.

제4차; 9월 25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렬렸다.

실무회의앞에 가로놓인 난관을 타개하고 적십자본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하며 회담앞에 제기된 인도주의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것을 남조선측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첫째, 남조선당국자들의 리용물로 되여 인도주의회담을 정치화하고 그것을 파탄에로 이끌려는 그릇된 행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둘째, 남조선에서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비인도적파쑈폭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체포투옥된 애국적인민들을 무조건 석방함으로써 인도주의적적십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남조선당국에 요구하여야 한다.

셋째, 이른바《저격사건》을 꾸며낸 음모자들을 단호히 처벌하며 일본당국과 결탁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탄압하려는 민족반역행위를 중지하도록 강력히 요구하여야 한다.

넷째, 실무회의에 성실하게 림하며 본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의제문제의 예비적토의에 모든 성의를 다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측은 남조선측이 회담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해온 사실을 력사적사실을 들어 전면적으로 폭로하고 당면한 실무회의를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고 본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4개항목의 새 제안을 또 내놓았다.

첫째로, 남조선에서 인권을 짓밟고 인도주의를 유린하는 살벌한 공포분위기를 제거하고 회담을 위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것.

둘째로, 남조선적십자사가 남조선당국에 회담분위기를 마련할데 대하여 담보하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할것

셋째로, 남조선적십자사는 인도주의회담사업에 끼여들어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고있는《중앙정보부》성원들을 대표단에서 제거하며 앞으로도 참가시키지 않겠다는것을 확약할것

넷째로, 우리는 이상의 모든 조치들이 취해진 1개월후에 서울에서 8차회담을 열자는것을 제의한다.

제5차; 11월 5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다.

우리측은 남북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정상화하고 회담의 성과적진전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인도주의리념에 충실하여야 하며 회담을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회담사업을 시급히 정상화하고 본회담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민족적대단결과 신뢰의 분위기를 마련해야 하며 회담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남조선측이 회담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고있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자료를 들어 폭로하였다.

우리측은 남조선파쑈분자들이 인민탄압을 일삼는것과 함께《공산주의자들과 싸워이기는것》은《생존투쟁》이라고까지 목갈리게 웨치고있으며 지어 우리와의 대화를 북과 남사이의《변화된 대결방식》이라고 하면서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기 위한《선제공격계획》까지 짜놓고 군사장비의 현대화를 다그쳐오다가 최근에는 북과 남의 관계를《전쟁상태》로 선포하고 남조선을 위험한 핵공격기지로 전변시키고있는 사실에 대하여 폭로하였다.

그리고 남조선이 인도주의회담이 열릴수 없는 살벌한 공포분위기로 휩싸여있다는데 대하여서는 남조선을 본 외국사람들은 물론 세계가 다 공인하고있다고 하면서 남조선에서 직접 파쑈폭압의 실태를 조사한《국제대사령 미국지부》의 보고와《아세아기독교협의회》대표단의 성명 등 일련의 사실적자료들을 들어 구체적으로 폭로하였다.

남조선측은 이른바《문서교환방식》이라는것을 다시금 들고나온 이외에 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한 아무런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 지어 또다시 이른바《로부모문제》를 들고나와 쌍방이 합의한 의제토의에 장애를 조성하였다.

제6차; 11월 29일 10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렬렸다.

우리측은 회담분위기가 갈수록 험악해지고있는 서울에서 당장 회담을 재개할수 없는 형편에서 회담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회담을 위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조성되여있는 평양에서 회담을 하자는것을 다시금 제의하였다.

남조선측은 이번에도 덮어놓고《서울의 회담분위기가 문제없다》고 생억지를 쓰면서 우리측의 정당한 제의를 반대하였다.

그리고《로부모문제》를 또다시 들고나와 회담진전에 장애를 조성하다못해 그 무슨《남침위협》을 운운하면서 비무장지대에서의 이른바《땅굴문제》와 같은 엉뚱한 문제를 들고나와 우리를 터무니없이 헐뜯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강점하의 남조선

남조선괴뢰도당의 민족분렬책동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1972년에 남북공동성명을 통하여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할것을 온 민족앞에 엄숙히 서약하였으나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부추김밑에 그 서약을 짓밟아버리고 민족분렬책동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가고있습니다.》

(《빠나마기자대표단과 한 담화》, 단행본, 13~14페지)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이해에도 의연히 우리 인민의 통일념원에 공공연히 도전하면서 남북공동성명을 란폭하게 유린하는 배신행위를 감행하였다.

조국통일에 대한 날로 높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열망과 내외여론의 압력밑에 마지못해 남북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우리와의 대화마당에 나온 박정희괴뢰도당은 대화에서 민족적대단결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도움이 될 어떠한 방안도 내놓지 않고 우리의 합리적인 제안들을 어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계속 회피하였으며 사말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공부만 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놈들은 회담장에서는 지연전술에 매달리고 회담장밖에서는 외세의존과 남북대결과 민족분렬만을 추구하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은 공동성명에서 외세를 배격하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할것을 온 민족앞에 서약하였으나 이것을 짓밟아버리고《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계속 애걸하며 일본군국주의침략세력을 대대적으로 남조선에 끌어들였다.

박정희역도는 10월 미국의 한 잡지기자의 질문에 대한 이른바 대답에서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계속 머물러있어야 한다고 떠벌였으며 이에 앞서 5월 8일 남조선《국무총리》란놈은《유엔군》이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것은《절대적인 힘》으로 된다고 공공연히 줴쳤다.

지어 놈들은《대미사절단》까지 보내여 미제침략군의 영구강점을 애걸하는 추태를 부렸다.

이것은 박정희괴뢰도당이 미제침략군의 총칼의 비호없이는 하루도 살아갈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는것을 실증하여 주는것이였다.

민족분렬정책을 합리화하며 미제침략군의 영구강점을 애걸하는 박정희도당의 매국배족책동은 포드놈이 남조선에 기여들었을 때 더욱 로골적으로 나타났다.

박정희역도는 포드놈의 남조선행각을 통하여 제놈의 현독재체제에 대한 정치적지지를 얻어 위기에 처한《유신》독재체제를《구원》하고 민족분렬의 현고착상태를 보다 공고화해보려고 하였다.

포드놈은 위기에 직면한 박정희괴뢰도당을 정치군사적으로 부추겨주어 남조선에 대한 제놈들의 식민지통치를 보다 공고히 해보려고하였다.

놈들의 이러한 음흉한 목적은 11월 22일과 23일에 포드놈의 남조선행각 전과정과《공동성명》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박정희역도는 포드놈에게 정세의 긴장성과《북으로부터의 위협》을 떠벌이고 남조선에 군사《원조》를 더 많이 줄뿐아니라 미제침략군을 철수하지 말며 괴뢰군《현대화계획》에 계속 지원을 주는 등 종래의《안보공약》을《재확인》하며 제놈들의《두개 조선 정책》과 파쑈적탄압정책에《지지》와《리해》를 표시해달라고 하였다.

포드놈은 괴뢰들에 대한《안보공약》을《재확인》한다고 하면서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즉각적인 지원》을 하겠다느니,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킬 의사가 없다느니《한미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느니 하면서 떠들어댔다.

포드놈은 이른바《공동성명》과 밀담에서 대화를 파탄시킨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려고 꾀하면서 분렬을 계속 추구하려는 남조선괴뢰들의 배신적책동에 대하여《지지》를《확약》함으로써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여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군사기지로 영원히 틀어쥐려는 침략야욕을 다시한번 드러내놓았다.

박정희괴뢰도당의 외세의존정책을 뒤받침하면서 미제는 남조선의 영구강점과 식민지예속화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더욱 로골적으로 책동하였다.

미제는 아세아의 일부 지역에 있는 병력을 배비조절하여 1974년에 타이로부터《에프—4팬톰》전투폭격기대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인것을 비롯하여 계속 무력을 증강하였다.

미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해 6월에 3만 8천명이였던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을 9월에 4만명, 12월에는 4만 2천명으로 늘이였다.

미제는 이해 더욱더 많은 신형무기들과 군사장비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면서 남조선괴뢰도당을 우리와의 대결에로 적극 추동하였다.

남조선의 사대망국노들은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인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였으며 그들의 뒤받침을 애걸하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남조선을 영원히 미제식민지군사기지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상품시장으로 팔아넘기려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책동에 발맞추어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의 옛식민지지배권을 회복할것을 망상하고 남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재침책동을 강화하였다.

이리하여 미제와 함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다그치면서 남조선분렬주의자들의《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적극 떠밀어주었으며 국제무대에서 우리 나라의 영구분렬을 조장시키기 위한《별동대》의 역할을 놀았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대일의존, 대일매국 행위는 경제분야에서도 나타났다.

놈들은 이른바 외국인의《투자의욕》을 높인다는 명목밑에《수출자유지대》를 설치하고 남조선의 넓은 땅을 사실상 일본군국주의자들의《조계지》로 만들어놓았으며 1974년 1월 31일에는《공동개발》이라는 간판밑에 우리 나라 남해의 대륙붕을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팔아넘기는 매국협정을 맺었다.

놈들은 미일침략자들을 끌어들이다못해 서구라파제국주의자들까지 마구 끌어들였다.

남북공동성명후 외국독점자본을 무제한하게 끌어들여 남조선을 무려 70억딸라의 빚더미에 올려놓고 남조선경제를 완전히 예속경제로 만들어버렸다.

《외자도입》을 통하여 박정희괴뢰도당은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리권을

넘겨주고 그들로 하여금《리권보호》라는 구실밑에 남조선에 계속 눌러붙게 하여 외래제국주의의 비호밑에 저들의 통치를 영구화하려고 추구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의 외세의존정책으로 오늘 남조선은 아세아에서 쫓겨나고있는 미제의 마지막 식민지군사지탱점으로 되고 해외팽창에 피눈이 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세력권안에 더욱 깊이 빠져들어갔으며 국제독점체들의 공동의 란무장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일침략자들은 실제상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모든것을 지배하고 모든것을 략탈하고 제멋대로 간섭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북과 남의 관계를《전쟁상태》로 묘사하고 괴뢰군에게《림전태세를 완비》하며《실전태세》를 갖추도록 임무를 내리고 남조선전역에서 주민들을 끌어내여《민방공훈련》을 벌리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전연지대에 방대한 병력을 집결시키고《미한합동군사훈련》을 비롯하여《북진》을 가상한 각종 군사연습을 매일같이 벌리고 온 남조선땅을 살벌한 전쟁분위기속에 몰아넣었으며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군사도발을 일으켜 남북관계를 고의적으로 긴장시켰다.

이해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2만 3천 800여차례에 걸쳐 우리측을 반대하는 각종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침략자들과 결탁하여 남조선을 위험한 핵공격기지로 전변시키려고 미쳐날뛰였다.

미하원공청회의 의사록에 의하면 미제는 수많은 핵탄두와 핵무기들을 남조선의《휴전선가까운곳》에 배치하고있으며 남조선의 도처에 그것들을 저장하였다.

남조선호전분자들은 미제상전의 핵전쟁준비책동에 발맞추어 핵무기생산에 필요한 원자로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이리하여 남조선을 아세아침략을 위한 핵공격기지로 전변시키려는 미제의 책동은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되였으며 조선에서 새로운 핵전쟁위험을 조성시켰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남북공동성명의 원칙도 배반하고《대화를 뒤받침》한다는 구실아래 극악한《유신》독재체제를 꾸며놓고 애국적민주세력에 대하여 횡포한 파쑈적탄압을 가하였다.

박정희파쑈도당은 이해에 들어와서만도 이른바《긴급조치》요,《갑호경계령》이요 하는 살인적인 폭압령을 련이어 공포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요구하는 수많은 애국적 청년학생, 지식인들과 민주인사들을 잡아가두었으며 지어는 천주교 주교와 기독교 목사, 이전《대통령》과 같은 보수정객들까지 군사재판에 걸어 처형하였다.

4월 3일《긴급조치 4호》를 날조하여 나어린 학생으로부터 백발의 종교인과 야당인사들에 이르기까지 수천명을 단꺼번에 검거투옥하고 수많은 애국적학생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비롯한 극형과 중형을 들씌운《민청학련사건》은 피에 주린 박정희도당의 파쑈적인 반동공세의 일단을 보여준다.

박정희도당의 파쑈적책동으로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통일론의는 고사하고 민주와 민권, 최소한의 생존의 권리마저도 전면적으로 유린말살되고 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르는곳마다에서《반공대회》니 뭐니하는것을 벌려놓고 공공연히《멸공》과《실지회복》에 대하여 떠벌이면서 이른바《이북5도》의《도지사》,《군수》를 임명하는 광대놀음까지 벌렸다.

지어 놈들은 남조선에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남조선의 모든 반파쑈민주화투쟁이《북의 지령》에 의한것처럼 날조하고 우리를 반대하도록 부추겼다.

남조선통치배들은 저들의 범죄적책동으로부터 남조선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의 주의를 딴데로 돌리며 안팎으로 철저히 고립된 저들의 신세를 건져보려는 최후발악적인 책동으로서 이른바《8. 15저격사건》이라는 정치적모략극을 꾸며내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발광적인《반공》소동을 절정에 이르게 하였으며 남북관계를 최악의 대치상태에 몰아넣었다.

《저격사건》을 계기로 박정희괴뢰도당은 우리와 총련을 걸고들면서 지어 일본반동들에게 재일동포들과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의 진정한 옹호자인 총련을 탄압해달라고 애걸하였다.

또한 박정희역도자신이《한국은 공산주의자들과의 생사결단의 투쟁에 직면》하고있다고 하면서《우리가 살자면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멸공통일》의 호전적망언을 늘어놓는데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대화의 그늘밑에서 분렬의 영구화와 장기집권을 노리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발악적책동이 얼마나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는가를 말해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해에도《두개조선》조작 책동을《정책》으로 공공연히 선포한 이른바 《특별성명》(1973년 6월 23일)을 버리지 않고 계속 집요하게 추구하였다.

6월 매국역적놈은 그 무슨《담화문》이라는것을 꾸며내여 제놈들이 한해전에 선포한《두개 조선》조작 음모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온 민족의 한결같은 규탄에도 불구하고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을 계속하겠다는것을 되풀이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민족분렬책동에 대하여 미국 콜럼비아대학 교수 개리 레드야드는 7월 16일 도꾜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박정권은 어떻게 하나 분렬을 고착시키고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 하고있으며 그것은 그들의 기본정책으로 되고있다.

박정권이 저지른 죄악중에서 인권유린같은 문제도 엄중하지만 더 허용할수 없는것은 통일문제에 대한 그의 이와 같은 태도이다.》라고 규탄하였다.

박정희도당은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파탄시키고 분렬의 영구화를 획책하고있는 저들의 정체를 가리기 위하여 8월에《불가침조약》이니, 《문호개방》이니,《남북선거》니 하는것을 다시 떠벌이면서《두개 조선정책》을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남조선에서 군대의 통수권을 비롯한 민족의 온갖 자주권을 미제침략자들에게 깡그리 섬겨바치고있을뿐아니라 전쟁수단에 대한 하등의 통제권도 없는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조선의 실제적통치자인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 남겨둔채《불가침조약》을 맺자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가소로운 일이며 평화와 평화통일문제를 가지고 민족을 희롱하는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하자는 우리의 제의를 반대하면서《문호개방》을 운운하는것은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교류에 관심이나 있는것처럼 내외여론을 기만해보려는것이였다.

박정희역적이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념원을 표현만해도 극형에 처하고있으며 미제의 강점하에 있는 남조선에서 이른바《선거》를 하자는것도 평화통일을 위하여 노력하고있는 듯이 가장하는것이다.

남조선괴뢰들의 민족분렬책동은 1973년에 들고나왔다가 남조선인민들과 전세계 인민들의 배격을 받은《두개 조선유엔가입》책동을 의연히 계속하고있으며 이해에 들어와 남조선

《유엔단독가입안》을 꾸며댄데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10월 28일 괴뢰《국무총리》 김종필놈은 미국재무부장관놈과의 밀담에서 《통일의 날이 멀어지고 오늘의 분단상태가 좀 지속되는 한이 있더라도》 《두개 조선》으로 유엔에 들어가야 한다고 함으로써 민족분렬영구화의 속심을 남김없이 털어놓았다.

남조선괴뢰 《외무부장관》이라는자는 11월 29일 제29차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남북조선의《유엔동시가입》과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애걸하면서 미군철수를 요구하는것은 《유엔의 역할을 저해》하는것이라느니, 《안보구조를 파탄》시키는것이라느니, 《남침》하려고 그런 주장을 한다느니 하고 고아댔다. 그리고 우리가 《유엔동시가입》을 반대하면 남조선만이라도 단독으로 유엔에 들어가야 하겠다고 발광하였다.

괴뢰들은《유엔》의 이름을 제멋대로 도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형세가 저들에게 불리하게 되자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유엔군》이 아니고 이른바 《한미호상방위조약》에 의하여 자기들의 요청으로 남아있다느니. 뭐니하는 궤변까지 들고나와 내돌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들을 못박아두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미제는 저들의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할 목적밑에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이 공동으로 유엔총회에 제출한《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하여》의《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하도록 추종국들에 압력을 가하는 등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놈들의 교활한 책동에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평화애호국가들과 민족적독립국가들은 남조선에서의 미제침략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유엔에서의 정세가 저들에게 불리하게 되자 해마다 유엔총회에서 취급하던 이 문제를 안전보장리사회의 좁은 테두리로 끌고가 여기에서 거부권을 리용하여 남조선영구강점의 목적을 실현하려고 날뛰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책동으로 통일문제해결에서는 한걸음도 전진을 보지 못하였으며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사실상 파탄상태에 처하였으며 남북관계는 극도로 긴장되였다.

침략전쟁준비책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은 계속 강화되고있으며 그들의 새 전쟁 도발음모는 더욱더 로골화되고있습니다. …남조선의 괴뢰도당은 미일반동들의 이중의 앞잡이로서 자기 상전들의 전쟁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분별없이 날뛰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71페지)

1974년에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은 더욱 로골화되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제놈들이 처한 파멸적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전쟁도발에서 찾으려고 그 어느때보다도 전쟁준비에 미쳐날뛰였다.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인민들의 드높은 통일지향에 도전해나서면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을《철수시킬 계획이 없다》느니,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공약에는 변함이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남조선괴뢰들과 새로운 침략전쟁음모를 꾸미였다.

9월에 미제는 괴뢰국방장관을 워싱톤에 불러들여 전쟁모의를 벌린데 뒤이어 9월 24일과 25일 호노룰루에서 이른바《제7차한미년례국방장관회의》를 벌려놓고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계속적인 유지와《한미호상방위조약》에 의한 효과적인 군사《원조》의 제공, 괴뢰군《현대화》계획의 추진, 군수산업육성을 다짐하는《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그리고《주한미대사》를 군사《전문가》인 스나이더로 갈아채우는 등 저들의 침략음모를 추진시키기 위하여 날뛰였다.

또한 미제의 수급전쟁사환군들인《미태평양지구 륙군사령관》, 《미태평양지구 공군사령관》, 《미공군참모총장》등을 비롯한 호전광들과 살인두목들이 남조선에 뻔질나게 들어와 군사분계선일대를《시찰》하고 남조선호전분자들과 전쟁모의를 벌리면서 《정세를 검토》하며 《림전태세완비》를 다그쳤다.

특히 11월 22일과 23일에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우두머리 포드는 남조선에 첫발을 들여놓자마자 군사분계선부터 싸다니였다.

이른바《갑호비상경계령》에 의하여 살벌한 파쑈적폭압의 무거운 분위기속에 잠겨있는 서울거리의 교통을 차단하고 사람들이 얼씬도 못하게 한 가운데 진행된 포드놈과 박정희놈사이의 쑥덕공론에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쟁준비와 군사《원조》에 대한 문제가 론의되였다.

《공동성명》에서 포드는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킬《아무런 계획도 없다》고 선포하고 미제침략군이 남조선괴뢰군과 함께《고도의 전력과 준비태세를 유지》할것이라느니,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즉각적》이며 《효과적》인《원조》를 줄것이라느니 《국군현대화계획》을 추진시키고 군수산업을《지원》할것이라느니 하면서 박정희도당의 전쟁준비책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미제는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공공연히 괴뢰군의《현대화》를 위하여 경제 및 군사《원조》를 더 많이 줄것을 요구하였을뿐아니라《일본자위대가 일본경외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될 때가 있을것》이라고 떠벌이면서 그들을 박정희괴뢰도당과의 군사적결탁에로 계속 부추겼다.

미제의 직접적인 조종밑에 박정희괴뢰도당과 일본군국주의자들사이에는 군사신호체계와 통신망체계의 일원화, 군사인원의 교류, 무기의 보급 및 수리 등 각 분야에 걸친 광범한《련계》가 실현되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을 저들의《자위대》가 행동하는《작전권》안에 포함시키고 북반부를 반대하는《작전계획》까지 짜놓고 그 기회를 노리고있다.

미일침략자들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남조선반동통치배들은 미제침략군의 장기주둔을 애걸하면서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파탄지경에 몰아넣고 남북관계를 고의적으로 긴장시키며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갔다.

1월 18일 박정희역적은 직접《년두기자회견》을 벌려놓고 《우리는 지금…준전시체제하에 살고있다》고 지껄였으며 7월 16일에는《오늘의 이 상황은 준전시상태가 아니라 전쟁을 하고있는 상태》라느니 뭐니 하면서 《실력배양》과 《국민총화》에 《최선》을 다하라고 떠들어댔다.

8월 30일에는 괴뢰군《주요지휘관회의》를 긴급소집하고《안보대책》등 전쟁모의를 벌렸고 9월 3일 괴뢰《국무회의》에서는《전시사변》시 병력을 대대적으로 늘일수 있도록《병역

법》을 개악하였다.

박정희역도는 괴뢰국회본회의를 비롯한 공식적인《행사》와 모임들에서 무력증강, 방위산업육성, 괴뢰군《현대화》, 괴뢰군복무기간연장 등 전쟁준비의 강화를 떠들어대면서 전쟁열의를 고취하였다.

미제와 남조선호전분자들은 남조선에 타이로부터 전투폭격기대대를 끌어들인것을 비롯하여 각종 신형무기와 작전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였으며 괴뢰군병력을 늘이고 그의 군사장비의《현대화》를 다그쳤다. 특히 남조선을 핵공격기지로 전변시키고 원자 및 유도 무기들을 끌어내여 전쟁연습을 벌리며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군사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미제는 조선에서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침략세력까지 끌어들여《미일한공동작전체계》를 수립하고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공을 가상한 여러가지 전쟁연습과《작전훈련》마저 거리낌없이 련일 벌리였다.

이리하여 이해 우리 나라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다.

무력증강책동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전쟁준비를 위하여 남조선에서 침략무력을 계속 강화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영구강점을 로골적으로 떠벌이면서 아세아에 널려있는 저들의 침략무력을 전반적으로 재편성재배치하면서 남조선에서 침략무력증강에 더욱 미쳐날뛰였다.

이른바《북의 위협》으로부터 남조선의《보호》니,《안보》니 뭐니 하는 구실밑에 미제는 아세아의 다른 지역에 주둔시킨 저들의 침략무력을 일부 조절하면서도 4만 2천명에 달하는 침략군을 남조선에 계속 유지하면서 그를 원자유도무기를 포함한 최신무기로 무장시키기 위한 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1973년에만 하여도 일본에 있던 제놈들의 전술공군과 그리고 윁남침략전쟁에 내몰았던 각종 신형무기들과 작전장비들을 남조선에 수많이 끌어들인 미제는 1974년에 들어와 또다시 타이로부터 《에프-4팬톰》전투폭격기대대를 끌어들였으며 앞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전투폭격기편대도 끌어들이려고 책동하였다.

놈들은 이 전투기들의 증강으로 남조선에서《미전투부대의 능력이 높아질것》이라고 떠벌였다.

5월 7일에는 미제7함대의 기함인 순양함《오크라호마씨티》호가 함대사령관놈을 비롯한 1천 200명의 해적을 싣고 부산항에 기여들었으며 6일에는 미제7함대 보급선《와비시》호와 구축함《파슨》호가 650여명의 해적을 싣고 이미 부산항에 기여들어 궁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박정희괴뢰도당에게 입김을 불어넣으며 반파쑈민주화투쟁에 일떠선 인민들을 위협하는 도발적인《무력시위》책동을 벌렸다.

또한 미국방부는《1974회계년도에 주한미군의 지상전투병력을 증원하고 한국방위를 목적으로 한반도와 일본 등지의 서태평양상에 주둔하는 미국해상병력을 1천 500명 증강시킬 계획》이라고 떠벌였다.

한편 미제는 무장장비와 군수물자들을 계속 증강하였다.

1973년에 이어 이해 1월과 2월에 걸쳐 오끼나와의 미끼, 텐강, 화이트비치를 비롯한 각 군항들로부터 대량의 155미리포탄과 화학무기, 땅크와 각종 군용차량을 비롯한 군사장비들이 계속 남조선에로 수송되였으며 건도크에서는 상륙정들이 긴급히 정비되였다.

현지 군수로동자들도 이 전쟁물자들이《조선전쟁터로 수송되는것》이라고 내놓고 말하였다.

또한 2월 10일을 전후하여 미제는 남조선, 대만, 필리핀에 걸쳐 많은 병력과 비행기, 함선들을 출동시켜 대규모의《한미합동비밀기동훈련》을 벌렸으며 여기에 동원된 그 많은 무기와 탄약 그리고 미제침략군병력이 그대로 남조선에 머물러있다.

미제는 제놈들의 병력을 더욱 보강하였을뿐아니라 박정희괴뢰도당을 새로운 조선전쟁도발의 앞장에 내몰기 위한 음흉한 군사계획의 한고리인 남조선괴뢰군의《현대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제는 심각한 재정적위기에 직면하여 이른바《대외원조》문제에서 날로 커다란 진통을 겪으면서도 남조선에 대하여 계속 방대한 군사《원조》를 쏟아부었다.

미제는 1974년 7월 1일부터 1975년 6월 30일까지의 1975회계년도만도 남조선괴뢰들에 대한 군사원조로 2억 5천여만딸라를 줄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전회계년도에 준 《군사원조액》을 훨씬 넘고있다. 뿐아니라 미제는 괴뢰군《현대화 5개년계획》(1971~1975) 기간에 예견한 15억딸라의《무상군사원조》를 계속 줄것이라고 떠벌이였으며 11월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의 전쟁두목 포드놈은 여기에 추가하여 5억딸라를 더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남조선괴뢰군의 증강에 미쳐날뛰였다.

전쟁준비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 남조선의 호전분자들은 괴뢰군《현대화》라는 명목밑에 미국으로부터 수많은 살인무기들과 작전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였다.

놈들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만도《에프-5에이》와 《에프-5씨》, 《에프-5이》등 제트전투기들과《에프-4팬톰》전투폭격기를 비롯한 최신형 전투기와 폭격기, 《디디-805》구축함과 미싸일장비를 갖춘 고속도 포함, 신형땅크와 장갑차, 상륙작전용 수륙량용차와 각종 로케트포들을 비롯하여 최신살인무기들과 군사장비들, 지어는 윁남침략전쟁에서 쓰던 무기들까지 수많이 끌어들였으며 그것을 전연지대에 배치하였다.

남조선호전분자들은 70만의 괴뢰군의 정규무력과 250만명의《향토예비군》을 상시적으로 유지하면서 남조선청년들을 괴뢰군에 더 많이 끌어내가기 위하여 파쑈적인 《병역법》과《병역법위반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형법》등 군사적악법들을 더욱 반동적으로 뜯어고쳤으며 1974년을 그 무슨 《병역기피자단속의 해》로 정하고 남조선청년들을 괴뢰군에 끌어넣기 위하여 남조선 전역에서 폭압소동을 대대적으로 벌리였다.

한편 《국군조직법중개정법률안》을 꾸며내여 종래에 분리되였던《해병대》를 해군에 통합하고 미제의 윁남침략전쟁마당에 끌려갔던 이른바《실전경험부대》들을 전연지대에 배치하며 전쟁에 상응한《특수부대》들을 편성확대하는 등 병력증강과 《1선무력》을 보충강화하기 위한 범죄적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놈들은《향토예비군》을 제놈들의 총알받이로 내몰기 위하여《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을 뜯어고쳐 그 편성을 전시체제로 개편하고 그를《전력화》한다는 간판밑에 중기관총과 고사포 등 중장비를 비롯한 기동수단들과 통신기재들을 공급하여 그 기동력과 화력을 증강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토지와 물자, 식량 등 모든 물적자원들을 전쟁수행에 동원리용할수 있는《징발법》까지 꾸며내여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놈들은 인민들로부터 략탈한 돈을 군사비에 더욱 대량적으로

불리였다.

1974년도 괴뢰정부예산에서 직접적인 군사비인 《국방비》만도 전해보다 373억원이나 늘어난 2천 216억원에 달하였다.

군사기지화책동

미제는 아세아 여러곳에서 얻어맞고 쫓겨남에 따라 아세아침략의 가장 중요한 지탱점으로서의 남조선에 대한 침략적군사기지화책동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렸다.

그것은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비법적으로 끌어들여 그것을 보관하고있을뿐아니라 군사분계선 가까운 전연지대에 배치하는 흉악한 핵전략에서 그 범죄적인 행위가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미제는 남조선을 제놈들의 아세아침략의 전초기지로 철저히 얽매놓고 그곳을 핵전쟁을 일으키는 제1선지대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그 어느 지역보다도 남조선에 핵무기를 가장 많이 그리고 집중적으로 배치하고있다.

10월 미국회 상하원합동원자력위원회에서 《라록크방위정보쎈터》의 책임자인 전 7함대 함장인 라록크가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에 핵포탄과 핵탄두를 끌어들여《콩크리트제 이글루식 창고》에 저장하고있다고 증언하였으며 그가 쓴《안전보장》이라는 론문에서 또다시 《핵운반이 가능한 미국의 많은 무기가 남조선에 존재하고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놓았다.

또한 12월 9일에 미하원이 공개한 미하원외교위원회 아세아태평양관계분과위원회의 공청회의사록에 의하면 이 공청회에서 미국방위정보소 성원인 스테판 리드는 《남조선에서는 38도휴전선 가까운곳에 핵탄두가 저장되여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미국회 군사문제담당자들은 미국의《핵무기는 남조선에 배치되여있다.》고 폭로하였으며 남조선괴뢰국방위원회에서 괴뢰국방장관이란자는《핵무기철수계획은 아는바 없다》고 말함으로써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여 보관하고있으며 남조선을 공화국북반부와 아세아침공을 위한 공격기지로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책동하고있다는것을 명백히 하였다.

미제는 우리 나라에서 핵전쟁준비를 다그치기 위하여 남조선에 핵무기를 대량적으로 끌어들이고 그곳을 저들의 완전한 핵기지로 전변시켰을뿐아니라 남조선을 전초기지로 하는 핵전략체계를 완비하는데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미제는 남조선과 가까이에 있는 일본, 필리핀, 대만, 타이 등 아세아 여러 지역들은 물론 괌도, 미드웨이 및 하와이를 비롯한 태평양연안의 여러 지역과 태평양을 싸다니고있는 제놈들의 침략함선들에까지 수많은 핵무기를 배치하고있는데 그것은 다 조선침략전쟁을《효과》있게《지원》하는 전략적목표밑에 배치되고있다.

1974년에도 이 지역을 싸다니는 항공모함, 프리게이트함, 구축함, 잠수함 등 미제의 각종 전투함들이 핵무기를 싣고 무시로 남조선에 드나들었는데 4월과 10월에는 핵무기를 실은 항공모함《미드웨이호》가 부산항에 정박하였다. 또한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 있는《비57》기들에 핵폭탄을 상시적으로 싣고있게 하였다.

뿐아니라 핵탄두와 그것을 발사할수 있는 오네스트죤미싸일, 호크 및 나이크 헤르쿨레스미싸일 등 유도무기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인 미제는 비무장지대 부근 전연에까지 원자무기들을 설치하고 빈번히 시험발사훈련을 감행함으로써 조선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급격히 조성시켰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박정희반역도당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일부 자금의 부담으로 남조선에 중수형원자로 2기를 끌어들이려고 책동하였다.

이 중수형원자로는 천연우라니움을 연료로 사용하기때문에 2기의 로에서 연소한 핵연료로부터 한해에 생산되는 플루토니움-239는 500키로그람에 달하며 이것은 태평양전쟁시기 일본 나가사끼에 투하된것과 같은 원자탄 50개를 만들수 있는 량에 해당된다.

남조선괴뢰들은 일본군국주의자들과의 이러한 군사적결탁으로써 미제의 핵전략에 복무하려고 책동하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남조선에 핵탄두와 핵폭탄을 끌어들이며 핵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중수형원자로를 설치하려고 책동하는것은 놈들의 침략책동이 매우 위험한 성격을 띠고 더욱더 엄중한 단계에로 나아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해 미제와 남조선호전분자들은 수만명의 전투인원들을 투입하여 비무장지대 남쪽부분의 전역에 걸쳐 요새화된 전투진지를 굴설하였으며 이해 6천 170여차례에 걸쳐 비무장지대와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의 남쪽부분에 땅크, 장갑차, 105미리곡사포, 106. 7미리박격포를 비롯한 여러가지 구경의 포들, 그리고 중무기를 비롯한 각종 자동무기들을 끌어들여 그곳을 전투진지로 만들었다.

미제는 남조선을 제놈들의 병참기지로 더욱 전락시킴으로써 조선 및 아세아침략에 필요한 무기와 작전장비, 전쟁물자의 일부를 남조선현지에서 조달하는 군사체계를 세울것을 추구하였다.

이로부터 미제는 박정희괴뢰도당에게 기술문건을 넘겨주고 자금《원조》도 제공하였다.

남조선호전분자들은 《방위산업육성》의 간판밑에 《국방부》에 있는《방위산업국》을 정비하고 남조선의 모든 물적자원을 전쟁준비에 복종시키는데 광분하는 한편 남조선에 병기공장들과 기타 군사장비들도 끌어들여 남조선의 군사적잠재력을 강화하는 놀음을 벌렸다.

놈들은 《경제개발을 통해 국력배양》을 해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미영 등 여러 자본주의나라독점체들로부터 더 많은 자본을 끌어들여《방위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중화학공장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리하여 《엠-16》소총공장건설을 다그쳤으며 전투기제조공장 또는 조립공장, 기타 무기공장을 세우려고 책동하였다.

또한 군사기지와 군용도로들을 끊임없이 신설확장하고 해군기지와 군용비행장들을 증설보강하면서 북평, 군산, 울산 등 여러곳에 대규모의 항만들을 새로 건설하려고 책동하였다.

김종필역적놈은 영동 및 동해고속도로《기공식》에서 《고속도로신설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그 리점과 효과를 극대화시켜 국력배양을 가속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공공연히 떠벌이면서 이미 건설된 고속도로를 《국도》로 전환시켜 재포장하는것과 함께 앞으로 계속 고속도로 건설을 다그치겠다고 함으로써 제놈들의 군사기지화책동을 더욱 뚝뚝히 드러내보였다.

군사도발책동

이해 미제와 남조선호전분자들은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무장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갔다.

미제와 그의 부추김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은《미한합동군사훈련》을 비롯하여 《북진》을 가상한 군사연습소동을 매일과 같이 벌렸다.

1974년 3월 21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사령부는 수많은 전투기와 수송기들을 동원하여 경기도 의정부지역 일대에서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이 임의의 장소에 착륙하여《전투임무를 수행할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이른바《헬리콥터에 의한 전투보급훈련》을 벌렸다.

4월에 들어와서 미제침략군은 또다시 숱한 무력을 남조선 대전지방에 끌어내여 나이크 헤르쿨레스와 호크유도탄을 발사하는 전쟁연습을 벌렸으며 7월 13일에는《근무소집훈련》이란 이름밑에 하와이에 있는 미륙군예비군을《긴급수송》하여다가 남조선의 오산공군기지에 투하하고 2주일동안 실전에 대비하는 전쟁연습소동을 벌렸다.

특히 놈들은 남조선에 핵폭탄과 핵탄두를 끌어들이고 원자 및 유도무기를 끌어내여 무모한 전쟁연습을 벌림으로써 조선에서 핵전쟁위험을 더욱 증대시켰다.

미제침략자들은 9월 전기간에 걸쳐 전선 중부의 비무장지대로부터 4.5키로메터 떨어진 사요리부근에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제4유도탄사령부와 제42야포 제1대대 에이포중대를 비롯한 수다한 침략무력과 로케트발사대를 끌어내여 이른바 《작전준비훈련시험》과 《유도탄사격훈련》을 련이어 벌렸으며 10월 21일에도 사요리부근에서 또다시《오네스트존》로케트를 쏘댔다.

또한 미제침략자들은 9월 한달동안에 비무장지대 가까이에서 《나이크 헤르쿨레스》유도탄중대를 공중수송하는 전쟁연습을 벌렸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서해안에서는 제61반항공포부대 2대대의 20미리《벌칸》포와 《채파랄》 및 《레드아이》유도탄들을 끌어내여 수만발의 포탄을 쏴대는 도발적인 전쟁연습을 벌렸으며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12월상순까지 한달 이상에 걸쳐 서해 대천항앞바다 일대에서 《유도탄사격훈련》을 감행하였다.

이밖에도 미제는 저들의 침략무력과 남조선괴뢰군을 동원하여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대규모의《항공기사격훈련》을 벌렸으며 7월에는 동해안에서 《함정이 보유한 모든 화력》을 동원하여 《해상함포사격》을,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에는 동서남해안지역에서 전쟁연습소동을 일으킨것을 비롯하여 4월 5일에는《포사격훈련》, 4월 10일에는《화학훈련》, 4월 11일에는 《주둔지전술훈련》, 《방어훈련》이니 하는 따위의 화약내풍기는 불장난을 련이어 벌렸다.

미제의 전쟁소동에 발맞추어 6월 26일에는 남조선전역의 35개 도시와 122개 읍, 항만이 총동원되여 《적의 기습공격과 실전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공훈련》을 감행하였는데 남조선호전분자들은 주민들속에서의 이러한 전쟁연습소동을 매달 벌리면서 전쟁분위기를 고취하였다.

9월에는 전체 괴뢰군병력과 경찰에 《비상동원령》을 내리고 후방에 있는 무력을 군사분계선일대에 끌어내는 일대《공수작전》놀음을 벌렸으며 또한 대학과 고등학교 학생들을 괴뢰군부대에 입소시켜 《특수공수훈련》, 《특수해상훈련》등을 강요하며 지어 방학을 계기로 남조선에 온 재일교포학생들까지 군사훈련에 내몰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강도적 본성을 더욱더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무장도발을 련일 감행하고있으며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고있습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111페지)

미제와 남조선호전분자들은 전연지대에 방대한 병력을 집결시키고 남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도발준비를 발광적으로 추진시켰을뿐아니라 땅과 하늘과 바다로부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장도발행위와 고공정찰기에 의한 군사정찰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미제는 3월 12일 2차에 걸쳐 《에쓰아르－71》 고속도고공정찰기를, 11월 5일에는 정탐용소형특수비행기를 침입시키는 등 각종 군용비행기들을 110여차에 걸쳐 우리측 령공과 군사분계선상공에 침입시켜 우리를 반대하는 정탐과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두목 포드놈의 남조선행각을 앞둔 11월 15일과 20일에는 비무장지대안의 남쪽부분에서 수십명의 괴뢰군과 105미리곡사포와 57미리무반동포를 비롯한 각종 중무기와 자동무기를 동원하여 우리측 초소를 향하여 수백발의 포탄과 총탄을 쏘아댄것을 비롯하여 230여차에 걸쳐 우리측을 반대하여 포탄과 총탄을 쏘아대는 악랄한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는 3월 3일 우리측 인원에 대한 집단적인 폭행을 감행한것을 포함하여 공동경비구역안에서만도 650여차례에 걸쳐 우리측을 반대하는 각종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또한 이해 여러차례에 걸쳐 정탐, 파괴, 살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특수훈련을 준 무장악당들을 우리측 지역에 계획적으로 침입시켰는데 11월 9일에는 서해의 우리측 도서인 월내도에 무장습격단을 침입시키는 로골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1974년에 남조선호전분자들은 미제의 부추김밑에 해군함선들과 무장간첩선들을 우리측연해에 빈번히 침입시켜 적대행동을 감행하는 군사적 도발을 일으켰다.

놈들의 이러한 무장도발책동은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이 채택되고 반《정부》반파쑈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이 급격히 강화되기 시작한 때를 계기로 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진 제놈들의 출로를 찾기 위한 목적밑에 더욱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박정희도당은 서해에서만도 1973년 10월부터 1974년말까지 150여차에 걸쳐 구축함을 비롯한 600여척의 각종 전투함선들을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켰으며 1974년 1월 2일부터는 매일같이 2척의 구축함을 비롯한 7～8척의 각종 전투함선들을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켰으며 한편 그를 부추길 목적으로 미제침략자들은 1월 4일과 12일에 연 4차에 걸쳐 《에쓰아르－71》고속도고공정찰기를 군사분계선상공과 서해 옹진반도상공에 침입시켜 정찰행동을 감행하는 악랄한 군사적도발을 일으켰다.

련이어 박정희파쑈악당은 1월 15일 17시경에 경호함과 땅크상륙함을 비롯한 여러척의 전투함선들을 기린도 서쪽에 있는 하린도로부터 5마일이나 되는 우리측 해상에 침입시켜 정탐과 적대행동을 감행하고 이날 18시경에는 옹도 남쪽 6마일계선에 경찰선을 침입시키는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일으켰다.

뿐아니라 우리측연해에 그 무슨《북방경비한계선》이라는것까지 설정해놓고 우리의 해군함정들이 저들의《령해》를《침범》한다고 떠들어대면서 제놈들이 인위적으로 격화시키고있는 긴장상태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며 놈들의 계획적인 해상도발책동을 정당화해보려 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적모험이 얼마나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은 놈들이 꾸며낸 《서해사건》과

《동해사건》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서해간첩선사건》; 서해일대에서 계통적으로 도발행동을 감행하여오던 박정희괴뢰도당은 2월 15일 서해 장산곶 서북쪽 북위 38도 14분, 동경 124도 28분 우리측 연해에 중무장한 2척의 무장간첩선을 침입시켜 정탐과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우리측 연해에 침입하여 정탐과 적대행위를 감행한 간첩선《32수원호》는 도망치려고 갑자기 배머리를 돌리다가 우리의 함선을 들이받고 침몰되였으며《33수원호》는 사건현장에서 우리의 해군함선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나포되였다.

이렇게 되자 적들은 우리가 그 무슨 《어선》을 《무장공격》하였다느니 뭐니 하면서《어선》의《송환》을 요구하며 이를 구실삼아《남침위협》을 떠들어댔다.

그러나 이것이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정탐과 적대행동이며 우리 나라 정세를 고의적으로 첨예화시키고 긴장상태를 조성하려는 도발행위라는것이 우리측에 나포된 적《함선》의 선장이 2월 20일에 한 자백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그는《이번에 우리 33수원호는 32수원호와 함께 중앙정보부로부터 이북해역에 침투하여 정탐모략활동을 할 임무를 받고 지난 7일 인천항을 출발하였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자기가 다음과 같은 임무를 받았다고 폭로하였다.

첫째로, 백령도 북쪽 이북수역에 깊이 들어가 이북측의 태도와 반응을 탐지하여 결과를《인천지부》에 무전으로 즉보할것

둘째로, 백령도 일대에서 움직이는 이북해군함선들의 수효와 그 구조 및 무장장비상태를 탐지하며 일체 함선들을 사진촬영할것

셋째로, 이북함선들에 단속되는 경우 순순히 응하지 말고《어선》으로 정체를 위장하면서 자기위치를 공해라고 주장하는 일방 계속 고기를 잡아갈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할것

넷째로, 피랍될시에는 몇달후 전원이 귀환할수 있으므로 념려하지말고 체류기간 계속 어민으로 가장하여 이북의 경제실태와 건설현황, 군사시설물의 배치와 도로상태, 민심동향 등 내부실태를 탐지할것

이밖에도 9월 20일에 명크상륙함을, 12월 13일에는 경호함을 서해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키는 군사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동해함선침입사건; 6월 28일 아침 8시 50분경 중무장한 해군함선을 동해의 수원단 동쪽 우리측 령해인 군사분계선 북쪽 6.2마일계선에까지 침입시켜 정상적인 순찰임무를 수행하고있던 조선인민군 해군함정에 수백발의 총포사격을 가한후 남쪽으로 도주하려 하였다.

조선인민군 해군함정들은 놈들의 무모한 도발에 대처하여 즉시 강력한 자위적조치를 취함으로써 놈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었으며 적함선 1척을 격침시키고 여러명의 도발자들을 범죄현장에서 사로잡았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대신 이날 11시 3분부터 11시 14분까지의 사이에 여러대의 전투기를 장아대단동쪽 우리측 령공에 침입시켜 우리 경비함정에 기총사격을 가하는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였다.

이 지역의 정세를 긴장시키기 위하여 미쳐날뛰던 박정희괴뢰도당은 저들의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군사적도발행위가 내외에 공포되자 이 무장함선소속 우두머리를 황급히 서울로 불러들여 모의를 벌린끝에《현장으로 출동》시켰으며《어로저지선》남쪽에서 《선체》와《유지품》을 《수색》하겠다고 허황한 놀음까지 벌렸으며 격침당시의 제놈들의 무장함선의 위치가《공해》라고 하면서 저들의 침략기도를 가리워보려 하였다.

그러나 제놈들의 무장함선이 동해 우리측 령해에 수장되여있고 도발자들이 우리의 손에 장악되여있는 엄연한 현실을 무시할수 없게 되자 결국 7월 1일에는《국회국방위원회》에서 괴뢰국방부장관이란자를 시켜《군사분계선 북방 6.5마일 근처에서 침몰되였다》고 침범행위를 실토하였다.

1974년에 남조선호전분자들은 690여차에 걸쳐 우리측 연해에 침입하여 적대행동을 감행하였으며 하늘과 땅, 바다에서 2만 3천 800여차례에 걸쳐 우리측을 반대하는 각종 군사적도발과 위반행위를 감행하였다.

괴뢰군의 통수체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군대의 통수권을 틀어쥐고있는것은 남조선당국자들이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의 간판을 가진 미군사령관이며 대포와 총칼을 비롯한 각종 전쟁수단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있는것도 미제국주의자들입니다.》(《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단행본, 12폐지)

남조선에서 군대의 통수권은《유엔군사령관》의 간판을 가진 미군사령관이 직접 틀어쥐고있다.

미제침략군은 1945년 8.15직후에는 일본침략군의 무장해제를 규정한 국제공약실현을 위한 《해방군》으로, 1948년 8월 괴뢰정부가 조작된후에는 《한미군사협정》 (1948.8.25)에 의거한《군사고문단》의 형태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정(1950.6)에 의하여《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남조선을 강점하였다.

조선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미제는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한미호상방위조약》 (1953.8.8.),《한미회담의사록》 (1954.11.17)을 조작하였다.

이리하여 미제는 4만 2천명의 미제침략군과 그를 보충하기 위하여 70만에 달하는 남조선괴뢰군을 유지하고있으며 그를 미제침략군의 지휘밑에 완전히 예속시켜 놓았다.

미제와 남조선괴뢰간에 맺은《통수권이양에 관한 협정》(1950.1.18)을 비롯한 일련의 군사《협정》들에 의하여 미군사령관은 남조선괴뢰군 륙해공군무력의《통솔에 대한 책임》을 지고《전반적작전통제를 실시할 권한》을 가지였으며 《서울방위권》까지 자기 손에 틀어쥐고있다.

뿐만아니라 3천명에 달하는《미합동군사고문관》을 괴뢰국방부의 각 행정부서, 련대에 이르기까지 배치해놓고 괴뢰군의 일거일동을 통제감독하고있다.

또한 미제침략군은 무기와 군사장비를 비롯한 각종 전쟁수단과 군사기재, 군사시설들에 대한 통제권은 물론 남조선군대의 편성과 그의 이동배치, 장교의 승진, 사병의 훈련과 휴가승인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제손아귀에 틀어쥐고있으며 남조선군대의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도 미제침략군의 간섭의 손이 뻗치지 않은곳이 없다.

미제침략군에게 군대의 통수권이 완전히 장악되여있는 남조선에서 괴뢰군은 미제침략자들의 고용군대로서 갖은 민족적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놈들의 침략전쟁을 위한 값싼《대포밥》으로, 《총알받이》로 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미제는 자기의 침략군대신 괴뢰군을 굉장히 많이 늘이고있다.

미제는 괴뢰군 1명의 유지비(평균 250딸라)로 미제침략군 1명의 유지비(평균 2만 3천딸라)의 90분의 1도 되지 않는 적은 비용을 쓰고

있다.

1974년 3월 26일 일본《도꾜신붕》은《한국의 군사면에서의 주도권이 〈유엔군〉의 간판밑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의 손아귀에 있다는것도 현실이다》라고 썼으며 같은 날 일본통신《교도》는《한국군은 1950년 7월이래 작전상 〈유엔군〉의 지휘하에 들어있으며 한국군사통수권은 실제상 미국이 장악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남조선괴뢰도당이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 남겨둔채《불가침조약》을 맺자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가소로운 일이며 아무런 의의도 없고 론의할 가치조차 없는것이다.

남조선괴뢰도당이 1974년 8월에 평화에 대한 아무런 담보도 없는《불가침조약》이란것을 들고나온것은 결국 통일문제를 가지고 민족을 희롱하는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빈말공부로서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우리의 제안을 거부한 저들의 책임을 모면하며 남조선에 미제침략군을 남겨두고 조선을 영구히 둘로 갈라서 장기집권해보자는 책동이라는것이 명백하다.

파 쑈 폭 압

파쑈적폭압체제의 강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여러가지 파쑈적악법들을 조작하는 한편 폭압기구를 대대적으로 늘여 남조선전역을 군사, 경찰, 정보, 특무망으로 뒤덮고있으며 남조선천지를 테로와 폭압의 생지옥으로 전변시키고있습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120페지)

박정희괴뢰도당은 저들의 파쑈독재체제를 부지하며 장기집권의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파쑈폭압기구와 폭압력량을 계속 강화하기에 날뛰였다.

박정희역도는 정권을 가로챈후 군사파쑈통치와 정보정치의 도구로서 무제한한 특권을 가진《중앙정보부》를 만들어냈다.

악명높은 괴뢰중앙정보부는 1만 5천여명의 기간성원들과 40여만명의 정치특무들을 가지고 괴뢰기관, 사회단체, 회사, 공장, 학교, 병원, 리발소, 양복점, 식당, 심지어 산속의 절간에까지 정보망을 늘여놓고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움직임을 항상 감시하며 터무니없는《간첩사건》들을 조작하여 그들을 체포, 투옥, 학살하고있다.

박정희역도는 또한 괴뢰경찰과 그 보조력량을 계속 늘이고있다.

박정희역도는 남조선에 3천여개의 괴뢰경찰서와 지서, 파출소를 만들어놓고 5만여명의 괴뢰경찰과 30여만명의 경찰특무들을 파쑈폭압에로 내몰고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조국통일과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투쟁이 앙양됨에 따라 1974년에는 4개의 괴뢰경찰서, 25개의 경찰지서와 파출소 등을 더 내오고 3천 100명의 괴뢰경찰을 늘이였으며 가까운 몇해사이에 7만명의 경찰을 유지할것을 획책하였다.

경찰인원과 함께 탄압장비도 대폭 늘였다. 큰 도시에는 차량, 모터찌클, 무전기 등으로 무장된《기동순찰대》와《순찰반》, 해안지방에는 쾌속정과 수십명씩의 괴뢰경찰들로 구성된《바다경찰서》와《여름경찰서》, 산간벽지에는《이동파출소》들을 내오는 등 파쑈폭압력량을 2중 3중으로 늘여놓고있다.

이리하여 남조선인민들은 40여만명의 괴뢰《중앙정보부》의 특무, 5만여명의 괴뢰경찰과 수많은 괴뢰경찰의 보조력량, 70만명의 괴뢰군무력과 250만명의《향토예비군》등 실로 방대한 파쑈폭압력량과 폭압기구들에 짓눌려있다.

파쑈폭압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박정희역도는 일인군사파쑈독재와 영구집권을 합법화하며 인민탄압을 위한 파쑈악법들을 수많이 조작하고 개악하였다.

박정희파쑈악당은 1972년 11월 21일《유신헌법》을 만들어낸후 수백건의 악법들을 조작하고 이미 만들었던 살인악법들도 더욱 파쑈화하였다.

놈들은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을 마음대로 잡아가두기 위하여《형사소송법》, 《형사소송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호적법》, 《소년법》등을 개악하였다.

이 파쑈악법에 의하면 박정희역도는 마구 잡아가둔 무고한 인민들에 대하여 종래 형식상으로나마 적용하였던《구속적부여부》에 대한《심사권》마저 없애버리고 종래 3년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범죄자》에게만 적용하였던《긴급구속》을 모든《징역형》에 해당하는《범죄자》들에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긴급구속》범위를 무제한하게 늘여 제놈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잡아가둘수 있게 만들었다.

박정희파쑈악당은 고문을 통하여 날조된《증거》도 유죄판결의 근거로 되게 만들었고 인민들을《영장》도 없이 체포할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이해 개악된《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출석이 없이도 선고공판을 열수 있고《피고인》이 없이도 증인을 심문할수 있도록 했으며 형사소송에만 적용되여왔던《국선변호인제도》를 민사소송에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제기된《사건》을 확실한 증거도 없이 무턱대고 재판을 강행하려는것이며 변호인을 제놈들의 직권으로 전임시킴으로써《사건》을 박정희도당이 마음먹은 그대로 손쉽게 처리하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박정희도당은 이러한 방대한 폭압력량과 파쑈악법으로써도 앙양되는 대중적인 반《정부》, 반파쑈투쟁을 막을수 없었다.

특히 1973년말 야만적인《유신헌법》과《유신체제》를 없애치우고 민주체제를 실현할 목적으로 발기한《100만명서명운동》은 각계의 전적인 공감과 지지 속에 시작된지 불과 10여일동안에 근 40만명이 서명하는 급속한 전진을 보였을뿐아니라 남조선에서 반파쑈민주화운동 전반을 한층 추동하였다.

이러한 사태발전에 당황망조한 박정희역도는 1974년 1월 8일《긴급조치》 1, 2호라는 또하나의《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민주주의와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는 인민들에 대한 야수적탄압을 전면적으로 강화해나섰다.

《긴급조치 1호》에서는 사기와 음모의 방법으로 만들어낸《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 행위와 그에 대한《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거나《청원하는 일체 행위》를 엄금하고 이런 행위를《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일체 행위》를 한자는 법적수속 절차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하며 15년이하의《징역》에 처하게 하였다.

다시말하여《긴급조치 1호》는 언론과 의사표시의 자유에 대한 인민들

의 권리를 완전히 말살하는 한이 있더라도《대통령》의 절대적인 권력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공포되였다.

《긴급조치2호》에서는 괴뢰국방부에 무제한한 권한을 가지고 인민들을 탄압할《비상고등군법회의》와 《비상보통군법회의》를 설치할것을 규정하였다.

이 포고령에는 또한 괴뢰《중앙정보부》가《대통령포고령》들이 포괄하는 령역에서 정보를 수집하며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진다는것이 규정되였다.

일본통신《지지》는 이날 긴급조치는《사실상의 비상계엄령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것이였다고 폭로하였다.

남조선파쑈악당은 《비상사태》와 《비상계엄령》에 겹쳐서《긴급조치》까지 조작하고서도 민주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을 가로막을수 없게 되자 4월 3일에는 《긴급조치 4호》라는것을 더 조작했다.

《긴급조치 4호》에서 놈들은 이른바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을 날조해놓고 이를 진압한다는 구실밑에 이 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등의 일체 행동을 금지하며 청년학생들의 출석, 수업 및 시험의 거부, 학교내외의 집회, 시위, 성토, 롱성을 금지하고 이 조치를 위반했을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였다. 또한 이 련맹의 활동에 대한 보도를 도서나 록음의 형식으로 발표, 전달, 배포 또는 전시하는것이 금지되였다.

이것이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살인악법이란데 대하여 4월 20일 미국통신《에이피》까지도 박정희괴뢰도당은《어떠한 문명사회에서도 기본적인 자유로 간주되는 언론, 신앙, 출판, 집회의 자유를 청원하는 그 어떤자도 사형에 처한다는것을 선포하는데까지 이르렀다》고 보도하였다.

《긴급조치》후 박정희역도는 폭압체제를 재정비하고 반파쑈민주화세력의 혁명적진출을 탄압하기 위하여 남조선전역의 경찰기구들에《비상근무상태에 들어가도록 지시》하고 주요도시들에 괴뢰경찰과 괴뢰군력량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이를 통일적으로 지휘통제하기 위한 체계를 세웠으며 괴뢰경찰수사지휘체계를 남조선전역에 걸쳐 일원화하고 전경찰의《수사요원화》를 더욱 다그쳤다.

박정희역도는 11월 21일《도시수사체제》개편의 한고리로서 남조선의 6개도시에《외근형사무선통신단》을 구성하였다.

놈들은 반파쑈민주화세력에 대한 일반적인 동향감시로부터 개별적인《전담제》로 바꾸고 여기에 모든 정보수사력량을 집중하도록 하였는데 대상인물 한사람에게 무려 5명내지 6명의 특무들을 붙여 감시통제하도록 하였다.

박정희도당이 내두르는《긴급조치》는 정보특무만능의 파쑈통치우에 군사통치까지 겹씌운 포악무도한 군정의 선포이며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각계각층 인민들에 대한 가장 흉악한 반동공세였다.

파쑈폭압만행에 대한 전체 조선인민의 견결한 항거와 세계인민들속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자 놈들은 그 수습책의 한 고리로서 8월 23일《긴급조치 1, 4호》를《해제》한다는 기만책을 벌렸다.

그러나 놈들은《긴급조치》위반혐의라는 날조된 죄명을 쓰고 체포투옥되였거나 살인재판에 넘긴 수많은 사람들을《해제에서 제외》시켰으며 애국적인민들을 체포구금하고 살인재판에 걸어 중형과 극형을 들씌운 포악한 살인폭압기구인《비상군법회의》와 《재판》을 그대로 존속시키겠다고 하였다.

10월 8일 괴뢰국무총리란놈은《긴급조치》가《해제》되였다 하더라도 반《유신》적인《발언》이 있게 될 때에는 다시 필요에 따라 발동하게 될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긴급조치》해제가 사실상 놈들의 폭압기능수행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하나의 기만술책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이밖에도 놈들은 인민들을 위협하고 반《정부》기세를 억누르기 위하여 8월 15일에《갑호경계령》, 11월 21일에《갑호비상령》, 12월 24일에《비상경계령》, 12월 28일에《비상근무령》등 폭압조치를 련발하였다.

박정희역도는 이러한 류례없는 비상수단의 발동과 전대미문의 군사적폭정에 매달리면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체포투옥하고 고문학살하는 천인공노할 파쑈광증을 일으켰다.

인 민 탄 압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당국자들은 인민들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빼앗고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습니다.》(《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단행본, 20페지)

이해 박정희파쑈도당의 야수적폭압책동은 극도에 달하였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박정권타도》,《유신독재타도》를 부르짖으며 반파쑈민주화의 기치를 높이들고 대중적항쟁에 줄기차게 떨쳐나서게 됨에 따라 더욱더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된 박정희괴뢰악당은 멸망의 운명으로부터 헤여나보려는 최후 발악적책동으로서 파쑈폭압만행을 더욱 강화하였다.

놈들은 이해에 들어서면서부터《긴급조치》요,《갑호경계령》이요 하는 수많은 폭압조치들을 련발하면서 혁명가들과 애국적청년학생들, 지식인들, 지어는 종교인들까지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사람은 그 경중에 관계없이 모조리 체포구금하였으며 그들을《군법》에 회부하여 중형과 극형에 처하였다.

놈들이《긴급조치》를 내린후 5월까지만도 정식 령장을 내여 공개적으로 구속한 인민들의 수는 무려 6만여명을 헤아렸다.

또한 박정희악당은 4월에《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을 날조하고 그를 탄압하기 위한《긴급조치 4호》를 공포한후부터 남조선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 수천명을 체포투옥하였다.

박정희파쑈악당은 수만명의 각계층 인민들을 잡아가두고 그들에게 터무니없는 죄명을 씌우기 위하여 전기고문, 물고문, 마약고문 등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악독하기 그지없는 야수적인 고문과 박해를 가하고 《울릉도거점간첩단사건》,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 《간첩단사건》등 각종《사건》을 꾸며내여 수많은 사람들을 극형에 처하였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통일혁명당성원들에 대한 탄압; 박정희역도는 미제의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끝장내며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우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에게 탄압의 예봉을 돌렸다.

3월 15일 박정희살인악당은 남조선에서 지하혁명조직을 뭇고 반외세, 반파쑈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정력적인 혁명활동을 벌려온 통일혁명당 경상북도위원회와 그 산하 당조직성원 32명을 악명높은《반공법》에 걸어 체포구금하고 그들의 투쟁을《울릉도거점간첩단사건》에 관련시켜 무데기로 극형과 중형을

들씌웠다.

놈들이 내몰리고있는《울릉도거점간첩단사건》이란 남조선인민들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며 혁명적애국력량을 탄압하기 위하여 놈들이 허위적으로 꾸며낸 모략극이다.

이른바 《울릉도거점간첩단사건》에 관련자로 몰린 이들은 선원, 농민, 회사원, 대학교수, 정당인 등 각계각층 출신의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이다.

이들은 통일혁명당경상북도위원회와 그 산하 조직에 망라되여 대구, 울릉도를 비롯한 경상북도 일대에서와 서울, 부산 등지에서 반외세반독재구국의 기치를 들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각성시켜 조직에 묶어세우면서 미일침략세력을 남조선에서 내몰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찾으며 파쑈통치를 짓부시고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켜왔다.

이것은 민족의 념원과 인민의 절박한 지향을 반영한 전적으로 의로운 활동이며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우려하는 구국일념으로부터 출발한 애국투쟁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도당은 이들을 체포한후 온갖 잔인무도한 고문을 가하면서 터무니 없는《죄》명을 날조하여 살인공판놀음을 거듭해오던 끝에 7월 3일 1심에 이어 12월 9일 2심공판놀음에서 전영관을 비롯한 3명에게 사형을, 다른 4명에게 무기징역을, 그리고 나머지 25명에게는 15년까지에 이르는 중형과 기타 형벌들을 선고하는 극악무도한 만행을 감행하였다.

박정희역도는 5월에도 통일혁명당 일부 조직성원들과 애국자들 30명을 무슨《간첩단사건》에 관련시켜 부당하게 체포하고 갖은 고문과 박해를 가해오던끝에 9월에 살인공판놀음을 벌리고 8명에게 무기징역과 15년에 이르기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화학회사 총무과장, 농산회사 직원, 건설사무소직원, 우체국 집배원, 택시운전수, 대학교수, 국민학교교장, 《공화당》기획국 간사, 괴뢰도청직원 등 각계각층 인사들로 무어진 이 통일혁명당 일부 조직성원들과 애국자들은 서울, 대전, 전주 등지에서 온갖 시련을 이겨내면서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활동을 과감히 벌렸다.

이리하여 그들은 광범한 대중을 외세를 반대하고《유신》파쑈독재를 반대하며 민주주의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이들의 이 구국활동은 인민들의 일치한 지향을 반영한 정당한 애국투쟁이였다.

박정희파쑈도당은 이 애국적투쟁을 함부로 모독하면서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에게 상투적수법 그대로 이른바《간첩》이라는 터무니없는《죄명》을 씌워 악랄하게 처형하였다.

로동자, 농민, 어민들에 대한 탄압; 박정희역적은 생존과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들과 어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학살하였다.

남조선로동자들은 놈들의 전례없는 파쑈폭압속에서도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고 8시간로동제의 실시와 임금인상, 로동조건의 개선, 로조결성과 그 활동의 자유 등 생존과 민주주의를 요구하여 힘차게 싸웠다.

박정희파쑈도당은 남조선로동자들의 이러한 투쟁을 악랄하게 탄압하였다.

9월 19일 경상남도 울산조선소 로동자들이 삶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정의로운 대중적투쟁에 일떠섰을 때 놈들은 그를 억누르기 위하여 경상남도 경찰국장놈의 직접《지휘》하에 울산과 그 주변 16개 도시와 마을로부터 무려 1천 200여명의 경찰들을 내몰아 로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악랄하게 탄압하였다.

파쑈악당들은 총칼을 휘둘러 투쟁에 참가하였던 70여명의 로동자들에게 심한 부상을 입히는 한편 현장에서 860여명을 체포하였으며 그중 200여명에게《방화, 폭행》등의 《죄》명을 씌워 구속하였다. 그리고 로동자들에 대한 삼엄한 감시를 하면서《배후수사》와《사건조사》에 날뛰였다. 괴뢰경찰은 울산조선소뿐아니라 그와 련관된 량산, 김해, 마산 등지에서 《주모자》를 찾아낸다고 하면서《수사》를 악랄하게 감행하였으며 로동자들을 닥치는대로 구속하였다.

12월 30일 괴뢰부산지방법원에서는 살인재판을 벌리고 삶을 위한 이 대중적폭동에 참가하였던 최영식을 비롯한 8명의 로동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박정희반역도당은 11월 30일 괴뢰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을 한사람도 참가시키지 않고 날치기로 현행 로동관계 악법들을 더욱 파쑈적으로 뜯어고치는 악랄한 행위를 감행하였다.

놈들은 여기에서《방위산업과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로동조합을 결성할수 없다》는 갖가지 파쑈적규정들을 박아넣었다.

이것은 남조선로동자들에 대한 박정희도당의 탄압만행이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한가를 말해주고있으며 동시에 놈들이 남조선혁명의 기본동력인 로동계급의 움직임에 대하여 얼마나 두려워하고있는가를 보여주었다.

로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함께 농민, 어민들에 대한 파쑈폭압도 더욱 강화하였다.

박정희역도는 농촌에《전략촌》,《5가련보조직》그리고 여러가지 어용단체들을 만들어놓았거나《새 마을지도자》등 제놈의 앞잡이들을 박아넣고 그것들을 통하여 농민들의 동태를 감시하게 하면서 농민들의 혁명적진출과 민주주의적대중단체의 결성을 미리 막아보려고 책동하였다.

박정희역도는 남조선인민들속에 미치는 공화국북반부의 혁명적영향을 가로막기 위하여 고기잡이를 하던중 모진 풍랑에 밀리워 우리 어업로동자들에 의하여 구원되고 공화국북반부의 따뜻한 품에 안겼다 돌아간 남조선어민들을《반공법》,《수산업법》에 걸어 탄압하였다.

또한 박정희도당의 파쑈폭압기구인 《해양경찰대》의 악당들은 동해어장의 군사분계선가까이에만 가서 고기잡이를 하여도《어로저지선》을 넘었다느니 뭐니하면서《수산업법》과《반공법》의《위반죄》로 몰아 혹독한 형벌을 들씌웠다.

청년학생들에 대한 탄압; 박정희파쑈악당의 파쑈적폭압의 악랄성과 가혹성은 특히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한데서 뚜렷이 나타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올해 4월에 남조선청년학생들이 반파쑈민주화투쟁에 대대적으로 떨쳐나서자 남조선당국자들은 미친듯한 탄압소동을 벌렸습니다.》(우와 같은 책 21페지)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에 의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은 박정희괴뢰도당은 이해에 들어와 청년학생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이 더욱 강화되고 조직화되자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놈들은 날로 치렬해가는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말살할 목적밑에 4월 3일 인간도살령인《긴급조치 4호》를 공포하고《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을 날조하여 미친듯이 탄압소동을 벌렸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이란 남조선의 애국적청년학생들이

1973년 10월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시위투쟁을 벌린후《전국민주청년학생 총련맹》을 조직하고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과 매국배족책동, 민족분렬정책을 반대하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민족적자주성을 요구하여 벌린 대중적시위 투쟁을 가지고 날조한《사건》이다.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각지의 광범한 대학의 수많은 학생들이 망라된 이 투쟁조직을 통하여 그들은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괴뢰정부의 동태를 시험하기 위한 산발적인 시위를 벌리는 동시에 3월 21일에 경북대학교와 서울의 서강대학교에서 대규모적인 시위를 가지기로 하고 시위의 지방확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방대학에서 일어난 시위분위기를 서울에 비화시키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4월 3일에《각 대학이 일제히 봉기》하기로 하였다. 이에 있어서 그들은 박정희도당이 학생들의 일거일동을 감시하며 집단적인 투쟁이 벌어질 기미만 보이면 폭압력량을 대량적으로 동원하여 야수적탄압을 가하며 발악적으로 전진을 가로막아나서는 사정을 고려하여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서울동부지역에 흩어져있는 각 대학 학생들은 4월 3일 오후 2시에 시내 청계천 5가에 모이며 연세대학교, 리화녀자대학교 등 서울 서부와 북부지역에 있는 각 대학 학생들은 같은 시각에 서울《시청》앞 광장에 집결하였다가 동시에 시위를 벌리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4월 3일 예정대로 고등학교학생까지 광범히 합세해나선 가운데 서울과 대구를 비롯한 남조선 각지에서《유신독재 물러가라》,《중앙정보부를 즉각 해체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등 민주본권을 확립하라》, 《대일예속 청산하라》, 《구속된 민주학생 석방하라》, 《국민을 울리는 물가정책 시정하라》고 웨치면서 조직적이며 대규모적인 시위를 벌렸으며《민중민족선언》, 《민중의 소리》, 《지식인, 언론인, 종교인들에게 드리는 글》등 10만여매의 삐라와 선전물을 남조선 각지에 뿌렸다.

학생들은 이 슬기로운 투쟁과정에 박정희반역도당의 매국배족적이며 파쑈적인 죄행을 폭로하고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선전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것은 미일침략자들을 등에 업고 나라의 영구분렬과 장기집권을 획책하면서 류례없는 악독한 파쑈적광란을 부리고있는 박정희반역집단의 매국배족적죄행의 필연적결과로서 인간의 존엄과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너무나도 정당한 애국적민주주의운동이였다.

그렇기때문에 이 투쟁은 광범한 각계층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해외에 사는 동포들의 열렬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의 활동이 적극화되는데 극도로 겁을 집어먹은 박정희반역도당은 이 조직을 파괴하기 위하여 악독한 폭압령을 내리고 맨주먹으로 민주주의적자유를 요구해나선 학생들을 중무장한 수많은 경찰들을 내몰아 정면에서 탄압하고 그들을 집단적으로 검거하였다.

놈들은 청년학생들의 시위대렬에 폭동진압을 위한 정, 사복 경찰을 내몰아 파쑈적탄압을 가하였으며 지어 최루탄을 비롯한 각종 형태의 유해가스탄을 발사하여 학생들에게 중경상을 입히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긴급조치 4호》를 내린 4월 3일에는 학생들의 시위대렬과 맞먹는 중무장한 경찰을 동원하여 학교주변과 교문에 배치하여 학생시위대렬을 교문과 학교마당에서 야수적으로 탄압하였으며 그들이 교문을 벗어나기만 하면 수십명씩 집단검거하였다.

지어 수많은 경찰들이 무리를 지어 신성한 학원안에까지 처들어가 학원의 자유를 란폭하게 짓밟고 학생들을 체포하였다.

놈들은 체포한 학생들을 사형에까지 처하겠다고 위협해나섰으며 이 조직에 망라된 학생들을 체포하는데 200만원씩의《현상금》까지 걸고 발광적인 수사놀음을 벌렸다.

4월 25일 괴뢰《중앙정보부》가 들고나온 이른바《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에 대한《수사전모》에 의하면 놈들은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통일적인 투쟁조직인《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의《행동총책》인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 리철을 비롯한 240여명의 애국적학생들을 체포하였는데 그후 몇달사이에 이《사건》으로 검거투옥된 인원수는 총 4천여명에 달하였다.

청년학생들뿐아니라 이 《사건》에 관련시켜 학생지도자들에게 5천 400딸라를 대주었다하여 시인 김지하가, 천주교주교 지학순이 김지하에게 2천500딸라를 주었다하여 기소되였다. 한때 괴뢰대통령을 한적이 있는 윤보선도 학생시위자들에게 1천딸라를 기증하고 그가《아무런 죄도 없는 젊은 학생들과 기독교도들이 사형,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데 대해 어떻게 이러한 가혹한것이 허용되고있는가》고 하였다 하여 체포되여《비상보통군법회의》에 끌려나왔다.

지어 놈들은 해외교포들인《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본부 조직국장까지 무슨 《비밀공작원》이라고 날조하여 이《사건》에 관련시켰다.

놈들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에 이른바《반국가단체》라는 딱지를 붙였으며 아무 죄도 없는 학생들을 체포해놓고 그들이《로농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폭력혁명》을 했다느니《화염병과 각목》으로《류혈사태를 유발》하고 괴뢰기관들에《방화》를 하려 했다느니 하고 제멋대로 거짓을 꾸며내고 그들에게《공산주의자》라는 극단적인 감투를 씌우며 그들을《내란죄》《대역죄》로 몰면서 지어《그와 같은 소행을 한자를 살려둔 력사가 없다》고 하면서 악마와 같이 날뛰였으며 남조선학생들의 내부투쟁을 그 무슨《배후조종》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그들을 악독하게 처형하며 제놈들의 야수적폭압만행을 합리화하려 하였다.

박정희파쑈악당은 이러한 흉악한 모략과 악랄한 폭압을 합리화하기 위하여《중앙정보부》 밀실과 《검찰구치소》의 고문실들에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야수적인 고문을 가하여 허위《자백》을 꾸며내고 사실을 날조하였다.

파쑈교형리들의 야수적인 살인고문에 의하여《중앙정보부》고문실에서는 자기의 신념과 의지를 굽히지 않은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희생되고 불구자로 되였으며 그들이 흘린 붉은피가 하수도를 메웠다. 전대미문의 야만적고문을 가해오던 파쑈교형리들은 각종 날조된《죄명》을 씌워 이《사건》으로 구속된 인사들 중 253명을《반공법》과《국가보안법》, 《긴급조치》에 걸어《비상보통군법회의》에 넘겼으며 7월에는 1차로 리철을 비롯한 50여명의 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에게 집단적으로 사형과 무기징역을 비롯한 중형을《선고》하는 천인공노할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8월 8일부터 13일까지 2차로 무려 다섯차례나 방청도 변호사도 없는 비밀재판을 벌려 놓고 37명의 애국적청년학생들과 서창석을 비롯한 13명의 각계인사, 이전괴뢰《대통령》윤보선, 기독교목사 박형규, 천주교 주교 지학순을 포함한 80여명의 량심적인 종교인들과 각계층 인사들을《사건》에 관련시켜 무기징역과 20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밖에 놈들은 그 누구도 모르게 극

비밀리에 군사재판을 벌려 서울서강대학 학생 8명을 비롯하여 무려 60여명에 달하는 청년학생들을 집단적으로 처형한것 등 놈들의 학살만행은 계속되였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을 날조하여 수많은 청년학생들을 학살하였으나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가로막을수 없었던 박정희파쑈악당은 탄압과 회유의 량면술책으로 학생핵심들을 학교로부터 제거하며 위협과 공갈로써 학생대렬을 분렬약화시키려 하면서 청년학생조직을 저들의 어용조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놈들은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날수 있는 학교주변이나 기타 지역에 시위군중과 거의 맞먹는《기동경찰대》를 배치하여 도로를 차단하고 공동집합장소를 봉쇄하였으며 시위가 일어나면 최루탄을 발사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10월 31일 시위를 벌린 연세대학교의 약 2천명의 청년학생들에 대하여 300명의 《기동경찰대》들이 최루탄을 발사하고 류혈적으로 탄압함으로써 5명의 청년학생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참상을 빚어냈으며 파쑈적인 《유신헌법》의 철페를 요구하여 가두시위에 나선 광주제1고등학교의 나어린 학생 1천명에게 가스탄을 발사하였다.

놈들은 시위주동학생들에 대한 구속과 함께《즉결심판》이란것을 적용하여 시위학생들을 마구 붙잡아갔다.

괴뢰내무부장관이란놈은 10월 15일《특별지시3호》라는 폭압명을 조작공포하고 이에 따라 시위학생들을 아무런 법적근거와 수속절차도 없이 구속기소하거나 즉결심판에 넘겼다.

놈들은 10월 14일 휴업, 휴교, 조기방학, 휴강 등의 강도적인 폭압명을 내린데 이어 16일과 18일에는 서강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각각 《조기방학령》을 떨구고 교문을 페쇄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 하여 강제《휴강조치》를 련이어 취하면서 서울대학교의 9개 단과대학과 부산대학교 동덕녀자대학, 서울카톨릭신학대학 등 20여개 대학들을 일제히 페쇄하였다.

이리하여 10월말현재 서울과 지방의 44개 대학을 휴강, 휴교 등 강제페쇄하고 수만명의 학생들을 등교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수백명의 학생들을 정학시키거나 내쫓았고《학생들의 지도를 소홀히 했다》는 리유로 교수들까지 파면시켰다.

또한 학생들의 기본권리와 행동규범을 규정해야 할 학칙을 더욱 반동적으로 개악하고 학원을 보다며 어용화하려고 책동하였다.

학생투쟁의 조직인 《총학생회》를 해산시키고 제놈들의 앞잡이들로《재건학생회》라는것을 새로 만들어놨으며 이를 청년학생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저지시키는데 리용하였다.

놈들은 제놈들의 주구단체들을 내세워 반《정부》투쟁에 공격을 가하게 하였으며 11월 5일에는 미제살인장군인 남조선강점《한미합동군》제1군단장이란놈을 학생들앞에 내세워《학생들은 오직 공부에 열중하고 보국의 정신을 길러야 한다》고 떠들게 함으로써 청년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박정희파쑈도당은 청년학생들의 반파쑈민주화운동을 탄압함으로써 하나의 사회정치세력인 청년학생들의 력량을 약화시켜 반《정부》투쟁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려고 책동하였다.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 박정희괴뢰도당은 언론기관들을 어용화하여 인민들의 반《정부》반파쑈민주화투쟁을 가로막고 무너져가는 파쑈통치체제를 유지해보려고 언론인들의 출판보도활동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방해하였을뿐아니라 심지어 진보적인 언론인들을 구타하거나 체포투옥하는 행위를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긴급조치》와 같은 군사폭압명들을 련이어 공포하면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언론기관을 봉쇄하고 일체 출판보도활동을 《중앙정보부》의 파쑈적통제하에 두고 괴뢰《중앙정보부》의 《승인》없이는 그 어떤 사실도 보도할수 없게 만들었다.

놈들은 언론출판기관들에 악질특무들을 박아넣고 편집국, 론설위원실, 인쇄공장을 돌면서 집필활동에 간섭하며 지어 신문편집을 통제하기 위하여 론설위원들의 방에 도청장치까지 해놓았으며 사실을 보도한 기자들에게《허위보도》와 《명예훼손》이라는《죄》명을 들씌워 야수적인 고문을 가하고 살인재판에 넘겼다.

언론인들의 반정부기세를 막기 위하여 박정희괴뢰도당은 신문사, 출판사, 방송기관들에 대한 자금투자를 음흉한 방법으로 제한하였으며 기자들의 일거일동을 살피기 위하여 이른바 《프레스카드제》까지 실시하고 그들의 취재활동을 방해하였다. 언론기관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통제와 탄압에 대하여 남조선의 한 어용출판물은 《박정권의 언론조종은 교활하고 교묘하다. 국민, 여론, 동향을 살피면서 경영자를 회유하고 그를 통하여 압력을 가한다.》고 폭로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반《정부》반파쑈민주화투쟁에 일떠선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기관들을 제놈들의 반동어용기관으로 만들어놓고 출판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10월 1일 박정희파쑈악당은 파쑈테로가 판을 치는 남조선의 《현실비판》을 《일체 금지할것》을 떠벌이였으며 10월 19일 괴뢰 《문교부장관》이란놈은 언론인들을 불러다놓고 《반정부시위, 남조선경제의 곤난한 형편, 남부월남에서의 정치적소동에 대하여 보도하지 말라.》는 파쑈적조치를 취하였다.

놈들의 이러한 파쑈적조치는 남조선언론기관의 그러한 보도가 남조선인민들의 반《정부》투쟁에 주게 될 영향이 무서워 취해진것이였다.

그런데 《동아일보》기자들이 이 파쑈적보도관제를 거부하고 해당 문제들에 대한 보도를 하려 하자 10월 21일 박정희괴뢰도당은 《동아방송》보도프로담당부장을, 22일에는 《한국일보》사장, 편집국장, 정치부장을, 23일에는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포함한 4명의 기자들을 체포구금하고 강도적인 《보복》적 박해를 가하였다.

11월 12일에는 《동아일보》기자들이 남조선종교인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에 대한 기사를 《동아일보》1면 맨웃자리에 사진과 함께 낼것을 요구하였으나 놈들은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여 내지 못하게 하였으며 연세대학 학생신문《연세춘추》에서는 치과대학생들의 《구속학생들의 석방》과 《언론의 자유보장》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실었다 하여 배포를 중지시켰다.

박정희역도는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의 반《정부》적투쟁기세가 높아지자 이들의 투쟁을 취재보도하지 못하게 방해할뿐아니라 심지어 취재하려간 기자들에게 폭행까지 가하였다.

괴뢰경찰들은 연세대학 학생들의 투쟁을 취재하던 《신아일보》기자 10명과 《한국일보》기자들을 한적한곳으로 끌고가 폭행을 가함으로써 현장취재활동을 방해하였을뿐만아니라 부상을 입히는 만행을 감행하였으며 11월 11일 《조선일보》기자는 괴뢰공무원에게 끌려가 위협당하는 폭행을 당하였다.

놈들은 11월 28일 《신아일보》사를 불의에 습격하여 온갖 행패를 부리면서 《기사를 취소하라, 그렇지 않

으면 륜전기를 때려부시겠다》는 폭언과 협박을 가하였다.

또한 《동아방송》기자가 1971년 《대통령선거》때 신민당의 《대통령후보》였던 김대중에 대한 취재활동을 했다고 하여 그를 《경찰서》에 구속하고 《심문》하는 만행을 가하였다.

한편 박정희괴뢰도당은 언론출판기관들을 반동어용기관으로 만들어놓고 《반공》선전에 리용하려고 책동하였다.

지어 박정희역도는 저들의 심복의 하나인 괴뢰《국회의원》의 글을 《조선일보》12월 17일호에 실음으로써 신문지면을 더럽힌데 대하여 항의한 기자들을 해고하는 횡포를 감행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일본잡지《세까이》는 박정희역도의 언론어용화에 대하여 폭로하면서 《지금은 어쨌든 이북과 일본을 욕하면 충성심이 있는것으로 된다. 일본에 있는 특파원들도 될수 있는대로 그런것만 추려서 써보낸다. 기사의 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그 내용이 사실인가고 물어보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할수 없지 않는가고 대답한다.

모든 신문보도수단들이 어용화되여 괴뢰들의 통제속에 장악되여있다.》라고 썼다.

이리하여 피비린내나는 파쑈총칼아래에서 진실을 말하고 여론을 대변하여야 할 수많은 언론인들이 붓을 꺾이우고 입을 틀어막히운채 무참히 쓰러지고있으며 남조선은 말그대로 《언론의 폐허지대》로 되고있다.

남조선을 다녀간 외국기자는 《남조선언론인들의 입에는 유신독재의 자갈이 물려져있고 그들의 손과 발에는 정보사찰의 족쇄가 채워져있다.

세상에 남조선과 같이 민주본권의 하나인 언론이 완전히 초토화된 그러한 암흑지대는 없다.》라고 폭로하였다.

종교인들에 대한 탄압; 박정희악당은 또한 종교인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1973년 10월초부터 더욱 앙양된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대중적인 반파쑈민주화투쟁에는 특히 남조선종교인들이 광범히 참가하였다.

남조선의 광범한 종교인들은 반《정부》구호를 들고 시위, 성명서발표, 기도회, 롱성, 단식투쟁, 모금운동, 삭발투쟁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박정희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며 참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정의의 투쟁을 완강하게 벌렸다.

남조선종교계를 비롯한 광범한 사회층이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계투쟁에 합세하자 극도로 당황한 박정희역도는 종교인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놈들은 이른바 《긴급조치 1, 2호》를 공포한후 며칠 안되는 사이에도 민주주의적권리와 로동자각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온《한국도시산업선교협회》에 망라된 종교인들을 비롯하여 11명을 체포구금하고 2월 7일에는 그들에게 10～15년의 징역형을《선고》하였다.

2월 16일과 3월 6일 자기의 교리를 지키며 파쑈적인《긴급조치》를 철회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싸운 5명의 종교인들과 3월 2일에는 개헌을 요구하는《100만명서명운동》을 발기하고 그것을 적극 추진시켜온 남조선《민주통일당》최고위원인 장준하를 비롯한 6명의 기독교목사들에게 민주주의를 회복하라고 한 구호를 웨쳤다 하여 5～15년까지의 징역형과 자격정지를《선고》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3월 28일 파쑈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여나선 《기독교장로회 서울 제1교회》목사 박형규, 전도사 권호경을 비롯한 15명의 종교인들을 《내란음모사건》이란 죄를 들씌워 1973년 7월부터 무참히 고문하여오던끝에 징역 12년까지 구형하였다.

4월 18일 놈들은 공화국북반부의 평화적통일방안과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지지하여나선 일본국제기독교대학 조교수 김영조를 비롯한 5명의 종교계인사들을 체포하고 《통일전선형성》과 《지하망조직》이라는 터무니 없는 죄명을 들씌워 검거하였으며 종교재단의 대학인 연세대학의 학생들에게까지 같은 루명을 들씌워 10년까지의 징역을 구형하였다. 지어 기독교 목사들이 기도회에서 박정희파쑈테로통치를 합법화한《유신헌법》의《개헌》을 요구하는 청문서를 나누어주었다고 하여 6명의 신교목사들을 비공개《군법회의》에 넘겨 10년에서 15년까지의 징역을 들씌웠다.

놈들은 교회가 정치문제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며 기독교인들의 반《정부》투쟁을 탄압할 목적밑에 7월 6일에는 천주교 주교 지학순이 제놈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말을 하였다 하여《민청학련사건》에 관련시켜 15년형을 언도하였다. 지학순주교의 교구인 남강원도 원주와 그 주변에서 교포활동을 하고있던 2명의 아일랜드신부와 3명의 종교인들도 잡아가두었다.

11월에는 미국인천주교신부가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하여 항의자들과 함께 시위를 하다가 3명의 남조선주민과 함께 체포되였다.

이와 같이 박정희역도는 종교인들과 지어 외국인 선교사들까지 닥치는대로 잡아가두고 살인재판에 넘기는 파쑈선풍을 끊임없이 벌렸다.

괴뢰《국무총리》김종필역도는 11월 19일 종교인들이 반《정부》선동과 저들의《권능》을 부인하면 심판하겠다고 지껄여댔으며《외무부장관》이란 놈은 외국의 종교인들이 반《정부》시위를 벌리는 경우에는《추방명》을 내리겠다고 위협하였다.

박정희역도의 악랄한 탄압책동에 대하여 남조선의 기독교목사인 함석헌은 《오늘과 같은 혹독한 탄압은 내평생》에 없었고《전세》에도 없었고 《후세》에도 없을것이라고 하면서 《일제때 왜놈들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굴지 않았다》고 통탄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종교단체들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갖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일본잡지 《세까이》3월호에서는 《기독교교회인사들도 20명이상이 24시간 활동을 봉쇄당하고있다. 설교내용은 설교에 앞서 보고할것이 강요되고있으며 설교할때에는 〈중앙정보부〉의 속기담당자가 몇명씩 동석한다…속기를 하는것은 공개적인 협박으로 된다》라고 폭로하였다.

같은 잡지 4월호는 남조선기독교주간잡지 편집부장을 자기 주간지에 투쟁에 일며선 남조선종교인들과 청년학생들을 동정하는 내용을 실었다 하여 구속하고 갖은 악형과 고문을 감행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각계인사들에 대한 탄압; 남조선에서 각계각층 인사들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권리마저 박탈당하고있으며 박정희도당의 군사파쑈적질서와 강제적규률의 사소한 저촉도 가혹한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괴뢰《중앙정보부》악당들은 10월 23일《민주통일당》이 《유신》독재철페와 개헌을 주장한다고 하여 이당 본부를 불의에 습격수색하여 물건을 압수하고 이 당의 부간사를 비롯하여 8명의 인사들을 체포하였다.

이에 앞서 3월 16일에는《민주통일당》당원 5명에게 《긴급조치》를 비방하였다는것을 리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까지를 들씌웠다.

박정희도당은 신민당이 민주화를 위하여 벌리려는 원외투쟁을 강권으로 막아나섰다.

11월 15일 신민당소속 괴뢰국회의원 54명이《개헌만이 살길이다》, 《유신헌법페지하고 민주헌정회복하자》라는 구호를 들고 시위운동에 나

서려고할 때 이에 대비하여 괴뢰경찰 600여명을 괴뢰국회 의사당 주변에 배치하고 삼엄한 경계를 폈다.

정문에는 방독면과 중화력기재로 무장한 괴뢰기동경찰관 150여명이 늘어섰고 그 뒤로 사복경찰이 늘어서 완전봉쇄하였으며 특히 신민당《의원》54명에 해당한 호송차와 특무들, 기동대원들이 매 사람을 담당하여 신민당《의원》들이 출입구밖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심지어 신민당 당수를 에워싸고 원외활동을 못하도록 제압하였다.

12월 27일에는 야당성원들이 《개헌추진경상북도지부》를 내오기 위해 대구에 머무르면서 파쑈적인《유신헌법의 개정》을 위한 운동을 벌리고 있을 때 100여명의 괴뢰경찰들과 깡패들을 내몰아 신민당 당수를 비롯한 이 당 성원들에게《개헌운동》을 하지말것을 강요하며 위협하였다.

박정희도당의 야수적폭압만행은 변론에 나선 법률가들에게까지 미치였다.

놈들은《긴급조치》위반혐의를 쓰고 부당하게 구속처형된 지학순주교의 변호인이 10월 지학순의 부탁을 받고 그의 옥중편지를 전하였다 하여 탄압하였으며 변호사 강신옥에게도 그가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관련 인사에 대한 변호에서 이《사건》을 날조하여 파쑈적인《긴급조치》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것을 론박하자《법정모욕》이라는《죄》명을 씌워 징역 10년,자격정지10년을 적용하였다.

연세대학 력사학교수, 신학대학 학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대학교수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였다 하여 살인재판에 회부되였으며 11월 27일에 결성된 《민주회복국민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을 지지하여 서명한 지식인들에게 보복을 안기였다.

박정희파쑈악당은 사회의 선각자들인 적수공권의 문학인들과 지성인들까지 터무니없는《죄》명으로 령장없이 체포투옥하였다.

2월 파쑈통치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평화통일을 주장하여 싸워온 남조선의 소설가들과 문학평론가, 경의대학 교수, 중앙대학 강사 등 5명의 인사들을 이른바 《간첩단》이라는 딱지를 붙여 체포투옥하였다.

더우기 남조선파쑈도당은 이들이 일본에 있는 김 아무개의 지령을 받고《간첩》활동을 하였다고 하면서 우리 공화국과 억지로 관련시켜보려는 파렴치한 행동까지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10월 18일《자유실천문인협의회 101인 선언대회》에서 문학인들이 부정부패가 만연되여있는 남조선사회의 현실을 폭로하였다 하여 검거소동을 벌렸다.

뿐만아니라 남조선반동관료배들의 부정부패행위를 폭로한 시를 썼다는 리유로 시인 김지하가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박정희파쑈악당은 무슨《간첩단사건》이란것들을 날조하여 남조선에서 반파쑈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지향하여 싸운 각계인사들에 대한 야수적인 탄압만행을 감행하였다.

11월 파쑈교형리들은 남조선의 정계, 경제계, 사회계, 학계, 군부를 비롯한 각계인사들과 9월 이른바《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서울에 온《민단》도꾜본부 부단장 등 18명을 부당하게 체포하고 야만적인 고문을 가하던끝에 그들이 우리와 무슨 관계나 있는듯이《사건》을 꾸며내여《간첩》이란《죄》명을 씌워 악랄하게 처형하였다.

11월 5일《재일한국인정치범구원위원회》와《민단》도꾜본부 단장은 박정희도당이 날조한《간첩단사건》과 관련하여 발표한 성명에서 이것은 그들이 종래 이러한 사건을 날조할 때마다 써온 상투적수법이며 특히《8.15저격사건이후 더욱더 앙양되고 있는 각계각층의 민주화투쟁을 외곡하며 그를 탄압하려는것이다》라고 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저주와 배격을 받고 궁지에 빠진 박정희반역집단은 제놈들의 죄행이 여론화되는것을 막기 위하여 이른바《무고 및 명예훼손시범일제단속》놀음을 벌리고 제놈들에게 항의한 항의문건까지 뒤져 무고한 주민들을 마구 구속하며 심지어 옥중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표시하는 사람까지 체포하였다.

놈들은《갑호경계령》, 《비상근무령》 등을 내리고 주민들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고 야간통행금지시간을 위반한 주민들까지 마구 가두어넣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실로 오늘 남조선은 살기어린 감옥으로 전변되였다.

일본잡지《세까이》7월호는 《군사재판에 걸린〈죄수〉가 있는 감방만이 군사감옥이 아니다.

한국사회 전체가 사형수를 넣는 군사감옥이다.

군사재판과 군사감옥에는 여하한 법도 통하지 않는다》고 썼다.

《반공》소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서 〈반공〉은 인민들을 탄압하며 정치적반대파를 제거하는것으로부터 전쟁소동을 일으키며 동족상쟁을 고취하는데 이르기까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모든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만병통치의 약〉으로 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387페지)

남조선에서《반공》은 인민들을 탄압하고 정치적반대파를 제거하며 분렬을 영구화하고 동족상쟁을 고취하며 매국배족적책동을 감행하는 등 미제와 그 주구들의 모든 범죄행위를《정당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사상적수단으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박정희괴뢰도당은《정권》을 가로챈 첫날부터《반공》을 《제1국시》로 선포하고 《반공》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책동을 분별없이 감행하였다.

놈들은 미제의 부추김밑에 《반공》의 구실로《중앙정보부》를 조작하고 《반공법》을 만들어냈으며 4.19인민봉기후 악법으로 규탄받고 폐지되였던 이른바《국가보안법》까지 다시 제정공포하였다.

한편《반공》의 구실밑에 경찰, 사법 등 폭압기구들을 대대적으로 늘이였다.

남북대화후에도 《유신헌법》이요, 《통일주체국민회의》요 뭐요 하면서 《반공》통치체제를 강화하였고 괴뢰군을 중심으로 하여《반공》사상을 집요하게 고취하였으며 자라나는 새세대들에 대한《반공》교육에 미쳐날뛰였다.

1974년에 들어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인민들에게 미치는 공화국북반부의 영향력을 막고 파쑈독재를 강화하여 장기집권하며 민족분렬을 영구화하고 동족상쟁을 고취하려는 흉악한 목적밑에《반공》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른바《승공행동강령》이라는것까지 꾸며내여 남조선

도처에서 련일《반공강연회》,《반공웅변대회》,《반공전시회》,《반공궐기대회》등을 벌려고 온갖 허위를 날조하고 사실을 외곡하여 우리를 미친듯이 헐뜯고있으며 해외에까지 싸다니면서 악의에 넘쳐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을 일삼았다.

심지어 박정희역도자신이 6월 25일에 어린학생들을 불러다놓고 흑백을 전도한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허위날조로써 우리를 헐뜯던 나머지 공산주의자들과는《같이 살수 없다…피는 같다해도…우리가 살자면 싸워서 이겨야 한다》느니 뭐니하고 떠들어대면서 동족상쟁을 고취하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의《반공》광증이 어느정도에 이르렀는가하는것은 7월 괴뢰《국무총리》김종필놈이《…승공통일의 기반을 굳혀 하루빨리 실지를 되찾는데 노력해야 할것이며》,《승공통일이 조속히 이루어져 이북의 시장, 군수 임명식이 북한에서 열리게 될 날이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공화국북반부땅에 저들의《시장》,《군수》까지 임명할 잠꼬대와 같은 망상을 늘어놓은데서 더욱 명백히 드러내보였다.

특히 1974년에 놈들의《반공》책동에서 주목되는것은 각종 사건을 날조하여《남침위협》을 떠벌이고 우리를 중상비방하며 전쟁준비를 다그쳤으며 2중 3중의《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애국적인민들과 학생들 지어는 종교인들에게까지《공산주의자》라는 감투를 씌워 마구 탄압하는《반공》광란극을 벌린것이다.

박정희호전분자들은 전쟁준비를 다그치면서《서해사건》,《동해사건》등 각종 사건을 꾸며 군사적도발책동을 계획적으로 감행하고 이를 구실삼아《남침위협》소동을 대대적으로 벌렸다.

2월 15일 박정희악당은 면밀한 계획밑에《서해사건》을 날조하고《반공》소동을 벌렸다.

이날 놈들은 서울을 비롯한 122개의 지방도시들에서 수십만명의 인민들을 강제로 끌어내여 이른바《민방공훈련》소동을 벌리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서해 우리측 연해에 어선으로 가장한 2척의 간첩선을 침입시켜 정탐행동을 감행하다가 우리측에 나포되였다.

이 간첩선침입사건이 곤경에 빠질때마다《남침위협》을 운운하면서 날조하는《반공》모략극이라는것은 1월하순 남조선에 기여든 미국무차관보 잉거솔이 박정희역도와 가진 밀담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잉거솔은 박정희도당이 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내외여론을 격동시킬수 있는 사건이 요망된다》느니 박정희역도에게 불린 남조선인민들의 원성을《휴전선에로 유도하며 인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로 전화시켜야 한다》느니 하면서《모종의 충격적인 사건》을 유발시키는 경우 미제가 그를 뒤받침해줄것이라고 떠벌였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우리측연해에 침입하였다가 나포된 적《함선》의 선장은《괴뢰중앙정보부》로부터 남조선괴뢰도당이《남침위협》을 떠들고있으나 남조선인민들이 잘 납득하지 않으므로 보다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납득시켜야 한다는《출항취지》를 받았다고 자백하였다.

이것은《남침위협》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악랄한 모략극이라는것이 명백하였다.

사건의 흑막이 세상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괴뢰도당은 이 사건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켜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놈들은 간첩선이 우리측에 나포되자마자 우리가《어선》을《무장공격》하였다고 하면서 발광적인 모략선전에 열을 올리면서 서울, 부산, 인천 등 남조선 각지에서 인민들을 강제로 끌어내여《궐기대회》,《반공강연회》《가두시위》까지 벌려놓고 학생들속에서《웅변대회》,《승공 혁신교육회》를 진행하는 소동을 벌렸다.

이러한《반공》소동에 대하여 부산의 한 대학교수는《6.25직전에 리승만도당이 벌린 〈반공〉소동을 그대로 방불케 한다》고 하면서《전민족이 통일의 열망으로 불타고있는 때에 동족상잔의 비극을 빚어내려고 하고있으니 박정희도당보다 더 지독한 만고역적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고 격분을 토로하였다.

《대한적십자총재》란놈은 2월 20일 국제적십자위원회에《어선》을《송환》해줄것을《요청》하였으며 5월 8일 괴뢰《보건사회부장관》놈은《어부》들을《송환하는데 협력》해줄것을 국제적십자위원회 위원장에게 당부하는 등《서해사건》의 진상을 외곡하여 국제적여론을 환기시키려고 책동하였다.

6월 28일에는 무장함선과 전투기를 동해의 우리측 연해와 상공에 침입시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다가 우리측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격침되고 저들의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도발행위가 내외에 폭로되자 이를 가리워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하였다.

놈들은 저들의 적대적기도가 일격에 분쇄되자《어로저지선》남쪽에서《선체》와《유지품》을《수색》하겠다고 허황한 놀음을 벌렸으며 격침당시의 함선의 위치가《동해군사분계선남쪽》인 그것도《공해》상에서 침몰되였다고 거짓을 꾸며 퍼뜨렸으며 격침된 무장함선의 임무가 어로작업을 하는 어선을《보호》하는것이라고 떠들었다.

또한 6월 30일에는 무장함선의 격침에 대하여 오히려《외교활동》을 통하여 그 누구의 소행을 널리 선전하겠다고 지껄였으며 지어 박정희역적은《정부대변인》과 그의 어용단체들을 통하여 사로잡은 도발자들과 시체를 돌려보내줄것을 요구하는《성명》이요《담화》요 하는것을 발표케 하였으며 국제적십자사와 유엔기구를 통해 이의《송환》과《반환》문제를 성사시키겠다고 줴쳤다.

7월 1일에는《성명서》라는것을 유엔성원국대표단과 유엔언론기관에 배포하면서 우리를 모해하기 위한 계획적인 모략소동을 벌렸다.

6월 29일 부산시, 경상북도, 강원도 등지에서 8만여명의 주민들과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시켜 허위와 모략으로 일관된《궐기대회》라는것을 벌려고 우리를 악랄하게 비방중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책동은 내외인민들의 강력한 규탄을 받았으며 저들의 정체는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른바《서해사건》과《동해사건》을 일으켰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박정희괴뢰도당은 이해 유엔총회에서의 조선문제토의와 미제의 침략두목 포드의 남조선행각을 앞두고 전선서부 비무장지대에서의 그 무슨《땅굴문제》라는 또하나의 모략극을 날조하여 우리를 헐뜯는 소란을 피웠다.

놈들은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완전히 허위날조한《반공》기만극을 꾸며내고《기자회견》이요,《대변인성명》이요 하는 따위의 광대놀음으로《땅굴문제》에 대하여 요란하게 떠들어오다가 11월 17일에는 이른바《안보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제놈들의《대사》들까지 내몰아 이《문제》에 대하여 널리 알리겠다고 불어대는 한편 군사분계선일대와 해안선에서《군사적경계》를 강화하겠다고 고아대였다.

11월 19일에는 괴뢰《국회》를 열어놓고 그 무슨《메쎄지》요,《결의안》이요 하는것들을 꾸며내여 내돌리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제소》하겠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댔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켜 남조선인민들과 세계여론을 속이고 미제상전으로부터 몇자루의 무기

와 명분의 딸라를 더 구걸하여 밑뿌리채 흔들리는 군사파쑈독재 《정권》을 부지하려고 날뛰였다.

이밖에도 동서해안과 군사분계선상에서 군사도발을 일으키고 《남침위협》을 떠들었다.

5월 5일에는 중부전선이남지역에 우리가 쏜 포탄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인민들에게《반공》사상을 고취하였으며 5월 21일에는 전라남도 목포앞바다에 있는 추자도에서 무슨《무장간첩》을 발견하고 《사살》했다느니, 《수색중》이라느니 하는 거짓을 꾸며 발표하였으며 7월 20일에는 서해어청도 서쪽에서 이른바《북의 간첩선》을《격침》시켰다는 허위날조로써 우리를 헐뜯는 비렬한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박정희역도는《남침위협》을 운운하면서《승공》을 위해서는 《실력을 배양》하여《힘의 우위를 차지》해야 하며 나라의 통일은《승공통일》이여야 한다고 줴치면서 남조선전역에서 전쟁분위기를 대대적으로 고취하며 나라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동족상쟁을 추구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실력배양》을 웨치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림전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신형무기들과 작전물자들을 남조선에 계속 끌어들이고있으며 미제침략군과 함께 륙지와 바다와 하늘에서 공화국북반부를《적》으로 가상한 대규모의 전쟁연습을 매일과 같이 벌리며 우리를 반대하는 범죄적인 군사도발을 쉬임없이 감행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있는 애국적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북조선의 침입〉으로 묘사하며 남조선 현위기의 원인이 〈북으로부터의 위협〉에 있는듯이 떠벌이면서 요란한 반공소동을 벌리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196페지)

남조선파쑈도당은 상투적으로 써오던 수법 그대로 또다시 우리를 걸고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고있는 반파쑈민주주의운동을 압살하며 위기에 직면한 파쑈독재체제를 부지하기 위하여《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 《간첩단사건》, 《저격사건》등 각종 사건을 날조하여《반공》소동을 소란하게 벌렸다.

4월 3일《긴급조치 4호》로써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을 조작한 박정희파쑈도당은 4월부터 몇달동안에만도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인민들 4천명을 검거투옥하여 전대미문의 야만적인 고문을 가하던끝에 집단적으로 중형과 극형을 들씌우면서 매개《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련결시켰으며 그중 수많은 애국적학생들에게 《공산주의자》라는 감투를 씌우고 그들을《내란죄》, 《대역죄》로 몰아 사형에 처하였다.

이 사건이 어떻게 꾸며졌는가 하는것은 남조선괴뢰검찰관이 이《사건》의 지도성원으로 알려진 류인태에게 재판장에서《너희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닌것을 나도 잘 알고있다.

그러나 국가적리익을 위해서…공소장에 있는대로 시인해주면 죄과는 묻지 않겠다》고 강요한 사실에서 그 진상의 허위성이 낱낱이 드러났다.

박정희역도의 이러한 사기행위에 대하여 7월 13일 일본《교도》통신은 《원래 민청학련사건 그 자체가 애국적립장으로부터 박정권의 부패상을 밝가놓은것이다.

그것을 공산주의적활동으로 보고 처분하고있는것은 부당하다.》고 하였으며 7월 19일 미국신문《로스안젤스 타임스》는《박이 자기의 모든 정치적 적수를 공산주의와 련결시키려고 하는것은 황당한 주장이며 정직하지 못한 점에서 모욕적인 소리이다.》라고 규탄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에서 조국통일을 요구하며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투쟁이《북의 지령》에 의한것처럼 날조하고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박정희살인악당들은 그 무슨《간첩단사건》이라는것을 날조하여 3월에는 통일혁명당 경상북도위원회와 그 산하 당조직성원들을, 4월에는 문필활동을 벌려온 소설가들을, 5월에는 일본의 전혹까이도대학조교수를, 그리고 서울, 대전, 전주 등지를 중심으로 애국적인 반파쑈구국활동을 벌려온 통일혁명당 일부 조직성원들과 애국자들을《간첩》이라는 루명을 씌워 체포구금하였다.

11월에는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애국적반파쑈구국투쟁을 벌려온 남조선의 각계인사들과 《민단》계인사들 18명을 부당하게 체포구금하고 야만적인 고문을 가하던 끝에 우리와 무슨 관계나 있는듯이《사건》을 꾸며내여 《간첩》이라는《죄명》을 씌워 악랄하게 처형하였다.

심지어 남조선에서 파쑈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여나선 천주교 주교와 기독교 목사들에게까지도《용공》의 감투를 씌웠다.

이외에도 1973년 7월에《기소》했던 고려대학교내《검은 10월단》사건 관련자들과 1974년 6월에《간첩활동죄》로 검거한 서울대학교 김승효재일교포학생에 대한 재판놀음까지 벌려놓고《반공》소동을 벌렸다.

또한 박정희살인악당은 인민들의 시선을 딴데로 돌리기 위하여 우리를 걸어 있지도 않는 그 무슨《사건》을 류포시켰다.

4월 18일 첩보모략기구인《중앙정보부》는 일본과 남해안선을 거점으로 한《간첩단》의 3개조직망을 적발하고 5명의 《간첩》을 체포하였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이를 계기로 3개《간첩》조직망에 고등교육을 받은 인테리들과 해안선지리에 밝은 현지주민들이 망라되여있다느니, 이들이 남조선의 종교계, 학원, 농어촌 등에 광범히 침투하여 무엇을 했다느니 하고 떠들어대며 지어 이들이 우리와 어떤 련계밑에 활동했다는 요언을 퍼뜨리고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합리화하고 인민들을 위협하는 책동을 벌렸다.

5월 14일에는 무슨 《간첩사건전모》라는것을 날조하여 그 누구의 《지령》을 받은《간첩》이 남조선에서《무장소조를 조직》하였다고 하면서《반공》선전에 열을 올렸다.

5월 9일에는 남조선에 있는 일본《외교사무소》들과 일본인 거주자 및 려행자들이 우리의 《테로행동의 대상》으로 되고있다는 거짓을 꾸며 서울주재 일본《대사관》에《통고》하는 정치적사기행위를 꾸며냈다.

남조선반동통치배들의 반공모략책동은 8월 15일 박정희역도가 꾸며낸 자기 녀편네를 살해하는 테로사건인 《저격사건》을 계기로 극도에 달하였다.

이른바《저격사건》이란 박정희도당이 우리의 공명정대한 평화통일방침을 거역하고 민족분렬을 영구화하며 저들의 장기집권야망을 실현하여보려던 온갖 책동이 남조선인민들의 세찬 반항과 세계여론의 규탄에 부딪쳐 파산을 면할수 없게 되자 내외인민들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기 위하여 꾸며낸 정치적모략극이다.

놈들은《저격사건》을 꾸며냄으로써 이《사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우리와 총련을 걸고들어《반공》모략선전을 미친듯이 벌렸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지난 8월 15일에 있은 〈저격사건〉에 대한 책임도 우리와 총련에 넘겨씌워보려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허황하기 짝이 없는 책동입니다.》 (《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파업에 대하여》, 단행본, 21페지)

박정희파쑈악당은 제놈들이 날조한《저격사건》을 억지로 우리와 해외교포단체인 총련과 결부시키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반공》모략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놈들은 날로 장성강화되는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의 예봉을 공화국과 총련에로 돌리며 제29차유엔총회를 앞두고 있지도 않는《남침위협》을 떠들면서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과 나라의 분렬을 고정화하려는《두개 조선》로선을 관철하는데 유리한 정세를 마련하여보려고 비렬하게 책동하였다.

박정희역도는 8월 27일 여당패거리들을《청와대》에 모아놓고 제놈이 등장인물로 되였던《저격사건》을 들고나와《북의 도발》이니 《공산주의자들의 지령》이니 하는《반공》나발을 불어댔다.

8월 22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기간에 서울과 지방들에서는《중앙정보부》특무놈들과 괴뢰경찰까지 내몰아 집집마다 들추어가며 련일 수만명의 군중을 강제로 끌어내여 관제《행사》판을 벌려놓고 우리를 비방중상하는《반공》소동을 벌렸다.

8월 27일 서울에서, 28일에는 인천, 부산, 광주, 대구, 청주에서 이른 새벽부터 주민들을 동원하여 무슨《범국민대회》란것을 벌렸으며 8월 하순에 들어와서는 학생들과 어용로조, 어용녀성단체, 종교단체들을 끌어내여《궐기대회》, 《성토대회》란것을 벌렸다.

거기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악의에 찬 중상비방과 함께 일본당국에 총련을 해체탄압하며 우리 무역선《만경봉》호의 입출항을 금지할것을 《요구》하는《결의문》이요, 《편지》요 하는것을 채택하는 망동을 부렸다.

박정희파쑈악당의 이러한 광란적인《반공》소동에 대하여 일본잡지《세까이》 11월호에서는《8. 15를 전후하여 박정권은 100만이상의 사람들을 서울에 강제집합》시키고《농촌에서 끌어온 사람들을 위해서는 려비까지 지불해주었다》고 폭로하였다.

남조선각지에서 벌어진《반공》광대놀음이 놈들의 계획적인 모략책동의 한고리로서 꾸며진 철저한 관제행사였다는것은 놈들이 9월 2일《반공련맹》, 《재향군인회》등 39개의 어용단체들로 이른바《8. 15사건진상규명범국민협의회》라는것을 조작하고 16일까지《시위와 규탄대회 등을 가지며 일본각계에 보내는 편지를 발송하는 범국민운동을 벌린다.》고 모략책동계획까지 발표한 사실이 똑똑히 말해주었다.

또한 그것은 《자연발생적》이라고 한 시위들을 괴뢰파쑈악당들이 직접《지휘》했다는 사실과 이《반공》광대놀음이 반박정희투쟁으로 번질가봐 반파쑈민주화투쟁에 나섰던 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교활하고 추악한 방법으로 군중을 동원시킨데서 명백히 드러났다.

《저격사건》을 전후하여 놈들은 20여회에 걸쳐 우리에 대한 허위날조와 중상모략으로 일관된 추악한 삐라를 고무풍선에 띄워 개성, 황해남도, 강원도들에 날려보냈으며 신문, 방송, 통신 등 어용출판보도물을 동원하여 우리를 헐뜯고 남북대립감정을 고취하였으며 괴뢰《문교부》는 각급 학교들에《8. 15저격사건》을 계기로《반공》교육을 더욱 강화할것을 지시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8월 28일에 열렸던 3차적십자실무회의에서까지 남북으로 흩어진 겨레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문제토의와는 인연도 없는《저격사건》을 들고나와 회담장을《반공》소동마당으로 전변시키려고 책동하였다.

이리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가하고있는 제놈들의 파쑈적탄압책동과 전쟁도발책동을 정당화하고 폭압소동을 규탄하는 내외여론을 무마하며 남북간의 대결을 고취하고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킴으로써 민족분렬주의정책을 합리화하려 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탄압하고《민단》산하 동포들속에서 높아가는 반박정희기세를 억누르고 조일 두나라 인민들간의 친선관계발전을 가로막으려고 책동하였다.

놈들은《민단》계 일부 깡패들을 동원하여 오사까에 있는 총련지부사무실과 동포상점을 습격, 파괴하고 동포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지어《대한교육련합회》등 어용단체를 통하여 국제기구들에 총련해체를《요구》하는《결의문》과 《호소문》을 보내고 미국, 남부웰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 살고있는 교포들을《시위》에로 내모는 등 제놈들의《반공》, 반총련 소동을 국제적으로 확대시키려는 음모까지 꾸몄다.

파쑈교형리들은 일본정부의 손을 빌어 총련을 탄압해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다.

놈들은 일본대사관과 령사관을 《습격》하고《항의놀음》에 다이나마이트, 화염병과 같은 폭발물을 사용하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반공》우익분자들을 내세워 할복자살을 기도하게 하며 손가락을 자르게 하는 등 추악한 놀음을 벌렸다.

9월 2일 다나까정부에 보낸《외교각서》에서는 우리와 총련을《저격사건》에 제멋대로 관련시키며《민단》산하단체까지도 포함한 재일조선인 단체들에 함부로《범죄집단》이요 뭐요하는 딱지를 갖다 씌우려들면서 그 활동을《규제》하고 《단속》하며 《제압》해달라고 애걸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의《반공》소동에 발맞추어 일본반동지배층은 19일과 20일에 자민당 부총재 시이나를《특사》로 남조선에 파견하여 다나까의《친서》와 총련을 규제할데 대한《구두설명》을 기록한《외교문서》를 박정희역적놈에게 넘겨주었다.

이른바《저격사건》을 조작함으로써 제놈들에게 쏠리는 남조선인민들의 증오와 저주의 눈길을 딴데로 돌리게 하며 세계여론을 오도해보려는 흉악한 기도밑에 우리와 총련을 걸어 온갖 비렬한 모략책동을 벌려온 박정희역도는《저격사건》의 내막이 더욱더 세상에 드러나게 되자 12월 20일《8. 15저격범》으로 내세웠던 문세광을 죽여버렸다.

박정희살인악당은 사형이 확정된지 3일만에 서둘러 문세광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면서 제놈들이 꾸며낸 모략극을 합리화해보려는 발악적시도로써 사형장에서 문세광이《총련에 속아 과오를 범했으므로 사형당해 마땅하다》라고 말한듯이 다시 거짓을 퍼뜨렸다.

이것은 놈들의《반공》소동이 얼마나 비렬하고 간악한 수법으로 진행되였는가 하는것을 실증하여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반공》교육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괴뢰문교부는《유신교육체제》를 확립하는것이 금년도 목표라고 하면서 학생들에게《반공》에 대한《실감있는 교육》을 준다는 구실밑에 지난 조국해방전쟁 때 악랄한 만행을 감행한자들을《반공》전담교원으로 학교마다 배치하였다.

6월 5일에는 새로운《반공교육강화방안》을 공포하고 이에 따라 각급 학교들에서의《반공교육을 확대체계화》하며《반공교과서》도 그 무슨《북으로부터의 침투》니《도발》이니, 또 무슨《사건》이니 하는 등의 온갖 허위날조로써 더욱 악랄하게 뜯어고치려고 책동하였다.

또한 학생들속에서 《반공》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하여《일선방문》을 조직하며《승공영화》를 통한《승공교

욱»을 강화하면서 «반공»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웅변대회», «승공혁신교육회»등을 대대적으로 벌리였다.

박정희악당은 «반공»을 부르짖는데서 종교를 유일한 무기로 전면에 내세우고 그것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속에 민족자주의식과 투쟁정신을 마비시키며 남북대결과 동족상쟁을 고취하였다.

악평높은 «반공» 단체인 «십자군련맹»은 1974년을 «반공» 정신무장의 해로 정하고 군사분계선가까이에 집중되여있는 «반공» 교회를 해안지방과 섬지역에 확대하였으며 «반공» 교회수를 배로 늘이고 여기에 2억 5천만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놈들은 «반공계몽기간»을 설정하고 괴뢰군전방부대를 비롯한 남조선각지에서 포스타 «반공사진전시회»를 벌리면서 «반공» 선전을 강화하였다.

박정희도당은 이 모든 «반공» 소동을 지휘하기 위하여 «공화당»을 비롯한 괴뢰조직들을 «반공» 일색으로 «전환»시키는 한편 대외적인 «반공» 모략선전을 위한 이른바 «의원외교»에 졸개들을 보내며 3월에 서울에서 어중이떠중이들이 한데 모인 무슨 «국제승공련합회창립기념식»이란 광대놀음을 벌려놓고 우리를 공공연히 비방중상하며 «승공사상무장에 분발하겠다»느니 하는 도발적인 망발을 늘어놓았다.

실로 박정희괴뢰도당이 악랄하게 벌리고있는 «반공» 책동은 남북대결과 동족상쟁을 고취하고 «승공통일»의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매국배족행위로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요구하는 전체 조선인민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와 함께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있는 외세는 일본군국주의자들입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저들의 상품시장으로, 식민지로 만들려는 목적밑에 미제의 〈두개 조선〉 정책에 적극 추종하고있으며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습니다.» («다오메정부기관지 〈다오엑스프레스〉 사장과 한 담화», 단행본, 18페지)

미제의 «새로운 아세아정책»에 따라 또다시 남조선에 기여들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 한해동안 박정희괴뢰도당과의 반동적결탁을 강화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으며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적극 추종하여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각방으로 방해하였다.

남조선괴뢰들과의 반동적결탁의 강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책동에서 특히 주목되는것은 멸망의 막다른 위기에서 발악하는 박정희괴뢰도당과의 반동적결탁이 어느때보다도 강화된 사실이다.

미제의 조종밑에 꾸며진 범죄적 «한일조약»을 계기로 남조선에 대한 재침략의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서울 한복판에 틀고앉은 «주한일본대사관»을 비롯하여 «총령사관», «령사관» 등 현지지배기구들과 «한일정기각료회의», «한일협력위원회», «한일의원간친회»,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를 비롯한 상설적인 침략기구들을 통하여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예속과 정치적지배를 실현하고있다.

놈들은 이해에도 «한일의원간친회» 제3차총회와 «제6차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 «한일어업공동위원회» 등 여러가지 모의들을 벌려놓고 정치, 외교, 경제, 문화, 군사 등 각 분야에 걸쳐 박정희괴뢰도당과의 결탁을 강화하고 남조선괴뢰들의 분렬주의적책동을 부추기기 위한 일련의 음모들을 꾸미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또한 «한일대륙붕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침략적이며 매국적인 «협정»들을 박정희매국도당과 체결하고 남조선에 대한 지배와 략탈의 지반을 확대하기에 미쳐날뛰였다.

이와 함께 놈들은 남조선 «중앙정보부»와 «주일한국대사관», «령사관»의 앞잡이들 그리고 저들이 남조선에 들여보낸 특무들을 통하여 남조선괴뢰들의 «정책수립»과 그 집행정형을 감시하고 장악통제하는 한편 우리와 총련을 반대하며 남조선인민들과 사회 각계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말살하려는 남조선괴뢰도당의 «반공» 모략음모에까지 끼여들어 그들의 범죄행위를 적극 비호조장하였다.

교활하고 음흉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신식민주의적침략수법에 따라 마치도 남조선괴뢰정권과 «대등»한 립장에 있는것처럼 때로는 수그러지는듯한 교활한짓까지 해가면서 박정희괴뢰도당이 고의적으로 꾸며낸 모략사건들에 맞장구를 치며 그들의 음모를 모든 힘을 다하여 감싸주고 두둔해주었다.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간의 반동적결탁은 놈들이 미제의 «두개 조선» 정책실현에 발벗고 나선데서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미제와 함께 이른바 «두개 조선»유엔동시가입안을 앞장서 들고나왔던 다나까정부의 뒤를 이은 미끼정부는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남조선강점 «유엔군»을 철수시킬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제안을 각방으로 방해하였으며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과 «두개 조선» 조작을 위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음흉한 책동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악랄하게 날뛰였다.

이것은 남조선을 마치 저들의 «보호지역»으로 여기고 일본을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종주국으로 자처하면서 침략과 간섭책동을 일삼던 다나까반동정부의 정책을 미끼정부가 그대로 답습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경제, 사상, 문화 및 군사적침투의 강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의 해외침략에서 우리 나라는 그 첫번째 대상으로 되고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지금 남조선괴뢰들과 공모결탁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면에 걸쳐 우리 나라 남반부에 대한 침략의 검은 손을 깊숙이 뻗치고있습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229페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조종밑에 박정희괴뢰도당과의 반동적결탁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 사상, 문화 및 군사적침투를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투에서 노리는것은 박정희매국도당과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조약»과 «협정»들을 체결하며 이미

체결된《조약》과 《협정》그리고 여러가지 침략기구들과 공간들을 통하여 남조선괴뢰도당의 《경제정책》작성과 그 집행에 직접, 간접으로 간섭하며 남조선경제를 일본경제에 철저히 예속시킴으로써 정치군사적침략과 지배를 뒤받침하는것이다.

이른바《원조》와《차관》, 《기술제휴》등의 명목밑에 상품과 자본, 기술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들이밀어 1960년대말까지에 이미 경제 여러 분야에서 침략과 략탈의 지반을 쌓은 일본독점자본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벌써 사자본의 대대적인 침투단계에 들어섰으며 1973년부터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이른바《중화학공업건설계획》에 직접 끼여들어 철강, 화학, 유색금속, 기계, 전자공업 등 저들의 공해산업을 마구 들이밀기 시작하였다.

1959년부터 1974년 6월말 현재 남조선에 침투한 일본자본은 1 4억 9천 700만딸라로서 남조선의 전체 외국자본도입액의 24%를 차지하였다.

여기에《한일조약》체결당시의 약속에 따라 들이민《원조》액 2억 3천 600만딸라를 합하면 17억딸라가 넘는다.

특히 교활하고 악랄한 침략형태인 사자본이 대대적으로 침투되여 1974년 6월말현재 그것은 미국의 2. 5배를 넘는 773건에 4억 6천 700만딸라에 달하여 남조선에 대한 외국인투자총액의 67. 4%를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비료, 화학, 철강, 제철, 기계, 섬유 등 기간산업으로부터 《수출산업》, 소비재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깊이 뿌리박고있으며 보세가공공업, 염화비닐공업, 알루미니움, 판유리 생산부문들은 각각 10 0%, 선박공업, 전기기구류, 화학섬유공업은 70～80%를 지배하고있다.

일본독점자본가들과 일본기업이 9 0%를 차지하고있는 경상남도 마산의 《수출자유지역》을 비롯한 남조선의 적지 않은 지역들을 치외법권적인《조계지》로 만들고있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공업단지건설》이라는 이름밑에 지난날 우리 나라에 기여들어 조선농민의 토지를 마구 강탈하던 《동척》과《흥업주식회사》의 만행을 방불케하는 토지략탈행위를 감행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의 《중화학공업건설계획》에 끼여든 메이징, 이도츄 등 일본독점체들이 1974년여름부터 경상남도 울주군 온산면에서 1만여명의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고 그들의 토지를 강탈하기 시작한것은 그 대표적실례의 하나이다.

일본의 미쯔이재벌계통인《도요엔지니아링주식회사》가 괴뢰도당과의 공모밑에 작성한 이른바 《중화학공업건설계획》에 의하면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981년까지를 목표로 남조선을 《서울지구》, 《강릉지구》, 《비인지구》, 《군산지구》, 《포항지구》, 《온산지구》, 《부산지구》, 《창원지구》, 《려수지구》등으로 나누어 이 지역들에 일본의 공해산업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려고 책동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전지역을 저들의 손아귀에 틀어쥐려는 침략적흉계의 구체적표현이다.

일본독점자본은 남조선의 상업류통과 무역, 금융부문에도 깊이 침투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 지점을 설치하고 무역도매, 중개업 등에 지배의 손길을 뻗치고있는 일본독점기업의 상사만도 미쯔이물산, 미쯔비시상사, 이도츄상사, 마루베니, 도요면화, 스미도모상사 등 수십개를 헤아리고있으며 서울에는 일본의 금융재벌까지 침투하여 미쯔비시은행, 도쿄은행, 다이이찌은행, 후지은행, 간쿄은행 등이 지점을 설치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정치, 경제적침투와 함께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사상문화적침투를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뿌리깊은 반일감정을 무마하고 친일사대주의사상을 불어넣음으로써 그들의 민족자주의식과 반제투쟁정신을 마비시키며 저들의 침략야망을 손쉽게 이룩할수 있는 사상정신적바탕을 마련할것을 노리고있다.

놈들은 이를 위해 침략적인《협정》들과 침략기구들을 통하여 박정희괴뢰도당으로 하여금 일본에 대하여《문화개방정책》을 쓰도록 강요하는 한편 수많은 사상문화수단들을 동원하여 친일사상을 고취하기에 열을 올렸으며 《관광》의 이름밑에 수십만의 일본인들을 남조선에 들여보내여 남조선인민들의 미풍량속을 해치고 왜색, 왜풍을 대대적으로 퍼뜨리게 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특히 어용학자들과 종교인들을 남조선에 수없이 들여보내여《공산주의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남조선과 일본이 《동맹》해야하고 호상《원조》와 《협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반공》선전에 미친듯이 날뛰였다.

심지어 지난 6월에는 박정희괴뢰도당과 공모하여 이께다 후미꼬란 《반공》미치광이년을 남조선에 들여보내여 20여일동안이나 남조선의 어용방송국들과 대학들을 싸다니면서 터무니없는 《반공》모략선전을 일삼게 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발광적인 사상문화적침략책동으로 오늘 남조선에는 《반공》사상과 군국주의적침략사상, 부패타락한 왜색왜풍을 설교하는 출판물들과 영화, 일본가요 등이 판을 치고있으며 남조선은 말그대로 일본화되여가고있어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를 련상케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경제문화적침투를 강화하면서 군사적침략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악명높은《미일공동성명》의 《남조선조항》에 따라 남조선을 일본의《안전》을 위한《생명선》으로 여기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을 해외침략의 첫번째 공격대상으로 삼고 박정희매국도당과의 군사적결탁과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침략을 끊임없이 강화하였다.

일본의 《자위대》와 남조선괴뢰군사이에는 이미 반항공조기경보체계,군사정보교환체계, 군수품보급체계,군사통신망체계와 같은 통일적인 군사활동체계가 세워져있으며 시모노세끼로부터 군사분계선까지 일본침략무력을 단시간에 끌어들일수 있도록《부관련락선》항로와 부산—서울사이의 고속도로가 개통되였다.

놈들은 1974년에 《항만건설계획조사단》이라는 침략의 사환군들을 남조선에 들여보내여 항만까지 틀어쥐려고 책동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통일적인 군사활동체계와 보급체계를 세우는 한편 비행기와 땅크, 함정과 군용차량을 비롯한 중무기들을 남조선에 넘겨주면서 남조선괴뢰들과의 공동군사훈련을 빈번히 벌리고있다.

놈들은 또한 서울에 《방위주재관》을 보내여 남조선괴뢰군과 일본《자위대》사이에 작전적련계를 맺는 동시에 《자위대》의 우두머리들로 하여금 괴뢰군부대들을《시찰》케 하면서 남조선괴뢰들을 전쟁도발소동에로 부추기고있다.

미끼반동정부의 외교부장이란자가 《남조선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에 중요하다.》느니 뭐니 하고 침략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으면서 박정희괴뢰도당을 부추겨주었으며 《주한일본대사》란놈이 여러명의 《대사관원》들과 함께 괴뢰군부대의 《최전방초소》들을 《순시》하며 전쟁열을 고취하기

에 날뛴것은 이해에 더욱 로골화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군사적침략책동의 구체적표현이였다.

이 한해동안 미친듯이 감행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이 모든 책동들은 놈들이야말로 남조선 인민들을 또다시 식민지노예로 만들려는 흉악한 원쑤일뿐아니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다나까의 《조문》행각, 시이나의 《사죄》놀음

남조선에서 이른바《8. 15저격사건》이 일어나자 이전 일본총리 다나까는 남조선《조문》행각을, 일본자유민주당 부총재 시이나는 《특사》로서 남조선에 기여들어《사죄》놀음을 벌렸다.

다나까는 서울에 기여들기바쁘게 박정희역적놈과 밀담을 벌리고 그를《위안》하면서 《저격사건범인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느니,《한일협력》을 강화하겠다느니 하고 주구앞에 격에 맞지 않게 다짐하였다.

《조문객》의 외피를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다나까놈은 멸망의 운명에서 발작증을 일으키는 주구에게 입김을 불어넣어주는것과 함께《저격사건》의 책임을 공화국 북반부와 총련에 넘겨씌워《반공》선전을 강화하려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비렬한 모략행위를 감싸주고 두둔해줌으로써 이놈을 길잡이로 남조선에 대한 재침과 지배야욕을 실현하려는 진짜 목적을 드러내놓았다.

일본의 광범한 사회계와 언론계에서는 다나까놈의 너절한 《조문》행각에 대하여《세계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이례적인것》이며 《기이한 현상》이라고 비난하였다.

9월 19일에는 일본자유민주당 부총재 시이나란자가《특사》의 간판을 떠메고 남조선에 기여들어와 주구앞에 《사죄》놀음을 벌렸다.

박정희역도놈의 이른바《저격사건》이 제놈자신이 제녀편네를 쐐죽이고 꾸며낸 너절한 정치적모략극이였다는것은 내외의 한결같은 주장과 움직일수 없는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더할나위 없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런데 박정희역도놈은 서울에 와있는 일본《대사》를 통하여 이《사건》이 일본에서 《준비》되였다느니 일본에도《책임》이 있다는식으로《항의》놀음을 벌려 제놈의《반공》, 반총련소동에 일본까지 끌어들이려고 비렬하게 책동하였다.

그리하여 시이나는 박정희괴뢰도당과 미리 합의를 본 일본총리의 이른바 《친서》와 구두설명서의 내용을 가지고 서울에 기여들게 되였던것이다.

시이나가 서울에 와서 남조선괴뢰들에게 한 떠벌임과《친서》와 구두설명의 내용이란 《저격사건》에 대해《사죄》를 하고 《책임》을 지며 《공범자》를 잡는데《협력》하며 총련의 활동을 《규제》하겠다는 등의 것이였다.

그는 일본에 돌아가서 한 기자회견에서도《총련의 활동을 방임할수 없다》느니 뭐니 하고 떠벌이면서 박정희괴뢰도당과의 공모밀에 총련을 탄압하려는 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잡지 《우시오》(1974년 11월호)는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사죄하라고 강박한것은 박정권이지만 일본정부가 사죄하지 않으면 곤난하게 될것은 일본정부가 아니라 박정권이다.

왜냐하면 일본정부의 힘을 빼놓으면 박정권은 성립조차 안되기때문이다.

가령 일본정부가 원조를 중지하고 강경하게 나온다면 사죄고 뭐고 없을것이 아니냐. 일본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고 박정권의 말을 들어준것은 역시 박정권을 도와주기 위한것》이다.

비슷한 실례는 박정희괴뢰도당이 조작한 이른바 《민청학련사건》에 관련되여 두명의 일본인 학생이 체포투옥되고 중형이 들씌워진데 대한 그리고 1973년 8월에 일어나 지금까지 유야무야로 되고있는 김대중랍치사건등에 대한 일본정부의 립장과 태도에서도 찾아볼수 있었다.

일련의 사실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박정희괴뢰도당의 비렬한 《반공》모략행위를 감싸주고 부추겨줌으로써 그들과의 반동적결탁을 강화하고 저들의 교활한 침략야망을 이루어보려고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하게 날뛰고있는가를 보여준다.

《한일의원간친회》,《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

1974년 5월 4일 서울에서는 일본자유민주당 소속국회의원 30여명과 남조선괴뢰국회의원 50여명이 참가한 이른바《한일의원간친회제3차총회》라는 침략적모의가 벌어졌다.

《한일의원간친회》란 표면상 《친선》의 간판을 걸고 실지에 있어서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박정희괴뢰도당과의 결탁을 강화하고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다그쳐 식민지통치자로서의 옛지위를 회복할것을 목적으로 조작한 침략기구의 하나이다.

일본자유민주당의《친한파》를 중심으로 한 극우익분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간에 결성된 이 침략기구는 1972년 5월 비밀리에 제1차총회를 진행하였으며 1973년 6월에는 제2차총회가 진행되였다.

이해 열린 제3차총회에서는 그 무슨《유엔대책》을 비롯한 정치, 외교분야에서의《협력증진》문제와 《경제협력》문제 등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을 길잡이로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문제들이 모의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박정희매국도당이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고 분렬을 꾀하는 제놈들의 범죄적《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정당화하려 하면서 정치, 외교 및 경제 분야에서의《협조》를 애걸하는 추태를 부린데 대해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리해를 깊이》하고《협조》할것을 다짐해보임으로써 안팎으로 고립되고 배격을 받아 죽어가는 매국분렬주의집단을 적극 비호하고 부축해주었다.

또한 도꾜에서는 2월 28일부터 3일간에 걸쳐《제6차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라는것이 진행되였다.

밀담끝에 발표된 이른바 《공동성명》에 의하면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괴뢰들로 하여금《중화학공업전문위원회》라는 기구와 《기업유치협의회》란것을 설치케 함으로써 일본독점자본이 남조선의《중화학공업건설》에 더욱 적극적으로 침투하는한편 《중간원자재공급》이란 명목으로 남조선경제를 더욱 철저히 지배하며 예속시킬수 있는 길을 보다 폭넓게 터놓았다.

원래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는 일본독점자본의 남조선침투를 통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1969년 1월에 조작된 침략기구의 하나로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일본독점자본의 남조선침투를 강화하기 위한 밀담이 진행되여왔다.

1973년에 있은 제5차회의이후에만도 일본의 이도추상사를 비롯한 많은 독점체들이 남조선괴뢰들로부터 《외자우대정책》의 특혜를 받으면서 남조선에 기여들었다.

침략과 매국의 협잡문서 《대륙붕협정》의 조작

1974년 1월 30일 서울에서 매국역적 박정희도당과 일본반동지배층사이에 이른바 대륙붕지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과 《경계확정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박정희도당과 일본반동당국사이에 조작된 대륙붕에 관한 이른바 《협정》들은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이 그 누구에게도 양도할수 없는 우리 나라의 신성한 민족적리권을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팔아넘긴 범죄적인 매국문건이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저들의 남조선재침의 길을 열어놓은 침략의 문건이다.

남조선과 일본사이의 《대륙붕문제》는 1968년에 아세아극동경제위원회(에카페)에서 우리 나라 남해일대의 대륙붕에 《페르샤만 다음가는 가장 많은 석유매장량이 있다》고 한후부터 제기되였다.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해저개발문제는 1970년대이후 국가안전보장체제의 지주가 되며 반공체제의 강화 및 군사전략상 거점으로 된다》고 떠벌이면서 조선인민의 민족적자주권에 속하는 우리 나라 남해의 대륙붕자원을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팔아넘기기 위해 미쳐날뛰였다.

박정희매국도당은 1970년 1월에 이른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라는 악법을 조작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해 5월에는 우리 나라 남해의 30만평방키로메터에 달하는 해양지역을 대륙붕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륙붕자원을 팔아먹기 편리하게 7개 《광구》로 구분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이 《걸프》, 《텍사코》, 《코리언아메리카》등 미제의 석유독점회사들과 영국의 《쉘》석유독점회사 등을 통하여 일본과 린접해있는 남해대륙붕지역에 대한 탐사작업에 착수하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대륙붕경계선의 일방적확정》을 구실로 1970년 6월에 박정희도당에게 탐사, 개발 작업을 중지하고 《한일간 대륙붕경계확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것을 요구하면서 《등거리원칙》을 적용하여 일본의 무인도인 조도 및 남녀군도와 제주도사이의 중간선으로 경계를 긋고 그 지역을 저들의 대륙붕이라고 주장해나섰다.

《대륙붕중복구역》을 《조절》할데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이러한 강도적요구에 박정희괴뢰도당은 무조건 순응함으로써 1970년 11월에 서울에서 《제1차실무자회의》가 열렸고 1972년 2월까지 6차례의 실무자급회의가 진행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1972년 9월 5일 《제6차한일각료회의》에서 《공동탐사》란 이름밑에 우리 나라 남해의 대륙붕자원에 대한 개발권을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넘겨주기로 한후 이와 관련한 9차례의 실무자급회담을 련속 벌려놓고 침략과 매국의 흥정놀음을 벌려오다가 끝내 1974년 1월 30일 《대륙붕협정》을 조작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과 일본군국주의자들사이에 체결된 《대륙붕협정》내용을 보면 《공동개발》구역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등거리원칙》을 적용하여 일본의 조도 및 남녀군도와 제주도사이의 중간선으로 경계를 긋고 일본놈들이 대륙붕구역이라고 주장한 구역이 그대로 《공동개발》구역에 속하게 되였다.

즉 박정희괴뢰도당이 설정한 남해의 대륙붕구역 《제7광구》의 전부와 《제4, 5, 6광구》의 일부가 이 《공동개발》구역에 들어가게 되였다.

이처럼 박정희괴뢰도당은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고 이 지역을 사실상 공해와 다름이 없게 함으로써 남해대륙붕구역에 대한 평유권을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넘겨주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미 4개의 미영회사들이 탐사하고있는 《공동개발》구역에 이와 동일한 수의 일본회사를 끌어들이는 문제를 들고나왔는데 박정희괴뢰도당은 여기에 대해서도 무조건 응해나섰다.

따라서 남해의 《대륙붕개발》에는 《서일본석유》, 《제국석유》, 《일본석유》회사 등 3개의 일본석유독점회사가 기여들수 있게 되였다.

또한 박정희괴뢰도당은 일본독점자본가들에게 《개발권》소유기간을 이미 미영제국주의독점체들에게 《대륙붕자원개발권》을 팔아넘긴 당시의 《협정》조건대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놈들이 종래 미영제국주의독점체들에게 주기로 한 《개발권》취득기간이란 탐사기간을 8년으로 하되 2년간 연장할수 있으며 생산기간은 30년간으로 하되 10년간 연장할수 있도록 하여줌으로써 50년간 장악할수 있게 한것이다. 그러므로 일본독점자본가들도 《대륙붕자원개발권》을 50년간 소유할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결국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조선의 대륙붕자원의 3분의 1을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넘겨주었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이처럼 박정희괴뢰도당이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대륙붕협정》을 조작하면서 노린 범죄적목적은 민족의 리권을 파는 대가로 일본군국주의자들로부터 몇푼의 《원조》를 받아 저들의 군사파쑈통치체제를 유지하며 나아가서 《실력을 배양》하여 《승공통일》의 야망을 이루어보려는데 있다.

1972년에 《한일각료회의》, 《공업소유권협정》과 《대륙붕협정》의 체결을 《약속》한 대가로 일본군국주의자들로부터 1억 3천만딸라의 《정부차관》을 구걸해먹은 박정희괴뢰도당은 《대륙붕협정》을 조작함으로써 이른바 《상여금》형식으로 외자를 더 받아먹을것을 노리였다.

뿐만아니라 《공동개발》이라는 구실밑에 일본석유독점체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유사시 《경제적리권》보호라는 이름밑에 일본군국주의와의 정치, 군사적 결탁의 강화 즉 일본《자위대》침략무력에 의한 《안전보장》을 노리였다.

해외팽창과 자원략탈에 광분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대륙붕협정》을 통하여 저들의 해외원료략탈기지를 확보하는 한편 남조선경제에 대한 지배를 보다 강화하려는 흉악한 목적을 추구하였다.

때문에 공화국정부는 2월 2일 외교부대변인성명을 통하여 박정희괴뢰도당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체결》한 대륙붕에 관한 이른바 《협정》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무효로 선포한다는것을 명백히 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의 심각한 파쑈통치위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더는 헤여날수 없는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 빠져들어갔으며 그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더 큰 불안과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

었습니다.》(1972년 《신년사》, 단행본, 16페지)

1974년에 들어와 박정희군사파쑈통치는 계속 세차게 일어난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 그리고 경제의 전면적파국과 적들의 내부모순의 첨예화로 인하여 더욱 걷잡을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갔다.

박정희괴뢰도당이 겪고있는 이 위기는 놈들의 외세의존과 민족분렬책동, 파쑈적전횡과 전쟁도발책동의 필연적결과로서 미일상전들이 정치, 경제, 군사, 대외 등 모든 부문을 포괄하여 겪고있는 엄중한 위기와 직접적으로 련결되였다.

그것은 박정희괴뢰도당의《집권》10여년간에 걸쳐 남조선사회의 밑바탕에서 뿌리깊이 자라온 대중의 강렬한 반《정부》적 불만을 중요한 배경으로 한 심각한것으로 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로부터의 출로를 파쑈체제와 전쟁체제를 더욱 강화하며 민족분렬을 영구화하는데서 찾으려고 미쳐날뛰면서 남북대화를 파탄에로 이끌고 《남침위협》이란 구실밑에 《반공》소동을 악랄하게 벌렸다.

그러나 이러한 매국배족적책동으로써도 첨예화되고있는 위기를 조금도 해소하지 못하였다.

정치적위기

박정희괴뢰도당은 어느때보다도 심각한 정치적위기에 빠졌다.

박정희괴뢰도당의 위기는 남조선인민들의 사상의식령역에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반파쑈민주화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진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배우려는 지향이 날을 따라 높아갔으며 그들은 주체사상을 자기들의 유일한 정신적량식으로, 투쟁의 지침으로 삼았다.

원쑤들의 삼엄한 파쑈폭압속에서도 남조선의 도처에《김일성주의연구소조》,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회》, 《주체사상연구회》등 여러가지 이름을 가진 연구소조, 연구회들이 무어졌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대중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들의 존경과 흠모의 정이 두터워지고 수령님의 품속에 하루빨리 안기려는 지향이 날을 따라 더욱 절절한것으로 되였다.

또한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반미, 반일, 반박정희 사상감정이 현저히 높아졌으며 박정희《정권》을 반대배격하고 때려엎기 위한 그들의 진출이 강화되였다.

《유신체제의 공고화》라는 구실밑에 감행된 놈들의 전례없이 가혹한 파쑈폭압속에서도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그 성격, 규모, 조직성에 있어서 종전의 투쟁과는 구별되는 일련의 특징을 띠면서 급속히 발전하였다.

《유신헌법》철페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이해 들어와《박정권타도》와 박정희역도의 사임을 요구하는 투쟁으로 발전하였으며 여기에는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뿐아니라 지식인, 언론인, 법률가, 종교인, 야당계인사들까지 합세함으로써 대중적투쟁으로 확대되였다.

그들의 투쟁은 조국통일운동과 밀접히 결합되여갔으며 또한 공화국북반부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말할것도 없고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음으로써 놈들의 파쑈통치체제를 한층더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었다.

투쟁에 궐기한 남조선인민들은《죽음》을 각오하고《유신》독재를 뒤집어엎을 때까지 싸울것을 선포하였다.

야당세력들도《유신헌법》의 개정을 요구하여《개헌촉진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일련의 조직들을 내오면서《국회》안팎에서 적극적인 투쟁을 벌렸다.

이렇듯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박정희파쑈집단의 매국배족죄행의 어느한 측면이 아니라 놈들의 군사파쑈독재정권자체를 반대배격하는데로 나갔다.

이리하여 남조선에서 파쑈독재체제가 연명되느냐 아니면 타도되느냐 하는 매우 심각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위기의 심각성은 괴뢰통치배들내부에서 모순과 알륵이 격화되고 통치집단내부의 와해과정이 촉진되고있는데서도 나타났다.

괴뢰지배층내부에서 서로 물고 뜯는 파벌싸움이 쉴새없이 벌어짐으로써 상층권력지반은 심히 약화되였다.

한때《수도경비사령부사건》, 《륙군보안대사령부사건》을 비롯한 여러《사건》들을 계기로 격화된 내부알륵과 대립으로 박정희역도의 심복 여러놈이 떨어져나갔다.

1973년에 박정희역도는 자기의 오른팔이라고 하던 리후락놈을《중앙정보부장》자리에서 떼범으로써《정보정치》를 규탄하는 인민들의 항거와 지배층내부모순을 해소하려고 망상하였다.

1974년에는《청와대경호실장》박종규놈이 이른바《8. 15저격사건》의 책임으로 떨어져나갔다.

이리하여 박정희놈의 불안과 고독감은 극도에 이르렀다.

리후락놈이 쫓겨나자 이 기회를 제놈의 세력지반을 닦는 좋은 기회로 삼은《국무총리》김종필놈은 1974년 1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만도 627명에 대한 부정《공무원숙청》소동을 벌려 반대파세력을 내쫓고 제놈의 심복들로 갈아채웠다.

이에 급해맞은 박정희놈은 외국에 나가 숨어있던 리후락놈을 급히 서울로 끌어들여 뒤수습하려고 날뛰였다.

이리하여 권력을 유지하려는 박정희놈의 등에 업혀 실권을 행사하려는 리후락놈, 박정희놈을 밀어제끼려는 김종필놈간의 개싸움이 벌어졌다.《민주공화당초대총재》를 비롯하여 박정희역도가 신임하던자들이 박정희의 1인파쑈독재체제의 강화에 불만을 품고 탈당하거나 일부는 다른 나라에 빠져나가 1인파쑈통치의 횡포성과 야만성을 폭로규탄하며 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는 투쟁조직을 결성하였다.

괴뢰군내에서도 미제와 박정희악당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높아갔다.

괴뢰군병사들속에서는 치욕스러운 괴뢰군살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무기와 탄약을 가지고 부대를 뛰쳐나오는 현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으며 박정희파쑈통치를 뒤집어엎기 위한 사건이 자주 일어났다. 괴뢰군내에서 뛰쳐나오는 현상은 1974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적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여건이나 되며 여기에 망라된 수는 약 30여명이나 된다.

남조선괴뢰《해병대》의 해산통합에 불만을 품은《해병대》중추분자들에 의한 군사정변음모가 현실적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남조선괴뢰륙군의 청년《장교》29명이 련명으로 박정희를 반대하는 정변을 일으킬 결의를 표명하여 미국시사잡지《뉴스위크》서울특파원앞으로 보내온 편지내용이 8월 23일《뉴스위크》지에 보도되였다.

서울에서는《뽀르투갈의 까에따노군사정권을 타도한 군사정변의 한국판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다.

이에 놀랜 괴뢰《중앙정보부》는 거듭되는 위협과 온갖 회유책을 미국기자에게 가하였으나 29명의《장교》이름을 알아내지 못했으며 그들을 잡아내지 못하였다.

군대에 의한 반란이 어떤것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역도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쌓이게 되였으며 마지막 지탱점으로 치부하여온 괴뢰군부도 믿을수 없게 되였다.

박정희놈이 《평관급》까지의 괴뢰장교들에게 무기도 자유로이 가질수 없도록 《통제조치》를 취하고있으며 《수도경비사령부》산하 무력을 강화하고 청와대를 요새화하고있는것도 그리고 청와대상공에 《비행통제구역》을 설정해놓고 제편 전투기와 려객기에 빈번히 포탄을 퍼붓고있는 이 모든 사실은 인민들에 대한 공포와 괴뢰군부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어느정도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보여준다.

박정희역도는 괴뢰정권을 부지하는데 있어서 누구도 믿을수 없게 되였으며 말그대로 사면초가의 막다른 궁지에 빠지고있다.

경제적위기

박정희괴뢰도당은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위기에 부닥쳐 허덕이였다.

남조선경제위기는 미제식민지예속화정책이 가져온 식민지예속경제구조의 취약성을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경제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였다.

세계를 휩쓸고있는 석유파동을 계기로 급속히 촉진된 경제의 파산은 박정희괴뢰《정권》에 심대한 위협으로 되였다.

전반적공업부문들에서 생산이 떨어지고 기업들의 파산이 심하게 나타났다.

연료와 원료의 80～100%를 미제를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끌어들여 생산을 유지하고있는 남조선공업은 제국주의자들에게 들이닥친 심각한 경제위기의 타격까지 받게 되여 더욱 심한 혼란속에 빠지게 되였다.

미제는 제놈들이 겪고있는 경제위기를 다소라도 완화시키려고 《파고철금수》, 《석유자원금수》, 《농산물수출품목제한》조치들을 련달아 취하였다. 이에 따라 남조선경제는 일대 연료, 원료위기에 말려들어가게 되였다. 그리하여 연료, 동력공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공업체들이 연료, 원료의 부족으로 생산을 중지하거나 조업을 단축하고 무리로 파산당하였다. 1974년에 들어와 문을 닫은 기업체수만도 850여개에 달하여 6만 3천여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거리를 헤매게 하였다.

지어 놈들은 《비상대기태세》에 둔 괴뢰륙해공군에 공급하는 유류의 량마저 줄이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이러하여 박정희괴뢰도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실력배양》책동은 거덜이 났다.

방직부문의 대기업체 정방기의 50%는 돌리지 못했으며 제분업체의 50%가 조업을 단축하였고 남조선 전체 기업체수의 96.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체들의 절반이 문을 닫았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경제위기는 공업생산뿐아니라 농업생산이 떨어지고 식량난이 심각화된데서도 나타났다.

전쟁준비에 미쳐날뛰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은 이해에도 군사시설과 군용도로를 끊임없이 확장하면서 농민들로부터 수만정보의 땅을 빼앗아냈다.

또한 농촌에서 청장년들이 강제징집되거나 군사시설공사에 강제동원됨으로써 리농현상이 급격히 늘어났다. 거기에 풍수해와 한재까지 겹쳐 량곡부족량은 400여만톤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박정희괴뢰도당은 8억딸라의 외화를 들여 량곡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될 형편인데 유일한 량곡수입대상지인 미국에서마저 대흉작이 들어 괴뢰들의 앞길은 더욱 암담한 형편에 처하였다.

쌀값은 한가마니당 년초에 1만 1천원선에서 12월중순에는 2만 1천원으로 뛰여올라가 남조선인민들은 심한 식량난에 허덕이였다.

여기에 련탄위기까지 겹쳐 로동자, 농민, 도시소시민을 비롯한 하층군중들은 말할것도 없이 절대다수의 중산층의 생활에까지 커다란 위협이 조성되였다.

놈들은 극심한 연료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료10%절약범국민운동》을 벌리는 한편 11월을 연탄사용위반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연료수급대책기동순찰반》을 만들어 단속하였으며 각급 학교들의 겨울방학을 연장하며 가로등도 하루건너씩 켜고 차량들의 장거리운행을 단속하였다.

남조선경제를 휩쓸고있는 위기의 심각성은 물건값의 급격한 오름새에서도 나타났다.

1973년말 이른바 《석유위기》를 계기로 물건값은 계속 뛰여올라 1974년초부터는 완전히 걷잡을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1974년초부터 9월까지 매달 그리고 한달에도 몇차례씩 괴뢰정부가 통제하는 중요물가와 각종 료금들을 훨씬 끌어올렸다.

그리하여 이 기간에만도 전반적경제부문들과 인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상품들의 값은 모조리 40%로부터 150%까지 뛰여올랐다.

대중소비품으로부터 원자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품들의 값이 전례없이 뛰여올랐다.

놈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해 1월부터 6월사이에 남조선의 도매물가는 무려 32.8%나 뛰여올랐다. 이것은 인플레가 심하였던 전해 같은 기간의 상승률에 비하여도 6배나 높은것이였다.

남조선에서 물건값이 급격히 올라감에 따라 인민생활과 경제전반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모든 물건값이 뛰여오르는데 따라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급속히 떨어지고 그렇지 않아도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있는 그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켰다.

원료, 자재 값과 여러가지 료금이 올라갔기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더 큰 연료난, 원료난을 겪게 되였으며 근로자들의 구매력이 감소되여 판로난까지 겪게 되였다. 그리하여 각계각층 인민들의 불만과 반항은 한층 높아졌다.

박정희괴뢰도당이 외자를 마구 끌어들인 나머지 대외부채는 급격히 늘어나 남조선경제는 이해에 60억～70억 딸라에 달하는 엄청난 빚더미속에 파묻히게 되였다.

이 모든 실례는 박정희괴뢰도당이 《실력배양》하여 우리와 대결해보려는 망상밑에 들었던 《경제유신》의 구호가 한갓 허황한 꿈에 지나지 않았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주었다.

놈들은 위기에 빠진 경제를 추세워보려고 미제와 일본상전들에게 더 많은 《경제원조》를 구걸하는 한편 대규모의 경제구걸 《사절단》을 각곳에 보내는 동시에 일부 자원보유국인들을 끌어들여 남조선에 대한 경제《원조》와 자본투자를 구걸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이 겪고있는 경제위기는 단순히 경제를 파국에 몰아넣고있는데 그친것이 아니라 남조선의 사회정치적위기를 보다 첨예화시켰다.

중소기업의 파산은 박정희괴뢰도당을 지지하던 일부 중간계층까지 이로부터 떨어져나와 반파쑈민주화투쟁에 합세케 하였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인민생활이 령락됨에 따라 생존의 권리를 위한 로동자, 농민의 투쟁기세는 더한층 높아졌으며 모든 계층들속에서 《더는 못살겠다》는 웨성이 터져나왔다.

이러한 때에 괴뢰도당이 직권을 람용하여 막대한 돈을 떼먹은 《금복통상부정대출사건》, 《보석밀수사건》등과 같은 부정부패행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남으로써 박정희괴뢰도당에 대한 인민들의 불평불만은 더욱 높아졌

다.

남조선인민들은 《집권층의 재산을 공개하자》, 《특권층의 부정부패일소하자》등 투쟁의 주되는 대상을 박정희놈의 독재 《정권》전복에로 일층 심화시켰다.

대외적위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오늘의 엄연한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남조선괴뢰도당이 지금과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고 력사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는 비렬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그들은 어떠한 출로도 찾아내지 못할것입니다.》 (1972년《신년사》, 단행본, 20페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화정책과 매국배족정책은 세계인민들 특히 제3세계나라 인민들로부터 저주와 규탄을 받고있으며 놈들은 대외적으로 더욱더 고립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의 국제적고립은 1973년 6월 23일 놈들이 이른바 《특별성명》이란것을 발표하고《두개 조선정책》을 공개적으로 떠들어댄후 더욱 심화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우리의 국제적진출을 막고 제놈들의 국제적고립을 모면해보려고 저들과 《외교관계》를 맺고있는 나라들에 우리와 외교관계를 맺지 않도록 애원하였으나 자이르는 그것을 내정간섭이라고 하면서 남조선괴뢰《대사》를 내쫓았으며 1974년 7월에는 오스트랄리아 휘틀람정부가 박정희괴뢰도당의 수차에 걸치는 구두, 서면 《항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9월 17일 또고공화국정부는 《조선문제의 평화적조정의 기본장애로 되는 외국군대를 아직까지 주둔시키고있는 남조선과 더는 관계를 가질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남조선괴뢰도당과 관계를 끊고 괴뢰《대사관》을 추방하였다.

이해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 나라의 국제기구가입을 지지하였으며 박정희괴뢰도당을 배격하였다.

1974년에 우리의 가입신청을 받은 모든 국제기구들이 그를 승인하였다.

5월 22일에 열린 만국우편동맹 제17차대회에서는 이 동맹의 기존가입절차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나라의 가입을 인정할것을 요구하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을 포함한 50개 나라들이 제기한 공동결의안을 투표없이 성원국대표들의 일치한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9월 제네바에서 있은 유엔무역개발회의 제14차리사회는 남조선괴뢰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우리 나라를 그 리사회산하의 주요위원회들인 원료상품위원회, 제품위원회, 해운위원회, 무역외융자위원회의 성원국으로 받아들일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9월 16일에 있은 국제원자력기구 제18차총회 전원회의와 10월 17일에 빠리에서 있은 130여개 성원국대표들이 참가한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제18차총회는 우리 나라의 가입문제를 투표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이밖에 국제법제계량기구, 아세아력기련맹, 아세아사격련맹을 비롯하여 우리가 제기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우리의 가입을 승인하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은 3월 아세아경기련맹에《가입신청서》를 냈으나 이 련맹은 원래《가입신청서》는 집행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되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기하지도 않고 부결해 버렸다.

또한 10월 이란의 수도에서 진행된 아세아경기련맹리사회 회의에서는 남조선괴뢰대신 우리 나라를 아세아경기련맹의 집행위원으로 선거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이 그처럼 발악적으로 벌려온《두개 조선》조작책동은 미일침략자들과 그의 몇개 안되는 졸개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세계 절대다수 나라들로부터 저주와 규탄을 받고 철저히 분쇄되였다. 그것은 제29차 유엔총회에서 더욱 뚜렷이 확증되였다.

유엔총회에서는 제3세계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 대표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 5대방침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두개 조선》조작책동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폭로규탄하고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하여야 한다는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강압과 회유 등 갖은 발악적책동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및 제3세계의 40개 나라들이 제출한 우리측 공동결의안은 표결에서 투표에 참가한 나라들의 절반에 해당한 나라들로부터 찬성을 받았다.

총회에서 미제와 그의 더러운 주구이며 추악한 매국역적인 박정희괴뢰도당외에는 미제에 추종하는 나라들도 《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고는 감히 주장하지 못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의《두개 조선》조작책동과 남조선에서의 미제침략군의 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11월 뻬루에서 진행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라틴아메리카회의》를 비롯하여 제3세계청년대회, 전아프리카학생동맹 제3차대회, 세계민주청년련맹 9차대회 등 이해 진행된 각종 국제회의들에서 강력히 울려나왔다. 회의들에서는 《조선에 관한 결의》와 유엔총회 제29차회의앞으로 보내는 전문을 채택하고 반파쑈민주화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월간을 설정하는 등 조치들을 취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정체는 국제의회동맹 제61차총회에서도 드러나 국제적으로 버림을 받았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우리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이 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의회그루빠대표단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그들의《지지》를 받으며 유엔에서의 조선문제토의와 관련하여 저들에게《유리한 조건》을 조성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으나 놈들의 이러한 어리석은 책동은 많은 대표들의 조소와 규탄을 받았으며 지어 회의에서 의장의 엄중경고까지 받았다.

남조선괴뢰들은 남의 나라에 있는 외국군사기지와 외국군대철수를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토의하는 이 회의에서까지 미제침략군의 영구강점을 떠벌이고 이미 거덜이난 이른바《불가침조약》이라는것을 들고나옴으로써 회의 참가자들로부터 규탄과 멸시를 받았다.

특히 총회에서《세계에서의 고문문제》를 토의할 때 많은 나라 대표들이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만행에 대하여 단죄하였다.

회의진행기간에 일본의 4개 민주단체는 공동명의로 아세아에서 가장 혹심하게 감행되는 남조선에서의 고문문제를 토의해줄것을 제기하는 요망서를 냈다.

유엔무대를 비롯한 국제회의에서 울려나온 세계인민들의 목소리는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할뿐아니라 미제침략군의 영구강점을 애걸하며 그 비호밑에 민족분렬을 영구화하고 숨통을 이어가려는 박정희괴뢰도당을 끝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

세계직련, 3대륙인민단결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세계 여러 나라 정당, 사회단체들이 성명과 호소문, 항의문들을 발표하여 박정희파쑈악당의 폭압책동을 규탄하였으며 놈들에게 체포된 남조선애국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광범한 운동을 벌렸다.

이밖에도 남조선을 방문하여 종교 및 인권 문제를 조사한 세계기독교회협의회의 실태보고서, 스웨리예전국평화옹호위원회 성명, 단마르크외교부의 성명 등에서는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폭압책동을 폭로하고 구속된 애국자들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의 야수적탄압만행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미국의 사회계와 언론계에서까지 울려나왔다.

미하원의원 101명은 키신저놈에게 서한을 보내여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은 국내에서 억압정책을 쓰고있는 독재정권을 떠받들어주고있다.》고 비난하고 《특히 박<정권>하의 <한국>에 대해서는 원조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며 11월 12일 워싱톤기자구락부에서는 박정희도당의 파쑈폭압과 정보통치, 남조선에 대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을 폭로하는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박정희괴뢰도당이 세계인민들로부터 얼마나 고립배격당하고 《국제고아》의 신세에 떨어졌는가 하는것을 보여준다.

박정희괴뢰도당이 겪고있는 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이해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우두머리들과 그리고 그 졸개들이 남조선에 기여들어 군사파쑈통치를 미화하고 전쟁준비책동에 열을 올려주었으나 이것은 다 죽은 송장에 입김을 불어넣은데 지나지 않았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박정희군사파쑈악당의 <유신>독재정권에 짙게 깃든 망조는 더는 가실 길이 없으며 황천길을 다그치고있는 박정희일당을 구원할 처방도 더는 없다》고 말하며 지어 미국정계에서까지도 《박정권은 벼랑우에 서있으며 그 바로 밑은 바다이다. 그가 바다에 떨어지는것을 그저 지켜볼수밖에 없다.》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돌고있는것은 박정희괴뢰도당의 멸망이 가까이에 내다보인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안에 외래독점자본가들은 1억 3천 300만딸라에 달하는 막대한 리윤을 짜내여 제놈들의 나라에 빼돌렸다.

서부독일 데페아통신은 날이 갈수록 경제적으로 크게 외국독점자본에 의존하고있는 남조선경제를 《암의 마지막단계에 있는 불구자와 같다.》고 지적하였다.

남조선경제의 예속성은 외자도입책동과 함께 박정희괴뢰도당이 벌리고있는 이른바《수출진흥》책동에 의하여서도 더욱 심해졌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따라 남조선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치면서 매국적인 《수출립국론》을 내걸고 남조선경제를 《수출화방향》에로 전환시키기에 온갖 발악을 다하여왔다. 모든것을 《수출증대》에 복종시키는 놈들의 범죄적인 《수출진흥》책동에 의하여 남조선경제는 상품판로마저 더욱더 대외시장에 의존하게 되였다.

남조선경제는 계속되는 물가등귀, 자금난, 원료난, 판로난으로 인한 기업체의 파산, 농업생산의 혹심한 파탄으로 인한 식량부족, 외화고갈로 인한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심각한 경제위기는 박정희괴뢰정권이 의거하고있는 경제적지반을 송두리채 뒤흔들었으며 놈들의 멸망을 다그쳤다.

남조선경제의 파국적위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의 군사적부속물로 굴러떨어진 남조선경제는 걷잡을수 없는 파국에 놓여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138페지)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인 외세의존정책으로 말미암아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완전한 예속경제로, 군사적부속물로 굴러떨어졌으며 끊임없는 불안과 위기속에 허덕여오던 남조선경제는 1974년에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말려들어가 더욱 수습할수 없는 심각한 파국상태에 빠졌다.

박정희괴뢰도당이 겪고있는 경제위기의 특징은 그것이 경제생활의 어느 한 부문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를 전면적으로 포괄하면서 그 위기의 폭을 넓히고 파괴력이 전에 없이 심한데서 표현되고있다.

미제의 지시에 따라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1974년에 밑뿌리로부터 뒤흔들리는 파쑈테로통치의 위기를 수습하고 늘어나는 군사적수요를 메우기 위하여《근대화》의 이름밑에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치는 한편 침략적인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데 피눈이 되여 날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경제사절단》이요 무슨《대표단》이요 하는것을 미국과 일본은 물론 서독과 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에 뻔질나게 보내여 구걸놀음을 벌리는 한편《조사단》이니 뭐니하는 외국독점자본가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자본투자를 확대해줄것을 애걸하였다. 또한 외국독점자본가들의 자본침투절차를 종전보다 훨씬 더 간소화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위원회》라는 매국기구까지 새로 내오면서 침략적외국독점자본가들의 투자를 무데기로 끌어들이려고 책동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의 사대망국적인 외자도입책동에 따라 1974년 6월까지 남조선에 밀려든 외국자본총액은 차관과 투자를 합하여 72억 6천만딸라에 이르렀다.

박정희괴뢰도당으로부터 온갖 《우대》와《특혜》를 받고있는 외래독점자본가들은 남조선에서 온갖 횡포를 다하여 자기 나라에서보다 10배나 더 높은 리윤을 짜내고있다. 상반년동

파산몰락하는 공업

박정희괴뢰도당의 외세의존정책으로 말미암아 미일독점자본에 철저히 예속되여 자립적발전의 가능성을 여지없이 박탈당하고있는 남조선공업은 1974년에 제국주의나라들에 들이닥친 심각한 경제위기의 타격을 받아 어느때보다도 심한 혼란속에 빠졌다.

남조선의 수많은 기업체들이 원료, 자금 및 판매의 곤난과 무거운 세금부담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빠져있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페업, 휴업 또는 조업을 단축하는 기업체수가 날을 따라 더욱 늘어났고 전반적공업부문들에서 생산이 떨어졌다.

공업에서 80%가 넘는 원료를 미일제국주의를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 의존하고있는 남조선공업은 전해말부터 세계적인 원료파동에 말려들어 심한 원자재난을 겪었다.

세계적인 원료위기의 후과로 심각한 원료, 연료난에 부딪쳐 침체와 혼란에 빠져들어가고있는 미일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원자재수출품목과 수출

량을 줄이며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１９７３년 7월에 있었던 미제에 의한 고철과 농산물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와 １０월의 석유자원금수조치로 남조선경제는 심각한 원자재파동의 폭풍속에 휘말려들어갔다.

미국독점회사들이 석유파동후 이해에 들어와 남조선에 대한 석유총공급량을 ５０％이상 줄인 반면에 원유가격을 몇배로 높이고 일본독점체들이 석유중간제품의 수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남조선의 연료, 동력공업과 화학섬유업체는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자본주의세계시장에서 원료자원에 대한 투기 및 매점 행위와 상품부족현상이 더욱 극심해지고 원자재의 국제시장값이 뛰여올라감으로써 자원구입난은 더욱 심해졌다.

더우기 미일독점체들은 남조선에 대한 원자재수출을 기피하거나 일부 수출하는 경우에도 국제시장가격보다 엄청나게 더 비싼 가격으로 강요하였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예속된 남조선업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었다.

특히 중소기업이 더욱 심한 원자재구입난에 빠졌는데 그것은 박정희도당의 《특혜》를 받고있는 매판자본가들이 원자재를 독점한것과 관련되였다.

판로마저 대외시장에 의존하고있는 남조선공업은 자본주의세계의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수출수요가 축소되여 판로난을 겪었다. 여기에 날로 강화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가혹한 수탈과 제품가격의 인상으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의 구매력이 더욱 떨어짐으로써 판로난은 더욱 격심하였다.

남조선중소기업은 이해에 들어와 헤여날수 없는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있었는데 그것은 박정희괴뢰도당의 중소기업에 대한 말살정책으로부터 자금봉쇄와 무거운 세금수탈정책과 관련되였다.

박정희도당은 이해에 들어와서만도 《재정자금》, 《차관자금》, 《금융자금》등으로 기업체들에 융자하는 자금의 거의 전부를 매판자본가들에게 집중배정하고 중소기업에는 명목상 극히 적은 자금을 배정하였다. 그 자금마저 대부분은《수출산업》과《군납업체》에 대출하도록 하였다.

박정희매국도당은 이른바《중소기업육성》이라는 이름밑에《중소기업신용보증》제도를 내놓았다. 이것 역시 4월부터 자취를 감추었다. 또한 4월부터《시중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들에서 일반대출을 중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더욱 악화되여 설비보수와 현상유지를 위한 《운영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기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에 의존하는 기업체가 늘어났는데 이에 따라 사채금리가 급격히 올랐다.

중소기업은 박정희괴뢰도당의 략탈적인《인정과세》에 의하여 소득의 대부분을 빼앗겼으며 자금난과 함께 무거운 세금부담으로 파산몰락되였다.

이해 연료난, 원료난, 자금난, 판매난이 겹쳐 남조선의 수많은 기업체들이 련이어 파산몰락되고 그것으로 하여 생산도 급격히 떨어졌다.

１～２월동안에 《한양화학》을 비롯한 석유화학계렬공장들과 콕스의 부족으로 기계 및 주물업계공장들이 휴업 또는 조업을 단축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이 수출공업품생산기업을 극력 장려하고 자금과 수입원자재를 우선 보장하였으나 1월, 2월 두달동안에만도 국내모방직 ５０여개 업체와 《제동산업》, 《대한종합식품》, 《현대모직주식회사》등 수출생산품업체들마저 폐업 또는 휴업되였다.

계속되는 경제불황을 이겨낼수 없어 하반기에만도 수많은 기업체들이 파산몰락되였다.

괴뢰들이 발표한 일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경상북도에서는 도내 기업체의 ８７％가 문을 닫거나 조업을 단축하였으며 특히 섬유공업이 집중되여있는 대구지방의 기업체들의 가동률은 １０％에 불과하였다.

끊임없이 파산몰락의 길을 걷고있는 합판업계에서는 간신히 남아있는 공장마저 《극심한 파동으로 현상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 목재와 타일, 기계업계에서도 《휴업과 불안정조업으로 인한 작업시간의 단축》현상이 잇달아 일어났다.

특히 섬유, 제사, 편직물 공장들과 농업생산과 련결된 중소제분업체들의 파산 몰락현상은 너무나도 심하여《전면적휴업》, 《전면적파산》이라는 암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남조선의 방송들은 《근래에 보기드문 불황》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조업단축, 휴업, 폐업으로 종업원들의 해고가 많아 심각한 문제》로 되고있으며《대학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취직할수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되였다》고 보도하였다.

심한 경제파동은 괴뢰도당과 매판자본가놈들이 경영하는 《대기업》에까지 파급되여 괴뢰들까지도 《대기업의 ８０％이상이 불실화되였다》고 비명을 지르는 형편이였다.

적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박정희괴뢰도당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며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치기 위한 책동의 한 고리로서 꾸려놓은 구미, 리리 등을 비롯하여 모든《공업단지》들에 세워놓은 공장들중 ３분의 １이상이 ６월말현재 움직이지 못하고있었다.

또한 《청주공업단지》내에 있는 기업체들은 심한 경영위기에 빠져 거의나 파산되고 겨우 ９개업체만이 가동하는 형편이였다.

남조선통신보도들이 《경제불황은 회복시기가 예측되지 않는 가운데 많은 기업체들이 조업단축, 휴업 또는 근로자들의 대폭적인 해고를 단행》하고 있으며《이와 같은 경기침체가 경제의 붕괴를 의미하고 공황사태를 빚어낼 양상》마저 띠고있다고 전한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기업체들의 계속되는 파산과 몰락은 공업생산을 급격히 떨어뜨렸다.

괴뢰들이 줄여서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남조선의 공업생산은 이해 ８월 한달동안에 그 전달보다 ９％, 그중 제조업부문에서는 １０．２％가 줄어들었다.

７월의 공업생산자체가 보잘것없었던 ６월보다 ３．２％나 더 떨어진것이였다는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남조선의 공업생산지수가 계통성을 띠고 급격히 줄어들고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남조선기업체들의 련이은 파산몰락과 그로 인한 생산의 급격한 감퇴는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비참한 구렁텅이에로 몰아넣었으며 사회적불안과 혼란을 심화시켰다.

쇠퇴몰락하는 농업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지주들의 략탈과 착취로 말미암아 남조선농업은 몹시 쇠퇴하였습니다. 경지면적과 파종면적은 계속 줄어들고있으며 농업생산은 여전히 중세기적인 뒤떨어진 기술에 기초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４０１폐지)

남조선경제를 휩쓸고있는 경제위기의 심각성은 농업생산이 급격히 떨어지고 식량난이 매우 심각화된데서도 나타나고있다.

１９７４년에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군사기지확장과 《고속도로》건

설 등 전쟁준비를 다그치기 위한 토지략탈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또한 《실력배양》이란 구실밑에 경제의 군사화와 외래독점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공업단지》의 조성, 수많은 《골프장》을 만들기 위한 농토의 략탈, 심지어 《관광》이니, 《미화》이니 하는 이름밑에 철도주변과 도로주변의 농토까지 마구 밀어제끼는 놀음까지 감행하였다.

대표적인 실례로 경상북도에서 100여키로메터의 군용도로확장공사를 벌려놓고 보름이면 거두어들일 수만평의 보리밭을 짓뭉개버렸으며 남조선강원도에서만도 1만 6천여정보의 밭을 강제로 빼앗고 2만 3천여명의 농민들을 쫓아내는 악독한 만행을 감행하였다.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괴뢰악당들이 감행하고있는 이러한 《초토화》책동으로 못쓰게 된 땅을 모두 합하면 《천문학적수자가 나올것》이라고 쓰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기지화정책과 토지략탈책동으로 말미암아 농경지가 전해보다 줄어들었을뿐아니라 남은것마저 제대로 걸구지 않아 더욱 척박해졌다. 더우기 놈들이 남조선토질에 맞지 않는 미국잉여비료를 끌어들여 마구 내리먹인 결과 토지의 산성화가 촉진되였다.

남조선출판물자료에 의하면 상주군내 전체 논중 85% (밭은 88%), 완주군내 밭 70%가 산성화되여 몇해 안가면 풀한포기도 살수 없는 페허가 될 실정이라고 한다.

남조선의 한 신문은 《이 상태로 농경지산성화가 계속되면 10년이내에 완전 페경지로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치산치수사업과 관개시설을 전혀 하지 않고 이미 있던것마저 모두 파괴해버린 결과 해마다 가물과 큰물의 피해를 입고있는 남조선에서 이해 가물피해, 큰물피해는 더 혹심하였다.

출판물자료에 의하더라도 5월중순에 있은 수해로 26만 3천 300정보의 농경지가 매몰류실되여 보리 52만석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7, 8월 남조선전지역을 휩쓴 수해로 전라남도에서는 논밭 8만 3천 200정보가 물에 잠기거나 씻겨내려가 알곡수확의 50%가 줄어들었다고 하며 경상남도에서는 1만 6천정보의 논이 물에 잠겨 완전히 농사를 망쳤고 충청남도에서는 2만정보가 매몰류실되여 알곡수확의 30%가 줄었다고 한다.

9월에 평동지방에서는 총 씨붙임땅 면적의 36.4%에 달하는 논벼가 심한 가물로 말라죽었으며 신도군에서는 8월에 가물로 인하여 논바닥이 갈라져 30여정보의 벼가 말라죽었다.

큰물피해, 가물피해는 특히 농업지대인 락동강, 한강, 금강, 섬진강류역들에서 더 혹심하였다.

남조선의 한 지식인이 이 일대를 돌아보고나서 농촌의 《황페상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고 하면서 《어디를 가나 흙은 메말라있고 강물은 모래와 자갈로 차서 물이 흐르지 않는 강으로 변했다》, 《10년전보다 달라지지 않은것은 태양뿐이고 흙과 물사정은 분명히 악화되였으니 이래서야 어찌 농업증산이 성취될수 있겠는가》고 쓴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괴뢰들이 줄여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더라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1972년의 피해액 341억원보다 훨씬 넘어서고있다. 이해 8월 호남지방에서만도 가물과 장마에 의한 피해액이 186억원을 넘고있으며 9월 평동지방의 태풍피해는 그보다 훨씬 컸다.

심한 가물, 홍수해, 농경지의 산성화로 병충해발생면적도 급격히 늘어났는데 그것은 8월현재 지난해의 3배 늘어났고 그로 인한 알곡의 감수량은 무려 900여만석이라고 한다.

남조선농촌에서는 괴뢰들이 비싸게 팔아먹고있는 미국잉여비료마저 일반 농민들은 제대로 얻어쓰기가 힘들다.

농업기술상태와 영농방법은 락후한 원시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농민들은 여전히 호미, 낫, 호리 등 원시적인 생산도구에 얽매여 힘겨운 로동에 시달리고있다.

박정희도당의 반동적인 농업《정책》의 실시로 말미암아 농촌경리는 여지없이 파탄되고 농업생산은 전례없이 줄어들어 심한 식량위기를 빚어냈다.

이해 여름작물들인 밀, 보리는 1968년보다 33만 7천톤, 최근 10년이래 최대 흉작이라고 하던 1973년에 비해도 근 4천톤이나 줄어들었다. 가을 곡식의 수확량도 그 전해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알곡생산량이 계속 줄어들므로써 식량자급률도 낮아지고있다.

남조선에서 알곡생산량은 년간소비량의 50%정도에 불과하다. 이것은 남조선인구의 절반이 사철 모진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될 기막힌 처지에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으로서 남조선에서 식량난이 어느정도에 이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이해 400여만톤의 량곡을 수입하지 않으면 먹고 살수 없다고 아우성쳤다.

부족되는 량곡의 수입을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있던 남조선괴뢰들은 이해 대흉작을 면치못한 미제가 《량곡수출규제》조치를 취함으로써 식량부족량을 메꿀길이 더 막히게 되였다.

설사 량곡을 수입한다고 하여도 식량위기는 세계적현상으로 되고있어 량곡의 국제시장가격이 시시각각으로 뛰여오른 형편에서 60억~70억 딸라의 외국의 빚을 걸머지고있는 남조선괴뢰들에게 사실상 비싼값을 치르고 사들일 외화예비도 없었다.

좀처럼 풀릴수없는 식량난을 반영하여 남조선에서 쌀값은 날을 따라 마구 뛰여올랐다. 전반적인 류통과정은 심각한 혼란속에 빠져들어갔을뿐아니라 농산물을 원료로 하거나 농촌을 판매시장으로 생산을 진행하는 민족공업의 파산몰락은 더욱 촉진되였다.

재 정 위 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괴뢰정부의 재정을 완전히 자기 손에 틀어쥐고 그 예산을 미국점령군과 방대한 괴뢰군대와 파쑈적통치기구를 유지하는데 전적으로 돌리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2권, 23~24페지)

미제강점하의 남조선에서 괴뢰정부재정은 완전히 미제의 수중에 장악된 침략의 도구로서 미제의 식민지략탈과 군사적목적에 전적으로 복무하고있으며 이것은 이해 박정희괴뢰도당의 전면적인 파멸적위기 특히 헤여날수 없는 전반적남조선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반영하여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써도 수습할수 없는 혹심한 파산상태에 빠져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겪고있는 재정위기의 심각성은 우선 괴뢰정부재정예산규모가 천문학적수자로 부풀어 오르고있는데 그것을 보상할 재정수입원천이 심히 고갈되여 더는 짜낼래야 짜낼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1974년 괴뢰정부재정예산 총규모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집권》이전인 1960년에 비하여 17.5배로 늘어났다. 8천 477억원에 달하는 1974년의 괴뢰정부재정예산규모를 1949년도 재정예산규모(9천 110만원)와 대비한다면 그것은 무려 9천 305배로 늘어난것이다.

남조선경제의 전면적파산으로 말미암아 자금조달을 위한 그 어떤 다른 수단을 가지지 못하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은 1974년에 극히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내자동원극대화》를 떠벌이면서 강도적수탈소동을 미친듯이 벌리였다.

1974년《예산》세입구성에서 조세수입(《전매익금》포함)은 1973년도에 비하여 23%(1천 276억원)나 늘어나 6천 780억원으로서 세입총액의 84.2%에 달하고있다. 이것은 1970년도에 비하여 1.8배, 1960년도에 비해서는 무려 24.8배에 달하는것이다.

이해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조선의 매 주민에게 들씌운 세금은 2만 2천 600여원, 가족 5명을 기준으로 세대마다 11만 3천여원으로서 1년내내 먹지도 쓰지도 않고 뼈빠지게 일해도 다 물수 없는 엄청난 것이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방대한 수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파쑈적수탈기구와 인원을 대대적으로 늘구고 각종 《세법》들을 꾸며냈다. 또한 직접세률 올림과 함께 간접세의 비률을 보다 더 높이는 악랄한 방법도 적용하였다.

놈들이 《벌금》의 이름밑에 남조선 인민들에게서 강다짐으로 빼앗아낸 돈만도 63억 600만원에 달하였다.

괴뢰정부재정위기의 심각성은 다음으로 괴뢰정부재정수입과 지출사이의 균형의 파탄에서 나타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온갖 악랄한 책동을 다하여 조세수탈을 강화하고 막대한 대외부채까지 끌어들이고도 해마다 만성적인 적자예산을 면치 못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해 괴뢰정부예산을 가리켜 《균형예산》이니, 《건전한 재정》이니 뭐니하고 떠벌였으나 사실은 막대한 적자요인을 가지고있을뿐아니라《불확정세입》이 또한 많은 돈에 이르고있다.

이해 괴뢰정부재정예산의 《적자요인》들로서는《한국은행으로부터의 단기 및 장기차입금》3천 555억원, 《국채 및 공채》 1천 710억원, 《국고채무부담행위》 519억 4천 476만원 등 무려 5천 856억원이나 된다.

이밖에도 《불확정세입》으로서 일본, 미국으로부터의 《재정차관》, 《경기호전》을 예견한 《법인세》, 《관세》등을 《과대계상》한것들도 적자요인이 아닐수 없다.

인민들로부터 빼앗아낼것을 예견한 조세수탈부터가 폭력의 배경없이는 아무런 담보도 없는 《수입예산》인데다가 이처럼 거액의 여러가지 적자요인을 가지고있는 괴뢰정부재정예산은 《세입》과 《세출》사이의 커다란 균형파탄을 가져오지 않을수 없었다.

이해 11월말현재 대외《무역》에서 생긴 적자는 전해의 2배가 넘는 21억 6천 800만딸라에 이르고있다.

괴뢰정부재정에서 《세입》과 《세출》사이의 균형의 파탄은 무엇보다도 미제의 지시에 따르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재정예산편성에서의 《군사제1주의》에 그 원인이 있다.

이해 괴뢰정부 《예산》에서 직접적군사비는 2천 216억원으로서 당초예산 보다도 20.3%나 늘어났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해 괴뢰정부재정예산에서 직접적군사비만 늘인것이 아니라 《재정투융자》의 규모도 크게 늘였는데 그 내용은 거의 전적으로 놈들의 전쟁준비에 따르는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치기 위한 것들이다.

즉 이해 괴뢰정부 《예산》에서《재정투융자》는 《세출예산》의 28.6%인 2천 311억원으로서 1973년보다 31.8%가 늘어났는데 그 대부분이 철도, 항만, 통신, 전략도로를 비롯한 전쟁준비에 따르는 시설들의 신설확장과 《전략산업》에 돌려졌다.

괴뢰정부재정위기의 심각성은 박정희괴뢰도당이 눈가림으로 재정지출총액에서 극히 보잘것없는 낮은 비률로 배정하고있는 《경제사업비》, 《사회문화비》마저도 대부분 군사적목적에 써먹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괴뢰정부위기의 심각성은 또한 그로부터 벗어나보려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발악적책동으로 인하여 빚어진 엄중한 통화팽창에서 나타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12월 7일 악화되는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해 미국 딸라에 대한 남조선돈의 환률을 400대 1로부터 480대 1로 즉 한꺼번에 20% 올리는 《류동환률제》를 실시하며 《물가구조를 개선》한다는 구실밑에 12월 15일부터 석유류제품의 값을 평균 31.3%, 전기료금은 평균 43.4%, 철도화물료금은 평균30%씩 각각 올리는 방법으로 통화팽창을 막고 그 선에서 전반적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이른바 《특별조치》를 취하였다.

딸라가치를 일방적으로 끌어올린 매국적환률인상으로 놈들이 1975년에 물어야할 외국독점자본가놈들로부터 끌어들인 《도로차관》에 대한 원금과 리자만도 당초보다 7억 2천 500만원이 자동적으로 불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9월말현재 들어온 《상업차관》에 대해서도 당초에 갚아주기로 계약된 원금과 리자를 내여놓고도 1천 440여억원의 빚돈을 추가적으로 더 물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또한 박정희괴뢰도당은 지난해 보다 745억원이나 더 많은 1천 790억원어치의 갖가지 채권과 증권을 찍어내여 인민들에게 강다짐으로 들씌웠다.

이해에 남조선에서 통화량은 그 전해에 비하여 무려 31.1%나 늘어났다.

남조선경제를 휩쓸고있는 물가의 급격한 오름새도 근본은 박정희괴뢰도당의 재정위기를 모면하려는 책동의 한 고리로서 놈들이 아무런 담보도 없는 지폐를 마구 찍어내는데 있다.

이해 남조선에서의 물가등귀는 그 오름새가 전례없이 높았을뿐아니라 그것이 대중소비품으로부터 원자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품들을 포괄하였다.

적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월부터 6월사이에 남조선에서 도매물가는 무려 32.8%나 뛰여올랐다. 이것은 역시 통화팽창이 심했던 그 전해 같은 기간의 상승률에 비해보아도 6배나 높은것이며 심각한 통화팽창속에 허덕이는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의 같은 시기 (1974년 1~6월)의 도매물가상승률과 대비해보아도 3~3.5배나 높은것이다.

괴뢰정부재정위기의 심각성은 또한 괴뢰정부의 방대한 대외부채에서 나타나고있다.

괴뢰정부가 외국에 지고있는 빚은 76억 5천만딸라가 넘는다. 이것은 괴뢰정부재정을 미일제국주의에 더욱 철저히 예속시키고 재정집행을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하고있다.

가뜩이나 세입원천이 고갈되고 확실치 못한 괴뢰정부재정이 이처럼 무거운 대외부채의 압박까지 받고있는 사실은 재정위기의 심각성이 이만저만 아니라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사 회 문 화

반동적교육

1974년에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말살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온순한 식민지노예로, 값싼 대포밥으로 만들며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와 조국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흉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조선의 교육제도를 반동적으로 더욱더 개편하였을뿐아니라 교육내용과 방법을 보다 악랄하게 개악하고 청소년학생들에게 가장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식민지노예교육을 강요하였다.

《반공》교육 박정희괴뢰도당은 이해 특히 청소년학생들속에서 날로 드높아가고있는 반독재, 반《정부》투쟁기운을 억누르고 제놈들의 매국배족행위와 파쑈적폭압만행, 민족분렬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반공교육》을 더욱 악랄하게 실시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청소년학생들속에 《반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 교육기관을 재정비하고 교수시간을 더 늘이고 교수내용을 보다 악랄하게 개편하였다.

5월 9일 박정희도당은 이른바 《정부, 여당련석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정부, 여당》은 교육기관들을 재정비하고 남조선 각급 학교학생들과 인민들에게 《반공교육》을 강화하라고 떠벌였다.

또한 6월 6일에는 청소년학생들에게는 물론 인민들에게도 《반공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껄이면서 《반공교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구인 《반공연구위원회》를 조작하였다.

5월 12일에는 남조선의 모든 학교들에서 실시하던 《국민륜리과목》 가운데서 《공산주의비판》부문을 따로 떼내여 매학년 시간배정을 5~6배 더 늘여 《반공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속에 북과 남사이의 대립감정을 조장하고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적대의식을 고취할수 있도록 전반적인 교육내용을 개편하고 온갖 음흉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공화국북반부의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악랄하게 헐뜯으며 비방중상모독하였다.

놈들은 특히 청소년학생들속에서 급격히 높아가고있는 평화통일기운을 말살하기 위하여 《반공교육》을 교활하게도 《통일교육》, 《새마을교육》으로 위장하고 《통일》문제를 잘 취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유신리념》에 기초한 《통일교육지침》이라는것을 시달하였다. 여기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은 제놈들이 마치도 《통일노력》과 《통일정책》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묘사하면서《국력배양》의 《중요성》과 《승공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74년에 박정희괴뢰도당은 《반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놈들의 충실한 졸개들로 교원대렬을 꾸리는 책동을 미친듯이 벌리였다.

놈들은 실감있는 《반공교육》을 준다는 이름밑에 전쟁시기 동족을 살륙하는데 솜씨를 보인 군사파쑈분자들을 《반공교육》 담당교사로 배치하였으며 대학에 《특수연구기관》들을 새로 세우고 《반공교육핵심》을 육성하며 사범대학에 《국민륜리학과》를 두고《반공교사》를 양성하는데 미쳐날뛰였다.

6월 16일에는 《국민륜리학과 졸업자는 최우선적으로 반공교사에 채용될것이다.》라고 떠벌이면서 《반공교육교사》들을 악질적인 《반공》분자들로 교체하는 놀음을 벌리였다.

이해에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학생들속에서 과외활동을 통한 《반공교육》을 강화하였다.

놈들은 각급 학교들에서 교수시간전에 수시로《반공조회》라는것을 열고 《반공의 노래제창운동》을 벌리며 《반공표어》들을 제시하는 등 《반공사상》을 불어넣기 위하여 미쳐날뛰였다.

또한《수학려행》, 《산업시설견학》, 《무기헌납식》이니 하는 이름밑에 《교련실기대회》들을 련이어 벌렸으며 《승공영화》를 통한 《승공교육》, 《반공》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웅변대회》, 《승공혁신회》 등을 억지다짐으로 벌리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해에 새 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면서 학원에 대한 파쑈화, 군사화책동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였다.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특히 학원들을 방대한 군사, 경찰, 정보, 특무망으로 뒤덮고 학생들의 일거일동을 《유신》의 형틀에 얽어매놓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선진사상을 연구하거나 진리를 탐구하지 못하도록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또한 청소년 학생들속에서 날을 따라 반파쑈민주화투쟁이 치렬하게 전개되자 《휴교령》, 《조기방학》을 조작하여 몇달씩 학교문을 닫고 진보적인 학생들을 학교에서 내쫓거나 체포구금하였다.

이해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까지 날조하여 수천명의 학생들을 닥치는대로 체포투옥하고 수십명의 학생들에게 무기징역에 이르기까지의 갖가지 중형을 들씌워 그들로부터 배움의 길을 빼앗은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은 각급 학교들의 과정안에 군사훈련시간을 대폭 늘이였으며 이른바《사격경기》, 《행군대회》 등 여러가지 군사연습을 빈번히 벌려놓았다.

8월 5일부터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남조선 각 대학들에서 300여명의 학생들을 끌어다가《특수공수훈련》이란것을 강제로 시키였으며 경상남도 진해만에서 100여명의 대학생들을 《특수해상훈련》에 내몬것은 그 한 실례이다.

학비인상책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에서 근로인민의 아들딸들은 마음대로 공부할수도 없습니다. 남조선에서 공부를 하려면 많은 돈을 내야 하는데 근로인민의 아들딸들은 학비를 낼수가 없습니다.》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단행본, 23페지)

학원을 돈벌이수단으로 삼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 인민들과 청소년 학생들로부터 막대한 돈을 빼앗아내기 위하여 해마다 《공납금》을 비롯한 학비를 계속 끌어올리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74년에 남조선의 각급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상급학교에 올라가는 학생들이 새학기 첫날에 물어야할 교육비총액만도 700억원 이상에 달하며 1년간에 바쳐야 할 교육비는 1천 116억원도 훨씬 넘는다. 이것은 남조선전체통화량 7천 114억원 (1973년 11월현재)의 16%에 해당한 막대한 량이다.

이해에《공납금》을 2회에 걸쳐 각각 30%씩 올리였으며 지어 국민학교《공납금》중《육성회비》의 경우는 300%까지 올려받아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놈들이 국민학교 학생 한명에게서 년간에 빼앗아내는《공납금》은 약 5만 2천원, 중학교학생은 약 7만 3천 400원, 고등학교 학생은 약 8만 7천 250원, 대학생은 30만원에 달하고있다.

남조선에서 한 학생이 국민학교로부터 대학까지 나오자면 최소한 물어야 할《공납금》만 하여도 약 199만원이상에 달한다.

이밖에도《과외수업비》,《잡부금》의 종수와 납부금액을 더욱 끌어올렸다.

그리하여 수십종의《잡부금》과 교과서 및 학용품값을 비롯한 학비까지 포함하여 국민학교는 년간에 12만 2천원, 중학교는 21만 2천원, 고등학교는 년간 36만 6천원의 학비가 있어야 하며 대학은 69만원의 학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한 학생이 국민학교를 졸업하자면 73만 2천원, 중학교를 졸업하자면 63만 6천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면 109만 8천원, 대학을 졸업하자면 276만원이 들어야 한다. 즉 한 학생이 국민학교로부터 대학까지 졸업하자면 522만 6천원의 막대한 돈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많은 돈을 물수 없어 이해에도 입학은 하였으나 학교로 가야 할 날까지 등록을 못한 학생들의 수가 무려 50%가 훨씬 넘었으며 국민학교를 졸업하고도 중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이 근 100만명이나 되였다.

서울 고려대학교의 경우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오른《등록금》을 내지 못하여 학교당국이 2차, 3차까지 등록기간을 연장하여도 3월 6일현재 16.4%라는 아주 낮은 등록률을 보이였다.

한심한 교육시설 남조선 인민들과 학생들로부터 앗아낸 돈을 군사비로 충당하거나 사리사욕에 채우고 교육비로는 거의 돌리지 않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책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학생들의 교육설비는 말할수 없는 한심한 형편에 있다.

우선 공부할수 있는 교실이 엄청나게 모자라고있다.

괴뢰도당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국민학교들에서 모자라는 교실이 3만 6천여개, 중학교는 1만여개에 달하고있다. 이것도 놈들이 한 교실에 80～150명씩 몰아넣고있는데 따른 교실 부족수이지 한 교실에 40～60명을 기준하여 계산한다면 국민학교 교실부족률은 무려 66%나 되고있는 실정이다.

교실이 이와 같이 모자라 남조선에서는 한개 교실에 평균 85명, 지어는 120～130명까지 넣고 수업하는데 이런 학급수가 전체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70%에 달하고있다.

교실부족으로 인하여 남조선의 모든 학교들에서 2～3부제수업을 하는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지어는 5부제수업까지 하는 학교들도 수없이 많다.

여기에 책상과 걸상까지 모자라서 한 책상에 3～4명의 학생들이 비좁게 앉아 수업을 받고있는 형편이다.

남조선의 신문까지도《어떤 학교는 한 교실에 100명 넘게 수용하고있으며 콩나물교실은 날로 심해지고있다. 2인용책상을 3～4명씩 사용케 함으로써 학생들은 선생의 지도를 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자리다툼에 신경을 쓰고있는 실정이다》라고 썼다.

남조선에는 있다는 교실마저도 낡을대로 낡아빠져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에 있는 학교들의 교실은 60%이상이 지은지 40～60년이 지난 나무 또는 흙으로 지은것으로서 거의 모두가 당장이라도 무너질 위험에 처해있다.

남조선의《기독교방송》이 전한 충청남도의 국민학교들의 실태만 보아도 교실의 80%이상이 낡을대로 낡아 당장 무너질 위험에 처해있으며 경상남도에서는 3천여개의 교실이 40여년전부터 써오던 나무로 지은 건물로서 천정과 기둥이 다 썩어 약간의 비만 와도 비물이 마구 새여들어 학생들이 수업을 하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전라남도 담양군 룡면《국민학교》의 교실가운데 10여개 교실은 6년전부터 비가 오면 50여군데나 새여 장마철이면 학생들이 새는 비를 피하느라고 소동을 피우고있으며 이해 4월 26일 경상북도 월성군 양북중학교의 한 교실에서는 수업도중에 천정이 무너져 수많은 학생들이 부상을 당하였다.

남조선학교들은 장마철이면 물란리가 나서 수업을 못하고 겨울에는 구멍뚫린 천정과 벽으로부터 불어들어오는 찬바람으로 인한 추위때문에 제대로 수업을 못하고있다.

남조선학교들은 또한 실험실습설비와 교육직관물이 전혀 갖추어져있지 않다.

경상북도안의 99.3%에 달하는 학교가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교구비품이 전혀 갖추어져있지 않다. 경기도안의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실험실습조건은 겨우 12%밖에 해결되여있지 않으며 서울대학교는 시설기준량의 40%밖에 갖추어져있지 못한 형편에 있으나 그나마도 대부분이 낡아서 리용하지 못하고있다 한다.

또한 남조선국민학교들의 45%가 전기시설, 70%가 수도 및 위생시설이 되여있지 않다.

남조선의 각급 학교 학생들은 교과서와 교원이 없어 수업에 막대한 고통을 받고있다.

놈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강원도안에서 국민학교 신입생의 100%, 재학생의 48%, 중학교의 신입생 68%, 재학생은 58%, 고등학교의 신입생은 74%, 재학생은 40%나 교과서가 없어 수업에 막대한 고통을 받고있다.

남조선출판물의 자료에 의하면 5월 20일현재 남조선 강원도안의 중학교의 경우에 무려 600여명의 교원이 모자라는 형편이며 서울대학교 부속학교들에서는 겨우 57%가 확보되였을뿐이다.

그리하여 교원마다 2～3개 학급을 담당하는것이 보통현상으로 되고있다. 그래도 다른데 비하여 좀 낫다는 서울시안의 각급 학교의 경우에도 한 교원이 2개이상의 학급을 맡고있는것은 전체 교원의 26%이상이나 되고있다.

퇴폐적이며 불건전한 교육환경;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교육정책의 후과로 하여 남조선의 각급 학교들은 퇴폐적이고 색정적인 각종 술집들과 료정들로 둘러싸여 학생들의 건전한 정신세계를 흐리게 하고있다.

서울시안의 경우 학교주변에 술집을 비롯한 극도의 사치와 부화타락한 생활을 보여주는 각종 류행시설들이 널려져있어 교육에 지장을 받고있는 학교수는 67%이상에 달한다.

부산시에는 학교주위에 흩어져있는 료정에 의하여 교육에 고통을 겪고있는 학교수가 47%에 달한다고 한다.

남조선학교들에는 학생들의 건전한 생활을 흐리게 하는 각종 불량만화와 영화들이 급격히 침투되고있어 학생들속에서 부화타락의 길로 떨어져가는 수가 점차 늘어나고있다.

경상남도 함안군내 각급 학교들의 주변에는 색정적이고 퇴폐적인 만화들을 파는 40여개의 각종 불량만화점들이 있다고 한다.

지어 학생들이 사용하고있는 출자나 각도계에까지 불량만화를 새겨서 판매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계몽영화》란 미명하에 록음만 우리 말로 바꾼 일본영화를 학교들에서 공공연히 돌리고있으며 학교주변에 대형고성기를 설치하여놓고는 학생들에게 각종 퇴폐적인 음악을 보급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학생들의 교육과 건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각종 공해산업들을 학교주변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가스와 악취, 소음으로 하여 수업과 건강에 막대한 저해를 받고있다.

경상북도 문경군 점촌읍내 3천여명의 학생들은《대한카바이드》공장에서 내뿜는 검은 연기와 독한 가스가 교실안에 날아들어 입마개를 쓰고서야 수업을 받는 형편이라 한다.

남조선의 한 방송이 전한데 의하면 남우국민학교와 남우고등국민학교의 1천 500여명의 학생들은 주변사료공장에서 풍기는 악취때문에 하루에 평균 15～16명의 학생들이 심한 구토까지 일으키고있다 한다.

서울시 서구관내 20여개 학교들은 주차장 혹은 철길에서부터 30～40메터 안팎에 자리잡고있어 기적소리와 각종 소음으로 수업에 지장을 받고있으며 경상남도내 각급 학교들의 42%, 부산시는 72%가 각종 소음으로 하여 수업에 지장을 받고있다.

남조선의 각급 학교들은 교육환경이 형편없이 불결한 처지에 놓여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내 각급 학교들의 주위에는 도살장 149개소, 오물처리장 180개소, 분뇨처리장 92개소, 폐수처리장 320개소가 있으며 서울시 도봉구 신상계국민학교앞 운동장은 오물적하장으로서 하루에도 260여차의 청소차가 드나들고있어 교원, 학생들이 운동장을 지날 때에는 코를 막고 달리고있는가 하면 무더운 여름철에도 창문을 열지 못한다고 한다.

민족문화말살책동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일반동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민족문화가 여지없이 짓밟히고 썩어빠진 〈양키문화〉와 왜색, 왜풍이 판을 치고있으며 인민들의 정신세계를 좀먹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58페지)

박정희괴뢰도당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남조선에서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미풍량속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귀중한 문화유물들이 심히 파괴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인민들에게 친미친일사상을 부식하며 그들의 투쟁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미일반동들과 함께 각종 문화침략기구들과 《협정》들을 조작하고 그것을 통하여《미국문화》와 왜색, 왜풍을 끌어들였다.

또한 놈들은《시찰단》이요, 《사절단》이요, 《관광단》이요 하는 명목으로 매해 수십만에 달하는 침략의 사환군들을 끌어들이며 지어는 미제의 침략의 척후병인《평화봉사단》까지 끌어들여 남조선의 사회풍조를 어지럽히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미국식생활양식》과 왜색왜풍을 마구 끌어들인 결과 남조선에서 우리의 슬기로운 민족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그 대신 말세기적풍조가 생활의 모든면에 침습하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구미반동문학예술의《한국화》책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문학작품과 영화는 인간증오와 색정, 허위와 비애를 례찬하고 음악은 광증과 비애, 절망을 고취하며 무용은 색정을 선동하는 비속하고 추잡한 내용으로 일관되여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의 어용나팔수로 더욱더 굴러떨어진 남조선의《반공문학》은 그 형상무대를 주로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와 공산주의자들을 헐뜯는데 돌리고있으며《자유민주주의》의 추악한 간판밑에 저주로운 남조선사회를 미화하기에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또한 남조선인민들속에 전쟁의식과《반공》사상을 불어넣기 위한 전쟁주제의《작품》들을 내는가 하면 지어 피묻은 칼을 들고 조선침략의 첫길에 올랐던 일본사무라이들을 찬양하는 소설까지 나돌고있다.

상영되는 영화는 대부분《반공》선전을 위한것, 미국과 일본의 추잡한 색정과 깽을 취급한것들로서 그것들은 미제의 식민지정책을 은폐하고 퇴폐적인 반동사상을 류포시키며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륜리도덕적으로 부패타락하게 하고있다.

이해에 들어와 돌린 영화만 보더라도 력사적사실들을 날조하여 공산주의자들을 터무니없이 비방, 중상모독함으로써 민족적대립의 감정을 고취하면서 인민들의 민족적,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며 조국통일에 대한 의욕을 수 없는 지향을 약화시키려 하고있으며 미제의 식민지정책을 적극 옹호하고있다.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한것은 미일침략자들에 대한 환상과 허무주의, 색정주의, 인간에 대한 증오사상으로 충만된 영화들이다.

이 영화들은 모두가 탄식과 눈물, 고독과 비애, 타락과 절망, 범죄와 방탕, 색정, 황금만능을 고취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서로 치고 쏘고 쫓는 실로 인간의 정상적인 사고력으로써는 도저히 생각할수 없는 몸서리치는 판장판을 보여주고있다.

이와 같은 영화들은 소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추구하는 목적은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이 인민대중을 계급적으로, 민족적으로 각성되지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낡고 썩은 식민지제도에 대한 반항을 무마하자는 것이다.

사정은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노래들은 쟈즈음악과 퇴폐적인 왜색가요의 선률에 뒤섞여 민족적인것은 알아볼수 없다.

이런것들은 우리 나라 민요가락에 미국음악의 색조를 마구 혼합하여 변조시켜 저속하고 음탕한 색정적인 기분을 자아내게 하고있다.

어떤것은 곡만이 아니라 가사까지도 미국식으로 엮어놓고있다.

또한 음악에서 주류를 이룬것의 하나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추잡한 류행가들과 새로 지은 색정가요들이다.

이리하여 남조선음악계는 퇴폐적이고 친미, 친일 사상을 고취하는 음악의 잡동사니로 되였으며 더우기 가슴아픈것은 이런 음악들이 국민학교 3～4 학년밖에 안되는 어린 학생들의 입에까지 옮겨가고있는것이다.

저속한 이런 음악에 따르는 무용 역시 비비꼬며 광태를 부리는 추악한것들임은 말할것도 없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우리 민족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하여 우리 인민의 귀중한 민족적재부이며 민족의 자랑이 깃들어있는 민족어를 말살시키기 위하여 날뛰였다.

놈들은《조선어의 렬등설》이라는 반동적《리론》을 조작하고 조선사람은《영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떠벌이며 일본군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일본말까지 끌어들이고있다.

특히 박정희괴뢰도당은 학교들에서 일본말을 제2외국어로 정하고 일본어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데 대한 매국적조치까지 취하였으며 서울에서만도 400여개의 《일본말강습소》를

설치하고있다.

남조선 신문, 잡지들과 방송, 텔레비죤, 광고들에서는 외래어들이 광범히 류포되고있으며 영어와 일본말이 뒤범벅이 된 국적을 분간할수 없는 천박한 말이 류행되고있다.

놈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출판물에서《평균 한 신문당 1천개이상의 서구라파어가 사용되고있으며 주간지는 한 지면당 평균 1천 17~2천 626개어 이상의 외래어를 사용하였다》한다.

7월 13일《한국문화방송》의 경우《제목의 36.3%가 서양말》이라고 폭로하였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고유한 조선말을 쓰는것은 무식한것으로, 영어와 일본말을 하고 한자를 많이 써야 유식한 사람으로 인정되고있으며 일부 중류계층들속에서는《외래어를 알아야 출세할수 있고 돈벌이도 잘할수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이름도 미국이나 일본식으로 부르고있다.

지어 5월 4일과 7월 19일의《한일의원간친회》와《한일협력위원회》에서 남조선괴뢰들은 일본말로《회의》를 하는 매국배족행위를 감행하였다.

《미국식생활양식》과 왜색, 왜풍을 끌어들인 결과 영어와 일본말로 된 음탕한 간판들이 서슴없이 내걸린 거리와 식당, 다방, 술집, 려관들에는 대낮에도 미국과 일본 노래들이 흘러나오고있으며 일부 녀성들속에서는《육체로출제 1주의》바람이 불어 조선녀성의 전통적인 아름다운 풍모를 더럽히고있다.

부르조아생활양식에 물젖은 부유한 계층의 가정부인들이《도박》을 하고 청소년들이 양춤장과《유흥가》를 싸다니며 추태를 부리는 등 극도로 부화타락하고 추잡한 퇴폐적인 현상이 남조선사회를 지배하고있다.

말과 옷차림까지도 양풍과 왜풍을 그대로 본따며 지어 얼굴까지도 미국놈들을 닮아야 잘난것이라고 하면서 얼굴을 수술하는 추태까지 부리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의 한 대학교수는 썩어빠진《미국식생활양식》이《남조선사람들의 본래의 관습을 압도하고 변경시켰다》고 분노를 표시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미국문화》와 왜색왜풍을 끌어들여 사회풍조를 어지럽혔을뿐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재능이 깃들어있는 수많은 고적들을 닥치는대로 마사버리고 귀중한 문화유물들을 해외에 팔아먹는 반역행위를 감행하고있다.

남조선《경향신문》1974년 6월 20일호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최근년간 박정희괴뢰도당이 해외에 팔아먹은 문화재는 미국의 박물관과 미술관에 2천 745점, 일본에 2천 958점, 영국에 308점, 이밖에 카나다, 서독, 프랑스, 벨지끄 등 여러 나라에 6천 600여점이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그밖에 알려지지 않은 것은 얼마인지 헤아릴수 없다.

또한 남조선의《강원일보》와《동아일보》는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조선강원도 원주시주변에서 발굴한 리조청자기를 비롯한 100여점의 유물과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발굴한 1만여점의 리조, 고려, 백제의 문화재를 일본에 팔아먹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놈들은 금관, 금불상, 토기를 비롯한 귀중한 문화유물들을 팔아먹다 못해 선조들의 무덤앞에 있는 망두석까지 팔아 돈벌이를 하고있다.

또한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국놈들은 치외법권을 악용하여 수많은 문화재를 훔쳐가며《관광객》의 미명하에 기여든 일본놈들은 남조선의 절간에 있는 그림까지 훔쳐가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또한 새 전쟁 도발에 광분하면서 도로확장공사요, 뭐요하면서 수다한 문화재를 파괴해버리거나 돈벌이대상으로 삼고 마구 유린하고있다.

이리하여 귀중한 문화재들이 허리를 잘리고 산산조각이 났으며 서울의 많은 고궁들과 락동강일대의 천연기념물까지 거덜이 나고있다.

경상북도 경주 불국사는 도저히 면모를 알아볼수 없게 되였으며 부여읍내의 사적지는 원형을 잃어가고있을뿐아니라 수백개의 백제석재가 다른 나라에 건축용으로 팔려가고있다.

친일주구 박정희역적은 옛상전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일제침략군의 유골들을 모아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벽제리에다《무명일본인위령탑》을 세우는 용납못할 반역행위를 감행하였으며 리조말기 유적인 서울의 운현궁자리를 일본대사의 집터로 내주려고까지 하였다.

또한 남조선괴뢰도당은《관광》이란 이름밑에 유적지들에 온갖 접객시설들을 차려놓고 일본놈을 비롯한 관광객들을 마구 끌어들여 돈벌이를 하고있다.

이리하여 우리 민족의 슬기와 로력이 깃들어있고 숭고한 민족적기개가 스며있는 유적지들이 음탕한 유흥지로, 도박장으로, 범죄의 소굴로 되고있다.

한심한 보건실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생활의 무참한 령락과 보건사업에 대한 집권자들의 범죄적무관심의 결과로 오늘 남조선에서는 여러가지 전염병과 만성질환이 무섭게 퍼지고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채 신음하고있으며 죽어가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46페지)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매국역적 박정희파쑈악당의 반인민적보건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은《병마의 소굴》,《질병의 왕국》으로 전변되였으며 절대다수 근로자들은 여러가지 전염병과 질병에 걸려도 아무 치료도 받지 못한채 무참히 죽어가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의 전체 섬들과 560개의 면들에는 의료시설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남조선인구 7천명당 의사는 겨우 1명밖에 차례지지 않는 형편이다.

전라북도에서는 의사 한명이 1만명의 도내 주민들을 맡아보는것으로 되고있으며 전라남도는 212개의 보건소가운데 의사가 없는 명목상 보건소가 57%나 되며 남조선강원도의 고성군소재지에는 병원이 하나도 없으며 양양군에는 1명의 의사밖에 없다.

특히 200만명의 서부 경남지구주민을 맡고있는 진주도립병원에는 단 한사람의 전문의사도 없는 형편이며 마산결핵병원에는 4명의 의사가 있을뿐이다.

남조선에서는 병원을 리용하는 환자의 수는 겨우 22%밖에 안되며 그밖의 환자들은 병원문이란 구경조차 못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보잘것없는 보건시설마저 저들의 돈벌이수단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서울을 비롯한 도시들에 집중시키고있다.

놈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여도 의료일군 총수의 80%가 도시에 집중되여있고 인구의 70%이상이 살고있는 농어촌은 대부분이《무의촌》이다.

특히 약국수의 절반은 서울시내에 집중되여있다.

3월 6일《신아일보》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인 보건시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전국적으로 의료사업이 확보되지 않아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수 없다. 더

구나 겨우 12키로메터이상을 걸어야 병을 볼수 있다는 지역이 많다는것은 주민들의 불평이 말이 아니다. 한국의 의료제도는 언제까지 이런 상태에 있을것인가, 온 국민이 골고루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고 질병에 대한 공포를 덜기 위해 현행의료제도의 모순점과 개선책이 요망된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치료비를 계통적으로 끌어올려 가난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치료를 받을수 없게 하고있다.

1974년에만 하여도 전해에 비하여 평균 치료비는 50~500%까지 끌어올렸으며 수술비는 25~50%, 입원비는 100%, 약품과 위생용품값은 각각 10~200%, 붕대값은 300%까지 끌어올리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괴뢰들이 공개적으로 끌어올리는 이러한 치료비외에도 의사들자체가 또한 환자들로부터 치료비와 약값을 제멋대로 올려받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해마다 치료비를 올리는 략탈행위를 감행함으로써 남조선근로자들은 진찰만 받으려 하여도 진찰권 200원에 진찰비 300원을 합하여 500원을 물어야 하며 간단한 치료 (주사 1대, 약 1일분) 를 받자고해도 1천 300원~2천 500원을 물어야 한다.

수술비는 2만 4천~8만 4천원, 입원비는 하등실인 경우 하루에 1천 800원, 왕진료는 500원~5천원, 렌트겐검사비는 1천 800~2천 40원, 조산료는 3만원이나 된다.

남조선로동자들이 배수술을 한번 받으려면 치료비, 진찰비, 입원비, 수술비, 약값만하여도 4년간의 임금을 몽땅 털어내놓지 않으면 안된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방역사업비》에서도 1인당의 의료비를 상층계급들이 기르는 집짐승방역비보다 엄청나게 떨어뜨려 정하고있다.

이해 충청북도의 방역비는 인구 1인당 10원 70전이라면 닭 등 집짐승 1마리당 돌려지는 방역비는 39원 85전이며 경상북도 영주군은 한 사람의 방역비가 1원 50전에 비해 집짐승은 12원 80전으로 가축이 사람보다 10배나 더 많이 할당받고있다.

또한 괴뢰도당은 얼마되지 않는 예방금마저 제놈들의 사치한 생활에 탕진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의 악정으로 남조선에서는 전염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들이 계속 퍼지고있다.

놈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결핵감염환자는 전체 인구의 70%나 되며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는 해마다 2만 5천여명을 헤아리고 있다. 1974년에 전라북도의 청장년들속에서만도 결핵환자는 전해보다 14.3%나 늘어났다.

또한《망국병》으로 불리우는 성병환자는 160만이나 되는데 그것은 부정부패를 일삼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륜락행위가 심해짐에 따라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성병환자의 40%는 청년들이며 오늘 그것은 10대의 어린이들에게까지 전염되여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2월 27일《서울신문》은 《전국 기지촌지역접객사업소, 호텔, 다방, 륜락가 등 녀성들의 신체검사결과 이 부문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성병발생이 1972년도에 평균 10%이던것이 1973년도에 19% 증가되였다.》고 폭로하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이 외국의 공해산업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인 결과 각종 환자가 늘어나고있다. 암환자는 장악된 수만 하여도 해마다 6만~7만명 발생하며 3만 5천명이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채 죽어가고있다.

또한 문둥병, 홍역, 콜레라, 장티브스, 일본뇌염 등 전염병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는데 1974년에 일본뇌염은 전해에 비하여 2배, 기타 여러 종류의 전염병이 배이상 늘어났다.

또한 근로자들에 대한 로동보호조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아 각종 직업병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있다.

놈들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가스중독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있는 로동자들은 고무공업부문 로동자들의 80%, 화학공업부문 로동자들의 50%에 달하며 각종 중독을 일으켜 눈, 코, 피부에 질환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정밀기계부문 로동자들의 89%, 전기부문로동자들의 90%에 달한다.

오늘 남조선《주민의 70%가 여러가지 질병환자》이며 각종 전염병으로 하여 죽는 사람은 해마다 30만명에 달하고있다.

이에 대하여 서방의 한 기자는《한마디로 말하여 남조선은 〈병마의 소굴〉이며〈질병의 왕국〉이며 온갖 세균들의〈진렬장〉이다. 이 무서운 병마의 소굴에서 남조선인민들이 생명을 보존한다는것자체가 기적이 아닐수 없다》라고 썼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보건정책의 후과로 남조선에서는 각종 질병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채 목숨을 잃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이 약값과 치료값을 올림으로써 남조선의 가난한 주민들속에서는 병을 고치기 위하여 자기 눈과 신장을 팔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치료비를 내지 못해 병원에 묶여있는 비참한 현상이 련일 나타나고있다.

7월 14일《동양라지오방송》에 의하면 서울 성동구 천호동에 사는 오정현은《담석병과 당뇨병으로 22년동안 앓아온 홀어머니의 치료비를 대준다면 자신의 눈이나 신장을 대신 주겠다》고 호소해왔다.

5월 28일에는 치료비 7천원을 내지 못해 인질로 갇혀있는 서울 중구 회현동에 사는 전현진은 문병을 온 아들을 대신 맡기고서야 5일만에 풀려나온 사실이 있다.

부산시 중구 부평동에 사는 리칠조의 네살나는 딸이 교통사고로 부산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으나 《병원당국은 보증금 10만원을 내지 않으면 입원시켜줄수 없다》고 하기때문에 돈을 구하러 다니다가 수술시기를 놓쳐 숨졌으며 삼천포시 선구동에 사는 리차순은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한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비관해오다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참상까지 일어났다.

또한 3대가 모두 앓아누워 심한 고통을 받고있으면서도 돈이 없어 약 한첩 못써보고《우리를 좀 살려주세요》라는 구원의 손길만 기다리고있는 전라남도 장성군에 사는 김일룡주민의 경우, 11월 련탄가스에 중독되여 서울의대부속병원 그리고 적십자병원 등을 찾아간 서울마포구에 사는 조양원로인과 정보순로파가 병원으로부터 치료를 거절당하게 되자 길가에서 숨진 사실 등은 인간의 존엄이 돈에 의하여 여지없이 짓밟히는 남조선사회의 반동성을 더욱 똑똑히 보여주었다.

참담한 인민생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 자립적민족경제가 없으니 인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

다. 남조선에서는 실업자수가 수백만을 헤아리고 있으며 절대다수인민들이 헐벗고 굶주리고있습니다.》 (《다오메정부기관지〈다오엑스프레스〉사장과 한 담화》, 단행본, 15페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남조선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로 말미암아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령락되고있다.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는 전례없는 경제위기로 하여 남조선경제는 더욱더 파국적상태에 깊이 빠져들어갔다. 경제의 파국적위기로 말미암아 기업체들은 문을 닫거나 대다수의 기업소들이 조업을 단축하고《력사상 최악의 쌀기근》, 《끝없는 절량》이 남조선전역을 휩쓸어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있다.

1974년에 실업률은 그 전해에 비하여 배가까이 늘어났다. 남조선괴뢰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실업률은 9.3%에 이르고있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그 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쪼들릴대로 쪼들려온 로동자들속에서는 그 일자리에서 마저 쫓겨나는 현상이 년중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1974년말에 경상남도에서는 경기침체와 환률인상 등으로 72개 기업체가 문을 닫거나 휴업에 들어감으로써 여기에서 일하던 1만 3천여명의 로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에 앞서 경상북도 대구에 있는 《경북견직물조합》산하의 합성섬유직물업체들과 견직물업체들이 문을 닫았거나 조업을 단축하면서 5천여명의 로동자들을 일터에서 내쫓았다.

이리하여 경상북도에서만도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24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심한 경영난으로 파산되여 1만 8천여명의 로동자들이 거리로 밀려났다.

남조선괴뢰들이 250개 기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데 의하더라도 이해 9월까지의 기간에 1만 9천여명의 로동자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났으며 중소기업체의 경우 실업률은 무려 22.5%에 달했다 한다.

남조선의 한 신문은 실업자들의 비참한 생활을 전하면서《그들은 보리겨나 비지로 끼니를 겨우 이어가거나 시장바닥에서 주은 쓰레기로 죽을 끓여먹는것이 류행처럼 되고있다》고 썼다.

이리하여 헐벗고 굶주린 실업자들이 길거리를 헤매다가 얼어죽고 굶어죽는 참상은 남조선도처에서 년중 벌어졌다.

11월 13일 경상북도 안동군 와룡면에서는 늦가을 추위에 남수자라는 녀성이 일자리와 먹을것을 찾아 거리를 헤매다가 길가에 쓰러져 얼어죽었다. 같은 날 이 도안의 영주에서도 깡통을 손에 쥔채 참혹하게 얼어죽은 한 젊은 녀성의 시체가 발견되였다. 12월 4일 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의 천막에서는 오래전부터 일자리를 구하려고 곳곳을 헤매던 한 주민이 극도의 영양부족으로 누워있던중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끝내 목숨을 잃고말았다.

남조선괴뢰도당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74년까지의 4년동안에 서울에서만도 굶어죽은 사람의 수는 매일 평균 8~9명에 달한다.

이것은 오늘 수백만 실업자들이 얼마나 눈물겨운 고통을 겪고있으며 억울한 운명을 강요당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겪고있는 식량위기는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을 극도로 령락시키고있다.

도시주민들과 로동자들은 심한 식량난에 허덕이고있다.

계절로 보아 쌀이 가장 많이 들어와야 할 시기에도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남조선의 거의 모든 도시에 쌀이 나오지 않아 사회적불안을 조성시키고있으며 쌀이 나오는 경우에도 가격이 너무 비싸 아우성쳤다.

1974년 가을의 쌀값은 전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2배로, 1963년에 비하여서는 10배나 높아졌다.

농촌지역에서도 식량사정은 심각하게 제기되였다.

남조선괴뢰도당의 량곡수탈정책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게다가 흉년까지 겹쳐 남조선농민들은 농사를 지어놓고도 식량이 없어 굶주리고있다.

농민들은 1년 지은 알곡전부를 생산비도 안되는 헐값으로 강제《매상》당하고있다.

1974년까지의 몇년동안에 수세, 인건비, 종자대 등 생산비는 평균 8.3배, 최고 19배, 생활비는 8배이상 올라갔다.

그렇기때문에 이해에도 초가을부터 식량이 떨어지고 빚더미우에 올라앉게 된 농민들이 막로동과 품팔이를 하여 연명하거나 고향을 떠났다.

남조선의 절량농가는 80%이상을 차지하며 1974년까지 5년동안에만도 리농민수는 200만명이상에 달하였다.

특히 1974년도 수해를 입은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참혹하며 8월 전라남도에서만도 리농민수는 2만 4천 100여명이 늘어났다.

남조선에서 천정높은줄 모르고 뛰여오르는 물건값역시 인민들의 생계를 크게 위협하였다.

1974년에 도매물가는 44.6%, 쌀을 비롯한 여러가지 식료품값은 30~40%로부터 2배까지 뛰여올랐다.

련탄 1개에 30~40원까지 올라간것을 비롯하여 물건값은 그전해에 비하여 50%나 전반적으로 뛰여올랐다.

박정희역적은 수도료금까지 평균 35%, 최고 100%까지 끌어올렸으며 그나마도 수도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물조차 제대로 못먹고있다.

마산시 시청관료배놈들은 물 한동이에 20원씩 내고 사라고 강요하고있으며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3만여명의 주민들은 수도물을 먹기 위하여 자체의 부담으로 1973년 8월에 통수식을 하였으나 2천 800만원의 빚때문에《법원》으로부터 전동기를 회수당하여 물을 먹지 못하였으며 서울 도봉구 쌍무동에 있는 수도에서는 흙탕물이 아니면 시궁창냄새가 나는 물이 나와 음료수는 고사하고 빨래조차 못하는 한심한 형편에 있으며 김해군 진영읍에 약간씩 보내는 음료수에서는 흙탕물이 나오고 지렁이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이것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통치가 빚어낸 필연적후과로서 남조선의 일부 특권층을 제외한 모든 인민들이 겪고있는 고통이다.

로동자들의 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로동자들은 일제때보다도 오히려 더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있습니다. 자유와 권리는 고사하고 생명을 보전하기도 어려운 정도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2권, 89페지)

남조선로동자들은 남조선에 기여든 미일제국주의자들과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있으며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는 고사하고 생명도 보전하기 어려운 비참한 생활처지에 놓여있다.

그들은 초보적인 인권과 민주주의적 권리마저 여지없이 짓밟히고 빼앗긴채 노예적굴종만을 강요당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비상사태》,

《긴급조치》와 같은 비상명들을 발동함과 함께《로동쟁의 조정법》, 《로동조합법》, 《로동위원회법》등 파쑈악법으로 로동자들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며 집회, 시위 등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마저 여지없이 유린말살하고 오직 노예적굴종만을 강요하고있다. 지어 놈들은 날로 높아가는 남조선로동자들의 반《정부》, 반괴뢰투쟁을 무마할 목적밑에 《로사협조》를 떠드는 한편 이른바《로동조합법중개정법률》이라는것을 꾸며내여 로조결성과 삶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투쟁마저도 《법》에 걸어 압살하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에 대한 박정희군사깡패무리들의 착취에서 기본을 이루고있는것은 식민지저임금정책을 통한 가혹한 착취이다.

박정희군사깡패도당은 １９６１년 5월에《경제의 침체회복에 관한 특별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고 강권으로 임금을 제놈들의《군사정변》이전 수준으로 눌러놓았다.

이것은 물건값이 계속 뛰여오르는 조건에서 사실상 임금을 깎아내리는것과 같은것이였다.

또한 그해 ９월에는《정부관리기업체직원보수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것을 꾸며내여 괴뢰정부관리기업체 로동자들의 임금을 １０~３０%씩 강제로 깎아내렸다. 이 파쑈적조치는 괴뢰정부의 이른바 관리기업체 로동자들에게만 적용된것이 아니라 남조선의 전반적기업소 로동자들에게 더욱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기준으로 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반역적죄행으로 물건값이 계속 뛰여오르고 임금과 물건값간의 차이는 더욱 벌어져 로동자들의 실질임금은 계속 떨어지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출판물들도 인정하고있는바와 같이 오늘 남조선로동자들의 임금은《후진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

박정희역도는 식민지저임금정책을 실시하면서 임금종류를 여러가지로 나누어놓거나 복잡한 지불형식을 취하는 방법을 통하여서도 착취를 강화하고있다.

특히 놈들은《일일고용원》, 《림시로동자》라는 이름을 붙여 더욱 낮은 임금으로 로동자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로동관계단체가 각부문로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로동자의 약 절반이《림시로동자》, 《일일고용원》으로 혹독한 착취를 당하고있다. 그중에서도 괴뢰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체신철도, 전매부문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하다.

놈들은 이 부문에서 로동자들의 대부분을《림시로동자》로 메우고 3개월~1년에 한번씩 일터에서 내쫓았다가 다시 가장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피땀을 혹독하게 짜내고있다.

체신부문 같은데서는 3개월마다 해고당하는 로동자들만도 전체로동자의 ４４%에 이르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렇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로동자들을 착취하면서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임금지불방법을 복잡하게 만들어 보잘것없는 임금마저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또 뜯어내고있다.

놈들은 로동자들에게 차례지는 몇푼 안되는 임금마저도 현금으로 줄대신 제놈들이 경영하는 류통망을 통하여 물건을 사도록 강요하며 금액을 적은 전표쪽지만을 주고는 현금과 바꿀 때에《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빼앗아내고있다.

이밖에도 각종 구실과 명목으로《벌과금》, 《공제금》을 뜯어내는 등 온갖 강도적방법으로 착취와 략탈을 감행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의 식민지저임금정책에 의하여 남조선로동자들의 실질임금은 계속 낮아지고있다.

１９７４년 한해동안 로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보잘것없던 그 전해보다도 ２４．６%나 더 떨어져 한달임금이란것이 최저생계비의 5분의 1~6분의 1도 되나마나한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한달 벌어서 한주일동안도 제대로 살아갈수 없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남조선로동자들은 그 보잘것없는 임금마저도 제때에 받지 못하고있다.

임금을 제때에 주지 않는 현상은 남조선의 어느 지역, 어느 부문을 막론하고 공통적인것으로 되고있다.

악질기업주놈들은 몇달 혹은 1년씩이나 미루는 범죄행위를 감행하고있는데 경상북도 경산군에 있는 염화염직회사의 악질기업주놈이 ３００여명의 로동자들에게 여러달째 임금을 한푼도 주지 않은것은 그 실례의 하나이다.

임금을 제때에 주지 않을뿐아니라 잘라먹는 현상까지 나타나고있다.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육창직물회사의 기업주놈은 나어린 녀성로동자들 １５０여명을 보잘것 없는 낮은 임금에 얽매여놓고 부려먹고는 ９월과 １０월 두달동안의 임금을 주지 않고 잘라먹었으며 마산에 있는 삼성전기주식회사의 악질기업주놈은 １２월 １４일에 １００여명의 로동자들을 내쫓았는데 놈들은 그들에게 １０월과 １１월의 두달분 임금과 그리고 회사를 그만둘 때《퇴직금》으로 준다는 명목밑에 달마다 임금에서 잘라내였던 돈을 한푼도 주지 않았다.

더우기 놈들이 내놓은 경제《특별조치》로 물건값이 급격히 뛰여오른데다 보잘것없는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못해 남조선로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형편은 날로 더욱 비참해지고있으며 그들속에서 굶어죽는가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눈뜨고 볼수 없는 참극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로동시간을 연장하며 로동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착취를 강화하고있다.

놈들은 종래의《근로기준법》을 더욱 개악하여 로동시간을 마음대로 연장할수 있도록 해놓았을뿐아니라 악질기업주놈들이 로동자들에게 연장작업을 강요할수 있게 온갖 조건을 보장해주고있다.

괴뢰도당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의 그 어느부문 어느 기업체를 막론하고 로동자들은 하루 １２~１８시간의 고역을 강요당하고있다.

그중 경공업부문로동자들은 하루 １６~１８시간, 운수부문의 나어린 녀차장들은 지어 ２０~２１시간씩이나 고역에 내몰리고있다.

악질기업주놈들은 로동자들을 이처럼 악독하게 부려먹으면서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그들에게 잠안오는 각성제까지 강제로 먹이면서 고된 일을 강요하고있다.

알려진데 의하더라도 잠이 오지 않는 약을 먹으면서 일하는 로동자들이 무려 １５０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박정희괴뢰도당과 그와 결탁한 악질기업주놈들은《경영합리화》의 구실밑에 로동자들을 부단히 해고하면서 공장에 남아있는 로동자들에 대한 로동강도를 계속 높이는 살인적인 방법으로도 혹독하게 착취하고있다.

3월초 인천부두의 하역회사들에서 한꺼번에 ８４０여명의 로동자들을 일터에서 내쫓고 나머지 로동자들에게 종래의 이 회사 전체 작업량을 그대로 강요하고있는것은 그 한례이다.

남조선로동자들은 아무런 로동안전대책도 갖추어지지 않은 원시적인 작업장들에서 매일 매 시각 생명의 위협을 받고있다.

남조선의 각 작업장들에서 로동재해는 꼬리를 물고 빚어지고있는데 １９７４년에 알려진것만 하여도 그것은 6만 8천 ８６０여건에 이르렀다. 그것은 그 전해의것보다 거의 ２０%

나 더 늘어난것으로 된다. 이로 인하여 허기진 배를 그러안고 힘겨운 일에 시달리던 로동자들 7만여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겼거나 불구자로 되는 등의 재난을 당하였다.

경상남도 울산의 현대조선소 한 기업체에서만도 1974년 1월부터 11월까지 기간에 800여건의 로동재해가 빚어져 수많은 로동자들이 무참히 생명을 잃었다.

특히 탄광과 광산들에서는 날마다 시각마다 소름끼치는 일들이 꼬리를 물고 빚어지고있다.

1974년 말에만 하여도 경상북도 문경군 대성광업소 마구리에서 천정이 갑자기 무너져내리는 바람에 집채같은 탄무지에 깔려 수많은 살상자가 났으며 남조선강원도 삼척군 장성광업소에서는 권양기가 못쓰게 되는 통에 20여명의 로동자들이 팔다리를 잘리웠다.

《마산자유수출공업단지》의 일본자본가 투기업체에 고용된 로동자들은 심한 진동소리, 가스방출, 먼지, 연가루, 조명, 복사열, 높은 온도, 습기 등 로동환경과 안전시설이 없는 작업장에서 일하고있는데 놈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단지내에서는 한달동안에만도 1천여명이 넘는 심한 직업병환자가 발생하고있으며 괴뢰들이 형식적이나마 규정한 《로동기준법》의 위반업체가 90%나 된다고 한다.

중공업부문의 로동자들은 거의 100%가 고열과 독한 화학물질의 피해로 심장병, 빈혈증 등에 걸려 신음하고있으며 남조선의 전체 로동자의 72%가 귀병과 눈병에 걸려 고통을 겪고있다.

남조선의 한 로동관계기관이 이해 6월 30일부터 8월말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 8개 도시에서 녀성로동자 3천 500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녀성로동자들의 근 30%가 위병에 걸려 고통을 겪고있으며 눈이 나빠 앞을 못보는 로동자들은 20%이상이나 된다고 한다.

이것은 오늘 남조선로동자들이 얼마나 한심한 작업조건에서 고역을 치르고있는가를 충분히 짐작할수 있게 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의 작업장들이 《죽음의 고역장》또는 《근로자도살장》으로 불리여지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농민들의 처지

농민들의 피땀을 최대한으로 짜내기 위하여 피눈이 되여 미쳐날뛴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책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민들은 1974년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무서운 가난과 극도의 무권리속에서 신음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비호밑에 농촌의 모든 실권을 틀어쥐고있는 지주놈들은 토지와 산림, 관개시설 등 농촌의 기본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 농민들을 더욱더 가혹하게 착취하였을뿐아니라 괴뢰들이 조작한 농촌의 반동관료기구들과 각종 관제어용조합들을 틀어쥐고 무제한한 봉건적 전횡과 횡포를 다 부리였다.

이해 일정한 기간 땅을 주어 농사를 짓게 하고 생산물의 50~60%를 빼앗아내는《어울리》, 일정한 땅을 주고는 농사야 됐건 안됐건 상관없이 떨어놓고 미리 정한만큼의 쌀을 강요하는《십도지》, 당장 먹을것이 없어 고통을 겪고있는 가난한 농민들에게 선심을 쓰는것처럼 몇푼의 품삯을 주고는 제놈의 일까지 할것을 강요하는 《선도지》, 교활한 지주놈들이 농민들에 대한 봉건적착취를 표면상 가리우기 위하여 자기 땅을 주어 경작케 하는《위탁농제》등 여러가지의 소작형태를 통한 지주들의 착취가 더 악랄해졌다.

충청남도 대덕군 유성면 신흥리의 한 농민은 지주놈에게 쌀 열다섯말을 바치고 논 한마지기를 겨우 얻어부쳤지만 곡식을 몇가마니 거두어들이지 못한데다 영농비까지 메우고나니 남는게 없다고 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지주놈의 땅을 얻어부치지 않을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였다.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 량동리의 정아무개 농민은《소작농은 더 늘고 농민은 더 죽게 됐어요, 우리 농민을 누가 알아줍니까, 이놈의 세상에서 죽으라는건 우리 농민이지요》라고 울분을 터뜨려놓았다.

남조선에서 소작농은 전체 농가의 70%에 달하고있다.

외국의 한 대학교수는 1971년 현재 남조선토지의 63%를 지주가 소유하고있고 논의 70%가 소작지로 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남조선의 한 기자는 자기의 농촌방문기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소작농은 갈수록 늘어나 그들의 빈궁화는 극도에 이르고》있고 반면에 《돈 많고 권세있는 탐욕적인 지주, 자본가의 세력만이 날로 커가는》모순된 이 현실은《심각한 사회문제로 나서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자기의 정치적위기가 심해짐에 따라 더욱더 지주, 매판자본가 등 반동세력에 의거하면서 《개발》이라는 구실밑에 매판재벌들의 토지략탈을 적극 장려하였으며 그것을《법》적으로 뒤받침해주기 위하여 이른바 《기업농육성》이니, 《생산성제고》니 하는 이름밑에 《토지소유한도》를 20~30정보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그리하여 경기도의 의정부시와 시흥군, 고양군, 양주군 등지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 일대의 논밭과 야산을 포함한 토지의 40~70%는 서울의 매판자본가놈들의 소유로 되여있다고 한다.

불도젤로 논밭을 깔아뭉개고 집을 마구 헐어버리는 매판자본가놈들의 악독한 만행으로 농민들은 땅과 집을 빼앗기고 피눈물을 뿌리며 고향을 떠나 정처없는 류랑의 길에 오르지 않으면 안되였다. 행여나 하여 서울이나 수원 등 도시로 나갔던 사람들은 세방 하나 얻지 못하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거지신세가 되여 돌아왔으나 발붙일 땅은 이미 없었다.

이해 인민을 억압착취하고 그들의 피땀을 악착스럽게 짜내기에 이골이 난 박정희괴뢰도당은 전에 볼수 없었던《무제한 매상》이라는 강도적구호를 들고 폭력을 휘두르며 농민들의 낟알을 깡그리 빼앗아내기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7~8월에 농민들로부터 여름곡식 300만섬을 략탈하였을뿐아니라 또한 500만섬의 가을곡식을 긁어내기 위하여 모든 착취수단과 방법을 다하였다.

농민들에 대한 최대한의 착취를 꾀하는 놈들은 《관계공무원》들은 물론 《새마을지도자》, 《4-에취구락부》 등 악질적인 반동단체까지 동원하여 농민들을 회유기만하면서 추수가 진행되기전부터 가을곡식을 강제로 빼앗아내기 위하여 미쳐날뛰였다. 또한 각 도, 시, 군들에서 《시장》과 《군수》의 책임하에 착취량을 미리 규정해놓고 시장가격보다 엄청나게 값을 눅게 정하여 곡식을 수탈하였다. 놈들은 지어 농민들이 응하지 않자 정미공장들의 문을 닫고 강탈적인 방법으로 수탈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도처에서는 《위정당국자들이 우리 농민들을 굶어죽을 지경에 몰아넣고도 감탕발속에서 훑어낸 낟알까지 수매라는 이름을 붙여 털어가려 하니 세상에 이런 날강도가 또 어디 있겠는가》하는 농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박정희괴뢰도당과 지주놈들의 이와

같은 잔인한 략탈만행이 도처에서 공공연히 감행됨으로써 이해 남조선농민들의 생활처지는 더욱 비참하였다.

봄의 그림자마냥 들이닥치는 춘궁은 온 남녘땅을 전례없이 일찌기 휩쓸었다.

남조선의 보도들에 의하면 지난해 가을에 심은 보리는 겨우 한두뼘밖에 안되고 《보리고개》는 까마득한데 농가의 70%이상이 먹을것이 떨어졌었다. 남조선에서도 곡창으로 이름있다는 평남벌의 경우를 보면 경상남도 진양군 금산면의 2개 리는 가을한지 두달도 못되는 지난해 11월말에 농가의 절반이상이 먹을것이 떨어졌었고 고성군 월하면 같은데서는 농가의 60%가 절량되였다.

호남지방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전라북도안의 대부분의 농민들은 먹을것이 없어 농사철에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굶어죽을 지경에 빠져있었다.

거듭된 큰물과 병충피해로 1천 200여세대의 농민들이 농사를 몽땅 망치고 식량이 없어 굶주린 전라남도 령암군 서호면을 비롯하여 해남군, 함평군, 고흥군, 강진군, 라주군 일대의 농민들은 이해 여름의 물란리통에 집과 살림도구를 잃은후 찬바람 휘몰아치는 겨울에도 집한칸 마련하지 못한채 움막이 아니면 거적이나 천막을 둘러친 집아닌 《집》에서 주린 배를 그러안고 추위에 떨었다.

특히 라주군 다시면 죽산리 조동부락 같은데서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여러달 낟알구경을 못하고 시레기죽으로 겨우 끼니를 에웠는바 그중 10여세대는 너무도 허기에 지쳐 바깥출입조차 제대로 못하였다.

이해 초겨울 첫추위에 전라남도 광주와 경상북도 안동, 영주 등지에서는 여러명이 허기에 지쳐 쓰러진채 얼어죽었으며 모진 생활고에 시달리다못해 제손으로 목숨을 끊는 참극이 빚어졌다.

경상남도 통영지방의 어느 한 농촌마을을 찾았던 남조선기자는 마을농민들의 비참한 모습을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굶주림에 시달리며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절량농민들의 얼굴은 황달병에 걸린것처럼 누렇게 떠서 부어있었고 바싹 여윈 몸은 차마 볼수가 없었다. 더우기 눈물없이 볼수 없는것은 녀성들과 어린 아이들의 비참한 처지였다. 누렇게 부어올라 한점의 피기도 찾아볼수 없는 얼굴들, 철모르는 어린것들이 배가 고파 앙상하게 뼈만 드러난 몸으로 양지쪽에 맥없이 앉아있는 모습은 하도 비참하여 볼수가 없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농민들을 이렇게 참혹한 지경에로 몰아넣고도 새해벽두부터 기자회견을 벌리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몇천년동안의 가난을 끊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느니 뭐니 하며 《조상탈》, 《환경탈》 등 이른바 《가난의 숙명론》을 설교하려들었는가 하면 파렴치하게도 하루 한끼조차도 굶땔수 없는 농민들에게 《덜먹기운동》을 벌리라고 떠들어댔다.

남조선농민들이 겪고있는 비참한 생활현실은 박정희괴뢰악당이 《집권》첫날부터 떠들고있는 이른바 《중농정책》이니, 《농업근대화》니, 《자급자족을 위한 식량증산》이니 뭐니하는 따위의 구호들이 농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에 사는 홍아무개로인은 《당국이 떠드는 근대화란 잘 사는놈을 더 잘살게 하자는것이고 못사는 우리 농민들의 명줄을 죄여 죽이자는것이지요. 우리가 이 고장에서 8대를 농사지어먹고 살지만 이렇게 억울해본적은 없었지요.

박정희놈은 일제때 왜놈보다도 더한 놈이지요.

그 생김새처럼 살모사같은놈이지요.》라고 격분을 금치 못해하였다.

심한 주택난

박정희괴뢰도당은 예산의 대부분을 전쟁준비와 파쑈적탄압을 위한 비용으로 탕진하면서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돌리지 않고있다.

박정희역적의 반인민적시책에 의하여 남조선인민들은 심한 주택난에 허덕이고있다.

남조선의 방송보도에 의하더라도 집없는 세대는 부산에서 전체 세대수의 50.1%, 대구시에서는 52.1%에 이르고있으며 다른 도시들의 경우도 별다른것이 없다.

서울의 실태를 보면 《시민의 절반가량이 집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괴뢰도당이 발표한 통계에 기초하여 보더라도 도시근로자가 제집을 하나 마련하는데 드는 돈을 벌려면 로동능력을 가진 때로부터 옹근 《60년이 걸려야 할 형편》이며 이것은 사실상 평생 벌어도 집 한칸도 장만하지 못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거기에다 집값은 해마다 굉장히 오르는 반면에 실질수입은 형편없이 떨어지고있는 조건에서 기를 쓰고 일해도 입에 풀칠조차 하기 힘든 도시의 가난한 주민들과 로동자들이 제집을 갖는다는것은 《그림의 떡》과 같은것이다.

얼마안되는 아빠트마저 사용료가 너무 비싸고 교통이 불편하여 돈이 없고 자가용차가 없는 일반주민들은 사용할 엄두도 못내고있다.

남조선도시들에서 보통 방 한칸짜리 세방전세는 제일 눅은것이 15만~20만원이며 월세는 5천~1만원이라고 한다.

이리하여 한줌도 못되는 특권층들은 고급호화주택을 지어놓고 부화방탕한 생활을 누리고있으나 1천여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은 집 한칸 없이 남의 집 세방이나 도시변두리에 몰켜있는 판자집, 움막집, 땅굴, 지어 천막집신세를 면하지 못하고있으며 그나마도 없는 사람들은 사철 떠돌이생활을 하다가 여기저기서 굶어죽고 얼어죽고있다.

특히 이해 7월 물란리에 집을 떠내려보낸 경상북도 영일군의 리재민들과 8월의 대홍수때 7천 100여호의 주택을 물에 잠기우고 떠내려보낸 전라남도 영산강류역의 수재민들은 여름홑옷을 걸친채 강뚝에서 천막생활을 하고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정희괴뢰도당은 인민들을 위한 집은 짓기는 고사하고 새 전쟁 도발준비를 위한 군용도로와 군사시설의 확장을 위하여, 또한 외국독점자본가들에게 공장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인민들의 보잘것없는 판자집, 토굴집마저 마구 허물어버리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놈들은 저들의 매국배족행위로 하여 빚어진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실태가 세상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여론화되는것을 막기 위해서 주요도로들과 도로주변관광지 주변의 빈민주택을 《무허가건물》이요, 《불량주택》이요 하면서 대책도 없이 강제 철거시키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해에도 《불량지구재개발》을 운운하면서 서울과 부산 등 주요도시에서 수천세대의 판자집과 인민들의 주택을 강제로 헐어버렸다.

지어 서울에서는 겨울을 나야 할 10월에 접어들어서까지 성동구 중량촌일대의 주민주택 1천 400여동에 대하여 당장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내렸으며 동대문구 신설동의 판자집 70여채를 아무 대책없이 강제철거시켜 그곳 주민들을 거리에 내쫓았다.

서울의 아현지구, 북아현지구를 비

못한 4개 지구에서도 670여동의 판자집을 강제 철거시켰다.

부산시의 동구주변의 주민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이 판자집 330여동을 《고지대불량건물》이라는 구실로 강제철거시키는바람에 야산에 천막을 치고 때아닌《야영생활》을 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판자집이 늘어나지 못하도록 매달 정기적으로 비행기를 띄워《공중촬영》놀음까지 벌리면서 가난한 주민들의 집을 모조리 짓뭉개버리기 위한 책동을 감행하고있다.

실로 사람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주택문제가 남조선에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는것은 박정희괴뢰도당의 악정이 빚어낸 필연적후과이다.

《이민》, 《인력수출》 책동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반역자들은 남조선의 수백만 실업자들을 북조선에 받아들여 취업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우리의 제의를 거부하고 동족을 구미 각국에 상품과 같이 팔아넘기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193페지)

박정희괴뢰도당은 제놈들의 장기집권과 부귀영화를 위한 몇푼의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하여 이른바《이민》과 《인력수출》을《중요시책》의 하나로 삼고 수많은 남조선인민들을 미국, 카나다, 서독과 일본, 브라질 등 50여개 나라와 지역의 해외농장주들과 독점자본가들에게 종신노예, 임금노예로 팔아먹고있다.

놈들의 이러한 동족매매책동은 1974년에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이미《해외이주법》, 《해외이민위원회》등 악법과 동족매매기구까지 만들어낸 놈들은 이해 2월에는 려권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괴뢰《외무부령사국》에 《이민담당관》제도를 내오고 《려권심사관》을 2배로 불구었으며 괴뢰보건사회부에는《해외이주민원상담실》이라는것을 새로 설치하고 인신매매문서와 수속절차 등을 《간소화》하였다.

4월 30일 괴뢰보건사회부는《민간단체의 간호원해외취업알선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놈들은 1975년부터 남미주의 5개지역에 3만명의 남조선농어민들을 집단적으로 강제《이민》시키기 위하여《남미농업이민공단》이라는 동족매매기구를 새로 조작해냈다.

지어 박정희역적은 외국노예주들의 무데기수요에 응하기 위하여《해외이주자》의《자격기준제》까지 없애고 정신병자, 불구자, 알콜 및 마약 중독자까지 눅거리로 마구 팔아먹을것을 획책하였다.

이리하여 놈들은 세계 여러나라 착취자들에게 갖가지 직종의 종신노예, 임금노예를 가장 신속히 더많이 팔아넘기기 위하여《사절단》, 《이민담당관》등을 여러나라들에 보내여 동족매매흥정을 벌렸다. 한편 박정희괴뢰도당은 종전까지 없었던 아프리카, 중근동 나라들과도 인신매매를 위한 모의를 대대적으로 벌렸다.

박정희역도가 인신매매를 시작한 1962년부터 1973년까지의 12년간에《이민》의 간판밑에 12만 8천 435명, 《인력수출》이라는 명목으로 9만 2천 32명이 팔려갔다.

또한 미제상전들과 맺은 이른바《고아입양특례법》에 따라 의지할데 없는 남조선어린이들이 이른바《양아들》, 《양딸》이라는 명목으로 해외략탈자들에게 팔리여갔는데 박정희역도는 미국의 한 거간군넘을 통해서만도 9천 300여명의 남조선고아들을 팔아넘기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괴뢰도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데 의하여도 놈들이 동족매매행위를 통하여 받아먹은 외화는 1972년에 벌써 4억 7천 400만딸라에 달하였다.

동족매매행위가 급격히 강화된 1973년에는 그것이 한해동안에 무려 1억 6천 300만 딸라에 이르렀다.

놈들은 1974년도《인력수출》에서만도 8천만딸라의 외화를 벌어들일것이라고 떠벌였다.

동족매매를 통한 부정축재에 맛들인 박정희역도는 이해 년초에《이민》의 간판으로만도 1981년까지 100만명을 팔아넘기겠다고 떠벌이면서 그의 일부로서 1978년까지 북미와 남미지역 등에 17만 5천 560여명의《이민》을 팔아넘기기로 결정하였다 한다.

놈들은 1974년에《인력수출》의 간판밑에 서부독일에 3천 100여명, 일본에 2천여명, 동남아세아지역에 1천여명, 미주지역에 800여명, 그밖에 세계각지에 선원 5천 800여명을 떠넘길 계획을 짜놓고 수많은 인민들을 고역과 죽음의 이역땅으로 몰아냈다.

박정희역도는 이와 같은 매국배족행위의 범죄적본질을 가리며 인민들을 속이기 위하여 그 무슨《실업자구제》니《일확천금》이니 뭐니하고 떠들어대면서 지어 동족을 팔아먹는《이민》이《국위를 높이는것》으로 된다고까지 뇌까렸다.

그러나 해외에 팔려간 사람들은 도착한 첫날부터 참을수 없는 민족적멸시와 차별대우, 가혹한 육체적고통과 병마에 시달려 피눈물을 흘리고있다.

이들은 유해부문의 중로동자, 농장머슴, 문지기, 청소부, 접대부, 간호보조원, 식모, 그리고 아이보개, 몸종 등 실로 그 나라에서는 누구도 고용되려 하지 않는 인간이하의 노예로동에 시달리고있다.

해외에 팔려간 녀성들의 처지는 더 한심하다.

서독이나 일본에 팔려간 간호원들은 그곳 간호원들이 하지 않는 온갖 굴욕적인 노예로동까지 강요당하고있으며 이국의 낯설은 땅을 헤매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상까지 발생하고있다.

서부독일에는 1만 9천 300여명의 남조선주민들이 팔려가있는데 그들중 50%가 일자리조차 얻지 못하고 낯설은 거리와 마을을 헤매면서 죽지못해 살아가고있다.

메히꼬에 팔려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남조선의 한 주민은《이민》으로 팔려간 사람들의 처지는《농장주의 개만도 못하다》고 폭로하였으며 브라질의 한 신문은《이민》으로 끌리여온 주민들은 하루에 15시간이상의 로동을 강요당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들의 처지는 한마디로 말해서《참혹한것》이라고 썼다.

서부독일에 팔려가있는 한 남조선녀성은 고향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너는 나의 가슴에 가득 고인 그 피눈물의 사연을 다는 모를게다.

너에게 간절히 부탁하고싶은것은 여기로 절대 오지말라는것이다.》

이해 7월에 오끼나와의 파인애플재배원으로 팔려간 남조선처녀들은 철창이 달린 수용소에 갇혀 고통을 겪고있다.

경영주놈들은 일을 시킬때면 그들을 수용소들에서 나준다 한다.

또한 남조선처녀들은《약속된 임금》액수의 절반도 못받고있으며 식량공급량은 너무나도 적어 언제나 굶주림속에 시달리고있다.

이 모든 사실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독재가 계속될수록 남조선 인민들에게는 더욱더 불행과 고통이 들씌워지고 남조선사회는 헤아릴수 없는 쇠퇴와 몰락의 구렁텅이에 더욱 깊이 빠지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 회 적 혼 란

부정부패행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의 부정부패행위는 매우 심합니다. 그들은 남조선인민들을 착취하고 나라와 민족을 팔아 숱한 돈을 부정축재하였으며 그것으로 회사와 호텔 같은것을 경영하면서 일신의 향락과 부귀영화를 누리고있습니다.》(《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단행본, 24~25페지)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부정부패사건의 직접적인 조직자이며 추동자일뿐아니라 그것으로 하여 수천억원의 재물을 략탈하고 수백만 인민들의 생명까지 희생시킨 가장 악독하기 짝이 없는 부정부패의 원흉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가 쥐여준 총칼을 휘두르면서 가장 추악하고 잔인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매판자본과 결탁하여 놈들에게 리권과 특전을 보장하여주는 대가로 수백억원의 뢰물을 받아먹은 외에 《관영기업체》와 실업계에 군사깡패졸개놈들을 박아넣어 엄청난 정치자금을 뜯어내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일독점자본 등 외래자본가들에게 나라의 자원과 재부를 송두리채 팔아넘긴 대가로 놈들로부터 딸라부스레기까지 거둬들여 막대한 개인축재를 하였다.

헤아릴수 없는 부정부패행위를 거리낌없이 감행하여 막대한 재부를 긁어모은 박정희괴뢰도당은 숱한 재산을 미국, 일본, 스위스 등 외국은행에 예금의 형식으로 빼돌렸으며 제놈의 앞잡이들을 시켜 일본, 하와이, 뉴욕 등지에서 《빌딩》과 《호텔》을 경영하며 《아리랑하우스》라는 《고급료정》까지 차려놓고 더욱 많은 재산을 긁어모으기에 미쳐날뛰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인민의 피땀을 짜서 부정축재한 돈을 제놈의 1인파쑈독재체제의 영구화와 부화방탕한 생활에 물쓰듯이 처넣고있다.

1974년에 그 범죄적내막이 드러난 박정희괴뢰도당이 자기졸개들을 내세워 은행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떼먹은 《금록통상부정대출사건》, 괴뢰정부《장, 차관》급 판료배들의 녀편네들이 매일같이 모여 수억원씩이나 되는 도박판을 벌린《억대의 도박사건》, 해외에 기지까지 두고 감행한 《보석밀수사건》, 《대한농산부정대부사건》, 《인천농협부정횡령사건》 등은 놈들의 부정부패행위가 얼마나 극도에 달하였는가를 잘 보여준다.

《금록통상부정대출사건》 박정희괴뢰도당이 은행을 통하여 1971년 5월부터 1973년 6월까지 2년동안에 74억원의 자금을 빼내여 부화방탕한 생활에 탕진하다가 세상에 드러난 범죄사건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이 떼먹은 74억원이란 돈은 남조선에서 한달에 5만원을 받는 중류급 공무원이 먹지도 쓰지도 않고 꼬박 1만 2천년을 걸려야 겨우 모을수 있는 돈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은행을 통한 사기행위를 막는다는 구실밑에 1971년에 《재무장관》이란놈을 시켜 《금융을 정상화》하며 《차후 은행을 통한 부정행위는 가차없이 엄단》한다고 떠들면서 은행자금대출방법을 까다롭게 만드는 한편 《은행감사반》을 수시로 조직하여 《감사》하는가 하면 《은행감사단계》를 늘이는 등 별의별 놀음을 다 벌려왔다. 이것은 사회적비난을 무마하고 은행자금지출 특히는 중소기업자금지출을 극력 억제하고는 그 돈을 더욱 클직하게 떼먹으려는데 있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막대한 은행자금을 끌어내기 위하여 리후락놈의 4촌동생인 괴뢰《중앙정보부》감찰실장놈과 그 이전의 감찰실장놈, 박정희놈의 첩년이던 륙영수년의 조카사위놈과 괴뢰중앙정보부 감찰과장 김모란놈을 직접적인 조종자로 내세웠고 이미 1968년에 은행사기협잡행위에 솜씨를 보인 박영복이란놈을 하수인으로 내세웠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박영복이란놈을 큰 무역업자로 가장시켜 서울을 비롯한 여러곳에 《영안통상》이니 《금록통상회사》니 하는 14개의 가짜 수출업체들을 꾸려놓고 이 기업체들이 《서울은행》, 《중소기업은행》등 8개의 은행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74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빼내게 하였다.

놈들은 우선 박영복으로 하여금 거액의 자금을 가지고 여러 은행에서 번갈아가며 예금을 무데기로 밀어넣게 하거나 꺼내게 하면서 은행들과 빈번한 거래를 가지게 하였고 은행으로부터 부정대출을 받을 때마다 사례금이란 이름밑에 은행관리들에게 뢰물을 제공하면서 박영복놈이 금융계로부터 《거액의 거래자》라는 환심을 사도록 하였다.

또한 은행융자담보물을 허위로 설정하거나《신용장》과 《부동산등기등본》을 비롯한 각종 은행문건을 완전히 날조하여 막대한 금액을 빼내도록 하였다. 한편 은행관리들로 하여금 박영복의 부정대출요청에 무조건 응하도록 협박을 가하였다.

1972년에는《서울시 충무로 4가 4층에 방음장치까지 한 방을 따로 만들어놓고 여기에 은행관리들을 불러들여 고문》을 가하면서 박영복이란놈이 세운《정화주식회사》에 수억원의 자금을 대주도록 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와 같이 인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돈을 사기와 협잡, 위협과 공갈로 빼내여 가지고는 일신의 향락을 위한 부화방탕에 탕진하였다.

전 괴뢰《중앙정보부》감찰실장이였던 김모놈은 제놈이 9대괴뢰국회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한《선거자금》으로 수억원을 탕진하였고 박영복놈은 10여채의 호화주택을 지어 상관놈들에게 바치는 한편 료정 등도 차려놓고 련일 수백수십만원씩 뿌려가면서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금록통상부정대출사건》의 범죄적진상이 드러나게 되자 이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조종자 몇놈과 하수인인 박영복놈 그리고 뢰물을 받아 사복을 채운 은행관리 몇놈만을《진범인》으로 내세워 사회의 여론을 그쪽으로 돌린후 내막을 밝히지 못하도록 하고 위협과 공갈을 해가면서 슬쩍 빠져버렸다.

《보석밀수사건》 1974년에 박정희, 김종필역적놈이 제놈들의 녀편네들을 추동하여 괴뢰상층판료배들의 녀편네들로《밀수단》을 조직하고 숱한 돈을 부정축재한《보석밀수사건》이 드러나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

《보석밀수사건》은 괴뢰지배층의 부패상을 드러낸 추잡한 사건으로서 여기에는 전괴뢰 《건설부장관》, 전괴뢰 《내무부장관》, 전괴뢰 《치안국장》, 《대한석탄공사사장》등 괴뢰지배층내의 고위급인물들과 매판재벌들의 녀편네 수십명을 포함하여 무려 60여명이나 관계하였다.

권력의 공공연한 비호밑에 괴뢰《고관》들과 매판재벌들의 녀편네들은 외

국과 거래하는 각종 기업체내의 안내원들과 선원들 그리고 외국국적을 가진자, 중간상인들을 끼고 추잡한 짓을 하여 보석을 밀수입하였는데 그것은 알려진것만도 1천여점에 이르고있다.

끝없는 사치와 금욕에 중독된《고관》녀편네들은 밀수입한 보석을 가지고 되거리판까지 벌렸다.

9월 6일현재 괴뢰들이 발표한 극히 축소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되거리판에서 암거래된 보석값은 1억원이 훨씬 넘는다.

남조선정계와 사회계에서는《보석밀수사건》을《정부고위당국자들의 부정이 로출된 증거》, 괴뢰집권층의 부정의 한 모서리라고 하면서 현《정권》을《밀수내각》이라고 비난하였다.

또한《보석밀수사건》에 관계한 괴뢰들의《명단과 그 자금출처를 밝히라》, 《사건전모를 밝히라》는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박정희괴뢰도당은 괴뢰집권층내부의 부정부패가 더욱더 드러나는것이 두려워 자금출처도 사건전모도 밝히지 않고 오히려 사건의 진상을 덮어버리기 위해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이해 10월 16일에 발표한《수사결과》를 보면 진짜 밀수범들인 괴뢰상충놈들은 다치지 않고 밀수한 보석을 처분하는데 한몫 끼여든 중간상인들, 그것을 산 사람들만 붙잡아서《죄인》으로 몰았다. 지어 밀수공범자들자신이 이구동성으로 범행사실을 인정한 모모《고관》녀편네까지도 가택수색결과《보석류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뒤로 빼돌렸다. 한편 자리바꿈 소동을 벌려놓고 괴뢰《건설부장관》등 이미 드러난 밀수범들을《교체》한다는 구실로 뒤로 빼돌렸다.

박정희도당은 괴뢰상충《고관》들과 그 녀편네들이 보석암시장에서 물쓰듯한 돈의 출처가 드러나는 날이면 누구보다 박정희, 김종필놈이 먼저 걸려들것이기때문에 이와 같이 사건을 호지부지해버리기 위한 음흉한 짓을 다하였던것이다.

허위와 기만, 사기와 협잡 행위

남조선에서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 말세기적인 인간관계가 지배하고있으며 서로 믿고 도와주며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풍습은 자취를 감추고있다.《속여야 산다》는 강도적론리가 《생활의 법칙》으로 되고있으며 사기와 협잡이 날로 성해가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른바 《부정업체》를《단속》한다고 떠벌이면서도 한편으로 그것을 제놈의 돈벌이를 위한 투기업의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 그리하여 박정희괴뢰도당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허울좋은 가짜간판을 달아놓고 인민들로부터 돈을 빨아내는《유령회사》들이 판을 치고있다.

적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사회에는 무려 6천여개의 《유령회사》라는 사기업체와 5천여명의 가짜사장이 판을 치고있다고 한다.

이밖에도 남조선도처에《무허가 강습소》를 비롯한 각종 사기업체가 수많이 설치되여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비호밑에 리윤추구에 미쳐날뛰는 자본가들은 불량식료품을 만들어 인민들의 눈을 속여가면서 돈벌이하는 사기협잡행위를 서슴지 않고 감행하고있다.

적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시장들에서 팔리고있는 식료품중에 60%이상이 썩었거나 불량한 가짜식료품이라고 한다.

경기도안에서만도 국민학교주변들에 썩은 과자들을 팔아먹기 위한 가게방이 185개이상이 설치되여있는 형편이다.

식당들에서는 식초대신에 공업용빙초산을 사용하고있으며 부패변질된 유독성식료품을 팔아먹고있다.

서울시안의 식당의 13%는 공업용빙초산을 식초로 사용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출판물에 의하면 경상북도 관내에서 판매되는 두부에는 석회가 포함되여있었고 맥주에는 가루비누가 들어있었으며 고추가루는 대부분이 염색한 톱밥이였다고 한다.

남조선의 식료품중에 가짜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것은 수산물을 가공해서 팔아먹는자가 자기 친구에게 《당신한테만 하는 말인데 어느것이나 다 그렇지만 더우기 우리 제품을 사먹지 말라, 그것은 몸에 해롭다》고 실토한 사실에서도 잘 알수 있다.

이와 같이 부패변질된 가짜식료품으로 하여 주민들속에서는 집단식중독환자들이 늘어나고있으며 가짜식료품때문에 인민들은 생명을 위협당하고있다.

이해 8월 강원도 삼척군에서 부패변질된 섭조개를 먹고 무려 300여명의 주민들이 식중독에 걸려 고통을 당한것은 그 한 실례이다.

남조선에서는 공업제품을 비롯한 일용품에서도 가짜가 판을 치고있다.

적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시장에서 거래되고있는 공업품의 50%이상은 믿을수 없는 가짜물품이라고 한다.

서울의 30여개의《고물상》들에서는 모두 가짜물건들을 팔고있다.

시장에서 거래되고있는 전기휴즈선은 모두 알루미니움선으로 만든 가짜여서 전기사고로 인한 화재사고들이 일어나고있다.

이밖에도 남조선에 있는 각종 외래품들의 70~80%는 모조품이거나 상표만을 바꾸어붙인 가짜물건이라고 한다. 적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7월한달동안에만도 시장에서 거래된 가짜외래품들은 1천 192건이나 된다.

각종 범죄

개인의 부귀영화와 향락을 위하여 남의 생명과 재산도 서슴없이 희생시키는 범죄행동이 거리낌없이 감행되고있는 남조선에서는 살인, 강도 등 폭력사건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살인, 강도, 강간 등 폭력행위를 업으로 삼는 폭력배들이 욱실거리고있다.

뿐아니라《올빼미》, 《왕거미》, 《밤나비》등 별의별 이름을 가진《깽단》이 수없이 많으며 거기에는 녀자들로만 조직된것도 적지 않다고 한다.

남조선은 이와 같은 폭력단의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위협, 공갈 등 인간백정행위가 박정희괴뢰도당의 비호를 받으면서 공공연히 감행되고있어 그야말로 가장 흉악한 범죄의 소굴로 되고있다.

남조선이 극악한 범죄의 소굴로 되고있는것은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인 교육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청년학생들속에서는 색정적이고 퇴폐적인 부르조아반동문화에 물젖어 여러가지 범죄행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으며 그것은 매해 늘어나고있다.

출판물들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사이에 남조선에서 1만 9천여건의 청소년범죄행위가 발생되였다고 하는데 그들 대부분은 부화방탕한 생활을 설교하는 영화나 텔레비죤, 소설들을 보고 그에 물젖은 소년들이라고 한다.

또한 살인, 강도 등 범죄사건이 짐승도 낯을 붉힐 정도로 악랄성과 잔인

성을 띠고있으며 돈을 위하여서는 부모와 처자도 서슴없이 살해하는 극도의 패륜패덕상을 그대로 드러내놓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남조선강원도 춘천시에서 로모라는 청년은 이해 2월달에 술값을 달래다가 거절당하자 아버지를 칼로 찔러죽이는 몸서리치는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청소년범죄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범죄년령에서 15~19살까지의 10대청소년이 86.5%를 차지하고 있는것이다.

즉 10대청소년들의 집단적인 폭행사건, 집단강도사건들이 발생하고있으며 더욱 악랄화, 흉악화되고있는데 있다.

이 해에 들어와서 인민생활령락으로부터 소년경제범죄행위가 급격히 늘어났다.

괴뢰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해초에 발생된 소년경제범은 남조선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건수의 57.6%를 차지하고있다.

갖가지 사고

미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와 박정희매국역적들의 군사파쑈적광란으로 하여 극도의 사회적무질서와 혼란이 지배하고있는 남조선에서는 갖가지 사고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인민들에게 막심한 재난을 들씌우고있다.

남조선은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이해 11월말까지의 사이에 3만 8천 800여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이로 말미암아 무려 4만 6천 850여명의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거나 다쳤다고 한다.

교통질서가 어찌나 무질서한지 사고를 치고 도망치는 《뺑소니사고》까지 늘어나고있는데 부산시내에서만도 4개월동안에 145건이나 발생되였다.

남조선이 《무서운 교통지옥》으로 불리우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괴뢰들은 대부분 도로에 교통안전장치하나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있으며 도로망을 정비하지도 않고있다. 지어 서울시내 50여개소의 주요 교차로에는 교통신호등마저 없는 형편이며 위험요소들에 표식판마저 전혀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고 한다. 그런데다가 낡아빠진 차에 대한 교체는커녕 정비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있어 교체대상차와 대수리를 요하는 차들이 수없이 많다고 한다.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남조선을《교통지옥》으로 만든 괴뢰도당을 규탄하면서《남조선 전체 차량의 20%가 낡아빠진 못쓰게 된 차량들이며 교통이 무질서하고 교통안전시설이 마비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쓰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인 악정으로 도시구획하나 제대로 꾸려지지 않고 소방시설마저 갖추어져있지 않은 남조선에서 화재사고는 막을수 없는 현상으로 되고있다.

9월말현재 2천 660여건의 큰 불이 일어나 많은 살림집들이 타버렸으며 670여명의 인명피해를 냈다고 한다.

이해 대구윤성방직공장, 부산국제화학공장, 대구견방직공장, 군산경성고무공장, 《새남산관광호텔》의 화재사고 등 대규모적인 화재사고들이 련이어 일어났으며 가난한 주민들의 주택이 불타버린것도 헤아릴수 없이 많다.

5월 5일까지에 일어난 산불만도 495건에 달하고있다.

11월 3일 청량리역전에 있는《대왕코너》라는 고층건물에서 불이 일어나 88명이 죽고 26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빚어졌다.

《대왕코너》라는 건물은 1972년도에도 불이 일어나 근 9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일이 있는데 그후에도 괴뢰통치배들을 끼고 방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다가 또 참변을 빚어냈던것이다.

돈벌이를 위해서는 무슨 협잡행위나 악덕행위도 서슴지 않는 박정희괴뢰도당은 이 건물안에 있는 한 방에서 불이 나자 음식값 등을 받아내려고 출입문까지 막아버리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만도 64명이 생죽음을 당했다.

11월 15일현재 693건의 해상사고가 일어나 지난해의 같은 기간보다 인명피해가 3배나 더 늘어났다.

해상사고의 대부분은 미일침략자들의 군함에 의한 충돌사고로 발생되고있다.

4월에 있은 《해빙호》침몰사건, 《진풍호》침몰사건들은 미제침략자들의 군함에 의한 충돌사고로 발생된것이다.

4월 서해안에서는《성동호》가, 6월 29일《해금강》호가 일본선박에 의하여 침몰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다 낡아빠진 선박들에 대한 보수정비대책이 없이 사용함으로써 자그마한 파도에도 배들이 가라앉거나 마사지는 형편에 있다.

5월 경상남도 거제군앞바다에서 고기잡이하던 자망어선이 파도에 침몰되여 12명의 선원들이 사망되였고 7월에는 전라남도 신안군앞바다에서 작업중이던《덕진호》가 침몰되여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10월까지의 사이에 바다에 나갔던 고기배가 불에 타는 바람에 목숨을 잃은 어민들도 210여명을 헤아린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시책에 의하여 풍수해방지대책이 전혀 세워져있지 않는 남조선에서는 약간한 비나 바람에 의해서도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당하고있다.

괴뢰들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전역에 9천 784개소의 풍수해위험지역이 있다.

5월 19일 하루에 내린 비로 하여 60여명의 인명피해와 약 2천여명의 리재민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250여채의 살림집과 수십군데의 길, 다리들이 마사졌으며 19만 7천 870여정보의 논밭이 물에 잠겼다.

또한 이해 7월초에 있은 태풍으로 인하여 7천여명의 리재민이 났으며 14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태풍과 함께 폭우로 하여 522정보의 농경지가 침수당하고 300여채의 건물과 736개소의 제방시설이 파괴되였다.

남조선에서는 이밖에도 폭발물사고, 익사사고, 중독사고 등 여러가지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있다.

미제침략군만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강도들의 만행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수많은 애국적인민들과 죄없는 겨레들의 피가 흐르고있으며 우리의 자매들이 모욕당하며 짓밟히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141페지)

세계반동의 원흉이며 침략과 전쟁의 화신이며 국제헌병인 미제침략자들은 근 30년동안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 들어앉아 주인행세를 하면서 우리 인민들에 대한 살륙과 폭행, 강간, 린치, 강탈, 파괴 등 귀축같은 만행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으며 온 남녘땅을 우리의 부모형제들의 붉은 피로 물들이고있다.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미제의 만행은 그 규모와 성격에서 그리고 방법의 잔인성과 악랄성에서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인민들에게 들씌우고있는 각종 형태의 만행은 그

것이 어느 한개 지역 또는 특정한 대상에 국한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놈들의 발길이 닿는 모든곳에서 계통적으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있는 현상이다.

미제침략군놈들은 남조선에서 가장 횡포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인민들의 재산을 닥치는대로 강탈, 략취, 파괴하는 날강도행위를 끊임없이 저지르고있다.

1973년 10월 7일 미제침략군의 한 부대 200여명이 무리를 지어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유흥장에서 진탕치듯 술을 처먹은후 주민들의 주택과 상점을 습격하여 인민들의 재물을 마구 파괴, 략탈하여 500여명의 주민들을 거리로 내쫓는 행패를 부렸다. 같은 시기에 미제침략군 10여명은 부대부근에 있는 식당에 뛰여들어 술을 실컷 처먹고나서 술값을 요구하는 주인을 마구 때렸을뿐아니라 기물들을 들부시는 란동을 부리였다.

1974년 1월 13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릉동에서 미제침략군 야수두놈이 남조선의 영업용 승용차와 그속에 있는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나는 날강도적만행을 감행하였다.

7월 4일 밤10시경 미제침략군 공군부대의 쉐쉴 등 4명의 강도놈들이 대구시 원대동의 한 시계방에 뛰여들어 시계와 금반지들을 빼앗아가지고 대기시켜놓았던 차를 타고 도망쳐버렸으며 이에 앞서 3일밤에도 이 시내 남산동에 있는 금방을 습격하고 금, 은 제품들을 훔쳐갔다.

10월 16일 밤11시경 경기도 의정부시 가릉동 앞길에서 3명의 미제침략군놈들이 차를 몰고가는 리아무개운전수에게 달려들어 그의 목을 자르고 돈을 빼앗아가지고 달아나는 강도적만행을 감행하였다.

11월 29일 저녁7시경 부산시내 동구 좌천동의 한 식당에 기여든 미제침략군의 테르제이란 야수놈은 까닭없이 트집을 걸어 식당종업원인 황윤희녀성을 마구 때려 3주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혔으며 같은날 저녁10시 30분경 캐일라 캐일이라는 미제침략군 악한놈은 시내 동구 초량동에 있는 송긴자녀성의 집에 뛰여들어 돈 3만여원을 강탈하여가지고 달아났다.

미제침략자들은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장 추잡한 방법으로 녀성들을 롱욕하는 가장 악독한 죄악을 저지르고있다.

남조선녀성들을 수욕을 채우기 위한 한갖 놀이개감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미제야수놈들은 길가는 녀성들을 위협람치하여 야수적으로 롱욕하는가 하면 주민집에 강도적으로 뛰여들어 부녀자들을 닥치는대로 강간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어느 하루도 빠짐없이 저지르고있다.

1973년 12월에 미제야수놈들이 집단적으로 서울시 한남동에 사는 박 아무개녀성을 권총으로 위협하여 남산속에 끌고가서 륜간하였으며 같은 시기 평택군 대산리에서도 미제침략군 20여명이 10여명의 남조선녀성들을 2대의 자동차에 강제로 붙잡아 싣고가 옷을 벗기고 집단적으로 롱욕한 후 손발을 비틀고 라체촬영까지 하는 치떨리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패륜패덕의 악당들이며 인간의 량심이란 흔적조차도 찾아볼수 없는 이 야수놈들은 더러운 수욕을 채우기 위하여서라면 칠순이 가까운 늙은이나 10대의 어린 소녀할것없이 닥치는대로 롱욕하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고있다.

3월에 미제침략군놈은 평택군 송탄리에서 윤아무개녀성의 집에 뛰여들어가 14살되는 어린 소녀를 강간하고 도주하는 등 귀축같은 만행을 서슴없이 벌림으로써 놈들이야말로 사람의 가죽을 쓴 두발가진 승냥이무리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제국주의침략군대의 귀축같은 만행은 또한 남조선인민들을 멸시하면서 야만적폭행과 민족적모욕을 가하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1973년 7월에 미제침략군 6명은 경기도 파주군 립진면 어느 한 부락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한 로동자를 붙들고 까닭없이 발길로 마구 차서 높이 15메터나 되는 다리밑으로 떨어뜨려 중상을 입히는 야수같은 폭행을 감행하였다.

1974년 5월 25일 경기도 평택에서 문종철이라는 운전수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잡아타고 서울로 가던 미제 8군 520경비중대소속 토메이라는 야수놈은 서울시 룡산구 효창동에 이르러 갑자기 칼을 빼들고 운전수의 온몸을 마구 찔러 중상을 입혔다.

11월 16일 밤10시경 미제침략군 모부대의 모리스라는 야수놈이 부산시안의 한 식당에 뛰여들어 무턱대고 기물들을 들부시면서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12월 7일 오후 4시 30분경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에 있는 미제침략군 특수부대 본부중대의 할디 칼리오 등 7명의 승냥이놈들은 부산에서 뻐스에 탄 송운대주민을 칼로 위협하면서 뭇매질을 하여 중상을 입히는 치떨리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인간증오사상과 인간살륙을 업으로 삼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잡아죽이는 살륙행위를 아무 거리낌없이 저지르고있다.

2월 5일 경기도 평택에서 수원쪽으로 군수물자를 실어나르던 미제침략군놈이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수청리에서 군용자동차로 이 마을에 사는 유호렬, 리호준 주민을 깔아 처참하게 죽이였다.

4월 5일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에서 미제침략군의 한 승냥이놈이 길을 가는 리관힌이라는 주민을 군용뻐스로 깔아 중상을 입혔으며 4월 8일 오전 11시 40분경 미제침략군부대의 한 악당놈이 서울시 성수동 1가의 강변도로에서 김정숙이라는 녀성을 자동차로 치여넘기고 도망쳐버렸다.

5월 7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야수놈이 경상북도 경주군방의 도로에서 군용자동차로 뻐스를 들이받아 홍인춘녀성을 비롯한 10여명의 남조선주민들에게 심한 상처를 입히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8일밤에도 경기도 수원시 영화동거리에서 미제승냥이 한놈이 군용자동차로 이 마을에 사는 송연이라는 처녀를 깔아넘기고 달아나는 흉혈귀적만행을 감행하였다.

7월 20일 미제침략군 퍼슨이라는 살인귀놈이 경기도 려주에서 군용차로 3명의 주민을 깔아넘겨 2명을 죽였으며 7월 27일 미제침략군부대의 제임스라는 야수놈이 서울시 영등포구 등촌동에 사는 조해준청년을 군용차로 깔아죽였다.

11월 30일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대자리 앞길로 승용차를 몰고가던 멜라드니라는 미국놈은 다리우를 지나가는 50대의 남조선주민을 깔아 학살하는 치떨리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사람잡이에 이골이 난 미제승냥이놈들은 남조선거리와 마을에서만아니라 바다에까지 따라나가서 몸서리치는 만행을 저지르고있다.

이해 4월에 미제해적선은 일본 와까야마현 앞바다에서 남조선화물선의 배 한복판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두동강을 내여 그 자리에서 침몰시킴으로써 19명의 선원들이 순식간에 죽는 참을수 없는 비극을 빚어내게 하였다.

남조선에서 근로인민은 생존을 위한 초보적인 권리도 유린박탈당하고있으며 그들은 피를 즐기는 미제침략자들의 살륙무기의 실험물로, 사격연습의 과녁으로, 렵기심을 충족시키는 살상대상으로 되고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활동

재일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심려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에도 총련과 60만 재일동포들의 애국사업과 생활을 위하여 온갖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4년을 맞이하여 축전을 보내신것을 비롯하여 총련사업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교시들을 여러차례에 걸쳐 주심으로써 총련의 앞길을 등대처럼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련 제10차전체대회에 즈음하여 친히 축하문을 보내시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그것을 구현함으로써 이룩한 성과를 크게 치하하여 주시였으며 조국인민들의 사회주의대건설의 총진군에 발맞추어 총련의 모든 애국사업을 더 한층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명시하여주시였다.

60만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해에도 재일조선인예술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비롯하여 총련의 여러 대표단과 조국방문단을 사회주의조국에 불러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그들을 만나주시였을뿐아니라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강령적교시를 여러차례에 걸쳐 주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9월 24일 재일본조선청년예술체육대표조국방문단, 제2차재일본조선교육일군조국방문단, 재일본조선고급학교학생조국방문단을 접견하시고 하신 력사적인 연설《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에서 총련의 기본과업과 그를 수행하는데서 재일본조선청년동맹앞에 나선 중요과업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항시 조국인민들을 그리워하는 재일동포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시여 공화국최고인민회의대표단, 평양4.25축구대표단을 비롯한 조국의 수많은 대표단들을 거듭 일본에 보내주시여 재일동포들이 이국땅에서도 언제나 조국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며 살며 일하도록 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재일조선예술인들이 꿈결에도 못잊던 조국의 품에 안겨 자기들의 예술적기량을 높일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극진한 배려밑에 세계해외교포운동력사상 처음으로《금강산가극단》을 뭇고 혁명가극《금강산의 노래》를 훌륭히 공연할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재일조선 작가, 예술인들을 따사로운 한품에 안으시여 극진히 보살펴주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창립 열다섯돐과 재일조선중앙예술단창립 열아홉돐에 즈음하여 재일조선중앙예술단에 우리 나라의 최고훈장인《김일성훈장》을 수여하여주시는 가장 큰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조선청년의 최고영예인《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하여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해에 재일조선예술인 11명에게 인민예술가, 인민배우, 공훈예술가, 공훈배우의 칭호와 훈장 및 메달을, 재일조선체육인 7명에게 공훈체육인 칭호를 수여하여 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극진한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발전을 위하여 이해에만도 여섯차례에 걸쳐 37억 1천 178만 5천 450원(일본돈)에 이르는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다. 이로써 수령님께서 1957년부터 선여덟번에 걸쳐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총액은 실로 183억 5천 986만 3천 983원에 이르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내외반동들의 파괴모략책동으로부터 총련조직을 지키고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온갖 국가적조치를 다 취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재일동포들에게 끊임없이 돌려주시는 이와 같은 뜨거운 사랑과 깊은 배려는 총련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이해에 거둔 자랑찬 성과와 승리의 결정적담보로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앞에는 첫째로 전체 재일동포들이 우리의 사회주의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적극 옹호하도록 하며, 둘째로 일본에 있는 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며, 셋째로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넷째로 일본의 민주세력과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단행본, 3페지)

총련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련앞에 제시하신 네가지 기본과업을 훌륭히 실행하였다.

1974년에 총련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내외원쑤들의 온갖 파괴음모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면서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옹호하고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굳건히 지키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운동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애국활동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총련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제10차전체대회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재일조선인운동에 전면적으로 구현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내세우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림으로써 총련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총련조직을 오직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들고나가는 충성의 대오로 보다 튼튼히 꾸려놓았다.

이해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는 충성의 열정이 한층 높아지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로 삼아 끝까지 관철하려는 열성이 크게 발휘되였으며 총련의 합법적지위를 고수하고 각급조직이 보다 튼튼히 다져진것은 총련애국사업에서 이룩된 가장 귀중한 성과였다.

총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1973년 8월 31일 교시와 1974년 9월 24일 강령적교시를 관철하는 사업을 적극 짜고들므로써 교육일군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에서와 학생들의 교육교양에서 전진을 가져왔으며 재일동포들의 제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총련은 1974년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 획기적전환의 해로 만들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6월 1일부터 9월말까지를《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는 애국운동월간》으로 설정하고 이 사업을 대중적으로 힘차게 벌려 재

일동포들속에서 민족적단합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운동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해에 위대한 수령님의 극진한 배려밑에 처음으로 무어진 《금강산가극단》이 공연한 혁명가극《금강산의 노래》는 일본주재 35개 나라 외교관들을 포함한 수많은 내외관람자들에게 커다란 감동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해에 일본인민들과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속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널리 해설선전하고 그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외활동을 줄기차게 벌림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렬을 확대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총련사업에서 이룩한 이 모든 자랑찬 성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해외교포운동방침의 빛나는 승리이며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과 육친적배려에 의하여 이루어진 고귀한 결실이다.

총련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업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는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관건적고리로 내세우고 모든 동포대중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시켰으며 총련을 그 어떤 풍파에도 드놀지 않는 힘있고 권위있는 해외공민단체로 반석같이 다져놓았습니다.》

1974년에 총련은 새로운 보다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에 맞게 총련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추켜올리기 위하여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켰다.

총련은 무엇보다도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전체 일군들과 동포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가지도록 하는데 기본을 두고 힘있게 밀고나갔다.

총련의 각급 기관들은 일군들과 동포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살며 일하는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고 그 어떠한 환경속에서도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도록 끊임없이 교양하였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이의 교시와 당정책을 유일한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언제나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에 대한 절대성의 정신, 무조건성의 정신을 지니고 수령님의 교시를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도록 교양하였다.

총련은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철두철미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배양하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기 위하여 주체사상교양을 실속있게 벌려나갔다.

총련의 각급 기관들은《김일성원수혁명력사연구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일군들과 동포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누구나 다 토요집체학습, 수요강연회 등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들,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학습하며 하루 2시간이상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고 모두가 정열적인 독학가가 되도록 하였다.

총련의 각급 기관들은 일군들과 동포들속에서 지난날 항일혁명투사들이 간고한 행군길과 격전을 앞둔 전야에도 잠시도 중단함이 없이 학습하던 학습방법들인 문답식학습방법, 토론과 론쟁의 방법, 개별담화로 일깨워주는 방법, 조를 무어 가르쳐주는방법, 학습경연 등을 널리 적용하였다.

그리하여 이해 총련의 각급 기관과 일군들속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해를 맞이하여 보내주신 축전교시와 총련제10차전체대회앞으로 보내주신 축하문교시, 1973년 8월 31일 교시, 1974년 9월 24일 교시를 비롯한 총련사업에 주신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들에 대한 통달운동과 문헌토의연구사업, 수령님의 교시관철중간총화와 재포치하는 사업들이 실속있게 조직되였으며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총련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토론회와 해설선전사업도 부단히 조직진행하였으며 도교, 효고를 비롯한 총련조직들에서 집중학습과 강연, 해설담화사업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하였다.

한편 사상교양의 중요한 수단이며 무기인 출판보도물의 배포리용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고 한장의 신문, 한권의 잡지, 서적도 헛됨이 없이 모든 동포들속에 골고루 들어가게 하였으며 동포들이 출판물을 열심히 읽고 옳게 리용하도록 하였다.

총련은 주체의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업으로써 일군들과 동포들속에서 혁명교양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일군들과 동포들이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하여 주체의 세계관을 확고히 세우며 미제와 그 주구들을 증오하고 원쑤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였다.

총련은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 세계사적사변을 비롯하여 날로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소개사업과 조국대표단 환영, 환송사업, 총련의 조국방문단보고모임, 내외반동들의 분렬책동과 파쑈만행을 폭로규탄하는 정치선동사업 등 대중교양사업들을 련속 벌림으로써 동포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조국의 해외공민된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 한층 높이도록 하였다.

이해 동포들과 일군들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는 충성의 열정이 한층 높아졌으며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되였다.

1974년에 총련은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대렬의 조직적단결을 강화하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이 사업에 많은 힘을 넣었다.

총련은 조직내부를 튼튼히 다지는 동시에 총련의 각급 기관과 산하단체의 모든 조직들과 일군들이 광범한 각계각층 동포들을 교양개조하여 총련의 애국력량을 확대강화하는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총련은 제10차전체대회의 계속으로 지방본부대회와 지부대회 및 단일단체와 사업체들의 대회, 분회총회들

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열성자대렬을 보다 튼튼히 꾸리였으며 각급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높이였다.

이와 함께 일군들속에서 조직생활과 조직규률을 강화함으로써 주체사상에 기초한 대렬의 조직적단결을 공고히 하였다.

총련은 조선사람찾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한명의 동포라도 더 많이 찾아내여 교양함으로써 그들에게 민족자주의식을 심어주었으며 수많은 동포들을 총련조직에 새로 묶어세웠다.

이해 총련의 모든 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으로 철저히 전환되고 일군들의 사업방법도 한층 개선되였다.

총련의 모든 일군들은 5일간은 아래에 즉 동포들속에 내려가 일하고 2일간은 올라와서 학습을 다시하고 다시 사업을 포치하는 사업체계와 방법을 제도화, 생활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방법을 배워 자신이 직접 학습강사로도 되고 선동원으로도 되여 대상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제때에 알려주고 그 관철에로 동포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실로 이해 총련은 중앙으로부터 분회에 이르는 모든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자기 조직을 어떠한 풍파에도 동요없이 오직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믿음직한 애국력량으로 꾸리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10차전체대회

1974년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앞으로 친히 축하문을 보내시여 주체사상의 불멸의 혁명적기치밑에 총결기간 총련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 앞에 나선 영예로운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축하문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두터운 신임의 표시로서 대회사업과 총련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총련제10차전체대회앞으로 보내신 축하문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총련 제10차전체대회가 재일조선인운동에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보다 심오히 구현하며 각계각층 동포대중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고 재일동포들의 민족적권익을 옹호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총련의 모든 애국사업을 더한층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전환의 계기가 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대회에서는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내세운 총련 제9차전체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3년간 안팎의 원쑤들의 파괴암해책동이 뒤따르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재일조선인운동방침을 옳게 세우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동포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함으로써 모든 동포대중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시켰으며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족의 륭성발전을 위한 숭고한 애국애족 운동에서 자랑찬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자랑스럽게 총화하고 새로운 투쟁과업을 토의하였다.

총련 제10차전체대회의제는 다음과 같다.

1, 총련중앙위원회사업보고
2,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사업보고
3, 총련규약을 일부 수정할데 대하여
4, 총련의 재정결산 및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5, 총련의 지도기관선거에 대하여

대회에는 경애하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대의원들 2천여명이 한사람의 결석자도 없이 100% 참가하였다.

대회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 위대한 김일성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인민들의 사회주의대건설의 총진군에 발맞추어 민족의 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한 총련사업을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더욱 높이 추켜올리기 위한 사업방침과 대책을 뚜렷이 내세웠다.

대회는 총련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총련사업의 총적과업으로, 첫째가는 사업으로 뚜렷이 내세우고 재일조선인운동에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보다 심오히 구현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대회는 총련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일군들과 동포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시키며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더욱 확고히 세울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대회는 또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5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정견과 신앙, 재산의 유무와 단체소속에 관계없이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재일동포들을 하나의 애국력량으로 크게 묶어세워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설것을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대회는 내외원쑤들의 탄압박해책동을 견결히 물리치고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을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굳건히 옹호하고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계를 강화하여 조국통일에 보다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을 내세웠다.

대회에서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5명의 부의장들을 선거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303명의 총련중앙위원회 위원들과 5명의 중앙감사위원회 위원들을 전원일치로 선거하였다.

총련 제10차전체대회는 불패의 혁명적기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진행된 영광의 대회로,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혁명전통계승자들의 단결된 힘과 빛나는 사업성과를 과시한 승리자의 대회로, 주체사상을 보다 심오히 구현하기 위한 총련사업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리정표로 되는 력사적인 대회로 되였다.

대회앞으로 일본의 각 정당, 사회단체 인사들과 지방자치체 책임자들, 학계, 문화계, 로조, 사회단체 등 각계의 인사들 그리고 일본각지의 《김일성주석로작연구회》들로부터 852통의 축전들을 보내여왔으며 세계평화리사회, 세계과학자련맹, 국제기자동맹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제단체들과 여러 나라들의 정당, 사회단체 및 저명한 사회활동가들로부터 84통의 축전들을 보내여왔다.

대회에서는 손님으로 참가한 일본의 각 정당, 사회단체 등 각계의 인사들이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총련의 제반 애국과업수행에서 달성한 성과와 총련 제10차전체대회를 축하하고 일조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힘껏 지지성원할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제10차대회

4월 3일과 4일 량일간에 걸쳐 도꾜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조청 각급 기관에서 선출된 1천 383명의 대의원들과 1천여명의 방청자들이 참가하였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을 비롯한 총련간부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또한 조청 제10차대회를 축하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구라파의 18개 나라에서 온 진보적청년학생대표단 31명의 대표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는 불패의 혁명적기치,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축하문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과업을 내세운 총련제10차전체대회결정 집행대책을 토의하였다.

대회는 조청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조청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 관철을 위하여 생신하게 움직이는 생기발랄한 전투적조직으로 꾸리며 조청이 총련의 제반 애국과업수행에서 계속 앞장서나갈것을 제기하였다.

조청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조직안에 사람과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조청반과 반위원들의 역할을 높여 조선 학교내 조청, 소년단 사업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돌릴것을 제기하였다. 특히 일군들과 청년학생들 속에서 주체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그들을 혁명화하여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며 사회주의조국을 무한히 사랑하고 민족자주의식을 높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해 몸바쳐 투쟁하도록 하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모범창조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며 특히 《꽃과는 처녀》혁신운동을 전동맹적으로 벌려나갈것을 결정하였다.

대회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 청년대표들과 일본의 정당, 청년단체, 로조단체 청년대표들 그리고 재일화교청년련합회대표가 각각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에 커다란 감명을 표시하였으며 그이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5대강령과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가 취한 조선의 평화를 공고히 하며 조국통일의 길을 개척하기 위한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조치에 대하여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앞으로도 재일조선청년들과 전체 조선인민과의 우호친선을 더욱 강화해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청규약을 일부 수정할데 대한 규약심의위원회보고와 재정결산 및 예산안심의위원회보고를 전원일치로 승인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청중앙역원과 139명의 중앙위원들을 선출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청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과 3명의 부위원장을 선출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1972년 8월 18일교시 기념비제막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1972년 8월 18일교시기념비제막식이 1974년 10월 10일 도꾜조선중고급학교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기념비는 어버이수령님께서 1972년 8월 18일 일본에서 태여나 자라는 도꾜조선중고급학교 축구소조와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 음악무용소조성원들을 만나시고 력사적인 교시를 주신 두돐을 맞이하여 이날을 영원히 기념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을 위하여 베풀어주시는 극진한 사랑과 배려를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이 학교 전체 교직원, 학생들과 학부형 동포들의 불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세워진 것이다.

충성의 기념비는 높이 2메터 50센치, 너비 2메터 30센치, 무게 11톤의 흰대리석으로 되여있는데 맨우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모형으로 다듬어져있으며 복판에는 비문을 새겨넣은 붉은 대리석판이 박혀있다.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버이수령님의 그사랑, 그 은혜 영원하리라

1972년 8월 18일
생각할수록 가슴뜨거워
감격에 목메이는 우리의 날입니다.
천만년 무궁한 세월과 더불어 영원할
위대한 사랑의 날입니다.
몸은 비록 찬비내리는 이국땅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수령님 우러러
끝없는 경모에 불타던 저희들을
어서 오라 친히 몸가까이 부르시여
세상의 모든 기쁨 안겨주시고
아버지 어머니도 주지 못한 크나큰 사랑을 주신
자애로운 어버이 김일성원수님!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수령님 품에 안긴 끝없는 영광이여, 행복이여
수령님 그 은정을 노래불러
충성으로 아로새기는 뜨거운 마음이여
자기의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고
자기의 수령과 자기의 당
자기 인민을 사랑하며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투쟁하는
애국자가 되여야 한다고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그 말씀
재일조선청소년들의 오늘과
머나먼 미래까지 밝혀주는
태양의 빛발로 폭풍도 격랑도 물리치며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우리들을 이끌어줍니다.
정녕 어버이수령님을 뵈온 그날에 우리는
오로지 수령님과 조국을 위해서만
자신의 청춘과 생명이 귀중함을 알았습니다.
수령님께서 그날 베풀어주신 사랑과 믿음은
저희들과 함께
재일조선청소년모두에게 돌려주시는
한없이 고마운 사랑과 믿음이였습니다.
영생불멸의 주체교육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조국의 청소년들에게 지어주신것과 꼭같이 훌륭한
배움의 궁전들을 우리에게 마련해주시며
조국의 귀중한 모든것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아 아 자애로운 어버이 김일성원수님!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은 주체교육의 화원으로 꽃피여
이국땅에 나서자라는 재일조선청소년들을
애국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워줍니다.
자애로운 수령님의 사랑의 품에 안긴 우리는
인류의 태양이신 수령님만을 따르는 조선의 해바라기
끝없는 행복에 넘쳐 크나큰 사랑에 목메여
수령님 우러러 맹세합니다.
우리 언제나 수령님만을 모시고 충성으로 받드는
주체조선의 미래로 더 활짝 꽃피렵니다.
수령님 펼쳐주신 혁명의 길에서
영원히 김일성주의자로 살며 싸우렵니다
아아 못잊을 그날의 수령님 은덕이여
번영하는 총련의 민족교육과 함께
아름다운 노래되여 길이길이 전하리라
1974년 8월 18일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투쟁

이해에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총련이 거둔 가장 큰 성과는 이른바 《저격사건》을 계기로 미일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이 감행하여나선 악랄한 파괴모략책동으로부터 자기 조직을 굳건히 보위한것이다.

총련의 전체 일군들과 동포들은 조국인민들과 광범한 각계 일본인민들 그리고 세계의 수많은 나라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으면서 이른바 《8. 15저격사건》에 마치나 공화국과 총련이 관련되고있는듯이 사태를 꾸며대는 박정희역도의 악랄한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항의운동과 군중집회, 가두선전사업 등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이리하여 내외반동들의 음흉한 책동을 여지없이 파탄시키고 총련의 합법적지위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총련의 단결된 위력을 내외에 크게 시위하였으며 원쑤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은 일본반동들의 민족동화정책을 견결히 반대하며 조선사람들을 다 찾아내고 한명의 조선사람도 일본사람으로 동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민족적권리를 철저히 지킬수 있습니다.》(《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단행본, 37~38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총련의 모든 조직들과 일군들, 분회동포들과 조선 학교 학생들은 모두가 떨쳐나서 일본반동들의 민족동화정책을 반대하며 조선사람을 다 찾아내고 한명의 조선사람도 일본사람으로 동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일군들과 동포들은 대상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이께서 총련사업부문에 주신 교시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밑에 발전하는 민족교육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대상의 수준과 준비정도에 맞게 해설침투하였다.

특히 사람의 운명은 자기 조국의 운명과 떼여서 생각할수 없으며 조국과 민족을 떠난 《행복》과 생활은 참된 인간의 행복과 생활이 아니며 정치적자주성을 잃은 보람없는 생활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교양함으로써 완고한 대상동포들까지 하나하나 이끌어나갔다.

총련은 조선사람을 되찾는 운동에서 특히 총련의 각급학교 사업을 강화하는데 모를 박고 조선학교 대렬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힘껏 밀고나갔다.

총련의 분회들에서는 조국영화감상모임, 조선학교 꼬마가무단의 예술공연과 조선학교에 대한 견학, 그리고 조선학교 학부형들과의 모임 등도 조직하여 재일동포자녀들에게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와 사랑에 대하여 해설해주면서 대상동포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응당 조선학교에 보내며 조선에 대하여 더잘아는것이 조선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것이라는것을 깨우쳐주었다.

총련은 제10차전체대회를 앞두고 학생대렬을 훨씬 늘이기 위한 통일행동을 성과적으로 조직 진행하였으며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달기간에는 1975~1976학년도 학생대렬을 늘이기 위한 월간사업을 전기판적인 사업으로 조직진행하여 조선학생대렬확대지표들을 넘쳐수행하였다.

한편 성인학교, 청년학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며 우리 말과 글을 모르는 동포들과 청년들을 교육교양하여 모든 동포들이 참된 조선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였다.

총련의 각급 기관들은 《한개분회에 한개 성인학교, 한개 반에 한개 청년학교》라는 목표밑에 더 많은 성인학교, 청년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였다. 그리고 많은 수강생들을 망라시키기 위하여 성인학교, 청년학교를 기본형태로 하면서 지방의 조건과 실정에 맞게 《집중적인 한달학교》, 《호조반》, 《국어학교》, 《상공인반》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였으며 《어머니배구소조》, 《조선료리강습소》, 《바느질소조》, 《노래소조》 등 문예체육사업을 배합시킴으로써 수강생들로 하여금 우리 말과 글을 더잘 배우도록 하였다.

총련은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성인학교, 청년학교 전임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강습회를 조직한것을 비롯하여 성인교육강사들의 교육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태로 조직하였다.

교육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3년 8월 31일에 주신 강령적교시 《총련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짜고들어 교육일군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에서와 학생들에 대한 교육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옴으로써 수령님의 이 교시를 맞는 한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총련은 조선대학교에 연구원과 6개월간부교원양성반을 신설하고 도꾜와 오사까 조선고급학교에 상업과를 병설하는 한편 기후현에 도노조선초중급학교를 새로 내옴으로써 민주주의적민족교육체계를 정비강화하였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자녀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충실한 아들딸로 더잘 키우기 위하여 야마구찌조선고급학교와 후꾸오까조선초중급학교, 세이방조선중급학교, 오까야마조선초중급학교의 새 교사와 체육관 및 기숙사들을 일떠세움으로써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려놓았다.

총련은 이국땅에 있으면서도 웅장한 조선대학교와 11개의 고급학교, 56개의 중급학교, 91개의 초급학교 모두 159개의 각급학교와 71개소의 유치반과 수많은 오후야간학교들을 꾸려놓고 재일동포자녀들을 경애하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아들딸로 훌륭히 키우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이해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탄생 예순두돐을 축하하는 재일조선인예술단》을 비롯하여 스물한번에 걸쳐 축하단, 대표단, 방문단으로 511명이 조국에 왔다 갔으며 일곱번에 걸쳐 21명이 제3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해 총련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조국에로의 귀국실현 열다섯돐을 뜻깊게 기념하였으며 귀국사업을 계속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1959년 12월 14일 조국을 향하여 니이가다항을 떠난 귀국선은 15년간 172차에 걸쳐 청진, 니이가다사이를 오갔으며 근 10만명에 달하는 재일동포들이 오매에도 그리던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겨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이해에 427억 400만원의 예금액을 늘이고 7개의 점포를 새로 꾸림으로써 조은신용조합을 2천 566억 400만원의 예금액과 130개의 점포를 가진 민족금융기관으로 더욱 발전시켰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새해에도 총련이 자기 활동의 모든 분야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각급 조직을 더욱 튼튼히 꾸리며 정견과 신앙, 재산의 유무와 단체소속에 관계없이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재일동포들을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투쟁전선에 하나로 묶어세움으로써 1974년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 획기적전환의 해로 만들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에서 자기앞에 맡겨진 숭고한 애국적의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총련은 1974년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 획기적전환의 해로 만들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김일성주의의 기치밑에 열린 총련 제10차전체대회에서《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자》라는 투쟁구호를 제기하고 총련 일군들과 동포들을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적극 조직동원하였다.

이해 총련은 6월 1일부터 9월말까지《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는 애국운동월간》사업을 대중적으로 벌려 재일동포들속에서 민족적단합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군사파쑈체제의 철폐와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여 용감히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힘있게 지지성원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총련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공명정대한 방침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환영하는 한편 강연회, 연설회, 전호방문운동 등 여러가지 형태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을 총련산하 동포들은 물론《민단》산하동포들에게 널리 알려주었다.

총련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4년 3월 4일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중앙상임위원회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군사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를 토의할것을 미합중국에 제기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 제안을 지지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를 가진것은 그 대표적 실례이다.

총련은 특히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는 애국운동월간》기간에《조국통일선전대》를 무어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방침을 구두선전과 직관선동, 문예활동 등으로 기동성있게 해설선전하였으며 8월 25일부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반대하며 대민족회의를 이해안으로 열데 대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호소를 적극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기간에 조국통일촉진연설회를 열고《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자》라는 제목의 강연을 각지에서 진행하였다.

총련은 전호방문운동을 군중적으로 벌려《민단》산하 동포들과의 접촉과 대화를 적극 진행하였다.

특히 총련의 각급 기관은 7.4공동성명발표 두돐을 전후하여 이를 기념하는《민단》파의 공동모임,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공동행동을 동포들이 사는 모든곳에서 조직하였다.

그리하여《민단》산하 동포들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강령을 지지하는 기운이 한층 높아졌다.

총련의 각급 기관은 재일동포들의 애국력량을 동원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반제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아침, 저녁, 삼복더위도, 억수로 퍼붓는 비바람 센날도 가리지 않고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삐라뿌리기, 군중대회와 시위행진, 전호방문운동을 힘차게 벌려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죄행을 폭로규탄하였을뿐아니라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해 싸우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지지자, 동정자 대렬을 늘여나갔다. 총련의 모든 일군들과 60만 재일동포들은 7월 8일 박정희깡패도당이 살인공판놀음을 벌려놓고 이른바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과 관련시킨 애국적인사들 21명에게 사형과 중형을《구형》하는 천추에 용납못할 야수적만행을 감행한데 대하여 민족적의분을 금치못하면서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민주인사들의 즉시 석방을 요구하는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총련 도꾜도본부에서는 선전차를 앞세우고 22일부터 25일에 걸쳐 관하동포들속에서 박정희군사깡패를 쓸어버리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며 긴급하게는 남조선의 애국적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여 강력한 항의투쟁을 벌릴것을 호소하는 가두선전을 벌리였다. 또한 일본인민들에게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책동을 낱낱이 폭로규탄하고 나라의 통일과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보내줄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7월 25일부터 31일까지의 1주일동안에는 총련의 각 단일단체, 사업체일군들 연 1천명이 떨쳐나서 도꾜의 주요정거장들에서 힘찬 가두선전을 벌리고 40여만장의 삐라를 일본인민들에게 넘겨주었다.

도꾜뿐아니라 박정희악당의 살인재판과 야수적탄압만행을 규탄하는 긴끼, 교또, 효고, 아이찌 등 각 지방대회에 참가한 수많은 동포들은 그 즉시로 괴뢰도당에 대한 참을수 없는 분노를 안고 시위, 가두선전, 자동차, 자전거행진, 항의전보 등 다양한 형식의 완강한 투쟁을 벌리였다.

또한 일본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대시하고 남조선괴뢰도당을 부추기는 일변도정책을 당장 그만두고《두개조선》을 조작하여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책동에 가담하지 말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방해되는 일체의 책동을 중지할데 대한 요청문, 항의전보, 성명, 담화발표 등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여 각종 투쟁을 벌렸다.

이해에 총련은 대외활동을 적극 벌려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세계각국인민들속에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널리 해설선전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지지자, 동정자 대렬을 더욱 확대하였다.

이해에 총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과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자료, 화첩《조선혁명박물관》등 11개종류의 출판물들을 번역출판하여 일본을 비롯한 세계 100여개 나라 인민들속에 9만 2천여부를 보급하였다.

또한 5개나라 말로 된 신문, 잡

지, 화보, 통신들을 세계 140여개 나라와 지역들에 적극 보급하였다.

총련은 이해에 《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를 비롯하여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는 일본 각계 인사들파의 교류를 더욱 강화하였다.

총련은 국제의회동맹 제61차총회를 비롯하여 벌가리아, 애급, 인도, 오스트랄리아에서 열린 6개의 국제회의들에 총련의 대표들을 참가시켜 제3세계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파의 친선단결을 더욱 강화하였다. 특히 조청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구라파의 18개 나라 대표들을 조청제10차대회에 초청하여 그들속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총련의 사업성과를 알리고 총련의 국제적위신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문학예술, 체육활동

1974년에 총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높이 받들고 문학예술활동을 적극 벌려 60만 재일동포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파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교양하였다.

이해에 재일조선문학예술부문일군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상예술성이 높은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예작품을 수많이 창작공연하였다.

특히 재일조선예술인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60만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수령님 탄생 예순두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정성다해 준비해온 훌륭한 예술작품들을 가지고 조국의 무대우에서 성과적으로 공연하였다.

그들은 민족최대의 경사로운 명절을 앞둔 4월 14일에 방금 준공한 인민문화궁전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첫 공연의 막을 올리였으며 혁명의 수도 평양파 여러 지방들에서 조국인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보람찬 공연을 진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모시고 충성다하려는 60만 재일동포들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부른 합창《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자기들의 확고한 신념으로 새기고 그 기치밑에 살며 싸우고있는 재일동포들의 불같은 의지를 담은 합창《김일성주의기치 높이 앞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여 자나깨나 그리운 만경대에로 끝없이 달려오는 60만 동포들의 끓어오르는 감정을 아름답고도 소박한 률동에 담아 노래하고 춤추는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60만은 축원합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은혜로운 해빛아래 재일조선상공인들이 어떻게 참된 애국의 길을 찾고 보람있는 생활을 누리게 되는가 하는것을 감동적인 화폭에 담아 진실하게 보여주는 노래이야기《해빛받은 상공인 삼형제》등 모든 종목들에는 어버이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며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자기들의 최대의 념원파 기쁨으로 여기며 삼가축원하고있는 재일동포들의 절절한 심정이 뜨겁게 흘러넘치고있었다.

무용《수령님 보내주신 민족악기를 받아안고》, 《공화국기발을 목숨으로 지키리》, 《우리 자랑 이만저만 아니라오》, 2중창《수령님 이끄시는 세금없는 내 나라》, 노래와 춤《조국통일 이룩하리》, 녀성독창《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 남성중창《동무들아 달려나가자》등 모든 공연작품들에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재일동포들이 총련의 애국사업에서 거둔 자랑찬 성과들파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으로 사는 기쁨파 감격이 진실하게 반영되고있다.

이해에 총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두돐에 즈음하여 수령님께 축하드린 재일조선인예술단의 공연을 7월 15일파 16일 이틀동안에 걸쳐 도꾜조선문화회관에서 대성황리에 진행하였다.

총련은 이해에 어버이수령님의 배려로 세계해외교포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금강산가극단》을 무어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귀중한 선물인 혁명가극《금강산의 노래》를 성과적으로 공연하였다.《금강산가극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두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이해 4월부터 7월에 걸쳐 조국을 방문한 동포들로 무어진 가극단으로서 재일조선중앙예술단, 12개 지방가무단성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창작, 성악, 무용, 민족관현악 등 모두 200여명으로 구성되여있다.

총련은 《금강산가극단》의 공연, 12개 지방가무단, 연극단의 공연, 조국영화상영사업 그리고 각종 체육경기행사들을 무려 3천 300여회에 걸쳐 진행하고 여기에 연 65만 1천여명의 각계층 동포들파 일본인민들을 망라하였다.

1974년에 총련의 모든 일군들파 체육인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체육사상을 높이 받들고 체육사업을 대중화하고 기술수준을 훨씬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그들은 체육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조선사람의 기질파 체질, 사상감정에 맞는 체육을 하며 모두가 우리 나라의 독창적인《사상전》,《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을 훌륭히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총련은 1955년에 재일본조선인중앙체육대회를 조직한 때로부터 이해에 이르는 20여년동안에 100여차례에 걸치는 중앙적인 종합체육대회와 종목별경기대회 등 복잡하고 방대한 사업을 훌륭히 진행하였으며 이 중앙적인 체육행사들에만 하여도 연 7만명에 달하는 동포체육선수들을 망라하였다.

재일본조선인체육련합회는 결성당시에 비하여 7배이상으로 불어난 22개의 지방체육협회와 축구, 배구, 야구, 탁구 등 100개 가까운 지방체육단파 1천여개의 각종 체육소조에 1만 3천여명의 동포체육인들을 망라하고있다.

재일조선축구단은 결단이래 일본의 이름난 축구단들파의 친선경기에서 412승의 개가를 올리였다.

《금강산가극단》이 공연한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에 대한 반향

재일동포들의 반향 혁명가극《금강산의 노래》의 일본에서의 첫공연은 재일동포들파 일본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혁명가극《금강산의 노래》는 몸은 비록 조국에서 수륙만리 멀어진 이국땅에 있으나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파 보살피심속에서 자라나고있는 재일조선예술인들에 의하여 훌륭히 공연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잊을수 없는 감동을 주었다.

공연을 본 재일동포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끝없는

민족적긍지감과 행복감에 겨워 눈물을 머금으면서 수령님의 가르치심 따라 일편단심 나아감으로써 그이께 영원토록 충성다할 억센 결의들을 다지였다.

녀맹 지바현 지바지부 6분회 리동포는《첫막이 올랐을 때부터 줄곧 흘러내리는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감격에 겨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수령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선물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으니 감사의 말씀을 어떻게 올렸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친히 무어주신 이런 훌륭한 가극단을 가지게 된것을 무한한 긍지로, 자랑으로 여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과 배려가 계시기에 가극에 나오는 순이와 그의 아버지, 어머니 등은 오가족을 오늘과 같은 그런 좋은 세상에서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이 되여 만날수 있었다.》

총련 도꾜도 아라까와지부 미까와시마 1분회 리분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과연 언제 우리 재일동포들이 세계1등급의 혁명가극을 무대우에 올려놓을수 있다고 생각할수 있었겠는가.

가극의 주인공들의 옛처지와 마찬가지로 지난날 사람대우조차 받지 못했던 우리의 딸들이 수령님의 품에 안겨 선녀가 되여 왔다. 이보다 감격스럽고 고마운 일이 또 어데 있겠는가. 》

손꼽아 기다리던 혁명가극을 드디여 보게 되여 소원을 풀었다는 도꾜도 이다찌상공회 리사장은《무엇보다도 이런 훌륭한 가극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최대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세계에 자랑하는 우리 나라의 혁명가극을 재일조선예술인들이 훌륭히 무대에 올려놓았으니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일본땅에서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가난하게 살아오던 재일동포들이 혁명가극을 공연할수 있게 된것은 커다란 자랑이며 우리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한층 높여줍니다.》

나이 여든살이 넘는 총련 지바현 지바지부 3분회 한 로인은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혁명가극을 꼭 보고싶어 달려왔다고 하면서 자기의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혁명가극에서 지난날의 우리 겨레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보았으며 오늘의 행복한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잘 알게 되였다.

그러니 정말 눈물 없이는 볼수 없었다.

왜정때 얼마나 많은 조선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사랑하는 부모처자들과 생리별하였던가.

그런데 그런 처지에 놓여있던 우리들이 오늘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밑에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 떳떳이 살아갈수 있게 되였으니 꿈같은 일이다.

나는 이 좋은 가극을 보면서 여생을 수령님의 품에서 더욱 보람있게 살기 위해 힘자라는대로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굳게 가지게 되였다.》

혁명가극을 보기 위해 5시에 달려왔다는 후꾸오까상공회 리부회장은 감격의 눈물을 머금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오늘 우리 예술인들을 어머니조국에 불러주시고 가지가지의 배려를 베풀어주시였을뿐만아니라 이처럼 훌륭한 혁명가극을 선물로 보내주신 수령님께 마음속으로부터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계속하여《나는 가극을 보면서 수령님께서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고 하신 말씀을 되새기고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였다.

가극에서도 보여주었지만 수령님께서 반세기동안 오직 조국과 인민을 위해 싸워오시였기에 우리 민족의 오늘의 행복이 있고 휘황한 래일이 있다.

수령님의 한없는 은덕과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길에 나서 굳세게 싸워나갈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사회주의제도에서 감격적인 상봉을 이룬 주인공일가의 행복한 모습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면서 나라의 분렬로 말미암아 지금도 암흑의 땅 남조선에서 생리별을 강요당하고있는 가족, 친척, 친우들을 머리속에 그리며 통일된 3천리금수강산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온 민족이 행복하게 살아갈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총련 도꾜도 스미다지부 무꼬지바분회 김동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도 고향에서 신음하는 친척들 생각이 나서 눈물을 금할수 없다. 지난날 나라 없는 탓으로 한 가족이 헤여져 살아야 했던 비극이 오늘도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한 민족의 분렬로 계속되고있다.

이런 비극은 끝 가셔져야 한다. 그런데 미제와 그의 충실한 개 박정희 매국역적은 공화국정부의 공명정당한 통일방안을 거부하고 나라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며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으며 최근에는 우리 총련조직까지 파피하려고 덤벼들고있다. 우리 인민의 지향에 어긋나게 민족의 비극을 확대하려는 이놈들을 당장 쓸어버려야 한다.》

혁명가극《금강산의 노래》는 일본각지의《민단》산하 동포들과 일본에 머무르고있는 남조선겨레들속에서도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공연을 본 그들은 조선민족으로 태여난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면서 오늘의 이 감격과 행복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흠모의 정을 표시하면서 경애하는수령님께서 만수무강하실것을 삼가 축원하였다.

후꾸시마현에 사는 40대의 한《민단》영향하의 동포는《공화국이 우리나라의 민족문화를 활짝 꽃피워주고있다. 정말 기쁜 일이다. 총련이 얼마나 옳은 일을 하고있는가를 실감적으로 느끼였다. 조선민족으로 태여난 자랑과 행복을 온세상에 자랑하고싶다. 오늘의 감격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고 말하였다.

니이가다현에 사는 한《민단》역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일제시기 천대받던 우리 백성을 오늘 세계에서 으뜸가는 인민으로 키워주시였다는것을 오늘 공연을 보고 똑똑히 알았다. 그런데 나의 심장을 더욱 격동시킨것은 김일성주석님께서 우리 재일동포들을 위하여 재일조선예술인들을 조국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사람들의 가슴을 격동시키는 훌륭한 혁명가극을 선물로 보내주신것이다.》그러면서 그는 우리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온겨레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김일성주석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하였다.

사이다마현에 사는 50대의 한《민단》산하 동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극을 보면서 지난날의 망국노의 신세가 자꾸 생각되여 몇번이나 눈물을 흘리였다.

아버지와 어머니, 딸이 그처럼 훌륭한 사람들로 자라나 서로 감격적인 상봉을 할수 있었던것은 김일성주석님의 정치가 좋고 또 이북의 사회주의제도가 우월하기때문이라는것을 나는 깊이 알게 되였다.

우리는 김일성주석님의 정치를 받아야 하며 사회주의에로 나가야 한다.》

가나가와현에 사는 60대의 한《민단》산하 동포는《이북이 얼마나 발전하였는가를 오늘 가극을 보고 잘 알수 있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이끄시는 이북이 우리 나라를 온세계에 빛내여주고있다》고 힘주어말하였다.

공연을 본《민단》산하 동포들은 또한 한결같이 조국통일에 대한 절절한 념원을 토로하면서 새로운 결의들을 다지였다.

원쑤들의 협박을 단호히 물리치고 사이다마현에서 공연을 보러 왔다는 《민단》산하의 한 동포는《아직 통일되지 못하여 서로 갈라져 사는 우리 겨레가 얼마나 많은가. 박정희놈은 저 순이와 같은 남조선녀성들을 미국놈과 일본놈들의 롱락물로 바치고있다.박정희놈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 남녘의 겨레들은 영영 남의 나라의 노예로 되고 말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박정권을 때려부셔야 한다》라고 격분에 넘쳐 말하였다. 그러면서《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령도아래에서만이 우리의 갈라진 혈육들이 저렇게 만날수 있고 남조선도 북반부와 같이 지상락원으로 전변시킬수 있다》고 강조하고 통일된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몸바쳐 싸울 결의를 다지였다.

일본에 머무르고있는 남조선의 동포들도 혁명가극《금강산의 노래》를 보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난생 처음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했으며 공화국북반부의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열렬한 동경심과 조국통일에 대한 절절한 념원을 말하였다.

친척방문을 위해 일본에 왔다가 공연을 보게 되였다는 김아무개로동자는 처음부터 감동의 눈물없이는 볼수 없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북의 예술을 처음으로 보았다. 아니 이처럼 훌륭한 예술을 본것은 난생 처음이다. 무대도 한량없이 아름다웠거니와 이야기줄거리며 등장하는 사람들이며 모든것이 어쩌면 그렇게도 아름다운가. 일본에 있는 동포들이 이북에 가서 배워온것이 저렇게 훌륭하니 이북에서는 더욱 굉장할것이다. 공연 마지막에 전체 출연자들이 목청껏 부르는 김일성주석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너무나 감개무량하여 높뛰는 가슴을 달랠수 없었다. 이남 동포들도 이북동포들처럼 잘 살수 있도록 어서 조국이 통일되여야 한다.》

강아무개라는 남조선의 한 선박로동자는 어느 한 장면치고 감동의 눈물없이 볼수 없었지만 특히 주인공이 일제놈들에게 탄압당하는 장면에서는 이가 갈리고 주먹이 떨리는것을 참을수 없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힘주어 말하였다.

《조국이 분렬된 탓으로 이남에서는 오늘도 주인공의 과거처럼 수십수백만의 겨레들이 부모, 형제, 처자들과 생리별한채 고통을 당하고있다.

또한 분렬된 탓으로 이남에는 미국침략군놈들과 일본자본가놈들한테 뜯기고 볶이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침략자들을 섬기는 박정희놈은 악독한 놈이다. 그놈은 나라와 민족을 미국침략자들과 일본반동놈들에게 팔아먹고있는 매국역적이며 동족을 마구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학살하는 인간백정이다. 이남은 병들고있으며 썩고있다.

우리 조국은 김일성주석님의 령도밑에 하루빨리 통일되여야 한다.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좋은가.

이남도 이북과 함께 사회주의의 길로 나가야 한다.》

일본대학에서 연구사업을 하기 위하여 일본에 와있다는 남조선의 한 대학교수는《나는 공연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재능있고 솜씨있고 힘있는 슬기로운 민족인가를 새삼스럽게 느끼였다.

그런데 같은 민족이면서 이남에서는 왜 이런 훌륭한 예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가.

그것은 사상, 주체사상이 없는 탓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남에서도 사람들의 재능이 활짝 꽃피고 모두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며 다같이 혁명가극을 볼수 있는 조국통일의 그날이 반드시 멀지 않아 오리라는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하였다.

전라남도에서 요꼬하마에 사는 아들을 찾아왔다는 한 할아버지는《이처럼 훌륭한 공연을 볼수 있게 된것은 김일성주석님의 덕분이다.

그분은 진정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며 위대한 수령이시다.

우리 민족처럼 자랑스럽고 행복한 민족은 없다.

조국이 하루빨리 통일되여 이런 예술을 전민족적으로 꽃피워나가며 볼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총련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옳은 사업을 하고있는 애국단체이다》라고 감동어린 어조로 말하였다.

일본인민들의 반향 일본의 보도관계자들과 가극애호가들은《조선의 가극은 세계가극력사에 새로운 페지를 열어놓았다》, 《조선의 가극은 가극력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았다》고 한결같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일본의 이름있는 한 음악가는《조선의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티없이 밝은 감정세계가 흐려진 우리의 가슴속까지 씻어주는것 같았다. 바로 한없이 밝은 노래가 그러하였고 무용도 무대미술도 그러하였다. 때로 양악기와 민족악기가 하나의 음을 이루면서 간혹가다 양악기속에서 대조적으로 들려오는 민족악기들의 소리는 얼마나 좋은가!

완전히 새 음악의 경지를 이루고있었다.

〈금강산의 노래〉는 또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선의 사회제도의 우월성을 노래하고있는 점에서 종래의 가극과는 다른 특이한것이라고 생각한다.

가극을 보면서 나라가 통일된후 헤여졌던 조선의 숱한 가족들이 금강산에서 얼싸안고 기쁨을 노래하는 모습을 눈물속에 련상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한 영화촬영가는《김일성주석님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조선은 얼마나 좋은가》고 부러움을 금치 못해 하면서 《어떻게 하면 무대배경에 물이 찰찰 흐르고 갈매기가 날아가며 달이 솟아 오르게 할수 있는가. 그 섬세하고 폭폭한 예술을 배울 길은 없는가》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주인공이 일본관헌에게 짓밟히는 장면에서 가슴이 찢어지는듯하였다. 해방된 조선의 락원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때 바로 이 행복속에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개된 항일투사들의 피어린 투쟁이 깃들어있음을 가슴뜨겁게 느끼게 된다.

정말 시간가는줄 몰랐다. 정말 완성된 예술이다.》라고 격동된 심정을 말하였다.

잡지《부인문예》의 한 편집자는 《가극이야말로 예술의 진가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를 배워주고있다.》고 힘주어말하면서《그렇듯 아름답고 밝은 노래의 우아함을 서투른 내 필치로 어떻게 표현하랴, 한없이 아름다운 마음과 마음들이 오가는 감동적인 장면들을 무슨 말로 다 그려내랴》라고 말하면서 못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하였다.

그는 또한《알기 쉽고 감동적인 우월한 이 가극은 벽에 부닥친 일본의 가극에 커다란 교훈을 주었다. 일본청년들과 녀성들의 훌륭한 정신적량식으로 될것이다.》라고 힘주어말하였다.

아사쭈사국제극장 연극부 파장은 《공연이 자기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매일과 같이 예술공연을 보고있지만 이런 훌륭한 예술을 보기는 오늘이 처음이다. 최고이다. 내용이 매우 알기 쉽고 노래는 전문가가 아닌 우리의 귀에도 곧 익는다. 가극의 흐름은 자막을 보지 않고도 충분히 리해할수 있다.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보다 좋은 락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우고있는 모습이 나의 가슴을 울렸다. 이렇게 훌륭한 가극을 공연하기에는 극장설비가 너무 불리한것 같애 부끄러움을 금할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다행히도 얻은 이 영예를 빛내이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것이다.》

그러면서 그는《이번뿐만아니라 래년에도 우리 극장에서 공연해줄수 있겠는가》고 간절히 요청하였다.

교도통신의 한 사진기자는 《무엇보다 감동된것은 김일성주석님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나라에서 마음껏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것이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제식민지 억압밑에서 한 집안식구가 헤여져서 20여년, 그렇듯 훌륭한 사회제도가 아니고서야 이 일가가 어떻게 상봉할수 있겠는가? 참으로 조선의 사회제도가 부럽기만 하다.

금강산의 아름다운 전설도 좋지만 오늘의 생활이 더 좋다고 노래하는 그 어여쁜 처녀들의 밝은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 이 가극단이 무어진지 얼마안된다고 하는데 그들의 예술기량이 대단하다.》

가극 애호가 와다나베 마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것이 진짜 가극이라는것을 알았다.

이 가극이야말로 우리 일반대중의 서정을 반영해줄수 있는 진정한 예술이다.

일본에서 어려운 조건이 많았을텐데 이처럼 훌륭한 가극을 창조할수 있었으니 조선사람은 참으로 슬기로운 민족이다. 또 총련이 조직하는 이와 같은 사업은 일본에도 리로운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를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이러한 총련을 〈불법단체〉니 뭐니 하면서 걸고들려는 박〈정권〉의 처사를 우리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60만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의 보살피심밑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고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여 1955년 5월 25일 결성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내세운 총련의 결성은 재일조선인운동과 재일동포들의 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요구를 대표하는 총련이 결성됨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은 비로소 주체를 철저히 확립할수 있었으며 우리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원칙적인 통일단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로부터 재일동포들은 진정으로 자기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믿음직한 조직을 가지게 되였으며 명확한 투쟁강령과 과학적인 사업방법을 소유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총련이 결성됨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은 비로소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에 기초한 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을 이룩할수 있게 되였으며 자기 나라 혁명에 복무하는 민족적애국운동으로 전환되게 되였다.

총련이 결성됨으로써 또한 재일동포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들의 의사와 리익을 대표하는 참다운 민주주의적민족조직체를 가지게 되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한 유일하게 정당한 투쟁강령을 떳떳이 내세우고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을 구현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총련의 결성은 오랜 세월을 두고 제국주의침략자들의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만 되여온 재일동포들의 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룩되고 우여곡절을 겪어온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주체의 새 시기가 시작되였다는것을 선포한 중요한 사변이였다.

총련은 49개의 현 본부와 310여개의 지부, 1,860여개에 달하는 분회조직을 가지고 있다.

총련의 단체, 사업체, 창립기념일

재일본조선청년동맹
1955년 8월 1일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1947년 10월 12일

재일본조선인상공련합회
1946년 2월 26일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1947년 8월 28일

재일본조선인중앙교육회
1955년 7월 2일

재일본조선인교육자협회
1959년 6월 29일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1959년 6월 7일

재일본조선언론출판인협회
1954년 10월 14일

재일본조선인신용조합협회
1953년 11월 23일

재일본조선인체육련합회
1954년 7월 30일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1945년 9월 14일

재일본조선인통일동지회
1948년 10월 25일

재일본조선인불교도련맹
1948년 8월 1일

재일본조선인통신교육협회
1963년 4월 20일

조선신보사
1945년 10월 10일

조선통신사
1948년 10월 1일

구월서방 1954년 4월 1일

학우서방 1949년 5월 5일

조선문제연구소 1952년 10월 15일

시대사 1963년 4월

조선화보사 1962년 4월

재일조선중앙예술단 1955년 6월 6일

재일조선연극단 1965년 1월 15일

재일조선축구단 1961년 8월 25일

조선총련중앙학원 1955년 8월 16일

조일수출입상사 1972년 1월 16일

동해상사주식회사 1961년 8월 7일

조선대학교
1956년 4월 10일


자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국제적권위는 비상히 높아가고있다

(1974년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의 빛나는 승리)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주체의 새 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에 몸소 9개 나라 국가수반들을 비롯하여 90여개 나라의 당 및 국가 지도적인 간부들, 혁명조직과 투쟁단체 책임간부들, 국제기구대표단, 저명한 사회활동가들과 권위있는 출판보도 및 언론인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에게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나아가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4년에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연설들과 로작들 30여건을 새로 발표하시여 세계인민들 특히 신흥세력인 제3세계인민들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세계를 창조하는 길로 확고히 이끌어주시였다.

여기에서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4년 3월 4일에 하신 연설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력사적인 연설에서 오늘 세계인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 추세이며 매개 나라 인민들은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시대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성과 구체적수행방도들에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1974년에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인 제3세계나라들의 경제적자립과 이 나라들간의 경제적협조문제에 각별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들이 제국주의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확고하게 전진해나갈수 있는 길을 명확히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3세계인민들은 자기의 앞길을 자신이 개척하며 자기의 손으로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이 단결하여 서로 아는것은 알려주고 모르는것은 배우며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협조하여나간다면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진보와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베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12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돈과 기술을 중요한 공간으로 하여 경제적지배와 략탈을 획책하고있는 조건에서 제3세계나라인민들이 국제무대에서 그 어떤 압력과 위협공갈에도 뒤흔들리지 않고 단합된 힘으로 맞서나가며 자기의 독자적인 로선과 정책을 실시하자면 자기의 원료, 자기의 힘에 의거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길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것을 명백히 가르쳐준 힘있는 투쟁의 무기로, 기치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4년에 또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의 전반적멸망과정을 가일층 촉진시키기 위하여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공동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 9월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시에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제3세계인민들이 반제공동위업에서 단결하는것은 력사발전의 필연적요구입니다.

제국주의가 있는 한 그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계속될것이며 투쟁이 계속되는 한 인민들은 승리하기 위하여 더욱 단결하게 될것입니다.

세계의 미래는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굳게 단결하여나가는 인민들에게 속합니다.》

수령님의 이 강령적가르치심은 모든 나라들이 반제반미투쟁을 더욱 견결히 하여 놈들의 멸망을 촉진케 하는 전투적기치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에 복잡하고 착잡한 국제정세를 예리하게 분석하시고 세계혁명적인민들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것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시고계시는 절대적인 권위와 국제적위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세계혁명적인민들과 수많은 나라 지도자들로부터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원수님은 조선인민의 수령이실뿐아니라 전세계의 해방과 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인민들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1974년에 세계혁명적인민들과 수많은 나라 지도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주체의 태양》, 《우리 모두의 태양》, 《현대세계의 가장 위대한 수령》, 《탁월한 사상가이시며 천재적리론가》, 《아세아와 제3세계의 전설적이며 백전백승의 영웅》이시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그이를 조선혁명의 수령으로뿐아니라 세계 혁명의 탁월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

러모시며 그이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일본대학원 연구생 오누마 하사오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김일성주석님은 오늘 비단 조선의 령도자이실뿐아니라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인 희망찬 미래를 지향하는 전세계인민들의 불세출의 영웅이시다.

조선인민들이여, 김일성주석님을 조선인민만의 수령이시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그이는 우리 모두의 태양이시다》라고 말하였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님은 인민들의 권리와 자유, 진보를 확신하시고 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시는 로련하신 위대한 혁명투사이십니다.》

도꾜《청년주체사상연구회》성원 우찌가시마 미끼야스는《김일성주석님이시야말로 인류가 오래동안 목마르게 기다리던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유일한 중심이시며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보장하는 영원한 령도자이시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각하께서는 조선과 우리의 아세아 그리고 자유와 자주적발전을 위하여 싸우는 모든 인민들의 위업에 가장 탁월한 기여를 하고계시는 우리 아세아와 제3세계의 전설적이며 백전백승의 영웅이십니다.》라고 말하였다.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헤나르 까르베로 체까서기장은 《오늘 세계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권위, 주체사상의 권위, 주체조선의 권위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습니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자주성으로 하여, 그이의 주체사상으로 하여 맑스나 레닌, 쓰딸린이 자기 시대에 볼수 없었던 사회주의건설문제들을 통찰하시여 해명하시고 맑스—레닌주의발전에 기여하신 공적으로 하여 세계에서 더욱더 두터운 존경을 받고계십니다.》라고 격조 높이 말하였다.

자이르공화국대통령 모부투는 자기의 공식연설에서 《나는 조선민족의 어버이이신 김일성원수님은 조선에서뿐아니라 세계의 모든곳에서 가장 큰 존경을 받고계신다는것을 당신들에게 확언하는 바입니다. 지어 그이를 반대하고있는자들, 원쑤들까지도 그이를 존경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 부위원장이며 아랍법률가동맹 서기장인 샤피크 아르쉬다르는《김일성원수님은 비단 당신들의 수령이실뿐아니라 전세계의 해방과 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인민들의 수령이시며 그이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전세계의 해방과 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귀중한 재부로 됩니다.

김일성동지는 탁월한 군사적천재성을 지니시고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전설적인 영웅이십니다》라고 격동된 심정으로 말하였다.

구라파에 있는 아프리카직맹일군들과 대학생들의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구모아 히뽈리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혁명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에로 확고하게 령도하여오신 탁월한 사상가이시며 천재적리론가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위하여 사상리론활동을 한시도 쉬임없이 정력적으로 진행하시여 탁월한 사상 및 리론적 공적을 끊임없이 쌓아올리고계신다.》

세계혁명적인민들과 여러 나라 지도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시고계시는 절대적인 국제적권위에 감탄을 표시하면서 그이께서 세계혁명적인민들로부터 높은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시는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하고있다.

자이르공화국 대통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흠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혁명은 위대한 모든 혁명의 력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지고있습니다. 때문에 당신께서는 응당 세계 모든 인민들의 존경과 흠모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대통령은《당신께서는 세계인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계십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당신께 축하를 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헌시에서 애급까히라종합대학 교수 박사 무함마드 싸비르는 다음과 같이 썼다.

《당신께서는 높이 서시여
원쑤들을 발아래 굽어보십니다.
당신께서는 천재적지혜로 20세기를 지키고계십니다.
당신의 심장에서 조선의 영광
세기의 영광이 맥박치고있습니다.
당신께서 높이 추켜드신 주체의 햇불은 등대되여
어두운 대양을 비쳐주고
난파선마냥 헤매이는 배들을
문명의 한길로 이끌어주나니
당신께서는 인류의 존엄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의 진두에 서계십니다.
당신께서는 사회주의조선의 어버이
당신께서는 광명한 미래에로의 향도자
당신께서는 세계평화의 기치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빛나는 미래와 영광을 주십니다.
당신께서는 온 세계인민들의 끝없는 사랑과 흠모속에 계십니다.
김일성원수각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김일성동지, 그이는 백전백승하시는 세계혁명의 수령》이라고 제목한 시에서 파키스탄 라호르 《김일성주석로작연구위원회》서기장 무쓰타파 카말파사는 다음과 같이 썼다.

《가장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나라, 조선
여기서 가장 위대한 인류의 영재탄생하셨네
력사는 그분께 세계적인 찬양을 아낌없이 드리나니
위대한 그이의 이름에 비길 이름 세상에 없네
김일성동지 만세!》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과 많은 나라 지도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는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그이의 접견을 받는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하며 경애하는 수령님을 만나뵈온 잊을수 없는 영광에 찬 인상들을 숨김없이 말하고있다.

자이르공화국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의 귀국방문은 실로 여러면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집니다. 이 방문이 력사적의의를 가진다는것은 나로 하여금 현대세계의 가장 위대한 수령의 한분이신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뵈올수 있게 하였으며 이 방문이 나로 하여금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당신들의 경모의 정을 볼수 있게 하였》기때문이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일본사회당 부인활동가대표단 단장인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이며 부인국 국장인 와다나베 미찌꼬는《자기들은 조선을 세계인민들이 사회주의선진국으로 부르는 나라로 전변시킨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뵈옵게 된 감격을 일생을 두고 잊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주석님께서 만수무강하시

기를 중심으로 축원한다고 말하였다.

세계혁명적인민들과 많은 나라 지도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흠모하고있기에 해마다 그이의 탄생일을 커다란 경사로 맞으며 그이께서 탄생하시고 큰뜻을 키우신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찾는것을 커다란 기쁨과 자랑으로 여기고있다.

１９７４년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두돐을 축하하여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과 사회활동가들, 진보적인사들, 세계 ５대륙에 조직되여있는 수령님의 사상연구소조 성원들로부터 그이께 수많은 축전, 축하편지들을 보내여왔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예순두돐을 성대히 기념하였다.

수령님의 탄생 예순두돐에 즈음하여 드리는 헌시 《경사로운 탄생일을 축하합니다》에서 파키스탄의 이름있는 시인 하와자 아브돌 레호만은 다음과 같이 썼다.

《각하의 경사로운 탄생일을 축하합니다.
각하의 위대한 탄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날은 사람마다 영원히 간직할 력사의 날
우리 또한 즐거웁고 행복한 인류의 명절날
당신께선 천재적인 지혜와 재능의 체현자
강의한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분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학자이신
당신께선 불굴의 투사이시며 설계가이시며 철학가이십니다.
…
력사는 언제나 위인의 이름을 간직하나니
당신의 찬란한 업적은 불멸할것입니다.
당신께선 장수하시여 위대한 업적 이룩하시려니
당신의 명성 세계에 떨쳐 길이 영생할것입니다
축원하옵니다. 당신께서 우주가 다하도록 만수무강하시기를!
축원하옵니다. 당신께서 만년장수하시여
인류에게 영원한 행복 가져다주시기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활 펼쳐주시기를!》

이해 우리 나라를 방문한 여러 나라 국가지도자들과 수많은 나라 대표단들은 유서깊은 만경대를 찾았다.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 서기장은 시 《혁명의 태양이 솟아오른 ４월 １５일》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혁명의 태양이 솟아오른 만경대
아름다운 꽃들이 다투어 피여나는 만경대
영광의 ４월 １５일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날
김일성주석님께서 탄생하신 날
내 여기 왔노라
영광의 땅 만경대, 아름다운 고향땅이여
영웅의 나라에 높이 솟은 만경대
여기 조선의 소박한 이 초가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과 사람들,
…
４월 １５일
이날보다 더 경사스러운 날, 어데 있으랴
새 힘과 새 희망을 안겨주는 ４월 １５일
이날은 영웅의 나라 조선의 명절
４월 １５일
이 날은 온 인류의 경사로운 명절이여라》

자이르공화국 대통령은 만경대를 방문하고 나서 《나는 오늘 세계의 혁명가들이 잘 알고있는 당신들의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시여 혁명의 큰 뜻을 키우시였으며 그이의 부모님께서도 살며 싸워오신 혁명의 성지, 만경대의 력사적인 장소를 참관할수 있게 된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하였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를 방문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절대적인 존경과 흠모가 세계 ５대륙에 차고 넘치고있음을 잘 말해주고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의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최고봉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주체사상이 제３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보다는 그것이 세계인민들속에서 특히 제３세계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고 하는것이 옳을것입니다.

오늘 주체사상이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는것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이 자주성을 요구하는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부합되기때문이라고 봅니다.》 (《빠나마기자대표단과 한 담화》, 단행본, １７페지)

오늘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많은 나라 지도자들은 천재적사상리론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 《우리 시대의 투쟁과 생활의 참된 교과서》,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최고봉》이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높이 평가하고있다.

일본 도꾜에서 성대히 진행된 《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김일성주석님의 사상, 리론 체계는 인민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민족해방과 민주주의, 평화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지구상의 여러 지역과 나라들에서 구체적으로 전개되고있는 새로운 세계사발전단계의 요구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계승발전시키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높은 단계에 올려세운것이다.

그러므로 김일성주석님의 사상, 리론 체계는 주체의 철학사상으로부터 대중령도의 리론, 기타의 광범한 령역에 걸쳐 시종일관한 체계를 이루고있으며 그것은 마땅히 김일성주의라고 부를수 있는것이다.》

일본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 중앙상무위원회 의장 야스이 가오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사상, 리론 체계는 맑스―레닌주의발전사상에 높이 솟아있으며 우리 시대의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으로 되고있다.

지난 시기 이 사상 리론 체계를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주의〉라고 규정하였지만 오늘은 주저함이 없이 이것을 〈김일성주의〉라고 부를수 있다.》

일본 《김일성주석저작연구회 전국협의회》의 한 성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 우리들은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사상, 리론 체계를 김일성주의로 부르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리론을 위한 리론이 아니라 실천의 무기로서 연구하고 학습하여야 할 위대한 사상이라는것을 확인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일본 도꾜 《청년주체사상연구회》 성원 우찌가시마 미끼야스는 《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의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최고봉이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사상이다.》라고 말하였다.

일본 군마현 《조선문제연구회》 기관지 《주체사상》은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체계화하신 영생불멸의 김일성주의는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변혁의 가장 과학적인 립장과 방법이며 혁명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해결의 가장 정확한 사상, 리론, 전략전술이며 대중령도의 가장 세련된 체계와 방법 및 작풍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김일성주의는 맑스—레닌주의의 단순한 계승발전이 아니라 인류사상력역에 있어서 위대한 혁명적전환이며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검증된 우리 시대의 투쟁과 생활의 참된 교과서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의가 창시됨으로써 혁명의 전도가 밝게 열려지고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은 인류의 전진운동을 힘있게 추진시키는 빛나는 전투적기치, 혁명투쟁의 위력한 사상, 리론적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라고 말하였다.

도꾜 《청년주체사상연구회》 성원 우찌가시마 미끼야스는 《김일성주의를 구성하는 세개의 요소가운데서 주체사상과 함께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대중령도에 관한 리론이 처음으로 체계화된것이다.

김일성주석님의 대중령도방법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군중관점의 구현이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군중관점이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관점이다.

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대중령도에 관한 리론은 반세기에 걸친 혁명투쟁의 실천을 통하여 그 불패의 위력과 정당성이 남김없이 검증된 산교과서이다. 그것은 세계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 특히 제3세계나라 인민들의 투쟁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있다.》라고 말하였다.

도꾜의 한 고등학교 교원 가와시마 도자오는 《주체사상의 위대성은 무엇보다도 세계인민들에게 자주성을 인간의 생명으로 보는 인간중심의 세계관을 안겨준데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근본립장과 방법을 가지게 한데 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갈망하는 수억만 인류의 세기적념원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지름길이 환히 열렸다.》라고 말하였다.

구라파에 있는 아프리카직맹일군들과 대학생들의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주체사상의 혁명적본질과 그의 기본요구, 그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정확히 구현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 등 주체확립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심오하고도 구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에 관한 근본적인 립장과 태도를 밝히는 사상이며 그의 성과적실현을 위한 가장 정당한 강령적지침이다.》

네팔과학원 원장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뿐아니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찬란한 빛을 뿌리는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태양과 같이 온 누리에 빛을 뿌리고있습니다.》라고 말하였으며 레바논의 《알올》신문사 사장은 수령님을 천재적인 사상리론가로 높이 우러러 흠모하면서 《19세기의 〈공산당선언〉이 자본주의의 종말을 선고한것처럼 주체사상은 20세기에 제국주의의 종말을 선고한 위대한 사상으로 되였다.》라고 말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온 누리에 찬연히 빛을 뿌려 그것을 따라배우는것은 우리 시대의 시대적조류로 되고있다.

1974년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여러 나라 민족어로 수백만부나 번역출판되였으며 각국 출판물들에 1억부이상 게재되였다.

또한 5대륙의 방방곡곡에 조직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신 《주체사상연구소조》, 《로작 및 혁명사상연구위원회》, 《사상연구위원회》들에서는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혁명활동에 대한 학습과 연구토론회들이 정열적으로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연구소조는 1975년 1월 미국 뉴욕에도 결성되였다.

주체사상토론과 연구모임은 연구소조와 연구위원회 범위를 훨씬 벗어나 련합토론회와 전국적연구모임, 국제적인 범위에서 크게 진행되는데 이르렀다.

일본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야스이 가오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님의 사상, 리론 체계는 참으로 〈현대의 백과전서〉라고 해야 할 폭의 넓이와 내용의 풍부성을 가지고있으며 그것을 옳게 연구학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본태도와 기본관점을 확고히 정하고 달라붙어야 한다.》

도꾜 《청년주체사상연구회》 성원 우찌가시마 미끼야스는 또한 《김일성주석님을 옹호하고 주석님을 따르는것, 이것은 진보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인민들앞에 공통적으로 나서고있는 보람찬 임무이다.》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두돐에 즈음하여 4월 14일 일본 도꾜에서는 제4차주체사상연구전국토론집회가 성대히 진행되였으며 6월 30일에는 일본의 각계각층 청년들의 《전국청년주체사상연구교류집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이 연구토론집회와 연구교류집회들에서는 일본 각지에서 모여온 주체사상연구소조들과 저명한 학자, 사회계인사들의 주체사상연구발표 및 연구경험교환토론들이 열정적으로 진행되였다.

1974년 10월 일본에서 진행된 《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장엄하게 선포하고 수령님께 《김일성주의》에 대한 연구회와 학습수준을 더욱 높이며 그것을 보다 광범한 인민들속에 널리 보급선전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해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는 편지를 삼가 올리였다.

토론집회참가자들은 《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가 도꾜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는것은 《멀지않은 시기에 김일성주의에 대한 국제회의가 일정에 오르게 될것이라는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열돐을 기념하여 또고,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속에서 기념집회와 이 문헌에 대한 학습, 연구토론모임들이 성대히 진행하였다.

1974년 10월 2~4일까지 또고의 수도 로메에서 성대히 진행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10돐을 기념하는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제3세계인민들의 과업》에 관한 국제적인 과학토론회에는 아프리카, 아세아, 라틴아메리카, 구라파에서 온 30여개 나라의 당 및 정부대표단들, 농업대표단들을 비롯한 110여명의 대표들과 700여명의 방청자들이 참가하였으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개막행사에 참가하였다.

보고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밝히신 천재적 사상과 리론, 그의 독창성과 위대한 생활력에 대하여 힘있게 강조하고 그것을 실현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연구사업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연구하는 소조, 위원회들과 개별적인 학자, 사회활동가들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 여러 나라 국가 지도자들속에서까지 연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오늘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자기 나라의 정책을 작성하거나 국가 지도 사업에서 걸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로작들을 읽고 거기에서 뚜렷한 방도를 찾고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고있는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발은 지구의 경도와 위도를 넘어 전세계에 찬연히 빛발쳐가고있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따라배우는것은 우리 시대의 추세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 모신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는 더욱더 높아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혁명의 국제적환경은 그 어느때보다도 유리하게 전변되고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가 한층 높아지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우리는 국제적으로 더 많은 친우들을 가지게 되였습니다.》(《신년사》, 1975년판, 18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국제적권위와 그이의 현명한 령도, 그리고 당중앙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1974년에 공화국의 대외관계는 더욱 넓어지고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가 더욱더 높아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4년에 적들을 압도하고 우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우리 혁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의 대렬을 늘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벌리도록 하시였다.

당중앙에서는 수령님의 이 방침의 성과적실현을 위하여 대외활동을 하나하나 세심히 보살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대외활동방침과 당중앙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1974년에 우리 나라는 리비아, 꼬스따 리까, 가봉, 가이아나, 기네―비싸우, 네팔, 요르단, 라오스, 오스트랄리아, 베네수엘라, 니제르, 져메이커, 보쯔와나, 오지리, 스위스 등 15개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새로 맺었으며 페루와 무역관계를 가지였다.

이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국제무대에서의 일대 개선행진이였다.

그리하여 1974년 현재 우리 나라는 80개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가지고 8개 나라와 총령사관계 및 무역관계를 설정하였으며 139개의 각종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오늘 세계의 이목이 더욱더 우리 공화국에로 쏠리고있는속에서 지난날에는 우리 나라를 반대하던 나라들까지도 주동적으로 우리와 외교관계를 맺을것을 요구하는 추세로 전변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절대적권위로 하여 우리 나라는 국제기구들에서 기존 절차와 규정들을 깨고 그 기구력사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당당하게 가입하게 되였다.

우리 나라는 1974년에 만국우편동맹, 국제원자력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를 비롯한 20개의 국제기구들에 당당히 가입하였는데 그에 있어서 종전의 관례를 깨뜨림으로써 적들이 비명을 지르게 하였다.

1974년에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운동도 전세계적범위에서 더욱 대중적으로 앙양되였다.

그것은 이해 6. 25―7. 27 반미공동투쟁월간에만 하여도 세계의 64개 나라와 13개의 국제민주단체, 5개의 국제회의들에서 1,406건의 각종 련대성지지조치가 취해진데서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이 기간에 경애하는 수령님께 115건의 축전, 전문, 편지들이 보내여왔으며 련대성월간은 35개나라에서 련대성집회는 130건, 출판, 방송, 보도는 710여건 조직되였다.

특히 미제의 《고요한 뒤동산》이라고 하던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이 급격히 앙양되였다.

1974년 11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라틴아메리카 20개나라의 100여개 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정계, 사회계,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참가하여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라틴아메리카회의》를 성대히 진행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우리 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는 서명운동이 광범히 벌어졌다.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우리 공화국을 지지하여 총회에 제출된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하여》의 알제리를 비롯한 40개국 결의안은 제3세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지지를 받았다.

결의안표결에서 1970년 제25차 유엔총회에 비하여 우리의 지지자가 16개 나라 늘어나고 반대자는 12개나라 줄어들었다.

이 모든것은 우리의 혁명위업을 지지하는 혁명력량이 세계 5대륙의 광범한 계층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대렬이 급격히 늘어나고있다는것을 확증하여주고있다.

참으로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높이 받들고 혁명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인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긍지와 자부심있는 인민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과 인민앞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여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4년에 진행하신 빛나는 대외활동

1 월

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4년 새해에 즈음하여 세계 여러 나라 당 및 정부 지도자들과 년하장, 축전들을 교환하시였다.

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라오스애국전선창건 열여덟돐에 즈음하여 이 전선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벌가리아인민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또도르 집꼬브동지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랍사회부흥당 이라크지역지도부 총비서 아흐마드 하싼 알 바크르동지에게 이 당 8차이라크지역대회가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그가 총비서로 재선된것과 관련하여 축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도공화국창건 스물네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딸리아공산당기관지《우니따》지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시였다.

2 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회교국가제2차수뇌자회의 앞으로 축전을 보내시였다.

2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고슬라비아신문 《웨체르니에 노보스찌》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시였다.

2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쿠웨이트국가국경절에 즈음하여 이 국가추장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잠비아공화국 외교부장과 그 일행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3 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르호 케코넨이 핀란드공화국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비행장에 나오시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혁명리사회 의장이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인 후아리 부메디엔을 뜨겁게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의례방문하여온 후아리 부메디엔의장을 만나시고 그와 회담을 시작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후아리 부메디엔각하를 환영하여 만수대의사당에서 성대한 연회를 배푸시고 연회에서 연설을 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로끄국경절에 즈음하여 이 나라 국왕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후아리 부메디엔 의장을 답례방문하시고 그와의 회담을 끝마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후아리 부메디엔각하와 함께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극《꽃파는 처녀》를 보시였다.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후아리 부메디엔의장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 친히 참석하시여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후아리 부메디엔의장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령님을 위하여 후아리 부메디엔의장이 만수대의사당에서 성대히 차린 연회에 초대되시였으며 연회에서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후아리 부메디엔의장과 함께 금성뜨락또르공장을 돌아보시였으며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시고 궁전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을 관람하시였다.

5일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비행장에 나가시여 우리 나라 방문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평양을 떠나는 후아리 부메디엔각하를 바래시였다.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아르헨띠나에서 큰물로 심한 피해를 입은것과 관련하여 이 나라 대통령 후안 도밍고 뻬론각하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시였다.

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대표단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총리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우 네윈이 버마련방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으로 취임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6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정무원 총리와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간의 경제적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쏘련 당 및 정부 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튜니지공화국독립 열여덟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무원 총리와 함께 캄보쟈민족통일전선결성과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창건 네돐에 즈음하여 캄보쟈국가원수, 캄보쟈민족통일전선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정치국위원장,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총리인 펜 누트친왕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파키스탄의 날에 즈음하여 파키스탄회교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알바니아인민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의 신임장을 받으시고 그와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니꼴라에 챠우쉐스꾸가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으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4 월

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무원총리와 함께 웽그리아해방 스물아홉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당및 국가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네갈공화국독립 열네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프리카통일기구 해방위원회친선대표단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및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대표단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무원 총리와 함께 라오스에서 민족련합정치리사회와 림시민족련합정부가 수립된것과 관련하여 라오스왕국 국왕, 라오스민족련합정치리사회 위원장 라오스림시민족련합정부 총리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기 위하여 특별렬차로 평양에 온 캄보쟈 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뜨겁게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부인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고 연회에서 연설을 하시였다.

1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함께 조선기록영화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 우리 나라에서의 휴식》과 조선천연색예술영화 《처녀지배인》을 보시였다.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함께 재일조선인 예술단의 공연을 보시였다.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함께 만수대예술단예술인들이 출연하는 음악무용종합공연을 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단마르크 국경절에 즈음하여 단마르크왕국 녀왕 마르그레테 2세폐하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말따국가에 선물을 보내시였다.(4월 15일 이 나라 수도 왈레따에서 선물전달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리아독립 스물여덟돐에 즈음하여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하폐즈 알 아싸드각하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 (4월 16일 모가디쇼에서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1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환영하는 남포시군중대회에 참석하시였다.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시에라 레온공화국선포 세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2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평남도 예술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가극 《연풍호》공연을 보시였다.

2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령님을 위하여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차린 연회에 초대되시였으며 연회에서 연설을 하시였다.

2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거장에 나가시여 우리 나라 방문일정을 성과있게 끝마치고 특별렬차로 평양을 떠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뜨겁게 바래우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부룬디민족통일진보당대표단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이란제국 첫 특명전권대사의 신임장을 받으시였다.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자니아련합공화국창건 열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단정부기관지 《알 싸하파》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시였다.

2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웽그리아인민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토고독립 열네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잠비아공화국 대통령 탄생 쉰돐에 즈음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스웨리예왕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이 나라 국왕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5 월

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우리 나라 주재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첫 특명전권대사의 신임장을 받으시였다.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무원 총리와 함께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수립 네돐에 즈음하여 캄보쟈국가원수, 캄보쟈민족통일전선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 총리 펜 누트친왕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8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무원 총리와 함께 체스꼬슬로벤스꼬해방 스물아홉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당 및 정부 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꼬스따 리까공화국 대통령으로 다니엘 오두베르가 취임하게 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자니아에서 큰물로 말미암아 심한 손실을 입은것과 관련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시였다.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오시여 수령님의 초청에 의하여 우리 나라를 국가 방문하는 세네갈공화국 레오뽈드 세다르 생고르대통령을 뜨겁게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네갈대통령과 부인을 환영하여 만수대의사당에서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고 연회에서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의례방문해온 세네갈 대통령을 만나시고 대통령과 전투적우의와 뜨거운 친선의 정 넘치는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네갈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네갈대통령을 답례방문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네갈손님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세네갈대통령을 환영하여 있은 혁명가극《금강산의 노래》공연을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무원총리와 함께 5월 11일과 12일에 중국 운남성 소통지구와 사천성 량산이족자치주경내에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 살림집과 인명 및 가축들의 피해가 있은것과 관련하여 중국의 당 및 정부 지도자들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주간》에 즈음하여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팔레스티나혁명군총사령관 야씨르 아라파트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네갈대통령을 환영하는 남포시군중대회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네갈대통령과 함께 남포시청년학생들이 출연한 집단체조 《은혜로운 해빛아래 꽃피는 평남도》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령님을 위하여 세네갈대통령과 부인이 만수대의사당에서 성대히 차린 연회에 초대되시였으며 연회에서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시고 궁전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을 관람하는 세네갈대통령과 동행하시였다.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가시여 우리 나라 방문일정을 성과있게 끝마치고 평양을 출발하는 세네갈대통령을 바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사이의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무역협정,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조인식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노르웨이왕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이 나라 국왕 올라프 5세페하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므니아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까메룬인민의 민족적명절에 즈음하여 이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가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스리랑카공화국선포 두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무원총리와 함께 가이아나독립절에 즈음하여 가이아나협동공화국 대통령과 총리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다오메교육대표단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3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단사회주의동맹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튜니지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6 월

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콩고인민공화국군사대표단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말가슈공화국 특명전권대사의 신임장을 받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가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으로 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알제리혁명리사회의장에게 선물을 보내였다.

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뻬루《엑쓰쁘레쏘》신문주필부부를 접견하시고 그들과 친선적인 담화를 하시였으며 손님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무원총리와 함께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수립 다섯돐에 즈음하여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며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 자문리사회 위원장인 원우수와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 주석인 황 떤 팔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벌가리아정부대표단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노르웨이사회인민당대표단을 접견하시고 손님들을 위해 오찬을 마련하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의사부부를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르헨띠나공화국 주재 꼬스따 리까공화국 특명전권대사부부를 접견하시고 손님들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 11차아프리카통일기구 국가및정부수뇌자회의앞으로 축전을 보내시였다.

1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부부를 만나시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수령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1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가 탄가니카 아프리카민족동맹 위원장으로 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장 뱅쌍동지가 스위스로동당 제10차대회에서 위원장의 책임적 직위에 새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서기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시였다.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인민해방군 친선참관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이 참관단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 제덴발동지가 몽골인민

공화국대인민후랄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에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슬란드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야씨르 아라파트가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던 유엔주재 뻬루상임대표를 접견하시고 그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수령님께서 이 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민주예멘인민의 명절인 시정조치 다섯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리사회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루돌프 키르슈 슈래게르가 오지리공화국대통령으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말가슈공화국독립 열네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정부수반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벌가리아신임전권대사의 신임장을 받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나라 주재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시였다.

2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던 핀란드공산당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르완다독립 열두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부룬디독립열두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3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던 일본경제학자일행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소말리아 독립 열네돐에 즈음하여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7 월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리사회의장이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인 후아리 부메디엔이 남부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침략자들의 거듭되는 야만적폭격행위를 규탄하여 모든 쁠럭불가담국가 수반들에게 편지를 보낸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친서를 보내시였다.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후안 도밍고 뻬론 대통령이 서거한것과 관련하여 이 나라 새 대통령 이싸벨 마르띠네스 데 뻬론에게 조전을 보내시였다.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알제리독립 열두돐에 즈음하여 혁명리사회의장이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인 후아리 부메디엔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무원 총리와 함께 뽈스까의 《실레지아》 탄광에서 일어난 불상사와 관련하여 뽈스까당및정부지도자들에게 전문을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말라위독립 열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의 탄생 60돐에 즈음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1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무원 총리와 함께 몽골인민혁명 쉰세돐에 즈음하여 몽골당및정부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노르웨이 공산당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친왕의 탄생 예순다섯돐에 즈음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라크공화국선포 열여섯돐과 7월 17일혁명승리 여섯돐을 맞으면서 이라크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프랑스공산주의청년운동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프가니스탄공화국선포 한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칠레사회당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2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던 벌가리아인민군 총정치국장부부를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무원총리와 함께 뽈스까인민의 민족적명절인 뽈스까인민공화국의 서른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당및정부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레바논조선련대성위원회 위원장부부를 접견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애급인민의 민족적명절인 7월 23일혁명 스물두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무원 총리와 함께 꾸바인민의 7월26일무장봉기 스물한돐에 즈음하여 꾸바당및정부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말디브제도독립 아홉돐에 즈음하여 이 제도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무원 총리와 함께 체스꼬슬로벤스꼬 《잘루지》 화학공장에서 불상사가 일어난것과 관련하여 이 나라 당 및 국가지도자들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리베리아독립절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뻬루독립절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무원총리와 함께 뽀드고르느이와 꼬씨긴동지가 쏘련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내각총리로 각각 재선 재임된것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다오메독립 열네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8 월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니제르독립 열네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국가수반인 최고군사리사회 의장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외교부장을 접견하시고 그를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버마사회주의로선당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알폰쏘 로뻬스 미첼쎈이 꼴롬비아공화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무원 총리와 함께 싱가포르공화국독립절아홉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과 총리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당및정부지도자들로부터 보내온 전문들에 대하여 답전을 보내시였다.

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 중의원의원인 자유민주당 아세아아프리카문제연구회 회장일행을 접견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에꽈도르독립절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벌가리아정부대표단 단장을 접견하시고 그를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꽁고인민의 8월혁명승리 열한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무원 총리와 함께 조선인민이 일제식민지통치의 멍에에서 해방된 8. 15명절 스물아홉돐에 즈음하여 쏘련당및정부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도네시아공화국 독립선포 스물아홉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봉독립 열네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적도기네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나라 주재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부부를 접견하시였다.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랍법률가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르헨띠나소년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대표단 전체 성원들에게 귀중한 선물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히 조선소년들과 아르헨띠나소년들의 련환모임에 참석하시였다.

2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승리 스물한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당및정부지도자들이 보내여온 전문들에 대하여 답전을 보내시였다.

2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네갈전국기자협회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네갈전국기자협회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시였다.

2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무원 총리와 함께 로므니아해방 서른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당및정부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네팔왕국 첫 특명전권대사의 신임장을 받으시였다.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한 원우수를 단장으로 하는 남부윁남공화대표단을 접견하시고 손님들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파크루딘 알리 아호메드가 인도공화국 대통령으로 취임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버마에서 큰물로 말미암아 혹심한 피해를 입은것과 관련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이 원우수를 단장으로 하는 남부윁남공화대표단을 환영하여 만수대의사당에서 성대히 차린 연회에 참석하시였다.

2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무원 총리와 함께 슬로벤스꼬 인민봉기 서른돐에 즈음하여 체스꼬슬로벤스꼬당및정부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르완다국가대표단을 접견하시고 손님들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말레이시아독립 열일곱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국왕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수리아아랍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참가자들의 열렬한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수리아아랍공화국 하페즈 알 아싸드대통령



평양학생소년궁전 수예실의 소조원들로
부터 수예품을 선물받는 세네갈공화국
레오뽈드 쎄다르 쎈고르 대통령



소년단원들의 뜨거운 마음어린 꽃묶음을 받으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대통령



현명가극 《꽃파는 처녀》공연이 끝나자 무대
에 올라 관람자들의 열렬한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와
알제리 혁명리사회 후아리 부메디엔 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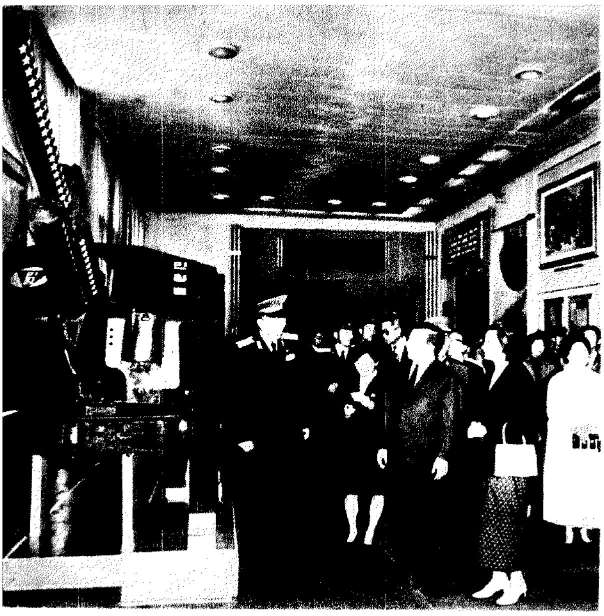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참관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자이르
공화국 모부투 쎄쎄 쎄꼬대통령



유서깊은 만경대를 방문하는
쌀림 루바이아 알리 대통령리사회
위원장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또고공화국사이의 공동콤뮤니케에 서명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그나씽그베 에야 데마대통령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는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는 칠레사회당 총비서 까를로스 알따미라노 오레고



평양에 도착한 나리다 도모미위원장을 단장으로하는 일본사회당대표단



일본도꾜에서 성대히 진행된
《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회의장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라틴아메리카회의장에
마련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전시관



토고에서 열린 김일성주석님의 농촌테제발표 10돐을 기념하는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제3세계인민들의 과업》에 관한 과학토론회에 참가하여 《김일성주석님만세!》를 소리높이 부르는 여러나라 대표들

께서 까타르독립 세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추장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리비아인민의 9월 1일 혁명다섯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혁명지도리사회 의장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딸리아공산당기관지 《우니따》축전에 즈음하여 이딸리아공산당 총비서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9 월

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빠나마신문들인 《엘 빠나마 아메리카》주필과 《마뚜떼노》주필을 접견하시고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무원총리와 함께 월남민주공화국창건 스물아홉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당 및 정부 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칠레로동자농민인민통일행동운동당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엔주재 수단상임대표를 접견하시고 그와 따뜻하고 친선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나리다 도모미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사회당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일본사회당 대표단사이의 회담에 참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나리다 도모미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사회당 대표단을 환영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차린 연회에 참석하시였다.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오시여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기 위해 평양에 온 또고공화국 대통령 그나씽그베 에야데마각하를 뜨겁게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또고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만수대의사당에서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고 연회에서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의례방문하여 온 또고 대통령을 만나시고 그와 전투적우의와 친선의 정 넘치는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동지께서 또고대통령을 답례방문하시였다.

7일과 8일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동지께서 또고공화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물여섯돐 기념 중앙보고대회에 또고공화국 대통령을 초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란 국회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군사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고슬라비아 자그레브지역에서 일어난 렬차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부상당한 불상사와 관련하여 찌또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무원총리와 함께 벌가리아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승리 서른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당 및 정부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또고공화국대통령과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물여섯돐을 경축하여 진행한 집단체조 《주체의 해발》을 보시였으며 공화국창건스물여섯돐 경축연회에 또고 대통령을 초대하시였다.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또고공화국 대통령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던 중국공산당 당일군친선방문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던 노르웨이사회민주당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또고공화국대통령이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고 궁전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을 보는데 함께 다니시였다.

1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또고대통령에게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또고공화국대통령으로부터 이 나라 최고영예훈장인 《모노대십자훈장》을 받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또고대통령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나리다 도모미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사회당대표단의 숙소를 방문하시였으며 일본사회당 동행기자단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과 일본사회당 사이의 제2차회담에 참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기네—비싸우공화국의 민족적명절에 즈음하여 그리고 기네—비싸우공화국인민이 뽀르뚜갈로하여금 기네—비싸우공화국을 법적으로 승인하고 자기군대를 철수하게 하는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것과 관련하여 기네—비싸우 및 베르데갑제도 아프리카독립당 총비서, 기네—비싸우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또고공화국사이의 공동콤뮤니케에 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가시여 우리 나라 방문일정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평양을 떠나는 또고대통령을 바래시였다.

1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팔레스티나해방조직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1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아르헨띠나기자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따뜻하고 친선적인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으며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다오메정부기관지 《다오멕스프레스》신문사 사장을 접견하시고 그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네갈공화국 대통령에게 친서와 선물을 보내시였다. (19일 대통령에게 이 나라 주재우리 나라 대사가 선물을 정중히 전달하였다.)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또고정부가 9월 17일에 남조선괴뢰도당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한것과 관련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전문을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의장인 혁명리사회의장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내각총리에게 친서를 보내시였다.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가시여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는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대통령 모크타르 울드 다다호를 뜨겁게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고 연회에서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의례방문하여 온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대통령을 만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말리공화국 선포 열네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국가수반 정부총리 민족해방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무싸 뜨라오레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대통령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대통령과 부인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크타르 울드 다다호대통령을 답례방문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21일 22일 평양에서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크타르 울드 다다호대통령에게 국기훈장 제1급을, 그 일행에게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크타르 울드 다다호대통령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대통령을 환영하여 진행한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공연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령님과 부인을 위하여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대통령이 만수대의사당에서 성대히 차린 연회에 초대되시였으며 연회에서 연설을 하시였다.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가시여 방문일정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평양을 떠나는 모리따니회교공화국 손님들을 바래시였다.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잠비끄해방전선의 무장투쟁개시 10돐에 즈음하여 이 전선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예멘아랍공화국혁명 열두돐에 즈음하여 예멘아랍공화국 지도리사회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네갈공화국 국회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가시여 우리 나라를 공식 및 친선방문하는 아랍사회부흥당 총비서이며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인 하페즈 알 아싸드가 인솔하는 당및정부대표단을 뜨겁게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만수대의사당에서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고 연회에서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의례방문하여온 하페즈 알 아싸드대통령을 만나시고 전투적우의와 형제적친선의 정 넘치는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2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과 수리아아랍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 사이의 회담에 참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페즈 알 아싸드 대통령을 답례방문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페즈 알 아싸드대통령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수리아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여 진행한 혁명가극 《피바다》공연을 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리사회 의장인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총리 후아리 부메디엔이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가 상정토의되게 된것과 관련하여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의장의 이름으로 쁠럭불가담나라들의 국가 및 정부수반들에게 서한을 보내여 조선문제의 정당한 해결에 계속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줄것을 권고하는 조치를 취한데 대해 그에게 전문을 보내시였다.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무원총리와 함께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당및정부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페즈 알 아싸드대통령과 함께 조선인민군 654부대를 방문하시고 이곳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하페즈 알 아싸드각하를 단장으로 하는 수리아아랍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과 함께 김승조동무가 일하는 기계공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과 함께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시고 궁전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을 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나이제리아독립 열네돐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련방군사정부 수반, 군총사령관 야쿠부 고원대장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0월

1일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페즈 알 아싸드를 단장으로 하는 수리아아랍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 참석하시여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무조건 물러가야 한다》라는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페즈 알 아싸드대통령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시였으며 수리아아랍공화국의 최고훈장인 《대우마이예훈장》을 수여받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페즈 알 아싸드대통령이 만수대의사당에서 성대히 차린 연회에 초대되시였으며 연회에서 연설을 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기네공화국독립 열여섯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가시여 방문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평양을 떠나는 하페즈 알 아싸드를 단장으로 하는 수리아아랍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바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던 전아프리카청년운동대표단을 접견하시고 손님들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무원 총리와 함께 독일민주주의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당및정부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사회당 부인활동가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뻬루에서 큰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것과 관련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간다독립 열두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에꽈도르 《불룬따드》출판사 사장을 접견하시고 손님을 위해 오찬을 마련하시였으며 그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또고공화국 대통령에게 친서와 선물을 보내시였다. (10일 이 나라를 방문하고있던 우리 나라 경제대표단이 대통령에게 선물을 전달함)

1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지도자들로부터 보내온 축전과 축하편지에 답전을 보내시였다.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적도기네공화국 독립 여섯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종신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총평및 중립로련대표단을 접견하시고 손님들을 위해 오찬을 마련하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다오메공화국 대통령부 출판문헌국장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으며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핀란드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의 신임장을 받으시였다.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민주예멘인민의 10월 14일 혁명개시 열한돐에 즈음하여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통령리사회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말리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인도공화국 첫 특명전권대사의 신임장을 받으시였다.

1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르헨띠나공화국 국회대표단을 접견하시고 손님들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으며 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1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이르공화국 의회그루빠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이르공화국 대통령관방특별고문부부와 그 일행을 접견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소말리아의 10월 21일 혁명승리 다섯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최고혁명리사회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도공화국 국회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잠비아독립 열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스물네돐에 즈음하여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묘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부룬디민족통일진보당 비상특별대회가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미쉘 미촘베로가 이 당 총비서로 재선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쏘련신임특명전권대사의 신임장을 받으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랍수뇌자회의 앞으로 축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란 황제의 탄생일과 이란 국경절에 즈음하여 이란제국 황제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다오메혁명승리 두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파키스탄인민당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대표단을 위해 오찬을 마련하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알제리혁명개시 스무돐에 즈음하여 혁명리사회 의장이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인 후아리 부메디엔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1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공화국과 베네수엘라공화국사이에 외교관계가 설정된것과 관련하여 베네수엘라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무원 총리와 함께 하지 레쉬동지와 메흐메트 쉐후동지가 알바니아인민공화국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내각총리로 각각 재선 및 재임된데 대하여 그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고 손님들을 위해 오찬을 마련하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쯔와나공화국대통령으로 쎄레쩨 카마가 다시 선거된데 대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무원총리와 함께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 쉰일곱돐에 즈음하여 쏘련당및정부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케니아공화국 대통령으로 조모 케니아타가 다시 선거된데 대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무원총리와 함께 캄보쟈왕국독립스물한돐에 즈음하여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펜 누트 친왕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우리 공화국의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가입을 열렬히 축하하여준데 대하여 그에게 사의를 표하는 전문을 보내시였다.

1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쿠웨이트 알 카바스신문사 총국장을 접견하시고 그를 위해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뉴니지공화국대통령으로 하비브 부르기바가 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법률가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가시여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하는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동지가 인솔하는 예멘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따뜻이 맞이하시였으며 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만수대의사당에서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고 연회에서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의례방문하여온 쌀림 루바이아 알리 대통령 리사회 위원장동지를 만나시고 그와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싱가포르 대통령으로 벤쟈민 헨리 새어즈가 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쌀림 루바이아 알리대통령리사회 위원장동지와 회담을 진행하시였으며 그와 함께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 공연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쌀림 루바이아 알리대통령리사회위원장동지를 답례방문하시였다.

2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및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 경제및재정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쌀림 루바이아 알리 대통령리사회 위원장동지와 함께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시고 궁전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을 보시였다.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쌀림 루바이아 알리대통령리사회 위원장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 참석하시였으며 쌀림 루바이아 알리동지가 차린 연회에 초대되였고 연회에서 연설을 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쌀림 루바이아 알리 대통령리사회 위원장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시였으며 대표단 일행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들을 수여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레바논 독립절과 기네인민이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물리친 승리의 날 네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방문일정을 성과있게 끝마치고 평양을 떠나는 민주예멘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바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이르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란제국 황제동생을 접견하시고 그를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무원총리와 함께 몽골인민공화국 선포 쉰돐에 즈음하여 몽골당및 정부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독립 열네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부룬디혁명 여덟돐에 즈음하여 부룬디민족통일진보당 총비서, 부룬디공화국대통령, 정부수반인 미쉘 미촘베로중장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무원총리와 함께 알바니아해방및인민혁명승리 서른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당및정부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고슬라비아인민의 민족적명절인 공화국의 날에 즈음하여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이며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대통령인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곱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리사회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가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로 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2월

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거장에 나가시여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는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뜨겁게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랍추장국련방 국경절에 즈음하여 이 련방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과 부인을 위하여 만수대 의사당에서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고 연회에서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의례방문하여온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만나시고 친왕과 우의의 정 넘치는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답례방문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함께 우리 나라 기록영화 《캄보쟈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과 우리 나라 시보영화들을 보시였다.

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부인과 함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

파 그 부인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친왕을 환영하여 진행한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 공연을 보시였다.

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랍사회주의동맹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나라 주재 기네공화국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핀란드공화국 독립선포 선일곱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예술영화촬영소를 참관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같이 다니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리따니회교공화국대통령이 《미페르마철광회사》를 국유화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령님을 위하여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만수대의사당에서 성대히 차린 연회에 초대되시였으며 연회에서 연설을 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상아해안의 민족적명절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거장에 나가시여 방문일정을 성과있게 끝마치고 평양을 떠나는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바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야꾸쵸전투 150돐에 즈음하여 뻬루공화국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로조단체에 귀중한 선물을 보내시였다.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가시여 우리 나라를 공식국가방문하는 자이르공화국 대통령 모부투 쎄쎄 쎄꼬 꾸꾸 느그벤두 와 자 방가대통령을 맞이하시였으며 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만수대의사당에서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고 연회에서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의례방문해온 자이르공화국대통령을 만나시고 그와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공화국과 보쯔와나공화국 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가 맺어진것과 관련하여 보쯔와나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이르공화국대통령을 답례방문하시였으며 대통령과 회담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이르공화국 대통령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모부투 쎄쎄 쎄꼬대통령을 환영하여 진행한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 공연을 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상부볼따 공화국선포 열여섯돐에 즈음하여 이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이르공화국 대통령과 함께 붉은기만경대혁명학원과 금성뜨락또르공장, 평양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시고 궁전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을 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니제르공화국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라크청년총동맹에 선물을 보내시였다.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11일 바그다드종합대학에서 진행되였다.)

1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다오메정부가 외국독점체들이 가지고있던 은행들을 국유화한것과 관련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이르공화국대통령과 함께 지방참관을 위해 특별렬차로 함흥에 도착하시여 조선인민군 654부대, 김승조동무가 일하는 기계공장을 참관하시였다.

1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이르공화국 대통령과 함께 천리마룡성기계공장과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찾으시였으며 지방참관을 마치시고 평양에 돌아오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무부장이 서거한것과 관련하여 혁명리사회 의장이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후아리 부메디엔에게 조전을 보내시였으며 우리 나라 주재 이 나라 대사관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이르공화국 대통령과 제2차회담을 진행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이르공화국 대통령과 함께 우리 나라 기록영화들인 《영광의 대오, 불패의 혁명무력》과 《로동당의 기치따라》를 보시였으며 조선인민군 구분대를 찾으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바레인국가국경절세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추장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이르공화국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을 환영하여 성대히 마련된 평양시군중대회에 참석하시고 대회에서 《신흥세력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단결하여야 한다》는 연설을 하시였으며 자이르공화국대통령과 부인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이르공화국 대통령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이르공화국의 최고훈장인 《레오빠르국가훈장》을 수여받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이르공화국대통령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대통령을 환영하여 조선인민군협주단이 출연한 음악무용종합공연을 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의 국경절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가시여 우리 나라 방문일정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평양을 떠나는 자이르공화국 대통령을 바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자이르공화국 첫 특명전권대사의 신임장을 받으시였다.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창건 열네돐에 즈음하여 이 전선 상무위원회 위원장 원우수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자니아대통령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

(19일 다르 에스 살람에서 선물전달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말따공화국이 선포되고 안또니 쬬세프 마모가 공화국대통령으로 취임한데 대하여 말따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몽골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을 접견하시였다.

25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나리다 도모미가 일본사회당 제37차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장으로 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뽈스까인민공화국 국가 쏘베트위원장의 탄생 예순다섯돐에 즈음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네팔왕국 국왕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애급아랍공화국 부총리겸 전쟁부장이 서거한것과 관련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조전을 보내시고 우리 나라 주재 애급아랍공화국대사관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리따니인민당창건 열세돐에 즈음하여 이 당 총비서인 모크타르 울드 다다호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3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수리아아랍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시였다.

혁명리사회의장이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인 후아리 부메디엔의 우리 나라 방문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번 후아리 부메디엔의장각하의 우리 나라 방문은 반제혁명투쟁의 한길에서 굳게 맺어진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투적친선관계의 발전에서 가장 큰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혁명리사회 의장이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인 후아리 부메디엔이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비행장에 나가시여 알제리인민의 탁월한 지도자인 후아리 부메디엔의장을 뜨겁게 맞이하시였다.

손님들의 우리 나라 방문기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후아리 부메디엔의장과 함께 금성뜨락또르공장을 참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후아리 부메디엔각하와 함께 만수대예술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혁명가극《꽃파는 처녀》공연을 보시였으며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시고 궁전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을 관람하시였다.

3월 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알제리인민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우리 인민의 가장 친근한 벗이며 혁명전우인 후아리 부메디엔의장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 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방문기간 군중집회를 비롯한 여러기회에 한 연설에서 우리 인민의 친근한 벗인 후아리 부메디엔의장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에 대하여 높이 칭송하면서 그이에 대한 높은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후아리부메디엔의장은 평양시군중대회 연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가장 걸출한 수령》이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우리는 김일성주석님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에 의하여 귀국이 외래제국주의의 강점과 침략을 반대하는 힘겨운 시련을 이겨내고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였으며 모든 분야에서 발전과 진보를 이룩하였고 오늘은 공업, 농업 총적으로는 경제와 사회문화건설의 여러분야에서 이미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또 이룩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제3세계의 자랑으로 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연회에서 한 연설에서 또한 그는 《당신께서 특별히 어려운 조건하에서 이룩하신 경험은 이미 훌륭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자기의 나갈길을 찾고있으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힘쓰고있는 우리 제3세계의 본보기로 됩니다.

당신의 령도밑에 귀국인민이 기울인 거대한 노력은 당신들의 혁명에 자기의 물질적 및 인류적 내용을 부여하였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고유한 특성들을 초월하여 마침내 당신의 훌륭한 사업이 고무의 원천으로 된다는것을 발견하게 될것입니다.

당신의 경험이 내외적으로 더 잘 알려진다면 이 경험은 더 잘 평가될것이며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더 풍부히 하였을것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

3월 4일 평양에서는 혁명리사회의장이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인 후아리 부메디엔의장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는 의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친히 수여식에 참가하시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독립을 위한 장기간의 알제리민족해방전쟁에서 영웅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세계피압박인민들의 반제혁명위업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독립후 반제, 자주의 기치밑에 민족적독립의 공고화와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알제리인민의 투쟁을 옳바르게 령도함으로써 나라의 륭성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위훈을 세웠으며 유태복고주의와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고 아랍민족의 존엄을 수호하며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으며 제3세계인민들의 단결과 세계평화와 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으며 자신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조선인민과 알제리인민사이의 전투적친선단결을 강화하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는데서 특출한 공헌을 한 후아리 부메디엔의장각하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와 함께 금별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

위원회는 후아리 부메디엔을 수행하여 온 외교부장 아브델 아지즈 부떼플리까에게 국기훈장 제1급을, 그리고 기타 수원들에게 각종 훈장과 메달들을 각각 수여하였다.

방문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의 후아리 부메디엔의장사이에 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은 친선적이며 매우 진지하고 동지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으며 쌍방이 각기 자기 나라의 정세에 대하여 통보하고 두 나라 사이의 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해서와 그밖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회담 결과 이루어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사이의 공동콤뮤니케가 3월 5일 평양에서 발표되였다.

공동콤뮤니케는 우리 시대가 압박받던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가 내리막길을 걷고있는것으로 특징지어지는 혁명의 전환의 시대임을 확인하였으며 작은 나라와 압박받는 인민들이라도 자주성을 견지하고 힘을 합친다면 제국주의의 전면적이고 종국적인 멸망과정을 촉진시킬수 있다는 쌍방의 확신을 표명하였다.

콤뮤니케는 또한 조선, 알제리 두 나라 인민들이 다같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얻은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며 번영하는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견지하고있는 반제적립장과 자주로선의 공통성으로 하여 굳은 전투적친선의 뉴대로 련결되여있음을 자랑스럽게 지적하였으며 앞으로 이 관계를 반제공동위업의 리익에 맞게 각분야에 걸쳐 더욱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확고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콤뮤니케는 《자주의 길로 나가는 인민들이 오늘 국제무대에서 위력한 지위를 차지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공동콤뮤니케는 조선과 알제리 두 나라 사이의 공고한 형제적친선단결이 3대륙인민들의 단결의 강화에 중요한 기여로 된다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공동콤뮤니케에서 쌍방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반제자주의 혁명적기치를 높이들고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반제혁명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할데 대한 확고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부메디엔의장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을 방문하도록 친절히 초청하였다. 이 초청은 감사히 수락되였다.

실로 후아리 부메디엔의장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과 알제리 두 나라 사이의 형제적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획기적사변으로 되며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우리 나라 방문

첫번째방문(4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번에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께서 다시금 우리 나라를 찾아주신것은 우리에 대한 각별한 형제적친근감에서 나온것이며 우리는 이에 매우 감동되고있습니다.

국가원수친왕의 이 방문은 오늘 우리들사이의 형제적우정과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투적친선단결이 얼마나 깊고 공고한가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경모와 형제적우의의 정을 안고 1974년 4월 12일부터 4월 22일까지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장 친근한 벗으로, 형제적친선의 정으로 친왕을 따뜻이 맞아주시였으며 방문 전기간 손님들에게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환영하는 남포시 군중대회에 참석하시였으며 친왕과 함께 만수대예술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음악무용종합공연, 평남도예술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가극《연풍호》, 남포시 청소년학생들이 출연한 집단체조《은혜로운 해빛아래 꽃피는 평남도》를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예순두돐에 즈음하여 그이를 모시고 진행한 재일조선인예술단 예술인들의 예술공연을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과 그 일행이 함께 보도록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방문기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평양지하철도도 참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친왕께서 정력적이고 다방면적인 국가활동을 통하여 캄보쟈민족통일전선과 왕국민족련합정부의 국제적위신을 비상히 높이고 캄보쟈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승리에로 고무하는데 커다란 공적을 이룩하였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왕이 조선—캄보쟈친선의 길을 개척한 선구자로서 두 나라 친선의 개화발전을 위한 위업에서 쌓아올린 공적을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친왕이 국제무대에서 언제나 우리 조선을 잊지 않고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위업을 지지하여 적극 활동한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였다.

우리 나라 방문기간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두돐을 열렬히 축하하고 그이께 다함없는 경모와 형제적친선의 정을 표시하였으며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을 진심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경모의 정을 담아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회주의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이 기적은 김일성원수각하께서 진행하신 훌륭하고 위대한 불멸의 활동의 결과이며 그이의 천재적인 주체사상의 승리로 됩니다.

이 위업과 이 사상은 온 세계의 가장 격동적인 경탄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세계의 모든 인민들은 가장 높은 국제적위신을 지니고계시는 김일성주석각하의 사업과 그이께서 창시하신 사상을 열정적으로 격조높이 축하하고 있습니다.》

방문기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손수 작시작곡한 노래《평양》을 드리였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또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적극 지지하여주었다.

이에 대하여 그는《우리는 가장 경애하는 위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천재적이며 탁월하고 비상히 애국적인 령도를 받들고 영광스러운 당의 기치, 주체의 기치밑에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미제국주의에 대한 수많은 승리를 쟁취하고있으며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나라들과 인민들의 계속 높아지는 지지와 성원속에 반드시 실현되고야말 조국통일의 휘황한 길우에 그 어느때보다도 넓은 문을 열어놓고있는 북반부인민들에게 가장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라고 감동적으로 지적하였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과 캄보쟈 두 나라 사이에 형제적의리로 맺어진 위대한 친선단결과 반미구국의 한 기치밑에 굳게 뭉쳐 영원히 같이 싸워나가려는 불같은 의지의 힘있는 시위로 되였다.

두번째 방문(1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1974년 12월 1~8일까지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부인, 그리고 그 일행이 우리나라를 친선방문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베푸신 연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친왕의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에 대한 커다란 신임의 표시로 되며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맺어진 친선단결의 불패성에 대한 시위로 됩니다.

친왕께서 우리 나라를 찾아주실 때마다 우리들사이의 우정은 두터워지고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투적친선단결은 더욱 공고해집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캄보쟈의 손님들을 따뜻이 맞아주시고 친왕과 그 일행에게 커다란 형제적환대를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친히 친왕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혁명가극《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관람하시였으며 우리 나라 기록영화《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과 우리 나라 시보영화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를 참관하는 시하누크친왕과 동행해주시였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매우 감동된 심정으로 김일성원수각하께서 베풀어주신 깊은 배려에 의하여 그이의 몸가까이에서 영화를 볼수 있게 된것은 자기에게 있어서 최상의 영광이며 최상의 행복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캄보쟈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국가원수친왕이 벌리고있는 다방면적인 국가활동에 대하여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원수친왕을 위원장으로 하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과 왕국민족련합정부의 올바른 령도밑에 캄보쟈인민과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이 반미구국투쟁에서 계속 승승장구하고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 론 놀매국도당을 헤여날수 없는 패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원수친왕께서는 지난 4월 우리 나라에 왔다간후에도 끊임없이 다방면적인 국가활동을 벌려 캄보쟈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승리에로 이끌며 캄보쟈 민족통일전선과 왕국민족련합정부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장 친근한 벗이신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앞으로도 자주 우리 나라를 찾아주실것을 바란다고 하시면서 캄보쟈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친왕의 고귀한 사업에서 보다 훌륭한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하시였다.

방문기간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각하께서는 조선과 우리의 아세아 그리고 자유와 자주적발전을 위하여 싸우는 모든 인민들의 위업에 가장 탁월한 기여를 하고계시는 우리 아세아와 제3세계의 전설적이며 백전백승의 영웅이십니다.》

국가원수친왕은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에서 발전된 선진적인 나라들의 첫대렬에 들어섰습니다.

가장 경애하는 국가수반이신 김일성주석님의 천재적령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어 〈초대발전〉국이라는 미국을 여러 분야에서 앞서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뛰여난 공적들로서는 가장 궁벽하고 가장 먼 내륙지방에 이르기까지의 나라의 전반적인 전기화의 실현, 전반적인 농촌수도화의 추진, 모든 단위에서의 전반적인 무료교육, 인민들의 주택의 훌륭한 보장, 모든 근로자들과 가족들을 위한 무상의료봉사, 전반적인 범위에서의 각종 세금의 폐지, 부엌일로부터 녀성들을 해방하고 기계화와 자동화에 의거하여 어려운 일부터 농민들과 근로자들을 해방하는 길에서 이룩된 성과들, 알곡생산에서의 세계적기록의 돌파, 논과 밭의 전반적수리화, 농촌에서의 매우 발전된 기계화와 화학화,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기초하여 가장 빠른 시일내에 이룩한 공업화 등을 들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위대한 조선인민의 친근한 벗으로, 전우로 된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있는 캄보쟈인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 위대한 승리들을 자신의 승리로 인정하며 캄보쟈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위하여 후진상태에서 벗어나며 경제적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제3세계를 위하여 조선인민의 진두에 서시여 그렇게도 유익하고 대단히 고무적인 이 승리들을 이룩하게 하신 가장 탁월한 영웅이신 김일성주석각하께 축하를 드리며 가장 정중한 사의를 표하게 됨을 커다란 영예로 생각하고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인 조국통일방침에 절대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그는 방문기간에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원수각하께서는 조선문제와 이 지역에서의 평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서울과 워싱톤당국에 내놓으시였습니다.

캄보쟈인민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과 그리고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는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1973년 6월 23일에 제시하신 5대방침과 1974년 3월 4일에 제시하신 방침 그리고 1974년 3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가 내놓은 새 제안들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다시한번 확인합니다.》

캄보쟈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며 견결한 반제투사인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우리 나라 방문은 반제공동투쟁에서 조선과 캄보쟈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굳게 맺어진 불패의 전투적친선단결을 더욱 강화발전시킴에 있어서 또 하나의 획기적사변으로 된다.

또한 이것은 아세아인민들의 반제공동전선과 제3세계나라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기여로 된다.

세네갈공화국 대통령 레오뽈드 쎄다르 쎈고르의 우리 나라 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세네갈공화국 대통령 레오뽈드 쎄다르 쎈고르가 1974년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번 레오뽈드 쎄다르 쎈고르대통령각하와 그 일행의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들사이의 호상 리해와 신뢰를 더욱 두터이하고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습니다.

이것은 조선과 세네갈 두 나라 인민의 친선의 력사에 새 페지를 열어놓았을뿐아니라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멍에에서 벗어나 새 생활 창조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제3세계나라 인민들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레오뽈드 쎄다르 쎈고르대통령은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 기간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와 남포시 청소년학생들이 출연한 집단체조《은혜로운 해빛아래 꽃피는 평남도》를 보았다.

또한 대통령은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고 궁전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을 관람하였다.

대통령과 그 일행은 이르는곳마다에서 우리 인민의 열렬한 환영과 환대를 받았다.

세네갈공화국 대통령은 우리 나라 방문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이 자주적발전을 지향하는 세계 모든 인민들의 투쟁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거듭 표명하면서 레오뽈드 쎄다르 쎈고르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체의 세계관은 한민족, 구체적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범위를 초월한다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습니다.》

그는 또한《주체사상이 있음으로 하여 귀국은 제3세계에 속하게 되였으며 이 진영내에서 세네갈은 당신들과 나란히 서있습니다.》라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우리 인민의 성과에 대하여 말하면서 레오뽈드 쎄다르 쎈고르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실로 조선인민은 그이의 현명하고 비범한 령도에 의하여 외세를 물리치고 주체의 공고한 땅우에 과학적사회주의를 건설함으로써 자기의 발전을 보장하였습니다. 근 30년동안에 당신들은 거대한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이 기간에 빈궁으로부터 구라파나라들도 아직 들어서지 못한 공업적문명에 들어섰습니다.

당신들이 성과를 거두게 된것은 김일성주석님의 령도밑에 조직성, 목적지향성, 규률성과 근면성 등 사회주의적방법을 적용하였기때문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조국통일방침을 지지하면서 레오뽈드 쎄다르 쎈고르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께서는 바로 주체에 기초하시여 원칙적면에서 견결할뿐아니라 방도와 시기성에서도 현실적인 그 유명한 5대방침을 제시하시였습니다.》

5월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레오뽈드 쎄다르 쎈고르대통령사이에 따뜻한 친선과 호상리해의 분위기속에서 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쌍방이 각기 자기 나라의 정세를 통보하고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킴데 대하여서와 그밖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토의된 문제들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회담결과 5월 16일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세네갈공화국사이의 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공동콤뮤니케에서 우리측은 세네갈인민이 자기의 탁월한 지도자 레오뽈드 쎄다르 쎈고르대통령의 령도밑에 외래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지반을 청산하며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민족적독립의 공고화와 나라의 번영을 위한 그들의 앞으로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열렬히 축원하였다. 또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이룩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세네갈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콤뮤니케에서 세네갈측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세네갈측은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자주로선의 구현으로 되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확고한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1973년에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방침과 1974년 3월 4일에 다시금 천명하신 조국통일방침 그리고 이해 3월 25일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가 내놓은 새로운 제안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쌍방은 오늘 우리 시대는 제국주의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제3세계나라 인민들이 국제무대에 주인으로 등장하는 력사적전환의 시대라고 평가하였다.

제3세계나라 인민들은 현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으로서 인류력사를 전진시키는 커다란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쌍방은 제3세계인민들이 더욱 굳게 단결하여 견결히 싸운다면 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멸망시키고 민족해방운동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독립되고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새 아세아, 새 아프리카, 새 라틴아메리카를 건설할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세네갈공화국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통하여 날로 강화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이 관계를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한결같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세네갈공화국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네갈공화국을 국가방문하도록 초청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초청을 기꺼이 수락하시였으며 방문날자는 앞으로 정하기로 하시였다.

방문기간 5월 16일 평양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사이의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무역협정,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이 협정들은 조선과 세네갈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경제, 문화, 기술, 무역 등 각 분야에 걸쳐 더욱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게 되였다.

이와 같이 레오뽈드 쎄다르 쎈고르 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 나라와 세네갈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서 조선인민과 아프리카인민들사이의 친선과 련대성이 날을 따라 확대강화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우리는 조선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조선해방의 탁월한 구성이시며 조선혁명의 경애하는 영명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하여 경탄을 금치못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경애하는 주석각하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하고도 정확한 령도밑에 우선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커다란 사회경제적변혁들을 이룩하였습니다.》

또고공화국 대통령은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연설을 마치면서《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로 구현되는 주체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경애하는 주석이신 김일성동지 만세!》를 불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9월 11일 또고공화국 대통령과 그 일행은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만경대를 방문하여 만경대고향집을 돌아보았으며 만경대고향집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또고공화국 대통령은 유서깊은 만경대의 방문인상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오늘 경애하는 주석이신 김일성동지의 고향집을 방문하는 기쁨을 가지게 되였다.

내가 귀국을 공식방문하고있는 기간에 여기 만경대를 방문하게 된것은 아주 기쁜 일이다.

오늘 본 모든것 그리고 들은 모든 설명들은 나를 매우 감동시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경모하여 또고공화국대통령은 위대한 수령님께 또고공화국의 최고영예훈장인《미노대십자훈장》을 수여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고공화국 대통령에게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시였다.

1974년 9월 7일, 8일에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또고공화국 대통령 사이에 회담이 진행되였다.

9월 12일에는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또고공화국 사이의 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발표된 콤뮤니케에 의하면 회담에서 쌍방은 각각 자기 나라의 정세에 대하여 통보하고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국제정세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고측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조선인민이 국가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을 높이

또고공화국 대통령 그나씽그베 에야데마의 우리 나라 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또고공화국 대통령 그나씽그베 에야데마가 1974년 9월 7~12일까지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고공화국 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베푸신 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번 대통령각하의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의 력사에 새로운 빛나는 기록을 하게 될것입니다.》

방문기간 대통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기념 중앙보고대회에 참가하였으며 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을 경축하여 진행된 집단체조《주체의 해발》을 관람하였다.

또한 중앙공업및농업전람관과 천리마청산협동농장을 참관하였고 혁명가극《금강산의 노래》를 보았으며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고 궁전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을 보았다. 9월 10일 평양에서 대통령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대회에 참석하시였다.

군중대회에서 또고공화국 대통령이 연설하였다.

대통령은 우리 나라 방문기간 군중대회연설을 비롯한 여러 연설들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으며 그이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빛발밑에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었다.

대통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면서《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관점을 고치고 새로운 사상에 의하여 지도되여야 하며 그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현실적인 념원인 사람을 중심에 놓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울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에 대하여 또고공화국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인민이 당신을 우러러 모시는 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당신께서는 오래동안 침략과 지배의 암흑속에 있던 조선인민을 광명에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당신께서는 바로 귀국인민을 위하여 어린 시절부터 나라의 완전해방을 위한 투쟁을 진행하여오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신께서는 자기의 존엄을 지키도록 인민들을 인내성있게 조직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도록 인도하시였으며 침략자를 반대하여 그들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인민생활의 물질적수단들을 창조하시고 마련하시였습니다.

당신께서는 또한 귀국인민을 숭고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시였습니다.》

평가하였다.

또고측은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빚어지고 지속되고있는 조선분렬상태를 종식시키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자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조선측은 또고인민이 그나씽그베 에야데마대통령의 령도밑에 높은 민족자주의식을 발휘하여 경제적독립을 이룩하고있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였다.

조선측은 또고인민이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파괴암해책동을 물리치면서 민족적통일을 강화하고 민족경제와 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커다란 성과를 찬양하였으며 그들에게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였다.

두 국가수반들은 오늘 우리 시대는 제국주의, 식민주의가 걷잡을수 없이 무너지고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제3세계인민들이 국제무대에 등장하여 자주, 자립의 길로 힘차게 나가는 새로운 력사적시대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두 국가수반들은 국제정세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정세에 대하여 분석하면서 최근년간 침략적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제3세계인민들이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을 만족스럽게 지적하였다.

쌍방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또고대통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또고공화국을 방문하시도록 친절히 초청하였으며 이 초청은 감사히 수락되였다.

실로 또고공화국 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인민과 또고인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획기적사변으로 되였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대통령 모크타르 울드 다다호의 우리 나라 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1974년 9월 21일～23일까지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대통령 모크타르 울드 다다호가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통령각하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들사이의 우정과 호상 신임을 더욱 두터이하며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맺어진 전투적친선단결의 불패의 생활력을 시위하는 또하나의 력사적계기로 되였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나라 방문기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이 먼저 조선으로부터 시작되였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이 투쟁에서 당신들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였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이께서는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투쟁의 길에 나서시여 강의한 조선인민을 묶어세우시고 투쟁을 조직하시여 36년동안이나 조선인민을 예속시켰던 일제강점자들을 조국땅에서 몰아내시였습니다.

당신들의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귀국인민은 일본식민주의자들을 타승하시였으며 침략적인 미제국주의자들을 패배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시였습니다.》

《우리는 귀국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신께서 조선인민에게 심어주신 높은 자각성과 그리고 그처럼 짧은 기간에 나라를 복구하였을뿐아니라 오늘과 같이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이며 번영하는 조선사회를 건설하는데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무한히 풍부한 창조성이 훌륭히 구현된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또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계혁명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당신께서 생존과 자유, 독립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전세계 인민들의 투쟁에 항상 기여하고계시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는것을 더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신께서 이룩하신 그처럼 훌륭한 공적은 그 어떤 강대국도 자기 운명을 튼튼히 틀어쥔것을 결심한 인민을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세계에 증명하여준것입니다.

당신께서는 세계인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계십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당신께 축하를 드립니다.》

《당신께서는 한 나라 인민이 단결되고 자기 힘을 믿으며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목숨으로 지킬 각오가 되여있으면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 진리를 밝혀주시였습니다.

당신의 정력적이며 전투적인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공업발전에서와 경제발전의 전반적분야에서 그리고 문화발전에서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당신께서는 한 인민의 사회분야에서의 재생에서 문화가 가지는 중요성을 통찰하시고 이 분야에서 기적을 창조하시였습니다.

당신께서는 원쑤들이 바다와 하늘, 땅 그 어디로부터 쳐들어오든지 놈들을 물리칠수 있도록 방위력을 다져놓음으로써 귀국을 제3세계나라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만드시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여주었다.

그는 방문기간에 한 연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취하신 모든 용감한 발기들에 대하여 전적인 확고한 지지를 보낸다는것을 다시금 확언한다고 말하였다.

9월 22일 평양에서는 모크타르 울드 다다호대통령각하와 그 일행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과 메달을 수여하는 의식이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여식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기의 정력적인 활동과 헌신적투쟁으로 반제혁명위업에서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린 모크타르 울드 다다호대통령과 부인에게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대통령일행에게 국가훈장과 메달을 수여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대통령 모크타르 울드 다다호각하 사이의 회담이 9월 21일과 22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조선과 모리따니 두 나

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킴에 대하여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이 교환되였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견해의 완전한 일치를 보았다.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대통령의 우리 나라방문은 두 나라사이에 맺어진 친선단결을 더욱더 강화하는 획기적계기로 되였다.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대통령은 1967년에 직접 우리 나라를 방문함으로써 조선과 모리따니 사이의 관계발전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1973년에는 마리엠 다다흐부인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의 뉴대를 더욱 두터이 하였다.

이번의 모리따니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나라 사이의 호상리해를 깊이 하고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활짝 꽃피여나가는데 있어서 획기적사변으로 되였다.

하폐즈 알 아싸드를 단장으로 하는 수리아아랍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아랍사회부흥당 총비서이며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인 하폐즈 알 아싸드를 단장으로 하는 당및정부대표단이 1974년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우리 나라를 공식 및 친선방문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하폐즈 알 아싸드를 단장으로 하는 수리아아랍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베푸신 성대한 연회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통령각하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 인민에 대한 커다란 지지와 고무로 되며 조선인민과 수리아인민사이의 전투적친선단결의 힘있는 시위로 됩니다.≫

방문기간 대통령과 그 일행은 유서깊은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평양시와 그 주변의 공장, 협동농장들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인민경제대학, 붉은기만경대혁명학원, 평양학생소년궁전, 조선인민군 구분대를 참관하였으며 혁명가극≪피바다≫와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을 보았다.

대표단은 이르는곳마다에서 우리 인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10월 1일 평양에서 수리아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먼저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무조건 물러가야 한다≫라는 연설을 하시였다.

이어 아랍사회부흥당 총비서이며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인 하폐즈 알 아싸드가 연설하였다.

대통령은 방문기간의 연설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높은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님은 인민들의 권리와 자유, 진보를 확신하시고 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시는 로련하신 위대한 혁명투사이십니다.≫

그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연설을 마치면서≪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인사를 드리며 그이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실것을 축원합니다.≫라고 말하였다.

대통령은 또한 일행과 함께 유서깊은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고≪김일성주석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를 방문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김일성주석님의 투쟁력사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김일성주석님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존경의 뜻을 표시하였다.

10월 1일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수리아훈장을 수여하는 의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의 최고훈장인≪대우마이예훈장≫을 수여받으시였다.

이날에 또한 아랍사회부흥당 총비서이며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인 하폐즈 알 아싸드각하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는 의식이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폐즈 알 아싸드대통령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와 함께 금별메달과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시였다.

9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과 수리아아랍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사이의 회담이 평양에서 있었다.

친선과 리해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회담에서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킴에 대하여서와 그밖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견해의 완전한 일치를 보았다.

10월 2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수리아아랍공화국 사이의 공동콤뮤니케가 조인되고 10월 4일에 평양에서 발표되였다.

콤뮤니케에 의하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아랍사회부흥당 총비서인 수리아아랍공화국 하폐즈 알 아싸드대통령에게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견지하고있는 로선과 정책 그의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조선인민이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 그리고 조국통일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대하여서와 특히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반동들과 결탁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방해하면서≪두개 조선≫을 조작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는데 대하여 통보하였다.

하폐즈 알 아싸드대통령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주석님께 아랍사회부흥당대회결정을 관철하는데서 수리아인민이 이룩한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성과들에 대해서와 국방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에 대하여 통보하였다. 또한 강점된 아랍령토를 해방하며 팔레스티나아랍인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리아아랍 인민과 무장력이 진행한 10월해방전쟁과 골란전쟁이후 중동에 조성된 중요사태발전에 대하여, 강점한 모든 아랍령토로부터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길에서의 첫걸음으로 되는 수리아병력분리협정을 이룩한 정치활동에 대하여 통보하였다.

수리아측은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올바른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짧은 기간에 자

기 나라를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으며 6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앞당겨수행하며 사회주의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더욱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축원하였다.

수리아측은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 남조선괴뢰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남조선인민들에게 가하고있는 그놈들의 가장 야수적인 폭행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과 특히 김일성주석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방침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조선측은 하페즈 알 아싸드대통령각하의 옳바른 령도밑에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적단합을 강화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제3차 5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그들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였다.

조선측은 10월전쟁과 골란전쟁에서 수리아아랍인민과 그의 무장력이 이스라엘침략자들과 용감하고 완강하게 투쟁한데 대하여 경탄을 표시하였으며 모든 수단을 리용하여 강점된 아랍령토를 해방하기 위한 수리아아랍공화국의 확고하고도 합법적인 권리에 대하여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조선측은 수리아와 다른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이스라엘의 침략적인 도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행위를 중지하고 강점한 모든 아랍령토에서 철수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고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이 반제민족해방운동의 한부분이라고 인정하며 그들의 민족적권리회복을 주장하고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이 팔레스티나인민의 합법적대표라는것을 지적하였다.

쌍방은 제3세계인민들이 자주성을 견지하고 전진하는것은 현시대의 막을 수 없는 기본추세라고 인정하면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차별정책을 반대하고 자유와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쌍방은 현 국제정세발전에 미치는 쁠럭불가담정책의 중요성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쁠럭불가담국가들사이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또한 알제리에서 소집된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의 모든 결정, 특히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규탄하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한 조선에 관한 결의를 철저히 리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수리아대통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을 방문하시도록 친절히 초청하였다. 이 초청은 감사히 수락되였다.

이렇듯 수리아아랍공화국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인민과 수리아인민사이의 형제적친선협조관계를 심화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사변으로 되였으며 제3세계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쌀림 루바이아 알리대통령리사회 위원장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이 1974년 11월 18~22일까지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신들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과 민주예멘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에서 중대한 사변으로 됩니다.

조선인민과 민주예멘인민은 지난날 다같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무장투쟁을 진행하였으며 오늘 자주의 한길에서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이 공동의 투쟁을 통하여 전우로서 또한 형제로서 굳은 친선의 뉴대를 맺었으며 이 불패의 친선관계가 오늘 대통령리사회 위원장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으로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습니다.》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은 우리 나라 방문기간 유서깊은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또한 금성뜨락또르공장과 중앙공업및농업전람관, 조선혁명박물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인민경제대학, 붉은기만경대혁명학원, 평양지하철도 등 공장과 교육문화기관들을 참관하였으며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 평양학생소년궁전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을 보았다.

이러한 참관에 대하여 쌀림 루바이아 알리동지는 일련의 공장들과 문화교육기관들을 참관하는 과정에서 대표단이 본 모든것은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 조국을 건설할것을 요구하는 주체사상에 따라 온갖 곤난을 극복하고 앞으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할 결심을 가지고있는 위대한 조선인민의 기개와 위대성을 증명하여 준다고 강조하고 수령이시며 우리의 친근한 동지이신 김일성주석님의 깊은 관심과 현명한 령도, 바로 이것이 이러한 빛나는 성과와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라는것을 잘 알게 되였다고 경탄과 존경을 표시하였다.

11월 21일 평양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쌀림 루바이아 알리대통령리사회위원장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군중대회에서 쌀림 루바이아 알리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쌀림 루바이아 알리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옳바른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뒤떨어졌던 자기 나라를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킴에 있어서 당신들이 발휘한 거대한 희생성의 열매와 이룩한 성과

를 직접 보기 위하여 귀국을 방문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민족민주주의혁명과업의 수행에 대한 커다란 추동력으로 됩니다.»

그는 또한 연설에서 《우리 민주예멘은 수령이시며 우리의 친근한 동지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5대강령에 기초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을 벌리고있는 친선적인 조선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있다는것을 확언합니다. 또한 우리는 남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11월 21일 평양에서는 쌀림 루바이아 알리대통령리사회위원장동지와 그가 인솔하는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일행에게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하는 의식이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수여식에 참석하시여 자기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반제공동위업에 특출한 기여를 한 민주예멘인민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조선인민의 친근한 벗인 쌀림 루바이아 알리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일행에게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하시였다.

11월 19일 평양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리사회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동지 사이의 회담이 진행되였다.

11월 22일 평양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발표된 공동콤뮤니케에 의하면 회담에서 쌍방은 각각 자기 나라의 정세에 대하여 통보하고 조선과 민주예멘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그 밖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쌍방은 오늘 낡은 제국주의세력이 쇠퇴몰락하고 지난날 압박받던 인민들이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현시대발전의 기본추세라고 평가하였다.

쌍방은 제3세계나라 인민들이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단결하고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며 견결히 투쟁한다면 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멸망시키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세계를 빨리 건설할수 있을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조선과 민주예멘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제3세계나라 인민들의 단결의 강화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인정하면서 이 관계를 앞으로 반제공동위업의 리익에 맞게 여러 분야에 걸쳐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일치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민주예멘측은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올바른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짧은 기간에 뒤떨어졌던 자기 나라를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으며 6개년계획의 과업을 앞당겨수행하며 다음 전망계획년도의 웅대한 건설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사회주의대건설에서 더욱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축원하였다.

민주예멘측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과 특히 1973년 6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방침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으며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규탄하고 유엔이 그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민주예멘측은 미제의 부추김밑에 남조선괴뢰도당이 감행하고있는 민족분렬영구화책동과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폭압만행을 단호히 규탄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조선측은 민주예멘인민이 1969년 6월 22일 시정조치이후 정치조직인 민족전선과 자기의 탁월한 지도자 쌀림 루바이아 알리동지를 위원장으로 하는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리사회의 올바른 령도밑에 온갖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면서 여러가지 진보적인 민주개혁들을 실시하고 민족민주주의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으며 5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그들의 앞으로의 투쟁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였다.

조선측은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대외관계분야에서 쁠럭불가담원칙에 기초하여 취하고있는 립장에 대하여서와 피압박민족들의 반제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공동콤뮤니케에는 또한 쌍방이 반제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하며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의 반제혁명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내며 앞으로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의 반제혁명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할데 대한 확고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하시도록 초청하였으며 수령님께서는 이 초청을 쾌히 수락하시였다.

11월 22일 평양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경제 및 기술적원조를 제공할데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의 협정이 조인되였다.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인민과 민주예멘인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 획기적계기로 되였으며 제3세계나라 인민들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자이르공화국 대통령 모부투 쎄쎄 쎄꼬 꾸꾸 느그벤두 와 자 방가의 우리 나라 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자이르공화국의 모부투 쎄쎄 쎄꼬 꾸꾸 느그벤두 와 자 방가대통령이 1974년 12월 9~16일까지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부투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베푸신 연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통령각하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공통된 리념과 호상 신임에 기초하고있는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서 력사적사변으로 되

며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방문기간 모부투 쎄쎄 쎄꼬대통령은 중앙공업및농업전람관, 평양지하철도, 금성뜨락또르공장, 공업도시 함흥에 있는 천리마룡성기계공장, 2.8비날론련합기업소와 그리고 김승조동무가 일하는 기계공장 등을 참관하고 우리 나라 주체공업의 위력에 감탄을 표시하면서 이와 같은 창조적사업은 바로 제3세계가 본받아야 할 귀감으로, 모범으로 된다고 하였다.

대통령은 또한 혁명가극《금강산의 노래》, 조선인민군협주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을 관람하였으며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고 궁전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을 관람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기록영화들인 《영광의 대오, 불패의 혁명무력》과 《로동당의 기치따라》를 보았다. 대통령은 붉은기만경대혁명학원을 참관하였다.

대통령은 조선인민군 구분대를 참관하였다.

대통령일행은 이러한 참관을 통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되여 나라의 모든것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데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감탄하였다.

12월 5일 평양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자이르공화국대통령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군중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먼저《신흥세력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단결하여야 한다》라는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자이르땅에서 일어나고있는 혁명적변혁과정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 우리 시대발전의 기본추세를 그대로 반영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자이르공화국대통령인 모부투 쎄쎄 쎄꼬대통령이 연설하였다.

군중대회와 체류기간에 한 연설들에서 자이르대통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경탄을 표시하였다.

자이르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조선민족의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님은 조선에서뿐아니라 세계의 모든 곳에서 가장 큰 존경을 받고계신다는것을 당신들에게 확언하는바입니다.》

《당신들, 조선인민은 위대한 군사적 명장이시며 정치적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가이시며 가장 고결한 인간성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있음으로 하여 위대한 인민으로 된데 대하여 긍지를 가질수 있게 되였습니다.》

《조선혁명은 위대한 모든 혁명의 력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지고있습니다. 때문에 당신께서는 응당 세계 모든 인민들의 존경과 흠모를 받아야 합니다.》

《나의 귀국방문은 실로 여러면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집니다. 이 방문이 력사적의의를 가진다는것은 나로 하여금 현대세계의 가장 위대한 수령의 한분이신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뵈올수 있게 하였으며 이 방문이 나로 하여금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당신들의 경모의 정을 볼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이 방문이 나로 하여금 우리의 목적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방법에서 얼마나 당신들과 공통성을 가지고있는가를 찾아볼수 있게 하여주었기때문입니다.》

방문기간 대통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경모하여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방문을 마치고 모부투대통령은 자기의 감상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오늘 세계의 혁명가들이 잘 알고있는 당신들의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시여 혁명의 큰 뜻을 키우시였으며 그이의 부모님께서도 살며 싸워오신 혁명의 성지, 만경대의 력사적인 장소를 참관할수 있게된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하였다.

12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혁명과 세계인민들의 반제혁명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조선과 자이르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신것으로 하여 자이르공화국의 최고훈장인 《레오바르국가훈장》을 수여받으시였다.

김성애동지는 《자이르국가훈장》을 수여받았다.

우리 나라 여러 간부들과 관계부문일군들도 자이르공화국 훈장을 수여받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과 자이르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과 세계인민들의 반제혁명위업에 크게 기여한 자이르공화국 모부투 쎄쎄 쎄꼬대통령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시였다.

그리고 대통령일행에게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이 수여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자이르공화국 대통령 모부투 쎄쎄 쎄꼬 꾸꾸 느그벤두 와 자 방가 사이의 회담이 1974년 12월 10일, 14일 두 차례에 걸쳐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자이르공화국 사이의 공동콤뮤니케가 12월 17일 평양에서 발표되였다.

발표된 콤뮤니케에 의하면 쌍방은 각기 자기 나라의 정세에 대하여 통보하고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그밖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쌍방은 매우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회담결과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였다.

조선측은 조선인민이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뒤떨어졌던 자기 나라를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와 강한 자위력을 가진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전변시킨 성과와 경험들에 대하여 자이르대표단에게 통보하였다.

조선측은 또한 오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들고 6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며 사회주의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하여 벌리고있는 조선인민의 사회주의 대건설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조선측은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사람자신의 손에 의하여 조국을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기울이고있는 시종일관한 노력에 대하여 통보하였다.

또한 조선측은 회담에서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에 대하여 통보하였으며 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하여서와 현남조선정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자이르측은 조선인민이 자기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축하하였으며 남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벌리고있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자이르측은 자이르인민이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난 다음 《오망며씨떼》정

책에 따라 나라의 민족적자주권을 튼튼히 지키고 경제적자립의 토대를 튼튼히 하며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하여 《자이르화》정책을 관철하고있는데 대하여 통보하였다.

자이르측은 또한 인민혁명운동의 두리에 뭉쳐 나라의 번영발전을 위하여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하는 투쟁을 계속할데 대한 자이르인민의 결의, 나라의 대외정책,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 아프리카의 완전한 통일과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아프리카민족해방운동의 종국적승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자기의 결의 등을 통보하였다.

쌍방은 국제정세를 토의하면서 현시대는 제국주의세력이 쇠퇴몰락하고 지난날 압박받고 천대받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흥세력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주의 길로 나가는 새로운 력사적전환의 시대라고 평가하였다.

쌍방은 신흥세력이 제국주의, 신구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의 공고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하고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해나간다면 제국주의의 어떠한 압력과 간섭도 짓부시고 그의 멸망을 촉진시킬수 있을것이라는 일치한 견해를 표명하였다.

쌍방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유태복고주의를 반대하며 나라의 완전한 해방과 령토완정, 민족적독립의 공고화, 나라의 자주권과 자연부원을 지키며 사회적진보를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모부투대통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이르공화국을 공식방문하시도록 초청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동지께서는 이 초청을 쾌히 수락하시였다.

자이르공화국 대통령의 방문기간 평양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자이르공화국집행리사회 사이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과 무역협정이 조인되였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마련된 모부투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관계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보여주며 조선인민과 아프리카인민들 사이의 단결과 신흥세력의 단결이 날로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관계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며 자주, 자립을 지향하는 공통된 립장에 기초하고있음으로 하여 커다란 생활력을 가지며 확고부동한것으로 되였다.

원우수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남부웰남공화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초청에 의하여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며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 자문리사회 위원장인 원우수를 단장으로 하는 남부웰남공화대표단이 1974년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 방문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8월 26일 우리 나라를 공식방문한 남부웰남공화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원우수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남부웰남공화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시면서 손님들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남부웰남인민의 영웅한 투쟁은 웰남인민뿐아니라 세계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주었다고 하시면서 남부웰남인민이 구국항전에서 이룩한 승리를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원우수위원장은 형제적조선인민이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큰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무한히 감동되였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이 달성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조선인민의 물심량면으로 되는 적극적인 지지는 남부웰남인민의 투쟁을 크게 고무해주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이 자기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협조하여준데 대하여 김일성주석각하와 그리고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에게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과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와 남부웰남인민의 이름으로 깊은 사의를 표시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과 남부웰남인민은 공동전선에서 미제를 반대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같이 싸우고 같이 승리하자고 말씀하시였다.

남부웰남공화대표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머무르는동안 조선혁명의 요람인 만경대를 방문하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평양학생소년궁전 등 평양시의 일련의 교육문화기관들과 조선인민군 구분대를 참관하였으며 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민들의 성대한 군중대회에 참가하였다.

군중대회에서 연설하면서 대표단 단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웅적 인민은 야수적인 침략전쟁을 감행한 미제를 용감하게 타승하여 세계인민의 반제투쟁에 고무적인 모범을 보여준후 조국건설사업에서 또다시 사람들을 경탄케 하는 눈부신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조선인민은 창조적이며 헌신적인 로동으로써 가난하고 전쟁에 의하여 혹심하게 파괴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경제와 국방에서 강력한 나라로 전변시켰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을 위하여 세금을 없앤 세계의 첫나라로 되였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성과들은 조국건설사업에서 인민의 자력갱생과 자주의 정신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신 존경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확증하고있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8월 27일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과 남부웰남공화대표단사이의 회담이 있었다. 회담에서는 우리 나라와 남부웰남공화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해서와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이 교환되였으며 토의된 문제들에서 의견일치를 보았다.

8월 30일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부웰남공화사이의 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남부웰남공화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인민과 남부웰남인민사이의 호상신뢰와 리해를 두터이 하고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전투적 친선단결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나리다 도모미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사회당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초청에 의하여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나리다 도모미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 가와사끼 간지 국제국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일본사회당대표단이 1974년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친선방문하였다.

일본사회당대표단은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 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기념 경축행사에 참가하였으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평양지하철도, 인민경제대학을 참관하였다. 또한 평양학생소년궁전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을 관람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9월 6일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던 일본사회당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석상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본사회당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손님들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9월 11일 일본사회당대표단의 숙소를 방문하시고 이 기회에 이 대표단 동행기자단을 접견하시였다.

9월 6일과 11일 평양에서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일본사회당대표단사이에 두 차례의 회담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회담에 참가하시였다.

회담에서는 두 당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호상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이 교환되였으며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9월 12일 평양에서 나리다 도모미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사회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있었다.

군중대회에서 나리다 도모미위원장이 연설하였다.

군중대회를 비롯한 여러 기회에 한 연설들에서 나리다 도모미위원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였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기적적인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높은 경모의 정을 안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님께서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귀국에 도착한 다음날 우리들을 장시간에 걸쳐 만나주시고 회담을 하여주시였으며 오늘 오전에 우리들의 숙소를 찾아주시고 제2차회담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우리는 커다란 기쁨으로 여기고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더욱더 건강하시여 혁명의 큰 사업에서 새로운 승리를 쌓아올리면서 지도하고계시는데 대하여 일본사회당의 전체 당원들의 이름으로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조선인민이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빛나게 수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은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굳게 단결하여 쟁취한 새로운 승리이며 귀국의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구체적사실로써 전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것입니다.》

9월 12일 평양에서 조선로동당과 일본사회당사이의 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공동콤뮤니케에서 쌍방은 아세아정세에 대하여, 남북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조선과 일본 두 나라의 관계에 대하여, 두 나라 인민의 우호관계를 강화할데 대하여, 기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한 결과 모든 문제들에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지적하였다.

공동콤뮤니케에서 일본사회당대표단은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비약을 이룩하였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고있는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을 맞이하고있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시하였다.

또한 조선인민이 극히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면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고 3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고있으며 6개년계획을 1년이상 앞당겨 완수하며 다음 전망회계년도의 10대경제건설목표점령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물가를 대폭 인하하고 세금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일본사회당대표단은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남북조선의 통일을 위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과 남북공동성명, 조국통일의 5대강령, 미국국회에 보낸 편지 등 정당하고 현명한 제의들을 전면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국점령군은 남조선으로부터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미제와 일본 및 남조선의 반동세력들은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조선은 단일한 국호에 의하여 유엔에 가입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또한 남조선의 반동도당이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애국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파쑈체제를 강화하며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을 조작하여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며 일본에 대한 내정간섭까지 서슴없이 감행하면서 재일조선공민들을 탄압하려 하고있는데 대하여 엄중히 규탄하였다.

일본사회당대표단은 일본의 일부 반동세력이 미제국주의와 공모하여 남조선에 대한 정치적 및 경제적 침투를 강화하고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일본정부가 《일한조약》을 폐기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그만두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여야 하며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또한 평등,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조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교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본사회당대표단은 일본국민의 우호운동의 다섯가지 구호를 내걸고 일본과 조선 두 나라의 우호를 바라는 광범한 세력을 결속하여 투쟁할것을 표명하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은 일본사회당과 일본의 민주세력이 조선인민의 사회주

의건설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모든 적대시정책을 반대하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적극 지지하며 재일본조선공민들의 민족권리를 옹호하며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고있는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 일본의 군국화와 파쑈화를 반대하고 일본의 민주주의, 평화와 중립을 위한 일본사회당의 투쟁을 평화와 중립, 사회적진보를 지향하는 일본인민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는 정당한 투쟁으로, 아세아와 태평양지역의 평화위업에 이바지하는 정의의 투쟁으로 된다고 높이 평가하고 그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쌍방은 조선로동당과 일본사회당이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기뻐하며 앞으로 두 당사이의 관계를 보다 긴밀한것으로 발전시키는것이 조일 두 나라 인민들의 공통적인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더 중요하다는것을 일치하게 확인하였다.

실로 일본사회당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인민과 일본인민의 친선과 련대성을 강화하고 두 나라사이의 우호관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기여로 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전국토론집회 일본 도꾜에서 성대히 진행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주체사상의 정당성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으며 많은 사람들속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128폐지)

위대한 주체사상을 심오히 연구학습하며 그것을 따라배우는것은 현시대의 사조로, 시대적추세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예순두돐에 즈음하여 1974년 4월 14일 일본도꾜에서는 제4차주체사상연구전국토론집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주체사상연구전국토론집회장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인자하신 모습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된 우리 나라의 발전모습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또한 《김일성저작선집》, 《김일성전》을 비롯하여 일본말과 여러 나라 말로 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혁명력사자료들이 함께 전시되여있었다.

주체사상연구전국토론집회에는 도꾜대학《김일성저작연구회》, 도꾜청년《주체사상연구회》, 도꾜다마《주체사상교육연구회》, 도꾜 스미다《주체사상연구회》 도꾜스기나미 《주체사상연구회》, 도꾜세다가야 《조선문제연구회》, 도꾜대학《사회주의조선연구회》, 센슈대학 《김일성로작연구회》, 도꾜가꾸게이대학 《조선문제연구회》, 《김일성저작도꾜도북부교원강습회》, 도시마구, 네리마구교직원 《김일성주석로작연구회》, 도꾜외국어대학 《조선연구회》, 도꾜 아라까와《천리마의회》, 군마 《조선문제연구회》, 이바라기대학 《주체사상연구회》, 사이다마 오가와지방 《김일성주석혁명활동연구회》, 지바대학 《조선문제연구회》, 쯔찌우라 《김일성주석저작연구회》, 가나가와 《주체사상연구회》, 삿뽀로 《사회주의조선주체사상연구회》, 삿뽀로 《주체사상연구회》, 니이가다시, 《김일성주석로작연구회》, 시즈오까대학 《조선연구회》, 아이찌 《김일성주석로작연구회》, 후꾸이대학 《김일성로작연구회》, 이즈미오쯔일조우호연구회, 오사까일본조선연구회, 오사까 이꾸노 《김일성주석의 주체사상을 배우는 회》, 니시나리청년로동자 《주체사상연구회》, 사까이 《주체사상연구회》, 아마가사끼 《주체사상연구회》, 가나가와일조부인간담회, 일조우호다마부인간담회, 시즈오까대학 조선강좌 등 도꾜, 오사까, 홋가이도, 효고를 비롯한 일본전국의 15개도, 도, 부, 현들에서 35개의 주체사상연구소조대표들과 성원들 200여명이 참가하였다.

집회에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이 초대되여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탄생예순두돐을 맞으시는 천재적사상리론가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여 세계사의 새로운 창조의 선두에 계속 서주실것을 축원하였으며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하였다.

토론집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세금제도철폐의 의의》라는 제목의 특별보고가 있었으며 이어 각 연구소조들의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남북조선의 통일에 대하여》, 《군마현에서의 주체사상학습과 실천》, 《사까이시에서의 김일성주석혁명활동력사를 중심으로 한 주체사상연구》, 《홋가이도에서의 주체사상연구와 실천》, 《가다가와에서의 주석님의 로작연구와 실천활동》, 《니이가다에서의 주석님의 로작연구》등에 대한 연구활동보고와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집회에서 한 연설자들과 보고, 토론자들은 천재적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높이 칭송하였다.

일조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 의장 야스이 가오루는 축하연설에서 일본의 과학자들도 《불멸의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김일성주의는 조선의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지침일뿐아니라 세계사의 전도를 환히 비쳐주는 위대한 사상이라고 생각하고있다》라고 말하였다.

군마 《조선문제연구회》 대표는 《김일성주의는 우리 시대의 유일한 라침판이다》라고 말하면서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김일성주의는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주석님에 의하여 창시되고 체계화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김일성주의는 15성상에 걸치는 항일무장투쟁을 거쳐 해방후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실천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남김없이 확증된 혁명의 진정한 교과서》이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그는 또한 《위대한 김일성주의체계는 그 깊이와 너비에 있어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완성된 리론체계이다. 과거에는 맑스-레닌주의를 연구하는것이 하나의 풍조로 되고있었으나 오늘은 김일성주의를 연구체득하는것이 시대의 커다란 조류로 되고있다.》라고 흥분된 심정으로 말하였다.

제4차주체사상연구전국토론집회에서는 일본각지에서의 주체사상연구경험을 나누고 그것을 확대심화하였다.

보고와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주체의 시대에 그 지도사상인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는것은 크나큰 영광이라고 긍지높이 말하면서 자신들의 연구성과들과 귀중한 경험들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의가 오늘 일본의 로동자들과 교원, 학생, 부인 등 광범한 인민들속에 급속히 알려지고 그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는것을 볼때 위대한 김일성주의의 무궁무진한 견인력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앞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을

깊이 학습하여 자기의것으로 만드는데 제일차적인 관심을 돌려나갈것이라고 굳게 결의다지였다.

다음으로 토론집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에서 세금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데 대하여 토론하면서 세금제도의 완전한 폐지는 《계급사회와 더불어 수천년동안 인민들을 수탈하여온 낡은 조세제도의 종말을 선고하고 인류가 갈망해온 무거운 세금부담에서의 해방의 리정표를 세워놓은 금자탑이며 력사적위업으로서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라고 한결같이 지적하였다.

집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세금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4월 1일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이날을 《4.1반세금투쟁의 날》로 설정할것을 일본인민에게 호소하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일본도꾜에서 성대히 진행된 제4차 주체사상연구전국토론집회의 소집과 그 진행 전과정은 오늘 주체사상을 배우고 그것을 따라 살려는 현시대의 추세에 따라 일본의 진보적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대렬이 급격히 늘어나고있으며 그들속에서 날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이 더욱더 뜨겁게 불타오르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토론집회 폐회사에서 센슈대학조교수 구리끼 야스노브가 《이번 집회가 지난시기의 곱절이 되는 각지 연구소조성원들의 참가밑에 성과적으로 진행된것은 오직 위대한 주체사상의 견인력과 주체사상으로 살려는 일본의 진보적인민들의 커다란 지향의 표현으로서 주체사상이야말로 자기들이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지도사상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는것》이라고 지적한것은 이에 대한 뚜렷한 립증으로 된다.

《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 일본 도꾜에서 성대히 진행

천재적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조선혁명의 경험에 기초하여 우리가 처음으로 내놓은 사상이지만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사상입니다.》 (《빠나마기자대표단과 한 담화》, 단행본, 17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위대한 주체사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방법을 연구체득하는것은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로 되고있다.

일본 도꾜에서 성대히 진행된 《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는 그의 대표적인 실례의 하나로 되였다.

1974년 10월 13일 일본 도꾜에서 《일조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와 《김일성주석저작연구회 전국협의회》의 공동주최로 《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집회장에 마련된 사진전시장 정면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집회장에는 세계지도우에 활활 타오르는 주체의 해불이 그려지고 그 두리에 《불멸의 주체사상 만세!》, 《일조우호친선만세》라는 글발들이 새겨진 커다란 원형판이 걸려있었다.

집회장에는 《김일성저작선집》, 《김일성전》, 《인민들속에서》 등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보여주는 수많은 서적들과 자료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집회에는 국제의회동맹 제61차총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나라 의회그루빠대표단 단장을 비롯한 대표단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여기에는 또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이 참가하였다.

일조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야스이 가오루, 《김일성주석저작연구회 전국협의회》 대표 구리끼 야스노부를 비롯하여 도꾜대학, 간또, 가꾸잉대학, 호세이대학 등에서 온 이름있는 교수, 학자, 인사들이 집회에 참가하였다.

또한 도꾜 네리마교직원 《김일성주석로작연구회》, 사이다마 오가와무라 이바라기대학, 후꾸시마 《김일성저작연구회》들, 일본 《청년주체사상연구회》, 도꾜 국철로동자 《주체사상연구회》, 도꾜《주체사상연구회》, 도꾜에 있는 스미다 북부교직원, 오다교직원, 도시마, 스기나미, 센슈대학, 외국어대학 《주체사상연구회》들, 니이가다대학, 후꾸이대학, 시즈오까, 오사까, 요도가와 오사까 니시나리청년로동자, 아마가사끼, 혹가이도 삿뽀로, 아오모리도와다《주체사상연구회》들, 쥬오대학, 세다가야, 사이다마, 가나가와, 요꼬하마시로련, 군마, 지바대학, 아이찌대학, 간사이, 가꾸잉대학 《조선문제연구회》들, 가나가와, 즈시시 《일조부인간담회》들과 도꾜로자와 《조선문제연구부인회》, 《학습회》, 《조선의 영화를 보는 회》, 일조협회, 교직원조합 등 일본의 16개 도, 도, 부, 현에서 60여개의 연구소와 여러 사회단체대표들 600여명이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께 드리는 편지가 전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집회에서는 주체단체들을 대표하여 일조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 사무국장 오루이 쥰의 개회사와 일조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야스이 가오루의 기조보고가 있은 다음 일조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 중앙상임위원인 요꼬하마국립대학 교수 가와무라 진야가 《주체사상과 그 전개》, 도꾜 《청년주체사상연구회》 성원 우찌가시마 미끼야스가 《주체사상의 구현과 김일성주석님의 대중령도》, 가나가와 《일조부인간담회》 성원 히조쎄레 이꼬가 《남북조선의 통일과 남조선문제》, 일조과학자련대위원회 사무국장인 도요대학 교수 오루이 쥰이 《미일 〈한〉 반동들간의 모순문제와 현시기에 대한 력사적인식》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연구토론을 하였다.

이어 집회에서는 일본전국의 연구소조대표들이 토론하였다.

《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에서 한 보고와 토론자들은 천재적사상리론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리론이 맑스—레닌주의 리론발전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온 완전히 독창적인 사상으로서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의 기치, 불멸의 김일성주의로 된다는데 대하여 한결같이 강조하였다.

기조보고에서 야스이 가오루는 《나는 맑스—레닌주의의 발전사상에서 김일성주석님의 사상 리론 체계가 차지하는 력사적지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맑스—레닌주의의 계승과 김일성주석님의 사상 리론 체계의 독창성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고 한다.

맑스—레닌주의를 그 어떤 고정된 교리와 같이 전제하고 달라붙는것은 잘못이다. 우리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성장발전하는것으로 포착하여야 한다.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사상 리론 체계는 맑스—레닌주의의 창시자들이 제시한 보편적진리를 시대의 변화와 조선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과거에는 제기되지 않았는데 우리 시대에 와서 새롭게

제기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준 독창적인 사상 리론 체계이다.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사상 리론 체계는 맑스―레닌주의 발전사상에 높이 솟아있으며 우리 시대의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으로 되고있다.

지난시기 이 사상 리론 체계를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주의〉라고 규정하였지만 오늘은 주저함이 없이 이것을 〈김일성주의〉라고 부를수 있다.

나는 우리 시대는 주체의 시대라고 하신 김일성주석님의 명철한 가르치심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그 가르치심은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김일성주의가 우리 시대의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이라는것을 스스로 밝혀주고있다.》라고 말하였다.

도꾜 《청년주체사상연구회》 성원 우찌가시마 미끼야스는 연구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의를 구성하는 세개의 요소가운데서 주체사상과 함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는것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대중령도에 관한 리론이 처음으로 체계화된것이다.

김일성주석님의 대중령도방법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군중관점의 구현이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군중관점이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관점이다.

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대중령도에 관한 리론은 반세기에 걸친 혁명투쟁의 실천을 통하여 그 불패의 위력과 정당성이 남김없이 검증된 산교과서이다. 뿐만아니라 그것은 세계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 특히 제3세계나라 인민들의 투쟁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있다.》

《김일성주석저작연구회 전국협의회》 대표 구리끼 야스노부는 폐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 우리들은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사상 리론 체계를 김일성주의로 부르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이 리론을 위한 리론이 아니라 실천의 무기로서 연구하고 학습하여야 할 위대한 사상이라는것을 확인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가 도꾜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는것은 멀지 않은시기에 김일성주의에 대한 국제회의가 일정에 오르게 될것이라는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였다.

토론회참가자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 칭송하면서 그이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도꾜 《청년주체사상연구회》 성원 우찌가시마 미끼야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모든 사실은 김일성주석님이시야말로 인류가 오래동안 목마르게 기다리던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유일한 중심이시며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보장하는 영원한 령도자이시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김일성주석님을 옹호하고 주석님을 따르는것, 이것은 진보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인민들앞에 공통적으로 나서고있는 보람찬 임무이다.》

또한 기조보고에서 야스이 가오루는 《불멸의 주체사상의 불길이 더욱더 세차게 타번질것을 충심으로부터 기대하며 그 창시자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만년장수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라고 말하였다.

토론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더욱 심오히 연구학습할 굳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일조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 사무국장 오루이 준은 개회사에서《오늘의 이 전국집회를 계기로 불멸의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더욱 심도있게 학습하고 일본의 민주주의와 사회적진보, 세계평화를 위한 투쟁에 크게 기여하여야 할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일조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야스이 가오루는 기조보고에서 《이 중요한 집회에서 기조보고를 담당할 임무가 나에게 맡겨졌는데 실행위원회에서는 그 제목을 〈김일성주석님의 사상 리론 체계와 우리의 연구학습의 기본관점〉이라고 하기로 결정하였다.

여기서 우리의 연구학습의 기본관점이란것은 일본의 과학자, 학생, 청년, 부인, 로동자 등의 연구학습에 대한 기본관점이란것이다.

김일성주석님의 사상 리론 체계는 참으로 〈현대의 백과전서〉라고 해야 할 폭의 넓이와 내용의 풍부성을 가지고있으며 그것을 옳게 연구학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본태도와 기본관점을 확고히 정하고 달라붙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또한《김일성주석저작연구회 전국협의회》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사상과 리론, 김일성주의를 배워야 한다.

우리들이 김일성주의를 깊이 연구학습하여야 하는것은 또한 일본의 자주, 평화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투쟁을 밀고나가는데서 김일성주석님의 전략전술을 반드시 배워야 하기때문이다.》

일조문화교류협회 리사장 다까기 다께오는 주체사상이 《제3세계나라 인민들을 얼마나 힘있게 고무하며 국제적으로 얼마나 큰 생활력을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오늘 주체사상을 배우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조류로 되고있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집회에서는 우리 나라 의회그루빠대표단 단장이 연설하였다.

집회에서는《김일성장군의 노래》의 힘찬 합창과 《주체사상을 배우자》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져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경모의 정으로 끓어넘치고있었다.

10월 13일 도꾜에서 진행된《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에서는 집회의 명의로 되는 선언이 만장의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선언요지는 다음과 같다.

일조문제가 날을 따라 더욱 중요성을 띠게 되고 일본인민들속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일조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와 《김일성주석저작연구회 전국협의회》의 공동주최로 일본의 연구자, 로동자, 학생, 녀성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광범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를 열고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것은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사상 리론 체계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것도 사람을 위한것이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힘있는 존재이라는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매개 나라들의 혁명과 건설이 그 나라 인민의 자주성, 창조성에 의하여 추진된다는것을 처음으로 보편적인 리론으로써 정식화한것이다.

김일성주석님의 사상 리론 체계는 인민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민족해방과 민주주의, 평화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지구상의 여러 지역과 나라들에서 구체적으로 전개되고있는 새로운 세계사발전단계의 요구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계승발전시키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높은 단계에 올려세운것이다.

그러므로 김일성주석님의 사상리론 체계는 주체의 철학사상으로부터 대중령도리론 기타의 광범한 령역에 걸쳐 시종일관한 체계를 이루고있으며 그것

은 마땅히 김일성주의라고 부를수 있는것이다.

이 집회에서 우리들은 심오한 연구토론회의 성과에 기초하여 그것을 확인하고 여기에 선언하는바이다.

김일성주의에 대한 확인은 앞으로의 연구학습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는것 그리고 이 집회가 그 획기적계기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토론회의 전과정은 오늘 일본땅에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이 더욱 넓고 깊게 뻗어가고 일본의 사회계와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이 더욱 높아가고있으며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따라배우는 대렬이 급격히 늘어나 그것이 일본에서의 하나의 큰 조류를 이루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김일성주석님의 농촌테제발표 10돐을 기념하는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제3세계인민들의 과업〉에 관한 과학토론회》 또고의 수도에서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주체사상이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는것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이 자주성을 요구하는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부합되기때문이라고 봅니다.》(《빠나마기자대표단과 한 담화》, 단행본, 17페지)

1974년에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열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1974년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또고의 수도 로메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10돐을 기념하는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제3세계인민들의 과업》에 관한 과학토론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토론회가 진행된 또고인민련합청사 대회장 정면에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그리고 또고인민의 탁월한 지도자 그나씽그베 에야데마대통령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또한 그 배경에는 《김일성주석님의 농촌테제발표 10돐을 기념하는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제3세계인민들의 과업〉에 관한 과학토론회》라는 큰 글발이 걸려있었으며 토론회장의 안에는 《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농촌테제만세!》, 《제3세계인민들의 친선단결만세!》라는 구호가 걸려있었다.

토론회에는 또고공화국 대통령 그나씽그베 에야데마를 대표하여온 공공사업광업운수및체신부장인 아이이떼 미베도르, 청년체육문화 및 과학연구부장과 토론회준비위원회 성원들, 수단과 시에라 레온의 당 및 정부대표단들, 또고, 잠비아, 소말리아, 민주예멘, 말가슈, 적도기네, 다오메의 정부대표단들, 세네갈, 꽁고, 이라크의 농업대표단들, 말리, 탄자니아, 자이르, 상부볼따, 우간다, 까메룬, 애급, 수리아, 감비아, 부룬디, 레바논, 팔레스티나, 서남아프리카, 짐바브웨, 아자니아,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띠나, 우루과이, 프랑스, 핀란드 등 나라들의 대표단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 참가한 110여명의 대표들속에는《김일성동지의 로작연구소조》성원, 국회의원들, 정부고위관리들, 투쟁단체 및 국제기구대표들, 박사, 교수들, 출판계인사들이 들어있었다. 토론회에는 이밖에 700여명의 방청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또고에 주재하고있는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였다. 이 과학토론회를 축하하여 또고공화국대통령 그나씽그베 에야데마가 축하서한을 보내여왔다. 축하서한에서 대통령은 이 모임이 1964년 2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10돐을 기념하게 되는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이 나라를 최근 공식방문한 우리는 오늘 탁월한 문헌으로 세상에 알려진 농촌문제에 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농촌테제를 관철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연구할것을 당신들에게 서슴없이 권고하는바입니다.…

이 테제는 보편적인것입니다.

농촌문제해결을 위하여 테제가 제기하고있는 문제들, 테제가 제시하고있는 방도들은 우리를 모든 나라들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학토론회가 우리 인민대중을 각성시키는것으로서 제3세계인민들사이의 훌륭한 협력의 출발점으로 또한 자기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가장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하는 기회로 될것을 축원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또고인민련합 중앙위원회 위원인 《또고프레스》신문사주필의 환영연설과 체육문화및과학연구부장의 개막사가 있은 다음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수단 당및정부대표단 단장인 수단사회주의동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시에라 레온 전인민대회당 중앙위원회 집행비서, 또고 전국과학연구소 소장, 민주예멘정부대표단 단장인 이 나라 농업부 중앙농업간부양성국장, 이라크농민조합총동맹대표단 단장인 이 동맹 집행위원회 위원,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대표단 단장인 이 조직 중앙위원회 위원, 인도국회 상원의원, 레바논대표단 단장인 국회의원, 아르헨띠나대표인 종합대학 교수, 팔레스티나대표단 단장인 팔레스티나혁명정치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제3세계나라들에서 온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대표들, 당및정부대표단 단장들, 저명한 학자들과 교수들, 사회활동가들, 농업부문지도간부들 30명이 열렬한 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농촌문제해결에 구현하시여 위대한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밝히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과 사회주의농촌테제에서 밝히신 천재적인 사상과 리론, 그의 독창성과 위대한 생활력에 대하여 힘있게 강조하였다.

보고와 토론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불멸의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사상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준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고 완성된 백과전서적인 탁월한 사상이라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말리대표인 말리평화운동위원회 총서기 마마두 싸꼬는 《주체시대의 가장 옳바른 지도사상은 불멸의 주체사상이며 그것을 진수로 하는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사상은 자연과 사회의 혁명적개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준 전일

적으로 체계화되고 완성된 백과전서적인 탁월한 사상이다.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사상은 전세계 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인류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혁명의 등대이며 백전백승의 기치이다.》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또한 말가슈정부대표단 단장인 말가슈내무부 농업발전국장은 《불멸의 주체사상은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시대, 주체시대에 내놓으신 김일성주의의 기본내용을 이루고있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립장과 태도를 밝혀주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정확히 해결할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고있다》라고 말하였다.

우간다대표 크리스토퍼 놈비는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은 귀중한 분이신 조선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에 의하여 창시되였다.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사상은 조선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속에서 나오게 된것이지만 그것은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일반적진리이다.》라고 말하였다.

보고와 토론자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회주의농촌테제가 위대한 주체사상을 농촌문제해결에 구현한 위대한 강령이라고 지적하면서 그것이 제3세계 모든 인민들의 귀중한 재부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또고인민련합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또고프레스》신문사 주필인 파오비벤니 콘손은 연설에서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인 1964년 2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길을 열어준 불후의 고전적로작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였다.

김일성주석님에 의하여 사회주의농촌문제의 본질적내용과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리론적기초가 확고히 마련되였으며 그 전략적방향이 뚜렷이 서게 되였다.

김일성주석님께서 농촌테제를 발표하신 이후 지난 10년동안 조선의 농촌은 자기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하고 세상에서 가장 발전된 사회주의농촌으로 되였다.》

상부볼따정부대표단 단장인 농업발전부 국장은 토론에서 《우리는 여기서 농촌문제에 관한 김일성주석님의 사상과 리론이 진정한 보편적인 지도리론으로 된다는것과 그이의 이 사상과 리론이 우리 시대가 제기하는 농촌문제에 완벽하고도 전면적인 대답을 주고있다는것을 엄숙히 선언하는바이다.

김일성주석님의 농촌문제해결에 관한 독창적이고 빛나는 사상은 전인류가 그처럼 열렬하게 원하고있는 발전된 사회주의농촌을 건설하기 위한 위대한 강령으로 된다.

농촌문제해결에 관한 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사상과 리론은 조선인민뿐아니라 발전도상에 있는 제3세계 모든 인민들의 귀중한 재부로 된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우루과이대표는 《김일성동지께서 집필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제3세계나라들의 훌륭한 교과서로 된다》라고 지적하였으며 다오메정부대표단 단장인 내무및안전부 경제담당기술참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국제적의의를 가지는 혁명적고전》이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토론을 마칠 때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 만세!》, 《불멸의 주체사상 만세!》를 목청껏 부르면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10월 4일 페막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편지랑독이 끝나자 장내에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주악이 장중하게 울려퍼지고 전체 참가자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준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위대한 강령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고 그것을 조선에서 빛나게 구현하시여 농촌문제의 참다운 해결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들에 확고한 전망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심심한 사의와 뜨거운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라틴아메리카회의 뻬루의 수도에서 진행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특히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반동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폭로분쇄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세계인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와 동정을 받았습니다.》(《신년사》, 단행본, 1975년판, 18페지)

1974년 11월 12일～14일까지 뻬루의 수도 리마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라틴아메리카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라틴아메리카의 20개 나라들의 100여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정계, 사회계, 학계, 언론계 인사들 1천여명이 참가하였다.

뻬루대통령의 조카 마누엘 벨라스꼬 아라나대위와 뻬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호르헤 델 쁘라도, 꾸바, 꼬스따 리까, 베네수엘라, 에꽈도르, 온두라스, 꼴롬비아, 아르헨띠나, 우루과이, 뿌에르또 리꼬, 니까라과, 빠라과이, 살바도르, 메히꼬, 빠나마, 도미니까, 브라질, 볼리비아, 과떼말라, 칠레의 많은 저명한 사회계인사들이 초대되였다.

또한 회의에는 뻬루에 주재하고있는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였다.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친선및평화대표단이 이 회의에 초대되였다.

꼬스따 리까 인민전위당정치국과 사회당정치국, 에꽈도르공산당 중앙위원회, 칠레인민통일련합, 꼴롬비아기자전국협회, 빠나마종합대학 총장, 라틴아메리카통일기구 집행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세계평화리사회 서기장, 세계직련 위원장,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서기장, 국제기자동맹 서기장을 비롯한 여러 국제단체 등 많은 나라 정당, 사회단체와 개별적인사들로부터 축전들을 보내여왔다.

회의는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울리는 가운데 시작되였다.

회의에서는 회의준비위원회 조정위원장이며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인 헤나로 까르네로 체까가 보고하였으며 뒤이어 많은 나라 대표들이 열렬한 토론을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많은 건설적인 제안들을 내놓으시였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남조선괴뢰도당이 거부하였을뿐아니라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보고자는 특히 오늘 세상사람들이 의식주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며《자주적이고 행복하고 자기의 미래에 대하여 그처럼 확신을 가지고있는 나라, 제3세계의 모범이며 자랑인 나라를 일떠세운 조선인민과 그의 수령이신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령도에 존경을 표시하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

의 수령이시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벗이며 현세계에서 가장 탁월하고 저명하고 영웅적인 령도자들중의 한 분이신 김일성주석님께 우리는 삼가 최대의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정중히 말하였다.

보고자는 계속하여 평양과 까라까스, 끼또, 리마, 빠나마, 몬떼비데오를 련결시키는것, 대동강과 아마죤강, 오리노꼬강, 마그달레나강을 하나로 합치는것, 조선인민과 2억의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목소리를 합치는것—이것은 공통된 념원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킬데 대한 38개 나라들이 제기한 요구를 유엔성원국들이 지지하여 투표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하였다.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 5대방침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하고 조선인민의 통일위업을 끝까지 지지성원할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베네수엘라대표인 베네수엘라공산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엑또르 무히까는 토론에서 《김일성원수님께서 여러차례 천명하신 조국통일방침 즉 조선의 통일을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평화적으로 조선사람들자신의 손으로 이룩할데 대한 방침을 우리는 견결히 지지한다》라고 힘주어 말하였으며 또한 뻬루대표인 뻬루근로자총련맹 서기장 구스따보 에스삐싸는 토론에서 《뻬루의 근로자들은 빠른 시일내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한다.

통일, 이것은 우리의 공동의 원쑤인 제국주의세력에 대한 또하나의 타격으로 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또한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으로부터 철거시키고 남조선파쑈도당의 《두개 조선》조작음모를 폭로분쇄하며 조선인민의 자주적통일위업을 지지하기 위한 운동을 라틴아메리카에서 더욱 강력히 전개할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정의의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편에 언제나 확고히 서있을것이라고 확언하고 하나의 민족, 한 령토를 이루고있는 조선인민이 통일된 조국땅에서 행복하게 살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라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자기 토론들을 마치면서 《김일성동지 만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 만세!》를 소리높이 불렀다.

11월 14일 폐막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전문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라틴아메리카회의》의 총선언문, 조선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련대성을 표시하기 위한 권고문, 유엔총회 제29차회의 의장에게 보내는 편지, 라틴아메리카나라 외교부장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채택되였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라틴아메리카회의》에서 채택된 총선언(요지)

라틴아메리카의 20개 나라 대표들은 자주권과 내정불간섭,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제인민들이 벌리고있는 투쟁이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유지공고화하기 위한 결정적요인으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조국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대하여 리해와 동정을 표시하고 련대성을 보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고 하면서 총선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그리고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 5대방침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미군의 남조선강점과 침략정책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로 되며 이 지역과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무조건 즉시 철거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책동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단호히 규탄하고 재일조선공민들과 그들의 조직인 총련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일본당국이 그들에 대한 탄압과 차별대우를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조선이 결코 분렬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조선인민의 의사대로 통일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조선을 지배하고있는 배신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배격한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1972년 7월 4일 남북사이에 합의된 공동성명의 3대원칙을 존중하고 지켜야 하며 조선의 조속한 통일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제안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과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의 애국자들과 청년학생, 지식인 및 종교인들의 정의롭고 용감한 투쟁에 우리의 지지성원을 보낸다.

우리는 자기 조국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이 세계적범위에서 벌어지고있는 반제투쟁의 한고리이며 세계평화애호인민들, 특히는 경제적독립과 완전한 자주권을 위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과 긴밀히 련결되여있다고 인정한다.

우리는 세계평화를 유지공고화 할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인민과의 친선과 련대성을 강화하며 그들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되도록 계속 모든 노력을 다할것을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과 민주단체들, 진보적인사들에게 호소한다.

인민들의 자결과 자주권을 존중하는 라틴아메리카나라 인민들은 자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조선인민의 중요한 동맹자로 될것이다.

회의에서 채택된 전세계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게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력을 만족감을 가지고 보았다.

그후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커다란 노력이 기울여졌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조국통일위업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지난해 6월에 나라의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으로서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과 의사를 반영하고 아세아와 세계 평화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는 애국적인 조국통일 5대방침을 새로이 제시하시였다.

그러나 이 성의있는 노력들은 미국과 일본당국자들의 책동과 남조선괴뢰들의 매국사대주의로 하여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있다.

이러한 사태앞에서 투쟁에 일떠선 남반부인민들은 가장 혹독한 탄압을 받고있으며 오늘 남조선에서는 청년학생, 진보적인테리들, 사회단체와 정당지도자들, 애국자들 그리고 지어는 종교인들까지도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

의 통일을 요구하였다는 리유로 살해당하고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미국군대를 즉시 철거시키고 남조선에서 체포고문당하고있는 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구원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적운동을 조직할것을 평화애호국가들과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 국제민주단체들, 세계인민들에게 호소한다.

조선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련대성을 표시하기 위한 권고문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1. 조선인민과의 친선단체들이 있는 나라들에서는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광범하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작성할것이다.

2. 친선단체들이 없는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련대성운동을 발전시킬 책임을 진 림시적인 위원회들을 조직하며 나아가서는 상설적인 단체들을 창설할것이다.

3. 김일성주석님께와 조선인민에게 정치단체, 로조, 농민단체, 문화인단체, 학생단체 등 모든 단체들이 조선의 통일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편지들을 보낼것이며 그 사본을 유엔에도 발송할것이다.

4. 조선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며 전반적조선문제에 대한 군중들의 인식을 증대시킬 목적밑에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기 위한 대중적활동을 벌릴것이다.

5. 대중적인 련대성운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선인민의 중요한 력사적 기념일들을 계기로 군중집회, 강연회, 회의, 전람회 등의 각종 활동들을 조직할것이다.

6. 본회의 문건들을 광범한 보도수단들을 통하여 선전하는 동시에 매개 나라 여러 조직들과 인사들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문헌출판사업을 진행할것이다.

7. 이상의 사업을 위하여 본회의준비위원회가 계속 활동하되 남미주와 까리브해지역 나라들을 위한 통보중심지는 리마에, 중앙아메리카를 위한 통보중심지는 꼬스따 리까의 싼 호세에 둘것이다.

라틴아메리카나라 외교부장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였다.

《우리들은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자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들을 지지하고 유엔의 기발밑에 은폐되여있는 외국군대의 남조선주둔과 간섭을 반대할것을 라틴아메리카나라 정부들에 요구한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그리고 외교관계가 이미 맺어진 경우에는 그를 강화발전시킬것을 라틴아메리카나라정부들에 호소한다.》

유엔총회 제29차회의 의장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라틴아메리카회의는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 상정된 공동결의초안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하여〉를 찬동하는것이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중의 하나라고 인정하면서 이번 유엔총회가 반드시 미군이 더는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지 말고 남조선으로부터 당장 물러가도록 하게 하는 결의를 채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회의의 전과정은 오늘 라틴아메리카에 우리 혁명의 지지자, 동정자의 대렬이 더욱 늘어나고있으며 이 지역에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련대성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1974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파견하신 특사들의 다른 나라 방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특사가 수단을 방문 (3월 31일~4월 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특사가 소말리아를 방문 (4월 6~1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특사가 애급을 방문 (4월 19~2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특사가 탄자니아를 방문 (4월 15~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특사가 수리아를 방문 (4월 24~2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특사가 이라크를 방문 (4월 29일~5월 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특사가 우간다를 방문 (5월15~1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특사가 알제리를 방문(5월 31~6월 3일)

1974년에 우리 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

만국우편동맹

1974년 5월 22일부터 스위스의 로잔느에서 시작된 만국우편동맹 제17차대회 29일회의에서는 우리 나라의 만국우편동맹가입문제를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먼저 우리 나라의 가입주동발기국인 알제리대표단 단장이 우리 나라의 만국우편동맹가입을 지지하여 연설하였다. 이에 당황망조한 미제의 부추김을 받은 남조선괴뢰가 우리 나라의 가입을 절차규정에 따라 통신투표로 하자고 뇌까리면서 반대해나섰다.

그러자 제3세계의 35개나라 대표들이 남조선괴뢰의 《발언》을 반박하기 위한 토론신청표식판을 들고일어났다. 우리 나라의 만국우편동맹가입을 직접 결정할데 대한 알제리결의안을 지지하여 니제르를 비롯한 일부 나라 대표들이 연설을 하였다.

그리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회의장 분위기에 압도되여 기가 죽은 나머지 3세계나라들의 주장을 더는 반박해나서지 못하였다.

결국 이날 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만국우편동맹가입을 요구하여 알제리를 주동발기국으로 하고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을 포함한 50개나라가 제기한 공동결의안이 투표없이 성원국대표들의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통과되였다. (원래 이 동맹의 가입절차규정에는 4개월간에 걸쳐 진행되는 통신투표를 통해 성원국들의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가입할수 있게 되여있다.)

대회에서 채택된 우리 나라의 만국우편동맹가입을 승인하는 결정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미 유엔에 상임옵써버대표부를 두고있으며 유엔전문기구인 세계보건기구와 유엔무역개발회의에 가입했으며 또 국제적으로 광범히 승인받고있다는것을 고려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만국우편동맹의 정식 성원국으로 받아들이는것을 승인한다는것이 지적되여있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는 만국우편동맹

의 존엄있는 성원국으로 되였으며 5월 30일부터는 우리 공화국대표단이 당당한 성원국대표로서 대회사업에 참가하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325페지)

우리 나라의 만국우편동맹가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의 또하나의 빛나는 승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시고계시는 높은 국제적권위와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이 있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는 만국우편동맹가입절차의 전례를 깨뜨리고 존엄있게 그 당당한 성원국으로 가입할수 있었다.

우리 나라의 만국우편동맹가입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륭성발전하는 우리 공화국의 높은 권위와 위신의 뚜렷한 시위로 되였다.

만국우편동맹의 가입으로 하여 오늘 우리 공화국은 제3세계에 우리의 혁명위업수행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 동정자의 대오를 가지고있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었다.

국제법제계량기구

1974년 5월 9일 우리 나라는 국제법제계량기구에 가입하였다.

국제법제계량기구는 정부적인 국제기구로서 법제계량에 대한 일반적원칙들을 결정하며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측정계기, 기구들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및 행정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국제적통일성을 보장하는것을 기본목적으로 하고있다.

이 기구의 본부는 프랑스의 빠리에 자리잡고있다.

우리 나라가 국제법제계량기구의 성원국으로 된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공화국의 자주적이고 원칙적이며 공명정대한 대외정책이 가져온 또하나의 빛나는 승리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륭성발전하는 공화국의 높은 권위와 위신의 시위로 된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은 세계의 많은 형제당들과 나라들, 세계의 수많은 혁명조직들과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92페지)

1974년 10월 17일—11월 23일까지 프랑스의 수도 빠리에서 130여개 성원국들이 참가한 가운데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제18차총회가 진행되였다.

10월 17일 총회에서는 우리 나라의 유엔과학교육문화기구의 가입문제를 토의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 기구의 정식 성원국으로 받아들일것을 투표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총회의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과학교육문화기구의 가입이 반대, 보류, 기권한 나라가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였다는것을 선언하자 회의장안에서는 우렁찬 박수가 오래동안 계속되였다.

총회에 참가한 알제리, 중국, 쏘련, 벌가리아, 몽골, 로마니아, 토고, 로므니아, 수단, 소말리아 대표들이 차례로 우리 나라의 이 기구가입을 축하하여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나라가 정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한데 대해 지적하고 우리 공화국이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 가입한것은 이 기구의 보편성을 실현함에 있어서 커다란 전진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에서 우리 공화국대표단 단장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연설하였다.

우리 나라가 유엔전문기구의 하나인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의 존엄있는 성원국으로 된것은 우리 나라 대외관계발전에서 또하나의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사변으로써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륭성번영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높은 국제적 권위와 위신의 뚜렷한 시위로 되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이고 원칙적이며 공명정대한 대외정책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다시한번 명백히 보여준것으로 된다. 이것은 비단 우리 인민의 승리일뿐아니라 세계 반제력량과 평화애호인민들의 공동의 승리로 된다.

우리 나라의 이 기구 가입은 《두개조선》조작음모에 미쳐날뛰고있는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총회는 다음번 총회를 케니아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가지기로 결정하였다.

1974년에 우리 나라가 대사급 외교관계 및 무역관계를 맺은 나라들

대사급외교관계

1. 리비아아랍공화국 1974년 1월 23일
2. 가봉공화국 1974년 1월 29일
3. 꼬스따 리까공화국 1974년 2월 10일
4. 기네—비싸우공화국 1974년 3월 16일
5. 네팔왕국 1974년 5월 15일
6. 가이아나협동공화국 1974년 5월 18일
7. 라오스왕국 1974년 6월 24일
8. 하쉐미트요르단왕국 1974년 7월 5일
9. 오스트랄리아련방 1974년 7월 31일
10. 니제르공화국 1974년 9월 6일
11. 쟈메이커 1974년 10월 9일
12. 베네수엘라공화국 1974년 10월 28일
13. 보쯔와나공화국 1974년 11월 27일
14. 오지리공화국 1974년 12월 17일
15. 스위스련방 1974년 12월 20일

무역관계

페루공화국 1974년 7월 12일

1974년 현재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고있는 나라 80개, 령사관계 맺고있는 나라 2개, 무역관계를 가지고있는 나라 6개

1974년에 다른 나라를 방문한 우리 나라 대표단

1월

조선녀성대표단 인도전국녀성련맹 제8차대회에 참가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 세계직변뷰로회의에 참가

우리 나라 정부군사대표단 탄자니아를 방문

조선교육문화일군직맹대표단 일본교육연구전국집회에 참가

우리 나라 정부무역대표단 웽그리아를 방문

우리 나라 수산대표단 쏘련을 방문

우리 나라 농업과학자대표단 웰남민주공화국을 방문

우리 나라 정부군사대표단 부룬디를 방문

2월

우리 나라 정부무역대표단 인도를 방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대표단 벌가리아에서 진행된 세계평화리사회에 참가

우리 나라 보건대표단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초청으로 그곳을 방문

우리 나라 유술대표단 쏘련에서 진행된 국제유술경기대회에 참가

우리 나라 속도빙상선수단 몽골에서 진행된 국제속도빙상경기대회에 참가

우리 나라 집단체조대표단 탄자니아련합공화국을 방문

우리 나라 적십자회대표단 로므니아를 방문

우리 나라 모터찌클선수단 쏘련을 방문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 웰남직업련맹 제3차대회에 참가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대표단 쿠웨이트, 레바논을 방문

우리 나라 녀맹대표단 제4차웰남녀성대회에 참가

우리 나라 정부무역대표단 방글라데슈를 방문

3월

우리 나라 집단체조대표단 우간다를 방문

우리 나라 정부문화대표단 꾸바를 방문

우리 나라 체육대표단 이란에서 진행된 아세아경기련맹리사회에 참가

우리 나라 농업기술대표단 중국을 방문

조선건축가동맹대표단 인도에서 진행된 국제건축가동맹 제45차회의에 참가

우리 나라 무역대표단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

우리 나라 력기선수단 쏘련에서 진행된 국제력기경기대회에 참가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대표단 쏘련, 유고슬라비아를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쏘련을 방문

조선 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대표단 이라크에서 진행된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제11차회의에 참가

우리 나라 체조선수단 쏘련에서 진행된 국제체조경기대회에 참가

우리 나라 격검선수단 뽈스까를 방문

우리 나라 사로청대표단 리비아에서 진행된 전아프리카청년운동 제4차대회에 참가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파키스탄을 방문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탁구협회대표단 일본 요꼬하마에서 열린 제2차아세아탁구련맹총회에 참가

우리 나라 녀자배구선수단 웽그리아에서 진행된 국제녀자배구경기대회에 참가

4월

우리 나라 정부무역대표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타이를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이란을 방문

국제의회동맹리사회 제114차회의에 참가할 의회그루빠대표단 로므니아를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버마를 방문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 모리따니를 방문

우리 나라 외교부대표단 잠비아를 방문

우리 나라 정부무역대표단 말레이시아를 방문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 기네를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시에라 레온을 방문

우리 나라 외교부대표단 아르헨띠나를 방문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 알제리를 방문

우리 나라 사로청대표단 쏘련레닌공청17차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쏘련을 방문

평양교예단 애급과 수리아를 방문

우리 나라 정부무역대표단 인도네시아를 방문

우리 나라 외교부대표단 핀란드를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부룬디를 방문

우리 나라 외교부대표단 이슬란드를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르완다공화국을 방문

우리 나라 외교부대표단 노르웨이를 방문

우리 나라 모형항공선수단 국제모형항공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

조선인민군 속도권총사격선수단 독일민주주의공화국에서 진행된 사회주의나라군대 속도권총사격선수권대회에 참가

우리 나라 정부무역대표단 타이를 방문

우리 나라 외교부대표단 스웨리예를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말리를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인도, 뽈스까를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리베리아를 방문

우리 나라 외교부대표단 단마르크를

방문

우리 나라 외교부대표단 리비아를 방문

우리 나라 외교부대표단 페루, 에꽈도르, 빠나마를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네팔을 방문

5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뽈스까를 방문

우리 나라 녀맹대표단 뽈스까에서 진행된 국제민주녀성동맹 뷰로회의 및 리사회에 참가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로므니아를 방문

우리 나라 녀성대표단 일본총평제19차 근로녀성중앙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일본을 방문

우리 나라 로동청년신문사대표단 프랑스를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핀란드를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웽그리아를 방문

우리 나라 외교부대표단 니제르를 방문

우리 나라 정부경제대표단 마로끄를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꼬스따 리까를 방문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 수단을 방문

우리 나라 경공업로동자직맹대표단 웽그리아와 쏘련을 방문

우리 나라 미술가동맹대표단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자이르를 방문

우리 나라 과학문화대표단 일본을 방문

우리 나라 화학공업로동자직맹대표단 벌가리아를 방문

우리 나라 외교부대표단 가이아나를 방문

조선로동당대표단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제10차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유고슬라비아를 방문

우리 나라 은행대표단 몽골을 방문

우리 나라 기자동맹대표단 벌가리아를 방문

우리 나라 기관차탁구선수단 뽈스까를 방문

우리 나라 외교부대표단 온두라스와 베네수엘라를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콩고인민공화국을 방문

6월

우리 나라 건축가동맹대표단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

우리 나라 공업기술총련맹 전기통신및전자공학협회대표단 벌가리아와 웽그리아를 방문

우리 나라 사로청대표단 뽈스까를 방문

우리 나라 군사대표단 애급을 방문

우리 나라 압록강축구선수단 중국을 방문

조선소년지도일군대표단 로므니아를 방문

우리 나라 미술가동맹대표단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

우리 나라 집단체조대표단 잠비아를 방문

조선청년대표단이 수단을 방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대표단 프랑스를 방문

우리 나라 조쏘과학기술협조상설분과위원회대표단 쏘련에서 진행된 제8차회의에 참가

조선국제보험회사대표단 자이르를 방문

우리 나라 군사대표단 수리아를 방문

우리 나라 정부무역대표단 파키스탄을 방문

우리 나라 농근맹대표단 끼쁘로스를 방문

우리 나라 기자동맹대표단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

조선조각가대표단 중국을 방문

조선중앙통신사대표단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

우리 나라 군사대표단 탄자니아를 방문

우리 나라 외교부대표단 라오스를 방문

7월

우리 나라 사로청대표단 알제리에서 열린 제3세계청년대회에 참가

우리 나라 사로청대표단 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맹창건 20돐기념행사에 참가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 벌가리아, 뽈스까를 방문

조선로동당대표단 쏘련을 방문

우리 나라 외교부대표단 월남민주공화국을 방문

조선학생위원회대표단 아세아에서의 빈궁과 실업에 관한 쎄미나르와 아세아학생협회 제4차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오스트랄리아를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이라크를 방문

우리 나라 녀맹대표단 민주예멘녀성총동맹 제1차대회에 참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대표단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

우리 나라 농근맹대표단 수리아를 방문

조선기자대표단 이라크를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조쏘정부사이의 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11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쏘련을 방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대표단 뽈스까를 방문

우리 나라 해운부장 일행 쏘련을 방문

압록강축구선수단 중국을 방문

우리 나라 군사대표단 탄자니아를 방문

우리 나라 경제대표단 벌가리아를 방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대표단 벌가리아를 방문

우리 나라 기자대표단 꾸바를 방문

우리 나라 기자동맹대표단 수리아를 방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대표단 뽈스까를 방문

우리 나라 사로청대표단 알제리를 방문

우리 나라 사로청대표단 탄자니아를 방문

우리 나라 사로청대표단 수단을 방문

8월

우리 나라 활쏘기선수단 중국을 방문

조선학생위원회대표단 알제리에서 진행된 팔레스티나학생총동맹 제7차전국대회에 참가

우리 나라 기상수문대표단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 진행된 사회주의나라 기상수문국장 제5차회의에 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로므니아에서 진행된 세계인구대회에 참가

우리 나라 대표단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무역개발회의 제14차리사회에 참가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 녀맹대표단, 조선청년학생대표단 로므니아해방 서른돐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이 나라를 방문

우리 나라 체육대표단 이란에서 열린 제7차아세아경기대회에 참가

2.8남녀탁구선수단 중국을 방문

과학기술통보대표단 쏘련을 방문

조선로동당대표단 이딸리아공산당기관지 《우니따》창간쉰돐기념축전행사에 참가

《로동신문》기자대표단 로므니아를 방문

우리 나라 보건대표단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세아지역 제27차총회에 참가

9월

사로청대표단 벌가리아를 방문

조선영화대표단 로므니아를 방문

조선영화대표단 쏘련을 방문

조선영화대표단 웽그리아를 방문

조선영화대표단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

황해북도 축구선수단 쏘련을 방문

평양시 물에뛰여들기선수단 쏘련을 방문

우리 나라 기자동맹대표단 몽골에서 열린 국제기자동맹 상무위원회에 참가

우리 나라 농근맹대표단 뽈스까에서 열린 국제농업, 산림및재배로동자직맹 지도위원회 제3차회의에 참가

조선공업기술총련맹 륙운및해운협회대표단 프랑스에서 진행된 제2차교통조종과 운수체계에 대한 국제학술토론회에 참가

조중친선협회대표단 중국을 방문

조선수리아친선협회대표단 수리아를 방문

우리 나라 농업과학원대표단 로므니아를 방문

우리 나라 의회그루빠대표단 일본에서 열린 국제의회동맹 제61차총회에 참가

조선혁명박물관대표단 쏘련을 방문

조선로동당 휴양단 유고슬라비아를 방문

10월

우리 나라 과학원대표단 로므니아를 방문

우리 나라 화학공업대표단 벌가리아를 방문

우리 나라 산부인과학대표단 벌가리아를 방문

조선중앙통신사대표단 중국을 방문

우리 나라 정부경제대표단 또고를 방문

우리 나라 기자대표단 알바니아를 방문

우리 나라 정부무역대표단 벌가리아, 알제리, 이라크를 방문

우리 나라 녀맹대표단 웽그리아를 방문

조선인민군출판기관대표단 로므니아를 방문

조선공업기술총련맹 륙운및해운협회대표단 프랑스를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잠비아를 방문

조선중앙통신사대표단 뽈스까를 방문

우리 나라 경제대표단 또고를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뽈스까를 방문

《로동신문》책임주필 일행 로므니아를 방문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 서독에서 진행된 철도로동자직맹국제쎄미나르에 참가

조선공업기술총련맹광업협회대표단 뻬루를 방문

조선건축가대표단 꾸바를 방문

우리 나라 유술선수단 꾸바에서 열린 국제유술경기대회에 참가

우리 나라 녀맹대표단 웽그리아에서 진행된 세계녀성대회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회의에 참가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 알제리를 방문

11월

우리 나라 사로청대표단 벌가리아에서 진행된 세계민주청년련맹 제9차대회에 참가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 알제리혁명개시 20돐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이 나라를 방문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 쏘련을 방문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 중국을 방문

우리 나라 대표단 프랑스에서 진행된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제18차총회에 참가

우리 나라 녀맹대표단 웽그리아를 방문

우리 나라 과학기술협조대표단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

우리 나라 정부군사대표단 알제리혁명개시 스무돐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이 나라를 방문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의 조선에 관한 문제토의에 참가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미국에 체류

조선로동당대표단 부룬디를 방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잠비아를 방문

조선음악가대표단 로므니아를 방문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 벌가리아를 방문

12월

우리 나라 농업과학원식물보호부문과학자대표단 쏘련을 방문

조선중앙방송위원회대표단 유고슬라비아를 방문

조선로동당대표단 로므니아공산당 제11차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 나라를 방문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 알바니아해방 및 인민혁명승리 서른돐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이 나라를 방문

조선중앙통신사대표단 유고슬라비아를 방문

우리 나라 체육대표단 중국을 방문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 유고슬라비아를 방문

우리 나라 교육 및 문화대표단 이란을 방문

조선영화인동맹대표단 쏘련을 방문

조선정부무역대표단 웰남민주공화국을 방문

평양예술단 싱가포르를 방문

조선중앙통신사대표단 쏘련을 방문

우리 나라 정부무역대표단 중국을 방문

조선로동당대표단 콩고로동당 제2차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 나라를 방문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 로므니아를 방문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 알바니아를 방문

우리 나라 혁명박물관대표단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

우리 나라 경제대표단 다오메를 방문

1974년에 우리 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

1. 만국우편동맹 (1974년 5월 29일)
2.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1974년 10월 17일)
3. 국제원자력기구 (1974년 9월 16일)
4. 국제발명및저작권소유기구 (1974년 8월 17일)
5. 국제법제계량기구 (1974년 5월 9일)
6. 국제정구련맹 (1974년 7월 12일)
7. 국제바드민톤련맹 (1974년 7월 1일)
8. 국제송구련맹 (1974년 10월 7일)
9. 아세아아프리카법률협상위원회 (1974년 3월 15일)
10. 아세아경기련맹 (1974년 3월 9일)
11. 아세아사격련맹 (1974년 9월 1일)
12. 아세아격검련맹 (1974년 9월 2일
13. 아세아자전거련맹 (1974년 9월 3일)
14. 아세아권투련맹 (1974년 9월 4일)
15. 아세아체조련맹 (1974년 9월 7일)
16. 아세아아마츄어수영련맹 (1974년 9월 7일)
17. 아세아송구련맹 (1974년 9월 13일)
18. 아세아축구련맹 (1974년 9월 13일)
19. 아세아체육기자협회 (1974년 9월 14일)
20. 아세아바드민톤련맹

※1974년 현재 우리 나라가 가입하고있는 국제기구는 총 139개

《77개국집단》

《77개국집단》은 제국주의의 통제, 착취와 략탈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점차 형성되고 발전된 제3세계나라들의 집단이다.

1964년 제네바에서 열렸던 유엔무역개발회의 제1차회의에서 발전도상에 있는 77개 나라들과 지역이 련합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77개국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77개국집단》은 1974년 유엔총회 제6차 특별회의에 앞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울데 관한 행동강령》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준비사업을 하였다.

반제자주를 위한 제3세계나라들의 투쟁이 심화됨에 따라 그 성원국은 늘어나 지금은 100여개 나라로 되였다. 그러나 《77개국집단》이라는 이름은 계속 써오고있다.

알루미니움생산국협회

1974년 3월 5일부터 8일까지 알루미니움생산국 국제회의가 기네의 수도 꼬나크리에서 있었다.

회의에서 알루미니움생산국들의 경제적리권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알루미니움생산국협회를 창설할것을 결정하였다.

이 협회에는 자메이커, 가이아나, 수리남, 기네, 오스트랄리아, 가나, 도미니까 등 10개국이 참가하고있다.

상설기구는 자메이커의 수도 킹스톤에 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신흥세력이 힘있게 전진하는 자주 자립의 새 시대

1974년도 국제정세 개관

1974년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시대의 위력한 신흥세력인 제3세계인민들이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더욱 당당히 등장하여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며 국제무대에서 그의 거대한 힘과 영향력을 힘있게 시위한 력사적인 한해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광휘로운 길을 따라 힘있게 전진하는 제3세계나라들의 반제자주, 새 생활 창조를 위한 투쟁의 파도가 세차게 굽이침으로써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지구우의 보다 좁은 판도에 몰려들어갔다.

이해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전례없는 연료 및 동력 위기, 생산의 감퇴, 식량위기 등에 부딪쳐 일대 아우성을 치며 더욱더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갔다.

1974년의 국제정세총화는 우리 시대, 주체시대에 신흥세력이 인류력사를 전진시키는 커다란 추동력으로써 승승장구하며 자기 시대를 다 산 제국주의는 계속 내리막선을 그으며 반드시 멸망한다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움직일수 없는 진리를 객관적현실로써 뚜렷이 확증해주었다.

영생불멸의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제3세계는 인류력사를 전진시키는 커다란 추동력

천재적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3세계나라들은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 새로 독립한 나라들이며 이 나라들은 지난날 다같이 제국주의자들의 압박과 착취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제3세계나라들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용감하게 투쟁하고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단행본, 27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제3세계는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새로운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한 신흥정치세력으로서 우리 시대의 위대한 반제혁명력량이며 인류력사를 전진시키는 커다란 추동력이다.

지금 제3세계에는 100여개 나라가 속하여있다.

제3세계인민들은 위대한 주체사상,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와 온갖 형태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민족적해방과 나라의 자주적발전의 력사적위업을 수행하고있다.

또한 사회적 진보와 번영을 이룩하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끝장내고 제국주의가 없는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찬란한 빛발을 뜨겁게 받아안은 제3세계 많은 나라들은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은 자기자신이며 민족의 존엄과 번영은 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자신의 힘으로써 지키고 쌓아올려야 한다는 신념을 굳게 가지고 외세의존과 사대주의사상을 배격하며 자력갱생의 원칙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있다.

제3세계인민들은 날이 갈수록 자주성은 매개 민족의 양도할수 없는 권리이며 자주성이 있어야 민족의 행복이 있고 영예가 있으며 자주성을 가진 민족이라야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 진리를 절실히 깨닫고있다.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주체사상과 자주성의 원칙을 국가활동의 지도적원칙으로 삼고있다.

특히 1974년에 제3세계의 알제리, 캄보쟈, 세네갈, 또고, 모리따니, 수리아, 민주예멘, 자이르의 국가수반들을 비롯한 높은 급의 당및정부대표단, 권위있는 출판계대표단 등 크고 작은 1천 231개 대표단의 주체조선 방문을 통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세계 모든 지역에 주체의 찬란한 기치가 더욱 힘있게 나붓기고 전세계적판도우에 자주성의 목소리가 보다 세차게 울려퍼져갔으며 주체의 혈맥은 세계 수많은 진보적인민들속에 뜨겁게 잇닿아졌다.

하여 1974년에 제3세계나라 인민들은 완전한 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힘있게 일떠섰으며 대내적으로뿐아니라 대외관계와 국제무대에서도 민족의 자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아갔다.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민족적독립을 쟁취한 제3세계나라들에서는 1974년에 국내에서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외래제국주의와 그와 결탁한 국내 반동세력들의 파괴책동을 물리치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낡은 식민지통치기구를 짓부시고 제국주의의 정치경제적지반을 청산하며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진보적인 사회제도를 세우며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갔다.

그것은 제3세계나라들에서 제국주의 나라들과의 외교관계의 단절, 제국주의독점회사들의 국유화와 그의 각종 리권의 제한과 박탈, 제국주의 군사고문단의 추방과 군사기지의 철폐, 제국주의의《원조》의 거부와 자본투자의 제한, 자체의 원료가격의 인상, 석유수출의 제한과 금지, 외교사절의 탈을 쓴 제국주의정탐배들과 파괴암해분자들의 적발과 추방, 제국주의의 영화상영과 출판물수입의 금지, 200마일령해권선포와 해상자원의 보호를 위한 법령발포, 령해와 국가주권을 침범하는 제국주의해적선과 강도들에 대한 단호한 제재 등 여러가지 반제조치들을 취한데서 여실히 표현되였다.

제3세계나라들은 나라의 자주독립의 물질적기초인 자립적인 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기 나라 경제에 대한

제국주의, 식민주의 예속의 흔적을 없애며 민족경제의 토대를 축성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제3세계나라들에는 풍부한 자원이 있으며 무궁무진한 생산잠재력이 있다.

발전도상에 있는 아프리카나라들은 풍부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통치와 략탈로 하여 대부분 공업발전이 미약한 뒤떨어진 농업국가들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1974년에 이 나라들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완전히 청산하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자체의 민족공업을 창설하고 발전시키며 민족교육과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1월말 쿠웨이트정부는 미영합영회사주권의 60%를 국가의 통제밑에 넣었으며 2월에 또고정부는 나라의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린산염을 거머쥐고있던 제국주의광업회사를 국유화하였다.

또한 3월말에 리비아는 서방제국주의원유회사를 국유화하였으며 나이제리아, 잠비아, 다오메, 부룬디, 콩고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자기 나라의 자연부원을 가혹하게 략탈하여 살쪄온 제국주의독점체들을 국유화하였다.

알제리인민은 공업혁명, 토지혁명, 문화혁명의 세가지 구호를 들고 투쟁함으로써 새로 독립한 나라들의 선구자적역할을 하고있다.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은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소말리아에서는 《에스까와 우감소》, 자이르에서는 《오땅떼씨떼》, 모리따니에서는 경제의 《모리따니화》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서 경제와 사회문화의 《아프리카화》, 《아랍화》의 방침과 구호밑에 각기 자기 나라식 민족경제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지난날 《식민지대륙》, 《암흑의 대륙》으로 불리우던 아프리카대륙이 오늘은 자유와 해방의 광명으로 빛나는 새로운 대륙으로 전변되여가고있다.

미제가 오래동안 《고요한 뒤동산》으로 부르며 자연부원을 무제한하게 략탈하여 배불려오던 라틴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 페루, 빠나마, 에꽈도르, 아르헨띠나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미제독점체들을 원료산지들에서 내쫓고 나라의 리권을 되찾아내였으며 200마일 령해와 경제수역을 지키기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하였다.

베네수엘라는 5월에 정부의 부장들과 여러 정당, 로조, 상공업계 대표들이 참가하는 석유국유화위원회를 구성한후 이어 7월에 1983년에 가서야 외국의 통제밑에 있는 석유공업을 국유화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집행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에꽈도르정부는 외국석유회사로부터 징수하는 세액을 높이기로 결정하였을뿐아니라 10월 1일부터 석유제품을 통제하는 국내판매를 시작하였다.

빠나마인민은 지난 70여년동안 이 나라안에 《나라안의 나라》를 만들어놓고 수십억원의 막대한 리윤을 짜내던 빠나마운하와 운하지대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략탈을 끝장내기 위한 완강한 투쟁을 벌림으로써 1974년 2월에는 가까운 앞날에 이 운하를 되찾을수 있는 8개 항목의 《빠나마운하 선언》에 미제가 도장찍게 하는데까지 이르렀다.

1974년에 반제자주를 위한 제3세계인민들의 투쟁에서 정치적 협조와 단결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3세계나라들이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렬강들이 국제문제들을 일방적으로 자기들에게만 리롭게 결정하고 처리하던 낡은 질서를 깨여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수 있으며 모든 문제를 제3세계인민들과 평화애호인민들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해나갈수 있습니다.》

(《페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12페지)

주체사상을 신조로 삼고 자주적발전을 지향하고있는 제3세계인민들의 이 사상정신적공통성은 제3세계나라들과 인민들을 하나의 뉴대로 단결시키는 튼튼한 기초로 된다.

주체사상에 기초함으로써 제3세계나라들은 최대한의 단결을 실현하고있으며 또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단결함으로써 제3세계나라 인민들의 단결이 공고한것으로 되고있다.

1974년에 제3세계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굳게 통일단결되여 나라의 정치적자주권을 수호하며 낡은 국제관계체계와 질서를 뜯어고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1974년 2월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회교국가제2차수뇌자회의, 3월에 알제리에서 열린 쁠럭불가담국가상설외교부장회의, 6월에 소말리아에서 진행된 제11차아프리카통일기구국가및정부수뇌자회의, 10월에 진행된 아랍국가수뇌자회의, 12월에 진행된 라틴아메리카 8개국수반들의 리마회의와 6개 나라 수반들의 가이아나회의 등 수많은 국제회의들에서 제3세계나라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수많이 제기되였으나 그때마다 투쟁의 예봉을 미제에게 돌려 국제무대에서 그놈들의 침략책동을 저지, 파탄, 고립시키기 위한 공동의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알제리에서 17개 나라 외교부장들의 참가밑에 진행된 쁠럭불가담국가상설회의와 회교국가제2차수뇌자회의 등에서는 중근동에서의 평화를 위하여 이스라엘침략자들과 정치, 경제, 문화관계 등을 즉시 끊고 유엔전문기관들에서 이스라엘놈들을 지원하는 나라들에 가능한 모든 압력을 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회의 결정에 따라 아프리카와 중근동의 수십개 나라들이 이스라엘놈들과 외교관계를 끊고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아랍나라들의 투쟁에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주었으며 10월 빠리에서 진행된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회의에서는 이스라엘놈들을 이 기구의 구라파지역그루빠에서 축출할데 대한 결의까지 채택하였다.

특히 제29차유엔총회에서는 제3세계나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의사와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11월 12일 유엔에서 남아프리카인종주의정권의 발언권과 결의권을 박탈함으로써 사실상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을 유엔무대에서 축출하였다. 또한 11월 23일회의에서 팔레스티나인민의 합법적권리를 인정하고 팔레스티나해방조직에 유엔옵써버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팔레스티나의 해방위업에 새로운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았다.

1974년에 제3세계나라들은 미제의 침략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제3세계나라들간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렸다.

42개 나라 국가및정부수반들이 참석한 제11차아프리카통일기구수뇌자회의, 아랍국가수뇌자회의 그리고 35개 나라 외교부장들이 참가하여 진행한 제5차회교국가외교부장회의들에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 아프리카에서 감행하는 침략행위를 규탄하고 아프리카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모든것을 다하여 지지할데 대한 성명과 비식민지화에 관한 결의, 아랍, 아프리카나라들간의 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결의를 비롯하

여 여러가지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아야꾸쵸》전투 150돐기념 8개 나라 공동준비위원회에 참가한 라틴아메리카나라 대표들은 미제의 식민주의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호상 지지하고 협력할데 대한 의견을 같이하였다.

새생활창조를 위하여서는 제3세계 인민들이 정치적단결을 강화할뿐아니라 경제적협조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3세계나라들은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여 정치적자주성과 함께 하루빨리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난날에는 몇몇 강대국들이 세계에서 주인행세를 하였지만 이제는 세계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제3세계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되여야 합니다.》 (《빠나마기자대표단과 한 담화》, 단행본, 21～22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제3세계나라들이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경제교류와 기술적협조를 강화하여나가는것은 강대국들의 신세를 지지않고 나라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며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그러므로 제3세계나라들은 정치적으로 단결할뿐아니라 경제, 기술, 문화의 모든 면에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지난날 제3세계나라들은 지구륙지 면적의 71%에 달하는 넓은 지역에 풍부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었으나 그것을 깡그리 식민주의자들에게 략탈당하였다. 미제만하여도 제3세계나라들에 2천여개의 독점회사들을 침투시키고 1만여개의 기간공업을 통제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정치적예속과 경제적략탈에 불만을 품고 항거해 일떠선 제3세계나라들은 1974년에 제국주의자들이 자기들의 략탈에 유리하게 만들어놓은 낡은 규범들과 경제질서들을 뜯어고치기 위한 공동의 투쟁을 벌리였다.

1974년 5월 원료 및 개발문제에 관한 제6차유엔총회특별회의에서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각종 압력과 공갈을 박차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수립에 관한 선언》과 《행동강령》을 채택하였으며 6월부터 8월까지 10주간에 걸쳐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제3차유엔해양법회의에서 제3세계나라대표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종래의 낡은 해양법대신에 공평하고 합리적인 새로운 해양법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결과 회의에서 제3세계나라들은 령해권문제를 비롯한 《해협문제》와 바다의 《자원문제》에서 연안국들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유엔제29차총회 제2위원회에서는 제3세계의 92개 나라가 공동으로 작성한 《모든 나라의 외국사람들의 재산의 국유와, 몰수 및 소유권이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의 《경제적권리 및 특전에 관한 헌장》을 채택하였으며 유엔헌장을 뜯어고칠데 대한 알제리를 비롯한 33개의 나라들이 제기한 《유엔헌장심의》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 제30차유엔총회에 새 헌장내용을 작성하여 보고하게 될《유엔헌장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밖에도 1974년 3월 기네에서 진행된 보크사이트생산국들의 회의, 5월 꼬스따 리까에서 진행된《커피생산국들의 회의, 6월에 꼴롬비아에서 진행된 바나나수출국가회의 등 수많은 국제회의들에서 제3세계나라들은 호상 협력하여 제국주의자들의 략탈행위에 공동으로 대항해나섰다.

여기에서 특히 1974년 6월 제네바에서 진행된 19개국대표들의 철광석생산 및 수출에 관한 회의에서는 철광석분야에서 석유수출기구와 같은 련합을 창설하며 철광석의 시장가격을 높일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철광석수출기구를 창설할 준비위원회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뻬루에서 54개국 대표들의 참가밑에 진행된 제8차세계광업대회에서 제3세계나라 대표들은 미제의 파렴치한 략탈행위를 폭로규탄하고 그에 대처하여 원료생산국들의 통일행동을 강화할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1974년에 중근동 및 아랍나라들은 미제를 우두머리로하는 서방자본주의나라들과 제국주의자들의 석유수출국가들에 대한 압력을 물리치기 위한 공동투쟁을 벌리였다.

1월에 중근동 및 아랍의 석유수출국들은 자기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석유소비국블럭을 형성하려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흉계에 대처하여 제네바에서 석유수출기구 비상회의를 가지고 석유를 무기로 하는 투쟁을 계속 견결히 진행할것을 토의하였다. 또한 2월에 알제리, 애급, 사우디 아라비아, 수리아 4개국 수뇌자회의에서는 대미석유수출금지, 석유가격의 인상 등 문제를 토의하였다.

12월에 베네수엘라 과야나시에서 열린 중미주나라 제1차수뇌자회담에서는 베네수엘라와 과떼말라, 온두라스, 살바도르, 꼬스따 리까, 니까라과 및 빠나마와의 경제협조를 넓힐 문제를 토의하며 동력위기와 관련하여 중미주나라들이 겪고있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조치를 취하며 커피와 기타 수출품 혹은 원료상품가격을 수호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였다.

1974년 11월에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브라질, 꼴롬비아, 꼬스따 리까, 과떼말라, 온두라스, 메히꼬, 니까라과, 살바도르 및 베네수엘라 등 나라들이 커피의 공정한 가격을 보호하기 위한 다국가기구를 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라틴아메리카 20개 사탕수출국들은 11월 27일 메히꼬의 작은 섬인 이꼬수멜에서 국제사탕가격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를 창설하였다.

이 기구는 앞으로 사탕생산을 조절하고 사탕수입국들이 사탕가격을 결정하게 할것이 아니라 매개 사탕생산국들이 자기 자체의 가격을 설정하게 하며 한 공동전선을 통하여 사탕가격을 조정하려 하고있다.

라틴아메리카는 미제의 《고요한 뒤동산》이 아니라 《혁명의 동산》으로 전변돼가고있다.

세계인구의 3분의 2이상을 망라하는 지구령토의 70%이상되는 지역에 제3세계가 형성되고 그 영향력이 강화됨으로써 제국주의의 지배령역과 세력권은 비할바없이 줄어들었다. 제국주의의 자본투하지와 판매시장, 원료원천지, 군사적관할지역, 정치적영향지역 등이 급격히 축소되였다.

1974년에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통치밑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오랜 기간의 투쟁끝에 민족적독립을 쟁취하였다.

아프리카에서 기네―비싸우가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로부터 독립하여 새생활 창조의 길에 들어선데 뒤이어 모잠비끄, 산토메 프린시페, 베르데갑제도, 앙골라, 꼬모르인민들이 수백년의 식민지통치로부터 독립에 관한 협정을 성취하였다.

짐바브웨, 나미비아, 아자니아 인민들도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서 밝은 전망을 가지게 되였다.

이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영제국주의의 식민지였던 그레네이더가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였다.

제반 사실은 우리 시대의 주류를 이루고있는 제3세계인민들이 국제무대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전반적국제관

계발전에 결정적영향력을 미치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이 이 위력한 력량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략탈하던 시기가 영영 지나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3세계나라들의 강화와 그의 반제자주적인 발전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체계를 종국적인 붕괴에로 이끌어가고있으며 이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의 세기적인 지배와 억압에 끝장을 내고있다.

제국주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 더는 《안전한 후방》도, 《세습령지》도, 《공고한 지탱점》도 가질수 없게 되였을뿐아니라 쫓겨나고있다.

자본주의세계를 휩쓴 심각한 경제, 정치적위기

1974년에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제3세계의 힘찬 진출과 그로부터의 강력한 타격에 의해서뿐아니라 제국주의의 고유한 경제, 정치적 위기로 하여 허우적거렸으며 더욱더 멸망의 운명에 빠져들어갔다.

이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전례없는 심각한 경제적위기에 빠져 허덕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제국주의세계는 제2차세계대전이래 가장 심각한 경제파동을 겪고있으며 전면적인 위기에 부닥쳐 더욱더 허덕이고있습니다.》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단행본, 8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제국주의세계를 휩쓸고있는 경제위기는 생산의 감퇴, 연료 및 동력위기, 식량위기 등 경제전반을 휩쓸고있으며 그것은 폭과 깊이에 있어서 전례가 없는것이다.

중동석유수출국들의 계속되는 강경조치로 미제를 비롯한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은 1974년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심한 연료위기를 겪었으며 이것은 동력을 비롯한 경제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였다.

그리하여 1974년에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생산은 더욱더 떨어졌으며 경제는 더욱 큰 내리막선을 그었다.

여기서 무엇보다 미국의 공업이 심히 감퇴되였다. 1974년에 미국경제의 《3대기둥》을 이룬다는 자동차공업은 그 전해에 비하여 2배나 되는 27%, 강철공업은 13%, 건설공업은 80.5% 각각 떨어졌다.

같은 기간 미국의 큰 자동차독점회사들인 《제네랄 모터스》회사의 생산량은 31.5%, 《크라이슬러》회사의 생산량은 11.7%, 《아메리칸 모터스》회사의 생산량은 1.3% 각각 줄어들었다.

한편 1974년에 미국에서 자동차판매량은 1973년에 비하여 약 23% 줄었다. 이와 같은 자동차판매량의 감소는 제2차세계대전후 미국자동차회사들이 대규모적인 파업으로 심한 위기를 겪었던 1959년이래 가장 대폭적인 감소이다.

경제의 《3대기둥》에서 위기가 심화됨으로써 미국경제의 전반적위기를 가일층 첨예화시키였다.

영국에서도 제2차세계대전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었다. 연료위기로 하여 영국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한주일에 3일간씩밖에 일할수 없는 소동이 벌어졌다.

프랑스에서도 그 위기는 매 한가지였다.

1974년의 첫 9개월동안에 프랑스의 공업생산은 6%, 그 가운데서 자동차생산은 30% 줄었으며 1974년 11월 자동차판매량은 전해 같은 기간보다 24%나 줄어들었다.

제2차세계대전후 이른바 《경제의 고도성장》을 부르짖으면서 《경제대국》의 과대망상증에 걸려 날치던 일본도 경제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다.

전후 7번째로 겪는 일본의 경제위기는 전기, 조선공업, 자동차, 기계, 화학, 건축, 강철 등 주요공업부문을 사정없이 휩쓸고있다. 1974년 첫 10개월간 일본의 공업 및 광업 생산은 1973년 12월에 비하여 11.7%, 강철생산은 1974년 9월에 전해 같은 기간보다 9.4%, 자동차생산은 1974년에 전해 같은 기간보다 8.6%, 기계와 방직 부문의 생산은 1974년 8월현재 전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5.3%, 40%로 떨어졌다.

심도 깊고 폭넓게 지속되는 연료 및 동력 위기로 하여 1974년에 미국을 비롯한 전반적자본주의나라들에서 기업이 무리로 파산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례컨대 1974년 첫 10개월동안에 미국에서 기업파산건수는 8천 200건으로서 이것은 1973년의 같은 기간의 기업파산건수에 비해 6% 더 많았다.

기업파산수는 영국에서 1974년 첫 9개월간에 3천960개, 1974년 한해동안에 프랑스에서는 2천700개, 일본에서는 1만 1천 186개나 되였다.

심각한 연료 및 동력 위기로 공장들이 무리로 불완전조업, 페업, 파산됨으로써 수많은 로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 밀려나갔다.

그리하여 1974년말—1975년초 현재 실업자수는 미국에서 750만명, 1974년에 프랑스에서 120만명, 서독에서 125만명, 일본에서 106만명, 카나다에서 81만 7천명, 에스빠냐에서 25만여명, 벨지끄에서 21만 8천명, 화란에서 20만 6천명, 아일랜드에서 10만명에 이르렀다.

여기서 특히 청년들이 실업대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는것이 주목된다. 청년실업자는 1974년에 미국에서 16.2%, 서독에서 21%, 아일랜드에서 125%, 화란에서 61%, 프랑스에서 41% 각각 늘어났다.

1974년에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은 생산의 만성적침체와 심한 감퇴를 나타내였을뿐아니라 대외국제수지에서도 엄청난 적자를 내였다.

1974년에 미제는 무역에서 1973년에 비하여 2.3배나 더 많은 180억딸라의 적자를 냈으며 영국은 51억 9천만파운드의 무역적자를 냈다.

프랑스는 국제수지적자 300억프랑, 그중 무역적자는 190억프랑을 냈다. 이딸리아는 1973년보다 2배이상인 무려 5조리라에 달하는 국제수지적자를 냈으며 서독은 1974년 첫 9개월동안에 13억마르크의 국제수지적자를 냈다.

《구라파자유통상지대》에 속한 나라들의 무역적자는 1974년에 1973년보다 거의 2배나 늘어나 44억파운드에 달하였다. 일본은 1974년 3월 31일에 끝난 1973회계년도에 대외무역에서 52억 5천만딸라의 적자를 냈다. 또한 국제수지적자총액은 134억 5천만딸라의 기록적수자에 달하였다.

생산의 감퇴, 대외국제수지에서의

기록적인 적자를로 하여 미국을 비롯한 전반적자본주의나라들에서 금이 고갈되고 커다란 빚더미우에 올라앉았다. 1974년 6월말현재 미제는 4천 800억딸라, 1974년현재 프랑스는 85억딸라, 이딸리아는 109억딸라의 대외빚을 걸머졌다. 1974년 단 한해동안에 영국이 진 빚은 30억딸라나 된다.

여기에 또한 서방시장들에서 금값이 뛰여오르고 딸라시세가 폭락하여 혼란이 계속 벌어지고있다.

1974년 12월 30일 1온스당 금값이 빠리시장에서 200딸라, 런던금융시장에서 198딸라, 쮜리히금융시장에서 197딸라 뛰여올랐다.

서구라파금융시장들에서 1온스당 금값은 공식적인 가격보다 거의 5배 비쌌다.

금값이 뛰여오르는 반면에 미국의 딸라시세는 계속 폭락하였다.

빠리, 프랑크푸르트, 브류쎌 등 여러 외환시장들에서 딸라시세가 폭락하였다.

서독의 외환시장에서 1974년 12월 22일에 1딸라가 243마르크로 교환되였다면 30일에는 240마르크로 떨어졌다.

자본주의세계전반을 휩쓴 이러한 경제위기는 서방자본주의 나라들 호상간의 모순과 알륵을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도 빚어내였다.

이 모순과 알륵은 무엇보다도 미국과 그에 대치한 프랑스를 비롯한 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간의 개싸움에서 표현되였다.

심각한 연료 및 동력위기로 하여 궁지에 빠진 미제는 그 무슨《해결책》이라도 찾아볼듯이 제놈들이 주동이 되여 1974년 2월에 9개 석유소비국회의, 5월에 5개 석유소비국회의 등을 부랴부랴 벌려놓았다.

미제는 9개국 외교부장회의에서 석유문제를 전문으로 다룰 《위원회》를 내오고 이 위원회의 통제밑에 석유에 대한 생산, 분배, 소비 그리고 가격문제 등을 조절하는 《권한》을 주는 내용의 그 무슨《문건》을 꾸며내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은 미제의 이 《제안》에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석유생산국들과 대결을 가져올수 있는 문제를 토의하지 말것을 완강히 주장해나섰다. 이러하여 1974년 1월 중순에 미제가 석유소비국들에 보낸 《토의안건》은 예비회의에서 부결되고말았다.

그러자 미제는 석유문제와 관련한 일체 권한을 가지는 《석유위원회》를 석유소비국만으로 조직하자고 주장해나섰다. 그러나 프랑스는 그것 역시 반대하면서 석유문제는 유엔에서 취급되여야 한다고 들이대였다. 석유생산국들과의 관계문제와 관련하여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이 석유소비국들과 《쌍무적협정》을 체결할 권리를 주장해 나선데 대비하여 미제가 그것을 반대하고 석유소비국들사이의 《협조》만을 고집함으로써 모순은 더욱 첨예화되였다. 석유문제에 관한 미국—프랑스간의 대립 그리고 석유문제를 둘러싼 개싸움은 년중 계속되였다.

12월 9일부터 빠리에서 진행된 이씨(구라파공동체) 우두머리들의 회의는 석유소비국으로서의 프랑스와 그 밖의 이씨 8개나라의 립장조정을 둘러싼 개싸움을 더욱더 격화시켰으며 성원국들간의 내부모순을 심화시켰다.

석유생산국과 소비국간의 관계문제를 둘러싸고 미제와 프랑스는 더욱 대립되였다. 미국은 석유생산국과 소비국간의 대화가 있기전에 공업국가들이 석유가격의 인하를 위해 블럭을 형성할것을 들고나왔으나 프랑스는 석유생산국들과의 대결을 가져올지 모르는 석유소비국들의 카르텔 비슷한것을 형성하는데 우려를 표시하였다.

다른 한편 1974년에 경제위기에 직면한 구라파 자본주의나라들은《구라파공동체내에서 영국의 공동체가입조건문제》를 둘러싸고 프랑스와 영국간에, 그리고 구라파공동체안의 《지역개발기금창설》 문제를 둘러싸고 서독과 영국간에 싸움을 벌리는 등 일대 란투를 벌리였다.

자본주의제도에 뿌리를 둔 하나의 합법칙적 현상으로 일어난 이 추잡한 개싸움은 놈들이 위기를 푸는데 그 어떤 출로도 주지 못하였으며 그 놈들을 더욱 큰 경제위기에 빠뜨려놓았을뿐이다.

1974년에 미국을 비롯한 전반적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대흉작이 들어 식량위기로 아우성치고있으며 그 여파는 일본과 남조선을 비롯한 괴뢰들, 나아가서 발전도상의 나라들에까지 미치고있다.

이해 무엇보다 미국에서 대흉작이 들어 농산물생산이 대폭 줄어들었다. 즉 1973년에 비하여 강냉이는 16%, 콩은 19%, 수수는 30%, 사탕무우는 18% 줄어들었다. 흉작으로 인한 농산물 및 축산물 손실은 100억딸라에 달하였다. 최근 년간 계속되는 흉작으로 하여 미국의 알곡재고량은 1974년 6월 현재 전해 같은 기간 보다 밀은 51%, 강냉이는 25%, 콩은 44%, 수수는 65% 줄어들었다.

알곡생산이 감소됨에 따라 미제는 1974년 12월말 현재 수출을 예견하였던 식량중 620만톤을 취소해버리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하여 미제의 식량에 명줄을 걸고있던 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과 특히 일본과 남조선괴뢰들이 엄중한 식량난을 겪고있다.

례컨대 식량의 70%, 사료의 거의 전부(닭먹이 100%, 돼지먹이 95.5%)를 미국에 의존하고있는 일본에서는 미국에서의 흉작의 여파로 하여 1974년 8월에 쌀값이 50%, 10월에 또 32%, 사료값은 년간에 4배나 뛰여오르게 되였다.

공업및농업생산의 감퇴와 통화의 팽창으로 하여 전반적자본주의세계에서 물건값은 천정모르고 뛰여올랐다.

미국에서 물가가 계속 뛰여올라 그것이 심각한 사회적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있다. 1974년 11월에 미국에서 물가는 그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12.1%나 비싸졌다.

영국에서도 1974년에 대중소비품값이 평균 18%올라 근로자들의 생활처지가 더욱 악화되였다.

1974년에 구라파공동체성원국들의 소매물가는 급격히 뛰여올랐다. 1973년 9월부터 1974년 9월까지의 기간에 그것은 이딸리아에서 203%, 아일랜드 17.1%, 단마르크 16.6%, 영국15.8%. 벨지끄 15.6%, 프랑스 14.7%, 룩셈부르그 10.6%,화란10.3%, 서독 70.3%로 되였다.

자본주의세계에서는 식료품가격도 급격히 뛰여올랐다.

1974년 9월과 10월에 식료품값은 1973년에 비해 미국에서 11.2%, 일본에서 26.2%, 이딸리아에서 21.6%, 메히꼬에서 21.3%, 영국에서 17.3%, 카나다에서 15.7%, 프랑스에서 12.6% 각각 올랐다.

미국신문 〈뉴욕타임스〉까지 《지금 서방세계는 1930년대의 대공황때와 같은 경제위기에 직면하고있으며 이것으로하여 파국을 겪을수 있다》고 비명을 올린것이나 미국잡지《비지네스 위크》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경기후퇴의 징후 등이 초가을에 떨어지는 나무잎처럼 실업가들과 경제전문가들앞에 떨어지고있다. 서방세계는 제2차세계대전이래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고있다》라고 실토한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1974년에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자본주의세계와 반동들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정치적위기까지 덮쳐 더욱 혼쌀나고있다.

이 심각한 정치적위기는 세력권을 위한 반동세력들 호상간의 개싸움, 국가정치무대에로의 좌익세력들의 급격한 진출, 인민들의 반정부 투쟁 및 생존의 권리를 위한 투쟁 등에서 표현되였다.

《워터게이트사건》을 둘러싼 미제 반동지배층안의 개싸움은 미국정치의 위기를 극도로 심화시켰다.

이 사건으로 하여 미국사회계와 인민지어 공화당내에서까지 고립되여 그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진 미제우두머리 닉슨놈은 1974년 9월에 대통령자리에서 쫓겨났다.

또한 심각한 경제및 정치적위기로 하여 일본반동정부총리 다나까, 서독총리 브란트, 영국총리 히스 등이 모두 제자리에서 쫓겨났으며 뽀르뚜갈, 희랍에서와 같이 미제를 추종하던 파쑈독재정권들이 련이어 무너졌다. 또한 에티오피아에서는 3천년묵은 왕권이 넘어졌다.

1974년에 프랑스, 이딸리아 등 많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좌익세력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국회선거들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닉슨놈의 뒤를 이은 포드놈은 《오늘의 사태는 우리 국가, 가정, 자유가 피멸되고 자유세계가 유지될수 없게 만들수 있다》라고 비명을 질렀으며 새로 정권에 들어앉은 일본총리 미끼놈은 《전후 최대의 난국인 이 시기에 내가 총리로 된 나의 내각은 죽음의 폭풍을 안고 바다로 떠나지 않으면 안되는 사자밥을 걸머진 내각》이라고 비명을 질렀다.

1974년에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독점자본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와 삶의 권리를 위한 로동계급과 여러부문 근로자들의 투쟁이 큰 규모에서 련이어 진행되였다.

1974년에 파업건수와 투쟁참가대렬은 례년에 비해 급속히 늘어났다.

미국에서 1974년 첫 9개월동안에 벌어진 파업건수는 1971년에에 비하여 더 많은 4천 950건에 달하였으며 파업참가자수는 1973년에 비하여 50만명이 더 많은 230만명에 달하였다.

서독에서는 1974년 상반년동안에만 파업으로 자본가들이 잃어버린 로동일수가 1973년 한해동안의 거의 2배에 달하였다. 프랑스에서 자본가놈들은 1974년 7개월동안에만도 1973년보다 17%나 더 많은 227만 로동일을 잃었으며 영국에서도 자본가놈들은 이해 첫 8개월동안에 1973년 한해동안보다 더 많은 986만 9천 로동일을 잃어버렸다.

1974년에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의 투쟁의 규모는 주목할만큼 컸다.

1974년 6월 미국의 30개주에 있는 옷공장들을 완전히 마비시킨 11만명 로동자들의 전국적 총파업은 1921년이래 이 부문에서 처음있은 가장 큰 총파업이였으며 영국에서 5월에 벌어진 100만명이상의 기계공업부문 로동자들의 전국적총파업도 1957년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것이였다.

또한 2월 서독에서 있은 공공기관 기업소, 로동자들과 사무원 200여만명의 전국적총파업은 《서독의 로동운동력사에서 처음보는 가장큰 파업》이였으며 10월 이딸리아에서 1천만명의 근로자들이 전개한 전국적총파업, 수백만 일본로동자들의 봄철공동투쟁과 가을철 공동투쟁 등도 매우 큰 규모의것들이였다.

1974년에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벌어진 각계층 근로자들의 파업투쟁은 장기성을 띠고 치렬하게 전개되였다. 례컨대 미국캘리포니아주의 한 과수원 로동자들은 6개월, 이 주에 있는 한 광산로동자들은 4개월, 임금인상과 로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일어난 카나다 항공회사로동자들은 8개월, 이딸리아의 석유공업부문로동자들은 6개월, 프랑스의 《리뽀》시계공장로동자들은 10개월, 영국간호원들의 파업은 4개월간 진행되였다.

1974년에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민주주의적권리와 생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대규모적인 로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졌다.

2월에 이딸리아의 1천3백만명 로동자들이 생활조건개선을 요구하여 일어난 전국적파업, 3월 일본 100만명 로동자들이 벌린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대집회와 시위투쟁, 11월 프랑스의 100만명의 각계층 근로자들이 벌린 《제2차세계대전후의 가장큰》 전국적파업 등은 그의 구체적 실례로 된다.

이와 같이 미제를 비롯한 자본주의 세계는 제2차세계대전이래 가장 심각한 경제 및 정치적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렸으며 더욱더 막다른 죽음의 구렁텅이에 굴러떨어졌다.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인 침략과 전쟁 책동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심각한 경제적위기에 빠져 허덕이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은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새로운 침략전쟁에서 찾으려 하고있습니다. 》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단행본, 52페지)

1974년에 미제는 《평화》에 대하여 그 어느때보다 요란히 떠들면서 그 막뒤에서 침략과 전쟁 책동을 미친듯이 벌리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미제 우두머리 닉슨놈이 2월 4일 국회에 내놓은 1975회계년도 《예산서신》에서 《국방비》로 1945년이래 가장 큰 군사비인 877억 딸라를 배정한 사실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놈들은 이 방대한 군사비로 전략핵무기의 연구개발, 공중 및 해상의 군사적 수송능력의 확대 및 현대화, 제1선 병력수의 증가 등을 다그치는데 쏟아부었다.

미제는 방대한 군사비로 현대화된 무력들을 새로 증강하였을뿐아니라 직접 아세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지역에서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강화하였다.

미제는 아세아지역에서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과 간섭, 새 전쟁 도발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놈들이 공식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제는 1974년 6월까지 남조선에 3만 8천명의 침략군을 강점시켰다면 12월말에는 인도지나침략전쟁에 참가하였던 침략무력의 일부까지 남조선에 끌어넣어 그 수를 4만 2천명으로 늘이였다.

또한 미제전쟁미치광이들이 꼬리를 물고 《사절단》의 명목으로 남조선에 기여들어 전선을 《시찰》하고 침략군들의 전쟁준비를 다그치게 하는 등 온갖 범죄적책동을 다 감행하였다. 지어 11월에는 미제의 새로운 우두머리 포드놈까지 남조선에 기여들어 전쟁열기로 환장이된 박정희괴뢰도당을 부추기고 놈들에게 상전으로서의 뒤받침을 《담보》해 주었다.

미제는 남조선괴뢰군의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원조》의 증대, 핵무기의 반입과 로케트와 유도탄 발사연습 등 전쟁도발 준비책동을 감행하였다. 미제가 1974년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땅과 바다, 하늘에서 감행한 군사적도발행위는 2만 3천 800

여차례나 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이 안팎으로 겪는 정치, 경제,군사적 위기와 우리 나라에 대한 끊임없는 강도적침략야욕으로부터 조선의 영구분렬과 《두개 조선》조작 및 조선에서 새 전쟁 도발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끌어내고있다.

놈들은 웰남, 라오스정화이후 아세아에 조성된 정세에 따라 남조선을 《닉슨주의의 시험장》이라고 부르면서 미일안보체제에 기초한 공모결탁과 동맹관계를 보다 강화하였다.

미일침략자들 사이의 반동적동맹관계는 포드놈이 새로이 대통령감투를 뒤집어쓴 이후 더욱더 횡포해지고있다.

그것은 포드놈이 대통령감투를 쓰기가 바쁘게 1974년 8월 10일 일본총리였던 다나까놈에게 보낸 《메쎄지》에서 《미일량국의 뉴대를 확고히 유지해나가는것이 나의 정책이다》라고 줴친데서와 그후 9월에 다나까놈을 미국에 불러 《포드—다나까회담》을 벌리고 11월 18—22일까지 키신저놈을 이끌고 일본에 기여들어 다나까놈과 미일《안보조약》과 핵무기문제, 아세아정세 등을 쑥덕공론한데서 여실히 찾아볼수 있다.

미제는 1974년에 일본에 있는 다찌가와를 비롯한 수십개의 군사기지들을 통합 정리 및 반환의 명목으로 일본자위대에 넘겨주어 일본에 있는 제놈들의 침략기지들을 압축강화하고 일본자위대를 증강하여주었으며 미일간의 공동작전체계를 더욱 확립하였다.

미제의 비호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과 아세아침략을 위해 국내에서 군국주의파쑈체제를 갖추기에 미쳐날뛰였다. 특히 제놈들의 해외침략을 형식상 구속하는 《헌법개정》을 통하여 형식상 헌법의 《구속》이 아니라 그의 《담보》밑에서 활개치며 침략책동을 감행하려 하였다.

또한 놈들은 《조선전략》에 따라 《제4차방위력정비계획》기간을 포함하는 1970년대에 오호쯔크해로부터 말라까해협에 이르는 제해권과 제공권을 쥐는것을 당면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이러한 강도적 침략목적으로부터 놈들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1974회계년도에 군사예산으로 1조 9백억엔 (36억 4천만 딸라)을 할당하였다. 이것은 1973년에 놈들이 세운 군사예산에 비하여 16.8%나 더 많은것이다. 일본반동들은 이 많은 군사비의 대부분을 공격용으로 쓸 새로운 비행대의 편성, 전투함들의 건조, 로케트 및 땅크부대의 편성과 장비에 돌리고있다.

일본반동들은 1974년 7월 중순에 제302 전투 비행대대를 새로 편성하였다.

놈들은 해군력의 증강을 위해 이해 2월에 잠수함 《구로시오》호, 7월에 로케트 방사기로 장비된 《이끼구모》호를 련이어 건조하였다.
이것으로 놈들은 전후 모두 15척의 잠수함, 5척의 구축함을 건조해낸것으로된다.

8월중순에는 수백대의 땅크와 장갑차 근 2천명의 병력으로 꾸려진 땅크려단을 꾸며내여 재래식의 지상군 《지원》이 아니라 《땅크전》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줴쳤다.

놈들은 이른바 《작전》계획에 따라 침략무력을 홋가이도, 돗도리 이와구니, 후꾸오까, 오끼나와, 사세보 등 우리 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군사기지들에 재편성배치하였다. 나아가서 일본자위대는 1974년에 조선에서 산악전을 예상한 훈련을 벌리였으며 침략포병부대들은 시모노세끼의 관부페리로부터 짧은 시간내에 조선전선에 투입되는 전쟁연습을 미친듯이 감행하였다.

미제는 웰남, 라오스 정화후 1974년에 빠리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이 지역에서의 정세를 계속 긴장시켰다. 이것은 미제가 웰남정화이후 12개월동안에 남부웰남괴뢰들에게 11억딸라어치의 무기(땅크 35대, 장갑차 35대포함)와 탄약을 공급하고 300만딸라어치의 공군용폭탄을 공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죄상을 여지없이 폭로해주고있다.

미제는 또한 캄보쟈의 앞잡이들을 시켜 캄보쟈에서의 전쟁을 계속하였으며 론놀괴뢰들을 부추기기 위해 1974회계년도에 7억딸라에 달하는 군사《원조》를 주었다.

미제는 중근동에 대한 간섭과 공갈정책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미제는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제4차중근동전쟁에서 잃은 막대한 무기와 군수기재들을 보충해주어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새로운 중근동침략전쟁에 나설수 있는《힘》과 《활기》를 불어넣어주는데 미쳐날뛰였다. 미제는 1974년에《비상군사원조》라는 구실밑에 22억딸라, 《차관》의 형식으로 7억딸라를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넘겨주었다. 1974년 6월 미제우두머리 닉슨놈이 이스라엘에 기여들어 그 놈들에게《군사원조》를 계속 주며 핵연료를 넘겨줄것을 다짐한것 등은 놈들의 이러한 정책의 한 고리이다.

미제는 1974년에 중근동정책에서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에로 준비시킬뿐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중근동의 석유수출국들에 대한 량면적인 책동으로 제놈들이 겪고있는 심각한 연료위기에서 벗어나보려는 교활한 책동도 감행하였다. 이를 위해 1974년에 여우와 같은 미국무장관 키신저놈이 중근동의 석유생산국들에 뻔질나게 드나들면서《한쪽》으로 전후 중근동의 그 어떤《평화》나 모색하는듯이 가장해나섰으며 제놈들의 잔꾀가 세상에 드러나고 중근동석유생산국들에 대한 제놈들의 교활한 정책이 실패되자 그 무슨 군사적위협까지 들고나오는 날강도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제4차중근동전쟁후 미제가 이 지역의《평화》를 위한《조종자》처럼 행동한것이 이 지역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는 강도적속심에서 나온것이였다는것을 다시한번 만천하에 자체 폭로했을뿐이다.

1974년 미제는 깨여져가는 침략적군사동맹기구들을 부둥켜안고 그것을 바로잡기에 날뛰였으며 이 기구의 침략무력들의 전투준비를 완성하기 위해 세계 여러 지역에서《전쟁연습》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새로운 침략전쟁을 위해 태평양우의 미크로네시아를 비롯한 섬들의 군사기지화책동을 계속 강화하는 한편 인도양에서 디에고 가르시아섬에 대한 군사기지화책동을 급격히 강화하였다.

1974년 9월에는 이 기지건설을 위해 또다시 2천 900만딸라를 들이밀었다.

미제는 지금 필리핀, 괌도, 남조선, 하와이, 오끼나와의 미공군가데나기지 등에 핵무기를 배치하고있으며 태평양에 있는 미제침략군 군함들에도 핵무기를 배치하고있다.

이해 프랑스는 태평양에서 7차례의 핵시험을 하였다. 이와같은 심상치 않은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은 제국주의자들이 그 어느 지역에서 어떤 더 큰 전쟁의 도발도 결코 서슴지 않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

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1974년의 국제정세는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발전하였다.

제국주의나라들에서 경제위기가 심하여짐에 따라 인민들의 혁명적기세가 높아가고있으며 제3세계인민들의 반제투쟁열의도 더욱 높아가고있다.

전반적국제정세는 멀지 않은 앞날에 혁명적대사변이 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아 세 아

정 세 개 관

１９７４년에 아세아의 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열렬히 신봉하면서 주체사상을 따라 자주, 자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갔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세계인민들이 주체사상을 요구하며 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습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１９７３년판, ３２５폐지)

아세아의 혁명적인민들과 당과 정부 지도자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곧바로 령도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 흠모하고있다.

１９７４년에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 민주예멘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살림 루바이아 알리,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하페즈 알 아싸드,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 자문리사회 위원장 윈우수, 키에우 삼판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및 왕국민족련합정부대표단, 일본사회당 위원장 나리다 도모미 등을 비롯하여 아세아 여러 나라들의 국가수반들과 당 및 정부 지도자들이 수령님을 직접 만나뵙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４월과 １２월 두 차례나 우리 나라를 방문한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위대한 수령님께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원수각하뿐이십니다. 때문에 최소한도 １년에 한번은 조선에 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맞이하여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러 오는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는 최대의 영광이며 최대의 행복입니다. 우리 캄보쟈인민은 각하에 대하여 매우 깊은 사랑과 흠모의 정을 품고있습니다. 각하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공산주의자와 전형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고있는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말씀올렸다.

９월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 수리아 아싸드대통령은 《김일성주석님은 인민들의 권리와 자유, 진보를 확신하고 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시는 열렬하신 혁명투사이십니다.》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의 참뜻을 깨달은 국가수반들과 대표단성원들은 한결같이 주체사상의 위대성에 대하여 커다란 감탄을 표시하였다.

４월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 캄보쟈 왕국민족련합정부대표단의 성원인 공보및선전부 부부장은 《만일 사회주의나라들이나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다 주체사상을 견지한다면 세계혁명은 승리적으로 수행될것이며 국제공산주의 및 로동운동은 개화발전할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위대한 주체사상에 커다란 공감을 표시하였다.

６월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 수리아 대통령관방실 문화고문은 《수령님의 주체사상은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 투쟁하는 인민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입니다.

김일성주석님의 로작에 담겨진 위대한 주체사상에 관한 리론은 세계인민들의 투쟁의 기치로, 앞길을 밝혀주는 희망의 홰불로 되고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외국의 국가수반들과 벗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그것을 자기 나라에 구현할 굳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수리아대통령은 자기 수원들에게 《조선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주석님께서 이룩하신 경험은 가장 위대한 경험》이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직접 만나뵈온 외국의 수많은 벗들과 진보적인사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 위대한 생활력,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높이 칭송하는 방문기들을 발표하였다.

９월 일본《요미우리신붕》사에서는 《주체의 나라 조선을 방문하여》라는 제목으로 일본사회당 위원장 나리다 도모미,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 회장 구노 쥬지 등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２３명의 일본의 저명한 인사들의 글을 실은 책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１９７４년에 아세아의 혁명적인민들속에서는 우리 시대의 사조로 되고있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적극 따라배우려는 열의가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높아졌다.

일본, 버마, 파키스탄, 인도, 네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비롯하여 수리아, 이라크, 레바논 등 중근동나라들에 이르기까지 아세아의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들을 대대적으로 출판하였으며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에 대하여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또한 위대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그것을 적극 따라배우고있는 아세아 인민들속에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보다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를 더욱 빛내여 나가기 위하여 주체사상연구토론회들을 가졌다.

일본에서만도 제４차주체사상연구전국토론집회, 제５차주체사상연구토론회, 전국청년주체사상연구교류집회를 비롯하여 전국적인 연구토론모임들과 주체사상에 대한 강연회 등이 진행되였다.

１０월에 진행된《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리론을 김일성주의로 세상에 엄숙히 선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시고계시는 높으신 국제적권위와 주체사상의 거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국제적위신은 더욱 높아졌으며 아직 우리 나라와 국가관계를 맺지 못한 나라들에서 우리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움직임이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있는가운데 １９７４년에 네팔, 라오스, 요르단이 우리 나라와 새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지어 일본에서도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우리 나라와 국교관계를 맺을것을 요구하는 여론과 운동이 더욱 급격히 높아졌다.

일본사회당 제３７차정기전국대회는 일조국교정상화를 촉진하며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할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일조협회확대전국리

사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그릇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11월 일본사회당, 공명당, 총평, 중립로련, 일조우호국교정상화국민회의, 일조문화교류협회, 일조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 일조로동자교류련대련락회의, 일본사회주의청년동맹, 일본부인회의 등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은 유엔총회에서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하여》라는 결의안이 토의될 때 그의 가결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영향력을 행사할것을 요구하여 유엔사무총장에게 공동서한을 보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 착취와 략탈 정책을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을 벌려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조선으로 부터 중국, 인도지나, 중근동에 이르는 넓은 지역이 반제혁명투쟁의 무대로 되고 이 지역에서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이 세차게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아세아의 전반적지역에서 자주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이 울리고있으며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기운이 급격히 높아가고있습니다.》 (《이딸리아공산당기관지 〈우니따〉지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7페지)

캄보쟈, 남부웰남, 라오스를 비롯한 인도지나인민들은 미제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반대하는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미제를 헤여나올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었다.

최후 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반미구국항전에 일떠선 영웅적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과 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 론놀괴뢰도당을 쓸어버리기 위한 영용한 투쟁을 벌려 한해동안에 15만명의 적들을 살상포로하고 수많은 무기와 군수기재들을 로획하는 빛나는 전과를 거두었다.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이미 전국령토의 87%와 600만명의 인구를 해방하였으며 애국적캄보쟈인민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종국적승리의 앞길이 환히 열려졌다.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은 해방지역에 대한 미제와 사이공괴뢰도당의《땅빼앗기작전》, 《평정》작전을 분쇄하고 25만 5천명의 적을 쓸어눕혔으며 122만명의 주민들을 해방하였다. 또한 적 군용차 4천여대와 포 500여문을 파괴하고 해적선 420척을 물속에 처넣거나 마사버렸으며 비행기 518대를 격추격상하고 여러가지무기 3만 3천여정을 빼앗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방지역을 없애버리고 남부웰남을 영원히 제놈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미제의 음흉한 책동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반미구국항전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웰남, 라오스 인민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평화와 민족적화목과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왔다. 이러한 투쟁속에서 4월 5일 라오스에서는 수파누봉친왕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족련합정치리사회와 수반나 푸마를 총리로 하는 림시민족련합정부가 수립되였다. 이리하여 라오스인민은 자기 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수 있는 새로운 조건을 가지게 되였다.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오래동안 제국주의자들의 략탈의 대상으로 되여온 동남아세아나라들은 미제의 예속과 간섭에서 벗어나며 민족적권리와 리익을 지키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였다.

원료및 개발문제에 관한 유엔총회특별회의에서 동남아세아나라들은 국제경제관계에서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현상이 존재하고있는데 대하여 그리고 다국적회사들이 원료가격을 통제하고 있고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을 착취하고있는데 대하여 공격하였다.

말레이시아대표는 회의에서 말레이시아가 비록 고무, 석, 야자유를 비롯한 중요한 1차제품수출국이지만 이 상품가격에 대해서는 도리여 발언권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미제의 착취와 략탈행위를 폭로 규탄하였다.

타이대표는 타이가 세계최대의 쌀수출국의 하나이고 쌀의 수출이 타이수출총액의 약 17%를 차지하지만 타이가 늘 가격파동의 위협을 받고있으며 그의 전통적인 시장에서 불공정하고 비상업적인 경쟁에 부딪치고있으며 새로운 시장에 들어갈 방도가 없다고 하면서 미제의 예속과 략탈 행위를 규탄하였다.

필리핀의 마르코스대통령은 7월 3일 이 나라의 자주권과 독립을 엄중히 유린해 온 필리핀—미국사이의 협정을 무효로 선포하였다.

타이인민들도 미제의 군사기지철폐와 타이내정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동남아세아나라들은 이 지역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려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하며 인도양을 평화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였다.

또한 동남아세아인민들속에서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경제적침투와 해외침략책동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반일투쟁이 광범히 진행되였다.

1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일본총리 다나까놈은 필리핀, 타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세아 5개나라들을 부리나케 싸다녔다. 다나까놈은 가는 곳마다에서 이 지역인민들의 격렬한 반일시위에 부딪쳐 극도의 공포에 떨었다.

이 지역인민들은 《일본군국주의는 다시 기여들지 말라》, 《일본놈 나가라》라고 웨치면서 일본군국주의의 경제적침투와 략탈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렸다.

중근동나라 인민들은 단합된 힘으로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아랍땅을 영원히 강점하고 지배하려는 놈들의 침략정책을 파탄시켰으며 아랍 해방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다.

수리아인민들은 골란고지전선에서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군사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놈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가함으로써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코대를 꺾어놓았으며 아랍땅을 영원히 강점하고 지배하려는 놈들의 야심적인 침략계획에 파렬구를 뚫어놓았다.

또한 아랍인민들은 팔레스티나인민의 합법적권리를 회복하며 강점당한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서 강력한 행동통일을 이룩하였다.

10월에 진행된 제7차아랍국가수뇌자회의에서 아랍나라들은 이스라엘놈들과의 협상을 통하여 중근동문제를 《단계별》로 해결할데 대한 미제의 요구를 배격하였으며 제네바중동평화회의를 통하여 시나이반도, 골란고원, 요르단강서안문제 등을 집단적으로 해결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애급, 수리아, 요르단, 팔레스티나해방조직 등의 전방국가들로서 《합동군》을 창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스라엘침략자들과 맞서고있는 나라들에 원조를 주기로 하였으며 중근동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경우 석유를 무기로 사용할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회교국가수뇌자회의에서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국제적으로 폭로하고

고립시키며 반이스라엘투쟁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와 행동통일을 보장할것을 호소하였다.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는 미제의 압해책동을 물리치고 제3세계나라들의 투쟁에 의하여 팔레스티나인민들의 민족적자결권, 독립권, 조국복귀권과 유엔옵써버자격을 줄데 대한 결의안이 압도적다수로 통과되였으며 팔레스티나해방조직대표가 옵써버의 자격으로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가하게 되였다. 이것은 팔레스티나땅을 영원히 강점하고 나아가서는 전아랍땅을 제놈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침략정책에 심대한 타격으로 되였다.

또한 중근동나라들은 석유무기를 리용하여 생산을 줄이고 수출을 금지하며 값을 올리고 국유화를 실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였으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을 헤여날수 없는 정치경제적위기에 몰아넣었다.

1월 쿠웨이트와 까타르는 자기 나라에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석유회사의 주권의 60%를 국유화 하였다.

이란,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나라들도 제국주의자들의 석유회사들을 국유화하였으며 석유값을 대폭 끌어올렸다.

이란도 석유가격문제를 가지고 미제와 정면으로 맞서 견결히 싸웠다.

미제와 서방제국주의자들이 석유가격을 낮추도록 계속 부단한 압력을 가하면서 석유생산국들을 위협해 나서자 9월 26일 이란왕은 《누구도 우리에게 명령할수 없다》, 《누구도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다》고 하면서 미제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계속 견결한 립장을 취하였다.

미제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은 미제의 아세아침략의 발판으로 되고있는 일본에서도 더욱 거세차게 일어났다.

일본인민들은 일미《안보조약》의 페기, 미제의 군사기지철폐 등을 요구하여 강력한 투쟁을 벌렸다.

11월 미제의 우두머리 포드놈의 일본행각을 계기로 반미투쟁은 더욱 치렬하게 전개되였다.

일본전국각지에서 《포드는 오지 말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강력한 시위와 집회들을 진행하였으며 국철로조와 동력차로조를 비롯한 여러 교통운수부문로조 및 기타부문로조 산하 350만명의 로동자들은 포드놈의 행각을 규탄하여 일제히 파업을 단행하였다.

일본로동계급과 인민들속에서는 반동정부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며 삶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투쟁이 또한 치렬하게 전개되였다.

일본로동계급은 봄철투쟁공동위원회를 뭇고 년초부터 치렬한 투쟁을 벌렸다.

1월 26일 100만명의 로동자들의 전국적인 파업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3월 26일에는 244만 로동자들의 공동파업투쟁, 4월 10일에는 120만로동자들의 공동파업투쟁 등 대규모적인 파업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4월 11일부터는 봄철투쟁공동위원회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국철로조, 동력차로조, 사철로조를 비롯한 83개 산별로조산하 650만명의 로동자들이 대규모적인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치렬히 전개된 일본로동계급의 봄철공동투쟁에 의하여 일본의 철도, 해상, 국내항공 운수부문들이 전국적으로 거의 마비되였으며 일본은 《력사상 최악의 교통위기》에 빠졌다.

일본인민들의 강력한 반미반정부투쟁에 의하여 일본반동정부는 심각한 정치적위기에 빠졌으며 11월 미제의 아세아정책에 적극 추종하던 다나까정권은 2년 4개월만에 밀려났다.

또한 일본은 자본주의세계를 휩쓴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 아우성속에 한해를 보냈다. 생산의 감퇴와 물가등귀, 통화팽창으로 이른바《고도성장》계획은 총파탄되였으며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이래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게 되였다.

연료및 동력위기로부터 시작하여 자동차, 기계, 방직, 화학, 강철 등 공업의 중요한 모든 부문을 휩쓴 파국적인 경제위기는 멸망에 직면한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놓았으며 일본사회를 밑뿌리로부터 뒤흔들어놓았다.

일본반동정부는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침략정책의 강화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침략에서 찾으려고 발광하였으나 이르는곳마다에서 인민들의 강력한 반항에 부딪쳐 쫓겨났다.

아세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인민들의 강력한 반미투쟁에 부딪쳐 얻어맞고 궁지에 빠진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지역에서 무너져가는 제놈들의 식민지지배체계를 유지해 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아세아에서 제놈들의 침략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일본군국주의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침략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더 깊이 끌어넣으려고 책동하였다.

11월 미제의 우두머리 포드란 놈은 키신저놈을 비롯한 300여놈을 이끌고 일본에 기여들어 침략적인 미일《안보조약》에 기초한 《미일군사동맹》체제를 영구히 견지할데 대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과 합의하였다.

또한 아세아에서 무너져가는 제놈들의 식민지지배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탱점으로서 남조선을 언제나 틀어쥐려고 발악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11월 남조선에 기여들어 박정희괴뢰도당에게 입김을 불어넣어주고 그놈들을 전쟁도발에로 더욱 부추기였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입김을 불어넣어도 그것은 헛된것이며 총붕괴의 위기를 겪고있는 제놈들의 식민지통치체제를 결코 건져낼수 없었다.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들인 남조선의 박정희매국도당과 남부웰남의 티우도당은 날로 앙양되는 인민들의 반《정부》투쟁에 부딪쳐 비틀거리고있으며 대만의 장개석도당과 캄보쟈의 론 놀도당은 죽음의 시각을 기다리고 있다.

1974년 아세아에서 일어난 제반 혁명적변혁과정은 낡은 제국주의세력이 망하고 신흥세력이 승승장구하는것은 력사의 흐름이며 제국주의는 그 무엇으로써도 력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중 국

(중화인민공화국)

넓이 960만km^2
인구 7억이상
수도 베이징(주민 약 700만명, 교외인구포함, 1971년)

정 치

전국인민대표대회 최고주권기관이며 임기는 4년이다. 현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제3기로서 1964년에 선거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는 상무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한다.

상무위원회 위원장 주덕

주석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되며 임기는 4년이다.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법령을 공포하며 대외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며 국가무력을 통솔하며 대사령과 전쟁상태를 선포한다.

주석대리 동필무

국무원 최고집행기관이며 주석이 국무원성원들을 임명한다.

총리 주은래, 외교부장 교관화, 국방부장 엽검영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7월 1일 상하이에서 창건

주석 모택동

인민정치협상위원회 인민민주주의통일전선단체로서 1949년 9월에 창립, 국민당혁명위원회 1948년1월에 조직, 전국총공회, 공산주의청년단, 부녀련합회

중국인민은 모택동동지와 공산당의 령도밑에 1945년 8월 항일전쟁에서 승리하였다.

항일전쟁승리후 장개석도당을 반대하는 제3차국내전쟁(1946—1949)을 진행하였다.

1949년 10월 1일 중국인민은 장개석도당의 반동통치를 뒤집어엎고 중국인민의 력사에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중국혁명의 승리는 그 의의로 보아 위대한 10월혁명의 다음가는 큰 국제적사변이였다. 세계인구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인민이 제국주의멍에를 벗어던지고 사회주의길에 들어선것은 제국주의식민지체계에 또 하나의 커다란 돌파구를 낸것이였으며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력량관계를 사회주의편에 결정적으로 리롭게 전변시켰다.》 (《동방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레닌의 위대한 사상은 승리하고있다》, 단행본, 7페지)

중국혁명의 승리와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장기간에 걸치는 혁명투쟁에서 중국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였으며 중국인민의 혁명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후 중국인민은 3년간의 복구기(1949—1952)를 거쳐 제1차 5개년계획(1953—1957)을 수행하였다.

제1차 5개년계획기간에 개인상공업과 수공업 및 농업에 대한 사회주의적개조를 진행하면서 사회주의공업화의 초보적토대를 쌓았다.

1954년 9월 2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기 제1차회의에서 헌법을 채택하였다.

1958년 5월에 소집된 중국공산당대표자회에서는 모든 힘을 다하여 앞장서기에 힘쓰며 더 많이, 더 빨리, 더 절약하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할데 대한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을 제시하였다.

1966년 8월에 소집된 중국공산당 제8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는 《프로레타리아문화대혁명》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69년 4월에 중국공산당 제9차대회는 프로레타리아문화대혁명을 총화하고 당규약을 채택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를 새로 선거하였다.

1971년 10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은 미제의 이른바《두개중국》조작음모책동을 짓부시고 유엔총회 제26차회의에서 세계 많은 나라들의 지지에 의하여 유엔에서 합법적지위를 회복하였으며 장개석도당은 유엔의 모든 기구에서 쫓겨났다.

1973년 8월 중국공산당 제10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는 림표반당집단을 분쇄하는 투쟁의 기본경험을 총화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하에서의 계속혁명의 방향과 과업을 더욱 명백히 규정하였다.

1974년에 중국인민은 승리한 프로레타리아문화대혁명의 성과를 굳건히 다지며 림표와 공자를 비판하는 운동을 힘차게 벌려 상부구조령역에서의 투쟁, 비판, 개조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림표와 공자를 비판하는 운동을 통하여 문예혁명, 교육, 보건 혁명이 새롭게 전진하였으며 여러 전선에서 투쟁, 비판, 개조가 촉진되였다.

당의 령도밑에 각급 혁명위원회들이 강화되였으며 군중들과의 련계가 더욱 밀접해졌다.

6월 17일 서부지구상공에서 새로운 핵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5월 1일부터 23일까지 혁명적경본극영화축전이 진행되였다.

1월 15일부터 남부웰남사이공당국은 뻔뻔스럽게도 해군과 공군을 출동시켜 서사군도의 영락군도를 침공하는 군사적도발책동을 감행하였다. 특히 놈들은 군함을 출동시켜 중국어선을 들이받아 파손시켰으며 감천도와 금은도를 강점하였다.

더우기 놈들은 1월 19일 침항도에 대하여 무장공격을 감행하고 군함과 비행기로 이 섬을 야만적으로 포격하고 폭격함으로써 여러 명의 중국어민과 민병들을 살상하였다. 그뿐아니라 사이공괴뢰군함들은 순찰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국함정들에 먼저 포사격을 하였다.

1월 20일 중국 외교부는 서사군도에 대한 남부웰남사이공괴뢰도당의 군사적도발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951년 8월 15일 당시 중국외교부장 주은래는《미영의 대일평화조약초안과 쌘프랜씨스코회의에 관한 성명》에서《서사군도와 남위도는 전체 남사군도, 중사군도, 동사군도와 마찬가지로 예로부터 중국의 령토였다》고 엄격히 지적하였다.

1974년에 중국 정부와 인민은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제3세계나라 인민들의 혁명위업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그의 국제적지위는 더욱 높아졌다. 이 해에 기네—비싸우(3월), 가봉 (4월), 말레이시아(5월), 트리니대드 토바고(6월), 베네수엘라(6월), 니제르 (7월), 그레네이더(10월), 감비아 (12월)와 새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였다.

또한 잠비아대통령, 알제리혁명리사회 의장 후아리 부메디엔(2월), 키에우 삼판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및왕국민족련합정부대표단(4월), 세네갈대통령, 파키스탄 부토총리, 끼쁘로스 마카리오스대통령, 말레이시아 총리(5월), 또고대통령, 모리따니대통령 (9월), 가봉대통령, 단마르크총리 (10월), 트리니대드 토바고총리(11월), 자이르대통령(12월)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1월 17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서는 중국말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사업용어에 포함시킬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9월 1일 진행된 아세아경기련맹리사회 회의에서 중국이 아세아경기련맹의 집행위원으로 선거되였다. 또한 테헤란에서 진행된 아세아의 여러 종목별 경기련맹총회들에서는 장개석도당의 체육조직들을 내쫓고 중국을 정식 성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중국은 아세아 바드민톤련맹, 력기련맹, 사격련맹, 격검련맹, 자전거련맹에 가입하였다.

9월 20일 마닐라에서 진행된 국제력기련맹총회에서는 중국력기협회를 국제력기련맹의 정식성원으로 확인하고 장개석도당을 이 기구에서 추방할데 관하여 국제력기련맹 집행위원회가 5월에 채택한 결정을 찬동하였다.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에서 5개국(조선, 중국, 일본, 스웨리예, 유고슬라비아) 탁구친선경기대회가 진행되였다.

11월 27일 베이징, 테헤란, 부꾸레슈띠, 티라나를 잇는 항로가 개통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1974년에 중국인민은 공산당의 령도밑에 모든 힘을 다하여 앞장서기에 힘쓰며 더 많이, 더 빨리, 더 잘 절약하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할데 대한 총로선의 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1974년에 공업부문들에서는 생산계획을 기한전에 넘쳐수행하였다.

공업총생산액은 1974년에 1964년에 비하여 190% 늘어났다. 그중 강철은 120%, 석탄은 91%, 석유는 650%, 면사는 85%, 화학섬유는 330% 늘어났다. 이 10년동안에 1천 100개의 대중형대상들이 자체의 힘으로 건설되였다.

흑색금속공업부문에서는 기술혁신과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큰 성과를 거두었다. 1949년에 중국에서의 강철생산량은 1년에 겨우 16만톤에 불과하였으나 현재 안산, 샹하이, 무한, 본계, 포두 등의 야금공업기지들에서 2천 300만톤(1972년)의 강철을 생산하고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석유공업에서는 1974년 상반년기간에만도 전년같은 기간에 비하여 원유생산이 21.3% 늘어났으며 원유가공량도 훨씬 늘어났다. 서부지역의 주요원유생산지인 크라매유전에서는 1974년에 원유, 휘발유, 디젤유, 윤활유 등의 생산계획을 기한전에 넘쳐수행하였다.

기계제작공업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였다.

1973년에 뜨락또르생산은 1965년에 비하여 5배, 내연기관은 4배이상, 탄광광산설비는 4.9배, 자동차, 공작기계, 발전설비, 각종 화학제품생산설비는 2.7~7배로 각각 늘어났다.

1974년에 베이징시 로동계급은 2만여건의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받아들여 1천대의 성능이 좋은 기계설비와 70여개의 자동흐름선을 자체로 만들었으며 샹하이시에서는 3만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받아들이고 128개의 자동흐름선을 만들어냈다.

샹하이시에서는 뜨락또르, 모내는기계, 벼수확기를 비롯하여 농업생산을 위한 기계생산에서만도 1973년보다 28% 더 많이 생산하였다.

화학, 세멘트, 전력 생산도 늘어났다.

광서장족자치구 남녕화학공장에서는 갈탄과 가루탄으로 합성암모니아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중국 각지의 작은 세멘트공장들에서는 중국의 세멘트 총생산량의 절반이상을 생산하였는데 국가생산과제를 24일간 앞당겨끝냈다.

호북성에는 15만키로와트능력의 황룡탄수력발전소가 새로 건설되였다.

중공업과 함께 경공업도 발전하였다. 재봉기, 털실, 전동알, 축전지 등 경공업제품생산이 1973년에 비하여 훨씬 늘어났다. 베이징시에서만도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경공업총생산액은 1973년의 같은 기간보다 10%이상 늘어났으며 그 가지수는 2천종이상에 달하였다.

샹하이시의 경공업부문에서는 사진기, 라지오를 비롯한 60여가지의 경공업제품생산에서 1973년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하였으며 자체로 설계하여 새 제품들을 만들어냈다.

림업부문근로자들은 통나무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하였다. 흑룡강성, 길림성들에서는 1974년 4.4분기에 그 전해의 같은 기간보다 20% 더 많은 통나무를 생산하였다.

농업부문에서도 대채를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을 힘있게 벌려 큰 성과를 거두었다. 1974년에 농업총생산고는 1964년에 비하여 51% 늘어났다.

알곡과 목화를 비롯한 공예작물농사가 잘되였다. 주요알곡생산지들과 함께 농사가 잘 안되던 일부 지역들에서도 농업생산이 늘어났다.

샹하이시교외의 농민들은 무당 평균 1천 450여근의 알곡을 거두어들였으며 하북성의 석가장시와 정정현, 섬서성의 고릉현 농민들은 무당 평균 1천근의 알곡을 생산하였다.

그리하여 1974년에 전국적으로 670여개의 현, 시들이《전국농업발전요강》에 예견된 알곡 무당 평균생산지표에 이르거나 그를 넘쳐하였다.

목화생산도 늘어났다. 주요 목화생산지인 호북성에서는 1974년에 1973년의 배나 되는 목화를 땄다.

농업발전을 위하여 가물과 큰물의 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도 힘차게 벌렸다.

1973년 겨울부터 1974년 9월까지의 기간에 논밭에 물을 댈수 있는 넓이를 6천여만무나 늘이였으며 7천여만무의 밭을 고르롭게 하고 많은 우물을 팠다.

농업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지식청년들이 당의 호소를 받들고 농촌으로 나갔다.

1974년 5월현재 감숙성에서는 3천여명의 지식청년들이 농촌에 나가 사회주의 새 농촌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있으며 청해성에서는 1973년말부터 1974년 5월까지만도 3천여명이 농촌에 나갔다.

철도운수부문에서도 큰 성과가 이룩되였다.

서남부의 주요철도간선인 귀주—곤명사이에 있는 선위, 곡청, 당자, 봉황산역을 비롯한 25개의 역들에서 1974년 짐나르기계획을 1개월이나 앞당겨수행하였다.

또한 한해동안에 9갈래의 주요 자동차길을 새로 닦았으며 현소재지와 인민공사를 잇는 많은 도로를 건설하였다.

1974년말현재 포장도로의 총연장길이는 1965년에 비하여 11배 늘어났다.

교육, 문화, 보건 분야에서도 큰 성과가 이룩되였다.

실천투쟁속에서 단련된 로동자, 농민, 병사 출신의 대학생들이 새로 졸업하여 나라의 여러 초소들에 나갔다. 1974년에 샹하이복단대학에서는 523명이, 청화대학에서는 2천여명의 로동자, 농민, 병사 출신의 대학생들이 처음으로 졸업하였다.

중국은 다민족국가이다. 한족이 전인구의 94%를 차지하고있으며 그밖에 조선족, 쭈이족, 장족, 훼이족, 위이얼족(위구르), 이족, 먀오족(묘족), 만주족, 멍구족(몽골족)등

60여개의 소수민족들이 살고있다.

언어는 중국말이 국가공용어로 되여 있다. 중국말은 한족의 고유민족말이다.

수백만의 맨발의사들이 자라나 프로레타리아 보건혁명을 촉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들은 농민들과 같이 일하면서 농민대중에게 위생지식을 적극 선전하며 병을 없애는것을 중심으로 하는 애국위생운동을 적극 벌리고있다.

또한 혁명적견본극에 의하여 대표되는 프로레타리아문예혁명이 더욱 심화되였다.

출판보도; 통신 신화

신문 인민일보(공산당기관지), 광명일보, 해방군보(인민해방군기관지), 베이징일보

잡지 홍기(공산당기관잡지)

방송 베이징방송, 베이징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9년 10월 6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3년 11월 조중경제및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1957년 12월에는 조중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1년 7월 11일에는 조중우호협조및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1971년 9월 6일에는 중국이 우리 나라에 군사원조를 무상으로 줄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1974년 11월 6일 베이징에서 조중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5차회의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12월 21일에는 두 나라 정부사이에 1975년도 상품교류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국인민해방군친선참관단(6월 14일), 당일군친선방문단(9월)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4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신 신년사를 《인민일보》 1월 2일호를 비롯하여 중국의 신문, 통신, 방송들이 광범히 보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열돐에 즈음하여 《인민일보》 2월 23일호는 《빛나는 성과, 휘황한 전망》이라는 큰 제목을 달고 위대한 농촌테제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눈부시게 발전하는 우리 나라 농업을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여섯돐에 즈음하여 2월 5일 인민해방군 베이징부대 포병부대에서 경축집회를 가졌다.

《인민일보》 2월 7일호는 전중국인민지원군 어느 한부대 특등공을 세운 중대의 이름으로 쓴 글을 실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물여섯돐에 즈음하여 9월 10일 베이징시에 있는 중조친선홍성인민공사에서 모임을 가졌다.

또한 9월 7일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중조우호협회는 공화국창건 26돐에 즈음하여 연회를 차렸다.

《인민일보》 9월 9일호는 《조선인민의 영광스러운 명절을 축하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발표하였다.

중국인민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대내외에서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하였다.

유엔총회 제29차회의 제1위원회에서 중국대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립장을 지지하여 연설하였으며 우리측 공동결의안 발기국으로서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결의안표결에서 찬성투표하였다.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회의가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데 대하여 중국의 신문, 통신, 방송이 크게 보도하였다.

2월 26일 《인민일보》, 《광명일보》, 《해방군보》는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회의에서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제를 마련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미합중국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한데 대하여 일제히 보도하였다. 또한 신문들은 미합중국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신화통신은 3월 25일에, 베이징방송은 26일에 이에 대하여 각각 보도하였다.

7월 3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회의장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베이징시 로동자, 청년, 녀성들의 대회가 진행되였다.

6월 13일 베이징에서 베이징대학, 청화대학 학생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통치를 반대하며 민주주의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공동집회를 가지고 남조선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인민일보》 6월 16일호는 《남조선학생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을 견결히 지지한다》라는 제목으로 된 길림육문중학교의 전체 교원들과 학생들이 쓴 글을 실었다.

《인민일보》 6월 25일호는 또한 《삼천리강산은 반드시 통일되여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판문군을 방문한 신화통신 기자의 글을 실었다.

6월 29일 상하이 제5강철공장 로동자들과 심양시학생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며 남조선의 애국적청년학생들을 탄압하고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는 박정희괴뢰도당을 규탄하여 각각 집회를 가졌다.

《인민일보》 2월 27일호는 《박정희도당의 야만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제목으로 수천명의 애국적인 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비법적으로 체포구금하고 그들에게 중형을 들씌우는 만행을 감행한 박정희괴뢰도당을 규탄하는 론설을 실었다.

1974년에 중국정부무역대표단(1월), 로동자대표단(4월), 길림육문중학교대표단(4월), 영화대표단(6월), 교통부철도견학단(7월), 《인민일보》기자들(8월), 제2차중국친선참관단(9월), 철도대표단(10월), 교육대표단(10월), 과학원대표단(10월), 탁구선수단(3월), 예술체조대표단(4월), 공안부녀자롱구선수단(5월), 8. 1남녀탁구선수단(6월), 남자배구선수단(6월) 등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무역대표단(12월), 농업기술대표단(2월), 조선조각가대표단(6월), 조선중앙통신사대표단(9월), 조중친선협회대표단(10월), 직맹대표단(10월), 체육대표단(11월), 압록강축구선수단(6월), 2. 8남녀탁구선수단(8월) 등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샹강(홍콩)

중국령토의 일부인 샹강은 광저우(광주) 시에서 동남쪽으로 140km 떨어진곳에 있는 샹강섬(82km²)과 쥬룽(구룡)반도(7km²), 그 부근에 널려있는 235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졌다.

넓이 1,034km²

인구 409만명(1971년)

행정중심지 샹강

총독 머레스 맥클호소 (영국사람, 1970년 10월─) 상강에 있는 영 침략무력은 총독이 직접 틀어쥐고있다.

통치기구로는 총독을 보좌하는 《행정리사회》와 《립법리사회》가 있다.

1839～1842년기간에 영식민주의자들은 중국을 반대하는 침략적인 《제1차아편전쟁》을 통하여 상강을 강점한후 1842년 10월 29일 중국에 불평등조약인 《난징조약》을 강요하여 상강을 완전히 강점하였다.

상강을 근거지로 중국침략을 강화한 영식민주의자들은 1860년 10월 또다시 침략적인 《베이징조약》을 강요하여 룰룽반도의 남부지역을 떼내였으며 1898년에는 상강일대의 섬(신개지)들을 99년간의《조차지》라는 명목밑에 빼앗아냈다.

제2차세계대전기간에는 3년 8개월간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무력으로 강점하고있었다. 일제가 패망한 후 영제국주의자들은 중국인민의 불가분리의 령토인 상강에 다시 기여들어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있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상강에 저들의 《극동군사령부》지휘하에 있는 2개려단의 침략무력을 주둔시켜 놓고 이곳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고있다.

상강로동자들은 영식민지당국의 착취와 략탈을 반대하며 삶의 권리를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경제는 영국과 미제의 독점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외래독점체들의 3대은행이 경제전반을 거머쥐고있다.

경제에서 상강의 자유무역항을 통한 중계무역과 략탈한 원료를 가공하여 다시 파는 중계가공무역이 큰 몫을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중계가공무역의 비중이 크다.

상강시장에서는 술, 담배, 약품을 제외한 상품들에는 관세를 붙이지 않으므로 세계 여러곳에서 많은 상품이 밀려든다.

주로 비금속광물, 직물 및 그 제품, 의약품, 남새, 과일, 커피, 홍차, 기계류, 염료, 시계, 반도체라지오, 인삼 등이 재수출되는데 이것은 총무역액의 20～30%를 차지한다.

중계가공무역에서는 방직, 금속, 고무, 식료, 전기기구, 유리가공제품이 기본을 이룬다. 방적, 편직물, 직물 등 섬유공업을 위주로 하는 경공업이 공업총생산액의 92%를 차지한다. 최근시기 섬유제품의 수출은 일본 및 미제 독점체들과의 경쟁에서 심한 타격을 받고있다. 경공업제품가운데서 가발과 꽃만드는것은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공업총생산액에서 8%는 조선업과 선박수리공업 그리고 세멘트공업과 약간의 제철공업, 소형기계공업에서 얻어진다.

인구의 약 8. 5%가 농업부문에서 일하며 부침땅 (농업을 주로하는 룰룽반도의 1만 2천100헥타의 부침땅가운데서 벼를 심는 땅은 7천 700헥타) 이 적으므로 주작물인 벼생산은 수요의 10%밖에 충족시키지 못한다.

1년에 약 100만명의 관광객을 받아들인다.

상강은 영국의 《파운드지역》에 속하여있지만 무역지대에서는 자유외화로 통용되는 상강딸라를 쓴다.

운수는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룰룽반도는 철길로 광저우와 련결되여있다.

주요수출품은 각종 천, 기성복, 부인용가방, 가발, 놀이감, 수예품, 신발, 전기기구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료품, 섬유원료, 식량, 남새, 고기, 운수기재, 전기설비, 기계 등이며 지어는 물까지 수입한다.

주민은 98%이상이 중국사람이며 영국사람과 기타 구라파사람들이 있다.

공용어는 영국말이나 일상적으로는 중국말을 많이 쓴다.

근로자들의 생활은 어려우며 28만명이 빈민굴에서 살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문회보, 대공보, 성도만보, 상강상보, 상강 스탠다드, 스타, 차이나 메일

방송 상강방송, 상강상업방송, 상강텔레비존방송

1974년 상강에서는 제18차 국제영화축전에서 세계영화계를 뒤흔들어 놓고 특별상과 특별메달을 받은 불멸의 기념비적명작인 우리 나라 천연색광폭예술영화 《꽃파는 처녀》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상영되였다. 《꽃파는 처녀》가 상영되는 기간 상강신문들은 《사람들을 깊이 감동시키는 영화》, 《예술적감화력이 풍부한 영화》, 《천만가지 좋다는 영화가운데서 제일 좋은 영화》, 《소문난 그대로의 〈꽃파는 처녀〉》, 《국제영화축전에서 특등상을 받은 〈꽃파는 처녀〉》, 《사람들에게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겨주는 〈꽃파는 처녀〉》등의 제목을 달고 이 영화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찬양하는 글들을 실었다.

또한 상강에서는 우리 나라 예술영화들인 《독로강반에 핀 꽃》과《명랑한 무대》가 커다란 관심속에 상영되였다. 상강신문들은 《사람들의 정신을 밝게 해주는 샘물》, 《어리광대의 어제와 오늘》등의 제목을 달고 영화들에 대한 관평을 실었다.

1974년에 상강의 출판, 사회계에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글들과 성명들을 발표하였다.

《상강 스탠다드》7월 12일호는 남조선애국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하려는 박정희괴뢰도당의 극악무도한 살인공판놀음을 폭로규탄하는 사설을 발표하였다.

7월 16일에는 상강주민들이 박정희파쑈악당들의 야수적인 인민탄압학살만행을 폭로규탄하는 항의시위를 벌렸다. 시위자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만행에 항의하는 편지를 괴뢰《총령사관》에 들이댔다.

7월 17일 멜보른에서 진행된 아세아에서의 빈궁과 실업에 관한 쎄미나르와 아세아학생협회 제4차대회에 참가하였던 상강학생련맹대표단이 련맹의 명의로 박정희괴뢰도당의 야수적인 파쑈폭압만행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7월 22일에는 학생들이 박정희파쑈살인악당의 천인공노할 인민탄압만행을 단죄규탄하여 항의시위를 벌렸다.

1974년 11월 웰렘 탐보트주식회사전문취체역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아오먼(마카오)

중국의 령토인 아오먼은 중국의 남해기슭, 상강에서 서쪽으로 60～70km 되는곳에 자리잡고있다. 좁은 갑에 의하여 광동성에 잇닿은 아오먼반도와 한적도와 帝도 등 작은 섬들로 이루어졌다.

넓이 16km²

인구 32만명

행정중심지 아오먼 (마카오)

1516년부터 중국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한 포르투갈식민주의자들은 1553년 부패무능한 명나라통치계급에 압력을 가하여 얼마의 돈을 주고 이 지역에서 무역할수 있는 권한을 빼앗아냈다.

1557년에는 제놈들자신이 중국의 해적토벌에 《원조》를 주었다는것을 구실로 거주권을 얻어내고 이곳을 《조차지》로 만들었다. 1887년 12월에는 조차료지불을 거부하면서 청국정부에 강요하여 아오먼을 완전히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후 놈들은 중국의 불가분리의 령

로인 다이완섬에 쫓겨간 장개석도당을 승인하고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중국정부는 1955년 10월 아오먼이 중국의 령토이며 이에 대하여 중국이 반환할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성명하였다. 이렇게 되자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파괴활동의 근거지로 리용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1965년 3월에는 아오먼에 있는 장개석도당의 사무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아오먼에 《총독》을 두고 통치하고있다.

1974년에 아오먼에 있는 뽀르뚜갈군을 줄일데 대한 뽀르뚜갈정부의 계획에 따라 뽀르뚜갈군의 일부가 철거하였다.

경제의 기본은 어업이며 년산 약 500만딸라에 달하는 물고기를 잡아 가공하여 팔고있다. 이외 직물과 성냥, 애자 등을 만드는 가내공업과 금세공이 있으나 보잘것 없다. 식량은 사들인다.

국제적도박장으로 유명하며 이 도박장을 통한 세금수입과 관광수입으로 재정을 유지하고있다.

상강을 통한 중계무역을 주로 하고있다. 대외무역액은 년간 6천 500만~7천만딸라이며 수입은 수출의 2배를 넘는다.

주요수출품은 남아프리카에서 가져다 다시 세공한 금세공품을 비롯하여 각종 수공업제품, 식료품, 섬유제품이며 수입품은 금, 식량, 음료수 등이다.

주민은 약 98%가 중국사람이다.

공용어는 중국말이다.

주민들의 문화수준은 낮으며 그들의 생활은 어려운 형편에 있다.

몽 골

(몽골인민공화국)

넓이 156만 5,000km²
인구 142만 2,400명 (1975년 1월 1일)
수도 울란 바따르 (주민 27만명)

정 치

대인민후랄 최고주권기관이며 임기는 3년, 현재의 대인민후랄은 제8기로서 1973년 7월 3일에 선거

상임위원회 위원장 윰좌긴 쩨덴발 (1974년 6월 11일—)

정부 총리 즈. 바트멍흐 (1974년 6월 11일—), 외교부장 룬돈긴 린친, 보위부장 바먼 도르쥬

정당, 사회단체; 인민혁명당 1921년 3월 1일에 창건된 인민당을 1924년 8월 제3차 당대회에서 인민혁명당으로 고쳤다.

제1비서 윰좌긴 쩨덴발

직업동맹, 혁명청년동맹, 근로녀성동맹, 몽골조선친선협회 1960년 8월12일 창건, 위원장 므. 르함수렌

1921년 7월 11일 몽골인민은 인민당의 령도밑에 외래침략자들과 봉건통치배들을 물리치고 인민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다.

1924년 11월 26일에는 몽골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때로부터 몽골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봉건사회로부터 자본주의발전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회주의에로 넘어가게 되였다.

1925년 몽골인민혁명당 제4차대회에서 채택한 강령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당의 기본과업에 따라 1940년까지 사회주의건설의 제1단계 과업인 일체 봉건적잔재를 청산하였다.

1940년 제10차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제2단계로서 사회주의기초축성을 위한 주요과업을 규정한 강령을 제시하였다.

1960년 7월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였다.

1966년 6월 제15차 당대회에서는 10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당강령을 개정하고 나라의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축성을 완성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1971년 6월 제16차 당대회에서는 인민경제 및 문화발전 제5차 5개년계획(1971~1975)에 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1974년 1월 15일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는 1974년에 인민혁명당 제3차대회 50돐, 몽골인민공화국선포 50돐을 맞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당중앙위원회결정서를 채택하였다.

1월 19일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내각, 직업동맹 중앙평의회, 혁명청년동맹 중앙위원회는 1974년 인민경제 및 문화 발전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전국사회주의경쟁을 벌릴데 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2월 7일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인민통제기관들의 역할을 높이고 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2월 20일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내각은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세울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2월 12일 제1차전국열성농민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농업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6월 10일 울란 바따르에서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는 대인민후랄 제8기 3차회의의 심의에 제출할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또한 농산물생산을 늘이며 농촌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제시한 대책들을 찬동하였다.

11월 23일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1975년도 인민경제 및 문화발전 국가계획에 대한 보고와 1975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의하고 해당한 문제들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6월 11일 대인민후랄 제8기 제3차회의에서는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의 제의에 의하여 유. 쩨덴발을 내각총리직에서 해임하고 대인민후랄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하였으며 내각총리로 즈. 바트멍흐를 임명하였다.

1974년에 서독 (1월), 타이 (3월), 이슬란드 (6월), 뽀르뚜갈 (7월)과 각각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4년 4월 26일 베이징에서 몽골과 중국간에 1974년도 상품호상납입에 관한 의정서를 조인하였다.

7월 1일에는 모스크바에서 쏘련과 경제 및 교육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8월 16일에는 민주독일과 1975년도 상품호상납입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9월 17일에는 체스꼬슬로벤스꼬와 품질, 규격화, 도량형학분야에서의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에 각각 조인하였다.

1974년 6월과 9월에 대인민후랄 상임위원회 위원장 쩨덴발이 웽그리아와 유고슬라비아를 각각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축산업을 위주로 하는 사회주의적농업—공업국가이다. 국민총생산액에서 농업이 약 60%를 차지한다. 농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농업에서 일면성이 극복되고 농업구조에서 변화가 일어났으나 아직도 축산업이 민족경제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인구 1인당 집짐승마리수에 있어서 세계 첫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양, 염소, 말, 소, 락

라 등이다.

1974년말현재 집짐승과 고기국가수매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집짐승새끼는 890만마리에 달하였다.

이것은 1973년에 비하여 약 100만마리가 더 늘어난것으로 된다.

축산업의 물질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1973년에만도 300만헥타의 방목지에 물을 댈수 있게 하였으며 많은 우물과 230여개의 저수지를 새로 만들었다.

농업은 혁명후 새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나 매해 수십만톤이상의 알곡을 생산하고있다. 1973년에 국영농장들과 농업협동조합들의 씨뿌림면적은 71만 6천헥타였다.

주요농산물은 밀, 귀밀, 보리, 감자 등이다. 1973년의 알곡생산량은 47만 6천 600여톤이였다.

혁명후에 창설되여 발전하기 시작한 공업은 1973년현재 사회총생산량의 36.3%, 국민소득의 24.1%를 차지하고있었다.

주요지하자원은 석탄, 쇠돌, 금, 은, 동, 망간, 몰리브덴, 형석 등이다.

주요공업부문은 축산물가공을 위주로 하는 식료공업, 가죽공업, 모방직공업과 채굴공업, 목재가공공업이다.

축산물가공과 모방직, 가죽 공업을 비롯한 경공업이 공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경공업공장들은 주로 울란바따르에 집중되여있다.

채굴업에서는 석탄채굴이 기본으로 되고있다.

주요공업지구는 울란 바따르, 초이발싼, 쑤헤바따르, 다르한시이다.

지하자원 탐사와 개발 사업이 진척되여 새로운 광산들이 건설되고있다. 1973년까지 160개소의 석탄매장지 (총매장량 약 200억톤)가 발견되였다. 1974년 동부고비도에 새로 광산이 조업하였는데 500만푸그리크어치의 광석을 캐낼것을 계획하고있다.

운수에서의 기본은 철도운수와 자동차운수이다. 화물량의 약 60%이상을 철도운수로 처리한다. 울란 바따르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자동차길이 뻗어있다. 1974년에 쑤헤바따르시와 다르한시를 련결하는 95키로메터의 포장도로가 새로 건설되였다.

주요수출품은 집짐승, 가죽, 양털, 고기 및 그 가공품이며 수입품은 공업설비, 건재, 농기구, 화학제품, 일용필수품 등이다.

교육분야에서는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있다. 1973년 3월현재 보통교육부문에서만도 532개의 학교에서 26만1천 2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었다.

주민은 90%이상이 몽골사람이며 그밖에 까자흐사람, 중국사람, 로씨야사람들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몽골말이다. 그러나 일부 종족들은 자기의 종족어를 쓰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몬짜메

신문 우넨 (당및정부기관지), 허뎀머르 (직업동맹기관지), 잘로초딘 우넨 (혁명청년동맹기관지)잡지

나뮌 아미드랄(인민혁명당기관잡지)

방송 울란 바따르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0월 1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6년 5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같은해 11월에는 경제및문화협정을 맺었다.

1969년 6월 7일에는 우리 나라와 평사협약을 맺었다.

1960년 8월 12일에 몽골조선친선협회가, 1961년 7월 7일에는 조선몽골친선협회가 각각 결성되였다.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여섯돐에 즈음하여 2월 6일 다르한시 위수경비대에서 기념집회가 진행되였다. 또한 몽골신문《잘로초딘 우넨》 2월 8일호는 편집국론설을 발표하였다.

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에 즈음하여 몽골조선친선협회 주최로 9월 5일 울란 바따르에서 경축집회가 진행되였다. 또한 울란 바따르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상영주간이 진행되였다.

1974년에 몽골인민공화국정부와 인민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몽골은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립장을 지지하여 연설하였으며 총회에 제출된 우리측을 지지하는 40개국 공동결의안의 성원국으로 활동하면서 이 결의안에 찬성투표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이 나라 신문《허뎀머르》 1974년 7월 4일호는《정의의 위업은 승리한다》라는 제목의 론설을 발표하였다.

1974년에 몽골 당사업일군대표단 (7월), 외교부장 (12월), 인민군협주단 (12월) 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2월 21일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이 나라 외교부장과 그 일행을 접견하시였다.

이해 5월 우리 나라 은행대표단이 몽골을 방문하였다.

웰 남

(웰남민주공화국)

넓이 15만 8, 750km²
인구 2, 100만명 (1971년말)
수도 하노이 (주민 65만명)

정 치

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이며 임기는 4년, 현인민회의는 제4기로서 1971년 4월 11일 420명의 대의원을 선거

상무위원회 위원장 장 정

주석 손 덕 승 (1969년 9월—), 임기 4년, 국방회의와 특별정치회의 의장을 겸한다.

정부 총리 범문동 (1964년 7월—), 외교부장 원유정, 국방부장 무원갑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1930년 2월 3일에 창건된 인도지나공산당을 1951년 2월 3일 제2차 전국대표자회에서 로동당으로 고쳤다.

제1비서 려 순

민주당, 사회당, 조국전선, 직업동맹, 호지명로동청년동맹, 청년련맹, 녀성동맹, 웰남조선친선협회 1965년 8월12일 결성, 위원장 하휘갑

1945년 8월 19일 웰남인민은 공산당의 령도밑에 총봉기를 일으켜 외래침략자들과 바오다이반동정권을 뒤집어엎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1945년 9월 2일 동남아세아에서 첫인민민주주의국가인 웰남민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1946년 12월부터 웰남인민은 로동당의 령도밑에 프랑스침략자들을 반대하는 8년간의 영웅적항전을 벌려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지켜냈다.

1954년 7월 웰남의 독립, 자주권, 통일 및 령토완정을 인정하는 제네바협정이 체결되였으며 웰남은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남북이 림시적으로 갈라지게 되였다.

그러나 미제는 2년안에 전국적인 총선거를 실시하여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통일을 실현하도록 규정한 이 협정을 란폭하게 짓밟고 제놈들의 앞잡이들을 부추겨 1956년 3월《단

독선거》로 괴뢰정권을 조작하였으며 남부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미제는 남부웰남에서 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면서 1964년 8월에 이르러서는《바크보만》사건을 날조하고 1965년부터 북부웰남에 대한 폭격과 포격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미제는 50여만의 미제침략군과 수많은 추종국가 및 괴뢰군을 끌어들여《특수전쟁》을《국부전쟁》으로 확대하였다.

웰남침략전쟁에서 참패를 거듭하게 된 미제는 겉으로는 기만적인《평화협상》을 떠벌이면서 막뒤에서 침략전쟁을 더욱더 확대하는데로 나아갔다.

1965년 4월 7일 웰남민주공화국정부는 웰남문제해결을 위한 4개항목의 립장을 천명하고 웰남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웰남침략전쟁에서 심대한 정치군사적패배를 당한 미제는 1968년 5월 2일부터 빠리평화회담에 끌려나오지 않을수 없었으며 28차례의 빠리평화회의와 174차례의《4자회의》, 1969년 8월이래 민주웰남측과 여러차례의 비밀회담끝에 1973년 1월 27일 많은 문제들에서 굴복하고 정화협정에 조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정화후 미제는 정화협정을 처음부터 란폭하게 파괴유린하고 티우괴뢰도당을 부추겨 남부웰남에서 전쟁상태를 지속시키면서 웰남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책동하였다.

미제는 제놈들의 침략군부대를 전부 철수하였다고 하면서도 1973년 3월 29일 현재 2만 5천여명의 군사인원들을 사복을 입혀 남부웰남에서 군사활동을 계속시키고 있었다.

또한 비행기, 땅크, 각종 무기 및 탄약을 끌어들여 남부웰남괴뢰군의 현대화를 다그치는 한편 사이공괴뢰도당을 부추겨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의 통제지역을 빼앗기 위한《작전》을 발광적으로 벌리게 하였다.

1974년 1월 6일 미국방장관이 란놈은《남부웰남에 미공군의 지원이 고려될지 모른다》느니, 민주웰남은《미국이 남부웰남군(사이공괴뢰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대를 파견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느니 뭐니하면서 남부웰남에 미제침략군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제놈들의 검은 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1974년 1월 17일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는 빠리협정이 조인된 때로부터 미제와 사이공괴뢰도당이 이 협정을 계속 위반하여 온 엄중한 행위들을 폭로 규탄하는 백서를 발표하였다.

1973년 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만도 사이공괴뢰도당의 협정위반행위는 30만 1천 97건이나 되였다.

1974년 민주웰남 정부와 인민은 미제와 사이공괴뢰도당의 도발책동을 철저히 짓부시면서 평화를 유지공고화하며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발전시키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미구국항전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웰남인민은 오늘 평화를 유지공고화하며 인민경제를 복구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있습니다.》

1월 22일 정부회의에서는 1973년도 국가계획수행정형과 국가예산집행정형을 총화하고 1974년도 국가계획 및 예산 초안을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1974년도의 주요과업은 전쟁의 후과를 가시고 인민경제를 급속히 복구발전시키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경각성을 높이며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할것과 1974년도 국가계획을 완수 및 초과완수하기 위한 대중적투쟁을 힘차게 벌릴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2월 4일부터 9일까지 인민회의 제4기 4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1974년도 계획 및 국가예산 초안을 토의하고 1974—1975년도 인민경제복구발전과업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1974년도 예산을 승인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인민회의 대외관계위원회를 새로 내올데 대하여 결정하고 그 위원장으로 춘수를 선거하였다.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직업동맹 제3차대회가 진행되였으며 3월 4일부터 7일까지에는 녀성동맹 4차대회가 진행되였다.

1974년에 웰남민주공화국 정부는 웰남민주공화국을 반대하여 빠리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도발책동을 벌리고있는 미제와 사이공괴뢰도당을 폭로규탄하여 여러차례의 성명들을 발표하였다.

2월 8일 외교부대변인은 빠리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사이공괴뢰군놈들에게 해적선 4척을 넘겨주는 범죄행위를 감행한 미제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2월 16일에는 미제전쟁두목 닉슨이 1974—1975회계년도에 남부웰남괴뢰도당에 대한 군사《원조》를 2배로 늘일것을 미국국회에 요구한 사실과 사이공괴뢰군을《현대화》하기 위해 수많은 비행기와 함선들을 남부웰남괴뢰도당에 넘겨줄것을 결정하고 이미 사이공괴뢰도당의《군사계획》을 작성할 미제침략군군사대표단이 15일 사이공에 기여든 사실을 폭로규탄하여 외교부성명을 발표하였다.

4월 16일과 19일에 외교부는 남부웰남내부문제에 대한 간섭을 더 한층 강화하면서 수많은 무기와 기타 군사장비를 끌어들여 남부웰남괴뢰군을 강화하고있는 미제와 그의 부추김밑에《땅빼앗기작전》을 벌리면서 해방지역에 대한 공격을 더욱 미친듯이 감행하는 사이공괴뢰도당을 규탄하여 각각 성명을 발표하였다.

5월 17일 외교부는 미제가 사이공괴뢰도당에 대한 군사원조를 더욱 강화하고있는데 대하여서와 미제의 부추김밑에 사이공괴뢰도당이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관할지역에 대한《땅빼앗기작전》과《평정작전》을 계속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날날이 폭로규탄하는 성명을 또다시 발표하였다.

6월 6일에 외교부는 또한 미제가《에프5이》전투기를 비롯한 무기, 탄약 및 전쟁물자를 남부웰남에 대량적으로 들이밀고 있을뿐아니라 탄약공장까지 건설할것을 꾀하고있는것을 폭로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6월 21일에는 사이공괴뢰도당이 20일 비행기와 군함을 동원하여 식료품을 싣고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 평해에서 민수임무를 수행하던 웰남민주공화국 수송선을 공격하여 침몰시키고 승무원 여러명을 억류하는 도발행위를 저지른것을 폭로규탄하여 외교부성명을 발표하였다.

6월 23일 외교부는 미제의 사촉밑에 회담을 파괴하고있는 사이공괴뢰도당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8월 8일에는 사이공괴뢰도당이 6일《에프 5이》분사식비행기를 비롯한 여러대의 공중비적들을 40여차례나 내몰아 로크 닌읍을 야수적으로 폭격하는 만행을 저지른것을 호되게 규탄하여 외교부성명을 발표하였다.

8월 17일 외교부는 미국의 새대통령으로 올라앉은 포드가 닉슨의 웰남정책을 추구할것이며 남부웰남괴뢰도당에 대한 군사경제《원조》를 계속 할것이라고 떠벌인것을 폭로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974년 3월에 혁명리사회 의장이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후아리 부메디엔과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 부총리 겸 국방부장인 키에

우 삼판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대표단이 이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1974년에 정부총리 범문동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알제리 (4월), 유고 (4월), 스웨리예 (4월), 구바 (3월) 등을 방문하였다.

1974년에 웰남민주공화국은 말따 (1월), 아프가니스탄 (9월) 과 각각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총생산액에서 농업이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벼, 강냉이이며 고무, 사탕수수, 바나나, 야자, 카싸바 (수박의 일종), 커피 등도 생산된다.

웰남에서는 1956년에 토지개혁이 끝났으며 1958년부터 협동화운동이 시작되였다.

1971년초 전체 농가의 94.3%가 조합에 망라되였었다.

부침땅의 90%에 알곡작물을 심고있는데 그중 논이 80%이상을 차지한다.

1974년에 알곡생산량은 1973년에 비하여 21.4% 늘어났다.

그중 올벼단위당 생산량은 력사상 최고이며 늦벼단위당 생산량은 15년래에 최고수준에 도달하였다. 헥타르당 년평균생산량은 6톤, 최고 10톤생산하였다. 주요 벼생산지는 홍하하류지역이며 북부웰남의 논과 벼수확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 물소, 돼지이다.

소와 물소는 부림소로 많이 리용한다.

전국토의 60%가 산림이며 질좋은 목재가 많이 생산된다.

공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은 석탄, 린회석을 비롯한 채광공업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석탄, 쇠돌, 주석, 망간, 중석, 금, 연, 린산염 등이다.

석탄이 가장 많이 나는곳은 바크보만기슭에 있는 홍가이로천탄전이다.년산 300만톤이상의 능력을 가진 이 탄전은 콕스탄대용으로 쓸수 있게 질 (6천500~8천카로리) 이 좋으며 탄층이 50~100메터에 달한다.

라오카이에서는 품위높은 린회석이 채굴된다.

흑색금속공업과 기계제작공업은 해방후에 창설된 공업부문이다.

쇠돌산지인 타이웬과 느게 안주소재지부근에 흑색금속공장들이 건설되였으며 하노이에는 현대적기계공장들이 건설되였다.

하이퐁에는 세멘트공장 (년산 40만톤) 이 있다.

1974년에 공업 및 수공업생산은 1973년에 비하여 15% 늘어났는데 그중 중앙공업은 26.7%, 지방공업은 7.4%로 각각 늘어났다.

북부웰남인민은 정화후 파괴된 공장, 기업소들을 복구개건하며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1973년에만도 687개의 공업기업소들이 복구개건되였으며 많은 공장, 광산들에서 생산이 정상화되였다.

1974년 3월에는 빈 푸주 송로강반에 《송로》 조선소가 새로 조업하였으며 칸손수력발전소 (능력 7만 6천여키로와트), 느구옌강철공장의 3기용광로 그리고 2개의 정미공장 등이 새로 건설되였다.

1974년 9개월동안에만도 기본건설부문에서는 766개의 건설대상이 완공되였다.

45만평방메터의 살림집, 1만 6천개의 교실이 새로 건설되였으며 60개의 의료단위가 복구재건되였다. 또한 50개소에 군병원이 건설되였다.

운수에서 기본은 철도와 해상운수이다.

철길의 총연장길이는 1천키로메터이며 자동차길은 1만키로메터이다.

정화후 짧은 기간에 모든 기본간선철길의 운행이 회복되였다.

1974년에만도 1천여키로메터에 달하는 다리들이 수리되였다.

그리하여 1974년에 화물수송량은 1973년에 비하여 30% 늘어났다.

주요수출품은 크롬, 린회석 등 광물과 쌀, 차, 커피, 참대, 찌크재이며 주요수입품은 금속 및 기계설비와 공업제품 등이다.

주민의 약 90%가 웰남족이며 그밖에 60개의 소수민족이 있다.

공용어는 웰남말이다.

출판보도; 통신 웰남통신

신문 인민 (로동당기관지), 구국 (조국전선기관지), 인민군 (인민군기관지)

잡지 학습 (로동당리론잡지)

방송 《웰남의 소리》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0년 1월 3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7년 11월 20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5년 8월 12일 웰남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으며 1965년 8월 27일에는 조선웰남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4년 8월 2일 평양에서 두 나라간에 1974—1975년도 문화교류계획서가 조인되였다.

1974년에 웰남인민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을 비롯한 여러가지 런대성행사들을 진행하였다.

5월 웰남민주법률가협회는 성명을 발표하여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전개하고있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애국자들을 파쑈적으로 탄압하고있는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7월 29일 웰남민주법률가협회는 남조선청년학생들에 대한 박정희살인악당의 군사재판놀음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1월 웰남조국전선 중앙위원회는 우리 나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의 11월 8일부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을 냈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웰남각지에서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군중집회들이 진행되였다.

6월 25일 하노이에서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군중집회를 가지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지지하는 성명을 채택하였다.

6월 7일에는 미제가 남조선에 더 많은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면서 조선에서 정세를 긴장시키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외교부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8월 16일 하노이에서는 웰남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웰남조선친선협회, 웰남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의 공동주최로 남조선애국자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탄압만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지고 박정희도당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인민》지 11월 21일호는 미제의 우두머리 포드의 남조선행각을 규탄하여 《미군은 남조선에서 물러가라》라는 제목의 론평을 실었다.

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에 즈음하여 9월 6일 하노이에서 웰남조국전선 중앙위원회와 웰남조선친선협회, 웰남대외문화련락위원회의 주최로 집회를 가졌다.

또한 웰남조선친선협회와 웰남대외문화련락위원회는 조선에 관한 강연을 조직하였다.

9월 5일 하노이에 있는 국제구락부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다.

1973년 6월 26~7월 1일까지 범문동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웰남당및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4년에는 웰남문화대표단 (8

월), 통신사대표단(5월)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직맹대표단(2월), 녀성대표단(3월)이 윁남을 방문하였다.

남부윁남

(남부윁남공화)

넓이 17만 3,809km²
인구 1,900만명 (1971년 말)

정 치

공화림시혁명정부 자문리사회 1969년 6월 남부윁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 종교단체, 소수민족, 정치세력 인사들과 지식인들의 대표들로 구성, 정부의 대내외정책에 관한 의견과 조언을 주는것을 과업으로 삼고있다.

위원장 원우수

공화림시혁명정부 1969년 6월 6~8일까지의 사이에 남부윁남민족해방전선과 윁남민족민주평화력량동맹을 비롯한 남부윁남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 종교단체 및 각계각층 대표들이 남부윁남국민대표자회의를 진행하고 수립

주석 휜면팔, 외교부장 윈티빙, 국방부장 쩐남중

정당, 사회단체; 남부윁남민족해방전선 1960년 12월 20일 남부윁남의 광범한 애국력량을 망라하여 창건된 반미구국통일전선체

상무위원회 위원장 원우수

인민혁명당 1962년 1월 1일에 창건, 로동계급의 혁명적전위대로서 남부윁남에서 처음으로 조직된 맑스-레닌주의당이다. 윁남민족민주평화력량동맹 1968년 4월 20일 남부윁남의 적강점지역안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과 정당, 대중단체들을 망라하여 창건된 반미구국통일전선체, 해방로동련맹, 호지명인민혁명청년동맹(1973년 8월 남부윁남인민혁명청년동맹 제2차대회에서 현재 이름으로 고침), 해방녀성동맹

1969년 6월 6일 남부윁남인민들은 미제와 괴뢰도당을 반대하는 영웅적투쟁을 통하여 남부윁남인민의 유일한 합법적대표인 남부윁남공화 림시혁명정부를 수립하였으며 1973년 1월 27일에는 장기간의 반미구국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부윁남인민의 참다운 합법적대표로서 지난 다섯해동안 남부윁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정확히 령도하여 위대한 승리를 달성한 남부윁남공화림시혁명정부는 오늘 빠리협정을 엄격히 리행하며 해방지역을 민주주의적민족혁명의 튼튼한 기지로 꾸리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으며 그의 국제적지위는 끊임없이 높아지고있습니다.》

1974년에 남부윁남공화 림시혁명정부와 인민은 빠리협정을 엄격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였다.

빠리협정을 리행하는데서 미제와 티우괴뢰도당의 교활하고 범죄적인 방해책동은 커다란 장애로 되였다.

미제는 윁남에 관한 빠리협정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남부윁남에서 티우도당을 내세워 전쟁상태를 지속시키며 신식민주의정책을 계속 감행하였다. 미제는 협정조항에 따라 제놈들의 침략군과 전쟁수단들을 남부윁남에서 모조리 끌어내가게 되였음에도 불구하고 2만 5천명의 미제침략군을 《민간인》으로 가장시켜 제놈들의 대사관, 총령사관, 사이공괴뢰도당의 《행정기관》 및 괴뢰군에 배속시켜 군사, 정치적 《지휘와 지도》를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놈들은 빠리협정조인후 1973년말까지에만도 수십톤의 포탄과 탄약, 500여대의 각종 비행기와 900여대의 군용차를 비밀리에 남부윁남에 끌어들여 사이공괴뢰군의 현대화를 다그쳤다. 1973년도 남부윁남괴뢰들에게 준 《원조》 30억딸라중 대부분이 군사《원조》이다. 1974년에는 군사경제《원조》를 더욱 늘이고 남부윁남에 대한 《6개년장기원조계획》이란 것까지 꾸며냈다.

1974년 3월부터 미제는 남부윁남괴뢰군이 사용하던 비행기를 《교체》해준다는 명목밑에 남부윁남에 최신형 군용기를 대대적으로 밀어넣었다. 1974년 7월 8일 미제는 4대의 《에프 5이》형 초음속분사식비행기를 남부윁남괴뢰들에게 넘겨주었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남부윁남괴뢰군은 해방지역에 대한 《땅빼앗기작전》과 《평정》》작전을 계속 벌리면서 해방지역에 대한 폭격과 포격 등 군사행동을 끊임없이 벌리였다.

1973년 1월 28일부터 1974년 8월 10일까지의 사이에만도 사이공괴뢰도당의 빠리협정위반행위는 무려 42만 1천 269건에 달한다.

미제와 남부윁남괴뢰도당은 고의적으로 2자공동군사위원회와 4자공동군사위원회의 활동을 중단상태에 빠뜨렸으며 남부윁남괴뢰들은 2자 및 4자 공동군사기구회의에 참가하는 윁남민주공화국 군사대표단과 남부윁남공화림시혁명정부 군사대표단에 대한 특권과 특전보장을 거부하였다.

이리하여 남부윁남전역에서 정화협정리행에 대한 통제, 쌍방군대통제지역의 확정 등 일련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하였다.

또한 미제와 남부윁남괴뢰도당은 전쟁시기 붙잡힌 20여만의 《정치범》중에서 다만 1천 500명만 석방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비밀리에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미제와 티우괴뢰도당의 이러한 책동에 대처하여 1974년 3월 22일 남부윁남공화림시혁명정부는 진정한 평화와 민족화해 및 화목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부윁남의 내부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려는 념원으로부터 남부윁남의 모든 지역에서 즉시 정화를 실시할데 대한 6개항목제안을 내놓았다.

6개항목제안은 다음과 같다.

1) 남부윁남의 모든 지역에서의 즉시 정화실시

2) 군인, 민간인 할것없이 모든 포로의 석방

3) 남부윁남전지역에서의 민주주의적권리의 회복

4) 지체없이 전국민족화해일치리사회를 설치할것

5) 《진정으로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총선거실시

6) 군대문제의 해결과 통일적인 남부윁남군창설

1974년 6월 10일 남부윁남공화 외교부는 공동군사위원회사업에 대한 미제와 사이공괴뢰도당의 파괴행위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사이공괴뢰도당이 협상파괴행위를 중지하지 않는 이상 남부윁남공화 림시혁명정부는 공동군사위원회를 비롯한 당사자측사이의 회의 또는 협상들에 참가하지 않을것이라고 지적하였다.

8월 1일 남부윁남공화 외교부는 미제가 이른바 《6개년장기원조계획》이라는것까지 만들어놓고 사이공괴뢰도당에게 계속 《원조》를 주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8월 7일 남부윁남공화 외교부는 6일 사이공괴뢰도당이 《에프 5이》분사식비행기를 포함한 여러대의 비행기들을 40여차나 내몰아 로크닌읍을 야수적으로 폭격하여 녀성들과 어린이를 수십명을 학살하고 100여명을 부상시키는 용납못할 만행을 감행한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

다. 이밖에도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는 1월 11일, 1월 14일, 1월 18일, 2월 1일, 4월 18일, 6월 10일 등 수십차에 걸쳐 미제와 괴뢰도당의 빠리협정위반행위를 규탄하는 각종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남부웰남인민과 그 무장력은 단합된 힘으로 미제와 그 주구들의 협정위반행위를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빠리협정의 정확한 리행을 위하여 싸웠다.

1973년에 남부웰남인민과 그 무장력은 24만명에 달하는 적유생력량을 소멸하고 수많은 전쟁수단과 장비들을 까부시거나 빼앗았으며 놈들이 사단, 려단급 병력을 동원하여 벌려놓은 《작전》들을 보기좋게 좌절시키면서 해방지역을 믿음직하게 지켜냈다.

1974년 1월 한달동안에 미 토주에서는 사이공괴뢰군의 230여차에 걸치는 《땅빼앗기작전》을 짓부시고 2천 497명의 적을 쓸어버렸으며 군용차 21대, 함선 2척, 포 5문을 까부시고 비행기 6대를 쏴떨구거나 파괴하였다.

이밖에도 무기 140점, 무전기 11대와 많은 군수물자를 빼앗았다.

또한 벤 트레주에서 활동하는 인민해방무장력은 1월 한달동안에 900여명의 적을 쓸어눕히고 100여점의 무기를 빼앗았다.

메콩강삼각주 서부지역에서 활동하는 인민해방무장력은 2월 한달동안에 해방지역공격에 미쳐날뛰던 5천 500여명의 적을 쓸어버리고 해적선 8척을 물속에 처넣거나 불태워버렸으며 군용차 22대를 까부시고 직승비행기 6대를 쏴떨구었다. 또한 빠리협정에 어긋나게 놈들이 해방지역에 비법적으로 만들어놓은 군사기지 2개를 짓부셔버리고 약 2만명의 주민들을 해방하였다.

1974년 한해동안에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은 25만 5천명의 적을 쓸어눕히고 놈들의 준군관구 및 소재지 13개, 적들의 요새와 초소 4천 500개를 점령하였으며 122만명의 주민들을 해방하였다.

또한 적군용차 4천여대와 포 500여문, 탄약창고 217개를 파괴하고 3천 160만리터의 연유를 불태워버렸으며 다리 325개를 폭파하고 해적선 420척을 물속에 처넣거나 마사버렸으며 비행기 518대를 격추격상하고 여러가지 무기 3만 3천여점을 빼앗았다.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의 응당한 반격앞에 참패를 거듭한 남부웰남괴뢰군놈들은 1974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사이에 남 보 중부지역에서만도 약 8천명이나 해방지역으로 넘어오거나 달아나버렸다.

6월 사이공괴뢰도당에 의하여 20여개의 집단수용소에 갇혀있던 1만 8천여명의 남부웰남인민들이 들고일어나 수용소를 짓부시고 해방지역으로 넘어왔다.

8월에는 타이 닌주 챠우 탄지역의 적 수용소에 갇혔던 1천명의 인민들이 살길을 찾아 해방지역으로 넘어왔다.

남부웰남 적강점지역인민들도 괴뢰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렸으며 살길을 찾아 해방지역으로 넘어왔다.

1974년 8월 꽝 남주의 퀘 손군에서는 약 3천명의 주민들이 괴뢰군에 끌려간 남편과 아들 형제들을 해방지역에 대한 《땅빼앗기작전》에 내몰고있는 사이공괴뢰도당들을 반대하여 강력한 시위를 벌렸다.

사이공로동자들과 수천명의 제탕부문로동자들은 임금을 올릴것과 생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드센 투쟁을 벌렸다.

이렇듯 남부웰남에서는 빠리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는 미제와 티우괴뢰도당을 반대하는 남부웰남인민의 투쟁이 치렬히 전개되였다.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기간에 남부웰남 사이공괴뢰도당은 뻔뻔스럽게도 해군과 공군을 동원하여 중국의 령토인 서사군도에 대한 군사적도발행동을 감행하였다.

1974년에 남부웰남인민은 전후 공화림시혁명정부가 규정한 기본과업에 따라 해방지역을 민주주의적민족혁명의 기지로 꾸리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렸다.

림시혁명정부는 남부웰남의 44개 주와 6개의 도시, 약 200개의 현과 2천개의 리에 각급 혁명정권을 세우고 정권기관들을 튼튼히 꾸렸다. 또한 해방지역건설을 적극 추진시키고있으며 당면하게는 농업과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집중하고있다.

이와 함께 령락된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생활필수품을 해방지역에서 자체로 생산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1974년 2월 5일부터 6일까지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의 1974년도 제1차내각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1973년도 정세를 총화하고 1974년도 과업과 사업방향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대외적으로도 공화림시혁명정부의 합법적지위는 더욱 높아지고있다. 공화림시혁명정부는 이미 40여개 나라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며 외교관계를 맺고있다.

1974년 6월에 기네—비싸우, 말가슈, 모리셔스와 각각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또한 2월에는 세네갈에 대사관을 새로 개설하였으며 5월 22일에는 빠리에 공화림시혁명정부 상설대표부를 설치하였다.

1974년에 민족해방전선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며 공화림시혁명정부 자문리사회 위원장인 윈우수를 단장으로 하는 남부웰남공화대표단이 라오스 (1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체스꼬슬로벤스꼬, 알바니아, 벌가리아 (9월) 등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인구의 85%가 농사한다. 주요농산물은 쌀, 고무, 강냉이, 사탕, 담배 등이다.

해방지역에서는 공화림시혁명정부의 령도밑에 농업이 새롭게 발전하고있다. 약 250만헥타의 지주놈들의 땅이 몰수되여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분배되였다. 농민들은 호상협조반과 공동작업반을 뭇고 파괴된 농촌경리를 복구하며 관개공사를 진행하는 등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3년 한해동안에만도 꽝 트리주에서는 1만 6천여헥타의 땅이 복구정리되였으며 트룽 보 남부지역에서는 부침땅이 1972년보다 13.5%늘어났다.

또한 남 보 서부지역에서는 1973년에 1천 200키로메터의 물도랑을 팠으며 250개의 크고작은 물주머니를 만들었다. 미 토주에서는 1974년 8월에만도 20키로메터에 달하는 물길을 째여 근 1천헥타의 논에 물을 댈수 있게 하였다.

1974년 상반년기간에 트룽 보 중부의 빈딘주에서는 1천헥타의 새땅을 일구고 관개공사를 하여 부침땅의 80%에 해당하는 논에서 2모작농사를 지을수 있게 하였다.

기아 라이주에서는 1973년과 1974년 상반년동안에 1천 500여헥타의 새땅을 일구어 씨를 뿌림으로써 1973—1974년도 늦곡식 생산량을 전해에 비하여 3배나 더 늘였다.

축산업도 발전하고있다.

물소와 돼지 마리수가 많이 늘어났다.

공업도 발전시키고있다. 방직공장, 목재가공공장, 종이공장, 사탕공장,

식료품가공공장 등 많은 공장들이 일떠섰다. 특히 소규모공업과 수공업이 발전하고있다. 1973년 1월부터 1974년 6월초까지의 기간에 트롱보중부의 해방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마을들에 철공소들이 생겨났다. 트롱보남부에 있는 칸 토주와 스크 트랑주들에서는 천을 짜며 돗자리와 밀짚모자를 엮고 항아리를 만드는것과 같은 전통적인 수공업을 복구발전시키고있다. 칸 토주에서는 기계수리업과 제분업을 발전시키고있다.

해방지역에서는 교육사업이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다. 1974년 상반년기간에 남보 서부지역에는 약 300개의 학교가 건설되여 2만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또한 라크 기아주에서는 5천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97개의 학교들이 일떠섰다. 투아 티엔주 해방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리마다에 학교가 세워졌으며 간부들을 재교양하기 위한 학교들이 모든 군들에 건설되였다.

보건망도 늘어나 매주들에 병원, 군들에 진료소, 마을들에는 의료초소들이 설치되였으며 기동의료대들이 조직되여 산간지대에 들어가 치료사업을 하고있다.

티우도당의 반인민적정책에 의하여 적강점지역의 경제는 파국상태에 빠져있다.

절반이상의 공장들이 이미 완전히 문을 닫았으며 남은 공장의 30~50%는 생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다. 특히 방직공장은 80%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문을 닫았으며 생산도 여지없이 떨어지고있다.

적강점지역에서는 퇴폐적인 문화와 폭행, 절도 등이 성행하고있으며 미제와 괴뢰도당의 착취와 략탈로 인민생활은 여지없이 파괴되고있다.

사이공—기아 딘지역에서만도 로동자들의 절반이상이 일자리를 잃고있다.

출판보도 ; 통신 해방통신 (해방지역통신)

신문 기애퐁(민족해방전선기관지), 기애퐁 쾅 (인민해방무장력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6년 5월 외교대표부급의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상설대표부가 우리 나라에 설치되였다.

1969년 6월 12일에는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2년 6월 9일에는 두 나라 정부사이에 외교및공무려권소지자들의 사증제도를 폐지할데 대한 협약을 맺었다.

1974년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며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 자문리사회 위원장인 원우수를 단장으로 하는 남부웰남공화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2월 26일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한 남부웰남공화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2월 29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남부웰남공화대표단 성원들에게 공화국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하도록 하시였다.

12월 29일 남부웰남공화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연설하면서 원우수위원장은 조선인민이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조국건설사업에서 인민의 자력갱생과 자주의 정신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신 존경하는 김일성주석과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령도를 확증해주고있다고 말하였다.

라 오 스

(라오스왕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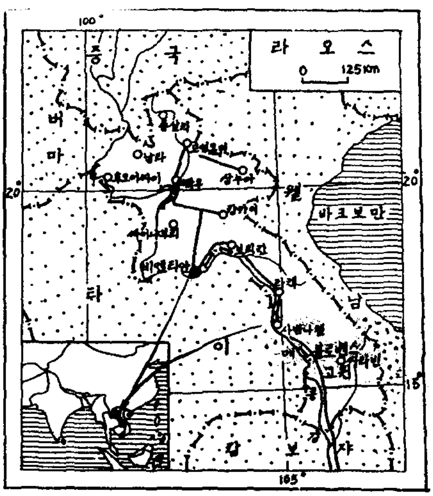
넓이 23만 6,800km²
인구 325만명 (1974년 12월)
수도 비엔티안 (주민 14만명)

정 치

국왕 사방 바타나 (1959년 10월—)

민족련립정치리사회 1974년 4월 5일 비엔티안협정과 의정서에 따라 조직된 중앙권력기관, 애국전선측과 비엔티안측 각각 16명, 중립파 10명, 총 42명으로 구성, 림시민족련합정부와 평등한 지위에 있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그의 임무는 국내외정치로선과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를 토론하며 림시민족련합정부에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기하며 림시민족련합정부의 사업을 촉진시키고 협조하며 관계 쌍방이 민족적화목을 실현하고 완성하도록 지도하고 추진시켜 주며 림시민족련합정부와 함께 선거와 관련되는 법령과 규정을 연구채택하며 협조하여 선거를 진행함으로써 국회와 정식민족련합정부를 수립하는데 있다.

위원장 수파누봉



림시민족련합정부 1974년 4월 15일에 수립, 애국전선측과 비엔티안측의 각각 5명과 중립파의 4명으로 구성, 림시민족련합정부는 평화와 민주주의적자유, 민족적단결과 화목을 실현하며 경제건설과 문화발전계획을 조절한다.

총리 수반나 푸마, 외교부장 푸미 봉비치트 (라오스애국전선측), 국방부장 참파사크 (비엔티안측)

정당, 사회단체 ; 라오스애국전선 1950년 8월에 창건되였던 《라오스자유민족통일전선》에 기초하여 1956년 1월 6일 창건, 위원장 수파누봉, 총비서 푸미 봉비치트, **인민당** 1955년 3월 22일 창건, **평화중립민족적화목및통일옹호위원회** 1960년 10월 31일 애국전선, 평화및중립정책옹호위원회, 청년단체, 애국적 국회의원, 각 민족, 각계층 승려 및 왕족대표들로 창설, **애국적중립파세력동맹위원회, 애국청년련맹, 애국녀성동맹**

1973년 2월 21일 라오스인민은 오랜기간의 반미구국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라오스인민해방군 최고사령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라오스 애국군대와 인민은 29년 (1945년 8—1974년 11월) 간에 걸치는 프랑스식민주의와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두차례의 항전에서 적군 25만 7천 328명을 소멸하고 각종무기 9만 59점, 무전기 약 3천대, 각종 군용차 2천여대, 전투함 242척을 빼앗거나 파괴하였으며 미국비행기 2천 518대를 격추 또는 격상하였으며 전파탐지기지 12개, 다리 208개, 군수물자 20여만톤을 파괴하고 라오스

령토의 5분의 4와 주민의 2분의 1을 해방하였다.

정화후 라오스인민은 정화협정을 엄격히 리행하며 해방지역을 공고발전시키고 새생활을 창조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라오스에서의 민족련립정치리사회와 림시민족련합정부의 수립은 평화와 민족적화목과 나라의 통일에 대한 라오스인민의 념원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전진으로 됩니다.》

1974년에 라오스인민은 라오스에서 평화를 회복하며 민족적화목을 이룩할데 대한 협정과 의정서를 리행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였다.

1월 24일 비엔티안에서 라오스의 쌍방대표들이 비엔티안과 루앙 프라방의《중립화》에 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협정에 의하면 쌍방은 비엔티안에 1천 200명, 루앙 프라방에 600명이 넘는 분견대를 주둔시킬수 없으며 이 인원수를 초과하는 정부군은 두 도시로부터 15키로메터밖으로 이동해야 한다.

2월 6일 쌍방은 비엔티안과 루앙 프라방의《중립화》에 관한 평화협정의 리행에 관한 2개 협정—즉《합동경찰군》의 편성과 비엔티안과 루앙 프라방 두 도시의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3월 19일 라오스협정리행 중앙공동위원회 쌍방은 특별회의를 열고 비엔티안과 루앙 프라방을 중립화하기 위한 조치를 급속히 관철할데 대한 문제와 국제감시문제 등을 토의하고 두 도시의 중립화조치를 관철하는 특별위원회를 내오기로 결정하였으며《협정리행 중앙공동위원회와 라오스에 있는 국제감시및관리위원회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에 조인하였다.

4월 2일 라오스쌍방은 13개월간의 협상끝에 새 련립정부구성에 합의하였으며 4월 5일 정식으로 라오스림시민족련합정부와 민족련립정치리사회가 창설되였다.

라오스림시민족련합정부와 민족련립정치리사회의 창설은《라오스에서 평화를 회복하며 민족적화목을 이룩할데 관한 협정》의 리행에서 새로운 승리이며 기본적인 민족적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라오스인민이 거둔 승리이다.

라오스에서는 이미 1957년과 1962년에 두번에 걸쳐 련립정부가 수립된바 있었으나 미제의 사촉밑에 라오스우파반동세력이 정변을 일으켜 련립정부들을 전복하였으며 라오스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라오스인민을 침략전쟁의 참화속에 밀어넣었다.

새로 제3차 민족련립정부가 창설됨으로써 라오스인민은 자기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외세의 간섭없이 해결할수 있는 새로운 조건을 가지게 되였다.

4월 6일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는 라오스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여 라오스에서의 평화, 독립, 민주주의, 중립, 통일 및 번영의 실현을 위하여, 민족련립정치리사회와 림시민족련합정부를 수호하며 비엔티안협정과 그 의정서의 모든 조항을 리행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데 대한 자기의 정당한 립장을 표명하였다.

4월 10일 라오스림시민족련합정부 제1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 련합정부 부총리겸 외교부장 푸미 봉비치트는 10개항목으로 된 련합정부의 당면과업을 내놓았다.

4월 25일에는 루앙 프라방에서 민족련립정치리사회 제1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수파누봉위원장을 비롯하여 10명으로 구성되는 민족련립정치리사회상무위원회를 선거하였다.

5월 29일 민족련립정치리사회는 평화롭고 독립된 중립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통일된 번영하는 라오스를 건설할데 대한 정치강령을 채택하였다.

강령은 당면한 새로운 정세하에서 라오스의 대내외정책을 천명하였다.

대내적으로는 각 민족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농업과 림업 등 민족공업을 발전시켜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하며 민주주의적인 행정기구들을 내올데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고있다.

대외적으로는 중립을 엄격히 지키면서《라오스의 독립과 자주권을 존중하는 모든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으며》《평화공존 5개원칙》을 지키는 조건에서《각이한 사회정치제도를 가진 나라들, 우선 라오스의 이웃나라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며 모든 형태의《군사동맹과 군사블럭에 가담하지 않는다는것》을 선포하였다.

4월 30일 라오스평화협정을 리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동위원회는 애국전선무장력과 비엔티안군대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의 여러 지역들에 공동기동순찰대를 파견하기로 하였다.

6월 4일 애국전선 중앙위원회는 민족련립정치리사회와 림시민족련합정부 수립후의 비엔티안협정 리행정형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지난 60일간에 이룩된 성과로서 민족련립정치리사회 제1차회의가 진행되고 정치강령이 채택되였으며 림시민족련합정부의 10개 항목의 행동강령이 채택된 사실을 들었다.

그러나 비엔티안협정이 조인된후 아직까지 비엔티안측은 정화명령을 정식으로 내리지 않았으며 따라서 정화가 의정서의 요구대로 실시되지 못하고있다.

또한 루앙 프라방과 비엔티안의 완전한 중립화가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라오스에 대한 미제의 군사개입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특수부대》와 군사기지들이 해체되지 않고있을뿐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신형무기들로 재정비되고 확대강화되여 해방지역에 대한 미제의 파괴책동에 리용되고있다.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있다.

또한 미제침략군과 타이군 등을 라오스에서 끌어내갈데 대한 협정조항들이 제대로 리행되지 않고있다는것을 지적하였다.

6월 22일 애국전선측과 비엔티안측은 비엔티안협정실행 중앙공동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정화에 대한 통제를 실시할데 관한 일련의 문제들에 합의하고 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콤뮤니케에 의하면 쌍방은 상대측의 통제지역을 위협하거나 침범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무력행동도 무조건 금지하기로 하였으며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쌍방사령부들이 충돌에 참가한 구분대들을 지체없이 해산시키고 중앙공동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며 결정을 채택하고 정화감시소조를 현지에 파견하기로 합의하였다.

7월 11일 련합정부는 련립정치리사회가 제출한 18개항목의 정강을 승인하였다.

4월 18일 애국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의 3월 22일부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5월 10일 련합정부는 라오스—북부웰남항공협정을 되살리고 두 나라간의 항공로를 다시 열기로 결정하였다.

1974년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5월), 쿠바, 싱가포르(9월)와 각각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90%가 농업과 림업에 종

사한다.

농업에서는 벼농사가 기본이다.

부침땅은 약 100만헥타르이며 그중 약 96만헥타르가 논이다.

주요농산물은 벼, 강냉이, 담배, 목화, 고무, 아편 등이다.

해방지역인민들은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폭탄구멍이를 메우고 버림받던 땅을 옥답으로 전변시키자!》라는 구호밑에 농경지를 복구하고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그리하여 히엥 광주에서만도 1974년에 들어와 논이 전년보다 20%나 늘어났다.

또한 메마른 땅에 물을 대기 위한 사업도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1973년 상반년기간에 우돔사이주에서만도 32개의 관개시설이 새로 건설되였다.

축산업도 발전하고있다.

1974년에 소의 마리수는 1972년에 비하여 20% 늘어났다.

공업과 수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다.

방직공장, 인쇄공장, 기계공장, 자동차수리공장 등 중소규모의 공장들이 새로 일며섰다.

특히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직공업발전에 주목이 돌려지고있다.

농업이 복구발전됨에 따라 10여개주에 소규모농기구공장들이 세워지고 거의 모든 마을들에 야장간과 농쟁기수리소들이 꾸려졌다.

산간지대에서는 돌소금을 많이 캐내고있다.

철길이 없고 교통운수는 물길과 자동차길에 의존하고있다.

도로복구사업이 진척됨에 따라 교통운수망이 급속히 늘어나고있다.

도로의 총길이는 4천키로메터에 달한다.

수로들도 개선확장되였다.

1974년초에 자동차수만도 5년전에 비하여 3배로 늘어났다.

교육문화, 보건사업에서도 큰 전진이 이룩되였다.

거의 모든 마을들에 소학교들이 있으며 많은 군들에 초급중학교들이 꾸려졌고 2개주에 고급중학교가 세워졌다.

1974년현재 약 10여만의 학생들이 각급 학교들에서 배우고있으며 4천 700여명의 교원들이 교육사업에 힘쓰고있다.

10년제일반교육망에 속한 학생수만도 해방지역 인구의 9.4%나 된다.

또한 1천 600여개의 부락들에서 문맹이 퇴치되였다.

의료망이 마을과 부락까지 뻗어갔다.

2개의 중앙병원, 18개의 주병원, 96개의 군병원이 있으며 108개 마을들에 진료소가 있다.

또한 2천 800개의 의료초소들이 각곳에 설치되여있다.

1천명당 20대의 침대가 차례지고있다.

보건일군수는 1974년초에 1966년에 비하여 11배로 늘어났다.

1개의 교예단, 4개의 중앙예술단, 1개의 민요단이 있다.

주민은 30여개의 민족,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라오족이 전체 주민수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국어는 라오스말이다.

종교는 불교가 지배적이다.

산간의 소수민족은 대체로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파테트 라오통신 (애국전선통신)

신문 라오 하크사트 (애국전선기관지)

방송 파테트 라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6월 24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으며 대사를 교환하는데 합의하였다.

1974년 8월 애국전선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세금을 완전히 없애며 공업상품가격을 대폭 낮춘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 결정을 열렬히 환영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8월 17일 애국청년련맹은 청년들과 지식인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탄압만행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974년 10월 라오스 림시민족련합정부경제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6월에는 우리 나라 외교부대표단이 라오스를 방문하였다.

캄 보 쟈

(캄보쟈왕국)

넓이 18만 1,035km²
인구 700만명 (1971년)
수도 프놈 펜 (주민 150만명)

정 치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 (1960년 6월—)

민족련합정부 1970년 5월 5일 수립, 총리 펜 누트, 외교부장 사린 챠크, 국방부장 (부총리겸총사령관) 키예우 삼판

정당, 사회단체; **민족통일전선** 1970년 3월 23일 창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캄보쟈의 광범한 애국력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체, 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 로동자련합회, 애국농민동맹, 민주녀성협회, 민주청년동맹, 애국인테리협회, 애국승려협회

1970년 3월 18일 미제국주의자들은 론 놀—시리크 마타크매국도당을 부추겨 반동적인 군사정변을 조작하고 캄보쟈인민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1970년 3월 23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조성된 위기로부터 나라를 건져내기 위한 력사적인 《5개항목의 선언》을 발표하고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였다.

5월 5일에는 민족통일전선의 정치강령이 발표되고 민족통일전선 령도하의 왕국민족련합정부와 민족해방인민무장력이 창건되였다.

이때부터 캄보쟈인민은 민족통일전선의 령도밑에 미제와 론 놀매국도당을 반대하는 성스러운 반미구국투쟁을 힘차게 벌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애국적캄보쟈인민의 투쟁기세는 매우 높으며 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종국적승리의 앞길이 환히 열려져있습니다.

미제의 앞잡이 론 놀—시리크 마타크반역도당은 프놈 펜의 좁은 지역에 포위되여 날로 심해지는 혼란과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있으며 그들의 명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974년 3월 22일 영웅적캄보쟈인민은 해방지역에서 모임을 열고 지난 4년간의 정세를 총화하였으며 당면과업을 토의하였다.

여기에는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성원들, 민족해방인민무장력대표들, 각급 조직대표들이 참가하였다.

3월 23일에는 해방지역에서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및 민족해방인민무장력창건 4돐 기념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에서는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프놈 펜 괴뢰도당을 쓸어버리며 시하

누크친왕의 1970년 3월 23일부선언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정치강령에 따라 진정으로 평화롭고 독립된 중립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번영하는 새 캄보쟈를 건설할데 대한 캄보쟈인민의 투쟁과업을 밝힌 결의를 채택하였다.

또한 결의는 프놈 펜과 기타 적강점지역인민들이 반미구국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영용한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과 인민들은 1973년에 프놈 펜과 그 주변전선에서 4만 6천여명의 적을 쓸어눕힌 그 기세로 1974년에 들어와서도 프놈 펜에 대한 포위망을 더바싹 조이면서 론 놀피뢰도당에게 더욱 세찬 불벼락을 들씌웠다.

1월 6일 민족해방인민무장력의 한 부대는 프놈 펜시내에 드센 포탄벼락을 들씌웠으며 민족해방인민무장력의 한 습격조는 캄보쟈피뢰군 총사령관놈의 소굴을 들이쳐 이놈의 집을 지키고 있던 피뢰경비대놈들을 무리로 쓸어눕혀 놈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1월 7일 민족해방인민무장력 포부대는 포첸통비행장에 포탄벼락을 안겨 비행장건물을 파괴하고 직승비행기 3대를 박산냈다.

1월 9일에도 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프놈 펜에 또다시 포탄벼락을 들씌웠다.

급해맞은 피뢰우두머리 론 놀놈은 라지오방송을 통하여 《공산군의 공격으로부터 프놈 펜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전역에 반군사적인 시민위원회들을 구성할것을 시관리들에게 명령》하는데까지 이르렀다.

피뢰《대통령궁전》주변에 대한 민족해방인민무장력의 맹포격으로 론 놀놈까지 부상당하게 되자 피뢰도당내부의 혼란과 불안은 극도에 이르렀다.

급해맞은 놈들은 저들의 피뢰《정부》를 프놈 펜에서 다른 고장으로 옮길데 대하여 모의하였으며 론 놀을 비롯한 피뢰상층부놈들은 가족들을 비밀리에 프놈 펜에서 끌어내가는 소동까지 벌렸다.

민족해방인민무장력의 강화되는 공세에 겁을 먹은 미제침략자들은 프놈 펜에서《외교사절단 직원들과 가족들의 철거를 명령》하였으며 프놈 펜주재 미영제국주의를 비롯한 각국 대사관 가족들을 철거하는 심한 혼란이 일어났다.

1월 상순과 중순에 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프놈 펜주변의 공격에서 적 1만 1천여명을 소멸하고 프놈 펜주변을 지키고있던 적군 제3사단을 와해시켰다.

3월 18일 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프놈 펜서북부 34키로메터지점의 5호도로에 있는 우동을 해방하는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 전투에서 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2천500여명의 론 놀 피뢰군을 쓸어눕히고 여러가지 무기 600여점과 50톤의 탄약, 2문의 포 그리고 많은 군수물자를 빼앗았다.

4월 21일에는 프놈 펜 북쪽 23마일지점에 있는 콤퐁 루옹을 점령하고 2천여명의 적을 소멸하였으며 많은 무기와 군수물자를 빼앗거나 마사버렸다.

우동과 우동부근에서 있은 공격전투에서 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1만여명의 적을 소멸하였으며 론 놀도당의 이른바《정예》부대인 피뢰군 제80, 30, 20려단을 전멸시켰다.

민족해방인민무장력과 인민들은 1973—1974년 가물철기간에 적 6만 2천명을 소멸하고 장갑차 290대를 까부셨으며 비행기 93대를 쏴떨구거나 땅우에서 파괴하고 함선 405척을 격침격상시켰으며 1만 6천180여점의 무기를 빼앗았다.

또 이 기간에 7만 4천여명의 주민들을 적강점지역으로부터 해방하였다.

가물철기간에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준 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장마철(5~10월) 기간에도 적들에게 련속 타격을 가하여 6만여명의 적들을 소멸하고 프놈 펜과 그밖의 도시들에 대한 포위망을 더욱 좁혔다.

이리하여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과 인민들은 1974년 한해동안에 15만여명의 적들을 살상포로하고 수많은 무기와 군수기재들을 로획하는 빛나는 전과를 거두었다.

애국적무장력의 영용한 투쟁에 고무되여 적통치구역내 각계층 인민들도 론 놀피뢰도당을 반대하여 분연히 일떠섰으며 힘차게 투쟁하였다.

3월말 프놈 펜에서 5천명의 발전소로동자들이, 4월에는 프놈 펜의 상수도시설부문 로동자 2천명이 각각 론 놀도당의 강제징집을 반대하며 임금을 올릴것을 요구하여 파업을 일으켰다.

피뢰도당의 통치밑에 있는 학생들도 론 놀반역도당의 야만적인 파쑈폭압을 반대하여 억세게 투쟁하였다.

6월 4일 1천여명의 학생들이 프놈 펜고등학교마당에서 모임을 가지고 반동당국이 부당하게 체포한 15명의 학생들과 4명의 교원들을 당장 내놓을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학생들은 저들의 요구서를 피뢰총리놈에게 들이대기로 결정하고 피뢰교육부청사앞으로 몰려가 항의시위를 벌렸으며 교육부장놈과 부부장놈을 끌어내여 한 고동학교에 가두어놓고 체포된 교원들과 학생들을 석방할 때까지 이놈들을 그곳에 연금할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론 놀반역도당은 수많은 헌병놈들을 내몰아 최루탄을 쏘며 총질을 하는 등 야만적으로 탄압하였으나 학생들은 끝내 굴하지 않고 놈들을 맞받아 희생적으로 싸웠으며 반역도당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5월 5일에는 프놈 펜에서 2개대대의 론 놀군병사들과 그 가족들을 포함하여 근 1천명이 《대통령》궁전앞에서 항의시위를 벌리고 4개월동안이나 밀린 임금을 내라고 요구하였다.

론 놀피뢰도당의 최후멸망이 다가옴에 따라 론 놀피뢰정부에서 복무하던 관리들이 민족통일전선측으로 련방 넘어왔다.

피뢰군안에서도 론 놀도당을 반대하는 투쟁기세가 나날이 높아가고있으며 수많은 피뢰군병사들이 해방지역으로 넘어왔다.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과 적통치구역내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하여 론 놀피뢰도당은 더욱더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 빠져들어갔으며 놈들의 통치지반은 밑뿌리로부터 뒤흔들렸다.

죽음의 마지막시각을 보내고있는 피뢰정부안에서 추잡한 권력다툼과 개싸움이 극도에 이르렀으며 그속에서 피뢰정부안의 일부《각료》들이 사표를 내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소동이 련이어 일어났다.

6월 5일에 론 놀도당의《부총리》놈과 다른 각료 세놈이《사표》를 낸데 뒤이어 7월 7일에는 또다시 《내무부장》놈을 비롯한 네놈의《각료》들이 제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편 돌이킬수 없는 참패로 하여 피눈이 된 론 놀놈은 제놈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거나 비위에 거슬리는 모든 자들을 닥치는대로 떼버리거나 목을 자르고있다.

5월 14일 론 놀놈은 반동군《장군》10놈을 한꺼번에 떼버렸다.

이것은 련속적인 군사적패배로 말미암아 사회계에서 론 놀도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군사정변을 일으킬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이 분분하여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형편에서 총칼을 쥔 우두머리놈들부터 우선 《목을 떼는것》이 상책이라고 론 놀놈은 타산하였던것이다.

민족해방인민무장력의 드센 공격에 의하여 프놈 펜에 갇혀 독안의 쥐신세가 된 론 놀피뢰도당은 멸망의 위기로부터의 출로를《비상사태》하의 극악

무도한 인민탄압에서 찾으려 하였다.

이로부터 론 놀괴뢰도당은 1월 30일 장기적인《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신문, 서적을 포함한 모든 민간출판물들의 발행과 5명이상이 모이는것을 금지하였으며 종교인들의《의식》도 괴뢰당국의《승인》하에서만 가질수 있게 하는 극단적인 파쑈폭압조치를 취하였다.

인민들을 파쑈폭압망에 몰아넣은 론 놀파쑈도당은 제놈들의 더러운 잔명을 조금이라도 더 이어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면서 지어 10대소년들로부터 환갑이 지난 늙은이들까지 죽음터에 내몰았으며 남자들은 병신까지도 모두 《자위대》에 몰아넣는 한편 통치지역안의 인민들을 집단수용소에 모조리 끌어들이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붕괴되여가는 론 놀매국도당을 어떻게 하나 구원하여 이 지역에서의 제놈들의 침략지반을 유지함으로써 제놈들의 종국적패배를 만회해보려고 발악하면서 론 놀도당에게 막대한《원조》를 주었다.

닉슨도당이 줄여서 발표한 수자에 의해도 론 놀도당에 대한 미제의 1974회계년도(1973년 7월~1974년 6월)《원조》총액은 6억딸라를 넘는다.

그러나 미제의 그 어떠한《원조》나 뒤받침도 이미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론 놀괴뢰도당의 죽음의 신세를 결코 구원해줄수 없게 되였다.

국제적으로도 캄보쟈민족통일전선과 왕국민족련합정부의 위신은 날로 높아가고있는 반면에 론 놀괴뢰도당은 더욱더 고립되였다.

1974년 현재 왕국민족련합정부는 60여개의 나라들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캄보쟈인민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로서 국제무대에 당당히 나서고있다.

1974년에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웰남(1월), 라오스 해방지역을 방문하였다.

또한 키에우 삼판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대표단이 아세아, 구라파, 아프리카의 11개 나라(웰남, 남부웰남공화, 조선,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로므니아, 알제리, 모리따니, 까메룬, 애급, 수리아)들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85%가 농사한다.

농사할수 있는 땅은 850만헥타에 달하나 실지 리용되고있는 땅은 약 200만헥타이다.

농업에서 기본은 벼재배이며 부침땅의 80%가 논이다.

그밖에 강냉이, 후추, 차, 목화, 콩 등을 심는다.

후추(년산 10만톤)생산은 인도네시아 다음으로서 세계 제2위를 차지한다.

축산업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물소, 소, 돼지 등이다.

물소와 소는 부림소로 많이 리용한다.

공업으로는 방직, 세멘트, 고무, 종이, 합판 공장 등이 있다.

주요지하자원은 금, 연, 몰리브덴, 질콘 등이다.

전령토의 45%가 산림이며 찌크나무, 망그로브 등 질좋은 나무들이 많다.

수산업에서는 민물고기를 많이 잡는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와 수상운수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자동차길의 총길이는 6천 500키로메터이다.

국내수상운수에서는 메콩강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철길의 총연장길이는 410키로메터이나 모두 좁은 철길이다.

주요수출품은 쌀, 고무, 후추, 목재, 수산물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금속, 기계설비, 천, 식료품, 화학제품 등이다.

경제령역에서 해방지역과 괴뢰통치지역은 심한 대조를 이루고있다.

해방지역인민들은 로력협조반을 무어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하여 힘쓰고있으며 특히 가뭄과 큰물을 이겨내기 위하여 힘차게 싸우고있다.

프레아르주의 텡군에서만도 40개의 크고작은 수로와 물주머니, 둑과 저수지를 건설하였다.

그리하여 알곡을 비롯한 농작물들의 생산을 부쩍 늘이였다.

해방지역에서는 옷, 수건, 모기장 등 천으로 만든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일련의 제품들을 자체로 만들고있다.

특히 해방지역에서 방직공업이 발전하고있다.

여러지방에 중소규모의 방직공장들이 건설되였으며 일부 공장들에서는 방직설비의 절반이 기계화되였다.

이리하여 해방지역에서는 천에 대한 수요의 40~50%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다.

론 놀도당의 반인민적통치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서 경제는 전면적으로 파탄되고있으며 물건값은 치닫아오르고 인민들은 기아선상에서 헤매고있다.

론 놀도당의 림시통제지역의 경제는 쇠퇴몰락하여 아무것도 없다.

혹심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론 놀도당은 미국에《원조》를 구걸하여 쌀, 일용소비품으로부터 연료에 이르기까지 수입하는 한편 세금을 대폭늘여 인민들의 피땀을 짜내는 동시에 화폐를 란발하여 재정적자를 메꾸고있다.

《원조》액이 가장 높았던 1974년(7억딸라)에 재정적자와 화폐발행량도 각각 500억리엘과 600억리엘에 달하였다.

론 놀도당의 통제지역에서 90%이상의 공장이 원료의 부족으로 문을 닫았으며 물건값이 수배 혹은 수십배로 올라갔다.

100키로그람의 쌀값이 반동정변이전의 600리엘로 부터 4만 5천리엘로 뛰여 올랐다.

1974년 8월현재 쌀값은 정변이전보다 30~40배나 더 비싸졌다.

국고는 텅 비였고 예산의 80%정도가 군사비로 지출된다.

1973년에만도 화폐단위인 리엘의 시세는 세번이나 떨어졌으며 1974년 1월 4일 또다시 25% 평가인하하였다. (교환시세는 정변이 일어나기전에 55리엘이던것이 377리엘로 되였다.)

론 놀반역도당은 500억리엘에 달하는 1974회계년도 적자예산을 메우기 위해 600억리엘에 이르는 지폐를 란발할것을 계획하고있으며 지어 물까지도 1립방메터당 300리엘씩 받고 팔아먹고있다.

민족해방인민무장력에 포위되여있는 프놈 펜에서 4월이래 물건값이 마구 뛰여오르고있다.

일용필수품값은 30%나 비싸졌으며 특히 여러가지 식료품값이 많이 올랐다.

연료값은 굉장히 뛰여올랐는바 석유 1리터값은 60리엘에서 100리엘로, 디젤유값은 38리엘에서 80리엘로 각각 비싸졌다.

주민은 87%가 크메르족이며 그밖에 타이족, 라오족, 카족, 프논족 등 20여개의 종족들과 50만명의 웰남사람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캄보쟈말이나 프랑스말도 쓰고있다.

국교는 소승불교이다.

출판보도 ; 통신 에이케이아이(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통신, 1970년 8월부터 시작)

방송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소리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3월 우리 나라와 총평사관계를 맺었으며 1964년 12월 20일에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3년 11월에는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973년 4월에는 문화 및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4년 12월 7일 캄보쟈해방지역에서 캄보쟈조선련대성위원회가 무어졌다.

1974년에 캄보쟈국가원수이며 민족통일전선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4월, 12월), 캄보쟈민족통일전선및왕국민족련합정부대표단 (4월), 캄보쟈민족통일전선및왕국민족련합정부경제및재정대표단(11월)이 각각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4월 5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부총리겸국방부장 키에우 삼판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및왕국민족련합정부대표단과 11월 20일 왕국민족련합정부 부총리부 특별고문 이영 싸리를 단장으로 하는 경제및재정대표단을 각각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접견석상에서 정부대표단 단장인 키에우 삼판은 자기들은 오래전부터 김일성주석님과 주석님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인민과 조선로동당에 전체 캄보쟈인민과 전투원들의 인사를 직접 전달할것을 희망하여왔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실현되게 되였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형제적캄보쟈인민과 민족해방인민무장력전투원들의 뜨거운 인사를 전해드리였다.

또한 두번에 걸쳐 우리 나라를 방문한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원수각하뿐이십니다.

때문에 최소한도 1년에 한번은 조선에 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맞이하여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러 오는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는 최대의 영광이며 최대의 행복입니다.

우리 캄보쟈인민은 각하에 대하여 매우 깊은 사랑과 흠모의 정을 품고있습니다.

각하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공산주의자의 전형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일 본

넓이 37만 9,873km^2
인구 1억 1,005만명(1974년 10월 1일)
수도 도꾜(주민 1,163만 3,875명, 1974년 7월 1일)

정 치

천황 히로히도 (1926년12월—)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의 량원제, 중의원은 491석이며 임기는 4년, 1972년 12월 제33차중의원총선거가 진행되였는데 공산당38석, 사회당 118석, 공명당 29석, 민주사회당 19석, 자유민주당 291석, 기타 2석, 무소속이 14석을 각각 차지, 참의원은 252석이며 임기는 6년, 3년마다 의원의 반수를 개선한다. 1974년 7월7일 제10차 참의원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전 참의원 총의석 244석 중 절반인 122석을 개선하고 비여있던 8개의석을 보선하여 모두 130명을 선거, 공산당 20석, 사회당 62석, 공명당 24석, 민주사회당 10석, 자유민주당 127석, 2원구락부 4석, 군소파 1석, 무소속 4석을 각각 차지

정부 1974년 12월 9일 구성, 총리 미끼 다께오, 외교부장 미야자와 기이찌, 방위청장관 사까다 미찌따

정당,사회단체; 공산당 1922년 7월 15일에 창건되였다가 1924년 3월에 해산, 1926년 12월에 재건, 1945년 12월 1일에 합법화되였다. 1973년에 오끼나와인민당과 합당, 의장 노사까 산조, 간부회 위원장 미야모도 겐지, 사회당 1945년 11월 2일에 창건, 도시와 농촌의 중소부르죠아지, 지식인, 사무원, 일부 로동자, 농민, 수공업자들속에 지반을 두고있다. 위원장 나리다 도모미, 공명당 1964년 11월 17일 종교단체인 《창가학회》를 모체로 하여 조직, 위원장 다께이리 요시가즈, 자유민주당(집권당) 1955년 11월 15일 반동적인 부르죠아정당들인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여 성립, 독점재벌들과 반동관료배의 집단으로서 미제에 적극 추종하고있다. 총재 미끼 다께오, 민주사회당 1960년 1월 사회당에서 떨어져나간 우파분자들로 조직, 자유민주당 로선을 지지하고있으며 오사까를 중심으로 한 일부도시 중소기업가들로 구성, 로동조합총평의회 1950년 7월 12일 성립되여 약 420여만명의 로동자를 망라한 일본 최대의 로조단체, 주로 사회당의 영향밑에 있다. 전일본로동총동맹 1964년 11월 12일에 구성된 우익로조단체, 중립로동조합련합회, 전일본농민조합련합회, 민주청년동맹 공산당의 영향밑에 있는 청년단체, 사회주의청년동맹 사회당의 영향밑에 있다. 일조협회 1951년 6월 결성, 일조무역협회 1956년 3월 결성,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 1971년 11월 16일 결성, 일조로련회의 1972년 2월 8일 결성

파쑈화, 군국화 책동: 일본군국주의는 력사적으로 큰 제국주의세력을 등에 업고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데 버릇된 아세아인민들의 철천지원쑤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제에 의하여 급속히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망상하면서 나라의 파쑈화, 군국화 책동을 미친듯이 벌리면서 침략전쟁준비를 더욱 본격적으로 다그쳤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반동지배층은 입만 벌리면 일본이 〈아세아의 주역〉을 놀아야 한다고 떠들어대며 〈국력에 상응한 군사력〉을 가질 때가 되였다고** 하면서 **군국화에 박차를 가하고있으며 국내체제의 파쑈화를 더욱 다그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97~498페지)

1974년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침략체제의 완성을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천황제파쑈통치체제를 세우려고 책동하였다.

4월 12일 일본반동정부와 자유민주당은 중의원내각회의에서 악명높은 《야스구니진쟈법안》을 전체 야당의 참가없이 제놈들끼리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른바 《야스구니진쟈》란 지난날 아세아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판에서 일본《천황》을 위하여 죽어너부러진 군국주의분자들의 망령을 《위안》하며 《천황》을 위하여 새로운 복수심과 잔인한 살인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군국주의침략사상선전의 거점으로서 일본반동들이 또다시 《야스구니

진자법안》이라는것을 틀고나서는것은 지난날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을 찬양하면서《천황》을 떠받들고 군국주의적침략목적을 달성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흉악한 기도로부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2차대전후 상징적인 존재로된《천황》을 국가원수로 법제화하여 그놈에게 군사통수권을 비롯한 모든 국가권력을 집중시키려 책동하고 있다.

3월 14일 다나까란놈은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천황》통치의 《영원성》을 찬미하고 군국주의를 고취하던 《기미가요》를 일본국가로, 군국주의상징인 《일장기》를 일본국기로 《법제화할 시기가 되였다》라고 줴쳤다. 또한 다나까놈은 모든 학교들에서《일장기》를 띄우고 《기미가요》를 불러야 한다느니, 군국주의적《교육칙어》를 교육강령으로 해야 한다느니 뭐니하고 떠벌이면서 학생들에게 군국주의재생과 침략전쟁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와 진정한 평화에 대하여 가르치는 교원들을 범죄자로 몰아《형사처벌》을 가할 《법안》을 꾸며낼것을 지시하였다.

일본반동정부의 파쑈화, 군국화 책동에 발맞추어 극우익반동들은 이른바《청람회》라는 파쑈조직을 꾸미였으며《청람회》에 망라된 극우익반동무리들은 2월 도꾜에서 《국민집회》란것을 열고 헌법개악과《자위대》 침략무력의 증강, 제2차 세계대전전에 일제파쑈분자들이 일으켰던 군사정변들인 《5. 15사건》과 《2. 26사건》과 같은 군사파쑈통치체제 수립을 위한 군사정변을 일으키는데 《몸바쳐》나설것을 미친듯이 짖어댔으며 제놈들의 침략의《기발이 세계 모든곳에 꽂힐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떠벌였다.

또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일본인민들속에 군국주의사상을 고취하려고 발광적으로 책동하였다.

1974년 4월 1일 다나까놈은 근 30년동안 필리핀의 루방섬에 숨어있던《황군》의 패잔병 오노다란놈을《천황》에게 가장 충실한 《영웅》으로 극구 찬양하였으며 뒤이어 일본반동들은 오노다가 쓰던《일본도》, 《전투모》, 《군복》 등 군국주의악취가 풍기는 물건짝들로 《전시회》까지 벌려놓았다.

일본반동들은《천황숭배》, 군국주의를 고취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해외침략을 위해 형식상 침략전쟁에 가담하는것을 구속하고있는 헌법 19조를 비롯한 법조항들을 뜯어고쳐 헌법의 《구속》이 아니라 그 《담보》밑에서 합법적인 해외파병과 전쟁책동을 감행하려고 악착하게 책동하였다.

일본반동들은 군국주의적파쑈화를 다그치는 한편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침략무력증강에 미쳐날뛰였다.

일본군국주의의 침략무력인 《자위대》는 30여만의 기간부대로 편성되여있으며 수백척의 각종 작전군함들과 1천700여대의 비행기, 근 1천여대에 달하는 땅크와《호크》, 《나이크—아젝스》등의 로케트를 포함하여 해외침략을 전제로 하는 현대적인 신형무기로 장비되여있다. 또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자위대》를 유사시에 100만명으로 확대할 동원체제를 수립해놓았으며 거기에 700만의 징병자명단까지 짜놓았다.

이것도 부족하여 1973년까지만도 녀자들을《륙상자위대》에만 끌어들이던 일본반동들은 1974년부터는《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에까지 잡아넣기로 하고 대대적으로 끌어넣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자위대》수를 계속 늘이는 한편 해외침략에 상응하게 침략무력의 최신무장에 열을 올리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때까지의《전수방어》로부터 방어와 공격, 모든 형태의 전투를 할수 있는《자주방어》를 내세우고있으며 《제4차방위력정비계획》기간을 포함하는 1970년대에 오호쯔크해로부터 말라까해협에 이르는 제해권과 제공권을 쥐는것을 당면목표로 내세웠다.

이러한 흉악한 목적에 따라 일본반동들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1974회계년도에 또다시 군사예산으로 1조 9백억엔(36억 4천만딸라)을 할당하였다. 이것은 1973년의 군사예산에 비하여 16. 8%나 더 많은것이다.

일본반동들은 이 방대한 군사비의 대부분을 《무기 및 장비의 국산화》의 미명밑에 공격용 비행대의 편성, 전투함들의 건조, 로케트 및 땅크 부대의 편성과 장비에 돌리고있으며 그 생산을 다그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1974년 2월에 잠수함《구도시오》호, 7월에 로케트방사기로 장비된《이끼구모》호를 건조하고 7월중순에 새로운 전투비행대대를 새로 편성하였으며 8월중순에 수백대의 땅크와 2천여명의 병력으로 이루어진 땅크려단을 편성한것 등은 모두 놈들이 최신무기로서 자위대를 무장시켜 우리 나라와 아세아에 대한 침략을 급속히 다그치려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다.

사실상 일본반동들은 증강된 자위대 침략무력을 우리 나라와 아세아에 대한 침략적《작전》계획에 따라 홋가이도, 돗도리, 이와구니, 후꾸오까, 사세보 등 앞으로 감행할 전투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데에 재편성집중배치하였다. 후꾸오까, 돗도리현의 여러 공군기지에는《에프—4》팬톰기를 증강하였으며 홋가이도에는 새로운 전투비행대를 배치하였다.

또한 8월에 일본총리 다나까놈은 이른바《저격사건》을 계기로《조문》의 외피를 쓰고 남조선에 기여들어 《한일조약》에 기초한 미,일, 《한》 《반공》동맹관계에 대한 쑥덕공론을 벌렸다.

국내에서의 군국주의파쑈체제의 확립과 로골적인 전쟁준비정책으로부터 출발하여 1974년의 일본의 대외정책은 일미동맹관계를 그 어느때보다 유지강화하는데로 집중되였다.

일본반동정부는 닉슨놈이 미제의 우두머리자리에서 쫓겨나고 포드놈이 새로 대통령감투를 뒤집어씀과 함께 그놈의 대일정책에 눈치를 보면서 일미관계의 변함없는 유지강화에 신경을 썼다.

9월 21일 일본총리 다나까놈이 미국을 방문하여 《포드—다나까회담》을 진행하였으며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미국대통령 포드놈을 일본에 끌어들여 다시 《미일수뇌자회담》을 진행하였다.

9월 다나까—포드놈사이의《회담》에서는《일미안보조약》을 계속 유지하고 일미관계를 발전시킬데 대해서와 국제관계에서 량국이《협력》할데 대하여 모의하였으며 11월《회담》에서는 침략적인 미일《안보조약》에 기초한《미일군사동맹》체제를 영구히 견지할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공동성명》에서는 미일 《안보조약》밑에서의《미일협력관계가 아세아에 있어서의 국제정세의 전진속에서 중요하고 항구적인 요소로 되고있으며 이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고 의의있는 역할을 계속할것》이라고 못박아놓았다.

이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를 등에 업고 아세아침략에서 미제의《돌격대》로서의 역할을 어김없이 수행하겠다는것을 다시 한번 확언한것이며 또한 미제를 등에 업고 제놈들의 침략야욕을 실현할 더러운 속심을 안받침한것이다.

이러한 범죄적인 쑥덕공론들을 통하여 일본반동들은 미제와의 공모결탁을

더욱 강화하였다.

일미간의 공모결탁밑에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에 있는 제놈들의 군사기지를《정비축소》하며 그 일부를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반환》한다는 놀음을 벌려놓고《거점기지》들에 군사기지들을 통합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이른바 《반환》이란 구실밑에 미제침략군기지들에 《자위대》를 주둔시켜 공동군사기지로 만들므로써 일미공동군사작전체제를 더욱 완성하여나갔다.

이 군사기지 《반환》놀음으로 하여 1974년 현재 일본에 있는 미제침략군기지는 초기 179개로부터 152개로 줄어들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와의 《핵결탁》도 더욱 강화하였다.

1974년 10월 이전 미제7함대의 함장이였던 라록크는 미국회에서《핵무기를 실은 미국군함들이 일본에도 기항하군한다》고 까밝혔으며 또한 미국신문《뉴욕타임스》10월13일호도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사이에 핵무기를 실은 미국의 항공기와 함선들이 일본을 통과할수 있다는 비밀《통과협정》이 체결되여있다고 밝혔다.

미국신문《워싱톤 포스트》 10월16일호도 지금 일본의 요꼬스까항에 머무르고있는 미제항공모함 《미드웨이》호에도 핵무기가 적재되여있다고 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온 일본땅을 미제의 핵기지로 섬겨바쳐 일본을 미제의 핵공격, 저장 및 보급 기지로 내주면서 앞으로 그것을 미일공동작전체제밑에서 제놈들의 아세아침략에 유리하게 리용할 잔꾀를 꾸미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대외정책에서 주목되는것의 하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 경제적침투를 강화하고있는것이다.

1974년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원조》,《공동개발》, 《지역적경제협조》,《공업화의 촉진》등 기만적인 간판을 들고 이러한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보다 강화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1973년도 이른바《원조》총액은 58억 4천만딸라로서 1972년도 27억 3천만딸라에 비하여 2배이상으로 늘어났다.

그중에서 중남미지역에 46.1%, 아세아지역에 39.1%를 각각 쏟아부었다.

동남아세아지역에만도 일본독점자본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투자하고있는 회사들과 상사들은 5천여개나 있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 1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일본총리 다나까놈이 필리핀, 타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5개 동남아세아나라들을 부리나케 싸다녔다.

다나까놈은 가는곳마다에서 이 지역 인민들과 학생들의 격렬한 반일시위에 부딪쳐 극도의 공포에 빠졌으며 잠도 제대로 못자고 밥도 제대로 못먹고 뒤길로 다니는 등 한 나라 총리로서는 보기드문 불안한《려행》을 하지않으면 안되였다.

다나까놈은 또한 9월에 메히꼬, 브라질, 카나다 등 미주나라들을 행각하였으며 10월말부터 11월초에 걸쳐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 버마 등 나라들을 싸다녔다.

1월 5일 중국과 무역협정을 맺었다.

8월 2일 도꾜에서는 제20차원수폭금지세계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핵무기완전금지 국제협정체결을 위한 운동을 더욱 촉진시킬데 대한 결의가 채택되였다.

10월 2일부터 11일까지에는 세계 66개대표들의 참가밑에 국제의회동맹61차총회가 진행되였다.

일본인민들의 투쟁: 1974년에 일본반동정부는 군국주의파쑈체제수립과 해외침략준비를 반대하는 야당들의 공동투쟁과 일본 각계층인민들의 투쟁의 강화, 전례없는 심각한 경제위기 등으로 하여 더욱 고립되였으며 심각한 정치적위기를 겪었다.

7월 7일에 진행된 제10차 참의원선거에서 일본반동정부의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은 참패를 당하였다.

결과 9석을 증가시킨 공산당을 비롯한 사회당, 공명당 의석이 증가된 반면에 자유민주당은 7석을 잃게 됨으로써 참의원에서《보수와 혁신사이의 세력이 대등》하게 되여 자유민주당은 자기의사를 마음대로 내려먹이기 어렵게 되였다.

7월 24일부터 진행된 제73차 림시국회에서 야당들은 림시국회를《단기국회》로 끝내려는 자유민주당의 책동을 반대하여《물가국회》로, 《선거공약》을 실행하는 국회로 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국회에서 4개야당(공산당, 사회당, 공명당, 민주사회당)이 공동으로 《다나까내각불신임안》,《다나까총리 문책결의안》을 제기하였다.

참의원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의 패배로 다나까정부와 자유민주당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졌으며 자유민주당안에서는 파벌싸움이 더욱 격화되였다.

다나까내각의 부총리였던 미끼 다께오와 대장부장 후꾸다 다께오가 다나까의《정치자세》를 비판하고《당체질의 개선》,《재건적인 당개혁》을 제창하면서 내각에서 물러났으며 행정관리청 장관 호리 시게루도 사임하였다. 다나까내각의 이른바《기둥》이라고 하던 미끼, 후꾸다, 호리의 사임으로 다나까정부는《수립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다나까놈은 추악한 부정부패행위까지 드러나 11월 26일 총리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였다.

다나까내각이 거꾸러짐과 관련하여 일본사회당 서기장은 담화를 발표하여《다나까내각의 붕괴는 총리개인의 실패에 그치지 않고 자민당정치 그 자체의 파탄》이라고 지적하였다.

12월 4일 량원의원총회에서 정부총리 미끼 다께오가 자유민주당 새총재로 선정되여 9일 총리로 되였다.

이리하여 다나까내각이 거꾸러지고 미끼 다께오를 총리로 하는 새 내각이 구성되였다.

그러나 미끼놈의 집권으로 하여 정부의 반동성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그것으로 하여 미끼반동정부에 대한 국내에서의 불만과 불신임은 더욱더 커졌다.

1974년에 일본에서는 진보적인 력량이 크게 장성하였다.

7월 참의원선거를 계기로 국회안에서 진보와 보수세력간의 력량은 122대 129로서 그 차이는 겨우 7석이라는 아슬아슬한 상태에 이르렀다.

특히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16개의 상임위원회 가운데서 내각, 외무, 문교, 지방행정 등 4개와 7개의 특별위원회, 오끼나와—북방문제, 물가대책, 공산법 등 3개위원회에서 자유민주당이 소수파로 되였다.

일본에서 급격히 자라나는 야당세력들의 힘은 그 무엇으로써도 저지시킬수 없게 되였다.

1974년에 일본인민들은 반동정부의 친미추종정책과 미제의 군사기지화정책을 반대하여 일미《안보조약》의 폐기, 미제의 군사기지철폐 등을 요구하는 강력한 투쟁을 벌렸다.

4월 도꾜에서는 1만 3천명의 로동자들과 인민들이 미제의《요꼬다》공군기지철폐를 요구하는 군중집회를 가지고《일미안보조약을 폐기하라》,《미군기지를 철폐하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강력한 반미시위를 벌렸다.

5월 15일 오끼나와의 나하시에서는《오끼나와반환》두돐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2만여명의 근로자들이 군중집

회를 열고 일본령토에 있는 모든 미제침략군기지를 철폐하고 일미《안보조약》을 폐기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10월 21일 국제반전의 날》에 즈음하여 미제의 군사기지철폐를 요구하는 일본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치렬히 전개되였다.

10월 21일 도꾜, 오사까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과 오끼나와, 후꾸오까현 등 일본전국의 450여개소에서 230여만의 각계층인민들이 핵무기의 반입과 미제침략군기지의 철폐를 요구하여 집회와 시위를 벌렸다.

미제의 우두머리 포드놈의 일본행각을 계기로 일본전국에서는 반미투쟁이 거세차게 일어났다.

10월말부터 원자탄및수소탄금지일본협회의 발기로 1천여개소에서 항의집회가 진행되였으며 각종 투쟁단체와 민주단체들이 포드놈의 일본행각을 반대하는 서명운동과 투쟁기간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투쟁을 벌렸다.

11월 17일 일본 사회당,공산당, 총평 등 19개정당, 사회단체들은 공동주최로 도꾜의 요요기공원에서 10만명의 참가밑에 포드놈의 행각을 반대하는 전국통일행동중앙총궐기대회를 가졌다.

포드놈의 일본행각을 반대하여 일본전국에서《포드는 오지말라》, 《다나까는 사임하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강력한 시위와 집회들을 진행하였다.

포드놈이 일본에 기여든 11월 18일에만도 일본전국 40여개 도, 도, 부, 현 212개소에서 7만 4천여명의 군중들이 항의집회와 시위들을 벌렸다.

11월 19일에는 포드놈의 일본행각을 규탄하여 국철로조를 비롯한 여러 교통운수부문 로조 및 기타 부문로조 산하 로동자 350만명이 일제히 파업을 단행하였다.

1974년에 일본반동정부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며 삶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일본로동계급과 인민들의 투쟁은 그 어느때보다 더욱 세차게 일어났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며 생활상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혁명투쟁도 더욱 강화되고있습니다. 이 투쟁은 피에 굶주린 제국주의자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325페지)

일본로동계급은 봄철투쟁공동위원회를 묶고 년초부터 치렬한 투쟁을 벌렸다.

1월 26일 100만명의 로동자들의 전국적인 파업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3월 26일에는 244만명 로동자들의 공동파업투쟁, 4월 10일 120만 로동자들의 공동파업투쟁 등 대규모적인 파업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4월 11일부터는 830만의 로조원들을 망라하고있는 봄철투쟁공동위원회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국철로조, 동력차로조, 사철로조를 비롯한 83개 산별로조단체산하 650여만명의 로동자들이 대규모적인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일본로동계급은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생활보장, 파업권획득, 통화팽창억제, 공공료금의 2년간 동결 등 요구조건을 내걸고 통일행동으로써 완강한 투쟁을 벌렸다.

이 파업으로 일본의 철도, 해상, 국내항공, 운수 부문이 전국적으로 거의 마비되여 일본은《력사상 최악의 교통위기》에 빠졌다.

또한 5. 1절에 즈음하여 일본로동계급들은 전국도처에서 다나까도당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렸다.

5월 1일 일본전국의 760여개소에서 약 700만의 근로자들이《다나까정부를 타도하라》, 《물건값을 낮추라》, 《군국주의교육을 그만두라》라고 쓴 구호판을 들고 집회와 시위를 벌렸다.

일본인민들의 이러한 대규모적인 반정부 반미정치투쟁들과 생활상권리를 위한 투쟁들은 일본반동정부의 정치적위기를 더욱더 심화시켰다.

경 제

일본은 발전된 자본주의공업국가이다.

일본경제는 제2차세계대전후 미제의 비호밑에 되살아난 독점재벌들에 장악되여있다. 전체 회사수의 0.2%도 못되는 대독점회사들이 전체 회사들의 자본총액의 70%이상을 독차지하고있으며 불과 5개도 못되는 대독점체들이 중요공업제품생산의 70~90% 특히 군수생산의 80%를 틀어쥐고있다.

일본은 국내에서 필요한 석유, 철광석, 동, 보크사이트, 생고무, 양털의 거의 100%, 콕스탄의 약 70%, 목재의 60%, 농산물과 식료품의 50%를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일본경제는 미제독점자본의 지배밑에 있다. 외자도입중 미제독점자본의 몫은 90%이상 차지하며 석유, 철강, 전력, 자동차,전기기계,전자 공업 등 기간공업부문은 자본, 원료, 기술면에서 미제독점자본에 의존하고있다.

1974년에 일본경제는 생산의 감퇴와 물가등귀, 통화팽창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졌으며 이른바《고도성장》을 떠들던 일본경제는 급격히 내리막선을 긋고있다.

전후 7번째로 되는 이번 경제위기는 연료 및 동력 위기로부터 출발하여 조선공업, 자동차, 기계, 방직,화학, 건축 및 강철 등 공업의 주요한 모든 부문을 휩쓸면서 오래 계속되고있다.

1973년 중근동전쟁을 계기로 서방자본주의세계를 휩쓴 연료위기는 특히 중근동석유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있는 일본경제에서 매우 심하게 나타났다.

이 위기로 하여 1973년말부터 여러 공업부문들이 엄중한 경영난에 부딪쳐 침체상태에 빠지고 생산이 계속 떨어졌다.

1974년 10월 현재 공업 및 광업생산은 1973년 12월에 비하여 11.7% 내려갔으며 체화상품은 1973년 10월에 비해 40.5% 늘어났다.

생산에서 계속 올리막길을 걷고있던 자동차공업도 1974년 첫 10달동안에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생산이 8.6% 줄어들었다.

8월현재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기계공업에서는 25~30%, 방직공업에서는 평균 40%이상 생산이 줄어들었다.

중공업부문에서 생산이 내려감에 따라 강철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9월현재 강철생산량은 1973년 10월에 비하여 9.4% 내려갔다.

연료 및 동력 위기를 기본으로 하는 각종 위기로 하여 일본의 중소기업의 약 80%가 파산의 위험에 처하였으며 1974년 한해동안에만도 1만 1천 186개의 기업소들이 파산되였다.

중소기업소들뿐아니라 네즈가꾸회사를 비롯한 비교적 큰 기업도 파산당했다.

공업생산의 감퇴로 국민총생산액도 계속 낮아졌는데 1974년 상반년동안에만도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5% 떨어졌다. 이것은《최근 20년래의 기록적인 생산저하》이다.

이러한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진 일본반동지배층은 지폐를 대량적으로 람발하고 재정투자를 급격히 늘이는 방

법으로 이른바 경제의《고도성장》을 견지해보려고 발악하였다. 결과 통화팽창이 걷잡을수 없이 심화되고 그로 인하여 물가가 급격히 뛰여올랐다.

1973년 1월말부터 1974년 1월까지 기간에 통화팽창률은 23.1%나 높아졌다.

통화량이 늘어나고 물가가 뛰여오름에 따라 엔의 가치는 끊임없이 떨어지고있다.

1973년에 이르기까지의 25년동안 엔의 가치는 75%나 떨어졌으며 그것은 1973년 3월부터 10월말까지의 기간에만도 11.7% 떨어졌다. 일본반동정부는 1974년 1월 7일 또다시 엔의 가치를 근 7% 평가인하하였다.

대외무역에서 수출이 부진상태에 빠졌으며 국제수지에서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외화보유량도 계속 줄어들었다.

1974년 3월 31일에 끝난 1973회계년도에 일본은 대외무역에서는 52억 5천만딸라, 국제수지에서는 134억 5천만딸라의 엄청난 적자를 냈다.

금예비도 계속 줄어들어 1974년 12월현재 금 및 외화 보유액은 135억 1천 800만딸라로 떨어졌다.

일본의 농업도 반동정부의 반인민적 농업정책과 대미추종정책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다.

부침땅은 그의 40%가 미제의 군사기지와 독점자본가놈들의 돈벌이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일본은 1974년도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세계전반에서의 대흉작으로 식량과 사료난에 부닥쳐 일대 아우성을 쳤다.

1974년에 일본에서는 봄씨뿌림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게다가 큰물과 가물로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가물로만도 29개현에서 74만 8천헥타르의 논과 과수밭, 남새밭이 못쓰게 되였다.

여기에 또한 돈벌이에만 눈이 뒤집힌 독점자본가들이 아무데나 공장들을 짓고 유독성폐설물을 마구 내버림으로써 숱한 곡식이 공해로 오염되였다. 일본의 주요 쌀생산지의 하나인 아끼다현에서만 하더라도 1974년에 공해로 1973년보다 5.7배나 더 많은 쌀이 못쓰게 되였다.

이리하여 최근년간 농업생산에서 계속 감소를 보고있는 일본은 1974년에도 흉작이 지속되여 벼정당 수확고만도 그 전해에 비하여 거의 절반이나 줄어들었다.

결과 일본반동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알곡자급률(1973년)은 43%에 불과하며 특히 잡곡의 자급률은 7%밖에 안된다.

일본에서는 식량의 수입로도 막혔다.

알곡을 포함하여 식물성기름의 50%, 사료의 80%, 콩의 90%이상을 다른 나라 주로 미국의 농산물에 의존하고있는 일본은 1974년에 미국에서의 대흉작으로 수출을 대폭 줄임으로써 더욱 심각한 식량위기에 빠졌으며 쌀값, 식료품값은 마구 뛰여올라 아우성을 치고있다. 1974년 8월에 쌀값은 무려 50%나 껑충 뛰여올랐으며 10월에는 또다시 32% 뛰여올랐다.

농업생산은 계속 줄어들고 농가는 파산되여 1년에 무려 100여만의 농촌청장년들이 농촌을 떠나고있다. 농촌인구는 점점 줄어들어 1974년 1월 1일현재 농촌주민수는 801만 8천명으로서 1973년 1월에 비해 40만 7천명이나 적어졌다.

전체 농가호수중에서 농업에만 종사하고있는 농가호수는 전체 농가호수의 13%에 불과하며 나머지 87%에 해당하는 농가는 농사만으로는 생계를 이어갈수 없어 계절적인 품팔이로동을 하거나 다른 직업에도 종사한다. 이리하여 농촌에서 남자들과 청년들은 찾아볼수 없고 주로 녀성(70%)들과 늙은이(10%)들이 삼짱농업(할머니, 어머니, 언니)을 하고있다.

일본은 닭먹이의 100%, 돼지먹이의 90%, 소먹이의 64%를 주로 미국에서 수입하고있는데 그것역시 미국에서의 대흉작으로 1974년에 집짐승먹이값이 4배로 뛰여올랐다. 반면에 고기수매값은 한정없이 낮게 설정되여있다.

사 회 문 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사회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사이의 빈부의 차이가 날로 심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이며 근로대중을 기아와 빈궁에로 몰아넣는 암담한 생지옥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6권, 347페지)

1974년에 일본에서는 경제위기로 실업자가 대대적으로 늘어났으며 물가는 뛰여오르고 인민들은 착취와 억압, 기아와 빈궁에서 허덕이였다.

일본반동정부가 발표한《로동력조사보고》에 의하더라도 10월에 완전실업자수는 75만명으로서 1973년 같은달에 비하여 40.3%(21만명)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에 취업인구는 114만명이 줄었는데 그중 제작공업부문에서만도 66만명이 줄어들었다.

또한 통화팽창으로 물건값이 껑충 뛰여올랐다.

1974년 첫9개월동안에만도 도매가격은 달마다 30%, 소매가격은 23~26%이상씩 뛰여올랐다.

일본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10월상순에 도매가격은 1970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56.3%, 소매가격은 55.1% 비싸졌다.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값은 전반적으로 50%나 뛰여올랐다. 11월에 쌀도매가격은 1973년 같은 달에 비하여 37.2%, 닭알의 도매가격은 48.8%, 집세, 전기세, 가스세, 의료세는 30~40% 올랐다.

반면에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끊임없이 낮아졌다.

일본로동부에서 발표한데 의하면 실질임금지수는 (1970년을 100으로 할 때) 1974년 10월에 99.7이였는데 이것은 1973년 10월에 비하여 2.9% 떨어진것이다. 이리하여 수입이 지출보다 적은 가정이 급격이 늘었다.

도꾜에서 다다미 여섯장짜리 방 한칸을 세를 내자면 임금의 30~40%에 해당하는 집세를 물어야 하는데 그나마 세집에 들려면 몇개월분에 해당하는 돈을 미리 보증금으로 물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독점자본의 가혹한 착취와 략탈로 인한 로동재해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불구자로 되고있다. 그중 큰 로동재해건수만도 매년 400여건이나 되며 1건당 사망자수는 평균 6명이나 된다.

일본에서는 공해때문에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있다. 1973년 한해동안에만도 일본의 대기를 오염시키거나 바다, 호수, 강 등으로 마구 내던져진 유독성연기와 공해폐설물은 무려 70만톤이나 되였다. 1974년 일본후생부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주민 1천명중 127명이 공해와 관련되는 여러가지 질병에 걸려 신음하고있는데 그중 27명은 호흡기질환, 26명은 고혈압과 혈액순환계통질환, 23명은 소화기질환, 51명은 기타 질환으로 고통겪고있다.

5월 17일 하루동안에만도 효고현에서는 4천 18건의 연기중독사건이 일어났다.

공해가 가장 심한 가와사끼시에서는 약 2천명이 공해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다.

공해는 어린이들의 발육에도 악영향을 미치고있는데 일본에서는 공해의 영향으로 어린이들의 키가 10년전에 비하여 평균 2~4cm 작아지고있다.

보건형편도 한심하다. 지방에 있는 병원들에서는 의사가 정원수의 40%밖에 안되며 지어 의사가 전혀 없는 지역도 약 2천 600개나 된다.

일본에서는 범죄건수도 늘어나고있다. 1974년에 있은 각종 범죄건수는 약 110만 3천건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1973년에 비하여 2만건이나 늘었다.

출판보도; 통신 지지, 교도, 재팬프레스, 니홍뎀빠

신문 아까하다 (공산당기관지) 아사히신봉, 마이니찌신봉, 요미우리신봉, 도꾜신봉, 쥬니찌신봉, 산께이신봉, 니홍게이자이신봉, 샤까이신뽀 (사회당주간지)

잡지 세까이 세이지시뽀 (공산당반월간잡지), 세까이 (정치리론잡지)

방송 엔에취케이방송, 아사히방송, 도꾜방송, 엔에취케이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인민들과 진보적인 계층들속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선린관계를 맺기 위한 운동이 광범히 벌어지고있습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235페지)

일본에는 우리 나라와 친선관계를 맺으며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옹호하며 우리 나라와의 제반교류의 촉진과 국교정상화를 요구하는 수많은 조직들이 무어졌다.

1951년에 일조협회, 1956년에 일조무역회가 결성된데 이어 일조자유래왕실현련락회의, 재일조선인귀국협력회, 재일조선인인권옹호회, 일조학술교류촉진회, 재일조선인의 귀국과 민족교육을 지키는 중앙련락회의, 재일조선인민족교육문제간담회, 일조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 조선연구소 등이 무어졌다.

1971년 11월 16일에는 일본국회의원들의 초당파적인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이 조직되였으며 일조간의 친선과 국교정상화를 요구하여 현의회들에서도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을 무었다.

1974년에는 일조우호촉진 나가노현 이나시의회의원련맹 (3월) 과 군마현 마에바시시에 《조선영화를 보는회》가 무어졌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끝없이 흠모하고 존경하는 일본의 각계층 인민들은 연구소조를 뭇고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심오히 연구학습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도꾜대학《김일성저작연구회》, 도꾜청년《주체사상연구회》, 도꾜 다마《주체사상교육연구회》, 도꾜 스미다《주체사상연구회》, 도꾜국철로동자《주체사상연구회》, 사이다마 오가와지방 《김일성주석혁명활동연구회》, 니이가다시《김일성주석로작연구회》, 오사까 이꾸노《김일성주석의 주체사상을 배우는 회》등 일본전국 각지에 수많은 연구소조들이 무어졌다.

1974년에는 니이가다대학에서 《주체사상연구회》를 새로 무었다.

1974년 일본인민들속에서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대한 절대적인 신봉과 공감이 더욱 높아졌으며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흠모의 정이 더욱 두터워졌다.

1974년에 일본사회당대표단을 비롯하여 사회당부인활동가대표단, 총평및중립로련대표단, 니이가다현 재일조선인귀국협력회대표단 등 많은 대표단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9월 6일 일본사회당위원장 나리다 도모미를 단장으로 하는 사회당대표단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대표단을 환영하여 연회를 차렸다.

연회에서 나리다 도모미위원장은 《…존경하는 김일성각하께서 나라일에 그처럼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도착한 다음날인 오늘 접견하여주시였으며 회담하여주신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영광입니다.》라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일본총평및중립로련대표단 (10월 12일), 사회당부인활동가대표단 (10월 6일), 사회당대표단동행기자단 (9월11일), 법률가대표단 (11월 13일), 니이가다현재일조선인귀국협력회대표단 (12월 10일)을 만나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직접 만나뵈온 일본의 수많은 진보적인사들은《주체의 조국을 찾아서》, 《천리마의 나라를 찾아서》, 《주체의 나라 조선을 방문하여》 등의 제목으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 위대한 생활력,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높이 칭송하는 방문기들을 발표하였다.

9월 9일《요미우리신봉》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한《주체의 나라 조선을 방문하여》에는 일본사회당 위원장 나리다 도모미,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 회장 구노 쥬지, 교직원조합 위원장 마끼에다 모도후미 등 23명의 각계 인사들의 글들이 실려있다.

이 책의 첫머리에는 인민들속에 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진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두돐기념일인 4월 15일에《일본평론사》에서는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게재하고 이와 함께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해설한 책을 발간하였다.

또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를 보여주는 화첩《조선혁명박물관》(상권)을 미라이샤출판사에서 일본말로 출판하였다. 화첩《조선혁명박물관》(상권)의 책가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이 숙영한 백두밀림의 사진이 받쳐져있으며 책 첫머리에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사진이 실려져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이딸리아공산당기관지 〈우니따〉지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일본공산당기관지 《아까하다》 4월 12일호가 실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또고공화국 대통령을 환영하여 베푸신 연회에서 하신 연설을《아까하다》9월 10일호가 실었다.

우리 시대의 사조로 되고있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적극 따라배우고있는 일본인민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리론실천적으로 보다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를 더욱 빛내여나가기 위하여 주체사상연구토론회들을 가졌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을 더 깊이 학습하고 그 진수와 정당성을 체득하여 실천사업에 구현해나갈 굳은 결의를 담은 편지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드리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예순두돐에 즈음하여 일본 전국의 15개 도, 도, 부, 현들에서온 15개 연구소조대표들과 학자들, 각계인사들은 4월 14일 도꾜에

서 제4차 주체사상연구전국토론집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세금제도철폐의 의의》라는 제목의 특별보고와 각 연구소조들의 연구활동과 관련한 보고와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토론회에서는 일본각지에서의 주체사상연구경험을 나누고 도꾜집회에서의 연구를 확대심화시키도록 하였으며 4월 1일을 《4.1반세금투쟁의 날》로 설정할것을 일본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6월 30일에는 도꾜에서 각계층 청년들의 《전국청년주체사상연구교류집회》가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도꾜청년 《주체사상연구회》, 센다이《사회과학연구회》, 오사까이꾸노《김일성주석로작연구회》, 군마현《조선문제연구회》의 발기로 일본전국각지의 11개 연구소조 대표들과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전체 참가자들의 열화같은 박수속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집회에서는 또한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침략을 반대하고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9월 14일 도꾜 다마찌에 있는 고조회관에서 22개 소조원들의 참가하에 제5차주체사상연구토론회가 진행되였다.

집회에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전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10월 13일 도꾜에서 일조사회과학자 련대위원회와《김일성주석저작연구회 전국협의회》의 공동주최로 《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장에는 《김일성저작선집》, 《김일성전》, 《인민들속에서》등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적들과 자료들이 전시되였다.

집회에는 일본의 이름난 학자, 인사들과 일본《청년주체사상연구회》, 도꾜《주체사상연구회》등 일본의 16개 도, 도, 부, 현에서 60여개의 연구소조와 여러 사회단체 대표들 600여명이 참가하였다.

집회의 명의로 채택된 선언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리론을 김일성주의로 선포하였다.

선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있다.

《김일성주석님의 사상, 리론체계는 주체의 철학사상으로 부터 대중적령도리론, 기타의 광범한 령역에 걸쳐 시종일관한 체계를 이루고있으며 그것은 마땅히 김일성주의라고 부를수 있는것이다.》

또한 5월 18일에는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10돐기념 파하연구회, 10월 8일에는《가나가와현 조선문제연구집회》, 12월 11일에는 히로시마현에서 불멸의 주체사상에 대한 강연회 등이 진행되였다.

일본인민들속에서는 일본반동정부의 조선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것을 요구하는 여론과 운동이 급격히 높아졌다.

1월 일본사회당 제37차정기전국대회는 일조국교정상화를 촉진하며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할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4월 일조협회확대전국리사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그릇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6월 24일 일조우호국교정상화국민회의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본의 여러 지방자치체들과 민주단체 및 로조들도 조선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여 재일조선인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보장할것을 일본반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나섰다.

11월 교또부의회에서는 조선에 대한 정책확립과 관련한 의견서를 부의회의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채택하였다.

또한 오사까시 교직원조합위원회, 이바라기현자치로조, 오사까시직원로조, 히가시 요도가와구지부 제1차정기대회와 요도가와구지부 제1차년차대회에서도 박정희도당의 잔인무도한 파쑈탄압을 규탄하면서 조선에 대한 정책을 당장 바꿀것을 한결같이 요구하는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11월 21일 일본사회당, 공명당, 총평및 중립로련, 일조우호국교정상화국민회의, 일조문화교류협회, 일조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 일조로동자교류련대련락회의, 일본사회주의청년동맹, 일본부인회의 등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이 유엔총회에서《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하여》라는 결의안이 토의될때 그의 가결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영향력을 행사할것을 요구하여 유엔사무총장에게 공동서한을 보냈다.

일본인민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5월 15일 도꾜 도요대학에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일조학생우호련대모임》이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남조선학생들에게 련대성을 표시하는 결의》와 남조선괴뢰《대사관》에 들이댈 항의성명을 채택하였다.

10월 9일 일조학생련대위원회 주최로 도꾜의 도요대학에서는 《일조학생련대집회 및 영화모임》이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에 련대성을 보내는 결의문과 박정희도당에게 보내는 항의문이 채택되였다.

10월 16일 도꾜의 쥬오대학에서도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지지하는 일조학생련대성집회가 진행되였다.

10월 1일 요꼬하마시에서 《남조선 청년학생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지지하는 가나가와현 청년집회》가 진행되였다.

9월 14일 일본사회당 국제국장 가와사끼 간지는 제29차 유엔총회가 열리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외교부를 찾아가 이번 유엔총회에 대한 일본사회당의 태도를 밝히면서 일본정부가 유엔총회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옳바른 립장을 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9월 19일 일본의 정당, 사회단체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테로통치와 그를 적극 뒤받침해주고있는 일본반동정부의 남조선에 대한 부당한 정책을 항의 규탄하여 국민대집회를 가졌다.

또한 일본의 진보적정당인사들은 조선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것을 요구하여 담화들을 발표하였다.

1974년에 일조체육교류촉진련맹대표단(1월),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 사무국장일행(2월), 사회당조선문제대책특별위원회대표단 (5월), 일조우호촉진가나가와현의회의원 간담회대표단, 체육협회대표단(6월), 로동조합대표단(7월), 일조우호촉진사이다마현의회의원련맹대표단,《주체사상연구회》대표단, 간사이지방학자대표단,오사까기자대표단(8월), 산세이도제조부장일행, 아사히이브닝뉴스편집총무 겸 보도부장, 교직원조합대표단(9월), 사까다시친선대표단, 일조우호촉진미에현우에노시의회

의원런맹대표단, 오사까교육대표단 (10월) 등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4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도꾜에서 진행된 국제의회동맹 제61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한 의회그루빠대표단(10월), 교육문화일군직맹대표단(1월), 영화인대표단 (2월), 4.25축구대표단 (3월), 녀성대표단(5월), 과학문화대표단 (5월) 이 일본을 방문하였다.

필 리 핀

(필리핀공화국)

넓이 30만km²
인구 3,950만명 (1973년 6월)
수도 케손 (주민 97만 1,637명) 1948년에 케손을 수도로 결정하였으나 정부기관은 아직 마닐라 (주민 131만명) 에 있다.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 24석, 임기는 6년 (2년에 3분의 1을 개선), 하원 120석, 임기 4년

정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1965년 11월), 외교부장 로물로, 국방부장 폰수 엔릴레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0년 11월 7일 창건, 1946년 6월에 비법화, 총비서 헤수스 라바, 자유당 1946년에 결성, 국민당 (집권당) 1907년에 결성된 친미부르죠아지의 정당, 사회당, 진보당, 민족주의공민당, 사회민주주의전선, 로동조합협회, 자유로동조합회

1571년부터 약 330년간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었다.

1898년 미국—에스빠냐전쟁결과 필리핀은 미제의 식민지로 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기간에는 일제에게 강점되였으며 일제가 패망하자 다시 미제의 식민지로 되였다.

1946년 7월 4일 민족적독립을 위한 치렬한 투쟁을 통하여 독립을 달성하였다. 미제는 이 나라의 독립을 인정한다는 구실밑에 필리핀헌법에 《평등권법안》을 첨가시키고 그후 필리핀에 《경제협정》, 《군사원조협정》, 《호상방위협정》 등 일련의 예속적인 불평등 조약과 협정들을 강요하였다.

1947년 4월 필리핀반동정부는 미제와 《군사기지협정》을 맺었으며 1966년에는 이 협정을 다시 25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필리핀은 아세아침략을 위한 미제의 침략도구인 《세아토》, 《아스파크》, 《아세안》 성원국이다.

필리핀반동정부는 1950년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고용병을 파견하였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성원국이였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반대하고있다.

1966년에는 미제의 윁남침략전쟁에 2천명의 고용병을 파견하였다.

1970년 5월 미제는 아세아침략을 위한 군사기지들을 더욱 확장하였으며 클라크공군기지에 공수사령부까지 설치하였다.

필리핀인민들은 정부의 대미추종정책을 반대하여 치렬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1942년에 조직된 항일조직인 《후크바라하프》는 1964년부터 무장투쟁을 더욱 강화하여 오다가 1969년 3월 23일에는 《새인민군》을 창건하였다. 이 무장력은 해방지역에 유격근거지를 창설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하였으며 전국도처에서 정부군과 치렬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1972년 9월현재 마르코스대통령이 밝힌바에 의하면 《새 인민군》은 1만명의 정규군과 10만명의 지지자를 가지고있었다.

필리핀정부는 인민들의 압력으로 차츰 미일제국주의의 예속과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으며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하고있다.

1973년 필리핀정부는 석유정제와 판매를 통제하여오던 미국석유회사와 바탄정유공장 주권을 넘겨받는다는것을 선포하였으며 1974년 7월 3일에는 필리핀의 자주권과 독립을 엄중히 유린해 온 필리핀—미국사이의 협정을 무효로 선포하였다.

1월 일본총리 다나까놈의 필리핀행각을 규탄하여 마닐라의 대학생들과 인민들은 일본군국주의의 경제적침투를 반대하는 군중적인 시위를 벌렸다.

필리핀의 아테네오 데 마닐라종합대학 교수들은 신문 《마닐라 타임스》에 편지를 보내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경제적협조》는 《일본의 공업을 위한 원료를 그 나라들로부터 략탈하기 위한것》이라고 하면서 놈들의 교활한 경제적침략을 단호히 반대배격할것을 호소하였다.

1974년 3월 필리핀정부는 산악지역거주종족들에게 자치를 주었으며 조상전래의 땅에 대한 그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령을 발포하였다.

5월에는 사회의 모든 측면을 《민주화》할데 대한 계획의 일환으로서 홀로시에서 개인토지소유제를 철폐하였다.

11월 19일 대통령은 필리핀사람들의 해외려행금지를 철회하고 해외에 있는 필리핀정치범들에게 대사령을 실시하였다.

1974년 12월에 필리핀은 메루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9월에는 중국과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10월 30일에는 필리핀쏘련합자회사인 필쏘해운회사가 마닐라에 설립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75%가 농사한다. 농산물이 국민총생산액의 약 35%, 수출의 60%를 차지한다. 부침땅으로 리용할수 있는 땅은 1천 400만헥타이나 실지 리용되는 땅은 50%에 불과하다. 토지의 대부분은 대로지소유자나 교회가 거머쥐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벼, 강냉이를 비롯한 알곡작물들과 이 나라의 4대특산물인 사탕수수, 코프라, 담배, 마닐라삼 등이다.

전체 부침땅의 30%에 벼와 강냉이를 심는다. 알곡은 자급자족하지 못하며 많은 량을 사들인다.

해마다 벼는 약 470만톤, 강냉이는 약 160만톤, 사탕수수는 1천 200만톤, 코프라는 150여만톤 정도 생산된다.

주요집짐승은 소, 돼지, 말, 염소 등이다.

공업에서 기본은 제국주의자들의 원료략탈을 위한 채광업이다. 미제독점자본이 이 부문의 50%를 틀어쥐고있다. 동 (년산 11만톤), 크롬 (정광으로 년산 약 40만톤), 쇠돌, 망간, 주석, 금, 은 등이 채굴된다.

세멘트, 방직, 기계, 금속, 펄프, 원유가공, 제약, 화학, 고무 공장 등이 있으나 미제와 일본독점자본이 침투되여있다.

이 나라에 투자된 외래독점자본의 80%가 미제독점자본이다.

림업과 수산업도 경제에서 큰 자리를 차지한다.

령토의 40%가 산림이며 라완재와 같은 굳은 나무를 비롯한 많은 목재를

수출하고있는데 그의 80%를 일본독점자본이 틀어쥐고있다.

해상운수가 대외무역, 국내화물수송, 려객수송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루손섬과 파나이섬에만 철길이 있는데 그 길이는 1천 167키로메터이다.

주요수출품은 목재, 코프라, 사탕, 동광석이며 그밖에 야자기름, 담배, 유색금속 등이다. 수입품은 운수기재, 금속제품, 식량 등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미국, 일본, 화란, 서독, 영국, 오스트랄리아이다.

인구의 3%에 불과한 특권계층이 국민소득의 65%를 독차지하고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은 아주 빈궁하다.

항시적인 실업자가 430만명이상이다.

국어는 타갈로그말이나 영어와 에스빠냐말도 쓴다.

출판보도;통신 피엔에스

신문 안그바얀 (공산당기관지), 마닐라 타임스, 마닐라 크로니클, 데일리 스타, 데일리 미러

방송 비비에스방송, 필리핀멜베비존방송

브 루 네 이

(영국《보호령》)

넓이 5, 765km²
인구 13만명
행정중심지 반다르 세리 베가완 (주민 약 6만명)

정 치

립법평의회 일원제, 총의석 21석, 형식상 10명은 선거하며 6명은 관리들중에서 나오며 5명은 임명한다.

추장 쩨기란 무다 마코타 하싸날 볼키아호 (1967년 10월—), 추장이 최고권력을 가지고있다고는 하나 외교, 국방, 치안권은 영국고등판무관이 쥐고있다.

원래 오늘의 북부깔리만딴 전지역이 브루네이였다.

1888년 영식민주의자들은 이른바《협정》을 강요하여 브루네이를 《보호령》으로 만들고 북부깔리만딴을 세지역(브루네이, 서라와크, 사바흐)으로 나누어 통치하였다.

제2차세계대전기간 (1942~1945년)에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브루네이를 강점하고있었으며 일제가 패망한후 1946년 7월에는 영제국주의자들이 다시 기여들어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전후 브루네이에서는 영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투쟁이 앙양되였으며 1956년 8월 브루네이인민당이 창건됨으로써 이 당의 지도밑에 더욱 치렬하게 전개되였다.

투쟁의 불길속에서 1963년 1월 1일 브루네이인민당 위원장 아자하리를 수반으로 하는 북부깔리만딴혁명정부가 수립되였으며 민족해방군이 조직되였다.

1965년 3월 혁명정부의 인민협상회에서는 북부깔리만딴의 정당, 사회단체, 모든 민족주의자들을 망라하는 민족통일혁명전선을 결성하였다.

1965년 3월 영제국주의자들은 민족적독립을 위한 이 지역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괴뢰들로 새 립법평의회를 날조해냈다.

1971년 11월 23일부터 내부자치를 실시하고있으며 실권은 영제국주의자들이 쥐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이다. 전체 로동인구의 4분의 3이 이 부문에서 일하며 재정수입의 90%가 여기에서 얻어진다. 미영독점체들이 석유채취권을 독점하고있으며 일본독점자본의 침투도 강화되고있다. 주요원유산지는 세리아유전이다. 해저유전이 개발되여 석유를 채취하고있다. 해마다 약 600만톤의 원유를 생산하며 그의 95%는 수출한다. 천연가스는 해마다 약 16억~17억립방메터정도 채취하며 그의 전부를 수출하고있다.

가공공업으로는 일용품을 생산하는 가내수공업과 제재소 및 목재가공공장이 있을뿐이다.

부침땅의 절반은 고무재배원(1만 2천헥터)이며 매년 1천여톤의 고무를 수출한다. 고무재배원의 대부분은 영국독점체들이 가지고있다.

주요농산물은 고무, 야자, 벼, 후추, 코프라 등이며 식량의 3분의 2는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철도가 없으며 하천운수와 연안해안운수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요수출품은 원유(90~95%), 고무, 목재, 후추, 코프라 등이며 수입품은 긴재와 채취설비, 운수수단, 천, 식량 등이다.

주민들의 생활형편은 장기간의 식민지통치의 결과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모르고있다. 도시에만 몇개의 병원이 있다.

주민은 절반이상이 말라이족이며 중국사람(6%), 다야크사람 (5%) 그밖에 일련의 소수민족이 있다.

공용어는 말라이말이다.

주민들의 대부분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신문 데일리 스타, 보르네오 불레틴, 살람, 퍼즐리타 브루네이

방송 브루네이방송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공화국)

넓이 190만 4, 345km²
인구 1억 2, 900만명 (1974년초)
수도 쟈까르따 (주민 491만 5, 260명, 1973년말)

정 치

협조국회 일원제로서 립법문제를 취급하나 대통령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총의석 460석중 100석(그중 75석 군인, 25석 골까르)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360석은 선거한다. 1971년 7월 협조국회 선거결과 정부의 정치조직인 골까르 (직능그루빠)가 236석, 회교승려협회가 58석, 인도네시아회교당이 24석, 민족당이 20석, 회교련맹당이 10석, 카톨릭교당이 3석, 기독교당이 7석, 뻬르띠회교당이 2석을 차지하였다.

인민협상회의 1969년 11월에 채택된 선거법에 의하여 1972년 10월 1일에 창설된 최고주권기관이다. 5년에 한번씩 열리며 대통령 및 부대통령의 선거, 헌법제정, 정강결정 등을 한다. 협조국회의원 460명과 지역대표, 국회의원이외의 정당대표, 직능그루빠대표 등 도합 920명으로 구성한다. 그중 골까르 458명, 장교 277명, 정당대표 185명이 망라되여있다.

정부 대통령 수하르또 (1968년 3월—, 1973년 3월 재선)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5년, 외교부장 아담 말리끄, 국방및안전부장 마르덴 빵가베안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5월 23일 창건, 1965년 《9월30일운동》후 비법화, 골까르 (집권정치조직), 민주당 1973년 1월 10일 민족당, 기독교당, 카톨릭교당 기타 정당이 통합하

여 성립, 회교승려협회, 인도네시아회교당, 회교련맹당, 페르띠회교당

오랜기간 화란의 식민지로 있었으며 제2차세계대전기간에는 일제의 강점하에 있었다.

1945년 8월 17일 일제의 패망과 함께 독립을 이룩하였으며 1950년 8월 15일에는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3년 5월 1일 이리안 쟈야(서부이리안)에 대한 화란의 행정권이 인도네시아에 넘어왔으며 1969년 8월 16일 인도네시아령토로 완전히 선포되였다.

1965년 9월에 《9월30일운동》이 일어났으며 10월 1일 진압되였다.

그후 인도네시아반동들은 수많은 공산당원들과 진보적인사들을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1966년 3월 독립이래 대통령으로 있던 수카르노의 정부가 해산되고 치안을 위주로 한 대통령 권한이 수하르또에게 넘어갔다.

1967년 1월에는《외자도입법》을 채택하고 미국, 일본, 화란, 서독으로부터《차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으며 이해 8월에는 타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동남아세아국가련합》(아세안)을 결성하였다.

1968년 3월 제5차 림시인민협상회의에서 수하르또를 대리대통령으로부터 정식 대통령으로 결정하였다. 1969년 11월 국회에서는 공산당원, 《9월 30일운동》에 관련된 사람들, 금지된 조직의 성원들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총선거법안》을 채택하였다.

이 원칙에 기초하여 1971년 7월 3일 16년만에 처음으로 협조국회선거가 진행되였다.

1972년 10월 1일《선거법》에 근거하여 독립후 27년만에 처음으로 창설된 인민협상회의가 열렸다. 1973년 3월에 진행된 인민협상회의에서 수하르또가 대통령으로 재선되였다.

인민협상회의는 대통령의 최고권한을 재확인하고 국가가 앞으로 5년간 리행할《기본지도로선》(정강)을 채택하였다. 이에 의하면 군부가 인도네시아의 정치에서 의연히 지도적역할을 놀것이라는데로부터《방위 및 안전 세력으로서 또한 사회세력으로서의 인도네시아군대의 강화》를 호소하였다.

1974년 1월 22일 정부는 새로운 외자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외국기업간의 합자회사에서 인도네시아측의 출자비률은 51%로 하며 외국기업이 투자할수 있는 분야도 제한하였다.

또한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인도네시아기업과의 합자형식을 취하여야 하며 인도네시아사람들을 많이 써야 한다. 그리고 외국기업의 투자대상은 인도네시아의 민족자본이여야 한다고 규정되여있다.

7월 정부는 방직공업과 림업 그리고 일부 채취공업부문과 수공업생산의 모든 부문, 경공업에 대한 외국의 투자를 금지하였다.

10월 9일 국회에서는 임금정돈, 로동조건개선 및 인민교육분야에서의 개혁을 예견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11월 정부는 국내의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의 수입을 금지하며 섬유제품의 수입량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7월 외교부장 말리끄는 미국잡지《뉴스위크》에 준 담화에서 일본독점자본가놈들의 가혹한 략탈행위를 비난하였다.

외교부장은 일본독점자본가놈들이《앞으로 쓸 나무하나 남겨놓지 않고 우리의 산림을 략탈해가고있다》고 규탄하였으며 일본독점자본의 침투에 언급하여《더우기 일본은 우리에게 그런 제품이 실지 필요한지도 고려함이 없이 우리의 공업가운데서 최대의 리윤을 짜낼수 있는 부문에 밀려들고있다》고 비난하였다.

1974년 1월 일본총리 다나까의 행각을 계기로 인도네시아에서는 학생들의 반일시위가 세차게 일어났다. 1월 9일 반둥에서는 700여명의 학생들이 다나까놈의 사진을 불태우면서 강력한 반일시위를 벌렸다.

반일시위는 다나까놈의 도착을 계기로 더욱더 힘차게 진행되였다.

1월 14일 다나까놈이 할림국제비행장에 첫발을 들여놓자마자 학생들과 인민들은《다나까의 〈미소〉의 배후에는 무엇이 숨어있는가》, 《다나까는 인도네시아를 점령할 계획을 짜고있다.》라고 쓴 삐라를 그놈의 면전에 뿌려 랭대하였으며 800여명의 학생들은《다나까는 물러가라》, 《우리는 일본이 없어도 살수 있다.》라고 쓴 프랑카드와 기발들을 들고 비행장가까이의 도로들에서 반일시위를 벌렸다.

1월 15일 학생들은 《다나까야 원조를 가지고 지옥으로 가라》는 프랑카드와 기발을 들고 다나까놈이 기여들어간 메르데까궁전 가까이의 거리들에서 일대 시위를 벌렸으며 일본놈들의 승용차, 화물자동차, 상점, 식당, 회사건물들을 짓부시고 불살라버렸다. 1월 15일 오후까지만해도 쟈까르따 중심거리들에서 박산나거나 불타버린 일본놈들의 자동차는 무려 100여대나 된다.

이리하여 다나까놈은 궁전밖에서 타번지는 반일 불길에 겁을 먹고 15일《하루종일 궁전밖으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였다》고한다. 다나까놈은 만나야할 사람은 불러들이게 하였으며 시내참관계획들도 모조리 취소하였다. 쟈까르따의《프레지덴트 호텔》에 들여박혀있는 제놈의 동행자들에게는 아무때고《피난》할수 있도록 보따리를 꾸려놓고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인도네시아정부는 1월 15일과 16일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반일시위에 떨쳐나선 학생들을 탄압하였다.

1월 15일 쟈까르따에서는 야간외출금지령이 내렸으며 다음날에는 쟈까르따의 여러 대학, 고등학교들이 폐쇄되고 5명이상의 야외회합이 금지되였다.

1월 17일에는 출판물검열제와 학생들의 정치활동금지를 선포하였다. 정부는 학생폭동후 신문《쟈까르따 타임스》, 학생신문 《까미》를 비롯한 11개의 출판물을 금지하였다.

1974년 5월 24일 인도네시아국회는《아세아의원련맹》에서 떨어져나왔다.

8월에는 아프리카통일기구해방위원회에 4천만딸라를 기증하였다.

1974년 8월 15일 수하르또대통령은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경제적협조를 강화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12월 쏘련과 경제기술협조협정을 맺었으며 웽그리아,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는 각각 무역협정을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민의 72%가 농사를 하며 국민소득의 40%가 이 부문에서 얻어진다. 부침땅은 약 1천 700만헥타이며 대부분이 쟈바섬과 마두라섬에 집중되여있다.

이 지역에서 전국 알곡생산량의 60~90%가 생산된다. 주요농산물은 후추, 키니네, 천연고무, 코프라, 커피, 야자, 차, 사탕수수, 사이잘삼 등 수출용작물과 벼, 강냉이, 밀, 콩, 고구마, 땅콩 등 알곡작물이다.

키니네는 이 나라의 특산물로서 자

바의 반둥가까이에서 재배되는데 세계 총수출량의 90%를 차지한다. 후추도 그 생산량과 수출에서 세계 첫자리를 차지한다. 천연고무생산량은 년 75만~80만톤으로서 자본주의세계에서 말레이시아 다음가는 자리를 차지한다.

1973년에 벼는 1천 400만톤, 강냉이는 230만톤, 콩은 51만3천톤, 땅콩은 28만톤, 고구마는 193만톤 생산되였다.

그러나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며 140만톤의 쌀을 사들이였다. 커피, 코프라, 담배, 후추 등 공예작물생산은 떨어졌다.

고무생산도 고무나무들이 오래되고 새 나무들을 심는 계획이 수행되지 못하여 생산이 늘어나지 못하고있다.

주요집짐승은 소, 물소, 말, 염소, 양, 돼지 등이다. 무진장한 산림자원을 가지고있어 목재생산도 경제에서 적지 않은 몫을 차지한다.

1973년에 2천만립방메터의 목재가 생산되였다.

일본독점자본이 찌크재와 같은 질좋은 목재채벌을 독점하고있다.

공업은 채취공업 (공업의 60%) 일면에만 치우치고있고 가공공업은 발전하지 못하였다.

주요지하자원은 주석, 원유, 석탄, 보크사이트, 니켈, 망간, 금, 은, 동, 크롬, 아연 등이다.

채취공업은 외국독점자본에 장악되여있다.

외국자본투자총액의 80%는 채취공업과 림업부문에 돌려지고있다. 1973년에 석유는 560만톤, 주석정광은 2만 2천 500톤, 보크사이트는 128만 9천톤 생산되였으며 450만립방메터의 가스가 채취되였다.

기타 공업으로서 소비품을 생산하는 중소규모의 경공업이 있다. 경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탕공업과 고무가공공업, 제유공업, 담배공업, 정미업 등이다.

방직공업능력이 늘어남으로써 천생산이 9억메터 (1972년에 8억 5천 200만메터) 에 달하였다.

1973년에 종이는 4만 300톤, 유리는 1만 5천톤, 철근 12만톤, 관은 4만 5천톤 생산되였으며 3만 3천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였다.

현정부는 국영부문을 축소하고 개인기업을 장려하고있다. 석유, 화학, 흑색금속 공업부문과 농업분야에 대규모의 외국자본투자를 요구하고있다.

제1차 5개년계획 (1969~1973년) 은 많은 면에서 서방나라들의 투자와 부채에 의거하였다. 계획수행 기간 필요한 자금의 70%가《외국원조》였다.

1973년 6월 현재 이 나라에 대한 외국자본투자총액가운데서 일본독점자본이 5분의 1에 달하는 4억 6천 700만딸라였다.

일본독점자본은《경제원조》라는 명목밑에 1973~1974년도에 477억엔 (1억 8천만딸라) 을 제공하였다.

교통운수에서는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은 7천여키로메터인데 주로 쟈바 (70%) 와 쑤마뜨라의 북부와 동남부에 집중되여있다. 기타 섬들은 자동차운수와 하천운수가 기본이다.

주요수출품은 원유, 천연고무, 주석, 담배, 코프라, 차, 커피, 후추, 키니네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기계설비, 직물, 화학공업제품, 일용품, 운수수단 등이다.

주민은 쟈바족, 순다족, 마둘라족 등 100여개의 종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인도네시아말이다.

식량과 소비품의 부족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인민생활은 낮은 수준에 있다. 인구1인당 국민소득은 년간 100딸라미만이다.

또한 1974년 2월초에 식료품값은 10.73%, 주택사용료는 6.4%, 의류값은 7.04% 각각 올랐다.

수백년간에 걸치는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문화수준과 생활형편은 그리 높지 못하다. 1974년초 10살이상의 글모르는사람이 약 3천 600만명이였다. 이것은 10살이상의 인도네시아사람들의 약 40%에 해당한다.

로동력있는 사람의 약 35% (3천 500만명) 가 실업자이다. 실업자수는 해마다 약 140만씩 늘어나고있다.

주민의 90%이상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 보도; **통신** 안따라통신

신문 베리따 유다 (륙군신문), 안뻬라 레뷰, 쟈까르따 타임스, 메르데까, 와르따 하리안, 와르따 베리따, 까미 (대학생행동전선기관지)

방송 인도네시아방송, 쟈까르따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1년 6월 17일 우리 나라와 총령사관계를 맺었으며 1964년 4월 16일에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3년 11월 15일에는 무역협정과 과학기술및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56년 12월에 인도네시아조선쏘쟈까르따친선협회가, 1958년 9월 6일에는 인도네시아조선쟈까르따친선협회가 무어졌다.

1974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알제리혁명리사회 의장 부메디엔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하신 연설《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안따라통신이 보도하였다.

1974년 7월 인도네시아정부대표단, 정부무역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7월 9일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정부대표단을 만나시였다.

접견석상에서 대표단단장은「조선방문을 통하여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조선을 위하여 내세우신 강령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조선인민이 이룩한 빛나는」성과들에 대하여 잘 알게 되고 많이 배웠으며 조선의 앞으로의 휘황한 전망에 대하여 더욱 확고하게 알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이해에 우리 나라 정부무역대표단 (4월), 보건대표단 (8월) 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다.

떠 모 르

(뽀르뚜갈식민지)

넓이 1만 4,925km²
인구 60만명 (1974년)
행정중심지 딜리 (주민 1만 9,000명)

정 치

식민지통치기구 뽀르뚜갈총독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있다. 총독의 보조기관으로서 립법 및 행정 위원들이 있다. 위원들의 일부는 선출되며 나머지는 임명된다. 그러나 농촌과 산지대에서는 추장을 통하여 통치하고있다.

정당, 사회단체; **프레틸린당** 인도네시아와의 통합을 반대, **떠모르해방위원회** 1962년 인도네시아의 쟈까르따에서 조직된 민족해방투쟁조직

1586년 뽀르뚜갈의 식민지로 되였다.

1661년 화란식민주의자들이 떠모르섬의 서부 꾸빵지역을 점령하였으며 1859년 4월에는 화란—뽀르뚜갈조약에 의하여 이 섬의 서부지역을 차지하였다.

１９０４년 뽀르뚜갈파 화란식민주의자들은 제놈들이 강점한 지역의 국경선을 확정하기 위한 회담을 벌려놓고 섬의 중부를 일직선으로 갈라 국경을 만드는데 합의하였다. 이 섬의 서쪽절반은 뽀르뚜갈식민지로 남아있다.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처음에는 떠모르를 아오먼행정구역에 편입시키고 총독통치를 실시하여 오다가 １８９６년부터는 총독을 따로 두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떠모르애국자들은 도처에서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１９６２년 자까르따에서 《떠모르해방위원회》가 조직되였으며 다음해에는 자까르따에서《떠모르련합공화국정부》가 조직되였다.

１９７４년 ９월 인도네시아와 뽀르뚜갈간에 떠모르의 장래에 관한 일련의 회담을 가지고 １９７５년에 이 섬의 장래에 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 섬에 있는 ３개정당은 떠모르의 장래문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해결(뽀르뚜갈에 속해있는것, 독립하는것, 인도네시아와 통합하는것)을 원하고있다.

９월 ２０일 딜리에서는 약 ４천명의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와의 통합을 반대하여 시위를 벌렸다.

경제, 사회문화

봉건적토지소유관계가 그대로 남아있는 락후한 식민지 농업국가다.

주요농산물은 강냉이, 벼, 고구마, 코프라, 커피, 천연고무 등이다. 식량은 자급자족하지 못한다.

원주민들은 주로 목축업을 한다.

주요집짐승은 소, 물소, 양, 염소, 돼지, 말 등이다.

이 나라에는 철길이 없으며 자동차와 배들이 기본수송수단이다. 자동차길은 약 ２천 ９００키로메터정도인데 그중 자동차가 마음대로 다닐수 있는 길은 ６５０키로메터에 지나지 않는다.

주요수출품은 동물 및 식물성기름, 코프라, 커피, 천연고무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남새, 식량, 화학제품, 천, 강재, 기계, 수송기재 등이다.

주민은 대부분이 떠모르사람이며 중국사람, 뽀르뚜갈사람, 인도사람 등이 있다.

공용어는 뽀르뚜갈말이다.

백인들은 천주교를 믿으며 원주민들은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 신문 보스 데 떠모르
방송 떠모르방송

싱 가 포 르

(싱가포르공화국)

넓이 ５８１．５km²
인구 ２１４만명 (１９７２년)
수도 싱가포르(주민 １５４만 ９,０００명)

정 치

국회 일원제, １９７２년 ９월 ３일 총선거 실시, 총의석 65석 (인민행동당이 차지), 임기 5년

대통령 벤쟈민 헨리 섀어즈(１９７１년 １월—)

국가원수로서 국회에 의해 선거된다. 임기 4년

정부 총리 리관유, 외교부장 에쓰. 라쟈라트남, 국방부장 고켕스웨

정당, 사회단체 ; 인민행동당 (집권당) １９５４년 １１월 회교도, 부르죠아지 및 지식분자들로 조직, 사회주의전선 １９６１년 ９월 인민행동당에서 떨어져나와 조직됨, 강령에서는 식민주의철폐와 통일독립된 말라이국가창설을 주장하고있다. 로동당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영국의 군사기지의 철페를 주장하고있다. 인민련맹, 인민전선, 전국로동조합회의, 로조련맹

１８６７년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１９４２년 ２월부터 ３년 ６개월간 일제의 강점하에 있다가 ２차대전에서 일제가 패망하자 곧 영식민주의자들의 예속밑에 들어갔다.

１９４６년 ４월 영식민주의자들은 싱가포르를 말라이에서 분리하여 제놈들의 직할식민지로 만들었다.

１９５９년 ６월 ３일 외교권과 국방권이 없는 영련방안의《자치국》으로 독립하였다.

１９６３년 ９월 １６일 영식민주의자들이 조작한 말레이시아련방의 한개주로 편입되였다. 그후 령토권, 민족문제 등에서 말라이와 리해관계가 맞지 않아 １９６５년 ８월 ９일《련방》에서 떨어져나와 독립을 선포하였다.

１９６５년 １２월 독립법안을 채택하고 １９６６년 ８월 ９일 이를 공포하였다. １９７１년 １０월 ３０일까지 영침략군이 말라이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１９７１년 １１월 싱가포르는 영국, 말레이시아,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와 ５개국《방위협정》을 맺었다.

대외적으로 《쁠럭불가담》을 표방하면서 일련의 나라들과 경제 및 정치 관계를 발전시키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중계무역이 경제의 기본을 이룬다. 국민소득의 ８０％이상이 중계무역과 련관된 부문에서 얻어진다.

이 나라의 경제는 국제적인 경제변동에 적지않게 좌우되고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독점자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말레이시아, 브루네이, 인도네시아, 타이, 버마,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세아와 아세아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들어오는 고무, 주석, 코프라, 향료 기타 각종 특산물과 공업제품들을 초보적으로 가공하여 팔거나 원료그대로 세계 각지에 재수출한다.

매해 １만 ７천～１만 ８천척(세계 제３위)의 배들이 싱가포르항에 들어오는데 그 화물류통량은 １년에 약 ３천 ８００만톤에 이른다.

최근년간 이 나라에서 중계무역은 제국주의독점체들의 무역공세로 난관에 부닥치고있다. 재수출보다 수입이 초과되여 수지적자가 생기고있으며 이것은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있다.

공업은 가공공업이 기본이며 야금공업이 약간 있을뿐이다. 공업은 아직까지 경제에서 부차적인 부문으로 되고있다. 주석제련소, 원유가공공장, 고무공장, 세멘트공장, 기름공장 등 크지 않은 공장이 몇개 있다. 서남부에 새로운《쥬룽공업지구》가 창설되고있는데 여기에는 이미 년간 １０만톤능력의 강철공장과 １만톤급이상의 배를 수리할수 있는 조선소, 세멘트공장, 성냥공장 등이 건설되였다.

최근년간 일본독점자본의 침투가 강화되고있다.

농업에서는 주로 남새를 가꾸면서 고무, 야자, 담배, 과일 등을 재배한다. 부침땅은 약 １만 ５천헥터이다.

식량은 대부분 사들인다.

운수는 싱가포르항을 중심으로 하는 해상운수가 기본이며 철길은 싱가포르시와 말레이시아를 련결하는 간선철길(１９．２키로메터)이 하나 있을뿐이다.

주요수출품은 고무, 야자, 향료 및 가공제품이며 수입품은 쌀, 각종 직물류, 원료 등이다.

문화수준은 높지 못하며 도시와 농촌의 문화수준의 차이가 심하다.

싱가포르대학과 남양대학 ２개가 있으며 그밖에 ７００여개의 각급 학교들이 있다.

주민은 75%이상이 중국사람이며 기타 말라이사람, 인도사람, 파키스탄사람, 구라파사람 등이 있다.

공용어는 중국말, 영국말, 말라이말, 타밀말이다.

종교는 다양하다. 중국사람들은 주로 불교, 말라이사람들은 회교, 인도사람들은 힌두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바리산 (사회주의전선기관지), 명보, 신명일보, 남양상보, 신평일보, 성주일보, 인터내슈널뉴스, 스트레이츠 타임스

방송 싱가포르방송, 싱가포르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5월 13일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각각 무역대표부를 설치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1969년 11월 28일에는 우리 나라와 총령사관계를 맺었다.

1974년에 싱가포르신문들인 《남양상보》, 《성주일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 등을 실었다.

1974년에 싱가포르에서 제일 큰 영화관인 《황금영화관》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구현한 불멸의 기념비적명작 우리 나라 천연색광폭예술영화《꽃파는 처녀》가 이 나라 인민들의 커다란 감격과 흥분, 환희속에서 상영되였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계적인 영화》, 《완전히 성공한 영화》, 《교양적가치가 가장 큰 영화》, 《사상성에서도 최고, 예술성에서도 최고, 모든것이 최고인 그야말로 최고봉의 영화》라고 하면서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또한 이 나라 신문, 방송들도 영화 《꽃파는 처녀》의 완벽한 사상예술성을 높이 찬양하였다.

1월 19일부터 2월 10일까지 이 나라 예술단체인 《청년 및 아동극단》이 《영웅적조선인민을 향하여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라 노래와 춤을 대성황리에 무대에 올렸다.

1974년 4월 우리 나라 정부무역대표단이 싱가포르를 방문하였다.

또한 12월에는 평양예술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음악무용종합공연종목들과 교예종목들로 구성된 평양예술단의 공연은 이 나라 인민들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았다. 공연을 본 한 선원은 《세계최고봉의 주체예술의 화원은 영원히 지구의 방방곡곡에 혁명의 향기, 투쟁의 향기를 뿌리며 아름답게 꽃필것이다.

김일성주석님께서 꽃피워주신 주체조선의 혁명적예술 만세》라고 하면서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말하였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련방)

넓이 33만 1,321km^2(말라이 13만 1,313km^2, 서라와크 12만 3,025km^2, 사바호 7만6,115km^2)

인구 1,080만명 (1971년 12월)

수도 쿠알라 룸푸르(주민 50만명)

정 치

련방의회 상하량원제, 상원은 58석, 그중 26명은 각주의회에서 선출하며 32명은 국왕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다. 하원은 154석, 1974년 8월 하원선거에서 련맹당을 비롯한 9개 정당이 망라되여있는 민족전선이 135석 차지

국왕 투안쿠 아브둘 할림 무아드잠 샤흐 이브니 알 마르홈 술만 바들리샤흐 (1970년 9월—), 각주추장의 합동회의에서 선출, 임기 5년

중앙정부 1974년 9월 5일 내각구성, 총리 툰 아브둘 라자크 (1970년 9월—, 외교부장 겸임), 국방부장 툰 무스타파 빈 다루 하룬

정당, 사회단체; **말라이공산당** 1930년 4월에 창건, 1948년에 비법화, 총비서 진평, **련맹당** (집권당) 1952년에 봉건귀족, 지주, 부르죠아지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3개의 정당 (통일말라이국민조직, 말라이—화교협회, 말라이—인도인대회) 을 련합하여 결성, 위원장 아브둘 라자크, 총비서 티. 에취 탄, **민주행동당**, **전말라이회교당**, **인민진보당**, **레이버당**, **인민운동당**, **서라와크국민당**, **서라와크련맹당**, **인민사회당**, **사바흐련맹당**, **사바흐사회민주당**, **사바흐국민당**, **말레이시아로조대회**, **인도인학교교원련맹**, **전말라이의료일군로조련맹**

1957년 8월 31일 영련방안에서 독립하였다.

1957년 10월 영국과 《대외방위 및 호상원조협정》을 맺었으며 영국군대의 말라이 무기한 주둔권과 군사기지를 영국에 넘겨주었다.

1963년 9월 16일 말라이 11개주, 싱가포르, 사바흐, 서라와크를 각각 1개주로 하여 도합 14개주로 《말레이시아련방》을 만들었다.

그러나 1965년 8월 싱가포르는 말라이와의 심각한 정치경제적 및 민족적모순으로 하여 이 련방에서 떨어져나왔다.

말레이시아는 대내적으로는 경제의 《말레이시아화》를 추진시키고있으며 점차 자주적인 길로 나아가고있다.

정부는 국내경제위기를 뚫고나가기 위하여 민족전선산하 정당대표들로 《국가협의리사회》를 조직하고 그의 상설기관을 내왔다.

또한 말라이사람들의 기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들에 대한 대부를 먼저 해주고있으며 국가무역상사들도 말라이사람들의 개인기업에 우선 상품을 공급해주고있다.

국가는 물가를 올리는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고있다.

1974년 7월 31일 이 나라 국왕이 국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통치체계를 내올것을 제의한데 뒤이어 1974년 8월 24일 이 나라에서 국회및 주의회 선거가 진행되였다.

국회선거에서 9개의 정당이 망라되여있는 민족전선이 154석중 135석을 차지하였다.

9월 5일 새 내각이 구성되였으며 라자크가 총리 겸 외교부장직을 다시 차지하였다.

1974년에 말레이시아인민들은 이 나라에 대한 정치, 경제, 문화적 침투를 강화하고있는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힘있게 투쟁하였다.

이해 말레이시아에서는 다나까놈의 행각을 반대하는 반일시위가 치렬히 벌어졌다.

1월 11일 말레이시아대학생들은 성명을 발표하여 다나까놈의 행각은 일본군국주의의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부활시키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고 폭로규탄하였다.

또한 1월 13일 말라이대학생련맹은 성명을 발표하여 말레이시아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을 규탄하고 말레이시아대학생들과 인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싸울것을 호소하였다.

1월 14일 말라이종합대학 학생들은 일본놈기발과 다나까놈의 허수아비를 불태워버리면서 강력한 반일시위를 벌렸다.

1월 29일 말레이시아전국학생동맹은 동남아세아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침략을 규탄하여 다나까놈에게 항의

문을 보내였다.

말레이시아는 대외적으로 동남아세아의《중립화》를 들고나오고있으며 점차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있다.

1972년과 1973년에 미제의 악명높은 아세아침략기구인 《아세아의원련맹》과 《아세아태평양지역각료리사회》에서 탈퇴하였다.

1974년 2월에 있은 회교국가수뇌자회의후 총리의 명령으로 이스라엘과의 모든 무역관계를 금지하였다.

1월 22일에는 자기 나라에 있는 영국방송회사의 중계소의 존속을 거부하였다.

1974년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총리 라자끄가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중국과 대사급 외교관계(5월)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고무생산과 주석채굴이다.

고무와 주석은 세계적인 생산국으로서 자본주의세계 천연고무생산량의 40%, 주석채굴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1973년에 고무는 149만톤, 주석은 8만톤 생산되였다.

주민의 65%가 농사한다.

부침땅의 3분의 2(490만헥타)가 고무재배원이다. 고무생산량은 세계에서 제1위이다.

1973년의 천연고무생산량은 149만톤으로서 세계총생산량의 40%를 차지하였다.

고무생산은 국민총생산액의 15%, 수출총액의 30%를 차지한다.

그밖에 코프라, 야자, 후추, 커피, 담배, 파인애플, 사탕수수 등을 심는다.

특히 야자기름생산이 많이 늘어나고있다.

1973년에 세계야자기름총판매량의 64%에 달하는 71만톤의 야자기름을 수출하였다.

벼는 부침땅의 15%정도 심는다.

1973년에 쌀생산량은 190만톤에 달하였다.

전령토의 4분의 3이 산림으로 덮여있어 목재도 많이 생산(년산 1천100만톤)된다.

공업은 채광업과 농산물가공공업이 기본으로 되여있다.

주요지하자원은 주석, 쇠돌, 보크사이트, 석탄, 석유 등이다.

주석은 년산 7만~7만 5천톤정도 생산되며 이 나라 국민총생산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또한 그 수출에 있어서 자본주의나라들중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주석은 서해안의 이뽀곡지, 따이삥과 꾸알라 룸뿌르부근에서 생산된다.

이 나라 채광업에서 쇠돌이 두번째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쇠돌산지는 꾸안딴 및 트렌가누지방이다.

삐낭과 꾸알라 룸뿌르부근에 영국자본에 의하여 운영되는 주석제련소가 있다.

또한 고무가공공장, 세멘트공장, 석유정제공장, 방직공장, 파인애플통졸임공장, 야자기름공장, 정미소, 제재소 등이 있다.

최근년간 일본독점자본의 침투가 강화되고있다.

그러나 아직도 영국독점자본이 고무생산의 40%이상, 주석채굴의 60%이상을 틀어쥐고있으며 주석제련업을 독점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은 이 나라 철광석수출량의 90%, 목재수출량의 3분의 2를 틀어쥐고있다.

운수에서는 해상운수가 큰 의의를 가진다.

철길의 총길이는 1천 643키로메터에 달하며 자동차길은 약 1만키로메터 정도이다.

철길의 대부분은 항구도시와 원료산지를 련결하고있으므로 서해안에 집중되여있으며 동서를 련결하는 철길은 없다.

서라와크에는 철길이 전혀 없으며 사바흐에는 186키로메터정도 있다.

주요수출품은 고무(수출총액의 60%), 주석(20%), 석유, 쇠돌, 야자기름, 코프라, 파인애플, 목재, 후추이며 수입품은 식량(총수입액의 50%), 원유제품, 기계류, 여러가지 천, 화학제품 등이다.

주민은 말라이족(50%), 화교(40%), 인도사람(10%) 등이다.

공용어는 말라이말이며 중국말, 영국말, 타밀말 등도 쓴다.

지역과 주민구성에 따라 중국말, 말라이말, 영국말, 타밀말 등으로 교육하고있으며 일부지방의 소수민족들은 자기의 고유한 말로 교육하고있다.

종교에서도 말라이사람은 회교, 중국사람은 불교, 인도사람은 힌두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베르남

신문 웃산 멜라이우, 말라이 메일, 말라이 타임스, 광화일보, 스트레이쯔 타임스

방송 말레이시아방송(사바흐와 서라와크에도 각각 1개의 방송국이 있다.), 말레이시아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6월 30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가금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와 《빠나마기자대표단과 한 담화》를 1974년에 말레이시아신문《스트레이쯔 타임스》10월 29일호와 11월 20일호가 실었다.

1974년 10월 말레이시아탁구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해 4월 우리 나라 정부무역대표단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였다.

말레이시아는 제29차유엔총회정치위원회에서 남조선으로부터《유엔군》을 철수시킬데 대한 결의안표결에서 기권하였다.

타 이

(타이왕국)

넓이 51만 4,000km²
인구 3,700만명
수도 방코크(주민 320만명)

정 치

국왕 푸미폰 아둘랴더트(1950년 5월—)

국왕은 국회의원과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국회 1973년 10월 타놈반동정권이 전복된후 12월 23일 국왕은 299명의 국회의원을 새로 임명하였다. 그중 국가관리 94석, 고위정치인사 33석, 대학교원 37석, 군인 23석, 의사, 법률가, 실업가, 112석, 나머지 의석은 일부 개별적인사들이다.

정부 1973년 10월 타놈정권이 전복된후 과도적인 민간인정부가 수립되였다. 1974년 5월 27일 내각개조, 40년이래 첫 순수민간내각구성, 총리 산야 타마스크더, 외교부장 차룬판드 이사랑쿨 나아유타야, 국방부장 크루안 수타닌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2년 12월 2일 창건, 1947년부터 비법화, 애국전선 1965년 1월 1

일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로 조직된 반미반정부조직, 반정부무장투쟁을 지도, 민족해방전선 1970년 10월 19일 타이애국적무장력의 영향을 받는 회교도세력이 중심이 되여 결성, 민주당, 근왕민족사회당 1973년 11월 21일 결성, 민족경제의 개선과 일련의 개혁주장, 사회민주당 1974년 4월 결성, 사회주의통일전선 1974년 6월 일부 정당들을 통합하여 결성, 이 당은 제도와는 관계없이 모든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실시할것을 주장

타이는 제2차세계대전후 동남아세아침략을 위한 미제의 발판으로 군사침략기지로 미제의 침략정책에 적극 추종해왔다.

타이 애국자들과 인민들은 미제와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여 오래전부터 완강한 투쟁을 벌려왔으며 1965년부터는 동북부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1973년에 이르러 반정부투쟁과 애국적인민들의 무장투쟁은 그 어느때보다 더욱 치렬히 전개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곳에서는 반드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며 압제자들의 폭압이 강화될수록 그에 항거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조직화되고 완강하여지는 법입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121페지)

1973년 10월 14일 타놈도당의 군사파쑈통치와 대미대일추종정책을 반대하는 청년학생들의 반정부폭동에 의하여 1963년부터 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여온 타놈친미반동정부가 거꾸러지고 1973년 10월 15일 타마사르종합대학총장이던 산야 타마스크더를 총리로 하는 새 민간인정부가 수립되였다.

10월 25일 총리는 헌법의 조속한 공포, 세금제도의 개혁,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외국과의 우호관계촉진 등 일련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시정방침을 발표하였다.

산야정부는 1973년 11월 27일 《로동법》을 개정하여 로조조직 및 로동자들의 파업권을 인정하였으며 이전군사정권이 조작한 5명이상의 집회에 대한 금지령을 페지하였다.

12월 27일에는 중국려행금지를 포함한《반공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1974년 3월 23일 국회는 《반공법》을 철회하였다.

1974년 5월 27일에는 군부출신각료들과 타놈군사정권시기부터 있던 각료들을 제거하고 순수민간출신각료들로 내각을 구성하였다.

1974년 6월 국회에서는 이전군사정권의 우두머리였던 타놈을 비롯한 3명의 재산을 몰수할데 대한 법안을 승인하였다.

1974년 8월에는 국회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을 실현시킬수 있는 법안을 채택하였다.

1974년에 타이인민들속에서는 반미투쟁이 세차게 벌어졌다.

타이학생들의 반정부투쟁에 의하여 타놈정권이 거꾸러진후 새 정부가 취한 일련의 진보적인 조치들에 불안을 느낀 미제국주의자들은 1973년 12월 이른바《위조편지》사건이란것을 조작하였다.

《공산당의 명의》로 미제가 조작한 《위조편지》의 내용은 타이정부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자치구역을 주면 《정화》에 《동의》하겠다는것이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타이에서의 반미투쟁은 보다 적극화되였다.

1974년 1월 미제의 교활하고 음흉한《위조편지》의 정체가 드러나자 산야총리는 미국대사놈을 불러 이 사건은《타이내정에 대한 간섭행위》라고 규탄하고《위조편지》를 쓴《미중앙정보원》을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국회의원들로 조직된 민주주의국민그루빠는 미상원의장놈에게 타이주재 미국대사놈을 환영할수 없는 인물로 규정하고 그를 제거하며《미중앙정보국》의 활동과 미제침략군의 강점을 당장 끝장내야 한다는《서한》을 보내였다.

2월 15일 부총리는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타이의 《민족적자주권》을 위해 미국과 체결한 모든《협정》들을 검토수정할데 대한 의향을 내놓았다.

또한 타이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타이에 대한《미중앙정보국》의 내정간섭을 반대하여《양키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대중적항의시위를 벌렸다.

1월 6일 타이학생쎈터는 타이에서의《미중앙정보국》인원들의 모든 활동을 밝힐것과 놈들이 타이내정에 다시는 간섭하지 못하게 할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항의문을 발표하였다.

1월 7일 타이학생들은 《미중앙정보국》이 모든 활동을 중지하며 타이기지들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이 물러갈것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방코크에 있는 미제대사놈에게 들이댔다.

1월 14일 우돈타니시에서는 1천500명의 로동자들이 《미중앙정보국》의 범죄적인 간첩활동을 폭로규탄하는 강력한 반미시위를 벌렸으며 2천여명의 학생들은 미국령사관앞에 모여 반미시위를 벌리고 이 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미제침략자들의 범죄행위를 폭로규탄하는 항의문을 미국령사놈에게 들이댔다.

또한 나콘 라트챠시아주의 3천명의 각계층 인민들도 항의 집회와 시위를 벌려 미제의 내정간섭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타이인민들의 투쟁에 질겁한 미제는 타이주재 자기 대사놈을 시켜《위조편지》를《미중앙정보국》이 조작한것임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사죄문》까지 쓰는 추태를 부리였다.

7월에 들어와서 미제의《독립절》과 때를 같이하여 방코크에서 청년학생들의 반미투쟁은 더욱 세차게 일어났다.

7월 3일 2천 300명의 방코크학생들이 2개의 대학에서 반미군중집회를 열고 미제의 군사기지철페와 미제침략군의 즉시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7월 4일에는 타이의 여러 학생단체들이 타이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고있는 미제의 범죄적책동을 규탄하는 성명들을 발표하였다.

1974년에 타이에서 반일투쟁도 힘차게 진행되였다.

타이인민들의 반일투쟁은 일본총리 다나까놈의 방문을 계기로 세차게 일어났다.

1월 8일 다나까의 행각에 앞서 타이전국학생쎈터는 전체 인민과 전국학생들에게 보내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월 9일 다나까놈이 기여들자 이 나라 인민들과 학생들은《다나까는 물아가라》라고 쓴 프랑카드를 들고 대규모적인 반일시위를 벌렸으며 다나까놈이 탄 자동차에《추악한 일본인》의 만화를 그려붙인 종이뭉치를 던졌다.

1월 9일 타이학생들은 다나까의 행각에 항의하여 방코크에 있는 일본독점자본가놈의 백화점을 들부셨다.

6월 8일에는 타이청년들이 방코크에 있는 일본항공회사 지사에 돌멩이벼락을 들씌워 이 지사의 건물에 손실을 입혔다.

1974년에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벌린 타이인민들의 거세찬 투쟁은 이 나라 인민들이 외세를 배제하고 자주적으로 살아나가려는 굳은 지향을 보여주었다.

타이인민들은 당국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는 투쟁도 힘차게 벌렸다.

1월 13일 타이학생들은 반동당국의 반인민적정책을 규탄하면서 상품가격의 등귀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하였다.

1월 16일에는 약 600명의 인민들이 뻐스값을 올린것을 반대하여 뻐스회사 사무실에 폭발물을 들씌우고 7대의 뻐스를 불태워버렸다.

또한 각계층 인민들속에서도 부정부패와 물가등귀를 반대하는 투쟁이 벌어졌다.

1974년에 타이정부는 몽골(3월), 체스꼬슬로벤스꼬(3월), 벌가리아(8월), 독일민주주의공화국(9월)과 각각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로동인구의 약 80%가 농사한다.

농업생산액은 국민총생산액의 약 60%를 차지하며 수출의 85%가 농산물이다.

부침땅은 약 1천 30만헥타이며 그중 720만헥터가 논이다.

부침땅의 절반을 왕실, 봉건귀족, 지주들이 차지하고있다.

농업에서는 벼농사가 기본이며 절반이상이 메남강삼각주에서 생산된다.

코라트고원의 메콩강지류지역과 북부골짜기지대도 주요한 벼산지이다.

뒤떨어진 영농방법에 의거하고있기때문에 벼수확고는 낮은 수준에 있으며 년 1천 300만톤정도 생산하고있다.

벼다음으로 고무나무재배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고무생산량은 매해 30~31만톤정도로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세계 제3위를 차지한다.

고무나무는 크라지협남쪽 말라이반도의 북부에서 주로 재배한다.

주요작물은 강냉이, 목화(년산 약 8만톤), 담배(년 8만톤이상), 사탕수수, 콩, 후추, 마니오크, 마닐라삼 등이다.

축산업이 비교적 발전하였다.

코라트고원의 열대초원지대에서 소, 물소, 말, 코끼리 등을 기른다.

전령토의 66%가 산림이며 찌크재등 목재가 많이 생산된다.

공업은 매우 뒤떨어져있다.

공업기업소의 90%가 10명미만의 로동자들이 일하는 소규모적인것들이다.

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농산물가공업과 방직공업을 위주로 한 경공업, 채굴공업이다.

경공업에서는 사탕공업, 정미, 방직공업이 기본을 이루고있다.

1년에 사탕은 약 40만톤정도 생산하며 담배는 1만 5천톤정도 가공한다.

이외 면직물과 5천만개정도의 마닐라삼마대를 만든다.

채굴업에서는 주석채굴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1972년에 주석생산량은 2만 2천톤정도로서 자본주의세계에서 세번째자리를 차지하였다.

이 나라의 공업은 미국, 일본, 영국 독점자본에 예속되여있다.

1962년 타이반동들이 매국적인 《산업장려법》을 조작한이래 일본독점자본이 본격적으로 기여들었다.

1971년현재 타이에 대한 외국투자총액에서 일본독점자본은 약 40%를 차지하였다.

운수에서 기본은 하천운수이다.

물길의 총길이는 약 3천 100키로메터정도이다.

철길은 방코크를 중심으로 하여 약 3천 700키로메터정도 뻗어있다.

경제에서 대외무역이 큰 역할을 논다.

공업이 뒤떨어진 조건에서 공업제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수출에서 기본은 쌀(년 140만~150만톤), 고무, 주석, 찌크재, 마대, 강냉이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각종 기계 및 설비품, 원유제품, 비료, 화학제품, 일용품 등이다.

수출에 비한 수입의 초과로 무역적자가 계속 늘어나 이 나라의 재정형편은 심히 악화되고있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및 국내반동도당의 략탈정책으로 인하여 일반주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령락되여 기아선상에서 헤매고있다.

특히 도시와 농촌간의 문화수준의 차이, 빈부의 차이가 심하다.

실업자가 많으며 파산당한 농민들이 도시로 계속 밀려들고있다.

위생보건시설이 아주 락후하여 수도인 방코크에서조차 수도물을 끓이지 않고서는 그대로 마실수 없는 형편이다.

주민의 30%이상이 글모르는 사람이다.

학교의 부족과 생활난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자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한다.

공용어는 타이말이다.

주민은 대부분이 타이족이며 그외 라오족, 크메르족, 화교, 말라이족 등 약 30개종족이 있다.

국교는 불교이다.

출판보도; 신문 산세, 방코크 포스트, 방코크 월드, 삼 뉴스, 방코크, 싱타이 원파오

방송 타이전국방송, 타이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타이반동도당은 1950년에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수많은 고용병을 보내여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감행하였다.

전후에 타이반동군대는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의 졸개노릇을 하였다.

지난날 타이반동정부는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을 받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성원국으로 있었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서 미제의 충실한 거수기로서 조선인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타이의 광범한 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통치를 반대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1974년 8월 4일 타마사트대학에서는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제목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폭압을 폭로규탄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8월 26일 타이학생들은 남조선청년학생들에 대한 박정희도당의 파쑈행위를 규탄하여 방코크주재 남조선괴뢰도당의 《대사관》에 항의문을 들이댔다.

1974년 12월 타이정부무역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4월에는 우리 나라정부무역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버 마

(버마련방사회주의공화국)

넓이 67만 8,033km²

인구 2,888만 5,800명(1973년 3월)

수도 랑군(주민 185만 4,890명)

정 치

인민회의 일원제의 최고립법기관. 총의석 451석, 1974년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인민회의 선거 진행

국가리사회 최고집행기관, 28명으로 구성, 1974년 3월 2일 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선거

국가리사회 의장은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을 겸임하며 서기장은 대통령이 없거나 그가 일시적으로 자기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 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의장 우 네 윈

대통령 우 네 윈 (1974년 3월—)

정부 1974년 3월 4일 18명으로 구성, 총리 우 세 윈, 외교부장 우라폰, 국방부장 틴우

정당, 사회단체; 1964년 3월 사회주의로선당이외의 모든 정당들을 금지, 공산당 1939년 8월에 창건, 1946년 2월 적기공산당과 백기공산당으로 갈라짐, 현재 비법화, 사회주의로선당 1962년 7월 4일에 창건된 유일집권당, 위원장 우 네 윈, 총비서 산 유, 인민로동자리사회 유일한 로조단체, 인민농민리사회

1948년 1월 4일 영련방에서 떨어져나와 독립을 쟁취하였다.

1962년 3월 2일 네윈이 우누정권을 뒤집어엎고 혁명리사회를 조직하였으며 헌법을 폐지하고 국회를 해산하였다.

1962년 4월 30일 혁명리사회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없애며 사회주의적민주주의국가의 창건을 주요목적으로 선포한 《사회주의에로 가는 버마의 길》이라는 정치선언을 발표하고 7월 4일 유일당인 버마사회주의로선당을 창건하였다.

1963년에 버마정부는 미제의 침략적인 《포드재단》과 《아세아기금》의 활동을 금지시켰으며 미국대사관이 경영하던 도서관을 몰수하였다.

또한 기업국유화법령을 발포하여 외국인들과 개인들이 가지고있던 공장, 기업소들과 은행, 산림자원 등을 국가의 통제하에 넣었다.

1971년 7월 사회주의로선당 제1차대회에서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국가건설과 《엄정중립정책》을 선포하고 새 헌법을 만들것을 결정하였다.

1973년 10월 사회주의로선당 제2차대회에서는 새 헌법을 심의비준하였다.

이해 12월 15일부터 새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되였다.

1962년 3월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고 군사통치를 실시하여온 네윈은 인민들속에서 정치적권리와 생활상처지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1974년 1월 민주주의적통치제도로 넘어갈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1974년 1월 3일 새헌법을 채택하고 나라이름을 《버마련방사회주의공화국》으로 고쳤다.

헌법에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완전히 청산하고 농민, 로동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할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사회주의로선당을 집권당으로 규정하였다.

1월 27~2월 10일까지 새헌법에 따라 인민회의 및 인민리사회(각급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거를 진행하였다.

3월 2일에는 인민회의 제1차회의를 소집하고 최고집행기관으로서 국가리사회를 선거하였다. 국가리사회 의장 겸 대통령으로 네윈이 되였다.

1974년에 네윈대통령이 파키스탄(4월), 인도(4월), 방글라데슈(4월), 말레이시아(5월), 오스트랄리아(5월), 뉴질랜드(6월), 인도네시아(7월), 싱가포르(7월), 유고슬라비아(10월)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약 80%가 농사한다.

농업은 국민소득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외화수입의 80~90%를 농산물수출에서 얻고있다.

붙일수 있는 땅은 약 1천 600만헥터이나 현재 리용되는 부침땅은 약 880만헥터이다.

세계적인 벼생산국의 하나로서 전체 부침땅의 70%가 논이다.

에라와디강삼각주와 바다가의 낮은 지대에서는 1년에 두번 벼농사를 한다.

그밖에 고무, 사탕수수, 목화, 차, 땅콩, 콩, 밀, 담배, 깨 등을 심는다.

축산업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 물소, 돼지, 코끼리인데 물소(300여만마리)와 소(180만마리)는 주로 농사일에, 코끼리는 목재운반에 리용한다.

공업에서 기본은 광업, 정미업, 제재업이다.

광업부문에서는 석유, 연, 아연, 주석, 중석 등을 캐내고있다.

정미업은 가공공업의 4분의 3을 차지하며 이 부문에서 전국 로동자의 절반이 일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국유화조치에 의하여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국유화되였으며 경제에서 국영공업이 압도적비중을 차지한다.

채취공업의 80%, 가공공업의 60%가 국유화되였다.

전국총생산에서 국영부문이 차지하는 몫은 35%, 협동부문이 차지하는 몫은 8%이다.

림업도 경제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령토의 60%가 찌크나무, 고무나무, 종려나무를 비롯한 290여종의 나무들이 무성한 산림지대이다. 특히 찌크재는 버마의 특산물로서 목재총수출량의 80%를 차지한다.

운수에서 국내수송은 철도운수가 기본이며 대외무역은 해상운수에 의거하고있다.

철길의 총연장길이는 4천 309키로메터이며 모두가 좁은 철길이다.

1974년 3월 살윈강에 새 다리가 건설되였다.

주요수출품은 쌀(수출총액의 약 70%), 찌크재(수출총액의 20%), 광석, 생고무, 목화 등이며 수입품은 일용필수품(약 20%), 기계설비, 공업원료 및 자재 등이다.

주민은 버마족, 카렌족, 산족, 카친족, 친족, 몬족 등 약 70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버마족이 압도적다수(2천만명)를 차지한다.

공용어는 버마말이며 영국말도 쓴다.

일반주민들속에서는 카친말, 카렌말, 친말, 산말 등도 쓴다.

독립이후 교육문화부문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교육기관들이 국유화되고 통일적인 교육시책이 실시되였다.

또한 글 모르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한 투쟁도 활발히 벌어졌다.

1967년부터 1974년 3월까지만도 100만명이 글을 읽고 쓸수 있게 되였다.

보건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보건시설망이 농촌에까지 점차 확대되고있다.

1961년 8월 불교가 국교로 선포되였다.

출판보도; 통신 버마통신

신문 루따삐뚜네씨, 만마아링, 워킹 피플즈 데일리, 보더타웅, 한사워디, 쩨몽, 가디언

방송 버마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1년 5월 15일 우리 나라와 총령사관계를 맺었으며 1958년 3월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랑군에 개설되였다.

１９６３년 8월 １4일 버마조선친선협회가, １９７１년 5월２5일에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위원회》가 각각 무어졌다.

버마인민들은 《김일성동지로작학술연구소조》, 《김일성동지혁명활동연구소조》,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 《김일성동지로작번역위원회》 등을 뭇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하고있다.

１９７４년에 《미따모출판사》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인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 《강서군당사업지도에서 얻은 교훈에 대하여》,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또한 이 나라 신문들인 《궤몽》, 《가디언》등은 수령님의 천재적로작들을 실었다.

１９７４년에 버마사회주의로선당대표단 (８월), 경제연구단 (９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８월 5일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사회주의로선당대표단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접견석상에서 대표단 단장은 조선을 방문하여 여러곳을 참관하는 과정에 자기들은 김일성주석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며 자주적인 길로 나아가고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하면서 주석각하께서 제시하신 정확한 로선이 있기때문에 조선은 끝없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에서 받은 깊은 인상에 대하여 말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그처럼 성과적으로 줄어들고있는 나라는 조선 하나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해 4월 우리 나라정부대표단이 버마를 방문하였다.

버마는 ２９차유엔총회 정치위원회에서 남조선으로부터 《유엔군》을 철거시킬데 대한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하였다.

부 탄

(부탄왕국)

넓이 4만 6,０００km²
인구 약 １１０만명
수도 팀푸

정 치

국왕 지그므 싱기 왕츄크 (１９７４년 6월 2일—)

국가원수로서 립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있다. 국왕의 자문기관으로서 협의위원회 (８명의 고문으로 구성)와 국가회의 (３０명으로 구성)가 있다.

정부 국왕이 총리를 겸하고있다. 외교부장 림포 다바 치야링

정당, 사회단체 ; 정당은 금지되였다. 부탄국민대회당이 해외 (인도)에서 활동하고있는데 네팔사람들의 지지를 받고있다.

１９１０년부터 영국의 《보호령》으로 있다가 １９４７년 8월 인도의 독립과 함께 영제국주의통치에서 벗어났다.

１９４９년 8월 조약으로 인도로부터 데완길지방을 넘겨받고 해마다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국방 및 외교권을 인도에 넘겨주었다. 그리하여 부탄에는 인도정부의 정치 및 법률고문이 파견되여있었다.

부탄은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오랜기간 투쟁하여 왔다.

１９７１년 부탄정부는 １９４９년 인도에 넘겨주었던 외교권을 되찾고 같은해 5월에 첫 외교대표부를 인도에 개설하였다.

１９７２년 8월 새 국왕 지그므 싱기왕츄크는 《부탄의 외교정책은 쁠럭불가담과 평화공존에 기초하여 모든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이다》라고 말하였다.

１９７４년 6월 2일 지그므 싱기 왕츄크가 정식 국왕으로 취임하였다.

１９７３년 부탄은 처음으로 쁠럭불가담국가회의에 참가하였다. １９７４년 4월에 있은 유엔총회 특별회의에서 유엔상주 부탄대표는 《진짜 필요한 것은 오래동안 지속되여온 제3세계에 대한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적인 착취를 끝장내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부탄은 해외에 두개 (인도와 유엔본부) 의 외교사절단만을 두고있다.

부탄은 ２９차 유엔총회 정치위원회에서 남조선으로부터 《유엔군》을 철거시킬데 대한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농목축업을 주로하는 농업국가이다. 봉건적인 생산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벼, 보리, 인도밀, 강냉이, 감자 등이다. 남부지방에서는 망고와 바나나를 재배하고있다. 이밖에 고무와 사향도 생산한다.

북부산악지대에서는 목축업을 많이 한다.

주요집짐승은 야크 (소의 일종), 양, 당나귀, 말이다.

전 국토의 ７０%가 산림이다. 목재생산은 이 나라 경제에서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소나무, 전나무, 도토리나무 등이 많다.

공업은 보잘것없으며 다만 동, 석탄, 운모, 백운석, 석고와 같은 광물들을 수공업적으로 캐낸다. 석탄채굴량은 1년에 3만톤 정도이다.

수공업적인 방법으로 종이 (주로 한지) 와 양털을 원료로 모직을 생산한다.

가내수공업과 은세공업이 약간 있다.

철길은 없다. 주요 운수수단은 야크와 당나귀, 말 등이다.

주요수출품은 목재, 과일통졸임, 농산물, 광물, 상아이며 수입품은 공업제품, 휘발유를 비롯한 연료, 사탕 등이다.

우표판매가 이 나라의 주요한 외화원천의 하나로 되고있다. 여기에서 년간 약 １3만딸라를 얻는다.

이 나라의 예산총액은 ２천만딸라인데 그중 ７5%는 외부로부터 주로 인도로부터 받는다.

１９７４년 4월부터 처음으로 자기의 지폐를 가지게 되였다.

１９７１년 4월부터 제3차 5개년계획을 수행하고있다. 투자총액은 약 3억 5천5００만루피이다. 보장기지건설과 교육, 보건 및 농촌경리발전, 공업기업소들의 건설에 주되는 힘이 돌려지고있다.

주민은 ８０%가 부탄족이며 나머지는 네팔족이다.

공용어는 티베트말이다.

대부분이 라마교를 믿고있다.

장기간에 걸치는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문화수준은 낮다. 학교의 부족으로 적지 않은 아이들이 글을 배우지 못하고있다. １９７１년에 １０８개의 학교에서 1만 5천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었다.

대부분의 농촌들에는 전기가 없다.

출판보도 ; 신문 쿠엔셀 (정부기관지)

시 킴

(인도《보호령》)

넓이 7,298km²
인구 약 20만명(1971년)
행정중심지 강또크(주민 1만 2,000여명)

정 치

국왕 쿠마르 팔덴 톤다프 남갈 쵸갈(1963년 12월—)

국회 일원제, 총의석 32석, 그중 31석은 국민대회당이 차지, 1974년 4월 처음으로 직접적보통선거진행

정부 1974년 7월 23일 이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의회제내각 성립, 5명으로 구성, 총리 카지 론휀두프 죠르지

정당, 사회단체; 국민대회당 1974년 선거기간 국민대회당과 국가대회당이 합당하여 창건, 립헌군주제와 나라의 민주화를 요구, 국민당 왕제의 유지를 주장

1817년부터 영국의《보호령》으로 있다가 1950년 12월 조약으로 인도의《보호령》으로 되였다.

1974년 4월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국회선거가 진행되였다. 총의석 32석 중 31석을 국민대회당이 차지하였다.

6월 20일 국회에서 새 헌법이 채택되였다.

이 새 헌법은 시킴에서의 사실상의 무제한한 권리를 인도에 주며 인도행정관이 시킴정부에 대한 통제권리, 기타 권력을 장악하게 되여있다.

그러므로 시킴국왕 쵸갈은 새 헌법이 시킴의 독자적지위를 변경시킬것이라는 근거로 새 헌법의 접수를 거부하면서 새 헌법에 서명하기를 2주일동안이나 미루어왔다.

7월 4일 국왕이 새 헌법에 서명하였으며 7월 23일 이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의회제내각이 성립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목축업이다.

주요농산물은 벼, 강냉이, 밀, 보리, 과일 등이다.

식량은 자급자족하지 못한다.

서남부의 밀림속에서 재배되는 소두구(인도의 카레료리에서 많이 쓰는 향료이며 약재이다.)는 이 나라의 특산물이다.

주요집짐승은 소, 야크, 말, 양, 염소 등이다.

공업부문에서는 소규모의 채굴업과 수공업이 기본을 이루고있다.

주요자원은 동, 연, 아연, 목재 등이다.

1960년에 설립된 시킴광업회사(주권의 49%는 인도가 쥐고있다)가 동, 연, 아연을 캐내여 가공하고있으나 보잘것없다.

수공업적방법으로 양털을 원료로 하여 직물, 융단을 생산한다.

약 800마일의 자동차길이 있는데 이 길은 전략상 위치로 하여 인도에 모두 장악되여있다.

인도와 중국의 시짱지방을 련결하는 도로가 히말라야산줄기를 넘어 이 나라를 지나가고있다.

주요수출품은 털과 집짐승, 소두구 등이며 수입품은 식량과 공업제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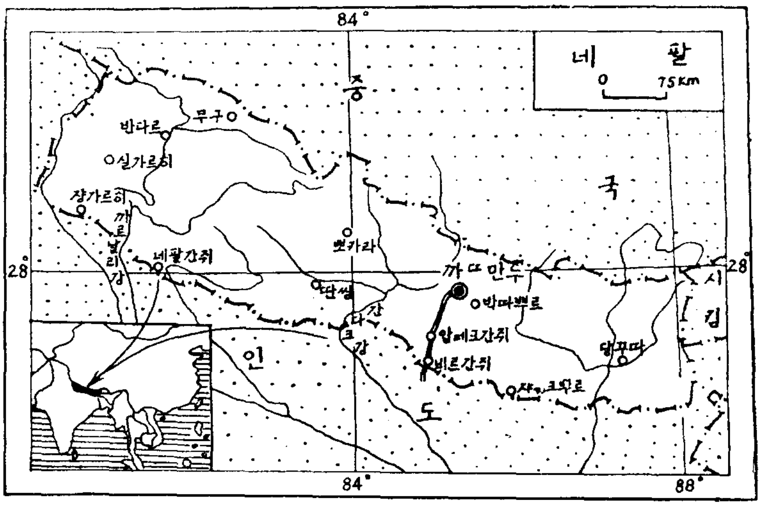
대외무역은 주로 인도와 한다.

라마교가 국교이나 주민의 60%가 힌두교를 믿는다.

네 팔

(네팔왕국)

넓이 14만 797km²
인구 1,128만 9,000명
수도 까트만두 (주민 33만 3,000명)



정 치

전국참사회(판차야트) 일원제의 최고립법기관으로서 의원수는 125명, 그중 30명은 국왕이 임명하며 나머지는 2년마다 3분의 1씩 개선한다. 부락, 구역, 지구, 전국의 4단계의 참사회가 있는데 주민들이 부락참사회를 선거하고 부락이 구역을, 구역이 지구를, 지구가 전국참사회를 선거한다. 전국참사회에서 채택된 일체 법령은 국왕의 비준을 받은 후에야 효력을 가진다.

국가리사회 국왕의 최고자문기관으로서 국방, 외교 등에 조언을 준다. 국가리사회성원은 국왕이 임명한다.

국왕 비렌드라 비르 비크람 샤호 데바(1972년 1월—)국왕은 전국참사회와 정부를 통하여 립법권과 행정권을 행사한다.

정부 정부성원은 국왕이 전국참사회성원중에서 임명한다. 1974년 3월 29일 내각개조

총리 나겐드라 프라싸드 리잘(국방부장겸임), 외교부장 갸넨드라 바하두르 까르끼

정당, 사회단체; 1961년 1월 일체 정당활동은 금지되였다. **공산당** 1949년 9월 15일창건(비법화), **청년단체**, **네팔조선친선협회** 1957년 9월 19일 결성, 위원장 프렘 바하두르 칸사카르

1816년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846년 영제국주의자들의 사촉밑에 라나가 정변을 일으켜 라나일가의 독재정권을 세웠다.

1951년 2월 18일 네팔대회당은 국왕과 힘을 합쳐 105년간에 걸치는 라나봉건일가의 포악한 독재정권

을 뒤집어엎고 립헌군주국을 선포하였다.

1959년 2월 이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선거를 진행하고 대회당내각이 구성되였으며 이 당은 그후 3차에 걸친 국회선거에서 압도적우세를 차지하여 집권하였다. 1960년 12월 대회당이 국왕을 제거하기 위한 정변음모를 꾸몄으나 진압되고말았다.

1960년 12월 15일 국왕은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수많은 각료들과 국회의원들, 정당지도자들을 구금하였다. 1961년 1월에는 모든 정당들을 비법화하고 일체 권한을 자기에게 집중시켰다.

1962년 12월 16일 의회제도를 페지하고《당이 없는 참사회 (판챠야트) 제도의 민주주의적체계》를 규정한 새 헌법을 선포하였다. 1963년 2월부터 4월중순에 걸쳐 전국참사회와 지방참사회 등 각급 정권기관선거가 진행되였다.

1963년 4월 국왕은 실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국가리사회 (국방, 외교 등에 직접 조언을 준다)를 조직하였다.

1972년 1월 30일 국왕 마헨드라가 병으로 사망하고 국왕의 아들 비렌드라가 왕위에 올랐다. 그는 1972년 6월에 진행된 전국참사회 제20차회의에 보낸 서신에서 정부가 계획에 따라 현대적인 농업과 공업을 발전시키며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일것이며 대외적으로는 평등,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모든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발전시킬것이라고 지적하였다.

1973년 11월 30일 네팔정부는 대외무역에서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외국상인들이 황마제품의 수출입무역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발포하였다. 또한 11월말부터 외국인들이 경영하거나 외국인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에 수출입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선포하였다.

1974년 4월 14일 네팔의 전통적인 새해명절에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왕은 자력갱생하여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족적독립을 보위할것을 강조하였다. 신년사에서는《우리는 자기 나라의 자원으로 자기 나라의 수요를 보장하는 공업을 확대하는것을 통하여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고 더 많은 벼들을 만들고 더 많은 나무를 심으며 더 많은 천도 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6월 24일 전국참사회 제24차회의에서 국왕은 자력갱생과 쁠럭불가담정책의 실시를 재천명하였다.

3월 16일 비라트나가르에서 국왕암살미수사건이 있었다.

1974년 12월 네팔은 라오스, 아일랜드와 각각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으며 5월에는 중국과 상품및지불협정을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90%이상이 농사를 한다. 농업은 국민총생산액의 65%를 차지한다. 부침땅은 약 180만헥터인데 그중 관개된 땅은 12만 5천헥터에 달한다. 2~3모작한다. 벼농사를 하기때문에 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그 대부분이 해발 1천 800메터의 높이에 있는 다락논이다.

주요농산물은 벼, 밀, 강냉이, 보리, 메밀 등의 알곡작물과 사탕수수, 황마, 목화, 담배 등의 공예작물, 바나나를 비롯한 열대과일 등이다.

농업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이 부문에 대한 국가투자를 늘이고 관개수리공사를 확대하며 부침땅을 새로 늘이고있다. 농업생산은 계속 늘어나고있는데 알곡총생산량은 1969~1970농업년도에 369만톤, 황마는 1970~1971농업년도에 5만 5천톤 생산하였다.

1963년에《토지개혁법》이 발포되였으나 아직까지 대지주들이 부침땅의 절반이상을 가지고있다. 지주들의 반항으로 토지개혁은 1976년에 가서야 끝날것이 예견된다.

목축업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 털소, 양, 염소, 당나귀 등이다.

령토의 50%가 산림으로 덮여있으므로 목재도 많이 생산하여 수출한다.

공업에서는 가내수공업이 위주였다. 그러나 네팔인민은《모든 분야에서 자력갱생하며 국내원료에 의거하여 생산을 발전시키자》,《경제적진보를 이룩하여 자급자족하자》라는 구호밑에 여러차례에 걸친 경제발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내원료에 기초한 공업이 점차 확대되고있다. 발전소들, 세멘트공장, 금속가공공장, 방직공장, 사탕공장, 구두공장, 종이공장 등 중소규모의 공장들이 건설되였다. 전력생산능력은 5만키로와트이상으로서 1950년에 비하여 10배이상 늘어났다.

산악국이기때문에 도로와 다리 건설에 큰 힘을 넣고있다. 자동차길은 총 4천키로메터에 달한다. 철길은 남부벌방지대에 127키로메터의 좁은 길이 있을뿐이다. 소, 당나귀 등이 운수수단으로 많이 리용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쌀, 밀, 목재, 황마, 가죽, 담배 등이며 수입품은 직물, 각종 연유, 운수기계, 공업제품 등이다.

1973년 11월 황마수출무역에 외국인들이 종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황마수출액이 점차 늘어나고있다. 황마수출액은 1972~1973년도의 3천 400여만루피로부터 1973~1974년에는 4천 300여만루피로 늘었다.

주민구성은 매우 복잡하다. 크게는 인도계통과 티베트계통의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가장 많은것이 쿠르카족 (인도계통)과 네와르족 (티베트계통)이다.

공용어는 네팔말이며 힌두말, 영국말도 쓴다.

민족어에 의한 교육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많은 민족기술간부들이 자라나 국가경제기관들을 관리운영하고있다.

국교는 힌두교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힌두교 (쿠르카족), 불교 (네와르족),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라스트리아 삼바트 사미티통신

신문 쿠르카 파트라 (정부기관지), 마더랜드, 마트리푸미, 코머너, 파샤 파트리카

방송 네팔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5월 1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9년 5월 11일 우리 나라와 무역관계 및 총령사관계를 설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같은해 7월 10일에는 총령사관계를 설정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네팔에서는《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위원회》, 《김일성주석로작편집부》등을 뭇고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연구하고있다.

1974년에 《짜멘더출판사》, 《스므리뜨출판사》, 《차문드라출판사》,《씽하출판사》등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등 많은 로작들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또한 이 나라 신문들인《너야유그》, 《마뜨리푸미》,《 미러》. 《코머너》등 여러 신문들도 수령님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을 앞을 다투어

실었다.

1974년에 네팔조선친선대표단(5월), 탁구선수단(6월)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또한 이해 5월에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네팔을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시는 말씀을 5월 4일 우리 나라 대표단단장이 국왕에게 전달하였다.

방글라데슈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

넓이 14만 1, 157km²
인구 7천 131만 6,000명 (1974년 5월)
수도 다카 (주민 131만 1, 000명)

정 치

국회 일원제, 총의석 300석, 1973년 3월 7일 첫국회선거에서 아와미련맹이 291석 차지

대통령 무지부르 라흐만 (1975년 1월—, 국방부장 겸임)

정부 1975년 1월 26일 구성, 총리 만수르 알리 (내무, 교통및우편전신부장 겸임), 외교부장 카말 호싸인

정당, 사회단체 ; 공산당 1948년에 창건되여 1954년 7월 파키스탄에서 비법화되였다. 방글라데슈국가가 수립된후 합법화되였다. 현집권당과 협조하면서 진보적시책들을 지지, 위원장 모니 싱, 총비서 모함메트 파르하드, 아와미련맹 (인민련맹) 1967년 파키스탄아와미련맹에서 떨어져나와 따로 조직, 동부파키스탄의 자치, 사회경제개혁과 중립적인 대외정책의 실시, 세아토와 쎈토에서의 탈퇴, 인도와의 관계정상화를 주장하였다. (현집권당) 1974년 1월 제2차당대회에서 당 규약과 강령을 수정하고 새 지도기관선거, 규약상 한사람이 당과 정부의 지도적지위를 동시에 차지할수 없다. 위원장 카마 루자만, 총비서 질루르 라흐만, 민족아와미련맹(민족인민련맹), 민족사회당, 인민통일전선 1971년 9월에 아와미련맹을 기본세력으로 하여 공산당, 민족아와미련맹이 전국협상위원회를 조직, 1973년 10월 3당지도자들이 인민통일전선을 창설, 인민청년동맹

인도가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있을 때 방글라데슈는 인도의 동부벵갈주였다.

1947년 8월 인도가 독립할 때 종교적구분에 의하여 회교도가 많은 서부지역이 떨어져나와 회교도국가인 파키스탄을 형성하였다.

이때 회교도가 많은 동부벵갈이 떨어져나와 파키스탄에 속하였다.

이리하여 파키스탄은 인도를 사이에 두고 서부파키스탄과 동부파키스탄(오늘의 방글라데슈)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동부파키스탄은 인종, 언어, 생활양식 등에서 서부파키스탄과 차이가 많았으며 정치, 경제적으로도 서부파키스탄으로부터 한급 낮게 취급되여왔다.

이리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벵갈사람들의 불만은 날로 커갔다.

1966년 동부파키스탄의 아와미련맹은 동부파키스탄의 《자치권》을 주장하는 6개항목의 주요요구를 발표하였다.

이때로부터 동부파키스탄에서 아와미련맹에 의한 민족주의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0년 11월 동부파키스탄을 휩쓴 대폭풍과 폭우로 전례없는 피해와 손실을 입었을 때 중앙정부의 충분한 방조가 없었다고 하여 이 지역에서는 이에 항거하는 대규모반정부폭동까지 일어났었다.

이러한 정치정세하에서 1970년 12월 7일 파키스탄이 독립한지 23년만에 처음으로 직접적인 총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에서 과반수이상 (313석중 167석차지)을 차지한 동부파키스탄의 아와미련맹은 방위 및 외교권만을 제외한 동부파키스탄의 완전자치와 동서파키스탄의 련방형성을 주장하였다.

동시에 선거후 중앙 및 주 정부를 구성할 권한을 얻은 아와미련맹위원장 라흐만은 즉시 국회를 소집할것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서부파키스탄의 인민당은 동부파키스탄의 자치와 국회소집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아와미련맹의 지도밑에 동부파키스탄에서는 총파업, 시위투쟁들이 련속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정당들간의 대립과 의견상이로 정세가 복잡하여지자 당시 대통령이던 야히아 한은 국회소집을 무기한 연장하고 동부파키스탄에서의 반정부시위와 파업에 대처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고 3월 25일 동부파키스탄에 정부군을 대대적으로 파견하였다.

한편 아와미련맹과 그 지지자들은 1971년 3월 26일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고 4월 17일에는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을 정식 선포하였다.

독립후 방글라데슈는 나라에 조성된 복잡한 정세를 타개하고 전쟁기간 파괴된 경제를 추켜세우기 위하여 일련의 정치적조치들과 사회경제적개혁을 실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은 외래제국주의와 국내반동 세력의 파괴활동을 분쇄하고 그의 경제적지반을 소탕하며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진보적인 사회제도를 수립하며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20폐지)

1972년 12월 16일에는 새 헌법을 채택하였다. 헌법에서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및 세속주의를 국가정책의 근본원칙으로 규정하였다.

1971년 12월 12일에는 국내 독점자본의 폐지, 모든 황마산업을 포함한 주요산업의 국유화 등을 규정한 《선언초안》을 발표하였다.

1972년 2월 20일에는 《토지개혁》을 실시할데 대한 정부결정을 발표하였으며 1972년 3월 26일에는 주요산업국유화를 선포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에 기초하여 모든 기간공업부문들과 철도, 항공 및 해상운수, 강하천운수회사들, 재정금융기관이 국가의 통제밑에 들어갔으며 땅없는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주었다.

1973년 3월 7일에는 첫 민족회의선거를 진행하고 라흐만을 총리로 하는 새 내각을 구성하였다.

1974년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아와미련맹 제2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당 강령과 규약을 수정하고 새 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규약에 의하면 한사람이 당과 정부의 지도적지위를 동시에 차지할수 없게 되여있다.

1974년에는 전후 처리문제에서도 큰 전진이 있었다.

4월 5일부터 뉴델리에서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슈 3개국 외교부장들이 회담을 가지고 1973년 8월 인도와 파키스탄간에 이루어진 뉴델리협정에 따라 《취해져야 할 새로운 조치들》을 토의하였으며 4월 9일에는 인도—파키스탄전쟁과 관련한 문제들을 처리할 2개의 협정 즉 인도에 억류되여있는 195명의 파키스탄장

교포들을 《전쟁범죄자》로서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파키스탄으로 송환할데 대한 파키스탄—인도협정과 유엔이 파키스탄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는 방글라데슈거주 비하르인들의 정확한 인원수를 조사할데 관한 파키스탄—방글라데슈협정을 맺었다.

2월 22일 라호르에서 진행된 회교국가수뇌자회의를 앞두고 파키스탄은 방글라데슈를 정식 승인하였으며 2월 23일 라호만은 부토의 초청으로 회교국가수뇌자회의에 참가하였다.

3월 24일 파키스탄에 있던 방글라데슈사람들이 모두 돌아왔으며 4월 30일 방글라데슈는《전범자》재판에 넘기려고 하였던 195명의 파키스탄장교들을 모두 넘겨주었다.

5월 3일에는 두 나라간에 직접 무역을 다시 하기로 하였다.

대외관계분야에서는《중립과 쁠럭불가담,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정책을 실시하고있다.

1973년 1월 라호만총리는 다카에서 진행된 군중대회에서 연설하면서 《방글라데슈는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우리는 평등과 자주권에 기초하여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을 지향한다》고 말하였다.

제4차중동전쟁이 일어났을 때 방글라데슈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아랍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1973년에 웰남민주공화국 (12월),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 (10월), 기네—비싸우 (9월) 를 승인하였으며 1974년 7월에는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를 승인하였다.

1974년에 토이기(4월 22일), 리베리아 (8월 7일) 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약 85%가 농사한다.

국민소득의 57%가 농산물에서 이루어진다.

전령토의 약 64%에 달하는 2천 600만에이커가 부침땅이다.

부침땅의 약 80%에 벼, 밀, 보리, 강냉이를 심는다. 논은 2천 200만에이커이다.

벼는 3모작하지만 그 생산량은 1천 100만~1천 200만톤에 불과하다.

주요수출작물은 황마와 차이다.

황마는 년산 120만~130만톤 정도로서 세계생산량의 80%를 차지하며 이 나라 외화수입의 90%를 차지한다.

황마밭은 전체 씨불임땅의 8%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 물소, 당나귀 등이다.

소는 주로 부림소로 쓰인다.

정부는 1972년 2월의《토지개혁》법령에서 매 세대당 토지소유규모를 100비그하 (약 7헥터) 로 제한하였으며 개인농장들을 국가의 통제밑에 두었다.

1973년 5월에 860세대의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주고 공동으로 경작하는 4개의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하였다.

조합에 드는 농민들에게는 2.5에이커, 개인농민에게는 1.5에이커의 땅을 주었다.

정부는 조합들이 자립할수 있도록 대부금을 비롯한 여러가지 물질적지원을 주었으며 이 조합들을 시범으로 하여 가까운 년간에 전국적범위에서 조직하려고 계획하고있다.

공업은 뒤떨어진 상태에 있다.

공업의 주도적부문은 황마를 원료로 하는 섬유 및 여러가지 제품생산이며 그밖에 작은 규모의 면방적, 면방직, 비단, 합성섬유 공장들이 있다. 나라양간쥐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황마공장이 있다.

또한 석유가공, 야금, 기계제작, 자동차조립, 종이, 뇨소비료 공장 등이 있다.

1972년 3월 주요산업국유화가 선포된후 67개의 황마공장과 방직, 제탄 공장들, 은행들, 9개의 외국인회사들과 보험회사들을 비롯한 큰 공장, 기업소들의 80%가 국가의 소유로 되였다.

제1차경제개건및발전계획 (1972~1973년)을 수행하여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를 기본적으로 복구개건하였다.

1973년 7월부터 제1차 5개년계획 (1974~1979년) 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이 기간에 투자의 89%가 국영부문에 돌려지게 되며 농업이 의연히 경제의 기본으로서 여기에 예산의 가장 많은 몫을 돌리게 된다.

해마다 국민소득은 5.5%까지 올릴것을 예견하고있다.

계획기간 필요한 자금의 약 40%는 외국자본에 의거하게 된다.

특히 기름생산, 남새 및 과일 통졸임, 소젖가공, 공업설비, 운수수단 및 그 예비부속품, 가죽제품, 의약품생산 등 18개부문에 외국자본투자를 장려하고있다.

또한《합작》 투자 (방글라데슈투자 51%, 외국자본투자 49%) 도 호소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의 영향력이 제일 강하게 나타나고있다.

교통운수에서는 하천운수가 기본이다.

배가 통과할수 있는 강의 길이는 장마철에는 6천 500키로메터, 가물철에는 4천 300키로메터에 달한다.

철길의 총연장길이는 900키로메터, 자동차포장도로길이는 2천 500키로메터이다.

주요항구는 치타공이다.

주요수출품은 황마, 차, 면사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건재품, 설비품 기타 공업제품 등이다.

주민은 98%가 벵갈족이며 아라칸족, 카시아족 등 소수민족이 있다.

공용어는 벵갈말이다.

영국말도 통한다.

글모르는 사람이 80%나 된다.

주민의 77%가 회교를 믿으며 그밖에 힌두교도 (22%), 불교도 등이 있다.

출판보도; 신문 에꼬다 (공산당주간지), 방글라바니 (정부계), 싼그바드, 모닝뉴스, 아자드, 메일

방송 다카방송, 치타공방송, 다카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12월 9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4년 2월 28일에는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과 1974년도 상품류통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를 이 나라 신문 《모닝뉴스》가 1974년 11월 29일부터 30일에 걸쳐 실었다.

방글라데슈는 29차유엔총회 정치위원회에서 남조선으로부터《유엔군》을 철수시킬데 대한 결의안표결에서 기권하였다.

인 도

(인도공화국)

넓이 326만 8,090km²
인구 6억 (1974년 9월)
수도 뉴델리 (주민 420만명)

정 치

대통령 파크루딘 알리 아호메드 (1974년 8월—) 대통령은 상하량원과 각주의 하원의원들로 구성되는 선거집단에 의하여 5년임기로 선거된다.

헌법상 국가원수로 되여있으나 실권은 총리에게 있다.

의회 련방원 (상원) 과 인민원 (하원) 의 량원제, 1971년 3월 제5차 총선거가 진행되였다. 상원의원수는 250명이하 (그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의원 12명) 이며 각주 하원의 원들이 선출한다.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의원수의 3분의 1을 개선, 의원중 국민대회당 좌파가 100석, 우파가 32석을 차지, 상원의장은 부대통령이 겸임, 하원의원은 각주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500명이하의 의원과 중앙직할지에서 선출되는 25명이하의 의원, 대통령이 임명하는 의원 등으로 구성, 임기 5년, 1971년 3월 총선거에서 515명이 선출됨, 그중 국민대회당 좌파 350석, 국민대회당우파 16석, 공산당 48석 (맑스주의공산당 25석) , 잔산당 22석, 자유당 8석, 드라비다진보동맹 23석, 인민사회당 2석, 련합사회당 3석, 기타가 43석을 차지

정부 1971년 3월 제3차 내각수립, 1974년 10월 내각개조, 총리 인디라 간디 (1967년 3월—), 외교부장 와이. 비. 차반, 국방부장 스와란 싱

정당,사회단체; 공산당 1933년 5월 28일 창건, 1964년 9월이래 피. 순다라야를 총비서로하는 공산당 (맑스주의) 파 당게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산당으로 분렬, 1969년 4월 맑스—레닌주의인도공산당이 결성됨, 국민대회당 (집권당)《의회민주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함, 1969년 10월 간디파와 극소수의 대독점체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우파로 분렬, 전인도민주당, 자유당, 통일사회당, 련합사회당, 인민사회당, 드라비다진보동맹, 잔산당, 전인도직업동맹, 인도전국녀성련맹, 전인도청년련맹, 인도조선문화협회 1956년 12월 25일 결성, 위원장 씨. 브람파카쉬, 전인도조선친선협회 1969년 12월 15일 결성, 위원장 케이, 디. 말라비아

1947년 8월 영련방안의《자치령》으로 독립하고 1950년 1월 26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공화국선포후 1952년에 이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총선거가 진행되였으며 국민대회당의 쟈와하를랄 네루를 총리로 하는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1967년 10월 제4차 총선거에서는 국민대회당이 286석 (선거전 375석) 으로 국회에서 겨우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1969년 8월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국민대회당안에서는 파벌싸움이 심해져 10월에는 국민대회당이《좌파》와 극소수의 대독점체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우파로 분렬되였다.

이로 말미암아 간디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대회당《좌파》의석은 과반수도 못되는 220석으로 줄어 집권당의 세력은 약화되였다.

1969년 11월 하원에서는 총리불신임안이 제출되는 등 불안정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1970년 6월 간디총리는 내각을 개조하고 12월 27일 국회를 1년 앞당겨해산시켰으며 1971년 3월 총선거를 실시할것을 선포하였다.

1971년 3월 각 정당들간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진행된 선거에서 간디의 국민대회당《좌파》는 350석을 얻음으로써 헌법개정이 가능한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게 되였다.

1971년 12월 인도와 파키스탄간에는 동서파키스탄에서 일어난 무장충돌이 격화되여 전면전쟁으로 확대되였다.

인도군대는 12월 15일 방글라데슈 (12월 6일승인) 의 수도 다카를 점령하였다.

또한 북부카슈미르의 약 50개초소를 포함한 1천 400평방마일의 파키스탄땅을 점령하였다.

12월 17일 인도—파키스탄전쟁은 14일만에 정화되였다.

1974년에 인도는 심라협정을 리행하는데서 일정한 전진을 가져왔다.

1974년 4월 25일 뉴델리에서 인도—파키스탄전쟁결과 생긴 전후 처리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슈 외교부장들의 회담이 있었다.

회담후 4월 30일에 인도에 갇혀있던 파키스탄전쟁포로 (총 9만 3천명) 송환사업이 끝났다.

1974년 8월 17일 제5기 대통령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결과 국민대회당《좌파》후보 파크루딘 알리 아호메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였다.

9월 4일 하원에서는 시킴왕국을 인도의 정치체제에 병합시키는 헌법수정안이 310대 7로 채택되였다.

헌법수정안에 의하면 시킴은 인도의 준주로 되며 인도의 상하량원에 각각 1명씩의 대표를 파견하게 된다.

1974년에 인도는 독립이래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으며 물가동귀와 생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파업파 시위투쟁이 계속되였다.

1월 2일부터 1주일간에 걸쳐 마하라쉬트라주에서는 물가인상을 반대하여 수백만명이 파업파 시위투쟁을 벌렸다.

이 주의 소재지 봄베이에서만도 100만명의 로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하였다.

1월 15일 인도전국에서 로동자, 공무원, 교원, 의료일군들이 임금을 올릴것을 요구하여 파업을 일으켰다.

10월 동부비하르주에서는 물가동귀와 정부의 부정부패를 반대하는 총파업이 폭력투쟁으로 번져 사망자와 부상자까지 냈다.

2월 우타르 프라데슈주에서 진행된 군중집회에서 연설하면서 간디총리는 인도는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언명하였다.

인도의 대외정책에 대하여 2월 16일 국민대회당 국회의원단총회에서 한 연설에서 간디총리는 평화와 제인민간의 친선을 위한 정책을 계속 실시하며 전반적인 평화와 국제적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대외정책적립장으로부터 1974년에 인도정부는 무엇보다도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섬에 해군기지를 창설할데 대한 영미협정을 신랄히 규탄하였으며 다른 나라와 맺은 쌍무적관계의 지위에 상관없이 어떤 외국이 인도양에서 군사기지를 설치하는것을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립장을 거듭 밝히였다.

또한 인도의 사회계와 인민들도 디에고 가르시아섬을 군사기지로 전변시키려는 미제의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2월 인도의 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전국각지에서 디에고 가르시아섬을 해군기지로 만들려는 미제의 책동을 반대하는 항의군중집회와 시위들을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2월 11일 뉴델리에서는 이 섬을 제놈들의 해군기지로 전변시키려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음모책동을 반대하여 놈들의 대사관앞에서 대규모적인 항의시위를 벌렸다.

또한 이 나라의 출판물들도 이 섬을 군사기지로 전변시키려는 미제의 책동을 견결히 반대하는 글들을 실었다.

1월 23일 뉴델리에서 인도총리 간디와 스리랑카총리 반다라나이케가 회담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카츠챠티브섬에 대한 령유권과 스리랑카에 있는 인도출신주민들에 관한 문제, 현석유위기와 쁠럭불가담회의 소집문제를 토의하였다.회담에서는 두 나라가 각각 7만 5천명의 타밀족에게 공민권을 주기로 합의하였다.

1974년 6월 스리랑카와 두 나라 국경경계선 확정에 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4월말부터 5월 초에 걸쳐 총리 간디가 이란을 방문하고 해운회사창설을 비롯한 일련의 합동기업을 창설할데 관하여 합의하였다.

5월 12일과 13일 2차에 걸쳐 뉴델리에서 인도총리 간디와 방글라데슈총리 라호만이 회담하고 호상협력문제와 남아세아정세에 관해 토의하였다.

1974년 8월 8일 인도는 인도의 니코바르제도와 인도네시아북단의 작은 웨도사이에 두 나라의 경계선을 긋는 대륙붕협정을 인도네시아와 조인하였다.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뉴델리에서 인도양에 있는 외국군사기지들을 철폐하며 인도양을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국제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인도양연안 및 그 내륙국가들과 일련의 국제기구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인도양에 있는 군사기지들을 강화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을 규탄하는 회의선언과 일련의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1975년 2월 16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을 인도양에서의 외국군사기지설치를 반대하는 공동행동주간으로 설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80%가 농사하며 국민총생산액에서 농업이 79%를 차지한다.

부침땅은 약 3억에이커에 달하는데 그중 4분의 3이 알곡재배지이다.

농촌인구의 10%에 달하는 지주, 부농들은 전국토지의 85%를 차지하며 농촌인구의 90%에 달하는 빈고농, 중농은 약 15%의 땅을 차지한다.

주요알곡작물은 벼, 밀, 보리, 강냉이, 기장 등이다.

벼생산량은 세계에서 두번째자리를 차지한다.

1973~1974년도 알곡생산량은 1억 300만톤이였다. 식량은 자급자족하지 못하며 해마다 많은 량의 식량을 수입한다.

1973하반년에만도 400만톤의 식량을 수입하였다.

공예작물로는 목화, 황마, 사탕수수, 차, 커피, 고무 등이다.

천연고무생산량은 년산 9만~10만톤정도로서 세계 제5위를 차지한다.

목화와 황마 생산량도 자본주의나라들가운데서 손꼽힌다.

주요집짐승은 소, 물소, 양, 염소, 락타 등이다.

소와 물소는 부림소로 많이 쓰인다. 소마리수는 세계에서 첫자리 (약 2억 2천 900여만마리)를 차지한다. 그중 4분의 1이 물소이다.

공업은 국민총생산액의 20%를 차지하며 인구의 약 10%가 이 부문에서 일한다.

주요지하자원은 석탄, 쇠돌, 망간, 돌비늘, 보크사이트, 석유, 동, 알루미니움 등이다.

돌비늘생산량은 년산 1만 6천톤으로서 자본주의세계에서 첫 자리를 차지한다.

독립후 흑색금속공업, 화학공업, 기계제작공업, 전력공업 등 새로운 공업부문들이 창설되였다.

그러나 공업의 대부분은 령세기업체들이며 기계설비, 부속품 및 원료의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공업의 구성과 배치에서도 식민지적 편파성을 면치못하고있다.

투자의 대부분은 경공업에 돌려지고있다.

소규모공업과 수공업이 공업생산에서 약 절반을 차지한다.

공업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면방직공업이다.

운수에서는 철도운수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철길의 총연장길이는 5만 9천 600키로메터로서 자본주의세계에서 제3위를 차지한다.그중 전기화된것은 2천 900키로메터이다.

인도는 많은 상선대를 가지고있으며 1974년현재 그의 짐실이능력은 300여만톤에 이르고있다.

주요수출품은 황마제품 (14%이상), 차 (9%정도), 쇠돌, 천, 가죽과 그 가공제품, 호두씨, 기계 및 설비, 식물성기름, 목화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 및 설비 (25%), 식량 (20%이상), 흑색 및 유색 금속, 비료, 원유, 화학제품 등이다.

60만개의 농촌지역가운데서 10만개의 지역에만 전기가 들어갔다.

경제적난관으로 물가는 오르고 인민생활은 어렵게 되고있다.

1974년 2월이후 「담배, 성냥, 비누 등 상품값은 20~60%, 각종 식용식물유값은 40~45% 뛰여올랐으며 뉴델리에서는 밀가루값이 7% 올라갔다.

1973년 1월부터 1974년 1월까지 소비품가격은 25. 7% 올라갔는데 이것은 같은 기간 일본에서 올라간 물건값보다 2. 6%나 더 높다.

경제형편이 악화됨에 따라 실업자수도 갈수록 많아지고있다.

1971년에 실업자수는 1970년보다 25. 3% 더 늘어났고 1972년에는 1971년보다 또다시 35% 더 늘어나 4천만명에 달하였다.

전체 인구중에서 2억이상이 늘 기아선상에서 헤매고있으며 80%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있다.

1973년에 인구 1인당 평균 실질수입은 1965년 수준이하로 떨어졌다.

독립당시 인구의 10분의 9가 글모르는 사람들이였는데 「현재 인구의 3분의 1이 글 아는 사람들이다.

인구의 85%가 인도교도 (힌두교) 이며 10%가 회교도이다. 그외 기독교, 불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피티아이

신문 뉴 에이지 (공산당계), 나브바라트 타임스 (국민대회당계), 인디안 엑스프레스, 타임스 오브 인디아, 힌두스탄 타임스, 패트리오트, 이벤트, 피플즈 데모크라씨, 스탠다드, 이브닝뉴

방송 인도방송, 전인도라지오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3월 1일 우리 나라와 총령사관계를 맺었으며 1973년 12월 10일에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8년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다.

1974년 2월 18일에는 두 나라간에 1974년도 통상의정서와 3년간의 효력을 가지는 무역및지불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56년 12월 25일 인도조선문화협회가, 1969년 12월 15일에는 전인도조선친선협회가 창설되였다.

1970년 12월 28일에는 뉴델리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회

판이 세워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인도인민들은 《김일성동지로작청년연구소조》,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연구위원회》, 《김일성동지의 로작연구및관잡어번역위원회》등을 무었다.

1974년 3월 4일 델리종합대학교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10돐에 즈음하여 수령님의 로작연구토론회를 가졌다.

1974년에 인도의 스므리뜨출판사, 로끄레하르출판사, 모자이크출판사, 중앙전기출판사, 전인도조선친선협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인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등 여러 로작들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또한 이 나라 신문들인 《이벤트》, 《순하리 파러뜨》, 《메와뜨》, 《하리안 타임스》등 많은 신문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을 널리 실었다.

1974년에 인도의 사회계와 인민들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인도 《세계협조및문화관계련맹》의 주최로 뉴델리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가 진행되였다.

또한 7월 16일 인도 《녀성토론회》주최로 진행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모임에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과 녀성들의 투쟁에 굳은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인도에서 여러가지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7월 18일 봄베이 인도조선친선협회와 기타 사회단체들의 공동주최로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군중집회가 진행되였다.

7월 11일에는 찬디가르인도조선친선협회가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와 영화감상회를 진행하였다.

8월 2일 뉴델리에서는 전인도청년련맹과 전인도대학생련맹의 주최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의로운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모임이 진행되였다.

6월 전인도청년대회 위원장이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전개하고있는 남조선청년학생들에 대한 남조선괴뢰도당의 야수적인 탄압만행을 규탄하여 출판물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전인도청년련맹과 전인도학생련맹도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극악한 파쑈적탄압만행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인도신문《뉴 에이지》는《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민족적자주권과 독립을 위한 남조선애국자들의 투쟁은 범죄행위가 아니다. 도리여 애국자들을 탄압하는자들을 엄중히 심판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남조선애국력량에 대한 박정희도당의 탄압책동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1974년에 인도 국회대표단(10월), 정부무역대표단 (11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0월 21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인도국회대표단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접견석상에서 대표단단장은 조선방문을 통하여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제시하신 주체사상에 대하여 그리고 주석각하께서 제시하신 강령과 정책에 대하여 충분히 리해할수 있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주석각하께서 제시하신 정책에 완전히 동의하며 주석각하께서 제시하신 정책에서 많이 배웠다고 말하였다.

이해에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4월), 정부무역대표단 (2월), 사로청및학생위원회대표단 (1월), 조선건축가동맹대표단 (2월)이 인도를 방문하였다.

파 키 스 탄

(파키스탄회교공화국)

넓이 80만 6,538km²
인구 6,489만명(1972년)
수도 이슬라마바드 (주민 10만명)

정 치

국민의회 상하량원제, 임기 5년
대통령 초우드리 파잘 엘라히 (1973년 8월—)
정부 1971년 10월 22일 개조, 총리 줄피카르 알리 부토 (1973년 8월—, 국방부장, 외교부장 겸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8년 인도공산당에서 떨어져나와 창건, 1954년 7월에 비법화, 1972년 8월 11일 18년만에 공산당에 대한 금지령이 해제됨, **인민당**(집권당), **회교도련맹당** 1906년에 창건, 대지주들과 부르죠아지들의 리익을 대변, **민족아와미당** (민족인민련맹) 1957년 7월 아와미련맹좌파와 민주당 당원들로 조직되였으며 파키스탄의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주장, **통일련합당** 1971년 11월 15일 7개의 당파가 련합하여 결성, **로조련맹**, **민족청년련맹**, **전파키스탄녀성협회**

1947년 8월 15일 종교적대립으로 인도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하고 1956년 3월 23일 회교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공화국선포후 정당들간의 불화와 동서파키스탄간의 대립 등으로 인하여 국내정세는 매우 불안정하였으며 1958년 11월에 진행하기로 되였던 총선거도 진행하지 못한채 이해 10월 군사정권이 수립되였다.

1970년 7월 12년간의 군사통치를 끝장내기 위한 이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국회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결과 동부파키스탄의 아와미련맹이 절반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였다.

선거후 헌법제정과 국회소집문제를 둘러싸고 아와미련맹과 인민당, 군사정권간에 복잡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동부파키스탄의 아와미련맹은 방위및 외교권만을 제외한 련방을 주장하면서 즉시적인 국회소집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서부파키스탄의 인민당은 동부파키스탄의 자치를 거부하고 국회소집을 연기할것을 주장하였다.

정당들간의 대립으로 정세가 복잡하여지자 야히아 한은 1971년 3월에 열기로 되였던 국회소집을 무기한 연기하고 동부파키스탄의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정부군을 대대적으로 파견하고 정당활동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1971년 3월 26일 동부파키스탄의 아와미련맹과 그 지지자들은《방글라데슈》국가수립을 선포하고 정부군에 무력으로 대항하여나섰다.

동부파키스탄에서 이러한 혼란이 조성됨에 따라 인도—파키스탄국경선에서 자주 무장충돌이 일어났으며 이것은 전면전쟁으로 확대되였다.

1971년 12월 17일 14일간에 걸치는 인도—파키스탄전쟁은 정화되고 야히아 한이 정권에서 물러났으

며 1 2월 2 0일 인민당 당수 부르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전후 파키스탄은 독립과 자주권을 지키며 전쟁의 상처를 가시고 민족경제를 복구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1 9 7 2년 4월 중앙정부의 대통령제와 반자치주들의 의회제를 실시할데 대한 림시헌법을 채택하고 계엄령을 페지하였으며 8월에는 1 8년간 금지되였던 공산당에 대한 금지령을 해제하였다.

1 9 7 3년 4월 1 0일에는 새헌법을 채택하였다.

1 9 7 4년 4월 2 3일 하원에서는 동부파키스탄에 대한 령토권의 포기를 규정한 헌법수정안을 비준하였다.

또한 일련의 진보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1 9 7 2년 3월에는 토지개혁안을 발표하여 개인소유의 토지한계 (1 0 0에이커) 를 대폭 줄이고 그 이상의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무상분배하게 하였으며 3월 1 5일에는 교육개혁의 실시를 발표하였다.

1 9 7 3년 1월에는 공업품과 농산물의 생산과 분배 령역에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며 큰 개인기업체들의 활동을 제한하였으며 6월에는 쌀무역을, 9월에는 식용유공업을 국유화하기로 결정하였다.

1 9 7 4년 1월 1일에는 국내의 모든 개인은행, 해운회사, 석유제품판매회사 등을 국유화하였다.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들도 취하였다.

어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1 9 7 3년 3월 정부는 물고기잡이구역을 해안으로부터 5 0해리로 넓혔으며 4월에는 소수민족의 가난한 주민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2 0 0만루피의 기금을 설립하였다.

8월에는 국가공무원들에 대한 낡은 신분제도를 페지하고 평등한 신분을 가지는 행정계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1 9 7 4년 8월 1 4일 군사통치시기 정지당하였던 공민의 자유와 기본권리를 회복하였다.

그리하여 파키스탄공민들은 평등, 차별의 방지,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전횡적인 체포와 구류의 방지, 나라의 임의의 지역에 이사하거나 거주지를 선택하는데서의 자유를 보장받게 되였다.

1 9 7 4년에는 심라협정을 실현하는 길에서도 큰 전진이 있었다.

4월 5일 뉴델리에서 인도—파키스탄전쟁결과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슈 외교부장들의 회담이 있었다.

3월 2 4일 파키스탄으로부터의 방글라데슈사람들의 송환사업이, 4월 3 0일에는 인도에 갇혀있던 파키스탄전쟁포로송환사업이 각각 끝났다. 여기에는 방글라데슈에서 전범자재판에 붙이려고 하였던 1 9 5명이 들어있다.

이리하여 1 9 7 3년 9월에 포로송환사업이 시작된 다음 파키스탄으로부터는 1 2만명의 방글라데슈사람들이, 인도로부터는 총 9만 3천명의 파키스탄전쟁포로 및 민간인들이 각각 방글라데슈와 파키스탄으로 돌아왔다.

2월 2 2일 파키스탄은 회교국가수뇌자회의를 앞두고 방글라데슈를 정식 승인하였으며 파키스탄의 령토권을 포기할데 대한 법령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5월 3일에는 방글라데슈와 직접 무역을 다시하기로 하였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9월 1 4일 두 나라사이에 우편및전신련계를 다시 가지며 두 나라 공민들의 호상래왕을 다시 시작할데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1 0월 1 5일에는 두 나라 사이의 원거리 전신련계를 회복할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1 1월 3 0일에는 두 나라사이의 무역금지조치를 해제할데 대한 의정서를 조인하였다.

7월 2 7일 파키스탄의 부르총리는 아프가니스탄에 불가침조약체결을 제의하였다.

대외적으로는 회교국가 및 제3세계 나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다.

1 9 7 2년 1월 영련방에서 탈퇴하였다.

1 9 7 2년 1 1월에는 미제의 악명높은 침략기구인 《세아토》와 미제의 조선침략기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에서 탈퇴하였다.

1 9 7 4년 2월 2 2일 방글라데슈를 승인하였으며 9월에는 뻬루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으며 1 9 7 4년 3월에는 이슬라마바드에 팔레스티나해방조직사무소를 개설하는데 동의하였다.

1 9 7 4년 2월 뽀르뚜갈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1 9 7 4년에 부토총리가 중국 (5월), 방글라데슈 (6월), 쏘련 (1 0월) 을 방문하였다.

1 9 7 4년 2월 2 2일부터 2 4일까지 라호르에서 회교국가 제2차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개막회의에서 연설한 부토총리는 강점된 아랍땅으로부터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몰아내며 팔레스티나인민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것이 아랍문제해결의 기본요소라고 강조하였다.

8월 1 8일 파키스탄은《남아세아를 핵무기없는 지대로 선포하며 설정할데 대하여》라는 문제를 2 9차유엔총회의제로 내놓았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대부분이 농사한다.

주요농산물은 밀, 목화이며 그외 조, 수수, 사탕수수, 유채, 황마 등도 심는다.

밀은 전체 부침땅의 5 5 %, 목화는 1 0 %를 차지한다.

판잡지방에서는 한해에 밀을 두번 거두어 들인다.

축산업도 큰 자리를 차지한다.

소와 물소가 기본이며 양, 염소도 기른다.

공업에서는 채취공업이 어느정도 발전하였다.

주요지하자원은 천연가스, 석탄, 크롬, 쇠돌, 우라니움, 류황, 돌소금 등이다.

동북부의 물탄, 라호르, 라왈핀디, 페샤와르 지구에 방직, 식료품, 제탕, 기계제작, 석유정제, 세멘트, 화학비료 공장들과 화력발전소가 있다.

남부의 카라치—하이데라바드지구에는 화학, 기계제작, 세멘트 공장 등이 있다.

정부는 공업발전을 위하여 개인기업체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공업품과 농산물의 생산, 분배에 대한 국가적통제를 강화하고있다.

특히 채취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광물탐사 및 채취사업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강화하고있다.

수산업도 발전하고있으며 해마다 많은 량의 물고기를 잡고있다.

운수에서는 해상과 철도운수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철길의 길이는 약 8천 7 7 5키로메터이나 좁은 철길이다.

주요항구는 카라치항이다.

주요수출품은 목화, 면사, 면직물, 양모, 가죽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석유, 화학공업제품, 강철, 기계, 운수설비, 식량 등이다.

교육분야에서는《파키스탄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정부는 글모르는 사람을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 1 9 7 2년 9월에 해마다 1 0월 1일을《문맹퇴치의 날》로 정하였다.

또한 교육분야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잔재를 가시기 위하여 교과서 및 과정안들을 수정 및 개편하는 사업을 벌리고있다.

주민구성이 다양하며 큰 민족은 판잡족, 신디족, 파르지아족 등이다.

국어는 우르두말이다.

지방주민들사이에서는 다르디쯔말, 판잡말, 신디말, 파르지아말, 후란다말, 라쟈스타니말, 구쟈라티말 등이 널리 쓰이고있다.

회교국가로서 주민의 대다수가 회교도이다.

1974년 12월 28일 북부파키스탄에서 지진으로 5천 200명이 죽었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피피 (파키스탄합동통신), 피피아이 (파키스탄국제통신)

신문 뉴 타임스, 돈, 썬, 타미르, 마싸와르, 데일리 뉴스, 모닝 뉴스, 파키스탄 타임스, 타미르 콤배츠, 퐁스탄, 이슬라미크 잠후르

방송 파키스탄방송, 파키스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11월 9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6년 11월 8일에는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1968년 1월 14일에는 령사관계를 맺었다.

1974년 6월 28일 두 나라 정부사이에 1974~1975년도 통상협정이 조인되였으며 7월에는 우리 나라 민용항공회사와 파키스탄국제항공회사 사이에 항공운수분야에서 총대리및호상봉사제공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파키스탄에서는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파키스탄조선녀성친선협회 등 20여개의 친선협회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위원회들이 무어져 활동하고있다.

파키스탄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김일성주석로작및혁명활동연구소조》, 《김일성주석각하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소조》, 《김일성주석로작편집부》등 연구소조들을 뭇고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연구하고있다.

1974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열돐에 즈음하여 라왈핀디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김일성주석로작연구위원회》가 로작연구발표 모임을 가졌다.

1974년에 파키스탄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이의 천재적로작들을 대대적으로 번역출판하였다.

1974년에 라호르인민출판사, 민족출판사, 아흐메드국제출판사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인《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농업협동화의 승리와 농촌경리의 앞으로의 발전에 대하여》,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상품류통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를 각각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또한 파키스탄 민족출판사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수록한《김일성전》제3부를 출판하였다.

이 나라 신문들인《싼》, 《싸야싸트》지 등도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을 널리 실었다.

4월 24일 파키스탄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파키스탄직업련맹, 파키스탄평화협회는 우리 공화국의 조국통일위업을 적극 지지하였다.

1974년 10월 파키스탄인민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0월 26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인민당대표단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접견석상에서 대표단단장은 김일성주석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는 자기들을 크게 고무해준다고 하면서 이번 방문을 통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을 더욱 깊이 체득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김일성주석각하의 주체사상은 가장 종합적인 철학이며 이 철학은 조선뿐아니라 모든 친선적인 나라들에서 다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0월 27일 파키스탄인민당대표단 단장은 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조국의 해방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 계속되는 투쟁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하고도 재능있는 령도를 받고있기때문입니다.》

1974년 3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파키스탄회교공화국 대통령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시는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3월 8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되였다.

1974년 3월에 부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정부무역대표단 (6월) 이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부토총리에게 보내시는 말씀을 대표단단장이 정중히 전달하였다.

파키스탄은 유엔총회 제29차회의 정치위원회에서 남조선으로부터《유엔군》을 철거시킬데 대한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하였다.

스 리 랑 카

(스리랑카공화국)

넓이 6만 5, 610km²
인구 1천 323만 4, 000명 (1973년말)
수도 콜롬보 (주민 56만 4, 000명)

정 치

대통령 1972년 5월에 채택된 새 헌법에 의하여 총독이였던 윌리암 고팔라와가 첫 대통령으로 되였다.

민족국가회의 일원제, 의원수 157석 (그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의원 6명), 임기는 5년, 1970년 5월 선거결과 자유당이 91석, 통일국민당이 17석, 평등사회당이 19석, 련방당이 13석, 공산당이 6석, 타미르련맹이 3석, 무소속이 2석을 각각 차지

정부 1970년 5월 31일 자유당, 공산당, 평등사회당의 통일전선정부가 수립되였다.

총리 시리마 아르. 디 반다라나이케 (1970년 5월—, 외교 및 국방부장 겸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3년 7월 3일에 창건, 1963년에 위크레마싱게를 총비서로 하는 당과 산무가타산을 총비서로 하는 당으로 분렬, **자유당** 1951년에 통일국민당좌파가 떨어져나와 조직; 싱할족민족부르죠아지들의 정당, **평등사회당** 1935년에 창건, **련방당** 1948년에 조직, 타밀족자본가들과 지주들의 리

익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타밀족의 자치를 주장, 전스리랑카타밀대회당 1944년에 창건, 로조련맹, 공산주의청년련맹, 자유당 청년련맹, 진보녀성협회, 스리랑카인민조선친선협회 1961년 10월 창설, 위원장 찬드라 구나쎄케라

1948년 2월 4일《영련방》안의 자치령으로 독립하였다.

독립후 진보적인 자유당정부와 우익적인 통일국민당정부가 여러번 바뀌여졌다.

1970년 5월 국회선거에서 민주력량의 통일전선 (자유당, 공산당, 평등사회당) 이 압도적으로 승리함으로써 반동적인 통일국민당정부가 무너지고 통일전선정부가 수립되였다.

통일전선정부는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일련의 진보적조치를 취하였다.

1972년 5월 새 헌법을 채택하고 나라 이름을 스리랑카로 고쳤다.

또한 5월 22일에는 공화국을 선포함으로써 영국의《자치령》의 예속적인 처지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되였다.

또한 정부는 농촌경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차, 고무나무, 야자 재배원을 국유화하였으며 1972년에 채택된 법령에 따라 토지소유규모를 제한하고 토지가 적거나 없는 농민들에게 재분배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밖에도 필수품수입과 수출의 많은 부분을 국가의 통제밑에 넣었으며 경제의 국영부문을 확대하였다.

동시에 외국자본의 활동을 제한하면서 경제의《스리랑카화》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사회문화분야에서도 제국주의자들의 침투와 파괴책동을 막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0년 7월에 나라의 교육, 법률, 행정, 도서관망, 과학기술 및 지방《개발》분야에 16년간이나 들어박혀있던 미제의 간첩무리인 이른바《아세아기금》을, 이에 앞서 같은해 6월에는 미제의《평화군》을 내쫓았다.

대외관계분야에서는 중립,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고있으며 신생독립국가들과의 단결을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스리랑카정부는 1971년에《인도양을 점차적으로 비무장화》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스리랑카총리 시리마보 반다라나이케는 1974년 9월 15일 서독《프랑크 프르떼르 알게마이네》지 기자와의 담화에서 인도양을 평화지역으로 만들데 대한 주장을 재천명하였다.

1974년 9월 11일 콜롬보에서 스리랑카청년들이 칠레애국자들의 투쟁에 대한 련대성군중집회를 가지고 칠레군사파쑈정권을 규탄하며 칠레공산당 총비서 루이스 꼬르발란을 비롯한 칠레애국자들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할것을 유엔과 기타 국제기구들에 호소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1974년 7월 스리랑카신문《자나베가야》는 론평에서 200마일경제수역을 선포한 제3세계나라들의 립장을 찬양하였으며 이것은 제3세계나라들의 커다란 승리라고 환영하였다.

또한 론평은 스리랑카는 제3세계나라이다. 스리랑카는 200마일경제수역을 주장한다. 스리랑카 정부와 인민은 제국주의 큰 나라들의 부당한 행위를 반대하는 제3세계나라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한다고 썼다.

1974년 6월 인도와 스리랑카가 두 나라 국경경계선확정에 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이 협정에 의하여 카츠챠티브섬에 대한 주권이 스리랑카에 속하게 되였다.

1974년 7월 스리랑카는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을 승인하였다.

1974년에 총리 반다라나이케는 1월에 인도, 9월에 파키스탄, 서독, 로므니아, 유고, 11월에 쏘련을 각각 방문하였다.

1974년 9월 1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콜롬보에서 영련방의원협의회 회의가 진행되였다.

10월 2일 콜롬보에서 진행된 영련방측량및방절약협회 개막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반다라나이케총리는《…우리 정책은 경제적해방과 사회적정의를 이룩하는데 돌려지고있다. 스리랑카는 공정하고도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에 노력하고있다》고 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53%가 농사한다.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차, 고무나무, 야자 등 수출용 열대농산물재배와 그 가공이 경제에서 위주로 되고있다.

이 3대작물은 농업생산액의 75%, 수출총액의 92%, 외화수입의 약 65%, 국민소득의 3분의 1을 각각 차지한다.

전평토의 30%에 달하는 160만정보의 부침땅중에서 3분의 2가 차, 고무나무, 야자 재배지이다.

차는 년산 22만톤, 생고무는 15만~16만톤정도 생산된다.

독립후 벼생산이 2배로 늘어나 한해에 15만 5천~16만톤정도 생산된다.

그러나 식량수요의 절반이상을 사들여서 채우고있다.

목축업도 하고있다.

주요집짐승은 소(210만마리), 양(50만마리), 돼지(10여만마리) 등이다.

농업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개인들의 토지소유를 50에이커로 제한하였으며 국유화한 토지를 농민들에게 재분배하였다.

또한 협동조합들을 조직하고 기술문건, 종자, 농기구 등을 대주고있다.

1973년현재 약 30여개의 농업협동조합들이 조직되였다.

공업부문에서 기본은 가공공업이며 그중에서도 농산물가공이 80%를 차지한다.

차, 고무, 야자씨를 가공하는 공장들과 야금공장, 원유가공공장, 다이야공장, 뜨락또르수리공장, 제분공장, 보석가공공장 등이 있다.

이 나라에는 약 40종의 보석들이 있는데 그 가지수에 있어서 세계에서 브라질 다음 간다.

약 6천여개의 보석채취정이 있다.

스리랑카정부는 보석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1971년 11월에 국영보석회사를 창설하고 보석의 채취, 가공, 매매, 수출을 통제관리하고있다.

1973년에 보석수출액은 1971년의 340만루피로부터 1억 5천만루피로 늘어났다.

보석은 이 나라의 수출항목가운데서 제3위를 차지하고있다.

흑연, 석고, 돌비늘, 형석 등을 캐내는 광산들이 있다.

정부는 1971년 5월 전체 광산들을 국유화하였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경제발전5개년계획(1972—1976년)을 실현하는 길에 있다.

이 계획의 기본목적은 생산을 장성시키고 인민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이 기간에 강철, 세멘트, 화학 공업부문들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일것을 예견하고있다.

1973년현재 70여개의 국영회사들이 창설되여 석유 및 채광공업, 차공업 등 중요부문들을 국가가 통제하고있다.

대외무역도 국가가 통제하고있다.

수산업은 크게 하지 않는다.

년평균어획고는 15만톤정도이다.

교통운수에서 국내운수는 기차와 자동차로, 대외무역은 배로 한다.

철길은 총 1천 445키로메터, 도로는 1만 7천 440키로메터정도이다.

주요수출품은 차, 생고무, 야자씨, 보석, 흑연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쌀, 밀가루, 섬유제품과 기계류 등이다.

교육부문에서는 1968년 학제개편후 소학교와 중학교들의 수가 늘어나고있다.

공용어는 싱할말이다.

그러나 타밀족은 타밀말을 쓴다.

주민은 싱할족(70%), 타밀족(23%), 말라이족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싱할족의 대부분은 불교를, 타밀족의 대부분은 힌두교를 믿는다.

그리하여 종교와 언어통일문제에서 싱할족과 타밀족사이에 대립이 심하다.

문화는 불교문화로서 이르는곳마다에 절간과 탑들이 있다.

실업자가 많으며 주민의 80%가 한달에 400루피(약22파운드)도 못번다.

출판보도 ; 통신 스리랑카통신

신문 아따(공산당기관지), 자나디나(평등사회당기관지), 썬, 데일리 미러, 스릴라거, 자나사티아, 란카디파, 다바싸, 비라케사리

방송 스리랑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2월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1963년 5월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콜롬보에 개설되였다.

1964년 1월 25일에는 우리 나라와 령사관계를, 1970년 7월 15일에는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말 디 브

(말디브제도공화국)

넓이 297Km²
인구 11만명(1971년)
수도 말레(주민 1만 5,000명)

정 치

국민의회 일원제, 의석 54석, 임기 5년

대통령 아미드 이브라힘 나시르 (1968년 1월—)

정부 총리 아흐메드 자키

정당, 사회단체 ; 공식적인 정당, 사회단체는 없다.

1887년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948년에는 그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1952년 군주제를 철폐하고 1953년 1월 공화국을 선포하였으나 이해 9월 정변이 일어나 1954년 2월에는 다시 군주제국가로 되였다.

1957년 12월 영제국주의자들은 말디브정부에 《군사협정》을 강요하여 이 나라의 간섭에 해군기지를 설치하였다. 1958년에는 간섭의 주변섬들을 말디브로부터 떼여낼 목적으로 제놈들의 주구들을 부추겨 반란을 일으키고 《련합수와디브제도》를 조작하였다.

1960년 2월에는 말디브에 국방, 외교권을 제외한 《내부자치권》을 주는 대가로 아드군도(간섭과 히따두섬의 일부지역)를 30년간 군사기지로 사용할데 대한 《협정》을 강요하였다. 그후 1962년 10월에는 제놈들의 군함들을 끌이밀고 군사적위협과 간섭을 로골화하면서 군사기지사용을 100년간으로 연장할것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책동을 감행하였다.

1965년 7월 26일 민족적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78년간에 걸치는 영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독립을 쟁취하였다.

1968년 11월 11일 군주제도를 철폐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말디브정부는 대내적으로는 영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며 대외적으로는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고있다.

1969년 외래침략자들의 침해로부터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령해를 3마일로부터 12마일로 확장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어업이며 주민의 대부분이 물고기잡이를 한다.

독립후 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해마다 물고기생산량이 늘어나고있다. 매년 2만~3만톤의 물고기를 잡아내고있다.

1969년 말디브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의 략탈로부터 나라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섬주변의 100마일수역을 어업구역으로 선포하였다.

농업에서는 강과 호수가 없고 땅이 메마르기때문에 알곡작물로 기장을 약간 심는 정도이며 주로 야자, 코프라, 바나나, 감귤류 등 열대작물과 남새를 심고있다. 식량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다.

정부는 농업발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토양조사사업을 벌리고있으며 새 땅을 개간하고 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벌리고있다.

농촌에서는 가금업도 약간하고 있다.

운수에서는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일부섬들에서 자동차운수의 비중이 늘어나고있으나 내륙운수에서는 자전거가 많이 리용된다.

주요수출품은 말린물고기와 물고기가루, 물고기통졸임, 야자, 코프라 등이다. 물고기제품이 수출의 97%를 차지한다. 주요수입품은 쌀과 밀가루, 사탕, 소금, 천, 황마제품, 일용품 등이다.

주민은 대부분이 말디브사람이며 그외 인도사람, 말라이사람, 아랍사람 등이 있다.

공용어는 말디브말이나 아랍말, 영국말도 쓴다.

일반소학교에서는 말디브말로 가르치고있으나 신학교에서는 아랍말로 글을 가르치고있으며 중학교에서는 영국말로 가르치고있다. 약 150개정도의 각급 학교가 있다.

1972년 현재 40여대의 침대를 가진 1개의 병원과 4명의 의사가 있었다.

거의 모든 주민이 회교를 믿고있다.

출판보도 ; 말디브말로 발간되는 일간신문과 방송국이 하나 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0년 6월 14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공화국)

넓이 64만 7,497Km²
인구 1,750만명
수도 카불(주민 50만명)

정 치

중앙위원회 1973년 7월 17일 국가정변후 조직된 나라의 최고기관, 7월 19일 중앙위원회 제1차회의에서는 대통령 겸 총리로 다우드 한을 선거

국회 1973년 7월 26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산

대통령 사르다르 모함메드 다우드 한 (1973년 7월 19일—)

정부 1973년 8월 2일 12명으로 구성, 대통령이 총리와 외교및국방부장직을 겸한다.

정당, 사회단체 ; 왕국정부시기부터 정당, 사회단체는 없다.

1973년 7월 17일 모함메드 다우드 한이 정변을 일으켜 군주제도를 뒤집어엎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공화국정부는 정권을 잡은후 곧 이전의 모든 정권들의 강령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강령을 내놓았다. 새 강령의 기초에는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수준을 높이며 토지개혁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무료초등교육제 실시 등 사회적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주요한 과업들이 밝혀져있다. 대외적으로는 적극적인 중립, 쁠럭불가담, 해방운동에 대한 지지,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나라들과의 친선협조, 선린관계의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새강령에 따라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사업이 시작되였으며 이미 토지가 없거나 토지가 적은 수천세대의 농가가 토지를 분여받았다. 또한 국립농업개발은행이 창설되고 농민들에게 대부금을 주고있다.

공업부문에서는 국영부문을 강화하는데 모를 박고있다. 또한 대외무역을 독점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73년 10월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아랍나라들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였다. 또한 이해 10월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를 승인하였다.

1974년 9월 16일 아프가니스탄은 웰남민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해에 중국과 경제및기술협조협정, 쏘련과는 무역협정을 각각 맺었다.

6월 4일부터 8일까지 총리 다우드 한이 쏘련을 방문하고 두 나라간에 경제기술협조혼성위원회를 창설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75%가 농업과 축산업을 하는 농업국가이다. 농업은 국민총생산의 약 50%, 수출총액의 80%를 차지한다. 농사할수 있는 땅은 1천 400만헥터에 달하나 불과 절반밖에 리용못하고 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강냉이, 벼, 목화, 사탕수수, 사탕무우, 과일 등이다.

경제에서 축산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의 3분의 2가 이 부문에서 일한다.

주요집짐승은 양(약2천만마리), 염소(320만마리), 말(40만마리), 락타(30만마리), 소(370만마리) 등이다.

공업은 국민총생산액의 16.2%에 불과하다. 25만명이 공업부문에서 일한다.

주요지하자원은 금, 은, 쇠돌, 연, 아연, 석탄, 류황, 대리석, 석유, 천연가스 등이며 수력자원도 풍부하다.

1956년 이래 수행된 3차례의 5개년계획을 통하여 일련의 공업부문들이 건설되였다.

그러나 아직 옥석제품, 주단 등을 생산하는 가내수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다.

정부는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영부문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자동차길은 7천 500키로메터에 달한다. 철길은 쏘련의 꾸슈까로부터 아프가니스탄의 뚜루군디까지 7키로메터가 있을뿐이다. 항공이 국내주요도시를 련결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목화, 자색가죽, 양털, 주단, 과일 등이다. 자색가죽은 수출총액의 4분의 1, 외화수입의 80%를 차지한다. 수입품은 기계, 기구, 섬유제품, 운수수단, 차, 사탕 등이다.

장기간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교육형편은 아직도 낮다. 주민의 90%가 글을 모른다.

정부는 글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배워주며 전반적인 무료초등교육을 실시하여 국립학교망을 늘일것을 예견하고있다.

다민족국가로서 20여개의 민족이 살고 있다.

여러 민족은 각기 자기의 고유한 말을 쓰나 공용어는 푸슈트 말과 다리말이다.

주민의 95%가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 통신 바크타르통신

신문 이슬라, 카라반 데일리, 모사바트, 아니스, 카불 타임스, 바다크샨, 베다르

방송 아프가니스탄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12월 26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아프가니스탄정부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유엔총회 제28차회의 제1위원회에서 연설한 아프가니스탄대표는 조선의 통일은 조선인민이 응당 가져야 할 자결권에 따라 자주적으로 실현되여야 하며 조선의 통일은 평화적으로 외부의 간섭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29차 유엔총회정치위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유엔군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 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하였다.

1974년 9월 카불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6돐과 관련하여 사진전람회가 열렸다. 전람회에는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으며 우리 나라 영화도 상영되였다.

이 란

(이란제국)

넓이 164만 8,000Km²
인구 3,220만명(1974년 6월)
수도 테헤란(357만 7,000명, 1974년 6월)

정 치

황제 국가수반이며 군총사령관이다. 국회에서 채택한 법령과 정령을 비준 또는 부결하며 국회를 해산할수 있으며 정부성원들을 임명한다. 황제 모함메드 레자 파흘라비(1941년 9월—)

국회 상하량원제, 임기는 각각 4년. 상원은 60석, 그중 30석은 테헤란과 각 주에서 선거하며 나머지는 황제가 임명, 국민의회(하원)는 268석, 1971년 7월 총선거결과 집권당인 신이란당이 상원에서 20석, 하원에서 214석차지

정부 1974년 4월 27일 내각 개조, 총리아미르 아빠스 호베이다(1965년 1월—), 외교부장 아빠스 알리 할라트바리

정당, 사회단체 ; 인민당(투데흐당)전신은 1920년에 창건된 공산당, 1949년부터 비법화, 제1비서 에스깐다리 이라주, 국민세력련합 진보쎈터, 신이란당, 로조, 농민, 녀성조직의 련합세력으로서 1963년에 결성, 1965년 1월에 현정부를 조직, 신이란당(노빈당) 1963년에 진보쎈터의 일부성원들이 조직, 집권당으로서 황제의 《사회개혁안》집행을 주요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진보쎈터 1961년에 조직, 당수 아미르 아빠스 호베이다, 국민당(멜리윤당) 1958년에 조직, 지주, 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 1960년까지 집권당이였다. 마르돔당 1957년 5월에 조직, 토지개혁의 실시, 토지소유권의 제한, 로동자들에 대한 리윤의 균등한 분배를 주장, 사회주의로동당 1974년 6월 결성, 모든 대규모회사들과 무역 및 보험회사들의 국유화를 요구, 이란자유운동, 정부관할하의 로조단체들이 있다.

세습적인 군주제국가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이란의 풍부한 석유자원에 눈독을 들이고 정치, 경제적 침투를 더한층 강화하였다.

1954년 9월 이란은 제국주의자들과 새로운 석유협정을 맺었으며 이 협정에 따라 이 나라의 석유리권은 《국제석유련합체》(미국, 영국, 프랑스, 화란)에 넘어갔다.

1955년 10월에는 미제의 침략적인 군사기구인 《쎈토》에 들어갔으며 1959년 3월에는 미제와 《쌍무군사조약》을 맺었다.

1963년 1월 26일 이란황제는 토지개혁, 선거법제정, 산림및목장국유화, 문맹퇴치, 로동자들에 대한 기업리익금의 배당, 행정및교육개편 등을 기본내용으로하는 《근대화》를 위한 《백색혁명》(황제가 우로부터 내리하는 개혁)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풍부한 석유자원을 가지고있는것으로하여 오래동안 제국주의자들의 략탈의 대상으로 되여온 이란은 경제의 《이란화》를 주장하면서 점차 미제에 대한 추종정책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길로 나가려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주체사상으로 살것을 원하고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 누구도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어떤 민족이든지 자기의 내정에 간섭하며 민족의 존엄을 짓밟는것을 허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325페지)

이란정부는 1973년 3월 미제를 우두머리로하는 제국주의석유독점체들로부터 석유생산의 통제권을 완전히 넘겨받았으며 7월에는 외래독점체들이 관리운영하던 석유공업을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석유가격문제를 가지고도 미제와 맞서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석유값을 올린것을 비난해나서자 이란왕은 《우리에게 자기의 가격, 자기의 인플레를 강요하고 있는것은 당신들 〈서방〉이다》라고 하면서 석유값이 내려갈것이 아니라 더 올라가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1974년 2월 7일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석유생산국들에 《집단적제재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워싱톤회의를 소집하려고 할때 이란황제는 《원유생산국가들과 맞서려는 어떠한 시도도 공업국가들에게 더 적은 원유가 차례지는 결과만을 가져올것》이라고 단호히 경고하였다.

또한 9월 미제의 두목 포드놈이 또다시 석유생산국들을 위협해 나서자 9월 26일 이란왕은 석유값을 올리지 못하게 하려는 미제의 압력을 무시하면서 《누구도 우리에게 명령할수 없다》, 《누구도 우리에게 이래라저래라 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대외적으로도 이란은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아세아나라들 특히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있다.

1974년 3월 20일 이란왕은 인도와 이란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인도양나라들을 포괄하는 《경제련합 또는 공동시장》을 창설할것을 제의하였다.

９월 ２０일에는 아세아에 대한 석유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도양나라들사이에서의 광범한 지역적협조를 호소하였다.

１０월 ２５일 이란은 유엔총회에 중동을 핵무기없는 지대로 설정할데 대한 제안을 정식으로 내놓았다.

이란은 １９７４년 １１월 １９～３０일까지 인도양에서 진행된 쎈토성원국들의 해군련습에 (미, 영, 이란, 토이기, 파키스탄) 참가하였다.

１９７４년에 이란은 방글라데슈(２월)와 기네―비싸우(８월)를 승인하였다.

또한 이란황제 파호라비는 ６월에 프랑스, １０월에 인도, 인도네시아를 각각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７５％가 농사한다. 국민소득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몫은 약 ２１％이다.

농사할수 있는 땅은 １천 ８００만헥타이나 리용되고있는 땅은 ６００만헥타이다.

농업에서는 알곡생산이 기본이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벼 등 알곡작물과 사탕무우, 사탕수수, 목화, 포도, 차 등의 공예작물 및 과일이다.

식량은 자급자족하지 못한다. １９７４년에 ２５０만톤의 밀을 사들였다.

１９７３년에 밀은 약 ４３０만톤, 보리는 ９０만톤, 쌀은 약 １３０만톤, 목화는 ２２만톤 생산되였다. 밀은 동부고원지대에서, 벼는 까스삐해연안과 후제스탄지방에서 많이 심는다.

정부는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5차 ５개년계획 (１９７３―１９７８) 기간에 전체 투자의 ２３％를 이 부문에 돌리기로 하였다.

《토지개혁법》이 발포된후 이란에서는 약 １３０만호의 농가가 유상으로, １００만호의 농가는 장기대부로 땅을 받았다. 또한 생산―판매협동조합들이 조직되였다. 이 협동조합은 알곡의 수매, 비료의 공급, 수로의 관리와 보수, 생산물의 판매를 보장하고있다.

목축업은 자연먹이에 기초한 이동방목이 위주로 되고있다. 약 ３００만명의 유목민이 있다.

주요 집짐승은 소(６４０여만마리), 양(약 ３천 ２００만마리), 염소, 당나귀, 말, 노새, 락타 등이다.

제5차 ５개년계획(１９７３―１９７８) 기간에 농업부문에 ２３억 ５천만딸라를 투자하게 된다. 이 기간에 １２개의 제방을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공업에서 기본은 석유채취와 그 가공이다. 4차 ５개년계획기간에 국민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２０％였는데 그중 석유부문이 차지하는 몫은 ２６.３％였다.

중동에서 석유매장량에 있어서는 세번째, 채취량에 있어서는 두번째자리를 차지한다. 유정당 하루 평균생산량은 ２천 ２００여톤에 달하며 어떤 유정은 1만톤에 달한다.

１９７３년에 석유생산량은 3억 ４천만톤, 가스채취량은 ４８６억립방메터로 늘어났다. 또한 이해 5개의 석유 및 가스 매장지들이 새로 발견되였다.

１９７３년 7월 법안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석유회사들은 이란국영석유회사의 완전한 통제와 관리하에 놓이게 되였다.

석유외에 가스, 크롬, 중정석, 아연, 연, 동 등의 지하자원을 캐내고있다.

중요공업기업소들로서는 원유가공, 세멘트, 판유리, 물감, 방직(면직, 모직, 합성섬유), 식료(사탕, 기름, 과일가공 기타), 가죽, 제약 공장 등이 있다.

강철은 한해에 １６０만톤생산되고있다. １９７６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직접 환원제철소가 아스파한시에 조업하게 되면 강철생산이 ６０％ 늘어나게 된다.

１９７２―１９７３년에 세멘트는 ３３９만톤생산되였다. 5차 5개년계획기간에 １２개의 세멘트공장이 또 새로 건설되게 된다.

１９７２―１９７３년에 전력은 ６８억 7천 ８００만키로와트시 생산되였다.

１９７３년에 １３개의 자동차생산 및조립공장이 가동하였다.

사탕은 65만여톤 생산되는데 국내에 있는 32개의 공장들이 만가동하지 못하고있으므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있다.

대외무역도 발전하고있다. 4차 5개년계획기간에 대외무역은 약 17% 장성하였다. 수출총액에서 석유와 석유제품이 90%를 차지한다. 1973년에 석유수출은 1972년보다 17% 높은 3억 600만톤에 달하였으며 그로부터의 수입은 40억딸라 (1972년에는 24억딸라) 를 넘었다.

주요수출품은 석유, 주단, 목화, 과일, 가죽, 광석, 메리야스제품이며 수입품은 기계 및 기계설비, 흑색압연제품, 화학제품 및 의약품, 수송수단, 전기설비 등이다.

주민은 약 절반이 이란 사람이며 그밖에 아제르바이잔사람, 쿠르드사람 등이 있다.

공용어는 이란말이다.

이란정부는 민족간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5년도부터 8학년까지의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료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중등및고등교육을 받을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조금을 주기로 하였다.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한후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간보다 2배나 되는 기간을 정부가 보내는곳에 가 일하여야 한다.

1974년 9월 1~16일까지 테헤란에서 제17차아세아체육경기가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우리 나라 선수단을 비롯하여 60여개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국교는 회교이다.

출판보도; 통신 이란국제통신, 파르즈통신

신문 매호데 이란 (마르톰당기관지), 네다예 이란 노비 (신이란당기관지), 카이한, 에텔라아트, 페이그하메 엠루즈, 카이한 인터내슈널, 테헤란 저널

방송 이란방송, 이란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4월 1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3년 9월에는 무역협정과 지불협정을 맺었다.

1974년 11월 28일 두 나라 정부사이에 무역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1972년 5월 30~6월 6일까지 이란인민당 제1비서 에스깐다리 이라주를 단장으로 하는 인민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4년 11월에는 황제동생 아브도르레자 파호라비친왕, 정부무역대표단, 체육위원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1월 23일 우리 나라에 온 파호라비친왕을 접견하시고 만찬을 베푸시였다. 접견석상에서 친왕은 위대한 수령님께 황제의 선물을 전하여 드리였다.

이해 4월 우리 나라 부주석이 이란을 방문하였다.

이 라 크

(이라크공화국)

넓이 43만 4, 924km²
인구 1, 000만명(1972년)
수도 바그다드 (주민 110여만명)

정 치

혁명지도리사회 1968년에 창설된 국가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여기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1969년 11월 리사회성원을 5명으로부터 15명으로 늘였다. 의장겸 대통령 아호마드 하싼 알 바크르 (1968년 7월—)

정부 대통령은 국가 및 정부수반이다. 1972년 5월에 아랍사회부흥당, 쿠르드민주당 및 공산당 (2명이 정부성원직 차지) 의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1974년 11월 11일 내각개조, 외교부장 사아둔 함마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4년 4월 2일 창건, 제1비서 아지즈 무함메드, **아랍사회부흥당** (집권당) 1947년에 창건, 아랍사람들의 리익을 대변, **쿠르드민주당** 1954년에 창건, **민족진보전선** 1973년 7월 17일에 결성된 아랍사회부흥당과 공산당의 통일전선체, **로동조합총련맹** 1974년 5월 제4차대회 진행, **농민조합총동맹**, **청년총동맹** 1973년 4월에 제1차대회진행, **녀성총동맹**

이라크인민은 1958년 7월 14일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 파이살왕조를 전복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59년 3월 24일 이라크정부는 미제의 침략적인 군사기구인 《바그다드조약》에서 탈퇴하였으며 3월 30일에는 42년간 자기 나라를 강점하고있던 영국침략군을 몰아냈다. 또한 미제와 맺었던 예속적인 《협정》들을 폐기하였다.

1968년 7월 17일 혁명에 의하여 혁명지도리사회가 구성되였으며 아호마드 하싼 알 바크르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쿠르드족문제를 정부앞에 나선 심각한 문제들중의 하나로 간주하고 이 문제해결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여온 이라크정부는 1970년《3월선언》에 의하여 진행되여오던 쌍무회담이 결렬된것과 관련하여 1974년 3월 11일에 이라크국내의 쿠르드족으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창설, 쿠르드말로 교육하는 학교설립 등의 범위에서 쿠르드족에게 자치를 부여한다는 법령을 일방적으로 발포하였다. 바르자니의 지도를 받는 쿠르드족은 이를 반대하고 무장반란을 일으켰다.

이미 1972년 6월 1일에 제국주의독점체들의 소유였던 《이라크석유회사》를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한 이라크혁명지도리사회는 1974년 6월에 외국회사들에 석유개발구역을 내맡기는 정책을 그만두고 자기 나라의 석유자원을 자기 힘으로 직접 개발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정부는 이라크의 6개 지역에서 석유개발권을 신청한 30개의 외국석유독점회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월에는 또한 미국기계제작회사 《카터필러회사》를 국유화하였다.

1974년에 여러차례에 걸쳐 이라크와 이란간의 국경충돌사건이 있었다.

이라크정부는 4월에 칠레에서 열리는 국제시장에 참가해달라는 칠레군사도당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월 26일 이라크는 수리아와 호상협조에 관한 의정서에 조인하였다. 이 협정에 의하여 두 나라는 이라크수도와 수리아의 동부도시를 련결하는 철도를 건설하며 통일적인 전력송전체계를 세우게 되였다. 또한 방직공장 등을 함께 건설하며 기계 및 전력공업부문에서 호상협조하게 되였다.

이라크는 6월에 유고와 장기경제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에, 8월에는 애급과 경제 및 공업협조에 관한 의정서에 조인하였으며 10월에 방글라데슈와 경제, 기술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4년에 이라크는 에콰도르 (2월), 꽁고 (2월), 가이아나 (9월) 와 외교관계를 가지는데 합의하였다.

이라크는 서부독일 (2월), 영국

(4월)과 끊었던 외교관계를 다시 회복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이라크는 로동인구의 약 75%가 농사하는 농업국이다. 부침땅으로 리용할수 있는 땅은 1천 400만헥타이며 실지 씨붙임땅은 약 800만헥타이다.

1968년 7월 혁명이전까지 인구의 10%에 불과한 왕족들과 지주들이 부침땅의 70%를 틀어쥐고있었다.

혁명지도리사회는 1970년 5월에 《토지개혁법》을 발표하여 봉건왕족들과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땅없는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1973－1974회계년도에 농촌경리발전에 6천 600만디나르를 지출하였다. 1974－1975회계년도에는 그것이 1억 8천만디나르에 달하였다.

해마다 밀은 120만～150만톤, 보리는 약 90만톤, 벼는 30만～35만톤 생산되고있으며 대추야자, 목화, 강냉이, 수수, 담배, 커피 생산도 늘어났다.

이름난 이라크대추는 해마다 평균 38만톤이상 생산되며 세계수출량의 80%를 차지한다.

집짐승으로서 양(1천여만마리), 소, 염소, 당나귀, 말, 노새, 락타를 기르며 년평균 1만 3천～1만 5천톤의 양털을 생산한다.

정부는 민족경제에서 지도적역할을 노는 국영부문의 비중을 높이는데 힘을 넣었다.

이 과업실행을 위해 국가공업설계및건설관리국이 조직되여 중공업발전에 필요한 튼튼한 원료기지들을 조성하였다.

1973～1974회계년도에 공업부문에 대한 지출이 5천만이라크디나르(1디나르는 2.52루블리)였다면 1974－1975회계년도에는 2억 500만디나르에 달하였다.

원유채취 및 가공공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공업로동자의 3분의 1이 석유공업부문에서 일하며 석유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예산액의 약 60%를 담당한다.

1974년에 정부는 350만톤 능력의 바스라원유정제공장, 150만톤능력의 모쑬원유정제공장, 북쪽에서 남쪽으로 석유를 운반하기 위한 연장길이 655메터의 송유관, 년산 1천만톤능력의 또하나의 원유정제공장건설을 시작하였다.

탐사된 석유총매장량은 38억 9천 800만톤에 달하며 유정당 석유생산량에 있어서 세계에서 두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석유생산의 85%를 국가가 통제한다. 1973년에 하루평균 210만바렐의 석유가 생산되였으며 한해동안의 석유총생산량은 1972년보다 43% 늘어난 약 1억 500만톤이였다. 6개의 석유가공공장이 있다.

그밖에 방직, 세멘트, 제약, 비료, 전기, 식료 등의 공장들이 새로 일떠섰고 개건확장되였다. 석탄, 류황, 망간, 대리석, 코발트, 연, 동 등의 지하자원개발사업도 활발하다. 1970년부터 1974년까지 5개년계획을 수행하였다.

운수에서는 철도와 하천운수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1천 915키로메터의 철길이 있으며 티그리스강은 하천운수에서 큰 역할을 한다.

주요수출품은 석유와 대추, 양털, 가죽, 목화이며 수입품은 사탕, 차, 식량, 기계설비, 목재, 금속 등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아랍나라들이며 사회주의나라들과도 한다.

혁명지도리사회는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1974년 2월 7일 모든 로동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올리며 세금을 낮출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72년에 국민소득은 12억 5천만 디나르였다.

1972－1973학년도에 소학교는 6천 454개, 중학교는 1천 32개였다. 같은 학년도에 5개의 종합대학에서 5만 5천명의 학생들이 공부하였다.

이 5개의 종합대학을 현대화하는데 1974년 새 예산에서 1억디나르를 할당하였다.

1973년 병원침대수는 2만 322대였으며 이 부문 기술일군수는 1만 2천 185명이였다.

주민구성에서 아랍사람이 75%이상을 차지하며 그밖에 쿠르드사람(20%), 토이기사람 등이다.

주민의 90%가 회교를 믿는다.

공용어는 아랍말이다. 쿠르드사람들은 자기들의 말을 쓴다.

출판보도; 통신 이라크통신

신문 알 사우라(정부기관지), 알 타아키(쿠르드민주당기관지), 알 타카파흐 쟈디다흐(공산당기관지) 알 줌후리아, 바그다드 옵써버, 알 아얌, 알 누우, 알 무즈타마, 싸우롯 화라바, 알 라쉬드, 알 리하리브, 알 무하리브, 하우카리

방송 이라크방송, 바그다드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9년 7월 우리 나라와 통상 및 지불에 관한 협정과 문화협정을 맺었으며 1968년 1월 30일에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1년 4월 두 나라간의 우편물교환에 관한협정과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9년 7월 6일 이라크조선친선협회가, 1969년 12월 13일 조선이라크친선협회가 각각 결성되였다.

1974년에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많은 출판물들이 실었다. 《이라크승리》출판사에서 로작《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를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단행본으로 출판하였으며 신문《알 라쉬드》는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단호히 물리치자》,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페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소개하였다.

신문《알 줌후리아》7월 9일호는 〈수단정부기관지 〈알 싸하파〉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게재하였다.

신문《하우카리》11월 2일호는 〈페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게재하였다.

신문《바그다드 옵써버》12월 9일호는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빠나마기자대표단과 한 담화》를 보도하였다.

1974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의 사이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특사가 이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바크르대통령을 만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시는 친서와 말씀을 특사가 바크르대통령에게 정중히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서와 말씀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대통령은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대통령은《이라크는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

시는 조선인민의 편에 서서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립장을 언제 그 어디서나 견결히 지지할것》이라고 힘주어말하였다.

이라크정부와 인민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1974년 9월 유엔총회 제29차 회의에서《알제리안》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우리 나라의 립장을 지지하여 찬성투표하였다.

1974년 8월 로동조합총련맹은 성명을 발표하여 남조선민주력량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탄압소동을 규탄하고 박정희놈을 미제의 주구, 조선인민의 리익의 배반자로 규탄하였다.

수 리 아

(수리아아랍공화국)

넓이 18만 5,180km²
인구 700만명(1974년 9월)
수도 다마스코(주민 63만 6,400명)

정 치

인민회의 1973년 5월에 선거된 최고립법기관, 총의석 186석중 민족진보전선이 140석 차지(그중 아랍사회부흥당 122석, 공산당 8석, 아랍사회주의동맹 6석, 아랍사회당 3석, 사회주의련합 1석), 임기 4년

대통령 1973년 3월에 채택된 새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은 군총사령관, 아랍사회부흥당총비서, 민족진보전선위원장을 겸하며 부대통령, 총리 및 각료들을 임명 또는 파면시킬 권리를 가진다. 대통령 하페즈 알 아싸드(1971년 3월—)

정부 1974년 8월 31일 내각개조, 총리 마흐무드 알 아유비, 외교부장 아브델 할림 하담, 국방부장 무쓰따파 틀라쓰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4년 10월수리아—레바논공산당으로 창건되였다가 1958년 11월에 떨어져나옴, 1972년 3월 7일에 창립된 민족진보전선의 규약에 따라 47년만에 처음으로 합법화됨, 1974년 9월 제4차대회 진행, 총비서 할레드 바그다쉬, **아랍사회부흥당** (집권당) 1954년 아랍부흥당과 아랍사회당이 합당하여 창건, 1963년 3월 8일 혁명후 집권당으로 됨, 소부르죠아지, 인테리, 수공업자, 하층장교, 농민 및 근로청년들을 망라, 아랍통일, 자유, 사회주의건설을 구호로 제기, 민족지도부 총비서 하페즈 알 아싸드, **수리아아랍사회주의동맹, 아랍사회당, 사회주의련합, 민족진보전선** 1972년 3월 7일 공산당, 아랍사회부흥당, 수리아아랍사회주의동맹과 기타 정당들을 망라하여 결성된 통일전선체, 위원장 하페즈 알 아싸드, **근로자로동조합련맹, 혁명청년동맹, 녀성동맹, 수리아아랍지역조선친선협회** 1970년 3월 28일 결성, 위원장 아브달라흐 알 아호마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리아아랍공화국 정부와 인민은 빼앗긴 땅을 해방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있는 모든 수단을 다 리용할데 대한 확고부동한 혁명적립장을 견지하고있으며 중근동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습니다.

수리아인민은 전쟁피해를 가시고 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며 무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고있습니다.》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무조건 물러가야 한다》, 단행본, 4페지)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위한 수리아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이 나라는 1946년 4월에 영국, 프랑스 침략군을 몰아내고 독립된 주권국가로 되였다.

1963년 3월 8일 수리아아랍사회부흥당을 중심으로 하는 군부세력이 혁명을 일으키고 정권을 잡았다.

수리아는 1967년 4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미제의 사촉밑에 감행된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침략을 받았다. 수리아정부와 인민은 이에 즉시 반격을 가하였으나 이 전투에서 골란고지를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강점당하였다. 그후 정부는 미영제국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끊고 놈들과 서독군국주의자들의 학교, 문화기관들을 폐쇄하는 등의 단호한 반제적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방력강화에 힘을 넣었다.

1970년 11월 13일 국방부장이던 하페즈 알 아싸드를 수반으로 하는 새정부가 구성되였다.

1972년 3월 7일 아랍사회부흥당, 공산당, 아랍사회주의동맹과 기타 정당들을 망라하는 민족진보전선이 결성됨으로써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이 일층 강화되였다.

1973년 1월 31일 새헌법초안이 채택되였으며 3월 12일에는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되였다. 헌법에서는 수리아를 《민주주의적이며 사회주의적이며 자주적인 인민의 나라》라고 규정하였다.

수리아인민은 1970년의 시정조치후 하페즈 알 아싸드대통령의 령도밑에 민족적단합을 강화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나가면서 일련의 진보적인 개혁들을 실시하였으며 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튼튼히 다지였다.

수리아인민은 이와 같은 성과에 기초하여 1973년 10월전쟁에서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일찌기 없었던 심대한 타격을 주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적존엄을 영예롭게 지켜냈으며 전반적중근동문제해결의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았다.

수리아는 제4차중근동전쟁이 정화에 들어간지 2일후인 1973년 10월 24일 이스라엘이 1967년 6월과 그 이후 점령한 지역에서 철수하는 조건에서 정화를 수락한다고 하였다.

수리아대통령은 정전직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모든 아랍땅에서 철수하지 않고 팔레스티나의 권리를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전투를 재개할것이라고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수리아와 이스라엘사이의 전쟁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정화협정위반행위로 하여 1974년 5월말 군대격리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되였으며 그 규모는 옹근 석달동안 진행된 골란고지에서의 전투를 통하여 확대되여 전전선을 포괄하게 되였다.

10월전쟁과 골란고원전선의 모든 전투들에서 수리아인민과 무장력은 영웅적으로 싸웠다.

1974년 3월 수리아군대들은 골란고원전선에서 이스라엘침략군포대와 땅크, 무기저장소를 격파하였으며 수리아포부대와 땅크부대들은 적의 포 및 박격포중대들을 격파하였다.

4월에도 수리아군대들은 골란고원에서 가렬한 전투를 벌리였다. 4월 19~20일 수리아군대들은 적지상대공중 로케트기지와 땅크, 장갑차집결소, 적전방진지들을 들이쳤다. 4월 8~27일까지 수리아군은 적비행기 28대를 떨구고 헤르몬산의 전략적지점들을 포위하였다.

수리아인민은 한편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대비하여 전쟁피해를 가시고 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며 무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수리아정부는 이해 1월에 정령을 발표하여 1974년부터 매해 3～6개월간씩 모든 수리아대학들에서 의무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1974년에 콩크리트와 강철판들로 된 대피호들을 가진 군용비행장 3개를 새로 건설하는 등 이스라엘놈들의 폭격으로부터 비행기들을 보호할 만단의 준비들을 갖추어나갔다.

1974년 5월 31일 제네바에서 수리아는 이스라엘과 골란고원에서의 군대를 격리시킬데 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협정에 의하면 이스라엘침략군이 1973년 10월전쟁에서 강점한 수리아령토와 1967년 6월전쟁에서 강점한 골란고원의 중심부에 있는 쿠네이트라시에서 철수하며 골란고원에서 가장 높은 헤르몬산과 쿠네이트라시주변의 3개고지들을 유엔관리하에 두며 쌍방의 포로를 교환하기로 되였다.

6월 3일 수리아인민회의는 성명을 발표하여 수리아—이스라엘병력분리협정은 평화협정도 아니며 한 국면의 종식도 아니며 군사적투쟁 및 경제적재건과 병행하여 벌어지는 정치적투쟁도상에서의 한걸음에 불과한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음단계는 강력한 경제를 건설하며《닥쳐올 결정적인 투쟁을 준비하는》국내전선의 강화를 필요로 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1974년 1월 정부는 10월전쟁에서 전사하거나 행방불명된 군인가족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할데 대한 정령을 발표하였으며 5월 5일에는 매해 5월 6일을 전국렬사들의 명절로 기념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1974년 10월 6일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침공한 1주년이 되는 날에 디마스끄에서 대무력시위가 있었다.

1974년 5월 미제우두머리 닉슨놈이, 10월에 여우와 같은 미국무장관 키신져놈이 수리아에 기여들어 중근동문제를 제놈들에게 유리하게 주어보려고 책동하였다. 그때마다 수리아인민은《우리는 평화해결을 거부한다》, 《무력에 의해 빼앗긴 땅을 무력으로 되찾을수 밖에 없다》는 강력한 구호를 들고 미제반대시위를 벌렸다.

1974년에 수리아는 유고슬라비아 (3월) 와 경제협조를 발전시킬데 대한 협정, 이라크 (10월) 와 호상협조할데 대한 협정, 아르헨띠나 (12월) 와 문화협정을 맺었다. 5월에 미제와, 8월에 서독과 대사급외교관계를 다시 회복하였다.

1974년에 아싸드대통령이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2월), 쏘련 (4월), 유고슬라비아 (8월), 벌가리아, 로므니아 (9월) 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75%가 농사한다. 농업은 국민소득의 65%, 수출총액의 85%를 차지한다. 부침땅은 545만헥타이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밀, 보리, 감자, 포도, 기장 등이다. 1972년에 밀은 195만톤, 보리는 73만 5천톤, 목화는 41만 9천톤 생산하였다.

정부는 농업발전을 위하여 농업을 협동화하고 기계화하며 현대적인 과학에 기초하여 생산을 진행하는것을 기본방도로 내세웠다. 농업협동조합과 국영농목장들, 매개 도에 시범적인 집단생산협동조합들이 조직되였다. 1973년 4월현재 약 2천개의 농업협동조합이 무어졌는데 1975년에 가서는 그수가 4천 500여개로 늘어날것이다. 17개의 국영농목장이 새로 조직되였다. 정부는 조직된 농업협동조합들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농민들에게 대부금, 종자, 비료 등을 대주고있다.

령토의 절반이 방목지로 리용할수 있는 지역이기때문에 이 나라에서 축산업은 큰 의의를 가진다. 주요집짐승은 양, 염소, 소, 말, 노새, 당나귀, 락타 등이다.

정부는 제3차 5개년계획 (1971～1975년) 기간에 농업생산을 년평균 5.1%씩 늘여 계획의 마지막해에 가서는 20억 900만 수리아파운드어치의 농산물을 생산할것을 계획하였으며 이를 위해 이 기간에 총예산액의 34.8%를 농촌경리부문에 돌리기로 하였다.

혁명후 정부는 민족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이 가지고있던 공장, 기업소들을 국유화하였으며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창설하였다.

주요지하자원은 원유, 린회석, 쇠돌, 망간, 크롬, 천연가스, 돌소금 등이다.

최근년간 수리아인민은 제국주의자들과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끊임없는 도발과 침략책동을 짓부시면서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썼다.

자력갱생의 전투적구호밑에 나라의 내부원천을 총동원하고있는 수리아인민은《사회주의에로의 과도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제에서 국영부문을 확대강화하고 그의 주도적역할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다.

국가투자의 70%이상을 국영부문에 돌렸다.

국가계획위원회를 내오고 통일적인 계획밑에 경제를 운영하고있다.

경제에서 주요부문인 원유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는 원유채취 및 가공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어나가고있다. 원유매장량은 10억톤이다.

원유공업부문에서는 제3차 5개년계획 (1971～1975년) 기간에 400개의 새 유정을 파낼것을 계획하고 그 실현에 힘쓰고있다.

1974년에 원유생산량은 449만톤이였다.

정부는 1975년에 원유생산량을 1천만톤으로 높일 계획이다.

전국도처에 80개의 원유저장고들이 있다.

홈스시에 270만톤의 원유제품을 생산할수 있는 원유가공공장이 있으며 3차 5개년계획기간에 500만톤능력의 새로운 원유가공공장이 건설된다.

3차 5개년계획기간에 이 나라의 공업생산은 2배로 늘어나게 되며 그중에서 석유공업과 방직공업은 2.5배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공업발전에서 특히 공업중심지들을 나라의 곳곳에 고루 배치하는데 큰 주의를 돌렸다.

디마스끄 북쪽으로 150키로메터 떨어진곳에 있는 하마시는 이 나라에서 네번째로 큰 공업도시로 꾸려졌다. 이 도시에는 야금공장, 세멘트공장, 방직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건설되였다.

수리아북부지방의 중심지 알레포시에는 년산 2천대의 뜨락또르와 각종 농기구를 만들어내게 될 뜨락또르공장이 건설되고있다.

농산물가공공장, 축산물가공공장, 기름공장, 사탕공장, 담배공장, 가죽공장들이 개건확장되거나 새로 건설되였다.

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의 총연장길이는 1천 400키로메터이다. 해상운수가 대외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논다.

1974년에 지중해의 항구도시 라따끼아와 나라의 동북부에 있는 카무이쉬리를 련결하는 철길을 건설하였다.

주요수출품은 목화, 밀, 보리, 양털, 가죽, 석유와 석유제품, 과일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금속, 기계 등 공

업설비품과 인민소비품이다.

발전하는 경제의 여러부문들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자들과 전문가들을 키우기 위한 조치로서 정부는 12월에 새로운 중등전문학교와 전문기술학교를 내올데 대한 인민회의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디마스끄, 알레포, 홈스와 같은 공업중심지들에서 1975년에 7개의 기술전문학교와 여러개의 직업기술학교가 문을 열게 된다.

7월에 수리아아랍공화국 기자동맹 창설에 관한 정령이 발표되였다. 새로 창설되는 기자동맹은 아랍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기자조직들과의 광범한 련계를 보장하는 사업을 맡아보게 되였다. 동맹기관지로 잡지《알 이떠하드》를 발행하게 되였다.

3차 5개년계획기간에 43개의 병원과 240여개의 진료소들이 새로 건설되게 되며 이 계획이 실행되면 주민 2천 500명당 의사 1명이 차례지게 된다.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족인 수리아사람이며 소수민족으로서 쿠르드족, 아르메니야족, 아씨리아족, 베드윈족 등이다.

주민의 85%가 회교도이다. 12%가 기독교도이며 아랍국가중 레바논 다음으로 기독교도가 많다.

공용어는 아랍말이다.

출판보도; 통신 수리아아랍통신

신문 알 바아스 (아랍사회부흥당기관지), 알 사우라 (정부기관지), 알 퍼다, 니달 알 팔라힌

방송 수리아방송, 수리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6년 7월 25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이해 8월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5년 10월 4일 우리 나라와 무역및지불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3년 7월 30일 디마스끄에서 1974년도 상품류통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1970년 4월 28일 수리아아랍지역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과 수리아는 다같이 아세아대륙에 있으며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식민지통치밑에서 압박받고 천대받던 지난날의 처지와 새생활창조를 위한 오늘의 투쟁의 공통성으로 하여 굳은 전투적친선의 뉴대로 련결되여있습니다.》(《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무조건 물러가야 한다》, 단행본, 1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아랍사회부흥당 총비서이며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인 하페즈 알 아싸드각하를 단장으로 하는 당및정부대표단이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싸드대통령과 그 일행을 여러차례 만나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였다.

9월 29일 평양에서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과 수리아아랍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사이의 회담이 있었다.

10월 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하페즈 알 아싸드각하를 단장으로 하는 수리아아랍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군중대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무조건 물러가야 한다》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군중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아싸드대통령은《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투쟁함으로써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고야말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아싸드대통령과 그 일행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만경대 고향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아싸드대통령은 중앙공업및농업전람관과 인민경제대학,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붉은기만경대혁명학원, 인민군구분대, 평양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하여 공장, 기업소들을 참관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0월 1일 수리아아랍공화국의 최고훈장인《대우마이예훈장》을 수여받으시였다.

10월 1일 아싸드대통령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가, 대표단성원들에게는 국기훈장 1, 2, 3급이 수여되였다.

1974년에 수리아의 출판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들을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9월 디마스끄출판사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청년들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선봉대가 되자》를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싸드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는 군중대회에서 하신 연설《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무조건 물러가야 한다》의 연설전문을, 수리아신문들인 《알 바아스》, 《알 사우라》, 《카파호 알 움말 알 이슈터라키》, 《알 셔르끄》, 《알 싸카파툴 우쑤부 아이예》, 《알 퍼다》, 《홈스》가 게재하였다.

신문《알 사우라》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1974년 신년사와 세네갈전국기자협회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을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게재하였다.

신문《알 싸카파툴 우쑤부 아이예》 2월호는《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를, 7월호는 《유고슬라비아신문 〈웨체르니에 노보스띠〉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게재하였다.

신문《알 바아스》 2월호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9월호는《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를 실었다.

신문 《알 자마히르 알 아라비아》 9월호가《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를, 신문《알 퍼다》 9월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를 실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특사가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이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아싸드대통령을 만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시는 친서와 말씀을 특사가 아싸드대통령에게 정중히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서와 말씀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대통령은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대통령은《김일성주석님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들 속에서 높은 위신을 지니고계신다.…우리는 앞으로도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시는 정책과 로선, 제안들을 모든 힘과 가능성을 다하여 적극 지지할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수리아정부와 인민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1974년 9월 유엔총회 제29차 회의에서 수리아는《알제리안》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우리의 립장을 지지하여 찬성투표하였다.

7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디마스끄에서 열린 국제전람회에 우리 나라가 참가하였다.

8월에 디마스끄에서 진행된 아랍기자동맹 제4차대회에 우리 나라 기자동맹대표단이 참가하였으며 아싸드대통령의 접견을 받았다.

레 바 논

(레바논공화국)

넓이 1만 400km²
인구 290만명 (1972년말)
수도 바이루트 (주민 80만명)

정 치

국회 일원제로서 임기는 4년이며 의석은 99석, 국회의석은 종교단체 대표비률의 원칙에 따라 배정된다. 1972년 4월의 선거에서 마론파기독교도가 30석, 순니파회교도가 20석, 시아파회교도가 19석, 희랍정교도가 11석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기타 교파들이 각각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으로서 임기는 6년이며 마론교도 (기독교일파) 만이 선출된다. 대통령 술레이만 프란쥐예 (1970년 8월—)

정부 정부수반으로는 시아파회교도중에서 선출된다. 총리 라쉬드 쏠리호 (1974년 10월 31일—), 외교부장 푸아드 나파호, 국방부장 죠쎄프 쓰까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4년에 수리아—레바논공산당으로 창건되였다가 1944년에 독자적인 당으로 창건, 총비서 니꼴라 샤우이, **사회진보당**, **아랍사회부흥당** 전아랍적인 아랍사회부흥당의 레바논지역조직, **팔랑헤당** 1936년에 창건된 극우익소부르죠아정당, **인민사회당**, **아랍사회주의로동당**, **아랍로동자청년당**, **통일로조련맹**, **근로자총련맹**, **로동자사무원로조전국련맹** (세계직련에 가입), **민주청년동맹**

1943년 11월 22일 (국경절) 에 완전한 민족적독립을 쟁취한 레바논인민은 1946년에 자기 나라에 기여들어 주인행세를 해오던 프랑스, 영국 침략군을 몰아냈다.

1952년에 대통령자리에 들어앉은 샤문은 1957년 3월에 이른바 《아이젠하워주의》를 접수하고 《특별군사원조》를 받는 대가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바이루트부근에 공군기지설치권과 미제 6함대에 레바논해군기지사용권을 넘겨주었다.

레바논인민들은 미제와 그에 추종하는 반동정부를 반대하여 1958년부터 민족적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국적항쟁운동을 개시하였다. 7월 15일 미제는 레바논에 수만명의 침략군을 상륙시켰으나 전인민적항쟁과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항의규탄에 부딪쳐 1958년 10월 25일 이 나라에서 쫓겨났으며 샤문친미반동정부도 무너졌다.

1967년 6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부추김밑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전쟁을 일으키자 미영제국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끊고 (그해 9월에 회복) 일체 석유 및 석유제품의 공급을 중지하였다.

1974년에도 이스라엘침략자들은 레바논에 대한 도발행위를 빈번히 감행하였다.

5월 16일 레바논은 이스라엘놈들의 대공습을 받았다. 거듭되는 국경충돌을 감행해온 이스라엘침략자들은 6월 18일 또다시 10대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레바논의 남부지방에 있는 피난민수용소와 그 부근을 폭격하였으며 6월 20일 이후에는 여러개 편대의 비행기와 여러척의 군함 그리고 포를 가지고 하늘과 땅으로 레바논을 침입하여 폭격과 포격을 감행하여 무고한 팔레스티나사람들과 레바논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레바논 남부지역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통로들과 그리고 수리아와 린접한 많은 지역들을 통제할수 있는 높은 고지들이 있으며 물원천과 유용한 농경지들이 많고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지대이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날로 우심해지는 적대적침략행위에 대처하여 1974년 5월 18일 레바논정부는 이틀에 걸쳐 비상내각회의를 열고 10개년국방계획을 토의하고 승인하였다.

군사력을 배로 강화하기 위한 10억딸라의 새국방계획은 륙군병력을 3만 6천명으로 늘이며 대공미싸일을 포함한 새 무기와 군장비들을 갖춤으로써 나라의 군사력을 현대적으로 꾸리는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12월 17일에 진행된 레바논내각회의는 레바논사태를 토의하고 제5차 중근동전쟁에 대처하여 3만 5천여명의 군대들에게 전투태세에 들어갈것을 명령하였으며 아랍나라들에 군사무기를 빨리 공급해줄것을 호소하였다.

1974년 7월 2일에 레바논안전군은 레바논에서 파괴활동을 일삼아온 이스라엘간첩망 일당을 체포하였다.

레바논정부와 인민의 이 완강한 반이스라엘조치와 투쟁들은 아랍나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1974년에 아랍나라들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레바논공격을 규탄하였으며 레바논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였다.

1974년 7월 3일과 4일에 걸쳐 애급의 수도 까히라에서 열린 아랍나라 외교및국방부장들의 회의에서는 싸우는 레바논인민과 팔레스티나유격대에 온갖 형태의 지원을 줄데 대한 문제들을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토의하였다.

알제리, 애급, 수리아 국가수반들은 레바논인민과 팔레스티나유격대가 이스라엘놈들과 싸우는데 요구되는 무기와 군대를 보내줄 결의를 표명하면서 이스라엘놈들이 레바논령토를 《단 한치》라도 공격한다면 주저함이 없이 《전투에 솔선 나서겠다.》고 하였으며 리비아, 마로끄를 비롯한 아랍나라들은 이스라엘놈들의 침략행위를 규탄하면서 레바논과 팔레스티나에 대한 원조를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12월 10일 이스라엘침략자들이 레바논의 수도 바이루트에 있는 팔레스티나유격대사무소 3개를 불의에 습격하자 이에 격분한 팔레스티나유격대원들은 11일밤에 텔 아비브에 있는 극장을 습격하여 폭파해버렸다.

애급과 수리아 정부는 레바논정세가 긴장되는데 따라 12월 19일부터 전체 군인들이 전투태세에 들어갈것을 명령하였다.

수리아, 애급은 또한 레바논에 무기를 보내줄것을 결정하였다.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리비아, 까타르는 레바논에 2억딸라의 군사원조를 약속하였다.

12월 12일 수도 바이루트에서 8천명의 은행일군들이 임금의 대폭인상을 요구하여 파업하였다.

1974년 2월에 레바논정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뽀르뚜갈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정부는 또한 기네—비싸우공화국을 승인하였다.

1974년에 레바논은 알바니아 (5월), 말따 (8월) 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중계무역, 금융, 관광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국민소득의 3분의 1을 대외무역이 차지한다. 바이루트항은 자유무역항으로서 중계무역뿐아니라 통과무역이 활발하다.

통과무역량은 레바논의 대외무역류통량을 릉가한다.

트리폴리항은 《이라크석유회사》송유관이 잇닿은 마지막항구이다.

직물류, 광물성원료, 기계설비 등이 주요중계무역품이다.

레바논은 또한 중근동에서 하나의 《재정금융중심지》로서 약 75개의 외국은행들이 활동하고있다. 국민소득의 20%를 차지하는 관광업부문에서는 8만여명의 주민들이 일한다.

외국자본투자액은 이 나라 총투자액의 90%를 릉가한다.

그의 대부분은 미제와 프랑스가 독점하고있는데 특히 미제독점체들의 회사는 450여개나 된다.

로동인구의 약 절반이 농사를 한다.

약 30만헥타의 부침땅가운데서 50%이상의 땅은 300명의 대토지소유자들이, 5%의 땅은 소지주들과 부농들이 차지하고있다.농촌주민의 4분의 3은 전혀 땅이 없으며 거의 모두가 소작농이다. 국민소득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몫은 12% 남짓하다.

농업총생산액에서 45%정도는 과일, 약 14%는 남새가 각각 차지한다.

사과, 귤, 포도 등 과일농사를 전문화하고있는데 약 30만헥타의 부침땅 가운데서 10만 5천 헥타에 사과, 귤, 포도, 바나나, 올리브 나무들을 심고있다.해마다 귤 23만 5천톤, 사과 15만톤, 포도 19만톤, 바나나 2만 5천톤, 올리브 4만톤을 생산하고있다.

6만 5천 헥타에 밀, 보리를 심고있다.

그밖에 강냉이, 감자, 사탕무우, 파, 담배 농사를 한다. 해마다 밀 3만~4만톤, 사탕무우 10만톤, 담배 6천 500톤, 파 1천400톤을 생산한다. 과일과 남새는 바다가벌들과 언덕지대들에서, 알곡은 베카고원지대에서 주로 생산된다. 식량은 수요량의 75%이상을 수입하고있다.

농업총생산액에서 25%를 차지하는 이 나라 축산업에서는 집짐승으로서 소(약 130만마리), 염소(48만여마리), 양 (26만여마리), 당나귀(4만2천여마리), 닭 등을 기른다.

공업은 국민소득에서 14~15%에 불과하며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다.

식료(과일가공, 기름, 포도주 등), 직물, 담배, 가죽, 피복, 세멘트, 석유가공, 기타 중소규모공장들이 있다.

교통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인데 670키로메터인 철길은 이웃나라들과 련결되여있다.

주요항구는 바이루트, 트리폴리이다.

주요수출품은 귤, 사과, 바나나 등 과일들과 남새들이다.

주요수입품은 식량, 식료품, 석유 및 석유제품, 설비품들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아랍나라들, 사회주의나라들, 미국, 영국, 프랑스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사람들이다.

그밖에 로이기사람, 쿠르드사람, 아르메니야사람, 희랍사람 등이 있다.

주민의 절반이 기독교도이고 나머지는 회교도이다. 이 두 교도는 여러 갈래의 파로 갈라져있다.

해외에서 품팔이를 하는 레바논사람들은 110여만명에 달한다.

공용어는 아랍말이다.

출판보도; 신문 알 안와르, 안 니다, 알 무하리르, 알 욤, 알 샤아브, 뜨리오르, 알 발랴그, 사우뜨 알 우루바, 앗 두니야, 알 리와

방송 레바논방송, 레바논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9월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1968년 12월 14일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바이루트에 개설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존경하고 흠모하는 레바논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는 위원회》,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는 로동자위원회》, 《김일성동지로작번역및출판위원회》,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로작을 연구하는 위원회》등을 결성하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연구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을 널리 출판선전하고있다.

1974년에 이 나라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들을 수많이 번역출판하였으며 소개하였다.

6월에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수록한 문헌집 《조선의 통일을 위하여》를 레바논의 이름난 출판사인 아랍연구소 출판사가 아랍말로 출판하였다. 이 책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3년 6월 23일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를 비롯하여 1955년 4월부터 최근에 이르는 기간에 그이께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보고 및 담화들이 체계적으로 수록되여있다. 문헌집은 위대한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였다.

12월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 《이딸리아공산당기관지 〈우니따〉지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를 아랍말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신문 《알 무하리르》6월 12일호와 신문《알 욤》6월 21일호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수단정부기관지 〈알 싸하파〉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실었다.

신문《앗 두니야》5월 8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4월 12일에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하신 연설전문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셨다.

신문《알 무하리르》8월호는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로작《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를 게재하였다.

신문《알 리와》8월 7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로작《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게재하였다.

신문《알 욤》8월 13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로작《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를 실었다.

잡지 《알 발랴그》10월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중에서 《주체사상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실었다.

신문《알 무하리르》10월 20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로작《세네갈전국기자협회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실었다.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신문은 또한 로작《다오메정부기관지 〈다오멕스프레스〉 사장과 한 담화》를 실었다.

신문《알 안와르》10월 26일호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무조건 물러가야 한다》를 실었다.

요 르 단

(하쉐미트요르단왕국)

넓이 9만 7,740km²
인구 250만명 (1973년)
수도 암만 (주민 45만명)

정 치

국왕 국가수반으로서 총리를 임명하며 법령을 비준하고 국회를 소집 또는 해산할수 있다. 3군총사령관을 겸하

면서 군부의 통수권을 장악하고있다.

국왕 아미르 아브달라흐 후쎄인 1세 (1952년—)

국회 상하량원제이며 상원의원은 30명 (국왕이 임명한다.), 하원의원은 60명으로서 임기는 4년이다.

1974년 11월 23일 후쎄인왕이 국회를 해산하고 서부요르단출신 상원의원 15명중 7명만 새로 임명하고 8명을 해임시켰다.

정부 1974년 11월 23일 새 내각 구성, 총리 리파이 (1974년 11월—), 외교부장, 국방부장을 겸한다.

정당, 사회단체 ; 1957년 4월이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은 금지되였다. 공산당 1943년에 창건되여 1951년까지 민족해방련맹이라고 불렀다. 제1비서 푸아드 나싸르, 아랍사회부흥당 비합법적으로 활동, 민주사회당, 아랍립헌당, 아랍민족동맹 유일정치조직이였으나 왕이 1974년 4월 28일 해산

요르단은 1946년 5월 25일 영제국주의자들의 《위임통치》로부터 독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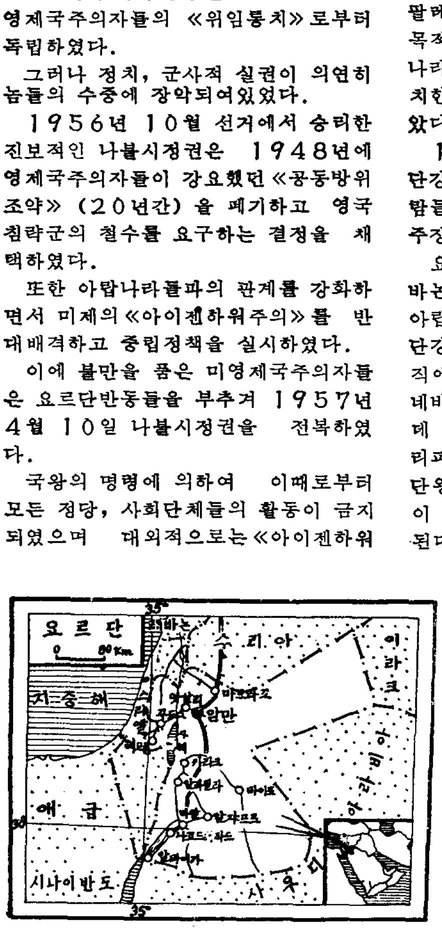
그러나 정치, 군사적 실권이 의연히 놈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있었다.

1956년 10월 선거에서 승리한 진보적인 나불시정권은 1948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이 강요했던《공동방위조약》 (20년간) 을 페기하고 영국침략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또한 아랍나라들파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제의《아이젠하워주의》를 반대배격하고 중립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요르단반동들을 부추겨 1957년 4월 10일 나불시정권을 전복하였다.

국왕의 명령에 의하여 이때로부터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금지되였으며 대외적으로는《아이젠하워주의》를 받아들이고 아랍분렬책동이 실시되였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이 1967년 6월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요르단은 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서부요르단의 5천 600평방키로메터에 달하는 령토를 놈들에게 강점당하였다.

1970년 2월 요르단정부는 팔레스티나유격대의 무장을 해제시킬 목적으로 정규군을 제외한 기타 인원들의 《무기휴대, 포이동, 폭발물저장의 금지》등을 규정한《치안강화조치》를 발표하였다.

1972년 3월 15일 요르단 국왕 후쎄인은 요르단에서 살고있는 100여만명의 팔레스티나사람들과 요르단강서쪽 이스라엘강점지역에서 사는 60여만명의 팔레스티나사람들로서 이른바 《팔레스티나준자치국》을 세우고 이것을 요르단과 통합하여《아랍련합왕국》을 조작할데 대한 제안을 공개하였다.

이 제안은 자기 조국을 되찾으려는 팔레스티나인민들의 리익과 항쟁운동 목적파는 반대되는 계획으로서 아랍나라들은 물론 세계진보적나라들의 일치한 반대와 규탄을 받아 실패하고말았다.

1974년에도 요르단정부는 요르단강서쪽에서 살고있는 팔레스티나사람들에 대한 요르단의 관할권을 계속 주장하였다.

요르단국왕 후쎄인이 5월 9일 레바논신문 《안 나하르》와의 담화에서 아랍나라들이 이스라엘에 강점된 요르단강의 서쪽지역을 팔레스티나해방조직에 맡기는 경우 중동문제에 관한 제네바평화회의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한데 뒤이어 6월 4일에는 요르단총리 리파이가 요르단강의 서쪽지대는 요르단왕국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만약 이 지역이 독립된 팔레스티나국가로 된다면 우선 경제적으로 살아나갈수 없을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8월에 후쎄인왕은 레바논신문《알 하아르》, 《데일리 스타》와의 담화에서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이 팔레스티나사람들의 합법적대표라는것은 인정하지만 유일한 대표로는 인정할수 없다고하였다.

9월 21일 애급의 수도 까히라에서 애급, 수리아, 팔레스티나해방조직사이의 회합이 있었으며 이 회의에서는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을 모든 팔레스티나인민들의 유일한 합법적대표로 인정한다는 결정이 발표되였다.

이에 대하여 요르단정부는 9월 22일 자기 정부가 이 까히라회의에 참가하지 않을뿐아니라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투쟁에 대한 아랍나라들의 전략전술을 토의하는 어떤 회의에도 당분간 참가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힘을 합쳐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릴것을 주장하는 아랍나라들, 팔레스티나인민들파의 립장을 달리하였다.

요르단의 이러한 립장은 전체 아랍나라들의 불만을 자아내였다.

10월에 라바트에서 진행된 아랍국가외교부장회의와 아랍국가수뇌자회의는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을 팔레스티나인들의 유일한 합법적대변자로 인정한다는것을 결정하였으나 요르단만은 이에 반대하였다.

아랍나라들의 통일적인 행동과 립장파는 달리 요르단정부는 팔레스티나사람들을 더욱 배척하면서 그들을 각 부문에서 제거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11월에 팔레스티나유격대가 요르단령토에서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작전을 하는것을 더는 허락하지 않겠다는것을 공공연히 선포한 후쎄인왕은 11월 5일 정부각료직에서 요르단강서쪽지대출신 팔레스티나대표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내각개조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뒤이어 11월 23일에 각료직 20개중 절반이 팔레스티나사람들로 구성된 리파이내각을 해산하고 새 내각을 구성하였다.

11월 18일에는 외국에 나가있는 12명의 팔레스티나출신 대사들을 해임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5월에 요르단정부가 남아프리카련방 및 남로데시아에 영국제 군용기, 미싸일 등 700만파운드어치의 무기를 비밀리에 팔아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것은 요르단정부가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파 공모한 범죄행위로서 세계 여러나라들의 항의규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튜니지정부가 9월 23일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을 도와준 요르단에 제재조치를 가할것을 요구하면서 특히 아랍 석유생산국들이 요르단에 주는 재정적원조를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아프리카민족회의는 9월 25일 알제에서 성명을 발표하여 요르단의 남아프리카에 대한 무기판매를 규탄하였으며 아프리카통일기구도 요르단의 이러한 범죄행위를 아랍련맹의 단결을 파괴할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서 큰

우려를 표시하였다.

가나신문 《데일리 그래픽》 9월 29일호는 후쎄인국왕의 이러한 범죄행위는 제국주의를 돕는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하면서 아랍련맹성원국의 자격문제도 다 심의되여야 할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요르단 국왕 후쎄인이 3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미국을 드나들면서 최신형무기를 요구하여 1억 3천만딸라의 군사원조를 받았다.

1974년에 후쎄인왕이 로므니아(1월), 애급, 수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4월), 오만, 아부다비, 바레인, 쿠웨이트, 애급 (7월), 카나다, 수리아(8월), 영국(2월과 9월)을 방문하였다.

3월과 5월에 미국무장관 키신저란놈이 요르단에 기여들어 음흉한 숙덕공론을 하였다.

1974년 11월 28일 요르단은 브라질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85%가 농업에 종사하는 락후한 봉건적농업국가이다.

경제의 주요부문은 외국자본의 통제하에 있다.

요르단은 1967년 중동전쟁에서 나라의 서부지역을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빼앗김으로써 경제에서 커다란 손실을 당하였다.

이 지역은 과거에 이 나라 알곡생산의 30%, 유지작물의 80%, 남새의 65%, 과일의 60%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집짐승의 35%도 여기에서 기르고있었다.

또한 이 강점지역에는 이 나라 공업기업소의 48%, 상업기관의 54%가 있었다.

부침땅은 전령토의 10분의 1로서 주로 요르단강골짜기에 집중되여있다.

관개된 땅은 전체 토지의 1%에 불과하다.

땅들은 대부분 왕족, 지주, 족장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있으며 토지없는 농민의 수는 전체농민의 40%나 된다.

주요농산물은 밀 (년산 15만톤), 보리 (4만 2천톤), 남새 (13만톤) 콩, 올리브, 포도, 감귤류, 담배 등이다.

목축업은 이 나라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동부의 반사막 및 사막 지대에서 유목 또는 반유목을 한다.

주요집짐승은 양 (53만마리), 염소 (86만마리) 이며 이밖에 소 (5만마리), 당나귀, 락타 등을 기른다.

공업은 린산염채취, 대리석가공, 담배가공, 진주조개채취 등이다.

요르단의 대리석은 질이 좋은것으로 세계에 알려져있다.

공업기업소들은 모두 수공업적인것이다.

석유가공공장, 세멘트공장, 금속가공공장 등 약간의 중공업기업소들이 있다.

과일가공공업이 약간 발전하였고 30여개의 방직공장이 있으나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운수의 기본은 자동차와 철도운수이다.

철길은 수리아와 사우디 아라비아를 련결하는 단선 (총 329키로메터) 이 있다.

유일한 항구는 알 아까바항구이다.

주요 수출품은 과일, 올리브, 담배 등 농산물과 얼마간의 광물류, 공업제품 등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아랍나라들, 미국, 영국, 서독, 일본이다.

도시와 농촌간의 수준에서의 차이, 빈부의 차이가 심하다. 주민의 80%이상이 글을 모른다.

대학은 하나밖에 없다.

주민은 아랍사람들이며 그중 60%가 팔레스티나사람들이다.

주민의 80%이상이 회교를 믿는다.

공용어는 아랍말이다.

출판보도; 신문 오피셜 가제트 (정부계), 알 라이 (관영), 알 사바, 알 데스투르, 아호바르 알 우쑤부오

방송 하쉐미트요르단방송, 요르단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7월 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요르단신문 《아호바르 알 우쑤부오》 3월 7일호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1974년 신년사를, 4월호가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게재하였다.

이 스 라 엘

넓이 2만 700km^2 (1949년 아랍국가들과의 정전선에 의한것, 1947년 팔레스티나분할에 관한 유엔결정에 의하면 1만 4,000km^2)

인구 약 335만명 (1974년초)

수도 텔 아비브 (주민 38만 5,000명)

정 치

국회 일원제로서 의원수는 120명, 임기는 4년이다.

1973년 12월 31일에 실시된 총선거결과 메이버당은 51석 (6석이 줄었음) 을 차지하였다.

대통령 국가수반으로서 임기는 5년이며 국회에서 선출된다. 대통령 에프라임 카쯔이르 (1973년 5월—)

정부 1974년 4월 11일 메이르내각 사임, 1974년 5월 28일 새 내각 구성, 총리 라 빈, 국방부장 시몬 페레스, 외교부장 이갈 알론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에 팔레스티나공산당으로 창건되였다가 1948년 5월 이스라엘공산당으로 고쳤다. 총비서 메이르 빌러 젠세크, **레이버당** 1968년 1월에 마파이당을 비롯한 3개의 우익정당이 합당하여 조직, **독립자유당** 1965년에 조직되였고 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 **국가종교당** 1956년에 조직된 유태교의 정당, **통일로동당** (마팜당), **전국로동총련맹**, **공산주의청년동맹**, **민주녀성련맹**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음모책동에 의하여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란 유태인국가가 조작되였다. 이스라엘은 같은해 5월 15일 영제국주의자들의 사촉밑에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전쟁》 (1948년 5월부터 1949년 7월까지의 제1차중동전쟁)을 일으켰으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6천 700평방키로메터의 땅을 빼앗았다.

팔레스티나아랍땅을 빼앗아 《국가》를 세운 이스라엘전쟁미치광이들은 1956년 10월 29일에 영국, 프랑스 제국주의자들과 함께 애급을 반대하여 수에즈운하사건을 조작해냄으로써 제2차중동전쟁을 일으켰으며 1967년 6월 5일에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을 등에 업고 제3차중동전쟁의 불을 질렀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애급의 시나이반도, 수리아의 골란고지, 요르단강서쪽지역을 포함한 6만 3천평방키로메터에 달하는 땅을 강점하였다.

1973년 10월에는 애급과 수리

아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을 감행하여 제4차중동전쟁을 일으켰다. 4차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코대는 꺾어졌고 아랍땅을 영원히 강점하고 지배하려는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야심적인 침략계획에는 파렬구가 생기게 되였다. 이 전쟁에서 심대한 손실과 커다란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아랍인민들앞에 굴복하고 부득불 강점한 아랍의 일정한 지역에서 물러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1974년 1월 18일에 이스라엘은 애급과 군대격리협정에 조인하고 자기들의 침략군대를 수에즈운하 동쪽으로 33~38키로메터 철수하였으며 5월 31일에는 수리아와의 군대격리협정에 조인하고 1967년 6월전쟁에서 강점한 골란고원의 중심부에 있는 쿠네이트라시에서 철수하였다.

4차례의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침략자들은 300억이스라엘파운드 (71억 4천만딸라) 를 탕진하였는데 이것은 시간당 1천만딸라씩 소비한것으로 된다. 4번에 걸친 전쟁에서 이스라엘침략자들 1만 1천 309명이 죽었고 2만 6천 682명이 병신이 되였다.

제4차중근동전쟁에서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심각한 정치군사적패배는 이스라엘지배층내에서의 정치적위기를 심화시켰다.

전쟁두목 메이르는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엘라자르, 정보국장 제이르를 비롯한 일련의 전쟁광들을 갈아치움으로써 패배의 《책임》을 몇몇 군부두목들에게 들씌우고 저들이 처한 심각한 정치적위기를 어떻게 하나 해소시켜보려고 교활하게 날뛰였다.

그러나 메이르도당의 이러한 책동은 오히려 지배층내부의 혼란과 개싸움을 격화시켰으며 이스라엘지배층내에서 메이르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게 하였다.

1974년 4월 11일에 메이르는 총리직을 사임하였고 22일에는 레이버당 당수의 자리에서도 밀려나게 되였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제4차중동전쟁에서 당한 대참패를 모면해보려고 1974년에 전쟁준비와 군사적모험책동을 계속하였다.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은 1974~1975회계년도에 예산지출의 40%이상을 군사력증강에 돌리는 등 전면적인 전쟁준비를 해나갔다.

1974년에 예산지출총액 350억이스라엘파운드(84억 4천만딸라) 에서 144억이스라엘파운드 (34억딸라) 가 국방비에 돌려졌다. 이것은 1973년 군비예산의 2배에 달하는것이다.

군사력증강을 위해 이스라엘전쟁광들은 워싱톤에 빈번히 드나들면서《원조》와 《차관》을 구걸하였다.

1974년 1월과 4월에 이스라엘의 호전광인 다얀이란놈이 워싱톤에 날아가 닉슨도당과 여러차례 밀담을 벌려놓고 더 많은 살인무기를 받을 흉계를 꾸몄다. 1974년에 이스라엘은 미제로부터 1973년 10월전쟁때 받은것보다 5% 더 많은 비행기, 30% 더 많은 수송기, 3% 더 많은 헬리콥터, 33% 더 많은 미국제 호크 및 반항공미싸일을 받았다. 륙군장비로서 땅크 50%, 장갑차 85%, 대포 25%가 더 증강되였다.

또한 1974년초에 들어와서만도 이스라엘은 미제상전으로부터 《비상군사원조》라는 이름밑에 22억딸라, 《차관》이라는 형식으로 7억딸라를 또다시 받았다.

새 전쟁준비에 미쳐날뛰고있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은 다른 한편 각종 세금을 만들어내여 근로자들의 주머니를 깡그리 털어다가 군사비에 충당하였다. 1974년 3월에 《세금개혁》을 발표하여 여러가지 종류의 세금을 만들어냈으며 국민소득의 44%를 세금으로 긁어갔다.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은 국내외에 전쟁광증을 고취하기 위하여 1974년 10월에 이른바 《외국예비병》들을 동원하기 위한 계획을 꾸며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서구라파와 북미주 및 남미주에 살고있는 유태인족들이 상당한 《상금》을 받고 이스라엘에 팔려와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치욕스러운 전쟁마당으로 내몰리게 되였다. 또한 이 계획에 의하여 이전에 제대되였거나 예비병으로 밀려났던 53살까지의 사람들을 《후원부대》로 모조리 입대시키였다.

한편 11월 19일에는 이스라엘 국방부장, 경찰부장, 공보부장놈들이 《각료급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인민을 반대하는 《무자비한 전쟁》을 벌릴것이라고 폭언하였다.

놈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유격대가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수색할것》이며 나아가서는 팔레스티나해방투사들을 지원하는 아랍나라들에 대하여서도 《공동의 책임을 계속 지울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였다.

1974년 2월에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애급, 인도, 레바논, 파키스탄, 탄자니아, 튜니지가 제출한 아랍강점지역에서의 이스라엘의 인권유린행위를 비난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1974년 유엔총회 제29차회의 11월 13일회의에서는 팔레스티나문제토의에서 이스라엘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1974년 3월에 말레이시아가 이스라엘과 무역관계를 끊었다.

11월에 국제기자동맹 서기국이 강점지역으로부터의 이스라엘군의 철거를 단호히 요구하였다.

11월에 또한 빠리에서 진행된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18차총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 기구의 모든 원조를 단절하며 이 기구의 모든 활동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할것을 결정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는 외국자본 특히 미제독점자본에 얽매여있다.

외국자본투자액중에서 70%를 차지하고있는 미제독점자본은 석유, 화학, 제당공업과 해운, 은행들을 장악하고있다.

공업은 주로 각종 살인무기생산을 위한 군수산업 일면에 치우치고있다. 약 90만명의 로력인구가운데서 20여만명이 군수공장들에서 일한다.

지하자원은 석고, 석회, 류황 등이다.

직접적인 군사비는 국민총생산액의 30~35%에 달한다.

군수공업 이외에 주로 수출을 목적으로 한 린비료, 면방직, 다이야, 세멘트, 종이, 자동차조립, 금강석연마, 광학유리, 정밀기계, 석유가공, 식료품가공 공장 등이 있다.

경제의 군사화로 군수품생산의 기형적장성과 민수공업의 심한 침체를 가져오고있다.

1973년 10월전쟁기간에 공업으로부터 농업, 관광업에 이르기까지 심한 손실을 입었다.

군사비증강으로 외화보유고는 계속 줄어들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였다. 외국에 걸머진 빚이 1970년에 21억딸라였다면 1973년에 그의 2배인 41억딸라, 1974년에는 60억딸라였다.

농업은 수출용 열대과일재배 일면에 치우쳐있으며 주민의 18%가 이 부문에서 일한다.

부침땅은 약 42만헥터인데 관개된 토지는 17만헥터에 불과하다.

주요농산물은 귤 (년산 약 87만톤), 포도 (26만톤이상), 레몬 등의 열대과일과 밀, 보리, 강냉이, 사

땅무우, 올리브, 담배이다.

과일류는 바다가지방에 집중되여있고 그의 60%는 수출한다.

식량은 국내수요의 절반도 충족시키지 못하며 수입에 의존한다.

집짐승들로서 소, 염소, 양, 닭 등을 기른다.

철길은 좁은 철길로서 주요항구들과 련결되여있다.

주요항구는 하이파와 텔 아비브이다.

주요 수출품은 연마한 금강석, 천, 다이야, 감귤류 등이며 연마하지 않은 금강석, 식량, 흑색압연제품, 화학제품, 원유제품, 수송설비 및 전기설비 등을 수입한다.

주요무역대상국은 미국, 영국, 서독 등 자본주의나라들이다.

세금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서 국가총세입의 60%를 근로자들에게서 짜내고있다.

세금의 90%이상과 국가수입의 거의 40%를 침략전쟁수행에 탕진한다.

주민의 약 3분의 1이 빈궁속에서 허덕이며 14살까지의 어린이들중 4분의 1이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하고있다.

이 나라에 있는 100여개의 아랍주민부락들의 절반은 의료시설이 전혀 없으며 실업자의 대부분도 아랍주민들이다. 그리하여 살길을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는데 출국신청자는 1973년 1년동안에 비하여 1974년 1월부터 6월까지 반년동안에 60%나 늘었다.

1974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에 일용품가격과 전기세, 연료 및 주택값이 31%, 빵, 우유, 기름, 닭알, 사탕을 비롯한 식료품값이 50~75%가 비싸졌다.

주민의 대부분은 유태사람이며 그밖에 아랍사람이 산다.

공용어는 헤브라이말이나 아랍사람들은 아랍말을 한다.

주민의 대부분은 유태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이스라엘통신 (아이엔에이), 이스라엘련합통신(아이티아이엠)

신문 콜 하암 (공산당기관지), 알하미쉬마르 (마팜당기관지), 하포엘 하트자이르 (레이버당기관지), 다바르 (전국로동총련맹기관지)

방송 콜 이스라엘방송, 중앙텔레비죤방송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왕국)

넓이 214만 9천 690km^2
인구 800만명 (1972년)
수도 리야드 (주민 35만명, 정부소재지)
메카 (주민 25만명, 회교성지)

정 치

국왕 국가수반으로서 립법권, 행정권을 가지며 종교적인 최고권력자로서 제한없는 권력을 가진다.

국왕 파이살 이븐 아브델 아지즈 이븐 싸우드 (1964년 11월—)

각료회의 (정부) 의장 (총리)은 국왕이 겸한다. 외교부장 장 오마르 사가프

1926년 1월 아라비아반도를 통일하고 왕국을 세웠으며 1932년에 나라이름을 사우디 아라비아왕국으로 고쳤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세습적인 군주제국가이며 이 나라의 법률은 회교성전에 기초하고있으며 국회도, 정당도 없다.

1962년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부추김밑에 예멘왕당파를 지원하여 예멘아랍공화국에 대한 무력간섭을 진행하였다.

1966년 10월에는 미제에게 자기 나라에 있는 비행장과 항구들을 임의의 시각에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1972년 4월 미제와 사우디 아라비아반동들은 민주예멘에서 쫓겨난 놈들과 사우디 아라비아, 북부예멘, 오만 등지에 있는 반동들을 긁어모아 민주예멘을 반대하는 소위 《지원군》을 조작하고 《통합사령부》 라는것까지 만들어놓았으며 재정《원조》와 무기, 탄약까지 공급해주었다.

1974년 1월 1일부터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민》은 원유의 직접거래가격을 2.3배 올려 바렐당 10.835딸라를 받기로 하였다. 또한 《씨에 프랑케이스데스 페트롤》회사는 석유값을 바렐당 4딸라 올리기로 하였다.

6월 사우디 아라비아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회사인 아랍—미국석유회사 (아람코) 의 주권의 60%를 차지하였다.

1973년 10월 미제와 이스라엘 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수리아전선에 지원병을 파견하였으며 미제에 대한 석유수출을 금지하였다.

1974년 1월 18일 사우디 아라비아정부는 미국정부에 보낸 각서에서 아랍석유생산국들의 석유수출금지를 막기 위하여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자기 나라의 석유밭을 폭파하겠다고 하였다.

1월 15일부터 사우디 아라비아정부는 친선적인 나라들에 대한 석유공급을 늘이도록 하였다.

5월 19일에는 팔레스티나해방운동과 레바논에 각각 300만딸라를 주었다.

또한 사우디 아라비아국왕이 애급을 방문하고 애급에 10억딸라의 무상원조와 5억딸라의 무리자차관을 제공하였다.

1월 7일 사우디 아라비아는 프랑스와 전투기판매협정을 맺었다. 협정에 의하면 사우디 아라비아는 앞으로 20년동안 프랑스에 8억딸라분의 석유를 팔며 대신에 프랑스로부터 《미라쥬》전투기와 중무기들을 사들여오게 되였다.

1974년에 사우디 아라비아는 가봉 (1월), 오스트랄리아 (1월), 아일랜드 (9월), 스리랑카 (12월) 등과 새로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이해 7월 29일 사우디 아라비아는 아랍추장국련방과 《부라이미 샘터》의 소유권을 둘러싼 12년간의 국경분쟁을 끝맺는 협정에 조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은 원유채취업이다. 국가재정수입의 85%를 원유에서 얻고있다. 원유매장량은 약 200억톤에 달한다. 세계 10대석유생산국의 하나로서 1년에 약 3억 7천 550만톤 (1973년) 의 석유를 생산한다.

원유가공공업은 아주 약하다.

공업으로는 석유공업외에 세멘트, 석고, 비누, 가죽공업, 석유화학공업 등이다. 매해 밀은 1만 5천톤, 강냉이는 2만 1천톤, 보리는 1만 3천톤, 벼는 2천톤, 대추야자는 20만톤정도 생산된다.

주요집짐승은 양, 염소, 락타, 말, 당나귀 등이다.

교통운수는 뒤떨어진 형편이다. 철

길은 알마디나로부터 요르단의 국경까지 뻗은것과 리야드와 아드담맘을 련결하는 철길뿐이다. 자동차길은 약 4천키로메터에 달한다. 아직도 락타에 의한 운반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수출에서는 원유 (수출액의 99%)가 기본이고 그밖에 과일, 집짐승, 가죽 등이며 수입품은 식량, 사탕, 운수수단, 일용품 등이다.

주민은 대부분이 아랍사람(85%)이며 그밖에 아프리카흑인(10%), 이란사람, 유태사람, 인도사람 등이다.

공용어는 아랍말이다.

주민의 95%가 글을 모른다.

회교의 본거지로서 회교규률이 엄격하다.

출판보도; 신문 타우라, 알 빌라드, 알 리야드, 레프리카

방송 사우디 아라비아방송, 사우디 아라비아국립텔레비죤방송

쿠 웨 이 트

(쿠웨이트추장국)

넓이 2만 770km² (중립지대 포함)

인구 80만명(1972년)

수도 쿠웨이트 (주민 25만명)

정 치

국민회의 일원제, 임기 4년, 의석 50석, 현국회는 제3기로서 1971년 1월에 선거되였다.

추장 국가수반으로서 법령을 비준하며 내각을 통하여 행사되는 일체 집행권을 가지고있다.

추장 사바흐 알 살렘 알 사바흐(1965년 11월—)

정부 1975년 2월 내각개조, 총리 자베르 알 아흐메드 알 자베르, 외교부장 사바흐 알 아흐메드 사바흐, 국방 및 내무부장 사아드 아브둘라흐

정당, 사회단체; 1963년 1월부터 일체 정당, 사회단체의 활동은 금지되였다.

1961년 2월 25일 영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하였다.

1961년 6월 19일 영제국주의자들과 맺었던 1899년의 예속적인 협정을 폐기하였다.

1963년 1월 립헌군주제와 의회책임제를 규정한 헌법을 채택하고 1월 30일 이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국회선거를 진행하였다.

1964년에는 나라의 서남지역에 있는 중립지대 분할에 관한 협정을 사우디 아라비아와 맺었다.

독립후 쿠웨이트정부는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국주의자들의 활동범위와 리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1964년에 《쿠웨이트국립석유회사》를 창설하고 원유의 채취,가공, 판매권을 틀어쥐였으며 1970년과 1971년에는 수출하는 원유값과 외국회사들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제국주의석유독점체들에 큰 타격을 주었다.

1974년 1월 정부는 자기 나라에서 조업하고있는 외국석유회사들의 주권의 60%를 넘겨받기로 결정하였으며 1월 30일에는 미영제국주의석유독점회사인 《쿠웨이트석유회사》를 국유화하고 이 회사주권의 60%를 통제하기로 하였다.

이 석유독점회사는 쿠웨이트에서 생산되는 전체 석유량의 95%이상을 채취하고있다. 정부는 1979년까지 이 독점회사의 주권에서 국가의 몫을 해마다 7~7.5%씩 늘여나감으로써 주권을 완전히 쥐게 된다.

대외적으로는 반제투쟁을 강화하면서 아랍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있다.

1966년 7월 뽀르뚜갈과 외교, 령사, 무역 관계를 끊었으며 1966년 12월에는 이스라엘침략자들과 거래하는 미제독점회사들과의 관계를 끊었다.

1967년과 1973년 중동전쟁때 싸우는 아랍인민을 지원하여 자기 군대를 파견하였으며 미제에 대한 석유공급을 중지하였다.

1974년 7월 쿠웨이트국회에서는 아랍의 경제개발을 위한 쿠웨이트기금의 자본금을 6억딸라에서 30억딸라로 늘였다.

10월 26일 쿠웨이트정부는 군사및 복구건설비로 쓰도록 애급에 1억 5천만딸라를 주었다.

2월 23일 쿠웨이트에는 아랍나라들과 회사들을 돕기 위한 50만쿠웨이트디나르(180만딸라) 의 자본금을 가진 특별융자회사가 설치되였다.

1974년에 탄자니아 (1월), 페루 (5월), 꾸바 (5월), 아일랜드 (10월), 쟈메이카 (11월), 기네—비싸우 (12월) 와 각각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0월에는 이 나라 추장이 애급을 방문하였다. 공동콤뮤니케에서는《중동에서의 평화는 오직 아랍령토에 대한 이스라엘강점의 청산과 팔레스티나인민의 모든 합법적권리의 회복을 통해서만 이룩될수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원유채취업이다. 국가수입의 92~94%이상을 원유수출에서 얻고있다. 원유매장량은 약 89억 3천 800만톤에 달하는데 매년 1억 5천만톤(1972년) 이상의 원유를 채취하고있다. 그중 1억 3천여만톤은 수출하고있다.

미영제국주의석유독점체인 《쿠웨이트석유회사》가 이 나라 원유채취의92%정도, 일본독점자본의《아라비아석유회사》가 약 6%를 틀어쥐고있다.

공업에서는 또한 석유채취일면에만 치우치던 경제의 편파성을 없애고 자체의 민족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전력, 기계, 화학 공업 등이 새로 생겨났다.

민족공업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국내의 기업가들에게 공장건설을 위한 땅을 대주며 연료, 전력, 공업용수, 자금을 대주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출판보도; 신문 알 카바스, 쿠웨이트타임스, 알 와탄, 데일리뉴스

방송 쿠웨이트방송, 쿠웨이트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9월 17일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1968년 4월 20일에는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쿠웨이트에 개설되였다.

1974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하자》등 여러 로작들을 이 나라 신문들인 《알 카바스》, 《쿠웨이트타임스》, 《알 와탄》, 《데일리뉴스》가 실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인《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중에서 첫째부분《주체사상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의 전문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중에서 첫째부분《주체사상에 대하여》의 전문을 신문《알 카바스》4월 15일호가 실었다.

신문《알 카바스》는《찬란히 꽃피

는 조선의 가극예술》이라는 총제목을 달고 우리 나라 가극예술을 소개하는 글을 2월 12~14일까지 3일에 걸쳐 매일 웅근 한면씩 련재하였다.

쿠웨이트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29차유엔총회 정치위원회에서 남조선으로부터 《유엔군》을 철거시킬데 대한 결의안표결에서 찬성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의 립장을 지지하였다.

1974년 11월 쿠웨이트 알 카바스신문사 총국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1월 10일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알 카바스신문사 총국장을 만나시였다.

접견석상에서 신문사총국장은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뵙게 된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주석님은 제3세계의 영웅이시며 세계의 천재적 수령이시며 인간해방의 위대한 수령이시라고 말하였다.

석상에서 총국장은 수령님께 알 카바스신문사종업원들이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지성어린 선물을 드리였다.

이해 1월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쿠웨이트를 방문하였다.

바 레 인

(바레인국가)

아랍만에 있는 33개의 크고작은 섬들로 이루어졌다. 가장 큰 섬이 바레인섬이다.

넓이 598km^2

인구 22만명

수도 마나마 (주민 약 8만명)

정 치

국회 1973년 12월 7일 처음으로 국회선거가 진행되였다. 총의석 39석

수장 이사 빈 술만 알 할리파 (1942년—)

각료회의 (정부) 1973년 12월 14명으로 구성, 총리 할리파 빈 술만 알 할리파, 외교부장 빈 무바라크 알 할리파, 국방부장 하마드 빈 이사 알 할리파

정당, 사회단체; 합법적 정당, 사회단체는 없다.

바레인민족해방전선 바레인의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1956년에 결성된 투쟁단체, **바레인민족동맹** 1953년에 조직

1971년 8월 14일 영국과의 예속적인 《조약》을 파기하고 독립을 선포하였다.

독립을 선포하면서 바레인은 이웃 추장국들과의 친선, 회교국가들 그리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의 협력, 아랍만의 안전과 진보를 위한 노력, 빼앗긴 조국을 찾으려는 팔레스티나인민들의 권리인정 등을 선언하였다.

1971년 8월 15일 영국과 새로운 《우호조약》을 맺었으며 이 조약에 의하여 영국의 해군 및 공군기지들이 바레인에 남아있게 되였다. 바레인에는 근동주둔 《영국군총사령부》가 있다.

1972년 1월 6일 미국과는 미해군의 바레인 기지의 계속 사용을 인정하는 《협정》을 맺었다.

1973년 10월 바레인정부는 미제가 침략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침략자들을 계속 뒤받침하면서 놈들을 침략전쟁확대에로 내몰자 미제와의 군사협정을 페기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제에 대한 석유수출을 전면적으로 중지하였으며 석유값을 올리기로 하였다.

1974년 9월 25일 정부는 민족자원을 지키기 위하여 외국석유회사 주권의 60%를 넘겨받았다.

11월 30일 바레인에서는 아랍석유생산국들과 공동으로 건설하는 대규모의 건도크건설을 시작하는 모임이 있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원유채취와 그 가공업이다.

국민소득의 80%가 원유생산에서 얻어지며 로동인구의 4분의 1이 원유채취 및 가공 부문에서 일한다. 탐사된 원유매장량은 약 1억톤에 달하며 매년 380~400만톤의 원유가 생산된다.

원유채취권은 미일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다.

1974년에 정부는 외국석유회사의 주권의 60%를 넘겨받았다.

또한 이 나라와 부근 나라들에서 생산되는 석유와 사우디 아라비아로부터 보내오는 석유도 정제한다. 바레인섬의 중부에 년산 1천만톤능력의 정유소가 있다.

독립후 년산 12만톤능력의 알루미니움제련공장이 건설되였다. 이 공장 자금의 40%를 바레인정부가 차지하고있다.

이외 공업으로는 약간의 세멘트, 벽돌공장과 진주제품, 일용품, 천 등을 생산하는 수공업공장들이 몇개있다.

농사는 오아시스부근에서 약간 한다. 부침땅은 령토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1만 5천에이커 정도이다. 그중 3분의 2이상은 대추야자농장이다.

주요농산물은 망고, 포도, 귤, 수박 등의 과일과 남새이며 벼도 약간 재배한다. 알곡은 자급자족 못하며 다른 나라에서 사들여온다.

바레인섬은 진주생산지로 이름이 높다. 진주채취의 대부분은 일본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다.

바다가주민들은 물고기잡이도 한다. 그러나 수산물의 대부분은 영국독점자본과 련결된 《바레인피쉬》회사가 독점하고있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이며 철길은 없다. 자동차길은 약 200키로메터이다.

주요수출품은 석유와 진주이며 수입품은 식량, 일용품, 공업제품 등이다. 천, 양복, 가구, 세멘트, 목재, 사탕, 차 등은 이웃 나라들에 재수출하여 리윤을 얻고있다.

주민은 85%가 아랍사람이며 그밖에 이란사람, 인도사람, 파키스탄사람 등이 살고있다. 인구밀도가 1평방키로메터에 340명으로서 중근동에서 제일 높다.

주민의 90%가 회교를 믿으며 기독교와 유태교도 있으나 그 세력은 약하다.

제국주의독점자본의 침투로 인민들의 생활은 매우 어렵다. 바레인로동자들의 평균임금은 백인들의 임금의 10~15%밖에 안된다.

물이 없으므로 대륙으로부터 약 150키로메터의 수도관을 통하여 공급받고있다.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로 교육 및 보건 형편도 매우 뒤떨어져있으나 독립후 점차 개선되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알 자리다 알 라스미야, 알 나즈마르 알 아스부이아, 아월리 매가진

방송 바레인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4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바레인을 방문하였다.

바레인은 유엔총회 제29차회의 정치위원회에서 남조선으로부터 《유엔군》을 철수시킬데 대한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하였다.

까 타 르

(까타르국가)

넓이 2만 2, 014km²
인구 14만명
수도 도하 (주민 10만명)

정 치

추장 할리파 빈 하마드 알 타니 (1972년 2월—)

정부 추장이 총리와 외교부장을 겸하고있다.

정당, 사회단체; 합법적정당, 사회단체는 없고 1964년에《까타르민족투쟁단체》가 결성되여 비합법적으로 활동하고있다.

1971년 9월 1일 영국과의 예속적인 조약을 페기하고 독립을 선포하였다.

독립성명에서 공동의 리익의 호상존중, 호상내정불간섭에 기초하여 모든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맺으며 아랍의 통일을 실현하며 빼앗긴 팔레스티나땅과 아랍땅을 되찾기 위한 아랍인민들의 투쟁에 모든 수단을 바칠것이라고 하였다.

1971년 9월 3일 영국과 새로운《우호조약》을 맺었다.

1972년 2월 22일 황태자 하마드 알 타니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아호메드 알 타니 추장을 내쫓고 정권을 잡았다. 정권을 잡은후 민족군대의《아랍화》를 주장하면서 까타르군대안에 있던 영국인 장교들을 내쫓았으며 일련의 경제개혁을 내놓았다. 또한 군인들과 국가공무원들의 임금을 20% 올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민족경제발전을 위하여 1972년 4월 민족석유회사창설에 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공동의 리익의 호상존중,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 모든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맺으며 아랍의 통일을 실현하며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한 아랍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1973년 10월 중근동전쟁때 싸우는 아랍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미제에 대한 석유수출을 전면적으로 중지하였다.

1974년 11월 추장은 한 모임에서 연설하면서 아랍나라들의 단결은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맞설수 있는 무기이라고 하면서 해방투쟁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아랍대오의 단결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74년에 소말리아 (1월), 브라질 (5월), 아일랜드 (9월) 와 각각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은 원유채취이다. 국민소득의 약 90%가 원유공업에서 들어온다. 탐사된 원유매장량은 약 4억톤이상이다. 원유채굴권은 미제의《까타르석유개발회사》 (2010년까지의 채굴권 가지고있다.), 영국의《까타르쉘석유회사》등이 독점하고있으며 일본석유독점체들의 침투도 강화되고있다.

농업은 뒤떨어져있으며 주민의 대부분이 반정착생활을 하는 유목민이다.

알곡작물로는 강냉이를 약간 심고있으며 남새와 과일을 생산한다.

바다가주민들은 고기잡이와 진주채취도 한다.

철길이 없으며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주요수출품은 원유와 진주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소비품, 자동차 등이다.

주민은 대부분이 아랍사람이며 그외 인도사람, 이란사람, 토이기사람, 아프리카사람 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아랍말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를 믿는다.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주민들의 생활수준과 문화수준은 낮다. 독립후 정부의 조치로 점차 나아지고있다.

1950년대초까지만 해도 단 하나의 학교도 없었으나 약 80여개의 소학교가 건설되였다.

출판보도; 신문 알 아압

방송 까타르방송, 까타르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9월 우리 나라가 까타르를 승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이 나라 신문《알 아압》1973년 4월 16일호가 실었다.

까타르는 유엔총회 제29차회의 정치위원회에서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결의안의 표결에서 결석하였다.

아랍추장국

(아랍추장국련방)

아라비아반도의 동남쪽 페르샤만의 입구에 있는 7개의 추장국 (아부 다비, 두바이, 푸쟈이라, 샤르쟈, 아즈만, 움알꾸와인, 라스 알 카이마호) 으로 이루어졌다.

넓이 8만 6, 300km²
인구 30만 3, 000명 (1974년)
수도 아부 다비 (주민 10만명)

정 치

련방최고회의 련방의 최고기관이다. 다수가결로 문제를 결정하는데 아부 다비와 두바이가 거부권을 가진다.

자문기관으로서 34명으로 구성된 평의회가 있는데 아부 다비와 두바이에서 각각 8명, 샤르쟈에서 6명 기타 3개국에서 각각 4명씩 참가하고 있다. (라스알 카이마호는 의석배정후에 련방에 가입)

대통령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하얀 (1971년 12월—)

정부 총리 마크툼 빈 라쉬드 엘 마크툼, 외교부장 아흐마드 할리파 엘 수와이디, 국방부장 모하메드 빈 라쉬드 엘 마크툼

1971년 12월 1일 6개의 추장국이 영국과의 보호조약을 페기하고 련방을 창설하였으며 2일 독립을 선포하였다. 1972년 2월 라스 알 카이마호추장국이 련방에 가입하였다.

1971년 12월 2일 영국과 새로운 조약을 맺었다. 협정에 의하여 영국은 일부 군사기지들을 그대로 가지고있다.

1974년 7월 29일 아랍추장국은 사우디 아라비아와 국경분쟁 해결을 위한 협정을 맺었다.

두 나라간에는 부라이미샘터의 소유권문제를 둘러싸고 12년간 국경분쟁이 계속되여 왔다.

8월 21일 두 나라는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12년간의 국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아랍추장국은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며 아랍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1973년 10월 미제와 이스라엘 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아부다비는 싸우는 아랍인민을 지지하여 미제에 대한 석

유수출을 중지하였다.

1974년 11월 대통령은 출판물에 준 성명에서《아랍추장국은 전체 아랍민족의 투쟁이기도 한 수리아의 투쟁에서 자기의 모든 병력을 수리아의 처분에 맡길것이다》라고 하면서 수리아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1974년에 대통령은 파키스탄(3월), 튜니지(8월), 마로끄(8월), 수리아(11월)를 방문하였다.

이해에 잠비아(11월), 사우디아라비아(8월)와 새로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외래독점체들에 의한 원유채취이다. 재정수입의 대부분이 원유수출에서 얻어지고있다. 원유채취권은 미국, 영국, 일본, 서독, 프랑스, 이딸리아 등 제국주의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다. 년간 원유생산량은 6천 270만톤(1973년)이다. 1974년에 정부는 서방제국주의자들의 석유독점체인《아부—다비 페트롤 캄파니》회사 주권의 60%를 국가의 통제하에 넣기로 하였다.

농업은 오아시스에서의 농사가 기본이다. 따라서 부침땅은 얼마 안되는데 그 땅은 추장들이 가지고있다.

주요 농산물은 대추야자, 강냉이 등이다.

주민의 10~15%는 목축업을 한다. 락타를 많이 기른다.

해안지대주민은 고기잡이와 진주채취를 한다.

련방형성이후 매개 추장국들에서는 원유수출에 의한 수입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일련의 경제발전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철길이 없으며 변변한 도로도 없다. 자동차길을 닦고 주요항구를 개건확장하는 사업에 주목이 돌려지고있다. 두바이는 32개소의 정박여유시설과 대형유조선을 위한 전도크를 하나 가지는 큰 항구로 확장되고있다. 두바이항은 관세를 받지 않는다.

주요 수출품은 원유와 그외 진주, 수산물이며 수입품은 공업설비, 운수수단, 식량, 일용품 등이다.

재정은 각 추장국에서 석유수입의 10%씩 담당한다.

각 추장국들은 발전수준에서 차이가 있다. 아부다비는 인구 1인당 국민소득이 년간 8천딸라로서 세계에서 제일 높다. 샤르쟈는 하루에 10만바렐의 석유를 채취하고있는데 이것은 두바이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쟈를 제외한 4개의 추장국은 원유가 나지 않는 가난한 나라들이며 부유한 이웃추장국의 원조에 의거하고있다. 어촌에 불과하다.

주민은 대부분이 자와손족, 아부아리족, 아부파라살족을 기본으로하는 아랍사람들이다.

공용어는 아랍말이다.

교육은 지방에서 자체로 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잡지 알 아이암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12월 우리 나라가 아랍추장국을 승인하였다.

1973년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잡지《알 아이암》이 실었다.

아랍추장국은 유엔총회 제29차회의 정치위원회에서 남조선으로부터《유엔군》을 철수시킬데 대한 결의안표결에서 기권하였다.

오 만

넓이 21만 2, 457km²
인구 75만명(1971년)
수도 마스까트(주민 약 1만명)

정 치

추장 추장은 실권을 못가지고있다. 추장국의 대내외정책은 추장국주재영국총령사에 의해 결정된다. 추장 가부스 빈 사이드(1970년 7월—)

정부 총리 사이드 타리크 빈 타이무드(1970년 8월—), 외교부장 알 자와위

정당, 사회단체; 오만해방인민전선 1971년 12월 20일 강점된 아랍만해방인민전선과 오만민족해방전선을 통합하여 통일적인 중앙조직인 오만 및 아랍만해방인민전선을 창건, 1974년 7월 제2차전국대회에서 이름을 오만해방인민전선으로 고침, 강점된 아랍만해방인민전선 1965년에 창건, 도파르지역에서의 무장투쟁을 지도, 오만민족해방전선(오만및 아랍만민족민주주의해방전선) 1970년 6월에 조직, 제벨 아호다르산지역에서 무장투쟁을 지도. 이외 강점된 아랍만해방인민전선아래에 청년조직, 녀성조직이 있다.

18세기말엽부터 오만은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쟁탈의 대상으로 되였다.

1839년과 1891년에 영식민주의자들은 오만에 예속적인 조약을 강요하여 제놈들의 지배를 강화하였다.

1913년 오만의 내륙지방인민들이 반영봉기를 일으켜 회교교주국을 세우고 독립을 선포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1939년과 1951년에 마스까트오만과《우호통상및항해조약》,《우호조약》을 강요하여 제놈들의 예속밑에 넣었다.

1955년 12월 영제국주의자들은 마스까트오만을 사촉하여 회교교주국을 반대하는 내란을 일으키게 하고 제놈들의 무력을 직접 동원하여 회교교주국을 강점하고 마스까트오만에 병합시켰다.

1958년 7월 영제국주의자들은 마스까트오만과《군사협정》을 맺고 제놈들의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설치하였으며 이 나라 군대의 통수권을 장악하였다.

1965년에는 마스까트오만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구실밑에 제놈들의 륙해공군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였다.

1970년 7월 23일 타이무르추장의 아들 가부스 빈 사이드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고 처음으로 내각을 조직하였다.

1974년 10월에 오만해방전선의 활동을 진압할 목적으로 오만정부의 요청으로 파견되였던 1천 200명의 이란군대가 철수하였다.

오만정부는 1973년 10월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지원하고있는 미제와 화란에 대한 석유수출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1973월 6월에는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오만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 오래전부터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여오던 오만인민들은 1963년 서부의 도파르지역에서 봉기를 일으키고 영침략자들과 그 괴뢰들을 반대하여 싸웠다.

1965년에는《도파르해방전선》이 창건되였으며 이해 6월 9일에는 이 전선의 지도밑에 도파르지역에서 무장투쟁이 시작되였다.

1968년 9월《도파르해방전선》제2차대회에서는 이 조직의 이름을《강점된아랍만해방인민전선》으로 고

쳤다.

이 전선은 무장투쟁에 의한 나라의 해방과 노예제도의 근절, 토지개혁의 실시, 자연부원의 국유화, 민주주의적인 오만국가의 건설을 투쟁강령으로 내세우고 적들을 호되게 족쳐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1972년초 이미 도파르주민의 98%를 적들의 통치기반에서 해방하였다.

1970년 6월에는 《오만민족해방전선》이 창건되여 제벨 아호다르산에서 무장투쟁을 벌리고있다. 1971년 12월 20일 오만에서 활동하고있는 투쟁단체들이 련합대회를 열고 민족해방투쟁의 통일성을 이룩하기 위하여 중앙조직인 《오만및아랍만해방인민전선》을 창설하고 반제반봉건투쟁강령을 채택하였다.

1974년 1월 11일 오만및아랍만해방인민전선기관지 《사우트 알 사우라》는 도파르에 대한 이란의 간섭을 배격할것을 애국적인 아랍나라들에 호소하였다.

7월 도파르해방지역에서 오만및아랍만해방인민전선 제2차전국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는 아라비아반도의 동남부와 아랍만지역의 정치정세를 토의하고 현단계에서 전선앞에 나선 과업을 규정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 지적된 전선의 기본과업은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통치로부터 오만을 해방하고 완전한 독립을 이룩하며 통일되고 민주주의적인 주권국가를 창설하는것이다.

대회에서는 오만및아랍만해방인민전선을 오만해방인민전선으로 고쳐 부를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전선의 지도기관들을 선거하였다.

8월 5일 오만및아랍만해방인민전선은 제국주의침략에 의하여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이 전선을 분권화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해당 지역의 정치정세에 비추어 정책을 세울 권리를 지역지도부들이 가지게 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90%가 농업과 목축업을 한다.

농업은 주로 오아시스근방에서 하는데 얼마안되는 부침땅마저 지주와 통치배들이 독점하고있다.

주요 농산물은 대추야자, 밀, 보리이며 그외 목화, 담배, 남새 등을 생산한다.

고원과 사막지대에서는 락타, 염소 등을 기른다.

바다가 주민들은 물고기잡이도 하며 중계무역에도 종사한다.

공업은 원유채취업외 다른것은 거의 없다. 채굴권은 《이라크석유회사》(미, 영, 프, 화란의 독점체)의 분회사인 《오만석유회사》가 거의 독점하고있다. 원유생산은 1천 500만~1천 700만톤 정도이다.

철길은 없고 약 400키로메터에 달하는 자동차길이 있다. 고원지대와 사막지대에서는 락타가 주요운수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원유, 대추야자, 물고기, 락타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식량, 천, 사탕, 운수수단, 일용품 등이다.

주민은 대부분이 아랍사람이며 그밖에 인도사람, 이란사람, 아프리카사람 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아랍말이다.

주민의 95%가 글을 모른다.

오랜 기간의 식민지통치결과 인민들의 생활수준은 매우 낮다.

주민의 60%이상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사우트 알 사우라 (오만및아랍만해방인민전선기관지), 쏘트 알 샤아브 (강점된아랍만해방인민전선기관지), 알 와판 (정부가 내는 주간지)

잡지 6월 9일 (강점된 아랍만해방인민전선기관잡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반미세계기자대회에 강점된아랍만해방인민전선대표단이 참가하였다.

1970년 5월 강점된아랍만해방인민전선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 전선대표단은 1971년 6월 사로청 6차대회에도 참가하였다.

오만정부는 유엔총회 제29차회의 정치위원회에서 남조선으로부터 《유엔군》을 철수시킬데 대한 결의안 표결에서 반대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방해하였다.

민 주 예 멘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넓이 28만 7, 683km^2
인구 180만명(1972년)
수도 아덴 (주민 25만명)

정 치

대통령리사회 1969년 6월 시정조치후 조직된 최고지도기관. 1971년 8월 민족전선중앙위원회 총비서, 정부총리를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 (1969년 6월—)

림시최고인민회의 민주주의적인 최고립법기관, 101명으로 구성. 상임위원회 위원장 아브둘 파타흐 이스마일 (1971년 5월—)

정부 총리 겸 보위부장 알리 나쎄르 무함마드 하싸니 (1971년 8월—), 외교부장 무함마드 쌀레흐 무티으

정당, 사회단체; **민족전선** 1963년 8월 9일 민족해방전선 (독립후 이름을 고침)으로 창건되여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독립후 민족민주주의혁명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조직, 총비서 아브둘 파타흐 이스마일, 로동조합총련맹, 청년련맹, 녀성련맹

1967년 11월 30일 4년이상에 걸치는 무장투쟁을 통하여 129년간의 영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정부는 경제, 군사 분야에서 식민지잔재를 가시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1967년 12월 군대내에서 영제국주의군사관리들과 왕족출신의 장교들을 몰아냈다.

1968년 3월에는 봉건령주, 반동지주들의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땅없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

민주예멘에서 혁명이 심화되고 반제자주의 길로 나가자 제국주의자들의 부추김밑에 우익반동세력들은 또다시 식민주의자들을 끌어들이려고 책동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1969년 6월 22일 우익반동세력을 청산하는 시정조치를 취하였다.

시정조치후 민주예멘정부는 낡은 식민지통치기구를 청산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면한 민주예멘인민은 1969년 6월 시정조치이후…낡은 식민지통치기구를 청산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오늘 새 5개년계획의 성과

적수행을 위하여 계속 힘차게 투쟁하고있습니다.》

1969년 11월 27일 지주, 독점체들의 재산과 은행들을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은행, 석유회사, 상업 및 보험회사들을 국유화하였으며 대외무역의 주요부문을 국가의 통제밑에 넣었다.

1970년 11월 5일에는 두번째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고 봉건령주들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1970년 11월 30일에는 이 나라 력사상 첫헌법을 채택하고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헌법에서는 현단계에서의 혁명의 성격을《민족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이를 당면 과업으로 내세웠으며 장차로는《과학적사회주의》를 건설할것을 규정하였다.

1972년 5월 민족전선 제5차대회에서는 외래독점체들의 경제적예속에서 벗어나며 봉건주의를 청산하며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며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기 위한 민족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민족전선의 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

민주예멘인민은 1974년 4월부터 경제 및 사회 발전 새 5개년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및토지개혁부 일군들은 매달 하루를 무보수로 일하기로 결정하고 이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대외적으로는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쁠럭불가담정책을 견지하고있으며 제국주의와 유태복고주의를 반대하고 팔레스티나를 비롯한 빼앗긴 아랍땅의 완전한 해방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1973년 10월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정부성명을 발표하여 애급과 수리아에 자기의 모든 예비를 다 제공할것이라고 언명하였으며 지원병파견을 위한 등록사업을 하였다.

또한 미제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1974년 3월 16일 아르헨띠나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1월에는 중국과 경제및기술협조협정을 맺었다.

또한 이해에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가 이라크(5월), 수리아(5월), 벌가리아(7월), 쏘련(7월), 소말리아(8월), 독일민주주의공화국(8월), 애급(9월), 중국(11월), 웰남(11월)등을 방문하였다.

애급을 방문한 쌀림 루바이아 알리 위원장은 한 담화에서 전체 아랍땅에서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이 세차게 벌어져야 한다는것을 강조하면서《민주예멘은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거만한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아랍의 주되는 장소로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90%가 농목축업을 한다. 부침땅은 12만 1천여헥터에 달한다.

주요 농산물은 목화이며 그밖에 담배, 밀, 참깨, 남새 등이다.

년평균 목화는 7천 500~8천톤, 기장과 수수는 6만여톤, 참깨는 3천톤 그리고 30만톤의 남새와 과일, 30만파운드어치의 담배를 생산하고있다.

토지개혁이 실시되여 농촌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농업협동조합들이 조직되고 농업생산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지원이 강화되였으며 관개공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였다.

3개년계획(1971~1973)기간 전국각지에 717개의 우물을 파고 제방을 쌓았다.

그리하여 전국적으로 관개된 땅은 독립전에 비하여 1만 9천페단이나 늘어났다.

1974년 2월 10일에는 메이파하쟈르 제1계단 관개공사가 준공되였다.

농업협동조합에 속해있는 부침땅은 전체 부침땅의 절반이상을 넘는다.

1974년부터 새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섰는데 이 기간에 정부는 땅개간사업을 적극 벌려 부침땅을 현저하게 늘이며 농산물생산을 54.5% 더 높임으로써 농산물에 대한 국내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것을 예견하고있다.

주요 집짐승은 소, 염소, 당나귀, 락타 등이다.

민주예멘 정부와 인민은 자력갱생의 구호밑에 나라의 민족공업의 토대를 쌓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세멘트공장, 방직공장, 가죽공장, 담배공장, 농산물가공공장, 알루미니움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건설되였다.

경제발전 3개년계획(1971~1973)기간에 만도 30여개의 공장들이 건설되였다.

이 기간 정부는 공업발전에 972만 5천여디나르의 자금을 투자하였다.

또한 정부는 계획화사업을 강화하고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일상적인 국가적지도를 진행함으로써 생산의 무정부성을 없애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새 5개년계획기간에 공업은 1973년에 비하여 164% 늘어나게 된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은 없고 바다가와 서부지역에 2천 500키로메터의 자동차길이 있다.

아덴항은 인도양과 홍해를 련결하는 중계무역항이다.

주요수출품은 목화, 천, 말린 물고기, 가죽, 커피, 소금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기계, 각종 금속류 기타 공업제품, 의약품 등이다.

주민들은 대부분이 아랍사람이며 그밖에 인도사람, 소말리아사람, 영국사람이 있다.

공용어는 아랍말이다.

민족교육과 민족문화건설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1972—1973학년도에 학생수는 독립당시의 거의 4배에 가까운 20만 8천여명으로 늘어났다.

5개년계획의 마지막해에 가서 그 수는 34만 4천여명에 달하게 된다.

3개년계획기간에 병원수는 2배로 늘어났다.

1974년 아덴에 첫 국립극장이 개관되였으며 이 나라에서의 첫 체육학교가 창립되였다.

민족문화건설을 위하여 영어사용을 금지하였으며 부르죠아생활양식을 설교하는 책과 영화를 회수하고 극장들에 대한 검열제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아덴통신

신문 아르바아타 아샤라 옥뚜브르(정부기관지), 앗 싸우라, (민족전선기관지), 싸우트 움말, 타우라

방송 국립방송, 아덴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2월 17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9년 5월 5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6월에는 우리 나라가 민주예멘에 경제적원조를 줄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1971년 4월에는 우편업무에 관

한 협정,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 우리 나라 방송위원회와 민주예멘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국사이에 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분야에서 서로 협조할데 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1974년 11월 22일 우리 나라가 민주예멘에 경제및기술적원조를 줄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1973년 3월 26일에는 평양시와 1도사이의 친선적련계설정에 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1973년 1월 24일에는 아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회관이 개관되였다.

1972년에 민주예멘에는 우리 나라의 원조로 농기구수리공장이 건설되였으며 1974년 2월 10일에는 우리 나라가 건설해주는 제5도 메이파하쟈르관개공사 1계단통수식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민주예멘인민들은 아덴항구로동자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학생전국총동맹 아덴시타와이지부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아덴시교원들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등을 무었다.

또한 이 나라의 신문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널리 소개선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를 신문《싸우를 움말》 11월 17일호가 실었다.

공화국창건 26돐에 즈음하여 민주예멘에서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행사들이 진행되였다.

9월 7일 아덴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회관에서는《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사진전람회가 진행되였으며 11월에는 기념강연회와 예술공연이 있었다.

7월 28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21돐에 즈음하여 아덴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과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이다》라는 제목의 강연을 진행하였다.

11월 17일 아덴텔레비죤방송은 《속도전의 불길 높여 사회주의건설에서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라 영웅적로동계급의 투쟁소식을 보도하는 특별방송을 하였다.

민주예멘정부는 창건 첫날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조선에서의 유일한 합법적국가로 인정하고 남조선괴뢰도당을 철저히 배격하면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적극 지지하여 투쟁하고있다.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는《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하여》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의 립장을 지지하여 찬성투표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서는 《민주예멘조선친선주간》을 설정하고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모임, 사진전람회, 기념강연회, 예술공연, 영화감상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신문《아르바아타 아샤라 욱투브르》7월 30일호는《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탄압책동에 대한 분노와 규탄》이라는 제목으로 남조선의 애국적민주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을 규탄하는 글을 실었다.

1974년 11월 18~22일까지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1월 1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쌀림 루바이아 알리위원장과 회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1월 21일 쌀림 루바이아 알리위원장과 대표단성원들에게 훈장과 메달을 수여하시였다.

1974년에 민주예멘에서 청년동맹대표단(4월), 외교부의례국장부부(6월), 유치원교육대표단 (11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3월 우리 나라 사로청대표단이 민주예멘을 방문하였다.

예 멘

(예멘아랍공화국)

넓이 19만 5,000km²
인구 700만명(1972년)
수도 사나(주민 12만명)
제2수도 타이즈(주민 8만명)

정 치

지도리사회 1974년 6월 13일 7명으로 구성된 나라의 최고기관. 10월 21일 지도리사회의 성원을 6명으로 줄임. 6월 19일에 발표된 림시헌법에 의하면 지도리사회가 립법 및 행정권을 가진다.

위원장 이브라힘 엘 함디(1974년 6월 13일—)

정부 1974년 6월 22일 20명으로 구성, 11월 22일 내각개조, 총리 모호쎈 알 아이니, 외교부장 야히아 쟈말

정당, 사회단체; 1974년 6월 14일 유일당인 인민혁명당을 해산하기로 결정

예멘인민은 1962년 9월 26일 혁명을 일으켜 예멘아랍공화국을 선포하고 공화제도를 세웠다.

공화국선포후 미영제국주의자들은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하여 쫓겨난 예멘왕당파, 사우디 아라비아, 요르단 반동들을 긁어모아 무력간섭을 감행하였다. 1964년 11월 정화협정이 체결되였으나 이러한 반란은 계속되였다. 1970년 3월 예멘정부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지다에서 사우디 아라비아, 예멘왕당파간에 내란을 끝장낼데 대한《정화협정》이 체결됨으로써 8년간에 걸치는 내란은 일단 끝나고 공화파와 왕당파간에《화해》가 이루어졌다.

1967년 11월 5일 군사정변으로 살랄정권이 무너지고 알 이리야니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화리사회가 창설되였다.

1970년 12월 새 헌법이 공포되였으며 1971년 3월에는 총선거가 진행되여 4월 공화파, 왕당파, 추장파를 비롯한 각이한 정치세력을 망라한 협상리사회가 창설되였다.

1974년 6월 13일 예멘군부사령관이던 엘 함디가 정변을 일으키고 7명으로 되는 지도리사회를 조직하였다.

6월 14일에는 지도리사회와 내각합동회의를 열고 군총사령부를 해체하며 의회의 기능을 정지하며 지도리사회의 성원을 7명으로부터 10명으로 늘이며 헌법을 정지하며 군인들의 봉급을 늘이며 나라의 유일정당인 인민혁명당을 해산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6월 19일 지도리사회는 이전총리 모호쎈 알 아이니(1967~1972년까지 3차례나 총리로 있었다.)를 총리로 임명하였으며 지도리사회가 립법 및 행정권을 가진다는것을 규정한 림시헌법을 발포하였다. 림시헌법은 예멘을《아랍국가의 일부인 독립된 아랍회교공화국》으로 선포하였다.

6월 24일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새정부는 동방과 서방의 모든 나라들과 친선과 협조관계를 강화할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두 예멘을 통합하기 위하여 민주예멘과 회담을 계속하려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나라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6월 22일 군사관등급의 최고수준을 소좌로 하기로 하였으며 7월 10일에는 맡은바 사명이 이미 끝났거나 또 끝나게 되여있는 외교관들은 귀국하게 하며 외교부내의 승급도 2년간 정지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10월 23일 새 지도리사회가 구성되였다. 새 지도리사회는 정변당시에 금지되였던 헌법을 다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도리사회의 임기를 6개월간 더 늘이기로 하였다. 또한 지도리사회의 성원을 10명으로부터 6명으로 줄였다.

11월 6일 헌법이 다시 효력을 발생하여 정변후 처음으로 국민의회가 소집되였다.

1974년 11월 20일 예멘은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또한 이해 7월에 엘 함디위원장이 사우디 아라비아, 애급을 각각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90%이상이 농업과 축산업을 한다. 부침땅은 약 230만헥타이며 2～3모작 한다.

주요농산물은 수수 (알곡생산의 90%차지), 보리, 밀, 강냉이, 목화, 커피, 야자, 종려 등이다. 수수는 년평균 90만～120만톤, 목화는 5천톤, 커피는 4천톤정도 생산된다.

축산업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로 동북고원지방과 바다가지방에서 양, 염소, 락타, 노새 등을 기른다.

주요지하자원은 금, 은, 찌단, 망간, 석탄, 쇠돌, 동, 류황, 석회석 등이다.

혁명후 알루미니움공장, 방직공장, 비료공장, 제철소, 세멘트공장, 식료공장 등이 건설되였다.

공업에서는 금, 은, 보석 등의 세공업과 기타 일용품을 만드는 가내수공업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철길은 없고 자동차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령토의 대부분이 산지와 고원으로 되여있으므로 자동차길을 닦는것이 급한 문제로 나선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목화, 집짐승, 소금이며 주요수입품은 목재, 식료품, 식량, 공업제품 등이다.

주민은 대부분이 아랍사람이며 이란사람, 소말리아사람 등이 있다.

공용어는 아랍말이다.

교육문화발전을 위하여 1970년부터 교육발전5개년계획을 수행하고있다. 이 기간에 38개의 소학교와 3개의 중학교, 3개의 교원대학을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주민의 90%이상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 통신 예멘통신

신문 알리싸라, 알 싸아브, 알 와하다

방송 사나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3년 3월 9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4년 9월 18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1970년 11월 10일 사나시고급중학교 학생들이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무었다.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인《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유고슬라비아신문 〈웨체르니에 노보스띠〉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딸리아공산당기관지 〈우니따〉지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나라신문《알리싸라》8월 31일, 9월 14일, 11월 10일호가 각각 실었다.

예멘인민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제29차유엔총회 정치위원회에서 남조선으로 부터 〈유엔군〉을 철수시킬데 대한 결의안에 찬성투표하였다.

1972년 7월 27일부터 8월1일까지 모흐쎈 알 아이니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1974년 5월에는 협상리사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토 이 기

(토이기공화국)

넓이 78만 576km²
인구 3,900만명(1973년말)
수도 앙까라 (주민 164만명)

정 치

국회 (대국민회의) 상하량원제, 상원은 187석 (그중 150명은 선거, 15명은 대통령이 임명, 22명은 종신) 이며 임기는 6년이다. 2년에 한번씩 의원의 3분의 1을 개선한다. 하원 (국민의원) 은 450석이며 임기는 4년이다. 1973년 10월 14일 총선거결과 주요정당들의 하원의석배석수는 인민공화당 185석, 정의당 149석, 민족구원당 48석, 민주당 4석, 신임당 13석 기타 10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상원의 52석에 대한 선거결과를 보면 인민공화당 25석, 정의당 22석, 민족구원당 3석, 신임당 1석 기타 1석이다.

대통령 국가원수로서 상하량원합동회의에서 3분의 2이상의 다수표로 선거되며 임기는 7년이다.

대통령 파호리 코르튜르크(1973년 4월 6일—)

정부 1974년 11월 17일 구성되였으나 11월 29일 국회에서 부결되였다.

총리 사디 이르마크, 외교부장 헬리흐 에센벨, 국방부장 일하끼 산카르

정당, 사회단체 ; 공산당 1920년 9월에 창건, 1925년에 비법화, 제1비서 야꾸브 데미르, 인민공화당 1923년에 창건, 부르죠아지들과 지주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친미우익정당, 정의당 1961년에 조직

1923년 10월 29일 왕권을 타도하고 부르죠아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공화국선포후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및 문화의 각 분야에 걸쳐 일련의 《개혁》들을 실시하였으나 본질적인 변화는 가져오지 못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미제국주의에 적극 추종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과 중근동나라 인민들을 반대하는 미제의 충실한 도구로 굴러떨어졌다.

1947년 7월에는《트루맨주의》에 의한《원조협정》을, 1948년 7월에는《마샬안》에 의한《경제협조협정》을, 1949년에는 《문화협조협정》을 미제와 맺었다.

그후 토이기반동정부는 침략적인 나토 (1952년) 와 쎈토 (1955년) 에 가담하였으며 1962년에는 서독군국주의자들과 《군사원조협정》을 맺었다.

앙까라에는 쎈토의 사무국이 있으며 이즈미르에는 나토의《동남부군사령부》와《제6전술공군(동남공군) 사령부》가 도사리고있다.

이밖에도 미제는 토이기에 각종 불

평등조약을 강요하여 수많은 침략적군사기지들을 설치하고 사회주의나라들과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군사침략기지로 리용하고있다.

또한 토이기는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고용병 (5천명) 을 보내여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1974년에 토이기에서 정치적불안정은 더욱 심해졌다.

이해 토이기에서는 집권을 위한 정당들간의 대립으로 년중 정부위기가 계속되였다.

1973년 10월 국회선거에서 인민공화당이 450석중 185석을 차지함으로써 정부를 구성할 권한을 이 당의 당수 에체비트가 가졌으나 3개월간의 정부위기끝에 1974년 1월에 와서야 인민공화당이 민족구원당과 련합하여 정부를 구성하게 되였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 끼쁘로스사태발생후 끼쁘로스에 대한 나라의 정책문제를 둘러싸고 련립당과 충돌하였으며 정부내에서는 의견상이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복잡한 정세밑에서 9월 18일 총리 에체비트는 새로운 련립내각을 꾸며보려고 두번이나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1월 17일 무소속상원의원들과 기술전문가들로 구성된 새 내각이 구성되였으나 11월 29일 국회에서 326대 11로 부결되였다.

이리하여 에체비트사임이후에도 토이기의 내부정세는 수습되지 못하였으며 더욱더 심한 난국에 빠진채 해를 넘겼다.

대외적으로 토이기정부는 미제와 회랍반동들이 끼쁘로스인민을 반대하는 반동적인 군사정변을 조작하자 토이기계주민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7월 20일 비행기와 40여척의 군함을 동원하여 끼쁘로스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토이기군과 토이기계끼쁘로스사람들은 회랍장교들이 이끄는 끼쁘로스방위군과 《에오카—비》를 대상으로 하여 치렬한 싸움을 벌리였으며 두 나라사이에는 전면전쟁이 일어날 위협이 조성되였다.

7월 22일《유엔안보리사회》결의에 따라 토이기와 희랍간에는 일단 정화가 이룩되였으며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제네바에서는 끼쁘로스문제해결을 위한 3개국 (토이기, 희랍, 영국) 외교부장회의가 진행되였다.

8월 8일부터 끼쁘로스문제해결을 위한 제2차제네바회담이 진행되였으나 끼쁘로스문제를 둘러싼 토이기 (토이기계끼쁘로스사람들의 자치지대를 형성할것 주장) 와 희랍간의 대립으로 회담은 파탄되고 토이기군대와 희랍군대사이에 또다시 무장충돌이 일어났다.

8월 14일 토이기정부는 군대에 공격을 명령했으며 3일만에 동부끼쁘로스의 모고사로부터 서부끼쁘로스의 레프카에 이르는 40%의 령토를 점령하였다.

토이기의 군사행동의 재개와 관련하여 8월 14일 유엔안보리사회는 군사행동의 즉시 중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16일 토이기총리는 끼쁘로스전전선에서 전쟁을 중지할것을 명령하였다.

9월 20일부터 포로교환사업이 진행되였으며 11월 7일부터는 토이기군대가 끼쁘로스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1974년에 토이기는 방글라데슈 (4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6월) 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으며 8월 2일에는 기네—비싸우공화국을 승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절반이상이 농사한다.

부침땅은 전체 령토의 28.4%를 차지하며 그 70%이상은 지주, 부농들이 가지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강냉이, 목화, 담배, 커피, 포도, 올리브 등이다.

1973년에 가물로 농산물생산이 떨어졌다.

특히 담배, 포도 등 수출작물생산이 떨어졌다.

1973년에 밀은 1천 50만톤, 목화는 약 59만톤 생산되였다.

목축업도 농업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

방목지는 전체 부침땅의 38.3%를 차지한다.

1973년 6월 토지 및 농업개혁법이 발포되였다.

그리하여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주게 되는데 농민들은 국가은행을 통하여 20년동안에 땅값을 모두 물어야 한다.

공업에서 기본은 광업과 경공업이다.

광업은 국민소득의 15%를 차지하며 로동인구의 12%가 이 부문에서 일한다.

주요지하자원은 석탄, 크롬, 동, 쇠돌, 망간, 연, 아연, 석유 등이다.

이 나라에는 14개의 석유회사들이 있는데 주권의 78%를 미제독점자본이 틀어쥐고있다.

1973년에 석유는 350만톤, 쇠돌은 200만톤, 석탄은 800만톤 생산되였다.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석유로는 국내수요의 50%밖에 충족시키지 못한다.

제철 및 제강, 기계, 세멘트, 화학 및 석유화학공업도 있다.

1973년에 선철은 90만톤, 강철은 130만톤, 세멘트는 880만톤, 전력은 104억키로와트 생산되였다.

석유가공공장들의 능력은 1천 470만톤에 달하였다.

경공업부문에서 중요한것은 담배, 종이, 유리, 도자기, 가죽, 식료가공, 양탄자제조 공업이다.

양탄자는 이란의 양탄자와 함께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있다.

운수에서는 철도 및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철도의 길이는 8천 135키로메터이다.

주요항구는 이즈미르, 이스딴불등이다.

자동차운수의 의의도 점차 커지고있다.

포장도로는 1만키로메터를 넘는다.

1973년 10월 이스딴불지역에서 구라파와 아세아를 련결하는 1천 560키로메터의 첫 허궁다리가 준공되였다.

주요수출품은 크롬광, 담배, 말린포도, 집짐승, 목화, 과일, 올리브이며 주요수입품은 금속제품, 기계, 화학제품, 원유제품 등이다.

1973년에 수출에서 공업품의 몫은 처음으로 33.8%에 달하였다.

대외무역에서는 독일련방공화국과의 무역이 첫 자리를 차지한다.

나라의 재정형편은 계속 안정되지 못하고 통화팽창이 심해지고있다. 1973년에 물가는 거의 30%나 올랐으며 1974년초에 또다시 50% 뛰여올랐다.

특히 천값은 151%, 식료품값은 43.3%, 연료는 33.4%, 공업제품은 14%, 건재는 10.9% 올랐다.

뛰여오르는 물가는 근로자들의 생활에 엄중한 후과를 미쳤다.

식구 4명있는 도시가정에서는 식료품값만하여도 1천 577리라가 요구되는데 공업로동자의 월평균로임은 900리라에 불과하다.

상시적으로 200만명의 실업자가

있다.

주민은 80%가 토이기사람이며 그밖에 쿠르드사람, 희랍사람, 그루지야사람 등이다.

공용어는 토이기말이다.

주민의 3분의 2가 글모르는 사람이다.

출판보도; 통신 아나돌리에통신

신문 올루스 (인민공화당기관지), 아달레트 (정의당계), 쑴 후리에트, 후리에트

방송 앙까라방송, 라지오및텔레비존방송

끼 쁘 로 스

(끼쁘로스공화국)

넓이 9, 251km²

인구 64만 5, 000명 (1973년 12월)

수도 니코시아 (주민 11만 8, 000명, 1973년 12월)

정 치

국회 일원제, 임기는 5년, 총의석 50석중 희랍계주민공동체에서 35명, 토이기계주민공동체에서 15명을 각각 선거한다.

대통령은 희랍계사람, 부대통령은 토이기계사람 중에서 선출한다.

대통령 마카리오스 (1960년 8월— 1973년 2월 재선)

정부 1975년 1월 14일 새 내각 구성, 외교부장 존클 그리스토피데스, 내무부장겸 국방부장 크리스또드로스 벤쟈민

정당, 사회단체; 근로인민진보당 1926년에 공산당으로 창건되였다. 1941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고침, 총비서 에제키아스 파파이오안누, 민족주의자통일당, 진보개혁전선, 토이기공화당 전끼쁘로스로조련맹, 통일민주청년조직, 녀성련맹

끼쁘로스는 1960년 10월 1일 영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하였다.

그러나 1959년에 영국, 희랍, 토이기간에 체결된 굴욕적인 협정 (영국은 99평방마일의 군사기지를 빼앗았으며 희랍과 토이기는 각각 침략군을 주둔시키게 되였다) 과 1960년 식민주의자들이 꾸며낸 《헌법》에 의하여 나라의 자주권은 심히 유린당하였다.

1963년 11월 마카리오스대통령은 비법적으로 강요된 3개국《협정》과 소수민족인 토이기계주민들에게 많은 권리를 준《헌법》의 페기를 선포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영제국주의자들은 끼쁘로스반동들을 부추겨 1963년 12월 희랍계주민과 토이기계주민들간에 류혈적인 충돌을 일으키게 하고 1964년 3월《질서유지》라는 미명밑에 8개추종국가군대로《유엔평화유지군》(1973년현재 2천 700명) 이란것을 조작하고 이 나라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하였다.

또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지중해 섬나라를 사회주의 나라들과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나토의 완전한 침략적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무장간섭을 강화하고 희랍계주민들과 토이기계주민들 사이에 불화와 반목을 격화시킴으로써 이 나라의 민족적통일단결을 방해하였다.

미제는 1971년에 리비아에서 침략적군사기지를 잃은 후부터는 이 나라를 제놈들의 침략적인 군사기지로 만들려고 미쳐날뛰였다.

또한 영제국주의자들은 말따로부터 제놈들이 쫓겨나게 되자 거기에 있던 제놈들의 비행대를 끼쁘로스의 아크로티리기지에 끌어들였다.

희랍과 토이기는 끼쁘로스에 있는 자기 민족들의 리익을《보호》한다는 구실밑에 자기 민족들이 사는 지역에 각각 군대들을 주둔시키고있다.

미영제국주의자들과 희랍, 토이기반동들의 책동으로 끼쁘로스정세는 계속 긴장되여왔다.

1967년 11월 두 민족간에 벌어진 싸움은 무장충돌로까지 번져 수많은 사상자까지 냈다.

1967년 12월 29일 토이기계주민들은 중앙정부와 완전히 구별되는 자기의《림시정부》를 세우고 이《정부》의 대통령으로 끼쁘로스중앙정부의 부대통령 (토이기사람) 을 들여앉혔다.

토이기계끼쁘로스사람들은《림시정부》가 중앙정부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토이기계주민구역에 한하여 립법, 행정, 사법권을 가지며 중앙정부에 복종하지 않는다는것을 선포하였다.

또한 희랍반동들의 부추김을 받은 극우익반동들은 1971년부터 끼쁘로스에 기여들어 반동들을 규합하여 《에노시스》(희랍과의 통합) 운동을 벌리기 시작하였으며 진보적인 마카리오스정부를 뒤집어엎기 위한 파괴암해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마카리오스정부는 독립후 중립적인 길을 걸어왔으며 최근년간에는 제3세계나라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미제와 희랍반동들의 간섭을 배격하면서 끼쁘로스의 완전독립과 평로완정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1971년부터는 독립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희랍계주민과 토이기계주민간의 불화와 반목을 가시기 위한 회담을 진행하여왔다.

또한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때에는 이스라엘에 군사물자를 실어나르는 미제의 비행기들이 끼쁘로스의 군사기지를 리용하는것을 단호히 거절하였다.

마카리오스정부의 이러한 자주적인 대내외정책은 이섬을 구라파사회주의 나라들과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나토의 군사기지로 만들려는 미제의 침략정책수행에 장애로 되였으며 따라서 미제와 희랍반동들은 마카리오스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책동을 악랄하게 벌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반동들을 매수하고 규합하여 진보적력량을 반대하게 하며 일부 신생독립국가들을 우경에로 돌려세우려 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331페지)

마카리오스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미제와 희랍반동들의 책동은 1973년 끼쁘로스에서의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더욱 악랄해졌으며 이해 10월에는 마카리오스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음모까지 꾸몄다.

마카리오스의 암살기도가 실패되고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자 마카리오스의 쁠리불가담정책을 눈에든 가시처럼 여겨오던 미제는 희랍반동들 그리고 끼쁘로스안의 우익분자들을 앞세워 마카리오스의 새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흉책을 꾸미였다.

또한 마카리오스대통령은 1974년 7월 2일 끼쁘로스에 희랍의 독재를 확대하기 위하여 희랍장교들이 이미 꾸며낸 테로단체인《에오카—비》의 지원밑에 자기의 정부를 전복할수 있다는 근거에서 650명중 50명을 제외한 모든 희랍장교들의 추방을 명령하였으며 방위군의 복무기한을 24개월로부터 14개월로 줄이는 조치를 취하였다.

1974년 7월 15일 미제의 조종과 희랍반동들의 직접적인 지령에 따라 끼쁘로스국가방위군에 복무하는 희랍장교들과《에오카—비》(196

4년에 조작된 불법적인 단체로서 희랍파의 통합을 주장함)가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희랍파의 통합을 제창하는 삼쁘손을 대통령으로 하는 새 정부를 세우고 《끼쁘로스희랍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또한 끼쁘로스를 희랍에 병합할데 대한 《정부강령》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끼쁘로스정변으로 매우 불안해하던 토이기는 토이기계주민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7월 20일 비행기와 40여척의 군함을 동원하여 끼쁘로스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리하여 끼쁘로스에서는 토이기군과 토이기계끼쁘로스사람들을 한편으로 하고 희랍장교들이 이끄는 방위군과 《에오카―비》등을 다른편으로 하여 치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그리고 희랍과 토이기국경에서는 두 나라간에 전면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조성되였다.

7월 21일 희랍은 48시간내에 토이기군대가 철수하지 않는다면 토이기를 반대하는 전쟁을 개시하겠다고 선포하였다.

끼쁘로스사태와 관련하여 영국은 쮸리히협정당사국으로서 끼쁘로스사태를 보고만 있을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군함들을 끼쁘로스에로 이동시키기까지 하였으며 미제는 끼쁘로스에 있는 3천여명의 《민간인》들을 《보호》한다는 미명밑에 지중해 6함대에 무력을 더 증강시키는 한편 12척의 군함을 끼쁘로스근해에 대기시키였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제3세계나라들을 비롯한 세계모든 나라들은 끼쁘로스에서의 군사정변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마카리오스를 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그가 빨리 복귀될것을 요구해나섰다.

끼쁘로스에서 반동적군사정변이 일어난후 해외로 떠난 마카리오스대통령은 사회주의나라들, 제3세계나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끼쁘로스사태의 수습을 위해 국내인민들에게 《조국에 대한 외국의 침략을 끝장내기 위해 투쟁》하도록 호소하는 한편 세계 여러 나라 수반들에게 끼쁘로스의 독립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원조》를 줄것을 호소하였다.

끼쁘로스사태에서 수세에 빠진 미제는 정세가 제놈들에게 점점 불리하게 되자 7월 20일 끼쁘로스사태에 대한 제놈들의 범죄적책임을 가리우면서 《유엔안보리사회》에서 정화결의를 조작하고 7월 22일부터 이것을 준수케 하였으며 7월 23일에는 희랍과 끼쁘로스에서 동시에 정권을 교체하는 연극을 꾸밈과 함께 나토성원국들인 희랍과 토이기가 전면전쟁을 벌리게 되는 경우 그러지 않아도 취약한 나토의 남부전선이 완전히 무너질수 있다는 우려로하여 두 나라의 전면전쟁을 막고 끼쁘로스문제해결에서 타협을 실현하기 위한 교활한 책동을 벌리였다.

7월 23일 끼쁘로스에서는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은지 9일만에 삼쁘손이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나고 국회하원의장이던 클레리데스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제네바에서는 끼쁘로스문제해결을 위한 3개국 외교부장(영국, 희랍, 토이기) 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7월 30일 현재로 모든 전투행동을 중지하며 토이기계끼쁘로스사람들과 희랍계끼쁘로스사람들의 거주지역을 가르는 《완충지대》를 설치할것을 규정한 《제네바선언》을 발표하였다.

8월 8일부터 제네바에서 제2단계의 3자회담이 진행되였으며 10일부터는 끼쁘로스의 희랍계주민대표 클레리데스와 토이기계주민대표 덴크따쉬(부대통령)가 참가하였다.

8월 14일 제2단계의 회담은 끼쁘로스문제를 둘러싼 토이기(끼쁘로스를 분할하여 련방공화국을 창설할것을 주장)와 희랍간의 대립으로 파탄되고 토이기군대와 희랍군대사이에서는 또다시 무장충돌이 일어났다.

토이기군대는 3일만에 동부끼쁘로스의 모고사로부터 서부끼쁘로스의 레프카에 이르는 이 나라의 40%의 령토를 점령하였다.

8월 14일 토이기의 군사행동의 재개와 관련하여 유엔안보리사회는 회의를 열고 군사행동의 즉시 중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8월 16일 토이기총리는 끼쁘로스 전전선에서 군사행동을 중지할것을 토이기군대에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일단 군사행동은 중지되였으나 끼쁘로스문제를 둘러싼 토이기와 희랍간의 리해관계의 대립으로 끼쁘로스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있으며 끼쁘로스는 사실상 두개의 주민지역으로 갈라지게 되였다.

9월 6일 희랍계주민대표 클레리데스와 토이기계주민대표 덴크따쉬간에 피난민처리문제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9월 11일 18살아래의 포로들과 외국의 대학에 등록되여 있는 학생, 교수, 환자, 부상자들을 석방할것을 결정하였다.

9월 13일에는 부분적인 포로석방에 합의하였으며 9월 16일 앓고있는 245명(희랍계 116명, 토이기계 129명)의 포로를 교환하였다.

9월 20일 희랍계대표와 토이기계대표간에 전반적인 포로교환에 합의하고 9월 23일부터 일반포로들의 교환사업이 시작되여 10월 25일까지 완전히 끝났다.

이리하여 모두 5천 989명(토이기계끼쁘로스사람 3천 33명, 희랍계끼쁘로스사람 2천 629명, 희랍사람 9명, 토이기사람 18명)의 포로가 교환되였다.

9월 12일부터는 끼쁘로스국회가 정상활동을 시작하였다.

10월 26일 끼쁘로스는 자기 나라에서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를 호소하는 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하였다.

11월 7일부터는 토이기군대가 끼쁘로스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12월 7일 정변후 5개월만에 마카리오스대통령이 끼쁘로스에 돌아왔다.

1975년 1월 14일 마카리오스대통령은 새내각을 구성하였다.

새 내각 성원 9명중 6명이 마카리오스대통령의 이전 내각의 성원들이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이 부문에서 로동인구의 약 40%가 일한다.

부침땅은 약 45만헥타인데 그가운데서 17만 5천헥타는 묵이고있다.

부침땅의 3분의 1은 대토지소유자나 교회가 가지고있다.

독립후 관개사업이 진척되였으나 16~20%의 땅밖에 물을 대지 못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감자, 포도, 감귤류 등이다.

매년 밀은 5만~10만톤, 보리는 5만~13만톤, 감자는 17만톤이상 생산되고있다.

농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포도와 감귤류 재배이다.

포도원은 약 4만헥타, 감귤류재배지는 거의 1만헥타이다. 매년 18만톤의 포도와 감귤류를 생산하고있다.

목축업은 농업총생산액의 약 35%를 차지한다. 주로 양과 염소를 기르고있다.

산림자원은 식민주의자들의 란벌로 황폐화되였으나 독립이후 《록화운동》을 벌려 나무를 많이 심고있다.

독립후 민족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100여개의 중소규모 공장들이 건설되였다.

공업에서 발전된 부문은 가공공업

특히 식료, 방직, 금속가공, 목재가공, 가죽 공업 등이다.

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세멘트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전재생산인데 이 부문에는 아직도 영국자본이 깊이 침투되여있다.

동력자원이 거의 없기때문에 발전소들은 전적으로 수입원료에 의거하여 돌아가고있다.

동, 쇠돌, 돌솜, 크롬 등이 채굴되나 그 채굴권은 미(70%), 영, 서독자본에 장악되여있다.

철길은 없고 해상운수와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자동차길은 6천 400여키로메터에 달한다.

주요수출품은 쇠돌, 동, 돌솜을 포함한 광물류와 포도, 포도주, 감귤류, 감자이며 주요수입품은 밀, 사탕, 비료, 액체연료, 천, 자동차, 금속제품, 일용품 등이다.

주민은 희랍계주민(78%)과 토이기계주민(18%)이며 그밖에 아르메니야사람, 아랍사람, 유태사람 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희랍말과 토이기말로 되여있으나 영국말도 통한다.

교육분야에서는 통일적인 정책이 실시되지 못하고있으며 희랍계주민지구와 토이기계주민지구들에서 제각기 자기들의 고유한 말과 학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있다.

희랍계주민은 희랍정교를, 토이기계주민은 회교를 믿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하라브기(근로인민진보당기관지), 필레레, 에트니키, 아곤, 아킨, 끼쁘로스 메일, 니키포스

방송 끼쁘로스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2월에 끼쁘로스조선친선협회가, 10월 12일에는 조선끼쁘로스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를 이 나라 신문《하라브기》(1970년 3월)와《싸로스》(1971년 7월)가 각각 실었다.

1972년 4월 우리 나라 전국사회파학자대회에 끼쁘로스조선친선협회 대표단이 참가하였으며 이에 앞서 1968년 평양에서 진행된 반미세계기자대회에 신문《하라브기》기자와《필레레》주필이 참가하였다.

1973년 4월 끼쁘로스근로인민진보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4년 6월 우리 나라 농근맹대표단이 끼쁘로스를 방문하였다.

디에고 가르시아섬에 대한 미제의 군사기지화책동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근년간에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사변들은 제국주의 무엇보다도 미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을 더욱더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의 침략적야망에는 끝이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92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전쟁 정책을 더욱더 추구하면서 1974년 2월 5일 영제국주의자들과 공모결탁하여《영령》디에고 가르시아섬에 있는 군사기지를 신설확장하기로 하였다.

이 섬은 인도남쪽으로부터 1천 600키로메터 떨어져있는 인도양 한복판의 차고스제도에 속한 섬들 가운데서 하나인데 길이 21키로메터, 너비 6.5키로메터되는 섬이다.

1810년부터 영국의 식민지로서 영제국주의자들은 인도양연안의 저들의 식민지나라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한 중요한 군사요충지로 삼아왔다.

인도양지역으로 말하면 탐사된 세계우라니움광예비의 60%, 금의 40% 그리고 자본주의세계의 주석, 고무, 황마, 금강석의 거의 모든 생산이 집중되여 있는곳이다. 이 지역나라들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직접투자는 100억딸라를 넘는다. 영제국주의자들도 이 지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있다.

극심한 재정, 경제 위기를 겪게 된 미제국주의자들은 1970년 10월 28일 이른바《수에즈이동정책》이란것을 내놓고 동남아세아와 인도양연안에 배치한 침략군의 일부를 철수한 후 디에고 가르시아섬의 군사기지는 주로 미제국주의자들이 리용하였다.

이 섬을 거점으로 하여 인도양에 대한 군사적진출을 노리고있던 미제는 인도—파키스탄전쟁(1972년 12월)을 좋은 계기로 삼고 제놈들의 제7함대 핵항공모함《엔터프라이즈》호를 인도양에 서둘러 파견하였다. 미국방장관 레어드란 놈은 이미 1972년초에 인도양과 아랍만을 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사령부의 《관할권》안에 두는 동시에 이 지역에 저들의 침략무력을 파견할것이라고 떠벌여댄후 놈들은 디에고 가르시아섬에 대한 군사적의의를 더 크게 부여하였다.

제4차중동전쟁(1973년 10월)을 계기로 인도양에 대한 미제의 침략적해군무력은 급속히 증강되였으며 1973년 11월 30일 미국방장관 슐레징거란놈은 인도양을 저들의《작전수역》으로 전변시키려는 침략적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미제가 인도양에 침략함대를 들이밀고 디에고 가르시아섬의 군사기지를 확장하는것은 인도양연안의 아프리카, 중근동, 인도준대륙 그리고 동남아세아주변 나라들에 군사적압력을 가하여 거덜이나고있는 저들의 정치경제적지위를 어떻게 하나 유지하며 위기에 처한 석유보급로를 확보하는 동시에 나아가서 인도양연안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 모험을 더욱 강화하려는데 있다. 미제의 이러한 음흉한 목적으로부터 놈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영제국주의자들과 쑥덕공론을 벌렸으며 군사기지신설확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인도양에서 활동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의 군함과 비행기들에 통신련락, 정보제공 등 전략적지휘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통신기지는 1973년 3월부터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미영제국주의자들사이에 꾸며진 새로운《협정》에 의하여 미제는 2천 400메터의 비행기활주로를 3천메터이상으로 늘여 전략폭격기《비 52》와 많은 병력과 무기를 실어나를수 있는 수송기《씨 에이 갤랙시》가 뜨고 내릴수 있게 비행장을 넓히며 이 섬을 항공모함이나 핵탄두를 장비한 원자잠수함들이 드나들수 있는 해군기지 그리고 연료보급, 수리 및 저장 기지로 확장하고있다. 또한 이 섬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 300명을 600여명으로 늘이고 핵무기가 여기에 저장될것이라 한다.

놈들은 일단 유사시에 대형수송기로 병력을 실어날라 현지에 저장된 전쟁물자로 무장하고 즉시 전투태세에 들어갈수 있게 정비하고있다.

1974년 9월 11일 미국회 상원이 1976년까지 완공하게 될 군사기지건설비로 우선 2천 900만딸라를 승인한 이래 놈들의 군사기지신설확장은 실천적단계에 들어섰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침략적군사기지화책동은 인도양을 《평화지대》로 만들것을 요구하는 인도양연안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대한 도전행위로서 강력한 반대와 항의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아 프 리 카

정 세 개 관

1974년에 아프리카인민들은 제3세계의 그 어느 대륙, 나라 인민들보다도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아프리카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마지막 생명선을 끊어버리고 아프리카의 완전독립을 이룩하며 자유롭고 자주적인 새 사회건설을 위하여 힘과 지혜를 합쳐 힘차게 투쟁하였다.

1974년은 무엇보다도 아프리카에서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하나의 거대한 사상조류를 이루고 이 지역 인민들과 국가지도자들속에서 혁명의 영재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이 더욱더 높아진 한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우며 그이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달성한 고귀한 성과들과 경험들을 직접 보고 따라배우기 위하여 이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권위있는 대표단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머나먼 아프리카에서 우리 나라를 찾아온 국가수반들과 대표단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내시여 현시기 제3세계나라들이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귀중한 말씀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그이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에 감동된 모부투대통령은 평양시환영군중대회에서 연설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대세계의 가장 위대한 수령》이시며 《위대한 군사적령장이시며 정치적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가이시며 가장 고결한 인간성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이시라고 칭송하였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간 아프리카의 국가수반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대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높으신 덕성에 대하여 더욱더 널리 선전하였으며 주체사상을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구현할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하였다.

아프리카의 국가수반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기간은 물론 방문후 자기 나라에 돌아간후에도 아프리카대륙의 모든 선전물들은 련이어 계속 조선을 위하여 편집되였고 온통 《조선판》으로 장식되였다.

이 모든 찬사와 영광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높은 국제적권위와 위신, 그리고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과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 고매한 덕성에 대한 열화같은 존경과 흠모의 표시이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달성한 위대한 성과에 대한 아프리카벗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련대성의 표시이다.

주체사상에 무한히 감동된 아프리카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은 1974년에도 주체사상을 시대의 절실한 요구로 제기하면서 그것을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구현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보급사업을 더욱 더 활발히 진행하였다.

이해에 아프리카 여러 나라 출판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과 영광찬란한 혁명력사, 그이의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실은 회상실기들을 앞을 다투어 번역출판하였으며 신문, 잡지들도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탄자니아의 《민족출판사》와 《프린트팍》출판사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 출판사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비롯한 수십건의 로작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단행본으로 번역출판하였다.

시에라 레온, 수단, 자이르, 꽁고, 우간다, 다오메를 비롯한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많은 신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와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공장과 농촌들을 현지지도하시는 사진들을 정중히 모시고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체계적으로 실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귀하신 존함을 모신 소말리아의 《김일성도서관》과 나이제리아의 《김일성서점》, 모리셔스의 《김일성동지도서관》들에서도 이해에 수령님의 로작들을 널리 보급선전하였다.

10월 또고의 수도 로메에서 진행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열돐을 기념하는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제3세계 인민들의 과업에 관한 과학토론회》는 전세계에 그 빛을 뿌리고있는 주체사상을 더욱 심오히 연구하며 그것을 매개 나라의 혁명과 건설, 농업문제해결에 훌륭히 구현해나가기 위한 실천적 과업을 토의한 하나의 모범으로 된다.

모든 사실은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을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여 지난날 《식민지 대륙》, 《암흑의 대륙》으로 불리워오던 아프리카를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새 아프리카로 꾸려나가려는 이 지역 인민들의 불같은 지향을 그대로 반영해주고있다.

이해에 아프리카대륙에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연설들에서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천명하신 부분들을 아프리카의 많은 통신, 방송, 신문들이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으며 《조선의 통일은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실현되여야 한다》라는 표제들을 달고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의 립장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수단사회주의동맹 제1차대회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과 조선로동당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결의를, 7월 알제에서 열린 제3세계청년대회가 《조선에 관한 결의》를 채택한것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주간이 설정되여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된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립장에 대한 아프리카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련대성의 표시인것이다.

알제리, 또고, 모리따니를 비롯한 22개 아프리카나라들이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조선문제토의에 관한 《알제리안》의 공동발기국으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립장을 적극 지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아프리카인민들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습니다.》 (《세네갈전국기자협회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22페지)

이해에 아프리카인민들은 자주자립의 기치밑에 아프리카인민을 위한 번영하는 새 아프리카를 건설하는 힘찬 투쟁을 벌렸다.

민족경제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이며 따라서 그 나라 인민만이 그 나라 경제를 관리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갈수 있다는 확고한 지향과 립장을 견지하고있는 아프리카인민들은 경제의 《아랍화》, 《자이르화》, 《잠비아화》, 《모리따니화》, 《상부볼따화》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지반을 허물어버리고 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을 첫째과업으로 내세웠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취한 자기 나라에 기여든 외국독점회사들을 국유화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모든 분야에서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려는 이 대륙 인민들의 확고한 지향과 결의를 반영하고있다.

이해에 알제리정부는 자기 나라에 남아있던 22개의 제국주의독점회사들을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함으로써 이 나라에서 활동하던 제국주의독점회사들을 몽땅 국가가 틀어쥐였으며 제국주의독점회사들을 계속 국유화해오던 또고정부는 2월 나라의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린산염채취를 거머쥐고있던 제국주의광업회사를 모두 국유화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밖에 나이제리아, 잠비아, 다오메, 부룬디, 꽁고 등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련이어 제국주의독점회사들을 국유화하였다.

1974년에 아프리카나라들은 경제분야에 침투한 제국주의침략세력들을 내쫓았을뿐아니라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결의를 더욱 굳게 하면서 여러 차례의 경제적계획들을 수행하여 경제의 식민지적기형성을 철저히 극복하고 민족공업의 토대를 하나하나 쌓아나갔다.

공업혁명, 토지혁명, 문화혁명의 구호를 들고 투쟁하여온 알제리인민은 사회주의경제에 토대한 현대적인 국가를 건설할 확고한 전망을 가지고 제2차 4개년계획수행에 들어섰으며 1974년을《경제의 해》로 선포한 소말리아인민은 이해에 많은 공장들을 건설하고 농업생산을 끌어올리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다.

아프리카나라들의 자주적지향은 또한 사회문화분야에서 제국주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새로운 민족문화를 건설하며 사회의 면모를 아프리카식으로 일신하려는 투쟁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또고정부는 도시와 마을, 거리들에 제국주의자들이 붙여놓았던 이름들을 아프리카식으로 고쳐부르기로 결정하였으며 다오메에서는 출판물들과 교과서들이 외국어대신 민족어로 출판되였다.

다오메정부가 퇴폐적인 서방영화상영금지를 위해 영화보급독점회사를 국유화하고 국영영화보급관리국을 새로 내온데 이어 까메룬에서 식민주의자들이 문화예술분야에 뿌려놓은 양풍을 하루빨리 뿌리뽑고 민족문화와 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전국의 70여개 예술소조들이 참가한 제1차민족예술축전을 마련한것은 건전한 민족문화와 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이 대륙인민들의 혁신적인 투쟁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새 생활창조를 위한 이러한 투쟁은 아프리카나라들 앞에 민족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자체의 민족간부들을 하루빨리 키워야 할 무거운 과업을 제기하였다. 이해에 까메룬, 세네갈, 모리따니 등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교육의《까메룬화》, 《세네갈화》, 《모리따니화》방침을 내놓고 종래의 교육체계를 검토하고 새로운 교육체계와 교육강령들을 작성하였다. 꽁고에서는 이해 6월 첫 국립대중도서관을 내오고 수천권의 자기 나라 문학, 정치시사잡지들과 민족경제건설에 필요한 기술서적들을 비치하였으며 전국도처에 대중도서관망을 늘일데 대한 준비사업들을 적극 밀고나갔다.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자립의 새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은 오직 아프리카인민들, 자신의 단합된 힘에 의거할 때에만 승리할수 있다는 진리를 체득한 아프리카인민들은 이해에도 식민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리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렸으며 이 투쟁에서 커다란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였다.

미제가 수십년동안 많은 딸라와 무기를 쏟아부은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이 반제반식민주의투쟁에 일떠선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에 굴복하였으며 지난해 기네—비싸우가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주권국가로 진출하게 된데 이어 모잠비끄, 산토메 프린시페, 베르데갑제도, 꼬모르인민들도 민족적독립을 인정하는 협정을 성취하고 모잠비끄해방전선의 령도를 받는 모잠비끄림시정부가 조직된것 등은 이해 이 지역인민들이 달성한 커다란 승리가 아닐수 없다.

아프리카인민들은 이해에도 반제자주, 번영하는 새아프리카—이 공통된 리념을 실현해나가는 길에서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서로의 힘과 지혜를 모았다.

1974년 6월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쇼에서 42개의 아프리카나라들의 국가수반들과 해방운동지도자들의 참가하에 진행된 제11차 아프리카통일기구 수뇌자회의, 5월 까메룬수도 야운데에서 17개 성원국대표들과 아프리카해방투쟁단체대표들이 참가한 아프리카통일기구 해방위원회 제23차회의, 6월 탄자니아의 수도 다르 에스 살람에서 60여개 나라 대표들이 참가한 제6차 범아프리카대회, 8월 꽁고의 수도 브라자빌에서 16개 나라 국가수반들이 참가한 제9차 동부및중부아프리카수뇌자회의들에서 아프리카나라들의 정치적단결과 협조 및 아프리카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전대륙적인 지원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실질적인 대책들을 세운것등은 식민주의를 영영 쓸어버리며 새 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이 대륙인민들의 통일단결과 위력을 힘있게 시위한것으로 된다.

아프리카나라들의 련대성의 지향은 또한 반이스라엘투쟁에 일떠선 아랍나라들을 지원하며 아프리카나라들의 자원을 지키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투쟁에서 행동통일을 보장하며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는데서도 훌륭히 발현되였다.

1974년 5월에 있은 원료및개발문제에 관한 유엔총회 제6차특별회의, 6—8월에 있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비롯한 국제회의들에서 아프리카나라들은 자기들의 리익을 위하여 행동통일을 기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단결된 위력을 다시한번 시위하였다.

이 모든 사실들은 신흥세력이 한데 뭉치고 보조를 같이 하여 공동으로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다면 원쑤들의 어떠한 침략과 간섭책동도 능히 짓부시고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아프리카를 훌륭히 일떠세울수 있다는것을 실증하였다.

반제자주의 기치 드높이 확신성있게 전진하고있는 아프리카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흔적들을 끝내 쓸어버리고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는 새 아프리카의 려명을 반드시 앞당겨올것이다.

애 급

(애급아랍공화국)

넓이 100만 1,449km²
인구 3,600만명 (1973년말)
수도 까히라(주민 840만 5천명, 1975년 1월)

정 치

인민회의 일원제, 의원수 350명, 현 인민회의는 1971년 11월에 선거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국회의 해산권과 부대통령, 총리 임명권을 가진다. 6년임기로 선거된다.

안워르 앗 사다트(1970년 10월—)

정부 1974년 9월 26일 새로 구성, 총리 헤가지, 외교부장 파흐미, 전쟁부장 무함마드 아브둘 가니 알 가마시

정당, 사회단체; 아랍사회주의동맹 1962년 6월 인민력량전국대회의 결정에 따라 1957년 11월에 조직된 민족련맹이 발전적으로 해산되고 1963년에 창건되였다. 광범한 민족전선의 역할을 하는 대중적정치조직이다. 위원장 안워르 앗 사다트, 로동련맹, 사회주의청년조직, 애급조선친선협회 1969년 2월 결성

1953년 6월 18일 애급공화국이 선포된 후 애급인민은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파괴암해책동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였다.

1956년 7월 26일 애급정부는 오래동안 제국주의자들이 통제장악하고있던 수에즈운하를 국유화할데 대한 력사적인 법령을 발포하였으며 이를 반대하여 애급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침략군을 물리쳤다.

1964년 3월에는 민족의회선거를 진행하고 림시헌법을 채택하였다. 림시헌법에서는 애급은《근로인민력량의 동맹에 기초한 민주주의적사회주의국가》라고 규정하고 대외적으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할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음모책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침략자들은 1967년 6월 5일 미제의 직접적인 지원과 사촉밑에 애급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불의에 도발하였다. 애급인민들은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웠으나 시나이반도를 강점당한채 6월 9일 정화하였다.

6월 7일 애급정부는 미제와 외교관계를 끊고 미국놈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놈들을 내쫓았으며 미국영화상영을 금지하였다.

정화후 애급인민은 강점된 아랍땅을 해방하기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정부는 1969년 1월 30일 나라의 방위 및 안전문제를 담당하는 최고기관인 전국방위리사회를 새로 창설하였으며 1970년 2월에는 최고민간방위리사회를 결성하였다.

1973년 4월 22일 인민회의에서는 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들에서 군사교육을 진행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1971년 4월 17일 리비아, 수리아와 함께 아랍공화국련방을 형성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으며 4월 29일에 나라 이름을 애급아랍공화국으로 고쳤다. 1972년 5월 애급아랍사회주의동맹은 리비아아랍사회주의동맹과 통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비니가지에서 사다트대통령과 가다피의장이 회합하고 1973년 9월 1일까지 두 나라의 완전통합을 실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통합문제는 전쟁발발로 중단상태에 있다.

1967년 6월의 중동전쟁을 통하여 애급의 시나이반도를 포함한 6만평방키로메터의 땅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이스라엘침략자들은 빼앗긴 땅을 평화적으로 되찾으려는 아랍인민의 노력에 무력으로 맞섰으며 1973년 10월 6일 애급을 불의에 침공함으로써 끝내 제4차중근동전쟁을 일으켰다.

10월 22일 제4차중동전쟁은 정화되였으며 11월 11일에는 애급과 이스라엘간에 정전협정이 조인되였다.

1974년에 애급 정부와 인민은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으며 전쟁의 상처를 가시고 나라의 사회경제적발전을 이룩하며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맞설 준비를 다그쳐나갔다.

전후 조성된 정세와 투쟁과업에 비추어 1974년 4월 24일 사다트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새 정부를 구성하였으며 민족행동계획리사회를 새로 내왔다. 민족행동계획리사회의 기본임무는 국가정책을 작성하며 나라의 군사 및 경제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는것이였다. 이 리사회는 대통령밑에서 사업하며 2명의 부대통령, 인민회의 의장, 대통령 보좌관들, 내각부총리들, 부와 기타 기관대표들로 구성되였다.

1974년 9월 26일에 사다트는 또다시 내각을 구성하여 총리직을 내놓고 대신에 헤가지를 총리로 임명하였다. 새 내각은 모든 아랍령토를 해방하기 위하여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림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는것을 자기의 기본임무로 내세우고 나라의 경제건설을 밀고나갔다.

전후 정전협정의 리행을 위하여 애급정부는 1974년 1월 18일에 수에즈전선의 애급군과 이스라엘침략군의 격리에 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그후 1월 24일에 최종 합의계획서가 조인되였다.

이 계획서에 의하면 두 나라 병력분리는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예견되였다.

제1단계는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이스라엘군이 수에즈시남쪽, 수에즈만서쪽의 아다비야항구의 수에즈시 서쪽 아다가산 및 수에즈—까히라도로 등 제 진지로부터 철수한다. 제2단계는 2월 21일부터 12일내에 시나이반도의 이스라엘군이 미틀라고개와 기디고개의 서쪽기슭까지 철수함으로써 101키로메터의 완충지대를 설치하며 이스라엘군의 철수가 끝난후 유엔비상군이 진주하여 량군을 격리시킨다. 제3단계는 1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의 40일간에 량군분리작업이 끝난후 유엔비상군이 량군지역에서 협정에 규정된 무기제한조항의 리행여부를 감시하게 되였다.

이 계획서에 따라 1973년중동전쟁시기 수에즈운하를 통해 운하의 서쪽강안으로 침입하였던 이스라엘침략군들이 1974년 1월 25일부터 강점지역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여 3월 4일에 철수를 완전히 끝냈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이 철수에 앞서 애급이 시나이반도의 석유자원을 되찾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점령하고있던 수에즈만의 아부 루데이스 석유밭에 불을 지르는 악랄한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 석유밭의 3개의 석유우물에서는 며칠간 계속 불이 꺼지지 않았으며 방대한 량의 석유가 불에 타버렸다.

병력분리협정은 더 진전이 없이 그 단계에 머물고있다. 12월에 애급은 1967년 6월 5일 이후에 이스라엘이 강점한 모든 아랍땅을 그 어떤 흥정과 절충적인 해결책이 없이 애급

에 도루 돌려줄것을 이스라엘에 요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러한 요구조건을 리행하고 팔레스티나아랍인민의 합법적권리를 인정한다면 이스라엘과의 26년간의 전쟁을 끝장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명백히 하였다.

애급인민들은 병력분리는 중근동에서의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는것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경각성을 높이면서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애급대통령 사다트는 1974년 7월 23일 혁명 22돐을 기념하는 아랍사회주의동맹 중앙위원회와 인민회의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우리는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이 계속되며 이스라엘이 우리 령토를 계속 강점하고 있다는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애급은 전쟁준비를 계속 다그쳐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10월 23일에는 인민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우리는 령토가 해방되고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무기를 놓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10월 14일 애급전쟁부장은 애급군공군군관학교 졸업생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앞으로 있을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군인들이 전투훈련을 더욱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

1974년에 애급정부는 제4차 중근동전쟁에서 애급의 승리 한돐에 즈음한 여러가지 행사들을 조직하면서 군대와 인민들에게 전쟁승리에 대한 자부심과 신심을 북돋아주었다.

10월 6일 애급의 수도 까히라에서 열병식과 애급아랍공화국 인민회의 특별경축집회가 진행되였으며 10월 24일에는 수에즈전투승리 한돐 군중집회와 시위 및 무력시위, 10월 전쟁에서 이스라엘침략군으로부터 로획한 전리품전시회 등을 진행하였다.

한편 10월전쟁참가자가족들에 대한 토지무상분배도 진행하도록 하였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13개 도에서 10월전쟁참가자 1만 5천세대에 3만페단 (1페단은 0.42정보)의 토지를 나누어주도록 하였다.

1974년에 애급에서는 전쟁의 상처를 가시며 나라의 사회경제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벌렸다.

2월 13일 애급내각회의에서는 1967년과 1973년 전쟁들에서 파괴된 수에즈운하도시들인 수에즈깐따라, 이스마일리아 및 포드사이드를 다시 건설할데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운하연안도시들의 재건사업의 제1단계공사에 2천만애급파운드를, 수에즈운하청소작업에 우선 1천 500만애급파운드를 할당하였으며 2월 3일에 또다시 1억딸라를 추가적으로 내고 이 공사에 12만 5천명을 동원하였다.

2월 애급내각은 앞으로 6개월내에 수에즈운하를 재개통하기로 결정하고 제1단계에서 1967년이전상태로 운하를 복구하며 다음단계에서는 27만톤급 대형유조선들이 통과할수 있도록 운하의 폭을 넓히고 물깊이를 깊게 하도록 운하건설방향을 토의하였다.

애급은 아프리카에서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며 아프리카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4년 7월 3일부터 5일까지 까히라에서 아랍국가합동국방리사회 특별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침략을 물리치며 자기 나라 령토와 민족적자주권을 수호하고있는 레바논인민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줄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3차아프리카대학생대회가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강점된 아랍땅을 해방하기 위한 아랍나라들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였으며 아프리카의 자원을 아프리카인민들의 리익과 해방운동에 리롭게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프리카대륙에 있는 외국독점체들과 그들의 재산을 국유화할것을 호소하였다.

2월 28일에 애급은 1967년이래 단절되여온 미국과 국교관계를 다시 맺었으며 3월 4일에는 미국에로의 려행제한조치를 철회하였다.

사다트대통령은 1974년에 사우디 아라비아(1월), 인도, 방글라데슈, 까타르(2월), 유고슬라비아(3월), 로므니아, 요르단(7월)을 방문하였다.

애급은 기네-비싸우(6월)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8월에는 이라크와 경제및공업협조에 관한 의정서에 합의하였다.

2월에 수단대통령 니메리가 애급을 방문하여 사다트대통령과 회담하였으며 두 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공동행동을 취하는데 합의하였다.

두 나라는 경제적통합과 정치적공동행동을 위한 계획작성에 착수할 몇개 위원회를 조직하는데 합의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약 60%가 농사한다.

국민소득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몫은 약 30%, 수출총액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몫은 약 62%에 달한다.

부침땅은 약 300만헥타이다.

농산물에서 기본은 목화이고 농민의 약 70%가 목화농사를 하고있으며 국가총수입의 30%를 농업이 차지한다.

그밖에 벼, 강냉이, 땅콩, 밀, 옥파 등을 심는다.

1972-1973농업년도에만도 52만톤의 목화를 생산하였다.

정부는 농업발전을 위하여 1961년부터 종합적인 계획화정책을 실시하고있는데 이미 두차례의 농업발전 5개년계획을 실시하였으며 1974년부터는 농업발전 10개년계획수행에 들어섰다.

특히 정부는 사막이 많고 부침땅이 제한되여있는 조건에서 사막을 수리화하는 대자연개조사업과 관개공사에 힘을 넣었다.

1971년에 아스완댐이 완공됨으로써 지금까지 경작할수 없었던 40만헥타의 땅에 관개가 실시되고 36만헥타의 땅은 항구적인 수리화된 땅으로 전변되였다.

또한 나일강류역을 큰물피해로부터 보호할수 있었다.

부침땅면적이 늘어나고 관개체계가 도입됨으로써 농업생산량이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1973년에 밀생산량은 180만톤이였다.

농촌전기화에도 큰 힘을 넣은 결과 1971년부터 1973년 7월까지 1천여개 마을에 전기가 들어갔다.

공업에서 중심은 면방직공업과 식료가공공업이다.

혁명후 공업화계획에 따라 10억애급파운드의 자금을 투자하여 석유가공공장, 대규모의 화학비료공장을 비롯하여 80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새로 건설되였다.

헬루안, 슈브라헤이마, 아스완 등 전국도처에 공업지구들이 생겨났다.

국민소득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24%이상에 달하였다.

1972년현재 공업의 85%이상이 국가수중에 장악되여있다.

1974년 5월 애급정부는 18개월간의 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계획의 기본과업은 새 5개년계획 (1976-1981년) 수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는것이였다. 이 과도적인 계획기간에 정부는 전쟁전에 시작한 공업대상들의 건설을 기본적으로 끝내며 로동조직을 개선하여 공업과 농업 부문의 모든 잠

재력을 동원하며 광물성비료, 세멘트, 철근 등을 생산하는 새로운 공장들을 건설하는데 힘을 넣었다.

1974년에 공업발전을 위해 1억 1천 460만애급파운드를 투자하였다.

이 나라 공업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헬루안야금종합공장의 개건확장을 위해서 1974년에 3천 20만애급파운드가 배당되였다.

1974년 한해동안에 30여개의 공장이 새로 건설되였다. 새로 건설된 공장들가운데는 년산 10만톤능력의 알루미니움공장, 10만톤능력의 강철공장, 10만톤능력의 대형강관공장을 비롯하여 소구경 관류와 여러가지 관부속품공장들, 28만톤 능력의 암모니아비료공장과 년산 10억갑의 성냥생산을 보장할수 있는 류황공장 등이 들어있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와 철도운수가 기본이다. 운수업은 완전히 국유화되였다.

철길은 총 7천 200키로메터이며 자동차길은 2만 1천 600키로메터 이상에 달한다.

수에즈운하는 국제적인 배길인 동시에 애급경제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논다.

까히라에서 60키로메터 떨어진곳에 새로운 국제공항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출총액에서 목화를 비롯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공업제품의 수출에서 55%는 실과천이며 농산물수출에서 70%는 목화이다.

수입품은 기계류, 화학제품, 금속 등이다.

혁명후 교육사업도 급속히 발전하였다.

8월에 있은 애급내각회의에서는 새학년도에 더 많은 학생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1974년에 초급학교입학생수는 1973년에 비해 1만 7천명이 더 많은 72만 1천명이였다.

정부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는데 따라 교원들을 더 많이 양성하기 위한 대책도 세웠다.

정부는 1974년부터 6년동안에 3만 5천명의 초급학교 교원들을 양성할것을 계획하고 이 사업을 밀고나갔다.

애급정부는 학교교육에서 기술교육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으면서 공장들에서도 교육체계에 따라 기술교육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5년제기술대학들을 더 세울것을 계획하였다.

1973년현재 대학생수는 3만명이였다.

6개의 종합대학과 33개의 단과대학, 30개의 전문학교가 있다.

고등교육을 위한 예산액은 1952년의 400만애급파운드로부터 1973년에 4천 800만애급파운드였다.

보건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달성되였다.

국교는 회교이다.

주민의 90%이상이 아랍족이며 소수의 베드윈족, 베르베르족이다.

공용어는 아랍말이다.

출판보도; 통신 멘통신

신문 알 굼후리아(정부기관지), 알 아호람, 알 아호바르, 알 메싸, 에집선 가제트, 쥬르날 에집트, 알 칼라즈, 아호바르 알윰

방송 애급방송, 중동방송, 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3년 8월 24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57년 12월에는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972년 9월에는 문화 및 보건협정을 각각 맺었다.

애급정부와 인민은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애급신문《알 메싸》 8월 2일호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을 규탄하는 글을 실으면서 박정희괴뢰도당이 있지도 않는《북으로부터의 위협》을 떠벌이면서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애국적인 인테리, 민주인사들을 마구 체포하살하고있는 사실을 폭로규탄하였다.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조선문제에 관한《알제리안》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립장을 적극 지지한바있는 애급은 1974년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도《알제리안》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우리 나라의 립장을 적극 지지하였다.

1974년 6월에 우리 나라 군사대표단이 애급을 방문하였으며 안워르 앗 사다트대통령을 만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애급아랍공화국대통령 안워르 앗 사다트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우리 나라 군사대표단 단장이 석상에서 정중히 전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귀중한 인사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대통령은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돌아가면 나의 형제이신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전쟁시기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하여주신데 대하여 그이께 충심으로 사의를 표하며 나의 가장 친근한 형제적인사를 드린다는것을 전하여주기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대통령은《우리는 앞으로도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계시는 김일성주석각하의 립장을 모든 분야에서 전적으로 지지할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사다트대통령은 우리 나라 군사대표단성원들에게 애급훈장을 수여하였다.

1974년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까히라에서 진행된 아프리카학생토론회에 우리 나라 재일본조선학생위원회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애급의 알렉산드리아에서 11월에 진행된 전아프리카학생동맹 제3차대회에서는《조선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냈다.

리 비 아

(리비아아랍공화국)

넓이 175만 9,540km²
인구 186만 9,000명(1971년 12월)
수도 타라블스(겨울수도, 주민 33만 2,000명)
비니가지(여름수도, 주민 28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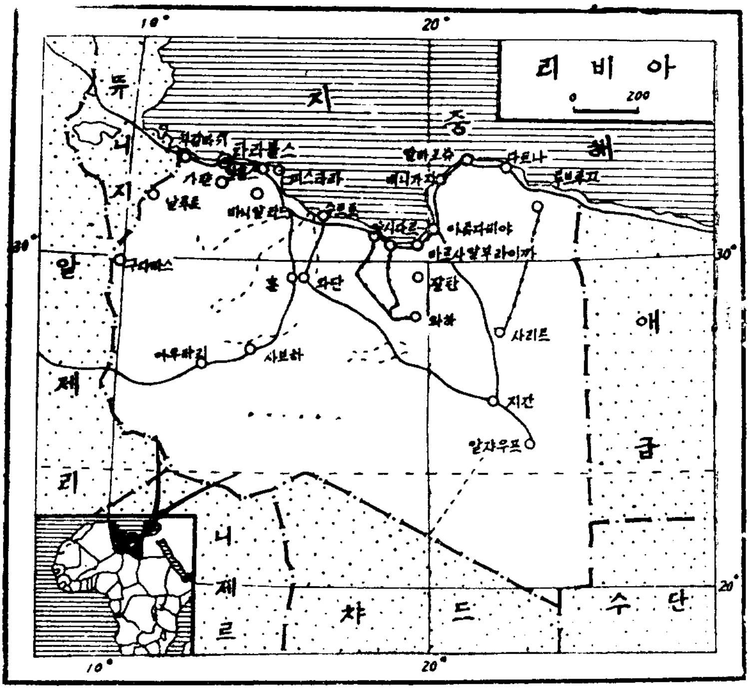
정 치

혁명지도리사회 1969년 9월에 조직된 최고주권기관, 의장 모아메르 엘 가다피(1969년—)

정부 1972년 7월 16일 구성, 1974년 11월 14일 부분적인 내각개조, 총리 아브둘 살람 잘루드, 외교부장 아브둘 모니메움 알 타헤르 알 후니소좌, 내무부장 알 크웨일디 알 하미디소좌

정당, 사회단체;리비아아랍사회주의동맹 1972년 3월에 조직된 유일한 대중적인 정치조직, 18살이상의 공민으로서 정치적권리를 잃지 않은 모든 성원들이 거의 망라되여있다. 공식적인 사회단체는 없다.

1969년 9월 1일 이드리스 1



세 봉건왕조를 뒤집어엎고 리비아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혁명지도리사회를 수립하였다.

혁명승리후 리비아인민은 혁명지도리사회의 지도밑에 미영제국주의자들의 군사기지를 철페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하며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왔다.

혁명지도리사회는 미제《윌러스》공군기지를 철페하였으며 미영침략군을 몽땅 쫓아냈다.

정부는 또한 이전 봉건왕조가 영국제국주의자들과 맺었던 예속적인《우호동맹조약》과 《군사 및 재정협정》, 미제와 맺었던 군사기지, 군사《원조》, 《경제원조》, 《기술원조》등에 관한 협정을 페기함으로써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지반을 완전히 청산하였다.

리비아정부는 또한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침략과 파괴책동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방리사회를 창설하였으며 인민행정대를 조직하였다.

리비아는 외국독점체들의 략탈로부터 나라의 자연부원을 지키고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국주의독점체들이 소유하고있는 외국회사들을 국유화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1974년 2월 11일 리비아정부는 미제의 도발적인 석유소비국회의에 대처하여 리비아에서 오래동안 풍부한 석유자원을 마구 략탈하던 미국석유회사들인 《텍사코 오버시즈 페트롤리움 캄파니》, 《캘리포니아 에이시어틱 캄파니》, 《리비아—아메리컨 오일 캄파니》를 완전히 국유화하였으며 3월 30일에는 서방제국주의자들의 원유독점체인 《쉘》원유회사재산을 완전히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이 법령에 의하여 리비아에 있는 이 회사의 고정재산과 소유물의 전부를 리비아국영원유회사가 차지하게 되였다.

정부는 1월 1일 석유가격의 인상을 발표하고 리비아원유의 공시가격을 1일부터 1바렐당 18.768딸라로 올렸다.

1974년 3월에 리비아의 타라불스와 오지리의 수도 윈에서 진행된 아랍석유수출국기구회의에서 리비아는 아랍석유수출국들이 1973년 10월중동전쟁당시 단행하였던 대미석유수출금지조치를 해제하는것은 팔레스티나인민의 위업에 대한 반역행위라고 하면서 끝까지 반대하였다.

1974년 1월 12일 가다피대통령은 남부튜니지의 제르바섬에서 튜니지대통령 부르기바와 회담하고 《아랍회교공화국》이라는 단일국가로 두 나라를 통합할데 대한 합의서에 조인하였다. 이 합의서에 의하면 튜니지와 리비아는 1월 18일 국민투표를 통하여 《아랍회교공화국》이라는 국명을 가진 단일국가로서 하나의 헌법, 군대, 국가, 행정부 및 립법부, 국기를 가지게 되여있다. 그러나 국민투표는 실시되지 못하였으며 통합과 관련해서는 일련의 문제들이 제기되고있다.

대외적으로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며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하고있다.

리비아아랍공화국 혁명지도리사회 의장 가다피가 1974년 6월 소말리아에서 진행된 제11차아프리카통일기구수뇌자회의에 참가하였다.

1974년에 가봉(1월), 니제르(3월), 방글라데슈(8월)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원유공업이다. 국민총생산액에서 83%를 차지한다. 원유매장량은 약 14억 1천만톤으로 추산되고있다.

혁명승리후 리비아정부는 원유공업발전을 위하여 이 나라 석유채취량의 90%를 독점하고있던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석유회사와 원유가공회사들을 국유화하였으며 1971년에는 석유와 천연가스자원에 대한 제국주의독점체들의 략탈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포하고 국영회사를 창설하였다. 또한 이미 있는 유정들에서의 원유생산량을 늘이며 새로운 원유산지들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사업을 따라세우고있다. 원유생산량은 해마다 늘어나고있는데 1961년부터 1970년기간에 70만톤으로부터 1억 7천만톤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원유공업외에 중소규모의 식료가공공장들이 있으며 세멘트공장들이 건설되고있다.

품질이 좋은 풍부한 원유를 수출하여 얻은 외화의 많은 몫을 식량과 식료품을 사들이는데 소비하고있는 리비아에 있어서 농업생산을 빨리 늘이는 문제는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되고있다. 리비아는 령토의 98%가 반사막과 사막으로 덮여있기때문에 식량생산을 늘이는 문제는 순탄한 일이 아니였다.

정부는 1973~1976년 사회경제발전계획에서 1976년까지 식량과 식료품을 자급자족할 목표를 내세우고 농업발전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정부는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큰 농장들을 국유화한데 기초하여 《록색혁명》을 선포하고 그 수행에 달라붙었다. 계획기간에 농촌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1

970년부터 1973년까지의 사이에 투자된 자금의 3배이상에 달하는 14억딸라를 배당하였다. 국가는 또한 농업은행으로 하여금 농민들에게 농사자금을 대부해주도록 하였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민들은 우물을 파고 저수지뚝을 쌓으며 물에서 염분을 빼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림으로써 사막지대의 많은 지역을 개간, 관개하였다. 봉건왕조시기에 《벽촌》으로 간주되였던 페잔은 《록색혁명》과정을 통하여 리비아의 곡창지대로, 고기공급기지로 전변되여가고있으며 알 제벨, 알 아흐다르, 쿠프라, 제파라의 고원지대가 농업발전의 거점으로 전변되여가고있다.

늘어나게 될 농산물을 제때에 처리가공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에서는 여러 지방에 제분공장, 밀가루공장, 과일즙공장, 도마도가공공장 등 식료품가공공장들을 대대적으로 짓고있다. 앞으로 이 공장들은 수입원료가 아니라 자기 지방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가공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게 된다.

주요 농산물은 밀, 보리, 땅콩, 올리브, 야자, 포도 등이다.

축산업에서 주요집짐승은 락타, 염소, 양 등이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은 비니가지지역에 있다.

주요수출품은 원유, 땅콩, 올리브기름, 파실, 집짐승, 가축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식량, 천, 건재, 운수수단 등이다.

교육분야에서 식민주의후과를 가시기 위하여 영국말을 페지하고 아랍말을 쓰고있다.

1973년 비니가지에 현대적설비를 갖춘 새 병원이 건설되였다.

주민의 90%가 아랍사람이며 그밖에 흑인, 이딸리아사람, 희랍사람 등이 있다.

국교는 회교이다.

출판보도; 통신 아랍혁명통신

신문 알 사우라 (정부기관지), 알 호르리예, 알 뜨라, 알 욤, 알 발라그, 트리폴리 미러, 알 무싸와르, 알 나하르

방송 리비아라지오및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12월 26일 우리 나라와 무역대표부를 호상교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74년 1월 29일에는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등 여러 로작들을 《알호르리예》를 비롯한 이 나라 신문들이 광범히 실었다.

1974년 5월 29일 만국우편동맹 제17차대회에서 우리 나라의 만국우편동맹가입을 찬성하였다.

1974년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리비아는 알제리를 비롯한 제3세계나라들과 사회주의나라들이 제출한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하여》의 공동발기국이였으며 표결에서 우리 나라를 지지하여 찬성투표하였다.

1974년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의 기간에 우리 나라 외교부 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수 단

(수단민주주의공화국)

넓이 250만 5,813km²
인구 1,630만 5,000명 (1972년)
수도 하르툼(주민 25만 5,740명)

정 치

인민회의 1972년 10월 총선거를 통하여 조직된 최고립법기관, 의원수 207명, 1974년 5월에 제2기정기회의 진행

대통령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 (1971년 10월 12일―), 임기 6년

정부 1973년 5월 10일 구성, 1974년 1월에 내각개조, 총리겸 국방부장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6년에 창건, 1971년 7월에 비법화, 수단사회주의동맹 1972년 1월 10일 창건된 유일한 정치조직, 《사회주의수단》건설을 내세우고있다. 1974년 1월 제1차대회진행, 위원장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 수단조선친선협회 1970년 3월 16일 결성

북부와 남부를 분렬하여 통치하려던 영국침략자들을 몰아내고 1956년 1월 1일에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9년 5월 25일 수단군장교들이 혁명을 일으켜 친서방적인 아즈하리―마흐쥬브정부를 뒤집어엎고 니메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혁명지도리사회를 조직하였으며 수단민주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5월혁명후 수단정부는 《수단식사회주의》를 내세우고 미영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파괴음모책동을 짓부시고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며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단독립 열아홉돐에 즈음하여 수단대통령에게 보내신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단인민은 오랜 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민족적독립을 이룩하였으며 특히 1969년 5월혁명후 각하의 옳바른 령도밑에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습니다.》

1970년 2월 니메리는 미제를 아랍인민의 《첫째가는 원쑤》라고 락인찍고 중근동에 있는 미제의 리권을 반대할것을 아랍나라들에 호소하였다.

수단정부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괴암해책동으로부터 나라를 보위하기 위하여 국가경비대를 새로 조직하고 1969년 5월부터 1970년 3월까지의 기간에만도 미제와 그 주구들의 여섯번에 걸친 정변음모와 무장반란을 제때에 짓부셔버렸다.

1969년 6월에는 남부수단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민족적통일을 이룩하였다.

1972년 1월에는 유일한 정치조직인 수단사회주의동맹을 창건하였다.

1973년 4월 11일 새 헌법을 채택하고 5월 10일 니메리를 총리로 하는 새 정부를 구성하였다. 6월 29일에는 수단사회주의동맹 이외의 모든 정당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포하였다.

1974년 1월 25일 니메리는 수단사회주의동맹 제1차전국대회 개막회의에서 수단의 대내정책에 대하여 말하였다.

니메리는 《나라의 장성과 전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나라의 자원을 남김없이 동원하고 각종 사회력량을 단결시켜야 한다. 우리는 일치하게 협조해야만 전진할수 있으며 우리는 단결시키는것에 힘을 기울이고 분렬시키는것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1974년 5월 제2기수단인민회의가 진행되였으며 이 회의에서 니메리대통령은 경제건설분야에서 수행하여야 할 당면한 10대목표를 제시하였다.

10대목표에서는 새로운 원유화학공업기지를 창설하고 방직공장, 사탕

공장, 세멘트공장들을 건설하며 운수, 체신 분야의 새로운 대상건설을 진행하는 등 방대한 기본건설에 힘을 넣어 공업의 발전을 이룩하며 농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수단은 경제발전 제2차 5개년계획(1971—1975년)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있으며 계획기간에 공업생산은 57.4%, 농업생산은 77.3%늘이려 하고있다.

제국주의 식민지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기 위하여 제국주의독점체들을 국유화하는 단호한 반제적조치들을 취하였다. 미영독점체들인《아메리칸 내슈널》회사, 《블루나일》회사, 《바타》회사를 비롯한 많은 공장, 기업소들, 교통운수, 체신기관들, 은행, 목화재배원들과 토지들을 국가소유로 만들었다.

수단정부는 대외적으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견결히 반대하고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나라들과 협조관계를 적극 발전시키고있으며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로부터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과 민족적독립을 수호하고 령토완정을 이룩하기 위한 전체 아랍인민들의 투쟁을 지원하며 아랍나라들의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수단은 민족해방운동을 지지하고있다. 수단은 국제법에 규정된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 모든 나라, 모든 인민들과 친선 및 호혜관계를 강화하고있다. 니메리대통령은 중동에서의 아랍위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유태복고주의의 공격을 저지시키고 물리치는 전선에 서있다는것을 재천명하였다.

그는 또한 1974년 3월 3일 상부나일주의 말라칼에서 진행된 《민족통일의 날》두돐기념집회에서 연설하면서 수단이 식민주의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3세계나라들의 투쟁에 참가하고있는것으로하여 자부심을 가진다고 말하였다.

1973년 중동전쟁때에 4천 200명의 군대와 의료단을 애급과 수리아에 각각 파견하였던 수단정부는 1974년 10월 7일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저들의 패배에서 교훈을 찾지 않고 여전히 전쟁도발에 미쳐날뛰고있다고 규탄하고 이스라엘침략자들과 맞서 싸울 단호한 립장을 다시한번 선언하였다.

1974년 6월 소말리아에서 진행된 제11차아프리카통일기구수뇌자회의에 참가하였다.

1974년에 니메리대통령이 자이르(8월), 이란(2월), 수리아(3월), 애급(4월), 인도, 아랍추장국련방, 바레인(11~12월)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목축업을 한다. 농업은 이 나라 총생산액의 약 80%, 총수출액의 95%를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목화와 아라비아고무이며 그 밖에 땅콩, 수수, 사탕수수, 참깨, 강냉이, 밀, 보리, 조, 콩 등이다. 목화는 그 생산량에서 아프리카에서 제2위이다. 목화밭은 전체 부침땅의 40%를 차지하며 농업인구의 85%가 목화농사를 한다. 아라비아고무는 수단의 특산물로서 세계총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세계시장에 들어가는 고무풀의 약 90%가 수단에서 생산된다.

혁명승리후 수단정부는 기름진 땅을 가지고도 식민주의자들의 통치밑에서 목화 하나에만 의존하던 단작경리의 식민지적후과를 가시고 농촌경리를 다각화하여 나갔다. 특히 정부는 수리화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게지라지구에 대규모의 관개체계를 만들었으며 나일강의 물을 끌어올려 9만페단의 메마른 땅에 관개수가 흘러들게 하였다. 또한 묵은 땅을 개간하며 부침땅을 확장하여 밀, 강냉이, 수수 등 여러가지 작물을 재배하고있다. 정부가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하여 깊은 관심을 돌린 결과 밀재배면적은 20여만페단이나 더 늘어났으며 1974년에 29만톤의 밀을 생산하였다.

수단은 아랍나라들중 축산업이 가장 발전하였다.

령토의 약 10분의 1에 달하는 25만평방키로메터의 넓은 방목지를 가지고있다.

집짐승은 지금 약 4천여만마리에 달하며 해마다 그 마리수는 평균 7%씩 늘어나고있다. 양은 1천 30만마리, 염소는 720만마리가 있다. 축산업에서는 유목과 반유목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혁명승리후 경제의《수단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새로운 공업부문들이 창설되였다. 나일강의 수많은 폭포들을 리용하여 많은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였으며 원유가공공장과 야금공장을 일떠세웠다. 또한 대추, 야자, 망고, 바나나, 종려 등 열매를 가공하는 70여개의 식료가공공장들이 운영되고있다. 국민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12%에 달하였다.

목화를 원료로 하는 방직공업이 빨리 발전하였으며 년 1억메터의 면직물을 생산하였다.

1973년에 사탕생산량은 1972년에 비하여 24%나 더 많은 11만 3천 500톤이였다.

혁명승리후 《교육의 민주화》와 《모든 공민들에게 교육의 권리를 부여》라는 구호를 들고 문맹퇴치운동을 적극 벌렸다. 혁명후에 소학교가 1천개, 중고등학교가 180개 늘어났다. 또한 기계공학기술학교, 농업기술학교, 공학건축기술학교 등 고등학교들이 새로 건설되여 민족경제건설에 필요한 기술인재들을 길러냈다.

공용어로는 아랍말을 쓴다.

보건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1973년에 병원수는 1969년의 77개로부터 122개로 늘어났다. 해마다 수천명을 헤아리던 천연두환자가 1973년에 거의 없어지게 되였다.

주민은 아랍사람, 누비아사람, 아프리카흑인 등 500여종족이 있다.

북부와 중부지대에서는 회교를, 남부에서는 원시종교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수단통신, 하르툼통신

신문 알 싸하파 (정부기관지), 알 아얌, 알 라이알암, 앗 수단 알 자디드, 모닝 뉴스, 알 아호바르, 나일미러

방송 수단방송, 수단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4월 23일 우리 나라와 령사관계를 맺었으며 6월 21일에는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9년 4월 13일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수단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이의 천재적로작들에 대한 연구와 출판보급사업이 널리 진행되고있다.

수단인민들은《김일성동지의 로작연구소조》, 《김일성동지의 사상연구소조》, 《김일성동지혁명활동및로작연구소조》 등을 비롯한 연구소조들을 뭇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연구학습하고있다.

1974년에 이 나라의 신문들과 여러 출판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을 광범히 보도하였다.

수단정부기관지 《알 싸하파》 1월 5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신년사를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실었다. 2월 26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

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를 실었다.신문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농업과학원 실험포전을 현지지도하시는 수령님의 사진을 정중히 모셨다.

4월 11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6월 23일호는《수단정부기관지 〈알 싸하파〉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게재하였다. 수단의 다른 신문들인 《알 아얌》과《나일미러》도 경애하는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이 로작을 소개하였다. 또한 6월 2일에는 수단텔레비존방송이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와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면서 이 로작을 소개하였다.

《알 싸하파》 8월 7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그이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소개하였다.

신문 《알 아얌》 9월 9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의 전문을 실었다. 11월 12일호는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실었다.

《알 싸하파》 1974년 2월 7일호는 또한 《조선인민군창건 스물여섯돐을 열렬히 축하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인민군대에 대한 특집을 조직하였다.신문은 군인들속에 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진을 정중히 모시고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언제나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조선인민군 병사들을 한품에 안아 키워주신다.》라고 썼다.

1974년 10월 또고의 수도 로메에서 진행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농촌테제발표 10돐을 기념하는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제3세계인민들의 과업》에 관한 과학토론회에서 수단대표단 단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이 농업분야에서 거둔 성과들은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관철된 결과이다. 수단사회주의동맹은 조선이 농촌문제해결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큰 관심과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고있으며 신생독립국가들이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이 경험을 본받을것을 희망한다. 농촌문제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로작들은 매우 중요하며 제3세계나라들은 난관을 타개하는 방도를 마련하기 위해 그것을 연구해야 한다.》

수단 정부와 인민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다.

1974년 10월 10일 하르툼시 알바라리지구 조선구역에서 조선로동당창건 29돐을 경축하는 기념집회와 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수단대통령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진행된 집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축하문이 참가자들의 우렁찬 박수속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니메리대통령은 1974년 8월 15일 수단주재 우리 나라 대사에게 《수단은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로부터 나라를 해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영웅적 조선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있다》고 하면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1974년 1월에 있은 수단사회주의동맹 제1차대회에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과 조선로동당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수단에서는 매해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기념일에 즈음하여 《수단조선친선주간》을 설정하고 기념행사들을 진행하고있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서는 전국각지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집회들을 가지고있다.

1974년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수단은 알제리를 비롯한 제3세계나라들과 사회주의나라들이 제출한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하여》의 공동발기국이였으며 표결에서 수단대표는 우리 나라를 지지하여 찬성투표하였다.

1974년 5월 수단사회주의동맹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보내는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대통령각하의 전투적인사를 대표단 단장이 정중히 전하여 드리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니메리대통령의 령도밑에 수단인민이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커다란 성과를 자기의 성과처럼 기뻐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대표단 단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조선인민이 수단혁명과 아랍인민들이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을 때 표시하여준 지지와 정당한 립장을 언제나 잊지않고있다고 하면서 수단인민은 조선인민이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 때까지 영원히 조선인민의 충실한 벗으로 남아있을것이라고 확언하였다.

1974년 8월 30일 유엔주재 수단상임대표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9월 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974년 4월 수단정부기관지 《알 싸하파》책임주필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접견석상에서 수령님께서는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들에 고전적인 명철한 대답을 주시였다.

1974년 4월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특사가 수단을 방문하였다.4월 1일 대표단 단장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니메리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친선적인 말씀을 정중히 전달하였다. 또한 이해에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 (5월), 조선청년대표단 (6월) 이 수단을 방문하였다.

뛰니지

(뛰니지공화국)

넓이 16만 4,150km²
인구 550만명 (1974년 1월)
수도 뛰니스 (주민 70만명)

정 치

국민의회 일원제의 최고립법기관, 의원수는 105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공화국리사회 나라의 최고심의기관으로서 데스뚜르사회당 정치국 위원들과 정부성원들로 구성된다.

대통령 하비브 부르기바 (1957년 7월 선거, 1974년 11월 3일 재선)

정부 총리 헤디 누이라 (1974년 9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프랑스공산당지부로 조직되였다가 1934년에 독자적인 정당으로 창건, 1963년에 비법화, 총비서 모함메드 엔다피, **데스트르사회당**(집권당) 1934년에 창건, 민족부르죠아지와 지주들의 리익을 대표, **근로자총련맹, 농민련맹, 녀성련맹**

튜니지는 1956년 3월 30일 독립하고 1957년 7월 25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3년 10월 15일 튜니지인민들은 독립후에도 자기 나라를 강점하고 내정에 간섭하던 프랑스침략군대를 비제르타기지에서 완전히 몰아냈다.

1964년 5월 외국인들의 토지를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고 프랑스독점체《모른》회사에 속한 27만정보의 땅을 몰수하였다.

1968년 9월 이스라엘을 국가로서 승인할것을 제창함으로써 아랍나라들과의 의견이 대립되여 아랍련맹에서 떨어져나왔다.

미제는 《평화군》, 《기술자》, 《교원》의 탈을 쓰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기관들에 기여들었으며 오늘까지 미제6함대가 튜니스, 비제르타, 사파끼스항들의 사용권을 쥐고 있다.

1970년 1월에 알제리와의 분쟁문제를 해결하고 20년 기한으로《우호선린및협조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1974년 1월 12일 남부튜니지의 제르바섬에서 튜니지대통령 부르기바는 리비아의 가다피대통령과 회담하고 《아랍회교공화국》이라는 단일국가로 두 나라를 통합할데 대한 합의서에 조인하였다.

이 합의서에 의하면 튜니지와 리비아는 1월 18일 국민투표를 통하여 《아랍회교공화국》이라는 국명을 가진 단일국가로서 하나의 헌법, 군대, 국가, 행정부 및 립법부, 국기를 가지게 되여있다.

그러나 국민투표는 실시되지 못하였으며 통합과 관련해서 일련의 문제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부르기바대통령은 4월 18일 리비아와의 통합협정을 무효로 선포하였다.

1974년 3월 23일 튜니지는 알제리와 두 나라 사이의 협력의 기초와 그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최고협력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목축업, 채광공업이다. 주민의 75%가 농민인데 농사를 지을수 있는 땅은 약 900만헥타에 달한다.

주요농산물은 올리브, 밀, 보리, 포도, 알파초(종이원료) 등인데 이 나라 농업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올리브생산이다. 독립후 정부는 물이 없던 사막지대를 관개하여 올리브나무밭을 새로 조성하는 조치들을 취한 결과 오늘 올리브나무수는 5천만그루에 달하고있다.

알곡작물인 밀은 년간 38만~45만톤, 보리는 13만~17만톤 생산된다.

목축업은 이 나라 농업생산액의 약 25%를 차지하며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락타, 말, 노새 등이다.

공업에서 기본은 채굴공업이며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많은 부분이 외래독점체들에 장악되여있다. 린광석, 쇠돌, 아연, 연, 석유, 돌소금 등이 있다. 린광석매장량은 자본주의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의 하나로서 년평균 200만톤 이상을 채굴하고있다.

그외에 제분공장, 올리브기름공장, 물고기, 과실 및 남새 가공공장, 작은 세멘트공장, 제철소, 화학공장 등이 있다.

운수에서는 철길 및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독립후 교육발전에 적지않은 힘이 돌려진 결과 문맹자수는 줄어들고 학교와 학생수는 늘어났다.

정부는 교육발전을 위해 매해 예산의 약 30%를 돌리고있다.

공용어로 아랍말을 쓰고있다.

주민은 대부분이 아랍족과 베르베르족이다.

출판보도; 통신 튜니지아프리카통신

신문 아랍페아(공산당기관지), 탁씨옹(데스트르사회당기관지), 알아말(데스트르사회당기관지), 쥬르날 오피씨엘 튜니지엥

방송 튜니지방송, 튜니지텔레비죤방송

알 제 리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넓이 238만1, 741km²
인구 1, 527만명(1972년)
수도 알제(주민 100만명)

정 치

혁명리사회 최고주권기관으로서 1965년 6월에 창설, 11명으로 구성되였으며 그중 7명이 군인이다.

의장 후아리 부메디엔

정부 1970년 7월 21일 개조, 23명으로 구성, 내각총리 후아리 부메디엔(1965년 7월ㅡ, 국방부장겸임), 외교부장 아브델 아지즈 부떼플리까

정당, 사회단체; 민족해방전선 집권당이며 유일당 1954년 8월에 창건, **근로자총동맹, 민족해방전선청년단체, 전국녀성동맹, 농업근로자전국련맹**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는 알제리혁명개시 스무돐기념행사에 참가한 알제리당및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신 석상에서 알제리인민이 제국주의자들에게 독립을 구걸한것이 아니라 손에 무장을 들고 투쟁을 통하여 정치적독립을 쟁취하였기때문에 알제리혁명의 승리가 매우 귀중하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알제리혁명은 세계혁명적인민들, 특히 아프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 커다란 고무를 주었다고 말씀하시였다.

130여년동안 식민지기반에서 가혹한 착취와 략탈을 당하여 온 알제리인민은 1954년 11월 1일 민족해방전선의 기치밑에 조국을 해방하며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무장을 들고 일어섰다.

알제리민족해방군의 투사들은 실로 8년동안 자기 희생성과 불굴의 투지로 용감히 일어나 80만의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강점군을 쳐갈기고 정치적독립을 쟁취하였다.

알제리는 부메디엔의장의 령도밑에 이미 달성한 정치적독립을 안받침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로서 프랑스식민주의자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토지와 원료, 원유, 가스의 국유화, 민족문화의 부흥과 같은 획기적대책을 세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알제리인민이 공업혁명, 토지혁명, 문화혁명의 세가지 혁명구호를 들고 힘차게 투쟁하고있는것은 매우 좋은 일이며 갓 독립한 나라 인민으로서 진보적길을 개척하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알제리인민은 가까운 몇해안에 사회주의경제에 토대한 현대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단계에 들어설 확고한 전망을 가지고 제2차4개년계획을 수

행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은 자립적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 정당한 로선을 관철함으로써 오늘 국제무대에서 그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독자적인 로선과 정책을 실시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단행본, 3페지)

독립후 알제리정부는 3개년계획(1967—1969년), 제1차4개년계획(1970—1973년), 제2차4개년계획(1974—1977년)에 따라 연료동력공업, 2차가공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을 국유화하여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지반을 허물어버리면서 새로운 국영부문들을 창설함으로써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였다.

원유생산의 대부분, 천연가스생산의 100%, 전력, 기계, 화학 등 중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을 모두 국유화하여 국영원유회사(쏘나트락크), 국영가스회사(쏘넬가즈), 국영광물탐사및채취회사(쏘나렘), 국영기계공업회사(쏘나코메) 등 국영회사들을 련이어 창설함으로써 정치적독립의 경제적기초를 마련해놓았다.

알제리정부는 제국주의식민지농업의 후과를 가시고 나라의 농촌면모를 일신하는데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토지혁명 제2단계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74년에 전국농민동맹 제1차대회를 소집하고 농민들을 토지혁명에로 불러일으켰으며 땅없는 농민들에게 처음으로 땅이 분배된 6월 17일에 즈음하여 로동계급들과 국가정무원들, 청년학생들을 농촌에 파견하였다.

그리하여 토지혁명 제1단계에서 제국주의자들이 소유하였던 250만헥터의 비옥한 땅을 국유화한 알제리에서는 1971년 11월에 선포한 토지혁명 제2단계의 과업인 400만헥터의 개인소유토지와 100만헥터의 공유지를 국유화하는 력사적과업을 1974년말까지 기본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국유화한 토지로 우선 2천개의 자치제농장과 300여개의 옛투사농장들을 창설하였으며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주로 토지혁명 1, 2단계의 과업은 나라의 북부지역들에서 끝났다. 그리하여 최근 2년동안에만 하여도 3천 200개의 여러가지 형태의 협동농장들이 조직되였으며 그의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닦아졌다.

알제리정부는 토지혁명 1, 2단계의 성과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1974년 2월 14일부터 방풍림지대조성사업에 떨쳐나섰다.

방풍림지대는 1, 400키로메터의 총길이에 20키로메터의 폭을 가짐으로써 열풍과 모래바람, 가물을 막고 토지혁명을 먼저 수행한 북부지대의 농경지와 방목지, 산림자원을 보호하게 된다.

5단계까지 예견된 토지혁명의 제3단계는 전국적으로 31개 도 중 1975년 1월 2일부터 13개 도에서 시작되였다.

알제리정부는 이 사업을 《목축혁명》으로 부르면서 《가축떼는 그를 기르는 사람들에게!》, 《양은 그를 기르는 사양공에게!》, 《초원은 가축사양공들에게!》라는 구호를 제기하였다.

문화혁명의 구호밑에 제2차4개년계획기간에 예산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을 교육비로 지출하기로 하였다.

청소한 공화국은 국가, 경제기관들에서 식민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대담하게 몰아내면서 자기 힘으로 길러낸 민족간부들을 파견하여 국가경제의 관리운영을 자체로 해나가도록 하였다. 원유공업부문의 기술자들과 간부들만 보아도 새로 양성배치한 일군들의 대오가 1만여명이나 되였다.

또한 국가, 경제기관, 학교들에서 외국말대신 아랍말을 쓰고있으며 신문, 잡지, 교과서들도 전부 아랍글자로 찍어내고있다.

알제리정부는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행정구역분할의 불합리성과 기형성을 없애기 위하여 1974년에 도행정체계를 인민들에게 더 접근할수 있도록 세분화하는 사업과 도인민회의의 기능을 더욱 높이기 위한 대책을 취하였다.

무엇보다먼저 이미 있던 15개 도외에 새로 16개 도를 내옴으로써 지역들간의 차이를 빨리 줄이고 도행정기관들에 인민들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할수 있는 체계를 세웠다.

또한 제2기도인민회의선거를 통하여 도인민회의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나라의 민주주의적정권을 더욱 튼튼히 다짐으로써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반제반식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운동인 쁠럭불가담운동의 확대발전과 아랍인민의 존엄을 지키고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이룩하며 제3세계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적극적역할을 놀고있다.

1974년 1월 30일 부메디엔은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의장의 자격으로서 연료 및 원료 문제를 포함한 국제경제관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총회 특별회의 소집을 제기하였다. 이 제안이 나온지 한달도 못되여 유엔성원국 135개 나라들중에서 130여개 나라들이 지지해나섬으로써 닉슨놈이 소집하였던 워싱톤석유소비국회의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아랍석유생산국들을 반대하는 쁠럭을 만들지 못하게 하였으며 나아가서 제3세계나라들이 원료와 동력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완전한 평등과 자주권을 누릴수 있게 하였다.

이에 앞서 1월 19일 부메디엔의장은 원료를 생산하는 제3세계나라들의 통일전선형성을 주장하였으며 2월 13일에는 알제리, 애급, 사우디아라비아, 수리아 4개국 수뇌자회의에서 대미석유수출을 금지할것을 제의하였다.

1974년 6월 부메디엔은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들, 아랍련맹과 아프리카통일기구 서기장들에게 팔레스티나인거주지역을 폭격한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만행을 규탄하는 서한을 각각 보냈다.

1974년 7월 부메디엔은 희랍정부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끼쁘로스에서의 류혈적인 충돌을 끝장내고 끼쁘로스의 독립과 자주를 담보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취할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의장의 명의로 쁠럭불가담 국가 및 정부 수반들에게 보냈다.

1974년 9월 부메디엔의장은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티나문제,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의 합법적권리회복문제가 토의되는것과 관련하여 사회주의나라수반들과 쁠럭불가담국가 및 정부수반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줄것을 호소하여 전문을 보냈다.

4월 23일 알제리혁명리사회 의장은 뜌니지대통령과 두 나라 사이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최고협력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1974년에 후아리 부메디엔의장은 중국(2월), 조선(3월), 뜌니지(3월), 꾸바(4월)를 국가방문하였다.

1974년 7월 6일부터 12일까지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제3세계청년대회가 진행되였다.

또한 7월 6일부터 22일까지 알

제에서 팔레스티나학생총동맹 제7차 전국대회가 진행되였다.

1974년 7월 9일에 오스트랄리아정부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은 채취공업과 농업이다. 공업총생산액에서 채취공업이 3분의 2를 차지하는데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이 위주로 되고있다.

독립후 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지반을 소탕하며 제국주의의 경제적침투를 막기 위한 혁명적조치들을 취하였다. 이리하여 이 나라 민족공업에서 국영부문은 공업총생산액의 80%를 차지하게 되였다.

알제리정부는 경제건설의 기본방향을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두고 이에 큰 힘을 넣었다.

《나라의 공업화는 우리의 중요한 전략목표이다》—이것이 알제리경제건설에서 기본구호이다.

알제리인민들은 제1차4개년계획(1970—1973년)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우선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을 많이 건설한 결과 나라의 국영공업을 더욱 강화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닦았다.

년산 1만대의 디젤기관차와 5천대의 뜨락또르를 생산하는 꼰스딴찐종합기계공장, 야금공업의 《맏아들》인 안나바야금종합공장, 년산 45억립방메터의 생산능력을 가진 천연가스액화공장을 비롯하여 무려 150개이상의 공장, 기업소들이 건설되였다.

그리하여 3개년계획(1967—1969년)을 통하여 나라의 공업화준비, 제1차4개년계획을 통하여 나라의 공업화토대를 닦은 알제리에서는 지금 자동차, 뜨락또르, 공작기계, 전기기구 및 각종 화학제품을 비롯한 새로운 중공업제품들이 대대적으로 생산되고있다.

또한 제1차4개년계획기간에 공업생산이 년평균 9%의 속도로 장성하였다. 특히 채굴공업, 원유공업, 화학공업과 같은 자립적민족경제의 기간공업부문들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원유채취량은 1970년의 4천 850만톤으로부터 1973년에는 5천100만톤, 천연가스는 40억립방메터로부터 90억립방메터로, 화학비료는 14만톤으로부터 1974년에 55만톤에 달하였다.

알제리인민은 제1차4개년계획(1970—1973년)을 성과적으로 수행한데 기초하여 1974년부터 제2차4개년계획을 실천하는 길에 들어섰다.

제2차 4개년계획기간의 총투자액은 1천 100억디나르로서 제1차 4개년계획기간 총투자액의 약 3배에 달하였다.

그중에서 43.5%는 식민지경제의 기형성과 편파성을 퇴치하고 자립적경제토대를 닦아나갈 공업부문에, 15%는 포도만을 위주로 하던 단작경리로부터 알곡을 기본으로 하는 다작경리인 농업 특히 수리화에 돌리게 하였다.

이에 따라 채굴공업, 석유공업, 화학공업, 야금공업, 기계공업, 건재공업이 급속히 발전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원유는 1977년에 1973년보다 1천 500만톤 더 많은 6천 500만톤, 천연가스는 50억립방메터나 더 많은 250억립방메터가 생산되며 각 지방에 도합 500여개의 지방공업공장들이 일떠서게 된다.

또한 제2차4개년계획에서는 모든 지방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할것을 중요하게 예견하고 가장 뒤떨어진 200여개 러들에 대한 특별계획과 30개 도시의 현대화계획에 많은 자금을 돌리고있다.

이에 따라 10만세대의 도시주택, 11만세대의 농촌주택, 300개의 《사회주의촌》이 건설되게 되였다.

한편 계획기간에 교육 및 민족간부양성에 많은 자금을 들여 기술자, 전문가들을 양성하게 되며 40여개의 종합병원, 200여개의 종합진료소, 400여개의 각종 의료초소들을 건설하게 된다.

제2차4개년계획에 따라 1974년에 첫해 계획을 수행하였다.

1974년의 국가예산에서 흑자는 90억디나르에 달하였다.

특히 국제수지흑자는 1974년말에 거의 20억디나르에 이르렀다.

이것은 경제적자립의 길로 나아가는 알제리공업생산이 정상화되고있으며 생산과 무역이 균형적으로 발전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제1차4개년계획기간에 많은 공장들이 건설되였고 공업제품생산량이 훨씬 늘어났다.

원유는 5천 200만톤(1972년), 가스는 90억립방메터(1973년), 철광석은 35만톤(1972년), 전력은 20억키로와트시(1972년), 세멘트는 120만톤(1972년), 강철은 48만톤(1973년), 직물은 1억메터나 생산되였다.

주요농산물은 밀, 포도, 보리, 귀밀, 담배, 도마도, 남새 등이다.

1970—1973년기간에 년평균 200만톤의 알곡을 생산하였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와 철도운수가 기본이다. 자동차길(6만키로메터)과 철길(4천 500키로메터)은 주로 지중해기슭의 도시들을 련결하고있다.

사막지대에서는 락타와 말이 운수수단이다.

대외무역은 1971년 7월부터 국가무역기관을 통해 진행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석유, 포도주를 비롯하여 가스, 올리브, 쇠돌, 가축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석유제품, 기계, 사탕 등이다.

교육분야에서는 교육의 《민주화, 아랍화, 과학기술교육발전》, 교원대렬의 《알제리화》방침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하였다.

1차4개년계획기간에 총투자의 12%(30억디나르)를 교육부문에 돌렸다. 3개의 종합대학과 30개의 기술단과대학이 있으며 6천 109개의 각급 학교들이 새로 건설되였으며 1973년 한해동안에만도 약 5천개의 교실을 새로 지었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원들이 모두 알제리사람들로 꾸려졌다.

1974년 1월부터 일부 지역들에서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였다.

주민의 97%가 아랍족과 베르베르족이며 대부분이 회교를 믿는다.

공용어는 아랍말이다.

출판보도; 통신 아뻬에스

신문 엘 무쟈히드(정부기관지, 프랑스말), 알 샤브(아랍말), 안나쓰르(동부지방신문, 아랍말), 레뿌블리끄(서부지방신문, 프랑스말), 레볼류씨옹 에 트라바이(로총기관지, 아랍말, 프랑스말), 에샤바보(청년동맹기관지, 아랍말, 프랑스말)

잡지 레볼류씨옹 아프리껜(민족해방전선기관지, 아랍말, 프랑스말), 엘 제이쉬(민족인민군기관지, 아랍말, 프랑스말), 엘쟈쟈이리아(녀맹잡지, 아랍말, 프랑스말)

방송 알제리방송, 알제리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8년 9월 2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4년 9월 16일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0월에는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혁명리사회 의장이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후아리 부메디엔이 1974년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의 기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과 후아리 부메디엔의장 사이에 회담이 진행되였으며 토의된 문제들에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후아리 부메디엔의장각하를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가 진행되였다.

군중대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의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군중대회에서는 또한 후아리 부메디엔의장이 연설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독립을 위한 장기간의 알제리민족해방전쟁에서 영웅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세계피압박인민들의 반제혁명위업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독립후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민족적독립의 공고화와 새 사회건설을 위한 알제리인민의 투쟁을 올바르게 령도함으로써 나라의 륭성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위훈을 세웠으며 유태복고주의와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고 아랍민족의 존엄을 수호하며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으며 제3세계인민들의 단결과 세계 평화와 진보를 위한 투쟁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으며 자신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조선인민과 알제리인민사이의 전투적친선단결을 강화하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는데서 특출한 공헌을 한 알제리인민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견결한 반제투사인 후아리 부메디엔의장각하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와 함께 금별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시였다.

후아리 부메디엔의장은 김일성주석께서 자기에게 최대의 영예를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면서 영웅의 나라에서 영웅칭호를 받는다는것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후아리 부메디엔은 다른 나라 국가수반들 중에서 우리 나라에서 영웅칭호를 받은 최초의 국가수반이다.

그는 수여식에서 조선이 통일되는 날 형제인 김일성주석각하와 그리고 조선인민과 함께 자기들은 그날을 뜻깊게 기념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974년에 알제리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연구발표모임을 진행하였고 많은 로작들을 번역출판하였다.

1월 11일 알제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에 대한 알제리에 있는 3대륙의 혁명적인 투쟁단체 대표들의 연구발표모임이 있었다.

모임에서는 수령님께 삼가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신문 《엘 무쟈히드》 3월 6일호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4년 3월 4일에 있은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실었다.

이미 부메디엔의장은 1973년 9월 알제에서 진행된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 조선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렸다.

1973년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우리 나라의 립장을 지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바 있는 알제리는 1974년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도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조성할데 대한 문제를 회의 의정으로 토의할것을 제기하였다.

이 알제리 발기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 5대방침과 1973년 10월 28일 연설정신을 반영한 자주적이고 공정한것이기때문에 1974년에는 40개 (1973년에는 33개) 나라들의 공동결의안으로 발전하였다.

후아리 부메디엔의장은 1974년 9월에 유엔총회에서의 조선문제토의와 관련하여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의장의 명의로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들에게 수뇌자회의결의에서 표명된 정신에 따라 조선에 관한 문제의 평화적해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줄것을 요구하는 전문을 보냈다.

한편 1974년에 유엔총회 제29차회의의 의장으로 선출된 알제리 부떼플리까외교부장은 유엔무대에서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기 위하여 적극 활동하였다.

부메디엔의장은 1974년 7월 알제에서 열린 제3세계청년대회에서 조국통일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였으며 《조선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도록 하였다.

만국우편동맹대회에서 알제리대표는 우리 나라가 이 기구에 들어가는것을 도와 적극적인 활동을 벌렸으며 우리의 가입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제일 먼저 연설하였다.

알제리민족해방전선과 정부와 사회단체들은 1974년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행사들을 성의있게 조직하였다.

련대성월간에 수도와 각도 소재지들에서 민족해방전선의 중앙과 지방당위원회들의 명의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들을 성대히 진행하고 수많은 련대성편지들을 채택하였으며 이 밖에도 사진전시회 등 여러가지 행사들을 크게 진행하였다.

이 해에 조선인민들과 알제리인민들은 알제리혁명개시 스무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는 알제리혁명개시 스무돐기념행사에 참가한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고 오찬을 베푸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알제리혁명개시 스무돐에 즈음하여 조선알제리친선협회,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의 공동주최로 1974년 11월 1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을 《알제리인민과의 친선주간》으로 설정하고 기념집회, 친선모임,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여러가지 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알제리혁명개시 스무돐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과 정부군사대표단이 알제리를 방문하였다.

이에 앞서 만수대예술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혁명리사회의장이며 내각 총리인 후아리 부메디엔이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과 만수대예술단을 접견하였고 특별공연을 보았다.

6월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특사가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4년에 알제리에서는 근로자총동맹대표단 (7월), 녀맹대표단 (7월), 알제종합대학 강좌장부부 (8월), 정부무역대표단 (11월)이 왔고 우리 나라에서는 녀맹대표단 (3월), 정부무역대표단 (9~10월) 이 방문하여 친선의 뉴대를 강화하였다.

1972년 11월 15일에 우리나라와 보건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의정서, 1973년 9월 28일에 1973—1974년도 과학협조에 관한 계획서가 각각 조인되였다.

1970년 7월 26일에는 알제리조선친선협회가, 1971년 3월에는 조선로동자들과의 알제리련대성위원회가 조직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3년 3월 알제리조선친선빠뜨리스 루뭄바렐사아동학원에 선물을 보내주시였다.

마 로 끄

(마로끄왕국)

넓이 44만 6, 550km² (이프니 포함)

인구 1, 630만명 (1972년)

수도 라바트 (주민 37만 5, 000명), 탄지르 (1962년 1월에 여름수도로 결정)

정 치

국회 일원제의 최고립법기관, 의원수는 240명, 그중 150명은 다계단선거에 의하여 선거되며 90명은 직접적선거에 의하여 선거, 임기는 6년, 1970년 8월에 선거된 국회의원중 180명은 무소속이고 60명은 인민운동당출신이다.

국왕 물라이 하싼2세 (1961년 3월—) 국가수반이며 군총사령관이다. 1970년 헌법에 의하여 국왕이 총리와 각료들을 임명하거나 파면할수 있고 국회를 해산할수 있다.

정부 1972년 11월 2일 구성, 총리 아호메드 오스만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프랑스공산당지부로 조직되였다가 1943년 독자적인 당으로 창건, 1960년에 비법화, **민주사회당** (집권당) 1964년에 조직, 대부르죠아지와 봉건령주들의 리익을 대변, **립헌제도옹호전선** 1963년 3월 인민운동당, 립헌민주당, 자유당이 선거통일전선으로 결성, 보수적인 왕당파로서 대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 **이스티클랄** (독립당) 1943년에 조직, 제일 영향력 있는 민족주의정당, **인민력량전국동맹** 1959년 이스티클랄에서 떨어져나온 사람들로서 조직된 좌익적인 민족주의정당, 1973년 4월 비법화, **해방및사회주의당** 1968년 공산당에 기초하여 창건, 근본적인 민주주의적개혁 요구, 1969년 9월 19일 라바트지방재판소는 이 당을 해산할것을 결정, 총비서 알리 야따, **진보및사회주의당** 1974년 8월 27일 창건, **로동련맹, 근로자총동맹, 로동청년동맹**

마로끄는 1959년 3월 2일 프랑스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해 4월 7일 에스빠냐령 마로끄가 이미 귀속되였으며 10월 26일에는 탄지르지역에 대한 《국제관리》도 철폐되였다. 1969년 1월 4일에 에스빠냐의 강점하에 있던 이프니가 마로끄에 통합됨으로써 나라의 완전한 통일이 이룩되였다.

1962년 12월 첫 헌법을 제정하고 립헌왕국으로 되였다.

1970년 7월 의회제를 규정한 새 헌법을 채택하고 이해 8월에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1971년 7월 10일과 1972년 8월 13일 두번에 걸쳐 장교들이 국왕전복 군사정변을 일으켰다가 진압되였다. 정변후 하싼왕은 국방부와 군대를 자기가 직접 틀어쥐였으며 국방부와 륙군 총사령관직을 없애버렸다.

1972년 3월에 종전의 헌법을 일부 개정한 새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여 승인되였다. 야당은 헌법의 전면적개정을 요구하여 국민투표에 참가하지않았다.

1974년 8월 27일 마로끄에서 새 정당인 진보및사회주의당이 창건되였다.

마로끄 로동계급과 농민의 당으로 알려지고있는 새 당은 강령에서 나라의 민족적자주권과 독립 및 령토완정의 강화를 위한 투쟁,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책동에 대한 폭로, 민주주의적자유의 확대를 정치적과업으로 제기하고있다.

마로끄는 외국인자본가들의 기업소들을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하고있다. 1956년에 이 나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의 하나인 린산염채굴회사들과 쇠돌채굴회사들을 국가의 수중에 넣었다. 1959년에는 외국인소유의 일부 은행을, 1963년부터는 식민주의자들의 소유지였던 27만 5천헥타의 땅과 외국독점체의 재산을 국가의 통제하에 넣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1973년 3월 9일 식민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땅을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을 발표하였다. 이 법령에 따라 8월 8일 《중앙접수위원회》가 구성되였으며 그후 각 주들에 《접수위원회》가 조직되여 전국적으로 토지를 몰수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대외적으로 적극적중립정책을 내놓고있는 마로끄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고 강점된 아랍땅에서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과 아랍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 마로끄왕국 국왕 물라이 하싼2세가 강점당한 땅을 되찾기 위한 아랍나라들의 투쟁과 민족적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그는 아랍인민의 정의의 투쟁이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마로끄는 어떠한 환경속에서도 그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 강화할것이라고 말하였다. 1973년 10월 중동전쟁기간에 마로끄는 수리아에 지원병을 파견하여 아랍인민들의 투쟁을 지원하였다.

1974년 8월 26일 라바트에서 제8차 아랍수뇌자회의 준비를 위한 아랍련맹외교부장회의가 진행되였으며 26~27일까지 제7차 아랍국가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20개성원국들의 국가원수, 정부수반 및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독립후 정부는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고 자립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일련의 대책들을 취하였다. 로력인구의 85%가 농사를 하는 이 나라에서는 농업발전에 많은 힘이 돌려지고있으며 독립후 토지개간, 수리화, 다각화에서 성과들이 있었다.

국민총생산액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몫은 35%이다. 부침땅은 700만헥타이상 (씨뿌리지 않는 땅까지 포함) 인데 그중 관개한 땅은 15만~20만헥타이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강냉이, 벼, 목화, 포도, 감류 등이다.

밀, 보리, 강냉이가 85%를 차지한다. 1974년에 5천100만껭딸 (1껭딸은 50키로그람) 을 거두었다.

목축업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남부초원지대에서는 양, 소, 말, 염소, 락타 등을 기른다.

공업에서는 채광업이 80%를 차지한다. 린산염채굴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제2위를 차지하며 이 나라 채굴공업생산액의 70%에 달한다. 이 외에 쇠돌, 연, 아연, 망간, 석탄, 석유, 동 등이 생산된다. 사탕공업도 눈에 띄게

발전하였다. 자체의 사탕공업을 가지고있지 못한것으로 하여 많은 외화를 사탕수입에 돌려오던 마로끄는 1963년부터 사탕무우발면적을 늘이고 그 생산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사탕무우재배지들에 사탕공장들을 건설하고있다. 현재 사탕무우발면적은 5만 7천헥타이며 년간 사탕생산량은 22만톤에 달한다.

1973년부터 시작된 경제발전5개년계획(1973—1977년)기간 공업부문에 11억 3천만디르함이 투자되는데 그중 방직공업부문에 7억 7천 800만디르함, 식료공업부문에 1억 3천 200만디르함, 중공업부문에 2억 2천만디르함이 돌려지게 된다.

풍부한 수산자원을 가진 이 나라의 수산업도 비교적 발전하였다. 정부는 독립후 원양어업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힘을 기울인 결과 1973년에 34만톤의 물고기를 잡았다. 정어리생산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제1위이다. 1974년에 들어와서만도 7월현재 2만 9천 600톤의 고기가루를 수출하였는데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2천 900톤 더 많은 량이다.

철도운수와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은 1천 700여키로메터, 도로는 2만 4천여키로메터에 달한다.

주요수출품은 린산염, 망간 등 광물류와 감귤류, 일년감, 수산물가공품, 어분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천, 식량, 기계, 차, 사탕 등이다.

교육의 《아랍화》를 위하여 민족간부양성사업을 추진시키며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힘쓰고있다.

대학은 4개 있다.

국교는 회교이다.

출판보도; 통신 마그레브아랍통신

신문 알 알람 (이스티클랄당기관지), 오삐니옹 (이스티클랄당기관지), 떼삐떠뜨 마로끄, 라 비지 마로끄, 알 안바아 (공보부신문), 알 마그레브 알 아라비, 아방가르드, 사우뜨 알 마그레브 팔라스뛴, 알끼파흐, 알 와따니, 알 바이얀

방송 마로끄방송, 마로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6월 마로끄신문《알 바이얀》은 《조선의 강철공업의 위력》이라는 제목밑에 빨리 발전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강철공업을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강철생산에서 인구1인당 발전된 공업국가들의 수준에 올라섰거나 그 수준을 릉가하고있다. 이것은 세계 강철공업발전력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강철생산에서 조선이 이처럼 높은 수준에 도달할수 있게된것은 전적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신문은 계속하여 전후 재더미우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던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공업화의 기초를 마련하며 강철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철소들과 제강소들을 현지에서 직접 지도하시면서 강철로동자들이 전후복구건설에 몸바쳐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고 썼다.

1974년 10월 마로끄신문 《알 바이얀》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고 매국배족행위를 일삼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을 규탄하는 론설을 발표하였다. 《조선의 통일문제》라는 제목의 론설은 우리 나라 통일문제에 가로놓인 난국은 미제와 남조선통치배들의 분렬주의적책동에 의한것이라고 규탄하였다.

1974년 5월 만국우편동맹 제17차대회에서 마로끄는 우리 나라의 가입을 지지하는 50개국 공동결의안 참가국으로서 우리 나라의 립장을 지지하였다.

에스빠냐령사하라

넓이 26만 6,000km^2
인구 9만여명
행정중심지 엘 아윤 (주민 5,300명)

정 치

식민지통치기구 에스빠냐총독이 통치하고있다. 명목상의 자치정권기관으로서 해외명의회라는것을 두고있다.

1916년부터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이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목축업이다. 인구의 절반이상이 유목민이다.

주요집짐승은 락타, 염소, 면양 등이다.

오아시스부근에서는 보리, 기장, 올리브를 심고있다.

물고기잡이와 바다풀채취도 한다. 공장이라고는 몇개의 작은 물고기통졸임공장밖에 없다.

주요지하자원은 린회석, 쇠돌, 석탄, 망간, 석유 등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베드윈족과 베르베르족이다.

공용어는 아랍말과 베르베르말이다.

주민들은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방송 사하라방송

모 리 따 니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넓이 103만 700km^2
인구 123만명 (1972년)
수도 누악쇼뜨 (주민 13만명)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 1971년 8월에 선거, 인민당이 전의석 50석을 차지하고있다. 임기는 5년이다.

정부 1973년 12월 내각개조, 대통령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 (1971년 8월 재선), 외교부장 함디 울드 무크나쓰, 국방부장 씨디 모하메드 디아가나

정당, 사회단체; **인민당** 집권당이며 유일당, 1961년 4개의 정당이 통합되여 성립, 수공업자, 지식인, 로동자, 농민, 유목민, 상인, 민족부르죠아지 등 사회의 모든 계층이 다 들어있다. 당의 강령은 아프리카통일, 아랍통일을 위해 투쟁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모든 제3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다. 총비서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 **근로자동맹**, **인민당청년최고리사회**, **인민당녀성최고리사회**,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 1968년 4월 11일 결성, 위원장 바 알라싼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리따니인민이 새 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고있는 빛나는 성과들로 하여 오늘 모리따니의 면모는 일신되고있으며 모리따니회교공화국의 국제적위신은 날로 높아가고있습니다.**》

1958년 11월 28일《프랑스공동체》내의 《자치공화국》으로 된 모리따니는 1960년 11월 28일 독립하여 회교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모리따니는 다다흐대통령의

령도밑에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자주권을 확고히 지키고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부단한 전진의 길을 걸어왔다.

모리따니정부는 독립직후 나라의 정치적단결을 이룩하는것이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업이라는것을 확신하고 1961년 국내의 4개 정당을 하나의 모리따니인민당으로 결성하였다.

1963년에 정부는 주동적으로 이전종주국인 프랑스의 재정적보충을 포기하고 나라의 예산에서의 자주를 실현하였다. 정부는 대외무역에 대한 외국자본의 독점을 청산하기 위해 1966년에 자기의 수출입회사를 창설하여 쌀, 차, 사탕을 비롯한 일부 인민생활필수품들의 수입과 주요특산물인 아랍고무의 수출을 통제하였다. 정부는 《간부의 모리따니화》구호를 내놓고 국가의 주요기관들에 남아있던 식민주의자들을 쫓아내고 나라의 행정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을 모리따니사람들이 관리운영하게 하였다. 또한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회사들과 공장, 기업소들을 국유화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침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72년 12월에는 제국주의식민지화페제도를 청산하고 민족화페(우기아)를 제정하였으며 1973년 5월에는 중앙은행을 창설하였다.

모리따니 정부와 인민은 1972년에 자기 나라 령해범위를 30마일로 넓히였다.

모리따니 정부와 인민은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추켜들고 민족경제를 발전시켜왔다.

정부는 독립후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하여 농업, 특히 알곡생산을 늘이는데 힘을 넣었다.

국영농장과 농업을 집단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내왔고 1974년 7월에는 모리따니 상업및개발은행을 창설하여 농업및상업경영자들에게 차관을 주는 적극적조치를 취하였다. 정부는 또한 목축업발전을 위해 1972년 7월부터 5년안으로 목축업세를 페지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공업분야에서도 모리따니는 1972년에 자기 나라 자본에 의하여 경영되는 모리따니국가공업및광업회사를 세웠다.

대외관계에서 모리따니는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고 제국주의,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아세아, 아프리카나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지지하고있다.

1965년 12월에 남로데시아 소수 백인인종주의정권을 부추기고있는 영제국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1967년 6월 미제가 이스라엘을 사촉하여 아랍나라들을 침략하였을 때 모리따니정부는 미제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1974년 3월 다다흐대통령은 군중집회에서 큰 나라들의 패권주의를 규탄하고 아프리카와 아랍나라들이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공동으로 맞서 싸울것을 호소하였다.

1973년 9월 뽀르뚜갈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오랜기간의 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기네-비싸우가 독립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자 지체없이 이 나라를 승인하였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와 아랍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모리따니정부는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에서 애급, 수리아 및 팔레스티나 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있었으며 물질적지원을 보냈다. 뿐만아니라 1974년 6월에 모가디쇼에서 진행된 아프리카통일기구수뇌자회의에서도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아랍인민들과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에 견결한 지지를 표시하였다.

정부는 인도지나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하여 1969년 6월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를 승인한다는것을 선포하고 유엔에서 론 놀도당의 《대표》를 내쫓을것과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의 합법적의석을 일관하게 주장하였다. 1974년에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대통령이 6월에 소말리아에서 진행된 제11차 아프리카통일기구수뇌자회의에 참가하였으며 9월에 중국을 방문하였다. 5월에 키에우 삼판부총리를 단장으로 하고 이엥싸리특별고문을 부단장으로 하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및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대표단이 모리따니정부의 초청에 의하여 이 나라를 공식방문하였다.

1974년 4월 모리따니는 까타르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모리따니는 축산업을 기본으로 하는 농업국이다.

경제의 기본은 축산업이다. 주민의 70%가 축산부문에서 일하고있으며 축산업의 생산액은 농업총생산액의 70%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락타 등이며 주로 중부의 반사막지대와 남부초원지방에서 많이 기른다. 이 나라의 전체 부침땅은 30만헥타이며 주요농산물은 수수, 조, 보리, 콩, 기장, 대추,야자, 아라비아고무 등이다.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남부 므뿌리평원에 현대적인 첫 국영농장이 생겼고 처음으로 벼를 심게 되였다. 그리하여 1973년에 벼를 헥타당 약 5.5톤씩 냈다. 세네갈강반에서는 농업집단조직이 나와 농민들은 집단적으로 관개수리공사를 하여 가물피해를 막고있으며 땅을 정리하여 농업생산을 부쩍 늘이고있다.

공업에서는 광업이 기본이다. 광업에서 로천채굴이 기본이며 주로 쇠돌, 동을 많이 캐낸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이 독차지하고있던 광석채굴권이 국가의 수중에 장악된 이후부터는 쇠돌생산량이 빨리 늘어나 그 생산량에 있어서 아프리카대륙에서 두번째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1973년말 누악쇼뜨북부의 세브크하에 석고광산이 새로 건설된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나라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개발하려는 모리따니인민의 확고한 결의를 보여준다.

주요지하자원으로는 쇠돌(매장량 10억톤), 동(매장량 3천 200만톤) 이외에 석유, 크롬, 니켈, 바나디움 등이 있다.

정부는 과거에 채취공업에만 치중하던 경제의 식민지적편파성을 극복하고 국내의 공업원료에 기초한 가공공업을 새로 창설하는데 힘을 넣었다.

지금 모리따니에는 양털공장, 통졸임공장, 가죽공장, 사탕공장, 우유가공공장, 식료가공공장 등이 건설되였다.

수산업도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해마다 약 30만톤의 물고기를 잡는다.

공업 및 농업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또한 교통운수업에 힘을 넣었다. 결과 전국적으로 아스팔트도로가 독립당시의 30키로메터로부터 1974년현재 560키로메터로 늘어났다.

교육분야에서도《모리따니화》가 실현되여 교원들의 100%가 모리따니사람으로 교체되였다.

1973년 누악쇼뜨에 사범대학이 새로 건설되였으며 각지에 고등학교들이 많이 일떠섰다.

공용어로는 아랍말을 쓴다.

인민보건사업에서도 새로운 전변이 이룩되여 8개의 큰 병원을 비롯하여 진료소, 예방원, 산원들이 건설되였다. 정부는 계속되는 가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5억아프리카프랑을 배당하여 집짐승을 잃은 유목민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무상으로 의료상 방조를 주

고있다. 또한 가물피해가 심한 지역인민들에게 식량도 나누어주고있다.

주민의 97%가 베르베르족의 모르사람이다.

회교가 압도적다수이며 기독교도는 약 1%밖에 안된다.

출판보도; 통신 모리따니통신

신문 뻬블 (인민당기관지), 쥬르날 오피씨엘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11월 12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모리따니회교공화국이 남조선과 맺고있던 외교관계를 단호히 끊어버리고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은것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것으로 되였다.

1965년 9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67년 10월에 무역협정과 과학기술협정을 맺었다.

1968년 4월 11일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0년에 《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 《김일성주석혁명력사연구소조》등이 결성되였다.

1974년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모리따니대통령 모크타르 올드 다다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그의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맺어진 전투적친선단결의 불패의 생활력을 시위하는 또하나의 력사적계기로 되였다. 방문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모크타르 올드 다다호대통령 사이의 회담이 있었다. 대통령은 방문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높은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커다란 업적들을 높이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나라 인민이 단결되고 자기 힘을 믿으며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목숨으로 지킬 각오가 되여있으면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 진리를 밝혀주시였습니다.…제3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국가건설에서 조선의 경험을 널리 리용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합니다.》

《당신께서는 세계인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계십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당신께 축하를 드립니다.》

방문기간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다다호대통령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시였다. 또한 그 일행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훈장 및 메달이 수여되였다.

조선인민군창건 26돐에 즈음하여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가 군중대회를 조직하였으며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1974년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모리따니는 우리 나라의 조국통일방침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우리측을 지지하는 결의안의 공동발기국으로 활동하였으며 우리 나라를 지지하는 결의안에 찬성투표하였다.

1974년 4월 우리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이 모리따니를 방문하였으며 8월에는 모리따니근로자동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말 리

(말리공화국)

넓이 124만km^2
인구 526만명 (1972년)
수도 바마코 (주민 20만명)

정 치

민족해방군사위원회 1968년 11월에 창설된 최고기관, 립법권을 행사한다. 위원장 무싸 뜨라오레

정부 1973년 5월에 내각 개조, 총리 무싸 뜨라오레 (1968년 11월―), 외무 및 협조부장 샤르레스 쌈바 씨쏘꼬, 국방, 내무 및 안전부장 키씨마 두카라

정당, 사회단체; 1968년 11월정변후 정당활동은 금지되였다. 산별로조의 활동만이 허용되고있다. **로조조정위원회** 1971년 7월 10일에 창설, **전국근로녀성위원회, 말리조선친선협회** 1972년 1월 결성

1959년 4월에 세네갈과 통합하여《말리련방》을 형성하고 1960년 6월 20일에《프랑스공동체》에서 독립하였다.

같은해 8월에 세네갈이 《말리련방》에서 탈퇴하자 수단으로 불리우던 나라 이름을 말리로 고치고 9월 22일에 말리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8년 11월 19일 중하층장교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모디보 케이타정권을 전복하고 군사정권을 수립하였으며 헌법을 페지하고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을 해산하였다.

정변후 새 정권은 정치, 경제적 지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변참가자들을 정부의 주위에 묶어세우는 한편 인민들에게는 경제활동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생산을 높일것을 요구하였다.

경제적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는 1968년 12월에 프랑스와 재정《협정》을 맺었으며 그 이듬해 2월에는《말리국가기업소 및 회사사업지도를 위한 프랑스전문대표부》를 말리에 설치하게 하였다.

대내적으로는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말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있다.

1973년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바마코에서 제1차아프리카평화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일반결의와 호소문이 채택되였다.일반결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적극 지지하였다.

1974년 1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아랍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은 95%이상이 농업과 목축업을 하고있으며 농업생산액은 국민소득과 수출총액에서 70%이상을 차지한다.

말리는 집짐승마리수에서 서아프리카에서 첫자리를 차지하며 주로 소, 양, 염소, 당나귀, 말, 락타 등을 유목 또는 반유목형태로 기르고있다. 집짐승은 인구 1인당 3마리가 차례진다. 큰뿔난 집짐승은 510만마리, 양과 염소는 1천만마리에 달한다.

해마다 집짐승마리수는 3%씩 늘어나고있다.

부침땅은 약 200만헥타에 달한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땅콩, 벼, 강냉이, 조, 수수, 사탕수수, 마니오크 등이다.

특히 목화생산량은 서아프리카에서 제1위를 차지하고있다.

정부는 지난날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땅콩만을 주로 심던 농업의 기형성을 가시고 벼, 목화, 고무 등의 생산지를 늘이는 한편 황무지개간과 관개사업들을 진행하

는 등 농업발전에 큰 힘을 넣었다.

1972년에 목화 8만톤, 땅콩 13만톤, 벼 12만톤을 생산하였다.

또한 말리정부는 해마다 500~600톤의 차를 수입하던것을 극복하고 차에 대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금은 차재배원이 생겨났다. 차잎가공공장도 건설되여 10여가지의 차를 생산하고있다.

민족공업을 추켜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70여개의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이 건설되였다.

도자기공장과 정미공장을 비롯하여 방직공장, 세멘트공장, 사탕공장, 육류가공공장 등이 건설되였다.

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주요수출품은 집짐승, 가죽제품, 땅콩, 목화, 쌀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설비, 부속품, 건재, 각종 연료 및 기타 일용품 등이다.

말리에서는 아동들의 학교취학률이 낮으며 문맹률이 높다. 정부는 매해 예산의 15%를 교육발전에 돌리고 학교들을 신설확장하며 새 기술일군들을 양성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공용어는 프랑스말이며 그밖에 각종 종족어들이 쓰이고있다.

주민은 밤바라족, 프리니족, 마르카족, 송가이족, 말린케족 등이다.

주민들은 회교(65%)와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말리통신

신문 에쏘르(민족해방군사위원회 기관지)

방송 말리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0년 10월 3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1년 7월 무역및지불에 관한 협정과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5년 10월 21일 우편물교환에 관한 협정과 전기통신련락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말리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이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연구와 출판사업이 진행되고있다.

말리인민들은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등을 뭇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학습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발표 3돐에 즈음하여 1974년 8월 6일 말리방송은 기념방송을 하였다.

말리신문《에쏘르》1974년 8월 15일호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를 실었다.

2월호는《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10돐기념론설을 실었으며 말리방송도 특별방송을 하였다.

1974년 10월 또고의 수도 로메에서 진행된《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제3세계인민들의 과업》에 관한 과학토론회에서 토론한 말리대표는《그이께서는 주체사상에 의거하시여 락후한 농업국가였던 조선을 발전되고 현대적인 부유한 나라로 전변시키시였다.

주체는 위대한 창시자이신 김일성원수님의 사상의 진수이며 농촌테제는 주체사상이 농촌부문에 구현된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말리 정부와 인민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말리평화운동위원회는 1974년 1월 23일 성명을 발표하여 남조선에서 파쑈적인《긴급조치》소동을 벌리고있는 박정희괴뢰악당의 극악한 폭압만행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성명은 조선에서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이 실현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6월에는 말리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가 박정희괴뢰악당의 인민탄압책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인민의 내정에 대한 미제의 간섭을 규탄하고 남조선으로부터의 미제침략군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있을 말리인민의 굳은 결의를 재천명하였다.

1974년 유엔 제29차총회에서 말리는 알제리를 비롯한 제3세계나라들과 사회주의나라들이 제출한《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하여》의 공동발기국이였으며 표결에서 말리대표는 우리 나라를 지지하여 찬성투표하였다.

1974년에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4월)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말리국가수반 무싸 뜨라오레위원장의 접견을 받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시는 말씀을 석상에서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단장이 무싸 뜨라오레위원장에게 정중히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귀중한 말씀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가장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시하고 무싸 뜨라오레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남조선강점 미군이 물러가야 한다는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이 기회에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말리 정부와 인민이 항상 조선인민의 편에 서있다는것을 확언한다.

김일성주석각하께 우리 말리공화국정부가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을것이라는것을 꼭 전해주기 바란다.

3월에는 또한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감 비 아

(감비아공화국)

넓이 1만 1,295km²

인구 37만명(1971년)

수도 반줄(주민 3만 8,000명)

정 치

국회 일원제, 의원수 40명, 그중 32명은 주민들이 선거하며 4명은 추장총회에서 선출한다. 1972년 3월에 진행된 선거결과 인민진보당이 25석, 통일당이 7석, 인민진보동맹이 4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대통령 다우다 크웨씨 쟈와라(1970년 4월—), 부대통령겸 외교부장 에이. 디. 카마라

정당, 사회단체; 인민진보당 1959년에 창건, 1962년에 집권당으로 됨, 식민주의제도의 청산을 주장하고있다. 통일당 1951년에 창건, 종족상층부들에 의거하고있다. 인민진보동맹, 로동련맹, 로동자련맹

1965년 2월 18일 영식민지철쇄를 끊어버리고 독립하였으며 1970년 4월 24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평화, 진보 및 번영》의 구호밑에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정부는 농업을 현대화, 다양화하며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장려하는 방법으로 경제를 발전시킬데 대한 계획을 세우고 3차례의 4개년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１９７３년 ４월 ２５일 식민주의자들이 달아놓았던 수도의 이름을 반쥴이라고 고쳤다.

대외적으로는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및 인종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다.

１９７３년에 민주독일(１월), 웰남(１０월)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으며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７월)를 승인하였다.

１０월 ２５일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９０％가 농사한다. 경제의 기본은 수출을 목적으로 한 땅콩생산이며 이것은 수출총액의 ９４％를 차지한다. 그외 벼, 조, 수수, 강냉이 등을 심는다. 땅콩은 １０만~１１만톤, 벼는 １만톤 생산된다.

농업에서는 다각화와 집약화를 기본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공업부문에서는 땅콩을 가공하기 위한 가공공장, 기름공장이 기본이며 그밖에 가죽공장과 년 ６천 ３００키로와트 능력의 수력발전소가 있다.

철길은 없으며 감비아강을 리용한 하천운수가 기본이다. 자동차길의 총연장길이는 １천 ２００키로메터이다.

주요수출품은 땅콩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천, 기계, 석유제품 등이다.

장기간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교육은 매우 뒤떨어져있다.

학교의 절반이상이 도시에 집중되여있으며 농촌지역에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더 많다.

１００개의 학교들에서 ２만여명의 어린이들이 공부하고있다.

공용어는 영국말, 아랍말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감비아 뉴스 불레틴(정부기관지), 감비아 온워드, 네이숀, 뉴 감비아

방송 감비아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１９７３년 ３월 ２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１９６８년 ６월 １１일 감비아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１９７３년 １０월 부대통령겸 외교부장인 에이. 디. 카마라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４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감비아를 방문하였다.

세 네 갈

(세네갈공화국)

넓이 １９만 ６,１９２km²
인구 ４２８만명(１９７４년 １１월)
수도 다까르(주민 ６６만명, １９７１년 １２월)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 의석 １００석, 임기 ５년, １９７２년 １２월 ２８일 민족회의선거 진행

대통령 레오뽈드 쎄다르 쎈고르(１９６０년 ９월—, １９７２년 １２월 재선)

정부 １９７２년 ６월 내각개조, 총리 아브두 디우프(１９７０년 ２월—), 외교부장 아싼 쎄크

정당, 사회단체; 진보련맹당(집권당) １９５８년 ９월 ２５일 창건, 아프리카독립당 １９５７년에 창건, １９６０년에 비법화, 전국근로자련맹, 근로자전국련합, 청년전국리사회, 녀성전국리사회

프랑스식민지였던 세네갈은 １９５８년 １１월 ２５일 《프랑스공동체》내의 《자치공화국》으로 되였으며 다음해 ４월에는 말리와 병합하여 말리련방을 형성하였다.

１９６０년 ４월 ４일에는 말리련방의 한 성원국으로 독립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네갈인민은 자기의 탁월한 지도자 쎈고르대통령각하의 령도밑에 나라의 독립을 이룩한 다음 경제의 <세네갈화>를 추진시키면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고있습니다.》

１９６０년 ８월 １９일 련방의회 의장이던 쎈고르가 군사혁명을 승리적으로 이끌므로써 세네갈은 ２０일 말리련방에서 떨어져나와 《프랑스공동체》내의 독립국가로 세네갈공화국을 선포하였다.

１９６０년 ８월 ２５일 세네갈의 첫 헌법이 채택되였으며 쎈고르가 초대대통령으로 선거되였다.

１９６９년 ３월 내각책임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책임제를 규정한 새 헌법을 채택하여 대통령이 직접 당, 정부, 군대를 장악하였으며 야당활동과 국가공무원들의 파업을 금지시켰다.

１９７０년 ２월 헌법을 개정하였는데 헌법에는 《대통령책임제를 보존하는 조건하에서 총리직을 내올것》과 총리와 각료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총리와 내각은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국가정책》을 실시할것을 규정하였다.

독립후 세네갈정부는 반제자주의 조류를 따라 경제의 《세네갈화》를 추진시키면서 《경제적자립이 없이는 정치적독립이 있을수 없다》는 구호밑에 이 나라 경제의 주도적부문인 농업의 식민지적편파성을 극복하고 농업생산의 다각화를 실현하며 알곡생산을 늘여 그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기에 커다란 힘을 돌려왔다.

특히 최근년간 정부는 농업, 목축업, 어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을 《민족적독립의 확고한 기초》로 삼으면서 농촌경리발전에 선차적주목을 돌려왔다.

정부는 전국각지에서 새 땅을 개간하여 경지면적을 늘이고 ５０만헥타의 관개면적을 조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선진기술과 영농방법을 보급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갔다.

１９７４년에 세네갈강의 상단 보디아라에서 이 강의 하구 쎙루이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서 관개공사가 진행되였다. 이와 함께 농업협동조합들을 조직하는 사업도 추진되고있다.

세네갈정부는 또한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민족경제의 기초로 되는 민족공업을 건설하는데 많은 힘을 돌렸다. 독립후 정부는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으로 민족경제를 건설하자!》는 전투적구호를 내놓고 민족공업의 터전을 닦는 힘찬 투쟁을 벌렸다. 정부는 공업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이고 이 나라에 없는 새로운 공업부문을 창설하며 중소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였다.

정부는 나라의 자연부원을 지키기 위하여 １９７２년 ４월 세네갈민족회의에서 나라의 령해권을 １１０마일로 넓히기로 결정하고 １９７４년 １월 １일부터 이 결정을 리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１９７４년 １월 영화의 수입과 보급을 정부가 도맡아하며 모든 영화관들을 국가의 손안에 넣을데 대한 법안을 발표하여 퇴폐적인 외국영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세네갈정부는 대외적으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있으며 앙골라, 모잠비끄, 기네—비싸우 인민을

비롯한 아프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과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령토완정과 민족적독립의 공고화를 위하여 싸우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세네갈은 남아프리카와 남로데시아인종주의도당들을 규탄하고있으며 론놀반동도당, 티우괴뢰도당들과의 외교관계를 끊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세네갈은 자기 조국을 되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해방위업과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아랍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여 1973년 12월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90%가 농사를 하는 농업국이다.

농업에서 기본은 땅콩생산이며 그외 수수, 기장, 벼, 밀, 강냉이, 목화 등을 심는다.

부침땅의 절반(90만헥타)이 땅콩밭이다. 땅콩생산량은 농업총생산액의 35%, 농민들의 총화폐수입의 65%, 세계땅콩생산량의 10%(4위)를 차지한다. 1972년에 땅콩은 91만 7천톤, 목화는 2만 1천톤, 수수와 기장은 60만 2천톤 생산하였다.

독립후에 정부는 식민주의자들의 강요에 의하여 땅콩만을 생산하던 식민지적편파성을 극복하고 농업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벼생산을 높이기 위해 저수지를 만들고 우물을 파는 등 여러가지 대책들을 취하였다. 특히 나라의 경제및 사회발전 4개년계획(1973—1976년) 기간에 농업에 465억 아프리카프랑을 지출하게 된다. 4개년계획기간에 농작물들의 생산량이 늘어나 1977년에 가서 사탕무우는 65만톤, 수수와 기장은 75만톤, 목화와 강냉이는 각각 6만톤, 콩이 4만 5천톤 생산되게 된다. 1971년에 겨우 1천톤 생산하던 남새는 1977년에 20만톤에 달할것이다.

축산업도 발전하였다. 1974년에 이 나라에는 소 300만마리, 양과 염소 250만마리가 있었다.

독립후 공업부문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지난날 간단한 농기구조차 제힘으로 만들지 못하던 이 나라에서 지금은 민족공업이 창설되고 나라의 풍부한 원료원천에 기초한 금속가공공장, 자동차다이야공장, 원유정제공장, 축전지공장들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지금은 기름, 사탕, 방직, 신발, 통졸임, 건재공장들에서 나오는 갖가지 물건들이 외국상품들을 대신하고있다.

또한 5개의 중요 목재공장들에서는 해마다 2만립방메터의 제재목을 생산하고있으며 므바오원유정제공장에서는 해마다 80만톤의 원유를 가공하고있다.이 나라 중요수출원천의 하나인 린광석생산량은 년산 130만톤으로서 현 4개년계획기간에 180만톤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수산업도 빨리 발전하게 된다.

독립전에는 다까르에 고기배가 불과 6척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100여척에 달하고있다.

1973년에 약 20만톤의 물고기를 잡았다.

독립후 세네갈정부는 새생활창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민족간부와 기술인재들을 키워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부의 세네갈화》를 확고한 방침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큰 힘을 돌려왔다.

교육발전을 위하여 국가의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여왔으며 1971—1972회계년도에는 66억 7천 500만 서아프리카프랑의 막대한 자금을 민족교육발전을 위해 배당하였다.

세네갈에서는 인민교육사업도 발전하고있다.

세네갈정부는 현 4개년계획의 기본방향을 《생산에 선차적주의를 돌리며 기술인재양성사업을 추진시키는》것으로 규정하고 나라의 경제발전에 긴요하게 필요한 부문의 기술자들을 양성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체로 양성한 민족간부들을 나라의 여러 부문에 적극 진출시킴으로써 공장, 기업소의 관리일군들을 점차 세네갈사람들로 교체하고있다.

주민은 월로프족(30%), 풀베족, 쎄레이족, 투꿀리르족 등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70%)를 믿으며 기타 원시종교와 기독교도 믿는다.

공용어는 영국말을 쓰고있으나 각 종족의 말들도 쓰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세네갈통신

신문 유니떼 아프리꺤(진보련맹당 기관지), 앵포르마씨옹 아프리꺤, 다까르 마땡, 모니뙤르 아프리꺤, 쑬레이, 아프리끄 누벨

방송 세네갈방송, 세네갈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9월 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1974년 5월 13～16일까지 세네갈공화국 대통령 레오뽈드 쎄다르 쎈고르가 우리 나라를 방문한것은 조선과 세네갈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되였다.

방문기간 대통령은 참관과 연설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커다란 공감을 표시하였으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방문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세네갈대통령사이에 회담이 진행되였으며 우리 나라와 세네갈공화국사이의 공동콤뮤니케가 조인되였다.

콤뮤니케에서 세네갈정부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제안들, 특히 김일성주석께서 1973년 6월 23일 내놓으신 조국통일 5대방침과 1974년 3월 4일 다시금 천명하신 조국통일방침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5월 16일 우리 나라와 세네갈공화국 정부사이의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무역협정,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이 평양에서 조인되였다.

세네갈정부기관지 《쏠레이》는 쎈고르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에 관한 보도를 8매의 사진을 받쳐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으며 텔레비존은 5월 31일부터 3일간에 걸쳐 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과 관련한 기록영화를 한시간씩 상영하였다.

9월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시는 친서와 선물인 우리 나라 기록영화 《세네갈공화국 대통령 레오뽈드 쎄다르 쎈고르각하 우리 나라 방문》을 세네갈공화국 주재 우리 나라 대사가 이 나라 대통령에게 정중히 전달하였다.

1974년 9월 세네갈공화국 국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또한 1974년 8월 21일 세네갈전국기자협회대표단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일련의 질문을 제기하여 그이께서 주시는 천재적인 대답을 받는 영예를 지니였다.

1974년에 세네갈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세네갈신문 《쏠레이》 3월 7일호

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1974년 3월 4일 연설을, 4월 13일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두돐을 기념하여 《유고슬라비아신문 〈웨체르니예 노보스찌〉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실었다.

9월 2일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쎈고르대통령과 굳은 악수를 나누시는 사진을 정중히 모시고 《세네갈전국기자협회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전문을 게재하였다.

1974년 10월 또고의 수도 로메에서 진행된 경애하는 수령님의 농촌테제발표 10돐을 기념하는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제3세계인민들의 과업》에 관한 과학토론회에서 연설한 세네갈대표단 단장은 세네갈이 이 과학토론회에 특별히 중요성을 부여하는것은 오래동안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점되였고 전쟁도 겪었으나 탁월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근면하고도 성실한 로동과 경제, 사회 및 문화분야에서 전면적발전을 이룩한 친선적인 조선인민의 경험에서 배울수 있게 하여주기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세네갈정부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었다.

1974년 6월 23일 남조선괴뢰국회 의원단놈들이 세네갈에 기여들어 대통령을 만날것을 애걸하였으나 쎈고르대통령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또한 1974년 유엔총회 제29차 회의에서 세네갈은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하여》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우리의 립장을 지지하여 활동하였으며 이 결의안에 찬성투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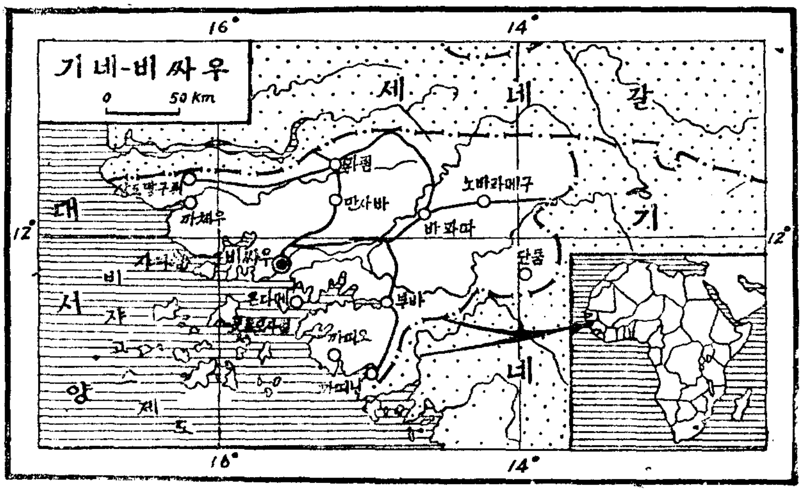
기네—비싸우

(기네—비싸우공화국)

넓이 3만 6,125km²

인구 76만 4,000명(1972년)

수도 비싸우(주민 2만 7,000명)



정 치

전국인민회의 최고립법기관. 1972년 8월~10월에 진행된 총선거에서 120명의 의원들이 선거되였다. 1973년 9월 24일~26일까지 제1차인민회의가 진행되였다.

국가리사회 1973년 9월 26일 15명으로 구성, 위원장 루이스 까브랄

정부 1973년 9월 26일 국가리사회 위원장이 16명의 정부성원들을 임명하였다. (1974년 9월 8일 내각을 일부 개조) 제1전권위원(총리) 프랑시쓰꼬 망데스

정당, 사회단체; 기네—비싸우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1956년 9월 19일 창건된후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당은 민족적독립의 쟁취, 민주주의제도의 수립, 급속한 경제적진보와 사회발전의 실현을 기본투쟁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총비서 아리스떼데 뻬레이라(1973년 7월 제2차당대회에서 선거), 기네—비싸우민족독립전선 기네—비싸우 해방운동과 기네—비싸우인민동맹으로 구성, 민족인민동맹, 기네—비싸우근로자전국동맹

오랜기간에 걸쳐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압제속에서 신음하던 기네—비싸우인민들은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가렬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1973년 9월 24일 기네—비싸우공화국을 선포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네—비싸우공화국선포와 관련하여 국가리사회위원장 루이스 까브랄에게 보내신 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기네(비싸우)공화국의 선포는 용감한 기네(비싸우)인민이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이며 귀국인민의 생활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사변으로 됩니다.》

기네—비싸우는 15세기부터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왔다.

기네—비싸우인민들은 기네—비싸우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의 지도밑에 1961년 8월 무장투쟁을 시작한 이래 1973년 9월까지 령토의 80%와 인구의 절반이상을 해방하였다.

이 기간에 기네—비싸우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은 해방지역에서 식민주의자들의 통치기구를 짓부시고 인민정권을 창설하였으며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인민적인 시책들을 실시하였다. 해방지역은 무장투쟁의 믿음직한 기지로, 튼튼한 후방으로 되였다.

1972년 8월부터 10월사이에 이 나라 력사상 첫 국가주권기관인 전국인민회의선거가 진행되였다.

1973년 9월 24일에 진행된 전국인민회의는 헌법을 채택하고 《기네—비싸우국가선언》을 발표하여 나라의 독립을 선포하였다.

독립선포후 기네—비싸우인민은 기네—비싸우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의 령도밑에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전령토를 해방하며 조국의 완전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1974년 9월 10일 뽀르뚜갈은 기네—비싸우의 독립과 당당한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이 나라에 들이밀었던 자기 나라 군대를 철수하지 않을수 없었다.

1974년 9월에는 기네—비싸우공화국을 처음으로 선포한 지역인 마디나 두 보에를 새 수도로 정하였다.

식민주의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19

74년 10월부터 시작된 거리와 광장들의 이름고치는 사업이 1975년 1월초에 끝났다. 이전까지 임뻬리오광장으로 알려진 비싸우의 가장 큰 광장을 민족적영웅들의 광장으로 고쳐부르기로 하였으며 공화국대통로로 불리우던 수도의 기본거리를 아밀까르 까브랄대통로로 고친것을 비롯하여 뽀르뚜갈사람들의 이름을 달고있던 거리 및 광장 이름들이 애국렬사들의 이름들로 고쳐졌다.

1974년 10월에는《뽀르뚜갈영웅》들의 동상들을 모두 없앴다.

까브랄은 앞으로의 정부정책에 언급하여 중요물품들의 일체 수입과 소매상인들에게 상품을 나누어주는것을 국가가 엄격히 통제할것이라고 하면서 중앙은행과 민족통화를 내올것을 시사하였다.

1974년 9월 24일 독립 한돐기념집회에서 기네-비싸우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총비서는 기네-비싸우가 제3세계에 속하여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고있다고 지적하고 기네-비싸우는 앞으로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974년 이 나라는 세계보건기구(5월), 만국우편동맹(5월), 아프리카통일기구(6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11월) 성원국으로 되였다. 8월에 유엔안보리사회가 기네-비싸우를 유엔성원국으로 받아들일것을 제기하는 결의를 채택한데 뒤이어 제29차유엔총회에서 유엔성원국으로 되였다.

1974년 이 나라는 중국(3월), 애급(6월), 남부웰남공화(5월), 웽그리아(6월), 인도 (9월), 알바니아(11월), 쿠웨이트(12월)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으며 기네공화국과 우호협조조약을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오랜기간의 식민지통치후과로 경제는 락후한 형편에 있었다. 식민주의자들의 강요에 의하여 땅콩, 피마주, 야자, 코코아 등 수출작물들을 주로 심고 그외에 강냉이, 벼, 사탕수수, 목화 등을 생산하였다.

주요집짐승은 말, 노새, 당나귀(2만 1천여마리), 소(2만 7천여마리), 염소(7만 9천 300마리) 등이 있다.

공업으로는 광업과 농산물, 수산물, 목재 등을 가공하는 몇개의 가공공장이 있는데 모두 뽀르뚜갈, 미국, 프랑스 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다.

철길은 없고 하천운수가 기본이다.

강점지역의 문맹률은 99%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중학교는 하나이며 학생수는 400여명인데 그 대부분이 백인이다.

식민주의자들은 이 나라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병원은 하나밖에 없다.

마라리아, 문둥병 등 각종 질병이 돌았다.

해방지역에서는 토지와 공장들이 이 나라 인민의것으로 되였으며 농업협동조합들이 조직되여 새생활이 창조되였다. 해방지역에 250여개의 학교, 4개의 병원, 100여개의 진료소들이 설치되였었다.

이 나라에는 수단어계통의 비란트, 풀라니, 마닝그 등 여러 종족이 살고있다.

주민들은 회교(35%) 또는 원시종교를 믿는다.

공용어는 뽀르뚜갈말이다.

출판보도; 신문 가버멘트 가제트, 오아 라우또, 볼레띰 다 유니마오 인떼르나찌오날 데 비싸우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10월 3일 우리 나라는 기네-비싸우공화국을 승인하였다.

1972년 8월 이전 총비서 아밀까르 까브랄을 단장으로 하는 기네-비싸우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1년 3월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 공부하고있는 기네-비싸우학생들이《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및 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고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깊이 연구하고있다.

기네-비싸우는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 제기한 우리측을 지지하는 공동결의안의 발기국이였으며 그 결의안에 찬성하였다.

베르데갑제도

아프리카대륙 서쪽의 대서양우에 있는 15개섬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매섬이 화산섬이다.

넓이 4, 033km²

인구 28만명

행정중심지 쁘라야(주민 약 3만명)

정 치

베르데갑제도는 1974년 8월 26일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진행된 뽀르뚜갈과 기네-비싸우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대표들의 회담에서 조인된 협정에 따라 주민의 자결권과 독립의 권리를 확인하였으며 1975년 7월 5일에 독립하게 되였다.

정당, 사회단체; **기네-비싸우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지도하였다. 총비서 아리스띠데 뻬레이라(아밀까르 까브랄 1973년 1월 사망), **민족인민동맹** 전신은 민족동맹이였다.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을 추종하고있다.

1495년에 뽀르뚜갈식민지로 되였다.

1951년에 뽀르뚜갈은 이 섬을《해외주》로 선포하고 총독통치를 실시하고있다.

베르데갑제도인민들은 식민주의자들이 나라를 강점한 첫날부터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이 투쟁은 특히 제2차세계대전후 1956년 9월에 조직된 기네-비싸우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과 베르데갑제도해방전선의 지도밑에 급격히 확대되였다.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베르데갑제도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과 아프리카의 다른 식민지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질식시키기 위하여 이 나라에 군사기지들을 설치하고 락하산부대들까지 주둔시키면서 악랄하게 책동하였으나 나라의 독립을 위한 베르데갑제도인민들의 투쟁은 막을수 없었으며 드디여 베르데갑제도에서 식민지통치는 허물어지게 되였다.

베르데갑제도는 1975년 6월 30일에 립법회의의 선거를 진행하게 되며 회의가 5일내에 헌법초안을 승인하고 7월 5일에 주권을 립법회의의 의장에게 넘긴다.

그동안 림시정부가 이 제도를 통치한다.

기네비싸우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출신의 5명의 부장들로 구성된 이 림시정부는 선거를 준비하게 된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대부분이 수출용작물인 질좋은 커피와 담배를 생산하고있으며 이밖에 강냉이, 땅콩, 사탕수수, 마니오

크, 감자, 바나나, 남새 등도 재배한다.

부침땅의 대부분을 대지주들이 차지하고있다.

농업생산에서 축산업도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며 소, 염소, 돼지를 기른다.

일부 주민들은 물고기잡이도 한다.

공업으로는 수공업적인 방법으로 소금, 술, 물고기가공 등을 하며 돌소금을 채굴한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담배, 광물, 물고기 및 그 가공품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천, 식량 및 음료수, 일용품 등이다. 수출입관계는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이 틀어쥐고있다.

학교는 있으나 거의 백인들만이 공부할수 있으며 원주민들은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고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뽀르뚜갈말을 쓴다.

주민은 물라트(혼혈종)와 아프리카인들이다.

주민들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출판물 노머씨아스 데 까보 베르데, 오 아르뀌뻴라고, 볼레띰 오피씨알

방송 베르데갑제도방송

기 네

(기네공화국)

넓이 24만 5, 857km²

인구 514만 3, 000명(1974년 12월)

수도 꼬나크리(주민 38만 8, 000명)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 민주당이 전의석(75석)을 차지하고있다. 임기는 5년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무장력의 최고사령관, 임기는 7년 아호메드 세꾸 투레(1961년-, 1968년에 재선)

정부 1972년 5월 총리직을 새로 내오고 내각을 구성, 1974년 3월 부분적인 내각 개조, 총리 란사나 베아보기, 외교부장 필리 씨쏘코, 인민군담당국무부장 투마니 싼가레

정당, 사회단체; 민주당 집권당이며 유일당, 1947년 5월 17일 아프리카민주련맹의 지부로 창건, 1958년 11월 19일 독립적인 정당으로 됨, 당의 최고기관은 전국혁명리사회이다. 총비서 아호메드 세꾸 투레, 근로자전국련맹, 아프리카민주혁명청년, 전국녀성위원회

기네는 1958년 10월 2일 서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독립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네공화국독립 16돐에 즈음하여 기네공화국 대통령 아호메드 세꾸 투레에게 보내신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네인민은 독립후 각하의 옳바른 령도밑에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의 온갖 파괴음모책동을 용감히 물리치면서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나라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독립후 기네는 《프랑스공동체》에서 떨어져나왔으며 같은해 11월 2일에는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독립을 갓 쟁취한 기네를 정치경제적으로 질식시키려고 책동하였다.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기네에 있던 저들의 기술자 8천명을 전부 소환하여갔다.

그러나 기네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국내반동들의 음모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진보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정부는 식민지통치시기에 있던 국가기관들과 사법, 안전기관들을 개편하고 식민주의자들의 경제적지반을 청산하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밀고나갔다. 1960년에는 외래침략자들로부터 조국을 보위하기 위한 민족군대를 창건하였으며 프랑을 폐지하고 새로운 민족화폐를 발행하였다. 정부는 또한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소유로 되여있던 은행과 땅, 운수회사들을 국가의 통제하에 넣고 대외무역을 완전히 국가가 장악하는 긍정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기네정부는 1963년 8월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과 모든 관계를 끊었으며 1965년 11월에는 프랑스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1970년 5월에는 제국주의식민주의자들의 침략책동으로부터 나라를 보위하기 위하여 의무병역제를 실시하였다.

기네정부의 반제자주적인 조치에 겁을 먹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기네반동들을 사촉하여 기네에서 반정부음모를 조작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네인민은 세꾸 투레대통령의 령도하에 제국주의자들의 음모와 도발을 쳐물리쳤다.

1974년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기네전국혁명리사회 제1차년례회의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경제 및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예견된 1974년도 과업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 세꾸 투레대통령은 《생산이 없이는 혁명이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기네인민에게 생산로동에 적극 참가하며 1974년도 계획실행에 힘을 집중할것을 호소하였다.

대외적으로 기네정부는 반제기치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 식민주의 및 인종주의를 견결히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기네대통령 세꾸 투레는 1974년 3월 기네근로자전국련맹창립 28돐과 기네아프리카민주혁명청년창립 15돐기념모임에서 《그 무엇으로써도 제국주의,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및 인종주의를 매장하기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을수 없다》고 하면서 기네가 저들과의 투쟁에서 결코 굴복하지 않을것이라고 지적하고 아프리카해방운동들에 대한 굳은 련대성을 표명하였다.

1974년 2월 기네근로자전국련맹회의는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과 인종주의자들 및 칠레파쑈군사도당들의 범죄행위를 규탄하고 기네-비싸우공화국과 앙골라, 모잠비끄, 나미비아 인민들에게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을 규탄하였다.

1974년 8월 6일 기네는 꼬나크리에서 기네-비싸우와 우호협조조약을 체결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86%가 농사를 하고있다.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하여 벼, 강냉이, 기장, 수수, 고구마 등 알곡작물을 많이 심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바나나, 커피, 파인애플, 벼, 강냉이, 기장, 수수, 나무감자, 고구마, 목화 등이다. 매년 벼 30만톤, 나무감자는 40여만톤, 고구마는 10만톤, 기장과 수수는 15만톤, 강냉이는 6만여톤 생산된다.

주요수출작물은 바나나, 파인애플, 커피, 코코아 등이다. 바나나는 해마다 8만톤, 파인애플은 1만 5천톤 정도 생산된다.

축산업은 주로 내륙 초원지대에서 소, 양, 염소 등을 많이 기르고있다.

독립후 정부는 식민지통치의 후과의 하나인 단작경리를 극복하고 농사를

다각적으로 지어 알곡작물을 비롯한 여러가지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힘을 넣었다. 동시에 부침땅면적을 늘이며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였다. 나라에서는 농기계, 연료, 씨앗, 비료 등을 농촌에 보내주어 농촌을 물질기술적으로 지원하였다. 황무지들에 벼를 심기 시작하였으며 각지에서 관개공사들이 진행되였다. 산간지대들에서는 수로를 째고 다락밭을 만들어 곡식들을 심기 시작하였다.

1973년부터 이 나라에서는 식량을 기본적으로 자급자족하고있다.

공업에서는 채광공업이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기네에는 세계최대의 매장량을 가진 보크사이트를 비롯하여 금, 은, 철, 금강석, 반토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독립후 정부는《자체의 로력과 자금으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방직공장을 비롯하여 원유가공공장, 철근공장, 세멘트공장, 유리공장, 합성수지공장, 제지공장, 육류가공공장 등을 새로 건설하였다.

철도망과 도로망이 비교적 발전하였다.

독립후 교육체계가 개편되고 교육망이 늘어났으며 학교들에서 민족어교육이 실시되고있다. 1972년에 25만명의 학생이 있었다.

글모르는 사람을 없애기 위하여 문맹퇴치전국위원회가 조직되였다.

공용어로는 프랑스말을 쓴다.

1971년 전국에 진료소들을 설치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주민은 풀베족(40%), 말린케족, 판닝그족, 수수족 등 20여개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이 회교도이며 원시종교와 기독교도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기네통신

신문 호로야(민주당기관지), 쥬르날 오피씨엘 드 기네(정부기관지), 프라바에르 드 기네(근로자전국련맹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8년 10월 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1년 6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68년 4월에는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4년에도 기네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광범히 소개선전하였다.

기네신문《호로야》1974년 4월 12일호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하신 연설을 실었다.

기네의 빠뜨리스 루뭄바인쇄소에서 1974년 10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우리 나라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몇가지 경험에 대하여》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단행본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셨다.

신문《호로야》1974년 12월 1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다오메정부기관지〈다오메스프레스〉사장과 한 담화》를 실었다.

기네정부와 인민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1974년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기네는 알제리를 비롯한 제3세계나라들과 사회주의나라들이 제출한《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하여》의 공동발기국이였으며 표결에서 기네대표는 우리 나라를 지지하여 찬성투표하였다.

1974년 6월 19일 기네근로자전국련맹은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기네근로자전국련맹이《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민족최대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과 근로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다》고 지적하였다.

시에라 레온

(시에라 레온공화국)

넓이 7만 1,740km²
인구 263만명 (1972년)
수도 프리타운 (주민 15만명)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 총의석 78석, 그중 66석은 총선거에 의해 선거되며 12석은 추장회의가 차지

대통령 시아카 프로빈 스티븐스 (1971년 4월—, 임기 5년, 국방부장 겸임)

정부 부대통령 겸 총리 에쓰. 아이. 코로마, 외교부장 디이 파솔레 루크

정당, 사회단체; 전인민대회당 1960년에 창건, 1968년 4월부터 집권당, 독자적인 민족발전정책의 실시와 외국자본의 제한을 주장, 총비서 씨. 에이. 카마라—테일러, 인민당 1951년에 창건, 민족부르죠아지들과 종족들의 상류계급의 리익을 대변, 로동대회 12개의 산별로조단체를 망라하고있으며 국제자유로조련맹에 가입, 전국청년동맹, 녀성조직전국련맹, 시에라 레온조선친선협회 1968년 9월 9일 결성, 전국위원회 위원장 몬티 코울

1961년 4월 27일《영련방》성원국으로 독립하였다. 1967년 3월의 총선거에서 전인민대회당이 승리하였으나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정권은 의연 반동들에게 장악되였다.

1968년 4월 17일 스티븐스를 총리로 하는 전인민대회당정부가 구성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에라 레온공화국 선포 세돐에 즈음하여 시아카 프로빈 스티븐스에게 보내신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조선인민은 시에라 레온인민이 공화국선포후 각하의 령도밑에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끊임없는 파괴책동을 물리치면서 민족적독립의 공고화와 새 생활 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기뻐하고있습니다.》

스티븐스정부는 집권후 제국주의자들의 예속에서 벗어나며 민족적독립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이 나라 경제명맥을 쥐고있던 영제국주의자들의 금강석 및 광업회사를 국유화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토지소유를 금지하였다.

1970년 5월에 있은 전인민대회당 제3차대회에서《사회적정의에 기초한 사회를 건설하는것》을 나라의 대내정책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농촌에서 협동화운동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힘쓰고있으며 1972년현재 1만세대이상을 망라하는 협동조합들을 지도할 중앙기관으로서 전국협동조합대회를 창설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진보적인 조치에 겁을 먹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은 1970년 9월, 10월, 1971년 3월에 스티븐스정부를 전복할 음모를 꾸몄으나 실패를 면치못하였다.

스티븐스는 1971년 4월 19일 자기 나라를 공화국으로 선포하고 영국녀왕이 시에라 레온의 녀왕으로 된다는 법령을 폐지하였다. 국회는 4월 21일에 헌법을 수정하여 국가수반으로 대통령이 되며 총리직제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부대통령이 수행하게 하

였다.

1971년 4월에 주요상품의 수입과 판매를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무역회사를 내오도록 하였으며 1973년 2월에는 전적으로 자기 나라의 소유인 민족상업은행을 창설하였다. 3월에는 자기 나라 사람들로서 기업소들을 운영할데 대한 법안을 채택하였다.

1973년 1월에는 전국계획리사회를 창설하였다.

1971년 4월에 령해권을 12마일로부터 200마일로 확대하였으며 1973년 12월 18일에는 민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업권수정법을 채택하였다.

1974년 4월 원료 및 개발문제에 관한 유엔총회 특별회의에서 스티븐스대통령은 발전한 나라들이 낮은 값으로 원료를 사들이고 비싼값으로 완제품을 파는 방법으로 제3세계나라들의 자원과 재부를 략탈해가고있다고 규탄하고 이 불평등한 국제경제관계의 청산을 호소하였다.

이 나라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대처할수 있도록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은 나라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라고 하면서 민병을 조직하고 해안방위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었다.

대외적으로는 쁠럭불가담, 아프리카통일의 리념에 대한 충실성, 인종주의반대, 아프리카의 종국적해방을 기본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1973년 1월 남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이 잠비아와의 국경을 봉쇄하고 잠비아인민을 반대하는 비렬한 음모책동을 감행하자 잠비아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잠비아에 재정원조를 주었다.

1973년 10월 27일에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아랍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12월 27일에는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를 캄보쟈인민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로서 승인하였다.

1974년에 스티븐스대통령이 로므니아 (7월),웽그리아 (8월) 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약 90%가 농사를 한다.

부침땅은 3만 6,617평방키로메터이며 주요농산물은 커피,코코아, 종려씨,강냉이, 벼, 수수, 생강 등이다.

정부는 나라의 발전계획에서 농업에 선차성을 부여하고 단작경리의 편파성을 없애며 다각적인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이 나라는 농업의 중심과업을 식량자급자족으로 규정하고 이 과업실천에 모든 력량을 조직동원하였다. 1974년 11월 스티븐스대통령은 물가가 계속 뛰여오르는 세계적추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주요농산물을 많이 생산하여 수입에 될수록 적게 의존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자력갱생하여 농업을 발전시킬것을 전체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1974—1975회계년도에 농업투자는 1천 260만레온으로서 발전예산의 40%였다. 국가는 국립협동개발은행을 세워 농민들에게 대부금을 주게 하였다. 부침땅을 늘이기 위하여 정부는 농민들이 황무지를 개간하도록 장려하고 조세를 면제해주었다. 1974년에 1만 5천에이커의 땅이 개간되였다. 벼를 재배하는 지역들에서 정부는 농민들에게 밭가는 기계를 제공해주었다. 정부는 또한 비료와 살충제를 농민들에게 눅은 값으로 팔아주었고 품종개량과 우량종자보급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였다. 1970년에 북부주에 로쿠프르버연구소를 내왔고 이 연구소에서는 지방의 조건에 맞는 다수확종자를 많이 육성해냈다. 정부는 농업발전계획초안을 작성하며 농업과학연구제목들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1972년 국가농업과학연구회를 창설하였다. 농업기술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정부는 농업학교, 양성쎈터, 벼재배농장들을 만들어놓고 농민들과 학생들이 농업기술을 배우게 하였다. 1974년에 농업기술자들은 540명이였다.

1973년에 벼 48만 7천톤, 커피 2만 1천톤, 코코아 8천톤이 생산되였으며 공예작물수출은 그전해에 비하여 13% 장성하였다.

공업에서 기본은 채취공업이다.

금강석, 쇠돌, 보크사이트, 금, 주석 등이 채굴되고있다. 금강석생산량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제4위를 차지한다. 국가재정수입의 15%이상, 광물수출총액의 60%를 차지한다.

정부는 민족경제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영제국주의자들의 금강석회사인 《시에라 레온 쎌렉숀 트라스트》의 통제권을 박탈하고 1970년말에는 국가가 그 주권의 51%를 차지하는 민족회사인 《디밍코》를 창설하였다. 또한 쇠돌, 보크사이트 등을 채굴하는 광업회사 주권의 51%를 차지하였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와 철도운수가 기본이다.자동차길은 3천 500키로메터이며 철길은 내륙지방과 련결되는것들이 있으며 산간지방에는 없다.

주요항구는 프리타운항과 페펠항이다.

수출품은 금강석,쇠돌, 보크사이트, 종려씨, 코코아, 커피 등인데 그중에서 광물이 수출액의 약 80%를 차지한다. 주요수입품은 식료품, 기계설비, 천, 차량, 석유이다.

교육분야에서도 정부는 이전의 《상업교육》의 낡은 식민지교육체계를 새로운 《기술교육체계》로 개편하고 학생들에게 자기 나라 민족경제건설에 필요한 기술을 배워주고있으며 자기 나라의 력사와 문화도 공부시키고있다.

독립직후 소학교가 500개 있었다면 1973년에는 1천 100여개로 늘었으며 이 기간 소학교 학생수는 8만 1천여명으로부터 18만 1천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에 중학교수는 36개로부터 108개로,중학교 학생수는 7천명으로부터 3만 6천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교원, 기계기술자, 농업기술자,상업 및 행정일군을 양성하는 학교들도 운영하고있다.

정부는 자체의 교원을 양성해내는 사업에 큰 관심을 돌리고있는데 사범학교들과 교원대학들에서는 1천 200명이상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국가는 생산실천활동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해내기에 힘썼다. 1974년 11월 스티븐스대통령은 학교들에 농업과를 설치하며 농업생산에 필요되는 간부들을 체계적으로 키워내도록 지시하였다.

공용어는 영국말이다.

주민은 멘데족 (30%),템네족, 림바이족 등 13개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출판보도;신문 데일리 메일 (정부기관지), 우니티, 아드반스, 엑스프레스, 피플, 위온, 더 네이숀, 싼디 플라쉬, 위쉬

방송 시에라 레온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9월 9일에 시에라 레온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으며 1971년 3월에는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련대성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1년 10월 14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0년 4월 8일 조선시에라 레온친선협회를 결성하였다.

1974년 5월 13일 시에라 레온과 우리 나라 사이에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시에라 레온에

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과 천재적로작들에 대한 연구와 출판사업이 널리 진행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시에라 레온 인민들은 《김일성원수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1974년에도 시에라 레온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광범히 소개하였다. 시에라 레온신문 《더 비이순》 5월 13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이딸리아공산당기관지 〈우니따〉지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전문을 실었다. 신문은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였다. 신문 《위온》 6월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유고슬라비아신문 〈웨체르니예 노보스머〉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전문을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게재하였다. 신문 《싼디 플라쉬》 9월 29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자주의 기발을 높이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게재하였다. 신문《위쉬》 10월 1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조선로동당창건 스무돐에 즈음하여》를 실었다. 신문 《데일리 메일》 10월 28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의 전문을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게재하였다. 신문 《싼디 플라쉬》 11월 10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세네갈전국기자협회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전문을 실었다. 이 신문 11월 17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다오메정부기관지 〈다오메 스프레스〉 사장과 한 담화》 전문을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게재하였다. 12월 1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를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소개하였다. 신문 《더 비이순》 12월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게재하였다.

시에라 레온정부는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고있다.

1974년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시에라 레온은 알제리를 비롯한 제3세계나라들과 사회주의나라들이 제출한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하여》의 공동발기국이였으며 표결에서 우리 나라를 지지하여 찬성 투표하였다.

시에라 레온신문 《더 비이순》 1974년 5월호는 《외국군대는 조선통일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규탄하는 글을 실었다.

신문은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인민들은 물론 미국안에서까지도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인민들도 미군이 남조선으로부터 물러갈것을 요구하고있다고 썼다.

리 베 리 아

(리베리아공화국)

넓이 11만 1, 369km²
인구 140만명
수도 몬로비아 (주민 10만명)

정 치

대통령 국가 및 정부수반으로 되며 임기는 8년, 윌리암 리챠드 톨버트 (1972년 1월—)

립법회의 최고립법기관이며 상하량원제로서 상원의원 18명이며 임기 6년, 하원의원 52명이며 임기 4년

정부 대통령이 정부 수반이다.

정당, 사회단체; 진정독립당 1869년에 창건된 집권당이며 유일당, 미국으로부터 이주해온《해방노예》의 후손들로 구성된 정당으로서 예속자본가와 농장주들의 리익을 대표, 1955년부터 진정독립당이외 정당들의 활동이 금지됨, 생산로조대회

리베리아는 1822년에 《미국식민지협회》가 보낸 《해방노예》들이 만들어낸 나라이다.

미국식민주의자들은 《해방노예》를 끌어다 리베리아라는 이름을 단 첫 《국가》를 조작하게 하고 저들의 충독놈을 통하여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미제는 제놈들의 식민지통치를 가리워보려고 1847년 7월 26일 이 나라에 형식상 《독립》을 주어《공화국》을 선포케 하고 실제상으로는 제놈들의 식민지통치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1878년부터 진정독립당이 독재정치를 실시하고있다.

1959년 9월에 미제와 예속적인 《방위협정》을 체결하여 몬로비아항과 로버쯔공군기지를 미제에게 넘겨주었다.

리베리아정부는 오늘 자주의 물결을 따라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주장하면서 점차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를 개선해나가려고 노력하고있다. 1972년에 쏘련 (6월) 과 외교대표교환에 합의하였으며 11월에는 체스꼬슬로벤스꼬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뒤떨어진 농업국가이다.

로동인구의 80%이상이 농사를 한다.

이 나라의 농업에서는 원시적소농경리와 외국자본 특히 미국자본의 지배하에 있는 대농장경리가 결합되여있다.

주요농산물은 천연고무이다. 그의 생산량은 년 7만~8만톤으로서 아프리카에서 1, 2위를 다투고있다. 이 나라의 고무는 품위가 높아 다른 나라들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천연고무의 대부분을 미국의 《파이어스톤고무회사》가 고용로동을 채용하여 생산하고있다.

그밖에 커피, 종려, 쌀, 바나나, 땅콩, 코코아 등이 난다.

원주민들은 주로 부대기를 일군 척박한 땅에서 이 나라의 주요 식량인 수수, 마니오크, 고구마, 벼 등을 심어 목숨을 이어가고있다.

공업은 다른것은 거의 없고 채광공업을 위주로 하고있다. 미제와 서부독일 독점체들에 장악되여있는 쇠돌채굴이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쇠돌생산은 세계적으로 세번째자리를 차지한다.

년간수출량은 2천만톤이다.

가공공업으로는 목재가공공업이 있을뿐이다.

물고기는 1년에 1만 5천톤정도 잡고있으며 그 절반은 수출되고있다.

상선대의 규모는 자본주의세계에서 제3위를 차지하나 그것은 미국, 영국, 희랍 등 외국해운업자들의 소유로 되고있다.

운수에서는 해상운수가 기본으로 되고있으며 철도운수는 아주 뒤떨어져있다.

상업과 무역도 외국독점체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다.

1974년 7월 22일 민족은행이

새로 창설되여 외래독점은행에 대한 의존성을 결장내고 나라의 재정원천을 효과적으로 통제리용하는 첫걸음을 떼였다.

리베리아에는 20개의 아프리카인 종들이 살고있다. 가장 많은 종족은 쿠르족 (50만명) 이며 그밖에 크펠레족, 말린케족이 있다. 또한 미국에서 이주해온 흑인후손인 아메리카—리베리아사람 (약 2만명)이 있다.

아프리카인 원주민들은 미국독점자본의 략탈과 친미반동지배계층의 반인민적정책으로 하여 헐벗고있다.

주민들은 회교와 천주교를 믿는다.

독립후 학교교육사업에서 일정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890여개의 각급 학교들에서 13만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12월 10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상아해안

(상아해안공화국)

넓이 32만 2,463km²
인구 442만명
수도 아비쟝 (주민 50만명)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 임기는 5년, 민주당이 총의석 (100명) 을 독차지하고있다.

정부 대통령 겸 총리 펠릭스 후푸에브와니 (1960—1970년에 3선)

정당, 사회단체; 민주당 집권당이며 유일당, 1946년에 창건, 민족부르조아지들과 관리들의 리익을 대변, 민족해방위원회 1958년 9월 창건, 나라의 진정한 독립을 주장, 근로자총련맹

상아해안은 1946년에 프랑스의 《해외령지》로 되였다가 1958년 12월 《프랑스공동체》내의 한개 자치국으로 되였다.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한 인민들의 피어린 투쟁에 의하여 1960년 8월 7일 70여년간의 식민지통치를 짓부시고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1961년 2월 11일에는 《프랑스공동체》에서 떨어져나왔다.

그러나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1961년 4월 24일에 상아해안과 예속적인 《협조협정》을 강압적으로 체결함으로써 대외, 국방,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이 나라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였다.

이 나라의 집권당인 민주당은 1970년에 있은 제5차대회에서 국가자본과 함께 개인기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일련의 결정들을 채택하였으며 대내정책으로서 《자유경제》정책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같은해 1월에는 상아해안경제사절단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쌍방간의 1970~1975년도 교류계획을 작성하였다.

이 나라는 1971년에 열렸던 유엔총회 제26차회의에서 남아프리카와의《대화》만이 아프리카에서《인종주의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973년 11월 2일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80%가 농사를 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커피, 코코아, 바나나, 목화생산과 림업이 경제의 기본으로 되고있다.

아프리카의 최대산지로 되여있는 커피생산은 최근년간에 해마다 24만~27만톤으로서 자본주의세계에서 3위를 차지하고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코코아생산도 세계적으로3, 4위를 다투고있는데 해마다 18만~22만톤씩 생산되고있다.

독립이전과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높은 수출작물생산에서는 아직도 프랑스를 비롯한 외국독점자본가들이 큰 지위를 차지하고있다.

축산업은 뒤떨어져있는데 양, 염소, 소 등을 기른다.

이 나라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림업이다. 산림지대에서는 20여종의 질좋은 통나무가 생산되고 있는데 그 생산량은 현재 400여만립방메터이다. 그러나 외국독점체들의 란벌로 산림지대는 거의 벌거숭이로 되였다.

공업에서는 목재가공공업이 크며 크지 않은 원유가공공장, 방직공장, 세멘트공장 등이 있다. 국민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이다.

주요지하자원은 금강석, 망간, 석유, 쇠돌 등이다.

해마다 금강석은 약 21만카라트이상, 망간은 11만~12만톤 채굴되고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은 프랑스자본에 의하여 운영되며 채취공업부문에 미제독점체의 침투가 강화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코코아, 목재, 바나나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기계류 등이다.

철길은 아비쟝에서 북쪽으로 뻗어 상부볼따와 련결하는 한개의 선밖에 없다.

주민의 80%가 글을 모르며 어린이들의 30%만이 겨우 학교에 다니고있다.

공용어는 프랑스말을 이다.

보건사업도 락후한 형편이며 병원은 수개에 불과하다.

주민은 바울레족, 쿠르족, 말린케족 등이다.

인구의 65%가 원시종교를 믿으며 회교와 기독교도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상아해안통신

신문 프라떼르니떼 마땡 (정부신문) , 앙땅뜨 아프리캔, 르 쥬르날

방송 아비쟝방송

상 부 볼 따

(상부볼따공화국)

넓이 27만 4, 200km²
인구 550만명 (1971년)
수도 와가두구 (주민 15만명)

정 치

민족회의 1원제로서 57명의 의원들로 구성, 임기는 5년, 1970년 12월 선거 결과 민주동맹이 37석, 민족해방운동이 6석, 아프리카재편성당이 12석, 기타가 2석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 1974년 2월 11일 10명의 군인과 4명의 사민으로 구성, 대통령 상구레 라미자나 (1966년 1월—, 총리와 사법부장 겸임) , 외교부장 사이예 제르보, 국방 및 제대군인담당부장 바바 시

정당, 사회단체; 1974년 2월 8일 라미자나대통령이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민주동맹 1947년에 창건, 종족장들의 리익을 대변, 민족해방운동 1958년에 창건, 인떼리와 학생청년들에게 의거한다. 아프

리카재편성당 1959년에 조직, 나라의 자본주의적발전을 반대, 민족재편성당 1970년에 조직, 다당제의 청산과 모든 정치세력들이 민주주의적 민족전선에 단합할것을 주장, 근로자당 1970년에 조직, 새공화국동맹, 인민행동파, 근로자로조련합, 아프리카로조련맹(세계직련에 가맹)

1958년 12월 11일《프랑스공동체》안에서 약간의 자치권을 가지는《공화국》으로 되였으며 1959년에 새 헌법을 제정하고 나라 이름을 상부볼따공화국이라고 하였다.

1966년 1월 4일 총참모장이던 상구레 라미자나가 정변을 일으켜 독립이래 정권을 잡고있던 야메오고정권을 전복하고 군사정권을 세웠다.

라미자나정부는 1969년 11월부터 정변당시 금지하였던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허용하였다.

1970년 6월 14일에 각 정당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제출한 새 헌법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채택되였다. 새 헌법에서는 군부가 1974년까지 정권을 유지하며 각료의 3분의 1은 군인들이 차지하며 총리직은 대통령이 선발하는 민간인으로서 민족회의의 비준을 받기로 하였다.

헌법에 따라 1970년 12월 20일에 민족회의 선거가 진행되였으며 라미자나를 대통령으로, 총리를 민간인으로 하는 군인들과 정당대표들의 민간—군인정부가 수립되였다.

1974년 2월 8일 라미자나대통령은 10개 항목의 선언을 발표하여 민족회의를 해산하고 헌법을 정지시켰으며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새 군사정부의 수립을 발표하였다.

선언은《새 정부의 목적은 자력갱생에 의한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매개인의 사회적정의의 보장을 추구하는데 있을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1974년 2월 11일 라미자나대통령은 자신이 총리직을 겸하고 10명의 군인과 4명의 민간인으로 새 정부를 구성하였다.

라미자나대통령은 자기 정부의 목표는《민족의 단합을 이룩하며 락후한 현상과 투쟁하여 번영하는 상부볼따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언명하였다.

그는《외국자본과 외국인의 통제밑에 있는 경제는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속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기업의 사회자본화》, 《인원과 간부의 상부볼따화》를 제기하고 자본은 국가의 수중에 장악하고 기업소들은 상부볼따인들에 의하여 운영되여야 하며 국가가 생활필수품에 대한 대내외상업을 점차 통제해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1974년에도 상부볼따는 우선 농촌경리의 발전에 심중한 주의를 돌리면서 우물을 파고 제방을 쌓아 수리화계획을 추진시켰다.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며 자기 나라에 대한 외세의 그 어떤 간섭도 허용하지 않고있다.

1974년 12월 4일 상구레 라미자나대통령은 말리와의 국경문제에 대해 말리국가수반 무싸뜨라오레와 회담을 가지고 공동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콤뮤니케에 의하면 쌍방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형제적친선관계를 강화하는데 관심을 돌리며 이러한 선린정책을 수호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평화협상의 방법으로 두 나라 사이의 국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합의를 보았다.

1973년 10월 중동전쟁시기 아랍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95%가 농업에 종사한다. 농업총생산액은 국민총생산액의 75%를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강냉이, 기장, 벼, 땅콩, 조, 수수 등이다. 몇년래 계속되는 심한 가물로 농업생산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목축업이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축산물수출액은 이 나라 수출총액의 50%를 차지한다.

공업은 농산물가공공업과 채굴업이다. 랭동공장, 기름공장, 신발공장, 벽돌공장 등 중소규모의 공장들이 있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은 와가두구로부터 국경까지 련결되여 주로 수출입을 하고있다.

1969년부터 민족문자를 제정하고 민족어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있다. 1972~1973년도 국가예산의 10%를 교육부문에 돌렸다.

공용어로는 프랑스말을 쓴다.

의료시설도 점차 확장되고 전염병이 현저히 줄었다.

주민은 모시족, 로비족, 보보족, 그룬시족 등이다.

원시종교가 대부분이며 회교와 기독교도가 있다.

출판보도; 신문 까예푸르 아프리껜(정부기관지), 쥬르날 오피씨엘 드 라 레퓨블리끄 드 오뜨 볼따, 뷜레뗑 꼬띠디앵 드 앵포르마씨옹

방송 상부볼따방송, 상부볼따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10월 1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상부볼따신문《까예푸르 아프리껜》1974년 10월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와《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게재하였다. 1974년 10월 또고의 수도 로메에서 진행된 경애하는 수령님의 농촌테제발표 10돐을 기념하는《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제3세계인민들의 과업》에 관한 토론회에서 상부볼따정부대표단은 조선은 오늘 가장 절박한 문제로 되고있는 농업문제해결에서 가장 빛나는 성공을 이룩한 나라이라고 하면서《…위대한 사상가이시며 자신께서 창시하신 사상의 위대한 실천가이신 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이 나라로 하여금 수세기를 거쳐서야 발전된 농업을 가지게 된 선진국가들의 수준을 단 10년 사이에 따라잡을수 있게 하였다. 김일성주석님의 사상과 농촌테제와 그리고 조선의 모범은 우리에게 자기 나라의 주인으로 된 인민은 아무리 락후한 농촌경리를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번영하는 나라를 건설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주고있다.

농촌문제해결에 관한 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사상과 리론은 조선인민뿐만아니라 발전도상에 있는 제3세계 모든 인민들의 귀중한 재부로 된다.》라고 감동적으로 말하였다.

상부볼따공화국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해주고있다.

1974년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조선문제 토의시 상부볼따대표는 유엔은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려는 조선인민에게 효과적인 방조를 줄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조선의 통일은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모든 외국군대들을 철거시키고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실현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제29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상부볼따는 우리 나라를 지지하여 찬성투표하였다.

가 나

(가나공화국)

넓이 23만 8, 537km²
인구 886만명(1971년)
수도 아크라(주민 63만 3,900명)

정 치

구국리사회(정부) 1972년 1월 13일 군사정변후 7명으로 구성, 위원장 아이. 케이. 아참퐁(국방부, 재정부, 경제부 담당)

정당, 사회단체; 1972년 1월 혁명후 모든 정당활동은 금지됨, 로조대회 1971년에 비법화되였다가 1972년 1월 혁명후 복구

1957년 3월 6일 황금해안과 영국의 후견령 또고(서부또고)가 통합되여《영련방》안에서 독립하였으며 나라 이름을 가나로 고쳤다.

1960년 4월 헌법을 채택하고 같은해 7월 1일 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느크루마가 초대대통령으로 되였다.

1966년 2월 일부 반동적군대와 경찰이 대통령의 외국려행중에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친서방적인 군사정권을 조작하였다.

1972년 1월 13일 제1보병려단 지휘관이던 아참퐁대좌를 비롯한 장교집단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반동적인 부시아정부를 전복하고 구국리사회를 조직하였다.

정부는 1973년 1월 11일 정부 강령인《부흥헌장》을 발표하여 가나의 대내정책이 인민의 리익을 보장하며 민족적통일을 강화하고 사람에 의한 사람의 온갖 형태의 착취를 없애고 인민들을 애국주의와 제인민간의 우의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공화국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정신, 물질적 력량을 동원할것을 선포하였다.

1972년부터 농업에서의《자급자족》운동이 벌어졌으며 이 운동에 로동자, 사무원, 대학생 및 군인들이 떨쳐나서 1973년에 20리 관개수로를 건설하였다.

정부는 농촌경리의 다각적발전을 위하여 알곡생산에 힘을 넣으면서 1972년부터 1974년까지를《농업의 해》로 정하고 알곡증산을 기본목적으로 하는《자급자족운동》을 전개하여 식량과 공업원료로 쓰이는 농산물을 기본적으로 자체로 해결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1973—1974 농업년도에 그 전해 년도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1천 490만세디를 돌렸다.

국제시장을 틀어쥐고있는 제국주의 독점체들이 코코아값을 마구 떨구고있는 형편에서 식민주의자들의 강요에 의하여 코코아생산에만 치우치던 가나가 알곡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뺨을 또다시 되게 때린것으로 되였다.

식민주의자들의 경제적예속의 후과로 독립후에도 오래동안 대외무역에서 적자를 낼수밖에 없었던 가나정부는 대외무역발전을 위해 국가가 외국자본과 대외무역을 통제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가나는 지난 시기 많은 적자를 냈다면 1973년에 1억 9천 810만세디의 흑자를 보았다.

1973년 3월에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령해권을 12마일로부터 30마일로 늘이고 대륙붕은 구국리사회의 관할권에 속한다는 법령을 발포하였다.

가나는 대외관계에서 적극적인 중립과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며 제국주의, 신구식민주의 및 인종주의의 온갖 형태와 표현을 폭로하고 견결히 규탄하며 아프리카의 통일을 적극 강화하며 아프리카와 세계의 기타 지역의 민족해방운동을 지지하며 모든 나라 및 선량한 인민들과의 협조를 강화하고있다고 규정하고있다.

1973년 1월 기네와 외교관계를 회복하였다. 10월에는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고 공보를 발표하여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강점지역에서 물러가기 전에는 이스라엘과 절대로 관계를 다시 맺지 않을것이라고 선언하였다.

1974년 5월에는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를 승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로동력의 60%가 농사를 하며 국민총생산액에서 농업이 42%를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코코아이다. 그 생산량은 세계 제1위로서 년산 42만~45만톤이다.

농업인구의 3분의 1이 코코아농사를 하고있다.

그밖에 바나나, 땅콩, 수수, 강냉이, 커피, 야자, 생고무 등도 생산한다.

정부는 민족경제발전에서 특히 알곡생산에 큰 힘을 넣었는데 농촌에 농기계들과 화학비료를 많이 공급하였다. 1971년에 5천 500톤의 화학비료가 농촌에 공급되였다면 농산물의《자급자족운동》이 시작된 1972년에는 2만 6천 600톤, 1974년에는 3만 2천 600톤이 공급되였다.

알곡증산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가나에서는 농민들에게 주는 대부금을 늘이고 알곡과 코코아, 목화 등 농산물의 수매가격을 높여 농민들의 생산열의를 높여주었다.

1972년에 강냉이는 그 전해에 비해 5% 더많은 39만 6천톤, 벼는 28% 더 많은 7만톤을 생산하였다.

정부는 1974년에도 알곡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지면적을 더욱 늘이고 수리화, 기계화, 화학화를 적극 추진시켰으며 농작물의 품종을 개량하고 확대하는데 많은 힘을 돌렸다.

공업에서는 채굴업이 기본이며 금, 금강석, 망간, 보크사이트를 생산한다. 매년 금은 70만온스, 금강석은 250만~280만카라트, 망간은 28만~30여만톤, 보크사이트는 24만톤 생산되고있다.

가공공업으로는 비누공장, 코코아가공공장, 제강소, 가구공장, 일용품공장, 원유가공공장 등이 있다.

년 14만톤의 물고기를 잡는다.

운수에서는 아크라와 코코아산지 및 광산지대를 련결하는 철도운수가 있고 자동차운수, 볼따강을 리용하는 수상운수가 있다.

주요수출품은 코코아, 금강석, 보크사이트, 망간, 목재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기계, 천, 연료 등이다.

독립후 정부는 교육과 민족문화발전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들이 건설되고 3개의 대학이 운영되고있다.

공용어는 영국말이다.

주민은 아샨티족(44%), 다고아족, 에웨족, 후아티족 등 10여개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기독교도가 43%, 회교도가 12%, 나머지는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가나통신

신문 가나 타임스(정부기관지), 데일리 그래픽, 이브닝 스탠다드, 스탠다드

방송 가나방송, 가나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12월 2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가나신문《데일리 그래피크》1972년 3월 28일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를 실었다.

1974년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가나는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립장을 지지하여 찬성투표하였다.

또 고

(또고공화국)

넓이 5만 6,000km²
인구 191만명(1971년)
수도 로메(주민 14만 8,000명)

정 치

정부 대통령 그나씽그베 에야데마(1967년 1월—), 외교부장 아이이 훈데데

정당, 사회단체; 인민련합 유일당이며 집권당, 1969년 11월 29일 창건, 전국위원회 위원장 그나씽그베 에야데마, 근로자전국동맹, 또고조선친선협회 1969년 11월 4일 결성, 위원장 파오비 벤니 존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또고인민은 민족자주의식을 확립하고 또고의 모든것을 〈민족화〉하며 경제적해방을 이룩할데 대한 구호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파괴암해책동을 물리치면서 일련의 진보적개혁들을 실시하고있으며 민족적단합을 강화하고 민족경제와 민족문화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습니다.》

오래동안 잔인한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지배와 착취를 받아온 또고는 그나씽그베 에야데마대통령에 의한 1967년 1월 13일 혁명이 승리함으로써 민족자주의 길을 따라 전진하기 시작하였다.

또고인민은 자주의 기치따라 민족자주의식을 확립하고 또고의 모든것을 《민족화》하며 경제적해방을 이룩할데 대한 구호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파괴암해책동을 물리치면서 일련의 진보적개혁들을 실시하고있으며 민족적단합을 강화하고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나라의 총면적 5만 6천평방키로메터중 4만평방키로메터가 농경지이며 특히 주민의 90%가 농사를 짓고있는 또고에서는 농업을 짧은 기간에 추켜세우는것이 나라의 경제적자립을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지난날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식민지적농업정책의 후과로 이 나라의 농업은 매우 뒤떨어져있었다. 커피, 코코아, 야자 등 일부 작물생산에 얽매여있던 또고의 농업에서는 식민지적편파성을 극복하고 농업생산의 다각화를 실현하며 알곡생산을 빨리 늘여 그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켜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었다.

에야데마대통령의 령도밑에 또고정부는 농업을《국가경제의 기초》로 선포하고 그를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정부는《토지는 경작자에게》라는 구호밑에 토지개혁을 실시하며 황무지를 개간하였다. 특히 《농업의 현대화》를 농업의 기본정책으로 내세우고 관개망을 넓히고 선진영농방법도 받아들이였다.

정부는《땅으로 돌아가라!》는 구호를 내놓고 도시로 들어간 농민들이 농촌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동원사업을 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적방조를 주었다. 1974년 6월 정부는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목화, 코코아, 커피, 카사바 등 작물의 수매가격을 높이였다.

정부는 또한 자주자립의 기치를 들고 민족공업을 튼튼히 다지는데 큰 힘을 넣었다.

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지반을 허물어버리고 공업을 점차 국가가 장악하는 반제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외국자본과의 합작으로 운영하는 기업소들에서 자기 나라 리권의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동시에 중소민족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돌렸으며 국가의 중소기업촉진쎈터와 국가투자회사, 개발은행 등 기구를 내오고 민족공업에 자금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조치도 취하였다.

또고대통령 그나씽그베 에야데마의 옳바른 령도밑에 또고정부가 실시하는 자주적인 정책에 불만을 품은 제국주의자들은 흉악한 음모책동을 계속해왔으며 1974년 1월 24일에는 에야데마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탄 비행기를 추락시키는 사건까지 꾸며냈다.

그러나 에야데마대통령은 반제자주적인 립장을 더욱 철저히 견지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회사들을 계속 국유화하는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나갔다.

이 력사적인 날과 관련하여 1975년 1월에 또고인민련합전국위원회는 에야데마대통령을 민족적영웅으로 선포하고 1월 24일을 《경제적해방의 날》로 기념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74년 2월 정부가 제국주의자들이 독점하고있던 《또고베닌광업회사》를 완전히 국유화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한것은 자기의 힘으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려는 또고인민들의 강력한 반제자주적지향을 보여준 그의 한 실례로 된다.

또고정부는 또한 교육문화분야에서 식민주의의 여독을 뿌리뽑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도 취하였다. 1973년 정부는 교육개혁방안을 제정하는 일을 시작하였으며 학교들에서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청년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내용에서 자기 나라의 교재를 늘이고 민족문학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1974년에 건설된 또고의 첫 최고학부인 베닌종합대학은 민족간부를 양성하는 중요기지로 되고있다.

식민주의흔적을 가시기 위하여 최근 또고정부지도자들은 자기 이름에서 다른 나라 이름자를 솔선 떼버렸다.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고쳐졌던 일부 지명도 아프리카본래의 전통적이름으로 바꾸었다.

1974년 9월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간 에야데마대통령은 9월 17일 로메에서 또고인민련합 중앙위원회 비상회의를 열고 앞으로 새로 출생하는 아이들에게 다른 나라식 이름을 붙이는것을 금지하며 외국식명칭을 단 국내의 모든 거리와 광장의 이름을 또고식 이름으로 고치기로 결정하였다.

비상회의는 앞으로 2개월안에 나라의 모든 행정기관들의 명칭들을 또고식 이름으로 고칠것을 권고하였다.

비상회의는 전국행정간부학교 개편에 관한 문제도 토의하였다.

대외정책에서 또고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큰 나라들의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제3세계나라들과 단결하고있다.

또고정부는 1972년 8월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를 승인하였으며 9월에는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었

다. 1974년 4월에 미국에서 진행된 원료 및 석유개발문제에 관한 유엔총회특별회의와 1974년 6월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제3차유엔해양법회의에서 또고대표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착취하고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착취하는 현상을 규탄하고 현 세계경제질서가 불공정하고 낡았다고 지적하였으며 또고가 자기의 자연부원에 대하여 영원한 자주권을 가진다는것과 이러한 자원을 자기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충분히 리용할수 있는 빼앗을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천명하였다. 서아프리카통화련맹참가국 제1차수뇌자회의가 10월 11일 로메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는 서아프리카중앙은행을 빠리로부터 세네갈수도 다까르로 옮겨오기로 결정하고 서아프리카개발은행을 설립하기로 함으로써 서아프리카나라들의 경제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또고정부는 아프리카나라들의 단결에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이 나라들에 대한 선린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최근년간 또고는 가나, 다오메, 상부볼따, 자이르, 나이제리아 등과 경제, 문화 및 무역관계를 강화하였으며 나이제리아와 함께 서부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를 발기하고 그 창설을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있다.

1974년 4월에 한 연설에서 에야데마대통령은 아프리카의 발전은 아프리카대중의 일이며 《집단적발전은 아프리카나라들간의 협조의 가장 믿음직한 길이다.》라고 말하였다. 1973년 9월 기네—비싸우공화국이 독립을 선포하자 또고는 즉시 그를 승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또고는 발전도상에 있는 농업국가이다. 경제분야에서 식민지후과를 가시고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코코아, 커피, 야자, 종려, 목화, 강냉이, 땅콩 등이다.

최근년간 또고정부는 식민주의자들이 농업에 끼친 후과로 코코아, 커피만을 생산하던 기형성을 극복하고 알곡을 더 많이 낼것을 계획하고 제2차 5개년계획(1971—1975년)기간에 투자총액의 67%를 농업에 돌렸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에 의하여 최근년간 강냉이, 조, 벼 생산에서 현저한 장성을 보았다. 매년 커피는 1만여톤, 코코아는 1만 8천여톤, 목화는 1천톤, 야자씨는 1만 6천톤, 땅콩은 5천톤 생산된다.

또고의 공업은 독립이후 새롭게 창설되고있다.

독립이전에 또고에는 3개의 외국자본이 경영하는 공장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늘 또고에는 민족공업이 창설되고있으며 광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방직공업, 식료공업 등 여러부문의 근 30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일떠서 갖가지 공업제품을 생산해내고있다. 그리하여 지난날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공업품을 자체로 만들어쓰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왔다.

1974년현재 이 나라에서는 년산 30만톤능력의 린비료공장, 원유정제공장, 파인애플통졸임공장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있으며 베닌광업회사의 린회석생산능력을 년 250만톤으로 늘이는 확장공사, 바따신발공장의 년간생산능력을 36만켤레로, 또고방직공장의 년간생산능력을 2천만메터로 각각 늘이는 공사가 힘차게 추진되고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들과 인민들의 힘찬 로력투쟁으로 또고의 국민총생산액은 년 7%의 장성을 기록하고있으며 국민총생산액에서 공업의 몫은 해마다 늘어나 21.8%에 이르고있다.

지금 또고인민은 5개년계획(1971—1975년)의 과업들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교통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은 499키로메터, 자동차길은 7천키로메터에 달한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코코아, 목화, 린회석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천, 식료품, 금속제품, 기계류 등이다.

주민은 에웨족, 마나족, 까뜨시족, 까부레족 등이다.

공용어로 프랑스말을 쓰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원시종교를 믿으며 약 30만명의 기독교도가 있다.

출판보도; 신문 또고프레스
방송 또고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1월 31일 우리 나라는 또고공화국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외교관계설정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서 중요한 리정표로 되였다. 1969년 11월 또고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1974년 9월 7일부터 12일까지 또고공화국 대통령 그나씽그베 에야데마가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한것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의 력사에 새로운 빛나는 기록을 하였다. 방문기간 에야데마대통령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또고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였으며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커다란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나씽그베 에야데마대통령은 그를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연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관점을 고치고 새로운 사상에 의하여 지도되여야 하며 그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현실적인 념원인, 사람을 중심에 놓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울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방문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또고공화국 대통령사이에 회담이 진행되였으며 9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또고공화국사이의 공동콤뮤니케가 평양에서 조인되였다.

방문기간 그나씽그베 에야데마대통령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훈장 제1급이 수여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또고공화국의 최고영예훈장인《모노대십자훈장》을 받으시였다.

우리 나라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에야데마대통령은 13일 로메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우리 나라의 농업발전에 대하여 찬양하면서 《조선의 농민들은 비의 주인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들은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지 않고 농사를 지을수 있는 수천키로메터의 관개망을 건설하였다.》고 말하였다.

대표단성원으로 우리 나라에 왔던 또고인민련합중앙위원회 위원인 《또고프레스》지 주필은 이 신문 9월 19일호에《로메와 평양을 련결하는 친선과 전투적련대성의 다리》라는 제목으로 론설을 발표하였다. 론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들에 언급하고 이 모든 성과들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달성된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필자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와 에야데마대통령이 로메와 평양을 련결하는 친선과 련대성의 큰 다리를 마련해주시였다고 지적하면서 이 다리는 난공불락의 다리, 그 어떤 폭탄으로도 파괴할수 없는 다리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

75년 1월 또고인민련합전국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또고대통령 그나씽그베 에야데마가 또고인민의 민족적영웅으로 되였으며 1월 24일을《경제적해방의 날》로 경축하기로 된것과 관련하여 또고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1974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또고의 수도 로메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10돐을 기념하는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제3세계인민들의 과업》에 관한 과학토론회가 진행되였다. 과학토론회에는 30여개 나라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에야데마대통령이 과학토론회 앞으로 축하서한을 보내여왔다. 축하서한에서 대통령은《탁월한 문헌으로 세상에 알려진 농촌문제에 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농촌테제를 관철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연구할것을 당신들에게 서슴없이 권고한다.》고 지적하였다.

토론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토론회와 관련하여《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전문을 또고신문《또고 프레스》10월 2일호가 실었다.

1974년에 또고공화국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여러모로 적극 지지해주었다.

9월 17일 로메에서 에야데마대통령의 사회하에 또고인민련합 중앙위원회비상회의가 진행되였다. 비상회의는 일련의 중요한 국제문제를 특히 분렬된 조선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회의는 조선의 남쪽에 외국군대가 계속 존재하는것은 나라의 두부분의 평화적통일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되고있는 조건에서 남조선 《정부》에 대한 지지를 계속할수 없다고 인정하고 남조선괴뢰도당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하였다. 또고외교부장 아이 이 훈베데는 이날 남조선괴뢰대사놈을 불러 이 사실을 통고하고 괴뢰대사놈을 또고에서 추방하였다.

또고는 1974년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 제출한《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하여》의 공동발기국 성원국으로서 활동하였으며 표결에서 우리측을 지지하여 찬성투표하였다.

유엔총회에서 연설한 또고대표는 남조선에 외국군대가 주둔하고있는것은 조선인민이 그처럼 바라고있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에 커다란 장애물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남조선으로부터 외국군대의 철거를 단호히 요구하였다.

1974년 10월에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10월 22일 또고의 수도 로메에서 우리 나라와 또고공화국정부 사이의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다 오 메

(다오메공화국)

넓이 11만 2,622km²
인구 287만명(1972년)
수도 뽀르또노보(주민 8만 5,000명), 정부 소재지는 꼬또누(주민 12만명)

정 치

전국혁명리사회 1973년 10월 19일에 창설된 최고지도기관, 위원장 마티어 께레꾸

군사혁명정부 1972년 10월 26일 12명의 장교들로 구성, 대통령 마티어 께레꾸, 외교부장 미쉘 알라다이에

정당, 사회단체; 1972년 10월 26일 혁명후 정당, 사회단체의 활동은 금지되였다. 1973년에 새로 사회단체들을 창설하기 위한 운동이 벌어졌다. **녀성전선** 1973년 8월 창립.

제2차세계대전후 다오메인민은 1900년이래 이 나라를 완전한 식민지로 예속하고있던 프랑스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을 벌려 1960년 8월 1일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1961년 2월 11일 《프랑스공동체》에서 떨어져나왔다.

독립후 12년동안 이 나라에서는 정치경제적불안정과 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책동으로 하여 5차례의 정변과 9차례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1972년 10월 26일 락하산부대 사령관이던 마티어 께레꾸의 지휘밑에 진보적장교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친서방적인 마가정권을 뒤집어엎고 군사혁명정부를 조직하여 나라를 새생활 창조의 길로 이끌기 시작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아프리카대륙에서는 자주의 기치밑에 식민주의의 온갖 잔재를 종국적으로 쓸어버리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습니다.》(《다오메정부기관지 〈다오엑스프레스〉 사장과 한 담화》, 단행본, 7페지)

다오메정부의 반제자주적지향은 그의 정부정강에서 표현되였다.

께레꾸대통령은 1972년 11월 30일에 발표한 정부정강에서《다오메 정부정책의 기초는 민족적독립을 고수하는것이며 국가와 인민이 나라의 부원을 책임지게 될것이다.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는 불럭불가담, 평등, 자주권에 대한 호상존중, 호혜 및 민족적존엄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

께레꾸정부는 이러한 정치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위를 높이며 나라의 경제문화 및 사회기구를 재조직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식민지시대에 몹시 팽창되였던 국가기구를 새 사회 건설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하였으며 이 기구유지에 필요로 하던 막대한 자금까지 줄이였다.

또한 나라의 모든 애국력량을 단합하기 위하여 1973년에 모든 근로자들을 통일하는 전국로조중앙과 가장 큰 녀성조직들을 망라한 다오메녀성전선을 새로 내왔다.

다오메정부는 또한 1974년 1월에 청년들이 단결하여 혁명에 참가할것을 호소하였으며 뒤이어 8월에는 청년운동의 통일을 보장하고 청년들을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단일조직에 묶어세우기 위하여 300개의 청년단체들을 120개로 만들었다.

정부는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었다.

민족경제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다오메전국혁명리사회 서기국은 1974년 12월 2일 다오메에 있는 외국은행들을 국가수중에 장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 조치에 따라 국가는 외국독점체들이 가지고있던 다오메은행회사와 다오메개발은행을 완전히 장악하였으며 기타 외국은행들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실시하게 되였다.

또한 보험사업을 국가가 독점하며 앞으로 외국전신회사도 국가의 통제에 두게 하였다.

다오메정부는 대외적으로 반제혁명력량의 편에 서서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민족적해방을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1974년 8월 께레꾸대통령은 제3세계나라 인민들은 그 어떤 정황

속에서도 다시는 자신의 자유와 존엄을 외국의 원조와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무엇보다먼저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제4차 중근동전쟁때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아랍나라들의 정의의 투쟁에 대한 지지의 표시로 １９７３년 １０월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９０％이상이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종려 (부침땅의 절반이상, 약 ６０만헥터) , 커피, 목화, 기장, 조, 강냉이, 벼, 나무감자, 땅콩, 수수, 바나나 등이다.

종려씨와 종려기름 생산이 경제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매년 5만여톤의 종려씨와 1만 6천여톤의 종려기름이 수출되고있는데 이것은 이 나라 수출총액의 약 ７０％를 차지한다.

독립후 꼭두각시정부는 식민주의자들이 농업분야에 끼친 기형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업의 다각화방침을 내놓고 투쟁하여왔다. 그리하여 종려, 야자 재배에만 치우치던 농촌에서 나무감자, 고구마, 강냉이, 땅콩, 목화, 커피, 수수, 바나나 등이 생산되고있다.

내륙언덕지대에서는 집짐승을 많이 기르고있다. 소, 양, 염소는 ５０여만마리, 돼지, 말은 ３５만마리정도 있다.

다오메정부는 １９７４년에도 자기자신의 힘에 의하여 나라를 건설할 결심을 더욱 굳게 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존엄을 침해하는 외국의 원조를 허용할수 없다고 선포하였다. 국내자원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많은 공장들을 건설하였다.

종려기름공장, 빵공장, 솜타는공장, 농산물가공공장, 타일공장, 비누공장, 세멘트공장 등이 있다. 국민총생산액에서 공업생산이 차지하는 몫은 약 ９％이다.

철도운수 (총 ６０２키로메터) 와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주요수출품은 종려씨와 종려기름, 땅콩, 목화, 커피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료품, 천, 원유제품, 금속제품 등이다.

정부는 사상, 문화, 교육 분야에서도 이 부문에 끼친 식민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고 자기 나라의 문화와 력사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１９７３년 2월 정부는 내각회의를 열고 지난 시기 인식교양적의의가 없고 내용이 불건전한 저속한 영화들을 영화관들에 내보내고있던 영화보급독점회사를 국유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영화관들에 보내는 영화들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며 국영영화보급관리국을 새로 내올것을 결정하였다.

정부는 또한 무료의무교육과 민주주의적교육을 실시하며 학교를 교회와 분리시켜야 할 과업들을 인민교육부문앞에 제기하고 이 사업을 적극 밀고나갔다.

군사혁명정부강령은 새로운 교육체계가 나라의 사회경제적발전의 리익에 부합되여야 하며 다오메력사와 문화를 깊이 연구하고 청년들에게 애국주의와 민족적자부심을 키워주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있다. １９７４년에도 국가는 자기 나라 말을 연구하며 글모르는 성인들에게 글을 배워주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

１９７４년 8월부터 민족어로 된 두개의 신문 《미쎄누ー미쎄그베》, 《이몰레》를 민족어로 새로 발행하기 시작하여 농촌주민들을 계몽시키는 조치도 취하였다.

각급 학교들에서 지금 ２０여만명의 어린이들이 공부하고있다.

공용어로는 프랑스말을 쓴다.

병원, 종합진료소, 산원, 진료소수가 늘어나고 의료시설도 점차 개선되여가고있다.

１９７３년 3월 정부는 의료품생산과 판매를 국가가 장악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국가의 통제를 받는 전국제약관리국이 나라의 의약품들과 의료기구들의 생산과 판매를 직접 맡아보도록 하였다.

주민은 폰족, 아야족, 요르바족, 바리바족, 풀베족 등이다.

원시종교를 많이 믿으며 회교와 기독교도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다오메통신

신문 다오엑스프레스 (정부기관지), 악씨옹 뽀쀨레르, 로브 누벨, 다오메 앵포르마씨옹, 르 데모끄라뜨, 미쎄누ー미쎄그베, 이몰레

방송 다오메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과 다오메인민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서로 지지협조하여왔으며 친선관계를 맺었습니다.

특히 １９７３년 ２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다오메군사혁명정부사이의 외교관계설정은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습니다.》(《다오메정부기관지 〈다오엑스프레스〉 사장과 한 담화》, 단행본, １페지)

１９７３년 2월 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으며 경제및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１９６８년 ９월 6일에 다오메조선친선협회가, １９７１년 5월에《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과 독립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다오메련대성위원회》가 결성되였다.

다오메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사업과 천재적로작들의 출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신문《다오엑스프레스》 １９７４년 3월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소개하면서 이 테제의 발표는《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전반적위업을 촉진하며 농촌문제해결에 관한 맑스ー레닌주의리론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사변》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농업협동화의 승리와 농촌경리의 앞으로의 발전에 대하여》를 １９７４년 １０월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는 《김일성주석의 로작 및 혁명활동략력연구소조》가 다오메인민들속에 조직되였다.

１９７４년 １０월에 또고의 수도 로메에서 진행된 경애하는 수령님의 농촌테제발표 １０돐을 기념하는《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제３세계인민들의 과업》에 관한 과학토론회에 참가한 다오메정부대표단 단장은 자기 연설에서 수령님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국제적의의를 가지는 혁명적고전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제국주의를 타승하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청산하기를 결심한 매개 인민들은 김일성주석님께서 천명하신 근본원칙들을 습득하고 이 사상을 매개 나라의 객관적조건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１９７４년 ９월에 《다오엑스프레스》사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 사장을 접견하시고 친선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접견석상에서 신문사 사장은 김일성주석각하는 한세대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하다고 하던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고 조선의 새로운 탄생을 가져오신 위대한 수령이시라고 하면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을 사회를 개조하는 가장 위력한 무기인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시였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주체사상은 조선인민에게 해방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마련해줄뿐아니라 온 세계 방방곡곡에 전파되여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며 인민들에게 나아갈 길을 밝혀주고있다고 하면서 자기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끝까지 충실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다오엑스프레스》는 10월 2일과 3일 량일간에 걸쳐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이 신문사 사장과하신 수령님의 담화전문을 실었다.

5월에 다오메교육대표단, 10월에 대통령부 출판문헌국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1월에 우리 나라 정부경제대표단이 다오메를 방문하였다.

나이제리아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넓이 92만 3,768km²
인구 7천 976만명(1973년 11월)
수도 라고스(주민 170만명)

정 치

련방군사정부 최고군사리사회와 련방집행리사회로 구성된 최고기관이다. 립법권과 집행권을 가진다.

정부수반이 두 리사회의 의장직과 군총사령관직을 겸한다. 수반 야쿠부 고원(1966년 8월—)

최고군사리사회 립법기관으로서 정부수반과 총참모장, 륙군참모장, 해군및공군사령관들, 주의 군정관들, 경찰총검열관과 부검열관으로 구성된다.

의장 야쿠부 고원

련방집행리사회(내각) 의장 야쿠부 고원

정당, 사회단체; 1966년 5월 모든 정당, 사회단체는 해산되였다.

나이제리아는 1960년 10월 1일 《영련방》내에서 독립하고 1963년 10월 1일 련방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고원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의 분렬책동을 짓부시고 제국주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며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련방정부수반, 군총사령관 야쿠부 고원에게 보내신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은 나이제리아인민이 각하의 령도밑에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두고있는 성과들을 진심으로 기뻐하고있습니다.》

1966년 7월 29일에 정권을 장악한 고원은 종족들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국내전쟁으로 파괴된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힘쓰는 한편 비아프라분렬주의자들과 공모하여 정부전복음모를 꾸민 미영제국주의자들을 추방하였다.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나이제리아정부는 모든것을 《나이제리아화》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힘을 넣었다.

아프리카의 제2의 원유생산국이며 세계의 10대원유생산국에 속한 이 나라에서 원유공업을 외래독점체들로부터 찾아내여 국가가 통제하는 문제는 정치적독립을 이룩한 나이제리아앞에 나선 선차적과업이였다.

이 나라에서 제국주의독점체들과의 이러한 《원유전쟁》은 1966년 정권을 장악한 야쿠부 고원을 수반으로 하는 련방군사정부에 의하여 비로소 힘차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1969년에는 외래독점체들에 대한 수출입허가 질서를 뜯어고치고 원유탐사 및 채취활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자본의 경제리권에 국가가 직접 참가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이 법령에 기초하여 국가는 이딸리아독점회사 《아쥐프》 주권의 33%, 프랑스회사 《싸프라프》주권의 35%를 장악하였으며 1974년 5월에는 해마다 이 나라 원유생산의 약 3분의 2에 달하는 6천만톤이상의 원유를 생산하고있는 이 나라 최대의 외래원유독점체인 《쉘—브리티슈》 회사주권의 55%를 틀어쥐였다.

1973년 1월 2일부터 영파운드 대신에 전국적으로 십진제 새화페(단위는 나라와 코보)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고원정부는 1974년 2월에는 나이제리아에 있는 모든 외국보험회사들의 주권중 많은 몫을 국가가 장악하기로 결정하였다.

1974년 1월에는 영제국주의자들이 장악하고있던 전신전화회사인 《나이쥐리 엑스터널 텔레콤뮤니케이숀》의 활동을 완전히 국가의 통제속에 두기로 결정하였다.

나이제리아련방정부는 대외적으로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1974년 3월 고원은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이 인종격리정책을 반대하여 싸우는 아자니아인민들을 잔인무도하게 학살하는 범죄적만행을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고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과 외교, 경제 및 문화적 관계를 맺고있는 나라들이 인종주의자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며 더우기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에게 무기를 공급하지 말것을 요구하였다.

고원은 1974년 6월 소말리아에서 진행된 제11차아프리카통일기구수뇌자회의에 참가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80%가 농사를 한다. 주요 농산물은 종려, 코코아, 땅콩, 담배, 목화, 고무 등이다. 그중 종려, 코코아, 땅콩은 그 생산과 수출량에 있어서 자본주의세계에서 2, 3위를 차지한다.

북부의 초원지대에서는 소, 양, 락타 등을 기른다.

공업은 석유, 콜롬바이트, 주석, 우라니움, 중석, 탄탈, 석탄, 금, 쇠돌 등을 캐내는 채굴공업과 원유가공공업이 기본으로 되고있다. 콜롬바이트생산량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주석생산량은 아프리카에서 제2위이다. 원유생산은 아프리카에서 리비아 다음의 제2위이며 세계 10대원유생산국의 하나이다.

이 풍부한 자연부원들과 경제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일어났던 3년간의 국내전쟁으로 심히 파괴되였었다.

고원정부는 파괴된 나라의 경제를 빠른 시일안에 복구하면서 경제의 식민지적편파성을 가시고 민족경제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고원정부는 제2차민족경제발전계획(1970~1974년)을 제시하고 근로자들을 경제계획수행에 조직동원하였다. 결과 계획기간에 해마다 약 6.1%의 경제장성을 예견하였었는데 평균 10.2%의 장성을 보았다.

1974년에 자기 원료로 1년에 60만톤을 생산할수 있는 2개의 세멘트공장건설을 진행하고있으며 이 공장들은 1976년부터 기본건설부문에 자기 힘으로 생산한 첫 세멘트를 보내게 되였다.

1974년 1월에 나이제리아동부 오구따시부근에서 또하나의 원유산지가 발견되여 나이제리아국영민족석유회사에 장악되였으며 여기에서만 하루

에 1천바렐의 원유를 퍼냈다.

1974～1975회계년도 예산은 31억 2천 200만나라이다.

새 회계년도에 농업생산을 늘이는데 큰 힘을 넣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대책도 세우고있다. 농업은행을 따로 내오고 농민들과 협동조직들에 전문적으로 차관을 대주는 사업을 시작하는 등 농업생산에 필요되는 온갖 조건과 요구를 해결하였다. 이러한 경제발전에 기초하여 정부는 1975～1980년의 제3차민족경제발전계획예정안을 발표하였다. 예정안은 많은 기업소들과 발전소들을 건설하며 농업생산을 부쩍 늘일것을 예견하고있다.

철도운수가 기본이며 니제르강을 통한 하천운수도 있다. 철길의 총길이는 3천 500키로메터이다. 제2차경제발전계획기간에 정부는 도로건설에 힘을 넣은 결과 1974년 4월현재 도로의 총연장길이는 5만 9천마일에 이르렀다. 이 도로들은 수도 라고스와 각주 소재지, 항구도시들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을 련결시켜준다.

대외무역이 늘어나고있으며 원유수출이 수출총액의 83%를 차지한다.

1974년 8월 제8차아프리카 식량 및 농업기구회의에서 나이제리아대표는 국제시장에서 아프리카나라들의 제1차상품들이 눅은 값으로 팔리고있는 반면에 아프리카나라들이 자본주의나라들의 상품을 비싼값으로 사들이고있는것을 상기시키면서 여러가지 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있는 아프리카나라들이 국제적인 경제위기의 영향을 당하고있는 현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나라들이 무역에서도 호상 협조하고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이제리아는 아프리카나라들과의 무역발전에 힘을 넣었다. 1973년에 아프리카나라들과의 무역은 1972년에 비해 71%, 1970년에 비해서는 3배나 늘어났다.

나이제리아는 1968년 9월에 37개의 아프리카나라들과 함께 자기 나라들의 민족자원을 보호할데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광물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할데 관한 원칙을 선포하였다. 나이제리아는 아프리카통일기구의 약 30개 성원국들과 무역관계를 가지고있다. 1974년에 나이제리아는 아프리카나라들을 돕기 위한 진실한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아프리카나라들에 원유를 가장 눅은 값으로 팔기로 결정하였다는것을 발표하였다. 1974년 10월 이 나라는 또고에 상당한 량의 원유를 보장해주며 또고로부터 린산염을 받을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주요수출품은 원유, 코코아, 종려씨, 종려기름, 땅콩, 목화, 콜롬바이트, 주석, 목재, 가죽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천, 식료품, 기계류 등이다.

이 나라에서 교육은 련방정부가 수도 라고스의 교육과 그리고 이바단파라고스에 있는 대학들만을 맡아보고있으며 기타 주별교육행정은 각 주정부들이 각각 책임을 지고있다. 따라서 주마다 교육제도도 다르다. 약 1만 5,000개의 소학교와 5개의 대학이 있다.

공용어는 영국말을 쓴다.

민족경제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기술일군들을 포함한 민족간부대렬을 늘이기 위하여 정부는 1973년 6월에 원유공업기술개발기금을 창설하고 이 기금을 국내외에서 원유기술교육에 돌림으로써 자체의 원유기술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보건사업도 각 주정부들이 제가끔 맡아보고있으며 발전수준도 각이하다.

주민은 하우사족(북부), 이보족(동부), 요루바족(서부) 등 200여종족이 있다.

인구의 47%가 이슬람교, 34%가 기독교를 믿으며 나머지는 전통적인 지방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모닝 포스트(련방정부기관지), 데일리 타임스, 데일리 엑스프레스, 데일리 스케취, 나이제리언 모닝포스트, 뉴스, 썬데이 스타, 나이제리언 워커

방송 나이제리아방송, 카더나북부나이제리아텔레비존방송, 나이제리아 국제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이 나라에는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와 나이제리아조선인민친선협회가 있다.

1971년 5월 이 나라에 《김일성서점》이 개관되였다.

또한 이 나라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는 나이제리아 《김일성동지로작학습연구소조》와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나이제리아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연구소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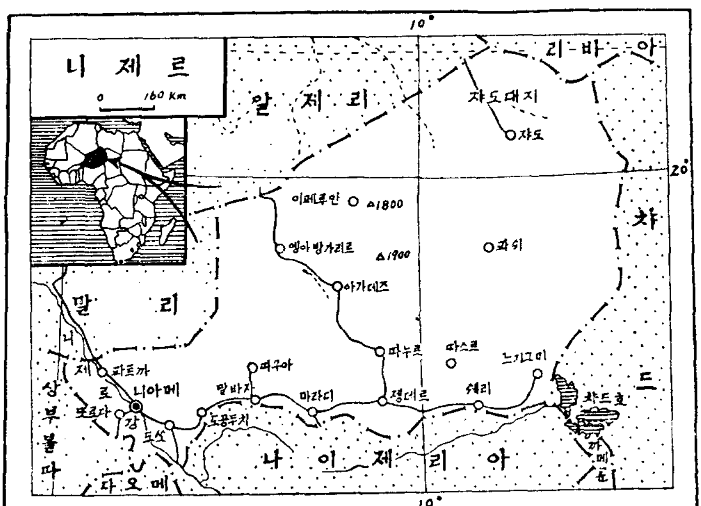
이 나라의 《오로로출판사》는 이미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여 널리 보급선전해오고있다.

1974년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우리 나라의 조국통일방침을 지지하여 찬성투표하였다.

니 제 르

(니제르공화국)

넓이 126만 7,000km²
인구 413만 6,000명 (1971년 9월)
수도 니아메(주민 8만 6,000명)



정 치

최고군사리사회 1974년 4월 15일 군사정변후 조직된 최고기관, 의장 쎄이니 꾼체

정부 1974년 4월 17일 11명의 군인들로 구성, 국가수반 쎄이니 꾼체(계획부장겸임)

정당, 사회단체; 1974년 4월정변후 일체 정당활동 금지

니제르는 1960년 8월 3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으며 1961년 2월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나왔다.

독립후 니제르정부는 종족간에 복잡하게 얽혔던 문제를 풀고 민족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을 기본과업의 하나로 내세우면서 경제발전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1973년까지 6년간 계속된 가물로 인민들은 기아와 고통에 시달렸으며 정권내에서도 가물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문제를 둘러싸고 의견불일치가 조성되여왔다. 이러한 정세밑에서 1974년 4월 15일 군총참모장이던 쎄이니 꾼체가 정권을 잡고 최고군사리사회를 조직하였으며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활동을 금지하였다.

니제르인민은 최고군사리사회 의장 쎄이니 꾼체의 지도밑에 《민족적통일》, 《인민생활수준제고》, 《경제적독립》의 구호를 들고 자주성을 견지하며 자주의 길로 나아가려 하고있다.

니제르정부는 민족적인 자립적경제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에서 기본을 이루고있는 농업과 축산업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농업발전에서 물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고 투쟁하였다. 령토의 대부분이 사막으로 덮여있고 기온이 40~50도를 오르내리고있는 불리한 조건에 있는 니제르의 경우에 물문제는 농사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그리하여 가는곳마다에서 물원천을 찾기 위한 탐사사업과 저수지를 건설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렸으며 부침땅을 점차 늘여나갔다.

니제르정부는 대외적으로 아프리카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며 제국주의를 규탄하고 식민주의와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할것을 제기하였다.

1974년 5월 정부는 쁠럭불가담국가로서 쁠럭불가담운동의 정책을 따르는것은 니제르의 의무라고 선언하면서 니제르가 독립한 이래 수도 니아메에 있는 프랑스공중수송보병대분견대의 철수를 요구하는 공보를 발표하였다. 공보는 《외국군대의 주둔은 어떠한 나라에 대해서도 그 나라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되는것》이라고 하면서 《현시기 제3세계나라로서 자국령토에 외국군대가 주둔하고있는것을 참고있다는것은 기이한것이다. 우리는 우리자신이 우리의 리익을 수호하는것보다 프랑스군대가 우리의 리익을 어떻게 더 잘 수호할수 있겠는지를 상상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90%이상이 농업과 목축업을 한다. 국민소득의 약 80%를 농업에서 얻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땅콩, 목화, 조, 나무감자, 사탕수수 등이다. 해마다 땅콩 20만~25만톤, 목화 1만톤정도 생산된다.

아프리카에서 손꼽히는 축산의 나라로서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락타 등이다.

농업부문에서 지난날 식민주의자들의 략탈정책으로 땅콩만을 심던 단작경리의 후과를 가시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오랜 기간의 식민주의자들의 통치와 예속으로 하여 니제르의 공업은 아직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가내공업과 수공업이 약간 발전되였을뿐이다. 공장이라고는 독립당시에 3개의 소규모의 기름공장을 포함하여 6개밖에 없었다. 그러나 독립이후 새로 건설되여 지금 그 수는 농산물, 축산물 가공공장을 비롯한 40여개에 달하고있다.

주요지하자원은 쇠돌, 주석, 우라니움, 망간, 중석, 돌솜 등이다.

철길은 없고 자동차길도 발달하지 못하였다. 대외무역을 주로 자동차길로 하는데 니제르강을 리용하기도 한다.

주요수출품은 땅콩과 땅콩기름, 축산물이며 수출총액의 75%를 차지한다.

주요수입품은 직물, 자동차, 금속, 기계, 전기설비, 원유제품 등이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애쓰고있는 니제르정부는 1974년 5월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현저히 높일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근로자들의 임금문제들을 연구하는 특별위원회를 창설하였다.

또한 쎄이니 꾼체의장은 교육문제에 언급하여 니제르가 교육을 개혁할것이며 이 교육개혁은 결코 이전 식민주의자들의 방법을 본딸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니제르에는 글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

공용어로는 프랑스말을 쓴다.

주민은 하우사족(약45%), 송가이족(약 20%), 제르마족, 투아레그족 등이 있다.

종족들간의 화목을 이룩하는것은 여전히 이 나라의 중요문제로 남아있다.

주민의 85%가 회교를 믿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르땅 듀 니제르, 쥬르날 오피씨엘 드 라 레쀼블리끄 듀 니제르, 르 니제르

방송 니제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9월 6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4년 12월에 니제르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대표단을 접견하신 자리에서 쎄이니 꾼체국가수반이 자주성을 견지하고 자주의 길로 나가려는것은 아주 현명한 조치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적자립경제가 없으면 자주성을 보장할수 없고 자주성이 없으면 독립을 고수할수도 없다고 하시면서 새로 발전하는 신흥세력인 제3세계나라들이 지난날 압박받던 처지에서 빨리 벗어나며 자기의 독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조하여 민족적자립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대표단 단장은 김일성주석각하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크지 않은 나라이지만 사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 때 아주 위대한 나라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참관한 모든 대상들에서 이것이 증명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에서 짧은 기간에 달성한 성과를 통하여 자기들은 자주성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더 잘 알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1974년 5월 우리 나라 외교부대표단이 니제르를 방문하였으며 쎄이니 꾼체의장을 만났다. 접견석상에서 쎄이니 꾼체의장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혁명전통과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달성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독립을 이룩하고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여 온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일제와 미제국주의자들을 타승하였으며 훌륭한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조선인민은 제3세계인민들의 모범으로 되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니제르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고있으며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우리측을 지지하는 결의안에 찬성투표하였다.

챠 드

(챠드공화국)

넓이 128만 4,000km²
인구 379만명(1972년)
수도 느쟈메나(주민 15만명)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 의원수 105명(진보당이 전의석차지), 임기 5년

정부 대통령 프랑수와 똠발바예(1960년—총리, 국방부장겸임), 외교부장 바바 하싼느

정당, 사회단체; 진보당 1947년에 조직, 독립이래 집권당이며 유일당, 민족부르죠아지와 인테리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민족주의정당, 총비서 프랑수와 똠발바예, 전국근로자동맹, 진보당청년동맹, 전국녀성동맹

챠드는 1960년 8월 11일《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기후상 관계로 1월 11일을 국경절로 기념)

1962년 3월 새 헌법을 채택하고 1963년 1월에는 유일당제를 확립하였다.

독립후 정부는 정부와 군대안에서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을 챠드사람으로 교체하였으며 챠드주재 프랑스대사, 프랑스인, 군인, 《의사》, 《기술일군》등을 반정부음모죄로 쫓아냈다. 1968년 4월에는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의 영향하에 있는 《중앙아프리카경제및관세동맹》으로부터 탈퇴하고 《중앙아프리카동맹》에 가입하였다.

독립후 정부는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고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며 식민주의자들의 장기간의 민족리간책동으로 말미암아 뿌리깊이 남아있는 종족들간의 충돌을 피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어세우기 위한데 힘을 넣었다. 정부는《민족적통일을 위한 투쟁이 곧 새로운 챠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다.》라는 구호를 제기하고 종족들간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결과 최근년간에 그들간의 리해와 단합이 이루어지게 되였다.

1973년 9월에 수도이름을 느쟈메나로 고쳤으며 식민주의시기 불리우던 수도의 모든 거리이름들도 고쳐부르게 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90%가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벼, 땅콩, 수수, 기장, 사탕수수 등이다. 농업에서 기본이 목화이며 이것은 이 나라국민총생산액의 20%, 수출총액의 82% 이상을 차지한다. 1972년의 목화생산량은 10만 9천톤이였다.

축산업은 적도아프리카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발전하였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말, 락타 등이다. 약 1천만마리이상의 집짐승이 있다. 인구 1인당 거의 3마리의 집짐승이 차례진다.

경제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10%미만이다. 솜타는 공장, 기름공장, 가죽공장, 가루가공공장, 원유가공공장, 화력발전소 등이 있다.

1971년에 외래제국주의자들의 목화략탈을 제한하기 위하여 국가가 주권의 45%를 차지하는 《코톤챠드》회사를 창설하였다.

챠드호를 비롯한 여러 호수들에서 매년 10만~11만톤의 물고기를 잡는다.

철길이 없으며 자동차길도 년중 쓸수 있는것이 거의 없다.

주요수출품은 목화, 집짐승, 고기, 가죽, 땅콩 등이며 수입품은 직물, 식량, 일용품, 운수수단, 기계류 등이다.

주민의 약 절반이 회교를 믿으며 그외는 원시종교를 믿는다.

1972년 수도에 첫 민족대학이 창설되였다.

출판보도: 통신 챠드통신

신문 앵포챠드(일간), 앵포르마씨옹 에꼬노미끄(주간), 쥬르날 오피씨엘 드 라 레쀠블리끄 듀 챠드

방송 챠드국립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5월 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까 메 룬

(까메룬련합공화국)

넓이 47만 5,442km²
인구 584만명
수도 야운데(주민 16만 5,000명)

정 치

국민회의 일원제의 최고립법기관, 총의석 120석, 1973년 5월 18일 선거

정부 1973년 7월 3일 구성, 대통령 엘하지 아호마두 아히죠(총리겸임), 외교부장 벤상 에퐁

정당, 사회단체; 민족동맹 (집권당) 1966년 9월 1일 동서까메룬의 6개 정당들이 통합되여 결성, 위원장 엘하지 아호마두 아히죠, 전국근로자동맹, 민주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

1960년 1월 1일 프랑스령까메룬이, 1962년 2월에는 영령까메룬이 각각 독립하였으며 같은해 10월 1일에 이 두 지역이 통합되여 련방공화국을 이루었다.

1972년 5월 새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련방을 이루고있던 동서까메룬이 단일한 국가체제인 까메룬련합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73년 5월 18일 국민회의 선거가 진행되였으며 련방국민회의 대신에 통일적인 국민회의가 창설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친선적인 까메룬인민이 각하의 올바른 령도밑에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거둔 성과를 진심으로 기뻐하고있습니다.》

1974년에도 까메룬정부는 아히죠대통령의 령도밑에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고 민족적통일을 이룩하며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1974년 6월 8일 국민회의에 보낸 서신에서 아히죠대통령은 까메룬앞에 나선 과업은 민족통일을 더욱 다지고 모든 부문에서 민족적독립을 계속 공고히 하며 민족적발전을 위한 사업에 력량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것이

라고 지적하고 《오직 단결함으로써만 우리는 발전도상에서 나서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까메룬을 강력하고 번영하는 나라로 만들려는 우리의 념원을 이룩할수 있을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까메룬근로자들은 《자립적인 경제적기초가 없는 정치적자주권은 주추돌이 없는 집과 같은것》이라고 한 엘하지 아호마두 아히죠대통령의 호소를 받들고 1974년에 제3차 5개년계획수행에 헌신하였다.

아히죠정부는 나라의 민족경제건설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참가시키기 위해 1974년초에 정령을 발표하여 전국개발공민복무대를 창설하였다. 정령은 16살로부터 55살에 이르는 전체 공민들이 새로 창설되는 전국개발복무대에 2년간 복무할 의무를 가지며 복무대원들은 첫단계에는 전문기술교육을 받고 둘째단계에는 직접 생산로동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까메룬인민들은 중공업공장들과 함께 중소규모의 공장들을 일며세웠고 농업에서 단작경리를 극복하고 농업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힘찬 로력투쟁을 벌렸다.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며 아프리카해방투쟁을 지지하면서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서는 아프리카인민들이 호상 지지하고 단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1973년 10월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싸우는 아랍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를 끊었다.

1974년 5월 까메룬수도에서 아프리카통일기구 학생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아프리카대륙에서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끝장낼데 대한 과업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까메룬대통령이 6월에 마로끄, 8월에 가봉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까메룬은 농업국가이다.

주민의 85%가 농사를 한다. 국민총생산액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몫은 42%이상이다.

주요농산물은 코코아, 커피, 바나나, 종려, 목화, 땅콩 등이다. 코코아는 해마다 약 10만톤이상 생산되며 이 나라 화폐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반제자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까메룬인민은 민족공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왔으며 많은 공장들을 건설하였다.

1973년에 정부는 공업발전을 위해 101억 1천 700만아프리카프랑을 투자하였다.

1974～1975회계년도 이 나라의 국가예산총액은 840억아프리카프랑이였다. 민족공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시책으로 전력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방직공업, 식료공업 등이 더욱 발전하게 되였다.

1974년에 까메룬정부는 3개의 전력회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까메룬국영전력회사》를 창설한데 뒤이어 휘펄시에 세멘트공장을 일떠세워 해마다 많은 량의 세멘트를 생산하여 기본건설부문들에 보냈다. 이외에 싸그멜리마와 느가운데레에 건설한 화력발전소들을 비롯하여 대규모의 큰 공장들과 함께 중소규모의 공장들도 많이 일떠세웠다. 그리하여 1974년현재 이 나라에 있는 200여개의 중소공장들에서 옷, 신발을 비롯한 여러가지 생활필수품들을 생산해냈다.

까메룬의 농민들은 《우리의 첫째가는 과업은 인민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충분히 마련해주는것》이라고 하면서 농업생산을 높이는것이 정부의 중심문제라고 호소한 아히죠대통령의 호소를 받들고 1974년에 농업부문에서 장기간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농업의 다각화를 추진시키고 관개사업을 다그치는 등 많은 로력투쟁을 벌리였다.

1973년에 코코아 10만 3천톤, 커피 8만 9천톤, 목화 4만 5천톤, 땅콩 6만 2천톤, 바나나 6만톤을 생산하였다.

이밖에 조, 강냉이, 감자, 땅콩생산도 늘어났으며 처음으로 심기 시작한 벼, 사탕수수 등의 생산량도 늘어났다. 3차 5개년계획의 마지막해인 1976년에 가서 해마다 코코아는 15만톤, 커피는 10만톤, 목화는 12만톤을 생산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코아생산국이기도 한 까메룬에서는 1974년 2월에 《코코아개발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코코아재배를 위한 사회경제적조건들을 개선하며 그 생산을 늘이기 위해 기술자들을 교육하고 농민들의 코코아재배를 장려하며 지도하는 일을 맡아하고있다.

아히죠정부는 교육문화분야에 남아있는 식민지후과를 가시기 위하여《교육의 까메룬화》방침을 내놓고 이를 적극 밀고나갔다. 1974년 2월 2일 교육연구소를 새로 내왔으며 이 연구소는 종래의 교육체계를 검토하고 새로운 교육체계를 세우며 새로운 교육강령을 작성하고 교육방법을 연구하며 교원들을 양성하는 사업을 맡아하고있다. 또한 정부는 대통령정령에 의하여 고등교육 및 과학기술 연구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국을 새로 세웠다.

이 새 기구들은 민족교육과 과학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작성하고 그 관철을 지도하며 나라의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 의의를 가지는 전국적인 연구사업을 지도통제하며 유능한 과학연구 및 기술일군들을 양성하는 사업을 맡아하고있다.

아히죠정부는 식민주의자들이 문화예술분야에 뿌려놓은 양풍을 반대하고 진정한 민족문화와 예술을 창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974년 6월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7개 주의 75개 예술소조들이 참가한 제1차 예술축전이 있었고 다채로운 민족예술작품이 소개되였다.

주민은 반투족, 세미반투족, 풀족, 함족 등 130여개 종족이 있다.

주민의 48%가 원시종교를 믿으며 기독교와 회교도 믿는다.

공용어로는 영국말과 프랑스말을 쓴다.

출판보도; 통신 까메룬통신

신문 유니떼 (민족동맹기관지), 라드레스뤼 까메룬, 쁘레스 드 까메룬, 레포르 까메루네

방송 까메룬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3월 3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까메룬신문 《라드레스뤼 까메룬》 1974년 2월 7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26돐기념 특집을 조직하였다. 신문은 조선인민군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데 대하여 언급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이 관철됨으로써 우리 인민군대가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나고 온 나라가 난공불락의 요새로 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8월 15일 까메룬방송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을 해방하기 위하여 전개하여오신 성스러운 혁명투쟁로정을 소개한다음 수령님께서는 1940년 8월 소할바령회의

를 소집하시고 민족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침을 내놓으시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정치군사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시였으며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일제를 격멸하고 조국을 광복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까메룬잡지《빙고》1월호가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를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실었다.

까메룬신문 《레포르 까메룬네》 11월 1일호와 14일호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네갈전국기자협회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을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게재하였다.

중앙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넓이 62만 2, 984km²
인구 164만명 (1971년)
수도 방기 (주민 29만 8, 500명)

정 치

민족회의 1966년 정변후 해산

대통령 쟝 베델 보카싸 (1966년 1월—)

1973년에 종신대통령으로 선포, 일체 립법 및 집행권을 가지고있다.

정부 1973년 4월 6일 내각개조, 대통령 겸 총리 쟝 베델 보카싸 (국방부장겸임), 외교부장 죠세프 포틀로트

정당, 사회단체; 흑아프리카사회혁명당 1946년에 창건, 1963년부터 유일당이며 집권당, 근로자총련맹, 녀성동맹, 민족청년동맹

1958년 12월 1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자치공화국을 선포하고 우방기샤리라고 부르던 나라 이름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 고쳤다.

1960년 8월 13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1965년 12월 31일 륙군참모총장이던 보카싸가 혁명을 일으켜 반동적인 다꼬정부를 전복하였다. 1966년 1월 헌법을 페지하고 민족회의를 해산하였다.

보카싸정부는 대내적으로 민족적독립을 공고히하며 경제적락후성을 극복하는것을 기본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1970년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중앙금고》를 국가의 통제하에 넣었으며 강하천운수회사들을 국유화하였다.

1971년 6월 이 나라의 금강석을 마음대로 략탈해가던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소피카르》금강석회사를 내쫓았다.

1974년 5월에는 법령을 발포하여 《쉘》, 《모빌》, 《텍사코》를 비롯한 다섯개의 외국석유회사들의 재산을 국유화하였다.

또한 정부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최저임금을 25% 인상한다는 법령도 선포하였다.

1973년 10월 기네—비싸우공화국을 승인하였으며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침략책동을 규탄하여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었다.

경제, 사회문화

로력인구의 약 80%가 농사한다. 부침땅은 약 150만정보이다.

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목화와 커피이며 그외 나무감자, 강냉이, 수수, 벼, 땅콩, 담배 등도 심는다. 1년에 목화는 5만~6만톤, 커피는 1만~1만 3천톤정도 생산된다.

산림자원이 풍부하며 12종의 질좋은 목재가 생산된다.

공업은 농산물가공업과 광업이 위주로 되고있다.

직물공장, 솜타는공장, 정미공장 등이 있다.

금강석채취업이 발전하였다. 매년 60만카라트의 금강석을 캐내고있다. 기타 자원은 거의 개발되지 못하고있다.

철길은 없고 하천운수와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도로의 총길이는 약 2만키로메터에 달한다.

대외무역에서 수출품의 55%는 목화와 커피 등 각종 농산물이 차지하며 그 나머지는 금강석이 차지한다.

1971년현재 18만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보카싸명칭대학을 비롯한 몇개의 대학이 있다.

인구의 약 70%가 원시종교를 믿으며 그밖에 기독교와 회교를 믿는다.

주민은 우방가족, 방다족, 만쟈족, 시라족, 페르며족 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프랑스말이다.

출판보도; 신문 페르 아프리켄 (흑아프리카사회혁명당기관지), 쁘삐쓰, 쥬르날 오피씨엘 드 라 레쀼블리끄 쎈트 아프리켄, 방기 라쏘

방송 국립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9월 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0년 10월 7일 무역협정과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0년 9월 이 나라 정부경제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적 도 기 네

(적도기네 공화국)

넓이 2만 8, 051km²
인구 35만명
수도 말라보 (주민 3만 7, 200명)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 의원수 35명

정부 대통령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느게마 (1968년 9월—외교부장, 국방부장 겸임)

정당, 사회단체; 민족유일로동당 유일정당이며 집권당, 1970년 7월 7일창건, 1972년 7월 2차당대회에서 민족통일당을 민족유일로동당으로 고침, 위원장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느게마, 당 산하에 《마시아스와 함께 전진하는》 청년조직, 녀성조직 등이 있다.

적도기네는 1968년 10월 12일 근 2세기에 걸치는 에스빠냐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 10월 10일 적도기네공화국 종신대통령에게 보내신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적도기네인민이 독립후 각하의 령도밑에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민족적독립의 공고화와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기뻐하고있습니다.》

적도기네는 독립후 제국주의자들의 파괴암해책동을 분쇄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적도기네정부는 1969년 3월 5일 제국주의자들의 국가정변음모를 좌절시키고 독립과 자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일련의 반제적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이해 자기 나라 령토에 있는 에스빠냐침략군과 그 군사기지를 철수케 하였으며 종전의 경찰제도를 폐지하고 민족경찰과 전국경비대를 새로 조직하였으며 군사학교를 설치하였다.

1970년 1월에는 미제의 군사기지설치기도들을 거절하였으며 미제의 석유회사와 《국제적십자사》의 간판밑에 적도기네에 둥지를 틀고있던 미국놈들을 내쫓아버렸다.

1970년 7월 느게마대통령은 모든 정당들의 활동을 금지시키고 유일당인 민족통일당을 창건하였다.

1972년 7월 민족통일당 제2차대회에서는 당명칭을 민족유일로동당으로 고쳤으며 느게마를 종신대통령으로 선거하였다.

적도기네인민은 《경제혁명》의 구호를 높이들고 새 적도기네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1973년 7월에 민족유일로동당 제3차대회에서는 새 헌법이 채택되였고 산타이사벨을 말라보시로, 페르난도—뽀섬을 마시아스 느게마섬으로 고쳐 부르기로 하였다.

정부는 적도기네에서의 《아프리카화》, 《간부적도기네화》방침을 내놓고 투쟁하였다.

정부는 식민지잔재를 뿌리빼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기관지를 비롯한 일련의 출판물이름을 새로 고쳤으며 전국도서관에 있는 서적들을 검열하고 적도기네인민에게 유해로운 사상을 고취하는 서적들을 회수하였으며 반동서적들의 배포를 금지하였다.

대외적으로 적도기네는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아프리카통일기구에 41번째의 성원국으로 가입하여 아프리카의 기타 진보적인 신생독립국가들과 긴밀히 협조하고있을뿐아니라 제3세계의 혁명적인민들과 뉴대를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과 평등, 자주권존중, 내정불간섭 및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대외관계를 발전시키고있으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제3세계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대부분이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코코아, 커피, 기름야자, 나무감자, 담배, 바나나 등이다. 커피는 주로 리오 무니에서 생산 (총생산량의 80%) 되며 코코아는 마시아스 느게마섬에서 생산 (총생산량의 90%) 된다.

매년 커피는 약 8천톤, 코코아는 2만 8천~3만 7천톤정도 생산된다.

이외에 고급목재를 리오 무니지역에서 해마다 33만~35만톤 생산한다.

공업은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약간의 가공공업이 있을 따름이다. 세멘트, 제재, 제분, 식료가공 공장이 몇개 있다.

식민주의자들은 이 나라에서 쫓겨가면서 주요농업생산물인 코코아와 커피농장들을 거의 페쇄해버리는 악랄한 책동을 감행하였다.

적도기네정부는 락후한 경제를 하루빨리 추켜세우며 민족경제를 창설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정부는 국영실험농장들과 코코아가공회사를 자체로 세웠으며 농민들에게 대부금을 주는 등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다른 한편 자연부원을 마구 실어내가던 이전 종주국 자본가놈들의 략탈행위를 철저히 금지시키고 전반적인 경제와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화폐류통을 통제하며 경제적안정을 이룩하기 위해 화페개혁을 실시하고 민족화폐 《에크쁘벨레》를 새로 제정하였다.

독립후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에 의하여 주민들의 생활문화수준이 높아졌다. 여러개의 교육기관들이 새로 창설되여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게 되였다. 식민주의자들이 쫓겨갈 때 이 나라 사람으로서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가는 16명에 불과하였는데 자체의 민족간부양성을 위한 정부의 《간부적도기네화》방침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이 양성되였다.

공용어는 에스빠냐말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판그족 (리오무니에서 산다.), 부비족 (마시아스 느게마섬에서 산다) 이다.

출판보도; 신문 디아리오 델라 기네아 에꾸아또리알 (정부기관지)

방송 적도기네방송, 적도기네벨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1월 30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적도기네 정부와 인민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1974년 9월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느게마 비요고대통령은 우리 나라 대사에게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으로부터 미국군대가 나가야 하며 조선은 하나이며 절대로 둘로 갈라질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대통령은 적도기네인민과 형제적조선인민은 지리적으로 떨어져있으나 두 나라 인민들은 자유와 자주의 길을 따라 전진하고있는것만큼 지리적간격은 친선관계의 발전에 그 어떠한 장애로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조선을 강점하고있는 제국주의세력은 물러가야 하며 오직 조선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조선인민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적도기네정부가 견지하고있는 립장이라고 강조하였다.

1974년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적도기네는 알제리를 비롯한 제3세계나라들과 사회주의나라들이 제출한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하여》의 공동발기국이였으며 표결에서 적도기네대표는 우리 나라를 지지하여 찬성투표하였다.

적도기네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이 1974년 8월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대표단은 경애하는 수령님께 적도기네민족유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며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인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느게마 비요고의 친서를 정중히 전하여 드리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고 조선과 적도기네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강화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8월 18일에는 평양에서 우리 나라 정부가 적도기네공화국정부에 경제및기술적 원조를 줄데 대한 두 나라 정부사이의 협정이 조인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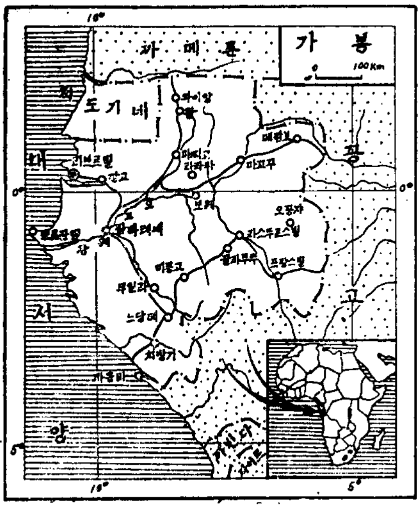
가 봉

(가봉공화국)

넓이 26만 7, 667km²
인구 64만명 (1971년)
수도 리브르빌 (주민 7만 5, 000명)

정 치

국민회의 일원제의 최고립법기관, 의원수 70명 (모두 민주당원들임)



1973년 2월에 선거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7년이다. 알베르 베르나르 봉고(1973년 2월에 재선)

정부 대통령이 정부수반을 겸한다. 외무 및 협조담당국무부장 죠르쥐 라위리

정당, 사회단체; 민주당 집권당이며 유일당, 1968년 3월 12일 민주련맹당과 민주사회동맹을 합당하여 조직, 총비서 알베르 베르나르 봉고, 로조총련맹(세계직련에 가입), 근로자전국련맹

가봉은 1960년 8월 17일《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강요한 예속적인《협조협정》에 의하여 군대주둔권, 군사기지설치권, 프랑스회사의 면세권을 허용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1967년 11월에 대통령으로 된 봉고는 40여개의 종족이 살고있는 자기 나라의 사정을 고려하여《종족적인 제한성과 친족성은 우리 지역에서 경제적인 락후성보다도 더욱더 엄중한 위험성으로 된다.》고 하면서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많은 힘을 돌려왔으며 일련의 시책들을 실시하였다. 봉고는 집권후에 종족들에 기초하여 조직된 다당제를 폐지하고 유일당을 창건하였다.

가봉정부는《독립은 종말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시작이다. 독립은 경제분야에 확대될 때에만 완전한것으로 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 힘을 넣었다. 정부는《기업의 가봉화》정책에 따라 외래독점회사들에서 가봉의 주권을 높이고 국가에서 기업소를 운영하며 중소기업을 건설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가봉정부는 이 나라에서 외래독점자본가들이 캐내고있는 우라니움값을 올리기로 결정하였으며 5월에는 우라니움을 비롯한 일체 광물들의 판매와 가격을 국가가 통제할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이 결정은 이 나라에서 우라니움광개발권을 가지고있는 서방독점체들이 국제시장에서《우라니움의 파잉》이라는 기만적인 구실밑에 우라니움의 수매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춤으로써 이 나라 경제발전을 억제하는 대가로 폭리를 얻어오던 교활한 책동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1974년 6월에는 외국자본에 의해 경영되던 메칸보철광회사 주권의 60%와 오웬로세멘트회사 주권의 51%를 국가가 장악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또한 기본자원의 하나인 석유제품판매를 통제하는 전국석유회사를 창설하며 외국인이 경영하는 가봉국제전신회사의 60%를 장악하기로 결정하였다.

1974년까지 이 나라는 공동으로 경영하고있는 일련의 회사들이 차지한는 주권의 몫을 51%로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정부는 또한《간부의 가봉화》방침에 따라 회사들의 주요자리에 자기 나라 사람들을 들여 앉히고있다.

대외관계에서 가봉은 식민주의와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가봉은 석유생산국들의 석유가격인상을 지지하고있으며 제3세계의 원료생산 및 수출국들이 석유생산 및 수출국들처럼 단결하여 민족경제의 권리와 리익을 지킬것을 주장하고있다.

1973년 9월 기네—비싸우공화국이 창건되였을때 가봉정부는 즉시 그를 승인하였으며 10월에는 이스라엘이제4차중근동전쟁을 일으키자 곧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고 아프리카와 아랍나라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가봉정부는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와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를 승인하였다.

1974년에 봉고대통령이 모리따니(1월), 알제리 (5월), 까메룬 (7월), 적도기네 (9월), 중국(10월), 인도(10월), 레바논(10월), 콩고(11월)를 방문하였다. 1974년에 가봉은 브라질(1월), 독일민주주의공화국(3월), 중국(4월), 꾸바(4월)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림업, 목재가공업, 채굴업이다.

원목생산과 목재가공업은 대외무역의 37%를 차지한다. 원목생산량은 매년 230만립방메터에 달하고있다.

그중에서 가장 값진 목재의 하나인 오쿠메나무의 년간생산량은 약 190만립방메터로서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이외에 매년 4만여립방메터의 제재목과 8만여립방메터의 고급합판이 생산되고있다.

정부는 림업발전을 위해 앞으로 3년동안에 약 140억 아프리카프랑을 돌릴것을 예견하고있으며 국가림업관리국본부를 빠리에서 리브르빌로 옮겨올 대책도 예견하고있다.

팔프원료가 많기때문에 종이공업도 발전하였다.

채굴업은 대외무역총액에서 60%를 차지한다.

석유는 매년 540만톤정도 생산되는데 아프리카석유생산국들중에서 네번째(리비아, 나이제리아, 알제리 다음)자리를 차지하며 이 나라 총수출량의 5분의 2를 차지한다.

망간은 약 2억톤 매장되여있는데 그 생산량은 자본주의세계에서 네번째자리를 차지한다.

이외에 천연가스, 우라니움 등도 채굴된다.

그러나 이 풍부한 자연부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략탈대상으로 되여왔으며 민족경제는 파괴되고 나라의 경제는 의연 외국자본에 얽매여있게 되였다.

가봉정부는 경제의 식민지적편파성을 하루빨리 가시고 민족경제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힘썼다. 제1차5개년계획 (1966~1970년)을 수행한 가봉정부는 제2차5개년계획(1971~1975년)을 작성하고 근로자들을 경제계획수행에로 조직동원하였다.

1973년도국가예산에서 생산에 대한 투자는 47%였다.

민족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치로서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건설하기에 힘쓴 결과 맥주, 청량음료, 담배, 식료품,

직물, 합성수지제품, 비누공장들이 새로 일며섰다.

인구의 3분의 2가 농사를 하며 농업생산에 적합한 자연조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에 걸친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정책에 의하여 이 나라의 농업은 아주 뒤떨어졌으며 식량을 전적으로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독립후 가봉은 농업분야에서 식민지 후과를 가시며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1963년에 본보기농장들과 하나의 가봉농촌개발회사를 설치하였다.

1965년에는 알곡생산과 함께 농업대부와 판매를 맡아보는 전국농업및상업국을 내왔다.

공업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운수업발전도 놓치지 않았다. 광산들과 항구를 련결하는 철길을 놓기시작하였으며 도로는 7천키로메터, 강배길은 1천 700키로메터로 늘였다.

젠틸항과 리브르빌항만으로는 경제발전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1974년에 오벤도에 큰 무역항을 건설하였다.

아프리카나라들중 비행장이 가장 조밀하게 배치되여있는데 23개의 비행장중 3개는 국제적비행장이다.

아프리카나라들중 취학률이 비교적 높다.

공용어는 프랑스말이다.

주민은 팡족, 피그미족, 바켈레족, 바니야비족 등 40여개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도시에서는 기독교가 우세하며 종족에 따라 서로 다른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가봉통신

신문 악듀알리떼 가봉내즈, 가봉 도쥬르듀이, 가봉 마땡, 르 빠뜨리오뜨

방송 가봉방송, 가봉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1월 29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꽁 고

(꽁고인민공화국)

넓이 34만 2,000km²
인구 130만 120명(1974년 7월)
수도 브라자빌(주민 20만명, 1971년)

정 치

민족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 1973년 6월 24일 115명의 대의원 선거

대통령 마리엔 느구아비(1968년 12월—, 1972년 12월 선거, 1974년 12월재선)

1973년 7월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가수반으로 되며 국가리사회 위원장으로 된다.

5년임기로 로동당대회에서 선거한다.

국가리사회 최고집행기관, 당정치위원 5명, 민족인민회의 대의원 5명 모두 10명으로 구성, 민족인민회의와 내각을 지도한다. 위원장 마리엔 느구아비(민족보위 및 안전부장 겸임)

정부 1973년 8월 30일 구성, 1975년 1월 9일 내각개조, 총리 겸 계획부장 앙리 로뻬즈, 외교부장 다비드 샤를레 가나오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집권당이며 유일당, 1969년 12월 31일 창건, 당의 리론적 및 조직적 기초는 맑스—레닌주의이며 꽁고에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을 주요목적으로 한다고 공포, 1974년 12월 27～30일까지 제2차당대회진행 위원장 마리엔 느구아비, 로동조합총련맹, 농업근로자직업동맹, 사회주의청년동맹, 녀성혁명동맹, 꽁고조선친선협회 1968년 7월 결성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꽁고인민의 대중적인 투쟁에 의하여 꽁고는 1960년 8월 15일에 독립하였다.

1963년 8월 애국적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혁명은 승리하였으며 율루반동정권이 타도되였다.

혁명승리후 꽁고정부는 프랑스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맺었던 예속적인 조약들과 협정 및 군사동맹을 폐기하며 식민주의의 후과를 청산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일련의 진보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반제적인 조치에 겁을 먹은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꽁고에서 정변을 또다시 조작해내려는 음모를 꾸미기시작하였다.

위협이 조성된 시기인 1968년 7월 31일 당시 군총사령관이였던 느구아비가 혁명을 일으키고 혁명리사회를 창설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용감한 꽁고인민은 1968년의 <7월 31일운동>이후 마리엔 느구아비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꽁고로동당과 국가리사회의 올바른 령도밑에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민족민주주의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으며 낡은 식민지통치기구를 마사버리고 나라의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며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습니다.》

《7월 31일운동》후 꽁고인민들은 헌법을 폐지하고 집권당이였던 민족혁명운동당의 정치국을 해산하였으며 1969년 12월 31일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는 꽁고로동당을 창건하고 꽁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72년 12월 로동당 비상대회에서 새헌법초안을 채택하였으며 1973년 2월 20일 경찰을 해산하고 그 기능을 군대에 넘겨주도록 하였다. 4월에 진행된 꽁고로동당과 그의 대중조직들의 제1차전국대표자회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외래자본주의의 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적원칙에 기초한 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정치로선을 채택하였다.

1973년 7월 12일에 새 헌법을 채택하였다.

꽁고는 1973년 느구아비대통령의 혁명적인 나라들에 대한 방문후 반제자주적인 길로 더욱 힘있게 전진하고있다.

1974년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의 사이에 진행된 꽁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는 자주적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기구체계에 남아있는 식민지잔재를 청산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더욱더 견결히 투쟁할 결의가 강조되였다.

1974년에 정부는 민족경제의 국영부문을 강화하고 모든 자연부원과 인적자원을 동원하는데 힘을 넣었다.

1974년 1월에 정부는 모든 개인보험회사들을 국유화하였으며 3월에는 꽁고에 있는 모든 외국보험회사들의 활동을 금지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꽁고 보험부문을 독점하고 국민소득을 략탈해가던 19개의 서방제국주의자들의 보험회사들이 국가수중에 장악되여 전국보험회사가 일체 보험사업을 맡아보게 되였다.

1월 12일 느구아비대통령은 명령을 발표하여 쉘, 텍사코, 모빌 등 7개의 외국석유회사들을 폐쇄하였다.

또한 이 나라에 풍부한 산림개발을 담당수행할 국영목재채벌회사와 전망적인 산림조성사업을 주관하는 꽁고산림국을 새로 조직하기로 결정한데 뒤이어 1974년초에는 새 산림법을 발포하였다.

새 산림법은 꽁고인민이 장기간의 투쟁으로 쟁취한 산림자원을 튼튼히 보호하고 제국주의자들의 략탈과 착취를 더는 허용하지 않는다는것을 규정하였다.

꽁고인민공화국은 대외관계분야에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견결히 반대하고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꽁고인민공화국 느구아비대통령이 1974년 6월 소말리아에서 진행된 제11차 아프리카통일기구수뇌자회의에 참가하였다.

1974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꽁고인민공화국의 수도 브라자빌에서 제9차동부및중부아프리카나라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지역적인 경제협조문제들과 아프리카대륙의 비식민지화문제 등이 토의되였으며 회의의 최종문건인 《브라자빌선언》이 채택되였다.

《브라자빌선언》은 아프리카나라들의 경제적자립은 대륙의 독립국가들이 협조를 백방으로 확대강화하며 식민지통치가 남긴 인위적인 장애를 없애는 길에서만 이룩될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브라자빌선언》은 아프리카대륙의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지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아랍령토를 계속 강점하고있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침략책동을 규탄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림업이며 주민의 약 80%가 이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주요농산물은 나무감자, 종려, 기장, 수수, 땅콩 등이며 과거에는 심을수 없다던 벼, 커피, 사탕수수 등을 심고있다.

8월혁명후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농업회사를 국유화하고 국영농업회사, 농목장, 농업협동조합들을 창설하였으며 유일적통제밑에 농업생산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고있다. 이 나라에는 6만여헥터이상의 땅을 가진 20여개의 농목장들이 있다.

산림은 그 넓이가 전 령토의 58.5%에 달하며 여기에서 흑나무, 경나무 등 진귀한 공업용목재들이 많이 생산되고있다. 생산되는 목재를 가공하기 위한 20여개의 목재가공공장이 있으며 해마다 50만립방메터의 목재를 수출하고있다.

1971년 2월에 프랑스독점회사들의 산림소유권이 페기되여 8만여헥터의 산림이 국가의 소유로 되였다.

공업에서는 광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공업생산액은 국민총생산액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광업부문에서는 금, 연, 주석, 동, 소금, 원유, 천연가스 등이 채굴되고 있다.

국영전력회사인 《쏘씨에떼 나씨오날 떼네르쥐》를 비롯하여 루떼뜨세멘트공장, 낀순더방직종합공장, 물고기가공공장, 국영목재종합공장 등이 건설되였다.

국영부문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며 국유화된 기업소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소들에 생산을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 혁명위원회들과 로조집행부를 창설하였다.

이리하여 수입에 의존하던 적지 않은 공업제품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으며 천과 성냥을 비롯한 일부 소비품의 수요를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개인기업가들이 생산하는 물건값에 대한 국가적통제를 실시하고있다.

로동자, 사무원들에 대한 사회보험제와 유급휴가제가 실시되고있다.

학령아동의 거의 전부가 학교에 다니고있으며 인구의 대부분이 글을 읽을줄 알며 4분의 1이 쓸줄 안다. 학령아동의 취학률은 95%로서 적도 아프리카나라들중 제일 높다.

공용어는 프랑스말이다.

1974년 6월 첫 국립대중도서관이 수도에 나왔다. 이 도서관에는 수천권의 문학, 기술서적, 정치시사잡지들이 비치되여 인민들의 문화수준제고에 이바지하고있다. 정부는 전국 도처에서 대중도서관망을 건설할 계획밑에 이 준비사업을 추진시키고있다.

의료봉사사업이 개선되여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무상치료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1974년 7월 31일부터 당뇨병과 열대성질병에 대한 치료를 무상으로 할데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

또한 새 학년도부터 모든 학교들에서 말라리아예방주사를 학생들에게 무료로 놓아줄것을 계획하였다.

주민의 97%는 반루족이며 피그미족이 약간있다. 대부분이 원시종교를 믿으며 주민의 30%정도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꽁고통신

신문 에똠바(로동당기관지), 브라자빌,라 부아 아프리깬, 꾸리에르드 아프리끄, 브라자빌로와, 쁘디 쥬르날 드 브라자빌, 쥬르날 오피씨엘 드 라 레 쀠블리끄 듀 꽁고

방송 꽁고《혁명의 소리》방송, 브라자빌방송, 꽁고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12월 24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5년에 우리 나라와 과학기술협조협정과 무역 및 지불협정을 맺었으며 또한 우리 나라가 꽁고에 경제및 기술적원조를 줄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1966년 12월에는 문화협정, 1967년 3월에는 통신 및 방송협정, 9월에는 우편물교환협정을 각각 맺었다.

1968년 7월 25일 꽁고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특히 1973년 8월 마리엔 느구아비 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꽁고인민공화국 당및정부 대표단의 우리 나라방문은 조선과 꽁고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형제적친선을 보다 활짝 꽃피게 하는 획기적사변으로 되였다.

꽁고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연구학습과 출판물보급사업이 널리 진행되였다.

1970년에 꽁고인민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김일성동지의 로작및 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 《김일성동지 위대한 혁명사상연구소조》등을 무었다.

꽁고는 1974년에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광범히 소개선전하였다.

1974년 4월에 꽁고방송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보도하였으며 꽁고통신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 《유고슬라비아신문 〈웨체르니에 노보스띠〉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도하였다.

통신은 또한 5월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4월 12일 캄

보자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을 보도하였다.

신문《브라자빌》9월 17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의 조국통일부분을《조선의 통일은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실현되여야 한다》라는 표제밑에 실었다.

또한 10월 17일호는 고전적로작《세네갈전국기자협회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전문을 실었다. 10월에는 꽁고통신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페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도하였다.

신문《꽁고생활》10월 7일 특간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리아대통령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을《조선인민앞에 나서고있는 최대의 민족적과업은 분렬된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는 것이다》라는 제목밑에 게재하였다.

신문《브라자빌》11월 25일호는 또한 고전적로작 〈다오메정부기관지〈다오엑스프레스〉사장과 한 담화〉를 실었다.

신문《꽁고생활》12월 22일호는 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게재하였다.

꽁고정부와 인민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1974년 제29차유엔총회에 우리측을 지지하여 제출한 결의안《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하여》의 공동발기국이였으며 표결에서 꽁고대표는 우리 나라를 지지하여 찬성투표하였다.

1974년 5～6월에 꽁고군사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2월에는 꽁고로동당창건 및 꽁고인민공화국선포 5돐기념경축행사에 우리 나라 당대표단이 참가하였으며 느구아비대통령의 접견을 받았다.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1974년 5～6월에 꽁고를 방문하였으며 느구아비대통령의 접견을 받았다. 접견석상에서 느구아비대통령은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침들을 꽁고인민은 전적으로 지지하고있으며 조선인민의 위업을 지지하는 것을 자기의 의무로 여기고있다고 말하였다.

자 이 르

(자이르공화국)

넓이 234만 5,409km²
인구 2,248만명(1971년)
수도 킨샤사(주민 150만명)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 의원수 420명, 임기 5년

대통령 국가 및 정부수반이며 임기는 7년, 대통령 모부투 쎄쎄 쎄꼬 꾸꾸 느그벤두 와 자 방가(1965년 11월—, 1970년에 선거)

전국집행리사회 1972년 10월 18일 정부대신 6명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최고집행기관, 1974년 3월 내각 개조, 각료성원들을 20명으로 줄임, 위원장 모부투 쎄쎄 쎄꼬(무력담당국무위원겸임), 외무 및 국제협조담당국무위원 움바다 루떼떼

정당, 사회단체; 인민혁명운동 집권당이며 유일당, 1967년 5월에 창건, 근로전국동맹

자이르는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며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장기간의 피어린 투쟁을 벌려 드디여 1960년 6월 30일 벨지끄식민주의기반에서 해방되여 독립하였다.

독립후에도 현대식민주의자들의 교활하고 집요한 파괴음모책동으로 5년동안이나 나라에는 일시적분렬과 혼란이 조성되였었다.

1965년 11월 당시 군사령관이던 모부투가 정권을 잡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65년 모부투 쎄쎄 쎄꼬대통령각하에 의하여 나라의 통일과 안정이 이룩된후 비로소 자이르인민은 민족적자주권을 누리게 되고 〈오땅떼씨떼〉사상에 기초하여 모든것을 〈자이르화〉하며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되였습니다.》

1967년 6월 새헌법을 채택하고 민족회의를 일원제로 개편하였다.

1967년 유일당인 인민혁명운동을 창건하였다. 자이르인민은 독립후에 《오땅떼씨떼》의 구호밑에 자주, 자립의 기치를 들고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자이르화》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1971년 10월 27일 민족적특성을 살려 나라 이름을 자이르공화국으로 고쳤으며 1972년에는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요되던 도시와 거리들의 이름을 자이르식으로 고쳤다.

식민지시대에 부르던 수도 이름인 레오폴드빌을 킨샤사로 고쳤다.

킨샤사에는 민족적영웅인 루뭄바의 동상을 세우고 그가 살해된 거리의 이름을 루뭄바거리로 고쳤다. 저주로운 벨지끄왕 레오폴드 2세의 동상을 없애버렸다. 또한 일부다처제를 페기하고 녀성들을 사회생활에 광범히 인입하고있다.

정부는 또한 경제적자립을 위하여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지반을 청산하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1968년 5월 자이르정부는 최대의 리권을 보유하고있던 벨지끄식민주의자들의 광업회사 《유니옹 미니에르》를 국유화하였으며 1967년에 자이르종합광업회사를 새로 내왔다.

1973년 2월에는 이 나라에서 제일 큰 벨지끄독점자본이 통제하고있던 전력공업회사인 《풀렉트리끄》를 국유화하였다.

1974년 1월에는 자이르에 있는 모든 외국회사들이 자이르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만일 자이르법질서에 어긋나게 행동하는자들에 대해서는 추방할것이 선포되였다.

11월에는 제국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농업부문회사들을 국유화하였다.

12월 20일 인민혁명운동 정치국과 전국집행리사회 합동회의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이 가지고있는 석유회사들의 석유저장고와 송유관, 기타 설비들을 국유화할것을 결정하였다.

1974년 5월에는 일본기업체인 닛산자동차회사와 도요공업회사를 국유화하였다.

1974년 2월 30일에 모부투 쎄쎄 쎄꼬대통령의 사회밑에 인민혁명운동정치국회의가 열렸으며 이 회의에서는 나라의 경제, 교육, 군사 분야에서의 새로운 중요한 개혁을 실시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결정에 의하면 1975년 1월 1일부터 공업생산, 건설 및 류통부문의 국유화가 실시된다.

결정에 의하면 또한 모든 공민들이 가지고있는 재산, 회사주권 및 증권들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자이르에서 외국은행들은 킨샤사를 제외한곳에 자기의 지점들을 가지는것이 금지되며 모든 인민들이 국내의 외국은행들에 가지고있는 돈을 1976년 9월까지 국가에 넘겨야 한다.

교육제도의 완전한 개편이 실시된다. 대학을 포함한 학교들에서 종교교육은 금지되며 중학교졸업생들은 누구나 1년간 의무봉사에 참가해야 한다.

정부의 새로운 조치에 따라 군대는 농업생산도하며 정치교양 및 전체 주민들에 대한 군사훈련도 맡아보게 된다.

1974년 1월에 모부투대통령이 발포한 법령에 따라 새로 석유회사가 설립되였다.

이 석유회사는 종전에 외국회사들이 석유를 수입하고 분배하던 현상을 극복하고 아랍석유생산국들로부터 직접 석유를 수입하고 분배하는 일을 맡아하게 되였다.

퇴폐적인 외국영화의 류입을 막기위하여 정부는 1974년 8월 국영영화보급사를 내왔으며 지난날 외국인들이 제멋대로 운영하던 영화보급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확고히 보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1975년 1월 6일에는 영화검열을 위한 혁명적인 위원회를 내올데 대한 정령이 발표되였다.

이 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민족교육부앞에 책임진다.

자이르정부는 국내에서 자본주의나라 퇴폐적인 문학책들의 판매를 금지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에 의하여 또한 외국으로부터 퇴폐적인 잡지와 사진들을 들여오는것도 일체 금지되고있다.

또한 퇴폐적인것이 담겨져있는 모든 출판물들은 압수 또는 태워버리게 되였다.

자이르공화국은 대외관계분야에서도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으며 아프리카의 해방과 통일, 신흥세력의 단결을 위한 위업에 큰 기여를 하고있다.

1972년 10월 29일에 아프리카통일기구를 대표하여 중동문제의 《평화적해결책》을 모색하면서 10명으로 구성된 《아프리카통일기구위원회》를 킨샤사에서 결성하였다.

1973년 2월 17일에는 로데시아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잠비아인민의 투쟁을 지원하여 100만딸라를 기증하였다.

1973년 10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아랍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자이르는 캄보쟈인민의 민족해방전쟁을 지지하고있으며 캄보쟈민족련합정부를 승인하였다.

1974년 6월 자이르대통령은 소말리아에서 진행된 제11차아프리카통일기구 수뇌자회의에 참가하였다.

또한 이해 자이르대통령은 쿠웨이트(2월), 애급(3월), 탄자니아(9월), 중국(12월)을 방문하였다.

1974년에 자이르는 쿠웨이트(2월), 꾸바(4월)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는 채광업과 공예작물생산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우라니움(매장량에서 세계 제1위), 동, 석, 금강석, 망간, 중석, 은, 탄탈, 라디움, 코발트, 연, 아연, 게르마니움, 철 등이다.

금강석과 코발트채굴량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1년에 금강석은 1천 400만~1천 600만 카라트, 코발트는 1만여톤, 동은 36만~40만 7천톤, 망간은 34만톤정도 생산된다.

1974년에 뜨락또르공장, 세멘트공장, 제철공장, 기름공장건설이 진행되여 거의 완공되였다.

1975년부터 제철공장에서 14만톤의 강철, 10만톤의 형강, 4만여톤의 아연도철판을 생산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경제에서 주요부문을 이루는 광업발전에 큰힘을 집중하였다.

1973년에 동 42만 8천톤, 코발트 1만 3천톤을 생산하였다.

주민의 70%가 농사한다. 부침땅은 약 300만헥타이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종려, 야자, 목화, 담배, 고무이며 이밖에 차, 삼, 강냉이, 나무감자 등을 심는다. 정부는 농업발전에 많은 힘을 돌렸다.

1974년 1월에 대통령법령을 발포하여 외국독점체들이 차지하고있던 육종장, 목축장 및 기타 관계기업소들을 국가소유로 만들고 이 기업소들을 관리하기 위한 7개의 농업국(국영림업국, 코코아국, 어업국, 제탕공업국, 천연고무국, 기타원료국, 식량국)을 새로 내왔다.

1973년에 커피 8만여톤, 차 8천 500톤, 종려유 8만 4천톤, 목화 5만여톤을 생산하였다.

주요수출품은 우라니움, 동, 금강석, 망간 등 광석과 야자기름, 커피, 고무등이며 광물은 수출총액의 80%, 예산 수입의 60%를 차지한다.

주요수입품은 광산기계와 설비품, 식량, 운수수단, 일용품, 석탄, 원유제품 등이다.

정부의 민족간부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의하여 학생수가 늘어났고 기술인재들도 많이 양성되고있다.

1973—1974학년도에 학생수는 317만여명이였다. 특히 중학교학생수는 독립당시에 비해 10배나 늘어났다.

1974—1975학년도에 대학생수는 3천여명이였다.

공용어는 프랑스말이다.

인구 1인당 국민소득은 90딸라이다.

200여종족이 있으며 그중 반투족이 약 80%를 차지한다.

출판보도 ; 통신 자이르통신

신문 에빵자, 쌀롱고, 엘리마, 모쟈

방송 팔레그방송, 레오방송, 자이르국립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12월 1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4년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모부투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자이르대통령의 우리 나라방문은 조선인민과 자이르인민사이의 친선관계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보여주며 조선인민과 아프리카인민들사이의 단결과 신흥세력의 단결이 날로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방문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이르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이르공화국의 최고훈장인 《레오빠르국가훈장》을 수여받으시였다.

모부투대통령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훈장 1급이 수여되였다.

12월 17일에 우리 나라와 자이르공화국 사이의 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모부투대통령의 우리 나라방문을 자이르의 신문, 방송, 통신, 텔레비죤들이 광범히 보도하였다.

《엘리마》와 《쌀롱고》 12월 10일과 11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그리고 자이르대통령 모부투 쎄쎄 쎄꼬 꾸꾸 느그벤두 와 자 방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

시고 자이르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 도착정형을 보도하였다. 또한 신문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부투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베푸신 연회에서 하신 연설과 그리고 모부투 쎄쎄 쎄꼬대통령의 연설요지를 실었다.

신문들은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표제밑에 우리 나라의 발전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우리 나라를 소개하는 글들을 특집하였다.

9일과 10일, 11일 자이르방송과 텔레비죤방송도 모부투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오늘 우리 나라가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공업국가로 전변된데 대하여 보도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2월 16일 모부투대통령과 함께 온 자이르기자들을 접견하시고 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시였다.

이에 앞서 10월에 자이르대통령판방특별고문부부와 그 일행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자이르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천재적로작들에 대한 출판보급사업이 널리 진행되고있다.

자이르신문《엘리마》 1974년 10월 10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를 실었다.

《엘리마》1974년 12월 25일호는 1면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자이르대통령과 함께 함흥에 도착하시여 환영을 받으시는 사진과 그이의 초상이 모셔져있는 여러장의 사진을 정중히 모시고 수령님께서 자이르기자들에게 주신 대답전문을 실었다.

《쌀롱고》지도 12월 26일, 27일, 30일호에 각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이르대통령과 함께 계시는 여러장의 사진을 정중히 모시고 수령님께서 주신 이 대답전문을 련재하였다. 11월 20일호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다오메정부기관지〈다오멕스프레스〉사장과 한 담화》를 실었다. 신문《모쟈》는 1974년 11월 2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실었다.

신문은 로작을 실으면서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셨다.

1974년 5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인민혁명운동창건 7돐기념행사에 참가하였다.

부 룬 디

(부룬디공화국)

넓이 2만 7,834km²
인구 362만명(1971년)
수도 부쥼부라(주민 9만명)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

대통령 미쉘 미촘베로(1966년 11월—), 국가수반으로서 모든 립법 및 집행권을 행사하며 임기는 7년이다.

정부 1972년 7월 14일 14명으로 구성, 1974년 11월 내각개조, 총리 니아모아 알빈, 외무협조 및 계획부장 길레 비마주부레

정당, 사회단체; 민족통일진보당 1959년에 창건, 1966년 12월 유일당으로 선포, 총비서 미쉘 미촘베로, 근로자총동맹, 르와가쏘레혁명청년동맹

1966년 11월 28일 총리이던 미촘베로가 느타레5세의 반동적인 군주제도를 뒤집어엎고 공화국을 선포한 후 부룬디정부는《통일, 로동, 진보》의 구호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 식민주의,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하였다. 정부는 국가행정기관에 남아있던 백인식민주의자들을 모두 내쫓았으며 제국주의독점체들을 국유화하고 식민지교육체계를 개편하였다.

이렇게 되자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종족간의 반목을 조성하여 부룬디를 분렬시키며 동족상쟁을 일으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미제와 제국주의자들의 민족분렬책동으로 하여 1969년 10월 바후투족들의 반정부음모가 있었으며 1972년 4월에는 대통령암살미수사건이 발생하고 소수집권종족인 와투치족을 반대하는 바후투족과 왕권지지파세력의 무장반란이 있었다.

그후 정부는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책동에 맞서기 위하여 종족대표들로 민간자위대를 조직하였다.

1974년 7월 1일 독립 12돐기념 경축대회와 군중시위가 부쥼부라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서 연설하면서 미촘베로대통령은 단결을 강화하고 민족적화목을 이룩할것을 부룬디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시위행진에 참가한 이 나라인민들은《식민주의를 타도하라》, 《아프리카 인민들이여, 단결하라》, 《독립을 공고히 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었다.

부룬디정부는 1974년 6월 19일 명령을 발표하여 제국주의 독점체인《유니카페 쎄두카》회사가 가지고 있는 커피가공공장들을 모조리 몰수하여 이 나라의 기업소들에 넘겼다.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부룬디의 수도 부쥼부라에서 부룬디, 자이르, 루안다 등 3개국 수뇌자들의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세나라 사이의 친선관계와 정치, 경제, 재정, 안전, 문화 및 사회적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8월에는 이 세나라가 탄가니카호로 흐르는 루지지강에 공동으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부룬디정부는 대외정책에서《쁠럭불가담,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한 불간섭 및 국제적협조》를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사회주의나라들, 반제적인 나라들과 관계를 발전시키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과 남아프리카, 뽀르뚜갈의 인종주의적이며 식민주의적인 정권을 반대배격하고있다.

1974년 9월 유엔총회에서 연설한 부룬디대표는 《남부윁남공화림시혁명정부가 남부윁남인민을 대표하고 있기때문에 그를 유엔의 옵써버로 받아들일것을 주장한다.》라고 하였다.

소말리아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시아드 바레의 부룬디방문(9월) 끝에 발표된 공동콤뮤니케에서 부룬디정부는 모잠비끄해방전선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고 자유를 되찾기 위한 모잠비끄인민의 영웅적인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을 약속하였다.

1974년에 부룬디는 꾸바(2월), 사우디 아라비아(7월)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으며 11월 10일에는 알제리, 카나다, 케니아, 리비아, 로므니아, 우간다, 소말리아에 부룬디대사관들을 설치하고 이 나라들에 특명전권대사들을 상시적으로 주재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축산업이다. 오랜기간 식민지통치밑에 있었기때문에 아라비카종 커피(수출총액의 80%차지), 목화 등 수출작물생산에 치우치고있으며 그외 벼, 차, 수수, 강냉이, 고구마 등을 심는다.

정부는 이러한 기형성을 없애고 농촌경리의 다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알곡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협동조합들을 조직하는 한편 토지를 개량확장하

여 알곡생산면적을 높이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리하여 년 벼생산량은 1만 5천톤 수준에 이르고있으며 커피는 약 5만톤, 목화는 약 7천톤 생산된다.

고원지대의 자연방목지를 리용하여 소, 양, 염소 등을 기른다. 소를 많이 기를데 대한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여러 지방에 국영목장들이 새로 생겨났으며 선진사양방법을 받아들이고있다.

공업으로는 금, 주석을 캐내는 광산과 농산물가공공장, 세멘트, 식료, 방직 공장이 몇개 있을뿐이며 수도 부줌부라를 비롯한 여러곳에 화력발전소들이 있다.

경제건설을 위하여 이 나라에서는 사회적로동(토요로동)으로 황무지개간, 관개공사, 건설사업들을 벌리고있는데 부줌부라주에서만도 500여개의 공공건물이 건설되였다.

철길이 없으며 자동차운수와 탄가니카호를 통한 수상운수가 기본이다. 1973년에 무람비아—끼제가를 련결하는 54키로메터의 포장도로가 새로 건설되였다.

수출품의 98%는 농산물이다. 주요 수출품은 아라비카종커피, 목화, 차, 집짐승, 축산물가공품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기계제품, 일용품 등이다.

교육발전을 위하여 1973년에 국가예산의 25%를 이 부문에 돌렸다. 1973년에 학생수는 20여만명이였다.

전국도처에 병원과 진료소들이 건설되고 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도 개선되고있다.

주민중 와투치족(키가 가장 큰 종족, 평균 2메터)이 12. 8%, 바후투족이 86. 4%를 차지하며 피그미족(키가 제일 작은 종족, 평균 1. 3메터) 등이 있다.

공용어는 프랑스말과 키룬디말, 상업용어로 스와힐리말도 쓴다.

주민의 약 절반은 기독교를, 그외는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마잠베리(민족통일진보당기관지), 유니옹 에 라 레볼류시옹, 미긴베, 앵포르 부룬디, 부룬디 크레띠앵, 인뚬 우부무에

방송 부룬디혁명의 소리방송, 코르다크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3월 1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9년 3월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4년 4월에 부룬디민족통일진보당 전국집행비서 비진 다비 베르나르드를 단장으로 하는 부룬디민족통일진보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접견석상에서 대표단단장은 수령님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자기 대표단을 만나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의를 표시하면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보내는 부룬디민족통일진보당 총비서이며 부룬디공화국 대통령이며 정부수반인 미쉘 미촘베로각하의 친서를 정중히 전해드리였다. 대표단단장은 미쉘 미촘베로대통령과 김일성주석각하 사이, 부룬디인민과 조선인민사이에는 이미 긴밀한 관계가 맺어졌으며 자기 대표단은 이번 조선방문을 통하여 이러한 친선단결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고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아름다운 조선에 머무르는동안 조선인민이 김일성주석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자기의 자주성을 굳건히 지키고있으며 자기 나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제국주의 모든 침략을 물리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명하였다. 4월 20일에 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안남도 남포시군중대회가 있었다.

4월에 또한 부룬디근로자총동맹대표단, 부룬디녀성동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4년 2월에 우리 나라 정부군사대표단이 부룬디를 방문하였으며 부룬디공화국 대통령 미쉘 미촘베로의 접견을 받았다.

4월에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여 미촘베로대통령의 접견을 받았다.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단장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시는 말씀을 미촘베로대통령에게 정중히 전달하였다.

미촘베로대통령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귀중한 말씀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우리 혁명에 대한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11월에는 우리 나라 당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대표단 단장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미촘베로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친서와 인사를 정중히 전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촘베로대통령은 사의를 표시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인민은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국통일을 이룩할것이다.

나는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이 가장 정당하고 가장 합법적인 투쟁이라고 생각한다.

부룬디는 모든 정치, 외교적수단을 다하여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할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1971년에 부룬디종합대학 학생들이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1974년에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수많이 출판게재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를 신문《우부무에》 1월 25일호가 실었다. 또한 이 신문 4월 5일호는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두돐에 즈음하여》라는 표제밑에 그이의 로작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소개하였다. 6월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4월 12일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하신 연설을 실었다. 7월 7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연설, 불멸의 주체사상》이라는 표제밑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5월 13일 세네갈대통령 레오뽈드 쎄다르 쎈고르를 환영하는 연회에서 하신 연설을 실었다. 10월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를 소개하였다.

1974년 5월 17일 부룬디르와가쏘레혁명청년동맹 중앙위원회가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여 전문을 보내였다.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부룬디는 조선문제에 관한 《알제리안》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정당한 립장을 지지하였다.

르 완 다

(르완다공화국)

넓이 2만 6，338km²
인구 390만명 (1972년)
수도 끼갈리 (주민 2만 6，000명)

정 치

전국평화및통일위원회 1973년 7월 5일 정변후 조직，국가의 최고기관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있다. 위원장 쥬베날 하비알리마나

정부 1973년 8월 1일 13명으로 구성，대통령 겸 국방부장 쥬베날 하비알리마나，외무및협조부장 느스갈리줴알오이스

정당，사회단체; **파르메후투당** (바후투족을 대표)，**민족동맹** (와투치족을 대표)，**아프르소마** (사회진보협회)，**전국청년동맹** 등이 있었으나 1973년 7월 5일 정변후 나라의 일체 정당，사회단체들의 활동은 1년간 금지되였다.

1962년 7월 1일 르완다공화국과 부룬디왕국으로 분리되여 각각 독립을 선포하였다.

1973년 7월 5일 경비및경찰부장이였던 하비알리마나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독립이래 정권을 잡고있던 바후투족출신인 까이방다를 내쫓고 정권을 장악한후 르완다정부는 《르완다화》정책에 따라 새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서고있으며 평화와 민족적단결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대외적으로는 외국 및 국제기구들과 체결한 모든 협정들과 조약들을 존중하며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싸우는 모든 나라와의 관계를 유지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1973년 10월 중동전쟁 때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아랍인민을 지지하여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1974년 8월에 제2차 대학생대회가 있었다.

르완다는 1974년 8월에 부룬디，자이르와 함께 탄가니카호로 흘러드는 루지지강에 수력발전소를 공동으로 건설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발전소는 이 세나라의 국경에 놓여있는 아프리카의 대호수지역을 전기화하게 된다.

경제，사회문화

주민의 90%이상이 농업과 목축업을 하고있다. 토지는 매우 척박하며 세 대당 평균 0.5헥타 차례진다.

지난날 이 나라는 식민주의자들의 강요에 의하여 수출작물인 커피와 ,목화，차，바나나，제충국 (구충제) 만을 주로 생산하였었다.

독립후 정부는 수출작물생산을 집약화하면서 알곡생산에 힘을 넣음으로써 국내 식량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키게 되였다.

주요농산물은 커피，목화，차，바나나，제충국,콩，감자，고구마 등이다. 년평균 커피는 22만톤이상，차는 700～900만톤，바나나는 150만～160만톤，콩은 14만톤，감자는 12만톤，고구마는 32만톤정도 생산된다.

바나나，감자，고구마를 주식으로 하고있다.

공업으로 채굴업과 소규모의 가공공업이 있다. 1970년에 국민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였다. 주로 농산물과 축산물을 가공하기 위한 130여개의 소규모공장들이 있다.

이외에 년산 2천톤정도의 주석 (수출의 40% 차지)，100～200톤의 중석과 베릴리움，30톤의 탄탈을 캐내고있다.

철길은 없고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주요수출품은 커피，목화，차，제충국，바나나，주석，탄탈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운수수단，기계，천 등이다.

2천여개의 소학교와 20여개의 중학교，4개의 대학이 있다. 학령아동의 70%가 학교에 다니고있으며 소학교 학생수만도 42만 5천명이나 된다.

공용어는 프랑스말이다.

1인당국민소득은 약 60딸라이다.

아프리카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

주민은 바후투족 (약 90%)，와투치족 (세계에서 키가 가장 큰 민족)，피그미족 (세계에서 키가 가장 작은 민족,평균 1.3메터) 으로 이루어졌다.

주민의 대부분이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임하보，끼니아，마졔까，루안다 까르레프르 아프리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8월 르완다국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고 그이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르완다국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로 되며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르완다대통령이 내놓은 《르완다화》 정책이 매우 정당하며 그에 대한 지지를 표시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접견석상에서 대표단 단장은 르완다에서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높이 칭송하고있다고 하면서 주체사상은 자유，독립，해방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제3세계나라들의 투쟁의 지침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르완다정부와 인민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1974년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르완다는 알제리를 비롯한 제3세계나라들과 사회주의나라들이 제출한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하여》의 공동발기국이였으며 표결에서 르완다대표는 우리 나라를 지지하여 찬성투표하였다.

1974년 4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 간 다

(우간다공화국)

넓이 23만 6，036km²
인구 1，046만명 (1972년)
수도 캄팔라 (주민 33만1，000명)

정 치

민족회의 1971년 1월 정변후 해산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수반으

로 되며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이디 아민 다다 (1974년 8월―), 외교부장 와누메 키베디, 국방부장 프랜시스 냥피소

정당, 사회단체; 1971년 10월 정변후 모든 정당활동은 금지되였다.

1962년 10월 9일 우간다는 《영련방》안에서 독립하였다.

1971년 1월 25일 정권을 잡은 아민대통령의 령도밑에 우간다는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정치, 경제적지반을 청산하고 새 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섰다.

아민정부는 1972년초에 《군사고문》, 《외교관》, 《평화군》의 탈을 쓰고 이 나라에 기여들어 파괴음모책동을 일삼던 미영제국주의자들과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내쫓았으며 또한 1972년 12월말까지 나라의 주요경제명맥을 장악하고있던 5만명의 영국계 아세아인들을 우간다에서 쫓아냈다.

아민대통령은 10월 12일 영국고등판무관과 460여명의 영국인 기술자, 전문가, 교육인들을 추방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아민대통령은 《우간다인민은 자기 나라의 완전한 주인》이 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외국인소유의 회사들을 국유화하였다.

1974년 5월 아민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독립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도리여 외래제국주의자들과 다국가회사들의 통제를 받는 그런 정황이 조성되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매개 나라는 자기의 민족경제를 틀어쥐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간다정부는 외국의 원조에만 매달리는것을 수치로 여기면서 자력갱생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상으로 인민들을 교양하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에게 강경한 태도를 취해온 아민정부는 미제가 우간다정부의 일련의 진보적조치들에 대한 보복으로 1973년 4월 우간다에 대한 《원조》를 중지하자 《경제적독립전쟁》을 선포하고 미제에 맞서 싸웠다.

1974년 8월 4일 우간다 경제전쟁선포 두돐 기념집회에서 우간다대통령 아민은 경제전쟁의 선포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착취와 략탈을 종식시키기 위한것이라고 강조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력갱생해야 하며 모든 공민이 민족적자각과 애국심을 발휘하여 생산을 배로 장성시켜나갈것을 전국에 호소하였다.

대외관계에서 우간다는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으며 제3세계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우간다는 1972년에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고 10개의 아랍나라들과 외교관계를 회복하였다.

1973년 중동전쟁시기 애급과 리비아에서 훈련받고있던 전체 우간다장교들에게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전쟁에 합류할것을 명령하였으며 우간다에 있는 정규군 2천명을 중동전쟁에 파견한바 있는 우간다정부는 1974년 4월에 자기 나라는 외국의 원조를 이스라엘과 싸우는 수리아에 양보할수 있다고 하면서 아랍인민의 승리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것을 호소하였다.

1974년 9월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우간다대표는 남아프리카와 로데시아에 대한《보다 더 직접적인 행동》으로서 그 나라들을 유엔에서 내쫓을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우간다대표는 영국과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우간다의 국유화조치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나머지 우간다에 대한 중상깜빠니야를 벌리고있다고 규탄하고 매개 나라는 자기 자원을 관리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에는 외국인 자산을 국유화하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면서 우간다는 모든 핵무기를 제국주의자들이 독점하는것을 반대하는바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이 핵무기를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석유와 기타 원료들을 내놓도록 강요하는 수단으로 쓸수 있기때문이라고 언명하였다.

아민대통령은 1974년 6월 소말리아에서 진행된 제11차 아프리카통일기구수뇌자회의에 참가하였다.

우간다는 1974년에 쿠바 (5월) 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국민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몫은 60%이다.

부침땅은 약 2만 5천평방키로메터이며 그중 4분의 3에 목화와 커피를 심는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년산 7만 5천~8만톤) 와 커피 (년산 20만~24만톤),차이며 그밖에 담배, 강냉이, 조, 수수, 바나나, 땅콩 등이다.

동남부고원의 초원지대에서는 양, 염소 등을 기른다.

주요지하자원은 동, 주석, 중석, 금, 은, 린회석, 망간, 코발트, 쇠돌 등이다. 해마다 동은 1만 6천~1만 8천톤, 주석은 250톤, 중석은 80~200톤정도, 전력은 약 7억 3천 700만키로와트시 생산된다.

호수와 강하천들에서 년산 12만톤정도의 물고기를 잡는다.

지난날 우간다의 경제는 외국자본의 예속하에서 략탈대상으로만 되여온 절름발이 경제였다.

아민정권수립후 경제의 《우간다화》를 위한 정부조치에 의하여 1972년 12월에는 모든 소매상업이 우간다인들의 수중으로 돌아왔다. 큰 차재배농장들과 이 나라에 들어와 활동하는 대다수의 외국회사들과 상사들이 정부의 통제하에 들어갔으며 대외무역 및 개발을 위한 《리비아아랍우간다은행》이 새로 창설되였다.

수상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은 1천 200키로메터, 자동차길은 2만 5천키로메터 정도밖에 안된다.

주요수출품은 목화와 커피 (수출총액의 90%),주석, 중석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천, 금속제품, 기계, 화학제품, 원유제품 등이다.

독립후 교육발전에 큰 힘을 돌려왔다. 영국계 아세아인들을 몰아냄으로써 1만동의 주택과 많은 학교들이 우간다인들에게 돌아왔다.

1971년에 우간다에는 초등학교 2천 888개, 중등학교 139개가 있었다. 1972~73년기간에만 하여도 교원수는 50%, 학교수는 600개 늘어났다.

교육내용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새 과목들이 첨가되였고 1974년부터는 체육과목이 과정안으로 되였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매개 초등학교에 체육교원 2명씩 양성하는 대깜빠니야가 벌어졌다. 중등학교들에서는 나라의 경제운영사업에서 실천적으로 요구되는 목재 및 금속 가공, 농업생산, 상업 등을 배우고있다.

공용어로 영국말을 써왔으나 1973년 8월부터 스와힐리어를 국어로 선포하였다.

주민은 38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부간다족을 비롯하여 20만명 이상씩 차지하는 10개 종족이 기본을 이룬다.

주민의 대부분이 원시종교를 믿으며 일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다.

출판보도 신문 피플, 우간다, 베이

슴, 오무룰, 렘베즈, 드윈 프와크, 아푸떼타, 로보 메와, 무시지, 우간다 소리

방송 우간다방송, 우간다텔레비죤 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１９７２년 ８월 ２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１９７３년 １０월 １６일에는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１９７４년에도 우간다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광범히 소개선전하였다.

우간다신문 《보이스 오브 우간다》 １９７４년 ８월 １７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를 실었다. １１월 ２５일호는 로작 《고등교육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를 《주체교육의 빛나는 승리》라는 표제밑에 실었다. 신문 《문노》 １１월 ２２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세네갈전국기자협회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실었다.

１９７４년 １０월 또고의 수도 로메에서 진행된 경애하는 수령님의 농촌테제발표 １０돐을 기념하는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제３세계인민들의 과업》에 관한 토론회에서 우간다대표는 농촌테제가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한 휘황한 전망을 열어놓았으며 농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의 급속한 향상을 가져오게 하는 위대한 강령으로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사상은 조선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속에서 나오게 된것이지만 그것은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일반적진리이다. 이 불멸의 주체사상은 오늘 세계정치,경제,사회문제들과 인류의 전진운동에 더욱더 커다란 영향을 주고있으며 전세계에 급속히 파급되였다.

우간다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해주고 있다.

１９７４년 １０월 １일 우간다 대통령은 우간다주재 우리 나라 대사를 만나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우리 혁명에 대한 견결한 지지를 다시금 천명하였다.

１９７４년에 진행된 유엔총회 제２９차회의에서 우간다는 《알제리안》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우리를 적극 지지하여 찬성투표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특사가 １９７４년 ５월에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특사는 우간다공화국 대통령 이디 아민 다다장군각하의 접견을 받았으며 수령님께서 그에게 보내시는 친서와 말씀을 전달하였다.

아민장군은 김일성주석동지께서 친서와 말씀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나라의 립장과 모든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１９７４년 １월에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이 우간다를 방문하였으며 ９월에 우간다공화국대통령의 형부부와 그 일행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제국)

넓이 １２２만 １,９００km²
인구 ２, ７００만명 (１９７３년)
수도 아디스 아바바 (주민 약 ８０만명)

정 치

림시군사행정리사회 １９７４년 ９월 １２일 구성, 위원장 테페리 벤티 (준장), 제１부위원장 멩기스토 하일레 마리암, 외교부장 키플레 워다죠

정당, 사회단체; 최고진보리사회 유일정당, 민족적리익파 근로자들의 생활개선을 위하여 투쟁하며 당면하게는 나라의 무질서와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기관들의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１９세기말 영국, 프랑스, 이딸리아에 강점당하였으며 １８８９년에는 이딸리아의 《보호국》으로 되였다.

이딸리아식민주의자들의 가혹한 략탈정책에 대한 인민들의 반항과 영국과 프랑스 대 이딸리아의 대립은 제１차 에티오피아전쟁 (１８９５～１８９６)을 일으켰으며 결과 에티오피아는 일단 독립국으로 되였다. １９３０년 하일레 셀라씨에가 왕위에 올라앉았다.

１９３５년 이딸리아가 제２차에티오피아전쟁을 일으키고 에티오피아를 다시 식민지로 만들었다.

１９４１년 제２차세계대전에서 이딸리아가 패망하자 영제국주의자들이 에티오피아에 대신 기어들었다.

１９４１년 ５월 ５일 셀라씨에 １세가 다시 왕위에 올랐다.

에티오피아의 동북부에 자리잡고있는 에리트레아는 １９４１년부터 영제국주의자들의 강점하에 있었으며 유엔에서 미영제국주의자들이 조작한 《결정》으로 １９５２년 ９월 에티오피아에 편입되였다가 １９６２년 １２월 에티오피아의 한개 주로 되였다.

에티오피아는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추종하는 립헌군주국으로서 정당도 없고 황제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국회와 정부의 주요한 자리도 모두 왕족일파가 차지하고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이다. 피압박인민들이 자신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불가피하다.》 (《김일성저작선집》, ４권, ５２１폐지)

１９７４년 ２월 ２６일 이 나라의 북부도시 아스마라에 있는 약 １만명의 에티오피아 륙군 제 ２사단 군인들이 봉급을 올릴것과 처지를 개선할것을 요구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군인폭동에서 주동적역할을 논것은 하층장교들과 병사대중이며 그들은 자기 상관들과 사령관을 체포하고 에티오피아에서 두번째로 큰 아스마라시의 행정권을 장악하였다.

아스마라시에서 일어난 군인폭동은 며칠사이에 전국에 퍼졌으며 수도에 있는 륙군 제４사단군인들까지 폭동에 합류하였다.

군인폭동은 점차 조직화되여갔으며 ６월말에 폭동군인들의 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군사조정위원회가 나왔다.

바빠맞은 셀라씨에황제는 ２월 ２４일 군인들의 봉급도 올리고 생계비를 낮추기 위하여 엄격한 가격통제조치도 발표하는 등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그러나 군인들의 폭동은 더욱더 확대되여 １９７４년 ２월 ２７일에는 해병대원들이 이 투쟁에 합류하였으며 폭동은 공군부대들에도 파급되였다. 이들은 봉급인상만이 아니라 나라의 《정치 및 경제적 변혁》을 요구하였다.

군인들의 폭동에 굴복하여 셀라씨에황제는 ２월 ２７일 내각을 총 사직시키고 ２８일에 새총리로 엔달카체우 마콘넨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폭동자들은 새 총리 마콘넨과 미제를 타도하라는 구호를 들고 더

욱더 힘차게 반정부시위를 단행하였다. 군인들과 함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교원, 인테리들이 또한 황제정권을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투쟁을 벌리였다.

3월 7일 에티오피아로조련맹에 망라된 로동자, 사무원들이 이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총파업을 단행하여 군인운동에 합세하였다.

농민들은 토지개혁을 요구하면서 지주집을 불태우고 지주놈의 농작물을 불살라버렸다.

대학생들은 《미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우리에게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달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반정부시위투쟁을 벌렸다.

경찰도 또한 군인폭동에 합류하였다.

군사조정위원회는 8월 총리 마콘넨을 체포하였으며 임루를 새총리로 임명하였다. 또한 셀라씨에 황제를 둘러싸고 있는 그의 지지자들과 귀족들, 반동관료배들을 체포하였으며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였다.

군사조정위원회는 약 6개월간에 걸쳐 점차적방법으로 황제놈의 팔다리역할을 놀고있던 모든 악당들, 반동우두머리놈들을 모조리 체포투옥하였으며 황실리사회를 비롯한 모든 황제기구들을 해체해버렸다.

9월 12일에 이르러 셀라씨에 황제를 국가수반자리에서 내쫓았으며 그를 체포투옥하였다.

이리하여 3천여년의 오랜 력사를 가진 에티오피아의 왕권군주제는 끝장이 났다.

인민들은 이 조치를 열렬히 지지하였으며 《황제놈을 교수형에 처하라!》고 웨치면서 수도거리를 시위행진하였다.

군사조정위원회는 새 생활창조를 위하여 일련의 정치,경제적 개혁들을 실시하고있다. 국회를 해산하고 낡은 헌법을 폐지하였으며 새 헌법이 공포될때까지 일체 권력을 자기 수중에 장악한다고 선포하였다. 또한 전국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하며 부족적, 종교적 및 계급적차이를 끝장내며 문맹을 없애고 사법제도를 고치며 모든 에티오피아인들에게 평등의 원칙을 보장할 조치들을 담고있는 15개조항의 개혁계획을 발표하였다.

새 헌법초안에는 법앞에서의 평등, 언론, 출판, 정당 조직 등 결사의 자유, 무료교육, 고용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수립, 국가공무원들의 개인재산등록과 그들의 개인기업금지 등이 예견되였다.

9월 3일 정부는 국유화된 황제의 이전궁전들을 학교, 의료 및 후생시설로 고쳐쓰기로 하였다.

《주빌리》궁전은 《인민궁전》으로 되였다. 황제의 탄생일과 즉위일을 명절로 하던것을 폐지하고 로동일로 선포하였다.

11월 23일 군사조정위원회 위원장 아만 안돔이 해임되였으며 11월 28일 에리트레아주둔 제2사단장 테페리 벤티가 위원장으로 임명되였다.

군사조정위원회는 11월 30일 셀라씨에 이전황제와 가족들의 일체 개인자산들을 가물구제기금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12월 20일 발표한 정책성명에서 정부는 《에티오피아식사회주의가 혁명의 초석》이라고 하고 정치생활은 유일정당인 《최고진보리사회》에 의해 지도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정치범들에 대한 대사령을 실시하여 지난날 황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다가 체포된 사람들을 석방하였다.

12월 23일 에티오피아군사조정위원회는 셀라씨에황제를 내쫓은 9월 12일을 《혁명기념일》로 기념하기로 결정하였다.

림시군사행정리사회는 근로대중의 요구에 따라 기본식료품값을 엄격히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림시군사행정리사회는 대외정책에서 《엄격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인구의 95%가 농목축업을 한다. 농업은 국민총생산액에서 65%를 차지한다.

부침땅은 약 80만헥터에 달한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수출총액의 60%차지) 이며 그외 강냉이, 밀, 보리, 유지작물, 사탕수수, 목화, 담배 등이다.

부침땅의 5.8%가 커피밭이며 1헥터에서 평균 270키로그람의 커피를 거두어 들인다. 커피생산부문에서 인구의 4분의 1이 일하고있다.

에티오피아림시군사행정리사회는 국영농장들을 창설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볼레가주에 국영농장이 창설되였고 이 농장에 뜨락또르와 농기계들이 분배되였다. 이 농장에서는 800명의 농민들이 개인토지소유자들한테서 넘겨받은 3천헥터의 땅에 강냉이를 심을 준비를 하고있다.

공업으로는 방직, 식료품, 피혁, 건재 등 일련의 경공업공장들이 있다. 국민총생산에서 공업은 5%를 차지한다.

주요지하자원으로는 금, 은, 망간, 석, 동, 류황, 운모, 소금, 니켈, 철, 갈탄, 우라니움 등이 있다.

공업발전을 위하여 에티오피아인들의 기술관리능력을 높이며 합동기업체에서의 에티오피아의 자본의 비중을 점차 늘이는 《에티오피아화》를 추진시켰다.

림시군사행정리사회의 조치에 의하여 공업기업소들을 국유화하는 사업이 시작되였다.

매년 관광업으로 1천 500만에티오피아딸라가 들어오고있다.

황제의 통치하에서 학교갈나이의 어린이의 70%가 학교에 가지 못하였다. 림시군사행정리사회는 청년학생들을 조직하여 글모르는 근로자들에게 글을 배워주기 위하여 전국각지에 파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주민은 암하라족 (40%) 과 갈라족(40%) 이 기본이며 그외 소말리아족과 샨가러족 등이 있다.

주민의 절반이상이 기독교를 믿으며 그외에는 회교를 믿는다.

공용어는 암하라말이며 영국말과 아랍말도 통한다.

출판보도; 통신 에티오피아통신

신문 아디스 제멘, 에티오피안 헤랄드, 아디스 스와르, 워티더아노 에티트레아, 산데크 알라마트친, 에티오피드오쥬르듀이

방송 에티오피아방송, 에티오피아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지난날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추종하여 조선전쟁에 참가한 유일한 나라이다. 그리고 에티오피아황제는 황제로서 남조선을 방문한 유일한 사람이다.

에티오피아에서 청년장교들이 황제제도를 뒤집어 엎은후 에티오피아의 한간부가 지난날 황제가 저지른 잘못을 우리에게 사죄하였으며 1950년에 자기 나라가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에 잘못 참가한 오점을 씻기 위해서도 조선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하였다.

에티오피아는 우리 나라와의 좋은 관계를 가지려하고있다.

림시군사행정리사회는 1974년 12월 28일 에티오피아텔레비죤에서 상영되던 서방영화들의 상영을 금지시키고 우리 나라영화를 소개하도록 하였다.

1973년 3월말부터 4월초에 걸쳐 우리 나라정부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소 말 리 아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넓이 63만 7,657km²
인구 450만명 (1971년)
수도 모가디쇼 (주민 25만명)

정 치

최고혁명리사회 최고립법기관, 25명으로 구성,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 (1969년 10월—)

정부 1973년 3월 27일과 1974년 12월 7일 내각 개조, 총리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 외무담당국무비서 오마르 아르테호 갈리브, 국방담당국무비서 모하메드 알리 사마테르

정당, 사회단체; 1969년 10월 21일 혁명후 모든 정당, 사회단체는 일시 금지되였다.

민족적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1960년 6월 26일에 영령소말리아가, 6월 30일에 이딸리아령소말리아가 각각 독립을 쟁취하고 같은해 7월 1일 두 지역이 통합되여 단일한 소말리아공화국으로 선포되였다.

1969년 10월 21일 소말리아 륙군이 혁명을 일으켜 친미반동적인 에갈정권을 뒤집어엎고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를 위원장으로 하는 최고혁명리사회를 조직하였다. 최고혁명리사회는 헌법을 페지하고 국회와 정당들을 해산하였으며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후 얼마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소말리아인민은 자기의 탁월한 지도자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소장각하를 위원장으로 하는 최고혁명리사회의 올바른 령도밑에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세력들의 끊임없는 파괴암해책동을 물리치면서 낡은 통치기구를 짓부시고 새로운 진보적인 사회정치제도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이미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지금 소말리아인민은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나가면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며 분렬된 나라를 완전히 통일하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고있습니다.》

혁명승리후 소말리아인민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민족경제와 민족문화건설을 위하여 투쟁하여왔다.

최고혁명리사회는 미제 《평화군》놈들을 몽땅 추방하였으며 미제의 혁명정부전복음모를 제때에 적발분쇄하였다. 1970년 5월에 모든 외국은행들과 주요외국인회사 및 공장기업소들을 국유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71년 1월에는 종족주의와 부패행위, 외국문화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하여 군사훈련과 정치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72년 2월 사회주의사상을 선전하는 최고조정위원회와 지방위원회들이 조직되였다.

1974년에도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리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외국인 회사들을 국유화하는 사업들이 진행되였는바 3월에 외국자본의 통제를 받던 10여개의 개인선박회사들을 인수하여 새로운 국영선박회사를 창설하였다.

1974년에 5개년경제발전계획(1974—1978년)이 발표되였다.

계획은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하여 농업생산을 끌어올리는것을 선차적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계획기간에 농업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물원천을 탐구하는데 많은 힘이 돌려질것이다.

계획은 또한 공업발전을 위해 나라의 원료를 합리적으로 리용할것과 소규모공장들까지 활발히 운영할것을 예견하였다.

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소말리아신문 《옥터버 스타》 1974년 3월호는 사설을 발표하여 경제적자립이 없이는 정치적독립을 이룩할수 없다고 하면서 5개년경제발전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것을 소말리아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1974년 8월 최고혁명리사회와 정부의 호소에 따라 8천여명의 대학생들, 3만 5천명의 중등학교 학생들과 교원들이 농촌지역으로 떠났다. 이들은 농촌에 나가 문맹퇴치, 보건, 가축방역사업들을 돕게 된다. 대학생들을 떠내보내면서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는 농촌에서 식민주의잔재를 없앨것을 호소하고 아프리카나라들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식민지통치의 후과인 문맹을 퇴치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소말리아혁명리사회의 호소에 따라 1973년 7월에 시작된 대자연개조사업은 1974년에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으로 밀려드는 모래산의 침습으로 오랜기간 위협당하고있던 남부소말리아에서는 모래산을 막고 농경지와 그 지방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이 힘차게 진행되였다.

자체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 자연을 정복하고야말 굳은 결의밑에 소말리아인민들은 이 모래지대에 나무들과 선인장들을 심는 방법으로 로력투쟁을 벌려 1974년 9월까지 300헥타의 황막한 모래지대를 나무로 뒤덮었으며 비옥한 땅을 메꾸어 들어오던 모래의 침습을 막았다.

한편 최고혁명리사회는 사회정치생활과 국가관리사업에 대중을 적극 참가시키기 위해 낡은 행정관리체계를 개조하고 새로운 행정기구체계를 내왔다.

대외관계분야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으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

1974년 6월 12~16일까지 이 나라의 수도 모가디쇼에서 제11차 아프리카통일기구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42명의 아프리카나라들의 국가수반들을 비롯하여 아프리카해방운동지도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아프리카나라들이 단결하여 제국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투쟁을 강화하며 제국주의의경제적략탈과 착취를 반대하고 민족경제를 병진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43건의 문제를 토의하고 성명과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바레위원장은 폐막연설에서 이번 회의는 《아프리카와 아랍의 단결과 경제 및 사회적협조의 강화》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하였다.

바레위원장은 1월에 아랍추장국, 바레인을 방문하였다. 소말리아정부는 4월에 아르헨띠나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축산업과 농업이다. 주민의 약 3분의 2가 유목 및 반유목민이며 순수농민은 10%정도이다.

주요집짐승은 락타와 소이며 닭이나 양도 기른다. 인구 1인당 10마리의

집짐승이 있다.

축산업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상설적인 국가기관을 내오고 일정한 지역에 안착시키는 사업을 추진시키고있으며 새로운 방목지들과 목장들을 설치하고 가축병원들을 신설확장하고있다.

정부는 식민주의자들이 농업분야에 남겨놓은 기형성을 퇴치하고 농촌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힘을 넣었다. 동시에 경리형태를 개조하는 사업도 적극 벌렸는데 대규모국영농장들을 꾸리고 협동조합들을 무어 이에 대한 투자를 늘임으로써 농장들과 협동조합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였다.

1974년에도 농업협동조합을 계속 조직하였다. 5월 남부 쉐베지주에서 5개의 농업협동조합이 새로 무어졌다. 토지를 개간하고 저수지를 만들며 물길을 째는 사업을 국가가 맡아하고있으며 농기계와 뜨락또르를 많이 장만하여 농사일에 무료로 봉사케 하였다.

부침땅은 약 100만헥타이며 바나나, 강냉이, 목화, 땅콩, 사탕수수 등을 심는다. 년 알곡생산량은 15만톤 이상이다.

공업에서는 축산물을 가공하는 식료공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혁명승리후 자립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으로 방직공장, 세멘트공장, 피혁공장, 목재가공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새로 건설되여 이 나라 민족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다.

그리하여 지난날 생활필수품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였다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다.

1974년초에는 한해에 1천 500만개의 벽돌을 구워낼수 있는 벽돌공장이 아프고이에 새로 일떠섰다.

주요지하자원은 망간, 연, 동, 석유 등이다.

자동차운수가 기본인데 총길이가 1만 3천키로메터이다. 철길은 없다. 내륙지방에서는 락타가 중요한 운수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혁명전에 학교라고는 거의 없었으며 인구의 90%이상이 문맹자였던 소말리아는 혁명승리후 《교육의 소말리아화》를 당면과업으로 내세우고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개선하는 등 교육분야에 끼친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기 위하여 투쟁하여왔다.

공용어는 소말리아말이다.

1973년 1월 21일부터 일체 일간 및 주간 신문들이 소말리아말로 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모든 학교와 정부기관들에서 소말리아말을 쓰기 시작하였다.

학교수는 1972—1973학년도에 72개, 학생수는 1973—1974학년도에 10만 3천 600명으로 장성하였다.

교육내용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다. 1969년 혁명이전에는 모든 학교들에서 외국어로 된 책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여왔으나 혁명이후에는 민족어로 교육이 진행되고있으며 소말리아말로 된 수십가지의 교과서들이 새로 출판되였다.

1974년 5월 소말리아최고혁명리사회와 정부의 합동회의에서는 나라에서 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보건분야에서는 앞으로 무상치료제를 실시할 목표밑에 이 사업에 큰 관심을 돌리고있다.

이동의료반을 조직하여 궁벽한 농촌들에까지 찾아다니면서 치료사업을 하고있다.

정부는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들에서 림시적으로 일하는 사무원들을 그 기관들에 정식으로 받아들이며 근로자들에게 유급휴가제를 비롯한 사회적혜택을 보장해주고있다.

주민은 사마르족과 그밖에 아랍사람, 인도사람, 에티오피아사람이 산다.

대부분이 회교를 믿는다. 남부에서는 기독교도 믿는다.

출판보도;통신 소나통신

신문 히지그타 옥터바르 (정부기관지), 선봉

방송 모가디쇼방송, 소말리아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4월 12일에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으며 그에 앞서 1962년에 우리 나라와 무역대표부 교환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2년 5월 23일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2년 5월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바레위원장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과 소말리아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의 길을 더욱 활짝 열어놓았으며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의 력사에 새로운 페지를 열어놓았다.

오늘 소말리아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출판과 연구학습이 널리 진행되고있다.

1970년 11월 모가디쇼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김일성도서관》이 개관되였으며 1973년에는 모가디쇼에서 중근동과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 정치활동가들, 사회활동가들의 참가밑에 《중근동 및 아프리카지역주체사상에 관한 과학토론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1974년에도 소말리아의 수많은 출판물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널리 소개하였다.

소말리아신문 《선봉》 1974년 2월 4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를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게재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중에서 두번째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킬데 대하여》의 전문과 로작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의 전문을 실었다. 4월 12일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유고슬라비아신문 〈웨체르니에 노보스띠〉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실었다.

신문 《선봉》 11월 1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세네갈전국기자협회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실었다.

소말리아신문 《히지그타 옥터바르》 7월 28일호는 우리 나라에 대한 특집보도를 조직하고 《전쟁사에 드문 조선인민의 대승리》라는 제목의 론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하나로 뭉친 영웅적 조선인민을 굴복시켜보려고 미제는 가장 간악하고 가장 야만적인 전쟁수단과 방법을 다 적용하였으나 도저히 굴복시킬수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특사가 1974년 4월 소말리아를 방문하였으며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위원장의 접견을 받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시는 말씀을 특사가 바레위원장에게 정중히 전달하였다.

접견석상에서 바레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투사들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소말리아인민들의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다.

우리는 우리가 할수있는 모든것을 다하여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할것이며 남조선인민들의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과 남조선으로부터 외국군대의 철거를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것이다.

김일성주석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높이 찬양한다. 바로 이 사상은 공화국북반부의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를 가장 높은 수준에로 올려세운 사상이며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주는 사상이다.»

공화국창건 26돐에 즈음하여 소말리아의 각지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기념집회들이 진행되였다. 9월 8일 소말리아국립종합대학에서 진행된 교직원 및 학생집회에서는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 5대방침을 전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소말리아정부와 인민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1974년 유엔총회 제29차 회의에서 소말리아는 알제리를 비롯한 제3세계나라들과 사회주의나라들이 제출한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하여》의 공동발기국이였으며 표결에서 소말리아대표는 우리 나라를 지지하여 찬성투표하였다.

프랑스령소말리아

(아파르―이싸)

아프리카대륙의 동북쪽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사이에 끼여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해발 500메터이하의 반사막지대이다.

넓이 약 2만 2, 000km²

인구 12만 5, 000명

행정중심지 지부티 (주민 6만 4, 800명)

정 치

해외령의회 32석중 민주통일당 26석, 아프리카인민동맹 6석 차지, 프랑스국회의 상하량원에서 각각 1석을 차지한다.

행정평의회 평의회에서 선출하는 9명의 성원으로 구성된 괴뢰통치기구.

정당, 사회단체; 프랑스령소말리아해방전선 1963년에 창건, 당의 투쟁목적은 중립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하는것이라고 선포하고 민족해방투쟁을 지도하고있다. 본부는 모가디쇼에 있다. 총비서 아브달라히 아르데에. **민주통일당** (집권당), **아프리카인민동맹, 민주련합당** 망명중에 있는 아프리카사람들의 정당으로서 아디스 아바바에 본부를 두고있다. **지부티해방운동** 본부는 에티오피아의 디레 다와에 있다. **민주청년**

프랑스령소말리아는 원래 소말리아의 일부분이였다. 19세기말부터 이 지역을 침략하기 시작한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1882년에《보호령》으로, 1958년에는 식민지로 만들었다. 1967년 6월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이 지역을 《아파르―이싸》로 고치고《프랑스공동체》내의 《해외령토》로 선포하였다.

프랑스고등판무관이 대외, 국방, 재정 및 사법권을 틀어쥐고 통치하고있다. 고등판무관의 관할하에 형식상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행정평의회》와 그리고《해외령의회》가 있다.

《행정평의회》는 《해외령의회》가 선출하는 6∼12명 (현재는 9명)의 성원으로 구성되였다.

1963년 이 나라 인민들은《프랑스령소말리아해방전선》을 조직하고 이 전선의 지도밑에 민족해방투쟁을 벌리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목축업으로서 주민의 대부분이 유목 및 반유목민이다. 해안지대주민들은 물고기잡이와 소금생산을 하고있다.

축산업발전에 유리한 조건도 있으나 기후의 제한성으로 하여 축산업이 광범한 지역에서 발전하지 못하고있다. 지금 소는 1만 3, 000마리, 양은 8만마리, 염소는 60만마리 있다.

농업도 비가 적게 내리는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있다. 관개시설이 되여있는 지부티와 기타 일부 지역에서 주로 과일나무와 남새를 약간 심고있으며 종려와 커피도 재배하고있다.

공업에서 주요생산물은 소금이다. 년산 6천∼7천톤 생산된다. 아쌀호에 20억톤가량의 소금이 매장되여있다.

기타 석유, 운모, 석고, 류황 등이 채취되고있다. 조선소및선박수리공장, 가스압축공장, 가죽공장, 식료가공공장 등과 기타 소규모의 기계공장이 약간 있다. 전력생산량은 년평균 3천 300만키로와트시이다.

공업제품과 식량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1968년현재 초등학교학생수는 4천 778명이였다. 그중 원주민의 비중은 대단히 낮다.

의료시설은 지부티밖에는 없으며 원주민들에게는 차례지지 않는다.

물이 나빠 마실수 없어《비텔》이라는 프랑스의 가공한 물을 가져다 마시는데 값이 비싸 원주민들은 마실수 없다. 이런데로부터 결핵 등 질병이 많다.

주민의 대부분이 소말리아족과 다나킬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말이다.

주민들은 회교를 믿는다.

지부티항은 자유항으로서 세계적으로 알려져있다.

지부티와 아디스 아바바를 련결하는 긴 철길이 있다.

출판보도, 신문 알라이드 (프랑스령소말리아해방전선기관지), 쥬르날 오피씨엘, 르 레베이 드 지부티.

방송 지부티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1970년에《강점된 서부소말리아해방전선 김일성동지 로작연구소조》(바그다드에서 7월 26일 결성), 강점된 서부소말리아해방전선돌격대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소조》(아덴에서 8월 23일 결성), 아덴에 있는 소말리아 민주청년조직성원들의《김일성동지 로작연구소조》(아덴에서 8월 24일 결성)를 결성하였다.

1971년에 신문《알라이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실었다.

케 니 아

(케니아공화국)

넓이 58만 2, 644km²

인구 1, 250만명 (1973년 10월)

수도 나이로비 (주민 50만 9, 000명)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립법기관이다. 의원

수 170명중 158명은 선거하며 12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부 대통령 겸 총리 조모 케니아타 (1963년 6월—), 외교부장 에프. 엘. 무뉴아와이야키

정당, 사회단체; 아프리카인민족동맹 집권당이며 유일당, 1960년 3월에 창건, 《아프리카식사회—민주주의적인 케니아》의 창설을 목표로 하고있다. 로조중앙조직 (28개의 부문별로조포함)

케니아는 1895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나라를 해방하려는 케니아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으로 1963년 6월에 자치정부가 수립되였으며 이해 12월 12일에 영련방안에서 독립을 쟁취하였다.

1964년 11월 3일 새 헌법을 채택하고 12월 12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공화국선포후 케니아타정부는 영침략군을 내쫓고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지반을 청산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독립후 제국주의독점회사들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아프리카인들의 관리하에 넘겼으며 식민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땅을 유상몰수하여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나누어주었다.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자주적발전의 길로 나갈것을 지향하고있는 케니아정부는 1973년 2월 지난날 식민지통치시에 부르던 도시와 거리들의 이름을 모두 케니아식으로 고쳤다.

1973년 4월에는 영국사람대신 케니아사람을 공군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1972년부터 《케니아화》 정책을 밀고나가고있는 케니아는 1974년 2월 1천명이나 되는 외국인실업가들에게 그들의 사무소들을 케니아공민들에게 넘겨주고《짐을 꾸려가지고 이 나라를 떠나라》고 명령하였다.

1974년 6월 9일 케니아타대통령은 케니아인민들이 나라의 경제적독립을 이룩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케니아인들이 기업소들과 상업, 농업 및 기타산업들을 인수하라고 명령하였다.

1974년 3월 12일에 인민경제발전 제3차5개년계획 (1974~1978년) 이 발표되였다. 새 계획에서는 농업생산의 기계화와 모든 부칠수 있는 땅의 보다 완전한 리용, 그리고 방목지들의 개량에 커다란 주목이 돌려졌다.

1974년 7월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케니아대표는 기술적으로 발전된 나라들이《다른 나라들의 리익을 고려함이 없이》대양의 자원을 략탈해가는 무제한한 기회를 가져왔다고 규탄하고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작성할것을 요구하였다.케니아는 12마일의 령해권과 200마일의 경제수역을 지키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절대다수의 주민이 농사를 하고있다.

총생산액에서 농업이 약 34%, 공업이 약 17%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사이잘삼, 차, 밀, 보리, 담배, 목화 등이다.

해마다 커피는 5만톤, 사이잘삼은 4만 8천톤, 목화는 1만 6천여톤, 쌀은 2만 6천여톤, 밀은 23만톤정도 생산된다.

독립후 정부는 《차혁명》을 하여 차생산을 대대적으로 장려하였다. 그 결과 차생산지는 1974년 현재 10만에이커이상으로 늘어났다.

기후가 좋고 먹이 풀이 많은 내륙고원지방에서는 또한 아프리카대륙에서 손꼽힐정도로 양, 소, 말 등을 많이 놓아기르고있다. 정부는 나라의 동물들을 보호증식시키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1974년 8월부터 코끼리를 국가적으로 보호하며 코끼리뼈의 수집, 가공,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민총생산액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몫은 34%이상에 달한다.

최근년간 정부는 농업발전을 위하여 농지《개혁》을 실시하였다. 이 개혁에 의하여 국가는 구라파식민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50만헥타의 땅을 유상으로 몰수하여 3만 4천 500세대의 케니아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나누어주었다. 또한 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협동조합을 조직하고있는데 이에는 약 50만명이 망라되였다.

공업은 국민총생산액에서 17%이상을 차지한다. 경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는 공업은 독립이후 많은 공장들이 새로 건설되여 보충되였다. 750여개의 외국회사들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아프리카인들의 관리밑에 넘기고 세멘트공장, 농산물가공공장, 다이야, 비누, 유리공장들도 건설하였다. 공장들의 대부분은 정미공장, 기름공장, 사탕공장, 파실통졸임공장 등 농산물가공공장이며 나이로비와 몸바사 등 5개 도시들에 집중되여있다. 공업부문에서는 현재 로동인구의 17~18%에 해당하는 11만명이상이 일하고있다. 독립후 6개년계획을 수행하고 1970년부터 1974년까지 제2차 5개년계획을 수행하였다.

지하자원으로는 동, 아연, 망간, 천연소다, 돌소금이 있으며 공업은 경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다.

이 나라 외화수입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관광수입은 해마다 약 2천만케니아파운드에 달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커피와 차, 사이잘삼, 목화 등으로서 농산물이 수출에서 60%를 차지한다.

주요수입품은 천, 식량, 금속제품, 원유제품, 운수수단 등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쏘련, 영국, 미국, 서독 등이다.

정부는 문화분야에서 식민지통치후과를 가시기 위하여 민족어인 스와힐리말로 신문, 잡지들을 발간하고 학교들에서 스와힐리말로 교수를 진행하고있다.1970년에 중학교수는 750개, 학생수는 13만명이였다.

1974년 7월 4일 정부는 스와힐리말을 국어로 선포하였다.

주민들은 귀쿠이아족 (220만명), 루오족 (150만명) 을 비롯한 42개의 소수민족과 종족이 살고있으며 배물교, 기독교 (25%), 회교 (6%) 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케니아통신

신문 이스트 아프리칸 스탠다드 (영국말), 데일리 네이숀, 타이파 레오 (스와힐리말), 썬데이 네이숀 (영어), 타이파 케니아 (스와힐리말)

방송 케니아의 소리 방송, 케니아의 소리 텔레비죤 방송

탄 자 니 아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넓이 93만 9, 703km²
인구 1, 363만명(1971년)
수도 다르 에스 살람 (주민 35만 3, 000명)

정 치

탄자니아는 탄가니카와 잔지바르가 련합공화국을 이루고있다.

민족회의 일원제, 련합공화국의 최고 립법기관인 동시에 탄가니카내정문제에 관한 최고립법기관이다. 총의석 204석, 임기 5년, 1970년 11월 5일 민족회의 선거진행, 잔지바

르혁명리사회 의원 전원이 민족회의에 망라된다.

대통령 쥴리어스 케이. 니예레레(1964년 4월—, 1970년 1월 30일 재선),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군총사령관이다. 임기 5년, 탄가니카 대통령을 겸한다.

제1부대통령 아보우드 줌베 무이니(1972년 4월—, 잔지바르대통령을 겸한다.)

정부 1972년 2월 17일 총리직제를 새로 내옴, 제2부대통령 겸 총리 쉐이크 라쉬디 므파우메 카와와(1972년 2월—), 외교부장 시귀예미시 사무엘 죤 말레쩰라, 국방보위 및 민족복무부장 에드와드 엠. 소코이네

정당, 사회단체; 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맹 1954년 7월에 창건된 탄가니카집권당, 《착취없는 사회주의건설》을 목적으로 내세우고있다. 위원장 쥴리어스 케이. 니예레레, 아프리카쉬라지당 1957년 2월에 창건된 잔지바르집권당, 위원장 아보우드 줌베 무이니, 탄가니카로동자전국동맹, 잔지바르혁명로조련맹, 청년동맹(탄가니카와 잔지바르에 각각 있다.) 전국녀성동맹, 탄자니아조선친선협회 1970년 4월 결성, 위원장 아담 사피 모크와와

1964년 4월 26일 탄가니카와 잔지바르가 련합하여 탄자니아련합공화국을 창건하였다. 련합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잔지바르는 독자적인 헌법을 가지고 국방, 경제, 문화 분야에서 독자적권한을 행사하며 지역적립법기관과 행정기관을 가지고 자치를 실시한다.

1965년 7월 5일 민족회의는 유일당 국가 제도를 규정한 새로운 림시헌법을 채택하였다.

1967년 2월 5일《사회주의와 자력갱생에 관한 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맹의 정책》이라는《아루샤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에는 탄자니아가 《사회주의나라를 건설》할것이라고 하면서 경제의 중요생산수단들을 로동자, 농민이 통제하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기 나라 인민과 부원에 의거하여 경제를 건설하며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현상을 근절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리념에 기초하여 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파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며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진보적 조치를 취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 4월 탄자니아련합공화국창건 열돐에 즈음하여 니예레레대통령에게 보내신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탄자니아련합공화국 창건후 지난 10년동안 탄자니아인민은 각하의 올바른 령도밑에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튼튼히 지키며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탄자니아는 1966년이래 이 나라에 기여들어 정탐과 정부전복음모를 꾸미던 미제 《평화군》400여명을 1969년 8월까지 모두 내쫓았다.

또한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침략책동으로부터 나라를 보위하기 위하여 1964년에 인민보위군을, 1971년 2월에 국방위원회를, 1973년에는 전국민병사령부를 내왔다.

니예레레대통령은 탄자니아의 방위력이 정치의식이 높고 용감하며 그 어떤 제국주의공격에 대처해서도 조국을 보위할수 있게 준비되여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민보위군을 지휘관들로부터 병사들에 이르기까지 탄자니아사람들로 꾸렸다.

1974년 1월에는 공장이나 농촌의 간부들과 근로자들, 전체 인민이 조국보위에 참가하며 군사훈련을 받을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1973년 8월에 국가주권과 수산자원을 수호하기 위하여 령해를 12마일로부터 50마일로 늘였다.

정부는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력갱생》과 《사회주의》의 구호밑에 제국주의독점체들의 회사와 농장들을 국유화하고 민족적인 농업과 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었다.

1974년 9월에 아루샤부근의 킬리만쟈로지역에서 17개의 외국인소유농장을 국가의 소유로 만든데 뒤이어 또다시 44개의 대농장을 국가통제하에 넣었다.

1월 30일에는 외국인들이 경영하고있던 해운회사 4개를 국유화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1974년 1월 탄자니아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핵구축함 《베인브리지》호를 인도양에 들이미는 미제의 책동을 규탄하였으며 4월에는 인도양에 도사리고 앉아 아프리카의 민족해방운동과 이를 지지하는 신생독립국가들을 반대하는 음모를 꾸미고있는 미제해적선들이 당장 물러갈것을 요구하였다.

탄자니아는 1974년을 아프리카해방의 해로 선포하고 아프리카의 해방투쟁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줄것을 전체 탄자니아인민에게 호소하였다.

1974년에 기네—비싸우, 모잠비끄, 앙골라, 짐바브웨,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인민들의 해방운동을 적극 지지하였다.

1974년 8월 모잠비끄해방운동을 지지하여 탄자니아인민들이 지원금과 지원물자들을 모아 모잠비끄에 보냈다.

1974년 7~8월에 탄자니아륙군과 해군전사들, 로동자들과 학생들이 도합 887핀트 (1핀트는 약 0.5리터)의 피를 싸우는 아프리카나라들에 보냈다.

1974년에 아르헨띠나, 아랍추장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4년 3월 탄자니아련합공화국대통령이 모리셔스, 중국,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를 방문하여 이 나라지도자들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다르 에스 살람에는 아프리카통일기구해방위원회를 비롯하여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 투쟁단체본부와 사무소가 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인구의 약 90%가 농사한다.

탄가니카에서는 사이잘삼(세계생산량의 3분의 1), 커피, 목화를, 잔지바르에서는 정향(세계생산량의 80%), 야자, 사탕수수를 많이 심고있다.

부침땅은 약4,000만에이커이다.

축산업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초원지방에서 소, 양, 염소 등을 기른다.

지난날 이 풍부한 자연부원들은 식민주의자들의 략탈대상으로 되여왔으며 이 나라의 경제는 락후한 형편에 있었다.

정부는 독립후 《농업이 발전의 기초》라고 규정하고 우선 농촌경리발전의 오랜 질곡으로 되여온 낡은 생산관계를 청산하는 사업에 큰 의의를 부여하였다. 정부는 토지와 사이잘삼재배원들을 국유화하였으며 황무지개간사업을 적극 벌려 경지면적을 늘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1974년에 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이 소유하고있던 42개의 사이잘삼재배원을 국유화하였다.

1973년에 정부는 황무지개간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려 잔지바르의 키보크와에서만도 500여에이커의 새 땅을 얻었다.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관개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는데 킬리만쟈로주의 파레지방에서만도 1974년 4월에 33개대상의 관개시설공사에 착수하여 많은 부분을 완공하였다.

또한 정부는 더욱더 많은《사회주의촌》을 조직하고 그것을 공고히 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1967년부터 1974년초까지 5천 600여개의《사회주의촌》이 조직되였다.

여기에는 전체 인구의 15%이상되는 200만명이 망라되여있다.

《사회주의촌》에는 농민들에게 직접 대부해주는 농촌개발은행이 있다. 또한 진료소, 유치원, 인민학교, 문맹퇴치를 위한 학습반이 창설되여 운영되고있다.

정부는 또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많은 간부들을 농촌에 파견하였다. 농업대학, 농업기술학교, 농업연구소를 새로 내와 농업기술일군들을 길러내는 한편 훌륭한 농산기술을 보급하고있다.

또한 농기구공장들, 화학비료공장들, 육종농장도 조직하여 농업의 기계화와 좋은 종자들의 도입을 연구하고 있다.

니에레레정부는 농업에서 식민주의자들의 예속적인 통치의 후과로 사이잘삼만을 재배하던 단작경리를 극복하고 여러가지 농작물들을 재배하여 자급자족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였다.

1972~1973회계년도에 카사바 79만톤, 강냉이 25만 4천톤, 밀 9만 8천톤, 벼 5만 8천톤, 차 1만 4천톤을 생산하였다.

특히 정부는 목화와 면직물을 수입해다 쓰는 예속적인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목화생산량을 늘이고 국내인민들이 쓸 면직물을 생산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정부는 농민들이 목화생산을 늘일수 있도록 많은 대부금과 기타 국가적방조를 주고있으며 목화씨뿌리는 계절에는 농민들이 국가로부터 화학비료와 농약을 외상으로 사다쓰고 목화를 판 다음에 그 값을 약 절반만 물며 나머지는 정부가 보상하도록 하였다.

목화의 수매값도 올렸다. 1973년에 정부는《탄자니아목화국》을 새로 내오고 목화재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40여명의 목화재배기술자들을 농촌에 파견하였다.

1973년에 목화생산량은 1961년의 3배로 늘어났다.

공업에서 기본은 채굴공업과 농산물가공공업이다.

국민소득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약 10%에 불과하였다.

주요지하자원은 금강석 (년 약 83만카라트), 금 (년 3톤), 주석, 연, 석고, 운모, 돌소금, 원유, 동 등이다. 1964년부터 1972년까지 탄자니아정부의 민족공업에 대한 투자는 해마다 20%씩 늘어났다.

정부는 자체원료로 민족공업을 발전시켜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며 공업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렸다. 독립전에 면방직공장이 하나도 없었다면 1974년현재 자체의 목화를 원료로 천을 짜내는 5개의 방직공장이 일떠섰다.

1972년~73년세멘트생산은 탄자니아국내수요의 3분의 2를 충족시켰다. 또한 압연공장, 다이야, 제약, 사이잘삼가방, 바줄 공장들이 일떠섰다.

화학비료생산은 1973년에 3만 3천톤이였다.

1974년에 탈화생겸질벗기는기계, 강냉이탈곡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기계들과 농기구들도 자체로 생산하였다.

교육문화분야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달성되였다.

학교들이 대대적으로 건설되였으며 학생수가 늘어났다. 1970년 6월 다르 에스 살람에 첫 국립종합대학이 창설되였으며 1972년 5월부터는 통신대학을 새로 내왔다. 1975년까지 글모르는 사람을 완전히 없앨 목표로 성인교육사업을 활발히 벌리였다. 잔지바르에서는 초중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다.

주민은 대부분이 아프리카사람이며 그외 아랍사람, 인도사람, 파키스탄사람, 구라파사람이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원시 종교를 믿으며 회교와 기독교도 믿는다.

공용어는 스와힐리말과 영국말이다.

출판보도; 신문 정부기관지로 썬데이 뉴스, 데일리뉴스, 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맹기관지로는 우후루, 음잘렌도가 있다. 느구루모 (개인경영), 잔지바르출판물로서는 잔지바르 가제트, 아프리카 크웨트, 판아프리카가 있다.

방송 탄자니아방송, 탄자니아잔지바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5년 1월 13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5년 6월에는 무역협정, 11월에는 과학기술협조협정, 1966년 7월에는 문화 및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4년에 이 나라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광범히 번역출판하였다.

탄자니아민족인쇄소에서 1974년 9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를, 10월에는 로작《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하자》,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기초》를, 12월에는 로작《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단행본들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였다. 탄자니아 《프린트팍》인쇄소에서 12월에 로작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탄자니아신문《느구루모》2월 25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게재하였다. 이 신문 8월 9일호는 로작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실었다. 9월 21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페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게재하였다.

또한 11월 14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빠나마기자대표단과 한 담화》전문을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게재하였다. 신문《데일리뉴스》10월 11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세네갈전국기자협회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실었다.

신문《우후루》10월 27일호는 로작《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를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게재하였다. 신문《음화냐카지》11월 30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다오메정부기관지 〈다오엑스프레스〉사장과 한 담화》를 수령님의 초상화

를 정중히 모시고 게재하였다.

1972년 8월 2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파견하신 우리나라 교원들에 의하여 꾸려진 다르 에스 살람민족교육대학 타누혁명력사 연구실이 개관되였다.

1973년 10월 10일 다르 에스 살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회관이 개관되였다.

탄자니아 정부와 인민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탄자니아신문 《느구루모》 1974년 6월호는 론설을 발표하여 애국적 남조선청년학생들에 대한 박정희괴뢰악당의 파쑈적인 탄압만행을 폭로규탄하고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애국적청년학생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는 조선문제에 관한《알제리안》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립장을 지지하여 표결하였다.

1968년 6월 니에레레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4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특사 (4월), 군사대표단 (7월) 이 탄자니아를 방문하였다.

모잠비끄

(뽀르뚜갈식민지)

넓이 78만 3,030km²
인구 800만명(1970년)
행정중심지 로렌쏘 마르께스(주민 25만명)

정 치

림시정부 1974년 9월 20일 6명의 모잠비끄사람들과 뽀르뚜갈사람들로 구성, 총리 호아낌 쉬싸노(흑인)

정당, 사회단체; **모잠비끄해방전선** 1962년 6월 아프리카민족동맹, 아프리카인동맹, 민족민주동맹 등 민주주의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을 망라하여 창건,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위원장 사모라 모이세스 마셀, **해방전선청년동맹**

모잠비끄는 1700년에 뽀르뚜갈의 식민지로 되였다.

뽀르뚜갈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오래전부터 줄기찬 투쟁을 벌려온 모잠비끄인민들은 1964년 9월부터 무장투쟁을 벌려왔다. 무장투쟁의 첫시기 250명의 대오로 시작된 애국적무장력은 투쟁과정에 1만 5천여명의 정규무력과 6만명이상의 자위대를 가진 강력한 력량으로 자라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 9월 25일 모잠비끄해방전선의 무장투쟁개시 10돐에 즈음하여 모잠비끄해방전선 위원장 사모라 모이세스 마셀동지에게 보내신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모잠비끄해방전선은 지난 10년간 자기 땅에서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을 몰아내고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모잠비끄인민을 굳게 조직령도하여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모잠비끄인민은 자기의 불굴의 투쟁으로써 원쑤들을 더욱더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었고 최근에는 모잠비끄의 완전독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것은 모잠비끄해방전선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장기간의 피어린 무장투쟁을 벌려온 모잠비끄인민의 큰 승리이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에 대한 또하나의 커다란 타격으로 됩니다.》

모잠비끄인민들은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쉼없는 투쟁을 벌려온 결과 마침내 뽀르뚜갈이 모잠비끄인민의 민족적독립의 권리를 승인하게 하였으며 1974년 9월 7일에는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에서 합의에 서명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협정에 의하면 모잠비끄해방전선 결성 11주년 기념일인 1975년 6월 25일에 모잠비끄가 완전히 독립하게 되였다.

협정에는 모잠비끄에 9명으로 구성되는 림시정부가 설치되며 그 구성은 모잠비끄해방전선으로부터 6명과 뽀르뚜갈측으로부터의 3명으로 될것이 밝혀져있다. 림시정부의 총리는 모잠비끄사람이 되며 뽀르뚜갈정부대표로서 고등판무관이 내각에 들어가게 되였다.

협정은 또한 모잠비끄해방전선과 뽀르뚜갈량측으로부터의 동일한 인원수로 구성되는 합동휴전감시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1974년 4월 뽀르뚜갈의 까에따노파쑈도당이 거꾸러진후 새로운 정세하에서 모잠비끄인민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자기들의 력량을 더욱 강화하면서 무장투쟁을 한시도 늦추지 않고 줄기차게 전개하여왔다. 뽀르뚜갈에서 정변이 일어난후 몇달동안 모잠비끄의 애국적무장력은 동부, 동북부, 서부와 중부 지역에 광범히 진출하여 새로운 승리를 거두었다. 5, 6월에는 애국적무장력이 병력을 집중하여 중부적군의 운수선을 습격하였으며 북부지역에서는 적군초소들을 습격하였다. 7월에는 잠베지아주에서 적들에게 맹렬한 불벼락을 안기였다. 투쟁의 불길은 전체 주의 3분의 1지역에로 확대되였으며 이 주의 5천명의 인민들이 무장대오에 참가하였다. 뽀르뚜갈군인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염전사상이 높아져 2천여명의 적군이 모잠비끄의 애국적무장력과의 전투를 거절하여 콤뮤니케까지 발표하였다. 8월에는 적들의 북부초소에 대한 련속적인 습격이 있었다.

모잠비끄의 인종주의자들과 우익반동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촉밑에 모잠비끄에서의 비식민지화과정을 방해하며 모잠비끄인민의 정의의 민족해방운동을 말살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독립협정이 조인된 9월 7일에 수도 로렌쏘 마르께스에서 모잠비끄해방전선을 반대하는 백인극단분자들의 무장습격이 있었다. 이 백인깡패들은 모잠비끄에서 소수백인정부수립을 주장하였다.

백인극단분자들은 또한 생활필수품값을 마구 올리는 등 경제적혼란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모잠비끄해방전선은 인민통제위원회를 내와 재정규률과 소매가격인상을 통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암시장을 엄격히 막기 위해 중앙중권은행설치에 대한 대책들을 토의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기름진 땅은 모두 뽀르뚜갈과 영국농장주들이 독점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사탕수수, 목화, 야자, 바나나, 사이잘삼, 땅콩, 강냉이, 조, 콩, 나무감자 등이다.

축산업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 집짐승은 양, 염소, 소 등이다.

공업발전수준은 매우 낮다. 석탄, 보크사이트, 금, 은, 우라니움, 석유, 주석 등을 채굴하나 모두 식민주의자들이 틀어쥐고있었다.

가공공업으로서 크지 않은 사탕, 기름, 비누, 세멘트 공장 등이 수도를 비롯한 몇개의 도시에 집중되여있다.

주요수출품은 목화, 땅콩, 차 등이며 수입품은 원유제품, 천, 운수수단 기타 금속제품 등이다.

주민의 대다수가 글을 모르는 사람

이고 하나밖에 없는 대학도 백인들이 차지하였다.

의료시설도 기본은 백인을 위한것이며 원주민의 사망률이 높다.

해방지역에서는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주고있으며 농업협동조합, 소비품공급협동조합 등이 세워졌다. 식량도 자급자족하고있다. 또한 수많은 학교들이 건설되여 모든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니고있다.

400여개의 유격대병원과 인민병원들이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반투족이며 이들 대부분이 원시종교를 믿는다. 백인들은 기독교를 믿는다.

공용어는 뽀르뚜갈말이다.

출판보도; 신문 모잠비칸 레볼루숀(해방전선 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우리 나라는 모잠비크림시정부가 수립된것과 관련하여 1974년 9월 24일 모잠비크림시정부 총리 호아킴 쉬싸노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1971년 6월 사로청 제6차대회에 민족해방전선 청년운동대표가 참가하였으며 9월에는 민족해방전선 위원장인 사모라 모이세스 마쉘을 단장으로 하는 민족해방전선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말 라 위

(말라위공화국)

넓이 11만 8,484km²

인구 455만명(1971년)
주민의 대부분은 아프리카인이며 혼혈인, 구라파인, 아세아인들도 산다.

수도 좀바(주민 2만명)

정 치

국민회의 일원제립법기관이다. 의원수 55명중 5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50명은 선거한다.

정부 대통령 헤스팅그스 카무주 반다(총리겸임, 1964년 7월—)

정당, 사회단체; 말라위대회당 유일당이며 집권당, 1959년 9월 창건, 영제국주의자들과의 협조를 주장, 1970년 9월 당대회에서 반다를 종신위원장으로 결정, 전국로동련맹, 로조대회

19세기말부터 영국, 뽀르뚜갈, 독일 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오던 말라위는 1891년 5월 영국식민주의자들의 《보호령》으로 되였으며 1953년에는 영제국주의자들이 조작한 《로데시아및니아살랜드련방》에 강압적으로 편입되였다.

민족적독립과《련방》의 해체를 요구하는 말라위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1963년 2월《내부자치제》가 실시되였으며 이해 12월에는 《련방》에서 떨어져나왔다.

말라위는 1966년 7월 6일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말라위는 1970년에 루사카에서 있은 쁠럭불가담회의와 아디스아바바에서 진행된 아프리카통일기구 수뇌자회의에 참가하는것을 거부하였다.

말라위는 남아프리카, 남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과의 협조를 강화하면서 이《정권》과의 일체 관계를 끊을데 대한 세계인민들과 아프리카인민들의 공동행동에 참가하지 않고있으며 남아프리카인종주의정권을 규탄하는 1972년 11월 1일 유엔총회 특별정치위원회 결의안 표결시에는 기권하였다.

1970년 5월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주의두목 보스터놈이 이 나라에 기여들어 말라위에 철도 및 도로를 건설할데 대한 회담을 벌렸으며 7월에는 일본군국주의자들과 특혜를 주는 통상협정까지 맺었다.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은 말라위의 군사기지를 리용하여 이 지역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70여년간에 걸쳐 영국식민주의자들이 좋은 땅(160만헥터이상)을 독점하고 차, 담배, 목화, 커피, 땅콩 등 수출작물의 생산량을 강요하였기때문에 농업은 기형성을 띠고있으며 식민주의자들의 농장이 부침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원주민들은 척박한 땅에서 주로 강냉이, 마니오크, 수수, 고구마 농사를 짓고있다.

현재 1만 6,000톤의 차, 1만 1천여톤의 담배, 2만톤의 목화를 생산하고있다.

말라위에는 보크사이트, 석탄, 금, 망간, 쇠돌, 금강석 등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여있으나 그 일부만을 수공업적으로 채굴하고있다.

영식민주의자들의 략탈로 공업은 거의 발전하지 못하고있으며 작은 차가공공장과 농산물가공공장, 제재소, 합판공장, 담배공장 등이 있을뿐이다.

운수는 철도와 수상 운수에 의거하고있는데 이 나라에는 살리마에서 시작되여 모잠비크로 통하는 외갈래 철길이 있을뿐이고 수도에는 기차길이 없다.

주요수출품은 차, 담배, 목화, 커피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료품, 식량, 천, 금속제품 등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영국,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등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아프리카흑인들이며 혼혈인들이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글을 모르며 학교갈 나이의 어린이들의 50%도 학교에 못가고있다.

공용어는 영국말을 쓴다.

주민들의 생활은 어려우며 매년 10여만의 로동자들이 짐바브웨, 잠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품팔이를 떠난다.

출판보도; 신문 말라위뉴스(말라위대회당 기관지), 말라위 가번멘트 가제트(관영), 모니, 타임스, 디스이즈 말라위(정부기관지)

방송 말라위방송

잠 비 아

(잠비아공화국)

넓이 75만 2,614km²

인구 430만명

수도 루사카(주민 25만명)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

정부 1973년 12월 10일 구성, 대통령 켄네스 다비드 카운다(국방부장 겸임, 1973년 12월 7일 3선, 임기는 4년), 외교부장 베르논 존슨 므완가

정당, 사회단체; 1972년 12월 모든 야당들을 금지하고 단일당제를 수립하였다. **민족통일독립당** 집권당이며 유일당, 위원장 켄네스 다비드 카운다, 로조대회, **민족통일독립청년운동, 잠비아조선친선협회** 1971년 4월 결성

1891년에 영국의《보호령》으로 되였으며 1958년에는 중앙아프리

카련방에 강압편입되였다.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1963년 12월 《중앙아프리카련방》은 해체되고 1964년 10월 24일 《영련방》내의 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아프리카인민들은 아프리카대륙에서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습니다.》

(《세네갈전국기자협회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22페지)

독립후 잠비아정부는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들에서 식민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잠비아인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68년에 정부는 제국주의자들과 체결한 예속적인 조약과 협정들을 폐기하였으며 1969년 6월에는 독립당시 영제국주의자들이 잠비아에 강요한 헌법을 개정하고 백인들의 선거권과 참정권, 일부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하였다.

1969년 8월 모든 광물자원의 개발권을 국가가 장악하였으며 12월에는 영제국주의자들이 조작한 《대영남아프리카회사》와 외국농장주놈들이 가지고있던 토지의 대부분을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도록 하였다.

1970년 2월에는 미영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책동에 대처하여 반동적인 야당활동을 금지시켰으며 1972년 12월 9일에는 유일당제를 수립할데 대한 헌법수정안을 채택하였다. 유일당제를 선포함으로써 73개의 부족을 가지고있는 잠비아는 종족적 및 부족적 계렬에 따라 잠비아를 분렬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파괴책동을 제때에 분쇄하고 나라의 정치적 단합을 이룩할수 있었다.

경제적자립을 위하여 이미 1973년 6월 23일에 23개의 외국인소유 개인농장들을 국유화한바 있는 잠비아는 1974년에도 주요기업소들과 농장들을 계속 국가수중에 장악하였으며 1974년 11월에는 잠비아상업은행을 국유화하였다.

경제적자립을 위한 길에서 잠비아는 특히 농업을 발전시켜 식량을 자급자족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고있다.

카운다대통령은 1974년 5월 농업전람회 개막식에서 연설하면서 《그처럼 좋은 기후, 자연부원과 잠재력을 가지고있는 나라가 식료품수입을 허용하여 자기 나라의 발전을 저애한다는것은 수치이다. 우리는 지금 농업분야에서 자급자족하기 위한 기초를 닦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1974년 6월 잠비아는 농업부문전문가들이 식량의 자급자족문제를 풀기 위해 농촌현지에 내려가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고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농업부문에서 자력갱생하려는 이 나라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독립된지 10년이 되는 1974년에 잠비아는 강냉이, 닭알 및 가금류를 자급자족할수 있게 되였다.

새 사회 건설에서의 잠비아의 전진과 반제적인 조치에 불안을 느낀 제국주의자들과 남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은 잠비아에 대한 침략과 도발 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놈들은 1973년에 잠비아와의 국경을 봉쇄하여 이 나라의 경제생활을 파괴하며 남아프리카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잠비아인민의 지지를 중단시키려고 책동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인종주의자들의 국경봉쇄행위는 잠비아의 경제를 말살할수 없었다. 이것은 오히려 잠비아인민으로 하여금 제국주의와 인종주의자들의 《경제봉쇄》정책에 대처하여 예비들을 총동원하여 자기 자원을 가지고 자기 경제적밑천을 튼튼히 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1974년 4월 잠비아대통령 카운다는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이 더욱더 횡포해지고있다고 경고하면서 전체 인민들에게 자기 조국을 수호하는것은 잠비아인민의 신성한 의무임을 자각하고 원쑤들의 온갖 책동에 대처하기 위한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출것을 호소하였다. 잠비아인민들은 1974년도 훈련강령에 의한 군사훈련을 받았으며 이 나라 국경지방들에 조직된 자위대와 나라의 방방곡곡에 꾸려진 잠비아민족군야영소들도 물질기술적으로 보다 더 강화됨으로써 나라의 전국적방위체계가 더욱 튼튼해졌다. 또한 1974년에 잠비아대통령의 호소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 입대하였으며 이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녀자들도 군사학교에서 군사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이해 1월 정부는 남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의 도발적인 침략책동을 막기 위해 남로데시아로 통하는 도로의 리용을 완전히 그만두기로 결정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세계적인 동생산국이며 채광업이 국민소득의 80%를 차지한다. 동은 이 나라 총생산액의 40~50%, 수출액의 90~95%를 차지한다. 이밖에 코발트, 쇠돌, 연, 아연, 우라니움, 크롬, 금, 은, 금강석이 있다.

정부는 광업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광산들을 개발확장하고 이미 있는 광산들의 채광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 한편 동생산 일면에만 치우치던 경제의 일면성을 극복하고 가공공업을 발전시켰다. 결과 동제품생산공장을 비롯하여 방직공장, 비료공장, 폭발물제조공장, 유리섬유제품공장 등이 건설되였다.

농업에서 《자급자족》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여 알곡과 목화를 비롯한 중요 농산물생산이 늘어났으며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축산물도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1974년에 잠비아정부는 사탕생산을 늘이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을 취하였다. 나캄발라지역에 있는 사탕수수밭을 훨씬 늘쿠며 느돌라시에 있는 사탕공장을 개건하고 큰 사탕공장을 새로 지을데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을 취하였다.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생산의 다각화에 큰 힘을 넣은 결과 커피가 자랄수 없는것으로 알려져있던 잠비아에서 1973년에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커피의 시험생산이 성공하여 1974년부터 커피생산이 정상화되였으며 100에이커의 커피밭이 조성되였다. 1973년에 커피생산량은 11톤이였다.

집짐승으로는 주로 소, 면양, 염소, 돼지 등이 있다.

정부는 농업의 다각화와 토지개혁사업을 추진시키면서 특히 농업을 기계화하는데 많은 힘을 넣었다. 40여개 농촌지구에서 200여대의 뜨락또르가 일하고있다.

나라의 자연경제적조건에 맞게 국내도처에 농산 및 축산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그 물질적토대를 강화하였다.

제2차민족개발계획(1972—1976년)에는 《식량 특히 강냉이를 자급자족하는것》을 주요한 목표의 하나로 내세우고 농촌경리발전에 큰 힘을 넣고있다.

운수에서 기본은 철도이다.

잠비아정부는 1974년에 스미스도당과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조치에 대처하여 잠비아와 인도양연안을 련결하는 잠비아—탄자니아철길을 완공하였다.

잠비아는 동, 코발트, 쇠돌, 아연, 연 등을 비롯한 광물과 담배를 수출하며 원유제품, 기계설비, 식량, 일용품 등을 수입한다.

무료교육제실시를 지향하고 중등수준까지의 교육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수 있게 되였다.

1971년에 초등학교들에서는 영국교과서들을 폐기하고 잠비아인들이 만든 새로운 교과서에 의하여 교육사업이 진행되고있다. 학교들에서 공부하는 녀학생들의 수도 계속 늘어나 1973년에 25개의 녀자중학교들에서 1만 900여명의 녀학생들이 글을 배웠다.

공용어로는 스와힐리말을 쓴다.

보건위생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망을 늘이고있는데 1972년에 농촌지역들에는 400개의 진료소들이 꾸려졌다.

주민은 카프에트족, 벰바족, 비르트세족, 룬다족 등 73개의 부족이있다.

또한 종합대학병원이 있으며 루사카와 느돌라에는 두개의 병원과 3개의 전문병원이 있다.

출판보도; 신문 잠비아 메일 (정부기관지) 메일리 메일

방송 잠비아방송, 잠비아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4월 12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1년 4월 18일 루사카에서 《잠비아조선청년친선협회》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련대성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2년 12월 12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잠비아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연구와 출판보급사업이 널리 진행되고있다.

잠비아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잠비아조선청년친선협회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등이 조직되여있다.

1974년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 많이 번역출판되였다.

잠비아신문《메일리 메일》5월 9일호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유고슬라비아신문 〈웨체르니에 노보스띠〉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6월 6일호는 수령님의 로작《이딸리아공산당기관지 〈우니따〉지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전문을 실었다.

6월 25일호는 수령님께서 하신 6월23일연설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를 게재하였다. 신문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였다. 7월 25일호는 또한 로작《수단정부기관지〈알 싸하파〉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전문을 실었다. 신문은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였다. 8월 22일호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로작《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실었다.

《메일리 메일》9월 10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의 전문을 실었다.

이 신문 9월 30일호는 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소개하였다.

신문은 머리글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촌테제를 발표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휘황한 길을 환히 밝혀주셨다고 지적하고 우리 나라 농촌에서 세기적변화들이 일어난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10월 6일호는 로작《페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실었다. 11월 1일호는 로작《세네갈전국기자협회 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전문을 실었다. 11월 26일호는 로작《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의 첫째부분《우리 나라의 정세에 대하여》의 전문을 실었다. 신문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였다. 12월 17일호는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에 있는 회상기 《그이의 높은 뜻을 받들고》의 전문을 실었다.

1974년 10월 또고의 수도 로메에서 진행된 경애하는 수령님의 농촌테제발표 10돐을 기념하는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제3세계인민들의 과업》에 관한 과학토론회에서 잠비아 대표단 단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거대한 탐구의 예비를 가지고있는 방대한 아프리카는 조선의 경험으로부터 배울수 있으며 그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수 있다. 또한 제3세계 전체가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농촌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때만이 제3세계의 진보적력량은 자기 발로 걸어나갈수 있을것이며 발전된 부유한 나라들로부터 더는 착취를 당하지 않을것이며 구걸도 하지 않게 될것이다.

1974년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잠비아는 알제리를 비롯한 제3세계나라들과 사회주의나라들이 제출한《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하여》의 공동발기국이였으며 표결에서 우리 나라를 지지하여 찬성투표하였다.

1974년 7월 우리 나라 집단체조대표단이 잠비아를 방문하였으며 카운다대통령을 만났다.

석상에서 카운다대통령은 《강력한 투사이시며 위대한 지도자이시며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주석각하께서 건강하십니까?》라고 정중히 문의한후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인민의 의로운 투쟁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10~11월에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잠비아를 방문하였다.

짐 바 브 웨

(남로데시아)

넓이 38만 9,400km²
인구 550만명 (1971년)
수도 솔스베리 (주민 42만 3,000명)

정 치

의회 상하량원제, 상원은 23명, 그중 백인이 10명, 부족장회의에서 선출하는 아프리카인 10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원 3명으로 구성된다. 하원은 66명중 백인이 50명, 부족장회의에서 선출하는 아프리카인이 8명, 지역별대표 8명이 차지한다. 부족장회의의 임명권은 백인이 장악하고있다. 하원에서 로데시아전선이 50석을 차지하고있다.

대통령 크리포드 워터 듀폰 (1970년 4월—)

정부 1971년 11월에 정부가 조직되였다. 총리 이완 스미스

정당, 사회단체;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 1961년 12월에 창건,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1962년 9월에 비법화, 본부는 잠비아에 있다.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 아프리카인민동맹에서 분리되여 1963년에

결성된 민족해방투쟁단체, 본부는 탄자니아에 있다. 짐바브웨해방전선, 로데시아전선 (집권당), 중앙당 인종차별정책을 반대한다. 범아프리카사회동맹, 아프리카로조대회

1895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953년 영식민주의자들은 짐바브웨인민들의 반식민지투쟁을 말살하고 식민지통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잠비아, 말라위, 짐바브웨를 통합하여 《중앙아프리카련방》을 조작하였다.

1963년에 이 지역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련방》은 해체되고 잠비아와 말라위는 독립하였으나 짐바브웨에서는 영식민지통치가 계속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민족적독립을 요구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부딪쳐 더는 제놈들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할수 없게 되자 스미스를 우두머리로 하는 백인인종주의정권을 조작하고 1965년 11월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포케 하였다.

1969년 6월 스미스도당은 인종주의정권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이른바 《헌법》을 채택하고 1970년 3월 2일 《남로데시아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의 소수백인정권 영구화를 위한 모략책동을 반대하며 나라의 진정한 독립을 위한 짐바브웨인민들의 파업과 폭동이 격렬한 가운데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은 1972년 1월초 인민혁명군을 창건하고 무장투쟁을 더욱 확대강화하였다. 인민혁명군은 간고한 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2만명의 강력한 대오로 장성강화되였으며 나라의 5분에 1에 해당하는 서부 및 중남부 지역에서 유격전을 전개하면서 백인인종주의자들을 도처에서 족쳐댔다.

남로데시아인종주의도당은 유격대의 활동이 가장 적극화되고있는 동북지역을 《거주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그곳으로부터 아프리카사람들을 《특수촌》으로 강제적으로 이주시켰다. 또한 1974년 1월에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백인이주자들을 남로데시아에 끌어들이기 위한 대대적인 깜빠니야를 벌렸다.

1974년 2월 남로데시아인종주의도당은 《짐바브웨유격대를 지원하였다》는 리유로 무지브촌락에 침입하여 집과 발곡식을 불태우고 집집승들을 빼앗아가며 100여명의 주민들을 마구 잡아가는 귀축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1973년 1월 9일 남로데시아백인인종주의자들은 두명의 남아프리카경찰이 죽은것을 구실로 잠비아와의 국경을 봉쇄하고 잠비아와 남로데시아사이의 모든 교통을 차단하는 도발행동을 감행하였다.

아프리카통일기구는 남로데시아백인인종주의자들의 잠비아국경봉쇄책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974년 12월에는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에서 짐바브웨민족해방운동대표들이 잠비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대통령들과 회합을 가지고 스미스도당을 없애기 위한 무장투쟁을 계속해나갈것을 결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4개월이내에 짐바브웨 전체 애국력량대회를 소집하고 인종주의압제로부터 나라의 해방을 위한 투쟁계획들을 토의하기로 합의하였다.

1974년에 짐바브웨유격대는 남아프리카와 남로데시아인종주의군대들을 공격하여 여러대의 적군용화물자동차들과 비행기들을 박산냈으며 수백명의 적군을 요정냈다.

짐바브웨유격대의 이러한 투쟁에 의하여 스미스도당은 담판장에 끌려나오지 않을수 없었으며 1974년 12월 11일 민족해방운동조직들과 전투정지와 제헌회의소집에 합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스미스는 억류중인 모든 정치범들의 석방을 약속하였으며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 짐바브웨해방전선을 망라한 로데시아아프리카민족회의는 회담에 참가할 용의를 표시하면서 짐바브웨유격대의 정화시간은 헌법협상 회의가 진행되는 날자에 따를것이라고 선포하였다. 민족해방운동단체들의 지도자들인 느코모와 시톨레가 석방되여 솔스베리로 돌아왔다.

그러나 스미스도당은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겠다는 약속을 리행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짐바브웨민족해방운동단체들은 억류된 사람들이 석방되기전에는 스미스도당과 어떤 회담도 하지 않을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민족해방운동단체들은 12월 15일 인종주의자들에게 흑인들을 불모의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킨 백인토지보유법의 철페를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들이대였다.

—유격대들이 활동하고있는 지역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추방된 사람들을 송환시킬것.

—아프리카부족추장들에 대한 특권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적립법을 페지할것.

—짐바브웨유격대들에 대한 대사령실시와 모든 정치범들의 석방, 잠비아와의 국경을 열것.

경제, 사회문화

전형적인 식민지적기형성을 띠고있는 농업국이다.

경제명맥은 영국독점자본이 틀어쥐고있다.

이 나라 인구의 5.7%밖에 안되는 백인인종주의자들이 기름진 부침땅의 70%를 차지하고 아프리카인농민들을 고용하여 담배, 목화 등의 상품작물을 생산하면서 막대한 리윤을 얻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담배 (농업생산액의 50~80%), 사탕수수, 강냉이, 목화, 땅콩 등이다.

짐바브웨의 경제에서 축산업과 림업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축산은 주로 고기생산을 기본으로 하고있으며 가금업도 비교적 발전하였다.

공업에서 기본은 채굴공업이다. 이 나라의 주요공업회사들은 영제국주의자들과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다. 짐바브웨에는 약 2억파운드의 투자를 하고있는 200~300개의 영국회사들이 있다.

주요지하자원은 금, 크롬광, 라디움광을 비롯한 전략물자들과 철, 동, 니켈 등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질좋은 돌솜을 생산하고있다. 이 모든 재부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략탈대상으로 되고있다. 크롬은 미영합자광업회사, 라디움은 미제의 자본을 위주로 하는 광업회사가 캐고있다. 200~300개의 영국회사들이 이 나라에 2억파운드의 투자를 하고있다. 영제국주의자들은 많은 값싼 아프리카인로동력을 끌어들여 서부지역의 석탄을 비롯하여 남부 및 중부 지역의 쇠돌, 돌솜, 크롬, 라디움, 니켈 등을 략탈하여가고 있다.

가공공업에서는 농산물가공업이 위주로 되고있으며 이밖에 중소규모의 금속공업, 석유공업, 세멘트공업, 방직공업 등도 있다.

매해 크롬광은 37만~40만톤, 동은 2만톤, 석탄은 300만톤, 금은 15톤정도 생산된다.

운수의 기본은 철도운수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이 나라의 자원을 략탈하기 위하여 여러 갈래의 철길을 부설하였다. 철길의 길이는 2천 152키로메터이다.

백인인종주의자들은 60여종의 인종차별을 위한 각종 악법으로 아프리카사람들을 억압착취하고있다.

아프리카사람들은 척박한 땅으로 쫓겨나 농사를 하거나 혹은 광산, 백인농장들에서 고용로동을 하고있다.

아프리카인들의 임금은 백인로동자의 임금의 20분의 1밖에 안된다. 원주민들은 제한된 거주구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으며 아빠트에서 살수 없다.

백인인종주의자들이 재산과 지식에 의한 선거권을 규정하고있기때문에 절대다수의 아프리카인들은 선거에 참가할 권리마저 잃고있다.

아프리카인들의 80%가 글을 모르며 백인과의 《공학》이 허용되지 않고있다.

주민은 대부분이 반투어계통의 흑인이며 백인(24만명)과 흑인의 혼혈인 등이 있다.

공용어는 영국말이다.

아프리카인들은 원시종교를, 백인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신문 짐바브웨 레뷰(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기관지), 로데시아 헤랄드, 크로니클, 썬데이 메일

방송 로데시아방송, 로데시아텔레비죤방송

앙 골 라

(뽀르뚜갈식민지)

넓이 124만 6,700km²
인구 510만명(1972년)
행정중심지 루안다(주민 29만명)

정 치

림시정부 1975년 1월 31일 구성, 1975년 11월 15일 앙골라가 완전한 독립을 선포할 때까지의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한다. 림시정부는 인민해방운동에서 3명, 민족해방전선에서 3명, 완전독립민족동맹 3명, 뽀르뚜갈인 3명으로 구성되였다.

정당, 사회단체; 인민해방운동 콩고의 브라자빌에 본부를 두고있다. 위원장 아고스띠노 네또, **민족해방전선** 자이르의 수도 킨샤사에 본부를 두고있다. 위원장 홀덴 로베르또, **완전독립민족동맹** 위원장 요나스 싸빔비, **전국근로자동맹**, 녀성조직

1885년에 뽀르뚜갈식민지로 되여 아프리카에서 제일 오래동안 식민지통치를 받아왔다.

앙골라인민은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이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한 그때부터 투쟁에 일떠섰으며 1961년 2월 4일부터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1962년 12월 인민해방운동 1차대회에서 민족해방군이 창건되였다.

초기 20자루의 보총을 가진 24명의 애국자들로 조직되였던 유격대는 현대적무장을 갖춘 수만명의 대오로 자라났으며 100만의 인구를 포함하는 령토의 3분의 1이상을 해방하였다.

앙골라인민의 영웅적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마침내 식민주의자들은 무릎을 꿇게 되였으며 1975년 1월 15일 앙골라의 민족해방조직들은 뽀르뚜갈과 앙골라의 독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에 의하여 앙골라는 1975년 11월 11일 독립을 선포하게 되며 그때까지 10개월간은 대통령리사회와 과도정부가 조직되여 독립선포를 위한 준비사업들을 하게 되였다.

독립을 위한 앙골라인민들의 투쟁기세에 겁을 먹은 식민주의자들은 앙골라투쟁조직들의 내부사정들을 거꾸로 리용하려고 획책하면서 국내반동들을 사촉하여 혼란을 조성하며 인종주의를 고취하는 등 비렬한 음모들을 꾸며냈다. 앙골라에 있는 백인식민주의자들은 철수하는 뽀르뚜갈군대들에게 돌아가지말것을 은밀히 부추기면서 지난시기 뽀르뚜갈비밀경찰요직에 있다가 남아프리카에 피신한자들과 련계를 맺고 그들의 세력을 규합하여 앙골라의 독립을 필사적으로 반대하면서 1974년 9월에는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제놈들의 인종주의정권을 세워보려고 책동하였다. 앙골라에 거주하는 50여만의 뽀르뚜갈백인들은 준비된 력량에 의거하여 《자기들의 경작지를 수호》하겠다고 하면서 자체의 군대까지 만들어내려는 음모도 꾸미였다. 식민주의자들의 이러한 파괴음모책동은 식민주의자들이 경제적의의가 큰 원유, 철광석, 금강석 등 앙골라의 풍부한 동력 및 유용광물의 예비를 장악하고 이 자원들을 일본, 카나다 및 미국에 팔아 막대한 리윤을 얻고있었던 조건에서 이 리권을 좀처럼 포기하려 하지 않고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심하다. 특히 년산 1천만톤의 큰 원유산지인 까빈다지역만이라도 떼내여 저들의 통제밑에 두려는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이 나라의 반동들을 부추겨 《까빈다 해방전선》이라는 《조직》까지 만들어내면서 분렬책동을 꾸미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프리카인민들이 비식민지화투쟁에서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들사이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인민들사이의 단결은 힘의 원천이며 승리의 확고한 담보입니다.》(《세네갈전국기자협회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23페지)

간고한 무장투쟁을 통하여 단련된 앙골라인민은 원쑤들의 파괴암해책동에 대처하여 애국력량들을 더욱더 통일단결시키기에 힘썼다. 1974년 7월 동부 자이르의 부카부에서 진행된 일부 아프리카국가수반들의 회의에서 앙골라인민해방운동과 민족해방전선간에 앙골라의 독립을 위하여 공동행동을 취할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9월 4일에는 인민해방운동지도자들이 콩고의 수도 브라자빌에 모여 대렬의 통일을 강화하며 림시지도부를 구성하는데 합의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광업이다. 주민의 87%가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사이잘삼, 종려, 사탕수수 등인데 이것들은 북서부지방에서 재배된다. 1972년에 20만 4천톤의 커피를 생산하여 아프리카에서 2위, 자본주의세계에서 4위를 차지하였다. 주민들의 주식인 강냉이, 바나나, 마니오크, 조 등은 바다기슭 벌방지대에서 재배된다.

주요집짐승은 소, 돼지, 양, 염소 등이다.

이 나라의 까빈다지역에는 석유가 풍부히 매장되였다.

류황성분이 적은 까빈다석유의 하루채취량은 15만바렐로써 미제가 년간 얻는 수입은 4억딸라에 달한다. 이 석유는 미제의 갈프석유회사가 장악하고있다.

그밖에도 까빈다지역에는 목재, 코코아, 종려기름, 커피 등이 풍부하며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금, 금강석매장지들이 있다.

공업에서 기본은 채광업이며 그외 가죽, 식료품가공공장, 성냥공장, 담배공장 등이 있다.

주요지하자원은 금강석, 금, 원유, 동, 망간, 쇠돌, 우라니움 등이다. 금강석채굴량은 년산 약 200만~220만카라트로써 자본주의세계에서 제4위를 차지한다.

광산은 모두 미국, 영국, 벨지끄,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이 차지하고있으며 서독, 일본자본도 들어오고있다.

철길의 총연장길이는 2천 400키로메터이다. 그중 절반이상은 외국자본의 소유이다.

주요수출품은 금강석, 커피, 사이잘삼, 쇠돌, 종려기름, 물고기 등이며 천, 일용품, 식량, 군수품, 운수수단, 연료 기타 공업제품 등을 수입한다.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가혹한 폭압정책으로 인민들은 무지와 몽매, 빈궁에서 허덕였다.

90%이상의 인민들은 글을 모르며 각종 질병들이 많이 돌았다. 매해 10여만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간다.

주민의 97%가 반뚜족이다.

원주민들의 대부분은 원시종교를 믿는다.

공용어는 뽀르뚜갈말인데 원주민은 거의 모두 반뚜말을 쓴다.

출판보도; 신문 윅또리아 오우 모르떼 (인민해방운동기관지), 아 쁘로빈씨아 데 앙골라, 디아리오 데 루안다, 오 꼬메르씨오, 오 로비또

방송 앙골라방송, 벵구엘라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앙골라인민해방운동투사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존경하고 흠모하면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뭇고있으며 인민해방운동기관지 《윅또리아 오우 모르떼》 (승리냐, 죽음이냐) 는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들을 광범히 싣고있다.

1968년 9월과 1971년 8월 두차례에 걸쳐 인민해방운동 위원장 아고스띠노 네또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1년 6월 우리 나라 사로청 6차대회에 인민해방운동청년대표단, 잠비아에 있는 인민해방운동 《김일성동지로작및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1975년 2월 3일 우리 나라 정부에서는 1월 31일 앙골라에서 림시정부가 수립된것과 관련하여 앙골라 대통령리사회 로뽀 도 나쓰씨멘또, 죠니 메두아르도, 호쎄 느델레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나 미 비 아

(서남아프리카)

넓이 82만 4.292km²

인구 65만명 (1971년)

행정중심지 윈드후크 (주민 7만명)

정 치

립법회의 1968년 10월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이 민족적독립을 위한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만들어낸《립법기구》로서 백인들로 구성되여있다. 의원수 18명, 남아프리카국회에 4명의 상원의원과 6명의 하원의원을 참가시키고있다. 1970년 4월 선거에서 국민당이 전의석을 차지

행정평의회 남아프리카대통령이 행정장관을 임명한다.

정당, 사회단체;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1958년에 창건,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탄자니아, 잠비아, 애급, 알제리, 꾸바에 대표부를 두고있다. 위원장 삼 누죠마, **국민당** (집권당)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정당인 남아프리카국민당의 지부, **통일당**, **서남아프리카로조**, **나미비아근로자련맹**, **청년동맹**

나미비아는 1915년 7월 영제국주의자들이 남아프리카에서 조작한 남아련방에 강점되였으며 1920년 12월부터 남아련방의《위임통치령》으로 되였다.

1949년 4월 남아련방은《서남아프리카사무수정법안》을 조작하고 이 나라를 자기 령토에 비법적으로 포함시켰다.

1968년 6월 12일 서남아프리카로 불리우던 나라이름을 나미비아로 고쳤다.

1969년 3월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은 나미비아에 대한 저들의 통치를 합법화하기 위한《법안》을 조작하여 이 나라의 행정 및 재정권을 장악하였다.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은 극단한 인종주의정책을 실시하면서 나미비아인민들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있다.

1966년 5월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의 지도밑에 무장투쟁이 개시되였으며 1968년 11월 동북부지역의 므파챠군사기지에 대한 공격을 계기로 무장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다. 나미비아 애국자들은 남아프리카침략군을 처단하였으며 로동자들의 파업투쟁도 치렬하였다.

1971년말부터 1972년초까지의 기간에 걸쳐 이 나라의 력사상 가장 큰 아프리카인로동자들의 파업이 진행되였다. 이 투쟁에는 4만 5천명의 로동자중 약 반수가 참가하였으며 로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광범한 인민들이 투쟁에 궐기하였다.

1973년 12월 12일 유엔총회에서는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을《나미비아인민의 진정한 대표》로 인정하는 결의안이 압도적다수로 채택되였으며 남아프리카인종주의악당들이 나미비아로부터《즉시 철거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유엔총회 제29차회의 12월 13일회의에서는 나미비아에서 인종주의와 식민주의를 종식시킬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1974년 5월 16일 제27차세계보건기구대회에서 이 기구의 정식성원국으로 가입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채광업과 축산업이며 해안지대에서는 어업도 한다. 채광공업이 이 나라 총생산액의 40%를 차지한다.

주요지하자원은 금강석 (세계생산량의 3%), 바나디움 (세계생산량의 10%), 동, 연, 아연, 망간, 우라니움, 중석, 금, 쇠돌, 은 등이다.

금강석은 주로 로천에서 채굴되고있는데 1972년에 약 185만카라트가 생산되였다. 영국 (외국자본 총투자액의 80% 차지), 미국, 남아프리카, 서독 등 100여개의 독점회사들이 이 나라의 자원을 마음대로 략탈해가고있다. 미영자본의 《합동금강석회사》는 금강석채굴의 99.6%를 독점하고 해마다 7천만딸라의 리윤을 짜내고있다.

가공공업으로는 수산물가공공장, 식료공장, 동제련공장 등이 있다.

토지의 90%는 백인인종주의자들이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강냉이이며 밀, 공예작물도 난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등이다. 해마다 300만매의 가죽을 수출한다.

항구들과 광산지대를 련결시키는 철길이 있다.

주요수출품은 가죽, 동, 연, 바나디움 등이며 일용품과 기타 제품들은 수입한다. 수입의 10분의 9와 수출의 4분의 1은 남아프리카와 한다.

인종차별정책에 의하여 나미비아인민은 공민권도 완전히 박탈당하고있으며 선거권, 교육을 받을 권리, 기능을 소유할 권리, 지어는 공직에 근무할 권리도 없다. 광산로동자들의 임금은

백인로동자임금의 20분의 1밖에 안되며 계약로동자들의 임금은 하루에 3분의 1실링이하로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어린이들의 사망률은 40%에 달한다.

주민의 90%가 오밤보족, 부슈맨족, 호텐토트족 등 아프리카사람이며 그외 보아사람, 독일사람, 영국사람 등이 있다.

아프리카사람들은 반투말을 쓰며 백인들은 영국말과 독일말을 쓴다.

출판보도; 신문 알게마이네 짜이퉁, 오피씨알 가제트 오브 사우즈 웨스트 아프리카, 윈드후크 애드버타이저

방송 아르에스에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3월 20일 잠비아에 있는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성원들이 《김일성동지로작및혁명활동력사를 연구하고 그를 구현하기 위한 선봉소조》를 결성하였으며 투쟁대오안에 《김일성부대》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1971년 6월 사로청제6차대회에 《김일성동지로작및혁명활동력사를 연구하고 그를 구현하기 위한 선봉소조》대표단과 나미비아청년동맹대표가 참가하였다.

1965년 7월과 1973년 7월에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위원장 삼 누조마를 단장으로 하는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보 쯔 와 나

(보쯔와나공화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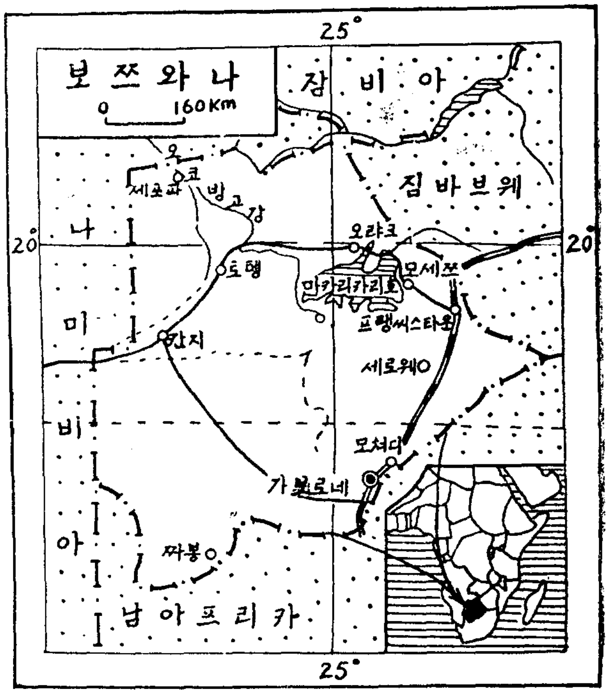
넓이 60만 372km²
인구 69만명 (1972년)
수도 가보로네 (주민 2만 7, 065명)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 임기 5년, 총의석 36석중 31석은 선거하며 4석은 국회의원들이 선거한다.

1969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24석, 인민당이 3석, 민족전선이 3석, 독립당이 1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대통령 쎄레체 카마 (1966년 9월—), 외교부장 마시시



정당, 사회단체; **인민당** 1960년에 창건,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아프리카인들의 민족주의정당, **민주당** (집권당) 1962년에 창건, 영식민주의자들을 지지하며 추장들의 리익을 대표, **독립당** 1964년 인민당에서 갈라져나와 창건, 진정한 민주주의발전을 요구, **민족전선**, 로조대회

1966년 9월 30일 영련방성원국으로 독립하고 베추아날랜드로 불리우던 나라이름을 보쯔와나공화국으로 고쳤다.

인종격리정책을 공개적으로 규탄하고있으며 남로데시아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는것을 단호히 거절하고있다. 1974년 2월 인종격리를 규탄하는 국제협정에 조인하였다.

1974년 9월 19일 정부는 외국회사의 통제밑에 있는 철도를 국유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외관계에서 진보적인 정책들을 실시하고있다.

1973년 11월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1974년 3월 중국을 승인하고 장개석도당의 대사관을 내쫓았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축산업이다. 축산물에서 얻는 수입은 국민소득의 75%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 (약 140만마리), 양 (약 33만마리), 염소 (약 86만마리) 등이며 대부분이 외래독점체들과 추장들의 소유이다.

부침땅은 약 800만헥타에 달하나 습하거나 메마른 땅이므로 거의 농사를 지을수 없고 북부와 동북 지방에서 약간의 강냉이, 수수, 콩 등을 심는다.

공업은 채굴공업이 약간 있으나 전부 제국주의독점체에 속해있다.

주요지하자원은 돌솜, 망간, 동, 금강석, 니켈, 연, 철, 금 등이다.

남아프리카와 짐바브웨를 련결하는 철길의 일부가 동부국경선을 통과 (650키로메터) 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집짐승, 가죽, 고기가공제품, 돌솜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천, 기계류, 원유제품 등이다.

학교교육은 제한되여있으며 75~85%가 글모르는 사람이다.

공용어로는 영국말과 보쯔와나말을 쓴다.

매해 로동인구의 4분의 1이 남아프리카에 끌려가 품팔이를 하고있다.

주민은 대부분이 아프리카사람이며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마사 (인민당기관지), 테리사니오 (민주당기관지), 무오 파 (민족전선기관지), 데일리뉴스, 쿠틀와노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11월 27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3년 8월 보쯔와나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3년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보쯔와나는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 상정된 우리측을 지지하는 결의안에 찬성투표하였다.

느 그 와 네

(느그와네왕국)

넓이 1만 7,363km²
인구 43만명 (1972년)
수도 옴바바네 (주민 1만 4,000명)

정 치

립법회의 상하량원제, 상원의원 12명중 왕이 6명을 임명하고 6명은 하원에서 선거한다. 하원의원 24명중 왕이 6명을 임명한다. 인보코드워민족운동당이 상하량원의석을 독차지하고있다.

국왕 국가원수이며 국왕이 국내에 없을 때는 왕모가 대신한다. 사브후자 2세

정부 총리 마코쉬니 들라미니 (1970년 5월—)

정당, 사회단체; **인보코드워민족운동당** (집권당) 1964년에 창건, **스워질랜드진보당, 느그와네민족해방대회당, 스워질랜드통일전선** 1962년에 결성, 봉건주의를 반대하여 투쟁

느그와네는 1906년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1962년 2월 영국의 세 보호령 (느그와네, 레소토, 보쯔와나) 의 민족주의 정당들이 통일전선인 범아프리카대회 (느그와네진보당, 바수톨랜드대회당, 보쯔와나인민당 망라) 를 결성하고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위한 공동투쟁을 벌렸다.

1967년 4월 《내부자치권》을 가지게 되였으며 1968년 9월 6일에는 영련방내의 립헌왕국으로 독립하였다.

그리고 스워질랜드라고 부르던 나라이름을 느그와네로 고쳤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주요부문은 농업과 목축업이다.

경제는 영국과 남아프리카에 예속되여있다.

부침땅의 절반이상에 달하는 비옥한 땅과 집짐승의 대부분을 인구의 1.5%에 불과한 백인농장주들과 남아프리카독점체들이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벼, 강냉이, 사탕수수, 오렌지, 땅콩, 감자 등이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등이다.

질좋은 목재도 많이 생산되고있다.

공업에서 기본은 채광업이다. 돌솜, 쇠돌, 금, 은, 주석 등이 채굴된다. 자본주의세계에서 4대 돌솜산지의 하나로서 해마다 3만톤의 돌솜을 캐내고있다.

농산물 및 축산물 가공공장들과 합판공장들이 몇개 있다.

철길은 없고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주요수출품은 돌솜 (총수출액의 3분의 2) 과 사탕이며 그외 집짐승, 털가죽, 가죽, 목재, 담배, 목화 등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원시적인 농업과 집짐승기르기를 하고있다. 원주민의 20%가 백인들의 농장에서 힘겨운 삯일을 하고있으며 로동자들은 고된 로동을 강요당하고있다. 흑인광부들의 로임은 백인광부들의 로임의 10분의 1밖에 안된다.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남아프리카의 금광으로 품팔이를 떠난다.

주민의 80%가 문맹자이다.

약 350개의 소학교가 있는데 그중 정부가 운영하는 학교는 38개, 나머지는 백인들의 소유이다.

공용어는 영국말과 스와힐리말이다.

주민의 85%가 스워지족이며 그외 줄루족 (14%), 구라파사람 (1%) 이 있다.

원주민들의 40%는 원시종교를 믿으며 나머지는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옴비키 (정부기관지), 타임스 오브 스워질랜드

방송 느그와네방송

아 자 니 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넓이 122만 3,409km²
인구 2,128만 2,000명
수도 프레토리아 (55만명)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은 54명으로 구성, 그중 43명은 매개 주에서 선거하며 11명은 대통령이 임명, 하원은 166명으로 구성, 국회의원은 백인만이 될수 있다. 1970년 4월 하원선거에서 국민당 118석, 통일당 47석, 진보당이 1석 차지

대통령 푸체 (1968년—)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7년

정부 총리 존 보스터 (1966년취임, 1975년 2월 1일 내각 개조) 국방부장 피. 보사, 외교부장 힐가드 뮬러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7월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창건되였으나 인종주의자들의 《공산주의진압법》에 의하여 1950년에 해산,

1960년에 다시 조직되여 지하에서 활동,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 1912년 1월에 창건,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쿠바, 알제리, 애급, 잠비아, 탄자니아 등에 대표부를 두고있다. 1966년부터 활동이 금지되여있다. 총서기 알프레드 느조, **국민당** 집권당 1913년에 조직, 가장 반동적이며 인종주의적 정당, **재생국민당** 1969년 국민당지도부에서 떨어져나온 극단적우익분자들로서 조직, **통일당** 1934년에 창건, 영국출신의 부르죠아지들의 리익을 대변, 전반적으로 인종차별정책을 지지하며 실현방도에서만 의견을 달리하고있다. **진보당** 1959년에 창건, 인종차별의 극단적인 형태를 반대, **민주주의자대회**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백인들의 정당, 1962년부터 금지되여있다. **남아프리카인도인대회, 남아프리카유색인주민대회, 로조대회** 1951년에 조직, 인종주의정권을 반대하는 유일한 로조련합체

아자니아는 영제국주의자들이 조작한 세계에서 가장 반동적인 백인인종주의정권이 지배하는 나라이다.

1910년에 영식민주의자들은 이 나라를 저들의 한개 《자치령》으로 만들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여왔다.

2차세계대전후 영식민주의자들은 민족적독립을 요구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앙양된 투쟁에 부딪쳐 제놈들의 식민지통치를 더는 유지할수 없게 되자 1948년에 식민지통치의 변종인 백인인종주의정권을 조작하였다.

인종주의자들은 1961년 5월에 이 나라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선포하고 극악한 인종주의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인종주의정권은 제놈들의 반동통치를 유지하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아프리카인들의 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통행증법》, 《파괴활동금지법》 등 100여종의 파쑈악법과 파쑈폭압기구를 조작하고 온 나라를 테로와 폭압이 살판치는 《인종주의감옥》으로 전변시켰다.

아자니아인민들은 백인인종주의도당의 인종차별정책과 인종격리정책을 반대하여 무장투쟁을 비롯한 각종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채광업과 농업이다. 경제는 소수백인인종주의자들과 외래독점자본에 얽매여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원료공급지로서 채광공업 일면에만 치우치고있다.

주요지하자원은 금, 백금, 금강석, 우라니움, 바나디움, 돌솜, 망간, 크롬, 석탄, 쇠돌, 동 등이다.

년간에 금은 960톤이상, 금강석은 740만카라트이상, 망간은 290만톤, 크롬은 160만톤정도 생산된다. 금, 백금 생산량은 자본주의세계 총생산량의 약 50%, 금강석은 60~70%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략탈대상으로 되고있다. 약 500개의 영국회사, 375개의 미제독점회사와 은행들, 약 300개의 서독회사들이 이 나라 경제의 대부분을 틀어쥐고 제마음대로 략탈해가고있다.

또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투도 강화되고있다.

가공공업은 매우 뒤떨어져있다.

농업은 이 나라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국민소득의 6분의 1정도를 차지한다.

농업에서는 축산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돼지 등이다.

부침땅은 전령토의 8%밖에 안되는데 그중 90%는 소수인종주의자들과 외래독점체들이 거머쥐고있다.

주요농산물은 강냉이, 밀, 목화, 담배, 사탕수수 등이다. 매년 강냉이는 470여만톤, 밀은 120여만톤, 땅콩은 30만톤정도 생산된다.

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주요수출품은 금과 금강석을 비롯한 광물자원들과 식료품, 양털, 금속제품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류와 운수수단 (수입의 45%이상), 화학제품, 소비품 (20%), 식량, 차, 커피 등이다.

보스터도당의 인종격리정책에 의하여 아프리카인들은 공민권도 없는 무권리상태에 있으며 아프리카인거주지역에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고있다.

아프리카인들은 로조도 결성할수 없고 파업할 권리도 없다. 백인과 결혼할 권리도, 국제경기에 참가할 권리도 못가지고있다. 아프리카인로동자들의 로임은 백인로동자들의 로임의 약 47분의 1밖에 안된다.

인종차별로 하여 거의 모든 대학들에서는 아프리카인들의 입학을 금지하고있다. 입학을 《금지하지 않는》 불과 몇개의 대학에서도 아프리카인학생들의 비률은 0.05%밖에 안되며 중학교학생의 비률은 1%미만이다.

공용어는 영국말과 아프리칸말이며 원주민은 반투말을 쓴다.

주민의 대부분은 반투족이며 약 378만명의 백인, 200만명의 혼혈인, 61만명의 아세아사람이 있다.

출판보도; 통신 남아프리카통신

신문 인꿀루레꼬 (공산당기관지), 트란스버러 (정부계), 아거스, 케이프 타임스, 란드 데일리 메일

방송 남아프리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9월 남아프리카아프리카인민족대회 총서기 알프레드 느조를 단장으로 하는 이 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이해 6월 사로청 6차대회에 남아프리카청년대표가 참가하였다.

레 소 토

(레소토왕국)

아프리카의 남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둘러싸여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고원이다.

넓이 3만 355km²

인구 93만명 (1971년)

수도 마세루 (주민 1만 4,000명)

정 치

국왕 모쉐슈 2세, 헌법에 의하여 국가수반으로 되고있다. 국왕과 국회가 립권법을 가지고있다. 현국왕은 1970년 국회선거에서 야당의 편에 섰다고 하여 규탄을 받아 4월에 해외로 떠났다가 1970년 12월에 귀국하여 다시 왕의 자리에 앉았다.

국회 량원제로서 상원은 22명의 추장들과 왕이 임명하는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하원 (국민총회) 은 5년 기한으로 선거되는 6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총리 레부아 조나탄 (1965년 4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62년 5월 5일 창건, 1970년 1월 27일 국회선거에 처음으로 참가, 그후 비상사태선포로 비법화, 총비서 케나, 대회당 1952년에 창건, 《아프리카인화》를 주장하며 종족차별반대, 토지개혁의 실시를 요구하고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의 정치, 경제적 해방을 주장하고있다. 위원장 모크헬레 꿀리난드, 민족당 (집권당) 관리들과 부르죠아지들, 기독교도의 리익을 대변, 마레마틀로우자유당 국왕 모쉐슈2세의 지지자들의 정당, 로조대회

1966년 5월에 《영련방》내에서 독립을 쟁취하고 같은 해 10월 4일에 바수톨랜드로 불리여오던 나라이름을 레소토라고 고치였다.

독립후 미영제국주의자들과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부추김을 받은 조나탄도당은 1966년 12월 28일 무고한 애국자 170명을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1970년 1월 27일 독립후 처음으로 국회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결과 총의석 60석중 대회당이 36석을 차지함으로써 집권당인 민족당을 타승하였다.

이렇게 되자 조나탄은 영제국주의자들과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사촉밑에 1월 30일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비상사태》와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선거를 《무효》로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시켰다. 또한 바수톨랜드대회당 지도자들을 체포구금하였다.

1967년 5월 조나탄도당은 레소토에 피난해오는 남아프리카애국자들을 체포하여 보스터도당에게 넘겨줄데 대한 《인도협정》을 맺었으며 70여명의 남아프리카애국자들을 보스터도당에게 넘겨주었다.

경제, 사회문화

락후한 봉건적농업국가이다.

령토의 대부분이 산악지대이고 부침땅은 령토의 10%에 불과하다.

농업에서 기본은 양털생산을 위주로 하는 축산업이다. 지금 150만마리의 양과 80여만마리의 염소, 37만여마리의 소를 기르고있다. 그러나 이 많은 수의 집짐승은 얼마되지않는 추장들에게 장악되여있다.

주요농산물은 강냉이, 수수, 밀 등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쇠돌, 돌솜, 석탄, 금강석 등이 있으나 약간의 금강석채취를 제외하고는 개발되지 못하고있으며 가공공업도 없는 형편이다. 그렇기때문에 해마다 20여만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남아프리카의 광산과 농장들에 팔려가고있다.

운수에서는 산악의 오솔길을 따라 등짐으로 운반하는것이 기본으로 되여있으며 철길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수도 마세루를 련결하는 몇키로메터 안되는 지선이 있을뿐이다.

주요수출품은 양털, 가축, 집짐승, 밀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직물, 농기구, 금속제품 등이다.

대외무역에서 수입초과로 계속 적자를 내고있다.

국가예산에서도 수입보다 지출이 2배나 된다.

주민은 바수토족(80%)과 줄루족(20%)이다.

글모르는 사람수가 대단히 많고 보건시설도 적다.

공용어로 영국말을 쓰며 반투말과 줄루말도 쓴다.

출판보도; 신문 레소토 타임스 (관영, 레소토말과 영국말로 발간), 느케투 (바수톨랜드민족당기관지), 모에레트시 오아 바소토모할라바니

방송 레소토방송

말 가 슈

(말가슈공화국)

넓이 59만 6,000km²
인구 760만 4,000명 (1973년 12월)
수도 따나나리브 (주민 33만 5,000명)

정 치

전국인민개발리사회 (국회) 1973년 10월 21일선거, 총의석 162석중 18개 의석은 정부가 지명, 52석은 총선거를 통해, 92명은 제한된 선거를 통해 각각 선출된다.

대통령 가브리엘 라마난트 소아 (1972년 10월—),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수반으로 되며 임기는 5년이다.

정부 1972년 10월 4명의 군인과 6명의 민간인들로 구성, 정부수반 가브리엘 라마난트 소아 (국방부장겸임), 외교부장 디디에 라찌라까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제1비서 앙드리 앙자 러네 앙셀므, 독립대회당 1958년에 독립을 요구하여 투쟁한 5개의 진보적정당을 망라하여 창건, 적극적인 중립과 기본생산부문의 국유화, 토지의 재분배를 주장, 사회주의동맹 1972년 10월에 창건, 현정부를 지지, 사회민주당 1972년 《5월혁명》전까지 집권당으로 있었다. 프랑스와의 《협조》를 주장, 민족당, 통일당, 근로자로조련맹, 민주청년동맹

1958년 10월 14일 《프랑스공동체》안의 《자치공화국》으로 되였으며 1960년 6월 26일에 《프랑스공동체》안에서 독립을 달성하였다.

1972년 5월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인민들의 대중적인 투쟁에 의하여 독립후 정권을 잡고있던 반동적인 치라나나정권이 무너지고 군총참모장이였던 라마난트 소아를 수반으로 하는 새 정부가 수립되였다.

1973년에 라마난트 소아를 대통령으로 하는 새 정부는 《나라의 리익을 위하여, 민족통일의 리익을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1월에 말가슈정부는 프랑스와 1960년에 맺었던 《협조협정》을 폐기하고 6월에는 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협조협정을 맺었으며 말가슈에 프랑스 군사기지를 설치하는것과 군대주둔을 포함한 일련의 특권을 취소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9월 1일까지 이 나라 내정에 간섭하고있던 프랑스침략군이 완전히 철거하였다.

1973년말에는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령해권을 12마일로부터 50마일로 넓혔다.

이 나라 경제건설에서의 기본구호는 《경제의 말가슈화》이다. 이 구호밑에 1973년 8월 31일 대통령 라마난트 소아는 은행, 보험, 운수, 동력, 광업 및 대외무역을 비롯한 중요부문을 국유화할것이라고 선포하였다.

1973년 5월에 프랑지역에서 탈퇴하고 7월에 중앙은행을 내왔으며 자국화폐의 발행권을 회복하였다.

1973년 8월 아프리카—말가슈—모리셔스합동기구에서 탈퇴하였다.

1974년 1월에는 프랑스놈들이 경영하던 수개의 은행들을 국가의 통제하에 넘었다. 4월에 이 나라 정부수반은 자기의 힘으로 민족경제를 발전시킬것을 또다시 주장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민족적자주권과 독립, 평등과 호혜,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 국가관계를 발전시키고있으며 민족적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아프리카나라들의 투쟁과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1974년 4월 말가슈정부는 남아프리카, 남로데시아, 모잠비끄, 앙골라, 나미비아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는것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대부분이 농사를 한다.

부침땅은 약 300만헥타로서 령토의 약 5%에 불과하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와닐라 (향료의 일종), 담배, 사이잘삼, 벼, 마니오크, 감자, 바나나, 사탕수수 등이다. 와닐라생산은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지하자원은 흑연, 돌비늘, 린회석, 금, 베릴리움, 크롬 등이다. 흑연채굴량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제4위를 차지한다.

철길의 연장길이는 864키로메터이다. 약 10개의 비행장이 있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와닐라, 흑연, 운모, 담배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금속제품, 화학제품, 차량, 석유제품, 식료품 등이다.

말가슈종합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들이 있다.

공용어로는 말가슈말과 프랑스말을 쓴다.

아프리카에서 보건사업이 비교적 발전된 나라로서 10여개의 병원과 400여개의 진료소가 있다.

주민은 인도네시아계의 이메리나족(호바족)과 베치미사라카족(동해안일대), 베칠레오족(중앙고원의 남부), 치미헤티족(북동부)등으로 이루어진 말가슈사람이 99%를 차지한다.

주민의 대부분이 원시종교를 믿으며 기독교도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말가슈통신

신문 마다가스까라 마할레오데나, 꾸리에 드 마다가스까르, 라 레뷰블리끄

방송 말가슈방송, 말가슈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11월 16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말가슈 정부와 인민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1974년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말가슈는 알제리를 비롯한 제3세계나라들과 사회주의나라들이 제출한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하여》의 공동발기국이였으며 표결에서 말가슈대표는 우리 나라를 지지하여 찬성투표하였다.

1972년 11월 외교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말가슈정부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1973년 3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말가슈를 방문하였다.

까 나 리 아

(에스빠냐식민지)

아프리카의 서북쪽(마로끄의 서남부)에서 115키로메터 떨어진 대서양에 있는 12개의 섬으로 이루어져있다. 대서양교통의 요충지이다.

넓이 7,273km^2

인구 100만명

행정중심지 산따 끄루스 데 떼네리페(주민 13만 5,000명)

정 치

정당, 사회단체; 까나리아섬 민족자결독립운동 1960년에 조직된 까나리아자치운동에 기초하여 1964년 10월 22일에 결성된 투쟁조직, 알제에 대표부를 두고있다. 총비서 안또니오 꾸빌로, **까나리아조선친선협회** 1971년4월 26일 결성

전략상 중요한 까나리아섬은 1516년에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되였다. 강점초기부터 인민들은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왔으며 특히 1960년초에 까나리아자치운동이 조직되면서부터 민족적독립을 요구하는 투쟁은 더욱 강화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한다. 밀, 보리, 바나나, 옥과, 사탕수수, 포도, 감자, 귤 등을 심는다.

집짐승으로서 소, 염소, 양, 락타 등을 기르고있다.

공업으로는 원유정제공장, 세멘트공장, 화학공장, 수산물가공공장이 있다.

미제의 석유독점회사가 급유탕크를 건설하고 많은 리윤을 짜내고있다.

주요수출품은 바나나, 물고기통졸임, 남새, 담배 등이며 수입품은 연료와 직물 등이다.

15세기중엽에 구라파식민주의자들이 이 섬에 대한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였을 때 인민들의 반항심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건설한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다.

주민은 대부분이 베르베르족태생인 까나리아족이고 그외에 에스빠냐인, 인도인, 독일인 등이 있다.

언어는 에스빠냐말을 쓴다.

인민들은 식민주의자들의 착취와 압박을 받으면서 빈궁과 기아에 시달리고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6월 우리 나라 사로청 6차대회에 까나리아섬민족자결독립운동대표가 참가하였다.

쎈트 헬레나

(영국식민지)

아프리카의 앙골라 서해안으로부터 서쪽으로 1천 920키로메터 떨어진 대서양에 있는 화산섬이다.

이 섬은 남아프리카로부터 서아프리카 앞바다를 거쳐서 구라파에 이르는 항로의 기항지, 중계지로 되고있다.

넓이 122km^2

인구 4,760명

행정중심지 제임스타운 (주민 1,700명)

정 치

1637년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영제국주의자들은 이 섬에 침략적군사기지를 설치하고 해군함대의 기지로 리용하고있다.

1956년 6월 1일부터 《내부자치제》가 실시되고있다. 영국총독이 형식상《내부자치제》에 기초하여 수립된《립법회의》와 《행정평의회》를 통하여 통치하고있다. 《립법회의》와 《행정평의회》 의장직은 총독이 겸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목축업 그리고 이 섬에 정박하는 선박들의 봉사사업에 종사한다.

경제의 기본은 아마재배이며 기타 남새, 과실 등도 심는다.

주요집짐승는 소와 양이다.

공업으로는 몇개의 아마가공공장과 레스공장이 있다.

아마(총수출의 85%)를 수출하고 식량과 공업제품을 수입한다. 무역에서 수출입은 영국이 독점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는다.

소학교 8개와 중학교 4개가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영국말을 쓴다.

출판보도; 신문 뉴스레뷰(주간지)

방송 쎈트 헬레나방송

산토메 프린시페

아프리카의 서부 기네만에 있는 화산섬이다. 강수량이 많고 따뜻하다.

넓이 964km^2 (산토메섬 836km^2)

인구 6만 6,000명

행정중심지 산토메 (주민 8,000명)

정 치

정당, 사회단체; 산토메 프린시페 해방위원회 민족적독립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정치조직, 현재 비법화, 총비서 토마스 메데이로스, **민족인민행동(집권당)**

1485년 뽀르투갈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951년에는 《해외주》로 되였다. 산토메섬은 뽀르투갈식민주의자들의 《정치범》의 류형지였다.

뽀르투갈총독이 형식상의 립법 및

행정기구를 두고 통치하였으며 산토메에는 뽀르뚜갈의 공군기지와 해군기지가 있다.

이 나라 인민들은 식민주의자들이 나라를 강점하자 산토메 프린시페해방위원회의 령도밑에 민족해방투쟁을 벌려왔으며 마침내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로부터 나라를 해방하고 민족적독립을 쟁취하게 되였다.

1974년 11월 26일 알제리수도 알제에서 뽀르뚜갈과 산토메 프린시페해방운동사이의 독립협정이 조인되였다. 협정에 의하면 1975년 7월 12일에 산토메 프린시페가 독립하게 되며 그때까지 림시정부가 행정권을 행사한다. 산토메 프린시페 해방운동부 총비서가 지도하는 림시정부는 이 해방단체의 4명의 대표들과 뽀르뚜갈이 임명한 부장으로 구성된다. 림시정부는 독립이전까지 선거법을 작성하며 민족회의 선거와 헌법초안을 준비한다.

경제, 사회문화

주요농산물은 코코아, 커피, 코프라 등이다. 코프라는 1년에 1천 300~1천 500톤 생산된다.

땅의 대부분은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이 차지하고있다. 원주민이 가지고있는 부침땅은 1인당 0.17헥타에 불과하다.

수산업도 하고있다. 년간어획고는 770톤정도이다.

집짐승으로서는 말, 노새, 당나귀(320마리), 소(3천 100마리),양(2천 300마리), 염소(1천마리) 등이 있다.

이 나라에는 2개의 작은 제분소가 있다.

주요수출품은 코코아 (수출총액의 70%), 커피, 코프라, 종려유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과 섬유제품 등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문맹자이다. 소학교 43개, 중학교 1개, 기술학교 1개가 있는데 가난한 원주민자녀들은 거의나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있다.

주민은 반투족(90%), 메티스족(8%)이다.

출판보도; 신문 볼레띵 오피씨알(주간지), 아 보즈 데 산토메(주간지)

방송 산토메 프린시페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6월 산토메 프린시페해방위원회 성원들로 조직된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대표단이 우리 나라 사로청 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세 이 쉘

(영국식민지)

인도양남서부에 있는 92개 섬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사람이 살고있는 섬은 64개이며 가장 큰 마에섬(145평방키로메터)에 총인구의 80%가 살고있다. 해양성아적도기후이다.

넓이 404km²

인구 5만 5,000명 (1971년)

행정중심지 빅토리아 (주민 1만 4,200명)

정당,사회단체; 세이쉘제도인민통일당 민족적독립을 주장한다. 위원장 레네, 민주당, 세이쉘당 9개의 로조단체들이 있다.

1794년부터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970년 3월부터 새《헌법》에 따라《내부자치제》가 수립되였다. 형식상《립법회의》와 《행정평의회》라는것이 있기는 하나 영국총독이 실권을 쥐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어업과 농업을 한다. 주요농산물은 야자, 커피, 향료, 겨자, 목화, 담배 등이다. 주민은 반투족, 인도인, 구라파인 등이 있다.

출판보도; 신문 피플(인민통일당기관지), 세이쉘 위클리(민주당기관지)

방송 세이쉘방송

모 리 셔 스

(모리셔스공화국)

넓이 2,045km²

인구 83만명 (1971년)

수도 포르루이스 (주민 15만명)

정 치

국민회의 일원제, 의석수 70석

정부 1969년 12월에 민족통일정부(레이버당, 사회민주당, 회교행동위원회의 3당련립정부)가 구성, 총리 시우사구르 람굴람 (1967년~), 외무, 관광 및 이민부장 쥴스 개란 두발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위원장 엘찬드라문, 레이버당(집권당) 1936년에 창건, 인도인출신의 사람들속에서 영향력을 가지고있다. 사회민주당(집권당) 혼혈인출신의 부르죠아지들과 지주들의 리익을 대변, 남아프리카와 아프리카나라들 사이의《대화》를 지지, 회교행동위원회, 민주동맹 1970년 11월 사회민주당에서 갈라져나와 조직, 독립전위별력, 투사운동, 로동련맹, 로조련맹, 로동대회, 공산주의청년동맹

1968년 3월 12월 영련방안에서 독립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73년 5월 14일 중앙아프리카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2월 27일에는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를 승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사탕수수 생산이다. 부침땅의 94%가 사탕수수밭이다. 사탕생산의 60%를 22개의 프랑스-모리셔스합영회사가 쥐고있다. 그밖에 담배, 차, 커피, 향료도 약간 가꾸고있으며 식량은 수요의 10분의 1도 생산못하며 매년 오스트랄리아 등에서 10여만톤의 식량을 수입한다.

공업은 거의 없고 22개의 사탕수수가공공장과 목재가공공장, 선박건조 및 수리공장 등이 있다.

관광업도 발전시키고있다. 1972년에 5만명의 관광객을 받아들였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자동차길은 1천 323키로메터, 철길은 총연장 43키로메터이다.

주요수출품은 사탕과 차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운수수단, 공업제품 등이다.

종합대학 한개와 초등 및 중등학교 100여개가 있다. 어린이들의 90%가 공부하고있다. 고등교육기관들에서는 자체로 양성한 모리셔스교원들이 교육사업을 맡아보고있다.

주민은 인도사람과 파키스탄사람이 67%, 혼혈인과 구라파사람이 30%, 중국사람이 3%를 차지한다.

구라파인과 크레올은 기독교, 인도인은 힌두교, 나머지는 회교, 불교를 믿는다.

공용어는 영국말과 프랑스말이다.

출판보도; 신문 액숀(영어, 프랑스어), 어드반스(영국말, 프랑스말), 로브, 탁시옹, 더 네이숀

방송 모리셔스방송, 모리셔스텔레비

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10월 4일 우리 나라와 총령사관계를, 1973년 3월 16일에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8년 9월 9일 모리셔스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으며 1971년 1월에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모리셔스위원회》가 결성되였다.

모리셔스조선친선협회성원들이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로므니아에서 공부하는 모리셔스학생들이 《김일성동지의 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1971년에 모리셔스에서《김일성동지도서관》이 개관되였다.

신문《더 네이숀》1974년 5월호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1974년《신년사》를 실었다.

신문《어드반스》11월 20일호는 로작《다오메정부기관지 〈다오멕스프레스〉 사장과 한 담화》를 실었다.신문은 로작을 실으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셨다.

신문《더 네이숀》11월 19일호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로작《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실었다. 신문은 로작을 실으면서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였다.

레 유 니 옹

(프랑스식민지)

아프리카의 남동쪽 인도양에 있는 말가슈로부터 동쪽으로 780km 떨어진 마스카렌제도에 있는 원추형의 화산섬이다. 열대해양성기후이다.

넓이 2,510km²
인구 45만명
행정중심지 쌍드니(주민 8만 9,000명)

정 치

의회 해외령의회로서 1971년 3월선거에 의하여 36명으로 구성되였는데 실권은 없다. 프랑스국민의회에서 3석을, 참의원에서 2석을 차지하고있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프랑스공산당지부로 있다가 1959년 5월부터 독점적인 정당으로 되였다. 의회에서 2석을 차지하고있다. 총비서 뽈 베르제스

1643년에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793년부터 레유니옹 (이전에는 부르봉이라고 부름) 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1810년부터 영국식민지로, 1815년에는 다시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946년 3월 19일에는 프랑스의《해외주》로 되였다.

프랑스정부가 보내는 지사가 통치하며 지사는 레유니옹의 최고집권자이다.형식상 의회는 있으나 실권은 없다.

경제, 사회문화

사탕생산이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인구의 절반이상이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사탕수수, 마니오크, 커피, 담배, 벼, 감자, 콩, 땅콩 등이다.

공업으로는 사탕생산을 주로 하는 소규모적인 농산물가공공장이 있다.

프랑스독점체들이 경제전반을 틀어쥐고있다.

철도운수와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은 섬둘레를 따라 고리처럼 놓여있으며 내륙지방과 몇군데 련결되여있을뿐이다.

사탕과 알콜이 수출액의 90%를 차지한다.

주요수입품은 쌀, 비료, 방직제품, 사탕공업설비, 연료 등이다.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매우 낮다.

글모르는 사람이 60%나 된다.

공용어로는 프랑스말을 쓴다.

사탕수수가을이 끝나면 년중 7~8개월동안은 계절적인 실업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인구의 20%가 결핵환자이다.

주민의 4분의 3이 구라파사람이며 그밖에 인도사람, 말가슈사람들이 있다.

주민은 85%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떼무아나쥐 (공산당기관지), 쥬르날 드 질 드 라 레유니옹, 라 데모끄라씨, 레 꾸리에 듀 뻬뽈

방송 레유니옹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기간에 공산당 총비서 뽈 베르제스를 단장으로 하는 공산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대표단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꼬 모 르

(프랑스식민지)

넓이 2,171km²
인구 29만명
행정중심지 모로니(주민 1만 1,500명)

정 치

정부 1973년 1월 7일 민주동맹과 인민민주회의의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총리 아호메드 아브달라호

정당 사회단체; **민주동맹** (집권당), **인민민주회의** (집권당), **꼬모르민족해방운동** 1963년에 창건된 진보적정당으로서 이 나라에서의 반식민주의투쟁을 지도하고있다. 1964년부터 비법화.

1912년 프랑스식민지로 되였다.

1957년에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이 섬을 제놈들의《해외령》으로 선포하였다.

1972년 12월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이 나라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못이겨《자치정부》를 구성하는데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프랑스국회 상원의 꼬모르대표로 파견되여있던 아호메드 아브달라호가《자치정부》총리로 선거되였다.

프랑스고등판무관이 재정, 국방, 외교 등의 모든 실권을 틀어쥐고있다.

1974년 12월 22일에 꼬모르에서 독립에 관한 국민투표가 진행되였으며 95.56%가 찬성투표하였다.

프랑스는 1975년 3월에 꼬모르제도의 독립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들은 주로 양을 기르며 야자, 와닐라 (향료의 일종), 코코아, 바나나 등을 재배한다. 주요 농산물은 커피,사이잘삼, 코코아, 야자,사탕수수, 목화, 와닐라, 바나나 등이다. 회교를 믿는다. 주민은 안떨라우또라족, 말가슈족, 인도족 등이 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6월 꼬모르민족해방운동청년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라 틴 아 메 리 카

정 세 개 관

1974년에 라틴아메리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더욱 널리 빛발쳐갔으며 주체사상을 뜨겁게 받아안은 이 지역에 반제자주의 기치가 그 어느 때보다 힘있게 휘날렸다.

이해에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혁명가들과 민주인사들, 정치가들과 사회활동가들, 청년일군들과 녀성활동가들이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직접 만나뵙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찾아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은 칠레사회당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당대표단, 칠레로동자농민통일행동운동당 부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당대표단,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부부, 뻬루 《엑쓰쁘레쏘》신문 주필부부, 유엔주재 뻬루상임대표, 빠나마신문들인 《엘 빠나마아메리카》주필과 《마뚜띠노》 주필, 에꽈도르 《불룬따드》출판사 사장, 아르헨띠나국회대표단, 아르헨띠나소년대표단, 아르헨띠나기자대표단, 아르헨띠나주재 꼬스따 리까대사부부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고 돌아갔다.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가르치심을 받는 자리에서 그들은 한결같이 《수령님을 만나뵈은 이 날은 자기의 일생에서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에꽈도르 《불룬따드》출판사 사장), 《현시대, 혁명의 시대의 가장 능력있고 높은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계시는 지도자이시며 위대한 혁명가이신 수령님을 직접 만나뵈옵게 된것은 최대한의 영광》(빠나마기자대표단)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체사상은 그 위대성과 거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적용하여야 할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사상》 (유엔주재 뻬루상임대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전세계의 모든 자주적인 민족들이 견지하여야 할 사상》 (빠나마기자대표단)이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1974년에 세계혁명적인민들과 더불어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조직들과 광범한 사회계인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읽고 자기들이 나아갈 길을 찾았다. 하기에 가이아나 수도 죠지타운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만을 전문으로 하는 서점이, 꾸바에는 《영웅조선》도서관, 《보천보도서관》이 나온 이래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요구하는 수많은 독자들로 붐비였다.

이해에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출판보급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그이께서 지니신 인민적사업작풍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이해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빠나마기자대표단과 한 담화》, 뻬루 《엑쓰쁘레쏘》 신문 주필부부를 접견하시고 하신 담화전문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 라틴아메리카 전대륙에서 광범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단행본으로 번역출판되고 수많은 신문, 잡지들에 실렸다.

그리하여 주체의 해발은 라틴아메리카대륙에 더욱 휘황히 퍼져갔으며 미제의 지배와 통제를 반대하며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려는 이 지역인민들의 반제자주의 투쟁을 그 어느 해보다도 세차게 고무하였다.

또한 이들의 우리 나라 방문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국가주석으로 높이 우러러모신 사회주의 우리 나라는 라틴아메리카의 광범한 인민들속에 보다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1974년에 우리 나라에서 정부대표단을 비롯한 여러 부문대표단들의 라틴아메리카방문은 우리 나라와 이 지역나라 인민들사이의 서로의 리해를 깊게 하고 련대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계기로 되였다. 우리 나라 대표단을 접견한 나라들의 국가 및 정부 수반, 공식인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의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놀라운 과들에 높은 찬사와 경탄을 표시하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정을 표시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 령도밑에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이고 혁명적 대외정책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이 에 우리 나라는 꼬스따 리까, 가이나, 베네수엘라, 쟈메이카와 새로 사급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뻬루에 정부급 무역대표부를 설치하였다. 지역에서 우리 나라와 관계를 맺으는 나라들은 날로 늘어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오랜 세월 틀고아 주인행세를 하며 제놈들의 《가공고한 지대》라고 떠벌려온 라틴아리카에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 대한 지지자, 동정자가 늘어나 국제 련대성이 급속히 강화되였다.

1974년 11월에 뻬루의 수도 리마 서는 라틴아메리카의 20개 나라의 1 여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정계 사회계, 학계, 언론계 인사 1천여명 참가밑에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 지지하는 라틴아메리카회의》가 성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드리는 전문이 참가자들의 열광적 박수속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의에서는 또한 총선언, 권고문, 전 계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라틴 메리카나라 외교부장들에게 보내는 지, 유엔총회 제29차회의 의장에게 내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회의와 때 같이 하여 우리 인민의 자주적평화 일위업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을 표 하는 서명운동이 광범히 벌어졌다.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유엔의 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 철거시킬데 대한 우리측 결의안에 러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찬성하였 나 동정을 표시하였다.

이해의 이 모든것은 라틴아메리카 륙에서도 우리 혁명위업을 지지성원 는 혁명력량이 급속히 자라나고 뿌 를 내리기 시작하였다는것을 보여주 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미제의 지배와 통제를 반대하고 정치적자주권 과 자연부원, 령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습니다.》(《뻬 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19페지

1974년에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지반을 허물어버리며 자연부원과 령해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제국주의독점체들의 경제적리권을 박탈하고 그들이 틀어쥐고있던 공장, 기업소들과 자연부원을 국유화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페루에서 300만헥타의 광물산지를 독점하고있던 미제의 《쎄로 데 빠스꼬》광업회사의 국유화, 베네수엘라에서 미제의 석유독점회사 《크레올》산하의 10개의 석유 기업소 및 산지들의 몰수, 그리고 놈들이 틀어쥐고있던 철광업의 국유화는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돌이킬수 없는 타격으로 되였다.

이미 여러차례 외래독점체들의 리권을 박탈하고 통제를 강화하여온 에꽈도르정부는 이해에 미제의 석유독점체인 《텍사코 갈프》회사의 대부분의 주권을 차지하였을뿐아니라 놈들에게 막대한 벌금을 들씌웠으며 아르헨띠나는 대부분 미제의 소유였던 석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와 분배 체계를 몽땅 국유화하였다. 그리하여 가이아나, 빠나마, 져메이카, 트리니대드 토바고, 꼴롬비아, 꼬스따 리까 그 어느 나라할것 없이 제국주의독점회사들의 국유화와 그의 리권의 제한과 박탈, 제국주의《원조》의 거부와 자본투자의 제한, 자체원료가격의 인상, 놈들의 영화상영과 텔레비죤방영의 금지 등 모든 령역에 걸쳐 반제자주적인 투쟁은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전라틴아메리카대륙을 휩쓸었다.

200마일령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제3차유엔해양법회의에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의 해양독점권을 반대하고 200마일령해권과 경제수역권을 끝까지 지켜낼 확고한 결의를 표시하였다. 라틴아메리카및까리브해지역 수출국협회련맹 제4차회의는 《리마선언》을 채택하고 200마일령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기로 결정하였다. 페루와 에꽈도르 등 여러 나라들이 령해와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해적선과 강도들에 대한 단호한 징벌을 안겼다.

미제의 착취와 략탈을 반대하고 자연부원을 지키기 위하여 이해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서로 단결하고 지지하며 공동으로 제국주의자들과 맞서 싸웠다.

1974년 7월에 있은 메히꼬와 다른 7개국 수뇌자들과 대표들의 쌍무회담들과 12월에 페루에서 있은 8개국 수뇌자들과 대표들의 리마회의, 같은달에 베네수엘라에서 있은 7개국 수뇌자들의 파야나회의들에서는 이 지역나라 인민들의 통일과 단결, 경제적협조를 일층 강화하며 자기들의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지켜내기 위하여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략탈행위를 반대하여 싸울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그리하여 페루에서는 《아야꾸쵸선언》이, 베네수엘라에서는 《파야나선언》이 채택되였다.

또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바나나수출국동맹, 커피생산국기구, 육류생산국기구, 라틴아메리카동력기구, 사탕수출국기구 등을 새로 조직하여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략탈을 끝장내고 민족적리익을 수호하며 자연부원에 대한 공정한 값을 받아내기 위한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라틴아메리카의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미제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라틴아메리카자유통상협회, 중미공동시장, 까리브공동시장, 안데스공동시장, 라쁠라따지역국가동맹, 라틴아메리카특별조절위원회와 같은 지역적시장과 기구에 의거하여 경제적협조를 강화하고 통상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나아가서 이 대륙나라들은 미제의 정치, 경제적 압력을 뿌리치고 사회주의나라들, 제3세계나라들과 외교관계, 경제통상 관계를 확대강화하고있다.

미제의 《고요한 뒤동산》으로 오랜세월 짓눌려온 이 대륙이 허리를 펴기 시작하였으며 미제의 면전에서 당당히 자기의 목소리를 높였다. 베네수엘라대통령은 《미국은 나치스트과쑈제국주의를 무색케 할 경제전제주의자들》이라고 신랄히 규탄하면서 원래는 1983년까지 국유화하기로 계획하였던 미제석유독점체들의 기업소들을 1년안으로 당장 국유화하겠다고 선포하였다. 메히꼬대통령은 《메히꼬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과 힘을 합쳐 대륙나라들의 자원을 지켜낼 준비가 되여있다.》, 《하나의 공동전선을 무어야 한다》, 《우리는 단결하여 본때있게 싸워야 한다》고 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의 무제한한 략탈정책으로 부터 원료와 자원을 지켜낼것을 이 대륙나라들에 호소하였다.

미제가 1962년이후 꾸바를 《봉쇄》하며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리용하여 오던 《미주국가기구》는 사실상 와해상태에 빠졌다. 11월에 진행된 이 기구회의에서 칠레의 삐노체트도당과 같은 한두개 친미독재나라들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꾸바에 대한 《봉쇄》를 당장 걷어치울것을 요구하였다. 메히꼬, 페루, 빠나마 등 여러 나라들은 미제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여온 《미주국가기구》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해에 빠나마 정부와 인민은 70여년간 운하와 운하지대를 강점하여온 미제를 신랄히 규탄하였으며 빠나마인민의 정당한 위업을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우리는 운하지대와 같은 식민지령토가 우리 나라의 심장부에 존재하는 한 진정한 독립을 이룩할수 없다. 빠나마는 보호령이나 식민지로는 되지 않는 길을 택하였다.》는 정부의 단호한 립장을 지지하여 빠나마인민은 《양키는 짐승이다》, 《살인자이다》, 《나라의 완전한 자주권을 위하여》, 《완전한 정치적독립을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줄기찬 투쟁을 벌렸다. 페루, 아르헨띠나, 메히꼬를 비롯한 이 대륙의 수많은 나라들은 물론 어제날까지 미제국주의자들을 무조건 충실히 떠받들어 온 브라질과 같은 나라도 《미주국가기구총회》에서 빠나마에 대한 미제의 부당한 《결의안》을 반대하고 빠나마의 립장을 지지하여 나섰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벌어진 이 모든 사실들은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시대의 막을수 없는 추세와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며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이 지역나라 인민들의 념원과 지향의 반영이였다.

주체사상의 휘황한 빛발 따라 자주의 정신으로 각성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이 대륙이 더는 미제의 《고요한 뒤동산》으로 남아있지 않게 되였으며 미제를 정면에서 후려갈기는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의 대륙으로 되였다. 하여 미제는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안식처를 잃어버리고 가는곳마다에서 고립배격당하였다.

지난날 이 대륙에서 《제왕》으로 행세하여온 미제가 자기의 세력권과 지배령역을 이처럼 잃고 볼품없는 존재로 버림받은적은 일찌기 없었다.

이해에 라틴아메리카에서 벌어진 제반 사변들은 미제가 이 대륙을 《안전한 후방》, 《세습령지》로 여기던 시대는 영영 자취를 감추고있으며 이 대륙 인민들이 미제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의 기발을 높이 추켜들고 제3세계의 한 대오에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꾸 바

(꾸바공화국)

넓이 11만 4,524Km²
인구 874만 9,000명(1972년)
수도 아바나(주민 175만 5,360명 1970년)

정 치

대통령 오스발도 도르띠꼬스 또라도 (1959년 7월 17일—)

혁명정부 립법권과 행정권을 가진다. 총리 피델 까스뜨로 루쓰(1959년 2월 16일—)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1962년 3월 8일에 《7월 26일운동》, 인민사회당(공산당), 《3월 13일혁명지도부》를 통합하여 《통일혁명조직》을 창건하였다가 1963년초에 사회주의혁명통일당으로 고쳤다. 1965년 10월 2일 사회주의혁명통일당 중앙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당의 이름을 공산당으로 고쳤다.

제1비서 피델 까스뜨로 루쓰

근로자로조중앙, 공산주의청년동맹, 녀성련맹, 소농협회, 혁명수호위원회

꾸바인민은 1959년 1월 1일 친미주구 바띠스따독재정권을 뒤집어엎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다.

1959년 2월 16일 피델 까스뜨로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정부가 수립되였다.

혁명승리후 꾸바 공산당과 혁명정부는 혁명의 전취물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사회경제개혁을 실시하였다.

혁명정부는 낡은 통치기구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1959년 5월, 1963년 10월 두 차례의 토지개혁으로 전국토지의 75%를 몰수하여 땅없는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거나 국영농목장을 만들었다.

1960년 8월 6일과 10월 25일에 공포한 《국유화법》에 따라 산업국유화를 실시하여 800여개의 미제독점체들과 그 주구들의 공장, 기업소, 은행들을 몰수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경제봉쇄》, 《외교관계단절》등으로 꾸바혁명을 질식시키려고 날뛰면서 라틴아메리카반동들을 긁어모아 1960년 8월 16일 이른바 《싼 호세선언》을 꾸며냈다. 꾸바혁명정부는 혁명의 전취물을 끝까지 고수할 자기 인민의 견결한 립장을 표명한 《제1아바나선언》(1960년 9월 2일)을 발표하였다.

1961년 4월 19일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꾸바를 또다시 삼켜보려고 약 2천명의 고용병을 쁠라야 히론에 들이밀었으나 놈들은 꾸바인민의 용감한 투쟁에 의하여 단 72시간내에 격멸소탕되고 말았다.

미제국주의자들은 1962년 1월 《미주국가기구》외교부장회의를 벌려놓고 꾸바를 이 기구에서 제명하며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나라들이 꾸바와 외교관계를 끊게 하는 반꾸바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꾸바에서는 《제2아바나선언》을 발표하였다.

영웅적꾸바인민은 1962년 10월 미제에 의하여 조성된 《까리브해위기》때에도 놈들의 《해상봉쇄》를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함으로써 꾸바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내였다.

1974년 1월 2일 꾸바인민은 혁명승리 열다섯돐을 성대히 기념하였다. 이날 수도의 호쎄 마르띠혁명광장에서는 열병식이 진행되였다.

5월 15일 꾸바혁명정부는 인민정권기관들을 선거한다고 공포하였다. 혁명승리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 선거는 마딴사스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여기에서 이룩된 경험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6월 30일 마딴사스주에서 선거가 진행되였다.

꾸바인민의 7월 26일 무장봉기 스물한돐에 즈음하여 마딴사스주소재지인 마딴사스에서 7월 26일 군중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에서 연설한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혁명정부 총리인 피델 까스뜨로동지는 1975년 하반년에 공산당 제1차대회가 진행된다고 말하였다.

1월 13일 혁명승리후 15년동안에 전투정치훈련에서 모범을 보인 군관들에 대한 《혁명군선봉대》메달수여식이 진행되였다. 4월에는 쁠라야 히론전투에서 민병들이 세운 공적을 기념하여 제정된 《민병절》에 즈음하여 민병성원들에게 예비역군관칭호수여식이 진행되였다. 7월 23일 호쎄 마르띠혁명광장에서는 군관학교 학생들의 졸업식이 있었다.

7월초에 사회, 경제 및 문화 발전과업의 성과적해결을 위하여 전국과학기술위원회가 내각직속으로 창설되였다. 새 기관의 임무는 연구사업과 그의 실천적적용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974년에 꾸바에서는 공산주의청년동맹 제7차대표자회(4월), 기자동맹 제3차대회(6월), 녀성련맹 제2차대회(11월)가 각각 진행되였다. 녀성련맹 제2차대회에서는 나라의 건설에 녀성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그밖에 이해에 꾸바혁명수호위원회 제3차전국결산선거회의(2월), 축산문제에 관한 제4차전국회의(2월), 제3차전국청년기술작업반회의 등이 진행되였다.

1974년에 꾸바 혁명정부와 인민은 대외관계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는 꾸바혁명을 질식시켜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여왔으나 꾸바공화국에 대한 그들의 봉쇄고립화정책은 날로 더욱 파탄되고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미제의 반꾸바책동을 짓부시는 투쟁이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놈들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는 투쟁의 한부분으로 된다는것을 깊이 깨닫고 미제의 반꾸바책동에 반기를 들고나왔으며 꾸바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1974년초에 아르헨띠나와 카나다는 미제의 반꾸바 《경제봉쇄》책동을 배격하고 꾸바와의 무역을 재개하였다. 아르헨띠나는 미제가 저들의 《법》을 자기의 령토밖에까지 적용하여 꾸바에 대한 수출금지를 취하고있는데 대하여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고 하면서 미제독점체들이 아르헨띠나에서 생산한 자동차까지도 꾸바에 대대적으로 수출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카나다정부는 자기 나라에 있는 미제의 독점회사인 《엠. 엘. 더블유》에서 생산한 디젤기관차 25대를 꾸바에 수출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라틴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1974년 11월 에꽈도르 수도 끼또에서 진행된 《미주국가기구》외교부장회의에서 이 기구의 개편을 주장하였으며 미제의 꾸바에 대한 정책을 변경시킬것을 요구하였다. 회의에서 베네수엘라, 꼴롬비아, 꼬스따 리까가 꾸바에 대한 정치경제적 《제재조치》를 취소할데 대한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이 결의안은 아르헨띠나, 뻬루, 베네수엘라, 꼬스따 리까, 빠나마, 메히꼬, 에꽈도르, 꼴롬비아, 트리니대드 토바고, 온두라스, 도미니까, 살바도르 등 12개 나라들의 일치한 지지를 받았으며 미제를 충실히 떠받들고있는 친미독재국가(칠레, 빠라과이, 우루과이)들을 제외한 그밖의 나라들까지 이 제안에 동정(볼리비아, 브라질, 과떼말라, 아이띠, 니까라과)을 표시하였다. 미제의 반꾸바정책을 변경시킬것을 요구한 12개 나라들은 표결직후 성명을 발표하여 《미주국가기구》가 미제에 의하여 부당하게 운영되고있는데 대하여 규탄하고 아직 꾸바와 외교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나라들이 곧 국교관계를 회복할 의향을 표시하였다. 그리하여 미제에 의하여 좌지우지되고있던 놈들의 침략기구 《미주국가기구》는 붕괴직전에 다달았다.

꾸바혁명정부는 1974년에 빠나마와 외교관계를 회복(8월 22일)하였고 2월에 다오메, 부룬디, 3월에 가봉, 4월에 말가슈, 자이르, 리베리아, 5월에 우간다, 쿠웨이트, 8월에 세네갈, 까메룬, 11월에 라오스 등 세계 여러 나라들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꾸바와 뻬루간의 협조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 (8월)됨으로써 농업, 광업 및 가공공업, 어업, 교육 및 기타 분야에서 협조관계가 일층 강화되였다. 또한 꾸바와 스위스사이의 정기항로를 개설할데 관한 협정(2월), 꾸바와 체스꼬슬로벤스꼬간의 경제및과학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 (10월)가 각각 조인되였다.

1974년에 꾸바공산당 제2비서이며 혁명정부 제1부총리이며 혁명무력부장인 라울 까스뜨로를 단장으로 하는 꾸바 당및정부대표단이 유고슬라비아를 방문(2월)하였다. 그는 7월에 뻬루도 다녀왔다. 또한 독일사회통일당 제1비서 에리히 호네케르를 단장으로 하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2월), 알제리혁명리사회 의장이며 내각총리인 후아리 부메디엔(4월), 탄자니아대통령 니에레레(9월),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야씨르 아라파트(11월)가 꾸바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꾸바에서 혁명승리후 토지개혁을 실시한 결과 농촌에는 인민농장과 소농협동농장의 두 형태가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농업에서 주되는 작물은 사탕수수이다. 꾸바는 세계에서 사탕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이다. 사탕은 이 나라 국민소득의 약 30%를 차지한다. 150만헥타르의 부침땅에 사탕수수를 심으며 1만대의 사탕수수적재기, 수많은 사탕수수수확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기계들이 사탕수수농장에서 일한다. 이 나라의 6개의 주가운데서 오리엔떼주, 까마구에이주, 라스 빌랴스주들이 사탕수수를 제일 많이 심는다.

1974년에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은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100만아로바(1아로바=11.5키로그람)의 사탕수수를 먼저베기투쟁을 벌렸다. 4월중순에 500여개의 사탕수수가을작업반들이 100만아로바의 사탕수수를 베여 영예의 《100만아로바작업반》칭호를 쟁취하였다.

그밖에 주요농산물로서는 벼, 강냉이, 콩, 땅콩, 마니오크, 감자 등 알곡류와 귤, 커피, 레몬, 코코아, 파인애플과 같은 열대작물을 심는다. 담배도 많이 심는다. 1973년에 삐노스섬의 감귤류농장에서만도 1만 3천톤의 감귤을 따들였다.

이해에 꾸바에서는 농작물의 안전한 수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저수지공사를 다그치고 물원천을 적극 찾아낸 결과 저수량은 40억립방메터에 달하였다.

식생활에서 뗄수 없는 고기문제를 풀기 위하여 소, 닭, 돼지를 위주로 한 집짐승을 많이 기르고있다. 1972년 현재 방목지는 3천 800여개에 달하였으며 소는 혁명전 1952년의 400만마리로부터 1971년에 730만 2천여마리(그중 젖소 466만 7천마리)로 늘었다. 오리엔떼주에만도 1974년에 7만 9천 800마리의 소가 있었다. 꾸바에는 전국적으로 19개의 인공종축장이 있다. 1974년에 15억개이상의 닭알을 생산하였다.

5개년계획 (1971~1975년)말에 가서 꾸바에서는 사탕수수가을의 약 40%가 기계화되며 쌀과 부식물 그리고 남새는 자체 충족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담배생산의 전통을 살리며 레몬, 커피, 파인애플 생산을 계속 늘이며 소젖생산을 2.3~3배로 늘이는 동시에 소마리수와 고기생산을 높이게 된다.

꾸바의 공업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사탕공업이며 사탕은 외화수입의 중요원천이다. 사탕공업은 공업총생산액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사탕의 수출은 수입지출을 위한 자금의 80%이상을 감당하고있다. 해마다 평균 570만톤의 사탕이 생산되며 최고기록을 낸 1970년에는 850만톤까지 올라갔다. 사탕생산의 대부분을 40여개 나라들에 수출한다.

그밖에 광업, 전력, 야금, 세멘트, 방직, 식료, 화학 공업을 발전시키고있다. 원유, 니켈, 망간, 크롬, 코발트, 쇠돌, 동 등을 채취하고있는 광업부문에서는 특히 니켈채취에 힘을 넣고있다. 니켈은 매장량에 있어서 세계에서 첫번째, 채취량은 세계에서 세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야금, 기계제작, 화학, 전력 공업부문안의 공장, 기업소들의 절반이상이 1974년도 첫9개월분 생산과제를 넘쳐수행하였다. 제일 큰 강철기지인 《호쩨 마르띠》야금공장은 년간생산과제를 107%로 완수하였다. 1974년에 모두 20만 8천여톤의 철을 생산하였다. 《니꼬 로뻬스》, 《에르마노스 디아스》, 《쩨르히오 쏘또》를 비롯한 꾸바의 원유정제공장들에서 1974년도 계획을 훨씬넘쳐수행하였다. 운수부문기업소들은 1974년에 전해보다 11%나 더 많은 리득을 국가에 주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고기 랭동 및 가공, 소젖가공, 빠터, 통졸임, 담배가공과 일용품(전기기구, 유리제품, 랭동기) 생산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경공업공장들은 1974년에 전해보다 2천만뻬소나 더 많은 6억 6천만뻬소어치의 대중소비품을 생산하였다. 이 부문의 9개의 큰 기업소들가운데서 8개가 년간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였다.

1974년에 라지오 및 텔레비죤 등 새 제품들도 생산공급하였다.

건설부문에 대한 국가의 투자액은 1973년에 약 3억 4천만뻬소였다면 1974년에는 그것이 12억 5천만뻬소로 늘었다. 1974년에 10개의 공장, 기업소가 조업하였다. 큰 공업기업소인 누에비따스화학비료공장건설을 거의 끝냈다. 1974년에 공업 및 농업 생산은 1973년에 비하여 약 7%나 늘었다.

꾸바에서는 《제2차 10개년전망계획》의 절반으로 되는 1971~1975년까지의 5개년계획을 수행하고있다. 이 기간에 경제는 년평균 7%장성을 예견했다.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선대를 묶고 가까운 바다와 먼 바다 물고기잡이를 배합함으로써 물고기와 새우생산량은 1973년에 약 15만 200톤에 이르렀다.

운수에서는 철길과 배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철길의 총연장길이는 1만 490키로메터이다. (그중 5천키로메터만이 일반용이고 나머지는 사탕공장들과 사탕수수밭을 위한것이다.) 아바나로부터 싼띠아고까지의 300키로메터에 달하는 철길이 개건되고있다. 상선대는 1974년현재 300여척이며 짐실이능력은 50만톤이다. 먼 바다상선대에는 50척의 배들이 있는데 세계의 32개 나라의 항구들에 드나든다. 상선대의 규모에 있어서 라틴아메리카에서 네번째자리를 차지한다. 혁명전에 자동차길은 모두 9천키로메터였다면 1974년까지 16년동안에 1만 4천키로메터의 자동차길이 새로 닦아졌다.

주요수출품은 사탕, 담배, 커피, 광물류, 열대과일이며 석유와 그 가공품, 철강재, 기계, 설비, 쌀 등을 수입한다.

주민은 에스빠냐계통의 백인 (72.8%), 혼혈인(14. 5%), 흑인(12. 3%)으로 이루어졌고 인디안은 극히 적다.

국어는 에스빠냐말을 쓴다.

1974—1975학년도에 6만 6천여명의 대학생들이 교육기관에서 공부하였다. 꾸바에는 아바나, 오리엔떼주, 싼따

플라따(라스 빌라스주), 까마구에이주에 대학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사, 농업전문가, 화학자, 의사들을 양성하고있다. 1959년부터 15년간에 3만 9천여명의 전문가들이 양성되였다. 1973년말현재 중등학교 학생수는 1959년보다 28만 2천명이나 더 많은 37만명이였다. 의학학교는 1958년의 16배인 96개로 늘었다. 큰 공장들에 대학분교와 기술학교가 새로 나왔다. 1974년현재 농촌에는 103개의 중등기술학교와 6개의 대학부속중학교가 있었다. 1974년에 인민교육부문에 7억뻬소이상의 자금이 지출되였다.

보건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뻬나르 델 리오, 아바나, 라스 빌랴스, 까마구에이, 오리엔떼 주들에 9개의 병원들이 건설되고있는데 매 병원은 250~600대의 침대를 놓게 된다.

1972년부터 파외로동에 기초한 건설분조운동을 시작함으로써 살림집도 현저히 늘었다.

출판보도; 통신 쁘렌싸 라띠나

신문 그란마(공산당기관지), 후벤뚜드 레벨데(공청기관지), 아델란떼(까마구에이주신문), 씨에라 마에쓰뜨라(오리엔떼주신문), 히론(마딴사스주신문), 반구아르디아(라스 빌랴스주신문)

잡지 베르데 올리보(혁명군주간잡지), 꼰 라 파르디아 엔 알또(혁명수호위원회기관잡지), 보에미아

방송 국립방송, 국립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0년 8월 29일 우리 나라와 꾸바사이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8년 8월 6일 경제및과학기술협정을, 1968년 8월 6일 경제및과학기술협조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꾸바에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꾸바조직위원회와 뻬나르 델 리오시에 《영웅조선》도서관이 있으며 1972년 6월 9일에는 꾸바혁명수호위원회 아바나시 10월 10일지구 라우똔구역위원회가 혁명전적지 보천보의 이름을 단 《보천보도서관》을 개관하였다.

1974년 5월 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고 어린시절을 보내신 조선인민의 마음의 고향 만경대의 이름을 단 《만경대기계직장》개관식이 꾸바과학원창립 열돐에 즈음하여 아바나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그밖에도 꾸바에는 꾸바조선친선협동농장, 꾸바조선친선원종장, 《천리마》제1조선소, 《천리마》타아소, 호쎄 안또니오 싸고중학교(친선학교)가 있다.

1974년 3월 15일 우리 나라와 꾸바정부사이의 1974—1975년도 문화교류계획서가 조인되였다.

1974년에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꾸바에서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행사를 광범히 진행하였다.

꾸바공산당기관지 《그란마》는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론설을 실었으며 6월 25일 조선인민과의 련대성꾸바조직위원회는 련대성성명을 냈다.

꾸바공산주의청년동맹 전국위원회, 아바나주녀맹, 아바나의 혁명광장지구 혁명수호위원회는 사진전시회를 가졌다.

꾸바과학원산하에 있는 《만경대기계직장》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 기관들에서 련대성집회가 있었다.

1974년 2월 독일사회통일당 제1비서 에리히 호네케르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꾸바방문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쌍방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고 외국군대를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나라를 통일할데 대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제안을 지지하였다.

4월 16일 꾸바를 방문한 알제리혁명리사회 의장이며 내각총리인 후아리 부메디엔을 환영하는 집회에서 꾸바공산당 제1비서이며 혁명정부 총리인 피델 까스뜨로동지는 조선문제에 언급하여 꾸바는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침략을 받아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반제투쟁을 지지한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4월 19일 발표된 공동콤뮤니께에서 쌍방은 그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

꾸바혁명정부는 1974년에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 제출한 우리측 공동결의안인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하여》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적극 활동하였다.

1974년 12월에 꾸바정부무역대표단, 2월에 문화대표단, 7월에 녀자롱구선수단, 혁명수호위원회대표단, 9월에 대외방송일군, 10월에 녀성련맹대표단, 공산주의청년대표단, 제인민간의친선협회대표단, 11월에 기자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해 1월에 김일성종합대학교육전문가대표단, 2월에 직맹대표단, 3월에 정부문화대표단, 8월에 기자대표단, 9월에 조선건축가동맹대표단, 12월에 과학원대표단이 꾸바를 방문하였다.

메 히 꼬

(메히꼬합중국)

넓이 197만 2, 546Km²
인구 5, 264만명 (1972년)
수도 메히꼬(주민 740만명, 1970년)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석수는 60석이며 임기는 6년, 하원의석수는 213석이며 임기는 3년

정부 대통령은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6년, 대통령 루이스 에체베리아 알바레스(1970년 12월 1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 9월 15일에 창건, 1973년 12월에 제16차당대회진행, 제1비서 아르놀도 마르띠네스 베르두고, 립헌혁명당 1929년에 무어진이래 1938년에는 메히꼬혁명당으로, 1946년에는 다시 현재이름으로 개칭, 이 당은 50여년간 집권, 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하는 민족개량주의적당으로서 상원의석의 전부와 하원에서 178석을 차지, 사회인민당 1948년에 창건, 소부르죠아지, 인테리, 대학생, 일부 로동자, 농민들로 구성, 하원에서 10석을 차지, 대토지소유제의 청산과 주요경제부문의 국유화를 주장, 국민행동당 1939년에 무어진 야당으로서 외국자본과 결탁된 금융 및 상업 자본가들과 천주교회의 리익을 대변, 하원에서 20석을 차지, 메히꼬혁명정의당, 독립농민중앙 50만명이상의 성원을 가진 농민조직으로서 공산당의 영향하에 있다. 메히꼬근로자련맹 립헌혁명당이 통제, 전국농민련맹 립헌혁명당이 통제, 국가기관사무원로조련맹, 독립로조전선, 메히꼬로동자농민총동맹, 로동자농민혁명련맹, 공산주의청년동맹, 전국녀성련맹

1521년에 에스빠냐침략자들에게 강점당한후 메히꼬인민은 300년간 식민지통치를 받아오다가 1821년 9월 16일 독립을 쟁취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1845년에 메히꼬령토였던 테사스를 떼내여 저들의 한개 주로 만들었으며 1846~1848년에 이 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을 감행하여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네바다, 유타

뉴멕시코, 플로리다, 와이오밍 등 메히꼬땅의 절반이상인 240만평방키로메터를 강탈하였다. 이 지역은 현재 미국령토의 3분의 1에 가까운 넓은 땅이다.

1861～1867년에 이 나라는 영국, 프랑스, 에스빠냐 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았다.

1876년부터 시작된 독재적인 전제정치에 대한 인민대중의 불만은 극도에 달하여 1910년 11월에는 《메히꼬혁명》이 일어났다. 이리하여 1910년부터 1917년사이에 이 나라에서는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이 수행되고 1917년에는 현재의 헌법인 부르죠아민주주의헌법이 발포되였다.

세계경제공황시기 (1929～1933년)에 로동자, 농민들의 반제반봉건투쟁이 급속히 확대강화되였다. 이러한 투쟁의 영향밑에 1934～1940년사이에 집권한 정부는 일부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으며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철도, 석유 회사들과 부분적으로 광업회사들을 국유화하였다.

꾸바혁명이 승리한후 이 나라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불간섭원칙을 견지하여온 메히꼬는 1961년 4월 꾸바와의 외교관계를 포함한 모든 관계를 끊을데 대한 미제의 침략도구인 《미주국가기구》의 《결정》을 거부하였다.

1970년 12월에 집권한 메히꼬의 에체베리아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을 반대하고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며 나라의 자주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일련의 진보적조치를 취하였다.

미제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의 민족경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메히꼬화》를 다그치고있다.

메히꼬정부는 미제를 포함한 외래독점체들이 장악하고있던 석유공업을 완전히 국유화하였으며 1972년 11월 자동차공업에 대한 외래독점체들의 투자를 금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1973년 3월에는 외래독점자본의 투자를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령이 발포되였다.

메히꼬정부는 이미 1971년 8월에 이 나라 동총생산량의 60%를 차지하였던 카나다동광회사와 류황생산의 75%를 차지하였던 범아메리카류황회사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하였었다. 이 두 조치가 취해진후에 메히꼬광물생산의 98%가 이 나라 민족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되였다.

1974년에도 북부국경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령을 발포하여 이 지역 중소기업소들에 유리한 재정적 및 행정적 조건을 지어주었다.

메히꼬정부는 대지주놈들의 땅을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사업도 밀고나가고있다.

1973년 4월에 미제의 문화적침투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사람들의 건전한 의식을 마비시키며 사회질서를 문란시키는 미국영화상영을 금지할것과 《미국식생활양식》을 설교하는 미제의 라지오 및 텔레비죤 방송을 금지시키는 2건의 법령을 발포하였다.

7월 17일 메히꼬정부는 《미중앙정보국》이 자기 나라에서 감행하고있는 비밀활동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대외정책분야에서 《자결권, 불간섭, 평등의 원칙》을 주장하고있는 메히꼬정부는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정치경제적예속을 반대하고 민족자원을 굳건히 지키면서 제3세계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부단히 강화하고있다.

메히꼬대통령은 2월 4일에 발표한 문건에서 제3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가난한 처지에 놓여있는 원인은 리윤획득과 식민지적지배를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략탈에 있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우선 매개 나라는 외부의 압력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경제 및 사회 제도를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매개 나라는 자기의 령해에 대하여 자주권을 누리고 그것을 행사하며 자기 령해자원에 대한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할수 있게 되여야 한다. 자기 나라에 있는 외국기업체들을 몰수하는것은 그 나라의 완전한 자주권에 속한다.

이에 앞서 1월 31일에 한 연설에서 그는 제3세계의 나라들이 정치적 및 경제적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에체베리아는 《메히꼬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과 힘을 합쳐 대륙나라들의 자원을 지켜낼 준비가 되여있다.》 (3월 23일), 《우리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서로의 리해를 더욱 깊게 하며 우리들이 벌려야 할 투쟁에서 하나의 공동전선을 무어야 한다.》 (7월), 제3세계나라들이 자기의 해역과 바다자원을 수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단결하여 본때있게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메히꼬정부는 1972년에 여러 라틴아메리카나라들과 함께 자기 령해에 대한 절대적인 자주권을 누리는 이외에 200마일 근해의 자연부원에 대한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질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이미 메히꼬정부는 200마일령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온 페루와 에꽈도르에 여러차례 공식적인 지지를 표시하였었다. 1974년 1월과 3월에 령해를 침범한 3척의 미제하
선을 붙잡았다.

에체베리아대통령은 1974년 7월 (
기자회견에서 꾸바에 대한 미제의 《
쇄》정책을 규탄하고 종식시킬것을
장하였다.

7월에 메히꼬대통령은 아르헨띠니
페루, 에꽈도르, 베네수엘라, 져메
커, 꼬스따 리까, 브라질을 방문히
다. 이 나라 국가수반들과 회담후
표한 공동성명들은 라틴아메리카니
들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며 경져
자립을 이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였다.

이해에 메히꼬정부는 끼쁘로스
월), 웽그리아(5월), 벌가리아(6월)
알바니아(10월)와 대사급 외교관계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중미나라들 가운데서 비교적 발전
농업—공업국가이다.

농업부문에서는 로동인구의 절반
상이 일하는데 부침땅은 전령토의
%를 차지한다. 부침땅의 40%이상
관개시설이 없이는 농사할수 없는
이다. 관개시설이 어느 정도되여있
북부 및 서북부 지역에서는 주로 목
와 밀, 강냉이, 쌀 기타 공예작물
재배되고있다. 이 지역은 이 나라
업총생산액의 55%를 담당하고있다
농업총생산액의 30%이상을 차지하
목화(년산 30만톤이상)는 그 수매로
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미제독점자본
큰 영향력을 미치고있다.

주요주식물인 밀생산량은 1973—74농업년도에 전해보다 20%나 늘어 240만톤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적지
은 식량을 수입에 의존한다.

북위 20도 이남의 바다가벌방지대
서는 수출작물인 커피, 바나나, 감
류, 코코아, 땅콩, 담배가 재배된다
1974년에 과일재배면적은 66만 3천
터였으며 과일생산량은 1974년에
전해보다 11.6% 늘었다.

농촌에는 농업생산협동조합인 《에
도》와 국영농장들이 있다. 이를 장
하기 위하여 전국에 《에히도장려금》
설치하였다. 또한 정부는 기본주식작
인 강냉이, 밀, 완두콩에 대한 수매가
을 올리는 조치도 취하였다. 1972년
에 채택된 관개수에 관한 법령에 의
여 소농경리에 대한 물공급이 개선
였다. 동시에 농민들에 대한 대부
높이기 위하여 모든 국가농업은행들
개편되였다.

농민들에 대한 토지분배사업도 계
하고있다. 1972년 9월부터 1973년 9

까지 약 200만헥터가 분배되였다. 1974년에 베라끄루스주에서 대토지소유자들로부터 약 1만헥터의 땅을 몰수하였다. 나라의 북부에 있는 일부 대농장들도 국유화되였다. 이 가운데는 외국자본가놈들의 소유도 들어있다. 현정부의 집권 3년동안에 550개의 새 《에히도》가 창설되였다. 농민들에게 분여된 토지는 다시 대지주놈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법적조치를 취하였다.

넓은 방목지를 리용하여 소를 비롯한 여러가지 집짐승을 놓아기른다. 1974년에 북부의 소노라주에서 심한 가물로 10만마리이상의 집짐승이 죽었다. 축산부문에도 《에히도》가 조직되였다.

메히꼬연해는 세계적인 다랑어어장의 하나이다. 1973년에 32만 6천톤의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것은 1970년에 비하여 7만 6천톤이나 많은것이다.

공업부문에서는 채굴공업과 일부 가공공업이 기본을 이루며 기타 부문은 뒤떨어졌다. 국민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30% 남짓하다.

채굴공업부문에서는 은, 연, 류황, 동, 석유, 천연가스 등을 채취한다. 그 가운데서 은생산량(1천 300여톤)은 자본주의나라를 가운데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광물생산의 98%가 민족자본의 통제밑에 있다. 차빠스주, 따바스꼬주 및 깜뻬체주에서 새로운 석유매장지가 발견되였다. 이 매장지들의 4개의 유정에서 석유가 채취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생산량은 매일 13만바렐이다. 국영석유회사 《뻬뜨롤레오스 메히까노스》가 이 유정들을 관리한다. 이리하여 메히꼬는 매일 약 64만 5천바렐의 석유를 생산함으로써 1974년 7월부터 자급자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9월부터 석유수출을 시작하였다. 따마우리빠스지방에서는 천연가스매장지가 발견되였다. 하루 4천만~5천만립방피트가 생산된다.

제2차세계대전후 흑색금속, 화학, 석유화학, 세멘트 등 중공업부문이 생겨났으나 그 규모는 아직 미약하다. 1972년에 국영부문의 석유화학, 강철, 세멘트, 동력 및 동 생산은 그 전해에 비하여 10% 늘었다. 메히꼬는 1973년에 라틴아메리카공업생산의 24%를 생산하여 브라질 (30%)다음인 두번째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 나라에 대한 외국자본의 직접적투자는 줄었으나 1971—1972년에 장기적인 간접투자가 1970—1971년의 7.4%에 비하여 39.7% 늘었다. 투자의 3분의 2 이상은 미제독점자본이 차지하였다. 대외채무의 크기에 있어서 메히꼬는 1972년에 라틴아메리카에서 브라질 다음가는 두번째자리를 차지하였다. 1973년에 메히꼬에는 국내제품의 12%를 생산하는 즉 외국독점자본이 참가한 1천 915개의 기업소들이 있었다.

대외무역에서 1973년에 수출액은 1972년에 비하여 21.1% 증가하였는데 수입액은 30% 늘어 적자를 냈다. 적자는 관광수입 (1973년에 그 전해에 비하여 28.3%장성)으로 적지 않게 보충되였다.

운수는 철도와 자동차 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설비들이 낡은 관계로 새로 갱신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1970년까지 도로망은 전국도시들의 4%만을 련결하였다면 1974년에 들어와서는 35%를 이었다. 주요항구는 땀삐꼬와 베라끄루스이다.

주요수출품은 전통적으로 과일, 커피, 사탕, 고기를 비롯한 식료품들과 목화, 은, 동, 연 등이였는데 공업제품의 몫이 점차 늘어 1973년에 그것은 수출총액에서 50%에 달하였다. 수입품으로는 주로 식량, 기계, 설비, 생활필수품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미국, 일본, 구라파 《공동시장》 성원국들이였으나 점차 제3세계나라들과의 무역관계를 확대하고있다. 1972년말현재 120여개 나라 및 지역들과 무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1973년에 이 나라 수출의 68.6%와 수입의 62.9%가 미국에 의존하였으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972년에 비하여 오히려 더 늘었다.

주민은 인디안과 에스빠냐인의 혼혈인이 50%이상, 인디안이 30%정도, 나머지는 에스빠냐계통의 백인이다.

공용어는 에스빠냐말이며 주민의 97%가 천주교를 믿는다.

15살이상 주민의 23%가 글을 전혀 모른다. 1974년초에 로동인구의 44.8%가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였다.

출판보도; 신문 엘 뽀뿔라르, 엘 디아, 엘 나씨오날(정부공식기관지), 라 쁘렌싸, 엘 우니베르쌀, 노베다데스

방송 메히꼬방송, 까데나방송, 메히꼬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여 메히꼬의 이름난 출판사인 《인민문화사》가 《김일성전》 제1부를 에스빠냐말로 출판하였다.

1974년 10월 메히꼬공산당 전국청년위원회, 독립로조전선, 독립농민중앙, 교직원혁명운동, 종합대학의 여러 학생조직들은 공동성명을 내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하고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갈것을 요구하였다.

메히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아르놀도 마르띠네스 베르두고동지가 1972년 7월 18~28일까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과 떼 말 라

(과떼말라공화국)

넓이 10만 8, 889Km²
인구 541만명(1972년)
수도 과떼말라(주민 77만명, 1970년)

정 치

국민의회 일원제, 의원수는 55명이고 임기는 4년

정부 대통령은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총선거에서 절대다수표에 의해 6년 임기로 선거, 1974년 3월 3일 테로와 협잡의 분위기속에서 대통령선거를 진행, 6월 24일 새 정부구성, 대통령 에우헤니오 라우게루드(1974년 7월 1일—)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1949년 9월 28일에 창건된 공산당을 1952년에 로동당으로 고쳤다. 립헌민주당 1964년에 무어졌고 지주, 자본가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반동적인 집권당, 국민해방운동 1959년에 나온 우익반동적인 정당이며 집권당, 기독교민주당, 혁명당, 자치로조련맹, 1957년에 조직, 세계직련에 가입, 로조리사회, 애국로동청년

1524년에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되였다가 1821년 9월 15일 독립하였다. 19세기말부터 이 나라에 대한 미제독점체들의 침투와 략탈이 강화되였으며 제2차세계대전시기에 미제는 과떼말라를 제놈들의 군사기지로 전변시켰었다.

1944년 10월 20일 전인민적무장폭동이 폭발하여 친미독재정권을 뒤집어엎었다. 같은해 12월에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아레발로는 일련의 긍정적조치를 취하였으며 1951년 3월 국내민주력량의 지지밑에 집권한 아르벤스정부도 제한성은 있었으나 진보적 정책들을 실시하였다. 그해 6월 17일

아르벤스정부는 법령 제900호를 발포하여 미제의 《유나이테드 프루트》의 소유였던 8만 5천헥타의 토지와 대지주놈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나누어주기로 하였다. 이러한 진보적조치에 불안을 느낀 미제는 군사정변을 조작하여 친미군사독재정권을 수립하였다. 아르마스반동정부는 《토지개혁》을 취소하였으며 미제독점회사와 지주놈들에게 땅을 되돌려주었다.

이러한 사태하에서 파떼말라인민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일떠섰으며 1960년 11월 13일 애국적인 군인들도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무장폭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1962년초부터 나라의 동북부에서 무장유격투쟁을 개시하였으며 투쟁을 점차 확대하였다.

위기에 빠진 친미독재정권을 구출하기 위하여 1966년에 독재자 쎄싸르 몬떼네그로가 집권한후에 미제는 이 나라 반동군대에 대한 재정적 《원조》를 4배로 늘였다. 미제의 특수《고문》놈들의 지휘밑에 반동군대는 유격대를 《토벌》한다는 구실밑에 무고한 인민들을 헤아릴수 없이 학살하였다. 그리하여 놈들은 1966년~1968년기간에 싸까빠지역에서만도 약 4만 5천명의 농민들을 학살하였다.

1970년 7월에 집권한 오소리오친미독재정권은 그해 11월부터 1971년 11월까지의 1년동안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많은 애국자들을 학살하였다. 1972년 9월에는 파떼말라로동당총비서를 비롯한 이 당중앙위원회 위원 여러명을 체포하여 가혹한 고문끝에 비밀리에 처형하였다.

1974년 3월 3일에 폭압과 테로, 사기와 협잡의 분위기속에서 대통령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에서 그 어느 정당출신 립후보도 압도적다수표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른바 《선거관리위원회》는 반동적인 국민해방운동출신 립후보의 승리를 날조하였다.

인민들과 사회계의 강력한 압력이 가해지자 3월 14일 반동적인 국회는 야당출신 국회의원들의 참가도 없이 우익정당들의 립후보 에우헤니오 라우게루드놈의 《승리》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라우게루드놈을 새 대통령으로 선포한 반동국회의 부당한 처사가 알려지자 수도와 기타 지방들에서 항의 시위와 파업들이 계속되였다.

반동정부는 군경놈들과 극우익파쑈분자들을 내몰아 협잡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군중에 대하여 테로와 탄압을 강화하였다.

수도에서만도 약 200명이 체포되였으며 여러명이 놈들의 총탄에 맞아 죽거나 부상을 입었다.

4월에 지하에서 활동하고있는 파떼말라로동당은 국내정세에 대한 성명에서 3월에 날조된 선거결과를 강력히 규탄하고 반동정권을 끝장내기 위하여 모든 진보적력량이 통일전선을 무어 진출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6월 24일 반동들로 꾸려진 새 각료들의 명단이 발표되였으며 7월 1일 새 대통령을 비롯한 각료들이 정식 취임하였다.

라우게루드는 극악한 친미군사독재자 오소리오가 대통령립후보로 지명한 자로서 그의 파쑈테로통치를 그대로 답습하고있다.

라우게루드는 대통령자리에 들어앉자마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라를 평정하겠다》고 줴치면서 반동 군대와 경찰의 수를 늘이고 애국적인민들의 반미반정부투쟁을 막아보려고 미쳐날뛰였다.

이놈의 집권후 얼마안되는 기간에 수천명의 애국자들이 체포되였으며 많은 사람들은 재판도 없이 현장에서 살해당하였다. 살인악당들은 살해된 애국자들의 시체를 길가나 무인지경에 버리거나 혹은 직승기로 실어 화산의 분화구와 바다에 처넣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고있다.

12월에 극악한 파쑈악당들이 이 나라 로동당 총비서 우베르또 알바라도를 체포하여 악착한 고문끝에 살해한것이 이 나라 수도교외에서 발견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3분의 2가 농사를 짓고있는 뒤떨어진 농업국이다.

농업에서는 몇가지 수출작물재배를 전문화하고있다. 주요수출작물은 커피, 바나나, 목화, 사탕수수인데 이것은 전체 부침땅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해마다 10여만톤 생산되는 커피는 이 나라 수출총액의 35%를 차지하며 그 질이 좋은것으로 평가되고있다.

그러나 이 나라 수출작물의 생산과 수출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미제의 《유나이테드》과일독점회사가 틀어쥐고있다.

그밖의 작물로서는 강냉이(년산 70여만톤), 당콩, 감자, 벼 등을 심고있으나 그 생산량은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막대한 량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한다.

바다가의 낮은 지대에서는 바나나가, 고원지대들에서는 커피와 강냉이, 콩이 주로 재배된다.

소를 기르는것을 위주로 하는 축산업도 농업에서 큰 자리를 차지한다.

목재로 쓰이는 질좋은 나무들이 많으며 고무도 채집한다.

공업부문에는 광산, 석유정제, 세멘트, 직물, 농산물가공, 신발, 목재가공 등의 중소규모의 광산과 공장들이 있다.

그러나 실제상 이 나라의 주요경제명맥을 틀어쥐고있는것은 《유나이테드》과일독점회사이다.

이 독점체는 수출용 농산물과 비옥한 토지는 물론 철도, 항구, 발전소, 통신시설, 상하수도, 병원, 교회, 광산, 수출의 4분의 3을 통제하면서 해마다 1억딸라의 리윤을 짜내고있다.

1970년초현재 파떼말라에 침투된 외래독점자본의 투자총액 1억 1천 500만딸라중에서 미제의 투자몫은 9천 800만딸라에 달하였다.

미제는 이 나라의 공업부문에 36.8%, 농업, 림업 및 어업에 24.3%, 상업부문에 23%, 전력 및 물 공급에 12.4%, 건설에 2%를 투자하였다.

1970년현재 외국에 진 빚은 1억 8천 260만께뜨살(이 나라 화폐단위)이였다.

철길은 1천 200키로메터에 불과한데 그의 4분의 1은 농장들과 광산들을 련결하는 인입선들이다.

주요수출품은 커피(총수출액의 35% 차지), 바나나, 목화, 사탕 등이며 75%이상의 수입품이 공업제품과 식량이 차지한다.

주민구성에서 원주민인 인디안이 54%정도 차지한다. 중미나라들가운데서 인디안의 비률이 제일 높다.

공용어는 에스빠냐말이나 주민의 절반은 마야말을 쓴다.

주민의 대부분은 천주교(97%)를 믿는다.

15살이상 주민의 63%가 글을 읽고 쓸줄 모른다.

생활수준이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낮은 나라의 하나이다.

출판보도 ; 신문 베르다드(로동당기관지), 쁘렌싸 리브레, 라 오라, 엘 그라피꼬

방송 파떼말라방송, 국립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6월 파떼말라애국로동청년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살 바 도 르

(살바도르공화국)

넓이 2만 1, 393Km²
인구 370만명(1973년말현재)
수도 산 살바도르(주민 47만 1, 860명)

정 치

립법회의 일원제, 의원수는 52명이고 임기는 2년, 1972년 3월선거에서 반동적인 국민화해당이 37석을 차지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이다. 임기는 5년, 대통령 아르뚜로 아르몬도 몰리나(1972년 7월 16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0년에 창건되였으며 1932년부터 비법화되여 지하에서 활동, 국민화해당 1961년에 무어진 반동적인 집권당, 기독교민주당 1960년에 무어진 야당, 살바도르인민당, 민족진화공화당, 《4월및5월》혁명당 1959년에 창건된 좌익정당, 혁명당 1967년에 금지된 혁신행동당의 후신, 민족민주련맹 1969년에 조직, 민족야당동맹 진보적야당세력을 망라한 통일전선체, 통일로조련맹 세계직련에 속한 진보적로조, 근로자전국련맹, 근로자총련맹, 로조총련맹, 혁명청년동맹

1524년에 에스빠냐침략자들에게 강점된 때로부터 300년간 놈들의 식민지통치를 받아오다가 1821년 9월 15일 살바도르는 민족적독립을 쟁취하였다.

독립후 이 나라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계속적인 침입을 당하였다. 20세기초 살바도르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강화한 미제는 친미주구들을 내세워 여러차례 반동적군사정변을 조작하였다.

미제의 예속화정책과 친미반동정권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여 1932년 4만명의 각계각층 군중이 참가한 반미반독재무장폭동, 1944년 5월 총파업과 반미반독재무장폭동 등이 일어났다.

력대친미독재정권들은 대외적으로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맹종하였으며 국내에서는 《반공법》을 휘둘러대면서 진보적력량에 대한 파쑈폭압정책을 실시하였다.

일찌기 1947년에 미제가 남조선에서 식민지통치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꾸며낸 《유엔조선위원단》에 끼여든바 있는 살바도르친미반동도당은 1950년에는 미제가 도발한 조선침략전쟁에 침략적고용병을 대주었다.

1962년에는 꾸바를 《고립》시키려는 미제의 책동에 가담하여 외교관계를 끊었고 1965년 4월 미제침략도구인 《중미통합군》에 망라된 살바도르반동군은 도미니까의 애국적군인들과 인민들의 무장폭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데 참가하였다.

1972년 3월 총선거결과 국민화해당 정부가 수립되였다.

살바도르정부는 1974년에도 미제국주의자들로부터 비행기, 땅크를 비롯한 살인무기들과 군사장비들을 끌어들였다.

살바도르와 린접국가인 온두라스사이에는 1969년에 100시간동안 진행한 국경충돌(일명《축구전쟁》)로 량측이 모두 2천여명의 사망자를 낸 전쟁후에도 대치상태가 완전히 가셔지지 않았다. 1974년에 국경분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차례의 수뇌자회담이 시도되였으나 그후 무기한 연장되였다.

살바도르는 미제의 침략도구들인 《미주방위리사회》와 《중미국가기구》(이 나라 수도에 그 본부가 있다)에 가담하였다.

한편 이 해에 살바도르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 사이에서 고립을 피하며 이 지역 정세에 편승하여 경제적리권보호를 위하여 경제적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참가하였다.

살바도르는 다른 라틴아메리카나라들과 함께 바나나의 값을 공동으로 정하고 수호하기 위하여 3월 30일 바나나수출국동맹을 결성하였다.

또한 다른 중미나라들과 같이 육류수출가격을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육류생산국기구(9월 9일)를 창설하였으며 역시 살바도르를 포함한 6개의 중미나라들은 국제시장에서 《공정한 값》을 받아내기 위한 조치로서 커피수확의 일부를 내놓지 않기 위한 결정(12월 14일)을 채택하였다. 이에 앞서 11월 27일에는 이 나라를 포함한 20개 나라들이 사탕생산국기구를 창설하였다.

12월 12～14일까지 베네수엘라의 파야나에서 살바도르를 포함한 7개 나라 정부수반들은 회의를 가지고 《파야나선언》을 채택하였다.

살바도르는 11월에 진행된 《미주국가기구》 외교부장회의에서 이 기구가 미제의 강요에 의하여 꾸바에 취한 정치, 경제적 《제재조치》를 취소할데 대한 결의안에 찬성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64%가 농업부문에서 일하는 뒤떨어진 농업국가이다. 경제의 주요 명맥은 미제국주의자들이 틀어쥐고있다. 농업은 커피재배를 비롯한 몇가지 수출용 작물에 치우친 전형적인 식민지적농촌경리가 지배적자리를 차지한다.

인구의 4%에 지나지 않는 대지주들이 부침땅을 독차지하고있는 반면에 절대다수의 농민들은 가혹한 《소작제도》에 얽매여있다.

이 나라에서 커피, 목화, 사탕, 헤네켄(커피마대용 섬유원료)은 4대수출용 농산물이다. 바나나도 적지않게 생산한다.

특히 커피는 농산물생산액의 40%, 수출총액의 40%이상, 외화총수입의 50%를 차지하는 기본수출작물이다. 자본주의세계에서 브라질, 콜롬비아 다음가는 커피생산국이지만 그 대부분을 미제가 헐값으로 략탈해가고있다.

년평균 약 13만 8천톤의 커피, 4만 6천톤의 목화, 11만톤 정도의 사탕이 생산된다. 이 밖에도 벼, 수수, 당콩, 콩, 기장 등 알곡작물도 약간 심는다. 소, 돼지 등의 집짐승도 기른다.

공업부문은 거의 미제독점자본의 예속밑에 있다. 수출용 농산물과 축산물을 가공하는 경공업(커피가공, 사탕, 포도주, 빠터)이 기본을 이루고 있으며 방직, 마대, 세멘트, 석유정제 공장들도 있다. 1971년현재 국가채무액은 약 1억 3천만딸라, 그중 다른 나라에 진 빚은 9천 200만딸라에 달하였다.

철길은 나라의 넓이에 비하여 조밀한 축에 속한다. (750키로메터)

주요수출품은 커피(수출총액의 40% 이상차지), 목화(약 10%), 사탕, 새우, 화학제품, 면직물이며 수입품으로서는 기계설비, 운수수단, 화학제품을 많이 사들인다. 대외무역은 미국, 서독, 일본과 주로 진행한다.

주민구성은 인디안과 에스빠냐인의 혼혈인이 78%정도 차지하며 나머지는 인디안과 백인이 거의 같은 비률을 차지한다.

공용어로서 에스빠냐말을 쓰며 대부분의 주민이 천주교를 믿는다.

30만명이상의 주민들이 생활난으로 해외로 떠나갔으며 농촌주민의 40%가 완전실업상태이다.

10살이상되는 주민의 80%가 글을 읽고 쓸줄모르며 대학은 2개밖에 없다.

출판보도; 신문 엘 디아리오 데 오이(중립계), 라 쁘렌싸 그라피까(보수계)

방송 살바도르방송, 중앙아메리카 텔레비죤방송

온 두 라 스

(온두라스공화국)

넓이 11만 2, 088Km²
인구 269만명(1972년)
수도 떼구시갈빠(주민 21만 8, 500여명)

정 치

국회 일원제이며 64명의 의원들로 구성

정부 대통령은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5년, 대통령 오스왈도 로뻬스 아렐라노(1972년 12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7년에 창건되여 1933년에 비법화되면서 해산되였다가 1954년에 재건, 국민당(일명 보수당) 미제의 《유나이테드》파일회사와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있고 현재 집권당, 자유당 1963년 군사정변이전까지 집권당으로 있은 반동적인 정당, 혁신통일당 1972년 정변후 새로 조직된 당, 근로자총련맹 1964년에 조직

1520년에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된후 온두라스는 인민들의 간고한 투쟁을 거쳐 1821년 9월 15일 놈들의 근 300년간의 식민지폭압정치에서 벗어났으며 1839년에는 공화국으로 되였다.

1905～1933년사이에 반미반정부폭동을 비롯한 대중적인 투쟁이 끊임없이 전개되였다. 미제는 이른바 《질서유지》라는 구실밑에 로골적인 무력간섭과 경제적예속과 통제를 일층 강화하였다. 미제의 비호밑에 독립후 이 나라에서는 군사정변과 기만적인 선거놀음을 통하여 반동적인 두 정당인 국민당과 자유당이 100여년간 정권을 가로타고 반인민적독재정책을 실시하였다.

1971년 3월 28일의 선거후 국민당정권이 조작되였으나 1972년12월 군사정변에 의하여 1971년초까지 근 10년동안 집권하였던 로뻬스 아렐라노가 새 정부를 수립하였다.

새 정부는 일련의 사회경제적개혁안을 제기하고 미제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며 민족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1974년초에 들어서면서 미제와 외래제국주의독점체들의 관할하에 있는 산림자원을 국유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줄것을 예견한 토지개혁안을 작성하였다.

1975년 1월에 이 나라 대통령은 민족보위최고리사회가 채택한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였다. 법령은 1월 15일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였으며 대지주놈들의 토지소유권을 제한하였다.

정부는 농민들의 토지를 비법적으로 빼앗았거나 묵이고있는 대지주놈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업협동조합들을 창설하기로 하였다.

1974년 9월 20일 이 나라 북부해안을 휩쓴 시속 200키로메터의 태풍《피피》와 태풍이 몰아온 폭우로 하여 혹심한 피해를 입었다.

자연재해로 약 1만 5천명이 죽었으며 6만여명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 도로와 철길의 대부분이 완전히 파괴되였다. 경제적손실액은 수억딸라분에 해당한다. 전국비상위원회가 조직되여 주민구제 및 복구 사업이 진행되였다.

온두라스정부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략탈행위에 맞서 이 대륙의 바나나생산국들과 함께 바나나판매를 중지하고 놈들에게 공정한 값을 받아내기 위하여 바나나값을 대폭 올리는 조치(3월)를 취하였다.

2월에 있은 《미주국가기구》외교부장회의에서 온두라스대표는 미국과의 불평등한 경제관계를 끊어버리고 미제독점체들의 략탈행위에 종지부를 찍을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11월에 있은 이 기구의 외교부장회의에서 온두라스대표는 미제의 강요에 의하여 꾸바에 가한 이른바 《제재조치》를 취소할것을 요구한 결의안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2월 14일 발표된 온두라스대통령의 빠나마방문과 관련한 공동성명에서 온두라스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자주권의 존중, 내정불간섭, 민족자결의 원칙을 지킬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온두라스정부는 미제의 침략도구인 《중미방위리사회》(1971년)에서 탈퇴하였다.

1974년에 온두라스대표는 다른 라틴아메리카나라들과 함께 바나나수출국동맹(3월), 육류생산국기구(9월), 사탕수출국기구(12월), 라틴아메리카동력기구(12월)를 결성하기 위한 회의들에 참가하였다.

이 나라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중앙아메리카 국가 및 정부 수반회의에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사이의 경제적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파야나선언》에 서명하였다.

온두라스와 살바도르는 1969년에 주민 및 국경 문제를 둘러싸고 2천여명의 희생자를 낸 《100시간의 전쟁》(일명 축구전쟁)이 있은후 관계개선을 위한 일련의 회담이 있었다.

1973년 8월 두 나라 사이에 오랜 《전쟁상태》를 끝장내고 《평화조약》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하기로 합의하였었다.

이 문제를 취급하기 위하여 1974년 5월 27일 두 나라 수뇌자회담을 열기로 되였으나 회담을 앞두고 살바도르군대의 온두라스국경침입사건으로 회담이 열리지도 못한채 무기한 연기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중앙아메리카에서도 뒤떨어진 농업국가로서 인구의 근 70%가 농업부문에서 일한다. 주요수출작물은 바나나, 커피(년산 2만 8천톤정도), 목화이며 그밖에 사탕수수, 벼, 강냉이, 당콩, 콩, 담배, 마니오크 등을 심는다.

특히 세계적인 바나나수출국의 하나로서 그 생산량은 년산 110만톤에 달한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약 5%에 불파한 지주놈들이 많은 땅을 틀어쥐고있다. 또한 미제의 《유나이테드》, 《스탠다드》 파일독점회사들의 자매회사들이 비옥한 토지는 물론 산림, 광물 자원을 틀어쥐고 이 나라 경제전반을 좌지우지하였다.

온두라스정부는 1974년에 수출작물(바나나, 커피)의 공정한 값을 받아내기 위하여 값을 대폭 올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토지개혁안에 따라 지주놈들의 묵은 땅을 몰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아직 식량, 남새까지 수입에 의존한다.

1974년 9월 20일 북부해안을 휩쓴 태풍피해로 씨뿔임땅의 약 90%가 물에 잠겼다. 더우기 주요수출작물로 되는 바나나농장들은 2년동안 못쓰게 되였다. 바나나농장들은 대부분 까리브해연안의 낮은 지대에 집중되여있다.

동부지역에서는 소, 돼지, 말 등 집짐승을 기르며 소고기, 돼지고기 및 소젖을 생산한다.

공업부문에서는 금, 은, 연 등의 채취공업, 림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때까지 미제독점체들이 지하자원과 산림자원을 헐값으로 마음대로 략탈하여 갔었다. 온두라스정부는 이 자원들의 수출을 국가가 장악하기로 하였다.

기타 석유가공, 사탕, 목재가공, 열대농산물가공 등 크지 않는 가공공장들이 약간 있다.

1972년말현재 다른 나라에 진 빚은 도합 4억렘삐라(이 나라 화폐단위)였다.

철길은 북부의 바나나농장들과 까리브해연안의 항구들과 련결하는 1천 300키로메터뿐이다.

주요수출품은 바나나(총수출액의 3분의 2를 차지), 커피, 목재 등이며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미제에 의존한다.

주민구성은 인디안과 에스빠냐사람의 혼혈인이 91%, 인디안이 6%, 흑인이 2%, 백인이 1%이다.

공용어는 에스빠냐말이며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10살이상 주민의 63%가 글을 전혀 모른다. 배울나이의 어린이들의 60%가 학교에 다니지 못한다. 한심한 보건상태, 극심한 영양실조로 하여 아이들이 죽는 비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이다.

이해에 있은 태풍피해의 후과로 식료품, 연료, 의약품 기타 대중소비품값이 뛰여오르는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적통제가 실시되였다.

출판보도; 신문 라 가쎄따(정부기관지), 엘 뿌에블로, 꼬르레오 델 노르떼(무소속)

방송 온두라스방송, 온두라스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8월 13일 온두라스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4년 3월에 온두라스평화및자주권수호전국리사회는 남조선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인 《긴급조치》소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5월에 우리 나라 외교부대표단이 온두라스를 방문하였으며 대표단은 5월 26일 이 나라 외교부장과 두 나라사이의 관계발전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온두라스외교부장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긍정적인 립장을 표시하면서 조선의 통일은 조선인민자신의 힘에 의하여 이룩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영령온두라스

넓이 2만 2, 965Km²
인구 12만명(1971년)
행정중심지 벨리제(주민 4만 2, 000명, 1971년)

정 치

식민지통치기구 영국총독이 모든 실권을 행사하고있다. 《새헌법》에 의하여 1964년 1월에 《자치정부》가 수립되였다. 총리 죠지 프라이스(인민통일당 당수)

립법기구 총리의 추천으로 총독이 임명하는 상원(8석)과 선거되는 하원(18석, 임기 5년)이 있다.

정당, 사회단체; **인민통일당** 1950년에 조직, 1964년부터 집권당, 국회에서 17석 차지, 당수 죠지 프라이스, **민족독립당** 1958년에 창건된 야당, 국회에서 1석 차지, **인민민주운동** 1969년에 조직, **영령온두라스로동자진흥총동맹**

이 나라는 16세기초에 에스빠냐식민지로 되였다. 17세기중엽부터는 영국식민주의자들이 풍부한 산림자원에 눈독을 들이고 기여들었으며 1786년의 《련던조약》에 의하여 《산림경영권》을 빼앗아냈다. 라틴아메리카대륙에서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이 쫓겨나던 때인 1821년에 과떼말라는 이 나라를 자기의 령토로 선포하였다.

1859년 영국식민주의자들과 과떼말라간의 조약에 의하여 이 나라는 영제국주의자들이 강점하였다. 1862년부터 이 나라에서 영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식민지총독정치가 실시되였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미제독점자본의 침투도 강화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식민지통치를 끝장내려는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이 전례없이 앙양되자 영제국주의자들은 1964년 1월 1일부터 국방, 외교권을 제외한 《내부자치권》을 부여하고 《자치정부》수립을 허용하지 않을수 없었다.

1966년 6월 이 나라 인민들은 영제국주의자들과 식민지반동당국을 반대하는 반정부폭동을 일으켰으며 나라의 완전한 민족적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계속 투쟁하고있다.

이 나라는 영제국주의자들과 과떼말라 및 메히꼬사이에 령토분쟁대상으로 되고있다. 과떼말라는 100여년전부터 이 나라를 자기의 령토였다고 주장하며 메히꼬도 령유권을 주장하고있다.

영국과 과떼말라사이에 이 나라의 《령유권》문제를 둘러싸고 오래동안 회담들이 진행되였으나 미해결문제로 여전히 남아있다.

1974년 12월 유엔총회 신탁통치위원회에서도 이 나라 문제를 둘러싸고 맹렬한 론쟁이 벌어졌다. 바베이도즈, 바하마군도, 그레네이더, 가이아나 및 자메이커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한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농업과 림업, 수산업이 국민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며 로동인구의 거의 40%가 농업부문에서 일한다. 씨뿌림땅은 약 20만헥타이고 주요농산물로서 사탕수수, 귤, 벼, 야자, 바나나, 고무나무 등 수출용 작물을 재배한다. 년산 약 5만톤의 사탕, 4만 5천톤 정도의 귤이 생산된다. 소(약 4만 2천마리), 돼지, 말, 노새, 당나귀와 같은 집짐승을 기른다.

경제에서 림업의 비중이 크다. 마호가니를 비롯한 질좋은 나무들과 염료용 나무, 껌의 원료인 티크르 등 다양한 산림자원을 가지고있으나 영제국주의자들의 략탈대상으로 되고있다.

공업기업소들로서는 사탕공장, 과일가공공장 등 주로 작은 규모의 경공업기업소들이 있다.

40키로메터의 좁은 철길이 있을뿐이다.

사탕(수출의 50%), 귤, 과일즙, 목재를 수출하고 식량과 기계류, 생활필수품을 수입한다.

대외무역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이 틀어쥐고있다.

주민의 75%이상이 흑인과 혼혈인이며 인디안은 주민의 17%에 지나지 않는다.

공용어는 영국말이나 일부지방에서 에스빠냐말을 한다. 주민의 대부분이 글을 모르며 소학교외에 중등 및 전문학교들은 몇개에 불과하다.

니 까 라 과

(니까라과공화국)

넓이 13만Km²
인구 199만명(1972년)
수도 마나과(주민 39만 8,000명, 1970년)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은 임기 6년인 16명의 의원과 종신의원인 이전 대통령 2명으로 구성, 하원 역시 임기 6년인 42명의 의원들로 구성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5년, 대통령 아나스따시오 소모사 데바일레 (1967년 5월—)

정당, 사회단체; **사회당** 1925년에 창건된 공산당에 기초하여 1944년에 창건, 1945년 이후부터 비법화되였으며 지하에서 활동, 1973년 11월 제10차당대회 진행, **국민자유당** 친미부르죠아지와 대농장주들의 리익을 대변하며

집권당, 정통보수당 지주들과 상업부르죠아지들 및 교권주의자들의 리익을 대변, 보수당 1957년에 정통보수당에서 분렬되여 나온 부르죠아정당, 독립자유당 부르죠아야당으로서 1941년에 조직되였으며 소모사의 독재를 반대, 기독교사회당 1957년에 조직된 부르죠아야당, 공화동원당 1958년에 조직되였고 소부르죠아지와 인테리들의 리익을 대변, 싼디노민족해방전선 미제와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무장유격투쟁을 지도, 해방민주련맹 1974년 12월 사회당을 포함한 7개 정당과 2개의 근로조가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여 투쟁할 목적으로 조직, 로동총련맹

니까라과는 1522년부터 300년간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었다. 1821년에 독립한후 1838년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세기후반기부터 이 나라에 대한 미제독점자본의 침투가 강화되였으며 20세기초에 와서는 사실상 미제의 식민지로 되였다. 1909년에 미제는 정변의 방법으로 친미반동정권을 들여앉히고 이 나라의 재정 및 관세권을 빼앗아냈다. 1914년 8월에는 니까라과반동정권을 강박하여 《브라이언—차모로운하조약》을 맺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련결하는 운하굴설권과 해군기지설치권(폰세까만) 및 꼬른제도의 《조차권》을 강탈하였다.

1926년 10월 19일 아우구스또 쎄싸로 싼디노를 비롯한 수천명의 애국자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의 봉화를 올렸다. 7년이상 전개된 애국적인민들의 무장투쟁에 의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은 미제침략군은 1933년초에 이 나라에서 쫓겨났다.(오늘 이 나라에서 반미반정부무장유격투쟁을 지도하고있는 《싼디노민족해방전선》은 이 애국자의 이름을 달았다.)

1936년에 미제의 지지밑에 군총사령관이던 소모사놈이 정권에 들어앉은 이후 오늘까지의 근 40년간 (소모사의 가족 그 일당이 집권) 계속 친미반동정책을 실시하면서 인민들의 초보적인 자유와 민주주의마저 무자비하게 탄압말살하고있다.

소모사도당은 미제와 《군사조약》(1954년)을 맺었으며 1965년 5월에는 미제침략도구인 《중미통합군》에 제놈들의 반동군대를 들이밀어 도미니까애국적인민들의 무장봉기를 야수적으로 탄압케 하였다. 그 이듬해에 반동정부는 자기 나라 령토를 꾸바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와 꾸바반혁명분자들의 군사훈련중심지로 내맡겼다.

니까라과인민들은 1959년부터 싼디노민족해방전선의 지도밑에 유격전선을 펴고 친미독재정권을 뒤집어엎기 위한 무장유격투쟁을 벌리고있다.

인민대중의 강력한 압력에 의하여 반동정권은 미제와 체결하였던 예속적인 《브라이언—차모로운하조약》을 1970년 7월에 페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1972년 12월 23일 수도 마나과에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 3만명이 죽고 20만명이 집을 잃었다. 도시의 대부분이 파괴되였다.

현 소모사친미독재정부는 진보적정당들을 비법화하고 반동정권을 반대하여 싸운 수많은 애국자들을 체포구금하였다. 그리하여 마나과감옥을 비롯한 많은 감옥들에서 애국자들이 야수적인 고문을 당하면서 신음하고있다. 한편 친미군사반동당국은 위기에 처한 파쑈통치제도를 부지하기 위하여 미제의 《군사사절단》을 끌어들여 그것을 유지하는데 인민들의 피땀으로 짜낸 숱한 돈을 쏟아붓고있다. 이 악마의 소굴인 《군사사절단》의 청사하나를 관리하는데만 하여도 매달 약 10만꼬르도바(1딸라=7꼬르도바)나 처넣고있다.

이 나라에서 반미반정부투쟁을 벌리고있는 싼디노민족해방전선의 한 무장소조는 1974년 12월에 마나과시에서 소모사일당의 친족들과 외교부장놈을 포함한 여러놈의 고위관리들이 술판을 벌리고있는 연회장을 습격하여 8명을 사로잡아갔다. 이 사건후 급해맞은 소모사도당은 이 무장소조의 요구대로 부당하게 갇혀둔 10명의 애국자들을 석방하였으며 500만딸라를 내놓지 않을수 없었다.

1974년 12월 1일 소모사놈은 다시 대통령감투를 뒤집어쓰고 취임식놀음을 벌렸다.

사회당을 포함하여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7개의 정당과 2개의 근로조단체들은 12월에 해방민주련맹을 창설하였다. 련맹은 소모사반동정권을 전복하고 심각한 사회경제적변혁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강령으로 제기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57%가 농업부문에서 일하는 뒤떨어진 농업국가이다. 부침땅의 50%이상을 외국독점체들과 국내의 대토지소유자들이 독차지하고 농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사탕수수, 강냉이, 벼, 참깨, 남새이다. 동부지방에서는 수출작물인 목화를 많이 심는데 한해동안에 7만톤이상 생산한다. 서북부지방에서는 커피(년산 3만톤이상)와 기타 작물들을 많이 가꾼다. 수출작물은 미제독점자본가놈들에게 거의다 헐값으로 빼앗긴다.

강냉이, 땅콩, 벼 등 알곡작물의 생산량이 적어 해마다 많은 식량을 수입한다. 축산업도 진행한다.

공업부문에서 화학, 금속가공, 종이, 석유 공업의 몫이 공업총생산액의 25%정도 차지한다. 그밖에 사탕, 채굴공업이 있다. 한해동안에 11만톤의 사탕과 5억 6천여만키로와트시의 전력이 생산된다.

이 나라에서 외래독점자본총액의 3분의 2를 미제의 사자본이 차지한다.

교통운수에서 자동차운수와 수상운수가 기본이며 철길(좁은 철길)은 400키로메터에 불과하다.

주요수출품은 목화와 목화씨, 커피, 사탕, 목재이며 수입품은 기계, 화학제품, 운수수단, 설비 등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미국, 서독, 일본이다.

주민의 대다수가 혼혈인(에스빠냐사람과 인디안의 혼혈인)이다. 그밖에 10만명정도의 흑인과 3만명정도의 인디안이 산다.

공용어는 에스빠냐말이고 주민들은 거의나 천주교를 믿는다.

인구의 10%에 달하는 사람들이 실업자이며 요행 일자리를 얻은 근로자들도 6개월정도밖에 일할수 없는 형편이다. 수도 마나과에는 단 한개의 종합병원이 있는데 치료비가 비싸기때문에 일반주민들은 치료받을 엄두도 못낸다.

주민의 65%가 문맹자이며 학교갈나이의 40%의 어린이들이 배움의 길을 잃고있다. 대학은 2개밖에 없다.

1974년 12월에 전기세를 55% 끌어올렸다. 물건값중에서는 특히 생활필수품값이 많이 올랐다.

출판보도; 신문 노베다데스 (국민자유당계), 라 노띠씨아(독립자유당계), 라 쁘렌싸 그라띠까 (국민자유당계), 라 나씨온(보수당계), 라 쁘렌싸 (무소속)

방송 니까라과국립방송, 니까라과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발표 한돐에 즈음하여 꾸바에 있는 니까라과싼디노민족해방전선 성원인 레이날도 꼬르돈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자기의 담화에서 《김일성 원수님의 연설은 그이의 주체사상과 철저한 반제반미로선을 구현한것으로서 조선인민은 물론 아세아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을 더욱 강화하며 그들을 보다 큰 승리에로 이끄는 강력한 사상적무기로 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 조직의 성원인 왈데리오 까메로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발표 배돐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김일성주석님의 보고를 읽고서 우리는 반제투쟁의 새로운 방침들을 찾게 되였으며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 혁명을 어떻게 계속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더욱 똑똑한 인식을 가지게 되였다.

그이의 보고에서 천명된 모든 귀중한 경험과 교훈은 오늘 진보와 사회주의로 지향하는 인민들과 제3세계인민들의 새사회건설투쟁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실로 보고는 피압박인민들과 근로대중에게는 무한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혁명의 량식이며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죽음과 멸망을 주는 강력한 폭탄으로 된다.》

1971년에 싼디노민족해방전선청년대표가 우리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꼬스따 리까

(꼬스따 리까공화국)

넓이 5만 700Km²
인구 184만명(1972년)
수도 싼 호세(주민 20만 3,000명, 1970년)

정 치

립법회의 일원제, 의원수는 57명, 임기는 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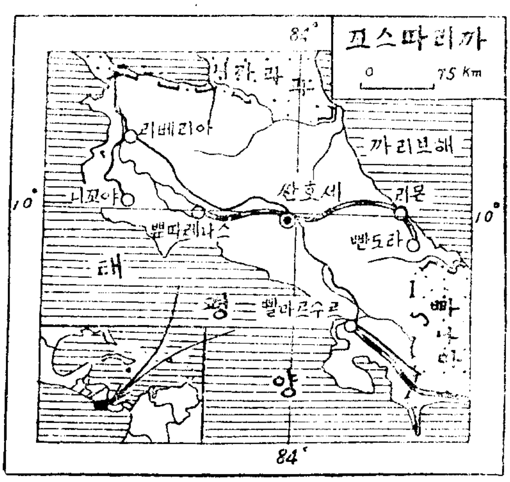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4년, 대통령 다니엘 오두베르(1974년 5월—)

정당, 사회단체; 인민전위당 전신은 1931년에 창건된 공산당이며 1943년에 지금 이름으로 고침, 1948년에 활동을 금지당하였다가 1950년부터 합법화, 총비서 마누엘 모라 발베르데, **사회당**, **민족해방당** 1945년에 조직, 부르조아지들과 커피농장주 및 지주들의 리익을 대변(집권당), **민족동맹당** 1947년에 조직된 대부르조아지들 및 미제독점자본과 련결된 대농장주들을 대변하는 정당, **민족공화당** 대부르조아지정당, **공민혁명동맹당** 부르조아정당, **기독교민주당** 반동적인 정당, **사회행동당** 1969년에 친미반동정당들의 련합체로 결성, **근로자총련맹** 세계직련에 가입한 진보적로조, **민주근로자련맹**, **혁명청년동맹**

16세기초부터 에스빠냐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 9월 15일 꼬스따 리까인민들은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독립하였다. 1823년에 《중미련맹》을 거쳐 1839년에는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20세기초부터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을 대신하여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침투가 일층 강화되였다.

1966년 4월 자기 나라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령해를 200마일로 정하였다.



1970년 5월부터 집권한 피게레스정부는 미제의 침략적군사기구인 《중미방위리사회》에서 탈퇴(1971년 2월)하였으며 미제가 새로 꾸며내려는 침략적군사동맹인 《중미련맹》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였다.

1974년 2월 립법회의(국회)는 미제독점자본가놈들의 회사인 《오싸 뻬로둑또스 포레스딸레스》의 소유로 되여있던 땅을 몰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정부는 미제독점회사 《엘라이드 케미클》소속 원유가공공장을 국가의 소유로 만들었다.

1974년 2월 3일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였다. 선거에서는 집권당인 민족해방당출신 립후보 다니엘 오두베르가 새 대통령으로 되였다. 5월 8일 대통령취임식이 진행되였으며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대통령취임식에서 오두베르는 자기의 자연부원에 기초하여 민족공업을 발전시키며 《국내에서 심오한 사회경제적변혁》을 이룩할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앞서 2월에 싼 호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말하면서 농촌에서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하며 살림집을 건설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립법회의는 8월에 미제의 《유나이테드 브랜즈》독점회사가 꼬스따 리까의 바나나구입을 제마음대로 거부함으로써 이 나라의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준것과 관련하여 놈들의 회사에 2천만꼴론의 배상금을 요구하였다.

12월에 립법회의는 미제의 알루미니움회사와 맺은 예속적인 《계약》(1970년)을 페기할데 대한 법안을 심의하였다. 또한 12월 12일 립법회의는 자기 나라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의 《군사사절단》에 유지비를 대주던 일을 1975년부터 걷어치우기로 결정하였다.

1974년에 꼬스따 리까근로자들은 나라의 자연부원을 헐값으로 마구 략탈하여가는 미제독점자본가놈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5월에 꼬스따 리까전국바나나생산협회, 기자협회 및 기타 일련의 사회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여 미제의 《스탠다드》과일독점회사가 세금을 올려물데 대한 정부의 조치에 응하지 않고있으며 바나나를 헐값으로 계속 빼앗아가고있는데 대하여 규탄하였다. 6월에 들어서면서 이 나라 수도에서 수천명의 로동자, 사무원, 학생들이 미제독점자본가들을 준렬히 규탄하면서 시위와 집회를 가졌다. 이어 6월 11일에는 미제의《스탠다드》과일독점회사에 원

매여있는 6천여명의 농업로동자들이 미제의 략탈행위를 반대하여 파업을 일으켰다. 6월말에 미제의 《유나이테드 브랜즈》파일독점회사에 고용된 로동자들도 놈들의 강도적략탈행위를 준렬히 규탄하고 파업투쟁을 벌렸다.

꼬스따 리까는 11월에 진행된 《미주국가기구》외교부장회의에서 베네수엘라, 꼴롬비아와 함께 꾸바에 대한 이른바 《제재조치》를 취소할데 대한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꼬스따 리까는 다른 라틴아메리카나라들과 함께 3월 30일에 바나나수출국동맹, 9월 9일에 육류생산국기구, 11월 24일에 커피수출국기구, 11월 29일에 사탕수출국기구를 내오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였거나 결성하였다.

12월 12～14일까지 베네수엘라에서 꼬스따 리까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나라 국가 및 정부 수반들은 경제적협조를 발전시킬 《파야나선언》을 채택하였다. 꼬스따 리까정부는 이미 지난년간들에 일련의 사회주의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1974년 1월에 민주독일, 11월에 리비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4년 4월에 피게레스대통령(1970년 5월～1974년 5월초까지 집권)이 로므니아, 유고슬라비아를 공식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몇가지 수출용 농산물생산에 주로 의거하는 뒤떨어진 농업국가이다. 로력인구의 48%정도가 농업부문에서 일하며 알곡작물은 적게 심는다.

기본수출작물은 바나나, 커피, 코코아, 사탕수수이다. 까리브해기슭의 낮은 지대에서 주로 재배되는 이 작물들은 미제의 《유나이테드》, 《스탠다드》 파일독점회사들이 거머쥐고있다.

해마다 100만～120만톤정도의 바나나, 8만톤이상의 커피, 5천톤의 코코아가 생산된다.

이러한 몇가지 수출용 작물에 의거하고있는 이 나라 경제는 미제의 략탈정책으로 말미암아 매우 불안정하며 심한 타격을 받고있다.

1974년 2월에 이 나라 립법회의는 미제의 《오싸 쁘로둑또스 포레스딸레스》독점회사의 소유였던 3만헥터의 땅을 몰수하기로 하였다.

경제에서 공업부문이 차지하는 몫은 매우 낮으며 그것마저 대부분 제국주의독점체들의 통제하에 있다. 국민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약 7%에 불과하다. 식료, 방직, 신발 등 중소경공업공장들이 있다. 년산 30만톤 능력의 석유가공공장이 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석유공급은 《텍사코》, 《에쏘》 등 미제의 석유독점회사들이 틀어쥐고있다.

철길은 1천 400키로메터인데 그의 65%가 미제독점회사의 소유이다.

수출품 가운데서 바나나, 커피, 코코아가 60%이상 차지하며 기계, 화학제품, 식량 등을 수입한다.

주민구성에서 에스빠냐사람 혈통의 백인과 인디안과 에스빠냐사람의 혼혈인이 주민의 97.6%를 차지한다.

공용어는 에스빠냐말이며 천주교는 이 나라의 국교이다.

15살이상의 주민들중 16%가 글을 읽고 쓸줄 모른다. 대학은 1개밖에 없다.

50%이상의 주민이 살림집이라고 할수 없는 집에서 산다.

출판보도; **신문** 리베르따드(인민전위당기관지), 라 레뿌블리까(민족해방당기관지)

방송 꼬스따 리까방송, 꼬스따 리까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2월 10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4년 5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니엘 오두베르가 꼬스따 리까공화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월 9일 우리 나라에 머무른 아르헨띠나주재 꼬스따 리까공화국 특명전권대사부부를 접견하시였다.

접견석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 인사를 올리게 된 크나큰 영광과 행복에 대하여 말하였으며 수령님께 보내는 꼬스따 리까대통령의 인사를 전해드리였다.

이날 경애하는 수령님께 대사부부는 자기들이 정성들여 준비한 귀중한 선물을 드리였다.

대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김일성주석각하와 같으신 위대한 령도를 받는 나라는 없다고 하면서 우리 제3세계는 김일성주석님과 같으신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대사는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제3세계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고있다고 말하였다.

1974년 5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꼬스따 리까를 방문하여 이 나라 새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되였다. 우리 나라 대표단을 이 나라의 새 대통령 다니엘 오두베르가 만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시는 말씀을 대표단 단장이 대통령에게 정중히 전달하였다.

빠 나 마

(빠나마공화국)

넓이 7만 5, 650Km²(운하지대는 제외)

인구 157만명(운하지대는 제외, 1973년)

수도 빠나마(주민 41만 2,000명, 1970년)

정 치

국민회의 최고립법기관, 3년 임기인 505명의 의원들은 505개의 《자치체》들에서 각각 1명씩 선출된다. 1972년 8월 각계각층이 선거되였다.

대통령 임기 6년인 대통령은 국민회의에서 선거, 대통령 데메뜨리오 바실리오 라까스(1972년 10월 11일—)

정부 수반은 국민회의에서 임명, 정부수반 오마르 또르리호스 에르레라(1972년 10월 11일—), 국가평의회 의장, 국가보안군 총사령관 및 총참모장 겸임, 외교부장 후안 안또니오 딱크

정당, 사회단체; **빠나마인민당** 1930년에 조직된 공산당에 기초하여 1943년에 창건, 총비서 루벤 다리오 쏘우사, **민족자유당** 1931년에 창건된 부르죠아정당, **기독교민주당**, **민족동맹** 1960년에 조직된 우익정당들의 련합, **빠나마당**, **공화당**, **《제4세력》**, **전국근로자회의** 1974년 6월 근로자전국로조중앙, 근로자로조련맹을 비롯한 여러 로조단체들로 통일적인 로조조직을 창설, **공산주의청년동맹**

빠나마가 1903년 독립한 해에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조차지》라는 구실밑에 운하를 건설할 목적으로 1천 432평방키로메터의 령토를 떼내였으며 놈들은 이 나라에 대한 부단한 내정간섭책동을 벌려왔다. 그리하여 빠나마인민은 독립한 때로부터 1947년까지 무려 54차례의 정변과 반란을 겪었으며 이 기간에 30여차례나 정권이 바뀌였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한

시도 멈추지 않은 빠나마인민은 1964년 1월 9일 이 나라 력사상 가장 큰 류혈적인 반미폭동을 일으켰다. 빠나마인민은 1월 9일을 희생된 폭동자들의 《추모의 날》로 정하고 해마다 이날을 기념하면서 미제와의 예속적인 《운하조약》의 페기, 운하지대에 대한 민족적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1968년 10월 11일 빠나마보안군 총사령관 오마르 또르리호스가 력대로 내려온 친미반동정권을 뒤집어엎고 새 정부를 수립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68년에 오마르 또르리호스 에르레라장군이 정권을 잡은 다음 빠나마공화국 정부는 빠나마인민의 리익에 맞는 진보적인 정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빠나마공화국 정부는 토지개혁을 비롯하여 교육체계의 민주화, 전기부문의 국유화, 농업협동조합의 조직, 미제독점체들과 국내 대자본가들의 리윤획득의 제한과 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빠나마기자대표단과 한 담화》, 단행본, 23페지)

미제와 국내반동세력의 온갖 음모파괴책동을 물리치고 새 정부는 《자주권과 민족적독립, 완전한 자유》를 이룩하고 《경제적예속성과 가장 빈곤한 층의 무권리를 끝장내며》, 《국내의 지역적인 차이를 없앨것》이라는 구호밑에 국가관리들을 새로 임명하였으며 국가보안군을 재편성하였다. 또한 인민당을 비롯한 진보적정당들과 로조단체, 농민, 학생 단체들의 활동을 합법화하였다.

1972년 8월 6일 실시된 새 국민회의선거에서 반동적파두세력을 제외한 광범한 계층의 근로자대표들이 립후보자로 선거되였다. 력사적으로 천대와 멸시를 받아 주변섬들에 쫓겨나 살던 소수민족인 인디안대표들도 처음으로 국민회의 의원들로 선거되였다. 새로 채택된 헌법은 이전 《헌법》과는 달리 나라의 령토를 일시적이건 부분적이건간에 외국에 절대로 제공할수 없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대지주들과 외래제국주의독점체들이 가지고있던 땅을 몰수하여 농업협동조합을 묶는 동시에 반동세력의 경제적파괴행위를 짓부시고 농촌경리발전을 위해 단기계획뿐아니라 장기계획을 세웠으며 거기에 많은 자금을 쓰고있다.

공업분야에서도 낡은 경제구조를 개조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여 국영 및 협동경리 형태의 기업소들이 늘어나고있다.

1974년 10월에 정부는 미제의 전신전화회사인 《웨스텐 유니온 인터내슈날》의 지사를, 이에 앞서 제국주의자들의 전기회사인 《푸에르싸스 이 루스》와 11월에 미제의 통신회사를 국가의 수중에 넣었다.

2월초에 빠나마당국은 자기 나라의 석유제품가격규정을 위반하고 비싸게 팔아먹은 미제의 《유에스 에쏘 스탠다드 오일 캄파니》석유회사에 막대한 벌금을 들씌웠다.

1974년에 《유나이테드》과일독점회사를 비롯한 미제의 독점체들은 바나나를 비롯한 나라의 자연부원을 지키기 위한 빠나마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반대하여 7월 23일부터 바나나수확과 수출을 제마음대로 중지하고 물어야 할 세금(900만딸라)도 내기를 거부하였다. 미제략탈자들은 7만 4천개의 바나나상자를 없애버리고 1만 5천명의 로동자들을 일자리에서 내쫓는 범죄적행위를 감행하였다. 5월에 지어 미제국주의자들은 정부수반 오마르 또르리호스를 암살하려고까지 하였다.

이 나라의 로동자, 농민, 실업가, 대학생 단체들은 성명들을, 출판물들은 사설 및 론설들을 내여 빠나마에 경제적압력을 가하는 미제독점회사의 행위는 빠나마에 대한 《경제전쟁을 선포》한것이며 《경제적침략행위》이라고 규탄하였다. 전국적으로 로동자,농민, 대학생, 사회계 대표들의 집회들이 련이어 진행되였다.

8월 12일 꼴론시에서 1만명의 시민들의 시위가 있은데 뒤이어 22일 치뜨레시에서는 약 1만명을 헤아리는 시민들이 집회를 가지고 미제의 경제적략탈을 신랄히 규탄하였다. 빠나마인민들의 강력한 반미투쟁기세에 놀란 미제의 《유나이테드 브랜즈》회사는 9월 4일 이 나라의 주요생산품인 바나나의 수출을 일방적으로 중지함으로써 빠나마를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려던 저들의 음흉한 책동을 포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빠나마정부수반은 자기의 방송연설에서 《우리는 민족의 리익을 수호하였다. 그러나 민족적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미제독점체들과의 투쟁과정을 통하여 결속된 이 나라 각계각층 인민들은 민족적존엄을 수호하는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6월에는 전국의 여러 로조단체들이 통일적인 하나의 로조인 전국근로자회의를 내왔다.

1974년에 《반미애국투쟁의 날》 열돐을 맞은 빠나마인민은 운하지역에 대한 미제의 강점을 반대하는 투쟁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력히 벌렸다.

빠나마시를 비롯하여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1월 9일 반미 집회와 시위들이 벌어졌다. 여러 사회단체들이 성명을, 출판물들은 일제히 사론설을 발표하여 미제를 빠나마운하지역에서 몰아낼 때까지 싸울 한결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1월 9일 외교부장은 자기의 연설에서 운하지대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적 지배를 끝장내며 민족적독립을 지키기 위하여 싸울 빠나마인민들의 결의를 확인하였다.

대외관계분야에서도 빠나마정부는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여 민족적자주권을 지키며 제3세계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1974년에 빠나마정부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에 언급하여 외교부장은《빠나마의 대외정책은 사회주의나라들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 다방면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키는것이다.》라고 말하였다.

6월 7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에 빠나마, 꼬스따 리까, 꼴롬비아의 국가 및 정부 수반들은 빠나마에서 회담을 가지고 민족자원을 지키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그후 빠나마정부는 바나나의 수출세를 올릴데 대한 결정을 변경시키지 않으며 제국주의다국적회사들의 압력에 맞서 끝까지 대항할 립장을 표시하였다.

빠나마, 메히꼬와 기타 중미지역 5개국은 9월 9일 메히꼬에서 각료회의를 가지고 지역적인 육류생산국기구를 창설하여 수출가격을 공동으로 보호하기로 합의하였다.

1974년에 빠나마정부수반 오마르 또르리호스는 1월에 아르헨띠나, 페루를 방문하였으며 2월에 온두라스대통령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1월 19일 발표된 빠나마정부수반의 아르헨띠나방문과 관련한 공동성명은 빠나마운하와 운하지대를 되찾기 위한 빠나마의 합법적요구에 대하여, 말빈제도의 소유권에 관한 아르헨띠나의 립장에 대하여 호상 지지를 표시하였다. 빠나마는 페루와 1월 28일 바다자원을 개발리용하는데서 서로 협조할데 관한 협정, 8월 5일 알제리와는 통상협정을 맺었다.

빠나마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고있는 《미주국가기구》를 뜯어고칠것을 주장하였으며 꾸바에 대한 미제의 《고립봉쇄》책동을 규탄하였으며 놈들의 압력을 물리치고 1974년 8월 22일 꾸바와 외교관계를 회복하였다. 1월에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미제독점자본이 일찍부터 이 나라에 침투하여 경제전반을 틀어쥔 결과 빠나마는 아직 뒤떨어진 농업국의 상태에 머물러있다. 미제독점회사들은 바나나, 사탕수수와 같은 수출작물재배에 국한시키고 그의 대부분을 헐값으로 빼앗아갔다. 이리하여 농업은 미제독점체들과 국내의 한줌도 못되는 대지주놈들에 얽매여 단작경리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주민의 약 70%가 농사하면서도 식량의 60%를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1968년에 진보적인 정부가 수립된 후 당국은 상업과 봉사령역에 치우친 현경제구조대신 다각경제를 창설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업과 농촌경리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정부는 대지주놈들과 미제독점회사들로부터 토지를 몰수하여 국영농장과 협동조합을 무었다. 1974년현재 몰수한 땅은 32여만헥터에 달하는데 바나나의 재배와 수출을 독점하고있는 미제의 《유나이테드》과일독점회사에서만도 1만 3천헥터의 땅을 몰수하였다. 이미 조직된 250개의 농업협동조합들이 나라로부터 기술적방조와 자금을 대부받으면서 조합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공고히 하고있다.

한편 정부는 묵은 땅을 개간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전개하고있다. 빠나마운하의 동쪽에 있는 바야노지역이 개발되고있다. 넓은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3억딸라의 자금이 지출되였고 도로와 수로 건설이 한창이다. 이와 같이 방대한 사업을 정부가 벌린 결과 일자리가 없어 떠돌던 사람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게 되였고 력사적으로 수모와 멸시를 받아 바다가섬들에 쫓겨났던 인디안소수민족들이 대륙으로 다시 찾아들고있다. 농촌경리에서 혁명적변혁으로 하여 낡고 무질서한 농업구조는 점차 파괴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바나나(약 70만톤), 커피(약 5천 300톤), 사탕수수, 파인애플, 코코아, 담배 등 수출작물들과 벼, 강냉이, 콩과 같은 알곡작물이다. 해마다 벼는 16만톤, 강냉이는 8만 5천톤 정도 생산한다. 1973년 5월부터 1974년 4월까지의 농업년도에 그 전해 농업년도에 비하여 벼는 29.5%, 강냉이는 23.6%, 콩은 12.1% 각각 늘었다. 이밖에 사탕수수, 커피, 담배 생산량도 많이 늘었다.

소(120만마리), 돼지 등을 기본으로 하는 축산업도 큰 의의를 가진다.

경제적자립을 지향하는 정부는 가장 중요한 공업부문을 국유화하여 국영부문을 확대하고있다. 동시에 협동적소유에 기초한 공업기업소들도 생겨나 공고화되고있다. 협동조합형태는 봉사부문에까지 미치고있다.

주요공업부문은 채굴공업(보크사이트, 동 등)이며 그밖에 약간의 농산물가공공장 및 빠나마운하지대에 대한 상품공급과 관련한 식료가공, 석유가공, 사탕, 방직, 신발 공장들이 있다.

정부는 국내원료를 가지고 일하는 국영기업소들을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3개의 큰 사탕공장이 건설되고있는데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비또리아》(승리)사탕공장이 조업하였다. 이 공장은 사탕수수재배로부터 사탕생산까지 하는 종합공장으로서 1974년에 35만톤의 사탕수수를 걷어들였고 3만 1천여톤의 사탕을 생산하였다.

또한 큰 세멘트공장과 목재가공공장, 2개의 수력발전소가 건설되고있다. 한 수력발전소는 벌써 조업단계에 들어섰다. 쎄로 꼴로라도의 가장 풍부한 동산지를 개발할 국영기업소도 일을 시작하였다.

정부는 국내자본가들로부터 보다 많은 세금(리윤의 40%)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자금을 얻어내여 주로 살림집건설, 운수 및 전력공업발전에 힘을 넣고있으며 지하자원개발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그러나 작은 규모의 상공업자들에게는 영업의 조건을 보장해주고 보호하고있다.

해안을 끼고있는 이 나라는 풍부한 수산자원을 가지고있다. 특히 새우와 청어가 많이 잡히는데 새우는 주요수출품이다. 1973년에 그 전해보다도 약 300톤이나 더 많은 새우와 2만 80톤이나 더 많은 청어를 잡았다. 1974년 1월 28일 뻬루와 맺은 협정에 의하여 물고기가공공업, 통졸임생산, 공장건설, 고기배무이, 시장의 탐구 등에서 서로 협조하고있다.

농업, 축산업, 민족공업발전을 위하여 빠나마국립은행은 1974년 첫 8개월동안에 이 분야에 9천 100만딸라를 지출하였다.

주요수출품은 바나나(수출총액의 60%), 석유제품, 고기, 수산물, 사탕이며 주요수입품은 석유, 식량, 피복, 자동차 등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미국, 베네수엘라, 일본, 서독이다.

주민은 흑인과 백인의 혼혈인 72%, 흑인 15%, 백인 13%이다.

공용어는 에스빠냐말이며 주민의 95%가 천주교를 믿는다.

정부는 《교육개혁》을 위한 《특별정부위원회》를 내오고 교육의 《빠나마화》를 위하여 투쟁하면서 이 부문에 투자를 늘이고 많은 학교를 지었다. 현정부가 집권한 3년동안에 각급학교 많은 1903～1967년까지의 전기간에 비하여 더 많이 늘었다. 대학은 2개로부터 4개로 늘었으며 대학생은 1972—1973학년도에 전해 학년도의 1만 3천명으로부터 2만명으로 늘었다. 국가는 대학생들의 학비를 줄이였고 국가자금으로 학비를 대주었다가 졸업후 보상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출신 자제들이 대학에서 공부할수 있게 하였다. 20만명에 달하는 문맹자들을 없애기 위해 《문맹퇴치강습소》 등이 설치되였다. 대학생들은 농촌지역에 나가 낮에는 농민들과 같이 밭에서 일하고 밤에는 여러가지 전문지식에 대한 강습을 조직한다. 정부는 1974년 2월 11일 학생들에게 애국주의사상을 높여주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빠나마—미국관계력사강좌를 내왔다.

국내벽지들까지도 국가의 의료방조를 받을수 있게 국가가 통제하는 통일적인 의료방조체계가 세워졌다. 각지에 진료소를 내오는데 청년의사들이 동원되고있다.

새 《로동법》에 의하여 정부는 로동자들의 단체계약체결권을 법적으로 옹호하고 파업을 기업주들과의 합법적투쟁수단으로 인정하였으며 기업주들이 로조단체의 동의없이 로동자들을 해고할수 없게 하였다.

빠나마의 싼 블라스군도에서 살던 인디안소수민족은 처음으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있다. 인디안들의 인권을 유린하던 수많은 법들이 새 정부에 의하여 폐지되였다. 그들은 다시 본대륙의 도시와 농촌에 이주하여 살수 있게 되였고 일자리를 받았다. 아이들은 난생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갔다. 인디안들이 국민회의 의원으로도 선거되였다.

출판보도; 신문 모멘또(인민당기관지), 엘 빠나마 아메리카(무소속), 마뚜띠노, 끄리띠까, 라 쁘렌싸, 엘 빠이스(무소속)

방송 빠나마방송, 빠나마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11월에 빠나마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문화련락위원회가 빠나마시에서 창설되였다. 협회위원장으로는 빠나마종합대학 총장 로물로 에스꼬바르 베딴꾸르뜨가 선거되였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 협회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두 나라인민들사이의 친

선과 협조를 발전시키는데 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 9월 1일 우리 나라에 머무른 빠나마신문들인 《엘 빠나마 아메리카》 주필과 《마뚜떠노》주필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접견석상에서 손님들은 현시대, 혁명의 시대의 가장 능력있고 높은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계시는 지도자이시며 위대한 혁명가이신 수령님을 직접 만나뵈옵게 된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며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빠나마인민의 굳은 전투적련대성과 뜨거운 친선의 인사를 전하여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빠나마공화국 정부수반인 오마르 또르리호스 에르레라장군의 자주적인 정책과 빠나마운하지대로부터 미제강점군을 내쫓고 운하지대에 대한 합법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빠나마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하시면서 빠나마인민들이 오마르 또르리호스 에르레라장군의 두리에 단결하여 속한 시일내에 완전한 자주성을 쟁취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으며 앞으로 조선과 빠나마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같이 어깨겯고 싸워나갈것을 희망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9월 1일 빠나마기자대표단과 하신 담화전문을 빠나마 신문들인 《마뚜떠노》 (9월 13일호)와 《엘 빠나마 아메리카》 (10월 6일호)가 실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빠나마기자대표단과 한 담화》를 빠나마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문화련락위원회가 12월 30일 단행본으로 각각 출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의 첫째부분 《우리 나라의 정세에 대하여》의 전문을 이 나라 신문 《마뚜떠노》(12월 22일호)가 실었다.

1974년 11월 12~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진행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라틴아메리카회의》에서 연설한 빠나마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문화련락위원회 위원장이며 빠나마종합대학 총장인 베만꾸르뜨는 《우리는 조선인민의 수령이신 김일성주석동지께서 제시하신대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하려는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1974년 4월 26~5월 5일까지 우리 나라 외교부대표단이 빠나마를 방문하였다.

빠나마정부수반 오마르 또르리호스 에르레라가 4월 30일 이 나라에 머무른 우리 나라 외교부대표단을 만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시는 말씀을 단장이 석상에서 빠나마정부수반에게 정중히 전달하였다.

빠나마정부수반은 빠나마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것이라고 말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님께 빠나마인민이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한다는것을 나는 확언합니다. 우리 두 나라에는 외국군대가 둥지를 틀고있습니다. 외국군대의 강점으로 하여 우리 두 나라 정세는 긴장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유엔에서 당신들의 립장을 계속 지지할것입니다.

끝으로 그는 《김일성주석님께 나의 가장 친선적이며 따뜻한 인사를 전하여 줄것을 바랍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나라에 머무르는 기간 대표단은 빠나마 대통령과 외교부장 및 기타 공식인사들도 만났다.

1971년 10월 5~20일까지 빠나마인민당총비서 쏘우사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이 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같은해 6월에 빠나마공산주의청년대표단이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운하와 운하지대를 되찾기 위한 빠나마인민들의 완강한 투쟁

빠나마운하는 남북아메리카대륙의 중앙부(빠나마공화국)를 통과하고있으며 태평양과 대서양을 련결시키는 국제운하의 하나이다. 운하는 갑문식(2중의 벽파 수도관을 사용하여 배를 통과시키는 운하)이며 운하의 길이는 약 80키로메터, 너비는 90~300메터이다. 한척당 통과시간은 8시간 걸리며 해마다 1만 4천척의 배들이 통과할수 있으며 1974년 8월 15일까지 60년동안에 49만 5천 4척의 배들이 통과하였다.

빠나마운하지대는 운하의 두 기슭, 각각 8키로메터에 해당하는 지대를 말한다. 이 지대의 넓이는 1천 432평방키로메터(그중 땅넓이는 952평방키로메터)이며 인구는 5만 1천 400명(그중 미국인 3만 9천 84명, 1970년)이다. 행정중심지는 발보아 하이쯔이다.

미제는 빠나마인민의 자주권을 짓밟고 운하와 그 량쪽지대를 강점하고 주인행세를 하고있다. 1903년에 예속적인 《미국—빠나마운하조약》을 강요한 미제는 운하의 량쪽 연안으로부터 각각 8키로메터안의 령토를 이른바 《영구조차지》로 강탈하였다. 놈들은 1904년 5월 운하건설에 착수하여 1914년 8월 15일에 완공하였다. 이 공사기간에 6만여명의 빠나마인민들이 생목숨을 잃었고 수십만명이 불구자로 되였다. 이것은 운하길이 1메터당 평균 1명이 죽은것으로 된다.

그때로부터 지난 70여년동안 미제는 운하지대에 《나라안의 나라》를 만들어놓고 이 운하를 저들의 침략 및 전쟁책동파 거액의 리윤추구의 수단으로뿐아니라 운하지대를 빠나마와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위업을 반대하는 침략적군사기지로 리용하여왔다. 운하를 통하여 해마다 많은 돈을 벌어들인 미제는 1972년초 현재 도합 30억딸라이상의 막대한 리윤을 짜냈다.

운하지대에는 미제의 《까리브해통합사령부》 (일명 남부군사령부)와 14개의 군사기지가 도사리고있다. 여기에는 약 1만명의 미제의 륙해공군과 해병대와 국방부에 속한 6천명의 《민간인》들이 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말살하기 위한 미제침략군의 특수학교(《미주학교》)와 특수부대들(《푸른 베레모》)이 있다. 《미주학교》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 끌어온 친미악당들을 《반유격전쟁법》으로 길들이고있다. 미제침략군의 특수부대는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 침투하여 《군사고문》으로 있거나 인민들의 유격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직접 지휘하고있다. 미제침략군 특수부대 악당들은 1967년에 볼리비아에서 무장유격투쟁을 지휘한 체 게바라를 학살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빠나마운하지대는 빠나마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책동을 위한 종합적군사기지로, 파괴, 정탐, 모략을 위한 간첩소굴로, 막대한 리윤추구의 수단으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예속적인 《운하조약》을 폐기하며 운하와 운하지대에 대한 민족적자주권을 되찾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빠나마인민의 사활적문제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빠나마인민은 빠나마 운하와 운하지대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빠나마인민은 빠나마 운하와 운하지대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적 지배와 략탈을 끝장내고 합법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대중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습니다.

빠나마 운하와 운하지대에서의 자주권과 합법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빠나마인민들의 투쟁은 령토완정을 이룩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존엄을 지키기 위한 정의의 투쟁입니다.》(《빠나마기자대표단과 한 담화》, 단행본, 22페지)

빠나마인민은 운하와 운하지대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적 지배와 략탈을 끝장내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존엄을 위하여 지칠줄 모르는 투쟁을 벌려왔다.

특히 1964년 1월의 반미폭동은 빠나마력사에 영원히 아로 새겨져있다. 1월 9일 운하지대에 양키놈들의 성조기가 드리운것을 보고 더는 참을수 없어 빠나마학생들은 《빠나마는 운하지역에서 자주권을 누릴것이다》라고 쓴 구호판을 추켜들고 《자주권 만세!》의 구호를 웨치면서 저주로운 가시철망을 넘어 운하지대에 돌진해들어갔다. 의분에 찬 수천수만의 빠나마인민들이 투쟁에 떨쳐나섰다. 살인귀 미제침략군놈들은 땅크와 기관총으로 적수공권의 군중을 향하여 22명의 빠나마학생들을 희생시키고 500여명을 부상시켰다.

빠나마 운하와 운하지대를 되찾기 위한 피어린 투쟁의 눈물겨운 력사를 되새기면서 빠나마인민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만약 지리가 력사의 색갈을 표시할수 있다면 운하의 물은 응당 붉은색으로 되여야 할것이다. 왜냐하면 처음 운하를 팔 때 죽은 사람들로부터 〈국기를 위해 싸우다〉가 희생된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그깃이 피의 력사를 이루고있기때문이다.》

1964년 1월 반미폭동후 미제는 빠나마와 새로운 조약을 맺기 위한 회담에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미제는 회담을 통하여 새 《조약》을 체결할듯이 기만과 지연 전술을 써가면서 운하와 운하지대를 계속 강점하려고 책동하는 동시에 새 운하건설을 위한 특권을 강탈해내려고 어리석게 날뛰였다. 그러나 빠나마당국은 일관하게 1903년의 예속적인 《조약》을 폐기하고 운하와 운하지대에 대한 자주권과 관할권을 주장하였다.

빠나마인민들의 단호한 립장에 의하여 저들의 목적이 실현될수 없게 되자 미제는 1967년말 회담을 일방적으로 파탄시켰다.

1968년 10월 오마르 또르리호스를 수반으로 하는 진보적정부가 수립된 이후 운하와 운하지대를 되찾기 위한 인민들의 강력한 반미투쟁에 접을 먹은 미제는 1971년 6월 회담석상에 다시 끌려나오기는 하였으나 부당한 조건과 구실을 내걸면서 회담을 지연시키려고 계속 책동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파렴치한 책동에 대답하여 이 나라 정부수반 오마르 또르리호스는 《만약 미국과의 만족스러운 합의가 달성되지 않는다면 인민적폭발은 불가피하다.》고 엄숙히 경고하였다.

1973년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지지찬동밑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특별회의가 빠나마시에서 열렸다. 40개 나라들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는 미제가 빠나마에 강요한 불평등조약을 폐기하고 운하지대를 빠나마에 귀속시키며 운하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것 등을 요구하는 빠나마와 뻬루가 제출한 공동결의안을 둘러싸고 미제에 날카로운 화살이 돌려졌다.

이 회의에서 운하지대에 틀고앉아 물러가지 않으려는 미제를 신랄히 규탄하면서 빠나마정부수반은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빠나마에서 《평화로운 변혁을 방해한다면 우리 인민들은 폭력적변혁의 방법을 사용하는데로 나가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며 《빠나마는 결코 미국의 식민지나 보호령으로 되지 않을것》이라고 선언하였다.

1974년 2월 7일 빠나마에서 수천명의 시위자들은 《양키는 짐승이다》, 《살인자이다》, 《나라의 완전한 자주권을 위하여》,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위하여》라는 구호판을 들고 운하지역의 자주권회복을 위하여 투쟁을 줄기차게 벌렸다. 이보다 앞서 1월 9일에는 반미폭동 열돐을 기념하여 전국적규모에서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고 각 사회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여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미제와 끝까지 싸울 결의를 다지였다.

1월 25일 빠나마정부수반 또르리호스는 미제가 운하지대를 강점하고 빠나마령토에 수많은 군사기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하여 폭로규탄하고 빠나마령토상에 미국기발이 오만하게 꽂혀있는 것을 빠나마인민은 허용할수 없다고 강조하였으며 2월 2일 외교부장은 《우리는 운하지대와 같은 식민지령토가 우리 나라의 심장부에 존재하는 한 진정한 독립을 이룩할수 없다. 빠나마는 보호령이나 식민지로는 되지 않는 길을 택하였다.》고 단호하게 말하였다.

빠나마 정부와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기세에 눌린 미제는 1973년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1974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빠나마 운하와 운하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회담장에 또다시 끌려나오지 않을수 없었다. 놈들은 1974년 2월 7일에 8개 항목의 《빠나마운하선언》(잠정적협정)에 서명하고야말았다.

그러나 미제는 빠나마 운하와 운하지대를 계속 강점하며 새 운하를 건설할수 있는 특권을 강탈해보려고 발악하면서 운하에 대한 관할권을 빠나마에 넘겨줄 날자를 정하지 않았다. 빠나마정부는 10년내에 이 운하를 넘겨받을것을 주장하고있지만 미제는 40~50년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통제권을 넘겨줄것이라고 하면서 기만책동에 매달리고있다. 또한 놈들은 운하에 대한 임차료를 한해에 200만딸라로부터 2천 500만딸라로 올리는것으로써 빠나마인민의 투쟁을 무마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였다.

2월에 빠나마외교부장은 《우리는 운하지대에 대한 자주권과 관할권을 년 2천 500만딸라의 수입과 바꾸지 않을것이다. 빠나마운하문제는 법적인 조약에 의한 간단한 협상으로써 체결될수 없는 문제이다.》라고 말하면서 완전한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리하여 새 《조약》을 맺기 위한 빠나마—미국회담이 1974년 10월 29일에 시작되였으나 어떻게해서라도 운하와 운하지대를 틀어쥐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기만과 지연 책동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난관에 직면하고있다.

그러나 빠나마인민들은 자기 나라의 완전한 민족적자주권을 위하여, 빠나마에서 《식민주의근원》을 영원히 청산하기 위하여 계속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져 메 이 카

넓이 1만 962Km²
인구 192만명(1972년)
수도 킹스톤(주민 19만 2,000명, 1970년)

정 치

총독 국가수반이며 영국녀왕이 임명

국회 **상하량원제로서 상원은** 21명으로 구성되는데 총리가 추천하는 13명과 야당지도자가 추천하는 8명을 총독이 임명, 하원의원수는 53명, 임기는 5년, 1972년 2월 총선거에서 인민국가당이 34석, 레이버당이 17석을 각각 차지

정부 총리 마이클 맨리(1972년—)

정당, 사회단체; 인민국가당 1938년에 결성되여 1972년 2월에 집권당으로 되였다. 도시와 농촌의 소부르죠아지, 지식인, 농업 및 공업 로동자의 일부를 망라하고있다. 당수 마이클 맨리, **레이버당** 1943년에 조직된 부르죠아정당으로서 상업, 공업 및 농업 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 자국경제에 대한 외국독점자본투자의 장려와 미영제국주의자들과의 정치, 군사적 동맹을 주장, **자유인민운동** 진보적정당, **인민정치당**

이 나라는 1494년에 세상에 알려진 후 150년동안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었다.

1655년에는 영국식민주의자들에게 또다시 강점되였으며 1670년 《마드리드조약》에 의하여 놈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1958년 1월에 영제국주의자들은 저메이커를 포함한 까리브지역에 있는 저들의 식민지들로 《서인도련방》을 조작하였다. 《련방》으로부터 탈퇴를 요구하는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1961년 10월 저메이커는 여기에서 나왔다.

1962년 4월에 국회선거가 진행된데 이어 같은 해 8월 6일 저메이커는 영련방성원국으로 독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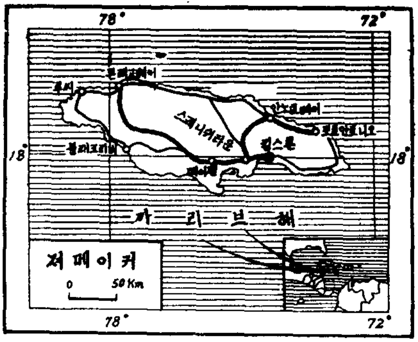
독립후 집권한 반동정당인 레이버당정부(1962년 4월부터 집권)는 미제와 《방위협정》 (1963년 6월 6일)을 맺었으며 미제는 이 나라의 롱 베이만 동부에 여러개의 침략적해군기지를 설치하였다.

1967년 2월에 진행된 선거후 반동적인 레이버당이 다시 집권하였다.

레이버당정부는 그의 반인민적정책으로 말미암아 1972년 2월에 진행된 국회선거에서 패배하였으며 인민국가당이 승리하였다.

새 정부는 제국주의의 지배와 예속을 배격하며 나라의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주권과 민족적존엄을 지키며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진보적조치를 취하였다.

1974년 5월 정부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보크사이트독점회사들에 대하여 세금을 더 붙여 받아내며 그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국회는 6월에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승인하였다. 이에 앞서 4월에 정부는 1953년부터 이 나라에 기여들어와 주요도시의 교통을 장악하고있던 외래독점자본의 뻐스회사를 몰수하여 국유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밖에도 정부는 보크사이트수출을 국가의 통제밑에 진행하기 위하여 국내독점자본가놈들의 략탈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도 취하였다.



대외적으로도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존엄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있는 이 나라는 1973년 8월 1일 여러 나라들과 함께 까리브공동체와 까리브공동시장을 창설하고 지역적협조를 강화하면서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고있다.

11월에 진행된 까리브공동시장참가국 외교부장들의 제1차회의에서 저메이커외교담당 국무부장은 대외적으로 까리브해지역 나라들이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까리브해지역 나라들은 자기 운명을 자신들이 결정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1972년 10월에 이 나라는 미제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꾸바와 외교관계를 맺기로 결정하였으며 미주국가기구외교부장회의(1974년 2월 21~23일)에서도 저메이커대표는 현시기 꾸바를 고립시키는것은 《극도의 근시안적인 행위》라고 미제를 조소하였다.

1974년 6월에 킹스톤에서 진행된 영련방교육회의에서 저메이커총리는 자기의 연설에서 제3세계나라들이 단결하여 불평등한 현국제경제관계를 변경시킬것을 주장하였으며 7월 31일 국회에서 그는 《저메이커는 제3세계의 적극적인 성원국이다.》라고 강조하였다.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이 나라 대표는 해상에서와 바다밑에서의 제국주의자들의 해적행위와 략탈행위를 단호히 규탄하고 200마일의 령해권을 견결히 주장하였다.

1974년 8월 21일부터 로므니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기로 결정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보크사이트채굴과 알루미니움공업이다. 그러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렐콘》, 《카이저》, 《레이놀드스》, 《알코아》 및 《리비어》 등 외래독점회사들이 《조차지》의 명목밑에 이 나라 넓이의 26%를 장악하고 보크사이트채굴과 그 가공을 통제하고있다.

년간 약 2억 8천만딸라의 국가재정수입중에서 약 1억 8천만딸라가 이 부문의 세금에서 들어온다. 자본주의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하는 보크사이트채굴량은 1년에 약 1천만톤 생산되고있으며 알루미니움공업에는 6천여명의 로동자들이 일한다. 저메이커는 외국자본이 지배하는 6개의 보크사이트회사에서 아무런 리권도 못가지고있다.

현정부는 보크사이트생산세의 증대와 국유화(보상예견), 새로 개발된 보크사이트광산에서 다수의 통제권을 쥘것을 주장하고있다.

이 나라 국회에서 새로 채택한 법안에 의하여 1974년 4월 17~1975년 3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보크사이트독점회사들은 최소한 1억 4천만저메이커파운드의 생산세를 이 나라에 물게 되였다. 이밖에도 쇠돌과 석고 등의 지하자원이 채굴된다.

년간 40만톤이상 생산되는 사탕공업부문에서는 5만 5천여명의 로동자들이 일한다.

봉사부문에서는 9천명이 일한다.

농업부문은 사탕수수, 바나나 (년산 28만톤정도), 커피, 귤, 담배와 같이 수출용 작물재배에 치우쳐있다. 농업인구의 0.7%에 불과한 대토지소유자들이 전체 부침땅의 76%를 거머쥐고있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략탈적인 무역정책에 의하여 이 나라는 1969년에 1억 2천만딸라, 1971년에 1억 7천 300만딸라의 적자를 냈다.

교통운수는 철도와 해상 운수가 기본이다.

주요수출품은 보크사이트, 바나나, 사탕, 커피, 귤, 람술이며 식량과 기타 식료품, 옷(이상은 수입의 3분의 1차지), 운수수단, 설비, 연료, 원료 등을 수입한다.

주민의 80%가 흑인이며 혼혈인과 인디안, 백인(1%)도 산다.

공용어로서 영국말을 쓴다.

실업자문제는 아직도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는데 로동인구의 15~20%를 차지한다.

인구의 4분의 1은 아직도 글을 읽고 쓸줄 모른다. 주민의 대다수가 영국교회파이다.

출판보도；신문 트란페트(인민국가당기관지), 보이스 오브 쟈메이카(레이버당기관지), 데일리 글리너(무소속),파블리크 오피니언(인민국가당계)

방송 쟈메이카방송, 쟈메이카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10월 9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쟈메이카대표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제3세계나라를 40개 나라가 제기한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하여》의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서 지지를 표시하였다.

1974년 4월에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쟈메이카를 방문하였다.

아 이 띠

(아이띠공화국)

넓이 2만 7, 750Km²
인구 500만명(1971년)
수도 뽀르또 쁘랭스(주민 25만명)

정 치

국민회의 1961년 4월부터 일원제국회로 고쳤다. 의원수는 67명, 임기는 6년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이다. 1971년 헌법수정에 의하여 《종신대통령》, 대통령 쟝 클로드 듀발리에(1971년 4월 22일—)

정당, 사회단체；**공산주의자통일당** 1934년에 창건된 공산당의 후신인 인민통일당과 민족해방인민당이 합당하여 1968년 12월에 창건,현재 비법화되여 지하에서 활동, **혁명정부행동통일당** 집권당이며 친미반동정당, 현재 비법화되였거나 해외에서 조직된 당들로서는 **농업공업당**, **《아이띠련합》**, **민족민주동맹**, **아이띠애국자민주주의운동**, **《신생아이띠당》** 등이 있다. **아이띠전국로동자련맹**, **아이띠기독교로조련맹**, **아이띠로조통일전선** 진보적로조, 현재 비법화, **통일공산주의청년**

1492년에 구라파에 알려진후 아이띠는 에스빠냐에 강점당하였다가 1697년에는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다. 이 시기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원주민(인디안)들을 멸살시키고 아프리카에서 끌어온 흑인노예들로 로동력을 보충하였다.

1790~1803년까지 흑인루사 뚜쌘의 지도밑에 이 나라 흑인들은 10여년동안 노예해방을 위한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프랑스, 영국, 에스빠냐 침략자들의 대규모적인 무력간섭을 물리치고 봉기자들은 1804년에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1806년에는 세계에서 첫 흑인공화국을 세웠다.

아이띠는 1822~1844년까지 아이띠섬(오늘의 아이띠와 도미니까를 포함)을 22년간 지배하였다.

1915년 수도 뽀르또 쁘랭스에서 강력한 반정부폭동이 일어난 기회를 리용하여 교활한 미제는 《자국민보호》라는 구실밑에 아이띠를 강점하였다. 그후 미제는 이 나라 인민들의 완강한 항거에 부딪쳐 1934년에 쫓겨났다.

1950년에 군사독재정권이 조작되였다. 1956년에 대중적인 반정부총파업에 의하여 독재정권이 위험에 처하게 되자 미제의 배후조종밑에 프랑수와 듀발리에가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듀발리에놈은 1957년 9월 협잡선거로 《대통령》으로 된후 1964년 6월에는 자신을 《종신대통령》으로 선포하였다.

듀발리에도당은 국내에서 모든 야당들을 비법화하고 수많은 애국자들을 체포, 투옥, 학살하거나 국외에 추방하는 파쑈테로정치를 실시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꾸바와 외교관계(1961년)를 끊는 등 미제에 적극적으로 추종하였다.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여 인민들은 국내외에서 투쟁조직을 묶고 반정부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1970년 4월에는 지어 반동정부군 해병대까지 들고일어나 경비정 4척을 탈취하여 가지고 독재자의 아성인 《대통령궁전》에 함포사격을 들씌워 반동통치집단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프랑수와 듀발리에놈은 자기의 림종시기가 가까와 오자 1971년 1월 《헌법》을 황급히 뜯어고쳐 자기의 애숭이 아들놈을 《종신대통령》으로 만들게 하였다. 그리하여 1971년 4월 친미독재자 프랑수아 듀발리에가 죽고 그 아들 쟝 클로드 듀발리에 (당시 20살)가 대통령자리에 들어앉았다.

쟝 클로드 듀발리에반동정권은 미제에 의거하여 독재체계를 강화하고 나라를 더욱더 위험한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

1972년 8월 반동정권은 애국적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미제로부터 더 많은 《군사원조》를 구걸하면서 미제의 《군사사절단》을 끌어들였다. 미제는 500만~1천만딸라분의 살인무기들과 아이띠반동군을 무장시키는데 필요한 기타 군사장비를 듀발리에도당에게 줄데 대한 모의를 벌렸다.

1974년에 반동당국은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탄압책동을 일층 강화하였다.

4월부터 빈궁, 생계비등귀, 반동당국의 탄압, 로동자들에 대한 무제한한 착취, 농민들의 토지수탈을 반대하는 광범한 투쟁이 줄기차게 일어났다. 반동당국은 테로폭압통치를 강화하면서 6월의 3주일동안에만 하여도 약 300명의 애국자들을 체포투옥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지하에서 활동하고있는 아이띠공산주의자통일당은 이러한 탄압책동을 규탄하면서 이것이 듀발리에독재정권의 이른바 《자유화》의 진상이라는것을 낱낱이 폭로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80%이상이 농업부문에서 일하는 뒤떨어진 농업국가이다. 주민의 1%밖에 안되는 지주놈들과 미제독점회사가 이 나라 부침땅의 3분의 2를 독차지하고 농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바나나, 사이잘삼, 사탕수수, 벼, 강냉이, 콩, 마니오크, 담배, 목화, 남새이다.

그중 바나나(년산 25만톤), 커피(2만 9천톤정도), 사이잘삼(2만 7천톤정도)이 많이 생산되는 작물에 속한다.

미제의 《사이잘삼》회사, 《사탕수수재배및사탕생산》회사는 이 나라의 수출용 농산물을 완전히 틀어쥐고있다.

집짐승으로는 소(약 70만마리), 돼지, 염소를 주로 기른다.

공업은 라틴아메리카나라들 가운데서도 가장 뒤떨어진 나라의 하나이다. 얼마안되는 공장기업소들마저 미제독점자본에 얽매여있으며 반동당국은 놈들에게 《특허권》까지 보장하고있다. 미제는 채굴공업에서 기본을 이루는 보크사이트(년산 약 50만톤), 동 생산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침투하였다.

세멘트, 방직, 사이잘삼가공, 사탕, 식료 공장 등이 있으나 그 규모는 작은것들이다.

공업품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거한다.

관광업이 외화수입에서 적지않은 자리를 차지한다. 경제의 주요명맥은 외래독점자본에 예속되여있는데 그 투자총액의 70%(5천만딸라)를 미제가 차지하고있다.

철길의 총연장길이는 376키로메터에 불과하며 포장도로도 뽀르또 쁘랭스로부터 항구도시 쟈크멜(80키로메터) 사이밖에 없다.

수출품의 약 2분의 1은 커피와 사탕이며 기타 사이잘삼, 보크사이트, 동, 고기, 과일, 수공업제품을 수출한다.

주요수입품은 천, 약, 식료품, 자동차 등이다. 수출의 절반이상과 수입의 3분의 2를 미제가 독점하고있다.

주민구성에서 라틴아메리카나라들가운데서 흑인(90%)이 제일 많은 나라이다. 상류지배층은 주민의 10%를 차지하는 물라트(흑인과 백인사이의 혼혈인)들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프랑스말(이 지역의 식민지섬들은 제외)을 쓰는 유일한 나라이다.

15살이상 주민의 89%가 글을 읽고 쓰지 못하며 대학은 1개밖에 없다. 병원이란 8개에 불과하며 주민 1만 5천명당 의사 1명이 차례진다. 천주교가 국교로 되여있으나 농촌주민의 대부분은 원시종교를 믿는다.

1974년 12월에 정부는 미제독점자본과 련결된 개인회사의 텔레비죤방송망을 국유화하였다.

출판보도; 잡지 부깐(공산주의자통일당월간잡지)

신문 아이떠 쥬르날, 르 나떠오날

방송 아이떠방송, 뽀르또 쁘랭스방송, 아이떠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10돐에 즈음하여 1974년에 꾸바에 있는 아이떠공산주의자통일당 소조책임자로부터 축전을 보내여왔다.

1971년 6월에 아이떠통일공산주의청년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었다.

도 미 니 까

(도미니까공화국)

넓이 4만 8, 734Km²
인구 434만 8, 000명(1970년)
수도 산또 도민고(주민 672,000명, 1970년)

정 치

민족회의 상하량원제, 상원의원수는 27명, 하원의원수는 74명이며 임기는 각각 4년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4년, 대통령 호아낀 발라게르(1966년 7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4년에 창건되여 1965년까지 인민사회당으로 불리여오다가 그후 공산당으로 고쳤다. 1947년부터 비법화되였으나 지하에서 활동강화, 총비서 나르시쏘 이싸끄떼, **개혁당** 1964년에 창건된 이 당은 민족부르조아지, 지주, 승려층으로 구성되였고 1966년부터 집권당, **도미니까혁명당** 1939년에 창건되였고 소부르조아지, 일부 농민들과 인테리들을 망라하고있는 진보적정당, 총비서 뻬냐 고메스, **《6월14일혁명운동》** 혁명적 인테리, 대학생, 소자산계급 그리고 일부 로동자, 농민들로 구성된 진보적정당,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여 지하에서 투쟁, **도미니까인민운동** 1959년 3월에 조직된 진보적정당이며 현재 지하에서 투쟁, **민족화해운동, 민주통합운동, 전국공민동맹, 기독교사회혁명당, 사회민주동맹, 기독교사회당, 자유진화당** 이전 독재자 뜨루힐로옹호자들로 구성, **도미니까민주당** 1967년에 나온 우익정당, **도미니까근로자련맹, 공산청년동맹, 녀성련맹**

도미니까는 1500년에 에스빠냐식민지로 강점당하였다가 1795년에는 프랑스식민지로 되였다. 1821년에 독립하여 아이떠와 련합(1822년)하였으나 1844년에 떨어져나와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16～1924년까지에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강점하고 정치, 경제적 실권을 장악하였었다.

이 나라에서 쫓겨난 후에도 미제는 도미니까에 대한 저들의 독점적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1930년에 철저한 친미주구인 라파엘 뜨루힐로를 부추겨 반동적군사정변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때로부터 도미니까에서는 30년간 뜨루힐로친미독재정권이 지배하였다.

미제는 저들의 충실한 앞잡이를 리용하여 경제적침투를 강화하였으며 뜨루힐로놈은 자기의 통치지반을 유지하기 위해 농민들의 토지를 략탈하여 극소수의 대토지소유자들에게 넘겨주었다.

1962년 12월 30년만에 대통령선거가 진행되였다. 대통령으로 된 혁명당출신 후안 보슈는 진보적개혁을 예견한 헌법을 제정하였으나 1963년 9월 미제가 조종한 군사정변에 의하여 그의 정권이 전복되였다.

1965년 4월 애국적인 군인들과 인민들의 무장봉기에 의하여 반동적군사정권이 전복되였으나 이해 미제와 그의 졸개들로 구성된 《중미통합군》의 무장간섭에 의하여 이 나라에는 또다시 친미독재정권이 조작되였다.

1970년 5월 살엄한 폭압망을 펴고 협잡과 날조로써 대통령감투를 뒤집어쓴 호아낀 발라게르는 이런 수법으로 1974년 5월 세번째로 대통령자리에 들어앉았다.

발라게르친미도당의 통치기간에 공산당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애국자들이 무참히 학살되고 체포구금되였다. 인민들의 생활형편은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미제독점자본의 대대적인 침투로 말미암아 재정, 경제 위기는 극도로 악화되였다.

친미독재정권에 항거하여 진보적력량의 지하투쟁이 활발히 전개되였으며 또한 생활조건의 개선을 위한 로동운동도 급격히 늘었다.

어떻게 하나 독재정권을 유지하려고 발라게르도당은 1973년 2월 남부해안으로부터 유격대가 상륙하였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1974년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장애로 되는 반대세력을 억누르기 위하여 《비상사태》까지 선포하고 일대 검거선풍을 일으켰다.

1974년 5월 16일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는 유권자의 60%이상이 선거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발라게르의 당선이 날조되였다.

자기의 당선을 위하여 발라게르는 전국에 군대와 경찰놈들, 무장한 파쑈무리들을 출동시켜 수많은 애국자들을 죽이고 투옥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 나라는 지역적협조에서 고립적인 립장을 피하려는데로부터 1974년 11월 27일 라틴아메리카의 20개 사탕생산국들이 국제사탕가격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전선을 펴기 위해 창설한 사탕생산국기구에, 12월에 자연부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된 라틴아메리카동력기구에 참가하였다.

11월에 진행된 《미주국가기구》외교부장회의에서 도미니까대표는 미제의 강요에 의하여 꾸바에 가해졌던 정치, 경제적 《제재조치》를 취소할데 대한 결의안에 찬성투표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뒤떨어진 농업국가이며 경제의 주요명맥은 미제를 비롯한 외래독점자본에 장악되여있다.

몇가지 수출용 농산물생산에 치우쳐있는 농업부문에서는 로동인구의 3분의 2가 일한다. 450명에 불과한 대토지소유자들이 전체 부침땅의 절반을 차지하고있는 반면에 10만명의 농민은 한뙈기의 땅도 없는 고용농민이다.

그리하여 농촌로력인구의 50%에 달하는 약 60만명이 계절로동자들로서 그들은 지주놈들의 농장에서 품팔이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요수출작물은 사탕수수, 커피, 코코아, 담배이다. 이 나라 수출총액의 50%에 달하는 사탕은 년산 100여만톤에 달한다. 기타 농산물로서 벼, 강냉이, 감자, 고구마, 마니오크, 땅콩을 심고 있으나 그 생산량은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해마다 식량을 수입한다. 산간지대에서는 자연방목지를 리용하여 소, 양, 돼지를 기른다.

공업은 뒤떨어진 관계로 국민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몫이 적다. 사탕공업을 비롯하여 약간의 가공공업, 채광공업이 있을뿐이다. 그나마도 미제독점자본이 거의나 통제하고있다.

미제의 《갈프 앤드 웨스텐》회사는 사탕생산의 25%, 《팔콘 브리쥬》회사는 철광석과 니켈의 주요산지를 틀어쥐고있다. 《이트》회사도 이 나라의 지하자원을 략탈해가고있다.

미제와 카나다의 합영회사인 《알 코아》는 보크사이트채굴(년산 약 130만톤)을 완전히 독점하고있다.

반동당국이 외래독점자본의 투자를 장려하여 공업을 추세워보려는 책동에 의하여 경제는 제국주의자들의 부속물로 전락되고 전반적경제의 침체는 더욱 촉진되고있다. 외국에 진 빚은 1969년에 벌써 2억딸라에 달하였다.

교통운수에서 기본은 자동차운수와 해상운수이다. 1천 800키로메터의 철길이 있으나 대부분 사탕수수농장의 인입선들이다. 주요항구는 산또 도민고와 뿌에르또 플라따이며 산또 도민고는 가장 중요한 수출입항구이다.

수출품은 주로 사탕 (수출총액의 50%이상차지), 커피(11~12%), 코코아(10%이상), 보크사이트, 담배 등 농산물과 광물류이며 수입품은 식량과 기계설비들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미국이다.

주민구성에서 인디안과 혼혈인이 70%를 차지하며 그밖에 흑인과 백인이 절반정도씩 된다.

에스빠냐말이 공용어이나 프랑스말과 영국말도 쓴다.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15살이상 주민의 36%가 아직 글을 읽고 쓸줄 모르며 중학생가운데서 녀학생은 겨우 1% 남짓하다.

출판보도; 신문 엘 뽀뿔라르(공산당기관지), 리베르따드, 엘·이·헤14(《6월14일혁명운동》기관지), 디아리오 데라 따르데(인민운동기관지)

방송 도미니까방송, 도미니까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반제반미투쟁을 통하여 맺어진 조선인민과 도미니까인민들 사이의 친선관계는 더욱 두터워지고있다. 해외에서 공부하고있는 도미니까류학생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연구하는것을 끝없는 영광으로 여기면서 연구소조를 뭇고 심오히 학습하고있다.

1972년 10월 24~31일까지 도미니까공산당총비서 나르시쏘 이싸 꼰데를 단장으로 하는 공산당대표단과 이에 앞서 1968년 10월 도미니까혁명당 지도자이며 이전 대통령인 후안 보슈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뿌에르또 리꼬

(미국식민지)

넓이 8, 897Km²
인구 284만명(1970년)
행정중심지 싼 후안(주민 80만 4, 700명, 1970년)

정 치

지사 집행권을 행사하며 협상리사회를 책임지고 있다. 임기는 4년, 지사 에르난데스 콜론(1972년 11월—)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은 27명, 하원의원은 51명이며 임기는 4년, 《자치권》의 테두리내에서 립법권을 행사, 최고립법권은 미국국회에, 최종재판심의권도 미국최고재판소에 속해있다. 미국회에 상주하는 대표를 보내고있으나 《결의권》이 없다.

협상리사회 지사가 리사회를 지도하며 그가 임명하는 9명의 각료로 구성된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4년에 창건되였다가 1944년에 해산, 1946년에 재건되였으나 현재 비법화, **사회당** 1971년 11월에 창건된 애국적정당, 미제의 전쟁정책과 식민지략탈정책을 반대하며 나라의 자유와 해방, 독립을 위하여 투쟁, 반미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의 통일전선과 공동행동의 실현을 위해 투쟁, 총비서 후안 마리˘브라스, **뿌에르또 리꼬독립운동**, 뿌에르또 리꼬독립당에서 갈라져나온 좌익정당으로서 비평화적방법으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짓부시고 나라의 독립을 달성할것을 주장, **뿌에르또 리꼬독립당** 소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하며 의회적방법으로 독립을 달성할것을 주장, **인민민주당** 1938년에 무어진 당으로서 미제의 독점체들과 긴밀히 련결된 대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 1972년 11월 선거후 집권당, **신진보당** 1968년에 국가공화당이 분렬되여 무어졌는데 그해부터 집권당으로 있다가 1972년 11월 선거에서 패배, **국가공화당** 1898년에 무어진 당으로서 자기 나라를 미국의 한개 주로 편입시킬것을 주장, **인민당** 1968년에 인민민주당에서 떨어져나온자들로 조직, **근로자련맹** 1957년에 조직되였고 약 20만명의 맹원을 망라, **자유근로자련맹**

1493년에 발견된 이 나라는 1509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통치를 받아왔다. 그후 《미국—에스빠냐전쟁》(1898년)의 결과 1898년부터는 미제의 식민지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뿌에르또 리꼬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였다. 미제는 1952년 7월 25일 미국의 이른바 《자유련합국》의 지위를 가지는 《내부자치권》을 주었으나 식민지통치는 실제상 계속되고있다.

미련방재판소는 뿌에르또 리꼬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재심의하고 취소할수 있으며 미국회가 채택한 법령들은 이 나라 인민들에게 례외없이 적용되며 청년들은 미제침략군의 징집령에 의무적으로 응하게 되여있다.

미제는 또한 이 나라 령토의 13%이상에 해당하는 땅을 저들의 군사기지, 정탐기지로 만들고 상시적으로 여기에 수만명의 륙해공군무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미제는 21개의 해군 및 공군 기지와 핵무기까지 배치하고 까리브해지역에서 위협과 공갈을 일삼고있다.

미제의 조선침략전쟁 때에 놈들은 4만여명의 뿌에르또 리꼬청장년들을 강제징집하여 조선전선에 저들의 대포밥으로 내몰았다.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반대하여 이 나라 인민들은 1960년에 조직된 뿌에르또 리꼬독립운동의 지도밑에 미제의 전쟁정책과 식민지략탈정책을 반대하며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무장투쟁을 포함한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벌리고있다.

1972년 11월초에 진행된 지사선거에서 집권당이던 신진보당이 인민들의 반대로 패배하고 야당이던 인민민주당이 승리하여 에르난데스 콜론이 당선되였다.

인민민주당은 선거강령에서 자기 나라가 미국의 한개 주로 되는것은 반대하나 미국과의 현관계를 그대로 유지할것을 주장하고있다. 또한 행정적 및 법적 통제를 약간 완화시킬것을 바라면서 자기 나라에 《보다 많은 자치권》을 줄것을 요구하고있다.

1974년에 미제와 반동당국의 지지밑에 진보적력량에 대한 우익반동들의 테로폭압행위가 일층 로골화되였다. 우익반동들은 사회당기관지 《끌라리다드》편집국에 대한 습격파괴행위와 동시에 이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12월에 반동당국은 12명의 로조지도일군들을 비법적으로 체포하거나 학살하였으며 파업로동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뿌에르또 리꼬 사회당 총비서 후안 마리 브라스는 10월에 한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미제는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해있다고 하면서 조선, 꾸바, 윁남에서 당한 미제의 패배는 제국주의의 총파산의 뚜렷한 표시이라고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뿌에르또 리꼬에서의 제국주의자들의 략탈행위를 규탄하고 뿌에르또 리꼬인민은 독립을 쟁취하며 희생을 무릅쓰고 독립을 지킬것을 결심하고있다고 말하였다.

11월 2일 뿌에르또 리꼬독립당 지도자 루벤 베리오스 마르띠네스는 유엔비식민지화위원회에서 미제가 뿌에르또 리꼬에서 매 4년마다 실시하는 선거의 본질을 폭로하면서 이것은 히틀러나 무쏠리니가 강점지역에서 실시한 국민투표와 같다고 규탄하였다. 그는 또한 미제가 뿌에르또 리꼬에서 대량학살, 경제적착취 및 정치적억압을 하고있는데 대하여 낱낱이 폭로하였다.

미제의 해적무리들은 이 나라 인민들의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12월에 꿀레브라섬과 그 주변의 산호초들을 계속 《포실탄사격장》으로 리용하겠다고 줴쳤다.

12월 3일에 미국부대통령놈과 국무장관놈이 이른바 《휴양차》로 기여들자 이 나라 애국적인민들은 놈들이 들어박혀있는 건물에 폭탄폭발을 일으켜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이해에 뉴욕에 있는 뿌에르또 리꼬사람들은 12월 5일 《미제는 뿌에르또 리꼬에서 손을 떼라!》, 《탄압을 중지하라!》, 《뿌에르또 리꼬에 자유를!》이라는 글발이 씌여진 구호판을 들고 시위를 벌렸다. 이에 앞서 10월에는 미제와 반동당국이 뿌에르또 리꼬항구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는것을 반대하여 3천여명이 파업을 일으켰다.

경제, 사회문화

뒤떨어진 농업국가로서 전문화된 사탕수수재배와 수출작물들인 담배, 커피, 바나나 재배가 농업에서 기본을 이룬다. 부침땅의 80%를 미제독점회사들이 독차지하고있는데 그 대부분은 사탕수수재배지이다. 미제의 략탈정책으로 하여 사탕생산량은 1961년에 100만톤에 달하던것이 1971년이후부터는 매해 28만여톤정도의 수준에 이르고있다. 알곡작물은 거의 심지 않기때문에 식량을 해마다 수입에 의존한다. 축산업부문에서는 산간지대를 중심으로 소, 돼지를 기르고있으나 생산되는 고기의 거의 전부를 미제가 헐값으로 빼앗아간다.

공업부문에는 농산물가공, 사탕 공장들을 비롯한 일련의 경공업기업소들과 채굴공업이 있다.

공업기업소의 80%는 미제독점회사들이 거머쥐고있으며 특히 동과 망간채굴은 완전히 독점하고있다. 1970년 현재 이 나라에 대한 미제독점자본의 투자총액은 16억딸라에 달하였는데 해마다 3억~4억딸라의 순리윤을 짜내고있다.

이 나라에는 철길이 없기때문에 해상운수와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운수와 체신 부문은 미제독점회사들의 통제밑에 있다.

사탕과 그 제품 수출이 수출총액의 50%이상을 차지한다. 미제는 이 나라 수입의 75%, 수출의 95%를 장악하고있다. 미제의 식민지략탈로 미국에만도 30억딸라의 빚을 지고있다.

주민의 80%가 에스빠냐사람계통의 후손들인 크레올이고 그밖에 흑인들과 혼혈인들이 있다.

공용어는 에스빠냐말과 영국말이며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15살이상되는 주민의 약 20%가 아직도 글을 읽고 쓸줄 모른다. 로동력의 30%가 일자리를 찾아 헤맨다. 주민의 4분의 1은 빈민굴에서 산다. 미제는 이 나라의 수많은 주민들을 값눅은 로동력으로 끌어갔기때문에 본토보다 미국에서 더 많이 산다. 이들은 미국에서 혹심한 인종차별을 받으며 실업자도 제일 많은 비률을 차지한다. 그들은 집도 없이 헤매는 사람들이 많으며 몹시 낡고 쓰러져가는 빈민굴에서 살고있다. 뉴욕에는 80만 남짓한 뿌에르또 리꼬사람들이 사는데 그의 35%가 최저수입조차 받지 못한다.

미제는 이 나라의 신문, 방송을 비롯한 보도수단을 독점하고 《미국식생활양식》을 퍼뜨리면서 뿌에르또 리꼬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영원히 노예화하기 위하여 사상문화적침투를 일층 강화하고있다. 결과 주민의 20%가 알콜중독자이며 그밖에 마약중독자도 적지 않다.

미제와 반동당국은 이른바 《산아제한계획》을 강요하여 젊은 녀성들의 36%를 불구로 만들었다.

출판보도; 신문 끌라리다드(사회당기관지), 엘 임빠르씨알(무소속), 엘 문도(무소속), 싼 후안스타, 엘 디아

방송 뿌에르또 리꼬방송, 뿌에르또 리꼬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1월 후안 마리 브라스 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뿌에르또 리꼬사회당대표단, 같은해 5월에 뿌에르또 리꼬독립운동대표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월 31일 뿌에르또 리꼬사회당대표단, 5월 13일 뿌에르또 리꼬독립운동대표를 각각 접견하시였다.

뿌에르또 리꼬사회당대표단을 환영하여 차린 연회에서 이 당총비서 후안 마리 브라스동지는 《우리 두 당은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련대성을 맺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조선혁명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기본으로 되고있는 주체의 원칙을 훌륭히 구현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영웅적조선인민에 대한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자주성과 민족적독립을 가장 견결히 수호하고 그것을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과 결합시키면서 자기자체의 힘으로 그리고 모범적으로 조선혁명을 추진시켰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1971년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을 에스빠냐말과 영국말로 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1972년 4월 이 나라 신문 《끌라리다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를 실었다. 이 신문은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여 《공산

주의운동에 기여한 빛나는 모범»이라는 표제밑에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략력을 소개하였다.

1971년 6월에는 뿌에르또 리꼬독립운동 청년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트리니대드 토바고

넓이 5, 128Km²(그중 트리니대드섬은 4, 828Km²)
인구 104만명(1972년)
수도 포트 오브 스페인(주민 9만 3, 954명, 1970년)

정 치

총독 국가수반이다. 총독 솔로몬 오쵸이(1962년—)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은 총독이 임명하며 의원수는 24명, 하원의원은 36명이며 임기는 5년, 1971년 5월 24일 하원선거결과 총의석 36석을 인민민족운동이 모두 차지

정부 총리 에리크 윌리암스

정당, 사회단체; 인민민족운동 1958년에 조직된 소부르죠아정당이며 독립이래 집권당, 민주로동당(인도사람들의 정당) 1956년에 조직되였고 자본가, 지주, 매수된 로동자상층성원들로 구성, 자유당, 인민민주당, 트리니대드토바고로동대회, 석유로동자로조

1498년에 구라파나라들에 알려지자 1532년에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이 이 섬나라를 점령하고 략탈을 시작하였다. 1797년의 영국—에스빠냐전쟁이 있은후 《아미안조약》(1802년)에 의하여 트리니대드섬은 영국의 속령으로 되였다. 토바고섬을 둘러싸고 구라파식민주의자들간에 쟁탈전을 벌리던끝에 1814년에 역시 영국식민주의자들이 차지하였다.

제2차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의 침투도 강화되였으며 1940년에 미제는 해군, 공군 기지들을 이 나라에 설치하고 이 지역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 행위를 일삼았다.

1958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은 트리니대드 토바고를 비롯한 영령 서인도섬들로써 《서인도련방》을 조작하였다. 이 나라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과 압력에 못이겨 영제국주의자들은 1961년 《자치》를 허용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1962년 8월 31일 트리니대드 토바고는 영련방안에서 독립하였다. 1971년 5월 24일 총선거에서 인민민족운동이 승리함으로써 독립후 정권을 잡고있던 이 당의 정부가 다시 수립되였다.

트리니대드 토바고정부는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며 민족경제발전을 위하여 일련의 진보적정책을 실시하고있다.

1970년에 이 나라에 둥지를 틀고있던 미제침략군의 차구라스해군기지를 빼앗았으며 이에 앞서 월러 필드공군기지도 철폐하고 이 기지에 농장과 목장들을 만들었다. 1972년 10월에는 꾸바와 외교관계를 맺기로 결정하였으며 까리브해지역 영련방성원국들과 함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략탈에 대처하여 1973년 8월 까리브공동체와 까리브공동시장을 창설하고 지역적협조를 강화하고있다.

같은해 3월에는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소유인 곡물회사와 2개의 큰 집짐승먹이공장을 몰수하였고 공업의 원료로 공급되는 모든 농산물을 국가가 직접 통제관리하는 조치를 취했다. 1974년에 이 나라 정부는 영국 및 화란 독점자본의 회사 《쉘 트리니대드》지부를 국유화하기로 결정하였다.

같은해 6~8월까지 진행된 제3차유엔해양법회의에서 트리니대드 토바고는 여러 나라들과 함께 국제해저자원이 전세계인민들의 공동의 재부이며 그 어떤 나라도, 어떤 개인도 이 재부를 독점할수 없다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이 나라 대표는 령해안에서 외국선박들이 연해국가들의 사전승인 없이 해양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1월에 진행된 까리브자유통상협회 부장회의 제16차회의에서 이 나라는 지역적협조를 강화하는데 적극 기여할것을 다짐하였다. 이해 6월에 트리니대드 토바고는 중국, 쏘련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석유공업과 피치생산이다. 이 나라의 남부와 서부연해 베리야만, 동부와 북부 연해지역에는 석유매장지들이 있다. 석유생산량은 년산 약 6천 700만바렐로서 영련방성원국들 가운데서 카나다 다음의 두번째자리를 차지한다. 석유와 석유제품은 이 나라 수출총액의 80%이상에 달하나 석유생산과 그 가공공업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이 틀어쥐고있었다. 년간 석유정제능력은 1천 400만톤으로서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석유와 함께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서 많은 량의 석유를 자기 나라에 수송하여 정제하고 있다.

남부지역에 있는 물한방울없이 천연피치만 차있는 이름난 《피치호수》(넓이 109에이커)에서는 100여년전부터 피치를 계속 캐내고있다. 그 년간생산량은 13만 6천톤에 달한다.

그밖에 공업부문에는 세멘트, 화학비료(미제의 자본), 사탕, 과일가공공장들이 있다.

1973년에 제3차5개년계획이 끝났다. 계획기간에 주요경제부문들에 대한 외국자본의 통제권을 제한하는 등 민족경제발전에 주력하였다. 석유공업과 피치생산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여기에서 필요한 일부제품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하여 힘썼다. 또한 경제가 지나치게 석유공업에 의존하는것을 피하고 수입제품을 줄이기 위하여 공업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결과 과거에 사탕을 뽑은 사탕수수짚을 버렸다면 지금은 목재대용품가공공장(민족자본이 74% 차지)의 원료로 리용되고있다. 농업발전에 효과적으로 복무하기 위한 과일가공공장들도 일떠섰다.

1973년 2월에 자체석유회사를 설치하고 석유공업을 발전시키고있다.

1974년에 정부는 《쉘 트리니대드》(영국—화란독점체)지부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주요농산물은 사탕수수, 커피, 코코아, 귤, 야자, 담배이다. 독립후 알곡작물의 수입을 줄이기 위해 벼, 강냉이, 수수, 콩도 심고있다. 새로 논도 풀고있는데 오로프체라군지방에는 2천에이커의 논에 벼를 심고있다. 이때까지 해마다 식량을 사들이는데만도 8천 960만파운드를 써왔다.

1974년 8월에 내놓은 식량생산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국영《까로니》회사는 160에이커의 땅에 알곡작물을 심기로 결정하였다. 수출용 농산물의 대부분은 미제의 《유나이테드 프루트》회사와 영제국주의자들이 거머쥐고있었다. 그러나 지금 국영《까로니》회사는 전국 사탕총생산량의 90%를 생산해내고있다.

집짐승으로서는 소(주로 젖소), 돼지, 양을 기르는데 양기르는 운동은 1971년부터 시작되였다. 1974년에 목장을 짓고 양마리수를 늘이기 위해 6만 5천트리니대드 토바고딸라를 지출하였다. 이리하여 양고기수입을 줄이게 되였다.

철길은 있으나 교통운수에서 기본은 국내에서 자동차운수이며 대외무역은 해상운수를 통해 한다.

정기적으로 회합을 가지고있는 트리

니대드 토바고—베네수엘라공동위원회는 1974년 11월 까리브해지역을 운항할 상선대창설문제를 토의하였다. 이 지역의 영국, 프랑스 및 화란의 수십개식민지섬들은 서로 거의나 해상련계가 없다. 또한 이 위원회는 수도관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물을 트리니대드 토바고섬의 메마른 땅에 공급할 문제도 토의하였다.

주요수출품은 석유와 석유제품(수출총액의 80%이상), 피치, 목재이다. 식량과 일용품은 거의 수입한다. 무역대상 나라는 주로 미국, 영국이였으나 1973년에 까리브공동체와 까리브공동시장이 창설된 이래 까리브해지역 나라들사이의 지역적경제협조가 점차 강화되고있다.

주민구성이 까리브해지역 나라들가운데서 가장 복잡하다. 흑인 47%, 인도사람 35% 기타 미국사람, 영국사람, 프랑스사람, 에스빠냐사람, 뽀르뚜갈사람 등 다양하다. 언어는 영국말을 쓴다.

이 나라에는 460여개의 소학교, 100여개의 중학교, 1개의 대학이 있다. 주민구성이 다양한것처럼 그들이 믿는 종교도 각이하다.

출판보도; 신문 이브닝 뉴스(무소속), 가디언(무소속), 엑쓰 쁘레쏘

방송 트리니대드방송, 트리니대드 토바고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에 이 나라 출판물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실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의 전문을 신문 《이브닝 뉴스》가,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의 전문을 신문 《가디언》이,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의 전문을 신문 《엑쓰 쁘레쏘》가 각각 실었다.

1973년 4월 12일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14일 트리니대드 토바고외교부장이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을 만났다.

그레네이더

(그레네이더공화국)

넓이 345Km²

인구 11만명

수도 쎈트 죠지스

까리브해의 동남부에 3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작은 나라이다.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1972년 2월에 하원선거 진행, 통일레이버당 13석, 그레네이더국민당 2석을 각각 차지

정부 총리 에리크 게어리(1972년 2월 재선)

정당, 사회단체; 통일레이버당(집권당), 그레네이더국민당

17세기초에 영국식민주의자들이 기여들었으나 섬주민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쫓겨난후 17세기중엽에 그레네이더는 프랑스에 강점당하였다.

그후 까리브해지역에서 영국과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사이에 식민지략탈전쟁의 결과 이 섬은 두 침략자들에 의하여 번갈아 강점당하였다. 1783년에 영국에 의하여 완전히 강점당한 때로부터 200여년간 놈들의 식민지통치를 받아왔다.

1795년부터 1796년사이에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대봉기가 일어났으며 그후에도 투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였다.

까리브해지역에 있는 저들의 식민지 나라들에서 민족적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날로 높아가자 영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1958년에 그레네이더를 포함한 이른바 《서인도련방》을 조작하였다. 그러나 1962년에 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배격에 의하여 《련방》이 해체되자 1967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은 이 섬에 《내부자치》를 허용하였다. 국방과 외교 문제는 의연히 저들이 틀어쥐고 실권을 행사하였다.

민족적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날로 높아가는 가운데 1973년 5월 영제국주의자들은 그레네이더의 독립문제와 관련한 회담을 여는데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1974년 2월 7일 그레네이더는 영련방성원국으로 독립을 선포하였다. 독립과 관련한 경축행사가 진행되였으며 이날 붉은색, 푸른색 그리고 황금색으로 된 새 국기가 게양되였다.

독립후 정부는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이고 농업에 기술적방조를 줄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또한 정부는 까리브공동체성원국으로서 이 공동체의 농업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전국자문회의를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1974년 9월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이 나라는 유엔성원국으로 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농업이 경제의 기본을 이룬다. 주요농산물로서 육두구(열대향료의 일종), 코코아, 바나나 등 3대수출작물과 그밖에 사탕수수, 목화가 난다. 특히 육두구는 이 나라의 특산물로서 그 생산량은 세계 총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3대수출작물은 수출총액의 92%를, 그중에서도 육두구는 35%를 차지한다.

주민의 80%가 흑인이며 공용어로서 영국말을 쓰지만 프랑스말을 모체로 하는 방언을 쓰기도 한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천주교도들이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공화국)

넓이 91만 2, 050Km²

인구 1, 200만명(1974년 3월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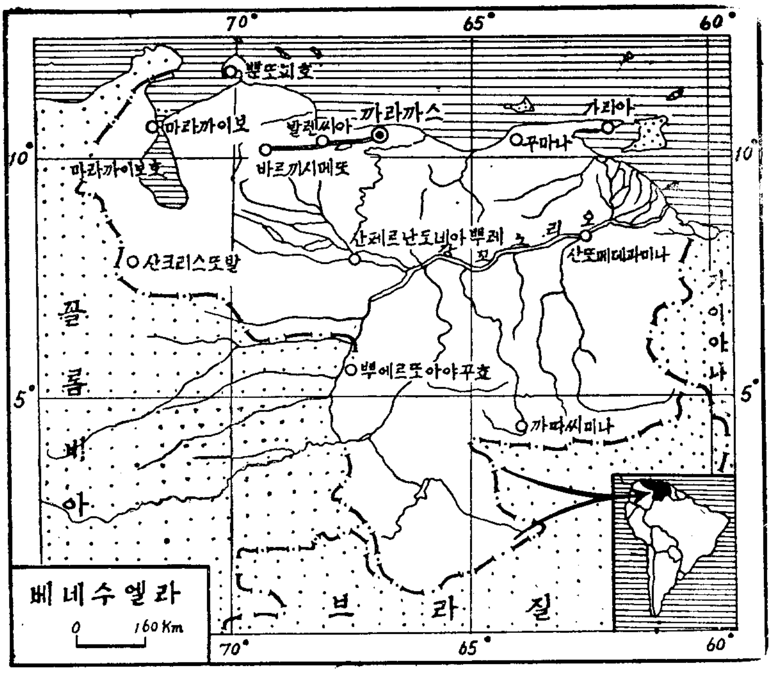
수도 까라까스(주민 217만명, 1970년)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수는 49명, 하원의원수는 200명이며 임기는 각각 5년, 1973년 12월 9일 총선거결과 민주행동당이 상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

정부 대통령은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5년, 1974년 3월 12일 새 정부 구성, 대통령 까를로스 안드레스 뻬레스(민주행동당출신, 1974년 3월 12일—), 외교부장 스챠츠뜨 아러스떼기에따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1년 2월 지하에서 공산주의자들의 그루빠가 형성되였다가 1937년 8월에 정식 창건, 위원장 구스따보 마챠도, 총비서 헤쑤스 파리아, 민주행동당(집권당) 1941년에 창건된 부르죠아정당, 기독교사회당(1969년 3~1974년 3월까지 집권당) 1946년에 조직되였고 대금융계, 지주, 천주교상층의 리익을 대변, 좌익혁명운동 1960년 4월 민주행동당에서 좌익적인 사람들이 떨어져나와서 조직, 이 당은 석유공업의 국유화, 대토지소유제의 폐지, 식민주의의 청산을 주장 인민선거운동 1967년 민주행동당에서 떨어져나온 진보적인 사람들로 조직,



공화민주련맹당 1946년에 조직된 중소부르죠아지들의 정당, 민족혁명당 1969년에 민족주의적인 인테리들을 토대로 하여 조직, 《새 력량》 공산당, 공화민주련맹당, 인민선거운동을 비롯한 좌익정당들과 많은 사회단체들, 로조들, 정치 및 사회활동가들을 망라한 선거운동통일전선체, 근로자통일중앙 1963년에 창립된 진보적로조이며 맹원은 25만명, 로조총련맹, 농민련맹, 공산주의청년동맹

1550년에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된후 베네수엘라인민은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통하여 1811년 7월 5일 독립을 쟁취하였다. 19세기초부터 영제국주의의 독점자본이 이 나라에 침투하였고 뒤이어 19세기말부터는 미제독점자본이 기여들기 시작하였다.

20세기초에 들어서면서 미제의 정치경제적 침투가 일층 강화되였다. 친미주구 고메스의 통치시기(1909～1935년)에 벌써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나라의 주요경제명맥인 석유채취공업을 비롯한 주요공업을 틀어쥐였다.

1969년 3월에 취임한 칼데라정부는 광범한 인민들과 사회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1971년 3월 미제를 포함한 외국석유독점체들의 석유수출값을 33% (년간 5억딸라) 올렸으며 이듬해에는 1939년에 미제가 이 나라에 강요한 예속적인 《통상협정》(1972년 6월 기한만료)을 폐기하는 등 일련의 반제자주적조치를 취하였다.

1971년 7월 30일 베네수엘라정부는 자기 나라에서 석유자원을 마음대로 략탈하여가던 미제를 포함한 제국주의자들의 석유회사들의 전체 재산을 리권기간만료(대부분 1983년까지)되는 차례로 보상없이 국유화할데 관한 법령을, 8월 13일에는 천연가스의 채취 및 개발을 국유화할데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주체사상으로 살것을 원하고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 누구도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어떤 민족이든지 자기의 내정에 간섭하며 민족의 존엄을 짓밟는것을 허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325페지)

베네수엘라인민들은 1974년에 미제의 내정간섭과 략탈을 반대하며 자주적발전의 길을 걷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였다.

특히 1974년 3월 12일 대통령으로 까를로스 안드레스 뻬레스가 취임한 이후 베네수엘라정부는 《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가 예속되는것을 반대하는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면서 경제의 《베네수엘라화》를 적극 다그쳐나갔다.

정부는 《원유판매법》, 《철광산운영법》및 《농산물판매법》 등 여러가지 법령을 련이어 발표하여 지난 50여년동안 이 나라에서 무려 300억딸라의 리윤을 짜낸 미제흡혈귀들의 략탈적지반을 허물어버리기 시작하였다.

7월에 이 나라 대통령 까를로스 안드레스 뻬레스는 미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하여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석유독점회사들을 기한만료기간(1983년까지)까지 기다릴것이 아니라 기한을 앞당겨 1년안으로 국유화하겠다고 공포하였다. 5월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안을 연구작성하기 위하여 주요 정당, 로조, 상공계 대표들을 망라하는 석유국유화위원회를 창설하였다.

정부는 7월 5일 미제의 《크레올 페트롤리움》석유회사의 소속 두개의 석유기업체에 대한 국유화, 16일에 이 회사로부터 또다시 4개의 석유산지개발권의 박탈, 3월 12일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외래석유독점체들이 마라까이보호수지역에서 진행하고있는 50개의 유정개발사업의 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이 나라 석유를 마구 략탈하면서 대기를 더럽히고있는 미제석유독점회사 《모빌 오일》이 운영하던 《부다레》석유기업소를 폐쇄시켰으며 7월 15일 베네수엘라국회는 석유공업을 국유화할데 대한 정부의 제안을 승인하였다.

한편 이 나라에서는 석유자원을 개발하고 수호하기 위하여 국영석유회사를 창설(1960년)하고 석유의 탐사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점차 틀어쥐고있다. 10월에 정부는 수출되는 석유의 대부분을 자기 나라 배로 리용하기 위하여 민족석유상선대를 무었다.

석유자원을 보호하고 미제석유독점체를 포함한 이 나라에 있는 외래석유독점체들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부는 4월에 하루 석유채취량가운데서 15만바렐을, 8월에는 또다시 10만바렐을 줄일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1월 8일 정부는 4월 8일부터 외래석유독점체들이 유전사용료의 일부를 현물(하루 10만바렐씩)로 바칠것을 요구하였다. 이 나라는 받아들인 석유를 국영석유회사를 통하여 석유위기를 겪고있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팔아주기로 하였다.

1973년 1월부터 1974년 1월까지 석유값을 12번이나 올린 베네수엘라정부는 10월에 석유값을 또다시 3. 5% 올림으로써 석유수입의 절반이상을 이 나라에서 가져가는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이 나라 대통령은 12월 7일 국회에서 1975년 1월 1일에 미제가 통제하는 철광업을 국유화할것이라고 선포함으로써 베네수엘라에 풍부한 철광석을 독점하고 략탈하여 가던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또하나의 타격을 주었다.

이 법령에 따라 미제의 두개의 독점회사 《유나이테드 스테이트 스틸》과 《베틀레헴 스틸》지부에 속해있던 볼리바르동남부주에 있는 철광산들과 가공설비들이 국가의 통제밑에 들어갔다. 국가는 또한 미국에 수출하던 철광석의 판매권도 틀어쥐였다.

그밖에도 이 나라 정부는 민족경제에 대한 외국의 자본투자를 제한하는 법령(5월 16일)을 발포하여 미제와 외래제국주의자들이 소유하고있는 동력체계, 보험기관,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국, 출판기관, 도시운수 및 큰상점들을 3년이내에 자기주권의 80%를 베네수엘라사람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되고있는 이 진보적시책들을 밀고나가기 위하여 6월초에 이 나라 국회는 대통령에게 경제분야에 대한 특별권한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금속공업기업소들을 국유화하고 이 나라에서 활동하는 제국주의석유독점체들에 대한 세금을 올리며 민족경제발전에 리롭게 재정체계를 개혁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였다.

베네수엘라정부는 온갖 간섭과 압력을 일삼는 미제에게 제때에 반격을 가함으로써 민족적존엄을 수호하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려는 확고한 립장을 견지하였다. 2월에 미제국주의자들이 이미 공포한 석유값을 올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 나라에서 해마다 가져가던 사탕수입을 중지하는것으로써 위협하려 하였으나 베네수엘라정부는 사탕을 국내수요로 돌리고 2년간 그의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또다시 미제에 된매를 안겼다.

이해에 베네수엘라대통령 까를로스 안드레스 뻬레스는 독립기념(7월 5일)집회에서 연설하면서 《우리는 나라의 경제발전을 저애하는 온갖 간섭과 략탈행위를 반대하여 싸울것이다. 우리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식민주의제도를 영영 끝장내기 위하여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굳게 손잡고 싸울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10월 14일에 한 군중집회의 연설에서 그는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경제적예속에서 완전히 벗어날 결의에 충만되여있다.》라고 말하고 베네수엘라정부는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며 자기의 경제적독립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것이라고 말하였다.

1974년 6월부터 8월까지 베네수엘라수도 까라까스에서 진행된 제3차유엔해양법회의에서 연설한 이 나라 대표단 단장인 외교부장은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 있어서 합리적이고도 공정한것으로 되는 새로운 국제해양법을 제정할것을 주장하였다.

11월에 진행된 《미주국가기구》 외교부장회의에서 베네수엘라대표는 미제의 강요에 의하여 1964년 이 기구가 날조해낸 꾸바에 대한 이른바 《제재조치》를 취소할데 대한 결의안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이 나라 대통령은 2월 9일 《아야꾸초선언》, 12월 14일 《과야나선언》에 각각 서명하였다.

베네수엘라는 11월 29일 다른 라틴아메리카나라들과 함께 사탕수출국기구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9월에 베네수엘라 수도 까라까스에서 칠레 및 라틴아메리카에서 파시즘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자유와 인권옹호를 위한 국제련대성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 참가한 27개 단체대표들이 조선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1974년에 베네수엘라는 중국(6월), 벌가리아(8월), 감비아(8월)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으며 기네—비싸우(8월)를 승인하였다.

메히꼬대통령(7월)과 감비아대통령(8월)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석유공업과 광업(쇠돌매장량 10억톤)이다. 이 나라는 세계적인 석유생산국이며 수출국의 하나이다. 1973년현재 탐사된 석유매장량은 140여억바렐이며 하루 평균 약 315만바렐씩 생산된다. 석유의 80%는 마라까이보호수에서 채취된다. 동부오리노꼬지방과 서북부 라벨라만에서도 새로운 유전이 발견되였다. 《오리노꼬석유지대》 (2만2천평방키로메터)에 있는 석유추정량은 7천억바렐에 달한다.

마라까이보호수 물우에는 7천개 유정이 있는데 하루 생산량은 260만바렐이며 전국석유생산량의 80%를 차지한다.

1973년 이 나라 석유생산량은 12억바렐로서 세계적으로 제5위를 차지하였으며 수출은 제3위였다.

그러나 풍부한 석유자원을 가지고있는 베네수엘라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석유독점체들이 석유생산의 85%를 틀어쥠으로써 다만 석유수출에 의존하는 단일경제국가로 떨어지게 되였다. 미제의 《뉴저시》석유회사의 소속인 《크레올》석유독점회사 하나만 하여도 석유생산의 40%이상을 장악하였다. 1917~1970년까지 외래석유독점회사들은 무려 253억바렐을 채취하여 헐값으로 략탈하여갔다.

현 베네수엘라정부는 1년안으로 석유공업을 국유화할것을 선포하고 1960년 4월에 창설된 국영석유회사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결과 1973년말까지 이 회사는 368개의 유정을 뚫어놓았으며 석유생산량은 하루 1962년에 근 1천바렐로부터 1974년에는 10만바렐로 늘었다. 이 회사의 정제능력은 하루 2만 5천 바렐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1964년의 17배에 해당된다. 서부꼬로지역 라 플라만에서 새 해저유전(추정매장량 약 1억 5천~5억바렐)이 발견되여 탐사작업이 계속되고있다.

이 나라는 석유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술리아주의 《엘 따블라소》석유화학종합기업소가 마라까이보호의 동북부에 건설 (1968년에 착수)되고있다. 일부 대상들은 완공되여 생산에 들어갔다.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암모니아수, 뇨소 및 수지 원료와 기타 제품도 생산하고있다. 이 기업소는 국영석유회사에 속하는 새로 조업한 천연가스가공공장에서 원료와 연료를 공급받는다. 모나가쓰주에도 하루에 50만립방메터의 천연가스를 가공하는 공장이 일며섰다.

석유공업의 다음가는 철광업은 미제의 《유에스 스틸》독점회사 산하의 《오리노꼬》광업회사와 《베틀레헴 스틸》독점회사에 속한 《베네수엘라》광업회사가 틀어쥐고있었다. 지난 24년간 이 나라에서 약 3억톤의 철광석이 채굴되였으나 그의 9%만 이 나라에서 가공되고 나머지는 원광대로 모두 미제국주의자들이 헐값(톤당 평균 약 4딸라 20쎈트)으로 강탈하였다. 반면에 놈들은 저들이 가공한 철광석의 값은 원광보다 5배나 비싸게 팔아먹었다. 1974년에도 이 나라에서 약 2천 400만톤의 철광석을 캐내였는데 그것의 거의 전부가 미국에 실려갔다.

그러나 1975년 1월 1일 철광업을 국유화함으로써 20여년간에 걸친 미제의 철광석략탈은 끝장났다. 베네수엘라는 1만 6천여헥타에 달하는 철광석매장지를 도로 찾았으며 철광석의 채취, 판매 등 모든것을 장악하였다.

1975년 1월 2일에는 국제시장에 수출되는 철광석의 톤당값을 59볼리바르 39쎈띰으로부터 62볼리바르 31쎈띰으로 올렸다.

그밖에도 이 나라에는 방직, 건재, 축산물가공, 농산물가공, 식료 공장들이 있다.

경제가 주로 석유세입에 의거하고있

으며 공업품, 식료품, 생활필수품들은 거의나 수입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모든 물가가 일반적으로 매우 높다.

주민의 40%가 일하고있는 농업부문은 매우 뒤떨어져있다. 1천 700만헥터의 방목지와 목장, 160만헥터의 부침땅이 있지만 이 모든것의 80%는 농촌인구의 1.5%에 불과한 대토지소유자들과 미제독점자본가들이 독차지하고있다.

이 나라 정부는 주요농산물인 커피, 코코아 등을 독차지하고있던 미제의 경제적리권을 빼앗으며 땅세와 농산물수출세를 올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뒤떨어진 농업을 추켜세우기 위한 농업발전강령수행에 착수하였다.

이 강령에는 묵은 땅의 개간, 관개수리공사, 도로건설공사, 알곡을 포함한 농산물의 생산을 늘이는 사업이 들어있다. 정부는 농업발전을 위한 첫투자로 4억 6천만딸라를 지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요농산물은 코코아, 커피, 바나나, 담배, 목화, 사탕수수 등이며 식량은 거의나 수입에 의존한다.

나라의 크기에 비하여 철도망 (1천 355키로메터)이 조밀하지 못하다. 앞으로 5년동안에 7천 500키로메터의 도로를 새로닦을 계획이 세워졌다. 주요석유수출항구는 마라까이보, 아무아이 이다.

주요수출품은 석유(총수출액의 65.6%)와 그 가공제품(26%이상), 쇠돌, 커피, 코코아 등이며 기계설비와 운수수단(수입액의 40%이상), 원자재, 식량, 식료품, 소비품, 건재품 등을 많이 수입한다. 대외무역의 거의 절반을 미제에 의존한다. 그밖에도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과 많이 진행하였으나 최근년간 사회주의나라들, 제3세계나라들과의 무역도 점차 확대하고있다. 대외무역분야에서도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있다.

주민구성은 혼혈인 65%, 백인 20%, 흑인 8%, 인디안 7%이다.

공용어는 에스빠냐말이며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주민의 1%가 국민소득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1971년초에 완전실업자수는 50만명에 달하였으나 현정부는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는 석유, 강철, 선박 공업부문들과 농업, 축산업, 수산업 분야에서 일할 자체의 기술일군들을 키울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가정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한 대책도 세웠다.

출판보도; 신문 뜨리부나 뽀뿔라르 (공산당기관지), 이스끼에르다 (좌익혁명운동기관지), 엘 나씨오날(무소속), 엘 문도(무소속), 울띠마스 노띠씨아스, 라 따르데

방송 베네수엘라국립방송, 국립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10월 2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해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일본정치리론잡지 〈세까이〉 편집국장과 한 담화》를 신문 《울띠마스 노띠씨아스》가,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신문《엘 나씨오날》이 실었다.

제4차유엔해양법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에 머무른 우리 나라 대표단이 7월 17일 이 나라 대통령 까를로스 안드레스 뻬레스를 만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 나라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대표단 단장이 석상에서 정중히 전달하였다.

베네수엘라대통령은 석상에서 조선의 통일이 하루 빨리 이룩될것을 축원하고 이어 《귀국정부의 정책은 아주 훌륭하다. 그리하여 조선은 아세아의 모범으로 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앞서 베네수엘라를 방문한 우리 나라 외교부대표단은 5월 30일 이 나라 외교부장을 만났다.

가 이 아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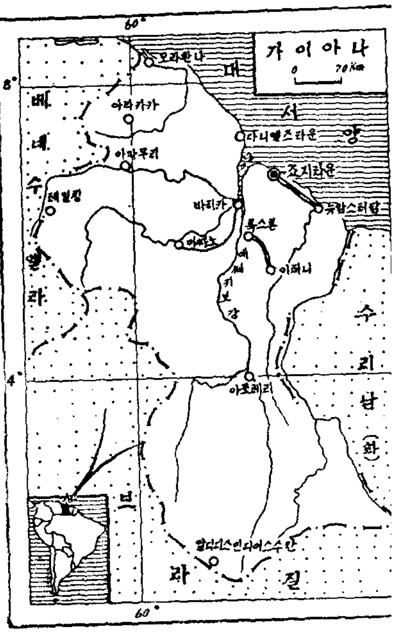
(가이아나협동공화국)

넓이 21만 4,969Km²
인구 75만명(1972년)
수도 죠지타운(주민 19만 5,250명, 1970년)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이며 의원은 53명, 임기는 4년, 1973년 7월 국회선거에서 인민진보당이 14석, 인민민족대회당이 37석, 통일력량당이 2석을 각각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으로서 민족회의에서 선거, 대통령 아르두르 충(1970년 3월—)



정부 1973년 7월 22일 새 정부 구성
총리 린든 포베스 쎔프슨 번함 (인
민족대회당출신, 1964년 12월—, 19
년 7월에 세번째로 당선), 총리는
방 및 내무부를 포괄한 국가안전부장
과 그외 두개 부를 직접 맡았다. 외
부장 수리다스 수렌드라나드 람팔

정당, 사회단체; **인민진보당** 1950
에 창건, 로동계급과 농민 주로 인
인출신 민족부르죠아지들을 망라하
있는 진보적인 야당, 총비서 체디
간, **인민민족대회당** 1955년에 인민
보당에서 갈라져나와 조직한 당, 주
아프리카인출신 사람들속에서 영향
을 가지고있으며 1964년 12월이래
권당, 지도자 번함, **통일력량당** 19
년에 부르죠아지, 지주들의 리익을
변하여 무어진 당, 주로 백인들로
성, 로조대회, **인민진보청년동맹**,
국평화리사회 1973년에 창립, 위원
(인민진보당 총비서) 체디 쟈간

1803년에 오늘의 가이아나땅을 점
한 영국식민주의자들은 런던협약(1
년)과 빠리강화조약(1815년)을 조
여 이 나라를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
다.

제2차세계대전후 민족적독립파
유를 위한 가이아나인민들의 강
투쟁에 의하여 1953년에 이 나라는
제국주의자들로부터 《내부자치》를
정받았다. 1953년의 첫의회선거에
인민진보당이 승리한후 1957년 8
1961년 8월 선거에서도 인민진보
우세를 차지하여 자치정부를 수립

다.

1964년 12월에 진행된 선거를 통하여 인민민족대회당과 통일력량당의 련합정부가 수립되였다.

1966년 5월 26일 가이아나는 영련방성원국으로서 독립하였다. 낡은 식민지통치기구를 청산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인민들의 꾸준한 투쟁에 의하여 1970년 2월 23일 이 나라에서는 공화국이 선포되고 식민지통치의 유물인《총독》제가 페지되였다. 이해 3월 17일 이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가이아나사람을 대통령으로 내세우는 선거가 진행되였다.

1973년 7월 16일 총선거가 진행되였으며 7월 22일 번함을 총리로 하는 정부가 수립되였다. 정부는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며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진보적정책을 실시하였다.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연부원을 수호하기 위하여 1971년 7월에 외국독점회사인 《데메라라》보크사이트회사를 국유화하고 뒤이어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외국목재회사도 접수하였다.

1973년 2월에는 외국사탕독점회사들의 토지를 국유화하였으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은행들에 강한 제한조치들을 실시하였다.

1974년에 가이아나 정부와 인민은 정치적자주권을 수호할뿐아니라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제국주의독점체들의 경제적지반을 허물어버리고 나라의 자연부원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다.

특히 풍부한 보크사이트자원을 수호하며 미제의 독점회사 《레이놀즈》를 반대하는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다.

9월에 정부는 미제의 《레이놀즈》회사에 많은 세금을 부과한데 이어 그것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을 벌렸다. 인민들은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여 수도를 비롯한 각지에서《단결하여 미제를 반대하여 싸우자!》,《〈레이놀즈〉회사는 물러가라!》,《미제국주의를 타도하라!》등의 구호밑에 시위와 집회를 가졌다.

가이아나 대통령은 12월 14일 미제의《레이놀즈》광업회사의 재산을 1975년 1월 1일부터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에 서명하였다. 같은날 이 나라 총리는 인민민족대회당 특별회의에서 이것을 공포하면서 이 조치는 자기의 민족자원의 주인으로 되려는 가이아나인민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이해 4월 3일에 정부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일용필수품을 통제할데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

가이아나총리는 4월 26일 연설에서 지난날 가이아나의 재정원천이 외국독점은행에 의존되여있었기때문에 자기 나라의 발전에 그것을 리용할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가이아나는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원치 않으며 오직 자기 나라의 모든것의 주인이 될것을 원한다고 말하였다.

4월에 한 집회에서 이 나라 국무부장도 자기 나라 민족경제발전에 언급하여 그는 가이아나는 외래제국주의자본투자에《기대》를 걸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하고 민족적리익에 맞게 경제를 발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6월 1일 《전국청년주간》페막식에서 연설한 총리는 자력갱생하여 공업 및 농업 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할것을 청년들에게 호소하였다.

대외관계분야에서도 가이아나는 미제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면서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제3세계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1973년 8월 1일 가이아나는 자메이카, 트리니대드 토바고, 바베이도즈와 함께 까리브해지역 나라들사이에 경제적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까리브공동체와 까리브공동시장을 창설하였다.

미제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1972년 10월 14일 꾸바, 1973년 9월 5일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와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사회주의나라들과도 이미 외교관계를 맺고 경제 및 무역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미제는 가이아나를 포함한 까리브해공동시장 나라들이 꾸바와 외교관계를 맺자 그들에 대한 재정《원조》를 중지하고 경제발전을 억제하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74년 3월에 이 나라 총리는 담화에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한 미제의 간섭책동을 신랄히 규탄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미제가 까리브해연안나라들의 경제발전을 가로 막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다고 단죄하고 가이아나는 지금 미국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9월에 이 나라를 방문한 탄자니아대통령의 환영연설에서 가이아나총리 번함은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제3세계나라 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립장을 재천명하였다. 9월 14일 가이아나와 탄자니아가 발표한 공동콤뮤니케에서 두 나라는 신구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여 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6월에 가이아나외교부장의 뻬루방문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두 나라 외교부장들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및 인종차별의 온갖 표현을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가이아나와 뻬루의 자주적인 정책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앞서 5월에 진행된 아프리카인민에 대한 련대성주간에 가이아나외교부장은 아프리카피압박인민들의 완전한 해방을 이룩하는데서 제3세계나라들이 노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이아나는 국제무대에서 아프리카해방운동을 지지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였다.

1974년 3월 미제의 앞잡이 이스라엘침략자들과 외교관계를 끊은 반면에 스리랑카(7월), 에과도르(7월)와 새로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농업과 광업이 경제의 기본을 이룬다. 로동인구의 37%가 농업부문에서 일하고있으며 국민총생산액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몫은 23%에 달한다.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하여 사탕수수농장이 부침땅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사탕수수재배와 그 수송, 가공부문에는 로동자의 3분의 1이 종사하고 있다.

사탕수수농장과 사탕공장들의 거의 전부를 두개의 큰 영국독점회사가 틀어쥐고있었다.

1973년 2월 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의 사탕회사에 속한 부침땅을 국유화하기로 결정하고 땅없는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

농업협동조합들이 조직되고있다.

주작물은 쌀인데 주로 소농경리에서 재배되고있다. 강냉이, 밀, 콩, 감자, 완두콩, 팥 작물재배가 도입되고 있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은 이 나라에서 사탕수수재배 일면에만 치우치고 주작물의 재배를 억제하였었다. 정부는 주작물의 부침땅을 계속 늘여 알곡생산량을 높임으로써 수입에 의존하던 적지않은 식량을 자체로 보장하였다.

1974년에 약 23만에이커의 논에 늦벼와 올벼를 심어 풍작을 이룩하였다.

강냉이 밭을 늘이는 사업과 함께 병충해방지, 종자고르기 등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연구사업도 광범히 벌어졌다. 지난날 심지 못하고 해마다 많은 외화를 들여 사오던 감자도 많이 거두어들였는데 수확기의 첫단계에 벌써 3만 3천폰드의 감자를 캤다.

그밖에 귤(년 2만톤정도), 파인애플, 커피, 코코아, 야자 등 열대농산물도 생산한다.

집짐승으로서 소, 양, 염소, 돼지를

기르나 그 수는 많지 못하다.

지난날 뒤떨어졌던 수산업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까리브해에서 어장을 늘이고 부두건설이 추진되였다. 국영수산물회사가 생기고 물고기가공공업이 발전하고있다. 수산일군양성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1973년에 이 나라의 물고기와 새우 생산액은 1972년에 비하여 400만파운드 더 늘어나 4천 200만파운드에 이르렀다.

산림자원이 풍부한 나라로서 질좋은 목재들이 많이 생산된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략탈대상으로 되였던 산림자원을 민족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이 나라 개발회사는 제국주의자들의 가장 큰 목재회사를 접수하였다. 통나무생산량을 늘이며 그 가공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길을 새로 닦는 일, 제재소건설을 진행하였다.

1973년에는 죠지타운에 목재건조공장이 일떠섰다.

공업부문에서는 보크사이트채굴공업이 기본이다. 그 생산량은 해마다 430만톤이상에 달하며 자본주의세계에서 세번째자리를 차지한다.

미제는 1952년에 이 나라에 략탈의 마수를 뻗친이래 1억 2천 700만톤의 보크사이트가 매장되여있는 2만 4천에이커의 땅을 차지하고있었다. 그 공업부문의 80%도 저들의 손에 틀어쥐고 있었다. 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1971년 7월에 미국—카나다의 《데메라라》보크사이트독점회사가 국유화된 이후 가이아나의 《가이복스》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1974년 12월에 또다시 미제의 《레이놀즈》보크사이트독점회사를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이 발포되여 1975년 1월 1일부터 크와크와니와 에베르톤에 있는 미국놈들의 재산을 몰수하게 되였다. 이 독점회사는 지난 10년동안에 무려 1억 5천 940만딸라어치에 달하는 보크사이트를 략탈하여갔다. 그밖에 금과 금강석(년산 약 5만카라트), 알루미나(30여만톤), 동, 망간, 니켈, 연 등 유색금속들이 채굴된다.

국민총생산액에서 광업부문이 차지하는 몫은 약 20%이다. 이 나라가 끼고있는 까리브해의 연안과 연해에서 석유탐사가 시작되였는데 그 전망이 밝다. 1974년 8월 이 나라의 수도 죠지타운 앞바다에서 원유 및 천연가스가 발견되였다.

가공공업부문에는 사탕, 방직, 담배, 열대농산물가공 등 주로 경공업공장들이 있다.

국내운수에서 강하천운수가 큰 자리를 차지한다. 철길은 바다가와 내륙의 광산지대를 련결하고있는데 그 길이는 278키로메터에 불과하다.

주요수출품은 사탕과 보크사이트, 금강석, 목재인데 수출총액에서 보크사이트가 약 50%, 사탕이 약 35% 차지한다. 주요수입품은 기계설비 및 운수수단(25%), 여러가지 완제품(25%), 식량(16%정도), 연료, 화학제품 등이다.

주민구성에서 원주민인 인디안은 2만명정도이고 영국식민지당시 인도에서 이 나라로 끌려온 노예의 후손들인 인도사람이 주민의 절반이상 차지한다. 기타 아프리카출신의 흑인이 30%이상, 혼혈인이 10%이상 차지하며 서구라파계통의 백인도 약간 산다.

공용어는 영국말이다.

독립후 문맹자가 많이 줄었으나 15살이상 주민의 13%가 아직 글을 읽고 쓸줄 모른다.

정부는 민족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식민지시기의 교육체계를 청산하고 교육내용을 민족적리익에 맞게 개편하였다.

민족간부양성을 위한 새 기구를 창설하고 교재의 편집 및 출판에 많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선더(인민진보당기관지), 뉴 네이순(인민민족대회당기관지), 씬(통일력량당기관지), 이브닝 포스트, 미러, 가이아나 그라픽
방송 가이아나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5월 1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3년 4월에 두 나라사이에 무역협정과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이 맺어졌다.

가이아나의 수도 죠지타운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들만을 전문으로 보급하는 서점이 있다. 서점안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져있으며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찬양하여 《현시대의 맑스-레닌주의저서》, 《20세기 공산당선언》이라고 쓴 구호판들이 장식되여 있다.

가이아나대표는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알제리를 비롯한 40개 나라들이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하여》의 우리측 공동결의안표결에서 지지를 표시하였다.

1972년 11월에 가이아나정부경제무역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3년에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4월), 1972년에 정부친선대표단(8월)이 가이아나를 각각 방문하였다.

수 리 남

(화란식민지)

넓이 16만 3, 265Km²
인구 41만명(1971년)
행정중심지 파라마리보
남아메리카대륙의 북부에 자리잡고있다.

정 치

식민지통치기구 화란총독이 9명으로 된 《내각》과 임명제로 되여있는 《자문회의》 그리고 39명으로 구성된 《의회》를 두고 통치한다.

정당, 사회단체; 수리남국민당 1946년 조직, 통일힌두스탄당 1949년 조직, 국민진보당, 수리남민주당, 민족공화당, 진보로동자조직, 광업로동자동맹

15세기말 16세기초부터 수리남지역에 대한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의 침략에 이어 1613년에는 영국침략자들이 강점하고 식민지로 만들었다.

1667년에 영국과 화란사이의 《브레다조약》에 의하여 화란식민주의자들이 북아메리카의 뉴암스테르담(지금의 뉴욕)을 영국에 내주고 그 대신 수리남을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제2차세계대전후 이 나라에 대한 침투를 강화한 미제는 1962년 4월 화란과 협정을 맺고 수리남을 마음대로 리용할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다.

화란은 1954년부터 수리남을 《자치령》으로 만들고 식민지총독정치를 실시하고있다.

현재 이 나라에는 화란의 전차, 포병, 보병 부대들이 주둔하고있다.

최근년간 수리남에서는 화란식민주의자들과 반동당국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며 민족적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급속히 앙양되였다.

1973년 1월 17일 행정중심지 파라마리보시 세관일군들이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을 일으켰다. 뒤이어 채취공업과 목재가공공업부문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부문 근로자들이 파업에 합류함으로써 2월 11일에는 전국적인 총파업으로 발전하였다. 여러날째 계속된 총파업은 이 나라 자연부원을 마음대로 략탈해가는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반동당국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반동적인 악질총리놈을 쫓아냈다.

그리하여 헨크 아론을 총리로 하는 새 정부가 수립되였다.

아론을 수반으로 하는 새 정부는 화란식민지통치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독립을 이룩할것을 주장하고있다. 새로 선거된 이 나라 국회는 1974년 2월 28일에 아론총리가 늦어도 1975년 이전에 완전한 독립을 이룩하자는 제안을 지지찬동하였다. 3월에 행정중심지 파라마리보시 중심거리를 누비며 시위를 전개한 수많은 청년들은 《우리는 당장 독립할것을 원한다》는 구호를 웨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결의를 다지였다.

아론총리는 수리남노예해방절(7월 1일)에 즈음한 전국라지오방송연설에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는 수리남인민은 자기의 앞날을 자신이 개척할것이며 식민주의자들의 《지시》에 더는 복종하지 않을것이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뒤떨어진 농업국가이다. 로력인구의 3분의 1이 농업부문에서 일한다. 주요 농산물은 벼(년산 약 10만톤), 사탕수수(15만 3천여톤), 강냉이, 감자, 남새, 바나나, 귤, 커피, 코코아 등이다. 식량은 수입에 의존한다. 소를 위주로 하는 축산업과 수산업 부문에서도 적지 않는 사람들이 일한다.

공업에서는 보크사이트와 금 채굴업이 기본이다. 미국―카나다자매회사인 《알코아 수랄코》와 화란회사인 《빌리톤》이 보크사이트채굴을 독점하고있다. 미제는 자국의 보크사이트소비량의 65%를 이 나라에서 헐값으로 략탈해가고있다. 1969년에 624만톤의 보크사이트를 캐내여 자본주의세계에서 두번째자리를 차지하였다. 금생산량은 년평균 160키로그람정도이다.

가공공업부문에 알루미니움가공공장, 목재 및 식료가공 공장들이 있으나 그 규모들은 작다. 사탕과 람술이 반수공업적으로 생산된다. 질좋은 목재들이 많이 생산되나 화란계 목재회사들이 틀어쥐고있다. 철길은 담과 파라마리보까지(170키로메터) 한줄기뿐이다.

그러므로 국내수송에서는 강하천운수가 큰 역할을 한다.

주요수출품은 보크사이트, 알루미나, 알루미니움, 사탕, 귤, 커피, 목재이고 옷, 식량과 기타 생활필수품을 수입한다. 미제와 화란이 이 나라 대외무역을 독점하고있다.

주민은 구라파계통의 백인(36%), 인도사람(35%), 인도네시아사람(15%), 흑인, 인디안 등이 산다. 다른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비하여 아세아사람들이 많은것이 특징이다.

공용어로서 화란말을 쓰나 일부 지식층은 영국말을 쓰기도 하나 일반주민들은 자기들의 고유한 말을 쓰기도 한다. 대학은 없으며 중등학교가 제일 높은급이다. 주민들은 제각기 자기 민족적종교형식을 따른다.

출판보도;신문 데 와레 티즈드, 데 웨스트, 수리남

방송 수리남방송, 수리남텔레비죤방송

프랑스령 가이아나

넓이 9만 1,000Km²

인구 5만 1,000명(1970년)

행정중심지 까옌느(주민 약 2만 4,500명)

남아메리카대륙의 북부에 자리잡고있다.

정 치

식민지통치기구 프랑스정부가 임명한 지사가 실권을 장악하고있다. 지사밑에는 15명으로 된 총무회의가 있는데 프랑스의 상하량원에서 각각 1명의 의석을 차지한다.

정당, 사회단체; **가이아나사회당** 1956년 창건, **사회당** 1951년 조직, **인민동맹당** 1958년 조직

17세기초부터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기 시작한 이 나라는 1674년에 프랑스의 속령으로 되였다. 18세기말 프랑스부르죠아혁명시기에는 류형지로서 많은 《정치범》들이 끌려왔다.

1850년대에 금광이 발견되면서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로동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아프리카로부터 수많은 흑인들을 노예로 끌어왔으며 놈들은 1870년부터 총독통치밑에 흑인들에게 더 가혹한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한 이 지역 인민들의 투쟁기세가 높아지자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은 1946년에 이 나라를 저들의 《해외현》으로 만들었으며 오늘도 식민지통치를 계속 강화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뒤떨어진 농업을 가진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프랑스에 완전히 장악되여있다.

금채취와 림업이 경제에서 큰 의의를 가지나 금생산은 점차 줄어들고있다. 령토의 90%이상이 밀림지대이며 질좋은 목재가 많이 생산된다.

농산물로서 사탕수수, 마니오크, 바나나, 파인애플, 코코아와 같은 열대농산물과 벼, 강냉이 등의 알곡작물이 재배된다. 집짐승으로는 소와 돼지를 주로 기른다.

공업부문에는 사탕공장, 람술공장, 목재가공공장 등 작은 규모의 공장들이 약간 있다.

주로 목재, 람술을 수출하고 식량과 공업제품은 수입한다.

주민은 인디안, 흑인, 프랑스사람들로 이루어졌고 프랑스말을 쓴다. 인구밀도가 1평방키로메터당 0.5명정도에 불과하다. 주민의 80%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신문 라 쁘레스 드 가이아나

방송 가이아나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브 라 질

(브라질합중국)

넓이 851만 1,965Km²

인구 1억명 (1973년 1월)

수도 브라질리아(주민 54만 5,000명, 1970년)

정 치

국민회의 상하량원제, 하원의원의 임기는 4년, 련방상원은 8년, 1974년 11월 15일 364석의 하원전원과 66석의 상원에서 3분의 1을 재선거실시, 결과 집권당인 민족부흥동맹은 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나 많은 의석을 잃고 야당인 브라질민주운동은 하원에서 3분의 1이상의 의석 차지, 상원에서 야당은 7석으로부터 21석으로 늘였다.

정부 대통령은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4년, 503명으로 구성된 대통령선거위원단에 의하여 간접선거, 이 위원단은 집권당인 민족부흥동맹과 야당인 브라질민주운동 성원만으로 구성되였고 그 가운데서도 위원단성원의 80%를 집권당이 차지, 대통령 에르네스또 게이젤(1974년 3월 15일―), 외교부장 아세레도 다 씰베이라, 군부는 륙, 해, 공군 부장들이 각각 따로 있음

정당, 사회단체; 1965년 10월에 발포된 법령에 의하여 모든 정당을 해산, 1966년에 두 정당의 창건만을 허용, **공산당** 1922년 3월 25일 창건, 1965년 10월 군사정변후 비법화되여 지하에서 활동, **민족부흥동맹** 1966년에 무어진 반동적인 집권당, **브라질민주운동** 1966년에 무어진 유일한 야당, 직접적인 대통령선거, 출판물검열제의 페지, 부의 보다 공정한 분배를 주장, **공업로동자전국련맹**, **상업일군전국동맹**, **륙운로동자전국련맹**

브라질은 16세기초에 뽀르뚜갈침략자들의 식민지로 된후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오랜 투쟁에 의하여 1822년 9월에 독립하였다. 1891년에 나라이름을 《브라질합중국》으로 선포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브라질에 대한 미제의 정치, 경제적 침투가 급속히 강화되였다.

1960년 10월에 집권한 꽈드로스정부와 그 뒤를 이은 굴라르뜨정부는 미제와 국내반동세력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진보적정책들을 실시하였다.

굴라르뜨정부는 1962년에 외국자본의 리윤방출제한법을 공포한데 이어 1963년에는 미제독점자본이 틀어쥐고있던 11개의 기업소들을 국유화하였다.

1964년 2월에는 최저임금을 100% 올릴데 대한 법령에 서명하였으며 국회에 보낸 서신에서 공산당을 비롯하여 비법화된 모든 정당들을 합법화할데 대하여 제기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켰다.

굴라르뜨정부의 진보적정책에 불안을 느낀 미제는 1964년 3월 반동적군부세력을 부추겨 군사독재정권을 수립케 하였다.

친미군사독재정권은 이전정부가 취한 진보적정책들을 말살하였으며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당들을 해산시켰다. 또한 진보적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정책을 실시하면서 수많은 애국자들과 진보적인사들을 체포투옥하였다. 1966년 두개 정당의 창건만이 허용되였다.

1967년 3월 새로 조작된 씰바친미군사독재정부는 1968년 12월 13일 국회를 임의의 시각에 해산하고 립법권을 독차지할수 있고 인민들의 정치적권리를 마음대로 정지시킬수 있는 특별권한을 대통령에게 주는 파쑈적악법인 이른바 《제도법 5호》를 꾸며냈다.

씰바군사독재정권을 뒤이은 메디씨반동정부는 1969년 10월 파쑈독재통치법을 그대로 반영한 새헌법(1969년 10월 30일 발효)을 발포하고 형식상 국회활동을 재개하였으나 《제도법 5호》를 유지하였으며 이전 친미군사독재정권의 반인민적정책을 계속 실시하였다.

1970년 11월 친미독재정권은 파쑈통치지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선거놀음을 벌려놓고 저들의 신복들로 국회의석을 채워넣었다.

1974년 1월 15일에 대통령선거가 있었으나 반동관료배집단으로 무어진 《대통령선거위원단》에 의한 간접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에서 에르네스또 게이젤이 선임대통령 메디씨의 뒤를 이은 새 대통령으로 되였으며 그는 2월 21일 새 각료명단을 발표하였다.

3월 15일 새 대통령의 취임식이 진행되였다. 그는 취임연설에서 이전 메디씨친미독재정권의 정책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반동당국은 브라질에 대한 외래독점자본의 투자를 계속 장려함으로써 민족경제를 더욱더 위기속에 몰아넣었다. 특히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경제적침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1974년 9월 일본총리 다나까가 이 나라에 기여들자 브라질반동정부는 《브라질에 대한 일본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떠벌였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 책동에 말려들고있는 브라질반동당국은 군사비를 1972년의 3억 300만딸라로부터 1973년에는 9억 6천 400만딸라, 1974년에는 또다시 13억딸라라는 기록적인 수자에 이르게 함으로써 인민들에게 더욱더 무거운 부담을 들씌웠다.

11월 15일 브라질에서 하원의원전원선거와 련방상원의원의 3분의 1을 재선거하였다. 선거에는 집권당인 민족부흥동맹과 유일하게 합법적인 야당인 브라질민주운동이 참가하였다.

반동적인 집권당인 민족부흥동맹은 현정부의 정책을 지지하였다. 브라질민주운동은 선거전강령에서 국내 모든 생활의 민주화와 국회전권의 회복, 일련의 사회경제적개혁의 실시와 근로자들의 로임을 올려줄것을 주장하였다.

선거결과 집권당인 민족부흥동맹은 비록 상하량원에서 과반수의석을 유지하였지만 야당인 브라질민주운동은 하원에서 87석으로부터 3분의 1이상의 의석을 얻었다. 66석의 상원에서는 7석으로부터 21석으로 늘었다. 야당에 대한 지지표가 늘어난것은 반동적군부의 통제밑에 있는 현정부에 대한 인민대중의 항의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야당인 브라질민주운동 위원장은 민주주의적자유가 회복될 때까지 여당파의 어떠한 련립에도 참가하지 않으며 야당으로 남아있을것이라고 말하였다. 선거는 정부의 대내외정책에서 아무런 근본적 변화도 가져오지 않았다.

브라질정부는 그의 대내외적반동정책으로 말미암아 국내외적으로 고립배격받게 되자 정책을 일부 완화하고 대외관계를 확대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5월에 로므니아, 벌가리아, 웽그리아, 방글라 데슈, 까따르와의 외교관계를 대사급으로 올리는데 동의하였으며 1월에 가봉, 8월 15일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9월에 사우디 아라비아외무담당국무부장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을 때 브라질정부는 이전정부들이 취한 《동거리립장》에서 벗어나 1967년에 강점한 모든 아랍땅에서 이스라엘침략군을 철수시키며 팔레스티나인민의 권리를 승인하는것이 중근동문제해결에서 근본조건으로 된다는 립장을 표시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외래독점자본에 예속된 농업—공업국가이다. 경제에서 농업부문이 기본을 이루고있으며 이 부문에서 로동인구의 50%가 일하고있다. 주민의 2%에 불과한 대토지소유자들이 80%의 비옥한 토지와 매우 넓은 방목지를 틀어쥐고있다. 게다가 600만정보를 외래독점회사가 거머쥐고있다.

반면에 농촌로력인구의 5분의 4는 전혀 땅을 못가지고있다.

식민주의자들의 략탈정책의 후과로 농업은 커피, 코코아, 사탕수수, 목화, 담배 등 수출작물재배에 치우쳐있다. 커피생산량(년산 100만～160만톤)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첫자리를, 코코아(20만톤이상)는 세번째자리를 차지한다. 이 수출작물들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략탈대상으로 되고있다. 1973년에 커피와 코코아 생산이 떨어졌다. 1973—1974년에 커피는 1972—1973년의 160만 8천톤에 비하여 69만톤으로 떨어졌다. 결과 수출총액에서 커피의 몫은 27%로부터 20%로 적어졌다.

알곡작물로서 강냉이, 벼, 밀, 콩 및 마니오크를 심고있다. 1973년이후 농업생산이 일정하게 늘었으나 단위당 생산을 높여 얻어진것이 아니라 씨뿌림땅을 늘여 얻어진것이다. 정보당평균 생산량에 있어서 알곡과 사탕수수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 비하여 절반도 못된다. 그러므로 넓은 땅을 가지고도 해마다 식량이 모자라 막대한 량을 수입에 의존한다. 현반동당국

은 《식량위기》에 대처하여 농업과 목축업에 투자를 높이는 동시에 아마존강류역개발을 계획하고있으나 진척되지 않았다.

1974년 3월말 4월초 북부지역에서 큰물로 인하여 10개주의 농촌지역은 심한 피해를 입었다.

농업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 목축업은 특히 제국주의자들의 략탈대상이다. 소, 돼지, 양, 당나귀, 말, 노새 등을 많이 기르는데 소만 하여도 근 1억마리이다. 그러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략탈정책으로 1974년에 이 나라에서 소고기는 구경조차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반동당국은 《비상조치》니, 《수출통제》니 뭐니하는 소동까지 빚어냈다. 1973년에는 집짐승병이 돌아 무리로 쓰러졌다.

공업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비교적 발전한 편이다. 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되여있고 아직 개발도상에 있다. 1964년 3월 반동적친미군사정변 이후 막대한 외래독점자본을 끌어들임으로써 보잘것없는 민족공업은 더욱 위기에 빠졌다. 이 나라에는 500개이상의 외래독점회사들과 36개의 외국은행지점들이 들어와 있다. 이것들은 특히 화학, 자동차, 운수 공업투자액의 80%를 틀어쥐고있다.

현당국은 선박건조, 자동차 공업과 채취공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있다. 그러나 자동차공업은 서부독일, 선박건조, 야금 공업은 일본독점자본의 통제밑에 있다.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있으나 이 분야는 완전히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독판치고있다.

미제의 《유나이테드 스테이트 스틸》, 《알칸 알루미니움》 및 《베들리헴 스틸》 독점회사들이 광대한 지대의 개발권을 얻어 막대한 지하자원을 략탈해가고있다. 브라질에 대한 미제의 직접투자는 1956년의 12억딸라로부터 1970년에는 벌써 18억 4천 300만딸라에 달하였다.

동북부 까라야스산줄기에서 큰 철광석매장지(약 180억톤)가 발견된후 이 근방에 서게 되는 이다끼제철소건설에 일본독점재벌인 《신닛뽕》제철회사가 투자하였다. 뚜바라오제철소건설에는 역시 일본독점재벌인 《가와사끼》제철회사가 끼여들었다. 이 두 독점회사는 무려 18억딸라를 투자하여 반제품을 깡그리 앗아간다. 북부지역에 건설되는 알루미니움제련소건설에 《스미도모》, 《미쯔비시》, 《미쯔이》 등 5개 일본대독점체들이 또 뛰여들었다.

브라질에 대한 일본독점자본의 투자총액은 1971년의 2억딸라로부터 1973년에는 6억딸라, 1974년에는 10억딸라에 이르렀다. 이것은 일본독점자본의 해외투자총액의 약 절반에 해당된다. 약 80개에 달하는 일본독점회사들의 자매회사들이 이 나라에 있는데 그것들은 제철, 선박, 석유화학, 전기 및 전자기구, 식료, 방직 공업 및 목축업과 같은 관건적인 경제부문들에 깊숙히 침투하였다.

1974년에 페루 및 콜롬비아와 국경을 같이하고있는 브라질국경지대에서 큰 석탄매장지가, 서부마또그로쏘주에서는 티타니움광매장지가 발견되였다. 자체석유생산으로써는 국내수요의 겨우 20%를 충족시킬뿐 80%는 수입에 의존한다.

석유수입의 근 절반은 중근동지역에서 들여온다.

1974년 상반년에 이 나라에서 생산된 석유는 도합 3천 150만바렐이였다. (1973년 한해동안에는 840만톤)

반동당국은 1974년에 전해보다 2%나 더 많은 30억딸라의 《외자도입안》을 또다시 내놓았다. 사실상 1974년에 브라질에 투자된 외래자본투자총액은 50여억딸라에 달하여 1973년말에 비하여 13% 더 늘었다.

그리하여 1974년 현재 대외빚은 180억딸라에 달하였다. 1973년에는 리자만으로도 15여억딸라를 물었다.

주요수출품중에서 전통적인 품목은 커피(원료), 코코아, 목화, 사탕이며 비전통적인 상품은 자동차와 그 부속품, 커피가루, 신발이다. 커피가루는 25개 나라들에 수출되고있는데 특히 미제와 영제국주의자들이 독점하고있다. 1973년에 300여만톤의 사탕을 수출하여 자본주의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수출품을 생산하는 외래독점체들을 포함한 개인회사들에 대한 《보조금》과 《특혜》를 줌으로써 비전통적인 수출품목이 늘고있다.

주요수입품은 기계설비, 운수수단, 화학제품, 식량 등이다. 1974년에 50억딸라의 무역적자를 냈다. 주요무역대상국은 미국, 일본, 서독이다.

주민구성은 백인이 61.7%, 흑인이 11%, 혼혈인이 26.5%, 기타가 0.8%를 차지한다. 백인은 주로 뽀르투갈, 이딸리아, 에스빠냐, 독일 계통의 사람들이며 흑인들은 식민지시기에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들의 후손들이다. 원주민인 인디안은 아마존강류역에 약 15만명정도 살고있다.

공용어는 뽀르투갈말이며 주민들의 93%가 천주교를 믿는다.

7살이상 주민의 50%가 글을 전혀 모른다. 학교에 갈 나이의 절반이상이 학비난으로 소학교 1학년과정도 채마치기전에 쫓겨난다. 농촌지역에는 의료기관이 거의 없는데 특히 동북부지역의 1천 200개 고장에는 단한명의 의사도 없다. 근로자들은 보통 한번 병을 보이는데 한달 임금에 맞먹는 《진단비》를 물어야 한다. 결핵을 포함한 여러가지 전염병에 걸린 근로자수만도 3천만~4천만명에 달하며 일평균 30여명이 폐결핵으로 목숨을 잃는다. 어린이 1천명당 149명이 한살도 되기전에 죽는다. 1974년 첫 8개월사이에만도 뇌막염으로 1천여명의 근로자들이 죽었다. 3월말에는 10개주에서 큰물피해로 25만명이 집을 잃었고 약 2천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미국식부르죠아생활양식을 설교하는 퇴폐적인 영화와 음악들이 판을 친다. 친미반동정권의 반인민적정책으로 말미암아 1974년 첫 두달동안에만도 생계비는 4.3% 뛰여올랐다. 3월에 약값은 8~12%, 학용품값은 20~30%, 소젖값은 17%, 닭알값은 6%, 남새와 과일값은 12~23% 올랐다.

출판보도; 통신 아헨씨아 나씨오날(정부통신)

신문 보스 오뻬라리아(공산당기관지), 오 에스따도 데 싼 빠울로(무소속), 죠르날 도 브라질, 오 글로보, 디아리오 데 브라질리아, 디아리오 데 노떼씨아스

방송 브라질교육문화방송, 브라질문화방송, 브라질전국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4월에 알제리에 있는 브라질투쟁단체대표부 성원들은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를 조직하였으며 《김일성동지혁명활동및로작연구소조》도 있다.

1974년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발표 다섯돐에 즈음하여 브라질사회활동가 안헬 베라스푸스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이 로작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가장 곧바른 길로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게 하는 천재적문헌으로서 새 사회건설을 지향하는 전세계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으며 세계혁명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기의 말을 맺었다.

《참으로 김일성동지께서는 훌륭한 분이시다. 그이께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탁월한 철학가이시며 위대한 경제학자이시다.》

콜롬비아

(콜롬비아공화국)

넓이 113만 8,914Km²
인구 2,315만명(1974년 10월)
수도 보고따(주민 300만명, 1974년 10월)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은 112석(임기 4년), 하원은 199석(임기 2년)이다. 1974년 4월 21일 상하원선거진행, 하원(5개 의석은 미확정)에서 자유당이 111석, 보수당이 61석, 전국인민동맹이 19석, 공산당이 3석을 각각 차지, 112개 의석의 상원에서 자유당이 66석, 보수당이 38석, 전국인민동맹이 7석, 공산당이 1석을 각각 차지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4년, 1974년 8월 7일 새 내각이 임명되였다. 대통령 알폰쏘 로뻬스 미첼쎈(1974년 8월 7일—), 외교부장 인달레씨오 리에바노, 국방부장 아브라함 바론 발렌씨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0년 7월 17일에 창건되여 1948년부터 비법화되였다가 1958년부터 합법화, 총비서 힐베르또 비에이라, **《민족전선》** 1958년에 자유당과 보수당의 《협정》으로 조직된 정치적련합체, 1974년 4월 선거를 앞두고 기한만료로 해체, **자유당** 부르조아지의 리익을 대변하며 집권당, **보수당** 지주, 교회, 대부르조아지의 리익을 대변하며 집권당, **인민자유혁명운동** 1960년에 창건되였다가 1967년에 재건, 중소부르조아지, 일부 로동자, 농민, 인테리들을 망라, **전국인민동맹** 1964년에 무어졌고 이전 독재자 로하스 삐닐의 지지자들로 구성, **기독교민주당** 1966년에 창건, **근로자로조련맹** 1964년에 창립된 진보적 로조, **근로자련맹** 1936년에 창립, **근로자동맹** 1946년에 조직된 천주교계 로조, **전국농업로동자련맹** 1919년에 조직, **공산주의청년련맹**, **민주녀성동맹**

16세기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된 콜롬비아는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통하여 1819년 7월 20일 독립하였다. 독립이래 콜롬비아에서는 반동적인 두 정당인 자유당과 보수당(이 당들은 모두 19세기 30년대에 나왔다.)사이의 추악한 정권쟁탈전이 계속되여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사태가 조성되여왔다.

그리하여 콜롬비아는 독립한 때로부터 70년동안 무려 27차례의 내란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나라의 경제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되고 인민들은 기아와 빈궁속에서 허덕이게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미제와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급속히 앙양되였다. 1948년부터 마르께딸리아산중에서 시작된 무장투쟁은 1970년에 와서는 넓은 지역들에 유격전선을 형성하고 미제와 친미독재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한편 자유당과 보수당은 1958년에 두 당의 정치적동맹인 《민족전선》을 무었다. 1957년 12월에 두 정당은 《헌법》을 수정하여 앞으로 12년간(1958년에 16년간으로 수정) 두 당이 대통령자리는 4년간씩 륜번제로 차지하며 국회의석과 각료직은 절반씩 나누어가지기로 하였다. 이때로부터 이 나라에서는 자유당과 보수당간의 량당지배체계를 법적으로 규정하여놓고 기타 좌익야당세력들과 인민대중의 진출을 억제하기 위한 통치가 더욱 강화되였다.

그러나 인민대중과 사회계의 강력한 압력에 못이겨 당국은 1972년 4월 지방자치기관선거에 야당세력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을수 없었다.

1972년에는 이 나라 정치무대에 새로운 민족적애국전선인 《민족야당동맹》이 출현하였다. 이 동맹은 이해 9월말에 총회를 열고 일련의 진보적내용을 담은 투쟁강령을 채택하였다.

1974년 4월 21일에 대통령 및 국회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과 보수당 사이의 《민족전선》형성에 관한 협정은 기한만료(1958～1974년까지)로 해체되였다.

선거에서 자유당출신 알폰쏘 로뻬스 미첼쎈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였다. 8월 7일 자유당출신 6명, 보수당출신 6명, 군인 1명으로 된 새 정부가 수립되였다.

1973년 8월에 외래제국주의독점회사들이 차지하고있던 귀금속채취광산들을 국유화할데 대한 법안을 채택한바 있는 이 나라 정부는 1974년도에 외래독점체들의 략탈적지반을 청산하며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벌렸다.

4월에 미제의 《인터내슈널 페트롤리움》독점회사지부를 국가의 통제하에 넣었으며 7월에는 국영석유회사를 통하여 외래독점회사인 《헬 콘도르》로부터 유정들을 넘겨받았다.

6월 7～8일까지의 기간에 빠나마, 꼬스따 리까, 콜롬비아의 국가 및 정부 수반들의 회합에서 새로 선거된 대통령 미첼쎈은 《우리 나라들은 언제나 제국주의의 다국가회사들의 위협과 공갈을 받아왔으며 놈들은 제마음대로 원료가격을 설정하고 착취해왔다》고 규탄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매개 나라들은 법적으로 주권을 행사할뿐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주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국주의독점체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힘을 합쳐 싸울것을 호소하였다.

3월에 콜롬비아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7개 바나나생산국들은 미제독점회사들의 착취와 략탈을 반대하며 바나나값을 공동으로 수호하기 위하여 바나나수출국동맹을 결성할것을 제안하였다. 7월 15일에 네번째로 열린 회의에서 이 바나나수출국들은 외국독점체들에 맞서 행동일치를 보장할것을 목적으로 동맹결성을 다그칠것을 결의하고 9월 15일 동맹을 조직하였다.

이에 앞서 2월 21～23일까지 메히꼬에서 진행된 《미주국가기구》 외교부장회의에서 이 나라 대표는 미제가 오래전부터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강요하고있는 예속적인 관계를 끝장낼것을 요구하였다.

콜롬비아대표는 11월에 열린 《미주국가기구》 외교부장회의에서 베네수엘라, 꼬스따 리까와 함께 미제의 강요밑에 꾸바에 가한 정치적 및 경제적 《제재》조치를 취소할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사이에는 파히라반도 앞바다에 있는 대륙붕의 경계선확정문제(석유매장지가 있을 가능성과 관련)로 8년간 분쟁을 벌려왔다. 1974년 5월에 이 문제와 관련한 두 나라사이의 외교부장실무회의가 진행되였다.

1974년에 새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미첼쎈은 정식취임에 앞서 로므니아(6월), 프랑스(7월)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뒤떨어진 농업국가이며 농업과 채굴업이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주민의 70%가 농업부문에서 일한다. 주민의 3% 남짓한 지주놈들이 전체 부침땅의 약 65%를 차지하고있는 반면에 근 85%에 달하는 농민들은 부침땅의 15%밖에 가지지 못하고있다. 세습적인 《대토지소유제》가 지배하고있으며 여기에는 약 82만호의 농가가 지주놈들의 농장에서 고용로동 혹은 《소작제》에 얽매여있다. 농업이 국민총생산

액에서 차지하는 몫은 30%에 불과하지만 외화벌이에서는 큰 자리를 차지한다.

식민지통치가 남긴 후과로 땅이 비옥한 큰 농장들에서는 주로 커피재배가 전문화되여있다. 세계적으로 브라질다음가는 커피생산국이며 그 품질에서는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평균 매 10명중 한사람은 커피재배원에서 일한다. 그밖에도 약 40만명이 커피생산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한다. 질좋은 커피는 《연커피》라고 하는데 해발 1천메터가량의 고산지대에서 잘 자란다. 한해동안에 47만～48만톤의 커피가 생산된다.

알곡작물은 강냉이(년산 약 90만톤), 벼(7만여톤), 감자, 콩류이며 담배도 심는다. 또한 바나나, 코코아, 사탕수수, 목화도 생산된다. 그러나 바나나와 코코아는 미제독점회사인 《유나이테드 프루트》가 대부분 장악하고있다.

주요농업지대는 마그달레나강류역이다. 동부와 남부의 산지대에서는 고무나무를 재배한다. 동북부의 산지대에서는 젖소, 양을 위주로 하는 집짐승들을 기른다. 정부는 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의 신용대부를 늘이는 조치를 취하였다. 축산물은 이 나라의 수출품목에서 점차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공업은 국민총생산액의 20%를 차지한다. 공업생산의 3분의 2는 안띠오끼아주, 꾼디나마르까주, 발리에주들에 집중되여있다. 특히 공업로동자의 30%는 보고따, 메델린, 깔리, 바란길라시들에 있다.

주요공업부문은 커피가공, 식료, 방직, 화학, 제약, 피복, 청량음료, 세멘트, 가죽이김, 도자기, 유리 등인데 최근년간 야금, 석유화학, 가소제 공업도 일정한 정도에 이르렀다.

1972년부터 실시되고있는 수출품종확대를 위한 《4개년계획》에 의하여 수출총액에서 커피가 차지하는 몫은 점차 줄고있다. 커피가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몫이 1950년대에는 80%, 1960년대에는 70% 였다면 1972년에는 52%까지 내려갔다. 광생김새가 험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난관은 있지만 채굴업이 의연히 공업부문에서 큰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지하자원은 석유, 보크사이트, 린산염, 금, 은, 백금, 쇠돌, 에메랄드(보석의 일종), 석탄, 돌소금 등이다. 하루 평균 20만바렐의 석유가 생산된다. 미제를 비롯한 외래독점체들이 80%이상 독점하고있던 석유채취공업이 정부의 부분적국유화 조치에 의하여 국영석유공업의 몫은 44%에 달하였다. 1973년 10월 석유 한바렐당 값을 1.56딸라로 올림으로써 미제는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국영석유회사를 통해 미제의 석유독점회사 산하에 있는 큰 석유가공공장들을 사들임으로써 전국의 석유가공공업을 기본적으로 통제하고있다. 귀금속 광산들을 국유화할데 대한 조치도 취해졌다.

그러나 미제독점자본은 250개의 기업체를 두고 수만명의 로동자들을 고용하고있다.

1970년 6월현재 외래자본투자총액은 12억딸라에 달하였는데 그가운데서 미제독점자본의 직접투자액이 8억딸라였다.

운수에서는 철도, 하천 운수가 국내수송에서 기본이다. 철길의 대부분은 서부지역에 치우쳐있다. 마그달레나강이 주요하천운수로로 리용된다.

주요수출품은 커피(50%이상차지), 석유와 그 가공제품, 축산물이며 수입품으로서 기계 및 설비(30%), 원료와 자재(50%) 등이다.

주민구성은 인디안과 에스빠냐인의 혼혈인 68%, 백인 20%, 인디안 7%, 흑인 5% 정도이다.

공용어는 에스빠냐말이며 주민의 90%가 천주교를 믿는다.

인구의 42%가 글을 읽고 쓸줄 모른다. 농촌에서는 학비난으로 소학교에 입학한 매 100명중 졸업하는 학생은 겨우 7명에 불과하다. 70만세대에 달하는 도시근로자들이 빈민굴에서 산다.

1974년 1월에 생계비는 3%나 올랐다. 1월에 물건값은 그전해 같은달 보다 35%나 비싸졌다. 특히 탑알, 소젖, 남새 및 쌀 값이 훨씬 비싸졌다.

출판보도; 신문 보스 쁘로레따리아(공산당기관지), 디아리오 오피씨알(정부기관지), 엘 에쓰뻭따도르(자유당계), 엘 씨글로(보수당계), 엘 띠엠뽀(자유당계), 라 레뿌블리까(보수당계), 엘 쑬

방송 콜롬비아국립방송, 콜롬비아국립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10월 콜롬비아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이 나라의 《보치까》출판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담은 문헌집 《김일성원수의 혁명사상》과 또한 그이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가 수록된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콜롬비아평화리사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등을 출판하였다.

1974년 3월에 콜롬비아 《엘 쑬》 신문사 주필은 박정희괴뢰도당이 들고나온 《불가침조약》은 조선의 영구분렬을 위한 책동이라고 규탄하고 공화국정부와 인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지지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1971년 8월 24～9월 2일까지 콜롬비아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이며 당주간지 《보스쁘로레따리아》 주필을 단장으로 하는 이 당대표단이, 같은해 9월에는 콜롬비아국회 하원 제1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에 꽈 도 르

(에꽈도르공화국)

넓이 28만 3,561Km²
인구 651만명(1972년)
수도 끼또(주민 65만명, 1970년)

정 치

정부리사회 륙군(대통령), 해군, 공군 사령관들로 구성된 나라의 최고 지도기관

민족회의 상하량원제, 상원의원수는 32명, 임기는 4년, 하원의원수는 71명, 임기는 2년, 1970년 6월 이후 해산

정부 대통령은 국가 및 정부 수반, 대통령 길예르모 로드리게스 라라(1972년 2월 15일—), 외교부장 호쎄 루씨오 빠레데스

정당, 사회단체 ; **공산당** 전신은 1926년 5월 23일에 창건된 사회당인데 1930년에 공산당으로 개칭, 1973년 11월 제9차당대회 진행, 총비서 뻬드로 안또니오 싸아드, **벨라스꼬주의자민족련맹** 1952년에 창건되였고 이전대통령 벨라스꼬의 신봉자들로 구성된 반동정당, **보수당** 미제독점체들과 련계를 가지고있는 가장 반동적인 자본가, 지주들의 정당, **자유급진당** 주로 상공업자들의 리익을 대변, **기독교사회운동** 1947년에 조직된 반동적인 기독교도들의 정당, **에꽈도르민족혁명행동** 극우익정당, **사회혁명당**, **사회통일당**, **에꽈도르사회당**, **인민통일려량**, **립헌민주련합**, **인민민주동맹** 공산당의 참가밑에 1968년에 조직되였고 제국주의독점체들과 국내반동들을 반대하며 근로

자들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 근로자총련맹 세계직련에 가입, 공산주의청년

에꽈도르는 1532년에 에스빠냐침략자들에게 강점된 때로부터 근 300년동안 놈들의 식민지통치를 받아오다가 1822년 5월에 독립하였다. 독립후 대콜롬비아련방의 일부로 있다가 1830년에 독립적인 공화국으로 되였다.

공화국이 선포된 이후 정변과 폭동이 빈번하여 1965년까지 헌법이 10회이상 개정되고 50여차례나 대통령이 바뀌였다.

1968년 8월에 대통령으로 들어앉은 벨라스꼬 이바라는 그의 집권기간에 반동적인 세금법안을 포함한 일련의 악법들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1967년 헌법대신 파쑈적인 1946년 《헌법》을 복귀하였다.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공산당을 비롯한 진보적단체들에 대하여 탄압하였다. 특히 1970년 6월에는 광대한 석유매장지를 40여년간을 기한으로 미제석유독점체에 팔아넘겼다.

근로자들의 반미반정부투쟁이 앙양되여가는 가운데 1972년 2월 15일 륙군사령관 길예르모 로드리게스 라라가 일으킨 군사정변으로 하여 벨라스꼬친미독재정권이 전복되였다. 정부리사회가 구성되고 길예르모 로드리게스 라라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현정부는 집권후 나라의 자주권과 자연부원을 지키기 위한 일련의 긍정적조치를 취하였다.

에꽈도르정부는 1972년 6월에 나라의 원유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석유독점체들의 활동을 제한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한데 이어 1973년 1월 6일 놈들이 독차지하였던 유전의 절반이상을 국가가 장악하였다. 그리하여 미제의 석유독점회사 《텍사코 갈프》는 130여만헥터의 유전을 박탈당하였다. 정부는 국유화된 유전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텍사코 갈프》석유회사의 파렴치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였다.

8월 18일에는 이전친미독재정권이 미제석유독점체들과 맺었던 예속적인 《석유개발계약》을 폐기하고 민족적리익에 맞는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이보다 앞서 4월 5일 정부는 법령을 발포하여 자기 나라 령해에서 활동하고있는 일체 선박들은 에꽈도르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1974년에 에꽈도르정부는 나라의 자연부원을 지키며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미 국영석유회사와 석유수송회사를 내온 정부는 6월 8일에 앞으로 2년내에 석유 및 그제품의 판매를 국영석유회사의 전적인 통제밑에 두기로 하였다. 정부는 10월에 또다시 외래제국주의석유독점회사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령을 발포하였으며 미제의 석유독점체인 《텍사코 갈프》회사가 가지고있는 주권의 25%를 에꽈도르가 더 차지할데 대한 법령이 발포되였다. 10월 23일 정부는 미제의 《텍사코 갈프》석유회사에 1천만딸라의 세금을 물게 하였다.

8월 1일에는 개인항공회사 《에꽈도리아나 데 아비아씨온》을 국가가 관할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73년 10월 9일 정부가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였으나 대지주놈들은 정부에 반항하면서 갖은 방해책동을 다하였다.

3월 3일 이 나라 대통령 길예르모 로드리게스 라라는 한 모임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진보적변혁과정을 가로막으려고 미쳐날뛰는 국내반동세력의 준동을 짓부셔버릴데 대하여 지적하고 그는 대지주놈들이 에꽈도르에서 진행되고있는 토지개혁을 방해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정부가 대지주놈들의 어떠한 반항도 물리치면서 국내에서 이미 시작한 변혁과정을 계속 추진시킬것이라고 강조하였다.

8월에 로스 리오스주의 행정중심지에서 약 2만명의 농업로동자들과 농민들이 토지개혁을 요구하여 집회를 가졌으며 집회에서 연설자들은 나라의 진보적변혁을 방해하고있는 국내반동세력을 규탄하였다.

1월에는 침보라쏘주에서 약 5천명의 농민들이 시위를 벌리면서 대지주놈들의 가혹한 착취와 략탈 행위를 규탄하고 토지개혁을 실시할것을 요구하였다.

대외관계분야에서 에꽈도르정부는 자주권을 지키며 제3세계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4월 12일 에꽈도르대통령은 정부가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정책을 확고히 실시할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외교부장은 1월에 나라의 200마일의 령해권을 지키는것은 에꽈도르대외정책의 중요한 한부분이라고 강조하고 그는 나라의 령해권을 끝까지 수호할 에꽈도르의 립장을 다시금 밝혔다.

6월 7일 이 나라 외교부장은 200마일의 령해권을 끝까지 지켜낼 에꽈도르의 립장을 밝히면서 200마일령해권은 령해안에 있는 섬과 대륙붕 그리고 바다에 대한 주권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연안국들은 200마일 령해내에서 자연부원을 조사하고 개발하며 그것을 리용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였다.

11월 에꽈도르외교부장은 한 기자회견에서 미제의 반꾸바 《봉쇄》정책을 규탄하고 에꽈도르가 꾸바를 반대하는 정치 및 경제적 《봉쇄》책동을 계속 반대하며 이러한 책동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투쟁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같은 달에 진행된 《미주국가기구》 외교부장회의에서 이 나라 대표는 반꾸바 《봉쇄》를 취소할데 대한 결의안표결에서 지지를 표시하였다.

뻬루에서 진행된 아야꾸쵸전투 150돐행사에 참가한 에꽈도르국가수반의 대표는 12월 9일 《아야꾸쵸선언》에 서명하였다.

1974년에 에꽈도르는 이라크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이 나라 대표는 12월에 진행된 사탕수출국기구, 라틴아메리카동력기구를 창설하기 위한 회합에 참가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뒤떨어진 농업국가로서 경제는 농업, 주로 바나나와 기타 열대농산물의 재배와 수출에 의거하고있다. 농촌주민의 1%에 해당하는 지주놈들이 부침땅의 4분의 3을 틀어쥐고있다. 농촌에서는 봉건적대토지소유제가 그대로 유지되고있으며 외국독점체들 특히 미제독점체들의 략탈로 농업발전은 커다란 지장을 받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바나나, 코코아, 커피, 사탕수수, 야자 등 열대농작물이다. 특히 세계에서 첫째가는 바나나수출국으로서 1973년에 그의 생산량은 250여만톤, 수출량은 150만톤에 달하였다. 바나나의 재배와 수출 부문에서만 하여도 40만명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있다. 이와 같이 이 나라 농업이 단작경리로 떨어진것은 제2차세계대전후 미제의 《유나이테드》과일독점회사를 비롯한 외국독점체들이 바나나재배만을 강요한 후과의 산물이다. 바나나수출에서 세계적으로 이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제2차세계대전 이전에는 불과 2%였다면 1960년에는 25%로 늘었다. 에꽈도르는 콜롬비아, 꼬스따리까 등 바나나생산국들과 바나나수출국동맹을 뭇고 미제의 과일독점체들을 비롯한 외국독점체들의 가격제한정책에 공동으로 맞서고있다.

1973년에 바나나수출에서 1억 900만딸라, 커피(년평균 6만톤생산)와 코코아(5만여톤) 수출에서 9천 300만딸라를 벌었다.

알곡작물로서는 강냉이, 밀, 벼, 콩, 마니오크 등이나 그 생산량은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정부는 1972년에 2억 8천만수끄레를 농촌경리에 투자하였다면 1973년에는 7억 1천 900만수끄레를 지출하였다. 농업발전을 위한 연구소가 설치되고 관개시설건설이 추진되였다. 농업과 목축업(소 약 240만마리, 양, 돼지)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을 대부해주는 재정기관을 설치하였고 석유수출에서 들어오는 수입의 일부를 농목축업발전에 돌리고있다.

1973년에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였으나 지주놈들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본질적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농촌에서 대토지소유제의 존재는 농업생산의 침체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실업자(국내 실업자총수의 70%를 차지)를 증가시키고있다. 지주놈들은 값싼 로동력을 리용하여 농민들을 악착하게 착취하면서 의연히 낡은 영농법에 매달리고있다. 결과 1973년에 농업생산은 겨우 1% 올랐다. 이러한 사정은 이 나라로 하여금 의연히 식량수입에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고있다.

좋은 어장을 가지고있는 이 나라는 수산업도 경제에서 큰 자리를 차지한다.

공업도 농업과 마찬가지로 아직 뒤떨어져있다. 석유채취 및 그의 가공공업을 제외하면 세멘트, 방직, 사탕, 식료가공, 목재 등 크지않은 공장들이 약간 있을따름이다.

1967년에 동부지역에서 새로운 큰 석유매장지가 발견된 때로부터 석유공업은 이 나라 경제에서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물론 싼따 엘레나반도에서 석유가 채취되였으나 그 생산량은 보잘것 없었다.

동부지역의 아그리오유전에서는 1972년부터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여 그해 8월부터 석유를 수출하게 되였다. 그 생산량은 하루에 21만바렐에 달하여 1973년에 약 1천 200만톤의 석유(5억 3천 200만딸라)를 수출하였다. 아그리오유전으로부터 태평양연안의 벨라오항구까지 500키로메터에 달하는 송유관이 설치되였다. 이리하여 이 나라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베네수엘라 다음가는 석유생산 및 수출국으로 되였고 1973년에 석유수출국기구의 성원국으로 되였다.

에꽈도르정부는 미제의 《텍사코 갈프》석유독점회사를 비롯한 외국석유독점체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놈들이 차지하였던 유전의 350만헥터를 국유화하였다. 《텍사코 갈프》석유독점회사는 130여만헥터의 유전을 박탈당하였다.

이 나라에는 국영석유회사와 국영석유수송회사가 설치되였다. 에스메랄다스시에 1976년에 완공될 하루 5만 5천바렐을 가공할수 있는 큰 국영석유가공공장의 건설이 시작되였다. 유전과 송유관 관리기관에서는 2천여명이 일하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석유수입에서 들어오는 자금으로 공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을 추켜세울것을 계획하고있다.

금속, 기계와 소비품 생산부문의 민족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여 국내산제품이 늘고있다.

석유가 생산되기 시작한 결과 1971년 12월 현재 외화보유액은 불과 2천 480만딸라였으나 1973년에 그것은 2억 9천 430만딸라로 늘었다.

철도, 자동차 운수가 교통운수의 기본역할을 하며 큰 무역항구로서 과야낄항구가 있다. 1974년 첫 7개월동안의 수출액은 1973년 같은 기간의 2.5배에 달하는 근 6억 7천 500만딸라였다.

주요수출품은 바나나, 코코아, 커피(석유가 채취되기 이전까지 이 3대 수출작물은 수출총액의 5분의 4를 차지하였었다.), 목화 및 석유이며 각종 기계류, 차량, 화학제품, 식량 등을 수입한다.

주민구성에서 혼혈인과 인디안이 80%(그중 절반은 께츄아족 인디안), 백인이 10%, 흑인이 5%, 기타 5%이다.

공용어는 에스빠냐말이며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1973년에 10만 5천명의 완전실업자와 100만명의 반실업자가 있었으며 주민의 40%가 글을 읽고 쓸줄 모르고 있었는데 이것은 아직 큰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다. 1974년에 학교건설에 6억 9천 100만수끄레의 자금을 돌리였다.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한 극소수의 부유한자들이 국민총생산액의 약 60%를 독차지하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엘 뿌에블로(공산당기관지), 엘 메리꾸리오(보수당기관지), 엘 꼬메르씨오(무소속), 엘 떠엠뽀, 울띠마스 노띠씨아스, 엑쓰쁘레쏘

방송 에꽈도르방송, 끼또방송, 에꽈도르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에꽈도르혁명적청년들은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무었다.

소조성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깊이 연구학습하고있다.

1974년 10월 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 머무른 에꽈도르 《불룬따드》출판사 사장 움베르또 오리며스를 접견하시였다.

손님은 접견석상에서 자기는 조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나라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원수님께 인사를 드리러왔다고 하면서 수령님을 만나뵈온 이날은 자기의 일생에서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이라고 말하였다.

손님은 오늘 전세계 인민들은 위대한 조선인민과 함께 있으며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원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전세계의 모든 자주적인 민족들이 견지하여야 할 사상이라고 말하였다.

1974년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에꽈도르의 《불룬따드》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의 전문을 신문 《울띠마스 노띠씨아스》가,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무조건 물러가야 한다》의 전문을 신문 《엑쓰쁘레쏘》가 각각 실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찬양하여 에꽈도르의 진보적사회계인사 루머 꼬르도바는 자기의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이의 로작을 깊이 연구하면서 나는 〈오늘의 조선의 농촌이 래일의 에꽈도르의 농촌으로 되여야 한다〉고 몇번이고 되뇌이군하였다.

이것은 비단 나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진보적인 사회개혁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라틴아메리카 모든 혁명가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라고 할수 있다.》

11월 12~14일까지의 기간에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진행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라틴아메리카회의》에 에꽈도르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축전을 보내였다.

에꽈도르작가 오마르 낀떠나는 담화를 발표하여 박정희괴뢰도당의 포악한 《긴급조치》소동을 규탄하였다.

1973년 5월 22~29일까지 에꽈도르공산당 총비서 뻬드르 안또니오 싸아드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이 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4년 4월 19~26일까지 우리 나라 외교부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대표단은 에꽈도르대통령관방실 책임일군과 외교부장대리를 만났으며 이 나라 외교부 책임일군들과 회담하였다.

뻬 루

(뻬루공화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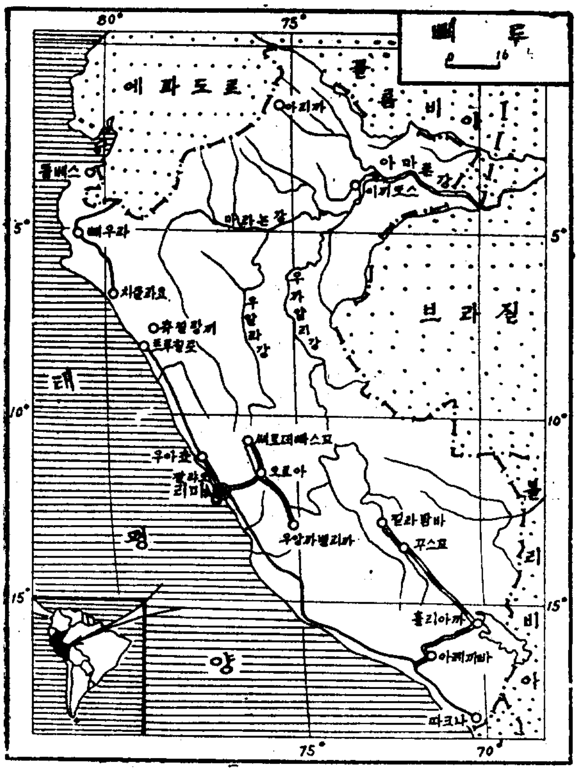
넓이 128만 5,216Km²
인구 1,412만명(1973년 8월)
수도 리마(주민 351만 5,800명, 1971년)

정 치

혁명리사회 나라의 최고지도기관이며 대통령과 륙군, 해군, 공군 대표들로 구성

국회 1968년 10월 군사정변후 반동적국회를 해산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6년,



대통령 후안 벨라스꼬 알바라도(1968년 10월—)

정부 혁명리사회의 자문기관역할을 수행, 총리 에르가르도 메르까도 하린(1973년 1월—)

정당, 사회단체 ; **공산당** 1928년 10월 17일 창건된 이래 38년동안 지하에서 활동, 1968년 10월 군사정변후 합법화, 총비서 호르헤 델 쁘라도, **《좌익혁명운동》** 1959년에 인민당 좌익청년집단이 떨어져나와 조직, 1965년 6월부터 1968년 10월 군사정변이전까지 무장유격투쟁을 전개, **사회당, 사회진보당** 1956년에 진보적지식인들로 조직, **기독교민주당** 민족부르조아지와 소지주들의 리익을 대변, **기독교인민당** 1966년 기독교민주당에서 극우익분자들이 떨어져나와서 조직, **《인민행동운동》** 1956년에 창건되여 1968년까지 집권당으로 있은 친미반동정당, 1974년 6월 1일 현정부는 국내의 진보적변혁과정을 방해하는 이 당의 활동을 금지, **근로자총련맹** 약 50만명의 맹원을 망라한 진보적로조, 1974년 3월 제3차대회 진행, **공산주의청년동맹, 인민녀성동맹** 1972년 11월 창립

뻬루는 1531년에 에스빠냐식민지로 되였다. 에스빠냐침략자들은 뻬루를 남아메리카대륙의 식민지들을 통치하기 위한 본거지로 삼았다.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독립전쟁시기에 뻬루인민들은 침략자들의 본거지인 리마를 점령하고 1821년 7월 28일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후 뻬루인민은 1824년 12월 9일 아야꾸쵸전투에서 에스빠냐침략군과 마지막 전투를 벌려 승리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의 300년동안의 지배를 영원히 종식시켰다.

19세기말부터 청소한 뻬루에 대한 침투를 강화한 미제는 경제의 주요부문을 틀어쥐고 이 나라를 예속상태에 빠뜨렸다.

제2차세계대전후 뻬루에서 민주세력이 강화되여 공산당이 참가하는 《전국민족전선》정부(1945년)가 수립되였으나 1948년 미제의 부추김을 받은 우익군부세력에 의하여 이 정부는 전복되였다. 공산당을 포함한 진보적정당들은 비법화되여 지하에 들어갔다. 로동운동과 농민운동이 앙양되는 가운데 1963년부터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이 개시되여 1965년에는 9개 주들에 유격전선이 형성되였다.

1968년 10월 3일 국방부장 겸 군사령관 후안 벨라스꼬 알바라도는 벨라운데 친미독재정권을 뒤집어엎고 혁명리사회를 구성하였다. 새 정권은 비법화되였던 공산당을 포함한 진보적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합법화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뻬루공화국 정부가 뻬루인민의 리익에 맞는 진보적이며 민주주의적이며 혁명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감탄하고있습니다.》(《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15~16페지)

뻬루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석유회사와 광산들을 비롯하여 외래독점자본가들과 국내자본가들의 공장, 기업소, 은행, 철도, 선박들을 국유화하였으며 미제국주의자들과 국내 대농장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토지개혁을 실시하고있다.

정부는 1969년에 미제와 체결한 예속적인 《딸라라협정》(1968년 7월 이 나라의 딸라라시에서 원유채취장을 미제의 《인터내슈널》석유회사에 넘겨준 협정)을 무효로 선포하고 《인터내슈널》석유회사를 국유화하였으며 이 날을 《민족존엄의 날》로 선포하였다. 미제의 석유독점회사에 대한 국유화가 선포된 이후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히켄루퍼수정안》을 휘둘러대면서 《원조중지》, 《경제봉쇄》 등 횡포한 위협공갈을 하였으나 뻬루정부는 진보적개

혁을 주저없이 밀고나갔다.

페루정부는 1969년 6월 24일에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고 이 날을 《농민의 날》로 선포하였으며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국내 대지주놈들의 땅을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다.

1974년에 페루정부는 국내외반동세력의 파괴암해책동을 물리치고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모든 분야에 걸쳐 혁명적변혁과정을 심화시켰다.

페루대통령 후안 벨라스꼬 알바라도는 3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대내정책에 언급하여 페루정부는 국내에서 진보적인 사회경제적변혁과정을 다그칠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제적자립을 위한 투쟁에서 1973년 말과 1974년초에 실시한 미제대독점회사 《쎄로 데 빠스꼬》의 국유화는 페루에서 일대 사변으로 되였다. 1969년에 국유화된 《인터내슈널 페트롤레움 캄파니》는 페루석유자원의 80%를 독점하고있었다면 《쎄로 데 빠스꼬》광업회사는 동, 아연, 창연 등이 묻혀있는 300만헥터의 광물산지를 틀어쥐고있었다. 이 광업회사의 국유화는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준 동시에 페루인민과 광범한 사회계의 지지를 받았다.

계속하여 정부는 2월중순에 미제의 《그레이스 엔드 캄파니》대독점회사에 속한 4개의 미국놈의 회사들을 국유화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2월 19일에는 놈들의 11개 회사를 또 정부의 통제밑에 넘겼다.

1974년에 페루정부는 국유화조치와 함께 민족경제발전을 위한 사업도 추진시켰다. 국영경제부문을 창설할데 관한 법령(5월), 국영공장들을 건설하기 위한 결정(6월), 국내시장에서의 목화의 판매와 수출을 국가가 통제할데 관한 법령(9월)이 발포되였다.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된 때로부터 1974년 6월 24일까지의 5년동안 정부는 미제와 국내 대지주놈들의 방목지를 포함하여 573만 6천헥터의 땅을 몰수하였다.

한편 정부는 페루에서 진보적변혁과정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6월 1일 정부는 반동적인 우익정당인 《인민행동운동》(1956년부터 1968년 10월초까지의 집권당)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반동적인 허위선전을 일삼던 라틴통신사의 지부를 폐쇄(4월)하였으며 뒤이어 반동적선전에 리용된 잡지 《까레따스》의 발행을 금지시켰다.

반면에 정부는 대중보도수단을 페루에서의 진보적변혁과정을 추진시키는데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엘 꼬메르씨오》, 《라 쁘렌싸》, 《꼬르레오》, 《오호》, 《울띠마 오라》(《라 쁘렌싸》의 석간지) 등 6개의 중앙급 신문들을 포함한 일련의 큰 신문들을 접수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몰수된 출판기관들은 농민, 로동자, 사무원, 교육 및 문화 일군의 조직에 넘어가게 되였다.

12월에 페루정부는 1975년 3월부터 전신-텔렉스통신체계를 국가수중에 넘길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때까지 미제의 《올 아메리카 케이블》회사와 영제국주의자들의 《케이블 웨스트 코스트》회사가 이것들을 틀어쥐고있었다.

대외관계분야에서 페루정부는 미제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적 리익과 존엄을 수호하며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1974년 7월 28일 독립 153돐에 즈음한 연설에서 이 나라 대통령 후안 벨라스꼬는 페루가 쁠럭불가담국가대렬에 들어선것은 《대외관계분야에서 페루가 자주적인 방침을 내세우고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자결을 위해 투쟁하는 다른 나라 인민들과 밀접한 련계를 맺을 결의를 표시하였다.

페루정부는 령해를 200마일로 선포하고 령해를 침범하는 미제해적선들에 단호한 징벌을 가하고있다. 1974년 6월 제3차유엔해양법회의에서 이 나라 외교부장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나라 령해의 200마일까지의 해역, 해저에 대한 주권과 관할권을 가진다는 주장을 단호히 수호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3월에 메히꼬에서 진행된 《미주국가기구》외교부장회의에서 페루외교부장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들고나온 이른바 《서반구공동체》의 반동적본질을 폭로규탄하고 페루는 이 《공동체》창설을 반대한다고 말하였다.

1974년에 빠나마정부총리 오마르 또르리호스 에르레라(1월), 메히꼬대통령 루이스 에체베리아 알바레스(7월)가 페루를 방문하였으며 공동성명들이 발표되였다. 공동성명에는 특히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이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며 경제적자립을 이룩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였다. 5월 31일 아르헨띠나외교부장의 페루방문에 관한 공동성명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등 온갖 관계를 쓸어버리기 위하여 힘을 합칠것을 강조하였다. 쌍방은 200마일령해권을 지켜내기 위한 두 나라 정부들의 결의를 재확인하였다.

페루와 남아메리카대륙에 대한 에스빠냐식민지통치를 끝장낸 아야꾸쵸전투 150돐에 즈음한 기념행사에 참가한 8개 나라(페루와 베네수엘라, 볼리비아의 대통령들, 빠나마정부수반 그리고 아르헨띠나, 에꽈도르, 꼴롬비아 및 칠레 대통령들의 대표)대표단 단장들은 (12월 8~9일까지) 회의를 가지였다. 회의참가자들은 1824년 12월 9일 아야꾸쵸전투(페루중남부에 있는 오랜 고원도시) 150돐에 즈음한 《아야꾸쵸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은 150년전에 있은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에 대한 이 승리가 가지는 커다란 의의를 강조하고 완전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이 지역 나라 인민들의 통일을 가일층 강화할 절박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선언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모든 문제는 외부로부터의 그 어떠한 간섭도 없이 이 나라 인민들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하며 이 지역 나라들은 자기들의 자연부원을 자기 나라 인민들의 복리에 맞게 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처분할 떼여낼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지적하였다.

1974년에 페루정부는 쿠웨이트(5월), 파키스탄(9월), 필리핀(12월)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또한 정부는 1월에 빠나마와 바다자원을 개발, 리용하는데서 서로 협조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으며 8월 꾸바와는 농업, 광업, 가공공업, 어업, 교육 및 기타 분야에서 서로 협조하기로 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대외수출을 위한 채취공업, 수산업 및 농업이다. 이 나라에는 석틀, 석유, 비스무르, 동, 은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자본주의세계에서 비스무트 생산량(년산 약 700톤)은 제1위, 은생산은 2~3위를 차지한다. 석유채취력사도 비교적 오래다. 그러나 이 나라의 풍부한 지하자원은 오래전부터 외래제국주의자들의 략탈과 치부의 대상이였다. 채취공업, 유색금속공업, 수산업은 거의 모두가 외래독점자본의 통제밑에 있었다. 특히 미제독점자본은 채취공업(광업의 85%, 석유공업의 90%)과 사탕공업의 70% 그리고 여러 가공공업부문과 자동차조립, 방직, 화학, 식료 공업 등을 장악하고있었다. 또한 수산업(물고기제품의 약 40%를 차지)과 농업(주로 사탕수수농장들)부문도 적지 않게 틀어쥐였었다.

그러나 1968년에 현정부가 수립된

이후 국유화조치에 의하여 미제를 비롯한 외래독점체들과 국내자본가놈들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미제를 포함한 외래제국주의자들의 3천 140여개의 광산소유권이 이미 정부의 수중에 장악되였다. 기타 공업부문과 물고기가공공업도 국유화되였다.

그리하여 페루의 공업구조에서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다. 1970년에 채택된 공업공동체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국가의 통제와 융자를 받는 국영기업소, 협동기업소, 사적자본이 참가하는 합영(페루와 외국)기업소, 기타 형태의 기업소들이 생겨났다. 순개인기업소들은 수공업기업소들과 봉사부문의 기업소들에 국한되였다.

또한 이 나라에서는 완제품수입을 국산품생산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진행하고있다. 자동차조립공업은 지난시기 100% 외국에 의존하였다면 벌써 부속품의 30%를 국내산으로 보장하고있다. 이밖에 정부는 지방들(수도 리마에는 전체 공업기업소의 80%이상 집중되여있다.)에 있는 공업기업소들에 대한 세금과 대부에서도 특혜를 주고있다.

공업화문제를 담당하고있는 《인두페루》국영회사는 중요공업부문들에 대한 통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새로운 공장기업소창설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있다.

1974년 2월 15일에 4개의 미국놈의 회사를 국유화한데 이어 19일에 동광, 화학, 섬유 및 물고기가공 회사 11개를 몰수하여 정부의 통제밑에 넣었다.

1973년 4월에 침보떼에 40만톤의 생산능력을 가진 제강소가 일떠섰다. 이 지방에는 이미 또 하나의 제강소가 있다. 나라의 동부지대에 발전소, 원유가공공장, 목재가공공장, 세멘트공장이 건설되고있다.

1974년 6월에 7개의 국영공장을 건설할데 대한 결정에 의하여 전기기구공장, 발동기공장, 모터찌클공장, 공장설비생산공장 등이 건설되고있다.

국영공업기업소들에서는 근로자들의 로력투쟁에 의하여 해마다 생산량이 늘어나고있다. 1972~1990년 흑색야금공업발전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고있다. 국영 《씨데르 페루》회사는 1974년 1~11월까지 기간에 40만톤의 강철을 생산하였다. 국영석유회사의 년간 가공능력은 11만 7천바렐에 달하여 국내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키고있다. 113개에 달하는 물고기가공공장에서 물고기가루를 생산하고있는데 그생산량은 1965년에 128만 2천톤으로부터 1971년에 189만 9천 400톤으로 늘었다. 물고기기름은 1972년에 40만 3천 700톤을 생산하여 그것은 1970년보다 약 2배나 더 많이 생산하였다. 1973년에 뜨루힐로시부근에 현대적시설을 갖춘 새 어항도 건설되였다.

특히 채취공업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풍부한 원유매장지인 동부지역을 개발함으로써 1972년말에 벌써 5개의 원유밭을 찾아냈다. 이 지대로부터 태평양연안까지의 800여키로메터에 달하는 석유관건설이 계획에 들었다. 페께나시의 동남쪽의 풍부한 원유밭에서도 생산에 들어갔다.

전체 외화수입의 30%를 차지하는 동채취공업을 민족공업발전에 리용하기 위하여 정부는 1974년에 나라에서 제일 큰 미제의 《쎄로 데 빠스꼬》광업회사를 국유화하여 동광채취와 가공 및 수출을 국가가 틀어쥐였다. 아레끼빠주와 꾸스꼬주에서 새로운 동광매장지가 발견되였다. 바쓰꼬주와 까하마르까주에서는 우라니움산지를 찾아냈다.

1973년 10월 5일 모든 조선소들을 국영조선소인 《씨마페루》(라틴아메리카에서 제일 큰 조선소)에 통합시킬데 대한 법령에 의하여 선박공업도 발전하고있다. 톤수가 높은 짐배, 고기배 및 원유운반선들을 많이 만들고있는데 고기배무이와 그의 수출에서 페루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농업은 국민총생산액에서 14.8%정도 차지하며 이 부문에서는 로동인구의 45%(약 190만명)가 일한다. 1천 200만헥터의 큰 초원, 산림 및 부침땅중에서 실지 씨붙임땅으로 리용되는 땅은 220만~300만헥터(령토의 약 16%)이다.

지난날 이 모든것은 외래독점회사들과 국내 대지주놈들이 독차지하였고 절대다수의 농민들은 놈들에게서 고용살이를 하였다. 더구나 몇가지 수출작물재배에만 국한한 관계로 알곡의 90%와 고기의 40%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새 정부의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농촌경리의 면모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1969년 6월 24일 토지개혁실시후 1974년 6월 24일까지의 기간에 미제와 대지주놈들의 방목지를 포함하여 573만 6천헥터의 땅이 몰수되였다. 수많은 농업협동조합들이 조직되여 국가로부터 물질기술적방조를 받고있다.

주요알곡작물은 강냉이, 밀, 벼, 감자이며 사탕수수, 목화, 커피는 전통적인 수출작물이다.

나라의 동부지역에서 새 땅을 일구는 사업이 진행되고있는데 여기에서 잘되는 사탕수수, 목화, 담배를 심게 된다. 한편 관개공사가 추진되여 현정부수립후 6년동안에 14만헥터의 메마른 땅에 물을 대였다. 1974년 5월에는 삐우라강의 물을 리용한 관개시설의 제1계단공사가 끝났다. 결과 1만헥터의 메마른 땅에 물을 댈수 있게 되였다.

축산업은 농업에서 큰 자리를 차지한다. 고기는 주식물의 하나로서 농업총생산액의 약 20%를 차지하며 이 부문에서는 농촌주민의 약 20%가 일한다. 정부는 대지주놈들의 방목지도 몰수하고있는데 1972년 10월현재 크고작은 1천 785개의 방목지를 농민들에게 넘겨주었다. 나라의 동부지역은 좋은 방목지로서 많은 목장들이 건설되였다. 주요집짐승은 소(약 370만마리), 양(1천 500여만마리), 라마 등이다. 1974년 12월 26일 정부는 알곡과 축산물 생산을 높이기 위해 식량부를 내오고 농업발전에 힘을 넣고있다.

페루의 연해는 세계적인 어장의 하나로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물고기잡이(년간 1천 200만~1천 300만톤)에서 세계 첫번째자리를 차지한다. 그중 세계적으로 물고기가루생산은 첫번째, 물고기기름생산은 두번째자리를 차지한다. 1974년 11월중순까지 정어리만 하여도 342만여톤을 잡았다.

과거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수중에 있던 철길(5천키로메터)은 국유화되여 국영《에나페르페루》가 관리운영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밑에 있다. 주요수출품은 동을 비롯한 쇠돌, 은, 연, 아연 등의 광물류, 물고기와 그 제품(가루와 기름), 원유와 석유제품, 농축산물(사탕, 커피, 목화 및 털) 등이다.

주요수입품은 원료와 반제품, 기계, 설비, 건재, 화학제품, 식량, 고기 등이다. 식량(밀, 고기와 그 제품) 수입에 년평균 약 1억 5천만딸라를 쓴다. 대외무역총액은 년평균 15억~16억딸라에 달한다. 1972년에 3억 2천 200만딸라의 물고기와 그 제품, 4억 8천만딸라의 원유, 1억 5천만딸라의 농산물이 각각 수출되였다.

주민구성은 원주민인 인디안이 46%, 혼혈인이 40%, 백인이 13%, 기타가 1%로 되여있다.

공용어는 에스빠냐말이며 주민들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1974년현재 각급학교학생수는 400여만명에 달하였다. 1973년에 교육비로 국가는 1천 400여만딸라를 내였다. 250만명이나 되는 글모르는 사람들에

게 1980년까지 글을 배워 줄 목표를 세우고 광범한 운동을 벌리고있다. 이 운동에는 수천명의 교원들과 지원자들이 참가하고있다. 이 사업에 정부는 1973－1974년까지 2천만솔(이 나라 화페단위)을 돌렸다.

정부는 1973년에 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의료기관들을 새로 짓고 이미 있는 병원들을 현대화하는데 920만딸라를 지출하기로 하였다. 1974년 8월 30일에는 애기어머니들을 보호할데 관한 법령을 발포하여 모든 국립병원들과 일련의 기타 의료기관들이 산모와 갓난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의료방조를 주기로 하였다.

국내의 모든 도시들 특히 빈민굴이 있는 구역들에 새로운 살림집들이 건설되고있으며 새 정부수립후 처음으로 산간지역들에 전기가 들어가고있다. 1974년 8월에 4만 5천명의 주민이 사는 우아로치리에 전기가 들어갔다.

이해에 정부는 국내 영화관들과 텔레비죤방송들에서 부패타락과 범죄행위를 설교하는 영화와 프로를 금지하는 특별결정(11월)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으로 부패, 타락, 깽, 마약중독 등을 고취하는 미국놈의 영화상영을 완전히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1973년 1월에 이미 정부는 물건값을 제마음대로 올리는것을 금지하며 투기업자들을 엄격히 처벌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여 반동세력의 책동을 통제하고있다. 이 조치로 근로자들의 통제위원회가 수도를 비롯한 여러곳에 설치되였다.

출판보도；신문 우니다드(공산당기관지), 엑쓰쁘레쏘, 엘 꼬메르씨오, 라 쁘렌싸, 꼬르레오, 오호, 울띠마 오라

방송 페루국립방송, 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7월 12일 우리 나라와 페루사이에는 정부급 무역대표부를 호상 설치하기로 하였다.

1970년 8월 13일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페루조선친선문화협회가 결성되였다.

1974년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페루《엑쓰쁘레쏘》신문주필 에프라인 루이스 까로부부(6월 2일)와 페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 헤나로 까르네로 체까부부(6월 11일), 유엔주재 페루상임대표 하비에르페 레스 데 꾸엘랴(6월 19일)를 접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페루《엑쓰쁘레쏘》신문주필부부와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으며 페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시였다.

석상에서 신문주필은 우리 나라 방문인상을 말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이 세계 그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높은 속도로 빨리 진행되고있는데 대하여 경탄을 표시하였으며 조선은 자주성을 견지하는데서 본보기라고 높이 찬양하였다.

그는 또한 자기 나라 혁명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잘하기 위하여 김일성원수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광범히 선전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령도하시는 주체의 나라 조선을 보고》라는 제목의 긴 방문기를 남기였다.

접견석상에서 페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은 수령님을 다시 만나뵙게 된 크나큰 영광과 행복에 대하여 말하면서 자기들이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있으나 마음은 언제나 수령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였다.

손님들은 김일성원수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매개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특성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바로 그렇기때문에 자기들은 제3세계를 위하여 주체사상을 널리 선전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까르네로 체까서기장은《우리 모두의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 삼가드립니다〈조선에 대한 노래〉》의 시를 남기였다.

석상에서 유엔주재 페루상임대표는 자기는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계시는 김일성주석님의 천재적인 주체사상을 알고있었으며 조선의 현실을 직접 보는 과정에서 더많은것을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주체사상은 그 위대성과 거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적용하여야 할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사상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주체사상을 현실에 적용하시여 조선혁명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심으로 하여 반드시 본받아야 할 귀감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것이라고 말하였다.

1974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6월 2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페루《엑쓰쁘레쏘》신문주필부부를 접견하시고 하신 담화와 위대한 수령님께서 6월 13일 페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이 단행본으로 페루에서 출판되였다.

이해에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와《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를《씨글로 베인떼》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신문《엑쓰쁘레쏘》가,《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를 신문《꼬메르씨오》가 실은것을 비롯하여 이 나라의 여러 출판물들이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을 실었다.

1974년 11월 12～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라틴아메리카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이대륙의 20개 나라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정계, 사회계, 학계, 언론계 인사들 1천여명이 참가하였다.

여기에는 페루대통령 조카와 페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도 참가하였다.

회의에서 페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의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전문이 회의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그밖에 회의에서는 총선언, 권고문, 전세계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라틴아메리카나라 외교부장들에게 보내는 편지, 유엔총회 제29차회의 의장에게 보내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리마에서 페루조선친선문화협회의 주최로 우리 나라 도서및사진전시회가 있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페루에서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벌렸다.

1월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페루공산주의청년대표단은 평양을 떠나면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탄압소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냈다.

이해에 페루외교부 부서기(7월), 공청대표단(1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외교부대표단(4월), 직맹대표단(2월), 조선공업기술총련맹 광업협회대표단(10월), 친선및평화대표단(11월)이 페루를 방문하였다.

볼리비아

(볼리비아공화국)

넓이 109만 8,581Km²
인구 519만명(1972년)
수도 라 빠스(정부소재지, 주민 56만 3,000명, 1971년), 수끄레(법적수도, 주민 7만 2,000명)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수는 27명, 하원의원수는 102명이며 임기는 각각 4년, 1971년 8월 군사정변후 해산

군사위원회 3군대표들로 구성되여있는 나라의 최고통치기관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4년, 대통령 유고 반세르 쑤아레스(1971년 8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에 창건되였다가 1950년 1월에 재건되였으며 현재 비법화, 제1비서 호르헤 꼴레 꾸에또, **민족혁명운동당** 1941년에 무어졌고 소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하는 정당, **사회주의팔랑헤당** 1937년에 자본가, 지주, 천주교도들의 리익을 대변하여 나온 극반동적인 정당, **진정혁명당** 1960년에 민족혁명운동당 우파가 떨어져나와 무은 당, **좌익혁명당** 1940년에 인테리, 대학생, 일부 계층들에 지반을 두고 창건된 당, **인민기독교운동**, **사회민주당**, **기독교민주당**, **로동자중앙**

볼리비아는 1532년부터 근 300년간 에스빠냐식민지로 있다가 1825년 8월 6일에 독립하였다.

칠레와의 《태평양전쟁》(1879~1883년)에서 패배하여 볼리비아는 초석산지를 포함한 광대한 지역을 잃었다. 이때로부터 이 나라는 바다를 전혀 가지지 못한 내륙국가로 되였다. 1932년~1935년기간에 그란 챠꼬지방의 석유산지를 둘러싸고 빠라과이와의 전쟁(《그란 챠꼬전쟁》)에서 패배하여 또다시 넓은 지역을 빼앗기고 심히 약화되였다.

독립후 볼리비아는 미제의 간섭과 반동적지배층내부의 정권쟁탈전으로 하여 1971년까지 187회의 정변과 14회의 헌법개정이 있었다. 정부내에서의 개싸움, 반동당국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층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이 나라의 정치정세는 의연히 불안정하고 복잡하다.

1970년 10월에 수립된 후안 호쎄 또레스정부의 반미적조치에 불안을 느끼고있던 미제는 우익반동들을 사촉하여 1971년 8월 22일 반세르를 두목으로 하는 반동군사정부를 꾸며냈다.

친미군사독재정부는 1967년에 철폐된 파쑈적악법인 《사형법》을 복귀하고 2천여명의 애국적인 각계각층인민들을 체포, 투옥, 학살하였다.

1973년 11월 26일 반세르군사도당은 집권후 일곱번째의 정부위기를 겪었다. 또한 여러차례의 《반정부음모사건》들이 일어나 반동정부는 일대 혼란상태에 빠졌었다.

1974년에 볼리비아에서는 반동당국의 반인민적경제정책을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투쟁이 년초부터 일층 강화되고 반동정부의 정치적위기는 극도에 달하였다.

1월 21일 반동정부가 여러가지 물건값을 《천문학적수자》로 또 끌어올렸다. 이날 반동당국의 반인민적조치를 반대하여 라 빠스시 근로자들이 파업투쟁에 들어간후 투쟁은 점차 전국에 급속히 확대되였다. 23일에는 10만명이상의 근로자들이 파업투쟁에 참가하였다. 꼬챠밤바주에서 25일과 26일에 수천명의 농민들이 정부의 반동적정책을 반대하여 투쟁에 합세하였다. 그들은 시내의 주요도로들을 봉쇄하고 50마일이상의 구간에서 교통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근로자들은 《앉아서 굶어죽지말고 일어나 싸우자》라는 구호밑에 반동정권의 탄압책동에 맞서 굴함없이 싸웠다.

1월 28일 바빠맞은 반동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근로자들의 반정부투쟁을 억눌러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한편 1월 30일 반세르도당은 꼬챠밤바주를 《군사지대》로 선포하고 직접 군사적통제밑에 두었다. 놈들은 비행기, 장갑차의 엄호밑에 수많은 반동군인들을 내몰아 투쟁에 일떠선 이 주의 농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그러나 2월 1일에 《까따비》와 《씨글로 베인떼》 광산 광부들의 새로운 파업투쟁에 이어 4일에도 다른 공업부문 기업소 로동자들이 파업에 합세하였다.

볼리비아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수습할수 없는 궁지에 빠진 반세르도당은 2월 15일 또다시 내각을 개조하는 놀음을 벌려 위기를 수습하여 보려고 헛되이 시도하였다.

반동정부는 인민들의 반정부적진출이 날로 높아가자 4월 27일 무시무시한 《비상사태》를 3개월간 더 연장하였다. 이리하여 볼리비아에서는 반동경찰놈들로 하여금 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인권마저 유린할수 있게 하였다. 지어 반세르놈은 5월에 이웃 나라들에서 반세르군사도당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여 싸우고있는 애국자들을 탄압해주도록 요구하는 파렴치한 놀음까지 서슴지 않았다.

5월 20일 반동당국은 학원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라 빠스대학과 싼 안드레스대학을 폐쇄하는 전횡을 감행하였다. 대학생들은 반동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여 동맹휴학을 벌리고 투쟁을 파탄시키려고 달려드는 우익반동들과 치렬한 싸움을 벌렸다. 학생들의 단합된 투쟁기세에 놀린 반동정부는 6월 19일 학생들의 요구조건을 수락하지 않을수 없었다.

6월 5일에 반세르도당이 기둥처럼 믿고있던 륙군내에서 2개 련대가 반동적군사정부를 반대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비록 실패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하여 군부내의 수많은 장교들을 해임시키는 등 일대 탄압소동이 벌어졌다. 7월 24일에도 놈들은 반정부음모가 또다시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7월 8일에 뒤흔들리고있던 내각이 총사직하고 완전한 군사정부가 조작되였다. 1975년에 가서 이른바 《총선거의 길》을 터놓는다는 구실밑에 반세르놈은 파쑈통치지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1971년 8월정변이래 군부세력과 함께 집권당으로 있던 반동적인 두 정당인 민족혁명운동당과 사회주의팔랑헤당 출신 문관각료들마저 련립정부에서 내쫓고 순수 군사깡패들로 내각을 재조직하였다.

정권에서 쫓겨난 두 우익정당의 무리들은 11월 7일 반세르군사정부에 대항하여 싼따 끄루스와 몬떼로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결과 전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치렬한 전투끝에 군사정부는 겨우 반란을 진압하였다.

반세르정부는 우익군부세력의 압력밑에 11월 9일 《군사독재정권을 합법화》한다는 법령을 발포하고 이른바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법령에 의하여 1975년 6월로 예정하였던 총선거를 무한정 연기한 군부는 1980년까지 저들이 정부를 완전히 통제할것이라고 줴쳤다. 《헌법》의 효력은 중지되고 모든 정당, 로조, 기타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금지되였다.

반동정부의 이러한 파쑈적폭압조치는 광범한 인민대중의 드센 반항을 불러일으켰다. 지하에서 활동하고있는 볼리비아로동자중앙의 호소에 의하여 국내에서는 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이 광

범히 일어났다. 가장 전투적인 이 로조의 호소에 호응하여 약 3만명의 광부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라 빠스와 꼬챠밤바 공업기업소 로동자들과 사무원들, 일련의 종합대학 학생들이 《새 질서》를 반대하는 항의운동을 벌렸다. 나라의 많은 지역들에서 반정부시위가 일어났다. 시위참가자들은 극악한 파쑈악법을 당장 폐기할것을 요구하였다. 당국은 반동군대를 내몰아 공장, 기업소들을 점거케 하고 파업로동자들을 총칼로 위협하였다.

정치,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반세르 반동정부는 일하기를 거부한 경제계, 로조지도자들, 기술자 및 기타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가는 이른바 《동원령》을 발표하였다. 《동원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2년간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국외로 추방하기로 되여있다.

그러나 반동정부내에서도 륙군과 공군사이, 해외에서 미제가 길러낸 장교들사이, 젊은장교들과 늙은장교들사이에 극심한 분렬과 적대감이 지배하고있다. 지배층의 이러한 정치적갈등과 정권쟁탈전으로 말미암아 경제는 위기에 처하고 이 나라 근로자들은 라틴아메리카대륙에서도 가장 가난한 처지에 놓여있다. 띠띠까까호수의 꼬아띠섬의 감옥을 비롯하여 전국에 수많은 감옥들에는 1천여명의 《정치범》들이 무서운 고문에 시달리고있다. 수천명의 이 나라 사람들이 군사독재정권의 탄압에 못이겨 해외에서 살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뒤떨어진 농업국가로서 부침땅은 전 령토의 2%에 불과하다. 약 180만명의 로동인구가운데서 약 절반에 가까운 주민이 농업과 수산업(담수어업) 부문에서 일하고있다. 농업인구의 8∼10%에 지나지 않는 지주놈들이 부침땅의 80%를 거머쥐고 대부분의 농민들을 고용하거나 략탈적인 소작제에 얽매여놓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강냉이, 벼, 감자를 비롯한 주작물과 사탕수수, 귤, 바나나, 파인애플 등의 열대농작물, 그밖에 포도, 담배, 목화이다. 식량수요의 70%정도를 수입에 매달리는 형편이다.

동부고원지방에서는 야생고무와 키나나무의 껍질(약재)을 채집한다. 고무생산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브라질 다음의 두번째자리를 차지한다.

집짐승으로서는 소를 위주로 기르면서 돼지, 양, 라마, 알빠까도 기른다.

광업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채광공업이다. 이것은 국민총생산액의 13%, 국가예산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주석과 안티몬 생산량은 자본주의세계에서 두번째, 중석은 세번째자리를 차지한다. 기타 연, 아연, 동, 수은, 은 등 유색금속도 난다.

세계적인 주석생산국인 동시에 수출국의 하나이다. 탐사된 주석매장량은 세계 주석매장량의 8%에 해당한다. 주석은 년평균 정광으로 3만 1천톤, 순주석으로 1천톤 정도 생산한다.

미제는 이 나라에서 광물과 함께 석유수출을 통제하고있다. 하루에 약 5만 2천바렐의 석유가 생산되며 그중 약 3만 2천바렐이 수출된다. 싼따 끄루스로부터 칠레의 아리까항구까지 송유관이 설치되여있다. 1974년 1월 31일 석유수출가격을 1바렐당 9.80딸라로부터 16딸라로 올렸다.

채광공업과 함께 식료, 석유가공, 세멘트, 방직, 신발 등 가공공업부문이 있으나 그의 25%이상은 작은 식료공장들이 차지한다. 1971년 정변후 이 나라의 기본경제부문들에 대한 미제독점자본의 침투가 일층 강화되였다. 1972년에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주고있는 군사《원조》중에서 가장 많은 400만딸라를 볼리비아반동당국에 던져준 대신 미제는 이 나라에서 확고한 경제적 지반을 닦았다. 1973년 11월 30일 《협정》에 의하여 브라질은 이 나라와의 국경지역인 동부에 강철, 석유, 화학 및 세멘트 공장들을 건설해준다는 구실밑에 경제적침투를 강화하고있다. 이 지역에는 벌써 약 3만명의 브라질 사람들이 은밀히 침투하였다.

1971년초현재 외국에 진 빚은 3억 7천여만딸라에 달하였다.

철길은 브라질, 아르헨띠나 등 대서양기슭에서 칠레의 태평양기슭을 련결하는 안데스횡단철길이 있을뿐이며 남북을 관통하는 철길도, 북부의 넓은 지역에도 철길은 없다. 라 빠스와 고원지대의 기타 지점들을 련결하는 3천키로메터의 도로건설계획이 검토되였다. 이 계획에 일본독점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주로 주석을 비롯한 광물이 약 90%를 차지하며 기타 석유, 열대과일과 식료품이다. 기계 및 설비(약 40%), 식량(약 20%), 화학제품과 직물을 사들인다. 대외무역에서 미제가 이 나라 대외수출의 35%, 수입의 40%이상 독점하고있으며 그밖에 영국과 서독이 차지하는 몫도 적지 않다.

주민은 인디안이 60%, 혼혈인이 28%, 백인이 12%로 구성되였다. 공용어는 에스빠냐말이며 주민의 대다수가 천주교를 믿는다.

대학은 8개이고 15살이상 주민의 60%가 글을 읽고 쓸줄 모른다. 주민 1인당 국민소득이 라틴아메리카나라들가운데서 가장 낮다.

1974년초에 쌀, 커피, 사탕값이 2∼3배나 비싸졌다. 교통운임은 60%나 높아졌다. 반면에 년초에 화폐는 거의 67%가 평가인하되였으며 그 결과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급격히 낮아졌다.

출판보도; 신문 우니다드(공산당기관지), 쁘레쎈시아, 엘 디아리오(무소속), 울띠마 오라(무소속)

방송 볼리비아방송, 볼리비아텔레비존방송

빠 라 과 이

(빠라과이공화국)

넓이 40만 6,752Km^2
인구 239만명(1970년)
수도 아순씨온(주민 43만 7,136명, 1970년)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수는 30명이고 하원의원수는 60명이며 임기는 각각 5년, 1968년 2월 국회선거에서 꼴로라도당이 상원에서 20석, 하원에서 40석, 급진자유당이 상원에서 9석, 하원에서 16석, 자유당이 상원에서 1석, 하원에서 3석을 각각 차지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5년, 대통령 알프레도 스뜨로에쓰네르(1954년 7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3년에 창건된 이래 1947년부터 비법화되여 지하에서 활동, 위원장 안또니오 마이다나(현재 감금되여있음), 총비서 오스깔 끄레메, **민족공화련맹**(꼴로라도당) 1881년에 무어졌고 친미매판자본가, 대농장주, 반동군부상층의 리익을 대변하며 집권당, 합법적야당으로서 **자유당**, **급진자유당**, **2월혁명당**, **기독교민주당**이 있다. **《민족해방통일전선》** 1959년에 창건되였으며 여기에는 자유당, 2월혁명당의 좌익적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공산당 등 일련의 진보적당들과 인사들을 망라, 해외(우루과이)와 국내에서 독재정권을 반대하여 투쟁, **근로자총련맹** 정부의 어용로조, **기독교근로자총련맹** 현친미독재정권을 반대, **공산주의청년동맹**

16세기초부터 빠라과이에 침략의 검은 손길을 뻗치기 시작한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은 1535년에 이 나라를 완전히 식민지로 만들었다.

빠라과이인민은 1811년 5월 14일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민족적독립을 쟁취하였으며 그후 1844년 이 나라는 공화국으로 되였다.

독립후 반동정권은 이웃 나라들인 브라질, 아르헨띠나 및 우루과이를 상대로 하는 침략전쟁(1865～1870년)을 일으켰다가 령토의 거의 절반과 인구의 대부분을 잃었다. 그후에도 반동정부는 그란 챠꼬지역을 둘러싸고 볼리비아와 옹근 한세기동안 령토분쟁을 벌려오다가 《그란 챠꼬전쟁》(1932～1935년)을 벌려 비록 《승리》하였으나 군대만 하여도 5만명이나 잃었다. 이와 같은 침략전쟁의 후과로 말미암아 빠라과이는 수많은 인명피해를 냈으며 경제는 극도로 황폐화되고 반동적인 군부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득세하였다.

제2차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이 나라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강화한 미제는 제놈들의 충실한 앞잡이들로 괴뢰정권을 부단히 갈아대면서 이 나라를 완전히 예속시켰다.

1954년에 미제의 앞잡이이며 극악한 《반공》분자인 알프레도 스뜨로에쓰네르란놈이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때로부터 빠라과이력사에서 류례없는 암흑통치가 시작되였다. 스뜨로에쓰네르놈은 정권을 잡은후 대농장주와 매판자본가들, 반동적군부상층들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독재체계를 확립하고 전국을 테로와 폭압이 살판치는 생지옥으로 전변시켰다. 빠라과이전역을 군사, 경찰, 특무망으로 뒤덮고 애국적민주력량에 대한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마저 억제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언론,출판기관들이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 수많은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이 파쑈독재정치의 희생물로 되였다.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여 반정부야당인사들과 애국적인민들은 1959년 4월 민족해방통일전선을 뭇고 유격활동을 전개하면서 반동지배층놈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한편 스뜨로에쓰네르도당은 친미독재정권에 이른바 《민주주의》의 외피를 씌우기 위하여 협잡과 날조로 엮어진 선거놀음을 벌려오다가 1968년에는 대통령이 세번이상 재선되는것을 금지하는 《헌법》마저 뜯어고쳤다.

1973년 2월 11일 알프레도 스뜨로에쓰네르놈은 폭압과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다섯번째로 대통령감투를 눌러쓰고 미제의 비호밑에 더욱더 기승을 부리면서 각종 파쑈적인 살인악법과 폭압기구에 매달려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검거투옥학살하고있다. 스뜨로에쓰네르놈의 20년간에 걸친 통치기간에 수천명에 달하는 애국자들이 무참히 학살되였으며 따꿈부와 챠꼬 감옥과 수용소들에는 수많은 애국자들이 재판도 없이 갇혀있다.

근 20년간 나라를 계엄상태하에 둔 반동정권은 1974년에도 90일간씩 연장하는 방법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인민탄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러나 친미독재정권의 반인민적정책과 탄압책동에 항거하는 인민들과 사회계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갔다. 《국회》내에서까지도 외국독점체들의 재산을 국유화하며 《정치범》들을 석방하며 민주주의적자유를 보장할데 대한 요구가 일층 높아졌다. 파쑈통치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동당국은 로동자수보다 4배나 더많은 군대를 유지하고있다.

1974년 3월 지하에서 열린 빠라과이공산당전국대표자회의에서는 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민족투쟁전선을 결성할것을 호소하였으며 감옥에서 굴하지 않고 싸우고있는 공산당지도자들을 석방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특별결의를 채택하였다.

8월에 지하단체인 빠라과이반독재반제투쟁중앙은 스뜨로에쓰네르반동정권의 집권이 20년째 되는것과 관련하여 군부, 지주 및 파두세력에 의하여 뒤받침되고있는 독재정권이 인민들을 기아와 빈궁속에 몰아넣은데 대하여 신랄히 규탄하였다.

친미독재정권은 대외적으로 미제에 적극 추종하면서 철저한 《반공》정책을 실시하고있다.

1962년에 자기 나라 령토에 로케트기지건설에 관한 협정을 미제와 맺었으며 1965년 6월에는 미제의 침략도구인 《미주통합군》에 가담하여 도미니까인민들의 반미반독재무장봉기를 야수적으로 진압하는데 참가하였다.

미제의 윁남침략전쟁에도 침략적인 고용병을 대주었다. 또한 빠라과이령토는 볼리비아와 칠레의 국가정변을 위하여 리용되였다.

1974년 4월 스뜨로에쓰네르놈은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배격과 규탄을 받고있는 남아프리카 보스터인종주의도당과 경제, 재정및기술협정을 맺고 더많은 《원조》를 구걸하였다.

미제에 적극 추종하고있는 빠라과이는 11월에 진행된 《미주국가기구》외교부장회의에서 미제가 이 기구에 강요한 꾸바에 대한 정치, 경제적 《제재조치》를 취소할데 대한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3개 나라의 결의안에 반대한 3개 나라중의 하나이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적으로 미제와 기타 외래독점자본에 철저히 얽매인 뒤떨어진 반식민지농업국가이다. 미제와 외래독점자본은 이 나라에서 비교적으로 크다고하는 15개의 생산기업소들중 12개를 틀어쥐고있으며 은행자본의 90%와 수출의 80%를 장악하고있다. 외래독점자본의 침투로 말미암아 경제는 침체상태에 빠져있으며 국내의 중소기업소들은 더욱더 파산몰락당하고있다. 경제분야에서 밀수입이 유명하여 사치품이 범람하고있다.

주민의 75%가 농업부문에서 일한다. 목축업을 위주로 하는 농업과 림업이 경제에서 큰 자리를 차지한다. 대토지소유제가 지배하고있는 이 나라에서 대지주와 목장주놈들이 전체 부침땅의 4분의 3과 집짐승의 대부분을 독차지하고있다.

대초원을 끼고있는 지리적관계로 목축업이 경제에서 노는 역할이 매우 크다. 자연방목지들에서는 소(560만마리), 양, 말, 당나귀 및 노새 등 풀먹는 집짐승들을 기른다. 해마다 적지않는 고기와 양털이 생산되지만 미영제국주의자들이 헐값으로 빼앗아간다.

목축업에 비하여 농산업은 비할바없이 뒤떨어진 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해마다 막대한 량의 식량을 수입하고있다.

주요농산물로는 마니오크, 벼, 당콩, 콩, 고구마, 밀 등을 비롯한 알곡작물과 사탕수수, 목화, 담배, 커피, 빠라과이차(일명 마떼차), 당오동나무열매와 같은 작물이 난다.

령토의 54%가 열대림으로 덮여있는 이 나라 령토에는 여러가지 용도에 쓰이는 건축 및 가구 용재들이 많이 생산되나 이 역시 제국주의자들의 략탈대상으로 되고있다.

공업에서는 고기가공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이 절대다수이며 석유정제, 세멘트, 야금 등 보잘것없는 중공업공장들이 몇개있다. 경공업부문안에서도 식료가공공업이 공업총생산액의 약 50%를 차지한다. 주요공업제품들인 식용유 년간 약 2만 3천톤, 직물 약 1천 600만메터, 전력 약 2억키로와트시, 세멘트 1만여톤이 생산된다.

1971년현재 다른 나라에 진 빚은 2억 4천만딸라에 달하였는데 보잘것없는 외화수입으로는 빚도 갚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철길의 길이는 1천 300키로메터이며 빠라과이강은 국내의 주요배길로 리용된다.

주요수출품은 고기와 그 가공제품, 목재, 목화, 가죽용 염료, 당오동나무기름 등이며 기계 및 설비, 운수수단, 식량, 흑색금속, 연료, 직물, 화학제품을 주로 수입한다.

주요무역대상국은 미국, 영국, 서독, 아르헨띠나이다.

주민구성에서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들보다 에스빠냐계의 혈통이 비교적 적고 원주민(주로 뚜삐—과라니족)의 비률이 높다.

에스빠냐말이 공용어이나 뚜삐—과라니말도 일반주민들사이에는 많이 쓰인다.

빈부의 차이가 매우 심하여 주민의 5%에 불과한 부자놈들이 국민총생산액의 50%를 차지하고있는 반면에 주민의 80%를 이루는 일반근로자들은 겨우 20%만이 차례지고있다. 살길을 찾아 해외에서 헤매는 이 나라 주민은 100여만명에 달한다. 20만세대는 살림집 아닌 빈민굴에서 산다.

천주교가 국교이며 주민의 80%가 천주교도이다.

출판보도; 신문 아델란떼(공산당기관지), 빠뜨리아(콜로라도당기관지), 라 리베르따드(자유당계), 라 뜨리부나(중립계), 엘 뿌에블로(2월혁명당기관지)

방송 빠라과이국립방송, 빠라과이텔레비죤방송

우 루 과 이

(우루과이동방공화국)

넓이 17만 7,508Km²

인구 295만 6,000명(1973년말)

수도 몬떼비데오(주민 135만명, 1970년)

정 치

국회(총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수는 30명, 하원의원수는 99명이고 임기는 모두 5년, 부대통령이 총회의장으로 된다. 1973년 6월 27일 국가정변에 의해 총회는 해산

정부 대통령은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5년, 대통령 후안 마리아 보르다베리 (콜로라도당출신, 1973년 3월 1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9월 21일에 창건, 1973년 6월 국가정변후 12월 1일 비법화되여 지하에서 활동, 제1비서 로드네이 아리스멘디, **사회당** 1911년에 창건된 진보적정당으로서 1967년이후 비법화되였다가 1971년 1월부터 다시 합법화, 1973년 12월 1일 또다시 비법화, 총비서 라몬 마르띠네스, **콜로라도당** 1835년에 창건된 당으로서 대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하는 반동적정당, 여러개의 분파로 구성, 1953년 이전까지 93년간 집권당으로 있었으며 1967년 3월이후부터 다시 집권당, **《인민정부를 위한》운동** 콜로라도당에서 갈라져나온 진보적그루빠로서 1970년에 조직된 당, **블란꼬당**(일명 민족당) 1835년에 창건되였고 대목장주, 대지주, 대은행가 및 천주교회세력의 리익을 대변, 1959년초부터 1967년 2월까지 집권당, **블란꼬인민진보운동** 블란꼬당에서 갈라져나온 진보적그루빠로서 1970년에 조직, **기독교민주당** 1962년에 조직, **혁명로동당**, **좌익해방전선** 1962년에 공산당을 포함한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로 조직, **《광범한 전선》** 1971년 2월에 조직, 공산당, 사회당, 혁명로동당, 블란꼬인민진보운동, 기독교민주당, 《인민정부를 위한》운동, 블란꼬당의 일부 대표들을 비롯하여 여러 진보적 사회단체들로 조직, **우루과이근로자전국회의** 1964년에 조직, 맹원 40만명, 1973년 6월 국가정변후 비법화, 총비서 세계직련 위원장이며 우루과이공산당 비서 엔리께 빠스또리노, **공산주의청년동맹**, **녀성동맹**

우루과이는 1516년부터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을 비롯한 외래침략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번갈아 받아오다가 1825년 4월 인민들의 무장봉기에 의하여 놈들의 멍에에서 벗어났으며 1830년 11월 6일 공화국으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미제는 우루과이에 대한 침투를 급속히 강화하였으며 1952년에 놈들은 이 나라에 《군사협정》을 강요하였다.

1963년 7월부터 무장유격대(《뚜빠마로스》, 일명 민족해방운동)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여 미제와 친미반동통치배놈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1971년 2월 우루과이의 진보적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들은 《광범한 전선》을 형성하고 자기의 사회경제적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광범한 대중투쟁을 조직전개하였다. 같은해 11월의 대통령 및 국회(상하원)선거에서 반동적인 콜로라도당의 《승리》가 날조되였으며 뒤이어 1972년 3월 1일 새 정부가 수립되였다.

반동정부는 1972년에 이른바 《국가안전및사회질서에 관한 법령》이라는 악법을 조작하여 《법률상의 담보》마저 페지하고 로조활동을 《법적으로 규제》하려고 시도하였다.

1973년 2월에 군부세력이 《사회경제개혁》을 실시할것이라는 미명밑에 정부사업에 개입하였으며 내각이 개조되고 광범한 권한을 가진 《국가안전위원회》가 창설되였다. 같은해 6월 27일 보르다베리대통령은 미제의 조종을 받는 반동적군부의 지지밑에 국가정변을 일으켜 국회를 해산하고 독재정권을 수립하였다. 이 나라에서 진보적이며 제일 큰 로조인 근로자전국회의가 비법화되고 로조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와 로조사무소들에 대한 페쇄, 그 재산의 몰수가 뒤따랐다.

12월 1일 반동정부는 공산당과 사회당, 기타 진보적정당들 그리고 일체 좌익단체들을 금지할데 대한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공산당기관지를 비롯한 진보적출판물이 페간당하고 엄격한 출판물검열제가 실시되였다. 10월에 대학들은 페쇄되였다.

반동당국은 수천명의 진보적사회정치활동가들과 애국자들을 체포하여 병영, 감옥, 집단수용소들에 구금하였다.

1974년에 우루과이에서는 애국적민주력량에 대한 반동들의 공세가 더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파쑈폭압을 끊임없이 강화한 반동지배층은 5월에 공산당 제1비서 로드네이 아리스멘디를 체포하였으며 애국자들에 대한 《재판》놀음을 벌려 처형하려는 범죄적음모에 매달렸다.

5월 1일 반동정부의 두목 보르다베리는 기자회견에서 약 2천 500명의 애국자들이 체포되였거나 재판을 받고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사실상 7천여명의 애국자들이 감옥에 갇혔다.) 또한 그는 이미 5.1절 시위와 집회들을 금지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였다는것도 숨기지 않았다.

이해에 우루과이는 이미 침체상태에 빠진 경제에 혹심한 가물까지 겹쳐 더욱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와 군부간, 또 그 내부들에서 개싸움들이 잦았다.

5월 20일에 군부내의 고위장교놈들이 삼엄한 경계밑에 《긴급비밀회의》를 열고 경제적위기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내각의 개편을 요구하였다. 뒤이어 5월 21일에는 이른바 《온건한 인물》로 지목된 륙군사령관이 교체되고 그밖의 여러명의 고위 장교 및 경찰놈들을 갈아대는 소동을 벌렸다. 군부를 완전히 장악한 우익반동장교놈들은 제놈들의 영향력을 일층 강화하고 국내정세를 살벌한 분위기에 휩싸이게 하

였다.

이해 하반년에 채택된 《민주주의적 신념에 대한 선언》법은 1973년 6월 국가정변이 있은 이후 현정권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한 일종의 《현정부에 대한 충실성의 선서》로서 모든 국가공무원들이 《선언》에 서명할것을 강요당하였다. 이 악법을 휘둘러 반동당국은 몬떼비데오종합대학 의학부에서 수업을 중단시켰으며 악법에 서명하기를 거부한 교원들을 탄압하였다.

우루과이공산당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는 2월 16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우루과이의 모든 진보적력량의 주되는 과업은 독재통치를 반대하며 나라를 제국주의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하여 힘을 합쳐 전투력을 높이며 조직성을 강화하며 애국적인 군인들을 인민의 편에 끌어들일것을 모든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이해에 세계적으로 우루과이애국자들을 석방하기 위한 련대성운동이 광범히 벌어졌으며 세계직련 집행국은 세계평화리사회회의 결정을 지지하여 6월 19일을 《우루과이 애국자들과 민주주의자들과의 련대성의 날》로 선포하였다.

우루과이 인민과 세계 광범한 사회계의 압력에 못이겨 반동당국은 1974년 11월 2일에 광범한전선 위원장을, 1975년 1월에 공산당 제1비서 로드네이 아리스멘디를 석방하지 않을수 없었다.

경제, 사회문화

축산물의 생산과 수출에 주로 의거하는 농업－공업국가이다. 농업생산에서 목축업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한다. 고기와 양털 생산량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아르헨띠나 다음가는 두번째자리를 차지한다. 부침땅의 거의 대부분이 방목지 혹은 먹이작물재배지이다. 부침땅의 절반이상은 1천헥타이상씩 소유한 농목장주놈들이 독차지하고있다.

주요집짐승은 소(840만마리), 양(2천 170만마리)이다. 집짐승마리수의 80％를 소수의 대농목장주놈들이 차지하고있다. 해마다 고기는 약 24만톤, 양털은 7만 5천톤 가량 생산되나 그의 대부분을 미영제국주의자들이 헐값으로 략탈해가고있다.

농산업은 목축업에 비하면 생산액이 매우 적다. 집짐승먹이작물재배에 많은 땅이 돌려지는데 불임땅의 4분의 1에 밀을, 그 나머지 땅에는 강냉이를 위주로 하면서 아마, 해바라기를 심는다. 남쪽과 서쪽에는 포도원이 많다. 식량의 막대한 량을 해마다 수입한다.

공업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고기랭동, 빠터, 치즈, 제분, 사탕, 양털가공, 포도주 등 식료 및 농축산물가공 공업과 방직공업이다. 그밖에 전기, 금속가공, 고무,종이, 화학 공업이 있다. 그러나 랭동고기생산의 45％를 미제독점회사가, 21％를 영제국주의자들의 독점회사가 틀어쥐고있으며 기타 공업부문도 역시 외래독점자본의 통제밑에있다. 전체 공업기업소의 절반이상이 몬떼비데오시에 치우쳐있다. 원유소비량의 100％(하루 4만바렐정도 소비)를 수입에 의존한다.

1970년 8월현재 다른 나라에 진 빚은 5억 3천 100만딸라였다. 1970년 현재 이 나라에 투자된 외래자본총액은 근 1억딸라에 달하는데 그중 6천 500만딸라를 미제국주의자들이 차지하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나라의 크기에 비하여 철길이 비교적조밀(4천키로메터)하다. 대외무역항은 몬떼비데오항구이다.

주요수출품은 랭동한 고기와 그 가공제품, 양털,천, 가죽, 공업원료, 광물 등이며 기계설비, 운수기재, 화학제품, 건재, 식량, 의약품, 연료, 생활필수품 등을 수입한다. 주요무역대상국은 미국, 영국, 서독, 이딸리아이다.

주민구성에서 구라파계통의 백인후손들이 90％를 차지하며 남아메리카에서 백인의 비률이 높은 나라의 하나이다. 나머지 10％는 인디안과 혼혈인이 차지한다. 총인구의 근 48％가 수도 몬떼비데오와 그 주변에서 산다.

국어는 에스빠냐말이며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1973년 6월 국가정변후 교육기관들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몬떼비데오종합대학은 반동적군인들의 통제하에 들어갔고 교원들과 학생들에 대한 탄압이 가해지고 있다. 이 대학의 10개 학부가운데서 9개 학부의 학부장들이 이른바 《파괴활동》의 죄명을 쓰고 철창속에 갇히였다. 중학교 교원들에 대해서도 《숙청》이 진행되였다.

반동정부의 반인민적정책으로 인하여 1974년 1월 3일 약 1천가지 소비품의 값이 뛰여올랐다. 휘발유값은 1갈론당 1.07딸라에서 2딸라로 올랐다.

출판보도；**통신** 우루과이통신(에이엔아이)

신문 엘 뽀뿔라르(공산당기관지), 꼴라린, 악씨온(꼴로라도당계), 엘 떼바떼(블란꼬당계), 엘 디아(꼴로라도당계),울띠마 오라(광범한전선기관지)

방송 우루과이방송, 우루과이텔레비죤방송, 몬떼까를로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3년 5월 17일 무역대표부를 설치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1967년 10월에 우루과이조선친선문화협회가 결성되였다.

1973년 1월 2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 머무른 우루과이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로드네이 아리스멘디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당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1974년 11월 12～14일까지 뻬루의 수도 리마에서 진행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라틴아메리카회의》에 참가한 우루과이조선친선문화협회 대표인 루이싸 데 까브레라는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가 락후와 빈궁에서 벗어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고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말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우리는 오직 하나의 조선, 통일된 조선, 자주적인 조선을 위하여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우리의 련대성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만 한다.》

우루과이사회활동가 페드리꼬 브리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열렬히 환영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또한 담화를 발표하여 박정희괴뢰도당의 포악한 《긴급조치》소동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1972년에 우루과이사회당대표단(2월), 우루과이사회당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국회대표단(10월)과 세계직련 위원장이며 우루과이근로자중앙 총비서인 엔리께 빠스또리노(10월)가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같은해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우루과이사회당 제37차대회(12월)에 참가하였다.

아르헨띠나

(아르헨띠나공화국)

넓이 277만 6,889Km²
인구 2,392만명(1972년)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주민 350만명), 교외까지는 약 800만명, 1970년)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1966년 군사정변 후 헌법폐지와 함께 해산되였다가 1973년 3월 새로 선거

정부 대통령은 국가 및 정부 수반, 1973년 8월 14일 새 정부 구성, 대통령 마리아 이싸벨 마르띠네스 데 뻬론 (1974년 7월 1일—)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1918년에 사회당좌파가 조직한 국제사회주의당을 1920년에 공산당으로 고침, 총비서 헤르니모 아르베도 알바레스, **정의운동당**(일명 뻬론당) 1958년 이전대통령 뻬론의 지지자들로 구성되였으며 현재 집권당, **비타협급진공민동맹** 중소부르죠아지와 인테리들의 리익을 대변, **인민급진공민동맹** 1957년에 창건되였으며 대금융부르죠아지, 대지주의 리익을 대변, **사회당, 진보민주당, 기독교민주당, 로동총련맹** 1930년에 창립, 세계직련에 가입, **로조행동통일및조절운동, 공산주의청년동맹**

아르헨띠나는 1516년에 에스빠냐침략자들에게 강점당한 이래 거의 300년동안 놈들의 식민지로 있었다. 1816년 7월 9일 독립을 선포한데 이어 1826년에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19세기말～20세기초 미영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침투가 강화되였다.

1946년 대통령선거에서 후안 도밍고 뻬론이 당선되였다. 그는 1943～1946년기간에 《사회적정의》의 구호를 제기함으로써 근로대중의 일정한 지지를 받고있었다. 그는 집권기간에 어느 정도 대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으며 공업과 은행 및 일체 사회적시설들을 국유화하였는데 미제의 《스탠다드》석유회사의 특권까지 제한하였다. 한편 동구라파의 일련의 사회주의나라들과 국가관계를 맺었다.

뻬론정부의 이러한 립장에 불만을 품어온 미제는 이 나라의 반동적군부세력을 조종하여 1955년 9월 23일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이 정부를 전복하였다. 그후 군사 및 민간인 정부가 여러번 바뀌였다.

1971년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라누쎄 군사정부는 군벌통치대신에 《안정된 의회제민주주의정치》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1973년에 총선거실시를 발표하였다. 1973년 3월 11일 10년만에 총선거가 진행된 결과 뻬론을 지지하는 선거통일전선체인 《정의해방전선》의 립후보자 엑또르 깜뽀라가 인민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되였으며 5월 25일에 정식 직무에 취임하였다.

그는 대통령취임후 《정의해방전선》이 선거전강령에서 제기한 아르헨띠나가 미제의 《경제적영향에서 벗어나며》 모든 나라들과 외교 및 무역 관계를 가지며 특히 우리 나라, 웰남민주공화국과의 외교관계를 설정하고 꾸바와 외교관계를 회복할데 대한 과업들을 실현하는데로 나갔다.

5월 26일에 독재정권에 의해 갇혀있던 《정치범》들이 모두 석방되고 1966년이후 실시하여온 이른바《탄압법》들이 폐기되였으며 공산당의 활동도 합법화되였다. 그밖에도 일련의 진보적조치들이 취해졌다.

대통령 깜뽀라는 약 18년간 망명생활을 하던 이전대통령 뻬론을 6월 20일 아르헨띠나에 돌아오게 하고 그의 대통령당선을 위하여 정권을 잡은지 48일만인 1973년 7월 13일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그리하여 같은해 9월 23일 아르헨띠나에서는 또다시 대통령,부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여 대통령으로 후안 도밍고 뻬론이, 부대통령으로 그의 부인 마리아 이싸벨 마르띠네스 데 뻬론이 당선되였다. 이들은 10월 12일에 각각 취임하였다.

1974년에 뻬론대통령은 선거전 강령을 리행하면서 2월 22일 이전반동군사정부가 1971년에 만들어낸 악법을 없애버리고 진보적정당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할수 있게 하였다.

1974년 7월 1일 후안 도밍고 뻬론대통령이 사망함으로써 헌법에 따라 부대통령인 마리아 이싸벨 마르띠네스 데 뻬론이 대통령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귀국의 이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의 중책을 넘겨받은 각하가 아르헨띠나인민을 굳게 결속시켜 후안 도밍고 뻬론대통령이 다하지 못한 위업을 계승하여 끝까지 수행하는데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게 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새 대통령의 취임에 대하여 아르헨띠나 륙, 해, 공군 사령부와 각 정당, 로조들 및 기타 사회단체들이 지지성명을 발표하였다. 7월 30일 공산당과 사회당을 비롯한 진보적인 정당들과 사회단체대표들은 회의를 가지고 새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8월 27일 진행된 주지사들의 회의에서 연설한 대통령은 국내우익반동세력들의 반정부책동에 언급한 후 군부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서거한 뻬론대통령의 정치로선에 따라 《확고한 립장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8월 5일 텔레비죤방송국들을 국가의 통제밑에 넣을데 대한 법령이 채택되고 8월 23일에는 국내에서 석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와 분배체계의 국유화, 9월에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출판기업체인 《꼬덱스》의 국유화 등 진보적조치들이 련이어 취하여졌다.

10월 18일 대통령은 외래제국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3개의 전력 및 전화회사(미제의 《국제전신전화회사》와 《스탠다드 엘렉트리크》포함)주권의 대부분을 국가가 장악할데 대하여 선포하였다.

아르헨띠나정부가 련이어 취한 이와 같은 반제자주적조치들에서 타격을 받고 악의를 품은 미제를 비롯한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국내반동세력은 아르헨띠나에서의 일시적난관을 기회로 하여 경제 및 정치적 혼란을 일으키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반동세력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9월 17일 대통령은 정부, 최고재판기관 및 군대사령부 성원들의 회의를 소집하고 놈들을 반대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데 대한 문제 등을 토의하였다.

이날 하루동안에만도 놈들은 각 도시들에서 약 100개의 폭탄을 터뜨렸으며 진보적인사들을 암살하였다. 반동세력의 책동이 날로 악랄해짐에 따라 공산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근로자들은 반동들의 책동을 짓부셔버릴 결의를 표시하였다.

각계인사들과 여러 출판물들은 자기나라에 기여든 미제의 정탐파괴암해기관인 《미중앙정보국》의 간첩놈들의 악랄한 파괴행위를 준렬히 규탄하였다.

9월 28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회는 국가안전법을 승인하였고 대통령이 이 법에 서명하였으며 10월 3일 대통령의 참가밑에 나라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로조단체, 기업가 및 군인 대표들의 회의가 소집되였다.

11월 7일 대통령은 반동세력의 준동과 테로행위를 저지시키고 이미 시작된 진보적변혁과정을 다그치기 위하여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국내에서 경제적난관을 조성하며 나아가서 《국가정변》을 위한 미제와 우익반동들의 책동은 정부의 단호한 조치, 광범한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걸음마다 분쇄되였다.

대외정책에서도 제3세계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있는 정부는 1974년 3월에 탄자니아, 민주예멘,

4월에 소말리아, 6월에 또고와 각각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6월 13일에는 기네-비싸우를 승인하였다.

1월에 빠나마정부수반 오마르 또르리호스가 이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1월 19일 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 성명에서 쌍방은 빠나마 운하와 운하지대를 되찾기 위한 빠나마의 합법적요구에 대하여 그리고 말빈제도소유권에 관한 아르헨띠나의 립장에 대하여 지지를 표시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공업이 비교적 발전한 나라이지만 이전 반동통치배들의 반인민적경제정책과 미제를 비롯한 외래독점자본의 침투로 말미암아 민족경제는 여지없이 짓밟혔다. 결과 1955년후부터 1973년까지의 기간에 이 나라에 대한 외국사자본의 투자총액은 13억딸라로부터 30억딸라로 늘었다. 그 가운데서 12억딸라가 미국, 4억 5천만딸라가 영국, 3억딸라가 이딸리아의 투자였다.

이 기간에 외국사자본이 이 나라에서 짜낸 년리윤은 4천만딸라로부터 3억 8천만딸라로 불었다. 아르헨띠나 공업총생산액에서 외래독점회사들이 차지한 몫은 8%로부터 40%로 늘었다. 이 기간에 가장 큰 기업소 100개 가운데서 미제를 비롯한 외래독점체들의 회사는 74개에 달하였다. 특히 미제독점자본은 야금공업, 가공공업, 자동차공업, 석유화학공업 등 중공업뿐아니라 고기랭동, 방직, 담배, 식료 공업과 같은 경공업, 금융분야에까지 깊이 침투하였다.

공업은 국민총생산액에서 44%정도 차지하는데 주요공업부문은 야금, 기계제작, 석유가공, 화학, 세멘트, 자동차, 방직, 고기가공 및 랭동, 제분, 식료(뻐터, 치즈, 포도주), 사탕 공업 등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무질서한 투자로 인하여 공업배치와 구조에서 불균형이 심하며 공장들은 주로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공업기업소의 절반이상)와 꼬르도바, 로싸리오, 라 쁠라따 등 큰 도시들에 몰켜있다.

현정부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경제적예속을 가시고 민족경제를 추켜세우기 위한 경제의 《아르헨띠나화》를 위하여 일련의 진보적조치를 취하였다.

국영경제부문을 강화하고 외국자본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국내에서 외국자본투자를 조절할데 관한 법령에 의하면 리윤의 반출은 자본의 12.5%까지로 제한하였다. 수출가능성이 제한되여있는 부문들과 나라의 방위 및 안전과 관련된 부문들, 전력및가스 생산과 관련된 부문들, 국영경제부문과 농업 및 림업에서는 외국자본과의 합영회사창설을 금지하였다.

이밖에도 민족은행들이 지방기업소들에 융자를 해줌으로써 외래독점회사들이 지방재정원천에 손을 뻗치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를 리행하기 위하여 1967~1969년기간에 외국독점자본의 수중에 넘어갔던 7개의 큰 국내은행들을 1973년에 국유화하였다.

1973년에 흑색야금, 화학, 방직, 자동차, 식료 공업 부문의 생산액은 늘었으나 채취공업은 그전해에 비하여 5.1% 줄었다.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가 줄었다. 석유와 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1974년 8월에 석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와 분배체계를 모두 국유화하여 국영석유회사에 넘겨주었다. 이 조치로 이 나라에서 석유제품판매량의 46%까지를 틀어쥐고있던 미제의 《스탠다드 오일 캄파니 오브 뉴저시》를 비롯한 제국주의독점회사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 엔쎄나다에 년산 20만 2천여톤능력의 새 석유화학공장이 일떠섰다. 국영석유산지들이 정비되고 새 석유 및 가스 산지들이 탐사되였다. 결과 1974년 1.4분기에 136개의 유정들이 뚫어졌으며 대륙붕에서 석유채취계획이 수행되고있다. 1974년 첫 9개월간에 천연가스생산량은 1973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10% 늘었다. 4월에 라 만딜시와 마르 델 쁠라따시를 련결하는 천연가스관(매일 250만립방메터수송)이 부설되였다.

《민족광업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하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힘쓰고있다. 파촌지역에서는 해마다 10만톤의 동을 캐낼수 있는 동매장지가 발견되였다. 마드린지방에는 하루 200톤 생산능력의 첫 보크사이트공장이 조업하였다.

민족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 의하여 1974년 상반년기간에 공업총생산액은 6.1% 늘었다.

1973년 12월에 나라의 경제발전방향을 규정하는 《1974~1977년기간의 민족부흥및해방 3개년계획》이 채택되였다. 이 계획에 의하면 년평균 국민총생산액은 7.5% 늘일것을 예견하고있다. 이것은 1961—1973년기간의 평균지표인 3.6%를 2배이상 릉가하는 수자이다.

아르헨띠나는 세계적인 농산물과 축산물 생산국의 하나로서 농업이 국민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몫은 15%에 불과하지만 수출총액에서는 농산물과 축산물이 90%를 차지한다.

농업은 크게 밀, 강냉이, 수수, 호밀, 귀밀, 감자, 아마, 해바라기, 땅콩, 목화, 사탕수수, 담배 등의 농산업과 소, 양, 돼지, 말을 방목하는 목축업으로 갈라볼수 있다. 라 쁠라따평원과 빠따고니아평원을 끼고있는 이 나라는 전령토의 70%가 넓은 평원지대이므로 부침땅과 방목지가 여기에 집중되여 있다. 특히 대초원인 《빰빠스》는 소를 비롯한 집짐승의 방목지일뿐아니라 여기에는 밀과 강냉이 밭이 많다. 그러나 농촌주민의 5%에 불과한 대지주놈들과 미제를 비롯한 외래독점체들이 토지의 74%를 거머쥐고있다.

이 나라는 1960년대말과 1970년대초에 세계 아마씨생산량의 25%(사회주의나라들은 제외), 소고기생산의 7.5%, 밀생산의 4%를 차지하였다. 이 나라의 알곡, 식물성기름, 고기, 양털의 수출관계는 자본주의세계시장의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 1973—1974농업년도에 알곡총생산량은 2천 560만톤에 달하였다. 그중 밀은 650만톤, 강냉이는 990만톤, 수수는 596만톤 생산하였다. 같은 기간에 밀은 297만톤, 강냉이는 403만 2천톤, 수수는 206만 2천톤을 수출하였다. 1973—1974년도의 밀씨붙임땅은 430만정보였다. 그밖에 약 78만톤의 사과, 150만톤의 감귤류, 150만톤의 사탕가루, 64만톤의 아마씨, 22만톤의 해바라기씨, 40만톤의 목화, 7만톤의 담배, 10만톤의 마떼차가 생산되였다. 1973년 12월에 엔뜨레 리오스주에서 이전 반동당국이 미국놈회사와 맺었던 예속적인 협정을 무효로 하고 3만 3천헥터의 땅을 되찾았다.

소마리수는 1973년에 전해보다 4.7%늘어 6천만마리에 달하였다. 같은해에 고기수출은 1972년의 59만 7천톤으로부터 49만 2천톤으로 줄었다. 그러나 국제시장에서 소고기값이 오른 결과 여기에서 얻은 수입은 1972년의 6억 8천 380만딸라로부터 1973년에 8억 300만딸라로 늘었다.

주요수출품은 농산물(밀과 밀가루, 강냉이)과 축산물(고기, 양털, 가죽, 기타)이 90%를 차지하며 기계설비, 수송수단(수입의 30%) 그리고 금속, 연료 등을 수입한다. 1973년의 수출총액은 30억 5천만딸라였다. 주요무역대상국은 미국, 이딸리아, 서독, 영국 등이 였으나 점차 제3세계나라들과의 무역도 확대하고있다.

주민의 97%가 구라파이주민의 후손들인 크레올(백인)이다. 원주민인 인

디안은 1970년현재 인구의 1%인 36만명이였다.

공용어는 에스빠냐말이며 천주교가 국교이며 주민의 90%가 천주교를 믿는다.

1974년에 정부는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상품의 공급과 가격의 통제를 실시하였다.

새 로동법(9월)을 발포하여 녀성근로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며 로동조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인종, 신앙, 사상적 요인에 의한 차별대우를 없애게 하였다. 통화팽창이 완화되였다.

반동세력의 파괴행위로부터 교육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라지오 및 텔레비죤 방송의 음악프로에서 민족음악을 장려할데 대한 법령도 발포되였다. 반면에 썩어빠진 미국식생활양식을 설교하는 미국텔레비죤영화의 상영을 금지하였다. 큰 출판기업체인 《꼬떽스》가 국유화되였으며 모든 주들에 출판보도국이 나왔다.

출판보도; 통신 중앙통신(1973년 9월에 창설)

신문 누에스뜨라 빨라브라(공산당기관지), 노띠시아스, 끄로니까, 오삐니온, 라 쁘렌싸

방송 아르헨띠나국립방송, 아르헨띠나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6월 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7년 7월 8일에 아르헨띠나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3년 12월에 두 나라간에 통상협정이 체결되였다.

1974년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아르헨띠나소년대표단, 아르헨띠나기자대표단, 아르헨띠나국회대표단을 각각 접견하시였다.

8월 19일 접견석상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보내는 아르헨띠나공화국 대통령의 친서와 선물을 아르헨띠나소년대표가 정중히 전하여 드리였다.

접견석상에서 대표단 단장은 자기들은 조선에 머무르는 동안 일생에 잊지 못할 좋은 인상을 받고 돌아가게 된다고 하면서 자기 대표단이 조선을 방문할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자기들의 생활에 대하여 그처럼 따뜻한 관심을 돌려주시는 김일성주석님께 충심으로부터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날 대표단 전체 성원들에게 귀중한 선물을 주시였다.

같은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조선소년단원들과 아르헨띠나소년들의 련환모임이 있었다.

9월 18일 접견석상에서 아르헨띠나기자대표단은 존경하는 김일성주석각하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하심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하나의 모범적인 나라로 일떠세우시였다고 말하였다.

손님들은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학설은 조선뿐아니라 전세계에서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학설이며 제3세계인민들은 주체사상을 필요로 하고있다고 하면서 돌아가면 라틴아메리카에서와 그리고 자기들이 가는 모든곳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널리 선전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대표단이 제기한 일련의 질문에 대답을 주시였다.

10월 19일 접견석상에서 아르헨띠나국회대표단 단장은 수령님께 보내는 아르헨띠나대통령의 인사와 아르헨띠나인민이 조선인민에 대하여 품고있는 친선의 정을 전하여드리였다.

대표단 단장은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창시하신 사상에 동감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이번 방문기간 주석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재건을 위한 투쟁에서 조선인민이 이룩한 성과들을 직접 보았으며 특히 조선이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소유하고있다는것을 잘 알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이해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들을 묶은 문헌집 《당건설에 대하여》를 《쎄삐》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문헌집에는 《당단체들의 조직사업에서의 몇가지 결함들에 대하여》, 《당조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당의 조직적사상적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의 총화에 관하여》, 《당원들 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가 수록되여있다.

1973년 5월에 뻬론장군의 부인이며 전국정의운동 부위원장인 이싸벨 마르띠네스 데 뻬론(현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이 운동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9월에는 아르헨띠나정부친선대표단이, 1972년 10월에는 아르헨띠나공산당대표단이, 1971년에는 아르헨띠나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1973년에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5월과 10월), 정부무역대표단(12월)이 아르헨띠나를 방문하였다.

칠 레

(칠레공화국)

넓이 75만 6,945Km²
인구 1천만명(1974년 2월)
수도 싼띠아고(주민 258만 6,000명, 1970년)

정 치

군사위원회 1973년 9월 반동적군사정변후 파쑈군사도당이 륙해공군, 경찰 사령관들로 구성, 《립법권》을 행사, 위원장(군총사령관) 삐노체뜨

민족회의(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 원수는 50명, 임기는 8년인데 4년에 절반씩 개선, 하원의원수는 150명이며 임기는 4년, 1973년 9월 군사정변이전에 상원에서 인민통일련합은 20석(공산당 9석, 사회당 7석, 급진당 2석, 사회민주당 1석, 좌익기독교당 1석), 기타 정당은 30석(기독교민주당 19석, 민족당 8석, 좌익급진당 3석)을 각각 차지, 1973년 9월 파쑈군사도당이 국회를 해산

정부 인민통일정부는 1970년 11월부터 1973년 9월 11일까지 집권, 군사정변후 삐노체뜨도당이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1974년 6월 25일에 《군사위원회》는 삐노체뜨놈을 이른바 《국가원수》로, 12월 17일에는 《대통령》으로 임명

정당, 사회단체; 군사정변후 파쑈군사도당은 모든 진보적정당과 사회단체활동을 금지, 그러나 지하에서 활동을 계속하고있으며 광범한 반파쑈전선을 형성, **공산당** 1922년 1월 22일 창건, 현재 비법화되였으나 지하활동 계속, 총비서 루이스 꼬르발란(현재 옥중에 있음), **사회당** 1933년에 창건, 총비서 까를로스 알따미라노 오레고, **사회민주당, 급진당, 《인민통일련합》** 1969년에 창건된 진보적통일전선체로서 공산당, 사회당, 사회민주당, 인민통일행동운동, 독립인민운동 등이 망라, **로동자농민통일행동운동당, 《좌익혁명운동》, 기독교민주당** 1957년에 무어진 반동적인 정당, **민족당, 인민사회동맹, 근로자통일로조중앙** 1953년에 결성된 진보적로조, **공산주의청년동맹, 사회주의청년동맹, 녀성련맹**

1541년부터 근 300년간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었던 칠레는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1810년 9월 18일 독립하였으며 1818년에는 공화국으로 되였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적침투를 강화한 미제는 《원조》와 《차관》을 미끼로 칠레의 주요경제명맥들을 틀어쥐였다.

1964년 9월에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공산당, 사회당을 포함한 민주력량은 《인민행동전선》을 뭇고 미제의 부추김을 받는 반동세력과 치렬한 선거전을 벌렸다. 선거투쟁과정을 통하여 《인민행동전선》은 광범한 근로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그후 1970년 9월 대통령선거에서 공산당, 사회당을 포함한 6개의 진보적정당들의 련합전선인 《인민통일련합》의 공동립후보 쌀바도르 알옌데(사회당출신)가 승리하여 그해 11월 3일 그는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알옌데를 수반으로 하는 인민통일정부는 칠레의 자주적발전을 가로 막는 기본질곡인 미제와 국내독점자본의 지배를 끝장내고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회경제적개혁을 실시하였다.

인민통일정부는 우선 미제독점체들이 장악하고있던 동광산과 은행들을 비롯하여 국내자본가놈들의 중요 공장, 기업소들을 국유화하고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단호한 혁명적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함께 인민통일정부는 일련의 새로운 민족공업을 창설하였으며 반동지주놈들에게서 몰수한 땅으로 협동조합을 조직하는 등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였다.

인민통일정부는 대외정책분야에서도 견결한 반제자주적립장을 견지하였다. 미제의 온갖 압력과 위협을 물리치고 우리 나라를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과 주동적으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반면에 정부는 미제독점자본가놈들을 칠레땅에서 내쫓았고 1971년 1월 8일 3개의 미제공군기지를 없애버렸다.

칠레땅에서 일어나고있는 이와 같은 변혁들과 날로 커가는 그 영향력에 질겁하여 미제와 국내우익반동세력들은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1973년 9월 11일 칠레에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직접적부추김밑에 친미극우익 군부와 경찰놈들이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인민통일정부를 전복하였으며 강도적방법으로 정권을 가로챘다. 칠레반동들은 군사정변의 주모자인 삐노체뜨란놈(당시 륙군사령관)을 우두머리로 하는 《군사위원회》를 조작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을 비법화하였다. 수만명의 애국자들에 대한 피비린내나는 학살만행을 감행한 파쑈교형리들은 온 칠레땅을 하나의 《감옥》으로 전변시켰다.

1974년에 칠레의 군사불한당놈들은 나라를 피바다속에 잠그고 인민통일정부가 지난 3년간 이룩하여 놓은 혁명의 전취물을 무참히 짓밟았으나 칠레인민은 일시적시련을 극복하면서 세계 광범한 인민들의 지지밑에 군사파쑈통치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렸다.

놈들은 비법적인 《재판》놀음을 벌려놓고 수많은 애국자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5월초에는 칠레공산당 총비서 루이스 꼬르발란을 비롯하여 인민통일정부의 부장들을 도쏜섬에서 수도 싼디아고에 올려다놓고 이들에 대한 《재판》을 벌리였다. 70여개나 되는 《수용소》들에는 2만 6천명의 애국자들이 갇혔다. 5월부터 8월사이에만도 700여명에 달하는 무고한 인민들을 이른바《정치적협의》로 체포구금하였다. 군사도당은 테로와 폭압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탄압수단으로써 6월에 《국가정보국》을 조작하였으며 그밖에도 여러가지 이름을 띤 파쑈단체를 꾸며냈다. 공장, 기업소들마다에 무장인원들을 배치하고 로동자들을 감시하는 체계를 수립하고 공산당과 사회당 기관지를 비롯한 일체 진보적출판물의 발행을 금지한 파쑈군사도당은 지어 제놈들이 승인한 몇개 안되는 우익출판물마저 엄격한 검열제를 실시하였다.

1월 21일에 삐노체뜨도당은 아직 두었던 우익정당들의 활동까지 공식적으로 금지하였다. 파쑈군사도당의 우두머리 삐노체뜨가 6월 20일 칠레에서 《계엄상태》를 무기한 연장할것이라고 줴친데 뒤이어 파쑈폭압만행은 일층 강화되였다.

파쑈군사도당은 인민통일정부시기에 국유화하였던 공장, 기업소의 대부분인 약 300개를 자본가놈들에게 되돌려주었다. 놈들은 이 나라에서 오래동안 생산을 독점하고 무제한한 리윤을 짜낸 미제독점회사들인 《케네코트》,《아나콘다》, 《쎄로》회사들에 《보상금》을 주기로 하였다(인민통일정부시기에는 국유화한 동광산들에 대한 미제의 《보상금》요구를 거절). 《아나콘다》회사에만도 2억 5천 100만딸라의 《보상금》을 주기로 하고 1974년 7월말현재 6천 500만딸라를 지불하였다. 일부 공장, 기업소들은 되돌려주고 운영하여 줄것을 애걸하였다.

군사불한당놈들은 인민통일정부가 몰수하였던 3천 500여개의 령지를 대지주놈들에게 되넘겨주었다. 그밖에도 놈들은 외국자본이 참가할수 있는 은행들을 설치함으로써 칠레는 완전히 미제를 비롯한 외래독점자본의 투하지로 변하였다.

이해 12월에 군사도당은 1975년도 군사비로 1974년(2억 7천 400만딸라)의 2배에 달하는 5억 2천 300만딸라를 배당하였다. 미제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칠레인민들의 투쟁을 탄압말살하려고 미쳐날뛰고있는 칠레파쑈군사도당에게 《원조》의 미명밑에 1974회계년도에 2천 20만딸라의 살인무기들과 기타 군수물자들을 넘겨주었으며 1975회계년도에는 무려 8천 600만딸라분을 주기로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곳에서는 반드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며 압제자들의 폭압이 강화될수록 그에 항거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조직화되고 완강하여지는 법입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121페지)

칠레에서 반동적군사정변후 누가 진짜 인민의 원쑤인가를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잘 알게 된 칠레인민은 폭압과 테로를 박차고 미제의 부추김을 받는 파쑈군사정권을 뒤집어엎기 위하여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화하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공산당과 사회당을 비롯한 《인민통일련합》에 들어있던 정당들의 활동이 지하에서 맹렬히 전개되였다. 근로자통일로조중앙이 근로자들을 파업투쟁에로 쉬임없이 불러일으켰다.

집단수용소에 갇힌 칠레공산당 총비서 루이스 꼬르발란은 브라질의 한 잡지기자와의 담화에서 《공산주의사상은 말살할수 없다. 이것은 근로자들의 원쑤, 인민의 배신자들이 공산주의사상을 없애려고 날뛸 때마다 실증되였다》고 말하면서 칠레에서 혁명승리의 확신성을 표시하였다.

2월에 칠레근로자통일로조중앙 전국지도리사회는 성명에서 《칠레근로자통일로조중앙은 살아있다. 칠레에는 근로자통일로조중앙 이외에 다른 전국적인 근로자조직이란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고 지적하였다.

3월에 칠레사회당 총비서 까를로스 알따미라노는 성명에서 행동통일은 투쟁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라고 하면서 사회당과 공산당을 비롯한 진보적정당들의 행동통일을 날과 더불어 더욱 강화하고 보다 높은 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칠레급진당은 6월에 성명에서 칠레군사정변의 사촉자, 조작자, 재정공급자는 미제라고 준렬히 규탄하고 모든 민주력량과 반파쑈력량, 애국자들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것이 파쑈군사정권의 탄압책동에 대처하기 위한 근본요구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앞서 5월 24일 인민통일행동운동은 파쑈군사정권을 뒤집어엎기 위한 통일전선을 뭇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 이 운동의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리하여 칠레에서는 광범한 반파쑈전선이 결성되였다. 반파쑈전선에는 《인민통일련합》안의 모든 정당들이 참가하였다. 이전에는 인민통일정부를 지지하지 않았던 《좌익혁명운동》과 기독교민주당안의 애국적기분을 가진 사람들, 각계각층 주민들까지 항쟁운동을 벌리는데 합류하였다.

1974년에 국내의 지하에서는 《민주주의항쟁운동》, 《칠레항전애국전선》과 《전국항쟁리사회》 등 여러가지 이름을 가진 항쟁조직들이 과감히 활동하였다. 신문 《엘 씨글로》, 《라 리베라씨온》과 통신불레찐이 여러 도시들과 지역들에 배포되였다. 시위와 태업, 파업 등 근로자들의 대중적인 투쟁이 일층 강화되였는데 파쑈군사도당이 정권을 가로챈 후 1년동안에 무시무시한 폭정밑에서도 약 200건의 파업이 일어났다.

이해에 칠레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은 제3세계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모든곳에서 힘차게 벌어졌다.

경제, 사회문화

칠레는 경제적특성에 따라 북부는 광산지대, 중부는 농산지대, 남부는 축산지대로 나뉜다.

중부지대에 가공공업의 대부분이 집중되여있으며 경제에서 광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동매장량은 세계 제1위, 그 생산량은 2~3위이다. 이 나라 특산물인 초석(천연질소비료원료)은 세계생산량의 95%, 요드는 90%를 각각 차지하며 그밖에 철광석, 석탄, 석유와 기타 희유금속들이 난다. 동은 국민소득의 4분의 1, 대외수출품의 80%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두개의 미제독점회사가 이 나라 동생산의 90%이상, 그 수출의 60%, 초석채굴의 75%, 금속공업의 대부분을 장악하고있었다.

인민통일정부가 수립된후 3년동안에 미제독점회사가 틀어쥐고있던 동을 비롯하여 초석, 철광석, 석탄 등의 광산들과 탄광들, 야금, 세멘트, 방직, 수산물가공 공장들을 국유화하였다. 국유화조치는 공업분야에서뿐아니라 상업, 금융 등 경제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였다.

그러나 파쑈군사도당은 인민통일정부가 국유화하였던 공장, 기업소와 은행들 가운데서 약 300개를 이전 착취자들에게 되돌려주었다.

1974년에 군사도당의 반인민적정책으로 하여 공업은 자기 능력의 20%도 내지 못하였다. 1974년에 전해에 비하여 생산이 가죽이김공업에서는 23.5%, 방직공업에서는 6.2%, 담배공업에서는 6.4% 떨어졌다. 채굴공업도 쭉 줄었다.

인구의 3분의 1이 농업부문에서 일하나 국민총생산액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몫은 20%에 불과하다. 1천 100만헥터의 부침땅이 있으나 실지 리용되고있는 씨붙임땅은 260만~270만헥터밖에 안된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강냉이, 감자, 사탕무우, 당콩 등이며 식량의 막대한 량을 수입에 의존한다.

인민통일정부가 몰수하였던 약 300만헥터의 땅이 대지주놈들에게 다시 넘어갔다.

주요수출품은 동, 쇠돌, 초석, 요드, 물고기가루 등이며 수입품은 기계, 설비 및 운수기재, 공업원료, 식량, 연료 등이다.

주민구성은 혼혈인이 66%, 백인이 25%로서 기본을 이루며 인디안은 3%(약 35만명)이다.

국어는 에스빠냐말이며 주민의 근 90%가 천주교도들이다.

파쑈군사도당이 집권한 후 대학생의 35%, 교수 및 교원의 40%이상을 체포하였다. 또한 놈들은 2만 5천명의 대학생들을 출학시켰으며 300여명의 교수와 대학교원들을 해고하였다. 대학들에서는 사회과학강좌를 없애버렸고 인민통일정부시기 만들어진 교과서들에 대한 이른바 《정리》놀음을 벌렸다.

놈들의 폭압소동에 의하여 7만 2천여명의 고아들이 거리를 방황하게 하였으며 실업자수는 전체 로동능력을 가진 인구의 9.6%(1974년 12월현재)에 이르렀다.

1974년 상반년동안에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1973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60% 떨어졌다. 반면에 반동군인들의 봉급은 3배이상 올랐다. 파쑈군사도당의 이러한 반인민적정책에 의하여 220만명의 근로자들이 빈궁에 시달리고있다.

군사도당이 집권한 이후 1974년까지 민족화폐 에스꾸도의 가치가 계속 떨어졌는데 1974년 12월에는 그 가치가 13.6% 떨어졌다. 그리하여 1딸라당 1천 100에스꾸도로 내려갔다.

197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여러가지 물건값이 뛰여올랐는데 쌀값은 1천~2천%, 빵, 식물성기름, 사탕값도 2천%까지 올랐다.

이해 첫 11달동안에 생계비는 91.4%, 첫 10달동안에 생활필수품값은 18배 뛰여올랐다.

출판보도; 반동적군사정변후 일체 진보적출판물들의 발행이 금지되였다.

신문 엘 씨글로(공산당기관지—지하에서 발간), 울띠마 오라(사회당기관지), 라 리베라씨온(민주주의항쟁운동기관지—지하에서 발간), 라 나씨온(정부기관지), 라 떼르쩨라 떼라 오라(합법적으로 발간되는 우익계 신문), 쎄군다(합법적으로 발간되는 우익계 신문)

방송 칠레방송, 칠레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6월 1일 우리 나라와 칠레인민통일정부사이에는 대사급 외교관계가 맺어졌으며 이에 앞서 1970년 11월에는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칠레에 설치되였었다. 1972년 6월 15일에는 두 나라사이에 경제및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었다.

칠레인민은 1962년 8월 13일 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를, 1971년 7월 21일에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칠레위원회를 각각 결성하였다.

1973년 9월 11일 군사정변후 우리 나라 외교부는 칠레에서 파쑈적인 반동세력이 권력을 행사하는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9월 18일부터 칠레와의 국가적관계를 중단한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1974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 머무른 칠레사회당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이 당대표단(7월 19일), 칠레로동자농민통일행동운동당 부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이 당대표단(9월 2일)을 각각 접견하시였다.

칠레사회당 총비서는 7월 21일 김일성고급당학교에서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교원, 학생들앞에서 강연을 하였다.

강연회에서 그는 조선로동당과 마찬가지로 칠레사회당은 앞으로 모든 문제를 자신의 머리로 사고하여야 하며 모든것을 기본적으로 자신의 힘에 의거하여야 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고 강조하고 그는 조선로동당과 마찬가지로 칠레사회당은 자주성을 가지고 사회주의나라들과 함께 있을것이라고 말하였다.

7월 22일 칠레인민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지지하는 평양시민들의 련대성군중집회에서 칠레사회당 총비서는 자

기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가 정권을 쥐고있으면서 귀국을 처음으로 방문하였을 때에도 친절하게 맞이하여주시였지만 우리가 우리 조국을 제국주의와 파시즘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싸우고있는 혁명가의 자격으로만 온 이번에도 우리를 더 따뜻하게 환영하여주시였으며 보다 큰 배려를 돌려주시였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혁명가이신 그이께서 실패한 동지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을 때 그들에게 돌려주시는 또하나의 국제주의적인 표시로 됩니다.》

바베이도즈

넓이 423Km²
인구 24만명(1972년)
수도 브리지타운(주민 10만 5,000명)

까리브해의 소안띨제도동쪽끝에 있는 섬나라이다.

정 치

총독 국가수반, 총독 위스톤 스코트(1967년 5월—)

국회 총독이 임명하는 립법(상원)의원 21명과 선거되는 하원의원 24명으로 구성, 하원의원의 임기는 5년, 하원에서 민주로동당이 15석, 국민당이 1석, 베이버당이 8석을 차지

정부 각료들은 총독이 임명, 총리 에롤 바로우

정당, 사회단체; 민주로동당 1955년에 조직되였고 집권당, 레이버당 1938년에 조직, 국민당, 바베이도즈로동자동맹, 바베이도즈공무원동맹

1625년에 바베이도즈를 식민지로 만든 영국식민주의자들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끌어다가 밀림을 개척하고 사탕수수재배를 강요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까리브해지역의 저들의 식민지섬들에서 반영투쟁이 앙양되자 영제국주의자들은 1958년에 바베이도즈를 포함한 영령 식민지들로써 《서인도련방》을 꾸며냈다. 1961년 10월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내부자치권》을 얻었다. 1966년 11월 3일에는 영제국주의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바베이도즈는 1966년 11월 28일 영제국주의자들의 339년간의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영련방성원국으로 독립하였다. 같은해에 이 나라는 유엔에 가입하였다.

1972년 10월 14일 미제의 압력을 물리치고 꾸바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정부는 1974년 12월 23일 자기의 정규군대를 가지기로 결정하였다.

민족적자주권을 수호하고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 나라는 까리브해지역 영련방성원국들과 함께 1973년 8월 1일 까리브공동체와 까리브공동시장을, 1974년 11월 27일 20개 라틴아메리카나라들과 함께 사탕생산국기구를 창설하고 지역적협조를 강화하고있다.

1974년 1월 바베이도즈의 수도 브리지타운에서 까리브공동체의 4개 나라들이 경제적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회의에는 성원국인 바베이도즈, 가이아나, 자메이카의 총리들과 트리니대드 토바고의 재정부장이 참가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매개 까리브공동체성원국들이 이 지역 나라들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업과 농업 분야에서 지역적 및 국가적 계획을 다그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지역적인 수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까리브공동체의 테두리내에서 수송문제를 다를 각료리사회를 내올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1974년에 바베이도즈의 4천여명의 려관로동자들이 미국놈들의 가혹한 착취를 반대하고 임금인상과 로동시간의 단축을 요구하여 파업투쟁을 벌리였다. 이 나라 려관의 대부분은 미국놈들이 틀어쥐고있다.

이해에 리베리아대통령이 11월 6일부터 3일간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제국주의자들의 오랜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말미암아 경제발전이 뒤떨어져있다. 경제의 기본은 사탕수수재배를 위주로 하는 농업이다. 2만 1천헥타의 부침땅가운데서 1년에 120만톤정도의 사탕수수를 걷어들이고있다. 년간 사탕생산량은 14만톤정도이다. 사탕과 그리고 사탕을 주원료로 한 당밀, 럼술 등은 이 나라 외화수입의 90%를 차지한다.

집짐승으로서 소(10만마리), 양(2만 3천마리), 돼지, 염소를 기른다. 물고기는 해마다 180만폰드가량 잡는다.

관광업을 통하여 무역적자의 많은 부분을 메우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사탕, 당밀, 럼술이며 수입품은 식량, 기계류, 화학제품 등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영국, 미국, 카나다였으나 1973년 8월에 까리브공동체와 까리브공동시장이 창설된 이래 이 지역나라들간의 호상협조를 강화하는데로 나가고있다.

주민구성은 흑인 77%, 혼혈인 18%, 백인 5%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영국말이다.

보통교육부문 학교들이 여러개 있으나 대학은 1개뿐이다. 종교적으로는 영국교회파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출판보도; 신문 비컨(레이버당 및 로조기관지), 바베이도즈 뉴스, 바베이도즈 옵써버, 르루즈

방송 바베이도즈방송, 까리브해안텔레비죤방송

바 하 마

(바하마련방)

넓이 1만 1,405Km²
인구 19만 5,000명(1971년)
수도 나쏘(주민 10만명)

꾸바와 아이띠섬 북쪽의 대서양상에 약 700개의 섬들과 2천 400여개의 작은 섬과 암초들로 이루어진 군도이다.

정 치

의회 상하량원제, 상원은 16명, 하원은 38명

정부 총리 린든 오. 핀들링(1967년—)

정당, 사회단체; 진보자유당 1972년 총선거에서 승리하여 현재 집권당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있다가 1973년 7월 10일 바하마는 독립을 쟁취하고 나라이름을 바하마련방으로 고쳤다. 독립을 선언하면서 이 나라 총리는 바하마국기가 올라간것은 《전체 바하마사람들이 새 시대에 들어간 징표》라고 말하였다.

1974년 11월 30일 꾸바와 대사급(비상주)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관광업과 과일을 주로 재배하는 농업이 기본이다.

관광업은 나라의 재정수입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데 해마다 100만명이상의 관광객을 받아들이고있다.

농업부문에서는 도마도, 바나나, 파인애플, 귤 등 수출용 과일재배에 치중하고있다. 식량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한다.

과일, 소금, 물고기, 목재를 수출하며 식량과 공업제품들을 수입한다.

주민구성에서 흑인이 86%를 차지하며 그밖에 백인들이 산다. 영국말이 공용어로 쓰인다.

출판보도; 신문 오피셜 가제트(정부계)

방송 바하마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구 라 파

정세개관

1974년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구라파땅에서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린 한해였다.

핀란드, 스웨리예, 단마르크들에 조직된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들을 비롯하여 구라파 여러 나라들에 조직된 연구소조 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정력적으로 연구하는 소조활동을 정상화하고있을뿐아니라 위대한 주체사상을 널리 선전보급하였다. 또한 구라파나라들에 있는 많은 나라 류학생들과 사회계인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연구소조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연구학습하게 된 크나큰 영광을 금치 못하였다.

연구소조 성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과 그이의 혁명력사의 중요기념일, 로작발표기념일들을 계기로 성대한 축하모임과 연구발표모임, 연구토론회들을 가지였다.

이해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많은 나라 출판물들과 출판사들이 앞을 다투어 싣거나 출판하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유고슬라비아신문 〈웨체르니예 노보스띠〉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이딸리아공산당기관지 〈우니따〉지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전구라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북구라파의 스웨리예, 핀란드, 노르웨이, 단마르크, 이슬란드, 서구라파의 프랑스, 영국, 남구라파의 이딸리아, 중구라파의 스위스, 오지리 등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구라파적판도에서 지심깊이 뿌리를 내리고 힘있게 울렸다.

1974년에 만수대예술단이 벌가리아, 로므니아, 알바니아를, 평양예술단이 이딸리아를 방문하여 온 구라파땅에 주체조선의 예술을 힘있게 시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문예사상의 빛발과 당중앙의 천재적령도아래 찬란히 개화발전한 주체예술을 본 벌가리아사람들은 《존경하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적문예로선의 빛나는 열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현대종합예술의 완성이며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최대의 모범이며 단연 세계적인 걸작》이라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세계에 이름난 주체조선의 만수대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은 로므니아와 알바니아에서도 폭풍같은 반향과 대절찬을 불러일으켰다. 공연을 본 관람자들은 《조선예술은 과장없이 최고봉에 오른 완전무결한 예술》, 《만수대예술단의 공연은 정치사상성에 있어서나 예술성에 있어서 대기념비적공연》(로므니아), 《조선예술은 혁명하는 인민, 전진하는 인민만이 창조하고 즐길수 있는 예술》, 《조선예술은 혁명적인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위한 참다운 예술의 모범》(알바니아)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이딸리아공산당기관지 《우니따》 창간 50돐기념축전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딸리아를 방문한 평양예술단은 축전도시 볼로냐의 로동계급과 시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와 대절찬속에서 《우니따》축전의 전기간을 빛나게 장식하였다. 평양예술단이 무대에 올린 혁명적이고 인민적이며 황홀하고 우아한 주체예술은 관람자들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았다.

실로 이해는 전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이 반제반미투쟁의 한전호속에서 부르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알프스산줄기를 진감하며 아드리아해와 지중해, 흑해의 검푸른 물결을 타고 지나 구라파땅에 멀리멀리 울려퍼진 한해였다.

1974년에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구라파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당 및 정부 대표단, 근로단체대표단, 경제대표단, 교육, 문화, 예술 대표단들이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은 핀란드공산당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대표단, 노르웨이사회인민당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대표단, 노르웨이공산당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대표단, 노르웨이사회민주당대표단, 프랑스공산주의청년운동 총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이 운동대표단들은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고 돌아갔다.

이해에 우리 나라에서도 당 및 정부대표단을 비롯한 수많은 대표단들이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과 기타 나라들을 방문하여 이 지역나라 인민들과의 사이에 친선협조와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세계의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우리 나라와의 국가적 및 우호적 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였다. 이해에 오지리(12월 12일), 스위스(12월 20일)가 우리 나라를 승인하고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이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의 발전에 또 하나의 새로운 계기를 열어놓았다.

구라파의 광범한 사회계와 학계인사들은 1974년 12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을 위한 구라파위원회를 결성하고 이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 나라를 정식 승인하도록 하기 위한 광범한 운동을 벌릴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국민회의 의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경제, 문화 관계발전을 위한 연구 및 친선그루빠(10월 19일)를, 참의원 의원들은 프랑스조선친선그루빠(12월 10일)를, 벨지끄에서는 벨지끄조선친선협회(9월)를 무었다.

《이딸리아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승인하라!》,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는 물러가라!》는 목소리는 이딸리아공산당기관지 《우니따》 축전폐막행사에 참가한 이딸리아 공산당원들과 로동계급들만이 아니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구라파의 대다수 나라들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위업에 한결같은 지지를 표시하여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이 성명을 냈으며 군중집회, 사진전시회, 군중시위들이 있었다. 수많은 출판물들은 글을 실었다. 스웨리예의 수도 스톡홀름 근로자들은 《미군은 남조선에서 물러가라!》, 《조선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라고 쓴 구호판을 들고 반미시위를 벌리면서 미제를 준엄히 규탄하였다.

다른 한편 구라파나라 인민들은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애국적민주인사들을 학살탄압하고있는 박정희괴뢰악당의 야수적폭압만행을 단호히 항의규탄하였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물론 스웨리

에총리, 핀란드총리, 단마르크 외교부, 그밖에 여러 나라 정당, 사회단체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의 피비린내나는 야수적만행을 강력히 단죄하였으며 단마르크의 수도 꾀뻰하븐의 각계층 인민들은 항의규탄시위를 벌렸다.

이해는 실로 우리 인민들과 구라파 사회주의나라 인민들 그리고 서구라파 로동계급과 혁명적인민들 사이의 전투적친선단결과 련대성을 힘있게 시위한 한해였다.

심화된 서방세계의 위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제국주의세계는 제2차세계대전이래 가장 심각한 경제파동을 겪고있으며 전면적인 위기에 부닥쳐 더욱더 허덕이고있습니다》(《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단행본, 8페지)

1974년에 미국을 포함한 서방자본주의세계가 겪은 동력위기에 극심한 재정금융위기, 전례없는 통화팽창과 물가폭등, 파국적인 생산감퇴와 실업사태, 거기에 식량위기까지 겹친 경제파동은 제국주의의 전면적위기를 가일층 심화시켰다. 1973년 12월부터 전후 여섯번째의 위기에 빠진 미제를 비롯한 서방자본주의세계경제는 이해에 건잡을수 없이 뒤흔들려 몸부림쳤다.

미국경제의 《3대기둥》을 이룬다는 자동차, 강철, 건설 공업부문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그와 련관된 다른 공업전반에 파국적인 영향을 미쳤다. 심각한 연료위기에 빠진 영국에서는 1974년에 전국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한주일에 3일만 일하는 이 나라 력사상 전례없는 《비상조치》가 취해졌다. 그리하여 영국의 강철생산은 1974년에 그 전해에 비하여 15%, 자동차 생산과 판매량은 12%와 25% 각각 줄었다. 서독에서는 연료부족으로 석유를 쓰는 화력발전소건설의 중지, 새로운 동력자원개발분야에로의 투자의 전환, 다른 종류의 연료에로의 공업과 운수의 적응 등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서독경제의 《기둥》이라는 자동차공업은 1973년에 비하여 1974년에 그 생산량이 3분의 1로, 판매량은 35～40% 줄었다. 프랑스의 자동차생산량은 30% 나 줄었다.

미국과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에서 공장, 기업소들이 경영난에 직면하여 기업체들이 헤아릴수 없이 파산몰락하였다. 1974년에 미국에서는 상반년기간에만도 5천개이상, 영국은 첫 9개월동안에 3천 960개, 서독과 프랑스는 한해동안에 7천 500개와 2천 700개의 중소기업체들이 파산당하였다.

많은 기업체들의 파산몰락은 실업자대렬을 급격히 늘였다. 미국에서는 1974년 한해동안에 200만명이상의 근로자들이 또 일자리를 잃어 년말에 등록된 완전실업자수는 전후최고인 650만명이상에 달하였다. 년말에 프랑스에서는 100만명이상, 서독에서는 근 95만명의 실업자들이 있었다.

심화되고있는 경제위기는 《자본주의경제의 청우계》라고 하는 주식시세를 급속히 떨어뜨렸다. 1974년 12월중순 런던증권시장의 전반적주식시세지수는 1972년 5월의 최고지수에 비하여 72%나 떨어졌다. 이것은 1930년대의 세계경제공황때의 주식시세폭락률인 52%를 훨씬 릉가한것이다. 1974년 12월초에 뉴욕증권시장에서의 주식시세지수도 1973년 1월에 비하여 근 50%나 대폭 줄었다.

미국과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은 제2차세계대전후 가장 엄중한 물가선풍에 휩쓸려들어갔다. 이해에 서구라파반동통치배들은 《물가등귀현상이 전염병처럼 각국에 급속히 퍼져 서방세계를 괴롭히는 가장 큰 난문제》라고 아우성치면서 물가폭등을 막아보려고 헛되이 시도하였다. 1974년 11월의 전반적인 소비자물가지수는 그 전해에 비하여 미국에서는 12.1%(1973년 한해동안은 6.2%), 프랑스에서는 14.9%(7.3%), 영국에서는 18.3%(9.2%), 이딸리아에서는 24.7%(10.8%) 각각 뛰여올랐다.

또한 심각한 재정금융위기로 하여 국가예산적자와 국제수지적자, 국가채무가 늘었다. 미국에서는 1974년 7월부터 11월에 이르는 1975회계년도의 첫5개월동안에만도 련방예산은 그 전회계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근 27억딸라나 더 많은 근 111억딸라의 적자를 냈으며 1974년 첫 9개월동안에만도 107억 8천 100만딸라의 국제수지적자를 냈다. 국제수지적자에 있어서 이딸리아는 1974년에 1973년보다 2배이상인 5조리라에 달하였으며 영국은 1974년 첫 10개월동안에 32억 2천 400만파운드를 기록하였다. 1974년에 프랑스는 30억프랑, 서독은 같은 해 첫 9개월동안에 13억마르크에 달하는 국제수지적자를 냈다.

이러한 적자현상은 금 및 외화 보유액을 급격히 줄게 하고 방대한 빚을 걸어지게 하였다. 미제가 걸머진 국가채무는 1970년이래 1천 70여억딸라나 더 불어나 1974년 11월말에는 4천 805억딸라에 이르러 그 리자지불액만도 년간 약 200억딸라에 달하였다. 영국은 1974년 한해동안에 30억파운드이상의 대외채무를 새로 더 걸머졌으며 년말에 이딸리아는 약 109억딸라, 프랑스는 85억딸라였다.

이와 같은 방대한 규모의 예산적자, 국제수지적자, 국가채무를 메우기 위하여 제국주의반동통치배놈들은 광범한 근로대중에 대한 세금수탈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한 화폐류통량을 초과함으로써 그것은 1972년이래 해마다 10～27%에 이르게 하였다.

1974년에 미국과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산업 및 재정금융 위기와 더불어 농업위기까지 겹쳐 숨가쁜 한해를 넘겼다. 미제가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74년에 알곡생산예상수확은 례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것이라고 아우성쳤다. 그중 례년에 비하여 강냉이는 25%, 콩은 19%, 수수는 21.5% 줄어들고 밀은 약 3천만톤 줄것이라고 하였는데 놈들이 이 예상수확고를 발표한 다음인 10월초에 된서리가 내려 모든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리하여 흉작으로 입은 농작물과 축산물의 피해는 100억딸라이상이나 되였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일부 지역을 휩쓴 《50년래에 있어서 최악의것으로 믿어지는 가물때문에》 농사를 망쳤다. 큰 흉작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은 미제는 《식량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라느니, 《식량과 사료용 알곡을 줄이라》느니 뭐니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결과 미제에 식량을 의존하던 수많은 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식량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이해에 미제를 비롯한 서방세계가 겪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반영하여 미재무장관이란놈은 《지금 미국경제는 제2차세계대전이래의 가장 심각하고 장기적인 침체상태에 빠져있다. 통화팽창률은 미국력사에 있어보지 못한 그러한 높은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미국경제는 확실히 중병에 걸려있다.》고 실토했으며 서독총리는 《일련의 주요자본주의나라들이 경제분야에서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였다고 비명을 질렀다. 미제의 어용신문들도 《지금 서방세계는 1930년대의 대공황 때와 같은 경제위기에 직면하고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파국을 겪을수 있다.》(신문 《뉴욕타임스》), 《서방세계는 제2차세계대전이래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잡지 《비지네스 위크》)고 우는소리를 쳤다. 이러한 아우성과 비명은 서방제국주의자들이 엄중한 경제위기로 하여 얼마나 진통을 겪고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해에 서방제국주의세계는 파국적인 경제적위기를 겪고있는 가운데 심

각한 정치위기를 겪었다. 인민들과 사회여론의 강력한 압력밑에 서방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정권교체놀음이 빈번하였다.

악명높은 전쟁우두머리 닉슨이 《워터게이터사건》으로 대통령자리에서 쫓겨났으며 이딸리아에서는 세번, 영국에서는 두번이나 정권이 바뀌는 등 년간을 통하여 서방세계는 정부위기를 겪었다. 이와 같이 련이어 일어난 정권교체놀음은 서방세계가 직면하고있는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의 산물로써 반동지배층이 그로부터 벗어나보려고 얼마나 궁지에서 모대겼는가를 보여준것이다.

또한 이해에 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에 의하여 미제의 비호밑에 목숨을 이어 나가던 파쑈독재정권들이 련이어 무너졌거나 그 처지가 매우 어렵게 되였다.

뽀르뚜갈에서는 근 50년동안이나 인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짓밟던 악독한 파쑈독재정권이 진보적군인들과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4월에 드디여 거꾸러졌으며 희랍에서는 7년동안이나 정권을 타고앉은 군사파쑈정권이 반파쑈민주력량의 투쟁에 의하여 타도되였다.

이해에 시장과 세력권 쟁탈을 위한 제국주의렬강간의 암투와 대립이 격화되고 서방세계에 대한 미제의 지휘봉은 더욱 약화되였다. 서구라파나라들을 새로운 올가미에 얽어매려는 미제의 《신대서양헌장》이 서방 《동맹국》들의 강력한 도전에 부딪쳤으며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을 자기 주위에 묶어세워 석유생산국들에 위협을 주며 저들의 강도적요구를 내려먹이기 위한 미제의 《석유전략》은 프랑스를 비롯한 일련의 《동맹국》들로부터 반대에 직면하였다.

미제와 그 《동맹국》들 사이의 불화와 알륵은 특히 미제의 침략적군사기구인 나토안에서도 나타났다. 나토성원국들인 희랍과 토이기는 끼쁘로스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렸다. 희랍의 새 정권은 8월 14일 나토의 군사기구로부터 탈퇴한다고 정식 선포하였다. 프랑스가 나토에 등을 돌려댄지 오래며 뽀르뚜갈도 별로 나토에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배타적인 경제공동체인 《구라파공동시장》안에서도 통화동맹문제, 지역개발분담금문제, 영국의 《공동시장》 재교섭문제 등을 놓고 벌린 치렬한 싸움질은 결국 리해관계의 대립으로 뒤엉킨 제국주의렬강간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켰다.

1974년에 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이 겪은 심각한 경제, 정치적 위기는 우리 시대에 제국주의의 붕괴와 몰락 과정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로동계급의 드센 공세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더욱 강화되고있습니다. 자본주의세계에서 로동운동이 더욱 힘차게 벌어지는것은 자본주의의 내부모순을 격화시키며 그 밑뿌리를 뒤흔들어놓는 강력한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88페지)

1974년에 미국과 서구라파자본주의 나라들의 심각한 경제위기는 자본주의의 내부모순을 더욱 증대시키고 계급투쟁을 일층 첨예화시켰다. 전례없는 파업이 서방자본주의세계를 휩쓸어 그의 반동통치집단을 밑뿌리채 뒤흔들어 놓았다.

1974년 8월 12일호 미국신문 《타임스》가 자기의 론평제목을 《파업, 파업, 파업!》이라고 단것은 우연치 않다. 실로 미제의 일련의 어용신문들까지도 1974년에 미국의 일부 부문과 기업소 로동자들의 파업이 30년, 50년, 100년래에, 지어 력사상 처음이라고 썼다.

미국에서 1973년 한해동안에 220만명이 파업에 참가하였다면 1974년 첫 6개월동안에만도 그 수는 무려 273만 2천명에 달하였다.

1974년에 영국의 파업건수는 1971년이래의 최고기록인 2천 88건에 160만 5천명의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가하였다. 프랑스에서 1974년 첫7 개월동안의 파업참가자수는 103만 6천명이였으며 파업으로 독점자본가놈들에게 준 손실일수는 980만 9천일로서 1973년 한해동안 합친 수자를 롱가하였다. 서독에서는 1974년 상반년의 파업으로 독점자본가들이 잃은 일수는 1973년에 비해 근 2배로 늘었다.

이해에 독점자본의 가혹한 착취를 반대하며 생활처지의 개선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파업투쟁이 전례없는 규모의 성격을 띠고 진행되였다.

2월에 10만명의 미국화물자동차운전수들의 파업은 42개주를 포괄하였으며 6월 30개주의 100여개 도시에 있는 750개 옷공장의 11만명 로동자들의 파업은 1921년이후 이 부문에서 처음으로 되는 전국적인 파업이였다. 12만명의 미국탄광로동자들은 로동안전, 임금인상과 파업의 권리를 요구하여 8월과 11월에 두 차례의 전국적인 파업을 일으켜 대부분의 탄광이 문을 닫게 하였다.

100여만의 영국기계공업부문 로동자들은 5월에 1957년이래 규모가 제일 큰 전국적인 파업을 일으켰다. 프랑스에서는 11월 19일 체신, 교통 및 자동차, 강철, 야금, 화학 공업부문 그리고 전력 및 가스 회사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이 나라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파업을 일으켰으며 약 100만명은 거리에 떨쳐나와 강력한 반정부시위를 벌렸다. 이딸리아에서는 수십만 지어 100만명이상의 근로자들이 참가한 큰 파업들이 련이어 일어났다. 11월에 이르러 1천만명이상이 참가한 전국적인 총파업은 세차례나 일어났다. 서독에서는 2월에 전국각지에서 거의 모든 부문의 근로자들이 이 나라 력사상 제일 크고 가장 범위가 넓은 파업이 휩쓸었다. 비교적 조용하였던 북구라파 지역에서도 큰 파업들이 부쩍 늘었다.

근로자들의 파업은 장기성을 띠고 요구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힘차게 벌어졌다.

미국의 여러 부문근로자들은 반동정부와 독점자본가놈들의 탄압과 기만, 반동적어용로조의 우두머리들의 파괴와 간섭을 배격하고 한달, 지어 1~2년동안의 파업투쟁을 견지하여 승리를 이룩하였다. 미국의 텍사스주 파라효옷공장의 녀성로동자 3천명은 22개월동안의 투쟁을 벌려 1974년 3월에 끝내 승리하였다. 캔터키주 브룩크사이드의 150여명의 탄광로동자들은 광범한 지역의 탄광부문로동자들의 지지성원밑에 1973년 7월부터 1974년 8월까지 13개월동안 파업을 계속하여 승리하였다.

영국의 27만명의 탄광로동자들은 1973년 11월부터 태업투쟁을 벌려오다가 1974년 2월부터 한달동안의 전국적인 총파업을 일으켜 반동정부를 굴복시켰다.

또한 이해에 근로자들의 파업투쟁에서 큰 자리를 차지한것은 로조의 권리를 요구하여 강력히 투쟁한것이다.

영국의 로동자들은 히스반동도당이 꾸며낸 악명높은 《반로조법》을 폐기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차별과 멸시, 압박과 착취를 혹독하게 받고있는 미국의 녀성로동자들은 로조결성을 위한 투쟁을 오랜기간 벌려온 끝에 처음으로 녀성로조조직인 로조녀성련맹을 무었다.

실로 1974년에 미국과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정치, 경제 위기의 심화는 계급적모순을 일층 첨예화시켰으며 독점자본에 대한 로동계급의 강력한 공세는 서방제국주의세계의 밑뿌리를 여지없이 뒤흔들어 놓았다.

쏘 련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넓이 2,240만 2,200Km²
인구 2억 5,330만명 (1975년 1월 1일)
수도 모스크바(주민 706만 1,000명, 1971년)

정 치

최고쏘베트 최고주권기관으로서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량원—련맹쏘베트와 민족쏘베트로 구성, 임기는 각각 4년, 련맹쏘베트는 전련맹적으로 쏘련인민의 공동의 리익을 대표하며 민족쏘베트는 각 민족의 리익을 대표한다.

현 최고쏘베트는 제9기로서 1974년 6월에 선거되였다.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 엔.웨.뽀드고르느이(1966년 8월—)

정부 1974년 7월에 구성, 총리 아.엔. 꼬씌긴(1966년 8월—), 외교부장 아.아. 그로미꼬, 국방부장 아.아. 그레치꼬

정당, 사회단체 ; 공산당 1903년 7월 30일에 창건

총비서 엘.이. 브레쥬네브

직업동맹,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쏘련청년단체위원회, 녀성위원회, 쏘련로병위원회, 쏘조친선협회

1917년 11월 7일 로씨야로동계급은 레닌의 지도밑에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고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새형의 쏘베트국가를 창건하였다.

1922년 12월 제1차전련맹쏘베트대회에서 다민족국가인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을 결성하였다.

1923년 1월 제2차 전련맹쏘베트대회에서 첫쏘련헌법이 채택되였다.

1925년 12월 쏘련공산당 제14차대회에서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할데 대한 방침, 1927년 12월 제15차 당대회에서 농업집단화를 실현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다.

1936년 12월 전련맹쏘베트 제8차비상대회에서 쏘련헌법이 채택되였다.

1941—1945년의 제2차세계대전에서 쏘련인민은 파쑈독일과 일제를 격파하고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였다.

쏘련인민은 혁명후부터 1970년까지 8차에 걸치는 5개년인민경제계획(1959—1965년간의 7개년계획포함)을 수행함으로써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다.

1971년부터 쏘련인민은 공산당 제24차 대회에서 제시한 새 5개년계획(1971—1975년)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4년 1월 12일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직업동맹 중앙평의회,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가 1974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공업, 건설, 운수 부문일군들의 전국적인 사회주의경쟁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전국농업부문일군들의 사회주의경쟁에 관한 결정서도 채택되였다.

7월 24일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쏘련최고쏘베트 제9기 1차회의와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7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쏘련최고쏘베트 제9기 1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가 선거되였으며 정부가 구성되였다.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니꼴라이 뽀드고르느이가 다시 되였으며 내각총리로는 알렉쎄이 꼬씌긴이 다시 임명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련맹쏘베트와 민족쏘베트 의장이 선거되였다.

련맹쏘베트와 민족쏘베트에는 각각 14개의 상설위원회들이 구성되였다.

회의는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정령들을 승인하였다.

10월에는 내각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1975년도 인민경제발전국가계획안과 예산안이 토의되였다.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최고쏘베트회의에서는 1975년도 인민경제계획 및 예산을 토의하였다.

1월 18일 모스크바에서 레닌서거 50돐에 즈음하여 《레닌의 학설과 위업은 영생불멸할것이다》에 대한 과학리론토론회가 진행되였다.

4월 22일 모스크바에서 레닌탄생 104돐기념 경축회의가 진행되였다.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레닌공청 제17차대회가 진행되였다.

6월 16일 쏘련최고쏘베트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자들의 99.97%가 련맹쏘베트 대의원립후보자들에게, 99.85%가 민족쏘베트 대의원립후보자들에게 각각 찬성투표하였다.

11월 23일 울라지보스또크에서 브레쥬네브—포드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전략무기제한문제에 대한문제, 구라파안보와 중동평화문제, 두 나라사이의 경제협력문제등이 토의되였다.

회담후 쏘미공동콤뮤니케와 공격용 전략무기제한문제에 관한 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

1974년 6월 2일부터 모스크바에서 국제방직피복피혁 및 모피로동자직맹 제5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처음으로 남조선로동계급대표가 참가하였다.

6월 3일 이 대회에서는 남조선괴뢰도당의 군사파쑈적폭압과 략탈정책을 규탄하는 항의전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이를 박정희역도에게 보냈다.

경제, 사회문화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이다.

세계공업생산의 20%를 차지한다.

쇠돌, 망간, 석탄, 원유, 가스, 연, 동, 아연, 수력자원 등의 자원이 풍부하다.

주요공업부문은 금속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연료동력공업을 비롯한 중공업이며 중공업부문은 이 나라공업의 70%이상을 차지한다.

1974년에 공업생산액은 1973년에 비하여 8% 늘어났다.

또한 이해에 약 350개의 대공업기업소들이 조업하였다.

쏘련에서는 연료동력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해왔다.

석탄, 원유, 가스, 수력자원 등 풍부한 연료동력자원에 기초하여 많은 발전소들이 건설되고 석유, 가스, 석탄산지들이 개발되였다.

주요연료동력기지는 도네쯔, 꾸즈네쯔, 까라간다, 모스크바부근, 뻬쵸라탄전들과 깝까즈지방의 바꾸, 그로즈늬, 꾸반의 유전들 그리고 중앙아세아, 싸할린, 우크라이나 등지의 유전들이다.

동력공업에서는 수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쏘련은 전력생산에 있어서 세계에서 둘째자리를 차지한다.

1972년에 전력생산량은 8천 580억키로와트시였다.

웨.이. 레닌명칭볼가강수력발전소(230만KW), 쏘련공산당 제22차대회명칭볼가강수력발전소(253만KW), 브라쯔크수력발전소(410만KW), 크라스노야르쓰크수력발전소(600만KW) 등 세계 최대의 수력발전소들과 100만키로와트 내지 그 이상의 출력을 가진 수개 화력발전소들이 있다.

동력자원이 부족되는 지방들에는 원자력발전소들이 건설되고 있다.

1974년에 세계에서 가장큰 원자력발전소인 노보워로네쥬원자력발전소 제1계단공사가 끝났다.

금속공업은 공업화를 실현하는 과정에 발전하였다.

1922년에 쏘련의 강철생산량은 미국의 113분의 1(30만톤)생산되였는데 1971년에는 미국보다 1천 200만톤이나 더 많은 강철을 생산하였다.

주요흑색금속공업지구는 도네쯔탄전을 중심으로하는 남부지구, 우랄지구 등이다.

주요유색금속공업지구는 우랄, 레닌그라드, 우크라이나 남부지대 등이다.

기계공업은 동력기계, 운수기계, 농기계, 공작기계 및 각종설비들을 생산하고있다.

쏘련은 간선내연기관차, 뜨락또르 및 기타 종류의 기계제작공업제품들의 생산에 있어서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동력기계제작중심지는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하리꼬브 등이며 운수기계제작중심지는 모스크바, 뜨빌리씨, 하리꼬브 등이며 자동차공업중심지는 모스크바, 야로슬라브, 고리끼시, 민스크 등이다.

1972년에 1천 460만키로와트의 총출력을 가진 타빈들이 생산되였으며 이해에 자동차는 137만 9천대생산되였다.

또한 매년 47만대이상의 뜨락또르가 생산되고 있다.

인공지구위성들, 우주비행선들, 최신식로케트들, 분사식고속비행기들, 원자력발전소들을 만들고있다.

화학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비료, 합성고무, 각종수지, 인조섬유생산이다.

쏘련은 화학제품생산량에 있어서 세계에서 두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1974년에 화학일군들은 현무암을 원료로 하여 새로운 섬유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하였다. 이 섬유는 낮은 온도나 높은 온도에도 견디여낸다.

쏘련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

농사할수 있는 땅은 전령토의 3분의 1(15억헥타)이며 그중 부침땅은 36%이고 나머지는 목초재배지, 방목지이다.

순열대작물을 제외하고 모든 작물이 다 재배된다.

농업에서는 알곡생산이 기본이며 부침땅의 절반이상에 밀을 심는다.

주요알곡작물은 밀, 강냉이, 보리, 호밀, 귀밀 등이다.

밀총생산량의 4분의 3은 동부지역이 담당하고있다.

1974년에 밀은 8천 380만톤, 벼는 190만톤 생산되였다.

주요공예작물은 목화, 아마, 삼, 사탕무우, 해바라기, 담배, 차 등이다.

목화는 중앙아세아 까자흐쓰딴남부지방에서 대부분 생산되는데 이곳에서 전체 목화생산량의 90%가 생산된다.

1974년에 목화는 840만톤의 기록적인 수확을 거두었다.

축산업이 발전하고있다. 축산업이 공업적방법으로 넘어가고있으며 특히 가금업이 발전하고있다.

주요집짐승은 소, 돼지, 양, 염소 등이다.

1974년에 고기는 1천 450만톤, 우유는 9천 180만톤, 닭알은 550억개 생산하였다.

어업도 중요한 경제부문의 하나이다.

물고기생산량은 세계에서 세번째자리를 차지한다.

세계에서 산림자원이 가장 많다.

산림의 넓이는 7억 4천 700만헥타이며 년목재생산량은 3억 7천 420만립방메터(1971년)에 달한다.

교통운수에서 기본은 철도운수이며 하천운수, 항공운수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철길의 총연장길이는 13만 4천 600키로메터에 달한다.

하천운수에서 절반은 볼가강이 담당한다.

주요수출품은 기계, 설비, 석유 및 석유제품, 쇠돌, 천연가스, 강재, 목재, 일부 농산물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와 설비, 소비품, 농기계 등이다.

무역은 대체로 사회주의국가들과 65%, 신생독립국가를 비롯하여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과 13.5%, 자본주의나라들과 21.5%(1971년현재)의 비률로 한다.

1974년의 총무역액(왕복)은 380억루블리로서 1973년에 비하여 21.4% 늘어났다.

1974년에 국민소득은 1973년에 비하여 5% 늘어났다.

또한 인구1인당 실질소득은 4.2%, 공장로동자들과 종업원들의 월평균소득은 4.3% 늘어났다.

1974년에 883개의 대학에서 460만명이 공부하고 있었다.

그중 종합대학만도 60개이며 여기에서만도 50여만명이 공부하고있었다.

1972—1973학년도에 일반교육학교의 학생수는 4천 910만명에 달하였다.

쏘련에는 3만 6천 500개의 종합진료소와 진료소가 있으며 270만대이상의 침대가 있다.

의사수는 73만 3천명이다.

1974년에 과학연구사업에서도 새로운 성과가 있었다.

2월 10일과 2월 12일에 행성간자동정류소들인 《마르쓰—4》호와 《마르쓰—5》호가 약 4억 6천만 키로메터의 거리를 극복하고 화성주변에 도착하였다.

2월 27일에는 인공지구위성 《꼬스모쓰—633》호를 쏘올렸으며 계속하여 1년동안에 《꼬스모쓰—696》호에 이르기까지 쏘올렸다.

그중 4월 23일과 9월 19일에는 8개의 인공지구위성을 단꺼번에 쏘올렸다.

3월 12일과 9일에 행성간자동정류소들인 《마르쓰—6》호와 《마르쓰—7》호가 각각 화성주변에 가닿았다.

5월 29일 달과 그 주변의 우주공간에 대한 연구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자동정류소 《루나—22》호를 쏘올렸다.

6월 25일에는 궤도과학정류소 《쌀류트—3》호를 쏘올렸다.

7월 4일 사람이 탄 우주비행선 《쏘유즈—14》호를 쏘올렸다.

7월 5일 우주비행선 《쏘유즈—14》호와 궤도과학정류소《쌀류트—3》호가 결합하였다.

8월 26일 사람이 탄 우주비행선 《쏘유즈—15》호를 쏘올렸다.

10월 28일 자동정류소 《루나—23》호를 달방향으로 쏘올렸다.

쏘련에서는 로씨야족(53%), 우크라이나족(20%), 벨로씨야족, 우즈베크족, 따따르족 등 100여개의 민족과 소수민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로씨야말이다.

출판보도; 통신 따쓰, 아뻬엔

신문 쁘라우다(공산당기관지), 이즈베쓰찌야(최고쏘베트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 꼼쏘몰쓰까야쁘라우다(레닌공청기관지), 뜨루드(직맹기관지), 크라쓰나야 즈베즈다(국방부기관지)

잡지 꼼무니쓰뜨(쏘련공산당리론잡지)

방송 모스크바방송, 모스크바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0월 12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49년 3월 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55년 2월에는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1960년에는 상업 및 항해조약, 1961년 7월에는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1967년 10월에는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 1970년 9월에는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4년 6월 5일과 6월 10일에는 두 나라 사이의 1974년도 통상의정서와 1974—1975년도 문화교류계획서가 각각 조인되였다.

5월 21일에는 모스크바에서 조쏘친

선협회와 쏘련대외친선문화협회련맹 및 쏘조친선협회 사이의 1974—1975년도 협조계획서가 조인되였다.

7월 17일부터 22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조쏘정부사이의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11차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토의된 문제들에 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1972년 4월 13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쏘련최고쏘베트상임위원회는 레닌훈장을 수여함에 관한 정령을 발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10돐에 즈음하여 《이즈베쓰찌야》 2월 26일호가 론설을 발표하였다.

론설에서는 수령님께서 농촌테제를 발표하신데 대하여 쓰고 테제는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다음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옳은 길을 밝혔다는것을 지적하였다.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스물여섯돐에 즈음하여 쏘련에서 기념행사들이 있었다.

2월 8일 쏘련군대중앙박물관에서는 우리 나라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였다.

2월 4일에는 레닌그라드고급포병지휘관학교와 레닌그라드군관구직속 하사관교도련대에서 군인집회가 있었다.

또한 쏘련의 통신과 신문들에서는 글을 발표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쏘련의 여러 도시들에서 사회계대표들의 집회와 근로자들의 군중대회, 쏘조친선야회, 사진전람회와 강연회 등이 진행되였다.

6월 24일 쏘련대외친선회관에서 모스크바사회계대표들의 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에서는 조선근로자들의 정의의 투쟁에 련대성을 보내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공화국창건 26돐에 즈음하여 쏘련각지에서 경축행사들이 진행되였다.

9월 4일 모스크바에서 경축회의가 진행되였다.

또한 9월 3일부터 9일까지의 사이에 모스크바제2철근콩크리트공장에서와 지방도시들인 이르꾸쯔크, 아슈하바드, 나호드까, 하바롭쓰크에서 경축집회들이 진행되였다.

8일 모스크바의 이즈마일공원에서는 친선야회가 있었다.

또한 《쁘라우다》, 《이즈베쓰찌야》, 《웰쓰까야쥐즌》,《쏘베트쓰까야 로씨야》지도 기념론설을 발표하여 조선인민의 뜻깊은 명절을 축하하였다.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회의에서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제를 마련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미합중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한데 대하여 《쁘라우다》를 비롯한 쏘련의 중앙급 신문들과 통신이 보도하였다.

쏘련공산당 기관지 《쁘라우다》 4월 24일호는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지지하고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의 야수적탄압만행을 규탄하여 론평을 발표하였다.

《이즈베쓰찌야》 8월 17일호는 1974년안으로 대민족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의 호소문을 지지하여 론평을 발표하였다.

8월 남조선청년학생들에 대한 박정희파쑈악당의 탄압만행을 규탄하여 쏘련청년단체위원회와 대학생리사회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즈베쓰찌야》 9월 14일호는 론평을 발표하여 남조선에서의 《저격사건》과 관련하여 박정희괴뢰도당이 미친듯이 벌리고있는 《반공》소동의 목적을 까밝혔다.

또한 이 신문 9월 20일호는 《박정희의 악몽》이라는 표제의 단평을 실었다.

10월 쏘련청년단체위원회와 대학생리사회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지지하며 박정희살인악당의 야수적탄압만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2월 24일 쏘련녀성위원회는 반파쑈민주화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청년학생들에 대한 박정희도당의 야수적탄압에 항의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974년에 경제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 25돐 행사에 참가할 쏘련대표단(3월),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12월), 영화인동맹대표단(2월), 작곡가대표단(3월), 문화대표단(4월), 《쁘라우다》 대표단(5월), 미술가대표단(5월), 전람일군대표단(11월), 영화대표단(11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대표단(3월, 7월), 최고인민회의대표단(3월), 사로청대표단(4월), 조선경공업로동자직맹대표단(5월), 영화대표단(9월), 조선혁명박물관대표단(10월), 조쏘친선협회대표단(11월), 농업과학원식물보호부문과학자대표단(11월), 고등교육대표단(11월), 영화인동맹대표단(12월) 등이 쏘련을 방문하였다.

뽈 스 까

(뽈스까인민공화국)

넓이 31만 2,677Km²
인구 3,350만명(1974년 1월 1일)
수도 와르샤와(주민 140만명, 1974년)

정 치

쎄임 최고 주권기관이며 립법기관이다. 대의원은 460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쎄임은 국가주권의 최고협의기관이며 국가수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최고쏘베트를 선거한다.

현쎄임은 제6기로서 1972년 3월에 선거되였다.

쎄임의 휴회기간에는 국가쏘베트가 최고주권기관이다.

국가쏘베트위원장 헨리끄 야브원스끼 (1972년 3월 28일—)

정부 총리 뾔뜨르 야로쉐비치(1970년 12월 —), 외교부장 쓰떼판 올숍스끼, 민족보위부장 야루젤스끼

정당,사회단체; 통일로동당 전신은 1918년 12월 16일에 창건된 공산당이다. 1948년 12월 15일 로동당과 사회당이 합당하여 통일로동당으로 됨

제1비서 에드와르드 게레크

통일농민당, 민주당, 인민통일전선, 직업동맹, 사회주의청년동맹, 농촌청년동맹, 녀성동맹

1944년 7월 22일 뽈스까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시적으로 강점되였던 히틀러독일의 파쑈통치기반에서 해방되여 민족재생의 길에 들어섰다.

재생후 뽈스까인민은 1945—1947년까지 부르죠아 정권을 되살리려던 반동세력을 진압하고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하였다.

1947년 1월 총선거에 의하여 공산당과 사회당(좌익)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정권이 수립되였다.

1952년 7월 헌법을 발표하였다.

뽈스까인민은 통일로동당의 령도밑에 인민경제복구건설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6개년계획(1950—1955년)을 수행함으로써 뒤떨어진 농업국가로부터 나라를 사회주의적공업—농업국가로 전변시켰다.

1971년부터 뽈스까인민은 통일로동당 6차대회에서 제시된 새 5개년계획(1971—1975년)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1974년 1월 18~19일까지 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통일로동당 제1차전국대표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토의하고 찬동하였다.

2월 15일 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는 뽈스까인민공화국 창건 30돐에 즈음한 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테제가 발표되였다.

6월 25일에 진행된 통일로동당 14차전원회의에서는 통일로동당 제1차 전국대표자회가 있은 이후기간의 사회경제발전과업수행에 관한 보고와 이 기간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비서국의 활동에 관한 통보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0월 22~23일까지 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15차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식량생산을 급속히 늘이며 농촌경리를 발전시키는것은 전체인민의 사업》이라는 보고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6월 26일 세임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로동법령초안을 토의하고 이 문건을 승인하였으며 1973년도 사회경제발전계획수행과 국가예산집행에 관한 정부의 보고를 토의하고 찬동하였다.

10월 24일 세임회의에서는 환경보호조치를 세울데 대한 법안을 토의하였다.

11월 6일 당정치국과 정부 상무위원회 합동회의에서는 1975년도 사회경제발전계획을 심의찬동하였다.

10월 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에드와르드 게레크가 미국을 방문하였다.

또한 내각총리 뾰뜨르 야로쉐비치가 쏘련(7월), 로므니아(7월), 헝그리아(8월), 오지리(9월), 이란(11월)을 방문하였다.

이해에 쏘련공산당 총비서 브레쥬네브(7월),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총비서 구스따브 후싸끄(3월), 미국공산당 총비서 거스홀(5월), 스웨리예총리 팔메(4월)가 뽈스까를 방문하였다.

6월 상아해안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사회주의적공업—농업국가이다.

공업에서 연료동력공업, 화학공업, 기계공업, 금속공업, 건재공업 등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지하자원은 석탄(력청탄),갈탄, 니탄, 천연가스, 동, 류황, 돌소금, 아연등이다.

연료동력공업에서는 석탄채굴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석탄채굴량은 년산 1억 5천만톤 이상으로서 세계에서 4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상부실레지아탄전과 하부실레지아의 발브쥐호탄전은 이 나라 석탄총생산량의 91%를 생산한다.

전력공업은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에 의거하고있으며 그생산거지도 실레지아탄전지역에 집중되여있다.

화학공업에서도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합성암모니아, 질소비료, 합성섬유 생산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자동차, 뜨락또르, 중형공작기계, 선박, 야금설비, 정밀광학기구들, 각종 계기들과 설비들을 생산하고있다.

방직공업부문에서는 면직, 모직, 아마직 생산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중심지는 로지시인데 여기에 이 나라 방직 및 섬유 공업의 약 절반이 배치되여 있다.

1974년에 공업제품생산량은 1973년에 비하여 12.2% 늘어났다.

1974년에 로지시에 새로운 방직 및 피복종합공장, 비드고쉬에 새화학공장, 끄라꼬브에 새 광산, 야슬로시에 새목삭판공장이 조업하였으며 그단스크에 새항구가 건설되였다.

또한 1974년 첫 8개월동안에만도 55척의 배를 새로 무었다.

농업에서 아직 협동화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주요농산물은 밀, 쌀보리, 귀밀,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밀과 쌀보리는 이 나라의 2대작물이다.

부침땅은 약 1천 500만헥타이상으로써 전령토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축산업에서는 소를 주로 기른다.

1974년에 농업생산액은 1973년에 비하여 약 2%, 축산물생산액은 4.5% 늘어났다.

교통운수에서는 철도운수, 해상운수, 하천운수가 큰 의의를 가진다.

철길은 남부지역에 조밀하게 뻗어있다.

대외무역에서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요수출품은 석탄, 아연, 콕스탄, 섬유제품, 기계, 선박, 일용품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쇠돌, 비료, 석유제품, 양털, 알곡, 목화 등이다.

1974년에 국민소득은 1973년에 비해 10%나 더 늘어났다.

주민의 약 98%가 뽈스까사람이며 그외 백로씨야사람, 우크라이나사람, 체스꼬사람, 슬로벤스꼬사람, 독일사람등이 있다.

공용어는 뽈스까말이다.

7월 30일 뽈스까에서 새중앙방송국이 사업을 시작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빠쁘통신(뽈스까통신)

신문 뜨리부나 류드(통일로동당기관지),그워스 쁘라찌(직맹기관지), 발까므워드호(사회주의청년동맹기관지), 조우네즈 볼노스찌(인민군기관지), 직제 와르샤빅, 젠니크 류도빅

잡지 노웨드로기(통일로동당리론잡지),직제 빠르떠(통일로동당생활잡지)

방송 뽈스까라지오 및 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0월 16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52년 6월에는 무역협정, 1956년 5월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57년 4월에는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1971년에는 1971—1975년도 장기무역협정, 1972년 10월에는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1974년 3월 17일에는 1974년도 상품호상공급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가, 4월 20일에는 1974—1975년도 문화교류계획서가 조인되였다.

1974년 11월에는 1975년도 상품교류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14일)와 두 나라 과학원들 사이의 1975—1976년도 협조계획서(28일)가 조인되였다.

1974년 10월 16~18일까지 두 나라 정부사이의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3차회의가 진행되였다.

1971년에 뽈스까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1974년에 신문 《글로쓰 쁘라찌》 8월 6일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발표 세돐에 즈음하여 《조선의 통일을 념려하시여》라는 제목의 론설을 실었다.

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각지에서 기념집회, 친선모임 등 여러가지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9월 6일 인민군의 한 강습소에서는 기념집회가 있었으며 같은날 오뜨보쯔크군에서는 친선모임이 있었다.

이 나라 신문 《젠니크 류도비》 9월 9일호는 《희망을 가지고 기념하는 명절》이라는 표제의 기념론설을 실었다.

뽈스까 정부와 인민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정부의 립장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하여》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우리의 립장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이 결의안에 찬성투표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와르샤와에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녀성들의 련대성 집회가 진행되였다.

또한 신문《뜨리부나 류드》6월 28일호는 《남조선으로부터 외국군대의 철거를 위한 투쟁월간》이라는 제목의 론설을 실었으며 빠쁘통신도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8월 뽈스까 사회주의청년동맹 쁘워쯔크청년야영소에서는 남조선청년학생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탄압을 규탄하여 집회를 가졌다.

8월 3일 뽈스까법률협회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는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진보적인사들에 대한 박정희도당의 폭압만행을 규탄하는 항의문을 발표하였다.

뽈스까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도 7월 27일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의 탄압만행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974년에 뽈스까 외교부 부부장 (9월), 무역 및 해상경제부대표단(10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로부터는 정부대표단(5월, 10월), 외교부장(5월), 사로청대표단(6월), 직맹대표단(7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대표단(7월), 통신사대표단(10월), 격검선수단(3월)이 뽈스까를 방문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넓이 12만 7,870Km²
인구 1,454만명(1974년 3월)
수도 쁘라하(주민 107만 8,000명)

정 치

련방회의 인민의원과 민족의원 량원제, 임기는 4년, 인민의원 대의원은 전련방적인 인구비례에 의하여 선출되며 그 수는 200명이다.

민족의원은 체스꼬와 슬로벤스꼬에서 각각 75명씩 선거되며 150명으로 구성한다. 체스꼬에서는 200명, 슬로벤스꼬에서는 150명으로 구성된 민족리사회가 있다.

대통령 루드위그 스워보다(1973년 3월 22일 재선), 대통령은 국가수반이며 량원합동회의에서 선거한다. 임기는 5년이다

련방정부 총리 루보미르 슈뜨로우갈(1960년 1월—), 외교부장 보후슬라브 호뇨우베끄, 민족보위부장 마르띤 드주르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5월 14일 창건, 1948년 6월 28일 사회민주당과 합당, 총비서 구스따브 후싸끄

사회당, 인민당, 슬로벤스꼬부흥당, 민족전선, 혁명직맹운동, 사회주의청년동맹, 녀성리사회

1945년 5월 9일 히틀러 파시즘의 기반에서 해방되였다.

1945년 7월 민족전선정부가 수립되였으며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하였다.

1948년 2월 25일 공산당의 령도밑에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전복하려고 시도한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반혁명적음모를 짓부셔 버리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였다.

2월사변후 산업, 은행, 상업 부문의 국유화를 실시하고 토지개혁을 완수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길에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48년 2월승리후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선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은 애국적헌신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짧은 기간에 자기 나라를 발전된 공업을 가진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켰으며 계급적원쑤들의 거듭되는 파괴암해책동을 물리치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였습니다.》(《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단행본, 2폐지)

체스꼬슬로벤스꼬는 1949—1953년간에 제1차 5개년계획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공업국가로 되였다.

1960년 7월 11일 새헌법을 채택하고 나라 이름을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으로 선포하였다.

1969년 1월부터 1968년에 채택된 련방국가제도법에 따라 련방제를 실시하고있다.

1970년까지 4차례의 5개년계획을 수행하고 1971년부터 제5차 5개년계획을 수행하고있다.

1974년 5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인민경제의 과학기술적발전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또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공산당 제14차대회 결정집행정형과 1975년도 과업에 대한 문제와 1975년도 인민경제발전계획초안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8월 30일 슬로벤스꼬인민봉기 30돐에 즈음하여 슬로벤스꼬의 반스까비스뜨리짜에서 여러가지 기념행사들이 진행되였다.

8월 28일에는 경축회의와 연회가 있었으며 29일에는 인민봉기 30돐기념군중대회가 진행되였다.

9월 15일 쁘라하에서 체스꼬슬로벤스꼬농업의 사회주의적발전 25돐을 기념하는 경축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구스따브 후싸끄는 《체스꼬슬로벤스꼬의 농촌경리가 사회주의적길을 따라 발전한 지난 25년동안 농촌에서와 농촌근로자들의 생활에서는 커다란 변혁이 일어났다.

빈궁과 락후, 지주들의 억압과 자본주의적착취가 근절되였으며 현대적인 사회주의적대규모생산이 발전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3월 구스따브 후싸끄를 단장으로하는 당및정부대표단이 뽈스까를 방문하였다.

공동콤뮤니케에서 쌍방은 외부의 간섭이 없이 나라의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

3월 15일 타이와 대사급외교 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사회주의 공업국가이다.

공업 및 농업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거의 90%에 달한다.

공업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부문은 기계, 흑색금속, 연료동력 공업이다.

특히 이 나라 경제구조에서 기계공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금속절삭기계, 기관차, 자동차, 뜨락또르, 발동기와 각종 기계설비들을 생산하고있다.

연료동력공업은 석탄자원에 기초하고있다.

동력자원가운데서 석탄이 85~90% 차지한다.

이 나라의 갈탄은 열량(5천카로리내외)이 높기때문에 화력발전과 화학공업원료로 리용된다.

화학공업에서는 유기화학공업이 기본이다.

인조섬유, 인조고무, 소다, 류산, 화학비료생산이 위주로 되고있다.

경공업에서는 방직공업과 구두생산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세계적으로 알려져있는 구두는 년간 1억켤레이상 생산된다.

부침땅은 약 530만헥타르로서 전령토의 42%에 해당한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감자, 사탕무우, 강냉이, 호쁘, 아마 등이다.

축산업은 농업총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주로 젖소), 말, 양, 돼지, 가금류이다.

이 나라는 해양선박대의 총배수톤수에 있어서 내륙국가들가운데서 두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1974년 8월 현재 600여척의 강하천선박이 있다.

1971년부터 1973년까지 사이에 34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였다.

주요수출품은 기계 및 설비, 도자기, 유리제품, 사탕, 경공업제품이며 수입품은 쇠돌, 유색금속광물, 화학공업원료, 원유제품, 목화 등이다.

수출총액에서 약 50%는 기계 및 설비가 차지하며 수입총액에서 약 50%는 원료수입에 돌려지고있다.

국어는 체스꼬말과 슬로벤스꼬말이다.

출판보도; **통신** 체떼까

신문 루데 쁘라보(공산당기관지), 쁘라쩨(혁명직맹운동기관지), 블라다 프론따(사회주의청년동맹기관지), 스보보드네 슬로보, 리도바 데모크라찌에

잡지 노바 미쓸(공산당리론잡지)

방송 체스꼬슬로벤스꼬방송, 체스꼬슬로벤스꼬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0월 2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54년 12월 21일에는 경제 및 기술협조를 위한 협정, 1956년 6월 23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4년 4월 11일 두 나라정부사이의 1974~1975년도 문화교류계획서가 조인되였다.

11월 25일에는 1975년도 상품호상공급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11월 13일부터 21까지 쁘라하에서 두나라 사이의 과학기술협조 분과위원회 제18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1974~1975년도 과학기술협조문건들을 심의하고 해당한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신문들인 《루데 쁘라보》, 《쁘라쩨》가 기념론설을 발표하였다.

9월 12일 체스꼬슬로벤스꼬영화위원회는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를 조직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이 나라 각지에서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들이 진행되였으며 사진전시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또한 이 월간에 이 나라신문들도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글들을 실었다.

《쁘라쩨》 6월 25일호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론설을 발표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신문《루데 쁘라보》는 남조선의 애국적민주력량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인 탄압행위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위한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론설을 발표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는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 제출된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하여》결의안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우리 공화국의 립장을 지지하여 활동하였으며 우리측을 지지하는 결의안에 찬성투표하였다.

1973년 6월 구스따브 후싸끄동지를 단장으로하는 체스꼬슬로벤스꼬 당 및 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4년 8월에는 체스꼬슬로벤스꼬 공산당당일군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 및 정부대표단(3월), 과학원대표단(1월), 정부통상대표단(11월)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4년 4월 우리 나라 요술대표단이 이 나라 까를로비 바리에서 진행된 제10차국제요술축전에 참가하였으며 종합특등을 하여 큰 금컵 1개, 은컵 1개, 금메달 1개, 상장 4개를 받았다.

웽 그 리 아

(웽그리아인민공화국)

넓이 9만 3,030Km²

인구 1,050만 5,000명(1974년 12월 1일)

수도 부다페슈트(주민 193만 9,500명)

정 치

국가회의 최고주권기관, 임기 4년, 352명의 대의원들로 구성, 국가회의 휴회기간에는 상임위원회가 최고주권기관의 기능을 수행한다.

현국가회의는 1971년 4월 25일에 선거되였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로숀찌 빨(1967년 3월—)

정부 총리 포크 예네(1967년 4월—), 외교부장 뿌여 프리제쉬, 국방부장 찌네재 라이요쉬

정당, 사회단체; **사회로동당** 1918년 11월에 창건, 전신은 1948년 6월에 공산당(1918년 11월 20일에 창건)과 사회민주당이 합당하여 창건된 근로자당이다. 1956년 11월에 당이름을 사회로동당으로 고쳤다.

제1비서 까다르 야노쉬

애국인민전선, 직업동맹, 공산주의청년동맹, 전국녀성리사회

1945년 4월 4일 웽그리아는 파쑈독일의 기반으로부터 해방되였다.

1945년 3월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였으며 1947년말부터 1949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산업국유화를 실시하였다.

1949년 8월 18일 국가회의는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새헌법을 채택하였다.

1956년 10월 웽그리아인민들은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이 미제의 부추김을 받아 일으킨 반혁명도발책동을 분쇄하고 이해 11월에 로농혁명정부를 수립하였다.

웽그리아인민은 1970년까지 3차례의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로동당 제10차대회(1970년 11월)가 제시한 4차 5개년계획을 수행하고있다.

1974년 6월 20일 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현국제정세문제와 당면한 경제문제를 토의하였다.

11월 20일에는 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당면한 국제문제들에 대한 보고와 사회로동당 제11차대회준비와 관련한 조직정치문제들에 대한 보고를 토의하고 찬동하였다.

제11차당대회준비문제를 토의하면서 전원회의 확대회의는 대회의정을 채택하였으며 대회와 관련한 일련의 문건들을 찬동하였다.

10월에 진행된 국가회의에서는 대외무역에 관한 법안을 토의하고 비준하였다.

1974년 4월 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까다르 야노쉬를 단장으로 하는 당 및 정부대표단이 체스꼬슬로벤

스꼬를 방문하고 공동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콤뮤니케에서 쌍방은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며 나라의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 제안을 지지한다고하였다.

또한 9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쏘련을 방문하였다.

10월 28일부터 5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 위원장 로숀찌 빨이 뽈스까를 방문하였다.

11월에는 내각 총리 포크 예네가 인도와 버마를 방문하였다.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부다뻬슈트에서 국제식료, 담배, 려관 및 관계부문일군직맹 제6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 참가한 여러 나라 로조단체대표단 단장들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과 근로자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1974년에 웽그리아는 메히꼬(5월), 브라질(5월), 기네—비싸우(6월), 뽀르투갈(7월)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사회주의공업국가이다.

공업은 인민경제에서 주도적부문을 이룬다.

공업에서 기본은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채굴공업, 흑색유색금속공업이다.

특히 기계제작공업은 공업총생산액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주요지하자원은 보크사이트, 석탄, 망간, 쇠돌, 천연가스, 원유, 갈탄, 우라니움 등이다.

1974년에 공업총생산액은 1973년에 비하여 8.2% 늘어났다.

이해에 전력은 189억키로와트시, 강철은 350만톤, 석탄은 2천 580만톤, 석유는 200만톤, 천연가스는 51억립방메터 생산하였다.

1974년에 두나이강연안의 발전소에서 2대의 큰 발전기가 조업하였으며 이노트발전소에서 100메가와트짜리 첫 가스타빈이 조업하였다.

농업은 국민소득의 약 20%를 차지하며 로력인구의 35%가 이 부문에서 일하고있다.

부침땅은 전령토의 57%(1971년현재)를 차지하며 그의 3분의 2는 알곡생산에 리용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강냉이, 사탕무우, 감자 등이다.

교통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자동차운수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1974년 떠싸강(8월)과 유고와의 국경선을 따라 흐르는 드라바강(10월)에 새다리가 건설되였다.

주요수출품은 공작기계, 금속제품, 전기기구, 의료기구, 여러가지 화학제품, 식료품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원유, 가스, 콕스, 쇠돌, 목화, 목재, 고무, 가죽, 정밀기계 등이다.

대외무역에서 쏘련과의 무역이 35%를 차지한다.

1974년에 1인당 국민소득은 1973년에 비해 7%, 주민들의 실질수입은 6.6% 늘어났다.

주민의 96%이상이 웽그리아사람(마쟈르족)이며 그밖에 슬로벤스꼬사람, 로므니아사람, 독일사람, 유고슬라비아사람 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웽그리아말이다.

출판보도; **통신** 엠떼이(웽그리아통신)

신문 네프싸바드 샤그(사회로동당기관지), 네프싸바(직맹기관지), 마쟈르이휴샤그 (공산주의청년동맹기관지), 마쟈르 넴제뜨(애국인민전선기관지)

잡지 따르샤달미 쎄물레(사회로동당정치리론잡지), 빠르뜨엘레뜨(사회로동당생활잡지)

방송 마쟈르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1월 1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6년 6월 20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71년 9월에는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창설에 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1974년 1월 16일에 1974년도 상품호상공급 및 지불에 관한 협정, 6월 24일에는 보건협조에 관한 협정, 11월에는 1975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김일성동지 혁명활동략력》을 웽그리아말로 출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10돐에 즈음하여 1974년 3월 22일 부다뻬슈트에서 사진전람회가 진행되였다.

1974년에는 우리 나라에 관한 책 《천리마의 날개》를 출판하였다.

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에 즈음하여서도 경축집회와 여러가지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9월 6일 국방부는 하사관교도대에서 경축집회를 가졌다.

또한 이날 웽그리아조선친선녀지까다농업협동조합에서도 기념집회를 가지고 조선웽그리아친선운동협동농장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신문 《네프싸바드 샤그》는 기념론설을 발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로정을 언급하였다.

1974년에 웽그리아 정부와 인민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공명정대한 립장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미제와 박정희파쑈도당의 탄압만행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성원하였다.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는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외국군대를 철거시킴에 대하여》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립장을 지지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웽그리아에서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들과 영화감상모임을 비롯한 여러가지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애개르쎄그시에서는 애국인민전선의 주최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가 진행되였으며 7월 15일 쎄싸르드군 마떼쎄리끄영화관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다.

또한 신문 《마쟈르 하뜰라쁘》 7월 3일호는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10월에 카톨릭교주교회는 박정희교형리들의 인권말살 행위를 규탄하여 호소문을 냈다.

또한 이 나라 종교단체들은 남조선의 종교인들과 애국적인사들에 대한 박정희파쑈악당의 탄압만행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974년에 웽그리아 정부대표단(6월), 권투종합선수단(2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통상대표단(1월), 정부대표단(5월), 경공업로동자직맹대표단(5월), 조선인민군권투선수단(5월), 기자동맹대표단(6월), 조선공업기술총련맹 전기통신 및 전자공학협회대표단(7월), 친선대표단(8월), 영화대표단(9월), 녀맹대표단(10월, 11월)이 웽그리아를 방문하였다.

로 므 니 아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넓이 23만 7,500Km²
인구 2,090만명(1975년 1월 1일)
수도 부꾸레슈띠(주민 164만 3,651명, 교외인구포함,

1973년 7월)

정 치

대민족회의 최고주권기관이며 임기 4년, 현대민족회의는 제6기로서 1969년 3월에 선거됨. 대민족회의 상임기관은 국가쏘베트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무력의 최고사령관, 대통령은 대민족회의에서 선거한다.

대통령 니꼴라에 챠우쉐쓰꾸(1973년 3월 28일ㅡ)

정부 총리 마냐 머네쓰꾸(1974년 3월ㅡ), 외교부장 게오르게 마꼬베쓰꾸, 무력부장 이온 이오니쩨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5월 8일에 창건되였으며 1948년 2월 사회민주당과 합당하여 로동당으로 되였다. 1965년 7월 로동당 제4차대회에서는 당의 명칭을 공산당으로 다시 고쳤으며 이 대회(로동당 제4차대회)를 공산당 제9차대회(1921년 5월에 있은 당대회로부터)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총비서 니꼴라에 챠우쉐쓰꾸

사회주의통일전선, 직업동맹, 공산주의청년동맹, 전국녀성위원회, 로므니아조선친선협회 1973년 4월 3일 결성

1944년 8월 23일 로므니아는 파쑈독일의 기반으로부터 해방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해방후 지난 서른해동안 형제적로므니아인민은 로므니아공산당의 령도밑에 주권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짧은 기간에 뒤떨어졌던 자기 나라를 번영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켰습니다.》

1945년 3월 6일 로므니아인민은 자기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로동자, 농민의 정권인 민주주의민족전선정부를 수립하였으며 1947년 12월 30일에는 군주제를 철폐하고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로므니아인민은 토지개혁(1945년 3월 20일), 산업국유화(1948년 6월 11일)를 비롯한 제반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1948년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들어섰다.

로므니아는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제1차 5개년계획(1951—1955년)과 사회주의적개조를 기본과업으로 하는 제2차 5개년계획(1956—1960년)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되였다.

1965년 8월 21일 새헌법을 채택하고 사회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로므니아인민은 1969년 8월 공산당 제10차대회에서 제시한 5개년계획(1971—1975년)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4년 3월 25~26일에 걸쳐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는 대통령제를 새로 내올데 관한 제안을 찬동하고 당규약을 일부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헌법을 일부 수정할데 대한 제안과 파쑈기반으로부터의 로므니아해방 30돐과 관련한 테제, 30돐기념행사계획을 찬동하였다.

3월 28일 대민족회의 회의에서는 공산당 총비서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를 대통령으로 선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챠우쉐쓰꾸가 대통령취임연설을 하였다.

7월 27~29일까지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경제사회발전최고리사회 합동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1974년 11월 25일에 공산당 제11차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공산당의 강령초안, 1976~1980년 5개년계획과 1981~1990년경제사회발전의 주요방향에 대한 제11차당대회 지시문초안을 찬동하고 이 문건들을 당단체들과 근로자회의들에서의 토의를 거쳐 제11차당대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원회의는 1975년도 국가계획과 국가예산초안을 채택하고 그것을 대민족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1974년 11월 9일 로므니아의 12개 도에서 도당단체 대표자회들이 진행되였다.

대표자회들에서는 11월 25일부터 열리는 공산당 11차대회에서 토의채택하게될 문건들을 토의하였다.

또한 당제11차대회에서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를 공산당 총비서로 다시 선거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당대회에 보낼 대표들을 선거하였다.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부꾸레슈띠에서 로므니아공산당 제11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당제10차대회와 제11차대회기간의 로므니아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사업과 당의 앞으로의 과업에 관한 보고, 당중앙검사위원회의 보고,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사회건설과 공산주의에로의 로므니아의 전진에 관한 로므니아공산당의 강령초안 등 7가지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대회는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를 공산당 총비서로 다시 선거하였다.

또한 대회는 당중앙위원회를 새로 선거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정치집행위원회와 비서국, 당중앙협의회, 당중앙검사위원회들을 선거하였다.

또한 로므니아공산당의 강령, 1976~1980년 5개년계획과 1981~1990년기간의 로므니아의 경제사회발전의 주요방향에 관한 공산당 제11차대회 지시문을 채택하였다.

12월 18일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공산당 제11차대회 결정에 따라 전원회의는 당강령을 수정 보충할데 대한 제안을 찬동하고 그것을 완성하였으며 또한 당규약을 수정할데 대한 제안을 찬동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전원회의는 또한 공화국 헌법의 일부 조항들을 수정할데 대한 제안과 공화국 선거법초안에 찬동하였으며 기타 일련의 문건들을 채택하였다.

7월 26일 대민족회의 회의에서는 대민족회의 의장을 선거하였으며 국가쏘베트가 발포한 법령을 토의하고 채택하였다.

5월 23~24일까지 사회주의통일전선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는 국내 사회정치생활을 발전시킴에 있어서와 로므니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선이 논 역할과 앞으로의 과업을 토의하였다.

또한 대회에서는 전선의 규약과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니꼴라에 챠우쉐쓰꾸가 사회주의통일전선위원장으로 선거되였다.

10월 30일 사회주의통일전선 전국리사회 전원회의에서는 공산당 제11차대회문건초안을 토의하고 이에 전폭적인 찬동을 표시하였으며 해당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또한 전원회의에서는 당조직들과 근로자들이 내놓은 공산당 제11차대회에서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를 당총비서로 재선할데 대한 제의를 전원일치로 찬동하였다.

1974년에 로므니아는 리비아(2월), 모리셔스(6월), 저메이커(8월)와 각각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또한 3월에 로므니아는 기네와 두나라사이의 우호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달에 아르헨띠나와 경제문화 교류에 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1974년에 챠우쉐쓰꾸대통령은 리비아(2월), 수리아(2월), 리베리아(3월), 아르헨띠나(3월), 기네(3월), 벌가리아(6월) 등을 방문하였다.

또한 이해에 모리따니대통령(6월), 애급대통령(6월), 유고슬라비아대통령(7월), 수리아대통령(9월), 리베리아

대통령(9월),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8월), 꼬스따 리까대통령(4월), 콜롬비아대통령(6월), 스리랑카총리(9월), 핀란드총리(4월), 에스빠냐공산당 위원장과 총비서, 프랑스공산당총비서(8월), 키예우 삼판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쟈 민족통일전선 및 왕국민족련합정부대표단이 로므니아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이다.

국민소득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65%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원유, 천연가스, 금, 은, 석탄, 소금, 망간, 동, 몰리브덴, 보크사이트, 쇠돌 등이다.

공업에서 중요한 부문은 원유채취업과 원유가공업, 천연가스채취를 위주로 하는 연료동력공업이다.

전력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흑색금속공업 등도 발전하고있다.

원유는 1년에 약 1천 300만톤이상, 천연가스는 250억립방메터(1970년)정도 생산되며 구라파에서 각각 제2위를 차지한다.

원유생산중심지는 쁠로예슈띠이며 여기로부터 부꾸레슈띠와 흑해연안의 꼰스딴짜항까지 송유관이 설치되여있다.

채취된 원유는 전부 자체의 공장에서 가공된다.

원유가공능력의 약 80%는 쁠로예슈띠와 삐떼쉬띠에 집중되여있다.

가스생산중심지는 뜨란실바니아고원의 중부지역이다.

전력생산의 약 95%는 화력발전에 의거하고있다.

화력발전소들의 75%는 천연가스, 약 4%는 석유, 약 20%는 석탄을 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있다.

점차 수력발전의 비중을 높이고있다.

1974년에 515억키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였으며 림러글—빌랴시근방에 새수력발전소(발전능력 2만 3천KW)가 조업하였다.

화학공업은 공업총생산액에서 11.6%(1970년)차지한다. 화학비료, 염료, 도료, 약품, 인조섬유,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을 생산한다.

기계제작공업은 국민소득에서 25%(1970년)를 차지하며 기계설비에 대한 수요의 70%를 자체로 충족시키고있다.

농기계, 석유 및 화학공업설비, 전기기계, 전자기계, 선박 등을 만들어 내고있다.

흑색금속공업도 발전하고있으나 쇠돌이 적으므로 필요한 많은 량을 수입해 쓰고있다.

1974년에 강철생산량은 860만톤에 달하였다.

중공업과 함께 방직, 일용 등 경공업도 발전하고있다.

농업에서는 알곡작물재배를 위주로 하는 농산물생산과 공예작물재배, 축산업이 중요하다.

주요농산물은 강냉이, 밀, 보리, 감자, 해바라기, 사탕무우, 포도, 남새 등이다.

부침땅은 900만정보이며 그의 70%에 알곡을 심는다.

씨붙임땅의 34%에는 강냉이, 30%에는 밀을 심는다.

축산업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양이다.

교통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강하천운수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철길의 총 길이는 1만 1천여키로메터(1972년)이다.

두나이강은 좋은 배길로 리용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석유제품, 석유가공설비, 뜨락또르, 기관차, 차량, 화학제품, 선박, 농기계, 전기기계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설비, 각종 공업원료, 반제품, 연료, 식료품, 생활필수품 등이다.

주민은 대부분이 로므니아사람(88%)이며 헹그리아사람, 독일사람, 기타 소수민족이 있다.

공용어는 로므니아말이다.

인구의 5분의 1이 각급 학교에서 공부하고있다.

8～9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다.

보건분야에서는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아제르 쁘레쓰

신문 쓰끈떼아(공산당기관지), 로므니아 리베러(국가쏘베트 및 내각 기관지), 문까(직맹기관지), 쓰끈떼아 띠네레뚤루이(공청기관지), 아뻐라레아 빠뜨리에이(인민군기관지)

잡지 룸따 데 클라써(공산당리론잡지)

방송 부꾸레슈띠방송, 부꾸레슈띠중앙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1월 3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53년 10월에는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1956년 5월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0년 8월에는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창설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1년 11월에는 민사, 가족 및 형사 사건들에서 법률상 방조를 서로 줄데 대한 조약과 령사협약이 체결되였으며 1972년 9월에는 비준서 교환의정서가 조인되였다.

1972년 7월에는 보건 및 의학과학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1974년 5월 17일 세멘트공업에서의 협조확대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1974년 10월 17일에는 과학원사이의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4년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부꾸레슈띠에서 두 나라 정부사이의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5차회의가 진행되였다.

또한 이 기간에 과학기술협의위원회 과학기술협조분과위원회 제4차회의가 진행되였다.

로므니아잡지 《루메아》 2월 14일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사상》이라는 제목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을 소개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10돐에 즈음하여 《쓰끈떼아》 2월 24일호는 위대한 농촌테제의 휘황한 빛발아래 우리 나라 농촌에서 이룩된 거대한 성과를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1974년 2월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발표 10돐》이라는 제목으로 공산당력사박물관과 혁명및 민주운동박물관에서 사진전람회가 열렸다.

7월 25일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갈라찌조선소에서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집회를 가졌다.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여섯돐에 즈음하여 2월 7일 로므니아 부꾸레슈띠중앙군인회관에서 기념집회가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6돐에 즈음하여 로므니아 각지에서는 경축집회, 사진전람회 등 여러가지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9월 5일과 11일 부꾸레슈띠와 씨비우에서는 경축집회가 진행되였다.

9월 7일에는 로므니아조선친선 띠꺼예니농업생산협동조합에서 집회가 진행되였다.

9월 10일 부꾸레슈띠에서는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가 진행되였으며 9월 11일 씨비우에서는 《사회주의건설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교육발전》이라는 사진전람회가 진행되였다.

브러일러시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상영주간이 진행되였다.

1974년에 로므니아 정부와 인민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었다.

로므니아는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 제출된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하여》결의안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유엔총회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정부의 립장을 지지하여 연설하였으며 우리측을 지지하는 결의안에 찬성투표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로므니아 알르미짜도에 있는 로므니아조선친선 퍼꺼예니농업생산협동조합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가 진행되였다.

7월 24일에는 부꾸레슈띠시 중앙군대회관에서 련대성집회가 진행되였으며 7월 25일 갈라찌시에 있는 조선소에서도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를 가졌다.

《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6월 25일 《쓰끈떼아》는 《평화적통일은 조선인민의 민족적념원》이라는 제목으로, 《로므니아 리베러》지는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보낸다》라는 제목으로 각각 론설을 발표하였다.

또한 신문 《쓰끈떼아 떠네레뚤루이》는 《조선인민의 합법적념원》이라는 제목의 론설을 실었다.

로므니아신문들인《쓰끈떼아》, 《로므니아 리베러》, 《문까》, 《쓰끈떼아 떠네레뚤루이》는 북과 남사이에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공화국정부의 제안을 지지하였다.

로므니아신문《로므니아 리베러》 9월 5일호와 《쓰끈떼아 떠네레뚤루이》 9월 13일호는 각각 《남조선의 비방중상》, 《남조선에서의 탄압과 도발》이라는 제목밑에 《저격사건》과 관련하여 《반공》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는 박정희도당을 규탄하는 론평을 실었다.

1971년 6월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4년에 로므니아 공산당활동가대표단(5월), 공청대표단(5월), 의사부부(6월), 기사기수민족위원회대표단(7월), 외교부장(8월), 《마라무레쉬》가무단(8월), 영화인대표단(9월), 관광대표단(5월), 작곡가동맹대표단(10월), 녀성출판사대표단(10월), 직맹대표단(10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로므니아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접견석상에서 대표단단장은 수령님께서와 부인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실것과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하는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이며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인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와 부인 엘레나 챠우쉐쓰꾸동지의 열렬한 인사를 정중히 전해드리였다.

또한 수령님께서는 6월 9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로므니아의사부부를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로동당대표단(11월), 정부대표단(5월, 8월, 10월), 적십자회대표단(2월), 조선소년단지도일군대표단(6월), 직맹대표단(8월), 청년학생대표단(8월), 녀맹대표단(8월), 영화대표단(9월), 공업기술총련맹대표단(9월), 농업과학원대표단(9월), 과학원대표단(10월), 조선인민군출판기관대표단(10월), 《로동신문》 책임주필일행(10월), 음악가동맹대표단(11월), 농기계부문대학교원대표단(11월), 조정선수단, 남녀송구선수단(9월), 만수대예술단(12월)이 로므니아를 방문하였다.

8월 28일 챠우쉐쓰꾸대통령은 로므니아를 방문하고있는 정무원 부총리 김영주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을 만나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므니아인민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로므니아해방 서른돐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내주시고 당 및 정부대표단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그이께 깊은 사의와 열렬한 인사를 드리였으며 수령님의 위대한 사업에서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였다.

10월 15일 챠우쉐쓰꾸대통령은 두 나라정부사이의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5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로므니아를 방문한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을 만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시는 뜨거운 형제적인사와 그리고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사회건설에서 로므니아인민에게 새로운 성과가 있기를 바라시는 축원의 말씀을 대표단단장이 챠우쉐쓰꾸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12월 17일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이며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대통령인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가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석상에서 만수대예술단 단장이 그에게 정중히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따뜻한 인사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는 존경하는 김일성동지께 자기의 가장 열렬한 인사를 전하여줄것을 만수대예술단 단장에게 부탁하였다.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은 《조선예술은 과장없이 최고봉에 오른 완전무결한 예술》, 《조선예술은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이며 혁신적이다》 등 로므니아인민들의 폭풍같은 환호와 절찬을 불러일으켰다.

벌 가 리 아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넓이 11만 912Km²
인구 860만 3,000명
(1973년 1월 1일)
수도 쏘피아(주민 약 92만 3,800명)

정 치

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이며 임기는 4년이다.

현인민회의는 1971년 6월에 선거되였다.

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상설적인 최고주권기관은 인민회의가 선거하는 국가쏘베트이다.

국가쏘베트위원장 또도르 찝꼬브

정부 총리 쓰딴꼬 또도로브(1971년 7월—), 외교부장 뻬떠르 믈라데노브, 인민보위부장 도브리 드쥬로브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 5월 25일에 창건, 전신은 1903년에 창건된 사회민주로동당이다.

제1비서 또도르 찝꼬브

인민농민동맹, 조국전선, 직업동맹, 지미뜨로브공산주의청년동맹, 녀성위원회

1944년 9월 9일 벌가리아인민은 지미뜨로브동지의 령도밑에 파쑈군주제도를 뒤집어엎고 인민민주주의정권을 세웠다.

1946년 9월 8일 군주제도를 폐지하고 9월 15일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벌가리아정부는 토지개혁법령(1946년 3월), 산업국유화법령(1947년 12월)등을 발포하고 제반민주개혁들을 실시하였으며 그후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개조를 추진시켰다.

벌가리아인민은 2개년인민경제계획과 여러차례의 5개년계획을 수행함으

로써 뒤떨어졌던 나라를 발전된 공업과 기계화된 농업을 가진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켰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벌가리아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후 나라의 주인으로 된 벌가리아인민은 벌가리아공산당의 령도밑에 애국적헌신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뒤떨어졌던 자기 나라를 발전된 공업과 기계화된 농업을 가진 번영하는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켰습니다.》(《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 단행본, 2페지)

1971년 4월 공산당 제10차대회에서는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강령을 내놓았으며 1971년 5월 18일에는 새 헌법을 채택하였다.

벌가리아인민은 10차당대회가 내놓은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1974년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쏘피아에서 벌가리아공산당 전국대표자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보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기 위하여》를 토의하고 찬동하였다.

2월 7~8일간에 걸쳐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사상사업을 제10차당대회에서 제시된 과업과 그리고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데 관한 당강령이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올려세울데 대한 문제와 1973년 하반년도 당 및 정부대표단들의 방문과 다른 당 및 국가대표단들과의 회담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사상사업을 제10차당대회에서 제시된 과업과 그리고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데 관한 당강령이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올려세울데 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7월 3일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비서국의 지난해 사업에 대한 통보를 토의하고 정치국과 비서국의 지난해 활동을 일치하게 찬동하였다.

4월 23일 인민회의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나라의 로력자원상태에 대한 로동 및 사회보장부장의 보고를 청취하고 일련의 법안을 비준하였다.

7월 2~4일까지 인민회의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농업부문의 재산을 보호할데 관한 법안과 인민 및 국가감독위원회들의 활동, 군사복무에 관한 법령의 개정문제를 토의하고 농업부문의 재산을 보호할데 대한 법령과 국가 및 인민적감독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으며 군사복무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였다.

10월 31일 인민회의회의에서는 1975년도 국가계획과 예산을 채택하였다.

3월 6일 조국전선 전국리사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또도르 쉽꼬브가 국내국제정세문제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1974년에 공산당 제1비서 또도르 쉽꼬브동지가 독일민주주의공화국(1월), 이라크(4월), 이란(11월)을 방문하였다.

또한 로므니아대통령 니꼴라에 챠우쉐스꾸(5월), 애급대통령 사다트(7월), 민주예멘대통령리사회위원장 루바이아 알리(7월), 수리아대통령 아싸드(9월)가 벌가리아를 방문하였다.

1974년에 벌가리아는 메히꼬(6월), 또고(7월), 베네수엘라(8월), 타이(8월), 리베리아(11월)와 새로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4월에 미국과의 령사협정에 조인하였다.

10월 20~27일까지 와르나에서 제18차 세계체조선수권대회가 진행되였다.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쏘피아에서 제7차국제도서전람회가 진행되였다.

9월 27일 또도르 쉽꼬브가 제7차국제도서전람회에 참가한 우리 나라 도서전람관을 돌아보았다.

경제, 사회문화

사회주의 공업—농업국가이다.

공업과 농업 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3분의 2이상에 이르고있다.

공업에서는 연료동력공업, 야금공업, 기계제작공업, 식료가공공업 등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지하자원은 석탄, 쇠돌, 연, 아연, 동, 망간, 은, 금, 원유, 천연가스, 크롬 등이다.

1974년 9월 4일 첫원자력발전소 《꼬즐로두이》제1호기가 조업하였다.

농업생산에서는 알곡작물이 40%, 공예작물이 20%, 다년생작물이 약 25%, 남새가 10%이상을 차지한다.

국민소득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몫은 23% 정도이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강냉이, 벼, 감자, 해바라기, 사탕무우, 목화, 담배, 포도, 과일, 남새 등이다.

부침땅은 약 586만정보이며 그중 관개한 땅은 21%에 달한다.

령토의 3분의 1(약 360만정보)이 산림이다.

주요수출품은 담배, 포도, 남새를 비롯한 식료품과 기계 및 설비들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와 석유, 화학제품 등이다.

대외무역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이 80%이상을 차지하며 그중 쏘련과의 무역이 56%를 차지한다.

주민의 대부분은 남슬라브족에 속하는 벌가리아사람이며 그밖에 토이기사람, 마께도니아사람 등이 있다.

공용어는 벌가리아말이다.

출판보도; 통신 베떼아(벌가리아통신), 쏘피아통신

신문 라보뜨니체스꼬 젤로(공산당기관지), 오쩨체스뜨벤 프론뜨(인민회의 및 조국전선기관지), 뜨루드(직맹기관지), 나로드나 믈라제쥬(공청기관지), 나로드나 아르미야(인민군기관지)

잡지 노보 브레메(공산당리론잡지)

방송 벌가리아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 쏘피아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1월 29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55년 7월 25일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56년에는 무역협정, 1969년 12월에는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조직에 관한 협정, 1970년 12월에는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협정, 1971년 7월에는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1974년 3월 30일 두 나라 정부사이의 1973—1974년도 문화교류계획서에 대한 1974년도 보충계획서가 조인되였다.

11월 10일에는 두 나라정부사이의 1975년도 상품호상공급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이 나라 신문《오쩨체스뜨벤 프론뜨》2월 7일호는《1974년은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인 해》라는 제목을 달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눈부시게 발전하는 우리 나라의 농업을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여섯돐에 즈음하여 벌가리아인민보위부가 기념집회를 조직하였다.

1974년 벌가리아 정부와 인민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과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었다.

벌가리아는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 제출된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

는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하여》결의안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유엔총회에서 이 결의안을 지지하여 찬성투표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벌가리아 직업동맹 중앙평의회와 평화옹호전국위원회, 아세아아프리카인민들과의 련대성위원회 및 벌가리아공산당 쏘피아시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쏘피아문화회관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에서는 우리 나라 해당기관들에 보내는 련대성편지가 채택되였다.

6월 11일 벌가리아아세아아프리카인민들과의 련대성위원회가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신문《라보뜨니체쓰꼬 젤로》6월 28일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지지하는 론설을 실었다.

9월 7일 공화국창건 26돐에 즈음하여 벌가리아조국전선 전국리사회와 직업동맹 중앙평의회, 벌가리아공산당 쏘피아시위원회, 대외친선문화련락위원회, 아세아아프리카인민들과의 련대성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쏘피아에서 경축집회가 진행되였다.

9월 2일 쏘피아의 블라고예브영화관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다.

8월 벌가리아반파쑈단체는 남조선애국자들에 대한 박정희도당의 탄압만행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9월 5일 지미뜨로브공산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와 학생위원회가 공동주최로 남조선의 애국적인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박정희살인악당의 탄압만행을 규탄하여 집회를 가졌다.

또한 이날 조국전선 전국리사회와 녀성리사회도 남조선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탄압만행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벌가리아신문《꼬오뻬라찌브노 젤로》 5월 24일호는 남조선청년학생들에 대한 박정희파쑈도당의 탄압만행을 규탄하여 《남조선에서의 테로를 저지시켜야 한다》라는 제목의 론설을 실었다.

1973년 10월 공산당 제1비서 또도르 쉽꼬브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벌가리아당및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4년에는 정부대표단(6월, 8월), 박물관대표단(10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또한 6월 평양에서 벌가리아상품전람회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월 7일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벌가리아정부대표단을 만나시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이해에 우리 나라로부터는 당대표단(7월, 10월), 무역대표단(9월), 직맹대표단(9월)이 벌가리아를 방문하였다.

또한 11월 22일부터 12월초에 걸쳐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고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와 음악무용종합공연을 진행하였다.

12월 4일 벌가리아공산당 제1비서이며 국가쏘베트위원장인 또도르 쉽꼬브동지가 만수대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을 관람하였으며 우리 나라 예술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였다.

또한 이날 벌가리아국가쏘베트는 우리 나라만수대예술단 전체 성원들에게 《벌가리아에서의 사회주의혁명 30돐메달》을 수여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혁명적내용과 독창적인 가극형식, 높은 예술성으로 하여 열광적인 환영과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1월 30일 쏘피아가극극장에서 첫공연이 끝났을 때 끝없이 감동된 한 할머니는 《자! 우리모두 이런 훌륭한 혁명가극을 볼수 있게 하여 주신 김일성동지께 경의를 드리며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함께 부릅시다》라고 열렬히 호소하면서 조선말로 노래를 선창하였다.

노래가 끝나자 이 할머니는 《가장 존경하는 김일성동지 만세!》를 소리높이 불렀다.

알 바 니 아

(알바니아인민공화국)

넓이 2만 8,748Km²
인구 227만명(1972년말)
수도 티라나(주민 24만명)

정 치

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 대의원수 264명, 임기 4년, 인민회의 휴회기간에는 상임위원회가 인민회의기능을 수행한다.

현인민회의는 제8기로서 1974년 10월 6일에 선거되였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하지 레쉬

정부 1974년 11월 29일 구성, 총리 겸 인민보위부장 메흐메트 쉐후, 외교부장 네스띠 나쎄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1941년 11월 8일 공산당으로 창건되였다가 1948년 11월 제1차 당대표대회에서 로동당으로 고쳤다.

제1비서 엔베르 호쟈

민주주의전선, 직업동맹, 로동청년동맹, 녀성동맹

알바니아인민들은 공산당의 령도밑에 강점자들과 국내반역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벌려 1944년 히틀러독일의 기반에서 해방되였다.

1946년 1월 11일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4월 14일에는 헌법을 채택하였다.

해방후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하고 2개년인민경제계획 (1949~1950년)과 4차례의 5개년계획(1950~1970년까지)을 수행하고 1971년부터 제5차 5개년계획을 수행하고있다.

1974년 7월 25일과 26일 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할데 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보고를 심의토의하고 해당한 조치를 취하였다.

6월 18일과 19일 인민회의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나라의 경제, 사회활동에서 절약을 강화할데 대한 보고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8월 5일 민주주의전선 총리사회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인민회의대의원선거 깜빠니야기간에 민주주의전선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라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으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즈음하여 알바니아인민에게 보내는 민주주의전선 총리사회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10월 6일 제8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결과에 관한 중앙선거위원회 공보에 의하면 유권자의 100%가 선거에 참가하여 100%가 민주주의전선 립후보자들에게 찬성투표하였다.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가 진행되였다.

첫날 진행된 인민회의 상임위원회선거에서는 하지 레쉬가 위원장으로 재선되였다.

제2일회의에서는 새 정부구성에 대한 메흐메트 쉐후의 보고를 청취토의하고 그를 일치하게 찬동하였다.

메흐메트 쉐후가 내각총리 겸 인민보위부장으로, 외교부장으로 네스띠 나쎄가 다시 되였다.

3월 20일 꼬르챠시에서는 인민전쟁

참전로병들의 제3차전국대회가 진행되였다.

1월 30일 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청년들속에서의 공산주의교양사업을 더 높은 수준에 끌어 올릴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1974년에 레바논(5월), 다오메(10월), 메히꼬(10월), 기네—비싸우와 각각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0월 7일에는 하노이에서 알바니아가 북부웰남에 무상경제원조를 줄데 대한 협정과 두 나라사이의 1975년도 상품공급및지불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알바니아는 사회주의농업—공업국가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원유, 석탄, 쇠돌, 크롬, 니켈 등이며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강냉이, 벼, 해바라기, 사탕무우, 담배, 포도, 과일, 남새 등이다.

주요공업부문은 채굴공업, 연료동력공업, 경공업, 목재가공공업이며 야금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전력공업 등이 발전하고있다.

1973년에 이 나라의 공업생산은 1960년에 비하여 3.4배로 높아졌다.

특히 생산수단생산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공업총생산액가운데서 생산수단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이다.

원유공업은 1973년에 1938년에 비하여 19배로 늘어났으며 원유와 원유가공제품에 대한 인민경제 여러부문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있다.

기계제작공업도 빨리 발전하고있다.

1974년 6월현재 25개의 기계공장과 200여개의 기계직장이 있다.

1973년에 기계제작공업총생산액은 1960년에 비하여 12배로 늘어났다.

1974년에 티라나주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기술혁신운동을 벌려 자기들의 힘으로 135개의 새로운 직장과 생산선을 건설하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도 새로운 화학공장들이 건설되였으며 유기 및 무기 화학공업이 창설되였다.

현 5개년계획(1971~1975)의 첫 두해동안에만도 해마다 11만톤의 질소비료와 10만 3천톤의 린비료를 생산하였다.

야금공업발전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였다.

특히 유색금속부문이 발전하였으며 흑색금속공업도 창설되고있다.

1973년에 조동생산은 1960년에 비하여 7.2배로 늘어났다.

1974년에 철길이 늘어났다.

3월 10일 5년동안에 걸쳐 진행된 엘바싼—쁘레냐스구간의 새 철도부설공사가 완성되였다.

농업도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농업총생산액에서 농산물이 3분의 2, 축산물이 3분의 1을 차지한다.

농업발전을 위하여 농업의 기계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있다.

1973년에 뜨락또르대수는 1만 3천 936대로서 평균 46헥타에 1대씩 차례졌다.

1974년에는 밭갈이의 80%와 씨뿌리기의 60%를 기계로 하였다.

국토의 25%가 방목지이며 양과 염소를 많이 기른다.

대외무역도 급속히 늘어나고있다.

1973년에 수출품가지수는 350가지로 늘어났으며 그중 공업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높아졌다.

원유수출은 1973년에 1970년에 비하여 5.1배로 늘어났으며 피치는 40%, 니켈광석은 81.5%, 크롬광석은 103.1%, 동제품은 50% 각각 늘어났다.

크롬광, 니켈광, 석유, 피치, 동제품, 목재가공품 등을 수출하고 광산설비를 비롯한 공업설비, 농기계, 운수수단 기타 공업제품을 수입한다.

주민은 대부분이 알바니아사람이며 그밖에 희랍사람, 토이기사람, 벌가리아사람 등이 있다.

국어는 알바니아말이다.

1972년에 각급학교학생수는 70만명에 달하였다.

1974년에 고등학교졸업생 3천 500명, 중등학교졸업생 9천 400명이 인민경제 여러부문에 진출하게 되였다.

보건사업도 발전하고있다.

1974년 7월현재 1만여명의 의료일군들이 일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아따

신문 제리 이 포플리트(로동당기관지), 바슈키미(민주주의전선 및 내각기관지), 제리 이 리니스(로동청년동맹기관지)

잡지 루가 에 빠르띠씨(로동당리론잡지)

방송 티라나방송, 알바니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9년 5월 17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55년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1956년 7월 1일에는 기술 및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4년 1월 21일에는 1974년도 무역협정에 조인하였다.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여섯돐에 즈음하여 알바니아《스깐데르베그》군사과학원에서 기념집회가 진행되였다.

또한 이 나라 신문《루프떼따리》는 《조선인민군의 뜻깊은 명절》이라는 표제의 기념론설을 실었다.

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에 즈음하여 9월 7일 알바니아대외문화및친선련락위원회와 테자시직맹위원회의 공동주최로 경축집회가 진행되였다.

9월 3일 티라나목재가공공장에서도 경축집회가 있었다.

알바니아 정부와 인민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정부의 립장을 적극 지지하고있으며 미제와 박정희파쑈도당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고있다.

유엔총회 제29차회의 정치위원회에서 남조선으로부터 유엔군을 철거시킬데 대한 결의안에 찬성투표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엔베르 호쟈》명칭학교와 대외문화 및 친선련락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이 학교에서 군중집회가 진행되였다.

또한 6월 25일 알바니아신문들인 《제리 이 포플리트》, 《바슈키미》, 《뿌나》는 론설을 발표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이 나라신문 《제리 이 포플리트》 1월 16일호는 박정희도당의 파쑈적《긴급조치》소동을 규탄하여 론설을 발표하였다.

또한 신문 《바슈키미》 8월 15일호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박정희살인악당의 파쑈적폭압만행을 규탄하는 론설을 발표하였다.

《제리 이 포플리트》 8월 24일호는 이른바 《저격사건》에 대한 책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들씌우려 하고있는 박정희도당을 규탄하여 론설을 발표하였다.

알바니아신문 《바슈키미》 3월 2일호는 2월 15일 우리측연해에 간첩선을 불법침입시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정탐과 적대 행위를 감행한 박정희괴뢰도당을 규탄하여 론설을 발표하였다.

신문 《제리 이 포플리트》 7월 4일호는 박정희괴뢰도당이 해군함선을 공화국북반부령해에 불법침입시켜 악랄한 군사도발행동을 감행한것을 준렬히 규탄하여 론설을 발표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21돐에 즈음하여 7월 29일 알바니아대외문화및 친선련락위원회가 볼로라전구공장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를 가졌다.

또한 신문《바슈키미》는《조선인민은 견결한 투쟁으로 민족적숙망을 실현하고야말것이다》라는 제목의 론설을 실었다.

1974년에 알바니아정부통상대표단(1월), 국립민족가무단(7월), 과학기술협조대표단(9월), 기자대표단(10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및정부대표단(11월)이 알바니아를 방문하였다.

12월에는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고 음악무용종합공연을 진행하였다.

12월 23일 알바니아로동당 제1비서 엔베르 호쟈동지가 만수대예술단을 만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엔베르 호쟈동지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석상에서 예술단단장이 그에게 정중히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따뜻한 인사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가장 깊은 사의를 표하고 엔베르 호쟈동지는 존경하는 김일성동지께 자기의 가장 열렬하고 혁명적이며 형제적인 인사를 전하여주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존경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혁명가이실뿐아니라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라고 하면서 그는 김일성동지를 충심으로부터 존경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엔베르 호쟈동지가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의 공연을 보았다.

독 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넓이 10만 8,178Km²
인구 1,705만 6,983명(1971년 1월)
수도 베를린(주민 108만 5,440명)

정 치

인민의원 최고주권기관이며 임기 4년, 434명의 대의원과 66명의 베를린대표들로 구성된다. 인민의원의 휴회기간에는 국가쏘베트가 최고주권기관이다. 현재의 인민의원은 제6기로서 1971년 11월에 선거되였다.

국가쏘베트 위원장 월터 슈토프(1973년 10월—)

정부 총리 호르스트 진데르만(1973년 10월—), 외교부장 오스카르 피쉐르, 민족보위부장 하인쯔 호프만

정당, 사회단체; **독일사회통일당** 1946년 4월 21일 독일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이 합당하여 창건되였다.

제1비서 에리히 호네케르

민주농민당, 기독교민주동맹, 자유민주당, 민족민주당, 민주주의독일민족전선, 자유독일직업총동맹, 자유독일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

1945년 5월 9일 파쑈독일은 쏘련을 비롯한 반파쑈력량에 의하여 패망하였다.

전후 독일은 쏘련, 미국, 영국, 프랑스의 4개 점령지역으로 갈라지게 되였으며 독일의 최고주권은 4개국대표들로 구성된 대독관리리사회에 들어있었다.

1949년 5월 30일 제3차인민대표대회에서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헌법을 채택하고 그해 10월 7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근로자들은 사회통일당의 령도밑에 토지개혁,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하였으며 1949~1960년까지의 사이에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끝냈다.

1968년 4월 9일 새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였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근로자들은 1951년부터 여러 차례의 5개년계획과 전망계획을 수행하였으며 1971년부터 독일사회통일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제5차 5개년계획(1971~1975년)을 수행하고있다.

1974년 7월 4일부터 5일까지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는 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보고를 청취하고 토의하였다.

9월 27일 인민의원 제13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공화국헌법 보충수정에 관한 법령이 승인되였다.

3월 14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독일련방공화국 사이에 상설대표부를 설치할데 대한 의정서가 본에서 조인되였다.

의정서에 의하면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상설대표부는 본에, 독일련방공화국 상설대표부는 베를린에 설치되며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함과 함께 개설되게 된다.

7월 20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는 서독련방의회에서 서부베를린에《련방환경보호사무소》를 설치할데 관한 법령을 채택한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7월 26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은 서부베를린에 서독의《련방환경보호사무소》를 설치할데 대한 법령이 실시된것과 관련하여 서독과 서부베를린사이의 통로를 통하는 려행자는 그가 서독의《련방환경보호사무소》성원이라는것이 판명되거나 이《사무소》의 물품과 물건을 가지고있을 때에는 통행을 금지하는 대응조치를 취하였다.

1974년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은 피지(1월), 빠나마(1월), 가봉(3월), 기네—비싸우(4월), 뉴질랜드(5월), 라오스(5월), 토이기(6월), 미국(7월), 모리셔스(10월)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4년에 독일사회통일당 제1비서 에리히 호네케르동지가 꾸바(2월), 뽈스까(6월), 쏘련(6월), 체스꼬슬로벤스꼬(10월)를 방문하였다.

또한 이해에 민주예멘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9월), 쏘련공산당 총비서 브레쥬네브(10월), 유고대통령 찌또(11월)가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공업이다.

국민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75%(1970년)이다.

주요공업부문은 연료동력공업, 금속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경공업이다.

주요지하자원은 갈탄, 카리염, 우라니움, 철광석, 콕스, 원유 등이다.

연료동력공업에서는 갈탄생산(매장량 500억톤)이 기본이다.

갈탄은 이 나라 동력자원의 98%를 차지하며 특히 전력생산의 90%가 갈탄을 리용한 화력발전에 의거한다.

갈탄은 해마다 2억 5천만톤이상 캐내는데 생산량에 있어서 세계 제1위이다.

주요생산지역은 엘바강서부의 할레와 라이프찌히 지역이다.

기계제작공업은 중기계로부터 정밀기계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기계들을 생산한다.

화학공업에서는 원유, 갈탄, 카리염, 석회석을 원료로 하여 화학비료, 시약, 합성섬유, 합성수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고있다.

조선공업도 발전하였다.

농업에서는 축산이 3분의 2를 차지

한다.

주요집짐승은 돼지, 가금, 소 등이다.

자연기후조건과 방판계로 주로 호밀, 밀, 감자, 사탕무우 등을 심는다.

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하천운수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엘바강은 중요하천운수로 리용되고 있다.

주요수출품은 공업설비, 화학제품, 경공업제품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농산물, 식료품 등이다.

주민은 대부분이 게르만족이다.

공용어는 독일말이다.

교육분야에서는 10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아데엔

신문 노이에스 도이췰란트(사회통일당기관지), 쏘씨알리스티쎄 데모크라티(국가쏘베트 및 내각기관지), 트리뷰네(자유독일직업총동맹기관지), 베를리네르 짜이퉁

잡지 아인하인트(사회통일당리론잡지), 노이에르 웨크(사회통일당생활잡지)

방송 독일민주주의공화국방송, 베를린 웰레방송, 도이췌 페른 쎄픈크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9년 11월 7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55년 1월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1956년 6월에는 경제 및 문화협정, 1971년 2월에는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 1971년 3월에는 1971—1975년기간의 장기통상협정, 1971년 9월에는 서로 법률상 방조를 줄데 대한 조약을 맺었다.

1974년 3월 25일에는 1974년도 상품교류의정서를, 9월 2일에는 농업과학원들간의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공화국 창건 25돐에 즈음하여 9월 9일 베를린에서는 《배우며 학습하는 나라, 교육의 나라—조선》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전람회가 열렸다.

또한 공화국 창건 25돐에 즈음하여 국제문제주간지《오리존트》는 론설을 발표하였다.

민주독일 정부와 인민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하여》의 결의안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정부의 립장을 지지하여 연설하였으며 이 결의안에 찬성투표하였다.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각지에서 련대성집회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모임들이 진행되였다.

7월 3일 라이프찌히체신부문일군들은 련대성집회를 열고 박정희도당의 인민탄압을 규탄하였다.

이날 라이프찌히통신기구공장에서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를 열고 우리 나라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9월 4일 평화위원회는 박정희괴뢰도당의 테로행위를 규탄하고 남조선애국자들에 대한 체포와 기타 전횡을 당장 중지하며 정치범들을 시급히 석방할것을 요구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9월 자유독일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근로청년위원회가 남조선애국자들에 대한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의 야수적탄압만행에 항의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974년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기자대표단(8월), 아데엔통신사대표단(9월),민족전선대표단(10월),조선어전문가대표단(10월), 와이마르민족가무단(11월)등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로동당대표단(7월), 정부무역대표단(3월), 미술가동맹대표단(5월), 조선중앙통신사대표단(6월), 농업과학원대표단(8월), 영화대표단(9월), 조선혁명박물관대표단(11월)이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하였다.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넓이 25만 5,804Km²
인구 2,066만명
수도 베오그라드(주민 99만 2,000명)

정 치

련방의회 최고립법및자치기관, 임기 4년, 련방리사회와 가맹공화국 및 변강리사회로 구성, 1974년 5월 새 헌법에 기초하여 련방의회선거 진행

대통령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1945년11월—)

새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국가상무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

국가상무위원회 최고지도기관(집체적대통령제)으로써 나라의 전반적정책을 협의하고 작성한다.

련방의회에 의하여 선거되며 임기는 5년, 1971년 7월 29일 구성, 1974년 2월 21일 새헌법에 의하여, 22명으로부터 9명으로 감소됨, 6개의 공화국과 2개 자치변강의 대표 각각 1명씩으로 구성됨

1974년 5월 16일 련방의회에서 9명의 국가상무위원회 위원들을 새로 선출, 위원장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

련방집행리사회(내각) 1974년 5월 17일 32명으로 구성, 위원장(총리) 제말 비에디츠(1971년 7월—), 외무담당련방비서 밀로쉬 미니츠, 국방담당련방비서 니꼴라 류비치츠

정당, 사회단체; 공산주의자동맹 1919년 4월에 창건된 공산당을 1952년 11월 6차당대회에서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위원장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

사회주의근로인민동맹, 직업동맹, 청년동맹, 인민해방전쟁루사련합동맹

1941년 7월부터 공산당의 지도밑에 유고슬라비아 인민과 인민해방군은 파쑈독일 강점자들을 족치고 많은 지역을 해방하였으며 1945년 5월에는 쏘련군대와 함께 파쑈강점자들을 내쫓고 나라의 전지역을 완전히 해방하였다.

1945년 11월 29일 유고슬라비아련방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1963년 4월 7일에는 새 헌법을 채택하고 나라이름을 사회주의련방공화국으로 고쳤다.

련방공화국에는 쎄르비아, 크로바찌아, 보스니아 및 헤르쩨고비나, 슬로베니아, 마께도니아, 체르노고리아 등의 사회주의공화국이 들어있다.

1974년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베오그라드에서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련방의회 련방리사회와 가맹공화국 및 변강리사회 합동회의가 진행되였다. 16일회의에서는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를 종신대통령으로 선거하였다.

또한 17일회의에서는 제말 비에디츠가 련방집행리사회 위원장으로 재선되였다.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공산주의자동맹 제10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공산주의자동맹과 그 지도기관이 한 사업에 관한 총화보고와 공산주의자동맹의 규약을 수정, 보충하는 문제를 토의하고 새 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대회에서는 공산주의자동맹의 당면과업들을 규정한 2개의 일반결의와 여러개의 개별결의들,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이딸리아반동세력의 령토적야망

을 단호히 규탄하는 특별결의를 채택하였다.

또한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를 공산주의자동맹 종신위원장으로 선거하였다.

3월 30일 유고슬라비아정부는 뜨르스뜨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이딸리아의 령토권주장을 규탄하여 이딸리아정부에 항의각서를 보냈다.

항구도시 뜨르스뜨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주권행사문제는 이미 유고슬라비아와 이딸리아의 참가밑에 관계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된 문제로서 1954년 런던비망록에 의하여 유고슬라비아는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이딸리아는 유고슬라비아의 관할하에 있던 뜨르스뜨주변지역을 유고슬라비아의 령토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나섰다.

5월 유고슬라비아 각지에서는 이 나라 령토의 일부분인 뜨르스뜨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이딸리아의 령토권주장을 규탄하는 군중집회들을 가졌다.

10월 20일 베오그라드에서 파쑈기반으로부터 수도해방 30돐에 즈음하여 기념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대통령 찌또가 베오그라드시에 인민영웅훈장을 수여하였다.

유고슬라비아정부는 쁠럭불가담국가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7월 16일 찌또대통령은 끼쁘로스사태와 관련하여 쁠럭불가담국가들과 모든 친선적인 나라들에 마카리오스대통령의 호소에 시급히 호응해나설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9월 베오그라드에서 7개 쁠럭불가담국가(유고슬라비아, 알제리, 인도, 인도네시아, 가이아나, 나이제리아)대표들의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호상간의 경제협조를 촉진할데 관한 문건을 채택하였고 쁠럭불가담국가 외교부장회의의 토의에 이 문건을 넘기기로 결정하였다.

1974년에 유고슬라비아는 모리셔스(8월), 레소토(8월)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4년에 유고슬라비아대통령 찌또가 인도(1월), 방글라데슈, 네팔(1월), 수리아(2월), 웽그리아(4월), 독일련방공화국(6월), 로므니아(7월), 독일민주주의공화국(11월), 단마르크(10월)를 방문하였다.

또한 이해에 키예우 삼판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대표단(4월), 꼬스따 리까대통령(4월), 버마대통령(10월), 칠레사회당총비서(9월), 스리랑카총리 반다라나이케(9월), 끼쁘로스대통령 마카리오스(9월)가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요지하자원은 석탄, 갈탄, 석유, 천연가스, 쇠돌, 보크사이트, 몰리브덴, 크롬, 동, 아연, 은, 안티몬, 연, 수은 등이다.

공업에서는 기계공업, 섬유공업, 담배공업, 제재공업, 강철공업, 화학공업, 전력공업, 선박공업 등이 비교적 발전하였다.

특히 기계공업은 공업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농촌경리에서는 아직도 개인경리가 지배적이다.

부침땅은 1천 470만 7천헥타이며 인구의 근 절반이 농업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강냉이, 감자, 사탕무우, 포도, 오얏, 사과, 담배, 해바라기, 삼 등이다.

주요수출품은 광물류, 기계, 운수설비, 목재, 식료가공품, 아열대농산물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철강재, 기계류, 공업설비, 화학제품, 석유, 콕스탄, 섬유 등이다.

주민은 쎄르비아사람, 크로바찌아사람, 슬로베니아사람 등 남슬라브족들이며 기타 10여개의 소수민족들이 있다.

언어는 쎄르비아말, 크로바찌아말이 대표적이며 슬로베니아말, 마께도니아말도 공용어로 쓴다.

초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있으며 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들에서 300여만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따뉴그통신

신문 꼼무니스트(공산주의자동맹기관지), 보르바(사회주의근로인민동맹기관지), 뽈리찌까, 웨체르니에 노보스띠

잡지 쏘찌알리즘(공산주의자동맹기관잡지), 국제로동운동(국제로동운동연구소 기관잡지)

방송 베오그라드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자그레브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류블리아나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0월 30일 두 나라간에 외교관계를 맺을데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1971년 9월에 서로 대사급외교대표를 파견하기로 하였다.

1971년 5월 무역및지불에 관한 협정을 맺었으며 1973년 5월에는 조선중앙통신사와 따뉴그통신사사이에 보도교환및호상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날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사이에는 래왕과 접촉이 빈번해지고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련계와 협조가 강화되고있습니다.》(《유고슬라비아신문 〈웨체르니에 노보스띠〉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8페지)

1974년 2월 2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고슬라비아신문 《웨체르니에 노보스띠》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시였다.

3월 11일 《웨체르니에 노보스띠》지를 비롯한 유고슬라비아신문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그이의 대답 전문 또는 상세한 요지들을 실었다.

또한 이 나라의 텔레비죤방송도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수령님께서 주신 대답을 상세히 보도하였으며 따뉴그통신도 이에 대하여 보도하였다.

또한 9월 6일 유고슬라비아의 《국제정치》잡지출판사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유고슬라비아신문 〈웨체르니에 노보스띠〉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10월 베오그라드에서 우리 나라도서전람회가 진행되였다.

유고슬라비아정부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 찌또대통령은 《우리는 두개국가로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함으로써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려는 책동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한다》라고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여 연설하였다.

유엔총회 29차회의에서 유고슬라비아는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하여》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정부의 립장을 적극 지지하여 연설하였으며 결의안표결에서 찬성투표하였다.

1974년 3월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월 7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공산주의자동맹대표단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또한 공산주의자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8월), 청년동맹대표단(9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로동당대표단(5월), 최고인민회의대표단(3월), 직맹대표단(12월), 조선중앙통신사대표단(11월), 중앙방송위원회대표단(12월)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핀 란 드

(핀란드공화국)

넓이 33만 7,009km²
인구 463만 4,000명(1973년 1월)
수도 헬싱키 (주민 53만 5,200명, 1970년)

정 치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국회에서 선출된다. 대통령 우르호 케코넨(1956년—)

국회 일원제이며 임기는 4년, 200명의 의원들로 구성, 1972년 1월 선거결과 인민민주련맹이 37개 의석, 사회민주당이 55개 의석, 중앙당이 35개 의석, 민족련합당 (보수당) 이 34개 의석, 농민당이 18개 의석, 스웨리예인민당이 10개 의석, 자유인민당이 7개 의석, 기독교동맹이 4개 의석을 각각 차지

정부 1972년 9월 사회민주당, 중앙당, 스웨리예인민당, 자유인민당의 련립정부 수립, 총리 칼레비 소르사 (사회민주당출신, 1972년 9월—)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1918년 9월 28일 창건, 위원장 아아르네 싸아리넨 (1974년 3월 명예위원장이였던 헤르타 쿠우씨넨 사망), 총비서 아르보 아알토, 인민민주련맹 1944년 공산당과 좌익사회당원들의 발기로 조직된 대중적인 사회정치조직, 공산당은 이 조직의 명칭을 가지고 선거전에 참가, 사회민주당 1899년에 창건된 당으로서 로조와 소농경리에 지반을 두고있다. 중앙당 1906년에 농민당으로 창건, 1965년에 현재 이름으로 고쳤고 소농의 리익을 대변, 자유인민당, 스웨리예인민당, 민족련합당, 농민당, 기독교동맹, 사회로동당 1974년 11월 제1차당대회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이 당대회에 축전을 보냄, 위원장 펜티 왈쩨르, 로조중앙조직, 민주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

핀란드는 1917년 12월 6일 독립하였다. 핀란드는 1948년에 쏘련과 우호협조및호상원조조약을, 1962년 3월에 《북구라파협력조약》(스웨리예, 노르웨이, 단마르크, 이슬란드) 을 맺었다.

제2차세계대전후 핀란드에서는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세력들과 중간파 및 우익세력들간 정치투쟁으로 인하여 1964년까지만 하여도 스물한차례의 정부교체가 있었다.

1972년 1월의 국회선거후 총의석 200개 의석중 55개 의석을 차지한 사회민주당의 단독내각이 수립되였다. 그후 같은해 9월에 다시 사회민주당을 주축으로 하는 중앙당, 스웨리예인민당, 자유인민당의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새 정부는 자기의 대외정책강령에서 평화를 공고히 하고 국제적협조를 발전시킬데 대한 《빠아씨끼비—케코넨의 로선》에 부합되는 정책을 실시할것이라고 하였으며 북구라파나라들과의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는것이 정부의 기본대외정책목표의 하나이라는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대외정책에 기초하여 핀란드는 평화애호적이며 중립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며 구라파의 완전한 평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1973년 12월 17일 칠레군사파쑈도당에 대한 원조를 끊기로 결정한 핀란드정부는 1974년 8월 16일 칠레군사악당들에 의하여 감금된 《정치범》들의 가족들과 정치적리유로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원조 (20만마르크) 를 주기로 하였다.

1974년 3월 이 나라에서 열린 《칠레군사정권의 범죄에 대한 국제조사위원회》회의에 참가한 핀란드총리는 칠레파쑈도당의 범죄적만행을 규탄하였다. 핀란드 대통령과 정부는 칠레군사도당에 편지를 보내여 애국자들에 대한 이른바 《재판》놀음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요구하였다. 100명의 이 나라 국회의원들도 칠레군사도당의 폭압만행에 항의하였다.

1974년에 핀란드대통령은 2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쏘련을, 총리는 4월에 로므니아, 8월에 스웨리예, 9월에 웽그리아를 공식방문하였다.

핀란드총리의 로므니아방문에 관한 공동콤뮤니케에서 두 나라는 문화, 예술, 과학, 교육 분야에서 협조의 발전에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구라파에서의 안전과 협조의 조정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려는 두 나라 정부의 결심을 재확인하였다.

이해 5월에 경제및기술협조를 위한 핀란드—인도공동위원회의 창설에 합의하였으며 10월에 쏘련과 동력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협정에 각각 조인하였다. 9월 19일에는 서부독일과 힘의 사용을 포기하며 핀란드의 국제적중립에 대한 서독의 존중을 선언하는 공동선언에 조인하였다. 1974년 8월 9일 핀란드는 기네—비싸우를 승인하였다.

1974년 6월 16일에 열렸던 핀란드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1975년 상반기에 핀란드공산당 제17차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1974년 11월에 핀란드사회로동당 제1차대회, 5월에 핀란드민주녀성동맹 제10차대회가 진행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핀란드는 자본주의적공업—농업국가이다.

경제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는것은 《스무가정》의 독점체들이다. 그것들은 전체 산업, 은행자본, 대외무역의 90%를 통제하고있다.

금속가공공업에서 3개의 주식회사가 이 부문 전체 자본의 거의 3분의 2를, 화학공업에서는 1개의 주식회사가 전체 자본의 3분의 1을, 동력공업에서는 2개의 회사가 전체 자본의 3분의 2를 쥐고있다. 이 독점체들은 미제를 비롯한 일련의 서구라파나라들의 독점회사들과 련결되여있다.

또한 경제에서 국가독점형태의 경영방식의 비중이 크다. 국가독점자본의 투자액은 총투자액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공업에서는 목재가공과 련관된 공업이 발전하였다. 목재가공, 팔프 및 종이 공업은 풍부한 침엽수림자원에 토대하고있다. 목재가공공업은 공업총생산액의 3분의 1, 수출의 85%를 담당하고있다.

신문용지생산은 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 가운데서 첫자리, 팔프생산은 두번째자리를 차지한다. 년평균 종이는 290만톤, 합판은 약 70만톤 생산한다.

석탄과 석유 등 연료자원이 없으나 그 대신 풍부한 수력자원에 의거하여 동력을 보장하고있다.

기계제작 (주로 대형설비) 공업과 금속공업, 선박공업의 일정한 토대를 가지고있다.

경공업부문에서 기본은 식료가공(축산물가공) 공업과 섬유공업이다.

농업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목축업이다. 중소토지소유자가 농촌에서 우세를 차지하는데 그들은 전체 농가의 95%, 부침땅의 5분의 4, 집짐승마리수의 5분의 4를 갖고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토지가 전혀없어 소작살이 하는 농민들도 적지 않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호밀, 귀밀, 감자이다.

년평균 40여만톤의 보리와 50여만톤의 귀밀을 생산한다. 식량은 국내수요의 70%밖에 충족시키지 못하며 농산물은 국민총생산액에서 8%정도 차지할뿐이다.

그러나 목축업에서는 품종이 좋은 젖소를 많이 기른다. 북극지방기후에 적응한 북극사슴도 많이 방목한다.

주로 발찌해와 수많은 호수들에서 물고기잡이도 한다.

교통운수에서 기본은 철도운수이며 국내수송에서는 운하를 통한 수송도 많이 한다. 철길의 길이는 5천 685키로메터이며 중요항구는 헬싱키와 포리이다.

주요수출품은 목재, 팔프, 종이, 배, 기계, 축산물가공제품 등이며 수입품은 석유, 석탄, 목화, 짐집승떠이, 기계류와 기타 공업제품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스웨리예, 영국, 서독, 쏘련이다.

주민의 90%이상이 핀족이며 그밖에 약간의 랍족과 스웨리예사람들이 산다.

공용어는 핀란드말이지만 스웨리예사람들은 자기들의 말을 쓴다. 주민의 95%가 신교 (국교) 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에스티티—에프엔비

신문 칸산 우우티세트 (공산당기관지), 쏘시알 데모크라티 (사회민주당기관지), 투룬쌔이메호티 (사회민주당소속), 에텔레—사이마 (중앙당기관지), 매드보르가르블라데트 (스웨리예인민당기관지) 풀또피스테 (자유인민당기관지), 우우시 수오미 (민족련합당기관지), 온딱뚤, 뜨리뀬트, 페이밴 우우티세트, 라껜따야, 이에도난따야, 쏘씨알리스떠넨 아이까까우레스호며

방송 핀란드방송 (대내, 대외), 핀란드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6월 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9년 10월 두 나라사이의 무역협정에 따라 1970년 9월 15일 헬싱키에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설치되였다.

1967년 3월 23일 핀란드조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4년 6월 29일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핀란드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아아르네 싸아리넨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이 당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아아르네 싸아리넨동지는 접견석상에서 이번 조선방문을 통하여 자기들은 조선은 반드시 통일되여야 한다는 것을 더욱 똑똑히 알수 있었다고 하면서 핀란드공산당은 앞으로도 모든 힘을 다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시하시고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로동계급, 제3세계나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강조하시였으며 두 나라 당과 로동계급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1974년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우리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다오메정부기관지 〈다오멕스프레스〉 사장과 한 담화》, 《빠나마기자대표단과 한 담화》, 《페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수령님께서 1974년을 맞이하여 하신 신년사 등을《쿠르시비》출판사가, 《이딸리아공산당기관지 〈우니따〉지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유고슬라비아신문 〈웨체르니에 노보스띠〉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난띠에》출판사가 각각 출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페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핀란드신문들인 《께스끼쑤오말라이넨》, 《칸산우우티세트》, 《라껜따야》, 《해벤 휘호 떼위스 뛰의》, 《패이밴 우우티세트》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 (요지) 를 신문《페이밴 우우티세트》가, 《수단정부기관지 〈알싸하파〉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요지) 을 신문《칸산 우우티세트》가 실은것을 비롯하여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이 나라 출판물들이 광범히 실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10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신문들인《칸산 우우티세트》와《페이밴 우우티세트》, 《이에도난따야》는《김일성각하께서 농촌테제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10년》, 《강력한 조선의 농업》, 《조선농업의 커다란 전진》이라는 제목을 달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함께 글을 실었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핀란드조선협회 땀뻬레지부와 땀뻬레종합대학 학생련맹의 주최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를 가진것을 비롯하여 핀란드의 각지에서 련대성행사들이 진행되여 성명, 편지, 결의들이 채택되였다.

공화국창건 26돐에 즈음하여 땀뻬레시에서 사진전람회가 있었으며 신문《라껜따야》는《26년전에 조선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라는 제목밑에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성과를 소개하는 글을 옹근 한면에 걸쳐 실었다. 9월 13~22일까지 우리 나라 전람회가 헬싱키에서 대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스물아홉돐에 즈음하여 핀란드공산당 중앙기관지《칸산 우우티세트》는 편집국론설을 실었다.

10월 19일과 20일 이틀동안에 핀란드조선협회 뚜르꾸지부의 주최로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와 사진전시회가 있었다.

1974년에 핀란드의 광범한 사회계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만행을 규탄하였다.

8월 2일 핀란드총리 칼레비 소르사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집단적으로 학살처형하려는 박정희살인악당의 야수적폭압만행에 항의하여 박정희도당에게 전문을 보냈다.

핀란드 평화위원회와 민주청년동맹, 기자총동맹은 1월에 성명 또는 편지를, 민주법률가협회와 사회주의청년동맹은 8월에 성명을, 핀란드공산당 이배스깔래지부, 매끼마떠지부는 항의편지를 채택한것을 비롯하여 여러 사회단체들과 출판물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의 피비린내나는 살인만행을 항의규탄하였다.

핀란드공산당 중앙기관지《칸산 우우티세트》는 《유엔에서의 조선문제토의》라는 제목을 달고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것을 주장하였다. 11월 26일 핀란드조선협회는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토의와 관련하여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해에 핀란드신문《쏘씨알리스떠넨 아이까까우레스호며》는《조선은 주체의 나라》라는 큰 제목밑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사회민주당대표단 성원이 쓴 방문기를 실었다. 신문《칼레바》는《조선에는 세금이 없을뿐아니라 통화팽창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성과를 소개하였다.

1974년 8월에 핀란드정부문화대표단과 식물학자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5월에 정부대표단이 핀란드를 방문하였다.

5월 9일 핀란드대통령이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을 만났다. 대통령은 조선과 핀란드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외세의 간섭이 없이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스 웨 리 예

(스웨리예왕국)

넓이 44만 9,750km²
인구 812만명(1972년)
수도 스톡홀름(주민 74만 7,490명, 1970년)

정 치

국왕 립헌군주국으로서 국가수반이나 상징적존재에 불과하다. 1973년 6월 6일 의회는 국왕의 정치적권한을 극히 제한하는 법안을 승인하였으며 이 법안은 1974년 2월 의회에서 최종 통과되였다. 국왕 까를구스타프(1973년 9월—)

의회 1971년 1월부터 일원제로 되였으며 임기는 3년, 의원은 모두 350명, 1973년 9월 총선거결과 공산주의자좌익당이 19개 의석, 사회민주당(집권당) 156개 의석, 중앙당 90개 의석, 인민당 34개 의석, 보수당이 51개 의석을 각각 차지

정부 사회민주당이 1936년부터 련립정부에 참가하였다가 1957년 10월부터 단독내각을 구성하고있다. 총리 올로프 팔메(1969년 10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주의자좌익당 1917년 5월에 창건, 위원장 칼 헨리크 헤르만손, 사회민주당 1889년에 나온 당으로서 로조에 지반을 두고있는 온전한 사회민주주의적정당, 위원장 올로프 팔메, 중앙당(전신은 농민당) 1910년에 조직되였고 부농, 중소농민, 도시의 일부 계층들로 구성, 인민당(전신은 자유당) 1934년에 조직되였고 대부르조아지, 주로는 중소부르조아지, 관리들, 사무원, 일부 로동자, 농민들로 구성, 온건련립당(전신은 보수당) 1904년에 나온 당으로서 대공업 및 금융자본가, 대토지소유자, 군부상층의 리익을 대변하는 우익정당, 로조중앙련맹 사회민주당의 영향밑에 있으며 공업로동자의 95%를 망라, 사무원로조중앙조직, 공산주의청년동맹, 사회민주청년동맹 사회민주당소속, 좌익녀성동맹

스웨리예는 두차례의 세계대전기간에《중립》을 유지하였으며 전후에도《중립정책》을 내세우고《나또》를 비롯한 침략적군사쁠럭들에 들어가지 않았다. 반면에《북구라파리사회》(1952년 12월에 스웨리예, 단마르크, 노르웨이, 핀란드, 이슬란드로 조직)성원국들과 정치, 경제 및 문화적 협조를 강화하고있다.

사회민주당의 정부는 1960년대부터 국제관계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였다. 정부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접촉을 강화하였다.

1967년 4월 남부웰남괴뢰도당과 외교관계를 멀리하고 자기 나라에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의 공보부를 설치하는데 동의하였다.

1969년에는 민주웰남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 참가하는것을 거부하고 도망쳐오는 미제침략군의 탈주병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였다.

스웨리예정부는 1970년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침략전쟁을 규탄하고 놈들의 철수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스웨리예정부의 이러한 반미적태도에 의하여 미제와 호상 대사까지 소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1973년 5월과 8월 스웨리예총리 올로프 팔메와 외교부장은 캄보쟈해방지역에 대한 미제침략자들의 야만적인 폭격만행을 규탄하였다. 같은 달에 이 나라에서는 악명높은《미중앙정보국》의 지령밑에 움직이던 한 간첩망을 적발분쇄하였다.

1974년 6월 11일 이 나라 총리는 한 담화에서 현국제정세하에서 작은 나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독립과 자주국가로 존재할 권리를 수호하는것이라고 지적하고 작은 나라들은 서로 굳게 단결하고 서로 련대성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힘주어말하였다.

인도지나인민들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고있는 이 나라 인민들은 4월 7일에 스웨리예의 18개 도시에서 웰남에 관한 빠리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있는 미제와 사이공괴뢰도당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렸다.

10월에도 스톡홀름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인도지나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규탄하고 미제와 그 주구들이 빠리협정을 엄격히 준수할것을 요구하여 시위와 집회를 가졌다.

5월 29일 수도의 수많은 근로자들은 스웨리예에 와있을 미국대사놈이 기여드는것과 때를 같이 하여 반미시위를 벌렸다.

스웨리예외교부장은 3월 20일 의회에서 정부는《중립정책》을 계속 실시할것이라고 말하고 정부선언을 랑독하였다. 선언에서 정부는 칠레에서의 친미파쑈도당의 군사정변을 다시금 규탄하였다.

12월 14일 사회민주당 (집권당)위원장 팔메(총리)와 공산주의자좌익당, 자유당 및 중앙당의 위원장들은 공동콤뮤니케를 발표하여 남부웰남에서 빠리협정을 계속 위반하는 사이공괴뢰도당을 규탄하고 1975년 빠리협정체결 두돐이 되는 날에 전국적인 시위를 벌리기로 하였다.

남부도시 말뫼에서 9월 15일 진행된 칠레군사파쑈정권을 반대하는 스웨리예근로자들의 집회에서 연설한 팔메총리는 칠레군사도당을 신랄히 규탄하면서 그는《어느 날에 가서 군사정권의 비렬한 깡패들은 소멸될것이며 칠레는 자유로운 국가로 될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1974년에 이 나라 외교부는 자기 나라에 있는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의 공보부의 급을 올려 총대표부로 하는것을 승인하기로 결정(8월 21일)하였으며 11월 27일 사이공괴뢰도당과는 외교관계를 완전히 끊는다는것을 발표하였다. 8월 9일에는 기네—비싸우를 승인하였다.

스웨리예정부는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 팔레스티나, 나미비아, 짐바브웨, 모잠비끄, 아자니아 등 정당한 위업을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있으며 일련의 나라들에 물질적지원을 주고있다.

1974년에 스웨리예총리는 쿨스까(4월), 유고슬라비아(6월), 화란(9월), 뽀르뚜갈(10월), 알제리(11월)를 방문하였다.

스웨리예총리의 알제리방문에 관한 공동콤뮤니케에서 쌍방은 팔레스티나, 나미비아, 짐바브웨와 아자니아 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지지하였다. 이 기간에 두 나라는 경제, 공업, 기술, 과학에 관한 협조협정에 조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스웨리예는 자본주의적공업, 농업국가이다.

공업부문에서는 로동인구의 36%가 일한다. 북부지방의 풍부한 쇠돌과 산림자원 및 수력자원에 기초하여 금속, 기계, 제재, 팔프, 선박 공업 등이 일정하게 발전하였다. 석유나 석탄은 거의 없으나 수력자원이 풍부하므로 전기에 의한 강철생산이 많이 진행되고있다. 콕스탄이 부족하여 선철보다 강철생산이 많으며 특히 고속도강생산의 비중이 크다.

채광공업은 공업총생산액의 4%를 차지한다. 쇠돌생산이 기본이며 그의 대부분은 원광 그대로 많이 수출한다. 기계제작공업에서는 팔프, 종이 생산설비들, 광산기계들과 고성능특수기계들을 주로 생산한다.

풍부한 산림자원에 기초한 목재가공, 팔프, 종이 공업이 발전하였다. 년평균 종이팔프는 약 840만톤, 목재는 약 1천 160만립방메터 생산한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합성수지생산이 큰 의의를 가지며 석유수입에 의한 그의 제품생산도 한다.

농업부문에서는 로동인구의 12%가 일한다. 부침땅은 전국토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그중 약 70%의 땅은 대자본가들과 농장주들이 가지고있다. 전체 부침땅의 10분의 7은 집짐승먹이작물재배지이다.주요농산물은 감자, 밀, 보리, 사탕무우 등이다. 년간 약 130만톤의 알곡, 127만톤의 감자, 약 180만톤의 사탕무우, 320만톤의 집짐승먹이작물을 생산한다. 식량과 집짐승먹이작물을 해마다 적지 않게 수입한다.

목축업은 농업에서 기본을 이룬다. 이것은 농업총생산액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집짐승으로는 소, 돼지, 양, 말, 닭을 기른다.

철길은 1만 2천 500키로메터이며 국내수송에서는 운하망도 큰 역할을 한다. 주요항구도시들로서 우메발라, 말뫼 및 피테부르그가 있다.

주민의 99.7%는 스웨리예사람들이며 북부에 핀란드사람들과 랍족이 약간 산다.

언어로서는 스웨리예말을 쓰나 북부지역에서는 핀란드말도 쓴다. 주민의 95%가 신교 (국교) 를 믿는다.

출판보도 ; 통신 스웨리예통신

신문 니 다그 (공산주의자좌익당기관지), 아프론 블라데트 (사회민주당및정부기관지), 다겐스 뉴헤테르 (자유당기관지), 익스프 웨쎈, 《조선통보》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기관지), 엑스프레쎈, 스벤스 다그 블라데트, 쏘찌알 데모크라티, 알제떼트

방송 스웨리예방송, 스웨리예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4월 7일에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0년 6월에는 우리 나라 공보부가 스웨리예에 설치되였다.

1969년 11월에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4년에 스웨리예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수많이 출판하였거나 신문에 실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묶은 문헌집《녀성동맹사업에 대하여》와《일본 정치리론잡지 〈세까이〉 편집국장과 한 담화》,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리아대통령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하신 연설을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티덴 본내젠》출판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리아대통령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하신 연설을 스웨리예신문《배스트고라 데모크라텐》이 실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을 지지하여 신문《니 다그》 (공산주의자좌익당기관지), 《아프톤 블라데트》, 《다그블라데트》가 글을 실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신문 《비그나드스 데모크라텐》이 요지를 실은것을 비롯하여 스웨리예의 많은 출판물들이 그이의 로작들을 앞을 다투어 실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열돐에 즈음하여 신문《니다그》와 이 나라의 지방신문들은 우리 나라 농업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상세히 소개하는 글들을 실었다.

11월 1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1974년에 전례없는 대풍작을 이룩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모습을 보여주는 《쌀풍년, 사과풍년, 모두다 풍년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진전람회》가 노르쉐피따시에서 열렸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6월 19일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의 주최로 스톡홀름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가 진행되였다. 스웨리예공산주의청년동맹도《조선인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월간》을 설정하고 6월 25일 피테부르그에서 군중집회를 진행하였다. 6월 20일 이 동맹 중앙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6월에 스웨리예평화옹호위원회는 미국회에 편지를 보내여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규탄하였다. 같은달에 스톡홀름의 근로자들은《미군은 남조선에서 물러가라!》, 《조선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라고 쓴 구호판들을 들고 미국놈들의 대사관으로 밀려갔다. 시위자들은 여기에서 항의집회를 가지고 반미결의를 채택하였다.

또한 7월에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와 이 나라에 있는 미국탈주병위원회는 남조선괴뢰 《국회의원대표단》이 기여드는것을 반대하여 시위를 벌렸다.

박정희파쑈악당이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애국적민주인사들을 집단적으로 처형하려는 야수적만행에 항의하여 8월 2일 이 나라 총리 울로프 팔메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는 한 모임의 연설에서 남조선애국자들에 대한 사형을 취소할것을 요구하였으며 한 신문의 부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면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만행을 규탄하였다.

10월 21일 우메오종합대학 학생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여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74년에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 제출된《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하여》라는 결의안을 정부가 지지할것을 요구하여 11월 4일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공산주의자좌익당, 좌익녀성동맹, 공산주의청년동맹, 평화옹호위원회 등 11개 정당, 사회단체들은 련명으로 된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11월 18일 반제반전단체인 통일에프엔엘그루빠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두개 조선》조작 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으며 공산주의청년동맹중앙위원회는 11월 27일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전문을 보냈다.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스웨리예평화옹호위원회를 비롯한 이 나라의 여러 사회단체들의 공동주최로 11월 26일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지지하는 집회를 가지고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1974년에 스웨리예외교부 처장 (10월), 스웨리예엔스킬은행대표단 (12월) 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해에 우리 나라에서는 외교부대표단이 4월 24~30일까지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4월 26일 이 나라 총리가 우리 나라 외교부대표단을 만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스웨리예총리에게 보내시는 말씀을 석상에서 대표단 단장이 정중히 전달하였다.

그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제안들을 잘 알고있다고 하면서 이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7월에 조선공업기술총련맹 자동화협회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노 르 웨 이

(노르웨이왕국)

넓이 32만 4,219km²
인구 393만명(1972년)
수도 오슬로 (주민 48만 7,363명, 1970년)

정 치

국왕 립헌군주국으로서 국왕이 국가수반이다. 국왕 올라브 5세(1957년—)

국회 (스토르팅그) 임기 4년인 의원 155명으로 구성, 의원들중에서 38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상원(라그팅그)을 구성하며 나머지 112명의 의원들로 하원(오델리스팅그)을 조직한다. 1973년 9월에 국회선거 결과 총의석 155개 의석중 레이버당이 62개 의석을 차지

정부 1973년 10월 16일 레이버당(로동당)의 정부가 수립되였다. 총리 트류그베 브랏텔리(1973년 10월 16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3년 11월 4일 창건, 1973년 11월에 제14차당대회 진행, 위원장 레이다르 테 라르센, 사회인민당 1961년 4월 16일 창건, 핵무장화반대, 나토로부터의 탈퇴 등을 주장, 1973년 3월 제8차 당대회를 진행, 레이버당(로동당) 1887년에 창건되여 로조에 지반을 두고있다. 1935~1968년, 그후 1971~1972년 10월까지 집권당이였고 1973년 3월 16일부터 다시 집권당, 위원장 트류그베 브랏텔리, 호이레당(보수당) 1885년에 나온 반동적인 부르죠아정당, 사회민주당, 기독교인민당 1933년에 나온 이래 교회세력과 련결된 당, 중앙당 1920년에 조직되여 대, 중토지소유자들과 산림경영주들의 리익을 대변, 벤스트레당 (자유당) 1884년에 조직되여 중소부르죠아지, 일부 사무원, 인테리들의 리익을 대변, 로조중앙련맹 국제자유로련에 가입, 공산주의청년동맹, 청년동맹 레이버당소속, 녀성동맹

1814년 5월 17일은 독립을 선언한 날로서 노르웨이의 국경절이다.

제1차세계대전시기 노르웨이는 중립을 견지하였다.

1940년 4월에 이 나라는 히틀러독일침략자들에게 강점당하였다.

강점기간 히틀러살인악당들은 4만명의 이 나라 인민들을 잡아가두고 그중 약 2천 500명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1945년 5월 파쑈독일의 패망과 함께 노르웨이는 다시 해방되였다.

전후 노르웨이는 침략적인 군사쁠럭인 나토에 가담하였다.

한편 이 나라는 1964년 10월 미제의 《다각적핵무력》창설안을 반대하였으며 1968년 6월의 《나토각료리사회》에서 나토의 지중해무력을 강화할데 대한 미제의 제의를 거부하였다.

이 나라에서는 1935년부터 1965년까지 대체로 레이버당정부가 집권하였다. 1972년 10월에 정부는 구라파《공동시장》가입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자 총사직하고 기독교인민당, 중앙당, 자유당의 소수파련립정부가 수립되였다.

1973년 9월 총선거후 10월 16일 레이버당의 소수파정부가 다시 수립되였다.

1974년 6월 10일 이 나라는 아프리카의 가물피해지역 나라들에 600만크로네의 원조금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였다.

6월 26일 노르웨이의 일련의 정당, 로조 및 청년단체들이 칠레파쑈도당에 의하여 감옥과 수용소들에 갇혀있는 《정치범》들의 즉시 석방을 요구하여 공동호소문을 발표하였다.

노르웨이는 9월에 북부노르웨이연해에서 어업전관수역을 1975년에 12마일로부터 50마일로 넓힐것이라고 발표한데 이어 12월초 노르웨이총리는 한 회의에서 자기 나라의 이 립장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는 200마일경제수역의 설정을 주장하고있다. 제3차유엔해양법회의 (1974년 6~8월기간에 베네수엘라에서 진행) 에 참가한 노르웨이대표는 이 립장을 거듭 밝혔다.

이해 7월 31일 노르웨이는 끼쁘로스에 《유엔평화군》 성원으로 1천 200명을 보내기로 하였다.

노르웨이는 자기 나라 령토내에 외국의 군사기지와 핵무기를 두지 않는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1974년 이 나라 총리는 3월에 쏘련, 10월에 뽈스까와 웽그리아를 각각 방문하였으며 공동콤뮤니케들이 발표되였다. 3월과 12월에 쏘련과의 항행협정, 국제자동차운수협정에 조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노르웨이는 비교적 발전된 공업—농업국가이다.

경제에서 해운업과 수산업, 림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전후에 경제구조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경제에서 공업이 중요한 부문으로 되여 국민소득의 거의 절반을 공업생산이 차지하게 되였다. 이 부문에서는 로동인구의 36%가 일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 (전기기계, 화학, 섬유, 제지, 물고기통졸임) 은 약간 줄었으나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공업생산의 몫이 조금 늘었다.

수력자원보유량에 있어서 서구라파지역에서 첫자리를 차지하며 공업에서 전력의 리용도가 높다.

야금공업 (년평균 선철은 약 67만~68만톤, 강철은 87만톤) 에서도 전력을 많이 리용하고있다. 1974년에 북해지역의 노르웨이연안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지 (20억바렐의 석유와 500억립방메터의 천연가스) 가 발견됨으로써 연료를 적지 않게 보충하게 되였다. 전력생산의 90%는 수력자원에 기초하고있다.

알루미니움생산을 비롯한 유색금속공업은 대외시장을 대상으로 하고있다. 알루미니움원료는 수입에 의존한다.

광업부문에서는 쇠돌 (매장량 약 20억톤), 동, 연, 니켈 등이 채취된다.

년간 아연 6만톤, 니켈 4만톤 정도 생산된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질소비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비료생산이 큰 의의를 가진다.

이 나라는 질소비료생산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업에 도입하였다.기계제작공업에서는 전기기계와 선박기계 생산이 전문화되였고 기타 기계생산은 뒤떨어졌다.

산림자원이 풍부한 이 나라는 팔프 및 종이 공업이 일정하게 발전하였다.

농업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몫이 적다.

부침땅은 전령토의 3% (80만헥타)에 불과하다. 이 부문에서는 로동인구의 겨우 5분의 1이 일한다.알곡작물 (밀, 보리, 감자)은 국내식량수요의 15~20%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소젖 및 고기 생산을 위주로 하는 축산업발전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농업총생산액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이 6%에 불과한데 그중 4분의 3은 축산업이 차지한다. 집짐승으로 소 (약 90만마리, 그중 젖소 43만마리), 양, 돼지를 기른다.

세계어장의 하나인 북해를 끼고있는 노르웨이에서는 대구, 청어 등 물고기를 많이 잡는다. 북부바다가지역은 어부들의 50%가 모여드는곳이며 이 나라의 어장과 물고기생산의 절반을 차지한다. 년평균 물고기생산량은 300만톤에 달하는데 이것은 구라파 《공동시장》나라들이 잡는 전체 물고기량의 근 절반에 해당한다. 고래잡이와 고래기름생산은 자본주의나라들의 총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경제에서 해운업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데 이 부문에서는 로력인구의 약 2%밖에 일하지 않지만 국민소득의 10%가 얻어진다.

외화수입의 27%정도는 해운업이 담당한다.

철길은 4천 200키로메터인데 그중 절반남직이 전기화되였다.

주요수출품은 쇠돌, 목재, 팔프 및 종이, 물고기와 그 가공제품, 배, 비료, 동물성기름, 가축과 그 가공제품 등이며 식량, 집짐승먹이, 사탕, 화학제품, 천과 실, 의복, 연료, 금속제품, 기계류, 운수설비 등을 수입한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영국, 스웨리예, 미국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노르웨이사람들이며 그밖에 스웨리예사람, 핀란드사람들이 약간 산다.

언어는 노르웨이말을 쓰며 주민들은 신교 (국교)를 많이 믿는다. 오슬로종합대학을 비롯하여 11개의 대학이 있다.

출판보도; 통신 엔터비 (노르웨이통신)

신문 프리 헤텐 (공산당기관지), 아르바이데르 (공산당기관지), 다그블라데트 (자유당기관지), 아르바이데트 블라데트(페이버당기관지), 쏘시알리스티스크 폴케파르티 (사회인민당기관지), 오리엔테링 (사회인민당기관지), 폴케쯔 프람티드 (기독교인민당기관지), 아프텐 포스텐 (보수당기관지), 나티오넨 (중앙당기관지)

방송 노르웨이방송, 노르웨이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6월 22일에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2년 9월에 노르웨이주재 우리 나라 공보부가 개설되였다.

1968년 2월 8일에 노르웨이조선친선협회가, 1972년 2월 28일 노르웨이조선련대성위원회가 노르웨이에서 각각 결성되였다.

1974년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노르웨이사회인민당 위원장 스테인 온하이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당대표단, 노르웨이공산당 부위원장 마르틴 군나르 크누젠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당대표단, 노르웨이사회민주당 집행위원회 위원이며 국회그루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대표단을 각각 접견하시였다.

6월 8일 접견석상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보내는 노르웨이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친선적인 인사를 노르웨이사회인민당대표단 단장이 정중히 전하여드리였다.

접견석상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 시대는 자주성을 강조하는 시대이며 매개 나라 혁명은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이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과 그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대해서와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자력갱생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에서 유일사상체계가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표단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스테인 온하이동지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사회주의를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건설하는데서 성공하였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이 자력갱생의 원칙밑에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경험은 자기들에게 크나큰 고무를 주었으며 모범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7월 11일 접견석상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보내는 노르웨이공산당 위원장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노르웨이공산당대표단 단장이 정중히 전해드리였다.

단장은 조선로동당이 자기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확고하게 의거하고있는 주체사상을 매우 긍정적인 사상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달성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9월 10일 접견석상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노르웨이사회민주당대표단 단장은 조선에 와서 조선인민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커다란 성과를 직접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이 《속도전》의 방법으로 사회주의 대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때문에 조선의 경제는 더 빨리 발전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교류도 더 잘하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1974년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수록한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을 《두나브》출판사가 출판하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일본 <이와나미>서점 상무취체역 총편집장과 한 담화》를 노르웨이조선친선협회가, 《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와 《이딸리아공산당기관지 <우니따>지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까이> 편집국장과 한 담화》,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니 다그》출판사가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를 노르웨이신문들인 《쏘테아데이더 블라데트》, 《피르다 포스텐》, 《모스다그 블라드》가,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무조건 물러가야 한다》를 신문 《하마르 아르베이 블라드》와 《남발아르베이데르 블라드》, 《오리엔테링》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와 《유고슬라비아신문 <웨체르니에 노보스띠>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신문 《다그 블라데트》가 각각 실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10돐에 즈음하여 신문 《다그 블라데트》는

수령님께서 농촌을 현지지도하시는 사진을 정중히 모시고 《조선에서 사회주의농촌문제의 빛나는 해결》이라는 제목밑에 특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리아대통령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하신 연설을 지지하여 노르웨이공산당 집행위원회 위원이며 노르웨이공산당기관지 《프리 헤텐》책임주필이 글을 실었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6월 25일 노르웨이조선친선협회가, 7월 26일 노르웨이사회인민당이 각각 성명을 발표하였다.

공화국창건 26돐에 즈음하여 노르웨이조선친선협회와 노르웨이조선련대성위원회는 오슬로에서 공동주최로 기념집회를 가졌다.

1974년에 노르웨이조선련대성위원회대표단(6월), 정부무역대표단(10월), 1969년 11월에 노르웨이공산당 위원장 헤이다르 테라르센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이 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4년에 우리 나라 정부무역대표단(10월), 1973년에 정부대표단(2월), 조선로동당대표단(11월에 노르웨이공산당 제14차대회에 참가)이 노르웨이를 방문하였다.

이 슬 란 드

(이슬란드공화국)

넓이 10만 2,846km²
인구 21만명(1972년)
수도 레이캬비크(주민 8만 1,470명)

정 치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4년, 국회와 함께 립법권을 가진다. 대통령 크리스찬 엘자른(1968년 7월—)

국회(알팅) 상하량원제로서 임기는 각각 4년, 국회정원은 모두 60명인데 그중 49명은 선거하며 나머지 11명은 비례제에 의하여 매개 정당들에 의석수가 배정된다. 60명의 의원들 가운데서 20명(3분의 1)을 선출하여 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40명으로 하원을 구성, 1974년 6월 총선거 결과 60개 의석중 독립당이 25석 차지

정부 1971년 7월에 인민동맹, 자유좌익당, 진보당 련립정부가 수립되였었으나 1974년 6월 30일 국회선거후 7월 2일 새 련립정부가 나왔다. 총리 할그림쏜(1974년 8월—)

정당, 사회단체; 인민동맹 1938년에 창건된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좌파가 련합하여 통일사회당을 조직하였다가 1968년에 해산, 같은해에 통일사회당을 모체로 하여 인민동맹이 창건됨, 위원장 아르날드손, **자유좌익당**(자유사상가및좌익세력조직) 1969년에 인민동맹에서 떨어져나온 사람들로 조직, 미제의 군사기지철폐를 주장하나 나토의 탈퇴문제에서 국민투표를 주장, **진보당**(농민당) 1916년에 창건되여 주로 농민들과 중소도시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 미제침략군의 철거를 주장하나 나토에 계속 남아있을것을 주장, **독립당**(보수당) 보수당과 자유당이 합당하여 1929년에 조직, 상업 및 금융 부르죠아지, 어업주들의 리익을 대변, 나토에의 가담과 미제침략군기지의 계속 유지를 지지, **사회민주당** 1916년에 조직된 당으로서 나토의 참가를 지지하며 보수세력과 협조, **이슬란드로조련맹** 국제자유로련에 가입, **전투적사회주의조직**

이슬란드는 1944년까지 단마르크와의 《합병조약》에 의하여 그의 예속상태에 있었다. 대외관계 및 방위문제는 단마르크가 틀어쥐고 이슬란드는 겨우 《자치권》만 유지하여 왔다.

1944년 6월 17일 《합병조약》의 유효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슬란드는 공화국으로 선포되고 현재의 헌법이 채택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이슬란드는 1949년에 나토에 들어갔다. 제2차세계대전시기에 이 나라를 군사기지로 전변시킨 미제는 전후에 침략군을 끌어내갈 대신 이슬란드가 나토에 가담한것을 구실로하여 1951년 5월《방위협정》(군사기지대여협정)을 강요하였다. 이 《협정》에 의하여 미제는 이 나라의 케플라비크에 해군 및 공군 기지를 설치하고 약 3천 500명의 침략군을 지금까지 계속 두고있다.

미제는 케플라비크군사기지를 더 확장하였고 흐발표르두르만지역에 또하나의 새로운 해군기지를 건설하였다. 자체의 군대가 없는 이슬란드는 사실상 미제침략군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1958년 6월 30일 이슬란드정부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령해를 4마일로부터 12마일로 확장할데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

이 나라에서는 1959년부터 보수적인 독립당과 사회민주당의 련립정부가 계속 집권하였다. 그러나 1971년 6월 13일 국회선거후 인민동맹, 진보당, 자유좌익당의 련립정부가 수립되였다.

새 정부는 자기의 대외정책강령에서 배타적인 경제공동체인 구라파 《공동시장》에 들어가지 않으며 1951년의 《방위협정》을 재검토하고 미제침략군을 점차 철거시킬것을 제기하였다.

1972년 9월에 이슬란드정부는 자기 나라 령해에서 대구를 마구 잡아가는 영제국주의자들의 략탈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50마일 령해권을 선포하였다. 1973년초부터는 경비정을 동원하여 이 수역에서 영국의 고기배들이 함부로 고기잡이하는것을 단속하였다.

한편 영제국주의자들은 이슬란드의 령해안에서 대구잡이를 하는 저들의 고기배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직승비행기와 해군함선들을 이 수역안에 침입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격분한 이슬란드총리는 1973년 5월 20일 자기 나라 령토상에 있는 나토비행장에 영국군용기들이 내리는것을 일체 금지하였으며 23일에는 정부결정으로 이를 확언하였다. 이에 따라 두 나라 사이에는 이른바 《대구전쟁》이라고 하는 싸움이 벌어졌었다.

5월 24일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수천명의 시민들이 영제국주의해적선들이 자기 나라 령해에 기여들어 수산자원을 마구 략탈해가는데 항의하여 강력한 투쟁을 벌렸다. 격분한 시위군중은 항의집회를 가진 다음 영국대사관으로 몰려가 돌벼락을 안기고 가증스러운 영국대사놈을 비롯하여 여러놈의 발을 꽁꽁 묶어놓았다.

5월 26일에 이슬란드의 포함은 자기 나라 령해에 기여든 영국놈의 해적선에 포탄벼락을 안겨 놈들의 해적행위에 대한 응당한 징벌을 가했다.

이슬란드총리 요한네쏜은 5월 28일 영제국주의자들이 이슬란드가 작은 나라라고해서 이슬란드에 대해 《큰소리를 치고 위협하고있다》고 격분을 표시하였으며 이에 앞서 5월 21일 이 나라 정부는 영국주재 이슬란드대사를 소환하였다.

이슬란드정부는 5월 7일 내각회의를 열고 영제국주의자들이 이슬란드령해에 들이민 군함들을 10월 3일까지 철수하지 않는다면 놈들과 외교관계를 끊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이슬란드정부는 1973년 6월 26일 《대구전쟁》을 비롯한 이슬란드—영국관계에서 영제국주의를 비호해나선 미제의 태도를 못마땅히 여기고 그와 맺은 예속적인 군사조약을 재검토할것을 나토리사회에 정식으로 통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케플라비크에 있는 해군기지에 관한 조약을 6개월안에 재검토할것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나라 정부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케플라비크에 있는 해군 및 공군 기지를 의연히 《나토방위구조의 주요한 요소》로 간주하고있다고 뻔뻔스럽게 떠벌였다.

1974년 1월 24일 이 나라 외교부장은 국회에서 자기 나라 정부가 케플라비크에 있는 미제침략군과 나토군사기지에 대한 미제의 《제안》을 거부할것이라고 밝히고 미국놈들이 이슬란드에서 물러가게 하기 위하여 계속 싸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슬란드의 어로수역문제와 관련하여 1974년 7월 25일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나라가 결정한 12～50마일 어로수역대신 15～20마일수역에서의 외국어선들의 고기잡이를 합법적인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나라 외교부장은 7월 25일 기자회견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린 부당한 《판결》을 반박하고 《이 〈판결〉이 이슬란드의 어업정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것》이라고 선포하였다.

1974년에 이슬란드에서는 진보당, 인민동맹, 자유좌익당 등 3당의 련립정부에서 5월 6일 자유좌익당이 탈퇴함으로써 련립내각은 총사직하였다.

5월 9일 국회가 해산되고 6월 30일 총선거결과 독립당이 60개 의석중 25개 의석을 차지하였다. 8월 28일 독립당, 진보당을 비롯한 3당의 련립정부가 수립되였다.

새 총리 할그림쏜 (독립당위원장)은 새 정부가 케플라비크에 있는 미제군사기지를 계속 유지할것이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1975년에 이슬란드는 자기의 해안으로부터 200마일까지 어로수역을 확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전국에 보내는 방송연설에서 그는 자기 정부가 1956년에 갱신한 1951년의 《이슬란드와 미국협정을 변경할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9월 26일 미제와의 회담결과 합의된 공동성명에 의하면 미제침략군은 케플라비크군사기지안에서만 활동하게 되였고 놈들의 일부 (400명)가 철수하게 되였다. 12월에 이슬란드에 있는 미제침략군의 장래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회담이 진행되였다.

이 나라 외교부장은 10월 1일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200마일까지의 독점적인 어로수역에 관한 조속한 국제적승인을 주장하였다.

1974년 6월 4일 이슬란드는 몽골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4년 2월 26일 이슬란드에서 3만명 로동자들의 총파업이 있었다. 이 파업으로 하여 이 나라의 거의 모든 공장, 연유공급소, 제유공장 등이 문을 닫지 않으면 안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수산업과 물고기가공공업이 경제의 주요부문을 이루고있다. 지하자원은 빙정석, 갈탄, 니탄, 류황이 약간 있는 이외에 다른것은 거의 없다.

이슬란드경제의 특징은 공업이 물고기잡이와 그 가공에 기초하고있는것이다. 난류와 한류가 교체되는 대서양북부의 거의 중심부에 있는 이 나라는 세계어장의 하나인 북해어장을 통하여 많은 대구와 청어를 잡는다. 고기배는 1972년초에 867척 (8만여톤)이였는데 해마다 평균 65만～85만톤의 물고기를 잡는다. 1970년에 72만톤의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중 46만 9천톤이 대구였다. (인구 한사람당 물고기잡이량에 있어서 세계에서 첫자리)

이 나라에는 95개의 물고기가공공장이 있는데 50개의 공장은 물고기가루와 기름을 생산한다. 또한 24개의 물고기통졸임공장이 있다.

크지 않은 배수리공장들과 작은 발동선들을 만드는 조선소가 있다.

다른 공업부문들은 덜 발전하였으며 극히 제한된 제품만이 국내수요를 충족시키는 정도이다. 크지 않은 화학비료공장, 세멘트공장 (년산 11만 3천톤), 주물공장 이외에 신발, 가죽제품, 편직물, 가구와 축산물가공 제품 등을 생산하는 경공업공장들이 있다. 1969년에 지은 기네와 오스트랄리아에서 수입하는 보크사이트에 의거한 알루미니움공장 (1972년에 4만 5천톤 생산) 이 하나 있다.

풍부한 수력자원을 가지고있는 이 나라는 그 예비가 250만키로와트에 달하는데 년간전력생산은 7억키로와트시, 그중 화력발전량은 30%이다.

농업부문에서는 주민의 13%가 일한다. 축산업이 기본이며 농산업은 덜 발전하였는데 씨붙임할수 있는 땅은 나라 넓이의 1% (10여만 헥터) 에 불과하다. 씨붙임땅의 대부분은 집짐승먹이작물재배지로 돌려지고 식량은 수입에 의존한다. 축산업에서는 양 (80만마리) 과 소 (5만 3천마리) 를 주로 기른다.

경제에서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대외무역이다. 그것은 국민총생산액의 약 40%를 이루고있다.

철길은 없으나 도로망이 비교적발전하였다.

주요수출품은 물고기와 그 가공제품 (수출의 80～90%) 으로서 수출량에서는 구라파에서 노르웨이 다음가는 두번째자리를 차지한다. 그밖에 고기, 양털, 가죽 등을 수출하며 식량, 연료, 공업품을 수입한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쏘련, 노르웨이, 미국, 영국이다.

주민은 노르웨이와 단마르크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후손들이다.

언어는 이슬란드말을 쓰지만 단마르크말도 쓴다. 주민의 절반은 도시에 모여산다.

출판보도; 신문 우트신 (인민동맹주간지), 알리두불라디드 (사회민주당기관지), 모르군불라디드 (독립당기관지), 티민 (진보당기관지)

방송 레이캬비크방송, 이슬란드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7월 27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4년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를 신문 《티민》이 실었다.

이해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우리 나라 외교부대표단이 이슬란드를 방문하였으며 17일 이 나라 총리 올라푸르 요한네쏜이 대표단을 만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슬란드총리에게 보내시는 말씀을 석상에서 대표단 단장이 정중히 전달하였다.

단 마 르 크

(단마르크 왕국)

넓이 4만 3, 069km²
인구 499만명 (1972년)
수도 쾨벤하븐 (주민 81만 9, 105명, 1970년)

정 치

국왕 립헌군주국으로서 국왕이 국가수반이다. 국왕 마르그레테 2세 녀왕

(1972년 1월—)

의회 일원제로서 임기는 4년, 의원은 모두 179명, 1973년 12월 4일 총선거결과 그중 사회민주당은 46개 의석, 사회인민당은 11개 의석, 자유당은 22개 의석, 공산당은 6개 의석을 차지

정부 1973년 12월 19일 자유당의 정부가 구성되였다. 총리 포울 하르틀링(1973년 12월 19일—)

정당, 사회단체 ; 공산당 1919년 11월 19일 창건, 쿠느드 에스페르센, 사회민주당 1871년에 창건된 당으로서 로조에 지반을 두고있다. 보수인민당 1915년에 창건, 귀족층, 대부르죠아지, 지주들의 리익을 대변, 급진자유당 1905년에 창건, 도시와 농촌의 중산층의 리익을 대변, 벤스트레당(자유당) 1870년에 창건, 도시와 농촌의 자유직업자들을 지반으로 삼고있다. 사회인민당 1959년에 창건, 공산당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로 조직, 좌익사회주의당 1967년에 사회인민당에서 나온 좌익적경향을 가진 사람들로 조직, 기독교인민당, 《민주중앙》당 1973년에 조직된 소부르죠아정당, 진보당

단마르크는 1848~1849년 부르죠아혁명에 의하여 립헌군주국으로 되였다. 제1차세계대전시기에는 중립국가로 있었다.

1940년 4월 히틀러독일침략자들에 의하여 강점되였다가 1945년 5월 5일 해방되였다.

단마르크는 《나토》에 들어갔으며 1951년에는 미제와 《그린랜드공동방위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에 의하여 미제침략군의 그린랜드주둔을 법적으로 승인하였다.

한편 단마르크는 북구라파나라들과의 《협력》를 강화하기 위하여 창설된 《북구라파리사회》의 성원국이며 1962년에 북구라파 4개 나라와 함께 《북구라파협력조약》을 맺었다.

단마르크는 1973년 1월 1일에 배타적인 구라파《공동시장》에 가입하였다. 12월 18일 단마르크와 카나다는 대륙붕을 둘러싼 국경선을 확정함데 관한 협정을 맺었다.

같은해 8월 11일 단마르크총리는 과세법안이 의회에서 부결되자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12월 4일로 앞당겨 실시할것을 국왕에게 요구하였다. 공산당은 당면한 행동강령이 담겨진 호소문을 발표하여 근로자들에게 《공동시장》과 《나토》에서 단마르크의 탈퇴를 위하여 투쟁할것을 호소하였다.

의회해산에 이어 12월 4일에 진행된 총선거결과 여당인 사회민주당, 사회인민당은 많은 의석을 잃었다. 그대신 13년만에 공산당이 의회에서 5개의석을 더 얻어 6개 의석을 차지하였다. 선거에서 그 어느 정당도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여 새 정부구성문제로 정치적위기를 겪었다.

12월 19일 벤스트레당(자유당)이 이끄는 소수파정부가 수립되였다.

1974년 1월 8일 의회에서 한 정책연설에서 단마르크총리는 새 정부가 구라파《공동시장》에 가입한 후 이전 정부가 수립한 로선을 따를것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는 정부가 북구라파나라들과 긴밀히 협조할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단마르크의 안전은 《나토에의 참가에 의존》할것이라고 하였다.

5월 8일 정부가 의회의 심의에 제출하여 5월 15일 승인된 새로운 세금법안을 반대하여 전국 각지에서 근로자들이 항의 파업과 시위를 벌렸다. 5월 13일에 진행된 대중적인 파업에는 6만명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5월 16일에는 수만명의 로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다. 11월 26일 수도 쾨뻰하븐에서 10만여명의 근로자들이 실업과 물가등귀를 반대하여 시위를 벌렸다.

지방도시들에서도 근로자들의 시위가 있었다.

단마르크를 포함하여 스웨리예, 핀란드, 노르웨이 및 이슬란드는 5월 18일 외교관보호협정에 조인하였다. 1974년에 단마르크총리는 서독(8월), 중화인민공화국(10월)을 방문하였다.

중국방문기간에 두 나라간의 해운협정과 무역,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합동위원회구성에 관한 문건에 조인하였다.

10월에 유고슬라비아대통령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단마르크와 바레인사이에 대사급 외교관계(8월)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단마르크는 자본주의적경제가 비교적발전한 나라이다. 수력 및 지하자원은 거의나 없으며 경제는 해외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공업의 주요부문은 축산물 및 수산물 가공, 기계제작과 조선업인데 공업원료와 설비의 대부분을 수입하고있다. 금속가공공업에서 주되는것은 내연기관(특히 배의 내연기관), 세멘트설비, 랭동기, 뻐터제조기, 자전거생산이다. 야금공업에서는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화학공업부문에서 린비료, 질소비료 생산이 큰 의의를 가진다. 그밖에 여러가지 통졸임(고기, 물고기, 과일)과 뻐터, 치즈 등 식료가공공업과 목재, 팔프 및 종이공업이 있다. 동력은 주로 수입연료에 의거하고있다.

중요공업제품들 가운데서 년간 강철은 47만톤, 세멘트는 235만톤, 린비료는 9만~11만톤, 질소비료는 7만 5천톤 정도 생산한다.

전후에 이 나라 경제는 생산의 집중화과정이 촉진되여 전체 기업체의 9%에 불과한 대독점체들이 국내생산품의 4분의 3과 자본의 70%를 통제하고있다. 한편 중공업부문에 미영독점자본이 적지 않게 침투하였다. 자동차, 뜨락또르 및 농기계 조립부문은 미제의 독점체들이, 축산물가공공업은 영국을 비롯한 기타 서방독점체들의 영향력이 크다.

농업은 국민총생산액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전령토의 60%(310만헥터)가 부침땅이지만 좋은 땅은 못된다. 소농경리가 전체 농가호수의 60%이상 차지하나 그들에게 차례진 땅은 전체 부침땅의 15%밖에 안된다. 부침땅리용률이 자본주의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이다. 많은 땅이 방목지 및 집집승먹이작물을 심는데 돌려지고있다.

축산업과 가금업이 농업에서 기본이다. 축산물은 농업총생산액과 수출총액에서 60%를 차지하고있다. 보리, 밀, 호밀, 귀밀을 비롯한 알곡작물을 심고있으나 보리, 밀을 제외한 기타 작물의 생산량은 적다. 또한 감자(년산 약 100만톤), 사탕무우(약 220만톤)도 심는다.

북해어장에서 대구, 청어를 잡는 수산업(년평균 생산량 120여만톤)도 경제에서 중요부문의 하나이다.

교통운수에서는 철길과 바다길이 기본이다. 수도 쾨뻰하븐과 스웨리예의 말뫼사이에는 철다리로 련결되여있다. 배짐실이량의 3분의 1은 쾨뻰하븐항을 거쳐 진행된다.

주요수출품은 축산물(고기, 뻐터, 치즈, 닭알가루)과 기계, 전기기구, 배, 화학제품, 사탕이며 석탄, 원유, 기계, 운수수단, 흑색 및 유색 금속, 천, 알곡을 주로 수입한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영국, 서독, 스웨리예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단마르크사람들이며 단마르크말을 쓴다. 주민의 97%가 신교(국교)를 믿는다. 6개의 대학이 있다.

1973년 1월 구라파《공동시장》에 가입한후 단마르크에서 물가와 세금의 증대, 통화팽창, 무역수지적자가 늘었고 살림집의 부족과 비싼 사용료금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졌다.

1974년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10만명에 달하였고 1973년 10월이래 중요소비품의 값은 평균 17% 올랐다.

출판보도 ; 통신 아르비

신문 란드 오그 폴크(공산당기관지), 아크 투엘트(사회민주당기관지), 니폴리티크 (사회민주당월간지), 베를링스케 티덴데(보수당기관지), 블라데트(사회인민당주간지), 폴리티켄 (급진자유당기관지), 미나비센, 유랜드 포스텐, 모겐스 포스텐, 인포메이숀

방송 단마르크방송, 단마르크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7월 17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에 앞서 1972년에는 단마르크주재 우리나라 공보부가 개설되였으며 1968년 10월 10일 단마르크조선친선문화협회가 결성되였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단마르크와 조선사이의 협조판계촉진위원회가 있다.

1974년에 단마르크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일본전국혁신시장회대표단과 한 담화》를 단마르크 조선친선문화협회가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를 신문《미나비센》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신문《유랜드 포스텐》이,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를 신문《모겐스 포스텐》이 각각 실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리아대통령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하신 연설을 이 나라 신문들인《란드 오그 폴크》, 《미나비센》 및 《인포메이숀》이 실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열돐에 즈음하여 단마르크조선친선문화협회의 주최로 로스킬드로동자학교에서 2월 22일과 23일 강연회와 영화감상회가 있었다.

단마르크작가 아느헬르 피터슨은 자기의 담화에서 《조선의 농업에서 이룩된 성과는 실로 놀라운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기아의 도탄속에 빠지거나 흉작을 겪고있는 반면에 조선에서는 해마다 풍작을 이루고있다.

이것은 자연의 우연적인 현상에 의한것이 아니다. 이것은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벌린 힘찬 로력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가 미국국회에 보낸 편지를 지지하여 7월 27일 단마르크의 12개의 사회단체들이 공동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이 해에 단마르크에서는 남조선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의 폭압만행을 규탄하여 단마르크와 조선사이의 협조판계촉진위원회는 호소문을, 단마르크민주법률가협회는 항의문을 냈으며 8월 2일 단마르크외교부는 남조선애국자들에 대한 사형《선고》를 취소할것을 요구하여 성명을 각각 발표하였으며 쾨펜하븐에서 각계층주민들은 시위를 벌렸다.

이 나라 신문들인 《폴리티켄》파 《란드 오그 폴크》는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폭압만행을 폭로규탄하는 글을 실었다.

1973년 6월에 단마르크공산당 위원장 크누드 에스페르센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이 당대표단, 이에 앞서 1970년 6월에 단마르크공산당대표단, 1972년 11월 단마르크외교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1년 8월과 1972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단마르크조선친선문화협회대표단이 그리고 1974년 7월 단마르크공산당휴양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4년 5월 1일 단마르크총리는 이 나라를 방문한 우리 나라 외교부대표단을 만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단마르크총리에게 보내시는 말씀을 석상에서 대표단 단장이 정중히 전달하였다.

서부독일

(독일련방공화국)

넓이 24만 8, 107km²
인구 5, 959만 6, 000명(1972년)
수도 본(주민 17만명)

정 치

국회 련방의회(하원)와 련방참의원(상원)으로 구성, 련방의회 의원은 496명이며 임기는 4년, 련방참의원 의원은 41명(결의권 없는 서부베를린 대표 4명 포함)이며 각 주정부대표들로 구성, 실권은 련방의회에 있고 련방참의원은 협의기관에 불과, 1972년 11월 19일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이 230석, 자유민주당이 41석, 기독교민주동맹이 177석, 기독교사회동맹이 48석을 각각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으로서 련방대회의(상하원합동회의)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5년, 대통령 발테르 쉘(1974년 5월 15일—), 1967년 7월～1974년 5월초까지는 구스타프 하이네만

정부 선거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자가 대통령의 제의에 따라 련방의회에서 총리로 임명된다.

1974년 5월 7일 브란트정부가 총사직하고 새 정부구성, 총리 헬무트 슈미트(1974년 5월 7일—)

정당, 사회단체 ; **독일의공산당** 1968년 9월에 창건되여 현재 합법적으로 활동, 위원장 헤러베르트 미스, **사회민주당** (집권당) 1946년 5월에 조직된 우익사회민주주의자들의 정당, **자유민주당** (집권당) 1948년에 나온 부르조아정당, **기독교민주동맹** 1945년 7월에 결성, 독점자본가, 대토지소유자 및 관료, 군국주의세력을 대변, **기독교사회동맹** 1945년에 결성, 바바리아주에만 당조직이 있다. 기독교민주동맹의《자매당》으로서 국회내외에서 공동행동, **전독일당** 우익정당, **국가민주당** 파쑈정당, **독일로조총련맹**, **서독사회주의청년동맹**

제2차세계대전이후 1949년 9월 미, 영,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서부독일땅에 《독일련방공화국》이 생겨났다.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서부독일에서는 군국주의세력이 빨리 되살아나

구라파에서 또다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자라났다.

서부독일반동도당은《나토》와 구라파《공동시장》을 비롯한 침략적군사기구와 배타적인 경제기구들에 가담하였다.

1956년 1월에《훈련부대》라는 미명밑에 첫병력을 편성한 때로부터 징병년령을 20살로부터 18살로, 종전의《지원제》로부터 《징병제》로 하고 정규군을 급속히 늘여 군국주의길로 줄달음쳤다.

1974년에 서부독일군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침략무력을 더욱 증강하고 현대화하는데 박차를 가하였다. 1973년에 침략군을 41만 8천여명으로부터 1974년에는 49만 5천명으로 늘였다. 년초에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서부독일군국주의의 우두머리들은 1973—1974년의 예산에서 군사비를 더욱 늘였으며 침략적인 나토를 강화할것을 공공연히 떠벌였다. 놈들은 1월 16일 미제로부터 175대의 팬톰기와 기타 군용비행기를 끌어들이기로 하였다.

2월 26일 놈들은 프랑스와 자기나라의 군수자본가놈들로부터 5천개 이상의 신형 반땅크로케트와 이 무기체계를 위한 100개의 지상설비를 주문하였다.

서부독일대통령이란놈은 4월 29일 이전 히틀러시대의 부총통까지 지낸 전범자의 석방을 공공연히 호소하였으며 6월과 12월에 진행된 나토국방부장회의에서 서부독일군국주의우두머리놈들은 나토무력의 증강과 현대화를 제창하였다.

1974년에 서부독일반동도당은 미제와 군사경제적으로 결탁을 강화하는 한편 저들의 《동맹국》안에서조차 고립배격당한 미제를 적극 두둔해나서면서 놈들의 세력을 업고 서구라파에서《맹주》가 되려는 심산을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놈들은 자기 나라 땅에 둥지를고있는 미제침략군이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는것을 묵인하였을뿐아니라 오히려 비호해나섰다.

4월 25일 브란트도당과 미제국주의자들 사이에 서부독일에 있는 미제침략군 (22만 9천명) 유지비에 관한 새《협정》이 꾸며졌다. 1973년 7월 1일부터 1975년 6월말까지 2년동안의 서부독일반동당국의 의무를 규정한 새《협정》에 의하여 반동도당은 유지비의 30%만을 물어오던것을 100% 짊어지게 됨으로써 그 액수는 무려 59억 2천만마르크 (2억 2천만딸라) 에 달하였다.

서부독일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군사우두머리들의 지휘밑에 3월에 자기나라에서 진행된 나토군통신부대군사연습, 같은 달에 카나다에서 벌린 나토군해군연습에 발벗고나섰다. 5월말에 미국에 불리여간 서부독일국방부장이란놈은 미국방장관놈과 나토무력을 더욱 강화하고 표준화할데 대하여 쑥덕공론을 벌렸다.

서부독일총리 브란트놈은 3월에 본에서 미국무장관 키신저와 만난 자리에서 이미 2월에 프랑스의 반대에 부딪쳐 깨여진 워싱톤 《석유소비국회의》를 극구 찬양하고 미제와 적극 《협조》하기를 다짐하였다. 브란트놈은《구라파의 단결》을 부르짖으면서 구라파《동료》나라들에 미제와 《대결》할것이 아니라《협조》해야 한다고 떠벌였다.

4월 1일 나토가 조작된지 25돐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브란트놈은 저들의《방위동료》로서의《미국을 대신할만한》나라는 없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이에 앞서 3월 17일 서부독일 이전 국방부장 슈트라우스놈은 서구라파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철수는 《재난》으로 될것이라느니, 《예상할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것이라느니하고 떠벌이면서 미제와의 관계에《최우선권》을 부여할것을 요구해나섰다.

12월 5일과 6일 워싱톤에서 있은 서부독일—미국수뇌자회담에서 서부독일 새 총리 슈미트는 아랍석유생산국들을 위협하고 반대할 목적으로 미제가 꾸며내려는《국제동력기구》창설을 비롯한 미제의 침략적대외정책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미제의 지지밑에 구라파 《공동시장》안에서 프랑스를 《고립》시키고 주도권을 쥐려고 무진 애를 썼다. 서부독일반동당국은《나토수뇌자회의》에 참가하여 서구라파나토성원국들과 미제와의 관계를 더 긴밀히 할데 대한 침략문건인《대서양관계선언》(6월 26일) 에 조인하였다.

4월 1일 구라파 《공동시장》회의에서 서부독일외교부장놈은 《공동시장》안에서 미제국주의자들에게《발언권》을 주며《상설적인 정치협의기관》을 두고 중요한 외교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제국주의자들에게《사전에 통고》하자고 들고나왔으나 프랑스의 반대로 좌절되였다.

구라파 《공동시장》안에 《통화동맹》(1973년) 을 형성하고 리득을 본 서독반동도당은 1974년 1월에 이《동맹》이 생긴지 10개월만에 프랑스가 떨어져나감으로써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놈들은 30억딸라의《차관》을 프랑스에 주어 거덜이 난 이《동맹》을 건져보려고 시도하였으나 끝내 프랑스를 돌려세우지 못하였다.

이딸리아에 찾아 간 서독총리 슈미트는 경제 및 재정금융 위기를 겪고있는 틈을 타서 이 나라 반동정부에 20억딸라의《차관》을 던져주어 이딸리아를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는 동시에 4분5렬되고있는 서구라파《동맹국》들을 묶어세우려는 부질없는 책동에 매달렸다.

1974년 5월 7일 브란트정부가 총사직하고 5월 16일 재정부장이였던 헬무트 슈미트를 총리로 하는 새 정부가 수립되였다. 취임식에서 그는 뒤흔들리는 구라파《공동시장》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넣겠다고 지껄였다.

이에 앞서 5월 15일에 련방대회의에서 외교부장이였던 발테르 쉘이 새 대통령으로 선출되였다.

1974년에 서부독일근로자들은 독점자본을 반대하며 처지개선을 요구하여, 학생들은 반동당국의 반인민적교육정책을 반대하여 힘차게 싸웠다.

2월에 전국각지에서 거의 모든 부문의 근로자들이 서부독일 력사상 가장 큰 파업을 일으켰다.

3월에는 큰 기업소들이 있는 하부웨제르지방과 브레멘 및 브레메르하펜에서 약 5만 5천명의 금속공업로동자들이 처지개선을 요구하여 파업을 일으켰다. 같은달 중순에는 바바리아주의 1만 5천명의 금속공장로동자들이 일제히 일을 그만두었다.

이해에 이와 같은 큰 파업이 련이어 일어나 상반년동안에만도 자본가놈들은 1973년 같은 기간의 근 2배나 되는 로동일을 잃었다.

1월 24일 본에서는 여러 도시들에서 모여온 3만명의 대학생들이 학업조건의 개선과 교육비지출을 늘일것을 요구하여 시위를 벌렸다.

1월과 12월에 하부삭소니아주의 노르드호른시주민들은 미제침략도구인 나토침략군의 사격연습을 당장 그만두며 사격훈련장을 없애치울것을 요구하여 투쟁하였다. 젠네시주민들은 시주변의 넓은 땅을 서부독일반동군의 군사훈련장으로 만들려는 반동당국의 책동을 반대하여 싸웠다.

서부독일련방의회는 6월 19일 국제협약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서부베를린에 저들의《련방환경보호사무소》를 둘데 대한 법안을 채택하였다.

6월 20일 서부독일과 독일민주주

의공화국은 호상 상설대표부의 상주특사를 교환하였다. 또한 6월 29일 서부독일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평해간의 경계선에 관한 의정서와 독일민주주의 공화국의 한 평해지역인 류베크쓰만에서의 고기잡이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9월 19일 서부독일과 핀란드는 힘의 사용을 포기하며 핀란드의 국제적중립에 관한 서부독일의 존중을 선언하는 공동성명에 조인하였다.

1974년 2월과 5월 이라크와 수리아는 1965년에 서부독일과 끊었던 외교관계를 다시 회복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서부독일은 자본주의적공업국가이다.

전후 서독경제는 집중화과정이 급속히 촉진되여 대독점체들이 경제의 중요부문들을 좌지우지하고있다. 서독의 50개의 대독점체의 년간류통액은 1973년에 서독공업 총류통액의 거의 절반에 달하였다. 대독점체들로 무어진《50인구락부》에는 년간류통액이 20억 또는 10여억마르크에 달하는 회사들이 망라되여있다. 1974년에 대야금독점체들인 《아우구스트 티쎈 휴테 아그》와《레인쉬탈》이 통합하였으며 기계제작독점체인 《데마그 아그》가《만네스만 아그》에, 석유독점체인 《겔젠베르그 벤찐 아그》가《페바》에 먹히웠다. 1973년 한해동안에만도 서독에서 공업 및 상업 회사들과 은행들의 융합건수는 275건에 달하였다. 이러한 공업 및 금융 자본의 집중화는 서독의 수많은 중소기업체들을 파산몰락시킨 반면에 독점자본가놈들의 독점적지위를 더욱 강화시켰다. 서독의 독점자본은 미국독점자본을 비롯한 외래독점자본과 밀접히 유착되였고 그에 심히 예속되였다. 외래독점체들은 서독공업의 기간부문들인 원유, 자동차, 전자 공업부문에 깊이 침투하였다. 석유가공공업의 70%를 미국과 영국—화란독점체들이 통제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제국주의세계는 제2차세계대전이래 가장 심각한 경제파동을 겪고있으며 전면적인 위기에 부닥쳐 더욱더 허덕이고있습니다.》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 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단행본, 8페지)

1974년에 서독에서 경제위기가 심화되여 수많은 기업체들이 파산몰락하였으며 생산은 떨어지고 무역적자가 크게 늘어났다.

서독의 국민총생산액은 1974년 2. 4분기부터 련속 두분기 내려갔다. 2. 4분기에는 전분기에 비하여 1%, 3. 4분기에는 전분기에 비하여 1%이상 떨어졌다. 상반년기간에 공업분야의 36%에서는 생산이 떨어졌고 17%는 침체상태에 있었다.

자동차, 건설, 방직, 의복 및 가죽공업은 이미 1973년부터 심한 위기를 겪었다. 서독경제의 기둥인 자동차공업에서 1974년 생산량은 3분의 1, 구라파나라들에 대한 판매량은 35~40% 줄었다. 건설공업에서 설비리용률은 56%에 지나지 않았으며 생산은 계속 떨어졌다.

1974년 상반년기간에 전해같은 기간에 비해 건설계약은 16%, 살림집건설은 41. 5% 내려갔다. 이 기간에 463개의 건설기업체들이 문을 닫았다.

1973년까지만하여도 수출의 활기로 벼락경기를 맞이하였던 기계제작, 화학, 강철 공업이 1974년에 악화되였다.

화학공업제품생산은 1974년 11월, 12월에 1973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15. 1%나 줄었다. 그중 라크, 인조고무, 소성물질, 인조섬유를 비롯한 화학제품생산은 19~31%나 각각 떨어졌다. 기계제작공업은 1974년 하반년부터 그 제품수출이 9% 내려갔고 생산이 전반적으로 35%내려갔다.

1973년말에 서독을 휩쓴 동력위기는 전반적경제에 심한 영향을 미쳤다. 전후에 값눅은 연료인 석유를 도입하는 급속한 과정이 진행되여 1955년부터 1973년까지의 기간에 경제에서의 동력소비는 2배로 늘어났는데 그 가운데서 석유소비는 11배로 늘었다. 동시에 석탄사용은 떨어졌다. 국내동력균형에서 급격한 변동은 1955년에 불과 10%밖에 안되던 석유의 몫을 1973년에 와서는 56%에 이르게 하였다. 1973년에 석유를 1억 1천 100만톤이나 수입한 서독은 아랍나라들이 석유채취를 줄이고 그 값을 올린 조치에 의하여 큰 타격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서독반동당국은 투자방향의 변동, 새로운 동력자원개발분야에로의 투자의 전환, 다른 종류의 연료에로의 공업과 운수의 저옹 등 일대 소동을 벌렸다. 석유를 쓰는 화력발전소건설이 금지되고 동력자원에서 뒤로 밀려났던 석탄생산에 다시 매달리지 않을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

주로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공업제품은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고있다. 특히 천과 의복류의 판매와 주문이 급격히 떨어졌다.

생산이 떨어짐에 따라 중소기업체들이 수많이 파산몰락하였다. 파산건수는 1972년에 4천 410건, 1973년에 5천 515건, 1974년 첫 10개월동안에 6천 270건으로 늘었다. 독점자본은 로동자들을 일자리에서 내쫓고 로동시간을 줄이는 등 경제위기의 중하를 근로자들에게 들씌웠다. 1975년 1월현재 완전실업자는 115만 4천명이상에 달하였고 반실업자수는 90만명에 이르렀다.

1974년 상반년기간에 국가예산적자는 50여억마르크에 달하였다.

실업자가 늘고 통화팽창이 격화됨에 따라 국내시장이 줄었다. 비교적 조건이 좋은 전기공업의 국내수요가 1974년에 전해보다 8%떨어졌다.

1974년 3. 4분기에 국내공업주문품은 년초에 비해 9. 4%내려갔다.

국내시장이 줄어들어감에 따라 서독경제는 더욱더 수출에 매달렸다. 자동차공업의 수출품은 1973년에 40%였다면 1974년에는 80%이상, 기계공업의 수출몫은 80%, 화학공업의 수출몫은 약 40%, 강철공업의 직접 및 간접적인 수출몫은 70%이상에 달하였다. 그러나 대외시장의 악화는 서독의 수출을 억제하였다. 1974년 하반기부터 외국의 서독상품주문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3. 4분기에는 2. 4분기에 비하여 약 3% 내려갔다. 강철제품의 주문은 9월에 8월보다 10%줄었다.

황폐화되고있는 농촌에서 1974년까지 10년동안에 약 50만개의 중소농장들이 파산당하였다.

서독의 대외무역은 대부분 구라파《공동시장》나라들과 진행한다. 1973년에 그것은 수출에서 47%, 수입에서 52%를 차지하였다. 주요무역대상 나라들은 프랑스 (류통액420억마르크), 화란 (390억마르크) 이였다.

생계비는 1974년 상반년에 7. 3% 올라갔는데 이것은 1954년이래 가장 높았다. 같은 해에 식료품값은 5. 4%올랐다. 그중에서 빵값이 11. 5%, 소젓값이 7. 2%, 고기값이 6. 4% 각각 비싸졌다.

서독에서는 50만명의 주민들이 집이 없어 거리에서 떠돌아다니고있으며 쓰고 사는 살림집의 3분의 2가 난방시설이 없는 집들이다. 반동당

국이 인정한 자료에 의해서도 집세가 너무 비싸서 비여있는 살림집은 20만호에 달한다.

출판보도; **통신** 데페아

신문 프라이에스 폴크 (독일의공산당기관지), 디벨트 (정부계), 프랑크푸르테르 알게마이네 짜이퉁, 케르니쉐르 룬트샤우 (기독교민주동맹계), 함부르게르 아벤트 블라트 (기독교민주동맹계), 프랑크 푸르테르 룬트샤우 (사회민주당계)

방송 8개의 방송망을 각지에 두고 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서부독일에는《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연구소조》가, 서부베를린에는《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가 결성되였다.

1970년에 서독신문《프랑크푸르테르 알게마이네 짜이퉁》은 《조선은 20세기의 영웅을 낳았다. 김일성전 제1부》라는 표제밑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기《김일성전 1부》를 소개하였다.

1971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을 비롯한 4편의 로작을 수록한 문헌집 제1권을 출판하였다.

1969년 4월 서부독일공산주의자그루빠가, 1970년 9월에는 서독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이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1971년 6월에는 서부독일에 있는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연구소조》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1972년 4월에는 서부독일텔레비죤방송기자가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1973년 6월에 서독텔레비죤기자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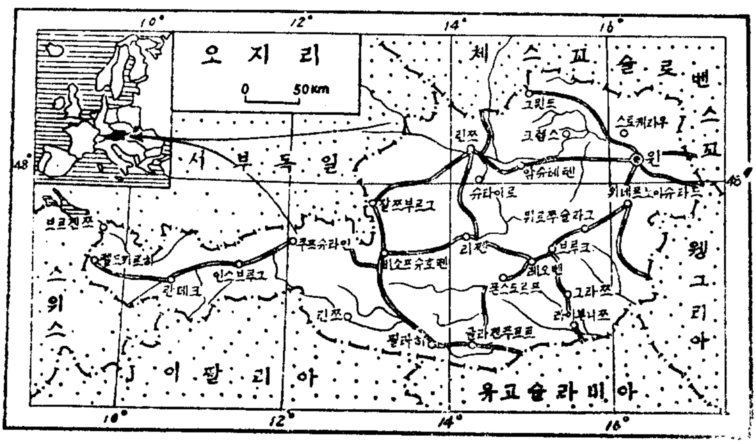
오 지 리

(오지리공화국)

넓이 8만 3,849km²

인구 749만명(1972년)

수도 윈(주민 164만 4,900명, 1969년)



정 치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6년, 1974년 4월 24일 프란쯔 요나스가 죽고 6월 23일 새 대통령선거 진행, 대통령 루돌프 키르슈슐래게르 (이전 외교부장, 1974년 7월 8일—)

국회 상하량원제, 국민의회 의원(하원)은 183명이며 임기는 4년, 련방의회 의원(상원)은 54명, 1971년 10월 국민회의선거결과 사회당이 93석, 인민당이 80석, 자유당이 10석을 차지

정부 1970년 3월부터 사회당의 단독정부가 집권, 총리 부르노 크라이스키(사회당출신, 1970년 4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8년 11월에 창건, 위원장 프란쯔 뮤리, **사회당**(집권당) 1945년에 창건되여 로조에 지반을 둔 정당, **인민당** 1945년에 나온 이 당은 대부르죠아지, 지주 및 부농의 리익을 대변하며 천주교회와 밀접히 련결되여있다. **자유당** 1956년에 무어진 극우익정당, **국가민주당** 신파쑈정당, **민주진보당** 1956년에 나온 우익개량주의정당, **로조련맹, 공산주의청년, 공산주의대학생동맹, 민주녀성동맹**

오지리는 1918년에 공화국으로 되였으며 윈조약(1919년)에 의하여 국경선이 확정되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 오지리는 파쑈독일에 강점당하였으며 1944년에 해방된후 쏘, 미, 영, 프랑스 4개국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갔다.

수도 윈도 4개 지역으로 분할되여 4개국 군대의 점령밑에 있었다.

1955년 5월 15일 대오국가조약에 따라 대오관리리사회사업은 페지되였으며 같은 해 10월 26일 오지리국회는《영구중립》을 선포하였다.

이 조약에 의하여 오지리는 원자무기, 유도무기, 독가스, 세균무기, 장거리포의 보유 및 제조, 군사동맹의 가입과 국내에 외국군사기지설치 등을 금지당하였다.

전후 오지리는 미제와《우호통상및항해조약》(1956년)을 맺었으며 《나토》와 련결된《구라파리사회》에 들어갔다.

오지리에서는 1945년부터 인민당과 사회당의 련립정부가 집권하였으나 실권은 대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하는 인민당이 틀어쥐고있었다.

1971년 10월 선거에서 사회당이 승리하여 단독정부를 구성하였다. 사회당정부는 자기의 정강에서 대외적으로는《중립의 준수》를 약속하였다.

이러한 원칙에서 1974년에 오지리총리는 자기 나라의 중동정책(즉 아랍나라들과 이스라엘과 다 좋게 관계를 계속 가지는것)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7월 8일 새 대통령은 자기의 취임식에서 중립적인 자기 나라가 동서방사이에서《중재자》로 활동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였다.

1974년에 오지리정부는 원료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유엔총회 특별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알제리의 제안을 지지하였으며 석유수출국기구에 다른 국제기구들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할데 대한 협정(2월 18일)을 이 기구 서기장과 조인하였다.

오지리는 끼쁘로스에《유엔평화군》으로 군대를 파견하기로 하였으며 1974년 7월 23일 이곳에 군대를 보내겠다고 하였다.

이해에 오지리총리는 쏘련(5월), 이란(10월), 미국(11월)을 방문하였다. 이란방문과 관련한 공동콤

뮤니케에서 쌍방은 아랍만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며 인도양이《평화지대》로 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9월에 수리아총리, 뽈스까총리가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수리아총리의 오지리방문기간에 두 나라는 경제기술협조협정을 체결하였다.

1974년에 국내에서는 4월 24일 프란쯔 요나스가 죽은 다음 6월 23일 새 대통령선거가 진행되였다.

새 대통령은 7월 8일 전후 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1974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오지리공산당 제22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오지리공산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와 조정위원회 사업총화보고들을 청취토의하고 일련의 문제들을 비준하였으며 기타 결의를 채택하였다.

4월에 공산주의청년 제1차대회, 2월에 사회당 제22차대회가 진행되였다.

3월 10일에 오리지민주녀성동맹의 주최로 3. 8국제부녀절과 관련한 군중집회가 진행되였는데 여기에는 이 나라 공산당 위원장도 참가하였다.

11월 2일 오지리 수도당국은 오지리공산주의청년, 오지리공산주의대학생동맹 등 많은 사회단체들의 항의에 의하여 신파쑈정당인《국가민주당》의 도발적인 집회를 저지시켰다.

1974년 9월 오지리 수도 윈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제18차총회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우리 나라의 국제원자력기구가입 승인문제를 하나의 문제로 토의하고 우리 공화국의 이 기구가입을 투표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1974년 10월중순 윈에서 석유수출기구각료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이해 10월 1일부터 리권료와 세금을 3. 5% 올리기로 결정하고 선진공업국가들이 공업제품가격을 인하하지 않는다면 석유값을 1975년부터 매달 1%씩 더 올리겠다고 경고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오지리는 비교적 발전된 자본주의적 공업—농업국가이다. 쇠돌, 석탄, 석유, 마그네사이트, 연, 동, 흑연 (매장량 세계 제1위) 등의 지하자원에 기초한 채취공업과 금속공업이 경제의 중추를 이룬다.

중요공업부문은 흑색금속, 방직, 전기기계, 석유가공, 석탄, 펄프 및 종이, 자동차, 화학 공업이며 전후에 자동차, 전기기계 생산이 증대되였다.

광업의 100%, 강철의 95%, 전력의 85% 그밖에 석유가공, 기계공업과 기타 큰 기업체들이 국가독점자본의 수중에 있다. 또한 외래독점자본의 투자도 적지 않다. 투자된 외래자본총액가운데서 서부독일이 25%, 미국이 20%를 차지한다.

동부와 북부 지역 그리고 두나이강류역에 공업기업소들이 몰켜있는데 특히 윈지역에는 그의 50%이상이 집중되여있다.

동력자원의 4분의 3은 수력자원에 의거한다.

공업부문에서는 1973년현재 67만 2천명의 사람들이 일하였다.

1973년부터 건설공업은 주문감소로 계속 타격을 받았다. 1974년 첫 10개월동안에 전재생산기업소들에 대한 주문품은 20~50%, 니스생산회사에 대한 주문품은 10~15% 줄었다.

농업부문에서는 인구의 약 20%가 일하고있다. 전체 농가호수의 1%에 불과한 지주놈들이 부침땅의 절반을 차지하고있다. 약 160만헥타의 부침땅가운데서 방목지 혹은 집짐승먹이작물재배지가 적지 않다.

목축업이 농업에서 큰 자리를 차지한다. 알프스산줄기로부터 두나이강에 이르는 초원지대가 있다.

주요집짐승은 소 (247만마리), 돼지, 양, 염소 등이다.

알곡작물로서 밀 (년산 80여만톤), 보리 (약 90만톤), 강냉이, 호밀, 귀밀, 감자, 사탕무우를 심으며 식량은 수입에 의존한다.

바다가 없는 이 나라는 철도와 하천 운수가 큰 의의를 가진다.

주요수출품은 선철, 강철, 기계류, 펄프 및 종이, 화학제품, 전기일용제품 등이다. 식료품, 연료, 기계류, 공업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대외무역에서 구라파《공동시장》나라들과의 무역이 절반이상 차지한다. 1973년에 수입의 65%, 수출의 50%가 이 나라들과 진행되였다.

1973년에 무역수지적자는 1972년에 비하여 16% 늘었다. 1973년 10월 1일《공동시장》과의 협정에 의하여 무역관세의 계단식축감으로 무역관계는 일층 밀접해지고있다.

주민은 게르만족계통의 사람들이며 그밖에 슬라브족, 마쟈르족, 이딸리아사람들이 있다.

언어는 독일말을 쓰며 주민의 90%가 천주교도들이다. 대학은 16개 있다.

1974년 1월에 일자리 없는 사람은 그 전해 같은 달에 비하여 14%나 더 많은 7만 1천 234명이였다. 녀성들은 남자들에 비하여 30% 이상 적은 로임을 받는다.

1973년 한해동안에 도매물가는 평균 9. 8%, 소매물가는 7. 4% 올랐다.

1974년 1월에 그전해 같은 달에 비하여 대중소비품의 값이 8%, 집세는 13% 올랐다.

출판보도 ; 통신 에이피에이

신문 폴크스 슈팀메 (공산당기관지), 윈 짜이퉁 (정부기관지), 디 프레쎄, 포르 베르츠, 아이바르테르 짜이퉁 (사회당기관지), 폴크스 블라르 (인민당기관지), 데에프페—텔레그람 (민주진보당기관지), 노이에 프론트 (자유당기관지)

방송 오지리방송, 오지리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0년 11월 23일 오지리와 우리 나라는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이 나라에 무역대표부가 설치되였다.

1974년 12월 12일 두 나라 사이에 대사급 외교관계가 맺어졌다.

1973년 5월 10일 오지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촉진협회가 결성되였다.

1974년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와《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를 신문《쥐드 오스트 타게스 포스트》가,《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파업에 대하여》를 신문《헤랄드 트리뷴》이 각각 실었다.

1974년에 오지리련방경제회의소대표단 (3월), 그리고 9월에 오지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촉진협회 부위원장부부 (1973년 6월에도 방문) 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해에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무역대표단 (8월), 외교부대표단 (12월) 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12월 13일 오지리대통령이 우리 나라 외교부대표단을 만났다.

석상에서 이 나라 대통령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발전문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 관계는 앞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강화발전될것이라고 말하였다.

희 랍

(희랍공화국)

넓이 13만 1,944km²
인구 896만명(1971년)
수도 아테네(주민 86만 2,133명, 1971년)

정 치

대통령 1974년 12월 8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공화제로 이행하였으나 새 헌법이 채택될 때까지 정식선거된 대통령은 없다. 림시대통령 미카엘 스타씨노풀로스(1974년 12월—)

국회 1974년 11월 17일 선거결과 총의석 300석가운데서 《신민주주의》당이 220석, 신세력중앙동맹 60석, 전희랍사회주의자운동 12석, 《좌익통일세력》(공산당, 통일민주좌익당) 8석을 각각 차지

정부 1974년 11월 21일 《신민주주의》당정부 구성, 총리 콘스탄틴 카라만리스(1974년 11월 21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8년에 창건된후 1947년에 비법화되여 지하에서 활동, 1974년 9월 23일 비법화조치를 정식 철회, 통일민주좌익당, 《신민주주의》당 1974년 9월 28일 총리 카라만리스가 창건, 신세력중앙동맹 1974년 창건, 전희랍사회주의자운동 1974년 9월 3일 창건, 당수 안드레아 파판드레우

제2차세계대전후 희랍에서는 공산당을 포함한 민족전선의 련합정부가 수립되였으나 그후 영제국주의자들의 무장간섭과 국내반동세력의 책동으로 공산당은 정부에서 배제되였다. 1946년 3월부터 립헌군주제가 복구되고 희랍에는 파쑈통치가 지배하게 되였다.

희랍반동지배층은 1950년에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에 가담하였으며 1952년에는 《나토》에 들어갔다. 1953년에 미제와 《군사기지협정》을 맺고 자기 나라에 미제의 침략적군사기지설치를 허용하였다. 그리하여 희랍본토에 2개, 크리티섬에는 5개의 미제침략군의 군사기지가 도사리게 되였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1967년 4월 20일 군사정변에 의하여 파쑈군사정부가 수립되였다. 반동군사정부는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당들의 활동을 금지하였으며 진보적력량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1973년 7월에 군사독재자 파파도풀로스는 이른바 《국민투표》라는것을 벌려놓고 군주제대신 공화제를 선포하고 자신이 《대통령》으로 들어앉았다. 그러나 반대파세력의 군사정변에 의하여 11월에 파파도풀로스군사독재정권은 전복되고 안드루트소풀로스내각이 새로 꾸며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피압박인민들은 오직 투쟁에 의해서만 자기자신을 해방할수 있다. 이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단순하고도 명백한 진리이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21폐지)

1974년 7월 23일 군사정변에 의하여 희랍군사독재정권이 무너지고 새 민간인정부가 수립되였다. 희랍에서 군사정변은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과 그리고 7월 15일 희랍군사정권이 끼쁘로스의 병합을 위해 일으킨 끼쁘로스에서의 군사정변의 실패에 뒤이어 일어났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끼쁘로스방위군을 지휘하고있던 희랍장교놈들과 희랍군사도당이 끼쁘로스에서 일으킨 군사정변은 희랍인민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끼쁘로스사태에 대한 책임을 군사정권에 넘겨씌운 반대파세력은 다른편으로는 무력을 동원하여 군사독재정권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7년동안이나 존재하여온 희랍독재정권은 뒤집혔다. 군부세력은 더는 군사적통치가 불가능하게 되자 7월 23일 정권을 민간인들에게 넘겼다.

7월 24일 정식 취임한 카라만리스정부는 일체 정치범들을 석방하며 정치망명자들에 대한 공민권의 회복과 공민들에 대한 모든 려행제한을 해제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카라만리스총리는 7월 25일 방송연설에서 정부의 첫째가는 과업은 《모든 힘을 다하여 끼쁘로스의 독립과 안정》을 보장하는것이며 그 다음 국내에서 《민주주의회복》에 달라붙겠다고 말하였다.

새 정부는 나라의 무력에 대한 전반적통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최고방위리사회(총리의 지도밑에 부총리, 국방부장, 조절및계획부장, 외교부장, 공안부장, 군총사령관 포함)를 내왔다. 이 리사회는 8월에 이전군사독재정권시기의 헌병대장놈을 포함한 17명의 장군들을 내쫓을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1월초에는 수많은 애국자들을 마음대로 처형하던 《비상군법회의》를 해체하였다.

8월 1일 정부는 이전파쑈군사정권이 1968년에 만든어낸 헌법을 폐지하고 새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1952년의 헌법이 효력을 가진다고 발표하였다.

이전 파쑈군사정권에 의하여 활동이 금지당하였던 공산당은 새 정부에 의하여 9월 23일 정식 합법화되였다. 이밖에도 여러 정당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거나 새로 결성되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8월 29일 이전군사정권시기 채택된 로조활동을 제한하는 법률과 규정들을 페지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1월 17일 여러 정당들의 참가밑에 국회선거가 진행되였다. 결과 카라만리스총리가 이끄는 《신민주주의》당이 총의석 300석가운데에서 220석을 차지하였다. 뒤이어 11월 21일 카라만리스를 총리로 하는 35명의 각료들을 망라한 《신민주주의》당정부가 수립되였다.

1973년 7월에 반동적군사정권밑에서 《공화제》실시여부를 결정한 《국민투표》를 무효로 선포하고 1974년 12월 8일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하였다. 이리하여 이날부터 희랍은 오랜 군주제로부터 공화제로 선포되였다.

새 헌법초안이 12월 23일 발표되였으나 모든 야당들의 비난을 받았다. 새 헌법이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대통령에게 더 많은 립법권과 행정권을 주며 파업에 대한 권리의 제한과 정당들을 해산할 가능성을 준다고 야당들은 일치하게 말하였다.

8월 30일 희랍당국은 미국을 포함한 나토성원국들에 편지를 보내여 희랍령토상에 있는 나토군사기지를 되찾으며 나토에 가입한 탓으로 지금까지 제한되였던 주권을 완전하게 행사할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앞서 8월 17일 희랍정부는 미제침략군의 군용기들이 희랍에 있는 미제침략군군사기지를 사용하는것을 일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희랍정부의 일련의 반미적조치와 때를 같이하여 8월 15일 수도 아테네에서 약 1천명의 학생들과 수많은 청년들이 《미국놈들은 물러가라!》를 비롯한 여러가지 반미구호들을 웨치면서 시위를 벌렸다. 헤라클리온에서는 1만여명의 근로자들이 반미시위를 벌렸다.

8월 19일 아테네에서 수천명의 주민들이 《미국놈들은 희랍에서 물러가라!》, 《제6함대기지들을 철폐하라!》라고 쓰인 구호판들을 들고 대중적인 반미시위를 벌렸다. 이에 앞서

18일 크리티섬에서는 5천명의 주민들이 미제침략군의 군사기지철폐를 요구하여 강력한 시위를 벌렸다.

그밖에도 8월 20일 약 1만명의 피르고스주민들의 반미시위, 9월 11일과 11월 24일 아테네종합대학 학생들과 시민들의 반미시위와 집회들에서 연설자들은 희랍에서 미국놈들이 물러갈것과 놈들의 군사기지를 당장 철폐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대외관계분야에서 희랍은 여전히 서방세계에 기울어져있으며 모든 면에서 그와의 련계강화를 시사하였다.

12월 11일 카라만리스총리는 국회에서 한 대외정책성명에서 《희랍은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상면에서 서방에 속한다. 희랍은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주로 서방과 협조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그는 희랍이 비록 나토군사동맹에서 탈퇴하였고 희랍에 있는 미국군사기지의 지위에 대하여 재검토하고있지만 《이것은 희랍이 서방세계와의 정치, 문화 및 기타 분야의 관계를 끊으려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한편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끼쁘로스정부를 미워하면서 그를 뒤엎고 끼쁘로스를 희랍에 병합하려는 희랍군사도당과 놈들의 책동을 부추겨준 대가로 끼쁘로스에 침략적군사기지를 마련해보려는 미제의 음모책동에 의하여 끼쁘로스에서 방위군에 복무하던 희랍장교놈들이 7월 15일 반동적군사정변을 일으켰다. 그러나 7월 20일 끼쁘로스에서 민족관계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토이기의 군사적개입과 끼쁘로스군사정변을 반대하는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항의규탄에 직면하여 정세가 제놈들에게 불리하게 번져가게 되자 량면적인 미제는 태도를 변경하여 끼쁘로스사태에 《외면》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희랍군사도당에게 넘겨씌웠다.

토이기반동군대가 끼쁘로스의 상당한 지역을 점령하고 정전이 되였으나 8월에 있은 정치문제해결을 위한 제2계단회담이 파탄된 이후에도 토이기반동군대는 끼쁘로스에서 군사적공세를 강화하여 이 나라 령토의 3분의 1이나 점령하게 함으로써 희랍민간인정부와 미제와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였다.

희랍정부는 7월에 있은 끼쁘로스위기시기에 《미국이 토이기의 끼쁘로스침공을 막을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기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로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또한 끼쁘로스령토의 3분의 1이상이나 토이기의 점령밑에 들어가게 한것도 미제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희랍정부는 8월 14일 《희랍총리가 나토에서 희랍군을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외교부장은 희랍이 더는 자체를 나토의 한 성원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희랍총리는 8월 16일 미제의 우두머리 포드놈의 미국방문요청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앞서 8월 15일 희랍외교부장도 미국무장관 키신저놈의 요청에 같은 대답을 주었다. 서방통신들은 이런 반미색채를 희랍이 《끼쁘로스사태를 둘러싼 나토 특히 미국의 태도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로 간주하였다.

한편 희랍당국은 8월 14일 《나토군사령부》로부터 자기 군대를 철수하지만 나토의 정치부문의 성원으로는 남아있겠다고 발표하였다. 희랍정부는 《구라파경제공동체의 통합을 될수록 빨리 실현》할것을 주장하였으며 《구라파리사회》가입을 희망하였다.

희랍총리는 대외정책성명 (12월 11일)에서 자기 정부가 《평등과 호혜, 호상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존중하는 기초우에서 그들의 정치제도와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를 모색하려 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희랍경제는 외래독점체들에 예속되여있다. 외국자본은 국내독점체들의 자본을 통가하고있다. 200개의 《대독점체가정》이 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을 틀어쥐고있으며 주권의 4분의 3은 9개의 《가정》에 집중되여있다.

해안지대는 경제가 비교적 발전하였으나 북부산악지대는 매우 뒤떨어졌다.

농업은 국민총생산액에서 28%정도 차지하며 부침땅은 전령토의 25%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주민의 50%가 일한다. 토지의 대부분은 지주, 승려, 은행가, 왕족들의 수중에 있다.

산지가 많고 벌방지대가 적은 이 나라는 전통적으로 알곡생산보다 담배, 사탕무우, 귤류, 올리브, 포도, 목화 등 과일과 공예작물 생산에 치우쳐있다. 알곡가운데서 밀 (년산 200만톤정도) 이 제일 많이 생산되며 대부분의 식량은 수입에 의존한다.

집짐승으로는 양 (900여만마리)과 소, 염소 등을 기른다.

공업은 국민총생산액에서 농업과 마찬가지로 28%정도 차지하며 반수공업적이거나 작은 기업체들이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중공업 역시 다른 서구라파자본주의 나라들에 비하여 뒤떨어졌다. 공업에서 식료, 방직, 담배가공, 목재가공, 가구생산과 같은 전통적인 경공업부문들이 큰 몫을 담당한다.

고무, 합성수지, 야금, 전기, 운수공업 등 큰 부문은 외래독점자본과 련결된 매판자본가놈들의 손아귀에 들어있다.

국민소득에서 거의 20%를 차지하는 채굴공업부문은 주로 미제와 서독독점자본이 틀어쥐고있다. 년평균 약 700만톤의 석탄, 200만톤의 보크사이트, 40여만톤의 쇠돌이 생산된다. 국내연료수요의 5분의 4는 수입한다.

희랍은 해상운수가 발전한 나라로서 해외화물수송으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인다.

주요수출품은 농산물 (올리브기름, 포도주, 담배) 과 광물류이며 수입품으로서는 여러가지 공업제품과 연료, 식량 등이다. 서독이 주요무역대상국이다.

주민의 90%이상이 희랍사람들이며 그밖에 토이기사람, 유태사람들이 약간 있다.

공용어는 희랍말이며 희랍정교가 국교로 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아테네통신
신문 아크로폴리스, 엘레프테로스 코즈모스, 네아폴리티아
방송 아테네방송, 피르고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1월 18일 희랍선박 《나브마초스》호의 선원들이 《김일성주석로작및혁명활동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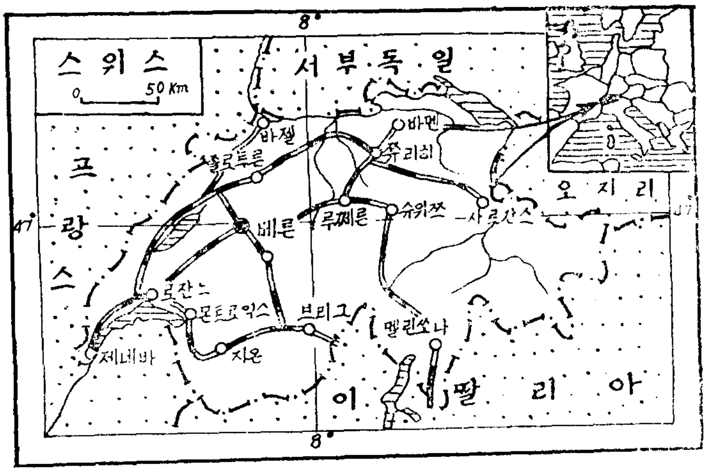
1972년에 희랍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수록한 문헌집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희랍말) 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1974년 7월에 희랍공산당 (국내) 대표단, 1970년 8월에 희랍공산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스 위 스

(스위스련방)

넓이 4만 1,288km²
인구 642만명(1972년)
수도 베른(주민 16만 8,000명, 1970년말)



정 치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1년, 대통령과 부대통령은 련방회의(정부)를 구성하고있는 7명의 각료들중에서 륜번제로 선출, 대통령 그라베르 삐에레

국회 상하량원제, 국민의회(하원)와 전주의회(상원)로 구성, 국민의회 의원은 200명이며 임기는 4년, 44명으로 된 전주의회는 매주에서 2명씩을 선출하며 임기는 각 주에서 정한다. 1971년 10월 30일 국민의회선거결과 련립여당들인 사회민주당, 급진민주당, 기독교보수당, 농민당이 총 200석중 160개 의석을 차지

련방회의(정부) 국회량원합동회의에서 선출되는 7명의 성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 각 주에서 내각성원을 2명이상 낼수 없다.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1921년 창건된 공산당과 좌익사회주의그루빠가 합당하여 1944년 10월에 조직, 위원장 장 뱅쌍, **사회민주당**(사회당) 1888년에 조직된 당으로서 로조에 지반을 두고있다. **급진민주당** 대금융부르조아지의 리익을 대변, **기독교보수당**(보수기독교사회당) 대부르조아지 및 중간부르조아지의 리익을 대변, **농민당** 농민, 수공업자, 도시소시민들의 리익을 대변, **《독립》당** 우익정당, **자유민주당** 대부르조아지의 리익을 대변, **로조련맹** 사회민주당의 영향하에 있다. **기독교로조**, **자치로조**, **자유청년**

스위스는 1815년 윈회의에서 국경이 확정되고《영구중립》국가로 선포되였다.

스위스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시기 중립을 유지하였다. 전후 《구라파자유무역지대》, 《구라파경제협력개발기구》등 경제기구들에 가입하였다.

스위스는《중립》국이라고 하여 유엔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조선정전중립국 감독위원회 성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1974년 스위스에서는 10월 9일 이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로동자와 그 가족들의 수(50만명)를 줄일데 대한 문제, 12월 8일 재정 및 사회 정책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날카롭게 제기되여 전국적인 국민투표가 실시되였다.

1974년 6월 1~3일까지 스위스로동당 제10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로선과 실천활동을 찬동하였으며 당규약개정초안을 비준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장 뱅쌍이 다시 선거되였다. 스위스정부는 8월 13일 기네―비싸우를 승인하였으며 남로데시아백인인종주의도당에 대한 유엔의 경제적제재조치를 계속 존중(8월 11일)할것이라고 하였다.

1974년 2월 19일 스위스정부는 칠레군사도당에게 무기수출을 하지 않을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해 6월 12일~7월 5일까지 스위스의 로잔느에서 만국우편동맹 제17차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 우리 나라와 기네―비싸우가 이 동맹의 성원국으로 가맹되였다.

끼쁘로스사태와 관련하여 1974년 7월 25~30일까지 영국, 토이기, 희랍 3개국외교부장들이 제네바에서 회담하고 끼쁘로스사태를 정상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데 합의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스위스는 주민 40%정도가 공업부문에 종사하는 비교적 발전된 자본주의공업국가이다. 지하자원은 거의나 없으며 최근년간 우라니움광이 채굴되고있을뿐이다. 반면에 수력자원이 풍부하다.

스위스는 물이 많은 여름에 전력(300억키로와트시)을 생산하여 이웃나라들인 서독, 프랑스, 이딸리아에 수출하고 겨울에는 전력을 수입한다.

공업의 중추부문은 독점체들이 장악하고있지만 중소규모의 기업소들이 많다. 50명미만의 로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소가 전체 기업소수의 5분의 4를 차지한다. 1천명이상의 로동자를 가진 공장은 15개정도밖에 안된다.

이 나라는 공업원료의 부족으로 원료가 적게 들고 숙련된 로동을 요구하는 공업부문을 발전시키면서 값비싼 제품생산을 전문화하고있다.즉 시계, 각종 계기류, 실험기구, 치차 등의 정밀기계공업을 위주로 하면서 방직기계, 전동기, 발전기, 타빈, 전기기관차도 생산한다.

시계의 거의 100%, 화학 및 제약 제품의 90~95%, 기계제품의 약 75%가 대외수출을 위하여 생산되고있다.

년간 약 9만톤의 알루미니움과 36만톤의 고질강이 생산되지만 그 원료는 수입에 의거한다.

화학공업에서 기본은 의약품(화학공업생산의 6%차지) 생산인데 그밖에 물감, 합성수지, 인조섬유, 광물질비료를 생산한다.

1973년 하반년에 와서 외국주문의 축소로 특히 화학, 제약, 신발 공업부문들에서 생산이 떨어졌거나 침체상태에 있었다.

원료와 반제품 및 소비품의 도매가격은 1973년 한해동안에 10.9% 올랐다. 전반적으로 1973년에 공업생산액은 5% 늘었을뿐이다.

농업은 부침땅(전국토의 6.7%)이 매우 적은 관계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몫이 매우 적다.

이 부문에서 일하는 주민은 로동인

구의 12%정도밖에 안되며 국민소득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몫은 6%정도이다.

주요농산물은 밀(년산 약 40만톤), 보리(11만톤), 호밀, 강냉이, 감자, 사탕무우(년산 47만톤)이다. 식량의 대부분은 사들인다.

농업에서 기본은 농업총생산액의 70%를 차지하는 목축업이다. 평토의 약 절반은 방목지와 집짐승먹이작물재배지이다. 젖소를 기본으로 하는 소와 양, 염소를 많이 기른다.

국민소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관광업은 년 18억 6천만스위스프랑정도의 수입을 얻는다.

미국의 딸라평가인하와 기타 일련의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변동시세제실시는 스위스프랑을 평균 10% 재평가하게 하였다. 1973년 1월에 비하여 1974년 상반년기간에 스위스프랑은 딸라에 대해 20%, 이딸리아의 리라에 대해 15%, 영국파운드에 대해 13%, 서독마르크에 대해서와 벨지끄프랑 및 프랑스프랑 그리고 화란의 굴덴에 대하여 각각 5% 재평가되였다.

교통운수에서 기본은 철도이며 스위스와 이딸리아의 사이는 알프스산줄기를 가로지른 지하도로로 이어져있다.

주요수출품은 시계(수출총액의 16%)를 비롯하여 각종 정밀기계와 기타 기계제품, 화학제품, 의약품, 천 등을 수출한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서독, 미국, 프랑스, 이딸리아이다.

다민족국가인 이 나라에는 스위스사람이 따로 없고 독일계, 프랑스계, 이딸리아계, 로망슈계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하나의 국어가 없고 독일말, 프랑스말, 이딸리아말을 쓴다.

이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사람의 수는 103만 2천명에 달하는데 1974년에는 50만명을 줄일데 대한 문제까지 제기되였었다.

주민은 52%정도가 신교도, 46%정도가 천주교도에 속한다.

1973년 12월에 생활필수품값은 그 전해보다 16%, 1972년 같은달에 비하여 무려 18.9%나 올랐다. 1973년에 자동차사고로 죽거나 부상당한 사람은 3만 4천 250명이였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지(스위스통신)

신문 보이스 우브리에르(로동당기관지), 포르베르츠(로동당기관지), 리베라 스탐파(사회민주당기관지), 아펜젤레르 짜이퉁(급진민주당계), 가제떠 드 로잔느(자유민주당계), 트리뷴 데 제네브

방송 스위스방송, 제네바방송(프랑스말), 로잔느방송(프랑스말), 쮸리히방송(독일말), 스위스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7월 14일 우리 나라와 정부급 무역대표부를 교환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1974년 12월 20일에는 두 나라사이에 대사급 외교관계가 맺어졌다.

1974년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다오메정부기관지〈다오멕스프레스〉사장과 한 담화》를 신문《트리뷴 데 제네브》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나찌오날 짜이퉁》이 실었다.

이해 8월에 스위스민족회의(국민의회) 대외사업위원회 위원장부부, 스위스련합은행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2월에 우리 나라 외교부대표단이 스위스를 방문하였다. 12월 17일 스위스부대통령 겸 정치국장이 우리 나라 외교부대표단을 만났다.

석상에서 그는 앞으로 두 나라 사이에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것을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리히텐슈타인

(리히텐슈타인공국)

넓이 157km²

인구 2만명(1972년)

수도 바두쯔(주민 4,000명)

오지리와 스위스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이다.

정 치

국왕 국가수반이며 모든 실권을 가지고있다. 국왕 프란쯔 요제프 2세(1938년—)

국회 15명으로 구성된 일원제국회이며 임기는 4년, 1970년 2월에 진행된 선거에서 조국동맹이 8석, 시민진보당이 7석을 차지

정부 총리(임기 6년)와 2명의 보좌관(부장, 임기 2년)으로 구성

정당, 사회단체; 조국동맹 집권당, 시민진보당, 기독교사회당, 리히텐슈타인로동자동맹(로조)

1719년에 공국으로 된 이후 1806년에《신성로마제국》에 병합되였다. 이《제국》에서 1896～1918년까지 오지리와《관세및통화동맹》을 맺고있었으나 제1차세계대전에서 오지리가 패배당한 후에는 실제상 스위스의《보호》밑에 들어갔다.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는 파쑈독일의 강점하에 있었다.

1921년에 제정된 헌법에 의하여 립헌세습군주제가 실시되고있으며 이 나라의 군사, 외교, 재정권은 스위스가 틀어쥐고있다.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와 같이 《중립》을 표방하고있으나 실지에 있어서는《반공》을 기본외교정책으로 삼고있다. 1972년 2월 국회선거에서 42년간 집권하여온 시민진보당이 패배하고 조국동맹이 승리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60%가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는 농업국가이다. 주요농산물은 강냉이, 보리, 밀과 포도를 비롯한 과일이다. 집짐승으로서는 주로 소를 기른다.

공업부문에는 주요 수입원천의 하나인 석탄채굴이외에 금속가공, 방직, 축산물가공, 소형정밀기계(현미경, 쌍안경, 시계, 계산기 기타 측정기) 공장들이 있다.

그밖에 이 나라는 전통적으로 의치(이발)를 잘 만드는 나라로 알려졌고 우표판매(국고수입의 3분의 1을 차지)와 관광업(관광객 년간 6만 5천명)이 주요재정수입원천으로 되고있다. 스위스의 화폐가 통용되고있다. 10키로메터의 철길이 있다.

주민은 게르만족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독일말을 쓴다. 국민학교 14개, 중학교 5개가 있을뿐이다.

사회적으로 녀성들에게는 정치에 참여할 권한이 없으며 년령적인 계층제가 심하다. 주민들의 대다수는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리히텐슈타인통신

신문 리히텐슈타이네르 파테르란트(조국동맹기관지) 리히텐슈타이네르 폴크스블란트(시민진보당기관지), 데르 리히텐슈타이네르(기독교사회당주간지)

이 딸 리 아

(이딸리아공화국)

넓이 30만 1,250km^2
인구 5,544만 9,000명 (1974년 8월현재)
수도 로마(주민 340만명, 교외 인구포함)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 315석(이전대통령과 종신의원 7명 포함), 하원 630석, 상원, 하원 임기는 각각 5년, 1972년 5월 7일과 8일에 있은 총선거결과 기독교민주당 267석, 공산당 179석, 사회당 61석, 사회민주당 29석, 자유당 21석, 공화당 14석, 《이딸리아사회운동》 56석, 기타 3석을 각각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상하량원합동회의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7년, 대통령 지오바니 레오네(기독교민주당출신, 1972년 6월—)

정부 1974년 11월에 기독교민주당, 공화당의 련립정부수립, 1973년 7월~1974년 3월까지 기독교민주당, 사회당, 사회민주당 및 공화당의 련립정부, 1974년 3월 14~10월 3일까지 기독교민주당, 사회민주당의 련립정부가 집권, 총리 알도 모로(기독교민주당출신, 1974년 11월 23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1월 21일 창건, 위원장 루이지 롱고, 총비서 엔리꼬 베를링게르, **기독교민주당** 1943년에 창건된 이래 교회, 독점자본가와 대지주의 리익을 대변하면서 계속 집권당, **사회당**, **사회민주당** 1969년에 사회당안의 우익분자들이 조직, **공화당**, **자유당**,

《이딸리아사회운동》 1947년에 무은 신파시스트정당, **군주통일민주당** 국회안에서 《이딸리아사회운동》파 같이 활동하는 극우익파쑈정당, **로조련맹** 세계직련에 가입하였고 공산당의 영향밑에 있는 로조, **근로자로조련맹**, **로동련맹**, **근로자기독교련맹**, **공산주의청년련맹**, **사회주의청년련맹**, **녀성련맹**

전후 이딸리아반동지배층은 1949년 4월에 침략적인 나토에 가담한 이외에도 《서구동맹》, 구라파 《공동시장》등 각종 침략적인 경제, 군사기구들에 들어갔다. 나뽈리에는 나토의 남부군사령부가, 스페찌아에는 나토해군의 잠수함방위훈련기관이, 리보르노항은 미제침략군의 보급기지가, 마달레나섬은 미제6함대소속 핵잠수함기지가 있다.

이딸리아반동정부는 미제의 침략파 전쟁 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1959년에는 자국령토상에 미제의 핵 및 로케트 기지설치를 허용하였으며 이딸리아반동군은 미제살인장군놈들의 지휘밑에 진행되는 나토의 군사연습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1974년에 이딸리아를 휩쓴 경제적위기는 지배층내부의 대립과 의견상이를 빚어내여 년간을 통하여 정치적위기를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3월 2일 통화팽창문제를 둘러싸고 공화당이 정부에서 떨어져나옴으로써 루 모르를 총리로 하는 기독교민주당, 사회당, 사회민주당 및 공화당의 중간좌파련립내각은 총사직하였다. 그후 여당들 사이에 겨우 타협이 이루어져 12일동안의 정부위기를 겪은 끝에 3월 14일 루 모르를 다시 총리로 하고 기독교민주당, 사회당, 사회민주당의 중간좌파련립정부가 수립되였다.

새 정부는 3월 21일 통화팽창파 싸우며 리라화를 보호하고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보장하겠다는 강령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3월 23일 루 모르정부는 성립된지 9일만에 벌써 하원의 신임투표에서 반대에 부딪쳤다.

정부는 석유위기에 직면하여 4월 30일에 5월 1일부터 비생활필수품 수입을 대폭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악화되는 국제수지, 걷잡을수 없이 떨어지는 리라시세의 폭락을 막을수 없었다.

루 모르내각은 《전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6월 10일 수립된지 3개월만에 다시 총사직함으로써 이딸리아는 《전후 최악의 정치위기》까지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재정경제위기와 함께 5월 12일과 13일 이틀동안 진행된 《리혼법》을 둘러싼 국민투표에서 기독교민주당의 참패와 좌익정당들의 승리는 련립정부안에서 재정, 경제에 대한 가일층의 《긴축강화》를 주장하는 기독교민주당파 그를 반대하는 사회당의 의견불일치를 더욱 촉진시켜 결국 내각의 총사직을 가져왔다.

6월에 루 모르내각이 무너졌다가 다시 수습되여 정권을 쥐였으나 정부안에서 사회민주당이 총선거를 요구하여 물러남으로써 10월 3일 련립내각은 마지막으로 물러앉고말았다.

반동적기독교민주당은 47일간의 정치위기를 겪고 11월 18일에 공화당과 함께 2개 정당의 소수파련립정부를 형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11월 23일 제2차세계대전이후 37번째의 알도 모로(기독교민주당출신) 내각이 새로 수립되였다. 12월 2일 알도 모로는 국회에서 한 첫 정책연설에서 통화팽창 및 대외무역적자와의 투쟁에 《우선권부여》를 고아댔으나 《30년래의 최악의 경제위기》에 부딪쳐 모대기는 이딸리아의 병든 경제를 도저히 추세울수 없었다.

심각한 경제위기, 지방선거에서의 좌익세력의 승리와 이를 배경으로 하여 독점자본을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대중적공세는 반동정부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었다.

1974년에 수십만 지어 100만명이상이 참가한 큰 파업이 연거퍼 일어났으며 10월 17일에 실업을 반대하여 전국의 여러 부문근로자들이 총파업을 벌렸다. 11월에 들어와서 각 부문을 포괄하는 1천만명이상이 참가한 전국적인 총파업이 세차례나 일어났다. 이것은 1970년대이래 처음 있은 일로서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 이딸리아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자본가놈들이 손해를 본 로동시간은 1969년의 4배에 달하였다.

한편 1974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딸리아공산당기관지 《우니따》창간 50돐기념축전행사가 진행되였다. 축전을 통하여 이딸리아공산당은 자기의 권위와 위신을 높이고 당파 각계각층 인민들파의 련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1974년 2월에 리비아총리, 8월에 기네총리, 9월에 벨지끄총리가 이딸리아를 방문하였다. 또한 이딸리아대통령이 9월에 미국을, 12월에 이란을 방문하였다. 이딸리아대통령 레오네와 미제의 우두머리 포드사이에는 나토안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할것이라고 하였으며 미국무장관 키신저놈이 이딸리아에 날아들어 위기에 빠진 이딸리아의 경제상태를 리용하여 《원조》라는 간판밑에 이 나라를 정치, 경제적으로 더욱 예속시키려고 획책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이딸리아의 경제는 자본주의적경리와 심한 봉건적경리가 결합된 2중경

체구조를 이루고있다. 나라의 북부지방은 대규모의 공업지대이라면 남부와 섬들에는 뒤떨어진 소농경리가 기본을 이룬다.

령토의 40%와 주민의 35%를 포괄하는 남부지대는 인구 한사람당 소득에서 발전된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에 비해서도 훨씬 떨어져있다.

전후 외래독점체들은 이 나라에 《차관》과 경제《원조》의 형태로 경제적 침투를 강화하였다. 1970년현재 이 나라에 침투한 외래자본총액은 약 3조 8천억리라였는데 그 가운데서 미제독점자본이 차지하는 몫은 40%를 넘었다. 1974년 1~10월까지의 사이에만도 외래독점체들이 직접 투자한 돈은 도합 334억리라였다. 또한 외래독점체들은《차관》과 경제《원조》의 간판밑에 1974년 9월과 10월사이에만도 500억리라를 투자하였다. 특히 식료 및 화학 공업 등 위기를 겪고있는 공업부문들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강화한 외래독점체들은 큰 식료회사들의 약 절반을 이러저러한 형태로 자기의 통제밑에 넣었다. 미제독점자본은 1971년까지만 하여도 660개이상의 이딸리아회사들을 통제하였다.

또한《피아트》(자동차공업),《떼르니》(흑색금속), 《스니아—비스꼬자》와 《몬떼까띠니》(화학),《안쌀도》(군수공업) 등 얼마 안되는 대독점체들과 국가독점자본이 이딸리아경제를 좌지우지한다.

제노아, 뚜린, 밀라노를 련결하는 북부이딸리아삼각지대가 이 나라 공업의 심장부를 이루고 여기에 모든 공업부문기업소와 로동자수의 80%이상이 집중되여있다. 공업부문에는 1972년현재 810만명의 로동자들이 일하였다.

기계제작공업은 공업총생산액의 약 4분의 1, 공업부문로동자의 5분의 4를 차지하는 주도적부문으로서 자동차, 배, 전기제품 등을 생산한다.

주로 수입원료에 의거하는 흑색금속공업과 유색금속공업은 대부분 연안지대에 배치되여있다.

기계제작공업의 다음자리를 차지하는 화학공업은 전후에 확대되여 구라파《공동시장》의 화학제품생산에서 13%(1971년)를 차지하였다. 2차화학제품생산에서 제약품이 첫자리를 차지한다.

방직공업은 가장 오랜 공업부문의 하나로서 로동자수와 제품수출에서 두번째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목화의 90%, 털의 75%를 사들인다.

서방자본주의세계를 휩쓴 재정금융위기와 동력위기는 연료와 원료를 전적으로 수입에 매달리고있는 이딸리아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1974년 첫 8개월동안에 공업부문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23%나 떨어졌다.

석유소비에서 아랍석유의 86%를 의존하고있는 이딸리아는 석유값이 올라감에 따라 동력의 배급 및 절약 소동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석유공급의 제한으로 새로운 화력발전소들의 건설이 중지되였다. 게다가 수력발전소들에서도 생산이 계속 떨어져 1973년 하반년부터 동력부문에서 타격이 심하여 전반적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채취공업에서 비금속광물생산이 약간 올라갔을뿐 1973년에 금속광물채취는 전해에 비하여 18%나 떨어졌다.

운수 및 일반 기계제작에서 생산이 1973년부터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줄었다. 휘발유공급의 제한으로 가공공업총액의 5.2%(1974년)를 차지하는 자동차공업에서 생산은 1973년부터 계속 줄었다. 자동차공업을 휩쓴 위기는 대독점체들에 직접 련관되여있는 1만여개의 작은 공장, 기업소의 대다수를 파산의 위기에 몰아넣었다.

경공업부문에서도 생산이 떨어졌다. 식료공업은 1973년부터 생산의 집적의 정도가 높았으며 기업소수의 38%가 줄었다. 방직공업은 전후부터 계속 위기를 겪고있으며 신발생산은 1973년에 비하여 훨씬 떨어졌다.

농업부문은 공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뒤떨어져있다. 농촌주민의 1.1%밖에 안되는 대지주놈들이 1천만헥터나 되는 부침땅을 거머쥐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강냉이, 보리, 호밀, 벼, 감자 등의 알곡작물과 사탕무우, 목화, 올리브 등의 공예작물이다. 그리고 과일재배(포도, 레몬, 귤)와 남새농사를 한다.

축산부문에서는 소와 양을 주로 기른다. 누에치기도 한다.

농촌경리가 더욱더 황폐화되였다. 1951년부터 1971년까지의 20년동안에 500만명이 농촌에서 자리를 떴다. 1973년에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겨우 320만명이였는데 이것은 한해동안에 4% 줄은것이다. 그리하여 제1차세계대전전에 구라파의《남새밭이며 과일밭》이라고 불리우던 이딸리아가 자체 수요도 충족시킬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

농산물, 고기, 소젖은 수요의 40~50%나 모자란다. 뿐아니라 감귤류와 올리브기름까지도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1951년에 고기의 10분의 9를 자급하였다면 1971년에는 불과 3분의 2를 충족시켰으며 1973년에는 수입이 벌써 국내고기생산을 릉가하였다.

1973년에 소고기수요량의 50%를 수입하였다.

알곡생산에서도 비료부족, 기계화수준이 낮은 관계로 생산이 떨어졌다.

1974년에 대외무역적자는 6조 9천 310억리라에 달하였다. 국제수지적자는 4조 8천 540억리라(75억 1천 400만딸라)에 이르러 1973년에 비하여 53% 더 늘었다.

대외무역적자는 금외화보유량을 크게 감소시켜 1973년 10월현재 금외화보유량은 3만 902억리라로서 1972년 같은 시기보다 5천 245억리라가 줄었다. 1974년 11월에 통화팽창률은 전해 11월에 비하여 25% 높아졌다. 1974년말에 대외빚은 약 109억딸라에 달하였다.

이딸리아는 여러가지 설비,방직기, 타자기, 계산기, 분석기구, 명주 생산의 5분의 4, 자동차생산의 3분의 1, 기타 아연, 수은, 천, 포도주 등을 수출한다. 반면에 목화의 약 90%, 털의 75%, 인견팔프의 100%, 동은 90%이상, 쇠돌의 대부분, 섬유의 90%이상, 석탄의 95%와 철강재류, 석유, 고기 그리고 열대농산물(차, 커피, 코코아)을 수입한다. 주요무역대상국은 《공동시장》나라들인 서독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이다.

주민의 대다수는 이딸리아사람들이며 그밖에 독일사람, 프랑스사람들도 산다.

언어는 이딸리아말을 쓰며 주민들은 천주교도들이 많다.

1974년 10월까지의 12개월동안에 생계비는 24.3% 올랐다. 1974년에 공업제품과 농산물 도매가격이 1973년에 비하여 40.7%, 1974년 한해동안에 빵류와 남새값은 30~43%, 대중소비품값은 평균 24.3% 뛰여올랐다.

실업자수는 1974년 12월말현재 122만 2천여명이였다.

수백만의 가난한 세대들이 전기불도, 수도도 없는 집아닌 《집》에서 사는데 300만세대의 살림집은 집세가 비싸서 비여있다.

수도 로마주변의 빈민구역은 날로 늘어나고있다.

출판보도 ; 통신 안사, 아기트, 아스뜨라

신문 우니따(공산당기관지), 아반띠(사회당계), 꼬리에레 델라 쎄라, 메싸제로, 일쥬르노, 뽀뽈로 (기독교민주당기관지), 보쎄 레뿌블리까나(공화당기관지), 라 스딴파(중립계)

방송 이딸리아방송회사가 라지오방송과 텔레비존방송을 독점

우리 나라와의 관계

이딸리아에서 1968년 1월 18일 이딸리아조선문화협회가, 1971년 10월 8일에는 남조선인민과의 련대성위원회가 로마에서 각각 결성되였다.

1974년에 이딸리아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수록한《김일성저작선집》제1권을 쟈카부크출판사가 이딸리아말로 출판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우리 나라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몇가지 경험에 대하여》,《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미국 〈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한 담화》,《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에리또리 우니찌》출판사에서 단행본과 문헌집으로 출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이딸리아공산당기관지 〈우니따〉지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과《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를 신문《우니따》가 실었다.

1974년에 이딸리아사회계는 이딸리아정부가 우리 나라 정부를 승인할것을 요구하여 강력히 투쟁하였다.

5월에 이딸리아공산당출신 국회의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승인할것을 자기 나라 정부에 요구하면서 이것은 시대의 요구에 부합된다고 지적하였다. 9월에 공산당출신 상원의원이며 국회대외정책위원인 젤라씨아 아다볼리는 우리 나라를 승인할것을 요구하는 문건을 국회에 내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있다고 말하였다. 9월 8일에 이딸리아공산당 모데나시위원회 비서 루차노는 《우니따》창간 쉰돐기념축전행사에 참가한 평양예술단과의 친선모임에서 연설하면서 이딸리아공산당은 자기 나라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승인하고 두 나라 사이에 외교관계를 수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투쟁하겠다고 강조하였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딸리아의 볼로냐에서 이딸리아공산당기관지《우니따》창간 쉰돐기념축전행사에 조선로동당대표단이 명예손님으로 참가하였다. 또한 축전에는 우리 나라 평양예술단이 참가하였다. 9월 1일 축전개막에 즈음하여 이딸리아공산당기관지《우니따》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동신문》특간호를 발간하였다. 4면으로 된 특간호는 100만부(이딸리아말판)에 달하였다.

9월 1일 볼로냐시에서 진행된 개막식에 명예손님인 조선로동당대표단 성원들이 초대되였으며 같은 날 저녁 볼로냐시에서 평양예술단이 대성황리에 축전개막축하공연을 하였다. 또한 이날 볼로냐시에서는 우리 나라 전람관이 대성황리에 개막되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은 공화국창건 26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에서 기자회견과 연회를 마련하였다.

9월 9일 이딸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는《조선의 날》을 정하고 볼로냐시 광장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를 진행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9월 15일 축전폐막식에 앞서 진행된 군중시위에 조선로동당대표단 성원들과 우리 나라 평양예술단 성원들이 참가함으로써 전통적인《우니따》축전력사에서 있어보지 못한 이채를 띠였다.

축전마지막날인 9월 15일 평양예술단은 볼로냐시축전광장에서 축전폐막공연을 대성황리에 진행하였다. 공연을 보고나서 이딸리아공산당 총비서 엔리꼬 베를링게르동지는 공연을 보여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그는 평양예술단의 공연은 매우 훌륭하며 그 수준이 비할바없이 높다고 하면서 이 공연은 이번《우니따》축전행사를 전례없이 빛내이고 이딸리아와 조선 두 나라 로동계급과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더욱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고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6돐에 즈음하여 이딸리아조선문화협회 위원장은《조선인민의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진행하였다.

1973년 3월 27일~4월 9일까지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 무용단이 이딸리아를 방문하여 이 나라의 수도 로마와 제노아, 라스페찌아, 베니스, 또리노, 볼로냐, 플로렌스 등지를 순회공연하여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974년에 이딸리아공산당 당일군대표단 (1월), 축구선수단(3월), 삐에몬뜨주의회대표단(9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바 띠 까 노

넓이 0.44km²
인구 1,000명

이딸리아의 수도 로마시의 서북쪽 언덕에 자리잡고있다.

정 치

법왕 립법, 사법, 행정 등의 일체 권한을 가지고있다.

법왕아래에 법왕청이 있고 이 기관의 국무장관(총리 겸 외교부장과 같다.)이 법왕의 집무를 보좌하고있다. 법왕 파올로 6세(제263대, 1963년 6월 21일—)

바띠까노는 1929년 2월 11일 이딸리아정부와 법왕청사이에 체결된 이른바《라떼라노》조약에 따라 무쏠리니란놈이 법왕청구역에 토대하여 만들어낸 법왕주권의 종교도시이다.

바띠까노의 모든 권력은 법왕에게 집중되여있으며 자체의 군대와 대학, 화폐를 가지고있다. 이곳은 세계 천주교회의 우두머리인 로마법왕의 본거지이며 국제반동들의 소굴의 하나이다. 세계 각지에 교회들을 두고 30만명이상의 목사와 100만명이상의 수도승을 가지고있다. 바띠까노의 세력밑에는 자본주의나라들에 널려있는 승려당들 즉 기독교민주당, 기독교사회당 따위들의 당들이 있는데 이 당들은 독점자본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나라 정치생활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있다.

또한 기독교로조를 비롯한 여러 조직들과 출판물, 방송, 통신 등을 통하여 반동적천주교리를 전파하고있다. 특히 신문《오쎄르바또레 로마노》는 세계에서 가장 반동적인 신문의 하나로 알려졌다.

바띠까노가 걸어온 길은 침략의 앞잡이로서, 그 직접적인 가담자로서,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극악한 비방중상자로서의 력사로 엮어졌다.

1930년에 쏘련을 반대하는《십자군원정》의 호소, 이딸리아의 파쑈독재자였던 무쏠리니에 대한 극구찬양, 히틀러도당의 전쟁도발에 대한 지

지, 1936～1939년의 에스빠냐공민전쟁기간에 프랑코도당에 대한 재정적원조, 미제의 침략전쟁에 대한 무조건적지지 등 바띠까노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한 제국주의자들의 비호자로서, 악랄한 《반공》기구로서의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바띠까노는 미제의 침략정책을 적극 옹호하면서 1950년에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을 지지함으로써 조선인민앞에 씻을수 없는 죄악의 자취를 남겨놓았다.

바띠까노는 세계 수많은 나라 (90여개) 들에 《성사》 (대사), 《대리성사》 (공사) 들을 두고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 파괴, 암해, 정탐 행위에 복무하고있다.

바띠까노에는 공업도, 농업도 없으며 또한 로동자나 농민도 없다. 그러나 바띠까노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나라 독점체들과 밀접히 련결되여있으며 이딸리아에서 46만 5천헥터의 토지를 독점하고 이 나라 농민들의 피땀을 짜내고있다.

주민은 천주교도들이다. 주민구성은 이딸리아사람 85%, 에스빠냐사람 12%, 기타 3%로 이루어졌다.

싼 마리노

(싼 마리노공화국)

넓이 60.57km²
인구 2만명 (1971년)
수도 싼 마리노 (주민 4,500명)

이딸리아의 중심부에서 동쪽 아뻬닌산줄기의 몬떼 띠따노산우에 자리잡고 있는 작은 나라이다.

정 치

국회 (대평의회) 5년 임기로 된 60명의 의원들로 구성, 1974년 9월 8일 선거에서 공산당이 15석, 기독교민주당이 26석, 사회민주당이 9석, 사회당이 8석, 민주인민당과 조국방위위원회가 각각 1석씩을 차지

정부 대평의회가 임명하는 국무부장 2명 (임기 6개월)과 행정회의가 행정권을 행사, 외교담당국무부장이 실권자이다.

정당,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에 창건, 위원장 에르메니질도 가스뻬로니, 총비서 움베르또 바롤리, 그밖에 집권당들인 기독교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이 있고 좌익적인 사회당 그러고 민주인민당과 조국방위위원회가 있다. 공산주의청년동맹, 민주로동총련맹,로동총련맹

중세기에 싼 마리노는 로마법왕청의 《보호》밑에 있다가 1631년에 독립하였다. 1851년에 오지리와 로마법왕청의 무장간섭을 받았으며 1862년에 다시 이딸리아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에는 파쑈이딸리아의 강점하에 들어갔으며 1943년에 이딸리아의 파쑈정권이 무너진후 다시 독립하였다.

전후 1945～1957년에 집권한 공산당과 사회당의 좌익련립정부는 이딸리아반동정부의 지원밑에 이 나라 반동집단이 꾸며낸 정변에 의하여 전복되고 1957년 10월에 보수적우익정당들인 기독교민주당과 사회민주당련립정부가 수립되였다.

이 정권은 이듬해 9월에 공산당과 진보적인사들을 탄압하였으며 1960년이후 미제와 이딸리아 자본을 끌어들였다.

기독교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은 집권후 여러차례의 협잡선거를 통하여 계속 정권에 들어앉아있으면서 반인민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1974년 9월 8일 국회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결과 집권당들인 기독교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은 그의 반인민적정책으로 하여 1969년 9월의 선거때보다 모두 3석의 국회의석을 잃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밀, 강냉이, 포도, 올리브 등의 농산물을 재배한다. 집짐승은 소와 양을 주로 기른다.모직천, 가구, 도자기, 세멘트, 석재, 가죽, 종이, 포도주, 선물용기념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있으나 큰것은 없다.

우표발행과 관광업이 주요수입원천으로 되고있다.년간수입의 3분의 1은 우표판매에서 얻어진다.

해마다 200만명이상의 관광객이 드나드는 이 나라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들을 위한 봉사부문에서 일한다.이딸리아의 리라화폐를 쓴다. 주요수출품은 포도주, 양털, 가죽 및 도자기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이딸리아사람들이며 주로 천주교를 믿는다.

말 따

(말따공화국)

넓이 316km²
인구 33만명 (1971년)
수도 왈레따 (주민 1만 8,300명)

정 치

대통령 안토니 죠세프 마모 (1974년 12월 13일—)

국회 의원수는 55명이며 임기는 5년, 1971년 6월 12일 선거결과 레이버당이 28석, 국민당이 27석을 각각 차지

정부 1971년 6월에 레이버당정부 수립, 총리 도미니크 민토프 (1971년 6월 16일—)

정당,사회단체;공산당 1970년에 창건, 레이버당 1920년에 창건, 로동자, 소부르죠아지, 지식인들로 구성, 《쁠러뿔가담》정책과 반식민주의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말따건설을 위하여 투쟁, 총비서 도미니크 민토프, 국민당 1924년에 창건, 부르죠아지와 천주교상층의 리익을 대변하며 영제국주의와의 밀접한 련계를 주장, 기독교로동당 1968년에 조직되여 《로동자들의 리익에 기초한 민족적발전》을 주장, 진보립헌당 1953년에 나온 친영정당, 민주민족당 1959년에 창건, 반제전선 (좌익조직), 로조련맹 세계직련에 가입, 청년련맹 레이버당소속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근 200여년동안 있은 말따인민은 민족적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왔다. 이 투쟁은 전후 레이버당의 지도밑에 더욱 줄기차게 일어났다.

말따인민의 투쟁기세에 질겁한 영제국주의자들은 1947년 말따에 국방과 재정, 외교권을 제외한 형식상 《내부자치》를 허용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국민당반동정부의 《대표》와 1964년 7월에 10년을 기한으로 하는 《방위및재정협조에 관한 협정》을 꾸며냈다.이 협정에 의하여 영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침략군대를 말따에 주둔시킬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였으며 임의의 시각에 이 나라에 무력간섭을 할수 있게 되였다.

말따는 1964년 9월 21일 영국과의 예속적인 협정의 테두리안에서 영련방성원국으로 《독립》을 얻게 되

였다.

말따는 독립하였으나 미제는 영제국주의자들과 공모결탁하여 이 나라에 《나토지중해사령부》 (일명 나토남구라파해군사령부)를 설치하여놓고 이스라엘침략군을 뒤받침해주는 중요군사요충지로 리용하여왔다.

1971년 6월 12일 국회선거에서 반동적인 국민당이 패배하고 진보적인 레이버당정부가 수립되였다.

말따는 대내적으로 제국주의의 식민지후과를 가시고 새 말따를 건설하기 위한 일련의 진보적조치들을 취하였다.

식민주의의 상징인 총독을 말따사람으로 교체하고 영국총독놈을 내쫓았다.외국사람들이 경영하는 공업경리의 관리권을 빼앗아 말따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영국인 사무원들을 말따사람으로 바꾸는 조치를 취하였다.국민당정부시기의 각료들과 외국주재 대사들도 철저히 교체하였다.

민토프총리는《말따의 진정한 독립은 마지막 외국인 병사가 말따를 떠날 때만이 올것이다.》라고 말하고 말따사람들은《그 무엇보다 중요한 말따를 위하여》단결하여 싸워나갈것을 요구하였다.말따정부는 1971년 6월 24일 말따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여온《나토지중해사령부》사령관놈을 내쫓은데 뒤이어 11월 26일에는 이 《사령부》마저 완전히 철수시켰으며 영국놈들과《나토》동맹 성원국들에 부여해주던《세금면제법》을 폐지하고 놈들에게 그 어떤《특혜와 특전》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선포하였다. 또한 미제침략군 6함대의 왈레따항기항과 그 시설 (배수리) 의 리용을 금지시켰다.

영제국주의자들에게 군사기지사용료를 더 지불할것을 완강히 주장한 말따정부는 1973년 3월 영국과의 회담을 통하여 영국이 그것을 해마다 500만파운드로부터 1천 400만파운드로 올리는데 동의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1974년 10월 민토프총리는 말따가 영국과의 관계를 끊고 자기 나라를 공화국으로 선포할것이라고 말하였다.그는 정부가 새 헌법초안작성을 끝마치고있다고 하면서 이 새 헌법은 영국이 말따에 강요한 현행헌법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말따국회는 12월 13일 새 헌법을 채택하였으며 총독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선포하였다. 말따의 이전 총독인 안토니 죠세프 마모 (말따사람)가 말따공화국의 첫 대통령으로 되였다.

새 헌법에 의하여 18살이상의 공민은 다 선거권을 가질수 있게 되였다.

레이버당정부는《중립》과 《쁠럭불가담》정책을 지향하면서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좋게 가지고있다.

말따는 지중해를 평화지대로 만들며 말따로 하여금 구라파와 아프리카, 아세아와의 관계에서《평화의 다리》의 역할을 놀아야 한다고 하고있다.

이 나라 정부는 지중해의 평화가 담보됨이 없이는 구라파에서의 진정한 평화를 담보할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 지대의 평화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중해연안나라들뿐아니라 지중해와 련관이 있는 모든 나라들은 서로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말따정부는 1973년 9월《쁠럭불가담국가기구》에 가입하였으며 민토프총리가 알제리에서 있은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 참가하였다.

이스라엘침략군대가 강점한 아랍령토로부터 철수하며 팔레스티나인민들의 권리의 회복을 주장하고있는 말따정부는 1974년에 이스라엘포함들의 말따령해침범에 대하여《이스라엘이 자기의 침범행위를 사과하지 않으면 그와 외교관계를 단절할것이다.》라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말따정부는 사회주의나라들, 아랍 및 아프리카 나라들과의 정치, 경제적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1973년에 말따정부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알바니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민토프총리는 1971년 11월에 뽈스까를, 1972년 4월과 11월에 중국과 로므니아를 방문하였다.

1973년 8월 15일에는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를 승인하였다.

1974년 8월에 레바논과 외교관계를 맺기로 결정하였다.

민토프총리는 2월에 사우디 아라비아, 5월에 레바논, 아랍추장국련방, 10월에 까타르추장국, 아랍추장국련방, 11월에 마로끄를, 또한 4월에 영국, 5월과 8월에 이딸리아를 방문하였다.리비아혁명지도리사회 의장 가다피가 12월에 말따를 방문하였다.

말따총리는 방문한 나라들과 주로 경제적협조관계를 가일층 강화할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12월에 말따와 리비아사이에는 공업 및 관광업 계획을 촉진하기 위하여 합작회사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5월에 이딸리아와는 전신, 전화 및 텔렉스통신중계소를 확장할데 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말따의 경제는 영제국주의자들의 오랜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말미암아 영국독점자본에 의존되여있다.

지하자원은 알려진것이 없으며 부침땅은 1만 4천 500정보이다.

농업부문에서는 로력인구의 7% (약5천명) 가 일한다.주로 밀, 올리브, 감자, 포도, 도마도 기타 남새를 가꾼다.자체 알곡생산량으로는 주민수요를 10%밖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한다.집짐승들로서 소 (8천 800마리), 말, 노새, 당나귀, 양, 돼지 등을 기른다.

농업은 국민총생산액에서 약 8%를 차지한다.

섬나라이지만 수산업이 그다지 발전하지 못하였다.년간 5만톤정도의 물고기를 잡는데 이 부문에서는 500여명의 주민이 일한다.

공업부문에서는 로동인구의 60%이상이 일하는데 국민총생산액에서 공업의 몫은 약 45% 차지한다.

경제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배수리공업이다.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과 땅생김을 리용하여 섬주변에 크고 작은 여러 형태의 배수리공장들을 건설하여놓고 외국선박들을 수리해주고있다.이 부문에서 전체 로동인구의 35%에 해당하는 3만 7천여명의 로동자가 일한다.건도크회사는 5천명의 로동자를 가진 가장 큰 기업소이다. 이 회사는 배를 수리할뿐아니라 만들기도 한다.

그밖에 방직, 석재, 합성수지, 기계가공 및 제작, 고무, 자동차조립, 식료 (과일 및 남새 가공, 맥주, 포도주) 공장들과 수공업적인 기호품가공공장들이 있다.소금도 생산한다.

국가수입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것은 관광업이다.관광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려관, 도로, 휴식장을 많이 건설하고 있다.년평균 20여만명의 외국관광객이 찾아드는데 그중 60%이상이 영국사람들이다.

영국군사기지에서 1천여명의 말따사람들이 봉사일군으로 일한다.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국민총생산액의 20%이상 (년평균 1억파운드) 에 달한다. 외화예비의 대부분이 영국파운드 (1970년현재 84%) 이므로 영국의 경제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이 나라 경제와 주민생활은 큰 영향을 받고있다.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과의 수출입에 의존하고있는 말따경제는 이 나라들의 경제파동에 영향을 받아 큰 손실

을 입었다. 이 나라들에 대한 수출이 떨어지고 파산에 직면한 외국상사들은 말따로동자들을 해고하는데까지 이르렀다.

현정부는 경제적으로 제국주의예속에서 벗어나 자체의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1973년에 말따는 해운회사, 항공회사, 방송국, 왈레따은행 등을 창설하였다. 새로운 화폐와 우표도 발행되였다. 해운회사와 항공회사는 말따의 무역과 관광사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놀고있다. 말따의 상선들이 서구라파와 북구라파의 일부연해국가들, 지중해의 이웃나라들에 드나들고있다.

이 나라 민용항공기도 구라파와 북아프리카의 일부 중요도시들에 래왕한다. 새 조선소와 부두 건설이 시작되였다.

《말따인민의 말따》라는 구호밑에 이 나라 정부는 1973년에 7개년경제발전계획 (1973~1979년)을 세웠으며 7년안으로 외국자본의 의존으로부터 점차 벗어나 나라의 자주적경제토대를 창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이 기간에 년평균 5~6%의 장성을 예견하며 1979년이후부터 영국군사기지를 철폐한다.

말따의 주요수출품은 주로 천 (약 60%), 신발, 남새, 포도주이며 여러가지 공업품, 연료, 원료, 반제품, 식량 등을 수입한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영국 (수출의 30%, 수입의 40%), 이딸리아였으나 점차 제3세계 나라들과 무역관계를 확대하고있다.

원래 말따족이 있었으나 점차적으로 이딸리아계의 혼혈종으로 변화되고있다.

주민들은 주로 영국말을 쓰나 이딸리아말도 쓴다. 정부는 원래있던 말따말을 학교들에서 가르치게 하였으며 민족어로 된 신문, 잡지들도 발행되고 있다.

인민들의 생활풍습을 살려 의상도 고유한 말따식으로 갖추도록 하는 사회적운동을 벌리고있다. 영국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부르던 공장들과 려관, 식당들을 말따식으로 고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으며 이 종교는 사회생활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말따뉴스, 일헬시엔 (레이버당기관지), 보이스 오브 말따 (레이버당주간지), 일 뻬쁠루 (국민당기관지), 오리존트 (로조련맹기관지)

방송 말따방송, 말따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12월 20일에 우리 나라와 말따사이에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4년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수단정부기관지 〈알 싸하파〉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의 요지를 말따신문들인《말따뉴스》와 《오리존트》가 실었다.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말따는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결의안공동발기국으로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성심성의로 지지성원하여주었다.

영 국

(대브리텐및북아일랜드련합왕국)

넓이 24만 4, 030km^2

인구 5, 579만명 (1972년)

수도 런던 (주민 761만 2, 280명, 1970년)

정 치

국왕 립헌군주국으로서 국왕은 영국본토와 해외령 및 일부 영련방성원국들의 국가원수이다. 그러나 정치적실권은 없다. 국왕 엘리자베스 2세녀왕 (1952년 2월—)

추밀원 국무에 관한 국왕고문관들의 집합체

의회 1911년의《의회법》에 의하여 상원의 권한은 현저히 축소되고 립법상 권한의 대부분은 하원이 행사, 상원은 국왕이 임명하는 왕족, 귀족, 승려 등으로 구성, 하원은 임기 5년으로 선거되는 635명으로 구성, 1974년 10월 10일 총선거결과 레이버당이 319석, 보수당이 276석, 자유당 13석 기타 27석을 각각 차지

정부 내각성원의 임명권은 국왕에게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하원에서 제1당으로 된 정당의 지도자가 총리로 되고 부장들은 제1당 성원인 의회의원들중에서 총리의 추천에 따라 임명, 내각은 국회에서 신임을 받지 못하면 사직해야 한다.

1974년 10월 10일 선거에서 제1당으로된 레이버당정부가 수립되였다. 총리 해롤드 윌슨 (1974년 10월—), 1970년 6월부터 1974년 3월초까지 보수당이 집권, 1974년 3월부터 집권한 레이버당은 같은해 10월선거후 다시 집권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7월에 창건, 총비서 존 골랜,

레이버당 (집권당) 로동조합, 협동조합, 일련의 련합체들로서 조직된 전형적인 개량주의 및 기회주의정당, 보수당 독점자본가 및 대지주의 정당으로 여러차례 집권당으로 있었다. **자유당** 중소부르죠아지정당, **독립당**, **공화레이버당**, **통합당**, **스코틀랜드국민당**, **로동자통일당**, **스피거당**, **로동조합콩그레스** 레이버당소속, **공산주의청년동맹**, **청년행동리사회**

제2차세계대전후 영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많은 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쟁취함으로써 《대영제국》은 심히 쇠퇴몰락하였다.

전후 영제국주의자들은 미제와 함께 나토, 세아토 등 침략적인 군사동맹들과 배타적인 경제기구들을 꾸며냈다.

영국반동정부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동남아세아와 중근동 등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전쟁을 일삼는 미제침략자들을 추종 변호하였으며 《대영제국》의 옛지위를 유지해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전후 영국의 정치무대에서는 두 부르죠아반동정당인 보수당과 레이버당의 량당지배체계가 계속되였다.

1970년 6월 보수당의 히스반동정부가 집권하였으나 1974년 2월 28일 임기도 만료되기전에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하지 않을수 없었다. 히스반동도당은 집권기간의 반인민적정책으로 말미암아 제2차세계대전후 가장 엄중한 경제위기를 가져오고 그 후과의 부담을 근로대중에게 들씌웠다. 더우기 반동정부가 구라파《공동시장》에 영국을 끌어넣음으로써 경제 및 재정금융 위기를 더욱 격화시켰다. 아랍나라들의 조치로 석유값이 오르고 27만명의 탄부들의 전국적인 파업으로 석탄생산이 줄어 동력위기까지 겪게 된 히스반동도당은 1973년 11월 13일 선포하였던 《비상사태》를 1974년 2월까지 네차례나 연장하였다.

놈들은 학교, 정부기관들을 비롯한 모든 공장, 기관들 지어 가정들에서의 연료소비까지 제한하는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사태를 조금도 개선할수 없게 되자 1974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한주일동안에 3일만 조업하고 나머지는 문을 닫아매는 《비상조치》까지 벌렸

다.《인플레억제》라는 허울좋은 구실밑에 히스놈은 1974년 1월 10일 탄부들의 임금인상요구에 결코 응하지 않겠다고 줴치면서 반인민적정책에 계속 매여달렸다.

27만탄부들의 파업의 도가니속에서 벌려놓은 총선거에서 그 어느 부르죠아정당도 과반수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으며 대독점의 리익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한 보수당은 27석이나 잃었다.

정부위기가 계속되던 끝에 3월 5일 레이버당소수파단독정부가 겨우 성립되였다. 제각기 자기 리속만 채우려고 서로 물고 뜯는 의회에서 과반수의석을 얻지 못하여 자기의 반동정책을 제마음대로 실시할수 없게 된 윌슨도당은 10월 10일 의회를 또다시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정권에 또다시 들어앉은 윌슨놈은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선거전《공약》을 뒤집어엎고 반동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윌슨도당은 선거전강령에서 영국에 있는 미제의 폴라리스미싸일군사기지의 철폐를 《약속》하였으나 집권후 《대미외교협조》를 제창하면서 이를 묵살하였다. 칠레파쑈군사도당에 대한 《무기수출금지》를 실시할것이라는 《약속》도 뒤엎고 4월 10일에 3척의 군함을 넘겨주겠다고 발표하였다.

8월 4일 윌슨놈은 영국이 제2차세계대전후 가장 엄중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고있다고 아우성치면서 쪼들리고있는 인민들에게 《내핍생활》을 강요하였다.

경제위기에서 헤여날수 없게 된 윌슨반동정부는 12월 2일 수에즈이동지역의 영국침략군의 군사기지를 대폭 줄이거나 페쇄하며 나토에 밀어넣은 침략군의 일부를 축소할것이라고 줴쳤다.

그러나 놈들은 당사자들과 《협의》니 뭐니하면서 리행하지 않았을뿐아니라 음흉한 방법으로 침략적군사기지들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11월 2일 윌슨도당은 남아프리카와의 시몬즈타운협정을 페기하고 이 해군기지를 인종주의자들에게 넘겨주는 놀음을 벌렸으나 사실상 희망봉지역에서 활동하는 영제국주의자들의 해군이 계속 리용할수 있게 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이 인도양상의 디에고가르시아섬에 해군 및 공군 기지를 건설확장하는것을 허용하는 《협정》을 윌슨반동정부는 재검토한다고 하였으나 여러차례 쑥덕공론을 벌리면서 놈들과 결탁을 더욱 강화하였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 책동에 적극 추종하면서 영제국주의자들은 6월에 미제침략군의 우두머리들의 지휘밑에 오스트랄리아지역에서 벌린 륙해공군군사연습에, 9월에는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과 시몬즈타운지역에서 해군군사연습들을 벌렸다.

또한 놈들은 3월 5일부터 7일까지 서독에서 벌린 나토침략군의 통신부대들의 군사연습에, 같은 달에 카나다에서 벌린 해군군사연습에, 11월에는 인도양에서 있은 쎈토해군, 공군군사연습 등에 참가하여 미친듯이 돌아쳤다.

12월에 진행된 나토성원국국방부장회의에서 영국국방부장놈은 자기 나라 근로자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들씌우게 될 방대한 무력증강 및 현대화계획을 지지함으로써 이른바 《해외군사공약》의 재검토니, 군대의《축소》니 하는 기만성을 낱낱이 드러냈다.

1974년에 윌슨반동정부는 배타적인 경제공동체인 구라파 《공동시장》가입조건을 재협상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으나 다른 성원국들의 정면공격을 받고 좌절되고말았다. 4월 1일에 열린 구라파《공동시장》성원국 외교부장회의에서 영국외교부장놈은 《공동시장》가입조건의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시장》탈퇴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생떼를 부렸지만 결국 프랑스, 서독의 반대에 부닥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윌슨놈이 7월에 프랑스를 방문하였을 때도 이 문제를 또다시 들고나왔으나 프랑스대통령 데스뗑은《영국의 공동체재가입교섭문제에 응할수 없다》고 잘라 말하여 땡대만 받고 돌아왔으며 11월에 있은 구라파 《공동시장》외교부장회의에서 《공동시장》재가입협상을 또다시 주장했으나 아무것도 실현하지 못하였다.

구라파《공동시장》안에서 1973년 12월부터 끌어온 《지역개발기금창설》문제를 둘러싸고 여기에 리해관계를 가진 영제국주의자들은 기금규모를 늘일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반대하는 서독의 완강한 반대에 맞다들어 서로 물고 뜯는 싸움판만 벌렸다.

한편 미제국주의자들과 결탁을 날로 더욱 강화하고있는 영제국주의자들은 6월 19일에 열린 《서구동맹》의원총회에서 이 기구성원국들과 미제국주의자들간의 이른바《협의를 제도화》하자고 들고나왔으나《구라파 경제 및 대외정책을 미국의 주장에 내여맡길수 없다》고 주장해나선 프랑스와 옥신각신하는 추태만 부렸다.

1974년에 영국반동정부는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위한 북아일랜드인민들의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놈들은 이 지역인민들의 투쟁이 두려워 1만명의 고용병과 수천명의 경찰 및 특무들을 현지에서 동원하여 인민들을 탄압하는데 미쳐날뛰였다.

4월 18일 사태가 험악해지고있는 북아일랜드에 기여든 윌슨총리놈은 침략군을 당장 걷어갈것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자기의 강점군을 무한정 둘것이라고 줴쳤다.

7월 4일 반동정부는 《직접통치》로써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북아일랜드인민들의 투쟁을 막을수 없게 되자 저들의 괴뢰들을 내세워 이른바 《제헌의회》라는것을 설치하여 새로운 신식민주의적통치를 꾀하였다.

1974년에 독점자본의 가혹한 착취와 반동당국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는 영국근로자들의 투쟁이 더욱 높아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이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21페지)

근로자들을 희생시켜 경제적난관을 극복하려는 반동정부의 반인민적정책은 년초부터 로동계급의 단호한 반격에 부딪쳤다.

1973년 11월부터 임금인상과 로동조건개선 등의 요구를 내걸고 석달동안 태업투쟁을 벌려온 27만명의 영국탄광로동자들은 1974년 2월 11일 국내 전체 로조들의 지지밑에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탄부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년초부터 석탄부족으로 많은 공장들에서 생산이 완전히 멎어버리고 영국을《암흑천지로 될 위험》에 빠지게 하였다. 게다가 2만 9천명의 기관사들은 1973년 12월 12일부터 매주 하루씩 기관차운행을 중지하여 오다가 1974년 2월 5일부터는 매주 이틀씩 기관차운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전력생산의 절반을 석탄에 의거하고 석탄생산의 3분의 2를 철도수송에 의거하고있는 영국에서 탄부들과 기관사들의 장기적인 투쟁은 독점자본가놈들에게 커다란 타격으로 되였다. 구라파와 국내 근로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영국탄부들은 반동정부를 굴복시키고 끝내 요구조건을 관철시켰다.

1973년 9월부터 임금을 올려줄것을 요구하여 태업투쟁을 벌려온 기계공업부문 로동자들은 1974년 4월 15일에 드디여 전국적인 총파업

에 들어갔다. 100만명이상의 기계공업부문 근로자들은 5월에 이르러 1957년이후 규모가 가장 큰 전국적인 투쟁을 벌려 승리하였다.

5월부터 4개월이상이나 줄기차게 벌린 수만명간호원들의 파업, 10월에 있은 스코트랜드지역의 공업 및 운수 부문에서 일하는 약 3만명의 근로자들의 파업 등 영국의 로동자들과 여러부문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단결된 힘으로 요구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굴함없이 싸웠다.

공업 및 운수 부문뿐아니라 농민, 청년학생 등 각계층군중이 정부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여 일떠섰다.

9월에 전국 여러 도시들에서 5만명이상의 농민들의 시위, 2월과 11월에 런던에서 대학생들의 시위, 5월에 런던에서 교원들의 시위와 12월에 스코트랜드에서 약 4만명의 교원들의 파업 등 규모가 큰 시위와 파업들이 련이어 일어났다.

학생들은 수업조건의 개선을, 농민들과 교원들은 생활처지의 개선을 요구하여 힘차게 싸웠다.

이리하여 1974년에 근로자들의 파업건수는 도합 2천 882건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1971년이래의 최고건수에 이른것이다. 또한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수는 160만 5천명에 이르러 1973년에 비하여 5%나 더 늘었다.

경제, 사회문화

《부익부, 빈익빈》의 나라 영국의 경제는 한줌도 안되는 독점자본가놈들의 손아귀에 틀어쥐여있다. 1%밖에 안되는 큰 부자놈들이 전체 개인재산의 42%에 해당하는 300억파운드를 그러쥐고있다. 독점자본가놈들은 1973년에 반동당국의 비호밑에 많은 세금을 면제받고 물건값을 끊임없이 끌어올림으로써 가장 큰 은행인 《베클레이스 뱅크 리미테드》하나만도 1971년보다 30%나 더 많은 리윤을 짜냈다. 영국에서 석유제품판매를 독점하고있는 석유독점체들인 《브리티쉬 페트롤리엄》, 《쉘》, 《에쏘》, 《비르마 오일》회사들의 수입은 1973년에 13억 6천 900만파운드에 달하였다. 영국—화란 국제독점체인 《로이얄 다취 쉘》회사의 순리윤은 1972년에 비하여 1973년에 4억 4천 800만파운드나 늘어났다.

영국독점자본가놈들은 국내에서뿐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자본투자를 강화하여 많은 리윤을 짜내고있다. 놈들의 해외자본투자총액은 1962년의 80억 7천만파운드로부터 1973년에는 307억 3천 500만파운드에 이르렀다. 1973년 한해동안에만도 12억 5천 300만파운드의 자본을 해외에 투자하였다. 이러한 규모의 자본투자를 통하여 독점자본가놈들은 1961년의 6억 7천 600만파운드로부터 1973년에는 20억 4천 900만파운드에 달하는 많은 리윤을 짜냈다.

한편 영제국주의자들이 경제적난관을 겪고있는 틈을 타서 미제독점자본가놈들은 특히 수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많이 투자하고있는데 놈들은 영국수출무역의 5분의 1을 차지하였다. 미제독점회사들은 신발공업설비, 출납용계산기, 사진설비, 식료기계생산의 80%, 의약품생산과 계산기생산의 60%이상, 자동차, 석유공업설비, 흡진기, 합성직물 생산의 절반이상을 독점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영국근로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여 짜낸 리윤은 해마다 약 15억파운드에 이르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제국주의세계는 제2차세계대전이래 가장 심각한 경제파동을 겪고있으며 전면적인 위기에 부닥쳐 더욱더 허덕이고있습니다.》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 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단행본, 8페지)

만성적인 성격을 띠고 침체와 위기를 거듭해오던 영국의 공업은 1973년 11월부터 극심한 동력위기로 하여 30년래의 가장 엄중한 경제위기를 겪고있다.

1974년 첫 10개월동안에 공업생산은 그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2% 줄었으며 특히 석탄공업, 강철공업, 자동차공업 등 기간공업부문이 더욱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석탄공업은 석달동안 줄기차게 진행된 전국탄부들의 파업투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마비상태에 빠졌었다. 석탄생산의 대폭적인 감퇴는 석유부족과 함께 심각한 동력위기를 빚어내여 사회생활과 경제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1973년 12월중순부터는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35% 대폭 줄었다. 결과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생산을 중지하였으며 반동당국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한주일에 3일만 일하고 나머지는 문을 닫아매는 영국력사상 전례없는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동력균형에서 석유의 몫은 48.1% (1972년) 인데 석유에 의한 동력의 수요는 공업에서 31.7%, 상업에서 37.3%, 운수에서 거의 99%를 차지한다. 그런데 석유수입의 3분의 2를 중근동지역에서 들여오는 영국에 있어서 석유값의 국제적폭등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었다.

1974년에 강철생산은 동력이 모자라고 경제전반이 침체상태에 빠져 1973년에 비하여 15%이상 줄었다. 자동차공업도 동력과 연료 위기로 하여 1974년에 그 생산량은 그전해에 비하여 12%, 판매량은 25%나 줄었다. 영국의 자동차공업이 약화된 틈을 타서 이 나라 국내시장에 다른 자본주의나라 독점체들이 침투를 강화하였다. 그것은 1973년에 영국시장에서 팔린 자동차몫의 27~28%를 차지하였다.

1973년에 영국에서는 공업원료의 80%이상과 식료품의 50%이상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 그런데 자본주의세계를 휩쓴 전례없는 물가폭등으로 영국이 사들인 원료와 연료의 원가는 1972년에 비하여 평균 46%나 비싸졌다.

생산이 떨어짐에 따라 공장, 기업소들이 경영난을 겪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1974년 첫9개월동안에만도 3천 960개의 중소기업체들이 파산몰락하였다.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파산몰락함에 따라 실업자대렬이 늘어났는데 1974년 첫 11개월동안에만도 무려 11만 2천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1974년에 재정금융위기도 더욱 심화되였다.

통화팽창이 격화되고 대외무역에서 방대한 적자를 냈다. 1973년에 통화팽창률은 10.3%, 1974년 첫 11개월동안에는 20% 올랐다. 1974년 첫 11개월동안에 그 전해의 같은 기간보다 도매가격은 28%, 소매가격은 18.3% 더 비싸졌다.

대외무역에서 1973년에 11억 1천 700만파운드 (26억 8천 80만딸라)의 적자를 냈다면 1974년에는 영국력사상 가장 큰 38억 2천 800만파운드 (91억 8천 720만딸라) 의 적자를 냈다.

대외무역에서 방대한 적자는 국제수지의 악화와 파운드시세의 저락을 가져오면서 재정금융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1974년 첫 10개월동안에 국제수지적자는 그 전해에 비해 두배나 더 많은 32억 2천 400만파운드

를 기록하였다. 1973년 6월에 금 및 외화 보유액은 70억 1천 300만딸라였는데 12월에는 64억 7천 600만딸라, 1974년 1월말에는 61억 7천 80만딸라로 떨어졌다. 금 및 외화 보유액이 계속 줄어들어 1974년 한해동안에 30억파운드 이상의 대외채무를 새로 걸머졌다. 공업생산이 줄고 또한 큰 공업회사들의 주식시세와 파운드시세가 끊임없이 떨어져 1974년 1월중순에 파운드 시세는 2.203딸라로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간 반면에 1온스당 금값은 125.75딸라 뛰여올랐다.

영국의 농업은 림업과 함께 국민총생산의 4~5%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 토지소유자들의 0.5%밖에 안되는 농장주들이 토지의 60%이상을 차지하고있다. 농민의 3분의 2가 소농경리에 매달려있다.

축산업은 농업총생산의 5분의 4를 차지한다.

농촌에서 소농경리의 몰락이 날로 심해지고있는데 1973년에 전반적 소농경리의 수입은 1972년에 비하여 평균 15%나 줄었다. 일부 부문에서는 그것이 40%까지 줄었다. 1973년에 주요농산물값은 평균 23%나 올랐다.

1974년에 영국의 사회생활전반도 악화되였다.

반동당국이 세금을 끌어올림으로써 런던시민들의 세금만 하여도 44% 올랐다. 또한 같은해에 대중소비품값은 평균 18%, 식료품값은 17%뛰여올랐다. 전기세와 석탄값은 각각 24%, 기차료금은 26%, 사탕값은 거의 3배나 비싸졌다.

1975년 1월현재 실업자수는 72만 2천여명에 달하였다. 1974년현재 집없는 사람은 5만 5천세대가 있었으며 빈민굴은 약 200만채였다. 런던에서도만 6만여명의 사람들이 거리를 헤매고있으며 해마다 겨울철에는 6만명에 달하는 늙은이들이 거리에서 얼어죽거나 굶어죽는 참상이 빚어진다. 근 100만명의 어린이들은 항시적인 빈궁에 시달린다. 집세가 비싸서 빈채로 남아있는집은 10만채나 있었다.

병원과 의사가 모자라 1974년에 50만명이 입원하지 못하였다. 최근 3년간 병원수는 10% 줄었다. 14살부터 19살까지의 전체 학생수의 10%이상이 마약중독자들이다.

출판보도; 통신 로이터, 프레스 아소시에이슌, 엑스체인지 텔레그라프

신문 모닝 스타 (공산당기관지), 데일리 텔레그라프(보수당계), 데일리 미러(레이버당계), 가디언 (자유당계), 데일리 엑스프레스, 타임스 (무소속), 레드모울, 데일리 메일 앤드 뉴스 크로니클 (무소속), 썬, 파이낸셜 타임스

방송 비비씨방송, 비비씨텔레비죤방송, 아이티에이 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9월에 영국조선무역회가 런던에서 결성되였다. 같은해 11월 22일에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영국조선무역회사이에 무역협정을 맺었다. 1971년 10월 10일에는 영국인민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4년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들인《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서문과 첫째부분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해결의 기본원칙》,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무조건 물러가야 한다》, 《이딸리아공산당기관지 〈우니따〉지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의 전문을 영국신문《타임스》가,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신문《가디언》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를 신문《데일리 메일》이 실었다.

1974년 6월에 영국내슈널 웨스트민스터은행대표단, 7월에 바크라이즈국제은행대표단과 모르간은행대표단, 10월에 삼손벤지에쓰주식회사대표단과 미들랜드은행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아 일 랜 드

(아일랜드공화국)

넓이 7만 283km²
인구 301만명 (1972년)
수도 더블린 (주민 66만 3,000명)

정 치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7년, 대통령 샤브홀 오 달라이 (1974년 11월 29일―), 1973년 6월에 선출된 에르스킨 칠더스는 1974년 11월 17일에 사망

국회 상하량원제

정부 총리리암 코스그레이브 (1973년 3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3년에 창건, 1970년 3월 15일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서 열린 특별련합대회에서 북아일랜드공산당과 아일랜드로동당이 합당하여 아일랜드공산당으로 되였다. 총비서 오리 오르단, **피안나 파일당** (공화당) 1926년에 창건된 이 당은 산업부르죠아지와 농장주들에 의거하며 도시의 소부르죠아계층속에서도 영향력이 있다. 1932~1948년, 1951~1954년, 1959~1973년초까지 집권당, **피네 가엘당** (아일랜드통일당) 1933년 9월에 창건된 극우익적인 부르죠아정당, 대부르죠아지와 대토지소유자들, 천주교상층부의 리익을 대변, 1948~1951년, 1954~1959년까지 레이버당과 함께 집권당이였고 1973년 3월부터 또다시 레이버당과 같이 집권당, 지도자 리암 코스그레이브, **레이버당** 1912년에 조직, **신페인당** 1905년에 창건, **새아일랜드통일공화당** 1971년 9월에 조직

아일랜드는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있다가 1921년 12월 6일에 32개의 주들가운데서 신교도가 다수를 차지하는 북동지방의 가장 발전된 6개주를 제외한 나머지 26개의 주가 《자치》를 실시하는《아일랜드자유국》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아일랜드는 더블린을 수도로 하는 아일랜드와 벨파스트를 행정중심지로 하는 북아일랜드로 갈라지게 되였다.

1937년에 이 나라는 새 헌법을 채택하고 영련방안에서 독립하였다. 1949년 4월 18일에 영련방에서 떨어져나와 공화국으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두 부르죠아정당들인 공화당과 통일당을 두 축으로 하는 량당통치가 계속되였다. 아일랜드는 대외적으로《중립》을 표방하면서도 미제를 비롯한 서방제국주의편에 가담하고있다.

1973년 2월말 총선거에서 통일당과 레이버당의 련립정부가 수립되였다.

1974년 3월 13일 아일랜드정부는 북아일랜드가 아일랜드령토의 일부이라고 주장하던 립장을 포기하고 그것이 영국의 일부분이라는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뒤이어 3월 14일 국회에서 총리는 자기 정부가 북아

일랜드가 영국에 속한다는것을 승인한다고 말하였다.

1974년 4월 5일 런던에서 아일랜드총리 코스그레이브와 영국총리 윌슨사이에 북아일랜드의 정치, 치안 및 정세전반에 대한 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서 두 정부는 남북아일랜드의 정세가 호상 련관되여있다는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또한 1973년 12월에 합의를 본 전아일랜드평의회의 설치를 포함한 북아일랜드분쟁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씨닝데일협정비준 문제에서도 합의를 보았다.

9월 12일에는 아일랜드총리와 영국총리사이에 북아일랜드의 합헌적장래문제에 관한 두 나라사이의 정부급 회담을 할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고 발표되였다.

2월 28일 아일랜드학생동맹의 호소에 따라 수도 더블린에서 수천명의 대학생들이 배움의 권리와 학원의 민주화를 요구하여 시위투쟁을 벌렸다. 국내의 여러 도시들에서 온 수많은 학생들이 이 시위에 합류하였으며 반동국회청사앞에서 군중집회를 가졌다. 다른 지방도시들에서도 시위와 집회들이 진행되였다.

5월 17일 수도 더블린에서 폭탄폭발사건 등 국내에서 사태가 험악해지자 5월 18일 반동정부는 이른바 《유엔중동비상군》이라고 파견하였던 아일랜드군 (300명) 마저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일랜드는 제3차유엔해양법회의 (1974년 6~8월 베네수엘라 수도 까라까스에서 진행) 에 참가하였다. 7월 11일 일반토의에서 연설하면서 이 나라 정부 특별대표는 12마일령해에 합의를 볼것을 주장하고 200마일경제수역의 개념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국제기구를 내올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는 기술이 발전한 나라들이 이 기구에서 지나치게 많은 영향력을 가지는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작은 나라인 아일랜드는 적합한 기구를 내오고 기술을 양도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특수한 리익과 수요를 고려하는것을 지지할것이라고 하였다.

1974년에 중동석유에 많은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이 나라는 9월에 사우디 아라비아, 까타르, 바레인, 10월에 쿠웨이트, 12월에 애급과 각각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또한 아일랜드는 아랍인민과 나아가서 세계인민의 한결같은 규탄을 받고있는 이스라엘침략자들과도 12월 11일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아일랜드는 자본주의적 농업, 공업국가이며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가운데서 경제발전이 뒤떨어진 나라에 속한다. 수세기에 걸친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의 후과와 현정부의 반인민적정책으로 하여 경제가 심히 미영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되여있다.

1972년초현재 미제는 7천만파운드, 영제국주의자들은 2천 800만파운드 (1970년), 서독군국주의자들은 1천 100만파운드, 화란은 500만파운드의 자본을 각각 투자하였다. 그밖에도 카나다, 일본 등의 독점자본이 계속 침투하고있다.

1972년현재 이 나라에 건설된 크고 작은 500개의 새 기업소들가운데서 350여개는 외래독점자본의 소유였다. 그리하여 공업의 50%이상이 외래독점자본의 통제밑에 있다.

공업에서는 경공업이 기본을 이룬다. 이것은 가공공업총생산액의 40%를 차지한다. 주요제품은 빠터, 소젖가공, 고기가공품, 맥주와 술, 담배, 가죽, 천이다.

중공업부문에서는 기계 (자동차, 뜨락또르, 농기구, 배무이), 화학비료, 석유화학, 전력공업이 미약하나마 있다. 그러나 그의 대부분은 외래독점자본이 지배하고있다.

수력자원이 거의나 없어 전력은 비교적 풍부한 니탄에 의거한다. 지하자원으로는 동, 연, 아연, 은이 있으나 기타 자원 (쇠돌, 보크사이트, 석탄, 돌소금) 의 개발은 작은 규모에서 캐내고있다.

농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목축업이다. 로력인구의 30%가 농업부문에서 일한다. 농산물의 대부분은 집짐승먹이작물과 사탕무우, 아마 등이다. 전령토의 약 60%가 방목지와 부침땅이나 식량은 수입에 의존한다. 집짐승은 소 (뿔이 없는 검은소), 양, 말이다.

반동정부가 대규모농목장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하여 소농경리는 부단히 파산몰락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집짐승과 축산물 (고기, 빠터, 양털, 가죽) 이며 수입품은 석탄, 자동차, 비료, 전기기구 등이다. 수출의 5분의 4, 수입의 약 3분의 1을 영국에 의존한다. 1973년 1월에 구라파《공동시장》에 가입함으로써 이 나라들과의 무역이 늘어나고있다. 1973년에 대외무역에서 이 나라는 2억 6천 560만파운드의 적자를 냈다. 이것은 1972년에 비하여 6천 410만파운드나 더 많은것이다. 1974년 1월에는 또 2천 830만파운드의 적자를 냈다. 1974년 3월말현재 1억 6천 440만파운드의 해외빚을 걸머졌다.

주민의 대부분은 아일랜드족이며 언어는 아일랜드말 (제1국어) 과 영국말 (제2국어) 을 쓴다. 주민의 88%정도가 천주교를 믿는다.

대학은 2개밖에 없으며 21만 5천명의 어린이들이 극심한 기아와 빈궁속에서 살아간다. 특히 늙은이들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림받고있다.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여도 전체 주민수의 27%에 해당하는 64만명의 근로자들이 끼니조차 제대로 에울수 없는 극빈한 상태에 있다.

1973년 9월부터 1974년 9월까지의 기간에 소매물가는 17.1% 뛰여올랐다. 1974년 2월 25일부터 빵값이 13~15% 더 비싸졌고 기타 공업상품값도 많이 올랐다.

출판보도; 신문 아이리쉬 프레스 (무소속), 글레아스 (피안나 파일당기관지) 유나이티드 아이리쉬맨 (신페인당기관지), 이브닝 헤랄드 (무소속), 아이리쉬타임스, 이브닝 프레스

방송 아일랜드방송, 아일랜드텔레비죤방송

화 란

(화란왕국)

넓이 3만 3, 162km²
인구 1, 360만명 (1974년 12월)
수도 암스테르담 (주민 104만명, 1970년)
왕궁과 정부는 헤그 (주민 71만 9, 000명, 1970년) 에 있다.

정 치

국왕 립헌군주국으로서 국왕은 국가수반, 국왕 율리아나녀왕 (1948년—)

국회 량원제, 상원의원은 75명이며 임기는 6년, 그중 절반은 3년만에 개선, 하원의원은 150명이며 임기는 4년, 1971년 4월 하원 총선거와 상원의 전체 의원의 선거를 실시 (괄호안의것은 하원의석), 공산당 상원 3석 (6석), 카톨릭인민당 22석 (35석), 반혁명당 7석 (13석), 기독교력사련합 7석 (10

석), 자유민주당 8석 (16석), 《민주주의적사회주의자들— 70》 0석 (8석), 레이버당 18석 (39석), 《민주주의자—66》 6석 (11석), 급진정치당 2석 (2석), 기타 2석 (10석)

정부 1973년 5월 7일 새 정부 구성

총리 주프 덴 유일 (1973년 5월 7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 4월에 창설, 위원장 헹그 후크스트라, **사회민주당**, **카톨릭인민당** 1945년에 무어진 이 당은 자본가, 지주들의 리익을 대변, **반혁명당** (신교반혁명당) 1879년에 나온 신교도의 보수정당, **기독교력사련합**, **자유와 민주주의인민당** (자유민주당) 대자본가의 리익을 대변, **레이버당**,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당**, **국가개혁당**, **개량주의정치동맹**, **농민당**, **《민주주의자—66》**, **급진정치당**, **복음교단결당**, **로조련맹** 국제자유로련에 가입, **카톨릭로조련맹**, **기독교로조련맹**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중립을 취하였으나 1940년 5월 10일 파쑈독일에 강점당하였다. 1945년 5월 해방되였으며 전쟁시기 심히 파괴되였었다.

전후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식민지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말미암아 화란반동정부는 1945년 8월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승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또한 서부이리안을 둘러싼 인도네시아와의 분쟁에서 끝내 굴복하고 1962년 8월 15일 이 지역을 인도네시아에 이관할데 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이밖에도 1949년 12월에 남아메리카의 수리남과 서인도제도 (화란령)에 《자치령》의 지위나마 주지 않을수 없었다.

화란반동정부는 미제에 적극 추종하면서《나토》에 들어갔으며 1954년 1월에는 서부독일복수주의자들을 재생재무장시킬데 대한《빠리협정》을 맺었다. 화란은 배타적인 경제공동체인 구라파《공동시장》에 들어갔다. 화란반동정부는 1950년 6월 조선침략전쟁을 일으킨 미제국주의자들에게 고용병을 대주었다.

1973년 5월 6일 주프 덴 유일 (사회민주당 당수)을 총리로 하는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새 정부에는 사회민주당, 기독교정당 및《민주주의자—66》으로부터 10명 그리고 카톨릭 및 칼빈파 정당들로부터 6명이 들어갔다.

화란반동정부는 1973년 10월 미제의 부추김밑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일으킨 제4차중동전쟁시기에 이스라엘반동들을 지지하여 준것으로 하여 아랍석유수출국들로부터 석유수입을 금지당하였다. 10월 3일 쿠웨이트가 화란에 대한 석유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같은 날 이라크는 자기 나라에 있는 제국주의 석유독점회사인《로이얄 다취 쉘》의 주권중에서 화란의 몫을 국유화하였다. 그후 전반적인 아랍석유수출국들로부터 석유수입을 금지당하는 처지에 빠졌다.

1974년 1월에 화란의 상하량원에서는 석유위기에 대처하여 정부에 그 무슨《특별권한》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7월 10일 아랍석유수출국기구 성원국들이 석유수출금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하기전까지 화란은 정치,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화란반동정부는 침략적군사기구인 《나토》의 《륙군사령부》 (1966년)를 끌어들인데 이어 1974년 3월 5일에는《공군사령부》를 자기 나라의 림부르그주에 설치할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화란정부는 9월 17일《구라파핵방위력》구상에는 반대한다는 립장을 거듭 표명하였다.

화란반동당국은 1974년에 군사비로 62억 4천만길다 (약 10억파운드)를 처넣었다.

1974년 4월 5일 헤그시에서 청년들이《나토》를 반대하는 대중적 시위를 벌렸다.

시위자들은 《화란은 나토에서 탈퇴하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반동국회청사로 밀려갔다.

또한 여러 대학생조직들은 같은 달 20일부터《나토를 반대하는 투쟁주간》을 설정하고 여러 도시들에서 반나토투쟁을 벌렸다.

한편 이해에 화란은 남아메리카에 있는 자기의 식민지 수리남에 1975년말까지 독립을 부여하는데 동의하였으며 8월 10일 기네—비싸우를 승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화란은 경제적으로 비교적 발전한 나라이다.

주민의 40%이상이 경제의 주도적 부문인 공업부문에서 일한다. 국민소득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 (1973년)은 39.5%이다.

경제의 주요명맥은 미제를 비롯한 외래독점체들이 차지하고있다. 930여개의 외래독점회사들이 이 나라에 등지를 틀고있는데 그중 미제독점회사가 376개, 영국이 170개, 서독이 128개를 각각 차지하고있다.

전후 공업, 상업, 은행 부문에 이르기까지 자본의 집적과 집중화 과정이 촉진되였다. 영국과 화란의 합영회사들인 《로이얄 다취 쉘》, 《유니레바》, 《필립스》를 비롯한 몇개의 대독점체들이 경제를 좌지우지한다. 특히《로이얄 다취 쉘》회사는 석유채취와 가공부문, 화학, 전기기계, 인조섬유, 기계 공업을 비롯한 거의 모든 공업부문에 손을 뻗치고있다.

주요공업은 채취, 화학, 기계제작, 흑색 및 유색 금속, 선박, 석유가공, 식료 공업이다.

그러나 동남부의 석탄과 천연가스자원을 제외하면 지하자원이 거의나 없으며 쇠돌, 석유, 목재 등 많은 공업원료를 수입에 의존한다.

1973년에 기계제작, 방직, 식료공업 등 중요부문들의 생산은 답보상태에 있었다.

채취공업에서도 가스를 제외하면 석탄채취량은 1972년의 280만톤으로부터 1973년에 150만톤으로 줄었다. 원유채취량은 120만톤이였는데 그것은 1972년에 비하면 7% 떨어졌다. 천연가스의 절반은 수출되고있는데 구라파《공동시장》안에서 최대의 공급자로 되고있다.

화학공업은 로테르담을 중심으로 석유를 원료로 하는 유기화학공업과 돌소금을 원료로 하는 무기화학공업이 있다. 아랍석유수출국들로부터 석유구입을 금지당한 화란은 석유 및 석유제품 공급의 25% 감소로 1973년에 화학공업의 여러 부문들에서 생산의 축소와 구조변동을 초래하였다. 석유가공공장들은 설비를 72%밖에 가동하지 못하였다. 석유공급의 축감은 자동차판매량도 급격히 줄게 하였다.

1973년 12월에 자동차판매는 1972년의 같은 달에 비하여 68%나 줄었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는 선박공업은 수출을 위한 여러가지 배를 주로 만든다.

기계제작공업부문에서는 배의 엔진, 그의 부속품들, 유전설비, 전기기계 생산에 주로 치우쳐있다.

식료공업부문은 맥주, 치즈, 빠터, 소젖가루, 통졸임, 사탕, 담배가공이 큰몫을 차지한다.

1973년에도 자본 및 생산의 집

적과정이 계속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의 자본의 침투가 강화되였다. 화란의 보험회사 《델따 로이드》가 영국의 《콤머샬유니온》재단에 삼키였고 또한 《유니다뜨》재단의 3개 독점체가 생겨났다. 이런 통합의 결과 대독점체들과의 경쟁에서 파산당한 중소기업소 건수는 1973년에 2천 543건에 달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7% 남짓한 주민들이 일하고있으며 국민소득에서 농업의 몫은 5.8%에 불과하다. 농업에서는 자본주의적농장경리가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농업인구의 4분의 1에 불과한 농장주놈들이 전체 부침땅의 70%를 거머쥐고있다.

바다보다 낮은 지대가 많은 화란은 근 100년간에 40만헥타의 간석지를 개간함으로써 부침땅을 약 20% 더 넓혔다.

농업의 주요부문은 축산업으로서 그것은 농업총생산액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집짐승은 소와 돼지이며 그중에서도 젖소가 많다. 부침땅의 3분의 2가 방목지와 집짐승먹이작물재배지이다. 축산제품의 약 절반은 수출한다.

알곡작물은 밀, 호밀, 보리, 귀밀, 감자를 심는데 감자(년평균 560여만톤)가 그중 많다.

식량은 거의나 수입에 의존한다.

사탕무우가 년간 460여만톤 생산된다. 감자로는 전분을 많이 뽑는다. 원예업에서는 튤리프(꽃의 일종)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초와 그 뿌리를 해외에 수출한다.

북해의 어장을 리용하여 수산업도 한다. 주로 대구와 청어를 잡는다.

해운업은 이 나라 국민소득에서 상당한 자리를 차지한다. 국내운수에서 운하들이 큰 역할을 한다.

주요수출품은 각종 배와 기계류, 화학제품, 석유가공제품, 천과 실, 강철, 여러가지 식료품, 꽃과 그 뿌리 등이다. 주요수입품은 기계류, 식량, 석유, 목재, 코르크 기타 공업원료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구라파《공동시장》(수출의 약 60%, 수입의 약 55%)성원국들과 진행한다.

주민은 출신과 언어로 보아 화란사람, 프리망사람, 프리즈사람들로 나눌수 있는데 그 대부분은 게르만족계통이다.

공용어로서 화란말을 쓴다.

주민들은 천주교도가 38%, 신교도가 45%를 차지하며 그밖에 유태교 등이 있다.

1974년 5월 현재 실업자는 13만여명이였다. 1973년 9월부터 1974년 9월까지 기간에 실업자는 15만 2천 800명으로 늘어났다. 범죄건수가 해마다 늘어 1973년에 전해에 비하여 12% 늘었다.

1973년에 물가는 8.2% 비싸졌다. 농산물과 수산물의 값은 9.6% 올랐다. 같은해에 통화팽창률은 8.2%나 늘었다.

1969년부터 1974년까지의 기간에 화란에서는 생계비가 약 40% 뛰여올랐다. 1974년 열한달사이에만도 이 나라에서 500여가지의 대중소비품값이 10.4% 올랐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엔피

신문 드 바아르 하이트(공산당기관지), 오피니에 (레이버당기관지), 네델란드세 게다히텐 (반혁명당주간지), 크리스텔리크 히스토리쉬웨그블라트 (기독교력사련합기관지)

잡지 폴리티크 엔쿨루르 (공산당월간잡지)

방송 피오비방송, 에이브이아르오방송, 화란세계방송, 화란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12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화란공산당의 초청으로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벨 지 끄

(벨지끄왕국)

넓이 3만 513km²

인구 975만 7,000명(1973년 12월말)

수도 브류쎌(주민 110만명, 교외인구포함)

정 치

국왕 립헌군주국으로서 국왕이 국가수반이며 립법권을 가진다. 국왕 보도앙 1세(1951년—)

국회 국왕과 함께 립법권을 가진 상하량원으로 구성, 하원의원은 212명, 상원의원은 178명이며 임기는 각각 4년, 1974년 3월 10일 총선거 결과 공산당이 4개 의석, 기독교사회당이 71개 의석, 사회당이 60개 의석, 자유진보당이 31개 의석, 왈롱인련맹이 24개 의석, 인민동맹이 22개 의석을 각각 차지

정부 1974년 4월 25일 기독교사회당과 자유진보당의 련립정부 구성, 총리 레오 틴데만스 (1974년 4월 25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9월 4일에 창건, 위원장 루이 반게이트, **기독교사회당** 오랜 집권당으로서 부르죠아지, 대지주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보수정당, **사회당** 1885년에 나온 우익정당, **자유진보당** 1846년에 나온 당으로서 부르죠아지, 인테리들의 리익을 대변, **왈롱인련맹**, **인민동맹**, **프랑코폰민주전선**, **로조총련맹** 국제자유로련에 가입, **기독교로조련맹**, **공산주의청년동맹**

벨지끄는 1830년에 부르죠아혁명에서 승리하여 독립을 선포하였으며 립헌군주국으로 되였다.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는 파쑈독일침략자들에게 강점당하였다.

전후 벨지끄반동지배층은 미제의 침략적군사기구인《나토》에 들어갔으며 구라파《공동시장》을 비롯하여 배타적인 경제기구들에 가담하였다.

특히 미제의 침략정책에 추종하여 벨지끄반동지배층은 1950년에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저들의 고용병을 대주었다.

1960년대에 와서 벨지끄는 그의 식민지들이였던 자이르 (1960년 6월) 그리고 부룬디와 르완다 (1962년 7월)가 독립함으로써 그의 지위가 심히 약화되였다. 그러나 벨지끄식민주의자들은 옛식민지나라들에서의 지위를 되찾으려고 직접적무력간섭과 내정간섭행위를 여러번 감행하였다.

벨지끄반동정부는 브류쎌에《나토리사회》본부를 두고있으며 1966년 7월 프랑스에서 쫓겨난 침략적《나토군 구라파합동사령부》본부를 자기 나라에 끌어들였다.

1973년 1월 25일 기독교사회당, 사회당, 자유진보당의 련립정부가 수립되였다.

모순으로 가득찬 집권당내부에서의 의견상이는 날이갈수록 일층 악화되였다.

1974년 1월 19일에는 이란과의 합영석유회사설립문제를 둘러싸고 대립이 극도에 달하여 각료전원이 총사직하는 추태를 빚어냈다.

이 반동정부를 붕괴시킨 중요원인은 무엇보다도 뷰르통반동정부의 집권기간에 국내에서 사회적문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통화팽창이 격화되고 근로대중의 처지가 더욱 어렵게 된것이다.

반동지배층은 인민들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교육, 보건, 살림집건설에 대한 지출을 줄였으며 대독점체들에 한해서는《특혜》를 주면서도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의 대책문제는 제기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반동적인 련립정부

는 총사직하고 국회는 임기(1975년 11월까지)도 되기전에 해산되였다.

주요반동정당들사이에서뿐아니라 자기 당들내부에서까지 극심한 의견상이를 드러낸채 1974년 3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되였다. 그러나 전후 22번째의 새 정부구성은 순탄하지 않았다.

어느 정당도 선거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여 정당들간의 협의가 계속 되였으나 왈롱사람과 프라망사람들의 거주지역에 《자치권》을 부여하는《지역화정책》에서 의견불일치와 기타 문제로 인하여 선거이후 4월 25일 겨우 기독교사회당과 자유진보당의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5월 1일 새 총리 레오 틴데만스는 국회하원에서 발표한 정부정강에서 새 정부가 평화와 긴장완화 및 안전보장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것이며 근동에 공고한 평화를 수립하기 위한 그 어떠한 발기도 지지할것이라고 하였다.

이해 5월 10일 벨지끄는 자이르가 이른바《친선조약》을 무효로 선포함으로써 또하나의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1974년 1월 14~16일까지 벨지끄공산당 제21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총결보고를 청취토의하고 반독점동맹강령을 채택하였으며 루이 반 게이트를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시 선거하였다.

1월 16일 벨지끄공산당은 정부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할것을 근로자들에게 호소하였다.

벨지끄농민들은《공동시장》이 정한 낮은 농산물수매가격을 높일것을 거부한 반동당국에 항의하여 8월과 9월에 광범한 쟁의투쟁을 벌렸다.

경제, 사회문화

벨지끄는 비교적 발전된 자본주의공업국가이다.

그러나 자체자원이 부족하며 공업원료의 80%는 대외시장에 의거하고있다.

주요경제명맥은 국왕일가와 밀접히 련결된《소시에떼 제네랄》과《솔리베이》및《유니온 슈미끄벨쥬》를 비롯한 7개의 대독점체들이 거머쥐고있다. 가장 큰 독점체인《소시에떼 제네랄》은 이 나라 동제련의 90%, 아연의 80%, 석탄 및 제강 공업의 40%, 은행자본의 절반을 통제하며 다른 나라 채광공업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있다.

전후 미제를 비롯한 외래독점자본의 침투도 강화되였다. 이 나라에 대한 외국자본투자총액에서 미제가 차지하는 몫은 41.3%에 달한다. 구라파《공동시장》성원국들은 도합 53억 3천만벨지끄프랑을 투자하였다. 일본도 거액의 자본을 투자하였다. 이리하여 1천개이상의 외국회사들이 이 나라에서 활개치고있다.

공업부문에서는 야금공업, 연료 및 화학 공업, 방직공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자체의 원료기지에 의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산은 매우 불안정하다. 또한 공업은 그 배치에서도 기형성이 심하다. 주요공업기업소들은 석탄산지인 동남부지대에 치우쳐있다.

전후에 생긴 석유가공, 자동차, 전자 공업기업소들도 원료와 반제품을 수입에 의거한다.

이 공업부문들은 북부의 항구도시들인 앙트베르뻥과 겐트시 등지에 몰켜있다.

연료공업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석탄생산이다.

그러나 전후 그 시설이 낡고 동력자원리용에서 석유에로의 전환, 《공동시장》가입의 후과로 하여 석탄생산량은 해마다 떨어진다.

1973년에 석탄생산량은 1972년에 비하여 15.8% 떨어지고 로동자수는 3천명이나 줄었다. 석유가공에서도 중근동과 북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에서 전부 수입하여 가공하였다.

특히 제4차 중동전쟁후 아랍석유수출국들에서 석유수출의 삭감으로 석유가공과 그와 련관된 공업기업소들이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1974년 4월 10일부터 휘발유와 기타 석유제품의 값은 평균 10% 올랐다. 수력발전량은 동력의 1%에 불과하며 전력생산은 화력발전에 의거한다.

경제에 대한 국내외독점자본의 강화는 중소기업소들을 더욱 파산몰락시키고있다.

농업부문에서는 주민의 20%정도가 일하지만 그 생산액은 국민소득의 6%밖에 안된다.

농업생산은 주로 자본주의적소농경리에 의거한다.

농업생산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몫은 60%이상 이다. 부침땅은 170만헥타이나 그 절반은 집집승먹이 작물재배지와 방목지이다.

주요알곡작물은 밀, 보리, 감자 등이며 밀생산량은 1970년에 70만톤에 불과하였다. 식량을 비롯한 농산물은 수입총액에서 15%정도 차지한다.

교통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철도망이 구라파에서 조밀한 나라에 속한다.

주요수출품은 흑색금속, 석유제품, 유색금속, 화학제품, 직물 등 공업제품의 40%정도를 수출하고 식량과 공업원료를 수입한다.

무역은 구라파《공동시장》나라들과 절반이상 진행한다.

주민의 대부분은 프라망사람들과 왈롱사람들로 구성되여있다. 북부에는 화란사람계통의 프라망사람이, 남부지역에는 프랑스사람계통의 왈롱사람이 산다. 주민의 66%가 도시에서 산다.

프라망사람은 화란말계통의 프라망말을, 왈롱사람들은 프랑스말계통의 왈롱말을 쓴다. 이러한 주민구성은 정치무대에까지 반영되여 두 민족들의 반동적상층부사이에 서로《자치권》과《우위권》을 요구하는 뿌리 깊은 모순이 깔려있다.

주민의 90%는 천주교를 믿지만 신교도도 적지 않다.

1973년 8월부터 1974년 8월까지의 기간에 물건값은 14.6%나 올랐다. 1973년에 통화팽창률은 7.3%, 1974년 1월에 7.5% 올랐다.

1973년 12월말현재 실업자수는 20만 3천 160명이였다.

출판보도; **통신** 벨지끄통신

신문 드라포 루쥬(공산당기관지), 가제트 반 앙트베르뻥, 볼크스 가제트, 피플, 렘메스 도쥬르듀이

방송 벨지끄라지오및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9월에 벨지끄조선친선협회가 벨지끄에서 결성되였다.

1973년 6월 조선로동당 대표단이 벨지끄를 방문하였으며 같은해 12월에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이 나라 공산당 제21차대회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벨지끄공산당 위원장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대표단 단장이 정중히 전달하였다.

룩셈부르그

(룩셈부르그대공국)

넓이 2,586km²

인구 35만 2,700명(1973년)

수도 룩셈부르그(주민 7만 8,3

00명, 1973년)

정 치

대공 국가원수로서 립법권과 행정권(총리와 함께)을 가진다. 대공(국왕) 쟌(1964년—)

국회 일원제로서 임기는 5년, 의원은 59명, 1974년 5월 26일에 총선거를 실시, 선거결과 공산당 5석, 기독교사회인민당 18석, 사회로동당 17석, 민주당 14석, 사회민주당 5석

정부 1974년 6월 1일 사회로동당과 민주당의 련립정부수립

총리 카스톤 토른(1974년 6월 1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1월 2일 창건, 1973년 3월 제21차당대회 진행, 위원장 도미니크 우르바니, 민주당(이전 자유당), 사회로동당 1902년에 창건, 기독교사회인민당 1914년에 결성되여 대부르죠아지, 부농의 리익을 대변, 사회민주당 1971년에 창건, 로동자로조련맹 국제자유로련에 가입, 기독교로조련맹

룩셈부르그는 1867년에 비무장《영구중립국》으로 선포되였다. 1890년에 대공국으로 되였으며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는 독일침략군에 강점당하였었다.

전후 룩셈부르그반동지배층은《영구중립》(1948년)을 그만두고《서구동맹》(1948년)과《나토》(1949년)에 가담하였으며 자기 나라 병력을《나토》에 밀어넣었다.

이 나라는 린접나라들인 벨지끄, 화란과《관세동맹》,《경제동맹》(1958년)을 맺고있으며 배타적인 구라파《공동시장》(1957년)에 들어갔다.

룩셈부르그는 1950년에 미제가 도발한 조선침략전쟁에 저들의 고용병을 대주었다.

1969년 2월에 두 부르죠아반동정당인 민주당과 기독교사회인민당의 련립정부가 수립되였다.

이 정부의 집권기간에 반인민적정책으로 말미암아 국내에서 통화팽창이 격화되고 물가와 세금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국내에 조성된 사회, 정치, 경제적위기로 하여 1974년 5월 14일 국회는 해산되였으며 이어 총 59석에 350명의 립후보를 내놓고 정당들의 선거깜빠니야가 진행되였다.

이런 환경속에서 1974년 5월 26일 총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결과 공산당 5석, 기독교사회인민당 18석, 사회로동당 17석, 민주당 14석, 사회민주당이 5석을 차지하였다.

50여년동안 집권당으로 있은 기독교사회인민당은 그의 반인민적정책으로 하여 선거에서 패배하였으며 야당으로 굴러떨어졌다. 또한 그 어느 부르죠아정당도 유일당의 정부를 구성할수 있는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6월 1일에 겨우 민주당과 사회로동당의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1974년 2월 룩셈부르그에서는 프랑꼬반동도당을 반대하는 에스빠냐근로자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지지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큰 련대성시위가 진행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룩셈부르그는 비교적 발전된 자본주의적공업국가이다. 풍부한 쇠돌매장지에 토대하여 채굴공업과 흑색금속공업의 일면이 발전하였다. 이 부문에서 공업로동자의 절반이상이 일한다.

두 공업부문은 공업총생산액의 80%를 차지하는데 강철과 압연제품의 95%를 수출한다.

강철제품의 대부분을 수출하고 석탄과 콕스를 사들인다.

경제의 주요명맥은《아르베드》(프랑스자본과 련계된 독점체)와 벨지끄의《소시에떼 제네랄》두 독점회사가 틀어쥐고있다.

야금공업기업소들은 쇠돌매장지인 서남부일대에 몰켜있다.

년평균 25억~28억키로와트시의 전력이 생산되는데 화력발전에 많이 치우쳐있다.

우르강기슭에 30여만키로와트능력의 수력발전소가 있다.

로동자수로 볼 때 두번째 큰 공업부문은 식료가공공업(약 4천명)이며 그밖에 기계공장, 화학공장과 경공업공장들이 있으나 그 규모는 작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식료가공공업부문에서는 주로 과일가공, 포도주, 술, 청량음료 등을 생산한다. 북부지방 산림지대에는 목재가공공장들이 있다.

농업은 매우 뒤떨어졌다. 전후 소농경리는 계속 파산당하여 부침땅의 5분의 4가 지주놈들에게 집중되였다. 남부지역에서는 대농장경리가 지배하고있다.

부침땅은 약 7만 5천헥타에 불과하며 주요농산물은 밀, 귀밀, 감자이다. 축산물생산에 몰두하고있는 관계로 부침땅까지 점차 방목지로 화하고있다.

축산업은 농업 총생산액의 80%이상 차지하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소젖과 고기를 생산한다.

약 19만마리의 소와 10만마리의 돼지, 3만마리의 양이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원예업과 포도재배업도 많이 하는데 거리와 유보도의 가로수에 이르기까지 과일나무를 심는다. 포도산지는 모젤강류역, 장미를 기본으로 하는 원예업은 남부지방에서 한다.

관광업이 주요수입원천(년간 100여만명)의 하나이다.

바다가 없는 이 나라는 대외무역을 철길로 진행한다.

주요수출품은 금속(강철, 선철, 압연제품), 쇠돌, 린비료, 세멘트, 목재, 포도주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석탄, 콕스, 기계, 설비, 알곡 등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서독, 벨지끄를 비롯한 구라파《공동시장》성원국들이다.

주민은 룩셈부르그사람이 기본이며 독일사람, 프랑스사람들도 적지 않게 산다. 주민의 약 60%가 도시에 몰켜산다.

공용어는 독일말과 프랑스말이며 주민의 90%정도가 천주교를 믿는다.

1973년 9월부터 1974년 9월까지의 기간에 물건값이 10.6% 올랐다.

출판보도; 신문 짜이퉁 퓸 레쩨부르게르 폴베크(공산당기관지), 레쩨부르게르 쥬르날(민주당계), 룩셈부르게르 보르트(천주교계), 타게블라트

방송 룩셈부르그방송, 룩셈부르그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룩셈부르그에는《김일성동지의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연구소조》가 있다.

1972년 8월 이 연구소조책임자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2년 12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룩셈부르그공산당의 초청으로 이 나라를 방문하였었다.

프 랑 스

(프랑스공화국)

넓이 55만 1,208km²

인구 5,150만명 (1972년 1월)

수도 빠리(주민 260만 7,600명)

정 치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7년, 《제5공화국》(1958년)으로 되면서 국회의 권한보다 대통령의 권한이 훨씬 강화되였다. 대통령은 총리와 부장들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전쟁시기에는 군최고사령관으로 된다. 대통령 지스까르 데스탱(1974년 5월 27일—), 1969년 6월～1974년 4월까지는 사망한 죠르쥬 퐁피듀

국회 국민의회(하원)와 참의원(상원)의 량원제, 국민의회 의원은 490명이고 임기는 5년, 참의원 의원은 283명이며 임기는 9년, 3년마다 3분의 1을 개선, 1973년 3월 4일과 11일 진행된 총선거결과 490석(3석은 미확정) 가운데서 공산당 73석, 사회당 89석, 좌익각파 19석, 중간파 28석, 드골파 273석, 우익각파 5석을 각각 차지

정부 1974년 5월 28일 새 정부 구성, 총리 쟈크 쉬라크(1974년 5월 28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12월 29일 창건, 총비서 죠르쥬 마르쉐, 명예위원장 발데크 로쉐, 사회당, 통일사회당 1960년 4월에 창건, 급진사회당, 공화국옹호민주주의자동맹 1958년에 드골이 조직한 《새 공화국옹호동맹》과 《민주로동동맹》을 합쳐 무은 부르죠아정당, 독립공화주의자전국련맹 원래 부르죠아지의 한개 집단에 불과하였으나 1966년에 정식 당으로 개편, 민주주의중앙, 민주주의및진보중앙, 공화중앙, 자유및진보옹호공화국련맹, 로조총련맹 세계직련에 가입, 공산당소속, 프랑스민주주의로동련맹, 《포르스우브리엘》, 전국교육련맹, 간부총련맹, 기독교근로자련맹, 공산주의청년운동, 녀성동맹

1958년에 프랑스제5공화국이 수립되였으며 그의 대통령으로 드골이 집권하였다. 그는 대외정책의 기본을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구라파사람에 의한 구라파건설》에 두고 서구라파에서《령도권》을 틀어쥐기 위한 이른바《독자적》인 《로선》을 추구하여 나토문제, 자본주의세계에서의 국제통화문제 등 일련의 국제문제들에서 미제에 맞섰다.

프랑스는 이러한 대외정책의《원칙》에 따라 1967년에 미제의 침략적군사기구인 나토의 군사통합사령부에서 자기 군대를 철수시켰으며 프랑스땅에 있던《나토군최고사령부》, 《나토군중구라파사령부》, 서구라파주둔《미군사령부》와 기타 나토산하기구들을 철수시켰다.

1969년 드골의 뒤를 이어 집권한 퐁피듀는 서구라파에서 패권을 쥐려는 드골의 대외정책을 그대로 계속하였다.

1974년에 프랑스국내에서는 동력위기, 통화팽창 등의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의견상이가 벌어져 2월 27일 내각이 총사직하였다가 3월 1일에 다시 수립되였다.

4월 2일 대통령 퐁피듀가 죽고 5월 5일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첨예한 정치투쟁이 벌어졌다.

여러 정치조류와 집단을 대표하는 18명의 대통령립후보가 나타났는가 하면 지어 퐁피듀의 련립집권당들안에서 3명이나 립후보로 출마하여 보수집권세력의 사분오렬을 보여주었다. 5월 5일에 실시된 선거에서 그 누구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여 5월 19일 2차투표가 실시되였다. 1차투표에서 첫자리를 차지한 좌익력량의 정치무대등장을 두려워한 보수파세력이 2차투표에서 최종적으로 결탁함으로써 겨우 대통령자리를 고수하였다. 좌익력량은 선거를 통하여 자기들의 위력을 시위한 반면에 퐁피듀가 이끌어온 드골파정당은 집권층안에서 중심자리를 빼앗기고 데스탱의 독립공화주의자전국련맹이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5월 27일 지스까르 데스탱이 제5공화국 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며 그는 5월 28일 총리를 포함한 16명으로 구성된 새 내각명단을 발표하였다. 정부에서 드골파의 지위는 현저히 떨어졌다.

데스탱은 5월 30일에 한 정책성명에서 프랑스가《구라파통일을 점차, 급속히 조직하는것을 지지》할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미제와는《평등한 권리에 기초》할것이며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와는《주로 그들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할것이라고 하였다.

6월 5일 프랑스총리 쟈크 쉬라크는 자기의 시정연설에서 드골파 퐁피듀의 로선을 계속 따르겠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1974년에 독점자본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생활상 권리를 위한 프랑스근로자들의 파업투쟁이 힘차게 벌어졌다.

1월 24일 2만여명의 종이공업부문 로동자, 사무원들의 파업, 로렌지방에서 1만 2천명의 탄부들의 파업, 1월 12일《라또》공장 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하여 쎄느 에 드 현안의 2만여명의 근로자들의 파업, 3월에 금융부문에서 20만명의 근로자들의 파업을 비롯하여 규모가 큰 파업들이 련이어 일어났다.

11월 19일에는 체신, 교통 및 자동차, 강철, 화학 공업부문 그리고 전력 및 가스 회사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파업을 일으켰으며 약 100만명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렸다. 이 파업은 프랑스에서 전례없이 제일 큰 파업과 시위의 하나였다.

1974년의 첫7개월동안에 파업자수는 80만 1천명이였고 파업으로 독점자본에 준 손실일수는 226만 9천 900일로서 1973년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하였다.

1974년에 서방자본주의세계를 휩쓴 동력위기, 재정금융위기는 프랑스대내외정책에까지 엄중히 반영되였다.

외환시장들에서 프랑시세가 걷잡을수 없이 떨어지고 석유위기에 의해 국제수지에서 막대한 적자를 내게 된 프랑스정부는 1월 19일 외환시장에 대한 중앙은행의 의무적개입을 앞으로 6개월간 중지한다는 결정을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구라파《공동시장》안의《통화동맹》이 생긴이래 10개월만에 프랑스가 떨어져나와《단독변동시세제》로 넘어감으로써《공동시장》의《공동변동시세제》는 사실상 끝장나고 말았다. 이러한 조치로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 서독반동당국은 프랑스에 30억딸라의 차관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프랑스의 립장을 돌려세우지 못하였다.

프랑스정부는 석유위기로 하여 1월 2일 공업 및 가정용 가스공급량을 줄인다고 발표하였으며 뒤이어 1월 10일에는 휘발유 및 가정용 석유값을 올리는 소동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1973년 10월 제4차중동전쟁이 일어난 이후 아랍나라들이 미제와 기타 제국주의나라들에 석유수출을 줄이거나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 석유값을 올리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석유문제를 놓고 프랑스와 기타 자본주의나라들사이에는 심각한 의견상이를 드러냈다. 1973년 11월에 있은《구라파공동시장각료리사회회의》에서 아랍나라들의 보복조치에 대처하여《석유동맹》을 형성할것을 주장한 화란에 대하여 프랑스는《아랍측을 자극해서는 안된다》고 틀고나와《공동시장》성원국들의《결속》을 꿈꾸어오던 이른바《구라파건설》은 엄중한 장

애에 부딪쳤었다.

그런데 1974년에 석유문제를 놓고 이번에는 프랑스와 미제국주의자들간에 모순이 일층 격화되였다. 프랑스는 석유생산국들의 조치에 대처하여 서방석유수입국들이 《동맹형성》을 하자는 미제의 요구를 반대하면서 석유수입국, 석유생산국 그리고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참가하는 광범한 회의소집을 주장하였다.

동시에 프랑스외교부장은 아랍나라(1월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수리아, 2월 이라크 등)들에 직접 들어가 석유를 받기 위한 《외교공세》를 벌림으로써 미제의 비위를 더욱 거슬리게 하였다. 미제가 워싱톤에서 벌려놓으려는 《석유소비국회의》를 앞두고 프랑스외교부장은 2월 6일 내각회의에서 《소비국들만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것은 생산국들과의 전면적인 대결을 초래할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미제가 시도하는 《새로운 세계동력질서수립》을 완강히 반대하여나섰다.

프랑스는 2월 11일과 12일 이틀동안에 걸쳐 워싱톤에서 미제가 벌려놓은 13개나라 석유소비국회의에서 동력정책을 조정하고 행동강령을 만든다는 이른바 《조정그루빠》의 창설을 무조건 반대하였다. 또한 미제가 내놓은 소비국들과 생산국들로만 국한될 《석유회의》소집을 반대하고 프랑스의 《독자적인 립장》을 고집함으로써 프랑스와 미제사이의 모순은 일층 격화되였다.

이해에 또한 서구라파지역에서 미제의 세력을 밀어내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구라파사람에 의한 구라파건설》을 대외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있는 프랑스는 미제침략군이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에 둥지를 틀고있는데 대하여 로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였다. 3월 9일과 12일 외교부장은 《구라파나라들은 만일 미군의 구라파주둔이 그들의 존엄과 량립될수 없는것으로 된다면 미군의 구라파주둔을 폐지시켜야 한다.》, 《구라파에 미군을 유지하고있는것은 리기주의적행위》라고 비난하였다. 대통령 퐁피듀는 3월 27일 《프랑스는 구라파의 장래에 관한 구라파국가들의 결정에 미국이 참여하는것을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프랑스, 미국관계는 일층 랭랭해졌다.

12월 14일 프랑스대통령 데스탱과 미제의 우두머리 포드사이에 마르띠니끄섬에서 동력문제, 경제문제, 비행기판매문제, 중동문제 등 광범위한 문제를 놓고 회담을 벌렸으나 제각기 제리속만 채우려는 엉킨 매듭은 풀리지 않았다.

7월에 프랑스에서 프랑스대통령과 영국총리사이의 회담에서 영국의 구라파《공동시장》가입재교섭문제가 중요하게 상정되였으나 프랑스대통령 데스탱이 《영국의 공동체가입재교섭에 응할수 없다》고 잘라 말하여 영국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12월에 진행된 《공동시장》성원국회의에 영국이 이 문제를 또다시 끌고갔으나 프랑스의 반대에 부딪쳤고 공동동력정책문제에서도 프랑스와 기타 성원국들사이에 의견대립으로 옥신각신하다가 흐지부지되는 등 이른바 《구라파통일》의 꿈은 더욱 암담하여졌다.

1974년 1월 1일에 프랑스와 꽁고사이에 서로 평등한 지위를 갖는 새로운 협조조약을 맺었다. 이해 아파르 이싸(프랑스령 소말리아)의 독립을 부인하고 프랑스대통령 데스탱은 11월 22일 《자기 나라의 일부》라고 하면서 이 나라 인민들의 독립을 완강히 거부하였다. 또한 데스탱은 10월 25일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티나민족이 존재하고 자기 조국을 가져야한다고 인정한 반면에 외교부장은 11월 27일 이스라엘이 존재할 권리를 프랑스가 지지한다는 립장을 취했다.

이해에 프랑스는 민족적독립을 위한 꼬모르인민의 투쟁에 굴복하여 1975년에 독립을 주는데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꼬모르가 독립한 후에 새 정부를 구슬려 자기의 《군사기지》를 설치하겠다는 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프랑스는 이해에 태평양지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반대와 항의를 무릅쓰고 남태평양의 무루로아환초에서 7차례에 걸쳐 대기권핵시험을 진행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프랑스는 발전된 자본주의공업—농업국가이다. 경제에서 국가독점자본이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전후 4대은행, 전국의 탄광과 전력, 가스 공업 부문과 《르노》자동차회사 등이 국가독점자본의 수중에 들어갔다. 국가독점자본은 사자본과 유착되여있다.

1973년현재 프랑스공업의 10%가 외국독점체들의 손아귀에 들어있었는데 투자의 약 90%가 미국과 구라파《공동시장》나라의 자본이였다.

외국독점자본의 대부분은 기계제작, 전기기계, 전자, 화학, 섬유 부문들에 침투하였다.

공업 및 농업 총생산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60%를 이룬다. 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중공업은 공업총생산액의 5분의 3(로동자수도 공업로동자의 5분의 3)을 차지한다.

흑색금속공업은 북부로렝의 쇠돌을 원료로 하고있는데 이 나라 수출에서 근 15%의 몫을 차지한다. 유색금속공업에서 기본인 알루미니움의 원료는 수입에 의존한다.

기계제작공업부문에서는 자동차, 전기기계, 철도설비, 선박기계 생산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특히 중요한것은 자동차공업으로서 주로 수출용 소형자동차를 생산한다. 프랑스는 다른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과 달리 중공업을 위한 대형설비를 생산하지 않고 이것들을 다른 나라에 의존한다. 설치된 공작기계 및 단야설비들의 약 절반은 수입한 기계들인데 사온 기계의 절반이 서부독일제품이다.

화학공업에서는 유기화학부문의 몫이 크다.

동력공업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력에 의거한다. 1973년현재 전력생산에서 수력발전소들의 몫은 20%, 화력발전소는 64%, 원자력발전소는 8%였다. 동력의 균형에서 석유는 65%, 석탄은 19%, 천연가스는 8%, 수력발전소전력은 6%, 원자력발전소는 2% 차지하였다. 원유수입에서 1973년에 아랍만나라들의 몫은 70%, 아프리카나라들(리비아, 알제리, 나이제리아)의 몫은 23%였다. 외래석유독점체들은 프랑스석유제품시장의 45%를 통제하고있다.

채굴공업에서는 석탄, 쇠돌, 보크사이트가 기본이며 그밖에 석유, 연, 아연이 생산된다. 석유위기와 관련하여 탄광들을 계속 폐쇄하던 정책이 재검토되고있다.

경공업부문에서 의의를 가지는것은 방직공업과 식료가공공업이다. 직물제품은 수출총액에서 10～15%의 몫을 차지한다.

1974년에 동력위기에 부딪친 프랑스경제는 년초부터 자동차공업을 비롯하여 화학, 비행기 공업 등 여러 부문들에서의 생산과 류통에서 침체와 혼란이 빚어졌다. 1974년 첫 9개월동안에 공업생산은 6% 줄었다.

가공공업총액의 6%를 차지하는 자동차공업은 1974년에 그 생산이 30% 줄었다. 자동차공업의 위기는 그와 련결된 야금, 유리, 전기기계 및 기타 부문들에서 주문의 장성을 멎어뜨렸다.

화학공업도 1973년말부터 원료

부족으로 생산이 떨어졌다.

프랑스는 자본주의세계에서 큰 농산물기지의 하나이며 토지의 집중화정도가 높다. 50헥타이상을 가진 농장주들이 부침땅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있다. 알곡생산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제3위, 고기, 소젖, 사탕무우 생산은 서구라파에서 제1위, 포도와 감자 생산은 제2위이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호밀, 귀밀, 강냉이, 감자이며 공예작물로서는 사탕무우, 아마, 담배, 호쁘 등이 생산된다.

목축업은 농업총생산액에서 약 60%를 차지한다. 소가 기본인데 그 품종은 30종을 넘는다.

수산업에서는 정어리, 대구, 고등어, 청어, 새우 등을 잡고있으나 그 생산량(년간 75만~80만톤)은 의연히 낮다.

프랑스는 외화예비가 대폭 줄고 국제수지가 크게 악화됨에 따라 1974년초에 공동변동시세제로부터 단독변동시세제로 넘어갔다. 1974년에 국제수지적자는 300억프랑에 달하였으며 무역적자는 약 190억프랑에 이르렀다. 통화팽창률은 1973년 1월부터 1974년 1월까지의 사이에 10.3%, 1974년 한해동안에는 15% 올랐다. 1974년에 대외빚은 85억딸라에 달하였으며 빚더미에 눌린 2천 700개의 기업소들이 파산당하였다.

주요수출품은 화학제품, 강철, 기계, 알곡, 직물, 자동차, 포도주이며 석탄, 콕스, 석유, 양털, 목화, 고무 등을 수입한다. 주요무역대상국은《공동시장》성원국들이다.

주민의 기본은 켈트족계통의 프랑스사람들이다. 공용어는 프랑스말이지만 알사스 로렝지방은 독일말을 쓴다. 주민의 80%가 천주교를 믿는다.

1974년에 생계비가 15.2% 나 올라 1951년이래 최고기록을 냈다. 1973년 9월부터 1974년 9월까지의 기간에 소매물가는 14.7%, 1974년 한해동안에 대중소비품의 값은 14.9% 높아졌다.

1974년 12월말현재 실업자수는 72만 3천여명이라고 하나 실제상 100만명을 넘는다.

출판보도;통신 에이에프피

신문 유마니떼(공산당기관지), 프랑스누벨(공산당주간지), 아방가르드(공청기관지), 쥬르날 오피씨엘 드 라 레쀼블리끄 프랑쌔즈(정부기관지), 몽드, 피가로, 뽀쀨레르(사회당기관지), 오로르, 프랑스 수아르, 콩바

방송 구라파 제1방송이 있고 그 밖에 제 2, 3, 4 방송이 있다. 3개의 텔레비죤방송국이 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4월 12일 우리 나라와 프랑스사이에는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이에 따라 1968년 4월 5일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프랑스의 빠리에 개설되였다.

1969년 12월 8일에는 프랑스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4년 10월 29일 프랑스국회의 국민의회(하원) 의원들이 모임을 가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경제, 문화 관계발전을 위한 연구및친선그루빠를 결성하였다. 국민의회 의원 삐에르 베르나르드 꾸스떼를 위원장으로 하는 그루빠집행위원회가 선거되였다.

같은해 12월 10일 프랑스국회의 참의원(상원) 의원 40여명은 모임을 갖고 프랑스조선친선국회 (참의원)그루빠를 결성하였다. 참의원 사회사업위원회 부위원장 돌르나르 르마리에를 위원장으로 하고 4명의 부위원장과 3명의 비서로 구성되는 그루빠집행위원회가 선거되였다.

1974년 7월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 머무른 프랑스공산주의청년운동 총서기 장 미첼 까딸라를 단장으로 하는 공산주의청년운동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접견석상에서 대표단 단장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게 된 커다란 영광과 행복에 대하여 말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보내는 프랑스공산당 총비서 죠르쥬 마르쉐동지의 인사를 정중히 전해드리였다.

1974년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프랑스말과 에스빠냐말판)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4년 새해를 맞으며 하신 신년사를《에브로》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각각 출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수단정부기관지〈알 싸하파〉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잡지《빙고》, 《이딸리아공산당기관지〈우니따〉지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와《수단정부기관지〈알 싸하파〉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잡지《아프리끄아지아》가 실었다.

3월 27일 프랑스조선친선협회는 콤뮤니케를 발표하여 프랑스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할것을 요구하였으며 3월 26일 프랑스의 여러 청년동맹이 망라되여있는 프랑스공산주의청년운동이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지지하여 성명을 냈다.

이해에 프랑스공산당주간지《프랑스누벨》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젊은 사회주의다》라는 제목밑에 우리 나라를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국민의회의 공산당소속 의원들 73명은 7월에 남조선애국자들에 대한 박정희살인악당의《야만적인 탄압에 항의할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프랑스공산당기관지 《유마니떼》와 이 당의 주간지《프랑스누벨》은 남조선애국자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폭압만행을 폭로하는 글을 실었다.

1974년 7월에 프랑스공산주의청년운동대표단, 전국항공회사대표, 9월에 쏘씨에떼제네랄은행대표단, 10월 크레비 리오네은행대표단과 중국주재 프랑스대사와 그 일행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해에 우리 나라에서는 3월에 조선소년단일군대표단, 5월에 로동청년신문사대표단, 9월에 조선공업기술총련맹 륙운및해운협회대표단이 프랑스를 방문하였다.

모 나 꼬

(모나꼬왕국)

넓이 1.4km^2
인구 2만명 (1971년)
수도 몽떼 까를로 (주민 9,900명)

프랑스의 동남부 (이딸리아국경근처), 지중해연안에 자리잡고있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작은 립헌군주국이다.

정 치

국왕 국가수반으로서 립법권과 행정권을 행사, 국왕 레니에 3세(1949년—)

국회 18명의 의원으로 구성, 임기는 4년, 국왕과 함께 립법권을 행사

정부 국왕과 함께 행정권을 가지며 총리이외에 4명의 부장들로 구성

모나꼬는 1861년에 프랑스의 《보호국》으로 된 이후 1918년 프랑스와의 조약에 의하여 독립국으로 되였으나 실제상 그의 《보호》밑에 있는 나라이다.

1958년 국회선거에서 승리한 민족민주동맹이 국회권한의 대폭적인 확대를 요구하자 1959년 1월 국왕은 헌법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해산하였다. 1961년 2월에 국회가 회복되였으며 이듬해 12월 17일 새 헌법이 채택되였다.

새 헌법에 의하면 이전에 비하여 국왕의 권한이 제한된 반면에 국회의 권한이 확대되였다.

1963년 5월 프랑스와 《관세및 재산에 관한 협정》을 맺는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다.

모나꼬는 20여개의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가지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향수, 화장품, 전기기계 및 약품이 주요생산물이다. 농업은 올리브와 귤을 약간 재배하며 식량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한다.

모나꼬는 자본주의세계에서 유람지로서, 도박장으로서 이름났다. 그러므로 관광업이 국가의 주요외화수입원천으로 되고있는데 년평균 65만명의 유람객이 찾아든다. 국가는 모나꼬사람들이 도박하는것은 엄격히 금지하였다.

주민은 모나꼬사람, 프랑스사람, 이딸리아사람들로 이루어졌는데 모나꼬사람은 약 3천명에 불과하다. 그들은 프랑스말과 모나꼬말 (프랑스말과 이딸리아말이 섞인 언어) 을 쓴다. 공민권은 모나꼬사람들에게만 준다. 천주교가 국교로 되고있다. 인구밀도는 1평방키로메터당 1만 5천 600명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이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레

신문 쥬르날 드 모나꼬 (정부공식기관지)

방송 몽떼 까를로방송, 몽떼 까를로 텔레비죤방송

안 도 라

(안도라공화국)

넓이 465km²
인구 1만 9, 600명 (1971년)
수도 안도라 라 벨라 (주민 6, 900명)

프랑스와 에스빠냐국경사이의 동부 삐레네이산줄기에 있는 산악의 나라이다.

정 치

총평의회 24명의 의원들로 이루어진 립법기관, 임기는 4년, 2년마다 절반씩 개선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프랑스와 에스빠냐 정부의 공동합의에 따라 임명

정부 행정권은 총평의회가 임명하는 장관 (대통령) 과 부장관이 행사

안도라의 령유권문제를 둘러싸고 오래동안 분쟁을 벌려온 프랑스와 에스빠냐는 1278년에 이 나라를《공동관리》하에 넣었다. 그해에 제정된 헌법에 따라 립법기관인 총평의회가 구성되였다.

1933년에 정변이 일어난후 선거권의 범위가 확대되였으나 1940년에 다시 제한되여 세대주들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되였다. 프랑스와 《관세동맹》을 맺고있으며 밀수입이 매우 심한 나라이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들은 축산업을 위주로 하면서 담배, 보리, 감자, 포도, 남새 등을 재배한다. 집짐승들로서 양 (약 2만 5천마리), 소, 말을 기른다.

공업부문에는 식료, 담배, 도자기, 알루미니움, 대리석가공 등 반수공업적인 공장들이 있으나 그 규모는 작다. 약간의 쇠돌, 연, 은, 대리석과 같은 지하자원이 있으나 개발이 활발하지 못하다.

나라의 재정은 관광업과 《국제선전방송》에 의한 수입에 크게 의존한다. 프랑스와 에스빠냐의 화폐가 쓰인다.

철길은 없고 프랑스와 에스빠냐로 통하는 자동차길이 있다.

주민들의 기본언어는 까따로니아말이나 프랑스말과 에스빠냐말도 쓴다. 90%이상의 주민이 천주교를 믿는다.

에 스 빠 냐

넓이 50만 4, 750km² (발레아르, 까나리아군도 포함)
인구 3, 540만명 (1974년 10월현재)
수도 마드리드 (주민 303만 700명)

정 치

총통 국가원수로서 국회에서 승인된 법안을 거부할수 있고 국회의 동의없이도 법안을 발포할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다. 1947년 3월 왕위계승법을 발포하고 자신이 종신총통의 지위를 차지하였으며 총통이 죽거나 집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 군주정체를 수립하기로 하였다. 1969년 7월 국회에서 프랑꼬는 부르봉왕가의 후안 까를로스 부르봉왕자를 자기의 《후계자》로 지명하고 1971년 7월 법령으로 이를 확정하였다.

총통 프란시스꼬 프랑꼬 바하몬데 (1939년—)

국회 일원제, 의원은 564명인데 그중 460명은 총통이 임명하고 나머지 104명만을 선거, 그밖에 임명과 선거에 의한 90명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국가회의》 (상원과 류사) 가 있다.

정부 총통이 총리를 임명, 총리 까를로스 아리아스 나바로 (1974년 1월 3일—), 외교부장 뻬드로 꼬르떼나 마우리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4월 5일에 창건되여 1939년 프랑꼬독재정권수립이후 지하에서 활동, 총비서 싼띠아고 까릴요, 《국민운동》 1933년에 무어진 팔랑헤당 (파쑈조직들과 왕당파 잔여세력에 기초하여 조직) 을 모체로 하여 1958년에 결성, 집권당인 《국민운동》을 제외한 일체 정당들의 활동은 금지되여있다. 공산당이외에 비법화된 정당들인 카톨릭통일사회당, 사회로동당, 에스빠냐동맹, 기독교민주동맹, 나라의 자유를 위한 바스끄루사동맹 지하에서 활동

에스빠냐인민들은 1931년 4월 군주제도를 뒤엎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36년 2월 인민전선정부가 수립되고 민족적자치를 요구한 소수민족 바스끄족은 자치를 얻었다. 프랑꼬도당은 파쑈독일과 이딸리아 무력간섭자들의 도움을 받아 같은해 7월에 반혁명내란을 일으켰다.

1936년 7월~1939년 8월의 공민전쟁기간에 에스빠냐공산당은 《반파쑈로농적위대》를 묶고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려던 국내반동도당

과 외국무력간섭자들을 반대하여 영웅적투쟁을 벌렸다. 집권후 첫 2년동안에 30만명의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투옥학살한 프랑코도당은 바스크족의 자치를 폐지하고 탄압정책을 실시하였다.

에스빠냐공산주의자들은 제2차세계대전시기 프랑코도당과 국제파시즘을 반대하여 간고한 유격투쟁을 전개하였다.

전후 프랑코도당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적극 복무하면서 1953년 9월 미제와 《방위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에 의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3개의 공군기지와 지브랄타르해협의 서쪽에 핵잠수함기지를 두고있다. 에스빠냐반동정부는 1970년 8월 이 조약의 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하였다.

1974년에 프랑코도당은 국내에서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근로자들의 반정부투쟁과 로동운동의 앙양에 질겁하여 겉으로는 독재정책을 《완화》하는척하면서 파쑈폭압을 일층 강화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친미반동정책에 매달렸다.

까레로 블랑코총리놈이 1973년 12월 20일 애국자들의 폭탄세례를 받아 즉사한 이후 1974년 1월 3일 까를로스 아리아스 나바로를 총리로 하는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나바로반동정부는 5월 29일 이른바 《시장선거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전에 저들이 직접 심복들을 임명하던 절차를 시의회 의원들이 선거하는 놀음으로 바꾸어놓음으로써 독재의 외피를 《민주주의》로 가리우려고 애썼다.

에스빠냐에서 35년간에 걸친 프랑코독재정치는 집권층안에서까지 《정치적자유》를 주장하는 개혁파와 《독재의 강화》를 고집하는 보수파간의 날카로운 론쟁을 불러일으켰다. 뽀르뚜갈과 희랍에서 파쑈독재정권이 뒤집힌데 놀란 보수파반동세력은 《출판물과 텔레비에 대한 통제를 완화》한 공보부장을 그 직책에서 몰아냈다. 이렇게 되자 공보부장의 해임에 항의하여 문화총국장이 사임하는 등 지배층안에서 개싸움은 날로 커갔다.

이러한 복잡한 정세속에서 1974년 7월 30일 에스빠냐에서는 공산당총비서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주주의혁명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이《위원회》는 에스빠냐의 반동정부를 대신할 림시정부의 창설을 호소하였다.

국내에서 지하조직인 《민주주의혁명위원회》가 결성되고 공산당의 지하활동이 전례없이 강화된데 놀란 반동집단은 새 모략을 꾸몄다. 에스빠냐의 유일한 합법적정당인 《국민운동》의 직접적인 통제밑에 《정치협회》 (정당들)들의 활동을 보장한다는 연극이 꾸며지기 시작하였다.

12월 2일 반동정부는 《국민운동》의 엄격한 통제밑에서 모든 정당들의 활동을 허용한다는 법안을 발포하였다. 이 법안에 의하면 110명으로 된 《국민운동리사회》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당들만이 활동이 허용되며 이 당들은 《국민운동》의 통제뿐아니라 《국가회의》와 정부의 감시도 받으며 조금이라도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기만 하면 그의 활동을 중지 또는 금지시킬수 있게 하였다. 정당활동을 허용하는척하면서 반동지배층은 여러가지 부대조건을 걸어 손발을 얽어매는 이와 같은 악법을 꾸며냄으로써 겉으로는 《민주화》로 가장하고 더 악랄하고 교활한 수법으로 놀아가는 인민들의 반독재투쟁을 달래여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였다.

이해 1월초에 벌써 프랑코놈은 3군반동두목들을 모여놓고 제놈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애국자들에 대하여 가차없이 탄압할것을 명령하였다.

3월 2일 반동경찰은 10명의 공산당원들을 체포한데 뒤이어 나라의 도처에서 폭압소동을 벌렸다.

1974년에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에스빠냐애국자들은 자기 조직들을 일층 강화하고 국내에서 반동정부와 독점자본을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로동운동을 더욱 세차게 불러일으켰다.

남부에스빠냐에서 6월초순에 8개의 좌익단체들이 프랑코도당을 뒤엎기 위한 련합조직을 내왔다. 10월에 진행된 사회로동당 제13차대회에서는 반프랑코그루빠들과의 단결을 호소하였으며 자기 당 출판물을 국내에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밖에도 여러지역에 비밀지하조직들이 결성되여 반정부투쟁을 활발히 벌렸다.

9월 13일 마드리드시 중심부에 있는 반동경찰본부의 한 식당에서 이나라 지하조직의 성원들이 장치한 폭탄의 폭발로 반동경찰놈 11명이 죽고 71명이 부상을 입었다.

《파업금지법》을 박차고 독점자본의 전횡을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파업투쟁이 각 부문에서 광범히 일어났다.

임금을 올리며 해고를 반대하여《아우띠》자동차회사에 속한 1천 400명의 로동자들은 한달남아, 바르쎌로나에 있는 《엘 리싸》회사에 속한 32개공장 로동자들은 한달반동안 파업을 벌려 승리하였다. 1월에 바르쎌로나에서 6천여명의 방직공들의 파업, 6월에 이 도시의 공업부문 로동자 8천명이 《엘 리싸》공장 로동자들의 해고를 반대하는 련대성파업이 일어났다. 12월에 마드리드시의 6만명의 건설로동자들과 나바라현의 공업중심지 빰쁠로나시 5만여명의 로동자들의 대규모파업, 12월 11일 북부의 바스크지방에서 약 20만명의 로동자들의 파업을 비롯하여 1974년에 근로자들의 파업건수는 2천 196건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지난 10년동안의 가장 많은것이였다. 파업으로 말미암아 자본가놈들은 180만로동일을 잃었다.

5월 9일 마드리드와 바르쎌로나에서 수천명의 대학생들은 프랑코파쑈도당의 반동적교육정책을 반대하여 세찬 시위를 벌렸다. 이와 같은 투쟁은 전국적으로 번져가 여러 도시의 각급 학교 학생들도 대중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11월에 바르쎌로나종합대학의 2천명의 학생들은 《쎄아트》자동차회사에 속한 파업로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시위를 벌렸다.

프랑코파쑈도당은 대외적으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군사적결탁을 더욱 강화하였다.

뽀르뚜갈과 희랍에서 파쑈독재정권의 전복과 그후 10월에 희랍이 《나토》로부터의 탈퇴와 관련하여 미제는 지중해지역에서 제놈들의 지위가 약화된 정세하에서 프랑코파쑈도당을 구슬려 《군사기지리용에 관한 에스빠냐—미국협정》을 갱신하려고 놈들과 끈덕진 쑥덕공론을 벌렸다. 놈들은 11월과 12월에 마드리드와 워싱톤에서 두차례의 회담을 벌려놓고 1975년 9월에 기한만료 되는 에스빠냐령토상에 있는 미제침략군의 군사기지들의 지위를 더욱 폭넓게 확대할데 대한 흉계를 꾸몄다. 이보다 앞서 미국무장관 키신저와 프랑코도당의 외교부장사이에는 7월 9일 마드리드에서 두 나라간의 관계를 개괄한 이른바 《선언》에서 놈들은 《방위분야에서 계속 협조》할것이라고 줴쳤다.

12월에 《미중앙정보국》의 우두머리놈들이 에스빠냐에 연방 날아들어 프랑코파쑈도당과 여러차례의 밀담을 벌렸다. 미제는 에스빠냐의 파쑈독재제도의 붕괴를 미리 막는 한편 만일의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한 《비밀작전》준비에 미친듯이 돌아쳤다. 그리하여 미제의 간첩놈들은 군대, 로조, 종교 및 정치 계층들속에 침투하기 위한 맹활동을 진행하여 에스빠냐를 지중해지역에서 관건적간첩중심지로 전변시켰다.

１９７４년에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은 민족적자결을 요구하는 사하라식민지를 어떻게 하나 틀어쥐려고 악을 썼다.

아프리카에서 종전의 방법으로 식민지통치를 유지할수 없게 된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은 7월에 사하라의 《독립》에 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놈들은 사하라가 《독립》된후 에스빠냐와 계속 《협조할데 대한 원칙》, 사하라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제놈들이 《추진시킬데 대한 의무》등을 지니게 하였다. 또한 프랑꼬도당은 １９７５년에 《유엔감시하의 주민투표》를 실시할것이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놈들은 《독립》의 간판밑에 괴뢰정권을 내세워 옛식민지종주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이 나라의 풍부한 린회석발을 자기의 손아귀에 계속 틀어쥐려고 꾀하였다. 사하라문제는 마로끄, 모리따니, 알제리와도 관계된다.

１９７４년에 리비아총리 (4월), 요르단국왕 (5월), 마로끄총리 (8월) 가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에스빠냐는 자본주의적농업—공업국가이나 주요경제명맥은 외래독점자본의 예속밑에 있다. １９７４년 １월초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미제독점체들은 에스빠냐에 ９００억뻬세따를 투자하였는데 이것은 외래자본투자총액의 ４０．３％에 해당한다. 그 다음은 스위스, 서독, 프랑스, 영국의 자본이 차지한다. 구라파《공동시장》에 들어있는 나라들의 투자액은 이 나라에 투자된 모든 외국자본의 ３２％에 해당한다. 미제는 주로 전기, 군수 공업부문에, 영제국주의자들은 광업, 선박, 야금 공업부문에, 서독은 광업, 방직공업과 기관차 생산부문에 침투하였다.

에스빠냐의 국가독점자본은 공업생산의 많은 부분 (수은채취의 ９０％, 배 무이의 ５０％, 흑색금속생산의 ２０％, 인견사생산의 ５０％, 석유가공공업의 ７５％) 을 통제한다. 그 몫은 전체 주식회사들의 3분의 2를 넘는다.

농산물총생산량에 있어서 서구라파에서 네번째자리를 차지하지만 해마다 알곡을 비롯한 많은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한다. 전령토의 근 ４０％ (약 １천만정보) 가 부침땅이다. 그러나 부침땅의 절반이상은 농촌주민의 １％도 안되는 지주놈들이 독차지하고있다.

농업에서 알곡과 과실 생산이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몫은 약 3분의 2에 해당한다. 이 두 부문의 몫은 거의 비슷하다. 밀 (년산 ５００만톤), 보리 (３００만톤), 강냉이 (１８０여만톤), 벼 (３８～４０만톤), 호밀, 감자의 씨붙임땅은 ７５０만헥타이지만 주식물과 집짐승먹이에 대한 알곡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밖에 목화, 담배, 사탕무우, 올리브, 해바라기, 바늘나래새와 같은 공예작물이 재배된다.

특히 올리브생산이 유명한 나라로서 그 생산량은 세계에서 첫번째자리 (세계총생산량의 약 ４０％차지) 를 차지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감귤류, 포도, 배, 사과 등의 과일이 재배된다.

１９７４년에 에스빠냐의 대부분의 지역을 휩쓴 가물로 인하여 알곡생산이 현저히 줄었다. 밀생산량은 5월에 예상하였던것보다 ７０만톤이나 줄었다. 가을에 뿌린 씨앗은 가물로 싹조차 트지 않았다.

방목을 위주로 하는 목축업은 농업총생산액에서 ３０％의 몫을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돼지, 말, 노새, 당나귀이다. １９７４년에 심한 가물로 나라의 북부지역에서는 풀조차 제대로 자라지 않아 집짐승을 마구잡아치우는 일들이 일어났다.

공업은 비교적 풍부한 지하자원에 기초하고있다.

수은 (자본주의세계에서 그 생산량 제2위), 동, 쇠돌, 연, 아연, 주석, 비스무트와 기타 일련의 광물자원이 있다. 알루미니움, 동, 아연, 연, 주석 생산은 주로 외래독점자본이 틀어쥐고있다.

야금, 기계제작, 선박 공업과 기관차 및 자동차, 전기기계, 동력설비 생산 등의 중공업부문이 있다.

경공업부문에는 식료 (물고기통졸임, 올리브기름, 포도주 등), 담배, 코르크 가공공업과 방직공업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대서양연안의 북부에서는 정어리, 대구, 동부와 남부 해안에서는 농어를 잡으며 북쪽의 강들에서는 연어를 잡는 수산업도 경제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관광업 (관광객수는 １９７０년에 2천 ４１０만명으로서 구라파에서 제１위차지) 이 국가수입의 주요원천의 하나이다.

대외무역에서 １９７４년에 약 ７３억 5천만딸라의 적자를 냈으며 재정형편도 어려워졌다.

１９７４년 첫 다섯달동안에 6억딸라에 달하는 금 및 외화 예비가 줄었다.

해상운수가 비교적 발전한 나라이다.

철길의 많은 부분은 개인소유이다.

주요수출품은 광물류, 올리브기름 (해마다 ２０여만톤 수출), 포도주 감귤류이며 수입품은 석유, 고무, 기타 공업제품, 섬유원료, 식량 등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미국, 서독, 프랑스, 영국, 화란 등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에스빠냐사람들이며 그밖에 유태사람, 프랑스사람들도 산다. 주민들은 라틴어계통의 에스빠냐말을 쓴다. 국교는 천주교이나 １９６７년 2월부터 유태교와 신교도 인정되였다. １９７４년까지 2년동안에 식료품과 소비품 값은 ３２％ 뛰여올랐는데 １９７５년초에 가정용 전기세는 １３％, 공업용 전기세는 １７％나 또다시 올랐다.

１９７４년말에 실업자수는 《１９５９년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２５만명에 달하였다. 수도 마드리드시는 극도의 대기오염으로 주민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이에프이

신문 운도 오브레로 (공산당기관지), 아리바 (국민운동기관지), 마드리드, 뿌에블로, 엘 쏘씨알리스따 (사회로동당기관지)

방송 국립방송, 에스빠냐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１９７３년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에브로출판사가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１９６９년 １０월 ７～１７일까지, １９７２년 １１월 ６～２０일까지 에스빠냐공산당 총비서 싼띠아고 까릴요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에스빠냐공산당 대표단이 두차례에 걸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뽀 르 뚜 갈

(뽀르뚜갈공화국)

넓이 ９만 ２，２００km² (아조레스, 마데이라 군도포함)
인구 ８５９만명 (１９７２년)
수도 리스봉 (주민 ８３만명, １９７０년)

정 치

구국군사위원회 １９７４년 ４월

25일 파쑈독재정권을 뒤집어엎은 이후 7명의 장교들로 구성, 이 기구는 《무장력운동》의 강령리행을 감시하는 기구이다. 대통령과 고위급 군사지휘관들을 임명하며 이 기구의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된다.

1974년 4월 25일에 이 기구의 위원장으로, 5월 15일에는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던 안또니오 데 스삐놀라가 9월 30일 제거되고 이 위원회의 부위원장이며 군총참모장이던 프란씨스꼬 다 꼬스따 고메스가 9월 30일 위원장으로 되였다.

대통령 구국군사위원회에서 임명, 대통령(군총참모장겸임) 프란씨스꼬 다 꼬스따 고메스(1974년 9월 30일—), 1974년 5월 15~9월 30일까지는 안또니오 데 스삐놀라

구국리사회 구국군사위원회의 7명의 성원, 대통령이 선출하는 군인대표 7명 그리고 민간인대표 7명으로 구성, 1975년 총선거가 진행될 때까지 립법권을 행사

정부 《무장력운동》의 강령을 집행한다. 정변후 1974년 5월 16일 첫 림시정부가 구성되였다가 7월 18일 새 림시정부 구성, 총리(국방부장겸임)바스꼬 도스 싼또스 곤쌀베스(1974년 7월 18일—), 1974년 5월 16~7월 11일까지는 아델리노 다 빨마 까를로스, 외교부장 마리오 쏘아레스

정당, 사회단체 ; 공산당 1921년에 창건되였으나 1926년 파쑈독재정권수립후 비법화, 1974년 4월 25일 군사정변후 합법화, 총비서 알바로 꾼할, 사회당 총비서 마리오 쏘아레스, 민주인민당, 기독교민주운동, 사회민주당, 《무장력운동》 1974년 4월 25일 파쑈독재정권을 뒤집어엎은 진보적장교들의 조직, 이 조직은 자기의 강령으로 국내의 민주화, 비식민지화, 사회경제개혁을 제기

뽀르뚜갈에서는 1910년 립헌군주제가 페지되고 공화국이 선포되였다.

제1차세계대전을 계기로 군국주의세력이 급속히 강화되였으며 1926년 군사정변후에는 군사파쑈독재가 수립되였다.

파쑈군부세력의 지원밑에 살라자르(당시 재정부장)가 1930년에 반동정당인《국민동맹》(1972년 2월에는《전국인민행동》으로)을 조작하였으며 1932년에는 총리직에 들어앉았다.

제2차세계대전후 뽀르뚜갈반동지배층은 미제의 침략적인 군사기구인《나토》에 가담하였으며 미제와《친선및호상원조협정》(1951년)을 맺고 본토와 식민지들에서 미제의 군사기지건설을 허용하였다. 악명높은 독재자 살라자르가 36년간에 걸친 파쑈독재통치를 실시하다가 1968년에 물러나고 그 뒤를 이어 다른 독재자 까에따노가 총리직에 들어앉아 국내에서 파쑈통치제도를 강화하고 식민지전쟁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뽀르뚜갈의 광범한 인민대중과 군인들에게 반정부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을수 없었다. 근로대중의 파업과 시위가 련이어 일어났으며 1974년 3월 16일에는 200여명의 중하층장교들과 병사들이 반정부투쟁에 일떠섰다.

정부와 상층군부사이에서도 아프리카에서 식민지전쟁문제를 둘러싸고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였다.

1974년 4월 25일 파쑈독재정권을 반대하는 중하층장교의 조직인 《무장력운동》이 주동이 되여 군사정변을 일으켜 까에따노파쑈독재정권을 뒤집어엎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뽀르뚜갈에서 정변후 대통령과 총리, 국방부장, 내무부장을 비롯한 파쑈독재정권의 우두머리들이 체포되여 추방되였으며 까에따노도당의 집권기간 유일한 합법적정당으로 행세하던 파쑈정당인《전국인민행동》과 《비밀정치경찰》이 해산되였다.

반면에 공산당과 사회당을 비롯하여 이전에 금지되였던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이 합법화되고 해외에 망명했던 그 지도자들이 귀국하였다.

1974년 4월 30일에 공산당 총비서 꾼할은 1961년에 감옥탈출후 13년간의 망명생활로부터 자기나라에 돌아왔다. 또한 모든 정치범들이 석방되였다.

《무장력운동》은 스삐놀라(이전정권시기 군부총참모장직에서 해임된 사람)를 위원장으로 하는《구국군사위원회》(4월 25일 병종대표 7명으로 구성)에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나라의 전반사업을 지도할것이 위임되였다.

《구국군사위원회》는 공산당, 사회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들과 광범한 협의끝에 5월 15일 스삐놀라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며 까를로스(무소속출신)를 총리로 하는 림시정부를 구성하였다.

또한 이날 1975년 3월 31일 립법회의 선거 때까지 립법권을 행사할 국가리사회를 조직하였다. 림시정부안에서 공산당은 무임소부장 (공산당 총비서), 로동부장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사회당은 외교부장(사회당 총비서), 사법부장, 공보부장 자리를 얻었다.

5월 16일 발표된 림시정부강령은 《특권이 없는 새로운 경제정책》, 《근로자들의 리익을 수호하는 새로운 시책》들을 실시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1926년이래 처음으로 5.1절이《로동자의 날》로 선포되고 경축까지 하였으며 공산당은 자기의 기관지를 합법적으로 발간할수 있게 되였다. 반면에 《구국군사위원회》는 5월 1일 24명의 이전 반동군부의 장령놈들을 현역에서 숙청한데 이어 이전 특군부장놈을 체포하였으며 5월 8일까지 800여명이상의 《비밀정치경찰》놈들을 체포투옥하였다.

6월 2일 국가리사회 성원들의 취임식이 진행된 후 소집된 림시정부 정기회의에서는 이전 정권시기 비법적으로 선거된 지방행정리사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내올것을 결정하였다.

반동세력의 악선전을 막기 위한 조치로써 림시정부는 전국 라지오 및 텔레비존방송망을 국가가 직접 장악(6월 15일)하였으며 신문과 방송에 대한 검열제를 실시(6월 22일)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까를로스정부는 집권후 아프리카식민지나라들의 독립문제에서와 국내민주화실현에서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각계층인민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고 집권층내부에서 그와 관련한 심각한 의견상이가 있었다.

스삐놀라는 아프리카식민지문제의 《정치적해결》은 제기하였으나《단계론》을 주장하면서 식민지나라들의 독립을 인정하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군사정변후 5월 16일에 수립되였던 까를로스정부가 해산(7월 11일)되고 곤쌀베스(《무장력운동》의 지도자로 간주)를 총리로 하는 새 정부가 수립되였다.

새 정부에서 총리, 국방, 내무, 로동, 공보 부장 등 주요직책들을 군인들이 차지하였으며 기타 많은 각료들은 그대로 남았다. 공산당은 이전 정부때보다 1명의 부장직이 줄고 공산당 총비서만이 무임소부장으로 그 직책을 유지하였으며 사회당역시 1명의 부장직이 줄고 2명이 부장직을 차지하였다. 새 총리는《새 내각은 각종 정치적경향이 련합한것이지만 군인들이 내각에 들어있는것이 큰 특징》이라고 하였다.

곤쌀베스총리는 7월 18일 발표한 정강에서 모든 인민들에게 유리하게, 무엇보다도 먼저 가난한 생활을 하는 주민계층에게 유리하게 경제정책을 실시할것이며 식민지인민들에 독립을 부여하는 등 그들의 자결을 인정할것이라고 하였다.

9월 28일《무장력운동》은 정부의 진보적정책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른바《침묵하는 다수파》가 조작한 우파반동세력의 대군중집회를 금지시켰으며 이 조직과 관련된 이전 파쑈독재정권의 3명의 이전 각료들과 15명의 장교를 포함한 283명을 체포하였다.《침묵하는 다수파》에 지반을 두고있던 스삐놀라가 9월 30일 대통령직을 사임하였으며《구국군사위원회》는 그를 위원장직에서 제거하였다. 그밖에도 국방부장과 공보부장이《구국군사위원회》성원직에서 나감으로써 우파반동세력은 현저히 약화되였다.

《구국군사위원회》부위원장겸 군총참모장으로 있던 고메스가 9월 3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곤쌀베스총리는 나라는 반동분자들이 주장하는것처럼《무질서》와 《혼란》에 빠져있지 않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는《무장력운동》이 비식민지화, 민주화를 실현하며 나라의 경제를 성과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자기 강령의 기본조항들을 리행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우리는 사회정치제도여하에 관계없이 내정불간섭 및 호상존중에 기초하여 세계 모든 나라들과 협조와 친선을 도모할것이라고 하였다.

《무장력운동》강령을 실현하는데서 온갖 파괴행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군대의 3군을 관할하는 작전사령부가 조직되였으며 나라의 대내외정책을 규정하며 구국군사위원회와 림시정부에 해당한 권고를 주는 무장력운동최고리사회(10월 28일)가 조직되였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들을 정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조직(7월 28일), 세금제도를 개편할데 대한 법령의 효력발생(8월 25일), 나라에서 가장 큰 3개의 개인은행의 국유화(8월 28일), 군사정변후 조직된 극우익정당인《민족당》의 비법화(9월 18일), 파쑈독재정권시기 공직을 차지하였던 자들에 대한 선거권의 박탈(12월 4일)등 일련의 진보적시책들을 실시하였다.

10월 21일에 1975년에 실시할 선거법초안, 10월 31일 정당들의 구성을 규정하는 법률이 각각 발표되였다.

그러나 뽀르뚜갈집권자들은 1975년에 선거에 의하여 새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는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경제권은 의연히 대독점집단의 수중에 있다.

1974년 10월 20~21일까지 뽀르뚜갈공산당 제7차비상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는 나라의 정치정세와 뽀르뚜갈공산당의 과업과 당 강령 및 규약 개정문제를 토의하였다.

당강령은 제1차적과업으로 민주주의국가를 공고화하며 민주주의적자유를 수호하며 그리고 나라의 가일층의 경제적발전의 보장을 위한 재정적 및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며 비식민지화 과정을 계속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대회는 새 강령과 규약을 채택하고 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대외적으로 뽀르뚜갈 새 정부는 장기간 아프리카에서 벌려온 식민지전쟁을 끝장내고 식민지나라들의 독립에 대한 자결을 인정함으로써 국제적고립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해방운동의 강력한 타격에 의하여 식민지노예의 철쇄는 이르는곳마다에서 끊어져가고있으며 인류에게 그처럼 많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제국주의식민지체계는 여지없이 붕괴되여가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325페지)

뽀르뚜갈은 아프리카에서 기네－비싸우, 모잠비끄, 앙골라, 산또메 프린시페 등 자기 령토보다 이십배를 넘는 식민지를 가지고있었다.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나 이 나라들에 대한 통치권을 유지하려고 10여년간 식민지전쟁을 벌려였다. 뽀르뚜갈에서 파쑈통치제도가 전복된 이후 새 정부는 아프리카식민지문제를 회담의 방법으로 해결하는데로 나가고있다.

5월 25일 영국 런던에서 뽀르뚜갈외교부장과 기네－비싸우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대표들 사이의 회담이 시작되였으며 그후 회담장소를 알제로 옮기였다. 7월 27일 아프리카령토에 대한 뽀르뚜갈정책의 기본원칙들을 규정한 헌법이 발포되였다. 여기에서 뽀르뚜갈이 아프리카식민지나라들의 자결권의 인정과 관련한 협정을 체결할것을 대통령에게 위임하였다.

알제에서 계속된 뽀르뚜갈과 기네－비싸우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대표들 사이의 8월 26일 회담에서 기네－비싸우의 독립을 인정하는 협정이 정식 조인되였다.

결과 기네－비싸우는 9월 10일부터 독립국가로 되였다. 협정은 뽀르뚜갈군이 기네－비싸우로부터 10월 31일까지 전면적으로 철수하며 두 나라사이에 독립, 평화, 호상존중, 호혜원칙 및 두 나라사이의 협조관계에 기초하여 앞으로 협력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베르데갑제도에 관해서 이 협정은 이 제도 주민의 자결과 독립의 권리를 재확인하였다고 지적하였다.

12월 18일 발표된 계획에 의하면 베르데갑제도는 1975년 7월 5일에 독립하게 되였다. 이 계획은 1975년 6월 30일에 립법회의선거를 예견하며 이 립법회의는 5일이내에 헌법초안을 승인하며 7월 5일에는 주권이 립법회의 의장에게 넘겨진다. 그 동안 림시정부가 이 제도를 통치하는데 기네－비싸우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출신의 5명의 부장을 망라할 이 정부는 선거를 준비한다.

뽀르뚜갈과 모잠비끄 대표사이의 회담에 의하여 9월 7일 모잠비끄의 독립협정이 잠비아 수도 루사카에서 조인되였다. 협정에 의하면 1975년 6월 25일 모잠비끄의 완전독립이 선포되며 1974년 9월 8일 쌍방은 정화하기로 하였다. 독립할 때까지 뽀르뚜갈의 고등판무관과 림시정부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합동군사위원회를 만들고 독립의 길을 촉진시키게 된다. 9월 13일 뽀르뚜갈군과 모잠비끄해방전선은 이곳에서 법과 질서를 공동으로 유지할데 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11월 26일 뽀르뚜갈과 산또메 프린시페해방운동 사이의 독립협정이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조인되였다. 협정에 의하면 1975년 7월 12일에 산또메 프린시페가 독립하게 되며 그때까지 림시정부가 행정권을 행사한다. 산또메 프린시페해방운동 부총비서가 지도하는 림시정부는 이 해방단체의 4명의 대표들과 뽀르뚜갈이 임명한 부장으로 구성된다. 림시정부는 독립이전까지 선거법을 작성하여 민족회의선거와 헌법초안을 준비한다. 독립이 선포된후 30일이내에 모든 뽀르뚜갈군이 철수하게 되였다.

10월 15일 뽀르뚜갈과 앙골라민족해방전선, 10월 22일 뽀르뚜갈과 앙골라인민해방운동사이에 정화협정이 각각 조인되였다. 협정조인후 10월 25일 앙골라의 행정중심지

루안다에 앙골라인민해방운동대표부가 설치되였다.

1975년 1월 5일 앙골라의 3개 해방조직들인 앙골라인민해방운동과 앙골라민족해방전선 및 앙골라완전독립민족련맹이 림시정부를 수립할데 관한 뽀르투갈정부와의 당면한 회담에 들고나갈 공동강령을 작성하였다.

1월 15일 뽀르투갈정부와 앙골라의 3개해방조직은 독립에 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협정에 의하면 1975년 11월 11일 앙골라는 정식독립하며 1월에 림시정부를 조직하며 립법회의 선거를 준비한다.

뽀르투갈에서의 이러한 사태발전은 파쑈제도를 반대하고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지향하는 뽀르투갈공산당을 비롯한 이 나라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과 그리고 뽀르투갈식민주의의 억압을 반대하는 아프리카식민지인민들의 거세찬 투쟁의 결과에 이룩된 승리적전진으로 된다.

새 정부가 수립된 이후 뽀르투갈은 국제적고립에서 벗어나 로므니아, 6월에 유고슬라비아, 쏘련,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체스꼬슬로벤스꼬, 7월에 웽그리아, 뽈스까, 몽골, 9월에 세네갈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새로 맺거나 회복하였으며 자이르와 령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한편 9월 30일 고메스는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나토와의 조약, 그리고 뽀르투갈이 조인한 기타 모든 국제조약을 존중할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10월에 미국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뽀르투갈은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 가운데서 경제가 가장 뒤떨어진 나라의 하나이다.

경제에서 기본을 이루는 농업부문에서 로동인구의 30%이상이 일한다. 농촌경리는 낡은 기술에 기초한 대농장경리가 우세를 차지하며 농민들은 대부분 고용농민이거나 소작농민들이다.

령토의 근 40%가 부침땅이지만 올리브, 포도, 파일 등 수출용 농작물을 주로 심는다.

주요알곡작물은 밀, 보리, 호밀, 귀밀, 강냉이, 벼, 감자이다. 식량은 해마다 막대한 량을 수입에 의존한다. 년평균 밀 63만톤, 호밀 20만톤, 강냉이 50만톤, 벼 16~17만톤, 감자 100여만톤정도 생산된다.

1974년 4월 파쑈독재정권이 무너진 이후 새 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8월 25일부터 효력을 가지는 토지에 대한 투기행위를 막으며 소작료를 제한하는 법령이 채택되였다.

소, 양, 돼지 등 여러가지 집짐승을 기른다.

공업부문에서는 석탄, 갈탄, 중석, 쇠돌, 동, 망간 등을 채취하는 채광공업이 큰 자리를 차지하나 개발사업이 뒤떨어졌다. 그밖에 기계, 선박, 원유가공, 세멘트, 화학 기타 중공업부문들이 있다.

경공업분야에서는 식료가공공업이 기본인데 여기에는 정어리통졸임, 포도주, 파일통졸임, 올리브기름, 제분, 사탕 공장들이 있다.

공업기업소의 대부분은 리스봉과 뽀르뚜사이의 해안지대에 몰켜있다. 이 나라에 등록된 약 4만여개의 크고작은 기업소중에서 168개 회사가 자본총액의 53%를 독차지하고있다.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기타 외래독점체들과 련결된 9개의 대독점체들이 이 나라 경제를 적지 않게 좌우한다. 새 정부는 일부 큰 탄광들을 국가의 통제밑에 넣었다. 3개 큰 개인은행들인《반꾸 데 뽀르뚜갈》, 《반꾸 데 앙골라》 및 《반꾸 나씨오날 울뜨라마리누》를 국유화하였다.

이 나라 경제에서 코르크참나무겁질 생산과 그 가공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 생산량은 세계 총생산량의 절반을, 수출에서는 첫번째자리를 차지한다. 소나무에서 송탄유도 생산한다.

수산업에서는 정어리를 많이 잡는다.

대외무역적자를 관광업(년간 관광객수는 300만명이상)의 수입에서 적지 않게 보충한다.

교통운수에서 철도와 해상 운수가 큰 역할을 하는데 주요항구는 리스봉과 뽀르뚜이다.

주민은 이베리아원주민에 여러 종족의 피가 섞인 지중해종족들로 구성되였다.

주민의 대부분은 농촌지역에서 많이 살며 국어는 라틴어계통의 뽀르투갈말을 쓴다.

구라파에서도 천주교가 뿌리깊은 나라로서 주민의 97%가 이 종교를 믿는다.

새 정부는 1974년 8월 16일 중학교들에서 교육을 민주화하며 나라의 새로운 생활조건에 맞는 교육체계를 내올것을 예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엔아이(뽀르투갈통신)

신문 아반떼(공산당기관지), 쟈리오 도 고베르노(정부기관지), 까삐딸, 레뿌블리까, 엑스쁘레쏘, 디아리 데 리스보아, 배똘 (로조기관지), 무비멘뚜(《무장력운동》블레찐)

방송 뽀르투갈방송, 뽀르투갈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6월 6~13일까지 뽀르투갈공산당 총비서 알바로 쿤할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6월 1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뽀르투갈공산당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1974년 5월 1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뽀르투갈에서 4월 25일 까에따노파쑈독재정부가 전복되고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과정이 진척됨에 따라 공산당의 모든 정치범들이 석방되고 특히 이 당 총비서 알바로 쿤할동지의 귀국과 공산당의 합법적활동이 재개된것과 관련하여 뽀르투갈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냈다.

1974년 10월 19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는 뽀르투갈공산당비상대회가 10월 20~21일까지 열리는것과 관련하여 이 대회 앞으로 축전을 보냈다.

축전에서는 비상대회가 현시기 뽀르투갈에 조성된 새로운 혁명정세에 부합되는 뽀르투갈공산당의 정확한 투쟁로선과 방향을 제시하고 이 나라에서의 혁명적변혁과정을 완성하며 당대오를 확대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표시하였으며 우리 당이 이 기회에 뽀르투갈인민대중과《무장력운동》간의 굳건한 동맹을 이룩하며 국내반동세력의 온갖 공격을 물리치고 나라의 민주화과정을 촉진하며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뽀르투갈공산당의 정당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고 지적하였다.

북　미

카 나 다

넓이 997만 6, 139mk²
인구 2, 738만명 (1974년 4월)
수도 오타와 (주민 70만명, 1971년)

정 치

국회 립법기관이며 상하량원으로 구성, 상원의원수는 102명이며 임기는 종신, 하원의원수는 264명이며 임기는 5년, 1974년 7월 8일 총선거결과 자유당 139석, 진보보수당 97석, 신민주당 12석, 사회신용당 12석, 무소속 2석, 기타가 나머지 의석차지

총독 카나다총리의 권고에 따라 영국녀왕이 임명, 정치적실권은 없다. 1952년부터 카나다사람으로 임명되고있다.

정부 총독이 국회의석을 제일 많이 차지한 당의 당수에게 정부조직을 위임한다. 각료들은 하원의원만이 될수 있다. 총리 엘리오트 트루도 (1968년 4월－), 외교부장 매캐컨, 국방부장 제임스 리챠드슨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2년 2월에 창건, 1974년 5월에 진행된 공산당 제22차대회에서 윌리암 카슈탄이 총비서로 다시 선거됨, 자유당 (집권당) 19세기 70년대에 조직, 진보보수당 1854년에 나온 반동적정당, 사회신용당, 이밖에 민족동맹, 신민주당이 있다. 공산주의청년동맹; 로동대회 (반동로조)

카나다는 자본주의국가이다.

제2차세계대전후 카나다반동정부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1949년에 침략적인 나토에 가담하였으며 1950년에는 미제가 도발한 조선침략전쟁에 고용병을 보냈다.

국제무대에서 남조선의 박정희괴뢰도당을 지지하고있다.

또한 카나다는 미제가 월남침략전쟁에서 쓸 침략무기를 생산공급하여주었으며 남부월남괴뢰경찰들을 훈련시켜주었다. 카나다정부는 뉴파운드랜드섬과 라브라도르반도에 핵탄두를 장비한 미제침략군공군무력의 주둔을 허용하였으며 《북미공중방위사령부》에 가담하였다.

전후 20년간 미제에 대한 이러한 추종은 카나다로 하여금 미제의 통제밑에 깊이 들어가게 하였다.

그러나 오늘 카나다는 국제적인 반미자주의 추세에 따라 점차 대미의존정책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로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나라들까지도 더는 큰 나라들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려 하지 않고있으며 독자적으로 행동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6권, 281페지)

카나다정부의 반미독자적움직임은 1974년에 취한 일련의 정치, 경제 정책들에서 표현되였다.

1월 4일 카나다국회는 미국독점체들의 팽창을 막기 위한 통제법을 채택하였으며 또한 11월 22일 정부는 대미석유수출을 1975년 1월부터 계단별로 줄이고 1982년에는 전면적으로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대미석유수출은 1974년 1.4분기에 90만바렐이였다면 3년후에는 그것을 50만바렐로 줄이고 1982년에는 전혀 없앨것이라 한다.

12월초 카나다총리는 미국에 가서 미제우두머리 포드놈과의 회담시에 카나다의 이 대미석유수출의 계단적삭감에 대하여 다시 주장하고 앞으로 카나다가 미국으로부터의 소고기수입을 제한하며 미국과의 일변도 무역에서 벗어나 무역의 다국화를 실현할 속심을 내놓았다.

또한 카나다재정부장은 미제의 강화되는 경제적 침투와 간섭을 비난하면서 자기 나라가 제발로 걸어나갈것을 원하며 나라의 자연부원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통제할것을 원하고있다고 내놓고 말하였다.

이러한 반미 독자적지향은 카나다에 대한 미제의 예속화정책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밖에도 카나다텔레비존방송들이 년초에 자기 나라 땅에서 미중앙정보국이 경찰활동을 한데 대해 폭로함으로써 미제에 면박을 주었다.

1974년에 카나다의 지배층에서는 일정한 움직임이 있었다. 트루도총리의 18개월간의 소수파정부는 5월 8일 그의 자유당이 련방예산정책과 관련하여 불신임동의안 표결에서 격파됨으로써 끝장이 났다.

그리하여 7월 8일 카나다에서는 총선거가 실시되였다.

선거결과 자유당은 하원 264의석중 절대과반수에 필요한 의석을 넘는 139석을 얻어 다시 집권당으로 되였으며 진보보수당은 97석, 신민주당은 12석, 사회신용당은 12석, 무소속 2석, 기타가 나머지 의석을 차지하였다.

2월에 카나다는 바레인, 오만, 까타르, 말라위, 아랍추장국련방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8월 12일에 기네－비싸우를 인정하였다.

5월 카나다공산당 제22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며 미국자본의 침투를 반대하여 투쟁할것을 호소하였다.

대회에서는 당규약을 개정하였으며 윌리암 카슈탄을 총비서로 다시 선거하였다.

1974년에 카나다에서는 외국자본의 경제적지배를 배제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벌어졌다.

카나다사회단체, 로조 및 실업계대표들이 외국회사들의 권력을 제한하고 카나다에 대한 외국자본의 침투에 엄격한 통제를 가하며 중요공업분야의 기업소들을 국유화할데 대한 요구를 강력히 들고나왔다.

경제, 사회문화

카나다는 자본주의적공업－농업국가이다.

공업에서는 지하자원과 산림자원을 가공수출하기 위한 유색금속공업과 팔프제지공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니켈, 백금 생산량은 세계 제1위이며 그밖에 지하자원으로서 우라니움광, 석탄, 금, 은, 아연, 동, 원유, 쇠돌, 연, 주석 등이 있다. 그중 개발된 공업원료들은 미제에게 략탈당하고있으며 공업기업소 자체가 미제독점체에 장악되여있다.

미제독점자본은 카나다의 석유 및 석탄채굴 공업과 고무, 화학공업의 70%, 기계공업의 67%, 전기공업의

57%를 통제하고있다.

민족공업은 더욱더 파산몰락되고있으며 1974년 6월현재 실업자수는 46만 9천명에 달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담배 등이다.

밀생산량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제2위를 차지한다. 이 나라는 밀과 기타 사료작물의 주요수출국으로 되고있다.

축산업은 넓은 초원지대가 있고 사료작물을 많이 심기때문에 어느정도 발전하고있다. 집짐승으로서는 소, 돼지, 양 특히 젖소를 많이 기른다.

태평양연안은 세계 3대어장의 하나로서 이 나라 수산업발전에 유리하며 여기에서는 대구, 청어, 연어, 가재미, 새우, 게 등을 많이 잡는다.

대외무역은 미제와 외국독점체들의 수중에 많이 장악되여있다. 수출품은 주로 종이, 농산물, 목재, 광석, 일부 공업제품이며 수입품은 기계, 운수수단, 일용필수품이다. 무역은 미국, 영국, 서독, 프랑스, 일본과 많이 하고있다.

주민의 기본을 이루고있는것은 구라파로부터 옮겨온 이주민들과 그 후손들이다. 구성비률에서 영국계 사람들이 43%, 프랑스계 사람들이 30%, 독일계 사람들이 7%, 이딸리아계 사람들이 2.5%를 차지하고있다. 원주민인 인디안은 현재 3만 7천여명이 남아있으며 북빙양의 추운 지대에서는 약 1만 6천명의 에스키모사람들이 살고있다.

이와 같이 주민구성이 복잡하고 자본주의사회에 고유한 인종적대립과 차별이 극심하기때문에 카나다에서는 자주 인종적충돌이 일어나 큰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다.

공용어는 영국말과 프랑스말이다.

종교에서도 프랑스계의 주민은 천주교를, 영국계의 주민은 신교를 믿고있다.

반동당국의 반인민적정책으로 하여 교육형편도 뒤떨어져있다. 학령아동의 대부분이 학교에 가지 못하며 문맹자도 줄어들지 않고있다. 케베크주만 하여도 25만명의 녀성문맹자가 있다. 대학은 44개 있으나 돈있는집 자식들만 다닌다.

출판보도; 통신 카나디안 프레스

신문 카나디언 트리뷴(공산당기관지), 토론토 스타, 썬데이 썬, 글로브 엔드 메일(무소속)

방송 씨비에스방송, 씨비에스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에 카나다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이 협회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축하하여 지성어린 선물을 보내왔으며 카나다인민들속에 우리 나라를 널리 소개선전하고있다. 신문《썬데이 썬》과《토론토 스타》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실었다.

미 국

(아메리카합중국)

넓이 936만 3,353km²(알라스카와 하와이제도포함)

인구 2억 1,320만 3,059명(1974년말 현재)

수도 워싱톤(75만 6,510명, 1970년)

정 치

미국은 50개의 자치주와 콜럼비아련방구(수도)로 구성되여있는 부르죠아련방제국가이다.

국회 상하량원으로 구성, 상원의원수는 매개주에서 2명씩 6년임기로 선거된 100명으로 구성, 매 2년마다 대의원수의 3분의 1이 새로 선거된다. 하원의원수는 435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은 상하량원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지 못한다.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수반이며 그가 임명하는 11명의 장관들로 정부가 구성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계속 8년이상 할수 없다.

대통령 제랄드 아르 포드(1974년 8월—), 국무장관 키신저, 국방장관 슐레징거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 9월에 창건, 위원장 헨리 윈스톤, 총비서 거스홀, **흑인해서 당** 1966년에 창건, 정부의 인종차별 및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며 흑인들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정당, **청년로동자해방동맹**, **유색인진보촉진전국련맹** 인종차별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흑인단체, **전국도시련맹**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흑인단체, **인민당** 1971년 11월 27일 창건, 부르죠아개혁주의적성격을 띤 제한된 강령을 내세우고있다. **공화당** 1854년에 무어진 극반동정당이며 현집권당, **민주당** 1928년에 나온 극반동정당

침략과 전쟁책동, 그의 전면적파산

미제국주의는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국제헌병이며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이며 전세계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이며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이다.

국가로 형성된 후 근 200년의 이 나라 력사는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 국내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과 략탈로 엮어진 피비린내나는 죄악의 력사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멸망하여가는 자기들의 운명을 구원할 출로를 찾기 위하여 더욱더 교활한 량면전술에 매달리면서 큰 나라들과는 관계를 개선하고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어들어가려 하며 아세아에서는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고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라틴아메리카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단행본, 5~6페지)

미제국주의는 전례없는 심각한 경제, 정치적위기에 빠져 허덕이면서 그 출로를 세계 여러 지역과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 간섭과 파괴암해 책동에서 찾고있다.

1974년에 미제의 량면적인 침략과 간섭 책동은 보다더 음흉하고 교활하게 감행되였다.

미제의 우두머리였던 닉슨놈은 이른바 1월 30일의《일반서신 연설》에서 제놈들의 군사비 지출의 증대와 군사력강화가《평화》를 위한것이라고 뇌까렸다.

그러고 닉슨놈은 2월 4일 국회에 내놓은 1975회계년도《예산서신》에서《국방비》의 명색을 가진 군사비 항목에 무려 877억딸라를 배정하였다. (1974회계년도에 그것은 795억딸라였다.)

새회계년도 미국의 이 엄청난 군사비는《1945년이래 가장 큰》것이였다.

《예산서신》에 의하면 미제는 이 군사비로써 이른바 전략핵무기의 연구개발, 공중 및 해상의 군사적수송능력의 확대 및 근대화, 제1선에서 실전에 가담할 병력수의 증가 등을 다그치는데 써먹을것을 예정하고있다.

미제는 한편 1975회계년도에 이른바《동맹자》들인 괴뢰들과 추종국가들에 더 많은 군사《원조》와《안전보장원조》를 줄것도 계획하였다.

미제는 이《원조》로써 제놈들의 앞잡이들의《방위능력》을 뒤받침해주고 있다.

한편 미제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세아의 혁명적나라들, 중근동과 세계 여러 지역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 책동을 미친듯이 벌리였다.

1974년에 미제는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간섭 책동에 미쳐날뛰였다.

놈들이 공식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제는 1974년 6월까지 남조선에 3만 8천명이였던 침략군을 12월말에는 4만 2천명으로 늘이였다.

제놈들의 침략적야욕으로부터 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회의에서 채택한 우리 공화국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공명정대한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74년에 미제는《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끌어내갈데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요구와 세계 진보적 나라 인민들의 목소리가 높아가자 교활하게도 미제침략군이《유엔군》이 아니며《유엔군》을 조작한 후에 꾸며낸것이 명백한 이른바《한미호상방위조약》에 의해 남조선에 머물러있다고 생억지를 쓰는데까지 이르렀다.

놈들은 이로부터 유엔총회 제29차 회의에서 조선문제의 정당한 토의까지 기를 쓰고 방해하였다. 1974년에 미제는 우리 나라에서 새 전쟁도발을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이해에 각종 명목의《사절단》으로 남조선에 기여든 전쟁미치광이들은 분계선일대를《시찰》하면서 전쟁준비상태를 검열하며 박정희괴뢰도당에게 전쟁의 열기를 돋구어주는 범죄적행위를 감행하였다.

1974년 11월에는 미제의 새로운 우두머리 포드놈까지 남조선에 기여들어 전쟁준비에 환장이 된 박정희괴뢰도당을 부추기고 상전으로서의《뒤받침》을 다시 확인하였다.

나아가서 놈들은 남조선지역에서 실전을 가상한 대규모의 전쟁연습을 련이어 미친듯이 벌리였으며 이해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땅과 바다, 하늘에서 2만 3천 800여차례의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1974년에 미제는 남조선괴뢰군을 조선에서 새 전쟁도발에로 내몰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미제는 1975회계년도에 1973회계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2억 5천 280만 딸라를 남조선괴뢰들에게《원조》하기로 하였으며 괴뢰군을《현대화》한다는 미명밑에 핵무기까지 쥐여주고있다.

1974년 4월에는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이 비무장지대에서《오네스트존》, 《나이크헤르 쿨레스》, 《호크》등 로케트들과 유도탄 발사연습까지 하는 횡포한 소동을 벌렸다.

미제는《닉슨주의》에 따라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더욱더 조선에서 새 전쟁도발에로 떠밀고있다.

미일간의 침략적동맹관계는 닉슨놈이 나떨어지고 포드놈이 새로 대통령감투를 뒤집어쓴 이후에 변함없이 더욱더 강화되고있다.

포드놈은 1974년 8월 10일 일본총리 다나까놈에게 보낸《메쎄지》에서《미일량국의 뉴대를 확고히 유지해나가는것이 나의 정책이다》라고 내놓고 줴침으로써 그러고 9월에 다나까놈을 미국에 불러《포드—다나까회담》을 벌리였고 11월 18~22일까지 국무장관 키신저놈을 데리고 일본에 기여들어 일본반동우두머리들과《미일안보조약》, 아세아정세 등을 쑥덕공론함으로써 앞으로 미일동맹관계를 계속 유지강화할수 있는 새로운《담보》를 마련하였다.

미제는 1974년에 일본에 있는 수십개의 미제군사기지들의《반환》놀음을 벌려 미일공동작전체제를 더욱 확립하고 일본자위대를 증강시켜주었다.

1월 30일에 미제는 일본반동들과 오끼나와에 있는 32개의 미제군사시설을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일본에《반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미제는 나하항을 포함한 19개군사시설을 일본반동들에게 전면《반환》하며 북부훈련지역과 구와에병영 등 13개 시설을 부분적으로《반환》하기로 하였다.

미제는 또한 4월 3일에 다찌가와비행장 등 9개시설을, 5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후 29년간 틀어쥐고있던 오끼나와 상공의 항공로관제권을, 8월 15일에는 불로포인트사격훈련장의 일부를 일본에 넘겨주었다.

미제의 이 반환놀음으로 일본에는 현재 오끼나와를 포함한 152개의 미군사기지만이 남아있게 되였다.

미제는 1974년에 일본을 기지로 하여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세아의 혁명적 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연습도 계속 감행하였다.

7월 2일에 일본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18전술전투기비행단의《에프—4팬톰》전투폭격기대대들이 오끼나와의 가네다공군기지에서 모형핵폭탄 4개를, 7월 23일에는 9개를 떨어뜨리면서 범죄적인 군사연습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아세아지역에서 핵전쟁을 위한 조기경보체계의 일부로서 일본의 사이다마현의 도꼬로자와, 홋가이도의 지도세, 오끼나와현의 아와세 등의 기지에 전파탐지시설들을 비밀리에 설치하였다.

미제는 윁남, 라오스 정화 이후에도 이 지역에 대한 간섭과 파괴 책동을 강화하고있다.

미제는 남부윁남괴뢰들에 대한 군사경제적원조를 계속하였으며 남부윁남에서 미제의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강화하였다.

놈들은 정전후 12개월간에만도 남부윁남괴뢰들에게 11억딸라어치의 무기와 탄약을 공급(땅크 35대, 장갑차 35대 포함)하였으며 300만딸라어치의 공군용폭탄을 공급하였다.

1974년 7월 미제는《에프—5이》전투기들을 남부윁남괴뢰에게 넘겨주었다.

미제는 죽어가는 론놀괴뢰도당을 부추기기 위해 1974회계년도에 7억딸라에 달하는 군사원조를 주었다.

미제는 중동지역에서 정세를 계속 긴장시키는 장본인이다.

미제의 우두머리였던 닉슨놈은 6월에 이스라엘에 행각하여 그놈들에게 군사《원조》를 계속 강화하며 핵연료를 공급할것을 다짐하였다.

1974년에 미제는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섬에 대한 군사기지화책동도 강화하였다.

놈들은 이해 9월에 2천 900만딸라를 이 군사기지설치에 할당하였다.

미제는 현재 해외에 51만 1천명의 침략군을 유지하고있다.

그가운데서 타이에 2만 3천명, 일본에 5만 8천명, 필리핀에 1만 6천명, 대만에 5천명을 머물러두고 있다.

1974년에 미제는 세계 여러 지역과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준비의 한고리로써 제놈들이 꾸며놓은 군사동맹의 침략군대들을 동원하여 합동군사훈련들을 감행하였다.

미제의 지휘밑에 1974년 3월에 서독에서 벌린 나토침략군 통신부대들의 군사훈련, 6월에 오스트랄리아지역에서 벌린 륙해공군군사훈련, 9월에 카나다에서 벌린 나토해군연습, 11월 인도양에서 벌린 쎈토해군연습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미드링그－74》라고 하는 5개나라 (미, 영, 이란, 토이기, 파키스탄) 들의 쎈토군사연습에만도 미제는 3척의 구축함의 호위를 받는 6만톤급 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패속보급함들을 동원하였다.

미제는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간섭과 파괴책동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1974년 8월에 해외침략의 길잡이인《평화군》의 간섭책동을 위해 225만 6천딸라를 더 줄데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평화군은 세계 69개 나라에 6천 500명이 침투되여있다.

정탐활동을 감행하고있는 미제는 1974년현재 도합 14만 8천명의 간첩들을 세계도처에 들이밀었다.

놈들은 이 정보기관을 움직이기 위해 해마다 80억～90억딸라를 쓰고있다.

미제는 또한《반공》선전에 악랄하게 매달리고있다.

미제의 우두머리 포드도당은 1975회계년도에 《자유구라파방송》, 《자유방송》, 《국제방송위원회》의 운영비로 근 5천만딸라를 할당하였다.

미제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한 이와 같은 침략과 간섭 책동을 통하여 이 지역에서의 제놈들의 지배와 식민지옛지위를 되찾으며 특히 급격히 장성하는 제3세계나라들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책동하였다.

그러나 놈들의 어리석은 침략과 간섭 책동은 제3세계나라들을 비롯한 반제적나라들과 인민들의 강력한 타격과 압력에 의하여 패배를 면치못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침략전쟁과 무력탄압으로써도 그 어떤 량면전술과 신식민주의정책으로써도 결코 죽어가는 자기들의 운명을 건져낼수 없으며 세계인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 오늘의 추세를 가로막을수 없습니다.》(우와 같은문헌, 6폐지)

미제의 침략과 간섭, 파괴략탈을 반대하는 투쟁은 특히 제3세계인민들속에서 거세차게 벌어졌으며 미제는 가장 호되게 얻어맞았다.

미제는 무엇보다도 아세아의 혁명적인민들로부터 되게 얻어맞고 녹아났다.

아세아에서는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있으며 이 지역에서 미제의 침략과 간섭 책동이 전면적으로 파탄되고있다.

아세아에는 싸우는 나라 혁명하는 나라들이 많으며 조선으로부터 중국, 인도지나, 중근동에 이르는 아세아의 넓은 지역이 반제혁명투쟁의 무대로 되고있다.

반미투쟁에서 우리 인민은 그의 전초선에 서있다.

1974년에 우리 인민은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내쫓으며 놈들이 분별없이 감행하는 새 전쟁 도발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미제의 침략적본성을 만천하에 더욱 힘있게 고발하고 놈들의 침략적흉계를 걸음마다 저지 파탄시켰다.

1974년에 조선에서의 정전의 유지는 전적으로 우리 공화국정부의 평화애호적인 노력에 의하여 담보되였다.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과 인민은 캄보쟈에 대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강력한 공세를 들이댐으로써 프놈 펜의 포위망을 바싹 조이고 괴뢰들의 마지막 숨통을 졸라매였다.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과 인민들은 1974년 한해동안에 15만명의 적들을 살상포로하고 수많은 무기와 군수기재를 로획하는 빛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리하여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침략정책에 돌이킬수 없는 심대한 패배를 주었다.

남부웰남인민은 북부웰남인민과 함께 빠리협정의 엄격한 리행을 보장하고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하고있으며 라오스인민은 통일되고 번영하는 새 라오스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또한 미제는 인도지나침략전쟁에서 중요한 군사적기지로 리용하던 타이에서조차 쫓겨나고있다.

1974년 2월 22일 타이외교부장은 앞으로 미제침략군이 타이 국내의 기지들을 리용하려면 타이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미제침략군이 타이기지들을 리용하여 전투를 감행하는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1973년의 세번에 걸친 철수기간에 7천여명의 침략적인 미군사인원과 151대의 전투기가 타이에서 물러났다.

우리 시대 신흥세력인 제3세계의 력사무대에로의 강력한 진출로 미제의 자본투하지, 판매시장, 원료원천지, 군사적관할지역, 정치적영향지역은 급격히 축소되여갔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제4차중근동전쟁을 사촉하여 도발한 보복으로 중근동석유생산국들로부터 석유를 정치적무기로 하는 강력한 타격을 받은 미제는 더욱더 파멸적인 경제위기에 빠져들어갔다.

또한 제3세계나라들의 자주 자립을 위한 지향이 강화되여 이 나라들에서 식민주의후과를 청산하고 민족경제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미제는 이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배격당할뿐아니라 경제령역에서 강압적으로 차지하였던 리권들을 련속 내놓고 쫓겨났다.

미제는 특히 1974년에 진행된 원료 및 개발문제에 관한 유엔총회 특별회의(5월), 제3차유엔해양법회의(6～8월) 등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략탈로부터 자기 나라 원료와 자원을 보호하고 굳건히 지키며 그것을 새생활건설에 동원리용하기 위해 힘차게 일떠선 제3세계 나라들의 강력한 타격으로 뒨서리를 맞았으며 제3세계나라들이 들고나온《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수립에 관한 선언》을 비롯한 여러문제들의 결정에서 신흥세력앞에 굴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지어 유엔제29차총회에서 신흥세력들이 많은 국제정치경제문제들의 토의에서 미제를 짓누르고 신흥세력의 정당한 리익을 반영한 많은 결의들을 뜻대로 토의결정함으로써 미제는 더욱더 유엔을 좌지우지할수 없게 되였다.

1974년에 벌린 미제의 침략과 전쟁 책동, 간섭과 략탈을 반대하는 세계인민들의 이러한 완강한 투쟁들은 미제가 제국주의적본성그대로 마지막 발악을 하며 기승을 부리지만 그의 멸망은 이미 선고된것이며 매우 빨리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고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미제국주의는 그 어떤 침략과 무력탄압으로써도 그 어떤 량면전술과 신식민주의정책으로써도 결코 죽어가는 자기들의 운명을 건져낼수 없으며 세계인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 오늘의 추세를 가로막을수 없다.

심각한 정치적위기

1974년에 미제는 국내에서 전례없는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에 빠져 더욱더 골병이 들었다.

미제국주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에서 사회적불안은 날로 심화되고있으며 지배층내의 모순은 극도에 이르고있습니다.》(《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

드시 승리할것이다.》, 단행본 8페지)

1974년 미국정치에서 심각한 위기의 하나는《워터게이트사건》에 대한 조사사업이 결정적골목에까지 이르고 그 결과 이 사건의 장본인인 닉슨놈이 대통령자리에서 쫓겨난것이다.

《워터게이트사건》에 대한 1973년의 조사에 이어 1974년 1월초 미상원특별위원회는 닉슨놈의 비밀록음테프를 요구하여 다시 워싱톤련방재판소에 제소하였다.

2월 19일에는 미국 메릴랜드주 25명의 하원의원들이 닉슨놈의 탄핵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미련방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미전국기독교련합회 리사회는 닉슨의 탄핵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4월 11일 미하원사법위원회는 백악관에 대한 닉슨놈의 탄핵근거를 조사할 42건의 추가록음테프와 관련된 보고를 4월 25일까지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소환령을 33 대 3표로 가결하였다.

닉슨놈에 대한 탄핵을 지지하는《눈사태현상》이 공화당원들속에서 급격히 커갔다.

1974년 7월 27일부터 30일어간에 미하원사법위원회는《워터게이트사건》과 그 말살공작을 둘러싼 사법방해탄핵결의안을 표결에 붙인데 이어 대통령의 직권람용에 관한 탄핵결의안,《록음테프제출거부》에 관한 대통령탄핵결의안 등을 모두 가결하였다.

미하원사법위원회의 대통령탄핵심의 완료로 탄핵심의는 하원본회의로 옮겨졌다.

닉슨놈에 대한 탄핵은 움직일수 없는것으로 되여갔다.

8월 7일 공화당 골드워터상원의원은 닉슨놈에게《공화당국회지도자들이 상원에서의 탄핵재판시에 그를 지지하는 표가 15표밖에 되지 않을것》이라고 《충격적인 전망을 전달》하였다.

바빠맞은 닉슨놈은 탄핵이라는 올가미를 쓰는데 질겁하여《대통령을 사임》하는 길을 택하였다.

그리하여 8월 9일 흉악한 침략의 우두머리이며 악명높은《반공》악당인 닉슨놈이 대통령자리에서 쫓겨났다.

닉슨놈이 대통령자리에서 나떨어짐과 함께 부대통령이였던 포드놈이 대통령감투를 뒤집어썼다.

미국에서《워터게이트사건》과 그 조사, 닉슨놈의 대통령자리에서의 추방 등은 이른바 《미국식민주주의》, 미국정치에서《량당제도의 우월성》등의 기만적인 간판밑에 권세와 지배를 위하여 서로 물고 뜯는 개싸움에 이골난 미제지배층내부의 부패상과 추악상을 밑뿌리채 드러내보였다.

미제의 정치적위기는 지배층내의 모순과 암투, 집권을 위한 로골적인 개싸움에서뿐아니라 반동정부의 반인민적 정책을 반대하며 생활처지의 개선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하여 더욱 심화되였다.

1974년에 미국의 각계층 인민들은 침략과 가혹한 억압착취를 반대하는 줄기찬 투쟁을 벌리면서 임금인상, 처지개선 등을 요구하여 파업, 시위 등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들을 벌리였다.

미국에서 1974년 첫 9개월동안에만도 1971년에 비하여 더 많은 4천 950건의 파업이 일어나고 파업자는 1973년에 비하여 1974년에 50만명이 더 많은 230만명에 달하였다.

미국탄광로동자들의 파업으로 독점자본가들이 입은 손해액은 50억딸라에 달하였다.

미국근로자들의 이러한 투쟁들은 매우 심각화된 미제의 정치적위기를 더욱더 심화시켰다.

서방《동맹국》들로부터의 더욱더 심한 고립

1974년에 미제는 국내에서 더욱더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를 겪었을뿐아니라 서구라파《동맹국》파의 알륵과 모순이 자라나 그것들로부터도 고립배격당하였으며 극도의 피동과 수세에 빠져들어갔다.

미제와 서구라파《동맹국》들과의 모순과 알륵은 석유문제, 나토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석유위기해결을 둘러싸고 심하게 나타났다.

1973년 10월 중근동전쟁을 계기로 조성된 연료위기는 1974년에도 서방자본주의나라들속에서 거듭 큰 영향을 미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미제와 서구라파《동맹국》들사이에 대립과 알륵관계가 더욱 심해졌다.

이 알륵과 모순은 무엇보다도 1974년 2월 11일～13일까지 워싱톤에서 감행된 주요석유소비국 9개국 외교부장들의 회의에서 보다 표면화되였다.

미제는 이 회의에서 석유문제를 전문으로 다룰《위원회》를 조작하고 이《위원회》의 통제밑에 석유에 대한 생산, 분배, 소비 그리고 가격문제 등을 조절하는《권한》을 주는 내용의《문건》을 꾸며내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라파 석유소비국들은 이《제안》을 반대하면서 회의에서 석유생산국들과 대결을 가져올수 있는 문제를 토의하지 말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1974년 1월중순에 석유소비국들에 보낸《토의안건》은 본회의를 위한 예비회담에서 부결되였다.

그러나 미제는 석유문제와 관련한 일체《권한》을 가지는《석유위원회》를 석유소비국만으로 조직하자고 주장하였다. 프랑스는 그것역시 반대하면서 석유문제는 유엔에서 취급되여야 한다고 들고일어났다.

석유생산국들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서구라파나라들이 석유소비국들과《쌍무적협정을 체결할 권리》를 주장해나선데 비해 미제는 석유소비국들간의《협조》만을 고집함으로써 모순을 더욱더 격화시켰다.

미제와 서구라파《동맹국》들간의 이러한 대립으로 석유문제에서 아무러한 해결도 보지 못하였다.

석유문제를 둘러싼 미제와 서구라파《동맹국》사이의 모순은 나토안에까지 반영되였다.

1974년 3월 15일 닉슨놈은 시카고의 부르죠아지들앞에서 한 며벌임에서 서구라파가 미국과의 새로운 경제관계개선안에 빨리 합의하지 않을 경우 서구라파정부우두머리들과 더는 만나지 않을뿐아니라 서구라파《동맹국》들이《한패가 되여 미국에 집단대항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것》이라느니, 지금과 같은 사태가 계속되면 미국은 앞으로《단독행위도 서슴지않을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서구라파주둔 30만미제침략군유지도, 핵무기제공도 더 이상 보장해줄수 없다고 위협해나섰다.

이에 대해 전프랑스대통령 퐁피듀는《구라파경제공동체의 정책결정에 대한 통제를 모색하려는 워싱톤의 그 어떤 시도도》,《복종관계에 놓이게 될 미국과의 사전협의를 달성하려는》그 어떤 노력도 반대할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프랑스외교부장은《미국이 구라파를 동료로 보는가, 하인으로 보는가 라고 반박하면서 구라파에 미군을 유지하고있는것도 미국의《리기주의적 행위》라고 호되게 후려갈겼다.

또한 나토성원국인 희랍은 끼쁘로스사태발생시 미제가 제놈들을 적극 지원해주지 않았다 하여 나토의 군사기구에서 탈퇴해버렸다.

이렇듯 1974년에 미제는 문자그

대로 안팎으로부터 호되게 얻어맞아 헤여날수 없는 곤경에 빠져들어갔다.

심각한 경제위기

1974년에 미제는 전례없는 심각한 경제적위기를 겪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제국주의세계는 제2차세계대전이래 가장 심각한 경제파동을 겪고있으며 전면적인 위기에 부닥쳐 더욱더 허덕이고있습니다.»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단행본, 8페지)

1974년에 미제는 생산의 심한 감퇴와 침체, 연료 및 동력 위기, 식량위기, 통화팽창 등으로 하여 전례없는 위기를 겪었다.

1974년에 연료 및 동력 위기는 지속되여 공업을 비롯한 경제와 인민생활 전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였다.

연료및동력난으로 하여 미국경제에서 《3대기둥》을 이룬다는 자동차, 강철, 건축 공업은 그 생산이 심히 감퇴되였다.

즉 자동차공업은 27%, 강철공업은 13%, 건설공업은 80.5% 각각 줄어들었다.

자동차공업에서 1974년에 미국의 큰 자동차회사들중 《제네랄 모터스》회사의 생산량은 31.5%, 《크라이슬러》회사의 생산량은 11.7%, 《아메리칸 모터스》회사의 생산량은 13% 각각 줄어들었다.

한편 1974년에 미국에서 자동차판매량은 1973년에 비하여 약 23% 줄었다.

이러한 자동차판매의 감소는 제2차세계대전후 대규모적파업으로 커다란 위기를 겪었던 1959년이래 가장 큰것이다.

자동차업계의 불경기로 많은 로동자들이 공장에서 쫓겨나는 선풍이 일어났다.

1974년 11월의 《크라이슬러》회사에서의 3만 5천 500명의 로동자들의 림시해고, 8천 400명의 로동자들의 무기해고 등은 그의 한 실례에 불과하다.

자동차, 강철, 건설뿐아니라 방직을 비롯한 여러 공업부문에서도 생산이 감퇴되고 기업이 무리로 파산되였다.

1974년 첫 10개월동안에 미국에서 기업파산건수는 8천 402건에 달하였다.

이것은 1973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6% 더 많은것이다.

자동차공업을 비롯한 여러공업부문의 대대적인 파산으로 하여 1973년 10월~1974년 11월초까지 총체적으로 130만명의 미국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1975년 1월현재 실업자수는 750만명에 달한다.

뉴욕에서는 매 10명당 실업자가 한명이나 된다.

연료위기를 막아보기 위해 미제는 주동이 되여 워싱톤에서 1974년 2월에 9개국 석유소비국회의, 9월에 5개국 석유소비국회의 등을 부랴부랴 소집하였으나 석유소비국들간의 의견불일치로 그 어떤 신통한 해결책도 찾지 못하였으며 또한 중근동의 석유수출국들로부터도 계속 랭대를 받음으로써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국내에서 연료소비기준만을 계속 강다짐으로 떨구어 버리는 란동을 부렸다.

포드놈은 대통령감투를 쓰기가 바쁘게 그 무슨 경제적위기들을 풀어보겠노라 호통을 쳤지만 연료위기를 막을길 없어 연료소비기준을 그 위기가 매우 심하였던 1973년도보다도 15%나 더 낮출데 대한《지시》를 떨구는것으로써 그 《방패》를 찾지 않으면 안되였다.

1974년에 미국농촌은 지배층놈들의 반인민적경제정책으로 하여 더욱 황폐화되고 대흉년이 들고 농업생산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1972~1973년기간 미국에서 3만 8천 500개의 중소농장이 파산되였다.

최근 10년간 미국에서 파산몰락한 중소농장수는 무려 66만 9천여개나 된다.

중소농장의 파산으로 미국농촌은 더욱더 황폐화되였다.

중소농장들의 파산과 계속되는 흉작으로 미국의 전반적 농산물의 생산이 대폭 줄어들었다.

즉 1974년에 1973년에 비하여 강냉이는 16%, 콩은 19%, 수수는 30%, 사탕무우는 18% 줄어들었으며 기타 농작물수확고도 많이 줄어들었다.

농작물 및 축산물 손실은 100억딸라에 달하였다.

최근년간 계속되는 흉년으로 미국의 알곡재고량은 대폭 줄어들었다. 1974년 6월현재 1973년 6월에 비하여 밀은 51%, 강냉이는 25%, 콩은 44%, 수수는 65% 줄어들었다.

알곡생산의 감소로 하여 미제는 1974년 12월말현재 수출에 예견한 식량중 620만톤을 취소해버리지 않을수 없었다.

농산물수출의 이러한 감소는 미국의 식량에 의존하던 많은 나라들에 혹심한 영향을 미치였으며 특히 미제에 전적으로 붙어먹고 사는 일본과 남조선괴뢰들에게 엄중한 식량위기를 조성시켰다.

1974년에 미제는 대외무역에서도 계속 커다란 적자를 내여 그 총액은 무려 180억딸라나 되였다.

이것은 미제가 1973년에 대외무역에서 번 적자의 2.4배나 되는 엄청난것이다.

그리하여 최근 5년간 미제가 걸머진 빚은 34%나 불어나 1974년 6월 30일현재 미제의 국가채무는 4천 800억딸라에 달하였다.

미제는 심한 딸라위기도 겪었다.

1974년에 빠리, 브류쎌 등 국제시장들에서 딸라시세는 더욱 떨어졌다.

례컨대 서독의 외환시장에서 1974년 12월중순에 1딸라가 2.43마르크로 교환되였다면 12월말에는 그것이 2.40마르크로 떨어졌다.

반대로 금값은 올라 12월 30일 빠리금융시장에서 금 1온스당값이 200딸라, 런던금융시장에서 198딸라, 쮜리히금융시장에서 197딸라나 되였다.

서구라파금융시장들에서 1온스당 금값은 공식가격보다 5배나 비싸졌다.

미제의 어용학자들까지《오늘의 미국경제는 페병환자가 암에 걸린 격》이라고 하면서 절망과 공포로 하여 비명을 지른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렇듯 심각한 정치적위기와 날로 격화되는 사회적모순에 경제위기까지 엎치고 덮치여 미제의 전반적위기는 극도에 이르고있다.

놈들이 여기에서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에서 찾고있는것은 멸망에 직면한 제국주의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볼수있다.

썩고 병든 사회문화

미국은 억만장자들을 위한 썩고 병든 사회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소수 착취계급들이 날로 부유해지는 반면에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들은 더욱더 령락되여 비참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6권, 347페지)

１９７４년에 미국의 경제전반을 휩쓴 파국적인 위기속에서도 미국의 많은 독점자본가들은 물가등귀, 근로자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략탈 등으로 하여 많은 돈벌이를 하였다.

례컨대 사탕값의 등귀로 미국의 사탕업자들은 １９７４년 ６～９월 넉달동안에만도 １２배의 리익금을 얻었으며 석유위기의 틈을 타서 미국석유업자들이 몇달동안에 얻은 리득은 ２９억딸라나 된다.

반면에 미국의 광범한 근로자들은 독점자본에 뜯기우고 낮은 임금과 생계비의 등귀, 심한 주택난 등으로 하여 더욱더 쪼들리고 빈궁에 빠져들어갔다.

１９７４년에 미국에서 생계비는 계속 뛰여올랐으며 이해 ９월과 １０월의 식료품값은 １９７３년 같은 기간에 비해 １１．２％나 올랐다.

이해 미국의 일반가정의 ５５％이상이 극히 낮은 생활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의 전체 주민세대의 ５３％가 초보적인 생활조건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한심한 살림집에서 살고있으며 또한 ７０만세대는 방이 배좁아 마음대로 움직일수조차 없는 집에서 살고있다.

《부익부》, 《빈익빈》의 미국사회에서 지배층놈들의 반인민적통치와 독점자본에 의한 가혹한 략탈로 못살게 된 수많은 미국사람들이 살길을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나가는 참상이 무리로 일어나고있다.

１９７３년에만도 이러한 사정으로 미국을 떠난 사람의 수는 １６０만명이나 된다.

몇몇 백만장자들의 리익만을 보장하며 의학이 그놈들의 더러운 숨통이나 건져주는데 리용되는 미국에서 인민들을 위한 보건대책은 세계적으로도 한심한 형편에 놓여있다.

미국의 １５０여개 지역들에는 단 한명의 의사도 없다.

１９７４년현재 치료비는 １９６０년에 비하여 ３５０％나 비싸졌다.

미국에서 직업병으로만도 해마다 １０만명의 로동자들이 죽고 ３９만명이 로동능력을 잃고있다.

미제우두머리 닉슨놈까지 2월 6일에 고백한 미국보건형편과 관련한《서신》에서 최근 ２년반동안《의료비가 ２０％이상 올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병원들에서 하루 입원비가 １００딸라 넘으며 해산 또는 산후 치료비가 무려 １억딸라에 이르고있다》고 비명을 지른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이른바《문명》을 떠드는 미국에서 교육비가 급격히 올라 수많은 대학들과 단과대학들이 문을 닫고있으며 교원수가 줄어들고 교수요강과 강의들을 줄이고있다.

더욱더 많은 미국청년들이 교육비가 엄청나기때문에 대학들에 들어가지 못하고있다.

특히 규모가 적고 새로 창설된 대학들은 예산의 ６０～９０％를 학생들의 수업료에 의존하고있는 조건에서 학비난으로 학생수가 해마다 줄어들고있다.

１９７２－１９７３학년도에만 하여도 대학생들의 학비난으로 １９개의 대학이 문을 닫았다.

사립 및 국립 전문학교와 대학들이 재정적난관을 겪고있다.

미국에는 미성년문맹자만 하여도 １００만명이나 된다.

１９７４년에 썩어져가는 미국의 개같은 세상에서는 더욱 더럽고 추잡한 몰골들이 수많이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범죄건수가 전례없이 늘어났다.

범죄는 주로 살인, 강간, 폭행, 강도, 절도, 자동차도적 등의 형태로 저질러졌다.

미국에서 １９７４년 첫 ９개월동안에 １９７３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엄중한 범죄건수가 １９％나 더 늘어났다.

１９７４년 １０월에 시카고의 금보관 및 수송회사의 금고실에서는 단번에 현금 ３８만딸라가 털리는 미국력사상 최대의 현금도난사건이 일어났다.

미국에서의 범죄건수의 증가정형을 지역적으로 보면 남부지역에서 ２０％, 동부지역에서 １３％, 서부지역에서 １４％, 중부지역에서 １５％ 각각 늘어난것으로 된다.

이 범죄행위의 대부분은 １５～２４살까지의 청소년들에 의하여 저질러진것이다.

１０대 소년이 ２７명의 사람을 죽이고 １８살난 소년이 범죄로 ９９년의 징역형을 받는 참상까지 일어났다.

또한 미국에서 각종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병신이 되고있다.

１９７４년에 자동차사고만으로도 4만 6천명이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은 그의 한 례에 불과하다.

패륜패덕이 성할대로 성하여 극도에 이른 미국에서는 쌘프랜씨스코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녀자가 남자로, 남자가 녀자로 차리고 다니는것이 합법화되여있으며 원시인들의 군혼생활을 방불케 하는 추잡한 생활이 사회를 휩쓸고있다.

지어는 대낮에 시안에서 대학생들을 비롯한 남녀청년들이 라체질주까지하는 란동이 벌어졌다.

실로 미국은 정치, 경제, 군사적 위기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더욱 썩고 병들므로써 그의 멸망은 돌이킬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피, 유피아이, 유에스아이에스

신문 워커 (공산당기관지), 피플즈 월드 (공산당계), 데일리 월드, 블랙 크펜서 (흑인펜서당기관지), 뉴욕타임스 (민주당계), 워싱톤 포스트 (민주, 공화 량당자유파의 견해를 반영), 뉴욕 헤랄드 트리뷴 (공화당계), 크리스찬 싸이언스 모니터 (중립계), 월 스트리트져널 (뉴욕월가의 금융경제신문), 인터내슈널 파블리셔스, 워커스 월드, 모헤메드 스피크스, 유 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방송 에이비씨방송, 씨비에스방송, 《미국의 소리》방송, 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미제국주의는 １００여년전부터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온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이다.

제２차세계대전후 미제는 남조선을 근 ３０년째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제놈들의 식민지군사전략기지로 만들었다.

그러나 미국의 광범한 계층들은 우리 나라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있다.

１９７０년 8월에 미국조선친선공보쎈터가 결성되였으며 １９７１년 6월 ２４일 캘리포니아의 비클리에 조선련대성위원회가 창설되였다.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발은 미제의 검은장막을 뚫고 광범한 인민들속에 찬연히 비쳐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의 상세한 요지를 미국신문《데일리 월드》１９７４년 6월 ２２일호가 실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의 전문을 미국신문《워싱톤 포스트》１９７４년 12월 ２７, ２８일호가 련재하였다.

１９７５년 1월 ２４일 미국 뉴욕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는《주체사상연구소조》가 결성되였다.

１９７４년 １２월 외교부 부부장을 단장으로하는 우리 공화국 대표단이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유엔총회 제２９차회의에 참가하였다.

대 양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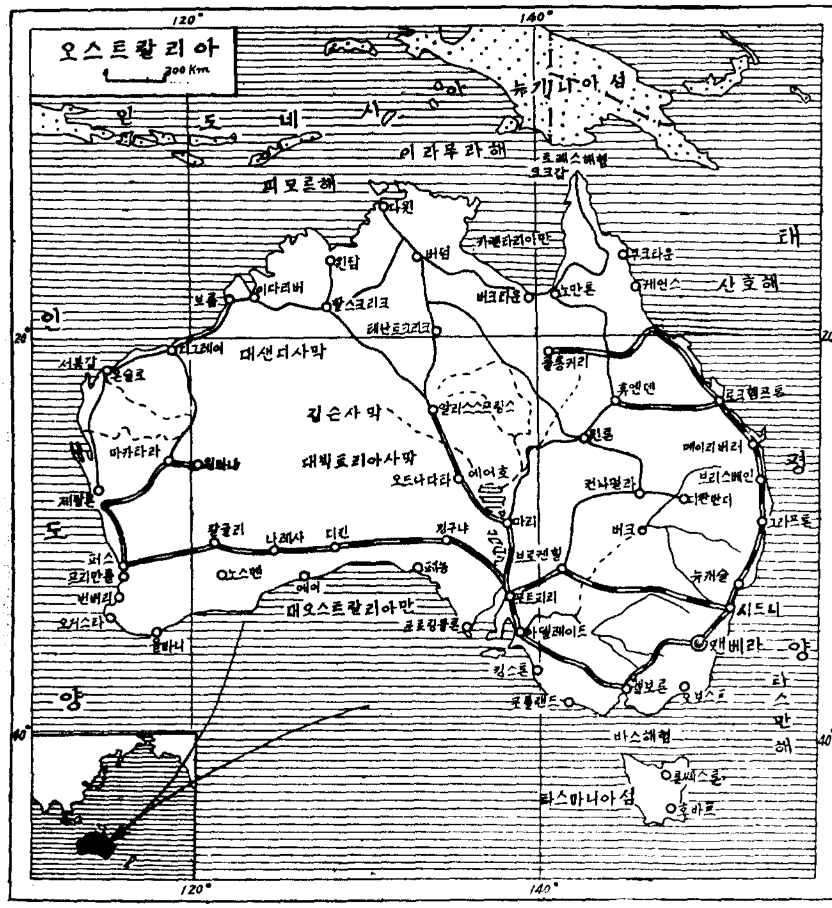
오스트랄리아

(오스트랄리아련방)

넓이 768만 6,810km²

인구 1,326만 8,300명 (1973년 12월말)

수도 캔베라 (주민 13만 7,000여명)



정 치

총독 폴 해즐러크 (1969년—), 총독은 국가수반인 영국녀왕을 대신한다. 국회의 소집과 해산, 법률을 승인한다.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은 60명, 임기 6년, 3년에 한번씩 의원의 절반을 개선한다.

하원은 각 주의 인구비례로 선거되며 임기는 3년이다.

1974년 5월18일부터 6월 22일까지 국회선거가 진행되여 하원 총의석 127석중 레이버당은 자유당파 지방당보다 5석 더 많은 66석을 차지하여 또다시 승리하였다.

정부 1974년 6월 10일 구성, 11월 21일 내각을 일부 개조, 총리 위틀람 (1974년 6월 10일), 부총리 케언즈, 외교부장 윌레시

정당, 사회단체 ; **공산당** 1920년 10월 30일 창건, 1940년에 비법화되였다. 1942년부터 다시 합법화됨, 1964년 3월 15일 이 당은 두 파로 갈라짐, **레이버당** (집권당) 1890년에 창건된 가장 오랜 정당, 로조에 지반을 두고있다. **사회당** 1972년 10월 창립, **자유당** 금융 및 공업독점체들의 리익을 대표, **지방당** 대지주, 목장주들의 리익을 대표, **흑인펜셔당** (원주민들의 조직) 1972년 1월 창건, **로동조합리사회**, **공산주의청년운동**, **부녀련맹**, **평화위원회**

1972년 12월 2일 진행된 하원선거에서 레이버당이 자유당과 지방당의 두 반동련립집권당들을 물리치고 승리함으로써 23년만에 정권을 잡았다.

레이버당은 집권한 이래 이전 자유당, 지방당 정부의 대미추종정책에서 벗어나 《독자적이며 자주적인》 일련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오스트랄리아의 이전 반동정권은 제1차세계대전시기에 영제국주의자들의 편에 가담하여 군수공업확장에 날뛰였으며 제2차세계대전때에는 군국주의 일제가 뉴기니아에 상륙하자 미영제국주의세력에 붙어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치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자기 나라를 미제의 예속하에 밀어넣었다. 전후에도 오스트랄리아반동지배층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적극 추종하였다.

오스트랄리아는 미제의 침략적군사동맹인 《안쥬스》(1951년), 《세아토》 (1954년 9월) 및 《아스파크》 (1966년 6월) 에 가담하였다.

1971년 11월 1일에는 영제국주의자들과 《동남아세아 5개국방위조약》을 맺고 동남아세아영련방성원국들에 저들의 침략군대를 배치하였다.

1967년부터 오스트랄리아반동지배층은 미제의 월남침략전쟁에 한몫끼여 남부월남에 침략무력을 파견하였으며 1970년 5월에는 캄보쟈괴뢰들에게 군사《원조》와 괴뢰군《훈련단》을 보냈다.

또한 미제와 항공및해군기지제공에 관한 군사협정을 맺고 자기 나라를 미제의 군사기지로 전변시켰다.

반동련립정권의 이러한 대미추종정책과 반인민적배족행위는 인민대중의 증오와 규탄을 받았으며 오스트랄리아가 자주의 길로 나갈것을 요구하는 사회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973년 10월 마닐라에서 진행한 세아토성원국들의 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지 않은 오스트랄리아는 1974년 3월 19일 인도양에서의 미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였으며 디에고 가르시아섬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려는 미제의 기도를 규탄하였다. 휘틀람정부는 1973년 3월 26일 오스트랄리아땅에서 미제의 군사시설《오메가항해지원소》건설을 배격한데 뒤이어 1974년 1월 9일에는 서부오스트랄리아에 있는 미해군통신시설에 대한 미제의 독점권을 빼앗고 오스트랄리아와 공동으로 운영할데 대한 약속을 받아냈다.

자주의 길로 나갈것을 주장하고있는 오스트랄리아정부는 또한 1974년 4월 8일 영국국가를 국가로 해오던것을 그만두고 오스트랄리아노래를 국가로 선포하였다.

오스트랄리아 레이버당정부는《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선언하고 일련의 진보적조치들을 취하였다.

1972년 12월 8일 남로데시아인종주의정권의《공보부》를 페쇄하였으며 1973년 3월 1일에는 이 나라와 일체 무역관계를 끊은 오스트랄리아정부는 1974년 2월에 피부색갈을 리유로 비구라파인 이주민들의 입국을 금지하여오던 종래의 법을 폐지하였다.

또한 7월 31일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의 무관놈이 캔베라에서 물러갈것을 단호히 요구하였으며 10월에는 남아프리카와의 일체 무역관계와 투자를 끊어버렸다. 10월에 유엔총회에서 오스트랄리아대표는 남아프리카정권이 25년동안 인종격리정책을 실시하면서 나미비아에 대한 해당한 결의들을 리행하지 않고있으며 남로데시아의 비법적인 정부와 로골적으로 협조하고있다고 규탄하고 유엔에서 남아프리카를 내쫓을것을 요구하였다.

오스트랄리아정부는 1973년 2월 26일 웰남민주공화국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기로 결정하였으며 1974년 11월 7일에 자기 나라의 첫 대사를 웰남민주공화국에 파견하였다. 11월 26일에는 북부웰남과의 첫 무역협정에 조인하였다.

9월 19일에 휘틀람정부는 장개석괴뢰들의《대표》들을 정부대표로 인정할수 없다고 선포하고 그들을 오스트랄리아땅에 들여놓지 않았다.

오스트랄리아외교부장 윌레시는 6월 21일 페루를 방문하여 200마일 령해권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투쟁을 지지하였으며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1974년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오스트랄리아의 멜보른에서 아세아에서의 빈궁과 실업에 관한 세미나르가 진행된데 이어 아세아학생협회 제4차대회가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였다. 대회는《조선에 관한 결의》,《재일조선학생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결의》,《4월 1일을 아세아와 세계에서 세금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의 날로 정할데 대한 호소》를 채택하였다.

정부는 8월 11일 기네—비싸우를 승인하였다.

1974년에 오스트랄리아는 사우디 아라비아(1월), 알제리(7월)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으며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장기통상협정(2월)을, 일본과 문화협정(11월), 경제, 상업 및 항행문제에 관한 협정(12월)을 맺었다.

1974년에 휘틀람총리가 말레이시아, 타이, 라오스, 버마, 싱가포르, 필리핀(1～2월), 카나다, 미국(10월), 벨지끄, 스리랑카, 영국(12월)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오스트랄리아는 자본주의적공업—농업국가이다. 제2차세계대전까지 오스트랄리아경제는 영제국주의경제의 부속물로서 채굴공업과 농산물 및 축산물 가공공업만을 가지고있은 식민지경제의 처지에 있었다.

제2차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장성된 군수공업으로 하여 경제에서 공업생산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

그러나 오스트랄리아경제에서 농업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으며 국민총생산액에서 농목축업과 어업이 30%를 차지하였다.

농업에 리용되는 땅은 4억 9천만 헥타에 달하는데 그중 78%가 목장과 초원이며 약 6%가 부침땅과 과수원, 남새밭이다. 관개된 땅은 140만 헥타이다. 토지의 대부분을 대토지소유자들이 장악하고있으며 농업인구의 40%가 농업로동자들이다.

농업인구는 총인구의 5분의 1이나 된다. 밀생산이 기본인 이 나라는 자본주의나라들중 주요밀생산국인 동시에 수출국의 하나이다. 년평균 밀생산량은 1천여만톤, 보리는 175만톤, 귀밀은 145만톤이다. 이밖에 강냉이, 감자, 사탕수수, 담배, 땅콩, 아마, 목화, 남새류, 사과, 귤류, 포도 등을 가꾼다. 축산업은 이 나라 농업총생산액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부문으로서 경제에서 큰 몫을 맡고있다. 양마리수와 양털생산량은 세계제1위로서 세계양털총생산량의 30%를 차지한다. 생산한 양털의 90%를 수출하며 이것은 이 나라 수출총액의 약 4분의 1에 맞먹는다.

1974년 1월에 동부오스트랄리아에서는 30년래에 없었던 큰 화재로 하여 1만 5천평방마일이나 되는 지역이 불타버리는 재해가 있었다.

국민총생산액에서 공업은 약 70%를 차지한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을 포함한 100여개의 외래독점체들이 전체 공업기업소의 3분의 1(주로 석유, 희유금속, 기계제작공업 등)을 차지하고있다.

공업의 대부분은 동남부와 남부의 항구도시들에 집중되여있다.

주요공업부문은 채취공업, 기계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 방직, 식료가공공업이다. 채취공업은 쇠돌을 비롯하여 석탄, 금, 연, 아연, 주석, 중석, 보크사이트, 우라니움, 석유 등 비교적 다양하다.

수출품은 양털, 밀, 고기, 쇠돌, 석탄이며 그외에 유색금속, 기계설비, 빠터, 치즈, 사탕, 과일 등이다. 수출총액에서 농축산품이 70%를 차지한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일본, 미국, 영국, 서독, 카나다 등이다.

1975년 1월현재 이 나라의 실업자수는 31만 1천 586명으로서 로력자의 5.2%였다.

1974년 10월에 오스트랄리아로조들은 일본승용차의 수입을 반대하고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것과 11월에는 오스트랄리아로총평의회 집행위원회가 일자리마련을 위해서 자동차, 직물, 다이야 및 목재제품들의 수입을 억제할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11월 12일 휘틀람총리는 의회에서 정부의 《경기자극, 실업방지》정책을 발표하여 몹시 늘어나고있는 수입자동차의 관세를 약 10%올릴계획을 발표하였다. 실업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던 신발공업계에서도 신발류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원주민들은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있다.

주민의 95%가 영국이주민들의 후손이며 원주민은 약 5만명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는다.

공용어는 영국말이다.

출판보도；통신 에이에이피통신(오스트랄리아련방통신), 에이유피

신문 뱅가드(공산당기관지), 시드니 모닝크 헤랄드(보수계), 오스트랄리안, 멜보른 에이지(중립계)

방송 오스트랄리아방송, 오스트랄리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7월 3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오스트랄리아 이전반동지배층들은 1950년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저들의 침략군대를 보냈으며 소위《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1972년 12월 오스트랄리아 레이버당정부가 수립된후 우리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새로운 발전이 이룩되고있다.

1973년 8월에 오스트랄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위원회가 조직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4년 11월 4일 오스트랄리아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을 11월 7일과 17일에 오스트랄리아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이 각각 방송하였다.

1974년 4월 오스트랄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위원회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뉴 질 랜 드

넓이 26만 8,675km²
인구 304만 8,600명(1974년 9월 30일)
수도 웰링톤(주민 30만 1,000명, 1970년 4월)

정 치

총독 에스피에 포리트, 총독은 국가수반인 영국녀왕을 대신한다.

국회 일원제, 임기는 3년, 1972년 11월 25일 국회선거결과 총의석 87석중 레이버당이 55석차지

정부 총리 월레이스 에드워드 로울링(1974년 9월), 외교부장 코르베르, 국방부장 폴크너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에 창건, 총비서 윌콕스, 레이버당(집권당), 국민당 매판자본가와 목장주, 농장주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반동적인 정당, 사회통일당, 사회신용당, 자유당, 로동련맹, 진보청년동맹, 녀성동맹

1907년 9월에 영련방내의 자치령으로 독립한 뉴질랜드는 제2차세계대전후 미제침략세력이 침투되면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가 미제에 예속되였다.

뉴질랜드는 1950년에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참가하였으며 《안쥬스》, 《세아토》, 《아스파크》등 미제가 조작한 침략적군사동맹에 가담하였다.

1960년 11월에 집권한 국민당정부는《세아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있는 영국기지들과 남부윁남전쟁터에 자기 나라 청장년들을 미제의 대포밥으로 내몰았다.

국민당정부의 이러한 대미추종정책과 특히 미제의 윁남침략전쟁에로의 파병을 반대하는 뉴질랜드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속에서 1972년 11월 25일 국회선거가 진행되였으며 이 선거에서 레이버당이 87석의 국회의석중 55석을 차지함으로써 1960년 11월이래 4기에 걸쳐 련속 집권당의 지위를 유지해온 친미반동정당인 국민당을 몰아내고 12년만에 정권을 잡게 되였다.

레이버당정부는 미제의 윁남침략전쟁에 파견하였던 뉴질랜드군대를 모두 철수하는 등 대미추종정책에서 새로운 변화를 보였다.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내세우고있는 뉴질랜드정부는 1973년에 방코크에 있는 세아토군사계획사무소에서 뉴질랜드직원들을 일부 소환하였다.

1972년 12월 22일 장개석도당과 외교관계를 끊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9월에는 윁남민주공화국을 공식승인하였다.

1974년 6월 프랑스가 태평양에서 핵시험을 여러차례 진행한것에 항의하였다.

1974년 1월에 뉴질랜드이전총리 커크가 파푸아뉴기니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방글라데슈를 방문하였다.

8월 31일 이전총리였던 커크가 사망하고 9월에 재정부장이던 로울링이 총리로 되였다.

이해 3월에 탄자니아대통령이 뉴질랜드를 방문하였다.

5월 31일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9월 30일에 이란에 뉴질랜드대사관을 두기로 결정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농목축업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목축업은 전적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농업생산액은 총생산액의 50%이상, 수출액의 80%이상을 차지한다. 농업생산액의 90%는 목축업에서 얻어진다. 농업에 리용되는 915만헥타의 땅중 90%는 목축업을 위한 방목지이며 씨붙임땅은 5%, 나무심는 땅이 5%이다.

이 나라에서는 주로 양, 소, 돼지를 기르는데 그중에서도 양의 마리수와 털생산량은 자본주의세계에서 2～3위를 차지한다.

양털은 매년 32만～33만톤 생산하며 그중 90%를 수출한다.

알곡재배는 축산업에 비하여 보잘것없으며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하고있다.

해마다 밀 27만～28만톤, 보리 17만톤, 귀밀 5만～6만톤, 강냉이 6만톤, 감자 24만여톤을 생산한다.

4천 300만에이커에 달하는 토지와 방목지를 가진 8만 5천개의 농목장을 농목장주들이 차지하고 농민들을 착취하고있다.

림산업도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해마다 1천 500만그루이상의 나무모를 심으며 약 181만립방메터의 목재를 생산한다.

지하자원으로는 석탄, 쇠돌, 금, 은 등이 있다.

공업에서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가공공업이 기본을 이루고있는데 고기가공과 소젖제품생산이 공업총생산액의 절반을 차지한다.

제2차세계대전후 기계제작, 금속가공, 방직, 전력, 석유가공, 팔프 및 종이공업을 비롯한 일련의 공업부문들이 새로 생겼으나 모든 공업부문들을 미영독점자본이 지배하고있다. 미제가 자동차조립과 석유가공을 비롯한 기타 부문을, 영제국주의자들이 식료공업, 금융, 해상운수 부문을 틀어쥐고있다.

고기, 소젖제품, 양털, 팔프 및 종이를 수출하고 기계설비, 소비품, 화학제품 등을 수입한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영국, 미국이며 기타 구라파《공동시장》에 들어있는 나라들과 일본, 오스트랄리아 등이다.

글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대학은 6개 있다.

출판보도； 통신 남부태평양통신

신문 도미니온, 썬데이 타임스, 뱅가드, 피플즈 보이스, 뉴질랜드 헤랄드
방송 뉴질랜드방송, 뉴질랜드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5월에 뉴질랜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가 조직되였다.

이 협회 결성모임에서는 협회위원회가 조직되였으며 크라이스트 처치 캔터브리종합대학 사회학교수 더블류. 이. 윌모트가 위원장으로 되였다.

이 협회는 우리 나라와 뉴질랜드사이의 호상리해를 도모하며 외교, 문화 및 무역관계를 촉진하며 우리 인민의 력사와 문화, 경제, 사회 및 정치활동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며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제안과 통일된 조선의 유엔가입을 지지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목적으로 하고있다.

피 지

피지는 태평양서남부의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멜라네시아동쪽끝에 있는 300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넓이 1만 8, 272km²
인구 52만 6, 800명
수도 수바 (주민 약 6만 1, 000명)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의 최고립법기관이다. 상원의원수는 22명, 임기는 6년이다. 하원의원수는 52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하원에서 피지인과 인도인이 각각 22석을, 구라파인이 8석을 차지하고있다.

총독 로버트 포스터, 1970년 헌법에 따라 영국녀왕을 대신하는 명목상 국가수반이다.

정부 총리 라트 세르 카미세세 마라

정당, 사회단체; **동맹당** 집권당이며 하원에서 27석을 차지, **민족련맹당** 1963년에 조직된 야당이며 하원에서 9석을 차지하고있다.

1643년부터 1674년기간에 피지의 일부 섬들이 발견되였다. 피지는 오랜 왕국이였다. 19세기 중엽부터 영제국주의자들이 피지에 세력을 뻗치기 시작하여 1874년에는 피지를 완전히 강점하고 직할식민지로 만들었다.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을 위한 피지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1970년 10월 10일 피지는 영련방성원국으로 독립하였다.

독립후 정부는 나라의 정치, 경제적 독자성을 가지고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하여 파괴령락되였던 경제를 다시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1974년 1월 피지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4년 4월 24일 피지정부는 남태평양에서의 미국의 항공정책을 호되게 규탄하고 자기 나라가 《〈미국〉현관의 구두흙털기로서 행동》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판아메리칸항공회사비행기들의 항공을 금지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은 사탕수수와 야자재배이다. 국민총생산액에서 농업생산이 차지하는 몫이 30%이다.

원주민들은 감자, 고구마, 마니오크, 바나나, 코프라 (야자씨), 땅콩, 생강 등을 재배한다. 자본주의적 농장을 경영하는 농장주들이 수출용작물인 사탕수수, 야자를 주로 재배하고 있다. 이외에 비티레부섬의 동부지역에서는 벼를 심고있다. 년평균 사탕은 약 34만톤, 야자기름은 1만 7천톤 정도 생산된다.

공업기업소는 거의 없으며 작은 사탕공장, 세멘트공장 (년산 약 5만톤), 화력발전소 (약 1억 3천만키로와트시) 기타 농산물가공공장들이 몇개 있다. 최근년간 금, 은, 동, 망간 등 지하자원이 소규모적으로 채굴되고있는데 일본독점회사들이 망간과 동을 략탈해가고있다.

피지는 남태평양의 해상 및 항공로의 교차점에 놓여있으므로 관광업과 운수업이 주요외화원천으로 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은 피지사람과 인도사람인데 구라파사람과 혼혈인들도 살고있다. 피지사람들은 기독교, 인도사람들은 힌두교를 믿고있다.

오랜기간에 걸친 식민지통치로 하여 문화수준이 낮은편이며 글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공용어는 영국말인데 멜라네시아말도 쓴다.

출판보도; 신문 피지 타임스, 쟈이 피지, 피지 로이얼 거제트
방송 피지방송

서부사모아

태평양의 서남쪽에 있는 폴리네시아의 사모아제도 서쪽절반을 차지하고있다. 이 나라는 사바이섬과 우폴루섬을 포함하여 7개 섬으로 이루어져있다. 섬들은 산호초로 둘러싸인 화산섬들이다.

열대성기후이며 섬은 열대식물로 뒤덮여있다.

넓이 2, 842km² (그중 우폴루섬 1, 075km², 사바이섬 1, 650km²)
인구 14만 2, 000명
수도 아피아 (주민 2만 8, 000명, 1970년)

정 치

립법회의 최고립법기관으로서 47명으로 구성되여있으며 임기는 3년이다.

국가원수 마리에토아 타누마필리 2세

정부 총리 투푸아 타마세세 레아로휘 4세 (1970년 3월—), 총리는 립법회의에서 선출한다.

서부사모아는 원래 독립왕국이였다. 1830년부터 미, 영, 독일식민주의자들이 침입하기 시작하였으며 1897년에는 독일에 완전히 강점당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하게 되자 1919년 서부사모아는 뉴질랜드의 《위임통치령》으로, 1947년부터는 《유엔후견령》으로서 뉴질랜드의 관할하에 있었다. 이 나라 인민들은 외래식민주의자들의 통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적자유와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왔으며 1962년 1월 1일 독립을 쟁취하였다.

1970년 8월 28일 영제국주의자들은 서부사모아를 영련방에 끌어들였다.

동부사모아는 오늘까지 의연히 미제의 식민지로 남아있다.

서부사모아는 뉴질랜드와의 《조약》에 의하여 1962년 8월 1일부터 대양주밖의 다른 나라들과 맺는 대외관계는 뉴질랜드외교대표를을 통하여 진행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땅이 걸어서 농사가 아주 잘된다. 그러나 영국침략자들이 토지의 대부분을 독차지하고 코코아농장을 만들었다.

주요 농산물은 코프라(야자씨), 바나나, 코코아이며 그밖에 감자와 고구마도 심는다.

섬나라이므로 많은 주민들이 물고기잡이를 한다. 잡은 조개와 낙지는 수출까지 하고있다.

독립후에 정부는 식민지예속경제의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고 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해 많은 힘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공업은 거의 발전하지 못하였고 농산물과 물고기를 가공하여 수출하기 위한 식료가공공장이 몇개 있을뿐이다.

외화원천을 늘이기 위해 관광업을 장려하고있으나 자본주의나라 관광객들이 섬나라 인민들에게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은 사모아사람이며 그밖에 구라파사람도 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다.

문자가 없고 라틴문자를 쓰는데 학교에서는 사모아말과 함께 영국말을 공용어로 쓰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사모아 타임스, 사발리, 아피아 애드버타이저,

방송 서부사모아방송

파푸아뉴기니아

파푸아뉴기니아는 인도네시아의 동쪽, 오스트랄리아대륙의 북쪽에 있는 뉴기니아섬의 동쪽절반을 이루고있다. 서쪽절반은 인도네시아령인 이리안쟈야(서부이리안)이다.

넓이 47만 2,693km²

인구 약 240만명

행정중심지 포트 모레스비

정 치

정부 초대총리 마이클 소마레(1973년 12월 1일—), 외교부장 알버트 마오리 키키

파푸아뉴기니아는 남북으로 갈라져있었다. 북부(뉴기니아)는 1946년에 《유엔후견령》으로 되면서 오스트랄리아의 관리하에 놓이게 되였고 남부(파푸아)도 1906년에 오스트랄리아의 식민지로 되였다. 1949년에 오스트랄리아반동정부는 《파푸아와 뉴기니아법》을 조작하여 파푸아뉴기니아를 행정적으로 통합하였으며 두 지대에 대한 련합통치를 실시하여왔다.

1973년 12월 1일에 파푸아뉴기니아가 자치국으로 되였으며 내부문제에 관한 완전한 권력을 오스트랄리아로부터 파푸아뉴기니아정부에 이관할데 관한 새 법령이 채택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이 나라에서는 금, 은, 동, 석유가 개발되고있으며 금은 주요수출품으로 되고있다.

농산물로서는 코코아, 커피, 코프라(야자씨), 고무, 바나나가 있으며 벼와 강냉이도 심고있다. 코프라와 고무는 주요수출품에 속한다. 자원이 풍부한 목재와 물고기도 많이 생산된다.

그러나 지난날 이 나라의 경제는 완전히 식민주의자들의 략탈대상으로 되여왔다.

주민의 대부분은 오스트랄리아원주민과 같은 계통의 파푸아사람들이다. 언어는 멜라네시아말을 쓴다.

누벨깔레도니아

(프랑스해외령)

오스트랄리아의 동북쪽 남태평양상에 있다. (멜라네시아의 남부) 누벨깔레도니아제도는 서북쪽에서부터 동남쪽으로 놓인 좁고 긴 섬들로 이루어졌다. 령토의 3분의 1은 바위산이다.

기후는 봄과 가을이 긴 아열대성기후에 속한다.

넓이 1만 9,103km²

인구 10만명

행정중심지 누메아(주민 5만명)

정 치

해외령의회 형식상 협의기관으로 되여있으나 실권은 프랑스고등판무관이 틀어쥐고있다.

정당, 사회단체; 깔레도니아동맹당, 누벨깔레도니아당 이 두 당은 섬의 자치를 요구하여 투쟁하고있다. **누벨깔레도니아인종운동당** 1971년 1월에 누벨깔레도니아당에서 떨어져나와 조직, **누벨깔레도니아자치로동조합동맹** 1970년 6월에 이 동맹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1744년에 영국인 쿠크에 의하여 발견된후 식민주의자들의 침입을 받아오다가 1853년 프랑스에 병합되였다. 1860년에 프랑스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1958년에 프랑스의 《해외령》으로 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니켈, 크롬, 쇠돌, 코발트, 망간, 동, 금이 채굴되고있다. 특히 품위가 높은 니켈과 크롬광석은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다. 년평균 니켈광석은 150여만톤(니켈 약 1만 7천톤), 쇠돌은 약 20만톤이 생산되고있다.

커피, 코프라(야자씨), 남새를 위주로 하는 농업과 소를 기본으로 하는 목축업, 림업과 수산업이 있다.

경제는 식민주의자들이 틀어쥐고있다.

니켈, 크롬, 쇠돌을 비롯한 광물들을 수출하고 공업제품, 세멘트, 일용품과 식료품을 수입한다.

주민은 백인이 많으며 쟈바인, 통킹인, 원주민들인 멜라네시아인과 파푸아인도 있다.

원주민들은 천주교를 믿는다.

공용어는 프랑스말이며 원주민들은 멜라네시아말 또는 파푸아말을 쓴다.

나 우 루

나우루는 미크로네시아의 마샬군도에 속하여있는 적도 바로 남쪽의 외딴 섬나라이다.

강수량이 비교적 적으며 열대의 태풍도 없다.

이르는곳마다에 야자나무가 무성하며 섬의 대부분이 린광석지대로 되여있다.

넓이 21km²

인구 7,000명

수도 메넹

정 치

립법회의 일원제이며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함메르 데 로바트, 국가수반으로서 임기는 3년이며 립법회의 의원들속에서 선출된다.

정부(국가리사회) 대통령이 총리를 겸한다.

1796년부터 구라파사람들이 기어들기 시작하였으며 1888년에 독일식민지로 되였다.

제1차세계대전시기에는 오스트랄리아침략군이 이 나라를 강점하였으며 그후에는 오스트랄리아, 영국, 뉴질랜드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 일제침략군이 나우루를 강점하였으며 1947년부터는 《유엔후견령》으로 되였다.

민족적독립을 위한 이 나라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나우루는 1966년에 《자치권》을 획득한데 이

어 1968년 1월에는《특별성원국》의 지위를 가진 영련방준가맹국(영련방성원국 수뇌자회의에 참가할 권리가 없다)으로 독립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은 린광석채굴이며 전령토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지역에 린광석이 깔려있다.

1970년 6월에 린광산들을 국유화하였다.한해에 150여만톤의 린광석을 채굴한다.린광석은 이 나라의 주요수출품이다.기계류, 자동차, 일용품, 식량을 수입한다. 철길의 길이는 3마일정도이며 포장도로는 12마일에 불과하다.

오랜 식민지통치와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가혹한 략탈로 인하여 이 나라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뒤떨어졌으며 문화수준도 락후한 형편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미크로네시아계 사람들인데 나우루사람이 3천 500명, 기타 원주민들이 약 2천명정도이다.그밖에 중국사람, 구라파사람 등이 있다.

언어는 미크로네시아계의 말과 영국말을 쓴다.

주민의 40%이상이 신교를 믿고있다.

출판보도 ; 불레찐을 발간하는 정도이다.

방송 나우루방송

통 가

(통가왕국)

태평양의 폴리네시아지역의 서남부와 사모아제도의 동남쪽에 있으면서 통가타푸제도, 하파이제도, 바바우제도로 이루어져있다.

넓이 697km²

인구 8만 5,000명(1970년현재)

수도 누쿠알로파 (통가타푸섬에 있음, 주민 1만 8,000명)

정 치

국왕 타우파아하우 투포우 4세(1965년—), 국가수반이며 국왕직속으로 비빌리사회가 있다.

립법회의 협상기관이며 22명의 의원들로 구성, 현 립법회의는 1969년 5월에 선거되였다.

정부 총리 파타페히 투이펠레하케(국왕의 동생)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거의 전부가 농사를 하고있다.

농산물로서 코프라(야자씨), 바나나, 파인애플, 고구마, 감자, 마니오크 등을 생산한다.특히 코프라와 바나나는 주요수출품이다.소작제가 실시되고있다.축산업과 물고기잡이도 조금 하고있다.

기업소라고 할만한 공장도, 지금까지 알려진 지하자원도 없다.1968년에 크지 않은 석유매장지가 탐사되였으나 미영제국주의석유회사들에 빼앗기고 말았다.

수출품은 코프라, 바나나이며 수입품은 식량, 천, 필수품 등이다.무역은 영국, 오스트랄리아와 주로 하고있다.

통가의 땅은 모두 왕과 33명의 귀족 및 정부의 소유로 되고있으며 평민은 땅이 없다.

영농방법은 원시적이며 농기구는 아직까지도 땅파는 막대기와 칼(산림채벌용)밖에 없다.

주민의 대부분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 신문 크로니클(정부계)

괌 도

괌도는 태평양서부 미크로네시아의 마리아나제도 가운데서 제일 큰 섬이며 미크로네시아의 정치적중심지이다.

넓이 549km²

인구 약 11만명

행정중심지 아가냐

정 치

괌도는 미제의 아세아침략을 위한 중요군사기지이며 태평양에서의 지배권획득을 위한 기지이다.

미제는 1950년 괌도에서 기만적인《민정이관》놀음을 벌리고 저들의 주구들을 내세워 식민지통치를 지금까지 실시하고있다. 미제가 내세운 지사가 이 섬을 통치하고있다.

이 섬에는 미제의 공군 및 해군 기지들과 공급기지가 있다. 특히 미제가 윁남과 라오스 및 캄보쟈에서 침략전쟁을 확대하면서부터 괌도는 놈들의 전략폭격기 출격기지로 리용되였다.《비52》전략폭격기들이 이 섬에 기지를 두고있다.

이 나라의 오로테반도에 있는 아프라항을 비롯한 여러곳에 미제의 큰 해군기지들과 원자잠수함기지가 있다.

괌도는 최근년간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괴뢰들 및 추종국가 우두머리놈들이 자주 모여 아세아침략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침략계획들을 꾸미는 장소로 세상에 알려졌다. 미제의 우두머리 닉슨이 1969년 여름에 바로 이 섬에서 교활하고 음흉한 침략정책인《닉슨주의》의 륜곽을 처음으로 밝혔다.

경제, 사회문화

섬의 많은곳이 미제의 군사기지로 되였기때문에 부침땅넓이는 3,700여에이커에 불과하다.

주요작물은 코프라(야자씨)와 파인애플, 바나나, 사탕수수이다.

이 생산량은 보잘것 없다. 그밖에 강냉이와 고구마, 감자가 난다.

공업에서는 미제의 군사시설과 그 대상들에 대한 건설, 시계조립부문이 있을뿐이다.

무역대상국은 미국과 일본이다.

미제의 우매화정책에 의하여 몇개의 소학교밖에 없고 많은 어린이들이 공부하지 못하고있다. 글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다. 미제는 썩고 병든 자본주의적문화와 생활양식을 이곳 주민들속에 퍼뜨리고있다.

주민들은 대부분 천주교를 믿고있다.

미크로네시아

(유엔후견령)

필리핀동쪽에 있는 마리아나군도, 카롤린군도, 마샬군도를 포함한 2천 100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넓이 1,813km²

인구 10만명

행정중심지 사이판(마리아나군도)

미크로네시아는 제1차 세계대전후부터 일제의《위임통치령》으로 있다가 1947년부터 유엔의《후견령》으로 되였으나 사실상 미제의 식민지로 되고있다.

미제는 오끼나와와 필리핀인민들의 반미투쟁에 부딪쳐 이 지역의 군사기지의 지위가 날로 불안정해짐에 따라 미크로네시아를 제놈들의 아세아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책동하나 이 지역 인민들의 강한 반항에 부딪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은 미크로네시아족이며 필리핀사람과 일본사람, 혼혈인들이 산다.

국 제 회 의

회교국가제2차수뇌자회의

1974년 2월 22~24일까지 파키스탄의 라호르에서 제2차회교국가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2월 18일 이 회의 앞으로 보내신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번 회교국가수뇌자회의는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 유태복고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한 제3세계인민들의 공동의 투쟁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축전에서 또한 이 회의에 참가한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정부수반들, 전체 대표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내시였으며 이 회의가 온갖 형태의 침략과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회교국가인민들의 공동의 리익을 수호하며 단결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되리라고 믿으면서 회의사업에서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하시였다.

회교국가제2차수뇌자회의에는 알제리, 아프가니스탄, 애급, 사우디 아라비아 국가수반들을 비롯한 약 38개 나라 대표단들이 참가하였다. (이라크 옵써버로 참가)

회의에서는 중동사태와 꾸드스를 해방할데 대한 문제, 석유수출금수조치 문제를 토의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모든 나라 대표들은 이스라엘이 강점한 아랍령토를 해방하며 이스라엘침략자들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킬것을 주장하였다. 결과 회의에서 채택된 중동사태와 팔레스티나 아랍인민의 합법적권리회복에 관한 《결의》에는 이스라엘에 점령당한 모든 령토를 온갖 수단을 다하여 해방하기 위한 애급, 수리아, 요르단 및 팔레스티나 인민의 합법적인 투쟁에 전면적이며 효과적인 지원을 주며 1967년에 강점한 모든 아랍땅에서 이스라엘이 지체없이 무조건 철수하도록 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며 아직도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있는 성원국들은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회교국가들의 련대성에 지지를 표명할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꾸드스에서 이스라엘이 즉시 철수할것을 요구하였다.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에서는 꾸드스에 대한 아랍의 주권회복은 중동문제해결의 첫째가는 전제조건으로 되며 이 회복이 없는 그 어떠한 해결책도 회교국가들이 받아들일수 없다는것을 주장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석유를 정치적무기로 하여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알제리혁명리사회 의장 부메디엔은 이 문제에 대하여 《현재의 석유가격을 유지하는것을 지지한다. 석유는 우리가 리용하고 있는 하나의 수단인데 이 수단으로써 우리가 좋은 결과를 달성할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지적하였으며 우간다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이것을 지지하였다.

회의에서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아프리카인민의 투쟁에 대한 지지성원을 계속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회의에서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규탄하고 팔레스티나인민의 합법적권리회복을 지지하는 《중동사태와 팔레스티나아랍인민의 합법적권리의 회복에 관한 결의》, 《꾸드스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라호르선언》을 발표하였다.

회의에서는 호상 경제협조와 자연부원의 보호 그리고 회교국가들사이의 련대성을 강화할 방도를 규정하기 위한 알제리, 애급, 쿠웨이트, 리비아, 파키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세네갈, 아랍추장국련방 등 8개국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회교국가제2차수뇌자회의는 자기 운명을 자신의 손에 틀어쥐고나가려는 제3세계인민들의 확고한 결의를 다시금 시위하였다.

제11차아프리카통일기구 국가및정부수뇌자회의

온 아프리카땅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해방과 자주적발전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환경에서 1974년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쇼에서 제11차아프리카통일기구국가및정부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 6월 12일 제11차아프리카통일기구국가및정부수뇌자회의 앞으로 보내신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번 아프리카통일기구수뇌자회의는 반제반식민주의기치밑에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아프리카인민들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함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축전에서 또한 회의참가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내시였으며 회의가 아프리카에서 식민주의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아프리카를 건설하며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한 이 지역 인민들의 투쟁을 강화발전시키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믿으며 회의사업에서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하시였다.

회의에는 42명의 아프리카나라들의 국가수반들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해방운동지도자들과 그리고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와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대표들이 옵써버로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아프리카나라들이 단결하여 제국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투쟁을 강화하며 제국주의의 경제적략탈과 착취를 반대하고 민족경제를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43건의 문제를 토의하고 성명과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먼저 아랍나라들과 흑아프리카사이의 석유를 둘러싼 분쟁문제, 비식민지화문제 등을 취급하였다. 모든 회의참가자들은 이 문제토의에서 아프리카를 위한 아프리카의 건설이란 리념에서 아프리카의 통일단결을 한결같이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소말리아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바레는 회의가 《아프리카와 아랍의 단결과 경제 및 사회적 협조의 강화》를 보여주었다고 하였으며 나이제리아국가수반 고원을 비롯한 많은 나라 수반들은 《우리 대륙의 단결에 의하여 현실적계획을 작성》해 낼수 있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회의에서는 다음으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프리카나라들의 민족해방투쟁에 전투적인 련대성을 보내였다. 아프리카를 해방하려는 이 대륙인민들의 결의를 보여주는 그럼들과

구호들로 장식된 회의장에서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회의에서 채택된 성명에는 먼저 독립을 달성한 나라들은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민족해방투쟁단체들에 대한 원조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인민들은 자기의 투쟁대오를 튼튼히 결속하여 투쟁을 끝까지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회의에서는 기네—비싸우공화국을 아프리카통일기구성원국으로 정식 가입시키고 이 나라에 100만 파운드의 원조금을 주기로 하였으며 다른 민족해방투쟁조직들에도 원조를 주기로 하였다.

회의에서는 다음으로 아프리카나라들사이에 경제적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토의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아프리카나라들사이에 각 분야에 걸치는 협조를 강화할것을 호소하면서 특히 경제분야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을 반대하고 아프리카나라들사이에 기술을 교환하여 아프리카경제를 발전시키자고 호소하였다. 아랍나라들은 아프리카나라들을 위하여 2억딸라를 지원하고 석유를 우선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아프리카나라들이 로데시아와 남아프리카 인종주의자들을 부추기고있는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을 《제재자명단》에 넣고 그놈들이 인종주의자들과 관계를 가진다면 이로부터 초래되는 후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회의에서는 제12차아프리카통일기구수뇌자회의를 1975년 6월에 우간다에서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까메룬대표 므부무아를 이 기구의 사무총장으로 새로 선출하였다.

제11차아프리카통일기구수뇌자회의의 전과정은 이 기구가 창설된 이후 그 어느 회의보다도 아프리카나라들이 반제반식민주의의 기치밑에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굳게 통일단결되여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제11차 아프리카통일기구수뇌자회의는 해방과 자주를 위한 아프리카나라들의 투쟁에서와 아프리카통일기구의 강화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제7차아랍국가수뇌자회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7차아랍국가수뇌자회의에 보내신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번 아랍수뇌자회의는 제국주의와 유태복고주의를 반대하고 아랍 해방과 통일을 위한 아랍인민들의 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1974년 10월 26~29일까지 마로끄의 수도 라바트에서 아랍국가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아랍련맹 20개 나라 수반들을 비롯한 각 나라 대표들과 팔레스티나해방조직대표 등이 참가하였다.

수뇌자회의에 앞서 외교부장들의 예비회의가 진행되였다.

수뇌자회의에서는 중근동정세, 아랍나라들의 경제 및 군사적 협조, 아랍나라들과 아프리카나라들사이의 관계문제들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요르단강서안의 장래문제를 둘러싼 팔레스티나해방조직과 요르단간의 문제, 중근동에서의 평화를 이룩할데 대한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토의하였으며 중근동문제를 속히 해결할데 대하여 일치하게 주장하였다. 또한 팔레스티나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회의참가자들은 팔레스티나문제의 해결을 확인하고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을 팔레스티나인민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대표로 인정하였으며 이 조직의 지도밑에 민족적인 정권을 수립하도록 아랍인민들이 지지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회의에서는 중근동문제해결방도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았다. 회의에서는 수리아와 애급의 공동제안에 기초하여 시나이반도, 골란고원, 요르단강 등 각 전선에서의 개별적 및 부분적 해결의 거부와 이스라엘침략군의 완전철수 그리고 제네바중동평화회의를 빨리 소집할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회의에서는 중근동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함과 함께 아랍나라들이 군사력을 일층 강화하여 강점된 모든 아랍땅에서 이스라엘침략군을 완전히 내쫓아야 한다는것을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이스라엘침략자들과 대결하기 위하여 앞으로 1년내에 23억 5천만딸라를 아랍나라들로부터 징수하여 애급과 수리아 (각각 10억딸라정도), 요르단 (3억딸라),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소말리아 등에 주기로 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중근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석유를 무기로 사용할것을 결정하였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앞으로 아랍—아프리카사이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수뇌자회의를 열기로 하였다.

이렇듯 제7차 아랍국가수뇌자회의는 아랍나라들의 단결을 시위하고 미제와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국제의회동맹 제61차총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은 세계의 많은 형제당들과 나라들, 세계의 수많은 혁명조직들과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92페지)

우리 공화국의 비상히 높아가고있는 국제적지위는 국제의회동맹 제61차총회를 통해서도 남김없이 시위되였다.

1974년 10월 2—1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일본 도꾜에서 국제의회동맹 제61차총회가 진행되였다.

이 회의에는 74개 성원국들가운데서 우리 나라 대표단을 비롯한 63개 나라의 대표들과 5개의 국제기구대표들 약 600명이 참가하였다.

총회에서는 국제긴장상태가 완화되는 조건에서 군비축소문제, 중동정세, 세계에서의 고문문제, 에네르기위기문제, 청소년교육, 인종차별문제 등 9가지 문제들이 의정에 상정되였다.

의정 첫째문제인 국제긴장상태완화문제를 토의할 때 우리 나라 대표단은 조선에서의 긴장상태를 가시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아세아 및 세계평화와 직접 관련되는 문제이라는것을 강조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방침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두개조선》조작책동을 폭로규탄하고 《유엔군》의 간판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외국군대를 철수시키며 조선문제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일체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회의의 많은 참가자들은 우리 대표단의 연설에 대하여 적극 지지하였으며 일본의 출판방송들은 이를 대서특필하였다.

회의에서는 수리아, 세네갈, 몽골, 체스꼬슬로벤스꼬,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등이 우리의 립장을 지지하여 발언하였다.

비할바없이 높아진 우리 나라의 국제적 권위와 위신, 제3세계나라들의 단결된 힘앞에 위압된 미일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들은 제놈들의 불

리한 처지를 모면해보려고 온갖 비렬한 책동을 다하였다.

남조선괴뢰대표놈은 회의장에서 판에 박은 소리를 몇마디 되풀이하고서는 회의분위기를 딴데로 돌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남조선괴뢰들은 사실을 날조하여 허위선전을 늘여놓으려다가 회의의장인 수단대표로부터 두세번이나 경고를 받았다.

수단대표단의 한 성원은 남조선괴뢰가 연설하자 뒤이어 연단에 나가 남조선에서 고문과 악행이 감행되는데 대하여 신랄히 폭로규탄하였다.

세번째의정인 고문문제토의에서 우리측은 박정희파쑈악당의 각종 고문현상과 비인간적박해, 테로, 탄압 행위에 대하여 자료와 사진들을 가지고 신랄히 폭로규탄하였다.

그러나 남조선괴뢰들은 고문문제토의에서도 흑백을 전도하면서 우리측을 헐뜯는 미친나발을 불어대였다.

회의에서 남조선괴뢰들의 교활한 책동에 대비하여 10월 3일과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회그루빠대표단의 대표는 일본국회의사당기자회견실에서 일본의 내외기자들과 만났다.

거기에는 일본의 각 신문, 통신, 방송 기자들과 여러 나라 기자들, 총련산하 기자들과 남조선기자들이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우리 나라 대표는 먼저 《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는것은 오늘 막을수 없는 시대적요구로 되고있다고 지적한 다음 정세가 저들에게 불리하게 되자 미제국주의자들이 미제침략군이 《유엔군》이 아니라는 황당한 궤변을 들고나오면서 저들의 침략군이 남조선에 계속 눌러있도록 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사실을 발가놓았다.

그는 또한 남조선괴뢰의 《대표》가 연설에서 《유엔군》이 남조선에 계속 주둔해줄것을 애걸한것은 바로 민족의 리익을 배반하는 남조선괴뢰들의 정체를 그대로 내보인것이라고 폭로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남조선괴뢰도당이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란폭하게 위반하고있을뿐아니라 남조선《대표》가 남북공동성명을 헐뜯는 악의에 찬 망발을 줴친것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우리 나라 대표는 또한 세계에서의 고문문제에 관한 토의에서 남조선《대표》가 흑백을 전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권위를 헐뜯는 망발을 줴친것과 관련하여 남조선괴뢰도당이 애국자들과 민주인사들, 청년학생 및 지식인들 지어는 종교인들에게까지 잔인무도한 야수적인 고문을 가하고있는것을 전세계가 폭로단죄하고있는데 대해 지적하였다.

기자회견후 일본의 통신, 방송들은 남조선괴뢰들의 너절한 행동을 폭로하고 쓴 웃음을 지었다.

국제의회동맹 제61차총회에서 우리 나라 대표단은 《아세아와 세계평화에 부합되게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할데 대하여》를 다음번 리사회와 총회의정으로 상정시킬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서기국에 제출하였다. 회의에서는 찬성 19, 반대 14, 기권 9표로 조선문제를 다음해 국제의회동맹 총회의정에 상정시키기로 결정하고 집행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우리 나라 대표단은 중동정세, 에네르기문제, 청소년교육문제 등의 의제에 대한 토론에도 참가하여 정당한 견해와 립장을 내놓음으로써 회의참가자들의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렇듯 국제의회동맹 제61차총회에서의 우리 나라 의회그루빠대표단의 공명정대한 립장과 주장들은 회의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나라 의회그루빠대표단은 모든 활동을 통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원칙적이며 자주적인 대외정책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정당성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국제의회동맹 제61차총회의 전과정은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높은 국제적권위와 위신, 그이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의 정당성으로 하여 미제와 반동들의 온갖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혁명의 지지자, 동정자 대렬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환경이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여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회의에서는 9개 의정에 대한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제3세계청년대회

1974년 7월 6~12일까지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제3세계청년대회가 진행되였다.

전아프리카청년운동과 알제리민족해방전선 청년조직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 대회에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50여개 나라 대표들과 민족해방운동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는 우리 나라 사로청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제3세계인민들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의 행동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 제3세계나라들의 경제적로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서 청년들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제3세계청년조직을 내올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대회는 7월 8일까지 전원회의를 하고 9일부터는 정치분과와 경제분과로 나누어 비공개로 진행되였다.

알제리청년대표단 성원이 정치보고를 하였다.

정치보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제3세계청년들은 전투적인 목표의 공통성과 평화와 정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공통성으로 하여 밀접히 결합되여있으며 자기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투쟁하고있다.

제3세계에서 더욱 강화되고있는 민족해방투쟁과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에게 가하고있는 심대한 타격은 이 투쟁의 정당성을 실증해주고있으며 제국주의는 결코 강적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식민지기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인민들을 지원하고 그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제3세계인민들의 해방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요인이며 우리의 의무로 되고있다.

아프리카대륙의 많은 지역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야수적탄압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은 손에 무장을 잡고 자유를 위하여 제국주의와 인종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다.

제3세계나라들은 이 투쟁을 지원하여야 하며 제국주의자들과 인종주의자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고립시켜야 한다.

제3세계청년들이 나라의 경제를 공고히 하며 번영하는 자주적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경제보고에서는 작은 나라, 발전하지 못한 나라들을 예속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제 《원조》의 략탈적본성을 낱낱이 폭로하고 제3세계청년들이 자립적이고 번영하는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동원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외부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나라의 리해관계에 맞는 자체의 공업을 창설해야 하며 3세계 나라들이 공동행동, 단합된 력량으로 나가야 하며 자립적이며 진보적인 경제를 건설하는데 인민대중을 동원하여야 한다

고 지적하였다.

분과회의들에서는 우리 나라 사로청 대표단 단장을 비롯한 여러나라 대표들이 연설하였다.

우리 나라 사로청대표단 단장은 정치분과회의에서 《제3세계인민들과 청년들의 반제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경제분과회의에서 《경제적자립은 부강하고 문명한 독립국가건설의 필수적조건이다》라는 제목으로 연설하였다.

회의참가자들과 여러 나라 연설자들은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과 청년들이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은 제3세계인민들이 따라배워야할 모범으로 되며 그들의 투쟁을 고무하여주고있다.》라고 지적하였다.

대회에서는 정치선언, 최종선언을 비롯하여 10여개의 문건들을 채택하였다.

대회에서 채택된 정치선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대회는 제3세계인민들을 반대하는 제국주의렬강들의 침략과 침략위협, 놈들의 탄압을 규탄하며 제3세계청년들과 인민들이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힘을 강화하며 그 영향력을 확대할것을 호소한다.

대회는 제3세계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 국제법과 규범을 유린하는 놈들의 죄행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련대성운동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치선언은 계속하여 강점당한 령토로부터 유태복고주의자들을 내몰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아랍인민들의 정의의 투쟁과 합법적권리회복을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에 지지를 표시하고 기네—비싸우 및 베르데갑제도, 모잠비끄, 앙골라,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짐바브웨인민들에 대한 식민주의자들의 학살만행을 규탄하며 그를 종식시킬것을 요구하였다.

정치선언은 또한 아세아와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정치선언은 대회가 세계적범위에서 반제투쟁을 강화하며 제3세계의 광범한 련대성운동에 적극 참가할것을 아프리카, 아세아, 라틴아메리카 청년들에게 호소하며 세계의 진보적청년들과 사회주의나라청년들, 구라파와 북미주의 민주청년들이 민주주의와 평화, 사회적진보를 위한 제3세계청년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할것을 호소하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와 유태복고주의,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며 해방과 독립, 자주성과 평화, 경제적발전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제3세계청년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려는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제3세계청년대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할데 대하여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지적하였다.

대회에서 채택된 정치강령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자주권과 독립을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고 제3세계인민들과 청년들이 반제투쟁에서 서로의 련대성과 단결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대회에서 채택된 최종선언은 억압받는 제3세계 인민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강한 투쟁을 전개하고있으며 자기들의 력사적지위를 되찾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음을 확언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최종선언은 계속하여 제3세계나라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근동 등 세계 여러곳에서 감행하고있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파시즘, 유태복고주의, 인종주의의 침략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세계의 모든 청년들에게 무조건적인 련대성을 보낸다.

제3세계청년대회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보고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 5대방침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제안들에 대한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대회에서 채택된 정치선언과 정치강령들에서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는것을 지적하였다.

제3세계청년대회는 마지막날인 7월 12일에 《조선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974년 7월 6일부터 12일까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의 수도 알제에서 진행된 제3세계청년대회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한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때로부터 2년이 지났으나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조선의 통일도상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있다는데 대하여 주의를 돌리면서

1, 조선의 통일은 반드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그를 구현하기 위한 애국애족적인 조국통일 5대방침에 기초하여 실현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미국이 조선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의 평화애호적인 제의를 지체없이 받아들여야 하며 《유엔군》의 간판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자기 군대를 당장 철수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조선의 통일을 반대하고 분렬을 영구화하여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인 행위를 조선 인민과 청년 그리고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에 대한 도전으로 견결히 규탄한다.

4, 반파쑈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한다.

5, 조선인민과의 국제적련대성월간(6.25부터 7.27까지)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과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실제적이며 효과적인 련대성 조치들을 취할것을 제3세계청년들에게 호소한다.

제3세계 청년대회는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에게 억압받고 천대받던 제3세계인민들과 청년들이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으며 자주의 기치밑에 통일단결된 제3세계청년들의 거세찬 전진운동은 이 세상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아세아에서의 빈궁과 실업에 관한 쎄미나르와 아세아 학생협회 제4차대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은 세계의 많은 형제당들과 나라들, 세계의 수많은 혁명조직들과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많은 혁명동지들과 벗들을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끊임없이 강화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92페지)

1974년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오스트랄리아의 멜보른에서 아세아에서의 빈궁과 실업에 관한 쎄미나르가 진행된데 이어 아세아학생협회 제4차대회가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였다.

쎄미나르와 대회에는 조선학생위원

회대표단과 재일본조선학생위원회대표단을 비롯하여 18개 나라에서 온 19개 민족단체대표단과 국제기구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아세아학생협회 제4차대회에서 오스트랄리아 부총리 이. 케언즈가 개막연설을 하였으며 이어 아세아학생협회 총서기의 사업총화보고가 있었다. 그는 조선학생위원회대표단의 대회참가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또한 재일조선학생위원회 대표단의 대회참가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대회에 참가한 모든 나라 대표들이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인 탄압과 놈들의 민족분렬책동을 규탄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 민족적독립을 위한 아세아학생들의 투쟁을 개괄하고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경제적침투를 규탄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학생위원회 대표단과 재일본조선학생위원회 대표단 단장을 비롯한 여러 나라 대표들의 축하연설이 있었다.

대회에서는 최종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최종콤뮤니케는 아세아에 대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경제적침투를 규탄하고 아세아에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미제를 아세아의 모든곳에서 몰아내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팽창야망을 꺾어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에 관한 결의》, 《재일조선학생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결의》, 《4월 1일을 아세아와 세계에서 세금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의 날로 정할데 대한 호소》 등이 채택되였다.

우리 나라를 지지하여 채택된 결의와 호소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과 정부의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의 또 하나의 승리의 표시이다.

아세아학생협회 제4차대회에서 채택된 《조선에 관한 결의》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과 조국통일 5대방침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과 청년학생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발기를 미국이 오늘까지도 받아들이지 않고있는것은 그들이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버리지 않고있으며 그들이 말하는 《평화》란 가짜평화라는것을 보여준다.

대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기한 평화애호적인 발기를 미국이 지체없이 받아들이고 남조선에서 자기의 침략군대를 모조리 철거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이 조선에서뿐아니라 아세아 전지역에서 커다란 위험으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확대발전시킬것을 아세아 각국 청년학생들에게 호소한다.

4, 아세아학생협회와 아세아의 진보적인 청년학생들은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에 대한 남조선당국자들의 중세기적인 파쑈적만행을 아세아에서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란폭한 유린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준렬히 규탄한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체포구금된 모든 애국적인 학생들을 무조건 석방하며 모든 비인간적인 탄압과 박해와 고문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5, 아세아학생협회 제4차대회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체포된 《민청학련》 관계자들과 애국적인 민주인사들을 석방시키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해마다 4월을《반파쑈민주화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월간》으로 설정한다.

아세아학생협회 제4차대회에서 채택된 《4월 1일을 아세아와 세계에서 세금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의 날로 정할데 대한 호소문》 (요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수억만인민들이 오랜세월에 걸쳐 조세제도를 끝장내기 위하여 진행하여온 투쟁에서 이룩된 위대한 세계사적 승리이며 인류의 해방과 진보를 위한 사업에서 거대한 사회정치적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이다.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며 모든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세상에서 세금없는 첫 나라로 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아세아와 제3세계 인민들의 고무적인 모범으로 되고있다.

세금제도를 없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력사적인 조치는 외래독점자본가들의 경제적략탈과 반동지배계급의 가혹한 세금수탈로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있는 우리 아세아와 세계 여러나라 인민들과 청년학생들 속에서 커다란 관심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아세아학생협회 제4차대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세금제도를 없앤 조치가 가지는 거대한 세계사적 의의와 인류의 해방과 권리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위업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해마다 4월 1일을 아세아와 세계에서 세금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의 날로 정할것을 모든 성원단체들에 호소한다.

아세아학생협회 제4차대회에서 채택된 《재일본조선청년학생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결의》 (요지)

대회는 일본당국이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탄압과 박해를 그만두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제3국에로의 려행의 자유를 비롯한 그들의 모든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세아학생협회 제4차대회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 박정희괴뢰도당의 《두개 조선》조작책동과 남조선괴뢰도당의 파쑈독재를 반대하며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재일조선청년학생들에게 강력한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

전아프리카학생동맹 제3차 대회

1974년 11월 17~19일까지 애급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전아프리카학생동맹 제3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아프리카 20여개 나라에서 온 학생단체대표단들과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투쟁단체대표들 기타 여러 나라 대표단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는 재일본조선학생위원회 대표단이 참가하여 연설하였다.

대회의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을 반대하고 아프리카대륙의 완전해방을 위한 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들을 강조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은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방침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과 학생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에 관한 결의》, 《전체 조선학생들에게 보내는 련대성편지》, 남조선에 있는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토의와 관련한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 보내는 요청서》,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인 매국행위를 단죄규탄하는 항의문을 채택하였다.

조선에 관한 결의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1, 대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조국통일 5대방침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선 인민과 청년학생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

2, 대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의 발기를 미국이 지체없이 받아들이고 남조선에서 자기의 침략군대를 모조리 철거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회는 또한 지금 진행되고있는 유엔총회 제29차회의가 미제에 의하여 비법적으로 조작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기 위한 응당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채택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할데 대한 결정내용이 실현되도록 백방으로 노력할것을 요구한다.

3, 대회는 남조선의 진보적인민들과 애국적청년학생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면서 그들에 대한 박정희파쑈도당의 탄압만행을 정의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전세계 진보적청년학생들에 대한 엄중한 도전행위로 인정하고 단호히 단죄한다.

박정희군사깡패무리들은 부당하게 체포구금한 모든 애국적인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을 즉시 무조건 석방하며 모든 비인간적인 탄압과 박해와 고문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4, 대회는 이른바 《박정희저격사건》을 꾸며내여 반공화국선전과 총련탄압에 광분하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과 그를 적극 부추겨 남조선재침책동을 강화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음흉한 책동을 견결히 규탄하면서 총련과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탄압과괴책동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조국에로의 래왕을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재일본조선학생위원회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5, 대회는 매해 7월을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 학생들과의 련대성월간》으로 설정할것을 결정한다.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 보내는 요청서》에는 《전아프리카학생동맹 제3차대회는 이번 유엔총회가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결의를 반드시 채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요청서를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 참가한 모든 성원국들에 알려줄것을 요청한다.》고 지적하였다.

원료 및 개발 문제에 관한 유엔총회 특별회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진행중에 있는 원료 및 개발문제에 관한 유엔총회 특별회의에서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이 제국주의렬강의 경제적 침략과 략탈에 단합된 힘으로 대항해나서고있습니다.

이것은 제3세계인민들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력사무대에 주인으로 등장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또하나의 뚜렷한 실례로 됩니다.》

1974년 1월 31일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혁명리사회 의장이며 내각총리인 후아리 부메디엔은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의장의 자격으로 《발전된 나라들》과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사이에 평등과 자주권에 기초한 보다 정당하고 균형적인 발전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원료 및 개발 문제를 포함한 국제경제문제를 토의할 유엔비상총회를 소집할것을 제기하였다.

부메디엔의장의 제안은 제3세계나라들뿐아니라 사회주의나라들 나아가서 많은 서방자본주의나라들속에서까지 지지를 받았다.

이 제안은 나온지 한달도 못되여 유엔성원국 135개 나라중 130여개 나라의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기초우에서 1974년 4월 9일부터 5월 1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원료 및 개발 문제에 관한 유엔총회 특별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을 비롯한 135개 나라에서 온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제국주의의 착취와 략탈, 통제를 반대하고 제3세계나라들의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지키며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며 자연부원을 보호할데 대한 문제 등을 토의하였다.

회의는 자주의 기치밑에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공동의 지향에 기초하여 단합된 제3세계인민들과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진행되였다.

유엔총회 특별회의에서 제3세계나라 인민들은 단합된 힘으로 제국주의렬강의 경제적 침략과 략탈에 맞서 싸웠으며 국제경제관계에서의 불평등과 제국주의자들의 통제, 착취와 략탈의 낡은 제도를 없애고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제도를 수립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부메디엔의장은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천연자원의 국유화, 가격결정권의 확립 등을 주장하였다. 나이제리아, 자이르 등 여러 나라 대표들은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 불평등한 국제관계를 강요하고있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각국 민족경제에 대한 외국의 통제를 없앨것을 요구하였다.

부룬디, 세네갈, 꽁고, 우간다 등 나라 대표들은 제3세계나라들이 착취와 략탈로 치부하고있는 부유한 나라들을 규탄하고 민족적부원에 대한 자주권을 고수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의 이와 같은 목소리는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함으로써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려는 제3세계나라들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였다.

제3세계나라들의 진출과 단합된 힘을 몹시 두려워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회의를 파탄시키며 제3세계나라들을 분렬시켜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특히 미제는 제3세계나라들에 대하여 위협공갈하면서 자원에 대한 국유화의 권리와 기타 제3세계나라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수 없게 하려고 마지막까지 발악하였다.

그러나 놈들의 책동은 제3세계나라들의 단합된 힘앞에서 파탄을 면치 못하였다.

회의는 완전히 제3세계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을 내려누르고 자기들의 요구와 의사에 따라 진행한것으로 특징지어졌다.

유엔이 창설된 이래 이러한 회의가 진행된것은 첫 일이다.

회의에서는 제3세계나라들의 의사와 주장을 기본으로 반영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수립에 관한 선언》과 《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

유엔총회특별회의의 소집과 회의 전과정은 우리 시대 발전의 근본적인 전환과 국제정치무대에서의 력량관계의 심각한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제3세계 인민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었다.

회의는 제3세계인민들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력사무대에 당당히 등장하고있으며 제국주의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고립되고 죽음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다는것을 움직일수 없는 사실로써 더욱 똑똑히 확증해주었다.

이 모든것은 제3세계나라들이 반제자주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이룩한 또 하나의 큰 승리이며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타격으로 된다.

1974년 5월 1일 원료 및 개발문제에 관한 유엔총회 특별회의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수립에 관한 선언》 (일반선언)

유엔성원국들은 자원과 개발의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특별총회를 개최한다.

각 성원국은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있는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를 심의하고 전인류의 경제적발전과 사회적련대성을 촉진한다는 유엔헌장의 정신, 목적, 원칙에 비추어 각국의 경제사회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공평, 주권의 평등, 호상의존, 각국에 공통적인 리익과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해 긴급히 행동한다는 일치한 결의를 엄중히 선언한다.

1, 세계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세계 소득의 30%밖에 차지하지 못하고있다. 지금까지 기존 국제경제질서밑에서 국제사회의 공평하고도 균형이 잡힌 발전은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발전된 나라》와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 사이의 간격은 계속 늘어나고있다.

2, 현행국제경제질서는 현재의 국제정치, 경제정세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1970년이래 세계경제가 직면한 일련의 심각한 위기는 특히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강대한 세력으로 되여 국제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게 성장하였다.

이 국제관계에서의 변화는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국제사회에 관한 모든 결정에 적극적이며 전면적으로 대등하게 참가하는것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3, 이러한 변화는 국제사회의 모든 나라들의 호상의존관계라는 현실을 두드러지게 하였다.

현재의 정세는 《발전된 나라들》과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리익이 벌써 떼여놓을수 없다는것, 《발전된 나라들》의 번영과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발전, 개발과의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것, 국제사회전체의 번영은 각국의 번영에 달려있다는것을 명확히 인식시켰다.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은 모든 나라들의 공통적인 목적이며 공동의 의무이다.

4,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전면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

각국의 주권의 평등, 전인류의 자결, 무력에 의한 령토획득의 불승인, 령토완정, 타국내정에 대한 불간섭

공평한 원칙에 기초한 모든 나라들의 가장 광범한 협력

모든 나라들의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국제경제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전면적이며 효과적인 참가

각국의 개발에 가장 적합한 경제사회제도를 도입할 권리

다국적기업활동의 규제에 대한 감시.

자국의 천연자원과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영구주권과 자원을 지키기 위해 각국은 국유화의 권리 또는 자국에로의 소유권의 이관을 포함하여 자국의 정세에 적합한 수단으로 천연자원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국가의 영구주권의 표현이나 어떠한 나라도 이 빼앗을수 없는 권리의 자유롭고도 전면적인 행사를 저지하려는 경제적, 정치적 기타 어떠한 강제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모든 국가 및 외국지배, 식민지지배 또는 인종격리정책의 차별밑에 있는 령토의 인민이 그의 해방을 실현하고 자기들의 천연자원과 경제활동에 대해 효과적지배를 회복할 권리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과 외국의 지배밑에 있는 령토와 인민에 대한 원조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수출하는 원료, 1차산품, 공업완제품, 반제품의 가격과 그리고 발전도상에 있는나라들이 교역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료, 1차산품, 공업품, 자본재의 가격간의 공정하고도 평등한 관계

정치, 군사 정세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 원조를 적극 제공할것

국제통화제도개혁의 주되는 목적의 하나로서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개발과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자원의 충분한 류입을 촉진할것

합성품과의 경쟁에 직면하고있는 천연자원의 경쟁력강화

국제경제협력의 모든 분야에서의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특혜적 대우의 제공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재정적자원의 이전을 위한 조건개선.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성과의 개방

식료품을 포함한 천연자원의 랑비배제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개발을 위해 자기 자원을 전면적으로 사용할 필요성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 사이의 특혜의 원칙에 기초하는 경제, 무역, 재정, 금융면에서의 협력의 강화

생산국련합들이 국제협력의 테두리내에서 각각 자기의 목적에 따라 수행할수 있는 역할의 촉진 특히는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장성과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가속적인 발전의 촉진

선언은 끝으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확립에 관한 이 선언이 모든 민족들과 인민들 사이의 경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의 하나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제3차유엔해양법회의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제3세계나라인민들속에서는 정치적자주권을 수호할뿐아니라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제국주의독점체들의 경제적지반을 허물어버리며 빼앗긴 자기 나라 자연부원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 더욱더 높아가고있습니다.》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단행본, 7페지)

1974년 6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 베네수엘라의 수도 까라까스에서 제3차유엔해양법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137

개 나라와 지역 및 국제기구 대표들 약 3천여명이 참가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령해와 경제구역의 폭, 국제항행에 리용되는 해협, 어업, 해양자원의 보호 및 개발, 해양환경보호 그리고 국제규범 등에 관한 새로운 해양법을 작성할데 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개막회의에서 베네수엘라대통령은 제3차해양법회의의 커다란 의의를 강조하고 그 어떤 해양법도 만약 그것이 가난한 나라들과 덜 발전한 나라들을 모욕하고 그에 손해를 끼치는 큰 나라들의 특권으로 된다면 그것은 합리적인것이 될수 없으며 평등과 국제적인 민주주의적공정성을 기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회의에서는 각 지역뻘려들의 대표들과 꼬스따 리까, 바베이도즈, 가네, 아랍추장국련방 등 수십개 나라 대표단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한결같이 연안국가들이 200마일령해권을 설정할수 있는 권리를 지지하고 최대한도 200마일수역은 그 연안국가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그 나라 자주권의 관할하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페루대표단 단장은 연설에서 이 회의의 근본목적은 대국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 리익을 위해 작성된 현해양법을 새롭고 합리적인 해양법으로 교체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3개 위원회들에서 실무적인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위원회들에서는 새 해양법의 여러가지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국가주권과 해양자원을 지키기 위한 제3세계나라들의 투쟁에는 리롭게, 해양패권주의자들에게는 집중적인 타격을 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였다. 제3세계에서 온 많은 나라 대표들은 위원회들에서 새 해양법문제에 관한 건설적인 제안들을 내놓았다.

제1위원회에서는 국가관할권밖에 있는 해저자원의 개발과 그러한 개발에 관한 국제적권한과 관리에 대한 제안을 토의하였다. 이 제안에 의하여 해저 및 그의 자원에 대한 모든 권한은 국제적기구에 속하게끔 되였다. 이 국제적기구는 부여된 효과적인 통제수단을 가지고 직접 또는 협약, 공동투자 및 그가 들어간 협회의 다른 형식들을 통해 해저자원을 개발할 권리를 을 가지고있다. 이 제안의 일부 조항들은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리익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며 그 어떤 나라가 어떤 형태로든지 해저자원을 독점적으로 소유하며 독단적으로 개발하는것을 방지할것을 목적하고있다. 이 제안은 중국, 로므니아, 알바니아 등 100여개 나라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 제안에 대처하여 미제는 독점체들에 해저자원을 개발할 특권을 부여할것을 추구하는 제안을 내놓았다.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과 일본도 이와 비슷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많은 나라 대표들은 그 제안들을 반대하였다. 쟈메이카대표는 미제의 제안이 완전히《상인의 성명》이라고 내놓고 폭로하였다.

한편 제2위원회는 대륙붕, 공해에서의 고기잡이 우선권, 륙지로 폐쇄되여있는 나라들의 권리, 군도원칙을 비롯한 기타 문제들에 관해 토의하였다.

이 위원회에서의 토의들은 200마일해양권을 지키기 위한 제3세계의 투쟁은 막을수 없는 세계적운동이라는것을 새롭게 보여주었다. 100여개 나라가 제기된 200마일경제지역을 지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200마일경제지역에 대한 연안국가들의 독립적인 권리를 거부하였으며 지어 군함을 포함한《모든 선박》들이 다른 나라의 령해내에 있는 해협을《자유롭게 통과》해야 한다고 고집하였다. 놈들의 패권주의적책동은 제3세계나라들로부터 또다시 타격을 받았다.

제3위원회에서는 해양에 대한 과학적연구, 해양환경의 보호 및 기타 관계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단 새로운 해양법조약초안의 기초로 되는 의견을 종합하고 이에 기초하여 다음번 회의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하게끔 하였다.

다음번 회의는 1975년 3월 17일~5월 3일까지 (가능하면 5월 10일까지 연장한다.) 제네바에서 진행한다고 합의하였다.

회의의 전과정은 오늘 제3세계나라 인민들속에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정치적지배와 경제적략탈을 반대하고 민족적자주권과 자연부원, 령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강화되고있으며 특히는 제국주의자들의 략탈에 유리하게 세워진 현해양질서를 제3세계나라들의 리익에 맞게 새로 뜯어고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유엔총회 제29차회의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번 유엔총회 제29차회의의 진행과정은 제3세계나라들이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유엔안에서도 제국주의렬강들이 국제문제들을 제멋대로 처리하던 낡은 질서를 깨여버리고 제3세계인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새로운 질서를 세울수 있으리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1974년 9월 18~12월 18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 제29차회의가 진행되였다.

개막회의에는 135개 성원국 가운데서 133개 성원국이 참가하였다.

총회 의장으로는 알제리외교부장 부떼플리까가 선출되였다.

총회는 조선문제를 비롯한 113개 의제를 토의하였다.

조선문제를 비롯한 주요정치문제들은 총회와 정치위원회(제1위원회)에서 토의되였다.

제3세계나라들은 총회에 상정된 주요한 정치문제 의제들인 조선문제, 유엔에서의 캄보쟈의 대표권문제, 팔레스티나의 자결권과 독립권 문제, 유엔에서의 남아프리카인종주의의 제거문제, 남아세아, 인도양, 중동, 아프리카에 비핵지대를 창설할데 대한 문제, 비식민지화문제 등의 토의에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신구식민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식민주의, 인종주의 정책을 신랄히 폭로규탄하고 그 범죄적책동을 준렬히 단죄하였다.

또한 사회주의나라들과 제3세계나라들은 반제자주독립과 평화의 리익을 반영하여 총회에 상정한 일련의 진보적결의들의 채택을 위하여 힘을 합쳐 투쟁하였다.

그리하여 제29차유엔총회를 제놈들의 침략적, 반동적 목적에 리용하며 국제문제들을 제멋대로 처리해보려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어리석은 기도를 여지없이 부셔버리고 유엔의 연단을 제3세계를 비롯한 진보적세력들의 판으로 만드는데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사회주의나라들, 제3세계와 진보적력량들의 힘있는 투쟁에 의하여 유엔 제29차총회에 상정되였던 많은 정치결의들이 그들의 뜻대로 성과적으로 채택되였다.

9월 30일 유엔총회에서는 총회의 석을 차지할 남아프리카대표단의 권리를 98대23, 기권 14표로 부결하였다. 또한 많은 나라 대표들은 남아프리카를 유엔에서 추방할것을 요구하였다.

11월 12일 유엔총회에서는 유엔에서 남아프리카의 투표권과 발언권을 이번 총회중에 정지한다는것을 결정하였다.

10월 14일 유엔총회는 미국, 영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세계반동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을 11월에 있을 팔레스티나인문제토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하기로 결정하였다.

11월 13일 팔레스티나문제를 토의하는 유엔총회에서 이스라엘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팔레스티나문제를 토의한 유엔총회 본회의는 11월 22일 팔레스티나의 민족자결권, 독립권, 조국복귀권 등을 요구하는 아랍 및 쁠럭불가담 37개국 공동결의안을 채택하였다.

11월 22일 유엔총회 제29차회의 전원회의에서는 팔레스티나인민의 합법적권리를 인정하며 팔레스티나인민의 유일하게 합법적인 대표인 팔레스티나해방조직에 상임옵써버의 자격을 부여할데 대한 결의들을 압도적다수의 찬성으로 각각 채택하였다.

1974년 11월 14일 유엔총회 제29차회의 제1위원회 (정치위원회)는 인도양을 평화지역으로 만들데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결의안은 인도양을 평화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큰 나라들이 인도양연안국가들과 곧 협상을 갖고 이 지역에서 외국의 모든 군사기지들을 철폐하며 군사력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결의안은 인도양에서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고 평화와 안전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첫조치로서 큰 나라들이 이 지역에서 군사적존재의 증대와 강화를 삼가할것을 호소하였다.

유엔총회 제29차회의 제1위원회는 11월 21일 아프리카를 핵무기없는 지역으로 만들데 대한 결의안을, 22일에는 중근동을 핵무기없는 지역으로 만들데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아프리카를 핵무기없는 지역으로 만들데 대한 결의안은 이 지역 나라들이 아프리카대륙에서 핵무기를 시험, 생산, 배치, 수송, 축적, 사용하지 말며 아프리카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다른 나라들을 돕지말것을 요구하였다.

11월 20일 유엔총회 제29차회의 제1위원회는 남아세아에 핵무기없는 지역을 창설할데 대한 파키스탄의 결의안을 압도적다수의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결의안에는 남아세아지역국가들이 자기들의 관할하에 있는 핵물질 및 시설들을 오직 평화적목적에만 사용하고 어떠한 핵무기나 핵발사기의 시험, 생산, 사용, 획득 및 축적도 하지 않는다는것을 공약하며 이에 대한 검증 및 시찰 체계를 수립하며 핵무기를 소유한 나라들이 남아세아지역 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것을 약속할데 대한 문제들이 지적되였다.

유엔총회 12월 13일회의에서는 짐바브웨, 나미비아, 꼬모르제도에서 인종주의와 식민주의 정권을 종식시킬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유엔총회 12월 18일회의에서는 식민지로부터 식민지통치국들이 당장 그리고 무조건 철수하고 새로운 식민지창설을 그만둘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유엔에서의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의 대표권문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교활한 방해책동으로 제29차유엔총회에서 결정되지 못하였으며 제30차총회에서 다시 토의하기로 되였다.

유엔제29차총회 제2위원회 (경제및재정문제위원회) 에서는 미국, 서독, 벨지끄, 단마르크, 룩셈부르그의 반대와 기타 10개 서방자본주의국가들의 기권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의 경제권과 임무에 관한 헌장초안을 압도적다수 (115개 나라찬성)로 승인하였다.

이 헌장에는 국가들사이의 경제관계가 자주권과 령토완정, 정치적독립, 불가침성, 평화적공존과 인민들의 평등권, 자결권의 원칙에서 수립되여야 한다는것을 지적하고있다.

총회에서는 기타 결의들도 채택되였다.

11월 1일 유엔총회본회의는 끼쁘로스, 희랍 및 토이기 나라들이 합의한 10개 항목으로 된 끼쁘로스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결의안에 포함된 중요항목으로는 끼쁘로스의 독립과 《쁠럭불가담》에 대한 존중, 끼쁘로스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신속한 철수》와 끼쁘로스문제에 대한 《모든 외국의 간섭의 종식》 이 섬의 희랍계 및 토이기계 주민사회들에 의한 끼쁘로스 헌법체계의 해결, 모든 끼쁘로스피난민들을 자기 집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는것 등이다.

2월 17일 유엔총회는 유엔헌장의 검토와 관련한 제의들을 고찰할 42개 나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유엔총회 제29차회의는 방글라데슈, 그레네이더, 기네—비싸우를 만장일치로 새 성원국으로 가입시켰다.

이로써 유엔성원국은 135개 나라로부터 138개 나라로 늘어났다.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이딸리아, 스웨리예, 일본, 탄자니아 및 가이아나가 새로 2년간의 유엔안보리사회 비상임리사국으로 선거되였다. 이 새로운 5개 비상임리사국은 오스트랄리아, 오지리, 인도네시아 및 페루와 교체되게 되였다.

다른 10개 성원국은 5개 상임리사국인 쏘련,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와 1975년말에 임기가 만료되는 백로씨야, 꼬스따 리까, 이라크, 모리따니 및 까메룬이다.

유엔 제29차총회의 전과정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반동세력들이 유엔을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력사무대에서 주인인 신흥세력들이 유엔에서의 국제문제들을 제3세계인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토의결정하며 자기들의 리익에 맞게 유엔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한 현실로써 확증해주었다.

제1위원회에서의 조선문제토의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혁명의 국제적환경은 그 어느때보다도 유리하게 전변되고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가 한층 높아지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우리는 국제적으로 더 많은 친우들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반동들의 〈두개조선〉 조작책동을 폭로분쇄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세계인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와 동정을 받았습니다.》(1975년《신년사》, 단행본, 18페지)

1974년도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조선문제는 그 상정을 가로막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온갖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나라들, 제3세계나라들의 완강한 요구에 의하여 정식의제로 상정되였으며 총회 제1위원회에서 토의되였다.

9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결의안이 상정된것과 관련하여 비망록을 발표하였으며 그것을 유엔공식문건으로 배포할데 대한 유엔주재 우리 나라 상임옵써버대표부의 요구에 의하여 10월 23일 유엔사무국은 비망록을 6개 어문

으로 출판하여 유엔성원국들에 공식문건으로 배포하였다.

또한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의 조선문제토의에 앞서 9월 24일 혁명위사회 의장이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인 후아리 부메디엔은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의장의 명의로 쁠럭불가담국가 및 정부수반들에게, 이 나라 외교부장은 쁠럭불가담국가 외교부장들에게 각각 서한을 보내였다.

9월 25일 유엔 제29차총회 제1위원회는 조선문제토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의 참가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외교부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유엔총회에 참가하였다.

유엔제29차총회 제1위원회에서의 조선문제토의는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우리 공화국대표단의 참가밑에 1974년 11월 25일~12월 9일까지 진행되였다.

조선문제토의에서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제3세계나라들 40개 나라가 공동으로 제기한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킴에 대하여》의 결의안과 미제와 몇몇 추종국가들이 제기한 이에 상반되는 이른바 《결의안》이 다루어졌다.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공명정대한 방침을 적극 지지하고있는 알제리를 비롯한 제3세계나라들과 사회주의나라들이 유엔에 제출한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킴에 대하여》의 결의안 발기국에는 40개 나라 즉 알제리, 또고, 잠비아, 수리아, 수단, 말리, 르완다, 부룬디, 이라크, 소말리아, 탄자니아, 시에라 레온, 기네-비싸우, 애급, 세네갈, 리비아, 말가슈, 적도기네, 북부예멘, 민주예멘, 기네, 유고슬라비아, 꽁고, 말따, 모리따니, 중국, 쏘련, 벌가리아, 꾸바, 체스꼬슬로벤스꼬,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웽그리아, 몽골, 로므니아, 우크라이나, 백로씨야, 뽈스까, 상부볼따, 다오메, 우간다가 망라되였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는 조선문제를 놓고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대표들의 연설이 진행되였다.

11월 25일 조선문제토의 첫날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유엔이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공통된 념원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유엔군》의 간판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기 위한 공정한 조치를 취할것을 주장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의 연설은 회의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제1위원회에서의 조선문제에 관한 여러 나라 대표들의 연설과정은 미제에 대한 련속 집중공세과정이였다. 무엇보다도 우리측을 지지하는 결의안발기국들과 지지자들은 연설건수에 있어서 적들을 완전히 눌러놓았다.

총연설자 73개 나라 대표가운데서 우리를 지지하여 연설한것은 42개나라대표, 적들을 지지하여 연설한것은 25개 나라 대표였으며 중립적립장에서 연설한것이 6개 나라 대표였다.

우리측 발기국들과 지지국 대표들은 론리정연한 강한 론조로 적들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었다.

우리측 지지자들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에 의거하여야만 실현될수 있다는것을 한결같이 강조하였다.

중국, 쏘련, 체스꼬슬로벤스꼬, 몽골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사회주의나라 대표들과 애급, 모리따니, 말리, 적도기네, 이라크, 수리아를 비롯한 제3세계의 여러 나라 대표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우리를 지지하여 연설한 나라 대표들은 모두다 미제를 침략자로, 남북대화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로 락인찍고 규탄하면서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해야 한다는것을 중심문제로 제기하였다.

우리측을 지지하는 나라 대표들은 또한 자기들의 연설에서 미제의 철저한 앞잡이로서의 박정희괴뢰도당의 정체를 폭로규탄하였다.

또고대표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기 정부는 외세에 의존하는 남조선괴뢰들과 외교관계를 끊었다는것을 다시금 모든 유엔성원국들앞에서 공포함으로써 괴뢰들을 더욱더 궁지에 몰아넣었다.

우리의 지지자, 동정자들은 연설들에서 적측 결의안의 부당성을 낱낱이 폭로하였다.

이에 앞서 9월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된 유엔총회 일반정치토론에서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폭로규탄하고 우리측 결의안을 지지하여 많은 나라 대표들이 연설하였다.

일반정치토론에서의 연설참가자들 가운데서 54개 나라 대표들이 조선문제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그 가운데 38개 나라 대표들이 우리의 립장을 지지하여 연설하였다.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은 《조선의 안정과 평화적통일에 알맞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외국군대를 완전히 철거시켜야 한다. 우리는 평화와 그리고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당사자들간의 직접적협상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우리는 조선이 두개 나라로서 유엔에 가입될수 있게 하는 것을 거부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표시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기네공화국 외교부장은 《조선인민자신이 재확인한바와 같이 조선반도에서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되여야 한다. 유엔은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켜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부룬디외교및협조부장은 남북대화의 유일한 장애는 《유엔군》의 남조선강점에 있다고 폭로하고 남조선강점 모든 외국군대들의 완전하고도 즉시적이며 최종적인 철거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르완다외교부장은 조선의 통일문제는 조선인민의 내부문제이며 《오직 조선인민이 자기 나라의 통일과 장래문제를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남조선괴뢰의 《유엔단독가입》 책동을 반대하였다.

이번 유엔 제29차총회 제1위원회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표결은 적아간에 첨예한 투쟁이 벌어지는가운데 진행되였다.

특히 투표당일에는 적아간에 투표수쟁취를 위한 마지막 투쟁이 벌어졌다.

표결을 앞두고 흉악한 미제는 표결에서 기권하든가 참가하지 않도록 일부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거나 매수하는 등 별의별 교활하고 추잡한 책동을 다하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지어 남조선 및 일본 기생년들을 회의장안에 끌어들여다 대표들을 유혹하여 회의장밖으로 끌고나감으로써 표결에 참가할수 없게 하려고까지 날뛰였다.

12월 9일 제1위원회에서는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였다.

적들은 제놈들의 결의안을 먼저 표결에 붙인다음 우리 결의안표결을 봉

쇄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그러나 놈들의 이와 같은 흉계는 알제리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끝내 파탄되고야 말았다.

우리측 결의안에 대한 표결은 처음부터 우리의 승리를 보여주었다.

유엔총회 제29차회의 제1위원회에서 표결결과 우리측을 지지하는 결의안에 대한 표결은 찬성 48표, 반대 48표, 기권 38표였다.

이것은 1970년도 25차유엔총회와 비교해보면 우리의 지지자가 16개 나라나 늘어나고 반대자는 12개 나라 줄어든것으로 된다.

표결에서 우리측을 지지하여 찬성한 나라는 다음과 같다.

알바니아, 알제리, 보쯔와나, 벌가리아, 부룬디, 백로씨야, 중국, 꽁고, 꾸바, 체스꼬슬로벤스꼬, 다오메, 민주예멘, 애급, 적도기네,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가나, 기네, 기네—비싸우, 가이아나, 웽그리아, 이라크, 쟈메이커, 쿠웨이트, 리비아, 말가슈, 말리, 말따, 모리따니, 몽골, 니제르, 나이제리아, 뽈스까, 로므니아, 르완다, 세네갈, 시에라 레온, 소말리아, 수단, 수리아, 또고, 우간다, 우크라이나, 쏘련, 탄자니아, 상부볼따, 북부예멘, 유고슬라비아, 잠비아.

미제가 유엔 제29차총회 제1위원회와 본총회에서 강다짐으로《채택》케 한《결의안》은 사실상 남조선에 제놈들의 침략군대를 언제까지나 못박아둘것을 전제로 한것으로써 조선에서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분렬을 영구화하며 남조선을 계속 식민지군사기지로 틀어쥐고있으려는 변함없는 속심에서 출발한것이다.

그것은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념원을 거역한것이며 시대의 요구에도 배치되는것이다.

유엔에서의 이번 조선문제토의의 전과정과 그 결과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커다란 승리로 되며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고《두개 조선》을 조작하려고 책동하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 대한 타격으로 된다.

이것은 동시에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침략책동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고있는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과 평화애호인민들의 공동의 승리로 된다.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조선문제토의가 끝난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전체 조선인민과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의사와 념원에 배치되는 제29차유엔총회의 조선문제에 관한 이른바《결의》를 단호히 반대하며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을 성명하였다.

1974년에 새로 나온 세계지역기구들

아랍의회동맹

1974년 6월에 수리아의 수도 디마스끄에서 진행된 창립대회에서 결성되였다. 대회에는 수리아, 애급, 수단, 모리따니, 요르단, 튜니지, 레바논, 바레인의 국회대표단들과 팔레스티나민족리사회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이 동맹은 아랍나라들의 통일을 공고히 하고 그들사이의 협조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아랍청년련맹

1974년 8월에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서 진행된 아랍나라청년단체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이 련맹의 창설을 선포하였다. 회의에서는 이 련맹의 규약이 심의되였다.

이 련맹에는 알제리, 애급, 튜니지, 마로끄, 레바논, 수리아, 이라크, 모리따니, 리비아, 오만, 아랍추장국련방 및 팔레스티나해방조직운동의 청년단체들이 망라되였다.

아프리카기자동맹

1974년 11월에 자이르의 수도 킨샤사에서 진행된 아프리카기자동맹 창립대회에서 이 동맹을 내올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동맹의 소재지는 킨샤사이다.

바나나수출국동맹

1974년 9월 17일 빠나마의 수도 빠나마시에서 라틴아메리카의 바나나생산국들인 빠나마, 온두라스, 꼴롬비아, 꼬스따 리까 및 과떼말라 대표들의 회의에서 창설되였다. 협정조인식에는「에꽈도르, 메히꼬, 쟈메이커와 도미니까가 옵써버로 참가하였다.

이 기구를 내온 목적은 성원국의 수출되는 바나나값을 보호하며 생산국과 소비국사이의 공정한 무역교환조건을 유지하는데 있다. 1974년 3월 라틴아메리카바나나생산국 경제부장들의 회의에서 이 기구를 내오기로 결정하였었다.

사탕생산국기구

1974년 11월 27일 메히꼬의 수도 메히꼬시에서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해연안 사탕생산 및 사탕수출국대표들의 회의에서 창설하였다.

이 기구에는 꾸바, 아르헨띠나, 뻬루, 꼬스따 리까, 베네수엘라, 에꽈도르, 메히꼬, 트리니대드 토바고, 가이아나, 쟈메이커, 꼴롬비아, 빠나마, 바베이도즈, 살바도르, 브라질, 온두라스, 도미니까, 니까라과, 빠라과이, 과떼말라가 가입하였다.

이 기구는 국제사탕값을 보호하기 위한《공동전선》을 펴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이 기구에 참가한 성원국들의 사탕생산량은 세계총생산량의 60%인 1천 200여만톤에 달한다.

라틴아메리카동력기구

1974년 12월 19일 에꽈도르의 수도 끼또에서 12개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해연안 나라대표들의 회의에서 창설되였다.

이 기구에는 꾸바, 쟈메이커, 가이아나, 뻬루, 트리니대드 토바고, 온두라스, 에꽈도르, 도미니까, 볼리비아, 칠레, 브라질이 가입하였다.

기구성원국들은 동력원천의 적절한 개발을 가져다주는 공동계획을 작성하며 성원국들의 동력원천의 탐사와 개발 그리고 상업화를 위한 효과적이고도 합리적인 정책을 실시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상개관

1974년의 기상조건은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었으며 해비침률이 낮은것이였다.

한해평균기온은 전반적지역에서 평년보다 낮았으며 그 정도는 북쪽에서 약하고 남쪽으로 갈수록 심해져서 황해남도와 강원도에서는 한해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0.6~0.7도씨나 낮았다.

강수량은 4—5월과 8월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계절에 적었으며 한해 강수량은 황해남북도를 비롯한 전반적지역에서 평년의 70~90%에 불과했다.

1974년의 기상조건을 요소 및 현상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기 온

1974년 기온의 한해변화를 보면 1월과 12월은 평년보다 높았으나 다른 달은 거의 전반적 지방에서 낮았다.

기온이 특별히 낮았던 달은 6~8월 및 10~11월이였다. (표1)

월평균기온의 평년과의 편차 (°C)

표 1

지점＼월	6	7	8	10	11	년
평양	—1.4	—0.5	—0.3	—2.2	—1.5	—0.8
신의주	—1.5	—0.1	—0.1	—1.7	—0.7	—0.1
해주	—1.7	—0.8	—1.1	—1.9	—1.0	—0.7
강계	—1.6	—0.1	—0.2	—1.7	—1.1	
청진	—1.8	—2.1	0.0	—1.2	0.0	—0.3
함흥	—2.0	—3.1	0.0	—1.7	—1.1	—0.6
원산	—1.6	—3.7	—0.7	—1.4	—0.9	—0.7

기온이 심히 낮았던 여름철 기온의 낮은 정도를 지역별로 보면 동해안남부에서 가장 심했으며 거기로부터 서쪽과 북쪽으로 갈수록 덜 낮아졌다.

월평균 기온이 가장 낮았던 7월의 기온편차는 강원도 해안지방에서—3.0—5.0도씨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낮은 기온은 최근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였다.

여름철기온이 이와 같이 낮았던 원인은 동해안에서 자주 나타나는 랭해파정때문이다.

즉 오호쯔크해를 중심으로 아세아의 동북부에 매우 찬 기단이 자리잡고있으면서 여름철 전기간에 걸쳐 우리 나라쪽으로 찬 공기를 세게 내려밀어 남쪽에서 더운 공기가 올라오는것이 억제당하였기때문이다.

10~11월에 기온이 낮은것도 역시 북쪽에서 찬공기가 여느해보다 일찍 우리 나라쪽으로 흘러들어온것과 관련된다.

하루 평균 기온 10°C이상의 시작 및 마감날자의 평년에 대한 편차

표 2

지점＼구분 편차	시작날자 1974	시작날자 평년	시작날자 차	마감날자 1974	마감날자 평년	마감날자 차	10°C 이상 날수의 차
평 양	4.25	4.16	+9	10.14	10.22	—8	—17
해 주	4.27	4.14	+13	10.21	10.31	—10	—23
강 계	4.30	4.23	+7	10.5	10.9	—4	—11
청 진	5.4	5.5	—1	10.13	10.19	—6	—5
함 흥	4.23	4.19	+4	10.17	10.24	—7	—11
원 산	4.18	4.16	+2	10.22	10.29	—7	—9

1974년도 기상조건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봄철이 늦어지고 가을철이 앞당겨진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하루평균 기온의 시작날자와 마감날자에서 볼수있다.

하루평균기온 10도씨이상의 시작날자는 2~13일간 (함북도제외) 늦었으며 마감날자는 5~17일간 빨랐다. (표2)

이리하여 더운 기간이 5~20일정도 짧아진 반면에 추운 기간은 그만큼 길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온도 례컨대 0도씨 및 5도씨에서도 볼수있다.

※ 날자에서 —는 빨라진것 +는 늦어진것이며

날수에서 —는 짧아진것 +는 길어진것이다.

1974년에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던 달은 1월과 12월이였으며 특히 1월은 평년보다 1.0~2.5도씨정도 높았다.

1974년의 기온조건의 이상과 같은 특성에 의해서 봄철이 늦어지고 가을철이 앞당겨졌으며 겨울철이 길어졌다는것과 여름철이 덥지 않으며 겨울철이 춥지 않았던 결과로 나타났다.

강수량

1974년기상조건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강수량이 적은것이였다.

강수량의 계절변화를 보면 대체로 평년에 비해 봄철에 많았을뿐이며 다른 모든 계절에는 적었다.

강수량이 특별히 적었던것은 여름철로서 서해안 북부와 동해안남부에서도 평년의 60%정도였다.

우리 나라에서 한해강수량의 50~60%를 차지하는 여름철의 강수량이 적고 겨울과 가을철도 적었으므로 한해강수량이 대부분 지방에서 평년의 60~90%정도였다.(표 3)

해비침률과 복사량

1974년은 해비침률도 심히 낮았다.

해비침률의 월별변화를 보면 2월부터 7월까지는 거의 전반적지역에서 평년보다 낮았으며 8—9월과 11—12월은 높은편이였다.

랭해가 심했던 여름철의 해비침률을 평년과 비교하면 다음 표4와 같다.

1974년 계절별 강수량(1mm)의 평년에 대한 비(%)

표 3

지점 \ 구분 \ 계절	겨울		봄		여름		가을		년 %
	강수량	%	강수량	%	강수량	%	강수량	%	
평 양	23.0	48	230.6	163	386.9	64	129.0	67	96
신 의 주	14.3	37	234.9	195	527.5	78	208.2	95	93
해 주	25.8	47	403.3	228	674.4	97	119.6	60	109
강 계	18.5	50	123.7	77	701.3	122	152.3	84	104
혜 산	13.4	54	118.9	121	281.7	72	107.0	101	84
청 진	6.6	14	213.2	240	387.2	107	108.1	62	109
함 흥	9.7	23	204.1	151	367.0	61	62.3	32	67
원 산	24.9	26	237.7	115	431.4	56	179.6	51	62

해비침률의 평년과의 차

표 4

지점 \ 월	6	7	8	여름철
평 양	+7	+4	+1	+4
해 주	−7	+7	−2	−1
강 계	−9	+5	+1	−1
청 진	−17	−6	+13	−3
함 흥	+3	−17	+7	−2
원 산	+1	−17	+5	−4

표4에서 보는바와 같이 여름철 해비침률은 달에 따라 지역별로 일정한 차이가 있으나 서해안 북부를 제외하면 평년에 비해 낮았으며 특히 동해안에서 7월의 해비침률이 매우 낮았던것이다.

해비침이 낮아진 관계로 복사량도 평년에 비해서 적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동해안과 서해안 남부에서 심했으며 여름철을 통해서 5kcoℓ/cm²이상 적었다. (표5)

1974년 6−8월 총복사량(kcoℓ/cm²)

표 5

지점 \ 월	6	7	8	여름철	평년과의 차
평 양	14.1	12.7	11.1	37.9	−2.0
해 주	13.5	8.7	9.9	32.1	−5.7
경 성	9.0	8.5	11.9	29.4	−5.0

랭 해

1974년도 랭해현상은 수십년만에 처음 있을 정도로 센것이였으며 세계기후변동의 특이한 현상의 하나였다.

이 랭해과정은 5월 하순부터 시작하였으며 6월 중순에 회복되였다가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 심한 랭해과정이 계속되였으며 8월 상순에 회복되였다가 다시 랭해과정으로 들어가서 9월초까지 계속되였다.

기온이 가장 심하게 낮았던 6월 하순부터 7월상순까지의 원산지방의 순평균기온의 평년에 대한 편차는 −3.0도씨이상이였으며 7월상순은 −4.1도씨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낮았던 최저기온은 13.9도씨였다.

랭해과정에서는 해비침률이 매우 낮았으며 심한 달에는 20%이하였다.

또한 매일 같이 안개비가 내려서 원산지방의 강수날자는 6월 19일, 7월 27일, 8월에 17일이였다. (0.0미리메터의 날수도 포함)

장 마

1974년 장마철은 6월 하순에 시작하여 9월 상순에 끝났다.

장마철기간에 비가 오래동안 계속해서 내리는 현상은 많지않았으며 8월 말부터 9월초에 걸치는 마지막장마에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다. (표6)

장마철기간에 서해안지방에서는 개인 날씨가 계속되는 현상이 많았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6∼7월에 가물도 있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1974년도 기상조건은 여름철에 기온과 해비침률이 심히 낮았으며 몇십년래에 처음보는 심한 랭해도 있었다.

또한 가을철기온도 평년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다.

이와 함께 봄철이 늦어지고 가을철이 앞당겨져서 농사에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였다.

그러나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700만톤의 알곡을 거둠으로서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2년앞당겨 점령하는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당의 주체농업의 위대한 승리이며 그의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온 세계에 시위하는것으로 된다.

성명, 보도 및 콤뮤니케 일람

(1974년 1월 1일~12월 31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 남조선괴뢰도당의 침략전쟁책동과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만행을 규탄하여 발표한 성명, 보도

1월 8일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성명 (박정희괴뢰도당이 애국적인 남조선문화인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을 강화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1월 10일 조선중앙통신사 성명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새로운 파쑈적탄압책동으로서 《긴급조치》를 꾸며낸것을 규탄하여)

1월 15일 조선로동당, 조선민주당, 천도교청우당 등 정당들과 여러 사회단체들의 공동성명 (남조선에서 민족적대단결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역행하는 파쑈적폭거를 규탄하여)

1월 17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이 서해 우리측 연해에서 일으킨 무모한 도발행동을 규탄하여)

2월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성명 (남조선매국도당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대륙붕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을 비롯하여 대륙붕과 관련한 일련의 범죄적인 문건들에 조인한것을 규탄하여)

2월 4일 조선기독교도련맹중앙위원회 성명 (박정희군사깡패무리들이 《비상보통군법회의》라는 살인재판놀음을 벌려놓고 조국통일을 념원하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청년학생들에 대한 극악한 파쑈적만행을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2월 8일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성명 (박정희파쑈도당이 이른바 《간첩단》이라는 또하나의 사건을 날조하여 남조선의 량심적인 문화인들과 지식인들을 체포구금하는 파쑈적만행을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2월 14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성명 (남조선의 민주인사들과 청년학생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만행을 반대배격하여)

2월 15일 조선중앙통신사 성명 (2월 15일 박정희괴뢰도당이 서해 장산곶 서북쪽 우리측연해에 간첩선을 침입시킨 도발행위를 규탄하여)

2월 1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성명 (박정희괴뢰도당이 2월 15일 우리측 연해인 장산곶 서북쪽 해상에 간첩선을 불법침입시키는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한것을 규탄하여)

2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성명 (우리를 반대하는 박정희도당의 반인민적이며 반민족적인 정탐, 모략행위를규탄하여)

2월 22일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성명,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성명 (2월 15일 우리측 령해인 서해상에 간첩선을 침입시키고 그를 전후하여 발광적인 《반공》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는것을 규탄하여)

2월 23일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성명,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성명 (박정희괴뢰도당이 15일 간첩선을 서해 우리측 령해에 침입시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도발책동을 감행하는 한편 광란적인 《반공》소동을 벌리고있는것을 규탄하여)

2월 25일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성명 (만고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이 서해 우리측 령해에 간첩선을 침입시켜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하고도 흑백을 전도하여 우리를 비방중상하는《반공》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는것을 규탄하여)

2월 26일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성명, 조선민주과학자협회 성명 (박정희괴뢰도당이 우리측 령해에 간첩선을 침입시키고 더욱더 악랄한《반공》소동을 벌리고있는것을 규탄하여)

2월 27일 조선기독교도련맹 중앙위원회 성명, 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성명 (남조선괴뢰도당이 우리측 령해에 간첩선을 침입시키고 이와 때를 같이 하여《반공》소동을 벌리고있는 것을 규탄하여)

2월 28일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 성명 (박정희파쑈악당이 우리측 령해에 간첩선을 침입시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엄중한 도발책동을 감행하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광란적인 《반공》소동을 벌리고있는것을 규탄하여)

4월 5일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성명 (박정희파쑈악당이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의 《수사전모》라는것을 날조하여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을 집단적으로 처형하려고 발광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4월 29일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성명 (박정희파쑈악당이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의 《수사전모》라는것을 날조하여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을 집단적으로 처형하려고 발광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4월 30일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조선학생위원회 성명 (박정희파쑈악당이 최근《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의 《수사전모》라는것을 날조하여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을 집단적으로 처형하려고 발광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5월 1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성명 (박정희파쑈악당이 최근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의 《수사전모》라는것을 날조하여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을 집단적으로 처형하려고 발광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5월 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박정희파쑈악당이 최근《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의 《수사전모》라는것을 조작하고 수백명의 남조선청년학생들을 체포구금하고 악랄하게 처형하려 미쳐날뛰고있는것을 규탄하여)

5월 12일 조선중앙통신사 성명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조선에 있는 일본《외교사무소》들과 일본인 거주자 및 려행자들이 우리의《테로행동의 대상》으로 되고있다는 어처구니없는 거짓을 꾸며 서울주재 일본《대사관》에 《통고》하였다는 음흉한 모략행위를 준엄히 단죄규탄하여)

5월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중앙위원회 성명 (일본반동당국이 과거 조선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침략의 희생자들인 조선사람의 유골을 가지고 남조선괴뢰들과 정치적흥정을 벌리고있는것을 규탄하여)

5월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미군무력을 더욱 증강하고있으며 조선에서 정세를 가일층 긴장시키고있는것을 규탄하여)

6월 3일 사회단체들의 련합성명 (애국적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남조선괴뢰도당의 파쑈적탄압을 규탄하여)

6월 4일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성명 (남조선의 민주인사 김대중에 대한

박정희도당의 파쑈적탄압만행을 규탄하여)

6월 25일 평양시군중대회가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의 공동성명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6월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성명 (남조선적십자사측이 외국에까지 가서 그 무슨 《리산가족문제》에 관한 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우리를 비방중상하는 한편 쌍방사이에 진행되고있는 남북적십자회담에 적십자국제위원회를 개입시키려는 비렬한 음모를 꾸미고있는것을 규탄하여)

7월 1일 조선중앙통신사 성명 (박정희괴뢰도당이 우리측 연해에 해군함선을 불법침입시켜 엄중한 군사도발을 감행한것을 규탄하여)

7월 11일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성명 (박정희괴뢰도당이 이른바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에 관련시켜 애국적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체포구금하고 야만적인 고문과 박해를 가하여 극형까지 들씌우는 만행을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7월 12일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조선학생위원회 성명 (박정희파쑈악당이 이른바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에 관련시켜 수많은 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체포구금하고 야만적인 고문을 가해오던 끝에 그들에게 극형을 들씌우는 만행을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7월 1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박정희괴뢰도당이 이른바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에 관련시켜 수많은 애국적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체포투옥하고 련일 살인재판놀음을 벌려오던 끝에 그들에게 집단적으로 사형과 중형을 들씌우는 극악무도한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7월 14일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성명 (인간백정 박정희악당이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살인공판놀음을 벌려놓고 이른바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에 관련시켜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각계 인사들에게 극형과 중형을 들씌우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8월 1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남조선파쑈악당들이 이른바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에 관련시켜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에게 무고한 중형과 극형을 선고한것을 규탄하여)

8월 18일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성명 (남조선파쑈악당들이 이른바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에 관련시켜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에게 무고한 중형과 극형을 선고한것을 규탄하여)

8월 19일 조선중앙통신사 성명 (《박정희저격사건》을 우리와 련결시키려는 남조선 반동들의 책동을 규탄하여)

8월 20일 조선기독교도련맹 중앙위원회 성명 (박정희파쑈교형리들이 또다시 군사재판놀음을 벌려놓고 남조선의 수많은 애국적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사들에게 중형과 극형을 선고한것을 규탄하여)

8월 30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박정희《저격사건》을 계기로 우리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광란적인 《반공》소동을 대대적으로 벌리고있는것을 규탄하여)

9월 4일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 성명 (남조선측이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들의 접촉마저 파탄시키려고 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성명 (박정희괴뢰악당이 남조선에서 일어난《저격사건》에 우리 공화국과 총련을 걸고들어 비방중상하는 일대《반공》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는것을 규탄하여)

9월 18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성명 (총련을 파괴하며 재일동포들을 탄압하려는 박정희괴뢰도당과 그에 발맞추고있는 일본당국의 범죄적인 정치적흥정놀음을 항의규탄하여)

10월 17일 조선학생위원회 성명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학생들에 대한 남조선괴뢰도당의 악랄한 탄압책동을 규탄하여)

10월 18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성명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정당한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청년학생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만행을 규탄하여)

10월 1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애국과 정의의 위업에 떨쳐나선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만행을 규탄하여)

10월 26일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성명 (박정희파쑈도당의 횡포한 언론탄압에 항거하여 일떠선 남조선언론인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12월 1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성명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을 침략적 군사기지로 더욱 철저히 전변시키고 조선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조성하는 악랄한 범죄행위를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12월 17일 조선중앙통신사 성명 (12월 14일 서해 옹진앞바다에서 기관고장을 일으켜 해상에 표류중인 우리측 어선을 인천항에 끌어다 놓고 《간첩선》이니 《공작선》이니 떠들어대면서 《반공》소동을 벌리고있는것을 규탄하여)

12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미제가 남조선에 핵탄두와 핵무기들을 끌어들여 남조선을 핵공격기지로 전변시키면서 새 전쟁 도발책동에 광분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12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대변인 성명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 토의가 끝난것과 관련하여)

싸우는 나라 인민들을 지지하며 미제와 그 추종분자들의 침략정책을 폭로규탄하여

1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대변인 성명 (중국의 서사군도와 남사군도에 대하여 야만적인 포격과 폭격을 감행한 남부웰남의 사이공괴뢰도당을 규탄하여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의 성명을 지지하여)

1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성명 (《웰남에서 전쟁을 끝내며 평화를 회복할데 관한 협정》이 조인된지 1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2월 27일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성명 (칠레군사파쑈도당이 세계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죄없는 인민들에 대한 류혈적탄압학살만행을 계속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3월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성명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의 1974년 3월 22일부 성명에서 천명된 정당한 립장과 6개항목의 제안을 지지하여)

4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대변인 성명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행위와 만행을 강력히 폭로규탄한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공보 및 선전부의 성명을 지지하여)

6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성명 (미제의 사촉밑에 남부웰남괴뢰도당이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전쟁행위를 강화하며 웰남에 관한 빠리협정을 더욱 엄중하게 파괴

유린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7월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미제의 부추김밑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레바논에 대한 야만적인 무력침공을 더욱 미친듯이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7월 11일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의 공동성명 (7월 26일 꾸바인민의 무장봉기 스물한돐에 즈음하여)

9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성명 (일본당국이 남조선통치배들과 공모결탁하여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를 탄압하는 범죄적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10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성명 (웰남에 관한 빠리협정을 란폭하게 파괴유린하고있는 미제와 남부웰남괴뢰도당의 범죄적행위를 단호히 규탄하며 남부웰남에서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화목을 이룩하고 남부웰남의 내부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립장을 천명한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의 10월 8일 성명과 웰남민주공화국정부의 10월 11일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여)

우리 나라와 외국과의 사이에 발표된 공동콤뮤니케 및 공동보도

1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가봉공화국사이에 외교관계 및 외교대표부 교환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리브르빌)

2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꼬스따 리까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뉴욕)

3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사이의 공동콤뮤니케 (평양)

3월 8일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과 관련한 공동보도 (평양)

3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기네-비싸우 공화국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 설정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꼬나크리)

4월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방문에 관한 공동보도 (쁘라하)

4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및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대표단의 공동성명 (평양)

4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방문에 관한 공동보도 (누악쇼트)

4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알제리방문에 관한 공동보도 (알제)

5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뽈스까방문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와르샤와)

5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네팔왕국사이의 대사급외교관계설정에 관한 보도 (평양)

5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세네갈공화국사이의 공동콤뮤니케 (평양)

5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가이아나협동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죠지타운)

5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일성동지의 특사 우간다공화국방문에 관한 공동보도 (캄팔라)

5월 31일 체스꼬슬로벤스꼬직맹중앙평의회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에 관한 공동보도(평양)

6월 14일 노르웨이사회인민당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과 관련한 공동보도 (평양)

6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라오스왕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비엔티안)

7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하쉐미트 요르단왕국사이의 외교관계수립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다마스끄)

7월 8일 조선직업총동맹대표단의 벌가리아방문에 관한 공동보도 (쏘피아)

7월 16일 노르웨이공산당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과 관련한 공동보도 (평양)

7월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오스트랄리아사이의 외교관계설정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쟈까르따)

8월 4일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외교부장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결과에 대한 공동보도 (평양)

8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부웰남공화사이의 공동콤뮤니케 (평양)

9월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니제르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니아메)

9월 12일 조선로동당과 일본사회당사이의 공동콤뮤니케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또고공화국사이의 공동콤뮤니케 (평양)

9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표단과 세네갈공화국 국회대표단사이의 공동콤뮤니케 (평양)

10월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수리아아랍공화국사이의 공동콤뮤니케 (평양)

10월 9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저메이커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설정에 관한 공동보도 (제네바)

10월 15일 조선직업총동맹대표단과 일본총평및중립로련대표단사이의 공동성명 (평양)

11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보쯔와나공화국사이의 대사급외교관계설정에 관한 보도

12월 6일 아랍사회주의동맹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에 대한 공동보도

12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자이르공화국사이의 공동콤뮤니케 (평양)

12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스위스련방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으며 외교대표를 교환할데 대한 공동콤뮤니케 (베른)

12월 24일 몽골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에 관한 공동보도 (평양)

국내주요일지

(1974년 1~12월)

1 월

1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사를 하심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해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 당 및 국가 지도자들과 새해축전과 년하장을 교환하심

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리마황해제철소 환원단광직장의 대상설비생산에서 모범을 보인 천리마락원기계공장, 8월8일공장, 천리마룡성기계공장을 비롯한 련관된 공장, 기업소들에 선물을 보내심 ▶ 위대한 수령님께서 협동농민 열성자 및 간부들에게 선물을 보내심

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전국농업대회 평양체육관에서 10일까지 열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회의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라는 강령적연설을 하심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 발표 열돐기념 사회과학토론회 진행 ▶ 김책제철소확장공사에 참가한 건설자들이 천리마작업반운동열성자회의를 열고 년간계획을 10월 10일전으로 끝낼것을 결의하고 전국의 공장, 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사회주의경쟁을 호소

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류치근동무가 일하는 건설사업소에 선물을 보내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13차, 제14차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을 만나심

8일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에서 박정희도당이 애국적인 남조선문화인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강화하고있는 것을 규탄하여 성명 ▶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주간》에 즈음하여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4차인민체육대회 각도 (직할시) 선수단 빙상경기 12일까지 강계빙상경기장에서 진행

9일 청천강화력발전소 건설자들이 궐기모임을 가지고 1974년안으로 발전소건설을 끝낼것을 결의하면서 서부지구 화학기지건설자들에게 사회주의경쟁호소

10일 조선중앙통신사가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새로운 파쑈적탄압책동으로서 《긴급조치》를 꾸며낸것을 규탄하여 성명

11일 청년화학공장건설에 참가한 4.25청년돌격대원들과 청년건설자들이 련합궐기모임을 가지고 중요건설대상의 조업기일을 최대한으로 앞당기기 위한 경쟁운동을 전국의 청년돌격대원들과 청년건설자들에게 호소

1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신년사에 대한 중앙연구토론회 (만수대의사당에서) ▶ 숙천군의 농업근로자들이 열성자회의를 열고 전국의 벌방지대 시, 군 농업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경쟁을 호소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농적위대창건 열다섯돐에 즈음하여 모범적인 로농적위대구분대들을 표창하시고 이 구분대들에 선물을 보내심 ▶ 로농적위대창건 열다섯돐에 즈음하여 중앙기념강연회 진행 ▶ 계관근위천리마룡양광산, 계관근위신포수산사업소, 천리마황해제철련합기업소, 무산광산, 북창화력발전소, 은파지질탐사대, 리명수림산사업소의 천리마기수들과 직맹원들이 천리마작업반운동열성자회의를 열고 1974년 인민경제계획을 10월 10일전으로 끝낼것을 결의하고 해당부문 공장, 기업소들에 사회주의경쟁을 호소

15일 조선로동당, 조선민주당, 천도교청우당과 우리 나라 여러 사회단체들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거를 단호히 규탄하여 공동성명발표 ▶ 우리 민족글자 《훈민정음》을 만든 530돐기념보고회 진행 ▶ 남북조절위원회 우리측 부위원장이 서울측 부위원장에게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 부위원장회의를 가질것을 제의

1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리명학동무가 일하는 공장에 선물을 보내시고 모범적인 일군들을 국가표창하심 ▶ 우리 나라와 웽그리아사이의 1974년도 상품호상 및 지불에 관한 협정조인 ▶ 녕변군의 농업근로자들 열성자회의를 열고 중간지대 농업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킬것을 결의하고 온 나라의 중간지대 시, 군 농업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경쟁을 호소

1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진수산사업소의 통악산호와 뜨랄 56호에 국기훈장제1급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공포하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오지리공산당 제22차대회 앞으로 축전을 보냄 ▶ 사로청창립 스물여덟돐기념 전국청소년빙상경기대회 (25일까지) 진행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에서 함경남도의 일부 행정구역을 고침에 대한 정령을 공포 ▶ 우리 나라 정부와 알바니아정부사이의 1974년도 상품호상공급 및 지불에 관한 협정조인

23일 우리 나라 외교부대변인이 중국의 서사군도와 남사군도에 대하여 야만적인 포격과 폭격을 감행한 남부웰남의 사이공괴뢰도당을 규탄하여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의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 ▶ 우리 나라와 리비아아랍공화국간에 대사급외교관계를 설정

2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황해북도 토산군에 모범교육군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중앙인민위원회 결정을 공포하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간석지개간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평북도 간석지건설사업소에 선물을 보내시고 이 사업소일군들과 철산군안의 농업근로자들을 국가표창하심

25일 로동신문이 사설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대고조에로 부르신다, 모두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새로운 평양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자》를 실음

2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에 대한 중앙연구토론회가 있었음

2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일본사회당 제37차대회에 축전을 보냄 ▶ 리파대학 제1회졸업식 진행

2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딸리아공산당기관지 《우니따》 지가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주심 ▶ 사로청창립 스물여덟돐에 즈음하여 모범적인 사로청조직들과 사로청원들을 표창하는 《김일성청년영예상》 수여식이 있었음 ▶ 우리 나라와 가봉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및 외교대표부 교환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조인

3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포수산사업소에 주신 계관근위칭호와 동해지구수산사업소의 먼바다어로공들에게 주신 국가표창을 수여하는모

임이 있었음 ▶조선중앙통신사 대변인은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우리에 대한 악랄한 비방중상을 걷어치우고 남북공동성명과 쌍방간의 합의사항을 리행할것을 촉구하여 성명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는 《웰남에서 전쟁을 끝내며 평화를 회복할데 관한 협정》이 조인된지 1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성명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들의 접촉 (관문각에서)

2 월

2일 우리 나라 외교부대변인이 1월 30일 남조선의 괴뢰매국도당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대륙붕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을 비롯하여 대륙붕과 관련한 일련의 범죄적인 문건들에 조인한것을 규탄하여 성명

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청년가극단이 창조한 혁명가극《청춘과원》을 보심 ▶조선기독교도련맹 중앙위원회는 박정희군사깡패무리들이 《비상보통군법회의》라는 살인재판놀음을 벌려놓고 조국통일을 념원하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청년학생들에 대한 극악한 파쑈만행을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6일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여섯돐을 기념하는 영화상영주간이 시작 (11일까지 진행)

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진수산사업소에 국가표창하심,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계관근위칭호와 공화국훈장 및 메달을 수여하는 모임 현지에서 진행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여섯돐기념 중앙보고대회 진행

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구분대를 찾으시고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여섯돐을 맞는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심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는 박정희파쑈도당이 이른바 《간첩단》이라는 또하나의 사건을 날조하여 남조선의 량심적인 문화인들과 지식인들을 체포구금하는 파쑈적만행을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재일조선인대표단을 만나심

1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이딸리아공산당 기관지 《우니따》창간 쉰돐에 즈음하여 이딸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냄 ▶우리 나라와 꼬스따 리까공화국 사이의 외교관계설정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발표 ▶미제침략군이 《에쓰아르－71》고속도고공정찰기를 군사분계선상공에 침입시켜 또다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

1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의 사회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림 (13일까지 진행)

14일 로동신문이 사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과 당중앙의 호소를 받들고 전당, 전국, 전민이 사회주의대건설사업에 총동원되자》를 실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제60차회의 진행, 회의에서 남조선의 민주인사들과 청년학생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만행을 반대배격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성명채택

15일 로동신문이 사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총동원되여 사회주의건설의 5개전선에서 승리의 기발이 휘날리게 하자》를 실음 ▶조선중앙통신사는 온 민족앞에 확약한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배치되게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면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위험한 군사적도발행동을 엄중히 경고하여 성명

16일 로동신문이《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은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대건설전투승리의 확고한 담보》를 실음 ▶박정희괴뢰도당이 2월 15일 서해 우리측 연해인 장산곶 서북쪽해상에 간첩선을 불법침입시켜 엄중한 적대적도발행위를 감행한것을 규탄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비롯하여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2, 21)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2, 22),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2, 23),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2, 22),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2, 23),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2, 25),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2, 26), 조선민주과학자협회 (2, 26),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 (2, 28), 조선기독교도련맹 중앙위원회 (2, 27), 천도교회중앙지도위원회 (2, 27)가 각각 성명을 발표 ▶남북조절위원회 우리측 부위원장이 박정희괴뢰도당이 간첩선을 서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이날 두번에 걸쳐 서울측 부위원장에게 전화문을 보냄

17일 로동신문이 사설《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웅대한 10대경제건설목표는 전체 인민을 새로운 영웅적투쟁과 승리에로 부른다》를 실음.

1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압록강운수사업소 5명의 선원들에게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공포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41명의 기계공업부문 일군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기계제작공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공포하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충직한 전사이며 열렬한 공산주의투사인 공화국영웅 장길부녀사 서거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고 장길부녀사의 령구를 찾아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열돐기념 전국과학리론토론회 진행 (만수대의사당)

20일 고 장길부녀사의 장의식 평양에서 국장으로 엄숙히 거행

2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고슬라비아신문 《웨체르니에 노보스띠》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주심

2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10차 전체대회 앞으로 축하문을 보내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10돐을 기념하는 중앙보고대회 만수대의사당에서 성대히 진행

2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공업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온 로력혁신자들에게 보내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 평양체육관에서 진행 ▶로동신문이 사설 《위대한 농촌테제의 휘황한 빛발아래 이룩된 자랑찬 성과를 공고발전시켜 새로운 더 큰 비약을 일으키자》를 실음

2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전국공업대회를 3월 7일까지 진행,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폐막회의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연설하심 ▶남북적십자회담 쌍방대표들사이의 접촉이 있었음 ▶미제침략군이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기 위하여 《에쓰아르－71》고속도고공정찰기를 군사분계선상공에 또 침입시킴

2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취하신 획기적조치인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공업상품의 값을 낮출데 대하여》를 공포하심.

27일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들의 제4차접촉이 있었음 ▶미제침략군이

《에쓰아르－71》 고속도고공정찰기를 공화국북반부지역 상공에 침입시켜 또다시 정탐행동을 감행 ▶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칠레군사파쑈도당이 세계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죄없는 인민들에 대한 류혈적탄압학살만행을 계속하고 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28일 3. 1인민봉기 쉰다섯돐평양시기념회 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발표 5돐을 기념하여 전국사회과학토론회 진행 ▶군사정전위원회 제348차회의, 우리측은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바다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악랄한 정탐과 적대적행위를 감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적측에 강경히 항의하고 책임추궁

3 월

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혁명리사회의장이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인 후아리 부메디엔을 맞이하심, 평양시내 수십만의 근로자들이 대표단을 열렬히 환영, 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후아리 부메디엔의장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성대히 진행, 대회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의 연설을 하심, 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본대표단을 바래우심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대표단사이의 회담진행 (평양)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4차인민체육대회 일반 및 체육 선수단부문 스키경기가 삼지연에서 8일까지 있었음 ▶우리 나라 4. 25축구선수단이 일본축구협회의 초청으로 일본으로 떠남 (13일 돌아옴)

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천철도건설사업소 기계화직장 자동차운전사들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공포하심

6일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있었음

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쉰세번째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심 ▶미제침략군이 《에쓰아르－71》고속도고공정찰기를 군사분계선상공에 침입시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정탐행동을 감행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올림픽위원회가 아세아경기련맹에 가입

10일 로동신문이 사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국공업대회에서 하신 연설을 높이 받들고 모든 전선에서 혁명의 북소리가 힘차게 울리게 하자》를 실음 ▶압록강축구선수단과 이딸리아축구선수단사이의 친선경기진행 (모란봉경기장)

1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계군 대정고등중학교에 선물을 보내심 ▶ 제15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 옴

12일 로동신문이 사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의 정신, 무조건성의 정신, 이것이 대건설전투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를 실음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는 웅기군종합농장경영위원회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공포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봉산군 청계, 온천군 금당협동농장들에 많은 뜨락또르와 영농물자를 보내심

15일 조쏘 두 나라사이의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스물다섯돐기념회 진행 ▶우리 나라 정부와 꾸바공화국 혁명정부사이의 1974～1975년도 문화교류계획서 조인 (아바나)

16일 로동신문이 사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청춘의 기백으로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지휘해나가자》를 실음 ▶우리 나라와 기네－비싸우공화국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설정

17일 우리 나라 정부와 뽈스까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1974년도 상품호상공급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조인 ▶이라크공화국 청년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청년학생집회 진행

1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대학교를 졸업하는 모범적인 학생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하심, 전달식 조선대학교 강당에서 진행 ▶대외문화련락위원회와 평양시행정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웽그리아쏘베트공화국 선포 쉰다섯돐기념집회 진행

2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 25일까지 진행

2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에서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한 최고인민회의법령을 발표하심, 최고인민회의에서 미합중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 ▶로동신문이 사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더욱 빛내여나가자》를 실음 ▶캄보쟈민족통일전선결성과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창건 네돐기념평양시군중집회 진행

2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3명의 먼바다어로일군들에게 로력영웅칭호를, 7명의 수산부문일군들에게 공훈어부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공포하심 ▶ 남조선청년학생들의 3. 24투쟁 연돐기념평양시청년학생웅변모임 진행

23일 우리 나라 정부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사이의 1974년도 상품호상공급에 관한 의정서 조인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파들루쁘공산당창건 서른돐에 즈음하여 이 당에 축전을 보냄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들의 제5차접촉이 있었음 (판문점)

28일 우리 나라 외교부는 남부웰남에서 평화와 민족적화목을 이룩할데 대한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의 1974년 3월 22일부 성명에서 천명된 정당한 립장과 6개 항목의 제안을 지지하여 성명

2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앙광업연구소에 선물을 보내심

30일 로동신문이 사설 《위대한 수령님의 정치적신임과 깊은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자》를 실음

4 월

1일 로동신문이 사설 《당원들은 혁명의 선봉투사들이다. 사회주의대건설의 돌격전에서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힘차게 떨치자》를 실음 ▶제15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군사정전위원회 제349차회의, 회의에서 우리측은 미제침략자들이 우리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과 박정희괴뢰도당을 부추기는 범죄행위를 당장 중지하며 모든 침략무력을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지체없이 물러갈것을 강경히 요구

2일 전국녀성대회를 열고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인 《기생관광》책동을 규탄

5일 평양시안의 근로자들이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및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대표단을 연도에서 열렬히 환영, 6일 이 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우리 나라 외교부대변인이 캄보쟈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행위와 만행을 강력히 폭로규탄한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공보 및 선전부의 성명들을 지지하여 성명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조선학생위원회에서는 또다시 반파쑈, 민주화를 위한 구국투쟁에 일떠선 남조선청년학생들에게 횡포한 탄압을 가하는 박정희파쑈도당의 범죄적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6일 남조선청년학생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탄압을 규탄하는 평양시대학생련합성토대회 진행

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근로단체중앙학교에 국기훈장제1급을 수여할데 대한 정령 공포하심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예순두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조국을 방문하는 재일조선인예술단, 재일조선상공인축하단이 평양에 옴

1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예순두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조국을 방문한 재일조선인예술단을 환영하여 정무원에서 연회를 차림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전국당간부양성기관 과학토론회 진행

1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새로 건설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개관식 성대히 진행▶ 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업적이 깃든 은률사적관 개관식 진행▶근로단체중앙학교 스물다섯돐기념 보고회진행▶우리 나라 정부와 체스꼬슬로벤스꼬정부사이의 1974～1975년도 문화교류계획서조인

1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는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맞이하심, 1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환영하는 남포시군중대회진행, 23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바래우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77개의 2중천리마작업반들과 인민반들에 천리마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공포하심 ▶중앙인민위원회에서 혁명과 건설사업에 큰 공헌을 한 9개 기관, 기업소들과 조선인민경비대구분대에《김일성훈장》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공포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 인민문화궁전 준공식 성대히 진행 ▶조국을 방문한 재일조선인예술단과 재일조선상공인축하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성대히 진행 (평양체육관)

1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포목장과 평양목장에 국기훈장제1급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공포하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인민경제 여러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로력영웅칭호 (11명) 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공훈제염공 (3명), 공훈사양공 (2명), 공훈예술가 (2명), 공훈방직공 (1명), 공훈재단사 (1명), 공훈리발사 (1명) 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공포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김책제철소 확장공사에 참가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보내주신 축하문전달을 위한 련합모임 현지에서 있었음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재일조선인예술단과 재일조선상공인축하단, 제15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을 만나심,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표단 성원들을 위하여 만찬회를 마련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리원방직공장건설에 참가한 기관, 기업소들에 귀중한 선물을 보내시고 모범적인 일군들을 국가표창하심, 선물전달식현지에서 진행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수대예술단 예술인들에게 인민배우 (2명), 공훈예술가 (2명), 공훈배우 (24명) 칭호를 수여함에 관한 정령, 인민예술가 (1명), 공훈예술가 (5명) 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공포하심 ▶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일조선인예술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공연을 보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미제침략군의《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려 버린 대전해방전투에 대한 대형전경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상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공포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두돐을 맞이하여 혁명의 명만경대에서 조선소년단 련합단체대회 성대히 진행

1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프랑스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유마니떼》창간 일흔돐에 즈음하여 이 당중앙위원회에 축전 보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삼석구역 협동농장들에 많은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보내심

1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목장창설 스무돐에 즈음하여 이 목장에 국가표창을 하시고 귀중한 선물을 보내심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양목장을 창설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 스무돐 기념모임 현지에서 진행 ▶남조선인민들의 4월봉기 열네돐을 기념하는 평양시 근로자들의 보고회 진행 ▶부룬디근로자동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근로자들의 집회와 부룬디녀성동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녀성들의 집회가 각각 있었음

20일 부룬디민족통일진보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남도 남포시군중대회 진행

21일 우리 나라 녀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의 탄생 여든두돐에 즈음하여 칠골혁명사적지에서 녀맹원들의 결의 모임가짐

2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농장창설 스무돐에 즈음하여 이 농장에 국가표창하시고 귀중한 선물을 보내심,위대한 수령님께서 평양농장을 창설할데 대한 교시 스무돐기념모임 현지에서 진행

2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가극《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보시고 공연에 출연한 예술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심 ▶영광스러운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두돐기념 중앙강연회 진행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들의 제6차 접촉, 조절위원회를 확대개편할데 대한 문제토의

2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단정부기관지《알 싸하파》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주심 ▶로동신문이 사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자》를 실음

2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동물원과 평양제1백화점, 농업출판사에 국기훈장 제1급을 각각 수여함에 대한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공포하심

2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화학공장건설사업소에 국가표창을 하시고 선물을 보내심, 전달식 현지에서 진행

2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건설자칭호를 제정함에 대한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공포하심 ▶남북적십자회담 대표들의 제5차접촉 판문점에서 있었음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와 조선학생위원회 (30일) 가 박정희파쑈악당이 또다시《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의《수사전모》라는것을 날조하여 애국적인 남조선청년학생들을 집단적으로 처형하려고 발광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3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산업은행에 선물을 보내시고 이곳 일군들을 국가표창하심 ▶로동신문이 사설《유일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더 튼튼히 준비시

키자》를 실음

5 월

1일 로동신문이 사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들고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실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2일)는 박정희파쑈도당이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의《수사전모》라는것을 날조하여 수백명의 청년학생들을 체포구금하였을뿐아니라 그들을 악랄하게 처형하려고 미쳐날뛰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3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길림육문중학교대표단을 환영하는 2중천리마창덕학교 교직원, 학생모임 있었음

4일 조선대외문화련락협회와 조선네팔친선협회는 우리 나라 방문 네팔조선친선대표단을 환영하는 집회를 가짐

5일 중국로동자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근로자 집회가 있었음

6일 오스트랄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위원회대표단을 환영하며 조선오스트랄리아친선문화협회를 결성하는 모임이 있었음

8일 로동신문이 사설《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경제선동을 진공적으로 벌려 일터마다에 불타는 충성의 열정과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게 하자》를 실음

9일 남조선괴뢰군이 림진강하구 우리측 지역상공에 직승비행기를 침입시켜 적대적인 군사적도발을 감행

1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8명의 철도운수부문일군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공포하심 ▶우리 나라 정부와 시에라 레온 정부사이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12일 조선중앙통신사는 남조선파쑈악당들이 남조선에 있는 일본《외교사무소》들과 일본인 거주자 및 려행자들이 우리의《테로행동의 대상》으로 되고있다는 거짓을 꾸며대는 음흉한 모략행위를 준렬히 단죄규탄하여 성명 ▶로므니아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학생집회가 있었음 ▶우리 나라 정부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사이의 문화 및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실행을 위한 1973~1974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1974년도 보충계획서조인

1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는 세네갈공화국 레오뽈드 쎄다르 쎙고르대통령을 맞이하심, 평양시민들 대표단을 연도에서 열렬히 환영,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대통령을 환영하는 남포시군중대회 성대히 진행, 1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세네갈공화국 대통령 레오뽈드 쎄다르 쎙고르의 참석밑에 우리 나라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사이의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무역협정,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세네갈공화국 대통령을 바래우심 ▶예멘아랍공화국협상리사회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가 있었음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8명의 지질탐사부문일군들에게 공훈지질탐사원 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공포하심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대표단과 예멘아랍공화국협상리사회대표단사이의 회담진행 ▶우리 나라 정부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조인 ▶군사정전위원회 제350차회의에서 우리측은 온갖 범죄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모든 침략무력을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물러갈것을 미제침략자들에게 강력히 요구

15일 우리 나라와 네팔왕국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으며 대사를 교환하는데 합의 ▶우리 나라 정부와 이라크공화국 정부사이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리행하기 위한 1974~1975년도 문화교류계획서 조인 ▶우리 나라에서 팔레스티나인민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5월 15일부터 21일까지를《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주간》으로 설정

1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뽀르투갈공산당의 합법적활동이 재개된것을 축하하여 이 당중앙위원회에 전문을 보냄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평양시군중집회진행 ▶우리 인민이 세계 인민들과의 친선과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조선위원회》결성모임을 가짐

1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김책수산사업소에 근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와 철도운수부문의 대들에 철도근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각각 공포하심 ▶우리 나라와 가이아나협동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에 관한 공동콤뮤니케발표

22일 무산지구전투승리 서른다섯돐기념중앙강연회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일본반동당국이 과거 조선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침략의 희생자들인 조선사람의 유골을 가지고 남조선괴뢰들과 정치적흥정을 벌리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남북적십자회담 대표들사이의 제6차접촉에서는 쌍방대표단 부단장을 책임자로 하는 실무회의를 열데 대하여 합의

23일 유서깊은 혁명전적지 량강도에서 력사적인 무산지구전투승리 서른다섯돐을 기념하는 보고회, 다채로운 공연, 야회 등 뜻깊은 행사들이 진행

25일 로동신문이 사설《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일색화하자》를 실음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열아홉돐에 즈음하여 중앙기념강연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수단 5월혁명승리 다섯돐에 즈음하여 1974년 5월 25일부터 31일까지를《조선수단친선주간》으로 설정

26일 수단혁명승리 다섯돐기념군중집회 진행

2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150억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기위하여 조국에 온 재일본조선인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2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핀란드공산당합법화 30돐에 즈음하여 이 당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냄

2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군출판사에 선물을 보내시고 이곳일군들을 국가표창하심 ▶우리 나라가 유엔전문기구의 하나인 만국우편동맹에 가입

30일 로동신문이 사설《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더욱 철저히 준비시키자》를 실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스위스로동당 제10차대회에 축전을 보냄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부 행정구역을 고칠데 대한 정령을 공포 ▶우리 나라 외교부대변인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미군무력을 더욱 증강하고있으며 조선에서 정세를 가일층 긴장시키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뻬루 《엑스쁘레쏘》신문주필부부를 환영하는 집회가 있었음

6 월

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재일조선인대표단과 재일조선민주녀성대표단을 만나심 ▶애국적청년학생

들과 인민들에 대한 남조선괴뢰도당의 파쑈적탄압을 규탄하여 평양시청년학생성토대회진행 ▶ 콩고인민공화국군사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와 평양시주둔부대 군중집회 가짐

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페루《엑쓰쁘레쏘》신문주필부부와 담화를 하심

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상업근위칭호를 제정함에 대한 정령을 공포하심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일떠선 남조선의 애국적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박정희군사깡패들의 류혈적탄압만행을 규탄하여 련합성명 발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6. 3투쟁열돐기념 평양시청년학생보고회 진행

4일 량강도내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서른일곱돐기념보고회, 집단체조, 웅변모임 등으로 이날을 뜻깊게 기념 ▶조선민주법률가협회가 남조선의 민주인사 김대중에 대한 박정희도당의 파쑈적탄압만행을 규탄하여 성명

5일 조선로동당대표단과 노르웨이사회인민당대표단사이에 회담▶우리 나라와 쏘련사이의 1974년도 통상의정서 조인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재일조선중앙예술단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공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재일조선인문학예술부문일군들 11명에게 인민예술가, 인민배우, 공훈예술가, 공훈배우 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공포하심, 수여식이 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었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심(12일까지) ▶ 조선소년단창립 스물여덟돐을 맞이하여《김일성소년영예상》수여식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있었음

7일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결성 열다섯돐과 재일조선중앙예술단창립 열아홉돐기념보고회가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었음 ▶페루조선친선문화협회서기장부부 환영집회가 있었음 ▶우리 나라 정부와 웽그리아인민공화국정부사이의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2차회의 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 ▶군사정전위원회 제351차회의, 우리측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부추김을 받는 남조선괴뢰도당이 남조선에 진투폭격기대대를 비법적으로 끌어들이며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정탐과 적대행위를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적측에 강경히 항의하고 책임추궁

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김책제철련합기업소 2명의 일군들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공포하심

9일 우리 나라와 웽그리아녀자배구선수단 사이의 친선경기가 평양체육관에서 진행

1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진시 녀성들이 사회적운동으로 새 수원지를 성과적으로 건설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이 공사에 참가한 모든 녀성들에게 선물을 보내주심 ▶ 우리 나라와 쏘련사이의 1974~1975년도 문화교류계획서 조인

1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함경북도위원회 전원회의확대회의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23일까지 함경북도 사업을 현지지도하심 ▶위대한수령님께서 페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주심 ▶ 로동신문이 사설《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을 다그쳐 모두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살며 일하게 하자》를 실음 ▶조국방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녀성집회가 있었음

1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리마평양종합방직공장에 선물을 보내심

18일 2. 8유술선수단과 로므니아종합및올림픽유술선수단사이 친선경기 진행 ▶제16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진행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제2백화점에 국기훈장제1급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공포하심

2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의 한돐에 즈음하여 평양시기념보고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23일 청진조선소에서 3, 750톤급 대형선미트랄선—《창광산》호를 종전보다 1. 5배의 속도로 건조, 현지에서 진수식 성대히 진행 ▶제171차로 조국으로 돌아오는 재일동포들을 태운 귀국선이 청진항에 와닿음

24일《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평양시민들의 군중대회와 시위진행, 평양시군중대회에서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채택 ▶ 우리 나라와 라오스왕국 사이의 대사급외교관계설정

25일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이 시작되는것과 관련하여 공동성명발표 ▶신천에서《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평양시와 황해남도, 황해북도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성토모임 가짐

2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청년가극단 작곡가에게 공훈예술가 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공포하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남조선적십자사측이 외국에까지 가서 그 무슨《리산가족문제》에 관한 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우리를 터무니없이 비방하는 한편 쌍방사이에 진행되고있는 남북적십자회담에 적십자국제위원회를 개입시켜보려는 비렬한 음모를 꾸미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조선로동당대표단과 핀란드공산당대표단사이의 회담진행 ▶신천군 원암리에서《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전국의 청소년학생들이 성토대회 가짐

2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체신부문일군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공포하심 (공훈통신공 6명, 공훈방송기계공 1명, 공훈우편 통신원 3명)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재일조선인예술단이 출연하는 혁명가극《금강산의 노래》공연을 보시고 그들을 만나시여 공연성과를 축하하심

28일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들의 제7차접촉이 있었음, 우리측은 남조선측이《반공》분렬주의 로선을 버리고 단결과 통일의 길로 나갈데 대하여 강력히 요구 ▶영웅적조선인민군 해군함정들이 동해 우리측연해에 불법침입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해군함선을 격침 ▶노르웨이조선련대성위원회대표단 환영집회 진행 ▶조선인민의 철천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의 침략책동을 규탄하는 전국녀성들의 성토대회진행

2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건설부문 일군들에게 공훈건설자(5명), 공훈설계가(3명) 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공포하심

30일 우리 나라 외교부대변인은 미제의 사촉밑에 남부웰남괴뢰도당이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진쟁행위를 강화하며 웰남에 관한 빠리협정을 더욱 엄중하게 파피유린하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7 월

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근로단체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발표 열돐기념 강연보고회 진행 ▶조선중앙통신사가 남조선반역집단이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해군함선을 불법침입시켜 수백발의 총포

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한것을 준렬히 규탄하여 성명 ▶군사정전위원회 제352차회의, 동해의 우리측연해에 해군함선을 침입시켜 우리측을 반대하는 악랄한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한데 대하여 적측에 강경히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

2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미제의 부추김밑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레바논에 대한 야만적인 무력침공을 더욱 미친듯이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알제리근로자총동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근로자집회가 있었음

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을 고수하기 위한 평양시군중대회가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었음 ▶로동신문이 글《통일이냐, 분렬이냐》를 3면과 4면에 실음 ▶조선로동당대표단과 노르웨이공산당대표단사이 회담이 있었음 ▶조선로동당대표단과 메히꼬공산당대표단사이의 회담이 있었음 ▶평양시 탁구선수단과 네팔탁구선수단 사이 친선경기 진행

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3명의 예술부문일군들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공포하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에서 돌아온 애국적인 상공인들을 국가표창하심 ▶로동신문이 사설《남북공동성명을 고수하며 민족의 공동강령인 3대원칙을 구현하여 통일위업을 촉진시키자》를 실음 ▶남북조절위원회 우리측 공동위원장이 7.4남북공동성명발표 두돐에 즈음하여 성명발표 ▶우리 나라 방문 알제리녀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녀성집회가 있었음

5일 로동신문이 사설《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여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힘차게 밀고나가자!》를 실음▶우리 나라와 하쉐미트 요르단왕국사이의 외교관계수립에 관한 공동콤뮤니케를 발표

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무산광산 채광자동차사업소 대형자동차운전사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공포하심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선물을 보내심

7일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대표단사이의 회담진행

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수대창작사 용접공에게 로력영웅칭호, 6명의 미술가에게 공훈예술가칭호, 함경남도 예술단 성악배우에게 공훈배우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공포하심▶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 탄생 여든돐기념중앙토론회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9일 몽골인민혁명 쉰세돐기념집회가 있었음

10일 김형직선생님탄생 여든돐에 즈음하여 중앙강연보고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제1차적십자실무회의가 있었음, 우리측 부단장은 남조선적십자사측에 불순한 정치적모략을 일삼지 말고 쌍방이 합의한 다섯가지원칙을 준수할데 대하여 확약할것을 제의▶조선로동당대표단과 희랍공산당대표단사이의 회담진행▶우리 나라 민용항공회사와 알제리국영항공회사가 총판매대리협정과 지상봉사협정체결

1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시 건설총국 동구공공건물사업소 작업반장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공포하심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7월 26일 꾸바인민의 무장봉기 스물한돐에 즈음하여 공동성명 발표, 7월 26일 꾸바인민의 무장봉기 스물한돐에 즈음하여 1974년 7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의 기간을《꾸바인민과의 련대성월간》으로 설정 ▶조선민주법률가협회와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1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13일)가 박정희파쑈도당이 이른바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에 관련시켜 수천명의 애국적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체포구금하고 야만적인 고문과 박해를 가하며 극형까지 들씌우는 만행을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각각 발표

12일 우리 나라와 뻬루공화국 사이의 무역대표부 설치에 관한 협정조인(평양) ▶평양에서 사회주의나라청소년친선 국제자유레스링경기대회 진행(15일까지)

1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경공업과학원에 선물을 보내시고 이곳일군들을 국가표창하심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탄압을 규탄하는 평양시성토대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14일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는 인간백정 박정희악당이《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살인공판놀음을 벌려 놓고 이른바《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에 관련시켜 50여명의 애국적청년학생들과 각계인사들에게 극형과 중형을 들씌우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프랑스공산주의청년운동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청년학생집회가 있었음 ▶우리 나라와 꾸바녀자롱구선수단 사이의 친선경기진행

15일 조선기독교도련맹 중앙위원회가 박정희파쑈악당이 남조선의 수많은 애국적종교인들과 각계층인사들, 청년학생들을 이른바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에 관련시켜 극형과 중형을 들씌우면서 그들에 대한 집단적인 학살처형음모를 기어이 실현해보려고 발광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탄압을 규탄하는 평성시성토대회 진행 ▶이라크공화국선포 열여섯돐과 7월 17일혁명승리 여섯돐을 기념하는 친선모임을 가짐

16일 로동신문이 사설《우리 당의 출판보도일군들은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하여 혁명의 필봉을 더욱 높이 추켜들자》를 실음 ▶노르웨이공산당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과 관련한 공동보도발표 ▶우리 나라와 스리랑카 정부사이의 1974~1975년도 통상협정체결

17일 조쏘정부사이의 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11차회의(22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진행

18일 통일혁명당대표가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과 관련하여 국내외기자들과 만남 ▶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자유와 민주주의와 나라의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여 온 박정희파쑈살인귀들이 불법무도하게도 그들에 대한 집단적인 학살처형음모를 기어이 성사시켜보려고 발광하고있는 것을 규탄하여 전세계 법률가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뽈스까인민공화국 서른돐 평양시 기념회 진행

19일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는 남조선의 박정희일당이 이른바《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에 관련시켜 수천명의 애국적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부당하게 체포구금하고 집단적으로 학살처형하려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전세계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레바논조선련대성위원회 위원장부부를 환영하는 집회가 있었음

20일 조선중앙통신사가 박정희반역집단이 서해어청도 서쪽에서 이른바 북의 간첩선을 격침시켰다고 떠들어대면서 우리를 헐뜯는 책동을 준렬히 단죄규탄하여 성명 ▶우리 나라 종교단체들에서 박정희파쑈살인귀들이 남조선의 수많은 종교인들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애국적인민들을《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에 관련시켜 집단적으로 학살처형하려고 발광하고있

는것과 관련하여 세계각국 종교단체들과 종교인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

21일 제12차전국민족체육경기대회 25일까지 개성에서 진행

2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의학과학원에 선물을 보내심 ▶칠레인민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지지하는 평양시민들의 련대성군중집회 진행 ▶재일본조선청년예술체육대표 조국방문단이 평양에 옴

24일 제2차적십자실무회의 진행, 우리측 부단장 이미 쌍방대표접촉에서 합의된 실무회의 의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의견들을 다시 제기

2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연피해를 막고 국가와 인민의 재산을 지켜낸 조선인민군 제779군부대 장병들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문과 선물을 보내심 ▶평양시 청년학생들 성토모임을 열고 남조선청년들과 인민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탄압을 준렬히 규탄 ▶꾸바인민의 무장봉기 스물한돐 평양시 기념집회 진행

26일 일본로동조합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근로자집회 진행 ▶오스트랄리아평화운동대표단을 환영하는 집회

2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김요웅동무소속비행구분대에 선물을 보내심 ▶로동신문이 사설《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농촌테제의 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를 실음

2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7명의 재일본조선체육인들에게 공훈체육인 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공포하심 ▶로동신문이 사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우리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을 실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이른바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에 관련시켜 또다시 남조선의 수많은 청년학생들과 각계인사들에게 극형과 중형을 들씌우는 박정희파쑈도당의 인간백정행위를 규탄하여 성명

30일 재일본조선청년예술체육대표 조국방문단을 환영하는 평양시청년학생 집회 진행

3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기계창안제작에서 모범을 보인 단위들에 선물을 보내심 ▶우리 나라와 오스트랄리아사이의 외교관계 설정에 관한 공동콤뮤니케발표

8월

2일 로동신문이《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이다》를 실음 ▶우리 나라 정부와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사이의 1974~1975년도 문화교류계획서 조인 (평양)

4일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외교부장 우리 나라 방문결과에 대한 공동보도 발표

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1년 8월 6일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의 세돐기념 평양시보고회 평양대극장에서 진행

6일 평양시 수천명의 학생소년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아르헨띠나소년대표단을 비행장에서 열렬히 환영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 5대강령에서 천명하신 대민족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방침을 조속히 실현할데 대하여》를 토의하는 제61차 확대회의 진행, 회의에서 남조선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들, 모든 해외교포단체들과 해외교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사로청중앙위원회 제9차전원회의 진행

8일 평양시 교원,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조국방문 제2차재일본조선교육일군방문단과 재일본조선고급학교학생조국방문단을 혈육의 정으로 열렬히 환영

11일 일본중의원의원인 자유민주당 아세아, 아프리카문제연구회 의장 일행을 환영하는 군중집회 평양대극장에서 진행

12일 우리나라와 벌가리아 두 나라 정부사이의 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6차회의 진행 ▶군사정전위원회 제353차회의 진행, 회의에서 우리 측은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악랄한 정탐과 군사적도발행위를 계속 감행하고있는 적측에 대하여 강경히 항의

13일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 진행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관근위 천리마검덕광산에 선물을 보내심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 진행 ▶우리 나라 당및 정부대표단과 적도기네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 사이의 회담진행 ▶세네갈전국기자협회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출판보도일군들의 모임 진행 ▶일본 간사이지방학자대표단을 환영하는 집회 진행

1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박정희파쑈도당이 이른바《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에 관련시켜 또다시 살인 재판놀음을 벌려 무고한 사람들에게 매일과 같이 극형과 중형을 들씌우는 극악무도한 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는 것을 규탄하여 성명 ▶아랍법률가동맹대표단을 환영하는 군중집회 진행

18일 아르헨띠나소년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학생소년집회와 아르헨띠나소년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학생소년들의 친선야회가 있었음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박정희파쑈교형리들이 이른바《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에 관련시켜 또다시 군사재판놀음을 벌려놓고 애국적인민들과 각계층인사들에게 집단적으로 극형과 중형을 들씌우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우리 나라 정부가 적도기네공화국정부에 경제 및 기술적지도를 줄데 대한 두 나라 정부사이의 협정조인 ▶제2차재일본조선교육일군조국방문단을 환영하는 교원학생집회 진행 ▶《4월 18일 우승컵》쟁취를 위한 전국청소년학생 제1차 종목별체육경기대회 21일까지 진행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조선소년들과 아르헨띠나소년들이 련합모임을 가짐 ▶조선중앙통신사는 남조선반동들이 박정희에 대한《저격사건》에 우리를 함부로 걸고드는 파렴치한 모략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남조선에서 일어난 박정희역도에 대한《저격사건》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가짐 ▶로므니아해방 서른돐 남포시기념회 진행

20일 조선기독교도련맹중앙위원회는 박정희파쑈교형리들이 또다시 군사재판놀음을 벌려놓고 남조선의 수많은 애국적청년들과 각계층인사들에게 극형과 중형을 들씌우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제11차전국체육구락부생체육경기대회 열림 ▶재일본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을 환영하는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집회 진행

21일 우리 나라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문화교류계획서 조인

22일 우리 나라 2.8축구선수단과 쏘련우크라이나《까르빠띠》축구선수단 사이 친선경기 진행

23일 일본 《주체사상연구회》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사회과학자들과 교원들의 집회 진행 ▶수리아조선친선협회대표단 환영집회 진행

24일 모리따니전국근로자동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근로자집회 진행 ▶오스트랄리아 사회과학자대표단

환영집회 진행

25일 평안남도의 근로자들이 궐기모임을 가지고 총돌격전을 세차게 벌려 년간계획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끝낼것을 결의

26일 수십만의 평양시 근로자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원우수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남부웰남공화대표단을 연도에서 열렬히 환영

27일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의 슬로벤스꼬인민봉기 서른돐 평양시기념집회 진행 ▶우리 나라 대표단과 남부웰남공화대표단사이의 회담진행

28일 북과 남사이의 제3차적십자실무회의 진행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르완다국가대표단 사이의 회담진행

29일 조선로동당 대표단과 칠레로동자농민인민통일행동운동당대표단 사이의 회담 진행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한 원우수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남부웰남공화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핀란드정부문화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교육문화일군들의 모임 진행

30일 우리 나라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사이의 경제 및 기술적협조에 관한 일반협정과 경제 및 기술적협조에 관한 협정,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조선괴뢰도당이 박정희역적에 대한《저격사건》을 계기로 우리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광란적인《반공》소동을 대대적으로 벌리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31일 이라크농민조합총동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농업근로자 집회

9 월

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빠나마기자대표단을 만나시고 담화를 하심▶이란의 수도에서 열린 아세아경기련맹리사회에서 우리 나라가 아세아경기련맹집행위원으로 선거됨 ▶북창곡산공장조업식진행 ▶건설출판사 창립 스무돐 기념보고회 진행

2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을 높이 받들고 1974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끝내기 위한 구성시 근로자들의 궐기모임 진행 ▶웰남민주공화국창건 29돐평양시기념회 진행 ▶우리 나라가 아세아 격검련맹에 가입

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모든 문제해결에서 중심고리를 튼튼히 틀어잡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자》발표 열다섯돐기념 사회과학토론회 진행

4일 남북조절위원회 우리측 부위원장이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들의 접촉마저 파탄시키려는 남조선측의 부당한 행위와 관련하여 성명발표 ▶우리 나라 외교부가 박정희괴뢰악당이 남조선에서 일어난《저격사건》에 우리 공화국과 총련을 터무니없이 걸고들어 비방중상하는 일대《반공》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우리 나라가 아세아권투련맹, 아세아자전거련맹(3일), 아세아력기련맹, 아세아사격련맹(1일)에 가입

5일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나리다 도모미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사회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기 위하여 평양에 옴 ▶조선로동당대표단과 노르웨이사회민주당대표단사이의 회담진행 ▶벌가리아사회주의혁명승리 서른돐 평양시기념집회가 평양대극장에서 진행

6일 조선로동당 대표단과 일본사회당 대표단사이의 회담 진행 ▶우리 나라와 니제르공화국 사이의 외교관계설정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발표

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는 또고공화국 그나씽그베 에야데마대통령을 맞이하심, 평양시내 수십만 근로자들이 연도에서 대표단을 열렬히 환영, 1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또고공화국대통령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성대히 진행, 12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또고공화국대통령을 바래우심▶우리 나라가 아세아체조련맹, 아세아아마추어 수영련맹에 각각 가입

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기념중앙보고대회 성대히 진행, 공화국각지에서 기념보고회들이 광범히 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만나시고 그들을 위하여 오찬을 베푸심

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물여섯돐을 경축하는 성대한 연회를 베푸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또고공화국대통령과 함께 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을 경축하여 남포시안의 청소년학생들이 마련한 집단체조《주체의 해발》을 보심 ▶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을 경축하여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충성의 노래모임과 평양시 근로자들의 야회가 있었음

11일 조선로동당 대표단과 일본사회당 대표단 사이의 제2차회담 진행 ▶나리다 도모미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사회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었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또고공화국 정부사이의 경제 및 기술적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 ▶중국공산당당일군친선방문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칠레 근로자들 및 인민과의 련대성 평양시 근로자집회 진행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또고공화국 사이의 공동콤뮤니케가 조인(평양),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또고공화국 대통령 그나씽그베 에야데마각하께서 공동콤뮤니케에 서명하심 ▶조선로동당과 일본사회당 사이의 공동콤뮤니케 발표 ▶군사정전위원회 제354차회의 진행, 회의에서 우리측을 반대하는 여러가지 적대적도발책동을 감행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범죄행위를 강력히 항의규탄

13일 우리 나라가 아세아송구련맹, 아세아축구련맹에 각각 가입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채취공업부문일군들에게 공훈광부(25명) 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공포하심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봉사부문일군들에게 공훈리발사(7명), 공훈료리사(6명), 공훈재단공(1명), 공훈판매원(5명), 공훈편의수리공(4명), 공훈도시관리공(4명), 공훈량정창고원(2명), 공훈정미공(1명) 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공포하심

15일 총련을 탄압하려는 박정희괴뢰도당과 일본당국자들의 음모책동을 반대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평양체육관에서 진행 ▶우리 나라와 이란사이에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 ▶국제민주법률가협회통보대표단 환영집회 진행

16일 오지리의 수도 윈에서 진행된 국제원자력기구 제8차총회에서 우리 나라가 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

1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반미세계기자대회에서 하신 축하연설 5돐기념강연보고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아르헨띠나기자대표단을 환영하며 조선아르헨띠나친선협회를 결성하는 집회 진행

18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제62차확대회의가 열림, 확대회의에서 총련을 파괴하려는 남조선괴뢰도당과 일본당국자들의 음모책동을 반대할데 대하여 토의하고 총련을 파괴하며 재일동포들을 탄압하려는 박정희괴뢰도당과 그에 발맞추고있는 일본당국의 범죄적인 정치적흥정놀음을 항

의규탄하는 성명을 채택 ▶총련을 탄압하려는 박정희괴뢰도당과 일본당국자들의 음모책동을 반대하는 해주시, 원산시, 개성시, 청진시, 함흥시, 혜산시, 신의주시, 강계시를 비롯하여 각지에서 군중대회 진행 ▶유고슬라비아청년동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청년학생집회 진행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이딸리아공산당 대표단 사이의 회담진행 ▶이딸리아 뻬에몬뜨주의회대표단 환영집회 진행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다오메정부기관지《다오엑스프레스》사장을 접견하시고 담화를 하심

2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장진종양장에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공포하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집회 진행

2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는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대통령 모크타르 울드 다다호를 맞이하심, 평양시내 수십만 근로자들 연도에서 대표단 일행을 열광적으로 환영, 2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모크타르 울드 다다호대통령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성대히 진행, 23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대통령을 바래우심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들의 제8차접촉이 있었음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는 일본당국이 남조선통치배들과 공모결탁하여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를 탄압하려는 범죄적책동을 더욱더 로골화하고있는것을 반대하여 성명발표 ▶오지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촉진협회부위원장부부를 환영하는 군중집회 진행

2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재일본조선청년예술체육대표조국방문단, 제2차재일본조선교육일군조국방문단, 재일조선고급학교학생 조국방문단을 만나시고 《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라는 강령적연설을 하심

25일 북과 남사이의 제4차적십자실무회의가 있었음

2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재일본조선고급학교학생조국방문단학생들이 출연하는 예술공연을 보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심 ▶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대표단과 세네갈공화국 국회대표단사이의 공동콤뮤니케발표 (평양)

2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아랍사회부흥당 총비서인 수리아아랍공화국 하페즈 알 아싸드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당및정부대표단을 맞이 하심, 평양시안의 수십만의 근로자들 연도에서 수리아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열렬히 환영, 10월 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진행, 군중대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무조건 물러가야 한다》 라는 연설을 하심, 10월 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대표단을 바래우심

29일 뽈스까인민통일전선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집회 진행 ▶전아프리카청년운동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집회진행 ▶일본교직원조합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교직원들의 집회 진행

10 월

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두단오리공장에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공포하심 ▶ 우리 나라 정부와 수리아아랍공화국정부사이의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조인 ▶세계직련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근로자집회진행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동해에서 조난당하여 일본에 표착되여 일본경찰에 억류되여있는 우리 선원들을 돌려보내줄데 대하여 일본적십자사에 전문을 보냄

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림업부문일군들에게 공훈벌목공(3명),공훈운재공(5명), 공훈류벌공(1명)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공포하심 ▶ 우리 나라 방문 일본사회당 부인활동가 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녀성집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6일 청진조선소에서 1만 4천톤짜리 대형화물선《왕재산》호를 무어 바다에 띄움 ▶학생절열두돐 중앙보고회 진행 ▶ 중앙인민위원회에서 모범학생들에게《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공포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올해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아프리카 일련의 나라들의 공동발기에 의하여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가 의정으로 상정된것과 관련하여 비망록을 발표 ▶ 우리 나라 정부와 라오스민족련합정부사이의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조인

8일 제4차재일동포상공인대표단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 도착

9일 우리 나라와 자메이카 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 설정

10일 로동신문이 사설《주체시대의 혁명위업을 선두에서 이끌어나가는 영광스러운 전위부대, 조선로동당》을 실음 ▶ 2.8세멘트공장에 현대적인 대형소성로를 짧은 시일안에 건설하고 조업식현지에서 성대히 진행

11일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나라 군대 군사3종경기선수권대회 진행(13일까지) ▶ 일본총평 및 중립로련대표단을 환영하는 평남도 남포로동자들의 로천대회와 집단체조《주체의 해발》이 진행

13일 체육절 스물다섯돐기념 중앙강연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14일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어지돈관개건설종합기업소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공포 ▶ 독일민주주의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 함흥시기념집회진행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서 어지돈관개건설종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연탄저수지준공식 성대히 진행 ▶ 조선직업총동맹대표단과 일본총평및중립로련대표단 사이의 공동성명 발표 ▶ 우리 나라 정부와 로므니아정부사이의 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5차회의 진행 (부꾸레슈띠)

16일 우리 나라 정부와 뽈스까정부 사이의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위회 제3차회의 진행 (와르샤와)

17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아르헨띠나공화국국회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인민문화궁전) ▶ 우리 나라 외교부가 월남에 관한 빠리협정을 란폭하게 파괴유린하고있는 미제와 남부월남괴뢰도당의 범죄적행위를 단호히 규탄하여 남부월남에서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화목을 이룩하고 남부월남의 내부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립장을 천명한 남부월남공화 림시혁명정부의 10월 8일성명과 월남민주공화국정부의 10월 11일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여 성명발표 ▶ 우리 나라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 투표없이 만장일치로 가입

1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방직공업부문 12명의 일군들에게 공훈방직공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을 공포하심 ▶위대한 수령님께서 국방체육단에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공포하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정당한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는 박정희도당의 파쑈적폭압을 규탄하여 성명 ▶자이르공화국 의회그루빠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남조선학생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을 규탄하는 평양시대학생성토대회 진행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뽀르뚜갈공산당비상대회를 열렬히 축하하여 전문보냄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대표단과 인도공화국 국회대표단사이의 회담진행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애국과 정의의 위업에 떨쳐나선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만행을 규탄하여 성명

20일 제17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 옴 ▶자이르공화국 대통령관방특별고문부부와 그 일행, 인도공화국 국회대표단을 환영하여 평안남도 남포시 학생소년들이 출연한 집단체조《주체의 해발》을 남포시 경기장에서 진행

21일 로동신문이 사설《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에 맞게 당을 강화하고 그 전투적위력을 더욱 높이자》를 실음

22일 인도공화국 국회대표단을 환영하여 평양시군중집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또고공화국 정부사이의 경제 및 기술적협조에 관한 의정서 조인

23일 조선로동당대표단과 파키스탄인민당대표단사이의 회담진행▶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프랑스공산당 비상대회 앞으로 축전보냄

2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수리아공산당창건 선돐과 레바논공산당창건 쉰돐에 즈음하여 이 당 중앙위원회에 각각 축전을 보냄

25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55차회의, 우리측은 남조선에 핵무기와 핵무기를 실은 함선들을 끌어들이는 미제침략자들이《유엔군》의 모자를 벗고 모든 침략무력을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지체없이 물러갈것을 요구 ▶만수대예술단이 알제리, 벌가리아, 로므니아를 방문하기 위하여 평양을 떠남

2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전력설계사업소 설계원에게 공훈설계원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공포하심 ▶남조선 언론인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박정희괴뢰도당의 언론탄압을 규탄하는 평양시 기자, 편집원대회 진행 (인민문화궁전)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는 박정희파쑈도당의 횡포한 언론탄압에 항거하여 일떠선 남조선언론인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발표

27일 파키스탄인민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인민문화궁전) ▶제4차재일동포상공인조국방문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평양대극장)

28일 우리 나라 정부와 노르웨이왕국정부사이의 무역협정 조인 (평양) ▶독일민주주의공화국민족전선대표단을 환영하여 평양시집회진행 ▶우리 나라와 베네수엘라공화국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설정 (까라까스)

2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강도사업을 11월 8일까지 현지에서 지도하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11월 8일 조선로동당 자강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31일 알제리혁명개시 스무돐에 즈음하여 조선알제리친선협회,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공동주최로 1974년 11월 1일부터 7일까지 기간을《알제리인민과의 친선주간》으로 설정

11 월

2일 광주학생운동 마흔여섯돐기념 청년학생중앙보고회 진행 (인민문화궁전)

3일 알제리혁명개시 스무돐기념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인민문화궁전) ▶우리 나라 정부와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정부사이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조인

4일 제172차로 조국에 돌아오는 재일조선공민들이 청진항에 도착 ▶우리 나라 과학원과 중국과학원사이의 1975～1976년도 과학협조에 관한 사업계획서 조인

5일 북과 남사이의 제5차적십자 실무회의 진행 ▶강반석혁명학원에서 알제리혁명개시 스무돐을 기념하는 친선모임을 가짐 ▶또고전국과학연구소 소장을 환영하는 평양시과학자들과 교원들의 집회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발표 열돐기념 사회과학토론회 진행 ▶우리 나라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1975년도 상품류통및지불에 관한 의정서 조인

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발표 열돐 문화예술인중앙경축보고회 진행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승리 쉰일곱돐을 맞이하여 평양시기념집회 진행, 쏘련영화상영주간시작 ▶조중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5차회의 의정서 조인 ▶산간지대의 하나인 양덕군 태홍협동농장에서 결산분배총화진행

7일 로동신문이 사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문예로선의 빛나는 승리》를 실음

8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제63차확대회의 진행

9일 체스꼬슬로벤스꼬민족전선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집회 진행

1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7명의 인쇄부문일군들에게 공훈인쇄공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공포하심

1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평남도 농업부문일군협의회 진행

13일 우리 나라와 체스꼬슬로벤스꼬사이의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8차회의 의정서 조인

14일 일본법률가대표단을 환영하는 군중집회진행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륙해운부문일군들에게 공훈자동차운전사 (6명) 칭호, 공훈선원 (5명) 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공포하심

16일 우리 나라 외교부대변인은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팔레스티나인민의 합법적대표의 참가밑에 팔레스티나에 관한 문제가 토의된것을 지지하여 성명 ▶우리 나라 대표단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및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경제 및 재정대표단과의 회담 (17일까지)

17일 제17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1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쌀림 루바이아 알리대통령리사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을 맞이하심, 평양시안의 수십만 근로자들이 연도에서 민주예멘의 친선의 사절을 열렬히 환영, 2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진행, 22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방문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대표단을 바래우심 ▶우리 나라 정부와

웽그리아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1975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조인

20일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및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경제 및 재정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진행▶황주군 룡천협동농장에서 대풍을 이룩한 올해농사를 결산총화하는 모임 진행

21일 조선로동당대표단의 부룬디공화국 방문에 관한 공동보도 발표

22일 우리 나라가 민주예멘에 경제및기술적원조를 제공할데 관한 우리 나라 정부와 민주예멘정부사이의 협정조인▶강서군 천리마청산협동농장에서 1974년의 농사를 빛나게 총화하는 농장원총회를 진행 ▶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우리 나라 정부초청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이란제국 황제 동생 아브도르 레자 파흐라비친왕을 환영하여 연회 차림 ▶우리 나라와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공동콤뮤니케 발표

2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란제국황제동생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심 ▶ 우리 나라 외교부대변인은 제국주의침략의 우두머리인 미국대통령 포드의 남조선행각을 규탄하여 성명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로므니아공산당 제11차대회에 축하문을 보냄 ▶몽골인민공화국선포 쉰돐 평양시기념집회 진행 ▶ 우리 나라와 체스꼬슬로벤스꼬사이의 1975년도 상품호상공급 및 지불에 관한 협정 조인 ▶우리 나라 정부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1975년도 상품류통에 관한 의정서 조인

27일 로동신문이 사설 《력사에 류례없는 대풍작, 농촌테제의 위대한 승리》를 실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4차회의 성대히 진행(30일까지)▶우리 나라와 보쯔와나공화국사이 외교관계 설정 ▶우리 나라 외교부대변인은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론 놀매국도당을 유엔에서 내쫓고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의 합법적권리를 회복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성명

2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년간계획을 40일 앞당겨끝낸 신창탄광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심, 전달모임 12월 11일에 현지에서 진행▶북과 남사이의 제6차적십자실무회의, 우리측은 회담을 위하여 모든 조건과 환경이 훌륭히 마련되여있는 평양에서 적십자회담을 열데 대한 우리의 제의를 남조선측이 지체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

3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4차회의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내세운 과업을 빠른 시일안에 완전히 실현할데 대하여》 결정을 공포하심 ▶이란의 아브도르 레자 파흐라비친왕전하를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인민문화궁전)

12 월

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는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맞이하심, 평양시안의 근로자들이 캄보쟈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열렬히 환영, 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바래우심

4일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아랍사회주의동맹대표단사이의 회담 진행

5일 로동신문이 사설《력사에 빛날 농촌테제의 대승리, 새로운 위대한 비약을 위한 투쟁의 선언》을 실음 ▶아랍사회주의동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진행 (인민문화궁전) ▶아랍사회주의동맹대표단을 환영하여 혁명가극《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공연▶남북조절위원회 우리측 대변인은 서울측대변인이 조절위원회 부위원장 접촉문제와 관련한 이른바《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여 우리를 터무니없이 비방하여 나선것을 규탄하여 성명발표

6일 아랍사회주의동맹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에 대한 공동보도 발표

8일 쏘련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청년학생집회 진행

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자이르공화국 모부투 쎄쎄 쎄꼬 꾸꾸 느구벤두와자 방가대통령을 맞이하심, 평양시내 수십만 근로자들 자이르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열렬히 환영,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자이르공화국 모부투 쎄쎄 쎄꼬대통령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대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신흥세력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단결하여야 한다》의 연설을 하심, 16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자이르공화국 대통령을 바래우심

10일 일본 니이가다현재일조선인귀국협력회대표단을 환영하는 군중집회 인민문화궁전에서 가짐

13일 우리 나라 정부와 니제르공화국 정부사이의 경제 및 기술적협조에 관한 협정조인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에서 귀국한 4명의 동포들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공포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재일본조선인대표단이 평양도착▶우리 나라와 오지리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및 외교대표교환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발표(17일부터 효력)▶우리 나라와 웽그리아사이의 과학기술협조분과위원회 제3차회의 의정서 조인 (부다페슈트)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협주단 작곡가에게 공훈예술가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공포하심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년간계획을 20일 앞당겨끝낸 천리마룡성기계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심, 전달식 현지에서 19일에 진행 ▶ 강원욱동무가 일하는 조선소에서 5천톤급 화물선《황금산》호를 무어 바다에 띄움 ▶우리 나라 정부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정부사이의 과학기술협조분과위원회 제14차회의 의정서 조인

16일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실현 열다섯돐기념중앙보고대회 진행(인민문화궁전) ▶우리 나라 정부와 자이르공화국 집행리사회 사이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과 무역협정조인(평양)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는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을 침략적군사기지로 더욱 전변시키고 조선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조성하는 악랄한 범죄행위를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17일 조선중앙통신사는 고기잡이를 하다 세찬 풍랑으로 떠내려가게 된 황해남도 옹진천해양식사업소 안강망어선《6－1102》호에 대하여 남조선괴뢰도당이 괴뢰해군함선을 동원하여 그것을 인천항에 끌어다놓고 갖은 비렬한 음모책동을 벌리고있는것을 규탄하며 우리의 어선을 당장 돌려보낼데 대하여 성명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일본사회당 제38차대회앞으로 축전보냄

20일 우리 나라 외교부대변인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수많은 핵탄두와 핵무기들을 끌어들이고있는 엄중한 범죄행위를 단호히 규탄하여 성명▶우리 나라와 스위스련방 사이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으며 외교대표를 교환할데 대한 공동콤뮤니케 발표(베른)▶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유고슬라비아 라지오텔레비존방송협회 사이에

방송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협정 조인(베오그라드)▶군사정전위원회 제357차회의, 우리측은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이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남조선에 핵탄두와 핵폭탄을 끌어들이며 우리측을 반대하는 범죄적행위를 감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적측에 강경히 항의하고 책임추궁

21일 우리 나라와 중국사이의 1975년도 상품교류에 관한 의정서 조인 (베이징)

23일 우리 나라 정부와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사이의 1975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조인

24일 우리 나라 외교부대변인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고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미제가 꾸며낸 유엔의 그 어떤 《결의》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데 대하여 성명 발표 ▶ 조중국경하천운하협조위원회 제14차회의 합의서 조인

2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년말특별상금을 줄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공포하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에 즈음하여 중앙강연회 진행 (인민문화궁전)

27일 로동신문이 사설《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진군을 더욱 다그쳐나가자》를 실음

2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수행한것과 관련하여 천리마강선제강련합기업소, 천리마성진제강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대형용광로 건설을 매우 짧은 기간에 끝내고 쇠물을 뽑아낸것과 관련하여 대형용광로 건설에 참가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문을 각각 보내심 ▶ 로동신문이 정론《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길로!》를 실음▶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년말특별상금을 주시는 크나큰 배려에 접하여 금성뜨락또르공장, 평양방직종합공장 종업원들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모임을 가지고 충성의 결의를 다짐 (30일까지 사이에)

30일 우리 나라 정부와 꾸바공화국 정부사이의 1975년도 통상의정서 조인 (평양)

3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평양시 학생소년들의 즐거운 설맞이모임 진행 (평양체육관) ▶우리 나라의 린정광생산기지들인 풍년, 영유, 중산, 쌍룡, 곡산 광산 조업식을 각각 진행

남조선주요일지

(1974년 1~12월)

1 월

1일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동지께 새해를 맞이하여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에서 축하문을 올림

4일 서울에 있는 남조선모방직주식회사 로동자들 긴급회의를 열고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혹독하게 착취하는 박정희파쑈도당과 회사기업주놈들을 규탄, 회의에서 로조활동의 자유, 로동조건의 개선, 단체계약의 리행, 인권보장 등 5개 요구조건을 채택 ▶남조선전역의 80개 대학의 기독교도학생들을 망라하고있는 기독교학생회총련맹 파쑈독재와 외세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새해 투쟁결의를 밝히는 선언문 발표

5일 남조선에서 파쑈적 《유신헌법》의 철폐를 요구하는 《100만명서명운동》발기자들이 자기들의 의로운 운동을 중지할것을 강요하는 박정희파쑈도당의 이른바 《경고담화》를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놈들의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

6일 서울시내에 박정희파쑈테로통치를 반대하여 싸울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반《정부》삐라가 나붙음

7일 남조선작가 61명이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파쑈적인《유신헌법》의 철폐를 요구하는 《100만명서명운동》을 지지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여야 한다 》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광주시내 각 교회목사들 20여명이 모임을 갖고 박정희도당의 추악한 장기 집권과 일인독재체제를 합법화한 파쑈적《유신헌법》을 없애며 새로운 민주주의적헌법을 만들것을 요구하는 선언문 발표

8일 신민당이 모임을 갖고 파쑈적인《유신헌법 개정》에 앞장서 투쟁할것을 결의, 이를 위해 당안에《헌법제도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 ▶박정희역도 괴뢰국무회의에서 남조선의 일체 민주세력과 애국력량,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모든 대상에 대한 전면적인 파쑈공세를 감행하기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1, 2호》를 공포하고 남조선전역의 경찰기구들에 《비상근무상태에 들어가도록 지시》하는 등 군사폭압에 날뜀

9일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가 박정희파쑈악당이 파쑈적인《긴급조치》를 선포한것을 규탄하여 성명발표▶신민당《긴급조치》를 따지기 위하여 《림시국회》를 소집할것을 요구 ▶ 민주통일당 당간부회의를 열고 박정희 군사파쑈악당의 포악무도한 《긴급조치》선포를 배격, 박정희도당의《유신체제》를 철폐시키고 민주주의적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대책을 세워나가며 이를 위해 당안에《비상시국특별위원회》를 내올것을 결정▶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주민 2천 500여명이 수도물을 특권층놈들에게 빼돌리는 《구청》관리들의 죄행에 격분하여 집단적인 항의투쟁 진행▶박정희괴뢰도당 올해부터《기업농집단이주》, 《계약이주》의 명목밑에 남조선주민들을 집단적으로 해외에 팔아넘길 반동적계획을 공포

10일 괴뢰《국방부장관》남조선에 기여든 미태평양지구 공군사령관과 륙군사령관이란자들과 전쟁밀담을 벌리고 전연과 군사시설들을 싸다님

14일 박정희역도 남조선인민들의 반《정부》기세를 거세하려는 회유기만책으로서《긴급조치》3호를 공포▶서울시 성북구 미아동의 살림집과 큰길 주변에 박정희반역도당의 《유신》독재를 반대하며 파쑈적인 《긴급조치》를 배격규탄하는 수십장의 삐라들이 나붙음

15일 서울시 중구 무교동의 한 집 바람벽에 박정희악당의《긴급조치》를 배격규탄하는 벽보가 나붙음▶바다에서 재난을 당하여 목숨을 잃은 선원들의 가족들이 부산시 한진해운회사에 몰려가 기업주놈의 죄행을 규탄하고 아들과 남편의 시체를 당장 찾아내라고 요구▶군사파쑈악당들 대중적인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일환으로 조직된 《100만명서명운동》발기자들을 체포구금하는 만행을 감행 ▶ 박정희괴뢰도당 경호함과 땅크상륙함을 비롯한 여러척의 전투함선들을 서해 기린도서쪽 우리측 해상에 침입시켜 정탐과 적대행동을 감행, 웅도 남쪽에 경찰선을 침입시키는 군사적도발을 일으킴

17일 한 종교단체인 《도시산업선

교련합회》가 서울에서 박정희반역도당의 파쑈적《긴급조치》를 배격규탄하며《유신체제》의 철폐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

19일 박정희군사파쑈도당 고속부대수송선을 비롯한 여러척의 전투함선들을 북반부연해인 서해 하린도 서쪽에 침입시켜 정탐과 적대행동을 감행

20일 경기도 인천시내에 있는 인하녀자고등학교학생 1천여명이 괴뢰당국이 부당한 구실을 붙여 이 학교를 강제로 폐쇄하려는 흉악한 목적밑에 새학년도의 신입생모집을 취소한데 격분하여 일제히 등교를 거부

21일 《도시산업선교회》를 비롯하여 19개의 신구교종교단체로 무어진 《신구교로동문제공동협의회》가 모임을 가지고 미일독점자본가놈들과 그 앞잡이놈들이 남조선로동자들을 가혹하게 억압착취하고 그들의 기본인권을 무참히 유린말살하고있는 사실을 폭로, 모임에서 어용로조우두머리들을 규탄하는 결의문 채택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에서 반독재투쟁에 궐기 ▶군사깡패놈들 반파쑈민주화투쟁에 나섰던 종교인을 포함한 11명의 애국자들을 체포구금

25일 서울대학교의 어느한 대학의 학생 12명이 《유신독재와 결사대결하자》는 투쟁결의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동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편지작전》 시작

26일 괴뢰보건부가 남조선인민들을 북미주와 남미주에 이민으로 팔아넘기려는 배족적책동의 내역에 대하여 공개 ▶ 박정희파쑈악당 이른바 《간첩단사건》을 날조하여 반파쑈민주화를 위하여 싸워온 문학계, 학계, 언론계인사들을 체포

28일 부산에서 현대모직주식회사 300명로동자들이 로조를 결성 ▶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면 애월리 앞바다에 고기잡이나갔던 어민들이 폭압에 날뛰던 제주도《도청》의 파쑈깡패놈을 물에 처넣음

29일 민주통일당 대변인이 24일 일본국회에서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철면피하게 미화하여나선 일본총리 다나까의 떠벌입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30일 박정희매국도당 일본지배층과《대륙붕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을 비롯하여 대륙붕과 관련한 일련의 범죄적인 문건들에《조인》함으로써 우리 나라 남해대륙붕의 령유권과 개발권을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팔아먹는 매국행위 감행

2 월

1일 군사파쑈악당 이른바 《긴급조치위반》으로 체포구금한 《100만명서명운동》의 발기자들에게 《사회적불안》을 조성하고《국가의 안보에 위협》을 조성하였다는 죄명을 씌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형벌을 들씌움 ▶ 반파쑈민주화투쟁에 일떠선 연세대학교 학생 7명에게 5~10년의 징역형을《선고》하는 파쑈적만행을 감행

5일 괴뢰《해안경찰대》의 파쑈깡패들이 서해어장에서 고기잡이 하던 29명의 어민들을 붙들어가는 만행을 감행

6일 통일혁명당 대변인이 남조선문학인들을 체포구금한 박정희파쑈악당의 만행을 규탄하여 담화 발표 ▶서울대학교내의 학생조직인《사자후》회에 망라되여있는 학생들이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미화해나선 일본총리 다나까의 파렴치한 망발을 규탄하여, 일제의 재침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할것을 호소하는 대일선언문과 삐라를 뿌림

8일 충청남도 천원군 성거면에서 애국적주민들 천안경찰서와 련결된 경찰경비전화선 1천 3백메터를 끊어치움

9일 경상북도 대구시내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부형 40여명이 《도교육위원회》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악질학원 모리배들의 부정협잡행위에 항의

15일 박정희괴뢰도당 서해 장산곶 서북쪽 우리측 연해에 간첩선을 침입시켜 정탐과 적대행동을 감행

16일 전주시 삼양산업사의 로동자 50여명이 자기들의 권익을 위하여 로조를 무음

17일 부산시내 동래구 구서동에 있는 태광산업주식회사 로동자들 악질기업주놈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로조를 결성

19일 경상남도 마산의 이른바《수출자유지역》내에 있는 평전공업회사 녀성로동자들 임금을 30% 올릴것을 요구하여 집단적으로 사표를 들이대고 일체 작업을 거부, 20일 요구조건 관철

22일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가 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죄행에 의하여 남조선로동자들이 겪고있는 최악의 참혹한 처지를 폭로하는《로동백서》를 발표

25일 경상남도 마산《수출자유지역》내의 일본독점자본가놈들이 경영하는 전기공업주식회사 수백명의 로동자들이 인격에 대한 모욕을 반대하며 임금의 30%인상과 로동조건의 개선 등을 요구하여 대중적투쟁을 벌림 ▶ 양양의 한 철광개발주식회사의 로동자 700여명이 기업주놈에게 임금을 올릴데 대한 요구조건을 들이대고 투쟁

26일 경기도 부평에 있는 반도상사의 700여명의 로동자들 악질기업주놈에게 8시간로동제 실시, 임금인상, 작업조건과 생활조건의 개선 등 6개항목의 요구조건을 들이대고 그 관철을 위하여 파업에 들어감

28일 박정희괴뢰도당과 일본군국주의자들간의 매국과 침략의 추악한 흥정놀음인 《제6차한일민간경제합동위원회》가 서울에서 열림

3 월

1일 남조선의 《독립동지회》, 《민족통일촉진회》, 《3.1동인회》등 10여개의 사회단체들 거족적인 반일애국운동인 3.1인민봉기 55돐을 맞으면서 공동명의로 대일구국선언서를 발표

2일 경기도 련천군 련천면에 사는 한 청년이 괴뢰경찰경비전화선을 끊어치움

4일 경상북도 왜관읍 삼청동에 사는 주민이 탄압에 미쳐날뛰던 괴뢰《왜관경찰파출소》의 경찰놈을 징벌

5일 부평의 반도상사로동자들 500여명 로조결성을 방해하는 기업주놈의 악랄한 행위에 항의하여 작업을 거부하고 파업에 들어감

7일 경기도내 주민들 박정희파쑈악당들의 야만적인 폭압만행에 격분하여 괴뢰경찰서의 경비전화선을 끊어버림 ▶《동아일보》기자들이 악랄한 방해책동과 탄압을 물리치고 로조를 무음,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및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싸울것을 다짐하는 결의문 발표

15일 박정희역도 남조선의 35개 도시와 122개읍을 비롯하여 항만과 《고속도로》등 전역에서 도발적인 《민방공훈련》을 벌림 ▶ 박정희살인악당《비상군법회의》를 벌려놓고《긴급조치위반》,《류언비어류포》라는 죄명을 걸어 8명의 야당소속정객과 주민들에게 중형을《선고》하는 파쑈만행을 감행

16일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가 박정희도당이 조국통일을 위한 의로운 활동을 벌려온 이 당 조직성원들을 체포구금하고 악랄하게 처형하려고 책동

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성명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현대통운회사의 110여명의 자동차운전수들이 기업주놈의 악랄한 착취행위를 반대하여 파업

21일 경북대학교의 반독재민주구국투쟁위원회가 반독재민주구국선언파 결의문을 발표 ▶서울시 중구 명동일대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을 배격규탄하는 삐라가 뿌려짐

23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에 있는 광백국민학교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학교를 없애치우려는 괴뢰도당의 책동에 항거하여 동성투쟁 ▶강원도 홍천에 있는 《한일제사공장》의 녀성로동자 180여명이 밀린 임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버티기투쟁

24일 한 애국적주민이 《향토예비군》의 무기고를 기습하여 무기를 탈취하여가지고 자취를 감춤 ▶ 서울의 한 대학생조직 3.24투쟁 열돐을 맞이하여 남조선의 전체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반《정부》, 반파쑈투쟁에로 부르는 격문을 발표

27일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가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제를 마련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미합중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한것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28일 군사깡패도당《비상보통군법회의》라는 군사《재판》놀음에서 청년학생, 종교인, 사무원 등 8명의 각계인사들을《긴급조치위반죄》로 몰아 중형을 들씌우는 만행 감행 ▶ 서강대학교 학생들 유신독재반대시위 진행

29일 경북대학교의 애국적학생들 《반독재민주구국투쟁위원회》라는 투쟁조직을 묶고 《반독재민주시국선언문》을 남조선전역의 각 대학에 보냄 ▶ 경기도 양주군, 파주군일대에 박정희독재를 반대하는 삐라들이 뿌려짐

4 월

1일 전라북도에 있는 여러 운수회사 운전수들과 차장들이 공동투쟁을 벌려 각 기업주놈들로부터 임금을 평균 30%올리겠다는 다짐을 받아냄 ▶연세대학교 학생들《유신독재》를 반대하는 시위 진행

3일 서울대학교의 각 대학과 고등학교 학생들이 《유신독재물러가라》, 《대일예속 청산하라》, 《체포된 학생을 석방하라》는 구호밑에 모임을 가지고 대중적인 시위전개, 경찰놈들에게 돌벼락을 안겨 여러놈의 경찰을 까눕힘 ▶ 성균관대학교, 리화녀자대학교,서강대학교 학생들 박정희매국도당을 규탄배격하는 집회와 시위전개,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의 이름으로 일반주민들에게 궐기를 호소하는 민중민족선언파 결의문을 발표 ▶ 남조선전역의 각 대학들과 수많은 고등학교들에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 《대학반독재투쟁위원회》의 이름으로 된 격문과 삐라들이 뿌려짐 ▶ 대구에서 학생들이《유신독재 물러가라》, 《중앙정보부를 즉각 해체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등 민주본권을 확립하라》고 웨치면서 대규모의 시위 진행 ▶ 박정희역도 이른바《림시 국무회의》에서 파쑈폭압조치인 악명높은 《긴급조치 제4호》를 조작공포

5일 남조선 각지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을 반대하는 각계각층 인민들이 망라된《일본군국주의재침반대투쟁동맹》이라는 대중적인 반일단체들이 결성

8일 경기도 김포에 있는 일본항공회사에 고용된 남조선종업원 120여명이 임금을 60% 올릴것과 일본말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걷어치울것을 요구하여 대중적인 투쟁을 벌림

11일 남조선의 19개 종교단체들이 괴뢰국회에 항의문을 들이대고 박정희역도의 세금수탈행위를 규탄하면서 세금의《감면조치》를 취할것을 요구 ▶ 광주에서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박정희도당의 폭정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를 벌림

12일 서울대학교의 각 단과대학 학생들이 대학별로 각각《긴급조치 4호의 철폐》, 《체포학생석방》,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보장》등의 구호밑에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강력한 시위투쟁을 벌림

14일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남조선 각 대학들에서《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의 이름으로 된 선언문과 결의문 발표 ▶ 남조선의 《기독자선교련합회》가 전체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호소문파 결의문을 발표, 결의문에서 파쑈독재를 반대하는 4월 14일의《자유의 용감한 행진》에 일제히 참여할것을 호소

15일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두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에서 축하문과 축기를 드림 ▶ 전라북도 김제군 김제읍에 사는 한 주민이 김제괴뢰경찰서의 경찰놈에게 된매를 안김

17일 박정희파쑈악당이 야당인 민주통일당의 각 국장으로 있는 5명의 인사들에게 중형을《선고》하는 만행을 감행 ▶ 경상북도 마산 동광회사 3천여명 로동자들 임금을 70% 올릴것을 요구하여 집단적으로 투쟁 ▶ 박정희역도 남조선에서 미제와 《한미의원간담회》란것을 벌리고 이른바 《경제협력문제》와《안보문제》에 대하여 쑥덕공론함

18일 통일혁명당대변인 남조선인민들의 4.19봉기 14돐에 즈음하여 담화 발표▶전라북도 전주괴뢰지방법원의 파쑈악당들이 《공판》놀음을 벌리고 강제징집을 거부한 청년들에게 징역형을《선고》하는 만행을 감행

23일 경기도 파주에서 한 애국적주민이 괴뢰군의《검문소》를 기습하여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자취를 감춤

25일 괴뢰《중앙정보부》가 남조선학생들의 통일적인 투쟁조직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에 대한 《수사진모》란것을 조작공포

26일 통일혁명당대변인 남조선의 애국적청년학생들에 대한 박정희괴뢰악당들의 야수적탄압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30일 괴뢰보건사회부《인력수출》의 명목으로 인신매매기구를 늘이고 《민간단체의 간호원해외취업알선도 허용》한다고 발표

5 월

4일 박정희역도 괴뢰지배층의 부패한 은행부정대출사건의 일단을 보도하였다 하여《중앙일보》, 《경향신문》을 비롯한 신문사 기자들을 무더기로 구속 ▶ 남조선기자협회, 신문편집인협회가 기자들에게 야수적탄압을 가하고있는 박정희파쑈악당들의 폭압만행을 규탄하고 체포된 기자들을 즉시 석방하라고 들이댐

7일 경상북도 김천에서 한 주민이 경찰서 대항지서의 악질 경찰놈을 징벌▶박정희파쑈교형리들 서울, 대전, 전주를 중심으로 애국적인 반파쑈구국활동을 벌려온 통일혁명당 일부 조직성원들과 애국자들 30여명을 부당하게 체포구금▶괴뢰서울고등법원이 재일교포하자인 전혹까이도대학 조교수에 대한 공판놀음을 벌려《국가보안법》과《반공법》에 걸어 징역을《선고》하는 만행을 감행

9일 박정희도당 서부림진강하구 우리측 지역상공에 직승비행기를 침입시켜 정탐행위를 감행하는 악랄한 군사적도발을 일으킴

18일 한 애국적주민이 박정희역도의 범죄적전쟁도발책동을 파탄시키기 위하여《군사작전용》전화선을 끊

어버리는 대담한 투쟁을 전개▶남조선 괴뢰해적선이 중국동해 해역에서 작업하고있는 중국어선들을 횡포하게 들이받아 어구를 못쓰게 만들고 잡은 물고기를 빼앗아가며 중국어민들을 부상시키는 등 범죄행위를 감행

15일 춘천토목공사장에서 혹사당하고있는 로동자들이 밀린임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춘천《시청》과 토목공사청부업체인 남양진흥회사에 몰려가 두달분의 임금을 당장 내놓을것을 요구

16일 서울시 영등포구 오류동에서 한 애국적주민이 괴뢰경찰용전화선을 끊어버리는 대담한 투쟁을 전개

18일 서울시 중구 동자동의 한 뻐스정류소에서 그 일대에 사는 주민 6명이 동자파출소의 경찰악당에게 뭇매를 안김

20일 살륙특무기구인《대간첩대책본부》가 목포 남쪽 추자도에《무장간첩》이 나타났다는 이른바《간첩단사건》이란것을 날조하여《반공》소동을 일으킴▶괴뢰륙군 모부대병사들이 괴뢰군내에서의 치떨리는 몽둥이규률과 상관놈의 야만적인 박해와 학대에 참을수 없어 여러정의 카빙총과 500발의 총탄을 빼앗아 가지고 집단적으로 부대를 뛰쳐나와 추격해오는 파쑈악당들에게 항거

26일 전라남도 광양군 골약면의 괴뢰군해안초소에서 한 병사가 카빙총과 180발의 탄알을 빼앗아가지고 뛰쳐나옴

30일 어민들에 대한 수탈기구의 하나인 괴뢰어용속초《어업조합》에서 고역을 당하고있는 녀성로동자들이 괴뢰앞잡이들의 파렴치한 착취행위를 반대하여 집단적으로 투쟁

6 월

5일 박정희파쑈교형리들 일본에서 랍치해다가 억류해놓은 남조선민주인사 김대중을 이른바《선거법위반》으로 몰아 첫《공판》놀음을 벌림

8일 경상남도 마산일대에《박정희단죄결사대》와 《불량외국인제재위원회》의 이름으로 박정희반역도당의 매국배족적행위와 횡포한 탄압만행을 단죄규탄하는 삐라가 뿌려짐

12일 경기도 인천시에 있는 괴뢰군부대의 한 병사가 치욕스러운 괴뢰군살이를 반대하여 총 두자루와 총탄 200여발을 가지고 부대를 뛰쳐나감

15일 박정희파쑈교형리들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에 관련시켜 체포구금한 애국적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 및 2명의 일본인 청년학생들에 대한《재판》놀음을 벌림

17일 전북 전주시 전미동에서 30여명의 주민들이《교육훈련》이라는 명목밑에 전쟁연습에 나올것을 강요하는 군사불한당들의《명령》을 거부

18일 남조선의 한주민이 미제침략군 모사단의 보병총탄 6천 200여발을 빼앗아냄

22일 서울시 성동구 삼진동 동방섬유주식회사의 100여명 로동자들이 기업주놈의 부당한 해고행위를 반대하여 버티기투쟁을 벌림

26일 박정희파쑈교형리들 남조선시인 김지하에 대한 살인공판놀음을 벌림▶박정희역도 이른바 《민방공훈련》이라는 도발적인 불장난을 벌림

28일 박정희역도 동해의 수원단동쪽 우리측 령해에 해군함선을 침입시켜 정상적인 순찰임무를 수행하고있던 조선인민군 해군함정에 수백발의 총포사격을 감행

29일 박정희역도 전선중부에서 괴뢰군부대의 대병력을 끌어내여《실전을 방불케 하는》광란적인 전쟁연습소동을 벌림, 우리측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적함선 1척 격침

7 월

7일 서울 주민들이 영등포 오류동에서 괴뢰치안국과 경기도《경찰국》으로 통하는 《경비전화선》을 끊어치우는 대담한 투쟁을 벌림

9일 남조선영화인들이 임금 100% 더 올릴데 대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일제히 영화제작을 위한 출연과 촬영을 거부▶서울 세브란스병원의 140여명의 의사들이 임금인상과 생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일제히 파업

10일 통일혁명당 대변인 남조선의 애국적청년학생들과 각계인사들에 대한 박정희살인악당들의 처형만행을 단죄하여 성명 발표▶서울에서 천주교신도들 1천 500여명이 모임을 가지고 체포된 종교인들을 즉시 석방하며 인민들에 대한 불법체포와 고문을 중지하고 민주주의를 실시할것을 요구하여 투쟁

11일 박정희파쑈교형리들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반파쑈민주화운동에 전적인 공감을 표시하고 함께 싸워온 각계인사 21명에게 극형과 중형을《선고》

13일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기관지《혁명전선》이 박정희살인집단이 남조선의 애국적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에게 집단적으로 극형과 중형을 들씌우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격문을 발표▶박정희살인악당 군사재판놀음을 벌리고 남조선의 이른바《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에 관련시켜 야수적박해를 가해온 애국적청년학생 및 각계인사 32명에게 극형과 중형을《선고》하는 만행을 감행▶부산의 어업주식회사 50여명의 선원들이 안전한 작업조건의 보장을 요구하여 물고기잡이를 거부

15일 박정희파쑈도당이 특무들을 발동시켜 이른바《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공판에서 시인 김지하를 비롯한 10여명의 애국적학생들의 변호를 담당해온 변호사 강신옥을 부당하게 체포

18일 통일혁명당대표가《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과 관련하여 평양에서 국내외기자들과 만남 ▶박정희파쑈무리들《국회》의원인 신민당부총재를 체포

20일 부산에 있는 공흥산업회사 300여명의 선원들이 밀린임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앉아버티기투쟁 벌림 ▶ 박정희역도 서해 어청도 서쪽에서 북의《간첩선》을《격침》시켰다는 터무니 없는 《간첩선》사건을 날조 ▶경상남도 하동군 량포면에 사는 한 청년이 자기에게 박해를 가하려는 괴뢰하동경찰서 진교지서의 경찰놈을 호되게 족침

22일 남조선전역의 천주교신도들이 일제히 박정희괴뢰도당에게 부당하게 체포된 종교인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모임을 가짐

23일 군사불한당들 경상북도 포항지구의 괴뢰해양경찰대 병력을 동해에 끌어내여 해상함포사격을 실시하는 군사적도발 감행

24일 박정희파쑈교형리들 통일혁명당 경상북도 위원회와 그 산하 조직성원들인 32명의 혁명가,애국자들에게 무데기로 극형과 중형을《선고》하는 범죄적만행을 감행, 25일 이를 규탄하여 통일혁명당 대변인 성명 발표▶박정희군사파쑈악당 전선동부 백현리 남쪽 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에 수십발의 기관총사격을 가하고 전선서부 상공에 전투기 1대를 침입시켜 정탐과 적대행동을 감행▶경상남도 진해의 양주공장 로동자 30여명이 동료로동자들을 부당하게 일터에서 내쫓은 기업주놈의 횡포에 항의하여 일제히 작업을 거부하고 투쟁

25일 충청북도 제천군 한수면에서 괴뢰군 별동대인《향토예비군》의 《방위소집》에 끌려나가 군사적고역을 치르던 한 청년이 카빙총과 실탄을 가지고 부대에서 뛰쳐나감

28일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남조선의 애국적청년학생들과 각계인사

들에 대한 박정희반역도당의 포악무도한 탄압과 치떨리는 살육모를 규탄하여 국제민주단체들과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 및 전세계 민중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29일 박정희파쑈악당 남조선강원도 원주에서 카톨릭교의 일을 보고있는 아일랜드사람인 신부를 체포

8 월

5일 박정희파쑈악당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남조선의 각 대학들에서 300여명의 학생들을 뽑아 괴뢰군부대에 몰아넣고《특수공수훈련》을 강제로 시킴

6일 철도로동자들이 임금의 일부인《수당금》을 현재의 10배로 높일것을 괴뢰당국에 요구

9일 파쑈악당들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에 관련시켜 남조선의 전《대통령》이며 야당정객인 윤보선과 기독교목사 박형규, 천주교주교 지학순, 대학학장과 교수들에게 15년까지의 징역형을《구형》하는 만행을 감행

12일 서울의 기독교목사들과 신자들 1천 500여명이 박정희반역도당의 파쑈폭압을 반대하여 집회를 가짐

13일 박정희파쑈악당 악질선장놈에게 항거한 남조선의 한 고기배의 선원 12명을《폭력행위》를 했다는 부당한 구실을 붙여 잡아감 ▶박정희살인악당 애국적청년학생들과 각계인사들 37명을《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에 관련시켜 무기징역에 이르기까지의 중형을 《선고》하는 만행을 감행

15일 박정희역적 제놈에 대한 이른바《저격사건》을 조작 ▶서울시 영등포구 마곡동에 있는 경남화학공장과 성동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8천여명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줌

17일 박정희역도 이른바《박정희저격사건》의《수사전모》라는것을 발표하여 이《사건》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려고 책동

19일 박정희괴뢰도당이 미제의 사촉밑에 9명의 각료들을 갈아채우는 이른바《개각》놀음을 벌림

20일 김종필역도 박정희에 대한《저격사건》과 관련한 이른바《특별담화》란것을 발표하고 이《사건》을 일본과 련결시켜《반일시위》를 조작

23일 박정희괴뢰도당 파쑈폭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기만적인 책동으로 폭압명인《긴급조치》1호와 4호를《해제》한다고 발표

21일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가 이 당 창립 5돐에 즈음하여 시국선언을 발표

24일 괴뢰경찰놈에게 붙들려가던 한 청년이 서대문형무소 앞길에서 머리를 추켜들고《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소리높이 불러 원쑤들을 전률케 함

29일 파쑈악당들《전국민청학련사건》에 관련시켜 시인 김지하에 대한 살인공판놀음을 벌림 ▶서울의 뻐스녀차장 90여명이 기업주놈의 비인간적인권유린행위를 폭로규탄하면서 시위진행

30일 박정희파쑈악당 애국적청년학생들과 시인 김지하의 의로운 활동에 대한 변론을 맡은 변호사 강신옥을 살인적인 군사재판놀음에 끌어내여 범죄적공판놀음을 벌림

9 월

2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삼성공업주식회사의 200여명의 녀성로동자들이 삶을 위한 두달동안의 밀린 임금과《퇴직금》을 당장 내놓을것을 요구하여 앉아버티기투쟁

4일 전라남도 라주군 라주읍 주민들이 라주화학공장의 폐수관이 터져 유독성폐수가 30여만평의 논밭을 휩쓸면서 다 익은 벼를 타죽게 한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를 보상할것과 공해를 막을것을 요구하여 공장에 몰려가 완강히 투쟁

11일 서울에서 1천 500여명의 교도들이 모임을 갖고 박정희살인깡패집단에게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학생들과 변호사, 목사, 주교들을 즉시 석방할것을 요구

12일 성균관대학교 학생들 체포된 학생들의 즉시 석방을 요구하여 괴뢰경찰들과 싸움을 벌리면서 시위투쟁▶신민당의 인권옹호위원회 성원들 모임을 갖고 박정희파쑈악당의 인권유린행위를 반대하여《보다 적극적으로 법적정치적투쟁을 벌리기로 결의》함▶박정희군사깡패들《비행금지구역》 상공을 날고있던 괴뢰군직승기를 향해 대공포를 쏘아대는 소동을 일으킴

17일 고려대학교 학생들 집회를 열고 박정희도당의 야수적인 인민탄압만행을 단죄규탄하는 한편《군법회의》에 걸려있는 구속학생들의 석방을 강력히 주장 ▶서울시 영등포구 고척동에 있는 30여명의 주민들이 괴뢰악당놈의 살림집강제철거만행에 항의하여 들고일어남

18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여러학생지도자들 대학정문에서 《<긴급조치>위반으로 구속되여있는 학생들을 석방하라》는 구호판을 들고 삐라를 뿌리면서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림

19일 울산조선소로동자 3천여명이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폭동에 궐기, 로동자들 조선소사무소를 점령하고 기물을 파괴하고 경찰악당놈들을 맞받아 치렬한 투석전을 전개

20일 남조선괴뢰도당 이른바《특별경비주간》을 정하고 파쑈폭압망을 더욱 늘임

22일 서울에서 카톨릭로동청년회를 비롯하여 청년학생, 교수, 변호사, 문화인들을 망라한 12개 단체의 성원들 1천여명이 모임을 갖고 박정희파쑈악당에 의하여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주교 지학순, 목사 박형규 및 기타 인사들의 즉시 석방을 요구

23일 리화녀자대학교 학생 4천여명이 파쑈적인《긴급조치》에 의하여 체포된 학생들을 석방할것 등 6개 항목의 요구조건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구속된 애국적인 학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전체 학생들에게 호소

24일 남조선괴뢰《국방부장관》놈이 호노룰루에서 미국방차관놈과 군사적밀담을 가지고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계속 주둔할것을 다짐받음

25일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되여있는 2만여명의 로동자들이 미제침략자들의 민족적박해와 착취를 반대하며 임금을 올려받기 위한 성명을 발표하고 투쟁에 일며섬 ▶《한국신학대학》학생들이 구속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여 3일간의 단식투쟁을 시작▶박정희살인악당들 반파쑈민주화투쟁을 벌려온 34명의 청년학생들과 대학교수들을 《비상고등군법회의》에 끌어내여 20년까지의 징역형을《선고》

27일《한국신학대학》학생들 100여명이 학교운동장에서 햇불시위 벌림, 박정희군사불한당들의 살인적만행을 폭로규탄▶서울의 홍익대학 총학생회가 구속된 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석방할것, 인민들의 민주주의적권리를 보장할것 등의 3개항목으로 된 결의문을 발표▶남조선각지에서 모여온 기독교장로회대표 300여명이 경기도 수원에서 총회를 열고 박정희살인악당의 파쑈폭압을 반대하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서와 결의문을 채택

28일 서울룡산역구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잡을 이루면서 좁은 계단

을 내려가다가 50여명의 려객들이 생명을 잃거나 중경상을 입은 일대참사가 빚어짐▶경기도 안양시 안양1동의 100여명의 주민들이 오가는 길을 마구 막아치우는 착취배놈들의 포악한 행위에 격분하여 롱성투쟁▶《한국신학대학》의 학장을 비롯한 이 대학의 교수단이 구속학생들을 석방할것과 학원의 자유를 보장할것 등의 요구를 밝힌 항의문을 괴뢰국무총리놈을 비롯한 관계《장관》놈들에게 들이댐

10 월

2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학생들 구속학생석방을 위한 모임을 갖고 서명운동 벌림▶서울의 연세대학교 학생 300여명이 학교운동장에 모여 학원의 자유와 민주주의적활동의 보장을 요구하여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림▶파쑈악당들 괴뢰서울지방법원에서 공판놀음을 벌려놓고 통일혁명당조직성원인 한 혁명가에게 《간첩》의 《죄》명을 씌워 사형을 구형

4일 핵무기를 실은 미항공모함 《미드웨이호》가 부산항에 입항

10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치과대학 학생들이 각각 성토대회를 가지고 선언문을 채택, 법과대학 학생 100여명이 학생총회를 가지고 투쟁을 멈추지 않을데 대한 결의를 다진 선언문을 채택 ▶고려대학교학생 1천여명 박정희파쑈악당의 만행을 규탄하고 이 대학 총학생회 이름으로 된 구국선언문 발표, 구속학생과 구속인사를 석방하라는 등의 4개항목 결의문 채택, 괴뢰경찰놈과 투석전을 전개하고 10여명의 경찰놈을 까눕힘▶성균관대학교 2천여명 학생들 학원의 파쑈화를 규탄하는 성토대회를 가짐

11일 《한국신학대학》학생200명 성토대회를 열고 구속학생의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위를 벌림▶서울대학교 상과대학 학생들 박정희파쑈악당의 가혹한 탄압만행을 규탄하고 구속자석방을 내용으로 하는 성명서와 결의문 채택

12일 서울감리교신학대학 학생들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유신헌법》을 페지하고 민주헌법을 실시할것을 강력히 요구

14일 중앙대학교 학생 1천여명 파쑈독재를 반대하여 성토대회를 갖고 시위투쟁 ▶ 부산대학교 학생들 구속학생석방과 민주질서회복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웨치면서 시위투쟁 ▶서울동국대학교 1천여명 학생 박정희파쑈교형리들의 살인귀적탄압만행을 규탄하는 성토대회를 가지고 대중적시위 전개 ▶전국대학교 학생 2천여명이 성토대회를 가지고 대중적시위

15일 춘천성심녀자대학 학생 580여명 대학기숙사에서 아침식사를 거부하고 문을 닫아맨채 구속학생석방과 학원의 민주화를 요구하여 단식롱성투쟁▶박정희괴뢰도당 전국각지 주민들을 끌어내여 33차 《민방공훈련》 놀음을 벌림

16일 서울의 국민대학, 숭전대학교, 광운전자공과대학과 부산동아대학 학생들이 파쑈도당을 단죄하는 모임을 갖고 시위와 앉아버티기 투쟁 ▶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로동자들이 임금을 올려받기 위하여 모임을 갖고 29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

17일 서강대학교 1천여명의 학생들 파쑈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여 성토대회와 시위를 벌리고 구속된 학생들과 인사들을 석방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 민주통일당 성명을 발표하여 박정희파쑈테로독재체제를 규탄하고 모든 애국적인사들을 즉시 석방하라고 주장

18일 서울대학교의 사범대학 학생들 박정희도당의 탄압만행을 규탄하는 성토모임을 갖고 박정희파쑈교형리들의 만행을 규탄

21일 신민당《헌법개정기초심의특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괴뢰《국회》에 제출▶리화녀자대학교 4천여명 학생들 파쑈독재를 규탄하는 성토대회에서 7개항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단식투쟁을 전개할것을 결의

29일 성균관대학교 학생 500여명이 학원에 대한 박정희도당의 횡포한 파쑈적폭압을 폭로규탄하는 성토모임을 가지고 괴뢰도당의 앞잡이인 학교재단리사장놈의 사무실에 몰려가 사무실을 점거하고 새 총장놈을 즉시 물러나게 하라고 들이댐 ▶《한국신학대학》학생들 반파쑈민주화를 위하여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가두시위,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냄 ▶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학생 200여명이 학교강당에 모여《정보정치, 강압을 뽑고 자유와 정의, 진리를 구현하자》는 구국투쟁선언문을 발표하고 《구속학생 석방하라!》, 《유신헌법을 철회하라》는 등의 3개항목의 결의문 채택 ▶감리교신학대학 학생들 파쑈악당들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과 결의문발표

30일 남조선의 한 인권옹호단체는 부당하게 구속되여있는 학생들을 무조건 즉시 석방할것을 요구하는 문건을 박정희역도에게 들이댐 ▶남조선의 학계 및 언론계 인사들 공개토론석상에서 언론탄압행위를 규탄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것을 주장

31일 박정희역도 연세대학교에 파쑈적인 휴강조치를 취하게 함 ▶서울 한양대학교 학생 1천여명이 성토대회를 열고 《유신헌법을 개정하라》, 《특권층의 부정부패를 일소하라》, 《순수한 민족자립경제를 확립하라》 등의 5개항목으로 된 결의문을 채택하고 가두시위 ▶민주통일당 성명을 발표하여 괴뢰《문교부》가 각 대학의 시위투쟁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리화녀자대학교 등 10여개 대학에 이른바《경고장》이라는것을 보내여 위협하면서 학교당국자들에게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도록 강요한 파쑈적조치를 규탄하고 《각 대학에 대한 경고장발부를 즉시 중지하라, 하루빨리 학원을 정상화시키라》고 요구 ▶괴뢰경찰놈이 서울의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대중적인 투쟁현장을 취재하던 《한국일보》의 김아무개 기자에게 뭇매를 가함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 서해의 대천항 앞바다에서 《한미합동유도탄사격훈련》을 벌림.

11 월

1일 홍익대학교 학생들 박정희괴뢰도당의 야만적인 탄압행위를 반대하여 집단적인 롱성투쟁을 벌림 ▶서울대학교 총불교학생회에 망라된 170여명학생들《구국발언대회》를 열고 박정희파쑈악당의《유신》독재를 규탄하고 구국투쟁에 떨쳐나서기 위한《구국발언문》을 발표 ▶기독교학생총련맹 서울에서《유신》독재를 반대하는 모임을 가지고 선언문을 채택

2일 남조선기독교학생총련맹이 《우리는 포드의 남조선방문을 견결히 반대한다는것을 선포한다》는 4개항목의 주장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

4일 서울의 외국어대학 1천여명 학생들 성토대회를 열고 《구속학생들을 석방하라》, 《학원사찰을 중지하라》등 결의문을 채택하고 괴뢰경찰놈들과 맞서 투석전을 벌림 ▶전북대학교의 법과대학과 문리과대학의 500여명의 학생들 구속학생석방을 위하여 앉아버티기투쟁

5일 박정희파쑈악당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의로운 반파쑈구국활동을 벌려온 18명의 각계인사들을 부당하게

체포구금하고 야만적인 고문을 가해오던 끝에 그들에게 《간첩》이라는 죄명을 씌워 처형▶광주에 있는 신진뻐스회사의 60여명의 운전수들과 정비공들이 밀린임금과 퇴직금 등의 지불을 요구하여 앉아버티기 투쟁

6일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 학생 300여명 구속학생석방을 요구하여 성토대회를 가지고 시위투쟁 ▶ 남조선천주교도들 2천여명이 서울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와 극악무도한 파쑈적폭압만행을 규탄하는 모임을 가지고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제2시국선언문을 발표 ▶ 서울에서 1천 500여명의 천주교도들이 미제의 두목 포드의 남조선행각을 반대배격하는 집회를 가지고 성명 발표, 성명에서 《포드의 서울방문은 박정희의 억압통치를 시인하는것》이라고 지적

7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 1천여명이 박정희파쑈악당의 《유신》독재와 추악한 부정부패행위 등을 규탄하여 성토대회를 가지고 시위와 투석전을 벌림

8일 100여명의 《한국신학대학》학생들 고위관료놈이 학생들을 회유기만하기 위한 《강연》을 한다고 이 대학에 기여들자 강연장을 박정희악당의 부정부패와 파쑈폭압행위를 규탄하는 성토장으로 전변시킴

9일 중앙대학교 200여명 학생들 성토대회를 가지고 《구속학생을 석방하라》등의 요구조건이 담긴 4개항목의 결의문 채택

10일 서울의 경동교회 대학생회에 망라되여있는 학생들 《유신》독재를 반대하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모임을 가지고 회불시위▶민주통일당 《개헌추진위원회》의 각 지방대표위원 40여명이 학생들의 의로운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 철야롱성투쟁▶충청남도 천안시 청당동에서 머슴살이청년이 학대와 착취를 일삼는 지주놈에게 보복의 징벌을 가함

11일 서울의 한남뻐스회사 로동자들 200여명이 《퇴직금》과 《해고수당금》을 내놓을것을 요구하여 앉아버티기투쟁 ▶ 남조선전역의 천주교도들이 서울을 비롯하여 광주와 인천, 부산, 대구, 전주 등 14개 도시들에서 《유신》독재를 반대하며 인권과 민주주의적자유를 요구하는 투쟁에 일제히 떨쳐나섬, 이 투쟁소식을 《동아일보》에 실으려고하는데 대하여 박정희도당이 가로막아나서자 이 신문사 기자들 태업에 들어감 ▶ 부산대학교의 학생신문 편집인들이 언론의 자유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 ▶ 민주통일당 파쑈적인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헌법개정시안》을 발표 ▶ 통일사회당의 30여명의 인사들 개헌추진위원회를 열고 《유신헌법의 철페를 요구하는 5개항의 《개헌원칙》과 《개헌운동선언》을 채택

12일 신문편성문제에 대한 악당들의 간섭행위에 항거하여 태업하였던 《동아일보》, 《동아방송》 기자들이 경영자측으로부터 《편집권침해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대처한다》는 약속을 받아냄 ▶ 고려대학교의 《검은 10월단》성원 5명에게 《내란음모》라는 《죄명》을 씌워 유죄판결 ▶ 서울《시청》출입기자단은 《시청》의 악질깡패놈이 《조선일보》기자에게 폭행을 가한데 대하여 괴뢰시장놈에게 강력히 항의

14일 서울의 숙명녀자대학교 학생들 1천여명 성토대회를 가지고 《유신헌법철폐하라》, 《정보기관의 월권행위를 중지하라》등 6개항목의 결의문을 채택 ▶남조선의 민주수호기독자회가 인권보장과 민주주의적자유를 요구하는 기독교도들을 중상모독한 김종필놈의 망언을 규탄 ▶ 박정희파쑈악당에게 부당하게 체포된 청년학생들과 각계인사들의 가족들 모임을 열고 호소문을 발표한후 가두시위를 벌림

15일 광주제1고등학교 1천여명 학생들 구속학생석방을 위한 가두시위를 벌림 ▶ 남조선괴뢰도당 전기료금 30% 올림

16일 서울의 신학대학 학생들 성토대회를 열고 구속학생석방, 민주헌정실시 등 5개항목의 결의안 채택

17일 전주에서 카톨릭전주교구학생련합회 주최로 도안의 중고등학교와 대학생, 종교인들 1천 500명 파쑈독재를 규탄배격하는 모임진행

18일 남조선의 문인협의회에 망라된 시인, 작가 등 문학인들 서울에서 《자유실천문인협의회 101인 선언대회》를 가지고 결의문 채택 ▶ 미제두목 포드놈의 남조선행각을 《환영》하기 위하여 만든 미제기발을 불태워버리는 사건 발생

19일 리화녀자대학교의 4천여명 학생들 모임을 갖고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시위투쟁을 벌림 ▶ 남조선의 《한국기독교학생총련맹》이 《제3십자가선언문》을 발표하여 남조선에 기여들려는 미제두목 포드놈의 범죄적행각을 배격

▶ 서울의 감리교신학대학생들 독재를 반대하는 성토모임을 열고 시위

20일 남조선전역의 주요 도시들에서 인권의 보장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천주교도들의 철야집회 진행

21일 박정희악당들에게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학생들과 각계인사들의 가족들 및 종교인들이 구속인들의 석방을 위하여 미제 《대사관》앞에서 시위를 벌림

22일 대전목원대학 학생들 100여명이 대전시 중동일대에 모여 《유신헌법 철페하라》, 《구속학생 석방하라》등의 프랑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림 ▶ 미제두목 포드놈이 남조선에 기여듬

23일 서울의 경기고등학교 학생들 《교육위기선언문》과 남조선의 전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시위투쟁을 벌림

25일 남조선의 변호사단체 부당하게 체포구금된 강신옥변호사를 즉시 석방할데 대한 공동명의의 요구서를 박정희역도에게 들이댐

27일 기자협회 《언론자유수호특별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언론인들의 활동의 자유를 위한 투쟁대책을 토의하고 세부적인 실천사항을 채택 ▶ 부산에서 지난날 일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일본의 군사고역장들과 전쟁마당에 징병, 징용으로 끌려가 참혹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 200여명이 일본놈의 《령사관》으로 몰려가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반일시위를 벌림

30일 박정희괴뢰도당 군사분계선에 면한 남조선강원도 린제지역의 3개지점에서 우리측을 향하여 제놈들의 매국배족 행위를 합리화하며 우리를 비방중상하는 방송을 불어댐 ▶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방림방적회사에서 해고된 50여명의 로동자들이 밀린임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회사사무실에 몰려가 롱성투쟁

12 월

4일 남조선전역의 천주교도들을 대표한 1천 400여명 종교인들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박정희괴뢰도당의 탄압만행을 규탄

5일 신민당소속 의원 55명 괴뢰국회 본회의장에 몰려가 파쑈독재를 반대하는 5개항목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롱성투쟁

9일 서울의 서강대학교 교수들 부당하게 체포구금된 애국적학생들을 즉

시 석방하고 학원에 대한 사찰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요구

10일 남조선의 천주교도들 2천 500여명이 민주주의적자유를 요구하는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만행을 규탄하는 모임 진행 ▶전라북도 기독교인들 500여명이《종교인활동을 억압하지 말라》등 8개항목으로 된 선언문을 발표

11일 전남대학교 학생 500여명 박정희파쑈독재를 반대하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 단행

12일 서울대학교의 문리과대학과 법과대학 학생들 박정희괴뢰도당의 탄압행위를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시위 진행

14일 남조선괴뢰도당 해상에서 표류중인 우리의 안강망어선인《6－102》호를 괴뢰해군함선을 동원하여 인천항에 끌어감

17일 수십명의 파쑈악당들이《개헌운동》을 추진시키려고 대구에 내려가 려관에 묵고있는 신민당총재를 습격하여 10여시간 려관에 감금

20일 박정희역도 《8. 15저격사건》의《범인》으로 내세웠던 문세광을 사형

25일 《동아일보》기자들 박정희악당이 이 신문에 광고를 내기로 한 상공인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것을 취소케 하고있는데 격분하여 긴급모임을 열고 놈들의 언론탄압에 끝까지 맞서 싸울데 대한 결의문 채택

27일 천주교단체의 하나인《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동아일보》에 대한 파쑈악당의 억압을 규탄하여 성명서 발표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활동일지

(1974년 1～12월)

1 월

1일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60만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1974년을 맞이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이 삼가 축전을 드림 ▶ 한덕수의장이 재일동포들에게 새해축하인사를 보냄, 여러 나라 정부와 혁명조직 지도자들에게 년하장을 보냄

9일 박정희괴뢰도당이《긴급조치》라는것을 발표하여 남조선의 일체 민주세력과 애국력량에 대한 새로운 전면적인 탄압기도를 드러내놓은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성명 발표

10일 1974년도 할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총련간또지방열성자대회 도꾜에서 진행▶박정희괴뢰도당이《긴급조치》를 선포하여 남조선인민들을 포악무도하게 탄압하는 용서못할 범죄행위를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

1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발표 열돐기념 과학연구토론회 도꾜에서 있었음

19일 총련애국과업을 더 잘하기 위한 간또지방동포상공인들의 모임 있었음 ▶제2차 재일동포상공인 조국방문단 보고모임이 도꾜에서 있었음

25일 제1차재일동포녀성조국방문단 보고모임 도꾜에서 진행

26일 총련 각급 학교 학생들의 중앙학과경연대회 도꾜에서 있었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국제국장이 일본총리 다나까가 24일 일본국회에서 일제의 과거 조선침략을 미화한 폭언을 퍼뜨린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성명 발표

31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박정희매국도당과 일본군국주의자들사이에《대륙붕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을 맺은것과 관련하여 이를 견결히 규탄하는 성명 발표

2 월

4일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의로운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열렬히 지지성원하는 재일본조선청년학생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7일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중앙상임위원회에서 1월 21일 11명의 남조선종교인들을 체포구금한데 이어 이른바《간첩단》사건을 날조하여 반파쑈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소설가 리호철을 비롯한 5명의 인사들을 체포구금하고 악명높은《반공법》에 걸어 처형하려는 박정희파쑈악당의 단말마적발악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

10일 도꾜도 아라까와지부 새 회관 준공축하모임 진행

1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 로작《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열돐기념 재일본조선과학자들의 연구토론회 도꾜에서 있었음

12일 총련중앙에서 3. 1인민봉기 쉰다섯돐을 공동으로 기념하기 위한 대회를 공동으로 가질것을《민단》에 제의 ▶조은교또신용조합창립 스무돐기념모임 교또에서 진행

18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이 15일 서해의 공화국북반부 연해에 또다시 간첩선을 불법침입시키는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이를 견결히 규탄하는 성명 발표

19일 조국영화인대표단을 환영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공화국국적법발포 열돐에 즈음하여 어버이수령님께 감사를 드리는 조국방문 재일조선인대표단의 사업보고모임 도꾜에서 진행

22일 170차 귀국선《만경봉》호가 조국을 향하여 니이가다항을 떠남

23일 총련제10차전체대회 도꾜에서 개막(25일 끝남)

2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열돐을 기념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3 월

1일 3. 1인민봉기 쉰다섯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쉰세번째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것과 관련하여 수령님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감사전문을 드림

4일 경애하는 수령님의 고전적로작《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발표 5돐을 기념하여 총련중앙간부강연회 도꾜에서 진행

7일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3월4일연설《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지지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성명 발표

8일 어버이수령님께서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150여억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15일 조선대학교 부속건물준공모임이 있었음

1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대학교 학생들에게 수여하여주신《김일성청년영예상》을 전달하는 모임 있었음 ▶조선대학교 제16회 졸업식 있었음

24일 어버이수령님께서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지난해의 2배이상이나 되는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게 하여주신것과 관련하여 그이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감사전문을 드림

26일 우리 나라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감사를 드리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

28일 총련 야마구찌조선고급학교 새 교사 준공축하모임이 있었음

29일 재일동포상공인들이 조선산업주식회사를 결성하는 총회를 가짐

30일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제안을 지지하며 새 전쟁 도발과 민족분렬에 광분하는 박정희괴뢰도당을 규탄하는 재일본조선인 중앙대회 진행

4 월

1일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완강한 투쟁끝에 일본당국으로부터 야마구찌조선고급학교 설치인가를 받아냄

3일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제10차대회 열림(4일 끝남)

4일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과감한 반《정부》,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열렬히 지지하며《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하고 파쑈폭압에 미쳐날뛰고있는 박정희도당을 준렬히 규탄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성명 발표

5일 기후현 도모지방에 총련의 자주학교인 도모조선초중급학교가 새로 세워짐

6일 총련제10차전체대회 결정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산하 각 단일단체들의 정기대회들이 열림

9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이 조청 제10차대회에 참가하였던 외국청년단체대표들을 위하여 연회를 차림

1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선네번째로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것과 관련하여 수령님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감사전문을 드림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두돐을 맞이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삼가 축하전문을 드림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예순두돐을 경축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와 지방대회들이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두돐을 축하하여 한덕수의장이 도꾜에서 성대한 연회를 차림

1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선네번째로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것과 관련하여 어버이수령님께 감사를 드리는 재일본조선교육일군, 과학자, 류학생들의 모임 있었음

19일 남조선인민들의 4. 19인민봉기 14돐을 기념하는 재일본조선청년학생중앙대회 있었음

21일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 강반석녀사의 탄생 82돐을 기념하는 재일조선녀성들의 강연모임이 도꾜에서 있었음

30일 총련제10차전체대회 결정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총련 각 본부대회 진행

5 월

5일 총련 가나가와조선회관 준공모임 있었음

8일 조청중앙상임위원회에서 4월 25일 박정희파쑈도당이《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의 《수사전모》란것을 발표하고 수백명의 애국적청년학생들을 체포구금하고 집단적으로 처형하려고 미쳐날뛰고있는것을 견결히 규탄하는 성명 발표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에서 박정희파쑈교형리들이 얼토당토 않는《간첩단사건》을 날조하여 최아무개녀성을 비롯한 30여명의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체포하는 폭압소동을 벌린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성명 발표

11일 후꾸오까조선초중급학교 새 교사 준공축하모임 있었음

14일 와르샤와에서 열리는 국제민주녀성동맹 뷰로회의및리사회에 참가할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단이 도꾜를 떠남

18일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선다섯번째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것과 관련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감사전문을 드림

23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선다섯번째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것과 관련하여 수령님께 감사드리는 재일본조선교육일군, 과학자, 류학생들의 모임이 도꾜에서 있었음

24일 총련결성 열아홉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성대히 진행

2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두돐 재일조선상공인 축하단의 보고모임 도꾜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련결성 열여덟돐기념 재일동포상공인 조국방문단을 만나시고 주신 교시 한돐기념 상공인들의 모임 도꾜에서 있었음

6 월

3일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6. 3투쟁 열돐을 맞으며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지지성원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있었음

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총련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2단계사업을 총화하는 동일본과 서일본지방 조선교육일군들의 모임이 도꾜와 오사까에서 있었음

18일 총련중앙에서 7. 4남북공동성명발표 두돐을 공동으로 기념할것을《민단》에 제의

19일 171차귀국선 《만경봉》호가 니이가다항에 도착

21일 171차귀국선 《만경봉》호가 니이가다항을 떠남

22일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발표 한돐기념 총련중앙강연회가 있었음

25일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며 박정희파쑈도당을 규탄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30일 오까야마조선초중급학교 새 교사와 체육관준공축하모임 있었음

7 월

2일 재일본조선인과학자협회창립 15돐기념모임 도꾜에서 있었음

4일 7. 4남북공동성명발표 두돐을 기념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

9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박정희파쑈악당이 8일 서울에서 살인공판놀음을 벌려놓고《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에 관련시킨 애국적인사들 21명에게 사형과 중형을《구형》하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성명 발표

10일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 탄생 여든돐에 즈음하여 총련중앙강연

회 있었음

12일 아세아학생협회 제4차대회에 참가하는 재일본조선학생위원회대표단이 도꾜를 떠남

15일 조국을 방문하였던 재일조선인예술단과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단의 보고모임 있었음

16일 박정희파쑈악당이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사건》에 관련시킨 애국적인사들 21명에게 사형과 중형을《구형》하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이를 견결히 규탄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21일 총련 히로시마조선회관 준공축하모임 있었음

26일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총련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발표 한돐을 기념하여 총련의 민족교육사업에서 전면적인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재일본조선교육일군들의 모임 있었음▶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남조선애국자들에 대한 파쑈폭압을 규탄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8 월

2일 재일본조선상공인들의 생산품상설전시장 개관모임 있었음

6일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발표 세돐을 기념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서기 위한 재일본조선인중앙보고회 도꾜에서 진행

7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남조선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들, 모든 해외교포단체들과 해외교포들에게 보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의 호소문을 지지하는 성명 발표

12일 어버이수령님께서 수여하여주신 공화국공훈체육인칭호및체육명수칭호를 전달하는 모임 도꾜에서 진행 ▶재일본조선인체육련합회결성 스무돐기념모임 진행

15일 8.15조국해방 스물아홉돐을 기념하며 대민족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의 호소문을 지지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

18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이른바《8.15저격사건》에 총련을 억지로 결부시켜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남조선괴뢰도당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

29일 어버이수령님께서 친히 무어주신《금강산가극단》결단모임 도꾜에서 진행

31일 남조선주재일본대사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총련을 탄압해산시킬것을 애원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규탄하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성명 발표▶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조국을 향하여 도꾜를 떠남(9월 30일 일본에 도착)

9 월

9일 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경축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12일 남조선에《특사》를 파견하여 총련을 탄압할것을 약속한《친서》를 넘겨주기로 한 일본정부의 책동을 규탄하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성명 발표

1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반미세계기자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발표 다섯돐을 기념하는 총련중앙강연회가 있었음

17일 8월 15일 남조선에서 있은《저격사건》에 대한 책임을 공화국과 총련에 넘겨씌워보려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정치적모략책동을 규탄하며 총련조직을 굳건히 옹호하기 위한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

19일 한덕수의장이 의례방문하여온 일본을 방문중인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대표단을 만남

10 월

1일 한덕수의장이 중화인민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국무원총리에게 축전을 보냄, 그리고 일본주재 중국대사가 차린 연회에 참가

5일 제4차 재일동포상공인조국방문단이 도꾜를 떠남

1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연설《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에서 제시된 총련의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공화국창건 스물여섯돐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및 조국방문단의 중앙보고모임 도꾜에서 있었음

17일 제17차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일행이 니이가다를 떠남

22일 재일본조선언론출판인협회창립 스무돐기념 출판보도일군들의 모임 있었음

26일 어버이수령님께서 쉰여섯번에 걸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것과 관련하여 그이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감사전문을 드림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신보사에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 진행

28일 아세아불교도평화촉진위원회 제3차회의에 참가할 재일본조선인불교도련맹대표단이 도꾜를 떠남

29일 172차 귀국선《만경봉》호 니이가다항에 도착

11 월

2일 172차 귀국선《만경봉》호 조국을 향하여 니이가다항을 떠남

7일 총련중앙위원회 제10기 제2차회의 도꾜에서 열림(9일 끝남)

12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확대회의 성명을 지지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성명 발표(17일에는 재일본조선인 중앙대회를 가짐)

13일 총련과 산하단체들이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구체적조치를 즉시 취할것을 요구하여 유엔사무총장에게 공동서한을 보냄

21일 미제두목 포드가 국제여론의 강력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사면초가의 운명에 처한 박정희괴뢰도당을 적극 부추겨주며 저들의 식민지적지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남조선에 기여드는것을 규탄하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성명 발표

22일 재일조선상공인 생산판매협동조합 결성

24일 총련규슈학원 새 교사준공축하모임 있었음

12 월

14일 어버이수령님께서 귀국의 길을 열어주신 열다섯돐을 기념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2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총련의 각급 학교에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도꾜에서 있었음

26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이 일본정부당국이 박정희역도의 정치적모략극인 《8.15저격사건》에 대한《특별수사본부》를 해산하고 사실상 아무런 진상도 해명하지 않은

제 수사를 그만둔것과 관련하여 일본정부당국이 남조선괴뢰도당의 모략책동을 도와나서는 행위를 더는 하지 말데 대한 성명을 발표

31일 어버이수령님께서 쉰일곱번째와 쉰여덟번째로 련이어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것과 관련하여 한덕수의장이 민족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신과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자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

국제주요일지

(1974년 1~12월)

1 월

1일 수단인민들이 독립 18돐을 성대히 기념함 ▶ 파키스탄정부가 모든 은행을 국유화함 ▶ 애급과 이스라엘이 쌍방병력의 분리원칙들의 일부에 합의를 봄

3일 꽁고대통령이 보험회사들을 모두 국유화할것이라고 공포함 ▶ 버마혁명리사회가 새헌법을 승인함

4일 남부웰남에서 교전쌍방이 1973년 7월이래 중단되여온 포로석방을 다시 진행하기로 합의함 ▶ 오스트랄리아국방부장 자기 나라가 더는 강대국의 예속국으로 남아있을수 없다고 언명함

5일 타이국가안전회의가 《반공산진압작전사령부》를 철폐하기로 결정함 ▶ 프랑스외교부장 석유소비국들의 동맹그루빠를 내오자는 미국무장관 키신저의 제안을 거부함

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전국농업대회가 열린데 대해 중국의《인민일보》를 비롯한 신문, 통신이 널리 보도함 ▶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에 대한 알제리에 있는 3대륙의 혁명적인 투쟁단체대표들의 연구발표모임이 진행됨

모임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열광적인 박수속에 만장일치로 채택함

7일 기네대통령이 아프리카의 첫째임무는 식민주의의 굴욕을 청산하는것이라고 언명함 ▶ 필리핀외교부장이 동남아세아의 방위를 일본이 담당하는것을 반대함 ▶ 제네바에서 석유수출국기구 비상회의가 개막됨, 새 석유값 문제를 심의함 ▶ 프랑스가 미제의 압력을 뿌리치고 사우디 아라비아와 전투기판매협정을 체결함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리아정부에 보내는 선물전달식이 수리아항구도시 타다끼에서 성대히 진행됨 ▶프놈 펜에서 론 놀괴뢰도당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여 1만 2천명의 교원들이 파업을 진행함 ▶ 타이대학생들이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타이주재 미국대사놈에게 들이댐 ▶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이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호소문을 발표함 ▶ 버마가 나라 이름을 버마사회주의공화국련방으로 고침 ▶ 에꽈도르 수도 끼또에서 200마일령해권을 지키기 위한 남태평양연안국가 제12차회의가 진행됨 ▶ 쿠웨이트 외교부장 미제가 군사적개입을 감행하면 모든 석유시설을 폭파할것이라고 언명함 ▶ 석유수출기구 각료회의에서 원유공식가격제도를 폐지함

10일 남아프리카 아프리카민족대회가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함

11일 까리브자유통상협회 부장회의 제16차회의 세계경제형편에 대하여 호상 긴밀히 협력할것을 호소함

12일 튜니지와 리비아가 아랍회교공화국이라는 단일국가로 통합하는데 합의함 ▶ 뻬루총리가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의 단결을 강조함 ▶ 아프리카통일기구방위위원회 아프리카의 모든 식민지를 해방할 결의를 표명함 ▶ 또고 대통령이 국내광업자원의 개발과 관리의 국유화를 선포함

13일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프놈 펜괴뢰들에게 항복하라고 최후통첩을 함

14일 까메룬과 세네갈이 아프리카민족해방운동을 지원할 결의를 다시 천명함 ▶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이 4호도로우에서 공세를 강화함 ▶ 다오메국가수반 청년들이 단결하여 혁명에 참가할것을 호소함 ▶ 자이르대통령 아프리카나라들이 자기들의 상품가격을 높일것을 호소함

15일 꽁고가 외국석유회사들을 국유화하기로 결정함 ▶ 프랑스의 53개 진보적정당,사회단체들이 웰남정화협정을 파괴유린하는 미제와 남부웰남괴뢰도당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함 ▶ 웰남민주공화국과 말따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가 수립됨 ▶ 인도네시아 대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규모적인 폭동을 일으켜 일본자동차회사를 파괴하고 300여대의 자동차를 파괴함 ▶ 인도전국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로동자, 교원, 공무원, 의료일군들이 파업을 일으킴 ▶ 영국에서 기관사들의 총파업으로 철도운행이 마비됨 ▶ 브라질에서 에르네스또 가이슬이 새 대통령으로 선거됨

16일 아바나에서 꾸바에 있는 여러 혁명조직대표들과 국제기구성원들 및 3대륙의 류학생들이 혁명의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에 대한 연구발표모임을 진행함 ▶ 14일부터 시작된 벨지끄공산당 제21차대회가 끝남, 대회에서 반독점동맹강령을 채택하고 중앙위원회 지도기관을 선거함, 루이반 게이트가 위원장으로 다시 선거됨 ▶ 국제민주녀성련맹 남조선녀성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함 ▶ 베네수엘라가 미국석유회사의 채취권을 박탈함 ▶ 프랑스총리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할것이라고 언명함 ▶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중국말을 사업용어에 포함시킬데 대한 결정을 채택함

17일 오지리공산당 제22차대회가 시작됨(22일까지 진행)
▶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미제공군을 다시 개입시키려는 프놈 펜괴뢰들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함 ▶ 라오스의 쌍방이 비엔티안 및 루앙 프라방의 중립화를 위한 부대편성문제에 가조인함 ▶ 타이총리 자기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중지할것을 미제에 요구함 ▶말가슈정부 프랑스가 통제하던 4개 은행을 국유화함

18일 모스크바에서 우리 나라와 쏘련사이에 어업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협정이 조인됨 ▶ 아르헨띠나대통령과 빠나마총리가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자주성을 강조함

19일 중국인민해방군이 서산군도에 침입해온 사이공괴뢰들의 구축함과 호위함정을 격침함 ▶ 18일부터 진행된 뽈스까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끝남, 회의에서 통일로동당 제1차전국대표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토의함 ▶ 알제리혁명리사회 의장 원료를 생산하는 제3세

계 나라들의 통일전선형성을 주장함

20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가 중국서산군도에 대한 남부웰남 사이공괴뢰도당의 군사적도발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함

21일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알바니아인민공화국정부사이의 1974년도 상품호상공급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이 조인됨 ▶ 칠레군사악당들이 모든 정당들의 일체 정치활동을 탄압함

22일 메히꼬외교부장 제3세계나라들과의 련대성을 재확인함

23일 우리 공화국과 리비아아랍공화국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음 ▶ 이딸리아외교부장 이스라엘은 아랍땅을 계속 강점하고있을 권리가 없다고 강조함 ▶ 애급외교부장 방문차로 쏘련에 도착함

24일 일본반동정부총리 다나까놈이 국회에서 과거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통치를 미화하는 망발을 늘어놓음 ▶ 일본야당들 다나까놈에게 악성인플레가 초래된데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그놈의 즉시 사퇴를 요구함 ▶ 서독의 본에서 3만여명의 서독대학생들이 반동당국의 반인민적교육정책을 반대하여 시위투쟁을 벌림 ▶ 이슬란드가 자기 나라에 있는 미제침략군의 철수와 나토군사기지 철폐를 요구함

25일 수단대통령이 수단사회주의동맹 제1차전국대회 개막회의에서 자주적인 대내외정책을 다시 천명함 ▶ 이딸리아에서 20만명의 자동차공업부문 로동자들의 파업이 진행됨

26일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22~26일까지 웰남민주공화국을 방문함 ▶ 일본자민당의 극우익집단인 《청람회》가 파쑈통치를 공공연히 제창함 ▶ 캄보쟈인민해방무장력이 프놈 펜을 맹렬히 공격, 미제로부터 로획한 포로 대통령궁전주변에 100발의 포탄을 발사함

27일 미국반전운동자들이 남부웰남괴뢰들에 대한 미제의 지원에 항의하여 미제의 소굴 백악관앞에서 시위를 진행함

28일 서독주민 700여명이 노르드호른에 있는 나토의 사격훈련장을 철폐할것을 요구하여 투쟁을 벌림 ▶ 수에즈운하전선에서 25일 정식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군의 수에즈운하 서쪽강안 남부지구로부터의 철수를 완료함

29일 가봉의 수도 리브르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가봉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및 외교대표의 교환에 관한 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됨

30일 박정희괴뢰도당과 일본군국주의자들 사이에 대륙붕, 남부지역공동개발에 관한 협정과 대륙붕지역경계확정에 관한 협정 등 반동적인 두개의 협정안이 조인됨 ▶ 도중착륙없는 베이징—모스크바 직통항공로 운행을 시작함 ▶ 캄보쟈 론 놀괴뢰도당이 장기적인 《비상사태》라는것을 선포함

31일 1월 29일부터 시작되였던 일본사회당 제37차정기전국대회가 끝남, 대회에서 일조국교정상화를 추진하며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할데 대한 결의를 채택함 ▶ 쿠웨이트가 미영합영석유회사자산의 60%를 국가의 통제밑에 넣을것을 선포함 ▶ 화란이 나토에서 탈퇴할 의향을 표시함 ▶ 이딸리아에서 생활처지의 개선을 위한 13만 2천여명의 근로자들의 파업이 단행됨

2월

1일 동독과 서독이 서부베를린에로의 통로에 관한 통보교환을 신속히 하기로 합의함

3일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쏘련공산당 총비서 브레쥬네브가 꾸바를 공식방문함 ▶ 애급대통령 사다트가 두차례의 중동전쟁에서 심히 파괴된 수에즈운하연선들의 도시재건을 위해 13억딸라를 추가할당할것을 명령함 ▶ 꼬스따 리까에서 대통령선거가 진행됨, 집권당인 민족해방당출신 립후보 다니엘 오두베르가 새 대통령으로 선거됨

4일 2월 4일까지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벌가리아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또도르 찝꼬브를 단장으로 하는 벌가리아 당및정부대표단이 동부독일을 방문, 공동성명에서 남조선으로부터의 외국군대철거를 요구함 ▶ 미제의 우두머리 닉슨놈이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국방비로 제2차세계대전중의 그 어느 회계년도보다 더 많은 887억딸라를 1975회계년도에 제출할 권한을 줄것을 국회에 요구함, 또한 《대외비군사계획》을 위해 41억딸라를 지불할것을 떠벌임

5일 조선인민군창건 스물여섯돐에 즈음하여 베이징부대 포병부대에서 경축집회를 진행함 ▶ 남부웰남 공동군사위원회에서 포로교환의 세부문제들에 합의함 ▶ 일본총평 제47차대회가 진행됨, 봄철투쟁에 총궐기할것을 호소하는 선언을 채택함

6일 아르헨띠나대통령 뻬론이 제국주의의 지배를 배격하고 자기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것이라고 강조함 ▶ 라오스의 두 당사자들이 평화협정리행에 관한 2개 협정에 조인함

7일 영제국주의식민지였던 그레네이더가 독립을 선포함 ▶ 애급정부가 수에즈운하를 6개월내에 다시 개통하기로 결정함 ▶ 빠나마시에서 빠나마외교부장 안또니오 딱크와 미국무장관 키신저가 빠나마운하 수로의 관할권을 빠나마에 넘겨주는 8개항목으로 된 빠나마운하선언에 서명함

8일 상부볼따대통령이 민족회의를 해산하고 헌법을 정지하였으며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것이라고 언명함 ▶ 베네수엘라 새 대통령이 민족적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단결할것을 호소함 ▶ 영국의 런던에서 2만여명의 대학생들이 정부의 반인민적교육정책을 반대하여 시위를 벌림

9일 4일부터 시작된 웰남민주공화국 인민회의 제4기 제4차회의가 끝남, 회의에서 1974~1975년도 경제복구발전과업과 방향 그리고 1974년도 목표에 관한 결정들을 채택함

10일 미국 뉴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꼬스따 리까 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에 관한 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됨 ▶ 전아프리카로조련맹총평의회 회의에서 《아프리카로조운동의 통일에 관한 선언》을 채택함 ▶ 영국에서 27만명이상의 탄부들이 전면적인 총파업에 궐기함 ▶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이딸리아공산당 제6차 로동자당원대표회에서 이딸리아로동계급의 정치적파업에 관한 문제를 토의함

11일 조선인민군창건 스물여섯돐에 즈음하여 수리아신문《알 우쑤부우알 리얄디》 11일호가 군중들의 환호에 답례하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진과 군인들속에 계시는 수령님의 사진을 정중히 모시고《조선인민군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믿음직하게 지키고있다》라는 표제밑에 특집을 함 ▶ 상부볼따공화국에서 새정부가 구성됨, 공화국대통령 상구레 라미자나가 내각수반으로 됨 ▶ 리비아가 3개의 미국회사를 국유화함 ▶ 서부독일에서 국가공공기관, 기업소 로동자들과 사무원 200여만명이 전국적인 파업에 떨쳐나섬 ▶ 11일부터 수일간 워싱톤에서《석유소비국회의》라는것이 진행됨 (회의에는 미국, 카나다, 일본, 프랑스, 영국, 서독 등 석유를 많이 쓰는 세계 주요 자본주의나라들이 참가함)

12일 쏘련의 따쓰통신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

원회의가 진행된데 대하여 보도함 ▶ 수에즈운하 서쪽강안의 이스라엘침략군의 3계단철수가 끝났다고 까히라주재 유엔 대변인이 발표함 ▶ 오스트랄리아와 필리핀이 새로운 아세아협력기구창설에 합의함 ▶ 프랑스총리 석유소비국들의 블럭형성을 반대한다고 언명함

13일 중국의《인민일보》를 비롯한 신문, 통신, 방송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8차전원회의가 열린데 대해 보도함▶알제리, 애급, 사우디 아라비아 및 수리아의 4개국 수뇌자회의에서 후아리 부메디엔이 대미석유수출을 금지할것을 제의함

14일 수단대통령이 아랍나라들의 단결을 강조함▶칠레사회당 총비서가 칠레반파쑈민주력량의 단결을 호소함▶수에즈운하동쪽강안으로부터의 이스라엘군의 제4단계철수가 시작됨

15일 타이부총리가 미국과의 모든 협정을 수정할것이라고 공포함 (그가운데는 2개의 조사협정, 친선 및 경제관계조약이 들어있음)

16일 수리아군이 골란고원에서 이스라엘의 1개 공병부대를 격파하였다고 통신들이 전함

17일 오스트랄리아가 오랜 시일 태양주에 휘날리고있던《백인국가》기발을 공식적으로 끌어내림, 백인주의, 인종주의적이민정책을 폐기함▶미국인들이 암살당한 흑인운동 지도자 킹박사의 초상화제막식을 진행함

18일 미제의 고속도고공정찰기《에쓰아르—71》이 분계선 상공에 침입하여 정탐행위를 감행함▶일본의 7대 도시장관들이 제3차회의를 열고 시민생활안정에로 정책을 전환할것을 다나까반동정부에 요구함▶일본에서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극반동적조직인《청람회》가 조작됨 ▶17~18일까지 로므니아국가쏘베트위원장이 수리아를 공식방문함

19일 애급대통령 사다트가 애급의회에서《10월전쟁의 승리는 지난 수세기간의 아랍의 진정한 첫 승리》라고 언명함▶수리아대통령이 힘에 의해 강요되는 그 무엇에도 굴복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함▶스위스정부가 칠레군사도당에게 무기수출을 하지 않을것이라고 선포함

20일 까타르정부가 외국석유회사의 운영권을 틀어쥠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가 캄보쟈해방지역에 대한 미제의 폭격에 항의함▶일본공산당이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참의원선거투쟁방침 등을 채택함▶미제륙군협회가 미제침략군의 아세아영구주둔을 떠벌임▶이딸리아에서 100만명이상의 로동자들이 생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파업에 들어감

21일 동부독일이 전독일회담을 가질것을 제의함▶1973년 중근동전쟁시기 수에즈운하를 습격하여 운하서쪽강안으로 건너갔던 이스라엘침략군의 마지막 부대가 129일간에 걸친 이 지역강점으로부터 철수를 끝냄

22일 파키스탄의 라호르에서 제2차회교국가 수뇌자회의가 열림, 23개국 국가수반을 포함한 37개 나라 대표들이 참가함, 회의에서 국가수반들이 회교국가들의 단결과 석유가격인하를 반대할것을 호소, 23일회의에서 팔레스티나의 위업, 중동전반 및 꾸드스에 관한 결의, 라호르선언 등을 채택함, 24일에 끝남▶타이외교부장이 자기 나라가 더는 미제의 전투수행지로 되기를 원치않는다고 말함

23일 희랍공산당이 제9차대회를 열고 당 제8차대회(1961년) 이후 기간에 중앙위원회가 한 활동에 관한 보고와 당 강령과 규약의 개정에 관한 문제를 토의함

24일 타이에서 비법화되였던 정당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함

2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10돐에 즈음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진전람회, 영화감상회 등을 진행함 ▶알제리혁명리사회 후아리 부메디엔의장이 중국방문을 위해 베이징에 도착함

27일 국내 반란군의 압력에 굴복하여 에티오피아내각이 총사직함 ▶1천300만명의 이딸리아 로동자들이 전국적인 총파업을 단행함

28일 방글라데슈 수도 다카에서 우리 나라와 방글라데슈사이에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과 1974년도 상품류통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됨 ▶영국에서 총선거진행결과 레이버당 301석, 보수당 296석, 자유당 14석, 기타 24석, 계 635석으로 됨

3 월

1일 프랑스에서 제3차 메스메르내각이 구성됨

2일 버마가 군정으로부터 민정으로 이행함, 네윈을 국가리사회 의장으로 선거함 ▶이딸리아의 련립내각이 총사직함

3일 일본에서 100만명 로동자들이 생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대집회와 시위를 진행함 ▶북부예멘에서 미키를 총리로 하는 20명으로된 새 내각이 구성됨

4일 말레이시아가 이스라엘과의 모든 무역을 금지함

5일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후아리 부메디엔의장이 윁남민주공화국을 방문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사이에 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됨 ▶세계민청뷰로가 남조선괴뢰도당이 우리측 령해에 간첩선을 침입시켜 악랄한 정탐행위를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남조선괴뢰들에게 항의전문을 보냄 ▶버마국가리사회가 네윈을 수반으로 하는 18명의 각료들로 구성된 새 내각을 구성함

6일 콩고인민공화국에서 모든 외국보험회사들의 활동을 금지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함▶미제침략군이《에쓰아르—71》고속도고공정찰기를 군사분계선 상공에 침입시켜 정탐행동을 감행함

8일 평양에서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과 관련한 공동보도가 발표됨 ▶가이아나정부가 외래석유독점체들의 활동을 제한하기로 결정함▶5~8일까지 로므니아국가쏘베트 위원장이 아르헨띠나를 공식방문함

9일 우리 나라가 아세아경기련맹에 가입함 ▶라틴아메리카커피생산국들의 회의에서 리권을 공동으로 수호하기로 결정함

12일 미제침략군이《에쓰아르—71》고속도고공정찰기를 군사분계선상공에 두차례나 침입시켜 분계선일대에서 정탐행위를 감행함

13일 론 놀괴뢰정부 부장 등 4명의 관리가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를 지지하여 해방지역으로 의거함▶프랑스의 53개 단체들이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간섭의 즉시 중지를 요구함

14일 과떼말라에서 이전 국방장관 에우헤니오 라우게루드가 이 나라 새 대통령으로 선포됨

15일 우리 나라가 아세아아프리카법률협상위원회에 가입함▶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인솔하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및캄보쟈 왕국 민족련합정부대표단이 라오스해방지역을 방문함

16일 기네수도 꼬나크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기네—비싸우공화국사이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을데 대한 협정이 조인됨▶카나다공산당 총비서가 자국의 자주권과 독립을 침해하고있는 미제를 규탄함▶타이에서 전국의 어부들 파업을 시작함

17일 우리 나라 정부와 뽈스까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1974년도 상품호상공급및지불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됨▶에티오피아녀성들이 남성들과의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여 시위를 벌림

18일 이날 현재 114개 나라가 유엔총회 특별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알제리의 제안을 지지함

19일 프랑스공산당이 공동강령의 실현을 위해 좌익정당들이 깜빠니야를 벌릴것을 호소함 ▶빠라과이공산당이 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민족투쟁전선의 창설을 주장함

20일 스웨리예정부가 중립정책을 계속 실시할것이라고 선언함 ▶라오스협정리행공동위원회 특별회의를 진행함, 비엔티안, 루앙 프라방의 중립화를 위한 조치 등에 합의함▶중국과 기네—비싸우가 외교관계를 수립함

21일 나이제리아국가수반이 인종주의나라들과의 관계를 단절할것을 유엔성원국들에 호소함

22일 20일부터 진행된 벌가리아공산당 전국대표자회에서 로동생산능률제고문제를 토의함

23일 우리 나라 정부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사이의 1974년도 상품호상공급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됨 ▶알제리와 튜니지 국가수반들이 두 나라간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최고협력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함 ▶이슬란드가 1976년 중간기까지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킬 계획을 작성함 ▶탄자니아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함 ▶알제리혁명리사회 의장이 튜니지를 방문함(22～23일까지) ▶메히꼬가 자기 나라 령해를 침범한 미국어선을 나포함

25일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칠레군사도당의 범죄행위조사국제위원회 제1차회의가 진행됨

26일 25일부터 시작된 로므니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끝남, 전원회의에서 로므니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챠우쉐스꾸를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으로 선거하도록 권고함(28일 니꼴라에 챠우쉐스꾸가 대통령으로 취임함)

28일 아랍련맹외교부장리사회회의는 아랍수뇌자회의를 9월에 열기로 합의하고 페막됨

30일 로므니아에서 새 출판법을 제정함 ▶리비아에서 서방제국주의 원유회사를 국유화함

31일 꾸바와 가봉이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음

4 월

1일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을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구스따브 후싸끄가 만남

2일 라오스에서 련립정부구성을 최종적으로 합의함

3일 오스트랄리아 총리가 자기 나라안에서 외국군사기지설치를 일체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함

5일 라오스림시련합정부와 민족련립정치리사회 설립에 관한 공동콤뮤니케가루앙 프라방에서 조인되고 라오스림시민족련합정부와민족련립정치리사회가 창설됨

7일 77개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령해를 200해리까지 넓히며 유엔해양법회의에서 통일전선을 취할데 대하여 합의함

9일 미국 뉴욕에서 원료 및 개발문제에 관한 유엔총회 특별회의가 시작됨

11일 쁘라하에서 우리 나라 정부와 체스꼬슬로벤스꼬정부사이의 1974—1975년도 문화교류계획서가 조인됨▶웰남민주공화국 총리 범문동이 8～11일까지 스웨리예를 방문함 ▶꾸바와 말가슈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가 수립됨▶미하원사법위원회가 닉슨놈에게《워터게이트사건》 록음테프의 강제제출을 명령함▶알제리가 아랍공동통화창설을 주장함

12일 일본자민당이 중의원내각회의에서 《야스꾸니진쟈법안》을 강행채택함

13일 일본로동계급이 봄철투쟁을 승리적으로 끝냄

14일 일본 도꾜에서 제4차주체사상연구전국토론집회가 성대히 진행됨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이 하루동안에 47척의 적함선을 파괴함▶골란고원에서 수리아군과 이스라엘군이 10월전쟁이래 가장 치렬한 전투를 벌림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두돐에 즈음하여 세계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 사회단체 대표들, 진보적인사들로부터 그이께 축전과 축문들을 보내여옴, 세계 여러 나라 신문, 통신, 방송들이 기념특집을 함 ▶니제르군총참모장 쎄이니 꾼체가 무혈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함,그를 국가수반으로 하는 새 정부가 조직됨

17일 평양에서 조선로동당대표단과 부룬디민족통일진보당대표단사이의 회담이 진행됨 ▶ 와르샤와에서 우리 나라 정부와 뽈스까정부사이의 1974～1975년도 문화교류계획서가 조인됨

18일 4월 11일～18일까지의 우리 나라 외교부대표단의 뻬루방문기간 우리 나라 정부와 뻬루정부사이에 무역관계를 맺기로 합의함 ▶동부독일과 기네—비싸우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함

20일 중국과 가봉이 외교관계를 수립함 ▶ 에티오피아에서 20만명의 군중이 반정부시위를 단행함

21일 유고슬라비아에서 진행된 국제법률가협회 뷰로회의에서 조선에 관한 결의를 채택함 ▶ 꼴롬비아에서 대통령선거와 국회선거가 진행됨, 알폰쏘 로뻬스 미첼쎈이 대통령으로 당선됨 ▶노르웨이에서 공산당, 사회인민당, 독립레이버당들이 새로운 급진당을 창건하기로 결정함

22일 쏘련에서 8개의 인공지구위성을 한꺼번에 쏴올림 ▶꾸바와 과떼말라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함 ▶ 이스라엘에서 이전 로동부장 이쯔하크 라빈을 새 총리로 선출함

23일 말가슈총리가 자력갱생하여 민족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24일 애급에서 대통령 안워르 앗사다르를 수반으로 하는 새 정부가 구성됨 ▶ 꼴롬비아의 새 대통령으로 선거된 로뻬스가 일련의 주요개혁을 실시하겠다고 말함

25일 뽀르뚜갈에서 스삐놀라를 비롯한 군부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림시정부를 선포함

26일 뽀르뚜갈에서 스삐놀라가 7명의 《구국군사위원회》를 내옴, 군사정권이 정치범들을 석방함

27일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이 우동지역에서 론놀괴뢰군 1개려단을 포위함 ▶ 워싱톤을 비롯한 미국의 대도시들에서 닉슨놈의 탄핵을 요구하는 군중시위를 진행함

30일 베네수엘라대통령이 미국회사들의 재산을 국유화할것을 주장함

5 월

1일 연료 및 개발문제에 관한 유엔총회특별회의가 끝남, 총회에서《새로운 경제질서의 확립에 관한 선언》과《행동강령》을 채택함 ▶일본에서 700만명의 근로자들이 5. 1절 시위를 벌림 ▶다마스끄에서 20만명의 군중이 반미시위를 벌림

2일 이라크를 방문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특사가 이 나라 대통령을 만남 ▶동서독일이 상대방수도에 상주대표부를 개설함

3일 뻬루정부가 국영경제부문의 창설에 관한 법령을 채택함

5일 프랑스에서 대통령선거 제1차투표를 진행함 ▶캄보쟈괴뢰군 2개 대대와 전쟁파부들이 대통령궁전앞에서 항의시위를 벌림

7일 서독총리 브란트가 총리직에서 사임함

8일 꼬스따 리까에서 다니엘 오두베르대통령의 취임식이 진행됨 ▶카나다자유당내각이 전쟁예산정책과 관련한 불신임동의안 표결에서 격파됨

10일 미국의 합동로조가 닉슨놈의 사임을 강력히 요구함 ▶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이 4호도로연선의 적진지들을 점령하고 비행장을 봉쇄함

11일 수리아군이 쉐이크산 등에서 전과를 확대함

14일 알제에서 우리 나라 정부와 알제리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이 조인됨

15일 우리 나라와 네팔왕국사이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으며 대사를 교환할데 대하여 합의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특사로 우간다를 방문한 우리 나라 부총리 겸 외교부장이 이 나라 대통령을 만남▶5월 14일부터 열렸던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끝남, 전원회의에서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경제의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함 ▶뽀르뚜갈에서 15명으로 구성된 림시정부를 구성함, 뽀르뚜갈구국군사위원회가 잠정헌법을 공포함

16일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세네갈공화국사이의 공동콤뮤니케 및 두 나라 정부사이의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무역협정,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이 조인됨▶웽그리아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까다르 야노쉬가 이 나라를 방문한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단장을 만남▶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련방의회, 련방리사회,가맹공화국 및 변강위원회 합동회의가 진행됨, 회의에서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를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종신대통령으로 선거함, 새헌법이 공포되고 그에 따라 새의회가 구성됨▶기네—비싸우공화국과 나미비아가 제27차세계보건기구대회에서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함

17일 프랑스신문《아드방스》5월17일호가 우리 나라에서의 세금제도 철폐를 지지하는 글을 실음 ▶일본의 22개단체 대표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의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고 일본인 학생들의 즉시 석방을 요구함

18일 가이아나 수도 죠지타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가이아나협동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에 관한 콤뮤니케가 발표됨 ▶카나다공산당 제22차대회가 진행됨, 대회에서 카슈탄을 당총비서로 다시 선거함

19일 수리아군이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병력집결지점들을 집중적으로 포격함

20일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김일성동지의 특사의 우간다공화국 방문에 대한 공동보도가 발표됨▶미련방재판소 록음테프를 제출하라고 닉슨놈에게 명령함

21일 타이 내각이 사임함, 전국에 경계태세가 선포됨▶세이쉘제도 총리가 자기 나라의 독립을 요구함

22일 베네수엘라대통령 석유, 광산, 채굴 및 야금 공업을 국유화할것이라고 강조함▶일본야당들이 강압채택한《교육법안》의 철회를 요구함, 25만 교원들이 항의파업을 단행함

24일 수단대통령이 제2기 수단인민회의에서 나라의 경제건설을 위한 10대목표를 제시함

25일 이날부터 3일간 미일침략자들이 일본 도꾜남쪽 태평양상에서 《미일합동대잠수함기동훈련》을 벌림

26일 룩셈부르그에서 총선거가 진행됨, 선거에서 야당인 사회로동당과 민주당이 승리함

27일 북아일랜드 행정내각수반 포그너가 13일간에 걸친 신교도계로동자들의 파업때문에 다른 유니온당출신각료들과 함께 사임함, 이것으로하여 이해 발족한 북아일랜드의 카톨릭교도—신교도련립내각이 사실상 붕괴됨

28일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이 프놈펜의 괴뢰대통령궁전을 맹폭격함▶이스라엘총리로 지명된 이쯔하크 라빈이 다얀국방부장과 에반외교부장을 제거하고 시몬 페레스를 국방부장으로, 이갈 알론을 부총리 겸 외교부장으로 지명함

29일 우리 나라가 만국우편동맹에 가입함 ▶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이 이 나라를 방문한 조선로동당대표단을 만남 ▶ 라오스민족련립정치리사회 제1차회의에서 정치강령을 채택함

30일 5월 17일에 열렸던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제10차대회가 끝남, 대회에서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가 이 동맹의 종신위원장으로 선거됨

31일 중화인민공화국과 말레이시아사이에 외교관계가 수립됨

6 월

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특사로 알제리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였던 우리 나라 부총리 겸 외교부장이 알제리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후아리 부메디엔의장을 만남 ▶룩셈부르그에서 사회로동당과 민주당 련립내각이 구성됨, 이전 외교부장 민주당당수 카스톤토른이 총리로 취임됨▶가이아나 총리《전국청년주간》 폐막식에서 한 연설에서 자력갱생하여 민족경제를 발전시킬것을 청년들에게 호소함 ▶수리아와 이스라엘사이에 포로교환이 시작됨

2일 빠나마에서 큰 로조단체들을 망라한 전국 근로자회의를 창설함 ▶부탄에서 지그메 싱기 왕츄크가 새로운 국왕으로 정식 취임함

3일 1일에 열렸던 스위스로동당 제10차대회가 끝남, 대회에서 장 뱅쌍이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됨▶베네수엘라에서 경제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일련의 법령을 채택함

4일 몽골과 이슬란드가 외교관계를 수립함

5일 모스크바에서 우리 나라와 쏘련사이에 1974년도 통상의정서가 조인됨

7일 6일~7일어간에 진행된 탄가니카 아프리카민족동맹전국대표회의에서 니에레레대통령이 이 동맹의 위원장으로 다시 선거됨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고있는 론 놀 괴뢰정부의 각료 8명이 사표를 제출함

9일 7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우리 공화국과 웽그리아인민공화국 사이의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2차회의가 진행됨 ▶까히라에서 팔레스티나민족회의가 진행됨, 10개 조항의 정책강령을 채택함, 아라파트를 위원장으로 다시 선거함

10일 모스크바에서 우리 나라와 쏘련사이의 1974년~1975년도 문화교류계획서가 조인됨 ▶ 몽골인민공화국 대인민후랄회의에서 유 쩨덴발을 내각총리직에서 해임하고 대인민후랄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함 ▶벌가리아와 메히꼬가 외교관계를 맺음

11일 오스트랄리아에서 27명으로 구성된 새 내각이 구성됨, 총리 휘틀람, 외교부장 도날드 윌레시, 국방부장 란스바 나드

12일 부룬디, 자이르, 르완다 등 3개국수뇌자회의에서 아프리카나라들의 단결을 강조함 ▶6일에 열린 아프리카통일기구 각료리사회가 끝남

13일 애급과 기네—비싸우가 외교관계를 맺음▶아르헨띠나가 기네—비싸우를 승인함 ▶북부예멘에서 이브라힘 엘함디대좌를 비롯한 군부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킴, 《사령부 리사회》가 정권을 넘겨가짐

15일 미국과 사우디 아라비아가

외교관계를 재개하는데 합의함

16일 모가디쇼에서 제11차아프리카통일기구국가및정부수뇌자회의가 진행됨 ▶쏘련에서 최고쏘베트선거가 진행됨, 유권자의 99.34%가 투표에 참가하여 로동자, 농민, 인테리들의 대표 1천 517명을 대의원으로 선거함

17일 프랑스가 남태평양의 무루로아환초에서 핵시험을 진행함

19일 벌가리아와 또고가 외교관계를 맺음

20일 중국과 트리니대드 토바고가 외교관계를 맺음▶웽그리아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됨, 현국제정세문제와 당면한 경제문제들을 토의함 ▶베네수엘라 수도 까라까스에서 제3차유엔해양법회의가 시작됨, 150개 나라와 지역 및 국제기구대표들이 회의에 참가함

23일 오지리에서 키르슈슈래게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

24일 비엔티안에서 우리 나라와 타오스왕국사이에 외교관계설정에 관한 콤뮤니케가 조인됨▶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쏘련최고쏘베트 제9기 제1차회의와 관련한 문제를 토의함 ▶네팔왕국이 자력갱생과 쁠럭불가담 외교정책실시를 강조함

25일 뽈스까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됨 ▶ 체스꼬슬로벤스꼬련방회의 인민의원 및 민족의원 합동회의가 진행됨, 회의는 1973년도 국가예산집행에 관한 정부 법안을 토의찬동함

26일 25일~26일 모스크바에서 쏘련최고쏘베트 제9기 제1차회의가 진행됨,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가 선거되고 쏘련정부가 구성됨 ▶ 뽈스까 쎄임회의가 진행됨, 현정세문제와 당면한 경제문제들을 토의함 ▶알바니아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중앙 정치국의 보고를 심의토의함

28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우리 나라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사이의 1974년~1975년도 통상협정이 조인됨

7 월

1일 우리 나라가 국제바드민톤련맹에 가입함 ▶아르헨띠나대통령 뻬론이 심장병으로 사망함, 이 나라 법에 따라 부대통령이였던 이싸벨 마르띠네스 데 뻬론이 대통령으로 됨

2일 에티오피아군이 이전 해군사령관인 황태자 등 고위관리들과 장교들을 체포함 ▶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간첩망을 체포함

3일 평양에서 조선로동당대표단과 노르웨이공산당사이에, 조선로동당대표단과 메히꼬공산당대표단사이에 회담이 진행됨 ▶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됨

4일 케니아에서 민족어인 스와힐리어를 공용어로 선포함 ▶ 영국이 북아일랜드의 장래에 관한 백서를 발표함

5일 수리아 수도 디마스끄에서 우리 나라와 하쉐미트요르단왕국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을데 대한 공동콤뮤니케가 조인됨 ▶스위스의 로잔느에서 열렸던 만국우편동맹 제17차대회가 끝남 ▶4일에 열렸던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끝남

6일 영국과 아일랜드사이에 연어잡이문제로 분쟁이 발생됨

9일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론 놀 괴뢰도당의《무조건평화교섭제안》을 배격함

10일 조선로동당대표단과 희랍공산당(국내)대표단사이의 회담이 평양에서 진행됨

11일 뽀르뚜갈대통령이 각료 전원을 해임함, 새 내각이 련립내각으로 될것이라고 함

12일 6일부터 알제에서 열렸던 제3세계청년대회가 끝남, 회의에서 최종선언, 정치결의, 경제결의가 채택됨, 회의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여《조선에 관한 결의》를 채택함 ▶평양에서 사회주의나라 청소년친선국제자유형 레스링경기대회가 시작됨

13일 부룬디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가 자기 나라의 새 헌법을 비준함

15일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해방지역의 외국고무재배원들을 국유화하기로 결정함 ▶희랍장교들이 이끈 끼쁘로스군대들이 군사 쿠테타를 일으키고 끼쁘로스희랍공화국을 선포함

16일 타이외교부장 타이기지들에 있는 미제침략군 비행기들이 인도양상공에서 정찰비행을 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주장함 ▶일본반동정부총리 다나까가 대장부장에 오히라(전 외교부장), 외교부장에 기무라를 임명함

17일 아프가니스탄총리가 자기 나라의 대외정책이 쁠럭불가담, 중립정책에 기초하고있다고 언명함

18일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오스트랄리아의 멜보른에서 아세아에서의 빈궁과 실업에 관한 쎄미나르가 진행된데 이어 아세아학생협회 제4차대회가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됨, 대회에서《조선에 관한 결의》, 《재일조선학생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결의》, 《4월 1일을 아세아와 세계에서 세금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의 날로 정할데 대한 호소》등을 채택함 ▶뽀르뚜갈공산당이 새 림시정부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것이라고 성명함 ▶타이전국학생쎈터가 박정희역도놈의 독재행위를 규탄함

19일 메히꼬정부가 미중앙정보국이 자기 나라에서 감행하고있는 비밀활동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고 발표함

20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정부가 서부베를린에 《련방환경보호사무소》를 설치할데 관한 법령을 서독련방의회에서 채택한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함

21일 까히라에서 아랍나라군대총참모장들의 회의가 진행됨

22일 16일부터 알제에서 진행된 팔레스티나학생총동맹 제7차전국대회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전문을 열광적인 박수속에 만장일치로 채택함, 회의에서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여《조선에 관한 결의》도 채택함 ▶베네수엘라가 철광석공업을 국유화함

23일 희랍군부가 위기에 처한 나라의 정세에 비추어 국가권력을 문관정부에 넘기기로 결정함

24일 미국최고재판소가 닉슨놈에게《백악관록음테프》등의 제출명령에 복종하라고 판결함

27일 파키스탄의 부토총리가 아프가니스탄에 불가침조약체결을 제의함 ▶미하원사법위원회가 닉슨탄핵결의안 제1항《워터게이트사건과 그 말살공작을 둘러싼 사법방해》를 찬성 21, 반대 11표로 채택함

28일 부카부에서 탄자니아, 잠비아, 자이르 및 콩고 대통령들이 아프리카의 정치 및 경제적 해방문제에 관해 협의함

29일 미하원사법위원회가 닉슨탄핵결의안 2항(대통령의 직권람용)을 채택함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랍추장국련방이《부라이미샘터》의 소유권을 둘러싼 12년간의 국경분쟁의 끝을 맺는 협정에 조인함

30일 미하원사법위원회가 닉슨탄핵결의안 제3항(록음테프제출거부)을 채택함 ▶영국, 토이기, 희랍 외교부장들이 끼쁘로스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함, 전투의 중지,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규정함

31일 우리 공화국과 오스트랄리아련방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가 설정됨 ▶에스빠냐에서 공산당총비서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주주의혁명위원회가

세위집 ▶미하원세출위원회가 남조선 강점 유엔군사령부, 미군사령부, 미8군사령부를 남조선주둔 미군사령부로 통합할것을 반동정부에 건의함

8 월

1일 희랍공산당이 민주주의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애국력량이 단합할것을 호소함

2일 일본공산당이 참의원선거결과를 총화하고 앞으로의 행동방향을 결정함

3일 자메이카총리가 자기 나라는 제3세계의 적극적인 성원국이라고 언명함

6일 오스트랄리아국회가 이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상하량원합동회의에서 선거개혁법안을 채택함 ▶에티오피아에서 3천년에 걸친 황제의 절대적권력을 빼앗는 새로운 헌법초안을 발표함

8일 일본의 각 정당, 사회단체들이 김대중사건 1돐과 관련하여 박정희괴뢰도당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13일 8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된 유엔무역개발회의 제14차회의에서 우리 나라가 리사회 산하 주요위원회들에 가입함 ▶희랍에서 통일민주좌익당이 다시 나옴

14일 베네수엘라의 수도 까라까스에서 9월 11일부터 열렸던 칠레및 라틴아메리카에서 파시즘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인권옹호를 위한 국제련대성회의가 끝남, 회의에 참가한 27개 단체대표들이 조선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함 ▶희랍이 나토군사기구에서 탈퇴함 ▶뽀르뚜갈 수도 리스봉에서 앙골라의 독립을 지지하는 시위가 진행됨

17일 우리 나라가 국제발명및저작권소유기구에 가입함 ▶인도에서 진행된 선거결과 인도국민대회당이 내세운 대통령 립후보 파크루딘 알리 아흐메드가 당선됨 ▶감비아와 베네수엘라가 외교관계를 수립함 ▶에티오피아군이 지금까지 황제의 통제밑에 있던 이 나라 최고기관을 해산시키고 사실상 나라의 실권을 장악함 ▶에티오피아군이 황제근위대사령관을 체포함

19일 희랍에서 수천명의 시위군중이 미제군사기지철폐와 6함대의 철수를 요구하여 시위를 단행함 ▶프랑스신문《몽드》가 끼쁘로스사태는 펜타곤과 미중앙정보국이 쓴 각본에 따라 진행된것이라고 폭로함 ▶로므니아와 자메이카가 대사급외교관계를 수립함

22일 꾸바와 빠나마가 외교관계를 회복함

23일 프랑스 및 희랍공산당지도자들이 회담에 관한 콤뮤니케를 발표함, 희랍의 민주화와 끼쁘로스의 자주권을 요구함

24일 희랍정부가 이전 헌병대장을 군부에서 축출함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된 총선거에서 총리 아브둘 라자크가 지도하는 9개 정당이 망라된 민족전선이 승리함

25일 뽀르뚜갈이 기네—비싸우의 독립을 승인함 ▶에티오피아군사위원회 헬라씨에황제가 거처해온 주빌리궁전을 몰수하여 국민궁전으로 이름을 바꿈, 황제의 측근자들을 체포하고 내각성원들을 교체함

27일 애급과 세네갈이 유엔총회의 우리 공화국을 지지하는 공동제안국으로 들어감 ▶마로끄에서 진보및사회주의당을 창건함

28일 에티오피아에서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제이행방침을 결정함 ▶뽀르뚜갈공산당이 기네—비싸우공화국의 승인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함 ▶이딸리아공산당기관지《우니따》창간 쉰돐기념경축행사에 참가할 조선로동당대표단이 로마에 도착함

29일 아르헨띠나정부가 석유판매및 분배망을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함

30일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르완다공화국정부 사이의 경제및기술협조에 관한 협정과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이 조인됨 ▶희랍정부가 7개의 미군기지를 비롯한 전령토에 대한 주권을 되찾겠다고 미국과 나토 기타 성원국들에 통고함 ▶꽁고수도 브라자빌에서 제9차동부및중부아프리카나라 수뇌자회의가 열림 ▶애급대통령 사다트가 총리직을 내놓고 제1부총리에게 새 내각구성을 요청함 ▶로므니아의 수도 부꾸레슈띠에서 8월 19일부터 열렸던 세계인구회의가 끝남

9 월

1일 우리 나라가 아세아사격련맹에 가입함 ▶우리 나라 평양예술단이 이딸리아에서 《우니따》축전축하공연을 대성황리에 진행함, 이딸리아의 볼로냐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람관이 대성황리에 개관됨 ▶제7차아세아경기대회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개막됨 ▶아세아경기련맹 리사회에서 우리 나라가 아세아경기련맹 집행위원으로 선거됨 ▶이딸리아공산당기관지《우니따》창간 쉰돐기념축전이 볼로냐에서 개막됨 ▶이딸리아공산당기관지《우니따》창간 쉰돐기념축전에 즈음하여 이 신문사가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특간호를 발간함(4면으로 된 특간호는 이딸리아말로 100만부 발행됨)

2일 우리 나라가 아세아격검련맹에 가입함

3일 우리 나라가 아세아자전거련맹에 가입함

4일 우리 공화국창건 26돐에 즈음하여 쏘련 모스크바에서 경축회의가 진행됨 ▶인도하원이 시낌왕국을 인도의 정치체제에 병합시키는 헌법수정안을 승인함 ▶앙골라인민해방운동림시지도부가 구성됨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미국이 외교관계수립에 합의함

6일 니아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니제르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에 관한 공동콤뮤니케가 조인됨

7일 우리 나라가 아세아체조련맹, 아세아아마츄어수영련맹에 가입함 ▶루사카에서 뽀르뚜갈정부와 모잠비끄해방전선사이에 1975년 6월 25일에 모잠비끄독립을 선포하기로 한 협정을 조인함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26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세계 여러 나라 당 및 국가 지도자들, 사회단체들로부터 축전을 보내여왔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6돐에 즈음하여 일본《요미우리신붕》사에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일본의 각계인사들이 쓴 글을 묶은 단행본《주체의 나라 조선을 방문하여》를 출판함

10일 뉴질랜드에서 내각을 개조함, 웰레이스 로울링이 새 총리로 됨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또고공화국 정부사이의 경제및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이 평양에서 조인됨

12일 에티오피아의 헬라씨에황제가 이 나라 군조정위원회에 의해 물러남, 림시군사행정부를 세우고 헌법을 정지, 국회의 상하량원을 해산시킴

13일 우리 나라가 아세아송구련맹, 축구련맹에 가입함

14일 우리 나라가 아세아체육기자협회에 가입함 ▶토이기련립정부내 의견대립으로 에체비트내각이 총사직함

16일 오지리 수도 윈에서 진행된 국제원자력기구 제18차총회 9월 16일회의에서 우리 나라의 국제원자력기구 가입문제를 토의하고 우리 공화국을 이 기구의 성원국으로 받아들일것

을 투표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함 ▶알제리를 비롯한 34개 나라 유엔성원국들이《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하여》결의안을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함 ▶

9월 1일부터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열렸던 제7차 아세아경기대회가 끝남

17일 또고공화국대통령이 인민련합중앙위원회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조선과 중국 방문결과를 토의하였으며 또고가 남조선괴뢰도당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남조선괴뢰《대사관》을 축출하기로 결정함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제29차회의가 열림,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이 총회 의장으로 선거됨▶미상하량원협의회에서 총 825억딸라에 달하는 침략적인 국방비지출법안을 최종적으로 합의함

19일 보츠와나정부가 외국회사의 통제밑에 있는 철도를 국유화하기로 결정함 ▶토이기정부가 정식 사임함

20일 모잠비끄에서 쉬싸노를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의 새 각료들이 정식 취임함

21일 유엔총회 제29차회의 본회의에서 조선문제를 포함한 110개 의제를 채택함

23일 1948년이래 비법화되였던 희랍공산당이 26년만에 합법정당으로 승인됨

24일 혁명리사회 의장이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후아리 부메디엔이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가 상정토의되게 된것과 관련하여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집행의장의 명의로 9월 24일 쁠럭불가담국가 및 정부 수반들에게 서한을 보냄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가 상정토의되게 된것과 관련하여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외교부장 아브델 아지즈 부떼플리까가 9월 24일 쁠럭불가담국가 외교부장들에게 서한을 보냄 ▶호노룰루에서 반동적인 제7차 한미안보협의회가 진행됨

25일 유엔총회 제29차회의 정치위원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를 조선문제토의시에 초청하기로 결정함 ▶또고에 둥지를 틀고있던 남조선괴뢰《대사관》놈들이 쫓겨남

26일 애급에서 새 총리 헤가지를 수반으로 하는 새 내각이 취임함

10 월

1일 알제리 등 33개 나라가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의 권리회복을 요구하는 공동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함▶아테네에서 1만명의 시위자들이 희랍주재 미제대사관앞에서 반미시위를 벌림

2일 또고의 수도 로메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고전적로작《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10돐을 기념하는《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제3세계인민들의 과업》에 관한 과학토론회가 성대히 개막됨

3일 뽀르뚜갈에서 스삐놀라의 대통령사임에 뒤이어 고메스가 대통령으로, 곤쌀베스가 총리로 됨 ▶ 또고의 수도 로메에서 진행된《김일성주석님의 농촌테제발표 10돐을 기념하는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제3세계인민들의 과업〉에 관한 과학토론회전체 참가자들이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존경하는 김일성주석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함

6일 알바니아에서 제8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됨, 선거결과에 관한 중앙선거위원회가 8일 발표한데 의하면 유권자의 100%가 선거에 참가하여 100%가 알바니아민주주의전선 립후보자들에게 찬성투표함

7일 우리 나라가 국제송구련맹에 가입함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저메이커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가 설정됨 ▶ 9일~10일 평양에서 조선직업동맹대표단과 일본 총평및중립로련대표단사이의 회담이 진행됨

11일 일본 도꾜에서 진행되였던 국제의회동맹 제61차회의가 페막됨 ▶영국의 총선거결과 레이버당이 과반수의석을 초과한 319의석을 얻어 집권하게 됨

13일 일본 도꾜에서 《주체사상과학토론집회》가 성대히 진행됨, 집회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께 드리는 편지를 만장일치로 채택함

14일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꾸바방송위원회 사이에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의정서가 조인됨 ▶ 베네수엘라대통령이 자기 나라는 미국의 경제적예속에서 완전히 벗어나려 한다고 언명함

15일 10월 9일~15일까지 탄자니아에서 《조선영화상영주간》이 진행됨 ▶10일부터 15일까지 로므니아 수도 부꾸레슈띠에서 우리 나라 정부와 로므니아정부사이의 경제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5차회의가 진행됨 ▶화란대학생들이 반나토시위를 벌림

16일 조선기자동맹과 체스꼬슬로벤스꼬기자동맹사이의 협조에 관한 협정이 조인됨 ▶탄자니아, 잠비아, 자이르 집권당들이 정치적협조를 강화하기로 결정함

17일 우리 나라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 투표없이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가입함 ▶우리 나라와 로므니아 과학원들사이에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이 조인됨

21일 일본전국 450여개소에서 230여만군중이 항의집회와 강력한 시위를 단행함

22일 13일부터 22일까지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람회가 대성황리에 진행됨

23일 평양에서 조선로동당대표단과 파키스탄인민당대표단사이의 회담이 진행됨 ▶ 유엔총회에서 우리 나라 정부 비망록을 유엔의 공식문건으로 배포함 ▶국제올림픽위원회총회에서 1980년 하기올림픽을 모스크바에서 하기로 결정함

24일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의 알제리방문과 관련하여 알제리신문《엘무쟈히드》10월 24일호가 우리 나라의 주체예술에 대하여 소개하는 글을 실음 ▶세계직련 총리사회 제25차회의 조선근로자들및 인민들과의 련대성결의를 채택함

25일 22~25일까지 마로끄의 수도 라바트에서 아랍나라 외교부장회의가 진행됨

26일 인도네시아신문《임빨리마》10월 26일호가 우리 나라에서 대풍을 이룩한데 대해 보도함 ▶마로끄의 수도 라바트에서 제7차아랍수뇌자회의가 열림

27일 수리아신문 《알 사우라》10월 27일호가 《조선의 가극예술 놀랄만큼 우아하다》라는 큰 제목밑에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가극예술을 소개하는 글을 실음 ▶ 24일~27일까지 빠리교외에서 프랑스공산당 제21차비상대회가 진행됨, 대회에서는 의정인《민주주의적개조를 위한 프랑스인민의 동맹》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의하고 결정을 채택함 ▶뽀르뚜갈에서 무장력운동최고리사회를 조직함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베네수엘라공화국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를 설정할데 대한 공동콤뮤니케가 까라까스에서 합의됨 ▶미제의 우두머리 포드가 1955년 대만결의의 정식폐기와 관련한 문건에 서명함, 이 법안의 성립으로 미국회가 1955년 1월 29일에 대만결의를 채택한 이래 과거 20년간 존재해온 미국의 금문, 마조수 섬 방위공약에 종지부가 찍히게됨 ▶말따총리가 새 헌법에 따라 자기 나라가 공화국이 될것이라고 언명함

29일 3대륙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이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이 당장 물러갈것을 요구하여 호소문을 발표함 ▶제7차 아랍수뇌자회의가 끝남, 회의에서 콤뮤니케와 결의들을 채택함 ▶알바니아내각 총리가 알바니아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새 정부의 정강을 발표함

30일 알제리에 머무르고있던 우리나라 당및 정부대표단 단장인 국가부주석이 알제리를 방문한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의례방문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내시는 인사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에게 정중히 전달함 ▶국제학생동맹서기국이 박정희도당의 탄압책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함 ▶ 5천명의 사이공시민들이 티우괴뢰도당을 반대하여 철야홰불시위를 벌림▶ 미제의 우두머리 포드의 일본행각을 반대하여 1천여명의 일본인민들이 도꾜에서 강력한 시위를 벌림▶ 일본전국 244개병원이 의료체제확립을 요구하여 파업을 단행함

11 월

1일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알제리혁명개시 20돐을 기념하여 군중시위와 무력시위를 벌림 ▶유엔총회 본회의가 끼쁘로스문제의 직접적유관측(끼쁘로스, 희랍, 및 토이기)들이 합의한 10개항목으로 된 끼쁘로스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2일 혁명리사회 의장이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인 후아리 부메디엔이 이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우리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을 만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후아리 부메디엔의장에게 보내시는 말씀을 대표단 단장이 석상에서 정중히 전달함 ▶영국정부가 사회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남아프리카와의 시몬즈타운협정을 폐기하기로 결정함

3일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정부사이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이 각각 조인됨

4일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과 중국과학원사이의 1975—1976년도 과학협조에 관한 사업계획서가 조인됨

5일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1975년도 상품류통및지불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됨

6일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됨▶《아사이신붕》이 남조선괴뢰도당이 꾸민 《간첩단사건》의 허위적내막을 폭로함

7일 싱가포르에서 대통령선거가 진행됨, 벤자민 헨리 새어즈가 대통령으로 재선됨

8일 이딸리아에서 1천만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보장과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림

9일 뽀르뚜갈에서 통신사를 국가가 장악함

10일 스웨리예 수도 스톡홀름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올해 대풍작을 이룩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모습을 보여주는《쌀풍년, 사과풍년, 모두다 풍년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진전시회》가 개막됨 ▶우간다 대통령이 유엔을 민주주의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개편함과 함께 본부를 우간다로 옮길것을 주장함

11일 단마르크에서 야당들이 정부의 사임과 새 국회선거를 요구해나섬▶이딸리아의 싸보나시에서 강력한 반파쑈시위가 벌어짐

12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우리 나라 도서 및 사진전시회가 진행됨 ▶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의 발언권과 결의권을 정지시킬데 대한 결정을 채택함▶세계민청 제9차대회가 유엔총회에 전문을 보내여 올해 유엔총회는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13일 혁명리사회 의장이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후아리 부메디엔의장이 알제리방문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을 만나고 예술인들을 위하여 연회를 마련함

14일 와르샤와에서 우리 나라와 뽈스까사이의 1975년도 상품호상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됨▶ 12～14일까지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라틴아메리카회의》가 진행됨▶ 일본에 있는 미국인 대표들이 포드놈의 남조선행각을 반대하여 공개서한을 범

▶14～17일까지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인도양에 있는 외국군사기지들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진행됨

18일 우리 공화국 정부와 웽그리아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1975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이 조인됨 ▶펀란드사회주의로동당 제1차대회가 진행됨 ▶미제 우두머리 포드놈의 일본행각을 규탄하여 일본전국에서 7만 4천여명의 군중이 시위를 단행하고 350만명의 로동자들이 파업을 단행함

19일 알제리방문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이 후아리 부메디엔의장을 위해 특별공연을 진행함▶프랑스에서 100만명의 각계층근로자들이 《제2차세계대전후 가장 큰》전국적인 총파업을 벌림

20일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이 벌가리아를 친선방문하기 위하여 쏘피아에 도착함, 22일부터 24일까지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공연을 대절찬속에 성과적으로 진행함▶유엔총회 제29차회의 제1위원회에서 남아세아에서 핵무기 없는 지역을 창설할데 대한 결의안을 채택함 ▶11월 13～21일까지 쁘라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사이의 과학기술협조분과위원회 제18차회의가 진행됨, 회의에서 우리 나라와 체스꼬슬로벤스꼬사이의 1974～1975년도 과학기술협조안건들을 심의하고 해당한 의정서를 채택함

22일 이란제국 황제동생 아브도르 레자 파흐라비친왕이 평양에 옴 ▶제29차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의 조선에 관한 문제토의와 관련하여 스웨리예평화옹호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함

24일 18일부터 24일까지 아프리카기자동맹창립대회가 진행됨 ▶희랍수도 아테네에서 100만명의 희랍사람들이 미제를 규탄하며 희랍왕의 귀국을 반대하여 시위를 벌림

25일 로므니아공산당 11차대회가 끝남,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를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로 다시 선거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1975년도 상품류통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됨

26일 일본총리 다나까가 사임함

▶에티오피아군사위원회가 메메리 벤티를 새 위원장으로 임명함 ▶메히꼬가 칠레파쑈군사도당과 외교관계를 단절함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보쯔와나공화국 사이의 대사급외교관계가 설정됨 ▶라틴아메리카 20개 사탕수출국들이 국제사탕가격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를 창설함

12 월

2일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 니꼴라에 챠우쉐스꾸동지가 조선로동당대표단을 만남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4차회의가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중국의 신문들과 통신, 방송이 널리 보도함 ▶평양에서 우리 나라 정부와 이란제국 정부사이의 무역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됨

4일 평양에서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아랍사회주의동맹대표단사이의 회담이 진행됨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벌가리아인민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또도르 쉽꼬브동지가 벌가리아방문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을 만남.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 쏘피아에서 초대공연진행.또도르 쉽꼬브가 관람함, 벌가리아국가쏘베트가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 전체 성원들에게 《벌가리아에서의 사회주의혁명 30돐메달》을 수여함 (5일 쏘피아를 떠남)

5일 부룬디에서 진행된 우리 나라 집단체조대표단을 환영하는 성대한 모임에서 이 나라 대통령이 연설함, 연설에서 대표단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이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였다.

6일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이 로므니아를 친선방문하기 위하여 부꾸레슈띠에 도착함 ▶다오메가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 제출된 우리측을 지지하는 결의안 공동발기국성원으로 됨

8일 희랍에서 국민투표로 공화제를 채택하기로 결정함

9일 라틴아메리카 8개 나라 수뇌자들이 아야꾸쵸선언을 채택함

10일 프랑스국회의 참의원 (상원) 의원 40명이 프랑스조선친선국회 (참의원) 그루빠를 결성함

12일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경제권리및특전에 관한 헌장과 중동비핵지대창설 등 결의안을 채택함

14일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오지리 수도 윈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대표단과 오지리공화국 외교부대표단사이의 회담에서 두 나라 사이에 외교관계를 맺으며 특명전권대사를 교환할데 대하여 합의함, 1974년 12월 17일부터 효력을 가지기로 함 ▶꾸바와 말가슈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음

16일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남로데시아의 인종주의정책을 규탄하는 결정을 채택함

17일 캄보쟈해방지역에서 캄보쟈조선련대성위원회가 무어짐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이며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인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가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을 만남 ▶미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 제21차대회를 1975년 6월 26~29일까지 시카고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함

18일 싱가포르를 방문한 평양예술단이 한주일간의 이 나라 공연을 성과적으로 끝냄

21일 베이징에서 우리 나라와 중국 두 나라 정부사이의 1975년도 상품교류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됨

22일 자이르대통령이 중국방문을 마치고 광주를 떠남 ▶20일시작된 일본사회당 제38차대표회가 끝남, 1975년도 운동방침을 채택함

23일 우리 나라 정부와 월남민주공화국 정부사이의 1975년도 상품류통및지불에 관한 협정이 조인됨 ▶알바니아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엔베르 호쟈가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을 만남,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이 티라나에서 진행한 공연에 엔베르 호쟈동지가 초대되여 공연을 봄

24일 조중국경하천운항협조위원회 제14차회의 합의서가 조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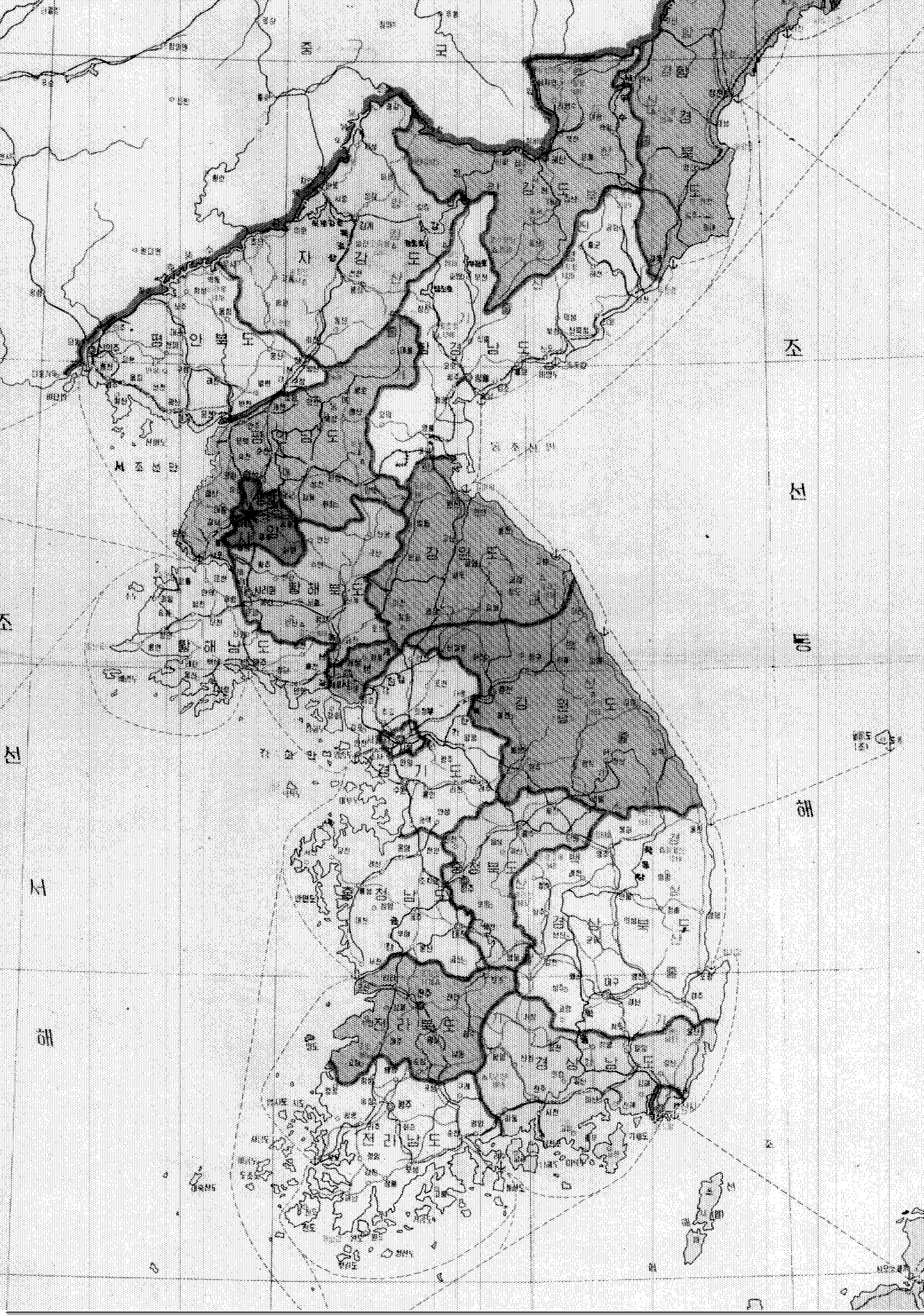
27일 우리 나라 과학원과 벌가리아과학원사이의 1975~1976년도 과학협조에 관한 사업계획서가 조인됨 ▶아흐메드 세쿠 투레가 기네공화국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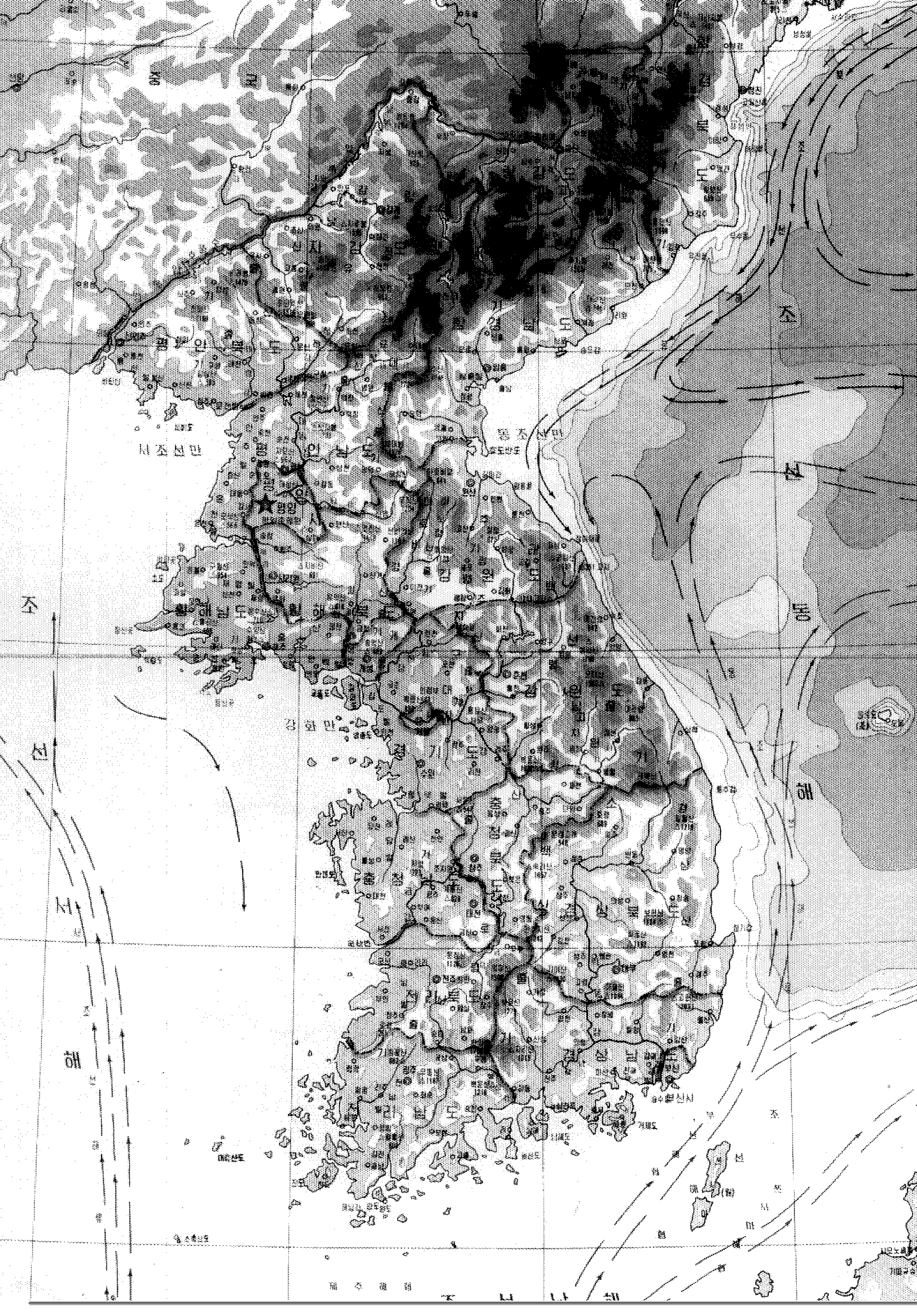
30일 우리 나라 정부와 꾸바공화국 정부사이의 1975년도 통상의정서가 조인됨 ▶만수대예술단이 알제리, 벌가리아, 로므니아, 알바니아 방문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옴 ▶27~30일까지 꽁고로동당 제2차대회가 진행됨, 대회에서 마리엔 느구아비가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시 선거됨

조 선 중 앙 년 감 (1975년)

발행소 조선중앙통신사 평양시 외성구역 오탄동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인 쇄 1975년 9월 30일 발행 1975년 10월 10일

ㄱ—5590106 값 5원 50전


중 국
자 강 도
평 안 북 도
황 해 북 도
황 해 남 도
강 원 도
경 기 도
충 청 북 도
충 청 남 도
서조선만
조 선 동 해
조 선 서 해



서조선만
동조선만
강화만
평양
평안북도
황해남도
경기도